

가톨릭

성 경

〈차 례〉

〈성경 바로가기〉

구약성경

〈오경〉

창세기	9
탈출기	80
레위기	137
민수기	178
신명기	235

〈역사서〉

여호수아기	286
판관기	320
룻기	355
사무엘기 상권	361
사무엘기 하권	407
열왕기 상권	446
열왕기 하권	490
역대기 상권	532
역대기 하권	571
에즈라기	617
느헤미야기	632
토빗기	652
유딧기	670
에스테르기	691
마카베오기 상권	708
마카베오기 하권	750

〈시서와 지혜〉

욥기	781
----------	-----

시편	820
잠언	903
코헬렛	932
아가	944
지혜서	951
집회서	972

〈예언서〉

이사야서	1028
예레미야서	1096
애가	1172
바룩서	1180
에제키엘서	1191
다니엘서	1258
호세아서	1287
요엘서	1298
아모스서	1303
오바드야서	1313
요나서	1316
미카서	1320
나훔서	1327
하바쿱서	1331
스바니아서	1335
하카이서	1339
즈카르야서	1342
말라키서	1354

신약성경

〈복음서〉

마태오 복음서	1360
마르코 복음서	1411

루카 복음서	1445
요한 복음서	1500

〈사도행전〉

사도행전	1542
------------	------

〈서간서〉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591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613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1635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650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659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667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673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679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1685
티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689
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	1696
티토에게 보낸 서간	1701
필레몬에게 보낸 서간	1705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1708
야고보 서간	1724
베드로의 첫째 서간	1731
베드로의 둘째 서간	1738
요한의 첫째 서간	1743
요한의 둘째 서간	1750
요한의 셋째 서간	1752
유다 서간	1754

〈묵시록〉

요한 묵시록	1757
--------------	------

<성경 바로가기> - 성경이름을 클릭하세요

오 경	역 사 서	시서와 지혜	예 언 서	복 음 서	사 도 행 전	서 간 서	목 시 록
창세기	여호수아기	욥기	이사야서	마태오	사도행전	로마	요한목시록
탈출기	판관기	시편	예레미야서	마르코		코린토1	
레위기	룻기	잠언	애가	루카		코린토2	
민수기	사무엘기상	코헬렛	바룩서	요한		갈라티아	
신명기	사무엘기하	아가	에제키엘서			에페소	
	열왕기 상	지혜서	다니엘서			필리피	
	열왕기 하	집회서	호세아서			골로새	
	역대기 상		요엘서			테살로니1	
	역대기 하		아모스서			테살로니2	
	에즈라기		오바드야서			티모테오1	
	느헤미야기		요나서			티모테오2	
	토빗기		미카서			티토	
	유딧기		나훔서			필레몬	
	에스테르기		하바쿱서			히브리	
	마카베오상		스바니아서			야고보	
	마카베오하		하까이서			베드로1	
			즈카르야서			베드로2	
		말라키서		요한1			
				요한2			
				요한3			
				유다			

구약성경

구약성경 - 1

오경 - 1

창 세 기

총 50 장

총 1,533 절

[구약성경-창세기]

천지창조

- 1¹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 2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심연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 3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 4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느님께서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치서,
- 5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 지났다.
- 6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물한가운데에 궁창이 생겨, 물과 물 사이를 갈라놓아라."
- 7 하느님께서 이렇게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을 가르시자, 그대로 되었다.
- 8 하느님께서서는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 9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곳으로 모여, 물이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 10 하느님께서서는 물을 땅이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 11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싹을 돋게 하여라.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 나무를 제 종류대로 땅 위에 돋게 하여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 12 땅은 푸른 싹을 돋아나게 하였다.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 13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흘날이 지났다.
- 14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궁창에

빛물체들이 생겨, 낮과 밤을 가르고, 표징과 절기, 날과 해를 나타내어라.

- 15 그리고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는 빛물체들이 되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 16 하느님께서서는 큰 빛물체 두 개를 만드시어, 그 가운데에서 큰 빛물체는 낮을 다스리고 작은 빛물체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별들도 만드셨다.
- 17 하느님께서 이것들을 하늘 궁창에 두시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 18 낮과 밤을 다스리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 19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흘날이 지났다.
- 20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물에는 생물이 우글거리고, 새들은 땅 위 하늘 궁창 아래를 날아다녀라."
- 21 이렇게 하느님께서서는 큰 용들과 물에서 우글거리며 움직이는 온갖 생물들을 제 종류대로, 또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 22 하느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번식하고 번성하여 바다물을 가득 채워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 23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닷새날이 지났다.
- 24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제 종류대로, 곧 짐짐승과 기어 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 25 하느님께서서는 이렇게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짐짐승을 제 종류대로, 땅바닥을 기어 다니는 온갖 것을 제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 26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짐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 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 27 하느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 28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 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 29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 30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어 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는 온갖 푸른 풀을 양식으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 31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 지났다.

2 ¹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 2 하느님께서 하시던 일을 이렛날에 다 이루셨다. 그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렛날에 쉬셨다.
- 3 하느님께서 이렛날에 복을 내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여 만드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그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 4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그 생성은 이러하였다. 주 하느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에덴 동산

- 5 땅에는 아직 들의 덤불이 하나도 없고, 아직 들굴 한 포기도 돌아나지 않았다. 주 하느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흙을 일굴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 6 그런데 땅에서 안개가 솟아올라 땅거죽을 모두 적셨다.
- 7 그때에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 8 주 하느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 하나를 꾸미시어, 당신께서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 9 주 하느님께서는 보기에 탐스럽고 막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흙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 10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곳에서 갈라져 네 줄기를 이루었다.
- 11 첫째 강의 이름은 피손인데, 금이 나는 하 율라 온 땅을 돌아 흘렀다.
- 12 그 땅의 금은 질이 좋았으며, 그고장에는 브델리움 향료와 마노 보석도 있었다.
- 13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에티오피아 온 땅을 돌아 흘렀다.
- 14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 동쪽으로 흘렀다. 그리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 15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 16 그리고 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어도 된다.
- 17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 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 18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 19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흙으로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신 다음,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

라 부르는지 보셨다. 사람이 생물 하나하나를 부르는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 20 이렇게 사람은 모든 짐승들과 하늘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인 자기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였다.
- 21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게 하시어 그를 잠들게 하신 다음,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 22 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에게 데려오시자,
- 23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아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 24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 25 사람과 그 아내는 둘 다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인간의 죄와 벌

3

- 1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냐?"
- 2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 3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도 마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 4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 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 6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 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 7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 8 그들은 주 하나님께서 저너 산들바람 속에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과 그 아내는 주 하나님 앞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 9 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며,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 10 그가 대답하였다.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 11 그분께서 "네가 알몸이라고 누가 알려 주더냐? 내가 너에게 따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따 먹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 12 사람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 13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고 물으시자, 여자가 대답하였다. "뱀이 저를 꾀어서 제가 따 먹었습니다."
- 14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짐승들과 들짐승 가운데에서 저주를 받아 내가 사는 동안 줄곧 배로 기어 다니며 먼지를 먹으리라.
- 15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 16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임신하여 커다란 고통을 겪게 하리라. 너는 괴로움 속에서 자식들을 낳으리라. 너는 네 남편을 갈망하고 그는 너의 주인이 되리라."
- 17 그리고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따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었으니,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사는 동안 줄곧 고통 속에서 땅을 부쳐 먹으리라."
- 18 땅은 네 앞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돋게 하고 너는 들의 풀을 먹으리라.
- 19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 20 사람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하였다. 그가 살아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이다.
- 21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 주셨다.
- 22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사람이 선과 악을 알아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으니,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 나무 열매까지 따 먹고 영원히 살게 되어서는 안 되지."
- 23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치시어, 그가 생겨 나온 흙을 일구게 하셨다.
- 24 이렇게 사람을 내쫓으신 다음, 에덴 동산 동쪽에 커룹들과 번쩍이는 불 칼을 세워, 생명 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카인과 아벨

- 4 ¹ 사람이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 같이하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남자 아이를 얻었다."
- 2 그 여자는 다시 카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기가 되고 카인은 땅을 부치는 농부가 되었다.
- 3 세월이 흐른 뒤에 카인은 땅의 소출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 4 아벨은 양 떼 가운데 맘베들과 그 굳기름을 바쳤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꺼이 굶어보셨으나,
- 5 카인과 그의 제물은 굶어보지 않으셨다. 그래서 카인은 몹시 화를 내며 얼굴을 떨어뜨렸다.
- 6 주님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화를 내고, 어찌하여 얼굴을 떨어뜨리느냐?"
- 7 내가 옳게 행동하면 얼굴을 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옳게 행동하지 않으면, 죄악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리게 될 터인데, 너는 그 죄악을 잘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
- 8 카인이 아우 아벨에게 "들어 나가자."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자기 아우 아벨에게 덤벼들어 그를 죽였다.
- 9 주님께서 카인에게 물으셨다.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 10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들어 보아라. 네 아우의 피가 땅바닥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 11 이제 너는 저주를 받아, 입을 벌려 네 손에서 네 아우의 피를 받아 낸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 12 네가 땅을 부쳐도, 그것이 너에게 더 이상 수확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세상을 떠돌며 해매는 신세가 될 것이다."
- 13 카인이 주님께 이르렀다. "그 형벌은 제가

깊어지기에 너무나 큼니다.

- 14 당신께서 오늘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시니, 저는 당신 앞에서 몸을 숨겨야 하고,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되어,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 15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카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나 일곱 갑절로 앙갚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카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 16 카인은 주님 앞에서 물러 나와 에덴의 동쪽 못 땅에 살았다.

카인의 자손

- 17 카인이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하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카인은 성읍 하나를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다.
- 18 에녹에게서 이랏이 태어났고, 이랏은 므후아벨을 낳고, 므후아벨은 므투시엘을 낳고, 므투시엘은 라벡을 낳았다.
- 19 라벡은 아내를 둘 얻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이고 다른 아내의 이름은 칠라였다.
- 20 아다는 아발을 낳았는데, 그는 짐짐승을 치며 천막에 사는 이들의 조상이 되었다.
- 21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비파와 피리를 다루는 모든 이의 조상이 되었다.
- 22 칠라도 투발 카인을 낳았는데, 그는 구리와 쇠로 된 온갖 도구를 만드는 이였다. 그리고 투발 카인의 누이는 나아미였다.
- 23 라벡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야, 칠라야, 내 소리를 들어라. 라벡의 아내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는 내 상처 하나에 사람 하나를, 내 생채기 하나에 아이 하나를 죽였다.
- 24 카인을 해친 자가 일곱 갑절로 앙갚음을

받는다면 라벡을 해친 자는 일흔일곱 갑절로 앙갚음을 받는다."

셋과 그의 아들

- 25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하니, 그 여자가 아들을 낳고는, "카인이 아벨을 죽여 버려, 하느님께서 그 대신 다른 자식 하나를 나에게 세워 주셨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 26 셋에게서도 아들이 태어나자, 그는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기 시작하였다.

아담의 자손

- 5¹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 하느님과 비슷하게 그를 만드셨다.
- 2 그분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하셨다.
- 3 아담은 백삼십 세 되었을 때, 자기와 비슷하게 제 모습으로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 4 셋을 낳은 다음, 아담은 팔백 년을 살면서 아들딸들을 낳았다.
- 5 아담은 모두 구백삼십 년을 살고 죽었다.
- 6 셋은 백오 세 되었을 때, 에노스를 낳았다.
- 7 에노스를 낳은 다음, 셋은 팔백칠 년을 살면서 아들딸들을 낳았다.
- 8 셋은 모두 구백십이 년을 살고 죽었다.
- 9 에노스는 구십 세 되었을 때, 케난을 낳았다.
- 10 케난을 낳은 다음, 에노스는 팔백십오 년을 살면서 아들딸들을 낳았다.
- 11 에노스는 모두 구백오 년을 살고 죽었다.
- 12 케난은 칠십 세 되었을 때, 마할랄엘을 낳았다.

- 13 미할랄엘을 낳은 다음, 케난은 팔백사십 년을 살면서 아들딸들을 낳았다.
- 14 케난은 모두 구백십 년을 살고 죽었다.
- 15 미할랄엘은 육십오 세 되었을 때, 예렛을 낳았다.
- 16 예렛을 낳은 다음, 미할랄엘은 팔백삼십 년을 살면서 아들딸들을 낳았다.
- 17 미할랄엘은 모두 팔백구십오년을 살고 죽었다.
- 18 예렛은 백육십이 세 되었을 때, 에녹을 낳았다.
- 19 에녹을 낳은 다음, 예렛은 팔백 년을 살면서 아들딸들을 낳았다.
- 20 예렛은 모두 구백육십이 년을 살고 죽었다.
- 21 에녹은 육십오 세 되었을 때, 므투셀라를 낳았다.
- 22 므투셀라를 낳은 다음, 에녹은 삼백 년을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아들딸들을 낳았다.
- 23 에녹은 모두 삼백육십오 년을 살았다.
- 24 에녹은 하느님과 함께 살다가 사라졌다. 하느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 25 므투셀라는 백팔십칠 세 되었을 때, 라멕을 낳았다.
- 26 라멕을 낳은 다음, 므투셀라는 칠백팔십이 년을 살면서 아들딸들을 낳았다.
- 27 므투셀라는 모두 구백육십구년을 살고 죽었다.
- 28 라멕은 백팔십이 세 되었을 때 아들을 낳고,
- 29 "이 아이가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수고하고 고생하는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노아라 하였다.
- 30 노아를 낳은 다음, 라멕은 오백구십오 년을 살면서 아들딸들을 낳았다.
- 31 라멕은 모두 칠백칠십칠 년을 살고 죽었다.
- 32 노아의 나이 오백 세 되었을 때,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하느님의 아들들과 가인족

- 6¹ 땅 위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 2 하느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여자들을 골라 모두 아내로 삼았다.
- 3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살덩어리일 따름이니, 나의 영이 그들 안에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들은 백이십 년밖에 살지 못한다."
- 4 하느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한자리에 들어 그들에게서 자식이 태어나던 그때와 그 뒤에도 세상에는 나팔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서 이름난 장사들이었다.

인류의 타락

- 5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악이 세상에 많아지고, 그들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 6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 7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기어 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까지 쓸어버리겠다.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구나!"
- 8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의 눈에 들었다.

노아

- 9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갔다.
- 10 그리고 노아는 아들 셋, 곧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 11 세상은 하느님 앞에 타락해 있었다.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 12 하느님께서 내려다보시니, 세상은 타락해

있었다. 장년 모든 살덩어리가 세상에서 타락한 길을 걷고 있었다.

- 13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모든 살덩어리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차다. 나 이제 그들을 세상에서 없애 버리겠다.
- 14 너는 잔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그 방주에 작은 방들을 만들고,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하여라.
- 15 너는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라. 방주의 길이는 삼백 암마, 너비는 쉰 암마, 높이는 서른 암마이다.
- 16 그 방주에 지붕을 만들고 위로 한암마 올려 마무리하여라. 문은 방주 옆쪽에 내어라. 그리고 그 방주를 아래층과 둘째 층과 셋째 층으로 만들어라.
- 17 이제 내가 세상에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 살아 숨쉬는 모든 살덩어리들을 없애 버리겠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숨지고 말 것이다.
- 18 그러나 내가 너와는 내 계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거라.
- 19 그리고 온갖 생물 가운데에서, 온갖 살덩어리 가운데에서 한 쌍씩 방주에 데리고 들어가,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한다.
- 20 새도 제 종류대로, 짐승도 제 종류대로, 땅바닥을 기어 다니는 것들도 제 종류대로, 한 쌍씩 너에게로 와서 살아남게 하여라.
- 21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온갖 양식을 가져다 쌓아 두어, 너와 그들의 양식이 되게 하여라."
- 22 노아는 그대로 하였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7 ¹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

는 네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거라. 내가 보니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 2 정결한 짐승은 모두 수놈과 암놈으로 일곱 쌍씩, 부정한 짐승은 수놈과 암놈으로 한 쌍씩 데려가거라.
- 3 하늘의 새들도 수컷과 암컷으로 일곱 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 4 이제 이레가 지나면, 내가 사십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 내가 만든 생물을 땅에서 모두 쓸어버리겠다."
- 5 노아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홍수

- 6 땅에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육백 살 되던 때였다.
- 7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다.
- 8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새와 땅바닥을 기어 다니는 모든 것이
- 9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 10 이레가 지나자 땅에 홍수가 났다.
- 11 노아가 육백 살 되던 해 둘째 달 열이렛날, 바로 그날에 큰 심연의 모든 샘구멍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 12 그리하여 사십 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가 내렸다.
- 13 바로 그날, 노아는 자기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자기 아내, 그리고 세 며느리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 14 그들과 함께 모든 들짐승이 제 종류대로, 모든 짐승이 제 종류대로, 땅을 기어 다니는 모든 것이 제 종류대로, 그리고 모든 새가 제 종류대로, 곧 온갖 날짐승과 날게 달린 것들이 들어갔다.
- 15 살아 숨쉬는 모든 살덩어리들이 둘씩 노아

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 16 이렇게,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살덩어리들의 수컷과 암컷이 들어갔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노아 뒤로 문을 닫아 주셨다.
- 17 땅에 사십 일 동안 홍수가 계속되었다. 물이 차올라 방주를 밀어 올리자 그것이 땅에서 떠올랐다.
- 18 물이 불어나면서 땅 위로 가득 차 오르자 방주는 물 위를 떠다니게 되었다.
- 19 땅에 물이 점점 더 불어나, 온 하늘 아래 높은 산들을 모두 뒤덮었다.
- 20 물은 산들을 덮고도 열다섯 암마나 더 불어났다.
- 21 그러자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살덩어리들, 새와 짐승과 들짐승과 땅에서 우글거리는 모든 것,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숨지고 말았다.
- 22 마른 땅 위에 살면서 코에 생명의 숨이 붙어 있는 것들은 모두 죽었다.
- 23 그분께서는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기어 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까지, 땅에 사는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다. 이렇게 그것들은 땅에서 쓸려 가 버렸다.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사람과 짐승만 남았다.
- 24 물은 땅 위에 백오십 일 동안 계속 불어났다.

홍수가 그쳤다

- 8 ¹ 그때에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짐승을 기억하셨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내려갔다.
- 2 심연의 샘구멍들과 하늘의 창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멎으니,
- 3 물이 땅에서 계속 빠져나가, 백오십 일이 지나자 물이 줄어들었다.
- 4 그리하여 일곱째 달 열이렛날에 방주가 아

리랏 산 위에 내려앉았다.

- 5 물은 열째 달이 될 때까지 계속 줄어, 열째 달 초하룻날에는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
- 6 사십 일이 지난 뒤에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
- 7 까마귀를 내보냈다. 까마귀는 밖으로 나가 땅에 물이 마를 때까지 왔다 갔다 하였다.
- 8 그는 또 물이 땅에서 빠졌는지 보려고 비둘기를 내보냈다.
- 9 그러나 비둘기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노아에게 돌아왔다. 온 땅에 아직도 물이 있었던 것이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아 방주 안으로 들여놓았다.
- 10 그는 이레를 더 기다리다가 다시 그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다.
- 11 저녁때가 되어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싱싱한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다. 그래서 노아는 땅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게 되었다.
- 12 노아는 이레를 더 기다려 그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자 비둘기는 그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 13 노아가 육백한 살이 되던 해, 첫째 달 초하룻날에 땅의 물이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내다보니 과연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 14 둘째 달 스무이렛날에 땅이 다 말랐다.

방주에서 나오다

- 15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셨다.
- 16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 17 모든 생물들,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살덩어리들, 곧 새와 짐승과 땅을 기어 다니는 모든 것을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 우글거리며 번식하고 번성하게 하여라."
- 18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 19 모든 짐승과 기어 다니는 모든 것, 모든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도 종류별로 방주에서 나왔다.

노아의 제사와 하나님의 다짐

- 20 노아는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들 가운데에서 번제물을 골라 그 제단 위에서 바쳤다.
- 21 주님께서 그 향내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다.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한 뜻을 품기 마련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이번에 한 것처럼 다시는 어떤 생물도 파멸시키지 않으리라.'
- 22 땅이 있는 한 썩썩리와 거두기,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으리라.'

노아와 계약을 맺으시다

- 9 ¹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 2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바닥을 기어 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이 너희의 손에 주어졌다.
- 3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풀을 주었듯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 4 다만 생명 곧 피가 들어 있는 살코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 5 나는 너희 각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나는 어떤 짐승에게나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남의 피를 흘린 사람에게 나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 6 사람의 피를 흘린 자 그자도 사람에게 의해서 피를 흘려야 하리라.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 7 너희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땅에 우글거리고 그곳에서 번성하여라."

8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9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들과 내 계약을 세운다.

10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곧 방주에서 나와, 너희와 함께 있는 새와 짐승과 땅의 모든 들짐승과 내 계약을 세운다.

11 내가 너희와 내 계약을 세우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살덩어리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는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12 하느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미래의 모든 세대를 위하여, 나와 너희,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은 이것이다.

13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둘 것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14 내가 땅 위로 구름을 모아들일 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15 나는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온갖 몸을 지닌 모든 생물 사이에 세워진 내 계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살덩어리들을 파멸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16 무지개가 구름 사이로 드러나면, 나는 그것을 보고 하느님과 땅 위에 사는, 온갖 몸을 지닌 모든 생물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계약을 기억하겠다."

17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와 땅 위에 사는 모든 살덩어리들 사이에 내가 세운 계약의 표징이다."

셈과 함과 야벳

18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다.

- 19 이 셋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온 땅으로 사람들이 퍼져 나갔다.
- 20 농부인 노아는 포도밭을 가꾸는 첫 사람이 되었다.
- 21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 자기 천막 안에 누워 있었다.
- 22 그때 가나인의 조상 함이 자기 아버지의 알몸을 보고, 밖에 있는 두 형제에게 알렸다.
- 23 셈과 야벳은 겹옷을 집어 들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알몸을 덮어 드렸다. 그들은 얼굴을 돌린 채 아버지의 알몸을 보지 않았다.
- 24 노아는 술에서 깨어나 작은아들이 한 일을 알고서,
- 25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인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제 형제들의 가장 찬한 종이 되리라."
- 26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하느님인 주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그러나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어라.
- 27 하느님께서 야벳에게 자리를 넓게 마련해 주시고 셈의 천막들 안에서 살게 해 주소서. 그러나 가나안은 야벳의 종이 되어라."
- 28 노아는 홍수가 있는 뒤에 삼백오십 년을 살았다.
- 29 노아는 모두 구백오십 년을 살고 죽었다.

노아의 자손들

- 10¹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다. 홍수가 있는 뒤에 그들에게서 자식들이 태어났다.
- 2 야벳의 아들들은 고메르, 마곡, 마다이, 아완, 투발, 메섹, 티라스이다.
- 3 고메르의 아들들은 아스쿠나즈, 리팻, 토가르마이교,
- 4 아완의 아들들은 엘리사야, 타르시스, 키팀,

도다님이다.

- 5 이들에게서 바닷가 민족들이 퍼져 나갔다. 이들이 지방과 각 언어와 씨족과 민족에 따라 본 야벳의 자손들이다.
- 6 함의 아들들은 에티오피아, 이집트, 쫓, 가나안이다.
- 7 에티오피아의 아들들은 스바, 하월라, 샤파타, 라아마, 샵트카이다. 라아마의 아들들은 세바와 드단이다.
- 8 에티오피아는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세상의 첫 장사이다.
- 9 그는 주님 앞에도 알려진 용맹한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니므롯처럼 주님 앞에도 알려진 용맹한 사냥꾼'이라는 말이 생겼다.
- 10 그의 왕국은 신아르 지방의 바벨과 에렉과 아카드와 칼케에서 시작되었다.
- 11 그는 그 지방을 떠나 아시리아로가서 니네베와 르호봇 이르와 켈라를 세우고,
- 12 니네베와 큰 성읍 켈라 사이에 레센을 세웠다.
- 13 이집트는 루드인, 아남인, 르합인, 납투인,
- 14 파트로스인, 후에 필리스티아족이 나온 카슬루인, 캅토르인을 낳았다.
- 15 가나안은 만아들 시돈, 히타이트,
- 16 여부스족, 아모리족, 기르가스족,
- 17 히위족, 아르케족, 신족,
- 18 아르왓족, 체메르족, 하맛족을 낳았다. 그 뒤에 가나안족의 씨족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나갔다.
- 19 가나안족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라르 쪽으로 가자까지 이르고, 소돔과 고모리와 아드마와 츠보임 쪽으로는 레시에 이르렀다.
- 20 이들이 씨족과 언어와 지방과 민족에 따라 본 함의 자손들이다.
- 21 셈에게서도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그는 에베르의 모든 아들들의 조상이며 야벳의 말형이다.
- 22 셈의 아들들은 엘람, 아시리아, 아르팍삿, 루

드, 아람이다.

- 23 아람의 아들들은 우츠, 홀, 게테르, 마스이다.
 24 그리고 아르팍삿은 켈라흐를 낳고 켈라흐는 에베르를 낳았다.
 25 에베르에게서는 아들 둘이 태어났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펠렉이다. 그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기 때문이다. 그 동생의 이름은 욱탄이다.
 26 욱탄은 알모닷, 켈렙, 하치르마?, 예라,
 27 하도람, 우갈, 디클라,
 28 오발, 이비미엘, 세바,
 29 오피르, 하월라, 요밥을 낳았다. 이들이 모두 욱탄의 아들들이다.
 30 그들의 거주지는 메사에서 동부 산악 지방인 스파르 쪽까지였다.
 31 이들이 씨족과 언어와 지방과 민족에 따라 본 썸의 자손들이다.
 32 이것이 민족 계보에 따라 본 노아 자손들의 씨족들이다. 홍수가 있는 뒤에, 이들에게서 민족들이 세상으로 갈라져 나갔다.

바벨 탑

- 11 ¹ 온 세상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날 말들을 쓰고 있었다.
 2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주해 오다가 신아르 지방에서 한 별관을 만나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3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 단단히 구워 내자." 그리하여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진흙 대신 역청을 쓰게 되었다.
 4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성읍을 세우고 꼭 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 이름을 날리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 땅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자."
 5 그러자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세운 성읍과 탑을 보시고
 6 말씀하셨다. "보라, 저들은 한 겨레이고 모

두 같은 말을 쓰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하려는 일의 시작일 뿐,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 7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 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자."
 8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거기에서 온 땅으로 흩어 버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읍을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9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말을 뒤섞어 놓으시고,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어 버리셨기 때문이다.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 10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셈은 나이가 백 세 되었을 때, 아르팍삿을 낳았다. 홍수가 있는 지 이 년 뒤의 일이다.
 11 아르팍삿을 낳은 뒤, 셈은 오백 년을 살면서 아들딸들을 낳았다.
 12 아르팍삿은 삼십오 세에 켈라흐를 낳았다.
 13 켈라흐를 낳은 뒤, 아르팍삿은 사백삼 년을 살면서 아들딸들을 낳았다.
 14 켈라흐는 삼십 세에 에베르를 낳았다.
 15 에베르를 낳은 뒤, 켈라흐는 사백삼 년을 살면서 아들딸들을 낳았다.
 16 에베르는 삼십사 세 되었을 때, 펠렉을 낳았다.
 17 펠렉을 낳은 뒤, 에베르는 사백삼십 년을 살면서 아들딸들을 낳았다.
 18 펠렉은 삼십 세 되었을 때, 르우를 낳았다.
 19 르우를 낳은 뒤, 펠렉은 이백구 년을 살면서 아들딸들을 낳았다.
 20 르우는 삼십이 세 되었을 때, 스룩을 낳았다.
 21 스룩을 낳은 뒤, 르우는 이백칠 년을 살면서 아들딸들을 낳았다.
 22 스룩은 삼십 세 되었을 때, 나호르를 낳았

다.

- 23 나호르를 낳은 뒤, 스룩은 이백 년을 살면서 아들딸들을 낳았다.
- 24 나호르는 이십구 세 되었을 때, 테라를 낳았다.
- 25 테라를 낳은 뒤, 나호르는 백십구 년을 살면서 아들딸들을 낳았다.
- 26 테라는 칠십 세 되었을 때, 아브람과 나호르와 하란을 낳았다.
- 27 테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테라는 아브람과 나호르와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 28 그러나 하란은 본고장인 칼데아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테라보다 먼저 죽었다.
- 29 아브람과 나호르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리이이고 나호르의 아내 이름은 밀카였다. 밀카는 하란의 딸로서 이스카와 동기간이었다.
- 30 사리이는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어서 자식이 없었다.
- 31 테라는 아들 아브람과, 아들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머느리 사리이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칼데아의 우르를 떠났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그곳에 자리 잡고 살았다.
- 32 테라는 이백오 년을 살고 하란에서 죽었다.

아브람이 부르심을 받다

- 12 ¹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거라.
- 2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 3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 4 아브람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떠났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일흔다섯 살이었다.
- 5 아브람은 아내 사리이와 조카 롯과, 자기가 모은 재물과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길을 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 6 아브람은 그 땅을 가로질러 스켄의 성소 곧 모래의 참나무가 있는 곳에 다다랐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족이 살고 있었다.
- 7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아브람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위하여 그 곳에 제단을 쌓았다.
- 8 그는 그곳을 떠나 베델 동쪽의 산악 지방으로 가서, 서쪽으로는 베델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곳에 천막을 쳤다. 그는 그곳에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불렀다.
- 9 아브람은 다시 길을 떠나 차츰차츰 네겟 쪽으로 옮겨 갔다.

이집트로 간 아브람

- 10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래서 아브람은 나그네살이하려고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 땅에 든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 11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자기 아내 사리이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아름다운 여인임을 잘 알고 있소.
- 12 이집트인들이 당신을 보면, '이 여자는 저자의 아내다.' 하면서,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 둘 것이오.
- 13 그러나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하시오. 그래서 당신 덕분에 내가 잘되고, 또 당신 덕분에 내 목숨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시오."
- 14 아브람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인들이 보니 과연 그 여자는 매우 아름다웠

다.

- 15 파라도의 대신들이 사라이를 보고 파라도 앞에서 그 여자를 칭찬하였다. 그리하여 그 여자는 파라도의 궁전으로 불러 갔다.
- 16 파라도는 사라이 때문에 아브람에게 잘해 주었다. 그래서 그는 양과 소와 수나귀, 남종과 여종, 암나귀와 낙타들을 얻게 되었다.
- 17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브람의 아내 사라이의 일로 파라도와 그 집안에 여러 가지 큰 재앙을 내리셨다.
- 18 파라도가 아브람을 불러 말하였다. "네가 도대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 그 여자가 네 아내라고 왜 나에게 알리지 않았느냐?"
- 19 어찌하여 그 여자가 네 누이라고해서, 내가 그를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떠나라."
- 20 파라도는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아브람을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함께 떠나보내게 하였다.

롯이 분하다

- 13 ¹ 아브람은 아내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거두어 롯과 함께 이집트를 떠나 네겟으로 올라갔다.
- 2 아브람은 가축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였다.
- 3 그는 네겟을 떠나 차츰차츰 베델까지, 곧 그가 처음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천막을 쳤던 곳까지 옮겨 갔다.
- 4 그곳은 그가 애초에 제단을 만들었던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람은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불렀다.
- 5 아브람과 함께 다니는 롯도 양과 소와 천막들을 가지고 있었다.
- 6 그래서 그 땅은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너무 좁았다. 그들의 재산이 너무 많아 함께 살

수가 없었던 것이다.

- 7 아브람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끼리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족과 프리즈족이 살고 있었다.
- 8 아브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한 혈육이 아니냐?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내 목자들과 너의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 9 온 땅이 네 앞에 펼쳐져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갈라져 나가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 10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들판을 바라보니, 초야르에 이르기까지 어디나 물이 넉넉하여 마치 주님의 동산과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았다. 그때는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 11 롯은 요르단의 온 들판을 제 몫으로 선택하고 동쪽으로 옮겨 갔다.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 갈라지게 되었다.
- 12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요르단 들판의 여러 성읍에서 살았다. 롯은 소돔까지 가서 천막을 쳤는데,
- 13 소돔 사람들은 악인들이었고, 주님께 큰 죄인들이었다.
- 14 롯이 아브람에게서 갈라져 나간 다음,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을, 또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 15 내가 보는 땅을 모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 16 내가 너의 후손을 땅의 먼지처럼 많게 할 것이니,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자리아 네 후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 17 자, 일어나서 이 땅을 세로로 질러가 보기도 하고 가로로 질러가 보기도 하여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18 아브람은 천막을 거두어, 헤브론에 있는 마르래의 참나무들 곁으로 가서 자리 잡고 살았다. 그는 거기에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아브람이 롯을 구하다

14 ¹ 신아르 임금 아브라멜과 엘라사르 임금 아르옥과 엘람 임금 크도틀라오메르와 고임 임금 티드알의 시대였다.

2 그들은 소돔 임금 베라, 고모라임금 비르사, 아드마 임금 신압, 츠보임 임금 세브에베르, 벨라 곧 초아르 임금과 전쟁을 벌였다.

3 이들 다섯 임금은 모두 동맹을 맺고 시뫼 골짜기 곧 '소금 바다'로 모여들었다.

4 이들은 십이 년 동안 크도틀라오메르를 섬기다가, 십삼 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5 십사 년째 되는 해에는 크도틀라오메르가 자기와 연합한 임금들과 함께 잔군해 가서, 아스타롯 카르나임에서 라파족을 치고, 함에서는 주즈족을, 사웨 키르야타임에서는 엠족을,

6 그리고 셰이르 산악 지방에서는 호르족을 쳐서 광야 언저리에 있는 엘 파란까지 이르렀다.

7 그들은 발길을 돌려 엔 미스팻 곧 카테스로 잔군해 가서, 아말렉족의 온 땅과 하치촌 타마르에 사는 아모리족까지 쳤다.

8 그러자 소돔 임금, 고모라 임금, 아드마 임금, 츠보임 임금, 벨라 곧 초아르 임금이 마주 나와, 시뫼 골짜기에서 그들에 맞서 전열을 가다듬었다.

9 엘람 임금 크도틀라오메르, 고임 임금 티드알, 신아르 임금 아브라멜, 엘라사르 임금 아르옥, 이 네 임금이 다섯 임금과 맞섰다.

10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역칭 수렁이 많아, 소돔 임금과 고모라 임금이 달아나다 거기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달아났다.

11 그러자 적군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양식을 가지고 가 버렸다.

12 그들은 또한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람의 조카 롯을 잡아가고 그의재물도 가지고 가 버렸다.

13 그곳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인 아브람에게 와서 이 일을 알렸다. 아브람은 그때 아모리족 마르래의 참나무들 곁에 머물고있었다. 마르래는 에스콜과 형제간이었고 아베르와도 형제간이었는데,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었다.

14 아브람은 자기 조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나서 훈련받은 장정 삼백십팔 명을 불러 모아 단까지 쫓아갔다.

15 아브람과 그의 종들은 여러 패로 나뉘어 밤에 그들을 치고, 다미스쿠스 북쪽에 있는 호바까지 쫓아갔다.

16 그는 모든 재물을 도로 가져오고, 그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함께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도로 데려왔다.

아브람과 멜기세덱

17 아브람이 크도틀라오메르와 그와 연합한 임금들을 치고 돌아오자, 소돔 임금이 사웨 골짜기 곧 임금 골짜기로 그를 마중 나왔다.

18 살렘 임금 멜기세덱도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사제였다.

19 그는 아브람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아브람은 복을 받으리라.

20 적들을 그대 손에 넘겨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아브람은 그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주었다.

21 소돔 임금이 아브람에게 "사람들은 나에게

들려주고 재물은 그대가 가지시오." 하고 말하자,

- 22 아브람이 소돔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신 주님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하오.
- 23 실오라기 하나라도 신발 끈 하나라도 그대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소. 그러니 그대는 '내가 아브람을 부자로 만들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오.
- 24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소.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을 빼고, 나와 함께 갔던 사람들 곧 아베르와 에스콜과 마르페만은 저희의 몫을 가지게 해 주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계약을 맺으시다

- 15 ¹ 이런 일들이 있은 뒤, 주님의 말씀이 환시 중에 아브람에게 내렸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해다. 너는 매우 큰 상을 받을 것이다."
- 2 그러자 아브람이 아뢰었다. "주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는 지식 없이 살아가는 몸, 제 집안의 상속자는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제르가 될 것입니다."
- 3 아브람이 다시 아뢰었다. "저를 보십시오. 당신께서 자식을 주지 않으셔서, 제 집의 종이 저를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 4 그러자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그가 너를 상속하지 못할 것이다. 네 몸에서 나온 아이가 너를 상속할 것이다."
- 5 그러고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였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 보아라." 그에게 또 말씀하였다.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 6 아브람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 7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였다. "나는 주님이다.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칼데아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이다."

- 8 아브람이 "주 하나님, 제가 그것을 차지하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묻자,
- 9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삼 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삼 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삼 년 된 숫양 한 마리,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와 어린 집비둘기 한 마리를 나에게 가져오너라."
- 10 그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와서 반으로 잘라, 잘린 반쪽들을 마주 보게 차려 놓았다. 그러나 날짐승들은 차리지 않았다.
- 11 맹금들이 죽은 짐승들 위로 날아들자, 아브람은 그것들을 쫓아냈다.
- 12 해 질 무렵, 아브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는데, 공포와 짙은 암흑이 그를 휩쌌다.
- 13 그때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잘 알아 두어라. 너의 후손은 남의 나라에서 나그네살이하며 사백 년 동안 그들의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 14 그러나 네 후손이 종이 되어 삼길 민족을 나는 심판하겠다. 그런 다음, 네 후손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 15 너는 평화로이 네 조상들에게로 갈 것이다. 너는 장수를 누리고 무덤에 묻힐 것이다.
- 16 그리고 그들은 사 대째가 되어서야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족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 17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연기 뿜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그 쪼개 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갔다.
- 18 그날 주님께서 아브람과 계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 강에서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준다."
- 19 이는 카인족, 코나즈족, 카드몬족,
- 20 히타이트족, 프리즈족, 라파족,
- 21 아모리족, 가나안족, 기르가스족, 그리고

여부스족이 살고 있는 땅이다."

하카르와 이스마엘

16 ¹ 아브람의 아내 사라이는 그에게 자식을 낳아 주지 못하였다. 사라이에게는 이집트인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하카르였다.

² 사라이가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여보, 주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갖지 못하게 하시니, 내 여종과 한자리에 드세요. 행여 그 아이의 몸을 빌려서라도 내가 아들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아브람은 사라이의 말을 들었다.

³ 그리하여 아브람의 아내 사라이는 자기의 이집트인 여종 하카르를 데려다, 자기 남편 아브람에게 아내로 주었다.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자리 잡은 지 십 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⁴ 그가 하카르와 한자리에 들자 그 여자가 임신하였다. 그 여자는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제 여주인을 업신여겼다.

⁵ 그래서 사라이가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렇게 부당한 일을 겪는 것은 당신 책임이에요. 내가 내 여종을 당신 품 안에 안겨 주었는데, 이 여종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업신여긴답니다. 아, 주님께서 나와 당신 사이의 시비를 가려 주셨으면!"

⁶ 아브람이 사라이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 손에 달려 있지 않소. 당신 좋을 대로 하구려." 그리하여 사라이가 하카르를 구박하니, 하카르는 사라이를 피하여 도망쳤다.

⁷ 주님의 천사가 광야에 있는 샘터에서 하카르를 만났다. 그것은 수르로 가는 길 가에 있는 샘이었다.

⁸ 그 천사가 "사라이의 여종 하카르야,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나?" 하고 묻자, 그가 대답하였다. "저의 여주인 사라이를 피

하여 도망치는 길입니다."

⁹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여라."

¹⁰ 주님의 천사가 다시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의 후손을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게 해 주겠다."

¹¹ 주님의 천사가 또 그에게 말하였다. "보라, 너는 임신한 몸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내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다."

¹² 그는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되리라. 그는 모든 이를 치려고 손을 들고 모든 이를 그를 치려고 손을 들리라. 그는 자기의 모든 형제들에게 맞서 혼자 살아가리라."

¹³ 하카르는 "내가 그분을 뵈었는데 아직도 살아 있는가?" 하면서, 자기에겐 말씀하신 주님의 이름을 "당신은 '저를 돌보시는 하느님'입니다."라고 하였다.

¹⁴ 그리하여 그 우물을 브에르 라하이 로이라 하였다. 그것은 카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다.

¹⁵ 하카르는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아브람은 하카르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다.

¹⁶ 하카르가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아 줄 때, 아브람의 나이는 여든여섯 살이었다.

계약과 할례

17 ¹ 아브람의 나이가 아흔이홉 살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가며 흠 없는 이가 되어라.

² 나는 나와 너 사이에 계약을 세우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³ 아브람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하느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⁴ "나를 보이라. 나와 맺는 내계약은 이것이

- 다.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 5 너는 더 이상 아브람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 6 나는 내가 매우 많은 자손을 낳아, 여러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서 임금들도 나올 것이다.
- 7 나는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네 뒤에 오는 후손들 사이에 대대로 내 계약을 영원한 계약으로 세워, 너와 네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하느님이 되어 주겠다.
- 8 나는 내가 나그네살이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전체를 너와 네 뒤에오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고, 그들에게 하느님이 되어 주겠다."
- 9 하느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계약을 지켜야 한다. 너와 네 뒤에 오는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한다.
- 10 너희가 지켜야 하는 계약, 곧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네 뒤에 오는 후손들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은 이것이다. 곧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 것이다.
- 11 너희는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운 계약의 표징이다.
- 12 대대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난 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씨종과, 너의 후손이 아닌 외국인에게서 돈으로 산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 13 네 씨종과 돈으로 산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내 계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계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 14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지 않은 자, 그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 나가야 한다. 그는 내 계약을 깨뜨린 자다."
- 15 하느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라이를 더 이상 사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마라. 사라가 그의 이름이다.
- 16 나는 그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서 아들을 얻게 해 주겠다. 나는 복을 내려 사라가 여러 민족이 되게 하겠다. 여러 나라의 임금들도 그에게서 나올 것이다."
- 17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나이 백 살 된 자에게서 아이가 태어난다고? 그리고 아흔 살이 된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던 말인가!'
- 18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이스마엘이나 당신 앞에서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뢰자,
- 19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사악이라 하여라. 나는 그의 뒤에 오는 후손들을 위하여 그와 나의 계약을 영원한 계약으로 세우겠다.
- 20 이스마엘을 위한 너의 소원도 들어 주겠다. 나는 그에게 복을 내리고, 그가 자식을 많이 낳아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는 열두 족장을 낳고, 나는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 21 그러나 나의 이 계약은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 줄 이사악과 세우겠다."
- 22 하느님께서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 23 아브라함은 그날로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씨종들과 돈으로 산 종들, 곧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들 가운데에서 남자들을 모두 데려다가,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대로 포피를 베어 할례를 베풀었다.
- 24 아브라함이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아흔이홉 살이었고,

- 25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열세 살이었다.
- 26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다.
- 27 그리고 집안의 모든 남자들, 곧 씨종들과 외국인에게서 돈으로 산 종들도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다

- 18 ¹ 주님께서서 마므레의 참나무들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한창 더운 대낮에 천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 ² 그가 눈을 들어 보니 자기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천막 어귀에서 달려 나가 그들을 맞으면서 땅에 엎드려
- ³ 말하였다. "나리, 제가 나리 눈에 든다면, 부디 이 종을 그냥 지나치려 마십시오.
- 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시어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 ⁵ 제가 빵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의 걸을 지나게 되셨으니, 원기를 돋우신 다음에 길을 떠나십시오." 그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 ⁶ 아브라함은 급히 천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 반죽하여 빵을 구우시오."
- ⁷ 그러고서 아브라함이 소 떼가 있는 데로 달려가 살이 부드럽고 좋은 송이치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서둘러 잡아 요리하였다.
- ⁸ 아브라함은 영긴 젓과 우유와 요리한 송이치 고기를 가져다 그들 앞에 차려 놓았다. 그들이 먹는 동안 그는 나무 아래에 서서 그들을 시종들었다.
- ⁹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댁의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가 "천막

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¹⁰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이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터인데, 그때에는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등 뒤 천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듣고 있었다.
- ¹¹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 많은 노인들로서, 사라는 여인들에게 있는 일조차 그쳐 있었다.
- ¹²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늙어 버린 나이에 무슨 육정이 일어나라? 내 주인도 이미 늙은 몸인데.'
- ¹³ 그러자 주님께서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는 웃으면서, '내가 이미 늙었는데, 정말로 아이를 낳을 수 있으랴?' 하느냐?"
- ¹⁴ 너무 어려워 주님이 못 할 일이라도 있다는 말이나? 내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돌아올 터인데, 그때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 ¹⁵ 사라가 두려운 나머지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부인하자, 그분께서 "아니다. 너는 웃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발다

- ¹⁶ 그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 소돔이내려다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려고 함께 걸어들었다.
- ¹⁷ 그때에 주님께서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 ¹⁸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민족이 되고,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 ¹⁹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식들과 뒤에 올 자기 집안에 명령을 내려 그들이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여 주님의 길을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하여 이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이루려고 한

- 것이다."
- 20 이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원성이 너무나 크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무겁구나."
- 21 이제 내가 내려가서, 저들 모두가 저지른 짓이 나에게 들려온 그 원성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아야겠다."
- 22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몸을 돌려소돔으로 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 23 아브라함이 다가서서 말씀드렸다. "진정 의인을 죄인과 함께 끌어버리시겠습니까?"
- 24 혹시 그 성읍 안에 의인이 한 명 있다면, 그래도 끌어버리시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의인 한 명 때문이라도 그곳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 25 의인을 죄인과 함께 죽이시어 의인이나 죄인이나 똑같이 되게 하시는 것,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에게서는 공정을 실천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 26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 성읍 안에서 내가 의인 한 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 그곳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
- 27 아브라함이 다시 말씀드렸다. "저는 비록 먼지와 재에 지나지 않는 몸이지만,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 28 혹시 의인 한 명에서 다섯이 모자란다면, 그 다섯 명 때문에 온 성읍을 파멸시키시겠습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곳에서 마흔다섯 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파멸시키지 않겠다."
- 29 아브라함이 또다시 그분께 아뢰었다. "혹시 그곳에서 마흔 명을 찾을 수 있다면 ……?"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마흔 명을 보아서 내가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

다."

- 30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아뢰다고 주님께서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서른 명을 찾을 수 있다면 ……?"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곳에서 서른 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
- 31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혹시 그곳에서 스무 명을 찾을 수 있다면 ……?"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스무 명을 보아서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 32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다시 한 번 아뢰다고 주님께서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열 명을 찾을 수 있다면 ……?"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열 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 33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자리를 뜨셨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소돔의 멸망과 롯의 구원

- 19¹ 저녁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그때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롯이 그들을 보자 일어나 맞으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 2 말하였다. "나리들, 부디 제 집으로 드시어 밤을 지내십시오. 발도 씻고 쉬신 뒤에,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십시오." 그러자 그들은 "아니오. 광장에서 밤을 지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 3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하자, 그들은 롯의 집에 들기로 하고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큰 상을 차리고 누룩 안 든 빵을 구워 주자 그들이 먹었다.
- 4 그들이 아직 잠자리에 들기 전이었다. 성읍의 사내들 곧 소돔의 사내들이 젊음이부터 늙음이까지 온통 사방에서 몰려와 그 집을

- 에워쌌다.
- 5 그리고서는 롯을 불러 말하였다. "오늘 밤 당신 집에 온 사람들 어디 있소? 우리한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들과 재미 좀 봐야겠소"
- 6 롯이 문 밖으로 나가 등 뒤로문을 닫고
- 7 말하였다. "형제들, 제발 나쁜 짓 하지들 마시오
- 8 자,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이 둘 있소 그 아이들을 당신들에게 내어 줄 터이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다만 내 지붕 밑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니, 이들에게는 아무 짓도 말아 주시오."
- 9 그러나 그들은 "비켜라!" 하면서 "이자는 나그네살이하려고 이곳에 온 주께 재판관 행세를 하려 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저자들 보다 너를 더 고약하게 다루어야겠다." 하고는, 그 사람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문을 부수려 하였다.
- 10 그때에 그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니 다음 문을 닫았다.
- 11 그리고 그 집 문 앞에 있는 사내들을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눈이 멀게 하여, 문을 찾지 못하게 만들었다.
- 12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은 롯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가족들이 여기에 또 있소? 사위들과 그대의 아들딸들, 그리고 성읍에 있는 그대의 가족을 모두 데리고 이곳에서 나가시오
- 13 우리는 지금 이곳을 파멸시키려 하오, 저들에 대한 원성이 주님 앞에 너무나 크기 때문이요, 주님께서 소돔을 파멸시키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소."
- 14 롯은 밖으로 나가 장차 자기 딸들을 데려갈 사위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곳을 빠져 나가게. 주님께서 곧 이 성읍을 파멸시키실 것이네." 그러나 사위들은 롯이 우스갯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였다.
- 15 동이 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하였다. "자, 이 성읍에 벌이 내릴 때 함께 휩쓸리지 않으려거든, 그대의 아내와 여기에 있는 두 딸을 데리고 어서 가시오."
- 16 그런데도 롯이 망설이자 그 사람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성읍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주님께서 롯에게 재비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 17 그들은 롯의 가족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말하였다. "달이나 목숨을 구하시오, 뒤를 돌아다보아서는 안 되오, 이 들판 어디에서도 멈추어 서지 마시오, 휩쓸려 가지 않으려거든 산으로 달아나시오"
- 18 그러나 롯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리,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 19 이 종이 나리 눈에 들어, 나리께서는 이제껏 저에게 하신 것처럼 큰 은혜를 베푸시어 저의 목숨을 살려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앙에 휩쓸려 죽을까 두려워, 저 산으로는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 20 보십시오, 저 성읍은 가까워달아날 만하고 자그마한 곳입니다. 제발 그리로 달아나게 해 주십시오, 자그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목숨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 21 그러자 그가 롯에게 말하였다. "종소, 내가 이번에도 그대의 얼굴을 보아 그대가 말하는 저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겠소
- 22 서둘러 그곳으로 달아나시오, 그대가 그곳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내가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그리하여 그 성읍을 초아르라 하였다.
- 23 롯이 초아르에 다다르자 해가 땅 위로 솟아올랐다.
- 24 그때 주님께서 당신이 계신 곳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향과 불을 퍼부으셨다.
- 25 그리하여 그 성읍들과 온 들판과 그 성읍의 모든 주민, 그리고 땅 위에 자란 것들을 모두 멸망시키셨다.

- 26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보다 조금 기둥이 되어 버렸다.
- 27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가 주님 앞에서 있던 곳으로 가서
- 28 소돔과 고모라와 그 들간의 온평을 내려다 보니, 마치 가뭄에서 나는 연기처럼 그 땅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 29 하느님께서 그 들간의 성읍들을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롯이 살고 있던 성읍들을 멸망시키실 때, 롯을 그 멸망의 한가운데에서 내보내 주셨다.

모압족과 임문족의 기원

- 30 롯은 초아르를 떠나 산으로 올라가서 자기의 두 딸과 함께 살았다. 초아르에서 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롯은 자기의 두 딸과 함께 굴속에서 살았다.
- 31 그때 맏딸이 작은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풍속대로 우리에게 올 남자가 없구나.
- 32 자, 아버지에게 술을 드시게 하고 나서,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누워 그분에게서 자손을 얻자."
- 33 그날 밤에 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들게 한 다음, 맏딸이 가서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그러나 그는 딸이 누웠다 일어난 것을 몰랐다.
- 34 이튿날, 맏딸이 작은딸에게 말하였다. "간밤에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오늘 밤에도 아버지에게 술을 드시게 하자. 그리고 내가 가서 아버지와 함께 누워라. 그렇게 해서 그분에게서 자손을 얻자."
- 35 그래서 그날 밤에도 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들게 한 다음, 이번에는 작은딸이 일어나 가서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그러나 그는 딸이 누웠다 일어난 것을 몰랐다.
- 36 이렇게 해서 롯의 두 딸이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 37 맏딸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그는 오늘날까지 이어 오는 모압족의 조상이다.
- 38 작은딸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벤 암미라 하였으니, 그는 오늘날까지 이어 오는 임문인들의 조상이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 20¹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 내겔 땅으로 옮겨 가서, 카테스와 수르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에서 나그네살이 하게 되었을 때,
- 2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리를 자기 누이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라르 임금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리를 데려갔다.
- 3 그날 밤 꿈에, 하느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네가 데려온 여자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그 여자는 임자가 있는 몸이다."
- 4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자를 가까이하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당신께서는 죄 없는 백성도 죽이십니까?"
- 5 아브라함 자신이 저에게 '이 여자는 제 누이입니다.' 하였고, 그 여자 또한 스스로 '그는 제 오라비입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흠 없는 마음과 결백한 손으로 이 일을 하였습니다."
- 6 그러자 하느님께서 꿈에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네가 흠 없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한 줄 안다. 네가 나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 준 이가 바로 나다. 네가 그 여자를 건드리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 7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사람은 예언자이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만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딸린 자들이 모두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을 알아 두어라."

- 8 아비멜렉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종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서, 그들에게 이 일을 날 낚이 들려주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였다.
- 9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어찌서이런 짓을 하였소? 내가 그대에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대는 나와 내 왕국에 이렇게 큰 죄를 끌어들이셨소? 그대는 해서는 안 될 일을 나에게 저질렀소."
- 10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물었다. "그대는 도대체 어찌자고 이런 일을 저질렀소?"
- 11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는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이라고는 도무지 없어서,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다.' 하고 내가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 12 더구나 그 여자는 정말 나의 누이입니다.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달라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 13 하느님께서 내게 아버지 집을 떠나 떠돌아 다니게 하셨을 때, 나는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에게 당부하는데,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내가 당신의 오라비라고 말하십시오.' 하였습시다."
- 14 그러자 아비멜렉은 양파 소, 남종과 여종들을 데려다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돌려주었다.
- 15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보시오, 내 땅이 그대 앞에 펼쳐져 있으니 그대 마음에 드는 곳에 자리를 잡으시오."
- 16 그리고 사라에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의 오라비니에게 은전 천냥을 주었소. 보시오, 그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모든 이들 앞에서 그대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이요, 이로써 그대는 모든 면에서 결백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소."
- 17 이에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기도하자, 하느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

종들의 병을 고쳐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었다.

- 18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단아 버리셨던 것이다.

이사악이 태어난다

- 21¹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들보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라에게 해 주시니,
- 2 사라가 임신하여,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 주신 바로 그때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 3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 준 아들의 이름을 이사악이라 하였다.
- 4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자기 아들 이사악이 태어난 지 여덟레 만에 할례를 베풀었다.
- 5 아브라함에게서 아들 이사악이 태어났을 때, 그의 나이는 백 살이었다.
- 6 사라가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가져다주셨구나.이 소식을 듣는 이마다 나한테 기쁘게 웃어 주겠지."
- 7 그리고 또 말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먹이리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감히 말할 수 있었으랴? 그렇지만 내가 늙은 그에게 아들을 낳아 주지 않았는가!"

하근과 이스마엘

- 8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사악이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 9 그런데 사라는 이집트 여자 하근과 아브라함에게 낳아 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사악과 함께 노는 것을 보고,
- 10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세요. 저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사악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는 없어

요 "

- 11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이 일이 무척이나 언짢았다.
- 1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와 네 여종 때문에 언짢아 하지 마라. 사라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다 들어 주어라. 이시악을 통하여 후손들이 너의 이름을 물려받을 것이다.
- 13 그러나 그 여종의 아들도 네 자식이니, 내가 그도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 14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 하가르에게 주어 어깨에 메게 하고는, 그를 아기와 함께 내보냈다. 길을 나선 하가르는 브에르 세바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다.
- 15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지자 그 여자는 아기를 담בל 밑으로 내던져 버리고는,
- 16 활 한 비방 거리만큼 걸어가서 아기를 마주하고 주저앉았다. '아기가 죽어 가는 꼴을 어찌 보라!'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그는 아기를 마주하고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 17 하나님께서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가르를 부르며 말하였다. "하가르야, 어찌 된 일이나?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저기에 있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 18 일어나 가서 아이를 들어 올려 네 손으로 꼭 붙들어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 19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하가르의 눈을 열어 주시니, 그가 우물을 보게 되었다. 그는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고 아이에게 물을 먹였다.
- 20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 그는 자라서 광야에 살며 활잡이가 되었다.
- 21 그는 파란 광야에서 살았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

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계약

- 22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수인 피콜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는 그대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계시는구려.
- 23 그러니 이제 그대는 나와 내 자식들과 내 후손들을 속이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대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나와 그리고 그대가 나그네살이하는 이 땅을 그렇게 대해 줄 것을 여기에서 하느님을 두고 나에게 맹세해 주시오."
- 24 아브라함은 "맹세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 25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은 우물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따졌다.
- 26 아비멜렉이 대답하였다. "누가 그런 짓을 하였는지 나는 모르오. 그대도 나에게 말해 준 적이 없지 않소? 나는 오늘까지 그런 말을 들어 보지 못하였소."
- 27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들과 양들을 데려다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은 계약을 맺었다.
- 28 아브라함이 양 떼에서 어린 암양일곱 마리를 따로 떼어 놓자,
- 29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어린 암양 일곱 마리를 따로 떼어 놓은 까닭이 무엇이었요?"
- 30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 어린 암양 일곱 마리를 내 손에서 받으시고, 내가 이 우물을 뚫다는 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 31 이렇게 그 두 사람이 거기에서 맹세를 했다고 하여, 그곳을 브에르 세바라 하였다.
- 32 그들이 이렇게 브에르 세바에서 계약을 맺은 다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수인 피콜은 일어나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으로 돌아갔다.

- 33 아브라함은 브에르 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한 하느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불렀다.
- 34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에서 나그네살이하였다.

아브라함이 이사악을 제물로 바치다

- 22** ¹ 이런 일들이 있는 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²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사악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져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터 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 ³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엮고 두 하인과 아들 이사악을 데리고서는, 번제물을 사를 장작을 켜 뒤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길을 떠났다.
- ⁴ 사흘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자, 멀리 있는 그곳을 볼 수 있었다.
- ⁵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나와 이 아이는 저리로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 ⁶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번제물을 사를 장작을 가져다 아들 이사악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불과 칼을 들었다. 그렇게 들은 함께 걸어갔다.
- ⁷ 이사악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고 부르자, 그가 "에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사악이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자,
- ⁸ 아브라함이 "에야,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 하고 대답하였다. 들은 계속 함께 걸어갔다.
- ⁹ 그들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았다. 그리고 나서 아들 이사악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 ¹⁰ 아브라함이 손을 뻗쳐 칼을 잡고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였다.
- ¹¹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 ¹²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 ¹³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덤불에 꿩이 걸린 숫양 한 마리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숫양을 끌고와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 ¹⁴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마련된다.'고들 한다.
- ¹⁵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 ¹⁶ 말하였다. "나는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일을 하였으니, 곧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 ¹⁷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 주겠다. 너의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 ¹⁸ 내가 너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 ¹⁹ 아브라함은 하인들에게 돌아왔다. 그들은 함께 브에르 세바를 향하여 길을 떠났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브에르 세바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의 아우 나호르의 자손

- 20 이런 일들이 있은 뒤, 밀카도 아브라함의 아우 나호르에게 아들들을 낳아 주었다는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다.
- 21 곧 맏아들 우즈, 그의 아우 부즈, 아람의 아버지인 크무엘,
- 22 그리고 케셋, 하조, 팔다스, 이들랍, 브투엘이다.
- 23 이 브투엘이 레베카를 낳았다. 이 여덟을 밀카가 아브라함의 아우 나호르에게 낳아 주었다.
- 24 나호르에게는 르우마라는 이름을 가진 소실이 있었는데, 그도 테바, 가람, 타하스, 마이카를 낳았다.

사라의 죽음과 막벨라의 무덤

- 23¹ 사라는 백이십칠 년을 살았다. 이것 이 사라가 산 햇수이다.
- 2 사라는 가나안 땅 키랴트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은 빈소에 들어가 사라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피 울었다.
- 3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앞에서 물러 나와 히타이트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 4 "나는 이방인이며 거류민으로 여러분 곁에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내 아내를 내어다 안장할 수 있게, 여러분 곁에 있는 묘지를 양도해 주십시오."
- 5 그러자 히타이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 6 "나리, 들으십시오. 나리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채후이십니다. 우리 무덤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 고인을 안장하십시오. 나리께서 고인을 모시겠다는데, 그것이 자기 무덤이라고 해서 나리께 거절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 7 아브라함은 일어나 그곳 주민들 곧 히타이트 사람들에게 큰절을 하고,
- 8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죽은 내 아내를 내어다 안장할 수 있게 기꺼이 허락해 주신다면, 내 말을 듣고 초하르의 아들 에프론에게 간청하여,
- 9 그가 자기의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동굴을 나에게 양도하게 해 주십시오. 값은 드릴 만큼 다 드릴 터이니,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나에게 묘지로 양도하게 해 주십시오."
- 10 그때 에프론은 히타이트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이 히타이트 사람 에프론은 성문에 나와 있는 히타이트 사람들이 모두 듣는 데에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 11 "나리, 아닙니다. 제 말을 들어 보십시오. 제가 그 밭을 나리께 그냥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동굴도 드리겠습니다. 내 겨레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드릴 터이니, 거기에다 고인을 안장하십시오."
- 12 아브라함은 그곳 주민들 앞에 큰절을 하고,
- 13 그곳 주민들이 듣는 데에서 에프론에게 말하였다. "제발 그대가 나의 말을 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밭 값을 드릴 터이니 받아 주십시오. 그래야 죽은 내 아내를 거기에 안장할 수 있겠습니까."
- 14 그러자 에프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 15 "나리, 제 말을 들어 보십시오. 은 사백 세켈짜리 땅이 저와 나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고인을 안장하십시오."
- 16 아브라함은 에프론의 말에 따라, 히타이트 사람들이 듣는 데에서 에프론이 밝힌 가격은 사백 세켈을 상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무게로 달아 내어 주었다.
- 17 그리하여 마므레 맞은쪽 막벨라에 있는 에프론의 밭,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동굴과 그 밭 사방 경계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 18 성문에 나와 있는 히타이트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재산이 되었다.

- 19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마르레, 곧 헤브론 맞은쪽 막벨라 밭에 있는 동굴에 자기 아내 사리를 안장하였다.
- 20 이렇게 하여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동굴이 히타이트 사람들에게서 아브라함에게로 넘어와 그의 묘지가 되었다.

이사악과 레베카의 혼인

24

- 1 아브라함은 이제 늙고 나이가 무척 많았다. 주님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셨다.
- 2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말아보는, 집안의 가장 늙은 중에게 말하였다. "네 손을 내 살에 넣어라.
- 3 나는 네가 하늘의 하느님이시며 땅의 하느님이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겠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족의 딸들 가운데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오지 않고,
- 4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사악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하여라."
- 5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드님을 나리께서 떠나오신 그 땅으로 데려가야 합니까?"
- 6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너는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 7 하늘의 하느님이신 주님, 곧 나를 아버지의 집과 내 본고장에서 데려오시고, '내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맹세하신 그분께서 당신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시어, 내가 그곳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올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 8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맹세에서 풀리게 된다. 다만

내 아들만은 그곳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 9 그래서 그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살에 제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다.
- 10 그 종은 주인의 낙타 떼에서 열 마리를 데리고, 또 주인의 온갖 선물을 가지고 나호르가 사는 성읍인 아람 나하리힘으로 길을 떠났다.
- 11 그는 여자들이 물을 길으러 나오는 시간인 저녁때에, 성 밖 우물 곁에 낙타들을 쉬게 하였다.
- 12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신 주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애를 베풀어 주십시오.
- 13 이제 제가 샘물 곁에서 있으면, 성읍 주민의 딸들이 물을 길으러 나올 것입니다.
- 14 제가 '그대의 물동이를 기울여서, 내가 물을 마시게 해 주오.' 하고 청할 때,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바로 그 소녀가, 당신께서 당신의 종 이사악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에게 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당신께서 제 주인에게 자애를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 15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아우 나호르의 아내인 밀카의 아들 브투엘에게서 태어난 레베카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나왔다.
- 16 이 소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주 예쁜 처녀였다. 그가 샘으로 내려가서 물동이를 채워 올라오자,
- 17 그 종이 그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그대의 물동이에서 물을 좀 들이키게 해 주오."
- 18 그러자 그가 "나리, 드십시오."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들고서는 그 중에게 물을 마시게 해 주었다.
- 19 이렇게 그 중에게 물을 마시게 해 준 다음,

레베카는 "낙타들도 물을 다 마실 때까지 계속 길어다 주겠습니다." 하면서,
 20 서둘러 물동이에 남아 있는 물을물통에 붓고는, 다시 물을 길으러 우물로 달려갔다. 이렇게 레베카는 그 낙타들에게 모두 물을 길어다 주었다.
 21 그러는 동안 그 남자는 주님께서 자기 여행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려는지 알아보려고, 그 처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22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고 나자, 그 남자는 무게가 반 세켈 나가는 금 코걸이 하나를 그 처녀의 코에 걸어 주고, 무게가 금 열 세켈 나가는 팔찌 두개를 팔에 끼워 주고는
 23 말하였다. "그대가 누구의 따님인지 나에게 말해 주오. 그대의 아버지 집에 우리가 밤을 지낼 수 있는 자리가 있겠소?"
 24 레베카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말카가 나호르에게 낳아 준 아들 브투엘의 딸입니다."
 25 그리고 그에게 또 말하였다. "저희 집에는 풀과 여물도 낙낙하고, 밤을 지낼 수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26 그는 무릎을 꿇어 주님께 경배하고 나서
 27 말하였다. "나의 주인에게 당신 자애와 신의를 거절하지 않으셨으니,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신 주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이 몸을 내 주인의 아우 집에 이르는 길로 이끌어 주셨구나."
 28 그 소녀는 달려가서 어머니 집 식구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
 29 레베카에게는 라반이라는 오빠가 있었는데, 라반은 샘에 있는 그 사람에게 뛰어난 자였다.
 30 그는 코걸이와 누이의 팔에 걸려있는 팔찌를 보고, 또 "그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누이 레베카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남자에게 간 것이다. 가서 보니 그는 아직도 샘물 옆 낙타 곁에 서

있었다.

- 31 라반이 말하였다. "주님께 복 받으신 분이시여, 들어오십시오. 왜 밖에 서 계십니까? 제가 집을 치워 놓았고 낙타들을 들 곳도 마련하였습니다."
 32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오자, 라반은 낙타들의 짐을 부리고 낙타들에게 풀과 여물을 주었으며, 그와 동행자들에게 말 셋을 물을 주었다.
 33 그리고 그 사람 앞에 먹을 것을 차려 놓았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저의 불일을 여쭙기 전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자, 라반이 "말씀하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34 그 사람이 말하였다.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35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복을 내리시어, 그분은 큰 부자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에게 양과 소, 은과 금,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들을 주셨습니다.
 36 제 주인의 부인인 사라가 늘그막에 제 주인에게 아들을 낳아 주셨는데,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37 저의 주인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맹세하게 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족의 딸들 가운데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오지 말고,
 38 내 아버지의 집안,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와야 한다.'
 39 그래서 제가 주인에게 '그 여자가 저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고 이뤄졌더니,
 40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시어 네 여행의 목적을 이루어 주셔서, 너는 내 친족, 내 아버지의 집안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올 수 있을 것이다.'
 41 그러니 내가 내 친족에게 가기만하면 너는

나에게 한 서약에서 풀려 난다. 그들이 여지를 내주지 않아도 너는 나에게 한 서약에서 풀려난다.'

42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샘터에 다다라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신 주님, 제가 하고 있는 여행의 목적을 제발 이루어 주십시오'

43 이제 내가 샘물 곁에서 있다가 처녀가 물을 길으러 나오면 그에게, '그대의 물동이에서 물을 좀 마시게해 주오' 하고 말하겠습니다.

44 만일 그가 저에게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길어다 주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바로 그가 주님께서 제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에게 해 주십시오.'

45 제가 마음속으로 말을 마치기도 전에, 레베카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나와 샘터로 내려가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해 주오.' 하였더니,

46 서둘러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려놓고,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제가 물을 먹이겠습니다.'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였습니다.

47 제가 그에게 '그대는 누구의 따님이요?' 하고 물었더니, '밀카가 나호르에게 낳아 준 아들 브투엘의 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그의 코에 코걸이를 걸어 주고 두 팔에는 팔찌를 끼워 주고 나서,

48 무릎을 꿇어 주님께 경배하고 제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신 주님을 찬미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제 주인의 아우님 딸을 주인 아들의 아내로 얻을 수 있도록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49 이제 여러분께서 저의 주인에게 자애와 신의를 베풀어 주시려거든, 그렇다고 제게 알려 주십시오.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제게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가겠습니다."

50 그러자 라반과 브투엘이 대답하였다. "이 일은 주님께에서 비롯된 것이니, 우리가 당신에게 나쁘다 좋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51 레베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 주인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

52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53 그리고 그 종은 금은 꿨들과 옷가지를 꺼내어 레베카에게 주고, 또 레베카의 오빠와 어머니에게도 값진 선물을 주었다.

54 종과 그의 일행은 먹고 마신 뒤 그곳에서 밤을 지냈다. 이튿날 아침, 모두 일어났을 때에 그 종이, "제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자,

55 레베카의 오빠와 어머니는 "저 애를 다만 며칠이라도, 일흔일이라도 우리와 더 머물게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가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56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저를 붙잡지 마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제 여행의 목적을 이루어 주셨으니, 주인에게 갈 수 있게 저를 보내 주십시오."

57 그래서 그들이 "그 애를 불러다가 직접 물어봅시다." 하고는,

58 레베카를 불러 그에게 "이 사람과 같이 가겠느냐?" 하고 묻자, 그가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59 그리하여 그들은 누이 레베카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그 일행과 함께 보내면서,

60 레베카에게 축복하였다. "우리 누이야 너는 수천만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후손은 적들의 성문을 차지하여라."

61 레베카는 몸종들과 함께 일어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나섰다. 이리하여 그 종

은 레베카를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되었다.

- 62 그때 이삭은 브에르 라하이 로이를 떠나, 네겟 땅에 살고 있었다.
- 63 저녁 무렵 이삭이 들에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눈을 들어 보니, 낙타 떼가 오고 있었다.
- 64 레베카도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서는 얼른 낙타에서 내려,
- 65 그 종에게 물었다. "들을 가로질러 우리 쪽으로 오는 저 남자는 누구입니까?" 그 종이 "그분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레베카는 너울을 꺼내어 얼굴을 가렸다.
- 66 그 종은 이삭에게 자기가 한 모든 일을 이야기하였다.
- 67 이삭은 레베카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천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 들었다. 이삭은 레베카를 사랑하였다. 이로써 이삭은 어머니를 여인 뒤에 위로로 받게 되었다.

크투라에게서 얻은 아브라함의 자손

- 25** 1 아브라함은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의 이름은 크투라였다.
- 2 그는 아브라함에게 지므란, 욱산, 므단, 미디안, 이스박, 수어를 낳아 주었다.
- 3 욱산은 세비와 드단을 낳았다. 드단의 자손들은 이수르인, 르투스인, 르움인이다.
- 4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파, 에페르, 하녹, 아비다, 엘다이다. 이들 모두가 크투라의 자손들이다.
- 5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물려주었다.
- 6 아브라함은 소실들이 자기에게 낳아 준 아들들에게도 한몫씩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그들을 자기 아들 이삭에게서 떼어 동쪽 곧 동방의 땅으로 내보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다

- 7 아브라함이 산 헷수는 백칠십오 년이다.
- 8 아브라함은 장수를 누린 노인으로, 한껏 살다가 숨을 거두고 죽어 선조들 곁으로 갔다.
- 9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동굴에 안장하였다. 이 굴은 마브레 맞은쪽, 히타이트 사람 초하르의 아들 에프론의 밭에 있었다.
- 10 이 밭은 아브라함이 히타이트 사람들에게서 사들인 것으로, 바로 이곳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안장되었다.
- 11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내리셨다. 이삭은 브에르 라하이 로이에 자리 잡고 살았다.

이스마엘의 족보

- 12 사라의 여종인 이집트 여자 하카르가 아브라함에게 낳아 준 아들, 곧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 13 태어난 순서에 따르면, 이스마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곧 이스마엘의 맏아들 느바웃, 케다르, 앳브엘, 밍삼,
- 14 미스마, 두마, 마짜,
- 15 하닷, 테마, 여투르, 나피스, 케드미이다.
- 16 이들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이고, 또 마을과 고을에 따라 본 그들의 이름으로서, 열두 부족의 족장들이다.
- 17 이스마엘이 산 헷수는 백삼십칠 년이다. 그는 숨을 거두고 죽어 선조들 곁으로 갔다.
- 18 그들은 하월라에서 수르에 이르는 지방에 살았다. 수르는 이집트 맞은쪽, 아시리아로 가는 곳에 있다. 이렇게 그는 자기의 모든 형제들에게 맞서 혼자 떨어져 살았다.

에שו와 아돔이 태어나다

- 19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역사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 20 이삭은 나이 마흔에, 파탄 아람에 사는

아람 사람 브투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 라반의 누이인 레베카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 21 이사악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그의 아내 레베카가 임신하게 되었다.
- 22 그런데 아기들이 속에서 서로 부딪쳐 대자, 레베카는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주님께 문의하러 갔다.
- 23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였다. "너의 배 속에는 두 민족이 들어 있다. 두 겨레가 네 몸에서 나와 갈라지리라. 한 겨레가 다른 겨레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삼기리라."
- 24 달이 차서 몸 풀 때가 되고 보니, 레베카의 배 속에는 쌍둥이가 들어 있었다.
- 25 선둥이가 나왔는데 색깔이 붉고 온몸이 털투성이라, 그의 이름을 에사우라 하였다.
- 26 이어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사우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있어,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사악의 나이는 예순 살이었다.
- 27 이 아이들이 자라서, 에사우는썩썩 좋은 사냥꾼 곧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온순한 사람으로 천막에서 살았다.
- 28 이사악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여 에사우를 사랑하였고, 레베카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에사우가 맏아들 권리를 팔다

- 29 하루는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다. 그때 에사우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왔다.
- 30 에사우가 야곱에게 "허기지구나. 저 붉은 것, 그 붉은 것 좀 먹게 해 다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 하였다.
- 31 그러나 야곱은 "먼저 형의 맏아들 권리를 내게 파시오." 하고 말하였다.
- 32 그러자 에사우가 대답하였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맏아들 권리가 내게 무슨 소용이겠느냐?"

- 33 그래서 야곱이 "먼저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하자, 에사우는 맹세를 하고 자기의 맏아들 권리를 야곱에게 팔아넘겼다.
- 34 그러자 야곱이 빵과 불콩죽을 에사우에게 주었다. 그는 먹고 마시고서는 일어나 나갔다. 이렇게 에사우는 맏아들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사악과 아비멜렉

- 26 ¹ 일찍이 아브라함 시대에 기근이 든 적이 있었는데, 그 땅에 또 기근이 들었다. 그래서 이사악은 그라르로 필리스티아 임금 아비멜렉에게 갔다.
- 2 주님께서 이사악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이 집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 주는 땅에 자리 잡아라.
- 3 너는 이 땅에서 나그네살이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에게 복을 내려 주겠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고,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루어 주겠다.
- 4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불어나게 하고, 네 후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겠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 5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 나의 규정과 나의 법을 지켰기 때문이다.
- 6 이리하여 이사악은 그라르에 살게 되었다.
- 7 그런데 그곳 사내들이 자기 아내에 대하여 묻자, 이사악은 내 누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는 레베카가 예뻐서 이곳 사내들이 레베카 때문에 나를 죽일지도 모르지.' 하고 생각하였기에, 내 아내요 하고 말하기가 두려웠던 것이다.
- 8 이사악이 그곳에 산 지 꽤 오래된 어느 날,

필리스티아 임금 아비멜렉이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이삭이 자기 아내 레베카를 애무하고 있었다.

9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말하였다. 그 여자는 그대의 아내임이 분명한데, 그대는 어찌서 그 여자는 내 누이요.' 하고 말하였소? 이삭이 그에게 그 여자 때문에 제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10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그대는 어찌자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저질렀소? 하마터면 백성 가운데 누군가 그대 아내와 동침하여, 우리를 죄에 빠뜨릴 뻔하지 않았소?

11 그리고서 아비멜렉은 온 백성에게 경고하였다. 이 남자와 이 여자를 건드리는 자는 사형을 받을 것이다.

12 이삭은 그 땅에 씨를 뿌려, 그해에 수확을 백 배나 올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듯 복을 내리시어,

13 그는 부자가 되었다. 그는 점점 더 부유해져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14 그가 양 떼와 소 떼와 많은 하인을 거느리자, 필리스티아인들이 그를 시기하였다.

15 그래서 필리스티아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이삭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모두 막고 흙으로 메워 버렸다.

16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가 우리보다 훨씬 강해졌으니, 우리를 떠나 주시오.

17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라르 골짜기에 천막을 치고 살았다.

18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판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것들은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필리스티아인들이 막아 버린 우물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19 이삭의 종들이 그 골짜기를 파다가, 생수가 솟는 우물을 발견하였다.

20 그러자 그라르의 목자들이 그 물을 자기네 것이라고 하면서, 이삭의 목자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그리하여 우물을 두고 싸웠다 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섹이라 하였다.

21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라르의 목자들이 그것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시트나라 하였다.

22 이삭이 그곳에서 자리를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곳을 마련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피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다.

23 그는 그곳을 떠나 브에르 세바로 올라갔는데,

24 그날 밤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고 네 후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25 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불렀다. 이삭은 그곳에 천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그곳에서도 우물을 팠다.

26 아비멜렉이 친구 아후자트와 자기 군대의 장수 피콜과 함께 그라르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27 이삭이 그들에게 그대들은 나를 미워하여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소? 하고 물으니,

28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소. 그래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그대 사이에 서약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였소. 우리는 그대와 계약을 맺고 싶소.

- 29 우리가 그대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에게 좋게만 대해 주었으며 그대를 평화로이 보내 주었듯이, 그대도 우리한테 해롭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요, 이제 그대는 주님께 복 받은 사람이요.
- 30 이사악은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함께 먹고 마셨다.
- 31 그들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 땡세하였다. 그런 다음 이사악이 그들을 보내자, 그들은 평화로이 그를 떠나갔다.
- 32 바로 그날 이사악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그에게 알리며, 저희가 물을 발견하였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 33 이사악은 그 우물을 시브이라 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성읍의 이름이 브에르세바이다.

에사우가 히타이트 여인을 아내로 맞다

- 34 에사우는 마흔 살 되던 해에 히타이트 사람 브에리의 딸 여후닷과 히타이트 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 35 이들은 이사악과 레베카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다.

야곱이 에사우의 복을 가로챈다

- 27 ¹ 이사악은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큰아들 에사우를 불러 그에게 내 아들아! 하고 말하였다. 에사우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 2 그가 말하였다. 내가 보다시피 나는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 3 그러니 이제 사양할 때 쓰는 화살 통과 활을 매고 들로 나가, 나를 위해 사양을 해 오너라.
- 4 그런 다음 내가 좋아하는 대로 별미를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것을 먹고,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겠다.

- 5 레베카는 이사악이 아들 에사우에게 하는 말을 엿듣고 있었다. 그래서 에사우가 사양하러 들로 나가자,
- 6 레베카는 아들 야곱에게 일렀다. 애야, 너의 아버지가 네 형 에사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 7 사랑하는 고기를 가져다가 나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어라. 그것을 먹고,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에게 축복하겠다.'
- 8 그러니 내 아들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 9 가죽 있는 곳으로 가서 좋은 새끼 염소 두 마리를 나에게 끌고 오너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대로 별미를 만들어 줄 터이니,
- 10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 11 그러자 야곱이 어머니 레베카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형 에사우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살갓이 매끈한 사람입니다.
- 12 혹시나 아버지께서 저를 먼저 보시면, 제가 그분을 놀리는 것처럼 되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 13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말하였다. 내 아들이, 내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으며, 너는 그저 내 말을 듣고, 가서 짐승이나 끌고 오너라.
- 14 그가 가서 짐승을 끌고 어머니에게 왔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대로 별미를 만들었다.
- 15 그런 다음 레베카는 자기가 집에 가지고 있던 큰아들 에사우의 옷 가운데 가장 값진 것을 꺼내어, 작은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 16 그리고 그 새끼 염소의 가죽을 그의 손과 매끈한 목둘레에 입힌 다음,
- 17 자기가 만든 별미와 빵을 아들 야곱의 손

에 들려 주었다.

- 18 아담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다. 그가 나 여기 있다. 아들이야, 너는 누구냐? 하고 묻자,
- 19 아담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사우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르신 대로 하였습시다. 그러니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 20 그래서 이사악이 아들에게 내 아들이야, 어떻게 이처럼 빨리 찾을 수가 있었느냐? 하고 묻자, 그가 아버지의 하느님이신 주님께서 일이 잘되게 해 주셨습시다. 하고 대답하였다.
- 21 이사악이 아담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이야, 가까이 오너라.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사우인지 아닌지 내가 만져 보아야겠다.
- 22 아담이 아버지 이사악에게 가까이 가자, 이사악이 그를 만져 보고 말하였다. 목소리는 아담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사우의 손이로구나.
- 23 그는 아담의 손에 그의 형 에사우의 손처럼 털이 많았기 때문에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게 축복해 주기로 하였다.
- 24 이사악이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사우냐? 하고 다져 묻자, 그가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25 그러자 이사악이 말하였다.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아담이 아버지에게 그것을 가져다 드리니 그가 먹었다. 그리고 포도주를 가져다 드리니 그가 마셨다.
- 26 그런 다음 아버지 이사악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이야, 가까이 와서 입 맞춰 다오.
- 27 그가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자, 이사악은 그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였다. 보아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님

께서 복을 내리신 들의 냄새 같구나.

- 28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하늘의 이슬을 내려 주시리라. 땅을 기름지게 하시며 곡식과 술을 풍성하게 해 주시리라.
- 29 못 민족이 너를 섬기고 못 겨레가 네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너는 네 형제들의 지배자가 되고 네 어머니의 자식들은 네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에사우가 잃어버린 복

- 30 이사악이 아담에게 축복하고 나서 아담이 아버지 앞에서 물러나자마자, 그의 형 에사우가 사냥에서 돌아왔다.
- 31 그도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들고 가서 말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아들이 사냥해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 32 그의 아버지 이사악이 그에게 너는 누구냐? 하고 물으니, 그가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사우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33 그러자 이사악이 깜짝 놀라 몸을 떨면서 말하였다. 그렇다면 사냥을 해서 나에게 고기를 가져온 자는 누구란 말이나? 내가 오기 전에 나는 이미 그것을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해 주었다. 그러니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 34 에사우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비통에 차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저에게, 저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 35 그러나 이사악이 말하였다. 네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구나.
- 36 그러자 에사우가 말하였다. 이제 저를 두 번이나 속였으니, 아담이라는 그 너석의 이름이 딱 맞지 않습니까? 저번에는 저의 맏아들 권리를 가로챘더니, 보십시오, 이번

에는 제가 받은 축복까지 가로셨습니다. 그러고서는 저를 위해선 축복을 남겨 두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묻자,

37 이사악이 에사우에게 대답하였다. **애야, 나는 그를 너의 지배자로 세웠고, 그의 모든 형제들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술을 그에게 마련해 주었다. 그러니 내 아들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겠느냐?**

38 그러자 에사우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아버지께는 축복이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버지, 저에게, 저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에사우는 목 놓아 울었다.

39 그러자 아버지 이사악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네가 살 곳은 기름진 땅에서 저 위 하늘의 이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리라.**

40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면서 네 아우를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뿌리칠 때 네 목에서 그의 멨를 떨쳐 버릴 수 있으리라.

아돔이 에사우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간다

41 에사우는 아버지가 아돔에게 해 준 축복 때문에 아돔에게 앙심을 품었다. 그래서 에사우는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게 될 날도 멀지 않았으니, 그때에 아우 아돔을 죽여 버려야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42 레베카는 큰아들 에사우가 한 말을 전해 듣고는, 사람을 보내어 작은아들 아돔을 불러 놓고 그에게 말하였다. **애야, 너의 형 에사우가 너를 죽여서 원한을 풀려고 한다.**

43 그러니 내 아들이, 내 말을 듣고 일어나 하란에 있는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달아나라.

44 네 형의 분이 풀릴 때까지, 얼마 동안 그분 집에 머물러라.

45 **네에 대한 네 형의 분노가 풀리고, 네가 형에게 한 일을 형이 잊을 때까지만이다. 그러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를 그 곳에서 태러오게 하겠다. 내가 어찌 한 날에 너희 둘을 다 잃을 수 있겠느냐?**

46 레베카가 이사악에게 말하였다. 나는 히타이트 여자들 때문에 살아가 싫어졌어요. 만일 아곱마저 이 땅에 사는 저런 히타이트 여자들 가운데에서 아내를 맞아들인다면, 내가 어찌 살겠습니까?

28

¹ 그러자 이사악이 아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해 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에서 아내를 맞아들이지 마라.

² 일어나 파란 아람에 있는 네 외할아버지 브투엘 댁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너의 외숙 라반의 딸들 가운데에서 아내를 맞아들여라.

³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어, 네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하시며, 네가 민족들의 무리가 되게 해 주실 것이다.

⁴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너와 네 후손에게 내리시어, 네가 나그네살이하는 이 땅, 곧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⁵ 이사악이 아곱을 떠나보내자, 그는 파란 아람에 있는 아람 사람 브투엘의 아들 라반에게 갔다. 라반은 아곱과 에사우의 어머니 레베카의 오빠였다.

에사우가 이스마엘의 딸과 혼인하다

⁶ 에사우는, 이사악이 아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파란 아람으로 보내어 그곳에서 아내를 맞아들이게 하면서, 그에게 축복하며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에서 아내를 맞아들이지 마라. 하고 당부하는 것과,

⁷ 아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듣고 파란 아람으로 떠나는 것을 보았다.

- 8 그리고 에사우는 자기 아버지 이사악이 가 나한 여자들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도 보 았다.
- 9 그래서 에사우는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 엘에게 가서, 다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 엘의 딸이며 느비웃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 내로 맞아들였다.

아굽이 베델에서 꿈을 꾸다

- 10 아굽은 브에르 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 다,
11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 을 자내게 되었다. 그는 그곳의 돌 하나를 가져다 머리에 베고 그곳에 누워 자다가,
12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세워 져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는데, 하느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13 주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며 이사 악의 하느님인 주님이다. 나는 내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14 네 후손은 땅의 먼지처럼 많아지고, 너는 서쪽과 동쪽 또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 갈 것이다. 땅의 모든 종족들이 너와 네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15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어디 로 가든지 너를 지켜 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16 아굽은 잠에서 깨어나, 진정 주님께서 이곳 에 계시는데도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구 나. 하면서,
17 두려움에 싸여 말하였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느님의 집이 다.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로구나.
18 아굽은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다 기념 기둥으로 세우고 그 꼭

대기에 기름을 부었다.

- 19 그러고는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그러나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즈였다.
20 그런 다음 아굽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느 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면서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 주시고, 저에게 먹을 양 식과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며,
21 제가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신다면, 주님께서 저의 하느님이 되시 고,
22 제가 기념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느님 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께 서 주시는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당신 께 바치겠습니다.

아굽이 라반의 집에 도착하다

- 29 ¹ 아굽은 발걸음을 옮겨 동방인들의 땅으로 들어갔다.
2 그가 보니 들에 우물이 하나 있고, 양 떼 세 무리가 그 곁에 었드려 있었다. 그것은 가축 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인데, 그 우물 위에는 큰 돌이 덮여 있었다.
3 가축들이 그곳에 다 모이면 목자들은 우물 에서 그 돌을 굴러 내어 양 떼에게 물을 먹 인 다음, 그 돌을 다시 우물 위 제자리로 돌려 놓는 것이었다.
4 아굽이 그들에게 형제들, 그대들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고 묻자, 그들이 우리는 하 란에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5 그가 또 나호르의 아들 라반을 알고 계십니 까? 하고 묻자, 그들이 압니다. 하고 대답하 였다.
6 아굽이 다시 그분은 잘 계십니까? 하고 묻 자, 그들이 잘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의 딸 라헬이 양 떼를 몰고 오는군요. 하고 대답 하였다.
7 그러자 아굽이 말하였다. 아직 한낮이라 짐 승들을 모이들일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

때에게 물을 먹이고 어서 가서 풀을 뜯게 하셔야지요.

- 8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답니다. 가축들이 다 모여든 다음에야 우물에서 돌을 굴러 내고 양 때에게 물을 먹이게 되어 있습니다.
- 9 야곱이 아직도 그들과 말하고 있을 때, 라헬이 아버지의 양 때를 물고 왔다. 그는 양치는 여자였다.
- 10 야곱은 자기 외숙 라반의 딸 라헬과 외숙 라반의 양 때를 보자, 다가가 우물에서 돌을 굴러 내고, 자기 외숙 라반의 양 때에게 물을 먹였다.
- 11 그런 다음 야곱은 라헬에게 입 맞추고 목 놓아 울었다.
- 12 그리고 야곱은 라헬에게 자기가 그 아버지의 혈육이고 레베카의 아들임을 밝혔다. 라헬은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 13 라반은 자기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달려 나가 그를 껴안고 입 맞추고는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야곱이 라반에게 자기의 일을 모두 들려주자,
- 14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정녕 너는 내 골육이다. 이리하여 야곱은 그 집에 한 달 동안 머물렀다.

야곱이 라반의 딸들과 혼인하다

- 15 하루는 라반이 야곱에게 물었다. 내가 내 혈육이기는 하지만, 내 일을 거저 해 줄 수가 없지 않느냐? 네 품값이 얼마면 되겠는지 나에게 말해 보아라.
- 16 라반에게는 딸이 둘 있었는데, 큰딸의 이름은 레아였고 작은딸의 이름은 라헬이었다.
- 17 레아의 눈은 생기가 없었지만, 라헬은 몸매도 예쁘고 모습도 아름답혔다.
- 18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으므로, 외삼

촌의 작은딸 라헬을 얻는 대신 칠 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 19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 내 집에 머물러라.
- 20 야곱은 라헬을 얻으려고 칠 년 동안 일을 하였다. 이것이 그에게는 며칠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그가 그만큼 라헬을 사랑하였던 것이다.
- 21 마침내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기한이 왔으니 제 아내를 주십시오. 같이 살겠습니다.
- 22 그러자 라반은 그곳 사람들을 모두 청해 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 23 저녁이 되자 그는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래서 야곱은 그와 한자리에 들었다.
- 24 라반은 자기의 여종 질파를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 25 그런데 아침에 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라헬을 얻는 대신 외삼촌 일을 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 26 라반이 대답하였다. 우리 고장에서는 작은 딸을 맏딸보다 먼저 주는 법이 없다.
- 27 이 초례 주간을 채워라. 그리고 내가 다시 칠 년 동안 내 일을 해 준다면 작은애도 우리가 너에게 주겠다.
- 28 야곱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초례 주간을 채웠다. 그러자 라반은 자기의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 29 라반은 자기의 여종 빌하를 딸 라헬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 30 야곱은 라헬과도 한자리에 들었다. 그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다시 칠 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야곱의 아들들

- 31 주님께서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 주셨다. 그러나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다.
- 32 레이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고는 주님께서 나니의 괴로움을 보아주셨구나.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하면서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였다.
- 33 그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고는 주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들으시고, 나에게 이 아들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시메온이라 하였다.
- 34 그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이렇게 아들을 셋이나 낳아 주었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에게 매이겠지.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다.
- 35 그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송하리라.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아기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다. 그리고서는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

- 30** 1 라헬은 자기가 야곱에게 아이를 낳아 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언니를 시샘하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를 갖게 해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죽어 버리겠어요.
- 2 야곱은 라헬에게 회를 내며 말하였다. 내가 당신에게 소생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느님 자리에라도 있다는 말이오?
- 3 그러자 라헬이 말하였다. 보시오, 내 몸중 발하가 있잖아요. 그 아이와 한자리에 드세요. 발하가 아기를 낳아 내 무릎에 안겨 준다면, 그의 몸을 빌려서나마 나도 아들을 얻을 수 있겠지요.
- 4 이렇게 해서 라헬이 야곱에게 자기의 몸중 발하를 아내로 주자, 야곱이 그와 한자리에 들었다.

- 5 발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 6 라헬은 하느님께서 내 권리를 되찾아 주셨구나. 그분께서는 내 호소도 들으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하면서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다.
- 7 라헬의 몸중 발하가 다시 임신하여 야곱에게 두 번째 아들을 낳아 주었다.
- 8 라헬은 내가 언니와 죽도록 싸워서 이겼다. 하면서 그 이름을 납탈라라 하였다.
- 9 레이는 자기의 출산이 멈춘 것을 알고, 자기의 몸중 질과를 데려다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다.
- 10 그래서 레이의 몸중 질과도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 11 레이는 다행이로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가드라 하였다.
- 12 레이의 몸중 질과가 야곱에게 두 번째 아들을 낳아 주었다.
- 13 레이는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할 것이니, 나는 행복하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아세라라 하였다.
- 14 밭을 거두어들이는 때, 르우벤이 밖에 나갔다가 들에서 합환채를 발견하고, 자기 어머니 레이에게 갔다 드렸다. 라헬이 레이에게 언니 아들이 가져온 합환채를 좀 나눠 줘요 하자,
- 15 레이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 남편을 가로챌 것으로는 모자라, 내 아들의 합환채까지 가로채려느냐? 그러자 라헬이 말하였다. 좋아요, 언니 아들이 가져온 합환채를 주면, 그 대신 오늘 밤에는 그이가 언니와 함께 자게 해 주지요.
- 16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자, 레이가 나가 그를 맞으며 말하였다. 저에게 오셔야 해요. 내 아들의 합환채를 주고 당신을 빌렸어요. 그리하여 야곱은 그날 밤에 레이와 함께 잤다.

- 17 하느님께서 레이의 소원을 들어 주셔서, 그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다섯 번째 아들을 낳아 주었다.
- 18 레이는 내가 남편에게 내 몸종을 준 값을 하느님께서 나에게 갚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이사카르라 하였다.
- 19 레이가 다시 임신하여 야곱에게 여섯 번째 아들을 낳아 주었다.
- 20 레이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남편에게 아들을 여섯이나 낳아 주었으니, 이제는 나를 잘 대해 주겠지. 하고는, 그 이름을 즈블룬이라 하였다.
- 21 레이는 또 얼마 뒤에 딸을 낳아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다.
- 22 그 뒤에 하느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다. 하느님께서 그의 청을 들어 주셔서 그의 태를 열어 주셨다.
- 23 그리하여 라헬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하느님께서 나의 수치를 없애 주셨구나. 하고 말하였다.
- 24 그러고는 주님께서 나에게 아들 하나를 더 보태 주셨으면! 하면서,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였다.

야곱과 라반

- 25 라헬이 요셉을 낳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 고장, 제 고향으로 가게 저를 보내 주십시오.
- 26 장인 어른의 일을 해 드리고 얻은 제 아내들과 자식들을 내주시어, 제가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제가 장인 어른의 일을 어떻게 해 드렸는지 어른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 27 그러자 라반이 대답하였다.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게나. 내가 점을 쳐 보니, 주님께서 자네 때문에 나에게 복을 내리셨더군.
- 28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내가 자네에게 주어야 할 품삯을 정해 보게. 그대로 주겠네.

- 29 야곱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장인 어른의 일을 어떻게 해 드렸는지, 그리고 어른의 가족들이 제 밑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어른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 30 제가 오기 전에는 장인 어른의 재산이 보잘것없었지만, 지금은 크게 불어났습니다. 제 발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께서 장인 어른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제는 저도 제 집안을 돌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31 그래서 라반이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나? 하고 묻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무것도 안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것만 해 주신다면, 장인 어른의 양과 염소를 제가 다시 먹이며 돌보겠습니다.
- 32 오늘 제가 장인 어른의 양과 염소 사이를 두루 다니면서, 얼룩지고 점 박힌 모든 양들을, 그리고 새끼 양들 가운데에서 검은 것들을 모두 가려내고 염소들 가운데에서도 점 박히고 얼룩진 것들을 가려내겠습니다. 이것들이 저의 품삯이 되게 해 주십시오.
- 33 그가 정직하다는 것은 뒷날 장인 어른이 저의 품삯을 확인하러 와 보시면 증명될 것입니다. 제가 차지한 염소들 가운데에서 얼룩지고 점 박히지 않은 것이나, 새끼 양들 가운데에서 검은 것이 있다면, 그것들은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 34 라반은 좋네. 자네 말대로 함세. 하고 대답하였다.
- 35 그러나 라반은 바로 그날로, 줄처지고 점 박힌 숫염소들을 가려내고, 얼룩지고 점 박힌 암염소들과 흰 점이 있는 것들과 그리고 새끼 양들 가운데에서 검은 것들을 모두 가려내어 자기 아들들에게 맡겼다.
- 36 그러고서는 야곱이 자기의 남은 양과 염소를 치는 동안, 라반은 야곱을 자기에게서 사흘거리로 떼어 놓았다.
- 37 야곱은 은백양나무와 편도나무와 버즘나무

의 상상한 가지들을 꺾고, 흰 줄무늬 껍질을 벗겨 내어 가지의 하얀 부분이 드러나게 하였다.

- 38 그런 다음 껍질을 벗긴 가지들을 물통에, 곧 양들과 염소들이 물을 먹으러 오는 물 구유에 세워, 가축들이 그 가지들을 마주 보게 하였다. 그런데 양들과 염소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짹짹기를 하였다.
- 39 양들과 염소들은 그 가지들 앞에서 짹짹기를 하여 줄쳐진 것, 얼룩진 것, 점 박힌 것들을 낳았다.
- 40 아굽은 어린 양들을 골라내어, 그 양들의 얼굴을 라반의 양 떼 가운데에서 줄쳐진 양들과 모든 검은 양들에게로 향하게 하였다. 그러나 자기의 가축 떼는 따로 떼어 놓아, 라반의 것과 섞이지 않게 하였다.
- 41 아굽은 튼튼한 양들과 염소들이 끼리끼리 짹짹기 할 때마다, 그 나뭇가지들을 볼 수 있도록 물통에 세워 놓고, 그 가지 앞에서 짹짹기를 하게 하였다.
- 42 그러나 약한 양들과 염소들이 끼리끼리 짹짹기 할 때는 가지들을 세우지 않았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라반 차지가 되고, 튼튼한 것들은 아굽 차지가 되었다.
- 43 이렇게 해서 아굽은 대단한 부자가 되어, 수많은 양과 염소뿐만 아니라 여종과 남종, 낙타와 나귀들을 거느리게 되었다.

아굽이 고향으로 달아나다

- 31¹ 아굽은 라반의 아들들이 아굽이 우리 아버지 것을 모조리 가로채고, 우리 아버지 것으로 그 모든 재산을 이루었다. 하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 2 아굽이 라반의 얼굴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다.
- 3 그때 주님께서 아굽에게 말씀하셨다. 네 조상들의 땅으로, 네 친족에게 돌아가거라. 네가 나와 함께 있었다.

- 4 그래서 아굽은 라헬과 레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기 가축 떼가 있는 들로 불러내고는,
- 5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네 아버지의 얼굴을 살펴보니 나를 대하는 것이 예전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느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셔 주셨소.
- 6 내가 힘을 다하여 당신네 아버지의 일을 해준 것을 당신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오.
- 7 그런데도 당신네 아버지는 나를 속이면서 내 품값을 열 번이나 바꿔 쳤소.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게 하셨소.
- 8 장인이 얼룩진 것들이 자네 품값이네.' 하면, 양들과 염소들이 모두 얼룩진 새끼들만 낳고, 줄쳐진 것들이 자네 품값이네.' 하면, 양들과 염소들이 모두 줄쳐진 새끼들만 낳았소.
- 9 하느님께서는 이처럼 당신네 아버지의 가축을 거두어 나에게 주셨소.
- 10 양들과 염소들이 끼리끼리 짹짹기 하는 시기에, 내가 꿈속에서 눈을 들어 보니, 암컷들과 꼬미하고 있는 수컷들이 줄쳐진 것, 얼룩진 것, 반점이 있는 것뿐이었소.
- 11 그 꿈속에서 하느님의 천사가 아굽아!' 하고 부르시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 12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눈을 들어 보아라. 암컷들과 꼬미하고 있는 수컷들이 모두 줄쳐진 것, 얼룩진 것, 반점이 있는 것뿐이다. 라반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내가 다 보았다.
- 13 나는 네가 기뻐 기뻐하며 기름을 붓고 나에게 서원을 한 베렐의 하느님이다. 이제 일어나서 이 땅을 떠나 네 본고장으로 돌아가거라.' 하셨소.
- 14 그러자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얻을 뭇과 유산이

또 있거나 합니까?

- 15 우리는 아버지에게 이방인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팔아넘기시고, 우리에게 올 돈도 다 써 버리셨습니다.
- 16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거두신 재물은 모두 우리와 우리 아들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께 분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 17 그리하여 아굽은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나누어 태우고,
- 18 자기의 모든 가축과 그동안 모은 재산, 곧 파란 아람에서 모아 자기 소유가 된 가축을 몰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이사악에게 돌아가기로 하였다.
- 19 라반이 마침 양털을 깎으러 간 틈을 타서, 라헬은 아버지 집안의 수호신들을 훔쳐 냈다.
- 20 아굽은 아람 사람 라반을 속여, 달아날 짐새를 보이지 않고 있다가,
- 21 자기의 모든 재산을 거두어 도망쳤다. 그는 길을 떠나 강을 건너 길앗 산악 지방으로 향하였다.

라반이 아굽을 쫓아간다

- 22 아굽이 달아났다는 소식이 사흘 만에 라반에게 전해졌다.
- 23 그는 친족을 이끌고 아굽의 뒤를 쫓아 이레 길을 달려가, 길앗 산악 지방에서 그를 따라잡게 되었다.
- 24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 라반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아굽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 25 라반이 아굽에게 다다랐을 때, 아굽이 산악 지방에 천막을 쳤으므로, 라반도 자기 친족과 함께 길앗 산악 지방에 천막을 쳤다.
- 26 라반이 아굽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전쟁 포로처럼 끌고 가

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 27 어찌서 나를 속이고 몰래 달아났는가? 왜 나에게 알리지 않았나? 그랬다면 내가 손북과 비파로 노래 부르며 기쁘게 자네를 떠나보내지 않았겠나?
- 28 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게 해 주지도 않았는가? 자네가 한 짓은 어리석기만 하네.
- 29 나는 자네들을 해칠 수도 있지만, 어젯밤 자네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아굽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셨네.
- 30 그런데 자네는 아버지의 집이 그토록 그리워 떠났다고는 하지만, 내 신들은 어찌서 훔쳤나?
- 31 아굽이 라반에게 대답하였다. 장인 어른께서 제 아내들을 빼앗아 가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 32 그러나 장인 어른께서 저희 가운데 누구에게서든 어른의 신들을 발견하신다면, 그자는 죽어 마땅합니다. 제 짐 속에 장인 어른의 것이 있는지, 저희 친족들이 보는 앞에서 찾아내어 가져가십시오. 아굽은 라헬이 그것들을 훔쳤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 33 라반은 아굽의 천막과 레아의 천막, 그리고 두 여종의 천막에 들어가 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는 레아의 천막에서 나와 라헬의 천막으로 들어갔다.
- 34 라헬은 그 수호신들을 가져다 낙타 안장 속에 넣고는 그 위에 앉아 있었다. 라반은 천막 안을 살살이 뒤졌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 35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몸이 있어, 아버지 앞에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라반은 두루 찾아 보았지만 수호신들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 36 그러자 야곱이 화를 내며 라반에게 따졌다. 야곱이 라반에게 다그쳤다. 내가 무엇을 할 못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악착스레 쫓아오셨습니까?
- 37 제 물건을 샅샅이 뒤지셨는데, 장인 어른 집안의 기물 가운데 무엇이라도 찾아내셨습니까? 여기 저의 친족과 장인 어른의 친족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내놓으십시오. 그들이 우리 사이의 시비를 가리게 하십시오.
- 38 저는 이 이십 년을 장인 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장인 어른의 임양들과 임염소들은 유산한 일이 없고, 저는 어른의 양 떼에서 숫양들을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 39 들짐승에게 찢긴 것은 장인에게 가져가지 않고 제가 물어냈습니다. 낮에 도둑을 맞든 밤에 도둑을 맞든 장인께서는 그것을 저에게 물리셨습니다.
- 40 낮에는 더위가, 밤에는 추위가 저를 괴롭혀, 눈도 제대로 붙이지 못했습니다.
- 41 이 이십 년을 저는 장인 어른 댁에서 지냈습니다. 그 가운데 십사 년은 어른의 두 딸을 얻으려고, 그리고 육 년은 어른의 가축을 얻으려고 일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장인 어른께서는 저의 품값을 열 번이나 바꿔 치셨습니다.
- 42 제 아버지의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두려우신 분께서 제 편이 되어 주지 않으셨다면, 장인 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저의 고통과 제 손의 고생을 보시고, 어젯밤에 시비를 가려 주신 것입니다.

야곱과 라반이 계약을 맺다

- 43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였다. 이 여자들은 내 딸들이고 이 아이들은 내 손자들이며, 이 가축 떼도 내 가축 떼일세. 자네가 보

- 고 있는 것들이 모두 내 것이네. 그렇지만 오늘에 와서 내가 여기 있는 내 딸들이나 그 애들이 낳은 아이들을 어찌하겠는가?
- 44 그러니 이제 이리 와서 자네와 내가 계약을 맺어, 그것이 나와 자네 사이에 증인이 되게 하세.
- 45 그래서 야곱이 돌 하나를 가져다 기념 기둥으로 세웠다.
- 46 그리고 야곱이 친족들에게 돌을 모아 오십시오. 하자, 그들이 돌들을 가져다 돌무더기를 만들었다. 그들은 그 돌무더기 위에서 음식을 먹었다.
- 47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여가르 사하두타라 불렀고, 야곱은 갈렛이라 불렀다.
- 48 그런 다음 라반이 말하였다. 오늘 이 돌무더기가 나와 자네 사이의 증인일세. 그리하여 그 이름을 갈렛이라 하였다.
- 49 그곳은 또 미츠크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그가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 볼 수 없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기를 바라네.
- 50 자네가 내 딸들을 구박하거나 내 딸들을 두고 다른 아내들을 맞이할 경우, 우리 곁에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의 증인이심을 명심하게.
- 51 라반이 야곱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돌무더기를 보게. 그리고 내가 나와 자네 사이에 세워 놓은 이 기념 기둥을 보게.
- 52 내가 이 돌무더기를 넘어 자네 쪽으로 건너가지 않고, 자네가 나쁜 뜻을 품고 이 돌무더기와 이 기념 기둥을 넘어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 돌무더기가 증인이고 이 기념 기둥이 증인일세.
- 53 아브라함의 하느님과 나호르의 하느님께서 우리 사이의 심판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사악의 두려우신 분을 두고 맹세하였다.
- 54 야곱은 그 산악 지방에서 제사를 지내고

자키 친족들에게 음식을 함께 나누자고 청하였다. 그들은 음식을 함께 나누고 그 산악 지방에서 밤을 지냈다.

32 ¹ 이튿날 아침 라반은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고 축복해 주었다. 그런 다음 라반은 길을 떠나 자키 고향으로 돌아갔다.

야곱이 에사우를 만날 준비를 하다

² 야곱도 길을 떠났다. 그는 도중에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주쳤다.

³ 야곱은 그들을 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진영이구나.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⁴ 야곱은 에돔 지방 세이트 땅에 있는 형 에사우에게 자키보다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⁵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의 주인인 에사우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리의 종인 야곱이 이렇게 아뢰입니다. '저는 라반 곁에서 나그네살이하며 이제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⁶ 저는 그동안 소와 나귀, 양과 염소, 남종과 여종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어 주인님께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

⁷ 심부름꾼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리의 형님 에사우에게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장정 사백 명을 거느리고 나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⁸ 야곱은 몹시 놀라고 걱정이 되어, 자키 일행과 양과 염소, 소와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다.

⁹ 그는 에사우가 한 무리에게 달려들어 치더라도, 나머지 한 무리는 살아남을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¹⁰ 그리고 나서 야곱은 기도하였다. 저의 아버

지 아브라함의 하느님, 저의 아버지 이사악의 하느님! 너의 고향으로, 너의 친족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에게 잘해 주겠다.' 하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¹¹ 당신 종에게 베푸신 그 모든 자애와 신의가 저에게는 과분합니다. 사실 저는 지팡이 하나만 짚고 이 요르단 강을 건넜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두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¹² 제 형의 손에서, 에사우의 손에서 부디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가 들이닥쳐서 어미 자식 할 것 없이 저희 모두를 치자나 않을까 저는 두렵습니다.

¹³ 당신께서는 내가 너에게 잘해 주고, 네 후손을 너무 많아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어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¹⁴ 그날 밤 야곱은 그곳에서 밤을 지냈다. 그런 다음 그는 자키가 가진 것 가운데에서 자키의 형 에사우에게 줄 선물을 골라내었다.

¹⁵ 암염소 이백 마리와 숫염소 스무 마리, 양양 이백 마리와 숫양 스무 마리,

¹⁶ 어미 낙타 서른 마리와 거기에 딸린 새끼들, 암소 마흔 마리와 황소 열 마리, 암나귀 스무 마리와 수나귀 열 마리였다.

¹⁷ 야곱은 이것들을 종들의 손에 한 떼씩 따로 넘기면서 나보다 앞서 가되, 떼와 떼 사이에 거리를 두어라. 하고 종들에게 일렸다.

¹⁸ 그리고 맨 앞에 선 종에게 지시하였다. 나의 형 에사우가 너를 만나, 너는 뉘 집 사람이나?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있는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묻거든,

¹⁹ 이렇게 대답하여라. 이것들은 나리의 종 야곱의 것인데, 주인이신 에사우께 보내는 선물입니다. 야곱도 저희 뒤에 오고 있습니다.'

²⁰ 야곱은 들깨와 셋째 종에게도, 그리고 가축

때를 뒤따라가는 자들에게도 지시하였다. 너희도 에사우를 만나거든 그렇게 말해야 한다.

- 21 그리고 나리의 종 야곱도 저희 뒤에 오고 있습니다.' 하고 말해야 한다. 야곱은 선물을 먼저 보내어 형의 마음을 풀어야지. 그런 다음 그를 보게 되면, 그가 나를 좋게 받아들일 지도 모르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 22 이렇게 해서 야곱은 선물을 앞서 보내고, 자신은 그날 밤을 아영지에서 지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다

- 23 바로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데리고 야벳 건널목을 건넜다.
- 24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이끌어 내를 건네 보낸 다음, 자기에게 떨어진 모든 것도 건네 보냈다.
- 25 그러나 야곱은 혼자 남아 있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이 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하였다.
- 26 그는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뼈를 찼다. 그래서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 엉덩이뼈를 다치게 되었다.
- 27 그가 동이 트려고 하니 나를 놓아 나오. 하고 말하였지만, 야곱은 저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28 그가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나? 하고 묻자, 야곱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29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니, 너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 30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십시오. 하고 여쭙었지만, 그는 내 이름은 무엇 때문에

물어보느냐? 하고는, 그곳에서 야곱에게 복을 내려 주었다.

- 31 야곱은 내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뵈었는데도 내 목숨을 건졌구나.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프니엘이라 하였다.
- 32 야곱이 프니엘을 지날 때 헤가 그의 위로 떠올랐다. 그는 엉덩이뼈 때문에 질뚱거렸다.
- 33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늘날까지도 짐승의 엉덩이뼈에 있는 허벅지 힘줄을 먹지 않는다. 그분께서 야곱의 허벅지 힘줄이 있는 엉덩이뼈를 치셨기 때문이다.

야곱이 에사우를 다시 만나다

- 33 ¹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사우가 장정 사백 명과 함께 오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아아들을 나누어 맡긴 다음,
- 2 두 여종과 그들의 아이들을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의 아이들을 그 뒤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세웠다.
- 3 야곱 자신은 그들보다 앞장서 가면서, 형에게 다가갈 때까지 일곱 번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 4 그러자 에사우가 야곱에게 달려와서 그를 껴안았다. 에사우는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었다. 그들은 함께 울었다.
- 5 에사우가 눈을 들어 여자들과 아이들을 바라보며, 네 곁에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고 묻자, 야곱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종에게 은혜로이 주신 아이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6 그러자 두 여종과 그들의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 큰절을 하였다.
- 7 레아와 그의 아이들도 앞으로 나와 큰절을 하고,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앞으로 나와 큰절을 하였다.
- 8 에사우가 물었다. 내가 오다가 만난 그 무리

는 모두 무엇하려는 것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주인께서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으면 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 9 에사우가 내 아우야, 나에게도 많다. 네 것은 내가 가져라. 하고 말하였지만,
- 10 야곱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면, 이 선물을 제 손에서 받아 주십시오. 장님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듯 주인의 얼굴을 뵈게 되었고, 주인께서는 저를 가까이 받아 주셨습니다.
- 11 제발 주인께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저는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간곡히 권하자 에사우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야곱이 에사우와 헤어지다

- 12 에사우가 말하였다. 자, 일어나 가자. 내가 앞장서마.
- 13 그러자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약하고, 저는 또 새끼 딸린 양들과 소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하루만 몰이쳐도 짐승들이 모두 죽습니다.
- 14 그러니 주인께서는 이 종보다 앞서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셰이르에 계시는 주인께 다리를 때까지, 앞에 가는 가축 떼의 걸음에 맞추고 아이들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나아가겠습니다.
- 15 에사우가 나와 동행한 사람들 가운데 몇을 나에게 남겨 주어야 하겠구나. 하고 말하였지만, 야곱은 그러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주인께서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지만 하면 저는 충분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16 그날로 에사우는 길을 떠나 셰이르로 돌아가고,
- 17 야곱은 수컷으로 가서 자기가 살 집을 짓고 가축들을 위한 초막들을 만들었다. 그

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수컷이라 하였다.

야곱이 스켄에 다니다

- 18 야곱은 파란 야람을 떠나 가나안 땅에 있는 스켄 성읍에 무사히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천막을 쳤다.
- 19 그리고 자기가 천막을 친 땅을 스켄의 아버지 하모르의 아들들에게서 돈 백 닢을 주고 샀다.
- 20 그는 그곳에 제단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다.

다가 폭행을 당하다

- 34 ¹ 레아가 야곱에게 낳아 준 딸 다나가 그 고장 여자들을 보러 나왔다.
- 2 그런데 그 고장의 족장인 히위 사람 하모르의 아들 스켄이 다나를 보고, 그를 데리고 가서 겁탈하였다.
- 3 그는 야곱의 딸 다니에게 반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그 소녀에게 다정하게 이야기하였다.
- 4 스켄은 자기 아버지 하모르에게 이 처녀를 제 아내로 얻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 5 야곱은 스켄이 자기 딸 다나를 더럽혔다는 말을 들었지만, 아들이 가축과 함께 들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스켄인들과 혼인 계약을 맺다

- 6 스켄의 아버지 하모르가 야곱에게 이야기하려고 왔다.
- 7 마침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와 있었는데, 이 남자들은 소식을 듣고 분개하여 화가 치밀어 있었다. 스켄이 야곱의 딸과 동침하여 이스라엘에서 추잡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런 짓은 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 8 그러나 하모르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들 스켄이 여러분의 따남에게 반해 있

- 습니다. 따님을 그의 아내로 주십시오.
- 9 우리와 인척 관계를 맺으시다. 여러분의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들을 데려가십시오.
- 10 우리와 어울려 삽시다. 이 땅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으니, 여기 사시면서 두루 돌아다니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 정착하십시오.
- 11 스켄도 다나의 아버지와 오빠들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 12 신부 몸값과 선물을 아주 많이 요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소녀를 저에게 아내로 주시지만 하십시오.
- 13 아굽의 아들들은 스켄이 자기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에, 스켄과 그의 아버지 하모르에게 거짓으로 대담하였다.
- 14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할례 받지 않은 남자에게 우리 누이를 주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 15 다만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 우리처럼 된다는 조건이라면, 여러분의 청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 16 그렇게 하면, 우리 딸들을 여러분에게 주고 여러분의 딸들을 우리에게 데려오고 하면서, 서로 어울려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겨레가 되는 것입니다.
- 17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 말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누이를 데리고 떠나갈 것입니다.
- 18 하모르와 하모르의 아들 스켄은 아굽 아들들의 제안을 좋게 여겼다.
- 19 그래서 그 젊은이는 지체하지 않고 그 제안을 실행에 옮겼다. 그가 아굽의 딸을 좋아하였기 때문이다. 이 젊은이는 자기 아

바지의 온 집안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 20 하모르와 그의 아들 스켄은 성문으로 가서 자기네 성읍 남자들에게 말하였다.
- 21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호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두루 돌아다닐 수 있게 해 줍시다. 이 땅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넓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 줍시다.
- 22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 있는 남자들도 모두 할례를 받는다는 조건이어야, 우리와 어울려 살면서 한 겨레가 되겠다고 합니다.
- 23 결국은 그들의 가족 때와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짐승들이 모두 우리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조건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우리와 어울려 살게만 합시다.
- 24 성문에 나온 사람들이 모두 하모르와 그의 아들 스켄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모든 남자들이, 성문에 나온 모든 이들이 할례를 받았다.

시메온과 레위의 음흉한 복수

- 25 사흘 뒤, 그들이 아직 아파하고 있을 때, 아굽의 두 아들 곧 다나의 오빠인 시메온과 레위가 각자 칼을 들고, 거침없이 성문으로 들어가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 26 하모르와 그의 아들 스켄도 칼로 쳐 죽이고, 스켄의 집에서 디나를 데리고 나왔다.
- 27 아굽의 아들들은 칼에 맞아 쓰러진 자들에게 달려들어 성읍을 약탈하였다.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 28 그들은 양과 염소, 소와 당나귀, 성안에 있는 것과 바깥 들에 있는 것들을 가져갔다.
- 29 재산을 모두 빼앗고 모든 어린아이들과 아낙네들을 잡아가고, 집 안에 있는 것들을 모조리 약탈하였다.

- 30 그러자 야곱이 사메온과 레위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 땅에 사는 가나안족과 프리즈족에게 나를 흉측한 인간으로 만들어, 나를 불행에 빠뜨리는구나. 내에게는 사람들이 얼마 없는데, 그들이 합세하여 나를 치면, 나도 내 집안도 몰살당할 수밖에 없다.
- 31 그러나 그들은 우리 누이가 창녀처럼 다루어져도 좋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간다

- 35 ¹ 하느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그 곳에서 살아라. 그곳에 제단을 만들어, 네가 너의 형 에사우를 피해 달아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느님에게 바쳐라.
- 2 야곱은 가족들과 자기에게 딸린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희에게 있는 낯선 신들을 내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 3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곳에 제단을 만들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 나와 함께 계셔 주신 하느님께 바치고자 한다.
- 4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낯선 신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들을 내놓았다. 야곱은 스켄 근처에 있는 향염나무 밑에 그 것들을 묻어 버렸다.
- 5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 하느님께서 내리신 꿈포가 그들 주위의 성읍들을 휘감아,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뒤쫓지 못하였다.
- 6 야곱은 자기에게 딸린 모든 사람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있는 루즈 곧 베델에 다다랐다.
- 7 야곱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 하였다. 그가 자기 형을 피해 달아날 때,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바로 그곳에서 그에게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이다.

- 8 그때 레베카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 베델 아래에 있는 참나무 밑에 묻혔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알론 바곳이라 하였다.
- 9 야곱이 파란 아람에서 돌아오자, 하느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 복을 내려 주셨다.
- 10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은 야곱이다. 그러나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제 너의 이름이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셨다.
- 11 하느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너에게서 한 민족이, 아니 민족들의 무리가 생겨날 것이다. 네 몸에서 임금이 나올 것이다.
- 12 내가 아브라함과 이사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준다. 또한 네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도 그 땅을 주겠다.
- 13 그런 다음 하느님께서 야곱과 말씀을 나누시던 그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 14 야곱은 하느님께서 자기와 말씀을 나누신 곳에 기념 기둥, 곧 돌로 된 기념 기둥을 세운 다음, 그 위에 제주를 따르고 또 기름을 부었다.
- 15 야곱은 하느님께서 자기와 말씀을 나누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벤아민의 탄생과 라헬의 죽음

- 16 그들이 베델을 떠나 에프라타까지는 아직 얼마 더 가야 하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었는데, 산고가 심하였다.
- 17 이렇게 라헬의 산고가 심하자 산파가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아들이에요.
- 18 라헬은 마침내 죽게 되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아기의 이름을 벤 오니라 하였다. 그러나 아기의 아버지는 벤아민이라 불렀다.

- 19 라헬은 이렇게 죽어, 에프라타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가에 묻혔다.
- 20 야곱은 라헬의 무덤에 비석을 세웠다.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서 있는 라헬의 묘비이다.

르우벤의 추행

- 21 이스라엘은 다시 길을 떠나 므딧 에테르 건너편에 천막을 쳤다.
- 22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살고 있을 때,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소실 빌하에게 가서 그와 동침하였다. 이스라엘이 이를 듣고 알게 되었다.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다.

야곱의 열두 아들

- 23 레아의 아들은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 시메온, 레위, 유다, 이사카르, 즈블룬이고,
- 24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아민이다.
- 25 라헬의 몸종 빌하의 아들은 단과 납탈리이고,
- 26 레아의 몸종 질파의 아들은 가드와 아세르이다. 이들은 야곱이 파란 아람에 있을 때 태어난 아들들이다.

이사악이 죽다

- 27 마침내 야곱은 마르페 곧 키르얏 아르바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사악에게 다다랐다.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사악이 나그네살이하던 헤브론이다.
- 28 이사악의 나이는 백여든 살이었다.
- 29 이사악은 노인으로, 한껏 살다가 숨을 거두고 죽어 선조들 곁으로 갔다. 아들 에사우와 야곱이 그를 안장하였다.

가나안에서 난 에사우의 자손

- 36** 1 에사우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다.
- 2 에사우는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에서 아내들을 맞이하였다. 히타이트 사람 엘론의 딸 아다, 히위 사람 치브온의 아들 아나에게서 난 딸 오홀리바마,

- 3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웃의 누이인 바스맛이 그들이다.
- 4 아다는 에사우에게 엘리파즈를 낳아 주었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다.
- 5 오홀리바마는 여우스, 알람, 코라를 낳았다. 아들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에사우의 아들들이다.
- 6 그 뒤에 에사우는 아내들과 아들딸들, 자기 집에 딸린 모든 식구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얻은 가축 떼와 모든 짐승들과 재산을 거두어, 자기의 아우 야곱에게서 좀 떨어진 땅으로 갔다.
- 7 함께 살기에는 그들의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가축이 너무 많아 그들이 머물던 땅이 그들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 8 그래서 에사우는 셰이르의 산악 지방에 자리를 잡았다. 이 에사우가 곧 에돔이다.

셰이르에서 난 에사우의 자손

- 9 셰이르 산악 지방에 사는 에돔의 조상 에사우의 족보는 이러하다.
- 10 에사우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에사우의 아내 아다의 아들 엘리파즈와 에사우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 르우엘이다.
- 11 엘리파즈의 아들은 데만, 오마르, 츠포, 가아탐, 크나즈이다.
- 12 에사우의 아들 엘리파즈에게는 탐나리는 소실이 있었는데, 그가 엘리파즈에게 아말렉을 낳아 주었다. 아들이 에사우의 아내 아다의 자손들이다.
- 13 르우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곧 나합, 제라, 삼파, 미짜이다. 이들이 에사우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들이다.
- 14 치브온의 아들 아나의 딸로서 에사우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그는 에사우에게 여우스, 알람, 코라를 낳아 주었다.

에돔의 족장들

- 15 에사우의 자손들의 족장들은 이러하다. 에사우의 맏아들 엘리파즈의 아들들은 족장 테만, 족장 오마르, 족장 크포, 족장 크나즈,
 16 족장 코라, 족장 가아탐, 족장 아말렉이다. 이들이 에돔 땅에 있는 엘리파즈의 족장들이다. 이들은 아디의 자손들이다.
 17 에사우의 아들 르우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족장 나훔, 족장 제라, 족장 삼마, 족장 미짜이다. 이들이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다. 이들은 에사우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들이다.
 18 에사우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족장 여우스, 족장 알람, 족장 코라이다. 이들은 아나의 딸로서 에사우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이다.
 19 이들이 에사우 곧 에돔의 아들들이며, 이들이 그 족장들이다.

호르 사람 세이르의 자손

- 20 호르 사람 세이르의 아들들로서 그 땅의 주민들은 이러하다. 곧 로탄, 소발, 치브온, 아나,
 21 디손, 에체르, 디산이다. 이들이 에돔 땅에 사는 세이르의 아들들로서 호르족 족장들이다.
 22 로탄의 아들들은 호르와 헤맘이고, 로탄의 누이는 탐나이다.
 23 소발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곧 알완, 마나훔, 에발, 스포, 오남이다.
 24 치브온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곧 아야와 아나이다. 아나는 자기 아버지 치브온의 나귀를 치다가,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사람이다.
 25 아나의 자녀들은 이러하다. 곧 디손과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이다.
 26 디손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곧 험단, 에스

반, 이트란, 크란이다.

- 27 에체르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곧 빌한, 자아완, 아킨이다.
 28 디산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곧 우츠와 아란이다.
 29 호르족 족장들은 이러하다. 곧 족장 로탄, 족장 소발, 족장 치브온, 족장 아나,
 30 족장 디손, 족장 에체르, 족장 디산이다. 이들이 세이르 땅에 사는 부족들에 따라 본 호르족의 족장들이다.

에돔의 임금들

- 31 이스라엘 자손들을 임금이 다스리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임금들은 이러하다.
 32 프오르의 아들 벨라가 에돔을 다스렸는데, 그의 성읍 이름은 단하비였다.
 33 벨라가 죽자 보츠라 출신 제라의 아들 요밥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34 요밥이 죽자 테만 땅 출신 후삼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35 후삼이 죽자 브닷의 아들, 곧 미디안을 모압 평야에서 무찌른 하닷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그의 성읍 이름은 아윗이었다.
 36 하닷이 죽자 마스레가 출신 사물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37 사물라가 죽자 강가 르호봇 출신 사울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38 사울이 죽자 악보르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39 악보르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자 하다르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그의 성읍 이름은 파우였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름은 므헤타브엘이었는데, 메 자합의 딸인 마트렛의 딸이었다.

에돔의 족장들

- 40 씨족과 지역과 이름에 따라 본 에사우의 족장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곧 족장 탐나,

- 죽장 알와, 죽장 여택,
 41 죽장 호올리바마, 죽장 엘라, 죽장 피논,
 42 죽장 크나즈, 죽장 태만, 죽장 밍차르,
 43 죽장 막디엘, 죽장 이람이다. 이들이 저마다 차지하고 살던 거주지에 따라 본 에돔의 족장들이다. 에사우는 에돔의 조상이다.

요셉과 그 형제들

- 37 ¹ 야콥은 자기 아버지가 나그네살이하던 땅 곧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았다.
 2 야콥의 역사는 이러하다. 열일곱 살 난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아버지의 아내인 빌하의 아들들과 질파의 아들들을 도와주는 심부름꾼이었다. 요셉은 그들에 대한 나쁜 이야기들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3 이스라엘은 요셉을 늘그막에 얻었으므로, 다른 어느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에게 긴 저고리를 지어 입혔다.
 4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어느 형제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정답게 말을 건넬 수가 없었다.

요셉의 꿈

- 5 한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때문에 형들은 그를 더 미워하게 되었다.
 6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꾸는 이 꿈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7 우리가 밭 한가운데에서 곡식 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곡식 단이 일어나 우뚝 서고, 형들의 곡식 단들은 빙 둘러서서 내 곡식 단에게 큰절을 하였답니다.
 8 그러자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우리의 임금이라도 될 셈이나? 네가 우리를 다스리더라도 하겠다는 말이나? 그러하여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

욱 미워하게 되었다.

- 9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별 열한 개가 나에게 큰절을 하더군요.
 10 이렇게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어 말하였다. 내가 꾸었다는 그 꿈이 대체 무엇이냐? 그래,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너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큰절을 해야 한단 말이나?
 11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그의 아버지는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 가다

- 12 그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 떼에게 풀을 뜯기러 스켄 근처로 갔을 때,
 13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네 형들이 스켄 근처에서 양 떼에게 풀을 뜯고 있지 않느냐? 자, 내가 너를 형들에게 보내야겠다. 요셉이 그러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14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네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 보고 나에게 소식을 가져오너라. 이렇게 해서 그는 요셉을 헤브론 골짜기에서 떠나보냈다. 요셉이 스켄에 도착하였다.
 15 어떤 사람이 보니 그가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찾고 있는나? 하고 묻자,
 16 요셉이 대답하였다. 저는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양들에게 풀을 뜯고 있는지 저에게 제발 알려 주십시오.
 17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 사람들은 여기서 떼났단다. 도탄으로 가자.'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 도탄에서 그들을 찾아냈다.
 18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 그가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 19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저기 저 꿈쟁이가 오는구나.
- 20 자, 이제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 넣고,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저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 21 그러나 르우벤은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 낼 속셈으로,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 22 르우벤이 그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피만은 흘리지 마라. 그 아이를 여기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져 버리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마라. 르우벤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 내어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이었다.
- 23 이윽고 요셉이 형들에게 다다르자, 그들은 그의 저고리, 곧 그가 입고 있던 긴 저고리를 벗기고,
- 24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다. 그것은 물이 없는 빈 구덩이였다.
- 25 그들이 앉아 빵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보니, 길앗에서 오는 이스마엘인들의 대상이 보였다. 그들은 여러 낙타에 향고무와 유황과 반일향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 26 그때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었느냐?
- 27 자, 그 아이를 이스마엘인들에게 팔아 버리고,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래도 그 아이는 우리 아우고 우리 살붙이가 아니냐? 그러자 형제들은 그의 말을 듣기로 하였다.
- 28 그때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다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다. 그들은 요셉을 이스마엘인들에게 은전 스무 닢에 팔아넘겼다. 이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 29 르우벤이 구덩이로 돌아와 보니, 그 구덩이 안에 요셉이 없었다. 그는 자기의 옷을 찢고,
- 30 형제들에게 돌아가 말하였다. 그 애가 없어졌다. 난, 나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나?
- 31 그들은 요셉의 저고리를 가져다, 솜뭉스 한 마리를 잡아 그 피에 적었다.
- 32 그들은 그 긴 저고리를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저희가 이것을 주웠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아들의 저고리인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 33 그가 그것을 살펴보다 말하였다. 내 아들의 저고리다.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찢겨 죽은 게 틀림없다.
- 34 아픔은 옷을 찢고 허리에 자루옷을 두른 뒤, 자기 아들의 죽음을 오랫동안 슬퍼하였다.
- 35 그의 아들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말하였다. 아니다. 나는 슬퍼하며 저승으로 내 아들에게 내려가련다. 이렇게 요셉의 아버지는 그를 생각하며 울었다.
- 36 한편 미디안인들은 이집트로 가서 파라오의 내신으로 경호대장인 포티파르에게 그를 팔아넘겼다.

유대와 티모

38

- 1 그때에 유다는 형제들과 떨어져 내려와, 히라리는 이름을 지닌 아들람 사람에게 붙어살았다.
- 2 유다는 그곳에서 수아라는 이름을 지닌 가나안 사람의 딸을 만나 아내로 삼고, 그와 한자리에 들었다.
- 3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자, 유다는 그 이름을 에프라 하였다.
- 4 그 여자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였다.
- 5 그 여자는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

- 라라 하였다. 그가 쉐라를 낳을 때 유다는 크집에 있었다.
- 6 유다는 맏아들 에르에게 아내를 얻어 주었는데, 그 이름은 타마르였다.
- 7 그런데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 8 그래서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였다. 네 형수와 한자리에 들어가. 사동생의 책임을 다하여 네 형에게 자손을 일으켜 주어라.
- 9 그러나 오난은 그 자손이 자기 자손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수와 한자리에 들 때마다, 형에게 자손을 만들어 주지 않으려고 그것을 바닥에 쏟아 버리곤 하였다.
- 10 그가 이렇게 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그도 죽게 하셨다.
- 11 그러자 유다는 자기 며느리 타마르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 쉐라가 클 때까지 너는 친정에 들어가 과부로 살고 있어라. 그는 이 아이도 제 형들처럼 죽어서는 안 되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타마르는 친정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다.
- 12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수이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에도 기간이 지나자, 유다는 아들람 사람인 친구 히라와 함께 탐나로 자기 양들의 털을 깎는 이들에게 올라갔다.
- 13 타마르는 너의 시아버지가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탐나로 올라간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 14 입고 있던 과부 옷을 벗고 너울을 써서 몸을 가리고, 탐나로 가는 길가에 있는 예나임 어귀에 나가 있었다. 쉐라가 이미 다 컸는데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데려가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 15 유다가 그를 보았을 때,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므로 창녀라니 생각하였다.
- 16 그래서 그는 길을 벗어나 그 여자에게 가서 말하였다. 이리 오너라. 내가 너와 한자리에 들어야겠다. 유다는 그가 자기 며느리인 줄을 몰랐던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물었다. 저와 한자리에 드는 값으로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 17 내 가족 때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마. 하고 그가 대답하자, 그 여자가 그것을 보내실 때까지 담보물을 주시면 좋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 18 그래서 유다가 너에게 무슨 담보물을 주랴? 하고 묻자, 그 여자가 어르신네의 인장과 줄, 그리고 손에 잡고 계신 지팡이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그것들을 주고 그와 한자리에 들었다. 그는 유다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 19 그는 일어나 돌아가서 쓰고 있던 너울을 벗고 다시 과부 옷을 입었다.
- 20 유다는 자기 친구 아들람 사람 편에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면서, 그 여자에게서 담보물을 찾아오게 하였으나, 그는 그 여자를 찾지 못하였다.
- 21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예나임 길 가에 있던 신전 창녀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자, 여기에는 신전 창녀가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22 그는 유다에게 돌아가 말하였다. 그 여자를 찾지 못했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 여기에는 신전 창녀가 없습니다.' 하더군.
- 23 유다가 말하였다. 가질테면 가지라지. 우리야 창피만 당하지 않으면 되니까. 보다시피 내가 이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냈는데, 자네가 그 여자를 찾지 못한 게 아닌가?
- 24 석 달쯤 지난 뒤, 유다는 그대의 며느리 타마르가 창녀 노릇을 했대네. 더군다나 창녀질을 하다 임신까지 했대네. 하는 말을 전해 들었다. 유다가 명령하였다. 그를 끌어내어 화형에 처하여라.

- 25 밖으로 끌려 나오게 된 타마르는 자기의 시아버지에게 전갈을 보냈다. 저는 이 물건 임자의 아이를 배었습니다. 그는 또 말하였다. 이 인장과 줄과 지팡이가 누구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 26 유다가 그것들을 살펴보다 말하였다. 그애가 나보다 더 옳다! 내가 그 애를 내 아들 셀라에게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다는 그 뒤 다시는 그를 가까이하지 않았다.
- 27 타마르가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그의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 있었다.
- 28 그가 해산할 때, 한 아기가 손을 내밀었다. 산파가 붉은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매고서, 애가 먼저 나온 녀석이다. 하고 말하였다.
- 29 그러나 그 아기가 손을 도로 집어넣고, 그의 동기가 나오니, 산파는 아니, 내가 틈을 비집고 나오다니!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 이름을 페레즈라 하였다.
- 30 그다음 그의 동기 곧 손에 붉은 실을 매단 아기가 나오자, 그 이름을 제라라 하였다.

포티파르의 종이 된 요셉

- 39** ¹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 내려갔다. 파라오의 내신으로 경호대장인 이집트 사람 포티파르가 요셉을 그곳으로 끌고 내려온 이스라엘인들에게서 그를 샀다.
- 2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는 모든 일을 잘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자기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았다.
 - 3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그가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그의 손을 통해서 잘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았다.
 - 4 그래서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그의 사중을 들게 되었다. 주인은 요셉을 자기 집 관리인으로 세워,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의 손에 맡겼다.

- 5 주인이 요셉을 자기 집과 모든 재산의 관리인으로 세운 뒤부터, 주님께서는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의 복이 집 안에 있는 것이든, 들에 있는 것이든 그의 모든 재산 위에 미쳤다.
- 6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요셉의 손에 내맡기고, 그가 있는 한 자기가 먹는 음식밖에는 마음을 쓰지 않았다. 요셉은 몸매와 모습이 아름다웠다.

요셉과 포티파르의 아내

- 7 이런 일이 있고 난 뒤,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며 나와 함께 자요! 하고 말하였다.
- 8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주인께서는 모든 재산을 제 손에 맡기신 채, 제가 있는 한 집안일에 전혀 마음을 쓰지 않으십니다.
- 9 이 집에서는 그분도 저보다 높지 않으십니다. 마님을 빼고서는 무엇 하나 저에게 금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이런 큰 악을 저지르고 하느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 10 그 여자는 날마다 요셉에게 즐겼지만, 요셉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의 곁에 눕지도 그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
- 11 하루는 그가 일을 보러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하인들이 집 안에 아무도 없었다.
- 12 그때 그 여자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와 함께 자요! 하고 말하자, 요셉은 자기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
- 13 그 여자는 요셉이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둔 채 밖으로 도망치는 것을 보고,
- 14 하인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 좀 보아라. 우리를 희롱하라고 주인께서 저 히

브리 너석을 데려다 놓으셨구나. 저자가 나와 함께 자려고 나에게 다가오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지.

- 15 저자는 내가 목청을 높여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자기 옷을 내 곁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쳐 나갔다.
- 16 그러고는 자기 주인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그 옷을 제 곁에 놓아두었다가,
- 17 그에게 같은 말로 이르는 것이었다. 당신이 데려다 놓으신 저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 18 그래서 내가 목청을 높여 소리 질렀더니, 자기 옷을 내 곁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쳤답니다.
- 19 주인은 당신 종이 나에게 이렇게 했어요. 하는 아내의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 20 그래서 요셉의 주인은 그를 잡아 감옥에 처넣었다. 그곳은 임금의 죄수들이 갇혀 있는 곳이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그곳 감옥에서 살게 되었다.

감옥에 갇힌 요셉

- 21 그러나 주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시면서 그에게 자애를 베푸시어, 전옥의 눈에 들게 해 주셨다.
- 22 전옥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곳에서 하는 모든 일을 요셉이 처리하게 하였다.
- 23 전옥은 요셉의 손에 맡긴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그가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잘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다.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풀이하다

- 40 ¹ 이런 일이 있는 지 얼마 뒤, 이집트 임금의 현작 시종과 제빵 시종이 그들의 주군인 이집트 임금에게 잘못을 저지

른 일이 일어났다.

- 2 파라오는 자기의 이 두 대신 곧 현작 시종장과 제빵 시종장에게 진노하여,
- 3 그들을 경호대장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혀 있는 곳이었다.
- 4 경호대장은 요셉을 시켜 그들을 시종들에게 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얼마 동안 갇혀 있었다.
- 5 그러던 어느 날 밤 이 두 사람, 곧 감옥에 갇힌 이집트 임금의 현작 시종과 제빵 시종이 저마다 뜻이 다른 꿈을 꾸었다.
- 6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 보니, 그들은 근심하고 있었다.
- 7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함께 갇혀 있는 파라오의 이 두 대신에게 물었다. 오늘은 어찌서 언짢은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 8 그들이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풀이해 줄 사람이 없네. 하고 대답하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꿈 풀이는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저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 9 현작 시종장이 요셉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네.
- 10 그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있었는데, 짝이 돋자마자 꽃이 피어오르고 포도송이들이 익더군.
- 11 그런데 내 손에는 파라오의 술잔이 들려 있었다네. 그래서 내가 그 포도송이들을 따서 파라오의 술잔에다 짜 넣고는, 그 술잔을 파라오의 손에 올려 드렸네.
- 12 그러자 요셉이 그에게 말하였다. 꿈 풀이는 이렇게입니다. 가지 셋은 사흘을 뜻합니다.
- 13 이제 사흘이 지나면, 파라오께서는 나리를 불러올려 복직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리께서는 전에 현작 시종으로서 하시던 법대로 파라오의 손에 술잔을 올리시게 될 것입니다.

- 14 그러나 나리께서 잘되시면, 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파라오께 저의 사정을 아뢰시어, 저를 이 집에서 풀려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15 사실 저는 히브리인들의 땅에서 불들려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저는 이런 구덩이에 들어올 일은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 16 요셉이 좋게 풀이하는 것을 보고 제빵 시종장도 그에게 말하였다. 나도 꿈에 보니 내 머리 위에 과자 바구니가 세 개 있었네.
- 17 제일 윗 바구니에는 파라오께 드릴 온갖 구운 빵이 들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그 바구니에서 그것들을 쪼아 먹고 있었네.
- 18 그러자 요셉이 대답하였다. 그 꿈 풀이는 이렇습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뜻합니다.
- 19 이제 사흘이 지나면, 파라오께서 나리를 불러올려 나무에 매달 것입니다. 그러면 새들이 나리의 살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 20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파라오의 생일이어서 그는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고는 현작 시종장과 제빵 시종장을 신하들 가운데로 불러올려,
- 21 현작 시종장을 현작 직위에 복직시키니, 그가 파라오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되었다.
- 22 그러나 제빵 시종장은 나무에 매달게 하였다. 요셉이 그들에게 풀이하여 준 그대로였다.
- 23 그렇지만 현작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를 잊어버린 것이다.

파라오의 꿈

- 41** ¹ 그로부터 이 년이 지난 뒤, 파라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 2 잘생기고 살진 암소 일곱 마리가 나일 강에서 올라와 갈대밭에서 풀을 뜯었다.

- 3 그런데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못생기고 야윈 암소 일곱 마리가 나일 강에서 올라와, 강가에 있는 그 암소들 곁으로 가서 섰다.
- 4 그러고는 이 못생기고 야윈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진 그 일곱 암소를 잡아먹는 것이었다. 파라오는 잠에서 깨어났다.
- 5 그는 다시 잠이 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다. 밭에 하나에서 살지고 좋은 이삭 일곱이 올라왔다.
- 6 그 뒤를 이어 아위고 셋바람에 바싹 마른 이삭 일곱이 솟아났는데,
- 7 이 아위 이삭들이 살지고 여문 그 일곱 이삭을 삼켜 버리는 것이었다. 파라오가 잠에서 깨어 보니 꿈이었다.
- 8 아침이 되자 그는 마음이 불안하여, 사람을 보내 이집트의 모든 요술사와 모든 현인을 불러들였다. 그런 다음 파라오는 자기가 꾸은 꿈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지만, 아무도 파라오에게 그것을 풀이해 주지 못하였다.
- 9 그때 현작 시종장이 파라오에게 이뢰었다. 오늘에야 제 잘못이 생각납니다.
- 10 파라오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진노하시어, 저와 제빵 시종장을 경호대장 집에 가두신 적이 있습니다.
- 11 저와 그는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저마다 다른 뜻을 지닌 꿈을 꾸었습니다.
- 12 그때 저기에는 경호대장의 종인 젊은 히브리인이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에게 말하자 그는 저희 꿈을 풀이하였습니다. 저희 각자의 꿈을 풀이해 주었던 것입니다.
- 13 그리고 그가 풀이한 대로 되었습니다. 저는 복직되고 제빵 시종장은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요셉이 꿈을 풀이하다

- 14 그러자 파라오는 사람들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은 서둘러 그를 구

덩이에서 끌어내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혔다. 그런 다음 요셉은 파라오에게 들어갔다.

15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풀이할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너는 꿈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그것을 풀이한다고 들었다.

16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만, 하느님께서 파라오에게 상서로운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17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야기하였다. 꿈에서 보니 내가 나일 강 가에 서 있는데,

18 살지고 잘생긴 암소 일곱 마리가 나일 강에서 올라와 갈대밭에서 풀을 뜯었다.

19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가냘프고 아주 못생기고 마른 암소 일곱이 올라오는데, 그것들처럼 흉한 것은 이집트 온 땅에서 본 일이 없다.

20 그런데 이 마르고 흉한 암소들이 먼저 올라온 그 살진 일곱 암소를 잡아먹었다.

21 그러나 이렇게 잡아먹었는데도, 그것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여전히 그 모습이 흉하였다. 그러고는 내가 잠에서 깨어났다.

22 내가 또 꿈에서 보니, 말대 하나에서 여물고 좋은 이삭 일곱이 올라왔다.

23 그런데 그 뒤를 이어 딱딱하고 아귀고 셋 바람에 바싹 마른 이삭 일곱이 솟아났다.

24 이 아된 이삭들이 그 좋은 일곱 이삭을 삼켜 버렸다. 내가 이것을 요술사들에게 이야기하였지만 아무도 나에게 풀이 주지 못하였다.

25 그러자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하였다. 파라오의 꿈은 한 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앞으로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는 바를 파라오께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26 좋은 암소 일곱 마리는 일곱 해를 뜻합니다. 좋은 이삭 일곱도 일곱 해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 꿈은 한 가지입니다.

27 그 뒤를 이어 올라온 마르고 흉한 암소 일곱 마라도 일곱 해를 뜻하고, 속이 비고 셋 바람에 바싹 마른 이삭도 그러합니다. 이것들은 기근이 들 일곱 해를 뜻합니다.

28 하느님께서 앞으로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는 바를 파라오에게 보여 주시는 것이라고 제가 파라오에게 이원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29 앞으로 오게 될 일곱 해 동안, 이집트 온 땅에는 대풍이 들었습니다.

30 그러나 그 뒤를 이어 일곱 해 동안은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집트 땅에서는 전에 들었던 그 모든 대풍이 잊혀지고, 기근이 이 땅을 고갈시켜 버릴 것입니다.

31 이렇듯 뒤따라오는 기근이 하도 심하여, 이 땅에 대풍이 든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이조차 없을 것입니다.

32 파라오께서 같은 꿈을 두 번이나 되풀이하여 꾸신 것은, 하느님께서 이 일을 이미 결정하셨고 지체 없이 그대로 실행하시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33 그러니 이제 파라오께서는 즐기롭고 지혜로운 사람 한이를 가려내시어, 이집트 땅을 그의 손 아래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4 파라오께서는 또 나라의 감독관들을 임명하셔서, 대풍이 드는 일곱 해 동안 이집트 땅에서 거둔 수확의 오분의 일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5 이 사람들이 앞으로 올 좋은 시절 동안 모든 양식을 거두어들이게 하시고, 파라오의 권한으로 성읍들에 곡식을 쌓아 갈무리하게 하십시오.

36 이 양식은 앞으로 이집트 땅에 닥칠 일곱 해 동안의 기근에 대비하여, 나라를 위한 비축 양식으로 남겨 두십시오. 그러면 이 나라는 기근으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이 재상이 되다

37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어졌다.

- 38 그리하여 파라오는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처럼 하느님의 영을 지닌 사람을 우리가 또 찾을 수 있겠소?
- 39 그런 다음 파라오는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 주셨으니, 그대처럼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또 있을 수 없소.
- 40 내 집을 그대 손 아래 두겠소. 내 모든 백성은 그대 명령을 따를 것이오. 나는 왕좌 하나뿐만 아니라 그대보다 높을 따름이오.
- 41 파라오가 다시 요셉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가 이집트 온 땅을 그대 손 아래 두오.
- 42 그런 다음 파라오는 손에서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 주고는, 아마 옷을 입고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 주었다.
- 43 그리고 자기의 두 번째 병거에 타게 하니, 그 앞에서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파라오는 이집트 온 땅을 요셉의 손 아래 두었다.
- 44 파라오가 다시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파라오요. 그대의 허락 없이는 이집트 온 땅에서 그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 움직이지 못하오.
- 45 파라오는 요셉의 이름을 차프랏 파네이라 하고, 온의 사제 포티 페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었다. 요셉은 이집트 땅을 살펴 보러 나갔다.
- 46 요셉이 이집트 임금 파라오 앞에 섰을 때, 그의 나이 서른 살이었다. 요셉은 파라오 앞에서 물러 나와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
- 47 대풍이 든 일곱 해 동안 그 땅은 풍성한 곡식을 내었다.
- 48 요셉은 이집트 땅에 대풍이 든 일곱 해 동안, 모든 양식을 거두어 성읍들에 저장하였다. 성읍마다 주위 밭에서 나는 양식을 그 안에 저장하였다.

- 49 이렇게 해서 요셉은 바다의 모래처럼 엄청난 곡식을 쌓아, 헤아리는 것조차 그만두었다. 헤아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요셉의 아들들

- 50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다. 온의 사제 포티 페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아 준 아들들이다.
- 51 요셉은 하느님께서 나의 모든 고생과 내 아버지의 집안조차 모두 잊게 해 주셨구나.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나쎄라 하였다.
- 52 그리고 하느님께서 내 고난의 땅에서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해 주셨구나. 하면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프라임이라 하였다.

흉년이 시작되다

- 53 이집트 땅에 들었던 칠 년 대풍이 끝났다.
- 54 그러자 요셉이 말한 대로 칠 년 기근이 시작되었다. 모든 나라에 기근이 들었지만, 이집트 온 땅에는 빵이 있었다.
- 55 이집트 온 땅에 기근이 들자, 백성이 파라오에게 빵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파라오는 모든 이집트인에게 말하였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사키는 대로 하여라.
- 56 기근이 온 땅에 퍼지자, 요셉은 곡식 창고를 모두 열고 이집트인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에 기근이 심하였지만,
- 57 온 세상은 요셉에게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몰려들었다. 온 세상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로 가다

- 42 ¹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어찌서 서로 쳐다보고만 있느냐? 하면서
- 2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들으니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는구나. 그러니 그곳으로 내려가 곡식을 사 오너라.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겠다.

- 3 그래서 요셉의 형 열 명이 이집트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다.
- 4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벤야민을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다. 그가 무슨 변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웠기 때문이다.
- 5 이렇게 가난한 땅에도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가는 다른 사람들 틈에 끼어 그곳으로 들어갔다.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다

- 6 그때 요셉은 그 나라의 통치자였다. 그 나라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이도 그였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였다.
- 7 요셉은 형들을 보자 곧 알아보았지만, 짐짓 모르는 체하며 그들에게 매몰차게 말하면서 물었다.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양식을 사러 가난한 땅에서 왔습니다.
- 8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 9 그때 요셉은 형들에 대하여 꿈 꾸음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엽탐꾼들이다. 너희는 이 땅의 약한 곳을 살피러 온 자들이다.
- 10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나리. 나리의 이 종들은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 11 저희는 모두 한 사람의 자식입니다. 저희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이 종들은 엽탐꾼이 아닙니다.
- 12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아니다. 너희는 이 땅의 약한 곳을 살피러 온 자들이다.
- 13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리의 이 종들은 본디 열두 형제입니다. 저희는 가난한 땅에 사는

어떤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지금 저희 아버지와 함께 있고, 다른 한 아우는 없어졌습니다.

- 14 그러나 요셉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대로다. 너희는 엽탐꾼들이다.
- 15 너희를 이렇게 시험해 봐야겠다. 너희 막내 아우가 이리로 오지 않으면, 내가 파라오의 생명을 걸고 말하건대, 너희는 결코 이곳을 떠날 수 없다.
- 16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어 아우를 데려오너라. 그동안 너희는 옥에 갇혀 있어라. 너희 말이 참말인지 시험해 봐야겠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내가 파라오의 생명을 걸고 말하건대, 너희는 정녕 엽탐꾼들이다.
- 17 그러고 나서 그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었다.
- 18 사흘째 되던 날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살려거든 이렇게 하여라.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 19 너희가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만 감옥에 남아 있고, 나머지는 굶고 있는 너희 집 식구들을 위하여 곡식을 가져가거라.
- 20 그리고 너희 막내아우를 나에게 데려오너라. 그러면 너희 말이 참되다는 것이 밝혀지고, 너희는 죽음을 면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 21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죄값을 받는 것이 틀림없어. 그 애가 우리에게 살려 달라고 애원할 때, 우리는 그 고통을 보면서 들어 주지 않았지. 그래서 이제 이런 괴로움이 우리에게 닥친 거야.
- 22 그러자 르우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잘못을 저지르지 마라.' 하고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말을 듣지 않더니,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 23 그들은 자기들과 요셉 사이에 통역이 서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알아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 24 요셉은 그들 앞에서 물러 나와 울었다. 그런 다음 돌아와 그들과 이야기하였다. 그는 그들 가운데에서 시메온을 불러내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묶었다.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간다

- 25 요셉이 명령하기를, 그들의 포대에 밀을 채우고 그들의 돈을 각각의 자루에 도로 넣고 그들에게 여행 양식을 주라고 하자, 그 대로 되었다.
- 26 그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다.
- 27 하룻밤 묵을 곳에 이르러,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다가, 그 곡식 자루 부리에 자기 돈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 28 그래서 그는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내 돈이 돌아와 있어. 봐, 내 자루 속에 들어 있어! 그러자 그들은 얼이 빠져 떨면서 서로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 29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와, 그동안 겪은 모든 일을 그에게 말씀드렸다.
- 30 그 나라의 주인 되는 사람이 우리에게 배물차게 말하면서, 저희를 그 나라를 엿보러 간 엽탐꾼으로 여겼습니다.
- 31 그래서 저희는 그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저희는 정직한 사람들이지 엽탐꾼은 아닙니다.
- 32 저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로서 열두 형제입니다.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지금 가나안 땅에 저희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 33 그랬더니 그 나라의 주인 되는 사람이 저희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정직한 사람들인지 이렇게 알아봐야겠다.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하나를 여기에 나와 함께 남겨 두어라. 나머지는 굶고 있는 너희 집 식구들을 위하여 곡식을 가지고 가거라.
- 34 그리고 너희 막내아우를 나에게 데려오너라. 그래야만 너희가 엽탐꾼들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그제야 내가 너희 형제를 풀어 주고, 너희는 이 땅을 두루 돌아다닐 수 있게 될 것이다.'
- 35 그런 다음 그들이 자루를 비우는데, 각각의 자루에 제 돈주머니가 들어 있는 것이었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 돈주머니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 36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내게서 자식들을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이 없어졌고 시메온도 없어졌는데, 이제 벤야민마저 데려가려 하는구나.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들이닥치다니!
- 37 그러자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제가 만일 벤야민을 아버지께 데려오지 않으면, 제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그 아이를 제 손에 맡겨 주십시오. 제가 아버지께 그 아이를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 38 그러나 야곱은 말하였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갈 수 없다. 그의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하게 되면, 너희는 이렇게 백발이 성성한 나를, 슬퍼하며 저승으로 내려가게 하고야 말 것이다.

요셉의 형들이 벤야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다

- 43** ¹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²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져 온 곡식을 다 먹어 갈 때,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다시 가서 양식을 좀 사 오너라.

- 8 그러자 유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저희에게 엄중히 경고하면서, 너희 아우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4 아버지께서 아우를 저희와 함께 보내시면, 내려가서 아버지께 양식을 사다 드리겠습니다.
- 5 그러나 그 아이를 보내시지 않으면, 저희는 내려가지 못합니다. 너희 아우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고 그 사람이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 6 그래서 이스라엘이 너희는 어찌하여 아우가 또 있다는 소리를 해서 나를 괴롭히느냐? 하고 말하자,
- 7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저희와 우리 가족에 대해 낯날이 캐물으면서,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다른 형제가 또 있느냐?' 하기에, 저희는 묻는 대로 대답했을 뿐입니다. 저희에게 아우를 데려오라고 할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 8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그 아이를 저와 함께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일어나 떠나가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아버지도, 그리고 저희의 어린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 9 제가 그 아이를 맡겠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저에게 책임을 물으십시오. 제가 만일 그 아이를 아버지께 도로 데려와 아버지 앞에 세우지 않는다면, 제가 아버지께 대한 그 죄를 평생 동안 짊어지겠습니다.
- 10 저희가 이렇게 머뭇거리지 않았다라면, 지금쯤 벌써 두 번은 다녀왔을 것입니다.
- 11 그러자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 그렇다면 이렇게 하여라. 이 땅의 가장 좋은 토산물을 너희 포대에 담아 그 사람에게 선물로 가지고 내려가거라. 약간의 유향과 꿀, 향고무와 반일향, 향과와 편도를 가져가거라.

- 12 돈도 두 배로 가져가거라. 너희 곡식 자루 부리에 담겨 돌아왔던 돈도 도로 가져가거라. 그것은 아마도 무슨 착오였을 것이다.
- 13 너희 아우를 데리고 일어나 그 사람에게 다시 가거라.
- 14 저희가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없이 여기시어, 그 사람이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벤아민을 보내 주기를 바란다. 자식을 잃어야 한다면 나로서는 잃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요셉이 형제들을 다시 만나

- 15 그리하여 이 사람들은 선물을 마련하고 돈도 갑절로 준비하여, 벤아민을 데리고 길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가 요셉 앞에 섰다.
- 16 요셉은 그들과 함께 벤아민이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집 관리인에게 일렀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가거라. 짐승을 잡고 상을 치려라.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이다.
- 17 관리인은 요셉이 말한 대로 해 놓고,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갔다.
- 18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였다. 지난번 우리 곡식 자루에 담겨 돌아왔던 그 돈 때문에 우리를 데려가는 거야. 우리에게 달려들어 우리를 던지고, 나귀와 함께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는 거야.
- 19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집 관리인에게 다가가, 그 집 문간에서 그에게 말을 걸며
- 20 물었다. 나리, 저희는 지난번에도 양식을 사러 내려왔습니다.
- 21 그런데 하룻밤 목을 곳에 이르러 곡식 자루를 열어 보니, 각자의 곡식 자루 부리에 저희 돈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도로 가져왔습니다.
- 22 저희는 또 양식을 살 돈도 따로 가져왔습니다. 누가 곡식 자루 속에 그 돈을 넣었

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 23 그러자 관리인은 말하였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느님, 여러분 아버지의 하느님께서 그 곡식 자루에 보물을 넣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돈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시메온을 그들에게 데려왔습니다.
- 24 관리인은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가서 발 씻을 물을 주고, 그들의 나귀들에게도 먹이를 주었다.
- 25 그들은 그곳에서 식사한다는 말을 듣고, 정오에 올 요셉을 기다리며 선물을 정돈하였다.
- 26 요셉이 집에 들어오자, 그들은 그 집으로 가져온 선물을 요셉 앞에 내놓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 27 요셉은 그들에게 인사하고 물었다. 전에 너희가 말한 늙은 아버지는 잘 계시느냐? 아직도 살아 계시느냐?
- 28 그들은 나리의 종인 저희 아버지는 잘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무릎을 꿇고 절하였다.
- 29 요셉은 눈을 들어 자기 친어머니의 아들, 친동생 벤야민을 보며, 전에 너희가 나에게 말한 막내아우가 이 아이냐? 하면서, 애야, 하느님께서 너를 어여뻐 여겨 주시기를 빈다. 하고 말하였다.
- 30 요셉은 자기 아우에 대한 애정이 솟구쳐 올라 울음이 나오려고 해서,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울었다.
- 31 그는 얼굴을 씻고 다시 나와서 자신을 억제한 다음, 음식을 차려라. 하고 명령하였다.
- 32 그들은 요셉에게 상을 따로 차려 올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려 주고 그와 함께 식사하는 이집트인들에게도 따로 차려 주었다. 이집트인들은 히브리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없었다. 그것이 이집트인들

에게는 역겨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 33 그들은 요셉 앞에 맏아들부터 막내아들에 이르기까지 나이 순서로 앉게 되자,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어리둥절해하였다.
- 34 요셉이 자기 상에서 각 사람의 몫을 나르게 하는데, 벤야민의 몫이 다른 모든 이들의 몫보다 다섯 배나 많았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벤야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진이 나온다

- 44** ¹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명령하였다. 저 사람들의 곡식 자루에다 그들이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양식을 채워 주어라. 그리고 각자의 돈을 그들의 곡식 자루 부리에 넣는데,
- 2 막내의 곡식 자루 부리에는 곡식 값으로 가져온 그의 돈과 함께 내 은잔을 넣어라. 그는 요셉이 분부한 대로 하였다.
 - 3 이튿날 날이 밝자 그 사람들은 나귀들을 끌고 길을 나섰다.
 - 4 그들이 그 성읍을 나와 얼마 가지 않았을 때,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그 사람들을 쫓아카거라. 그들을 따라잡거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 5 이것은 내 주인께서 마실 때 쓰시는 잔이며 점을 치시는 잔이다. 너희는 고약한 짓을 저질렀다.'
 - 6 관리인이 그들을 따라잡고 이렇게 말하자,
 - 7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리께서는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리의 이 종들이 그런 짓을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8 보십시오, 저희는 지난번 곡식 자루 부리에서 발견한 돈을 가나안 땅에서 가져다 나리께 되돌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찌 나리의 주인덕에서 은이나 금을 훔칠 수 있겠습니까?
 - 9 나리의 이 종들 가운데 그것이 발견되는 자

- 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나리의 종이 되겠습니다.
- 10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좋다. 너희 말대로 하자. 그것이 발견되는 자는 나의 종이 된다. 그러나 나머지는 자유롭게 가도 좋다.
- 11 그들은 서둘러 곡식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저마다 제 곡식 자루를 풀었다.
- 12 관리인이 큰아들부터 시작하여 막내아들에 이르기까지 뒤지자, 그 잔이 벤야민의 곡식 자루에서 나왔다.
- 13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의 옷을 찢고 저마다 나귀에 짐을 도로 실은 뒤, 그 성읍으로 되돌아갔다.
- 14 유다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러 보니, 그는 아직도 그곳에 있었다. 그들이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자,
- 15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짐을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 16 유다가 대답하였다. 저희가 나리께 무어라 이뢰겠습니까? 무어라 여쭙겠습니까? 또 무어라 변명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이 종들의 죄를 밝혀내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나리의 종입니다. 저희도, 잔이 나온 아이도 그러합니다.
- 17 그러나 요셉은 말하였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잔이 나온 사람만 내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에게 올라가거라.

유다가 대신 종이 되었다고 나다

- 18 그러자 유다가 그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나리, 이 종이 감히 나리께 한 말씀 이뢰겠습니다. 나리께서는 파라오와 같은 분이시니, 이 종에게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 19 나리께서 이 종들에게 아버지나 아우가 있는냐?' 물으시기에,
- 20 저희가 나리께 대답하였습니다. 저희에게 늙은 아버지가 있고, 그가 늙그막에 얻은 막내가 있습니다. 그 애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 아들로는 그 애밖에 남지 않아, 아버지가 그 애를 사랑합니다.'
- 21 그러자 나리께서는 그 아이를 나에게 데리고 내려오너라. 내 눈으로 그를 보아야겠다.' 하고 이 종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만,
- 22 저희는 나리께 대답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버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나면 그 애 아버지는 죽고 말 것입니다.'
- 23 그러나 나리께서는 이 종들에게, 너희 막내 아우가 함께 내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다시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하셨습니다.
- 24 그래서 저희가 나리의 종인 저희 아버지에게 올라갔을 때, 나리의 말씀을 아버지에게 전하였습니다.
- 25 그 뒤에 저희 아버지가 다시 가서 양식을 좀 사 오너라.' 하였지만,
- 26 저희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저희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막내아우가 함께 가야 저희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막내아우가 저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저희는 그 어른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 27 그랬더니 나리의 종인 저희 아버지가 저희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 아내가 나에게 아들 둘을 낳아 주었다는 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 28 그런데 한 아이는 나를 떠났다. 나는 그 애가 찢겨 죽은 것이 틀림없다고 말하였고, 사실 나는 지금까지도 그 아이를 다시 보지 못하였다.
- 29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서 데려갔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하게 되면, 너희는 이렇게 백발이 성성한 나를, 비통해하며 저승으로 내려가게 하고야 말 것이다.'
- 30 이렇게 아버지의 목숨이 그 애의 목숨에 달려 있는데, 이제 그 아이 없이 제가 나

- 리의 종인 저희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 31 그 아이가 없는 것을 보게 되면, 아버지는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종들은 결국, 나리의 종인 백발이 성장한 저희 아버지를, 애통해하며 저승으로 내려가게 하고야 말 것입니다.
- 32 나리의 이 종은 제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맡았다고 하면서, 제가 만일 그 아이를 아버지께 도로 데려오지 않는다면, 제가 아버지 앞에서 그 죄를 평생 짊어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 33 그러나 이제 이 종이 저 아이 대신 나리의 종으로 여기에 머무르고, 저 아이는 형들과 함께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 34 그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저의 아버지가 겪게 될 그 비통함을 저는 차마 볼 수 없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다

- 45 ¹ 요셉은 자기 곁에 서 있는 모든 이들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모두들 물러가게 하여라. 하고 외쳤다.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힐 때, 그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 2 요셉이 목 놓아 울자, 그 소리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들리고 파라오의 궁궐에도 들렸다.
- 3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직 살아 계십니까?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너무나 놀라, 그에게 대답할 수가 없었다.
- 4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서는, 그들이 가까이 오자 다시 말하였다.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 5 그러나 이제는 저를 이곳으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자신에게 화를 내지도 마십시오. 우리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느님께

- 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 6 이 땅에 기근이 든 지 이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섯 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겨우 지도 못합니다.
- 7 그래서 하느님께서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시어, 여러분을 위하여 자손들을 이 땅에 일으켜 세우고, 구원받은 이들의 큰 무리가 되도록 여러분의 목숨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 8 그러나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파라오의 아버지로, 그의 온 집안의 주인으로, 그리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 9 그러나 서둘러 아버지께 올라가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이라 하고 이렇게 전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 내려오십시오.
- 10 아버지께서 고센 지방에 자리 잡게 되시면, 아버지께서는 아들들과 손자들, 그리고 양떼와 소 떼 등 모든 재산과 더불어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 11 기근이 아직도 다섯 해나 계속될 터이니, 제가 그곳에서 아버지를 부양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집안, 그리고 아버지께 딸린 것들이 굶핍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 12 지금 형님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말하고 있는 것을 내 아우 벤야민과 함께 바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 13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는 이 영화와 그 밖에 무엇이든 본 대로 다 아버지께 말씀드리십시오. 서둘러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으로 내려오십시오.
- 14 그러고 나서 요셉은 자기 아우 벤야민의 목을 껴안고 울었다. 벤야민도 그의 목을

겨안고 울었다.

- 15 요셉은 형들과도 하나하나 입을 맞추고 그들을 붙잡고 울었다. 그제야 형들은 그와 이야기하였다.

파라오의 초청

- 16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 파라오의 궁궐에 전해지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좋아하였다.
- 17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이르시오,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너희의 짐승들에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 18 너희 아버지와 집안 식구들을 데리고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고, 이 땅의 기름진 것을 먹게 해 주겠다.'
- 19 그대는 또 이렇게 내 말을 전하시오,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너희의 어린것들과 아내들을 생각하여, 이집트 땅에서 수레들도 끌고 가져라. 거기에는 너희 아버지를 태워 오너라.
- 20 너희 세간들을 아껴워하지 마라. 이집트 온 땅의 가장 좋은 것들이 너희 차지가 될 것이다.'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다

- 21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하라는 대로 하였다. 요셉은 파라오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들을 내주고 여행 양식도 마련해 주었다.
- 22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예복을 한 벌씩 주고, 벤야민에게는 은전 삼백 닢과 예복 다섯 벌을 주었다.
- 23 또한 아버지에게는 이집트의 특산물을 실은 나귀 열 마리와, 아버지가 여행길에 먹을 곡식과 빵과 음식을 실은 암나귀 열 마리를 보냈다.
- 24 요셉은 형제들을 떠나보냈다. 그들이 떠나갈 때 요셉은 길에서 너무 흥분하지들 마

십시오 하고 당부하였다.

- 25 이렇게 하여 그들은 이집트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 다다랐다.
- 26 그들이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그는 온 이집트 땅의 통치자입니다. 하고 말하였지만, 야곱의 마음은 무덤덤하기만 하였다.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 27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다 전해 듣고,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수레들을 보자, 아버지 야곱은 정신이 들었다.
- 28 내 아들 요셉이 살아 있다니, 이제 여한이 없구나!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 아이를 봐야겠다. 하고 이스라엘은 말하였다.

야곱이 이집트로 떠나다

- 46 ¹ 이스라엘은 자기에게 딸린 모든 것을 거느리고 길을 떠났다. 그는 브에르 세바에 이르러 자기 아버지 이사악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 2 하나님께서 밤의 환시 중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시자,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 3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 4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겠다. 요셉의 손이 네 눈을 감겨 줄 것이다.
- 5 그리하여 야곱은 브에르 세바를 떠났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태워 오라고 파라오가 보낸 수레들에 아버지 야곱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태웠다.
- 6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얻은 가축과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로 들어갔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이 함께 들어갔다.
- 7 야곱은 아들과 손자, 딸과 손녀, 곧 그의 모

든 자손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들어갔다.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

- 8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인들, 곧 야곱과 그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야곱의 맏아들은 르우벤이고,
- 9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 팔루, 헤즈론, 카르미이다.
- 10 시메온의 아들은 여무엘, 야민, 오핫, 야킨, 초하르, 그리고 가나안 여자에게서 난 사울이다.
- 11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크핫, 므라리이다.
- 12 유다의 아들은 에르, 오난, 셸라, 페레츠, 제라인테,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페레츠의 아들은 헤즈론과 하물이다.
- 13 이사카르의 아들은 툴라, 푸와, 야습, 시므론이다.
- 14 즈블론의 아들은 세렛, 엘론, 아홀엘이다.
- 15 이들은 레아가 파란 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아 준 아들들이다. 이 밖에 딸 디나가 있다. 그의 아들딸들은 모두 서른세 명이다.
- 16 가드의 아들은 치프온, 하기, 수니, 에츠본, 에리, 아로디, 아르엘리이다.
- 17 아세르의 아들은 압나, 이스와, 이스위, 브리아이고, 그들에게는 세라리는 누이가 있었다. 브리아의 아들은 헤베르와 말기엘이다.
- 18 이들은 라반이 자기의 딸 레아에게 준 질파의 자손들이다. 질파가 이들을 야곱에게 낳아 주었다. 이들은 열여섯 명이다.
- 19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벤야민이다.
- 20 요셉에게서는 이집트 땅에서 므나세와 에프라임이 태어났다. 이들은 온의 사제 포티페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아 준 아들들이다.
- 21 벤야민의 아들은 벨라, 베케르, 아스벨, 게

라, 나아만, 에히, 로스, 무뫼, 후뫼, 아르드이다.

- 22 이들은 야곱에게서 태어난 자식들로 라헬의 자손들이다. 이들은 모두 열네 명이다.
- 23 단의 아들은 후심이다.
- 24 납탈리의 아들은 야흐즈엘, 구니, 예체르, 실렘이다.
- 25 이들은 라반이 자기 딸 라헬에게 준 빌하의 자손들이다. 빌하가 이들을 야곱에게 낳아 주었다. 이들은 모두 일곱 명이다.
- 26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간 사람들은 야곱의 며느리들을 뺀 직계 자손들이 모두 예순여섯 명이다.
- 27 이집트에서 태어난 요셉의 아들들은 둘이다. 그래서 이집트로 들어간 야곱의 집안 식구는 모두 일흔 명이다.

요셉이 가족을 맞이하다

- 28 이스라엘은 자기보다 앞서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어, 고센으로 오게 하였다. 그런 다음 그들은 고센 지방에 이르렀다.
- 29 요셉은 자기 병거를 준비시켜,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러 고센으로 올라갔다. 요셉은 그를 보자 목을 꺾어안았다. 목을 꺾어안은 채 한참 울었다.
- 30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렇게 너의 얼굴을 보고 내가 살아 있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기꺼이 죽을 수 있겠구나.
- 31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올라가 파라오에게 이렇게 아뢰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제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이 저에게 왔습니다.
- 32 그 사람들은 본디 가족을 치던 목자들이어서 양 떼와 소 떼, 그리고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 33 그러니 파라오께서 여러분을 불러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나?' 하고 물으시거든,

- 34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임금님의 이 종들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줄곧 가축을 쳐 온 사람들입니다. 저희도 그러하고 저희 조상들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센 지방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라면 모두 역겨워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가족이 파라오를 알현하다

47 ¹ 요셉이 가서 파라오에게 이뢰었다. 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양 떼와 소 떼, 그리고 자기들의 재산을 모두 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와, 지금 고센 지방에 있습니다.

2 그런 다음 요셉은 자기 형제들 가운데에서 다섯 사람을 가려 파라오에게 소개하였다.

3 파라오가 그의 형제들에게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나? 하고 묻자, 그들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이 종들은 목자들입니다. 저희도 그러하고 저희 조상들도 그러하였습니다.

4 그들은 계속 파라오에게 말하였다. 저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살이를 할까 해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이 종들의 양 떼를 먹일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종들이 고센 지방에 머무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그러자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 왔소.

6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펼쳐져 있으니, 그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땅에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머무르게 하시오. 그들은 고센 지방에 머물러도 좋소. 그대가 알기에 그들 가운데 유능한 사람들이 있거든 내 가축을 돌보는 책임자로 세우시오.

7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셔다 파라오 앞에 세우자, 야곱이 파라오에게 축복하였

다.

8 파라오가 야곱에게 연세가 얼마나 되시오? 하고 묻자,

9 야곱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나그네 살이한 햇수는 백삼십 년입니다. 제가 산 햇수는 짧고 불행하였을 뿐 아니라 제 조상들이 나그네살이한 햇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10 야곱은 다시 파라오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 나왔다.

11 요셉은 파라오가 분부한 대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 곧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라메세스 지방에 머무르게 하고, 그들에게 소유지도 떼어 주었다.

12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에, 그 식솔 수대로 양식을 대 주었다.

요셉의 양곡 관리

13 기근이 매우 심하여 온 땅에 양식이 떨어졌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이 이 기근으로 파멸해져 갔다.

14 요셉은 사람들이 사 가는 곡식 값으로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조리 거두어들였다. 그는 그 돈을 파라오의 궁궐로 넘겼다.

15 이렇게 하여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이 떨어지게 되자, 이집트인들이 모두 요셉에게 물려와 말하였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나리 앞에서 죽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16 그러자 요셉이 대답하였다. 돈이 떨어졌으면 여러분의 가축을 팔고 오시오. 그러면 그 가축 값으로 여러분에게 양식을 내주겠소.

17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팔고 왔다. 요셉은 말과 양 떼와 소 떼와 나귀들을 받고서 양식을 내주었다. 이렇게 그해에는 그들의 가축 값으로 양식을 공급해 주었다.

- 18 그해가 다 지나 이듬해가 되자, 그들이 다시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저희가 나리께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돈은 떨어졌고 가축 떼도 이제 다 나리 것입니다. 이제 나리께 갓다 드릴 것이라고는 저희 몸과 농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 19 저희가 저희 농토와 함께 나리께서 보시는 앞에서 망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양식을 주시고 저희와 저희 농토를 사십시오. 농토는 물론이고 저희가 파라오의 종이 되겠습니다. 씨앗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죽지 않고 살 것이고, 농토도 황폐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 20 이리하여 요셉은 이집트의 모든 농토를 파라오의 것으로 사들였다. 기근이 심하여 이집트인들이 하나같이 자기 밭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땅이 파라오의 차지가 되었다.
- 21 그는 이집트 국경 끝에서 끝까지 백성들을 모두 종으로 만들었다.
- 22 그러나 사제들의 농토만은 사들이지 않았다. 사제들은 파라오에게서 녹을 받기 때문이다. 그들은 파라오가 주는 녹을 먹었으므로 농토를 팔 필요가 없었다.
- 23 그런 다음 요셉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농토를 파라오의 것으로 사들였소. 자, 여기에 씨앗이 있으니 농토에 씨앗을 뿌리시오.
- 24 그러나 수확의 오분의 일을 파라오에게 바치시오. 그리고 오분의 사는 여러분의 것이니, 밭에 씨앗을 뿌리고, 여러분과 집안 식구들의 양식과 아이들의 양식으로 삼으시오.
- 25 그러자 그들이 요셉에게 대답하였다. 나리께서 저희의 목숨을 살려 주셨습니다. 나리께서 저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는 기꺼이 파라오의 종이 되겠습니다.
- 26 이렇게 하여 요셉은 이집트의 농토에 관하

여 오늘날까지 유효한 법을 만들었다. 곧 오분의 일이 파라오에게 속한다는 것이다. 다만 사제들의 농토만은 파라오의 차지가 되지 않았다.

야곱의 유언

- 27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 고센 지방에 머물게 되었다. 그들은 그곳에 소유지를 얻어 자식들을 많이 낳고 크게 번성하였다.
- 28 야곱은 이집트 땅에서 십칠 년을 살았다. 그래서 야곱이 산 햇수는 백사십칠 년이 되었다.
- 29 죽을 때가 다가오자 이스라엘은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호의를 보여 준다면, 나에게 효성과 신의를 지켜 나를 이집트 땅에 묻지 않겠다고, 네 손을 내 살에 넣고 맹세해 다오.
- 30 내가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되거든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 그분들의 무덤에 묻어 다오. 요셉이 내가 꼭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습니까. 하고 대답하자,
- 31 이스라엘이 그러면 나에게 맹세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요셉이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맡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야곱이 에프라임과 므나쎄를 아들로 삼다

- 48 ¹ 이런 일들이 있는 뒤, 요셉은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두 아들 므나쎄와 에프라임을 데리고 갔다.
- 2 아들 요셉이 왔다고 사람들이 야곱에게 알렸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기운을 내어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 3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가나안 땅 루즈에서 나에게 나타나 복을 내려 주시며,
- 4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하겠다. 또한 네가 민족들의

우리가 되게 하고, 이 땅을 네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

5 그러나 이제 내가 이집트로 너에게 오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태어난 너의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삼아라겠다. 에프라임과 므나세는 르우벤과 시메온처럼 내 아들이 되는 것이다.

6 이 아이들 다음에 너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은 너의 아이들이다. 그들은 제 형들의 이름으로 상속 재산을 받을 것이다.

7 내가 파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길을 가던 중, 에프랏까지는 아직 얼마 더 가야 하는 곳에서 그만 라헬이 죽고 말았다. 그래서 나는 에프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옆에 그를 묻었다.

8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 아이들은 누구냐? 하고 물었다.

9 요셉이 이 아이들은 하느님께서 이곳에서 저에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이스라엘이 아이들을 나에게 데려 오너라. 내가 아이들에게 축복하겠다. 하고 말하였다.

10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었다. 요셉이 아이들을 가까이 데려가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입 맞추고 끌어안았다.

11 그런 다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네 얼굴을 다시 보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이제 하느님께서는 네 자식들까지 보게 해 주시는구나.

12 요셉은 아이들을 아버지 무릎에서 물러나게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다.

13 요셉은 두 아이를 데려다, 에프라임은 오른손으로 이끌어 이스라엘의 왼쪽으로, 므나세는 왼손으로 이끌어 이스라엘의 오른쪽으로 가까이 가게 하였다.

14 그러자 이스라엘은 손을 엇갈리게 내밀어, 에프라임이 작은아들인데도 오른손을 에프

라임의 머리에 얹고, 므나세가 맏아들인데도 왼손을 므나세의 머리에 얹었다.

15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축복하였다. 저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을 당신 앞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느님, 제가 사는 동안 지금까지 늘 저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느님,

16 저를 모든 불행에서 구해 주신 천사께서는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 나의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 아이들에게 살아 있으리라. 또한 이들이 세상에서 크게 불어나리라.

17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프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는 못마땅하게 여겨, 아버지의 손을 잡아 에프라임의 머리에서 므나세의 머리로 옮기려 하였다.

18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이니, 이 아이 위에 아버지의 오른손을 얹으셔야 합니다.

19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며 말하였다. 아들이, 나도 안다, 나도 알아. 이 아이도 한 겨례를 이루고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크게 되고, 그의 후손은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20 그날 야곱은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를 들어 말하며 이렇게 축복하리라. 하느님께서 너를 에프라임과 므나세처럼 만들어 주시리라.' 이렇게 그는 에프라임을 므나세 앞에 내세웠다.

21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자, 나는 이제 죽는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계시면서, 너희를 다시 조상들의 땅으로 데려가 주실 것이다.

22 그리고 나는 너의 형제들보다 너에게, 내 칼과 활로 아모리족의 손에서 찢은 스켄 하나를 더 준다.

야곱의 축복

- 49 ¹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말하였다. 너희는 모여들 오너라. 낫날 너희가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일러 주리라.
- ² 야곱의 아들들아, 모여 와 들어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들어라.
- ³ 르우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 나의 힘, 내 정력의 첫 열매. 너는 영광이 넘치고 힘이 넘친다.
- ⁴ 그러나 물처럼 끓어오르니 너는 남보다 뛰어나지 못하리라. 너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갔다. 그때 너는 내 침상을 더럽혔다.
- ⁵ 사메온과 레위는 형제 그들의 칼은 폭행의 도구.
- ⁶ 나는 그들의 모의에 까지 않고 그들의 모임에 들지 않으리라. 그들은 격분하여 사람들을 죽이고 멧대로 소들을 못 쓰게 만들었다.
- ⁷ 포악한 그들의 격분, 잔악한 그들의 분노는 저주를 받으라. 나 그들을 야곱에 갈리놓으리라. 그들을 이스라엘에 흠여 버리리라.
- ⁸ 너 유다야, 네 형제들이 너를 찬양하리라. 네 손은 원수들의 목을 잡고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엎드리리라.
- ⁹ 유다는 어린 사자. 내 아들아, 너는 내가 잡은 짐승을 먹고 컸다. 유다가 사자처럼, 암사자처럼 웅크려 엎드리니 누가 감히 그를 건드리랴?
- ¹⁰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고 민족들이 그에게 순종할 때까지 왕권이 유다에게서, 지휘봉이 그의 다리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 ¹¹ 그는 제 어린 나귀를 포도 줄기에, 새끼 나귀를 좋은 포도나무에 매고 포도주로 제 옷을, 포도의 붉은 즙으로 제 겹옷을 댄다.
- ¹² 그의 눈은 포도주보다 검고 그의 이는 우유보다 희다.
- ¹³ 즈불론은 바닷가에 살며 배들의 항구가 되고 그 경계는 시돈에 이르리라.
- ¹⁴ 이사카르는 튼튼한 나귀 가축 우리 사이에 엎드린다.
- ¹⁵ 쉬기에 좋고 땅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는 그곳에서 짐을 지러고 어깨를 구부려 노역을 하게 되었다.
- ¹⁶ 단은 이스라엘의 여느 지파처럼 제 백성을 정의로 다스리리라.
- ¹⁷ 단은 갈가의 뱀 오솔길의 독사. 말 뒤꿈치를 물어 그 위에 탄 사람이 뒤로 떨어진다.
- ¹⁸ 주님, 제가 당신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 ¹⁹ 가드는 약탈자들의 습격을 받았지만 그 자신이 그들의 뒤를 습격하리라.
- ²⁰ 아세르는 양식이 넉넉하여 임금에게 진미를 올리리라.
- ²¹ 납탈리는 풀어 놓은 암시슴 예쁜 새끼들을 낳는다.
- ²² 요셉은 열매 많은 나무 썸 기에 심긴 열매 많은 나무. 그 가지가 담장 너머로 뻗어 간다.
- ²³ 궁수들이 그를 어지럽히고 그에게 활을 쏘며 덤벼들어도
- ²⁴ 그의 활은 든든히 버티고 그의 손과 팔은 날쌔었다. 이는 야곱의 장사의 손, 이스라엘의 목자요 바위이신 분의 이름 덕분이고
- ²⁵ 네 아버지의 하느님 덕분이다. 그분께서 너를 도우시리라. 전능하신 분 덕분이다. 그분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위에 있는 하늘의 복, 땅 속에 놓여 있는 심연의 복, 젓가슴과 모태의 복을 내리시리라.
- ²⁶ 네 아버지의 복은 예로부터 있던 산들의 복보다, 처음부터 있던 언덕들의 탐스러운 것들보다 크다. 그 복이 요셉의 머리로, 제 형제들 가운데에서 봉헌된 자의 정수로 내리리라.
- ²⁷ 벤야민은 약탈하는 이리 아침에는 움켜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잡은 것을 나눈다.
- ²⁸ 아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 각자에게 알맞은 복을 빌어 주면서 한 말이다.

야곱이 죽다

- 29 그런 다음 야곱이 아들들에게 분부하였다. 나는 이제 선조들 곁으로 간다. 나를 히타이트 사람 에프론의 밭에 있는 동굴에 조상들과 함께 묻어 다오.
- 30 그 동굴은 가나안 땅 마르페 맞은쪽 막벨라 밭에 있는 것으로, 아브라함께서 그 밭을 히타이트 사람 에프론에게서 묘지로 사 두셨다.
- 31 그곳에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께서 묻히셨고, 그곳에 이사악과 그분의 아내 레베카께서 묻히셨다. 나도 레이를 그곳에 묻었다.
- 32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이 히타이트 사람들에게서 산 것이다.
- 33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분부하고 나서, 다리를 다시 침상 위로 올린 뒤, 숨을 거두고 선조들 곁으로 갔다.

야곱의 장례

- 50** 1 그러자 요셉은 아버지의 얼굴에 었드려 울며 입을 맞추었다.
- 2 그런 다음 요셉이 자기 시의들에게 아버지의 몸을 방부 처리하도록 명령하자, 시의들이 이스라엘의 몸을 방부 처리하였다.
- 3 그들이 이 일을 하는 데에 사십 일이 걸렸다. 방부 처리를 하는 데에는 그만큼 시일이 걸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며 칠십 일 동안 곡을 하였다.
- 4 곡하는 기간이 지나자 요셉이 파라오의 궁궐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다면, 파라오께 이렇게 말씀해 주시오.
- 5 저의 아버지가 '내가 죽거든, 내가 가나안 땅에 나를 위해서 파 놓은 무덤에 묻어라.' 하며, 저에게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올라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낼 수 있

게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 6 파라오는 아버지가 그대에게 맹세하게 한 대로, 올라가서 그분의 장사를 지내시오. 하고 윤택하였다.
- 7 이리하여 요셉은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러 올라갔다. 그와 함께 파라오의 모든 신하와 파라오 궁궐의 원로들과 이집트 땅의 모든 원로,
- 8 그리고 요셉의 온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이 올라갔다. 그들의 아들과 양 떼와 소 떼만 고센 지방에 남겨 두었다.
- 9 또 병거와 기병까지 요셉과 함께 올라오니, 그것은 굉장한 행렬이었다.
- 10 그들은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고렌 아닷에 이르러, 크고 아주 장엄하게 호곡하였다. 요셉은 이제 동안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 11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족은 고렌 아닷에서 애도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이집트인들의 장엄한 애도로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아벨 미츠라임이라 하였다. 그곳은 요르단 건너편에 있다.
- 12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분부한 대로 하였다.
- 13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주검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 막벨라 밭에 있는 동굴에 안장하였다. 그 밭은 마르페 맞은쪽에 있는 것으로서, 아브라함이 히타이트 사람 에프론에게서 묘지로 사 둔 것이다.
- 14 아버지의 장사를 지낸 다음 요셉은 형제들과 또 자기와 함께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러 올라왔던 사람들과 더불어 이집트로 돌아갔다.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킨다

- 15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보

고, 요셉이 우리에게 적개심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저지른 모든 악을 되갚을지도 모르지. 하면서,

- 16 요셉에게 말을 전하게 하였다. 아우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분부하셨네.
- 17 너희는 요셉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 너의 형들이 내게 악을 저질렀지만, 제발 형들의 잘못과 죄악을 용서해 주어라. ' 그러니 아우님은 그대 아버지의 하느님의 이 종들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게. 요셉은 그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듣고 울었다.
- 18 이어 요셉의 형제들도 직접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아우님의 종들일세.
- 19 그러자 요셉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하느님의 자리에도 있다고 말입니까?
- 20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짖었지만, 하느님께서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분께서 이루신 것처럼, 큰 백성을 살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
- 21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들을 부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위로하며 다정하게 이야기하였다.

요셉이 죽다

- 22 이렇게 해서 요셉과 그 아버지의 집안이 이집트에 자리 잡고 살게 되었다. 요셉은 백십 년을 살았다.
- 23 그러면서 요셉은 에프라임에게서 삼 대를 보았다. 므나세의 아들 마기르의 아들들도 태어나 요셉 무릎에 안겼다.
- 24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이끌어 내시어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실 것입니다.

- 25 요셉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맹세하게 하면서 일렀다. 하느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 여기서 내 유골을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 26 요셉이 백열 살에 죽자, 사람들이 그의 몸을 방부 처리하고 관에 넣어 이집트에 모셨다.

구약성경 - 2

오경 - 2

탈출기

총 40 장

총 1,213 절

[구약성경-탈출기]

이스라엘인들의 종살이

- 1¹ 야곱과 함께 저마다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은 이러하다.
- 2 르우벤, 시메온, 레위, 유다,
3 이사카르, 즈블론, 벤야민,
4 단, 납탈리, 가드, 아세르이다.
- 5 야곱의 몸에서 난 이들은 모두 일흔 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가 있었다.
- 6 그 뒤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 세대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 7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식을 많이 낳고 늘어만 갔다. 그들은 번성하고 더욱더 강해졌다. 그리하여 그 땅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 찼다.
- 8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이집트에 군림하게 되었다.
- 9 그가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해졌다.
- 10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더욱 번성할 것이고,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그들은 우리 원수들 편에 붙어 우리에게 맞서 싸우다 이 땅에서 떠나가 버릴 것이다."
- 11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려고 그들 위에 부역 감독들을 세웠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파라오의 양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피툼과 라메세스를 짓게 되었다.
- 12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더욱 널리 퍼져 나갔다.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 13 그리하여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 14 진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고된 일과 온

갖 들일 등, 모든 일을 혹독하게 시켜 그들의 삶을 쓰디쓰게 만들었다.

- 15 이집트 임금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한 여자의 이름은 시프라였고 다른 여자의 이름은 푸아였다.
- 16 그가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자들이 해산하는 것을 도와줄 때, 밑을 보고 아들이거든 죽여 버리고 딸이거든 살려 두어라."
- 17 그러나 산파들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이집트 임금이 그들에게 분부한 대로 하지 않고 사내아이들을 살려 주었다.
- 18 이집트 임금이 산파들을 불러, "너희는 왜 그런 짓을 하였느냐? 왜 사내아이들을 살려 주었느냐?" 하고 묻자,
- 19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과는 달리 기운이 좋아, 산파가 가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 버립니다."
- 20 이에 하느님께서 산파들을 잘 돌보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하여 더욱 강해졌다.
- 21 산파들이 하느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의 집안을 일으켜 주셨다.
- 22 마침내 파라오가 온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히브리인들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은 모두 강에 던져 버리고, 딸은 모두 살려 두어라."

모세의 탄생

- 2¹ 레위 집안의 어떤 남자가 레위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 2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겨 길렀다.
- 3 그러나 더 숨겨 둘 수가 없게 되자, 왕골 상자를 가져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그 안에 아기를 뉘어 강가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 4 그리고 아기의 누이가 떨쩍이 서서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 5 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공주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 여중 하나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 6 그것을 열어 보니 아기가 울고 있었다. 공주는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기며, "이 아기는 히브리인들의 아이 가운데 하나로구나." 하였다.
- 7 그러자 아기의 누이가 나서서 파라오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공주님 대신 아기에겐 젖을 먹일 히브리인 유모를 하나 불러다 드릴까요?"
- 8 파라오의 딸이 "그래, 가져라." 하자, 그 처녀가 가서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 9 파라오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기를 데려다 나 대신 젖을 먹여 주게. 내가 직접 그대에게 샴을 주겠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였다.
- 10 아이가 자라자 그 여인은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갔다. 공주는 그 아이를 이들로 삼고,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냈다." 하면서 그 이름을 모세라 하였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달아나다

- 11 모세가 자란 뒤 어느 날, 그는 자기 동포들이 있는 데로 나갔다가, 그들이 강제 노동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때 그는 이집트 사람 하나가 자기 동포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 12 이리저리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그 이집트인을 때려죽이고서 모래 속에 묻어 감추었다.
- 13 그가 이튿날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된 사람에게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시오?" 하고 말하였다.

- 14 "그저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관으로 세우기라도 했소? 당신은 이집트인을 죽였듯이 나도 죽일 작정이오?' 하고 대꾸하였다. 그러자 모세는 '이 일이 정말 탄로나고야 말았구나.' 하면서 두려워하였다.
- 15 파라오는 그 일을 전해 듣고 모세를 죽이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파라오를 피하여 도망쳐서, 미디안 땅에 자리 잡기로 하고 어떤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
- 16 그런데 미디안의 사제에게는 딸이 일곱 있었다. 이들이 그곳으로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서는 아버지의 양 떼에게 물을 먹이려 하였다.
- 17 그때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었다. 그러자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 양 떼에게 물을 먹여 주었다.
- 18 그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돌아가자, "오늘은 웬일로 일찍 돌아왔느냐?" 하고 그가 물었다.
- 19 "어떤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구해 주고, 우리 대신 물까지 길어서 양 떼에게 먹여 주었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 20 그가 딸들에게 말하였다. "그가 어디 있는가? 어찌서 그 사람을 내버려 두었느냐? 그를 불러다 음식을 대접하여라."
- 21 그 뒤 모세가 그 사람의 청을 받아들여 함께 살기로 하자, 그는 자기 딸 치포라를 모세에게 주었다.
- 22 그 여자가 이들을 낳자, 모세는 "내가 낫선 땅에서 이방인이 되었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게르숨이라 하였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생각하신다

- 23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이집트 임금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역에 짓눌려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러자 고역에 짓눌려

도움을 청하는 그들의 소리가 하느님께 올라갔다.

- 24 하느님께서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당시의 계약을 기억하셨다.
- 25 하느님께서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펴보고 그 처지를 알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불타는 떨기 속에 나타나시다

- 3¹ 모세는 미디안의 사제인 장인 이트로의 양 떼를 치고 있었다. 그는 양 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렘으로 갔다.
- 2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가 보니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그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 3 모세는 '내가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아야겠다. 저 떨기가 왜 타 버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 4 모세가 보러 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떨기 한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 5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 6 그분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네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느님을 뵈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모세가 소명을 받다

- 7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 8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그 땅에서 저 좋고 넓은 땅, 젓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족과 히타이트족과 아모리족과 프리즈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이 사는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 9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에게 다다랐다. 나는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억누르는 모습도 보았다.
- 10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어라."
- 11 그러자 모세가 하느님께 이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낼 수 있겠습니까?"
- 12 하느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면, 너희는 이 산 위에서 하느님을 예배할 것이다."

하느님께서 당신 이름을 계시하시다

- 13 모세가 하느님께 이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 이름이 무엇이요?'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 14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 15 하느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신 아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히 불릴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대대로 기

릴 나의 칭호이다."

모세의 소명에 관한 지침

- 16 "가서 이스라엘 원로들을 모아 놓고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너희를 찾아가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고 있는 일을 살펴보았다.'
- 17 그리하여 이집트에서 겪는 고난에서 너희를 끌어내어, 가나안족과 히타이트족과 아모리족과 프리즈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 18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함께 이집트 임금에게 가서, '주 히브리인들의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가 광야로 사할 길을 걸어가, 주 저희 하느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 19 그러나 강한 손으로 몰아세우지 않는 한, 이집트 임금은 너희를 내보내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안다.
- 20 그러므로 나는 손을 내뻗어 이집트에서 온갖 이적을 일으켜 그 나라를 치겠다. 그런 뒤에야 내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 21 나는 또 이 백성이 이집트인들에게 호감을 사도록 하여, 너희가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
- 22 여인들은 저마다 이웃 여자와 자기 집에 함께 사는 여자에게 은붙이와 금붙이와 옷가지를 요구할 것이고, 너희는 그것들을 너희 아들딸들에게 지울 것이다. 이렇게 너희는 이집트를 털 것이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다

- 4¹ 그러자 모세가 대답하였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제 말을 듣지도 않으면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나타나셨을 리가 없소' 하면 어찌합니까?"

- 2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나?" 그가 "지팡이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 3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것을 피해 물러서자,
- 4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꼬리를 붙잡으니, 뱀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 5 "이는 그들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인 주님이 나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는 것이다."
- 6 주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 보니, 그 손이 나뭇가지에 걸려 하얀 눈처럼 되어 있었다.
- 7 주님께서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어 보아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 그런 다음 품에서 손을 꺼내 보니, 제 살로 되돌아와 있었다.
- 8 "그들이 너를 믿지 않고 첫 번째 표징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두 번째 표징이 말하는 것은 믿을 것이다.
- 9 그들이 이 두 표징도 믿지 않고 너의 말을 듣지 않거든, 나일 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 강에서 퍼 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이론이 모세의 대변인이 되다

- 10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말씀씨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제 도 그제도 그러하였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도 무디고 혀도 무딥니다."

- 11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에게 입을 주었느냐? 누가 사람을 말 못하게 하고 귀먹게 하며, 보게도 하고 눈 멀게도 하느냐? 나 주님이 아니냐?"
- 12 그러니 이제 가거라. 내가 말할 때 내가 너를 도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겠다."
- 13 그러나 모세는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주님께서 보내실 만한 이를 보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 14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며 말씀하셨다. "레위인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는 너를 보면 마음으로 기뻐할 것이다.
- 15 너는 그에게 일러, 그가 해야 할 말을 그 입에 담아 주어라. 내가 말할 때나 그가 말할 때,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 16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는 너의 입이 되고, 너는 그의 하느님이 되어 줄 것이다.
- 17 그리고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너는 그것으로 표징들을 일으킬 것이다."

모세가 미디안을 떠나 이집트로 돌아가다

- 18 모세는 장인 이트로에게 돌아가서 말하였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척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 있는지 보아야겠습니다." 그러자 이트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게." 하고 말하였다.
- 19 주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네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 20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데려다 나귀에 태워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모세는

손에 하느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 2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쥐어 준 그 모든 기적을 명심하여 파라오 앞에서 일으켜라. 그러나 나는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게 하겠다.
- 22 그러면 너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파라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은 나의 만아들이다.
- 23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말하였건만, 너는 거부하며 그를 내보내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의 만아들을 죽이겠다.'"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다

- 24 모세가 길을 가다 어떤 곳에서 밤을 지내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려 하였다.
- 25 그러자 치포라가 날카로운 차들을 가져다 제 아들의 포피를 자르그서, 모세의 발에 대고 "나에게 당신은 피의 신랑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 26 그러자 그분께서 그를 놓아주셨다. 그때 치포라는 할례를 두고 '피의 신랑'이라고 말한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 앞에 서다

- 27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를 만나러 광야로 가거라." 그래서 아론은 길을 떠나 하느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 28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면서 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일으키라고 명령하신 모든 표징을 아론에게 알려 주었다.
- 29 모세와 아론은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로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 30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려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표징들을 일으켰다.

31 그러자 백성이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는 말을 듣고, 무릎을 꿇어 경배하였다.

모세와 아론이 주님의 말씀을 파라오에게 전하다

5 ¹ 그 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하여 축제를 지내게 하여라.'"

2 그러자 파라오가 대답하였다. "그 주님이 누구이기에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그 주님을 알지도 못 할뿐더러, 이스라엘을 내보내지도 않겠다."

3 그들이 다시 말하였다. "히브리인들의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 주 저희 하느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분께서 흑사병이나 칼로 저희를 던치실 것입니다."

4 이집트 임금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모세와 아론,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이 일을 하지 않도록 부추기느냐? 너희 일터로 돌아가라."

5 파라오가 또 말하였다. "그들이 이제 이 땅의 백성보다 많아졌는데도, 너희는 그들이 일을 그만두게 하려는구나!"

파라오가 이스라엘인들을 더 심하게 부린다

6 파라오는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작업 감독들과 조장들에게 명령하였다.

7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쓰는 짚을 더 이상 예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 주지 마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짚을 모아 오게 하여라.

8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그들이 예전에 만들던 것만큼 그들에게 지워라. 그 양을 줄여

서는 안 된다. 그들은 게을러져, '가서 저희 하느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며 아우성치고 있다.

9 그자들의 일을 더 힘들게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일만 하느라 허튼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될 것이다."

10 이에 그 백성의 작업 감독들과 조장들이 물러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파라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더 이상 짚을 대 주지 않겠다.'

11 직접 가서, 너희가 쓸 짚을 어디서든 찾아 가져와라. 그러나 너희의 일을 조금도 줄여서는 안 된다."

12 그리하여 그 백성은 온 이집트 땅에 흩어져, 벽돌 짚으로 쓸 지푸라기를 모아 왔다.

13 그러나 작업 감독들은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다름없이 그날 일은 그날로 마쳐라." 하며 다그쳤다.

14 그리고 파라오의 작업 감독들은 자기들이 세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조장들에게, "너희는 어찌서 정해진 벽돌 양을 어제보다도 늘도 예전처럼 채우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들을 때렸다.

이스라엘인 조장들이 파라오에게 항의하다

15 이스라엘 자손의 조장들이 파라오에게 가서 부르짖었다. "어찌하여 임금님의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16 이 종들은 짚을 받지도 못하는데, 그들은 벽돌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 종들이 이렇게 매를 맞았습니다. 임금님께서서는 이 백성에게 잘못하고 계십니다."

17 그러자 파라오가 대답하였다. "너희는 게으르기 짝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주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것이다.

18 가서 일이나 하여라. 너희에게 짚을 대 주지 않겠다. 그러나 벽돌은 정해 준 수대로

만들어 내어라."

- 19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들은, "너희가 만들어야 하는 벽돌 양을 줄여서는 안 된다. 그날 일은 그날로 하여라." 하는 말을 듣고 자기들이 곤경에 빠진 것을 알았다.

조상들의 불평과 모세의 탄원

- 20 그들은 파라오 앞에서 물러 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과 마주치자,
- 21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소. 당신들은 파라오와 그 신하들이 우리를 역겨워하게 만들어, 우리를 죽이도록 그들 손에 칼을 쥐어 주었소."
- 22 그러자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 아뢰었다. "주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괴롭히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보내셨습니까?"
- 23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당신 이름으로 말한 뒤로, 그가 이 백성을 괴롭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께서는 당신 백성을 도무지 구해 주시지 않습니다."

6 1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파라오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정녕 그는 강한 손에 밀려 그들을 내보낼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 그가 자기 땅에서 그들을 내쫓을 것이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다

- 2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나는 아혜다.
- 3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느님'으로 나타났으나, '아혜'라는 내 이름으로 나를 그들에게 알리지는 않았다.
- 4 또 나는 가나안 땅, 그들이 나그네살이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계약을 세웠다.
- 5 그리고 나는 이집트인들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 소리를 듣고, 나의 계약을 기억하였다.

- 6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님이다. 나는 이집트의 강제 노동에서 너희를 빼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구해 내겠다. 팔을 뻗어 큰 심판을 내려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 7 그리고 나서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느님이 되어 주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이집트의 강제 노동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8 그런 다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 차지로 주겠다. 나는 주님이다."
- 9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가가 꺾이고 힘겨운 종살이에 시달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 10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 11 "너는 이집트 임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라고 하여라."
- 12 이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도 제 말을 듣지 않았는데, 어찌 파라오가 제 말을 들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입이 안 떨어져 말을 못 합니다."
- 13 주님께서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다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라고 명령하시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집트 임금 파라오에게 보내셨다.

모세와 아론의 족보

- 14 그들 집안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눅, 팔루, 헤츠론, 카르미인데, 이들이 르우벤의 씨족들이다.
- 15 시메온의 아들들은 여무엘, 아민, 오핫, 야

킨, 초하르, 그리고 가나안 여인의 아들이
사울인데, 이들이 시메온의 씨족들이다.

- 16 족보에 따라 본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이
러하다. 곧 게르손, 크핫, 므라리이다. 레
위가 산 헷수는 백삼십칠 년이다.
- 17 씨족에 따라 본 게르손의 아들들은 리브니
와 시므이이다.
- 18 크핫의 아들들은 아르람, 이츠하르, 헤브
론, 우찌엘이다. 크핫이 산 헷수는 백삼십
삼 년이다.
- 19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이다. 이
들이 족보에 따라 본 레위의 씨족들이다.
- 20 아르람은 자기의 고모 요케벳을 아내로 맞
아들었는데, 이 여인이 그에게 아론과 모세
를 낳아 주었다. 아르람이 산 헷수는 백삼
십칠 년이다.
- 21 이츠하르의 아들들은 코라, 네벵, 지크리이
다.
- 22 우찌엘의 아들들은 미사엘, 엘차판, 시트리
이다.
- 23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이요 나호손의 누이
인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었는데, 이
여인이 그에게 나답, 아비후, 엘아자르, 이
타마르를 낳아 주었다.
- 24 코라의 아들들은 아찌르, 엘카나, 아비아삽
이다. 이들이 코라인들의 씨족들이다.
- 25 아론의 아들 엘아자르는 푸티엘의 딸들 가
운데 하나를 아내로 맞아들었는데, 이 여인
이 그에게 피느하스를 낳아 주었다. 이들이
씨족에 따라 본 레위인 가문의 우두머리들
이다.
- 26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대로 편성하여 이집
트 땅에서 이끌어 내어라." 하신 주님의
분부를 받은 이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다.
- 27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
려고 이집트 임금 파라오에게 말할 이들도
바로 모세와 아론이다.

모세가 소명을 받다

- 28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이르시
던 날,
29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
나는 주님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모두 이집트 임금 파라오에게 전하여라."
30 그러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오, 저는 입이 안 떨어져 말을 못 합니다.
어찌 파라오가 제 말을 들겠습니까?"

- 7 ¹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
아라, 나는 너를 파라오에게 하느님
처럼 되게 하였다. 그리고 너의 형 아론은
너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 2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모두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그것을 파라오
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 땅에
서 내보내게 하여라.
- 3 그러나 나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
고,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기적을 많이 일
으키겠다.
- 4 그래도 파라오가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나
는 이집트에 내 손을 뻗쳐 큰 심판을 내려
서 나의 군대, 곧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
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겠다.
- 5 내가 이집트 위로 내 손을 뻗어 그들 가운
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 내면, 이
집트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
다."
- 6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주님
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 7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할 때, 모세는 여든
살, 아론은 여든세 살이었다.
- ##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다
- 8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9 "파라오가 너희에게 '기적을 일으켜 보아
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잡아

- 파라오 앞으로 던지라고 말하여라. 그것이 큰 뱀이 될 것이다."
- 10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 가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아론이 자기 지팡이를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으로 던지자, 그것이 큰 뱀이 되었다.
- 11 파라오도 현인들과 요술사들을 불러들였다. 이들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자기네 요술로 그와 똑같이 하였다.
- 12 그들이 저마다 자기 지팡이를 던지자, 그것들도 큰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들을 삼켜 버렸다.
- 13 그래도 파라오는 마음이 완고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첫째 재앙: 물이 피가 되다

- 14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가 마음이 완고해서 백성을 내보내기를 거부하는구나.
- 15 아침에 파라오에게 가거라. 그가 물가로 나갈 터이니, 나일 강 가에서 있다가 그를 만나라. 뱀으로 변하였던 그 지팡이도 손에 쥐고 있어야.
- 16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 히브리인들의 하느님께서 저를 임금님께 보내시어, '내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하셨는데도, 파라오께서는 여태껏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 17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나는 내가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보아라, 내 손에 있는 이 지팡이로 나일 강 물을 치겠다. 그러면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 18 강에 있는 물고기들은 죽고 강은 악취를 풍겨, 이집트인들이 강에서 물을 퍼 마시지 못할 것이다.' "

- 19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에 있는 물, 강과 운하와 늪, 그 밖에 물이 권 모든 곳 위로 손을 뻗으라고 말하여라. 그리하여 그것들이 피가 되게 하여라. 그러면 이집트 땅 모든 곳에, 심지어 나무와 돌에까지도 피가 흥건할 것이다."
- 20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 물을 쳤다. 그러자 나일 강 물이 모두 피로 변하였다.
- 21 강에 있는 물고기들은 죽고 강은 악취를 풍겨, 이집트인들이 강에서 물을 퍼 마실 수가 없었다. 이집트 온 땅에 피가 흥건하였다.
- 22 그러나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자기네 마술로 그와 똑같이 하였다. 그러자 파라오는 마음이 완고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 23 파라오는 이 일도 마음에 두지 않은 채, 몸을 돌려 궁궐로 돌아가 버렸다.
- 24 나일 강에서 물을 퍼 마실 수 없게 되자, 이집트인들은 모두 마실 물을 찾아 강 주변을 왔다.
- 25 주님께서 나일 강을 치신 지 이레가 지났다.

둘째 재앙: 개구리 소동

- 26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에게 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 27 내가 만일 내보내기를 거부한다면, 나는 개구리 떼로 너의 온 영토를 치겠다.
- 28 그러면 나일 강에 개구리들이 우글거릴 것이다. 그것들은 올라와 네 궁궐과 침실로, 네 침상 위로, 네 신하들과 백성의 집으로, 네 화덕과 반죽 통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29 그리고 개구리들은 너에게, 네 백성에게, 너의 모든 신하들에게 뛰어오를 것이다."

8

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든 손을

강과 운하와 늪 위로 뻗어, 개구리들을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라고 말하여라."

2 아론이 이집트의 물 위로 손을 뻗자, 개구리들이 올라와 이집트 땅을 뒤덮었다.

3 그러나 요술사들도 자기네 마술로 그와 똑같이 하여, 개구리들을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였다.

4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였다. "너희는 주님께 기도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들을 물리쳐 다오.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을 내보내어, 주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 주겠다."

5 그러자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하였다.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궁궐에서 물러나 니일 강에만 남아 있도록, 임금님과 신하들과 백성을 위하여 언제 기도해야 할지 저에게 분부만 내리십시오."

6 파라오가 "내일이다." 하고 대답하자, 모세가 말하였다. "임금님 말씀대로 하겠습니까. 이는 주 저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임금님께서 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7 이제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궁궐과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물러가, 니일 강에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8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서 물러 나왔다. 모세는, 주님께서 파라오에게 보내신 개구리들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었다.

9 주님께서 모세가 청한 대로 해주셨다. 개구리들이 집과 뜰과 들에서 죽어 갔다.

10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무더기로 쌓아 놓으니, 땅이 악취를 풍겼다.

11 그러나 파라오는 일이 진정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완강해져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셋째 재앙: 모기 소동

12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뻗어 땅의 먼지를 쳐서, 그것을 이집트 온 땅에서 모기로 변하게 하라고 말하여라."

13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지팡이를 든 손을 뻗어 땅의 먼지를 치자,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모기들이 달려들었다. 이집트 온 나라에서 땅의 먼지가 모기로 변하였다.

14 요술사들도 똑같이 하여 자기네 마술로 모기들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모기들이 계속해서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달려들었다.

15 요술사들이 파라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마음이 완고해져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넷째 재앙: 등애 소동

16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나서라. 그가 물가로 나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여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17 내가 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네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또 너의 궁궐로 등에 때를 보내겠다. 그러면 이집트인들의 집과 그들이 사는 땅이 등애로 가득할 것이다.

18 그러나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사는 고센 땅만은 따로 구분하여, 그곳에는 등애가 없게 하겠다. 이는 나 주님이 이 땅에 있음을 내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19 나는 이렇게 너의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둘 터인데, 그 표징이 내일 일야날 것이다."

- 20 주님께서는 그대로 하셨다. 엄청난 등에 떼가 파라오의 궁궐과 그 신하들의 집으로 날아들었다. 이집트 온 나라의 땅이 등에 때문에 폐허가 되었다.
- 21 그러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였다. "가져라. 그러나 이 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 22 모세가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희가 주 저희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집트인들이 역겨워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인들이 역겨워하는 것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희가 제물로 바치면, 그들이 저희에게 돌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 23 주 저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 그분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 24 그러자 파라오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내보낼 터이니, 광야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다만 너무 멀리 가서는 안 된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다오."
- 25 모세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제가 임금에게서 물러가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면 파라오와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등에 떼가 물러날 것입니다. 다만 파라오께서 다시 저희를 속이시고 이 백성을 내보내지 않아, 주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26 모세는 파라오에게서 물러 나와 주님께 기도하였다.
- 27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가 말한 대로 해주셨다. 등에 떼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에게서 물러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 28 그러나 파라오는 이번에도 마음이 완강해서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다섯째 재앙 가축병

- 9 ¹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였다. "파라오에게 가서, '주 히브리인들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일러라.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배배하게 하여라.
- 2 내가 그들을 내보내기를 거부하고 계속 그들을 붙잡아 둔다면,
- 3 주님의 손이 들에 있는 너의 짐승들,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을 지독한 흑사병으로 칠 것이다.
- 4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의 짐승들과 이집트의 짐승들을 구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 5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이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하시며 때를 정하셨다.
- 6 이튿날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하셨다. 이집트의 짐승들은 모두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짐승들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 7 파라오는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의 짐승들은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파라오는 마음이 완강해서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 ### 여섯째 재앙 종기
- 8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였다. "너희는 가마에 있는 그늘음을 두 손 가득히 쥐어라.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파라오 앞에서 공중으로 뿌려라.
- 9 그리하여 그것이 만지가 되어 이집트 온 땅에 퍼져 나가, 이집트 온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에게 궤양을 일으키는 종기가 되게 하여라."
- 10 그들은 가마에 있는 그늘음을 쥐고 파라오 앞에 섰다. 모세가 그것을 공중으로 뿌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궤양을 일으키는 종기가 되었다.
- 11 요술사들과 모든 이집트인에게 종기가 생

겨, 요술사들도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다.

- 12 그러나 주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므로, 그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였다.

일곱째 재앙: 우박

- 13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나서서, '주 히브리인들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여라. '내 백성을 내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 14 이번에는 내가 온갖 재앙을 너 자신과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내려,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음을 네가 알게 하겠다.
- 15 진작 나는 손을 내뻗어 너와 너의 백성을 흑사병으로 쳐서, 네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해 버릴 수도 있었다.
- 16 그렇지만 나는 까닭이 있어 너를 살려 두었다. 너에게 내 능력을 보이고, 온 세상에 내 이름을 떨치게 하려는 것이다.
- 17 그런데 너는 계속 내 백성을 거만하게 대하면서, 그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는다.
- 18 그러므로 나는 내일 이 시간에, 이집트가 생긴 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엄청난 우박을 쏟아 붓겠다.
- 19 그러나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너의 집집승과 들에 있는 너의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라. 미처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들에 남은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 20 파라오의 신하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제 종들과 집집승들을 제빨리 집 안으로 피신시켰다.
- 21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들은 제 종들과 집집승들을 그대로 들에 내버려 두었다.

22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을 하늘로 뻗어라. 그리하여 우박이 이집트 온 땅에, 이집트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과 모든 풀 위에 내리게 하여라."

23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로 뻗자, 주님께서 우레와 함께 우박을 내리셨다. 번갯불이 땅으로 떨어졌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우박을 쏟으셨다.

24 번갯불이 잇달아 번쩍이면서 우박이 내렸다. 이처럼 엄청난 우박은, 이집트에 나라가 선 뒤로 이집트 온 땅에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었다.

25 이렇게 우박이 이집트 온 땅에서,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에 이르기까지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다. 들의 풀도 모조리 치고 들의 나무도 모조리 부러뜨렸다.

26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고센 땅에만은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27 파라오는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 말하였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주님께서는 옳으시고 나와 내 백성은 그르다.

28 주님께 기도해 다오. 우레와 우박이 너무 심하구나. 내가 너희를 내보내겠다.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르지 않아도 된다."

29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제가 성읍을 나서는 대로 주님께 제 손을 펼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레가 멎고 우박이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세상이 주님께 속한다는 것을 임금님께서 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30 그래도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이 아직 주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으실 줄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31 마침 보리는 이삭이 패고 아머는 꽃이 피어 있었으므로, 아머와 보리는 못 쓰게 되고 말았다.

32 그러나 밀과 귀리는 늦게 나오는 것들이었

으므로 못 쓰게 되지는 않았다.

- 33 모세는 파라오에게서 물러나 성읍을 나와서, 주님께 손을 펼쳤다. 그러자 우레와 우박이 멎고, 땅에는 비가 더 이상 쏟아지지 않았다.
- 34 파라오는 비와 우박과 우레가 멎는 것을 보고 다시 죄를 지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또 완강해진 것이다.
- 35 파라오는 마음이 완고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였다.

아들째 재앙: 메뚜기 소동

- 10 ¹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에게 가거라.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든 것은 나다. 그것은 그들 한가운데에 나의 이 표징들을 일으키려는 것이고,
- 2 내가 이집트인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표징들을 이루었는지 네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내가 주님임을 너희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 3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히브리인들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굽히기를 거부하려느냐?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 4 내가 나의 백성을 내보내기를 거부한다면, 나는 내일 너의 영토 안으로 메뚜기 떼를 끌어들이겠다.
- 5 메뚜기들이 온 땅을 덮어 땅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은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은 것들을 먹어 버리고, 들에서 자라는 너희의 나무들도 모조리 먹어 버릴 것이다.
- 6 또 너의 궁궐과 네 모든 신하의 집과 모든 이집트인의 집이 메뚜기로 가득 찰 것이다. 이는 너의 아버지와 너의 조상들이 이 땅에

서 살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까지 일찍이 보지 못한 일이 될 것이다." 모세는 몸을 돌려 파라오에게서 물러 나왔다.

- 7 파라오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저자가 언제까지 우리에게 올라미가 되도록 내버려 두시렵니까? 저자들을 내보내시어 주 그들의 하느님께 예배드리게 하십시오. 이 집트가 망한 것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 8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이 다시 파라오에게 불러 갔다. 파라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가서 주 너희 하느님께 예배드려라.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누구냐?"
- 9 모세가 대답하였다. "저희의 아이들과 노인들을 데리고 가야겠습니다. 아들딸들과 함께, 양 떼와 소 떼도 몰고 가야겠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축제를 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 10 그러자 파라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아무리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 한들,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것들을 함께 내보낼 성실이나? 너희가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 11 어렵도 없다. 장정들이나 가서 주님께 예배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바라던 것이 아니냐?" 그들은 파라오 앞에서 쫓겨났다.
- 12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을 이집트 땅 위로 뻗어라. 그리하여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으로 몰려와 땅의 풀을 모조리, 우박이 남겨 놓은 것을 모조리 먹어 버리게 하여라."
- 13 모세가 이집트 땅 위로 지팡이를 뻗자, 주님께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그 땅으로 셋바람을 몰아치셨다. 아침이 되어 보니, 셋바람이 이미 메뚜기 떼를 몰고 와 있었다.
- 14 메뚜기 떼가 이집트 온 땅에 몰려와, 이집트 온 영토에 내려앉았다. 이렇게 엄청난 메뚜기 떼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였다.

- 15 그것들이 온 땅을 모두 덮어 땅이 어두워졌다. 그리고는 우박이 남긴 땅의 풀과 나무의 열매를 모조리 먹어 버렸다. 그리하여 이집트 온 땅에는 들의 풀이고 나무고 할 것 없이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 16 그러자 파라오가 서둘러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였다. "내가 주 너희 하느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 17 그러나 이번만은 내 죄를 용서하고 주 너희 하느님께 기도하여, 이 치명적인 재앙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게만 해 나오."
- 18 모세가 파라오에게서 물러 나와 주님께 기도하였다.
- 19 그러자 주님께서 바람을 매우 세찬 하늬바람으로 바꾸셨다. 그 바람이 폐뚜기 때를 물고 가서 갈대 바다로 치넣으니, 이집트 온 영토에 폐뚜기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
- 20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이름째 재앙: 아픔

- 21 주님께서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로 손을 뻗어라. 그리하여 어둠이, 손으로 만져질 듯한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게 하여라."
- 22 모세가 하늘로 손을 뻗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이집트 온 땅을 덮었다.
- 23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곳은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 24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님께 예배드려라. 다만 너희 양 떼와 소 떼만은 남겨 두어라. 어린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도 좋다."
- 25 그러자 모세가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도,

주 저희 하느님께 저희가 바칠 희생 제물과 번제물을 내주셔야 하겠습니까.

- 26 그리고 저희의 짐승들도 저희와 함께 가야 합니다. 한 마리도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 저희 하느님께 바칠 것을 골라야 하는데, 저희가 그곳에 다리를 때까지는 주님께 무엇을 바쳐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27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는 그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 28 파라오가 모세에게 말하였다. "나에게서 썩 물러가라.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 너는 죽을 것이다."
- 29 모세가 대답하였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임금님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않겠습니다."

열째 재앙의 예고

- 11 ¹ 주님께서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파라오와 이집트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런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이곳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이에 너희를 모조리 이곳에서 내쫓을 것이다.
- 2 백성에게 일러, 남자는 이웃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 여자에게 은불이와 금불이를 요구하게 하여라."
- 3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인들에게 호감을 사도록 해 주셨다. 그리고 이 모세라는 사람은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의 신 하들과 백성의 눈에 위대한 인물로 보였다.
- 4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가운데로 나아가겠다.
- 5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만이들부터 멧돌 앞에 앉은 여종의 만이들까지 이집트 땅의 만

- 아들과, 짐승의 만배들이 모조리 죽을 것이다.
- 6 그러면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터질 것이다.
- 7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개조차 짓지 않을 것이다.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그러할 것이다. 이는 주님이 이집트인들과 이스라엘 인들을 구분하였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 8 이렇게 되면 임금님의 신하들이 모두 내려와 저에게 앞드려, '그대와 그대를 따르는 백성은 모두 떠나가 주시오.' 하고 말할 것 입니다. 그제야 저는 떠나가겠습니다." 모세는 노기에 차 파라오에게서 물러 나왔다.
- 9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는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에게 이집트 땅에서 더 많은 기적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 10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 앞에서 이 모든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지 않았다.

파스카 축제

- 12** 1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 2 "너희는 이달을 첫째 달로 삼아,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 3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달 초열흘날 너희는 가정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집집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 4 만일 집에 식구가 적어 짐승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사람 수에 따라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짐승을 마련하여라. 저마다 먹는 양에 따라 짐승을 골라라.
- 5 이 짐승은 일 년 된 흠 없는 수컷으로 양이

나 염소 가운데에서 마련하여라.

- 6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나흘날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모여 저녁 어스름에 잡아라.
- 7 그리고 그 피는 반아서, 짐승을 먹음 집의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 8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 9 그것을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이 있는 채로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
- 10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 11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매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다.
- 12 이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만아들과 만배를 모조리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 신들을 모조리 벌하겠다. 나는 주님이다.
- 13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거르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 14 이날이아말도 너희의 기념일이니, 이날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라. 이를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야 한다.'

무교절

- 15 '너희는 이제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이에 첫날에 너희 집 안에서 누룩을 치워 버려라. 첫날부터 이렛날까지 누룩 든 빵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잘려 나갈 것이다.

- 16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이렛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이라. 이 두 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가 저마다 먹어야 할 것만은 준비해도 된다.
- 17 너희는 무교절 축제를 지켜야 한다. 바로 이날, 내가 너희 부대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날을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지켜야 한다.
- 18 첫째 달 열나흘날 저녁부터 그달 스무하룻날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 19 이레 동안 너희 집 안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룩 든 것을 먹는 자는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누구든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잘려 나갈 것이다.
- 20 누룩 든 것은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파스카 축제에 대한 지시

- 21 모세는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저마다 제 집안을 위하여 작은 짐승을 한 마리씩 끌 어다 파스카 제물로 잡아라.
- 22 그리고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받아 놓은 피에 담가라. 그것으로 그 대야에 받아 놓은 피를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너희는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 23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을 치러 지나시다가,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른 피를 보시면, 그 문은 거르고 지나가시고 파괴자가 너희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 24 너희는 이것을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한 규정으로 삼아 영원히 지켜야 한다.
- 25 너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실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켜라.
- 26 너희 자녀들이 너희에게 '이 예식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으면,

- 27 이렇게 대답하여라. '그것은 주님을 위한 파스카 제사이다. 그분께서는 이집트인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을 거르고 지나가시어, 우리 집들을 구해 주셨다.'" 그러자 백성은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다.
- 28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서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열째 재앙: 이집트 민비들과 만배의 죽음

- 29 한밤중에 주님께서서는 이집트 땅의 만아들과 만배를, 곧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만아들부터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만아들과 짐승의 만배까지 모조리 치셨다.
- 30 그러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이집트인들이 모두 그 밤중에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곡성이 터졌다. 초상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 31 파라오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였다. "너희도 이스라엘 자손들도 어서 일어나 내 백성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말하던 대로, 가서 주님께 예배드려라.
- 32 너희가 말하던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복을 빌어 나오."
- 33 이집트인들은 "우리가 모두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네 땅에서 어서 떠나가라고 재촉하였다.
- 34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빵 반죽이 부풀기도 전에, 반죽 통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메었다.
- 35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일러 준 대로, 이집트인들에게 은붙이와 금붙이와 옷가지들을 요구하였다.
- 36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인들에게 호감을 사도록 하시어, 요구하는 대로

다 내주게 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이집트 인들을 털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다

- 37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은 라베세스를 떠나 수컷으로 향하였다. 아이들을 빼고 걸어서 행진하는 장정만도 육십만기량이나 되었다.
- 38 그 밖에도 많은 이국인들이 그들과 함께 올라가고, 양과 소 등 수많은 가축 떼도 올라갔다.
- 39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 없는 과자를 구웠다. 반죽이 부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쫓겨 나오느라 머뭇거릴 수가 없어서, 여행 양식도 장만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 40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사백삼십 년이다.
- 41 사백삼십 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부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 42 그날 밤,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시려고 밤을 새우셨으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도 대대로 주님을 위하여 이 밤을 새우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세칙

- 43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파스카 축제 규칙은 이러하다. 외국인인 아무도 파스카 제물을 함께 먹지 못한다.
- 44 돈으로 사들인 종은 누구든 할례를 받았으면 함께 먹을 수 있다.
- 45 거류민과 머슴은 함께 먹지 못한다.
- 46 어느 집이든 한 집에서 먹어야 한다. 고기를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 47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이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한다.
- 48 네 곁에 머무르는 이방인이 주님을 위하여 파스카 축제를 지내려면, 남자는 모두 할례

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그는 본토인처럼 파스카 축제를 함께 지낼 수 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아무도 함께 먹지 못한다.

- 49 이 법은 본토인에게나 너희 가운데에 머무르는 이방인에게나 동일하다."
- 50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 51 바로 이날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대로 편성하여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다.

만이들과 만배의 봉헌

- 13 ¹ 주님께서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²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만아들, 곧 태를 맨 먼저 열고 나온 첫아들은 모두 나에게 봉헌하여라. 사람뿐 아니라 짐승의 만배도 나의 것이다."

누룩 없는 빵에 관한 세칙

- 3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나온 이날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 내셨기 때문이다. 이날 누룩 든 빵을 먹어서는 안 된다.
- 4 너희는 아빌 달 바로 오늘 나왔다.
- 5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가나안족과 히타이트족과 아모리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시거든, 이달에 이러한 예식을 올려야 한다.
- 6 너희는 이제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이 랫날에는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야 한다.
- 7 이제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그 동안 너희 영토 어느 곳에서든 누룩 든 빵이 보여서도 안 되고, 누룩이 보여서도 안 된다.

- 8 그날 너희는 너희 아들에게, '이것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 때문이란다.' 하고 설명해 주어라.
- 9 이것을 너희는 너희 손에 감은 표징과 너희 이마에 붙인 기님의 표지로 여겨, 주님의 가르침을 되낼 수 있게 하여라.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기 때문이다.
- 10 너희는 이 규칙을 해마다 정해진 때에 지켜야 한다."

민이들과 민배의 봉헌 시책

- 11 "주님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를 가나안족의 땅으로 데려가셔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면,
- 12 너희는 태를 맨 먼저 열고 나온 것을 모두 주님께 바쳐야 한다. 너희 가족이 처음 낳은 것으로 수컷은 모두 주님의 것이다.
- 13 그러나 나귀의 첫 새끼는 양으로 대속해야 한다. 대속하지 않으려면 그 목을 꺾어야 한다. 너희 자식들 가운데 맏아들은 모두 대속해야 한다.
- 14 뒷날, 너희 아들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여라.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셨다.
- 15 그때 파라오가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으므로, 주님께서 사람의 맏아들부터 짐승의 맏배까지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것을 모조리 죽이셨다. 그래서 나는 태를 맨 먼저 열고 나온 수컷을 모두 주님께 바친다. 그러나 아들들 가운데에서 맏아들은 모두 대속하는 것이다.
- 16 이것을 네 손에 감은 표징과 네 이마에 붙인 표지로 여겨라.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

- 17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때, 하느님께서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을 지나갈 길이 가장 가까운데도,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이 닥쳐올 전쟁을 내다보는 마음을 바꾸어 이집트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지.' 하고 생각하셨던 것이다.
- 18 그래서 하느님께서 백성을 갈대 바다에 이르는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열을 갖추고 이집트 땅에서 올라갔다.
- 19 모세는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하느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 여기서 내 유골을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엄숙히 맹세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 20 그들은 수컷을 떠나 광야 가장자리에 있는 에탐에 진을 쳤다.
- 21 주님께서 그들이 밤낮으로 행진할 수 있도록 그들 앞에 서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어 주셨다.
- 22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에탐에서 갈대 바다로

- 14 ¹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²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되돌아가서 므딕들과 바알 츠폰 알 바다 사이에 있는 피 하리못 앞에 진을 치라고 일러라. 너희는 바알 츠폰을 마주하고 바닷가에 진을 쳐야 한다.
- 3 그러면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갇혀 아직도 이 땅에서 헤매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 4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그가 그들의 뒤를 쫓을 것이다. 그런 다음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를 쳐서 나의 영광

을 드러내면,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을 뒤쫓다

- 5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 임금에게 전해졌다. 그러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마음이 달라져, "우리를 섬기던 이스라엘을 내보내다니, 우리가 무슨 짓을 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 6 파라오는 자기 병거를 갖추어 군사들을 거느리고 나섰다.
- 7 그는 병거 육백 대에 이르는 정예 부대와, 군관이 이끄는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나섰다.
- 8 주님께서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므로,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뒤를 쫓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었다.
- 9 마침내 파라오의 모든 말이며 병거, 그의 기병이며 보병 등 이집트인들이 그들의 뒤를 쫓아가, 바알 츠론 앞 피 하히롯 근처 바닷가에 진을 친 그들을 따라잡았다.
- 10 파라오가 다가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보니, 이집트인들이 그들 뒤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 11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밋자리가 없어 광야에서 죽으라고 우리를 데려왔소?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어 이렇게 만드는 것이오?"
- 12 '우리한테는 이집트인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 이집트인들을 섬기게 우리를 그냥 놔두시오.' 하면서 우리가 이미 이집트에서 당산에게 말하지 않았소?"
- 13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들 마라. 똑바로 서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실 구원을 보아라. 오늘

너희가 보는 이집트인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것이다.

- 14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실 터이니, 너희는 잠자코 있기를 하라."

이스라엘인들이 바다를 건다

- 15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일러라.
- 16 너는 네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뻗어 바다를 가르고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가게 하여라.
- 17 나는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너희를 뒤따라 들어 가게 하겠다. 그런 다음 나는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 18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19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나아가던 하느님의 천사가 자리를 옮겨 그들 뒤로 갔다.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자리를 옮겨 그들 뒤로 가셨다.
- 20 그리하여 그것은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자 그 구름이 한 쪽은 어둡게 하고, 다른 쪽은 밤을 밝혀 주었다. 그래서 밤새도록 아무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다가갈 수 없었다.
- 21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거센 샅바람으로 바닷물을 밀어 내시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그리하여 바닷물이 갈라지자,
- 22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 23 뒤이어 이집트인들이 쫓아왔다. 파라오의

모든 말과 병거와 기병들이 그들을 따라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 24 새벽녘에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에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다.
- 25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집트 병거들의 바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어, 병거를 몰기 어렵게 만드셨다. 그러자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을 피해 달아나자.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집트와 싸우신다." 하고 말하였다.
- 26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위로 손을 뻗어,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병거와 기병들 위로 물이 되돌아오게 하여라."
- 27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날이 새자 물이 제자리로 되돌아왔다. 그래서 도망치던 이집트인들이 물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주님께서서는 이집트인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차넣으셨다.
- 28 물이 되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따라 바다로 들어선 파라오의 모든 군대의 병거와 기병들을 덮쳐 버렸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 29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 30 그날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해 주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죽어 있는 이집트인들을 보게 되었다.
- 31 이렇게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에게 행사하신 큰 권능을 보았다. 그리하여 백성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그분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모세의 노래

15 ¹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이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이

렇게 노래하였다. "나는 주님께 노래하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처넣으셨네.

- 2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군셈. 나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다. 이분은 나의 하느님, 나 그분을 찬미하리라. 내 아버지의 하느님, 나 그분을 높이 기리리라.
- 3 주님은 전쟁의 용사 그 이름 주님이시다.
- 4 파라오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내던지시니 그 빼어난 군관들이 갈대 바다에 빠졌네.
- 5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돌처럼 깊이 가라앉았네.
- 6 주님,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신 당신의 오른손이, 주님, 당신의 오른손이 원수를 짓부수셨습니다.
- 7 당신의 그 큰 엄위로 적들을 뒤엎으시고 당신의 진노를 보내시어 그들을 검멸인 양 살라 버리셨습니다.
- 8 당신 노호의 숨결로 물이 모이고 물결은 돌처럼 우뚝 섰으며 깊은 물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엉겼습니다.
- 9 원수가 말하였습니다. '내가 쫓아가 붙잡고 노획물을 나누어 내 욕구를 채우리라. 칼을 뽑아 들고 이 손으로 그들을 쳐부수리라.'
- 10 그러나 당신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들은 거센 물 속에 납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 11 주님, 신들 가운데 누가 당신과 같겠습니까? 누가 당신처럼 거룩함으로 영광을 드러내고 위엄으로 두렵게 하며 기적을 일으키겠습니까?
- 12 당신께서 오른손을 뻗으시니 땅이 그들을 삼켜 버렸습니다.
- 13 당신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자애로 인도하시고 당신 힘으로 그들을 당신의 거룩한 처소로 이끄셨습니다.
- 14 민족들이 듣고 떨었으며 필리스티아 주민들은 고통에 사로잡혔습니다.

- 15 에돔의 족장들이 질겁하고 모압의 수령들이 전술에 사로잡혔으며 가나안의 모든 주민이 불만에 떨었습니다.
- 16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에게 밀어닥쳤습니다. 그들은 당신 팔의 위력을 보고 돌처럼 잠잠해졌습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당신께서 얻으신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잠잠하였습니다.
- 17 당신께서 그들을 데려다 당신 소유의 산에 심으셨습니다. 주님, 그 산은 당신께서 살려고 만드신 곳 주님, 당신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 18 주님께서서는 영원무궁토록 다스리신다."
- 19 파라오의 말들이 그의 병거와 기병들과 함께 바다에 들어섰을 때, 주님께서서는 바닷물을 그들 위로 되돌리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걸었다.

미르얌의 노래

- 20 예언자이며 아론의 누이인 미르얌이 손북을 들고, 여자들이 모두 그 뒤를 따라 손북을 들고 춤을 추었다.
- 21 미르얌이 그들에게 노래를 메겼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처넣으셨네."

모세가 마리아에서 쓴 물을 단 물로 바꾸다

- 22 모세가 이스라엘을 갈대 바다에서 떠나게 하니, 그들이 수르 광야로 나아갔다. 광야에서 사흘 동안을 걸었는데도, 그들은 물을 찾지 못하였다.
- 23 마침내 마리아에 다다랐지만, 그곳 마리아의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 24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한단 말ियो?" 하고 불평하였다.
- 25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나무 하나를 보여 주셨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단 물이 되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서는 백성을 위한 규정과 법규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주님께서서는 백성을 시험하셨다.

- 26 그리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며,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정을 지키면, 이집트인들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낮게 하는 주님이다."
- 27 그들은 엘림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샘이 열두 개, 아자나무가 일흔 그루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만나와 매추라기

- 16 ¹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는 엘림을 떠나, 엘림과 사나이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는 날이었다.
- 2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였다.
- 3 이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였다. "아, 우리가 고기 냄비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그때, 이집트 땅에서 주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런데 당신들은 이 무리를 모조리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왔소?"
- 4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 줄 터이니, 백성은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모아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나는 이 백성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겠다.
- 5 옛날에는, 그날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음식을 장만해 보면, 날마다 모아들이던 것의 갑절이 될 것이다."
- 6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모든

-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신 분이 주님이심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 7 그리고 아침이 되면, 너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가 주님께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인가에 너희가 우리에게 불평하느냐?"
- 8 모세가 다시 말하였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저녁에는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가 주님께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인가? 너희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 불평한 것이다."
- 9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너희의 불평을 들으셨으니, 그분 앞으로 가까이 오나라.' 하고 말하십시오."
- 10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이 광야 쪽을 바라보니,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 11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 12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가 저녁 어스름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양식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너희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13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 진영을 덮었다. 그리고 아침에는 진영 둘레에 이슬이 내렸다.
- 14 이슬이 걷힌 뒤에 보니, 잘기가 땅에 내린 서리처럼 잔 알갱이들이 광야 위에 깔려 있는 것이었다.
- 15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이게 무엇인가?" 하고 서로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 16 주님께서 내리신 분부는 이렇다. '너희는 저마다 먹을 만큼 거두어들여라. 너희 식구의 머리 수대로 한 오메르씩, 저마다 자기 천막에 사는 이들을 위하여 가져가거라.'"
- 17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하였다. 더러는 더 많이, 더러는 더 적게 거두어들였다.
- 18 그러나 오메르로 되어 보자, 더 많이 거둔 이도 남지 않고, 더 적게 거둔 이도 모자라지 않았다. 저마다 먹을 만큼 거두어들인 것이다.
- 19 모세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아무도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마라."
- 20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 두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구더기가 피고 고약한 냄새가 났다.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내었다.
- 21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제가 먹을 만큼만 거두어들였다.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은 녹아 버렸다.
- 22 엿새날에는 한 사람에 두 오메르씩, 양식을 갑절로 거두어들였다. 공동체의 수장들이 모두 와서 모세에게 이 일을 알리자,
- 23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분부하셨다. '내일은 안식의 날, 주님을 위한 거룩한 안식일이다. 구울 것은 굶고 삶은 것은 삶아라. 그리고 남은 것은 모두 아침까지 보관해 두어라.'"
- 24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아침까지 놓아두었지만, 고약한 냄새를 피우지도 않고 벌레가 피지도 않았다.
- 25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은 이것을 먹어라. 오늘은 주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오늘날은 들에서 양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 26 엿새 동안 너희는 그것을 거두어들일 수 있다. 그러나 안식일인 이렛날에는 아무것도 없다."
- 27 그런데 이렛날에 백성 가운데 몇몇이 그것

을 거두어들려고 나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28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언제까지 내 계명과 내 지시를 지키지 않으려느냐?"

29 보아라, 주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다. 그래서 옛날에는 너희에게 이틀치 양식을 준다. 그러니 이렛날에는 저마다 제자리에 머무르고, 아무도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나 밖으로 나가지 마라."

30 그리하여 백성은 이렛날에는 쉬었다.

31 이스라엘 집안은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하였다. 그것은 고수풀 씨앗처럼 하얗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32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리신 분부는 이렇다. '그것을 한 오메르 가득 채워 대대로 보관하여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낼 때, 광야에서 너희를 먹여 살린 이 양식을 자손들이 볼 수 있게 하여라.'"

33 그리고 나서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항아리 하나를 가져다 그 안에 만나 한 오메르를 가득 담아서, 주님 앞에 두어 대대로 보관하십시오."

34 그래서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언판 앞에 놓아 보관하게 하였다.

35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착지에 다다를 때까지 사십 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 땅 경계에 다다를 때까지 그들은 만나를 먹었던 것이다.

36 한 오메르는 십분의 일 에파이다.

마씨와 르피딤의 물

17 ¹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는 주님의 분부대로 신 광야를 떠나 차츰 차츰 자리를 옮겨 갔다. 그들은 르피딤에 진을 쳤는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2 백성은 "우리가 마실 물을 내놓으시오." 하면서 모세와 시비하였다. 그러자 모세가 말하였다. "어찌서 나와 시비하려 하느냐? 어찌서 주님을 시험하느냐?"

3 그러나 백성은 그곳에서 목이 말라, 모세에게 불평하며 말하였다. "어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소?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족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랬소?"

4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에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5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원로들 가운데 몇 사람을 데리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가거라. 내일 강을 친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거라.

6 이제 내가 저기 호렘의 바위 위에서 네 앞에서 있겠다. 네가 그 바위를 치면 그곳에서 물이 터져 나와, 백성이 그것을 마시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7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비하였다 해서,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씨와 르피바라 하였다.

아말렉족과 싸워 이기다

8 그때 아말렉족이 물려와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였다.

9 그러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장정들을 뽑아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거라. 내일 내가 하느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10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후르는 언덕으로 올라갔다.

11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손

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하였다.

- 12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자, 그들은 돌을 가져다 그의 발 아래 놓고 그를 그 위에 앉혔다. 그런 다음 아론과 후르가 한 사람은 이쪽에서, 다른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두 손을 받쳐 주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차지지 않았다.
- 13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 14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일을 기념하여 책에 기록해 두어라. 그리고 내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에서 완전히 없애 버리겠다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똑똑히 일러 주어라."
- 15 모세는 제단을 쌓아 그 이름을 아훼 니짜라 하고,
- 16 이렇게 말하였다. "손 하나가 주님의 여좌를 거슬러 들리리니, 주님과 아말렉 사이에 대대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트로가 사위 모세를 찾아오다

- 18 ¹ 미디안의 사제이며 모세의 장인인 이트로,는, 하느님께서 모세와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일, 곧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어떻게 이끌어 내셨는지를 들었다.
- 2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트로는 친정에 돌아와 있던 모세의 아내 치포라와,
- 3 치포라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왔다. 한 아이의 이름은 게르쉴인데, 이는 모세가 "낮선 땅에서 내가 이방인이 되었구나." 하고 말한 까닭이고,
- 4 다른 아이의 이름은 엘리에제르인데, 이는 모세가 "내 아버지의 하느님께서 나에게 도움이 되시어, 나를 파라오의 칼에서 구해 주셨다." 하고 말한 까닭이다.
- 5 모세의 장인 이트로는 모세의 아들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가 잔을 친 광야, 곧 하느

님의 산으로 그를 찾아갔다.

- 6 그는 모세에게 전갈을 보냈다. "자네의 장인인 나 이트로가 자네 처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네."
- 7 모세는 장인을 맞으러 나가 앞드려 절하고 입을 맞췄다. 그들은 서로 인부를 묻고 함께 친막으로 들어갔다.
- 8 모세는 장인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에게 하신 모든 일과 자기들이 도중에 겪은 모든 고생,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구해 주셨는지 이야기하였다.
- 9 이트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해 내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온갖 고마운 일을 듣고 기뻐하였다.
- 10 이트로가 말하였다. "이집트인들의 손과 파라오의 손에서 자네들을 구해 주신 주님, 이 백성을 이집트인들의 손 아래에서 빼내어 구해 주신 주님께서,는 찬미받으시리라!"
- 11 이집트인들이 이 백성을 방자하게 다루었지만, 그 일에서도 이제 나는 주님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았네."
- 12 모세의 장인 이트로는 하느님께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바쳤다. 그러자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원로들이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느님 앞에서 음식을 먹었다.

이트로의 충고에 따라 재판관들을 세우다

- 13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려고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 14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하는 일을 모두 보고 말하였다. "자네가 백성을 위하여 하는 이 일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어찌서 자네 혼자 앉아 있고, 백성은 모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곁에 서 있는가?"
- 15 그러자 모세가 장인에게 대답하였다. "백성

- 이 하느님께 문의하려고 저를 찾아오기 때
문입니다.
- 16 무슨 일이 생기면 그들은 자에게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웃 간의 문제를 재판해 주
고, 하느님의 규정들과 지시들을 알려 줍
니다."
- 17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일하는 방식은 좋지 않다.
- 18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가 거느린 백성도 아
주 지쳐 버리고 말 걸세. 이 일은 자네에게
너무나 힘겨워 자네 혼자서는 할 수가 없
네.
- 19 이제 내가 자네에게 충고할 터이니 내 말
을 듣게. 아무쪼록 하느님께서 자네와 함
께 계시기를 비네. 자네는 하느님 앞에서
백성을 대리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일을
하느님께 가져가게나.
- 20 그리고 그들에게 규정들과 지시들을 밝혀
주고, 그들이 갈아야 할 길과 해야 할 일
을 가르쳐 주게.
- 21 또 자네는 온 백성 가운데에서, 하느님을
경외하고 진실하며 부정한 소득을 싫어하
는 유능한 사람들을 가려내어, 그들을 천
인대장, 백인대장, 오십인대장, 십인대장으
로 백성 위에 세우게.
- 22 이들이 늘 백성을 재판하고, 큰일만 자네에
게 가져오도록 하게. 작은 일들은 모두 그
들이 재판하도록 하게. 이렇게 그들과 짐을
나누어 져서, 자네 짐을 덜게나.
- 23 자네가 이렇게 일을 하고 하느님께서도 그
렇게 명령하시면, 자네도 베틀어 나갈 수
있고, 이 백성도 평화롭게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니."
- 24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한 대로
다 하였다.
- 25 모세는 온 이스라엘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인대장, 백인
대장, 오십인대장, 십인대장으로 삼았다.

- 26 그리하여 이들이 늘 백성을 재판하였다. 그
들은 어려운 일만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일들은 모두 그들이 맡아 재판하였다.
- 27 그 뒤 모세가 장인을 떠나보내자, 그는 제
고장으로 돌아갔다.

시나이 산에 도착하다

- 19¹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다.
- 2 그들은 르피담을 떠나 시나이 광야에 이르
러 그 광야에 진을 쳤다. 이렇게 이스라엘
은 그곳 산 앞에 진을 쳤다.

계약 체결을 약속하다

- 3 모세가 하느님께 올라가자,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아굽 집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
주어라.
- 4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 보았다.
- 5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
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 6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
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알려 줄 말이다."
- 7 모세가 돌아와 백성의 원로들을 불러, 주님
께서 분부하신 이 모든 말씀을 전하였다.
- 8 그러자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이르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의 말을 주님께 그
대로 이뢰었다.

계약 체결을 준비하다

- 9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질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다가가겠다. 그러
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 너

- 를 언제까지나 믿게 될 것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님께 그대로 전해 드리자,
- 10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에게 가져라.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
- 11 셋째 날을 준비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시나이 산에 내릴 것이다.
- 12 그리고 백성에게 경계를 두루 정하여 주고 이렇게 일러라. '산에 오르지도 말고 산자락을 건드리지도 마라. 산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 13 그런 자는 아무도 손을 대지 말고, 돌이나 활에 맞아 죽게 해야 한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숫양 뿔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리거든, 백성을 산으로 올라오게 하여라."
- 14 모세는 산에서 백성에게 내려왔다. 그는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옷을 빨았다.
- 15 그는 백성에게, "셋째 날을 준비하고 여자를 가까이하지 마라." 하고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시나이 산에 나타나시다

- 16 셋째 날 아침, 우렛소리와 함께 번개가 치고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뿔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자, 진영에 있던 백성이 모두 떨었다.
- 17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세가 백성을 진영에서 데리고 나오자 그들은 산기슭에 섰다.
- 18 그때 시나이 산은 온통 연기가 자욱하였다. 주님께서 불 속에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며 산 전체가 심하게 뒤흔들었다.
- 19 뿔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말씀을 이기자, 하느님께서 우

렛소리로 대답하셨다.

- 20 주님께서 시나이 산 위로, 그 산봉우리로 내려오셨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모세를 그 산봉우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 2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에게, 주님을 보려고 밀려들다 많은 이들이 죽는 일이 없게 경고하여라.
- 22 주님에게 가까이 오는 사제들도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들을 내려칠 것이다."
- 23 모세가 주님께 대답하였다. "'산에 경계를 정하여 그곳을 성별하여라.' 하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경고하셨기 때문에, 백성은 시나이 산으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 24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너라. 그러나 사제들이나 백성이 주님에게 올라오려고 밀려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주님이 그들을 내려칠 것이다."
- 25 모세는 백성에게 내려가 말하였다.

십계명

- 20¹ 그때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 2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 3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 4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 5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의 하느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삼 대 사 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 6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

- 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 7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 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 9 옛새 동안 일하면서 네 할 일을 다 하여라.
- 10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의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짐승과 네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 11 이는 주님이 옛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 12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 13 살인해서는 안 된다.
- 14 간음해서는 안 된다.
- 15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 16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 17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

백성이 모세의 중기를 요청하다

- 18 온 백성은 우렛소리와 불길과 뿔 나팔 소리와 연기에 싸인 산을 보고 있었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떨면서 떨쩍이 서 있었다.
- 19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당신이 말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랬다가는 우리가 죽습

니다."

- 20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들 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시험하시려고, 그리고 너희가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녀 죄짓지 않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 21 백성은 떨쩍이 서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먹구름 쪽으로 가까이 갔다.

계약의 책

제단에 관한 법

- 22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하늘에서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 23 너희는 내 곁에 아무것도 만들어 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자신들을 위하여 은으로 신들을 만들어서도, 금으로 신들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 24 너희는 나를 위하여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 그 위에서 너희의 번제물과 친교 제물, 그리고 양과 소를 바쳐라.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여 예배하게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너희에게 강복하겠다.
- 25 너희가 나를 위하여 돌로 제단을 만들려거든, 다듬은 돌로 쌓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정을 대면 제단이 부정하게 된다.
- 26 그리고 너희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제단 앞에서 너희 알몸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종에 관한 법

- 21 ¹ "이것이 내가 그들 앞에 세워 놓아야 할 법이다.
- 2 '너희가 히브리인을 종으로 샀을 경우, 그는 여섯 해 동안 종살이하고, 일곱째 해에는 대가 없이 자유로운 몸으로 풀려 나간다.

- 8 그가 홀몸으로 들어왔으면 홀몸으로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왔으면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간다.
- 4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얻어 주어, 그 아내가 그에게 아들이나 딸을 낳아 주었으면, 그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 차지가 되고, 그는 홀몸으로 나간다.
- 5 그러나 그가 ' 나는 주인과 내 아내와 아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몸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면,
- 6 주인은 그를 하느님께 데리고 가서 문짝이나 문설주에 다그세우고, 그의 귀를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종신토록 그의 종이 된다.
- 7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을 경우, 이 여종은 남종들이 풀려 나기듯 나가지는 못한다.
- 8 주인이 데리고 살려 했는데 눈에 들지 않으면, 그 여자를 되팔아야 한다. 그러나 주인이 그 여자를 부당하게 대하였으므로, 그를 이민족에게 팔 권리는 없다.
- 9 그 여자를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딸들에게 해 주는 법대로 그 여자를 대해야 한다.
- 10 주인이 다른 여자를 맞아들이더라도, 첫 여자의 양식과 의복, 그리고 부부 관계를 줄 여서는 안 된다.
- 11 주인이 그에게 이 세 가지를 다하지 않을 경우, 그 여자는 값을 치르지 않고 대가 없이 풀려 나간다.'

폭력에 관한 법

- 12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 13 만일 그가 일부러 하지 않고, 하느님이 그의 손에 걸리게 한 것이라면, 그가 피신할 수 있는 곳을 너희에게 지정해 주겠다.
- 14 그러나 악의로 흥계를 꾸며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가 내 제단을 붙잡았더라도 끌어내어 사형에 처해야 한다.

- 15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 16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 데리고 있던 사형을 받아야 한다.
- 17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상해에 관한 법

- 18 '사람들이 서로 다투다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 그가 죽지는 않고 자리에 눕게 되었을 경우,
- 19 그가 나중에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났을 돌아다니게 되면, 때린 자는 벌을 면한다. 다만 그동안의 손해를 갖고, 나를 때까지 치료해 주어야 한다.
- 20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경우, 그는 벌을 받아야 한다.
- 21 그러나 그 종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그는 벌을 받지 않는다. 좋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 22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 임신한 여자와 부딪쳤을 경우, 그 여자가 유산만 하고 다른 해가 없으면, 가해지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 그는 재판관을 통해서 벌금을 치른다.
- 23 그러나 다른 해가 뒤따르게 되면,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하고,
-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 25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 26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 상하게 하였을 경우, 눈 대신 그를 자유로운 몸으로 내보내야 한다.
- 27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

뜨렸어도, 이 대신 그를 자유로운 몸으로 내보내야 한다.

- 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뿔로 받아서 그가 죽었을 경우, 그 소는 둘에 맞아 죽어야 한다.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소 임자는 벌을 받지 않는다.
- 29 그러나 그 소가 예전부터 받는 버릇이 있어, 그 주인이 경고를 받고도 그것을 잡도리하지 않아 남자나 여자를 죽였으면, 소가 둘에 맞아 죽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인도 사형을 받아야 한다.
- 30 만일 배상금을 요구해 오면, 그 주인은 자기 몸값으로 요구하는 것을 다 물어야 한다.
- 31 소가 남의 아들을 받았거나 남의 딸을 받았을 때에도, 그 주인은 이 법에 따라 다루어진다.
- 32 소가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으면, 그 주인에게 은 서른 세겔을 갚아야 하고, 소는 둘에 맞아 죽어야 한다.
- 33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
- 34 그 구덩이의 임자는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치러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구덩이 임자의 차지가 된다.
- 35 어떤 사람의 소가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게 하였을 경우, 살아 있는 소를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도 나누어 가진다.
- 36 그러나 그 소가 예전부터 받는 버릇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도, 그 주인이 그것을 잡도리하지 않았다면, 소는 소로 배상하고 죽은 소는 자기가 차지한다.'

절도에 관한 법

- 37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았을 경우,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를,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를 배상해야 한다.

- 22 ¹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가다 들켜서 맞아 죽었으면,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
- 다.
- 2 그러나 해가 이미 떠오른 다음에는 살인죄가 된다. 도둑질한 자는 배상해야 한다. 그가 가진 것이 없으면, 제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갚아야 한다.
- 3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 나귀든 양이든 아직 산 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손해 배상법

- 4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풀을 뜯기던 가축을 풀어 놓아 남의 밭 곡식을 뜯어 먹게 하였을 경우, 그는 자기 밭의 가장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소출로 배상해야 한다.
- 5 불이 나서 가지땀불에 옮겨 붙어 남의 날가리나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웠을 경우, 불을 낸 자는 자기가 태운 것을 배상해야 한다.
- 6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지켜 달라고 맡겼다가 그 집에서 도둑을 맞았을 경우, 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은 그것을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 7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이웃의 물품에 손을 대지 않았는지 밝히려 하느님께 나아키야 한다.
- 8 소나 나귀나 양이나 결우이나 그 밖의 어떤 분실물이든, 한쪽이 '저것은 내 것이다.' 하고 주장하는 사건이 생기면, 양쪽이 관련된 이 일은 하느님께 가져가야 한다. 하느님께서 유죄 판결을 내리신 자는 상대방에게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 9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나귀나 소나 양이나 그 밖의 어떤 가축이든 지켜 달라고 맡겼는데,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에 없어졌을 경우,
- 10 맡았던 이가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맹세하여, 두 사람 사이의 사비를 가려야 한다. 그러면 임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은 배상하지 않는다.
- 11 그러나 그것이 도둑을 맞았다면, 그 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 12 그것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면, 그것을 증거물로 내놓고, 찢겨 죽은 짐승은 배상하지 않는다.
- 13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짐승을 빌려 갔다가 그것이 다치거나 죽었을 경우, 그 임자가 같이 있지 않았다면 배상해야 한다.
- 14 임자가 같이 있었다면 배상하지 않는다.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면 셋돈은 물어야 한다.'

채녀를 범한 자에 관한 법

- 15 '어떤 사람이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피어 그와 동침하였을 경우, 신부 몸값을 내고 그 처녀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 16 그 처녀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에게 주는 것을 거절하면, 처녀의 몸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야 한다.'

그 밖에 사형에 처할 죄인

- 17 '너희는 주술쟁이 여자를 살려 두어서는 안 된다.
- 18 짐승과 교잡하는 자는 누구든 사형을 받아야 한다.
- 19 주님 말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자는 처형되어야 한다.'

악자 보호법

- 20 '너희는 이방인을 억압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 21 너희는 어떤 과부나 고아도 억눌러서는 안 된다.
- 22 너희가 그들을 억눌러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줄 것이다.
- 23 그러면 나는 분노를 터뜨려 칼로 너희를 죽이겠다. 그러면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아들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 24 너희가 나의 백성에게, 너희 곁에 사는 가난한 이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그에게 채권자처럼 행세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물려서도 안 된다.
- 25 너희가 이웃의 걸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
- 26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그것뿐이고,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 걸옷뿐인데,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들어 줄 것이다. 나는 자비하다.'

하느님을 섬기는 몇 가지 법

- 27 '너희는 하느님을 욕하거나 너희 백성의 수장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 28 너희의 풍성한 수확과 과일즙을 나에게 바치기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 너희 아들들 가운데 만이 나에게 바쳐야 한다.
- 29 너희 소와 양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레 동안은 어미와 함께 두었다가, 여드렛날에는 나에게 바쳐야 한다.
- 30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들에서 맹수에게 찢긴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개에게나 던져 주어야 한다.'

정의 실현에 관한 법

23

- 1 '너희는 헛소문을 퍼뜨려서는 안 된다. 악인과 손잡고 거짓 증인이 되

- 어서는 안 된다.
- 2 너희는 다수를 따라 악을 저질러서는 안 되며, 재판할 때 다수를 따라 정의를 왜곡하는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 3 또 힘없는 이라고 재판할 때 우대해서도 안 된다.
- 4 길을 잃고 헤매는 너희 원수의 소나 나귀와 마추질 경우, 너희는 그것을 임자에게 데려다 주어야 한다.
- 5 너희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에 눌러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을 경우, 내버려 두지 말고 그와 함께 나귀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
- 6 너희는 재판할 때 가난한 이의 권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 7 그리고 거짓 고소를 멀리해야 한다. 죄 없는 이와 의로운 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 8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온전한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이들의 송사를 뒤엎어 버린다.
- 9 너희는 이방인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으니, 이방인의 심정을 알지 않느냐?

인식년과 인식일에 관한 법

- 10 '너희는 여섯 해 동안 땅에 씨를 뿌리고 그 소출을 거두어들여라.
- 11 그러나 일곱째 해에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너희 백성 가운데 가난한 이들이 먹게 하고 거기에서 남는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너희 포도밭과 올리브 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 12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이렛날에는 쉬어야 한다. 이는 너희 소와 나귀가 쉬고, 너희 여종의 아들과 이방인이 숨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 13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른 신들의 이름을 찬미하

여 불러서는 안 된다. 그것을 입 밖에 내어 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

연중 삼대 축제에 관한 법

- 14 '너희는 일 년에 세 차례 나를 위하여 축제를 지내야 한다.
- 15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이빚 달 정해진 때에 이례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그달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 16 너희는 밭에 씨를 뿌려 얻은 너희 노동의 만물을 바치는 수확절을 지키고, 밭에서 너희 노동의 결실을 거두어들이는 연말에는 추수절을 지켜야 한다.
- 17 남자들은 모두 일 년에 세 번 주 하느님 앞에 나와야 한다.
- 18 너희는 나를 위한 희생 제물의 피를 누룩 든 빵과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또 축제 때 나에게 바친 굳기름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 두어서도 안 된다.
- 19 너희 땅에서 난 만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느님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삶아서는 안 된다.'

가난한 땅 압주에 관한 약속과 경고

- 20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키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게 하겠다.
- 21 너희는 그 앞에서 조심하고 그의 말을 들어라. 그가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리니, 그를 거역하지 마라. 그는 내 이름을 지니고 있다.
- 22 너희가 그의 말을 잘 들어 내가 일러 준 것을 모두 실행하면, 나는 너희 원수들을 나의 원수로 삼고, 너희의 적들을 나의 적으로 삼겠다.
- 23 나의 천사가 앞장서서 너희를 아모리족, 히

타이트족, 프리즈족, 가나안족, 히위족, 여부스족이 사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나는 그들을 멸종시키겠다.

- 24 그러면 너희는 그들의 신들에게 경배해서도 그 신들을 섬겨서도 안 되고, 그들이 하는 것을 따라 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의 기념 가동들을 부수고 깨뜨려 버려야 한다.
- 25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나는 너희의 빵과 물에 강복하고, 너희에게서 질병을 없애 주겠다.
- 26 너희 땅에는 유산하는 여인도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도 없을 것이며, 나는 너희의 수명을 채워 주겠다.
- 27 나는 나에 대한 공포를 너희보다 앞서 보내어, 너희가 쳐들어가는 모든 민족을 혼란에 빠뜨리고, 너희의 모든 원수가 등을 돌려 달아나게 하겠다.
- 28 나는 또 말뱀을 너희보다 앞서 보내어, 히위족과 가나안족과 히타이트족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게 하겠다.
- 29 그러나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이 많아져서 너희를 해치는 일이 있을까 염려되므로, 일 년 동안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 30 나는 너희가 반성하여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조금씩 몰아내겠다.
- 31 그리고 너희 땅의 경계를 갈대 바다에서 필리스티아 바다까지, 광야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로 정하여, 그 땅의 주민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너희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 32 너희는 그들이나 그들의 신들과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 33 그들이 너희 땅에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들이 너희를 유혹하여 나에게 죄를 짓게 할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신들을 섬

길 경우, 그것이 너희에게 닳이 되고 말 것이다."

산아산에서 계명을 맺다

- 24 ¹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원로 일흔 명을 데리고 주님께 올라와, 말뚝이 서서 경배하여라.
- 2 너 모세만 주님께 가까이 오고 다른 이들은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아예 산으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
- 3 모세가 백성에게 와서 주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법규를 알려 주었다. 그러자 온 백성이 한목소리로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실행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4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따라 기념 가동 열둘을 세웠다.
- 5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몇몇 젊은이들을 그리로 보내어, 번제물을 올리고 소를 잡아 주님께 친고 제물을 바치게 하였다.
- 6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 여러 대접에 담아 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 7 그리고 나서 계약의 책을 들고 그것을 읽어 백성에게 들려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실행하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 8 모세는 피를 가져다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 9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원로 일흔 명과 함께 올라갔다.
- 10 그들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뵈었다. 그분의 발 밑에는 청옥으로 된 바다 같은 것이 있었는데, 맑기가 꼭 하늘 같았다.
- 11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령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은 하느님을
뵈고서 먹고 마셨다.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사십 일을 지내다

- 12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있는 이 산으로 올라와 거기 머물러라.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 판을 너에게 주겠다."
- 13 모세는 일어나 자기 시종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느님의 산으로 올라가면서,
- 14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려라. 아론과 후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문제가 있는 이는 그들에게 가거라."
- 15 모세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덮었다.
- 16 주님의 영광이 시나이 산에 자리 잡고, 구름이 옛새 동안 산을 덮었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 17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기에 산봉우리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았다.
- 18 모세는 구름을 뚫고 산에 올라갔다. 모세는 밤낮으로 사십 일을 그 산에서 지냈다.

성소 건립을 위한 예물

- 25 **1**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2**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나를 위한 예물을 받아라. 마음에서 우러나와 너에게 바치는 것이면 누구에게서든 예물을 받아라.
- 3**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런 것들이다. 금, 은, 청동,
- 4** 자주와 자홍과 다홍 실, 아마실, 염소 털,
- 5** 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 들고래 가죽, 아카시아 나무,
- 6** 등잔 기름, 성별 기름과 향기로운 향에 넣을 향료,
- 7** 에팍과 가슴받이에 박을 마노와 그 밖의 장

식 보석들이다.

- 8**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머물겠다.
- 9** 내가 너에게 보여 주는 성막의 모형과 온갖 기물의 모형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계약 궤

- 10** "그들이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게 하여라. 그 길이는 두 암마 반, 너비는 한 암마 반, 높이도 한 암마 반으로 하여라.
- 11** 나는 그것을 순금으로 입히는데, 안팎을 입혀라. 그 둘레에는 금대를 둘러라.
- 12** 금 고리 네 개를 부어 만들어 네 다리에 다는데, 한쪽에 고리 두 개, 다른 쪽에 고리 두 개를 달아라.
- 13**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 금을 입혀라.
- 14**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워 궤를 들 수 있게 하고,
- 15** 채를 궤의 고리에 그대로 두어 거기에서 빠지지 않게 하여라.
- 16** 그러고 나서 내가 너에게 줄 증언판을 그 궤 안에 넣여라.
- 17** 너는 순금으로 속죄판을 만들어라. 그 길이는 두 암마 반, 너비는 한 암마 반으로 하여라.
- 18** 그리고 금으로 커룹 둘을 만드는데, 속죄판 양쪽 끝을 마치로 두드려 만들어라.
- 19** 커룹 하나는 이쪽 끝에, 다른 하나는 저쪽 끝에 자리 잡게 만들어라. 그 커룹들은 속죄판 양쪽 끝에 만들어야 한다.
- 20** 커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고, 서로 얼굴을 마주 보게 하여라. 커룹들의 얼굴은 속죄판 쪽을 향해야 한다.
- 21**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언판을 넣여라.
- 22**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나고, 속죄판 위, 곧

증언 채 위에 있는 두 컵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일러 주겠다."

제사장

- 23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들어라. 그 길이는 두 암마, 너비는 한 암마, 높이는 한 암마 반으로 하여라.
- 24 그것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 25 그리고 그 상 둘레에 손바닥 너비만 한 턱을 만들고, 그 턱 둘레에도 금테를 둘러라.
- 26 또 금 고리 네 개를 만들어 그 상 네 다리의 귀퉁이에 달아라.
- 27 상을 들 때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그 고리들은 턱 곁에 달려 있어야 한다.
- 28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혀서, 그것으로 상을 들게 하여라.
- 29 너는 상에 딸린 대접과 접시, 그리고 제주를 따르는 단지와 잔을 만들어라. 그것들은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 30 그리고 제사 빵을 늘 그 상 위에, 곧 내 앞에 놓아두어라."

등잔대

- 31 "너는 또 순금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의 밑받침과 가지는 마치로 두드려 만들고, 잔과 꽃받침과 꽃잎은 등잔대와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
- 32 등잔대 양쪽에 가지 여섯 개가 나오게 하는데, 한쪽에 등잔대 가지 세 개, 다른 쪽에 등잔대 가지 세 개가 번어 나오게 하여라.
- 33 가지 하나에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편도 꽃 모양의 잔 세 개, 또 다른 가지에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편도 꽃 모양의 잔 세 개를 만들어라. 등잔대에서 번어 나온 가지 여섯 개를 모두 이처럼 만들어라.
- 34 등잔대 원대에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편

도 꽃 모양의 잔 네 개를 만들어라.

- 35 등잔대에서 양쪽으로 번어 나온 가지 둘 바로 밑에 꽃받침 하나, 그다음에 양쪽으로 번어 나온 가지 둘 바로 밑에 꽃받침 하나, 또 다음에 번어 나온 가지 둘 바로 밑에 꽃받침 하나를 만들어라. 등잔대에서 번어 나온 가지 여섯 개를 모두 이처럼 만들어라.
- 36 꽃받침과 가지들을 등잔대와 한 덩어리가 되게 하고, 순금을 두드려 모두 하나로 만들어라.
- 37 그리고 등잔 일곱 개를 만들어 앞쪽을 밝게 비추도록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라.
- 38 불뿔 기위와 불뿔 접시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 39 등잔대와 이 모든 기물들을 순금 한 탈렌트로 만들어라.
- 40 자,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 준 모형대로 만들어라."

성막

26

- 1 "너는 가늘게 곧 아미실, 자주와 자홍과 다홍 실로 짠 천 열 폭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컵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그 폭을 만들어야 한다.
- 2 각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암마, 각 폭의 너비는 네 암마로 하되, 폭마다 치수를 같게 하여라.
- 3 다섯 폭을 옆으로 나란히 잇고 다른 다섯 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라.
- 4 그리고 나란히 이은 것의 마지막 폭 가장자리에 자주색 실로 고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것의 마지막 폭 가장자리에도 그와 같이 하여라.
- 5 폭 하나에 고 된 개를 만들고, 이것과 이를 다른 마지막 폭의 언저리에도 고 된 개를 만들어, 그것들을 서로 맞물리게 하여라.
- 6 그리고 금 갈고리 된 개를 만들어, 이 두 쪽

을 하나하나 갈고리로 맞걸어서 한 성막이 되게 하여라.

- 7 너는 또한 성막 위에 씌울 천막의 폭을 염소 털로 만드는데, 열한 폭을 만들어라.
- 8 각 폭의 길이는 서른 암마, 각 폭의 너비는 네 암마로 하되, 열한 폭의 치수를 모두 같게 하여라.
- 9 다섯 폭을 따로 잇고 나머지 여섯 폭도 따로 이어라. 여섯째 폭은 천막 앞에서 겹치게 하여라.
- 10 그리고 나란히 이은 것의 마지막 폭 가장 자리에 고 싼 개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것의 마지막 폭 가장자리에도 고 싼 개를 만들어라.
- 11 또 청동 갈고리 싼 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를 고에 꿰어 한 천막이 되게 하여라.
- 12 그리고 천막의 폭 가운데에서 여분으로 남는 부분, 곧 여분으로 남는 반 폭은 성막 뒤로 늘어뜨려라.
- 13 천막 폭 길이에서 양쪽으로 한 암마씩 남는 것은 성막 양쪽으로 늘어뜨려 덮여라.
- 14 또 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으로 천막 덮개를 만들고, 돌고래 가죽으로 그 위에 덧씌울 덮개를 만들어라."

성막에 쓸 목재품

- 15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을 세울 널빤지를 만들어라.
- 16 각 널빤지 길이는 열 암마, 각 널빤지 너비는 한 암마 반으로 하고,
- 17 널빤지마다 축꽃이 두 개를 만들어 서로 잇낼 수 있게 하여라. 성막의 널빤지를 모두 이와 같이 만들어라.
- 18 이렇게 성막의 널빤지를 만드는데, 우선 네 겹 쪽 곧 남쪽에 세울 널빤지 스무 장을 만들어라.
- 19 또 그 널빤지 스무 장 밑에 반철 은 밑받침 마흔 개를 만드는데, 널빤지마다 축꽃

이를 꽃을 밑받침 두 개씩을 만들어라.

- 20 성막의 두 번째 면, 곧 북쪽에 세울 널빤지도 스무 장을 만들어라.
- 21 그리고 은 밑받침 마흔 개를 만드는데,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밑받침 두 개씩을 만들어라.
- 22 성막 뒷면인 서쪽에 세울 널빤지는 여섯 장을 만들어라.
- 23 성막의 뒷면 두 모퉁이에 세울 널빤지도 두 장을 만들어라.
- 24 이것들이 밑에서 서로 겹치고 꼭대기에서도 포개져서 첫 고리에 연결되게 하여라. 두 모퉁이 다 이렇게 하여라.
- 25 한 널빤지 밑에 밑받침 두 개, 또 한 널빤지 밑에 밑받침 두 개, 이렇게 하여 널빤지가 여덟 장, 그에 딸린 은 밑받침이 열여섯 개가 된다.
- 26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어라. 성막 한 면의 널빤지들에 다섯,
- 27 성막 다른 한 면의 널빤지들에도 가로다지 다섯, 성막 뒷면인 서쪽의 널빤지들에도 가로다지 다섯을 만들어라.
- 28 널빤지들 가운데에 끼울 중간 가로다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미치게 하여라.
- 29 널빤지에는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꿰고 리는 금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혀라.
- 30 이렇게 하여 산에서 너에게 보여 준 규격대로 성막을 세워라."

휘장

- 31 "너는 또한 자주와 자홍과 다홍 실, 그리고 가늘게 꼰 아미실로 휘장을 만들어라. 커튼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그것을 만들어야 한다.
- 32 이 휘장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네 기둥에 드리우는데, 기둥마다 금을 입히고 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어, 은 밑받침 네 개

위에 세워라.

- 33 그 휘장을 갈고리들에 걸고 그 뒤에 증언 궤를 모셔라. 그래서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게 하여라.
- 34 지성소에 있는 증언 궤는 속죄판으로 덮여라.
- 35 휘장 앞에는 상을 놓고, 그 상 맞은편인 성막의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는데, 상은 북쪽에 놓여라.
- 36 천막 어귀를 가리는 막을 자주와 자홍과 다홍 실, 그리고 가늘게 꼰 아마실로 무늬를 놓아 가며 만들어라.
- 37 이 막을 칠 기둥 다섯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금을 얹히고 금 고리를 붙여라. 그리고 기둥을 세울 밑받침 다섯은 청동을 부어 만들어라."

제단

27

- 1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길이는 다섯 암마, 너비도 다섯 암마로 하여 제단을 네모나게 만들고, 높이는 세 암마로 하여라.
- 2 그 네 귀퉁이에는 뿔을 만드는데, 뿔과 제단을 한 덩어리가 되게 하여 청동을 얹혀라.
- 3 그리고 재반이와 삽과 쟁반, 고기 갈고리와 부삽 등 제단에 딸린 모든 기물을 청동으로 만들어라.
- 4 제단에 쓸 그물 격자를 청동으로 만들고, 그 그물의 네 모서리에 청동 고리 네 개를 만들어 붙여라.
- 5 그것을 제단 가두리 밑에 아래쪽으로 달아, 제단 중간까지 닿게 하여라.
- 6 또 제단을 드는 채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청동을 얹혀라.
- 7 이 채들을 고리에 끼워, 제단을 들어 나를 때 그것들이 제단 양 옆에 붙어 있게 하여라.
- 8 제단은 판자로 안이 비게 만드는데, 산에서

너에게 보여 준 그대로 만들어라."

성막 뜰

- 9 "너는 성막 뜰을 만들어라. 가늘게 짠 아마 포로 내뻗, 곧 남쪽에 칠 뜰의 휘장을 만드는데, 그쪽 면의 길이가 백 암마 되게 하여라.
- 10 휘장을 칠 기둥 스무 개와 밑받침 스무 개는 청동으로, 기둥 고리와 가로대는 은으로 만들어라.
- 11 북쪽에도 마찬가지로 휘장이 백 암마 되게 하고, 기둥 스무 개와 밑받침 스무 개는 청동으로, 기둥 고리와 가로대는 은으로 만들어라.
- 12 뜰의 서쪽 너비는 휘장 길이를 쉰 암마로 하고, 기둥 열 개와 받침대 열 개를 만들어라.
- 13 해가 뜨는 동쪽 뜰의 너비도 쉰 암마로 하여라.
- 14 한쪽에 기둥 셋, 밑받침 셋과 함께 열다섯 암마 되는 휘장을 쳐라.
- 15 다른 쪽에도 기둥 셋, 밑받침 셋과 함께 열다섯 암마 되는 휘장을 쳐라.
- 16 또 자주와 자홍과 다홍 실, 그리고 가늘게 꼰 아마실로 무늬를 놓아 가며, 뜰 정문에 칠 스무 암마 되는 막과 기둥 네 개, 밑받침 네 개를 만들어라.
- 17 뜰의 사방에 세울 기둥들은 은으로 된 가로대로 있는데, 고리는 은으로, 기둥은 청동으로 하여라.
- 18 뜰의 길이는 암마로 백 암마, 너비는 쉰 암마, 높이는 다섯 암마로 하되, 가늘게 짠 아마포로 둘러치고, 밑받침은 청동으로 만들어라.
- 19 각종 예식에 쓰는 성막의 기물과 말뚝, 그리고 뜰의 말뚝은 모두 청동으로 만들어야 한다."

등불

- 20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등잔에 쓸 기름, 곧 올리브를 짠 순수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이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여라.
- 21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등불을 만민의 천막 안 증언 궤 앞 휘장 밖에 켜 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님 앞에서 그것을 보살펴야 한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칙이다."

사제들의 옷

- 28 ¹ "너는 이스라엘인들 가운데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너에게 가까이 오게 하여, 사제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곧 아론과 그의 아들인 나답, 아비후, 엘아자르, 이타마르이다.
- 2 그리고 너의 형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을 영광스럽고 장엄하게 만들어라.
- 3 내가 슬기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어 재능을 갖추게 된 아들들 모두 불러, 아론이 사제로서 나를 섬기도록 성별할 옷을 만들라고 하여라.
- 4 그들이 만들 옷은 가슴받이, 에폭, 겹옷, 수놓은 저고리, 쓰개, 허리띠다. 이렇게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옷을 만들어 주어, 그들이 사제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 5 금과, 자주와 자홍과 다홍 실, 그리고 아마실을 가져다 만들게 하여라."

에폭

- 6 "그들은 금과, 자주와 자홍과 다홍 실, 그리고 가늘게 꼰 아마실로 정교하게 에폭을 만들어야 한다.
- 7 에폭에 멜빵을 두 개 붙이는데, 그 양쪽 끝에 붙여라.
- 8 에폭 위에 달 띠는 같은 솜씨로 금과, 자주와 자홍과 다홍 실, 그리고 가늘게 꼰 아마

실로 만들어 에폭에다 한테 붙이게 하여라.

- 9 너는 마노 보석 두 개를 가져다 거기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 10 태어난 순서에 따라 한 보석에 여섯 이름, 다른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을 새겨라.
- 11 보석공이 인장 반지를 새기듯, 두 보석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그리고 그 보석들을 금테두리에 박아라.
- 12 이 보석 두 개를 에폭의 양쪽 멜빵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념하는 보석으로 달아라. 이렇게 아론은 주님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기념하여 양 어깨에 짊어지게 되는 것이다.
- 13 너는 또 금으로 테를 만들고,
- 14 순금 사슬 두 개를 줄을 꼬듯이 만들어, 그 꼰 사슬들을 테에 달아라."

가슴받이

- 15 "너는 에폭을 만들 때와 같은 방식으로 금과, 자주와 자홍과 다홍 실, 그리고 가늘게 꼰 아마실로 판결 가슴받이를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
- 16 이것은 두 겹으로 네모나게 만드는데, 길이도 한 뼘, 너비도 한 뼘이 되게 하고,
- 17 거기에 보석을 넉 줄로 박아라. 첫째 줄에는 홍옥수와 황옥과 취옥,
- 18 둘째 줄에는 홍옥과 청옥과 백수정,
- 19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흑요석과 자수정,
- 20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마노와 벽옥을 박는데, 이것들을 금테 안에 박아 넣여라.
- 21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에 따라, 곧 그들의 이름 수대로 열둘이 되어야 한다. 인장 반지를 새기듯 각자의 이름을 새겨 열두 지파가 되게 하여라.
- 22 가슴받이를 매달 사슬은 순금으로 줄을 꼬듯이 만들어라.
- 23 그리고 가슴받이에 달 금 고리 두 개를 만들어, 그 두 고리를 가슴받이 양쪽 끝에 달고,

- 24 금줄 두 개를 가슴받이 양쪽 끝에 있는 그 고리에 걸어라.
- 25 두 줄의 다른 두 끝을 양 태두리에 매달아, 에봇 멜빵 앞쪽으로 늘어지게 하여라.
- 26 그리고 금 고리 두 개를 더 만들어, 가슴걸이 양 끝에, 곧 에봇의 옆쪽으로 가슴받이 안쪽 두 가장자리에 달아라.
- 27 다시 금 고리 두 개를 만들어, 에봇 양쪽 멜빵 앞부분의 아래, 곧 에봇의 띠 위쪽, 멜빵이 에봇과 접치는 곳 곁에 달아라.
- 28 그리고 자주색 실로 만든 끈으로 가슴받이 고리를 에봇 고리에 이어, 에봇의 띠 위에 오게 해서 가슴받이가 에봇에서 늘어지지 않게 하여라.
- 29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판결 가슴받이에 새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가슴에 달아, 주님 앞에서 늘 기념이 되게 하여라.
- 30 판결 가슴받이 안에는 우림과 툼땀을 넣어, 아론이 주님 앞으로 들어갈 때, 그것을 가슴에 달게 하여라. 이렇게 아론은 늘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판결 도구를 가슴에 지녀야 한다."

겉옷

- 31 "너는 또 순 자주색 실로 에봇에 딸린 겉옷을 만들어라.
- 32 그 가운데에 머리를 넣을 구멍을 뚫고, 구멍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갑옷의 구멍처럼 흘러서 찢어지지 않게 하여라.
- 33 그 겉옷 자락 둘레에는 자주와 자홍과 다홍 실로 석류들을 만들어 달고, 석류 사이 사이에는 돌아가며 금방울을 달아라.
- 34 겉옷 자락을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에 석류 하나, 또 금방울 하나에 석류 하나씩을 달아라.
- 35 그리하여 아론이 예식을 거행할 때 이것을 입어, 주님 앞으로 성소에 들어가거나 거기

에서 물러날 때 방울 소리가 울려, 그가 죽지 않게 하여라."

성주대

- 36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장 반지를 새기듯, 그 위에 '주님께 성별된 이'라고 새겨라.
- 37 이것을 자주색 실로 된 끈에 매어 쓰개에 다는데, 그것이 쓰개 앞쪽으로 오게 하여라.
- 38 그것을 아론의 이마에 달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한 예물을 봉헌할 때, 그 봉헌물로 짓는 죄를 아론이 짊어지게 하여라. 그것이 늘 그의 이마에 달려 있어, 그 예물이 그들을 위해 주님 앞에서 호의로 받아들여지게 하여라."

그 밖의 사제복

- 39 "너는 또 아마포로 저고리를 지어라. 그리고 아마포로 쓰개를 만들고, 무늬를 놓아 가며 허리띠를 만들어라.
- 40 너는 아론의 아들들이 입을 저고리를 만들어라. 띠도 만들고 두건도 만들어, 그들이 영광스럽고 장엄하게 보이도록 하여라.
- 41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것들을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직무를 맡기고 성별하여, 사제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 42 그들의 치부를 가릴 속바지를 아마포로 만들어라. 그것은 허리에서 넓적다리까지 닿아야 한다.
- 43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만민의 천막으로 들어갈 때나, 성소에서 예식을 거행하려 제단으로 나아가는 때 이 옷을 입어야 한다. 그레야 죄를 짊어져 죽는 일이 없게 된다. 이는 아론과 그의 후대 자손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칙이다."

사제 임직식 준비

- 29** ¹ "이것은 사제로서 나를 섬기도록 그 들을 성별하기 위하여 내가 그들에 게 해야 할 바다. 황소 한 마리와 숫양 두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골라 놓아라.
² 그리고 누룩 없는 빵과 누룩 없이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누룩 없이 기름을 발라 만든 부꾸미를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라.
³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아, 황소와 두 마리의 숫양과 함께 광주리째 가져오너라."

정갈화와 축복과 기름부음

- 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만민의 천막 어귀로 데려다 물로 씻겨라.
⁵ 그리고 옷을 가져다가, 저고리와 에봇에 딸린 걸옷, 에봇과 가슴받이를 입히고 에봇 띠를 매어 주어라.
⁶ 그의 머리에 쓰개를 씌우고, 쓰개 위에 거룩한 관을 씌워라.
⁷ 성별 기름을 가져다 그의 머리 위에 부어 그를 성별하여라.
⁸ 그런 다음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 저고리를 입히고,
⁹ 그들에게 허리띠를 매어 주고 두건을 감아 주어라. 그리하여 영원한 규칙에 따라 사제직이 그들의 것이 되게 하여라.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직무를 맡겨라."

임직 예식

- ¹⁰ "너는 황소를 만민의 천막 앞으로 끌어들여 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황소 머리에 손을 얹게 하여라.
¹¹ 그런 다음, 너는 만민의 천막 어귀 주님 앞에서 그 황소를 잡아라.
¹² 그리고 그 황소의 피를 받아다 손가락으로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아라.
¹³ 내장을 덮은 모든 굳기름과 간에 붙은 것, 두 콩팥과 거기에 있는 굳기름을 가져다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쳐라.

- ¹⁴ 그러나 그 황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영 밖에서 불에 태워라. 이것은 속죄 제물이다.
¹⁵ 너는 숫양 한 마리를 끌어들여 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양 머리에 손을 얹게 하여라.
¹⁶ 그런 다음, 그 숫양을 잡아 피를 받아다 제단을 돌면서 거기에 뿌려라.
¹⁷ 그 숫양의 각을 뜯 다음, 내장과 다리를 씻어 각을 뜯 고기와 머리에 얹어 놓아라.
¹⁸ 이렇게 그 숫양을 송두리째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쳐라. 이것은 주님을 위한 번제물이고 향기며 주님을 위한 화제물이다.
¹⁹ 너는 다른 숫양을 끌어들여 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양 머리에 손을 얹게 하여라.
²⁰ 그런 다음, 그 숫양을 잡아 그 피를 얼마쯤 받아서 아론의 오른쪽 귓볼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볼, 그들의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라. 그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을 돌면서 거기에 뿌려라.
²¹ 너는 제단 위에 있는 피와 성별 기름을 얼마쯤 가져다 아론과 그의 옷,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 뿌려라. 그러면 그와 그의 옷,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이 성별된다.
²² 이 숫양에서 굳기름, 곧 기름진 꼬피와 내장을 덮은 굳기름과 간에 붙은 것, 두 콩팥과 거기에 있는 굳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져오너라. 이것은 바로 임직식을 위한 숫양이다.
²³ 너는 또 주님 앞에 놓인 누룩 없는 빵 광주리에서 둥근 빵 하나, 기름을 섞어 만든 빵 과자 하나, 부꾸미 하나를 가져다가,
²⁴ 그것을 모두 아론과 그 아들들의 손바닥에 얹고,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주님 앞에 올리게 하여라.
²⁵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받아다 주님을

위한 향기로, 제단의 번제물 위에 놓고 살라 연기로 바쳐라. 이것은 주님을 위한 화제물이다.

- 26 아론의 임직식 제물인 숫양의 기름을 가져다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쳐라. 이것은 너의 몫이 된다.
- 27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임직식 제물인 숫양에서 흔들어 바친 것과 들어 올려 바친 것, 곧 흔들어 바친 기름과 들어 올려 바친 넓적다리를 성별하여 놓아라.
- 28 이것은 들어 올려 바친 예물이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받는 영원한 몫이 된다. 이것이 친교 제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 올려 바칠 예물이다. 곧 주님에게 들어 올려 바치는 그들의 예물인 것이다.
- 29 아론의 거룩한 옷은 그의 후대 자손들에게 물려주어,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부음을 받아 직무를 맡게 하여라.
- 30 그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그의 뒤를 이을 사제는 만민의 천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예식을 거행할 때, 이레 동안 그 옷을 입어야 한다.
- 31 너는 임직식의 숫양을 가져다 그 고기를 거룩한 곳에서 삶아라.
- 32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만민의 천막에서 이 고기를 광주리에 든 빵과 함께 먹도록 하여라.
- 33 그들에게 직무를 맡기고 그들을 성별하려고 속죄 예식을 거행한 것이므로, 그들만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속인은 먹지 못한다.
- 34 임직식의 고기와 빵이 이튿날 아침까지 남으면, 남은 것을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 35 너는 이와 같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대로 다 해 주

어라. 너는 이레 동안 그들의 임직식을 거행해야 한다."

제단 축성

- 36 "너는 속죄하기 위하여 날마다 속죄 제물로 황소 한 마리를 바쳐라. 또 제단에 대한 속죄로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바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성별하여라.
- 37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여 그것을 성별하여라. 그러면 제단은 가장 거룩한 것이 되고, 거기에 닿는 것도 모두 거룩하게 된다."

일일 번제물

- 38 "내가 제단 위에서 바칠 것은 이레하다. 일년 된 숫양 두 마리를 거르지 말고 날마다 바쳐야 한다.
- 39 어린 숫양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저녁 어스름에 바쳐라.
- 40 첫 번째 어린 숫양에다 고운 곡식 가루 십분의 일 에파와 쥘어서 짠 기름 사분의 일 힌을 섞은 것을 바치고, 포도주 사분의 일 힌을 제주로 바쳐야 한다.
- 41 두 번째 어린 숫양을 저녁 해거름에 바칠 때에도, 아침처럼 곡식 제물과 제주를 바쳐라. 이것은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다.
- 42 이것은 내가 너에게 말하려고 너희와 만나는 만민의 천막 어귀 곧 주님 앞에서, 너희가 대대로 바쳐야 하는 일일 번제물이다.
- 43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 주어, 그곳이 내 영광으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 44 나는 만민의 천막과 제단을 성별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사제로서 나를 섬기도록 성별하겠다.
- 45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 머물면서 그들의 하느님이 되어 주겠다.
- 46 그러면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주 그들의 하느님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주 그들의 하느님이다."

방향 제단

30 ¹ "너는 향을 피우는 제단을 만드는 데, 그것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² 길이는 한 암마, 너비도 한 암마로 하여 네 모나게 하고, 높이는 두 암마로 하며, 제단과 그 뿔들이 한 덩어리가 되게 하여라.

³ 그리고 제단의 윗면과 네 옆면과 뿔들을 순금으로 입히고, 돌아가면서 태를 둘러라.

⁴ 또 금 고리 두 개를 만들어 금테 밑 양쪽 옆에 붙여, 거기에 채를 끼워 제단을 들 수 있게 하여라.

⁵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혀라.

⁶ 너는 그 제단을 증언 케 앞에, 곧 내가 너를 만나 줄 증언 케 위에 있는 속죄판을 가린 휘장 앞에 놓아두어라.

⁷ 아론은 그 제단 위아래 향기로운 향을 피우는데, 아침마다 등을 손질할 때 피워야 하고,

⁸ 해거름에 등을 켤 때에도 피워야 한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거르지 말고 주님 앞에서 피워야 하는 향이다.

⁹ 너희는 그 위에 속된 향이나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올려서도 안 되고, 그 위에 제주를 부어서도 안 된다.

¹⁰ 아론은 그 제단의 뿔에 해마다 한 번씩 속죄 예식을 거행해야 한다. 너희는 대대로 해마다 한 번씩, 속죄하려고 바치는 속죄 제물의 피로 그 제단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해야 한다. 이 제단은 주님에게 바친 가장 거룩한 것이다."

¹¹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¹² "네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를 세어 인구 조사를 실시할 때, 사람마다 자기 목숨 값으로 주님에게 속전을 바쳐야 한다. 그래야 인구 조사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

¹³ 인구 조사를 받는 이는 누구나 성소 세겔로 반 세겔을 내야 한다. 한 세겔은 스무 게라이다. 그 반 세겔은 주님에게 올리는 예물이다.

¹⁴ 인구 조사를 받는 스무 살 이상의 남자는 누구나 주님에게 예물을 올려야 한다.

¹⁵ 너희 목숨에 대한 속죄로 주님에게 이 예물을 바칠 때, 부지라고 반 세겔보다 더 많이 내도 안 되고, 가난한 이라고 이보다 덜 내도 안 된다.

¹⁶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속전을 받아, 만민의 천막 예식 비용으로 쓰도록 내주어라. 이것이 주님 앞에서 너희 목숨에 대한 속죄의 기념이 될 것이다."

물두멍

¹⁷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¹⁸ "너는 몸을 씻을 물두멍과 그 받침을 청동으로 만들어, 만민의 천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거기에 물을 담아라.

¹⁹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로 손과 발을 씻게 하여라.

²⁰ 그들이 만민의 천막으로 들어갈 때, 물로 씻어야 죽지 않는다. 그들이 예식을 거행하려고, 곧 주님에게 화제물을 살라 바치려고 제단에 다가갈 때에도 마찬가지다.

²¹ 그들이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는다. 이는 그와 그의 후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성유

²²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²³ "너는 가장 좋은 향료를 이렇게 장만하여

인구 조사와 세금

- 라. 액체 몰약을 오백 세켈, 향기로운 육계 향을 그 절반인 이백오십 세켈, 향기로운 향초를 이백오십 세켈,
- 24 계피를 성소 세켈로 오백 세켈, 그리고 울 리브 기름 한 힌을 장만하여라.
- 25 너는 향을 만드는 법에 따라 이것들을 잘 섞어 거룩한 성별 기름을 만들어라. 바로 이것이 거룩한 성별 기름이 될 것이다.
- 26 너는 이것을 만남의 천막과 증언 궤에 붓고,
- 27 또 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기물들, 분향 제단,
- 28 번째 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 그리고 물두멍과 그 받침에 부어
- 29 그것들을 성별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고, 거기에 닿는 것도 모두 거룩하게 된다.
- 30 또한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이 사제로서 나를 섬기도록 성별하여라.
- 31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나의 거룩한 성별 기름이 될 것이다.
- 32 아무 사람의 몸이나 부어서는 안 되고, 그런 배합법으로 똑같이 만들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에게도 거룩한 것이 되어야 한다.
- 33 그와 같이 섞어 만들거나 속인에게 발라 주는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 나갈 것이다."

향료

- 34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향료 들, 곧 소합향과 나갑향과 풍자향을 장만하여, 이 향료들과 순수한 유향을 섞는데, 각각 같은 분량으로 하여라.
- 35 너는 향 제조사가 하듯이, 이것들을 잘 섞고 소금을 쳐서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만

들어라.

- 36 너는 그 가운데 일부를 가루로 뿜어서, 내가 너를 만나 줄 만남의 천막 안 증언 궤 앞에 놓아라. 이는 너희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 37 너희는 사사로이 쓰려고 같은 배합법으로 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것을 주님을 위한 거룩한 것으로 삼아야 한다.
- 38 향기를 즐기려고 그와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 나갈 것이다."

성막 제조 기술자

- 31 ¹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²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에 속하는 후르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브찰엘을 지명하여 불러,
- 3 그를 하느님의 영으로, 곧 재능과 총명과 온갖 일으로써 채워 주겠다.
- 4 그러면 그는 여러 가지를 고안하여 금, 은, 청동으로 만들고,
- 5 테에 박을 보석을 다듬고 나무를 다듬는 온갖 일을 할 것이다.
- 6 나는 또 단 지파에 속하는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브찰엘에게 붙여 주었다. 그리고 재능 있는 모든 이의 마음에 재능을 더해 주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였다.
- 7 그리하여 그들은 만남의 천막과 증언 궤와 그 위에 덮을 속죄판과 천막에 딸린 모든 기물,
- 8 상과 거기에 딸린 기물들,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 분향 제단과
- 9 번째 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 물두멍과 그 받침,
- 10 예식을 거행할 때 입는 옷, 사제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이 사제직을 수행할 때 입는 옷,

- 11 성별 기름과 성소에서 쓸 향기로운 향을,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다 만들 것이다."

안식일

- 12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13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안식일은 나 주님이 너희를 성별하는 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세운 표징이다.
- 14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다. 이날을 더럽히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이날에 일을 하는 자는 누구나 제 백성 가운데에서 잘려 나갈 것이다.
- 15 옛세 동안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렛날은 안식일, 주님을 위한 거룩한 안식의 날이니, 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는 누구나 사형을 받아야 한다.
- 16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대대로 안식일을 영원한 계약으로 삼아, 이 안식일을 지켜 나가야 한다.
- 17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다. 주님이 옛세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모세에게 증언판을 주시다

- 18 하느님께서 사나이 산에서 모세와 말씀을 다 하신 다음, 당신 손가락으로 쓰신, 돌로 된 두 증언판을 그에게 주셨다.

금송아지

- 32 ¹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래도록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에게 물려와 말하였다. "일어나, 앞장서서 우리를 이끄실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저 모세라는 사

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2 아론이 그들에게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딸들의 귀에 걸린 금 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하자,
- 3 온 백성이 저희 귀에 걸린 금 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 4 아론이 그 금을 그들 손에서 받아 거푸집에 부어 수송아지 상을 만들자, 사람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의 신이다."
- 5 아론은 이것을 보고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은 뒤, "내일은 주님을 위한 축제를 벌입니다." 하고 선포하였다.
- 6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물을 올리고 친교 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 흥청거리며 놀았다.

하느님의 진노와 모세의 간청

- 7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어서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 8 저들은 내가 명령한 길에서 빨리도 벗어나, 자기들을 위하여 수송아지 상을 부어 만들어 놓고서는, 그것에 절하고 제사 지내며,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의 신이다.' 하고 말한다."
- 9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으로 목이 뻗뻗한 백성이 다.
- 10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마라. 그들에게 내 진노를 터뜨려 그들을 삼켜 버리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 11 그러자 모세가 주 그의 하느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큰 힘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신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를 터뜨리십니까?"

- 12 어찌하여 이집트인들이,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치려고 이끌어 내서는, 산에서 죽여 땅에 하나도 남지 않게 해 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시렵니까? 타오르는 진노를 푸시고 당신 백성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 13 당신 자신을 걸고 '너희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모두 너희 후손들에게 주어, 상속 재산으로 같이 차지하게 하겠다.' 하며 맹세하신 당신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 14 그러자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셨다.

모세가 증언판을 깨뜨다

- 15 모세는 두 증언판을 손에 들고 돌아서서 산을 내려왔다. 그 판들은 양면에, 곧 앞뒤로 글이 쓰여 있었다.
- 16 그 판은 하느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며, 그 글씨는 하느님께서 손수 그 판에 새기신 것이었다.
- 17 여호수아가 백성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진영에서 전투 소리가 들립니다." 하고 모세에게 말하였다.
- 18 그러자 모세가 말하였다. "승리의 노랫소리도 아니고 패전의 노랫소리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그냥 노랫소리일 뿐이다."
- 19 모세는 진영에 가까이 와 사람들이 춤추는 모습과 수송아지를 보자 화가 나서, 손에 들었던 돌 판들을 산 밑에 내던져 깨 버렸다.
- 20 그는 그들이 만든 수송아지를 가져다 불에 태우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빵아 물에 뿌리고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하였다.
- 21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그들에게 이렇게

큰 죄악을 끌어들이었습니까?"

- 22 아론이 대답하였다. "나리, 화내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악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 23 그들이 나에게 '앞장서서 우리를 이끄실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저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기에,
- 24 내가 그들에게 '금불이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빼서 내시오.' 하였더니, 그들이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이 수송아지가 나온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열성

- 25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하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어, 적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이다.
- 26 모세가 진영 대문에서 서서, "누구든지 주님의 편이거든 나에게로 오나라." 하고 외치자, 레위의 자손들이 모두 그에게 모여들었다.
- 27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각자 허리에 칼을 차고, 진영의 이 대문에서 저 대문으로 오가면서, 저마다 자기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여라.'"
- 28 레위의 자손들은 모세가 분부한 그대로 하였다. 그날 백성 가운데에서 삼천 명가량이 나 쓰러졌다.
- 29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 너희는 저마다 자기 아들이나 형제에 대한 대가로 주님을 위한 직무를 맡았다. 그분께서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모세가 다시 하느님께 빌다

- 30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큰 죄를 지었다. 행여 너희의 죄를 갚을 수 있는지,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가 보겠다."

- 31 모세가 주님께 돌아가서 이뢰었다. "아,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 32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거든, 당신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발 저를 지워 주십시오."
- 33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나에게 죄지은 자만 내 책에서 지운다.
- 34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 준 곳으로 백성을 이끌어라. 보아라, 내 천사가 네 앞에 서서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내 징벌의 날에 나는 그들의 죄를 징벌하겠다."
- 35 그 뒤 주님께서 백성이 수송아지를 만든 일 때문에, 곧 아론이 만든 수송아지 때문에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발을 명령하다

- 33** 1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과 함께 이곳을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네 후손들에게 이것을 주겠다.' 하며 맹세한 땅으로 올라가거라.
- 2 나는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가나안족, 아모리족, 히타이트족,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을 몰아내겠다.
- 3 너희는 젃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뺏뺏한 백성이므로, 도중에 내가 너희를 없애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 4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패물을 몸에 다는 사람이 없었다.
- 5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목이 뺏뺏한 백성이다. 내가 혼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너희를 없애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패물을 몸에서 떼어 내

- 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 6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호렘 산에서부터 패물을 벗어 버렸다.

만남의 천막

- 7 모세는 천막을 챙겨 진영 밖으로 나가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것을 만남의 천막이라 불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영 밖에 있는 만남의 천막으로 갔다.
- 8 모세가 천막으로 갈 때면, 온 백성은 일어나 저마다 자기 천막 어귀에 서서, 모세가 천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뒤를 지켜보았다.
- 9 모세가 천막으로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 천막 어귀에 머무르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다.
- 10 구름 기둥이 천막 어귀에 머무르는 것을 보면, 온 백성은 일어나 저마다 자기 천막 어귀에서 경배하였다.
- 11 주님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여 말씀하시곤 하였다. 모세가 진영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의 짧은 수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천막 안을 떠나지 않았다.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 12 모세가 주님께 이뢰었다. "보십시오, 당신께서는 저에게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저와 함께 누구를 보내실지 알려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신께서는 '나는 너를 이름까지도 잘 알뿐더러, 너는 내 눈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 13 그러나 이제 제가 당신 눈에 든다면, 저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당신을 알고, 더욱 당신 눈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민족이 당신 백성이라는 것도 생각해 주십시오."

- 14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몸소 함께 가면서 너에게 안식을 베풀겠다."
- 15 모세가 주님께 이뢰었다. "당신께서 몸소 함께 가지지 않으려거든, 저희도 이곳을 떠나 올라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 16 이제 저와 당신 백성이 당신 눈에 들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었습니까? 저희와 함께 가시는 것이 아납니까? 그래야만 저와 당신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다른 모든 주민과 구분되는 것이 아납니까?"
- 17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칭찬이 일도 내가 해 주겠다. 내가 내 눈에 들고, 나는 너를 이름까지도 잘 알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다

- 18 모세가 이뢰었다. "당신의 영광을 보여 주십시오."
- 19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나의 모든 선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네 앞에서 '아훼'라는 이름을 선포하겠다. 나는 내가 자비를 베풀려는 이에게 자비를 베풀고, 동정을 베풀려는 이에게 동정을 베풀다."
- 20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한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다."
- 21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여기 내 곁에 자리가 있으니, 너는 이 바위에서 있어라."
- 22 내 영광이 지나가는 동안 내가 너를 이 바위 굴에 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내 손바닥으로 덮어 주겠다.
- 23 그런 다음 내 손바닥을 거두면, 내가 내 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얼굴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모세가 새 증언편을 받으러 시나이 산으로 올

라다

34

- 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돌 판 두 개를 깎아라. 그러면 내가 깨뜨려 버린 그 처음 돌 판에 새겨져 있던 말을 내가 새 돌 판에 다시 써 주겠다."
- 2 내일 아침까지 준비하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시나이 산으로 올라와, 이 산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서 있어라.
- 3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 산 어디에도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되고, 양과 소가 이 산을 마주하고 풀을 뜯게 해서도 안 된다."
- 4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처음 것과 같은 돌 판 두 개를 깎고,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돌 판 두 개를 손에 들고 시나이 산으로 올라갔다.

하느님께서 나타내시다

- 5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싸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그곳에 서시어, '아훼'라는 이름을 선포하셨다.
- 6 주님께서는 모세 앞을 지나가며 선포하셨다. "주님은,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며
- 7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풀고 죄악과 악행과 잘못을 용서한다. 그러나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고 조상들의 죄악을 아들 손자들을 거쳐 삼 대 사 대까지 벌한다."
- 8 모세는 얼른 땅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며
- 9 이뢰었다. "주님, 제가 정녕 당신 눈에 든다면,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이 목이 뻗뻗하기는 하지만, 저희 죄악과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당신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계약을 맺다

- 10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계약을 맺는다. 나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어떤 민족에게서도 일어난 적이 없는 기적들을 너의 온 백성 앞에서 일으키겠다. 너를 둘러싼 온 백성이 주님의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이 일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 11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잘 지켜라. 이제 내가 너희 앞에서 아모리족, 가나안족, 히타이트족,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을 몰아내겠다.
- 12 너희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들과 계약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 가미가 될 것이다.
- 13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기념 기둥들을 부수고 그들의 아세라 목상들을 잘라 버려야 한다.
- 14 너희는 다른 신에게 경배해서는 안 된다. 주님의 이름은 '질투하는 이', 그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 15 너희는 그 땅의 주민들과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저희 신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고 저희 신들에게 제사를 바치면서 너희를 부르면, 너희는 그들의 제물을 먹게 될 것이다.
- 16 또한 너희가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아내로 얻어 주어, 저희 신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는 그 여자들이 너희 아들들도 그 신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게 만들 것이다.
- 17 너희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어서는 안 된다.
- 18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아빌 달 정해진 때에 이레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아빌 달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 19 태를 맨 먼저 열고 나온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큰 가축이건 작은 가축이건 너희 집짐승 가운데 태를 맨 먼저 열고 나온 수

컷은 모두 나의 것이다.

- 20 그러나 나귀의 첫 새끼는 양으로 대속해야 한다. 대속하지 않으려면 그 목을 꺾어야 한다. 너희 자식들 가운데에서 만아들은 모두 대속해야 한다.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 21 너희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이렛날에는 쉬어야 한다. 밭갈이하는 철에도 거둬질하는 철에도 쉬어야 한다.
- 22 너희는 밀의 만물을 거두어들일 때 구간절을, 해가 바뀔 때 추수절을 지켜야 한다.
- 23 남자들은 모두 일 년에 세 번 주 하느님, 곧 이스라엘 하느님 앞에 나와야 한다.
- 24 나는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 영토를 넓혀 주며, 너희가 한 해에 세 번 주 너희 하느님 앞에 나오려고 올라올 때 아무도 너희 땅을 탐내지 않게 하겠다.
- 25 너희는 나를 위한 희생 제물의 피를 누룩과 빵과 함께 바치서는 안 된다. 파스카 제물을 이틀날 아침까지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
- 26 너희 땅에서 난 만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느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삶아서는 안 된다."
- 27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말을 기록하여라. 나는 이 말을 조건으로 너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었다."
- 28 모세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밤낮으로 사십 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는 계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모세가 빛나는 얼굴로 사나이 산에서 내려오다

- 29 모세는 사나이 산에서 내려왔다.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손에는 증언판 두 개가 들려 있었다. 모세는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자기 얼굴의 살갓이 빛나게 되었으나,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 30 이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그 얼굴의 살갓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 31 모세가 그들을 불렀다. 아론과 공동체의 모든 수장들이 그에게 나아오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 32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그에게 가까이 왔다. 모세는 주님께서 사나아 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 33 모세는 그들과 이야기를 다 하고 자기 얼굴을 너울로 가렸다.
- 34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려 그분 앞으로 들어갈 때는 너울을 벗고, 나올 때까지 쓰지 않았다. 나와서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였다.
- 35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얼굴의 살갓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려 들어갈 때까치는, 자기 얼굴을 다시 너울로 가리곤 하였다.

안식일을 지켜라

- 35** 1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를 모아 놓고 말하였다. "이것이 주님께서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 2 '옛새 동안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렛날은 거룩하게 지내야 하는 안식일, 주님을 위한 안식의 날이니, 이날 일하는 자는 누구나 사형을 받아야 한다.
- 3 안식일에는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도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

성소 간접을 위한 예물

- 4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말하였다. "이것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다.

- 5 너희 가운데에서 주님을 위한 예물을 거두어 가져오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는 누구나 주님을 위한 예물을 가져오너라. 곧 금, 은, 청동,
6 자주와 자홍과 다홍 실, 아마실, 염소 털,
7 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 들고래 가죽, 아카시아 나무,
8 등잔 기름, 성별 기름과 향기로운 향에 넣은 향료,
9 에봇과 가슴받이에 박을 마노와 그 밖의 장식 보석들이다."

성막 기물들

- 10 "너희 가운데 재능 있는 이는 모두 와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어라.
- 11 곧 성막과 그 천막과 덮개, 갈고리, 널빤지, 가로다지, 기둥, 밀반침,
12 궤와 그 채, 속죄판과 칸막이 휘장,
13 상과 그 채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 제사 빵,
14 불을 켜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기물들, 등잔과 등잔 기름,
15 분향 제단과 그 채, 성별 기름, 향기로운 향, 어귀 곧 성막 어귀의 막,
16 번제 제단과 거기에 달 청동 격자와 채와 거기에 딸린 다른 모든 기물, 물두멍과 그 반침,
17 뜰에 두를 휘장과 그 기둥과 밀반침, 뜰 정문의 막,
18 성막의 말뚝과 뜰의 말뚝, 그리고 거기에 쓰일 줄,
19 성소에서 예식을 거행할 때 입는 옷, 사제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이 사제직을 수행할 때 입는 옷이다."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라

- 20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는 모세 앞에서 물러 나왔다.

- 21 마음이 내긴 사람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나서서, 만민의 천막과 그 곳에서 거행되는 온갖 예식에 필요한 가물 들과 거룩한 옷을 만드는 데에 쓸 주님의 예물을 가져왔다.
- 22 남자들은 물론 여자들도 나섰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들은 모두 깃꽃이, 귀걸이, 인장 반지, 목걸이 등 온갖 금붙이를 가져와, 저마다 그 금붙이를 주님께 흔들어 바쳤다.
- 23 그리고 자주와 자홍과 다홍 실, 아마실, 염소 털, 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 돌고래 가죽을 가진 사람들도 모두 그것들을 가져왔다.
- 24 은과 청동을 예물로 바칠 수 있는 이들도 모두 그것을 주님을 위한 예물로 가져왔다. 예식 준비를 위한 온갖 일에 쓸 아카시아 나무를 가진 이들도 모두 그것을 가져왔다.
- 25 재능 있는 여자들은 모두, 자주와 자홍과 다홍 실, 그리고 아마실을 손수 자아서 그것들을 가져왔다.
- 26 재능이 있어 마음이 내긴 여자들은 모두 염소 털로 실을 자았다.
- 27 지도자들은 에봇과 가슴받이에 박을 마노와 그 밖의 장식 보석들,
- 28 향료와 등잔 기름, 성별 기름과 향기로운 향에 넣을 향료를 가져왔다.
- 29 남녀 할 것 없이 모두가 마음에서 우러나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만들라고 명령하신 온갖 작업에 필요한 것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을 위하여 자원 예물을 가져왔다.

성막 재조 기술자

- 30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에 속하는 후르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브찰엘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 31 그를 하느님의 영으로, 곧 재능과 총명과 온갖 일쫓으로써 채워 주셨다.
- 32 그래서 그가 여러 가지를 고안하여 금, 은, 청동으로 만들고,
- 33 데에 박을 보석을 다듬고 나무를 다듬은 온갖 세공일을 하게 되었다.
- 34 또한 주님께서는 그와 단 지파에 속하는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 가르치는 능력도 주셨다.
- 35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온갖 조각하는 일과 고안하는 일, 그리고 자주와 자홍과 다홍 실과 아마실로 무늬를 놓으며 길쌈하는 일과 같은 모든 일을 하고, 여러 가지를 고안하는 재능을 채워 주셨다.

36

- ¹ 그러므로 브찰엘과 오홀리압과 재능 있는 모든 사람은, 곧 성소 건립 작업을 맡아 수행할 줄 알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재능과 총명을 주신 이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한다."

예물 봉헌을 중단시키다

- 2 모세는 브찰엘과 오홀리압을 비롯하여 주님께서 재능을 주신 모든 사람을 부르고, 일을 해 보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 3 그들은 성소 건립 작업에 쓰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 그래도 사람들이 아침마다 계속 자원 예물을 모세에게 가져오자,
- 4 성소의 갖가지 일을 하는 기술자들이 저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와서,
- 5 모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일을 하기에 넉넉한데도, 백성이 많은 것을 가져옵니다."
- 6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명령을 내려 진영에 두루 전하게 하였다. "남자든 여자든 성소를 위한 예물로 바칠 물품을 더 이상 만들

지 마라." 그러자 백성이 가져오기를 멈추었다.

7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였다.

성막을 만든다

8 일꾼들 가운데 재능 있는 이들이 모두, 가늘게 썬 아마실과 자주와 자홍과 다홍 실로 짠 천 열 폭으로 성막을 만드는데, 커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그 폭을 만들었다.

9 각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암마, 각 폭의 너비는 네 암마로 하되, 폭마다 치수를 같게 하였다.

10 그는 다섯 폭을 옆으로 나란히 잇고 다른 다섯 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었다.

11 그리고 나란히 이은 것의 마지막 폭 가장 자리에 자주색 실로 고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것의 마지막 폭 가장자리에도 그와 같이 하였다.

12 폭 하나에 고 선 개를 만들고, 이것과 이를 다른 마지막 폭의 언저리에도 고 선 개를 만들어, 그것들을 서로 맞물리게 하였다.

13 그리고 금 갈고리 선 개를 만들어, 이 두 쪽을 하나하나 갈고리로 맞걸어서 한 성막이 되게 하였다.

14 그는 또한 성막 위에 씌울 천막의 폭을 옆소 털로 만드는데, 열한 폭을 만들었다.

15 각 폭의 길이는 서른 암마, 각 폭의 너비는 네 암마로 하되, 열한 폭의 치수를 모두 같게 하였다.

16 다섯 폭을 따로 잇고 나머지 여섯 폭도 따로 이었다.

17 나란히 이은 것의 마지막 폭 가장자리에 고 선 개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것의 마지막 폭 가장자리에도 고 선 개를 만들었다.

18 그리고 청동 갈고리 선 개를 만들어 한 천막이 되게 하였다.

19 이 밖에도 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으로 천막 덮개를 만들고, 돌고래 가죽으로 그 위에 덧씌울 덮개를 만들었다.

성막에 쓸 목재품을 만든다

20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을 세울 널빤지를 만들었다.

21 각 널빤지 길이는 열 암마, 각 널빤지 너비는 한 암마 반으로 하고,

22 널빤지마다 축꽃이 두 개를 만들어 서로 잇대어 놓았다. 성막의 널빤지를 모두 이와 같이 만들었다.

23 이렇게 성막의 널빤지를 만드는데, 우선 네 겹 쪽 끝 남쪽에 세울 널빤지 스무 장을 만들었다.

24 또 그 널빤지 스무 장 밑에 반칠 은 밑받침 마흔 개를 만들고, 널빤지마다 축꽃이를 꽃을 밑받침 두 개씩을 만들었다.

25 성막의 두 번째 면, 곧 북쪽에 세울 널빤지도 스무 장을 만들었다.

26 그리고 은 밑받침 마흔 개를 만들고,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밑받침 두 개씩을 만들었다.

27 성막 뒷면인 서쪽에 세울 널빤지는 여섯 장을 만들었다.

28 성막의 뒷면 두 모퉁이에 세울 널빤지도 두 장을 만들었다.

29 이것들이 밑에서 서로 겹치고 꼭대기에서도 포개져서 첫 고리에 연결되게 하였다. 두 모퉁이 다 이렇게 만들었다.

30 한 널빤지 밑에 각각 밑받침을 두 개씩 하여, 널빤지가 여덟 장, 그에 딸린 은 밑받침이 열여섯 개가 되었다.

31 그는 또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었다. 성막 한 면의 널빤지들에 다섯,

32 성막 다른 한 면의 널빤지들에도 가로다지 다섯, 성막 뒷면인 서쪽의 널빤지들에도 가로다지 다섯을 만들었다.

- 33 중간 가로다지도 만들어 날뻐지들 가운데에 끼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미치게 하였다.
- 34 날뻐지에는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꿰고 리는 금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가로다지에 도 금을 입혔다.

휘장을 만든다

- 35 그는 또한 자수와 자홍과 다홍 실, 그리고 가늘게 꼰 아마실로 휘장을 만드는데, 커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만들었다.
- 36 이 휘장을 칠 기둥 네 개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금을 입히고, 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어 달았다. 그리고 그 기둥에 반침은 밑받침 네 개를 부어 만들었다.
- 37 천막 어귀를 가리는 막을 자수와 자홍과 다홍 실, 그리고 가늘게 꼰 아마실로 무늬를 놓아 가며 만들었다.
- 38 이 막을 칠 기둥 다섯과 고리를 만들어 그 기둥머리와 가로대에 금을 입히고, 그 밑받침 다섯은 청동으로 만들었다.

계약 께를 만든다

- 37 ¹ 브찰엘은 아카시아 나무로 께를 만들었다. 그 길이는 두 암마 반, 너비는 한 암마 반, 높이도 한 암마 반으로 하였다.
- 2 순금으로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다.
- 3 금 고리 네 개를 부어 만들어 네 다리에 달았는데, 한쪽에 고리 두 개, 다른 쪽에 고리 두 개를 만들었다.
- 4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 금을 입혔다.
- 5 그 채를 께 양쪽 고리에 끼워 께를 들 수 있게 하였다.
- 6 그는 순금으로 속죄판을 만들었다. 그 길이는 두 암마 반, 너비는 한 암마 반으로 하였

다.

- 7 그리고 금으로 커룹 들을 만들었는데, 속죄판 양쪽 끝을 마치로 두드려 만들었다.
- 8 커룹 하나는 이쪽 끝에, 다른 하나는 저쪽 끝에 자리 잡게 하였다. 그 커룹들을 속죄판 양쪽 끝을 늘어 만들었다.
- 9 커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고, 서로 얼굴을 마주 보게 하였다. 커룹들의 얼굴은 속죄판 쪽을 향하게 하였다.

제사상을 만든다

- 10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들었다. 그 길이는 두 암마, 너비는 한 암마, 높이는 한 암마 반으로 하였다.
- 11 그것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다.
- 12 그리고 그 상 둘레에 손바닥 너비만 한 턱을 만들고, 그 턱 둘레에도 금테를 둘렀다.
- 13 또 금 고리 네 개를 부어 만들어 그 상 네 다리의 귀퉁이에 달았는데,
- 14 상을 들 때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그 고리들을 턱 곁에 달았다.
- 15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혀서, 그것으로 상을 들게 하였다.
- 16 그는 상 위에 놓을 기물들, 곧 대접과 접시, 그리고 제주를 따르는 잔과 단지를 순금으로 만들었다.

등잔대를 만든다

- 17 그는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등잔대의 밑받침과 가지는 마치로 두드려 만들고, 잔과 꽃받침과 꽃잎은 등잔대와 한 덩어리가 되게 하였다.
- 18 등잔대 양쪽에 가지 여섯 개가 나오게 하였는데, 한쪽에 등잔대 가지 세 개, 다른 쪽에 등잔대 가지 세 개가 번어 나오게 하였다.
- 19 가지 하나에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편도

꽃 모양의 잔 세 개, 또 다른 가지에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편도 꽃 모양의 잔 세 개를 만들었다. 등잔대에서 번어 나온 가지 여섯 개를 모두 이처럼 만들었다.

- 20 등잔대 원대에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편도 꽃 모양의 잔 네 개를 만들었다.
- 21 등잔대에서 양쪽으로 번어 나온 가지 둘 바로 밑에 꽃받침 하나, 그다음에 양쪽으로 번어 나온 가지 둘 바로 밑에 꽃받침 하나, 또 다음에 번어 나온 가지 둘 바로 밑에 꽃받침 하나를 만들었다. 등잔대에서 번어 나온 가지 여섯 개를 모두 이처럼 만들었다.
- 22 꽃받침과 가지들을 등잔대와 한 덩어리가 되게 하고, 순금을 두드려 모두 하나로 만들었다.
- 23 그리고 등잔 일곱 개와 불뿔 가위와 불뿔 집시를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 24 등잔대와 이 모든 기물을 순금 한 탈렌트로 만들었다.

분향 제단을 만든다

- 25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분향 제단을 만들었다. 길이는 한 암마, 너비도 한 암마로 하여 네모나게 하고, 높이는 두 암마로 하였으며, 제단과 그 뿔들이 한 덩어리가 되게 하였다.
- 26 그리고 제단의 윗면과 네 옆면과 뿔들을 순금으로 입히고, 돌아가면서 태를 들렸다.
- 27 또 금 고리 두 개를 만들어 금테 밑 양쪽 옆에 붙여, 가지에 채를 끼워 제단을 들 수 있게 하였다.
- 28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혔다.

성별 기름과 향을 만든다

- 29 그는 향을 만드는 법에 따라 거룩한 성별 기름과 향기롭고 순수한 향을 만들었다.

번제 제단을 만든다

- 38 ¹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번제 제단을 만들었다. 길이는 다섯 암마, 너비도 다섯 암마로 네모나게 하고 높이는 세 암마로 하였다.
- 2 그 네 귀퉁이에는 뿔을 만들었는데, 뿔과 제단을 한 덩어리가 되게 하여 청동을 입혔다.
- 3 그리고 제단에 떨어진 모든 기물, 곧 재반이와 삼과 쟁반, 고기 갈고리와 부삽을 만들었다. 이 모든 기물을 청동으로 만들었다.
- 4 제단에 쓸 그물 격자를 청동으로 만들어 제단 가두리 밑에 아래쪽으로 달아, 제단 중간까지 닿게 하였다.
- 5 또 청동 격자의 네 모서리에 채를 끼우는 데 쓸 고리 네 개를 부어 만들었다.
- 6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청동을 입혔다.
- 7 이 채들을 제단 양 옆의 고리에 끼워 제단을 들어 나룰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제단은 판자로 안이 비게 만들었다.

물두멍을 만든다

- 8 그는 만남의 천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거울을 녹여 청동 물두멍과 청동 받침을 만들었다.

성막 뜰을 만든다

- 9 그는 뜰을 만들었다. 가늘게 짠 아모포로 네 겹, 곧 남쪽에 칠 뜰의 휘장을 길이가 백 암마 되게 만들었다.
- 10 휘장을 칠 기둥 스무 개와 밑받침 스무 개는 청동으로, 기둥 고리와 가로대는 은으로 만들었다.
- 11 북쪽에 칠 휘장도 백 암마 되게 하고, 기둥 스무 개와 밑받침 스무 개는 청동으로, 기둥 고리와 가로대는 은으로 만들었다.
- 12 서쪽에 칠 휘장은 선 암마 되게 하고, 기둥 열 개와 받침대 열 개를 만들었다. 기둥 고리와 가로대는 은으로 만들었다.

- 13 해가 뜨는 동쪽 뜰의 너비도 쉰 암마로 하였다.
- 14 한쪽에 기둥 셋, 밀받침 셋과 함께 열다섯 암마 되는 휘장을 치고
- 15 다른 쪽, 곧 뜰 정문의 양쪽에도 기둥 셋, 밀받침 셋과 함께 열다섯 암마 되는 휘장을 쳤다.
- 16 뜰의 사방에 두른 휘장은 가늘게 짠 아마 포로 만들었다.
- 17 기둥 받침대는 청동으로, 기둥 고리와 가로대는 은으로 만들고, 또 기둥머리 덮개도 은으로 만들었다. 뜰의 기둥들은 모두 은으로 된 가로대로 이었다.
- 18 뜰 정문에 칠 막은 자주와 자홍과 다홍 실, 그리고 가늘게 꼰 아마실로 무늬를 놓아 가며 만든 것으로, 길이는 스무 암마이고, 높이 곧 너비는 다섯 암마로 뜰의 휘장과 같았다.
- 19 그 막을 칠 기둥 네 개와 밀받침 네 개는 청동으로, 고리는 은으로 만들고, 또 기둥머리 덮개와 가로대도 은으로 만들었다.
- 20 성막과 뜰의 사방에 박을 말뚝은 모두 청동으로 만들었다.

공사에 든 금속 명세

- 21 다음은 성막, 곧 증언관을 모신 성막 공사의 명세서로, 아론 사제의 아들 이터바르가 모세의 명령을 받아 레위인들을 시켜 만든 것이다.
- 22 유다 지파에 속한 후르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브찰엘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 23 브찰엘과 함께, 단 지파에 속하는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암이 일하였는데, 그는 조각가이고 도안가이며, 또 자주와 자홍과 다홍 실, 그리고 아마실로 무늬를 놓는 자수기였다.
- 24 성소 건축 작업에 든 금, 곧 흔들어 바친

금은 모두 성소 세켈로 이십구 탈렌트 칠 백삼십 세켈이었다.

- 25 인구 조사의 대상이 된 공동체가 바친 은은 성소 세켈로 백 탈렌트 천칠백칠십오 세켈이었다.
- 26 이것은 인구 조사를 받은 스무 살 이상의 남자 육십만 삼천오백오십 명이 모두 머릿수대로 저마다 한 베가, 곧 성소 세켈로 반 세켈씩을 낸 셈이다.
- 27 성소 밀받침과 휘장 밀받침을 부어 만드는 데 은 백 탈렌트가 들었다. 밀받침 백 개에 백 탈렌트, 곧 밀받침 하나에 한 탈렌트가 든 셈이다.
- 28 나머지 천칠백칠십오 세켈로 기둥 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덮었으며, 기둥들을 이었다.
- 29 흔들어 바친 청동은 칠십 탈렌트 이천사백 세켈이었다.
- 30 이것으로 그는 만남의 찬막 아귀의 밀받침, 청동 제단과 그것에 다는 청동 격자와 제단의 다른 모든 기물을 만들고,
- 31 뜰 사방의 밀받침, 뜰 정문의 밀받침, 성막의 말뚝과 뜰 사방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다.

대제제의 옷

- 39 ¹ 그들은 자주와 자홍과 다홍 실로 성소에서 예식을 거행할 때 입는 옷을 만들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에봇

- 2 그는 금과, 자주와 자홍과 다홍 실, 그리고 가늘게 꼰 아마실로 에봇을 만들었다.
- 3 그들은 금편을 두드려 늘린 다음 그것을 잘라 가는 실처럼 만들고, 자주와 자홍과 다홍 실, 그리고 아마실을 사이사이에 섞어 가며 정교하게 감을 꼰다.

- 4 또 에봇에 붙일 멜빵들을 만들어 그 양쪽 끝에 붙였다.
- 5 에봇 위에 달 띠도 같은 방식으로 금과, 자주와 자홍과 다홍 실, 그리고 가늘게 꼰 아마실로 만들어 에봇에다 한테 붙였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 6 그리고 금테두리에 박을 마노들을 다듬어, 인장 반지를 새기듯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겼다.
- 7 이 보석들은 에봇의 양쪽 멜빵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념하는 보석으로 달았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가슴받이

- 8 그는 에봇을 만들 때와 같은 방식으로 금과, 자주와 자홍과 다홍 실, 그리고 가늘게 꼰 아마실로 판결 가슴받이를 정교하게 만들었다.
- 9 이 가슴받이를 두 겹으로 하여 네모나게 만들었는데, 두 겹으로 하였을 때 길이도 한 뼘, 너비도 한 뼘이었다.
- 10 거기에 보석을 넉 줄로 박았다. 첫째 줄에는 홍옥수와 황옥과 취옥,
- 11 둘째 줄에는 홍옥과 청옥과 백수정,
- 12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흑요석과 지수정,
- 13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마노와 벽옥을 박았는데, 이것들을 금테두리 안에 끼워 박았다.
- 14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에 따라, 곧 그들의 이름 수대로 열둘이 되었다. 인장 반지를 새기듯 각자의 이름을 새겨 열두 지파가 되게 하였다.
- 15 그들은 가슴받이를 매달 사슬을 순금으로 줄을 꼬듯이 만들었다.
- 16 그리고 금테두리 두 개와 금 고리 두 개를 만들어, 그 두 고리를 가슴받이 양쪽 끝에 달았다.
- 17 그런 다음 금줄 두 개를 가슴받이 양쪽 끝

에 있는 그 고리에 걸었다.

- 18 두 줄의 다른 두 끝을 양 테두리에 매달아 에봇 멜빵 앞쪽으로 늘어지게 하였다.
- 19 그리고 금 고리 두 개를 더 만들어, 가슴결이 양 끝에, 곧 에봇의 옆쪽으로 가슴받이 안쪽 두 가장자리에 달았다.
- 20 다시 금 고리 두 개를 만들어, 에봇 양쪽 멜빵 앞부분의 아래, 곧 에봇의 띠 위쪽, 멜빵이 에봇과 접치는 곳 곁에 달았다.
- 21 그리고 자주색 실로 만든 끈으로 가슴받이 고리를 에봇 고리에 이어, 에봇의 띠 위에 오게 해서 가슴받이가 에봇에서 늘어지지 않게 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겂옷

- 22 그는 또 순 자주색 실로 에봇에 딸린 겂옷을 짜서 만들었다.
- 23 그 겂옷 가운데에 겂옷의 구멍처럼 구멍을 뚫고, 구멍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훑어서 찢어지지 않게 하였다.
- 24 그 겂옷 자락 둘레에는 자주와 자홍과 다홍 실, 그리고 가늘게 꼰 아마실로 석류들을 만들어 달았다.
- 25 또 순금 방울들을 만들어, 겂옷 자락을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그 방울들을 달았다.
- 26 이렇게 예식을 거행할 때 입는 겂옷 자락을 돌아가며 방울 하나에 석류 하나, 또 방울 하나에 석류 하나씩을 달았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 밖의 사제복

- 27 그들은 또 이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저고리를 아마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다.
- 28 그리고 아마실로 쓰개를, 아마실로 두건을, 가늘게 꼰 아마실로 속바지를 만들고,
- 29 가늘게 꼰 아마실, 그리고 자주와 자홍과 다홍 실로 무늬를 놓아 가며 허리띠를 만

들었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성막에

30 그들은 또 거룩한 관에 붙이는 패를 순금으로 만들어, 인장 반지를 새기는 글씨체로 그 위에 '주님께 성별된 이'라고 새겼다.

31 이것을 자주색 실로 된 끈에 매어 쓰개에 달았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모세가 모든 제작용품을 받다

32 이렇게 해서 성막, 곧 만남의 천막 공사가 모두 끝났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33 그러고 나서 그들은 모세에게 성막을 가져왔다. 천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 곧 갈고리와 널빤지와 가로다지, 기둥과 밑받침,

34 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으로 만든 덮개와 돌고래 가죽으로 만든 덮개, 칸막이 휘장,

35 증언 궤와 거기에 딸린 채, 속죄판,

36 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과 제사 빵,

37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차례로 없어 놓을 등잔들, 그리고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 등잔 기름,

38 금 제단, 성별 기름, 향기로운 향, 천막 어귀의 막,

39 청동 제단과 거기에 달 청동 격자, 제단의 채와 그 밖의 모든 기물, 물두멍과 그 받침,

40 뜰의 휘장과 그 기둥과 밑받침, 뜰 정문의 막, 줄과 말뚝, 그 밖의 성막 곧 만남의 천막에서 예배하는 데 쓰는 모든 기물,

41 성소에서 예식을 거행할 때 입는 옷, 아론 사제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이 사제직을 수행할 때 입는 옷이다.

42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든 일을 주님께서 모

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43 모세가 그 모든 것을 살펴보니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성막을 세워 봉헌하다

40¹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2 "너는 첫째 달 초하룻날에 성막 곧 만남의 천막을 세워라.

3 거기에 증언 궤를 놓고 휘장을 쳐서 그 궤를 가려라.

4 그리고 상을 가져다 차릴 것을 차려 놓고 등잔대를 가져다 등잔들을 올려놓아라.

5 또 금으로 된 분향 제단을 증언 궤 앞에 놓고, 성막 어귀를 가리는 막을 드리워라.

6 번제 제단은 성막 곧 만남의 천막 어귀에 놓아라.

7 만남의 천막과 제단 사이에는 물두멍을 놓고 거기에 물을 담아라.

8 그 둘레에 뜰을 만들고, 뜰 정문에 막을 드리워라.

9 너는 성별 기름을 가져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그 기름을 부어,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을 성별하여라. 그러면 성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10 번제 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에 기름을 부어 제단을 성별하여라. 그러면 제단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될 것이다.

11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기름을 부어 그것을 성별하여라.

12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만남의 천막 어귀로 데려다가, 그들을 물로 씻겨라.

13 그런 다음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성별하여, 사제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14 또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 저고리를 입혀라.

15 그리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사제로

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들은 기름부음을 받음으로써 대대로 영원한 사제직을 맡게 될 것이다."

- 16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 17 마침내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룻날에 성막이 세워졌다.
- 18 모세는 성막을 세우는데, 먼저 밑받침을 놓은 다음 널빤지를 맞추고 가로다지를 끼운 뒤, 기둥을 세웠다.
- 19 또 성막 위로 천막을 치고 천막 덮개를 그 위에 씌웠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 20 그런 다음 증언판을 가져다 궤 안에 놓았다. 그 궤에 채를 끼우고 궤 위에 속죄판을 덮었다.
- 21 또 궤를 성막 안에 들여놓고 칸막이 휘장을 쳐서 증언 궤를 가렸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 22 그는 만민의 천막 안, 성막의 북쪽 면, 휘장 바깥에 상을 놓았다.
- 23 상 위에는 주님께 바치는 빵을 가지런히 차려 놓았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 24 만민의 천막 안, 상 맞은쪽, 곧 성막의 남쪽 면에 등잔대를 놓고
- 25 주님 앞에 등잔들을 올려놓았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 26 또 금으로 된 제단을 만민의 천막 안, 휘장 앞에 놓고
- 27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웠다. 이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였다.
- 28 그리고 성막 어귀에 막을 드리웠다.
- 29 그런 다음 성막 곧 만민의 천막 어귀에 번제 제단을 놓고, 그 위에서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쳤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 30 그러고는 만민의 천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놓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았다.

- 31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었는데,
- 32 만민의 천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씻었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 33 그는 또 성막과 제단 둘레에 뜰을 만들고, 뜰 정면에 막을 드리웠다. 이렇게 하여 모세는 일을 마쳤다.

주님께서 성막을 당신 것으로 받으셨다

- 34 그때에 구름이 만민의 천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 35 모세는 만민의 천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구름이 그 천막 위에 자리 잡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구름이 이스라엘자들을 이끈다

- 36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모든 여정 중에, 구름이 성막에서 올라갈 때마다 길을 떠났다.
- 37 그러나 구름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 구름이 올라가는 날까지 떠나지 않았다.
- 38 그 모든 여정 중에 이스라엘의 온 집안이 보는 앞에서,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자리를 잡았다.

구약성경 - 3

오경 - 3

레 위 기

총 27 장

총 859 절

[구약성경-레위기]

번제물에 관한 규정

- 1** ¹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 만남의 천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 2**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가운데 누가 짐승을 잡아 주님에게 예물을 바칠 때에는, 소 떼나 양 떼 가운데에서 골라 예물을 바쳐야 한다.
- 3** 소 떼에서 고른 예물을 번제물로 바치려면, 흠 없는 수컷을 바쳐야 한다. 주님 앞에서 호의로 받아들여지도록, 그것을 만남의 천막 어귀로 가져온 다음,
- 4**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 그러면 그 제물이 그를 위해 호의로 받아들여져, 그의 속죄가 이루어진다.
- 5** 그가 주님 앞에서 그 소를 잡으면, 아론의 아들인 사제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만남의 천막 어귀에 있는 제단을 돌며 거기에 그 피를 뿌린다.
- 6** 그런 다음 그는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 7** 아론 사제의 아들들은 제단에 불을 피우고, 그 불에 장작을 얹어놓는다.
- 8** 아론의 아들인 사제들은 각을 뜬 고기와 머리와 지방을 제단의 불에 얹은 장작 위에 차려 놓는다.
- 9** 제물을 바치는 이가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 놓으면, 사체는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서 살라 번제물, 곧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로 살라 바친다.
- 10** 작은 가죽, 곧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예물을 골라 번제물로 바치려면, 흠 없는 수컷을 바쳐야 한다.
- 11** 제물을 바치는 이는 제단의 북쪽, 주님 앞에서 그것을 잡고, 아론의 아들인 사제들은 제단을 돌며 거기에 그 피를 뿌린다.

- 12** 그런 다음 제물을 바치는 이가 각을 뜨고 그 제물의 머리와 지방을 빼어 놓으면, 사체는 그것들을 제단의 불에 얹은 장작 위에 차려 놓는다.
- 13** 또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 놓으면, 사체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이것은 번제물, 곧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다.
- 14** 날짐승 가운데에서 주님을 위한 예물을 골라 번제물로 바치려면, 산비둘기나 잡비둘기 가운데에서 예물을 골라 바쳐야 한다.
- 15** 사체는 그 날짐승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머리를 빼어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치고, 피는 제단 벽에 대고 짜낸다.
- 16** 제물의 모이주머니는 그 안에 든 것과 함께 꺼내어, 제단 동쪽에 있는 제 구덩이에 버린다.
- 17** 제물을 바치는 이가 두 날개를 잡고, 아주 떨어지지는 않게 그 날짐승을 찢어 놓으면, 사체가 그것을 제단 위에서, 곧 불에 얹은 장작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이것은 번제물, 곧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다.'

곡식 제물에 관한 규정

- 2** ¹ '누가 주님에게 곡식 제물을 예물로 바칠 때에는, 고운 곡식가루를 바쳐야 하는데, 거기에 기름을 따르고 유향을 얹어,
- 2** 아론의 아들인 사제들에게 가져와야 한다. 사체는 고운 곡식 가루와 기름을 한 손 가득 퍼내어, 유향 전부와 함께 기념 제물로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이것은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다.
- 3** 남은 곡식 제물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것이 된다. 이것은 주님에게 바친 화제물에서 온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 4** 너희가 가마에 구운 것을 곡식 제물로 바칠

때에는,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을 섞어 누룩 없이 반죽하여 만든 과자나, 기름을 발라 누룩 없이 반죽하여 만든 부꾸미를 바쳐야 한다.

5 너희 예물이 번철에 구운 곡식 제물이면,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을 섞어 누룩 없이 반죽한 것이어야 한다.

6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따른다. 이것은 곡식 제물이다.

7 너희 예물이 냄비에 구운 곡식 제물이면,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을 넣어 만든 것이어야 한다.

8 너희가 이렇게 만든 곡식 제물을 주님에게 가지고 와서 사제에게 주면, 사제는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온다.

9 그런 다음 사제는 그 곡식 제물에서 기념 제물을 들어내어,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이것은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다.

10 남은 곡식 제물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것이 된다. 이는 주님에게 바친 화제물에서 온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11 너희가 주님에게 바치는 곡식 제물은 어떤 것이든 누룩을 넣어 만들어서는 안 된다. 어떤 누룩이나 어떤 꿀도 주님을 위한 화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12 이것들을 만물 예물로는 주님에게 바쳐도 되지만, 향기로 바치려고 제단 위에 올려 놓아서는 안 된다.

13 너희가 곡식 제물로 바치는 모든 예물에는 소금을 쳐야 한다. 너희가 바치는 곡식 제물에 너희 하느님과 맺은 계약의 소금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 너희의 모든 예물과 함께 소금도 바쳐야 한다.

14 너희가 주님에게 만물 제물을 바치려면, 이삭을 불에 볶아 굵게 빻은 햇곡식을 너희의 만물 제물로 바쳐야 한다.

15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는다. 이것

은 곡식 제물이다.

16 사제는 햇곡식과 기름을 조금 덜어 내어, 유향 전부와 함께 기념 제물로 살라 연기로 바친다. 이것은 주님을 위한 화제물이다.'

친교 제물에 관한 규정

3¹ '친교 제물을 올리는데 소를 잡아 바치려면,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 없는 것을 주님 앞에 바쳐야 한다.

2 제물을 바치는 이가 자기 예물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만남의 천막 어귀에서 그것을 잡으면, 아론의 아들인 사제들은 제단을 돌며 거기에 그 피를 뿌린다.

3 이 친교 제물 가운데 일부를 주님에게 화제물로 바치는데, 곧 내장을 덮은 굳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굳기름,

4 두 콩팥과 거기에 있는 허리계의 굳기름, 그리고 콩팥을 떼어 낼 때 함께 떼어 낸 간에 붙은 것이다.

5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불에 얹은 장작 위 번제물과 함께 살라 연기로 바친다. 이것은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다.

6 작은 가축을 친교 제물로 주님에게 바치려면,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 없는 것을 바쳐야 한다.

7 예물로 바치려는 것이 양이면, 예물을 바치는 이는 그것을 주님 앞으로 끌고 와서,

8 자기 예물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만남의 천막 앞에서 그것을 잡는다.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을 돌며 거기에 그 피를 뿌린다.

9 이 친교 제물 가운데 일부를 주님에게 화제물로 바치는데, 곧 엉덩이뼈 가까이에서 떼어 낸 기름진 꼬피 전부와 내장을 덮은 굳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굳기름,

10 두 콩팥과 거기에 있는 허리계의 굳기름, 그리고 콩팥을 떼어 낼 때 함께 떼어 낸

간에 붙은 것이다.

- 11 사제는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이것은 불에 태워 주님에게 바치는 음식 제물이다.
- 12 염소를 바치려면, 예물을 바치는 이가 그것을 주님 앞으로 끌고 와서,
- 13 그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만민의 천막 앞에서 그것을 잡는다.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을 돌며 거기에 그 피를 뿌린다.
- 14 그 짐승의 일부를 주님에게 화제물로 바치는데, 곧 내장을 덮은 굳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굳기름,
- 15 두 콩팥과 거기에 있는 허리계의 굳기름, 그리고 콩팥을 떼어 낼 때 함께 떼어 낸 간에 붙은 것이다.
- 16 사제는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이것은 불에 태워 바치는 향기로운 음식 제물이다. 모든 굳기름은 주님의 것이다.
- 17 이는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법규이다. 너희는 어떤 굳기름도, 어떤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속죄 제물에 관한 규정

대새끼의 속죄 제물

4

¹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²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누가 실수로, 주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하나라도 하여 죄를 지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3 기름부음 받은 사제가 죄를 지어 백성도 죄인이 되게 하였으면, 자기가 저지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흠 없는 황소 한 마리를 주님에게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 4 그는 그 황소를 만민의 천막 어귀, 곧 주님 앞으로 끌고 와서, 그 황소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주님 앞에서 그 황소를 잡는다.

- 5 기름부음 받은 사제는 황소의 피를 얼마쯤 받아, 만민의 천막으로 가지고 들어간다.
- 6 사제는 손가락에 피를 찍어 주님 앞에, 곧 성소 휘장 앞면에 그 피를 일곱 번 뿌린다.
- 7 사제는 또 그 피에서 얼마를 만민의 천막 안 주님 앞에 있는, 향기로운 향을 피우는 분향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황소의 나머지 피는 모두 만민의 천막 어귀에 있는 번째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 8 그러고 나서 속죄 제물이 된 황소의 모든 굳기름을 들어내는데, 곧 내장을 덮은 굳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굳기름,
- 9 두 콩팥과 거기에 있는 허리계의 굳기름, 그리고 콩팥을 떼어 낼 때 함께 떼어 낸 간에 붙은 것이다.
- 10 사제는 그것들을 친교 제물이 된 소에서 들어낼 때처럼 들어내어, 번째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 11 그 황소의 가죽과 모든 살, 머리와 다리, 내장과 똥,
- 12 곧 그 황소의 나머지는 모두 진영 밖 깨끗한 곳에 있는, 재를 쌓아 두는 정결한 곳으로 내다가 장작불 위에 올려놓고 태운다. 그것은 재를 쌓아 두는 곳에서 태워야 한다.'

회중의 속죄 제물

- 13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실수로 잘못을 저지르고, 모두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하나라도 하여 죄인이 되었으면,
- 14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깨닫는 대로 회중은 황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 소를 만민의 천막 앞으로 끌고 오면,
- 15 공동체의 원로들이 주님 앞에서 황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나서, 주님 앞에서 그 황소를 잡는다.

- 16 기름 부음 받은 사제는 황소의 피를 얼마 썬 가지고 만남의 천막으로 들어가서,
 17 손가락에 피를 찍어 주님 앞에, 곧 휘장 앞면에 일곱 번 뿌린다.
 18 또 그 피에서 얼마를 만남의 천막 안 주님 앞에 있는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만남의 천막 어귀에 있는 번제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19 그러고 나서 황소의 굳기름을 모두 들어내어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20 속죄 제물로 바치는 황소를 처리하듯 이 황소도 그것과 똑같이 처리해야 한다. 사제가 이렇게 그들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들은 용서를 받는다.
 21 그리고 그는 그 황소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앞서 말한 황소를 태우는 것처럼 그것을 태운다. 이것이 회중의 속죄 제물이다.'

수장의 속죄 제물

- 22 '수장이 실수로, 주 그의 하느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하나라도 하여 죄를 짓고 죄인이 되었으면,
 23 자기가 저지른 죄를 깨닫는 대로, 흠 없는 숫염소 한 마리를 예물로 끌고 와서,
 24 그 숫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번제물을 잡는 곳, 곧 주님 앞에서 그것을 잡는다. 이것은 속죄 제물이다.
 25 사제는 이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조금 묻혀 번제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26 그러고 나서 굳기름은 모두, 친교 제물의 굳기름처럼,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이렇게 사제가 그 죄 때문에 수장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일반인의 속죄 제물

- 27 '나라 백성 가운데 누가 실수로, 주님이 하

- 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하나라도 하여 죄를 짓고 죄인이 되었으면,
 28 자기가 저지른 죄를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흠 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예물로 끌고 와서,
 29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는다.
 30 사제는 그 피를 손가락에 조금 묻혀 번제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번제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31 그런 다음 친교 제물에서 굳기름을 떼어 내듯 그 굳기름을 모두 떼어 낸다. 그러면 사제는 그것을 살라 주님을 위한 향기로 바친다. 이렇게 사제가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32 속죄 제물로 양을 바치려면, 흠 없는 암컷을 끌고 와서,
 33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것을 잡아 속죄 제물로 삼는다.
 34 사제는 그 피를 손가락에 조금 묻혀 번제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35 그런 다음 친교 제물로 바치는 양의 굳기름을 떼어 내듯 그 굳기름을 모두 떼어 낸다. 그러면 사제는 그것을 주님을 위한 화제물과 함께 살라 바친다. 이렇게 사제가 어떤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속죄 제물을 바치는 구체적인 경우

- 5¹ '누가 어떤 사건을 보거나 알고 있어서 증인이 되었는데, 증언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소리를 듣고서도 알리지 않아 죄를 짓고 그 죄값을 지게 될 경우,

- 2 누가 부정한 들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짐 짐승의 주검, 또는 부정한 길짐승의 주검같이 어떤 것이든 부정한 것에 몸이 닿아, 그것을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부정하게 되어 죄인이 되었을 경우,
- 3 또는 사람 몸에 있는 부정한 것, 곧 그것이 무엇이든 그를 부정하게 하는 것에 몸이 닿고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다가, 그 사실을 깨달아 죄인이 되었을 경우,
- 4 또는 누가, 사람들이 생각 없이 맹세하며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에 대해서건, 생각 없이 입을 열어 좋은 뜻으로든 나쁜 뜻으로든 맹세를 하고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다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 그런 맹세 때문에 죄인이 되었을 경우,
- 5 누가 이러한 것들 가운데 한 가지 때문에 죄인이 되었을 경우, 그는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해야 한다.
- 6 그런 다음 주님에게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작은 가축 가운데에서 암컷을, 곧 암양이나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치는데, 사제는 그 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해야 한다.'

가난한 이들의 속죄 제물

- 7 '그러나 그가 작은 짐짐승 하나도 마련할 힘이 없으면,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주님에게 가져다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 8 이것들을 사제에게 가져오면 사제는 먼저 속죄 제물로 가져온 것을 바치는데, 머리가 목에서 떨어지지 않게 떼어 놓는다.
- 9 그리고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얼미쯤 제단 벽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대고 짜낸다. 이것은 속죄 제물이다.
- 10 두 번째 비둘기는 법규에 따라 번제물로

바친다. 이렇게 사제가 어떤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 11 그러나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도 장만할 힘이 없으면,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예물로 고운 곡식 가루 십분의 일 에파를 가져다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은 속죄 제물이므로, 그 위에 기름을 치거나 유향을 없어서는 안 된다.
- 12 그가 사제에게 그것을 가져오면, 사제는 그 가루를 기뻐 제물로 삼아 한 손 가득 퍼내어, 주님을 위한 화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살라 바친다. 이것은 속죄 제물이다.
- 13 이렇게 사제가, 어떤 사람이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하나라도 거슬러 지은 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나머지는 곡식 제물에서 처럼 사제의 것이 된다."

보상 제물에 관한 규정

- 14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15 "누가 주님에게 봉헌된 것과 관련하여 실수로 죄를 지어 불충을 저질렀을 때에는, 주님을 위한 보상 제물로 작은 가축 가운데에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그것은 성소 세겔로는 몇 세겔이 되는지를 정한 값에 따른 보상 제물이어야 한다.
- 16 그는 봉헌된 것과 관련하여 지은 죄를 배상하는데, 그 값의 오분의 일을 더 보태어 사제에게 낸다. 그래서 사제가 보상 제물인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 17 누가 모르고 했을지라도, 주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하나라도 하여 죄를 지어 죄인이 되고, 그 죄값을 지게 되었을 때에는,

- 18 정해진 값에 따라, 작은 가축 가운데에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보상 제물로 사제에게 가져와야 한다. 그리하여 모르고 실수로 저지른 잘못 때문에 사제가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 19 이것은 보상 제물이다. 그는 정녕 주님에게 죄인이 되었던 것이다."
- 20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21 "누가 위탁물이나 담보물, 또는 약탈물과 관련하여 동족을 속이거나, 동족을 착취하여 주님에게 불충을 저질렀을 때,
- 22 또는 분실물을 줌고서 거짓말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를 짓게 되는 온갖 일들 가운데 어느 한 가지에 대해 거짓으로 맹세하여 주님에게 불충을 저질렀을 때,
- 23 그가 이렇게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을 때에는, 자기가 약탈한 약탈물이나 착취한 착취물, 자기가 맡았던 위탁물이나 주운 분실물,
- 24 또는 거짓으로 맹세한 물건을 돌려주어야 한다. 그는 완전히 배상할뿐더러 물건 값의 오분의 일을 보태야 한다. 보상 제물을 바치는 날, 원임자에게 그것을 갚아야 한다.
- 25 그리고 그는 정해진 값에 따라, 작은 가축 가운데에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주님을 위한 보상 제물로 사제에게 가져와야 한다.
- 26 그래서 사제가 그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라도 하여 지은 죄를 용서받는다."

번제물을 바칠 때 사제가 지킬 규정

- 6 ¹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²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번제물에 관한 법은 다음과

같다. 번제물은 아침까지 밤새도록 제단 위, 제물을 태우는 곳에 그대로 있어야 하고, 제단의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

- 3 사제는 아마포 옷을 입고, 안에는 맨몸에 아마포 속바지를 입는다. 제단 위에서 번제물이 불에 타고 남은 재는 쳐서 제단 옆에 둔다.
- 4 그리고 그 옷들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그 재를 진영 밖 정결한 곳으로 내간다.
- 5 제단 위의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져서는 안 된다. 사제는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지피, 번제물을 그 위에 차려 놓고, 친교 제물의 굳기름을 그 위에서 살라 바친다.
- 6 제단 위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고 늘 타고 있어야 한다.'

곡식 제물을 바칠 때 사제가 지킬 규정

- 7 '곡식 제물에 관한 법은 다음과 같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을 주님 앞, 곧 제단 앞에서 바친다.
- 8 곡식 제물로 바친 고운 곡식 가루와 기름과, 제물 위에 얹은 향 전부를 한 손 가득 퍼내어, 제단 위에서 주님을 위한 향기, 곧 기념 제물로 살라 바친다.
- 9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는데, 누룩을 넣지 않고 거룩한 곳에서 먹는다. 곧 만남의 천막 뜰에서 그것을 먹는다.
- 10 누룩을 넣고 구워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나에게 바친 화제물 가운데에서 내가 그들의 몫으로 준 것이다. 그것은 속죄 제물과 보상 제물처럼 가장 거룩한 것이다.
- 11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는 주님에게 바치는 화제물과 관련하여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이 제물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 거룩하게 된다."

- 12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13 "이론과 그의 아들들이 기름부음 받은 날, 주님에게 바쳐야 하는 예물은 이러하다. 고운 곡식가루 십분의 일 에파를 정례 곡식 제물로 바치는데, 반은 아침에, 반은 저녁에 바친다.
- 14 이 예물은 번철 위에서 기름을 섞어 만드는데, 잘 반죽하여 구운 것을 여러 조각으로 부수어, 그것을 곡식 제물로 가져와 주님을 위한 향기로 바친다.
- 15 이론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그의 뒤를 이어 기름부음 받은 사제가 이 예물을 만든다. 이는 영원한 규정이다. 이 제물은 주님에게 온전히 살다 연기로 바친다.
- 16 사제의 모든 곡식 제물은 온전히 바쳐야 한다. 누구도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속죄 제물을 바칠 때 사제가 지킬 규정

- 17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18 "이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속죄 제물에 관한 법은 다음과 같다. 속죄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곳, 곧 주님 앞에서 잡는다. 이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 19 속죄 제물을 바치는 사제가 그것을 먹는데, 거룩한 곳, 곧 만민의 천막 뜰에서 먹는다.
- 20 그 고기에 닿는 것은 다 거룩하게 된다. 그 피가 옷에 튀었을 때는, 피가 튼 데를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한다.
- 21 그 제물을 삶은 옹기그릇은 깨뜨려야 한다. 청동 그릇에 삶았으면 문질러 닦고 물로 행구어야 한다.
- 22 사제 집안의 남자는 모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 23 그러나 성소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하려고 제물의 피를 만민의 천막 안으로 가져왔으면, 그 제물은 어떤 것이든 먹지 못한다. 그것은 불에 태워야 한다.'

보상 제물을 드릴 때 사제가 지킬 규정

- 7 ¹ '보상 제물에 관한 법은 다음과 같다. 이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 2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보상 제물을 잡고, 그 피는 제단을 돌며 거기에 뿌린다.
- 3 그리고 그 제물의 굳기름은 모두 바친다.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굳기름,
- 4 두 콩팥과 거기에 있는 허리계의 굳기름, 그리고 콩팥을 떼어 낼 때 함께 떼어 낸 간에 붙은 것이다.
- 5 사제는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주님을 위한 화제물로 살다 바친다. 이것은 보상 제물이다.
- 6 사제 집안의 남자는 모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만 먹을 수 있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사제의 몫

- 7 '속죄 제물은 보상 제물과 같아, 같은 법은 이 두 제물에 적용한다. 그 제물은 속죄 예식을 거행하는 사제의 것이 된다.
- 8 어떤 사람의 번제물을 받아서 바친 사제는 그렇게 바친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 것으로 차지한다.
- 9 가미에 구운 곡식 제물, 냄비나 번철에서 만든 제물들은 모두 그것을 바친 사제의 것이 된다.
- 10 다른 모든 곡식 제물은, 기름을 섞은 것이든 섞지 않은 것이든 이론의 모든 아들에게 똑같이 돌아간다.'

친교 제물을 바칠 때 사제가 지킬 규정

- 11 '주님에게 바치는 친교 제물에 관한 법은 다음과 같다.
- 12 감사의 뜻으로 친교 제물을 바치려면, 감사의 제물에, 누룩 없이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누룩 없이 기름을 발라 만든 부꾸미와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을 섞어 과자처럼 반죽한 것을 곁들여 바친다.

- 13 이런 감사의 친교 제물에 누룩을 넣은 빵과 지를 예물로 곁들여 바친다.
- 14 이 예물들 가운데에서 각각 하나씩을 주님에게 들어 올려 바치는 예물로 드린다. 이것은 친교 제물의 피를 뿌린 사제의 것이 된다.
- 15 감사의 친교 제물로 바친 고기는 예물을 바친 그날로 먹는다. 다음 날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된다.
- 16 바치는 예물이 서원 제물이거나 자원 제물이면, 그 제물을 바친 그날에 먹고, 남은 것은 다음 날 먹어도 된다.
- 17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남은 제물의 고기를 불에 태운다.'

일반 규정

- 18 '사흘째 되는 날에 자기가 바친 친교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것을 바친 자는 호의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제물은 그의 것으로 해아려지지 않는다. 그것은 부정한 고기가 되어,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값을 지게 된다.
- 19 무엇이든 부정한 것에 닿은 고기는 먹지 못한다. 그것은 불에 태워야 한다. 그렇지 않은 고기라면, 정결한 이는 누구나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 20 그러나 주님에게 바친 친교 제물의 고기를 부정한 상태에서 먹는 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 나가야 한다.
- 21 누가 무엇이든 부정한 것, 곧 사람 몸에 있는 부정한 것이나 부정한 짐승 또는 부정한 길짐승에 몸이 닿고 나서, 주님에게 바친 친교 제물의 고기를 먹었을 경우, 그는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 나가야 한다.'

피와 굳기름은 먹지 못한다

- 22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23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굳기름은 어떤

것이든 먹어서는 안 된다.

- 24 죽은 짐승의 굳기름이나 맹수에게 찢긴 짐승의 굳기름은 어떤 일이나 쓸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먹어서는 결코 안 된다.
- 25 주님에게 화제물로 바친 짐승의 굳기름을 먹는 자는, 정녕 누구나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 나가야 한다.
- 26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새의 것이든 짐승의 것이든 어떤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 27 어떤 피든 피를 먹는 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 나가야 한다.'

친교 제물에서 사제에게 돌아가는 몫

- 28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29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에게 친교 제물을 바치는 이는 그 친교 제물의 일부를 주님을 위한 예물로 가져와야 한다.
- 30 주님에게 바칠 화제물을 직접 손에 들고 온다. 가슴 부위에 곁들여 굳기름을 가져 오는데, 가슴 부위는 흔들어서 바치는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고
- 31 굳기름은 사제가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가슴 부위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것이 된다.
- 32 너희 친교 제물의 오른쪽 넓적다리는 들어 올려 바치는 예물로 사제에게 준다.
- 33 이 오른쪽 넓적다리는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친교 제물의 피와 굳기름을 바친 사람의 몫이 된다.
- 34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친교 제물 가운데 흔들어서 바친 가슴 부위와 들어 올려 바친 넓적다리를 그들에게서 받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정에 따라 아론 사제와 그의 아들들에게 준다.'

제물에 관한 맺음말

- 35 이것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주님을 섬기

는 사제가 되도록 봉헌된 날부터, 주님께 바친 화제물 가운데에서 아론이 받는 몫이며, 그의 아들들이 받는 몫이다.

- 36 곧 그들에게 기름 부으신 날,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칙이다.
- 37 이것이 번제물과 곡식 제물, 속죄 제물과 보상 제물, 임직 제물과 친교 제물에 관한 법이다.
- 38 이는 주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날 모세는 시나이 광야에서, 주님께 예물을 바치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였다.

첫 사제들의 임직식

8

1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2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함께 데려오너라. 또 옷들과 성별 기름, 속죄 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 숫양 두 마리와 누룩 없는 빵 한 광주리를 가져오너라.

- 3 그런 다음 만민의 천막 어귀로 온 공동체를 불러 모아라."
- 4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공동체가 만민의 천막 어귀로 모여 오자,
- 5 모세가 공동체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 6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 물로 씻겼다.
- 7 그는 아론에게 저고리를 입히고 허리띠를 매어 주고 걸옷을 입혔다. 그리고 아론에게 에봇을 걸쳐 준 다음, 에봇 띠를 매어 꼭 붙여 있게 하였다.
- 8 모세는 또 그에게 가슴반이를 달아 주고 그 가슴반이 안에 우림과 톱뿔을 넣었다.
- 9 그리고 그의 머리에 쓰개를 씌우고, 얼굴 앞쪽 쓰개 위에 금꺄를 달아 준 다음, 거룩한 관을 씌워 주었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 10 그런 다음 모세는 성별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부어 그것들을 성별하였다.
- 11 그는 또 그 기름을 제단 위에 일곱 번 뿌리고 나서, 제단과 그 모든 가물, 물두멍과 그 받침에 기름을 부어 그것들을 성별하였다.
- 12 그는 또 성별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따라 부어 그를 성별하였다.
- 13 그러고 나서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저고리를 입히고 허리띠를 매어 주고 두건을 감아 주었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 14 그런 다음 모세는 속죄 제물로 바칠 황소를 끌어 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속죄 제물로 바칠 그 황소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 15 모세는 그 소를 잡고 피를 받아다가, 제단을 돌며 그 뿔들에 손가락으로 피를 발랐다. 이렇게 제단을 정화하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아 속죄 예식을 거행하여 제단을 성별하였다.
- 16 그러고 나서 모세는 내장에 붙은 모든 군 기름과 간에 붙은 것, 두 콩팥과 거기에 있는 군기름을 가져다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쳤다.
- 17 황소의 나머지, 곧 가죽과 살과 똥은 진영 밖에서 불에 태웠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 18 그런 다음 번제물로 바칠 숫양을 끌어 오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양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 19 모세는 그것을 잡고, 제단을 돌며 거기에 그 피를 뿌렸다.
- 20 그리고 모세는 그 숫양의 각을 떼서, 머리와 각을 뜯 고기와 지방을 살라 연기로 바쳤다.

- 21 내장과 다리들을 물에 씻은 뒤, 모세는 솟양을 송두리째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쳤다. 그것은 향기로운 번제물, 곧 주님을 위한 화제물이었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 22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솟양, 곧 임직식에 쓸 솟양을 끌어 오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솟양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 23 모세는 그것을 잡고 그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랐다.
- 24 모세는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그 피를 발랐다. 모세는 제단을 돌며 거기에 나머지 피를 뿌렸다.
- 25 그는 굳기름, 곧 기름진 꼬피와 내장에 붙은 모든 굳기름과 간에 붙은 것, 두 콩팥과 거기에 있는 굳기름, 그리고 오른쪽 넓적다리를 떼어 내었다.
- 26 또 주님 앞에 놓인 누룩 없는 빵 광주리에서 누룩 없는 과자 하나, 기름을 섞어 만든 빵 과자 하나, 부꾸미 하나를 집어 굳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올려놓았다.
- 27 이것을 모두 아론의 손바닥과 그 아들들의 손바닥에 놓고,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였다.
- 28 그런 다음 모세는 그들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번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쳤다. 그것은 향기로운 임직식 제물, 곧 주님을 위한 화제물이었다.
- 29 모세는 가슴 부위를 가져다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드렸다. 그것은 임직식 제물 가운데에서 모세의 몫이 되었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 30 그리고 모세는 성별 기름과 제단 위에 있는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 뿌려, 아론과

그의 옷,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을 성별 하였다.

- 31 그런 다음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만남의 천막 어귀에서 고기를 삶아, 임직식 광주리에 담은 빵과 함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것을 먹어야 한다.' 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거기서 드십시오.
- 32 남은 고기와 빵은 불에 태워 버리십시오.
- 33 임직식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 만남의 천막 어귀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임직식은 이레 동안 계속됩니다.
- 34 주님께서 오늘 한 것처럼 여러분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 35 여러분은 이레 동안 밤낮으로 만남의 천막 어귀에 머물면서,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정녕 내가 이렇게 명령을 받았습시다."
- 36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것을 모두 실행하였다.

아론이 첫 제물을 바치다

- 9¹ 여드레째 되는 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불러 놓고,
- 2 아론에게 말하였다. "속죄 제물로 바칠 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솟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들로 끌어다 주님 앞에 바치십시오.
- 3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이르십시오. '속죄 제물로 바칠 수염소 한 마리, 그리고 번제물로 바칠 일 년 된 송아지 한 마리와 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끌어 오고,
- 4 또 주님 앞에 친교 제물로 바칠 수소 한 마리와 솟양 한 마리,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곡

- 식 제물을 가져오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낼 것입니다."
- 5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것들을 만민의 천막 앞으로 끌어 오고, 온 공동체가 모여 주님 앞에 서자,
- 6 모세가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 7 그리고 나서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였다. "제단으로 가까이 가서 형님의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바쳐, 형님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백성의 예물을 바쳐 그들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십시오."
- 8 아론은 제단으로 가까이 가서 자기를 위한 속죄 제물로 바칠 송아지를 잡았다.
- 9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가져오자, 그는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았다.
- 10 그리고 속죄 제물에서 떼어 낸 굳기름과 콩팥들과 간에 붙은 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쳤다.
- 11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에 태웠다.
- 12 다음에 아론은 번제물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건네자, 아론은 제단을 돌며 거기에 그것을 뿌렸다.
- 13 또 그들이 각을 뜯 번제물을 그 머리와 함께 건네자, 아론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쳤다.
- 14 내장과 다리들은 씻어서 번제물에 얹어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쳤다.
- 15 다음에 아론은 백성의 예물을 드렸다.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바칠 숫염소를 끌어다 잡고, 먼젓번처럼 속죄 제물로 드렸다.
- 16 또 번제물을 끌어다 법규에 따라 바쳤다.
- 17 이어서 곡식 제물을 드렸다. 그것을 한 손 가득 채워 아침 번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

서 살라 연기로 바쳤다.

- 18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위한 친교 제물로 바칠 수소와 숫양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건네자, 아론이 제단을 돌며 거기에 그것을 뿌렸다.
- 19 그리고 그 수소와 숫양의 굳기름,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것, 콩팥들과 간에 붙은 것을 떼어,
- 20 이 굳기름들을 그 짐승의 가슴 위에 얹었다. 아론은 그 굳기름들을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치고,
- 21 가슴 부위와 오른쪽 넓적다리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주님 앞에 흔들어서 바치는 예물로 드렸다.
- 22 그런 다음에 아론은 손을 들어 백성에게 축복하였다. 이렇게 그는 속죄 제물과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다 드리고 내려왔다.
- 23 모세와 아론은 만민의 천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였다. 그러자 주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 24 그때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굳기름을 삼켰다. 온 백성은 그것을 보고 환성을 울리며 땅에 엎드렸다.

나답과 이비후의 죽음과 사제들의 상례

- 10 ¹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이비후는 저마다 제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놓았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과는 다른 속된 불을 주님 앞에 피워 바친 것이다.
- 2 그러자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 3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있는 이들을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의 온 백성 앞에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를 두고 하신 것입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 4 모세는 아론의 삼촌 우찌엘의 두 아들 미사엘과 엘차판을 불러 말하였다. "이리 와서 너희 조카들을 성소에서 진영 밖으로 옮겨 가거라."
- 5 그들은 모세가 분부한 대로 앞으로 나와, 조카들의 저고리를 잡고 그들을 진영 밖으로 옮겨 갔다.
- 6 모세는 아론과 그의 두 아들 엘아자르와 이타마르에게 말하였다.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마십시오. 그러다가는 여러분이 죽고 온 공동체에는 주님의 진노가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제들, 곧 이스라엘의 온 집안만이 주님께서 불살라 버리신 자들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습니다."
- 7 여러분은 만민의 천막 어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죽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기름으로 성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분부대로 하였다.

사제는 집무 중에 술을 마시지 못한다

- 8 주님께서 아론에게 이르셨다.
- 9 "너와 너의 아들들이 만민의 천막 안에 들어올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마시면 죽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칙이다."
- 10 이는 또한 너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고,
- 11 주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한 모든 규정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게 하려는 것이다."

사제들의 몫

- 12 모세가 아론과 그의 살아남은 두 아들 엘아자르와 이타마르에게 일렀다. "주님께 화제물로 바치고 남은 곡식 제물을 가져다가,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드십시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므로,
- 13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주님께 바친 화제를 가운데에서 이것이 형님의 몫이고

형님 아들들의 몫입니다. 나는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시다.

- 14 흔들어 바치는 기름 부위와 들어 올려 바치는 넓적다리에는 형님과 형님의 아들딸들이 정결한 곳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친교 제물 가운데서 형님의 몫이고 형님 아들들의 몫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속제 제물에 관한 특별 규정

- 15 이 들어 올려 바치는 넓적다리와 흔들어 바치는 기름 부위를, 화제물로 바치는 굳기름과 함께 가져와서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고 나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영원한 규정에 따라, 그것은 형님과 형님 아들들의 것이 됩니다."
- 16 모세는 속제 제물로 바친 숫염소가 어찌 되었는지 조사해 보았다. 그랬더니 그것은 이미 타 버린 뒤였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아자르와 이타마르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 17 "너희는 어찌하여 그 속제 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으로서, 공동체의 죄를 벗기고 주님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속제 예식을 거행하라고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 18 그 피를 성소 안으로 가져가지 않았으므로,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제물을 성소에서 먹어야 했다."
- 19 그러자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그들이 바로 오늘 주님 앞에 속제 제물과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다니요! 내가 오늘 속제 제물을 먹는다 한들 주님께서 좋게 보아 주시겠습니까?"
- 20 이 말을 듣고 모세도 동감하였다.

정결과 부정에 관한 가르침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11 ¹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²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땅 위에 사는 모든 짐승 가운데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은 이런 것들이다.
³ 짐승 가운데 굽이 갈라지고 그 틈이 벌어져 있으며 새김질하는 것은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다.
⁴ 그러나 새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졌더라도 이런 것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 낙타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⁵ 오소리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⁶ 토끼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⁷ 돼지는 굽이 갈라지고 그 틈이 벌어져 있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⁸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되고, 그 주검에 몸이 닿아서도 안 된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⁹ 물에 사는 모든 것 가운데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물에 살면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바다에서 살든 개울에서 살든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
¹⁰ 그러나 물 속에서 우글거리는 모든 것과 물에 사는 모든 동물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바다에서 살든 개울에서 살든 모두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¹¹ 그것들은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너희는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고, 그 주검도 혐오스럽게 여겨야 한다.
¹² 물에 살면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¹³ 새들 가운데 너희가 혐오스럽게 여길 것은

이런 것들이다. 그것들은 혐오스러운 것이니 먹어서는 안 된다. 곧 독수리와 참수리와 수염수리,

- ¹⁴ 검은 솔개와 각종 솔개,
¹⁵ 각종 모든 까마귀,
¹⁶ 타조와 쪽독새와 갈매기와 각종 매,
¹⁷ 부엉이와 가마우지와 올빼미,
¹⁸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물수리,
¹⁹ 황새와 각종 왜가리와 오디새와 박쥐다.
²⁰ 네 발로 걸으며 날개가 달린 동물은 모두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²¹ 그러나 네 발로 걸으며 날개가 달린 모든 벌레 가운데, 발 위로 다리가 있어 땅에서 뿔 수 있는 것은 먹어도 된다.
²² 그래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각종 메뚜기와 각종 방아깨비, 각종 누리와 각종 귀뚜라미다.
²³ 이 밖에 네 발이 있고 날개가 달린 모든 벌레는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²⁴ 이런 것들이 너희를 부정하게 만든다. 이것들의 주검에 몸이 닿는 이는 저녁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²⁵ 그 주검을 나르는 이는 누구나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²⁶ 굽이 갈라졌어도 그 틈이 벌어져 있지 않거나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것에 몸이 닿는 이는 모두 부정하게 된다.
²⁷ 네 발로 걷는 동물 가운데 발바닥으로 걷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 주검에 몸이 닿는 이는 모두 부정하게 된다.
²⁸ 그 주검을 나르는 이는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²⁹ 땅을 기어 다니는 것들 가운데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족제비와 쥐와 각종 큰도마

뱀,

- 30 도마뱀붙이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 모래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다.
- 31 기어 다니는 모든 것 가운데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이것들이 죽었을 때에, 거기에 몸이 닿는 이는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 32 이것들이 죽어서, 어떤 나무 그릇에든, 옷에든, 가죽에든, 자루에든, 일하는 데에 쓰는 어떤 기물에든 떨어지면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것은 물에 담아야 한다. 그것은 저녁때까지는 부정하고, 그 뒤에는 정결하게 된다.
- 33 이런 것들이 옹기그릇 속에 떨어지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 안에 있는 것은 모두 부정하게 된다. 너희는 그 그릇을 깨뜨려 버려야 한다.
- 34 그 그릇에 있던 물에, 먹을 수 있는 어떤 음식이라도 닿으면 부정하게 된다. 그러한 모든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다 부정하게 된다.
- 35 이런 것들의 주검이 떨어지면 무엇이든 부정하게 된다. 가마든 아궁이든 부수어야 한다. 그것들은 부정한 것이다. 너희는 그것들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 36 샘과 물을 모아 두는 저수 동굴만은 정결한 채로 남는다. 그러나 그것들의 주검에 닿는 이는 부정하게 된다.
- 37 어떤 것이든 파종할 씨에 이런 것들의 주검이 떨어졌을 경우, 그 씨는 정결하다.
- 38 그러나 그 씨에 물을 부은 뒤에 이런 것들의 주검이 그 위로 떨어질 경우, 그것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된다.
- 39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죽었을 경우, 그 주검에 몸이 닿는 이는 저녁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 40 그 죽은 고기를 먹는 이는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 주검을 나르는 이도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 41 땅을 기어 다니는 모든 것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것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
- 42 배로 기어 다니든, 네 발이나 더 많은 발로 기어 다니든, 땅을 기어 다니는 어떤 것도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 43 너희는 기어 다니는 어떤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혐오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들로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 너희가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 44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무엇이든 땅에서 우글거리며 기어 다니는 것으로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 45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주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 46 이는 짐승과 새와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모든 동물과 땅을 기어 다니는 동물에 관한 법으로,
- 47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산모의 정결혜

12

- 1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2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여자가 아기를 배어 사생아이를 낳았을 경우, 이제 동안 부정하게 된다.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게 된다.
- 3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아기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배풀어야 한다.
- 4 그리고 그 여자는 피로 더럽혀진 몸이 정결하게 될 때까지, 삼십삼 일 동안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

- 이 찰 때까지, 거룩한 것에 몸이 닿거나 성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 5 계집아이를 낳으면, 월경할 때와 같이 두 주 동안 부정하게 된다. 그리고 피로 더럽혀진 몸이 정결하게 될 때까지, 육속육 일 동안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 6 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아들이나 딸을 위하여 번제물로 바칠 일 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바칠 짐비둘기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만남의 천막 어귀로 가져와서 사제에게 주어야 한다.
- 7 사제는 그것을 주님 앞에 바쳐, 그 여자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그러면 피로 더럽혀진 그 여자의 몸이 정결하게 된다. 이것이 새내이어나 계집아이를 낳은 산모에 관한 법이다.
- 8 그러나 양 한 마리를 바칠 힘이 없으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짐비둘기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올려도 된다. 그리하여 사제가 그 여자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 여자는 정결하게 된다."

사람에게 생기는 악성 피부병

- 13 ¹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 ² "누구든지 살갓에 부스럼이나 습진이나 얼룩이 생겨, 그 살갓에 악성 피부병이 나타나면, 그를 아론 사제나 그의 아들 사제 가운데 한 사람에게 데려가야 한다.
- 3 사제는 살갓에 생긴 병을 살펴보는데, 병든 자리의 털이 희어지고, 그 자리가 다른 살갓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보이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사제는 그것을 살펴본 뒤,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 4 그러나 그 살갓에 생긴 얼룩이 희기는 하나, 다른 살갓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보이지는 않고, 털도 희어지지 않았으면, 사제는 병자를 이레 동안 격리한다.
- 5 이레째 되는 날 사제가 그를 살펴보아, 병이 변하지 않고 살갓에 더 번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면, 사제는 그를 다시 이레 동안 격리한다.
- 6 다시 이레째 되는 날에 사제가 그를 살펴보아, 병이 수그러지고 살갓에 더 번지지 않았으면, 사제는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단순한 습진이므로 옷을 빨아 입으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 7 그러나 사제에게 보여 정결 선언을 받은 뒤에라도 그 습진이 살갓에 두루 번졌으면, 그는 다시 사제에게 보여야 한다.
- 8 사제가 그것을 살펴보고 습진이 살갓에 번졌으면,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 9 누구든지 악성 피부병이 생기면 그를 사제에게 데려가야 한다.
- 10 사제가 그를 살펴보는데, 살갓에 흰 부스럼이 나고 그곳의 털이 희어졌으며, 또 그 부스럼에 새살이 생겼으면,
- 11 살갓에 생긴 것은 이미 오래된 악성 피부병이다.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는 이미 부정한 사람이므로 사제는 그를 격리하지 않는다.
- 12 그러나 사제의 눈에 보이는 곳마다 악성 피부병이 살갓에 두루 퍼져, 그의 머리에서 발까지 온 살갓을 덮었으면,
- 13 사제는 다시 살펴본다. 악성 피부병이 그의 몸 전체를 덮었으면,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그는 온통 희어졌으므로 정결하다.
- 14 그러나 새살이 보이는 날에 그는 부정하게 된다.
- 15 사제는 새살을 살펴보고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므로 그 새살은 부정하다.
- 16 그러나 새살이 다시 희어지면 그는 사제에게 간다.
- 17 사제가 그를 살펴보아, 병들었던 자리가 희

어졌으면 그 사람을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그는 정결하다.

- 18 누구든지 살갓에 종기가 생겼다 나았는데,
19 종기가 낫던 그 자리에 흰 부스럼이나 희
불그레한 얼룩이 생기면, 사제에게 보여야
한다.
20 사제가 살펴보아, 그 자리가 다른 살갓보다
깊이 들어가 보이고 털이 희어졌으면, 사제
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종
기에서 퍼진 악성 피부병이다.
21 그러나 사제가 그것을 살펴보아, 털이 희어
지지도 않고 다른 살갓보다 깊이 들어가지
도 않았으며 병이 수그러졌으면, 사제는 그
를 이레 동안 격리한다.
22 그것이 살갓에 두루 퍼졌으면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
이다.
23 그러나 그 얼룩이 한 곳에 머물러 더 번지
지 않았으면, 그것은 종기 자국이다. 사제
는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24 또 누구든지 화상을 입었는데, 그 상처에
희불그레한 얼룩이나 흰 얼룩이 생기면,
25 사제는 그것을 살펴본다. 그 얼룩에 난 털
이 희어지고, 그 자리가 다른 살갓보다 우
묵하게 들어가 보이면, 그것은 화상에서 생
겨난 악성 피부병이다.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26 그러나 사제가 그것을 살펴보아, 그 얼룩에
흰 털도 없고 그 자리가 다른 살갓보다 깊
이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병이 수그러졌으
면, 사제는 그를 이레 동안 격리한다.
27 이레째 되는 날에 사제가 그를 살펴보아,
증상이 살갓에 두루 번졌으면, 사제는 그
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악성 피
부병이다.
28 그러나 얼룩이 한 곳에 머물러 살갓에 더
번지지 않고 수그러졌으면, 그것은 화상
에서 생긴 부스럼이다. 그것은 화상 자국이

므로 사제는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 29 남자든 여자든 머리카락에 어떤 병이 나
타나면,
30 사제는 그 병을 살펴본다. 그 자리가 다른
살갓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보이고, 거기에
난 털이 누렇게 가늘면, 사제는 그를 부정
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백선, 곧 머리카
락에 생기는 악성 피부병이다.
31 사제가 백선이 든 자리를 살펴보아, 그곳이
다른 살갓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보이지 않
고, 또 거기에 검은 털도 없을 경우에, 사
제는 백선 병자를 이레 동안 격리한다.
32 이레째 되는 날에 사제가 병을 살펴 보아,
백선이 번지지 않고 거기에 누런 털도 생
기지 않았으며, 백선이 든 자리가 다른 살
갓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보이지 않으면,
33 백선이 든 자리만 빼놓고 털을 밀게 한 다
음, 사제는 백선 병자를 다시 이레 동안 격
리한다.
34 이레째 되는 날에 사제가 그 백선을 살펴
보아, 그것이 살갓에 번지지 않고, 그 자리
가 다른 살갓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보이지
않으면, 사제는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한
다. 그가 옷을 빨아 입으면 정결하게 된다.
35 그러나 그가 정결 선언을 받은 뒤에라도
그 백선이 살갓에 두루 번지면,
36 사제는 그를 다시 살펴본다. 그래서 백선이
살갓에 번졌으면, 사제가 누런 털을 찾아볼
필요도 없이, 그는 부정하다.
37 그러나 사제가 보기에 백선이 멎고 그 자
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백선이 나았으
므로 그는 이미 정결하다. 사제는 그를 정결
한 이로 선언한다.
38 남자든 여자든 살갓에 얼룩이 생기면, 곧
흰 얼룩이 생기면,
39 사제가 살펴본다. 살갓에 생긴 얼룩이 희끄
무레하면, 그것은 살갓에 생겨난 백반이므
로 그는 정결하다.

- 40 누구든지 머리카락이 빠지면, 대머리가 될 뿐, 그는 정결하다.
- 41 앞 머리카락만 빠지면 앞 대머리가 될 뿐, 그는 정결하다.
- 42 그러나 대머리가 된 정수리나 이마에 희불그러운 병반이 나타나면, 그것은 정수리나 이마에 생겨난 악성 피부병이다.
- 43 사제가 그를 살펴보아, 정수리나 앞머리에 희불그러운 부스럼이 생겨, 다른 살갓에 나타나는 악성 피부병처럼 보이면,
- 44 그는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므로 부정하다. 그는 머리에 병이 든 사람이므로,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해야 한다.
- 45 악성 피부병에 걸린 병자는 옷을 찢어 입고 머리를 푼다. 그리고 콧수염을 가리고 '부정한 사람시오', '부정한 사람시오.' 하고 외친다.
- 46 병이 남아 있는 한 그는 부정하다. 그는 부정한 사람이므로, 진영 밖에 자리를 잡고 혼자 살아야 한다."

옷과 가죽에 생는 곰팡이

- 47 "옷에 곰팡이가 생겨, 모직 옷이든, 아마포 옷이든,
- 48 아마포나 모직으로 된 직물이든 편물이든, 또 가죽이든 가죽 물품이든,
- 49 푸르스름하거나 불그스름한 병반이 그 옷이나 가죽에, 그 직물이나 편물에,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나타나면, 그것은 곰팡이 병이므로 사제에게 보여야 한다.
- 50 사제는 그 병을 살펴보고 병든 물건을 이레 동안 따로 둔다.
- 51 이레째 되는 날에 병든 물건을 살펴보아, 옷이나 직물이나 편물에, 또는 어떤 용도로 쓰는 가죽 물품이든 그 가죽에 병이 번졌으면, 해로운 곰팡이 병이므로, 그 물건은 부정하다.
- 52 그래서 병든 것은, 모직이나 아마포로 된

옷이든, 직물이든, 편물이든, 또는 어떤 가죽 제품이든 불에 태워야 한다. 그것은 해로운 곰팡이이므로 불에 태워야 한다.

- 53 그러나 사제가 살펴보아, 그 옷이나 직물이나 편물에,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그 병이 번지지 않았으면,
- 54 사제는 병든 물건을 빨도록 지시하고, 다시 이레 동안 따로 두게 한다.
- 55 병든 물건을 빨아 놓은 뒤에 사제가 살펴보아, 그 병이 더 번지지 않았더라도 생김새가 바뀌지 않았으면, 그것은 부정하다.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파먹혀 들어간 그것을 불에 태워야 한다.
- 56 그러나 그 물건을 빨아 놓은 뒤에 사제가 살펴보아, 그 병이 수그러졌으면, 그 옷이나 가죽, 또는 직물이나 편물에서 그 부분을 떼어 낸다.
- 57 그 뒤에도 옷이나 직물이나 편물, 또는 어떤 가죽 물품에 병이 다시 나타나면, 그것은 퍼지고 있는 것이므로, 병든 물건을 불에 태워야 한다.
- 58 그러나 한 번 빨 뒤에 옷이나 직물이나 편물,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서 병이 사라졌을 때에는, 그것을 다시 빨면 정결하게 된다.
- 59 이는 모직이나 아마포로 된 옷, 직물이나 편물, 또는 온갖 가죽 제품에 나타나는 곰팡이에 관한 법으로, 그 물건을 정결하게 하거나 부정하다고 선언하기 위한 것이다."

악성 피부병 환자의 정결해

- 14 ¹ 주님께서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² "악성 피부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지켜야 할 법은 다음과 같다. 그를 사제에게 데려가면,
- 3 사제는 진영 밖으로 나간다. 사제가 살펴보아 악성 피부병 환자가 그 병에서 나왔으면,
- 4 사제는 정결하게 되려는 그 사람을 위하여,

살아 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향백나무와 다홍실과 우슬초를 가져오도록 지시한다.

5 사제는 또 웅기그릇에 담긴 생수 위에서 새 한 마리를 잡도록 지시한다.

6 그리고 나서 그는 살아 있는 다른 새와 향백나무와 다홍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이 물건들과 살아 있는 새를, 생수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찍어,

7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이에게 일곱 번 뿌린다. 그런 다음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하고, 살아 있는 새를 들로 날려 보낸다.

8 정결하게 되려는 이는 자기 옷을 빨고 털을 모두 민 뒤에 물로 몸을 씻으면 정결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진영으로 들어가 자기 천막 밖에서 이레 동안 머무른다.

9 이레째 되는 날에 그는 다시 털을 모두 민다.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까지 털을 모두 민다. 그런 다음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으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10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 십분의 삼 에파와 기름 한 록을 가져온다.

11 정결례를 거행하는 사제는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을 이것들과 함께 만남의 천막 어귀, 주님 앞에 세운다.

12 그리고 사제는 어린 숫양 한 마리를 끌어다 기름 한 록과 함께 보상 제물로 올리는데, 그것들을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드린다.

13 그리고 나서 그 어린 숫양을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잡는 거룩한 곳에서 잡는다. 이 보상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사제의 것이 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14 사제는 보상 제물의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

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른다.

15 그런 다음 사제는 기름 한 록에서 얼마쯤 가져다 자기 왼 손바닥에 붓는다.

16 사제는 자기 왼 손바닥에 있는 기름을 오른쪽 손가락으로 찍어, 그 손가락에 묻은 기름을 주님 앞에 일곱 번 뿌린다.

17 그리고는 손바닥에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되려는 이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 곧 보상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덧바른다.

18 또 사제는 자기 손바닥에 아직 남아 있는 기름을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른다. 그런 다음, 사제는 주님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19 곧 사제는 속죄 제물을 바쳐,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하게 되려는 이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그리고 나서 번제물을 잡고,

20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제단 위에서 바친다. 이렇게 사제가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21 그러나 그가 가난하여 그것들을 다 마련할 힘이 없으면, 그는 자신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흔들어 바칠 속죄 제물로 어린 숫양 한 마리,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 십분의 일 에파, 그리고 기름 한 록을 가져온다.

22 또 힘이 닿는 대로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마련한다.

23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는 정결 선언을 받기 위하여 이것들을 사제에게, 곧 만남의 천막 어귀, 주님 앞으로 가져온다.

24 그러면 사제는 보상 제물로 드릴 어린 숫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그것들을 주님 앞에 올린다.

25 그리고 나서 보상 제물로 바칠 어린 숫양을 잡는다. 사제는 그 보상 제물의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이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른다.

- 26 그리고 사제는 자기 왼 손바닥에 기름을 얼마쯤 붓고,
27 그 왼 손바닥에 있는 기름을 오른쪽 손가락으로 얼마쯤 찍어 주님 앞에 일곱 번 뿌린다.
28 그러고는 손바닥에 있는 기름을, 정결하게 되려는 이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 곧 보상 제물의 피를 바른 바로 그 자리에 덧바른다.
29 또 사제는, 주님 앞에서 그를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자기 손바닥에 아직 남아 있는 기름을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른다.
30 그런 다음, 정결하게 되려는 이가 힘이 닿는 대로 마련한 산비둘기나 짐비둘기를 한 마리씩 바친다.
31 곧 그의 힘이 닿는 대로 마련한 것들 가운데에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곡식 제물과 함께 바친다. 이렇게 사제는 정결하게 되려는 이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32 이는 정결 선언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것들 다 마련하지 못하는 악성 피부병 환자에 관한 법이다."

집에 생는 곰팡이

- 33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34 "내가 너희에게 소유로 주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들어갔을 때, 너희 소유가 된 그 땅의 어떤 집에 내가 곰팡이 병을 생기게 하면,
35 그 집 임자는 사제에게 와서, '저의 집에 어떤 병 같은 것이 보입니다.' 하고 알려야 한다.
36 사제는 자기가 그 병을 살펴봐서 가기 전

에 집을 비우도록 지시한다. 비우지 않으면 그 집 안에 있는 것이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사제는 그 집을 살펴봐서 간다.

- 37 병든 곳을 살펴봐서, 집 벽에 생긴 그 병이 푸르스름하거나 불그스름한 점으로 되어 있고, 다른 벽면보다 깊이 들어가 보이면,
38 사제는 그 집 문밖으로 나와 이레 동안 그 집을 잠가 둔다.
39 이레째 되는 날에 사제가 다시 가서 살펴봐서, 병이 그 집 벽에 번졌으면,
40 사제는 병든 돌들을 빼내어 성읍 밖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지시한다.
41 또 그 집 안벽을 돌아가며 긁어내어, 긁어낸 흙도 성읍 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한다.
42 그러고 나서 다른 돌들을 가져다 그 돌들 대신 끼우고, 다른 흙을 가져다 그 집 벽에 바르게 한다.
43 그 돌들을 빼내고 집 벽을 긁어내어 다시 바른 다음에, 그 병이 또 생겨 집에 퍼지면,
44 사제가 가서 살펴본다. 그 병이 괴연 집에 번졌으면, 그것은 집에 생긴 해로운 곰팡이다. 그 집은 부정하다.
45 그러므로 그 집을 허물고 돌과 나무와 그 집의 흙을 모두 성읍 밖 부정한 곳에 내다 버리게 한다.
46 그 집을 잠가 둔 동안, 그 안에 들어가는 이는 저녁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47 그 집에 누워 자는 이는 옷을 빨아야 하고, 그 집에서 음식을 먹는 이도 옷을 빨아야 한다.
48 사제가 가서 살펴봐서, 그 집을 다시 바른 다음에 그 집에 병이 번지지 않았으면, 병이 나은 것이므로 사제는 그 집을 정결한 것으로 선언한다.
49 그 집을 정화하기 위하여 새 두 마리와 향

백나무와 다홍실과 우슬초를 가져온다.

- 50 먼저 옹기그릇에 담긴 생수 위에서 새 한 마리를 잡는다.
- 51 그런 다음에 향백나무와 우슬초와 다홍실, 그리고 살아 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생수에 적어 그 집에 일곱 번 뿌린다.
- 52 이렇게 새의 피와 생수, 그리고 살아 있는 새와 향백나무와 우슬초와 다홍실로 그 집을 정화한다.
- 53 살아 있는 새는 성읍 밖 들로 날려 보낸다. 이렇게 그 집에 대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 집은 정결하게 된다.
- 54 이는 온갖 악성 피부병과 백선,
- 55 옷과 집에 생기는 곰팡이,
- 56 그리고 부스럼과 습진과 얼룩에 관한 법으로서,
- 57 언제 부정하게 되고 언제 정결하게 되는지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악성 피부병에 관한 법이다."

남자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

- 15 ¹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 ²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어떤 남자는 그곳에서 고름이 흐를 경우, 그는 그 고름 때문에 부정하게 된다.
- 3 고름이 흘러 생기는 부정은 이러하다. 그곳에서 고름이 계속 흐르든, 그곳에서 고름이 더 이상 흐르지 않든 그는 부정하다.
- 4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누는 잠자리는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가 앉는 물건도 모두 부정하게 된다.
- 5 그의 잠자리에 몸이 닿는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 사람은 저녁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 6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앉았던 물건에 앉는 이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
- 도 저녁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 7 고름을 흘리는 남자의 몸에 닿는 이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도 저녁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 8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정결한 이에게 침을 뱉는 경우, 침이 묻는 이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도 저녁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 9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타고 다니는 안장은 모두 부정하게 된다.
- 10 무엇이든 그 남자가 깔고 앉는 것에 몸이 닿는 이는 모두 저녁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런 물건을 나르는 이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 11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물로 손을 씻거지지 않고 손을 댄 이는 모두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들은 저녁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 12 고름을 흘리는 남자의 몸이 닿는 옹기그릇은 깨뜨려야 하고, 나무 그릇은 모두 물로 씻겨야 한다.
- 13 고름을 흘리던 남자의 고름이 멎어 깨끗하게 되면, 정결하게 되기까지 이레 동안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생수로 몸을 씻는다. 그러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 14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잡비둘기 두 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 곧 만민의 찬막 어귀로 와서 그것들을 사제에게 준다.
- 15 사제는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친다. 사제는 이렇게, 고름을 흘린 것 때문에 그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 16 남자가 정액을 흘릴 경우, 온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 17 정액이 묻은 옷과 가죽은 모두 물로 씻어

야 한다. 그것은 저녁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 18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여 정액을 쏟으면, 둘 다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들은 저녁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여자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

- 19 '여자에게서 무엇인가 흐를 경우, 곧 그곳에서 피가 흐를 때에 그 여자는 이레 동안 불결하다. 그 여자의 몸에 닿는 이는 모두 저녁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 20 그 여자가 불결한 기간에 눕는 자리는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가 앉는 자리도 모두 부정하게 된다.
- 21 그 여자의 잠자리에 몸이 닿는 이는 모두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 22 무엇이든 그 여자가 앉는 물건에 몸이 닿는 이도 모두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 23 잠자리든, 또는 그 여자가 앉는 물건이든 그것에 몸이 닿는 이는 저녁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 24 어떤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면, 그 여자의 불결한 상태가 그에게 옮겨 이레 동안 부정하게 된다. 그 남자가 눕는 잠자리도 모두 부정하게 된다.
- 25 어떤 여자가 불결한 기간이 아닌데도 오랫동안 피를 흘리거나, 불결한 기간이 끝났는데도 피를 흘리면, 피를 흘리는 동안 내내 그 여자는 부정하다. 불결한 기간일 때처럼 그 여자는 부정하다.
- 26 그 여자가 피를 흘리는 기간 동안 눕는 잠자리도 모두, 불결한 기간에 눕는 잠자리처럼 다루어야 한다. 그 여자가 앉는 물건도, 불결한 기간에 부정하듯, 모두 부정하게 된다.
- 27 그것들에 몸이 닿는 이는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 28 흐르던 피가 멎어 깨끗하게 되면 이레 동안 기다린다. 그런 뒤에 그 여자는 정결하게 된다.
- 29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 여자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짐비둘기 두 마리를 가지고 만남의 천막 어귀에 있는 사제에게 온다.
- 30 사제는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친다. 사제는 이렇게, 부정하게 피를 흘린 것 때문에 그 여자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맺음말

- 31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의 부정을 경고하여서,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나의 성막을 부정하게 하여 그들이 부정 속에 죽는 일이 없게 하여라.
- 32 이는 유출하는 자에 관한 규정이다. 곧 정액을 흘려 부정하게 된 남자,
- 33 불결한 기간 중에 있는 여자, 몸에 유출이 있는 남자나 여자, 그리고 부정한 상태에 있는 여자와 동침한 남자에 관한 규정이다.'

속죄일

- 16 ¹ 아론의 두 아들이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갔다가 죽은 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2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일러, 휘장 안쪽의 성소, 곧 궤 위에 있는 속죄판 앞으로 아무 때나 들어왔다가 죽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구름 속에서 속죄판 위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 3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그는 속죄 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숫양 한 마리를 가져온다.

4 그는 거룩한 아마포 저고리를 입고 그 안에는 맨몸 위에 아마포 속바지를 입는다. 그리고 아마포 띠를 매고 아마포 쓰개를 두른다.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다. 그는 물로 몸을 씻고 나서 이것들을 입는다.

5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공동체에게서, 속죄 제물로 바칠 숫염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숫양 한 마리를 받는다.

6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로 황소를 바쳐,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7 그런 다음 숫염소 두 마리를 끌어들여, 주님 앞, 만남의 천막 어귀에 세워 놓는다.

8 아론은 그 숫염소 두 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는데, 제비 하나는 주님을 위한 것이고 다른 제비는 아자젤을 위한 것이다.

9 아론은 주님을 위한 제비가 뽑힌 숫염소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

10 아자젤을 위한 제비가 뽑힌 숫염소는 산채로 주님 앞에 세워 두었다가, 그 위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하고 광야로 아자젤에게 보낸다.

11 아론은 다음과 같이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로 황소를 바쳐,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그는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될 황소를 잡는다.

12 그런 다음 주님 앞 제단에서 숯불을 향로에 가득 담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으로 가득 퍼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

13 그 향을 주님 앞에서 숯불에 놓아, 향 연기가 증언 케 위에 있는 속죄판을 덮게 한다. 그래야 그가 죽지 않는다.

14 그러고 나서 황소의 피를 얼마즙 가져다가, 손가락에 찍어 속죄판 동쪽 위로 뿌리고, 또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속죄판 앞에 일곱 번 뿌린다.

15 이어서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될 숫염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와서,

황소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속죄판 위와 속죄판 앞에 뿌린다.

16 이렇게 그는 성소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정과 허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잘못 때문이다. 그는 또 부정한 그들 가운데에 있는 만남의 천막을 위해서도 같은 예식을 거행한다.

17 그가 성소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들어왔다 나갈 때까지, 아무도 만남의 천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는 자신과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18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있는 제단으로 나와, 그것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는데, 먼저 황소의 피와 숫염소의 피를 얼마즙 가져다가, 제단을 돌며 그 뿔들에 바른다.

19 그리고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제단 위에 일곱 번 뿌린다. 이렇게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정을 벗겨 제단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한다.

20 그는 성소와 만남의 천막과 제단을 위한 속죄 예식을 마친 다음, 살려 둔 숫염소를 끌고 온다.

21 아론은 살려 둔 그 숫염소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죄, 곧 그들의 허물과 잘못을 고백하여 그것들을 그 염소 머리에 씌우고서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광야로 내보낸다.

22 그러면 그 염소는 그들의 모든 죄를 불모지로 날라 간다. 이렇게 그 숫염소를 광야로 내보낸다.

23 그러고 나서 아론은 만남의 천막으로 들어와, 성소에 들어올 때 입은 아마포 옷들을 벗어 거기에 놓아 둔다.

24 그는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은 다음, 본래의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 자기의 번제물과 백성의 번제물을 바쳐, 자신과 백

성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 25 속죄 제물의 굳기름은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 26 숫염소를 아자엘에게 놓아 보낸 이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다. 그런 다음 진영 안으로 들어온다.
- 27 성소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하려고 피를 받았던 황소와 숫염소, 곧 속죄 제물로 바친 황소와 속죄 제물로 바친 숫염소의 나머지는 진영 밖으로 내다가,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불에 태운다.
- 28 이것들을 태운 이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다. 그런 다음 진영 안으로 들어온다.
- 29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규칙이 되어야 한다. 일곱째 달 초월할날에 너희는 고행을 하고,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본도 인이든 너희 가운데에 머무르는 이방인이든 마찬가지다.
- 30 바로 이날이 너희를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너희는 주님 앞에서 너희의 모든 잘못을 벗고 정결하게 된다.
- 31 이날은 너희에게 안식일, 곧 안식의 날이다. 너희는 고행을 해야 한다. 이는 영원한 규칙이다.
- 32 기름부음 받고 자기 아버지 대신 사제직을 수행하도록 직무를 받은 사제가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그는 아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 33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그리고 만민의 천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고, 사제들과 회중의 온 백성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 34 이렇게 한 해에 한 번씩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잘못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는 것을 너희의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라."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성결법

잡승을 잡는 장소와 방식

17

- ¹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² "이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것은 주님이 명령한 것이다.'
- ³ 누구든지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았던 진영 밖에서 잡았든,
- ⁴ 그것을 만민의 천막 어귀로 가져와 주님의 성막 앞에서 주님에게 예물로 바치지 않는 자는 그 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사람은 피를 흘렸으니,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 나가야 한다.
- ⁵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판에서 잡아 제사를 지내 오던 제물들을 주님에게, 곧 만민의 천막 어귀로 사제에게 가져와서 친교 제물로 잡아 주님에게 바치게 하려는 것이다.
- ⁶ 사제는 그 피를 만민의 천막 어귀에서 주님의 제단 쪽으로 뿌리고, 굳기름은 살라 주님을 위한 향기로 바친다.
- ⁷ 그들은 더 이상 자기들이 불륜을 저지르며 따르던 염소 귀신들에게 제물을 잡아 바치는 안 된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칙이다.'
- ⁸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든 그들 가운데에 머무르는 이방인이든, 번제물이나 다른 희생 제물을 바칠 때,
- ⁹ 그것을 만민의 천막 어귀로 가져와서 주님에게 바치지 않는 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 나가야 한다.'

피는 먹지 못한다

- ¹⁰ '누구든지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에 머무르는 이방인이나, 어떤 피든 피를 먹으면, 나는 그 피를 먹은 자에게 내 얼굴을 돌려,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잘라 내겠다.

- 11 생물의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할 때에 그것을 제단 위에서 쓰라고 너희에게 주었다. 피가 그 생명으로 속죄하기 때문이다.
- 12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 머무르는 이방인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 13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한 사람이든 그들 가운데에 머무르는 이방인이든,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였을 때에는, 그 피를 흘리고 나서 흙으로 덮어야 한다.
- 14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다.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그것을 먹는 자는 잘려 나갈 것이다.'
- 15 저절로 죽은 짐승이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을 먹는 자는 본토인이든 이방인이든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때까지 부정하게 되었다가, 그 뒤에 정결하게 된다.
- 16 그러나 빨지 않고 씻지 않으면, 그는 그 죄 값을 져야 한다."

성과 혼인과 가족의 성소로움

- 18 ¹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²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 3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제 너희를 이끌고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해셔도 안 된다. 그리고 너희는 그들의 규칙들을 따라서도 안 된다.
- 4 너희는 나의 법규들을 실천하고, 나의 규칙들을 지키며 따라야 한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 5 너희는 내 규칙들과 내 법규들을 지켜야 한다. 그것들을 실천하는 이는 그것들로 살 것이다. 나는 주님이다.
- 6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살붙이를 가까이하여 그의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님이다.
- 7 네 아버지의 치부와 네 어머니의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는 네 어머니이니, 너는 그의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 8 네 아버지의 아내의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곧 네 아버지의 치부이다.
- 9 너는 네 누이의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네 아버지의 딸이든, 네 어머니의 딸이든, 집에서 낳았든, 밖에서 낳았든 마찬가지다.
- 10 네 아들이 낳은 딸이나 네 딸이 낳은 딸의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네 치부이다.
- 11 네 아버지의 아내가 낳은 딸은 네 아버지의 자식으로 네 누이니, 그의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 12 네 아버지의 누이의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붙이다.
- 13 네 어머니의 자매의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는 네 어머니의 살붙이다.
- 14 네 아버지의 형제의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의 아내를 가까이해서도 안 된다. 그는 네 숙모이다.
- 15 네 며느리의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는 네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치부를 드

러내서는 안 된다.

- 16 네 형제의 아내의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네 형제의 치부이다.
- 17 어떤 여자와 또 그 딸의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 여자의 친손녀나 외손녀를 데려다 치부를 드러내서도 안 된다. 그들은 그 여자의 살붙이로, 그것은 더러운 것이다.
- 18 아내가 살아 있는 동안 그의 자배를 첩으로 데려다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 19 불결한 기간을 맞아 부정한 상태에 있는 여자를 가까이하여 그의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 20 너희는 동족의 아내와 동침해서는 안 된다. 그 여자로 네가 부정하게 된다.
- 21 너희는 너희 자식을 몰록에게 희생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님이시다.
- 22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역겨운 것이다.
- 23 어떤 짐승하고도 교잡하면 안 된다. 그것으로 너희가 부정하게 된다. 여자도 짐승과 교잡하면 안 된다. 그것은 추잡한 것이다.
- 24 이것들 가운데 그 무엇으로도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려는 민족들이 이 모든 것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 25 그 땅도 부정하게 되었다. 나는 그 죄 때문에 그 땅을 벌하였고, 그 땅은 주민들을 토해 내었다.
- 26 그러니 너희는 내 규칙들과 내 법규들을 지켜, 본토인이든 너희 가운데에 머무르는 이방인이든, 이 온갖 역겨운 짓 가운데에서 어느 하나라도 저지르지 않도록 하여라.
- 27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이런 온갖 역겨운 짓을 저질렀고, 그래서 그

땅이 부정하게 되었다.

- 28 그러니 너희가 그 땅을 부정하게 만들어, 그 땅이 너희보다 앞서 그곳에 살던 민족들을 토해 냈듯이 너희를 토해 내지 않게 하여라.
- 29 이런 온갖 역겨운 짓 가운데 하나라도 저지르는 자는 모두, 그런 짓을 저지르는 자는 모두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 나갈 것이다.
- 30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잘 지켜,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저질러진 이런 역겨운 풍속을 하나라도 따라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시다."

거룩한 백성이 되라

19

- 1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2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 3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해야 한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시다.
- 4 너희는 몸을 돌려 우상들에게 가서는 안 된다.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시다.
- 5 주님에게 친교 제물을 바칠 때에는, 너희를 위하여 호의로 받아들여지도록 그것을 바쳐야 한다.
- 6 제물은 너희가 바친 그날과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다.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는 것은 불에 태워야 한다.
- 7 사흘째 되는 날에 그것을 먹으면, 그것은 부정한 고기가 되어 호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8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값을 져야 한다. 그는 주님에게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그런 자

- 는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 나가야 한다.
- 9 너희 땅의 수확을 거두어들일 때, 밭 구석까지 모조리 거두어들여서는 안 된다. 거두고 남은 이삭을 주워서도 안 된다.
- 10 너희 포도를 남김없이 따 들어서는 안 되고,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를 주워서도 안 된다. 그것들을 가난한 이와 이방인을 위하여 남겨 두어야 한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 11 너희는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속여서는 안 된다. 동족끼리 사기해서는 안 된다.
- 12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된다. 나는 주님이다.
- 13 너희는 이웃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품팔이꾼의 품삯을 다음 날 아침까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 14 너희는 귀먹은 이에게 악담해서는 안 된다. 눈먼 이 앞에 장애물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 15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너희는 가난한 이라고 두둔해서도 안 되고, 세력 있는 이라고 우대해서도 안 된다. 너희 동족을 정의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 16 너희는 중상하러 돌아다니서는 안 된다. 너희 이웃의 생명을 걸고 나서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님이다.
- 17 너희는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동족의 잘못을 서슴없이 꾸짖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짊어지지 않는다.
- 18 너희는 동포에게 앙갚음하거나 앙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 19 너희는 나의 규칙들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종류가 서로 다른 가축끼리 교배시켜서는 안 된다. 너희 밭에 서로 다른 두 가지 씨앗을 뿌려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두 가지 옷감으로 만든 옷을 걸쳐서는 안 된다.
- 20 한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였는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기로 되어 있는 여종으로, 속량되지도 않고 자유가 주어지지도 않았을 경우, 배상은 하지만 그 둘이 사형을 당하지는 않는다. 그 여자가 자유의 몸이 아니기 때문이다.
- 21 그 남자는 자신을 위한 보상 재물을 만났을 천막 어귀로 주님에게 가져온다. 그 보상 재물은 숫양이어야 한다.
- 22 사제는 그 보상 재물인 숫양을 가지고, 그 남자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그러면 그 남자는 자기가 저지른 죄를 용서받는다.
- 23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온갖 과일나무를 심을 경우, 그 과일들을 할례 받지 않은 포피로 여겨야 한다. 세 해 동안 그것들은 할례 받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과일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
- 24 넷째 해의 과일들은 주님에게 축제 제물로 바쳐야 하고,
- 25 다섯째 해부터는 너희가 그 과일들을 먹을 수 있다. 이는 너희의 소출이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 26 너희는 아무것도 파계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짐을 쳐서도 안 되고, 요술을 부려서도 안 된다.
- 27 너희는 관자놀이의 머리를 돌아가며 깎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수염 끝을 잘라서는 안 된다.
- 28 너희는 죽은 이를 위하여 너희 몸에 상처를 내서는 안 된다. 너희 몸에 문신을 새겨서도 안 된다. 나는 주님이다.
- 29 너희는 너희 딸을 창녀로 내놓아 그를 더럽히지 마라. 딸을 창녀로 내놓으면, 그 땅

은 창녀처럼 되고 더러운 짓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 30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경외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 31 너희는 영매들과 점쟁이들에게 가지 마라. 너희가 그들을 찾다더니 그들이 너희를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 32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어른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을 존경해야 한다. 너희는 하느님을 경외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 33 너희 땅에서 이방인이 너희와 함께 머무를 경우,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 34 너희와 함께 머무르는 이방인을 너희 본토인 가운데 한 사람처럼 여겨야 한다. 그를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 35 너희는 재판할 때나 물건을 채고 달고 될 때에 부정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 36 너희는 바른 자울과 바른 추, 바른 예파와 바른 힌을 써야 한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주 너희 하느님이다.
- 37 너희는 나의 모든 규칙과 나의 모든 법규를 지키고 그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성결을 가스르는 죄에 대한 형벌

- 20 ¹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²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한 사람이든 이스라엘에 머무르는 이방인이든, 제 자식을 몰록에게 바치면,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 땅의 백성이 그에게 돌을 던져야 한다.'
- 3 나도 그 사람에게 내 얼굴을 돌려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잘라 내겠다. 그는 제 자식을 몰록에게 바쳐, 나의 성소를 부정하게

만들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 4 제 자식을 몰록에게 바치는데도, 그런 사람을 그 땅의 백성이 눈감아 주어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 5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가문에 내 얼굴을 돌려, 그와 그를 뒤쫓아 몰록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을 모두 그들의 백성에게서 잘라 내겠다.
- 6 누가 영매나 점쟁이에게 가서 그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면, 나는 그자에게 내 얼굴을 돌려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잘라 내겠다.
- 7 너희는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 하느님이기 때문이다.
- 8 너희는 나의 규칙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다.
- 9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면,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였으니, 그는 자기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 10 어떤 남자가 한 여자와 간통하면, 곧 어떤 남자가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통하면, 간통한 남자와 여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 11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처부를 드러내었다. 그 둘은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 12 어떤 남자가 자기 며느리와 동침하면, 그 둘은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추잡한 짓을 하였으므로, 자기들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 13 어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그 둘은 역겨운 짓을 하였으므로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 14 어떤 남자가 아내와 그 어머니를 함께 데

리고 살면, 그것은 더러운 것이다. 그와 두 여자를 불에 태워, 다시는 너희 가운데에 더러운 것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 15 짐승과 교접하는 사람은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짐승을 죽여야 한다.
- 16 여자가 어떤 짐승을 가까이하여 그것과 교접하면, 너희는 그 여자와 그 짐승을 죽여야 한다. 그들은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 17 어떤 남자가 아버지의 딸이든 어머니의 딸이든 자기 누이를 데려다 그 여자의 치부를 보고, 그 여자도 그 남자의 치부를 보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잘려 나가야 한다. 그는 자기 누이의 치부를 드러냈으니 그 죄값을 져야 한다.
- 18 불결한 기간에 있는 여자와 동침하여 그 여자의 치부를 드러내면, 그 남자는 그 여자의 뺨을 얼어젖히고 그 여자는 자기 피의 뺨을 드러낸 것이므로, 그 둘은 자기들의 백성에게서 잘려 나가야 한다.
- 19 너희는 너희 어머니의 자매나 너희 아버지의 누이의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기의 몸을 내보이는 것이다. 너희는 그 죄값을 져야 한다.
- 20 자기 숙모와 동침하는 사람은 자기 숙부의 치부를 드러낸 것이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지고 자손도 보지 못한 채 죽어야 한다.
- 21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그것은 불결한 것이다. 그가 제 형제의 치부를 드러낸 것이므로, 그들은 자손을 보지 못할 것이다.
- 22 너희는 나의 모든 규칙과 나의 모든 법규를 지키고 그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 살게 할 땅이 너희를 토해 내지 않을 것이다.
- 23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려는 민족

들의 풍속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들이 이런 것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역겨워하며,

- 24 너희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그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그 땅을,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겠다.' 나는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에서 가려낸 주 너희 하느님이다.
- 25 그러므로 너희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부정한 새와 정결한 새를 가려야 한다. 그래서 짐승이든 새든, 그 밖에 땅을 기어 다니는 어떤 것이든, 내가 너희에게 부정하다고 가려낸 것으로 너희 자신을 혐오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 26 나 주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에서 가려내어 내 것이 되게 하였다.
- 27 남자든 여자든 영매나 점쟁이로 나서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들에게 돌을 던져야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사제직의 성스러움

- 21 ¹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의 자손들인 사제들에게 말하여라. '사제는 자기 백성 가운데 죽은 이 때문에 부정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 2 다만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살붙이, 곧 어머니와 아버지, 아들과 딸과 형제는 예외다.
- 3 또한 아직 남편이 없어 자기 곁에 있다가 처녀로 죽은 누이 때문이라면 부정하게 되어도 괜찮다.
- 4 그러나 자기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과 혼인한 누이 때문에 부정하게 되어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 5 사제들은 머리를 밀거나, 수염 끝을 깎거나, 몸에 상처를 내서는 안 된다.
- 6 그들은 자기들의 하느님에게 거룩한 사람이

- 되어야 하고, 자기들의 하느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들은 주님에게 화제물을, 자기들의 하느님에게 양식을 바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거룩해야 한다.
- 7 그들은 창녀나 몸을 더럽힌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서는 안 된다. 남편에게 소박맞은 여자도 아내로 맞이하여서는 안 된다. 사제는 자기 하느님에게 거룩한 사람이다.
- 8 너희는 사제를 거룩한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 그는 너희 하느님에게 양식을 바치는 사람이다. 사제는 너희에게 거룩한 사람이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 9 사제의 딸이 불륜을 저질러 제 몸을 더럽힐 경우, 그것은 제 아버지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 여자는 불에 태워야 한다.
- 10 자기 형제들 가운데에서 으뜸으로 뽑힌 대사제는 성별 기름을 머리에 받고 직무를 맡아 예복을 입었으므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서는 안 된다.
- 11 그는 어떤 죽임에도 다가가서는 안 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때문이라도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 12 그는 성소 밖으로 나가서 자기 하느님의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는 자기 하느님의 성별 기름으로 축성을 받았다. 나는 주님이다.
- 13 그는 숫처녀만을 아내로 맞이하여야 한다.
- 14 과부나 소박맞은 여자나 창녀가 되어 몸을 더럽힌 여자, 이런 여자를 맞이하여서는 안 된다.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숫처녀를 아내로 맞이하여야 한다.
- 15 이렇게 하여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자식을 더럽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다."
- 16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17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의 후손 대대로,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자기 하-

- 님에게 양식을 바치러 가까이 오지 못한다.
- 18 정녕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가까이 오지 못한다. 눈먼 사람, 다리저는 사람, 얼굴이 일그러졌거나 몸이 기형인 사람,
- 19 다리가 부러지거나 팔이 부러진 사람,
- 20 굵사등이, 난쟁이, 눈에 백태 낀 사람, 가려움증이 있거나 수포진에 걸린 사람, 고환이 상한 사람은 가까이 오지 못한다.
- 21 아론 사제의 후손들 가운데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치러 다가오지 못한다. 몸에 흠이 있기 때문에 자기 하느님에게 양식을 바치러 다가오지 못한다.
- 22 그는 하느님에게 바친 양식, 곧 가장 거룩한 것과 거룩한 것들을 먹을 수 있다.
- 23 그러나 몸에 흠이 있기 때문에, 그는 휘장으로 오거나 제단으로 다가와서 나의 이 거룩한 곳들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다."
- 24 모세는 이 말씀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일러 주었다.

제들의 성스러움

22

- 1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2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에게 봉헌하는 거룩한 예물들을 조심스럽게 다루어,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나는 주님이다.
- 3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후손 대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에게 봉헌하는 거룩한 예물에 부정함으로 가까이 가는 자는 모두 내 앞에서 잘려 나갈 것이다. 나는 주님이다.
- 4 아론의 후손 가운데 누구든 악성 피부병을 앓거나 고름을 흘리는 사람은 정결하게 될 때까지 거룩한 예물을 먹지 못한다. 어떤

- 주검 때문에 부정하게 된 것에 몸이 닿는 사람이나 정액을 흘리는 남자,
- 5 또는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 온갖 길짐승이나, 어떤 종류의 부정이든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 사람에게 몸이 닿는 이,
- 6 이런 것이나 이런 사람에게 몸이 닿는 이는 저녁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리고 물로 몸을 씻지 않고서는 거룩한 예물을 먹지 못한다.
- 7 해가 지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그런 다음에야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이 그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 8 저절로 죽은 짐승이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을 먹어, 그것으로 부정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님이다.
- 9 그들은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지켜, 거룩한 예물 때문에 죄값을 지지 않아야 한다. 그들이 거룩한 예물을 더럽힐 경우,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다.
- 10 속인은 누구도 거룩한 예물을 먹지 못한다. 사제의 객식구나 품팔이꾼도 거룩한 예물을 먹지 못한다.
- 11 그러나 사제가 돈을 주고 사들인 사람은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사제의 씨종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사제의 양식을 함께 먹을 수 있다.
- 12 사제의 딸이라도 속인에게 시집갔으면, 거룩한 예물로 바친 것을 먹지 못한다.
- 13 사제의 딸이 자식 없이 과부가 되었거나 소박을 맞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으면, 처녀 때처럼 자기 아버지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속인은 누구도 그것을 먹지 못한다.
- 14 어떤 사람이 실수로 거룩한 예물을 먹을 경우, 그는 거룩한 예물의 오분의 일 값을 더 보태어 사제에게 갚아야 한다.
- 15 이렇게 사제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

에게 바친 거룩한 예물들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 16 그래서 거룩한 예물들을 먹다가 보상해야 할 죄를 짊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나는 그 예물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

- 17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18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든 이스라엘에 머무르는 이방인 이든, 서원을 채우는 어떤 예물이나 자원으로 올리는 예물을 주님에게 번제물로 바칠 때,
- 19 그 예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흠 없는 수컷이어야 너희를 위하여 호의로 받아들여진다.
- 20 어떤 것이든 흠이 있는 것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호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21 누가 서원을 채우기 위해서든 자원으로도, 소 떼나 양 떼에서 골라 주님에게 친교 제물을 바칠 경우, 호의로 받아들여지려면 그 짐승에 흠이 없어야 한다. 어떤 흠도 있어서는 안 된다.
- 22 눈이 먼 것이나 어디가 부러진 것, 어디가 잘려 나간 것이나 얼룩이 있는 것, 가려움증이 있거나 수포진에 걸린 것, 너희는 이런 것들을 주님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제단 위에서 화제물로 주님에게 올려서는 안 된다.
- 23 몸이 기형이거나 한쪽이 오그라든 소나 양을 자원 제물로는 바칠 수 있다. 그러나 서원 제물로는 호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24 고환이 터졌거나 으러졌거나 빠졌거나 잘린 짐승을 주님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너희 땅에서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 25 너희는 이런 것들 가운데 그 무엇도 외국인의 손에서 받아, 너희 하느님에게 양식으로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결함이 곧 흠이어서, 그것들은 너희를 위하여 호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26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27 "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이레 동안 어미 품에 있어야 한다. 여드레째 되는 날부터는 주님을 위한 화제의 예물로서 호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 28 너희는 소나 양을 그 새끼와 함께 같은 날에 잡아서 안 된다.
- 29 주님에게 감사 제물을 바칠 경우, 너희를 위하여 호의로 받아들여지도록 그것을 바쳐야 한다.
- 30 그것은 그날로 다 먹고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님이다.
- 31 너희는 나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 32 나의 거룩함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 드러나도록,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다.
- 33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이다. 나는 주님이다."

이스라엘의 축일들

- 23** 1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2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소집해야 하는 주님의 축일들은 이러하다. 이것들이 나의 축일이다.'

안식일

- 3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렛날은 안식일로서 거룩한 모임을 여는 안식의 날이니,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지켜야

하는 주님의 안식일이다.'

파스가 축제와 무교절

- 4 '너희가 정해진 때에 소집해야 하는 거룩한 모임, 곧 주님의 축일들은 이러하다.
- 5 첫째 달 열나흘날 저녁 어스름에 주님의 파스카를 지켜야 한다.
- 6 이달 보름에는 주님의 무교절을 지내는데, 너희는 이레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 7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 8 그리고 이레 동안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레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햇곡식을 바치는 축일

- 9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10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서 수확을 거두어 들일 때, 너희 수확의 만물인 곡식 단을 사제에게 가져와야 한다.
- 11 사제는 그 곡식 단이 너희를 위하여 호의로 받아들여지도록 주님 앞에 흔들어서 바친다. 사제는 그것을 안식일 다음 날 흔들어서 바친다.
- 12 곡식 단을 흔들어서 바치는 날, 너희는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숫양 한 마리를 주님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 13 또 거기에 따르는 곡식 제물로는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 가루 십분의 이 에파를 바친다. 이는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다. 그리고 제주로는 포도주 사분의 일 힌을 바친다.
- 14 바로 그날이 되기 전에는, 곧 너희가 이렇게 너희 하느님에게 예물을 가져오기 전에는 빵도 볶은 곡식도 푹이삭도 먹지 못한

다. 이는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칙이다.'

주간절

- 15 '너희는 안식일 다음 날부터, 곧 곡식 단을 흔들어 바친 날부터 일곱 주간을 꼭 차게 해야린다.
- 16 이렇게 일곱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오십 일을 해야려, 새로운 곡식 제물을 주님께 바친다.
- 17 흔들어 바칠 예물로, 고운 곡식 가루 십분의 이 에파에 누룩을 넣어 구운 빵 두 개를 너희가 사는 곳에서 가져온다. 이것은 주님께 올리는 만물이다.
- 18 이 빵과 함께,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숫양 일곱 마리와 황소 한 마리와 숫양 두 마리를 끌어들여 바친다. 그리하여 이것들이 곡식 제물과 제수와 함께 주님을 위한 번제물, 곧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 되게 한다.
- 19 너희는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일 년 된 어린 숫양 두 마리를 친교 제물로 올린다.
- 20 사제는 이것들을 만물로 올리는 빵과 어린 숫양 두 마리와 함께 주님 앞에 흔들여 바친다. 이것들은 주님에게 바쳐진 거룩한 것들로서 사제의 몫이 된다.
- 21 바로 그날에 너희는 모임을 소집한다. 이는 거룩한 모임이므로,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칙이다.
- 22 너희 땅의 수확을 거두어들일 때, 밭 구석까지 모조리 거두어들여서는 안 된다. 거두고 남은 이삭을 주워셔도 안 된다. 그것들을 가난한 이와 이방인을 위하여 남겨 두어야 한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칠월 초하루

- 23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24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일곱째 달, 그달 초하룻날은 너희에게 안식의 날이다. 나팔을 불어 기념일임을 알리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속죄일

- 25 너희는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한 화제물을 바쳐야 한다."
- 26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27 "또한 이 일곱째 달 초엿흘날은 속죄일이다.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며,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쳐야 한다.
- 28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는 속죄일이기 때문이다.
- 29 이날에 고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 나갈 것이다.
- 30 그리고 누구든지 이날에 어떤 일이라도 하면, 내가 그자를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없애 버리겠다.
- 31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칙이다.
- 32 이날은 너희에게 안식일, 곧 안식의 날이며 고행을 해야 하는 날이다. 그달 초이흐렛날 저녁, 곧 그 날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초막절

- 33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34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이 일곱째 달 보름날부터 이레 동안은 주님을 위한 초막절이다.
- 35 그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 36 너희는 이레 동안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친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

임을 열고,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친다. 이 날은 집회일이므로, 너희는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맞은말

- 37 '이는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소집해야 하는 주님의 축일들로서, 이때 너희는 그날그날에 맞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희생 제물과 제주를 주님에게 화제물로 바쳐야 한다.
- 38 이것들은 주님의 안식일 제물과는 다른 것이며, 너희가 주님에게 바치는 예물과 모든 서원 제물, 그리고 모든 자원 제물과도 다른 것이다.'

초막절 규정에 덧붙이는 말

- 39 '땅의 소출을 거두고 난 다음, 너희는 일곱째 달 보름날부터 이레 동안 주님의 축제를 지내야 한다. 첫날은 안식의 날이고 여드레째 되는 날도 안식의 날이다.
- 40 첫날 너희는 좋은 나무의 열매와 야자나무의 가지와 무성한 나무의 줄기와 깃버들을 마련하고,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하여야.
- 41 너희는 해마다 이레 동안 이렇게 주님의 축제를 지내야 한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칙으로서, 일곱째 달에 이 축제를 지내야 한다.
- 42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본토인은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 43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 초막에서 살게 하였던 일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 44 그리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의 축일들을 일러 주었다.

성소의 등불

- 1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24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올리브를 찢어서 짠 순수한 등잔 기름을 가져오도록 명령하여, 늘 등불이 타오르게 하여라.

- 3 아론에게 말하여, 그것을 만님의 천막 안 증언 궤의 휘장 밖에 차려 놓아,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님 앞에 늘 켜 두게 하여라.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칙이다.
- 4 그 등불들을 주님 앞 순금 등잔대 위에 늘 차려 놓게 하여라."

제사상

- 5 "너희는 고운 곡식 가루를 가져다가, 하나에 삼분의 이 에파를 들어 빵 과자 열두 개를 굽고,
- 6 주님 앞 순금 상 위에, 한 줄에 여섯 개씩 두 줄로 쌓아 놓아라.
- 7 그리고 그 줄마다 순수한 유향을 없여라. 그리하여 이것이 그 빵의 기념 제물, 곧 주님을 위한 화제물이 되게 하여라.
- 8 안식일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늘 차려 놓아야 한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계약이다.
- 9 그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 된다. 그것은 주님에게 바친 화제물에서 온 것으로 가장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는 영원한 규정이다."

하느님 이름을 모독한 자의 처벌

- 10 이스라엘 여자와 이집트 남자 사이에서 난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나왔다. 이 이스라엘 여자의 아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에서 싸우게 되었는데,
- 11 이 이스라엘 여자의 아들이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저주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끌고 모세에게 왔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인데, 단 지파에 속하는 디브리의 딸이었다.

- 12 사람들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 결정을 내리려고 그를 기다어 두었다.
- 13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14 "저주한 그자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그가 저주하는 것을 들은 이들이 모두 그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한 다음, 온 공동체가 그에게 돌을 던지게 하여라.
- 15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누구든지 자기 하느님을 저주할 경우, 그 죄값을 져야 한다.
- 16 주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온 공동체가 그에게 돌을 던져야 한다.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사형을 받아야 한다.'

보상법

- 17 '누구든지 사람을 때려 목숨을 잃게 한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 18 또 짐승을 때려 목숨을 잃게 한 자는 그것을 보상해야 한다. 목숨은 목숨으로 갚는다.
- 19 동족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은 자기가 한 대로 되받아야 한다.
- 20 골절은 골절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대로 자신도 상해를 입어야 한다.
- 21 짐승을 때려 죽인 자는 그것을 보상해야 한다. 사람을 때려 죽인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 22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너희에게는 법이 하나일 뿐이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 23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이르자, 저주한 그자를 사람들이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그에게 돌을 던졌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성년

안식년

- 25 ¹ 주님께서 사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2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그 땅도 주님의 안식을 지켜야 한다.
- 3 너희는 여섯 해 동안 밭에 씨를 뿌리고, 여섯 해 동안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 4 그러나 일곱째 해는 안식년으로, 땅을 위한 안식의 해, 곧 주님의 안식년이다. 너희는 밭에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포도원을 가꾸어서도 안 된다.
- 5 너희가 수확한 다음에 저절로 자란 곡식을 거두어서도 안 되고,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 저절로 열린 포도를 따서도 안 된다. 이것이 땅의 안식년이다.
- 6 안식년에 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남종과 여종과 품팔이꾼, 그리고 너희와 함께 머무르는 거류민의 양식이 될 것이다.
- 7 또한 너희 가축과 너희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온갖 소출을 먹을 것이다.'

화년

- 8 '너희는 안식년을 일곱 번, 곧 일곱 해를 일곱 번 해야 하라. 그러면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나 마흔이홉 해가 된다.
- 9 그 일곱째 달 초월날 곧 속죄일에 나팔 소리를 크게 울려라. 너희가 사는 온 땅에 나팔 소리를 울려라.
- 10 너희는 이 오십 번째 해를 거룩한 해로 선언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의 화년이

다. 너희는 저마다 제 소유지를 되찾고, 저마다 자기 씨족에게 돌아가야 한다.

- 11 이 오십 번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다. 너희는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저절로 자란 곡식을 거두어서도 안 되며, 저절로 열린 포도를 따서도 안 된다.
- 12 이 해는 희년이다.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해다. 너희는 밭에서 그냥 나는 것만을 먹어야 한다.
- 13 이 희년에 너희는 저마다 제 소유지를 되찾아야 한다.
- 14 너희가 동족에게 무엇을 팔거나 동족의 손에서 무엇을 살 때, 서로 속여서는 안 된다.
- 15 너희는 희년에서 몇 해가 지났는지 헤아린 다음 너희 동족에게서 사고, 그는 소출을 거둘 햇수를 헤아린 다음 너희에게 팔아야 한다.
- 16 그 햇수가 많으면 값을 올리고, 햇수가 적으면 값을 내려야 한다. 그는 소출을 거둘 햇수를 너희에게 파는 것이다.
- 17 너희는 동족끼리 속여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을 경외해야 한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 18 너희는 나의 규칙들을 실천하고, 나의 법규들을 지키며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그 땅에서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 19 그리고 땅이 열매를 내주어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곳에서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 20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두어서도 안 된다면, 우리가 일곱째 해에는 무엇을 먹으리오?' 하고 너희가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 21 그러나 나는 여섯째 해에 나의 복을 베풀어 세 해 동안 먹을 소출이 나게 하겠다.
- 22 그래서 씨를 다시 뿌리는 여덟째 해에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이홉째 해가 되어 그해 소출이 날 때까지 묵은 곡식

을 먹게 될 것이다.'

재산을 되사는 규정

- 23 '땅은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내 곁에 머무르는 이방인이고 거류민일 따름이다.
- 24 너희가 소유한 땅에서는 어디서나 땅을 되사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25 너희 형제가 가난해져 자기 소유지를 팔 경우, 그에게 가장 가까운 구원자가 나서서 그 판 것을 되사야 한다.
- 26 구원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스스로 힘이 닿아 되사기에 충분한 방도가 생기면,
- 27 자기가 판 뒤에 지난 햇수를 헤아려 나머지 값을 산 사람에게 치르고 그 소유지를 되찾는다.
- 28 그러나 되찾을 능력이 생기지 않으면, 그가 판 것은 희년이 될 때까지 그것을 산 사람의 손에 남아 있게 된다. 그러다가 희년에는 그 소유자가 풀려, 그는 그것을 되찾게 된다.
- 29 어떤 사람이 성곽 도시에 있는 주택을 팔 경우, 판 지 한 해가 다 될 때까지는 되살 권리가 있다. 되살 권리가 일정 기간에만 있는 것이다.
- 30 한 해가 다 차기까지 되사지 못하면, 성곽이 있는 그 도시의 집은 대대로 아주 그 집을 산 사람의 것이 된다. 그것은 희년이 되어도 풀리지 않는다.
- 31 들레에 성곽이 쳐지지 않은 시골의 집들은 그 땅의 토지로 여겨진다. 그래서 그것을 되살 권리가 있고, 희년이 되면 풀린다.'

레위인들에 관한 특별 규정

- 32 '레위인들의 성읍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다. 레위인들은 언제나 그들 소유의 성읍에 있는 집을 되살 권리가 있다.
- 33 다른 레위인이 그것을 되산다 하더라도, 레위인들이 소유한 성읍에서 팔린 집은 희년

이 되면 풀린다. 레위인들의 성읍에 있는 집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자기 소유로 얻은 것이다.

34 그들 성읍 들레의 목초지는 팔지 못한다. 그것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다."

가난한 이들을 도울 의무

35 '너희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너희 곁에서 허덕이면, 너희는 그를 거들어 주어야 한다. 그도 이방인이나 거류민처럼 너희 곁에서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36 그에게서 이자나 이익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을 경외해야 한다. 그리하여 너희 형제가 너희 곁에서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37 이자를 받으려고 그에게 돈을 꾸어 주어서도 안 되고, 이득을 보려고 그에게 양식을 꾸어 주어서도 안 된다.

38 나는 너희에게 가난한 땅을 주고 너희 하느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주 너희 하느님이다.'

이스라엘인의 종이 될 경우

39 '너희 곁에 사는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신을 너희에게 팔 경우, 그를 종 부리듯 해서 안 된다.

40 그가 품팔이꾼이나 거류민처럼 너희 곁에서 살며 희년이 될 때까지 너희 일을 하다가,

41 자기 자식들과 함께 너희를 떠나서 자기 씨족에게 돌아가 조상 전래의 소유지를 되찾게 해야 한다.

42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나의 종들이니, 종이 팔리듯 팔려서는 안 된다.

43 그를 가혹하게 다스려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을 경외해야 한다.'

44 '너희가 소유할 수 있는 남종과 여종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다. 너희는 주위 민족들에게서 남종과 여종을 사들일 수 있다.

45 또 너희 곁에 머무르는 거류민의 자식들 가운데에서나, 너희 땅에서 태어나 너희 곁에 머무르는 그들의 친척 가운데에서 사들여, 너희 소유로 삼을 수 있다.

46 너희는 그들을 너희 자손에게 대대로 물려 주어 소유하게 할 수 있다. 너희는 그들을 언제까지나 종으로 부리도 된다. 그러나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끼리는 가혹하게 다스려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인이 외국인인 종이 될 경우

47 '너희 곁에 사는 이방인이나 거류민이 넉넉해졌는데, 그 옆에 사는 너희 형제가 가난해져, 너희 곁에 사는 이방인이나 거류민, 또는 이방인 씨족의 후손에게 자신을 팔 경우,

48 팔린 다음이라도 그는 자신을 되살 권리를 지닌다. 그의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그를 되살 수도 있다.

49 아니면 그의 삼촌이나 삼촌의 아들이 그를 되살 수도 있고, 그 씨족의 다른 살붙이가 그를 되살 수도 있다. 그 자신이 넉넉해지면 스스로 제 몸을 되살 수도 있다.

50 이 경우 그는 자기를 산 사람과 함께 제 몸을 판 그해부터 희년까지가 몇 해인지 헤아려, 그 햇수에 따라 가격을 매기는데, 그 집에 머물러야 할 기간을 날품팔이의 날수로 쳐서 계산한다.

51 아직 햇수가 많이 남았으면, 그것에 따라 자기를 판 가격에서 일정액을 빼고 자신을 되사는 값을 치른다.

52 희년까지 남은 햇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그 햇수에 따라 계산한 다음 자신을 되사는 값을 치른다.

53 그를 한 해 한 해 날품팔이로서 주인집에

머무르게 하고, 주인이 너희 눈앞에서 그를 가혹하게 다스리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 54 그가 이 여러 방도 가운데 어느 하나로도 자신을 되사지 못한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자식들과 함께 풀려난다.
- 55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에게 속한 종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나의 종들이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계명들의 요약

26 ¹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거나, 신상이나 기념 기둥을 세워서 안 된다. 또 조각한 돌을 너희 땅에 놓고 그것에 절해서도 안 된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²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경외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순종에 따르는 상

- ³ '너희가 나의 규칙들을 따르며 나의 계명들을 지키고 실천하면,
- ⁴ 나는 제때에 비를 내려 주겠다. 그러면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는 열매를 낼 것이다.
- ⁵ 타작 기간이 포도 수확 때까지 이어지고, 포도 수확이 파종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양식을 배불리 먹으며 너희 땅에서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 ⁶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니, 너희가 누워 자더라도 너희는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위험한 짐승들을 없애고, 같이 너희 땅을 휩쓸지 못하게 하겠다.
- ⁷ 너희는 원수들을 뒤쫓고, 그들은 너희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 ⁸ 너희는 다섯 명이 백 명을 뒤쫓고 백 명이 만 명을 뒤쫓으며, 원수들은 너희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⁹ 나는 너희를 보살피며 너희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하며, 너희와 맺은 나의 계약을 이루겠다.

¹⁰ 너희는 묵은 곡식을 오래 갈무리하며 먹다가, 햇곡식이 나오면 묵은 곡식을 퍼내 버려야 할 것이다.

¹¹ 나는 너희 가운데에 나의 거처를 정하고, 너희를 혐오하지 않겠다.

¹² 나는 너희와 함께 살아가면서 너희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¹³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으로 남지 않게 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주 너희 하느님이다. 나는 너희 명애를 부수어, 너희가 얼굴을 들고 걸어갈 수 있게 하였다.'

가역에 따르는 벌

¹⁴ '그러나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이 모든 계명을 실천하지 않거나,

¹⁵ 나의 규칙들을 업신여기고 나의 법규들을 혐오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실천하지 않고 나의 계약을 깨뜨리면,

¹⁶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 나는 너희에게 갑작스러운 재난을, 곧 폐병과 열병을 보내어, 눈이 어두워지고 목숨이 사그라지게 하겠다. 너희가 씨앗을 뿌려도 헛될 것이니, 너희 원수가 그것을 먹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¹⁷ 내가 너희에게 내 얼굴을 돌리면, 너희는 원수들 앞에서 패망하여 적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뒤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게 될 것이다.

¹⁸ 이렇게까지 하여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는 계속해서 너희 죄를 일곱 배로 벌하겠다.

¹⁹ 그리하여 나는 너희가 자랑하는 그 힘을 꺾어 버리겠다. 나는 너희 하늘을 쇠처럼, 너희 땅을 구리처럼 만들겠다.

- 20 그러면 너희가 힘을 다하여도 헛될 것이니, 땅은 소출을 내지 않고 땅의 나무는 열매를 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21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맞서며 내 말을 듣지 않으려 한다면, 나는 계속해서 너희 죄에 마땅한 재앙을 일곱 배로 내리겠다.
- 22 나는 너희에게 들짐승들을 보내어 너희 자식들을 물어 가게 하고 너희 가축들을 멸종케 하겠다. 그러면 너희 수가 줄어들어, 너희가 다니는 길들이 한산하게 될 것이다.
- 23 이렇게 해도 너희가 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에게 맞선다면,
- 24 나도 너희에게 맞설 수밖에 없다. 나 역시 너희 죄를 일곱 배로 하여 너희를 치겠다.
- 25 나는 너희에게 칼을 보내어 계약을 어긴 것을 복수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 성읍들 안으로 피해 모여들면, 나는 너희 가운데에 흑사병을 보내겠다. 그리하여 너희는 원수의 손에 넘어가고 말 것이다.
- 26 내가 너희 양식을 끊어 버리면, 여자 열 명이 너희가 먹을 빵을 가마 하나에서 구워 낼 것이다. 그들이 그 빵을 저울에 달아 너희에게 나누어 주면, 그것을 먹어 보아야 너희가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 27 이렇게 해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에게 맞선다면,
- 28 나 역시 화를 내며 너희에게 맞서고, 너희 죄를 일곱 배로 벌하겠다.
- 29 그러면 너희는 너희 아들들의 살을 먹고 너희 딸들의 살을 먹어야 할 것이다.
- 30 나는 너희의 산당들을 헐어 버리고 너희의 분향 제단들을 부수어 버리겠다. 그리고 너희 주검들이 너희 우상들의 주검 위로 쌓이게 하겠다. 이렇게 나는 너희를 혐오할 것이다.
- 31 나는 너희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고 너희 성소들을 황폐하게 하겠다. 너희가 바치는 향기도 맡지 않겠다.

- 32 나는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니, 너희 원수들이 그곳에 살려 왔다가 그 모습에 질겁할 것이다.
- 33 나는 너희를 민족들 사이로 흩어 버리며 너희 뒤로 칼을 빼어 휘두르겠다. 그리하여 너희 땅은 황폐해지고 너희 성읍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 34 이렇게 땅이 황폐해지고 너희가 원수들의 땅에 있는 동안, 땅은 비로소 제 안식년들을 줄곧 누리게 될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땅은 쉬면서 제 안식년들을 누리게 된다.
- 35 너희 땅은, 너희가 그곳에 살 때 안식년에 쉬지 못한 대신, 이제 황폐해 있는 동안 줄곧 쉬게 될 것이다.
- 36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원수들의 땅에 사는 동안, 내가 그들 마음에 겁을 집어 넣으리니, 그들은 떨어지는 나뭇잎 소리에 도 쫓길 것이다. 칼을 피하듯 도망치다 뒤쫓는 자가 없는데도 쓰러질 것이다.
- 37 뒤쫓는 자가 없는데도 칼을 피해 도망칠 때처럼 서로 걸려 비틀거릴 것이다. 너희는 원수에게 맞설 힘이 없을 것이다.
- 38 너희는 민족들 틈에서 멸망해 가고,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켜 버릴 것이다.
- 39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두려져 갈 것이다.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도 그들은 두려져 갈 것이다.'

회개의 전망

- 40 '그러나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맞서 지은 자기들의 죄악과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하면,
- 41 그리고 내가 자기들에게 맞서고 자기들을 원수들의 땅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음을 깨닫는다면, 그리하여 할례 받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져 자기들의 죄값을 치른

- 다면,
42 나는 야곱과 맺은 나의 계약과 이사와와 맺은 나의 계약, 또 아브라함과 맺은 나의 계약을 기억하고, 그 땅도 기억하겠다.
43 그들이 짓값을 치르는 동안, 그들이 버리고 떠난 그 땅은 그들 없이 황폐한 채 남아 제 안식년들을 누릴 것이다. 그들이 나의 법규들을 업신여기고 나의 규칙들을 혐오하였기 때문이다.
44 그렇지만 나는 그들이 원수들의 땅에 있는 동안에도,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혐오하여 그들을 멸망시키거나 그들과 맺은 나의 계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나는 주 그들의 하느님이다.
45 나는 그들을 위하여 선조들과 맺은 계약을 기억하겠다.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려고,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었다. 나는 주님이다."
46 이것이 주님께서 사나이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당신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세우신 규정과 법규와 법이다.

부록 사원 예들의 값

- 27** ¹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²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사람을 봉헌하겠다고 주님에게 서원하고, 그 사람에게 해당하는 값에 따라 서원을 채우려 할 경우,
3 스무 살에서 예순 살에 이르는 남자의 값은 성소 세겔로 은 선 세겔이다.
4 여자이면 그 값이 서른 세겔이다.
5 다섯 살에서 스무 살까지는, 남자의 값이 스무 세겔이고 여자는 열 세겔이다.
6 한 달에서 다섯 살까지는, 남자의 값이 은 다섯 세겔이고 여자의 값은 은 세 세겔이다.
7 예순 살 이상인 남자의 값은 열다섯 세겔이고 여자는 열 세겔이다.

- 8** 너무 가난하여 이 값을 낼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사제 앞에 세우고 사제가 그 값을 매기는데, 서원한 사람의 능력에 따라 값을 매긴다.
9 주님에게 예물로 바칠 수 있는 짐승이면, 주님에게 올리려고 한 것은 모두 거룩하다.
10 그러므로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신하지 못한다.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또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지 못한다. 짐승을 짐승으로 바꾸면, 본래의 것과 바꾼 것, 둘 다 거룩하게 된다.
11 주님에게 예물로 바칠 수 없는 부정함 짐승이면, 그것이 어떤 짐승이든 사제 앞에 세우고,
12 사제가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가려 값을 매긴다. 사제가 값을 매기는 그대로 그 값이 된다.
13 그것을 되사고자 하면 그 값에다 오분의 일을 더 보아야 한다.
14 누가 자기 집을 주님에게 거룩한 것으로 봉헌하고자 할 경우, 사제가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가려 값을 매긴다. 사제가 값을 매기는 그대로 그 값이 결정된다.
15 봉헌한 이가 자기 집을 되사고자 하면, 그 가격에 오분의 일을 더 보아야 한다. 그러면 그 집이 다시 그의 것이 된다.
16 누가 자기 소유의 밭을 주님에게 봉헌하고자 하면, 씨앗의 분량에 따라 그 값이 매겨진다. 보리 한 호메르의 씨앗 분량이면 은 선 세겔이다.
17 희년부터 그 밭을 봉헌하면, 그 값이 그대로 결정된다.
18 희년이 지난 다음에 그 밭을 봉헌하면, 사제가 다음 희년까지 남은 햇수에 따라 돈을 계산하여 본값에서 깎는다.
19 그 밭을 봉헌한 이가 그것을 되사고자 하면, 그 가격에 오분의 일을 더 보탠다. 그러면 그 밭은 다시 그의 것이 된다.

- 20 그 밭을 되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면, 다시는 그 밭을 되살 수 없게 된다.
- 21 희년이 되어 그 밭이 풀리더라도, 그것은 완전 봉헌물이 된 밭처럼 주님에게 바쳐진 거룩한 것으로서, 사제의 소유가 된다.
- 22 누가 본래 자기 소유의 밭이 아니라 사들인 밭을 주님에게 봉헌하면,
- 23 사제가 희년까지 얼마인지 따져 그 값의 총액을 계산한다. 그러면 그는 그날로 그 값을 주님에게 거룩한 것으로 바친다.
- 24 희년이 되면 그 밭은 그것을 판 사람, 곧 그 땅의 본래 임자에게 돌아간다.
- 25 모든 값은 스무 게라를 한 세켈로 하는 성소 세켈에 따른다.
- 26 짐승의 판매는, 판매로서 이미 주님에게 속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봉헌할 수 없다. 소든지, 양이나 염소든지 그것은 이미 주님의 것이다.
- 27 그러나 부정한 짐승이면 그 값에 오분의 일을 더 보태어 그것을 대속할 수 있다. 그것을 되사지 않으면 그 값으로 다른 이에게 팔려 나간다.
- 28 그러나 누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에서 무엇이든 완전 봉헌물로 주님에게 바쳤으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기 소유의 밭이든, 그것을 팔거나 되살 수 없다. 완전 봉헌물은 모두 주님에게 바쳐진 가장 거룩한 것이다.
- 29 완전 봉헌물이 된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대속할 수 없다.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 30 땅의 십분의 일은, 땅의 곡식이든 나무의 열매든 모두 주님의 것이다. 주님에게 바쳐진 거룩한 것이다.
- 31 누가 그 십분의 일을 되사고자 하면 그것에 오분의 일을 더 보태야 한다.
- 32 큰 가축과 작은 가축의 십분의 일, 곧 지팡이 밑으로 지나가게 하여 골라낸 모든 가축의 십분의 일은 주님에게 바쳐진 거룩한

것이 된다.

- 33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살펴서도 안 되고 바꾸어서도 안 된다. 그것을 바꾸면 본래의 것과 바꾼 것이 둘 다 거룩하게 되어 되살 수 없게 된다."
- 34 이것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내리신 계명들이다.

구약성경 - 4

오경 - 4

민수기

총 36 장

총 1,289 절

[구약성경-민수기]

첫 번째 인구 조사

- 1** ¹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 이듬해 둘째 달 초하룻날, 주님께서 사나이 광야에 있는 만남의 천막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2** "너희는 씨족과 집안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의 수를 세어라. 모든 장정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세어라.
- 3**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스무 살 이상 된 남자들을 모두 부대별로 사열하여라.
- 4**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자기 집안의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이 너희를 돕게 하여라.
- 5** 너희를 도와줄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테우르의 아들 엘리후르,
- 6** 시메온 지파에서는 추리사파이의 아들 슬루미엘,
- 7**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호손,
- 8** 이사카르 지파에서는 추아르의 아들 느탄엘,
- 9** 즈블룬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
- 10** 요셉의 아들들 가운데, 에프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 므나쎄 지파에서는 프다추르의 아들 가블리엘이다.
- 11**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
- 12**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파이의 아들 아히에제르,
- 13** 아셀르 지파에서는 오크란의 아들 파그이엘,
- 14** 가드 지파에서는 드우엘의 아들 엘아삽,
- 15** 납탈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리이다."
- 16** 이들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뽑힌 사람들이로서, 각 지파의 주장이며 이스라엘 각 부족의 우두머리였다.

- 17** 모세와 아론은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 18** 둘째 달 초하룻날에 온 공동체를 불러 모아, 스무 살 이상 된 남자들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씨족과 집안별로 등록하게 하였다.
- 19**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이렇게 모세는 사나이 광야에서 그들을 사열하였다.
- 20**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스무 살 이상 된 모든 장정을 씨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하나하나 모두 호명하였다.
- 21** 이렇게 르우벤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사만 육천오백 명이였다.
- 22** 시메온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스무 살 이상 된 모든 장정을 씨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하나하나 호명하며 모두 사열하였다.
- 23** 이렇게 시메온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오만 구천삼백 명이였다.
- 24** 가드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스무 살 이상 된 남자들을 씨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 25** 이렇게 가드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사만 오천육백오십 명이였다.
- 26** 유다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스무 살 이상 된 남자들을 씨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 27** 이렇게 유다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칠만 사천육백 명이였다.
- 28** 이사카르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스무 살 이상 된 남자들을 씨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 29** 이렇게 이사카르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오만 사천사백 명이였다.
- 30** 즈블룬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스무 살 이상 된 남자들을 씨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 31 이렇게 즈블론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오만 칠천사백 명이였다.
- 32 요셉의 자손들, 곧 에프라임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스무 살 이상 된 남자들을 씨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 33 이렇게 에프라임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사만 오백 명이였다.
- 34 므나세히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스무 살 이상 된 남자들을 씨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 35 이렇게 므나세히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삼만 이천이백 명이였다.
- 36 벤야민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스무 살 이상 된 남자들을 씨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 37 이렇게 벤야민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삼만 오천사백 명이였다.
- 38 단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스무 살 이상 된 남자들을 씨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 39 이렇게 단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육만 이천칠백 명이였다.
- 40 아세르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스무 살 이상 된 남자들을 씨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 41 이렇게 아세르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사만 천오백 명이였다.
- 42 납탈리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스무 살 이상 된 남자들을 씨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 43 이렇게 납탈리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오만 삼천사백 명이였다.
- 44 이들은 모세와 아론이, 저마다 자기 집안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열두 수장과 함께 사열한 사람들이다.
- 45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스무 살 이상 된 사람으로서 집안별로 사

- 열을 받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의 수는,
46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의 총수는 육십만 삼천오백오십 명이였다.
- 47 그러나 레위인들의 지파만은 이들과 함께 사열을 받지 않았다.
- 48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레위인들의 병역 면제

- 49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만은 사열하지도 말고, 그들의 수를 세지도 마라.
- 50 너는 레위인들에게 증언판을 모신 성막과 모든 기물과 거기에 딸린 모든 물건을 맡겨라. 그들은 성막과 모든 기물을 날라야 하고, 성막을 보살피며 그 들레에 진을 치고 살아야 한다.
- 51 성막을 옮겨 갈 때에 레위인들이 그것을 거두어 내려야 하고, 성막을 칠 때에도 레위인들이 그것을 세워야 한다. 속인이 다가왔다기에는 죽을 것이다.
- 52 리엘의 다른 자손들은 저마다 자기 진영 안에, 저마다 자기 부대의 깃발 아래 진을 치고,
- 53 레위인들은 증언판을 모신 성막 들레에 진을 쳐야 한다. 그래야 이스라엘 자손들의 공동체에게 진노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레위인들은 증언판을 모신 성막을 지키는 일을 해야 한다."
- 54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지파들의 아영 위치와 행진 순서

- 2 ¹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² "이스라엘 자손들은 저마다 제 집안의 표지로 세운 깃발 아래 진을 쳐야 한다. 만남의 천막에서 조금 떨어져 그 들레에 진

을 처야 한다.

3 동쪽 곧 해 뜨는 쪽에 진을 칠 이들은 유다 진영의 깃발 아래 있는 부대들이다. 유다 자손들의 수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호손이고,

4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칠만 사천육백 명이다.

5 그 곁에 진을 칠 이들은 이사카르 지파이다. 이사카르 자손들의 수장은 추아르의 아들 느탄엘이고,

6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오만 사천사백 명이다.

7 그다음은 즈블룬 지파이다. 즈블룬 자손들의 수장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고,

8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오만 칠천사백 명이다.

9 이렇게 유다 진영으로 사열을 받은 이들은 부대별로 세어 모두 십팔만 육천사백 명이다. 이들이 첫 번째로 출발한다.

10 남쪽에는 르우벤 진영의 깃발 아래 있는 부대들이 진을 친다. 르우벤 자손들의 수장은 스테우르의 아들 엘리추르이고,

11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사만 육천오백 명이다.

12 그 곁에 진을 칠 이들은 시메온 지파이다. 시메온 자손들의 수장은 추리사따이의 아들 슬루미엘이고,

13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오만 구천삼백 명이다.

14 그다음은 가드 지파이다. 가드 자손들의 수장은 드우엘의 아들 엘아삽이고,

15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사만 오천육백오십 명이다.

16 이렇게 르우벤 진영으로 사열을 받은 이들은 부대별로 세어 모두 십오만 천사백오십 명이다. 이들이 두 번째로 출발한다.

17 그다음에는 만민의 천막과 함께 레위인들의 진영이 다른 진영들의 한 가운데에 자리 잡고 출발한다. 이렇게 진을 치는 순서대

로 출발하는데, 저마다 자기 깃발 아래 제 자리를 지켜야 한다.

18 서쪽에는 에프라임 진영의 깃발 아래 있는 부대들이 진을 친다. 에프라임 자손들의 수장은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이고,

19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사만 오백 명이다.

20 그 곁에는 므나쎄 지파가 진을 친다. 므나쎄 자손들의 수장은 프다추르의 아들 가블리엘이고,

21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삼만 이천이백 명이다.

22 그다음은 베아민 지파이다. 베아민 자손들의 수장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고,

23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삼만 오천사백 명이다.

24 이렇게 에프라임 진영으로 사열을 받은 이들은 부대별로 세어 모두 삼만 팔천백 명이다. 이들이 세 번째로 출발한다.

25 북쪽에는 단 진영의 깃발 아래 있는 부대들이 진을 친다. 단 자손들의 수장은 암미사따이의 아들 아히에제르이고,

26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육만 이천칠백 명이다.

27 그 곁에 진을 칠 이들은 아세르 지파이다. 아세르 자손들의 수장은 오크란의 아들 파그이엘이고,

28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사만 천오백 명이다.

29 그다음은 납탈리 지파이다. 납탈리 자손들의 수장은 예난의 아들 아히라이고,

30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오만 삼천사백 명이다.

31 이렇게 단 진영으로 사열을 받은 이들은 모두 십오만 칠천육백 명이다. 이들이 자기들의 깃발 아래 마지막으로 출발한다."

32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집안 별로 사열을 받은 이들이다. 이렇게 부대

별로 진영에 따라 사열을 받은 이들은 모두 육십만 삼천오백오십 명이였다.

- 33 그러나 레위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사열을 받지 않았다.
- 34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들은 저마다 씨족과 집안에 따라 자기들의 깃발 아래 진도 치고 출발도 하였다.

아론의 아들들

- 3¹ 주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때에 아론과 모세의 자식들은 이러하다.
- 2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맏아들 나답, 아비후, 엘아자르, 이타마르이다.
- 3 이것이 사제직을 수행하도록 직무를 받은, 곧 기름부음을 받은 사제들로서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다.
- 4 나답과 아비후는 시나이 광야에서 속원 불을 주님 앞에 바치다가 주님 앞에서 죽었다.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엘아자르와 이타마르가 아버지 아론 밑에서 사제직을 수행하였다.

레위인들의 의무

- 5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6 "너는 레위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여, 그들을 아론 사제 앞에 세워서 그를 시중들게 하여라.
- 7 그들은 성막의 일을 하여, 만민의 천막 앞에서 아론을 위한 임무와 온 공동체를 위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 8 그들은 또한 만민의 천막에 있는 모든 기물을 보살피고 성막의 일을 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 9 너는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붙여 주어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에게서 뽑혀 나에게 바쳐진 이들이며 아론에게 주어진 이들이다.

- 10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임명하여 사제직을 수행하게 하여라. 속인이 다가왔다가는 죽을 것이다."

레위인들을 선택하다

- 11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12 "나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태를 맨 먼저 열고 나온 모든 맏아들 대신,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골라 갖는다. 레위인들은 나의 것이 된다.
- 13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던 날,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으로 성별하였다. 그것들은 나의 것이 된다. 나는 주님이다."

레위인들의 첫 번째 인구 조사

- 14 주님께서 시나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15 "너는 레위의 자손들을 집안과 씨족별로 사열하여라.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를 모두 사열해야 한다."
- 16 모세는 주님의 분부에 따라, 명령을 받은 대로 그들을 사열하였다.
- 17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 크핫, 므라리이다.
- 18 씨족에 따라 본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리브니와 시므이이다.
- 19 씨족에 따라 본 크핫의 아들들은 아므람, 이즈하르, 헤브론, 우찌엘이다.
- 20 씨족에 따라 본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이것이 집안에 따라 본 레위의 씨족들이다.
- 21 게르손에게는 리브니 씨족과 시므이 씨족이 속하였다. 이들이 게르손의 씨족들이다.
- 22 그들 가운데에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 모든 남자의 수를 헤아리며 사멸하니, 사멸을 받은 이들은 칠천오백 명이였다.
- 23 게르손의 씨족들은 성막 뒤 서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고,
- 24 그 게르손의 집안 수장은 라엘의 아들 엘아삽이였다.
- 25 게르손의 자손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맡은 임무는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 만남의 천막 어귀를 가리는 막,
- 26 뜰의 휘장, 성막과 제단을 둘러싼 뜰의 어귀를 가리는 막, 그리고 온갖 일에 쓰는 줄들을 관리하는 것이였다.
- 27 크핫에게는 아므람 씨족, 이즈하르 씨족, 헤브론 씨족, 우찌엘 씨족이 속하였다. 이들이 크핫의 씨족들이다.
- 28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를 헤아리니 팔천육백 명이었는데, 이들은 성소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였다.
- 29 크핫 자손 씨족들은 성막 옆 남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 30 크핫 씨족들의 집안 수장은 우찌엘의 아들 엘리차환이였다.
- 31 그들의 임무는 궤와 상과 등잔대, 제단들과 예식에 쓰는 성소의 기물들과 휘장의 관리,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온갖 일이였다.
- 32 레위인들의 최고 수장은 아론 사제의 아들 엘아자르였는데, 그는 성소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이들의 감독이였다.
- 33 므라리에게는 마흘리 씨족과 무시 씨족이 속하였다. 이들이 므라리의 씨족들이다.
- 34 그들 가운데에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를 헤아리며 사멸하니, 육천 이백 명이였다.
- 35 므라리 씨족들의 집안 수장은 아비히일의 아들 추리엘이였다. 이들은 성막 옆 북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 36 므라리의 자손들에게 맡겨진 임무는 성막의 날뻘지, 가로다지, 기둥, 밑받침들과 거

- 기에 딸린 모든 기물의 관리, 성막과 관련된 모든 일,
- 37 그리고 뜰 둘레에 세우는 기둥과 밑받침, 말뚝과 줄들을 관리하는 것이였다.
- 38 성막 앞 동쪽으로, 곧 만남의 천막 앞 헤뜨는 쪽으로 진을 칠 이들은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였다.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임무를 대신하여 성소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였다. 속인이 다가왔다 가는 족제 되어 있었다.
- 39 모세와 아론이 주님의 분부에 따라 씨족별로 사멸한 레위인들은 모두, 곧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는 모두 이만 이천 명이였다.

레위인과 맏이들

- 40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맏이들을 모두 사멸하고 그들의 이름을 세어라.
- 41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맏이들 대신에 레위인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진 가족의 모든 맏배 대신에 레위인들의 가족을 나의 것으로 골라내어라. 나는 주님이 다."
- 42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맏이들을 사멸하였다.
- 43 그들 가운데에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맏이들을 모두 호명하며 사멸하니, 이만 이천이백칠십삼 명이였다.
- 44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45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맏이들 대신에 레위인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족 대신에 레위인들의 가족을 골라내어라. 레위인들은 나의 것이 된다. 나는 주님이 다.
- 46 이스라엘 자손들의 맏이들 가운데에서 레위인들의 수를 넘는 이백칠십삼 명의 대속

값으로는,

- 47 한 사람에게 다섯 세켈씩 받아라. 스무 게라가 한 세켈이 되는 성소 세켈로 받아라.
- 48 이렇게 수를 넘는 이들을 위한 대속 값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돈을 주어라."
- 49 그리하여 모세는 레위인들이 대속한 사람들의 수를 넘는 이들에게서 대속 값을 받았다.
- 50 이스라엘 자손들의 만아들에게서 받은 돈은 성소 세켈로 천삼백육십오 세켈이었다.
- 51 모세는 주님의 분부에 따라,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대속 값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레위 지파 각 씨족의 직무

4

¹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² "너는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크핫 자손들의 수를 씨족과 집안별로 세어라.

- ³ 서른 살 이상에서 쉰 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직업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의 수를 모두 세어라.
- ⁴ 크핫의 자손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할 일은 가장 거룩한 것들을 다루는 일이다.
- ⁵ 진영을 옮길 때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와서, 칸막이 휘장을 내려 그것으로 증언 케를 덮은 다음,
- ⁶ 그 위에 돌고래 가죽 덮개를 씌우고, 다시 그 위에 순 자주색 천을 펴고 채를 뒀다.
- ⁷ 제사상 위에는 자주색 천을 펴고, 그 위에 대접, 접시, 잔, 제주 단지들을 놓는다. 늘 차려 놓는 빵도 그 위에 놓아야 한다.
- ⁸ 그 위에 다홍색 천을 펴고,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은 다음 채를 뒀다.
- ⁹ 그리고는 자주색 천을 가져다가, 불을 켜는 등잔대와 그것에 딸린 등잔, 불뿔 가위, 불뿔 접시, 그리고 등잔대에 쓰는 온갖 기름 그릇을 덮은 다음,

- ¹⁰ 그 등잔대와 그것에 딸린 모든 기물을 돌고래 가죽 덮개로 싸서 들것 위에 얹는다.
- ¹¹ 금 제단 위에는 자주색 천을 펴고, 그것을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은 다음 채를 뒀다.
- ¹² 성소에서 예식에 쓰는 그 밖의 모든 기물을 가져다가, 자주색 천으로 싸고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어 들것 위에 얹는다.
- ¹³ 제단은 채를 치우고 나서 그 위에 자홍색 천을 뒀 다음,
- ¹⁴ 제단에서 쓰는 모든 기물, 곧 불뿔 접시, 고기 갈고리, 삽, 쟁반 등 제단의 모든 기물을 엮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 덮개를 뒀 다음 채를 뒀다.
- ¹⁵ 진영을 옮길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물을 덮는 일을 이런 식으로 마친다. 그런 다음에야 크핫의 자손들이 와서 그것들을 든다. 그들은 거룩한 물건들에 몸이 닿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랬다가는 죽는다. 이것이 만남의 천막에서 크핫의 자손들이 옮겨야 하는 짐이다.
- ¹⁶ 아론 사제의 아들 엘야자르가 맡은 것은 등잔 기름, 향기로운 향, 늘 바치는 곡식 제물, 성별 기름이다. 그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성소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을 맡는다."
- ¹⁷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 ¹⁸ "너희는 크핫의 씨족들로 이루어진 부족이 레위인들 가운데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 ¹⁹ 그들이 가장 거룩한 것들에 가까이 갈 때 죽지 않고 살게 하려면, 너희가 이렇게 해주어야 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과 짐을 정해 주어야 한다.
- ²⁰ 그러나 크핫인들은 들어와서 한순간이라도 거룩한 것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는 죽는다."
- ²¹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22 "게르손의 자손들도 집안과 씨족에 따라 수를 세어라.
- 23 서른 살 이상에서 쉰 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사열하여라.
- 24 게르손의 씨족들이 할 일과 질 짐은 이러하다.
- 25 그들이 나를 짓는 성막에 치는 천, 만남의 천막과 그 덮개, 그 위에 씌우는 돌고래 가죽 덮개, 만남의 천막 어귀에 치는 막,
- 26 뜰의 휘장, 성막과 제단을 둘러싼 뜰의 정문 어귀에 치는 막, 거기에 딸린 줄과 그들이 일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기물이다. 그들은 이것들과 관련된 모든 일도 해야 한다.
- 27 게르손의 자손들은 어떤 짐을 나르든 어떤 일을 하든, 모든 일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분부를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질 모든 짐을 그들의 임무로 지정해 주어야 한다.
- 28 이것이 게르손의 씨족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할 일이다. 그들은 아론 사제의 아들 이타마르의 지휘 아래 자기들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 29 너는 므라리의 자손들도 씨족과 집안별로 사열하여라.
- 30 서른 살 이상에서 쉰 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사열하여라.
- 31 그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할 모든 일은 이러한 것들을 맡아서 옮기는 것이다. 곧 성막의 널빤지, 가로다지, 기둥, 밑받침,
- 32 뜰 둘레에 세우는 기둥, 밑받침, 말뚝, 줄과 이것들에 딸린 모든 기물, 그리고 이것들과 관련된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이 맡아 옮겨야 하는 기물들을 지정해서 맡겨야 한다.
- 33 이것이 므라리의 씨족들이 아론 사제의 아

들 이타마르의 지휘 아래, 만남의 천막에서 해야 할 모든 일이다."

레위인 장정들의 인구 조사

- 34 모세와 아론과 공동체의 수장들은 크핫의 자손들을 씨족과 집안별로 사열하였다.
- 35 서른 살 이상에서 쉰 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사열하였다.
- 36 이렇게 씨족별로 사열을 받은 이들은 이천 칠백오십 명이었다.
- 37 이들이 모두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사람으로, 크핫의 씨족들에서 사열을 받은 이들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분부에 따라 그들을 사열하였다.
- 38 게르손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씨족과 집안별로 사열을 받은 이들은,
- 39 곧 서른 살 이상에서 쉰 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남자로서
- 40 이렇게 씨족과 집안별로 사열을 받은 이들은 이천육백삼십 명이었다.
- 41 이들이 모두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사람으로, 게르손 자손들의 씨족들에서 사열을 받은 이들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 그들을 사열하였다.
- 42 므라리 자손들의 씨족들 가운데에서 씨족과 집안별로 사열을 받은 이들은,
- 43 곧 서른 살 이상에서 쉰 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남자로서
- 44 이렇게 씨족별로 사열을 받은 이들은 삼천 이백 명이었다.
- 45 이들이 므라리 자손들의 씨족들에서 사열을 받은 이들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분부에 따라 그들을 사열하였다.
- 46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수장들은 레위

- 인들을 씨족과 집안별로 사열하였는데, 이 때에 사열을 받은 이들은 모두,
- 47 곧 서른 살 이상에서 쉰 살까지, 복무에 들어갈 만년의 천막에서 일을 하고 짐 나르는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남자
- 48 이렇게 사열을 받은 이들은 팔천오백팔십 명이었다.
- 49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분부에 따라 사람마다 일과 짐을 맡았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사열을 받은 것이다.

부정한 사람의 처리

- 5 1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2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악성 피부병 환자와 고름을 흘리는 사람과 주검에 닿아 부정하게 된 사람을 모두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하여라.
- 3 너희는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내보내야 한다.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 머무르는 진영을 그들이 부정하게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 4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하였다.

질투에 대한 배상

- 5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6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남자인 여자인 남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러 주님을 배신할 경우, 그자는 죄인이 된다.
- 7 그런 자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한 다음, 손해를 끼친 이에게 전액을 보상하고, 거기에 오분의 일을 더하여 갚아야 한다.
- 8 그러나 그 피해자에게 대신 보상을 받을 근친이 없으면, 속죄 예식에 쓰는 속죄 숫양은 물론이고 그 보상도 주님에게 돌아가 사제

의 몫이 된다.

- 9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제에게 가져오는 모든 거룩한 예물 가운데 흔들여 바치는 것은 모두 사제의 것이 된다.
- 10 각자의 거룩한 예물은 자기 것이 되지만, 누가 사제에게 준 것은 사제의 것이 된다."

간통 혐의를 받는 여자

- 11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12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밧나가 남편을 배신하고
- 13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는데, 그 여자가 체면을 더럽힌 사실이 남편 눈에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진 채, 증인도 없고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을 경우,
- 14 남편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실제로 몸을 더럽힌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아내를 의심하게 되면,
- 15 그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제에게 데리고 와야 한다. 아울러 아내 뒤통으로 보았기루 십분의 일 에피를 예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 예물에는 기름을 따라서도 안 되고 유향을 엮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질투의 곡식 제물이며, 죄를 상기시키는 기억의 곡식 제물이기 때문이다.
- 16 사제는 그 여자를 가까이 오게 하여 주님 앞에 세운다.
- 17 그런 다음에 사제는 거룩한 물을 옹기그릇에 떠 놓고, 성막 바닥에 있는 흙먼지를 굽어 그 물에 탄다.
- 18 사제는 그 여자를 주님 앞에 세운 채 그 여자의 머리를 풀고, 기억의 곡식 제물 곧 질투의 곡식 제물을 그 여자의 두 손바닥에 얹어 놓는다. 사제 자신은 저주를 부르는 쓴 물을 손에 들고

- 19 이렇게 말하며, 그 여자를 맹세하게 한다. '다른 남자가 그대와 동침한 적이 없고, 그대가 남편 밑에 있으면서 빗나가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를 부르는 이 쓴 물이 그대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 20 그러나 그대가 남편 밑에 있으면서 빗나가 몸을 더럽혔거나, 남편 아닌 다른 남자가 그대와 동침한 적이 있으면,
- 21 — 이때 사제는 그 여자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주님께 서 그대의 허벅지를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그대의 배를 부풀어 오르게 하시어, 그대의 백성 가운데에서 그대를 저주와 맹세의 본보기로 만드실 것이다.
- 22 이제 저주를 부르는 이 물이 그대의 창자 속에 들어가, 배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허벅지를 떨어져 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여자는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해야 한다.
- 23 사제는 이 저주를 글로 써서 그 쓴 물에 씻는다.
- 24 저주를 부르는 쓴 물을 그 여자에게 마시게 하면, 저주를 부르는 그 물이 몸 안에 들어가 쓰러지게 하는 것이다.
- 25 사제는 그 여자의 손에서 질투의 곡식 제물을 받아, 주님 앞에 흔들어서 바치고 제단으로 가져온다.
- 26 사제는 그 곡식 제물을 한 손 가득 파내어, 그것을 기념 제물로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그런 다음에 그 물을 여자에게 마시게 한다.
- 27 그 물을 여자에게 마시게 하였을 때, 그 여자가 몸을 더럽히고 자기 남편을 배신하였으면, 저주를 부르는 그 물이 몸 안에 들어가 쓰러지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배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그 여자의 허벅지를 떨어져 나가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여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저주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 28 그러나 그 여자가 몸을 더럽힌 일이 없게 깨끗하면, 해를 입지 않고 자식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 29 이것이 질투에 관한 법이니, 여자가 남편 밑에 있으면서 빗나가 몸을 더럽혔거나,
- 30 남편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자기 아내를 의심하게 되면, 그 여자를 주님 앞에 세우고, 사제는 이 법을 모두 그 여자에게 적용해야 한다.
- 31 그러면 남편은 죄를 면하고 아내는 자기 죄값을 지게 된다."

나지르인

- 6 ¹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²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남자들은 자신을 주님에게 봉헌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원 곧 나지르인 서원을 할 경우,
- 3 그는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야 하고, 포도주로 만든 식초와 독주로 만든 식초를 마셔서는 안 된다. 또 어떤 포도즙도 마셔서는 안 되고, 날포도도 건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 4 봉헌 기간 내내 그는 씨에서 껍질에 이르기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만든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 5 서원한 봉헌 기간 내내 그는 머리에 면도칼을 대서는 안 된다. 주님에게 자신을 봉헌한 기간이 다 찰 때까지 그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 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 6 그는 자신을 주님에게 봉헌한 기간 내내 죽은 이에게 다가가서는 안 된다.
- 7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에도, 그들의 주검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 안 된다. 하나님에게 봉헌한 표를 머리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8 봉헌 기간 내내 그는 주님에게 거룩한 사람

- 이 되어야 한다.
- 9 누가 그의 곁에서 갑자기 순식간에 죽어, 봉헌된 그의 머리를 부정하게 할 경우,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깎아야 한다. 곧 이레째 되는 날에 깎아야 한다.
- 10 그리고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만남의 친막 어귀로 가져와 사제에게 준다.
- 11 사제는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 주검 때문에 죄를 지은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그는 그날로 다시 자기 머리를 거룩하게 바친다.
- 12 그는 봉헌하기로 정한 기간 동안 자신을 다시 주님에게 봉헌하기로 하고, 일 년 된 어린 숫양을 보상 제물로 가져온다. 이미 지난 기간은 그의 봉헌이 부정하게 되었으므로 무효가 된다.
- 13 봉헌 기간이 다 찼을 때에 나지르인과 관련된 법은 이리하다. 먼저 그를 만남의 친막 어귀로 오게 한다.
- 14 그러면 그는 주님에게 예물을 바친다. 곧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숫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는 친교 제물로 바친다.
- 15 또 누룩 없는 빵과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기름을 발라 누룩 없이 만든 부꾸미 한 광주리를 곡식 제물과 제주와 함께 바친다.
- 16 사제는 그것들을 주님 앞에 가져와서, 그를 위한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바친다.
- 17 숫양은 그 누룩 없는 빵 한 광주리와 함께 주님에게 친교 제물로 바친다. 사제는 곡식 제물과 제주도 함께 바친다.
- 18 그다음에 나지르인은 봉헌한 자기 머리를 만남의 친막 어귀에서 깎는다. 봉헌한 자기 머리의 털은 가져다가, 친교 제물 밑에

서 타고 있는 불 위에 없는다.

- 19 이렇게 나지르인이 봉헌한 자기 머리를 깎고 나면, 사제는 삶은 숫양의 어깨 고기, 그리고 광주리에서 누룩 없는 과자 하나와 누룩 없는 부꾸미 하나를 가져와 나지르인의 두 손에 없었다가,
- 20 그것을 주님 앞에 예물로 흔들어 바친다. 그것은 흔들어 바친 가슴 고기와 들어 올려 바친 넓적다리 고기와 함께 사제의 거룩한 몫이 된다. 그런 다음에야 나지르인은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 21 이것이 서원을 한 나지르인에 관한 법이다. 이것이, 그가 따로 마련할 수 있는 것 외에, 자기의 봉헌 서약과 관련하여 주님에게 올려야 하는 예물이다. 그는 자기가 한 서원에 따라서, 자기의 봉헌 서약과 관련된 법에 맞추어 바쳐야 한다."

사제의 축복

- 22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23 "이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여라.
- 24 '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 주시리라.
- 25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 26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
- 27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각 지파 수장들의 예물

- 7¹ 성막 세우는 일을 마치던 날에 모세는 성막에 기름을 부어,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 그리고 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을 성별하였다. 모세가 그것

- 들에 기름을 부어 성별하자,
- 2 이스라엘의 수장들 곧 각 집안의 우두머리들이 예물을 바쳤다. 이들은 각 지파의 수장들로서 사역하는 일을 맡아보던 이들이다.
- 3 이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가져왔는데, 달개가 있는 수레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였다. 수레는 수장 둘에 한 대씩, 소는 한 사람에게 한 마리씩이었다. 그들이 이것들을 성막 앞으로 끌고 오자,
- 4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 5 "너는 그들에게서 그 예물을 받아 만남의 천막 일에 써라. 레위인들에게 저마다 맡은 일에 따라 나누어 주어라."
- 6 모세는 그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들에게 넘겨 주었다.
- 7 게르손의 자손들에게는 그들이 맡은 일에 따라 수레 두 대와 소 네 마리를 주었다.
- 8 므라리의 자손들에게는 아론 사제의 아들 이타마르의 지휘 아래 그들이 맡은 일에 따라 수레 네 대와 소 여덟 마리를 주었다.
- 9 그러나 크핫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았다. 그들이 맡은 거룩한 일은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 10 제단에 기름을 붓던 날, 수장들은 제단 봉헌 예물을 바쳤다. 그들이 자기들의 예물을 제단 앞에 바치자,
- 1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루에 수장 한 사람씩 제단 봉헌을 위한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 12 첫째 날에 예물을 바친 이는 유다 지파 소속 암미나답의 아들 나흐손이었다.
- 13 그의 예물은 성소 세겔로 백삼십 세겔 나가는 은 대접 하나와 일흔 세겔 나가는 은 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 14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열 세겔 나가는 금 접시 하나,
- 15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 일 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
- 16 속죄 제물로 바칠 숫염소 한 마리,
- 17 친교 제물로 바칠 소 두 마리, 숫양 다섯 마리, 숫염소 다섯 마리, 일 년 된 어린 숫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흐손이 바친 예물이었다.
- 18 둘째 날에는 이사카르의 수장, 추아르의 아들 느탄엘이 예물을 바쳤다.
- 19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겔로 백삼십 세겔 나가는 은 대접 하나와 일흔 세겔 나가는 은 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 20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열 세겔 나가는 금 접시 하나,
- 21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 일 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
- 22 속죄 제물로 바칠 숫염소 한 마리,
- 23 친교 제물로 바칠 소 두 마리, 숫양 다섯 마리, 숫염소 다섯 마리, 일 년 된 어린 숫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추아르의 아들 느탄엘이 바친 예물이었다.
- 24 셋째 날에는 즈블론 자손들의 수장,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 바쳤다.
- 25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겔로 백삼십 세겔 나가는 은 대접 하나와 일흔 세겔 나가는 은 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 26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열 세겔 나가는 금 접시 하나,
- 27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 일 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
- 28 속죄 제물로 바칠 숫염소 한 마리,
- 29 친교 제물로 바칠 소 두 마리, 숫양 다섯 마리, 숫염소 다섯 마리, 일 년 된 어린 숫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헬론의 아들 엘

- 리압이 바친 예물이었다.
- 30 빗재 날에는 르우벤 자손들의 수장, 스테우르의 아들 엘리추르가 바쳤다.
- 31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백삼 십 세켈 나가는 은 대접 하나와 일흔 세켈 나가는 은 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 32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열 세켈 나가는 금 접시 하나,
- 33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 일 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
- 34 속죄 제물로 바칠 숫염소 한 마리,
- 35 친교 제물로 바칠 소 두 마리, 숫양 다섯 마리, 숫염소 다섯 마리, 일 년 된 어린 숫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스테우르의 아들 엘리추르가 바친 예물이었다.
- 36 다섯째 날에는 시메온 자손들의 수장, 추리사따이의 아들 슬루미엘이 바쳤다.
- 37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백삼 십 세켈 나가는 은 대접 하나와 일흔 세켈 나가는 은 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 38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열 세켈 나가는 금 접시 하나,
- 39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 일 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
- 40 속죄 제물로 바칠 숫염소 한 마리,
- 41 친교 제물로 바칠 소 두 마리, 숫양 다섯 마리, 숫염소 다섯 마리, 일 년 된 어린 숫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추리사따이의 아들 슬루미엘이 바친 예물이었다.
- 42 여섯째 날에는 가드 자손들의 수장, 드우엘의 아들 엘야삽이 바쳤다.
- 43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백삼 십 세켈 나가는 은 대접 하나와 일흔 세켈 나가는 은 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 44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열 세켈 나가는 금 접시 하나,
- 45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 일 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
- 46 속죄 제물로 바칠 숫염소 한 마리,
- 47 친교 제물로 바칠 소 두 마리, 숫양 다섯 마리, 숫염소 다섯 마리, 일 년 된 어린 숫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드우엘의 아들 엘야삽이 바친 예물이었다.
- 48 일곱째 날에는 에프리임 자손들의 수장,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가 바쳤다.
- 49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백삼 십 세켈 나가는 은 대접 하나와 일흔 세켈 나가는 은 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 50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열 세켈 나가는 금 접시 하나,
- 51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 일 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
- 52 속죄 제물로 바칠 숫염소 한 마리,
- 53 친교 제물로 바칠 소 두 마리, 숫양 다섯 마리, 숫염소 다섯 마리, 일 년 된 어린 숫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가 바친 예물이었다.
- 54 여덟째 날에는 므나쎄 자손들의 수장, 프다추르의 아들 가블리엘이 바쳤다.
- 55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백삼 십 세켈 나가는 은 대접 하나와 일흔 세켈 나가는 은 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 56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열 세켈 나가는 금 접시 하나,
- 57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 일 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

- 58 속죄 제물로 바칠 숫염소 한 마리,
- 59 친교 제물로 바칠 소 두 마리, 숫양 다섯 마리, 숫염소 다섯 마리, 일 년 된 어린 숫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프다추르의 아들 가블리엘이 바친 예물이었다.
- 60 아홉째 날에는 벤야민 자손들의 수장,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바쳤다.
- 61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겔로 백삼십 세겔 나가는 은 대접 하나와 일흔 세겔 나가는 은 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 62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열 세겔 나가는 금 접시 하나,
- 63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 일 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
- 64 속죄 제물로 바칠 숫염소 한 마리,
- 65 친교 제물로 바칠 소 두 마리, 숫양 다섯 마리, 숫염소 다섯 마리, 일 년 된 어린 숫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바친 예물이었다.
- 66 열째 날에는 단 자손들의 수장, 암미사따이의 아들 아히에제르가 바쳤다.
- 67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겔로 백삼십 세겔 나가는 은 대접 하나와 일흔 세겔 나가는 은 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 68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열 세겔 나가는 금 접시 하나,
- 69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 일 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
- 70 속죄 제물로 바칠 숫염소 한 마리,
- 71 친교 제물로 바칠 소 두 마리, 숫양 다섯 마리, 숫염소 다섯 마리, 일 년 된 어린 숫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암미사따이의 아들 아히에제르가 바친 예물이었다.
- 72 열한째 날에는 아세르 자손들의 수장, 오크

- 란의 아들 파그이엘이 바쳤다.
- 73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겔로 백삼십 세겔 나가는 은 대접 하나와 일흔 세겔 나가는 은 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 74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열 세겔 나가는 금 접시 하나,
- 75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 일 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
- 76 속죄 제물로 바칠 숫염소 한 마리,
- 77 친교 제물로 바칠 소 두 마리, 숫양 다섯 마리, 숫염소 다섯 마리, 일 년 된 어린 숫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오크란의 아들 파그이엘이 바친 예물이었다.
- 78 열두째 날에는 납탈리 자손들의 수장, 예난의 아들 아히라가 바쳤다.
- 79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겔로 백삼십 세겔 나가는 은 대접 하나와 일흔 세겔 나가는 은 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 80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열 세겔 나가는 금 접시 하나,
- 81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 일 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
- 82 속죄 제물로 바칠 숫염소 한 마리,
- 83 친교 제물로 바칠 소 두 마리, 숫양 다섯 마리, 숫염소 다섯 마리, 일 년 된 어린 숫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예난의 아들 아히라가 바친 예물이었다.
- 84 이것이 제단에 기름을 붓던 날에 이스라엘의 수장들이 바친 제단 봉헌 예물이다. 곧 은 대접이 열둘, 은 쟁반이 열둘, 금 접시가 열둘이었다.
- 85 은 대접 하나의 무게가 백삼십 세겔이고, 쟁반 하나의 무게가 일흔 세겔이었으므로, 그릇에 쓰인 은은 성소 세겔로 모두 이천

사백 세켈이었다.

- 86 향을 가득 담은 금 접시는 열둘이었는데, 하나가 성소 세켈로 열 세켈이었으므로, 접시에 쓰인 금은 모두 백이십 세켈이었다.
- 87 번제물로 바친 짐승을 합하면, 황소가 열두 마리, 숫양이 열두 마리, 일 년 된 어린 숫양이 열두 마리였고, 또 그것들에 딸린 곡식 제물이 있었다. 숫염소 열두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쳤다.
- 88 친교 제물로 바친 짐승을 합하면, 황소가 스물네 마리, 숫양이 예순 마리, 숫염소가 예순 마리, 일 년 된 어린 숫양이 예순 마리였다. 이것이 제단에 기름을 부은 뒤에 바친 제단 봉헌 예물이었다.
- 89 모세는 주님과 말씀을 나누려고 만남의 천막 안으로 들어가면, 두 커튼 사이에 있는 증인 궤에 놓인 속죄판 위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곤 하였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이르셨다.

등잔을 차려 놓는 방식

8

1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2 "너는 아론에게 일러라.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네가 등잔들을 차려 놓을 때, 등잔 일곱 개가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하여라.'"
- 3 아론은 그대로 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등잔들이 등잔대 앞을 비추도록 차려 놓았다.
- 4 등잔대를 만드는 방식은 이러하였다. 금을 두드려서 만드는데, 밀반침에서 꽃잎까지 두드려서 만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보여 주신 본보기대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레위인들의 봉헌식

- 5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6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 7 그들을 정결하게 할 때에 이렇게 하여라. 그들에게 속죄의 물을 뿌린 다음, 온몸을 면도칼로 밀고 옷을 빨아 입게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정결하게 된다.
- 8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황소 한 마리와, 그것에 곁들어 바칠 곡식 제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 가루를 가져오게 하고, 너는 속죄 제물로 바칠 다른 황소 한 마리를 끌어 온다.
- 9 그리고 너는 레위인들을 만남의 천막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를 모은다.
- 10 네가 레위인들을 주님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레위인들에게 손을 얹는다.
- 11 그러면 아론은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올리는 예물로 주님 앞에 흔들어서 바친다. 그러면 그들은 주님을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 12 레위인들이 황소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나면, 너는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또 한 마리는 번제물로 주님에게 바쳐, 레위인들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여라.
- 13 너는 또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그들을 흔들어서 바치는 예물로 주님에게 올려라.
- 14 너는 이렇게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갈라 놓아, 그들이 나의 것이 되게 해야 한다.
- 15 이렇게 한 다음에야 레위인들은 만남의 천막에 들어가 일을 할 수 있다. 너는 그들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흔들어서 바치는 예물로 올려야 한다.
- 16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바쳐진 아들, 나에게 바쳐진 아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태를 맨 먼저 열고 나온 모든 만아들 대신에 그들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 17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나의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던 날, 나는 그들을 나의 것으로 성별하였다.
- 18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만아들 대신에 레위인들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 19 나는 나에게 바친 이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뽑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붙여 주었다. 이는 그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일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소에 다가올 때 제앙이 닳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 20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는 레위인들에게 그대로 하였다. 주님께서 레위인들에 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대로 다 하였다.
- 21 레위인들은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 입었다. 아론은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고, 그들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였다.
- 22 그런 다음 레위인들은 만남의 천막에 들어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밑에서 맡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주님께서 레위인에 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대로 다 하였다.

레위인들의 복무 기간

- 23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24 "이것이 레위인들에 관한 규정이다. 스물다섯 살 이상 되는 남자는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을 한다.
- 25 쉰 살부터는 복무를 마치고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
- 26 그들은 형제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에 그들의 시중을 들 수는 있어

도, 일을 맡아 하지는 못한다. 나는 레위인들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렇게 하여라."

두 번째 파스가 축제

- 9 ¹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 이듬해 첫째 달, 주님께서 사나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2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해진 때에 파스가 축제를 지내야 한다.
- 3 너희는 정해진 때, 곧 이달 열나흘날 저녁 어스름에 파스가 축제를 지내야 한다. 관련된 모든 규정과 법규에 따라 그것을 지내야 한다."
- 4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파스가 축제를 지내라고 일렀다.
- 5 그래서 그들은 사나이 광야에서 첫째 달 열나흘날 저녁 어스름에 파스가 축제를 지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 6 그런데 사람의 주검에 몸이 닿아 부정하게 되어, 그날에 파스가 축제를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날, 그들이 모세와 아론 앞으로 다기와
- 7 말하였다. "우리가 사람의 주검에 몸이 닿아 부정하게 되기는 하였지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우리만 떨어져서 정해진 때에 주님께 예물을 바치지 못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 8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가다려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들어 보아야겠다."
- 9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10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너희와 너희 후손들 가운데 누가 주검에 닿아 부정하게 되거나, 먼 길을 나선다 해도, 주님을 위한 파스가 축제를 지내야 한다.
- 11 이런 이들은 둘째 달 열나흘날 저녁 어스

- 름에 파스가 축제를 지내라.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을 곁들여 파스가 제물을 먹어라.
- 12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되고,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파스가 축제의 모든 규정에 따라 그것을 지내야 한다.
- 13 그러나 정결한 사람이나 길을 나서지 않은 사람이 파스가 축제를 거르고 지내지 않으면, 그는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 나갈 것이다. 정해진 때에 주님에게 예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 죄값을 지는 것이다.
- 14 너희와 함께 사는 이방인이 주님을 위한 파스가 축제를 지내고자 하면, 파스가 규정과 법규에 따라 지내야 한다.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너희에게 규정은 한 가지뿐이다."

광야 길을 인도하는 구름

- 15 성막을 세우던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언판을 모신 천막을 덮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지는 불 모양으로 성막 위에 자리 잡았다.
- 16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밤에는 그것이 불 모양으로 변하였다.
- 17 구름이 천막에서 올라갈 때마다, 그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을 떠나고, 구름이 내려앉은 곳에 진을 쳤다.
- 18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 길을 떠나고, 주님의 분부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내려앉은 동안 내내 그들은 진을 치고 살았다.
- 19 구름이 성막 위에서 맑은 날을 지체할 때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의 명령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 20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도 그들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 진을 치고, 주님의 분부에 따라 길을 떠났다.
- 21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도 아침에 구름이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루 밤낮을 머무를 때에도, 구름이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 22 이들이든 한 달이든 또는 그 이상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내려앉아 지체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구름이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 23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 진을 치고, 주님의 분부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분부에 따라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나팔 신호

- 10 ¹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² "너는 은 나팔을 두 개 만들어라. 은을 두드려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공동체를 불러 모으거나 진영을 출발시킬 때에 그것을 쟤라.
- 3 두 개를 같이 불면, 온 공동체가 만남의 천막 어귀로 너에게 모여 오고,
- 4 하나만 불면, 수장들 곧 이스라엘 부족의 우두머리들이 너에게 모여 오게 하여라.
- 5 너희가 비상 나팔을 불면 동쪽에 진을 친 진영들이 출발하고,
- 6 두 번째 비상 나팔을 불면 남쪽에 진을 친 진영들이 출발한다. 출발할 때마다 이렇게 비상 나팔을 불게 하여라.
- 7 집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냥 나팔을 불고 비상 나팔을 불지 않는다.
- 8 사제들이든 이단의 자손들만 나팔을 불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 9 너희 땅에서 너희에게 맞서는 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는 비상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주 너희 하느님이 너희를 기억하여,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 줄 것이다.

10 또 너희의 잔칫날과 축일과 매달 초하룻날에, 너희는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올리면서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하느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 다."

사나이 광야를 떠나

11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증언관을 모신 성막에서 구름이 올라갔다.
 12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나이 광야를 떠나 차츰차츰 자리를 옮겨 갔다. 그 뒤에 구름은 파란 광야에 이르러 내려앉았다.
 13 그들이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분부에 따라 길을 떠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14 맨 먼저 유다 자손들의 진영이 깃발을 앞세우고 부대별로 출발하였는데, 전 부대의 책임자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흐손이었다.
 15 이사카르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추아르의 아들 느탄엘이었고,
 16 즈블론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아이였다.
 17 이어서 성막을 걷자, 게르손의 자손들과 므라리의 자손들이 그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다.
 18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이 깃발을 앞세우고 부대별로 출발하였는데, 전 부대의 책임자는 스테우르의 아들 엘리추르였다.
 19 시메온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추리사파이의 아들 슬루미엘이었고,
 20 가드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드우엘의 아들 엘야삽이었다.
 21 다음으로 성소의 짐기들을 나르는 크핫인들이 출발하였다.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성막은 미리 세워 놓아야 했다.
 22 다음으로 에프라임 자손들의 진영이 깃발을 앞세우고 부대별로 출발하였는데, 전 부대의 책임자는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

였다.
 23 므나세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프다추르의 아들 가블리엘이었고,
 24 베냐민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였다.
 25 다음으로 앞의 진영들을 뒤에서 지키는 단 자손들의 진영이 깃발을 앞세우고 부대별로 출발하였는데, 전 부대의 책임자는 암미사짜이의 아들 아히에제르였다.
 26 아세르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오크란의 아들 파고이엘이었고,
 27 납탈리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예난의 아들 아히라였다.
 28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대별 행진 순서였다. 그들은 이렇게 길을 떠났다.

광야의 길잡이

29 모세가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밤에게 청하였다. 그는 모세의 장인이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우리와 함께 가지지요. 잘 모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30 호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가지 않겠네. 내 고향, 내 친족들에게로 돌아가야겠네."
 31 그러자 모세가 다시 말하였다.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 광야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장인께서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십시오."
 32 우리와 함께 가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 장인께 베풀어 드리겠습니다."

행진의 시작

33 그들은 주님의 산을 떠나 사흘 길을 갔다. 그들이 쉴 곳을 찾으려고 주님의 계약 껍데가 그들 앞에 서서 사흘 길을 갔다.
 34 그들이 진영을 떠나면 주님의 구름이 낮

동안 그들 위를 덮어 주었다.

- 35 궤가 떠날 때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일어나소서. 당신의 원수들은 흩어지고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은 당신 앞에서 도망치게 하소서."
- 36 그리고 궤가 멈추어 설 때면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돌아오소서, 이스라엘의 수만 군중에게로!"

광야에서 백성이 불평하다

- 11 ¹ 백성이 주님의 귀에 거슬리는 불평을 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진노하셨다. 그러자 주님의 불이 그들을 거슬러 타올라 진영 언저리를 삼켜 버렸다.
- 2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그리하여 모세가 주님께 기도하자 불이 꺼졌다.
- 3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타브레라라고 하였다. 주님의 불이 그들을 거슬러 타올랐기 때문이다.
- 4 그들 가운데에 섞여 있던 어중이떠중이들이 탐욕을 부리자, 이스라엘 자손들까지 또 다시 울며 말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 줄까?"
- 5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공짜로 먹던 생선이며,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나는구나.
- 6 이제 우리 기운은 떨어지는데, 보이는 것이 이 만나뿐, 아무것도 없구나."
- 7 만나는 고수 씨앗과 비슷하고 그 빛깔은 브델리움 같았다.
- 8 백성은 돌아다니며 그것을 거두어서, 뿔뿔에 갈거나 절구에 빻아 냄비에다 구워 과자를 만들었다. 그 맛은 기름 과자 맛과 같았다.
- 9 밤에 이슬이 진영 위로 내리면, 만나도 함께 내리곤 하였다.
- 10 모세는 백성이 씨족끼리 저마다 제 천막 어귀에 앉아 우는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서 대대히 진노하셨다. 모세에게도 그것이

언짢았다.

- 11 그래서 모세가 주님께 여쭙었다. "어찌하여 당신의 이 종을 괴롭히십니까? 어찌하여 제가 당신의 눈 밖에 나서, 이 온 백성을 저에게 짐으로 지우십니까?"
- 12 제가 이 온 백성을 배기라도 하였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하였습니까? 그런데 어찌서 당신께서는 그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유모가 젖먹이를 안고 가듯, 그들을 제 품에 안고 가라 하십니까?"
- 13 백성은 울면서 '먹을 고기를 우리에게 주시오.' 하지만, 이 온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었습니까?"
- 14 저 혼자서는 이 온 백성을 안고 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 15 저에게 이렇게 하셔야했다면, 제발 저를 죽여 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눈에 든다면, 제가 이 불행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 16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백성의 원로이며 관리라고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원로들 가운데에서 나를 위해 일흔 명을 불러 모아라. 그들을 데리고 만민의 천막으로 와서 함께 서 있어라."
- 17 내가 내려가 그곳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있는 영을 조금 덜어 내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이 백성을 너와 함께 짊어져서, 내가 혼자 지지 않아도 될 것이다.
- 18 너는 또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일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너희는 주님의 귀에다 대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 줄까?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참 좋았는데!' 하면서 울었다. 이제 주님이 너희에게 고기를 줄 터이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 19 너희가 하루만 먹는 것이 아니다. 이틀도 아니고 셋새도 아니며, 열흘도 아니고 스

무 날도 아니다.

- 20 한 달 내내, 너희 쿿구멍에서 그것이 나와 구역질이 날 때까지다. 너희 가운데에 있는 주님을 너희가 배척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어찌자고 이집트를 떠났단가?' 하면서 울었기 때문이다."
- 21 그러자 모세가 말하였다. "저를 둘러싼 백성은 길어서 행진하는 사람만 육십만 명입니다. 당신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한 달 내내 먹게 하겠다.' 하시지만,
- 22 양 떼와 소 떼를 다 잡는다 한들 그들에게 넉넉하겠습니까? 바다의 고기를 모조리 모아들인다 한들 그들에게 넉넉하겠습니까?"
- 23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주님의 손이 너무 짧기라도 하단 말이나? 이제 너는 내 말이 들어맞는지, 맞지 않는지 보게 될 것이다."

원로 일흔 명이 주님의 영을 빌다

- 24 모세는 밖으로 나와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그는 백성의 원로들 가운데에서 일흔 명을 불러 모아, 천막 주위에 둘러세웠다.
- 25 그때에 주님께서 구름 속에서 내려오시어 모세와 말씀하시고, 그에게 있는 영을 조금 떨어 내시어 그 일흔 명의 원로들에게 내려 주셨다. 그 영이 그들에게 내려 머무르자 그들이 예언하였다. 그러나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
- 26 그때에 두 사람이 진영에 남아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엘닷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메닷이었다. 그런데 명단에 들어 있으면서 천막으로 나가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도 영이 내려 머무르자, 그들이 진영에서 예언하였다.
- 27 한 소년이 달려와서,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고 모세에게 알렸다.

- 28 그러자 젊은 때부터 모세의 사종으로 일해 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저의 주인이신 모세님, 그들을 말리셔야 합니다."
- 29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를 생각하여 시기하는 것이냐? 차라리 주님의 온 백성이 예언자였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다."
- 30 모세와 이스라엘의 원로들은 진영으로 돌아왔다.

주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다

- 31 그때 주님께서 바람이 일어나,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진영을 돌아가며 진영 이쪽과 저쪽으로 하룻길 되는 너비로 떨어뜨려, 땅 위에 두 암마카랑 쌓이게 하였다.
- 32 그러자 백성은 일어나 그날 온종일 밤새도록, 그리고 이튿날도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거둔 사람이 열 호메르를 모았다. 그들은 그것들을 진영 둘레에 널어놓았다.
- 33 그런데 그들이 고기를 다 씹기도 전에, 주님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매우 큰 재앙으로 백성을 치셨다.
- 34 그래서 그곳 이름을 키브롯 타이와라고 하였다. 탐욕스러운 백성을 그곳에 묻었기 때문이다.
- 35 백성은 키브롯 타이와를 떠나 하체롯으로 향하였다. 그들은 하체롯에 머물렀다.

미르얌과 아론이 모세를 시기하다

- 12** ¹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미르얌과 아론은 모세가 아내로 맞아들인 그 에티오피아 여자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였다.
- 2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 3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은 매우 겸손하였다. 땅 위에 사는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하였다.
- 4 주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르얌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셋은 만민의 천막으로 나오니라." 그들 셋이 나오자,
- 5 주님께서 구름 기둥 속에 내려오시어 천막 어귀에 서시고, 아론과 미르얌을 부르셨다. 그 둘이 나와 서자
- 6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에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님이 환시 속에서 나 자신을 그에게 알리고 꿈속에서 그에게 말할 것이다.
- 7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안을 충실히 맡고 있는 사람이다.
- 8 나는 입과 입을 마주하여 그와 말하고 환시나 수수께끼로 말하지 않는다. 그는 주님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는냐?"
- 9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며 떠나가셨다.

미르얌이 벌을 받다

- 10 구름이 천막 위에서 물러가자, 미르얌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몸을 돌려 미르얌을 보자, 과연 그 여자는 악성 피부병에 걸려 있었다.
- 11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아, 나의 주인님,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하여 저지른 죄의 값을 우리에게 지우지 마십시오.
- 12 미르얌을, 살이 반은 멩그러진 채 모태에서 죽어 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놓아두지 말아 주십시오."
- 13 그러자 모세가 주님께 "하느님, 제발 미르

얌을 고쳐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 14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르얌의 얼굴에 그의 아버지가 침을 뱉었다면, 그 여자가 이제 동안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 그를 이제 동안 진영 밖에 격리하였다가, 그 뒤에 돌아오게 하여라."
- 15 미르얌은 이제 동안 진영 밖에 격리되었다. 백성은 미르얌이 돌아올 때까지 남아 있었다.
- 16 그 뒤에 백성은 하세롯을 떠나 파란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정찰대를 가나안으로 보내다

- 13 ¹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²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찰하게 하여라. 각 지파에서 모두 수장을 한 사람씩 보내야 한다."
- 3 모세는 주님의 분부에 따라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들의 우두머리였다.
- 4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자쿠르의 아들 삼무아
- 5 시메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랏
- 6 유다 지파에서는 여룬네의 아들 갈렘
- 7 이사카르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그알
- 8 에프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 9 벤야민 지파에서는 라푸의 아들 팔티
- 10 즈블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가뎀엘
- 11 요셉 지파와 므나쎄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가뎀
- 12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임미엘
- 13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들
- 14 납탈리 지파에서는 읍시의 아들 나흐비
- 15 가드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였다.
- 16 이것이 모세가 그 땅을 정찰하라고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

- 세이에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주었다.
- 17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찰하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말하였다. "저기 네겝 지방에도 올라가 보고, 산악 지방에도 올라가 보아라.
- 18 그 땅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그곳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 19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마을들이 천막으로 되어 있는지 요새로 되어 있는지,
- 20 그 땅이 기름진지 메마른지, 그곳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아라. 용기를 내어라. 그리고 그 땅의 과일을 가져오너라." 그때는 첫 포도가 익는 철이었다.
- 21 그들은 올라가서 친 광야에서 하맛 어귀 르홉까지 그 땅을 정찰하였다.
- 22 그들은 네겝으로 올라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아나의 후손인 아히만, 세사이, 탈미아가 살고 있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초안보다 칠 년 먼저 세워졌다.
- 23 그들은 에스콜 골짜기에 이르러, 포도송이 하나가 달린 가지를 잘라,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둘러메었다. 석류와 무화과도 따다.
- 24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곳에서 자른 포도송이 때문에, 그곳을 에스콜 골짜기라고 하였다.

정찰대의 보고

- 25 그들은 사십 일 만에 그 땅을 정찰하고 돌아왔다.
- 26 그들은 파란 광야 카데스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공동체에게 그 땅의 과일을 보여 주면서 보고하였다.
- 27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우리를 보내신 그 땅으로 가 보았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곳 과일입니다.

- 28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백성은 힘세고, 성읍들은 거창한 성채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곳에서 아나의 후손들도 보았습니다.
- 29 아말렉족은 네겝 땅에 살고, 히타이트족과 여부스족과 아모리족은 산악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족은 바닷가와 요르단 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 30 칼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말하였다. "어서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 31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우리는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하면서,
- 32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기들이 정찰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우리가 가로지르며 정찰한 그 땅은 주민들을 삼켜 버리는 땅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모두 키 큰 사람뿐이다.
- 33 우리는 또 그곳에서 나팔족을 보았다. 아나의 자손들은 바로 이 나팔족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 눈에도 우리 자신이 매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랬을 것이다."

백성이 반란을 일으킨다

- 14 ¹ 온 공동체가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 2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거렸다. 온 공동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이 광야에서라도 죽어 버렸으면!
- 3 주님께서는 어찌자고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오셔서, 우리는 칼에 맞아 쓰러지고, 우리 아내와 어린것들은 노획물이 되게 하시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 4 그러면서 서로 "우두머리를 하나 세워 이집

- 트로 돌아가자." 하고 말하였다.
- 5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의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 6 그러자 그 땅을 정찰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푼네의 아들 칼렘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나서,
- 7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가로지르며 정찰한 저 땅은 정말 무척이나 좋은 땅입니다.
- 8 우리가 주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저 땅으로 데려가셔서 그곳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 9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저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제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을 덮어 주던 그들은 이미 건져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다

- 10 그러자 온 공동체가 돌을 던져 그들을 죽이려고 말해 댔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만민의 천막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
- 1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은 언제까지 나를 업신여길 것인가?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일으킨 그 모든 표징을 보고도, 이자들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것인가?"
- 12 내가 이제 이들을 흑사병으로 치고 쫓아내 버린 다음,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겠다."
- 13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당신께서 이 백성을 당신의 힘으로 이집트 한가운데에서 데리고 올라오셨는데, 이집트인들이 이 일을 듣게 되면,

- 14 그들은 그것을 저 땅의 주민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이 백성 한가운데에 계시다는 말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당신께서는 눈과 눈을 마주하여 이 백성에게 나타나 보여 주시고, 당신의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무르며,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밤에는 불기둥 속에서 몸소 그들 앞에 서서 가신다는 말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 15 그런데 이제 당신께서 이 백성을 사рам 하나 죽이듯 죽여 버리시면,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들은 민족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 16 '주님은 저 백성에게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몰살시켜 버렸다.'
- 17 그러니 주님,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발 당신의 힘을 크게 펼치시기 바랍니다.
- 18 '주님은 분노에 더디고 자애가 충만하며 죄악과 악행을 용서한다. 그러나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고 조상들의 죄악을 아들을 거쳐 삼 대 사 대까지 벌한다.' 하셨으니,
- 19 이집트에서 여기에 올 때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셨듯이, 이제 당신의 그 크신 자애에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용사와 벌

- 20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의 말대로 내가 용서해 주마.
- 21 그러나 내가 살아 있는 한, 주님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 22 나의 영광, 그리고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일으킨 표징들을 보고도, 이렇게 열 번 씩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 23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업신여긴 자들은 모두

-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 24 그러나 나의 종 칼렘은 다른 영을 지나 나를 온전히 떠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땅으로 그를 데려가고,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 25 이제, 아말렉족과 가나안족이 골짜기에 살고 있으니, 너희는 내일 발길을 돌려 갈대 바다 쪽 광야로 떠나라."
- 26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 27 "이 악한 공동체가 언제까지 나에게 투덜 거릴 것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에게 투덜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다.
- 28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의 말이다. 내가 살아 있는 한, 너희가 내 귀에 대고 한 말에 따라,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그대로 해 주겠다.
- 29 바로 이 광야에서 너희는 사체가 되어 쓰러질 것이다. 너희 가운데 스무 살 이상이 되어, 있는 대로 모두 사멸을 받은 자들, 곧 나에게 투덜댄 자들은 모두,
- 30 여푼네의 아들 칼렘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빼고,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 31 노획물이 되리라고 너희가 말한 너희의 어린것들만 내가 데려가서, 너희가 업신여긴 저 땅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게 하겠다.
- 32 그러나 너희는 사체가 되어 이 광야에서 쓰러질 것이다.
- 33 그리고 너희의 자식들은, 너희가 모두 주검으로 이 광야에 누울 때까지, 너희가 배신한 값을 지고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칠 것이다.
- 34 너희가 저 땅을 정찰한 사십 일, 그 날수대로, 하루를 일 년으로 쳐서, 너희는 사십 년 동안 그 죄값을 져야 한다. 그제야 너희는 나를 멀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 35 나 주님이 말한다. 나를 거슬러 모여든 이 악한 공동체 전체에게 나는 기어이 이렇게 하고야 말겠다. 바로 이 광야에서 그들은 최후를 맞을 것이다. 이곳에서 그들은 죽을 것이다."
- 36 모세가 그 땅을 정찰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와,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리며 온 공동체를 부추겨, 모세에게 투덜거리게 하였다.
- 37 그러자 그 땅에 대하여 몹시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재앙을 당하여 죽었다.
- 38 그 땅을 정찰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푼네의 아들 칼렘만이 살아남았다.

백성이 만용을 부다

- 39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전하자, 백성은 크게 슬퍼하였다.
- 40 다음 날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자, 우리가 잘못하였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곳으로 올라가자." 하면서, 산악 지방의 고지대로 올라갔다.
- 41 그러나 모세는 말하였다. "너희는 어찌하고 주님의 분부를 거스르느냐? 이 일은 성공하지 못한다.
- 42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에 계시지 않으니, 너희가 적에게 패배하지 않으려거든 올라가지 마라.
- 43 아말렉족과 가나안족이 그곳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터이니, 너희는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너희가 주님 뒤를 따르지 않고 돌아선 탓으로,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 44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계약 궤와 모세가 진영을 떠나지 않았는데도, 만용을 부려 산악 지방의 고지대로 올라갔다.
- 45 그러자 그 산악 지방에 사는 아말렉족과

가나안족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쫓아 버렸다.

어린 제물과 겉돌이는 곡식 제물과 제주

- 15** ¹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²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될 땅에 들어가, **3** 소 떼나 양 떼 가운데에서 짐승을 골라 주님을 위한 향기로 바치려고,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 서원을 채우는 제물이나 자원으로 올리는 제물, 또는 너희 축일 때에 올리는 제물을 화제물로 바치게 되면, **4** 주님에게 예물을 올리는 이는 고운 곡식 가루 십분의 일 에파에 기름 삼분의 일 힌을 섞은 것을 곡식 제물로 올려야 한다. **5** 너희는 또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을 바칠 때, 어린 양 한 마리에 포도주 삼분의 일 힌을 제주로 바쳐야 한다. **6** 숫양 한 마리에는 고운 곡식 가루 십분의 일 에파에 기름 삼분의 일 힌을 섞은 곡식 제물을 바쳐야 한다. **7** 거기에서 주님을 위한 향기로, 포도주 삼분의 일 힌을 제주로 올려야 한다. **8** 서원을 채우려고, 또는 주님에게 친교 제물로 봉헌하려고, 수소를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로 바칠 때에는, **9** 그 수소에 곁들여, 고운 곡식 가루 십분의 삼 에파에 기름 반 힌을 섞은 곡식 제물을 올려야 한다. **10** 거기에서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로 포도주 반 힌을 제주로 올려야 한다. **11** 소 한 마리나 숫양 한 마리, 어린 숫양이나 염소 한 마리마다 이렇게 해야 한다. **12** 너희가 바치는 제물 수에 따라, 하나하나 그 수에 따라 이렇게 해야 한다. **13** 본토인으로서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을 올리려면 누구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

- 14** 또 너희 곁에 머무르거나 대대로 너희 가운데에 사는 이방인도,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을 바치려면, 너희가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15 회중에게는, 너희에게나 함께 머무르는 이방인에게나 규정은 한 가지뿐이다.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너희나 이방인이나 주님 앞에서는 마찬가지로이다.
16 너희나 너희 곁에 머무르는 이방인에게나 한 가지 법, 한 가지 법규가 있을 따름이다."

첫 반죽 봉헌물

- 17**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18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데려가는 저 땅에 들어가서 **19** 그 땅의 빵을 먹게 되면, 그 가운데 얼마를 주님에게 봉헌물로 바쳐야 한다. **20** 너희가 처음 반죽한 것으로 만든 빵 하나를 봉헌물로 바쳐야 한다. 그것을 타작마당 봉헌물처럼 바쳐야 한다. **21** 너희는 대대로 처음 반죽한 것에서 얼마를 주님에게 봉헌물로 올려야 한다.'

실수로 지은 죄를 뱃는 제물

- 22** '너희가 실수하여, 주님이 모세에게 말한 이 계명들 가운데 어느 것이든 실행하지 않을 경우,
23 곧 주님이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것들 가운데 무엇이든, 주님이 그것을 명령한 날부터 너희 대대에 이르기까지 실행하지 않을 경우,
24 만일 공동체의 눈에 띄지 않은 채 실수로 저지른 것이면, 온 공동체가 법규에 따라 곡식 제물과 제주를 곁들여, 황소 한 마리를 번제물 곧 주님을 위한 향기로,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 25 이렇게 사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들은 용서를 받는다. 그것은 실수로 저질러진 것이며, 그들이 예물 곧 주님을 위한 화제물과 자기들의 실수를 보상하기 위한 속죄 제물을 주님 앞에 가져왔기 때문이다.
- 26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와 그들 가운데에 머무르는 이방인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다. 실수로 저지른 죄가 온 백성의 죄이기 때문이다.
- 27 한 개인이 실수로 죄를 지으면, 일 년 된 임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 28 이것으로 사제는 실수로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을 위하여 주님 앞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이렇게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 29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본토인이든 너희 가운데에 머무르는 이방인이든, 너희에게는 실수로 행동한 사람에게 관한 법이 한 가지뿐이다.
- 30 그러나 본토인이든 이방인이든 일부러 그렇게 행동한 자는 주님을 모독한 자이므로, 그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잘려 나가야 한다.
- 31 그는 주님의 말을 무시하고 주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런 자는 반드시 잘려나가고 자기 죄값을 져야 한다."

안식일을 어긴 자에 대한 벌

- 32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에 나무를 줍는 사람을 보게 되었다.
- 33 나무를 줍는 그 사람을 본 이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공동체에게 데리고 갔다.
- 34 그들은 그를 가두어 두었다.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된 것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 35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사형을 받아야 한다. 온 공동체가 진영 밖에서 그에게 돌을 던져야 한다."

- 36 그래서 온 공동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다가 돌을 던져 죽였다.

웃자락에 다는 술

- 37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38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이게 말하여, 대대로 웃자락에 술을 만들고 그 웃자락 술에 자주색 끈을 달게 하여라.
- 39 그리하여 너희가 그것을 볼 때마다, 주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실천하고, 너희 마음이나 눈이 풀리는 것, 곧 너희를 배신으로 이끄는 것에 끌리지 않도록 하는 술이 되게 하여라.
- 40 그래서 너희는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실천하여, 너희 하느님에게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라.
- 41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주 너희 하느님이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코라와 다탄과 아비람의 반역

- 16 ¹ 이즈하르의 아들이고 크핫의 손자이며 레위의 증손인 코라가, 르우벤의 자손들인 엘리압의 아들 다탄과 아비람, 그리고 펠렛의 아들 온과 함께 뻔뻔스럽게 행동하였다.
- 2 이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이백 오십 명과 함께 모세에게 맞서 일어났다. 이들은 집회에서 뽑힌 공동체의 수장들로서 이름난 사람들이었다.
- 3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물려와서 말하였다. "당신들은 너무하오. 온 공동체가 다 거룩하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 4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었드렸다.
- 5 그리고 나서 코라와 그의 온 무리에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는 누가 당신의 사람이고, 누가 거룩하며, 누가 당신께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알려 주실 것이다. 당신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당신께 가까이 오게 하실 것이다.
- 6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코라와 그의 무리는 모두 향로를 가지고 오나라.
- 7 내일 주님 앞에서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라. 그때에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다. 레위의 자손들이라, 너희야말로 너무하구나."
- 8 모세가 코라에게 말하였다. "레위의 자손들이라, 제발 들어 보아라.
- 9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너희를 이스라엘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가려내셔서, 당신께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 성막의 일을 맡기시고, 공동체 앞에 서서 그들을 보살피게 하셨는데, 그것으로는 모자란다는 말이나?
- 10 그분께서는 너를, 그리고 너의 형제 레위인들을 모두 너와 함께 당신께 가까이 올 수 있게 해 주셨다. 그런데 이제 사제직마저 요구하는구나.
- 11 너와 너의 무리는 바로 주님을 거슬러 모여든 것이다. 아론이 누구인데 너희가 그에게 투덜댄다는 말이나?"
- 12 모세는 엘리압의 아들 다탄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소.
- 13 우리를 찢과 풀이 흐르는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만으로는 모자라서, 이제 우리 위에서 아주 군주 노릇까지 하려 드시오?
- 14 더군다나 당신은 우리를 찢과 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지 못하였소. 그리고 밭과 포도원을 우리 소유로 주지도 못하였소. 당신

은 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할 셈이오?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소."

- 15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주님께 아뢰었다. "저들이 바치는 제물에는 눈도 돌리지 마십시오. 저는 저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 가져오지 않았고, 저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 16 모세가 코라에게 말하였다. "너와 너의 무리는 모두 내일 주님 앞으로 나오너라. 너와 그들, 그리고 아론이다.
- 17 저마다 자기 향로를 들고 거기에 향을 담아, 주님 앞으로 가져와야 한다. 저마다 자기 향로를 가져오면, 향로가 이백오십 개가 될 것이다. 너와 아론도 저마다 제 향로를 가져와야 한다."
- 18 그리하여 그들은 저마다 향로를 들어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운 다음, 모세와 아론과 함께 만남의 천막 어귀에 섰다.
- 19 코라는 그 두 사람에게 맞서 온 공동체를 만남의 천막 어귀로 모이게 하였다. 그러자 주님의 영광이 온 공동체에게 나타났다.
- 20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 21 "너희는 이 공동체에게서 떨어져 서라. 내가 그들을 한순간에 없애 버리겠다."
- 22 그러자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었드려 말하였다. "하느님, 모든 육체에 영을 주시는 하느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온 공동체에게 격분하십니까?"
- 23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24 "너는 이 공동체에게 코라와 다탄과 아비람의 거처 주변에서 물러서라고 일러라."
- 25 모세가 일어나 다탄과 아비람에게 가자, 이스라엘의 원로들도 그 뒤를 따라갔다.
- 26 모세가 공동체에게 일렀다. "너희는 이 악인들의 천막을 떠나라. 그들에게 떨린 것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라. 그랬다가는 그들의 모든 죄 때문에 너희도 같이 휘말려 죽을 것이다."

- 27 그러자 공동체는 코리와 다단과 아비람의 거처 주변에서 물러섰다. 다단과 아비람은 밖으로 나와,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어린 것들과 함께 자기들의 천막 어귀에 섰다.
- 28 그때에 모세가 말하였다. "너희는 이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하게 하신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 29 이자들이 여느 사람처럼 죽는다면, 또는 이들에게 닥칠 운명이 여느 사람의 운명과 같다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 30 그러나 주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시어, 땅바닥이 입을 열어젖히고 이들과 이들에게 떨어진 모든 것을 집어삼켜서, 이자들이 산 채로 저승에 내려가게 되면, 그때에 너희는 이 사람들이 과연 주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31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 발밑의 땅바닥이 갈라졌다.
- 32 땅은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 집안, 그리고 코리아에게 떨어진 모든 사람과 모든 재산을 삼켜 버렸다.
- 33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에게 떨어진 사람들과 함께 산 채로 저승에 내려가고, 땅은 그들을 덮어 버렸다. 이렇게 그들은 공동체 가운데에서 사라졌다.
- 34 그들의 비명 소리에 주위에 있던 이스라엘 인들은 모두, "땅이 우리마저 삼킬지 모른다!" 하며 도망쳤다.
- 35 그러자 주님께서 불이 나와, 향을 바치던 이백오십 명을 삼켜 버렸다.

발발아 죽은 이들의 향로로 제단을 씌우다

17 ¹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² "너는 아론 사제의 아들 엘아자르에게 말하여 불탄 자리에서 향로들을 모으게 하고, 불은 멀리 흩어 버려라. 그것들은 거

- 룩하게 되었다.
- 3 죄를 지어 목숨을 잃은 이 사람들의 향로는 주님 앞에 가져왔던 것으로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이니, 두드려 펴서 제단을 씌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표징이 되게 하여라."
- 4 엘아자르 사제는 타 죽은 이들이 주님 앞에 가져왔던 청동 향로들을 거두어, 두드려 펴서 제단에 씌웠다.
- 5 그리하여 그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대로, 아론의 후손이 아닌 속인이 주님 앞에 향을 피우려 다가갈 수 없고, 그렇게 하였던다는 코리와 그 무리처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되었다.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다

- 6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모세와 아론에게, "당신들은 주님의 백성을 죽였소." 하며 투덜거렸다.
- 7 공동체가 모세와 아론에게 물려오자, 둘은 만민의 천막을 향하여 돌아섰다. 그 때에 구름이 천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 8 모세와 아론이 만민의 천막 앞으로 가서,
 9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10 "너희는 이 공동체에게서 물러서라. 내가 그들을 순순간에 없애 버리겠다." 그러자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 11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불을 담고 향을 피워, 어서 공동체에게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격분이 터져 나와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 12 아론은 모세가 말한 대로 향로를 들고 공동체 가운데로 뛰어갔다. 백성 사이에서는 이미 재앙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향을 넣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였다.

- 13 그가 죽은 이들과 산 이들 사이에 서자, 재 난이 그쳤다.
- 14 이 재난으로 죽은 이가 만 사천칠백 명이 나 되었다. 이는 코라의 일로 죽은 이들은 뻔 것이다.
- 15 재난이 그치자, 아론은 만민의 천막 어귀로 모세에게 돌아왔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돋다

- 16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17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집안마다 지팡이 하나씩, 곧 각 집안의 수장에게서 지팡이 하나씩 열두 개를 거둔 다음, 수장의 이름을 각기 그의 지팡이에 새겨라.
- 18 그리고 아론의 이름을 레위 집안의 지팡이에 써라. 각 집안의 우두머리마다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19 너는 그것을 만민의 천막 안, 내가 너희와 만나는 증언판 앞에 놓아라.
- 20 내가 선택하는 바로 그 사람의 지팡이에서 싹이 돋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에게 투덜거리는 것을 멈추게 하겠다."
- 21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을 전하자, 이스라엘의 모든 수장이 각자 집안마다 지팡이 하나씩, 모두 열두 개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내놓았다. 아론의 지팡이도 그 지팡이들 가운데에 있었다.
- 22 모세는 증언판을 모신 천막 안 주님 앞에 그 지팡이들을 놓았다.
- 23 이튿날 모세가 증언판을 모신 천막에 들어가 보니, 레위 집안을 대표한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 있는 것이었다.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원도 열매가 이미 익어 있었다.
- 24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모두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내오자, 그들은 저마다 자기 지팡이를 찾아 들었다.
- 25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

팡이는 증언판 앞으로 도로 가져다 놓아, 반역자들에게 표징이 되도록 보존하여라. 그렇게 해서 너는 그들이 나에게 그만 투덜거려, 그런 일로 죽는 일이 없게 하여라."

- 26 모세는 그렇게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 27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 28 가까이 가는 이, 주님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이는 누구나 죽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모조리 죽어 가야 한단 말입니까?"

사제와 레위인의 직무

- 18 ¹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를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집안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너희의 사제직을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네 아들들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 2 너는 네 아버지 지파인 레위 지파에 속한 형제들도 데려오너라. 그리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언판을 모신 천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네 곁에 있으면서 시중을 들게 하여라.
- 3 그들은 너를 위한 임무와 천막 전체를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성소의 기물들이나 제단에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였다가는 그들뿐 아니라 너희도 죽을 것이다.
- 4 그들은 네 곁에 있으면서, 만민의 천막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일과 관련하여 그곳에서 맡은 임무를 수행한다. 속인은 너희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 5 너희는 성소를 위한 임무와 제단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격분이 내리지 않게 하여라.
- 6 이제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들을 가려낸다. 그들은 만남

의 천막 일을 하도록 너희에게 내린 선물이며, 주님에게 바쳐진 이들이다.

7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과 관련하여 사제직을 수행하고, 그곳에서 일을 해야 한다. 나는 너희의 사제직을 선물로 준다. 가까이 오는 속인은 죽게 될 것이다."

사제의 몫

8 주님께서 아론에게 이르셨다. "자,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바치는 예물들의 관리를 너에게 맡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치는 모든 거룩한 예물 가운데에서 한 부분을 영원한 규정에 따라 너와 네 아들들의 몫으로 준다.

9 불에 사르지 않는 가장 거룩한 것 가운데에서 이것들이 너의 차지라 될 것이다. 곧 그들이 나에게 되돌려 주는 모든 곡식 제물과 모든 속죄 제물과 모든 보상 제물 등 그들의 모든 예물이다. 이는 가장 거룩한 것으로서 너와 네 아들들의 것이다.

10 너는 그것을 가장 거룩한 것으로 알고 먹어야 한다.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너에게 거룩한 것이다.

11 또 이것들도 너의 차지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선물 가운데 들어 올려 바친 예물과 흔들어 바친 모든 예물을, 내가 영원한 규정에 따라, 너와 네 아들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너의 딸들에게 준다. 네 집안에 있는 사람으로 정결한 이는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12 가장 좋은 햇기름과 가장 좋은 햇포도주와 곡식, 곧 그들이 주님에게 바치는 만물을 모두 내가 너에게 준다.

13 그들의 땅에서 나는 모든 것 가운데에서 그들이 주님에게 가져오는 만물은 너의 것이 된다. 네 집안에 있는 사람으로 정결한 이는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14 이스라엘에서 바쳐지는 완전 봉헌물도 모두 너의 것이 된다.

15 사람이나 짐승이나 육체를 지닌 온갖 것들 가운데에서, 모태를 처음으로 열고 나와 주님에게 바쳐지는 것도 모두 너의 것이 된다. 그러나 사람의 만아들은 대속해야 한다. 부정함 짐승의 만배도 대속해야 한다.

16 한 달 된 것부터 대속하는데, 그 값은 스무 게라를 한 세켈로 하는 성소 세켈에 따라는 다섯 세켈로 정하여야.

17 그러나 소의 만배나 양의 만배나 염소의 만배는 대속하지 못한다. 그것들은 거룩한 것이다.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굳기름은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로 불에 살라 바쳐야 한다.

18 그러나 그 살코기는 흔들어 바친 가슴 부위와 오른쪽 넓적다리처럼 너의 것이 된다.

19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에게 들어 올려 바치는 거룩한 예물들은 모두, 영원한 규정에 따라, 내가 너와 너의 아들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너의 딸들에게 준다. 이는 너와 너의 후손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서 맺은 영원한 소금 계약이다."

20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에서 상속 재산을 가질 수 없다. 그들 사이에서 너에게 돌아갈 몫은 없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네가 받을 몫과 상속 재산은 바로 나다."

레위인의 몫

21 "레위의 자손들에게는, 만민의 천막에서 그들이 하는 일의 값으로, 이스라엘에서 나는 십일조 진부를 재산으로 준다.

22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만민의 천막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랬다가는 그 죄값을 지고 죽을 것이다.

23 만민의 천막 일은 레위인들만 하고,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진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칙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서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한다.

24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에게 들어 올려 바치는 십일조를 내가 레위인들에게 재산으로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한다고 내가 말한 것이다."

레위인의 십일조

25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26 "너는 레위인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재산으로 주는 십일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받으면, 너희는 그 십일조에서 십일조를 떼어 주님에게 들어 올려 바치는 예물로 올려야 한다.

27 그것은 타작마당의 곡식과 술들의 포도주처럼, 너희가 들어 올려 바치는 예물로 썬해질 것이다.

28 그러므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받는 모든 십일조에서 그 일부를 주님에게 들어 올려 바쳐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주님에게 들어 올려 바치는 예물로 아론 사제에게 주어야 한다.

29 너희가 받는 모든 선물 가운데 일부를 주님에게 들어 올려 바치는 온전한 예물로 올려야 한다.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거룩한 예물로 올려야 한다.'

30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들어 올려 바치면, 나머지 레위인들을 위하여 타작마당의 소출과 술들의 소출로 썬해질 것이다.

31 그것은 너희와 너희 집안 사람들이 아무 곳에서나 먹을 수 있다. 그것은 만민의 천막에서 너희가 하는 일의 값으로 너희가 받는 보수이다.

32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들어 올려 바치

면, 너희는 그 일에 대한 짓값을 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치는 거룩한 예물을 더럽혀서 너희가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정화의 물

19 ¹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² "다음은 주님이 명령하는 법 규정이 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흠 없이 온전하고 아직 멩애를 매어 본 일이 없는 붉은 암소를 너에게 끌어 오게 하여라.

3 너희는 그것을 엘아자르 사제에게 주어라. 그런 다음에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고 가, 그의 앞에서 잡게 하여라.

4 엘아자르 사제는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만민의 천막 앞쪽으로 그 피를 일곱 번 뿌린다.

5 그 암소는 그가 보는 앞에서 불에 사른다. 가죽과 고기와 피를 내장에 든 것과 함께 불에 사른다.

6 사제는 향백나무와 우슬초와 다홍색 천을 가져다가, 암소를 사르는 불 가운데로 던진다.

7 그런 다음에 사제는 자기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는다. 그렇게 한 뒤에야 그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제는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8 그 암소를 불에 사른 이도 자기 옷을 물에 빨고, 몸을 물로 씻는다. 그는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9 그 뒤에 정결한 사람이 그 암소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깨끗한 곳에 가져다 놓는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공동체를 위한 정화의 물에 쓸 것이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이 암소는 속죄 제물이다.

10 암소의 재를 거두는 이는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너희 가운데에 머무르는 이

방인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 되어야 한다.

- 11 누구의 주검이든 그것에 몸이 닿는 이는 이레 동안 부정하다.
- 12 그가 사흘째 되는 날과 이레째 되는 날에 그 물로 자신을 정화하면 정결하게 된다. 그가 사흘째 되는 날과 이레째 되는 날에 자신을 정화하지 않으면 정결하게 되지 않는다.
- 13 누구든지 주검, 곧 죽은 사람의 몸에 닿은 이가 자신을 정화하지 않으면, 그는 주님의 성막을 부정하게 만든다. 그런 자는 이스라엘에서 잘려 나가야 한다. 정화의 물을 자기 몸에 뿌리지 않아, 그가 부정한 그대로이며 그의 부정이 여전히 그에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 14 사람이 천막 안에서 죽었을 경우와 관련된 법은 이러하다. 그 천막에 들어가는 이나 천막 안에 있던 이는 모두 이레 동안 부정하게 된다.
- 15 끈으로 맨 뚜껑 없이 위가 열린 그릇도 모두 부정하게 된다.
- 16 들에 있다가, 칼에 맞아 죽은 이나 저절로 죽은 이, 또는 사람의 뼈나 무덤에 몸이 닿는 이는 모두 이레 동안 부정하게 된다.
- 17 이렇게 부정하게 된 이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타고 남은 재를 얼마쯤 그릇에 담고 그 위에 생수를 붓는다.
- 18 그런 다음, 정결한 사람이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천막과 모든 기물과 그 안에 있던 이들에게 뿌린다. 뼈나 살해된 이나 저절로 죽은 이나 무덤에 몸이 닿은 이에게도 그렇게 한다.
- 19 정결한 이가 사흘째 되는 날과 이레째 되는 날에 부정한 이에게 그 물을 뿌려 준다. 이렇게 정결한 이가 이레째 되는 날에 부정한 이를 정화해 주면,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는다. 저녁때가 되면 그

는 정결하게 된다.

- 20 부정하게 된 사람이 자신을 정화하지 않으면, 그는 공동체에서 잘려 나가야 한다. 그가 주님의 성소를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화의 물을 자기 몸에 뿌리지 않아, 그는 부정하다.
- 21 이는 그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 되어야 한다. 정화의 물을 뿌린 이는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정화의 물에 몸이 닿는 이도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 22 부정한 이가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게 되고, 그것에 몸이 닿는 사람도 저녁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미르얌의 죽음

20 ¹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들, 곧 온 공동체는 친 광야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백성은 카데스에 자리를 잡았다. 그곳에서 미르얌이 죽어 거기에 묻혔다.

모세의 물

- 2 공동체에게 마실 물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물려갔다.
- 3 백성은 모세와 시비하면서 말하였다. "아, 우리 형제들이 주님 앞에서 죽을 때에도 죽었더라면!
- 4 어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공동체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 가족을 여기에서 죽게 하시오?"
- 5 어찌자고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 오게 하여 이 고약한 곳으로 데려왔소? 여기는 곡식도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자랄 곳이 못 되오. 마실 물도 없소."
- 6 모세와 아론은 공동체 앞을 떠나 만남의 천막 어귀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 다.
- 7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8 "너는 지팡이를 집어 들고, 너의 형 아론과 함께 공동체를 불러 모아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더러 물을 내라고 명령하여라. 이렇게 너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공동체와 그들의 가축이 마시게 하여라."
- 9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 앞에 있는 지팡이를 집어 들었다.
- 10 모세가 아론과 함께 공동체를 바위 앞에 불러 모은 다음,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반항자들아, 들어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가 마실 물을 나오게 해 주랴?"
- 11 그러고 나서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그 바위를 두 번 치자, 많은 물이 터져 나왔다. 공동체와 그들의 가축이 물을 마셨다.
- 12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공동체에게 주는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 13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과 시비한 므리바의 물이다. 주님께서서는 이 물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셨다.

애돔이 이스라엘의 통과 요청을 거절하다

- 14 모세는 카데스에서 애돔 임금에게 사자들을 보냈다. "임금님의 형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임금님께서서는 우리가 겪은 온갖 고초를 알고 계십니다.
- 15 일찍이 우리 조상들은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오랫동안 이집트에 살게 되었는데, 이집트인들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였습니다.
- 16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자, 그분께서는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시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

리하여 우리는 임금님의 영토 경계에 있는 성읍 카데스에 와 있습니다.

- 17 이제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을 지나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임금의 큰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를 다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 18 그러나 애돔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은 내 땅을 지나가지 못하고. 그랬다가는 내가 칼을 들고 당신을 치러 나갈 것이오."
- 19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에게 다시 부탁하였다. "우리는 길만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가축이 임금님의 물을 마시게 되면, 그 값을 드리겠습니다. 별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걸어서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
- 20 그러나 그는 "지나가지 못하고." 하고 대답하였다. 그런 다음에 애돔은 중무장한 큰 군대를 거느리고 그들을 치러 나왔다.
- 21 이렇게 애돔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거절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돔에게서 물러났다.

아론의 죽음

- 22 이스라엘 자손들, 곧 온 공동체는 카데스를 떠나 호르 산에 이르렀다.
- 23 주님께서 애돔 땅 경계 부근의 호르 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 24 "이제 아론은 선조들 곁으로 간다. 너희가 므리바의 샘에서 나의 분부를 거역하였으므로,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 25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아자르를 데리고 호르 산으로 올라가서,
- 26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아자르에게 입혀라. 아론은 선조들 곁으로 간다. 그는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 27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은 온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호르 산으로 올라갔다.
- 28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아자르에게 입혔다. 아론이 그곳 산꼭대기에서 죽자, 모세와 엘아자르는 산을 내려왔다.
- 29 그래서 아론이 숨진 것을 온 공동체가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온 집안은 아론의 죽음을 슬퍼하며 삼십 일 동안 곡을 하였다.

호르미를 잠정하다

- 21** ¹ 이스라엘이 아타림 길로 온다는 소식을 내궐에 사는 가나안 사람, 아랏 임금이 듣고 이스라엘에 맞서 싸워 그들 가운데 알미를 포로로 잡아갔다.
- 2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님께 서원하였다. "저 백성을 제 손에 넘겨주시면, 그들의 성읍들을 완전 봉헌물로 바치겠습니다."
- 3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족을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호르미라 하였다.

구리 뱀

- 4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 산을 떠나 갈대 바다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 길을 가는 동안에 백성은 마음이 조급해졌다.
- 5 그래서 백성은 하느님과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당신들은 어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오? 양식도 없고 물도 없소. 이 보잘것없는 양식은 이제 진저리가 나오."
- 6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에게 불 뱀들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백성을 물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

- 7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청하였다. "우리가 주님과 당신께 불평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을 우리에게서 치워 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 8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 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 9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 뱀을 만들어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그 사람이 구리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호르 신에서 모압까지

- 10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다.
- 11 다시 오봇을 떠나서는 모압 맞은편, 해 뜨는 쪽 광야에 있는 이에 아비람에 진을 쳤다.
- 12 그 뒤 그곳을 떠나 제렛 개천에 진을 쳤다가,
- 13 또 그곳을 떠나 아르논 강 건너편, 아모리인들의 영토에서 시작하는 광야에 진을 쳤다. 아르논 강은 모압과 아모리인들 사이에 있는 모압의 경계다.
- 14 그러므로 '주님의 전쟁기'에도 이렇게 쓰여 있다. "수파의 외롭고 그 개천들, 아르논과 그 개천들의 벼랑은 아르논의 거주지로 뻗어 있고 모압의 경계를 따라 이어진다."
- 15 그들은 그곳을 떠나 브에르로 향하였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마." 하고 말씀하신 그 우물이다.
- 17 그때에 이스라엘은 이러한 노래를 불렀다. "우물아, 솟아라. 너희는 우물에게 노래하여라.
- 18 지휘봉과 지팡이로 제후들이 파고 백성의

귀족들이 뚫은 우물이다." 그들은 광야에 서 마타나로,

- 19 마타나에서 나할리엘로, 나할리엘에서 바못으로,
20 바못에서 모압 지방에 있는 골짜기로 갔다. 그곳은 황야가 내려다보이는 피스가 산 꼭대기 부근이었다.

요르단 동쪽을 점령하다

- 21 이스라엘은 아모리인들의 임금 시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청하였다.
22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를 다 지나갈 때까지 '임금의 큰길'만 따라가겠습니다."
23 그러나 시혼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든 군대를 모아 광야로 나왔다. 그는 아하즈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싸웠으나,
24 이스라엘이 도리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르논에서 야벳까지, 곧 암몬 자손들의 영토에 이르기까지 그의 땅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암몬 자손들의 경계는 굳건하였다.
25 이스라엘은 그곳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헤스본과 거기에 딸린 모든 마을을 포함한 아모리인들의 모든 성읍에 자리를 잡았다.
26 헤스본은 아모리인들의 임금 시혼의 성읍이었다. 시혼은 모압의 이전 임금과 싸워, 아르논에 이르기까지 그의 땅을 모두 빼앗은 임금이다.
27 그래서 시인들은 이렇게 읊는다. "헤스본으로 오너라. 시혼의 성읍을 세워라, 튼튼히 하여라.
28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혼의 성읍에서 불꽃이 나와 아르 모압을 집어먹고 아르논의 산당들을 삼켜 버렸다.

29 불행하여라, 모압아! 크모스의 백성아, 너는 망하였다. 그는 아모리인들의 임금 시혼에게 제 아들이 쫓겨 가게, 제 딸들이 끌려가게 하였다.

30 그러나 우리가 활을 쏘아 대자 헤스본에서 다본까지 다 망하였다. 우리는 노파까지, 메드바까지 다 황폐시켰다."

31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모리인들의 땅에 자리를 잡았다.

32 모세는 사람을 보내어 아제르를 정탐하게 하였다. 그 뒤에 그들은 아제르에 딸린 마을들을 점령하고, 그곳에 사는 아모리인들을 쫓아냈다.

33 그들은 몸을 돌려 바산 가는 길로 올라갔다. 그러자 그들을 맞아 싸우려고 바산 임금 옥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나왔다.

34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너는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인들의 임금 시혼을 해치웠듯이 그를 해치워라."

35 그들은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온 백성을 생존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쳐 죽였다. 그리고 그의 땅을 차지하였다.

모압 임금이 발리움을 불러오다

22¹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을 떠나, 예리코 앞의 요르단 건너편 모압 벌판에 진을 쳤다.

2 치포르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3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너무 많아 몹시 무서워하였다. 모압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겁에 질려,

4 미디안의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소가 들의 풀을 뜯어 먹듯, 이제 이 무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모조리 먹어 버리겠습니다."

그때에 모압 임금은 치포르의 아들 발락이
 었다.

5 그는 브오르의 아들 발리암을 불러오려고,
 강가 아바우인들의 땅에 있는 프토르로 사
 자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어떤 백
 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온 땅을 덮고서는 내
 앞에까지 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6 그들이 너무 강하여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
 으니, 이제 부디 오셔서 나를 위하여 그 백
 성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무찔러 이 땅에서 몰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
 다. 당신이 축복하는 이는 복을 받고, 당신
 이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7 모압의 원로들과 미디안의 원로들은 복채를
 들고 길을 떠나, 발리암에게 가서 발락의 말
 을 전하였다.

8 그러자 발리암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에서 오늘 밤을 지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
 게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대답해 드
 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대신들은 발라
 암과 함께 머물렀다.

9 하느님께서 발리암에게 와서 물으셨다. "너
 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10 발리암이 하느님께 대답하였다. "치포르의
 아들인 모압 임금 발락이 이들을 보내면서,

11 '어떤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온 땅을 덮
 었습니다.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과 싸워 그들을
 몰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
 습니다."

12 하느님께서 발리암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들과 함께 가지 마라.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해서는 안 된다."

13 발리암은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대신들에
 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나라로 돌아가십
 시오. 주님께서는 내가 여러분과 함께 가
 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14 그리하여 모압의 대신들은 일어나 발락에
 게 돌아가서, "발리암이 저희와 함께 오기
 를 거절하였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15 발락은 그들보다 높은 대신들을 더 많이
 보냈다.

16 그들이 발리암에게 가서 말하였다. "치포르
 의 아들 발락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무것도 꺼리지 말고 나에게 와 주십시오.
 17 극진히 대우해 드릴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지 요구하는 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오셔서 나를 위하여 저 백성을 저주
 해 주십시오.'"

18 발리암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였다. "발
 락이 비록 그의 집에 가득 찰 만한 은과
 금을 준다 하여도, 나는 주 나의 하느님의
 분부를 어기고서는,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9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밤을 여기에서 묵으
 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
 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 그날 밤에 하느님께서 발리암에게 와서 말
 씌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다
 면,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
 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하여라."

21 발리암은 아침에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엮
 고, 모압의 대신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발리암과 그의 나귀

22 하느님께서 발리암이 가는 것을 보고 진
 노하셨다. 그래서 주님의 천사가 그를 막으
 려고 길에 서 있었다. 발리암은 나귀를 타
 고 가고, 하인들도 그와 함께 있었다.

23 나귀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
 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길을 비켜
 나 밭으로 들어갔다. 발리암은 나귀를 때
 러 다시 길로 들어가게 하였다.

24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포도밭들 사이, 양쪽
 에 담이 있는 좁은 길에 섰다.

- 25 나귀가 주님의 천사를 보고 벽으로 몸을 바짝 붙이는 바람에, 발리암의 발까지 벽으로 바짝 붙게 되었다. 그러자 발리암이 다시 나귀를 때렸다.
- 26 주님의 천사가 앞으로 더 나아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비켜날 길이 없는 좁은 곳에 섰다.
- 27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고 발리암을 태운 채 주저앉아 버렸다. 발리암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 28 그때에 주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주시니, 나귀가 발리암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께 어쨌기에, 나를 이렇게 세 번씩이나 때리십니까?"
- 29 발리암이 나귀에게, "네가 나를 놀려 대지 않았느냐? 내 손에 칼만 있었으면, 내가 너를 당장 쳐 죽였을 것이다." 하자,
- 30 나귀가 발리암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날까지 당신이 일생 동안 타고 다닌 나귀가 아답니까? 내가 언제 당신께 이렇게 하는 버릇이라도 있었습니까?" 그가 "없었다." 하고 대답하였다.
- 31 그때에 주님께서 발리암의 눈을 열어 주셨다. 그제야 그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서 있는 것을 보고는, 무릎을 꿇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렸다.
- 32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너의 나귀를 이렇게 세 번씩이나 때렸느냐? 내가 내 앞에서 나쁜 길을 걷기에, 내가 막으려고 나왔다.
- 33 나귀가 나를 보고 세 번이나 내 앞에서 비켜났으니 망정이지, 내 앞에서 비켜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귀를 살려 주고 너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 34 발리암이 주님의 천사에게 말하였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저의 길을 막고 서 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눈에 거슬리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니다."

- 35 주님의 천사가 발리암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해야 한다." 그리하여 발리암은 발락의 대신들과 함께 갔다.

발락이 발리암을 영접하다

- 36 발락은 발리암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맞으러 자기 영토가 끝나는 아르논 강 경계의 이르 모압으로 나갔다.
- 37 발락이 발리암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모시려고 그렇게 사람을 보냈는데, 어찌하여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을 대우해 주지 못할 것 같습니까?"
- 38 발리암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임금님께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저의 입에 넣어 주시는 말씀밖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 39 발리암은 발락과 함께 떠나 키르얏 후춧에 이르렀다.
- 40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제물로 바치고, 발리암과 그를 데리고 온 대신들에게 한몫씩 보내 주었다.
- 41 다음 날 아침, 발락은 발리암을 데리고 바못 비알로 올라갔다. 그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끝 자락을 볼 수 있었다.

발리암의 첫 번째 실탁

- 23¹ 발리암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제단 일곱을 쌓고, 황소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장만해 주십시오."
- 2 발락은 발리암이 말한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발락과 발리암은 각 제단에서 황소와 숫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 3 그런 다음에 발리암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 임금님의 번제물 곁에서 계십시오. 저는 다녀오겠습니다. 어찌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저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 주시든 그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벌거숭이 언덕으로 올라갔다.

4 하느님께서 발리암을 만나 주셨다. 발리암이 하느님께 말하였다. "제가 제단 일곱을 차려 놓고, 제단마다 황소와 숫양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5 주님께서 발리암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면서, "발락에게 돌아가 이대로 일러라." 하고 말씀하셨다.

6 발리암이 그에게 돌아가 보니, 그는 모압의 모든 대신과 함께 자기 번제물 곁에 서 있었다.

7 발리암이 신탁을 선포하였다. "발락이 이람에서, 모압의 임금인 동방의 신악 지방에서 나를 데려왔다. '와서 나를 위하여 아굽을 저주해 주오. 와서 이스라엘에게 악담해 주오.'

8 하느님께서 저주하지 않은 이를 내가 어찌 저주하랴? 주님께서 악담하지 않은 이에게 내가 어찌 악담하랴?

9 나는 그를 바위산 꼭대기에서 바라보고 언덕에서 굽어본다. 보라, 홀로 서 있는 저 백성. 그들은 자신을 여느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

10 누가 먼저처럼 많은 아굽의 자손들을 헤아릴 수 있으리오? 누가 먼저 구름 같은 이스라엘의 수를 셀 수 있으리오? 나도 올곧은 이들처럼 죽을 수 있다면! 내 종말도 그들과 같을 수 있다면!"

11 발락이 발리암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나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것입니까? 내 원수들을 저주해 달라고 당신을 데려왔는데, 당신은 도리어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12 그러자 발리암이 대답하였다. "저야 주님께서 제 입에 넣어 주시는 말씀만 조심스럽게 전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발리암의 두 번째 신탁

13 발락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끝 지락만 보고, 전체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14 그리하여 그는 발리암을 피스가 산 꼭대기, '파수병 밭'으로 데리고 갔다. 그는 거기에 제단 일곱을 쌓고, 각 제단에서 황소와 숫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15 그러자 발리암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 임금님의 번제물 곁에 서 제십시오. 저는 거기에서 만나 뵙고 오겠습니다."

16 주님께서 발리암을 만나 주시고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면서, "발락에게 돌아가 이대로 일러라." 하고 말씀하셨다.

17 발리암이 그에게 돌아와 보니, 그는 모압의 대신들과 함께 자기 번제물 곁에 서 있었다. 발락이 그에게 "주님께서 무어라 이르셨습니까?" 하고 묻자,

18 발리암이 신탁을 선포하였다. "발락아, 일어나 들어라. 치포르의 아들이라,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19 하느님은 사람이 아니시어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아니시어 생각을 바꾸지 않으신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고 실천하지 않으실 리 있으랴? 이야기만 하시고 실행하지 않으실 리 있으랴?

20 보라, 나는 축복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니 그분께서 강복하신 것을 내가 되돌릴 수 없다.

21 아굽에게서는 아무 재앙도 찾아볼 수 없고 이스라엘에게서는 아무 불행도 볼 수 없다. 주 그들의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임금님께 환호하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22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신 하느님은 그들에게 들소의 뿔 같은 분이시다.

- 23 정녕 야곱에는 짐승이 없고 이스라엘에는 주술이 없다. 이제 야곱을 두고, 이스라엘을 두고 말하리라, 하느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 24 보라, 암사자처럼 일어나고 수사자처럼 일어서는 백성을. 짐승을 잡아먹지 않고서는, 잡은 짐승의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늙지 않는다."
- 25 발락이 발리암에게 말하였다.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마시오."
- 26 그러자 발리암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일러 주시는 것밖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 27 발락이 발리암에게 말하였다. "갑시다. 내가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행어 하느님의 눈에 들어, 그곳에서 당신이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 줄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 28 그리하여 발락은 발리암을 데리고 황야가 내려다보이는 프오르 산 꼭대기로 갔다.
- 29 발리암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제단 일곱을 쌓고, 황소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장만해 주십시오."
- 30 발락은 발리암이 말한 대로 한 다음, 각 제단에서 황소와 숫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 4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이의 말이다. 전능하신 분의 환시를 보고 쓰러지지만 눈은 뜨이게 된다.
- 5 야곱아, 너의 천막들이, 이스라엘아, 너의 거처가 어찌 그리 좋으나!
- 6 골짜기처럼 뻗어 있고 강가의 동산 같구나. 주님께서 심으신 침향나무 같고 물가의 향백나무 같구나.
- 7 그의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그의 썬는 물을 흠뻑 먹으리라. 그들의 임금은 아카보다 뛰어나고 그들의 왕국은 위세를 떨치리라.
- 8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신 하느님은 그들에게 들소의 풀 같은 분이시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맞서는 민족들을 잡아삼키고 그 뼈를 짓부수며 화살로 쳐부수리라.
- 9 웅크리고 엎드린 모습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랴? 너희에게 축복하는 이는 복을 받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 10 발락은 발리암에게 화가 나서, 손바닥을 치며 발리암에게 말하였다. "나는 원수들을 저주해 달라고 당신을 불렀소 그런데 보시오, 당신은 이렇게 세 번씩이나 그들에게 축복해 주었소."
- 11 그러니 이제 당장 당신 고향으로 물러가시오, 나는 당신을 극진히 대우해 주겠다고 했지만, 보드시피 당신이 대우를 받는 것을 주님이 막아 버렸소."
- 12 그러자 발리암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저에게 보내신 사자들에게도 제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 13 '발락이 비록 그의 집에 가득 찰 만한 은과 금을 준다 하여도, 나는 주님의 분부를 어기고서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 하고 말입니다.
- 14 이제 저는 제 백성에게 돌아갑니다. 자, 뒷

발리암의 세 번째 실탁

- 24 ¹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는 것을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을 본 발리암은 전처럼 징조를 찾으러 가지 않고, 광야 쪽으로 얼굴만 돌렸다.
- 2 발리암은 눈을 들어 지파별로 자리 잡은 이스라엘을 보았다. 그때에 하느님의 영이 그에게 내렸다.
- 3 그리하여 그는 신탁을 선포하였다. "브오르의 아들 발리암의 말이다.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의 말이며

날에 저 백성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발리암의 네 번째 신탁

- 15 그리고 나서 그는 신탁을 선포하였다. "브오르의 아들 발리암의 말이다.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의 말이며
- 16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식을 아는 이의 말이다. 전능하신 분의 환시를 보고 쓰러지지만 눈은 뜨이게 된다.
- 17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나는 그를 바라본다. 그러나 가깝지는 않다. 아굽에게서 벌 하나가 솟고 이스라엘에게서 왕홀이 일어난다. 그는 모압의 관자놀이를, 셋의 모든 자손의 정수리를 부수리라.
- 18 애들은 속국이 되리라. 세이르는 원수들의 속국이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력을 떨치고
- 19 아굽에게서는 통치자가 나와 이르에서 도망쳐 나온 자들을 멸망시키리라."
- 20 그런 다음에 그는 아말렉을 보며 신탁을 선포하였다. "민족들 가운데 첫째인 아말렉. 그러나 그의 종말은 영원한 멸망이 되리라."
- 21 그는 또 카인족을 보며 신탁을 선포하였다. "네 거처는 든든하고 네 보금자리는 비위 위에 있다.
- 22 그러나 카인은 황폐하게 되리라. 아시리아가 너를 언제까지 사로잡아 둘 것인가?"
- 23 그는 다시 신탁을 선포하였다. "아, 하느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에 누가 살아남으랴?
- 24 키팁 쪽에서 배들이 온다. 그들은 아시리아를 억누르고 에베르를 억누르겠지만 그들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 25 발리암은 일어나 제 고향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제 갈 길을 갔다.

이스라엘이 프오르에서 우상을 섬다

- 25** 1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이 모압의 여자들과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 2 이 여자들이 저희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에 백성을 부르자, 백성은 거기에서 함께 먹으며 그들의 신들에게 경배하였다.
 - 3 이처럼 이스라엘이 스스로 프오르의 신 바알의 멍에를 매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 4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대낮에 주님 앞에서 목을 매달아, 주님의 타오르는 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물러가게 하여라."
 - 5 그리하여 모세가 이스라엘의 판관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저마다 자기 사람들 가운데에서 스스로 프오르의 신 바알의 멍에를 맨 자를 죽여라."
 - 6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만남의 천막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모세와 온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자 하나를 자기 형제들에게 데려왔다.
 - 7 아론 사제의 손자이며 엘아자르의 아들인 피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공동체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 8 그 이스라엘 사람을 뒤쫓아 천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사람과 그 여자, 둘의 배를 찔러 죽였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재난이 그쳤다.
 - 9 그 재난으로 죽은 이들은 이만 사천 명이었다.
 - 10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11 "아론 사제의 손자이며 엘아자르의 아들인 피느하스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나를 위하여 열성을 다해,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물러가게 하였다. 그래서 내가 질투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없애 버리지 않았

다.

- 12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보라, 나는 그와 평화의 계약을 맺는다.
- 13 그것은 그와 그의 뒤를 잇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사제직의 계약이 될 것이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 하았기 때문이다."
- 14 미디안 여자와 함께 처형된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은 살루의 아들 지므리였는데, 그는 시메온 지파에 속하는 집안의 수장이었다.
- 15 처형된 미디안 여자의 이름은 추르의 딸 코즈비였는데, 추르는 한 부족, 곧 미디안에 있는 한 집안의 우두머리였다.
- 16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17 "미디안인들을 공격하여 그들을 쳐 죽여라.
- 18 그들은 프오르의 일과, 미디안의 한 수장의 딸, 곧 프오르의 일로 재난이 터졌을 때에 처형된 그들의 누이 코즈비의 일로 너희를 속이면서 괴롭힌 자들이다."
- 19 그 재난이 지난 다음,

두 번째 인구 조사

- 26 ¹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 사제의 아들 엘아자르에게 말씀하셨다.
- 2 "너희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안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 곧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스무 살 이상 된 남자들의 수를 모두 세어라."
- 3 그리하여 모세와 엘아자르 사제는 예리코 앞의 요르단 건너편 모압 벌판에서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 4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스무 살 이상 된 남자들의 수를 센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러하다.
- 5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맏아들인데, 르우벤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하녹에게서 하녹 씨족이, 팔루에게서 팔루 씨족이,

- 6 헤즈론에게서 헤즈론 씨족이, 카르미에게서 카르미 씨족이 나왔다.
- 7 이것이 르우벤의 씨족들로서, 그들 가운데 사열을 받은 이들은 사만 삼천칠백삼십 명이었다.
- 8 팔루의 아들은 엘리압이다.
- 9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 다탄, 아비람이다. 이 다탄과 아비람은 공동체에서 뽑힌 이들로서, 코라의 무리가 주님께 대항할 때,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한 자들이다.
- 10 그 무리가 죽고 불이 이백오십 명을 집어 삼켜 버릴 때,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함께 코라를 삼켜 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본보기가 되었다.
- 11 그러나 코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 12 씨족에 따라 본 시메온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느무엘에게서 느무엘 씨족이, 야민에게서 야민 씨족이, 야킨에게서 야킨 씨족이,
- 13 제라에게서 제라 씨족이, 사울에게서 사울 씨족이 나왔다.
- 14 이것이 시메온의 씨족들로서, 이만 이천이 백 명이었다.
- 15 씨족에 따라 본 가드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츠폰에게서 츠폰 씨족이, 하끼에게서 하끼 씨족이, 수니에게서 수니 씨족이,
- 16 오즈니에게서 오즈니 씨족이, 에리에게서 에리 씨족이,
- 17 아룻에게서 아룻 씨족이, 아르엘리에게서 아르엘리 씨족이 나왔다.
- 18 이것이 사열을 받은 이들에 따라 본 가드 자손의 씨족들로서, 사만 오백 명이었다.
- 19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이다.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 20 씨족에 따라 본 유다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셀라에게서 셀라 씨족이, 페레츠에게서 페레츠 씨족이, 제라에게서 제라 씨족이 나왔다.
- 21 페레츠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헤즈론에게서

헤즈론 씨족이, 허물에게서 허물 씨족이 나왔다.

22 이것이 사열을 받은 이들에 따라 본 유다의 씨족들로서, 칠만 육천오백 명이었다.

23 씨족에 따라 본 이사카르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툴라에게서 툴라 씨족이, 푸아에게서 푸아 씨족이,

24 아습에게서 아습 씨족이, 시므론에게서 시므론 씨족이 나왔다.

25 이것이 사열을 받은 이들에 따라 본 이사카르의 씨족들로서, 육만 사천삼백 명이었다.

26 씨족에 따라 본 즈블룬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세렛에게서 세렛 씨족이, 엘론에게서 엘론 씨족이, 야홀르엘에게서 야홀르엘 씨족이 나왔다.

27 이것이 사열을 받은 이들에 따라 본 즈블룬의 씨족들로서, 육만 오백 명이었다.

28 씨족에 따라 본 요셉의 아들들은 므나쎄와 에프라임이다.

29 므나쎄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마키르에게서 마키르 씨족이 나왔는데, 마키르는 길앗을 낳았고, 길앗에게서 길앗 씨족이 나왔다.

30 길앗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이에제르에게서 이에제르 씨족이, 헬렉에게서 헬렉 씨족이,

31 아스리엘에게서 아스리엘 씨족이, 세켄에게서 세켄 씨족이,

32 스미다에게서 스미다 씨족이, 헤페르에게서 헤페르 씨족이 나왔다.

33 헤페르의 아들 출롭핫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다. 출롭핫의 딸들 이름은 마홀라, 노아, 호글라, 밀가, 티르차였다.

34 이것이 므나쎄의 씨족들로서, 그들 가운데 사열을 받은 이들은 오만 이천칠백 명이었다.

35 씨족에 따라 본 에프라임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수텔라에게서 수텔라 씨족이, 베케르에게서 베케르 씨족이, 타한에게서 타한 씨

족이 나왔다.

36 수텔라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에란에게서 에란 씨족이 나왔다.

37 이것이 사열을 받은 이들에 따라 본 에프라임 자손의 씨족들로서, 삼만 이천오백 명이었다. 이것이 씨족에 따라 본 요셉의 자손들이다.

38 씨족에 따라 본 벤야민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벨라에게서 벨라 씨족이, 이스벨에게서 이스벨 씨족이, 아히람에게서 아히람 씨족이,

39 스푸팜에게서 스푸팜 씨족이, 후팜에게서 후팜 씨족이 나왔다.

40 벨라의 아들들은 아르드와 나아만이다. 아르드에게서 아르드 씨족이,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씨족이 나왔다.

41 이것이 씨족에 따라 본 벤야민의 자손들로서, 그들 가운데 사열을 받은 이들은 사만 오천육백 명이었다.

42 씨족에 따라 본 단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수함에게서 수함 씨족이 나왔다. 이것이 씨족에 따라 본 단의 씨족들이다.

43 이것이 사열을 받은 이들에 따라 본 수함의 씨족들로서, 육만 사천사백 명이었다.

44 씨족에 따라 본 아세르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암나에게서 암나 씨족이, 이스위에게서 이스위 씨족이, 브리아에게서 브리아 씨족이 나왔다.

45 브리아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헤베르에게서 헤베르 씨족이, 말기엘에게서 말기엘 씨족이 나왔다.

46 아세르의 딸 이름은 세리이다.

47 이것이 사열을 받은 이들에 따라 본 아세르 자손의 씨족들로서, 오만 삼천사백 명이었다.

48 씨족에 따라 본 납탈리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야흐츠엘에게서 야흐츠엘 씨족이, 구니에게서 구니 씨족이,

- 49 예체르에게서 예체르 씨족이, 살렘에게서 살렘 씨족이 나왔다.
- 50 이것이 씨족에 따라 본 납탈리의 씨족들로서, 그들 가운데 사열을 받은 이들은 사만 오천사백 명이었다.
- 51 이처럼 사열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육십만 천칠백삼십 명이었다.

땅 분배에 관한 일반적인 지시

- 52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53 "이들에게 사람 수에 따라 땅을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라.
- 54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상속 재산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상속 재산을 적게 주어야 한다. 각 지파에게, 사열을 받은 이들의 수에 따라 상속 재산을 주어야 한다.
- 55 그러나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야 하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지파 이름에 따라 상속 재산을 받게 해야 한다.
- 56 수가 많은 지파와 적은 지파 사이에서 제비를 뽑아, 그 결과에 따라 상속 재산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

레위인들의 두 번째 인구 조사

- 57 씨족에 따라 사열을 받은 레위인들은 이러하다. 게르손에게서 게르손 씨족이, 크핫에게서 크핫 씨족이, 므라리에게서 므라리 씨족이 나왔다.
- 58 레위의 씨족들은 이러하다. 리브니 씨족, 헤브론 씨족, 마흘리 씨족, 무시 씨족, 코라 씨족이다. 크핫은 아므람을 낳았다.
- 59 아므람의 아내 이름은 레위의 딸 요케벳인데, 그는 이집트에서 레위가 낳은 딸이다. 요케벳은 아므람에게 아론과 모세, 그리고 그들의 누이 미르얌을 낳아 주었다.
- 60 아론에게서는 나답, 아비후, 엘아자르, 이타마르가 태어났는데,
- 61 나답과 아비후는 숙된 불을 주님 앞에 바

치다가 죽었다.

- 62 한 달 이상 된 남자로서 사열을 받은 이들은 모두 이만 삼천 명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받을 상속 재산이 없었으므로,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사열을 받지 않았다.

인구 조사의 결론

- 63 이들이 모세와 엘아자르 사제가 사열한 이들이다. 모세와 엘아자르는 예리코 앞의 요르단 건너편 모압 벌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열하였다.
- 64 이들 가운데에서 모세와 아론이 사나아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열할 때, 그 사열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 65 주님께서 그들을 두고 "그들은 반드시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 여편네의 아들 칼렘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말고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딸의 유산 상속권

- 27 ¹ 그때에 출몰학의 딸들이 앞으로 나왔다. 출몰학은 요셉의 아들 므나세 씨족에 속한 사람으로, 헤페르의 아들이고 길앗의 손자이며 마키르의 증손이고 므나세의 현손이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마홀라, 노아, 호글라, 밀카, 티르차이다.
- 2 그들은 만남의 천막 어귀에서 모세와 엘아자르 사제와 수장들과 온 공동체 앞에 서서 말하였다.
- 3 "저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주님을 거슬러 모여든 무리, 곧 코라의 무리 속에 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당신의 죄로 돌아가셨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 4 그러나 아들이 없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당신 씨족 가운데에서 없어져서야

- 어찌 되겠습니까? 저희 아버지의 형제들과 더불어 저희에게도 소유지를 주십시오."
- 5 모세가 그들의 소송건을 주님 앞으로 가져 가니,
- 6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7 "출롯핫의 딸들이 하는 말이 옳다. 너는 그들 아버지의 형제들과 더불어 그들에게도 반드시 상속 재산으로 소유지를 주어라. 그들 아버지의 상속 재산이 그들에게 넘어지게 하여라.
- 8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두어라. '누구든지 아들 없이 죽으면, 그의 상속 재산은 딸에게 넘어지게 하여라.
- 9 만일 딸이 없으면, 그의 상속 재산을 그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 10 형제들도 없으면, 그 상속 재산을 그의 아버지 형제들에게 주어라.
- 11 그의 아버지에게 형제들이 없으면, 그의 씨족 가운데에서 그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그것을 소유하게 하여라.' 이는 주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할 법 규정이 되어야 한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되다

- 12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아버림 산으로 올라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 13 그 땅을 바라본 다음에는, 너의 형 아론이 간 것처럼 너도 선조들 곁으로 가게 될 것이다.
- 14 이는 친 광야에서 공동체가 시비를 걸어올 때,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물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는 내 분부를 너희가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이 물은 친 광야에 있는 트리밧 카테스의 물을 가리킨다.
- 15 모세가 주님께 이퇴였다.
- 16 "모든 육체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느님께서 이 공동체 위에 한 사람을 세우시기

- 바랍니다.
- 17 그들 앞에 서서 나가고 그들 앞에 서서 들어오는 사람, 그들을 데리고 나가고 그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공동체가 목자 없는 양 떼처럼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 18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논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오너라. 그는 영을 지닌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네 손을 얹어라.
- 19 그리고 그를 엘아자르 사제와 온 공동체 앞에 세워,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임명하여라.
- 20 너의 권위 가운데 일부를 그에게 주어,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그에게 순종하게 하여라.
- 21 그러나 그는 엘아자르 사제 앞에 서야 한다. 그러면 엘아자르가 주님 앞에서, 그에게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우뚝으로 물어볼 것이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곧 온 공동체는 그의 지시에 따라 나가고 그의 지시에 따라 들어와야 한다."
- 22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엘아자르 사제와 온 공동체 앞에 세웠다.
- 23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이르신 대로, 그에게 자기 손을 얹고 그를 임명하였다.

주님께 바치는 제물

- 28** 1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2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받을 예물, 곧 향기로운 화제물로 내가 받을 양식을 정해진 때에 바치도록 명심하여라.'
- 3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주님께 바쳐야 하는 화제물은 이러하다.' '날마다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숫양 두 마리를

일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일일 번제물

- 4 어린 숫양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저녁 어스름에 바쳐라.
- 5 또 찢어서 짠 기름 사분의 일 한을 섞은 고운 곡식 가루 십분의 일 에파를 곡식 제물로 바친다.
- 6 이는 사나이 산에서 제정된 일일 번제물로,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다.
- 7 그리고 이와 함께 바치는 제주는 어린 숫양 한 마리마다 사분의 일 힌으로 한다. 너희는 성소에서 주님에게 독주를 제주로 부어 바쳐야 한다.
- 8 두 번째 어린 숫양을 저녁 어스름에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곡식 제물과 제주를 함께 바친다. 이는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다.'

안식일에 바치는 제물

- 9 '안식일에는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숫양 두 마리를,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 가루 십분의 이 에파의 곡식 제물과 제주와 함께 바친다.
- 10 이는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제주 외에 안식일마다 따로 바치는 번제물이다.'

매달 초하룻날에 바치는 제물

- 11 '너희는 매달 초에 주님에게 번제물을 바쳐야 한다. 황소 두 마리와 숫양 한 마리,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바쳐야 한다.
- 12 황소 한 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 가루 십분의 삼 에파를 곡식 제물로 곁들이고, 숫양 한 마리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 가루 십분의 이 에파를 곡식 제물로 곁들인다.
- 13 그리고 어린 숫양 한 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 가루 십분의 일 에파씩을 곡식 제물로 곁들인다. 이는 향기로운 번제

물, 곧 주님을 위한 화제물이다.

- 14 이와 함께 바칠 제주는 황소 한 마리에 포도주 반 힌, 숫양 한 마리에 삼분의 일 힌, 어린 숫양 한 마리에 사분의 일 힌이다. 이것이 일 년 내내 달마다 그 달에 바치는 월 번제물이다.
- 15 또한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제주 외에, 속죄 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를 주님께 바쳐야 한다.'

파스가 제사

- 16 '첫째 달 열나흘날에는 주님을 위한 파스가 축제를 지내야 한다.
- 17 그달 열닷새날은 축제일이다. 이때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 18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 19 너희는 화제물 곧 주님을 위한 번제물을 바쳐야 한다. 황소 두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일곱 마리인데, 흠 없는 것이어야 한다.
- 20 이와 함께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 가루를 곡식 제물로 곁들이는데, 황소 한 마리에는 십분의 삼 에파, 숫양 한 마리에는 십분의 이 에파를 바쳐야 한다.
- 21 어린 숫양 일곱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숫양 한 마리에 십분의 일 에파씩을 바친다.
- 22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 너희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여야.
- 23 너희는 일일 번제물에 속하는 아침 번제물과는 따로 이것들을 바쳐야 한다.
- 24 너희는 이렇게 이레 동안 날마다 주님에게 양식을, 곧 향기로운 화제물을 바쳐야 한다.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제주 외에 이것을 바쳐야 한다.
- 25 이레째 되는 날에 너희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주간절에 바치는 제물

- 26 '만물의 날, 곧 햇곡식을 주님에게 제물로 바치는 주간절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 27 너희는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번제물로 황소 두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바쳐야 한다.
- 28 이와 함께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 가루를 곡식 제물로 곁들이는데, 황소 한 마리에 십분의 삼 에파, 숫양 한 마리에 십분의 이 에파이다.
- 29 어린 숫양 일곱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숫양 한 마리에 십분의 일 에파씩이다.
- 30 또 너희를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할 숫염소 한 마리를 바쳐야 한다.
- 31 너희는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는 따로, 이것들을 제주와 함께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흠 없는 것이어야 한다.'

산당제에 바치는 제물

- 29 ¹ '일곱째 달 초하룻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 2 너희는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번제물로 황소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바쳐야 한다.
- 3 이와 함께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 가루를 곡식 제물로 곁들이는데, 황소 한 마리에 십분의 삼 에파, 숫양 한 마리에 십분의 이 에파이다.
- 4 어린 숫양 일곱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숫양 한 마리에 십분의 일 에파이다.
- 5 또 너희를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할 숫염소 한 마리를 바쳐야 한다.
- 6 너희는 법규에 따라, 월 번제물과 그것에 딸

린 곡식 제물, 그리고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이것들을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로 바쳐야 한다.'

속죄일에 바치는 제물

- 7 '이 일곱째 달 초엿새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을 하며,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 8 너희는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번제물로 황소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흠 없는 것이어야 한다.
- 9 이와 함께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 가루를 곡식 제물로 곁들이는데, 황소 한 마리에 십분의 삼 에파, 숫양 한 마리에 십분의 이 에파이다.
- 10 어린 숫양 일곱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숫양 한 마리에 십분의 일 에파씩이다.
- 11 또 속죄 예식에 쓰는 속죄 제물과 일일 번제물, 그리고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초막절에 바치는 제물

- 12 '일곱째 달 열닷새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제 동안 주님을 위한 축제를 지내야 한다.
- 13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인 번제물로 황소 열세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흠 없는 것이어야 한다.
- 14 이와 함께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 가루를 곡식 제물로 곁들이는데, 황소 열세 마리의 경우에는 황소 한 마리에 십분의 삼 에파, 숫양 두 마리의 경우에는 숫양 한 마리에 십분의 이 에파,
- 15 어린 숫양 열네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숫

- 양 한 마리에 십분의 일 에파씩이다.
- 16 또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
- 17 둘째 날에는 황소 열두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바친다.
- 18 황소와 숫양과 어린 숫양에게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는 짐승의 수대로 법규에 따라 바친다.
- 19 또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
- 20 셋째 날에는 황소 열한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바친다.
- 21 황소와 숫양과 어린 숫양에게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는 짐승의 수대로 법규에 따라 바친다.
- 22 또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
- 23 넷째 날에는 황소 열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바친다.
- 24 황소와 숫양과 어린 숫양에게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는 짐승의 수대로 법규에 따라 바친다.
- 25 또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
- 26 다섯째 날에는 황소 아홉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바친다.
- 27 황소와 숫양과 어린 숫양에게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는 짐승의 수대로 법규에 따라 바친다.
- 28 또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
- 29 여섯째 날에는 황소 여덟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바친다.
- 30 황소와 숫양과 어린 숫양에게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는 짐승의 수대로 법규에 따라 바친다.
- 31 또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
- 32 일곱째 날에는 황소 일곱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바친다.
- 33 황소와 숫양과 어린 숫양에게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는 짐승의 수대로 법규에 따라 바친다.
- 34 또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
- 35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집회를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 36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인 번제물로 황소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바쳐야 한다.
- 37 황소와 숫양과 어린 숫양에게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는 짐승의 수대로 법규에 따라 바친다.
- 38 또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
- 39 너희는 정해진 때마다, 너희의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 그리고 너희의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제주와 친교 제물과는 따로, 이것들을 주님에게 바쳐야 한다."

30 ¹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여자의 맹세

- 2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 3 남자가 주님께 서원을 하거나 맹세를 하여 스스로 서약을 할 경우, 자기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제 입에서 나온 것을 다 그대로 실행해야 한다.
- 4 여자가 아버지 집에 살면서 어린 나이로 주님께 서원을 하거나 서약을 할 경우,
- 5 그의 아버지가 딸의 서원이나 딸이 스스로 한 서약을 듣고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의 모든 서원은 그대로 성립되고, 그가 스스로 한 모든 서약도 그대로 성립된다.
- 6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로 반대하면, 그의 모든 서원과 스스로 한 서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딸에게 반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 딸을 용서해 주신다.
- 7 서원에 매여 있거나, 또는 생각 없이 입을 놀려 스스로 서약한 채 시집을 갈 경우,
- 8 남편이 그것을 듣고 들은 그날로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의 서원은 그대로 성립되고, 그가 스스로 한 서약도 그대로 성립된다.
- 9 그러나 남편이 그것을 들은 그날로 반대하면, 아내가 매여 있는 서원과 아내가 생각 없이 입을 놀려 스스로 서약한 바를 남편이 취소시키는 것이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그 여자를 용서해 주신다.
- 10 과부나 소박맞은 여자의 서원은 그가 스스로 무슨 서약을 하였든 그대로 성립된다.
- 11 그러나 남편 집에 살면서 서원하거나, 맹세로써 스스로 서약할 경우,
- 12 남편이 그것을 듣고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으면, 그의 모든 서원은 그대로 성립되고, 스스로 한 모든 서약도 그대로 성립된다.

- 13 그러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로 곧 취소시키면, 그 여자가 자기 서원과 스스로 한 서약과 관련하여 제 입으로 말한 모든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의 남편이 그것을 취소시킨 것이고, 주님께서도 그 여자를 용서해 주신다.
- 14 아내가 한 모든 서원과 고행하기로 서약한 모든 맹세는, 남편이 성립시킬 수도 있고 취소시킬 수도 있다.
- 15 만일 남편이 그날부터 다음 날까지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는 아내의 모든 서원과 모든 서약을 성립시키는 것이 된다. 그가 그것을 듣는 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 곧 그것을 성립시키는 것이다.
- 16 그러나 그것을 듣고서 얼마 뒤에야 취소시키면, 그는 아내의 죄를 짊어지게 된다."
- 17 이는 남편과 아내 사이, 아버지와 아직 아버지 집에 사는 어린 딸 사이에 관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정이다.

미디안과 전쟁을 하다

- 31 ¹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² "너는 미디안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수를 갚아라. 그런 다음에 너는 선조들 곁으로 가게 될 것이다."
- 3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알렸다. "너희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은 무장하여라. 미디안으로 쳐들어가, 미디안에게 주님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
- 4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마다 천 명씩 전쟁에 내보내야 한다."
- 5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부족들에서 각 지파마다 천 명씩 헤아리니, 전쟁에 나가려고 무장한 사람이 만 이천 명이 되었다.
- 6 이렇게 모세는 각 지파에서 천 명씩 전쟁에

내보냈다. 그들과 함께 엘아자르 사제의 아들 피느하스에게도 성소의 기물들과 신호용 나팔을 손에 들려 전쟁에 내보냈다.

7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과 전쟁하여, 남자들을 모두 죽였다.

8 그들은 이렇게 살해된 자들이다 미디안의 임금들까지 죽였다. 곧 에위, 레켄, 추르, 후르, 레바 등 미디안의 다섯 임금, 그리고 브오르의 아들 발라암을 칼로 쳐 죽였다.

9 이스라엘 자손들은 미디안의 여자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아 오고, 그들의 짐승과 가축과 재산을 모조리 빼앗았다.

10 그리고 그들이 살던 성읍들과 고을들을 모두 불태워 버리고,

11 사람과 짐승은 모두 노획물과 전리품으로 삼았다.

12 그들은 포로와 전리품과 노획물, 예리코 앞의 요르단 건너편 모압 벌판에 자리 잡은 진영으로, 모세와 엘아자르 사제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공동체에게 끌고 왔다.

13 모세와 엘아자르 사제와 공동체의 수장들이 모두 그들을 맞으러 진영 밖으로 나갔다.

14 그런데 모세가 전쟁에서 돌아오는 군대 지휘관들, 곧 천인대장들과 백인대장들에게 화를 내었다.

15 그들에게 모세가 말하였다. "너희가 여자들을 모두 살려 두다니!

16 프오르에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발라암의 말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을 배신하게 하여, 주님의 공동체에게 제앙이 내리게 한 것이 바로 이 여자들이다.

17 그러니 이제 아이들 가운데 남자는 다 죽여라.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모두 죽여라.

18 다만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하지 않아 사내를 안 일이 없는 여자 아이들은 너희를 위하여 살려 두어라.

19 그리고 너희는 이제 동안 진영 밖에 머물러야 한다. 사람을 죽였거나 살해된 자의 몸에 닿은 이는, 너희만이 아니라 너희 포로들까지 사흘째 되는 날과 이레째 되는 날에 자신을 정화해야 한다.

20 또 너희는 모든 옷가지, 모든 가죽 제품, 염소 털로 짠 모든 것, 나무로 만든 모든 것도 정화해야 한다."

21 엘아자르 사제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법 규정은 이러하다.

22 금, 은, 구리, 철, 주석, 납 등

23 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모두 불 속에 넣었다가 꺼내면 깨끗하게 되지만, 다시 정화의 물로 정화되어야 한다. 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모두 물에 담갔다가 꺼내면 된다.

24 너희의 옷을 이레째 되는 날에 빨면 너희가 정결하게 된다. 그런 다음에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포로와 전리품의 분배

25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6 "너는 엘아자르 사제와 공동체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함께, 사람이든 짐승이든 사로잡아 온 전리품의 수를 세어라.

27 그리고 너는 그 전리품을 나누어, 반은 전쟁에 나갔던 전사들에게, 반은 온 공동체에게 나누어 주어라.

28 그런 다음에 전쟁에 나갔던 병사들에게서 주님을 위하여 공물을 떼어 내어라. 사람이든 소든 나귀든 양이든 그 오백분의 일을,

29 그들이 차지한 절반에서 반아, 주님을 위한 예물로 엘아자르 사제에게 주어라.

30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한 절반에서는, 사람이든 소든 나귀든 양이든 어떤 가축이든 그 오십분의 일을 받아, 주님의 성소를 보

살피는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 31 모세와 엘아자르 사제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 32 군사들이 빼앗은 것 가운데에서 남은 전리품은 양이 육십칠만 오천 마리,
- 33 소가 칠만 이천 마리,
- 34 나귀가 육만 천 마리고,
- 35 사람은, 남자와 짐자리를 같이하지 않아 사내를 안 일이 없는 여자가 전부 삼만 이천 명이였다.
- 36 이 가운데에서 절반이 전쟁에 나갔던 이들의 몫이 되었는데, 양의 수는 삼십삼만 칠천오백 마리였고,
- 37 이 양들 가운데에서 주님을 위한 공물은 육백일흔다섯 마리였다.
- 38 소는 삼만 육천 마리였는데, 주님을 위한 공물은 일흔두 마리였고,
- 39 나귀는 삼만 오백 마리였는데, 주님을 위한 공물은 예순한 마리였다.
- 40 또 사람은 만 육천 명이었는데, 주님을 위한 공물은 서른두 명이였다.
- 41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공물, 곧 주님을 위한 예물을 엘아자르 사제에게 주었다.
- 42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에게서 떼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누어 준 나머지 절반,
- 43 곧 공동체가 받은 나머지 절반은 양이 삼십삼만 칠천오백 마리,
- 44 소가 삼만 육천 마리,
- 45 나귀가 삼만 오백 마리,
- 46 사람이 만 육천 명이였다.
- 47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한 그 절반에서, 곧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오십분의 일을 받아, 주님의 성소를 보살피는 레위인들에게 주었다.

지휘관들의 봉헌물

- 48 군부대의 지휘관들, 곧 천인대장들과 백인대장들이 모세에게 와서,
- 49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이 종들이 저희 수하에 있는 병사들의 수를 세어 보았는데, 우리 쪽에서는 한 사람도 실종되지 않았습니다.
- 50 그래서 저희가 주님 앞에서 속죄하려고, 저마다 자기가 얻은 금패물, 곧 팔고리, 팔찌, 인장 가락지, 귀걸이, 구슬 장식을 주님께 예물로 가져왔습니다."
- 51 모세와 엘아자르 사제는 그들에게서 금으로 된 그 모든 세공품을 받았다.
- 52 이렇게 천인대장들과 백인대장들에게서 받아 주님께 예물로 바친 금은 모두 만 육천 칠백오십 세켈이였다.
- 53 그 밖의 군인들은 저마다 자기의 노획물을 가지고 있었다.
- 54 모세와 엘아자르 사제는 천인대장들과 백인대장들에게서 금을 받아, 주님 앞에 바칠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념 제물로서 만남의 천막 안으로 가져갔다.

요르단 강 동쪽 지역을 나다

- 32 ¹ 르우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에게는 매우 큰 가축 떼가 있었다. 그들이 야제르 땅과 길앗 땅을 바라보니, 목축에 알맞은 곳이었다.
- 2 그래서 가드의 자손들과 르우벤의 자손들이 와서, 모세와 엘아자르 사제와 공동체의 수장들에게 말하였다.
- 3 "야타롯, 디본, 야제르, 니므라, 헤스본, 엘알레, 스밤, 느보, 브온,
- 4 곧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공동체 앞에서 치이기로 이 땅은 목축에 알맞은 땅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이 종들에게는 가축 떼가 있습니다."
- 5 그들은 계속 말하였다. "저희가 당신의 눈에

- 든다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소유로 주시어, 저희가 요르단을 건너지 않게 해 주십시오."
- 6 모세가 가드의 자손들과 르우벤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만 여기에 머물러 살겠다는 말이냐?"
- 7 너희는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의 용기를 꺾어,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
- 8 저 땅을 살펴보고 내가 너희 아버지들을 카데스 바르네아에서 보냈을 때에, 그들도 이처럼 하였다.
- 9 그들은 에스콜 골짜기까지 올라가서 저 땅을 살펴보고 와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용기를 꺾어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 10 그러자 그날 주님께서 진노하시어 이렇게 맹세하셨다.
- 11 '이집트에서 올라온 남자들 가운데 스무 살 이상 된 자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 12 다만 크나즈 사람 여푼네의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주님을 온전히 따랐으므로 예외다.'
- 13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어,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것을 한 그 세대가 모두 없어질 때까지, 광야에서 사십 년 동안 떠돌아다니게 하셨다.
- 14 그런데 이제 죄인들의 족속인 너희가 너희 아버지들 대신 일어나,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분노를 더 타오르게 하려는구나.
- 15 너희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선다면, 그분께서는 이 백성을 다시 광야에 내버려두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이 온 백성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 16 그러자 그들이 모세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저희 가족 떼를 위한 양 우리들과 저희 어린것들을 위한 성읍들을 세우겠습니다.
- 17 그런 다음에 저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 곳으로 데려갈 때까지, 무장을 갖추고 그들 앞에 선발대로 서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의 어린것들은 이 땅의 주민들을 피하여 요새 성읍들 안에서 머무를 수 있을 것입니다.
- 18 이스라엘 자손들이 저마다 자기 상속 재산을 받을 때까지 저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 19 저희가 요르단 이편 동쪽에서 상속 재산을 차지하게 되었으니, 요르단 건너 저편에서는 그들과 함께 재산을 받지 않았습니다."
- 20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가 그 말대로 한다면, 너희가 주님 앞에서 싸우려고 무장을 하고,
- 21 주님께서 당신의 원수들을 당신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무장을 한 너희가 모두 주님 앞에서 요르단을 건너가 머무른다면,
- 22 그러고 나서 그 땅이 주님 앞에서 점령되면, 너희가 돌아올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주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나고, 이 땅은 주님 앞에서 너희 소유가 될 것이다.
- 23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 두어라.
- 24 너희 어린것들을 위한 성읍들과 양들을 위한 우리들을 세우라. 그리고 너희 입으로 한 말을 지켜라."
- 25 그러자 가드의 자손들과 르우벤의 자손들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이 종들은 나리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입니다.
- 26 저희의 어린것들과 여자들과 가족과 모든

짐승은 여기 길앗의 성읍들에 남아 있게 하겠습니까.

27 그러나 당신의 이 종들은 나리께서 이르신 대로, 주님 앞에서 싸우려고 모두 전쟁 무기를 갖추고 건나가겠습니다."

28 그러자 모세는 이들과 관련하여 엘아자르 사제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의 집안 수장들에게 명령하였다.

29 모세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가드의 자손들과 르우벤의 자손들이 주님 앞에서 싸우려고 모두 무장을 하여 요르단을 건너가고, 그 땅이 너희 앞에서 점령되면, 길앗 땅을 그들 소유로 주어라.

30 그러나 그들이 무장을 하고 너희와 함께 건너가지 않으면,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에서 소유지를 차지하게 하여라."

31 가드의 자손들과 르우벤의 자손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당신의 이 종들에게 이르신 것을 그대로 하겠습니까.

32 저희는 주님 앞에서 무장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건나가겠습니다. 저희 상속 재산이 될 소유지가 요르단 이쪽에 있게만 해 주십시오."

33 모세는 가드의 자손들과 르우벤의 자손들과 요셉의 아들 므나세의 반쪽 지파에게, 아모리 임금 시혼의 왕국과 바산 임금 옥의 왕국, 곧 그 땅과 그 안 사방에 흩어져 있는 성읍들과 그 주변 영토를 주었다.

34 그리하여 가드의 자손들은 디분, 아터롯, 아로에르,

35 아터롯 소판, 아제르, 욱보하,

36 벳 니트라, 벳 하란 등 요새 성읍들과 양 우리들을 세웠다.

37 르우벤의 자손들은 헤스본, 엘알레, 키르야 타임,

38 나중에 이름이 바뀐 느보와 바알 므온, 그리고 시브마를 세웠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은 성읍들에 이름을 붙였다.

39 므나세의 아들 마키르의 자손들이 길앗으로 가서 그곳을 점령하고, 그곳에 있는 아모리인들을 쫓아냈다.

40 그리하여 모세는 길앗을 므나세의 아들 마키르에게 주어 그곳에 살게 하였다.

41 므나세의 아들 아이르도 가서 그들의 부락들을 점령하여, 그곳을 '아이르의 부락들'이라 하였다.

42 노바도 가서 크냐트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그곳을 노바라 하였다.

이집트에서 요르단에 이른 여정

33¹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대로 편성되어 모세와 아론의 지휘 아래 이집트 땅에서 나와 행군한 여정은 이러하다.

2 모세는 주님의 분부에 따라 그들이 머무르다 떠난 출발지들을 기록하였다. 출발지에 따라 본 그들의 여정은 이러하다.

3 그들은 첫째 달, 곧 첫째 달 열닷셋날에 라메세스를 떠났다. 파스카 축제 다음 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온 이집트인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나왔다.

4 그때에 이집트인들은 주님께서 쳐 죽이신 모든 만아들의 장사를 지내고 있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의 신들에게도 심판을 내리셨다.

5 이스라엘 자손들은 라메세스를 떠나 수룻에 진을 쳤다.

6 수룻을 떠나서는 광야 언저리에 있는 에탐에 진을 쳤고,

7 에탐을 떠나서는 비알 촌촌 앞 피 하히롯으로 돌아가 막돌 앞에 진을 쳤다.

8 피 하히롯을 떠나서는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서 광야로 나가, 에탐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어가 마리에 진을 쳤다.

9 그러고는 마리를 떠나 엘림으로 갔다. 엘림에는 샘이 열두 개 있고 야자나무가 일흔

- 그루 있었는데, 그들은 그곳에 진을 쳤다.
- 10 엘림을 떠나서는 갈대 바다 가에 진을 쳤다.
- 11 갈대 바다를 떠나서는 신 광야에 진을 쳤고,
- 12 신 광야를 떠나서는 둑가에 진을 쳤다.
- 13 그리고 둑가를 떠나서는 알루스에 진을 쳤다.
- 14 알루스를 떠나서는 르피담에 진을 쳤는데, 그곳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 15 르피담을 떠나서는 시나이 광야에 진을 쳤다.
- 16 시나이 광야를 떠나서는 키브롯 타이와에 진을 쳤고,
- 17 키브롯 타이와를 떠나서는 하체롯에 진을 쳤다.
- 18 하체롯을 떠나서는 리트마에 진을 쳤다.
- 19 리트마를 떠나서는 림몬 페레즈에 진을 쳤고,
- 20 림몬 페레즈를 떠나서는 리브나에 진을 쳤다.
- 21 그리고 리브나를 떠나서는 리싸에 진을 쳤다.
- 22 리싸를 떠나서는 크헬라타에 진을 쳤고,
- 23 크헬라타를 떠나서는 세페르 산에 진을 쳤다.
- 24 또 세페르 산을 떠나서는 하라다에 진을 쳤고,
- 25 하라다를 떠나서는 막헬롯에 진을 쳤다.
- 26 막헬롯을 떠나서는 타חת에 진을 쳤다.
- 27 타חת을 떠나서는 테라에 진을 쳤고,
- 28 테라를 떠나서는 맛가에 진을 쳤다.
- 29 그리고 맛가를 떠나서는 하스모나에 진을 쳤다.
- 30 하스모나를 떠나서는 모세롯에 진을 쳤고,
- 31 모세롯을 떠나서는 브네 아이칸에 진을 쳤다.
- 32 브네 아이칸을 떠나서는 호르 깃갓에 진을

쳤다.

- 33 호르 깃갓을 떠나서는 옷바타에 진을 쳤고,
- 34 옷바타를 떠나서는 아브로나에 진을 쳤다.
- 35 아브로나를 떠나서는 에즈온 게베르에 진을 쳤고,
- 36 에즈온 게베르를 떠나서는 친 광야 곧 카데스에 진을 쳤다.
- 37 그리고 카데스를 떠나서는 에돔 땅 언저리에 있는 호르 산에 진을 쳤다.
- 38 아론 사제가 주님의 분부에 따라 호르 산에 올라가 그곳에서 죽으니, 그때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사십 년 되는 해 다섯째 달 초하룻날이었다.
- 39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을 때에 나이는 백스물세 살이었다.
- 40 가나안 땅 네겔에 사는 가나안 사람 아랏 임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 41 그들은 호르 산을 떠나 찰모나에 진을 쳤다.
- 42 찰모나를 떠나서는 푸논에 진을 쳤다.
- 43 푸논을 떠나서는 오봇에 진을 쳤고,
- 44 오봇을 떠나서는 모압 영토 안에 있는 이에 아비림에 진을 쳤다.
- 45 이암을 떠나서는 디본 가드에 진을 쳤다.
- 46 디본 가드를 떠나서는 알몬 디블라타임에 진을 쳤고,
- 47 알몬 디블라타임을 떠나서는 느보 앞 아바림 산에 진을 쳤다.
- 48 그리고 아바림 산을 떠나서는 예리코 앞 요르단 강 가의 모압 벌판에 진을 쳤다.
- 49 그들은 요르단 강 가를 따라 모압 벌판에 진을 쳤는데, 벧 여시못에서 아벨 시탐까지 이르렀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지시하다

- 50 주님께서 예리코 앞 요르단 강 가의 모압 벌판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51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이
 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 52 그 땅의 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모조리 쫓아
 내고, 돌에 새긴 그들의 우상들과 주조
 신상들을 없애고, 그들의 산당들도 모조리
 헐어 버려야 한다.
- 53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고 주었다.
- 54 너희는 씨족별로 제비를 뽑아 재산을 받아
 라. 큰 씨족에게는 상속 재산을 많이 주고,
 작은 씨족에게는 상속 재산을 적게 주어라.
 제비를 뽑아 나오는 대로 저마다 제 것으
 로 삼아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지파에 따
 라 재산을 받아라.
- 55 너희가 그 땅의 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쫓
 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 놓은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바
 늘이 되어,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
 를 괴롭힐 것이다.
- 56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하려고 생각했던 그
 대로 너희에게 하겠다."

가나안 땅의 경계

- 34** ¹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²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
 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것이 너희에게 상
 속 재산으로 돌아갈 땅이 된다. 곧 다음과
 같이 경계가 정해진 가나안 땅이다.
 - 3 남쪽은 친 광야에서부터 에돔 땅을 따라간
 다. 그러므로 너희의 남쪽 경계는 ' 소금
 바다' 동쪽 끝에서 시작된다.
 - 4 너희의 이 경계는 ' 아크라뱀 오르막' 남
 쪽을 돌아 친 광야를 지나서, 그 끝이 카데
 스 바르네야 남쪽에 이른다. 거기에서 하차
 르 아뜨르로 나가 아쯔몬을 지난다.
 - 5 그 경계는 다시 아쯔몬에서 ' 이집트 마른

- 내 쪽으로 돌아,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 6 서쪽 경계는 큰 바다와 그 해변이다. 이것이
 너희의 서쪽 경계다.
- 7 너희의 북쪽 경계는 이러하다. 큰 바다에서
 호르 산까지 선을 그어라.
- 8 또 호르 산에서 하맛 어귀까지 선을 긋고,
 이 경계선의 끝이 츠닷에 이르게 하여라.
- 9 그런 다음, 경계선은 지프론으로 나와 그 끝
 이 하차르 에난에 이른다. 이것이 너희의 북
 쪽 경계다.
- 10 동쪽 경계선은 먼저 하차르 에난에서 스팜
 까지 그어라.
- 11 이 경계선은 아인 동쪽의 리블라까지 내려
 온 다음, 다시 더 내려가서 칸넬렛 호수 동
 쪽 비탈에 다다른다.
- 12 거기에서 경계선은 다시 요르단으로 내려
 가, 그 끝이 ' 소금 바다' 에 이른다. 이것
 이 사방 경계가 정해진 너희 땅이 될 것이
 다."
- 13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였다. "
 이것이 너희가 제비를 뽑아 상속 재산으로
 받을 땅, 곧 주님께서 아홉 지파와 반쪽 지
 파에게 주라고 명령하신 땅이다.
- 14 르우벤 자손 지파와 가드 자손 지파는 이
 미 집안별로 상속 재산을 받았고, 므나쎄
 반쪽 지파도 그것을 받았다.
- 15 이 두 지파와 반쪽 지파는 에리코 앞의 요
 르단 건너편 해 뜨는 동쪽에서 자기들의
 상속 재산을 이미 받았다."

소유지 분배 책임자들

- 16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17 "너희에게 땅을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들의 이름은, 엘야저르 사제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다.
- 18 너는 또 땅을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도
 록 지파마다 수장을 한 사람씩 뽑아라.
- 19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유다 지파에

- 서는 여푼네의 아들 칼렙,
 20 시메온 자손 지파에서는 암미훗의 아들 스무엘,
 21 벤야민 지파에서는 키슬론의 아들 엘리닷,
 22 단 자손 지파에서는 요글리의 아들 부키수장,
 23 요셉의 자손들 가운데, 므나세 자손 지파에서는 에훗의 아들 한니엘 수장,
 24 에프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십탄의 아들 크무엘 수장,
 25 그리고 즈블론 자손 지파에서는 파르낙의 아들 엘리차관 수장,
 26 이사카르 자손 지파에서는 아짚의 아들 팔티엘 수장,
 27 아세르 자손 지파에서는 슬로미의 아들 아히훗 수장,
 28 납탈리 자손 지파에서는 암미훗의 아들 프다엘 수장이다."
 29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상속 재산을 나누어 주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들이다.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줄 가주지

- 35** 1 주님께서 예리코 앞 요르단 강 가의 모압 벌판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2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그들 소유로 받은 상속 재산 가운데에서 레위인들이 살 성읍들을 내주게 하여라. 그 성읍들 주위에 있는 목초지도 내주어야 한다.
 3 그래서 그 성읍들은 레위인들이 살 곳이 되고, 그 목초지들은 레위인들의 가축과 재산과 모든 짐승을 위한 곳이 되게 하여라.
 4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내줄 성읍의 목초지는 성벽에서 밖으로 사방 천 암마의 땅이다.
 5 성읍을 한가운데에 두고 성읍 바깥 동쪽으로 이천 암마, 남쪽으로 이천 암마, 서쪽으로 이천 암마, 북쪽으로 이천 암마씩 채어라. 이것이 그들의 성읍에 딸린 목초지다.

- 6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내줄 성읍들에는 살인자가 피신할 수 있도록 너희가 정한 도피 성읍 여섯이 들어 있어야 한다. 이 밖에도 너희는 마흔두 성읍을 내주어야 한다.
 7 그래서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내줄 성읍은 모두 마흔여덟 성읍이 된다. 곧 그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들이다.
 8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소유 가운데에서 내주는데, 큰 지파에서는 많이 떼고 작은 지파에서는 적게 떼어라. 저마다 받은 상속 재산에 따라 레위인들에게 성읍들을 얼마씩 내주어라."

도피 성읍

- 9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10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1 몇몇 성읍을 선정하여 도피 성읍으로 삼아, 실수로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12 너희는 이 성읍들을 보복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 살인자가 재판받으려고 공동체 앞에 서기 전에 죽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13 너희는 이렇게 여섯 성읍을 정하여 도피 성읍으로 삼아라.
 14 세 성읍은 요르단 건너편에 정하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정하여, 도피 성읍이 되게 하여라.
 15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들뿐 아니라 이방인이나, 그들 가운데에 머무르는 거류민에게도 도피처가 되어, 실수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모두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16 그러나 누가 죄 연장으로 남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다. 살인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17 누가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쥐고 남

- 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다. 살인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 18 또는 누가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쥐고 남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다. 살인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 19 피의 보복자가 바로 그런 살인자를 죽여야 하는 사람이다. 그는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인다.
- 20 미워하여 밀치거나 악의를 품고 무엇을 던져 남을 죽게 하였으면,
- 21 또는 적의를 품고 손으로 쳐서 남을 죽게 하였으면, 그 가해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는 살인자다. 피의 보복자는 그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인다.
- 22 그러나 어쩌다가 적의 없이 남을 밀치거나 악의 없이 아무 연장이나 던졌으면,
- 23 또는 미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떨어뜨려 남을 죽게 하였으면, 서로 원수도 아니고 해칠 뜻도 없었으므로,
- 24 공동체는 이 법규들에 따라 그 가해자와 피의 보복자 사이를 판가름해 주어야 한다.
- 25 공동체는 그 살인자를 피의 보복자의 손에서 구하여, 그가 피신해 있던 도피 성읍으로 돌려보낸다. 그는 거룩한 기쁨을 부어 세운 대사제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아야 한다.
- 26 그러나 만일 살인자가 피신해 있던 도피 성읍의 경계 밖으로 나가면,
- 27 피의 보복자가 도피 성읍의 경계 밖에서 그 살인자를 발견하고 그를 살해하여도, 피의 보복자에게는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28 살인자는 대사제가 죽을 때까지 반드시 도피 성읍에서 살아야 한다. 대사제가 죽은 다음에야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 수 있다.
- 29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법 규정이다.

- 30 누구든지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증인들의 말에 따라 그 살인자를 처형해야 한다. 그러나 증인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사형에 처하지 못한다.
- 31 너희는 죽을 죄를 지은 그런 살인자의 목숨에 대한 대가로 배상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 32 너희는 살인자가 도피 성읍으로 피신하였다가 사제가 죽으면 고향에 돌아와 살게 해 주는 대가로 배상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 33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피는 땅을 더럽힌다. 땅에 피가 흐르면,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므로 속죄될 수 없다.
- 34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그 안에 머무르는 땅을 너희는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 주님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여자 상속인의 혼인

- 36** ¹ 요셉 자손의 씨족들 가운데, 므나세의 손자이자 마키르의 아들인 길앗 자손의 씨족들에 속하는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나서서, 모세와 수장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 앞에서 말하였다.
- 2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주님께서는 제비를 뽑아 이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라고 나라게 명령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라께서는 우리의 동기 출롯합의 상속 재산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주님께 명령을 받으셨습니다.
- 3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시집가게 되면, 그들의 상속 재산은 우리 조상들의 상속 재산에서 떨어져 나가, 그들이 시집간 지파의 상속 재산에 보태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속

- 재산의 몫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 4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희년이 돌아온다 하여도, 그들의 상속 재산은 그들이 시집간 지파의 상속 재산에 보태져,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지파의 상속 재산에서 그들의 상속 재산이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 5 모세가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였다. "요셉 자손 지파가 하는 말이 옳다.
- 6 출롭핫의 딸들과 관련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이러하다. '그들은 저마다 눈에 드는 사람에게 시집갈 수 있다. 다만 자기 아버지의 지파에 속한 씨족으로 시집가야 한다.
- 7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속 재산은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저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지파의 상속 재산에 붙어살아야 한다.
- 8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가운데에서 상속 재산을 이어받은 딸은, 누구나 자기 아버지 지파의 씨족에 속하는 사람에게만 시집갈 수 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저마다 자기 조상들의 상속 재산을 이어받게 해야 한다.
- 9 상속 재산은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은 저마다 자기 상속 재산에 붙어살아야 한다."
- 10 그리하여 출롭핫의 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 11 출롭핫의 딸들, 곧 마흘라, 티르차, 호글라, 밀카, 노이는 모두 사촌 오빠들에게 시집갔다.
- 12 이렇게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나쎄 자손의 씨족에게 시집갔으므로, 그들의 상속 재산이 그들 아버지 씨족의 지파에 남아 있게 되었다.
- 13 이는 주님께서 예리코 앞 요르단 강 거의 모압 벌판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규들이다.

구약성경 - 5

오경 - 5

신명기

총 34 장

총 959 절

【구약성경-신명기】

모세가 설교한 곳과 때

- 1** ¹ 이것은 모세가 요르단 건너편 아라바에 있는 광야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다. 아라바는 습을 미주 보고, 파란과 토벨, 라반, 하체룻, 디 자합 사이에 있다.
- 2** 호렘에서 세이르 산 길을 따라 카데스 바르네이에 이르기까지는 열하루가 걸렸다.
- 3** 사십 년째 되던 해 열한째 달 초하룻날,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일렀다.
- 4** 그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족의 임금 시혼을 쳐부수고,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사는 바산 임금 옥을 쳐부순 다음이었다.
- 5** 모세는 요르단 건너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호렘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다

- 6** "주 우리 하느님께서 호렘에서 우리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 7** 이제 발걸을 돌려 떠나라. 아모리족의 산악 지방, 그리고 그 부근의 모든 지역, 곧 아라바, 산악 지방, 평원 지대, 내썩, 해안 지대로 가거라. 가나안족의 땅, 그리고 레비논과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거라.
- 8** 보아라, 내가 너희 앞에 저 땅을 내놓았다. 가서 주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사와 과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차지하여라."

모세가 우두머리들을 세우다

- 9**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 혼자서는 너희를 떠맡을 수 없다.'
- 10**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불러내게 하시니, 너희가 오늘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 것

이다.

- 11**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너희를 천 배나 더 많게 하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 12** 그렇지만 나 혼자서 어떻게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 송사를 다 떠맡을 수 있겠느냐?
- 13** 너희는 지파별로 지혜롭고 슬기로우며 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뽑아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너희의 우두머리로 세우겠다.'
- 14** 그러자 너희는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대답하였다.
- 15** 그래서 나는 너희 지파들의 우두머리들, 곧 지혜롭고 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희의 우두머리로 내세워, 그들을 각 지파의 천인대장, 백인대장, 오십인대장, 십인대장으로, 그리고 관리로 삼았다.
- 16** 또한 그때에 나는 너희의 판관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 동족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잘 듣고 의롭게 재판하여라. 동족뿐 아니라 동족과 이방인 사이도 그렇게 하여라.'
- 17** 너희는 재판할 때에 한쪽을 편들어서 안 된다. 낮은 자의 말이나 높은 자의 말이나 똑같이 들어 주어야 한다. 재판은 하느님께 속한 것이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감당하기 힘든 송사는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들어 주겠다.'
- 18** 그때에 나는 이렇게 너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명령하였다."

가나안 정찰과 백성의 불평

- 19** "우리는 주 우리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호렘을 떠나, 너희가 본 저 크고 무서운 광야를 가로질러, 아모리족의 산악 지방 길을 따라 카데스 바르네이에 이르렀다.
- 20** 거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주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족의 산악 지방에 이르렀다.'
- 21** 보아라,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앞에 저

땅을 내놓으셨다.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 하여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라.'

22 그러나 너희는 모두 나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우리보다 앞서 사람들을 보내어 저 땅을 정찰한 다음, 우리가 올라가야 할 길과 들어가야 할 성읍들에 관하여 보고하게 합시다.'

23 나는 그 말이 좋게 들려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뽑았다.

24 그들은 발길을 돌려 산악 지방으로 올라가서, 에스콜 골짜기까지 가며 그 땅을 정탐하였다.

25 그들은 그 땅에서 난 열매를 따 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와서, '주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 땅은 좋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26 그러나 너희는 올라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주 너희 하느님의 분부를 거역하였다.

27 그러면서 너희는 천막 안에서 불평하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모리족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시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구나.'

28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한단 말인가? 우리의 형제들이 ' 그곳 백성은 우리보다 우람하고 키도 크다. 성읍들은 클뎨더려 하늘까지 닿는 요새로 되어 있다. 우리는 또 거기에서 아낙인들까지 보았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지 않았는가?'

29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마라.'

30 너희 앞에 서서 가시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서,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집트에서 하신 것과 똑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다.

31 너희는 마치 사람이 제 아들을 업고 다니듯,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이곳에 다

다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너희를 업고 다니시는 것을 광야에서 보았는데, 그 광야에서도 그렇게 싸워 주셨다.

32 그런데도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믿지 않았다.

33 너희가 천막을 칠 곳을 찾아 주시려고, 또 너희가 갈 길을 보여 주시려고, 밤에는 불 속에서, 낮에는 구름 속에서 앞장서 가시는 주님을 너희는 믿지 않았다."

주님께서 진노하시어 이스라엘을 벌하시다

34 "주님께서는 너희가 하는 소리를 듣고 진노하시어 이렇게 맹세하셨다.

35 '이 악한 세대,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아무도,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36 그러나 여푼네의 아들 칼렙만은 그 땅을 볼 것이다. 그는 주님을 충실히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밝은 땅을 그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겠다.'

37 주님께서는 너희 때문에 나에게도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셨다. '너 또한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38 너의 시중을 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줄 사람이니, 너는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라.

39 그리고 적의 약탈물이 되리라고 너희가 말한 너희 어린이들과, 아직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할 줄 모르는 너희 자식들도 그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그 땅을 주어 그들이 차지할 것이다.

40 그러나 너희는 발길을 돌려 갈대 바다 길을 따라 광야로 떠나라.'

41 그러자 너희는 나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너희는 저마다 무기를

들고 산악 지방으로 올라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 42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 내가 너희 가운데에 없을 것이니,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마라. 그래야 너희가 적 앞에서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
- 43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일렀지만 너희는 듣지 않았다. 너희는 주님의 분부를 거역하고 주재념게 산악 지방으로 올라갔다.
- 44 그러자 그 산악 지방에 살던 아모리족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 떼처럼 달려들어 너희를 내몰았다. 그들은 세이르에서 호르마까지 뒤쫓아 가며 너희를 쳤다.
- 45 너희는 돌아와 주님 앞에서 울었지만, 주님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셨다.
- 46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오랫동안 카테스에 머물렀던 것이다."

예들과 모압과 암몬을 지나기다

- 2 ¹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신 대로, 우리는 발길을 돌려 갈대바다 길을 따라 광야로 떠났다. 그리고 오랫동안 세이르 산 주변을 떠돌아다녔다.
- 2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 3 '너희는 이 산 주변을 오랫동안 떠돌아다녔으니, 이제 북쪽으로 발길을 돌려라.
- 4 그리고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 너희는 세이르에 살고 있는 에사우의 자손들, 곧 너희 친족의 영토를 지날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겠지만, 매우 조심하여
- 5 그들에게 싸움을 걸지 마라. 내가 세이르 산을 에사우에게 소유지로 주었으므로, 너희에게는 그들의 땅을 한 치도 주지 않을 것이다.
- 6 너희는 그들에게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사 먹고, 물도 돈을 주고 사 마셔야 한다.

- 7 주 너희 하느님은 너희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었고, 또 너희가 이 큰 광야를 지나가는 것을 안다. 지난 사십 년 동안 주 너희 하느님이 너희와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
- 8 우리는 엘랏과 에츠온 계곡과 아라바 길을 버리고, 세이르에 사는 우리의 친족인 에사우의 자손들을 비켜 지나갔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발길을 돌려 모압 광야 길을 따라 지나갔다.
- 9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그들에게 싸움을 걸지도 마라. 내가 아르를 롯의 자손들에게 소유지로 주었으므로, 너희에게는 그 땅 어느 곳도 소유지로 주지 않을 것이다. —
- 10 전에는 그곳에 엠인들이 살았는데, 그들은 우람하고 수가 많았으며 야만인들처럼 키가 컸다.
- 11 그들은 야만인들처럼 라피인으로도 알려졌으나, 모압인들은 그들을 엠인이라 하였다.
- 12 세이르에는 전에 호르인들이 살았으나 에사우의 자손들이 그들을 내쫓고 멸망시킨 뒤, 그들 대신 그곳에 살게 되었다. 이는 이스라엘이,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소유지로 주신 땅에 한 것과 똑같다. —
- 13 이제 일어나 제렛 시내를 건너가라.' 그래서 우리는 제렛 시내를 건너갔다.
- 14 우리가 카테스 바르네아를 떠나 제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걸린 기간은 삼십팔 년인데, 그동안에 주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군사들의 한 세대가 모두 진영에서 사라졌다.
- 15 바로 주님의 손이 그들을 치셔서, 그들을 진영에서 내몰아 모두 없애 버리신 것이다.
- 16 백성 가운데에서 군사들이 모두 죽어 없어지자,
- 17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 18 '오늘 너희는 모압의 영토인 아르를 지날

것이다.

- 19 너희가 암몬 자손들의 경계에 다다르면,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그들에게 싸움을 걸지도 마라. 내가 그 땅을 롯의 자손들에게 소유지로 주었으므로, 너희에게는 암몬 자손들의 땅 어느 곳도 소유지로 주지 않을 것이다. —
- 20 그 땅도 라파인들의 땅으로 알려진 곳이다. 전에는 그곳에 라파인들이 살았는데 암몬인들은 그들을 잠쭈뎨이라 하였다.
- 21 그들은 우람하고 수가 많았으며 야만인들 처럼 키가 컸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암몬인들 앞에서 멸망시키셨으므로, 암몬인들이 그들을 내쫓고 그들 대신 그곳에 살게 되었다.
- 22 이는 주님께서 세이르에 살던 에사우의 자손들을 위하여 하신 것과 똑같다. 주님께서 호르인들을 그들 앞에서 멸망시키셨으므로, 에사우의 자손들이 호르인들을 내쫓고 그들 대신 오늘날까지 살게 된 것이다.
- 23 가자에 이르기까지 여러 마을에 살던 아와인들도 마찬가지다. 캅토르에서 온 캅토르인들이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 대신 살게 되었다. —
- 24 일어나 떠나라. 그리고 아르논 강을 건너라. 보이라, 내가 헤스본 임금 아모리인 시혼과 그의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니, 그 땅을 차지해 나가라. 그에게 싸움을 걸어라.
- 25 오늘 내가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민족들에게 너희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불어넣기 시작하겠다. 그들이 너희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면, 너희 때문에 떨면서 몸서리칠 것이다.!"

헤스본 임금 시혼을 쳐부수다

- 26 "그래서 나는 크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임금 시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렇게 인

사의 말을 하였다.

- 27 '내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고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 28 나는 임금님이 돈을 받고 파시는 음식만 먹고, 임금님이 돈을 받고 주시는 물만 마시겠습니다. 내가 걸어서 지나가게만 해 주십시오.
- 29 세이르에 사는 에사우의 자손들과 아르에 사는 모압인들이 나에게 해 주었듯이, 내가 요르단을 건너 주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 30 그러나 헤스본 임금 시혼은 우리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오늘 이처럼 그를 너희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의 영을 완고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 31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보이라, 내가 이제부터 시혼과 그의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그 땅을 차지해 나가라.'
- 32 시혼이 제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우리와 맞서 싸우려 아하츠로 나왔다.
- 33 그러나 주 우리 하느님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으므로, 우리는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쳐부수었다.
- 34 그때에 우리는 시혼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남자,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성읍 주민들을 모조리 전멸시켜, 생존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 35 다만, 가축과 우리가 점령한 성읍들에서 약탈한 물건들만 전리품으로 거두었다.
- 36 아르논 강 끝에 있는 아로에르와 그 강가의 성읍에서 길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차지하지 못한 성은 하나도 없었다. 주 우리 하느님께서 그것들을 모두 우리에게 넘겨주셨던 것이다.
- 37 그러나 너희는 암몬 자손들의 땅과 아백

강 주변 전역과 산악 지방의 성읍들, 그리고 주 우리 하느님께서 금하신 곳은 어느 곳에도 가까이 가지 않았다."

바산 임금 옥을 쳐부수다

3

¹ "우리는 발길을 돌려 바산 쪽으로 올라갔다. 그러자 바산 임금 옥이 우리에게 맞서 싸우려고 온 백성을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나왔다.

²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는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족의 임금 시혼을 쳐부수었듯이 그를 쳐부수어라.'

³ 이렇게 주 우리 하느님께서 바산 임금 옥과 그의 온 백성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우리는 생존자 하나 남기지 않고 그들을 모두 쳐부수었다.

⁴ 그래서 우리는 그의 성읍들을 모두 점령하였다.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못한 성은 하나도 없었다. 바산에서 다스리던 옥의 왕국인 아르곱 전 지역에는 성읍이 예순 개나 있었는데,

⁵ 그 성읍들은 모두 높은 성벽과 성문과 빗장으로 요새가 되어 있었다. 그 밖에 성벽이 없는 마을들도 매우 많았다.

⁶ 우리는 헤스본 임금 시혼에게 한 것처럼 그들을 전멸시켰다. 모든 성읍에서 남자,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전멸시켰다.

⁷ 그러나 성읍들의 모든 가축과 노획물은 전리품으로 거두었다.

⁸ 이렇게 우리는 요르단 건너편에 있던 아모리족의 두 임금으로부터 아르논 강에서 헤르몬 산에 이르는 땅을 빼앗았다. —

⁹ 헤르몬을 시돈인들은 시르몬이라 하고, 아모리족은 스니르라고 하였다. —

¹⁰ 우리는 고원 지대에 있는 모든 성읍과 살카와 에드레이에 이르기까지 길앗과 바산

의 전 지역을, 곧 바산에서 다스리던 옥의 왕국의 성읍들을 빼앗았던 것이다. —

¹¹ 바산 임금 옥은 라파인들 가운데에서 홀로 살아남았다. 쇠로 만든 그의 침대가 지금도 암몬 자손들이 사는 라빠에 있지 않은가? 그것은 보통 암마로 길이가 아홉 암마, 너비가 네 암마나 된다."

요르단 건너편 땅을 분배하다

¹² "그때에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하였다. 나는 아르논 강에 있는 아로에르에서 시작하여 길앗 산악 지방의 절반과 그 성읍들을 르우벤인들과 가드인들에게 주었다.

¹³ 그리고 길앗의 나머지 지역과 옥의 왕국인 바산 전역을 므나세 반쪽 지파에게 주었다. — 아르곱의 전 지역, 곧 바산의 전 지역은 라파인들의 땅이라 불렀다.

¹⁴ 므나세의 아들 아이르네는 구스르인들과 마아키인들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아르곱 지역을 모두 빼앗았다. 그런 다음에 그곳 바산을 자기 이름을 따서 '아이르의 부락'이라 불렀는데,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린다.

¹⁵ 나는 마키르에게도 길앗을 주었다.

¹⁶ 그리고 르우벤인들과 가드인들에게는, 아르논 강 가운데를 경계로 하여 길앗에서 아르논 강까지, 그리고 암몬 자손들의 경계인 아뻑 강까지 주었다.

¹⁷ 또한 요르단을 경계로 하여, 아라바와, 킨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동쪽의 피스가 기슭 아래 '소금 바다'에 이르는 지역을 주었다.

¹⁸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너희 형제들인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서서 건너가거라.

¹⁹ 다만 너희 아내들과 아이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너희에게 가축이 많이 있는데, 그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들에 머물러 있게 하여라.

20 주님께서 너희와 마찬가지로 너희의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베푸시고, 그들 또한 주 너희 하느님께서 요르단 건너편에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때에야 너희는 저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땅으로 돌아올 수 있다.'

21 그때에 나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다. '너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이 두 임금에게 하신 모든 것을 똑똑히 보았다. 주님께서는 내가 들어가는 모든 나라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22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주 너희 하느님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시는 분이다."

모세가 요르단을 건너지 못하게 되다

23 "그때에 내가 주님께 이렇게 간구하였다.

24 '주 하느님,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 종에게 당신의 위대함과 당신의 뛰어난 능력을 보여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이나 땅에 있는 어떤 신이 당신의 업적과 위업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25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해 주시어, 제가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저 좋은 땅, 저 아름다운 산악 지방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26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시어 내 말을 들어 주지 않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만 됐다. 더 이상 이 일로 나에게 말하지 마라.

27 피스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쪽과 북쪽과 남쪽과 동쪽으로 눈을 들어, 네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너는 이 요르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28 너는 여호수아에게 책임을 맡겨라. 그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어라. 그는 이 백성 앞에 서서 건너갈 사람이며, 이 백성에게 내가 보는 땅을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이다.'

29 그래서 우리는 벳 프오르 맞은쪽 골짜기에 머물렀다."

하느님의 법

4 ¹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가르쳐 주는 규정과 법규들을 잘 들어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고,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2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무엇을 보더라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주 너희 하느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3 너희는 주님께서 바알 프오르에서 하신 일을 두 눈으로 보았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프오르의 바알 신을 따라간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에서 모두 멸망시키셨다.

4 그러나 주 너희 하느님께 충실하였던 너희는 오늘 모두 살아 있다.

5 보아라,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땅에서 그대로 실천하도록, 나는 주 나의 하느님께서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규정과 법규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다.

6 너희는 그것들을 잘 지키고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민족들이 너희의 지혜와 슬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규정을 듣고, '이 위대한 민족은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이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7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까이 계시어 주시는, 주 우리 하느님 같은 신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느냐?

8 또한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내놓는 이 모든 율법처럼 올바른 규정과 법규들을 가진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느냐?

9 너희는 오로지 조심하고 단단히 정신을 차려, 너희가 두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것들이 평생 너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또한 자자손손에게 그것들을 알려 주어라."

호렘 산에서 내린 계시

- 10 "너희가 호렘에서 주 너희 하느님 앞에 서 있던 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을 나에게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나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들의 자손들도 가르치게 하겠다.'
- 11 그리하여 너희가 다가와서 산 밑에 서자, 그 산은 하늘 한가운데까지 치솟는 불길에 휩싸였다. 그런데도 어둠과 짙은 구름이 깔려 있었다.
- 12 그때에 주님께서 불 속에서 너희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말씀하시는 소리는 들었지만,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다. 너희는 소리만 들었을 뿐이다.
- 13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명령하신 당신의 계약을, 곧 십계명을 너희에게 선포하시고 그것을 두 돌 판에 써 주셨다.
- 14 또한 그때에 주님께서,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실천해야 할 규정과 법규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라고 나에게 명령하셨다."

우상 숭배를 경고하다

- 15 "주님께서 호렘 산 불 속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 너희는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으니 매우 조심하여,
- 16 남자의 모습이든 여자의 모습이든,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어 타락하지 않도록 하여라.
- 17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나, 하늘을 날아다니는 어떤 새의 형상이나,

18 땅 위를 기어 다니는 어떤 것의 형상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19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어, 해나 달이나 별 같은 어떤 천체를 보고 유혹을 받아,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주 너희 하느님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주신 몫이다.

20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도가니 곧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셔서 오늘 이처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이다.

21 주님께서 너희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시어, 내가 요르단을 건너지 못하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저 좋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맹세 하셨다.

22 그래서 나는 요르단을 건너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었지만, 너희는 건너가서 저 좋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23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금하신 그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24 주 너희 하느님은 태워 버리는 불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25 너희가 자손들을 낳으며 그 땅에서 오래 살게 될 때, 너희가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어 타락하거나, 주 너희 하느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러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면,

26 내가 오늘 너희를 거슬러 하늘과 땅을 중인으로 세우는데,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차지하려는 저 땅에서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는 그곳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27 주님께서 너희를 다른 민족들 사이에 흠여 버리실 것이며, 주님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

실 그곳 백성들 가운데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 28 너희는 거기에서 사람의 손이 너무나 돌로 만든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신들을 섬길 것이다.
- 29 거기에서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찾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 될 것이다.
- 30 너희가 곤경에 빠지고 이 모든 일이 너희에게 닥치면, 마침내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가 그분의 말씀을 잘 듣게 될 것이다.
- 31 주 너희 하느님께서서는 자비하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버리지도 파멸시키지도 않으실 것이며,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계약도 잊지 않으실 것이다."

주 하느님의 위대함과 선택받은 이스라엘

- 32 "이제, 하느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너희가 태어나기 전의 날들에게 물어보아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물어보아라. 과연 이처럼 큰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이와 같은 일을 들어 본 적이 있느냐?
- 33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소리를 듣고도 너희처럼 살아남은 백성이 있느냐?
- 34 아니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가 보는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적, 전쟁과 강한 손과 뻗은 팔과 큰 공포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 가운데에서 데려오려고 애쓴 신이 있느냐?
- 35 그것을 너희에게 보여 주신 것은 주님께서 하느님이시고, 그분 말고는 다른 하느님이 없음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 36 그분께서는 너희를 깨우치시려고 하늘로부터 당신의 소리를 너희에게 들려주셨다.

또 땅 위에서는 당신의 큰 불을 너희에게 보여 주시고, 너희가 불 가운데에서 울려 나오는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해 주셨다.

- 37 그분께서는 너희 조상들을 사랑하셨으므로 그 후손들을 선택하셨다. 그분께서는 몸소 당신의 큰 힘으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다.
- 38 그리하여 너희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내쫓으시고, 너희를 이 땅으로 데려오셔서, 오늘 이처럼 이 땅을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신 것이다.
- 39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주님께서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느님이시며, 다른 하느님이 없음을 분명히 알고 너희 마음에 새겨 두어라.
- 40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규정과 계명들을 지켜라. 그래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잘되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영원토록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요르단 동쪽에 있는 도피 성읍

- 41 그때에 모세는 요르단 건너편, 헤 뜨는 쪽에 성읍 셋을 따로 떼어 놓고,
- 42 전에 미위한 일이 없는 이웃을 실수로 죽인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였다. 살인자가 이 성읍들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면 살 수 있었다.
- 43 그 성읍들은 르우벤인들에게 속한 고원 시대 광야의 베체르, 가드인들에게 속한 길앗의 라뭇, 므나쎄인들에게 속한 바산의 골란이다.

모세가 율법을 선포한 곳

- 44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내놓은 율법이다.
- 45 또한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모세가 그들에게 선포한 법령과 규정과 법규들이다.

- 46 요르단 건너편, 벧 프오르 맞은쪽 골짜기, 헤스본에 살던 아모리족의 임금 시혼의 땅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처부순 임금이다.
- 47 그들은 시혼 임금의 땅과 바산 임금 옥의 땅을 차지하였는데, 이들은 요르단 건너편, 해 뜨는 쪽에 있던 아모리족의 두 임금이 다.
- 48 그들이 차지한 땅은 아르논 강 어귀에 있는 아로에르에서 시온 산, 곧 헤르몬까지,
- 49 동쪽으로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아라바 전 지역, 그리고 피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 바다까지다.

십계명

5

- 1 모세는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똑똑히 알려 주는 규정과 법규들을 들어라! 너희는 그것들을 배우고 명심하여 실천하여라.
- 2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호렙에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다.
- 3 주님께서는 이 계약을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살아 있는 우리 모두와 맺으신 것이다.
- 4 주님께서는 그 산 위 불 속에서 너희와 일곱을 마주 보고 말씀하셨다.
- 5 그때에 너희가 그 불이 무서워서 산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주님과 너희 사이에 서서, 너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알려 주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 6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
- 7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 8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어떤 형상으로도 신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 9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의 하나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삼 대 사 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 10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 11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 12 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여라.
- 13 엿새 동안 일하면서 네 할 일을 다 하여라.
- 14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의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너의 소와 나귀, 그리고 너의 모든 짐승과 네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여 너의 남종과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해야 한다.
- 15 너는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였고, 주 너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너를 그곳에서 이끌어 내었음을 기억하여라. 그 때문에 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 16 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고 잘될 것이다.
- 17 살인해서는 안 된다.
- 18 간음해서는 안 된다.
- 19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 20 이웃에게 불리한 허위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 21 이웃의 아내를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집이나 밭,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재산은 무엇이든지 욕심내서는 안 된다.'
- 22 주님께서서는 구름이 덮이고 어두운 산 위 불 속에서, 큰 소리로 너희 온 회중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셨다. 그리고 두 돌 판에 이 말씀을 쓰시어 나에게 주셨다."

백성이 모세의 중기를 요청하다

- 23 "산이 불에 타고 있는 가운데, 어둠 속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를 듣고, 너희 지파의 우두머리들과 원로들이 모두 나에게 가까이 와서
- 24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과 위대함을 보여 주시고, 우리는 불 속에서 울려 나오는 그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사람과 말씀하셨는데도 그 사람이 살아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 25 그런데, 이제 왜 우리가 죽어야 합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켜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우리 하느님의 소리를 다시 듣는다면,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 26 육체를 가진 사람 가운데, 살아 계신 하느님께서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도 우리처럼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 27 그러니 당신께서 가까이 가지어 주 우리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 우리 하느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면, 우리가 듣고 실천하겠습니다.'
- 28 주님께서서는 너희가 나에게 말할 때에 그 말을 들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나에게 한 말을 다 들었다. 그들이 한 말은 모두 옳다.
- 29 그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져, 늘 나를 경외

- 하고 나의 모든 계명을 지킨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면 그들과 그들 자손들이 영원토록 잘될 것이다.
- 30 가서 그들에게 천막으로 돌아가라고 일러라.
- 31 그러나 너는 여기에서 나와 함께 있어라. 내가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모든 계명과 규정과 법규를 내가 너에게 일러 주겠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차지하다고 주는 땅에서 그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 32 그러므로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들을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너희는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
- 33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길을 따라 걸어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되고 오래 살 것이다."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라

- 6 ¹ "이는, 너희가 건나가 차지하게 될 땅에서 실천하도록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규정들과 법규들이다.
- 2 그것은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평생토록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그분의 모든 규정과 계명을 지켜 오래 살게 하려는 것이다.
- 3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이것을 듣고 명심하여 실천하여라. 그러면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이다.
- 4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 5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 6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

- 에 새겨 두어라.
- 7 너희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이 말을 너희 자녀에게 거듭 들려주고 일러 주어라.
- 8 또한 이 말을 너희 손에 표징으로 묶고 이마에 표지로 붙여라.
- 9 그리고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 놓아라.
- 10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을 너희에게 주시려고, 너희를 그곳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거기에는 너희가 세우지 않은 크고 좋은 성읍들이 있고,
- 11 너희가 채우지 않았는데도 이미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들과, 너희가 파지 않았는데도 이미 파인 저수 동굴들과, 너희가 가꾸지도 않은 포도밭과 올리브 밭이 있다. 거기에서 너희가 마음껏 먹게 될 때,
- 12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 13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한다.
- 14 너희는 너희 주위에 있는 민족들의 신들 가운데 그 어떤 신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
- 15 너희 가운데에 계시는 주 너희 하느님은 질투하시는 하느님이시다. 주 너희 하느님의 진노가 너희를 거슬러 타올라, 너희를 저 땅에서 멸망시키시는 일이 없게 하여라.
- 16 너희가 마씨에서 주 너희 하느님을 시험한 것처럼, 그분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 17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들과, 그분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법령과 규정들을 잘 지켜야 한다.
- 18 너희는 주님의 눈에 드는 옳고 좋은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잘되고, 주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저 좋은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 19 또한 주님께서서는 약속하신 대로 너희의 모든 원수를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 20 댁날, 너희 아들이 너희에게, '주 우리 하느님께서 부모님께 명령하신 법령과 규정과 법규들이 왜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 21 너희는 너희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종이였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다.
- 22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이집트, 곧 파라오와 그의 집안에 크고 무서운 표징들과 기적들을 내리셨다.
- 23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셨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를 데려다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었다.
- 24 그런 다음에 우리가 늘 잘되고 오늘 이처럼 우리를 살게 해 주시려고, 주님께서서는 이 모든 규정을 실천하고 주 우리 하느님을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 25 주 우리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분 앞에서 이 모든 계명을 명심하여 실천하면, 우리가 의로워질 것이다.'"

이스라엘과 이민족의 관계

- 7¹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차지하려 들어가려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시고, 많은 민족, 곧 너희보다 수가 많고 강한 일곱 민족인 히타이트족, 기르가스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실 때,
- 2 그리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셔서 너희가 그들을 쳐부수게 될 때, 너희는 그들을 반드시 전멸시켜야 한다. 너희는 그들과 계약을 맺어서도, 그들을 붙잡히 여겨서도 안 된다.
- 3 너희는 또한 그들과 혼인을 해서도 안 된다.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고, 너

희 아들에게 주려고 그들의 딸을 맞아들이
서도 안 된다.

4 그런 짓은 너희의 아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주님의 진노가 너희를 거슬러 타올
라 주님께서 너희를 곧바로 멸망시키실 것
이다.

5 오히려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그들의 제단들을 허물어뜨리고 그들의 기념
기둥들을 부수며, 그들의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 버리고 그들의 우상들을 불에 태워 버
려야 한다.

6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
이며,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시
어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너희를 당신 소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
문이다.

7 주님께서 너희에게 마음을 주시고 너희를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어느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사실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수가 가장 적다.

8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시어, 너
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려고, 강
한 손으로 너희를 이끌어 내셔서, 종살이하
던 집,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 내셨다.

9 그러므로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참하
느님이시며,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
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계약과 자애를 지키시는 진실하신 하느님이
심을 알아야 한다.

10 또 당신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를 멸망시
키시어 직접 갚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
없이 직접 갚으신다.

11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명령하는 계명과 규정들과 법규들을 너희
는 지켜야 한다.

12 너희가 이 법규들을 들어서 지키고 실천하
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도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계약과 자애를 너희에게 지켜 주
실 것이다.

13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
며 너희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또 너희
에게 주시겠다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
신 땅에서, 너희 몸의 소생들과 너희 땅의
열매, 곧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송
아지와 새끼 양들에게도 복을 내리시어 불
어나게 해 주실 것이다.

14 너희는 어떤 민족보다 복을 더 받아서, 너
희에게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남자도 여자
도 없을 것이며, 너희 가족들 가운데에는
새끼를 낳지 못하는 암컷도 수컷도 없을
것이다.

15 주님께서는 너희에게서 온갖 병을 없애 주
실 것이다. 또 너희가 이집트에서 본 온갖
나쁜 질병을 너희에게는 퍼뜨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
게는 그 질병들을 내리실 것이다.

16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넘겨
주시는 모든 민족들을 없애 버려라. 너희는
그들을 동정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신들을
섬겨서도 안 된다. 그것은 너희에게 옮기미
가 될 것이다.

17 너희 마음속에 '이 민족들이 우리보다 수가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내쫓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18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파라오와 온 이집트에 하신 일
을 똑똑히 기억하여라.

19 너희가 두 눈으로 본 큰 재앙들, 그리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표징과 기적들을 일으키
시며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너희를 이끌어
내신 것을 기억하여라. 주 너희 하느님께
서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 20 게다가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로 계속 말벌을 보내셔서, 살아남은 자들과 너희 앞에서 숨은 자들을 기어이 멸하실 것이다.
- 21 위대하고 두려운 하느님이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너희는 그들을 겁내지 마라.
- 22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그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몰아내실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단번에 제거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들짐승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 23 그러나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시고 줄곧 큰 혼란에 빠뜨리시어, 마침내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 24 그분께서는 그들의 임금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너희는 하늘 아래에서 그들의 이름을 없애 버릴 것이다. 아무도 너희에게 맞서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마침내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 25 너희는 그들의 신상들을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들 위에 입혀진 은이나 금을 탐내어 너희 것으로 삼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떼어 걸릴 것이다. 정녕 그런 짓은 주 너희 하느님께 역겨운 것이다.
- 26 역겨운 것을 너희 집에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너희도 그것처럼 전멸할 것이다. 그것은 전멸하게 되어 있는 물건이므로, 너희는 그것을 철저히 혐오하고 역겨워해야 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

- 8¹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을 명심하여 실천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살 수 있고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며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 2 너희는 이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그것은 너희를 낫추시고, 너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너희 마음속을 알아보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신 것이다.
- 3 그분께서는 너희를 낫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다음,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게 해 주셨다. 그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 4 이 사십 년 동안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해진 적이 없고, 너희 발이 부르튼 적이 없다.
- 5 너희는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단련시키듯,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단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 깊이 알아 두어야 한다."

약속의 땅에서 받게 될 유혹

- 6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의 길을 따라 걷고 그분을 경외해야 한다.
- 7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좋은 땅으로 데리고 가신다. 그곳은 물이 흐르는 시내와 샘이 있고, 골짜기와 산에서는 지하수가 솟아 나오는 땅이다.
- 8 또 밀과 보리와 포도주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 9 그곳은 너희가 모자람 없이 양식을 먹을 수 있고,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땅이며, 돌이 곧 쇠이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이다.
- 10 너희는 배불리 먹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좋은 땅 때문에 그분을 찬미하게 될 것이다.
- 11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잊지 않도록 조

삼하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계명과 법규와 규정들을 지키지 않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 12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들을 짓고 살게 될 때,
- 13 또 너희 소 떼와 양 떼가 불어나고 너희에게 은과 금이 많이 생기며,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 불어날 때,
- 14 너희 마음이 교만해져,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내신 주 너희 하느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 15 그분은 불 뱀과 전갈이 있는 크고 무서운 광야, 물 없이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차돌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분이시다.
- 16 또 그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몰랐던 만나를 너희가 막게 해 주신 분이시다. 그것은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셔서 뒷날에 너희가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 17 너희는 마음속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산을 마련하였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 18 그러나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기억해야 한다. 바로 그분은 오늘 이처럼,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계약을 이루시려고, 너희가 재산을 모으도록 너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 19 만일 너희가 정녕 주 너희 하느님을 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한다면, 내가 오늘 분명히 경고하는데,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고야 말 것이다.
- 20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처럼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보다 의로운 것이 없다

9 ¹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는 너희보다 더 크고 힘센 민족들에게 가서 그들을 쫓아내고, 하늘까지 닿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큰 성읍들을 차지하러, 오늘 요르단을 건너가려 하고 있다.

- 2 저기에는 우람하고 키 큰 백성, 곧 너희가 아는 야만인들이 있다. '누가 야만인들과 맞설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을 너희는 들었다.
- 3 그러나 너희는 오늘 주 너희 하느님은 태워 버리는 불이 되시어 너희 앞에 서서 건너가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한다. 그분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또 그분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굴복시키실 것이다. 그러하여 주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곧바로 그들을 쫓아내고 멸할 것이다.
- 4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실 때, 너희는 마음속으로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오시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저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려는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 5 너희가 그들의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는 것은, 너희가 의롭거나 마음이 울퉁아서가 아니다. 다만 저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려는 것이다. 그러하여 주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 6 그러므로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저 좋은 땅을 차지하라고 너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녕 너희는 목이 뻗뻗한 백성이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느님께 불충하다

- 7 "너희는 광야에서 주 너희 하느님의 분노를 일으킨 일을 기억하여 잊지 마라. 너희가 이

집트 땅에서 나와 이곳에 이를 때까지, 너희는 줄곧 주님을 거역해 왔다.

- 8 호렘에서 너희가 주님의 분노를 일으켰으므로,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진노하시어 너희를 멸망시키려 하셨다.
- 9 내가 돌 판, 곧 주님께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판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갔을 때, 나는 밤낮으로 사십 일을 산에 머무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 10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두 돌 판을 주셨는데, 거기에는 집회의 날에 주님께서 그 산의 불 속에서 너희와 하신 말씀이 모두 그대로 쓰여 있었다.
- 11 밤낮으로 사십 일이 지난 뒤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두 돌 판, 곧 계약판을 주셨다.
- 12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빨리 여기에서 내려가거라. 네가 이집트에서 이끌어 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저들은 내가 명령한 길에서 빨리도 벗어나 자기들의 우상을 만들었다.'
- 13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정말로 목이 뻗뻗한 백성이구나.'
- 14 나를 말리지 마라. 내가 저들을 멸망시키고 저들의 이름을 하는 아레에서 지워 버리겠다. 그 대신에 나는 너를 저들보다 더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 15 내가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은 불에 타고 있었고, 나의 양손에는 두 쪽으로 된 계약판이 들려 있었다.
- 16 내가 보니, 너희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주 너희 하느님께 죄를 짓고 있었다. 너희는 이렇게 주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길에서 빨리도 벗어났다.
- 17 그래서 나는 양손으로 그 두 판을 치켜들어 내던져서, 그것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깨뜨려 버렸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주님께 간청하다

- 18 "그런 다음에 나는 전과 같이, 주님 앞에서 밤낮으로 사십 일을 었드려 있었다. 너희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러 그분의 분노를 돌우며 지은 그 온갖 죄 때문에, 나는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 19 그것은 주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키시려고 너희에게 품으신 분노와 열화를 내가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번에도 나의 간청을 들어 주셨다.
- 20 또 주님께서 아론에게도 몹시 화를 내시어 그를 멸망시키려 하셨으므로, 나는 그때에 아론을 위해서도 기도하였다.
- 21 그리고 나는 너희가 만든 죄악, 곧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우고 그것을 부순 다음, 먼지 같은 기루가 될 때까지 잘게 갈아, 산에서 내려오는 시내에 내버렸다.
- 22 너희는 타브에라와 마짜와 키브롯 타아와에서도 주님을 분노하시게 만들었다.
- 23 또 주님께서 카데스 바르네아에서,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여라.' 하시며 너희를 보내실 때에도,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의 분부를 거역하고 그분을 믿지 않았으며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 24 내가 너희를 알게 된 날부터 너희는 줄곧 주님을 거역해 왔다.
- 25 주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밤낮으로 사십 일을 주님 앞에 었드려 있었다.
- 26 그러면서 나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느님, 당신의 그 큰 능력으로 구해 내시고,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오신, 당신의 소유, 이 백성을 파멸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 27 당신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셔서, 이 백성의 완고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말아 주십시오.

- 28 당신께서 저희를 이끌어 내오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주님은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구나. 그가 그들을 미워하여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들을 이끌어 내었구나.'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 29 그들은 당신께서 당신의 큰 힘과 당신의 뽕은 팔로 이끌어 내오신 당신 백성, 당신의 소유입니다."

새 십계판과 계약 례

- 10 ¹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먼젓번과 같은 돌 판 두 개를 깎아서, 산으로 나에게 올라오너라. 또 나무 궤를 하나 만들너라.
- 2 그러면 내가 부수어 버린 먼젓번 판 위에 쓰여 있던 말을 내가 그 판 위에 써 줄 것이니, 너는 그것을 궤 안에 넣으라.'
- 3 그래서 나는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고, 먼젓번과 같은 돌 판 두 개를 깎아서, 그 두 판을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다.
- 4 그러자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집회의 날에 그 산의 불 속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먼젓번에 쓰셨던 것처럼 그 판 위에 쓰셔서 나에게 주셨다.
- 5 그 뒤에 나는 돌아서서 산을 내려와,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만든 궤 안에 판들을 넣었는데, 그것들은 지금도 그 안에 있다.
- 6 이스라엘 자손들은 브에롯 브네 아이칸을 떠나 모세라로 옮겼다. 거기에서 아론이 죽어 그곳에 묻히고, 그의 아들 엘아사르가 뒤를 이어 사제가 되었다.
- 7 그들은 그곳을 떠나 굶고다로 옮겼고, 굶고다에서는 다시 물이 흐르는 옷바타로 옮겼다.
- 8 그때에 주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따로 가려

내서서, 주님의 계약 궤를 나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서 당신을 섬기며 당신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다.

- 9 그 때문에 레위인에게는 동족과 함께 받을 몫도 상속 재산도 없다. 그 대신에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상속 재산이 되신다.
- 10 내가 산 위에서 먼젓번처럼 밤낮으로 사십 일을 머물렀는데, 주님께서는 이번에도 나의 간청을 들어 주셨다. 주님께서는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기로 하신 것이다.
- 11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나에게, '일어나 백성 앞에 서서 길을 떠나라. 그래서 그들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사랑과 순종의 법

- 12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길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섬기는 것.
- 13 그리고 너희가 잘되도록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님의 계명과 규정들을 지키는 것이다.
- 14 보라,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그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 너희 하느님의 것이다.
- 15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에게만 마음을 주시어 그들을 사랑하셨으며, 오늘 이처럼 모든 백성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자손들인 너희만을 선택하셨다.
- 16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활례를 행하고, 더 이상 목을 뻗뻗하게 하지 마라.
- 17 주 너희 하느님은 신들의 신이시고 주님들

의 주님이시며,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고 시고 뇌물도 받지 않으시는, 위대하고 힘세며 경외로우신 하느님이시다.

- 18 또한 그분은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되찾아 주시고, 이방인을 사랑하시어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다.
- 19 너희는 이방인을 사랑해야 한다. 너희도 이 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기 때문이다.
- 20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만 매달리고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한다.
- 21 그분은 너희가 찬양을 드려야 할 분이시고, 너희가 두 눈으로 본 대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크고 두려운 일을 하신 너희 하느님이시다.
- 22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는 일흔 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셨다."

모세가 주님의 위대함을 기쁘다

- 11 ¹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과 규정과 법규와 계명들을 늘 지켜야 한다.
- 2 주 너희 하느님의 징계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너희 자녀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오늘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의 강한 손과 뻗은 팔을 기억해야 한다.
- 3 또한 그분께서 이집트 한가운데에서 이집트 임금 파라오와 그의 온 나라에 일으키신 표징과 업적을,
- 4 그리고 이집트의 군대와 말들과 병거들이 너희를 뒤쫓아 올 때, 갈대 바다의 물이 그들을 덮치게 하시어, 오늘날까지 그들을 멸망시키신 일과,
- 5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하신 일을,
- 6 그리고 르우벤의 손자이며 엘리압의 아들인

다탄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천막과 그들을 따르던 모든 사람을 삼켜 버리게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한다.

- 7 너희는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위대한 업적을 두 눈으로 보았다."

주님께서 좋은 땅을 약속하다

- 8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강해져서,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 9 또한 너희는 주님께서 너희 조상들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 10 너희가 차지하려 들어가는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과 같지 않다. 이집트에서는 너희가 씨를 뿌린 다음에, 채소밭처럼 밭로 물을 대야만 했다.
- 11 그러나 너희가 차지하려 건너가는 땅은 언덕과 골짜기가 많은 땅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축축이 적서 주는 곳이다.
- 12 주 너희 하느님께서 돌보아 주시며, 주 너희 하느님의 눈이 한 해가 시작할 때부터 한 해가 끝날 때까지 늘 살려 주시는 땅이다.
- 13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계명을 잘 들어,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면,
- 14 주님께서 너희 땅에 제때에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시어,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해 주실 것이다.
- 15 또 너희 들에서는 가축에게 풀을 주시어, 너희가 배불리 먹게 해 주실 것이다.
- 16 너희는 마음에 유혹을 받아, 길을 벗어나서 다른 산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경배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 17 그러지 않으면 주님의 진노가 너희를 거슬

러 타올라 하늘을 단으실 것이다. 그러면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소출을 내지 않고, 너희는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좋은 땅에서 바로 멸망할 것이다.

- 18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너희 정신에 새기고 너희 손에 표징으로 묶고 이마에 표지로 붙여라.
- 19 또 이 말씀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쳐 주어라.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이 말씀을 일러 주어라.
- 20 그리고 그것을 너희 집의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 놓아라.
- 21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땅 위에 있는 하늘처럼 오래오래 살 것이다.
- 22 내가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명령하는 이 모든 계명을 너희가 꼭 지키고,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모든 길을 따라 걷고 그분께 매달리면,
- 23 주님께서서는 저 모든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고, 너희는 너희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차지할 것이다.
- 24 너희 밭바다에 밟는 곳은 모두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서 서쪽 바다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 25 아무도 너희에게 맞서지 못할 것이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서는,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땅 어디에서나 너희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을 퍼뜨리실 것이다."
- 26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 27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들을 너희가 듣고 따르면 복이 내릴 것이다. 그러나

축복과 저주

- 28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들을 듣지 않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벗어나,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가 내릴 것이다.
- 29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차지하려 들어가려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시면, 그리짐산 위에서는 축복을, 에발 산 위에서는 저주를 선언해야 한다.
- 30 그 산들은 요르단 건너편에, 서쪽으로 좀더 가서, 아라바에 사는 가나안인들의 땅에, 곧 길갈 맞은쪽, 모세의 참나무 곁에 있지 않느냐?
- 31 너희는 요르단을 건너,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그곳을 차지하려고 한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자리 잡으면,
- 32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내놓는 모든 규정과 법규를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유일한 성소

- 12** ¹ "이것이 너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언제나,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땅에서 명심하여 실천해야 할 규정들과 법규들이다.
- 2 너희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높은 산 위에서든, 언덕 위에서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든,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던 곳은 모조리 없애 버려야 한다.
 - 3 그들의 제단들을 허물어뜨리고 그들의 기념기둥들을 부수며, 그들의 아세라 목상들을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또 그들의 신상들을 깨뜨리고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없애 버려야 한다.
 - 4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그렇게 경배해서는 안 된다.
 - 5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려고, 너희 모

- 든 지와 가운데에서 선택하시는 곳을 찾아
가야 한다. 너희는 반드시 그곳으로 가야
한다.
- 6 너희는 번제물과 희생 제물, 십일조와 예물,
그리고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 소와 양의
만배들을 그곳으로 가져가야 한다.
- 7 너희는 거기,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먹어
라. 너희와 너희 집안은 주 너희 하느님께
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어 너희 손으로 얻
은 모든 것을 두고 기뻐하여야.
- 8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저마다 제 눈에 울
게 보이는 것을 다 하고 있지만, 너희는 앞
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 9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아직은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안식처와 상속
지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 10 그러나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
는 땅에 자리 잡고, 그분께서 너희 주위에
있는 원수들을 모두 물리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셔서 너희가 평안히 살게 되면,
11 그때에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
곧 번제물과 희생 제물, 십일조와 예물, 너
희가 주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한 가장 좋은
서원 제물을, 주 너희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머무르게 하시려고 선택하시는 곳
으로 가져가야 한다.
- 12 그리고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너
희의 아들딸들, 남종들과 여종들, 그리고
너희와 함께 받을 몫이나 상속 재산 없이
너희 성안에서 사는 레위인들과 함께 기뻐
하여야.
- 13 너희는 눈에 띄이는 아무 곳에서도 번제물
을 바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 14 오직 주님께서 너희의 한 지파에서 선택하
시는 곳에서만 번제물을 바치고, 거기에서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해
야 한다.
- 15 그러나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베푸
신 복에 따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어느 성
에서든지 짐승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부정한 사람도 정결한 사람도 그것을
영양이나 사슴 고기처럼 먹을 수 있다.
- 16 그러나 그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물처럼 땅에 쏟아야 한다.
- 17 그리고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
일조, 소와 양의 만배와 너희가 바치기로
서원한 온갖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과 예
물은, 너희가 사는 성에서 먹을 수 없다.
- 18 너희는 그것들을 주 너희 하느님께서 선택
하시는 곳에서,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만
먹을 수 있다. 너희는 너희의 아들딸들, 남
종들과 여종들, 그리고 너희 성안에 사는
레위인들과 함께 먹으며, 너희 손으로 얻은
모든 것을 두고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기
뻐하여야.
- 19 너희는 저 땅에서 사는 동안 늘 레위인들
을 저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 20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
로 너희의 영토를 넓혀 주신 뒤, 너희가 고
기가 먹고 싶어서, '고기를 먹어야겠다.'
하면, 원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다.
- 21 주 너희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
고 선택하시는 곳이 너희가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소나 양을
잡아, 너희가 사는 성에서 원하는 대로 먹
을 수 있다.
- 22 영양이나 사슴을 먹듯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며, 부정한 사람이나 정결한 사람
이나 다 함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 23 그렇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 피는 생명이요 생명을 고기와 함
께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 24 너희는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물
처럼 땅에 쏟아야 한다.

- 25 너희는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해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잘될 것이다.
- 26 너희가 바쳐야 할 거룩한 것과 너희의 서원 제물은,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으로 들고 가야 한다.
- 27 번제물의 고기와 피는 주 너희 하느님의 제단 위에서 바쳐야 한다. 희생 제물의 피는 주 너희 하느님의 제단에 쏟고, 고기는 너희가 먹어도 된다.
- 28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명심하여 들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주 너희 하느님의 눈에 드는 좋은 일과 옳은 일을 하는 것이므로, 그래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영원토록 잘될 것이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경고하다

- 29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가서 쫓아내려는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제거하시면, 또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땅에 자리 잡으면,
- 30 그들이 너희 앞에서 멸망한 다음, 그들의 뒤를 따르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또한 '이 민족들이 자기네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하며 그들의 신들을 찾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 31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그렇게 경배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저희 신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온갖 역겨운 짓을 하며, 심지어 아들딸마저 불에 살라 저희 신들에게 바친다."

우상 숭배의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

- 13 ¹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말을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거기에 무엇도 보태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
- 2 너희 가운데에서 예언자나 환몽가가 나타나

- 너희에게 표징이나 기적을 예고하고,
- 3 그가 말한 표징이나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들을 섬기자.' 하고 그가 말하거든,
- 4 너희는 그 예언자나 환몽가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는지 알아보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 5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따르고 그분을 경외해야 한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매달려야 한다.
- 6 그 예언자나 환몽가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자들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희를 종살이하던 집에서 구해 내신 주 너희 하느님을 배반하라는 말을 하여,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따라 걸으라고 명령하신 길을 벗어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치워 버려야 한다.
- 7 너희의 동복 형제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품의 아내나 너희 목숨과도 같은 친구가 은근히 너희를 꺾면서, 너희도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려 하자.'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 8 그 신들은 땅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너희 주위에 있는 민족들의 신이다.
- 9 그런 경우에 너희는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도 듣지도 말아야 한다. 그를 동정하지도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그를 감싸 주지도 말아야 한다.
- 10 너희는 오히려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를 죽일 때에는 너희가 먼저 손을 대고, 온 백성이 그 뒤를 따라야 한다.
- 11 너희는 돌을 던져 그를 죽여야 한다. 그는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

어 내신 주 너희 하느님에게서 너희를 떼어 내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 12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다시는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 13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살라고 주시는 성읍들 가운데 한 곳에서 들리는 말이,
- 14 너희 가운데에서 불량한 자들이 나와 성읍 주민들을 유혹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러 가자.' 한다 하거든,
- 15 너희는 탐문하고 조사하고 심문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에서 그런 역겨운 짓이 벌어졌다는 말이 사실로 드러나면,
- 16 너희는 반드시 그 성읍 주민들을 칼로 쳐 죽이고,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가축까지 칼로 전멸시켜야 한다.
- 17 그런 다음에 모든 노획물을 성읍의 광장 한가운데에 모아 놓고, 성읍과 모든 노획물을 불살라 주 너희 하느님께 통째로 바쳐야 한다. 그리고 그 성읍은 영원히 폐허 더미로 만들고 다시는 세우지 말아야 한다.
- 18 너희는 그 완전 봉헌물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주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푸시고 너희를 기없이 여기시며,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를 기어위하시며 너희를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 19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 주 너희 하느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거룩한 백성에게 금지된 장례 풍습

- 14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의 자녀들이다. 너희는 죽은 이를 위하여 제 목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밀어서는 안 된

다.

- 2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주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시어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너희를 당신 소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 3 "너희는 역겨운 것은 무엇이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 4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이런 것들이다. 곧 소와 양과 염소,
- 5 사슴과 영양과 꽃사슴, 들염소와 산염소, 그리고 들양과 산양이다.
- 6 짐승 가운데 굽이 갈라지고 그 틈이 둘로 벌어져 있으며 새김질하는 짐승은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다.
- 7 그러나 새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졌더라도 이런 것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 낙타와 토끼와 오소리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 8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되고, 그 주검에 몸이 닿아서도 안 된다.
- 9 물에 사는 모든 것 가운데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
- 10 그러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므로 먹어서는 안 된다.
- 11 정결한 새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 12 그러나 그것들 가운데에서 먹을 수 없는 것은 이렇하다. 곧 독수리와 참수리와 수염수리,
- 13 새매와 검은 솔개와 각종 말뚝가리,
- 14 각종 모든 까마귀,
- 15 타조와 쪽독새와 갈매기와 각종 매,
- 16 부엉이와 올빼미와 따오기,

- 17 사다새와 물수리와 가마우지,
- 18 황새와 각종 왜기리와 오디새와 박쥐다.
- 19 날개 달린 곤충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므로 먹어서는 안 된다.
- 20 그러나 정결하고 날개 달린 것은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다.
- 21 너희는 저절로 죽은 것은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것을 너희 성안에 있는 이방인에게 먹으라고 주거나, 외국인에게 팔아야 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삶아서 안 된다."

십일조 규정

- 22 "너희는 해마다 밭에서 나는 모든 소출의 십분의 일을 떼어 놓아야 한다.
- 23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머무르게 하시려고 선택하시는 곳에서,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분의 일을, 그리고 너희의 소와 양의 만배를 그분 앞에서 먹어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언제나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 24 그러나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셨는데,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시는 곳이 너희에게서 너무 멀어져 있어서, 길이 멀어 십일조를 가져갈 수 없을 경우에는,
- 25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손에 단단히 쥐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으로 가야 한다.
- 26 거기에서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소나 양, 포도주나 독주, 그리고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이든지 돈을 주고 사서,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먹으며, 너희와 너희의 온 집안이 기뻐해야 한다.
- 27 또한 너희 성안에 사는 레위인들도 저버려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는 너희와 함께 받

- 을 뚫도 상속 재산도 없기 때문이다.
- 28 너희는 세 해마다 끝에, 그해에 난 소출의 십분의 일을 모두 가져다가 너희 성안에 저장해 두어라.
- 29 그러면 너희 성안에서, 너희와 함께 받을 뚫도 상속 재산도 없는 레위인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가 와서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그러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빛을 탕감해 주는 해에 대한 규정

- 15** ¹ "너희는 일곱 해마다 빛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
- 2 탕감에 관한 규정은 이러하다. 이웃에게 빛을 준 모든 사람은 자기가 꾸어 준 것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 주님의 탕감령이 선포되었으므로, 자기 이웃이나 동족에게 독촉해서는 안 된다.
 - 3 너희가 외국인에게는 독촉할 수 있지만, 너희 동족이 너희에게 진 빛은 탕감해 주어야 한다.
 - 4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차지하라고 주시는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므로, 너희 가운데에는 가난한 이가 없을 것이다.
 - 5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계명을 명심하여 실천하지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 6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복을 베푸실 것이므로, 너희가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 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이고, 너희가 많은 민족들을 다스리기는 하여도 그들이 너희를 다스리지는 못할 것이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규정

- 7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

어느 성에서 너희 동족 가운데 가난한 이가 있거든, 가난한 그 동족에게 매정한 마음을 품거나 인색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

8 오히려 너희 손을 활짝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히 꾸어 주어야 한다.

9 너희 마음에 비열한 생각이 들어, '일곱째 해, 곧 탕감의 해가 다가오는구나.' 하면서, 너희가 가난한 동족을 팔사하고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일이 없도록 조심 하여라. 그가 너희를 걸어 주님께 호소하면 너희에게 죄가 될 것이다.

10 너희는 그에게 반드시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게 줄 때에 아끼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이 일 때문에,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과 너희가 손대는 모든 것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11 그 땅에서 가난한 이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땅에 있는 궁핍하고 가난한 동족에게 너희 손을 활짝 펴 주라고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빛 때문에 종이 된 이를 놓아주는 규정

12 "너희 동족인 히브리 남자와 여자가 너희에게 팔려 와서, 여섯 해 동안 너희의 종으로 일할 경우, 일곱째 해에는 그를 자유로이 놓아주어야 한다.

13 너희가 그를 자유로이 놓아줄 때, 그를 빈 손으로 놓아주어서는 안 된다.

14 너희는 그에게 너희의 양 떼와 타작마당과 술틀에서 넉넉히 내주어야 한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것을 그에게도 주어야 하는 것이다.

15 너희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과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구해 내신 것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것을 명령하는 것이다.

16 그러나 그 종이 너희와 너희 집안을 사랑

하고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너희에게 '저는 주인남에게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17 너희는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라. 그러면 그는 평생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의 여중에게도 똑같이 하여라.

18 너희는 그를 자유로이 놓아줄 때에 그것을 언짢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는 여섯 해 동안 품팔이꾼 샴의 갑절만큼이나 너희를 섬겼기 때문이다. 그러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가족의 만배에 대한 규정

19 "너희의 소와 양에게서 난 만배의 수컷은 모두 주 너희 하느님께 봉헌해야 한다. 너희는 소의 만배를 부리거나 양의 만배의 털을 깎아서는 안 된다.

20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에서,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너희와 너희 집안은 해마다 그것을 먹어야 한다.

21 그러나 그 짐승에게 흠이 있으면, 곧 다리를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그 밖에 어떤 흉한 흠이 있으면, 그것을 주 너희 하느님께 제물로 잡아 바쳐서는 안 된다.

22 그런 것은 영양과 사슴처럼, 너희 성 안에서 부정한 이와 정결한 이가 다 함께 먹을 수 있다.

23 그렇지만 그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물처럼 땅에 쏟아야 한다."

파스가 축제

16¹ "너희는 아빌 달을 지켜, 주 너희 하느님을 위하여 파스가 축제를 지내야 한다. 그것은 아빌 달에,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밤에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 오셨기 때문이다.

- 2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머무르게 하시려고 선택하시는 곳에서, 양과 소를 주 너희 하나님께 파스카 제물로 잡아 바쳐야 한다.
- 3 너희는 누룩 넣은 빵을 그 제물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레 동안은 누룩 없는 빵, 곧 고난의 빵을 그 제물과 함께 먹어야 한다. 그것은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급하게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을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 4 이레 동안은 너희 영토 어디에서든지 누룩이 너희 눈에 뜨여도 안 되고, 너희가 첫날 저녁에 제물로 잡은 고기가 아침까지 남아 있어서도 안 된다.
- 5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성 가운데 아무 데서나 파스카 제물을 잡아 바칠 수는 없다.
- 6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머무르게 하시려고 선택하시는 곳에서만,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오던 그 시각, 곧 저녁 해거름에 파스카 제물을 잡아 바쳐야 한다.
- 7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에서 고기를 끓여 먹고, 아침에 너희 천막으로 돌아가야 한다.
- 8 너희는 옛새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하며, 이렛날에는 주 너희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집회를 열어야 한다. 그날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주간절

- 9 "너희는 일곱 주간을 세는데, 수확할 곡식에 낫을 대는 날부터 시작하여 일곱 주간을 세어야 한다.
- 10 그런 다음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대로, 너희가 바칠 자원 제물을 들고 와서, 주 너희 하나님을 위하여 주간절 축제를 지내야 한다.
- 11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머무르게 하시려고 선택하시는 곳에서, 너희의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희 성안에 사는 레위인, 너희 가운데에 있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여야.

- 12 너희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정을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초막절

- 13 "너희는 타작마당과 술틀에서 소출을 거두어들일 때, 이레 동안 초막절 축제를 지내야 한다.
- 14 너희는 축제를 지내는 동안, 너희의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희 성안에 사는 레위인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기뻐하여야.
- 15 이레 동안 너희는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야 한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소출과 너희가 손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어, 너희가 한껏 기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16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해마다 세 번씩, 곧 무교절과 주간절과 초막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에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
- 17 저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려 주신 복에 따라, 제 능력껏 주님께 바쳐야 한다."

판관이 지켜야 할 규정

- 18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모든 성에 판관들과 관리들을 세워, 그들이 백성에게 올바른 재판을 하게 해야 한다.
- 19 너희는 공정을 왜곡해서도 안 되고 한쪽을 편들어서도 안 되며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된다. 뇌물은 지혜로운 이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이들의 송사를 뒤엎어 버린 다.

20 너희는 정의, 오직 정의만 따라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금지된 예배 관습

21 "너희가 만들 주 너희 하느님의 제단 옆에, 어떤 나무로도 아세라 목상을 박아서는 안 된다.

22 또한 주 너희 하느님께서 싫어하시는 기념 기둥을 세워서도 안 된다.

17 ¹ 어떤 결합이든 흠이 있는 소나 양을 주 너희 하느님께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것을 역겨워하신다.

2 너희 가운데에서, 곧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성들 가운데 한 곳에서, 남자든 여자든 주 너희 하느님의 계약을 어기고 그분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것을 저지를 경우,

3 내가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하나 달이나 하늘의 모든 군대와 같은 다른 신들에게 가서 그것들을 섬기고 경배할 경우,

4 그 일을 너희가 듣고 알게 되면, 철저히 조사해 보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그런 역겨운 짓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5 너희는 그 악한 짓을 저지른 남자나 여자를 성문으로 끌어내어,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

6 그렇지만 반드시 증인 둘이나 셋의 증언이 있어야 그를 죽일 수 있다. 증인 한 사람의 증언으로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7 증인들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온 백성이 그 뒤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 가운데에서 그 악을 치워 버려야 한다."

8 "너희 성안에서 살인이나 다름이나 폭력과 관련하여 너희가 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송사가 있을 경우에는, 일어나 주 너희 하느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

9 너희는 레위인 사제들과 그때에 직무를 맡은 판관에게 가서 문의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너희에게 그 사건의 판결을 알려 줄 것이다.

10 너희는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에서 그들이 너희에게 알려 준 판결대로 해야 한다. 그들이 너희에게 지시하는 그대로 명심하여 실행해야 한다.

11 너희는 그들이 너희에게 내리는 지시와, 너희에게 알려 주는 판결대로 실행해야 한다. 그들이 너희에게 알려 주는 결정에서 오른 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

12 그러나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주 너희 하느님을 섬기는 당직 사제나 판관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면,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이렇게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악을 치워 버려야 한다.

13 그러면 온 백성이 듣고서 두려워하며 다시는 주께님께 굴지 않을 것이다."

임금이 지켜야 할 규정

14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자리 잡은 다음,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처럼 임금을 세워야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

15 반드시 주 너희 하느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을 임금으로 세워야 한다. 너희는 너희 동족 가운데에서 임금을 세워야 하며, 너희 동족이 아닌 외국인을 임금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16 그렇지만 임금은 군마를 늘리거나, 그것을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다시는 너희

가 이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고 말 씀하셨기 때문이다.

- 17 임금은 또 아내를 늘려 마음이 났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은이나 금을 너무 많이 늘려서도 안 된다.
- 18 임금은 왕위에 오르면, 레위인 사제들 앞에서 이 율법의 사본을 책에 기록해야 한다.
- 19 그리고 그것을 자기 곁에 두고 평생토록 날마다 읽으면서, 주 자기 하느님을 경외 하는 법을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규정을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 20 그렇게 하여 그는 자기 동족을 업신여기지 않고, 계명에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그와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왕위에 앉을 것이다."

레위인의 권위

- 18** ¹ "레위인 사제들을 비롯하여 온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과 함께 받을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화제물과 사람들이 그분의 상속 재산에서 바치는 예물을 먹고 살아야 한다.
- 2 그들에게는 자기 동족 가운데에서 차지할 상속 재산이 없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신 대로, 주님께서 바로 그들의 상속 재산 이시다.
 - 3 백성에게, 곧 소나 양을 제물로 잡아 바치는 사람들에게 사제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이렇하다. 사제들에게는 그 제물의 어깨와 턱과 위를 주어야 한다.
 - 4 너희는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만물, 그리고 양털의 만물도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
 - 5 그것은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그 아들들이 언제나 그분 앞에 서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식을 거행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 6 레위인이 이스라엘 어디에서든지, 너희 성들 가운데 한 곳에서 살다가, 자기가 원하여 그 곳을 떠나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으로 갈 경우,
- 7 그는 그곳에서 주님 앞에서 서 있는 다른 모든 형제 레위인처럼 주 자기 하느님의 이름으로 예식을 거행할 수 있다.
- 8 또한 그는 조상에게서 받은 것을 팔아 얻는 수입과 상관없이, 그들과 똑같은 몫을 받아 먹을 수 있다."

오방 풍습의 금지

- 9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민족들의 역겨운 짓을 배워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
- 10 너희에게는 제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와, 점쟁이와 복술기와 요술사와 주술사,
- 11 그리고 주문을 외우는 자와 혼령이나 혼백을 불러 물어보는 자와 죽은 자들에게 묻 의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 12 그런 짓을 하는 자는 누구나 주님께서 역겨워하신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서는 그런 역겨운 짓 때문에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신다.
- 13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 흠이 없어야 한다.
- 14 너희가 쫓아낼 저 민족들은 복술가들이나 점쟁이들의 말을 듣지만, 너희에게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침언자의 모습

- 15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 16 그것은 너희가 호렘에서 집회의 날에 주 너희 하느님께 청한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다시는 저희가 주

저희 하느님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이 큰 불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 17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한 말은 옳다.
18 나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일으켜,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 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일러 줄 것이다.
19 그가 내 이름으로 이르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직접 추궁할 것이다.
20 또한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은 것을 주께담게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가 있으면, 그 예언자는 죽어야 한다.'
21 그런데 너희가 마음속으로, '주님께서 하지 않으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22 그러나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였는데도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언자가 제멋대로 말한 것이므로, 너희는 그를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도피 성읍

- 19 ¹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 그곳에 사는 민족들을 주 너희 하느님께서 없애 버리시고,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어 그 성읍과 짐에서 살게 되면,
2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땅에 성읍 셋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한다.
3 그리고 나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땅을 세 지역으로 나누고 길을 지정하여, 모든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4 살인자가 피신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이러

하다. 전에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실수로 죽인 자나,

- 5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러 숲으로 가서, 나무를 찍으려고 손에 도끼를 잡고 휘두르다가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나가 이웃을 치는 바람에 그 이웃을 죽게 한 자는, 그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살 수 있다.
6 살인자가 전에 그 이웃을 미워한 일이 없으므로 사형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피의 보복자가 흥분한 나머지 그 살인자를 뒤쫓아 가서, 그 성읍에 이르는 길이 먼 탓에 그를 따라잡아 때려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7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성읍 셋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한다.' 하고 명령한 것이다.
8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 영토를 넓혀 주시고, 너희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이르신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시면,
9 곧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을 명심하여 실천하고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며 언제나 그분의 길을 따를 경우에 그렇게 해 주시면, 그때에는 이 성읍 셋에 또 다른 성읍 셋을 보태야 한다.
10 그리하여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너희 땅에서 무죄한 이의 피가 흐르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피에 대한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
11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웃을 미워하여, 숨어서 기다리다가 그를 덮쳐 때려 죽게 한 다음,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할 경우에는,
12 그가 살던 성읍의 원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곳에서 그를 잡아다가, 피의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게 해야 한다.
13 너희는 그를 동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을 없애 버려야 너희가 잘될 것이다."

이웃의 경계를 존중해야 한다

14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다고 주시는 땅에서, 너희가 물려받을 너희 상속지에 선조들이 정해 놓은 이웃의 경계를 밀어내서는 안 된다."

증인에 관한 규정

15 "어떤 사람이 저지르는 모든 잘못과 관련하여, 그의 어떤 죄나 잘못이든지, 증인 한 사람만으로는 그 증인이 성립되지 못하고, 증인 둘이나 셋의 증인이 있어야 유죄가 성립된다.

16 악의가 있는 증인이 나서서 어떤 사람이 잘못하였다고 증언하면,

17 그 사건의 두 당사자는 주님 앞에, 사제들과 그때에 직무를 맡은 판관들 앞에 서야 한다.

18 판관들이 잘 심문한 결과, 그 증인이 거짓 증인이고 자기 동족에 대하여 거짓으로 증언한 것이 드러나면,

19 너희는 그가 자기 동족에게 하려고 작정하였던 것과 똑같이 그에게 해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치워 버려야 한다.

20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두려워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다시는 그런 악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21 너희는 그를 동정해서는 안 된다.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야 한다."

전쟁에 관한 법

20 ¹ "너희가 적과 싸우러 나가서, 기마와 병거와 너희보다 수가 더 많은 군대를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

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

2 싸울 때가 다가오면 사제가 앞에 나서서 백성에게 말해야 한다.

3 그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오늘 적과 싸울 때가 다가왔다. 너희 마음을 약하게 가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당황하지도 말고 그들 앞에서 떨지도 마라.

4 주 너희 하느님은 너희를 위하여 적들과 싸우시러 너희와 함께 나아가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5 그다음에 군관들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새 집을 짓고서 아직 봉헌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가 싸우다 죽어서, 다른 사람이 그 집을 봉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6 또 포도밭을 가꾸어 놓고서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가 싸우다 죽어서,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7 또 여자와 약혼하고서 아직 그 여자를 맞이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가 싸우다 죽어서, 다른 사람이 그 여자를 맞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8 군관들은 백성에게 다시 이렇게 말해야 한다. '겁이 많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자가 형제들의 마음을 제 마음처럼 녹아 내리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9 군관들이 백성에게 할 말을 마치면, 백성을 지휘할 장수들을 임명해야 한다.

10 너희가 어떤 성읍을 치려고 그곳에 다가가면, 먼저 그 성읍에 화전을 제안해야 한다.

11 그 성읍이 너희의 화전을 받아들여서 문을 열면, 그곳에 있는 백성은 모두 너희의 노역자가 되어 너희를 섬기게 해야 한다.

- 12 그러나 그 성읍이 너희와 화친하지 않고 싸우려 하면 그 성읍을 포위하여라.
- 13 그러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곳의 남자를 모두 칼로 쳐 죽여야 한다.
- 14 그렇지만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과,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것, 곧 모든 노획물은 전리품으로 삼아도 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적의 노획물을 먹고 쓸 수 있다.
- 15 저기에 있는 민족들의 성읍이 아니라, 너희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성읍에 그렇게 해야 한다.
- 16 그러나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저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 두어서는 안 된다.
- 17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히타이트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을 모조리 전멸시켜야 한다.
- 18 그래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하는 온갖 역겨운 짓을 너희도 하라고 가르쳐서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께 죄를 짓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 19 너희가 어떤 성읍을 점령하려고 싸움을 벌여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을 때, 그 성읍의 나무에 도끼를 휘둘러 나무를 쓰러뜨려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베어서는 안 된다. 들의 나무는 너희가 포위해야 할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 20 그렇지만 너희가 알기로 열매를 먹을 수 없는 나무는 쓰러뜨리고 베어서, 너희와 싸우는 성읍이 함락될 때까지 그 성읍을 포위하는 공격 보루를 만들어도 된다."

- 21 ¹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차지 하라고 주시는 땅에서, 살해당한 사람이 들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는데, 누가 그를 때려죽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 ² 너희의 원로들과 판관들이 나가서, 살해당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주변 성읍들에 이르는 거리를 재어야 한다.
- ³ 그러면 살해당한 사람에게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있을 것이다. 그 성읍의 원로들은 아직 부린 적도 없고, 멩에를 매워 끌어 본 적도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야 한다.
- ⁴ 그리고 나서 성읍의 원로들은 늘 물이 흐르는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내려가, 갈지도 썩 뿌리지도 않은 그 사냇가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야 한다.
- ⁵ 그런 다음에 레위의 자손 사제들이 앞으로 나와야 한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어 당신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판결에 따라 모든 송사와 폭력 사건이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 ⁶ 살해당한 사람에게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성읍의 원로들이 사냇가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고,
- ⁷ 이렇게 증언해야 한다. '저희의 손은 이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았고 저희의 눈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 ⁸ 주님, 당신께서 구해 내신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벗겨 주시고, 당신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그 피에 대한 책임을 벗게 된다.
- ⁹ 이렇게 너희는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무죄한 이가 흘린 피에 대한 책임을 치워 버려야 한다."

- 10 "너희가 적과 싸우러 나갔을 때,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어 너희가 포로들을 사로잡았는데,
- 11 그들 가운데에서 예쁘게 생긴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 아내로 삼게 될 경우,
- 12 너희는 그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여자가 머리를 자르고 손톱 발톱을 손질한 다음,
- 13 포로 때에 입었던 옷을 벗게 해야 한다. 그 여자는 너희 집에 살면서 한 달 동안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하여 곡을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와 동침하여 남편이 되면 그 여자는 아내가 된다.
- 14 그러나 그 여자가 너희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대로 가게 하되, 돈을 받고 팔 수는 없다. 너희가 그 여자를 욕되게 하였으므로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만아들의 권리

- 15 "어떤 사람에게 아내가 둘 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다른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사랑받는 여자와 미움 받는 여자가 다 그 사람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을 때, 만아들이 미움 받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
- 16 그 사람이 아들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날, 만아들이인 미움 받는 여자의 아들 대신에 사랑받는 여자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 없다.
- 17 미움 받는 여자의 아들을 만아들로 인정하여 그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주어야 한다. 그 아들이 자기 정력의 만물이며 그에게 만아들의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불효자에 관한 규정

- 18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셀뿐더러 반항만 하며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부모가 꾸짖어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을 경우,

- 19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를 붙잡고 그가 사는 성읍의 성문으로 원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 20 그들에게 '이 우리 아들은 고집이 셀뿐더러 반항만 하며 우리 말을 듣지 않는 데다가 방탕이요 술꾼입니다.' 하고 말해야 한다.
- 21 그러면 그 성읍의 남자들이 모두 그에게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 그렇게 너희는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치워 버려야 한다. 온 이스라엘은 그것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사형수에 관한 규정

- 22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을 나무에 매달 경우,
- 23 그 주검을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두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날로 묻어야 한다.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느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땅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재산에 관한 규정

- 22** ¹ "너희는 동족의 소나 양이 헤매고 있는 것을 보거든, 그것들을 모르는 채하지 말고 반드시 너희 동족에게 데려다 주어야 한다.
- 2 너희 동족이 가까이 살지 않거나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거나, 그 짐승을 너희 집으로 끌고 가서, 너희 동족이 그것을 찾으러 올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3 너희 동족의 나귀도 그렇게 하고 그의 길우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 동족이 잃은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발견하면 그렇게 하고 그것들을 모르는 채해서는 안 된다.
 - 4 너희는 너희 동족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

저 있는 것을 보거든, 그것들을 모르는 체하지 말고 반드시 너희 동족을 거들어 일으켜 주어야 한다."

그 밖의 규정

- 5 "여자가 남자 복장을 해서도 안 되고, 남자가 여자 옷을 입어서도 안 된다. 그런 짓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 너희 하느님께서 역겨워하신다.
- 6 너희가 길을 가다가 나무에서건 땅에서건 어린 새나 알이 있는 둥지를 보았을 때, 어미 새가 어린 새나 알을 품고 있거든, 새끼들과 함께 어미 새까지 잡아서서는 안 된다.
- 7 새끼들은 잡아도 되지만 어미 새는 반드시 날려 보내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잘되고 오래 살 것이다.
- 8 너희는 새 집을 지을 경우, 옥상에 난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누가 옥상에서 떨어지더라도, 너희 집에는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이 없을 것이다.
- 9 너희는 포도밭에 다른 종류의 씨를 뿌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씨 뿌린 곡물과 포도밭의 소출이 모두 손될 수 없는 것이 된다.
- 10 너희는 소와 나귀를 함께 부려서 밭을 갈아서서는 안 된다.
- 11 너희는 양털과 아미를 섞어서 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 12 너희는 몸에 두를 겹옷 자락 네 귀퉁이에 술을 만들어 달아야 한다."

혼인과 처녀성과 간음에 관한 규정

- 13 "어떤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여 동침한 다음에 그 여자가 미워지자,
- 14 그 여자에게 터무니없는 비방을 하며, '내가 이 여자를 맞아 가까이하여 보았더니 처녀가 아니었다.' 하고 누명을 씌울 경우,
- 15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젊은 여자의 처녀성을 증명하는 물증을 성문으

로 그 성읍의 원로들에게 가지고 나간 다음,

- 16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원로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내가 나의 딸을 이 남자에게 아내로 주었는데 그가 내 딸을 미워하여,
- 17 남의 입에 오르내릴 일을 꾸며 내어서, '당신 딸이 처녀가 아닙니다.' 하면서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딸의 처녀성을 증명하는 물증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읍의 원로들 앞에 그 겹옷을 펴 놓아야 한다.
- 18 그러면 그 성읍의 원로들은 그 남자를 붙잡아서 벌을 주어야 한다.
- 19 원로들은 그에게서 은 백 세켈을 벌금으로 받아,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어야 한다. 그것은 그 남자가 이스라엘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웠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는 계속 그의 아내로 남고, 그는 평생 그 여자를 내보낼 수 없다.
- 20 그러나 그 일이 사실이어서 그 젊은 여자의 처녀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 21 그 여자를 제 아버지의 집 대문으로 끌어내어, 그 성읍의 남자들이 그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 그 여자가 제 아버지의 집에서 음행을 하여 이스라엘에서 추잡한 짓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치워 버려야 한다.
- 22 어떤 남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와 동침하다가 들켰을 경우, 동침한 그 남자와 여자 두 사람 다 죽여야 한다. 이렇게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악을 치워 버려야 한다.
- 23 어떤 젊은 처녀가 한 남자와 약혼을 하였는데, 성읍 안에서 다른 남자가 그 여자와 만나 동침하였을 경우,
- 24 너희는 두 사람을 다 그 성읍의 성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에게 돌을 던져 죽여야 한

다. 그 처녀는 성읍 안에 있으면서도 고향을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치워 버려야 한다.

- 25 그러나 그 남자가 약혼한 그 젊은 여자를 들에서 만나 여자를 강제로 붙잡아 동침하였을 경우, 그 여자와 동침한 남자만 죽어야 한다.
- 26 그 젊은 여자에게는 죽을죄가 없으므로, 너희는 그 여자에게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는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담벼락 들어 그를 죽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 27 또한 남자가 그 약혼한 젊은 여자를 만난 곳이 들이었으므로, 여자가 고향을 질렀다 하더라도 구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 28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젊은 처녀를 만나, 그 여자를 붙들어 동침하였다가 들켰을 경우,
- 29 그 여자와 동침한 남자는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 선 세겔을 주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욕보였으므로, 그 여자는 그의 아내가 되고, 그는 평생 그 여자를 내보낼 수 없다.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 수 없는 사람들

23 ¹ 아무도 자기 아버지의 부인을 아내로 맞아서는 안 된다. 어떤 남자도 자기 아버지의 옷자락을 들추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 수 없는 사람들

- 2 "고환이 눌러 터졌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은 주님의 회중에 들 수 없다.
- 3 사생아는 주님의 회중에 들 수 없고, 그의 십 대손까지도 주님의 회중에 들 수 없다.
- 4 암몬족과 모압족은 주님의 회중에 들 수 없고, 그들의 자손들은 십 대손까지도 결코 주

님의 회중에 들 수 없다.

- 5 이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이 빵과 물을 가지고 길에서 너희를 맞이하지 않았고, 너희를 저주하려고 발리암을 고용하여 아람 나하라임의 프토르에서 데려왔기 때문이다.
- 6 그러나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발리암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다.
- 7 너희는 평생토록 그들의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힘써서는 안 된다.
- 8 너희는 에돔족을 역겨워해서는 안 된다. 그는 너희의 친족이다. 너희는 이집트인을 역겨워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의 땅에서 이방인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 9 그들에게서 삼 대손으로 태어난 아들들은 주님의 회중에 들 수 있다."

진영의 창결에 관한 규정

- 10 "너희는 적과 싸우러 진영으로 나갈 경우, 온갖 나쁜 것을 조심해야 한다.
- 11 너희 가운데 밤에 흘린 것 때문에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은 진영 밖으로 나가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 12 그러나 저녁 무렵에는 물로 목욕하고 해가 질 때에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 13 너희는 진영 밖에 뒷간을 두어, 밖으로 나가 일을 보아야 한다.
- 14 너희는 장비 외에 작은 삽을 가지고 있다가, 밖에서 뒤를 볼 때에 그것으로 구덩이를 판 다음, 돌아서서 배설한 것을 덮어야 한다.
- 15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 적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시려고 너희의 진영 가운데를 다니시므로, 너희의 진영은 거룩해야 한다. 그래야 주님께서 더러운 것

을 보시고 너희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실 것이다."

파신해 온 종에 관한 규정

- 16 "너희는 제 주인에게서 파신해 온 종을 주인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
17 그가 마음에 들어 선택하는 성의 한 곳에서, 너희와 함께, 너희 가운데에서 살게 하고 그를 구박해서는 안 된다."

신전 매물에 관한 규정

- 18 "이스라엘의 딸은 신전 창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의 아들은 신전 남창이 되어서는 안 된다.
19 너희는 창녀의 해웃값이나 남창의 몸값을, 주 너희 하느님의 집에 어떤 서원 제물로도 가져와서는 안 된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둘 다 역겨워하신다."

이자에 관한 규정

- 20 "너희는 동족에게 이자를 받고 꾸어 주어서는 안 된다. 돈에 대한 이자든 곡식에 대한 이자든, 그 밖에 이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다.
21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고 꾸어 주어도 되지만, 너희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고 꾸어 주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차지하려 들어가는 땅에서 너희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서원에 관한 규정

- 22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 서원을 할 경우, 그것을 미루지 말고 채워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실 것이고, 너희에게는 죄가 될 것이다.
23 이에 서원하지 않으면 죄가 될 일도 없다.
24 너희 입으로 주 너희 하느님께 스스로 서

원한 대로, 너희 입에서 나온 것을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남의 포도나 곡식에 관한 규정

- 25 "너희가 이웃의 포도밭에 들어갈 경우, 원하는 만큼 배불리 포도를 먹을 수는 있지만 그릇에 담아서서는 안 된다.
26 너희가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경우, 손으로 이삭을 자를 수는 있지만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서는 안 된다."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정

- 24¹ "어떤 남자가 여자를 맞아들어 혼인하였는데, 그 여자에게서 추한 것이 드러나 눈에 들지 않을 경우,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쥐어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
2 그 여자가 그의 집을 떠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3 두 번째 남편도 그 여자를 싫어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쥐어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낸 경우나,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 남자가 죽은 경우,
4 그 여자가 이미 더럽혀졌으므로, 그를 내보낸 첫 남편은 다시 그를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다. 그런 일은 주님 앞에 역겨운 짓이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땅에 죄를 끌어들이서는 안 된다."

갓 혼인한 남자에 관한 규정

- 5 "어떤 남자가 신부를 맞이하였을 경우, 그를 군대에 보내서도 안 되고, 그에게 어떤 의무를 지워주어도 안 된다. 그는 한 해 동안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새로 맞은 아내를 기쁘게 해 주어야 한다."

담보물에 관한 규정

- 6 "땃들은 그 위쪽 하나라도 담보물로 삼아서

는 안 된다. 그것은 생명을 담보물로 삼는 것이다."

납치에 관한 규정

7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 자손 하나를 납치하여 혹사하거나 팔아넘긴 경우, 그 납치자는 죽어야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치워 버려야 한다."

악성 피부병에 관한 규정

8 "악성 피부병이 생겼을 경우, 레위인 사제들이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그대로 명심하여 철저히 실천하여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9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주 너희 하느님께서 미르암에게 하신 것을 기억하여라."

담보물에 관한 규정

10 "너희는 이웃에게 무엇이든지 꾸어 줄 경우,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11 너희는 밖에 서 있고, 너희가 꾸어 줄 사람이 밖으로 담보물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12 그 사람이 가난하면, 너희는 그의 담보물을 잡아 둔 채 잡자리에 들어서서는 안 된다.

13 해가 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돌려주어, 그가 자기 겂옷을 덮고 잘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며,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의로워질 것이다."

품삔에 관한 규정

14 "너희는 너희 동족들 가운데에서나, 너희 땅, 너희 성안에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품팔이꾼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

15 그의 품삔은 그날로 주어야 한다. 그는 가

난하여 품삔을 에타게 기다리므로,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품삔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가 너희를 거슬러 주님께 호소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다."

개인의 책임

16 "자식 때문에 아버지가 사형을 당해서도 안 되고, 아버지 때문에 자식이 사형을 당해서도 안 된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죄로만 사형을 당해야 한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규정

17 "너희는 이방인과 고아의 권리를 왜곡해서는 안 되고, 과부의 옷을 담보로 잡아서도 안 된다.

18 너희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이었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거기에서 구해 내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실천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19 너희가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더라도 그것을 가지려 되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의 몫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20 너희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떨 때, 지나온 가지에 다시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의 몫이 되어야 한다.

21 너희는 포도를 수확할 때에도 지나온 것을 따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의 몫이 되어야 한다.

22 너희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실천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판관이 지켜야 하는 공경

25 1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재판 받으러 나아가면, 판관들은 그들을

재판하여 옳은 이에게는 무죄를 선언하고, 그른 자에게는 유죄를 선언해야 한다.

- 2 그른 자가 매를 맞아야 하면, 판관은 그를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한 다음, 그의 잘못에 해당하는 대 수만큼 매질하게 해야 한다.
- 3 그를 마흔 대까지는 매질하여도 괜찮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그것은 마흔 번이 넘도록 너희 동족을 매질하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가 업신여감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타작하는 소에 관한 규정

- 4 "타작 일을 하는 소에게 부리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

후손에 관한 규정

- 5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하나가 아들 없이 죽었을 경우, 죽은 그 사람의 아내는 다른 집안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없다. 남편의 형제가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들여, 시숙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6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첫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아,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지워지지 않게 해야 한다.
- 7 그러나 그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를 맞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 형제의 아내가 성문으로 원로들에게 올라가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제 시숙이 이스라엘에서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어 주기를 거부합니다. 저에게 시숙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 8 그러면 성읍의 원로들이 그를 불러서 그에게 타일려야 한다. 그래도 그가 고집을 부리며 '나는 이 여자를 맞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면,
- 9 그 형제의 아내가 원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다가가 발에서 산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은 다음, '자기 형제의 집안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고 말해야 한다.

- 10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그의 이름은 '신 벗겨진 자의 집안'이라고 불릴 것이다."

싸울 때에 금지된 행동

- 11 "두 사람이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남편을 때리는 사람의 손에서 남편을 구해 내려고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의 치부를 붙잡을 경우,
- 12 너희는 그 여자의 손을 잘라 버리고, 동정해서는 안 된다."

도랑형에 관한 규정

- 13 "너희는 자루에 크고 작은 두 개의 저울추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 14 너희는 집에 크고 작은 두 개의 되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 15 너희는 정확하고 올바른 저울추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정확하고 올바른 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다.
- 16 이런 일을 하는 자, 곧 불의를 저지르는 자는 모두 주 너희 하느님께서 역거위하신다."

아말렉인들을 치라는 명령

- 17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인들이 너희에게 한 짓을 기억하여라.
- 18 그들은 너희가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에 너희와 길에서 마주치자, 하느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너희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두 쳐 죽였다.
- 19 그러므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차지하도록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땅에서 너희 주위의 모든 적을 물리쳐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면, 너희는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인들에 대한 흔적조차 없애 버려야 한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말씀의 봉헌

- 26** ¹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여 그곳에 자리 잡게 되면,
- ²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두어들이는 모든 수확의 만물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아, 주 너희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머무르게 하시려고 선택하시는 곳으로 가야 한다.
- ³ 그리고 너희는 그때에 직무를 맡은 사제에게 가서, '주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가 들어왔음을, 오늘 주 당신의 하느님께 이웁니다.' 하고 말해야 한다.
- ⁴ 사제가 너희 손에서 광주리를 받아 그것을 주 너희 하느님의 제단 앞에 놓으면,
- ⁵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저희 조상은 떠돌아다니는 아랍인이었습니다. 그는 몇 안 되는 사람들과 이집트로 내려가 이방인으로 살다가,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 ⁶ 그러자 이집트인들이 저희를 학대하고 괴롭히며 저희에게 심한 노역을 시켰습니다.
- ⁷ 그래서 저희가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서는 저희의 소리를 들으시고, 저희의 고통과 불행, 그리고 저희가 억압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 ⁸ 주님께서서는 강한 손과 뻗은 팔로, 큰 공포와 표징과 기적으로 저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 ⁹ 그리고 저희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시어 저희에게 이 땅, 곧 젖과 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 ¹⁰ 주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님께서서 저희에게 주신 땅에서 거둔 수확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는 그것을 주 너희 하느님 앞에 놓고, 주 너희 하느님께

경배드려야 한다.

- ¹¹ 그리고 너희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있는 이방인과 함께,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와 너희 집안에 베푸신 모든 좋은 것을 두고 기뻐하여라."

세 해마다 바치는 십일조

- ¹² "너희는 세 해마다 십일조를 바칠 때에 너희 소출에서 십분의 일을 모두 떼어 놓고, 그것을 레위인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그들이 너희 성안에서 배불리 먹게 될 때,
- ¹³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저희는 거룩한 것을 저희 집에서 떼어 놓아, 그것을 당신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계명대로 레위인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었으며, 당신의 계명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잊지도 않았습니까다.
- ¹⁴ 저희는 애도할 때에 십일조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저희가 부정한 때에 그것을 떼어 놓지 않았으며, 그것을 죽은 자에게 바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주 저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습니다.
- ¹⁵ 당신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굽어보시어,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당신께서 저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에게 주신 땅, 젖과 풀이 흐르는 이 땅에도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

- ¹⁶ "오늘 주 너희 하느님께서 이 규정과 법규들을 실천하라고 너희에게 명령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것들을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 ¹⁷ 주님을 두고 오늘 너희는 이렇게 선언하였다. 곧 주님께서서 너희의 하느님이 되시고, 너희는 그분의 길을 따라 걸으며, 그분의

규정과 계명과 법규들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들겠다는 것이다.

- 18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너희를 두고 이렇게 선언하셨다. 곧 주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분 소유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19 그분께서는 너희를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민족들 위에 높이 세우시어, 너희가 찬양과 명성과 영화를 받게 하시고,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다."

율법의 돌

- 27 ¹ 모세와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을 지켜라.
2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 너희는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발라야 한다.
3 그리고 너희가 건너가거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써야 한다. 그때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 곧 젃과 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4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돌들을 에발 산에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발라야 한다.
5 그리고 그곳에 주 너희 하느님을 위하여 제단을, 곧 쇠 연장을 대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어야 한다.
6 너희는 다듬지 않은 돌로 주 너희 하느님을 위하여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서 주 너희 하느님께 번제물을 바쳐야 한다.
7 또 너희는 친교 재물을 바치고 거기에서 먹으며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기뻐하여라.
8 그리고 돌들 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분명하게 써야 한다."

- 9 모세와 레위인 사제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일렀다. "이스라엘아, 조용히 하고 들어라. 오늘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다.
10 그러므로 주 너희 하느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계명과 규정들을 실천해야 한다."
11 그날 모세가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12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뒤, 백성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짐 산에 서야 할 지파들은 시메온, 레위, 유다, 이사카르, 요셉, 벤야민이다.
13 그리고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 산에 서야 할 지파들은 르우벤, 가드, 아세르, 즈불룬, 단, 납탈리이다."

열두 가지 저주

- 14 "그리고 레위인들은 큰 소리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해야 한다.
15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새겨 만든 우상이나 부어 만든 우상, 곧 장인의 손으로 만든 것을 은밀한 곳에 두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온 백성은 '아멘.' 하고 응답해야 한다.
16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온 백성은 '아멘.' 하고 말해야 한다.
17 '이웃의 경계를 밀어내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온 백성은 '아멘.' 하고 말해야 한다.
18 '눈인 이를 길에서 잘못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온 백성은 '아멘.' 하고 말해야 한다.
19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왜곡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온 백성은 '아멘.' 하고 말해야 한다.
20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아버지의

- 웃자락을 들추었으므로 저주를 받는다.' 하면, 온 백성은 '아멘.' 하고 말해야 한다.
- 21 '짐승과 관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온 백성은 '아멘.' 하고 말해야 한다.
- 22 '아버지의 딸이든 어머니의 딸이든 제 누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온 백성은 '아멘.' 하고 말해야 한다.
- 23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온 백성은 '아멘.' 하고 말해야 한다.
- 24 '이웃을 은밀한 곳에서 쳐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온 백성은 '아멘.' 하고 말해야 한다.
- 25 '무죄한 사람을 살해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온 백성은 '아멘.' 하고 말해야 한다.
- 26 '이 율법의 말씀들을 존중하여 실천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온 백성은 '아멘.' 하고 말해야 한다."

순종에 따르는 복

- 28** ¹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을 명심하여 실천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에 너희를 높이 세우실 것이다.
- 2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내려 너희 위에 머무를 것이다.
- 3 너희는 성읍 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 4 너희 몸의 소생과 너희 땅의 소출도, 새끼 소와 새끼 양을 비롯한 너희 가축의 새끼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 5 너희의 광주리와 반족 통도 복을 받을 것이다.
- 6 너희는 들어올 때에도 복을 받고 나갈 때에도 복을 받을 것이다.
- 7 주님께서는 너희를 거슬러 일어나는 적들이

- 너희 앞에서 패배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치러 한 길로 나왔다가, 너희 앞에서 일곱 길로 흩어져 도망칠 것이다.
- 8 주님께서 명령하시어, 너희의 공간과 너희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 9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따라 걸으면,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이다.
- 10 그리하여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 11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해 주실 것이다.
- 12 주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당신의 그 풍요로운 곳 집 하늘을 여시어, 너희 땅에 때맞추어 비를 주시고 너희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너희는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 주는 하역도 너희가 꾸지는 않을 것이다.
- 13 내가 명심하여 실천하라고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너희가 듣고 따르면, 주님께서 너희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쫓겨는 되지 않게 하실 것이며, 너희는 위로만 올라가고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 14 또한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말씀에서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벗어나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 섬기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자주의 경고

- 15 "그러나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 듣지 않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과 규정을 명심하여 실천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려 너희 위에 머무를 것이다.
- 16 너희는 성읍 안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 17 너희의 광주리와 반죽 통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 18 너희 몸의 소생과 너희 땅의 소출도, 새끼 소와 새끼 양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 19 너희는 들어올 때에도 저주를 받고 나갈 때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 20 너희가 주님을 저버린 악행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 손이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혼란과 위협을 계속 보내시어, 마침내 너희가 순식간에 멸망하고 멸절되게 하실 것이다.
- 21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계속 흑사병이 달라 붙게 하시어, 너희가 차지하려 들어가는 땅에서 마침내 너희를 없애 버리실 것이다.
- 22 주님께서는 너희를 폐병과 열병과 염증, 무더위와 가뭄과 마름병과 감부깃병으로 계속 치시고, 마침내 너희가 망할 때까지 그것들이 너희를 쫓아다니게 하실 것이다.
- 23 너희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은 구리가 되고 아래에 있는 땅은 쇠가 될 것이다.
- 24 주님께서는 너희 땅의 비를 재와 먼지로 만드셔서, 너희가 멸망할 때까지 그것들이 하늘에서 줄곧 너희 위로 내리게 하실 것이다.
- 25 주님께서는 너희가 적들 앞에서 패배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적을 치러 한 길로 나갔다가, 그 앞에서 일곱 길로 흩어져 도망칠 것이며, 너희는 땅의 모든 나라에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 26 너희 주검이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의 모든 짐승의 먹이가 되어도, 그것들을 쫓아 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 27 주님께서는 너희가 고치지 못할 이집트의
- 궤양과 종기와 음과 가려움 병으로 너희를 치실 것이다.
- 28 주님께서는 또 정신병과 실명증과 착란증으로 너희를 치실 것이다.
- 29 눈먼 이가 어둠 속에서 더듬는 것처럼, 너희는 대낮에도 더듬으며 길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늘 억압을 받고 착취를 당하여도 구원해 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 30 너희가 여자와 약혼하여도 다른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고,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 살지 못하며, 포도나무를 심어도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 31 너희의 소를 너희 눈앞에서 잡아도 너희는 그것을 먹지 못하고, 너희의 나귀를 너희 눈앞에서 빼앗겨도 그것을 되찾지 못하며, 너희의 양 떼가 너희 원수들에게 넘어가도 너희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 32 너희의 아들딸들이 다른 백성에게 넘겨져, 너희 눈이 온종일 그쪽을 바라보다 기진하여도, 너희 손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 33 너희 땅의 소출과 너희가 일하여 얻은 모든 것을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백성이 먹어 버리며, 너희는 언제나 억압을 받고 짓밟히지만 할 것이다.
- 34 너희의 두 눈으로 보는 광경 때문에 너희는 미치게 될 것이다.
- 35 주님께서는 너희가 고치지 못할 악성 궤양으로 너희의 무릎과 정강이를 치실 것이며, 그것은 너희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번질 것이다.
- 36 주님께서는 너희뿐 아니라 너희가 받아들여 세운 임금을,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던 민족들에게 데려가실 것이고, 너희는 거기에서 나무와 돌로 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 37 주님께서 너희를 끌고 가실 그곳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너희는 놀람 거리와 놀림거리와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38 너희가 밭에 씨를 많이 뿌려도 때뚜기가 그것을 먹어 치워 버려서, 너희는 조금밖에 거두지 못할 것이다.

39 너희가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어도 벌레가 그것을 먹어 치워서,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도 못하고 저장하지도 못할 것이다.

40 너희의 온 영토에 올리브나무가 있어도 그 열매가 떨어져서, 너희는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다.

41 너희가 아들딸들을 낳아도 그들이 포로로 잡혀 가서, 너희에게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42 너희 땅의 나무와 열매는 모두 벌레가 차지하고 말 것이다.

43 너희 가운데에 있는 이방인은 너희보다 점점 높아지겠지만, 너희는 점점 낮아질 것이다.

44 그는 너희에게 꾸어 주어도 너희는 그에게 꾸어 주지 못하며, 그는 머리가 되고 너희는 꼬리가 될 것이다.

45 이 모든 저주가 너희 위에 내려, 너희가 멸망할 때까지 너희를 쫓아다니며 너희 위에 머무를 것이다.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시는 계명과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46 이 저주들은 너희와 너희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표징과 표지가 될 것이다.

47 모든 것이 풍부하더라도, 너희가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주 너희 하느님을 섬기지 않은 까닭에,

48 너희는 굶주림과 목마름과 헐벗음과 온갖 궁핍 속에서, 주님께서 너희를 치라고 보내시는 너희의 원수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또 주님께서는 너희 목에 쇠 망개를 씌워 두시어, 마침내 너희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49 주님께서는 너희를 치라고 땅 끝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데려오실 것인데, 너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는 그 민족이 너희에게 독수리처럼 날아들 것이다.

50 얼굴이 뻘뻘스럽게 생긴 그들은 노인을 존경하지도 않고, 어린이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 민족이다.

51 그들은 너희 가족의 새끼들과 너희 땅의 소출을 줄곧 먹어 치워, 마침내 너희가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에게 곡식도 포도주도 기름도 새끼 소들과 새끼 양들도 남겨 두지 않아서, 마침내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52 그들은 너희의 모든 성을 에워싸고, 너희가 민던 놓고 튼튼한 성벽이 온 땅에서 무너져 내리게 할 것이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온 땅의 모든 성을 그렇게 에워쌀 것이다.

53 너희의 원수들이 너희를 조여 오는 곤경과 고난으로, 너희는 너희 몸의 소생을, 곧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들딸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54 너희 가운데에서 매우 온순하고 고상한 사람도 제 형제들과 제 품 안의 아내와 남아 있는 자식들에게 험악한 눈을 하며,

55 자기가 먹고 있는 제 자식의 살점을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너희의 원수가 너희의 모든 성마다 너희를 조여 오는 곤경과 고난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56 너희 가운데에서 온순하고 고상한 여자, 한 번도 맨발바닥을 땅에 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고상하고 온순한 여자도, 제 품 안의 남편과 아들딸에게 험악한 눈을 하고,

57 제 두 다리 사이에서 나온 어린것들과 자기가 낳은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하며, 그들을 잡아먹으려 할 것이다. 원수가 너희의 성마다 너희를 조여 오는 곤경과 고난

- 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58 너희가 이 영광스럽고 경외로운 이름,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이 책에 쓰인 율법의 모든 말씀을 명심하여 실천하지 않으면,
- 59 주님께서는 크고 질긴 재난과, 고약하고 질긴 질병으로 너희와 너희 후손을 호되게 치실 것이다.
- 60 그분께서는 너희가 잡내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되돌리시어, 그것들이 너희에게 달라붙게 하실 것이다.
- 61 주님께서는 이 율법서에 쓰여 있지 않은 모든 병과 재난을 줄곧 너희 위에 내리시어, 마침내 너희가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 62 너희가 하늘의 별처럼 많다 하여도 적은 수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 63 주님께서 너희가 잘되고 번성하게 하시기를 좋아하신 것처럼, 너희를 멸절시키고 멸망시키시기를 좋아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차지하려 들어가는 땅에서 너희는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 64 주님께서는 땅 끝에서 땅 끝까지, 모든 민족들 가운데로 너희를 흠으실 것이니, 너희는 그곳에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무와 돌로 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 65 또 너희는 그 민족들 가운데에서 쉬지 못할 뿐 아니라, 발바닥이 쉴 곳조차 찾지 못할 것이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너희 마음이 떨리고 눈이 어두워지고 열이 빠지게 하실 것이다.
- 66 너희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밤낮으로 공포에 떨면서, 계속 살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 67 너희는 마음에 느끼는 공포와 두 눈으로 보는 광경 때문에, 아침에는 '저녁이 되었

으면!' 하고, 저녁에는 '아침이 되었으면!' 할 것이다.

- 68 '너희가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길로, 주님께서는 너희를 배에 태워 이집트로 도로 데려가실 것이다. 거기에서 너희가 원수들에게 자신을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고 하여도, 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모압 땅에서 맺은 계약에 따르는 의무

29

- 1 이것은 주님께서 호렘에서 맺으신 계약에 덧붙여,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맺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약의 말씀이다.
- 2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주님께서 너희 눈앞에서 하신 일을 보았다.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나라에 하신 일을 모두 보았다.
- 3 그것은 너희가 두 눈으로 본 그 큰 시험과 표징과 큰 기적들이다.
- 4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
- 5 주님께서는 너희를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셨다. 그동안 너희 몸에 걸친 옷들이 해진 적이 없고, 너희 발에 신은 신들이 떨어진 적이 없다.
- 6 또 너희는 빵도 먹지 않았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않았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 너희 하느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 7 그리고 너희가 이곳에 다다랐을 때, 헤스본 임금 시혼과 바산 임금 옥이 우리와 맞서 싸우러 나왔지만, 우리는 그들을 쳐부수었다.
- 8 우리는 그들의 땅을 빼앗아, 르우벤인들과 가드인들, 그리고 므나세 반쪽 지파에게 그

땅을 상속 재산으로 주었다.

9 그러므로 너희는 이 계약의 말씀들을 지키고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될 것이다.

10 너희는 오늘 모두 주 너희 하느님 앞에 나와 섰다. 너희 지파의 우두머리들과 원로들과 관리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11 너희의 어린것들과 아내들, 그리고 장작을 췌 주고 물을 길어 주는 이에 이르기까지 너희 진영에 있는 이방인들이 다 나와 섰다.

12 이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오늘 너희와 맺으시는 주 너희 하느님의 계약과 맹세에 너희가 참여하려는 것이다.

13 또한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너희의 하느님이 되시려는 것이다.

14 나는 이 계약과 이 맹세를 너희하고만 맺는 것이 아니고,

15 오늘 주 우리 하느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과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않은 사람들과도 맺는다.

16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또 우리가 민족들 가운데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너희는 잘 알고 있다.

17 너희는 그들이 모시는 혐오스러운 것들과 우상들,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것들을 보았다.

18 너희 가운데에는 남자들 여자들, 씨족이든 지파든, 오늘 주 우리 하느님에게서 마음이 돌아서서, 저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러 가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는 이렇게 독이 든 쓴흰썩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19 어떤 사람이 이 맹세의 말씀들을 듣고서도, 제 마음속으로 자신을 부추키며, '내가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아, 젖은 것이든 마른

것이든 모조리 휩쓸어 간다 하더라도, 내에게는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한다면,

20 주님께서 그를 용서하려 하지 않으실 것이다. 오히려 그에 대한 주님의 진노와 질투가 타올라 이 책에 쓰인 모든 저주가 그 위에 내리고,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 버리실 것이다.

21 주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떼어 내시어, 이 율법서에 쓰인 계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22 너희 뒤에 일어날 다음 세대의 자손들과 먼 땅에서 올 외국인인, 이 땅의 재난과 주님께서 이 땅을 병들게 하신 질병들을 보고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23 '온 땅이 유행과 소금으로 불타 버려 씨를 뿌리지도 못하고 뿌린 씨가 나오지도 못하는구나. 이곳은 어떤 풀도 돌아나지 않아, 마치 주님께서 당신의 분노와 진노로 멸망시키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츠보임의 처지와 같구나.'

24 또 모든 민족들이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하셨는가? 타오르는 이 큰 분노는 어찌 된 것인가?' 하고 물으면,

25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들이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실 때에 자기들과 맺으신 그분의 계약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26 그들은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지도 않으신 다른 신들에게 가서 그것들을 섬기고 경배하였다.

27 그래서 이 땅을 거슬러 주님의 진노가 타올라, 이 책에 쓰인 모든 저주가 그 위에 내렸다.

28 주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며 크게 격분하셔서 그들을 제 땅에서 뽑아, 오늘 이처럼 다른 나라로 쫓아 버리신 것이다.'

29 감추어진 것은 주 우리 하느님의 것이지만, 드러난 것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

의 것이니, 우리는 이 율법의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

주님께 돌아오다

- 30** ¹ "이 모든 말씀, 곧 내가 너희 앞에 내놓은 축복과 저주가 너희 위에 내릴 때,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몰아내 버리신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너희가 마음속으로 뉘우치고,
- ²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와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너희와 너희의 아들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그들의 말씀을 들으면,
- ³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또 너희를 기없이 여기시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흠어 버리신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희를 다시 모아들이실 것이다.
- ⁴ 너희가 하늘 끝까지 쫓겨났다 하더라도,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그곳에서 너희를 모아들이시고 그곳에서 너희를 데려오실 것이다.
- ⁵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이 차지 하였던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시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조상들보다 더 잘되고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이다.
- ⁶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마음과 너희 후손의 마음에 활력을 베푸시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너희를 살게 해 주실 것이다.
- ⁷ 또한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원수들과, 너희를 미워하며 쫓아다니던 자들 위에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 ⁸ 그때에 너희는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을 실천할 것이다.
- ⁹ 그러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 손이 하는 모든 일과, 너희 몸의 소생과 너희

가족의 새끼와 너희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두고 흐뭇해하셨듯이, 정녕 다시 너희의 번영을 두고 기뻐하실 것이다.

- ¹⁰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 율법서에 쓰인 그분의 계명들과 규정들을 지키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오면 그러하실 것이다."

말씀을 가까이 있다

- ¹¹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너희에게 힘든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 ¹² 그것은 하늘에 있지도 않다. 그러니 '누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리오?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터인데.' 하고 말할 필요가 없다.
- ¹³ 또 그것은 바다 건너편에 있지도 않다. 그러니 '누가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리오?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터인데.' 하고 말할 필요가 없다.
- ¹⁴ 사실 그 말씀은 너희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 너희의 입과 너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생명을 선택하되

- ¹⁵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행복, 죽음과 불행을 내놓는다.
- ¹⁶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을 듣고,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 걷고, 그분의 계명과 규정과 법규들을 지키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또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차지하려 들어가는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 ¹⁷ 그러나 너희의 마음이 돌아서서 말을 듣지 않고, 유혹에 끌려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섬기면,

- 18 내가 오늘 너희에게 분명히 일러 두는데,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고, 요르단을 건너 차지하려 들어가는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 19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
- 20 또한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께 매달려야 한다. 주님은 너희의 생명이시다. 그리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가 오랫동안 살 수 있게 해 주실 분이시다."

31 1 모세는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을 하였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다

- 2 모세는 또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오늘로 백스무 살이나 되어 더 이상 나다닐 수가 없게 되었다. 또 주님께서는 나에게, '너는 이 요르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 3 주 너희 하느님께서 친히 너희 앞에 서서 건너가시고, 저 모든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시어,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너희 앞에 서서 건너갈 것이다.
- 4 주님께서는 아모리족의 임금 시혼과 옥과 그 나라를 멸망시키신 것처럼, 저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 5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시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대로 그들에게 해야 한다.
- 6 너희는 힘과 용기를 내어라. 그들을 두려워해서도 겁내서도 안 된다. 주 너희 하느님께

서 너희와 함께 가시면서,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 7 그리고 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 놓고,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말하였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이 백성과 함께,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저 땅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 8 주님께서 친히 네 앞에 서서 가시고, 너와 함께 계시며, 너를 버려두지도 저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너는 두려워해서도 낙심해서도 안 된다."

일곱 해마다 율법을 읽어야 한다

- 9 모세는 이 율법을 써서, 주님의 계약 궤를 나르는 레위 자손 사제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원로에게 주었다.
- 10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일곱 해마다, 곧 탕감의 해로 정해진 때마다 초막절에,
- 11 온 이스라엘이 주 너희 하느님 앞에 나아 가려고 그분께서 선택하시는 곳으로 모였을 때, 너희는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똑똑히 읽어야 한다.
- 12 너희는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를 가릴 것 없이 온 백성과 너희 성안에 있는 이방인까지 불러 모아, 그들이 듣고 배워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명심하여 실천하게 해야 한다.
- 13 또한 이것을 모르는 그들의 아들들도,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사는 동안에 언제나 듣고 배워,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게 해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 14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자, 네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 여호수아를 불러 만민의 천막 안에 함께 서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겠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

아가 만민의 천막 안에 함께 썼다.

- 15 그때에 주님께서 구름 기둥 속에서 천막 안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천막 어귀 위에 머물러 있었다.
- 16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제 너는 조상들과 함께 잠들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성은 저 땅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낫 선 신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저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나의 계약을 깨뜨릴 것이다.
- 17 그날에 그들을 거슬러 나의 분노가 타올라서, 나는 그들을 저버리고, 그들에게서 나의 얼굴을 감추어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남의 먹이가 되고 많은 재앙과 고난이 그들을 덮칠 것이다. 그날에 그들은,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재앙들이 우리를 덮친 것이 아닌가?' 하고 말할 것이다.
- 18 그러나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돌아서서 저 지른 모든 악행 때문에, 나는 그날 나의 얼굴을 기어이 감추어 버리겠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적으라고 명령하시다

- 19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적은 다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이 노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 20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 그들이 배불리 먹고 살찌게 되면,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돌아서서 그것들을 섬기고 나를 업신여기며 나의 계약을 깨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 21 그러나 많은 재앙과 고난이 그들을 덮칠 때에, 이 노래가 증인이 되어 그들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그 후손들의 입에서 이 노래가 잊혀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

실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기도 전에, 나는 오늘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을 이미 알고 있다."

- 22 그날 모세는 이 노래를 적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다.
- 23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갈 사람은 바로 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율법서의 보충

- 24 모세는 이 율법의 말씀들을 책에 끝까지 다 쓴 다음,
- 25 주님의 계약 কে를 나르는 레위인들에게 명령하였다.
- 26 "이 율법서를 가져다가 주 너희 하느님의 계약 কে 곁에 두어라. 거기에서 이 책이 너희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여라.
- 27 그것은 내가 너희의 반항심과 너희의 고집을 잘 알기 때문이다. 내가 오늘 이처럼 너희와 함께 살아 있는데도 너희가 주님께 반항하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는 얼마나 더 하겠느냐?
- 28 너희 지파들의 모든 원로와 관리를 나에게 불러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이 말씀들을 똑똑히 들려주고, 하늘과 땅을 그들에 대한 증인으로 내세우겠다.
- 29 내가 죽은 뒤에, 너희가 타락하여 내가 명령한 길에서 벗어나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너희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러 너희 손이 하는 일로 그분을 진노하시게 하여, 뒷날 너희에게 재앙이 닥치리라는 것도 알기 때문이다."
- 30 모세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 노래를 끝까지 똑똑하게 들려주었다.

모세의 노래

- 32** ¹ 하늘아, 귀를 기울여라. 내가 말하리라. 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라.
- ² 나의 가르침은 비처럼 내리고 나의 말은 이슬처럼 맺히리라. 푸른 들에 내리는 기랑비 같고 풀밭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라.
- ³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라.
- ⁴ 바위이신 그분의 일은 완전하고 그분의 모든 길은 올바르다. 진실하시고 불의가 없으신 하느님 의로우시고 올곧으신 분이시다.
- ⁵ 그분께 못된 짓을 하여 그 허물로 이제는 그분의 자녀가 아닌 그들,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대일 따름이다.
- ⁶ 주님께 이렇게 보답하느냐?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백성아! 그분은 너희를 내신 아버지라 아니시냐? -그분께서 너희를 만들고 세우시지 않았느냐?
- ⁷ 옛날을 기억하고 대대로 지나온 세월을 생 각해 보아라.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알려 주리라. 노인들에게 물어보아라. 말해 주리라.
- ⁸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에게 상속 재산을 나누어 주실 때 사람들을 갈라놓으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에 따라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 ⁹ 그러나 주님의 몫은 당신의 백성 그분의 소유는 아낌이었다.
- ¹⁰ 주님께서서는 광야의 땅에서 울부짖는 소리만 들리는 삭막한 황무지에서 그를 감싸 주시고 돌보아 주셨으며 당신 눈동자처럼 지켜 주셨다.
- ¹¹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휘저으며 새끼들 위를 맴돌다가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들어 올려 깃털 위에 얹어 나르듯
- ¹² 주님 홀로 그를 인도하시고 그 곁에 낮은 신은 하나도 없었다.

- ¹³ 주님께서서는 그가 이 땅의 높은 곳을 달리게 하시고 들의 소출로 그를 먹이셨다. 바위에서 나오는 꿀을 빨아 먹게 하시고 차돌 바위에서 나오는 기름을 먹게 하셨다.
- ¹⁴ 어린 소젖과 양의 젖을 어린 양들의 굳기름과 함께 먹게 하시고 바산의 숫양과 염소들을 기름진 밀과 함께 먹게 하셨다. 그리고 너희는 붉은 포도로 빛은 술을 마셨다.
- ¹⁵ 예수문은 살이 찌더니 불평을 늘어놓았다. 살이 찌고 몸이 불어나 기름기가 흐르더니 자기를 만드신 하느님을 저버리고 제 구원의 바위이신 분을 업신여겼다.
- ¹⁶ 그들은 낮은 신들로 그분을 질투하시게 하고 역겨운 짓으로 그분을 분노하시게 하였다.
- ¹⁷ 그들은 하느님이 아니라 잡신들에게 제물을 바쳤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던 신들 갖 들어온 새 신들 너희의 조상들은 두려워하지도 않던 신들이다.
- ¹⁸ 너희는 너희를 낳으신 바위를 무시하고 너희를 세상에 내신 하느님을 잊어버렸다.
- ¹⁹ 주님께서서는 그것을 보시고 분노하시어 당신 아들딸들을 물리치셨다.
- ²⁰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그들에게서 나의 얼굴을 감추고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리라. 그들은 타락한 세대 진실이라고는 전혀 없는 자식들이다.
- ²¹ 그들은 신도 아닌 것들로 나를 질투하게 하고 헛것들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다. 나 또한 내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을 질투하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을 분노하게 하리라.
- ²² 나의 진노로 불이 타올라 저승 밑바닥까지 타 들어가며 땅과 그 소출을 삼켜 버리고 산들의 기초까지 살라 버리리라.
- ²³ 나는 그들에게 제안을 퍼붓고 나의 화살을 모조리 쏘리라.

- 24 그들은 굶주려 쇠약해지고 열병과 모진 괴질로 죽어 가리라. 나는 그들에게 짐승들의 이빨을 먼지 위를 기는 것들의 독과 함께 보내리라.
- 25 밖에서는 칼이 아이들을 앗아 가고 안에서는 공포가 난무하여 총각도 처녀도 젖먹이도 백발 노인도 같은 꼴을 당하리라.
- 26 '나는 그들을 산산조각 내고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기억을 지워 버리리라.' 생각하였지만
- 27 원수가 뽕뽕까 두려워서 또 그들의 적대자들이 착각하여 '우리의 손이 더 강하였다. 이 모든 것을 한 이는 주님이 아니다.' 할까 보아 그렇게 하지 않았다."
- 28 정녕 그들은 소견이 없는 백성이며 슬기가 없는 자들이다.
- 29 그들이 지혜롭다면 이것을 이해하고 자기의 끝이 어떠한지 깨달을 터인데.
- 30 그들의 바위께서 그들을 팔아 버리지 않으신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신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 명을 쫓을 수 있으며 두 사람이 만 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으랴?
- 31 우리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을 내린다 하더라도 정녕 그들의 바위는 우리의 바위와 같지 않다.
- 32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이며 고모리의 밭에서 나온 것. 그들의 포도는 독 포도여서 송이마다 쓰기만 하다.
- 33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 독사의 무서운 독이다.
- 34 "그것은 나에게 간직되어 있지 않느냐? 나의 보고 안에 밀봉되어 있지 않느냐?
- 35 그들의 밭이 비틀거릴 때 복수와 보복은 내가 할 일, 멸망의 날이 가까웠고 그들의 재난이 재빨리 다가온다."
- 36 당신 백성의 힘이 다함을, 노예도 자유인도 남아 있지 않음을 보시고 주님께서서는 당신

- 백성의 권리를 옹호하시며 당신의 종들을 가엾이 여기시리라.
- 37 주님께서 말씀하시리라. "그들의 신들은 어디 있느냐? 그들이 피신처로 삼던 바위는 어디 있느냐?
- 38 그들이 바친 희생 제물의 굳기름을 먹고 그들이 따라 바친 제주를 마시던 것들이 아니냐? 그것들에게 일어나 너희를 도와 달라고, 너희의 피난처가 되어 달라고 하여라.
- 39 이제 너희는 보아라! 나, 바로 내가 그다. 나 말고는 하느님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나는 치기도 하고 고쳐 주기도 한다. 내 손에서 빠져나갈 자 하나도 없다.
- 40 나는 하늘로 손을 들어 나의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한다.
- 41 내가 번뜩이는 칼을 갈아 내 손으로 재판관을 주관할 때 나의 적대자들에게 복수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되갚으리라.
- 42 내 화살들이 피를 취하도록 마시고 내 칼이 살코기를 먹게 하리라. 살해당한 자들과 포로들의 피를 마시고 적장들의 머리를 먹게 하리라."
- 43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에게 환호하여라. 그분께서는 당신 종들이 흘린 피를 갚아 주시고 당신의 적대자들에게 복수하시며 당신 땅과 당신 백성의 죄를 풀어 주신다.
- 44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가서, 백성에게 이 노래를 모두 똑똑히 들려주었다.

생명의 유일한 원천인 율법

- 45 모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말씀을 끝까지 들려준 다음,
- 46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를 거슬러 증언한 모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 자손들에게 명

렁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명심하여 실천하게 하여라.

47 이 말씀은 빈말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또한 너희는 이 말씀 덕분에,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차지하려 가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모세가 느보 산으로 올라가는 명령을 받다

- 48 바로 그날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49 "나는 에리코 맞은쪽,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맥의 느보 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소유하라고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 50 그리고 너의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선조들 곁으로 간 것처럼, 너도 내가 올라간 산에서 죽어 선조들 곁으로 가야 한다.
- 51 그것은 너희가 친 광야에 있는 므리밧 카데스 샘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한가운데에서 나를 배신하였고, 이스라엘 자손들 한가운데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 52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땅을 멀리 바라보지만 할 뿐 들어가지는 못한다."

모세의 축복

- 33 ¹ 이것은 하느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 축복이다.
- 2 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시나이에서 오시고 세이르에서 그들 위에 떠오르셨다. 그분께서 파란 산에서 빛을 내시고 므리밧 카데스에서 오시는데 그분의 오른손에는 타오르는 횃불이 들려 있었다.
- 3 정녕 민족들을 사랑하시는 분. 당신의 거룩한 이들은 모두 당신 손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 발 앞에 엎드려 저마다 당신의 말씀을 받습니다.

- 4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야곱의 모임에 소유로 준 것이다.
- 5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이스라엘의 지파들과 함께 모였을 때 여수룬에 한 임금이 일어났다.
- 6 "르우벤은 죽지 않고 살리라. 그러나 사람 수는 많아지지 않으리라."
- 7 그가 유다를 두고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유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자기 백성에게 데려다 주십시오. 그의 손이 자신을 위해 싸우게 하시고 당신께서 그를 도우시어 그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 8 레위를 두고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당신의 톱뿔과 당신의 우림을 주십시오. 당신께서는 마찌에서 그를 시험하시고 므리바의 샘에서 그와 겨루셨니다.
- 9 그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고 '나는 그를 본 적이 없다.' 하며 자기 형제를 외면하고 자기 아들들을 아는 체하지 않았습니니다. 정녕 그는 당신의 말씀을 지키고 당신의 계약을 준수하였습니다.
- 10 그는 당신의 법규들을 야곱에게 가르치고 당신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칩니다. 당신 앞에 향을 피워 올리고 당신 제단에서 번제물을 바칩니다.
- 11 주님, 그의 힘에 복을 내리시고 그의 손이 하는 일을 가까이 받아 주십시오. 그를 반대하는 자들의 허리를 치시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 12 벤야민을 두고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는 주님 곁에서 평안히 산다. 주님께서 언제나 그를 보호하시니 그는 그분의 어깨 사이에서 산다."
- 13 요셉을 두고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의 땅은 주님께 복 받은 땅. 하늘의 귀한 선물인 이슬과 저 아래 펼쳐진 심연으로,

- 14 해가 내놓는 값진 선물과 다달이 나오는 값진 선물로,
 15 예로부터 있던 산에서 나는 최상품과 처음부터 있던 언덕에서 나는 값진 선물로,
 16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에서 나는 값진 선물과 담불에 사시는 분의 은총으로 복을 받아라. 이 모든 복이 요셉의 머리 위에, 형제들 가운데에서 뽑힌 그의 정수리 위에 내리리라.
 17 그는 말로 난 소, 그에게 영예가 있어야. 그의 뿔은 들소의 뿔. 그 뿔로 민족들을 땅 끝까지 모두 들이받으리라. 에프라임의 수만 명이 그러하고 므나쎄의 수천 명이 그러하리라."
 18 즈불론을 두고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즈불론아, 집을 나서면서 기뻐하여라. 이사카르야, 천막 안에서 기뻐하여라.
 19 그들은 민족들을 산으로 불러 모아 거기에서 의로운 희생 제물을 바치리니 바다의 풍요와 모래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누리기 때문이다."
 20 가드를 두고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가드의 땅을 넓혀 주신 분께서는 찬미받으소서. 가드는 암사자처럼 자리 잡고서 먹이의 팔과 머리를 찢는다.
 21 그는 가장 좋은 것을 골랐으니 그곳에 지도자의 뿔이 간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오라 하여 주님의 정의를, 이스라엘과 함께 그분의 공정을 실천하였다."
 22 단을 두고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단은 바산에서 뛰어난 자 사 세기다."
 23 납탈리를 두고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은총이 충만하고 주님의 복이 가득한 납탈리. 그는 바다와 남쪽 지방을 차지한다."
 24 아세르를 두고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들 가운데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아세르. 그는 형제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가 되어 발

을 기름에 담그리라.

- 25 너의 빗장은 쇠와 구리 너는 한평생 평안 하리라."
 26 "여수룬의 하느님 같으신 분은 없다. 그분께서는 너를 도우시러 하늘을 타고 오시며 당신의 권능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신다.
 27 예로부터 계시는 하느님은 파란치이시고 처음부터 계시는 그 팔은 지주이시다. 그분께서는 네 앞에서 원수를 쫓아내시며 '멸망시켜라.' 하고 말씀하셨다.
 28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고 야곱의 후손들은 안전하게 하늘이 이슬을 내려 주는 곡식과 포도주의 땅에 산다.
 29 이스라엘아, 너는 복되어라.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아, 누가 너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를 도우시는 방패이시며 너를 힘 있게 하시는 칼이시다. 너의 원수들은 너에게 아무하지만 너는 그들의 등을 짓밟으리라."

모세의 죽음

- 34 ¹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예리코 맞은 쪽에 있는 느보 산 피스가 꼭대기에 올라가자, 주님께서 그에게 온 땅을 보여 주셨다. 단까지 이르는 길앗,
 2 온 납탈리, 에프라임과 므나쎄의 땅, 서쪽 바다까지 이르는 유다의 온 땅,
 3 네겝, 그리고 초아르까지 이르는 평야 지역, 곧 종려나무 성읍 예리코 골짜기를 보여 주셨다.
 4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저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의 후손에게 저 땅을 주겠다.' 하고 맹세한 땅이다. 이렇게 네 눈으로 저 땅을 바라보게는 해 주지만, 네가 그곳으로 건너가지는 못한다."
 5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곳 모압 평야에서 죽었다.
 6 그분께서 그를 모압 땅 벳 프오르 맞은쪽

골짜기에 묻히게 하셨는데, 오늘날까지 아무도 그가 묻힌 곳을 알지 못한다.

- 7 모세는 죽을 때에 나이가 백스무 살이었으나, 눈이 어둡지 않았고 기력도 없지 않았다.
- 8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압 평야에서 삼십 일 동안 모세를 생각하며 애곡하였다. 그런 뒤에 모세를 애도하는 애곡 기간이 끝났다.
- 9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인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으로 가득 찼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실천하였다.
- 10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주님께서 얼굴을 마주 보고 사귀시던 사람이다.
- 11 주님께서 그를 보내시어,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온 나라에 일으키게 하신 그 모든 표징과 기적을 보아서도 그러하고,
- 12 모세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이룬 그 모든 위업과 그 모든 놀라운 대업을 보아서도 그러하다.

구약성경 - 6

역사서 - 1

여호수아기

총 24 장

총 658 절

[구약성경]-[여호수아기]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통수권을 맡기시다

- 1** ¹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 주님께서 모세의 시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 2** "나의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이제 너와 이 모든 백성은 일어나 저 요르단을 건너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 3** 내가 모세에게 이른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다 너희에게 주었다.
- 4** 광야에서 레바논을 거쳐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리고 히타이트 사람들의 온 땅과 해 지는 쪽 큰 바다까지 모두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 5** 내가 사는 동안 내내 아무도 너에게 맞서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 주었듯이 너와 함께 있어 주며,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 6** 힘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은 바로 너다.
- 7** 오직 너는 더욱더 힘과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명심하여 실천하고,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 8** 이 율법서의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을 밤낮으로 되뇌어, 거기에 쓰인 것을 모두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그러면 네 길이 번창하고 내가 성공할 것이다.
- 9** 내가 너에게 분명히 명령한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무서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 너의 하느님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다

- 10**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였다.
- 11** "진영 가운데를 지나가며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양식을 준비하여라. 사흘 뒤에 너희는 이 요르단을 건너,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저 땅을 차지하러 들어간다.'"
- 12** 여호수아는 또 르우벤인들과 가드인들, 그리고 므나세 반쪽 지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 13** "주님의 종 모세께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베푸시고 이 땅을 주셨다.' 하고 너희에게 이르신 말씀을 기억하여라.
- 14** 너희 아내와 아이들과 가축은 모세께서 너희에게 주신 요르단 건너편 땅에 머물러 있게 하여라. 그러나 너희 가운데 힘센 용사들은 모두 무장을 하고, 너희 형제들 앞에 서서 강을 건너가, 그 형제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 15** 주님께서 너희와 마찬가지로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베푸시고 그들도 주 너희 하느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는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너희의 소유가 된 땅, 곧 주님의 종 모세께서 요르단 건너편 해 뜨는 쪽에 주신 땅으로 돌아와서 그곳을 차지하여라."
- 16**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나리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겠습니다. 또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 17**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하였던 그대로 나리께도 순종하겠습니다. 주 나리의 하느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서 주셨던 것처럼 나리와도 함께 계서 주시지만 바랄 뿐입니다.
- 18** 나리의 분부를 거역하고, 나리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사형을 받을 것입니다. 오직 힘

과 용기를 내십시오."

예리코에 정탐꾼들을 보낸다

- 2** ¹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탐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몰래 보내며, "가서 저 땅과 예리코를 살펴보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길을 떠나 리합이라고 하는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 2** 그러자 예리코 임금에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몇 사람이 이 땅을 정찰하려고 오늘 밤에 이곳으로 왔습니다." 하는 보고가 들어갔다.
- 3** 그래서 예리코 임금이 리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너한테 들어간 사람들,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내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찰하러 온 자들이다."
- 4** 그러나 그 여자는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 놓고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 온 것은 맞습니다만 어디에서 왔는지는 몰랐습니다."
- 5** 그리고 어두워져서 성문이 닫힐 때쯤 그 사람들이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빨리 그들의 뒤를 쫓아가지 마시오. 그러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 6** 그 여자는 이미 그들을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옥상에 널어놓은 아마 줄기 속에 숨겨 주었던 것이다.
- 7** 사람들은 요르단 쪽으로 간절목까지 그들의 뒤를 쫓아갔다.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
- 8** 정탐꾼들이 자리에 눕기 전에, 리합은 옥상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갔다.
- 9**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싸여 있습니다. 이 땅의 주민들이 모두 당신들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 10**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갈데 바다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이며, 당신들이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족의 두 임금 시혼과 옥에게 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 11**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아 내렸습니다. 당신들 앞에서는 아무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느님이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느님이십니다.
- 12** 그러나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대내 아버지의 집안에 호의를 베풀겠다고 주님을 두고 맹세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신뢰를 하나 주십시오.
- 13**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자매, 그리고 그들에게 딸린 모든 이를 살려 주고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구해 주십시오."
- 14**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대답하였다. "그대들이 우리 일을 알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목숨으로 그대들의 목숨을 보장하겠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성실껏 호의를 베풀겠소."
- 15** 리합은 창문으로 밧줄을 늘어뜨려 그들을 내려 보냈다. 그 여자의 집이 성벽 담에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바로 성벽에 붙어 살았던 것이다.
- 16** 그러면서 리합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을 뒤쫓는 자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산 쪽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뒤쫓는 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사흘 동안 숨어 계십시오. 그런 다음에 갈 길을 가십시오."
- 17** 그러자 그 사람들이 리합에게 다짐하였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면, 우리는 그대가 시킨 이 맹세에 매이지 않을 것이요.
- 18**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 그대는 우리를 내려 보낸 창문에다 진홍색 실로 된 이 줄을 매달아 놓으시오. 그리고 그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그대 아버지

의 온 집안을 그대의 집에 모여 있게 하시오

- 19 누구든지 그대의 집에서 문 밖으로 나가는 자는 자기 탓으로 죽을 것이오. 그러면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소. 그러나 그대와 함께 집 안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라도 누가 손을 댈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죽음은 우리의 책임이오.
- 20 그런데 만일 그대가 우리 일을 알리면, 우리는 그대가 시킨 이 맹세에 매이지 않을 것이오."
- 21 라합은 "당신들의 말씀대로 그렇게 합시다." 하고는 그들을 떠나보냈다. 그리고 나서 창문애다 진홍색 줄을 매달아 놓았다.
- 22 그들은 길을 떠나 산으로 가서, 뒤쫓는 자들이 돌아갈 때까지 사흘 동안 거기에 머물렀다. 뒤쫓는 자들은 길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들을 찾지 못하였다.
- 23 그제야 그 두 사람은 다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논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가서, 자기들이 겪은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 24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정녕 주님께서 저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대한 두려움에 싸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르단 강을 건너다

- 3 ¹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함께 시탐을 떠나 요르단까지 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서 묵었다.
- 2 사흘이 지난 무렵에 관리들이 진영 가운데를 지나가며,
- 3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주 여러분의 하느님의 계약 궤와 그 궤를 멘 레위인 사제들을 보거든, 여러분이 있던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 가시오.

- 4 여러분이 전에 이 길을 가 본 적이 없으니, 그렇게 해야 갈 길을 알 수 있을 것이오. 다만 여러분과 그 궤 사이에 이천 암마가량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마시오."
- 5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라. 주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 6 여호수아는 또 사제들에게 말하였다. "계약 궤를 메고 백성 앞에 서서 나아가라." 그러자 그들은 계약 궤를 모시고 백성 앞에 서서 나아갔다.
- 7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내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여 주기 시작하겠다. 그러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 준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어 준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 8 너는 계약 궤를 멘 사제들에게, '요르단 강 물가에 다다르거든 그 요르단 강에 들어가서 있어라.' 하고 명령하여라."
- 9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이리 가까이 와서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라."
- 10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일어날 이 일로써, 살아 계신 하느님께서 너희 가운데에 계시면서, 가나안족, 히타이트족, 히위족, 프리즈족, 기르가스족, 아모리족, 여부스족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시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11 자, 온 땅의 주인이신 분의 계약 궤가 너희 앞에 서서 요르단을 건널 것이다.
- 12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에서 지파마다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뽑아라.
- 13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의 궤를 멘 사제들의 발바닥이 요르단 강 물에 닿으면, 위에서 내려오던 요르단 강 물이 끊어져 두처럼 멈추어 설 것이다."

- 14 백성이 요르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천막에서 떠날 때에, 계약 궤를 멘 사제들이 백성 앞에 섰다.
- 15 드디어 궤를 멘 이들이 요르단에 다다랐다. 수확기 내내 강 언덕까지 물이 차 있었는데, 궤를 멘 사제들이 요르단 강 물가에 발을 담그자,
- 16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멈추어 섰다. 아주 멀리 차르탄 곁에 있는 성읍 아담에 독이 생겨, 아라바 바다, 곧 '소금 바다'로 내려가던 물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다. 그래서 백성은 예리코 맞은쪽으로 건너갔다.
- 17 주님의 계약 궤를 멘 사제들이 요르단 강 한복판 마른 땅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동안, 온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마침내 온 겨레가 다 건너간 것이다.

둘 열두 개로 기념비를 세우다

- 4 ¹ 온 겨레가 요르단을 다 건너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 2 "백성 가운데에서 지파마다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뽑아라.
- 3 그리고 그들에게, '저기 요르단 강 한복판, 사제들이 발을 움직이지 않고 서 있던 곳에서 둘 열두 개를 메고 건너와, 너희가 오늘 밤 묵을 곳에 놓아라.' 하고 명령하여라."
- 4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아 두었던 열두 사람을 불러,
- 5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너희 하느님의 궤 앞을 지나 요르단 강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저마다 둘을 한 개씩 어깨에 메고 오너라.
- 6 그리하여 그것들이 너희 가운데에서 표징이 되게 하여라. 뒷날 자손들이 너희에게 이 돌들이 무엇을 뜻하느냐고 물으면,
- 7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요르단 강 물이 주님의 계약 궤 앞에서 끊어

- 졌다. 궤가 요르단을 건널 때에 요르단 강 물이 끊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한 기념비가 되었다.'" ⁸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요르단 강 한복판에서 둘 열두 개를 메고 나와, 그들이 하룻밤을 묵을 곳까지 가져다가 그곳에 내려놓았다.
- 9 여호수아는 요르단 강 한복판, 계약 궤를 멘 사제들의 발이 서 있던 곳에 둘 열두 개를 세워 놓았다. 그것들은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다.
- 10 백성에게 일러 주라고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까지, 궤를 멘 사제들은 요르단 강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리고 백성은 서둘러 강을 건넜다.
- 11 온 백성이 강을 다 건너자, 주님의 궤와 사제들이 백성이 보는 앞에서 간났다.
- 12 르우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과 므나세 반쪽 지파가, 모세가 그들에게 이룬 대로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서서 간났다.
- 13 무장을 갖춘 그들 약 사만 명은 주님 앞을 지나 예리코 벌판으로 싸우러 나아갔다.
- 14 그날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여 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세가 살아 있는 동안 내내 그를 경외하였듯이, 여호수아도 경외하게 되었다.
- 15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 16 "증언 궤를 멘 사제들에게 요르단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하여라."
- 17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제들에게, "요르단에서 올라오너라." 하고 명령하였다.
- 18 주님의 계약 궤를 멘 사제들이 요르단 강 한복판에서 올라올 때, 그 사제들의 발바

다. 다이 마른 땅에 닿자마자, 요르단 강 물이 제자리로 돌아가서 전처럼 강 언덕에 넘쳤다.

- 19 첫째 달 초열흘날, 백성은 요르단에서 올라와 예리코 동쪽 번두리에 있는 길가에 진을 쳤다.
- 20 여호수아는 사람들이 요르단에서 가져온 돌 열두 개를 길가에 세우고
- 21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뉘날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으면,
- 22 너희는 자손들에게 이렇게 알려 주어라. '이스라엘이 이 요르단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 23 그것은 주 너희 하느님께서 우리가 갈대 바다를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그 바다를 마르게 하신 것처럼, 주 너희 하느님께서 우리가 요르단을 다 건널 때까지 그 물을 마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 24 그리하여 온 땅의 백성에게, 주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하시고, 또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을 늘 경외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5 ¹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르단을 다 건널 때까지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그 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요르단 건너편 서쪽에 있는 아모리족의 모든 임금과 바닷가에 있는 가나안족의 모든 임금의 마음이 녹아 내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가에서 할례를 받다

- 2 그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돌갈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두 번째로 할례를 베풀어라."
- 3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갈을 만들어, 아랄못 언덕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베풀

었다.

- 4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풀은 까닭은 이러하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 남자들, 곧 군사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도중에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
- 5 그때에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지만, 이집트에서 나와 도중에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 6 이집트에서 나온 이 온 겨레 가운데에서 군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탓으로 다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십 년 동안 광야를 걸었다. 주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우리에게 주시기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던 것이다.
- 7 주님께서는 그들 대신에 그들의 자손들을 일으켜 주셨는데, 바로 그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풀은 것이다. 그 자손들이 이렇게 할례 받지 못한 자로 남아 있었던 것은, 도중에 할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 8 할례를 다 받고 나서 이물 때까지, 온 겨레가 진영 안 자기 자리에 머물렀다.
- 9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치워 버렸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가나안에서 첫 파스카 축제를 지나다

- 10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열나흘날 저녁에 예리코 벌판에서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
- 11 파스카 축제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 없는 빵과 볶은 밀을 먹은 것이다.
- 12 그들이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밟았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난 것을 먹었다.

주님 군대의 장수가 나타나다

- 13 여호수아가 예리코 가까이 있을 때,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 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나? 적의 편이나?"
- 14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지금 주님 군대의 장수로서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물었다. "나리, 이 중에게 무슨 분부를 내리시렵니까?"
- 15 주님 군대의 장수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네가 서 있는 자리는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는 그대로 하였다.

예리코를 점령하다

- 6 ¹ 예리코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굳게 닫힌 채, 나오는 자도 없고 들어가는 자도 없었다.
- 2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예리코와 그 임금과 힘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 3 너희 군사들은 모두 저 성읍 둘레를 하루에 한 번 돌아라. 그렇게 엿새 동안 하는데,
- 4 사제 일곱 명이 저마다 숫양 뿔 나팔을 하나씩 들고 제 앞에 서라. 이렛날에는 사제들이 뿔 나팔을 부는 가운데 저 성읍을 일곱 번 돌아라.
- 5 숫양 뿔 소리가 길게 울려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되거든, 온 백성은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에 백성은 저마다 곧장 앞으로 올라가거라."
- 6 논의 아들 여호수아는 사제들을 불러 말하였다. "계약 궤를 메어라. 그리고 사제 일곱 명은 저마다 숫양 뿔 나팔을 하나씩 들

고 주님의 궤 앞에 서라."

- 7 그는 이어서 백성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아가서 성읍을 돌아라. 무장을 갖춘 이들은 주님의 궤 앞에 서서 나아가라."
- 8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한 대로, 사제 일곱 명이 저마다 숫양 뿔 나팔을 하나씩 들고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다. 주님의 계약 궤가 그 뒤를 따랐다.
- 9 그리고 무장을 갖춘 이들이 뿔 나팔을 부는 사제들 앞에 서서 걸어가고 후위대가 궤 뒤를 따라가는데, 뿔 나팔 소리는 계속 울려 퍼졌다.
- 10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마라. 너희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마라. 내가 함성을 지르라고 하거든 그때에 함성을 질러라."
- 11 이렇게 그는 주님의 궤가 성읍 둘레를 한 번 돌게 하였다. 백성은 그렇게 한 다음 진영으로 돌아가 그 밤을 진영에서 지냈다.
- 12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사제들도 주님의 궤를 메었다.
- 13 숫양 뿔 나팔을 하나씩 든 사제 일곱 명이 주님의 궤 앞에 서서 가며 줄곧 나팔을 불었다. 그리고 무장을 갖춘 이들이 그들 앞에 서서 걸어가고 후위대가 주님의 궤 뒤를 따라가는데, 뿔 나팔 소리는 계속 울려 퍼졌다.
- 14 그들은 이튿날에도 성읍을 한 번 돌고 나서 진영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엿새 동안 그렇게 하였다.
- 15 이렛날이 되었다. 동이 틀 무렵에 그들은 일찍 일어나 같은 방식으로 성읍을 일곱 번 돌았다. 이날만 성읍을 일곱 번 돌 것이다.
- 16 일곱 번째가 되어 사제들이 뿔 나팔을 불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함성을 질러라. 주님께서 저 성읍을 너희에게

넘겨주셨다.

- 17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한 완전 봉헌물이다. 다만 창너 리합과 그 여자와 함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 주어라. 그 여자는 우리가 보낸 심부름꾼들을 숨겨 주었다.
- 18 너희는 완전 봉헌물에 손을 대지 않도록 단단히 조심하여라. 탐을 내어 완전 봉헌물을 차지해서 이스라엘 진영까지 완전 봉헌물로 만들어 불행에 빠뜨리는 일이 없게 하여라.
- 19 은과 금, 청동 기물과 철 기물은 모두 주님께 성별된 것이므로, 주님의 창고로 들어가야 한다."
- 20 사제들이 뿔 나팔을 부니 백성이 함성을 질렀다. 백성은 뿔 나팔 소리를 듣자마자 큰 함성을 질렀다. 그때에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은 저마다 성읍을 향하여 곧장 앞으로 올라가서 그 성읍을 함락하였다.
- 21 그리고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소와 양과 나귀 할 것 없이,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칼로 쳐서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
- 22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 창녀의 집으로 가서, 너희가 맹세한 대로 그 여자와 그에게 딸린 모든 이를 그곳에서 이끌고 나오너라."
- 23 그래서 정탐하러 갔던 젊은이들이 가서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 그리고 그에게 딸린 모든 이를 데리고 나왔다. 라합의 온 씨족을 이끌고 나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데려다 놓았다.
- 24 그런 다음에 백성은 성읍과 그 안에 있는 것을 모조리 불에 태웠다. 그러나 은과 금, 청동 기물과 철 기물은 주님의 집 창고에 들여놓았다.
- 25 여호수아는 창너 리합과 그의 아버지 집안과 그 여자에게 딸린 모든 이를 살려 주었

다. 그래서 그 여자는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살고 있다. 예리코를 정탐하라고 여호수아가 보낸 심부름꾼들을 그 여자가 숨겨 주었기 때문이다.

- 26 그때에 여호수아가 선언하였다. "이 예리코 성읍을 다시 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기초를 놓다가 만이들을 잃고 성문을 달다가 막내아들을 잃으리라."
- 27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이런의 죄와 그 결과

- 7¹ 이스라엘 자손들이 완전 봉헌물과 관련하여 죄를 지었다. 유다 지파 제라의 증손이고 잡디의 손자이며 카르미의 아들인 아칸이 완전 봉헌물을 차지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를 터뜨리셨다.
- 2 예리코에서 여호수아가 베렐 동쪽 벧 아웬 부근에 있는 아이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올라가 그 땅을 정탐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올라가 아이를 정탐하고,
- 3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백성이 다 올라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천 명이 나 삼천 명쯤만 올라가도 아이를 칠 수 있습니다. 저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으니, 온 백성을 그리로 가게 하여 고생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 4 그리하여 백성 가운데에서 삼천 명쯤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다.
- 5 아이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에서 서른여섯 명을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비림까지 뒤쫓아 가 내리막에서 그들을 쳐 죽였다. 그러자 백성의 마음이 녹아 내려 물이 되어 버렸다.
- 6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

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저녁때까지 었드려 있었다. 이스라엘의 원로들도 그와 같이 하였다. 그들은 또 자기 머리 위에 먼지를 끼었었다.

7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아, 주 하느님! 어찌하여 이 백성이 요르단을 잘 건너게 하시고는, 저희를 아모리족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저희가 요르단 건너편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였다면 좋았겠습니다.

8 주님,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이 원수들 앞에서 등을 돌려 달아났으니,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9 가나안족과 이 땅의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들으면, 저희를 에워싸고 이 땅에서 저희 이름을 없애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하십니까?"

10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그렇게 었드려 있느냐?

11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계약을 어기고 완전 봉헌물을 차지하였으며, 도둑질과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 물건을 자기 기물 가운데에 두었다.

12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자신이 완전 봉헌물이 되어 버려, 원수들에게 맞설 수 없게 되고 그 앞에서 등을 돌려 달아났던 것이다. 이제 너희 가운데에서 완전 봉헌물을 없애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13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완전 봉헌물이 있다. 그 완전 봉헌물을 너희 가운데에서 치워 버리기 전에는, 너희가 원수들에게 맞설 수 없다. '

14 너희는 아침에 지파별로 앞으로 나와라. 주님이 제비로 뽑는 지파는 씨족별로 앞으로

나오고, 또 주님이 제비로 뽑는 씨족은 집안별로 앞으로 나와라. 그리고 주님이 제비로 뽑는 집안은 장정별로 앞으로 나와라.

15 그래서 완전 봉헌물을 가지고 있다가 제비로 뽑히는 자는, 그에게 떨어진 모든 이와 더불어 불에 태워야 한다. 그가 주님의 계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추잡한 것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16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다.

17 유다의 씨족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였더니 제라 씨족이 뽑히고, 제라 씨족을 장정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였더니 잡디 집안이 뽑혔다.

18 이어서 잡디 집안을 장정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제라의 증손이고 잡디의 손자이며 카르미의 아들인 아칸이 뽑혔다.

19 여호수아가 아칸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려라.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숨기지 말고 내게 말하여라."

20 아칸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참으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런 짓을 하였습니니다.

21 제가 전리품 가운데에 신아르에서 만든 좋은 겉옷 한 벌과 은 이백 세켈, 그리고 무게가 쉰 세켈 나가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는 그만 탐을 내어 그것들을 차지하였습니니다. 그리고서는 제 천막 안 땅속에도 은을 밑에 깔고 숨겨 두었습니다."

22 여호수아가 심부름꾼들을 보냈다. 그들이 그 천막으로 달려가 보니 과연 천막 안에 그것들이 숨겨져 있었는데, 밑에는 은이 있었다.

23 그들은 그것들을 천막에서 꺼내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있는 곳으로

가져다가 주님 앞에 펼쳐 놓았다.

- 24 여호수아는 제리의 자손 아칸, 은과 겔옷과 금덩어리, 그의 아들딸들, 소와 나귀와 양들, 천막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을 이끌고 온 이스라엘과 함께 '아코르 골짜기'로 올라갔다.
- 25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불행에 빠뜨렸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를 불행에 빠뜨리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돌을 던져 죽이고, 나머지 것은 모두 불에 태우고 나서 그 위로 돌을 던졌다.
- 26 그리고 그들은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아 올렸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그제야 주님께서 타오르는 진노를 거두셨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코르 골짜기'라고 한다.

이름을 점령하다

- 8 ¹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라. 일어나 모든 병사를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 임금과 그 백성과 성읍과 그 땅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 2 너는 아이와 그 임금에게도 예리코와 그 임금에게 한 것처럼 해야 한다. 다만 진리품과 가죽뿔은 너희가 차지하여도 좋다. 그 성읍 뒤쪽에 복병을 배치하여라."
- 3 여호수아와 병사들은 모두 아이로 올라가려고 일어났다. 여호수아는 힘센 용사 삼만 명을 뽑아 밤을 틈타 보내면서,
- 4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보아라,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을 향하여 매복하는데, 성읍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는 마라. 모두 준비하고 있이라.
- 5 나는 나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다가가겠다. 그들이 지난번처럼 우리에게 마주 나오면 우리는 그들 앞에

서 도망칠 것이다.

- 6 그들은 우리가 지난번처럼 도망친다고 생각하고서는 우리 뒤를 따라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들을 성읍에서 멀리 떨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그들 앞에서 도망칠 때,
- 7 너희는 매복하고 있던 곳에서 일어나 성읍을 점령하여라. 주 너희 하느님께서 저 성읍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 8 너희가 성읍을 장악하거든 그 성읍에 불을 질러라.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 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명령이다."
- 9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은 아이 서쪽으로 가서 베텔과 아이 사이에 있는 매복 장소에 자리 잡았다. 여호수아는 백성 가운데에서 그날 밤을 지냈다.
- 10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을 사열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함께 백성 앞에 서서 아이로 올라갔다.
- 11 그와 함께 있던 병사들도 모두 올라가서, 성읍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 아이 북쪽에 진을 쳤다. 그들과 아이 사이에는 계곡이 있었다.
- 12 여호수아는 오천 명쯤 뽑아 그 성읍의 서쪽, 곧 베텔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다.
- 13 이렇게 백성은 성읍 북쪽에 본진을 치고 성읍 서쪽에 후위 부대를 배치하였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에 계곡 한가운데로 갔다.
- 14 아이 임금이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 그리하여 그 성읍의 사람들, 곧 임금과 그의 온 백성이 서둘러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맞아 싸우러 아라바 쪽의 적당한 곳으로 나왔다. 그러나 그는 성읍 뒤에 자기를 치려는 복병이 있는 줄은 몰랐다.
- 15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패배하는 척하고 광야 쪽으로 도망쳤다.
- 16 그러자 성읍 안에 있던 모든 백성이 이스

라엘인들을 뒤쫓기 위해서 소집되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뒤를 쫓노라고 성읍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17 아이와 베델에서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성읍에서 나와 이스라엘을 쫓아갔다. 그들은 성읍을 열어 놓은 채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간 것이다.

18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에 든 창을 아이 쪽으로 내뺐어라. 내가 저 곳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여호수아는 손에 든 창을 그 성읍 쪽으로 내뺐었다.

19 그가 손을 내뺐자, 북병들이 제자리에서 재빨리 일어나 돌진하여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나서 곧 그 성읍에 불을 질렀다.

20 아이 사람들이 뒤돌아보니, 성읍에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리모도 저리모도 도망칠 힘이 없었다. 광야로 도망치던 이스라엘 백성까지 쫓아오던 자들에게로 돌아섰던 것이다.

21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북병들이 그 성읍을 점령하고 성읍에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는, 돌아서서 아이 사람들을 쳤다.

22 북병들도 그들에게 맞서려고 성읍에서 나왔다. 그리하여 아이 사람들은 이쪽도 저쪽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로막혀 그 가운데에 놓이게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남거나 도망치는 자가 한 명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쳐 죽였다.

23 그러나 아이 임금은 산 채로 붙잡아서 여호수아에게 끌고 갔다.

24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쫓아오던 아이의 모든 주민을 광야 벌판에서 다 죽였다. 그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칼날에 쓰러지자, 온 이스라엘은 아이로 돌아가서 그 성읍 백성을 칼로 쳐 죽였다.

25 그리하여 그날 쓰러진 자가 남자와 여자

다 합하여 만 이천 명인데, 모두 아이 사람들이었다.

26 여호수아는 아이의 모든 주민을 완전 봉헌물로 바칠 때까지, 창을 들고 내뺐은 손을 거두지 않았다.

27 다만 그 성읍의 가축과 전리품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제 몫으로 차지하였다.

28 여호수아는 아이를 불태워 영원한 폐허 더미로 만들었는데,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다.

29 그리고 그는 아이 임금을 저너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 해질 무렵에 여호수아가 명령하자,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성문 어귀에 내던지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아 올렸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에발 산에 제단을 만들고 율법을 봉독하다

30 그때에 여호수아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위하여 에발 산에 제단을 쌓았다.

31 그것은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한 대로, 곧 모세의 율법서에 쓰인 대로, 쇠 연장을 대어 다듬지 않은 돌들을 쌓아서 만든 제단이었다. 그들은 그 위에서 주님께 번제물을 올리고 친교 제물을 바쳤다.

32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쓴 율법 사본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 돌들에 새겼다.

33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은 원로들과 관리들과 판관들과 함께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구별 없이, 주님의 계약 깨를 멘 레위인 사제들 앞에 췌의 이쪽과 저쪽으로, 절반은 그리짐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갈라섰다. 전에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려는 것이었다.

34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는 율법서에 쓰인 대

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축복과 저주를 읽어 주었다.

35 모세가 명령한 모든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사는 이방인들 앞에서 읽어 주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기브온 사람들과 계약을 맺다

9¹ 요르단 건너편 산악 지방과 평원 지대, 레바논 앞까지 이르는 큰 바다 연안 전체에 사는, 히타이트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의 모든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2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

3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예리코와 아이에 한 일을 듣고서,

4 그들 나름대로 속임수를 쓰기로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양식을 썬 다음, 낡아 빠진 자루와 낡고 갈라져서 껍엔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길을 떠났다.

5 밭에도 낡아 빠져 기운 신을 신고 몸에도 낡아 빠진 옷을 걸쳤다. 양식으로 마련한 빵은 모두 마르고 부스러져 있었다.

6 그들은 길갈 진영으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저희는 먼 고장에서 왔습니다. 이제 저희와 계약을 맺어 주십시오."

7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히위족에게, "그대들은 우리 가운데에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찌 그대들과 계약을 맺어 줄 수 있겠소?" 하자,

8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저희는 나리의 종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그대들은 누구며 어디에서 왔소?" 하고 물으니,

9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이 종들은 주 나리의 하느님 이름 때문에 아주 먼

고장에서 왔습니다. 저희는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이며,

10 요르단 건너편의 두 아모리족 임금, 곧 헤스본 임금 시혼과 아스타롯에 살던 바산 임금 옥에게 하신 일을 다 들었습니다.

11 그래서 저희 원로들과 저희 고장 주민들이 모두 저희에게 말하였습니다. '여행 양식을 손에 들고 그들을 만나러 가서 '저희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와 계약을 맺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12 여기에 저희 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려고 저희가 떠나오던 날 집에서 그것을 썰 때에는 따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마르고 부스러졌습니다.

13 이 술 부대도 저희가 술을 채울 때에는 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또 저희의 옷과 신도 아주 먼 길을 오다 보니 이렇게 낡아 버렸습니다."

14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지도 않고 그들에게서 양식을 받았다.

15 여호수아는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기로 하고 그들을 살려 준다는 계약을 맺었다. 공동체의 수장들도 그들에게 맹세해 주었다.

16 그런데 그들과 계약을 맺은 지 사흘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가까이 살 뿐만 아니라 바로 자기들 가운데에 산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17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을 떠나 사흘째 되는 날에 그들의 성읍에 다다랐다. 그들의 성읍은 기브온, 크피라, 브에롯, 키르얏 여아림이었다.

18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을 치지 않았다. 공동체의 수장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공동체가 수장들에게 불평하였다.

19 그러자 모든 수장이 온 공동체에게 말하였

다. "우리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해 주었으니, 이제는 그들에게 손을 댈 수 없소."

20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은 이러하오. 곧 그들을 살려 주어, 우리가 그들에게 해 준 그 맹세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가 내리지 않게 하는 것이오."

21 수장들이 또 말하였다. "그들을 살려 줍시다." 그래서 수장들이 결정한 대로, 그들은 온 공동체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와 물을 길는 자가 되었다.

22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렀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우리 가운데에 살면서도 '저희는 아주 먼 고장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속였소?"

23 이제 그대들은 저주를 받아, 그대들 가운데 일부는 영원히 종이 되어 내 하느님의 집에서 쓸 나무를 패거나 물을 길게 될 것이오."

24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이 땅을 모두 여러분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여러분 앞에서 멸망시키라고, 주 하느님께서 당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몹시 두려운 나머지,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25 이제 저희는 나리의 손안에 있습니다. 나리의 눈에 좋고 옳게 보이는 대로 저희 일을 처리하십시오."

26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의 일을 이렇게 처리하였다. 곧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에서 구해 주고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27 그리고 바로 그날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공동체가 쓸 나무와 주민의 제단에서 쓸 나무를 패는 자로, 또 물을 길는 자로 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하다

10 ¹ 예루살렘 임금 아도니 체택은,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여 그 곳을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여호수아가 예리코와 그 임금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그 임금에게도 그렇게 하였고, 또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평화를 이루어 그들 가운데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2 아도니 체택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기브온이 왕도만큼이나 큰 성읍으로 아이보다 크고, 그곳의 남자들은 모두 용사였기 때문이다.

3 그래서 예루살렘 임금 아도니 체택은 헤브론 임금 호함, 야르뭇 임금 피르암, 라키스 임금 아피야, 에글론 임금 드브르에게 전갈을 보냈다.

4 "올라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과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5 그리하여 예루살렘 임금, 헤브론 임금, 야르뭇 임금, 라키스 임금, 에글론 임금, 이렇게 아모리족의 다섯 임금과 그들의 모든 군대가 모여 올라와서, 기브온을 향하여 진을 치고 싸움을 걸었다.

6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영으로 여호수아에게 전갈을 보냈다.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저희에게 빨리 올라오시어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산악 지방에 사는 아모리족의 임금들이 모두 저희를 치려고 몰려왔습니다."

7 그러자 여호수아는 병사들과 힘센 용사들을 모두 거느리고 길갈을 떠나 올라갔다.

8 그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너에게 맞서지 못할 것이다."

9 여호수아는 길갈을 떠나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들이닥쳤다.

- 10 주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시니, 이스라엘은 기브온에서 그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이스라엘은 또 벧호론 오르막길로 아제카와 마케다까지 쫓아가면서 그들을 쳐 죽였다.
- 11 그들이 이스라엘을 피하여 벧 호론 내리막길로 도망칠 때, 주님께서는 아제카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을 쏟아 부어 그들을 죽게 하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 12 주님께서 아모리족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으로 넘겨주시던 날,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외쳤다. "해야, 기브온 위에, 달아, 아얄론 골짜기 위에 그대로 서 있어라."
- 13 그러자 백성이 원수들에게 복수할 때까지 해가 그대로 서 있고 달이 멈추어 있었다. 이 사실은 아사르의 책에 쓰여 있지 않은가? 해는 거의 온종일 하늘 한가운데에 멈추어서, 지려고 서두르지 않았다.
- 14 주님께서 사람의 말을 그날처럼 들어주신 때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정녕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 주신 것이다.
- 15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 진영으로 돌아갔다.

아모리족의 다섯 임금을 처형하다

- 16 한편, 그 다섯 임금은 도망쳐서 마케다의 동굴에 숨었다.
- 17 "다섯 임금이 마케다의 동굴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는 보고를 받고,
- 18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그 굴 어귀에 큰 돌들을 굴러다 놓고 그 곁에 사람들을 세워 지키게 하여라."
- 19 그리고 너희는 서 있지 말고 원수들의 뒤

를 쫓아가 그 후군을 치고, 자기들의 성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 20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에게 아주 큰 타격을 입혀 거의 전멸시켰다. 그들 가운데에서 목숨을 건져 살아남은 자들은 요세 성읍들 안으로 들어갔다.
- 21 온 백성은 마케다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무사히 돌아갔다. 그리하여 아무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함부로 허를 놀리지 못하였다.
- 22 그때에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굴 어귀를 열고 저 다섯 임금을 굴에서 끌어내어 나에게 데려오너라."
- 23 사람들이 그대로 하였다. 에루살렘 임금, 헤브론 임금, 야르못 임금, 라키스 임금, 에글론 임금, 이렇게 다섯 임금을 그 굴에서 끌어내어 여호수아에게 데려갔다.
- 24 사람들이 그 임금들을 끌어내어 여호수아에게 데려가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은 다음, 자기와 함께 갔던 병사들을 지휘하는 군관들에게 지시하였다. "가까이 와서 발로 이 임금들의 목을 밟아라." 그들이 가까이 가서 발로 임금들의 목을 밟자,
- 25 여호수아가 또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라. 힘과 용기를 내어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 26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아서, 저녁때까지 거기에 매달려 있게 하였다.
- 27 해가 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자, 사람들은 그들을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동굴에 내던지고, 그 굴 어귀를 큰 돌들로 막아 놓았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성읍들을 점령하다

- 28 그날에 여호수아는 마케다를 점령하고 그 성읍의 주민들과 임금을 칼로 쳐 죽였다. 그들과 성읍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을 모조리 완전 봉헌물로 바치고, 생존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예리코 임금에게 한 것처럼 마케다 임금에게도 그대로 하였다.
- 29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마케다에서 리브나로 나아가, 리브나와 싸웠다.
- 30 주님께서는 그 성읍도 임금과 함께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수아는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칼로 쳐서, 생존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예리코 임금에게 한 것처럼 그 성읍의 임금에게도 그대로 하였다.
- 31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리브나에서 라키스로 나아가, 진을 치고 그곳을 공격하였다.
- 32 주님께서는 라키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리브나에서 한 것과 똑같이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칼로 쳐 죽였다.
- 33 그때에 게제르 임금 호람이 라키스를 도우러 올라왔지만, 여호수아는 그와 그의 백성도 쳐서 생존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 34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라키스에서 예글론으로 나아가, 진을 치고 그곳을 공격하였다.
- 35 그들은 그날로 그 성읍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칼로 쳐 죽였다. 라키스에서 한 것과 똑같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날 모조리 완전 봉헌물로 바친 것이다.
- 36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예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 그곳을 공격하였다.
- 37 그들은 그 성읍을 점령하고, 예글론에서 한

것과 똑같이 임금과 그곳에 딸린 모든 성읍, 그리고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칼로 쳐서 생존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완전 봉헌물로 바친 것이다.

- 38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드비르로 돌아가서 그곳을 공격하였다.
- 39 그는 임금과 그 성읍과 그곳에 딸린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칼로 쳐 죽였다.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완전 봉헌물로 바쳐, 생존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헤브론에서 한 것처럼, 그리고 리브나와 그 임금에게 한 것처럼 드비르와 그 임금에게도 그렇게 하였다.
- 40 이렇게 여호수아는 온 땅, 곧 산악 지방, 내깎, 평원 지대, 비탈 지대, 그리고 그곳의 임금들을 모조리 쳐서 생존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쉬시는 모든 것을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
- 41 여호수아는 또 카데스 바르네아에서 가자까지, 그리고 고센의 온 땅과 기브온까지 모조리 쳤다.
- 42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 모든 임금과 그들의 땅을 단 한 번에 점령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 주셨기 때문이다.
- 43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길갈 진영으로 들어갔다.

가나안 북부를 점령하다

- 11¹ 하초르 임금 아빈은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임금 요밥, 시므론 임금, 악삽 임금에게,
 2 그리고 북부 산악 지방, 킨네렛 남쪽 아라바, 평원 지대, 서쪽의 도르 고지대에 있는 임금들에게,
 3 또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족, 산악 지방의 아

모리족, 히타이트족, 프리즈족, 여부스족, 미즈와 땅 헤르몬 산 밑의 히위족에게 전갈을 보냈다.

4 그들이 저희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오니, 병사들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고 군마와 병거도 아주 많았다.

5 이 임금들이 모두 모여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로 가서 함께 진을 쳤다.

6 그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 내가 이스라엘 앞에 그들을 모두 사체로 넘겨 주겠다. 너는 그들의 군마 뿔다리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불에 태워라."

7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든 병사와 함께 메롬 물가에 있는 그들에게 갑자기 밀어닥쳐 그들을 덮쳤다.

8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쳐 죽이고 '큰 시돈'과 미스르프 마임까지, 동쪽으로는 미즈와 골짜기까지 뒤쫓아 갔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생존자가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모두 쳐 죽였다.

9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곧 그들의 군마 뿔다리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불에 태워 버린 것이다.

10 그때 여호수아는 돌아오는 길에 하초르를 점령하고 그 임금을 칼로 쳐 죽였다. 하초르가 전에 이 모든 왕국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이다.

11 또한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칼로 쳐 죽여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 이렇게 그는 숨쉬는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하초르는 불에 태워 버렸다.

12 여호수아는 이 모든 임금의 성읍들을 점령하고 그 임금들을 사로잡아,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칼로 쳐 죽여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

13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불태워 버

린 하초르를 제외하고는 언덕 위에서 있는 성읍들을 하나도 불태우지 않았다.

14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성읍들에서 나온 모든 전리품과 가축을 차지하고, 사람들은 모조리 칼로 쳐 죽여 없애 버렸다. 이렇게 숨쉬는 것은 하나도 남겨 두지 않았다.

15 주님께서 당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또 그대로 실행하였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가운데에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점령을 끝낸다

16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 모든 땅, 곧 산악 지방, 온 내딤 땅, 온 고센 땅, 평원 지대, 아라바, 이스라엘 산악 지방과 그 평원 지대를 정복하였다.

17 그리고 세이트 쪽으로 솟은 할락 산에서 헤르몬 산 아래 레비논 골짜기에 있는 바알 가드까지, 모든 임금을 사로잡아 쳐 죽였다.

18 여호수아는 이 모든 임금과 오랫동안 싸웠다.

19 기브온의 주민 히위족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평화를 이룬 성읍은 하나도 없었다. 나머지 성읍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싸워서 정복한 것이다.

20 이스라엘이 사정을 보지 않고 그 원주민들을 완전 봉헌물로 바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서는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어 이스라엘을 맞아 싸우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전멸시켰다.

21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악 지방, 헤브론, 드비르, 아납, 유다의 모든 산악 지방, 이스라엘의 모든 산악 지방에서 야만인들을 제거하였다. 그들이 살던 성읍들과 그들을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

- 22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에는 아낙인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가자와 갓과 아스돗에만 남아 있다.
- 23 이렇게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그대로 모든 땅을 정복하였다. 그리고 나서 지파별 구분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땅을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전쟁은 끝나고 이 땅은 평온해졌다.

이스라엘이 요르단 동쪽에서 정복한 임금들

- 12** ¹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르단 건너편 해 뜨는 쪽 아른는 강에서 헤르몬 산과 동쪽의 온 아라바에 이르기까지 임금들을 쳐 죽여 땅을 차지하였는데, 그 임금들은 이러하다.
- 2 헤스본에 살던 아모리족의 임금 시혼은 아른는 강가에 있는 아로에르에서 시작하여, 그 강 중간에서부터 암몬 자손들의 경계인 야벳 강까지 길앗의 절반을 다스렸다.
- 3 그는 또 동쪽으로 칸넫 바다까지 이르는 아라바와, 다시 동쪽의 벧 여시못 쪽으로 아라바 바다, 곧 '소금 바다'까지, 그리고 남쪽으로 피스가 기슭과 부근 지역까지 다스렸다.
- 4 라파인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인 바산 임금 옥은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살았다.
- 5 그는 헤르몬 산, 살가, 그수르족과 마야카족의 경계까지 이르는 온 바산, 헤스본 임금 시혼의 경계까지 이르는 길앗의 절반을 다스렸다.
- 6 이들을 주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쳐 죽였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종 모세는 그 땅을 르우벤인들과 가드인들, 그리고 므나세 반쪽 지파에게 소유로 나누어 주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정복한 임금들

- 7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르단 건너편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바알 가드에 서 세이르 쪽으로 솟은 할락 산에 이르기까지 그 땅의 임금들을 쳐 죽였는데, 그 임금들은 이러하다. 여호수아가 지파별 구분에 따라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소유지로 나누어 주었는데,
- 8 산악 지방, 평원 지대, 아라바, 비탈 지대, 광야, 네겟으로서, 히타이트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의 땅이다.
- 9 그 임금들은 예리코 임금 하나, 베텔 근처 아이 임금 하나
- 10 예루살렘 임금 하나, 헤브론 임금 하나
- 11 아르뭇 임금 하나, 라기스 임금 하나
- 12 에글론 임금 하나, 게제르 임금 하나
- 13 드비르 임금 하나, 게데르 임금 하나
- 14 호르마 임금 하나, 아랏 임금 하나
- 15 리브나 임금 하나, 아들람 임금 하나
- 16 미케다 임금 하나, 베텔 임금 하나
- 17 타푸아 임금 하나, 헤페르 임금 하나
- 18 아벡 임금 하나, 시론 임금 하나
- 19 마돈 임금 하나, 하초르 임금 하나
- 20 시므론 므론 임금 하나, 악삽 임금 하나
- 21 타야낙 임금 하나, 므기또 임금 하나
- 22 케데스 임금 하나, 카르멜의 요크스암 임금 하나
- 23 도르 고지대의 도르 임금 하나, 갈갈의 고임 임금 하나
- 24 티르차 임금 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임금들은 모두 서른한 명이다.

점령하지 못한 지역

- 13** ¹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이 들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고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차지해야 할 땅은 아주 많이 남아 있다.

- 2 남아 있는 땅은 이러하다. 필리스티아인들의 온 지역, 그수르족의 온 땅,
 3 이집트 동쪽의 시호르에서 북쪽으로 에크론 경계까지, — 가나안족의 소유로 여겨지는 이 땅에는 가자, 아스돗, 아스클론, 갓, 에크론 제후, 이렇게 필리스티아인들의 다섯 제후가 있다. — 그리고 남쪽에 있는 아와인들의 땅,
 4 가나안족의 온 땅, 시돈인들에게 속한 아라에서 아벡까지, 곧 아모리족의 경계까지,
 5 또 그בל족의 땅, 헤르몬 산 아래 바알 가드에서 하맛 어귀까지 이르는 해 뜨는 쪽의 온 레바논이다.
 6 그리고 레바논에서 미스르뿔 마임까지 이르는 산악 지방의 모든 주민, 곧 시돈인들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모조리 쫓아내겠다. 그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이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배해 주기만 하여라.
 7 이제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나세 반쪽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라."

요르단 동쪽의 이스라엘 영토

- 8 므나세 반쪽 지파와 함께 르우벤인들과 가드인들은, 모세가 요르단 건너편 동쪽에서 준 상속 재산을 이미 받았다. 주님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땅은 이러하다.
 9 아르논 강 가에 있는 아로에르에서 시작하여, 그 강 중간에 있는 성읍, 메드바에서 디본까지 이르는 고원 지대 전체,
 10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족의 임금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들의 경계까지 이르는 지역,
 11 길앗, 그수르족과 마이카족의 영토, 헤르몬 산 전체, 살가까지 이르는 바산 전체,
 12 그리고 라파인 가운데 마지막 남은 자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임금 옥의 왕국 전체이다. 모세가 이미 그

- 들을 쳐서 그 땅을 차지하였던 것이다.
 13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수르족과 마이카족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수르와 마이카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살고 있다.
 14 레위 지파에게만은 상속 재산을 주지 않았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바치는 화제물이 바로 그들의 상속 재산이기 때문이다.

르우벤 지파의 영토

- 15 모세가 르우벤 자손들의 지파에게 씨족에 따라 상속 재산을 주었는데,
 16 그들의 영토는 아르논 강 가에 있는 아로에르에서 시작하여, 그 강 중간에 있는 성읍, 메드바 곁의 고원 지대 전체,
 17 헤스본, 그 고원 지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 바못 바알, 벳 바알 므온,
 18 아하츠, 크데못, 메파앗,
 19 키리아타임, 시브마,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체랏 사하르,
 20 벳 프오르, 피스가 기슭, 벳 여시뿔,
 21 그리고 고원 지대의 모든 성읍,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족 임금 시혼의 왕국 전체이다. 모세가 이 시혼을, 또 그 땅에 살면서 시혼의 봉신으로 있던 미디안족의 제후 에워, 레켄, 추르, 후르, 레바를 쳐 죽였다. 이들은 그 땅에 살던 시혼의 제후였다.
 22 그때에 죽은 자들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칼로 쳐 죽인 점쟁이, 브오르의 아들 발라암도 들어 있다.
 23 이렇게 르우벤 자손들의 경계는 요르단과 그 연안이다. 이것이 르우벤의 자손들이 씨족에 따라 상속 재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가드 지파의 영토

- 24 모세가 가드 지파, 곧 가드의 자손들에게 씨족에 따라 상속 재산을 주었는데,

- 25 그들의 영토는 아제르, 길앗의 모든 성읍, 라빠 동쪽 아로에르까지 이르는 암몬 자손들의 땅 절반,
- 26 헤스본에서 라맛 미츠페와 브토남까지, 마하나임에서 로 드바르 경계까지,
- 27 계곡에 있는 벳 하람, 벳 니므라, 수룻, 차푼, 헤스본 임금 시혼 왕국의 나머지, 요르단 건너편 동쪽 킨넬렛 바다 끝까지 이르는 요르단과 그 연안이다.
- 28 이것이 가드의 자손들이 씨족에 따라 상속 재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요르단 동쪽 므나세 지파의 영토

- 29 모세가 므나세 반족 지파에게 상속 재산을 주었다. 그래서 그것이 씨족에 따라 므나세 자손들의 반족 지파에 속하게 되었는데,
- 30 그들의 영토는 마하나임에서 시작하여 바산 전체, 곧 바산 임금 옥의 왕국 전체, 바산에 있는 '아이르의 부락들' 예순 개 성읍이다.
- 31 길앗 절반, 바산에 있던 옥의 왕도인 아스타룻과 에드레이는 므나세의 아들 마키르의 자손들, 곧 마키르 자손들의 절반이 씨족에 따라 받았다.
- 32 이것이 모세가 예리코 동쪽, 요르단 건너편 모압 벌판에서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준 땅이다.
- 33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상속 재산을 주지 않았다. 이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바로 그들의 상속 재산이시기 때문이다.

요르단 서쪽 지역을 나누다

- 14 ¹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받은 땅, 곧 엘아자르 사제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의 가문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준 땅은 이러하다.

- 2 이 상속 재산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아홉 지파와 한 지파의 절반에게 제비를 뽑아 나누어 준 것이다.
- 3 두 지파와 한 지파의 절반에게는 모세가 이미 요르단 건너편에서 상속 재산을 주었고, 레위인들에게는 상속 재산을 주지 않았다.
- 4 요셉의 자손들은 므나세와 에프라임 두 지파가 되었다. 레위인들에게는 거주할 성읍들, 그리고 소 떼와 양 떼를 기를 목초지 외에는 이 땅에서 어떤 몫도 주지 않았다.
- 5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 땅을 나누었다.

칼렙의 묘

- 6 유다의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갔을 때, 크나스인 여푼네의 아들 칼렙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카데스 바르네아에서 하느님의 사람 모세께 저와 나리의 일을 두고 이르신 말씀을 나리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 7 제가 마흔 살이었을 때, 주님의 종 모세께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저를 카데스 바르네아에서 보내셨습니다. 저는 돌아가서 제 마음에 있는 그대로 그분께 보고하였습니다.
- 8 저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녹여 약하게 하였습니다만, 저는 주저의 하느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 9 그래서 그날 모세께서는, '네가 주 너의 하느님을 온전히 따랐으니, 네 밭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들의 상속 재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셨습니다.
- 10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저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을 때에 주님께서 모세께 이 말씀을 이르신 때부터 마흔다섯 해 동안 저를 살아남게 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제 저는 여든다섯 살이 되었습니다.

- 11 모세께서 저를 보내시던 그날처럼 오늘도 저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전쟁하는 데에든 드나드는 데에든, 제 힘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12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 그날 이르신 저 산악 지방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때 들으신 대로 야낙인들이 저곳에 살고 있고, 성읍 들은 클뎀더러 요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셔만 주신다면,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제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 13 그러자 여호수아가 여편네의 아들 칼렘에게 축복하고 헤브론을 상속 재산으로 주었다.
- 14 그리하여 헤브론이 크나즈인 여편네의 아들 칼렘의 상속 재산이 되어 오늘에 이른다.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 15 헤브론의 옛 이름은 키르얏 아르비였는데, 아르비는 야낙인들 가운데 가장 큰 인물이었다. 이로써 전쟁은 끝나고 이 땅은 평온해졌다.

유다 지파의 영토

- 15** ¹ 유다 자손들의 지파가 씨족별로 제비를 뽑아 받은 땅은, 남쪽으로는 에돔의 경계, 남쪽 맨 끝에 있는 친 광야까지 이른다.
- 2 그래서 그들의 남쪽 경계는 '소금 바다' 끝, 그 남쪽 끝에서 시작하여,
 - 3 계속 남쪽으로 '아코르뿔 오르막'으로 뻗어나가, 친을 지나서 카데스 바르네아의 남쪽으로 올라간다. 거기에서 헤츠론을 지나 아따르로 올라가다가 키르카 쪽으로 돌고,
 - 4 거기에서 다시 아츠몬을 지나 '이집트 마른내'로 나가다가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이것이 너희의 남쪽 경계이다."

- 5 동쪽 경계는 '소금 바다'인데 요르단이 끝나는 데까지 이른다. 북쪽 경계는 요르단이 끝나는 '소금 바다' 북쪽 끝에서 시작한다.
- 6 그 경계는 벧 호글다로 올라가서 벧 아라바 북쪽을 지나, 다시 르우벤의 아들 '보한의 바위'까지 올라간다.
- 7 또 그 경계는 '아코르 골짜기'에서 드비르로 올라간 다음에 북쪽으로 돌아, 그 마른내 남쪽에 있는 '아둠뿔 오르막' 맞은쪽의 길갈로 향한다. 그리고 나서 '엔 세메스 물' 쪽을 지나 그 끝이 엔 로겔에 이른다.
- 8 그 경계는 다시 여부스 곧 예루살렘의 남쪽 비탈을 따라 '벤 힌놈 골짜기'로 올라간 다음, 서쪽으로 '벤 힌놈 골짜기' 맞은편 산꼭대기로 올라가서는 르파임 골짜기의 북쪽 끝에 다다른다.
- 9 다시 산꼭대기에서 뱀토타 샘으로 구부러져 에프론 산 성읍들 쪽으로 나간 다음, 바알라, 곧 키르얏 여아림 쪽으로 구부러진다.
- 10 그리고 바알라에서 서쪽으로 돌아 셰이르 산으로 가서 여아림 산, 곧 크살론의 북쪽 비탈을 지난 다음, 벧 세메스로 내려가 팀나를 지난다.
- 11 그 경계는 또 에크론 북쪽 비탈로 나가서 사카론 쪽으로 구부러져 바알라 산을 지난 다음, 아브느엘로 나가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 12 서쪽 경계는 큰 바다와 그 언안이다. 이것이 바로 씨족별로 유다의 자손들에게 돌아간 땅의 사방 경계이다.

칼렘이 헤브론을 차지하다

- 13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분부대로, 여편네의 아들 칼렘은 유다의 자손들 가운데서 몫을 받았는데, 헤브론이라고도 하는 키르얏 아르비이다. 아르비는 야낙의 아버지이다.
- 14 칼렘은 야낙의 세 자손, 세사이와 아히만과

- 탈마이를 그곳에서 쫓아냈다. 그들은 아나
의 후손이다.
- 15 그리고 거기에서 칼렘은 드비르의 주민들
을 치러 올라갔다. 드비르의 옛 이름은 키
르얏 세페르이다.
- 16 그때에 칼렘이 말하였다. "키르얏 세페르를
쳐서 점령하는 이에게 내 딸 약사를 아내
로 주겠다."
- 17 칼렘의 아우 크나즈의 아들 오토니엘이 그
곳을 점령하자, 칼렘이 그에게 자기 딸 약
사를 아내로 주었다.
- 18 오토니엘에게 간 약사는 그를 부추겨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요구하게 하였다. 약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칼렘이 "무슨 일이나?"
하고 물었다.
- 19 약사가 말하였다. "저를 네겟 땅으로 보내
시니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십시오. 썬을
몇 개 주십시오." 그래서 칼렘이 약사에게
윗썬과 아랫썬을 주었다.
- 20 이것이 씨족에 따라 유다 자손들의 지파가
받은 상속 재산이다.

유다 지파의 성읍들

- 21 에돔 경계 가까이 내겟 지방에 있는 유다
자손 지파의 남쪽 가장자리 성읍들은,
- 22 캅츠엘, 에테르, 야구르, 카나, 디모나, 아
드아다,
- 23 케데스, 하초르, 이트난,
- 24 지프, 텔렘, 브알롯,
- 25 하초르 하다타, 크리웃 헤츠론 곧 하초르,
- 26 아맘, 스마, 몰라다,
- 27 하차르 가따, 헤스몬, 벳 펠렛,
- 28 하차르 수알, 브에르 세바, 비즈요트야,
- 29 비알라, 이임, 에츨,
- 30 엘톨랏, 크실, 호르마,
- 31 치클랏, 마드만나, 산산나,
- 32 르바웃, 실힘, 아인, 림몬, 이렇게 모두 스
물아홉 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 33 평원 지대에 있는 성읍들은 에스타울, 초르
아, 아스나,
- 34 자노아, 엔 간님, 타푸아, 에남,
- 35 아르못, 아들람, 소코, 아제카,
- 36 사이라임, 아디타임, 그데라, 그데로타임,
이렇게 열네 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
다.
- 37 그리고 츠난, 하다사, 막달 가드,
- 38 달안, 미츠페, 욱트엘,
- 39 라기스, 보츠캇, 에글론,
- 40 카뵘, 라흐미스, 키틀리시,
- 41 그데롯, 벳 다르, 나야마, 마케다, 이렇게
열여섯 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 42 또 리브나, 에테르, 아산,
- 43 입타, 아스나, 느침,
- 44 크일라, 약집, 마레사, 이렇게 아홉 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 45 또한 에크론과 거기에 딸린 마을과 촌락들,
46 에크론에서 바다까지 아스돗 가까이에 있
는 모든 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
47 아스돗과 거기에 딸린 마을과 촌락들, '이
집트 마른내와 큰 바다, 그리고 그 연안까
지 퍼져 있는 가자와 거기에 딸린 마을과
촌락들이다.
- 48 산악 지방에 있는 성읍들은 사미르, 야티
르, 소코,
- 49 단나, 키르얏 산나 곧 드비르,
- 50 아남, 에스트모, 아님,
- 51 고센, 홀론, 길로, 이렇게 열한 성읍과 거
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 52 그리고 아라브, 두마, 에스안,
- 53 아눔, 벳 타푸아, 아페카,
- 54 훔타, 키르얏 아르바 곧 헤브론, 치오르,
이렇게 아홉 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
다.
- 55 또 마온, 카르멜, 지프, 유타,
- 56 이즈르엘, 욱드암, 자노아,
- 57 카인, 기브야, 탐나, 이렇게 열 성읍과 거

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 58 또한 할홀, 벳 추르, 그도르,
- 59 마이랏, 벳 아눗, 엘트콘, 이렇게 여섯 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 60 그리고 키르얏 바알 곧 키르얏 여아림, 라 빠, 이렇게 두 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 61 광야에 있는 성읍들은 벳 아라바, 미딘, 스카카,
- 62 님산, '소금 성읍', 엔 게디, 이렇게 여섯 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 63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족은 유다의 자손들이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여부스족은 오늘날까지 유다의 자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요셉의 두 아들의 영토

- 16** ¹ 제비를 뽑아 요셉의 자손들에게 둘 아간 땅은, 예리코의 썸 동쪽에 있는 예리코의 요르단에서 시작하여, 예리코에서 베텔 산악 지방으로 올라가는 광야로 이어지고,
- 2 베텔에서 다시 루즈로 나가 에렉족의 경계를 지나 아타롯에 다다른 다음,
 - 3 서쪽 아플렉족의 경계로 '아래 벳 호론'과 게제르까지 내려가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 4 이렇게 요셉의 아들 므나세와 에프라임이 자기들의 상속 재산을 받았다.

에프라임 지파의 영토

- 5 에프라임의 자손들이 씨족별로 받은 땅의 경계는 이러하다. 그들이 받은 상속 재산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타롯 아따르에서 '위 벳 호론'까지다.
- 6 그 경계는 다시 바다 쪽으로 나가 북쪽 미크랏에 다다른다. 그리고 동쪽으로 돌아서 타아낫 실로에 다다르고, 그곳을 거쳐 동쪽으로 야노아를 향하여 간다.

- 7 야노아에서 다시 아타롯과 나아라로 내려가다가 예리코에 닿고서 요르단으로 나간 다음,
- 8 다시 타푸아에서 서쪽으로 카나천까지 가서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이것이 에프라임 자손 지파가 씨족별로 받은 상속 재산이다.
- 9 이 밖에도 에프라임의 자손들에게는, 므나세 자손들의 상속 재산 가운데에서 따로 떼어 놓은 성읍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도 그들의 몫이었다.
- 10 그러나 그들은 게제르에 사는 가나안족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그 가나안족은 오늘날까지 에프라임 사람들 가운데에 살면서 노역을 하게 되었다.

므나세 지파의 영토

- 17** ¹ 므나세가 요셉의 맏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지파도 제비를 뽑아 받은 땅이 있었다. 므나세의 맏아들이며 길앗의 아버지인 마키르는 전사였으므로, 이미 길앗과 바산을 자기 것으로 차지하였다.
- 2 므나세의 나머지 자손들에게도 씨족별로 땅이 주어졌다. 곧 아비에제르의 자손들, 헬렉의 자손들, 아스리엘의 자손들, 세켄의 자손들, 헤페르의 자손들, 스미다의 자손들이다. 이들이 씨족별로 본, 요셉의 아들 므나세의 남자 자손들이다.
 - 3 출롭핫은 헤페르의 아들, 헤페르는 길앗의 아들, 길앗은 마키르의 아들, 마키르는 므나세의 아들인데, 출롭핫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들뿐이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마홀라, 노아, 호글라, 밀카, 티르차이다.
 - 4 그들이 엘아자르 사제의 아들 여호수아와 수장들 앞으로 나아가 말하였다. "저희 남자 친족들과 함께 저희에게도 상속 재산을 주라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분부대로 아버지의 친족들과 함께 상속 재산을 받았다.

- 5 이렇게 하여 므나쎬에게는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길앗과 바산 땅 외에 열 몫이 더 돌아갔다.
- 6 므나쎬 지파의 딸들이 아들들과 함께 상속 재산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길앗 땅은 므나쎬의 나머지 자손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 7 므나쎬의 경계는 아세르에서 출발하여 스켄 맞은쪽에 있는 미크므앗에 다다라, 다시 남쪽으로 엔 타푸아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간다.
- 8 타푸아 땅은 므나쎬의 소유이지만, 므나쎬의 경계에 있는 타푸아 성읍은 에프라이م 자손들의 소유가 되었다.
- 9 이어서 그 경계는 카나천으로 내려간다. 므나쎬의 성읍들 가운데에서 그 개천 남쪽의 성읍들은 에프라이م에 속한다. 므나쎬의 경계는 다시 그 개천 북쪽에서 시작하여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 10 이렇게 남쪽은 에프라이م의 소유이고 북쪽은 므나쎬의 소유인데, 바다가 그 경계를 이룬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세르에 닿고 동쪽으로는 이사카르에 닿는다.
- 11 이사카르와 아세르에도 므나쎬의 소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벧 스안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이블르암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도르 주민들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엔 도르 주민들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타야나 주민들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므기또 주민들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이다. 셋째 성읍은 바로 네벳이다.
- 12 이 성읍들은 므나쎬의 자손들이 차지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가나안족이 그 땅에 계속 살기로 작정하였던 것이다.
- 13 그러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강해진 다음에, 그 가나안인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다. 그러나 완전히 쫓아내지는 않았다.
- 14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우리가 이토록 큰 무리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제비를 딱 한 번 뽑아서 그 한 몫만 우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십니까?"
- 15 여호수아가 대답하였다. "너희가 그렇게 큰 무리라면 에프라이م 산악 지방이 너희에게 비좁을 터이니, 프리즈족과 르파임족의 땅에 있는 수풀 지역으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여라."
- 16 요셉의 자손들이 말하였다. "산악 지방만으로는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평야에 사는 모든 가나안족이며, 벧 스안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 또 이스라엘 평야에 사는 자들에게는 철 병거가 있습니다."
- 17 여호수아가 요셉 집안, 곧 에프라이م과 므나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큰 무리일뿐더러 힘도 세다. 제비를 한 번만 뽑아 얻은 땅으로는 안 되겠다."
- 18 산악 지방이 너희 소유이니, 그 수풀 지대를 개간하여 그 경계 끝까지 차지하여라. 가나안인들이 철 병거가 있고 강력하다 하더라도, 너희는 정녕 그들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 일곱 지파의 영토

- 18 ¹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실로에 모여, 그곳에 만남의 천막을 쳤다. 땅은 이미 그들 앞에서 점령되었다.
- 2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는, 아직도 상속 재산을 나누어 받지 못한 지파가 일곱이나 남아 있었다.
- 3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언제까지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려 하지 않고 꾸물거릴 작정이나?"
- 4 내가 보낼 사람을 각 지파에서 세 명씩 선 발하여라. 그들이 일어나 저 땅을 두루 돌

요셉 자손들의 영토 확장

아다니며 자기들이 차지할 상속 재산에 따라 지도를 그려 나에게 가져오도록 하겠다.

5 그러면 저 땅을 일곱 몫으로 나누어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다는 계속 남쪽에 있는 자기 영토에 머무르고, 요셉 집안은 북쪽에 있는 자기 영토에 머무른다.

6 너희는 저 땅을 일곱 몫으로 나누어 지도를 그려 이리로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여기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몫을 정하겠다.

7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서 레위인들이 받을 몫은 없다. 주님의 사제직이 그들의 상속 재산이다. 또한 가드와 르우벤, 그리고 므나세 반쪽 지파는, 주님의 종 모세가 요르단 건너편 동쪽에서 준 상속 재산을 이미 받았다."

8 그 사람들은 일어나 길을 떠났다. 이 땅의 지도를 그려려고 길을 떠나는 이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하였다. "가서 저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지도를 그려 나에게 돌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여기 실로에서, 너희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몫을 정하겠다."

9 그리하여 그 사람들이 길을 떠나 이 땅을 두루 지나며, 성읍들을 일곱 몫으로 나누어 이 땅의 지도를 책에 그린 다음, 실로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갔다.

10 그러자 여호수아가 실로에서, 그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몫을 정하였다. 여호수아가 그곳에서 지파별 구분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몫을 나누어 준 것이다.

벤야민 지파의 영토

11 씨족별로 나뉜 벤야민 자손 지파를 위한 제비가 나왔다. 그렇게 제비를 뽑아 그들에게 돌아간 영토는, 유다 자손들과 요셉 자손들의 영토 사이에 있었다.

12 그들의 북쪽 경계는 요르단에서 시작하여

에리코 북쪽 비탈로 올라간다. 거기에서 서쪽 산악 지방으로 계속 올라가다가 그 끝이 광야, 곧 벳 이엘 광야에 이른다.

13 그 경계는 또 거기에서 남쪽으로 베텔이라고 하는 루즈, 곧 루즈 비탈을 지나 '아레 벳 호른' 남쪽 산 위에 있는 아타룻 아파르로 내려간다.

14 그 경계는 다시 구부러져 벳 호른 맞은편 남쪽에 있는 산에서 남쪽을 향하여 서쪽으로 돌아, 그 끝이 유다 자손들의 성읍인 키르얏 비알, 곧 키르얏 여아림에 이른다. 이것이 서쪽 방면이다.

15 남쪽으로는 그 경계가 키르얏 여아림 끝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나간 다음에 다시 넵토아 썸으로 나가,

16 르파임 골짜기 북쪽에 있는 '벤 힌눔 골짜기' 맞은쪽 산 끝으로 내려간다. 또 여부스 남쪽 비탈을 따라 한눔 골짜기로 내려가서 엔 로겔로 내려간다.

17 거기에서 다시 북쪽으로 구부러져 엔 세메스로 나간다. 그러고서는 '아둠뎀 오르막' 앞에 있는 글릴롯으로 나가, 르우벤의 아들 '보한의 바위'까지 내려간다.

18 이어서 북쪽으로 아라바 맞은쪽 비탈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간다.

19 그 경계는 다시 북쪽으로 벳 호글라 비탈을 지나, 그 끝이 '소금 바다' 북쪽 끝, 요르단 남쪽 끝에 이른다. 이것이 남쪽 경계이다.

20 그리고 요르단이 동쪽 경계를 이룬다. 이것이 벤야민의 자손들이 씨족별로 받은 상속 재산의 사방 경계이다.

21 벤야민 자손 지파가 씨족별로 받은 성읍은 에리코, 벳 호글라, 에벨 크치즈,

22 벳 아라바, 츠마리암, 베텔,

23 아림, 파라, 오프라,

24 크파르 암모니, 오프니, 게바, 이렇게 열두 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 25 그리고 기브온, 라마, 브에롯,
 26 미츠크, 크피라, 모차,
 27 레킴, 이르프엘, 타르알라,
 28 켈라, 엘렙, 어부스 곧 예루살렘, 기브아,
 키르얏 여아림, 이렇게 열네 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이것이 벤야민의 자
 손들이 씨족별로 받은 상속 재산이다.

시메온 지파의 영토

- 19 ¹ 두 번째로 시메온, 곧 씨족별로 나
 닌 시메온 자손 지파를 위한 제비가
 나왔다. 그들의 상속 재산은 유다 자손들의
 상속 재산 가운데에 있었다.
 2 이렇게 하여 그들이 얻은 상속 재산은 브에
 르 세바, 세바, 몰라다,
 3 하차르 수알, 발다, 에켄,
 4 엘톨랏, 프토르, 호르파,
 5 치클락, 벳 마르키붓, 하차르 수사,
 6 벳 르바우, 사루헨, 이렇게 열세 성읍과 거
 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7 그리고 아인, 림몬, 에테르, 아산, 이렇게
 네 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
 8 또 바알랏 브에르와 리맛 내깁까지 그 성읍
 들 주변에 있는 모든 촌락이다. 이것이 시메
 온 지파가 씨족별로 받은 상속 재산이다.
 9 시메온 자손들의 상속 재산은 유다 자손들
 의 뭍에서 떼어 낸 것이다. 유다 자손들의
 뭍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메온의
 자손들이 유다 자손들의 상속 재산 가운데
 에서 저희 뭍을 나누어 받았다.

즈블론 지파의 영토

- 10 세 번째로, 씨족별로 나뉜 즈블론의 자손들
 을 위한 제비가 나왔다. 그들이 받은 상속
 재산의 경계는 사랏까지 다다라,
 11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르알라에 이르고 다
 빼섯에 닿은 다음, 요르느암 맞은쪽 개천
 에 닿는다.

- 12 또 사랏에서 해 뜨는 동쪽으로 돌아 키슬
 롯 타보르 경계에 다다른 다음, 다브랏 쪽
 으로 나가다가 아뵤아로 올라간다.
 13 거기에서 다시 해 뜨는 동쪽으로 갓 헤페
 르와 이엣 키천을 지나, 네아를 향해 구부
 러지면서 림몬 쪽으로 나간다.
 14 그 경계는 다시 북쪽으로 돌아 한나톤으로
 가다가, 그 끝이 입타 엘 골짜기에 이른다.
 15 이렇게 카랏, 나합달, 시므론, 이드알라,
 베들레헴까지 포함하여 열두 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16 이것이 즈블론의 자손들이 씨족별 상속 재
 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
 이다.

이사카르 지파의 영토

- 17 네 번째로 이사카르, 곧 씨족별로 나뉜 이
 사카르의 자손들을 위한 제비가 나왔다.
 18 그들의 영토 안에는 이르르엘, 크술롯, 수
 념,
 19 하파라임, 쉬온, 아나하랏,
 20 라멧, 키스온, 에베츠,
 21 레멧, 엔 간님, 엔 하파, 벳 파체츠가 있다.
 22 그리고 그 경계는 타보르, 사하추마, 벳 세
 메스에 닿은 다음, 그 끝이 요르단에 이
 른다. 이렇게 열여섯 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
 락들이다.
 23 이것이 이사카르 자손 지파가 씨족별 상속
 재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촌락
 들이다.

아세르 지파의 영토

- 24 다섯 번째로, 씨족별로 나뉜 아세르 자
 손 지파를 위한 제비가 나왔다.
 25 그들의 영토 안에는 헬랏, 할리, 베덴, 악
 삽,
 26 알람멜렉, 아르앗, 미스알이 있다. 그 경계
 는 서쪽으로 카르멜과 시호르 리브낫에 닿
 고,

- 27 해 뜨는 쪽으로 뱃 다곤을 돌아서 뱃 에벡과 느이엘 북쪽에 있는 즈블룬과 입타 엘 골짜기에 닿은 다음, 왼쪽으로 카블을 향하여 나가,
- 28 압돈, 르흠, 함몬, 카나를 거쳐 '큰 시돈'에 다다른다.
- 29 그 경계는 다시 라마 쪽으로 돌아서 요새 성읍 티로에 다다른 다음, 다시 호사 쪽으로 돌아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이렇게 마할랍, 악집,
- 30 아코, 아벡, 르흠까지 포함하여 스물두 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 31 이것이 아세르 자손 지파가 씨족별 상속 재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납탈리 지파의 영토

- 32 여섯 번째로, 씨족별로 나뉜 납탈리의 자손들을 위한 제비가 나왔다.
- 33 그들의 경계는 헬렙과 차아난님 참나무에서 시작하여, 아다미 네캅과 야브느엘을 지나 라콴까지 다다랐다가 그 끝이 요르단에 이른다.
- 34 그 경계는 다시 아즈낏 타보르를 향하여 서쪽으로 돌아 거기에서 후쪽으로 나간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즈블룬에 닿고 서쪽으로는 아세르, 또 해 뜨는 쪽으로는 요르단의 여후디에 닿는다.
- 35 그리고 요새 성읍은 치땀, 체르, 함맛, 라캇, 칸네렛,
- 36 아다마, 라마, 하초르,
- 37 케데스, 에드레이, 엔 하초르,
- 38 이르온, 믹달 엘, 호렘, 뱃 아낏, 뱃 세메스, 이렇게 열이홉 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 39 이것이 납탈리 자손 지파가 씨족별 상속 재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단 지파의 영토

- 40 일곱 번째로, 씨족별로 나뉜 단 지파 자손들을 위한 제비가 나왔다.
- 41 그들이 상속 재산으로 받은 영토 안에는 초르아, 에스타올, 이르 세메스,
- 42 사알라뻬, 아알룬, 이틀라,
- 43 엘룬, 탐나, 에크룬,
- 44 엘트케, 기브톤, 비알랏,
- 45 여훗, 브네 브락, 갓 림몬,
- 46 메 아르곤, 라곤, 그리고 야포 맞은쪽 지역이 들어 있다.
- 47 그러나 단의 자손들은 자기들의 영토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레셈으로 올라가 싸워서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곳을 칼로 쳐서 차지하고 그곳에 살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레셈을 자기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하였다.
- 48 이것이 단 자손 지파가 씨족별 상속 재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가나안 땅의 분배를 마친다

- 49 이렇게 그들은 경계에 따라 땅 나누는 일을 마쳤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도 자기들 가운데에 있는 상속 재산을 주었다.
- 50 주님의 분부에 따라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곧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있는 탐낏 세라를 주었다. 여호수아는 그곳에 다시 성읍을 세우고 살았다.
- 51 이것이 엘아자르 사제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의 각 가문 우두머리들이, 실로에 있는 만남의 천막 어귀,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상속 재산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땅 나누는 일을 마쳤다.

도피 성읍

- 20** ¹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 ²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제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일러 준 도피 성읍들을 정하여,
- ³ 실수로 생각 없이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려다. 너희는 그 성읍들을 피의 보복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야 한다.
- ⁴ 살인자는 그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원로들에게 자기의 사정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면 원로들은 그를 성읍 안으로 받아들인 다음, 자리를 마련해 주어 자기들과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 ⁵ 피의 보복자가 뒤쫓아 와도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전에 그 이웃을 미워한 적 없이 생각 없이 쳐 죽였기 때문이다.
- ⁶ 그 살인자는 재판을 받기 위하여 공동체 앞에 설 때까지, 그리고 그때의 대사제가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서 살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쳐 나온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 ⁷ 그리하여 그들은 납탈리 산악 지방에서는 갈릴래이의 케데스를,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서는 스킴을, 유다 산악 지방에서는 키르얏 야르파 곧 헤브론을 성별하였다.
- ⁸ 그리고 요르단 건너편, 예리코 동쪽의 르우벤 지파에서는 고원 광야의 베체르를, 가드 지파에서는 길앗의 라못을, 므나쎄 지파에서는 바산의 골란을 정하였다.
- ⁹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든 그들 가운데에서 나그네살이하는 이방인이든, 실수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누구든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지정된 성읍들이다. 살인자가 공동체 앞에 서기 전에 피의 보복자 손에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레위인들의 성읍

- 21** ¹ 그때에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엘아자르 사제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가문 우두머리들에게 다가갔다.
- ² 가나안 땅 실로에서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살 성읍과 가축을 키울 목초지를 내주라고,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셨습니다."
- ³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 자기들의 상속 재산 가운데에서 다음의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들을 레위인들에게 내주었다.
- ⁴ 먼저 크핫 씨족들을 위한 제비가 나왔다. 그래서 레위인들 가운데에서 아론 사제의 자손들은 제비를 뽑아, 유다 지파와 시메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열세 성읍을 받았다.
- ⁵ 크핫의 나머지 자손들은 제비를 뽑아, 에프라임 지파의 씨족들과 단 지파와 므나쎄 반쪽 지파에서 열 성읍을 받았다.
- ⁶ 게르손의 자손들은 제비를 뽑아, 이사카르 지파의 씨족들과 아셀르 지파와 납탈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나쎄 반쪽 지파에서 열세 성읍을 받았다.
- ⁷ 므라리의 자손들은 씨족별로 르우벤 지파와 가드 지파와 즈블론 지파에서 열두 성읍을 받았다.
- ⁸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이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들을 레위인들에게 내주었다.
- ⁹ 유다 자손 지파와 시메온 자손 지파에서, 다음과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성읍들을 내주었는데,
- ¹⁰ 그것이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크핫 씨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들의 처지가 되었다. 제비가 그들에게 먼저 떨어졌기 때문이다.

- 11 그래서 유다 산악 지방에 있으면서 헤브론 이라고도 하는 키르얏 아르바와 그 주변에 있는 목초지를 내주었다. 아르바는 아나의 아버지다.
- 12 그러나 그 성읍에 딸린 들과 촌락들은 여 쩌네의 아들 칼렘에게 그의 소유로 내주었다.
- 13 아론 사제의 자손들에게는 살인자의 도피 성읍 헤브론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리브나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 14 아티르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에스트모아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 15 홀론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드비르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 16 아인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유태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벳 세베스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이렇게 아홉 성읍을 그 두 지파에서 내주었다.
- 17 또 벤야민 지파에서는 기브온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게바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 18 아나톳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알몬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이렇게 네 성읍을 내주었다.
- 19 그래서 아론의 자손 사제들의 성읍은, 모두 열세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들이다.
- 20 크핫의 나머지 자손들, 곧 레위인 크핫 자손의 씨족들은 제비를 뽑아 에프라임 지파에서 성읍들을 받았다.
- 21 그래서 그들에게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있는 살인자의 도피 성읍 스켄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게제르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 22 킵차임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벳 호론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이렇게 네 성읍을 내주었다.
- 23 또 단 지파에서는 엘트케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기브톤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 24 이알론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갓 림몬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이렇게 네 성읍을 내

- 주었다.
- 25 므나세 반쪽 지파에서는 타아나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갓 림몬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이렇게 두 성읍을 내주었다.
- 26 그래서 크핫 자손의 나머지 씨족들에게는, 모두 열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들이 돌아갔다.
- 27 레위인 씨족들 가운데에서 게르손의 자손들에게는, 므나세 반쪽 지파에서 살인자의 도피 성읍 바산의 골란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브에스트라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이렇게 두 성읍을 내주었다.
- 28 이사카르 지파에서는 키스온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다브랏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 29 아르뭇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엔 간남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이렇게 네 성읍을 내주었다.
- 30 이세르 지파에서는 미스알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암돈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 31 헬갓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르흠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이렇게 네 성읍을 내주었다.
- 32 납탈리 지파에서는 살인자의 도피 성읍 갈릴래이의 케테스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함뭇 도르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카르탄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이렇게 세 성읍을 내주었다.
- 33 그래서 게르손인들이 씨족별로 받은 성읍은, 모두 열세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들이다.
- 34 레위인들 가운데에서 남은 므라리 자손의 씨족들에게는 즈블론 지파에서 요크스암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카르타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 35 탐나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나할랄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이렇게 네 성읍을 내주었다.
- 36 르우벤 지파에서는 베체르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아하츠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 37 크데못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베와앗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이렇게 네 성읍을 내주었다.
- 38 가드 지파에서는 살인자의 도피 성읍 라못 길앗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마하나임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 39 헤스본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아제르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이렇게 모두 네 성읍을 내주었다.
- 40 그래서 레위 씨족들 가운데에서 남은 므라리의 자손들이 씨족별로 제비를 뽑아서 받은 성읍은 모두 열두 성읍이다.
- 41 이스라엘 자손들의 소유지 가운데에서 레위인들에게 내준 성읍은, 모두 마흔여덟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들이다.
- 42 성읍마다 그 주변에 목초지가 딸려 있었다. 그 성읍들이 모두 그러하였다.

하느님의 약속이 실현되다

- 43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을 차지하여 살게 되었다.
- 44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들을 사방으로부터 평온하게 해주셨다. 모든 원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대항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주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던 것이다.
- 45 이리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 집안에 하신 그 모든 좋은 말씀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

여호수아가 요르단 건너편 지파들을 돌려보내다

- 22** ¹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인들과 가드인들, 그리고 므나세 반쪽 지파를 불러 놓고,
- ²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주님의 종 모세

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두 지켰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내 말도 잘 들었다.

- ³ 너희는 오늘날까지 이처럼 오랫동안 너희 형제들을 저버리지 않고,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을 성실히 지켰다.
- ⁴ 이제 주 너희 하느님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너희 형제들을 평온하게 해주셨다. 그러나 주님의 종 모세께서 요르단 건너편에서 주신 너희 소유지로, 너희 천막으로 돌아가거라.
- ⁵ 주님의 종 모세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법을 명심하여 잘 지켜,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을 따라 걸으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께만 매달리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섬겨라."
- ⁶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고 보내니 그들이 자기들의 천막으로 돌아갔다.
- ⁷ 므나세 반쪽 지파는 이미 모세에게서 바산에 있는 땅을 받았고, 나머지 반쪽 지파는 여호수아에게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요르단 건너편 서쪽에 있는 땅을 받았다. 여호수아는 그들도 그들의 천막으로 보내면서 축복하였다.
- ⁸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많은 재산과 이 많은 가축, 은과 금과 구리와 철, 또 이토록 많은 옷을 가지고 너희 천막으로 돌아가거라. 너희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을 형제들과 함께 나누어라."
- ⁹ 르우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 그리고 므나세 반쪽 지파는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나,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주님의 분부에 따라 소유하게 된 자기들의 소유지 길앗 땅으로 돌아갔다.
- 요르단 강 기에 제단을 쌓다**
- ¹⁰ 가나안 땅에 있는 요르단의 글릴롯에 다다

른 르우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 그리고 므나세 반쪽 지파는 그곳 요르단 강가에 보기에도 커다란 제단을 쌓았다.

11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보라, 르우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 그리고 므나세 반쪽 지파가 가나안 땅 경계선, 요르단의 글릴롯, 곧 이스라엘 자손들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 말을 들었다.

12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말을 듣고, 온 공동체가 그들과 싸우러 올라가려고 실로에 모였다.

13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앗 땅으로 르우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 그리고 므나세 반쪽 지파에게 엘아자르 사제의 아들 피노하스를 보냈다.

14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집안마다 수장 한 사람씩, 열 명의 수장이 그와 함께 갔다. 그들은 저마다 이스라엘 부족의 집안을 대표하는 우두머리였다.

15 그들은 길앗 땅으로 르우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 그리고 므나세 반쪽 지파에게 가서 말하였다.

16 "주님의 온 공동체가 이렇게 말하였소. '그대들이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배신하여, 오늘 이처럼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서서 제단을 쌓아 주님께 거역하다니, 어찌 이런 배신을 할 수 있단 말ियो?'

17 프오르에서 지은 죄만으로는 부족하단 말이요? 그 때문에 주님의 공동체에 재난이 내렸고, 우리는 오늘날까지 그 죄를 씻지 못하고 있지 않소?

18 그런데 그대들은 오늘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섰소. 그대들이 오늘 주님께 거역하였으니, 내일은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 진노하실 것이요.

19 그대들의 소유지가 부정하다면, 주님의 성막이 자리 잡은 주님의 소유지로 건너와서 우리와 함께 소유지를 나누어 가지시오.

주 우리 하느님의 제단이 아닌 다른 제단을 쌓아, 주님께 거역하거나 우리에게 거역하는 일을 하지 마시오.

20 제라의 자손 아퀼이 완전 봉헌물과 관련하여 죄를 지어서, 온 이스라엘 공동체 위에 진노가 내리지 않았소? 그의 죄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이 어디 그 한 사람뿐이었소?"

21 르우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 그리고 므나세 반쪽 지파가 이스라엘 씨족의 우두머리들에게 대답하였다.

22 "하느님 주 하느님, 하느님 주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알고 계시오. 이스라엘도 알기를 바라오. 만일 우리가 주님께 거역하거나 그분을 배신하여 이 일을 하였다면, 그분께서 오늘 우리를 구해 주지 않으셔도 좋소.

23 우리가 만일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서려고 제단을 쌓았다면, 번제물과 곡식 재물을 올리거나 친교 재물을 바치려고 그렇게 하였다면, 주님께서 친히 보복하실 것이오.

24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소. 우리는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이 일을 한 것이요. 뒷날 그대들의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오. '너희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25 주님께서 우리와 너희 르우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 사이에 요르단을 경계로 정하여 주셨으니, 너희는 주님께에서 받을 몹이 없다.' 그러면서, 그대들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할지도 모르지 않소?

26 그래서 우리가 '제단을 쌓자.' 하였던 것이오. 그러나 이는 번제물이나 희생 재물을 위한 것이 아니오.

27 우리와 그대들 사이에,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사이에 증인이 되어, 우리도 우리의 번제물과 희생 재물과 친교 재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려는 것이오, 그래서 뒷날 그대들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너희는 주님께에서 받을 몫이 없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오.

- 28 뒷날 그대들의 자손들이 우리나 우리 후손들에게 그렇게 말할 경우에는, '보아라,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만든 주님의 제단 모형일 뿐이다.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인일 따름이다.' 하고 대답하리라 생각하였소.
- 29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성막 앞에 있는 주 우리 하느님의 제단 이외에,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이나 희생 제물을 바치는 다른 제단을 쌓아, 우리가 오늘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오."
- 30 피느하스 사제와 공동체의 수장들과 그와 함께 있던 이스라엘 씨족의 우두머리들은, 르우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과 므나쎄의 자손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좋게 여겼다.
- 31 그래서 엘아자르 사제의 아들 피느하스가 르우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과 므나쎄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이 주님을 배신하지 않은 것을 보고,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소. 이제 그대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주님의 손에서 구해 낸 것이오."
- 32 엘아자르 사제의 아들 피느하스와 수장들은 르우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과 작별하고, 길앗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와서 그대로 보고하였다.
- 33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보고를 듣고 좋게 여기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르우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이 사는 땅을 쳐부수기 위하여 싸우러 올라가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 34 르우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은,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하느님이심을 우리 사이에서 증언하는 증인이다." 하면서, 그 제단의 이름을 지었다.

여호수아의 유언

- 23 ¹ 주님께서 원수들을 모두 물리치시고 사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평온하게 해 주신 뒤, 오랜 시일이 지났다. 여호수아는 늙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
- 2 그래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곧 원로들과 우두머리들과 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 말하였다. "나는 이제 늙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
- 3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민족들에게 하신 것을 다 보았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신 것이다.
- 4 보아라, 내가 요르단에서 해 지는 쪽 큰 바다까지, 이미 멸망시킨 모든 민족들과 아직도 남아 있는 이 모든 민족들을 너희 지파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 5 주 너희 하느님께서 친히 그들을 너희에게서 몰아내시고 너희 앞에서 내쫓으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이르신 대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 6 그러므로 너희는 아주 굳어져서 모세의 율법서에 쓰여 있는 모든 것을 명심하여 실천하고, 거기에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 7 그래서 너희 곁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과 어울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들 신들의 이름을 찬미하여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해서도 안 되고, 그 신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경배해서도 안 된다.
- 8 너희는 오늘날까지 해 온 대로 오직 주 너희 하느님께만 매달려라.
- 9 주님께서 크고 강한 민족들을 너희 앞에

서 쫓아내 주셨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아무도 너희에게 맞서지 못하였던 것이다.

- 10 주 너희 하느님께서 이르신 대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워 주셨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천 명을 쫓을 수 있었다.
- 11 그러니 너희는 깊이 명심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 12 그러나 너희가 돌아서서, 너희 곁에 남아 있는 이 나머지 민족들에게 달라붙어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고서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이 너희와 어울리면,
- 13 주 너희 하느님께서 다시는 너희 앞에서 이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 두어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에게 그들과 올라미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는 마침내 주 너희 하느님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고 말 것이다.
- 14 보라, 오늘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간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두고 이르신 그 모든 좋은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루어진 것을, 너희는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잘 알고 있다. 그 말씀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너희에게 다 이루어졌다.
- 15 그러나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그 모든 좋은 말씀이 너희에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께서서 그 모든 나쁜 말씀도 너희에게 이루어서, 마침내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를 없애 버리실 수도 있다.
- 16 그러므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계약을 너희가 어기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그들을 섬기고 경배하면, 주님의 분노가 너희에게 타올라, 너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바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스켄 집회

- 24** ¹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스켄으로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우두머리들과 판관들과 관라들을 불러 내니, 그들이 하느님 앞에 나와 섰다.
- 2 그러자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옛날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이며 나호르의 아버지인 테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들은 강 건너편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 3 그런데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데려다가, 온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게 하고 그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이사악을 주고,
 - 4 이사악에게는 야곱과 에사우를 주었다. 그리고 에사우에게는 세이크 산을 주어 차지하게 하였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 5 나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이집트 가운데에서 그 모든 일을 하여 그곳을 친 다음, 너희를 이끌어 내었다.
 - 6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렇게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었다. 그 뒤에 너희는 바다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집트인들이 병거와 기병을 거느리고 갈대 바다까지 너희 조상들의 뒤를 쫓아왔다.
 - 7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주님에게 부르짖자, 주님이 너희와 이집트인 사이에 암흑을 갖다 놓고 바닷물을 끌어들여 그들을 덮쳐 버렸다. 이렇게 내가 이집트에서 한 일을 너희는 두 눈으로 보았다. 너희가 광야에서 오랫동안 머무른 뒤에,
 - 8 나는 너희를 요르단 건너편에 사는 아모리인들의 땅으로 데려갔다. 그때에 그들이 너희에게 맞서 싸웠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어, 너희가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패망

- 시킨 것이다.
- 9 그 뒤에 모압 임금, 치포르의 아들 발락이 나서서 이스라엘에게 맞서 싸웠다. 그는 너희를 저주하려고 사람을 보내어 브오르의 아들 발라암을 불러왔다.
- 10 그러나 나는 발라암의 말을 들어 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해 주었다. 나는 이렇게 너희를 발락의 손에서 구해 주었다.
- 11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서 에리코에 이르렀을 때에는, 에리코의 지주들, 곧 아모리족, 프리즈족, 가나안족, 히타이트족, 기르가스족, 히위족, 여부스족이 너희에게 맞서 싸웠다. 나는 그들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 12 나는 또 너희보다 앞서 말별을 보내어, 아모리족의 두 임금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었다. 그렇게 한 것은 너희의 칼도 너희의 화살도 아니다.
- 13 그러고 나서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일구지 않은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읍들을 주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또 직접 가꾸지도 않은 포도밭과 올리브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게 되었다.'
- 14 그러니 이제 너희는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겨라. 그리고 너희 조상이 강 건너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주님을 섬겨라.
- 15 만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거슬리면,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아니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모리족의 신들이든,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여라.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기겠다."
- 16 그러자 백성이 대답하였다.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주님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 17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셨으며, 우리 눈앞에서 이 큰 표징들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주 우리 하느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또 우리가 지나온 그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우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 18 또한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과 이 땅에 사는 아모리족을 우리 앞에서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 19 그러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주님을 섬길 수 없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거룩하신 하느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느님으로서, 너희의 잘못과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 20 너희가 주님을 저버리고 낯선 신들을 섬기면,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선을 베푸신 뒤에라도, 돌아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망시켜 버리실 것이다."
- 21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 22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너희가 주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겠다고 한 그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너희 자신이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가 증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23 "그러면 이제 너희 가운데에 있는 낯선 신들을 치워 버리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마음을 기울여라." 하자,
- 24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주 우리 하느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들겠습니다."
- 25 그날 여호수아는 스킴에서 백성과 계약을 맺고 그들을 위한 규정과 법규를 세웠다.
- 26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모두 하느님의 율법서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그곳 주님의 성소에 있는 향협나무 밑에 세웠다.
- 27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 이 돌이 들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가 너희 하느님을 부정하지 못하게 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28 여호수아는 백성을 저마다 상속 재산으로 받은 땅으로 돌려보냈다.

여호수아가 죽다

29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주님의 종, 논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의 나이는 백열 살이었다.

30 그는 자기가 상속 재산으로 받은 땅, 곧 가이스 산 북쪽,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있는 탐낫 세라에 묻혔다.

31 여호수아가 살아 있는 동안 내내,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모든 일을 이는 원로들이 여호수아보다 장수하며 살아 있는 동안 내내, 이스라엘은 주님을 섬겼다.

32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올라온 요셉의 유골을 스켄에, 아굽이 스켄의 아버지 하모르의 아들들에게 돈 백 닢을 주고 산 밭에 묻었다. 그곳은 요셉 자손들의 상속 재산이 된 곳이다.

33 이룬의 아들 엘아자르도 죽었다. 그는 자기 아들 피느하스가 상속 재산으로 받은 성읍인 에프라임 산악 지방의 기브아에 묻혔다.

구약성경 - 7

역사서 - 2

판 관 기

총 21 장

총 618 절

[구약성경 - [판관기]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다

- 1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여쭙어 보았다. "저희 가운데 누가 먼저 가나안족과 싸우러 올라가야 합니까?"
- 2 주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보라, 내가 저 땅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대답하셨다.
- 3 그러자 유다 지파가 자기들의 형제 시메온 지파에게 말하였다. "우리 뚝으로 정해진 땅으로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족과 싸웁시다.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뚝으로 정해진 땅으로 함께 진군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시메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진군하였다.
- 4 유다 지파가 올라갔을 때에 주님께서 가나안족과 프리즈족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은 베젝에서 만 명을 쳐 죽였다.
- 5 그들은 이 베젝에서 아도니 베젝을 만나 싸워 가나안족과 프리즈족을 쳐 죽인 것이다.
- 6 또 그들은 도망치는 아도니 베젝을 뒤쫓아가 붙잡고서는,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 버렸다.
- 7 그러자 아도니 베젝이 말하였다.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린 임금 일흔 명이 내 식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줌은 하였는데, 이제 하느님께서 내가 한 대로 갚으시려구나." 사람들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갔는데 그는 그곳에서 죽었다.
- 8 유다의 자손들은 예루살렘과 싸워서 그곳을 점령하여, 주민들은 칼로 쳐 죽이고 성읍은 불태워 버렸다.
- 9 그런 다음에 유다의 자손들은 내려가서, 산악 지방과 내갓과 평원 지대에 사는 가나안족과 싸웠다.
- 10 유다 지파는 또 헤브론에 사는 가나안족을 향하여 진군하였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키

르얏 아르비이다. 거기에서 그들은 세사이, 아히만, 탈마이를 쳐 죽였다.

- 11 유다 지파는 거기에서 다시 드비르 주민들을 향하여 진군하였다. 드비르의 옛 이름은 키르얏 세페르이다.
- 12 그때에 칼렘이 말하였다. "키르얏 세페르를 쳐서 점령하는 이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 13 칼렘의 아우 크나즈의 아들 오토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자, 칼렘이 그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다.
- 14 오토니엘에게 간 악사는 그를 부추겨 자기 아버지에게 받을 요구하게 하였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칼렘이 "무슨 일이나?" 하고 물었다.
- 15 악사가 말하였다. "저를 네갓 땅으로 보내 시니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십시오. 썸을 몇 개 주십시오." 그래서 칼렘이 악사에게 윗썸과 아랫썸을 주었다.
- 16 모세의 장인은 카인족이었는데, 그의 자손들이 유다의 자손들과 함께 '야자나무 성읍'에서 아랏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로 올라갔다. 나중에 그들은 그곳을 떠나가서 아말렉족과 함께 살았다.
- 17 유다 지파는 자기들의 형제 시메온 지파와 함께 진군하여, 츠팏에 사는 가나안족을 쳐 죽여서 그곳을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다.
- 18 유다 지파는 또 가자와 그 영토, 아스클론과 그 영토, 에크론과 그 영토를 점령하였다.
- 19 주님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악 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평야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들이 철 병거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 20 칼렘은 모세가 이른 대로 헤브론을 받고, 아난의 세 아들을 그곳에서 쫓아냈다.
- 21 그런데 벤아민의 자손들은 예루살렘에 사

- 는 여부스족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여부스족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베안민의 자손들과 함께 살고 있다.
- 22 요셉 집안도 베텔로 올라갔는데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 주셨다.
- 23 요셉 집안은 먼저 베텔을 정찰하였다. 그 성읍의 옛 이름은 루즈였다.
- 24 정찰꾼들이 그 성읍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대에게 은혜를 베풀겠소."
- 25 그러자 그 사람이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려 주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읍을 칼로 치면서도,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은 모두 살려 보냈다.
- 26 그 사람은 히타이트 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성읍을 세우고 그 이름을 루즈라 하였는데,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린다.
- 27 므나세 지파는 벳 스안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타이낙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그리고 도르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에 사는 주민들, 이블르암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에 사는 주민들, 므기또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에 사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가나안족은 계속 그 땅에서 살기로 작정하였다.
- 28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다음에 가나안족에게 노역을 시켰지만, 그들을 쫓아내지는 않았다.
- 29 에프라임 지파도 게제르에 사는 가나안족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가나안족이 게제르에서 그들과 섞여 살았다.
- 30 즈블론 지파도 키트론 주민들과 나할룰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가나안족이 그들과 섞여 살다가 노역을 하게 되었다.
- 31 아세르 지파도 아코 주민들, 시돈 주민들, 그리고 아흘랍, 약집, 험바, 아픽, 르흠에

사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 32 그래서 아세르인들은 그 땅 주민인 가나안족과 섞여 살았다. 아세르인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 33 납탈리 지파도 벳 세메스 주민들과 벳 아낫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납탈리 지파는 그 땅 주민인 가나안족과 섞여 살았다. 그러다가 벳 세메스와 벳 아낫 주민들이 납탈리 지파를 위하여 노역을 하게 되었다.
- 34 아모리족은 단의 자손들을 다시 산악 지방으로 내몰고, 평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
- 35 그러고 나서 아모리족은 하르 헤레스, 아알론, 사알뵤에 계속 살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나 요셉 집안의 세력이 그들을 무겁게 짓누르자 그들도 노역을 하게 되었다.
- 36 아모리족의 경계는 '아크라뵤 오르막'에서 시작하여 셀라와 그 위로 뻗었다.

주님의 천사가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선포하다

- 2 ¹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보킴으로 올라가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다. 그리고 이렇게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때에 내가 말하였다. '나는 너희와 맺은 계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겠다.'
- 2 그러나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계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허물어 버려야 한다.'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 3 그러므로 내가 말해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너희의 적대자가 되고 그 신들은 너희에게 올라미가 될 것이다.'
- 4 주님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을 하자, 그들은 목 놓아 울었다.

5 그래서 그들은 그곳의 이름을 보킴이라 하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물을 바쳤다.

여호수아가 죽다

6 여호수아가 백성을 해산시키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저마다 제 상속 재산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7 여호수아가 살아 있는 동안 내내,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본 원로들이 여호수아보다 장수하며 살아 있는 동안 내내, 백성은 주님을 섬겼다.

8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백열 살에 죽었다.

9 사람들은 가이스 산 북쪽, 에프라임 산악 지방의 담타 헤레스에 있는 그의 상속 재산 경계 안에 그를 묻었다.

10 그의 세대 사람들도 모두 조상들 곁으로 갔다. 그 뒤로 주님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업적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왔다.

이스라엘의 불충과 징벌

11 이스라엘 자손들은 비알들을 섬겨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12 그들은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이신 주님, 저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신 주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민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고 경배하여, 주님의 화를 돌우었다.

13 그들은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14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악탈자들의 손에 넘겨 버리시고 악탈당하게 하셨다. 또한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에게 맞설 수 없었다.

15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

다 주님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심한 곤경에 빠졌다.

16 주님께서서는 판관들을 세우시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악탈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도록 하셨다.

17 그런데도 그들은 저희 판관들의 말을 듣지 않을뿐더러, 다른 신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고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저희 조상들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빨리도 벗어났다. 그들은 조상들의 본을 따르지 않았다.

18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위하여 판관들을 세우실 때마다 그 판관과 함께 계시어, 그가 살아 있는 동안 내내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도록 하셨다. 억압하는 자들과 학대하는 자들 앞에서 터져 나오는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가없이 여기셨기 때문이다.

19 그러나 판관이 죽으면 그들은 조상들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경배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완악한 행실과 길을 버리지 않았다.

이민족들이 약속의 땅에 남은 이유

20 그리하여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어 말씀하셨다. "이 민족이 내가 저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나의 계약을 거스르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

21 그러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남기고 죽은 민족들 가운데에서 그 어떤 민족도 더 이상 쫓아내지 않겠다."

22 이는 이스라엘이 저희 조상들처럼 주님의 길을 명심하여 따라 걷는지 따라 걷지 않는지, 그 민족들을 통하여 시험하시려는 것이었다.

23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그 민족들을 곧바로 쫓아내지 않고 남겨 두셨으며, 그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약속의 땅에 남은 이민족들

- 3** ¹ 가나안에서 벌어진 전쟁들을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남겨 두신 민족들은 이러하다.
- 2** 이는 오로지, 전에 전쟁을 겪어 보지 못한 이스라엘 세대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고 가르치시려는 것이었다.
- 3** 그들은 팔리스티아인들의 다섯 제후, 온 가나안족, 시돈족, 바알 헤르몬 산에서 하맛 어귀에 이르는 레바논 산에 사는 히위족이다.
- 4** 이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시험해 보시려는 것이었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에 순종하는지를 알아보시려는 것이었다.
- 5**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족, 히타이트족, 아모리족,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과 섞여 살게 되었다.
- 6** 그들은 그 민족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저희 딸들을 그 민족들의 아들들에게 아내로 내주었다. 그러면서 그 민족들의 신들을 섬겼다.

판관 오트니엘

- 7**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 저희 하느님을 잊어 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겨,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 8**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아람 나하라임 임금 쿠산 리스아티임의 손에 팔아넘기셨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덟 해 동안 쿠산 리스아티임을 섬겼다.
- 9**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시어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

가 곧 칼렘의 아우 코나즈의 아들 오트니엘이다.

- 10** 주님의 영이 오트니엘에게 내리니, 그는 이스라엘의 판관이 되어 싸우러 나갔다. 주님께서 아람 임금 쿠산 리스아티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의 세력이 쿠산 리스아티임을 억눌렀다.
- 11** 그리하여 이 땅은 코나즈의 아들 오트니엘이 죽기까지 마흔 해 동안 평온하였다.

판관 에훗

- 12**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압 임금 에글론을 이스라엘보다 우세하게 하셨다. 그들이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 13**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의 자손들을 모아 진군해 와서, 이스라엘을 치고 '야자나무 성읍'을 차지하였다.
- 14**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열여덟 해 동안 모압 임금 에글론을 섬겼다.
- 15**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셨다. 그가 곧 벤야민 지파 게라의 아들 에훗이다. 그는 왼손잡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에훗을 시켜 모압 임금 에글론에게 공물을 보냈다.
- 16** 에훗은 길이가 한 곱텨 되는 양날 칼을 만들어, 옷 속 오른쪽 허벅다리에 찼다.
- 17** 에훗은 모압 임금 에글론에게 공물을 갖다 바쳤다. 에글론은 매우 살진 사람이었다.
- 18** 에훗은 공물을 다 바친 다음에 그 공물을 들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 19** 그러나 그 자신은 갈갈 근처 우상들이 서 있는 곳에서 되돌아가, "임금님,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이 시종들에게 "조용히 하여라!" 하고 말하자 그들이 모두 물러갔다.

- 20 그래서 에훗은 시원한 윗방에 홀로 앉아 있는 에글론에게 다가갔다. 에훗이 "임금님께 전해 드릴 하느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그가 의자에서 일어났다.
- 21 그때에 에훗이 왼손을 뺀어 오른쪽 허벅다리에서 칼을 뽑아 그의 배를 찔렀다.
- 22 칼날과 함께 자루까지 박혔는데, 에훗이 에글론의 배에서 칼을 뽑지 않았으므로 굳기름이 칼에 엉겨 붙었다.
- 23 에훗은 윗방 문을 닫아 잠그고서는 현관으로 나갔다.
- 24 에훗이 나간 뒤에 에글론의 신하들이 와서 윗방 문을 잠긴 것을 보고, '시원한 방에서 뒤를 보고 계시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 25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에글론이 윗방 문을 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열쇠를 가져다가 문을 열어 보니, 저희 주인이 바닥에 쓰러져 죽어 있는 것이었다.
- 26 그들이 지체하는 동안에 에훗은 몸을 피하였다. 우상들이 있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몸을 피하였다.
- 27 그곳에 다다른 에훗은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다 나팔을 불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훗을 앞세우고 산에서 내려갔다.
- 28 그때에 에훗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뒤를 따라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원수모양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들은 에훗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으로 가는 요르단 건널목들을 점령하고서는,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다.
- 29 그때 그들이 쳐 죽인 모압인들은 만 명가량 되었는데, 모두 건장하고 힘이 세었지만 한 사람도 몸을 피하지 못하였다.
- 30 그날 이렇게 모압은 이스라엘의 손 아래 굴복하였다. 그 뒤에 이 땅은 여든 해 동안 평온하였다.

- 31 에훗 다음에는 야벳의 아들 삼가르가 나왔다. 그는 소몰이 막대로 필리스티아인 육백 명을 쳐 죽였다. 삼가르도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판관 드보라와 그의 장수 바락

- 4¹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 2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하초르를 다스리는 가나안 임금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아넘기셨다. 그의 군대 장수는 하로셋 고임에 사는 시스라였다.
- 3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야빈이 철 병거 구백 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스무 해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하게 억압하였던 것이다.
- 4 그때에는 라피돗의 아내 여예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판관이었다.
- 5 그가 에프라임 산악 지방의 라미와 베텔 사이에 있는 '드보라 야자나무' 밑에 앉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재판관을 받으러 그에게 올라가곤 하였다.
- 6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탈리의 케데스에서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명령하셨소. '자, 납탈리의 자손들과 즈블론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만 명을 데리고 타보르 산으로 행군하여라.'
- 7 그러면 내가 야빈의 군대 장수 시스라와 그의 병거대와 그의 무리를 키손천으로 끌어내어, 네 손에 넘겨주겠다."
- 8 그러자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하였다. "당신께서 함께 가시면 저도 가겠지만, 함께 가지 않으시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 9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그대와 함께 가겠소. 그러나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그대에게 영예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오. 주님께서 시스

- 라를 한 여자의 손에 팔아넘기실 것이오." 하고서는, 일어나 바락과 함께 케데스로 갔다.
- 10 바락은 즈불룬과 납탈리 지파를 케데스로 소집하였다. 그리하여 만 명이 바락의 뒤를 따라 올라가는데,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 11 모세의 장인 호باط의 자손들 가운데 카인족 헤베르라는 이가 있었는데, 그는 동족에게서 갈라져 케데스 부근에 있는 차아난님 참나무 곁에까지 와서 천막을 치고 살았다.
- 12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타보르 산으로 올라갔다는 보고를 시스라가 들었다.
- 13 그러자 시스라는 자기의 온 병거대, 곧 철 병거 구백 대와 자기에게 있는 전군을 하로셋 고암에서 키손천으로 소집하였다.
- 14 그때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였다. "자, 일어나시오.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를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날이오. 주님께서 반드시 그대 앞에 서서 나가실 것이오." 그리하여 바락이 그 만 명을 거느리고 타보르 산에서 내려갔다.
- 15 주님께서 시스라와 그의 온 병거대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혼란에 빠뜨리셨다. 그러자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 달음질쳐 도망갔다.
- 16 바락은 그 병거대와 군대를 하로셋 고암까지 뒤쫓았다. 시스라의 온 군대는 갈날에 쓰러져 하나도 남지 않았다.
- 17 한편 시스라는 달음질쳐 카인족 헤베르의 아내 야엘의 천막으로 도망갔다. 하초르 임금 야빈과 카인족 헤베르가 평화롭게 지냈기 때문이다.
- 18 야엘이 나가서 시스라를 맞으며 말하였다. "들어오십시오, 나리. 제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시스라가 천막으로 들어오자 야엘이 담요로 그를 덮어 주었다.
- 19 시스라는 "목이 마르니 마실 물을 좀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야엘이 우유가 든 가죽 부대를 열어 마시게 하고서는 다시 그를 덮어 주자,
- 20 시스라가 또 당부하였다. "천막 어귀에 서 있다가, 누가 와서 '여기에 낫선 사람이 있소?' 하고 묻거든, '없소.' 하고 대답해 주시오."
- 21 그러나 헤베르의 아내 야엘은 천막 밑쪽을 가져와서 망치를 손에 들고 몰래 안으로 들어가, 밑쪽이 땅에 꽂히도록 그의 관자놀이에 들어박았다. 시스라는 지쳐서 깊이 잠 들었다가 이렇게 죽었다.
- 22 그때에 바락이 시스라를 뒤쫓고 있었다.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말하였다. "이리 오십시오. 나리께서 찾으시는 사람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바락이 그의 천막으로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관자놀이에 밑쪽이 박힌 채 쓰러져 죽어 있었다.
- 23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그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가나안 임금 야빈을 굴복시키셨다.
- 24 이스라엘 자손들의 세력이 가나안 임금 야빈을 점점 더 강하게 짓눌러,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임금 야빈을 멸망시켰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 5¹ 그날 드보라는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과 함께 이렇게 노래하였다.
- 2 "이스라엘에서 지도자들은 지휘하고 백성은 자원하여 나서니 주님을 찬미하여라.
- 3 임금들아, 들어라. 군주들아, 귀를 기울여라. 나 주님께 노래하리라. 내가 노래하리라.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노래 부르리라.
- 4 주님, 당신께서 세이르를 나오실 때 에돔 벌판에서 행진해 오실 때 땅이 뒤흔들리고 하늘도 물이 되어 쏟아졌으며 구름도 물을 쏟아 내렸습니다.

- 5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시나이의 그분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앞에서.
- 6 아낫의 아들 삼가르의 시대에, 아엘의 시대에 대상들은 끌고 먼 길 가는 이들은 셋 길로 다녔네.
- 7 끌렸네, 이스라엘에 선도자들이 끌렸네, 드 보라, 그대가 일어설 때까지 그대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일어설 때까지.
- 8 사람들이 새로운 산들을 선택하였다가 전쟁이 성문에 들이닥쳤을 때 이스라엘의 사만 군사 가운데 방해나 창이 하나라도 보였던가?
- 9 내 마음은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백성 가운데에서 자원하여 나선 이들에게 풀리네. 주님을 찬미하여라.
- 10 흰 나귀를 타고 가는 이들이 웅단 위에 앉은 이들이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노래하여라.
- 11 물구유 사이에 서 있는 양치기들의 목소리에 따라 거기에서 그들은 주님의 의로운 업적을 노래하네.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의로운 업적을. 그때에 주님의 백성이 성문께로 내려갔네.
- 12 깨어나라, 깨어나라, 드보리야. 깨어나라, 깨어나라,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라, 바락야. 그대의 포로들을 끌고 가라, 아비노암의 아들이.
- 13 그때에 살아남은 이들이 귀족들과 더불어 내려왔네. 주님의 백성이 용사 되어 나에게 내려왔네.
- 14 에프라임에서는 아말렉에 뿌리를 둔 이들이 벤아민아, 네 병사들과 함께 네 뒤를 따르고 마키르에서는 지휘관들이, 즈블론에서는 지휘봉을 잡은 이들이 내려왔네.
- 15 이사카르의 족장들이 드보리와 합세하고 이사카르도 바락처럼 그 뒤를 따라 골짜기로 내달았네. 르우벤의 여러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크게 뉘우쳤네.
- 16 나는 어찌하여 기축 우리 사이에 앉아 양 떼 부르는 피리 소리나 듣고 있었느냐? 르우벤의 여러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크게 뉘우쳤네.
- 17 길앗은 요르단 건너편에 머물러 있었네. 단은 또 어찌하여 배나 타고 있었느냐? 아세르는 바닷가에 자리 잡아 부둣가에 머물러 있었네.
- 18 즈블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내건 백성. 납탈리도 들관 언덕 위에서 그리하였네.
- 19 임금들이 모여 와 싸웠네. 그때에 므기또의 물가 타아낙에서 가나안 임금들이 싸웠네. 그러나 은 노획물은 얻지 못하였네.
- 20 하늘에서는 별들도 싸웠네. 자기들의 궤도에서 시스리와 싸웠네.
- 21 키손천이 그들을 휩쓸어 가 버렸네. 태고의 개천, 키손천이. — 내 영혼아, 힘차게 나아가라. —
- 22 그때에 말발굽들이 땅을 찼네. 치닫고 치닫는 군마들의 발굽이.
- 23 '메로즈를 저주하여라.' 주님의 천사가 말한다. '그 주민들을 저주하여라. 그들은 주님을 도우려, 용사 되어 주님을 도우려 오지 않았다.'
- 24 카인족 헤베르의 아내 아엘은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어라. 천막에 사는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어라.
- 25 시스라가 물을 청하자 아엘은 우유를 주고 귀한 그릇에 엉긴 짖을 갖다 주고는
- 26 손을 뻗어 말뚝을 잡고 왼손에는 일꾼들의 장도리를 쥐고서 시스라를 쳐 머리를 부수고 관자놀이를 뚫어 쪼개 버렸네.
- 27 아엘의 발 앞에 주저앉은 시스라 쓰러져 드러누웠네. 아엘의 발 앞에 주저앉더니 쓰러졌다네.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네.
- 28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창살

틈으로 소리쳤네. '그의 병거가 왜 이리 더디 오느냐? 병거의 말발굽 소리가 왜 이리 느장을 부리느냐?'

- 29 가장 지혜로운 귀부인들이 대답하고 그 어미도 혼자 말하였네.
- 30 '그들은 틀림없이 전리품을 찾아내어 나누고 있었지. 사람마다 차녀가 포로로 하나 들씩 돌아가고 거기에다 시스라는 물들인 옷감을 전리품으로, 물들이고 수놓은 옷감을 전리품으로 차지하겠지. 또 전리품으로 얻은 자들의 목에 걸칠 물들이고 수놓은 옷감을 들씩 차지하겠지.'
- 31 주님, 당신의 원수들은 모두 이렇게 망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뒤로 이 땅은 마흔 해 동안 평온하였다.

기드온이 판관으로 부르심을 받다

- 6¹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들을 일곱 해 동안 미디안족의 손에 넘겨 버리셨다.
- 2 미디안족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억누르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미디안족을 피하여 산에다 은신처와 동굴과 그 밖에 접근하기 어려운 곳들을 마련하였다.
- 3 이스라엘인들이 씨를 뿌려 놓으면, 미디안족과 아말렉족과 동방인들이 올라오곤 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쳐 올라오곤 하였다.
- 4 그들은 이스라엘인들 곁에 잔을 치고서는, 가자 어귀에 이르기까지 땅의 초출을 망쳐 놓아, 이스라엘에 양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양도 소도 나귀도 마찬가지로였다.
- 5 그들이 천막까지 쟁겨서 가축 떼를 몰고 올라오는데 매뚜기 떼같이 많았다. 사람이고 낙타고 그 수를 셀 수가 없었다. 그들은 이렇게 와서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곤 하였다.
- 6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디안 때문에 큰 곤궁에 빠졌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 7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자,
- 8 주님께서서 예언자 한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셨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다. 너희를 종살이하던 집에서 끌어내었다.'
- 9 내가 이집트의 손에서,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구하였다. 또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 10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너희가 아모리족의 땅에 산다고 해서 그 신들을 경외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 11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제르 사람 요아스의 땅 오프라에 있는 향엽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족의 눈을 피해 밀을 감추어 두려고, 포도 확에서 밀 이삭을 떨고 있었다.
- 12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용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고 말하였다.
- 13 그러자 기드온이 천사에게 물었다. "나리,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다면, 어찌저 저희가 이 모든 일을 겪고 있던 말입니까? 저희 조상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않으셨더냐?' 하며 이야기한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저희를 버리셨습니다. 저희를 미디안의 손아귀에 넘겨 버리셨습니다."
- 14 주님께서서 기드온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너의 그 힘을 자니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

- 디아족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라. 바로 내가 너를 보낸다."
- 15 그러자 기드온이 말하였다. "나리,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보십시오, 저의 씨족은 므나쎄 지파에서 가장 약합니다. 또 저는 제 아버지 집안에서 가장 보잘것 없는 자입니다."
- 16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하여 너는 마치 한 사람을 치듯 미디안족을 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 17 그러자 기드온이 또 말하였다. "참으로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면, 저와 이 말씀은 하시는 분이 당신이시라는 표징을 보여 주십시오.
- 18 제가 예물을 꺼내다가 당신 앞에 놓을 터이니, 제가 올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에 주님께서, "네가 돌아올 때까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하고 대답하셨다.
- 19 기드온은 가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잡고 밀가루 한 에파로 누룩 없는 빵을 만들었다. 그리고 고기는 광주리에, 국물은 냄비에 담아 가지고 향엽나무 아래에 있는 그분께 내다 바쳤다.
- 20 그러자 하느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그 위에 부어라." 기드온이 그렇게 하였다니,
- 21 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를 내밀어, 그 끝을 고기와 누룩 없는 빵에 대었다. 그러자 그 큰 돌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삼켜 버렸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는 그의 눈에서 사라졌다.
- 22 그제야 기드온은 그가 주님의 천사였다는 것을 알고 말하였다. "아, 주 하느님, 제가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주님의 천사를 보았
- 군요!"
- 23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셨다.
- 24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주님은 평화'라고 하였다. 그 제단은 오늘날까지 아비에제르 사람들에게 속한 오프라에 서 있다.
- 25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네 아버지의 황소, 곧 일곱 살 된 둘째 황소를 끌어 오너라. 그리고 나서 네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잘라 버려라.
- 26 그런 다음, 이 요새 꼭대기에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하여 합당한 순서에 따라 제단을 쌓고, 그 둘째 황소를 끌어다가, 내가 잘라 버린 아세라 목상의 나무로 불살라 반제물로 바쳐라."
- 27 기드온은 종들 가운데 열 사람을 데리고,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하였다.
- 28 이튿날 아침 일찍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헐리고 그 곁에 서 있던 아세라 목상이 잘렸으며, 새로 쌓은 제단 위에서는 둘째 황소가 바쳐지고 있었다.
- 29 그들은 "누가 이런 짓을 하였나?" 하고 서로 물었다. 그들은 조사하고 깨물은 끝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런 짓을 하였다." 하고 말하였다.
- 30 그리하여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그대의 아들을 끌어내시오. 그는 죽어 마땅하오. 그가 바알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서 있던 아세라 목상을 잘라 버렸소." 하였다.
- 31 그러자 요아스가 둘째에 선 모든 이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바알을 옹호하는 거요? 그대들이 바알을 구원할 수라도 있다

는 말이요? 바알을 옹호하는 자는 내일 아침까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요 자기 제단이 헐렸으니, 바알이 신이라면 자신을 직접 옹호해 보라고 하시오."

- 32 그날 기드온은 여부새알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것은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바알은 그에게 맞서 자신을 옹호하라.'는 뜻이다.
- 33 그때에 온 미디안족과 아말렉족과 동방인들이 함께 모여, 강을 건너와 이스라엘 평야에 진을 쳤다.
- 34 그러자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았다. 그리하여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자기를 따르라고 아비에게르 사람들을 소집하였다.
- 35 그는 또 전령들을 온 므나세 땅으로 보내어 그들도 자기를 따르도록 소집하였다. 아세르와 즈블론과 납탈리에도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도 적에게 맞서려고 올라왔다.
- 36 기드온이 하느님께 아뢰었다. "이미 이르신 대로 저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렵니까?"
- 37 그렇다면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 뭉치 하나를 놓아두겠습니다. 이슬이 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땅은 모두 말라 있으면, 이미 이르신 대로 저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줄로 알겠습니다."
- 38 그러자 정말 그렇게 되었다. 기드온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양털 뭉치를 짜자, 그 뭉치에서 물이 한 대접 가득히 나왔다.
- 39 기드온이 다시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한 번 더 아뢰다고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이 양털 뭉치로 한 번만 더 시험해 보게 해 주십시오. 이 뭉치만 말라 있고 다른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 주십시오."
- 40 하느님께서서는 그날 밤에도 그대로 해 주셨다. 그 뭉치만 말라 있고 다른 땅에는 이슬이 내렸던 것이다.

기드온이 미디안족을 쫓아나다

- 7 ¹ 여부새알 곧 기드온과 그가 거느린 모든 군사는 일찍 일어나 하룻 쉼 곁에 진을 쳤다. 미디안은 거기에서 북쪽으로, 모레 언덕 아래 평야에 진을 치고 있었다.
- 2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사들이 너무 많아, 내가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줄 수가 없다. 이스라엘이 나를 제쳐 놓고, '내 손으로 승리하였다.' 하고 자랑할까 염려된다.
- 3 그러니 이제, '두렵고 떨리는 자는 돌아가라.' 하고 군사들에게 직접 말하여라." 기드온이 그렇게 하고 나서 사열해 보니, 군사들 가운데에서 이만 이천 명이 돌아가고 만 명이 남았다.
- 4 주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군사들이 아직도 너무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너를 도와 그들을 시험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자는 너와 함께 갈 사람이다.'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자는 너와 함께 갈 사람이 아니다.' 하면, 그런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가서는 안 된다."
- 5 기드온이 군사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분부하셨다. "개가 활듯이 물을 핥는 자를 모두 따로 세워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도 모두 따로 세워라."
- 6 그렇게 하였더니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대고 혀로 핥는 자들의 수가 삼백이었고,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 7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물을 핥아 먹는 사람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 8 그리하여 기드온은 그 군사들이 손에 든 양

식과 나팔을 다른 이들이 넘겨받게 한 다음, 삼백 명만 남겨 놓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제 천막으로 돌려보냈다. 미디안의 진영은 그 아래 평야에 있었다.

9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저 진영으로 쳐 내려가거라. 내가 그것을 이미 네 손에 넘겨주었다.

10 쳐 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너의 시종 푸리와 함께 진영으로 내려가 보아라.

11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나면 진영으로 쳐 내려갈 용기가 날 것이다." 그리하여 기드온은 자기 시종 푸리와 함께 진영의 전초 끝으로 내려갔다.

12 미디안족과 아말렉족과 모든 동방인이 수 많은 메뚜기 떼처럼 평야에 널려 있었다. 그들의 낙타들도 바닷가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13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러 보니, 마침 어떤 사람이 동료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 빵 하나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오지 않았는가! 천막에 다다른 그 빵이 천막을 치니 그것이 쓰러져 버리더군. 위아래가 뒤집히니 천막이 쓰러져 버린 것이다."

14 그러자 그 동료가 대답하였다. "그것은 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이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신 것일세."

15 그 꿈 이야기와 해몽을 들은 기드온은 경배하고 나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말하였다. "일어나시오. 주님께서 미디안 진영을 그대들의 손에 넘겨주셨소."

16 기드온은 삼백 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나서, 각 사람 손에 나팔과 빈 단지를 들려 주었다. 단지 속에는 횃불이 들어 있었다.

17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나를 보고 있다가 똑같이 하시오. 이제 내가

저 진영 끝에 가서 하는 대로 똑같이 하시오.

18 내가 거느린 모든 이와 함께 내가 나팔을 불면, 그대들도 온 진영 사방에서 나팔을 불며, '주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고 외치시오."

19 기드온과 그가 거느린 백 명이 진영 끝에 다다른 것은, 중간 야경이 시작될 때, 보초들이 막 교대하고 나서였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손에 든 단지를 깨뜨렸다.

20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깬다. 그리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주님과 기드온을 위한 칼이다!" 하고 소리쳤다.

21 그러면서 그들은 진영을 둘러싼 채 제지리를 지켰다. 그러자 진영은 온통 갈광질광 아우성치며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22 삼백 명이 나팔을 부는 동안에, 주님께서 온 진영에서 적들이 저희끼리 서로 칼을 들이밀게 하셨다. 그리하여 적군은 츠레라 방향으로 뱃 시타까지, 타빳 근처 아벨 므홀라의 물가까지 도망쳤다.

23 납탈리와 아세르와 온 므나쎄에서 동원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을 뒤쫓았다.

24 기드온은 또 에프라임 온 산악 지방에 전령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미디안족을 향해 내려와서 그들을 앞질러, 뱃 바라까지 물가와 요르단을 점령하시오." 이렇게 동원된 에프라임의 모든 사람이 뱃 바라까지 물가와 요르단을 점령하였다.

25 그리고 미디안의 두 체후 오렘과 즈엡을 사로잡아, 오렘은 오렘 비위에서 죽이고 즈엡은 즈엡 포도 화에서 죽인 다음, 계속 미디안족을 뒤쫓았다. 오렘과 즈엡의 머리는 요르단 건너편으로 기드온에게 가져갔다.

8¹ 그때에 에프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

게 말하였다. "그대가 미디안족과 싸우러 가면서 우리를 부르지 않다니, 어찌 우리에게 이룰 수 있소?" 그들이 저세게 기드온을 비난하자,

2 기드온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이번에 내가 한 일을 어찌 여러분이 한 일에 비기겠습니까? 아비에제르가 포도를 수확한 것보다 에프라임이 포도 지스러기를 모은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3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미디안의 제후 오렘과 즈업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일을 어찌 여러분이 한 일과 비길 수 있겠습니까?" 그가 이 말을 하자 그에 대한 그들의 노기가 풀렸다.

기드온이 요르단 동쪽에서 미디안족을 쳐부수다

4 기드온이 요르단에 다다랐다. 그와 그가 거느린 삼백 명은 강을 건너, 지친 몸으로 적들을 계속 뒤쫓았다.

5 기드온이 수컷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나를 따르는 이 군사들이 지쳤으니, 그들에게 빵 몇 덩어리만 줌 주십시오. 나는 미디안 임금 제바와 찰문나를 뒤쫓고 있습니다."

6 그러나 수컷의 수령들은, "당신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제바와 찰문나의 손이 이미 당신 손안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오?" 하고 대답하였다.

7 기드온은 "좋소. 주님께서 제바와 찰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광야 가시와 엉겅퀴로 당신들의 살을 도리깨질해 버리겠소." 하고는,

8 거기에서 프누엘로 올라가 같은 간청을 하였다. 그러나 프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수컷 사람들의 대답과 같았다.

9 그래서 그는 프누엘 사람들에게도,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에 이 탑을 헐어 버리겠소." 하고 말하였다.

10 그때에 제바와 찰문나는 만 오천 명쯤 되

는 군대와 함께 카르코르에 있었다. 그들은 다 동방인들의 모든 군대에서 살아남은 자들인데, 칼로 무장한 십이만 명이 이미 전사하였다.

11 기드온은 노바와 욱보하 동쪽 유목민들의 길을 따라 올라가서 적군을 쳤다. 그때에 적군은 안심하고 있었다.

12 제바와 찰문나는 도망쳤다. 기드온은 그들을 뒤쫓아 가서 미디안족의 이 두 임금 제바와 찰문나를 사로잡고, 온 적군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13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싸움을 끝내고 헤레스 오르막 쪽에서 돌아오다가,

14 수컷의 젊은이 하나를 붙잡고 캐물으니, 그가 수컷의 수령과 원로 일흔일곱 명의 이름을 적어 주었다.

15 기드온은 수컷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제바와 찰문나가 여기 있소. 당신들은 '당신의 지친 부하들에게 빵을 주라니, 제바와 찰문나의 손이 이미 당신 손안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오?' 하며 나를 조롱하였소."

16 기드온은 그 성읍의 원로들을 체포한 다음, 광야 가시와 엉겅퀴를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 수컷 사람들을 도리깨질하였다.

17 또 프누엘의 탑을 헐어 버리고 그 성읍 사람들도 죽였다.

18 그런 다음에 기드온은 제바와 찰문나에게, "당신들이 타보르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떠하였소?" 하고 물었다. "그들은 당신과 같았소. 하나하나가 왕자처럼 보였소."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19 기드온이 말하였다. "그들은 내 어머니에게서 난 내 형제들이오, 살아 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당신들이 그들을 살려 주었더라면 내가 당신들을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오."

20 그러고 나서 기드온은 만이들 에테르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저자들을 죽여라." 그러나 그 아이는 두려워서 칼을 뽑지 못하였다. 그가 아직 아이였기 때문이다.

21 그러자 제바와 찰문나가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일어나 우리를 내리치시오. 사람이 생긴 대로 힘도 나오는 법이요." 그리하여 기드온이 일어나 제바와 찰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서 초승달 장식을 벗겨 내었다.

기드온이 왕권을 거부하다

22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당신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23 그러자 기드온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여러분을 다스릴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이 여러분을 다스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다스리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24 기드온이 그들에게 또 말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할 것이 있습니다.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에서 고리를 하나씩 내주십시오." 적군이 이스마엘인들이었기 때문에 금 고리를 달고 있었던 것이다.

25 그러자 그들은 "드리고 말고요." 하면서, 걸음을 펴고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에서 고리를 하나씩 그 위에 던졌다.

26 그의 요청으로 들어온 금 고리의 무게는 금 천칠백 세켈이었다. 그 밖에도 미디안 임금들에게서 벗긴 초승달 장식과 귀걸이와 자홍색 옷이 있었고, 그들의 낙타 목에서 벗긴 목걸이들이 있었다.

27 기드온은 그것들로 에פק을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프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 에פק을 받들며 불륜을 저질렀다. 그리하여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에 울카미가 되고 말았다.

28 미디안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굴

복하고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기드온의 시대 마흔 해 동안 이 땅은 평온하였다.

기드온이 죽다

29 요아스의 아들 여루빠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살았다.

30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제 몸에서 난 아들이 일흔 명이었다.

31 스켄에 있는 그의 소실도 그에게 아들을 하나 낳아 주었는데, 그는 그 아이에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32 기드온은 장수를 누리고 죽어, 아비에제르인들의 땅 오프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33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바알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34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들레에 있는 모든 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구해 주신 주 저희 하느님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았다.

35 그리고 여루빠알 곧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한 그 모든 선행에 합당한 호의를 그의 집안에 베풀지도 않았다.

아비멜렉이 임금이 되다

9¹ 여루빠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스켄으로 외숙들에게 가서, 그들과 외가의 모든 친족에게 청하였다.

2 "'여루빠알의 아들 일흔 명이 모두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것이 낫습니까?' 하고, 스켄의 모든 지주에게 직접 물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과 한 골육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3 그의 외숙들은 그의 부탁대로 이 말을 다스켄의 모든 지주에게 직접 전해 주었다. 그러자 지주들은, '그는 우리 형제이지.' 하

며 아비멜렉에게 마음이 졸랐다.

- 4 그리고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일흔 세켈을 꺼내어 그에게 주었다. 아비멜렉은 그것으로 형편없는 건달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 5 그리고 나서 그는 오프라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들, 곧 여루빠알의 아들 일흔 명을 한 바위 위에서 살해하였다. 여루빠알의 막내아들 요탐만이 숨어 있었으므로 살아남았다.
- 6 그리하여 스켈의 모든 지주와 벳 밀로의 온 주민이 모여, 스켈에 있는 기념 기둥 곁 참나무 아래로 가서 아비멜렉을 임금으로 세웠다.

요탐의 우화

- 7 사람들이 이 소식을 요탐에게 전하자, 그는 그리짐 산 꼭대기에 가 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스켈의 지주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그래야 하느님께서도 그대들의 말을 들어 주실 것이오.
- 8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임금을 세우려고 나무들이 길을 나섰다네. '우리 임금이 되어 주오.' 하고 올리브 나무에게 말하였네.
- 9 올리브 나무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네. '신들과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을 포기하고 다른 나무들 위로 가서 흔들거리란 말인가?'
- 10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나무에게 '그대가 와서 우리 임금이 되어 주오.' 하였네.
- 11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네. '이 달콤한 것이 맛있는 과일을 포기하고 다른 나무들 위로 가서 흔들거리란 말인가?'
- 12 그래서 그들은 포도나무에게 '그대가 와서 우리 임금이 되어 주오.' 하였네.
- 13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네. '신들과 사람들을 흥겹게 해 주는 이 포도주를 포기하고 다른 나무들 위로 가서 흔들거리란

말인가?'

- 14 그래서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그대가 와서 우리 임금이 되어 주오.' 하였네.
- 15 가시나무가 다른 나무들에게 대답하였네. '너희가 진실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나를 너희 임금으로 세우려 한다면 와서 내 그늘 아래에 몸을 피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이 가시나무에서 불이 터져 나가 레비논의 향백나무들을 삼켜 버리리라.'
- 16 이제 아비멜렉을 임금으로 세웠는데, 그대들은 진실로 그리고 흠 없이 행동한 것이오? 그대들이 여루빠알과 그 집안에 잘해 준 것이오? 여루빠알의 업적이 보답한 것이오?
- 17 나의 아버지께서는 목숨을 걸고 그대들을 위하여 싸우셔서, 그대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 주셨소.
- 18 그런데 그대들은 이제 내 아버지 집안을 거슬러 일어나, 그분의 아들 일흔 명을 한 바위 위에서 살해하였소. 그리고서는 내 아버지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을 그대들의 형제라고 해서, 스켈의 지주들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세웠소.
- 19 만일 그대들이 오늘 여루빠알과 그분의 집안을 진실로 그리고 흠 없이 대하였다면, 아비멜렉을 두고 기뻐하시오, 아비멜렉도 그대들을 두고 기뻐하라고 하시오.
- 20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터져 나와, 스켈의 지주들과 벳 밀로를 삼켜 버리고, 또 스켈의 지주들과 벳 밀로에서 불이 터져 나와 아비멜렉을 삼켜 버릴 것이오."
- 21 그리고 나서 요탐은 도망쳐 브에르로 달아났다. 그는 자기 형 아비멜렉을 피하여 거기에 머물렀다.

스켈인들이 반린을 일으켰다가 실패하다

- 22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을 세 해 동안 다스렸

다.

- 23 그때에 하느님께서 아비멜렉과 스켄의 지주들 사이에 악령을 보내시니, 스켄의 지주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었다.
- 24 하느님께서 아비멜렉이 여루빠알의 아들 일흔 명에게 저지른 폭행을 되갚으셔서, 그들이 흘린 피를 자기 형제들을 살해한 아비멜렉 위로, 그리고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살해하는 데에 힘을 보탠 스켄의 지주들 위로 되돌리시려는 것이었다.
- 25 그리하여 스켄의 지주들이 여러 산꼭대기에 사람들을 매복시켜 놓고, 그곳의 길을 지나는 사람들을 모두 털게 하여 아비멜렉을 괴롭혔다. 이 일이 아비멜렉에게 보고되었다.
- 26 에벳의 아들 가알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스켄으로 이사 갔는데, 스켄의 지주들이 그를 신뢰하게 되었다.
- 27 그들은 들에 나가 포도밭에서 즐겁게 노래하며 포도를 따서 맑은 다음,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였다.
- 28 그때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 말하였다. "아비멜렉이 누구이고 스켄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한단 말입니까? 저 여루빠알의 아들과 그의 감독관 즈불은, 스켄의 이버지 하모르의 사람들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찌하여 그를 섬겨야 한단 말입니까?"
- 29 아, 나에게 이 백성을 거느릴 권한만 있다면! 그러면 내가 아비멜렉을 몰아낼 터인데, 아비멜렉에게 '네 군대를 증강시켜서 나와라.' 할 터인데."
- 30 즈불 성주가 에벳의 아들 가알의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 31 이루마에 있는 아비멜렉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자가 자기 형제들과 함께 스켄으로 왔습니

다. 그런데 그들이 임금님을 거슬러 이 성읍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 32 그러니 이제 임금님께서서는 거느리고 계신 군대와 함께 밤중에 일어나 들에 매복하셨다가,
- 33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일어나 성읍을 습격하십시오. 그래서 가알과 그가 거느린 군대가 임금님께 나가거든, 상황에 따라 그를 처리하십시오."
- 34 그리하여 아비멜렉은 자기가 거느린 온 군대와 함께 밤에 일어나, 스켄을 향하여 네 부대로 나누어 매복하였다.
- 35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 성문 어귀에 서자, 아비멜렉과 그가 거느린 군대가 매복한 곳에서 일어났다.
- 36 가알이 그 군대를 보고 즈불에게, "보시오, 여러 산꼭대기에서 군대가 내려오고 있소." 하니, 즈불이 그에게 말하였다. "산 그림자가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오."
- 37 그러나 가알이 다시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배꼽에서 군대가 내려오고 있소. 부대 하나는 '점쟁이 참나무' 쪽에서 오고 있소."
- 38 그제야 즈불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한단 말입니까?' 하더니, 이제는 어찌 된 일이오? 저들이 바로 그대가 업신여기던 군대가 아니오?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워 보시구려."
- 39 그리하여 가알은 스켄의 지주들을 거느리고 앞장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웠다.
- 40 그러나 그는 아비멜렉에게 쫓기어 그 앞에서 도망치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사상자가 성문 어귀까지 널렸다.
- 41 그 뒤에 아비멜렉은 계속 이루마에서 살고, 즈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더 이상 스켄에 살지 못하게 하였다.
- 42 이튿날 스켄 사람들이 들로 나갔다. 이 소

식을 들은 아비멜렉은,

- 43 군대를 데려다가 세 부대로 나누어 들에 매복시킨 다음,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쳐 죽였다.
- 44 아비멜렉과 그가 거느린 부대는 달려나가 성문 어귀에 서고, 다른 두 부대는 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쳐 죽인 것이다.
- 45 아비멜렉은 그날 종일 그 성읍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그리고 성읍 안에 있는 백성을 죽이고 나서 성읍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
- 46 '스켄 탑'의 지주들은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엘 브릿 신전의 지하실로 들어갔다.
- 47 '스켄 탑'의 지주들이 모두 한데 모였다는 것이 아비멜렉에게 보고되었다.
- 48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기가 거느린 온 군대와 함께 찰몬 산으로 올라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들을 찍어 어께에 들쳐 메고서는, 자기가 거느린 군대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는 것을 보았으니, 너희도 빨리 나처럼 하여라."
- 49 그래서 온 군대는 저마다 나뭇가지들을 찍어 가지고, 아비멜렉을 따라가서 그 지하실 쪽에 쌓아 놓았다. 그러고서는 거기에다 불을 질러 지하실을 태워 버렸다. 이렇게 하여 '스켄 탑'의 사람들이 모두 죽었는데, 남는 천 명가량이었다.

아비멜렉이 죽다

- 50 그 뒤에 아비멜렉은 테베츠로 진군하여 진을 치고서는 그곳을 함락하였다.
- 51 그런데 그 성읍 한가운데에 견고한 탑이 하나 있어서, 모든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성읍의 지주들이 그리로 도망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서는 탑 옥상으로 올라갔다.
- 52 아비멜렉이 그 탑으로 가서 공격하는데, 탑 어귀까지 다가가서 불을 질러 태우려고 하

였다.

- 53 그때에 어떤 여자가 맷돌 위쪽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던져 그의 두개골을 부수어 버렸다.
- 54 아비멜렉은 곧바로 무기병을 불러 말하였다. "네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두고 '여자가 그를 살해하였다.' 할까 두렵다." 그리하여 그 시종이 아비멜렉을 찌르니 그가 죽었다.
- 55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저마다 고향으로 돌아갔다.
- 56 이렇게 하느님께서서는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일흔 명을 죽여 제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악을 되갚으시고,
- 57 스켄 사람들의 모든 죄악도 그들 머리 위로 되돌리셨다. 여루빠알의 아들 요탐의 저주가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판관 톨라

- 10 ¹ 아비멜렉 다음에는 이사카르 사람으로서, 도도의 손자이며 푸아의 아들인 톨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는 에프라임의 산악 지방에 있는 사미르에 살았다.
- 2 그는 스물세 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다가 죽어 사미르에 묻혔다.

판관 아이르

- 3 그다음에 길앗 사람 아이르가 일어나 스물 두 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 4 그에게는 아들이 서른 명 있었는데 그들은 저마다 나귀를 타고 다녔다. 그들은 또 성읍 서른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길앗 땅에 있는 이 성읍들은 오늘날까지 '아이르의 부락'이라고 불린다.
- 5 아이르는 죽어 카몬에 묻혔다.

암몬인들의 침입

- 6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주님의 눈에 거슬

리는 약한 짓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들과 아스터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들의 신들, 필리스티아인들의 신들을 섬겼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그분을 섬기지 않았다.

7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필리스티아인들과 암몬 자손들의 손에 팔아넘기셨다.

8 그리하여 그해부터 열여덟 해 동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짓밟고 억눌렀다. 요르단 건너편 길앗 지방에 있는 아모리족의 땅에 사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그렇게 하였다.

9 암몬 자손들은 또 요르단을 건너 유다와 베냐민과 에프라임 집안도 공격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심한 곤경에 빠졌다.

10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정녕 저희는 저희 하느님을 저버리고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11 그러자 주님께서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인들, 아모리족, 암몬 자손들, 필리스티아인들,

12 시돈인들, 아말렉족, 미디안족이 너희를 억압할 때에도 너희가 나에게 울부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13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다시는 구원해 주지 않았다.

14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곤경에 빠진 이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15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 주님께 아뢰었다.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께서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저희에게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날은 저희를 구해 주십시오."

16 그러고는 자기들 가운데에서 낮은 신들을 치워 버리고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계실 수 없었다.

17 그때에 암몬 자손들이 동원되어 길앗에 진을 치자, 이스라엘 자손들도 모여 미즈파에 진을 쳤다.

18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곧 길앗의 수령들이 서로 말하였다. "암몬 자손들과 싸움을 시작할 사람은 누구인가? 그가 길앗 온 주민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판관 입타

11 ¹ 길앗 사람 입타는 창녀의 아들이었는데 힘센 용사였다. 길앗이 이 입타를 낳았다.

2 길앗의 아내도 그에게 아들들을 낳아 주었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타에게, "너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집안에서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없다." 하며 그를 쫓아내었다.

3 그래서 입타는 자기 형제들을 피하여 달아나 톱 땅에서 살았는데, 건달들이 입타에게 모여들어 그와 함께 노략질하러 다녔다.

4 얼마 뒤에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

5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길앗의 원로들이 입타를 데려오려고 톱 땅으로 가서,

6 입타에게 말하였다.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 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손들과 싸울 수 있겠소."

7 그러나 입타는 길앗의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낸 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곤경에 빠졌으면 빠졌지,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8 그러자 길앗의 원로들이 입타에게 대답하였

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에게 온 것이요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들과 싸우고 길앗에 사는 모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주시오."

9 이에 입타가 길앗의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도로 데리고 가서 내가 암몬 자손들과 싸울 때,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내가 여러분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요?"

10 그러자 길앗의 원로들이 입타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요, 우리는 꼭 그대의 말대로 하겠소."

11 그리하여 입타는 길앗의 원로들과 함께 갔다.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모시자, 입타는 미츠파로 가서 자기가 나눈 모든 말을 주님 앞에서 되풀이하였다.

12 입타는 암몬 자손들의 임금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그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와서 내 땅을 공격하는 것이요?"

13 그러자 암몬 자손들의 임금이 입타의 사절들에게 대답하였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 아벙까지, 또 요르단까지 내 땅을 점령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주시오."

14 입타가 다시 암몬 자손들의 임금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15 말하였다. "나 입타는 이렇게 말하오, 이스라엘이 모압 땅이나 암몬 자손들의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오.

16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올라와 갈대 바다까지 광야를 가로질러 카데스에 다다랐소.

17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에돔 임금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소. 그러나 에돔 임금은 들어 주지 않았소. 모압 임금

에게도 사절들을 보냈지만 그도 허락하지 않았소. 그래서 이스라엘은 카데스에 머물러 있다가,

18 광야를 가로질러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 동쪽에 다다른 다음, 아르논 건너편에 진을 쳤던 것이요. 그리고 아르논이 모압의 경계였으므로 모압의 영토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소.

19 이스라엘은 또 아모리족의 임금, 곧 헤스본 임금 시혼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우리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임금님의 땅을 지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소.

20 그러나 시혼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그냥 지나간다는 것을 믿지 않았을뿐더러, 자기의 온 군대를 모아 아하츠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웠소.

21 그러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서는 시혼과 그의 온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이스라엘은 그들을 쳐 죽이고 그 지방에 사는 아모리족의 땅을 모두 차지하였소.

22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아르논에서 아벙까지, 광야에서 요르단까지 아모리족의 온 영토를 차지하게 된 것이요.

23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당신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아모리족을 쫓아내셨는데, 이제 와서 그대가 이 이스라엘을 쫓아내겠다는 것이요?

24 그대는 그대의 신 크모스가 차지하라고 준 것을 차지하지 않았소? 우리도 주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것을 차지해야 하지 않았소?

25 이제 그대가 정말 모압 임금, 치포르의 아들 발락보다 낫다고 생각하오? 그가 이스라엘과 한 번이라도 다툰 적이 있소? 그가 이스라엘과 한 번이라도 싸운 적이 있소?

26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아로에르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 아르논

강 거의 모든 성읍에 삼백 년 동안 살았는데, 그동안 그대는 어찌하여 이곳들을 되찾지 않았소?

- 27 나는 그대에게 잘못된 것이 없소. 그런데도 그대는 나를 공격하여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하고 있소. 그러나 판관이신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과 암몬 자손들 사이에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이오."
- 28 그러나 암몬 자손들의 임금은 입타가 보낸 전갈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 29 주님의 영이 입타에게 내렸대. 그리하여 그는 길앗과 므나체를 가로질렀다. 그리고 길앗 미츠파로 건너갔다가, 길앗 미츠파를 떠나 암몬 자손들이 있는 곳으로 건너갔다.
- 30 그때에 입타는 주님께 서원을 하였다. "당신께서 암몬 자손들을 제 손에 넘겨만 주신다면,
- 31 제가 암몬 자손들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갈 때, 저를 맞으러 제 집 문을 처음 나오는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제가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 32 그리고 나서 입타는 암몬 자손들에게 건너가 그들과 싸웠다. 주님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 33 그는 아로에르에서 만년 어귀까지 그들의 성읍 스무 개를, 그리고 아벨 크라뎀까지 쳐부수었다. 암몬 자손들에게 그것은 대단히 큰 타격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굴복하였다.

입타의 딸

- 34 입타가 미츠파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의 딸이 손북을 들고 춤을 추면서 그를 맞으러 나오는 것이었다. 그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다. 입타에게 그 아이 말고는 아들도 딸도 없었다.
- 35 자기 딸을 본 순간 입타는 제 옷을 찢으며 말하였다. "아, 내 딸아! 네가 나를 짓눌

러 버리는구나. 바로 네가 나를 비탄에 빠뜨리다니! 내가 주님께 내 입으로 약속했는데, 그것을 돌이킬 수는 없단다."

- 36 그러자 딸이 입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주님께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들에게 복수해 주셨으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 37 그리고 나서 딸은 아버지에게 청하였다. "이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두 달 동안 말미를 주십시오. 동무들과 함께 길을 떠나 산으로 가서 처녀로 죽는 이 몸을 두고 곡을 하렵니다."
- 38 입타는 "가거라." 하면서 딸을 두 달 동안 떠나보냈다. 딸은 동무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처녀로 죽는 자신을 두고 곡을 하였다.
- 39 두 달 뒤에 딸이 아버지에게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님께 서원한 대로 딸을 바쳤다. 그 딸은 남자를 안 일이 없었다. 이로부터 이스라엘에 한 가지 관습이 생겼다.
- 40 해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집을 떠나, 길앗 사람 입타의 딸을 생각하며 나흘 동안 애곡하는 것이다.

입타와 에프라임 자파

- 12¹ 에프라임 사람들이 동원되었다. 그들은 차폰으로 건너가서 입타에게 말하였다. "너는 왜 암몬 자손들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같이 가자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네 집을 나와 함께 불태워 버리겠다."
- 2 그러자 입타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내 백성과 더불어 암몬 자손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면서 그대들을 소집하였소. 그러나 그대들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해 주지 않았소.
- 3 그대들이 구해 주지 않는 것을 본 나는,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들이 있는 곳으로 건너

갔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소. 그런데 그대들은 어찌하여 오늘 이렇게 올라와서 나와 싸우려 드는 것이요?"

4 그리고 나서 입타는 길앗 사람들을 모두 모아 에프라임인들과 썬었다. 길앗 사람들은 에프라임인들이 평소에, "너희는 에프라임에서 도망간 자들이다. 길앗은 에프라임과 만나세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하고 말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쳐 죽였다.

5 그리고 길앗인들은 에프라임으로 가는 요르단 건널목들을 점령하였다. 도망기는 에프라임인들이 "강을 건너게 해 주시오." 하면, 길앗 사람들은 그에게 "너는 에프라임인가?" 하고 물었다. 그가 "아니요." 하고 대답하면,

6 그에게 "'쉬렐렛' 하고 말해 봐." 하였다. 그 사람이 제대로 받음하지 못하여 '시렐렛' 이라고 하면, 그를 붙들어 그 요르단 건널목에서 죽였다. 이렇게 하여 그때에 에프라임에서 사만 이천 명이 죽었다.

7 입타는 여섯 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리고 나서 길앗 사람 입타는 죽어 길앗에 있는 자기 성읍에 묻혔다.

판관 입찬

8 그 뒤로 베들레헴 출신 입찬이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9 그에게는 아들 서른 명과 딸 서른 명이 있었는데, 딸들도 일가 밖으로 시집보내고 며느리들도 일가 밖에서 데려왔다. 그는 일곱 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10 그리고 나서 입찬은 죽어 베들레헴에 묻혔다.

판관 엘론

11 그 뒤로 즈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는 열 해 동안 이스

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12 그리고 나서 즈불론 사람 엘론은 죽어 즈불론 땅 아얄론에 묻혔다.

판관 압돈

13 그 뒤로 피르아톤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14 그에게는 아들 마흔 명과 손자 서른 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저마다 나귀를 타고 다녔다. 그는 여덟 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15 그리고 나서 피르아톤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은 죽어 에프라임 땅, 아말렉 산악 지방에 있는 피르아톤에 묻혔다.

삼손이 태어나다

13 ¹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마흔 해 동안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 넘겨 버리셨다.

2 그때에 초르아 출신으로 단 씨족에 속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노아였다.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3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그 여자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보라, 너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지만,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4 그러니 앞으로 조심하여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5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기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지르인이 될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기 시작할 것이다."

6 그러자 그 여자가 남편에게 가서 말하였다.

"하느님의 사람이 나에게 오셨는데, 그 모습에 하느님 천사의 모습 같아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묻지도 못하였고, 그분도 당신 이름을 알려 주지 않으셨습니다.

7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보라, 너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느님께 바쳐진 나지르인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8 그래서 마노아가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 외롭던 말씀입니다만, 당신께서 보내신 하느님의 사람이 저희에게 다시 와서, 태어날 아이에게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치게 해 주십시오."

9 하느님께서는 마노아의 말을 들어 주시어, 하느님의 천사를 그 여자에게 다시 가게 하셨다. 그때에 그 여자는 들에 앉아 있었고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않았다.

10 그래서 그 여자는 급히 남편에게 달려가 알렸다. "이봐요, 저번에 나에게 오셨던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11 마노아는 일어나 아내를 뒤따라갔다.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다다른 그는, "당신께서 전에 이 여자에게 말씀하신 분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그렇다." 하고 대답하자,

12 마노아가 그에게 또 물었다. "앞으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 아이는 어떤 사람이 되며 또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13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저 여자는 명심해야 한다.

14 저 여자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서는 안 되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저 여자는 지켜야 한다."

15 마노아가 주님의 천사에게 "새끼 염소를 한 마리 잡아 올리겠으니 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16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기다리기는 하여도 내가 준비한 음식을 먹지는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 반제물을 드리고 싶으면 그렇게 하여라." 마노아는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17 마노아가 다시 주님의 천사에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래야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당신을 공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18 그러나 주님의 천사는, "내 이름은 무엇 때문에 물어보느냐? 그것은 신비한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19 그제야 마노아는 새끼 염소 한 마리와 곡식 예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신비한 일을 하시는 분' 주님께 바쳤다. 그리고 나서 마노아는 아내와 함께 지켜보았다.

20 그때에 제단에서 불길기 하늘로 올라가는데, 주님의 천사도 그 제단의 불길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었다. 이를 보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21 주님의 천사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제야 마노아는 그분이 주님의 천사였다는 것을 알았다.

22 그래서 마노아는 아내에게 말하였다. "하느님을 뵈었으니 우리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오."

23 그러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반제물과 곡식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보여 주지도 않으시고, 이와 같은 것을 들려주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24 그 여자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삼손이라 하였다. 아이는 자라나고 주님께서는 그에

게 복을 내려 주셨다.

- 25 그가 초르아와 에스타을 사이에 자리 잡은 '단의 진영'에 있을 때, 주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삼손이 혼인하다

- 14 ¹ 삼손은 탐나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필리스티아 여자 하나를 보고서는,
- 2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청하였다. "탐나에서 필리스티아 여자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여자를 제 아내로 맞이하여 주십시오"
- 3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말하였다. "네 동족의 딸들 가운데에는, 나의 온 백성 가운데에는 여자가 없어서, 할례 받지 않은 필리스티아인들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러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그 여자를 제 아내로 맞이하여 주십시오. 그 여자가 마음에 듭니다." 하고 말하였다.
- 4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이 주님께서 하시는 것인 줄 몰랐다. 그분께서는 필리스티아인들을 치실 구실을 찾고 계셨던 것이다. 그때에는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 5 그리하여 삼손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탐나로 내려갔다. 그런데 탐나의 포도밭에 다다랐을 때, 힘센 사자 한 마리가 그에게 으르렁거리는 것이었다.
- 6 그때에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들이닥쳤으므로, 삼손은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새끼 염소를 찢듯이 그 사자를 찢어 죽였다. 그러나 그는 사자가 한 일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았다.
- 7 삼손은 그 여자에게 내려가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여자가 삼손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 8 얼마 뒤에 삼손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들

이러 다시 그곳으로 가다가 길을 벗어나, 죽은 사자가 있는 곳으로 가 보았더니, 그 사자 시체에 벌 떼가 모여 있는데 꿀도 고여 있었다.

- 9 그는 그 꿀을 따서 손바닥에 놓고 길을 가면서 먹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가서 그 꿀을 드리니, 그들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나 삼손은 그 꿀이 사자의 시체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알리지 않았다.
- 10 삼손의 아버지도 그 여자에게 내려갔다. 삼손은 그곳에서 젊은이들이 하는 풍속대로 잔치를 베풀었다.
- 11 필리스티아인들은 그를 보자, 동료들을 서른 명 데려다가 그와 자리를 같이하게 하였다.
- 12 그때에 삼손이 그들에게 제안하였다. "내가 그대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소. 잔치가 계속되는 이때 동안에 답을 찾아서 그 수수께끼를 풀면, 내가 그대들에게 아마 속옷 서른 벌과 예복 서른 벌을 내겠소."
- 13 그러나 풀지 못하면, 그대들이 나에게 아마 속옷 서른 벌과 예복 서른 벌을 주시오." 그들이 "당신의 그 수수께끼를 내놓아 보시오. 한번 들어 봅시다." 하고 응답하자,
- 14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단것이 나왔다." 그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다.
- 15 나흘째 되는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네 신랑을 구슬러 우리에게 수수께끼를 풀이해 주라고 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 집안을 불태워 버릴 테다. 우리를 가난뱅이로 만들려고 초대한 것이냐, 뭐냐?"
- 16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그의 곁에서 울며 즐겼다. "당신은 나를 미워하기만 하지,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 동포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고도, 나에게

풀이해 주지 않았지요." 그러자 삼손이 말하였다. "이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께도 알려 드리지 않았는데, 어찌 당신이라고 알려 주겠소?"

- 17 그러나 그의 아내는 잔치가 계속되는 이레 동안 줄곧 삼손 곁에서 울어 댔다. 이렇게 들끓는 바람에, 삼손은 이레째 되는 날 마침내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이해 주고 말았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자기 동포들에게 그 수수께끼를 풀이해 주었다.
- 18 이레째 되는 날 해가 지기 전에 그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무엇이 꿀보다 더 달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랴?"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대들이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내 수수께끼의 답을 찾지 못하였을 것이오."
- 19 그때에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들이닥쳤다. 그리하여 삼손은 아스클론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서른 명을 쳐 죽이고 옷을 벗긴 다음,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그 예복들을 주었다. 그러고는 화를 내며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 버렸다.
- 20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그의 들러리를 서준 동료의 아내가 되고 말았다.

삼손이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복수하다

- 15 ¹ 얼마 뒤 밀 수확기에, 삼손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끌고 아내를 찾아가서 장인에게, "제 아내 방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장인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 2 그를 타일렀다. "나는 자네가 틀림없이 그애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였네. 그래서 그애를 자네 동료에게 주어 버렸네. 그 애보다는 동생이 더 예쁘지 않나? 동생을 대신 아내로 삼게나."
- 3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필리스티아인들에게 해를 끼친다 해도, 이번만은 그들이 나를 탓할 수 없을 것이오."

- 4 그리고 나서 삼손은 밖으로 나가 여우 삼백 마리를 사로잡고 해도 마련한 다음, 쪼리를 서로 비꼬며매고서는 그 두 쪼리 사이에 해를 하나씩 매달았다.
- 5 이어서 해에 불을 붙여 여우들을 필리스티아인들의 곡식밭으로 내보냈다. 이렇게 하여 그는 곡식 가리뿔 아니라, बे지 않은 곡식과 포도밭과 올리브 나무까지 태워 버렸다.
- 6 "누가 이 짓을 했느냐?" 하고 필리스티아인들이 묻자, 사람들이 "탐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오, 삼손의 아내를 그의 동료에게 주어 버렸기 때문이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필리스티아인들이 올라가서 그 여자와 아버지를 불태워 버렸다.
- 7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좋다.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기 전에는 결코 그만두지 않겠다."
- 8 그리고 나서 삼손은 닳치는 대로 필리스티아인들을 쳐 죽이고는, 에탐 바위로 내려가 그 바위틈에 머물렀다.

삼손이 당나귀 턱뼈로 필리스티아인들을 쳐부수다

- 9 필리스티아인들이 올라와서 유다에 진을 치고 르히를 습격하였다.
- 10 유다 사람들이 "어째서 우리에게 올라왔소?" 하고 묻자, 그들은 "삼손을 묶어 그 자가 우리에게 한 그대로 해 주려고 올라왔소." 하고 대답하였다.
- 11 그래서 유다 사람 삼천 명이 에탐 바위 틈으로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하였다. "자네는 필리스티아인들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않나? 그런데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였단 말인가?" 삼손이 그들에게, "저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저들에게 한 것뿐이오." 하고 대답하자,

- 12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자네를 묶어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 넘기려고 내려왔네." 삼손이 그들에게 "그러면 나를 때려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시오." 하고 말하였다.
- 13 그러자 그들이 "그러고 말고, 우리는 자네를 결박만 해서 저들 손에 넘길 뿐 결코 죽이지는 않겠네." 하고 나서, 새 밧줄 두 개로 그를 묶어 그 비위에서 끌어 올렸다.
- 14 이렇게 하여 삼손이 르히까지 가자, 필리스티아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 마주 왔다. 그때에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들이닥쳤다. 그러자 그의 팔을 동여맨 밧줄들이 불에 탄 아미포처럼 되었다. 그래서 그를 묶은 그 포승이 녹아내리듯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 15 삼손은 심상한 당나귀 턱뼈 하나를 발견하고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아, 그 턱뼈로 천 명을 쳐 죽였다.
- 16 그러고 나서 삼손은 이렇게 말하였다. "당나귀 턱뼈로 나 그들을 마구 두들겨 뺐다네. 당나귀 턱뼈로 천 명을 쳐 죽였다네."
- 17 말을 마친 삼손은 그 턱뼈를 손에서 내던졌다. 그래서 그곳을 라맛 르히라고 하였다.
- 18 삼손은 몹시 목이 말라 주님께 부르짖었다. "당신께서는 당신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승리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말라 죽어서,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손에 떨어져야 하겠습니까?"
- 19 하느님께서 르히에 있는 우묵한 곳을 쪼개 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 나왔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자 정신이 들어 되살아났다. 그리하여 그 이름을 엔 코레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오늘날까지 르히에 있다.
- 20 삼손은 필리스티아인들의 시대에 스무 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삼손과 가자 성문

- 16 ¹ 삼손이 가자에 갔다가 거기에서 창녀 하나를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 2 가자 사람들은 "삼손이 여기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을 에워싼 다음, 밤새도록 성문에 숨어 그를 기다렸다. 그들은 "내일 동이 틀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죽이자." 하면서 밤새도록 가만히 있었다.
- 3 삼손은 한밤중까지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러다가 그는 한밤중에 일어나 성문의 두 문짝과 양쪽 문설주를 잡고 빗장째 뽑아 어께에 메고서는, 헤브론 맞은쪽 산꼭대기로 올라가 버렸다.

삼손과 들릴라

- 4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뒤, 삼손은 소액 골짜기에 사는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들릴라였다.
- 5 필리스티아 제후들이 그 여자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삼손을 구슬러 그의 그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잡아 묶어서 꼼짝 못 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내어라. 그러면 우리가 저마다 너에게는 천백 세겔씩 주겠다."
- 6 그리하여 들릴라가 삼손에게 물었다. "당신의 그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서 꼼짝 못 하게 할 수 있는지 말해 주세요."
- 7 삼손이 그 여자에게 대답하였다. "마르지 않은 심상한 줄 일곱 개로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어느 사람처럼 된다오."
- 8 그래서 필리스티아 제후들이 마르지 않은 심상한 줄 일곱 개를 올려 보내자, 들릴라는 그것으로 삼손을 묶었다.
- 9 복병을 미리 자기 방에 숨겨 둔 들릴라가 그에게 말하였다. "삼손, 필리스티아인들이 당신을 잡으러 와요." 그러자 삼손은 불에

닿은 삼 오라기를 끊듯이 그 줄들을 끊어 버렸다. 그리하여 그 힘의 비밀이 알려지지 않았다.

- 10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당신은 나를 놀렸어요.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무엇으로 묶으면 되는지 이제 말해 주세요."
- 11 삼손이 그 여자에게 대답하였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묶기만 하면, 내가 약해져서 어느 사람처럼 된다고요"
- 12 그래서 들릴라는 새 밧줄을 가져다가 삼손을 묶고 나서 말하였다. "삼손, 필리스티아인들이 당신을 잡으러 와요." 방에는 미리 복병을 숨겨 두고 있었다. 그러자 삼손은 세 팔을 묶은 밧줄을 실처럼 끊어 버렸다.
- 13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여전히 나를 놀리고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군요. 무엇으로 묶으면 되는지 말해 주세요." 삼손이 그 여자에게 대답하였다. "내 머리털 일곱 가닥을 베를 날실로 땅아 말뚝에 매고 벽에 박아 놓으면, 내가 약해져서 어느 사람처럼 된다고요."
- 14 그래서 들릴라는 그를 잠들게 하고 나서,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베를 날실로 땅아 말뚝으로 박아 놓은 다음 말하였다. "삼손, 필리스티아인들이 당신을 잡으러 와요." 그러자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말뚝과 날실을 뽑아 버렸다.
- 15 들릴라가 또 삼손에게 말하였다. "마음은 내 곁에 있지도 않으면서, 당신은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를 세 번이나 놀리면서, 당신의 그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말해 주지 않군요."
- 16 이런 말로 들릴라가 날마다 들볶고 조르는 바람에, 삼손은 지겨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 17 그래서 삼손은 자기 속을 다 털어놓고 말

았다. "내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 본 적이 없소.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느님께 바쳐진 나지르인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아 버리면 내 힘이 빠져나가 버릴 것이요. 그러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처럼 된다고요."

- 18 삼손이 자기 속을 다 털어놓은 것을 본 들릴라는, 필리스티아 제후들을 불러 모으려고 전갈을 보냈다. "이번에는 직접 올라오십시오. 그가 자기 속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필리스티아 제후들이 그 여자에게 올라왔다. 저마다 손에 돈을 들고 올라왔다.
- 19 들릴라는 삼손을 무릎에 누어 잠들게 하고 나서, 사람 하나를 불러 일곱 가닥으로 땅은 그의 머리털을 깎게 하였다. 그러자 삼손은 허약해지기 시작하더니, 힘이 빠져나가 버렸다.
- 20 들릴라가 말하였다. "삼손, 필리스티아인들이 당신을 잡으러 와요."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지난번처럼 밖으로 나가 몸을 빼낼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 21 필리스티아인들은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후벼 낸 다음, 가자로 끌고 내려가서 청동 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언자배를 돌리게 하였다.
- 22 그런데 그의 깎인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삼손의 복수와 죽음

- 23 필리스티아 제후들이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물을 바치면서 기쁘게 지내려고 한데 모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셨네."
- 24 백성도 그를 보고서는 자기들의 신을 찬양

하며 말하였다. "우리 땅을 망쳐 놓은 자 우리를 많이도 살해한 자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신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셨네."

25 그들은 마음이 흥겨워지자, "삼손을 불러내어 재주를 부리게 합시다."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감옥에서 불러내어 자기들 앞에서 재간을 부리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를 기둥 사이에 세워 놓았다.

26 그러자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들어 주는 소년에게 부탁하였다.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들을 만질 수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다 다오. 거기에 좀 기대야겠다."

27 그때에 그 집은 남자와 여자로 가득 찼는데, 필리스티아 제후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다. 옥상에도 삼손이 재주를 부릴 때에 구경하던 남자와 여자가 삼천 명쯤 있었다.

28 그때에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 하느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저에게 다시 힘을 주십시오. 하느님, 이 한 번으로 필리스티아인들에게 저의 두 눈에 대한 복수를 하게 해 주십시오."

29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집을 버티고 있는 중앙의 두 기둥을 더듬어 찾아서, 기둥 하나에는 오른손을, 다른 하나에는 왼손을 대었다.

30 그리고 삼손이 "필리스티아인들과 함께 죽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힘을 다하여 밀어내니, 그 집이 그 안에 있는 제후들과 온 백성 위로 무너져 내렸다. 그리하여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사는 동안에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31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안이 모두 내려와 그의 주검을 들고 올라가서, 초르아와 에스타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장사 지냈다. 그는 스무 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미카의 신당

17 ¹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미카라는 사람이 있었다.

2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어머니가 은 천백 세켈을 잃어버리신 일이 있지요? 그때에 저주를 하셨는데, 제가 듣는 데에서도 그리하셨습니다. 그 은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내 아들은 주님께 복을 받아라." 하고 말하였다.

3 이렇게 그가 은 천백 세켈을 돌려주니, 그의 어머니가 또 이런 말을 하였다. "사실은 내가 이 은을 내 아들을 위해서 주님께 봉헌하였다. 그것으로 조각 신상과 주조 신상을 만들려고 하였는데, 이제 그것을 너에게 도로 주마."

4 그러나 미카는 그 은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은 이백 세켈을 떼어서 은장이에게 주어, 조각 신상과 주조 신상을 만들게 하였다. 그것은 미카의 집에 모셔졌다.

5 미카리는 이 사람에게는 신당이 하나 있었다. 그는 에봇과 수호신들을 만들고, 한 아들에게 직무를 맡겨 자기의 사제로 삼았다.

6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제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하였다.

7 유다 땅 베들레헴에 유다 씨족의 한 젊은이가 있었다. 레위인인 그는 그곳에서 나그네 살이하고 있었다.

8 그 사람은 다른 곳에서 나그네살이하려고 유다 땅 베들레헴 성읍을 떠나 길을 가다가,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있는 미카의 집까지 이르게 되었다.

9 미카가 그에게 "어디서 오셨소?" 하고 물었다. "저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입니다. 아무 데서나 나그네살이하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자,

10 미카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살면

서 나에게 아버지와 사제가 되어 주시오. 일 년에 은 열 세켈과 옷가지와 양식을 드리겠소."

- 11 레위인은 그 사람과 함께 살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 젊은이는 미카의 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 12 미카가 레위인에게 직무를 맡기니, 그 젊은이는 미카의 사제가 되어 그의 집에 머물렀다.
- 13 그러자 미카는 '레위인이 내 사제가 되었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나에게 잘해 주실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다.

땅을 찾아 나선 단 지파

- 18** ¹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었다. 단 지파는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에서 상속지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바로 그 시대에 자기들이 살 곳을 찾고 있었다.
- 2 단의 자손들은 자기들의 씨족 전체에서 다섯 사람, 곧 초르아와 에스타을 출신의 용감한 사람 다섯에게, "가서 땅을 탐지해 보시오." 하고 일러, 그들이 땅을 정탐하고 탐지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있는 미카의 집까지 이르러,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 3 미카의 집에 있을 때에 그들은 젊은 레위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서 그에게 물었다. "누가 그대를 이리 데려왔소?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오? 그대는 이곳과 무슨 관계가 있소?"
 - 4 "미카가 이리저러하여 나를 고용하였소. 그래서 내가 그의 사제가 된 것이오." 하고 그가 대답하자,
 - 5 그들이 부탁하였다. "하느님께 여쭙어 보아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성공할 것인지 알려 주시오."
 - 6 그 사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평안히 가시

오. 그대들이 가는 길은 바로 주님 앞에 펼쳐져 있소."

- 7 그리하여 그 다섯 사람은 길을 떠나 리이스에 다다랐다. 그들은 그곳 백성이 시돈인들의 방식으로 태평스럽게 사는 모습을 보았다. 조용하고 태평하게 사는 그들의 땅에는, 무슨 일로 남을 부끄럽게 만드는 권세가도 없었다. 그들은 시돈인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을뿐더러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다.
- 8 그들이 초르아와 에스타을로 친족들에게 돌아오자, 친족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되었소?" 하고 물었다.
- 9 그들이 대답하였다. "자, 그들에게 올라갑시다. 우리가 그 땅을 보았는데 매우 좋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망설이지 말고 길을 떠나 그곳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 10 여러분은 태평하게 사는 백성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드넓은 그 땅을 정녕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세상에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단 지파의 이주

- 11 단 씨족 가운데에서 율백 명이 무장하고 초르아와 에스타을을 떠났다.
- 12 그들은 유다 땅에 있는 키르얏 여아림으로 올라가서 진을 쳤다. 그리하여 그곳을 오늘 날까지 '단의 진영'이라고 하는데, 그곳은 키르얏 여아림 서쪽에 있다.
- 13 그들은 거기에서 에프라임 산악 지방을 가로질러 미카의 집까지 이르렀다.
- 14 리이스 땅을 정찰하러 갔던 그 다섯 사람이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 건물들 안에 에봇과 수호신들, 조각 신상과 주조 신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 15 그러고 나서 그들은 방향을 틀어, 미카의

집에 있는 그 젊은 레위인의 거처로 가서 그에게 인사하였다.

- 16 무장한 단의 자손 육백 명은 그동안 대문 어귀에 서 있었다.
- 17 땅을 정찰하려 갔던 그 다섯 사람은 층계를 올라 집으로 들어가, 조각 신상과 에봇과 수호신들과 주조 신상을 꺼내 왔다. 사제는 무장한 육백 명과 함께 대문 어귀에 서 있었다.
- 18 그 사람들이 미카의 집으로 들어가서 조각 신상과 에봇과 수호신들과 주조 신상을 꺼내 오니, 사제가 그들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것입니까?" 하고 따졌다.
- 19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조용히 입을 다물고 우리를 떠나소서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와 사제가 되어 주시오, 한 집안의 사제가 되는 것이 좋소? 아니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씨족의 사제가 되는 것이 좋소?"
- 20 그러자 그 사제는 마음이 흐뭇해져, 에봇과 수호신들과 조각 신상을 가지고 그 무리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 21 그들은 비전투원들과 가축과 짐을 앞세우고 다시 길을 떠났다.
- 22 이렇게 하여 그들은 미카의 집에서 멀어져 갔다. 소집을 받은 미카의 이웃집 사람들이 단의 자손들을 바짝 뒤쫓아 갔다.
- 23 그들이 고향을 지르자 단의 자손들이 돌아서서 미카에게 물었다. "무슨 일기에 이렇게 사람들을 소집하였소?"
- 24 미카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내가 만든 나의 신을 가져가고 사제도 데려가고 있소.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란 말ियो? 그런데도 당신들은 나에게 '무슨 일ियो?' 하고 물을 수 있소?"
- 25 그러자 단의 자손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아무 말 하지 마시오, 그러지 않으면 성질 급한 사람들이 당신들을 쳐서, 당신과

당신 집안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가 있소."

- 26 그리고 나서 단의 자손들은 제 길을 계속 가 버렸다. 미카는 그들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아서서 집으로 갔다.

라이스의 정복, 단 성읍과 성소의 창건

- 27 이렇게 그들은 미카가 만든 것과 그에게 딸린 사제를 데리고 라이스로, 조용하고 태평하게 사는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쳐 죽이고 그 성읍을 불살라 버렸다.
- 28 벳 르흠에 딸린 골짜기에 자리잡은 라이스는,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뿐더러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구해 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리하여 단의 자손들은 성읍을 다시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다.
- 29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을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자기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지었다. 그 성읍의 이전 이름은 라이스였다.
- 30 단의 자손들은 그 조각 신상을 모셔 놓았다. 그리고 이 땅의 백성이 유배를 갈 때까지,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숨의 아들인 요나탄과 그의 자손들이 단 지파의 사제로 일하였다.
- 31 그들은 하느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카가 만든 조각 신상을 그곳에 두고 섬겼다.

어떤 레위인과 그의 소실

- 19¹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던 그 시대에, 에프라임 산악 지방의 구석진 곳에서 나그네살이하는 레위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어떤 여자를 소실로 맞아들었다.
- 2 그런데 그 여자가 남편에게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를 버리고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 거기에서 너 달쯤 머물러

있었다.

- 3 그래서 남편은 그 여자의 마음을 달래어 도로 데려오려고, 종과 함께 나귀 두 마리를 끌고 그 여자 뒤를 따라 길을 나섰다. 그 여자가 그를 자기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니,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쁘게 맞이하였다.
- 4 그는 장인, 곧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불 들어서, 장인과 더불어 사흘을 묵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밤을 지냈다.
- 5 나흘째 되는 날,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에 그가 떠날 채비를 하자,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하였다. "음식을 좀 들고 원기를 돋운 다음에 떠나게나."
- 6 그래서 둘은 같이 앉아 먹고 마시는데,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또 그 남자에게 권하였다. "자, 하룻밤 더 묵으면서 즐겁게 지내게."
- 7 그래도 그는 일어나 가려고 하였지만, 장인이 조르는 바람에 다시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 8 다섯째 되는 날 아침에 그가 일찍 일어나 떠나려 하자,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다시 말하였다. "먼저 원기를 돋우게나." 그래서 그 둘은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날이 기울 때까지 지체하게 되었다.
- 9 그래도 그 사람이 소실과 종을 데리고 떠나려 하는데, 그의 장인, 곧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또 권하는 것이었다. "이보게, 날이 저물어 저녁이 다 되어 가니 하룻밤 더 묵게나.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 여기에서 하룻밤 더 묵으면서 즐겁게 지내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 자네 집으로 가게나."
- 10 그러나 하룻밤을 더 묵을 생각이 없던 그 사람은 일어나서 길을 떠나 여부스, 곧 에루살렘 맞은쪽에 이르렀다. 안장을 얹은 나귀 두 마리와 소실도 그와 함께 있었다.

기브아인들의 민행

- 11 그들이 여부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는 날이 이미 많이 기울어져 있었다.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자, 이 여부스 족의 성읍으로 들어가 하룻밤을 묵으시지요."
- 12 그러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하지 않은 이 이방인들의 성읍에는 들어갈 수 없다. 기브아까지 가야 한다."
- 13 그는 또 종에게 말하였다. "기브아나 라마, 이 두 곳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하룻밤을 묵자."
- 14 그래서 그들이 그곳을 지나 계속 길을 가는데, 벤아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가까이에서 마침내 해가 졌다.
- 15 그들은 기브아에 들어가 하룻밤을 묵려고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서 성읍 광장에 앉았지만, 하룻밤 묵으려고 집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 16 마침 한 노인이 저녁이 되어 들일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에프라임 산악 지방 출신으로 기브아에서 나그네살이하는 사람이었다. 그곳 사람들은 벤아민인이었다.
- 17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광장에 있는 그 길손을 보고, "어디로 가는 길ियो? 어디서 오셨소?" 하고 묻자,
- 18 그가 대답하였다. "저희는 유다 땅 베들레헬에서 에프라임 산악 지방의 구석진 곳까지 가는 길입니다. 저는 바로 그곳 출신입니다. 유다 땅 베들레헬까지 갔다가 이제 저의 집으로 가는 길인데, 저를 집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군요."
- 19 어르신의 이 종들에게는 나귀들을 먹일 짚과 여물은 물론, 저와 어르신의 이 여종과

- 이 짧은 아이가 먹을 빵과 술도 있습니다. 모자라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 20 노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 오셨소, 모자라는 것은 내가 다 돌보아 드리겠소, 아무튼 광장에서 밤을 지내서는 안 되지요."
- 21 그리하여 노인은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나귀에게는 먹이를 주고 길손들에게는 발을 씻게 해 준 다음, 함께 먹고 마셨다.
- 22 그들이 한참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그 성읍의 남자들이, 곧 불량한 남자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그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였다. "당신 집에 든 남자를 내보내시오, 우리가 그와 재미 좀 봐야 겠소."
- 23 그러자 집주인이 밖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들, 안 되오, 제발 나쁜 짓 하지들 마시오, 저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온 이상, 그런 추잡한 짓을 해서는 안 되오."
- 24 자, 나의 처녀 딸과 저 사람의 소실을 내보낼 터이니, 그들을 욕보이면서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렇지만 저 사람에게만은 그런 추잡한 짓을 해서는 안 되오."
- 25 그러나 그 남자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안에 있던 그 사람이 자기 소실을 붙잡아 밖에 있는 그들에게 내보냈다. 그들은 아침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그 여자와 관계하며 능욕하였다. 그러다가 동이 틀 때에야 그 여자를 놓아 보냈다.
- 26 그 여자는 아침 무렵에 돌아왔다. 그리고 날이 밝을 때까지 자기 주인이 있는 그 노인의 집 문간에 쓰러져 있었다.
- 27 그 여자의 주인은 아침에 일어나, 다시 길을 떠나려고 그 집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그의 소실이 문간에 쓰러져 있는 것이었다. 그 여자의 두 손은 문지방 위에 놓여 있었다.

- 28 그가 "일어나구려, 길을 떠나야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그 여자를 들어 나귀에 엮고서는 길을 출발하여 제고장으로 갔다.
- 29 그리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칼을 들고 소실을 붙잡아, 그 몸을 열두 토막으로 잘라 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온 영토로 보냈다.
- 30 그것을 보는 이마다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자, 생각하고 의논하여 말해 보시오."

벤아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의 전쟁

- 20¹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나섰다. 단에서 브에르 세바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길앗 땅에서도 온 공동체가 일제히 미츠파로 주님 앞에 모여들었다.
- 2 온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수장들도 칼로 무장한 보병 사십만 명으로 이루어진 하느님 백성의 회중 가운데에 자리를 잡았다.
- 3 벤아민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츠파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런 악행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해 보시오." 하였다.
- 4 살해된 여자의 남편인 그 레위인이 대답하였다. "저는 저의 소실과 함께 하룻밤을 묵으려고 벤아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로 갔습니다.
- 5 그런데 그날 밤에 기브아의 지주들이 저를 해치려고 나서서, 제가 들어간 집을 둘러쌌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 소실을 욕보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 6 그래서 제가 저의 소실을 붙들어 토막을 낸 다음, 이스라엘 상숙지 곳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부정하고 추잡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7 자,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여러분 모두 여기에서 토론하고 의논하여 보십시오."

8 그러자 온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말하였다. "아무도 자기 천막으로 가서는 안 된다. 아무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9 이제, 우리가 기브아에 할 일은 이리하다. 제비를 뽑아 그곳을 치러 올라가자.

10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백 명마다 열 명을, 천 명마다 백 명을, 만 명마다 천 명을 뽑자. 그래서 벤아민 땅 기브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저지른 그 모든 추잡한 짓에 따라 그들을 응징하러 가는 군사들이 먹을 양식을 가져오게 하자."

11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하나로 뭉쳐서 그 성읍으로 모여들었다.

12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온 벤아민 지파로 사람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그대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 악행은 어찌 된 것인가?

13 이제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한 사람들을 넘겨서, 우리가 그자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치워 버리게 하여라." 그러나 벤아민의 자손들은 자기들의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14 그리하여 벤아민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러 나키려고, 살던 성읍들을 떠나 기브아로 모여들었다.

15 그날에 자기들이 살던 성읍을 떠나 사열을 받은 벤아민의 자손들은, 기브아 주민들 외에, 칼로 무장한 사람이 이만 육천 명이었다.

16 이 무리 가운데에는 왼손잡이 정병 칠백 명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머리카락 하나 빗나가지 않게 맞히는 돌팔매꾼이었다.

17 이스라엘 사람들도 벤아민 지파를 빼고 사열을 받으니, 칼로 무장한 사람이 사십만 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전사들이었다.

18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

가서 하느님께 여쭙어 보았다. "저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벤아민의 자손들과 싸워야 하나요?" 그러자 주님께서 "유다가 먼저 가거라." 하고 대답하셨다.

19 다음 날 아침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 기브아로 가서 진을 쳤다.

20 이스라엘 사람들은 벤아민 지파와 싸우려고 나가서, 기브아를 마주 보고 전투 대열을 갖추었다.

21 그러자 벤아민의 자손들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만 이천 명을 땅에 쓰러뜨렸다.

22 이스라엘 자손들은 올라가서 저녁때까지 주님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 여쭙어 보았다. "저희가 저희 동족인 벤아민의 자손들과 다시 싸우러 가야 하나요?" 주님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거라." 하고 대답하셨다.

23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대는 용기를 내어, 전날에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 다시 전투 대열을 갖추었다.

24 그 둘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벤아민의 자손들에게 다가갔다.

25 그런데 이 둘째 날에도 벤아민 지파가 기브아에서 마주 나와,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만 팔천 명을 땅에 쓰러뜨렸다. 쓰러진 이들은 모두 칼로 무장한 사람이었다.

26 그러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온 군대가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서 주님 앞에 앉아 통곡하였다. 그날에 그들은 저녁때까지 단식하고 주님 앞에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쳤다.

27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 여쭙어 보았다. — 그 시대에는 하느님의 계약 궤가 그곳에 있었다.

28 그리고 그 시대에는 아론의 손자이며 엘아자르의 아들인 피느하스가 그 궤를 모시고

있었다. — "저희가 저희 동족인 벤야민의 자손들과 다시 싸우러 나가야 합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합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29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기브아 들레에 복병을 배치하였다.

30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흘째 되는 그날, 전처럼 기브아를 마주 보고 전열을 갖추었다.

31 벤야민의 자손들이 그들에게 마주 나왔다가 자기들의 성읍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벤야민의 자손들은 한쪽은 베텔로, 다른 한쪽은 기브아로 올라가는 큰길에서, 그 들레에서 전처럼 이스라엘 군대를 치기 시작하여, 이스라엘 사람을 서른 명쯤 죽였다.

32 그러면서 '저들은 만졌던처럼 우리에게 패배할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리가 도망치는 척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길 쪽으로 멀리 떨어지게 하자." 하고 말하였다.

33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나 바알 타마르로 가서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의 복병들은 자기들이 숨어 있던 곳, 게바 부근에서 쏟아져 나왔다.

34 온 이스라엘에서 뽑힌 정병 만 명이 기브아 바로 앞에 이르자 싸움이 치열해졌다. 그러나 벤야민의 자손들은 자기들에게 재앙이 닥쳐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35 마침내 주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벤야민을 치셨다. 그리하여 그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벤야민 사람 이만 오천백 명을 쓰러뜨렸다. 쓰러진 이들은 모두 칼로 무장한 사람이었다.

36 그제야 벤야민의 자손들은 자기들이 패배한 것을 알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벤야민에게 자리를 내주고 물러났다. 기브아

쪽에 배치시킨 복병들을 믿었기 때문이다.

37 이 복병들이 기브아로 재빨리 공격해 들어가서 온 성읍을 칼로 쳤다.

38 이스라엘 사람들과 복병들 사이에는 약속이 되어 있었다. 곧 복병들이 성읍에서 연기를 올려 보내면,

39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움터에서 몸을 돌리기로 하였다. 벤야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기 시작하여 서른 명쯤 죽였다. 그러면서 '저들은 틀림없이 만졌던 싸움에 서처럼 우리에게 패배할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다.

40 그때에 성읍에서 연기 기둥이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벤야민 사람들이 뒤돌아보니, 성읍 전체가 불길에 싸여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41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몸을 돌리자 벤야민 사람들은 질겁하였다. 자기들에게 재앙이 닥쳐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42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돌아서서 광야로 향하였지만, 뒤쪽에서는 싸움이 멈추지 않았다. 성읍에서 나온 이들도 그들을 가운데에서 쓰러뜨렸다.

43 이스라엘 사람들은 벤야민 사람들을 에워싸, 동쪽으로 기브아 맞은편에 이르기까지 쉴 새 없이 추격하며 짓밟았다.

44 그리하여 벤야민에서 만 팔천 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이들은 모두 용사였다.

45 남은 자들이 돌아서서 광야 쪽 '림몬 바위'로 도망쳤지만, 큰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삭 줍듯이 오천 명을 죽이고, 기드움에 이르기까지 바짝 뒤쫓으면서 또 이천 명을 쳐 죽였다.

46 이렇게 하여 그날 벤야민에서 쓰러진 사람은 모두 칼로 무장한 군사 이만 오천 명이였다.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

47 그러나 육백 명은 돌아서서 광야 쪽 '림몬 바위'로 도망쳐, 넉 달 동안 그 '림몬 바위

'에서 지냈다.

- 48 그러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벤야민의 자손들에게 돌아가, 성읍의 남자 주민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보이는 대로 모조리 칼로 쳐 죽였다. 나머지 성읍들도 모두 불태워 버렸다.

벤야민 지파의 복권과 회복

21 ¹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에 미츠파에서, "우리는 아무도 벤야민 사람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내주지 않는다." 하고 맹세한 일이 있었다.

2 그래서 백성은 베델로 가서 저녁때까지 그곳에서 하느님 앞에 앉아, 소리를 높여 크게 통곡하며

3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느님,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나, 오늘 이스라엘에서 지파 하나가 없어져야 한단 말입니까?"

4 이튿날 백성은 일찍 일어나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쳤다.

5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누가 주님 앞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러 올라오지 않았는가?" 하고 물었다. 미츠파로 주님 앞에 올라오지 않은 자와 관련하여, "그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엄숙한 맹세가 있었기 때문이다.

6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의 동족 벤야민을 애석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에서 지파 하나가 잘려 나갔다.

7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 딸들을 아내로 내주지 않기로 주님을 두고 맹세하였으니, 어떻게 하면 살아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구해 줄 수 있겠는가?"

8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 어느 지파가 미츠파로 주님 앞에 올라오지 않았는가?" 하고 물었다. 그러자 아베스 길앗에서

진영, 곧 집회에 한 사람도 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9 백성을 사열해 보니, 과연 그곳에 아베스 길앗 주민은 한 사람도 없었다.

10 그래서 공동체는 그곳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 만 이천 명을 보내면서 명령하였다. "가서 아베스 길앗의 주민들을 여자와 어린 아이까지 칼로 쳐 죽이시오.

11 그대들이 할 일은 이렇소 모든 남자, 그리고 남자의 잠자리를 아는 모든 여자를 전멸시키시오."

12 그들은 아베스 길앗의 주민들 가운데서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하지 않아 사내를 모르는 어린 처녀 사백 명을 발견하고, 가난한 땅에 있는 실로의 진영으로 데려왔다.

13 그리고 나서 온 공동체는 '림본 비위'에 있는 벤야민의 자손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과 이야기하고 평화를 선언하게 하였다.

14 그리고 그때에 벤야민 사람들이 돌아오자, 아베스 길앗의 여자들 가운데 살려 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내주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충분하지가 않았다.

15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지파들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하셨으므로, 백성은 벤야민을 애석하게 여겼다.

16 그래서 공동체의 원로들이 서로 의논하였다. "벤야민에서 여자들이 몰살당하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구해 줄 수 있겠는가?"

17 그들이 말을 계속하였다. "어떻게 하면 벤야민에 생존자들이 남아, 이스라엘에서 지파가 하나 사라지는 일이 없게 하겠는가?"

18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 딸들을 아내로 내줄 수가 없지 않은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벤야민 사람에게 여자를 내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 19 그들은 마침내 말하였다. "그래, 해마다 실로에서 주님의 축제가 열리지!" 실로는 베텔 북쪽, 베텔에서 스켄으로 올라가는 큰길 동쪽으로, 르보나 남쪽에 있었다.
- 20 그래서 그들은 벤아민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였다. "가서 포도밭에 숨어
- 21 살피다가 실로의 젊은 여자들이 운무를 추러 나오거든, 그대들도 포도밭에서 나와 그 실로 처녀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에 여자 하나씩 잡아 벤아민 땅으로 돌아가시오.
- 22 만일 그들의 아버지나 형제들이 우리에게 와서 따지면, 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겠소. '우리를 보아서 저들을 관대하게 대해 주시오. 우리는 전쟁 중에 아무도 여자를 차지하지 않았소. 그렇다고 당신들이 저들에게 딸을 그냥 내주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오? 그랬다가는 당신들도 죄를 짓게 되었을 테니 말이오.'"
- 23 벤아민의 자손들은 그대로 하였다. 그들은 춤추는 여자들을 납치하여 그 가운데에서 저희의 수만큼 아내를 골라 가지고, 자기들의 상속지로 돌아가서 성읍들을 다시 짓고 그곳에서 살았다.
- 24 그제야 이스라엘 자손들도 저마다 자기 지파와 자기 씨족에 따라 그곳을 떠나 흩어져 갔다. 저마다 그곳을 떠나 자기 상속지로 간 것이다.
- 25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채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하였다.

구약성경 - 8

역사서 - 3

룻 기

총 4 장

총 85 절

[구약성경]-[룻기]

기근이 들어 모압으로 이주하다

- 1 ¹ 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나라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헬에 살던 한 사람이 모압 지방에서 나그네살이를 하려고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 2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마흘론과 킬욤이었는데, 이들은 유다 베들레헬 출신으로 에프랏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그들은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되었다.
- 3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서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었다.
- 4 이들은 모압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파이고 다른 여자의 이름은 룻이었다. 그들은 거기에서 십 년쯤 살았다.
- 5 그러다가 마흘론과 킬욤, 이 두 사람도 죽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자식과 남편을 여윈 채 혼자 남게 되었다.

나오미가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헬으로 돌아오다

- 6 나오미는 며느리들과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나 돌아가기로 하였다.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돌보시어 그들에게 양식을 베푸셨다는 소식을 모압 지방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 7 그래서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나자 두 며느리도 따라나섰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떠났다.
- 8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자, 각자 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남편들과 나에게 해 준 것처럼 주님께서 너희에게 자애를 베푸시기를 바란다.
- 9 또한 주님께서 너희가 저마다 세 남편 집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하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입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은 소리 높여 울면서

- 10 시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저희도 어머니님과 함께 어머니의 겨레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 11 그러나 나오미가 말하였다. "내 딸들아, 돌아가려무나. 어찌자고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내 배 속에 아이들이 들어 있어 너희 남편이 될 수 있더라도 하단 말이나?"
- 12 돌아가려무나, 내 딸들아! 가거라. 남편을 맞이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지 않았느냐? 설사 나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 하여, 바로 오늘 밤에 남편을 맞이해서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 13 그 애들이 클 때까지 너희가 기다릴 수 있겠느냐? 새로 남편을 맞이하기를 마다하려느냐? 내 딸들아, 안 된다. 주님의 손에 얻어맞은 이 몸, 너희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나 쓰라리다."
- 14 그들은 소리 높여 더 서럽게 울었다. 그리고 오르파는 시어머니에게 작별을 고하며 입 맞추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에게 바짝 달라붙었다.
- 15 나오미가 말하였다. "보아라, 네 동서는 제 겨레와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네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 16 그러자 룻이 말하였다. "어머님을 두고 돌아가라고 저를 다그치지 마십시오. 어머님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고 어머님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렵니다. 어머님의 겨레가 저의 겨레요 어머님의 하느님이 제 하느님이십니다.
- 17 어머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렵니다. 주님께 맹세하건대 오직 죽음이 저와 어머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 18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하였음을 보고, 나오미는 그를 설득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 19 그래서 두 사람은 길을 걸어 베들레헴에 다다랐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다다랐을 때에 온 마을이 그들 때문에 떠들썩해지며, "저 사람 나오미 아니야?" 하고 아낙네들이 소리 질렀다.
- 20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세요. 전 능하신 분께서 나를 너무나 쓰라리게 하신 까닭이랍니다.
- 21 나 이쉬움 없이 떠나갔는데 주님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찌 그대들은 나를 나오미라 부르나요? 주님께서 나를 거칠게 다루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불행을 안겨 주셨답니다."
- 22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출신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은 보리 수확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룻이 보아즈와 만나다

- 2¹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 가문으로 재산가였는데 이름은 보아즈였다.
- 2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들로 나가,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사람 뒤에서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그래 가거라, 내 딸아." 하고 말하였다.
- 3 그래서 룻은 들로 나가 수확꾼들 뒤를 따르며 이삭을 줌는데, 우연히 엘리멜렉 가문인 보아즈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
- 4 때침 보아즈가 베들레헴에서 와,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하시길 비네." 하고 수확꾼들에게 인사하자, 그들은 "주님께서 어르신께 강복하시기를 빕니다." 하고 그에게 응답하였다.
- 5 보아즈가 수확꾼들을 감독하는 종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자는 뉘 태인가?"
- 6 수확꾼들을 감독하는 종이 대답하였다. "나 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출신의 젊은 여자입니다.
- 7 '수확꾼들 뒤를 따라가며 보리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워 모으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더군요. 이렇게 외서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는데 조금밖에는 쉬지 않습니다."
- 8 보아즈가 룻에게 말하였다.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우려 다른 밭으로 갈 것 없다. 여기에서 멀리 가지 말고 내 여종들 곁에 있어라.
- 9 수확하는 밭에서 눈을 떼지 말고 있다가 여종들 뒤를 따라가거라. 내가 종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였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 있는 데로 가서 종들이 길에다 놓은 물을 마셔라."
- 10 그러자 룻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말하였다. "저는 이방인인데,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생각해 주시니 어찌 된 영문입니까?"
- 11 보아즈가 대답하였다. "네 남편이 죽은 다음 네가 시어머니에게 한 일과 또 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네 고향을 떠나 전에는 알지도 못하던 겨례에게 온 것을 내가 다 잘 들었다.
- 12 주님께서 내가 행한 바를 갚아 주실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신하려고 왔으니, 그분께서 너에게 충만히 보상해 주시기를 빈다."
- 13 그러자 룻이 말하였다. "저의 주인님, 저에게 참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군요. 이 하녀를 위로해 주시고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다니요. 저는 다행히 하녀들 가운데 하나만도 못한데 말입니다."
- 14 끼니때가 되자 보아즈는 룻에게, "이리 와서 음식을 들고 빵 조각을 식초에 찍어 먹어라." 하고 권하였다. 그 여자가 수확꾼들 옆에 앉자 그는 볏은 밀알을 건네주었다.

룻은 배불리 먹고 남겼다.

- 15 룻이 다시 이삭을 주우려고 일어나자 보아즈가 자기 종들에게 명령하였다. "저 여자가 보릿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워도 좋다. 그에게 무례한 짓을 하지 마라."
- 16 아예 보리 다발에서 이삭을 빼내어 그 여자가 줍도록 흘러 주어라. 그리고 그를 야단치지 마라."
- 17 룻이 저녁때까지 들에서 이삭을 줍고, 그 주운 것을 털어 보니 보리 한 에파가량이 되었다.
- 18 룻은 그것을 지고 마을로 들어가, 거두어 들인 것을 시어머니에게 보이고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겨 온 것을 꺼내 드렸다.
- 19 시어머니가 그에게 말하였다. "오늘 어디에서 이삭을 주웠느냐? 어디에서 일을 했느냐? 너를 생각해 준 이는 복을 받을 것이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누구네 밭에서 일했는지 말하였다. "오늘 제가 일한 밭의 주인 이름은 보아즈입니다."
- 20 그러자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분은 산 이들과 죽은 이들에 대한 당신의 자애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주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오미는 그에게 계속 설명하였다. "그분은 우리 일가로서 우리 구원자(가) 가운데 한 분이시란다."
- 21 모압 여자 룻이 "계다가 그분은 또 '내 밭의 수확이 다 끝날 때까지 내 종들 곁에 있어라.' 하셨습니다." 하고 말하자,
- 22 나오미는 "내 딸아, 내가 그분의 여종들과 함께 일하려 나가게 되었다니 잘되었구나. 다른 밭에서 사람들이 너를 괴롭히지 않게 되었으니 말이다." 하고 자기 며느리 룻에게 말하였다.
- 23 그래서 룻은 보리 수확과 밀 수확이 끝날 때까지 보아즈의 여종들 곁에서 이삭을 주웠다. 그리고 나서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집에 머물렀다.

룻이 보아즈와 가까워진다

- 3¹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내 딸아, 네가 행복해지도록 내가 너에게 보금자리를 찾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 2 그런데 내가 함께 있던 여종들의 주인인 보아즈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아라, 그분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 3 그러니 너는 목욕하고 향유를 바른 다음에 걸옷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러나 그분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그분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 4 그분이 자려고 누우면 너는 그분이 누운 자리를 알아 두었다가, 거기서 가서 그 밭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분이 네가 해야 할 바를 일러 줄 것이다."
- 5 그러자 룻이 나오미에게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 6 그러고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였다.
- 7 보아즈는 먹고 마시고 나서 흡족한 마음으로 보릿가리 끝에 가서 누웠다. 룻은 살며시 가서 그의 밭치를 들치고 누웠다.
- 8 한밤중에 그 남자가 한기에 몸을 떨며 웅크리는데, 웬 여자가 자기 밭치에 누워 있는 것이었다.
- 9 그래서 "너는 누구냐?" 하고 묻자, 그 여자가 "저는 주인님의 종인 룻입니다. 어르신의 옷자락을 이 여종 위에 펼쳐 주십시오. 어르신은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10 그러자 보아즈가 말하였다. "내 딸아, 너는 주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가난뱅이든 부자든 젊은이들을 쫓아가지 않았으니, 네 효성을 전보다 더 훌륭하게 드러낸 것이다.
- 11 자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말하는 대로 다 해 주마. 온 마을 사람들이 네가 훌륭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 12 그런데 내가 구원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너에게는 나보다 더 가까운 구원자가 있다.
- 13 이 밤을 여기에서 지내라. 아침에 그가 너에게 구원 의무를 실행한다면, 좋다, 그렇게 하라지. 그러나 그가 만일 너에게 그 의무를 실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내가 너를 구원하마. 아침까지 여기에 누워 있어라."
- 14 그래서 룻은 이른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기 전에 일어났다. "타작마당에 이 여자가 왔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보아즈가 말하였기 때문이다.
- 15 그때에 보아즈가 "내가 쓴 너울을 이리 내어 붙잡고 있어라." 하고 말하였다. 룻이 그것을 붙잡자 그는 보리 여섯 되를 퍼서 거기에 담아 주고 마물로 들어갔다.
- 16 룻이 시어머니에게 오자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시어머니가 물었다. 룻은 그 남자가 자기에게 해 준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 17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되지.' 하시면서 이 보리 여섯 되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 18 그러자 나오미가 말하였다. "내 딸아, 일이 어떻게 될지 알게 되기까지 잠자코 있어라. 그분은 오늘 안으로 이 일을 결말짓지 않고는 가만히 있지 못할 것이다."

룻과 보아즈가 혼인하다

- 4¹ 보아즈는 성문으로 올라가 거기에 앉았다. 때마침 보아즈가 말하던 그 구원자가 지나갔다. 보아즈가 "여보게, 이리로 와서 앉게." 하고 말하니 그가 와서 앉았다.

2 보아즈가 마을 원로들 가운데 열 사람을 데려다가, "여기 앉으십시오." 하자 그들이 앉았다.

3 그러자 보아즈가 그 구원자에게 말하였다. "우리 형제 엘리멜렉에게 속한 밭을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팔려고 내놓았네.

4 그래서 내가 그대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이렇게 말하리라고 생각하였네.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내 겨레의 원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들이게. 그대가 구원 의무를 실행하려면 그렇게 하게. 그러나 그 의무를 실행하지 않으면 나에게 알려 주게. 구원 의무를 실행할 사람은 그대밖에 없고, 그대 다음은 나라는 것을 알고 있네.'" 그러자 그는 "내가 구원 의무를 실행하겠네." 하고 대답하였다.

5 보아즈가 다시 "나오미에게서 그 밭을 사들이는 날에 그대는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도 맞이하여, 고인의 이름을 그의 소유지 위에 세워 주어야 하네." 하고 말하였다.

6 그러자 그 구원자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나로서는 구원 의무를 실행할 수 없네. 내 재산을 망치고 싶지는 않다네. 나는 구원 의무를 실행할 수 없으니 내 구원자 의무를 그대가 실행하게."

7 옛날 이스라엘에는 구원하거나 교환할 때, 무슨 일이든 확정 짓기 위하여 자기 신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에서는 증거로 통하였다.

8 그 구원자는 보아즈에게 "자네가 사들이게." 하며 자기 신을 벗어서 건네주었다.

9 그러자 보아즈는 원로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엘리멜렉에게 속한 모든 것과 킬론과 마흘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제가 나오미의 손에서 사들인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은 오늘 증인이 되셨습니다.

10 고인의 이름을 그의 소유지 위에 세워, 고인의 이름이 형제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의 고을 성문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마흘론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을 제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에 대해서도 증인이십니다."

- 11 그러자 성문에 있던 온 백성과 원로들이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이요, 주님께서 그대 집에 들어가는 그 여인을, 둘이서 함께 이스라엘 집안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 주시기를 기원하오, 그리고 그대가 에프라타에서 번성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비오.
- 12 또한 그대의 집안이 주님께서 이 젊은 여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실 후손으로 말미암아, 타마르가 유다에게 낳아 준 페레즈 집안처럼 되기를 기원하오."
- 13 이렇게 보아즈가 룻을 맞이하여 룻은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가 룻과 한자리에 드니, 주님께서 잡지해 주시어 룻이 아들을 낳았다.
- 14 그러자 아낙네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오늘 그대에게 대를 이을 구원자가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신 주님께서는 찬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기려지기를 바랍니다.
- 15 그대를 사랑하고 그대에게는 아들 일곱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이 아기가 그대의 생기를 북돋우고 그대의 노후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 16 나오미는 아기를 받아 품에 안았다. 나오미가 그 아기의 양육자가 된 것이다.
- 17 이웃 아낙네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이름은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사이의 아버지이다.
- 18 이것이 페레즈의 족보이다. 페레즈는 헤츠론을 낳고,
- 19 헤츠론은 람을 낳았으며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다.
- 20 암미나답은 나흐손을 낳고 나흐손은 살마

를 낳았으며,

- 21 살몬은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오벳을 낳았다.
- 22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을 낳았다.

구약성경 - 9

역사서 - 4

사무엘기 상

총 31 장

총 811 절

[구약성경]-[사무엘기 상권]

사무엘과 계막 귀와 필리스티인들

사무엘의 탄생

- 1¹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축족의 라마 타임 사람이 하나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엘카나였는데, 에프라임족 여로합의 아들이고 엘리후의 손자이며, 토후의 증손이고 축의 현손이었다.
- 2 그에게는 아내가 둘 있었다.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이고, 다른 아내의 이름은 프난나였다. 프난나에게는 아이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 3 엘카나는 해마다 자기 성읍을 떠나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가 주님의 사제로 있었다.
- 4 제사를 드리는 날, 엘카나는 아내 프난나와 그의 아들딸들에게 제물의 몫을 나누어 주었다.
- 5 그러나 한나에게는 한몫밖에 줄 수 없었다. 엘카나는 한나를 사랑하였지만 주님께서 그의 태를 담아 놓으셨기 때문이다.
- 6 더구나 적수 프난나는,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담아 놓으셨으므로, 그를 괴롭히려고 그의 화를 몹시 돋우었다.
- 7 이런 일이 해마다 되풀이되었다. 주님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프난나가 이렇게 한나의 화를 돋우면,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 8 남편 엘카나가 한나에게 말하였다. "한나,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도 않고 그렇게 슬퍼만 하오? 당신에게는 내가 아들 열보다 더 낫지 않소?"
- 9 실로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섰다. 그때 엘리 사제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 10 한나는 마음이 쓰러려 흐느껴 울면서 주님께 기도하였다.
- 11 그는 서원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님, 이 여종의 가련한 모습을 눈여겨보시고 저를 기억하신다면, 그리하여 당신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 여종에게 아들 하나만 허락해 주신다면, 그 아이를 한평생 주님께 바치고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 12 한나가 주님 앞에서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그의 입을 지켜보고 있었다.
- 13 한나는 속으로 빌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는 그를 술 취한 여자로 생각하고
- 14 그를 나무라며, "언제까지 이렇게 술에 취해 있을 참이오? 술 좀 깨시오!" 하고 말하였다.
- 15 그러자 한나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나리!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 주님 앞에서 제 마음을 털어놓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 16 그러니 당신 여종을 좋지 않은 여자로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너무 괴롭고 분해서 이제껏 하소연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 17 그러자 엘리가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당신이 드린 청을 들어 주실 것이오." 하고 대답하였다.
- 18 한나는 "나리께서 당신 여종을 너그럽게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는 그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의 얼굴이 더 이상 전과 같이 어둡지 않았다.
- 19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엘카나가 아내 한나와 잠자리를 같이하자 주님께서는 한나를 기억해 주셨다.
- 20 때가 되자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 한나는 "내가 주님께 청을 드려 얻었다."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다.
- 21 남편 엘카나가 온 가족을 데리고 주님께 주년 제사와 서원을 드리러 올라가는데,
- 22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다. 한나는 남편에게 말하였다. "아이가 젖을 땔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주님께 보이고, 언제까지나 그곳에서 살게 하겠습니까."
- 23 그러자 남편 엘카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 좋을 대로 하구려. 아이가 젖을 땔 때까지 기다리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만을 바랄 뿐이오." 그리하여 한나는 집에 남아 아이를 젖을 땔 때까지 키웠다.
- 24 아이가 젖을 떼자 한나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갔다. 그는 삼 년 된 황소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피와 포도주를 채운 가죽 부대 하나를 싣고,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아이를 데려갔다. 아이는 아직 나이가 어렸다.
- 25 사람들은 황소를 잡은 뒤 아이를 엘리에게 데리고 갔다.
- 26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나리! 나리께서 살아 계시는 것이 틀림없듯이, 제가 여기 나리 앞에 서서 주님께 기도하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 27 제가 기도한 것은 이 아이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드린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 28 그래서 저도 아이를 주님께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을 주님께 바친 아이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곳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

한나의 노래

- 2¹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였다. "제 마음이 주님 안에서 기뻐 뛰고 제 이마가 주님 안에서 높이 들립니다. 제 입이

- 원수들을 바웃으니 제가 당신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 2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이 없습니다. 당신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하느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 3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고 거만한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마라. 주님은 정녕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느님이시며 사람의 행실을 저울질하시는 분이시다.
- 4 용사들의 활은 부러지고 비틀거리는 이들은 힘으로 허리를 동여맨다.
- 5 배부른 자들은 양식을 얻으려 품을 팔고 배고픈 이들은 다시는 일할 필요가 없다. 아이 못낳던 여자는 일곱을 낳고 아들 많은 여자는 홀로 시들어 간다.
- 6 주님은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분, 저승에 내리기도 올리기도 하신다.
- 7 주님은 가난하게도 가멸게도 하시는 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신다.
- 8 가난한 이를 먼지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이를 거름 더미에서 일으키시어 귀인들과 한자리에 앉히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땅의 가동들은 주님의 것이고 그분께서 세상을 그 위에 세우셨기 때문이다.
- 9 주님께서는 당신께 충실한 이들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지만 악한 자들은 어둠 속에서 멸망하라. 사람이 제 힘으로는 강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 10 주님이신 그분께 맞서는 자들은 깨어진다.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천둥으로 호령하신다. 주님께서는 땅 끝까지 심판하시고 당신 임금에게 힘을 주시며 기쁨부음 받은이의 뿔을 높이신다."

엘리의 아들들

- 11 엘카나는 라미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나, 아이는 엘리 사제 앞에서 주님을 섬

졌다.

- 12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한 자들로서 주님을 알아 모시지 않았고,
- 13 백성과 관련된 사제들의 규정도 무시하였다. 누구든지 제사를 드린 다음 고기를 삶고 있지만 하면, 사제의 시종은 삶이 셋인 갈고리를 손에 들고
- 14 냄비나 솥이나 가마솥이나 도가니에 찔러 넣었다. 갈고리에 꿰혀 나오는 것은 무엇이나 사제가 제 것으로 가졌다. 그들은 실로에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런 짓을 하였다.
- 15 게다가 굳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사제의 시종이 와서, 제사를 바치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사제님께 구워 드리게 고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받으시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 16 그러면 그 사람이 시종에게 "굳기름을 먼저 살라 바치고 나서 당신이 바라는 만큼 가져가시오" 하여도, "지금 당장 내놓으시오! 그러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가져가겠소" 하였다.
- 17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이 젊은이들의 죄가 매우 커졌다. 그자들이 주님의 제물을 업신 여겼기 때문이다.

사무엘이 실로에 머무르다

- 18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아마포 에פק을 두르고 주님을 섬겼다.
- 19 그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주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올 때면 그에게 작은 예복을 지어 가져왔다.
- 20 그러면 엘리는 엘카나와 그 아내에게 "주님께서 이 여인이 바친 예물 대신, 이 여인에게서 난 후손으로 그대에게 갚아 주시기 바라오" 하며 복을 빌어 주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갔다.
- 21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시니 한나가 임신하

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자라났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

- 22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갖 짓을 저지르고, 만남의 천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같이한다는 소문을 듣고서
- 23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자고 너희가 이런 짓들을 하느냐? 나는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고 있다.
- 24 내 아들들아, 안 된다! 주님의 백성 사이에 퍼지는 고약한 소문이 나한테까지 들리다니!
- 25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느님께서 중재하여 주시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해 빌어 주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그들을 죽이실 뜻을 품으셨기 때문이다.
- 26 한편 어린 사무엘은 주님과 사람들에게 총애를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났다.

엘리의 집안은 망한다

- 27 하느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조상의 집안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집안에 속해 있을 때에, 내가 나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았느냐?'
- 28 나는 너의 조상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내 사제로 선택하여, 내 제단에 올라와 향을 피우고 내 앞에서 에פק을 걸치게 하였다. 나는 네 조상의 집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화제물을 모두 맡겼다.
- 29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바치라고 명령한 제물과 예물을 무시하느냐? 너희는 자신을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예물 가운데 가장 좋은 몫으로 살찌웠다. 그렇게 너는 나보다 네 자식들을 소중하게

여긴 것이다.

- 30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말씀이다. 나는 일찍이 네 집안과 네 조상의 집안에게 내 앞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하였다. 그러나 이제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들은 나도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지 만, 나를 업신여기는 자들은 멸시를 받을 것이다.
- 31 이제 그때가 온다. 내가 너의 기운과 네 조상 집안의 기운을 꺾으리니, 네 집안에는 오래 사는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 32 또한 너는 너의 경쟁자가 이스라엘에 내려진 온갖 복을 누리며 성소에서 봉사하는 것을 바라볼 것이다. 네 집안에는 오래 사는 자가 영영 없을 것이다.
- 33 내가 너의 가족 가운데 내 계단에서 잘라 내지 않을 자마저도,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슬퍼지게 하겠다. 네 가족이 사람들의 칼에 맞아 다 죽을 것이다.
- 34 네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에게 닥칠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곧 그들이 둘 다 한날에 죽을 것이다.
- 35 나는 믿음직한 사제 하나를 일으키리니, 그가 내 마음과 생각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내가 믿음직한 집안을 그에게 일으켜 주고, 그가 나의 기름부음받음이 앞에서 언제나 살아가게 하겠다.
- 36 네 집안에 남은 자는 누구나 그를 찾아가 푼돈과 빵 한 덩이를 빌면서, 제발 사제직 한 자리에 붙여 주어 빵 조각이라도 먹게 해 달라고 말할 것이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다

- 3 ¹ 소년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 그때에는 주님의 말씀이 드물게 내렸고 환시도 자주 있지 않았다.

- 2 어느 날 엘리는 잠자리에 누워 자고 있었다. 그는 이미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여 잘 볼 수가 없었다.
- 3 하느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기 전에, 사무엘이 하느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는데,
- 4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예." 하고 대답하고는,
- 5 엘리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은 돌아와 자리에 누웠다.
- 6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내 아들이,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 7 사무엘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드러난 적이 없었던 것이다.
- 8 주님께서 세 번째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는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고 계시는 줄 알아차리고,
- 9 사무엘에게 일렀다. "가서 자라. 누군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은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다.
- 10 주님께서 찾아와 서시어, 아껴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 11 그러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에서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것을 듣는 이마다 두 귀가 멍멍해질 것이다.

- 12 그날, 내가 엘리 집안을 두고 말한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거슬러 이루고야 말겠다.
- 13 나는 엘리에게, 그의 죄악 때문에 그 집안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알려 주었다. 그 죄악이란, 엘리가 자기 아들이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은 것이다.
- 14 그러므로 나는 엘리 집안에게, 그 집안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는 영원히 속죄받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였다."
- 15 사무엘은 아침까지 누워 있다가 주님의 집 대문을 열었으나, 엘리에게 환시에 관하여 알리기가 두려웠다.
- 16 그때 엘리가 "내 아들 사무엘아!" 하고 부르자, 사무엘이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17 엘리가 물었다. "그분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숨겨서는 안 된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하신 모든 말씀 가운데 한마디라도 나에게 숨기면, 그분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 18 사무엘은 엘리에게 모든 것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그러자 엘리는 "그분은 주님이시니, 당신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하시겠지." 하고 말하였다.
- 19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어, 그가 한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 20 단에서 브에르 세비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의 믿음직한 예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21 주님께서서는 실로에서 거둬 나타나셨다. 주님께서 실로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당신을 드러내신 것이다.

- 4 ¹ 그리하여 사무엘의 말은 그대로 온 이스라엘에 전해졌다.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우러 나가 에벤 에제르에 진을 치고, 필리스티아인들은 아벡에 진을 쳤다.
- 2 필리스티아인들은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에게 맞섰다. 싸움이 커지면서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인들에게 패배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은 별판의 전선에서 이스라엘 군사를 사천 명가량이나 죽였다.
- 3 군사들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어찌하여 오늘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우리를 치셨을까? 실로에서 주님의 계약 궤를 모셔 옵시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시어 원수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합시다."
- 4 그리하여 백성은 실로에 사람들을 보내어, 거기에서 커뜰들 위에 좌정하신 만군의 주님의 계약 궤를 모셔 왔다. 엘리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도 하느님의 계약 궤와 함께 왔다.
- 5 주님의 계약 궤가 진영에 도착하자, 온 이스라엘은 땅이 뒤흔들리도록 큰 함성을 올렸다.
- 6 필리스티아인들이 이 큰 함성을 듣고, "히브리인들의 진영에서 저런 함성이 들리다니 무슨 까닭일까?" 하고 묻다가, 주님의 궤가 진영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7 필리스티아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말하였다. "그 진영에 신이 도착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쳤다. "우리는 망했다! 이런 일은 일찍이 없었는데.
- 8 우리는 망했다!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저 신은 광야에서 갖가지 제앙으로 이집트인들을 친 신이 아나나!
- 9 그러나 필리스티아인들이, 사나이답게 힘을 내어라. 히브리인들이 너희를 삼킨 것처럼

- 너희가 그들을 섬기지 않으려거든, 사나이답게 싸워라."
- 10 필리스티아인들이 이렇게 싸우자, 이스라엘은 패배하여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다. 이리하여 대살육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군은 보병이 삼만이나 쓰러졌으며,
- 11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엘리히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도 죽었다.
- 12 그날 벤야민 사람 하나가 싸움터에서 빠져 나와 실로로 달려왔다. 그의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이 묻어 있었다.
- 13 그가 왔을 때 엘리히는 하나님의 궤 때문에 마음이 떨려, 길가 의자에 앉아서 멀리 내다보고 있었다.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와 소식을 전하자 온 성읍 주민들이 울부짖었다.
- 14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웬 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우냐?" 하고 묻자, 그 사람이 엘리에게 급히 와서 소식을 전하였다.
- 15 엘리는 아흔여덟 살이나 되었고 눈이 굳어져 앞을 볼 수가 없었다.
- 16 그 사람이 엘리에게 "제가 바로 싸움터에서 온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하자, 엘리는 "내 아들이야, 그래, 그곳 사정이 어떠냐?" 하고 물었다.
- 17 전령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도망쳤고, 군사들이 대학살을 당하였습니다. 사제님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도 죽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 18 전령이 하나님의 궤를 언급하자, 엘리가 대문 옆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더니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 사람은 늙은 데다 몸까지 무거웠던 것이다. 엘리는 마흔 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 19 엘리의 며느리, 피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아이 낳을 때가 다 되었다. 그

- 여인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마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몸을 웅크린 채 아이를 낳았다. 갑자기 진통이 닳았던 것이다.
- 20 여인이 숨을 거두려 할 때, 그를 돌보던 여자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 말아요." 하고 일러 주었다. 그러나 여인은 그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마음도 두지 않더니,
- 21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구나." 하면서, 아이를 이카봇이라 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마저 죽었기 때문이다.
- 22 그 여인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말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이 하나님의 궤 때문에 벌을 받다

5

- 1 필리스티아인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에벤 에제르에서 아스돗으로 옮겼다.
- 2 그런 다음에 필리스티아인들은 하나님의 궤를 들어, 다곤의 신전으로 가져다가 다곤 곁에 세워 두었다.
- 3 이튿날 아스돗인들이 일찍 일어나 보니, 다곤이 땅에 얼굴을 박은 채 주님의 궤 앞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일으켜 제자리에 다시 세웠다.
- 4 그들이 다음 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다곤이 또 땅에 얼굴을 박은 채 주님의 궤 앞에 쓰러져 있었다. 다곤은 몸통만 남아 있을 뿐, 머리와 두 손이 잘려서 문지방 위에 널려 있었다.
- 5 그래서 아스돗에서는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사체들과 다곤의 신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모두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 6 주님의 손이 아스돗인들을 짓누르시어 망하게 하였다. 그분께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종기로 치신 것이다.

- 7 이런 일을 보고 이스돗 사람들은 말하였다. "이스라엘 하느님의 궤가 우리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무겁게 짓누르기 때문이다."
- 8 그들은 사람을 보내어 필리스티아인들의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놓고, "우리가 이스라엘 하느님의 궤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하고 물어보았다.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하느님의 궤를 갖고서 옮겨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은 이스라엘 하느님의 궤를 옮겼다.
- 9 그들이 그 궤를 그리로 옮기자, 주님의 손이 그 성읍을 치셔서 매우 큰 소동이 일어났다. 그분께서 그 성읍 사람들을 낮은 자 높은 자 가릴 것 없이 내려치시니, 종기가 그들 몸에 솟아났다.
- 10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궤를 예크론으로 보냈다. 하느님의 궤가 예크론에 들어오자, 예크론인들도 "어찌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 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하는가?" 하면서 울부짖었다.
- 11 그들도 사람을 보내어 필리스티아인들의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제자리로 돌려보내어,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시오." 하고 요청하였다. 하느님의 손이 그곳을 무겁게 짓누르시어, 온 성읍에 죽음의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 12 죽지 않은 사람들은 종기가 났다. 그래서 온 성읍에서 지르는 비명 소리가 하늘까지 올라갔다.

하느님의 궤가 돌아오다

- 6 ¹ 주님의 궤가 필리스티아인들의 지역에 머무른 지 일곱 달이 지났다.
- ² 필리스티아인들은 사제들과 점쟁이들을 불러 놓고 물었다. "주님의 궤를 어떻게 하면

-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궤를 제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 3 그들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하느님의 궤를 돌려보내려면,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하느님에게 보상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병이 나을 것이고, 그가 왜 여러분에게서 손을 거두지 않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 4 "그러면 그 하느님에게 무엇을 보상 제물로 바쳐야 하나?" 하고 필리스티아인들이 묻자, 그들이 이렇게 일러 주었다. "필리스티아인들의 통치자들 수만쿰, 금으로 종기 다섯 개와 쥐 다섯 마리, 마리를 만들어 함께 보내십시오. 같은 재앙이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통치자들에게 닥쳤기 때문입니다."
- 5 여러분은 이 땅을 파괴하고 있는 이 종기와 쥐 모양을 만들어,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하느님에게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가 여러분에게서, 그리고 여러분의 산들과 땅에서 자기 손을 거둘 것입니다.
- 6 왜 여러분은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처럼 고집을 부리려 하나? 그가 이집트인들을 거칠게 다룬 다음에야,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을 떠나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 7 그러니 이제 새 수레 하나를 마련하여, 멍에를 매어 본 적이 없는 어미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묶고, 새끼들은 어미에게서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 8 그런 다음, 주님의 궤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그에게 보상 제물로 바칠,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그 곁에 놓으십시오. 그렇게 그것을 떠나보내고 나서
- 9 지켜보십시오. 만일 수레가 제 고장에 난 길을 따라 벧 세메스로 올라가면, 그가 우리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의 손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재앙이 우리에게 우연히 닥쳤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 10 사람들은 그대로 하였다. 그들은 어미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묶고, 새끼들은 우리에 가두었다.
- 11 수레에는 주님의 궤를 싣고, 금으로 만든 쥐와 종기 모양의 물건들을 담은 상자도 실었다.
- 12 그러자 소들은 벳 세메스 쪽으로 난 길을 따라 곧장 걸어갔다. 소들은 울음소리를 내면서 한 길만을 따라갔는데,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았다. 필리스티아인들의 통치자들은 그 뒤를 따라 벳 세메스 경계까지 갔다.
- 13 그때에 벳 세메스인들은 골짜기에서 밀을 거두어들이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는 기뻐하며 나가 맞았다.
- 14 수레는 벳 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발에 와서 멈추었는데, 거기에는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다. 그들은 수레를 부수어 장작을 만들고, 그 소들을 주님께 번제물로 바쳤다.
- 15 레위인들이 주님의 궤와 금으로 만든 물건들이 든 상자를 내려 그 큰 바위 위에 놓자, 그날 벳 세메스 사람들은 주님께 번제물을 바치고 다른 제물도 바쳤다.
- 16 필리스티아인들의 다섯 통치자들은 이것을 보고 그날 예크론으로 돌아갔다.
- 17 필리스티아인들이 보상 제물로 주님께 바친, 금으로 만든 종기들은 아스돗 뿔으로 하나, 가자 뿔으로 하나, 아스클론 뿔으로 하나, 갓 뿔으로 하나, 예크론 뿔으로 하나였다.
- 18 금으로 만든 쥐는 다섯 통치자들이 다스리던 필리스티아인들의 모든 성읍, 곧 요새 성읍들과 성벽이 없는 마을 수에 맞춘 것이었다. 주님의 궤를 올려놓았던 그 큰 바위는 오늘날까지도 벳 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발에 그대로 있다.
- 19 그런데 주님께서는 벳 세메스 사람들이 주

- 님의 궤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치셨다. 그 백성 가운데에서 일흔 명과 오만 명을 치신 것이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토록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애도하였다.
- 20 벳 세메스 사람들은 "이렇게 거룩하신 하느님이신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나설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분을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지게 할까?" 하고 의논하였다.
- 21 그러다가 그들은 키르얏 여아림 주민들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필리스티아인들이 주님의 궤를 돌려보냈소. 내려와 모시고 올라가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7 ¹ 그러자 키르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모시고 올라갔다. 그들은 주님의 궤를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기고, 그의 아들 엘아자르를 성별하여 그 궤를 돌보게 하였다.

사무엘이 판관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

- 2 궤가 키르얏 여아림에 자리 잡은 날부터 이십 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다. 이스라엘 온 집안은 주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있었다.
- 3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안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여러분 가운데에서 낯선 신들과 아스타롯을 치워 버리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만 두고 그분만을 섬기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빼내어 주실 것이오."
- 4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치워 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 5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말하였다.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즈파로 모이게 하시오.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리겠소."
- 6 사람들은 미즈파로 모여 와서 물을 길어가 주님 앞에 부었다. 바로 그날 그들은 단

- 식하며, "저희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사무엘은 미츠파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판관으로 일하였다.
- 7 필리스티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츠파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필리스티아인들의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소식을 듣고 필리스티아인들을 두려워하였다.
- 8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무엘에게,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도록, 주 우리 하스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 9 사무엘이 잣막이 어린 양 한 마리를 끌어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셨다.
- 10 사무엘이 아직 번제물을 바치고 있을 때,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날 주님께서 필리스티아인들 위에 큰 소리로 천둥을 울리시어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시자,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하였다.
- 11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츠파에서 나와, 벧카르 아래까지 쫓아가며 필리스티아인들을 쳤다.
- 12 사무엘은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츠파와 센 사이에 세우고, "주님께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며,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제트라 하였다.
- 13 필리스티아인들은 이렇게 꺾이고 나서 다시는 이스라엘 영토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필리스티아인들을 억누르셨던 것이다.
- 14 에크론에서 갓에 이르기까지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성읍들이 이스라엘에 되돌아왔다. 이스라엘은 거기 딸린 지역들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빼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리족도 평

화롭게 지내게 되었다.

- 15 사무엘은 살아 있는 동안 내내 이스라엘을 위하여 판관으로 일하였다.
- 16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츠파를 돌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판관으로 일하였다.
- 17 그런 다음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는 그곳에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사무엘과 왕정 제도

백성이 임금을 요구하다

8

- 1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져서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내세웠다.
- 2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아였다. 이들은 브에르 세비에서 판관으로 일하였다.
- 3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잇속에만 치우쳐 뇌물을 받고는 판결을 그르치게 내렸다.
- 4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원로들이 모여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
- 5 청하였다. "어르신께서는 이미 나이가 많으시고 아드님들은 당신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있으니, 이제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를 통치할 임금을 우리에게 세워 주십시오." 사무엘은 "우리를 통치할 임금을 정해 주십시오." 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언짢아 주님께 기도하였다.
- 7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하는 말을 다 들어 주어라. 그들은 사실 너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배척하여, 더 이상 나를 자기네 임금으로 삼지 않으려는 것이다.
- 8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

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런 짓을 저질러 왔는데, 그 모든 짓을 너한테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9 그러나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 주어라. 그러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임금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 그들에게 알려 주어라."

10 사무엘은 자기한테 임금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을 모두 전하였다.

11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이 여러분을 다스릴 임금의 권한이요 그는 여러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 병거와 말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요.

12 천인대장이나 오십인대장으로 삼기도 하고, 그의 밭을 갈고 수확하게 할 것이며, 무기와 병거의 장비를 만들게도 할 것이요.

13 또한 그는 여러분의 딸들을 데려다가, 항제조사와 요리사와 제빵 기술자로 삼을 것이요.

14 그는 여러분의 가장 좋은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을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주고,

15 여러분의 곡식과 포도밭에서도 십일조를 거두어, 자기 내시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이요.

16 여러분의 남종과 여종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 그리고 여러분의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요.

17 여러분의 양 떼에서도 십일조를 거두어 갈 것이며, 여러분마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18 그제야 여러분은 스스로 뽑은 임금 때문에 울부짖겠지만, 그 때에 주님께서서는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요."

19 그러나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마다하며 말하였다.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임금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까.

20 그래야 우리도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임금

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 앞에 나서서 전쟁을 이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1 사무엘은 백성의 말을 다 듣고 나서 그대로 주님께 이터었다.

22 주님께서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 그들에게 임금을 세워 주어라." 하고 이르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마다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시오." 하고 일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

9 ¹ 벤야민 지파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키스였다.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고 츠로르의 손자이며, 브코랏의 증손이고 아피아의 현손이었다. 그는 벤야민 사람으로서 힘센 용사였다.

2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사울인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것처럼 잘생긴 사람은 없었고, 키도 모든 사람보다 여게 위만큼은 더 컸다.

3 하루는 사울의 아버지 키스의 암나귀들이 없어졌다. 그래서 키스는 아들 사울에게 말하였다. "종을 하나 데리고 나가 암나귀들을 찾아보아라."

4 사울은 종과 함께 에프림 산악 지방을 돌아다니고, 살리사 지방도 돌아다녔지만 찾지 못하였다. 그들은 사알림 지방까지 돌아다녔는데 거기에도 없었다. 다시 벤야민 지방을 돌아다녔으나 역시 찾지 못하였다.

5 그들이 छ 지방에 들어섰을 때, 사울은 함께 가던 종에게 말하였다.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귀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6 그러자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성읍에는 하느님의 사람이 한 분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존경받는 분이신데, 하시는 말씀마다 모두 들어맞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거기에 한번 가 보십시오. 혹시 그분이 우리에게

- 가야 할 길을 알려 주실지도 모릅니다."
- 7 그러자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그런데 간다면 그분에게 무엇을 가지고 가야겠느냐? 자투리는 빵도 떨어지고, 그 하느님의 사람에게 갖다 드릴 예물이 하나도 없구나. 우리에게 뭐 남은 것이 없느냐?"
- 8 종이 다시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여기 저에게 은 사분의 일 세켈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느님의 사람에게 드리면, 그분이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
- 9 옛날 이스라엘에서 하느님께 문의하러 가는 사람은 "선견자에게 가 보자!"고 하였다. 오늘날의 예언자를 옛날에는 선견자라고 하였던 것이다.
- 10 그러자 사울은 종에게, "네 말이 옳다! 어서 가자." 하며 하느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다.
- 11 그들은 그 성읍으로 난 오르막길을 가다가, 물을 길으러 나오는 처녀들을 만나, "이곳에 선견자가 계시지요?" 하고 물었다.
- 12 처녀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그분이 저 앞에 가십니다. 어서 서두르십시오. 그분은 오늘 산당에서 백성을 위한 제사가 있어 이 성읍에 오셨습니다."
- 13 두 분이 성읍으로 들어가시면, 그분이 식사하러 산당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백성은 먹지 않고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분이 제물에 축복하신 다음에야 초대받은 이들이 먹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 올라가시면 곧 그분을 만나실 것입니다."
- 14 그들은 성읍으로 올라갔다. 성읍 안으로 막 들어서려는데, 마침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오다가 그들과 마주쳤다.
- 15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님께서서는 사무엘의 귀를 열어 주시며 말씀하셨다.
- 16 "내일 이맘때에 벤야민 땅에서 온 사람을 너에게 보낼 터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내 백성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구해 낼 것이다. 나는 내 백성이 고생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 17 사무엘이 사울을 보는 순간,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 18 사울이 성문 안에서 사무엘에게 다가 물었다. "선견자의 택이 어디인지 알려 주십시오"
- 19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그 선견자요. 앞장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오. 두 분은 오늘 나와 함께 음식을 들고, 내일 아침에 가시오. 그때 당신이 마음에 두고 있는 일도 다 알려 주겠소."
- 20 당신이 사흘 전에 잃어버린 양나귀들은 이미 찾았으니, 더 이상 그 일로 마음을 쓰지 마시오.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가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아시오? 바로 그대와 그대의 집안에 걸려 있소."
- 21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렇지만 저는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에서도 가장 작은 벤야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문은 벤야민 지파의 씨족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 22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큰 방으로 들어가, 초대받은 이들 맨 뒷자리에 앉혔다. 손님들은 서른 명쯤 되었다.
- 23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일렀다. "내가 너에게 간수하라고 맡겨 둔 뭇을 가져오너라."
- 24 요리사가 넓적다리와 꼬리를 가져다가 사울 앞에 차려 놓자 사무엘이 말하였다. "여기 남겨 둔 것을 당신 앞에 차려 드리니 잡수시오. 당신이 초대된 사람들과 함께 때맞춰 들도록 남겨 둔 것이요." 이렇게

그날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 25 그들이 산당에서 성읍으로 내려온 다음,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옥상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무엘이 사울을 임명으로 세우다

- 26 그들은 일찍 일어났다. 동틀 무렵 사무엘이 옥상에 대고 사울을 부르면서, "일어나시오. 내가 당신을 바레다 주겠소." 하자, 사울이 일어났다. 그리고 사울과 사무엘은 둘이서 밖으로 나갔다.
- 27 그들이 성읍 끝까지 내려갔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종더러 우리보다 앞서 가라고 이르시오. 종이 앞서 가고 나면, 당신은 잠서서 계시오.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들려주겠소."

10 ¹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춘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그분의 소유인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소.

2 오늘 당신은 나를 떠나서 가다가, 벤야민 영토 쉐라에 있는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오. 그들은 당신에게, '당신 아버지는 당신이 찾으러 다니던 암나귀들을 이미 찾으셨소. 이제 나귀 걱정은 놓으셨지만, '내 아들은 어찌 되었을까?' 하시면서 당신들을 걱정하고 계시오.' 하고 말할 것이오.

3 거기에서 더 가다가 타보르의 참나무에 이르르면, 하느님을 예배하러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오. 한 사람은 새끼 염소 세 마리를 끌고, 한 사람은 빵 세 덩이를 들고, 나머지 한 사람은 술 한 부대를 메고 있을 것이오.

4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인사를 하고, 빵 두 덩이를 줄 것이니 받으시오.

5 그런 다음 당신은 필리스티아인들의 수비대가 있는 기브아 엘로힘에 이르게 될 것이오. 당신이 그 성읍에 다다르게 되면, 산당에서 내려오는 예언자들의 무리를 만날 것이오. 사람들이 그들을 앞서 가며 수금을 뜰고 손북을 치고 피리를 불고 비파를 타는 가운데, 예언자들은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고 있을 것이오.

6 그때 주님의 영이 당신에게 들이닥쳐, 당신도 그들과 함께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면서 판사람으로 바뀔 것이오.

7 이런 표징들이 당신에게 닥치거든, 하느님께서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시오.

8 당신은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시오. 나도 뒤따라 당신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번제물을 바치고 친교 제물을 드리겠소. 내가 당신에게 갈 때까지 이레 동안 기다리시오. 그 때에 가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내가 알려주겠소."

9 사울이 몸을 돌려 사무엘을 떠나가려는데, 하느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고, 바로 그날 이런 표징들이 모두 일어났다.

10 사울이 종과 함께 그곳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 예언자의 무리가 오고 있었다. 그러자 하느님의 영이 사울에게 들이닥쳐, 그도 그들 가운데에서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였다.

11 사울을 전부터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가 예언자들과 함께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는 것을 보고, "키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지?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인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12 거기에 있던 사람 하나가 "이들의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지?" 하고 물었다. 그리하여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인가?"라는 속담이 생겨났다.

13 예언이 끝나자 사울은 산당으로 갔다.

14 사울의 삼촌이 사울과 그 종에게 "어디에

갔었느냐?" 하고 묻자, 사울이 대답하였다. "암나귀들을 찾아 나섰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사무엘께 갔었습니다."

- 15 사울의 삼촌이 다시 물었다. "사무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어서 말해 보아라."
- 16 사울이 삼촌에게 "그분께서는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알려 주시더군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그는 사무엘이 왕권과 관련하여 말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울이 임금으로 뽑히다

- 17 사무엘이 백성을 미즈파로 불러 주님 앞에 모아 놓고서,
- 18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다. 내가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그리고 너희를 억누르던 모든 나라의 손에서 너희를 빼내었다.'
- 19 그런데도 오늘 여러분은, 온갖 계양과 재난에서 여러분을 구해 주신 여러분의 하나님을 배척하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임금을 세워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소. 그러니 이제 지파와 씨족별로 주님 앞에 나와 서시오."
- 20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자 베인 지파가 뽑혔다.
- 21 다시 베인 지파를 씨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자 마트리 씨족이 뽑혔고, 이어 키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찾아보았으나 그는 보이지 않았다.
- 22 그들이 다시 주님께,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하고 여쭙어 보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저기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 23 그들이 달려가 그곳에서 사울을 데리고 나

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에 서자, 그의 키는 모든 백성보다 아예 위만큼 더 컸다.

- 24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주님께서 뽑으신 이를 보았소? 온 백성 가운데 이만 한 인물이 없소." 하고 말하자, 온 백성이 환호하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 25 사무엘은 백성에게 왕정의 권한을 설명하고, 그것을 책에 적어 주님 앞에 두었다. 그런 뒤에 온 백성을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다.
- 26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신 용사들도 그와 함께 갔다.
- 27 그런데 몇몇 불량한 자들은 "이 친구가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으랴?" 하면서, 사울을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울이 암몬족을 물리치고 왕위에 오르다

- 11 ¹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아베스 길앗을 포위하였다. 그러자 아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하스에게 말하였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소."
- 2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내가 너희 오른쪽 눈을 모두 후벼 내어 온 이스라엘에 대한 모욕으로 내놓는다는 조건 아래 너희와 계약을 맺겠다." 하고 대꾸하였다.
- 3 아베스의 원로들이 그에게 사정하였다. "우리가 이스라엘 곳곳에 전령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이제 동안만 말미를 주시오. 만일 우리를 구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당신에게 항복하겠습니다."
- 4 전령들은 사울의 기브아에 가서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자 백성은 모두 놀아 올랐다.
- 5 마침 사울이 소를 몰고 밭에서 오다가, "백

- 성에게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 우느냐?" 하고 물었다. 그들은 사울에게 아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들려주었다.
- 6 이 소식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들이닥치니, 그의 분노가 무섭게 타올랐다.
- 7 사울은 겨릿소 한 쌍을 끌어다가 여러 토막을 내고, 그것을 전령들 편에 이스라엘의 온 영토로 보내면서,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나서지 않는 자의 소는 이 꼴이 될 것이다." 하고 전하게 하였다.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백성을 사로잡자 그들은 하나같이 따라나섰다.
- 8 사울이 베zek에서 그들을 사열해 보니, 이스라엘 사람이 삼십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삼만 명이었다.
- 9 사울이 자키에게 온 전령들에게 일렀다. "아베스 길앗 사람들에게, '내일 햇벌이 뜨거워질 때에 여러분은 구원될 것이요.' 하고 전하여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아베스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니 그들은 기뻐하였다.
- 10 아베스 사람들은 나하스에게,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항복하겠으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 11 이튿날 사울은 군사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이른 새벽녘에 적의 진영 한복판으로 쳐들어와서, 햇벌이 뜨거워질 때까지 임문군을 무찔렀다. 살아남은 자들은 흩어져서, 두 사람이 함께 남아 있는 일조차 없었다.
- 12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사울 따위가 우리 임금이 될 수 있겠느냐?' 하던 자들이 누굽니까? 그런 자들을 죽여 버리겠으니 우리에게 내주시시오."
- 13 그러나 사울은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구원을 이루어 주신 날입니다. 이런 날 아무도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였다.
- 14 사무엘이 백성에게 "자, 길갈로 가서 왕정

- 을 새롭게 다잡시다." 하고 말하자,
- 15 온 백성은 길갈로 가 주님 앞에서 사울을 임금으로 세우고, 주님께 친교 제물을 바쳤다. 거기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크게 기뻐하였다.

사무엘의 고백사

- 12 ¹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이 나에게 청한 대로 여러분의 말을 다 들어 주어, 여러분을 다스릴 임금을 세웠소.
- 2 이제부터는 이 임금이 여러분을 이끌 것이오 나는 늙어 백발이 되었고 내 아들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소 나는 젊어서부터 이날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왔소.
- 3 여기 내가 있으니 나를 고발할 일이 있거든, 주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기름부음받음이 앞에서 하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거나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소? 내가 누구를 학대하거나 억압한 일이 있소? 누구에게 뇌물을 받고 눈감아 준 일이 있소?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여러분에게 갚아 주겠소."
- 4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를 학대하거나 억압하신 일도 없고, 누구의 손에서 무엇 하나 빼앗으신 일도 없습니다."
- 5 그러자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 손에서 무엇 하나 찾아내지 못하였으니,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증인이 되시고 그분의 기름부음받음이라도 증인이 되었소." 백성이 "예, 증인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6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님께서 증인이시오,
- 7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그대로 서 있으시오. 내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의로운 업적을 모두 들어, 주님 앞에서 여러분과 시비를 가려야겠소.

- 8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여러분의 조상들이 주님께 울부짖자,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어 이집트에서 여러분의 조상들을 이끌어 내게 하시고, 그들을 이곳에 자리 잡게 하셨소.
- 9 그러나 그들은 주 저희 하느님을 잊어버렸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하초르의 군대 장수 시스라의 손에,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 그리고 모압 임금의 손에 팔아넘기시어 그들을 공격하게 하셨소.
- 10 그러자 여러분의 조상들은 주님께 울부짖었소.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비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이제 저희를 원수들의 손에서 빼내 주십시오. 저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 11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루빠알과 바락, 입타와 사무엘을 보내시어, 사방에서 에워싼 원수들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내 주시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셨소.
- 12 그런데 여러분은 암몬 자손들의 임금 나하스가 치러 오는 것을 보고, 주 여러분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임금이신데도 나에게, '안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임금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소.
- 13 자, 여러분이 요구하여 뽑은 임금이 여기 있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임금을 세워 주셨소.
- 14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경외하여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면,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을 다스리는 임금도 주 여러분의 하느님을 따르게 될 것이오.
- 15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임금을 치실 것이오.
- 16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그대로 서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 앞에서 하실 이 큰일을 지켜보시오.
- 17 지금은 밭을 거두는 때가 아니오? 그렇지 만 내가 주님께 간청하여 찬동과 비를 내리시게 하겠소. 그러니 여러분은 임금을 요구한 일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커다란 악인지 깨달으시오."
- 18 사무엘이 주님께 간청하자, 그날로 주님께서 찬동과 비를 내리셨다. 그리하여 온 백성이 주님과 사무엘을 매우 경외하게 되었다.
- 19 온 백성이 사무엘에게 호소하였다. "당신 종들을 위해서 주 당신의 하느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는 이미 저지른 모든 죄에다 임금을 요구하는 악까지 더하였습니다."
- 20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이 모든 악을 저질렀지만,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서는 일 없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시오.
- 21 여러분에게 이익도 구원도 주지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려고 돌아서지 마시오. 그것들은 정녕 헛된 것들이오.
- 22 주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하신 이름 때문에 당신 백성을 물리치지 않으실 것이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당신 백성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소.
- 23 나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거나 하여 주님께 죄를 짓지는 않을 것이오.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좋고 바른길을 가르쳐 주겠소.
- 24 여러분은 오로지 주님만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분만을 충실하게 섬기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해 주신 위대한 일을 똑똑히 보시오.
- 25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여전히 악행을 일삼는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임금도 모두 쫓겨날 것이오."

사울이 이만 전투

사울이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우다

13 ¹ 사울이 임금이 된 것은 서른 살 때였다. 그는 이스라엘을 두 해 동안 다스렸다.

³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삼천 명을 뽑아 이천 명은 자기와 함께 미크마스와 베텔 산악 지방에 있게 하고, 천 명은 요나탄과 함께 벤아민 땅 기브아에 있게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저마다 제 천막으로 돌려보냈다.

⁴ 요나탄이 계바에 있는 필리스티아인들의 수비대를 치자, 필리스티아인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 사울은 "히브리인들은 들으시오!" 하면서 온 나라에 나팔을 불었다.

⁵ 온 이스라엘은 사울이 필리스티아인들의 수비대를 쳐서, 자기들이 필리스티아인들의 원한을 사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은 길갈로 와서 사울과 합세하라는 소집령도 받았다.

⁶ 필리스티아인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여들었다. 병거는 삼천이고 기마는 육천이나 되었으며, 군사들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다. 그들은 벳 아헨 동쪽 미크마스에 올라가 거기에 진을 쳤다.

⁷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포위되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저마다 굴이나 덩굴이나 바위틈, 또는 구덩이나 웅덩이를 찾아 몸을 숨겼다.

⁸ 어떤 히브리인들은 요르단을 건너 가드와 길앗 지방으로 넘어갔다. 사울은 아직 길갈에 남아 있었는데, 그의 뒤에서는 군사들이 모두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⁹ 사울은 사무엘이 약속한 이레를 기다렸으나, 사무엘은 길갈에 오지 않았다. 군사들은 사울 곁을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¹⁰ 그래서 사울은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나

에게 가져와라." 하여 번제물을 바쳤다.

¹¹ 사울이 번제물을 바치고 나자 사무엘이 왔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하자,

¹² 사무엘이 "임금님은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군사들은 저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어르신은 약속하신 때에 오지 않으시는데, 필리스티아인들이 미크마스에 모여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¹³ 그러자 '필리스티아인들이 나를 향해 길갈로 내려오는데도 주님의 호의를 간청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번제물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¹⁴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어리석은 일을 하셨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지키셨더라면 지금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님의 왕국을 영원히 굳게 세워 주셨을 터인데,

¹⁵ 이제는 임금님의 왕국이 더 이상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으므로, 주님께서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시어, 당신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임명하셨습니다."

¹⁶ 사무엘은 일어나서 길갈을 떠나 벤아민 땅 기브아로 올라갔다. 나머지 군대는 사울을 쫓아 길갈에서 벤아민 땅 기브아로 이동하였다. 사울이 자기가 거느린 군대를 사멸하여 보니 육백 명가량 되었다.

¹⁷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탄, 그리고 그들이 거느린 군대는 벤아민 땅 계바에 머무르고, 필리스티아인들은 미크마스에 진을 쳤다.

¹⁸ 필리스티아인들 진영에서는 공격대가 셋으로 나뉘어 출동하였는데, 한 부대는 수알 지방 오프라로 난 길을 향하고,

¹⁹ 다른 한 부대는 벳 호론으로 난 길을 향하

였으며, 나머지 한 부대는 츠보임 골짜기를 따라 광야가 바라보이는 지역으로 난 길을 향하였다.

- 20 그 당시 이스라엘 온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필리스티아인들이 히브리인들에게 칼이나 창을 만들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 21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버리기 위해,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내려가야만 하였다.
- 22 보습이나 곡괭이를 버리는 값은 삼분의 이 세켈이었고, 도끼를 버리거나 낫을 가는 값은 삼분의 일 세켈이었다.
- 23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과 요나단을 따르는 모든 군사들의 손에는 칼도 창도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
- 24 필리스티아인들의 전초 부대는 미크마스 길목까지 나와 있었다.

요나단이 필리스티아인들을 치다

- 14 ¹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병에게 "자, 저 건너편 필리스티아인들의 전초 부대를 치러 건너가자."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 2 그때 사울은 기브아 번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무르고 있었는데, 군사 육백 명과량이 그와 함께 있었다.
- 3 거기에는 실로에서 주님의 사제로 있던 엘리의 증손이고 피느하스의 손자이며, 이카봇의 조카이고 아히톱의 아들인 아히아가 에봇을 걸치고 함께 있었다. 그런데 군사들은 요나단이 자리를 뜬 줄 모르고 있었다.
- 4 요나단이 필리스티아인들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려고 했던 길목 양쪽에는 절벽이 있었는데, 하나는 보체츠라 하고 다른 하나는 센네라라고 하였다.

- 5 북쪽에 우뚝 솟은 절벽은 미크마스를 마주 보고, 남쪽의 다른 절벽은 계바를 마주 보고 있었다.
- 6 요나단이 무기병에게 일렀다. "자!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전초 부대로 넘어 들어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동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데에는 수가 많은 적든 아무 상관이 없다."
- 7 무기병은 그에게 "무엇이든 마음 내키시는 대로 하십시오. 왕자님께서 먼저 실행하십시오. 저야 왕자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따를 뿐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 8 그러자 요나단이 일렀다. "좋다.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우리 모습을 드러내자.
- 9 그들이 만일 우리한테, '우리가 갈 때까지 꼼짝 마라.' 하고 소리치면, 그 자리에 선 채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고,
- 10 '어디 올라와 봐라.' 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신 것이니 우리가 올라가자.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징이다."
- 11 두 사람이 필리스티아인들의 전초 부대에 모습을 드러내자, 필리스티아인들은 "저것 봐라, 히브리 놈들이 숨어 있던 구멍에서 나오고 있다." 하고 말하였다.
- 12 전초 부대 군사들은 요나단과 그의 무기병에게, "어디 올라와 봐라. 알려 줄 게 있다." 하고 외쳤다. 그때 요나단이 무기병에게 "주님께서 저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하고는,
- 13 손과 발로 기어올라 갔다. 무기병도 그의 뒤를 따랐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요나단 앞에서 쓰러졌다. 무기병도 요나단을 뒤따라 가며 그들을 쳐 죽였다.
- 14 이렇게 요나단과 그의 무기병이, 겨릿소 한 쌍이 한나절에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죽인 군사들은 스무 명쯤 되었다.

- 15 진영 안에 있던 들판에 있던, 모든 군대 사이에 공포가 퍼져 나갔다. 전조 부대와 공격대도 공포에 떨었다. 땅이 뒤흔들리고 하나님의 공포가 퍼져 나갔다.
- 16 벤아민 땅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병들이 보니, 필리스티아인들의 무리가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 17 그래서 사울이 함께 있는 군사들에게, "인원을 점검하여 우리 가운데에서 누가 빠져 나갔는지 알아보아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들이 점검해 보니 요나탄과 그의 무기병이 없었다.
- 18 사울이 아히아에게 "하나님의 궤를 모셔 오시오." 하고 일렀다. 그때에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있었다.
- 19 사울이 사제에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필리스티아인들의 진영에서는 소란이 더욱 심해졌다. 그래서 사울은 사제에게 "그만 두시오." 하고 말하였다.
- 20 사울과 그가 거느린 모든 군사가 함성을 지르며 싸우러 나가 보니, 필리스티아군은 제 편끼리 칼로 치며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다.
- 21 이제껏 필리스티아인들 편에 붙어 그들과 함께 진영에 올라와 있던 히브리인들도 돌아서서, 사울과 요나탄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한편이 되었다.
- 22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숨었던 이스라엘군도 필리스티아인들이 도망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그들 뒤를 바짝 쫓아가며 싸웠다.
- 23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도와주시어, 싸움은 벧 아웬 건너편까지 번져 갔다.

요나탄이 사울의 명령을 어기다

- 24 그날 이스라엘군이 곤경에 처했을 때, 사울은 군사들에게 저주를 씌우는 맹세를 하였

- 다. "오늘 저녁 내가 원수를 다 갚기 전에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군사들은 모두 음식을 맛보지도 못하였다.
- 25 모든 군사가 숲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땅바닥에 풀이 있었다.
- 26 그러나 군사들 가운데에는 숲에 들어가서 풀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손으로 찍어 입에 대는 이가 없었다. 그 맹세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 27 그런데 요나탄은 아버지가 군사들에게 저주를 씌우는 맹세를 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든 막대기를 내밀어 그 끝으로 벌집에서 꿀을 찍어 입에 넣었다. 그러자 눈이 번쩍 뜨였다.
- 28 군사들 가운데 하나가 요나탄에게 알려 주었다. "아버님께서 군사들에게, '오늘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시면서 맹세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들 지켜 있는 것입니다."
- 29 그러자 요나탄이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불행에 빠뜨리셨구나. 이 꿀을 이렇게 조금만 맛보기도 내 눈이 번쩍 뜨였는데,
- 30 오늘 군사들이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마음대로 먹었다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지금쯤은 필리스티아인들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 31 그날 이스라엘군은 필리스티아인들을 미크마스에서 이알론까지 쫓아가며 쳐 죽였다. 그리고 나서 군사들은 몹시 지친 나머지,
- 32 빼앗은 것에 달려들어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맨땅에서 잡고 고기를 피째 먹었다.
- 33 사울은 군사들이 고기를 피째 먹어 주님께 죄를 짓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명령하였다. "너희는 배신하였다! 당장 큰 돌을 하나 굴러 나에게 가져오너라."
- 34 사울이 다시 명령하였다. "백성 가운데로

흠어져 가서 그들에게, '저마다 소와 양을 내게로 끌고 와 이 돌 위에서 잡아먹되, 피째로 먹어 주님께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고 전하여라." 그래서 그날 밤 군사들이 모두 소를 끌고 와 거기에서 잡았다.

35 그리고 나서 사울은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세웠는데, 이것이 그가 주님께 처음으로 세워 드린 제단이다.

36 사울이 말하였다. "우리가 오늘 밤에 필리스티아인들을 쫓아 내려가 동이 틀 때까지 약탈하자.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남겨 두지 말자." 군사들은 "임금님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하고 대답하였으나, 사제는 "여기서 하느님께 나아가 여쭙어 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37 그래서 사울이 하느님께 여쭙어 보았다. "필리스티아인들을 쫓아 내려갈까요?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날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셨다.

38 그러자 사울이 명령하였다. "군대 수장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 오늘 이런 죄가 어떻게 저질러졌는지 알아보아라.

39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그 죄가 내 자식 요나탄에게 있다 하여도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군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40 사울이 다시 온 이스라엘군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한편에 서라. 나와 내 아들 요나탄은 다른 편에 서겠다." 군사들은 사울에게 "임금님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41 사울이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분명히 알려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렸더니, 요나탄과 사울이 뿔히고 백성은 풀려났다.

42 그다음 사울이 "나와 내 아들 요나탄을 두

고 제비를 뽑아라." 하자 요나탄이 뽑혔다. 43 그래서 사울은 요나탄에게,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해 보아라." 하고 물었다. 요나탄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손에 든 막대기 끝으로 풀을 조금 찍어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죽을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44 사울이 말하였다. "요나탄아,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45 그러자 군사들이 사울에게 간청하였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 준 요나탄 왕자님을 꼭 죽이셔야 합니까? 안 됩니다. 주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그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결코 땅에 떨어지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하느님과 함께 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군사들이 요나탄을 살려 내어, 그는 죽지 않게 되었다.

46 사울은 필리스티아인들을 뒤쫓는 일을 그만두고 올라갔다. 필리스티아인들도 자기들 고향으로 물러갔다.

사울이 왕위를 군다

47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하고 나서, 사망에 있는 모든 원수들, 곧 모압과 암몬 자손들과 에돔, 초바 임금들과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웠다. 그리고 그는 어느 쪽으로 가든지 그들을 패배시켰다.

48 그는 아말렉도 용감하게 쳐부수어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의 손에서 빼내었다.

49 사울의 아들은 요나탄과 이스위와 말키수이었다. 딸도 둘 있었는데, 큰딸의 이름은 메랍이고 작은딸의 이름은 미갈이었다.

50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야아즈의 딸 아히노암이었다. 사울 군대의 장수 이름은 그의 삼촌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였다.

51 사울의 아버지는 키스였고, 아브네르의 아버지 네르는 아비엘의 아들이었다.

52 사울은 평생 필리스티아인들과 격전을 벌

였다. 그는 용감하고 힘센 사람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러 모았다.

사울이 이말렉과 싸우다

- 15** ¹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임금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 ²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짓,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길을 막았던 그 일 때문에 나는 그들을 벌하겠다.
- ³ 그러니 너는 이제 가서 사정없이 아말렉을 치고, 그들에게 딸린 것을 완전히 없애 버려라.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소 떼와 양 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여야 한다.'
- ⁴ 사울이 군사들을 소집하여 트라임에서 사열해 보니, 보병이 이십만이었고 유다에서도 장정 일만이 가담하였다.
- ⁵ 사울은 아말렉 성읍에 이르러 골짜기에 군사들을 매복시켜 놓고,
- ⁶ 카인족에게 말하였다. "아말렉족 한가운데에서 떠나 내려들 오시오. 그래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이집트를 떠나 올라올 때 친절을 베풀어 준 당신들을 아말렉족과 함께 치지 않을 것이요." 그러자 카인족은 아말렉족 한가운데에서 떠났다.
- ⁷ 사울은 하일라에서 이집트 동쪽 수르까지 아말렉을 쳤다.
- ⁸ 그는 아말렉 임금 아각만 산 채로 사로잡고,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칼날로 완전히 없애 버렸다.
- ⁹ 그런데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아각뿐 아니라, 양과 소와 기름진 짐승들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들과 새끼 양들, 그 밖에 좋은 것들은 모두 아깝게 여겨 완전히 없애 버리지 않고,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없애 버

렸다.

주님께서 사울을 꾸짖다

- ¹⁰ 주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내렸다.
- ¹¹ "나는 사울을 임금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는 나를 따르지 않고 돌아섰으며 내 말을 이행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화가 나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 ¹² 이튿날 사무엘이 아침 일찍 일어나 사울을 만나러 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전하였다. "사울 임금님이 카르멜로 가시다가 자신의 기념비를 세워 놓으시고, 그곳을 지나 길갈로 내려가셨습니다."
- ¹³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자, 사울이 말하였다. "주님께 복을 받으십시오. 저는 주님의 말씀을 이행하였습니다."
- ¹⁴ 그러자 사무엘이 "제 귀에는 양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또 소 울음소리도 들리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물었다.
- ¹⁵ 사울이 "아말렉족에게서 끌고 온 것들입니다. 군사들이 주 어르신의 하느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 떼와 소 떼 가운데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아껴 둔 것이지요. 그 밖의 것은 완전히 없애 버렸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¹⁶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그만두십시오. 간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응답하였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 ¹⁷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은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실지 몰라도,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이스라엘 위에 임금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 ¹⁸ 주님께서 임금님을 내보내시면서 이런 분부를 하셨습니다. '가서 저 아말렉 죄인들을 완전히 없애 버려라. 그들을 전멸시

킬 때까지 그들과 싸워라.'

- 19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전리품에 덤벼들어,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 20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아말렉 임금 아각은 사로잡고 그 밖의 아말렉 사람들은 완전히 없애 버렸습니다."
- 21 다만 군사들이 완전히 없애 버려야 했던 전리품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양과 소만 끌고 왔습니다. 그것은 길갈에서 주 어르신의 하느님께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었습니다."
- 22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진정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숫양의 굳기름 보다 낫습니다."
- 23 거역하는 것은 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셨기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왕위에서 배척하셨습니다."
- 24 사울이 사무엘에게 빌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군사들이 두려워서 주님의 분부와 어르신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의 말을 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 25 그러니 부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돌아가시어, 제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 주십시오."
- 26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같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셨기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이스라엘의 왕위에 머무르시지 못하도록 배척하셨습니다."
- 27 사무엘이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사울이

그의 걸음을 붙잡자 옷자락이 찢어졌다.

- 28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서는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임금님에게서 찢어 내시어, 임금님보다 훌륭한 이웃에게 주셨 습니다."
- 29 이스라엘의 영웅이신 분은 거짓말을 하시거나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분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뜻을 바꾸지 않으 셉니다."
- 30 사울이 간청하였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만, 제 백성의 원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제발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저와 함께 돌아가시어, 제가 주 어르신의 하느님께 예배드리게 해 주십시오."
- 31 그리하여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 돌아가니, 사울은 주님께 예배드렸다.

사무엘이 아각을 처형하다

- 32 사무엘이 "아말렉 임금 아각을 나에게 데려오너라." 하고 명령하였다. 아각은 분명히 죽을 고비는 넘겼나 보다 생각하며, 기분이 좋게 사무엘 앞으로 나왔다.
- 33 사무엘은 "너의 칼이 못 여인을 자식 없게 만들었으니, 네 어미도 여인들 가운데에서 자식 없이 지내야 마땅하다." 하고 말한 다음, 길갈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아각을 난도질하였다.
- 34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올라갔다.
- 35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는 사울을 두고 슬퍼하였다.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 위에 임금으로 세우신 일을 후회하였다.

다윗의 성공과 사울의 몰락

다윗에게 기름을 붓다

- 16 ¹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하고만 있을 셈이나? 나는 이미 사울을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서 밀어냈다. 그러니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떠나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사이에게 보낸다. 내가 친히 그의 아들 가운데에서 임금이 될 사람을 하나 보아 두었다."

2 사무엘이 여쭙었다. "제가 어떻게 갑니까? 사울이 그 소식을 들으면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암송이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여라.

3 그러면서 이사이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다음에 네가 할 일을 내가 알려 주겠다. 너는 내가 알려 주는 이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4 사무엘은 주님께서 이르시는 대로 하였다. 그가 베들레헴에 다다르자 그 성읍의 원로들이 떨면서 그를 맞았다. 그들은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하고 물었다.

5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물론 좋은 일이지요. 나는 주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것이요. 그러나 몸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러 함께 갑시다." 사무엘은 이사이와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한 다음 그들을 제사에 초청하였다.

6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주님의 기름부음받은이가 바로 주님 앞에서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7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8 다음으로 이사이는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이도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아니요." 하였다.

9 이사이가 다시 삼미를 지나가게 하였지만, 사무엘은 "이 아이도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아니요." 하였다.

10 이렇게 이사이가 아들 일곱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사이에게 "이들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없소." 하였다.

11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아들들이 다 모인 겁니까?" 하고 묻자, 이사이는 "딱내가 아직 남아 있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말하였다. "사람을 보내 데려오시오.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을 수가 없소."

12 그래서 이사이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다. 그는 불이 불그레하고 눈매가 아름다운 잘생긴 아이였다. 주님께서 "바로 이 아이다. 일어나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13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들고 형들 한 가운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디윗에게 들이닥쳐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렀다. 사무엘은 그곳을 떠나 라마로 갔다.

다윗이 사울을 썬다

14 주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주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그를 괴롭혔다.

15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지금 하느님께서 내리신 악령이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으니,

16 임금님께서는 여기 이 종들에게 분부하시어, 비파를 숨겨 있게 타는 사람을 하나 구해 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임금님께 내릴 때마다 그에게 비파를 타게 하면, 임금님께서는 편안해지실 것입니다."

17 그래서 사울은 신하들에게 "비파를 잘 타

는 사람을 하나 찾아서 나에게 데려오너라." 하고 분부하였다.

- 18 젊은 시중 가운데 하나가 말하였다. "제가 베들레헬 사람 이사이에게 그런 이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비파를 잘 탈 뿐만 아니라 힘센 장사이며 전사로서, 말도 잘하고 풍채도 좋은 데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 19 사울은 전령들을 이사이에게 보내어, "양을 치는 너의 아들 다윗을 나에게 보내라." 하는 말을 전하였다.
- 20 이사이는 빵과 포도주 한 부대를 나귀에 싣고,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달려서 아들 다윗 편에 사울에게 보냈다.
- 21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그를 시중 들게 되었는데, 사울은 다윗을 몹시 사랑하여 그를 자기 무기병으로 삼았다.
- 22 그리고 이사이에게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다윗이 내 눈에 드니, 내 앞에서 시중들게 하여라."
- 23 하느님께서 보내신 영이 사울에게 내릴 때 마다, 다윗은 비파를 손에 들고 났다. 그러면 악령이 물러가고, 사울은 회복되어 편안해졌다.

이스라엘이 골리앗의 도전을 받다

- 17 ¹ 필리스티아인들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대를 소집하여 유다의 소코에 집결시켰다. 그들은 소코와 아제가 사이에 있는 에페스 담뭍에 진을 쳤다.
- 2 사울도 이스라엘군을 집결시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맞서 전열을 가다듬었다.
- 3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필리스티아인들은 저쪽 산 위에, 이스라엘은 이쪽 산 위에 맞서고 있었다.
- 4 필리스티아인들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갓출신 투사가 하나 나왔다. 그는 키가 여섯

암마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 5 머리에 청동 투구를 쓰고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청동 오천 세켈이나 나갔다.
- 6 다리에는 청동으로 만든 정강이 가리개를 차고, 어깨에는 청동으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 7 그 창대는 베들 용두머리만큼 굵었고 창날은 쇠로 되어 있었는데, 무게가 육백 세켈이나 되었다. 골리앗은 방패병을 앞세우고
- 8 나서서 이스라엘 전선에 대고 소리쳤다. "너희는 어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고 있느냐? 나는 필리스티아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 가운데 하나를 뽑아 나에게 내려 보내라.
- 9 만일 그자가 나와 싸워서 나를 쳐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이겨서 그자를 쳐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한다."
- 10 그 필리스티아 사람이 다시 소리쳤다. "내가 오늘 너희 이스라엘 전열을 모욕하였으니, 나와 맞붙어 싸울 자를 하나 내보내라."
- 11 사울과 온 이스라엘군은 이 필리스티아 사람의 말을 듣고, 너무나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 이기다

- 12 다윗은 이사이라고 불리는, 유다 베들레헬 출신 에프랴 사람의 아들이다. 이사이에게는 아들이 여덟 있었는데, 사울이 다스리던 때에 그는 이미 나이 많은 노인이었다.
- 13 이사이의 큰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다. 싸움터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맏아들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머였다.
- 14 다윗은 막내였다. 세 형들은 사울을 따라갔고,

- 15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 사이를 오가며 아버지의 양 떼를 쳤다.
- 16 그 필리스티아 사람이 아침저녁으로 가까이 다가와 싸움을 걸어온 지 사십 일이나 되었다.
- 17 이사가 아들 다윗에게 일렀다. "네 형들에게 이 볏은 밀 한 에파와 빵 열 덩이를 가져다주어라. 진영으로 뛰어가서 네 형들에게 주어라.
- 18 이 치즈 열 덩이는 그곳 천인대장에게 갖다 드리고, 형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잘 있다는 표를 받아 오너라."
- 19 그 무렵 사울과 다윗의 형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는 엘라 골짜기에서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우고 있었다.
- 20 이튿날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 양 떼를 양치기에게 맡기고, 아버지 이사가 시킨 대로 짐을 들고 떠났다. 그가 진영에 다다랐을 때, 온 군대는 함성을 지르며 전선으로 나가고 있었다.
- 21 이스라엘과 필리스티아인들은 서로 전열을 지어 맞서고 있었다.
- 22 다윗은 가지고 온 짐을 짐 지키는 군사에게 맡기고, 전열로 달려가 형들에게 문안하였다.
- 23 다윗이 형들과 말을 나누고 있을 때, 필리스티아인들의 전열에서 골리앗이라는 갓 출신 필리스티아 투사가 올라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였다. 다윗도 그의 말을 들었다.
- 24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그 사람을 보자 너무나 무서워 도망을 쳤다.
- 25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였다. "자네들도 저기 올라오는 저자를 보았겠지.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네. 임금께서는 저자를 쳐 죽이는 사람에게 많은 재산뿐만 아니라 공주님도 주시고, 이스라엘 안에서 그의 집안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실 거야."
- 26 다윗이 옆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

- 저 필리스티아 사람을 쳐 죽여 이스라엘에서 치욕을 씻어 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준다고요? 할례도 받지 않은 저 필리스티아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신 하느님의 전열을 모욕한단 말입니까?"
- 27 군사들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어떤 상이 내릴지를 같은 말로 일러 주었다.
- 28 다윗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만형 엘리압이 듣고, 그에게 화를 내며 다그쳤다. "네가 어찌자고 여기 내려왔느냐? 광야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들은 누구한테 맡겼느냐? 내가 너의 교만과 못된 마음을 모를 줄 아느냐? 너는 싸움을 구경하러 온 것이 분명하다."
- 29 다윗은 "말 한마디 한 것뿐인데, 지금 내가 무엇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하고는,
- 30 형을 떠나 다른 사람에게 가서 같은 말로 물어보았다. 군사들은 앞서와 같은 말로 그에게 대답하였다.
- 31 다윗이 한 말이 퍼져 나가더니, 마침내 사람들은 사울 앞에서까지 그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불러들였다.
- 32 다윗은 사울에게, "아무도 저자 때문에 상심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필리스티아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 33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말했다. "너는 저 필리스티아 사람에게 마주 나가 싸우지 못한다. 저자는 어렸을 때부터 전사였지만, 너는 아직도 소년이 아니냐?"
- 34 그러나 다윗이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은 아버지의 양 떼를 쳐 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 무리에서 새끼 양 한 마리라도 물어 가면,
- 35 저는 그것을 뒤쫓아 가서 쳐 죽이고, 그 아가리에서 새끼 양을 빼내곤 하였습니다. 그

것이 저에게 덤벼들면 턱수염을 휘어잡고 내리쳐 죽었습니다.

36 임금님의 종인 저는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저 필리스티아 사람도 그런 짐승들 가운데 하나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전열을 모욕하였습니다."

37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빼내 주신 주님께서 저 필리스티아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빼내 주실 것입니다." 그제야 사울은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러면 가거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를 빈다."

38 사울은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힌 다음, 머리에는 청동 투구를 씌워 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혔다.

39 그리고 자기 칼을 다윗의 군복에 채워 주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무장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감지도 못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제가 이런 무장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이대로는 나설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들을 벗어 버렸다.

40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기의 막대기를 손에 들고, 개울가에서 매끄러운 돌멩이 다섯 개를 골라서 메고 있던 양치기 가방 주머니에 넣은 다음, 손에 무릿매 끈을 들고 그 필리스티아 사람에게 다가갔다.

41 필리스티아 사람도 방패병을 앞세우고 나서서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42 그런데 필리스티아 사람은 다윗을 보더니, 그가 불이 불그레하고 용모가 이름다운 소년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그를 업신여겼다.

43 필리스티아 사람이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오다니, 내가 개란 말이나?" 하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44 필리스티아 사람이 다시 다윗에게 말하였

다. "이리 와라. 내가 너의 몸을 하늘의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주겠다."

45 그러자 다윗이 필리스티아 사람에게 이렇게 맞대꾸하였다. "너는 칼과 표창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전열의 하느님이신 만군의 주님 이름으로 나왔다.

46 오늘 주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나아팔로 너를 쳐서 머리를 떨어뜨리고, 오늘 필리스티아인들 진영의 시체를 하늘의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주겠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 계시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게 하겠다.

47 또한 주님께서 칼이나 창 따위로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여기 모인 온 무리가 이제 알게 하겠다. 전쟁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48 필리스티아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도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향하여 전열 쪽으로 날치게 달려갔다.

49 그러면서 다윗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 하나를 꺼낸 다음, 무릿매질을 하여 필리스티아 사람의 이마를 맞혔다. 돌이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바닥에 얼굴을 박고 쓰러졌다.

50 이렇게 다윗은 무릿매 끈과 돌멩이 하나로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누르고 그를 죽였다. 다윗은 손에 칼도 들지 않고 그를 죽인 것이다.

51 다윗은 달려가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밟고 선 채, 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를 죽이고 목을 베었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저희 용사가 죽은 것을 보고 달아났다.

52 그러자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사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필리스티아인들을 갖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에크론 성문까지 뒤쫓아 갔다. 그리하여 사이리임에서 갓과 에

크론에 이르기까지 필리스티아인들은 칼에 맞아 쓰러져 갔다.

- 53 이스라엘 자손들은 필리스티아인들을 추격하다가 돌아와서 그들 진영을 약탈하였다.
- 54 다윗은 그 필리스티아 사람의 목은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으나, 그의 무기는 자기 천막에 두었다.

다윗이 사울 앞에 나아가다

- 55 사울은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보고 군대의 장수 아브네르에게, "아브네르, 저 젊은이는 누구의 아들이요?" 하고 물었다. 아브네르가 "임금님, 임금님의 목숨을 두고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56 임금은 다시 아브네르에게, "저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지 직접 알아보시오." 하고 명령하였다.
- 57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자, 아브네르가 그를 사울 앞에 데려갔다. 그의 손에는 필리스티아 사람의 머리가 들려 있었다.
- 58 사울이 그에게 "젊은이, 자네는 누구의 아들이냐?" 하고 묻자, 다윗이 "저는 베들레헬 사람, 임금님의 종 이사이의 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다윗과 요나단이 계약을 맺다

- 18 ¹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다 하고 나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그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되었다.
- 2 사울은 그날로 다윗을 붙잡아 두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 3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여 그와 계약을 맺었다.
- 4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겹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심지어 칼과 활과 허리

띠까지도 주었다.

- 5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출전하여 승리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그에게 군인들을 통솔하는 직책을 맡겼다. 그 일이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이 보기에도 좋았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다

- 6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쳐 죽이고 군대와 함께 돌아오자,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 손뼉을 치고 환성을 울리며, 약기에 맞추어 노래하고 춤추면서 사울 임금을 맞았다.
- 7 여인들은 흥겹게 노래를 주고받았다. "사울은 수천을 치시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 8 사울은 이 말에 몹시 화가 나고 속이 상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을 돌리니, 이제 왕권 말고는 더 돌아갈 것이 없겠구나." 9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다

- 10 이튿날 하느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사울에게 들이닥쳐 그가 집안에서 발작을 일으키자, 다윗이 여느 날처럼 비파를 탔다. 이때 마침 사울은 손에 창을 들고 있었다.
- 11 사울은 '다윗을 벽에 박아 버리겠다.'고 생각하면서 창을 던졌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앞에서 두 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 12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며 자기에게서 돌아서셨기 때문에 다윗을 두려워하였다.
- 13 사울은 그를 천인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에게서 떠나보냈다. 다윗은 군대 앞에서 출전하곤 하였다.
- 14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다.
- 15 사울은 다윗이 크게 승리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두려움을 느꼈다.

16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좋아하였다. 그들 앞에 서서 출전하는 이가 바로 그랬기 때문이다.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다

17 사울은 다윗에게 "자, 내 맏딸 메랍을 아내로 줄 터이니, 오로지 너는 나의 용사가 되어 주님의 전쟁을 치러 다오." 하고 말하였다. 사울은 '내 손으로 그를 치지 않고, 필리스티아인들 손으로 그를 처야겠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18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제가 누구이며, 이스라엘에서 제 아버지의 씨족이 무엇인가에, 감히 임금님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하며 사양하였다.

19 그런데 사울은 자기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한 때가 되자, 므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어 버렸다.

20 한편 사울의 다른 딸 미갈은 다윗을 사랑하고 있었다. 누군가 이를 사울에게 알리자, 사울은 그것을 잘된 일로 보고서

21 이런 궁리를 하였다. '그 애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어야겠다. 그래서 그 애를 미끼 삼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해야지.' 사울은 다윗에게 다시 말하였다. "오늘 내 사위가 되어 주게."

22 그러고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다윗에게 던지시, '당신은 임금님 마음에 드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신하들도 모두 당신을 사랑하니, 어서 그분의 사위가 되시지요.' 하고 귀땀해 주어라."

23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자, 다윗은 "나처럼 가난하고 찬한 몸으로 임금님의 사위가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쉬운 일로 보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24 신하들은 다윗이 한 말을 사울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25 사울이 다시 분부하였다. "다윗에게 가서 '임금님께서서는 혼인 예물로 필리스티아인들의 포피 백 개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임금님의 원수를 갚으십시오.' 하고 전하여라." 사울은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으로 그를 죽일 생각이었던 것이다.

26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였다. 다윗은 임금의 사위가 되는 것을 잘된 일로 보고서, 기간이 다 차기 전에

27 부하들을 이끌고 나갔다. 다윗은 임금의 사위가 되려고 필리스티아인들을 이백 명이 나 처 죽이고, 그 포피를 모두 거두어 임금에게 바쳤다. 그러자 사울도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내주었다.

28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고, 자기 딸 미갈마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아 알고서는,

29 다윗이 점점 더 두려워져서 평생 그와 원수가 되었다.

30 그 무렵 필리스티아인들의 제후들이 싸우러 나왔지만,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은 사울의 어느 신하보다도 큰 승리를 거두어, 아주 큰 명성을 얻었다.

요나탄이 다윗을 감싸 주다

19 ¹ 사울이 아들 요나탄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탄은 다윗을 무척 좋아하였기 때문에,

2 이를 다윗에게 알려 주었다. "나의 아버지 사울께서 자네를 죽이려고 하시니, 내일 아침에 조심하게. 피신처에 머무르면서 몸을 숨겨야 하네.

3 그러면 나는 자네가 숨어 있는 들판으로 나가, 아버지 곁에 서서 자네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겠네. 그러다가 무슨 김새라도 보이면 자네에게 알려 주지."

- 4 요나탄은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좋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 임금님의 신하 다윗에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임금님께 죄를 지은 적이 없고, 그가 한 일은 임금님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5 그는 목숨을 걸고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처 죽였고,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 주셨습니다. 임금님께서도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서는 공언히 다윗을 죽이시어,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 6 사울은 요나탄의 말을 듣고, "주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다윗을 결코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맹세하였다.
- 7 요나탄은 다윗을 불러 이 모든 일을 일러 주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들어가, 전처럼 그 앞에서 지내게 하였다.

다윗이 죽을 고비를 넘는다

- 8 다시 전쟁이 일어나자, 다윗은 싸움터에 나가서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웠다. 다윗이 필리스티아인들을 크게 무찌르니, 그 앞에서 그들이 도망쳤다.
- 9 주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사울에게 내려왔다. 그때 사울은 궁궐에서 창을 손에 들고 앉아 있었으며, 다윗은 비파를 타고 있었다.
- 10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다윗이 사울 앞에서 몸을 피하는 바람에 창이 벽에 꽂혔다. 다윗은 도망쳐 목숨을 건졌다. 그날 밤,
- 11 사울은 전령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며,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칼이 남편에게 "오늘 밤 당신의 목숨을 건지지 않으면, 내일은 죽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일러 주었다.
- 12 미칼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 보내니, 다윗

은 달이나 목숨을 건졌다.

- 13 미갈은 수호신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짠 망으로 머리를 씌운 다음 옷으로 덮어 놓았다.
- 14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냈을 때, 미갈은 "남편이 아파 누워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 15 사울은 다윗을 직접 확인하라고 다시 전령들을 보내면서 말하였다. "다윗을 침상째 들고 오너라. 내가 죽여 버리겠다."
- 16 전령들이 들어가 보니, 침상에는 염소 털로 짠 망으로 머리를 씌운 수호신이 누워 있었다.
- 17 사울이 미칼에게 "어찌자고 내가 나를 속여서, 내 원수를 빼내어 목숨을 건지게 하였느냐?" 하고 묻자, 미칼이 사울에게 "그가 저에게 '나를 빼내 주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다윗을 찾아 라미로 가다

- 18 다윗은 그렇게 달이나 목숨을 건진 다음, 라미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다윗과 사무엘은 나뉘어서 가서 거기에 머물렀다.
- 19 누군가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라미의 나뉘에 있습니다." 하고 일러 주었다.
- 20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냈다. 그들이 가서 보니, 한 무리의 예언자들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고 있었다. 그 순간 사울의 전령들에게도 하느님의 영이 내려 그들도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였다.
- 21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다른 전령들을 보냈으나, 그들도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였다. 그가 다시 세 번째로 전령들을 보냈지만 그들도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였다.

- 22 그래서 사울 자신이 라마를 향해 나섰다. 그가 세쿠에 있는 큰 저수 동굴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묻자, 어떤 이가 "그들은 라마의 나뭇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23 그래서 사울이 그곳 라마의 나뭇으로 가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 라마의 나뭇까지 걸어가는 동안 줄곧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였다.
- 24 그는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며, 그날 하루 밤낮을 알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인가?"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

다윗과 요나탄의 우정

- 20 ¹ 다윗이 라마의 나뭇에서 달아나 요나탄에게 가서 말하였다. "제가 무슨 짓을 했던 말입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까? 왕자님의 아버님께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분께서 이렇게 제 목숨을 노리신단 말입니까?"
- 2 요나탄은 다윗에게, "그럴 리가 있나? 자네가 죽는 일은 결코 없을 걸세. 아버지께서는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에게 알리지 않고는 하지지를 않는다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런 일을 왜 나에게 숨기시겠는가? 그럴 리가 없네." 하고 말하였다.
- 3 그러나 다윗은 맹세까지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왕자님의 아버님께서서는 왕자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 사실을 요나탄에게 알려 그를 슬프게 해서 안 되지.' 하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살아 계신 주님과 왕자님의 목숨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저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습니다."
- 4 요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원하
- 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 주겠네."
- 5 그러자 다윗이 요나탄에게 이렇게 부탁하였다. "내일이 초하룻날입니다. 제가 임금님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모래 저너머까지 들에 숨어 있도록 저를 내보내 주십시오.
- 6 만일 왕자님의 아버님께서 저를 찾으시거든, '온 씨족을 위한 주년 제사가 있으니 급히 고향 베들레헴에 가게 해 달라고 다윗이 저에게 간절히 청했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 7 그분께서 만일 '좋다!' 하시면 이 종이 무사하겠지만, 화를 내신다면 그분께서 저를 해치기로 작정하신 줄 아십시오.
- 8 왕자님은 주님 앞에서 이 종과 계약을 맺으셨으니, 의리를 지켜 주십시오. 그렇지만 저에게 잘못이 있다면 차라리 왕자님이 저를 죽여 주십시오. 저를 왕자님의 아버님에게까지 데려갈 까닭은 없지 않습니까?"
- 9 요나탄이 대답하였다. "자네에게 그런 일은 없을 걸세! 만일 아버지께서 자네를 해치기로 작정하신 줄 내가 알게 되지만 하면, 어찌 자네에게 알려 주지 않겠는가?"
- 10 그러자 다윗이 요나탄에게 물었다. "왕자님의 아버님께서 거칠게 대답하실 경우, 누가 저에게 그것을 알려 주겠습니까?"
- 11 요나탄이 다윗에게 "자, 들로 나가세." 하고는, 둘이서 들로 나갔다.
- 12 요나탄은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네. 내일이나 모래 이맘때 아버지를 살피보아, 그분께서 자네 다윗을 좋게 보시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자네에게 그것을 꼭 알려 주겠네.
- 13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자네를 해치려고 하시는데도, 내가 자네에게 알려 주지 않아서 자네를 무사히 떠나가게 해 주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이 요나탄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좋네. 주님께서 아버지

- 와 함께 계셨듯이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 14 그 대신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바라시는 의리를 지켜 주게.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 15 또한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땅 위에서 없애 버리실 때에도, 내 집안과 의리를 영원히 끊지 말아 주게."
- 16 그리고 나서 요나단은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복수해 주시기를 비네." 하면서 다윗 집안과 계약을 맺었다.
- 17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사랑으로 다윗에게 다 시 맹세하게 하였다.
- 18 요나단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일은 초하룻날이니, 자네 자리가 비면 아버지께서 자네를 찾으실 걸세.
- 19 모레가 되면 더 멀리 내려가, 저번 일이 있었을 때 숨었던 곳으로 가서 그 비위 옆에 머물러 있게.
- 20 내가 과녁을 맞추는 척하고 그 옆으로 화살 세 개를 쏘겠네.
- 21 그러고는 시종을 시켜 '가서 화살을 찾아오너라.' 하면서, 그 시종에게 '화살이 네 쪽에 있다. 집어라.' 하면, 주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아무 일 없을 터이니 안심하고 나오게.
- 22 그러나 내가 그 중에게 '화살이 더 멀리 있다.' 하면, 주님께서 자네를 보내시는 것이니 떠나가게.
- 23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 언제까지나 증인이 되실 것이네."
- 24 그리하여 다윗은 들에 숨게 되었다. 초하룻날이 되자 임금이 음식을 먹으려고 자리에 앉았다.
- 25 임금은 어느 때처럼 벽 쪽에 있는 자기 자리에 앉았다. 그때 요나단이 일어섰다. 사울 옆에는 아브네프가 앉았는데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 26 그런데도 사울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다윗에게 무슨 일이 생겨 부정하게 되었나 보군. 부정하게 된 것이 틀림없어.' 하고 생각하였다.
- 27 그러나 두 번째 날, 곧 초하루 다음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사울은 아들 요나탄에게, "어찌하여 이사이의 아들이 어제도 오늘도 식사하러 나오지 않느냐?" 하고 물었다.
- 28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이 베들레헴에 다녀오게 해 달라고 저에게 간청하면서,
- 29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보내 주십시오. 저희 씨족이 성읍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형님이 다녀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제가 왕자님 마음에 드신다면, 조용히 가서 형들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임금님의 식탁에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 30 사울이 요나탄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이 더럽고 뉘플 계집의 자식 놈아! 내가 이사이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그것이 바로 너의 망신이고 벌거벗은 네 어미의 망신이다.
- 31 이사이의 아들놈이 이 땅에 살아 있는 한, 너도 네 나라도 안전하지 못하다. 그자는 죽어 마땅하니, 당장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아들여라."
- 32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말하였다. "왜 그가 죽음을 당해야 합니까? 그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 33 그러자 사울은 요나탄을 죽이려고 그에게 창을 던졌다. 그래서 요나탄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였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 34 요나탄은 화가 치밀어 식탁에서 일어났다. 그날 초이튿날,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

다. 아버지가 다윗을 욕하였으므로 다윗을 두고 슬퍼하였던 것이다.

- 35 이튿날 아침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대로 어린 시종 하나를 데리고 들로 나갔다.
- 36 그리고 시종에게 "내가 활을 쏘 테니 뛰어가 화살을 찾아오너라." 하고 분부한 다음, 시종이 뛰어가자 그 너머로 활을 쏘았다.
- 37 요나단은 자기가 쏜 화살이 떨어진 곳에 시종이 다다랐을 때, 그 뒤에다 대고 소리쳤다. "화살은 더 멀리 있지 않느냐?"
- 38 그러고 나서 요나단이 다시 시종 뒤에다 대고, "머뭇거리지 말고 서둘러라." 하고 소리쳤다. 요나단의 시종은 화살을 집어 가지고 주인에게 가면서,
- 39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몰랐다. 그러나 요나단과 다윗은 그 까닭을 알고 있었다.
- 40 요나단은 데리고 온 시종에게 자기의 무기를 주면서, "성읍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라." 하고 분부하였다.
- 41 시종이 떠나자, 다윗은 바위 앞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세 번 절하였다. 그들은 서로 얼싸안고 울었는데 다윗이 더 크게 울었다.
- 42 그러고 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평안히 가게. 우리 둘은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 내 후손과 자네 후손 사이에 언제까지나 증인이 되실 것이네.'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는가!"

다윗이 늙은 사제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다

- 21** 1 다윗은 일어나 떠나가고 요나단은 성읍 안으로 들어갔다.
- 2 다윗은 늙은 아히멜렉 사제를 찾아갔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맞았다. 그가 다윗에게 "어떻게 아무도 없이 혼자 오십니까?" 하고 묻자,
- 3 다윗이 아히멜렉 사제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면서, '내

가 너에게 맡겨 보내는 이 일을 아무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부하들과 이곳 어느 지점에서 만나기로 약속해 놓은 것입니다.

- 4 그런데 지금 사제님 수중에 무엇이 좀 없습니까? 빵 다섯 덩이라도 좋습니다. 아니면 아무것이나 있는 대로 저에게 주십시오."
- 5 사제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보통 빵은 내 수중에 없고, 있는 것이라고는 거룩한 빵뿐입니다. 부하들이 여자를 가까이하지 않았다면 드릴 수 있습니다."
- 6 다윗이 사제에게 응답하였다. "내가 출정할 때 늘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여자를 멀리하였습니다. 그러니 부하들의 몸도 깨끗합니다. 이번 경우가 보통 여행길이라는 하지만, 오늘은 그들 몸이 깨끗합니다."
- 7 그제야 사제는 거룩한 빵을 다윗에게 주었다. 주님 앞에 바친 제사 빵 말고는 다른 빵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침 그날 주님 앞에서 물려 내고 파근한 빵으로 바꾸면서 치위 놓은 것이었다.
- 8 그런데 그날 거기에는 사울의 신하 하나가 주님 앞에 부득이 머물러 있어야 했다. 그는 애دم 사람으로 이름은 도엑이었는데, 사울의 목자들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 9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물었다. "지금 혹시 사제님께 창이나 칼이 없으신지요? 임금님께서 맡기신 일이 너무 급해서 칼은 물론 다른 무기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 10 사제가 대답하였다. "장군께서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필리스티아 사람 골리앗의 칼이 있습니다. 보자기에 싸서 애푼 뒤에 두었는데 그것이라도 가지려면 가지십시오. 이곳에 그것 말고 다른 무기라고는 없습니다." 다윗이 말하였다. "그만 한 것이 어디 또 있었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다윗이 필리스티아로 망명하다

- 11 다윗은 일어나, 그날로 사울에게서 달아나
 갓 임금 아키스에게 갔다.
- 12 아키스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 나라 임금 다윗이 아닙니까? 그
 를 두고 사람들이 춤추며 이렇게들 노래하
 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수천을 치셨고 다
 윷은 수만을 치셨다네.'"
- 13 이 말을 듣고 다윗은 가슴이 뜨끔하였다.
 그는 갓 임금 아키스가 몹시 두려워,
 14 사람들 앞에서 태도를 바꾸고 그들에게 들
 러싸여 있는 동안 미친 척하였다. 그는 성
 문쪽에 무엇인가를 급적거리기도 하고, 수
 염에 침을 흘리기도 하였다.
- 15 그러자 아키스가 신하들을 꾸짖었다. "미친
 놈이 아니냐! 어찌자고 저런 자를 나에게
 끌어 왔느냐?"
- 16 나에게 미친 놈들이 모자라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
 냐? 그래 이런 자까지 내 집에 들어 와야
 하겠느냐?"

다윗이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다

- 22 ¹ 다윗은 그곳을 떠나 아들람의 굴 속
 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집안 전체가 이 소식을 듣고
 그리로 내려갔다.
- 2 또한 곤경에 빠진 아들, 빗진 아들, 그 밖에
 불만에 찬 사람들이 모두 다윗에게 모여들
 었다.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 수는 사백 명가량 되었다.
- 3 거기에서 다윗은 모압의 미즈파로 가, 모압
 임금에게 청하였다. "하느님께서 저를 어떻
 게 하실지 알게 될 때까지, 저의 부모님이
 임금님과 함께 머무르게 해 주십시오."
- 4 이렇게 다윗은 모압 임금에게 그들을 맡겨,
 자신이 산성에 있는 동안 줄곧 그 임금 곁
 에 머물러 있게 하였다.
- 5 그런데 가드 예언자가 다윗에게 알렸다. "이

산성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어서 유다
 지방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 헤벳 숲으로 들어갔다.

사울이 놈의 사제들을 학살하다

- 6 사울이 다윗과 그 부하들이 나타났다는 소
 식을 들었다. 그때 사울은 기브아의 높은
 지대에 있는 에셀 나무 아래에서 손에 창을
 들고 앉아 있었는데, 모든 신하가 그 주변
 에 둘러서 있었다.
- 7 사울은 자기 주변에 둘러서 있는 신하들을
 꾸짖었다. "이 벤아민 사람들아, 잘 들어라.
 이사이의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
 원을 주고, 너희를 모두 천인대장이나 백인
 대장으로 삼을 줄 아느냐?"
- 8 그래서 너희가 모두 나를 거슬러 음모를 꾸
 민 것이냐? 내 아들이 이사이의 아들과 계
 약을 맺었을 때도, 나에게 알려 준 자가 아
 무도 없었다. 또 내 아들이 오늘 이처럼 내
 신하를 부추겨서 나를 차려고 노리는데도,
 너희 가운데에는 나를 염려하여 알려 주는
 자가 아무도 없다."
- 9 그때 에돔 사람 도역이 사울의 신하들 곁에
 서 있다가 이렇게 응답하였다. "제가 이사
 이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놈으로 아히
 톱의 아들 아히멜렉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
 다.
- 10 그때 아히멜렉은 그를 위하여 주님께 여주
 어 본 다음, 그에게 여행 양식을 주고 필리
 스티아 사람 골리앗의 칼도 내주었습니다."
- 11 임금은 놈에 있는 아히톱의 아들 아히멜렉
 사제와 그 아버지 집안의 사제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그들이 모두 임금 앞에 나오
 자,
- 12 사울이 "아히톱의 아들이아, 잘 들어라." 하
 고 말하였다. 아히멜렉이 "예, 임금님! 말
 씬하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 13 사울이 그를 꾸짖었다. "너는 어찌하여 이

사이의 아들과 더불어 나를 거슬러 음모를 꾸몄느냐? 어찌하여 그에게 음식과 칼을 내주고, 그를 위하여 하느님께 여쭙어 보아, 오늘 이처럼 나에게 맞서 일어나 나를 노리게 하였느냐?"

14 아히멜렉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신하들 가운데 다윗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임금님의 사위이자 경호대장이며, 궁궐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아닙니까?"

15 그리고 그를 위하여 하느님께 여쭙어 보는 일을 제가 오늘에 와서야 시작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서는 이 일의 책임을 이 종이나 이 종의 아버지 집안 전체에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은 작건 크건 이 모든 일에 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16 그러나 임금은 "너 아히멜렉과 네 아버지의 온 집안은 죽어 마땅하다." 하고 말하였다.

17 임금은 자기 주변에 둘러선 호위병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돌아서서 주님의 이 사제들을 죽여라. 그들은 다윗과 손을 잡고, 그가 달아난 것을 알면서도 나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그러나 임금의 신하들은 감히 손을 들어 주님의 사제들을 치려고 하지 않았다.

18 임금이 도엑에게 "네가 돌아서서 이 사제들을 쳐라." 하고 명령하자, 에돔 사람 도엑은 돌아서서 그 사제들을 쳤다. 그날 그는 아마포 에פק을 걸친 사람 여든다섯 명을 죽였다.

19 사울은 그 사제들이 살던 성읍 주민들도 칼로 쳐 죽였다.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젖먹이, 소와 나귀와 양들까지 모두 칼로 쳐 죽였다.

20 그런데 아히톱의 손자이며 아히멜렉의 아들인 한 사람이 목숨을 건져 다윗에게 달아났다. 그의 이름은 에브야타르였다.

21 에브야타르는 다윗에게 사울이 주님의 사제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22 다윗이 에브야타르에게 말하였다. "그 에돔 사람 도엑이 그날 거기에 있었는데, 그가 틀림없이 사울에게 보고하리라 짐작하였소. 당신 아버지 집안이 모두 목숨을 잃은 것은 바로 내 탓으로 돌려야 하오.

23 무서워하지 말고 여기에서 나와 함께 있도록 합시다. 사실 당신 목숨을 노리는 자는 바로 내 목숨을 노리는 것이니,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오."

다윗이 크일라를 구하다

23 ¹ 다윗은 필리스티아인들이 크일라에 싸움을 걸어 타작마당을 약탈해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2 그가 주님께 "제가 가서 저 필리스티아인들을 칠까요?" 하고 여쭙어 보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가서 필리스티아인들을 치고 크일라를 구해 주라." 하고 이르셨다.

3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크일라로 가서 필리스티아인들의 군대에 맞서라는 말씀입니까?"

4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다시 한 번 여쭙어 보자,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어서 크일라로 내려가거라. 내가 필리스티아인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5 그리하여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크일라로 가서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웠다. 다윗은 가족들을 몰아낸 다음, 필리스티아인들을 크게 무찌르고 크일라 주민들을 구하였다.

6 아히멜렉의 아들 에브야타르가 크일라에 있는 다윗에게 도망쳐 올 때, 그는 에פק을 손에 들고 내려왔다.

7 한편 사울은 다윗이 크일라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그자를 내 손에 넘겨주셨구나. 성문과 빗장

- 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스스로 갠헨 풀이 되었군."
- 8 사울은 크일라로 내려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려고, 모든 군대를 소집하였다.
- 9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치려고 준비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에브야타르 사제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였다.
- 10 다윗이 주님께 여쭙어 보았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의 종인 저는 사울이 크일라로 와서 저 때문에 이 성읍을 파괴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 11 크일라 주민들이 저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당신 종이 들은 바대로 사울이 내려 오겠습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 종에게 제발 알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가 내려올 것이다." 하고 대답하시자,
- 12 다윗이 다시 여쭙었다. "크일라 주민들이 저와 부하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 13 그래서 다윗은 곧 부하 육백 명가량을 이끌고 크일라에서 나와, 밭길 닿는 대로 떠돌아다녔다. 다윗이 크일라에서 빠져나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울은 출동하려다가 그만두었다.
- 14 다윗은 광야의 산성에서 살았다. 다윗이 지프 광야의 산속에 살고 있는 동안 사울은 날마다 그를 찾아다녔지만, 하느님께서서는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
- 15 지프 광야 호레스에 있을 때, 다윗은 사울이 자기 목숨을 노리고 출동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16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탄은 다윗을 찾아 호레스까지 와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를 격려해 주었다.
- 17 "두려워하지 말게. 나의 아버지 사울의 손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네. 결국은 자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고,

나는 자네 다음 자리에 있게 될 것일세. 아버지도 그걸 아신다네."

- 18 들은 주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 그런 다음 다윗은 호레스에 남고, 요나탄은 자기 집으로 갔다.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벗어난다

- 19 지프인들 몇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다윗은 지금 우리 가운데에 숨어 있습니다. 여시몬 남쪽, 하킬라 산 위 호레스 산성에 있습니다.
- 20 그러니 임금님께서서 마음이 내키시는 대로 언제든지 내려오십시오. 우리 쪽에서는 임금님께 그를 넘겨 드리겠습니다."
- 21 그러자 사울이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그토록 동정해 주니 주님께 복을 받기 바란다.
- 22 이제 가서 철저히 준비하여라. 내가 듣기에 그는 아주 피가 많다고 하니, 그가 어디로 가는지, 누가 그를 보았는지 잘 알아보아라.
- 23 숨을 만한 은신처는 모두 살펴 알아본 다음,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나에게 돌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가 이 지방에 있거만 하면, 유다의 모든 씨족 가운데에서 그를 찾아내고야 말겠다."
- 24 그들은 일어나 사울보다 앞서 지프로 갔다. 그때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여시몬 남쪽 아라바에 있는 마온 광야에 있었다.
- 25 사울도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 나섰다. 누군가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자, 그는 '바위'로 내려가 마온 광야에 머물렀다.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뒤쫓아 마온 광야에 들어섰다.
- 26 사울이 산 이쪽에서 쫓아가자, 다윗은 부하들과 산 저쪽에 있다가 사울을 피하여 급히 도망쳤다.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과

그 부하들을 잡으려고 포위하기 시작하였다.

27 그때 전령 하나가 사울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빨리 돌아가십시오. 필리스티아인들이 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28 사울은 다윗을 뒤쫓다 말고 필리스티아인들을 치러 돌아갔다. 그리하여 그곳을 '갈림 바위'라 하였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 주다

24 ¹ 다윗은 그곳에서 올라가 엔 게디 산성에 머물렀다.

2 사울이 필리스티아인들을 쫓아내고 돌아왔을 때, 누군가 사울에게 다윗이 엔 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

3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거러 뽑은 삼천 명을 이끌고, 다윗과 그 부하들을 찾아 '들염소 바위' 쪽으로 갔다.

4 그는 길 옆으로 양 우리들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사울은 거기에 들어가서 뒤를 보았다. 그때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굴속 깊숙한 곳에 앉아 있었다.

5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가 너의 원수를 네 손에 넘겨줄 터이니, 네 마음대로 하여라.' 하신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다윗은 일어나 사울의 겹옷 자락을 몰래 잘랐다.

6 그리고 나자, 다윗은 사울의 겹옷 자락을 자른 탓에 마음이 찢렸다.

7 다윗이 부하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의 기름부음받은이인 나의 주군에게 손을 대는 그런 짓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어쨌든 그분은 주님의 기름부음받은이가 아니시나?"

8 다윗은 이런 말로 부하들을 꾸짖으며 사울을 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사울은 굴에서 나와 제 길을 갔다.

9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와 사울 뒤에다 대고,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하고 불렀다. 사울이 돌아다보자, 다윗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다.

10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다윗이 임금님을 해치려 합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끝이 들으십니까?"

11 바로 오늘 임금님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는 동굴에서 임금님을 제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임금님을 죽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그분은 주님의 기름부음받은이니 나의 주군에게 결코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임금님의 목숨을 살려 드렸습니다.

12 아버지, 잘 보십시오. 여기 제 손에 아버님의 겹옷 자락이 있습니다. 저는 겹옷 자락만 자르고 임금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임금님을 해치거나 배반할 뜻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살피 주십시오. 제가 임금님께 죄짓지 않았는데도, 임금님께서는 제 목숨을 빼앗으려고 찾아다니십니다.

13 주님께서 저와 임금님 사이를 판가름하시어, 제가 임금님께 당하는 이 억울함을 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제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14 '악인들에게서 악이 나온다.'는 옛 사람들의 속담도 있으니, 제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15 이스라엘의 임금님께서 누구 뒤를 쫓아 이렇게 나오셨단 말씀입니까? 임금님께서는 누구 뒤를 쫓아다니십니까? 죽은 개 한 마리입니까, 아니면 벼룩 한 마리입니까?

16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시어 저와 임금님 사이를 판가름하셨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송사를 살피시고 판결하시어, 저를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 주시길 바랍니다."

- 17 다윗이 사울에게 이런 사연들을 다 말하고 나자, 사울은 "내 아들 다윗아, 이게 정말 네 목소리냐?" 하면서 소리 높여 울었다.
- 18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네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너를 나쁘게 대하였는데도, 너는 나를 좋게 대하였으니 말이다.
- 19 주님께서 나를 네 손에 넘겨주셨는데도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으니, 내가 얼마나 나에게 잘해 주었는지 오늘 보여 준 것이다.
- 20 누가 자기 원수를 찾아 놓고 무사히 제 갈 길로 돌려보내겠느냐? 내가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을 해 준 것을 주님께서 너에게 후하게 갚아 주시기를 바란다.
- 21 이제야 나는 너야말로 반드시 임금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왕국은 너의 손에서 일어설 것이다.
- 22 그러니 이제 내 후손을 내 뒤에서 끊어 버리지 않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집안에서 지워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맹세해 다오."
- 23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맹세하였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궁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 부하들은 자기들의 산성으로 올라갔다.

사무엘의 죽음

- 25 ¹ 사무엘이 죽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모여들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라마에 있는 그의 집에 그를 묻었다. 그 뒤 다윗은 파란 광야로 내려갔다.

다윗과 아비가일

- 2 마온이라는 곳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는 카르멜에 목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양이 삼천 마리, 염소가 천 마리나 되는 큰 부자였다. 마침 그는 카르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 3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고,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그 여인은 슬기롭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남편은 거칠고 행실이 악하였다. 그 남자는 칼렘족이었다.

- 4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말을 광야에서 듣고,
- 5 젊은이 열 명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일렸다. "카르멜로 올라가 나발을 찾아가서 내 이름으로 안부를 묻고,
- 6 이렇게 내 말을 전하여라. '안녕하십니까? 맥도 평안하시고, 맥의 집안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맥의 모든 소유도 아무 탈이 없기를 바랍니다.
- 7 맥이 지금 양털을 깎는다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맥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카르멜에 있는 동안 내내 그들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까.
- 8 맥의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알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날 우리가 찾아왔으니 이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아 주시어, 부디 맥의 종들과 맥의 아들 다윗에게 무엇인든지 손에 닿는 대로 집어서 보내 주십시오."
- 9 다윗의 젊은이들이 도착하여, 나발에게 다윗의 이름으로 이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잠자코 가다렸다.
- 10 그러자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 누구며 이사이의 아들이 누구냐? 요즈음은 주인에게서 뛰쳐나온 종들이 득실거리는 판이다.
- 11 그러니 내가 어찌 빵과 물, 그리고 털을 깎는 내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 12 다윗의 젊은이들은 왔던 길로 발길을 돌려 다윗에게 돌아가, 이 모든 일을 그대로 전하였다.
- 13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모두 허리에 칼

- 을 차라." 하고 이르자, 모두 허리에 칼을 찼다. 다윗 자신도 허리에 칼을 찼다. 이리 하여 부하 사백 명기량은 다윗을 따라 올라가고, 이백 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켰다.
- 14 일꾼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사실을 알려 주었다. "다윗이 광야에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우리 주안게 축복의 문안을 드렸는데, 주인께서 그들에게 호통만 치셨습니다.
- 15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주 잘 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들에서 지내며 그들과 함께 돌아다니는 동안 내내, 우리는 아무런 괴로움도 당하지 않고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 16 그들은 우리가 양을 치면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내내, 밤낮으로 우리에게 성벽이 되어 주었습니다.
- 17 주인님과 주인님 집안에 돌이킬 수 없는 화가 닥치고 있으니, 마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할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님은 성미가 고약한 분이시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 18 아비가일은 빵 이백 덩이, 술 두 부대, 요리한 양 다섯 마리, 볶은 밀 다섯 스아, 건포도 백 뭉치, 말린 무화과 과자 이백 개를 서둘러 마련하여 여러 나귀에 실었다.
- 19 그리고 자기 일꾼들에게, "뒤따라갈 테니 나보다 먼저 가거라." 하고 일렀다. 그러나 남편 나발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 20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굽이를 돌아 내려가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도 그 여자 맞은쪽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아비가일은 다윗 일행과 마주치게 되었다.
- 21 다윗이 말하였다. "내가 광야에서 나발에게 속한 것을 모두 지켜 주어, 그에게 속한 것 가운데 아무것도 잃지 않게 해 주었지만 헛일이었다. 그는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 22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 가운데 벽에 오줌을 누는 자 하나라도 남겨 둔다면, 하느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좋다."
- 23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 나귀에서 얼른 내려와 다윗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다.
- 24 그러고 나서 다윗의 말 앞에 엎드린 채에 원하였다. "나리, 죄는 바로 저에게 있습니다. 당신 여종이 나리께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디 당신 여종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 25 나리께서는 나발이라는 고약한 사람에게는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그는 나발이라는 이름 그대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당신 여종은 나리가 보내신 젊은이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 26 나리, 살아 계신 주님과 나리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리께서 사람의 피를 흘리시고 손수 복수하시는 일을 막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리의 원수들과 나리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은 나팔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 27 여기 당신 여종이 나리께 가져온 이 선물은 나리의 뒤를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 28 당신 여종의 잘못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나리께서는 주님의 전쟁을 치르고 계시니, 주님께서 정녕 나리께 튼튼한 집안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나리께서는 한평생 어떤 재난도 겪지 않으실 것입니다.
- 29 나리를 쫓아다니며 나리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주 나리의 하느님 앞에서 나리 목숨은 생명의 보자기에 감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나리 원수들의 목숨을 팻말처럼 뿔개치실 것입니다.
- 30 이제 주님께서 나리께 약속하신 복을 그대로

- 로 이루어 주시어 나라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실 터인데,
- 31 지금 정당한 이유 없이 피를 흘리며 몸소 복수하시다가, 나라께서 후회하시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으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라께 복을 내려 주실 때, 당신 여종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 32 다윗이 아비기일에게 말하였다. "오늘 그대를 보내시어 이렇게 만나게 해 주셨으니,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미할 뿐이오."
- 33 오늘 내가 사람의 피를 흘리고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하는 일을 그대가 막아 주었으니, 그대와 그대 분별력에 축복을 드리오."
- 34 그대를 해치지 않도록 나를 막아 주신, 살아 계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고 분명히 맹세하지만, 그대가 급히 와서 나를 만나지 않았던들, 나팔에게는 내일 아침이 밝을 때까지 벽에 오줌을 누는 자 하나도 남지 못할 뻔했소."
- 35 다윗은 여자가 가져온 것을 그 손에서 받으며 말하였다. "이보시오, 내가 그대의 말에 귀 기울여 그대의 청을 들어주었으니,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시오."
- 36 아비기일이 나팔에게 돌아와 보니, 나팔은 집에서 임금이나 차릴 만한 잔치를 벌여 놓고, 흥에 겨워 취할 대로 취해 있었다. 아비기일은 아침이 밝아 올 때까지 크건 작건 그 일에 대해 알려 주지 않았다."
- 37 아침에 나팔이 술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아내가 나팔에게 그동안의 일을 알려 주었다. 그러자 나팔은 심장이 멎으면서 돌처럼 굳어 버렸다."
- 38 열흘쯤 지나서 주님께서 나팔을 치시니, 그가 죽었다."
- 39 나팔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주님께서는 내가 나팔에게서 받은 모욕을 갚아 주시고, 당신 종이 악을 저지르

- 지 못하도록 막아 주셨다. 게다가 주님께서는 나팔이 자기의 악을 되받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아비기일을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 뜻을 전하였다.
- 40 다윗의 부하들이 카르멜에 있는 아비기일을 찾아 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 어르신께서 부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 41 아비기일은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한 다음, "이 좋은 나리 부하들의 발을 씻어 주는 계집종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 42 아비기일은 서둘러 일어나 나가에 올랐다. 그의 여종 다섯도 함께 따라나섰다. 이렇게 아비기일은 다윗의 심부름꾼들을 따라 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 43 다윗은 이미 이즈르엘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에, 두 아내를 거느리게 되었다.
- 44 사울은 다윗의 아내인 자기 딸 미갈을 갈림 출신 라이스의 아들 팔티에게 주었다.

다윗이 사울을 다시 살려 주다

- 26 ¹ 지프 사람들이 기브야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말하였다. "다윗이 여시몬 맞은쪽 하킬라 언덕에 숨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 2 사울은 곧 이스라엘에서 뽑은 부하 삼천 명을 거느리고 지프 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아 그곳으로 내려가,
- 3 여시몬 맞은쪽 하킬라 언덕 길가에 진을 쳤다. 다윗은 광야에서 지내고 있다가, 사울이 자기 뒤를 쫓아 광야로 온 것을 알게 되었다.
- 4 다윗은 정찰대를 보내어 사울이 분명히 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다음,
- 5 일어나 사울이 진을 친 곳으로 갔다. 그는 사울과, 네르의 아들인 군대의 장수 아브넨

르가 자고 있는 곳을 보아 두었다. 사울은 진지 한가운데에서 자고, 그의 주변에는 군사들이 야영하고 있었다.

6 다윗은 헛 사람 아히멜렉과, 요압의 동기며 츠루아의 아들인 아비사이에게,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가겠느냐?" 하고 물었다. "제가 장군님을 따라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아비사이가 대답하였다.

7 다윗은 아비사이를 데리고 밤을 타서 군대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때 사울은 진지 안에서 머리맡 땅바닥에 창을 꽂아 놓고 잠들어 있었다. 아브네르와 그의 군사들도 사울을 둘러싸고 잠들어 있었다.

8 아비사이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오늘 원수를 장군님 손에 넘기셨으니, 이 창으로 그를 단번에 땅에 박아 놓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9 그러나 다윗이 아비사이를 타일렀다. "그분을 해쳐서는 안 된다. 누가 감히 주님의 기름부음받은이에게 손을 대고도 벌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10 다윗은 다시 말을 이었다. "살아 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주님께서 그분을 치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때가 되어서 돌아가지거나 싸움터에 내려가 사라질 것이다."

11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의 기름부음받은이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가자."

12 다윗은 사울의 머리맡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다. 주님께서 그들 위에 깊은 잠을 쏟으시어 그들이 모두 잠들었기 때문에, 다윗은 본 사람도 알아채거나 잠을 깬 사람도 없었다.

13 다윗은 맞은쪽으로 건너가 상대와 거리를 멀리 두고 산꼭대기에 서서,

14 군대를 향하여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에게

소리쳤다. "아브네르야, 대답하지 못하겠느냐?" 아브네르가 "임금님을 부르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며 대꾸하자,

15 다윗이 아브네르를 꾸짖었다. "너는 대장부가 아니냐? 이스라엘에 만난 한 자가 또 어디 있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이쪽 군사 하나가 너의 주군이신 임금님을 해치려고 들어갔는데도, 너의 주군이신 임금님을 지켜 드리지 못하였느냐?"

16 너는 이번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살아 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는 주님의 기름부음받은이인 너희 주군을 지켜 드리지 못하였으니 죽어 마땅하다. 그분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는지 당장 찾아보아라."

17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물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다윗은 "제 목소리입니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하고 대답하였다.

18 그가 다시 말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군께서는 이 종을 뒤쫓으십니까? 제가 무슨 짓을 했던 말입니까? 제 손으로 지은 죄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19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는 이제 이 종의 말을 들어 주십시오. 만일 주님께서 임금님을 부추기시어 저를 치시려는 것이라면, 저는 기꺼이 그분께 바치는 예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그렇게 하였다면, 그들은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주님의 상속 재산을 더 이상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라.' 하면서, 그들이 오늘 저를 쫓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 그러나 이제 제가 주님 앞에서 멀리 떨어져진 채, 땅에 피를 흘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임금님께서 정령 산에 있는 자고새를 뒤쫓듯이, 벼룩 한 마리를 찾아 나서셨으니 말입니다."

- 21 그러자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네가 오늘 내 목숨을 소중하게 보아 주었으니,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내가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하여 매우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 22 다윗이 응답하였다. "여기 임금님의 창이 있습니다. 짧은이 하나가 건너와 가져가게 하십시오."
- 23 주님은 누구에게나 그 의로움과 진실을 되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임금을 제 손에 넘겨주셨지만, 저는 주님의 기쁨부음받은이에게 손을 대려 하지 않습니다.
- 24 이렇게 제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귀중하게 보아 드렸으니, 주님께서도 제 목숨을 귀중하게 보아 주시어 온갖 제양에서 건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 25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 다윗아, 복을 받아라. 너는 하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다윗은 자기 갈 길을 가고, 사울도 제자리로 돌아갔다.

다윗이 다시 필리스티인로 명명하다

- 27 ¹ 다윗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내가 이리다가 인젠가는 사울의 손에 망할 것이다. 그러나 필리스티인들의 땅으로 가 목숨을 건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사울은 나를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만 찾다가 마침내 단념하고 말겠지. 그러면 나는 그 손에서 목숨을 건지게 될 것이다.'
- 2 다윗은 일어나 자기를 따르는 부하 육백 명과 함께 갓 임금, 마옥의 아들 아키스에게 넘어갔다.
- 3 이렇게 하여 다윗과 그 부하들은 저마다 가족을 데리고, 갓에 있는 아키스와 더불어 살

게 되었다. 다윗이 거느리고 간 두 아내는 이즈르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카르멜 여자 아비가일이었다.

- 4 사울은 다윗이 갓으로 달아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다시는 그를 찾지 않았다.
- 5 다윗이 아키스에게 청하였다. "제가 임금님 눈에 드신다면, 지방 성읍들 가운데 한 곳을 저에게 주시어 거기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제가 어찌 왕도에서 임금님과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 6 아키스는 그날로 치클락을 다윗에게 주었다. 그리하여 치클락이 오늘날까지 유다 임금들의 처지가 된 것이다.
- 7 다윗이 필리스티아인들의 지방에서 산 기간은 일 년 사 개월이었다.
- 8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올라가 그수르족과 게레즈족과 아말렉족을 공격하였다. 그들은 텔람에서 수르를 거쳐 이집트 땅에 이르는 지역의 주민들이었다.
- 9 다윗이 그 지역을 칠 때는 남자든 여자든 아무도 살려 두지 않았다. 그런 다음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가지들을 빼앗아 아키스에게 돌아오곤 하였다.
- 10 아키스가 "오늘은 누구를 털었소?" 하고 물으면, 다윗은 "유다의 네겔입니다." 하거나 "여라흐므엘족의 네겔입니다." 또는 "카인족의 네겔입니다." 하고 대답하곤 하였다.
- 11 다윗은 "저들이 우리를 두고 '다윗이 이러저러한 일을 하였다.'고 말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며, 남자든 여자든 모두 죽이고 아무도 갓으로 데려오지 않았다. 다윗은 필리스티아인들의 지방에 머물러 있는 동안 내내 이렇게 하였다.
- 12 그러나 아키스는 "다윗이 제 백성 이스라엘에게 마음을 사서 이제는 영영 내 종이 되겠구나." 하며 다윗을 믿었다.

사울이 잠쟁이를 찾아가다

- 28** ¹ 그 무렵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전투에 필요한 부대를 소집하였다. 아키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와 함께 출전하게 될 터이니 그리 아시오."
- ² 다윗이 아키스에게 대답하였다. "알겠습니다. 임금님께서서는 이 종이 무엇을 할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아키스는 다윗에게 "그렇게만 된다면, 나는 그대를 평생 나의 경호원으로 삼겠소." 하고 말하였다.
- ³ 사무엘은 이미 죽어, 온 이스라엘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가운데 고향 라미에 묻혔다. 한편 사울은 영매와 잠쟁이들을 나라에서 몰아내었다.
- ⁴ 필리스티아인들이 수백에 모여 와 잔을 치자, 사울도 온 이스라엘군을 모아 길보아에 잔을 쳤다.
- ⁵ 사울은 필리스티아인들의 진영을 보고 두려워서 가슴이 뚱시 두근거렸다.
- ⁶ 그래서 사울은 주님께 여쭙어 보았으나, 주님께서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를 통해서도 대답해 주시지 않았다.
- ⁷ 그리하여 사울은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혼백을 불러올리는 여자를 하나 찾아내어라. 내가 가서 그 여자에게 물어봐야겠다." 신하들이 사울에게 "엔 도르에 혼백을 불러올리는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 ⁸ 사울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옷을 갈아입고는, 부하들을 데리고 밤에 그 여자에게 가서, "나를 위해 혼백을 불러 줌을 쳐주고, 내가 말하는 명령을 불러올려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 ⁹ 그 여자가 사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사울이 이 나라에서 영매와 잠쟁이들을 없애 버린 사실을 잘 아시겠지요. 그런데 어찌자고

- 당신은 나의 목에 울가미를 씌워, 나를 죽이려 하시오?"
- ¹⁰ 사울은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주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이 일로 그대가 벌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오."
- ¹¹ 그러자 여인이 "누구를 불러올릴까요?" 하고 물었다. 그가 "사무엘을 불러올려 주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 ¹² 그 여자는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사울에게 따졌다. "어찌하여 저를 속이셨습니까? 당신은 사울 임금님이 아니십니까?"
- ¹³ 임금이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엇이 보이느냐?" 그 여자가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땅에서 신령이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 ¹⁴ 사울이 다시 그 여자에게 "어떤 모습이냐?" 하고 묻자, "겉옷을 휘감은 노인이 올라옵니다." 하고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것을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다.
- ¹⁵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다. "왜 나를 불러올려 귀찮게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였다. "저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이 저를 치고 있는데, 하느님께서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꿈으로도 저에게 더 이상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 주십시오고 어르신을 부른 것입니다."
- ¹⁶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미 너를 떠나 네 원수가 되셨는데 어찌자고 나에게 묻느냐?"
- ¹⁷ 주님께서서는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너에게 하시어, 이미 이 나라를 네 손에서 빼앗아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
- ¹⁸ 너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의 타오르는 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않았다.

주님께서 오늘 너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 19 주님께서는 너와 더불어 이스라엘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 넘기시어, 내일이면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 20 그러자 사울은 곧바로 땅바닥에 벌렁 나가 떨어졌다. 사무엘의 말에 몹시 겁을 먹은 데다, 밤낮으로 온종일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하여 기운이 없었던 것이다.
- 21 그 여자가 사울에게 다가와 그가 몹시 놀란 것을 보고 간청하였다. "보십시오, 이 여종은 임금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저에게 이르신 그대로 임금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따랐습니다.
- 22 그러니 이제 임금님께서도 이 여종의 말을 들어 주십시오. 제가 임금님께 음식을 줌차려 드릴 터이니 잠수십시오. 그래야 임금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기운을 차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 23 사울은 "먹지 않겠다!" 하면서 거절하였으나, 신하들이 그 여자와 함께 억지로 권하자, 그들의 말을 들어 땅바닥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았다.
- 24 마침 그 여자 집에는 살진 송이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여자는 서둘러 그것을 잡았다. 그리고 밀가루를 가져다가 누룩을 넣지 않고 반죽하여 빵을 구워서,
- 25 사울과 그의 신하들 앞에 차려 놓았다. 그들은 그것을 먹고 일어나 그 밤으로 길을 떠났다.

다윗이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비축당하다

- 29 ¹ 필리스티아인들은 모든 진영을 아베크에 집결시키고, 이스라엘은 이즈르엘에 있는 썩기에 진을 쳤다.
- 2 필리스티아 통치자들은 수백 명씩, 또는 수

천 명씩 거느리고 나아갔고, 다윗과 그 부하들은 아키스와 함께 뒤에서 나아갔다.

- 3 그런데 필리스티아 제후들이 "이 히브리인들은 누구요?" 하고 물었다. 아키스가 필리스티아 제후들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임금 사울의 신하였던 다윗이지 않소? 그가 나와 함께 지낸 지 이미 한두 해가 되었지만, 나에게 망명해 온 날부터 이날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소."
- 4 그러나 필리스티아 제후들은 아키스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그 사람을 돌려보내시오. 그는 임금께서 정해 준 곳으로 돌아가야 하오. 그가 싸움터에서 우리의 적대자가 될 지도 모르니, 우리와 함께 싸움터로 내려갈 수는 없소. 이자가 무엇으로 제 주군의 환심을 사겠소? 여기 있는 군사들의 머리를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겠소?"
- 5 그가 바로 사람들이 춤을 추며 '사울은 수천을 치셨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하고 노래하던 그 다윗이 아니요?"
- 6 그러자 아키스는 다윗을 불러 말하였다. "살아 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대는 올곧은 사람이오. 그대가 나에게 온 날부터 이 날까지 나는 그대에게서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대가 나와 함께 출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소. 그러나 다른 통치자들 눈에는 그대가 좋게 보이지 않는가 보오.
- 7 그러니 이제 평안히 돌아가시오. 필리스티아의 통치자들 눈에 거슬리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소."
- 8 다윗이 아키스에게 항의하였다. "제가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임금님 앞에 나아온 날부터 이날까지 이 종에게 무슨 잘못이 있기에,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의 원수들과 싸우러 나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 9 아키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내 눈에는

그가 하느님의 천사처럼 좋은 사람이고, 그 사실을 나는 알고 있소. 그러나 필리스티아 제후들이 '그가 우리와 함께 싸우려 나 가면 안 되오.' 하고 말하였소.

- 10 그러나 그대는 그대와 함께 온 옛 주군의 부하들과 더불어 아침 일찍 일어나시오. 아침 일찍 일어나 동이 뜨는 대로 길을 떠나시오."
- 11 그리하여 다윗과 부하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필리스티아인들은 이즈르엘로 올라갔다.

다윗이 이말렉을 치다

- 30 ¹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사흘 만에 치클락에 이르렀는데, 그때는 아말렉족이 네겔과 치클락을 습격한 뒤였다. 아말렉족은 치클락을 쳐 불을 지르고는,
- 2 거기에 있던 여자들을 비롯하여 어린이와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사로잡아, 하나로 죽이지 않고 제 길로 끌고 갔다.
- 3 다윗과 부하들이 성읍에 이르러 보니, 성읍은 불타 버리고 그들의 아내와 아들딸들은 이미 사로잡혀 가고 없었다.
- 4 다윗과 그의 수하 군사들은 더 이상 올 기운조차 없을 때까지 목 놓아 울었다.
- 5 다윗의 두 아내 이즈르엘 여자 아히노암과, 카르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다.
- 6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모든 군사가 저마다 아들딸을 잃고 마음이 쓰라려, 다윗에게 돌을 던져 죽이자고 수군거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윗은 주 자기의 하느님 덕분에 힘을 얻었다.
- 7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 에브야타르 사제에게, "에봇을 나에게 가져오시오." 하였다. 에브야타르가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자,
- 8 다윗이 주님께 여쭙어 보았다. "이 강도떼를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까?" 주님께

서 그에게 응답하였다. "쫓아가거라. 반드시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

- 9 다윗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 육백 명을 이끌고 나섰다. 브소르 개울에 다다랐을 때 뒤에 처지는 이들은 거기에 남겨 두었다.
- 10 지쳐서 브소르 개울을 건너지 못하는 부하 이백 명은 그곳에 남겨 두고, 다윗은 부하 사백 명만 데리고 계속 쫓아갔다.
- 11 그러다가 별관에서 어떤 이집트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부하들이 그를 다윗에게 데려왔다. 그들은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물도 마시게 하였다.
- 12 또 말린 무화과 과자 한 조각과 건포도 두 뭉치도 주었다. 이것을 먹고 그는 정신을 차렸다. 그는 사흘 밤낮을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했던 것이다.
- 13 다윗이 그에게 "너는 누구네 집 사람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는 이집트 아이로서 어떤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자 사흘 전에 주인이 저를 버렸습니다.
- 14 우리는 크렛족의 네겔과 유다 지방과 칼렙의 네겔을 습격하고, 치클락을 불태웠습니다."
- 15 다윗이 그에게 "네가 나를 강도떼에게 데려다 줄 수 있었느냐?" 하고 묻자, 그가 대답하였다. "저를 죽이지 않으시고 제 주인의 손에 넘기지도 않으시겠다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맹세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라를 그 강도떼에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 16 이렇게 하여 그가 다윗과 함께 내려가 보니, 과연 그들이 온 땅에 흩어져 있었다. 그들은 필리스티아인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빼앗아 온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온통 먹고 마시며 흥청거리고 있었다.

- 17 다윗은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그들을 쳐부수었는데, 그들 가운데 낙타를 타고 도망친 젊은이 사백 명을 빼고는 아무도 목숨을 구하지 못하였다.
- 18 그리하여 다윗은 아말렉족이 빼앗아 간 것을 모두 되찾고 두 아내도 되찾았다.
- 19 어린이와 늙은이, 아들딸들과 전리품, 그리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물건들 가운데 잃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도로 찾아왔다.
- 20 양 떼와 소 떼도 모두 빼앗았다. 사람들은 앞에 서서 이 가축 떼를 몰고 오면서,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고 외쳤다.
- 21 다윗이, 너무 지쳐서 자기를 따르지 못하여 브소르 개울에 머무르게 했던 이백 명의 부하들에게 돌아오자, 그들이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고 다윗과 함께 오는 사람들도 맞이하였다. 다윗도 그들에게 다가가 문안하였다.
- 22 그런데 다윗과 함께 갔던 이들 가운데 악하고 고약한 자들이 모두 이렇게 말하였다. "이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니, 우리가 되찾은 전리품은 하나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저마다 제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합시다."
- 23 그러나 다윗이 말했다. "형제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안 되고.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를 치러 온 강도떼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는데,
- 24 이 일을 두고 누가 그대들의 말을 들을 것 같소? 싸우러 나갔던 사람의 뒤통이나 뒤에 남아 물건을 지킨 사람의 뒤통이나 다 똑같아야 하오.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하오."
- 25 그날 이후 다윗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규정과 법규로 세웠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 오고 있다.
- 26 다윗은 치클락에 돌아온 다음, 자기 친구인

유다 원로들에게 전리품의 일부를 보내면서 이렇게 전하였다. "여기 주님의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 일부를 어르신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 27 그들은 베델, 라못 네셋, 아티르,
28 아로에르, 시프뫓, 에스토모아,
29 라갈, 여라흐므엘족의 성읍들, 카인족의 성읍들,
30 호르마, 보르 아산, 아탁,
31 헤브론, 그리고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드나들던 모든 고장의 원로들이었다.

사울이 죽다

- 31 ¹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도망치다가, 길보아 산에서 살해되어 쓰러졌다.
- 2 필리스티아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에게 바짝 따라붙어, 사울의 아들들인 요나탄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이를 쳐 죽였다.
- 3 사울 가까이에서 싸움이 격렬해졌다. 그러다가 적의 궁수들이 사울을 발견하였다. 사울은 그 궁수들에게 큰 부상을 입었다.
- 4 사울이 자기 무기병에게 명령하였다. "칼을 뽑아 나를 찔러라. 그러지 않으면 할례 받지 않은 저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희롱할 것이다." 그러나 무기병은 너무 두려워서 찌르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칼을 세우고 그 위에 었어졌다.
- 5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무기병도 칼 위에 었어져 그와 함께 죽었다.
- 6 그리하여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병을 비롯하여 사울의 모든 부하가 그날 다 함께 죽고 말았다.
- 7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치고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고, 골짜기 건너편과 요르단 건너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러자 필리스

티아인들이 거기에 와서 살았다.

- 8 그 이튿날 필리스티아인들이 와서 살해된 이들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 9 그들은 사울의 머리를 자르고 갑옷을 벗긴 다음, 필리스티아인들의 땅 곳곳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저희 우상들의 신전과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알렸다.
- 10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의 갑옷을 아스타롯 신전에 보관하고, 시체는 벳 산 성벽에 매달아 놓았다.
- 11 아베스 길앗의 주민들은 필리스티아인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전해 들었다.
- 12 그러자 그곳의 용사들이 모두 나섰다. 그들은 밤새도록 걸어가서, 사울의 주검과 그 아들들의 주검을 벳 산 성벽에서 내려다가, 아베스로 돌아와 거기에서 불태웠다.
- 13 그다음 그들은 그 뼈를 추려 아베스에 있는 에셀 나무 밑에 묻고, 이레 동안 단식하였다.

구약성경 - 10

역사서 - 5

사무엘기 하

총 24 장

총 695 절

[구약성경]-[사무엘기 하편]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다

- 1¹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은 아말렉을 쳐부수고 돌아와 치클락에서 이틀을 묵었다.
- 2 사울께 되는 날, 어떤 사람이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 흙이 묻은 채 사울의 진영에서 찾아왔다. 그가 다윗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절을 하자,
- 3 다윗이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물었다. 그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4 다윗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서 말해 보아라." 하자, 그가 대답하였다. "싸움터에서 군사들이 달아났습니다. 또 많은 군사가 쓰러져 죽었는데, 사울 임금님과 요나단 왕자님도 돌아가셨습니다."
- 5 소식을 전해 준 젊은이에게 다윗이, "사울 임금님과 요나단 왕자님도 돌아가신 줄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고 물었다.
- 6 그러자 소식을 전해 준 젊은이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 임금님께서 창에 몸을 기대고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병거와 기병들이 그분을 바짝 뒤쫓고 있었습니다.
- 7 그분은 뒤돌아보시다가 저를 발견하고 부르셨습니다. 제가 '예!' 하고 대답하니,
- 8 임금님께서 저에게 '너는 누구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아말렉 사람입니다.' 하자,
- 9 임금님께서 저에게 '내 곁으로 와서 나를 죽여 다오. 내게 아직도 목숨이 붙어 있으니 괴로워 전딜 수가 없구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 10 제가 보기에도 그분께서는 쓰러지신 뒤에 다시 살아나실 것 같지 않아, 그분 곁으로

가서 그분을 돌아가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에 쓰신 왕관과 팔에 끼신 팔찌를 벗겨 여기 나라께 가져왔습니다."

- 11 그러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었다.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였다.
- 12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주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집안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애도하고 울며, 저녁때까지 단식하였다.
- 13 그리고 나서 다윗이 소식을 전해 준 그 젊은이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나?" 하고 물었다. 그가 "저는 이방인의 자손으로 아말렉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 14 다윗이 "네가 어찌자고 겁도 없이 손을 뻗어 주님의 기름부음받은이를 살해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다.
- 15 그리고 다윗은 부하들 가운데 하나를 불러, "가까이 가서 그를 쳐라." 하고 일렀다. 부하가 그를 치니 그가 죽었다.
- 16 다윗이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네 피가 네 머리 위로 돌아가는 것이다. 네 입이 너를 거슬러 '제가 주님의 기름부음받은이를 죽였습니다.' 하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를 짓다

- 17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생각하며 이런 얘기를 지어 부르고는,
- 18 '황의 노래'라 이름 붙여 유다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일렀다. 그 얘기는 '아사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 19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살해되어 언덕 위에 누워 있구나. 어찌다 용사들이 쓰러졌는가?
- 20 이 소식을 갖에 알리지 말고 아스클론 거리에 전하지 마라. 필리스티아인들의 딸들이 기뻐하고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딸들

이 좋아 날뻐라.

- 21 길보아의 산들이 너희 위에, 그 비옥한 밭에 이슬도 비도 내리지 마라. 거기에서 용사들의 방패가 더럽혀지고 사울의 방패가 기름칠도 않은 채 버려졌다.
- 22 요나탄의 활은 살해된 자들의 피와 용사들의 굳기름을 묻히지 않고서는 돌아온 적이 없고 사울의 칼은 허공을 치고 되돌아온 적이 없었네.
- 23 사울과 요나탄은 살아 있을 때에도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죽어서도 떨어지지 않았구나. 그들은 독수리보다 날래고 사자보다 힘이 세었지.
- 24 이스라엘의 딸들이 사울을 생각하며 울어라. 그는 너희에게 장식 달린 진홍색 옷을 입혀 주고 너희 애복에 금붙이를 달아 주었다.
- 25 어찌다 용사들이 싸움터 한복판에서 쓰러졌는가? 요나탄이 네 산 위에서 살해되다니!
- 26 나의 형 요나탄 형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오. 형은 나에게 그토록 소중하였고 나에게 대한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이롭다웠소.
- 27 어찌다 용사들이 쓰러지고 무기들이 사라졌는가?"

다윗이 유다의 임금이 되다

- 2¹ 그 뒤 다윗이 주님께 여쭙어 보았다. "유다의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거라." 하고 이르셨다. 다윗이 다시 "어디로 올라가야 합니까?" 하고 여쭙어 보자, 그분께서는 "헤브론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 2 그래서 다윗은 두 아내, 곧 이즈르엘 여자 이히노암과 카르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곳으로 올라갔다.

- 3 다윗은 함께 있던 부하들도 저마다 가족을 데리고 올라가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헤브론의 여러 성읍에 자리 잡았다.
- 4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와, 거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유다 집안의 임금으로 세웠다. 다윗은 사울의 장례를 치른 이들이 아베스 길앗 사람들이라는 소식을 듣고,
- 5 심부름꾼들을 아베스 길앗 사람들에게 보내어 이런 말을 전하게 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군 사울에게 그토록 충성을 다하여 그의 장례를 치렀으니, 주님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6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애와 성실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런 일을 하였으니 나도 여러분에게 선을 베풀겠습니다.
- 7 여러분의 주군 사울이 세상을 떠났지만, 주먹을 불끈 쥐고 용기를 내십시오. 유다 집안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았습니다."

이스 보셋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다

- 8 사울 군대의 장수이며 네르의 아들인 아브네스가 사울의 아들 이스 보셋을 데리고 마하남으로 건너갔다.
- 9 거기에서 그는 이스 보셋을 길앗과 이수르 족과 이즈르엘, 에프라임과 베아민과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 10 사울의 아들 이스 보셋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된 것은 마흔 살 때였다. 그는 두 해 동안 다스렸다. 한편, 유다 집안은 다윗을 따랐다.
- 11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집안을 다스린 기간은 일곱 해 여섯 달이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기브온에서 싸우다

- 12 네르의 아들 아브네스와, 사울의 아들 이스 보셋의 부하들은 마하남에서 기브온으로 출정하였다.

- 13 츠루아의 아들 요압도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출정하여 기브온 못 가에서 그들과 마주쳤는데, 한편은 못 이쪽에, 다른 편은 못 저쪽에 자리 잡았다.
- 14 그때 아브네르가 요압에게 "부하들을 내세워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하니, 요압도 "좋다." 하였다.
- 15 그래서 부하들이 일어나 정한 수대로 나갔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 보셋 쪽에서 벤야민 사람 열둘,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에서 열둘이 나갔다.
- 16 그들은 저마다 상대방의 머리를 붙잡고 칼로 옆구리를 찔러 함께 쓰러졌다. 그래서 그곳을 '옆구리 벌판'이라고 하였는데, 그곳은 기브온에 있다.
- 17 그날 싸움은 매우 치열하였다. 아브네르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배하였다.
- 18 그곳에는 츠루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사이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은 들에 사는 영양처럼 달음박질이 빨랐다.
- 19 아사엘은 아브네르의 뒤를 쫓아,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몸을 돌리지 않고 아브네르의 뒤만 따라갔다.
- 20 아브네르가 뒤돌아보며, "네가 바로 아사엘이냐?" 하고 물으니, 아사엘이 "그렇다." 하고 대답하였다.
- 21 그러자 아브네르가 그에게 말하였다.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몸을 돌려 쫓은이나 하나 잡고 그를 털어 가라." 그러나 아사엘은 물러서지 않고 그의 뒤를 쫓았다.
- 22 아브네르가 다시 아사엘에게 "내 뒤는 그만 쫓고 물러서라. 내가 너를 쳐 땅바닥에 쓰러지게 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네 형 요압 앞에서 내가 어떻게 머리를 들겠느냐?" 하고 말하였다.
- 23 그래도 아사엘은 물러서기를 마다하였다. 그래서 아브네르는 창끝으로 그의 배를 찔

- 렀다. 창이 등을 꿰고 나오자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아사엘이 쓰러져 죽은 자리에 다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곳에 멈추어 섰다.
- 24 그러나 요압과 아비사이는 계속 아브네르의 뒤를 쫓아, 해가 질 무렵 기브온 광야로 가는 길 거의 기아 맞은쪽에 있는 암마 언덕에 이르렀다.
- 25 그때 벤야민의 자손들은 아브네르의 뒤로 모여들어 한 무리가 되자, 어떤 언덕 꼭대기에 버티고 섰다.
- 26 아브네르가 요압을 불러서 말하였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칼부림을 해야 하겠느냐? 이러다가 결국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을 모른다. 말이나? 그대는 군사들에게 제 형제의 뒤를 그만 쫓고 돌아서라는 명령을 끝내 내리지 않을 셈인가?"
- 27 요압이 대답하였다. "살아 계신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대가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내일 아침이 되어서야 군사들이 저마다 제 형제의 뒤를 쫓는 것을 그만두었을 것이다."
- 28 요압이 나팔을 부니, 모든 군사가 멈춰 서서 더 이상 이스라엘인들의 뒤를 쫓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았다.
- 29 그날 아브네르와 그의 부하들은 밤새도록 걸어 아라바를 지나 요르단을 건너고, 오전 내내 걸어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 30 요압도 아브네르의 뒤를 더 이상 쫓지 않고 돌아섰다. 그가 군사들을 모두 모아 보니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 열아홉 명과 아사엘이 비었다.
- 31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벤야민 사람과 아브네르의 부하를 삼백육십 명이나 쳐 죽였다.
- 32 그들은 아사엘을 메어다가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무덤에 묻었다. 그런 다음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밤새도록 걸어서 동

틀 무렵에 헤브론에 이르렀다.

3 ¹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의 싸움은 오래 계속되었다. 다윗은 갈수록 강해졌고 사울 집안은 갈수록 약해졌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 ²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다. 맏아들은 이즈르엘 여자 아히노암에게서 난 암논이다.
- ³ 둘째는 카르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버지 길에게서 난 킬압이고 셋째는 그수르 임금 탈미의 딸 미아카의 아들 압살롬이다.
- ⁴ 넷째는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이고 다섯째는 아비탈의 아들 스파트야이다.
- ⁵ 여섯째는 다윗의 부인 에글라에게서 난 이트람이다. 이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낳은 아들들이다.

아브네르가 이스 보셋을 배반하다

- ⁶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아브네르는 사울 집안에서 점점 강해졌다.
- ⁷ 사울에게는 아이의 딸 리즈파라는 후궁이 있었다. 어느 날 이스 보셋이 아브네르에게 "장군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였소?" 하고 말하였다.
- ⁸ 이스 보셋의 말에 아브네르가 몹시 화를 내며 대꾸하였다. "내가 유다의 개 대가리란 말이요? 오늘날까지 나는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안과 그분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어 가지 않게 하였소. 그런데도 당신은 오늘 한 날 여자에 관한 잘못을 들어 나를 꾸짖으시오?"
- ⁹ 주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일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하였소. 그러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이 아브네르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요.

- ¹⁰ 그 일은 이 나라를 사울 집안에서 거두어, 다윗의 왕좌를 단에서 브에르 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세우는 것이요."
- ¹¹ 이스 보셋은 아브네르를 두려워하여 그에게 다시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였다.
- ¹² 아브네르는 다윗에게 자기 대신 사자를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이 땅이 누구 것입니까? 저와 계약을 맺어 주십시오. 제가 임금님의 편이 되어 온 이스라엘을 임금님께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 ¹³ 다윗은 이렇게 응답하였다. "종소, 그대와 계약을 맺겠소. 그 대신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겠소. 그대가 나를 보러 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대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 ¹⁴ 한편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 보셋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나의 아내 미갈을 돌려주소. 나는 필리스티아인들의 포피 백 개를 바치고 그 여자를 아내로 얻었소"
- ¹⁵ 이스 보셋이 사람을 보내어 미갈을 그의 남편, 리이스의 아들 팔티엘에게서 데려왔다.
- ¹⁶ 남편도 그 여자와 함께 떠나, 바후림까지 올면서 그 뒤를 따러왔다. 아브네르가 그에게 "그만 돌아가시오" 하니, 그가 돌아섰다.
- ¹⁷ 아브네르는 이미 이스라엘 원로들과 이렇게 약속한 바가 있었다. "여러분은 오래전부터 다윗을 여러분 위에 임금으로 모시려 하고 있습니다."
- ¹⁸ 이제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그리고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 ¹⁹ 아브네르는 또 배반된 사람들과도 이야기

한 다음, 이스라엘과 온 벤야민 집안이 다 좋게 여긴 것을 다윗에게 알리러 헤브론으로 갔다.

20 아브네르가 부하 스무 명과 함께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자, 다윗은 아브네르와 그 부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21 아브네르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제가 일어나 가서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 온 이스라엘을 모아들여 그들이 임금님과 계약을 맺게 하겠으니, 임금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다스리십시오." 다윗이 아브네르를 보내자 그가 무사히 떠나갔다.

요압이 아브네르를 죽이다

22 마침, 다윗의 부하들과 요압이 약탈하러 갔다가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때 아브네르는 헤브론에 다윗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윗이 그를 보내어 그가 무사히 떠나갔기 때문이다.

23 요압과 그의 모든 군대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요압에게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가 임금님께 왔는데, 임금님께서 그를 보내시어 그가 무사히 떠나갔습니다." 하고 일러 주었다.

24 요압이 임금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도대체 임금님께서 무슨 일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브네르가 임금님께 왔다는데, 어찌하여 그를 보내어 그가 떠나가게 하셨습니까?"

25 임금님도 아사다시피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는 임금님을 속하려고 왔습니다. 임금님께서 들어오고 나가시는 것을 살피고, 또 임금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살피려 온 것입니다."

26 요압은 다윗에게서 물러 나온 다음, 사람들을 보내어 아브네르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그들은 아브네르를 시라 우물 가에서 데려왔는데, 다윗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

다.

27 아브네르가 헤브론으로 돌아오자, 요압은 그와 더불어 조용히 이야기하겠다고 그를 성문 안쪽으로 데려갔다. 그런 다음 요압은 거기에서 그의 배를 찔렀다. 아브네르는 이렇게 요압의 동생 아시엘의 피를 흘린 탓에 죽었다.

28 나중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말하였다. "나와 나의 나라는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의 피에 대하여 주님 앞에서 영원히 죄가 없다.

29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집안 전체에 다치리니, 요압의 집안에는 그름을 흘리는 자와 악성 피부병 환자, 물레질하는 자와 칼에 맞아 쓰러지는 자와 양식이 없는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30 요압과 아비사이 형제가 아브네르를 죽인 것은, 아브네르가 기브온 싸움터에서 저희 동생 아시엘을 죽였기 때문이다.

31 다윗이 요압과 그가 거느린 모든 군사에게 일렀다. "너희는 옷을 찢고 자루옷을 두른 채 아브네르의 주검 앞에서 애도하여라." 그러고 나서 다윗 임금 자신도 상여 뒤를 따라갔다.

32 아브네르를 헤브론에 장사 지낸 다음, 아브네르의 무덤에서 임금이 소리 높여 우니 모든 군사도 울었다.

33 임금은 아브네르를 생각하며 이런 얘기를 읊었다. "어리석은 자가 죽듯이 아브네르가 그렇게 죽어야 했더라 말이나?"

34 그대의 손이 묶이지도 않았고 그대의 발이 쇠고랑에 차이지도 않았는데 불의한 자들에게 맞아 쓰러지듯 쓰러졌구나." 그리고 모든 군사가 다시 그를 생각하며 울었다.

35 때는 낮이었다. 군사들이 모두 와서 다윗에게 음식을 들라고 권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맹세하였다. "내가 만일 해가 떨어지기 전에 빵이나 그 밖의 어떤 것이라도

맛본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 36 군사들이 모두 이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보기에 좋았다. 임금이 하는 일은 무엇이나 모든 군사가 보기에 좋았던 것이다.
- 37 그리하여 그날 모든 군사와 온 이스라엘은, 네르의 아들 अब네르를 죽인 것이 임금의 뜻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 38 임금이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오늘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장수 하나가 쓰러진 것을 모르오?"
- 39 내가 비록 기름부음 받은 임금이지만 오늘은 이렇게 약하구려. 츠루야의 아들들인 이 사람들이 나에게서 너무 벽차오. 주님께서 악을 저지르는 자에게 그 악에 따라 갚아 주시기를 바랄 뿐이오."

이스 보셋이 죽다

- 4 ¹ अब네르가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사울의 아들 이스 보셋은 두 손에 맥이 빠졌다. 온 이스라엘도 혼란에 빠졌다.
- 2 사울의 아들에게는 약탈대 장수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나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었다. 그들은 벤야민의 자손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이었다. 사실 브에롯도 벤야민 지파에 속한 것으로 여겨졌다.
- 3 브에롯인들은 일찍이 기타임으로 달아나 오늘날까지 거기에 머물러 살게 된 것이다.
- 4 사울의 아들 요나탄에게는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의 나이가 다섯 살 되던 해, 이즈르엘에서 사울과 요나탄에 관한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유포가 그를 데리고 황급히 도망치는 바람에, 그가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므브보셋이다.

- 5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나가 뜨거운 한낮에 길을 떠나 이스 보셋의 궁에 이르렀다. 마침 이스 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 6 그들은 밀을 가지러 온 채하며 궁 안으로 들어가, 이스 보셋의 배를 찔렀다. 그리고 레갑과 그의 동생 바나나는 거기에서 빠져 나왔다.
- 7 그들이 궁으로 들어갔을 때 이스 보셋은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 자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를 쳐 죽인 다음에 그의 머리를 베어 가지고 나와서 밤세도록 아리바 길을 걸었다.
- 8 그들은 이스 보셋의 머리를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가지고 가서 임금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목숨을 노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 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을 위하여 사울과 그의 후손에게 원수를 갚아 주셨습니까."
- 9 그러나 다윗은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동생 바나나에게 말하였다. "온갖 고난에서 나의 목숨을 건져 주신, 살아 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 10 전에 어떤 자가 제 댁에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줄로 여기며, '사울이 죽었습니다.' 하고 나에게 알렸다. 그러나 나는 그 기쁜 소식의 대가로 그를 잡아 치클락에서 죽였다.
- 11 하물며 악한 자들이 자기 집 침상에서 자는 의로운 사람을 살해하였는데, 내가 어찌 그 피에 대한 책임을 너희 손에 묻지 않으며 이 땅에서 너희를 없애 버리지 않겠느냐?"
- 12 다윗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자, 부하들은 그들을 죽인 다음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헤브론의 못가에 달아 매었다. 그러나 이스 보셋의 머리는 거두어 헤브론에 있는 अब네르의 무덤에 장사 지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다

- 5** ¹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의 골육입니다."
- ² 전에 사울이 우리의 임금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전하신 이는 임금님이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될 것이다.' 하고 임금님께 말씀하셨습니다."
- ³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모두 헤브론으로 임금을 찾아와, 다윗 임금은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 ⁴ 다윗은 서른 살에 임금이 되어 마흔 해 동안 다스렸다.
- ⁵ 그는 헤브론에서 일곱 해 여섯 달 동안 유다를 다스린 다음, 예루살렘에서 서른세 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다

- ⁶ 다윗 임금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스족을 치려 하자, 여부스 주민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이들과 다리저는 이들도 너쫓은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다윗이 거기에 들어올 수 없으려고 여겼던 것이다.
- ⁷ 그러나 다윗은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다. 그 곳이 바로 다윗 성이다.
- ⁸ 그날 다윗이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여부스족을 치려는 자는 지하 수로로 올라가, 이 다윗이 미워하는 저 다리저는 이들과 눈먼 이들을 쳐라." 여기에서 "다리저는 이와 눈먼 이는 궁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생겨났다.

- ⁹ 다윗은 그 산성에 살면서, 그곳을 '다윗 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은 밀로 안쪽으로 성곽을 둘러쌓았다.
- ¹⁰ 다윗은 세력이 점점 커졌다. 주 만군의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 ¹¹ 티로 임금 히람이 다윗에게 사질단과 함께 향백나무와 목수와 석수들을 보내어, 다윗에게 궁을 지어 주게 하였다.
- ¹² 그리하여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튼튼히 세우시고,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왕권을 높여 주신 것을 알게 되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

- ¹³ 다윗은 헤브론을 떠나온 뒤에 예루살렘에서 후궁과 아내들을 더 얻었는데, 그들이 아들과 딸들을 더 낳아 주었다.
- ¹⁴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 소박, 나탄, 솔로몬,
- ¹⁵ 입하르, 엘리수아, 네벵, 아피아,
- ¹⁶ 엘리사마, 엘야다, 엘리펠렛이다.

다윗이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워 이기다

- ¹⁷ 필리스티아인들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는 소식을 들었다. 필리스티아인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모두 올라오자, 다윗은 그 보고를 듣고 산성으로 내려갔다.
- ¹⁸ 그때에 필리스티아인들은 이미 르파임 골짜기로 와서 그곳에 퍼져 있었다.
- ¹⁹ 다윗이 주님께 "필리스티아인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들을 세 손에 넘겨 주시겠습니까?" 하고 여쭙어 보자, 주님께서서 다윗에게 이르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반드시 필리스티아인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 ²⁰ 그래서 다윗은 바알 프라침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그들을 쳐부순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큰물로 무너뜨리듯, 주님께서는 내 앞

에서 원수를 무너뜨리셨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바알 프라침이라 하였다.

- 21 필리스티아인들이 그곳에 자기 우상들을 버리고 갔으므로,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그것들을 치웠다.
- 22 필리스티아인들이 다시 올라와 르파임 골짜기에 퍼졌다.
- 23 다윗이 주님께 여쭙어 보자, 주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바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밭삼 향나무 숲 맞은쪽에서 그들에게 다가가거라.
- 24 밭삼 향나무 꼭대기에서 밭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습격하여라. 주님이 앞장서 나가 필리스티아인들의 군대를 칠 것이다."
- 25 다윗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게바에서 게제르까지 필리스티아인들을 쳤다.

다윗이 게바 کے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다

6

- 1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삼만 명을 모두 소집하였다.
- 2 다윗은 유다 바알라에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 오려고,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그곳으로 떠났다. 그 궤는 커룹들 위에 좌정하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불렸다.
- 3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내갔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짜와 아흐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 4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내갈 때, 아흐요가 궤 앞에서 걸었다.
- 5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안은 주님 앞에서 방백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비파와 수금과 손북과 요령과 자바리에 맞추어 춤추었다.
- 6 그들이 나콘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였다. 소들이 비틀거리는 바람에 우짜가 손을 뻗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
- 7 그러자 우짜를 향하여 주님의 분노가 타올

랐다.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 때문에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는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 8 다윗은 주님께서 우짜를 그렇게 내리치신 일 때문에 화가 났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페레즈 우짜라고 하였는데, 그곳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린다.
- 9 그날 다윗은 주님을 두려워하며, "이래서야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겨 갈 수 있겠는가?" 하고 말하였다.
- 10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가져가려 하지 않고, 갓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겼다.
- 11 주님의 궤가 갓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머무르는 동안, 주님께서는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리셨다.
- 12 주님께서 하나님의 궤 때문에 오벳 에돔과 그의 모든 재산에 복을 내리셨다는 소식이 다윗 임금에게 전해지자, 다윗은 기뻐하며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올라갔다.
- 13 주님의 궤를 멘 이들이 여섯 걸음을 옮기자, 다윗은 황소와 살진 송아지를 제물로 바쳤다.
- 14 다윗은 아마포 에봇을 입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
- 15 다윗과 온 이스라엘 집안은 합성을 울리고 나팔을 불며, 주님의 궤를 모시고 올라갔다.
- 16 주님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갈 때, 다윗 임금이 주님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려다보고, 속으로 그를 비웃었다.
- 17 그들은 다윗이 미리 쳐 둔 천막 안 제자리에 주님의 궤를 옮겨 놓았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주님 앞에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쳤다.
- 18 다윗은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다 바친 다

음에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였다.

- 19 그는 온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모든 군중에게 빵 과자 하나와 대추야자 과자 하나, 그리고 건포도 과자 한 뭉치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 뒤 온 백성은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 20 다윗이 자기 집안을 축복하러 돌아오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이하러 나와서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 꽤 가운데 하나가 알몸을 드러내듯이, 자기 신하들의 여종들이 보는 앞에서 벗고 나서니, 그 모습이 참 볼 만하더군요!"
- 21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당신 아버지와 그 집안 대신 나를 뽑으시고, 나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소. 바로 그 주님 앞에서 내가 흥겨워한 것이오.
- 22 나는 이보다 더 자신을 낮추고, 내가 보기에 더 천하게 될 것이오. 그러나 당신이 말하는 저 여종들에게는 존경을 받게 될 것이오."
- 23 그 뒤 사울의 딸 미갈에게는 죽는 날까지 아이가 없었다.

나탄의 예언

- 7 ¹ 임금이 자기 궁에 자리 잡고 주님께서 그를 사방의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 주셨을 때이다.
- 2 임금이 나탄 예언자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나는 항백나무 궁에 사는데, 하느님의 궤는 천막에 머무르고 있소."
- 3 나탄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엇이든 마음 내키시는 대로 하십시오."
- 4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의 말씀이 나탄에게 내렸다.
- 5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짓겠다는 말이나?

- 6 나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어떤 집에서도 산적이 없다. 천막과 성막 안에만 있으면서 옮겨 다녔다.
- 7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니던 그 모든 곳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게, 어찌하여 나에게 항백나무 집을 지어 주지 않느냐고 한마디라도 말한 적이 있느냐?"
- 8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양 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웠다.
- 9 또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물리쳤다. 나는 너의 이름을 세상 위인들의 이름처럼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 10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곳에 그들을 심어 그들이 제자리에서 살게 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전처럼, 불의한 자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 11 곧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판관을 임명하던 때부터 해 온 것처럼, 나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 주겠다. 더 나아가 주님이 너에게 한 집안을 일으켜 주리라고 선언한다.
- 12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 네 몸에서 나와 네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 13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그 나라의 왕좌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
- 14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

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의 매와 인간의 채찍으로 그를 징벌하겠다.

- 15 그러나 일찍이 사울에게서 내 자애를 거둔 것과는 달리, 그에게서는 내 자애를 거두지 않았다.
- 16 너의 집안과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네 왕좌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 17 나탄은 이 모든 말씀과 환시를 다윗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다윗의 감사 기도

- 18 다윗 입금이 주님 앞에 나아가 앉아 이뢰었다. "주 하느님, 제가 누구이기에, 또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 19 주 하느님, 당신 눈에는 이것도 부족하게 보이셨는지, 당신 종의 집안에 일어날 먼 장래의 일까지도 일러 주셨습니까. 주 하느님, 이 또한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 20 이 다윗이 당신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수 있었습니까? 주 하느님, 당신께서는 당신 종을 알고 계십니다.
- 21 당신께서 이 위대한 일을 모두 이루시고 그것을 당신 종에게 알려 주신 것은, 당신의 말씀 때문이며 또 그것은 당신의 뜻이었습니다.
- 22 그러므로 주 하느님, 당신께서는 위대하시고 당신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저희 귀로 들어 온 그대로, 당신 말고는 다른 하느님이 없습니다.
- 23 이 세상 어느 민족이 당신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느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건져 내시어, 당신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한 당신께서는 이집트에서 손수 건져 내신 당신 백성 앞에서 다른 민족들과 그 신들을 몰아내시

리고, 위대한 일과 무서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 24 또한 당신을 위하여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당신의 백성으로 튼튼하게 하시고, 주님, 당신 친히 그들의 하느님이 되셨습니다.
- 25 그러니 이제 주 하느님, 당신 종과 그 집안을 두고 하신 말씀을 영원히 변치 않게 하시고,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 26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영원히 위대하게 되고, 사람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시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당신 종 다윗의 집안도 당신 앞에서 튼튼해질 것입니다.
- 27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당신께서는 당신 종의 귀를 열어 주시며, '내가 너에게서 한 집안을 세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 종은 이런 기도를 당신께 드릴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 28 이제 주 하느님, 당신은 하느님이시며 당신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당신 종에게 이 좋은 일을 일러 주셨으니,
- 29 이제 당신 종의 집안에 가까이 복을 내리시어, 당신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해 주십시오. 주 하느님, 당신께서 말씀하셨으니, 당신 종의 집안은 영원히 당신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다

- 8¹ 그 뒤에 다윗은 필리스티아인들을 쳐서 굴복시키고,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메텍 암마를 빼앗았다.
- 2 그는 또 모압을 치고 그들을 땅에 눕힌 다음 줄로 잣다. 두 줄 길이 안에 든 사람들은 죽이고, 한 줄 길이 안에 든 사람들은 살려 주었다. 그러자 모압은 다윗의 신하가 되어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

- 3 다윗은 르홉의 아들, 초바 임금 하닷에제르가 유프라테스 강가에 자기 세력을 일으켜 갈 때 그를 쳐서,
- 4 기병 천칠백과 보병 이만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나서 병거 백 대를 끌 말만 남겨 놓고, 나머지 말은 모두 뒷다리 힘줄을 끊어 버렸다.
- 5 다마스쿠스의 아람인들이 초바 임금 하닷에제르를 도우러 오자, 다윗은 아람인 이만 이천 명을 쳐 죽이고,
- 6 다마스쿠스의 아람인들 가운데에 수비대를 두었다. 그리하여 아람인들도 다윗의 신하가 되어 조공을 바쳤다. 주님께서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도와주셨다.
- 7 다윗은 하닷에제르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 방패들을 거두어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 8 또한 다윗 임금은 하닷에제르의 성읍 베타와 베로타이에서 매우 많은 청동을 거두었다.
- 9 하맛 임금 토이는 다윗이 하닷에제르의 군대를 모두 쳐부수었다는 소식을 듣고,
- 10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 임금에게 보내어 문안하고, 다윗이 하닷에제르와 싸워 그를 쳐부순 것을 축하하였다. 토이는 하닷에제르와 전쟁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은 기물과 금 기물과 청동 기물들을 보내왔다.
- 11 그래서 다윗 임금은 이것들도 그가 정복한 모든 민족들에게서 거둔 은과 금과 함께 주님께 바쳤는데,
- 12 그것들은 아람과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과 필리스티인들과 이말렉에게서 거둔 것과 초바 임금 르홉의 아들 하닷에제르의 전리품에서 떼어 놓은 것이었다.
- 13 다윗은 돌아오는 길에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인 만 팔천 명을 쳐 죽여 이름을 떨쳤다.
- 14 그는 에돔에도 수비대를 두었다. 에돔 전지역에 수비대를 두자 에돔 전체가 다윗의

신하가 되었다. 주님께서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도와주셨다.

다윗의 관료들

- 15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모든 백성에게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였다.
- 16 츠루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 지휘관이었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관이었다.
- 17 아히툼의 아들 차독과 에브야타르의 아들 아히멜렉은 사제였고 스리아는 서기관이었다.
- 18 여호아다의 아들 브나야는 크렛족과 펠렛족을 지휘하였다. 다윗의 아들들은 사제였다.

다윗 왕의 계승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에게 호의를 베풀다

- 9¹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기억하여 그에게 자애를 베풀고자 한다."
- 2 마침 사울 집안에 치바라는 종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다윗에게 데려왔다. 임금이 "네가 치바냐?" 하고 물으니, 치바가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3 그러자 임금은 "사울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에게 하느님의 자애를 베풀고자 한다." 하고 말하였다. 치바가 임금에게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두 다리를 잡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4 임금이 치바에게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묻자, "그는 로 드바르에 사는 암미엘의 아들 마키르의 집에 있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 5 다윗 임금은 사람을 보내어, 로 드바르에 사는 암미엘의 아들 마키르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 6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탄의 아들인 므피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므피보셋아!" 하고 부르자, "예, 당신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므피보셋이 대답하였다.
- 7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탄을 기억하여 너에게 자애를 베풀고자 한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땅을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늘 내 식탁에서 음식을 먹어라."
- 8 그러자 므피보셋이 절하며 말하였다. "당신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와 같은 저를 보살피 주십니까?"
- 9 임금이 사울의 시종 치바를 불러 말하였다. "내가 사울에게 속한 모든 것과 그의 집안에 속한 모든 것을 네 상전의 아들에게 주었으니,
- 10 너는 그를 위해서 네 자식들과 종들을 거느리고 그 밭을 갈고 거두어들여, 네 상전의 아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마련하여라. 그러나 네 상전의 아들 므피보셋은 늘 나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치바에게는 아들 열다섯 명과 종 스무 명이 있었다.
- 11 치바가 임금에게 말하였다. "당신 좋은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분부하신 대로 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므피보셋은 왕자들 가운데 하나처럼 다윗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 12 므피보셋에게는 미카라는 어린 아들이 있었다. 치바의 집에 사는 사람은 모두 므피보셋의 종이 되었다.
- 13 므피보셋은 예루살렘에서 살며 늘 임금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그는 두 다리를 절었다.

다윗이 암몬과 아람을 쳐부수다

10 그 뒤에 암몬 자손들의 임금이 죽자,

그의 아들 하눈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 2 다윗은 '하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자애를 베풀었듯이, 나도 그의 아들 하눈에게 자애를 베풀어야겠다.'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신하들을 보내어, 그에게 그의 아버지에 대한 조의를 표하고자 하였다.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들의 땅에 들어가자,
- 3 암몬 자손의 장수들이 그들의 주군 하눈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조문 사절들을 보냈다 해서, 임금님께서 그가 부왕께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보십니까? 이 성읍을 살살이 살피고 엿탐하여 이곳을 뒤엎으려고, 다윗이 자기 신하들을 임금님께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 4 그래서 하눈은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턱수염을 절반씩 깎아 버리고, 예복도 엉덩이 부분까지 절반씩 잘라 낸 뒤에 돌려보냈다.
- 5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윗에게 보고하자, 임금은 그들이 심한 모욕을 당하였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그대들의 턱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예리코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시오." 하고 말하였다.
- 6 암몬 자손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마움을 사게 된 것을 알았다. 그래서 암몬 자손들은 사람을 보내어, 벧 르흠의 아람인들과 초비의 아람인 보병 이만 명, 천 명의 군사를 거느린 마이카 임금, 그리고 톱 사람 만이천 명을 고용하였다.
- 7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용사들로 이루어진 부대 전체를 요압과 함께 보냈다.
- 8 그러자 암몬 자손들이 밖으로 나와 성문 어귀에서 전열을 갖추고, 초비와 르흠의 아람인들, 톱 사람들, 그리고 마이카도 따로 들만에 전열을 갖추었다.
- 9 요압은 전선이 자신을 상대로 앞뒤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

병 가운데 일부를 골라 아람인들에게 맞서 전열을 갖추게 하였다.

- 10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동생 아비사이의 손에 맡겨, 암몬 자손들에게 맞서 전열을 갖추게 하였다.
- 11 그런 다음에 요압이 말하였다. "만일 아람인들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도와야 한다. 암몬 자손들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러 가겠다.
- 12 용기를 내어라. 우리 백성을 위해서, 우리 하느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용기를 내자. 주님께서는 당신 보시기에 좋은 일을 이루실 것이다."
- 13 그리고 나서 요압과 그의 군대가 아람인들과 싸우러 나아오니, 아람인들은 요압 앞에서 도망쳤다.
- 14 아람인들이 도망치는 것을 본 암몬 자손들도 아비사이 앞에서 도망쳐 성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요압은 암몬 자손들과 싸우기를 그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 15 아람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것을 보고 한데 모였다.
- 16 하닷에제르가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에 있는 아람인들을 출전시키니, 하닷에제르 군대의 장수 소박의 지휘 아래 그들이 헬람에 이르렀다.
- 17 이 소식을 들은 다윗도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여 요르단을 건너가서 헬람에 이르렀다. 그러자 아람인들이 다윗에게 맞서 전열을 갖추고 그와 싸웠다.
- 18 그러다가 아람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쳤다. 다윗은 아람인들의 병거병 칠백명과 기병 사만 명을 죽였다. 그리고 나서 그가 군대의 장수 소박을 내리치니 소박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
- 19 하닷에제르를 따르던 모든 임금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한 뒤에 이스라엘을 섬겼다.

그리고 아람인들은 두려워서 더 이상 암몬 자손들을 돕지 않았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 세비를 처하다

- 11 ¹ 해가 바뀌어 임금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과 자기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내보냈다. 그들은 암몬 자손들을 무찌르고 라뻬를 포위하였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 2 저녁때에 다윗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옥상에서 내려다보게 되었다. 그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다.
- 3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는데, 어떤 이가 "그 여자는 엘리암의 딸 밧 세비로 헛 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하였다.
- 4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왔다. 여인이 다윗에게 오자 다윗은 그 여인과 함께 잤는데, 여인은 부정한 기간이 끝나 자신을 정화한 다음이었다. 그 뒤 여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 5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제가 임신하였습니다." 하고 알렸다.
- 6 다윗은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를 나에게 보내시오." 하였다. 그래서 요압은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다.
- 7 우리아가 다윗에게 오자, 그는 요압의 안부를 묻고 이어 군사들의 안부와 전선의 상황도 물었다.
- 8 그리고 나서 다윗은 우리아에게, "집으로 내려가 그대의 밧을 씻어라." 하고 분부하였다.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오는데 임금의 선물이 그를 뒤따랐다.
- 9 그러나 우리아는 제 주군의 모든 부하들과 어울려 왕궁 문전에서 자고,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 10 사람들이 다윗에게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고 보고하자, 다윗은 우리아에게 "그대는 먼 길에서 돌아 오지 않았나?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는가?" 하고 물었다.
- 11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계약 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초막에 머무르고, 제 상관 요압 장군님과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의 신하들이 평바닥에서 아영하고 있는데, 제가 어찌 제 집에 내려가 먹고 마시며 제 아내와 함께 잘 수 있겠습니까? 살아 계신 임금님을 두고, 임금님의 목숨을 두고 맹세 합니다.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 12 그러자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오늘도 여기 머물러라. 내일은 내가 그대를 돌려보내겠다." 그래서 우리아는 그날도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그다음 날
- 13 다윗이 그를 다시 불렀다. 우리아는 다윗 앞에서 먹고 마셨는데, 다윗이 그를 취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저녁이 되자 우리아는 밖으로 나가 제 주군의 부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 14 다음 날 아침,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보냈다.
- 15 다윗은 편지에 이렇게 썼다.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심한 곳 정면에 배치했다가, 그 만 남겨 두고 후퇴하여 그가 칼에 맞아 죽게 하여라."
- 16 그리하여 요압은 성읍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가 보기에 강력한 적군이 있는 곳으로 우리아를 보냈다.
- 17 그러자 그 성읍 사람들이 나와 요압과 싸웠다. 군사들 가운데 다윗의 부하 몇 명이 쓰러지고,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 18 요압은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전쟁 상황을 모두 보고하였다.
- 19 요압은 전령에게 이렇게 알렸다. "내가 임금님께 전쟁 상황을 모두 보고하면,
- 20 임금님의 분노가 타올라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어찌자고 성읍에 바짝 다가가 싸웠느냐? 성벽에서 그들이 활을 쏘아 델 줄 몰랐단 말이나?'"
- 21 여루빠알의 아들 이비멜렉을 누가 죽였느냐? 한낱 여인이 성벽 위에서 그의 머리 위로 맷돌 위쪽을 떨어뜨려, 그를 테베에서 죽이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은 성벽에 바짝 다가갔느냐?' 그러면 나는 '임금님의 부하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하고 이뢰여라."
- 22 전령이 와서 다윗에게 요압이 시킨 대로 다 보고하였다.
- 23 전령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희보다 우세하였습니다. 그들이 저희에게 맞서 들뜬으로 나오기에, 그들을 추격하여 성문 입구까지 갔습니다."
- 24 그러자 궁수들이 성벽 위에서 임금님의 부하들에게 활을 쏘아 대어 부하 몇 명이 쓰러졌습니다. 임금님의 부하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 25 다윗이 전령에게 말하였다. "너는 요압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칼이란 이쪽도 저쪽도 삼켜 버릴 수 있으니, 이 일을 나쁘게 여기지 말고, 그 성읍을 맹렬히 공격하여 그곳을 무너뜨리시오.' 이런 말로 그를 격려하여라."
- 26 우리아의 아내는 자기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 주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 27 애도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궁으로 불러들였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데, 여인은 그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그러나 다윗이 한 것이 주님의 눈에 거슬렸다.

나탄이 다윗을 꾸짖다

- 12** ¹ 주님께서 나탄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탄이 다윗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 ²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매우 많았으나,
- ³ 가난한 이에게는 자기 산 작은 양양 한 마리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이는 이 양양을 길렀는데, 양양은 그의 집에서 자식들과 함께 자라면서, 그의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의 잔을 나누어 마시며 그의 품 안에서 자곤 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이 양양이 딸과 같았습니다.
- ⁴ 그런데 부자에게 길손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자기 양과 소 가운데에서 하나를 잡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양양을 잡아 자신을 찾아온 사람을 대접하였습니다."
- ⁵ 다윗은 그 부자에 대하여 몹시 화를 내며 나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그런 짓을 한 그자는 죽어 마땅하다.
- ⁶ 그는 그런 짓을 하고 동정심도 없었으니, 그 양양을 네 갑절로 갚아야 한다."
- ⁷ 그러자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기쁨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해 주었다.
- ⁸ 나는 너에게 네 주군의 집안을, 또 네 품에 주군의 아내들을 안겨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안을 주었다. 그래도 적다면 이것저것 너에게 더 보태 주었을 것이다.
- ⁹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이 보기에 악한 짓을 저질렀느냐? 나는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를 칼로 쳐 죽이고 그의 아내를 네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자손들의 칼로 죽였다.

- ¹⁰ 그러므로 이제 네 집안에서는 칼부림이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를 무시하고,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데려다가 네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
- ¹¹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거슬러 너의 집안에서 재앙이 일어나게 하겠다. 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너의 아내들을 데려다 이웃에게 넘겨 주리니, 저 태양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너의 아내들과 잠자리를 같이할 것이다.
- ¹² 너는 그 짓을 은밀하게 하였지만, 나는 이 일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앞에서, 그리고 태양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할 것이다."
- ¹³ 그때 다윗이 나탄에게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하고 고백하였다. 그러자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임금님께서 돌아가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 ¹⁴ 다만 임금님께서 이 일로 주님을 몹시 업신여기셨으니, 임금님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반드시 죽고 말 것입니다."
- ¹⁵ 그러고 나서 나탄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우리야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 준 아이를 치시니, 아이가 큰 병이 들었다.

다윗의 아들이 죽다

- ¹⁶ 다윗은 그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님께 호소하였다. 다윗은 단식하며 방에 와서도 바닥에 누워 밤을 지냈다.
- ¹⁷ 그의 궁 원로들이 그의 곁에 서서 그를 바닥에서 일으키려 하였으나, 그는 마다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 ¹⁸ 이레째 되는 날 아이가 죽었다.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고 그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왕자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우리가 그분께 말씀드리면 우리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왕자님이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소? 그분께서 해로운 일을 하실지도 모르오."

- 19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다윗은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소?" 하고 물었다. "예,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였다.
- 20 그러자 다윗은 바다에서 일어나 목욕하고 몸에 기름을 바른 다음, 옷을 갈아입고 나서 주님의 집에 들어가 경배하였다. 그리고 자기 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음식을 차려 오자 그것을 먹었다.
- 21 신하들이 그에게 여쭙었다. "임금님께서 어찌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왕자님이 살아 계실 때에는 단식하고 우시더니, 이제 왕자님이 돌아가시자 일어나시어 음식을 드시니 말입니다."
- 22 다윗이 말하였다. "아이가 살아 있는 동안에 내가 단식하고 운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 아이가 살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하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오."
- 23 그러나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단식하겠소? 아이를 다시 데려 올 수라도 있다는 말이오? 내가 아이에게 갈 수는 있지만 아이가 나에게 돌아올 수는 없지 않소?"

솔로몬이 태어난다

- 24 다윗은 자기 아내 밧 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 잠자리를 같이하였다. 밧 세바가 이들을 낳자 다윗은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였다. 주님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셨다.
- 25 주님께서 에언자 나탄을 보내시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이라 하여 그의 이름을

여디아라고 부르게 하셨다.

다윗이 라뻬를 점령하다

- 26 요압은 암몬 자손들의 라뻬를 공격하여 그 왕성을 점령하였다.
- 27 요압은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라뻬를 공격하여 그 '물의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 28 이제 임금님께서서는 나머지 군사들을 모아 그 성읍 앞에 진을 치고 그곳을 점령하십시오. 그러지 않으시면 제가 그 성읍을 점령해서 그곳이 제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 29 다윗은 모든 군사를 모아 라뻬로 가서 그 성읍을 공격하고 점령하였다.
- 30 그런 다음 그들 임금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겨 왔는데, 그 무게가 금 한 탈렌트나 되었고 거기에는 값진 보석들이 박혀 있었다. 이제 그것은 다윗의 머리에 얹혀졌다. 다윗은 그 성읍을 털어 아주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나왔다.
- 31 그는 또 그곳의 백성을 데려다가 톱과 날 카로운 쇠 연장과 쇠도끼 다루는 일을 맡기고, 그들에게 벽돌 만드는 일을 시켰다. 그는 암몬 자손들의 성읍마다 이렇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다윗과 모든 군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암논과 타미르

- 13 ¹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의 아들 암살롬에게는 이름다운 누이가 있었는데 이름은 타미르였다. 이 타미르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사랑하였다.
- 2 암논은 제 누이 타미르 때문에 애를 태우다가 병이 나고 말았다. 타미르가 처녀인지라, 그에게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 암논에게는 불가능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 3 암논에게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는 다

윗의 형인 시므아의 아들로 이름은 여호나답이었다. 여호나답은 매우 영리한 자였다.

4 그가 암논에게 물었다. "왕자님, 무슨 일로 나날이 그렇게 아위에 가십니까? 저에게 그 까닭을 말씀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암논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내 동생 압살롬의 누이 타마르를 사랑한다네."

5 그러자 여호나답이 그에게 말하였다. "왕자님은 침상에 누워 아픈 척하십시오. 그러면 부왕께서 왕자님을 보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 그분께 '누이 타마르를 들여보내시어 저에게 음식을 먹이게 해 주십시오. 제가 볼 수 있도록 그 애가 제 눈앞에서 음식을 만들고, 그 애 손에서 제가 음식을 받아먹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십시오."

6 암논이 누워서 아픈 척하자 암논이 그를 보러 왔다. 암논이 암논에게 "누이 타마르를 들여보내시어, 그 애가 제 눈앞에서 과자 두 개를 만들고, 제가 그 애 손에서 받아먹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7 다윗이 타마르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네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어라."

8 그래서 타마르가 자기 오빠 암논의 집으로 가 보니 그가 누워 있었다. 타마르는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그의 눈앞에서 과자를 구웠다.

9 가 번철을 들고 가 암논의 눈앞에 과자를 내놓았으나 그는 먹기를 마다하였다. 그러면서 암논은 "사람들을 모두 내게서 물러가게 하여라." 하고 일렀다. 사람들이 모두 물러가자,

10 암논이 타마르에게 말하였다. "음식을 방안으로 가져와, 내가 네 손에서 받아먹게 해 나오." 타마르는 자기가 만든 과자를 들고 암논 오빠의 방으로 가져갔다.

11 타마르가 암논에게 먹을 것을 가까이 가져가니, 암논은 타마르를 끌어안으며 말하였

다. "누이야, 이리 와서 나와 함께 눕자."

12 그러자 타마르가 그에게 말하였다. "오라비니, 안 됩시다! 저를 욕보이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추잡한 짓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13 제가 이 수치를 안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한 오라비니는 이스라엘에서 추잡한 자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임금님께 청하십시오. 그분께서 저를 오라비니에게 주시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14 그러나 암논은 타마르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타마르보다 힘이 썩기 때문에 강제로 타마르와 함께 잤다.

15 그런 다음 암논은 타마르가 지독히 미워졌는데, 타마르를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타마르를 사랑하던 마음보다 더 컸다. 그래서 암논은 타마르에게, "일어나 나가라!" 하였다.

16 그러자 타마르가 암논에게 말하였다. "안 됩니다! 저를 내쫓는 것은 조금 전에 제게 하신 행동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암논은 타마르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17 시중드는 젊은이를 불러 "내 앞에서 이 여자를 밖으로 내쫓고 그 뒤에서 문을 걸어 잠가라!" 하고 일렀다.

18 타마르는 긴 겹옷을 입고 있었는데, 시중 안 간 공주들이 보통 그런 옷을 입었다. 암논의 시중은 타마르를 밖으로 내보내고 그 뒤에서 문을 걸어 잠갔다.

19 타마르는 제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자기가 입고 있는 긴 겹옷을 찢었다.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은 채 울부짖으며 계속 걸었다.

20 타마르의 오빠 압살롬이 타마르에게 말하였다. "네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렇다면 애야, 지금은 입을 다물어라. 어떻든 그는 네 오빠이다. 이 일에 따음을 두지 마라." 타마르는 제 오빠 압살

롭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

- 21 다윗 임금이 이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화를 내었다.
- 22 압살롬은 암논에게 좋다 나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 누이 타마르를 욕보인 일로 압살롬은 암논을 미워하였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다

- 23 두 해가 지났다. 에프라임 근처 바알 하초르에는 압살롬의 양털깎는 일꾼들이 있었다. 압살롬은 왕자들을 모두 그곳으로 초대하고,
- 24 다윗 임금에게도 가서 말하였다. "이번에 임금님의 이 종이 사자들을 불러 양털을 깎게 되었는데, 임금님께서도 신하들을 거느리시고 이 종과 함께 내려가 주십시오."
- 25 그러나 임금은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니다, 내 아들이. 우리가 다 내려가 너에게 짐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압살롬이 계속 간청하였지만 그는 가려 하지 않고, 그 대신 복을 빌어 주었다.
- 26 그러자 압살롬이 "그러면 암논 형이라도 우리와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이 그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암논이 너와 함께 가야 하느냐?"
- 27 그래도 압살롬이 간청하자 임금은 암논과 모든 왕자를 압살롬과 함께 떠나보냈다.
- 28 압살롬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암논이 술로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내가 '암논을 쳐라.' 하거든 그를 죽여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힘을 내어 용사답게 행동하여라."
- 29 압살롬의 부하들은 그가 명령한 대로 암논에게 하였다. 그러자 왕자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노새에 올라타고 도망쳤다.
- 30 그들이 돌아오는 도중에,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두 죽여 그들 가운데 하나도 남지 않

았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다.

- 31 그러자 임금은 일어나 옷을 찢고 바닥에 누웠다. 그를 모시고 섰던 신하들도 모두 옷을 찢었다.
- 32 그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여호나답이 말하였다. "임금님께서서는 그들이 젊은 왕자들을 모두 살해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은 암논 왕자님 혼자만 돌아가셨습니다. 이는 암논 왕자님이 누이 타마르 공주님을 욕보이시던 날부터 이미 압살롬 왕자님이 걱정하신 일입니다.
- 33 그러하오니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서는 '왕자들이 모두 죽었구나.' 하시면서 이 일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암논 왕자님 혼자만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 34 그 사이에 압살롬은 달아났다. 한편 파수를 보던 병사가 눈을 들어 보니, 많은 사람이 산등성이에서 호로나임 길을 내려오고 있었다.
- 35 여호나답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왕자님들이 오셨습니다. 이 종이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 36 그가 막 이 말을 마쳤을 때, 왕자들이 도착하여 목 놓아 울었다. 임금과 신하들도 몹시 슬프게 울었다.
- 37 압살롬은 달아나 그수르 임금 암미훗의 아들 탈마이에게 가고, 다윗은 날마다 자기 아들을 생각하며 애도하였다.

압살롬이 돌아오다

- 38 압살롬은 달아나 그수르로 가서 세 해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 39 암논의 죽음이 가져온 충격에서 벗어나자, 다윗 임금은 압살롬을 애타게 그리워하였다.

14

¹ 츠루아의 아들 요압은 임금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기우는 것을 알아차

- 렸다.
- 2 그래서 요압은 트코아에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불러다가 말하였다. "그대는 애도하는 여자 행세를 하시오.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도 말고, 죽은 이를 위하여 오랫동안 애도하는 여자인 채하십시오.
- 3 그다음 임금님께 나아가 이런 말씀을 아뢰시오." 그리고 나서 요압은 여인이 해야 할 말을 알려 주었다.
- 4 그 트코아 여인이 임금에게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한 다음, "임금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 5 임금이 그 여인에게 "무슨 일이나?" 하고 묻자, 여인이 대답하였다. "사실 저는 남편을 여인 과부입니다.
- 6 이 여종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들판에서 서로 싸우다가 말리는 이가 없어, 아들 하나가 다른 아들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 7 그런데 이제 온 집안이 이 여종에게 맞서 일어나 말합니다. '제 동기를 죽인 자를 내놓아라. 그가 살해한 동기의 목숨 값으로 우리가 그를 죽여 상속자마저 없애 버리겠다.' 이렇게 그들은 남은 불씨마저 꺼 버려, 이 땅 위에서 제 남편에게 이름도 자손도 남겨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 8 그러자 임금이 여인에게 "집에 가 있어라. 내가 친히 너를 위해 명령을 내리겠다." 하고 말하였다.
- 9 트코아 여인이 임금에게 아뢰었다. "저의 주군인 임금님, 이 죄는 저와 제 아버지 집안에 있지, 임금님과 임금님의 왕좌에는 없습니다."
- 10 이에 임금이 일렀다. "누가 너에게 무어라 하거든 그자를 나에게 데려오너라. 그자가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
- 11 여인이 또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하느님이

신 주님께 이 일을 기억하게 하시어, 피의 복수자가 살육을 그만두고 제 아들을 없애 버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한 올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 12 여인이 또 "이 여종이 저의 주군인 임금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게 해 주십시오." 하자, 임금이 "말해 보아라." 하고 일렀다.
- 13 그래서 여인이 말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서는 하느님 백성에게 해가 되는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임금님께서서는 당신께 쫓겨난 이를 돌아오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런 결정으로 임금님께서서는 스스로 잘못을 저지르신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 14 우리는 반드시 죽게 마련이니, 땅바닥에 쏟아져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느님께서서는 목숨을 거두지 않으시고, 쫓겨난 이를 당신에게서 아주 추방시키지는 않으실 계획을 마련하십니다.
- 15 제가 지금 저의 주군인 임금님께 이 말씀을 드리러 온 까닭은, 백성이 저를 두렵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신 여종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임금님께 아뢰면 임금님께서서는 당신 여종의 말대로 해 주실 것이다.'
- 16 임금님께서 청을 들어 주시어, 하느님의 상속 재산에서 나와 내 아들을 함께 없애 버리려는 저의 손에서 이 여종을 구해 주실 것이다.'
- 17 이 여종은 또 이렇게도 생각하였습니다. '나의 주군인 임금님의 말씀이 나를 안심시켜 주실 것이다. 나의 주군인 임금님은 하느님의 천사 같은 분으로, 선과 악을 판별해 주시는 분이시다.'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 18 그러자 임금이 여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묻는 말에 아무것도 숨기지 마라." 이에 여인이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말씀하십시오." 하고 아뢰었다.

19 임금이 "요압이 네 뒤에서 이 모든 일을 꾸민 것이 아니냐?" 하고 묻자 여인이 대답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살아 계신 임금님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사실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시켰습니다. 이 종이 해야 할 말을 모두 알려 준 것도 그분입니다.

20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사정을 바꾸어 보려고 이 일을 꾸몄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우신 임금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지혜로우시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21 임금은 요압을 불러 말하였다. "종소 이제 내가 그대 뜻대로 하겠소. 가서 그 어린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22 그러자 요압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임금에게 축복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오늘 이 좋은 임금님께서 이 종의 뜻대로 해 주시는 것을 보고, 제가 임금님 눈에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3 요압은 일어나 그수르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24 그러나 임금은 "그를 제집으로 돌아가게 하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게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제집으로 돌아갔으나, 임금의 얼굴은 보지 못하였다.

다윗이 압살롬과 화해하다

25 온 이스라엘에서 압살롬만큼 잘생기고 그 만큼 칭찬을 받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

26 그는 머리가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머리카락을 자르곤 하였는데, 그가 머리카락

을 자르고 나서 그것을 달아 보면 왕궁 저울로 이백 세켈이나 나갔다.

27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의 이름은 타마르였다. 타마르는 아름다운 여자였다.

28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두 해를 머물렀는데도 임금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29 그래서 압살롬은 요압을 임금에게 보내려고 그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그가 압살롬에게 오려 하지 않았다. 압살롬이 두 번째로 사람을 보냈으나 역시 오려 하지 않았다.

30 그러자 압살롬은 자기 종들에게, "보다시피 보리를 심어 놓은 요압의 밭이 내 밭에 잇닿아 있다. 가서 거기에 불을 놓아라." 하고 일렀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놓았다.

31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따졌다. "어찌하여 왕자님의 종들이 제 밭에 불을 놓았습니까?"

32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 '좀 와 주시오' 하고 청하였소. 나는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어 이렇게 청하려고 하였소. '무엇 때문에 제가 그수르에서 왔습니까? 차라리 제가 계속 그곳에 있었다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제가 임금님의 얼굴을 뵈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 죄가 있다면 저를 죽여 주십시오.' 하고 말ियो."

33 그리하여 요압이 임금에게 나아가 사정을 이리니 임금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은 임금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임금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다

15

1 그 뒤, 압살롬은 자기가 탈 벵거와 말들을 마련하고, 자기 앞에서 달리

- 는 사람들을 쉰 명이나 거느렸다.
- 2 압살롬은 일찍 일어나 성문으로 난 길 옆에서 있곤 하였다. 그러다가 고발할 일이 있는 사람이 임금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마다, 압살롬은 그를 불러 "그대는 어느 성읍에서 오시오?" 하고 물었다. 그가 "이 좋은 이터 저러한 이스라엘 지파에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 3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였다. "듣고 보니 그대 말이 다 옳고 정당하오. 그러나 임금 곁에는 그대의 말을 들어 줄 자가 아무도 없소."
- 4 그리고 압살롬은 이런 말도 하였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만 준다면, 고발하거나 재판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를 찾아오고, 나는 그들에게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줄 텐데!"
- 5 또 누가 그에게 가까이 와서 절할 때마다, 그는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곤 하였다.
- 6 압살롬은 임금에게 재판을 청하러 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 7 네 해가 지나자 압살롬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제가 헤브론에 가서 주님께 한 서원을 채우게 해 주십시오.
- 8 이 좋은 이람의 그수르에 머무를 때, '주님께서 저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면, 제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드렸습니다."
- 9 임금이 그에게 "평안히 떠나라." 하자, 그는 일어나 헤브론으로 떠났다.
- 10 그러나 압살롬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밀사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전하게 하였다. "나팔 소리를 듣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의 임금이 되었다.'고 하시오."
- 11 예루살렘에서는 이백 명이 초청을 받아 압살롬과 함께 떠났는데, 그들은 그저 따라가기만 했을 뿐 아무 영문도 몰랐다.

- 12 압살롬은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고문인 길로 사람 아히토헤노 길로 성읍에서 불러내었다. 그때 그는 희생 제물을 바치고 있었다. 그리하여 반란 세력이 점차 커지고 압살롬 편이 되는 백성이 점점 많아졌다.

다윗이 요르단으로 달아나다

- 13 전령 하나가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쏠렸습니다."
- 14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일렀다. "어서들 달아납시다.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압살롬에게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요. 서둘러 떠나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가 서둘러 우리를 따라잡아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고, 칼날로 이 도성을 칠 것이요"
- 15 임금의 신하들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이 종들은 저희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서 결정하시는 대로 모두 따르겠습니다."
- 16 임금은 그의 온 집안 사람을 데리고 걸어나가고, 후궁 열 명은 궁을 지키도록 남겨 두었다.
- 17 임금이 온 백성을 데리고 걸어나가다가 마지막 집 앞에서 멈추었다.
- 18 신하들이 모두 임금 곁을 지나가고, 모든 크렛 사람과 모든 펠렛 사람과 갓에서부터 그를 따르던 갓 사람 육백 명이 모두 임금 앞을 지나갔다.
- 19 그때 임금이 갓 사람 이타이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대까지도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오? 그대는 외국인이고 그대의 나라에서 유배된 사람이니, 돌아가 다른 임금과 함께 지내시오.
- 20 그대가 온 것은 어제인데, 오늘 내가 그대에게 우리와 함께 가자고 할 수 있겠소? 다구나 나는 발길 닿는 대로 가야 할 처지요. 그러니 그대의 동족을 데리고 돌아가시오. 주님께서 그대에게 자애와 성실을 베풀

- 어 주시기 바라오."
- 21 그러나 이타이는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살아 계신 주님과 살아 계신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죽을 곳이든 살 곳이든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계시는 곳이면 어디나 이 종도 거기에 있겠습니다."
- 22 다윗이 이타이에게 일렀다. "그러면 어서 지나가시오." 갓 사람 이타이가 자기의 모든 부하와 자기에게 딸린 모든 아이와 함께 지나갔다.
- 23 이렇게 그 모든 사람이 지나갈 때 온 세상이 목 놓아 울었다. 임금이 키드론 시내를 건너고, 사람들도 모두 그곳을 건너 광야로 난 길을 향하였다.
- 24 마침 차독도 모든 레위인과 함께 하느님의 계약 궤를 모시고 나오다가 하느님의 궤를 내려놓자, 에브야타르도 올라와 사람들이 모두 도성에서 지나갈 때까지 거기 서 있었다.
- 25 그때 임금이 차독에게 일렀다. "하느님의 궤를 도성 안으로 도로 모셔 가시오 내가 주님의 눈에 들면 그분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어, 그 궤와 안치소를 보게 하실 것이오."
- 26 그러나 그분께서 '나는 네가 싫다.' 하시면, 나로서는 그저 그분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나에게 하시기를 바랄 뿐이오."
- 27 임금이 또 차독 사제에게 말하였다. "이보시오, 그대는 도성으로 평안히 돌아가시오, 그대들은 두 아들, 곧 그대의 아들 아히마아츠와 에브야타르의 아들 요나탄도 데리고 가시오."
- 28 그대들이 나에게 소식을 보낼 때까지, 나는 광야의 길목에서 기다리겠으니 그리 아시오."
- 29 차독과 에브야타르는 하느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도로 모셔다 놓고 그곳에 머물렀다.
- 30 다윗은 올리브 고개를 오르며 울었다. 그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걸었다.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제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계속 올라갔다.
- 31 다윗은 "아히토펴이 압살롬의 반란 세력에 끼여 있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님, 제발 아히토펴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 32 다윗이 하느님께 예배드리는 산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에렉 사람 후사이가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이 묻은 채 다윗에게 마주 왔다.
- 33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떠나면 그대는 나에게 짐만 될 뿐이오."
- 34 그러나 그대가 도성으로 돌아가 압살롬에게 '임금님, 이제 저는 임금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제가 임금님 아버지의 종이었으나 지금은 임금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대가 나를 위하여 아히토펴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이오."
- 35 그곳에는 차독 사제와 에브야타르 사제가 그대와 함께 있을 것 아니요? 그대가 왕궁에서 듣는 말은 무엇이나 다 차독 사제와 에브야타르 사제에게 알려 주시오."
- 36 또 거기에는 그들의 두 아들, 곧 차독의 아들 아히마아츠와 에브야타르의 아들 요나탄이 함께 있소. 그러니 그들을 시켜 그대가 들은 말을 모두 나에게 전해 주시오."
- 37 그리하여 다윗의 벗 후사이는 도성으로 들어갔다. 그때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다윗과 치바

- 16 ¹ 다윗이 산꼭대기에서 조금 더 갔을 때, 마침 므피보셋의 종 치바가 안장 없는 나귀 한 쌍에 빵 이백 덩어리와 진포도 백 멍치와 여름 과일 백 개와 포도주 한

- 부대를 싣고 그에게 미주 왔다.
- 2 임금이 치바에게 "웬일로 이것들을 가져오느냐?" 하고 묻자, 치바가 대답하였다. "이 나귀들은 임금님의 집안이 타실 것이고, 빵과 여름 과일도 임금님의 부하들이 먹을 것이며, 포도주는 광야에서 지친 이가 마실 것입니다."
- 3 임금이 또 "네 주군의 아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묻자, 치바가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그분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에야 이스라엘 집안이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나에게 돌려줄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 4 임금이 치바에게 "므피보셋에게 떨어진 것은 이제 다 네 것이다." 하고 이르자, 치바가 말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임금님께 경배드립니다. 제가 임금님의 눈에 들기만 바랄 뿐입니다."

다윗과 시므이

- 5 다윗 임금이 바후람에 이르렀을 때였다. 사울 집안의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서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게라의 아들 시므이였다. 그는 나오면서 저주를 퍼부었다.
- 6 온 백성과 모든 용사가 임금 좌우에 있는데도, 그는 다윗과 다윗 임금의 모든 신하에게 돌을 던졌다.
- 7 시므이는 이렇게 말하며 저주하였다. "꺼져라, 꺼져! 이 살인자야, 이 무뢰한아!
- 8 사울의 왕위를 차지한 너에게 주님께서 그 집안의 모든 피에 대한 책임을 돌리시고, 그 왕위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너는 살인자다. 이제 재앙이 너에게 닥쳤구나."
- 9 그때 츠루아의 아들 아비사이가 임금에게 말하였다. "이 죽은 개가 어찌 감히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을 저주합니까? 가서 그의 머리를 베어 버리게 해 주십시오."

- 10 그러나 임금은 "츠루아의 아들들이여, 그대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소? 주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시어 저자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어느 누가 '어찌하여 내가 그런 짓을 하느냐?' 하고 말할 수 있겠소?"
- 11 그러면서 다윗이 아비사이와 모든 신하에게 일렀다. "내 배 속에서 나온 자식도 내 목숨을 노리는데, 하물며 이 배아된 사람이야 오죽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 12 행여 주님께서 나의 불행을 보시고, 오늘 내리시는 저주를 선으로 갚아 주실지 누가 알겠소?"
- 13 다윗과 그 부하들이 길을 걷는 동안, 시므이는 다윗을 따라 산비탈을 걸으며 저주를 퍼붓고, 그에게 돌을 던지며 흙먼지를 뿌려대었다.
- 14 임금과 그를 따르던 온 백성은 지친 몸으로 그곳에 도착하여 한숨을 돌렸다.

후사이가 압살롬에게 접근하다

- 15 압살롬과 이스라엘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아히토펠도 압살롬과 함께 있었다.
- 16 다윗의 벗 에렉 사람 후사이가 압살롬에게 나아가, "임금님 만세! 임금님 만세!" 하고 외치자,
- 17 압살롬이 후사이에게 물었다. "이것이 그대의 벗에 대한 충성이요? 그대는 어찌하여 벗을 따라가지 않았소?"
- 18 후사이가 압살롬에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주님과 이 백성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뽑은 바로 그분께 속한 몸이니, 그분과 함께 머무르겠습니다."
- 19 그렇다면 제가 누구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그분의 아드님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부왕을 섬겼듯이 이제는 임금님을 그렇게 모시겠습니다."

- 20 압살롬이 아히토펴에게 물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의견을 내놓아 보시오."
- 21 아히토펴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부왕이 궁을 지키라고 남겨 놓은 그분의 후궁들에게 드십시오. 임금님께서 부왕에게 미움 받을 일을 한 것을 온 이스라엘이 듣게 되면, 임금을 따르는 모든 이가 손에 힘을 얻을 것입니다."
- 22 그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천막을 쳐 주자,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에게 들었다.
- 23 그 시절에 아히토펴이 내놓는 의견은 마치 하느님께 여쭙어 보고 얻은 말씀처럼 여겨졌다. 아히토펴의 모든 의견이 다윗에게도 압살롬에게도 그러하였다.

압살롬이 후사이의 의견을 따른다

- 17 ¹ 아히토펴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제가 만 이천 명을 뽑아 출동하여, 오늘 밤으로 다윗의 뒤를 쫓게 해 주십시오."
- 2 그가 치켜 손에 힘이 빠졌을 때 그를 덮쳐 놀라게 하면,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도망칠 것입니다. 그때 제가 임금을 쳐 죽이겠습니다.
- 3 그리하여 신부가 남편에게 돌아오듯, 온 백성을 임금님께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임금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한 사람의 목숨뿐이니 온 백성은 안전할 것입니다."
- 4 이 말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원로에게 옮겨 여겨졌다.
- 5 그러나 압살롬은 "에렉 사람 후사이라도 불러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 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 6 후사이가 압살롬에게 오자, 압살롬이 그에게 물었다. "아히토펴이 이런 말을 하였는데, 우리가 그의 말을 따라도 좋겠소? 아니라면 당신도 말해 보시오."
- 7 후사이는 압살롬에게 "이번에 아히토펴이

낸 의견은 좋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8 그러면서 후사이는 이렇게 덧붙였다. "임금님께서도 아사다시피 임금님의 아버지와 그 부하들은 용사입니다. 그들은 새끼를 빼앗긴 들녘의 곰처럼 무섭게 화가 나 있습니다. 또한 임금님의 아버지는 전사이므로 밤에 백성과 함께 잠도 자지 않습니다."
- 9 그분은 지금쯤 굴이나 다른 어떤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군인들 가운데 처음부터 쓰러지는 자가 생기면, 그 소식을 듣는 자마다 '압살롬의 뒤를 따르는 군사들이 지고 말았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 10 그렇게 되면 사자처럼 담력이 센 용사라도 완전히 맥이 풀릴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임금님의 아버지가 장사이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용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11 그러므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단에서 브에르 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불러 모으신 다음, 임금님께서 친히 전투에 나가십시오."
- 12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가 이슬이 땅에 내리듯 그분을 덮치면, 그분은 물론 그분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 13 그분이 만일 어떤 성읍으로 피신하면, 온 이스라엘이 그 성을 밧줄로 동여매어 계곡까지 끌어내려서, 그곳에 돌맹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게 할 것입니다."
- 14 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히토펴의 의견보다 에렉 사람 후사이의 의견이 더 좋다." 하고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압살롬에게 제왕을 끌어들이시려고 아히토펴의 그 좋은 의견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다.

후사이의 작전과 아히토펴의 자살

- 15 후사이가 차독 사제와 에브야타르 사제에

게 말하였다. "아히토펴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원로들에게 이리이러한 의견을 내놓았으나, 나는 이리이러한 의견을 내놓았소.

16 그러나 이제 서둘러 다윗 임금님께 사람을 보내어, '오늘 밤 광야의 길목에 묵지 마시고 반드시 그곳을 건너가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시면 임금님께서서는 물론 임금님과 함께 있는 온 백성이 전멸할 것입니다.' 하고 전해 주십시오."

17 한편 요나탄과 아히마아스는 엔 로겔에 서 있다가, 한 여종이 와서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면, 그들이 다시 다윗 임금에게 가서 그것을 전하기로 하였다. 그들이 도성에 들어가다가 들켜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

18 그러나 젊음이 하나가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려버렸다. 그래서 그들 두 사람은 얼른 거기를 떠나 바후람에 사는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마침 그 집에는 우물이 있어서 그들은 그리로 내려갔다.

19 그러자 그 집 여인이 덮개를 가져와 우물의 아귀를 덮고, 그 위에 낱알을 던져놓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였다.

20 그때 압살롬의 부하들이 그 집에 들어와 여인에게 "아히마아츠와 요나탄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었다. 여인이 그들에게 "개울물을 건너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두 사람을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21 그들이 떠난 다음에 두 사람은 우물에서 올라와, 다윗 임금에게 가서 보고하였다. 그들이 다윗에게 "아히토펴이 여러분을 해칠 의견을 이렇게 내놓았으니, 어서들 일어나 물을 건너가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22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온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르단을 건넜는데, 아침이 밝기까지 요르단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23 아히토펴은 자기 의견대로 되지 않은 것을 보고는, 나귀에 안장을 엮고 일어나 제 고향 성읍으로 돌아갔다. 그는 집안일을 정리한 다음 목을 매고 죽었다. 그리고 그는 제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다.

압살롬이 다윗을 뒤쫓다

24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야, 압살롬은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르단을 건넜다.

25 압살롬은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내세워 군대를 지휘하게 하였다. 아마사는 이스라엘 인으로서 이트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트라는 요압의 어머니 츠루아의 자매인 나하스의 딸 아비기일과 혼인한 사이였다.

26 이스라엘 백성과 압살롬은 길앗 땅에 진을 쳤다.

27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자손들의 성읍 라바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로 드바르에서 암미엘의 아들 마키르가, 로글림에서 길앗 사람 바르질리아가 찾아왔다.

28 그들은 침상과 접시와 질그릇을 가져오고, 밀과 보리, 밀기루와 볏은 밀, 콩과 팥,

29 꿀과 엉긴 젖, 그리고 양과 쇠고기를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에게 먹으라고 내놓았다. 그들은 그 백성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압살롬이 싸움에 자다

18¹ 다윗은 함께 있는 군사들을 사열하고, 그들 위에 천인대장과 백인대장들을 세웠다.

2 다윗은 군사들을 출동시켰는데, 삼분의 일은 요압의 손에, 삼분의 일은 츠루아의 아들이며 요압의 동생인 아비사이의 손에, 나머지

삼분의 일은 갓 사람 이타이의 손에 맡겼다. 임금이 군사들에게 일렀다. "나도 그대들과 더불어 꼭 출정하고 싶소."

3 그러나 군사들이 말했다. "임금님께서서는 출정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도망치더라도, 그들은 저희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가운데 절반이 죽는다 해도, 역시 저희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서는 저희들만 명과 같습니다. 그러니 임금님께서서는 이 성읍에서 저희를 지원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4 그러자 임금은 그들에게 "그러면 그대들 보기에 좋은 대로 하겠소" 하고는, 모든 군사가 백 명씩, 천 명씩 출전하는 동안 성문 곁에서 있었다.

5 임금이 요압과 아비사이와 이타이에게 분부하였다. "나를 보아서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다루어 주시오." 임금이 압살롬에 관하여 모든 장수에게 분부하는 것을 군사들도 다 들었다.

6 군사들은 이스라엘인들과 싸우려고 들판으로 나갔다. 싸움은 에프라임 숲에서 일어났다.

7 거기에서 이스라엘군은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배하여, 그날 그곳에서 이만 명이 죽는 큰 살육이 벌어졌다.

8 싸움은 그곳 전 지역으로 번져, 그날 칼이 삼켜 버린 사람들보다 숲이 삼켜 버린 사람들이 더 많았다.

9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그때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다. 그 노새가 큰 향엽나무의 얽힌 가지들 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의 머리카락이 향엽나무에 휘감기면서 그는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게 되고, 타고 가던 노새는 그대로 지나가 버렸다.

10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요압에게 알려 주었다. "압살롬이 향엽나무에 매달려 있

는 것을 보았습니다."

11 요압이 소식을 전해 준 그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를 보았다면 어찌하여 그 자리에서 그를 내리쳐 땅에 쓰러뜨리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전 열 닢과 락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12 그러나 그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였다. "제가 은전 천 닢을 손에 쥘지라도, 왕자님께 손을 뻗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는 임금님께서 장군님과 아비사이와 이타이에게 '나를 보아서 저 어린 압살롬을 지켜 주시오' 하고 분부하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13 제가 만일 목숨을 내걸고 배신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임금님께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으니, 장군님께서서는 저에게 등을 돌리셨을 것입니다."

14 그러나 요압은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고 말한 뒤에, 표창 셋을 손에 집어 들고, 향엽나무에 매달린 채 아직 살아 있는 압살롬의 심장에 꽂았다.

15 그러자 요압의 무기병인 젊은이 열 명이 둘러싸서 압살롬을 내리쳐 죽였다.

16 그러고 나서 요압은 나팔을 불어, 군사들이 이스라엘인들을 추격하는 것을 그만두고 돌아오게 하였다. 요압이 군사들에게 싸움을 그치게 하자,

17 그들은 압살롬을 들어가다 숲 속 큰 구덩이에 던져 넣고, 그 위에 커다란 돌무더기를 쌓았다. 이스라엘인들은 저마다 제집으로 도망쳤다.

압살롬의 기념비

18 생전에 압살롬은 "내 이름을 기억해 줄 아들이 없구나." 하며 기념 기둥 하나를 마련하여 세워 두었는데, 그것이 '임금의 골짜기'에 있다. 그가 이 기념 기둥을 자기 이름으로 불렀기에, 오늘날까지도 그것이 '

압살롬의 비석'이라 불린다.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알고 슬퍼하다

- 19 차독의 아들 아히마아즈가 말하였다. "임금님께 달려가, 주님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임금님을 건져 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 20 그러나 요압이 그를 말렸다. "오늘은 네가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이 아니니, 다른 날 전하여라. 오늘 너는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한다. 왕자가 죽었기 때문이다."
- 21 그리고 나서 요압은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불러, "네가 가서 임금님께 본 대로 알려 드려라." 하고 일렀다. 에티오피아 사람은 요압에게 절을 한 다음 달려갔다.
- 22 차독의 아들 아히마아즈가 다시 요압에게 청하였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저도 에티오피아 사람을 뒤따라 달려가게 해 주십시오." 요압이 "아들아, 너에게 보살할 만한 기쁜 소식이 없다는데도, 어찌 굳이 달려가겠다는 것이냐?" 하고 말하였다.
- 23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달려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요압은 그에게 "달려가라." 하고 허락하였다. 아히마아즈는 들뜬으로 난 길을 달려 에티오피아 사람을 앞질렀다.
- 24 그때 다윗은 두 성문 사이에 앉아 있었다. 파수꾼이 성벽을 거쳐 성문 위 망대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혼자서 달려오고 있었다.
- 25 파수꾼이 소리쳐 이를 임금에게 알리자, 임금은 "그가 혼자라면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다." 하고 말하였다. 그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 26 그런데 파수꾼은 다른 사람도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파수꾼이 수문장에게 "어떤 사람이 혼자서 또 달려오고 있습니

다." 하고 소리치니, 임금이 "그도 역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다." 하였다.

- 27 파수꾼이 다시 "제가 보기에 앞에 달려오는 사람의 모습은 차독의 아들 아히마아즈가 달리는 모습 같습니다." 하고 알리자, 임금이 말하였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이다."
- 28 아히마아즈가 큰 소리로 임금에게 "평안하셨습니다가?" 하고 인사한 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뢰었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 맞서 반기를 든 자들을 넘겨주신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서 찬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29 임금이 "그 어린 압살롬은 무사하나?" 하고 물었다. 아히마아즈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 종을 보낼 때, 큰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으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30 그러자 임금이 "물러나 거기 서 있어라." 하니, 그가 물러나 섰다.
- 31 그때 에티오피아 사람이 들어와 말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맞서 일어난 자들의 손에서 오늘 임금님을 건져 주셨습니다."
- 32 임금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그 어린 압살롬은 무사하나?" 하고 묻자,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의 원수들과 임금님을 해치려고 일어난 자들은 모두 그 젊음이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19 ¹ 이 말에 임금은 부르르 떨며 성문 위 누각으로 올라가 올었다. 그는 올라가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다.

- 2 "임금님께서 우시며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 하신다."는 말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 3 그리하여 모든 군사에게 그날의 승리는 슬픔으로 변하였다. 그날 임금이 아들을 두고 마음 아파한다는 소식을 군사들이 들었기 때문이다.
- 4 군사들은 그날 슬며시 성읍으로 들어왔는데,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칠 때 부끄러워 슬며시 빠져나가는 군사들 같았다.
- 5 임금은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이, 내 아들이!" 하며 울부짖었다.
- 6 그때 요압이 임금의 거처로 들어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서는 오늘 이 종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오늘 임금님의 목숨과 임금님 아들딸들의 목숨과 왕비와 후궁들의 목숨을 구해 드렸습니다.
- 7 그런데 임금님께서서는 임금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임금을 사랑하는 이들을 미워하십니다. 정녕 오늘 임금님께서서는 장수들과 신하들이 임금님께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저는 압살롬이 살고 저희가 모두 죽었다더라면, 임금님 눈에 옮겨 보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 8 그러니 이제 일어나 나가셔서 임금님의 신하들에게 다정한 말씀을 건네주십시오.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임금님께서 만일 나가시지 않으면 오늘 밤 아무도 임금님과 함께 지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임금님께 닦친 모든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 9 그러자 임금이 일어나서 성문에 나와 앉았다. 온 백성은 "임금님께서 성문에 나와 앉아서이다."는 말을 듣고 임금 앞으로 나아갔다. 이스라엘인들은 저마다 제집으로 도망쳤다.

- 10 그 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온 백성이 서로 논쟁을 벌였다. "임금님께서서는 우리를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구해 주셨고, 팔리스티아인들의 손아귀에서도 구해 주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압살롬을 피해 이 땅에서 달아나셔야 했다.
- 11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 위에 세웠던 압살롬이 싸움터에서 죽었는데도, 너희는 왜 임금을 다시 모셔 오는 일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 12 다윗 임금은 차독 사제와 에브이타르 사제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에게 이르시오, '온 이스라엘의 말이 임금에게, 그의 거처에 이르렀는데도, 어찌하여 여러분은 임금을 궁으로 다시 모시는 일에 풀쩍이 되려고 하시요?'
- 13 여러분은 나의 형제이며 골육인데, 어찌하여 임금을 다시 모시는 일에 풀쩍이 되려고 하시요?'
- 14 그리고 아마사에게는 이렇게 말하시오, '그대는 나의 골육이 아니요? 내가 언젠가 그대를 요압 대신 내 앞에서 군대의 장수로 삼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요.'"
- 15 그가 이렇게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자기에게 기울게 하니, 그들이 임금에게 사람을 보내어, "임금님께서 신하들을 모두 데리고 돌아오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다윗과 시므이

- 16 임금이 돌아오는 길에 요르단에 이르자, 유다인들이 임금을 맞이하여 요르단을 건너게 하려고 길갈로 나왔다.
- 17 바후림 출신 벤아민 사람인 게리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 임금을 맞으며, 유다 사람들과 함께 서둘러 내려왔다.
- 18 그는 벤아민 사람 천 명을 거느리고, 사울

집안의 종 치바와 아들 열다섯 명과 종 스무 명과 함께 요르단에 있는 임금 앞으로 급히 갔다.

- 19 그들은 임금의 집안 사람들을 건너게 하고 임금에게 잘 보이려고 건널목을 건너왔다. 임금이 요르단을 건너려고 할 때에, 개리의 아들 시므이가 임금 앞에 엎드렸다.
- 20 그는 임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 저의 죄를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던 날 이 종이 저지른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마음에 품지 마십시오.
- 21 이 좋은 죄지은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을 맞이하려고 요셉의 모든 집안에서 가장 먼저 내려왔습니다."
- 22 그때 츠루아의 아들 아버지사가 그 말을 받아 이렇게 아뢰었다. "시므이가 주님의 기름부음받은이를 저주하였으니, 그는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23 그러나 다윗이 말하였다. "츠루아의 아들들이여, 그대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오늘 그대들이 나의 반대자가 되려 하오? 내가 오늘에야 이스라엘의 임금임을 잘 알게 되었는데, 이런 날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당해야 하겠소?"
- 24 그러고 나서 임금은 시므이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오." 임금은 그에게 맹세를 하였다.

다윗과 므피보셋

- 25 사울의 아들 므피보셋도 임금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는 임금이 떠난 날부터 무사히 돌아오는 날까지, 밭도 쟀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았으며 옷도 빨아 입지 않았다.
- 26 므피보셋이 임금을 맞으러 예루살렘에서 왔을 때, 임금이 그에게 물었다. "므피보셋아, 어찌하여 너는 나와 함께 떠나지 않

았느냐?"

- 27 그가 대답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제 종이 저를 속였습니다. 임금님의 이 종이 다리를 절기 때문에 그에게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야 하겠으니, 나귀에 안장을 엮어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 28 그런데 그는 임금님께 가서 이 종을 모략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천사와 같으시니, 임금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 29 제 아버지의 온 집안은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는데, 임금님께서서는 이 종을 임금님의 식탁에서 먹는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 이상 제가 무슨 권리를 더 임금님께 호소할 수 있었습니까?"
- 30 임금이 그에게 말하였다. "왜 그 일을 다시 꺼내 이야기하느냐? 내가 한번 결정했으니 너와 치바가 그 땅을 나누어 가져라."
- 31 그러나 므피보셋은 임금에게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서 무사히 궁으로 돌아오셨으니, 그가 다 가져도 좋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윗과 바르질라이

- 32 길앗 사람 바르질라이도 로글람에서 내려와, 임금을 도와 요르단을 건너게 하려고 요르단까지 그를 따라갔다.
- 33 바르질라이는 나이가 아주 많았는데 여든 살이나 되었다. 그는 큰 부자였으므로, 임금이 마하나임에 머무르는 동안 임금에게 양식을 대 주었다.
- 34 임금이 바르질라이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나와 함께 갑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그대에게 양식을 대 주겠소."
- 35 그러나 바르질라이는 임금에게, "제가 몇 해나 더 산다고 임금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겠습니까?

- 36 제 나이 지금 여든인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종이 먹고 마시기는 하지만 그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노래하는 남녀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종이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 또 다른 짐이 되어서야 어찌 되겠습니까?
- 37 이 좋은 임금님을 모시고 요르단을 건너 몇 걸음만 더 가겠습니다. 저에게 그런 상을 내리시는 것은 당치 않습니다.
- 38 부디 이 종이 고향 성읍으로 돌아가 제 아버지 어머니의 무덤 곁에서 죽게 해 주십시오. 다만 여기 임금님의 종 김함이가 있으니, 그가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과 함께 건너가게 해 주시고, 임금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그에게 무엇이든 배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39 그러자 임금이 말하였다. "김함은 나와 함께 갈 것이오. 그리고 그대 보기에 좋은 대로 그에게 배풀어 주겠소. 또한 그대가 내게서 바라는 대로 모두 그대에게 해 주겠소."
- 40 마침내 온 백성이 요르단을 건너고 임금도 건넜다. 임금이 바르질라이에게 입을 맞추고 축복하자, 그는 제고장으로 돌아갔다.

유다와 이스라엘

- 41 임금이 길갈로 건너갈 때 김함도 그와 함께 건넜다.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절반도 임금을 모시고 건넜다.
- 42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임금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저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임금님을 빼들려, 임금님과 임금님 집안 사람들을 모시고 요르단을 건너다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다윗의 모든 부하는 그와 함께 있었다.
- 43 유다 사람들이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우리와 가깝기 때문이다. 이런 일로 너희가 화낼 까닭이 무엇이나? 우리가 임금님께 무엇을 얻어먹기라도 했던 말이나? 우리가 임금님께 무슨 선물을 받기라도 했던 말이나?"

- 44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이 왕국의 몫을 얻어나가지고 있으니, 다윗 임금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희보다 더 가져야 한다. 그런데 왜 너희는 우리를 업신여기느냐? 임금님을 모시고 돌아가자고 먼저 말한 것은 우리가 아니냐?" 그러나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더 거센다.

세바가 반란을 일으킨다

- 20¹ 그즈음 어떤 무뢰한이 그곳에 나타났는데, 그의 이름은 벤아민 사람 비크리의 아들 세바였다. 그가 나팔을 불며 말하였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도 없고, 이사이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저마다 제집으로 돌아가라."
- 2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윗을 버리고, 비크리의 아들 세바의 뒤를 따랐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요르단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의 임금을 충실히 따랐다.
- 3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궁으로 들어갔다. 임금은 자신이 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 열 명을 데려다가, 감시병이 지키는 집에 가두었다. 다윗은 그들에게 먹을 것은 대 주었으나 그들에게 들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죽는 날까지 생과부로 간혀 지냈다.
- 4 임금이 아마사에게 일렀다. "그대는 사흘 안에 유다 사람들을 동원하여 나에게 데려오고, 그대도 여기 대령하십시오."
- 5 아마사는 유다인들을 동원하러 나갔으나 정

해진 기일을 넘겼다.

6 그러자 다윗이 아비사이에게 일렀다. "이제는 비크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에게 더 해로울 터이니, 그대 주군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를 뒤쫓으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가 요새 성읍들을 찾아내어 우리 눈을 피하게 될 것이오."

7 요압의 부하들과 크렛족과 펠렛족과 모든 용사가 세바의 뒤를 쫓아 나갔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나서서 비크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았다.

8 그들이 기브온에 있는 큰 비위 곁에 이르렀을 때, 아파사가 그들 앞으로 나아왔다. 요압은 군복을 입고, 허리에 띠를 매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칼이 든 칼집이 달려 있었다. 요압이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나왔다.

9 요압은 아파사에게 "장군, 평안하시오?" 하면서, 오른손으로 아파사의 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었다.

10 그런데 아파사는 요압의 손에 있는 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찔러 그의 창자를 땅에 쏟아지게 하니, 그는 두 번 찔러 것도 없이 죽어 버렸다. 그리고 나서 요압과 그 동생 아비사이는 비크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았다.

11 그때에 요압의 부하 하나가 아파사 곁에 서서 말하였다.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의 뒤를 따르라."

12 그런데 아파사는 피투성이가 되어 큰길 한 가운데에 나동그라져 있었다. 그 부하는 온 백성이 멈추어 선 것을 보았다. 그는 아파사 곁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아파사를 큰길에서 들판으로 옮겨 놓은 뒤, 그 위에 옷을 던져 덮었다.

13 이렇게 아파사를 큰길에서 치우자, 모든 사람이 요압의 뒤를 따라 비크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았다.

14 세바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두루 거쳐

아벨 벧 마이커에 이르자, 비크리인들이 모두 모여 그의 뒤를 따랐다.

15 요압을 따르는 군사들이 그곳에 이르러 아벨 벧 마이커에 있는 그를 포위하고, 그 성읍을 치려고 공격 축대를 쌓아 바깥 성벽만큼 올렸다. 군사들이 모두 그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헐기 시작하였다.

16 그때에 어떤 지혜로운 여인이 성읍 안에서 외쳤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가 요압 장군님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 이리 가까이 와 주시라고 제발 전해 주세요."

17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자, 그 여인이 "요압 장군님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요압이 "그렇소." 하고 대답하니, 그 여인이 "이 여종의 말을 들어 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요압이 "내가 듣고 있소." 하고 대답하자,

18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옛적에 사람들은 '아벨에 물어보아야 한다.'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19 저는 이스라엘의 평화롭고 성실한 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도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 같은 성읍을 멸망시키려고 하십니다. 어찌하여 주님의 상속 재산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20 요압이 대답하였다.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오. 나는 맹세코 이곳을 삼키거나 파괴하지 않을 것이오."

21 사정은 그런 것이 아니오. 예프라임 산악 지방 출신으로 비크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 임금님께 반기를 들었소. 여러분이 그지만 남겨주면 나는 이 성읍에서 물러가겠소." 그 여인이 요압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의 머리를 성벽 너머로 장군님께 던지겠습니까."

22 그 여인이 가서 온 백성을 지혜롭게 설득하니, 그들이 비크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에게 던졌다. 요압이 나팔

을 불자 군사들은 성읍을 나와 흩어져, 저마다 제집으로 돌아갔다. 요압도 예루살렘으로 임금에게 돌아갔다.

다윗의 대신들

- 23 요압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지휘하고, 여호아다의 아들 브나야는 크렛족과 펠렛족을 지휘하였다.
- 24 아도람은 부역 감독이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팻은 기록관이었다.
- 25 스와는 서기관이고 차독과 에브야타르는 사제였다.
- 26 아이르 사람 이라도 다윗의 사제였다.

부록

기근과 사울 후손들의 처형

- 21 ¹ 다윗 시대에 연이어 세 해 동안 기근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께 곡절을 물으니, 주님께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탓으로, 그 피가 사울과 그의 집안에 머물러 있다."고 대답하였다.
- 2 임금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물어보았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족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살려 주기로 약속했는데도, 사울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대에 대한 열정에서 그들을 다 처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 3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다. "내가 그대들에게 무엇을 해 주면 좋겠소? 내가 어떻게 보상해야 그대들이 주님의 상속 재산을 축복해 주겠소?"
- 4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사울이나 그 집안과 저희 사이는 은이나 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저희는 이스라엘에서 어느 누구도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대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

엇이요? 내가 그대들에게 해 주겠소." 하고 말하자,

- 5 그들이 임금에게 청하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땅에서 저희가 살아남지 못하도록 저희를 없애 버리고 멸망시키려 한 그 사람,
- 6 그 사람의 자손 가운데 일곱 명을 저희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선택자 사울이 살던 기브온에서, 저희가 그들을 주님 앞에서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임금은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소." 하고 약속하였다.
- 7 그러나 임금은 자기와 사울의 아들 요나탄이 했던 주님의 맹세 때문에,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탄의 아들인 므피보셋은 살려 두었다.
- 8 임금은 아이의 딸 리즈파가 사울에게 낳아 준 두 아들, 곧 아르모니와 므피보셋,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이 므홀라 사람 바르질라의 아들 아드리에엘에게 낳아 준 아들 다섯을 붙들어나가,
- 9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산 위에 올라가 그들을 주님 앞에서 나무에 매달았다. 그렇게 그들 일곱은 함께 죽었다. 그들이 처형당한 것은 수확 철이 시작될 때, 곧 처음으로 보리를 거두어들이기 때였다.
- 10 아이의 딸 리즈파는 자루옷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펼쳐 놓고 앉아, 처음으로 보리를 거두어들이기 때부터 그 주검 위로 비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하늘의 새가 밤에는 들짐승이 그 주검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였다.
- 11 다윗은 사울의 후궁, 아이의 딸 리즈파가 한 일을 전해 듣고,
- 12 아베스 길앗의 주민들에게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탄의 뼈를 가져왔다. 그들은 펠리스티아인들이 길보아에서 사울을 죽이던 날, 벳 산 광장에 매달아 둔 사울과 요나탄의 주검을 그곳에서 몰래 거두어 간

이들이다.

- 13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탄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자, 사람들은 매달렸던 자들의 뼈도 거두었다.
- 14 그러고 나서 그들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탄의 뼈를, 벤아민 땅 켈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키스의 무덤에 묻었다. 이렇게 그들은 임금이 명령한 대로 다 하였다. 그런 다음에야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위한 간청을 들어주셨다.

필리스티아의 전사들과 다윗의 용사들

- 15 필리스티아인들과 이스라엘인들 사이에 다시 싸움이 일어났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내려가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우다가 지치게 되었다.
- 16 그때 라파의 후손 이스비 브느미라는 자가 청동 삼백 세켈이나 되는 창을 들고 허리에 새 칼을 차고는, 다윗을 죽이겠다고 나섰다.
- 17 그러나 츠루야의 아들 아버시아가 다윗을 도우러 와서,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내리쳐 죽였다. 그 뒤 다윗의 부하들은 "임금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다시는 싸움터에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임금님께서 이스라엘의 등불을 꺼 버리시게 될 것입니다." 하며 다짐을 받았다.
- 18 그다음에도 곱에서 필리스티아인들과 다시 싸움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후사 사람 시브카이가 라파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인 샵을 쳐 죽였다.
- 19 곱에서 필리스티아인들과 다시 싸움이 일어났다. 베들레헴 사람 아아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갓 사람 골리앗을 쳐 죽였는데, 골리앗의 창대는 베들의 용두머리만큼이나 굵었다.
- 20 갓에서도 싸움이 또 일어났다. 그때 어떤 거인이 나타났는데, 손가락과 발가락 수가

여섯 개씩 스물셋이었다. 그도 라파의 후손이었다.

- 21 그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욕을 퍼붓자,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 요나탄이 그를 쳐 죽였다.
- 22 이 네 사람은 갓에 살던 라파의 후손이었다. 그들은 다윗과 그 부하들의 손에 쓰러졌다.

다윗의 승전가

- 22 ¹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신 날, 다윗은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 2 그는 말하였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 3 저의 하나님, 이 몸 피신하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채, 저의 피난처, 저를 구원하시는 분. 당신께서는 저를 폭력에서 구원하셨습니다.
- 4 찬양받으실 주님을 불렀을 때 나는 원수들에게서 구원되었네.
- 5 죽음의 파도가 나를 둘러싸고 멸망의 급류가 나를 들이쳤으며
- 6 저승의 오락줄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울가미가 나를 덮쳤네.
- 7 이 곤경 중에 내가 주님을 부르고 내 하나님을 불렀더니 당신 궁전에서 내 목소리 들으셨네. 내 부르짖음 그분 귀에 다다랐네.
- 8 이에 땅이 흔들리며 떨고 하늘의 기초도 뒤들리며 흔들렸으니 그분께서 진노하신 까닭이네.
- 9 그분 코에서는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는 삼킬 듯 불길이 치솟았으며 그분에게서 숯불이 타올랐네.
- 10 그분께서 하늘을 기울여 내려오시니 먹구름이 그분 발밑을 뒤덮었네.
- 11 커룹 위에 올라 날아가시고 바람 날개 타고 나타나셨네.

- 12 어둠을 당신 주위에 둘러치시고 사커면 비 구름과 짙은 구름을 덮개로 삼으셨네.
- 13 그분 앞의 빛에서 뿜어 나오는 것 불타는 숯덩이들이었네.
- 14 주님께서 하늘에 우렛소리 내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당신 소리 울려 퍼지게 하셨네.
- 15 화살들을 쏘시어 그들을 흡으시고 번개로 그들을 어쩔 줄 모르게 하셨네.
- 16 바다의 밑바닥이 보이고 땅의 기초가 드러났네. 주님의 질타로, 그분 노호의 숨결로 그리되었네.
- 17 그분께서 높은 데에서 손을 뻗쳐 나를 붙잡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끌어내셨네.
- 18 나의 힘센 원수에게서, 나보다 강한 적들에게서 나를 구하셨네.
- 19 환난의 날에 그들이 나를 덮쳤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의지가 되어 주셨네.
- 20 넓은 곳으로 이끌어 내시어 나를 구하셨으니 내가 그분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네.
- 21 주님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나에게 행하시고 내 손의 결백함에 따라 나에게 갚아 주셨으니
- 22 내가 주님의 길을 지키고 나의 하느님을 배반하지 않았으며
- 23 그분의 모든 법규를 내 앞에 두고 그분의 규범을 내게서 물리치지 않았기 때문이네.
- 24 나 그분께 결백하게 지내 왔고 죄에 떨어질까 조심하였네.
- 25 주님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나에게 갚아 주셨네. 그분 앞에서 지켜 온 내 결백함에 따라 갚아 주셨네.
- 26 당신께서는 충실한 이에게는 충실하신 분으로 결백한 용사에게는 결백하신 분으로 당신을 나타내시고
- 27 깨끗한 이에게는 깨끗하신 분으로 대하시지만 그릇된 자에게는 비뚤어지신 분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 28 가련한 백성은 구원하시지만 거만한 자들은 끌어내리시려고 지켜보십니다.
- 29 주님, 정녕 당신은 저의 등불이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저의 어둠을 밝혀 주십니다.
- 30 정녕 당신의 도우심으로 제가 무리 속에 뛰어들고 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 31 하느님의 길은 결백하고 주님의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께서는 당신께 피신하는 모든 이에게 방패가 되신다.
- 32 정녕 주님 말고 그 누가 하느님이며 우리 하느님 말고 그 누가 반석이 되어 주겠는가?
- 33 하느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이시며 나의 길을 온전하게 놓아 주셨네.
- 34 내 발을 암사슴 같게 하시고 높은 곳에 나를 세워 주셨으며
- 35 내 손에 전투를 익혀 주시고 내 팔이 청동 활을 당기게 하셨네.
- 36 당신께서는 구원의 방패를 제게 주시고 순수 보살피시어 저를 크게 만드셨습니다.
- 37 제 발걸음 닿는 곳을 넓히시어 제 발목이 흔들리지 않았습디다.
- 38 저는 제 원수들을 뒤쫓아 멸망시키고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디다.
- 39 제가 그들을 무찌르고 내리치자 그들은 일어서지 못하고 제 발아래 쓰러졌습니다.
- 40 당신께서는 저에게 싸울 힘을 매어 주시어 저에게 맞서 일어난 자들을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 41 제 원수들을 달아나게 하시고 저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가 멸망시키게 하셨습니다.
- 42 그들은 바라보았으나 도와주는 이 없었고 주님께 청하였으나 그들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 43 저는 그들을 땅의 먼지처럼 갈아 부수고 거리의 오물처럼 부수고 짓밟았습니다.
- 44 당신께서 저를 백성의 다룸에서 구하시어

- 민족들의 우두머리로 지켜 주셨으니 제가 알지 못하던 백성이 저를 섬기고
- 45 이방인들이 저에게 아양 부리며 제 말을 듣자마자 저에게 복종하였습니다.
- 46 이방인들이 기진맥진하여 그들의 성곽에서 허리에 띠를 매고 나왔습니다.
- 47 주님께서 살아 계시다! 나의 반석께서는 찬미받으시라니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느님께서서는 드높으시다.
- 48 하느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 주시고 백성들을 내 발아래 굴복시키셨다.
- 49 당신께서는 제 원수들에게서 저를 빼내시고 저를 거슬러 일어난 자들에게서 들어 높이셨으며 포악한 자에게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 50 그러기에 주님, 제가 민족들 앞에서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 이름에 찬미 노래 바칩니다.
- 51 그분께서는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을 베푸시고 당신의 기쁨부음받음이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자애를 베푸신다."

다윗의 마지막 말

- 23** ¹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사의 아들 다윗의 신탁이며 높이 일으켜 세워진 사람의 말이다. 그는 야곱의 하느님의 기쁨부음받음이며 이스라엘의 노래들을 지은 이다.
- ²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담겨 있다.
- ³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으며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사람을 정의를롭게 다스리고 하느님을 경외하며 다스리는 이는
- ⁴ 구름 끼지 않은 아침, 해가 떠오르는 그 아침의 햇살 같고 비 온 뒤의 찬란함, 땅에서 돌아나는 새싹과 같다."
- ⁵ 나의 집안이 하느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않은가! 그분께서는 나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시

어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시고 굳건히 하셨다. 그분께서는 나의 구원과 소망을 모두 이루어 주시지 않는가!

- ⁶ 그러나 무뢰한들은 모두 버려진 가시덤불 같다. 아무도 그들을 손으로 찢 수 없지 않은가!
- ⁷ 그들을 만지려는 사람은 쇠 막대나 창 자루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니 그들은 그 자리에서 불타 없어지리라.

다윗의 용사들

- ⁸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하크모니 사람 요셉 바세벳은 세 용사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그는 한 전투에서 팔백 명에게 창을 휘둘러 그들을 모조리 죽인 사람이다.
- ⁹ 그다음으로 아호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아자르가 있었는데, 그도 세 용사 가운데 하나다. 그가 다윗과 함께, 싸움터에 집결해 있는 필리스티아인들에게 욕을 퍼부으며 맞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퇴한 적이 있었다.
- ¹⁰ 그러나 엘아자르는 버티고 서서 필리스티아인들을 쳐 죽였다. 나중에는 그의 손이 굳어져 칼에서 풀리지 않을 정도였다. 주님께서 그날 큰 승리를 이루어 주셨다. 그제야 다른 군사들도 그에게 돌아왔지만, 죽은 자들을 타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다.
- ¹¹ 그다음으로 하라르 사람 아계의 아들 삼마가 있었다. 필리스티아인들이 르히에 집결해 있을 때, 그곳에는 팔을 가득 심은 밭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필리스티아 군대를 보고 달아났다.
- ¹² 삼마는 밭 한가운데에 버티고 서서, 그것을 지키며 필리스티아인들을 쳐 죽였다. 이렇게 주님께서 큰 승리를 이루어 주셨다.
- ¹³ 수확 철에, 삼십 인의 우두머리 가운데 세 사람이 아들람 동굴에 있는 다윗에게 내려

- 갔는데, 필리스티아인들 한 무리가 르파임 골짜기에 잔을 치고 있었다.
- 14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필리스티아인들의 수비대는 베들레헴에 있었다.
- 15 다윗이 간절하게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저수 동굴에서 물을 가져다가 나에게 마시도록 해 주었으면!"
- 16 그러자 그 세 용사들이 필리스티아인들의 진영을 뚫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저수 동굴에서 물을 길어 다윗에게 가져왔다. 그러나 그는 그 물을 마시기를 마다하고 주님께 부어 바치며
- 17 말하였다. "이 물을 마셨다가는 주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가져온 부하들의 피가 아닌가!" 그러면서 다윗은 그 물을 마시기를 마다하였다. 그 세 용사가 바로 그런 일을 하였다.
- 18 츠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사이는 삼십 인 부대의 우두머리였다. 바로 그가 창을 휘둘러서 삼백 명을 찔러 죽여 그 세 사람과 함께 이름을 날렸다.
- 19 그는 삼십 인 가운데에서 큰 명성을 떨쳐 그들의 장수가 되었지만, 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 20 여호아더의 아들 브나야는 캅츠엘 출신으로 큰 공을 세운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는 모압의 두 전사를 쳐 죽이고, 또 눈 오는 날 저수 동굴 속으로 내려가 사자를 쳐 죽였다.
- 21 그리고 그는 풍채 좋은 이집트인 하나를 쳐 죽였다. 그 이집트인은 손에 창을 들고 있었으나 브나야는 막대기만 가지고 내려가, 이집트인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찔러 죽였다.
- 22 여호아더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들을 하여 세 용사와 함께 이름을 날렸다.
- 23 그는 삼십 인 가운데에서 큰 명성을 떨쳤지만, 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 다윗은 그를 호위대장으로 삼았다.
- 24 삼십 인 부대원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
- 25 허롯 사람 삼마와 허롯 사람 옐리카,
- 26 펠렛 사람 헬레츠, 트코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
- 27 아나돗 사람 아비에제르, 후사 사람 므부나이,
- 28 아호아 사람 찰몬, 느토와 사람 마하라이,
- 29 느토와 사람 바아나의 아들 헬렘, 벤아민의 자손들에게 속한 기브아 출신 리바이의 아들 이타이,
- 30 피르아톤 사람 브나야, 가이스 계곡 출신 히파이,
- 31 아라바 사람 아비 알본, 바후림 사람 아즈마,
- 32 사알본 사람 엘야흐바, 아센의 아들들과 요나단,
- 33 하라르 사람 삼마, 하라르 사람 사라르의 아들 아히암,
- 34 마이가 사람 아하스바이의 아들 엘리펠렛, 길로 사람 아히토텔의 아들 엘리암,
- 35 카르멜 사람 헤츠로, 아라브 사람 파이라이,
- 36 초바 출신 나탄의 아들 이그알, 가드 사람 바니,
- 37 암몬 사람 헬렘, 츠루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병인 브에롯 사람 나하라이,
- 38 아티르 사람 이라, 아티르 사람 가렘,
- 39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 이렇게 모두 서른일곱 명이었다.

인구 조사와 흑사병

- 24 ¹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인들에게 진노하시어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 2 그리하여 임금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대

- 의 장수 요압에게 말하였다. "단에서 브에르 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시오 내가 백성의 수를 알고자 하오."
- 3 그러나 요압이 임금에게 아뢰었다.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서 백성을 지금보다 백 배나 불어나게 하시어,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만,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 4 그러나 임금의 말이 요압과 군대의 장수들을 위압하였다. 그리하여 요압과 군대의 장수들은 임금 앞에서 물러 나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 떠났다.
- 5 그들은 요르단을 건너 아로에르에 진을 치고 갓 골짜기 한가운데에 있는 성읍 오르쪽에서 시작하여 아제르까지 조사하였다.
- 6 그리고 나서 그들은 길앗을 거쳐 타흐뎸 핫시의 땅에 이르고, 그다음 단 아난을 거쳐 시돈을 돌았다.
- 7 거기에서 그들은 티로 요새와 히위족과 가나안족의 모든 성읍으로 들어섰다가, 유다의 내륙 지방 브에르 세바 쪽으로 나아갔다.
- 8 그들은 이렇게 온 땅을 두루 다닌 다음, 아홉 달 스무 날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 9 요압이 조사한 백성의 수를 임금에게 보고하였는데, 이스라엘에서 칼을 다룰 수 있는 장정이 팔십만 명, 유다에서 오십만 명이었다.
- 10 다윗은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한 다음, 양심에 가책을 느껴 주님께 말씀드렸다. "제가 이런 짓으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당신 종의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제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 11 이튿날 아침 다윗이 일어났을 때, 주님의 말씀이 다윗의 환시자인 가드 예언자에게 내렸다.
- 12 "다윗에게 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일러라. '내가 너에게 세가지를 내놓을 터이니, 그 가운데에서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 13 가드가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알렸다. "임금님 나라에 일곱 해 동안 기근이 드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임금님을 뒤쫓는 적들을 피하여 석 달 동안 도망다니시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임금님 나라에 사흘 동안 흑사병이 퍼지는 것이 좋습니까? 저를 보내신 분께 무엇이라고 회답해야 할지 지금 잘 생각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14 그러자 다윗이 가드에게 말하였다. "괴롭기 그지없으려. 그러나 주님의 자비는 크시니, 사람 손에 당하는 것보다 주님 손에 당하는 것이 낫겠소."
- 15 그리하여 주님께서 그날 아침부터 정해진 날까지 이스라엘에 흑사병을 내리시니, 단에서 브에르 세바까지 백성 가운데에서 칠만 명이 죽었다.
- 16 천사가 예루살렘을 파멸시키려고 그쪽으로 손을 뻗치자, 주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을 후회하시고 백성을 파멸시키는 천사에게 이르셨다. "이제 됐다. 손을 거두어라." 그때에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있었다.
- 17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바로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못된 짓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양들이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니 제발 당신 손으로 저와 제 아버지의 집안을 쳐 주십시오."
- 18 가드가 그날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 시어 주님을 위한 제단을 세우십시오."
- 19 다윗은 가드의 말에 따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곳에 올라갔다.

- 20 아라우나가 내려다보니, 임금과 그 신하들이 자기에게 건너오고 있었다. 아라우나는 곧 임금 앞에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다.
- 21 그러고 나서 아라우나는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무슨 일로 이 종에게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다윗이 대답하였다. "그대에게 타작마당을 사서 주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 드리려고 하오. 그러면 재난이 백성에게서 돌아설 것이오."
- 22 그러자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은 무엇이나 가져다가 바치십시오. 여기 번제물로 바칠 소도 있고, 빨감으로 쓸 탈곡기와 소 멍에도 있습니다.
- 23 임금님,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것을 임금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아라우나는 임금에게 이렇게 덧붙여 말하였다.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서 임금님을 기꺼이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 24 그러나 임금은 아라우나에게 "아니오. 당신에게 값을 주고 그것을 사야겠소. 나는 거저 얻은 것을 주 너의 하느님께 바치지 않겠소." 하고 말하였다. 다윗은 은 쉰 세켈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 25 그러고 나서 다윗은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쳤다. 주님께서 나라를 위하여 바치는 그의 간청을 들어주시니,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난이 그쳤다.

구약성경 - 11

역사서 - 6

열왕기 상

총 22 장

총 817 절

[구약성경-열왕기 상권]

다윗과 수넬 처녀

- 1 ¹ 다윗 임금이 늙고 나이가 많이 들자,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았다.
- 2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군이신 임금님께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 드려 임금님을 시중들고 모시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처녀를 품에 안고 주무시면 주군이신 임금님의 몸이 따뜻해지실 것입니다."
- 3 그리하여 신하들은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아름답고 젊은 여자를 찾다가, 수넬 여자 아비삭을 찾아내고는 그 처녀를 임금에게 데려왔다.
- 4 그 젊은 여자는 매우 아름다웠다. 그가 임금을 모시고 섬기게 되었지만, 임금은 그와 관계하지는 않았다.

아도니야가 임금 행세를 하다

- 5 한편 하깃의 아들 아도니야는 "내가 임금이 될 것이다." 하면서 거만을 부렸다. 그러고는 자기가 탈 병거와 말을 마련하고, 호위병 선 명을 두었다.
- 6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평생 한 번도 그에게 "내가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물으며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다. 아도니야 또한 용모가 뛰어나고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던 것이다.
- 7 아도니야가 츠루아의 아들 요압과 에브아타르 사제와 의논하자, 그들은 아도니야를 지지하였다.
- 8 그러나 차독 사제, 여호아다의 아들 브나야, 나탄 예언자, 시므이와 레위,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야 편에 서지 않았다.
- 9 아도니야는 왕자들인 자기의 모든 형제와 임금의 신하들인 유다의 모든 남자를 엔 로겔 근처 초헬렛 비위에 불러 놓고, 양과 소

와 살진 송아지를 잡아 제사를 드렸다.

- 10 그러나 나탄 예언자와 브나야와 용사들, 그리고 자기 동생 솔로몬은 부르지 않았다.

나탄과 밧 세바의 계책

- 11 그때에 나탄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 세바에게 말하였다. "주군이신 다윗 임금님께서도 모르시는 사이에 하깃의 아들 아도니야가 임금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 12 이제 제가 의견을 드릴 터이니, 당신의 목숨과 당신 아들 솔로몬의 목숨을 구하십시오.
- 13 당장 다윗 임금님께 들어가서 이렇게 아뢰십시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임금님께서는 일찍이 이 여종에게, '너의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임금이 되고, 내 왕좌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아도니야가 임금이 되었습니까?'
- 14 당신께서 임금님께 아뢰고 계시면, 저도 뒤따라 들어가 그 말씀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15 그리하여 밧 세바는 침전으로 임금을 찾아가다. 그때 임금은 매우 늙어서 수넬 여자 아비삭이 그를 섬기고 있었다.
- 16 밧 세바가 무릎을 꿇고 임금에게 절하자, 임금이 "무슨 일이요?" 하고 물었다.
- 17 밧 세바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임금님, 임금님께서 주 임금님의 하느님을 두고 이 여종에게, '너의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임금이 되고, 내 왕좌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맹세하셨습니다.
- 18 그런데 지금 아도니야가 임금이 되었는데도,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모르고 계십니다.
- 19 그는 모든 왕자와 에브아타르 사제, 그리고 군대의 장수 요압을 불러 놓고, 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의 종 솔로몬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 20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의 뒤를 이어 누가 왕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실지, 온 이스라엘이 임금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 21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조상들과 함께 잠드시는 날, 저와 제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될 것입니다."
- 22 밋 세바가 아직 임금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나탄 예언자가 들어왔다.
- 23 시종들이 "나탄 예언자 드십니다." 하고 임금에게 고하자, 나탄은 임금 앞에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 24 이뢰었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임금님께서는 '아도니아가 내 뒤를 이어 임금이 되고, 내 왕좌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25 오늘 그가 내려가 모든 왕자와 군대의 장수들, 그리고 에브야타르 사제를 불러 놓고, 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지금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임금 만세!'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 26 그러나 그는 임금님의 종인 저와 차독 사제, 여호아다의 아들 브나야와 임금님의 종인 솔로몬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 27 이런 일이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의 명령에 따라 일어났겠습니까? 임금님께서서는 누가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의 뒤를 이어 왕좌에 앉게 될 것인지 임금님의 신하들에게 알려 주신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명령으로 임금이 되다

- 28 그러자 다윗 임금은 "밋 세바를 불러오너라." 하고 말하였다. 밋 세바가 들어와 임금 앞에 서자,

- 29 임금이 이렇게 맹세하였다. "온갖 재난에서 내 목숨을 구해 주신, 살아 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오.
- 30 내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고 그대에게, '그대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임금이 되고, 나 대신 왕좌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으니, 오늘 그대도 하겠소."
- 31 밋 세바는 무릎을 꿇어 얼굴을 땅에 대고 임금에게 절하며 이뢰었다. "저의 주군이신 다윗 임금님, 만수무강하십시오."
- 32 다윗 임금이 "차독 사제와 나탄 예언자, 그리고 여호아다의 아들 브나야를 불러오너라."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임금 앞으로 나오자,
- 33 임금이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그대들 주군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워 기혼으로 내려가시오.
- 34 거기에서 차독 사제와 나탄 예언자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시오. 그러고 나서 나팔을 분 다음, '솔로몬 임금 만세!' 하고 외치시오.
- 35 그리고 그를 따라 올라오시오. 그가 와서 내 왕좌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임금이 될 것이요. 내가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영도자로 임명하였소."
- 36 여호아다의 아들 브나야가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아멘,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의 주 하느님께서도 좋다고 하시기를 빕니다.
- 37 주님께서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과 함께 계셨듯이 솔로몬과도 함께 계시어, 그의 왕좌가 저의 주군이신 다윗 임금님의 왕좌보다 더 높게 되기를 빕니다."
- 38 그리하여 차독 사제와 나탄 예언자, 여호아다의 아들 브나야, 크렛 사람들과 펠렛 사람들이 내려가, 솔로몬을 다윗 임금의 노새에 태워 기혼으로 데리고 갔다.
- 39 차독 사제가 기름 담은 빵을 천막에서 가

저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나서 나팔을 분 다음, 모든 백성이 "솔로몬 임금 만세!" 하고 외쳤다.

40 모든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피리를 불고 올라가며 큰 기쁨에 넘쳐 환호하였는데, 그 소리에 땅이 갈라질 지경이었다.

41 아도니아와 그에게 초대받은 모든 사람이 향연을 마치려 하다가 이 소리를 들었다. 요압이 나팔 소리를 듣고는 "저 성읍이 왜 저렇게 소란스러우냐?" 하고 물었다.

42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에브야타르 사제의 아들 요나단이 나타났다. 아도니아가 말하였다. "어서 오게. 그대는 훌륭한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겠지."

43 그러자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 주군 다윗 임금님께서 솔로몬을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44 임금님께서 차독 사제와 나탄 예언자, 여호아다의 아들 브나야, 크렛 사람들과 펠렛 사람들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은 솔로몬을 임금님의 노새에 태웠습니다.

45 그리고 차독 사제와 나탄 예언자는 기혼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임금으로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기뻐하며 올라가느라 성읍이 떠들썩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신 소리가 바로 그 소리입니다.

46 솔로몬은 왕좌에 앉기까지 하였고,

47 더구나 임금님의 신하들이 우리 주군 다윗 임금님께 와서, 이렇게 축복하였습니다. '임금님의 하느님께서 임금님의 이름보다 솔로몬의 이름을 더 훌륭하게 하시고, 임금님의 왕좌보다 그의 왕좌를 더 높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임금님께서도 친히 침상에서 절을 하시며,

48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 왕좌에 앉을 사람 하나를 주시고, 이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49 그러자 아도니아에게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두 떨면서 일어나 저마다 제 갈 길로 가 버렸다.

50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대하기가 두려워서, 일어나 제단으로 가 그 뿔을 움켜잡았다.

51 그러자 솔로몬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전하였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임금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단의 뿔을 움켜잡고, '솔로몬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종을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지금 저에게 맹세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52 솔로몬이 말하였다. "만일 그가 훌륭한 사람답게 처신한다면 머리카락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서 악이 드러나면 마땅히 죽을 것이다."

53 그러고 나서 솔로몬 임금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내려오게 하니, 그가 솔로몬 임금에게 와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솔로몬은 그에게 "집으로 가시오." 하고 일렀다.

다윗이 죽다

2 ¹ 다윗은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일렀다.

2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간다. 너는 사나이답게 힘을 내어라.

3 주 네 하느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을 걸으며, 또 모세 법에 기록된 대로 하느님의 규정과 계명, 법규와 증언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4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네 자손들이 제 길을 지켜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실히 걸으면, 네 자손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당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5 더구나 너는 츠루아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것,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수,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와 에테르의 아들 아미사에게 한 것을 알고 있다. 요압은 그들을 죽여 전쟁 때에 흘린 피를 평화로운 때에 값으로 써, 그 피를 자기 허리띠와 신발에 묻혔다.

6 "그러니 너는 지혜롭게 처신하여, 백발이 성성한 그자가 평안히 저승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여라.

7 그러나 길앗 사람 바르질리아의 아들들에게는 자애를 베풀어, 네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네 형 압살롬을 피해 달아날 때, 나를 그렇듯 충성스럽게 맞아 주었다.

8 또 바후림 출신으로 벤아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는데, 그는 내가 마하나임에 간 날 나를 심하게 저주한 자다. 그렇지만 그가 요르단 강으로 나를 마중 나왔을 때, 나는 주님을 두고 '그대를 칼로 죽이지 않겠소.' 하고 맹세하였다.

9 그러나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이제 그런 자에게 벌을 내리지 않은 채 그냥 두지 마라. 너는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 것이다. 백발이 성성한 그자가 피를 흘리며 저승으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10 다윗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 묻혔다.

11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마흔 해이다. 헤브론에서 일곱 해, 예루살렘에서 서른세 해를 다스렸다.

12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왕좌에 앉자, 그의 왕권이 튼튼해졌다.

아도니아가 죽다

13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밋 세바를 찾아갔다. 밋 세바가 "좋은 마음으로 왔느냐?" 하고 묻자, 그는 "좋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4 그러면서 그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였다. "말해 보아라." 하고 밋 세바가 허락하자,

15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모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나라는 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도 제가 임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뒤집어져 아우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가 주님에게서 그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6 이제 모후께 한 가지 청을 드리니 거절하지 마십시오." 밋 세바가 그에게 "말해 보아라." 하자,

17 그는 이렇게 청하였다. "솔로몬 임금님에게 말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제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임금님은 모후의 청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18 밋 세바가 대답하였다.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임금에게 말해 주마."

19 그리하여 밋 세바는 아도니아를 위하여 청을 하러 솔로몬 임금에게 갔다. 임금은 일어나 어머니를 맞으며 절하고 왕좌에 앉았다. 그리고 임금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의자를 가져오게 하여 그를 자기 오른쪽에 앉게 하였다.

20 밋 세바가 "작은 청이 하나 있는데, 거절하지 마시오." 하자, 임금이 그에게 "어머니, 말씀하십시오.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21 밋 세바가 말하였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임금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 주시오."

22 이에 솔로몬 임금이 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어찌하여 어머니께서는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청하십니까? 차라리 그에게 나라를 주라고 청하시지요! 그는 저의 형이고, 또 그의 편에 에브야타르 사제와 트루아의 아들 요압도 있으니 말입니다."

23 그러고 나서 솔로몬 임금은 주님을 두고

맹세하였다. "아도니아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말을 하였으니, 그 목숨을 살려 두면 하느님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입니다."

24 이제 저를 세우시어 아버지 다윗의 왕좌에 앉히시고,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집안을 일으켜 주신, 살아 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아도니아는 오늘 죽을 것입니다."

25 그리고 나서 솔로몬 임금이 여호아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어 아도니아를 내려치게 하니, 아도니아가 죽었다.

에브야타르와 요압의 운명

26 임금은 에브야타르 사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봇에 있는 그대의 땅으로 가시오, 그대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그대가 나의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하느님의 궤를 날랐고, 또 아버지와 온갖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므로 오늘 그대를 죽이지 않겠소."

27 그런 다음 솔로몬은 에브야타르를 주님의 사제직에서 내쫓았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실로에 있는 엘리 집안을 두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28 이 소식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그는 압살롬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아도니아를 지지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천막으로 도망쳐 제단의 뿔을 잡았다.

29 솔로몬 임금은 요압이 주님의 천막으로 도망쳐 제단 곁에 있다는 보고를 듣고, 여호아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가서 그를 내려치시오." 하고 일렀다.

30 브나야가 주님의 천막으로 가서 요압에게 "어명시오 나오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못 나가겠소. 차라리 여기서 죽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브나야가 임금에게 돌아가서 "요압이 이러저러하게 저에게 대답하였습니다." 하고 보고하자,

31 임금이 다시 브나야에게 일렀다. "그가 말한 대로 해 주시오, 그를 내려치고 묻으시오, 그리하여 요압이 흘린 죄없는 사람의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안에서 치워 주시오."

32 주님께서서는 요압이 흘린 피에 대한 책임을 그의 머리 위로 돌리실 것이요, 사실 요압은 나의 아버지 다윗께서 모르는 사이에, 자기보다 의롭고 나은 두 사람, 이스라엘 군대의 장수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와 유다 군대의 장수 에테르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내려쳐 죽였소.

33 그들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요압의 머리와 그 후손의 머리 위로 영원히 돌아가고, 다윗과 그 후손, 그 집안과 왕좌는 주님에게서 영원토록 평화를 얻게 될 것이요."

34 그리하여 여호아다의 아들 브나야는 요압이 있는 데로 올라가 그를 내려쳐 죽였다. 요압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묻혔다.

35 임금은 요압의 자리에 여호아다의 아들 브나야를 임명하여 군대를 지휘하게 하고, 에브야타르의 자리에는 차독 사제를 임명하였다.

시므이가 죽다

36 그 뒤 임금은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너는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라.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어느 곳으로도 나가면 안 된다.

37 나아서 키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을 줄 알아라. 네 피에 대한 책임이 네 머리 위로 돌아갈 것이다."

38 시므이가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 종은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시므이는 예루살렘에서 한동안 살았다.

39 그런데 세 해가 지날 무렵, 시므이의 종 들

이 갓 임금 마아카의 아들 아키스에게 달아났다. 사람들이 시므이에게 "나리의 종들이 갓에 있습니다." 하고 알리자,

- 40 시므이는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엮고 자기 종들을 찾으러 갓에 있는 아키스에게 갔다. 그가 직접 가서 종들을 데려왔던 것이다.
- 41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 갓에 다녀온 일이 솔로몬에게 보고되었다.
- 42 임금은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주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지 않았느냐? '네가 여기에서 나가 어느 곳으로든 가는 날에는 정녕 죽을 줄 알아라.' 하고 내가 경고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도 '지당하신 말씀이니 순종하겠습니다.' 하였다.
- 43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주님을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너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
- 44 임금이 계속해서 시므이에게 말하였다. "네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온갖 못된 짓을 너 자신이 마음속으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내가 저지른 악을 네 머리 위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 45 그러나 나 솔로몬 임금은 복을 받으며 다윗의 왕좌는 주님 앞에서 영원히 튼튼해질 것이다."
- 46 그리고 나서 임금이 여호아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니, 브나야가 나가서 시므이를 내려치자 그가 죽었다. 이리하여 솔로몬의 손안에서 왕권이 튼튼해졌다.

솔로몬이 파랏오의 딸과 혼인하다

- 3¹ 솔로몬은 이집트 임금 파랏오와 혼인 관계를 맺었다. 그는 파랏오의 딸을 맞아들여, 자기 집과 주님의 집과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성벽을 다 짓기까지 그 아내를 다윗 성에 머무르게 하였다.
- 2 주님의 이름을 위한 집이 그때까지 지어지

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 3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여,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규정을 따라 살았다. 그러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웠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꿈을 꾸다

- 4 임금은 제사를 드리러 기브온에 갔다. 그곳이 큰 산당이었던 때문이다. 솔로몬은 그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천 마리씩 바치곤 하였다.
- 5 이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한밤중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다.
- 6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당신 종인 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자애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당신 앞에서 진실하고 의롭고 올곧은 마음으로 걸었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는 그에게 그토록 큰 자애를 내리시어, 오늘 이렇게 그의 왕좌에 앉을 아들이라 주셨습니다.
- 7 그런데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당신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만, 저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서 백성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 8 당신 종은 당신께서 뽑으신 백성,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당신 백성 가운데에 있습니다.
- 9 그러니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느 누가 이렇게 큰 당신 백성을 통치할 수 있었습니까?"
- 10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
- 11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것을 청하였으니, 곧 자신을 위해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부를 청하지도 않고, 네 원수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않고, 그 대신 이처럼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하였으니,

- 12 자, 내가 네 말대로 해 주겠다. 이제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너 같은 사람은 네 앞에도 없었고, 너 같은 사람은 네 뒤에도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 13 또한 나는 네가 청하지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너에게 준다. 네 일생 동안 임금들 가운데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 14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향이 걸었듯이 내 길을 걸으며, 내 규정과 내 계명을 지키면 네 수명도 늘려 주겠다."
- 15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 주님의 계약 궤 앞에 서서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치고, 모든 신하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솔로몬의 판결

- 16 하루는 창녀 둘이 임금에게 나아가 그 앞에 섰다.
- 17 한 여자가 말하였다. "저의 임금님! 저와 이 여자는 한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에 이 여자도 집에 있었습니다.
- 18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집에는 저희 둘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 안에는 저희 둘뿐이었습니다.
- 19 그런데 밤에 이 여자가 아들을 깔고 자는 바람에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 20 그러자 이 여자는 그 밤중에 일어나, 당신 여종이 잠자는 사이에 갈에 있던 제 아들을 데려다 자기 품에 넣어 놓고, 죽은 자기 아들을 제 품에 넣어 놓았습니다.
- 21 제가 아침에 일어나 제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다 보니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이어서 그 아이를 자세히 보니 제가 낳

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 22 그러자 다른 여자가 "천만에! 산 아이는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야." 하고 우겼다. 처음 여자도 "아니야.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고, 산 아이가 내 아들이야." 하고 우겼다. 그렇게 그들은 임금 앞에서 말다툼을 하였다.
- 23 그때에 임금이 말하였다. "한 사람은 '살아 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너의 아이다.' 하고, 다른 사람은 '아니다.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고 산 아이가 내 아이다.' 하는구나."
- 24 그러면서 임금은 "칼을 가져오너라." 하고 말하였다. 시종들이 임금 앞에 칼을 내오자,
- 25 임금이 다시 말하였다. "그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쪽은 이 여자에게, 또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 26 그러자 산 아이의 어머니는 제 아들에 대한 모성애가 솟구쳐 올라 임금에게 아뢰었다. "저의 임금님! 산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제발 그 아기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너의 아이도 안 된다. 자, 나누시오!" 하고 말하였다.
- 27 그때에 임금이 이렇게 분부하였다. "산 아기를 죽이지 말고 처음 여자에게 내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기의 어머니다."
- 28 임금이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을 온 이스라엘이 들었다. 그리고 임금에게 하느님의 지혜가 있어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을 알고는 임금을 두려워하였다.

솔로몬의 대신들

- 4 ¹ 솔로몬 임금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었을 때,
- 2 그의 대신들은 이러하다. 차독의 아들 아자르야는 사제,

- 3 시사의 아들 엘리호렘과 아히야는 서기관이고, 아히랏의 아들 여호사팻은 역사 기록관이었으며,
 4 여호아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대 지휘관이었고, 차독과 에브야타르는 사제였다.
 5 나탄의 아들 아자르야는 지방관들을 관리하였고, 나탄의 아들 자붓은 사제이며 임금의 벗이었다.
 6 아히사르는 궁내 대신이고,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부역 감독이었다.
 7 솔로몬은 또 온 이스라엘에 열두 지방관을 두어, 임금과 왕실에 양식을 대도록 하였다. 한 사람이 한 해에 한 달씩 양식을 대었는데,
 8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후르의 아들이 에프림 산악 지방을 맡고,
 9 데케르의 아들이 마카즈와 사알빔과 벧 세메스와 엘론 벧 하난을,
 10 헤셋의 아들이 아루랏과 소코와 헤페르 땅 전체를 맡았다.
 11 또 솔로몬의 딸 타팻을 아내로 삼은 아비나답의 아들이 도르의 고지대 전체를 맡고,
 12 아히랏의 아들 바야나가 타아낙과 므기또, 이스라엘 아래 차르탄 곁에 있는 벧 스안 전체와, 벧 스안에서 아벨 므홀라에 이르는 지역, 곧 요크므암 건너편까지를,
 13 그리고 게베르의 아들이 라못 길앗을 맡았다. 그의 지역은 길앗에 있는 므나세아의 아들 '아이르의 부락들'과, 바산의 이르굽 지역에 있는, 성벽과 창동 빗장을 갖춘 큰 성읍 예순 개였다.
 14 그리고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 마하나임을 맡고,
 15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은 아히마아츠가 납탈리를,
 16 후사이의 아들 바야나가 아세르와 브알롯을,
 17 파루아의 아들 여호사팻이 이사카르를,

- 18 엘라의 아들 시므이가 벤아민을,
 19 우리의 아들 게베르가 길앗 땅, 곧 아모리 임금 시혼과 바산 임금 옥의 땅을 맡았다. 그리고 유다 땅을 맡은 지방관은 따로 있었다.

솔로몬의 통치 아래 왕국이 굳건해진다

- 20 유다와 이스라엘은 그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다. 그들은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지냈다.

5 ¹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필리스티아 땅까지, 그리고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그들은 솔로몬이 살아 있는 동안 내내 조공을 바치며 그를 섬겼다.

- 2 솔로몬의 하루 양식은 고운 밀가루 서른 코르와 거친 밀가루 예순 코르,
 3 살진 소 열 마리와 목장 소 스무 마리와 양백 마리였고, 그 밖에 수사슴과 영양, 수노루와 살진 새들이 있었다.
 4 그는 틱사에서 가지에 이르기까지 유프라테스 서쪽 지역 전체를, 곧 유프라테스 서쪽 임금을 통치하고 사방 모든 지역에서 평화를 누렸다.
 5 솔로몬이 살아 있는 동안 내내 유다와 이스라엘에서는 단에서 브에르 세비에 이르기까지,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마음 놓고 살았다.
 6 솔로몬에게는 병거 끄는 말을 두는 마구간이 사만 칸 있었고, 기병이 만 이천 명 있었다.
 7 그리고 지방관들은 솔로몬 임금과 솔로몬 임금의 식탁에 함께 앉은 모든 이를 위하여, 저마다 한 달씩 부족함이 없게 양식을 대었다.
 8 그들은 또 끄는 말들과 타는 말들이 먹을 보리와 밀짚도 저마다 맡은 양에 따라 지정

한 곳으로 가져갔다.

솔로몬이 이름을 떨쳤다

- 9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매우 뛰어난 분별력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주시니,
10 솔로몬의 지혜는 동방 모든 이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11 그는 어느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제라 사람 에탄이나 마홀의 아들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더 지혜로웠으므로, 주변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 이름을 떨쳤다.
12 그는 잠언을 삼천 개나 지었고, 그의 노래는 찬다섯 편이나 되었다.
13 솔로몬은 레바논에 있는 향백나무부터 담벼락에서 자라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초목들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었으며, 짐승과 새와 기어 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관하여도 이야기할 수 있었다.
14 그리하여 모든 민족들에게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 그 가운데에는 세상 모든 임금도 그의 지혜에 관하여 소문을 듣고 보낸 이들도 있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다

- 15 솔로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임금으로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티로 임금 히람은 언제나 다윗을 좋아하였던 까닭에 솔로몬에게 신하들을 보냈다.
16 그러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17 "임금님도 아시다시피, 내 아버지 다윗은 그분의 하느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사방에서 그를 둘러싼 자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까지, 그들과 전쟁을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18 그러나 이제 주 나의 하느님께서 나를 사방으로부터 평온하게 해 주시어, 적대자도

없고 불상사도 없습니다.

- 19 나는 주 나의 하느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너 대신 네 왕좌에 앉힐 너의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20 그러니 이제 명령을 내리시어 나를 위해 레바논의 향백나무를 베어 주십시오. 내 종들이 임금님의 종들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임금님의 종들에게는 임금님이 정하시는 대로 품삯을 주겠습니다. 임금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가운데에는 시든 사람처럼 나무를 벨 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21 히람은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하였다.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어 이 큰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 주님께서서는 오늘 찬미받으소서."
22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나에게 보내신 전갈을 받았습니다. 향백나무든 방백나무든 원하시는 것을 다 해 드리겠습니다.
23 나의 종들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나무를 나르면, 내가 그것으로 뗏목을 만들어 바다로 띄워서, 임금님이 나에게 지시하시는 장소로 옮기겠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뗏목을 풀면 그것을 날라 가십시오. 그리고 그 대가로 나의 왕실에서 쓸 양식을 보내 주시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24 이렇게 해서 히람은 솔로몬이 원하는 만큼 향백나무와 방백나무를 보내 주었다.
25 그리고 솔로몬은 히람 왕실의 양식으로, 밀이만 코르와 쟈어서 짠 기름 스무 코르를 히람에게 보내 주었다. 솔로몬은 해마다 이만큼씩 히람에게 보내 주었다.
26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혜를 내리 주시어,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자리 잡았고, 그 둘은 조약을 맺었다.
27 솔로몬 임금은 온 이스라엘에 부역 소집령

을 내렸다. 부역꾼은 삼만 명이였다.

- 28 그는 그들을 한 달에 만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냈다. 그들은 레바논에서 한 달, 집에서 두 달을 머무르게 되었는데, 아도니람이 그 부역 감독이었다.
- 29 솔로몬은 짐꾼 칠만과 돌을 떠내는 사람 팔만을 산악 지방에 두었다.
- 30 그 밖에도 솔로몬에게는 일을 감독하는 고급 관리 삼천삼백 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일하는 사람들의 책임자였다.
- 31 고급 관리들은 임금의 명령에 따라 다듬은 돌로 주님의 집 기초를 놓으려고 크고 값진 돌들을 캐내었다.
- 32 이렇게 솔로몬의 건축가들과 히람의 건축가들과 그말 사람들이 돌을 깎아 내고, 주님의 집을 지을 나무와 돌을 마련하였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다

- 6¹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사백팔십 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사 년째 되던 해 자우달,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은 주님의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 2 솔로몬 임금이 주님께 지어 바친 집은 그 길이가 예순 암마, 너비가 스무 암마, 높이가 서른 암마였다.
- 3 주님의 집 성소 앞에 있는 현관은 좌우 길이가 그 집의 너비와 똑같이 스무 암마이고, 집 앞으로 나온 그 현관의 길이는 열 암마였다.
- 4 그는 집에 네모난 격자창들을 만들어 달았다.
- 5 그리고 집의 벽을 돌아가며 그 벽들에 사방으로 결체를 짓고, 성소와 안쪽 성소를 돌아가며 사방에 결방들을 만들었다.
- 6 결체의 아래층은 너비가 다섯 암마이고 가운데 층은 너비가 여섯 암마이며, 삼층은 너비가 일곱 암마였다. 그리고 집 둘레에
- 비깁쪽으로 턱을 만들어 결체의 들보가 그 집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다.
- 7 집은 채석장에서 다듬은 돌로 지었다. 그래서 그것을 지을 때에, 망치나 정이나 그 어떤 쇠 연장 소리도 그 집에서는 들리지 않았다.
- 8 결방 아래층의 입구는 집 오른쪽에 나 있어, 층계를 밟고 가운데 층으로 올라가고 또 가운데 층에서 삼 층으로도 올라갔다.
- 9 이렇게 솔로몬은 집 짓는 일을 마쳤는데, 그 집을 향백나무 널빤지와 들보로 덮었다.
- 10 그는 집 전체에 결체를 붙여 지었는데, 높이가 다섯 암마였다. 결체는 향백나무 재목으로 그 집에 이어졌다.
- 11 주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내렸다.
- 12 "네가 짓는 이 집을 두고 하는 말이다. 만일 내가 나의 규정대로 걷고 내 법규를 따르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걸으면, 나는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한 것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 13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않겠다."
- 14 이렇게 솔로몬은 집 짓는 일을 마쳤다.
- 15 그는 집의 안쪽 벽을 바닥에서 천장 들보에 이르기까지 향백나무 널빤지로 붙이고, 집의 바닥은 방백나무 널빤지로 깔았다.
- 16 그리고 스무 암마 되는 집 안쪽은 바닥에서 들보까지 향백나무 널빤지로 붙였는데, 그곳을 안쪽 성소 곧 지성소로 지었다.
- 17 그 집, 곧 앞쪽에 있는 성소는 마흔 암마였다.
- 18 집 안쪽에 입힌 향백나무에는 조롱박과 활짝 핀 꽃이 새겨져 있었다. 모두 향백나무이며 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 19 솔로몬은 집의 가장 깊은 곳에 안쪽 성소를 마련하고, 그곳에 주님의 계약 께를 모셨다.
- 20 그 안쪽 성소는 길이가 스무 암마, 너비가

- 스무 암마, 높이가 스무 암마인데 순금으로 입혔다. 그리고 계단은 향백나무로 입혔다.
- 21 솔로몬은 집 안쪽을 순금으로 입히고, 안쪽 성소 앞쪽에는 금 사슬을 드리웠으며, 안쪽 성소도 금으로 입혔다.
- 22 그는 집 전체를 온통 금으로 입히고, 안쪽 성소에 딸린 계단도 모두 금으로 입혔다.
- 23 그는 안쪽 성소에 올리브 나무로 높이가 열 암마되는 커룹을 둘 만들어 놓았다.
- 24 커룹의 한쪽 날개가 다섯 암마이고 다른 쪽 날개도 다섯 암마였다. 그래서 이쪽 날개 끝에서 저쪽 날개 끝까지는 열 암마가 되었다.
- 25 커룹도 열 암마로, 두 커룹이 치수도 같고 형태도 같았다.
- 26 한 커룹의 높이도 열 암마이고, 다른 커룹도 마찬가지였다.
- 27 솔로몬은 이 커룹들을 집의 가장 깊은 곳에 두었다. 커룹들의 날개는 펼쳐진 채 한 커룹의 한쪽 날개가 이쪽 벽에 닿고, 다른 커룹의 한쪽 날개가 저쪽 벽에 닿았으며, 그들의 다른 날개들은 집 가운데에서 서로 닿았다.
- 28 그는 이 커룹들을 금으로 입혔다.
- 29 다른 그는 집의 온 벽을 안팎으로 돌아가며 커룹과 야자나무와 활짝 핀 꽃을 새겨 넣고
- 30 집의 안쪽 방과 바깥쪽 방 바닥을 금으로 입혔다.
- 31 안쪽 성소로 드는 입구의 문은 올리브 나무로 만들었는데, 상인방과 문설주가 오각형을 이루었다.
- 32 두 올리브 나무 문에는 커룹과 야자나무와 활짝 핀 꽃을 새겨 넣고, 그 위에 금을 입혔다. 커룹에도, 야자나무에도 금을 칠하였다.
- 33 성소로 드는 입구도 올리브 나무로 만들었는데, 문설주들은 사각형을 이루었다.

- 34 두 방백나무 문은 앞문이 양쪽으로 젖혀지고, 뒷문도 양쪽으로 젖혀졌다.
- 35 그 위에 커룹과 야자나무와 활짝 핀 꽃을 새겨 놓았다. 그리고 그 조각품 위에 금을 고루 입혔다.
- 36 또 다듬은 돌 세 켤와 향백나무 서까래 한 켤와 안뜰을 지었다.
- 37 제사년 지우 달에 주님의 집 기초가 놓였다.
- 38 그리고 제십일년 불 달, 곧 여덟째 달에 그 집은 모든 부분이 설계한 대로 완공되었다. 솔로몬이 그 집을 짓는 데에는 일곱 해가 걸렸다.

솔로몬이 궁전을 짓다

- 7¹ 솔로몬이 열세 해에 걸쳐 자기 궁전을 짓고, 궁전 전체를 마무리하였다.
- 2 그는 또 '레바논 수풀 궁'을 지었는데, 그 길이가 백 암마이고 너비가 쉰 암마이며 높이가 서른 암마였다. 너 줄로 된 향백나무 기둥 위에는 향백나무 서까래를 얹고,
- 3 한 줄에 열다섯 개씩 마흔다섯 개 기둥 위에 세운 결방들을 향백나무로 덮었다.
- 4 네모난 창들은 석 줄로 되어 있고, 석 줄 창문은 저마다 마주 보았다.
- 5 모든 문과 문설주는 네모꼴이고, 석 줄 창문은 저마다 마주 보았다.
- 6 그는 '기둥 별실'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쉰 암마이고 너비가 서른 암마였다. 앞쪽에는 기둥들로 현관이 마련되었고, 기둥들 앞에는 차양이 있었다.
- 7 또 판결을 내리는 '왕좌 별실', 곧 '재판 별실'도 지었는데, 이 '재판 별실'은 바닥 전체를 향백나무로 깔았다.
- 8 그는 별실 뒤쪽 다른 뜰에 자기가 살 집을 같은 모양으로 지었다. 솔로몬은 또 그가 아내로 맞이한인 파라오의 딸에게도, 이 별실과 같은 집을 지어 주었다.

- 9 이 모든 것이 치수에 맞게 앞뒤를 톱으로
차른 값진 돌들로 만들어졌다. 기초에서 갖
돌까지, 또 바깥쪽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졌다.
- 10 기초는 열 암마짜리와 여덟 암마짜리의 값
진 큰 돌로 놓았다.
- 11 그리고 그 위는 치수에 맞게 다듬은 값진
돌과 향백나무로 꾸몄다.
- 12 큰 뜰의 사방은 다듬은 돌 세 켤과 향백나
무 서까래 한 켤로 둘러치고, 주님의 집 안
뜰과 그 집 현관도 그와 같이 둘러쳤다.

청동 기술공 히람을 데려오다

- 13 솔로몬 임금은 사람을 보내어, 티로에서 히
람을 데려왔다.
- 14 히람은 납탈리 지파에 속한 한 과부의 아
들로, 그의 아버지는 티로 사람으로서 청
동 기술공이었다. 히람은 청동을 다루는
온갖 일에 뛰어난 지혜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솔로몬 임금에게 와서
그의 일을 도맡아 하였다.

청동 기둥

- 15 그가 청동을 부어 기둥 둘을 만들었다. 한
기둥의 높이는 열여덟 암마이고 그 둘레는
열두 암마짜리 줄로 잴 수 있었는데, 다른
기둥도 마찬가지였다.
- 16 그는 또 청동을 녹여, 기둥 꼭대기에 얹을
기둥머리 둘을 만들었다. 한 기둥머리의 높
이는 다섯 암마, 다른 기둥머리의 높이도
다섯 암마였다.
- 17 그다음 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머리를 꾸
미려고, 격자무늬 그물과 사슬 모양 고리를
만들었다. 한 기둥머리에도 그물을, 다른
기둥머리에도 그물을 만들어 얹었다.
- 18 그리고 나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머리
를 덮을 그물 하나에 두 줄로 돌아가며 석
류를 달아 놓았다. 다른 기둥머리에도 같은
식으로 하였다.

- 19 현관 기둥 꼭대기의 기둥머리는 나리꽃 모
양으로 높이가 네 암마였다.
- 20 두 기둥 위, 곧 그물 걸 돌출부 위로 기둥
머리가 얹혀 있었다. 둘째 기둥머리에는 석
류 이백 개가 줄을 지어 돌아가며 달렸다.
- 21 그는 성소 현관에 기둥을 세우고, 오른쪽에
세운 기둥의 이름을 야킨이라 하고, 왼쪽에
세운 기둥의 이름을 보아즈라 하였다.
- 22 그가 기둥 꼭대기에 나리꽃 모양으로 만든
것을 얹으니, 이로써 기둥을 세우는 일이
끝났다.

청동 바다 모형

- 23 그다음에 그는 청동을 부어 바다 모형을
만들었다. 이 둥근 바다는 한 가장자리에
서 다른 가장자리까지 지름이 열 암마, 높
이가 다섯 암마, 둘레가 서른 암마였다.
- 24 그 가장자리 아래에 돌아가면서, 열 암마
되는 조롱박들이 바다를 둘러쌌다. 이 조
롱박들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만든 것이다.
- 25 바다는 황소 열두 마리 위에 얹혀 있었는
데, 세 마리는 북쪽을, 세 마리는 서쪽을,
세 마리는 남쪽을, 세 마리는 동쪽을 바라
보았다. 바다는 황소들 위에 올려져 있고
황소들은 모두 엉덩이를 안쪽으로 향하였
다.
- 26 바다의 두께는 한 테파이며, 그 가장자리는
나리꽃 모양으로 된 잔의 가장자리처럼 만
들어졌다. 이 바다는 물 이천 배를 담을 수
있었다.

받침대

- 27 그는 또 청동으로 받침대 열 개를 만들었
다. 각 받침대는 길이가 네 암마, 너비가
네 암마, 높이가 세 암마였는데,
- 28 그 구조는 이렇하다. 받침대에는 널빤지가
있었는데, 그 널빤지는 틀 사이에 끼여 있
었다.

- 29 이렇게 틀 사이에 끼인 널빤지에는 사자와 황소와 커룹들이 그려져 있고, 사자와 황소의 위아래 틀에는 빗살 무늬의 화환들이 새겨져 있었다.
- 30 받침대에는 저마다 청동 바퀴 네 개와 청동 바퀴 축이 있었고, 네 귀퉁이에 물두멍을 괴는 고임대들을 달았다. 그 고임대들은 청동을 부어 만들었는데, 저마다 그 옆쪽으로 화환이 새겨져 있었다.
- 31 고임대 아가리는 받침대 머리 부분 안, 틀에서 위쪽으로 한 암마 자리에 있었다. 이 아가리는 둥글게 테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한 암마 반 자리에 있었다. 아가리에는 무늬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 아가리의 판들은 둥글지 않고 네모졌다.
- 32 네 바퀴는 널빤지 아래에 있었는데, 바퀴 축들은 받침대에 연결되고 바퀴 하나의 높이는 한 암마 반이었다.
- 33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와 같았으며, 축과 테와 바퀴살과 축을 감싸는 통들은 모두 녹여 부은 것이었다.
- 34 받침대마다 네 귀퉁이에는 고임대가 네 개 있었는데, 고임대는 받침대와 하나를 이루었다.
- 35 받침대 꼭대기에는 반 암마 높이의 둥근 테두리가 있고, 또 받침대 꼭대기에서는 버팀대와 널빤지들이 받침대와 하나를 이루었다.
- 36 그는 버팀대 걸면과 널빤지 위 빈자리마다 커룹들과 사자들과 야자나무들을 새겼으며, 그 둘레에는 화환을 새겼다.
- 37 그는 이런 식으로 받침대 열 개를 만들었는데, 모두 같은 치수와 같은 형태로 하나 하나 부어 만들었다.

그 위의 청동 기틀

- 38 또 그는 청동으로 물두멍 열 개를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물 마흔 배를 담을 수

있었다. 물두멍 하나의 지름은 네 암마였고, 받침대 열 개에 물두멍 하나씩을 얹어 놓았다.

- 39 받침대 다섯 개는 주님의 집 오른쪽에, 또 다섯 개는 집 왼쪽에 놓아두었고, 바다 모형은 집의 오른쪽 남동쪽에 두었다.

성전 기틀

- 40 히람은 또 뱀비와 삽과 쟁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히람은 솔로몬 임금에 위하여 주님의 집을 짓는 일을 모두 마쳤다.

- 41 두 개의 기둥과 두 개의 기둥 꼭대기의 둥근 기둥머리, 그 기둥 꼭대기의 둥근 두 기둥머리에 씌운 두 그물,

- 42 그 두 그물에 달린 석류들, 곧 기둥 꼭대기의 둥근 두 기둥머리에 씌운 각 그물에 매단 석류 두 줄 사백 개,

- 43 받침대 열 개와 그 받침대 위에 얹은 물두멍 열 개,

- 44 바다 모형 하나와 그것을 받칠 황소 열두 마리,

- 45 뱀비와 삽과 쟁반들, 히람이 솔로몬 임금에 위하여 만든, 주님의 집의 이 기물들은 모두 윤이 나는 청동으로 된 것이었다.

- 46 임금은 요르단 평야 수컷과 차르탄 사이의 진흙 바닥에서 그것들을 부어 만들었다.

- 47 솔로몬은 이 모든 기물을 달아 보지 않았는데, 그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동의 무게는 아무도 모른다.

- 48 솔로몬은 또 주님의 집에 있는 온갖 기물을 만들었다. 금 제단과 제사 빵을 차려 놓는 금 상,

- 49 안쪽 성소 앞 오른쪽에 다섯 개 왼쪽에 다섯 개씩 두는 순금 등잔대들, 금으로 만든 꽃 장식과 등잔과 부집게들,

- 50 로 된 잔과 불뿔 기워와 쟁반과 향 접시와 불뿔 접시들, 집의 가장 깊은 지성소의 문과 성소의 문에 다는 금 들췌귀들이 그

기물들이다.

- 51 이렇게 하여 솔로몬 임금이 시행한 주님의 집 공사가 모두 끝났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봉헌한 물건들, 곧 은과 금과 기물들을 가져다가 주님의 집 창고에 넣어 두었다.

계약 궤를 성전에 모시다

- 8 ¹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주님의 계약 궤를 시온, 곧 다윗 성에서 모시고 올라오려고,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각 가문 대표인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자기 앞에 소집하였다.
- 2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에타님 달, 곧 일곱째 달의 축제 때에 솔로몬 임금 앞으로 모였다.
- 3 순금이스라엘의 모든 원로가 도착하자 사제들이 궤를 메었다.
- 4 그들은 주님의 궤뿐 아니라 만민의 천막과 그 천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물들도 모두 가지고 올라갔는데, 사제와 레위인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올라갔다.
- 5 솔로몬 임금과 그 앞에 모여든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함께 궤 앞에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이 많은 양과 황소를 잡아 바쳤다.
- 6 그리고 나서 사제들이 주님의 계약 궤를 제 자리에, 곧 집의 안쪽 성소인 지성소 안 커룹들의 날개 아래에 들여다 놓았다.
- 7 커룹들은 궤가 있는 자리 위에 날개를 펼쳐 궤와 채를 덮었다.
- 8 그 채들은 끝이 안쪽 성소 앞에 있는 성소에서 보일 정도로 길었다. 그러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들은 오늘날까지 그곳에 남아 있다.
- 9 궤 안에는 두 개의 돌 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돌 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신 호렘에서 모세가 넣어 둔 것이다.

- 10 사제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주님의 집을 가득 채웠다.
- 11 사제들은 그 구름 때문에 서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집에 가득 찼던 것이다.
- 12 그때 솔로몬이 말하였다. "주님께서서는 길은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 13 그런데 제가 당신을 위하여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당신께서 영원히 머무르실 곳입니다."
- 14 임금은 얼굴을 돌려, 모여 서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축복하고 나서
- 15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손수 실현해 주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서는 찬미받으소서!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소.
- 16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낸 날부터,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서도 내 이름을 머무를 집을 지을 성읍을 선택한 적이 없다. 다만 다윗을 선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 17 나의 아버지 다윗께서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으셨소.
- 18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소. '내가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었으니,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은 잘한 일이다.
- 19 그러나 너는 그 집을 짓지 못한다. 네 몸에서 태어날 너의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한 그 집을 지을 것이다.'
- 20 이제 주님께서서는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셨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좌에 올랐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이름을

위한 짐을 지었소.

- 21 또한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실 때에 그들과 맺으신 계약을 넣은 케를 둘 곳을 여기에 마련하였소."

솔로몬의 기도

- 22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펼치고
- 23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 그 어디에도 당신 같은 하느님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당신 앞에서 걷는 종들에게 당신은 계약을 지키시고 자애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 24 또한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 제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친히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처럼 손수 실현해 주신 것입니다.
- 25 그러나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의 종 제 아버지 다윗에게, '네가 내 앞에서 걸은 것처럼 네 자손들도 내 앞에서 걸으며 제 길을 지켜 나가지만 하면, 네 자손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지켜 주십시오.
- 26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의 종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 27 그러나 어찌 하느님께서 땅 위에 계시겠습니까? 저 하늘, 하늘 위의 하늘도 당신을 모시지 못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집이야 오죽하겠습니까?
- 28 그러나 주 저의 하느님, 당신 종의 기도와 간청을 돌아보시어, 오늘 당신 종이 당신 앞에서 드리는 이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 29 그리하여 당신의 눈을 뜨시고 밤낮으로 이

집을, 곧 당신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머무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이곳을 살피시어, 당신 종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 30 또한 당신 종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간청을 들어 주십시오. 부디 당신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어 주십시오.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 31 누구든지 이웃에게 죄를 짓고 자신에게 저주를 씌우는 맹세를 하게 되어, 이 집에 있는 당신 제단 앞에 와서 맹세하면,
- 32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동하시어, 당신 종들에게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그리하여 죄 있는 자에게는 유죄 판결을 내리시어 그의 행실에 따라 그 머리 위로 갚으시고, 의로운 이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리시어 그 의로움에 따라 그에게 갚아 주십시오.
- 33 당신 백성 이스라엘이 당신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하였다가도, 당신께 돌아와 이 집에서 당신의 이름을 고백하며 당신께 기도하고 간청하면,
- 34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어,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 35 그들이 당신께 죄를 지은 탓으로 하늘이 단혀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도, 당신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므로, 그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당신의 이름을 고백하고 자기 죄에서 돌아서면,
- 36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당신 종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 정녕 당신께서는 그들이 걸어야 할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 그리고 당신 백성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신 당신의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 37 이 땅에 기근이 들 때, 흑사병과 마름병과 캄부깃병이 들거나 메뚜기 떼와 누리 떼가

- 설칠 때, 적이 성읍을 포위할 때, 온갖 환난과 온갖 질병이 변질 때,
- 38 당신 백성 이스라엘이 개인으로나 전체로나 저마다 마음으로 고통을 느끼며, 이 집을 향하여 두 손을 펼치고 무엇이나 기도하고 간청하면,
- 39 당신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어 용서해 주시고 행동하십시오. 당신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그 모든 행실에 따라 갚아 주십시오. 당신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 40 그렇게 해 주시면 그들은 당신께서 저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 사는 동안 언제나 당신을 경외할 것입니다.
- 41 또한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그가 당신 이름 때문에 먼 고향에서 찾아오거든,
- 42 곧 그들이 당신의 위대한 이름을 듣고, 당신의 강한 손과 뻗은 팔이 하신 일을 듣고 와서 이 집을 향하여 기도하면,
- 43 당신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당신께 호소하는 것은 무엇이나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의 이름을 알아 모시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당신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가 지은 이 집이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 44 당신 백성이 적과 싸우러 나갈 때, 당신께서 그들을 어느 길로 보내시든지, 그들이 당신께서 선택하신 도성과 제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이 집을 향하여 주님께 기도하면,
- 45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청을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보아 주십시오.
- 46 죄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 백성도 당신께 죄를 지어, 당신께서 그들

에게 화를 내시고 그들을 적에게 넘겨주시면, 이 백성은 멀거나 가까운 적국의 땅에 사로잡혀 가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 47 그러나 사로잡혀 간 땅에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몸쓸 짓을 하고 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며, 사로잡아 간 자들의 땅에서 당신께 간청하면,
- 48 그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원수들의 땅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회개하고, 당신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당신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제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이 집을 향하여 기도하면,
- 49 당신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청을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보아 주십시오.
- 50 또한 당신께 죄를 지은 당신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당신을 거역하여 지은 모든 반역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로잡아 간 자들 앞에서도 그들을 기없이 여기시어 저들이 그들을 기없이 여기게 해 주십시오.
- 51 그들은 당신 백성이며 당신 소유로서, 당신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그 도가니 한가운데에서 구해 내셨습니다.
- 52 눈을 뜨시어 당신 종의 간청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간청을 굽어보시고, 그들이 당신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의 호소를 들어 주십시오.
- 53 주 하느님, 당신께서 저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실 때에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가려내시어 당신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백성에게 축복하고 권고하다

- 54 솔로몬은 이 모든 기도와 간청을 주님께 드리고는 기도가 끝나자, 두 손을 하늘로 펼치고 무릎을 꿇고 있던 주님의 제단 앞

에서 일어났다.

- 55 그는 일어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 56 "말씀하신 그대로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인식을 주신 주님께서 찬미받으소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좋은 것을 하나도 빼뜨리지 않으셨소.
- 57 주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계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 58 우리 마음을 당신께 기울이게 하시어 당신의 모든 길을 걷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당신의 계명과 규정과 법규들을 지키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59 주님 앞에 드린 이 간청의 말씀이 낮이나 밤이나 주 우리 하느님 가까이 있어, 주님께서 당신 종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사정을 날마다 그에 맞게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 60 그리하여 주님만이 하느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 61 그러므로 주 우리 하느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한결같이 하여, 오늘과 같이 주님의 규정대로 걷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시오."

성전을 봉헌하다

- 62 그런 다음, 임금은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주님 앞에 희생 제물을 바쳤다.
- 63 솔로몬은 주님께 친교 제물을 바쳤는데, 황소 이만 이천 마리와 양 십이만 마리를 바쳤다. 이렇게 임금과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집을 봉헌하였다.
- 64 바로 그날, 임금은 주님의 집 앞에 있는 뜰 한가운데를 성별하고, 그곳에서 번제물과 곡식 제물, 그리고 친교 제물의 굳기름을

바쳤다. 주님 앞에 있는 청동 제단이 너무 작아서, 번제물과 곡식 제물, 그리고 친교 제물의 굳기름을 담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 65 그때에 솔로몬과, 하맛 어귀에서 '이집트 마르네'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에서 모여든 큰 회중이, 주 우리 하느님 앞에서 두 이레, 곧 열나흘 동안 축제를 지냈다.
- 66 여드레째 되는 날에 솔로몬은 백성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들은 임금에게 축복하고, 주님께서 당신 종 다윗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온갖 은혜에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자기들 천막으로 돌아갔다.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시다

- 9 ¹ 솔로몬이 주님의 집과 왕궁과 그 밖
에 자기가 지으려고 계획한 모든 것
을 마친 다음이었다.
- 2 주님께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어
- 3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내 앞에서 한 기도와 간청을 들었다. 네가 세운 이 집을 성별하여 이곳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니, 내 눈과 내 마음이 언제나 이곳에 있을 것이다.
- 4 네가 네 아버지 다윗이 걸은 것처럼, 내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바르게 걸으며,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실천하고 내 규정과 법규를 따르면,
- 5 나는 너의 왕좌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워 주겠다. 이는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네 자손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 대로이다.
- 6 그러나 만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나에게서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내놓은 계명과 규정을 따르지 않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예배하면,
- 7 나는 내가 준 땅에서 이스라엘을 잘라 버리

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별한 이 집을 내 앞에서 내버리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속담 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8 그리고 이 집은 폐허가 되어, 이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몹시 놀라고 회파람을 불어 대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찌하여 주님이 이 땅과 이 집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9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할 것이다. '자기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신 주 그들의 하느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끌어들이고 그 신들을 예배하고 섬겼기 때문이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제앙을 그들 위에 내리셨다네.'"

솔로몬이 히람과 가뵈하다

10 솔로몬이 두 건물, 곧 주님의 집과 왕궁을 짓기까지는 스무 해가 걸렸다.

11 티로 임금 히람은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항백나무와 방백나무 채목과 금을 보냈다. 그러자 솔로몬 임금은 갈릴래야 땅의 성읍 스무 개를 히람에게 주었다.

12 히람은 티로에서 나와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았으나 눈에 들지 않아서

13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형제여, 당신이 나에게 준 성읍들이 이제 뭍니까?"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곳을 카불의 땅이라고 한다.

14 사실 히람은 금을 백오십 탈렌트나 솔로몬 임금에게 보냈던 것이다.

솔로몬의 건축 활동

15 솔로몬 임금이 주님의 집과 자기 궁전과 밀로 궁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과 하초르와 므기또와 게제르를 세우려고 부역을 시킨 이야기는 이러하다.

16 이집트 임금 파라오가 올라와 게제르를 점령할 때, 그 성읍에 불을 지르고 그곳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살해한 일이 있었다. 그는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 딸에게 그

성읍을 지참금으로 주었는데,

17 솔로몬이 이 게제르를 재건하였던 것이다.

솔로몬은 또 '아래 뱃 호른'을 세우고,

18 유다 지방 광야에 바알랏과 타마르를 세웠다.

19 솔로몬은 자기의 모든 양곡 저장 성읍, 그리고 병거대 주둔 성읍들과 기병대 주둔 성읍들을 세웠다. 그 밖에도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을 비롯하여 자기가 다스리는 온 영토 안에 세우고 싶어 하던 것들을 다 세웠다.

20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족과 히타이트족과 프리즈족, 그리고 히위족과 여부스족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모든 백성,

21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멸시킬 수 없어서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역에 동원시켰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다.

22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어느 누구도 노역으로 만들지 않았다. 그들은 군사와 그의 신하, 장수와 군관, 그리고 병거대와 기마대의 장수들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23 솔로몬의 일을 지휘한 관리 책임자들은 오백오십 명이었는데, 그들은 일하는 백성을 감독하였다.

24 파라오의 딸은 다윗 성에서 올라가, 솔로몬이 지어 준 자기 집에 들었다. 솔로몬이 밀로 궁을 지은 것은 바로 그때다.

25 솔로몬은 자기가 주님을 위하여 세운 제단 위에서 한 해에 세 번씩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쳤고, 주님 앞에서 향도 피워 올렸다. 이리하여 솔로몬은 집 짓는 일을 마쳤다.

솔로몬의 무역 활동

26 솔로몬 임금은 에돔 땅의 갈대 바닷가, 엘랏 근처에 있는 에즈른 게베르에다 상전대

를 만들었다.

- 27 히람은 자기 종들 가운데 바다에 익숙한 선원들을 상선대와 함께 보내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있게 하였다.
- 28 그들은 오피르로 가서 금 사백이십 탈렌트를 실어 와 솔로몬 임금에게 바쳤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다

- 10 ¹ 스바 여왕이 주님의 이름 덕분에 유명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까다로운 문제로 그를 시험해 보려고 찾아왔다.
- 2 여왕은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향료와 엄청난게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에 왔다. 여왕은 솔로몬에게 와서 마음 속에 품고 있던 것을 모두 물어보았다.
- 3 솔로몬은 여왕의 물음에 다 대답하였다. 그가 몰라서 여왕에게 답변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 4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모든 지혜를 지켜보고 그가 지은 집을 보았다.
- 5 또 식탁에 오르는 음식과 산하들이 앉은 모습, 시종들이 시종드는 모습과 그들의 복장, 헌작 시종들, 그리고 주님의 집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넋을 잃었다.
- 6 여왕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내가 임금님의 업적과 지혜에 관하여 내 나라에서 들은 소문은 과연 사실이군요.
- 7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 직접 보니, 내가 들은 이야기는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임금님의 지혜와 영화는 내가 소문으로 들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 8 임금님의 부하들이야말로 행복합니다. 언제나 임금님 앞에서 서서 임금님의 지혜를 듣는 이 신하들이야말로 행복합니다.
- 9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서 임금님이 마음에 드시어 임금님을 이스라엘의 왕좌에 올려놓으셨으니 찬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왕으로 세워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게 하셨습니다."

- 10 그리고 나서 여왕은 금 백이십 탈렌트와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임금에게 주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 임금에게 준 것만 큼 많은 향료는 다시 들어온 적이 없다.
- 11 오피르에서 금을 실어 오던 히람의 상선대도,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자단나무와 보석을 실어 왔다.
- 12 임금은 이 자단나무로 주님의 집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노래하는 이들이 쓸 비파와 수금도 만들었다. 이와 같은 자단나무는 오늘날까지 들어온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 13 한편 솔로몬 임금은 그의 손에 걸맞게 스바 여왕에게 선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왕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청하는 대로 다 주었다. 여왕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솔로몬의 영화

- 14 한 해 동안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는 육백육십육 탈렌트였다.
- 15 무역상들과 상인들의 거래에서 받은 것, 그리고 아라비아의 모든 임금과 국내의 지방관들에게서 받은 것을 빼고도 그러하였다.
- 16 솔로몬 임금은 금을 두드려 큰 방패를 이백 개 만들었는데, 그 방패 하나에 금 육백 세켈이 들었다.
- 17 또 금을 두드려 작은 방패를 삼백 개 만들었는데, 그 방패 하나에 금 세 미나가 들었다. 임금은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수풀 궁'에 두었다.
- 18 임금은 상아로 큰 왕좌를 만들고 그것을 순금으로 입혔다.
- 19 그 왕좌에는 층계가 여섯 개 있었고, 왕좌 등받이 윗부분은 둥글었다. 왕좌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그 팔걸이 옆에는 사자가

두 마리 세워져 있었다.

- 20 여섯 층계 양쪽에도 사자가 열두 마리 세워져 있었다.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는 만들지 못하였다.
- 21 솔로몬 임금의 마시는 데에 쓰는 그릇은 모두 금으로 만들고, '레바논 수풀 궁'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으로 만들었다. 은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에 은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도 않았다.
- 22 임금에게는 히람의 상선대와 함께 바다에서 활동하는 타르시스 상선대가 있었다. 이 타르시스 상선대가 세 해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실어왔다.
- 23 솔로몬 임금은 부와 지혜에서 세상의 어느 임금보다 뛰어났다.
- 24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하느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넣어 주신 지혜를 들으려고 그를 찾아왔다.
- 25 그들은 저마다 은 기둥과 금 기둥, 옷과 무기, 향료와 말과 노새들을 예물로 가져왔는데, 그런 일이 해마다 그치지 않았다.

솔로몬의 병거대

- 26 솔로몬이 병거와 군마를 모으니 병거가 천 사백 대, 군마는 만 이천 마리에 이르렀다. 그는 그것들을 병거대 주둔 성과 임금이 있는 예루살렘에 나누어 배치하였다.
- 27 솔로몬 임금 덕분에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돌처럼 흔해졌고, 향백나무는 평원 지대의 들무화과나무만큼이나 많아졌다.
- 28 솔로몬은 이집트와 크웨에서 말들을 들여왔는데, 왕실 무역상들을 통하여 크웨에서 일정한 가격으로 사들였다.
- 29 병거는 한 대에 은 육백 세켈, 말은 한 마리에 은 백오십 세켈을 주고 이집트에서 들여와다가, 왕실 무역상들을 통하여 히타

이트의 모든 임금과 아람 임금들에게 되팔았다.

솔로몬이 하느님에게서 돌아오다

- 11 ¹ 솔로몬 임금은 파라오의 딸뿐 아니라 모압 여자와 암몬 여자, 에돔 여자와 시돈 여자, 그리고 히타이트 여자 등 많은 외국 여자를 사랑하였다.
- 2 이들은 주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신 민족의 여자들이었다. "너희는 그들과 관계를 맺지 말고 그들도 너희와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여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그들의 신들에게 돌려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들과 사랑에 몰두하였다.
- 3 솔로몬에게는 왕족 출신 아내가 칠백 명, 후궁이 삼백 명이나 있었다. 그 아내들은 그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 4 솔로몬이 늙자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 돌려놓았다. 그의 마음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만큼 주 그의 하느님께 한결 같지는 못하였다.
- 5 솔로몬은 시돈인들의 신 아스타롯과 암몬인들의 험오스러운 우상 밀콤을 떠났다.
- 6 이처럼 솔로몬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자기 아버지 다윗만큼 주님을 온전히 추종하지는 않았다.
- 7 그때에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 위에 모압의 험오스러운 우상 코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암몬인들의 험오스러운 우상 볼록을 위해서도 산당을 지었다.
- 8 이렇게 하여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외국인 아내를 위하여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쳤다.
- 9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그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에게서 돌아섰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그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시어,

- 10 이런 일, 곧 다른 신들을 따르는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도, 임금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 11 그리하여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 씀하셨다. "네가 이런 뜻을 품고, 내 계약 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떼어 내어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 12 다만 네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네 생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아들의 손에서 이 나라를 떼어 내겠다.
- 13 그러나 이 나라 전체를 떼어 내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뽑은 예루살렘을 생 각하여 한 지파만은 네 아들에게 주겠다."

솔로몬의 적들

- 14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에돔 사람 하닷을 솔로몬의 적대자로 일으키셨다. 하닷은 에돔의 왕손이었다.
- 15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의 장수 요압이 살해당한 이들을 문으러 올라갔다가, 에돔 남자들을 모두 쳐 죽인 일이 있었다.
- 16 요압과 온 이스라엘은 에돔 남자들을 모두 전멸시킬 때까지 여섯 달 동안 거기에 머물렀다.
- 17 그러나 하닷은 자기 아버지의 신하인 몇몇 에돔 사람들과 더불어 이집트로 달아났다. 그때에 하닷은 어린 소년이었다.
- 18 그들은 미디안을 떠나 파란에 이르렀다. 그리고 파란에서 장정 몇 사람을 데리고 이집트로, 그곳 이집트 임금 파라오를 찾아갔다. 파라오는 그에게 집을 주고 양식을 대 주겠다고 약속한 다음, 땅도 주었다.
- 19 하닷이 파라오의 눈에 썩 들어, 파라오는 자기 처제, 곧 타흐프네스 왕비의 동생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 20 타흐프네스의 동생은 하닷에게 아들 그누

발을 낳아 주었는데, 이 아들을 타흐프네스가 파라오의 궁에서 길렀다. 그리하여 그누발은 파라오의 궁에서 파라오의 왕자들과 더불어 지냈다.

- 21 하닷은 다윗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군대의 장수 요압도 죽었다는 소식을 이집트에서 듣고는, 파라오 임금에게 "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저를 보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 22 그러자 파라오는 "나와 함께 있으면서 무엇이 부족하여 제 고향으로 가려고 애쓰느냐?" 하고 물었다. 하닷은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만, 제발 저를 보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 23 하느님께서는 또 엘아다의 아들 르존을 솔로몬의 적대자로 일으키셨다. 그는 자기 주군인 초바 임금 하닷에게 그를 버리고 달아난 자다.
- 24 그는 사람들을 모아 약탈대의 두목이 되었는데, 다윗이 그들을 죽였다. 그러자 르존은 다마스쿠스로 가서 거기에 정착하고는 다마스쿠스의 임금이 되었다.
- 25 르존은 솔로몬이 살아 있는 동안 내내 이스라엘에 대적하여, 하닷이 일으킨 제앙에 제앙을 더하였다. 그는 아람의 임금이 되어 이스라엘을 멸시하였다.

에로보암의 반란을 예고하다

- 26 느발의 아들 에로보암은 츠레다 출신 에프라임 사람이었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츠루아인데 과부였다. 그는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임금에게 반기를 들었다.
- 27 그가 임금에게 반기를 든 사정은 이러하다. 솔로몬이 밀로 궁을 세우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성의 갈라진 틈을 막을 때였다.
- 28 에로보암이라는 사람은 힘센 용사였다. 솔로몬은 그 젊은이가 일하는 것을 보고 그를 요셉 집안의 모든 강제 노동의 감독으

로 임명하였다.

- 29 그때에 예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다가 실로 사람 아히야 예언자를 길에서 만났다. 그 예언자는 새 옷을 입고 있었다. 들에는 그들 들뿐이었는데,
- 30 아히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움켜 쥐고 열두 조각으로 찢으면서,
- 31 예로보암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열 조각을 그대가 가지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제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이 나라를 찢어 내어 너에게 열 지파를 주겠다.'
- 32 그러나 한 지파만은 나의 종 다윗을 생각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내가 뽑은 예루살렘 도성을 생각하여 그에게 남겨 두겠다.
- 33 이는 그가 나를 버리고 시돈의 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크모스, 임몬 자손들의 신 밑꿈을 예배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나의 길을 걷지 않고, 내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지도 않았으며, 나의 규정과 법규를 지키지도 않았다.
- 34 그러나 내가 뽑은 나의 종 다윗, 나의 계명과 규정을 지킨 그를 생각하여, 솔로몬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이 나라 전체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않고, 그를 계속 통치자로 앉혀 두겠다.
- 35 그렇지만 그의 아들 손에서 이 나라를 빼앗아 열 지파는 너에게 주고,
- 36 한 지파는 그의 아들에게 주겠다. 그리하여 나의 종 다윗에게 준 등불이 내 앞에서, 내 이름을 두려고 뽑은 도성 예루살렘에서 언제나 타오르게 하겠다.
- 37 내가 너를 데려다가 내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리게 하리니,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것이다.
- 38 내가 만일 나의 종 다윗이 한 것처럼 내가

명령하는 바를 모두 귀담아듣고,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고 내 규정과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또한 내가 다윗에게 세워 준 것처럼 너에게도 굳건한 집안을 세워 주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 39 이렇게 나는 다윗의 자손들을 벌하겠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 40 그러자 솔로몬은 예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였다. 예로보암은 일어나 이집트로 달아나서 이집트 임금 시삭에게 갔다. 그리고 그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렀다.

솔로몬이 죽다

- 41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에 관한 것은 솔로몬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 42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마흔 해이다.
- 43 솔로몬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히고, 그의 아들 르하브암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북쪽 지파들이 반란 들다

- 12 ¹ 르하브암은 스켄으로 갔다. 온 이스라엘이 스켄에 모여 그를 임금으로 세우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 2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은 솔로몬 임금을 피하여 이집트로 달아나 있다가 거기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예로보암은 이집트에서 돌아왔다.
- 3 사람들이 심부름꾼을 보내어 그를 불러내니, 예로보암은 온 이스라엘 회중과 함께 르하브암에게 가서 말하였다.
- 4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땅에를 힘겹게 하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아버지께

- 서 지우신 합겨운 일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 5 그러자 르하브암은 그들에게 "돌아갔다가 사흘 뒤에 다시 나에게 오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에 백성은 돌아갔다.
- 6 르하브암 임금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 있을 때에 그를 받들던 원로들을 불러, "저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의견을 듣고 싶소." 하고 의논하였다.
- 7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오늘 임금님께서 저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자 하시면, 그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저 백성이 언제나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 8 그러나 임금은 원로들이 내놓은 의견을 버리고, 그 대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이들로서 자기를 받드는 자들과 의논하면서
- 9 그들에게 물었다. "나에게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우신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저 백성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그대들의 의견을 듣고 싶소."
- 10 그러자 임금이 함께 자란 젊은이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매우신 멍에가 무거우니 그것을 가볍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저 백성에게 임금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씀입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소.'
- 11 내 아버지께서 그대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우셨는데, 나는 그대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그대들을 가족 채적으로 징벌하셨지만, 나는 갈고리 채적으로 할 것이오."
- 12 임금이 사흘 뒤에 다시 오라고 이른 대로, 예로보암은 온 백성과 함께 사흘째 되는 날에 르하브암에게 갔다.
- 13 임금은 원로들이 내놓은 의견을 버리고 백성에게 거칠게 대답하였다.
- 14 그는 젊은이들의 의견대로 백성에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께서 그대들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는데, 나는 그대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그대들을 가족 채적으로 징벌하셨지만, 나는 갈고리 채적으로 할 것이오."
- 15 임금이 이처럼 백성의 말을 들어 주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일을 그렇게 돌리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서는 실로 사람 아히아를 통하여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은 이루시려고 일을 그렇게 하신 것이다.
- 16 온 이스라엘은 임금이 자기들의 말을 들어 주지 않은 것을 보고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뭉이 무엇이나? 이사이의 아들에게서 받을 상속 재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네 천막으로 돌아가거라. 다윗아, 이제 네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자기 천막으로 돌아갔다.
- 17 그러나 유다의 성읍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르하브암이 다스리게 되었다.
- 18 르하브암 임금이 부역 감독 아도람을 보내자, 온 이스라엘은 돌을 던져 그를 죽여 버렸다. 그러자 르하브암 임금은 서둘러 병거에 올라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쳤다.
- 19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집안에 반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남과 북이 갈라진다

- 20 온 이스라엘은 예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집회에 불러서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유다 지파 말고는 아무도 다윗 집안을 따르지 않았다.
- 21 르하브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온 유다 집안과 벤야민 지파에 동원령을 내려 정병

십팔만을 모았다. 이스라엘 집안과 싸워 솔로몬의 아들 르하브암의 왕권을 되찾으려는 것이었다.

22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렸다.

23 "유다 임금, 솔로몬의 아들 르하브암과 온 유다와 벤야민 집안과 나머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24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올라가 그들과 싸워서 는 안 된다. 저마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된 것은 나의 뜻이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모두 주님 말씀 대로 돌아갔다.

25 예로보암은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스킴을 세우고 거기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나와 프누엘을 세웠다.

26 예로보암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였다. '어쩌면 나라가 다윗 집안으로 돌아갈 지도 모른다.

27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집에 희생 제물을 바치러 올라갔다가, 자기들의 주군인 유다 임금 르하브암에게 마음이 돌아가면, 나를 죽이고 유다 임금 르하브암에게 돌아갈 것이다.'

28 그래서 임금은 궁리 끝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다. 그리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은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십니다.'

29 그리고 나서 금송아지 하나는 베델에 놓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30 그런데 이 일이 죄가 되었다. 백성은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하러 베델과 단까지 갔다.

31 임금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의 자손들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에서 사제들을 임명 하였다.

32 예로보암은 여덟째 달 열닷셋날을 유다에서 지내는 축제처럼 축제일로 정하고, 제단 위에서 제물을 바쳤다. 이렇게 그는 베델에서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자기가 만든 산당의 사제들을 베델에 세웠다.

33 임금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인 여덟째 달 열닷셋날이 되면, 베델에 세운 제단에 올라갔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킬 축제일을 이렇게 정하고, 그 제단에 분향 하러 올라갔던 것이다.

베델의 제단이 무너진다

13 ¹ 예로보암이 제단 옆에 서서 분향하러고 하는데, 마침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유다에서 베델로 왔다.

2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에 대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외쳤다. '제단아, 제단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집안에 한 아들이 태어나리니, 그 이름은 요시아이다. 그가 네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사제들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태울 것이다.'"

3 바로 그날 그는 한 가지 표징을 제시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표징입니다. 이 제단이 산산조각 나고 그 위에 있는 제가 쏟아질 것입니다."

4 예로보암 임금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제단에 대고 이렇게 외치는 말을 듣고, 제단에서 손을 뻗으며 "그를 붙잡아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를 향해 뻗었던 손이 굳어 오므릴 수가 없게 되었다.

5 곧 이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시한 표징대로, 제단이 산산조각 나고 제단에서 제가 쏟아졌다.

6 그러자 임금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 그대의 하나님께 호의를 간청하고, 내 손이 회복 되도록 기도해 주시오." 하고 말하였다. 하

느님의 사람이 주님께 간청하자 임금의 손이 회복되어 전과 같이 되었다.

- 7 임금이 하느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피로를 푸시오, 내가 그대에게 선물도 드리리다."
- 8 그러자 하느님의 사람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 궁전의 절반을 저에게 주신다 하여도 임금님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 9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런 명령이 저에게 내려졌습니다.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그리고 온 길로 돌아가지도 마라.'"
- 10 그리고 나서 하느님의 사람은 그가 베텔에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

베텔의 늙은 예언자

- 11 그 무렵에 한 늙은 예언자가 베텔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 하느님의 사람이 베텔에서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또한 그가 임금에게 한 말도 아버지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 12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가 어느 길로 갔느냐?" 하고 묻자, 그의 아들들은 유다에서 온 하느님의 사람이 간 길을 보여 주었다.
- 13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나귀에 안장을 엮어라." 하고 일렀다. 그들이 나귀에 안장을 엮으니, 그가 나귀를 타고
- 14 하느님의 사람을 뒤쫓아 가다가, 향엽나무 밑에 앉아 있는 그를 만났다. 늙은 예언자가 그에게 "당신이 유다에서 온 하느님의 사람이오?" 하고 묻자, 그는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15 예언자가 하느님의 사람에게 "함께 집으로 가서 음식을 드시지요." 하고 권유하였다.
- 16 하느님의 사람이 말하였다. "나는 어르신과 함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르신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곳에서는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실 수 없습니다.

- 17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런 명령이 저에게 내려졌습니다. '여기에서는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그리고 온 길로 돌아가지도 마라.'"
- 18 그러자 예언자는 하느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당신과 같은 예언자요. 한 친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를 너의 집에 데려다가 빵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여라.' 하고 나에게 명령하였소."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 19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람은 예언자와 함께 되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다.
- 20 그들이 식탁에 함께 앉아 있는데, 하느님의 사람을 도로 데려온 예언자에게 주님의 말씀이 내렸다.
- 21 예언자는 유다에서 온 하느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선언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주님의 말을 어기고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내린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 22 너는 돌아와,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한 곳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다. 그러므로 너의 주검은 네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 23 하느님의 사람이 빵을 먹고 물을 마시고 나자, 예언자는 그가 타고 갈 나귀에 안장을 엮었다. 그 나귀는 그를 도로 데려온 예언자의 것이었다.
- 24 하느님의 사람은 그곳을 떠나가다가, 길에서 사자를 만나 물려 죽었다. 그 주검은 길에 내던져진 채로 있었는데, 나귀가 그 곁에서 있고 사자도 그 곁에서 있었다.
- 25 지나가던 아들이 길에 내던져진 주검과 그 주검 곁에서 있는 사자를 보고, 늙은 예언자가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서 이 일을 전하였다.

- 26 그를 길에서 도로 데려왔던 예언자는 그 일을 전해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어긴 하느님의 사람이다. 주님께서 그를 사자에게 내어 주시어, 그에게 하신 말씀에 따라 사자가 그의 뼈를 부수어 죽이게 하셨구나."
- 27 그리고 나서 예언자가 아들들에게 "나귀에 안장을 엮어라." 하고 이르자, 아들들이 안장을 엮었다.
- 28 그는 가서 길에 내던져진 주검과 그 주검 곁에 서있는 나귀와 사자를 발견하였다. 그런데 사자는 주검을 먹거나 나귀의 뼈를 부수지 않았다.
- 29 예언자는 하느님의 사람의 주검을 들어 나귀에 엮고 그것을 옮겨 왔다. 늙은 예언자는 성읍으로 들어와 곡을 한 뒤 그를 묻어 주었다.
- 30 예언자가 그의 주검을 자기 무덤에 묻자, 사람들이 "아이고, 내 형제여!" 하고 곡을 하였다.
- 31 그를 묻은 뒤에 예언자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죽거든 이 하느님의 사람이 묻힌 무덤에 나를 묻어라. 그리고 그의 뼈 곁에 내 뼈를 놓아라.
- 32 그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두고 선언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 33 이런 일이 있던 뒤에도 예로보암은 그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또다시 일반 백성 가운데에서 산당의 사제들을 임명하였다. 그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직무를 맡겨 산당의 사제가 될 수 있게 하였다.
- 34 예로보암 집안은 이런 일로 죄를 지어, 마침내 멸망하여 땅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예로보암의 아들이 죽다

- 14 ¹ 그때에 예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자,
- 2 예로보암이 아내에게 말하였다. "자, 당신이 예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하고 실로로 가시오. 그곳에는 아히야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나에게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이 될 것이라고 일러 준 사람이오.
- 3 빵 열 덩이와 과자 몇 개와 꿀 한 단지를 가지고 그에게 가시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가 알려 줄 것이오."
- 4 예로보암의 아내는 이 말대로 하고 일어나 실로를 향하여 나갔다. 그가 아히야 집에 이르러 보니, 아히야는 나이 탓으로 눈이 침침해져 볼 수가 없었다.
- 5 그런데 주님께서서는 아히야에게 미리 말씀해 두셨다. "예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어 그 아내가 아들의 일로 나에게 문의하러 오고 있다. 그가 오거든 이리이러하게 대답하여라. 그가 올 때는 다른 여자인 채할 것이다."
- 6 아히야는 그 여자가 문에 들어설 때, 발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예로보암의 부인이시여,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은 다른 여자인 채하십니까? 저는 당신에게 나쁜 소식을 전할 임무를 받았습시다.
- 7 예로보암에게 가서 말씀하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에서 들어 올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고,
- 8 다윗 집안에서 나라를 떼어 너에게 주었다. 그러나 너는 나의 종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윗은 나의 계명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나를 따랐으며, 내 눈에 드는 옳은 일만 하였다.
- 9 그러나 너는 너보다 앞서 있던 모든 임금보다 더 악한 짓을 저지르고, 게다가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만들어 나의 분노를 돋우었다. 이렇게 너는 나를 등 뒤로 내던졌다.

- 10 그러므로 이제 내가 예로보암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예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이스라엘에서 잘라 버리겠다. 그리하여 똥거름을 말끔히 치우듯이 나는 예로보암 집안을 치워 버리겠다.
- 11 예로보암에게 딸린 사람으로서 성안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어 치우고, 들에서 죽은 자는 하늘의 새가 쪼아 먹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였다.'
- 12 부인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부인의 발이 성읍에 들어서자마자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 13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곡을 하고 그를 묻을 것입니다. 예로보암에게 딸린 자 가운데 그 아이만 무덤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로보암 집안에서 그 아이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좋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 14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른 임금을 일으키실 터인데, 그가 예로보암 집안을 잘라 버릴 것입니다.
- 15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을 치셔서, 갈대가 물속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이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을 뽑아, 그들을 유프라테스 강 저쪽으로 흩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들이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어 주님의 분노를 돋우었기 때문입니다.
- 16 예로보암이 혼자만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죄짓게 한 그 죄 때문에,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을 넘겨 버리실 것입니다."
- 17 예로보암의 아내는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 티르차로 돌아갔다. 그가 집 문지방에 들어서자마자 아이가 죽었다.
- 18 온 이스라엘은 그를 묻고 그를 위하여 곡을 하였다. 주님께서 당신 종 아히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였다.

예로보암이 죽다

- 19 예로보암의 나머지 행적, 곧 그가 전쟁을 어떻게 치르고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지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 20 예로보암이 다스린 기간은 스물두 해이다. 그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들 나담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르하브암의 유다 통치

- 21 한편 유다에서는 솔로몬의 아들 르하브암이 다스리고 있었다. 르하브암은 마흔한 살에 임금이 되어,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선택하신 도성 예루살렘에서 열일곱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이마인데 암몬 여자였다.
- 22 유다도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들이 지은 죄는 자기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보다 더 커서 주님의 격정을 불러일으켰다.
- 23 그들 역시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레마다 산당과 기둥 기둥과 아세라 목상들을 새웠다.
- 24 또한 그 땅에는 신전 남창들이 있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온갖 역겨운 짓을 그대로 따라 하였다.
- 25 르하브암 임금 제오년에 이집트 임금 시삭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 26 주님의 집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가져갔다. 모조리 가져가 버렸다. 또한 솔로몬이 만든 금 방해도 모두 가져갔다.
- 27 그러자 르하브암 임금은 금 방해 대신 청동 방해들을 만들어, 왕궁 대문을 지키는 호위 군관들의 손에 그것들을 맡겼다.
- 28 임금이 주님의 집에 들어갈 때마다 호위병들은 그 청동 방해를 들고 있다가, 다시 호

위대실로 가져다 두곤 하였다.

- 29 르하브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 30 르하브암과 예로보암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다.
- 31 르하브암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 성에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미인데 암몬 여자였다. 그의 아들 아비얌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비얌의 유다 통치

- 15 ¹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 임금 제십팔년에 아비얌이 유다의 임금이 되어,
- ² 예루살렘에서 세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이카인데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 ³ 그런데 임금은 제 아버지가 앞서 지은 죄를 모두 따라 걸었다. 그의 마음은 자기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리 주 하느님께 한결같지 못하였다.
- ⁴ 그러나 주 다윗의 하느님께서서는 다윗을 생각하시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일으키시어 예루살렘을 굳게 해 주셨다.
- ⁵ 다윗은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 사건 말고는,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만 하였으며, 살아 있는 동안 내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
- ⁶ 르하브암과 예로보암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다.
- ⁷ 아비얌 임금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아비얌과 예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
- ⁸ 아비얌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 성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 뒤를 이

어 임금이 되었다.

아사의 유다 통치

- ⁹ 이스라엘 임금 예로보암 제이십년에 아사가 유다의 임금이 되어,
- ¹⁰ 예루살렘에서 미혼한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할머니 이름은 마이카인데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 ¹¹ 아사는 자기 조상 다윗처럼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 ¹² 그는 신전 남창들을 나라에서 몰아내고 조상들이 만든 우상들을 모두 없애 버렸다.
- ¹³ 그는 자기 할머니 마이카마저 아세라를 위하여 역겨운 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역겨운 상을 잘라 내어 '키드론 골짜기'에서 불살라 버렸다.
- ¹⁴ 산당들은 없애 버리지 않았지만, 아사의 마음은 살아 있는 동안 내내 주님께 한결같았다.
- ¹⁵ 그는 자기 아버지와 자기 자신이 봉헌한 은과 금과 기물들을 주님의 집에 들여놓았다.
- ¹⁶ 아사와 이스라엘 임금 바아사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 내내 전쟁이 있었다.
- ¹⁷ 이스라엘 임금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아무도 유다 임금 아사와 왕대하지 못하게 하려고 라마를 세웠다.
- ¹⁸ 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집 창고와 왕궁 창고에 남아 있던 은과 금을 모조리 거두어서, 신하들 손에 들려 다마스쿠스에 사는 이람 임금, 헤즈몬의 손자이며 타브림몬의 아들인 벤 하닷 임금에게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 ¹⁹ "나와 임금님 사이에, 나의 아버지와 임금님의 아버지 사이에 맺은 계약이 있습니다. 나는 임금님에게 은과 금을 예물로 보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임금 바아사와 맺으신

계약을 파기하시어, 그가 나에게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 20 벤 하닷은 아사 임금의 말을 듣고, 군대의 장수들을 그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게 하였다. 그는 이윤과 단과 아벨 벳 마이카와 온 칸넬렛, 그리고 납탈리 전 지역을 쳐부수었다.
- 21 이 소식을 들은 바아사는 라마를 세우다 말고 티르차에 그대로 머물렀다.
- 22 그러자 아사 임금은 유대인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불러 모아, 바아사가 라마를 세우는 데 쓰던 돌과 목재를 옮기게 하였다. 아사 임금은 그것들로 벤아민의 게바와 미즈파를 세웠다.
- 23 아사의 나머지 모든 행적과 모든 무용, 그리고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세운 성읍들에 관한 것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그런데 그는 늘그막에 밭에 병이 났다.
- 24 아사는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조상 다윗의 성에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여호사팻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나답의 이스라엘 통치

- 25 유다 임금 아사 제이년에 예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두 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 26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자기 아버지의 길을 걸었다. 아버지가 이스라엘까지도 죄짓게 한 그 죄를 따라 걸었다.
- 27 이사카르 집안 출신 아히아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거슬러 모반하였다. 바아사는 필리스티아인들에게 속해 있던 기브톤에서 나답을 쳤다. 그것은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톤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28 바아사는 유다 임금 아사 제삼년에 이렇게

나답을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 29 바아사는 임금이 되자마자 예로보암 집안 전체를 쳤는데, 예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목숨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게 하였다. 주님께서 당신 종 실로 사람 아히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였다.
- 30 그것은 예로보암이 혼자만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죄짓게 한 그 죄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분노를 돋우었기 때문이다.
- 31 나답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 32 유다 임금 아사와 이스라엘 임금 바아사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 내내 전쟁이 있었다.

바아사의 이스라엘 통치

- 33 유다 임금 아사 제삼년에 아히아의 아들 바아사가 티르차에서 온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스물네 해 동안 다스렸다.
- 34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예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예로보암이 이스라엘까지도 죄짓게 한 그 죄를 따라 걸었다.

16 ¹ 바아사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 하나의 아들 예후에게 내렸다.

- 2 "나는 너를 만지에서 들어 올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영도자로 세웠다. 그런데 너는 예로보암의 길을 걷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의 분노를 돋우었다.
- 3 이제 내가 바아사와 그 집안을 쓸어버리겠다. 네 집안을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집안처럼 만들겠다.
- 4 바아사에게 딸린 사람으로서 성안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어 치우고, 들에서 죽은 자는 하늘의 새가 쪼아 먹을 것이다."

- 5 바야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일, 그리고 그의 무용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 6 바야사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티르차에 묻히고, 그의 아들 엘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 7 주님께서 하나니의 아들 예후 예언자를 통하여 바야사와 그의 집안에 관한 말씀을 내리신 것은, 그가 예로보암 집안처럼 되어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온갖 악한 짓을 저지르고, 제 손이 하는 일로 주님의 분노를 돋우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예로보암 집안을 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엘라의 이스라엘 통치

- 8 유다 임금 아사 제이십육년에 바야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티르차에서 두 해 동안 다스렸다.
- 9 그런데 엘라의 신하이며 병거대의 절반을 지휘하는 지므리라는 장수가 그를 거슬러 모반하였다. 마침 임금이 티르차에 있는 궁내 대신 아르치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있을 때,
- 10 지므리가 들어와 그를 쳐 죽이고, 유다 임금 아사 제이십칠년에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 11 지므리는 임금이 되어 왕좌에 앉자마자 바야사의 온 집안을 쳐서, 그에게 딸린 사람 가운데 일가든 친구든 사내는 단 하나도 남겨 두지 않았다.
- 12 이렇게 지므리는 바야사의 온 집안을 사라지게 하였는데, 주님께서 예후 예언자를 통하여 바야사를 두고 하신 말씀 그대로였다.
- 13 그것은 바야사가 지은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가 지은 죄 때문이었다. 그들은 자기들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죄짓게 하여, 그들이 만든 우상들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분노를 돋우었다.

- 14 엘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지므리의 이스라엘 통치

- 15 유다 임금 아사 제이십칠년에 지므리가 임금이 되어, 티르차에서 이레 동안 다스렸다. 그 무렵에 이스라엘 군대는 필리스티아인들에게 속한 기브톤을 치려고 진을 치고 있었다.
- 16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는 "지므리가 모반하여 임금을 죽이기까지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날로 잔지에서 군대의 장수 오프리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내세웠다.
- 17 오프리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기브톤에서 올라와 티르차를 포위하였다.
- 18 지므리는 성읍이 함락되는 것을 보고 왕궁 성채로 들어갔다. 그러고 나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불 속에서 타 죽었다.
- 19 이것은 그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예로보암의 길을 걸었으며, 예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그 죄를 따라 걸었기 때문이다.
- 20 지므리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모반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오프리의 이스라엘 통치

- 21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들로 나뉘었다. 백성의 절반은 가낫의 아들 티브니를 임금으로 세워 그를 따랐고, 다른 절반은 오프리를 따랐다.
- 22 그러나 오프리를 따르는 백성이 가낫의 아들 티브니를 따르는 백성보다 우세하였다. 마침내 티브니는 죽고 오프리가 임금이 되었다.

- 23 유다 임금 아사 제삼십일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열두 해 동안 다스렸는데, 여섯 해는 티르차에서 다스렸다.
- 24 그는 사마리아 산을 세메르에게서 온 두 탈렌트로 산 뒤, 그 산을 요새로 만들고 자기가 세운 성읍의 이름을, 산의 본래 소유자인 세메르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하였다.
- 25 오므리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것을 저질렀는데, 그 이전의 어떤 임금보다 더 악한 것을 하였다.
- 26 그는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예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죄지게 한 그 죄를 따라 걸어 그들의 우상들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분노를 돋우었다.
- 27 오므리 임금이 한 나머지 행적과 그가 보여 준 무용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 28 오므리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사마리아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합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합의 이스라엘 통치가 시작되다

- 29 유다 임금 아사 제삼십팔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스물두 해 동안 다스렸다.
- 30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의 어떤 임금보다 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 31 아합은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죄를 따라 걷는 것만으로는 모자랐는지, 시돈인들의 임금 엠티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비알에게 가서 그것을 섬기고 예배하기까지 하였다.
- 32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비알 신전에 비알을 위하여 제단을 세웠다.
- 33 또 아합은 아세라 목상도 만들고 그보다

더한 짓을 하여, 그 이전의 어떤 이스라엘 임금보다 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분노를 돋우었다.

- 34 아합 시대에 베텔의 히엘이 에리코를 세웠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히엘은 에리코의 기초를 놓다가 맏아들 아비람을 잃더니, 성문을 달다가는 막내아들 스굽을 잃었다.

엘리아가 기쁨을 예언하다

- 17 ¹ 길앗의 티스베에 사는 티스베 사람 엘리아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살아 계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앞으로 몇 해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아와 까마귀

- 2 주님의 말씀이 엘리아에게 내려졌다.
- 3 "이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 요르단 강 동쪽에 있는 크릿 시내에서 숨어 지내라.
- 4 물은 그 시내에서 마셔라. 그리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에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하겠다."
- 5 엘리아는 주님의 말씀대로 요르단 강 동쪽에 있는 크릿 시내로 가서 머물렀다.
- 6 까마귀들이 그에게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날라 왔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날라 왔다. 그리고 그는 시내에서 물을 마셨다.
- 7 그러다가 얼마 뒤에는 시내의 물이 말라 버렸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엘리아가 사렙타 과부에게 기적을 베풀다

- 8 주님의 말씀이 엘리아에게 내려졌다.
- 9 "일어나 시돈에 있는 사렙타로 가서 그곳에 머물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해 놓았다."
- 10 그래서 엘리아는 일어나 사렙타로 갔다. 그

- 가 성읍에 들어서는데 마침 한 과부가 땀감을 줌을 주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자를 부르고는, "마실 물 한 그릇 좀 떠다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 11 그 여자가 물을 뜨러 가는데 엘리야가 다시 불러서 말하였다. "빵도 한 조각 들고 오면 좋겠소."
- 12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 어르신의 하느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구운 빵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단지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땀감을 두어 개 주워다가 음식을 만들어, 제 아들과 함께 그것이나 먹고 죽을 작정입니다."
- 13 엘리야가 과부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당신 말대로 음식을 만드시오. 그러나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 과자 하나를 만들어 내오고, 그런 다음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드시오."
- 14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 주님이 땅에 비를 다시 내리는 날까지, 밀가루 단지는 비지 않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 15 그러자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자와 엘리야와 그 여자의 집안은 오랫동안 먹을 것이 있었다.
- 16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단지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 17 이런 일이 있는 뒤에 집주인 여자의 아들이 병들게 되었는데, 병이 매우 심해져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 18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하느님의 사랍이시여! 어르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라고 저한테 오셔서, 제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 19 엘리야는 여자에게 "아들을 이리 주시오." 하며, 과부의 품에서 아이를 받아 안고 자

기가 머무르는 옥상 방으로 올라가서, 자기 잠자리에 누웠다.

- 20 엘리야는 주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다. "주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제가 머물고 있는 이 집 과부에게까지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 21 그리고 그는 아이 위로 세 번 자기 몸을 펼친 다음 주님께 다시 이렇게 부르짖었다. "주저의 하느님, 이 아이 안으로 목숨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 22 주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 안으로 목숨이 돌아오게 하시자,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
- 23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옥상 방에서 집 안으로 내려와, 아이 어머니에게 주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 24 그러자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르신께서 하느님의 사랍이시며, 어르신 입으로 전하신 주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엘리아와 오바드야

- 18¹ 세월이 많이 흘러 삼 년째 되던 해에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 2 그리하여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갔다. 그 때에 사마리아는 가뭄이 매우 심하였다.
- 3 아합은 궁내 대신 오바드야를 불렀다. 오바드야는 주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 4 오바드야는 이제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 예언자 백 명을 한 동굴에 쉰 명씩 숨기고 빵과 물을 대 주었다.
- 5 아합이 오바드야에게 말하였다. "이 땅에 물이 있는 샘과 시내를 모두 찾아라 보시오. 우리가 어쩌면 풀을 찾아내어 말과 노새를 살리고, 가축 가운데 얼머는 잃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소?"

6 그리하여 그들은 돌아다닐 땅을 나누어 한 쪽으로는 아합 혼자서, 다른 쪽으로는 오바드야 혼자서 떠났다.

7 오바드야는 길을 가다가 엘리야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엘리야를 알아보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인사하였다. "엘리야 나라가 아니십니까?"

8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그렇소. 가서 당신 주군에게 엘리야가 여기에 있다고 전하십시오."

9 그러자 오바드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의 이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시려는 것입니까?"

10 살아 계신 주 어르신의 하느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의 주군이 어르신을 찾으려고 사람들을 보내지 않은 민족과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면, 그는 그 나라와 민족에게 어르신을 찾지 못하였다고 맹세하게 하였습시다.

11 그런데 지금 어르신께서는 '너의 주군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에 있다고 전하여라.' 하십니다.

12 제가 어르신을 떠나자마자, 주님의 영이 어르신을 제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데려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가서 아합에게 알린 뒤, 그분이 와서 어르신을 찾지 못하면 저를 죽일 것입니다. 어르신의 종인 저는 어릴 때부터 주님을 경외하여 왔습시다.

13 나리께서는 전에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살해할 때, 제가 주님의 예언자 백명을 한 동굴에 쉰 명씩 숨기고 빵과 물을 대 주었다는 소문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14 그런데 지금 어르신께서는 '너의 주군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에 있다고 전하여라.'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가 저를 죽일 것입니다."

15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내가 오늘 반드시 임금을 만나겠소."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

16 오바드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왔다.

17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을 불행에 빠뜨리는 자요?"

18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불행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조상의 집안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고, 임금님은 바알을 따랐습시다.

19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카르멜 산으로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서 얻어먹는 바알의 예언자 사백오십 명과 아세라의 예언자 사백 명도 함께 모아 주십시오."

엘리야가 카르멜 산에서 바알 예언자들과 대결하다

20 아합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예언자들을 카르멜 산에 모이게 하였다.

21 엘리야가 온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절뚝거리길 작정입니까? 주님께서 하느님이시라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하느님이라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은 엘리야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22 엘리야가 백성에게 다시 말하였다. "주님의 예언자라고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나 바알의 예언자는 사백오십 명이나 됩니다.

23 이제 우리에게 황소 두 마리를 끌어다 주십시오. 그들에게 황소 한 마리를 골라 토막을 내어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은 불이지 말게 하십시오. 나도 다른 황소를 잡아 장작 위에 놓고 불은 불이지 않겠습니다.

24 여러분은 여러분 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 나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겠습니다. 그때에 불로 대답하는 신이 있으면,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러자 백성이 모두 "그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 25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제안하였다. "당신들이 수가 많으니 황소 한 마리를 골라 먼저 준비하시오. 당신들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마시오."
- 26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황소를 데려다가 준비해 놓고는,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 "바알이시여, 저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대답도 없었다. 그들은 절뚝거리며 자기들이 만든 제단을 돌았다.
- 27 한낮이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놀리며 말하였다. "큰 소리로 불러 보시오. 바알은 신이지 않소. 다른 불일을 보고 있는지, 자리를 비우거나 여행을 떠났는지, 아니면 잠이 들어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소?"
- 28 그러자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며, 자기들의 관습에 따라 피가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들 몸을 찢러 댔다.
- 29 한낮이 지나 곡식 제물을 바칠 때가 되자 그들은 예언 황홀경에 빠졌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대답도 응답도 없었다.
- 30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이리 다가 오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백성이 모두 다가오자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 31 엘리야는, 일찍이 "나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내린 아랍의 자손들 지파 수대로 돌을 열두 개 가져왔다.
- 32 엘리야는 그 돌들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제단 둘레에는 곡식 두 스아가 들어갈 만한 도랑을 팠다.
- 33 그는 장작을 쌓은 다음, 황소를 토막 내어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 34 그리고 나서 "물을 네 항아리에 가득 채워

- 다가 번제물과 장작 위에 쏟으시오." 하고 일렀다. 그런 다음에 그는 "두 번째도 그렇게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두 번째도 그렇게 하자, 엘리야는 다시 "세 번째도 그렇게 하시오." 하고 일렀다. 그들이 세 번째도 그렇게 하였을 때,
- 35 물이 제단 둘레로 넘쳐흐르고 도랑에도 가득 찼다.
- 36 곡식 제물을 바칠 때가 되자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말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시고 제가 당신의 종이며, 당신의 말씀에 따라 제가 이 모든 일을 하였음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 37 저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이 백성이 당신이야말로 하느님이시며, 바로 당신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였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 38 그러자 주님의 불길이가 내려와, 번제물과 장작과 돌과 먼지를 삼켜 버리고 도랑에 있던 물도 훑아 버렸다.
- 39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부르짖었다.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십니다."
- 40 그때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사로잡으시오." 백성이 그들을 사로잡아 오자, 엘리야는 그들을 키손천으로 끌고 가 거기에서 죽였다.

기름이 끝나다

- 41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 42 아합이 음식을 들리고 올라가자, 엘리야도 카르멜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으로 몸을

수그리고 얼굴을 양 무릎 사이에 묻었다.

- 43 엘리야는 자기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아라." 하고 일렀다. 시종이 올라가 살펴보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는 일곱 번을 그렇게 다녀오라고 일렀다.
- 44 일곱 번째가 되었을 때에 시종은 "바다에서 사람 손바닥만 한 작은 구름이 올라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야가 시종에게 일렀다. "아합에게 올라가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병거를 갖추어 내려가십시오.' 하고 전하여라."

- 45 그러는 동안 잠깐 사이에 하늘이 구름과 비랍으로 캄캄해지더니, 큰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아합은 병거를 타고 이즈르엘로 갔다.
- 46 한편 엘리야는 주님의 손이 자기에게 내리자, 허리를 돌려매고 아합을 앞질러 이즈르엘 어귀까지 뛰어갔다.

엘리아가 호렘 산으로 가다

- 19 ¹ 아합은 엘리야가 한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를 죽인 일을 낱알이 이 제벨에게 이야기하였다.
- 2 이제벨은 심부름꾼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그대의 목숨을 그들의 목숨과 한가지로 만들지 못한다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릴 것이오"
- 3 엘리야는 두려운 나머지 일어나 목숨을 구하려고 그곳을 떠났다. 그는 유다의 브에르세바에 이르러 그곳에 시종을 남겨 두고,
- 4 자기는 하룻길을 더 걸어 광야로 나갔다. 그는 싸리나무 아래로 들어가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이것으로 충분하니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 5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싸리나무 아래에 누

워 잠이 들었다.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 6 엘리야가 깨어 보니, 뜨겁게 달군 돌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머리맡에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누웠다.
- 7 주님의 천사가 다시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하고 말하였다.
- 8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으로 힘을 얻은 그는 밤낮으로 사십 일을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렘에 이르렀다.

엘리아가 하느님을 만나다

- 9 그가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그곳에서 밤을 지내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엘리야야,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 10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저는 주 만군의 하느님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일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신의 계약을 저버리고 당신의 제단들을 헐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저 혼자 남았는데, 저들은 제 목숨마저 없애려고 저를 찾고 있습니다."
- 11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지나가 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할퀴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람 가운데에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 12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 13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걸은 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동굴 어귀로 나와 섰다.

그러자 그에게 한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아야,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 14 엘리아야가 대답하였다. "저는 주 만군의 하느님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일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신의 계약을 저버리고 당신의 제단들을 헐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저 혼자 남았는데, 저들은 제 목숨마저 없애려고 저를 찾고 있습니다."
- 15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돌려 다마스쿠스 광야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 거든 하자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임금으로 세우고,
- 16 남시의 손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므홀라 출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네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 17 하자엘의 칼에서 빠져나간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에서 빠져나간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 18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칠천 명을 모두 남겨 두겠다."

엘리아야가 엘리사를 부르다

- 19 엘리아야는 그곳을 떠나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 엘리사는 열두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열두 번째 겨릿소는 그 자신이 부리고 있었다. 그때 엘리아야가 엘리사 곁을 지나가면서 자기 걸옷을 그에게 걸쳐 주었다.
- 20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그냥 두고 엘리아에게 달려와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에 선생님을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아가 말하였다. "다녀오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다고 그러느냐?"
- 21 엘리사는 엘리아를 떠나 돌아가서 겨릿소

를 잡아 제물로 바치고, 쟁기를 부수어 그 것으로 고기를 구운 다음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 일어나 엘리아를 따라나서서 그의 시종을 들었다.

벤 하닷이 사마리아를 공격하다

- 20 ¹ 아람 임금 벤 하닷이 전군을 소집하였다. 그는 임금 서른두 명과 말과 병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로 올라가, 그곳을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 2 벤 하닷은 성읍 안으로 이스라엘 임금 아합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 3 말하였다. "벤 하닷이 말한다. 그대의 은과 금은 나의 것이다. 그대의 아름다운 아내들과 아들들도 나의 것이다."
- 4 이스라엘 임금이 대답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임금님의 말씀대로 저와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임금님의 것입니다."
- 5 사절들이 다시 아합에게 와서 이렇게 전하였다. "벤 하닷이 말한다. 내가 전에 그대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대의 은과 금과 아내들과 아들들을 나에게 내놓아라.' 하고 말하였다.
- 6 내일 이맘때쯤 나의 신하들을 보내어 그대의 집과 신하들의 집을 뒤져서, 그들의 눈에 드는 것은 무엇이든 손을 대어 가져오게 하겠다."
- 7 그러자 이스라엘 임금은 나라의 모든 원로를 불러 놓고 말하였다. "이자가 무슨 악을 피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가 나에게 사람을 보내어 왕비들과 왕자들과 은과 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나로서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 8 모든 원로와 백성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그의 말을 듣지 말고 거절하십시오."
- 9 그리하여 그는 벤 하닷의 사절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의 주군이신 임금님께 '이 종에게 처음 요구하신 것은 모두 들어

드리겠으나, 이번의 요구는 들어 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전하시오." 사절들은 돌아 가서 그 말을 전하였다.

- 10 그러자 벤 하닷은 다시 이렇게 전갈을 보냈다. "만일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의 손에 쥐어질 만큼 사마리아의 먼지가 충분히 남으면, 신들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실 것이다."
- 11 이스라엘 임금도 이렇게 대답하였다. "갑옷을 입을 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갑옷을 벗을 때 자랑하는 법이라고 전하여라."
- 12 벤 하닷은 임금들과 초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이 말을 전해 듣고, "공격할 준비를 하여라!" 하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성읍을 공격할 준비를 갖추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다

- 13 그때에 한 예언자가 이스라엘 임금 아합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큰 무리를 본 적이 있느냐? 오늘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니, 너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14 "누구를 사키시렵니까?" 하고 아합이 묻자 예언자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을 시켜서 할 것이다.'"
- 15 아합이 다시 "누가 공격을 시작할까요?" 하고 묻자, "임금님 이십니다." 하고 예언자가 대답하였다.
- 16 그리하여 아합이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을 사열하니, 이백삼십이 명이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전군을 사열하니 모두 칠천 명이였다.
- 17 그들은 정오에 싸우러 나갔는데, 그때에 벤 하닷은 자기를 돕는 임금 서른두 명과 함께 여전히 초막에서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있었다.
- 18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이 먼저 나갔다.

벤 하닷이 정찰대를 내보냈는데, 그들이 "사마리아에서 군사들이 나왔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 18 벤 하닷은 "그들이 화친을 하러 나왔다 하더라도 사로잡고, 싸움을 하러 나왔다 하더라도 사로잡아라." 하고 명령을 내렸다.
- 19 그러나 그들, 곧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과 그 뒤를 따르는 병사들은 이미 성읍에서 나와,
- 20 저마다 닥치는 대로 적을 쳐 죽였다. 마침내 아람군이 도망치게 되자, 이스라엘군이 그들을 뒤쫓았다. 아람 임금 벤 하닷은 말을 타고 기병들과 함께 빠져 나갔다.
- 21 그러자 이스라엘 임금도 나가서, 말과 병거를 쳐부수고 아람군을 크게 무찔렀다.
- 22 그 예언자가 다시 이스라엘 임금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임금님께서서는 용기를 내시고 무엇을 하셔야 할지 헤아려 보십시오. 해가 바뀌면 아람 임금이 다시 임금님을 치려고 올라올 것입니다."

아람군이 다시 쳐들어오다

- 23 아람 임금의 신하들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그들의 신은 산악 지방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평지에서 싸우면 틀림없이 우리가 그들보다 강할 것입니다."
- 24 그러나 이렇게 하십시오. 임금들을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그 대신 총독들을 거기에 배치하십시오.
- 25 그리고 임금님께서서 떨어져 나간 군대와 군마와 병거의 수만큼 그대로 모집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틀림없이 우리가 그들보다 강할 것입니다." 그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였다.
- 26 해가 바뀌자, 벤 하닷은 아람군을 소집하여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렉으로 올라갔다.

- 27 이스라엘 자손들도 소집되어 양식을 지급 받고는 그들을 치려고 나아갔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람군 앞에 진을 쳤으나, 들판을 가득 메운 아람군에 비하면 마치 작은 두 엄소 때 같았다.
- 28 그때에 하느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임금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람군은 주님이 산악 지방의 신이고 평야의 신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저 대군을 모두 너의 손에 넘겨주리니,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29 양쪽 군대는 서로 마주 보고 이레 동안 진을 치고 있다가, 이레째 되는 날에 드디어 싸움에 들어갔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날 하루 만에 아람군의 보병 십만을 쳐 죽였다.
- 30 나머지 적군은 아홉 성읍으로 도망쳤는데, 마침 성벽이 나머지 이만 칠천 명 위로 무너져 내렸다. 벤 하닷도 도망쳐서 성안의 어느 골방으로 들어갔다.
- 31 그때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저희가 듣자 하니, 이스라엘 집안의 임금들은 자에롭다고 합니다. 저희가 허리에 자루옷을 걸치고 머리에 줄을 감고, 이스라엘 임금에게 나가게 해 주십시오. 혹시 그가 임금님의 목숨을 살려 줄지도 모릅니다."
- 32 그리하여 그들은 허리에 자루옷을 두르고 머리에 줄을 감고, 이스라엘 임금에게 가서 간청하였다. "임금님의 종 벤 하닷이 '저의 목숨을 살려 주십시오' 하고 합니다." 그러자 아합은 "그가 아직도 살아 있느냐? 그는 나의 형제이다." 하고 말하였다.
- 33 그 사람들은 이것을 좋은 징조로 보고 아합에게서 얼른 그 말을 받아 말하였다. "예, 벤 하닷은 임금님의 형제입니다." 그러

자 아합이 "가서 그를 데려오너라." 하고 일렀다. 벤 하닷이 이스라엘 임금에게 나오니, 아합 임금은 그를 자기 병가에 오르게 하였다.

- 34 벤 하닷이 아합 임금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가 임금님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성읍들을 돌려 드리겠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사마리아에 특별 구역을 두었듯이, 임금님도 다마스쿠스에 특별 구역을 두십시오." 이에 아합은 "그러면 그 조건으로 당신을 놓아주리다." 하고 말한 다음, 그와 계약을 맺고 그를 놓아주었다.

한 예언자가 아합을 자주하다

- 35 예언자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동료에게 "나를 때려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사람이 때리기를 거절하자,
- 36 그 예언자가 말하였다. "자네가 주님의 소리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나를 떠나서 가다가 사자를 만나 죽을 것이네." 과연 그 사람은 그를 떠나서 가다가 사자를 만나 죽었다.
- 37 그 예언자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나를 때려라." 하고 말하였다. 그 사람은 예언자를 때려 상처를 입혔다.
- 38 예언자는 눈을 천으로 감아 변장한 채, 길에서 임금을 기다렸다.
- 39 임금이 지나가는데 그가 임금에게 이렇게 소리쳤다. "임금님, 이 종이 싸움터 한복판으로 나아갔는데, 어떤 병사가 돌아서서 포를 하나 데리고 저에게 와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을 감시하십시오. 만일 놓칠 경우에는 그대의 목숨으로 이 사람의 목숨을 대신하든지, 아니면 은 한 탈렌트를 물어내야 하오.'"
- 40 그런데 이 종이 이 일 저 일을 하는 사이에 그 사람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임금은 말하였다. "그렇다면 판결은 너 스스로 내린 것이니, 그 대로 당해야 한다."

- 41 그러자 그 예언자는 눈에 감은 천을 서둘러 풀었다. 그제야 이스라엘 임금은 그가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임을 알아보았다.
- 42 예언자가 임금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온전히 바쳐야 할 자를 손에서 풀어 주었다. 그러나 그를 대신하여 내가 죽고,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너의 백성이 죽을 것이다.'"
- 43 이스라엘 임금은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궁전으로 돌아갔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다

- 21** ¹ 그 뒤에 일어난 일이다. 이즈르엘 사람 나봇이 이즈르엘에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밭은 사마리아 임금 아합의 궁 곁에 있었다.
- ²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포도밭을 나에게 넘겨주게. 그 포도밭이 나의 궁전 곁에 있으니, 그것을 내 정원으로 삼았으면 하네. 그 대신 그대에게는 더 좋은 포도밭을 주지. 그대가 원한다면 그 값을 돈으로 셈하여 줄 수도 있네."
- ³ 그러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서는 제가 제 조상들에게서 받은 상속 재산을 임금님께 넘겨 드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 ⁴ 아합은 이즈르엘 사람 나봇이 자기에게, "제 조상님들의 상속 재산을 넘겨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한 말에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궁전으로 돌아갔다. 아합은 자리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을 들려고도 하지 않았다.
- ⁵ 그의 아내 이제벨이 들어와서 물었다. "무슨 일로 그렇게 속이 상하시어 음식조차 들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 ⁶ 임금이 아내에게 말하였다. "실은 내가 이즈

르엘 사람 나봇에게 '그대의 포도밭을 돈을 받고 주게. 원한다면 그 포도밭 대신 다른 포도밭을 줄 수도 있네.' 하였소. 그런데 그 자가 '저는 포도밭을 임금님께 넘겨 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는 것이요."

- ⁷ 그러자 그의 아내 이제벨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에 왕권을 행사하시는 분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일어나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 제가 이즈르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을 당신께 넘겨 드리겠습니다."
- ⁸ 그 여자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그의 인장으로 봉인하고, 그 편지를 나봇이 사는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다.
- ⁹ 이제벨은 그 편지에 이렇게 썼다. "단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의 첫 자리에 앉히시오.
- ¹⁰ 그런 다음, 불량배 두 사람을 그 맞은쪽에 앉히고 나봇에게, '너는 하나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다.' 하며 그를 고발하게 하시오. 그리고 나서 그를 끌어내어 돌을 던져 죽이시오."
- ¹¹ 그 성읍 사람들, 곧 나봇이 사는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은 이제벨이 보낸 전갈 그대로, 그 여자가 편지에 써 보낸 그대로 하였다.
- ¹² 그들이 단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의 첫 자리에 앉히자,
- ¹³ 불량배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맞은쪽에 앉았다. 불량배들은 나봇을 두고 백성에게, "나봇은 하나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습니다." 하고 말하며 그를 고발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나봇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을 던져 죽인 다음,
- ¹⁴ 이제벨에게 사람을 보내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고 전하였다.
- ¹⁵ 이제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합 임금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셔서, 이즈르엘 사람 나봇이 돈을 받고 남

겨주기를 거절하던 그 포도밭을 차지하십시오. 나뭇은 살아 있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 16 나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아합은 일어나, 이즈르엘 사람 나뭇의 포도밭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 17 그때에 주님의 말씀이 티스베 사람 엘리야에게 내렸다.
- 18 "일어나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임금 아합을 만나러 내려가거라. 그는 지금 나뭇의 포도밭을 차지하려고 그곳에 내려가 있다.
- 19 그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주님이 말한다. 살인을 하고 땅마저 차지하려느냐?' 그에게 또 이렇게 전하여라. '주님이 말한다. 개들이 나뭇의 피를 핏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개들이 네 피도 핏을 것이다.'" 20 아합 임금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 내 원수! 또 나를 찾아왔소?"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또 찾아왔습니다. 임금님이 자신을 팔면서까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 21 '나 이제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나는 네 후손들을 쓸어버리고, 아합에게 딸린 사내는 자유인이든 종이든 이스라엘에서 잘라 버리겠다.
- 22 나는 너의 집안을 나뭇의 아들 예로보암의 집안처럼, 그리고 아히아의 아들 바야사의 집안처럼 만들겠다. 너는 나의 분노를 돌우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였다.'
- 23 주님께서는 이제벨을 두고도, '개들이 이즈르엘 들판에서 이제벨을 뜯어 먹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 24 '아합에게 딸린 사람으로서 성안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어 치우고, 들에서 죽은 자는 하늘의 새가 쪼아 먹을 것이다.'" 25 아합처럼 아내 이제벨의 충동질에 넘어가 자신을 팔면서까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른 자는 일찍이 없었다.

- 26 아합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인들이 한 그대로 우상들을 따르며 참으로 역겨운 짓을 저질렀다.

아합이 뉴욕차다

- 27 아합은 이 말을 듣자, 제 옷을 찢고 맨몸에 자루옷을 걸치고 단식에 들어갔다. 그는 자루옷을 입은 채 자리에 누웠고, 풀이 죽은 채 돌아다녔다.
- 28 그때에 티스베 사람 엘리야에게 주님의 말씀이 내렸다.
- 29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춘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으니, 그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나 그의 아들 대에 가서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아합이 라못 길앗을 도망치려 하다

- 2 ¹ 그 뒤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세 해 동안 언어 전쟁이 없었다.
- 2 세 해째가 되자 유다 임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임금에게 내려갔다.
- 3 이스라엘 임금이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라못 길앗이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아오? 그런데 우리는 아람 임금의 손에서 그것을 다시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소"
- 4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싸우러 라못 길앗으로 가지겠습니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나나 임금님이나, 내 백성이나 임금님 백성이나, 내 군마나 임금님 군마나 다 한편입니다."
- 5 이렇게 말하고 나서 여호사밧은, "그러나 먼저 주님의 뜻을 문의하시지요." 하고 이스라엘 임금에게 말하였다.
- 6 그러자 이스라엘 임금은 예언자들을 사백

명기랑 모아 놓고 물었다. "내가 라못 길앗으로 싸우러 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 만두는 것이 좋겠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주님께서 라못 길앗을 임금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7 여호사팻이 물었다. "이들 말고 우리가 문의 할 만한 주님의 다른 예언자는 없습니까?"

8 이스라엘 임금이 여호사팻에게 대답하였다. "주님의 뜻을 문의해 줄 이가 아직 한 사람 더 있기는 합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카야인데,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나를 두고 좋게 예언하지 않고 나쁘게만 예언합니다." 여호사팻이 말하였다. "임금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9 그러자 이스라엘 임금은 내시 하나를 불러, "이물라의 아들 미카야를 빨리 데려오너라." 하고 일렀다.

10 그때에 정장을 한 이스라엘 임금과 유다 임금 여호사팻은 사마리아 성문 어귀의 타작마당에 마련된 왕좌에 앉아 있었고, 그들 앞에서는 모든 예언자가 예언하고 있었다.

11 크나야나의 아들 치드키야는 쇠로 뿔들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뿔들로 아람인들을 들이받아 전멸시킬 것이다.'"

12 그러자 다른 예언자들도 모두 같은 예언을 하며 말하였다. "라못 길앗으로 올라가 승리를 거두십시오. 주님께서 그곳을 임금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미카야가 아합의 파ռ을 예언하다

13 미카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였다. "예언자들이 임금님께 한결같이 좋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언자께서도 그들처럼 좋게 말씀하십시오."

14 그러나 미카야는, "주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할 따름이오" 하고 대답하였다.

15 그가 임금 앞에 나아가자 임금이 물었다. "미카야, 우리가 라못 길앗으로 싸우러 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 만두는 것이 좋겠소?" 미카야가 대답하였다.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십시오. 주님께서 그곳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16 그러나 임금은 그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진실만을 말하라고 몇 번이나 맹세를 시켜야 하였소?" 하고 말하였다.

17 그러자 미카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떼처럼 이 산 저 산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주인이 없으니, 저마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8 이스라엘 임금이 여호사팻에게 말하였다.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자는 내 일을 두고 좋게 예언하지 않고 나쁘게만 예언합니다."

19 미카야가 말하였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주님께서 어좌에 앉으시고 하늘의 온 군대가 그분 오른쪽과 왼쪽에서 있었습니다.

20 그런데 주님께서 '누가 아합을 피어내어, 그를 라못 길앗으로 올라가 쓰러지게 하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저마다 이런저런 의견을 내놓는데,

21 어떤 영이 주님 앞에 나서서 '제가 아합을 피어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에게 '어떻게 그를 피어내겠느냐?' 하고 물으시자,

22 그는 '제가 나가 아합의 모든 예언자의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그를 피어내어라. 성공할 것이다. 가서 그렇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 23 그러니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임금님의 이 모든 예언자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 24 그러자 크나아나의 아들 치드키아가 미카아에게 다가가서 뺨을 치며 말하였다. "주님의 영이 어떻게 나를 떠나가 나에게 말 씀하셨다는 말이나?"
- 25 미카아가 대답하였다. "네가 골방으로 들어가 숨는 날에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 26 그러자 이스라엘 임금은 말하였다. "미카아를 붙잡아 아몬 성주와 요아스 왕자에게 끌고 가거라."
- 27 그리고 이 임금이 이렇게 말한다고 전하여라.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이자를 감옥에 가두고 빵과 물을 조금씩만 주어라.'
- 28 미카아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무사히 돌아오시기만 한다면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민족들아, 모두 들어라."

아합이 리못 길에서 전사하다

- 29 이스라엘 임금과 유다 임금 여호사팻은 라못 길앗으로 올라갔다.
- 30 이스라엘 임금이 여호사팻에게 말하였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에 나갈 터이니, 임금님은 그대로 정장을 하십시오." 이스라엘 임금은 변장을 하고 나서 싸움터로 나갔다.
- 31 아람 임금은 그의 병거대 장수 서른두 명에게 명령하였다. "낮은 자든 높은 자든 누구하고도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임금하고만 싸워라."
- 32 병거대 장수들은 여호사팻을 보고, "저자가 바로 이스라엘 임금이다." 하며, 그와 싸우려고 달려들었다. 여호사팻이 소리를 지르

자,

- 33 병거대 장수들은 그가 이스라엘 임금이 아남을 알아보고서, 그를 쫓다가 돌아섰다.
- 34 그런데 어떤 병사가 무턱대고 쏜 화살이 이스라엘 임금을 맞추었다. 화살이 갑옷 가슴팍이의 이음새에 꽂히자, 임금은 자기 병거를 모는 부하에게 말하였다. "병거를 돌려 싸움터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
- 35 그러나 그날 싸움이 격렬해져서, 임금은 아람군을 마주 보며 병거 위에서 부축을 받고 서 있다가 저녁때에 죽었다. 병거 바닥에는 상처에서 흐른 피가 흥건하였다.
- 36 해 질 무렵, "각자 자기 성읍으로, 각자 자기 고향으로!" 하고 외치는 소리가 병사들 사이에 들었다.
- 37 이렇게 임금은 죽었다. 사람들은 임금을 사마리아로 옮겨 그곳에 묻었다.
- 38 그리고 임군의 병거를 사마리아의 연못가에서 씻었는데, 개들이 그 피를 핥았고 창녀들이 그곳에서 목욕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 39 아합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 그가 세운 상아 궁과 그가 세운 모든 성읍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 40 아합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들 아히즈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여호사팻의 유다 통치

- 41 이스라엘 임금 아합 제사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팻이 유다의 임금이 되었다.
- 42 여호사팻은 서른다섯 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스물다섯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주비인데 살히의 딸이었다.
- 43 그는 자기 아버지 아사가 걸던 길에서 벗

어나지 않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44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아,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45 여호사팻은 이스라엘 임금과 화평을 맺었다.

46 여호사팻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보여 준 무용과 그가 한 전쟁에 관한 것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47 그는 자기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까지 남아 있던 신전 남창들을 그 땅에서 끌어버렸다.

48 그때에 에돔에는 임금이 없었고 임금의 지방관만 있을 뿐이었다.

49 여호사팻 임금은 타르시스 상선들을 만들어 오피르에서 금을 가져오려고 하였으나, 그 상선들이 에즈온 게베르에서 부서져 그 곳에 가지 못하였다.

50 그러자 이합의 아들 아하즈야가 여호사팻에게 말하였다. "나의 종들이 임금님의 종들과 함께 상선을 타고 가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사팻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51 여호사팻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조상 다윗의 성에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하즈야의 이스라엘 통치

52 유다 임금 여호사팻 제십칠년에 이합의 아들 아하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두 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53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자기 아버지의 길과 자기 어머니의 길을 걷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54 그는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여, 그의 아버지가 한 것과 똑같이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의 분노를 돋우었다.

구약성경 - 12

역사서 - 7

열왕기 하

총 25 장

총 719 절

[구약성경]-[열왕기 하]

엘리아와 아합의 임금

- 1¹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거슬러 반란을 일으켰다.
- 2 아합자는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옥상 방의 격자 난간에서 떨어져 다쳤다. 그래서 그는 사자들을 보내며, "에크론의 신 바알 즈블에게 가서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아라." 하고 일렀다.
- 3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티스베 사람 엘리아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사마리아 임금의 사자들을 만나 이렇게 전하여라. '이스라엘에는 하느님이 없어서, 에크론의 신 바알 즈블에게 문의하러 가느냐?'"
- 4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네가 올라가 누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대로 죽을 것이다." 그리하여 엘리아는 길을 나섰다.
- 5 사자들이 돌아오자, 임금은 그들에게 "왜 벌써 돌아왔느냐?" 하고 물었다.
- 6 그들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이 저희를 만나러 올라와서 저희에게, '그대들을 보낸 임금께 돌아가서 전하여라.'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에는 하느님이 없어서, 에크론의 신 바알 즈블에게 문의하러 사람들을 보내느냐? 그러므로 너는 네가 올라가 누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대로 죽을 것이다.'"
- 7 그러자 임금은 "너희를 만나러 올라와서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고 물었다.
- 8 그들이 대답하였다. "몸에는 털이 많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른 사람이었습니다." 임금은 "틀림없이 티스베 사람 엘리아다!" 하면서,
- 9 오십인대장을 부하 선 명을 팔려서 엘리아

- 에게 보냈다. 오십인대장이 올라가 보니 엘리아는 마침 산꼭대기에 앉아있었다. 그가 엘리아에게 "하느님의 사람이시여, 임금님께서 내려오시라고 분부하셨습니다." 하자,
- 10 엘리아는 그 오십인대장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네 부하 선 명을 삼켜 버릴 것이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부하 선 명을 삼켜 버렸다.
- 11 임금은 다시 다른 오십인대장을 부하 선 명을 팔려서 엘리아에게 보냈다. 그도 올라가서 엘리아에게, "하느님의 사람이시여, 임금님께서 빨리 내려오시라고 이르셨습니다." 하자,
- 12 엘리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네 부하 선 명을 삼켜 버릴 것이다." 그러자 하늘에서 하느님의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부하 선 명을 삼켜 버렸다.
- 13 임금은 세 번째 오십인대장을 부하 선 명을 팔려서 엘리아에게 보냈다. 이 셋째 오십인대장이 올라가서 엘리아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애원하였다. "하느님의 사람이시여, 저의 목숨과 당신의 종들인 이 선 명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 14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미 오십인대장 두 명과 그들의 부하 선 명씩을 삼켜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 15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엘리아에게 일렀다. "그와 함께 내려가거라. 그리고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엘리아는 일어나 그와 함께 임금에게 내려갔다.
- 16 엘리아가 임금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뜻할 문이랄 하느님이 없어서, 에크론의 신 바알

그룹에게 문의하러 사자들을 보냈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누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대로 죽을 것이다."

- 17 엘리야가 전한 주님의 말씀대로 임금이 죽었다. 그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의 아우 요람이, 유다 임금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제이년에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 18 아하즈야가 남긴 나머지 행적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엘리아가 승천하고 엘리아가 그 뒤를 잇다

2

1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바람에 실어 하늘로 들어 올리실 때였다. 엘리아와 엘리아사가 길갈을 떠나 건다가,

- 2 엘리야가 엘리아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주님께서 베델까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엘리아는 "주님께서 살아 계시고 스승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저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베델로 내려갔다.
- 3 베델에 있던 예언자 무리가 엘리아에게 나와서 물었다. "주님께서 오늘 당신의 주인님을 당신에게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 4 엘리야가 또 엘리아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주님께서 나를 에리코로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엘리아는 "주님께서 살아 계시고 스승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저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에리코로 내려갔다.
- 5 에리코에 있던 예언자 무리가 엘리아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주님께서 오늘 당신의 주인님을 당신에게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6 엘리야가 또 엘리아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주님께서 나를 요르단 강으로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엘리아는 "주님께서 살아 계시고 스승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저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함께 떠났다.

7 예언자들의 무리 가운데 천 명이 그들을 따라갔다. 두 사람이 요르단 강 가에 멈추어 서자, 그들도 멀찍이 떨어져 멈추어 섰다.

8 엘리야가 걸옷을 들어 말아 가지고 물을 치니, 물이 이쪽 저쪽으로 갈라졌다. 그리하여 그 두 사람은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넜다.

9 강을 건넌 다음 엘리야가 엘리아에게 물었다.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해 주어야 할 것을 청하여라." 그러자 엘리아가 말하였다. "스승님 영의 두 뭇을 받게 해 주십시오."

10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어려운 청을 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대로 되겠지만,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11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걸어가는데, 갑자기 불 병거와 불 말이 나타나서 그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다.

12 그는 그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기병이시여!" 엘리아는 엘리야가 더 이상 보이지 않자, 자기 옷을 움켜쥐고 두 조각으로 찢었다.

13 엘리아는 엘리아에게서 떨어진 걸옷을 집어 들고 되돌아와 요르단 강 가에 섰다.

14 그는 엘리아에게서 떨어진 걸옷을 잡고 강물을 치면서, "주 엘리야의 하느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엘리아가 물을 치니 물이 이쪽 저쪽으로 갈라졌다. 이렇게 엘리아가 강을 건너지는데,

- 15 예리코에서 온 예언자 무리가 멀리서 그를 보고, "엘리아의 영이 엘리사에게 내렸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엘리사를 맞으러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고,
- 16 엘리사 그에게 말하였다. "여기 당신 종들에게 장정 된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님을 찾게 하십시오. 어쩌면 주님의 영이 그를 들어가다가, 어떤 산 위나 어떤 골짜기에 내던졌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사는 "아니, 보내지 마시오" 하였지만,
- 17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들이 졸라 대는 바람에, "그럼, 보내시오" 하고 허락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쉰 명을 보내어 사흘 동안 찾았으나, 그를 찾아내지 못하고,
- 18 예리코에 머물러 있는 엘리사에게 돌아왔다. 엘리사는 그들에게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소?" 하고 말하였다.

열셋째 두 가지 기적을 일어난다

- 19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어르신께서 보시다시피 이 성읍은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나빠서 이 땅이 생산력을 잃어버렸습니다."
- 20 이 말에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시오" 하고 일렀다. 그들이 소금을 가져오자,
- 21 엘리사는 물이 나오는 곳에 가서 거기에 소금을 뿌리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물을 되살렸으니, 이제 다시는 이 물 때문에 죽거나 생산력을 잃는 일이 없을 것이다.'"
- 22 그러자 그 물은 엘리사가 한 말대로 되살아나서 오늘에 이르렀다.
- 23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갔다. 그가 베델로 가는 도중에 어린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하며 그를 놀려 댔다.

- 24 엘리사는 돌아서서 그들을 보며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러자 암곰 두 마리가 숲에서 나와, 그 아이들 가운데 마흔두 명을 찢어 죽였다.
- 25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카르멜 산으로 갔다가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요람의 이스라엘 통치

- 3 ¹ 유다 임금 여호사팻 제십팔년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열두 해 동안 다스렸다.
- 2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지만,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같지는 않았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기념가등을 치웠던 것이다.
- 3 그러나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이 저지른 죄에 사로잡혀 그것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이스라엘과 유다 동맹군이 모압과 싸우다

- 4 모압 임금 메사는 목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임금에게 어린 양 십만 마리, 그리고 숫양 십만 마리의 털을 바쳐 왔다.
- 5 그러다가 아합이 죽자 모압 임금은 이스라엘 임금에게 반란을 일으켰다.
- 6 요람 임금은 곧바로 사마리아에서 출정하였다. 그는 온 이스라엘군을 사열하고
- 7 나서면서, 유다 임금 여호사팻에게 전갈을 보냈다. "모압 임금이 나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나와 함께 모압으로 싸우러 가지겠습니까?" 유다 임금이 대답하였다.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나나 임금님이나, 내 백성이나 임금님 백성이나, 내 군마나 임금님 군마나 다 한편입니다."
- 8 그러고는 그가 "어느 길로 올라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묻자, 요람 임금이 "예뎜의 광야 길로 올라갑시다." 하고 대답하

- 였다.
- 9 그리하여 이스라엘 임금과 유다 임금과 에돔 임금이 함께 행군하였다. 그들이 이레 길을 돌아 행군하는데, 군대와 군대 뒤를 따르는 짐승들이 마실 물이 떨어졌다.
- 10 그때에 이스라엘 임금이 말하였다. "큰일이 다! 주님께서 우리 세 임금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고 불러내셨구나."
- 11 그러나 여호사밧 임금은 "여기에 주님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그에게 부탁하여 주님의 뜻을 문의하게 말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임금의 신하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시중을 들던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12 그러자 여호사밧이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닌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임금과 여호사밧과 에돔 임금이 그에게 내려갔다.
- 13 그런데 엘리사는 이스라엘 임금에게, "임금님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임금님 아버지의 예언자들과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나 가 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임금은 그에게, "아니오, 주님께서 우리 세 임금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고 불러내신 것이오." 하고 말하였다.
- 14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제가 모시는, 살아 계신 만군의 주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제가 유다 임금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해 주지 않았다면, 임금님을 거들떠보지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 15 이제 저에게 약사를 한 사람 데려오십시오." 약사가 연주하는 동안, 주님의 손길이 엘리사에게 내렸다.
- 16 그리하여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 버린 이 사내에 웅덩이를 많이 파라.
- 17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말라 버린 이 사내에 물이 가득 차서,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들이 마시게 될 것이다.'
- 18 그런데 이런 것은 주님 보시기에 하찮은 일입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손에 모압을 넘겨주실 것입니다.
- 19 여러분은 모든 요새 성읍과 모든 주요 성읍을 처부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좋은 나무들을 모두 쓰러뜨리고, 물이 솟는 샘을 모조리 틀어막으며, 모든 옥토를 돌밭으로 만들 것입니다."
- 20 다음 날 아침에 제물을 드리는 때가 되자, 에돔 쪽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 그 땅이 물로 가득 찼다.
- 21 한편 모든 모압인은 임금들이 자기들과 싸우러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징집 연령이 된 사람들과 그 이상 된 사람들이 모두 소집되어 국경에 배치되었다.
- 22 모압인들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자, 해가 물 위에 떠올라서 그들 맞은쪽의 물이 피처럼 붉게 보였다.
- 23 그들은 말하였다. "피다! 저쪽 임금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쳐 죽였구나. 그렇다면 이제 모압인들이, 약탈하러 가자!"
- 24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자, 이스라엘군이 일어나서 모압인들을 쳤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치자, 이스라엘군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모압인들을 쳤다.
- 25 그들은 성읍들을 부수고 병사들마다 모든 옥토에 돌을 던져 그곳을 돌로 가득 채웠으며, 물이 솟는 샘을 모두 틀어막고 좋은 나무들을 모조리 쓰러뜨렸다. 그리하여 마찰내 키르 하레셋에 돌담만 남게 되었는데, 그곳마저 투석병들이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 26 그렇게 되자 모압 임금은 싸움이 자기에게

너무 벅차다는 것을 알고, 칼 쓰는 군사 칠 백 명을 이끌고 애돔 임금 쪽을 뚫으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 27 그래서 모압 임금은 자기 뒤를 이어 임금이 될 만자들을 데려다가, 성벽 위에서 번제물로 바쳤다. 그러자 무서운 분노가 이스라엘군에 내렸다. 이스라엘군은 그곳에서 철수하여 본국으로 돌아갔다.

과부의 기름병

4 ¹ 예언자 무리의 아내들 가운데 하나가 엘리사에게 호소하였다. "어르신 의 종인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어르신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르신 의 종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제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2 엘리사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집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알려 주시오." 여자가 대답하였다. "이 여종의 집에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 밖에 없습니다."

3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밖으로 나가 모든 이웃 사람에게서 그릇을 빌려 오시오. 빈 그릇을 되도록 많이 빌려다가,

4 두 아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서, 그릇마다 기름을 붓고 그릇이 가득 차면 옆에 옮겨 놓으시오."

5 여자는 엘리사에게서 물러나, 두 아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다. 그리고는 두 아들이 그릇을 건네주는 대로 계속 기름을 부었다.

6 그러마다 기름이 가득 차자 여자가 아들에게 일렀다. "그릇을 더 가져오너라." 아들이 여자에게 "그릇이 더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7 여자가 하느님의 사람에게 가서 이 일을 알리자, 그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는 당신과 당신 아이들이 살아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수넬 여자와 그의 아들

8 하루는 엘리사가 수넬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한 부유한 여자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의 집에 들러 음식을 먹곤 하였다.

9 그 여자가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우리 집에 늘 들르시는 이분은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10 벽을 둘러친 작은 옥상 방을 하나 꾸미고, 침상과 식탁과 의자와 등잔을 놓아 드립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그곳에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11 어느 날 엘리사가 거기에 갔다가 그 옥상 방에 들어 쉬게 되었다.

12 엘리사는 자기 종 게하지에게 "저 수넬 여자를 불러라." 하고 일렀다. 종이 여자를 부르니, 그 여자가 엘리사 앞에 섰다.

13 엘리사가 종에게 말하였다. "부인에게 이렇게 여쭙어라. '부인, 우리를 돌보시느라 수고가 많으시오. 내가 부인에게 무엇을 해 드리면 좋겠소? 내가 부인을 위하여 임금님이나 아니면 군대의 장수에게 무엇을 좀 부탁하면 어떻겠소?'" 그러자 여자가 "저는 이렇게 제 겨레 가운데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4 엘리사는 종에게 "그러면 저 부인에게 무엇을 해 주면 좋을까?" 하고 물었다. 게하지가 "저 부인은 아들이 없는 데다가 남편은 나이가 많습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5 그러자 엘리사는 "여자를 불러라." 하고 일렀다. 종이 여자를 부르니 그 여자가 문간에 섰다.

16 엘리사가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은 한 아들을 안게 될 것이오." 여자

- 가 대답하였다. "어르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이 여중에 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 17 그러나 그 여자는 임신하여, 엘리사가 말한 대로 이듬해 같은 때에 아들을 낳았다.
- 18 그 아이가 자라났다. 하루는 곡식 거두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기 아버지에게 나갔다가,
- 19 갑자기 아버지에게 "아이고, 머리아! 아이고, 머리아!" 하고 소리쳤다. 아버지는 종에게 "아이를 안아서 제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어라." 하고 일렀다.
- 20 좋은 아이를 안아서 어머니에게 데려갔다. 그 아이는 정오까지 제 어머니 무릎에 누워 있다가 죽고 말았다.
- 21 그러자 그 여자는 위로 올라가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아이를 눕히고는, 문을 닫고 나왔다.
- 22 그리고 나서 자기 남편을 불러 말하였다. "종 한 사람과 암나귀 한 마리를 보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에게 얼른 다녀와야 하겠습니다."
- 23 남편이 물었다. "왜 꼭 오늘 그분에게 가려 하오? 오늘은 초하룻날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그래도 여자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말한 다음,
- 24 나귀에 안장을 엮고 나서 종에게 일렀다. "고삐를 잡고 출발하여라. 내가 말하기 전에는 멈추지 말고 몰아라."
- 25 이리하여 여자는 길을 떠나 카르멜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 하나님의 사람은 멀리서 그 여자를 보고 자기 종게 하자에게 말하였다. "저기 수넬 여자가 오는구나."
- 26 얼른 뛰어가서 맞이하여라. 그리고 '부인은 평안하십니까? 바깥어른도 평안하시고 아이도 평안하십니까?' 하고 물어보아라." 그러자 여자가 "평안합니다." 하고 대답하였

다.

- 27 여자는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자, 그의 두 발을 붙잡았다. 게하지가 그 여자를 밀어내려고 다가가니,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였다. "부인을 그대로 두어라. 부인에게 가슴 아픈 일이 생겼다. 다만 주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감추시고 알리지 않으셨구나."
- 28 그때에 여자가 말하였다. "제가 언제 어르신께 아들을 달라고 하였습니까? 저는 오히려 '저에게 헛된 기대를 갖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 29 그러자 엘리사가 게하지에게 말하였다. "허리에 띠를 매고 내 지팡이를 들고 가져라. 누구를 만나더라도 인사하지 말고 누가 인사하더라도 응답하지 마라. 그 집에 들어가거든 내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라."
- 30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살아 계시고 어르신께서 살아 계시는 한, 저는 결코 어르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일어나 그 여자를 떠나시켰다.
- 31 게하지가 앞서 가서 그 아이의 얼굴 위에 지팡이를 놓아 보았으나, 아무 소리도 응답도 없었다. 게하지는 엘리사를 만나러 돌아와서, "그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 32 엘리사가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아이는 죽어서 자기 침상에 누워 있었다.
- 33 엘리사는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안에는 들뿐이었다. 그는 주님께 기도드린 다음,
- 34 침상에 올라가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자기 눈을 아이의 눈에, 자기 손을 아이의 손에 맞추고 그 위에 엎드렸다. 이렇게 아이 위에 몸을 수그리고 있자,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였다.
- 35 엘리사는 내려와서 집 안을 이곳저곳 한

번씩 걷더니, 다시 침상에 올라가 아이 위에 몸을 수그렸다. 그러자 아이가 재채기를 일곱 번 하고는 눈을 떴다.

- 36 엘리사는 게하지를 불러, "저 수넴 여자를 불러라." 하고 일렀다. 게하지가 여자를 부르니 여자가 엘리사에게 왔다. 엘리사가 "부인의 아들을 데려가시오." 하자,
- 37 여자는 들어와 그의 발 앞에서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고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

독이 든 국

- 38 엘리사는 길갈로 돌아갔다. 그 지방에는 마침 가뭄이 들어 있었다. 엘리사 앞에 예언자들의 무리가 앉아 있을 때, 엘리사가 종에게 "큰 솥을 걸고 예언자들의 무리가 먹을 국을 끓여라." 하고 일렀다.
- 39 어떤 사람이 들에 푸성귀를 뜯으며 나갔다가 들포도나무를 발견하고, 그 열매를 옷자락에 가득 담아 가지고 돌아와서, 무엇인지도 모르고 국 솥에 잘라 넣었다.
- 40 그들이 사람들에게 국을 먹으라고 떠 주자, 국을 먹어 본 이들이 "하느님의 사람이시여, 솥 안에 죽음이 들어 있습니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그들이 국을 먹지 못하고 있는데,
- 41 엘리사가 "밀가루를 가져오너라." 하고 일렀다. 그는 밀가루를 솥에 뿌려 넣은 다음, "사람들에게 국을 떠 주어 먹게 하여라." 하였다. 그러자 솥에는 더 이상 해로운 것이 없었다.

백 명을 먹인 기적

- 42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왔다. 그는 만물로 만든 보리 빵 스무 개와 햇곡식 이삭을 자루에 담아, 하느님의 사람에게 가져왔다. 엘리사는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누어 주어라." 하고 일렀다.
- 43 그러나 그의 사종은 "이것을 어떻게 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

니까?" 하고 물었다. 엘리사가 다시 말하였다.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누어 주어라. 주님께서 이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 44 그리하여 그것을 사람들에게 내놓으니,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먹고도 남았다.

엘리사가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다

5 ¹ 아람 임금의 군대 장수인 나아만은 그의 주군이 아끼는 큰 인물이었다. 주님께서 나아만을 시켜 아람에 승리를 주셨던 것이다. 나아만은 힘센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다.

- 2 한번은 아람군이 약탈하러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왔는데,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 곁에 있게 되었다.
- 3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르신께서 사마리아에 계시는 예언자를 만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주님의 나병을 고쳐 주실 텐데요."
- 4 그래서 나아만은 자기 주군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가 이리이러한 말을 하였다고 아뢰었다.
- 5 그러자 아람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임금에게 편지를 써 보낼 터이니, 가보시오." 이리하여 나아만은 은 열 탈렌트와 금 육천 셰켈과 예복 열 벌을 가지고 가서,
- 6 이스라엘 임금에게 편지를 전하였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편지가 임금님에게 닿는 대로, 내가 나의 신하 나아만을 임금님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나병을 고쳐 주십시오."
- 7 이스라엘 임금은 이 편지를 읽고 옷을 찢으면서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시는 하느님이란 말인가? 그가 사람을 보내어 나에게 나병을 고쳐 달라고 하다니! 나와 싸울 기회를 그가 찾고 있다는 사실을

- 그대들은 분명히 알아 두시오."
- 8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스라엘 임금의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 임금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임금님께서서는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를 저에게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 9 그리하여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대문 앞에 와서 멈추었다.
- 10 엘리사는 심부름꾼을 시켜 말을 전하였다. "요르단 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러면 새살이 돌아 깨끗해질 것입니다."
- 11 나아만은 화가 나서 발길을 돌리며 말하였다. "나는 당연히 그가 나에게 나와 서서, 주 그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곳 위에 손을 흔들어 이 나병을 고쳐 주려니 생각하였다."
- 12 다마스쿠스의 강 아비나와 파르파르는 이스라엘의 어떤 물보다 더 좋지 않으나? 그렇다면 거기에서 씻어도 깨끗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나아만은 성을 내려 발길을 옮겼다.
- 13 그러나 그의 부하들이 그에게 다가갈 때 말하였다. "아버님, 만일 이 예언자가 어려운 일을 시켰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아버님께 몸을 씻기만 하면 깨끗이 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 14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느님의 사람이 일러준 대로, 요르단 강에 내려가서 일곱 번 몸을 담갔다. 그러자 그는 어린이이 살처럼 새살이 돌아 깨끗해졌다.
- 15 나아만은 수행원을 모두 거느리고 하느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가 그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이 종이 드리는 선물을 부디 받아 주십시오."
- 16 그러나 엘리사는 "내가 모시는 주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결코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였다. 그래도 나아만이 그것을 받아 달라고 거듭 청하였지만 엘리사는 거절하였다.
- 17 그러자 나아만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시다면, 나귀 두 마리에 실을 만큼의 흙을 이 종에게 주십시오, 이 종은 이제부터 주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 18 그런데 한 가지 주님께서 이 종을 용서해 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의 주님께서 림몬 신전에 예배하러 가실 때에 제 팔에 의지하십시오, 저도 림몬 신전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림몬 신전에서 예배할 때, 이 일을 두고는 주님께서 이 종을 용서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 19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안심하고 가십시오." 나아만이 엘리사를 떠나 얼마쯤 갔을 때였다.
- 20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지가 이런 생각을 하였다. '주인님께서 이 아람 사람 나아만이 가져온 것을 받지 않으시다니, 그를 너무 관대하게 대하셨구나. 주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그의 뒤를 쫓아 달려가서 무엇이든 좀 받아 오고야 말겠다.'
- 21 그리하여 게하지는 나아만을 뒤쫓아갔다. 나아만은 누군가 자기 뒤를 쫓아 달려오는 것을 보고는, 그를 맞이하려고 병거에서 내려 "별일 없지요?" 하고 물었다.
- 22 게하지가 대답하였다. "별일 없습니다. 그런데 저의 주인님께서 저를 보내서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막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서 예언자 무리 가운데 두 사람이 나에게 왔습니다. 그들에게 줄은 한 탈렌트와 예복 두 벌을 보내 주십시오.'"
- 23 나아만은 "기왕이면 두 탈렌트를 받아 주

시오." 하며, 억지로 은 두 탈렌트를 두 자루에 묶고 예복 두 벌을 젊은 부하 두 사람에게 주어, 게하지 앞에서 메고 가게 하였다.

- 24 **오펠에 이르자** 게하지는 그들 손에서 짐을 받아 집 안에 두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들이 떠난 다음,
- 25 게하지는 들어가서 자기 주인 앞에 섰다. 그때에 엘리사가 "게하지야, 어디를 갔다 왔느냐?" 하고 물으니, 게하지가 "이 좋은 아무 데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26 그러나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누군가가 너를 맞이하려고 병거에서 몸을 돌릴 때,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지 않은 줄 아느냐? 지금이 돈을 받아 옷과 올리브 나무와 포도밭, 양과 소, 남종과 여종을 사들일 때냐?"
- 27 그러므로 나야빔의 나병이 너에게 옮겨 네 후손들에게 영원히 붙어 다닐 것이다." 게하지가 엘리사 앞에서 물러 나오니 나병으로 눈처럼 하얗졌다.

엘리사가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 주다

- 6 ¹ 예언자 무리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스승님 앞에서 자내는 이곳이 저희에게 너무 좁습니다.
- 2 저희가 요르단 강으로 가서 저마다 들보감을 하나씩 가져다가 저희가 지낼 곳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가거라." 하자,
- 3 한 사람이 "이 종들과 함께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엘리사는 "그래, 나도 가마." 하고,
- 4 그들과 함께 떠났다. 그들은 요르단 강에 이르러 나무를 자르기 시작하였다.
- 5 그런데 한 사람이 들보감을 찍어 넘기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다. 그가 "아이고, 스승

님, 저것은 빌려 온 도끼인데요." 하고 소리치자,

- 6 **하느님의 사람이** "도끼가 어디에 빠졌느냐?" 하고 물었다. 그가 그 자리를 가리키니,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꺾어 그곳에 던졌다. 그러자 도끼가 떠올랐다.
- 7 엘리사가 "그것을 집어 올려라." 하고 이르니, 그가 손을 뻗어 도끼를 잡았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사로잡다

- 8 금이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던 때였다. 그는 신하들과 의논한 뒤, "이러이러한 곳에 내 잔을 쳐라." 하고 일렀다.
- 9 그러나 하느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임금에게 전갈을 보냈다. "그곳을 지나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람군이 그리로 내려올 것입니다."
- 10 이에 이스라엘 임금은 하느님의 사람이 일러 준 곳에 사람을 보냈다. 이런 식으로 하느님의 사람이 임금에게 경고하여, 임금이 조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 11 이 일 때문에 아람 임금은 마음이 크게 흔들려, 신하들을 불러 놓고 말하였다.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임금과 내통하는 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겠소?"
- 12 아람 임 그러자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그런 자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어,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까지도 이스라엘 임금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 13 아람 임금은 "가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사로잡겠다." 하고 일렀다. 그러자 "그가 도탄에 있습니다." 하는 보고가 임금에게 들어왔다.
- 14 임금은 군마와 병거와 큰 부대를 보냈다. 그들은 밤중에 도착하여 성읍을 포위하였

다.

- 15 하느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갔다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린 부대가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종이 엘리사에게 "아이고, 주인님! 이 걸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물었다.
- 16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편이 그들 편보다 많다." 하고서는,
- 17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님, 저 아이의 눈을 여시어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열어 주셨다. 그가 보니 군마와 불 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온 산에 가득하였다.
- 18 아람 군대가 엘리사에게 내려올 때, 엘리사는 주님께 "저 민족을 치시어 눈이 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치시어 눈이 멀게 하셨다.
- 19 이에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길이 아니오. 이 성읍이 아니오. 나를 따라오시오.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에게 데려다 주겠소."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려갔다.
- 20 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섰을 때, 엘리사는 "주님, 이 사람들의 눈을 여시어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시자, 그들은 자라들이 사마리아 성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 21 이스라엘 임금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물었다. "아버님, 저들을 처 죽일까요? 제가 처 죽이겠습니다."
- 22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그들을 처 죽여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께서서는 처 죽이시려고 칼과 활로 포로들을 사로잡으십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빵과 물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한 다음, 자기 주군에게 돌아가게 하십시오."
- 23 그리하여 임금은 큰 잔치를 베풀어 먹고

마시게 한 다음, 그들의 주군에게 돌려보냈다. 그러자 아람의 약탈자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 않았다.

포위된 사마리아가 굶주림에 허우다

- 24 그러나 나중에 아람 임금 벤 하닷이 전군을 소집하고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였다.
- 25 그들의 포위가 계속되자, 사마리아는 큰 굶주림에 시달려 나귀 머리 하나가 은 여든 세켈에 팔리고, 비둘기 똥 사분의 일 컵이 은 다섯 세켈에 팔릴 지경에 이르렀다.
- 26 어느 날 이스라엘 임금이 성벽 위를 지나갈 때, 한 여자가 울부짖었다. "저의 주군 이신 임금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 27 임금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너를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너를 돕겠느냐? 타작마당의 곡식으로 돕겠느냐? 술들의 포도주로 돕겠느냐?"
- 28 그러면서 임금은 그 여자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나?" 하고 물었다. 여자가 대답하였다. "이 여자가 저에게 '당신 아들을 내놓으시오. 오늘은 당신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읍시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 29 그래서 제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이튿날 제가 '당신 아들을 내놓으시오. 잡아서 같이 먹읍시다.' 하였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 30 임금은 여자의 이야기를 듣더니 자기 옷을 찢었다. 임금이 성벽 위를 지나갈 때, 백성은 그가 속에 자루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
- 31 임금이 말하였다. "사렛의 아들 엘리사의 목이 오늘 그대로 붙어 있으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엘리사가 자라들이 오는 것을 미리 말하다

- 32 그때에 엘리사는 집에 앉아 있었고, 원로들도 그와 함께 앉아있었다. 임금이 자기 주변의 어떤 사람을 보냈는데, 그 전령이 오기 전에 엘리사가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저 살인자가 내 목을 베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아십니까? 전령이 오는 것을 보고 있다가 문을 잠그십시오. 문을 단단히 걸어야 합니다. 그를 뒤따라오는 주군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 33 엘리사가 아직 원로들에게 말하고 있는 사이에 임금이 그에게 내려와 말하였다. "이 재앙은 분명 주님께서 내리신 것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주님께 무엇을 더 바라야 한단 말지요?"

- 7 ¹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켈, 보리 두 스아가 한 세켈 할 것이다.'" ² 그때에 임금을 부축하고 있던 무관이 하느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여신다 한들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그대는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이요, 그러나 먹지는 못할 것이요."

아람군이 진지를 두고 달아나다

- 3 그때에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벋이 있었다. 그들이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⁴ 성읍에 들어가자 한들 성읍이 굶주림에 허덕이니 거기에서 죽을 것이고, 그렇다고 여기 앉아 있어도 죽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니 아람군의 진영에 가서 행복이나 하자. 그들이 살려 주면 살고, 죽이면 죽을 수밖에." ⁵ 그러고는 아람군 진영으로 가려고 해질 녘

에 일어섰다. 그런데 그들이 아람군 진영의 경계에 이르러 보니,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 ⁶ 주님께서 아람군 진영에 병거 소리와 군마 소리와 대군이 쳐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게 하셨던 것이다. 그리하여 아람군은 서로 "이스라엘 임금이 히타이트의 임금들과 이집트 임금들을 고용하여 우리에게 쳐들어오는구나!" 하며, ⁷ 해질 녘에 일어나 천막과 군마와 나귀들을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둔 채,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쳤던 것이다. ⁸ 이들 나병 환자들은 진영의 경계에 이르러, 한 천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옷을 챙겨 들고 나와 숨겨 두고는, 돌아가서 또 다른 천막에 들어가 물건들을 챙겨 들고 나와 숨겨 두었다. ⁹ 그런 다음에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우리가 하는 일은 떳떳하지 못하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어서 왕궁에 가 이 사실을 알리자." ¹⁰ 그리하여 그들은 가서 성의 문지기를 불러서 알렸다. "우리가 아람군 진영에 갔더니 거기에는 아무도 없고 인가척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군마도 매여 있고 나귀도 매여 있었으며, 천막들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¹¹ 문지기들이 이 소식을 외치며 왕궁 안에까지 알렸다. ¹² 그러자 임금은 밤중에 일어나서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아람군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지 내가 그대들에게 알려 주겠소. 그들은 우리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알고 진영에서 나가 들만에 숨어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들은 '저들이 성읍에서 나오면 사로잡고 그 성읍으로 쳐들어가자.' 하고 생각하고 있소."

- 13 그러자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이 성읍 안에 남아 있는 군마는 이미 사라져 간 온 이스라엘의 무리와 같은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군마 가운데에서 다섯 필을 끌어 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함께 내보낸 다음에 지켜봅시다."
- 14 그래서 임금은 군마가 끄는 병거 두 대를 끌어내어, 아람군의 뒤를 쫓아가도록 내보내면서 "가서 알아보아라." 하고 일렀다.
- 15 그들이 아람군의 뒤를 쫓아 요르단 강까지 가면서 보니, 갈마다 아람군이 서둘러 도망치느라 내버린 옷가지와 장비가 널려 있었다. 전령들은 돌아와서 임금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 16 그러자 백성은 나가서 아람군 진영을 털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켈, 보리 두 스아가 한 세켈 하였다.
- 17 임금은 자기를 부축한 무관을 성문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성문에서 사람들에게 밋혀 죽었다. 임금이 내려왔을 때에 하느님의 사람이 말한 그대로다.
- 18 그때에 하느님의 사람은 임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가 한 세켈,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켈 할 것입니다."
- 19 그 말에 무관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여신다 한들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느님의 사람이 "그대는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이요. 그러나 먹지는 못할 것이오." 하였던 것이다.
- 20 그래서 그런 일이 그에게 일어나, 그는 성문에서 사람들에게 밋혀 죽고 만 것이다.

수념 여자 이야기의 마무리

8

1 엘리사가 이전에 어떤 여자의 아들

을 살린 일이 있는데, 그 여자에게 이렇게 일러 주었다. "일어나 당신 가족과 함께 떠나, 당신이 몸 붙여 살 만한 곳으로 가서 사시오. 주님께서 가뭄을 불러들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일곱 해 동안 가뭄이 닥칠 것이요."

- 2 그 여자는 하느님의 사람이 일러 준 말에 따라 일어나 가족과 함께 필리스티아 땅으로 가서, 일곱 해 동안 거기에서 살았다.
- 3 일곱 해가 지나자, 그 여자는 필리스티아 땅에서 돌아와 임금에게 가서, 자기 집과 밭을 돌려 달라고 호소하였다.
- 4 그때에 임금은 하느님의 사람의 종인 게하지와 말하고 있었다. "엘리사가 이론 큰일들을 모두 이야기하여라." 하고 임금이 명령하자,
- 5 게하지는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려 준 일을 임금에게 이야기하였다. 바로 그때에 엘리사가 이들을 살려 준 여자가 임금에게 자기 집과 밭을 돌려 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게하지가 이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바로 엘리사가 살려 준 그 아들입니다."
- 6 이에 임금이 여자에게 묻자, 여자는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임금은 여자의 일을 어떤 내시에게 맡기며 명령을 내렸다. "이 여자의 모든 재산과, 여자가 이 고장을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그 밭에서 난 모든 소출을 돌려주어라."

엘리사와 아람 임금

- 7 엘리사가 다마스쿠스로 갔을 때, 아람 임금 벤 하닷이 앓고 있었다. "하느님의 사람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보고를 듣고,
- 8 임금은 하제엘에게 말하였다. "예물을 가지고 하느님의 사람을 찾아가 만나시오. 그를 통하여 '제가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겠습

나까?' 하고 주님께 문의해 보시오."

9 하자엘은 예물로 나타 마흔 마리에 실을 다 마스쿠스의 온갖 귀중품을 가지고 하느님의 사람을 만나러 갔다. 그는 하느님의 사람 앞에 나와 서서 말하였다. "어르신의 아들 같은 아람 임금 벤 하닷이 저를 보내어, '제가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10 엘리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돌아가서, '임금님께서는 회복되실 것입니다.' 하고 전하십시오. 그러나 그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 주셨소."

11 그리고 나서 하느님의 사람은 하자엘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얼굴을 똑바로 하고 그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12 "어르신, 어찌하여 우십니까?" 하고 하자엘이 묻자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나는 그대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악을 저지를지 알기 때문이요, 그대는 그들의 요새들에 불을 지르고, 젊은이들을 칼로 쳐 죽이고, 어린아이들을 매어치며,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가를 것이요."

13 하자엘이 "개와 같은 이 종이 어찌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대가 아람의 임금이 될 것임을 보여 주셨소."

14 하자엘은 엘리사를 떠나 자기 주군에게 돌아갔다. "엘리사가 그대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소?" 하고 임금이 묻자, 하자엘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엘리사는 임금님께서 반드시 회복되실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15 그러나 이튿날 하자엘은 담요를 가져다 물에 적서 임금의 얼굴에 덮어 죽이고는,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여호람의 유다 통치

16 이스라엘 임금, 아합의 아들 요람 제오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임금으로 있을 때, 유다 임금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임금이 되었다.

17 여호람은 서른두 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여덟 해 동안 다스렸다.

18 여호람은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에, 아합 집안이 하던 대로 이스라엘 임금들이 간 길을 걸어,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19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당시 중 다윗을 생각하시어,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지는 않으셨다. 일찍이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영원히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20 여호람 시대에 에돔은 유다의 지배에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들의 임금을 세웠다.

21 그러자 여호람은 모든 병거대를 이끌고 차이르로 건너갔다. 여호람은 밤에 출동하여 자기와 병거대 장수들을 둘러싼 에돔군을 쳤으나, 오히려 여호람의 군대가 자기네 천막으로 도망쳐 버렸다.

22 이리하여 에돔은 유다의 지배에 반란을 일으켜 오늘에 이르렀다. 리브나가 반란을 일으킨 것도 그때다.

23 여호람 임금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24 여호람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 성에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아하즈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하즈야의 유다 통치

25 이스라엘 임금, 아합의 아들 요람 제삼이년에 유다 임금 여호람의 아들 아하즈야가 임금이 되었다.

26 아하즈야는 스물두 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한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탈야인데 이스라엘 임금 오므리의 손녀였다.

- 27 그는 아합 집안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에, 아합 집안의 길을 걸어 아합 집안처럼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약한 짓을 저질렀다.
- 28 그는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아람 임금 하자엘과 싸우려고 라못 길앗으로 갔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람인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혔다.
- 29 요람 임금은 라마에서 아람 임금 하자엘과 싸울 때에 아람인들에게 입은 부상을 치료 하려고, 이즈르엘로 돌아갔다. 이렇게 아합의 아들 요람이 아팠으므로, 유다 임금 여호람의 아들 아하즈야가 그를 보려고 이즈르엘로 내려갔다.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임금으로 세우다

- 9 ¹ 엘리사 예언자가 예언자 무리에서 한 사람을 불러 이렇게 일렀다. "허리에 띠를 매고서 이 기름병을 손에 들고 라못 길앗으로 가거라.
- 2 거기에 이르거든 남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찾아라. 그리고 인에 들어가 동료를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내어 골방으로 데리고 가거라.
- 3 그런 다음에 기름병을 들고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며 말하거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임금으로 세운다.' 그러고는 머뭇거리지 말고 문을 열고 도망쳐라.'"
- 4 그 젊은이, 곧 젊은 예언자는 라못 길앗으로 갔다.
- 5 그가 거기에 이르러 보니 마침 군대의 장수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 그는 "장군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후가 "도대체 우리 가운데 누구 말인가?" 하고 묻자, 그가 대답하였다. "바로 장군님입니다."
- 6 예후가 일어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니, 젊은

예언자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임금으로 세운다.'

- 7 너는 너의 주군 아합의 집안을 처야 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벨의 손에 죽은 나의 종 예언자들뿐 아니라 주님의 모든 종의 피를 갚게 해야 한다.
- 8 그러면 아합의 온 집안이 망할 것이다. 내가 아합 집안에 딸린 사내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이스라엘에서 잘라 버리겠다.
- 9 나는 아합의 집안을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집안과 아히아의 아들 바아사의 집안처럼 만들겠다.
- 10 이제벨은 이즈르엘 들판에서 개들이 뜯어 먹고, 아무도 그를 묻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젊은 예언자는 문을 열고 도망쳤다.
- 11 예후가 자기 주군의 신하들에게 돌아오자 그들이 물었다. "괜찮소? 그 미친 녀석이 왜 장군에게 왔소?" 예후는 "그가 어떤 자이고 어떻게 말하는지 알지 않소!" 하고 대답하였다.
- 12 그들은 "거짓말! 자, 털어 놓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후는 "그 사람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임금으로 세운다.'고 말하였소."
- 13 그러자 그들은 재빨리 저마다 제 겹옷을 벗어 예후의 발밑 층계에 깔고는 나팔을 불며, "예후께서 임금님이 되셨다!" 하고 외쳤다.

예후가 이스라엘 임금 요람을 죽이다

- 14 남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는 요람을 칠 계획을 꾸몄다. 그때에 요람은 이스라엘 전군을 이끌고 아람 임금 하

자엘에게 맞서서 라못 길앗을 지키고 있었다.

15 그런데 요람 임금은 아람 임금 하자엘과 싸울 때에 아람인들에게 입은 부상을 치료 하려고, 이즈르엘로 돌아가 있었다. 예후가 말하였다. "이것이 그대들의 뜻이라면, 아무도 이 성읍을 빠져나가 이즈르엘에 소식을 알리려 가지 못하게 하시오."

16 그리고 나서 예후는 병거를 타고 이즈르엘로 갔다. 그때에 이즈르엘에는 요람이 앉아 누워 있었고, 유다 임금 아하즈야가 요람을 보러 내려와 있었다.

17 이즈르엘의 탑에서 있던 파수병이 예후의 부대가 오는 것을 보고, "웬 부대가 보입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요람은 "기병을 하나 뽑아 보내어, 그들을 만나 평안한지 묻게 하여라." 하고 일렀다.

18 기마병이 나가서 예후를 만나, "평안하시냐고 임금님께서 물으십니다." 하자, 예후는 "평안하건 안 하건 너와 무슨 상관이나? 돌아서서 내 뒤나 따라라." 하고 일렀다. 파수병이 보고하였다. "전령이 그들에게 다 다르기는 하였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19 그래서 임금이 다시 두 번째 기마병을 보냈다. 그도 그들에게 가서 "평안하시냐고 임금님께서 물으십니다." 하자, 예후는 "평안하건 안 하건 너와 무슨 상관이나? 돌아서서 내 뒤나 따라라." 하고 일렀다.

20 그러자 파수병이 또 보고하였다. "그 역시 그들에게 다르기는 하였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친 듯이 말을 몰고 오는 모습이 님시의 손자 예후 같습니다."

21 이 말에 요람은 "병거를 준비하여라." 하고 일렀다. 사람들이 병거를 준비하자, 이스라엘 임금 요람과 유다 임금 아하즈야는 저마다 자기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만나러 나갔다. 그들은 이즈르엘 사람 나봇의 밭에서 예후를 만났다.

22 요람이 예후를 보고 "예후 장군, 평안하오?" 하고 묻자, 예후가 대답하였다. "당신의 어머니 이제벨이 온갖 음행과 마술을 일삼고 있는데 평안이 다 뭐요?"

23 요람은 손에 쥔 말고삐를 돌려 도망치며, 아하즈야 임금에게 "아하즈야 임금, 반역이오!" 하고 소리쳤다.

24 예후는 활을 당겨 요람의 두 어깨 사이를 겨누고 쏘았다. 화살이 요람의 심장을 뚫고 나오자, 그는 병거 바닥에 쓰러졌다.

25 예후는 자기 무관 빅트르에게 말하였다. "그를 들어 이즈르엘 사람 나봇의 밭에 내던져라. 나와 네가 요람의 아버지 아합의 뒤에서 나란히 병거를 타고 다닐 때, 주님께서 그를 두고 하신 이 신탁을 기억해 보아라."

26 '나는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 주님의 말이다. 내가 바로 이 밭에서 너에게 그대로 값을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를 들어 그 밭에 내던져라."

예후가 유다 임금 아하즈야를 죽이다

27 유다 임금 아하즈야는 그것을 보고 뺏길로 도망쳤다. 예후는 그의 뒤를 쫓으며 "저자도 쏘아라." 하고 일렀다. 병사들은 병거를 타고 가는 아하즈야를 이블르암 근처의 구르 오르막길에서 쏘았다. 아하즈야는 쓰기도 도망쳤으나 거기에서 죽었다.

28 그의 신하들이 그를 병거에 실어 예루살렘으로 옮겨다가, 다윗 성에 있는 무덤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었다.

29 아합의 아들 요람 제십일년에 아하즈야가 유다의 임금이 되었다.

예후가 이제벨을 죽이다

30 예후가 이즈르엘에 이르렀을 때, 이제벨은 소식을 듣고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민 다음, 창문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 31 예후가 문에 들어서자 이제벨이 말하였다. "자기 주군을 죽인 지브리 같은 자야, 평안하냐?"
- 32 그러자 예후가 창문을 쳐다보며 말하였다. "거기 누가 내 편이냐? 누구 없느냐?" 그러자 내시 두세 명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 33 예후가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져라." 하고 일렀다. 내시들이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지자 그 피가 담벼락과 말에 튀었다. 예후가 그 여자를 짓밟고
- 34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신 다음, "저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가다 물어 주어라. 그래도 임금의 딸이 아니냐?" 하고 말하였다.
- 35 그러나 그들이 여자를 물어 주러 나가 보니, 두개골과 발과 손바닥 말고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
- 36 그들이 돌아와 예후에게 보고하자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당신의 종 티스베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즈르엘 들판에서 개들이 이제벨의 살을 뜯어 먹고
- 37 이제벨의 주검이 이즈르엘 들판의 거름이 되어 아무도 그것을 이제벨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예후가 아합의 아들들을 죽이다

- 10¹ 사마리아에는 아합의 아들 일흔 명이 있었다. 그래서 예후는 사마리아에 있는 이즈르엘의 고관들과 원로들과 아합 아들들의 교육관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 보냈다.
- 2 "너희는 너희 주군의 아들들과 함께 있고 병자와 군마도 갖고 있다. 또한 요세 성읍에다 무기까지 갖추었다. 그러나 이 편지가 너희에게 가거든,
- 3 너희 주군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적당한 자를 골라 그 아버지의 왕좌에 앉히고, 너희 주군의 집안을 위하여 싸워라."
- 4 이에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두 임금도 그를 당해 내지 못하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해 내겠소?"
- 5 그리하여 궁내 대신과 성읍 책임자와 원로들과 교육관들은 예후에게 이렇게 전갈을 보냈다. "저희는 장군님의 종들입니다. 장군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떤 임금도 세우지 않겠습니다. 장군님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 6 예후는 두 번째 편지를 이렇게 써 보냈다. "너희가 만일 내 편이 되어 내 말에 순종하겠다면, 너희 주군의 아들들 머리를 내일 이맘때까지, 이즈르엘에 있는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때에 왕자들 일흔 명은 모두 그들을 키우는 그 성읍의 대관들과 함께 있었다.
- 7 이 편지가 그들에게 가자, 그들은 그 왕자들 일흔 명을 잡아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즈르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다.
- 8 전령이 와서 예후에게 "그들이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하고 보고하니, 그가 이렇게 일렀다. "그 머리들을 성문 어귀에 두 무더기로 쌓아서 아침까지 두어라."
- 9 아침이 되자 그는 나가 서서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죄가 없습니다. 내 주군을 칠 계획을 세우고 그를 살해한 것은 바로 나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 사람들은 모두 누가 쳐 죽였습니까?"
- 10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주님께서 아합 집안을 두고 하신 말씀은 한바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 11 그러고 나서 예후는 이즈르엘에 남아 있던 아합 집안을 모두 쳐 죽였다. 또한 그 집안의 대관들과 친지들과 사제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

예후가 유다 임금 아하즈아의 형제들을 죽이다

- 12 그런 다음에 예후는 거기에서 떠나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벧 에켓 로암에 이르러,
- 13 유다 임금 아하즈아의 형제들과 마주쳤다. 예후가 "그대들은 누구요?" 하고 물었다. 그들이 "우리는 아하즈아의 형제들이요, 왕자들과 대비의 자손들에게 인사하러 내려왔소." 하고 대답하자,
- 14 예후는 "저자들을 사로잡아라." 하고 일렀다. 부하들이 그들을 사로잡아, 벧 에켓의 구덩이 곁에서 그 마흔두 명을 죽였다. 예후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예후와 여호나답

- 15 예후가 다시 그곳을 떠나서 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나온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 예후는 그에게 인사한 다음, "내 마음이 그대 마음과 함께하듯, 그대 마음도 그러하오?" 하고 물었다. 여호나답이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후는 "그렇다면 그대의 손을 내미시오." 하고 말하였다. 여호나답이 손을 내밀자 예후는 그를 자기 병거에 태웠다.
- 16 그러고는 말하였다. "함께 가서 주님에 대한 나의 열성이 어떠한지 보시오." 이렇게 예후는 그를 자기 병거에 태우고
- 17 사마리아에 들어갔다. 거기에서 그는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아합에게 딸린 자로서 남은 자들을 모두 쳐서 없애 버렸다.

예후가 바알 숭배를 없애다

- 18 예후는 모든 백성을 모아 놓고 말하였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밖에 섬기지 않았지만, 이 예후는 바알을 더 많이 섬길 것입니다.
- 19 그러니 이제 바알의 예언자들과 숭배자들과 사제들을 모두 나에게 불러오십시오.

- 내가 바알에게 성대한 제사를 드릴 터이니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빠지는 사람은 누구나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후는 바알 숭배자들을 없애 버리려고 이런 계락을 꾸민 것이다.
- 20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거룩한 집회를 열 어라." 하고 이르자, 집회가 선포되었다.
- 21 예후는 온 이스라엘에 사람들을 보냈다. 그리하여 바알 숭배자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모여 와 바알 신전으로 들어가니,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 차게 되었다.
- 22 예후는 의상 관리인에게, "바알 숭배자들이 입을 예복을 꺼내 오너라." 하고 일렀다. 그가 그들이 입을 예복을 꺼내 오자,
- 23 예후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함께 바알 신전 안으로 들어가, 바알 숭배자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여러분 가운데에 주님 숭배자들이 들어 있지 않나 살펴보십시오. 이곳에는 바알 숭배자들만 있어야 합니다."
- 24 그런 다음에 그들이 희생 제물과 번제물을 드리려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밖에서는 예후가 군사 여든 명을 배치하고 그들에게 일렀다.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이자들 가운데 하나라도 빠져나가게 하는 사람은 대신 목숨을 잃을 것이다."
- 25 예후는 번제물을 다 드리고 호위병들과 무관들에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도 살아 나가지 못하게 다 쳐라." 하고 일렀다. 그리하여 호위병들과 무관들이 그들을 칼로 쳐서 밖으로 내던졌다. 그러고는 바알 신전의 성체에까지 들어가,
- 26 바알 신전의 기둥 기둥들을 뽑아 불에 태웠다.
- 27 또 바알의 기둥 기둥을 부수고 바알의 신전을 허물어 뒷간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예후의 죄

- 28 이렇게 하여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비알을 없애 버렸다.
- 29 그러나 예후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숭배에서는 돌아서지 않았다.
- 30 주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으니 참 잘하였다. 내가 마음에 품은 그대로 아합 집안의 일을 처리하였다. 그러므로 너의 사 대 자 손까지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것이다."
- 31 그러나 예후는 마음을 다하여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율법에 따라 걷는 일에 충실하지 않았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예로보암의 죄에서는 돌아서지 않았던 것이다.

예후의 미자막

- 32 그때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조금씩 찢어 내기 시작하셨다. 하지엘이 이스라엘의 온 영토를 공격하였다.
- 33 그는 요르단 강 동쪽, 갓 사람들과 르우벤 사람들과 므나쎄 사람들이 사는 길앗의 모든 땅, 곧 아르논 강 곁에 있는 아로에르에서 길앗과 바산에 이르는 지역을 공격하였던 것이다.
- 34 예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의 모든 무용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 35 예후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사마리아에 묻히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즈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 36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스물여덟 해이다.

아탈야의 유다 통치

- 11 ¹ 아하즈의 어머니 아탈야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서는,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 2 그러자 요람 임금의 딸이며 아하즈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살해될 왕자들 가운데에서, 아하즈의 아들 요아스를 아탈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 두었으므로, 요아스가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 3 아탈야가 나라를 다스리는 여섯 해 동안, 요아스는 유모와 함께 주님의 집에서 숨어 지냈다.
- 4 칠 년째 되던 해에 여호아다가 사람을 보내어 카리 사람 백인대장들과 호위병 백인대장들을 데려다가, 자기가 있는 주님의 집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그는 그들과 계약을 맺고 주님의 집에서 맹세하게 한 다음, 왕자를 보여 주었다.
- 5 그리고는 이렇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이 할 일은 이렇소. 그대들 가운데 안식일 당번 삼분의 일은 왕궁을 지키고,
- 6 다른 삼분의 일은 수르 문을, 나머지 삼분의 일은 호위병들 뒤쪽에 있는 문을 지키시오. 이렇게 궁전을 지켜야 하오.
- 7 그다음에 안식일 비번인 두 부대는 모두 임금을 위하여 주님의 집을 지키시오.
- 8 저마다 무기를 손에 들고 임금을 에워싸시오. 대열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시오. 임금님께서 나고 드실 때에도 곁에 있어야 하오."
- 9 백인대장들은 여호아다 사제가 명령한 대로 다 하였다. 그들은 저마다 안식일 당번인 부하들뿐만 아니라 안식일 비번인 부하들까지 데리고 여호아다 사제에게 갔다.
- 10 사제는 주님의 집에 보관된 다윗 임금의 창과 방패들을 백인대장들에게 내주었다.
- 11 호위병들은 모두 무기를 손에 들고 주님의 집 남쪽에서 북쪽까지 제단과 주님의 집에서 서서 임금을 에워쌌다.
- 12 그때에 여호아다가 왕자를 데리고 나와, 왕관을 씌우고 증언서를 주었다. 그러자 사람

들이 그를 임금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은 다음, 손뼉을 치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 13 아탈야가 호위병들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백성이 모인 주님의 집으로 가서
- 14 보니, 임금이 관례에 따라 기둥 곁에 서 있고 대신들과 나팔수들이 임금을 모시고 서 있었다. 온 나라 백성이 기뻐하는 가운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래서 아탈야는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 하고 외쳤다.
- 15 그때에 여호아다 사제가 군대를 거느린 백인대장들에게 명령하였다. "저 여자를 데 열 밖으로 끌어내시오. 그를 따르는 자가 있거든 칼로 쳐 죽이시오." 여호아다 사제는 이미 "주님의 집에서 그 여자를 죽이지 마라." 하고 말해 두었던 것이다.
- 16 그들은 그 여자를 체포하였다. 그리고 나서 아탈야가 왕궁의 '말 문'으로 난 길에 들어 서자, 거기에서 그 여자를 죽였다.

여호아다 사제의 개혁

- 17 여호아다는 주님과 임금과 백성 사이에, 그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계약을 맺게 하였다. 또한 임금과 백성 사이에도 계약을 맺게 하였다.
- 18 그 땅의 모든 백성이 바알 신전에 몰려가 그것을 허물고, 바알의 제단들과 그 상들을 산산조각으로 부수었다. 그들은 또 바알의 사제 마탄을 제단 앞에서 죽였다. 여호아다 사제는 주님의 집에 감독을 세웠다.
- 19 그런 다음에 백인대장들과 카리 사람들과 호위병들과 온 나라 백성을 데려왔다. 그들은 주님의 집에서 임금을 모시고 내려와, '호위병들의 문'을 거쳐 왕궁으로 들어갔다. 거기에서 임금이 왕좌에 앉자,
- 20 온 나라 백성이 기뻐하였다. 아탈야가 왕궁에서 칼에 맞아 죽은 뒤로 도성은 평온해

졌다.

요아스의 유다 통치

- 12 ¹ 요아스는 임금이 될 때에 일곱 살이 었다.
- 2 요아스는 예후 제갈년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마흔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치브야인데 브에르 세바 출신이 었다.
- 3 요아스는 여호아다 사제가 가르쳐 준 대로 살아 있는 동안 내내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 4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아,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 5 요아스가 사제들에게 일렀다. "주님의 집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 곧 개인이 바치는 일반 헌금, 의무 헌금,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주님의 집에 가져오는 모든 헌금은,
- 6 사제들이 저마다 친지에게서 받아 두었다가, 주님의 집에 부서진 곳이 드러나는 대로 그 부서진 곳을 고치는 데에 쓰시오."
- 7 그러나 요아스 임금 제이십삼년까지도 사제들은 주님의 집의 부서진 곳을 고치지 않았다.
- 8 그래서 요아스 임금은 여호아다 사제를 비롯하여 다른 사제들을 불러 놓고 일렀다. "어찌하여 그대들은 주님의 집의 부서진 곳을 고치지 않고 있소? 이제부터는 그대들이 친지들에게서 돈을 받지 말고, 주님의 집의 부서진 곳에 쓰도록 그 돈을 남기시오."
- 9 사제들은 이 말을 받아들여, 백성에게서 돈을 받지도 않고 주님의 집의 부서진 곳을 직접 고치는 일도 하지 않기로 하였다.
- 10 여호아다 사제는 궤를 하나 가져다가 뚜껑에 구멍을 내어, 주님의 집에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제단 옆에 놓아두었다. 그러고는 문지방을 지키는 사제들이 주님의 집에 들어오는 모든 돈을 그 궤에 넣게 하였

다.

- 11 그 궤에 돈이 많아 보이면, 임금의 서기관과 대사제가 올라가서 주님의 집에 있는 돈을 쏟아 내어 세었다.
- 12 그리고 썸이 끝난 돈은 주님의 집 공사 책임자들에게 주었다. 책임자들은 다시 그 돈을 주님의 집에서 일하는 목수들과 건축가들에게 내주었고,
- 13 미장이들과 석수들에게도 주었다. 또한 그 돈은, 주님의 집 부서진 곳을 고치는 데에 드는 나무와 짝은 돌을 사고, 그 밖에도 집을 수리하는 데에 드는 모든 경비로 썼다.
- 14 주님의 집에 들어오는 그 돈은 주님의 집을 위하여 은 대야나 불뿔 가위나 쟁반이나 나팔, 그리고 온갖 금은 기물을 만드는 데에 쓰지 않고,
- 15 다만 일꾼들에게 주어 주님의 집을 고치게 하였다.
- 16 일꾼들에게 주라고 돈을 넘긴 사람들에게 정산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정직하게 일하였기 때문이다.
- 17 보상 제물의 돈과 속죄 제물의 돈은 주님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것은 사제들이 차지하였다.

이람의 침입과 유다 임금 요아스의 죽음

- 18 그 무렵에 이람 임금 하자엘이 올라와 그를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런 다음에 하자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려고 방향을 돌렸다.
- 19 그래서 유다 임금 요아스는 유다 임금들이 있던 자기 조상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즈야가 봉헌한 모든 예물과 자기가 봉헌한 예물, 그리고 주님의 집 창고와 왕궁 창고에 있는 모든 금을 꺼내어 이람 임금 하자엘에게 보냈다. 그러자 하자엘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고 떠나갔다.

- 20 그들은 요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 21 요아스의 신하들이 일어나 음모를 꾸미고, 실라로 내려가는 그를 밀로 궁에서 죽였다.
- 22 그때에 요아스를 쳐 죽인 사람들은 그의 신하인, 시므앗의 아들 요자카르와 소메르의 아들 여호자밧이었다. 요아스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마즈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여호아하스의 이스라엘 통치

- 13 ¹ 유다 임금 아하즈야의 아들 요아스 제이십삼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열일곱 해 동안 다스렸다.
- 2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죄를 따라 걸으며 그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 3 그러자 주님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거슬러 타오르게 되었고,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을 잇따라 이람 임금 하자엘과 하자엘의 아들 벤 하닷의 손에 넘기셨다.
- 4 그런데 여호아하스가 주님의 호의를 간청하자, 주님께서 그의 청을 들어 주셨다. 이스라엘이 억압당하는 것을, 이람 임금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다.
- 5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구원자를 보내시어, 그들을 이람인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은 예전처럼 자기들 천막에서 살게 되었다.
- 6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예로보암 집안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고, 그 죄를 따라 걸어갔다. 또 사마리아에는 아세라 목상도 그대로 서 있었다.
- 7 그리하여 주님께서 여호아하스에게 기마

병 씌 명, 병거 열 대, 보병 일만의 병력만 남기셨다. 아람 임금의 그 군대를 짓부수어 타작 때의 먼지처럼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

- 8 여호아하즈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의 무용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 9 여호아하즈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사마리아에 묻히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여호아스의 이스라엘 통치

- 10 유다 임금 요아스 제삼십칠년에 여호아하즈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열여섯 해 동안 다스렸다.
- 11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지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온갖 죄에서 돌아서지 않고 그 죄를 따라 걸었다.
- 12 여호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 또 그가 유다 임금 아바즈야와 싸울 때에 보인 무용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 13 여호아스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예로보암이 그의 왕좌에 앉았다. 여호아스는 이스라엘의 임금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혔다.

엘리사가 죽다

- 14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그 앞에서 울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기병이시여!"
- 15 엘리사가 임금에게 말하였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임금이 활과 화살을 가져오니,
- 16 엘리사가 이스라엘 임금에게 "활을 당기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이 활을 당기자 엘리사는 자기의 손을 임금의 손에 얹고,

- 17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하였다. 임금이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쏘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이 활을 쏘니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베푸실 승리의 화살입니다. 아람을 이기실 승리의 화살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아백에서 아람을 쳐서 그들을 전멸시키실 것입니다."
- 18 엘리사는 또 임금에게 "화살을 잡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이 화살을 잡으니, 엘리사가 이스라엘 임금에게 "땅을 치십시오." 하였다. 임금은 땅을 세 번 치고 그쳤다.
- 19 그러자 하느님의 사람이 임금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대어섯 번 치셨더라면, 아람을 쳐서 전멸시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람을 세 번밖에 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 20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죽으니, 사람들이 그를 장사 지냈다. 그 무덤 모양 약탈대가 해마다 이 땅에 쳐들어왔는데,
- 21 한번은 사람들이 주검을 묻으려다가 그 약탈대를 보고는, 주검을 엘리사의 무덤 속에 던지고 가 버렸다. 그런데 그 주검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섰다.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

- 22 아람 임금 하자엘은 여호아하즈가 살아 있는 동안 내내 이스라엘을 억압하였다.
- 23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시고 그들을 가없이 여기셨다. 아브라함과 이사와 야곱과 맺으신 당신의 계약을 생각하시어, 당신 백성에게 얼굴을 돌리셨던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백성을 멸망시키실 마음이 없으셨기에 아직은 당신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 24 아람 임금 하자엘이 죽자, 그의 아들 벤 하닷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25 그때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는 하 지엘의 아들 벤 하닷의 손에서 성읍들을 도로 찾았다. 그 성읍들은 하자엘이 전쟁에서 여호아스의 아버지 여호아하스에게서 빼앗은 것들이었다. 여호아스는 벤 하닷을 세 번 쳐서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도로 찾았던 것이다.

아마츠야의 유다 통치

14 ¹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 제이년에 유다 임금 요아스의 아들 아마츠야가 임금이 되었다.

2 아마츠야는 스물다섯 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스물아홉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아편인데 예루살렘 출신이었다.

3 그는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못하였지만,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4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아,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5 그는 자기 손에서 왕권이 튼튼해지자 부왕을 시해한 신하들을 처 죽였다.

6 그러나 그 시해자들의 자손들은 모세의 율법서에 쓰인 대로 죽이지 않았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처형되어서는 안 되고, 아들도 아버지 때문에 처형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죄 때문에 처형되어야 한다."고 명령하셨다.

7 아마츠야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군 일만을 쳐 죽이고, 전투 끝에 셀라를 점령하여 그 이름을 욱트엘이라 하였는데,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린다.

8 그 무렵에 아마츠야가 예후의 손자이며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런 말을 전하였다. "자, 우리 한번 겨루어 보자!"

9 그러나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는 유다 임

금 아마츠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대답하였다. "레비논의 영경귀가 레비논의 향 백나무에게 '그대의 딸을 내 이들에게 아내로 주오.' 하고 전갈을 보냈다. 그러자 레비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영경귀를 밟아 버렸다.

10 그대는 에돔을 쳐부수었다고 마음이 우쭐해져 오만하게 구는데, 집이나 머물러 있어라. 어찌하여 제앙을 일으켜 그대 자신과 유다를 함께 쓰러뜨리려 하는가?"

11 그러나 아마츠야가 듣지 않자,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는 올라가 유다에 속한 벧 세메스에서 유다 임금 아마츠야와 겨루었다.

12 유다군은 이스라엘군에게 패배하여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다.

13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는 아하즈야의 손자이며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임금 아마츠야를 벧 세메스에서 사로잡았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에프라임 성문'에서 '모퉁이 성문'까지, 예루살렘 성벽 사백 암마를 헐었다.

14 그는 주님의 집과 왕궁 창고에 있는 금과 은과 기물을 모조리 빼앗고, 인질까지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15 여호아스가 한 나머지 행적과 그의 무용, 그리고 그가 유다 임금 아마츠야와 한 전쟁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16 여호아스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이스라엘의 임금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히고, 그의 아들 예로보암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유다 임금 아마츠야가 죽다

17 유다 임금 요아스의 아들 아마츠야는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죽은 뒤에도 열다섯 해를 더 살았다.

18 아마츠야의 나머지 행적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 19 예루살렘에서 그를 거슬러 모반이 일어났다. 그래서 아마즈야가 리키스로 도망쳤지만, 모반자들은 그의 뒤를 쫓아 리키스까지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그를 죽였다.
- 20 그리고 아마즈야를 말에 싣고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었다.
- 21 유다의 모든 백성이 나이 열여섯 살인 아자르야를 데려다가, 자기 아버지 아마즈야의 뒤를 이어 임금으로 세웠다.
- 22 아마즈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든 뒤에, 아자르야는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다.

예로보암 아씨의 이스라엘 통치

- 23 유다 임금 요아스의 아들 아마즈야 제십오년에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의 아들 예로보암이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마흔한 해 동안 다스렸다.
- 24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 25 그가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영토를 되찾았다. 이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갓 헤페르 출신으로 당신의 종인, 아미타이의 아들 요나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다.
- 26 종이든 자유인이든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이 없이, 그들이 매우 쓰라리게 고생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던 것이다.
- 27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 버리겠다고 하지는 않으셨으므로, 여호아스의 아들 예로보암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 28 예로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 그의 무용과 그가 한 전쟁, 그리고 그

가 유다에 속하였던 다마스쿠스와 하맛을 이스라엘로 복귀시킨 일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 29 예로보암이 자기 조상 이스라엘의 임금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들 즈카르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자르야의 유다 통치

- 15 ¹ 이스라엘 임금 예로보암 제이십칠년에 유다 임금 아마즈야의 아들 아자르야가 임금이 되었다.
- 2 아자르야는 열여섯 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스두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콜야인데 예루살렘 출신이었다.
- 3 그는 자기 아버지 아마즈야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 4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아,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 5 그리하여 주님께서 임금을 치시니, 그는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병원에서 살고, 요탐 왕자가 궁전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 6 아자르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 7 아자르야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 성에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요탐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자르야의 이스라엘 통치

- 8 유다 임금 아자르야 제삼십팔년에, 예로보암의 아들 즈카르야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여섯 달 동안 다스렸다.
- 9 그는 자기 조상들이 하던 대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 10 아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거슬러 모반하였다. 살룸은 이블르암에서 그를 쳐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 11 즈카리아의 나머지 행적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 12 주님께서 예후에게 "나의 사 대 자손까지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살룸의 이스라엘 통치

- 13 유다 임금 우찌야 제삼십구년에 아베스의 아들 살룸이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한 달 동안 다스렸다.
- 14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티르치에서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아베스의 아들 살룸을 쳐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사마리아의 임금이 되었다.
- 15 살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일으킨 모반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 16 그때에 므나헴은 틱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티르치를 비롯하여 그 일대를 쳤다. 그가 그곳을 친 것은 그들이 성문을 열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임신한 모든 여자의 배를 가르기까지 하였다.

므나헴의 이스라엘 통치

- 17 유다 임금 아자르야 제삼십구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열 해 동안 다스렸다.
- 18 그는 살아있는 동안 내내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 19 아시리아 임금 풀이 나라를 치러 오자, 므나헴은 은 천 탈렌트를 풀에게 주었다. 이는 므나헴이 그의 도움을 받아 자기 손에

서 왕권을 튼튼히 하려는 것이었다.

- 20 므나헴은 아시리아 임금에게 주려, 이스라엘에서 곧 모든 부자에게서 은을 천 세 켈씩 거두었다. 그러자 아시리아 임금은 이스라엘 땅에 머무르지 않고 돌아갔다.
- 21 므나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 22 므나헴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들 프카흐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프카흐야의 이스라엘 통치

- 23 유다 임금 아자르야 제오십년에 므나헴의 아들 프카흐야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두 해 동안 다스렸다.
- 24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 25 그의 무관, 르말야의 아들 페카가 그를 거슬러 모반하였다. 페카는 아르곱과 아르에와 길앗 사람 선 명과 더불어, 사마리아 왕궁 성채에서 프카흐야를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 26 프카흐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페카의 이스라엘 통치

- 27 유다 임금 아자르야 제오십이년에 르말야의 아들 페카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스무 해 동안 다스렸다.
- 28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 29 이스라엘 임금 페카 시대에 아시리아 임금 티글랏 필에세르가 와서, 이온, 아벨 벧 파이가, 이노아, 케데스, 하초르, 길앗, 갈릴래아와 납탈리 온 지역을 점령하고, 사람들에

을 아시리아로 끌고 갔다.

- 30 그 뒤에 엘라의 아들 호세야가 르말야의 아들 폐카를 거슬러 모반을 일으켰다. 그는 폐카를 쳐 죽이고, 우찌야의 아들 요탐 제이십년에 그 뒤를 이어 임금에 되었다.
- 31 폐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요탐의 유다 통치

- 32 이스라엘 임금, 르말야의 아들 폐카 제이년에 유다 임금 우찌야의 아들 요탐이 임금이 되었다.
- 33 요탐은 스물다섯 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열여섯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인데 차독의 딸이었다.
- 34 그는 자기 아버지 우찌야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 35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아,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바로 그가 주님의 집 '윗대문'을 세웠다.
- 36 요탐이 한 나머지 행적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 37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유다를 거슬러 아람 임금 르친과 이스라엘 임금 르말야의 아들 폐카를 보내기 시작하셨다.
- 38 요탐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조상 다윗의 성에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아하즈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하즈의 유다 통치

- 16 ¹ 르말야의 아들 폐카 제십칠년에 유다 임금 요탐의 아들 아하즈가 임금이 되었다.
- 2 아하즈는 스무 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열여섯 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자기 조상 다윗과는 달리 주 그의 하느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지 않고,

- 3 이스라엘 임금들의 길을 따라 걸었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역겨운 짓을 따라, 자기 아들마저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 4 그는 산당과 언덕과 온갖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 5 그때에 아람 임금 르친과 이스라엘 임금 르말야의 아들 폐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아하즈를 포위하였지만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 6 바로 그 무렵에 아람 임금 르친은 엘랏을 아람에 복귀시키고, 엘랏에서 유다인들을 몰아내었다. 그리하여 에돔인들이 엘랏으로 가서 오늘날까지도 그곳에 살고 있다.
- 7 아하즈는 아시리아 임금 티글랏 필에세르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임금님의 종이며 아들이입니다. 올라오시어, 저를 공격하고 있는 아람 임금과 이스라엘 임금의 손아귀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 8 아하즈는 주님의 집과 왕궁의 창고에 있는 은과 금을 거두어, 아시리아 임금에게 선물로 보냈다.
- 9 아시리아 임금은 그의 말을 들어 주었다. 아시리아 임금은 다마스쿠스로 올라가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러고는 그 주민들을 키르로 사로잡아 가고, 르친은 죽었다.
- 10 아하즈 임금은 아시리아 임금 티글랏 필에세르를 만나러 다마스쿠스로 갔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즈 임금은 그 제단의 자세한 그림과 모형을 우리야 사제에게 보냈다.
- 11 그래서 우리야 사제는 제단을 세웠다. 아하즈 임금이 다마스쿠스에서 보내온 것에 따라, 그가 돌아오기 전에 그대로 만들었다.
- 12 임금은 다마스쿠스에서 돌아와 그 제단을 보고, 제단으로 가까이 다가가 그 위로 올라갔다.
- 13 그러고는 자기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치

고 제주를 따라 부었다. 또 자기 친교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렸다.

- 14 그리고 주님 앞에 놓인 청동 제단은 주님의 집 앞에서, 곧 새 제단과 주님의 집 사이에서 옮겨다가 새 제단의 북쪽에 놓았다.
- 15 그런 뒤에 아하즈 임금은 우리야 사제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이 큰 제단에서 아침 번제물과 저녁 곡식 제물, 임금의 번제물과 곡식 제물, 그리고 이 나라 온 백성의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제주를 바치시오. 또 번제물과 희생 제물의 피를 모두 이 제단에 뿌리시오. 청동 제단은 내가 생각해 보겠소"
- 16 우리야 사제는 아하즈 임금이 명령한 대로 다 하였다.
- 17 아하즈 임금은 받침대의 널빤지를 잘라 물두멍을 받침대에서 떼어 내고, 청동 황소들이 받치고 있던 바다 모형을 돌바닥 위에 내려놓았다.
- 18 또한 아시리아 임금 때문에 주님의 집 안에 지어진 안식일 전용 복도와 임금의 바깥 출입구를 주님의 집에서 없애 버렸다.
- 19 아하즈가 한 나머지 행적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 20 아하즈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 성에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히즈키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임금 호세아

- 17 ¹ 유다 임금 아하즈 제십이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아홉 해 동안 다스렸다.
- ²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지만, 그 이전의 이스라엘 임금들 같지는 않았다.
- ³ 호세아 임금은 아시리아 임금 살만에세르가 자기를 치러 올라오자, 그의 신하가 되어 조

공을 바쳤다.

- ⁴ 그러나 아시리아 임금은 호세아의 모반을 알아차렸다. 호세아가 이집트 임금 소에게 사신들을 보내고, 아시리아 임금에게 해마다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아시리아 임금은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 ⁵ 그런 다음에 아시리아 임금은 온 나라를 치러 올라왔다. 그는 사마리아까지 쳐 올라와 그곳을 세 해 동안 포위하였다.
- ⁶ 마침내 호세아 제구년에 아시리아 임금은 사마리아를 함락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하라와 고잔 강 가 하보르와 메디아의 성읍들에 이주시켰다.

북 왕국 이스라엘의 몰락에 대한 반성

- ⁷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이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손에서 빼내시어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 저희 하느님께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다.
- ⁸ 또한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풍속과 이스라엘 임금들이 만들어 낸 것에 따라 걸어갔기 때문이다.
- ⁹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 저희 하느님을 거슬러 옳지 않은 일을 은밀히 저질렀다. 또한 파수 탑에서 요새 성읍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읍에 산당을 짓고,
- ¹⁰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기념 기둥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웠다.
- ¹¹ 그러고는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몰아내신 민족들처럼 그 모든 산당에서 향을 피웠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분노를 돋우는 악한 짓들을 저지르고,
- ¹²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그런 짓을 해서 안 된다."고 이르신 우상 숭배를 저질렀다.
- ¹³ 주님께서 모든 예언자와 선견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 경고하셨다. "너

희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보낸 모든 율법대로 나의 계명과 규정들을 지켜라."

14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주 저희 하느님을 믿지 않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목을 뺏뺏하게 하였다.

15 그들은 그분의 규정과 그분께서 저희 조상들과 맺으신 계약,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신 경고를 업신여겼다. 헛것을 따라다니다가 헛것이 되었다. 그들은 또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명령하신 주변의 민족들을 따라다녔다.

16 주 저희 하느님의 계명을 모두 저버린 채, 자기들을 위하여 쇠를 녹여 부어 송아지 형상을 두 개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며, 하늘의 모든 군대를 예배하고 바알을 섬겼다.

17 더구나 그들은 자기 아들딸들을 불속으로 지나가게 하고, 점괘와 마술을 이용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는 일에 자신들을 팔아 주님의 분노를 돋우었다.

18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노하시어 그들을 당신 앞에서 물리치시니, 남은 것은 유다 지파뿐이었다.

19 그러나 유다도 주 저희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이 만들어 낸 풍속을 따랐다.

20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후손을 저버리셨다. 그들을 별하시고 악탈자들의 손에 넘기셨으며, 마침내 당신 앞에서 내 쫓기까지 하셨다.

21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 집안에서 떼어 내실 때, 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을 임금으로 세웠다. 그런데 예로보암은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이스라엘을 주님께서서 떼어 놓고, 큰 죄를 짓게 만들었다.

22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로보암이 지은 온갖 죄를 따라 걷고, 그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23 마침내 주님께서는 당신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당신 앞에서 물리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땅에서 아시리아로 유배를 떠나 오늘에 이르렀다.

사마리아인의 기원

24 아시리아 임금은 바벨론과 쿠타와 이와와 하맛과 스파르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들에 살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성읍들에서 살았다.

25 그들은 그곳에 살면서 처음에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에 사자들을 보내시어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다.

26 그러자 사람들이 아시리아 임금에게 이렇게 보고하였다. "임금님께서 유배를 보내 사마리아의 성읍들에 살게 하신 민족들은 이 지방 신의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신이 그들 가운데에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이 사자들이 지금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이 지방 신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7 그러자 아시리아 임금이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사마리아에서 유배를 보낸 사제들 가운데 한 명을 그리로 보내라. 그가 그곳에 가 살면서 그 지방 신의 법을 가르치게 하여라."

28 그리하여 그들이 사마리아에서 유배를 보낸 사제들 가운데 하나가 돌아와 베텔에 살면서, 그들에게 주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 가르쳤다.

29 그러나 민족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신상을 만들어, 사마리아인들이 지은 산당들 안에

놓았다. 민족마다 자기들이 사는 성읍에서 그렇게 하였다.

- 30 바빌론 사람들은 수컷 브נות을 만들고, 쿠타 사람들은 네르갈을 만들었으며,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고,
- 31 아와 사람들은 납하즈와 타르탁을 만들었다. 스페르와임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자기 아들들을 불에 살라 바쳤다.
- 32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였다. 일 반 백성 가운데에서 뽑아 산당의 사제들을 만들고, 산당들에서 자기들을 위하여 일을 보게 하였다.
- 33 이렇게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면서도, 자기들을 유배시킨 민족들의 관습에 따라 자기네 신들을 함께 섬겼다.
- 34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옛 관습을 따라 하고 있다.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지어 주신 야콥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규정과 법규와 율법과 계명대로 행하지 않았다.
- 35 주님께서는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경외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예배해서도 안 되고 섬겨서도 안 되며, 그들에게 제물을 바쳐서도 안 된다.
- 36 큰 힘과 뻥은 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주님만 경외하고 예배하며, 그에게만 제물을 바쳐라.
- 37 주님이 너희에게 써 준 규정과 법규와 율법과 계명들을 언제나 준수하여 지키고, 다른 신들을 경외해서는 안 된다.
- 38 내가 너희와 맺은 계약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른 신들을 경외해서는 안 된다.
- 39 주 너희 하느님만 경외해야 한다. 그러면 주님이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 줄 것이다."
- 40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들의 옛 관습만 지켰다.

- 41 이처럼 이 민족들은 주님을 경외하면서도, 그들이 세져 만든 우상들을 함께 섬겼다. 그들의 자손과 그 대대 자손들도 오늘날까지 자기 조상들이 한 짓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

히즈키야의 유다 통치

- 18¹ 이스라엘 임금,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삼년에 유다 임금 아하즈의 아들 히즈키야가 임금이 되었다.
- 2 히즈키야는 스물다섯 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스물아홉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인데 즈카르아의 딸이었다.
- 3 그는 자기 조상 다윗이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 4 그는 산당들을 없애고 기뭇 기뭇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들을 잘라 버렸다. 그리고 모세가 만든 구리 뱀을 조각내었다. 느후스탄이라고 불리던 그 구리 뱀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때까지도 향을 피웠기 때문이다.
- 5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신뢰하였다. 그의 뒤를 이은 유다의 모든 임금 가운데 그만 한 임금이 없었고, 그보다 앞서 있던 임금들 가운데에서도 그만 한 임금이 없었다.
- 6 그는 주님께 매달려 그분을 따르는 일에서 돌아서지 않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켰다.
- 7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시며,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게 해 주셨다. 그는 아시리아 임금에게 대항하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 8 바로 그가 필리스티아인들을 가져와 그 경계에 이르러까지, 파수 탑에서 요새 성읍까지 쳐부수었다.

사마리아가 함락되다

- 9 히즈키야 임금 제사년, 이스라엘 임금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칠년에, 아시리아 임금 살만에세르가 사마리아로 올라가 그곳을 포위하고,
- 10 세 해 만에 함락시켰다. 곧 히즈키야 제육년, 이스라엘 임금 호세아 제구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된 것이다.
- 11 아시리아 임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유배를 보내어, 하라와 고잔 강 가 하보르와 메디아의 성읍들에 정착시켰다.
- 12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 저희 하느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분의 계약을,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듣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았다.

아시리아 임금 산헤립이 유다를 치다

- 13 히즈키야 임금 제십사년에, 아시리아 임금 산헤립이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으로 올라와서 그곳들을 점령하였다.
- 14 유다 임금 히즈키야는 라키스로 아시리아 임금에게 전갈을 보냈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임금님께서서 부과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임금은 유다 임금 히즈키야에게 은 삼백 탈렌트와 금 서른 탈렌트를 요구하였다.
- 15 히즈키야는 그에게 주님의 집과 왕궁의 창고에 있는 은을 모두 내주었다.
- 16 유다 임금 히즈키야가 주님의 집 문짝들과 문설주에 입혔던 금을 벗겨, 아시리아 임금에게 내준 것도 그뿐이다.
- 17 아시리아 임금은 라키스에서 타르탄과 랍사리스와 랍 사케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 예루살렘으로 히즈키야 임금에게 보냈다. 그들이 올라와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들은 올라와 그곳에 이르러, '마전장이 밭'으로 가는 길가 윗저수지의 수로 곁에 주둔하였다.
- 18 그들이 임금을 부르자, 할키아의 아들 엘야김 궁내 대신과 세브나 서기관과 아삽의 아들 요아 역사 기록관이 그들에게 마주나갔다.
- 19 랍 사케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즈키야에게 전하여라. 대왕이신 아시리아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던 말이나?'
- 20 너는 전쟁 계획과 능력이 고작 입술에서 나오는 말뿐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 21 지금 너는 저 부러진 갈대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 이집트를 믿는다마는, 그것에 기대는 사람마다 손바닥만 썰리게 된다. 이 집트 임금 파라오는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 바로 그러하다.
- 22 너희는 나에게 '우리는 주 우리 하느님을 믿소' 하고 말한다. 그러나 그분은, 히즈키야가 그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치워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되리라.' 하고 말한 그런 하느님이 아니냐?"
- 23 자, 이제 아시리아의 임금님이신 나의 주군과 내기를 해 보이라. 내가 기수들을 마련할 수단 있다면, 내가 너에게 말 이천 마리를 주겠다.
- 24 병자와 기병 때문에 이집트를 믿고 있는 네가, 어떻게 내 주군의 하찮은 신하들 가운데서 총독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 25 그리고 내가 주님의 분부도 없이 이곳을 멸망시키려고 올라왔겠느냐?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저 땅으로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켜라.' 하고 분부하셨다."
- 26 그러자 할키아의 아들 엘야김과 세브나와 요아가 랍 사케에게 말하였다. "저희가 아

람 말을 알아들으니, 제발 이 종들에게 아람 말로 말씀해 주십시오. 성벽 위에 있는 백성이 듣고 있으니, 저희에게 유다 말로는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27 그러나 랍 사게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주군께서 너희 주군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제 빵을 먹고 제 오줌을 마셔야 할 저 성벽 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도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겠느냐?"

28 이어 랍 사게는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외쳤다. "대왕이신 아시리아 임금님의 말씀을 들어라.

29 이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히즈키야에게 속지 마라. 그자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 내지 못한다.

30 히즈키야가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해 내신다. 이 도성은 아시리아 임금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 하면서, 너희가 주님을 신뢰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31 히즈키야의 말을 끝이듣지 마라.' 아시리아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와 화친하고 나에게로 나와라. 그러면 너희는 저마다 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고, 제 저수 동굴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32 때가 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땅과 다름없는 땅으로, 곧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 빵과 포도밭의 땅, 새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러면 너희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히즈키야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 내신다.' 하면서 너희를 부추길 때, 그의 말을 듣지 마라.

33 못 민족의 신들 가운데 누가 제 나라를 아시리아 임금의 손에서 구해 낸 적이 있더냐?

34 하맛과 아르파트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스파르와임과 해나와 아외의 신들은 어디

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구해 냈더냐?

35 이 나라들의 모든 신 가운데 누가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구해 낸 적이 있기에, 주님이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해 낼 수 있다는 말이나?"

36 그러나 백성은 침묵을 지킨 채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에게 대답하지 마라." 한 임금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37 힐키야의 아들 엘야킴 궁내 대신과 세브나 서기관과 아삽의 아들 요아 역사 기록관은 찢어진 옷을 입은 채, 히즈키야에게 와서 랍 사게의 말을 전하였다.

히즈키야가 아시리아에게 문의하다

19¹ 히즈키야 임금은 그 말을 듣자 채 옷을 찢고 자루옷을 두르고서는, 주님의 집으로 들어갔다.

2 그리고 자루옷을 두른 엘야킴 궁내 대신과 세브나 서기관과 원로 사제들을 아모즈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에게 보냈다.

3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히즈키야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은 환난과 징벌과 굴욕의 날이오. 아이들이 태어나려고 하는데 낳을 힘이 없구려.'

4 주 그대의 하느님께서 랍 사게의 말을 모두 들으셨기를 바라오. 그는 살아 계신 하느님을 조롱하려고 그의 주군인 아시리아 임금이 보낸 자요 주 그대의 하느님께서 들으신 그 말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오. 그대도 아직 살아남아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오."

5 히즈키야 임금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와서 이렇게 전하니,

6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주군께 이렇게 말씀드리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시리아 임금의 종

들이 나를 모욕한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마라.

- 7 보라, 내가 그에게 영을 보내면, 그는 뜬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가 자기 나라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게 하겠다."
- 8 랍 사게는 돌아가서 리브나를 공격하는 아시리아 임금을 만났다. 그는 임금이 라키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다.

아시리아가 다시 위협하다

- 9 그때 아시리아 임금은 에티오피아 임금 티르히가카 자기와 싸우려고 나왔다는 말을 들었다. 아시리아 임금은 히즈키아에게 다시 사신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 10 "너희는 유다 임금 히즈키아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믿는 너의 하느님이, 에루살렘은 아시리아 임금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 하면서, 너를 속이는 일이 없게 하여라.
- 11 자, 아시리아 임금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전멸시키면서 어떻게 하였는지 너는 듣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만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느냐?
- 12 나의 선왕들이 멸망시킨 고잔과 하란과 레첩, 그리고 틀라사르에 있는 에텐족을 그 민족들의 신들이 구해 낼 수 있었다냐?
- 13 하맛 임금과 아르파트 임금, 그리고 스파르와 임 성읍과 헤나와 이외의 임금들은 어디에 있느냐?"

히즈키아의 기도

- 14 히즈키아는 사신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런 다음 히즈키아는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주님 앞에 펼쳐 놓았다.
- 15 그리고 히즈키아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커름들 위에 좌정하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세상의 모든 왕국 위에 당신

홀로 하느님이십니다. 당신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 16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 주십시오. 주님, 눈을 뜨고 보아 주십시오. 살아 계신 하느님을 조롱하려고 산헤립이 보낸 이 말을 들어 보십시오.
- 17 주님, 사실 아시리아 임금들은 민족들과 그 영토를 황폐하게 하고,
- 18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버렸습니다. 그것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작품으로서 나무와 돌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그것들을 없애 버릴 수 있었습니다.
- 19 그러나 이제 주 저희 하느님, 부디 저희를 저자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왕국이, 주님, 당신 홀로 하느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산헤립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

- 20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히즈키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임금 산헤립 때문에 네가 나에게 바친 기도를 내가 들었다.'
- 21 주님께서 그를 두고 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처녀 딸 시온이 너를 경멸한다, 너를 멸시한다. 딸 예루살렘이 네 뒤에서 머리를 흔든다.
- 22 내가 누구를 조롱하고 모욕하였느냐? 내가 누구에게 큰소리를 치고 눈을 치켜들었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다.
- 23 너는 사신들을 보내어 주님을 조롱하였다. 너는 말하였다. '수많은 병거를 몰아 나는 높은 산들을 오르고 레바논의 막다른 곳까지 다다라 그 큰 항백나무들과 빼어난 방백나무들을 베어 버리고 그 정상 끝까지, 그 울창한 수풀까지 나아갔다.
- 24 나는 우물을 파서 낯선 물을 마셨으며 내

말바닥으로 이집트의 모든 강을 말려 버렸다.
다.'

- 25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내가 오래전에 그것을 결정하고 옛날에 그것을 계획하여 이제 실행에 옮겼음을. 그래서 네가 요세 성읍들을 파괴시켜 무너져 내린 돌무더기로 만들 수 있었다.
- 26 그곳 주민들은 기운이 다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하였다. 그들은 들의 풀처럼 여린 잔디처럼 자라기도 전에 말라 버리는 자붕 위의 잡초처럼 되었다.
- 27 나는 네가 서고 앉는 것도 나고 드는 것도 나에게 격노하고 있음도 알고 있다.
- 28 내가 나에게 격노하고 너의 소란이 내 귀에까지 올라왔으니 나는 네 코에 나의 갈고리를 꿰고 네 입술에 나의 재갈을 물려 내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되돌아가게 하리라.

히즈키야에게 내린 주님의 표징

- 29 이것이 너를 위한 표징이다. 너희가 올해에는 떨어진 낱알에서 난 곡식을 먹고 내년에는 뿌리지 않고 저절로 난 곡식을 먹으리라. 그러나 후년에는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두고 포도밭을 가꾸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 30 유다 집안의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다시 밀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 31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생존자들이 시온 산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정이 이를 이루시리라.
- 32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시리아 임금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곳으로 활을 쓰지도 못하리라.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고 공격 축대를 쌓지도 못하리라.
- 33 자기가 왔던 그 길로 되돌아가고 이 도성에는 들어오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 34 나는 이 도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니 이는 나 자신 때문이며 나의 종 다윗 때문이다."

산헤립의 밀로

- 35 그날 밤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 아시리아 진영에서 십팔만 오천 명을 쳤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들이 모두 죽어 주검뿐이었다.
- 36 아시리아 임금 산헤립은 그곳을 떠나 되돌아가서 니네베에 머물렀다.
- 37 그런데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그의 두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르에제르가 그를 칼로 쳐 죽이고는 아라랏 땅으로 도망쳤다. 그의 아들 에사르 하폰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히즈키야의 병명과 치유

- 20 ¹ 그 무렵 히즈키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안일을 정리 하여라. 너는 회복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 2 그러자 그가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말씀드렸다.
- 3 "아, 주님, 제가 당신 앞에서 성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왔고, 당신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 온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히즈키야는 슬피 통곡하였다.
- 4 이사야가 가운데 뜰을 나가기 전에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 5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영도자 히즈키야에게 말하여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느님인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 사흘 안에 너는 주님의 집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 6 내가 너의 수명이다 열다섯 해를 더해 주겠

- 다. 그리고 아시리아 임금의 손아귀에서 너와 이 도성을 구해 내고, 나 자신과 나의 종 다윗을 생각하여 이 도성을 보호해 주겠다."
- 7 이시야는 무화과 과자를 가져오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 종기에 붙이자 임금의 병이 나았다.
- 8 히즈키야가 이시야에게 물었다. "주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어 내가 사흘 안에 주님의 집에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그 표징이 무엇이요?"
- 9 이시야가 대답하였다. "이것이 주님께서 임금님께 주시는 표징입니다. 곧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표징입니다. 그림자가 열 칸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열 칸 뒤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 10 그러자 히즈키야가 대답하였다. "그림자가 열 칸 앞으로 갈아지는 것은 쉬운 일이고, 그러니 열 칸 뒤로 돌아가게 해 주시오."
- 11 그래서 이시야 예언자가 주님께 청하니, 주님께서 아하즈의 해시계에 드리운 그림자를 열 칸 뒤로 돌아가게 하셨다.

바빌론 시절단

- 12 그때에 발아단의 아들인 바빌론 임금 므로다크 발아단이, 히즈키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냈다.
- 13 히즈키야는 그들을 반기이 맞이하였고, 그들에게 자기의 보물 창고 전체와 은과 금, 향료와 고급 기름, 병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것을 다 보여 주었다. 히즈키야가 자기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 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 14 그때에 이시야 예언자가 히즈키야 임금에게 와서 물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히즈키야가 대답하였다.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요, 바빌론에서 왔소."

- 15 이시야가 다시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즈키야가 대답하였다. "내 궁궐 안에 있는 것을 다 보았소. 내 창고 안에 있는 것 가운데 내가 그들에게 보여 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소."
- 16 그러자 이시야가 히즈키야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 17 '보라, 네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과 네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 온 것들이 바빌론으로 옮겨져, 하나도 남지 않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 주님이 말한다.
- 18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들 가운데 더러는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내시가 될 것이다.'
- 19 히즈키야가 이시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전한 주님의 말씀은 지당하오." 그러면서도 그는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지만 한다면야.' 하고 생각하였다.

히즈키야가 죽다

- 20 히즈키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모든 무용, 그리고 그가 저수지와 수로를 만들어 도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일에 관해서는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 21 히즈키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들 므나שה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므나שה의 유다 통치

- 21 ¹ 므나שה는 열두 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선다섯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차바였다.
- 2 므나שה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역겨운 짓을 따라,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 3 그는 자기 아버지 히즈키야가 흠어 버린 산당들을 다시 짓고, 바알 제단들을 세웠다.

또 이스라엘 임금 아합이 하던 대로,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군대를 경배하고 섬겼다.

4 그리고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에 나의 이름을 두겠다." 하고 말씀하신 주의 집 안에도 제단들을 세웠다.

5 그는 주님의 집 두 뜰에 하늘의 모든 군대를 위하여 제단들을 지었다.

6 또 자기 아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고 요술과 미술을 하였으며, 영매와 점쟁이들을 두었다. 이렇게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많이 저질러 주님의 분노를 돋우었다.

7 그는 자기가 새겨 만든 아세라 목상을 주님의 집 안에 세웠다. 이 집을 두고 주님께서 일찍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집,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선택한 이 예루살렘에 나의 이름을 영원히 둔다.

8 내가 명령한 모든 것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준수하여 자기지만 하면, 이스라엘이 다시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해매지 않게 하겠다."

9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므나세는 이스라엘을 잘못 이끌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보다 더 악한 짓을 저지르게 하였다.

10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11 "유다 임금 므나세가 이런 역겨운 것들을 저지르고, 자기 이전에 살았던 아모리인들보다 더 악한 짓을 하였으며, 자기 우상들로 유다까지도 죄짓게 하였다.

12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듣는 자마다 두 귀가 멍멍해질 재앙을 예루살렘과 유다에 가져오겠다.

13 사마리아를 켜 측량줄과 아합 궁전에 내려

뜨렸던 추를 다시 사용하여, 짐사를 뒤아 없어 놓은 것처럼 예루살렘을 뒤아 내겠다.

14 내 소유의 남은 자들을 내던져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면, 그들은 그 모든 원수의 악탈품과 노획품이 될 것이다.

15 자기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내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러 내 분노를 돋우었기 때문이다."

16 므나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도록 유다를 죄짓게 한 죄악 말고도, 무죄한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피로 채웠다.

17 므나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 그리고 그가 저지른 죄는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18 므나세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궁전의 동산인 우짜 동산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몬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이몬의 유다 통치

19 아몬은 스물두 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두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므스레멧인데 옷바 출신 하루츠의 딸이었다.

20 그는 자기 아버지 므나세가 하던 대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21 곧 자기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그대로 걸어, 자기 아버지가 섬긴 우상들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22 그는 주 자기 조상들의 하느님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걷지 않았다.

23 그러자 이몬의 신하들이 임금을 거슬러 모반하여 궁전 안에서 그를 죽였다.

24 그러나 나라 백성이 이몬 임금을 거슬러 모반한 자들을 모두 쳐 죽이고, 그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요시아를 임금으로 세웠다.

- 25 아몬이 한 나머지 행적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26 아몬은 우짜 동산에 있는 그의 무덤에 묻히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요시아의 등극과 종교 개혁

- 22** ¹ 요시아는 여덟 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서른한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인데 보츠캣 출신 아다아의 딸이었다.
 2 그는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으며, 자기 조상 다윗의 길을 그대로 걸어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았다.

주님의 율법서를 발견하다

- 3 요시아 임금 제십팔년에, 임금은 므술람의 손자이며 아찰야의 아들인 사판 서기관을 주님의 집으로 보내며 일렀다.
 4 "할기야 대사제에게 올라가서, 주님의 집으로 들어온 돈, 곧 문지기들이 백성에게서 모은 돈을 다 계산하여,
 5 주님의 집 공사 책임자들에게 주고, 그들이 다시 그 돈을 주님의 집 일꾼들에게 주어 그 집의 부서진 곳을 고치게 하시오.
 6 목수와 돌 쌓는 사람과 미장이에게 품값을 주고, 또 집을 고치는 데에 쓸 나무와 깎은 돌을 사게 하시오.
 7 그들은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니, 그들 손에 넘겨진 돈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정산을 요구하지 마시오."
 8 할기야 대사제가 사판 서기관에게, "내가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서를 발견하였소" 하고 말하면서, 그 책을 사판에게 주었다. 그것을 읽고 나서,
 9 사판 서기관은 임금에게 나아갔다. 그는 임금에게 먼저 이렇게 보고하였다. "임금님의 신하들이 주님의 집에 있는 돈을 쏟아 내어,

주님의 집 공사 책임자들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 10 그러고 나서 사판 서기관은 임금에게, "그런데 할기야 사제가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었습니다." 하면서, 임금 앞에서 소리 내어 읽었다.
 11 그 율법서의 말씀을 듣고 임금은 자기 옷을 찢었다.
 12 임금은 할기야 사제, 사판의 아들 아히감, 미카야의 아들 악보르, 사판 서기관, 그리고 임금의 시종인 아시아에게 명령하였다.
 13 "가서 이번에 발견된 이 책의 말씀을 두고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주님께 문의하여 주시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에게 관하여 거기에 쓰여 있는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거슬러 타오르는 주님의 진노가 크오."
 14 할기야 사제와 아히감과 악보르와 사판과 아시아는 홀다 여예언자에게 갔다. 홀다는 하르후스의 손자이며 티크와의 아들인 살룸 예루 담당관의 아내였다. 홀다는 예루살렘 신시가지에 살고 있었다. 그들이 홀다에게 용건을 말하자,
 15 홀다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나에게 보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16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유다 임금이 읽은 책에 쓰여 있는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이곳과 이곳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17 그들이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워, 자기들 손으로 저지른 그 모든 짓으로 나의 화를 돌우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진노가 이곳을 거슬러 타오를 터인데, 그 진노는 꺼지지 않을 것이다.'
 18 그리고 주님께 문의하라고 여러분을 보낸 유다 임금님께 이 말도 전하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들은 말씀에 관한 것이다.

- 19 이곳과 이곳 주민들이 황폐해지고 저주를 받으리라고 내가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유순해져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다. 또 네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래서 나도 네 말을 잘 들어 주었다. 주님의 말이다.
- 20 그리하여 내가 너를 네 조상들 곁으로 불러들일 때, 너는 평화로이 내 무덤에 묻히고, 내가 이곳에 내릴 모든 재앙을 네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을 임금에게 전하였다.

요시야가 계약 책을 봉독하고 계약을 맺다

- 23 임금은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원로를 소집하였다.
- 2 임금은 모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 사제들과 예언자들, 낮은 자에서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데리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 주님의 집에서 발견된 계약 책의 모든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 그들에게 들려주었다.
- 3 그런 다음에 임금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라 걸으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분의 계명과 법령과 규정을 지켜, 그 책에 쓰여 있는 계약의 말씀을 실천하기로 주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 그러자 온 백성이 이 계약에 동의하였다.

요시야의 종교 개혁

- 4 임금은 할기야 대사제와 두 번째 서열의 사제들과 문지기들에게 명령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바알과 이세라와 하늘의 모든 군대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기물들을 모조리 끌어내게 하였다. 그는 그것들을 예루살렘 밖 키드론 들녘에서 태우고, 그 재를 베델로 가져갔다.
- 5 그는 또 유다 임금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

살렘 들녘에 있는 산당들에서 분향하도록 내세운 우상 숭배 사제들을 내쫓았다. 또한 바알과 해와 달과 별자리들과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분향하던 자들도 내쫓았다.

- 6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주님의 집에서 예루살렘 밖 '키드론 골짜기'로 끌어내다가, 그것을 '키드론 골짜기'에서 태우고 가루로 만든 다음, 서민 공동묘지에 뿌렸다.
- 7 임금은 또 주님의 집에 있던 신전 남창들의 집들을 허물어 버렸다. 그곳은 여자들이 아세라 숭배에 쓰는 천을 짜던 집들이었다.
- 8 그는 유다 성읍들에서 모든 사제를 불러들이고, 계바에서 브에르 세바에 이르기까지 그 사제들이 향을 피우던 산당들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었다. 성읍 대문을 들어서면서 왼쪽으로 '여호수아 성주의 문'이 있었는데, 그 문 어귀에 세워진 대문 산당들도 허물어 버렸다.
- 9 산당의 사제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였지만, 자기 동료들과 함께 누룩 없는 빵은 먹었다.
- 10 임금은 '벤 힌놈 골짜기'에 있는 토벳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어, 아무도 제 아들딸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여 몰록에게 바치지 못하도록 하였다.
- 11 또 유다 임금들이 주님의 집 입구, 곧 그 경내에 있는 내시 느탄 멜렉의 방 곁에 세운, 태양신에게 바친 말의 상들을 파괴하고, 태양신의 병거들도 불태워 버렸다.
- 12 임금은 유다 임금들이 아하즈의 옥상 방 지붕 위에 세운 제단들과, 므나שה가 주님의 집 두 뜰에 세운 제단들을 허물고 부순 다음, 그 가루를 '키드론 골짜기'에 뿌렸다.
- 13 또 임금은, 이스라엘 임금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아스타롯,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크모스, 그리고 암몬인들의 역겨운 우상 밀콤을 모시려고, 예

루살렘 동쪽 '멸망의 산' 남쪽에 세운 산당들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었다.

- 14 그는 기념 기둥들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들을 잘라 낸 다음, 그것들이 있던 곳을 사람의 뼈로 가득 채웠다.
- 15 베텔에 있는 제단과,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이 만든 산당, 임금은 이 제단과 산당도 허물었다. 그는 산당을 태워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목상도 태워 버렸다.
- 16 요시아는 얼굴을 돌려 산 위에 무덤들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무덤 속에서 뼈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러고는 그것을 제단 위에 놓고 태워 그 제단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일찍이 하느님의 사람이 이 일을 두고 선언한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 17 그때에 요시아가 "저기 보이는 기념 기둥은 무엇이오?" 하고 물으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유다에서 온 하느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분은 임금님께서 베텔의 제단에 하신 이 일을 예고하신 분입니다."
- 18 그러자 임금이 말하였다. "그분은 그대로 두시오. 아무도 그분의 뼈를 옮기지 마시오." 그래서 그들은 그의 뼈를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뼈와 함께 그대로 두었다.
- 19 요시아는 또한 이스라엘 임금들이 사마리아 성읍들에 만들어 놓아, 주님의 분노를 돋운 모든 산당을 베텔에서 한 것과 똑같이 없앴다.
- 20 그는 그곳 산당들의 사제들을 모두 제단 위에서 죽이고, 그들 위에 사람의 뼈를 얹어 태운 다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요시아가 파스카 축제를 지낸다

- 21 임금이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 계약 책에 쓰여 있는 대로 주 여러분의 하느

님을 위하여 파스카 축제를 지내십시오."

- 22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판관들의 시대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임금들과 유다 임금들의 시대 내내, 파스카 축제를 그렇게 지낸 적이 없었다.
- 23 요시아 임금 제십팔년에 이르러서야,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파스카 축제를 지내게 되었다.
- 24 요시아는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눈에 띄이는 대로, 점쟁이와 영매와 수호신들과 우상들과 온갖 혐오스러운 것들을 치워 버렸다. 이렇게 하여 요시아는 할키야 사제가 주님의 집에서 발견한 책에 쓰여 있는 율법의 말씀을 실현시켰다.
- 25 요시아처럼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께 돌아온 임금은, 그 앞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다시 나오지 않았다.
- 26 그러나 만나제가 주님의 분노를 몹시 돋우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유다를 거슬러 타오르는 커다란 분노의 열기를 거두지 않으셨다.
- 27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다. "나는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처럼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겠다. 내가 선택한 이 도성 예루살렘도, 나의 이름이 여기에 있으리라고 말한 이 집도 내버리겠다."

요시아가 죽다

- 28 요시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 29 요시아 시대에 이집트 임금 파라오 느코가 아시리아 임금을 도우려고 유프라테스 강을 향하여 올라갔다. 요시아 임금이 그와 맞서 싸우러 나가자, 파라오 느코는 므기도에서 요시아를 보고 그를 죽여 버렸다.
- 30 신하들은 죽은 요시아를 병거에 실어 므기

또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 와서, 그의 무덤에 묻었다. 그 뒤에 나라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 뒤를 이어 임금으로 세웠다.

여호아하스의 유다 통치

- 31 여호아하스는 스물세 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루탈인데 리브나 출신 예레미야의 딸이었다.
- 32 그는 자기 조상들이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 33 파라오 느코가 하맛 지방 리블라에서 그를 잡아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그 나라에 은 백 탈렌트와 금 한 탈렌트를 배상금으로 바치게 하였다.
- 34 그러고 나서 파라오 느코는 요시아의 아들 엘야킴을 아버지 요시아의 뒤를 이어 임금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킴으로 바꾸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여호아하스를 끌고 갔다. 여호아하스는 이집트에 들어가 그 곳에서 죽었다.

여호야킴의 유다 통치

- 35 여호야킴은 파라오 느코에게 은과 금을 내주었는데, 파라오가 명령한 돈을 바치기 위하여 나라에 먼저 세금을 부과해야만 하였다. 그는 파라오에게 은과 금을 내주려고, 나라 백성에게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 부과된 금액을 거두어들였다.
- 36 여호야킴은 스물다섯 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열한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즈비다인데 루마 출신 프다야의 딸이었다.
- 37 그는 자기 조상들이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킴은 세 해 동안 그의 신하가 되었다. 그 뒤에 그는 돌아서서 내부카드네자르에게 반역하였다.

- 2 주님께서는 칼데아 약탈대와 아람 약탈대와 모압 약탈대와 암몬 자손들의 약탈대를 여호야킴에게 보내셨다. 주님께서 당신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유다를 멸망시키시려고 그들을 유다에 보내신 것이다.
- 3 므나שה가 지은 온갖 죄 때문에, 유다를 당신 앞에서 물리치려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런 일이 유다에 일어났다.
- 4 또한 그가 흘린 무죄한 피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가 예루살렘을 무죄한 피로 채웠으므로, 주님께서 용서하실 마음이 없으셨던 것이다.
- 5 여호야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 6 여호야킴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 7 그때에 바빌론 임금이 '이집트 마르네'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집트 임금에게 속한 땅을 모두 점령하였으므로, 이집트 임금이 다시는 자기 영토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다.

여호야킨의 유다 통치

- 8 여호야킨은 열여덟 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느후스타인데 예루살렘 출신 엘나탄의 딸이었다.
- 9 여호야킨은 자기 아버지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유다인들의 첫 번째 바빌론 유배

- 10 그때에 바빌론 임금 내부카드네자르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였다.

- 11 이렇게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이 도성에 이르렀다.
- 12 그러자 유다 임금 여호아킨은 자기 어머니와 신하들, 대신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빌론 임금에게 항복하였다. 그리하여 바빌론 임금은 그의 통치 제팔년에 여호아킨을 사로잡았다.
- 13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부카드네자르는 주님의 집에 있는 모든 보물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내가고, 이스라엘 임금 솔로몬이 주님의 집에 만들어 놓은 금 기물들을 모조리 떼어 냈다.
- 14 또한 온 예루살렘 주민과 모든 대신과 모든 용사 등 포로 일만 명과 모든 장인들과 대장장이들을 끌고 갔다. 그리하여 나라 백성 가운데 가난한 이들 말고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 15 네부카드네자르는 여호아킨을 모후와 왕비들, 내시들과 나라의 고관들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그들을 끌고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데려간 것이다.
- 16 바빌론 임금은 또 훌륭한 사람 칠천 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천 명 등, 전투할 수 있는 건장한 모든 사람을 바빌론으로 데려갔다.
- 17 그런 다음에 바빌론 임금은 여호아킨의 삼촌인 마탐야를 그 뒤를 이어 임금으로 세우고, 이름을 치드키아로 바꾸게 하였다.

치드키아의 유다 통치

- 18 치드키아는 스물한 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열한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루탈인데 리브나 출신 예레미야의 딸이었다.
- 19 치드키아는 여호아킴이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 20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님을 분노하시게 하

였기에, 주님께서서는 마침내 그들을 당신 앞에서 쫓아내셨다. 그런데 치드키아가 바빌론 임금에게 반역하였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다

- 25 **25** 1 그래서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는 치드키아 통치 제구년 열째 달 초엿새날에, 전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을 향하여 진을 치고 사방으로 공격 축대를 쌓았다.
- 2 이렇게 도성은 치드키아 임금 제십일년까지 포위당하였다.
- 3 그달 초아흐렛날, 도성에 기근이 심해지고 나라 백성에게 양식이 떨어졌다.
- 4 드디어 성벽이 뚫렸다. 그러자 군사들은 모두 칼데아인들이 도성을 둘러싸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임금의 정원 곁에 있는 두 성벽 사이 대문을 통하여 아라바 쪽으로 갔다.
- 5 칼데아인들의 군대가 임금을 뒤쫓아 예리코의 들에서 그를 따라잡자, 그의 모든 군대는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 6 그들이 임금을 사로잡은 다음,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임금에게 데리고 올라가니, 바빌론 임금이 그에게 판결을 내렸다.
- 7 그는 치드키아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가운데 살해하고 치드키아의 두 눈을 멀게 한 뒤, 그를 청동 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상전이 파괴되다

- 8 다섯째 달 초이렛날,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 제십구년에 바빌론 임금의 신하인 느부자르야단 친위대장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 9 그는 주님의 집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태웠다. 이렇게 그는 큰 집을 모두 불태워 버렸다.
- 10 또한 친위대장이 이끄는 칼데아인들의 모

든 군대는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가며 허물었다.

- 11 느부자르아단 친위대장은 또 도성에 남아 있던 나머지 백성과 바빌론 임금에게 넘어간 자들, 그리고 그 밖의 남은 무리를 끌고 갔다.
- 12 그러나 친위대장은 그 나라의 가난한 이들을 일부 남겨, 포도밭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 13 칼데아인들은 주님의 집에 있는 청동 기둥들과 받침대들, 그리고 주님의 집에 있는 청동 바다를 부순 뒤, 그 청동을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 14 그들은 냄비와 부삽, 불뿔 가위와 접시, 그 밖에 예배 때 쓰는 모든 청동 기물도 가져갔다.
- 15 친위대장은 향로와 쟁반들도 가져갔는데, 금으로 만든 것은 금이라고 가져가고, 은으로 만든 것은 은이라고 가져갔다.
- 16 솔로몬이 주님의 집에 만들어 놓은 기둥 두 개와 청동 바다 하나와 받침대 등, 이 모든 기물에 쓰인 청동은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였다.
- 17 기둥 한 개의 높이가 열여덟 암마이고, 그 기둥 위에는 청동으로 만든 기둥머리가 있는데, 그 기둥머리의 높이는 세 암마였다. 이 기둥머리에는 모두 청동으로 만든 그물과 석류들이 돌아가며 달리고, 두 번째 기둥도 마찬가지로 그물이 달렸다.
- 18 친위대장은 스리아 수석 사제, 두 번째 서열의 스바니아 사제, 그리고 성전 문지기 셋을 체포하였다.
- 19 또한 군사 지휘관인 내시 하나도 도성에서 체포하였다. 이 밖에도 도성에서 발견된 임금의 측근 다섯과 나라 백성을 징집하는 군부대신 서기관과, 도성에서 발견된 나라 백성 예순 명도 체포하였다.
- 20 느부자르아단 친위대장은 그들을 체포하여,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임금에게 끌고 갔다.

- 21 바빌론 임금은 하맛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처 죽였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고향을 떠나 유배를 갔다.

네부카드네자르가 그달아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하다

- 22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는 사편의 손자이며 아히캄의 아들인 그달아를 자기가 유다 땅에 남긴 나머지 백성의 총독으로 임명하였다.
- 23 바빌론 임금이 그달아를 총독으로 임명하였다는 소식을 군대의 모든 장수와 그 부하들이 들었다. 그래서 그들 곧 느탄아의 아들 이스마엘, 카레이의 아들 요하난, 느토와 사람 탄후멧의 아들 스리아, 마이가 사람의 아들 아잔아와 그 부하들은 미즈파에 있는 그달아에게 갔다.
- 24 그달아는 그들과 그 부하들에게 맹세하며 말하였다. "칼데아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론 임금을 섬기시오. 그러면 그대들에게 좋을 것이오."
- 25 그러나 일곱째 달에, 왕족 출신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탄아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부하 열 명과 함께 찾아와서, 그달아를 쳐 죽이고 그와 함께 미즈파에 있던 유다 사람들과 칼데아 사람들도 죽였다.
- 26 그러고 나서는 칼데아 사람들이 두려워, 낮은 자에서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과 군대의 장수들이 일어나 이집트로 갔다.

여호아킨이 바빌론 임금에게 은전을 입다

- 27 유다 임금 여호아킨의 유배살이 제삼십칠년 열두째 달 스무이렛날이었다. 바빌론 임금 에월 므르다크는 자기가 임금이 된 그 해에, 유다 임금 여호아킨을 감옥에서 풀어 주었다.
- 28 바빌론 임금은 그에게 친절히 말을 건네며, 그와 함께 바빌론에 있는 다른 임금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곳에 그의 자리를 마련
해 주었다.

29 그 뒤에 여호야킨은 죄수복을 벗고, 살아
있는 동안 내내 바빌론 임금 앞에서 늘 음
식을 먹게 되었다.

30 여호야킨의 생계비는 그가 살아 있는 동안
내내, 임금이 날마다 일정하게 대 주었다.

구약성경 - 13

역사서 - 8

역대기 상

총 29 장

총 943 절

[구약성경]-[역대기 상권]

아담에서 아브라함에 이르는 족보

- 1 ¹ 아담, 셋, 에노스, ² 케난, 마할랄렘, 예벳,
- 3 에녹, 므투셀라, 라멕,
- 4 노아, 셈, 함, 야벳.
- 5 야벳의 아들은 고메르, 마곡, 마다이, 아완, 투발, 메섹, 티라스이다.
- 6 고메르의 아들은 아스카나즈, 디팻, 토가르 마이고,
- 7 아완의 아들은 엘리사아, 타르시스, 키탐, 로다남이다.
- 8 함의 아들은 에티오피아, 이집트, 폿, 가나 안이다.
- 9 에티오피아의 아들은 스바, 하월라, 삽타, 라이마, 삽트카이고, 라이마의 아들은 스바 와 드단이다.
- 10 에티오피아는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세 상의 첫 장사가 되었다.
- 11 이집트는 루드인, 아남인, 르함인, 납투인, 파트로스인, 뒤에 필리스티아족이 나온 카 슬루인, 갑도르인을 낳았다.
- 13 가나안은 만아들 시돈, 히타이트,
- 14 여부스족, 아모리족, 기르가스족,
- 15 히위족, 아르케족, 신족,
- 16 아르왓족, 체베르족, 하맛족을 낳았다.
- 17 셈의 아들은 엘람, 아시리아, 아르팍삿, 루 드, 아람, 우츠, 훌, 게테르, 메섹이다.
- 18 아르팍삿은 셀라흐를 낳고, 셀라흐는 에베 르를 낳았다.
- 19 에베르에게는 아들 둘이 태어났는데, 한 아 들의 이름은 펠렉이다. 그의 시대에 세상이 갈라졌기 때문이다. 그의 아우 이름은 욥탄 이다.
- 20 욥탄은 알모닷, 셀렘, 하차르마뻬, 예라,
- 21 하도람, 우갈, 디클라,
- 22 에발, 아비미엘, 스바,

- 23 오피르, 하월라, 요밥을 낳았다. 이들이 모 두 욥탄의 아들들이다.
- 24 셈, 아르팍삿, 셀라흐,
- 25 에베르, 펠렉, 르우,
- 26 스투, 나호르, 테라,
- 27 아브람 곧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자손

- 28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사악과 이스마엘이다.
- 29 그들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스마엘의 만아 들 느바웃, 케다르, 앓브엘, 밍삼,
- 30 미스마, 두마, 마짜, 하닷, 테마,
- 31 여투르, 나피스, 케드마. 이들이 이스마엘 의 아들들이다.
- 32 아브라함의 소실 크투라가 낳은 아들은 지 므란, 욱산, 므단, 미디안, 이스박, 수어이 다. 욱산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다.
- 33 미디안의 아들은 예파, 에페르, 하낙, 아비 다, 엘다이다. 이들이 모두 크투라의 자 손이다.
- 34 아브라함은 이사악을 낳았다. 이사악의 아 들은 에사우와 이스라엘이다.

에사우의 자손

- 35 에사우의 아들은 엘리파즈, 르우엘, 여우 스, 알람, 코리이다.
- 36 엘리파즈의 아들은 테만, 오파르, 츠피, 가 아담, 크나즈, 탐나, 아말렉이다.
- 37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 제라, 삼마, 미짜이 다.
- 38 세이르의 아들은 로탄, 소발, 치브온, 야나, 디손, 에체르, 디산이다.
- 39 로탄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고, 로탄의 누 이는 탐나이다.
- 40 소발의 아들은 알안, 마나핫, 에발, 스피, 오남이다. 치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니이 다.
- 41 아니의 아들은 디손이다. 디손의 아들은 하 므란과 에스반과 이트란, 그리고 크란이다.

42 에체르의 아들은 빌한, 자이완, 아야칸이
다. 디산의 아들은 우즈와 아란이다.

에돔의 임금과 족장들

- 43 이스라엘 자손들을 임금이 다스리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임금들은 이렇다.
브오르의 아들 벨라, 그의 성읍 이름은 딘
하비였다.
- 44 벨라가 죽자 보즈라 출신 제라의 아들 요
밥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 45 요밥이 죽자 테만 땅 출신 후삼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 46 후삼이 죽자 브닷의 아들, 곧 미디안을 모
압 평야에서 무찌른 하닷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그의 성읍 이름은 아윗이었
다.
- 47 하닷이 죽자 마스레카 출신 사들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 48 사들라가 죽자 유프라테스 강 가 르호봇
출신 사울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 49 사울이 죽자 악보르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 50 바알 하난이 죽자 하닷이 그 뒤를 이어 임
금이 되었다. 그의 성읍 이름은 파이였다.
그의 아내 이름은 므헤타브엘인데, 그는 메
자합의 딸인 마트렛의 딸이었다.
- 51 하닷이 죽은 다음의 에돔 족장들은 이렇하
다. 족장 탐나, 족장 알야, 족장 여벧,
52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파논,
53 족장 크나즈, 족장 테만, 족장 밍차르,
54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이다. 이들이 에돔
의 족장들이다.

이스라엘의 아들들

- 2¹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렇다. 르
우벤, 시메온, 레위, 유다, 이사카
르, 즈블론,
2² 단, 요셉, 벤야민, 납탈리, 가드, 아세르이

다.

유다의 자손

- 3 유다의 아들은 에르, 오난, 셀라인데, 이 셋
은 그가 가나안 여자 수아의 딸에게서 얻은
아들들이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주님 보
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 4 유다의 며느리 타마르는 그에게 페레츠와
제라를 낳아 주었다. 이렇게 유다의 아들은
모두 다섯이다.
- 5 페레츠의 아들은 헤츠론과 하물이고,
6 제라의 아들은 지므리, 에탄, 헤만, 칼콜,
다라, 이렇게 모두 다섯이다.
- 7 카르미의 아들은 아가르인데, 그는 완전 봉
헌물과 관련하여 죄를 지음으로써 이스라엘
을 불행에 빠뜨린 자다.
- 8 에탄의 아들은 아자르야이다.
- 9 헤츠론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여라흐므엘,
람, 클루바이이다.
- 10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유다 자
손들의 수장 나호손을 낳았다.
- 11 나호손은 살미를 낳고 살미는 보아즈를 낳
았다.
- 12 보아즈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사이를 낳
았다.
- 13 이사이는 맏아들 엘리압, 둘째 아미나답,
셋째 시므아,
14 넷째 느탄엘, 다섯째 라피이,
15 여섯째 오웜, 일곱째 다윗을 낳았다.
- 16 이들의 누이는 트루야와 아비가일이다. 트
루야의 아들은 아비사이, 요압, 아사엘, 이
렇게 셋이다.
- 17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테르이다.
- 18 헤츠론의 아들 칼렐은 아내 아주비와 여러
옷에게서 자식들을 낳았는데, 아주비에게서
난 아들은 예세르, 소팜, 아르돈이다.

- 19 이주바가 죽자 칼렘은 에프랏을 아내로 맞
이들었다. 에프랏은 그에게 후르를 낳아 주
었다.
- 20 후르는 우리를 낳고 우리는 브찰엘을 낳았
다.
- 21 그 뒤 헤츠론은 나이 예순에 길앗의 아버
지인 마키르의 딸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
내로 맞이들었다. 그 여자가 그에게 스킴
을 낳아 주었다.
- 22 스킴은 아이르를 낳았는데, 이 아이르는 길
앗 땅의 성읍 스물세 개를 차지하였다.
- 23 그러나 그수르와 아람이 그 가운데에서 '아
이르의 부락들', 그리고 크낏과 거기에 딸
린 마을 예순 개를 빼앗았다. 이들이 모두
길앗의 아버지 마키르의 자손이다.
- 24 헤츠론이 칼렘 에프라타에서 죽은 다음, 헤
츠론의 아내 아비아가 그에게 트코아의 시
조 아스후르를 낳아 주었다.
- 25 헤츠론의 맏아들 여라흐므엘의 아들은 맏
아들 람, 부나, 오웬, 오켄, 아히아이다.
- 26 여라흐므엘에게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
데, 그 이름은 아타라로서 오남의 어머니
다.
- 27 여라흐므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이츠,
아민, 에케르이다.
- 28 오남의 아들은 삼마이와 아다이이고, 삼마이
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수르이다.
- 29 아비수르의 아내 이름은 아히하일인데, 이
여자가 아비수르에게 아흐반과 몰랏을 낳
아 주었다.
- 30 나답의 아들은 켈렛과 아파임인데, 켈렛은
아들 없이 죽었다.
- 31 아파임의 아들은 이스이이고 이스이의 아
들은 세산이며, 세산의 아들은 아홀라이이
다. 삼마이의 아우 아더의 아들은 에테르
와 요나탄인데, 에테르는 아들 없이 죽었
다.
- 32 요나탄의 아들은 펠렛과 자자이다. 이들이

- 여라흐므엘의 자손이다.
- 33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었다. 그러나 세
산에게는 이집트인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야르하이다.
- 34 세산이 이 종 야르하에게 자기 딸을 아내
로 주자, 그 딸이 야르하에게 아타이를 낳
아 주었다.
- 35 아타이는 나탄을 낳고 나탄은 자밧을 낳았
다.
- 36 자밧은 에플랄을 낳고 에플랄은 오벳을 낳
았다.
- 37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자르야를 낳
았다.
- 38 아자르야는 헬레즈를 낳고 헬레즈는 엘아
사를 낳았다.
- 39 엘아사는 시스마이를 낳고 시스마이는 살
롬을 낳았다.
- 40 살롬은 여카므야를 낳고 여카므야는 엘리
사미를 낳았다.
- 41 여라흐므엘의 아우 칼렘의 자손으로 맏아
들 메사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지프의 시
조다. 그리고 헤브론의 시조 마레사의 아
들들이 있다.
- 42 헤브론의 아들은 코라, 타푸아, 레겜, 세마
이다.
- 43 세마는 요르코암의 시조 라함을 낳고 레겜
은 삼마이를 낳았다.
- 44 삼마이의 아들은 마온이고, 마온은 벳 추르
의 시조다.
- 45 칼렘의 소실 에파는 하란, 모차, 가제즈를
낳고, 하란은 가제즈를 낳았다.
- 46 아다이의 아들은 레겜, 요담, 게산, 펠렛,
에파, 사압이다.
- 47 칼렘의 소실 마이카는 세베르와 티르하나
를 낳았다.
- 48 또 마드만나의 시조 사압과, 막베나와 기브
아의 시조 스와도 낳았다. 칼렘의 딸은 악
사다.

- 49 이들이 칼렙의 자손이다.
- 50 에프라타의 맏아들 후르의 아들은 키르얏 여아람의 시조 소발,
- 51 베들레헴의 시조 살마, 벧 가데르의 시조 하렘이다.
- 52 키르얏 여아람의 시조 소발의 자손은 로에와, 마나핫족의 반쪽이다.
- 53 키르얏 여아람의 씨족들은 아티르족, 푸트족, 수미족, 미스라족이다. 이들에게서 초르아족과 에스타올족이 나왔다.
- 54 살마의 자손은 베들레헴, 느도파족, 아트룻 벧 요압, 마나핫족의 반쪽, 초르아족이다.
- 55 아베즈에 사는 소페라인들의 씨족들은 티르아족, 시므아족, 수가족인데, 이들이 레갑 집안의 조상 하맛에게서 나온 카인족이다.

다윗 기본

- 3¹ 헤브론에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맏아들은 이즈르엘 여자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암몬이고, 둘째는 카르멜 여자 아비가일에게서 낳은 다니엘이다.
- 2 셋째는 그수르 임금 탈미아의 딸 마이카의 아들 압살롬이고, 넷째는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이다.
- 3 다섯째는 아비탈에게서 낳은 스파트야이고, 여섯째는 아내 에글라에게서 낳은 이트르암이다.
- 4 이렇게 여섯 아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서 태어났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일곱 해 여섯 달 동안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서른세 해 동안 다스렸다.
- 5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시므아, 소발, 니탄, 솔로몬, 이 넷은 암미엘의 딸 밧 수아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 6 그리고 입하르, 엘리사마, 엘리펠렛,
- 7 노가, 내벵, 아피야,
- 8 엘리사마, 엘야다, 엘리펠렛, 이렇게 아홉이

다.

- 9 이들이 모두 다윗의 아들들이다. 그 밖에 소설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누이 타마르가 있었다.
- 10 솔로몬의 아들은 르하브암, 르하브암의 아들은 아비야, 아비아의 아들은 아사, 아사의 아들은 여호사밧,
- 11 여호사밧의 아들은 요람, 요람의 아들은 아하즈야, 아하즈야의 아들은 요아스,
- 12 요아스의 아들은 아마즈야, 아마즈야의 아들은 아자르야, 아자르야의 아들은 요탐,
- 13 요탐의 아들은 아하즈, 아하즈의 아들은 히즈키야, 히즈키야의 아들은 므나세,
- 14 므나세의 아들은 아몬, 아몬의 아들은 요시아이다.
- 15 요시아의 아들은 맏아들이 요한단, 둘째가 여호야킴, 셋째가 치드키야, 넷째가 살롬이다.
- 16 여호야킴의 아들은 여콘야이고 여콘야의 아들은 치드키야이다.
- 17 사로잡혀 간 여콘야의 아들은 스알티엘,
- 18 말키람, 프다야, 셴야차르, 여카므야, 호사마, 느다브야이다.
- 19 프다야의 아들은 즈루빠벨과 시므야이다. 즈루빠벨의 아들은 므술람과 하난야이고 슬로밋은 그들의 누이며,
- 20 그 밖에도 허수바, 오헬, 베레크야, 하사드야, 유삽 헤셋, 이렇게 다섯 아들이 더 있다.
- 21 하난야의 아들은 플라트야, 플라트야의 아들은 여시아, 여시아의 아들은 르파야, 르파야의 아들은 아르난, 아르난의 아들은 오바드야, 오바드야의 아들은 스칸야,
- 22 스칸야의 아들은 스마야, 스마야의 아들은 하투스, 이그알, 바리아, 느아르야, 사팻, 이렇게 여섯이다.
- 23 느아르야의 아들은 엘요에나이, 히즈키야, 아즈리감, 이렇게 셋이다.

24 엘요에나이의 아들은 호다우야, 엘야십, 플라야, 아쿱, 요하난, 들리야, 야나니, 이렇게 일곱이다.

유대의 자손

4 ¹ 유대의 아들은 페레츠, 헤츠론, 카르미, 후르, 소발이다.

2 소발의 아들 르야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미야와 라핫을 낳았다. 이들이 초르야족의 씨족들이다.

3 에탐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이즈르엘, 이스마, 잇바스인데, 그들의 누이 이름은 하츨렐 뿐이었다.

4 그도르의 시조 프누엘과 후사의 시조 예제르는 에프라타의 맏아들이자 베들레헴의 시조인 후르의 아들이다.

5 트코야의 시조 아스후르에게는 헬야와 나아라라는 두 아내가 있었다.

6 나아라는 아스후르에게 아후잠과 헤페르, 테므니와 아하스타리를 낳아 주었다. 이들이 나아라의 아들이다.

7 헬야의 아들은 체렛, 초하르, 에트난이다.

8 코츠는 아눗, 초베바, 그리고 하룸의 아들 아하르헬의 씨족들을 낳았다.

9 아베츠는 자기 형제들보다 존경을 받았다. 그의 어머니는 "내가 고통 속에서 낳았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아베츠라고 하였다.

10 아베츠는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이렇게 빌었다. "부디 저에게 복을 내리시어 제 영토를 넓혀 주시고, 당신의 손길이 저와 함께 있어 제가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제앙을 막아 주십시오." 그러자 하느님께서 그가 청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11 수히의 동기 클롬은 므히르를 낳았는데, 이 므히르가 에스톤의 시조다.

12 에스톤은 벳 라파와 파세야, 그리고 이르나하스의 시조 트한나를 낳았다. 이들이 레카 사람들이다.

13 코나즈의 아들은 오토니엘과 스라이이고, 오토니엘의 아들은 하닷과 므오노타이다.

14 므오노타이는 오프라를 낳고, 스라이는 게하라십의 시조 요압을 낳았다. 요압 사람들은 장인들이어서 게하라십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

15 어폰네의 아들 갈렙의 아들은 이루, 엘라, 나암이고, 엘라의 아들은 코나즈이다.

16 여할렐엘의 아들은 지프, 지파, 티르야, 아사르엘이다.

17 예즈리의 아들은 예테르, 베크트, 에페르, 알론이다. 그 여자는 미르얌과 삼마이, 그리고 예스토모야의 시조 이스바를 임신하였다.

18 그의 유대인 아내는 그도르의 시조 예렛, 소코의 시조 헤베르, 자노야의 시조 여쿠티엘을 낳았다. 이들은 베크트 아내로 딸 아들인 파라오의 딸 비트야의 아들들이다.

19 나함의 누이 호디아의 아들은 가르미족인 크일라의 시조와, 마이카족 예스토모야이다.

20 시몬의 아들은 암논, 린나, 벤 하난, 털론이다. 이스이의 아들은 조헛과 벤 조헛이다.

21 유대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카의 시조 예르, 마레사의 시조 라다, 벳 아스베아에서 아버포를 만드는 씨족들,

22 요킴족과 코제바 사람들, 그리고 모암에서 주인 노릇을 하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요아스와 사람이다. 이것은 옛날 일이다.

23 이들은 웅기장이들로서 임금을 섬기며 느타임과 그데라에서 살았다.

시메온의 자손

24 시메온의 아들은 느무엘, 아민, 아림, 제라, 사울이다.

25 사울의 아들은 살룸, 살룸의 아들은 밍삼,

밍삼의 아들은 미스마이다.

26 미스마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 함무엘의 아들은 자쿠르, 자쿠르의 아들은 시므이이다.

27 시므이에게는 아들 열여섯과 딸 여섯이 있었지만, 다른 형제들에게는 아들이 많지 않았으므로, 그의 모든 씨족이 유다의 자손만큼 늘어나지는 않았다.

28 그들은 브에르 세바, 몰라다, 하차르 수알,

29 발하, 에츨, 툴랏,

30 브투엘, 호르마, 치클랏,

31 벧 마르카뭇, 하차르 수심, 벧 비리이, 사아리임에서 살았다. 다윗이 다스릴 때까지 이곳들은 그들의 성읍이었다.

32 여기에 딸린 촌락들은 에탐, 아인, 림몬, 토켄, 아산, 이렇게 다섯 성읍과,

33 바알에 이르기까지 이 성읍들 둘레의 모든 마을이다. 이것이 그들의 거주지로서 족보에 올라 있다.

34 또 므소밍과 야물렉, 아마츠야의 아들 요사,

35 요엘과 예후가 있다. 예후는 요시브야의 아들, 요시브야는 스리아의 아들, 스리아는 아시엘의 아들이다.

36 그리고 엘요에나이, 아이코바, 여소하야, 아시아, 아디엘, 여시미엘, 브니아가 있다.

37 지자는 시프이의 아들, 시프이는 알론의 아들, 알론은 여다야의 아들, 여다야는 시므리의 아들, 시므리는 스마야의 아들이다.

38 이들은 씨족의 수장 명단에 오른 사람들이다. 그들의 집안은 불어나 퍼져 나갔다.

39 그들은 양을 칠 목장을 찾아서 그도르 어귀에 있는 골짜기의 동쪽까지 갔다.

40 거기에서 그들은 기름지고 좋은 목장을 찾아내었다. 그 땅은 사방이 넓고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전에 그곳에 살던 주민들은 함족이었다.

41 위의 명단에 적혀 있는 사람들은 유다 임

금 히즈키야 시대에 그리로 들어갔다. 그들은 그곳에 있던 주민들의 천막들과 므운족을 쳐 전멸시킨 다음, 그들 대신 오늘날까지 거기에서 살고 있다. 그곳에는 양을 칠 목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42 이 시메온의 자손들 가운데 오백 명이 이스이의 아들들인 플라트야, 느아랏야, 르파야, 우짜엘을 우두머리로 삼고, 세이르 산으로 갔다.

43 그들은 그곳에 생존해 있는 아말렉족의 남은 자들을 쳐 죽이고, 오늘날까지 거기에서 살고 있다.

르우벤의 자손

5¹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르우벤은 맏아들이면 서도 아버지의 잠자리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의 맏아들 권리가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아들들에게 넘어가고, 족보에 맏아들로 오르지 못하였다.

2 유다가 형제들 가운데에서 세력이 컸으므로 그에게서 영도자가 났으나, 맏아들 권리는 요셉에게 있었다.

3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은 하눅, 팔루, 헤츠론, 카르미이다.

4 요엘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 스마야의 아들은 곡, 곡의 아들은 시므이,

5 시므이의 아들은 미카, 미카의 아들은 르아야, 르아야의 아들은 바알,

6 바알의 아들은 브에라이다. 이 브에라가 아시리아 임금 티글랏 필에세르에게 사로잡혀간 르우벤인들의 수장이다.

7 씨족별로 세대에 따라 족보에 오른 그의 형제는 우두머리 여이엘, 즈카르야,

8 벨라이다. 벨라는 아자즈의 아들, 아자즈는 세마의 아들, 세마는 요엘의 아들이다. 그들은 아로에르를 중심으로 느보와 바알 므운

- 까지 퍼져 살았고,
 9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 쪽의 사막 어귀까지 걸쳐 살았다. 길앗 땅에서 그들의 가족이 붙어났기 때문이다.
 10 그들은 사울 시대에 전쟁을 벌여 하카르인들을 힘으로 쓰러뜨리고, 길앗 동쪽 전 지역에 걸쳐 하카르인들의 천막에서 살았다.

가드의 자손

- 11 그들 옆에 자리 잡은 가드의 자손들은 살카까지 이르는 바산 지방에서 살았다.
 12 그들의 우두머리는 요엘이고, 둘째 우두머리는 사팜이었다. 야나이와 사팜도 바산에서 살았다.
 13 그들 집안의 형제들은 마카엘, 므술람, 세바, 요라이, 야간, 지아, 에베르, 이렇게 일곱이었다.
 14 이들은 아비하일의 자손인데,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 후리는 야로이의 아들, 야로이는 길앗의 아들, 길앗은 마카엘의 아들, 마카엘은 여시사이의 아들, 여시사이는 야흐도의 아들, 야흐도는 부즈의 아들이다.
 15 압디엘의 아들이고 구니의 손자인 아히가 그들 집안의 우두머리다.
 16 그들은 길앗과 바산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과 사론의 모든 목초지 끝까지 퍼져 살았다.
 17 이들은 모두 유다 임금 요탐 시대와 이스라엘 임금 예로보암 시대에 족보에 올랐다.
 18 르우벤의 자손들과 가드인들과 므나세 반쪽 지파에는, 방패와 칼을 들고 활을 쏘며 군사 훈련을 받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용사가 사만 사천칠백육십 명 있었다.
 19 그들이 하카르인들을 비롯하여 여투르, 나피스, 노답과 전쟁을 벌일 때,
 20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카르인들과 그 모든 동맹군이 그들의 손에 넘겨졌는데, 이는 그들이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

- 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간청을 들어 주신 것이다.
 21 그들은 적의 가축, 곧 낙타 오만 마리와 양 이십오만 마리와 나귀 이천 마리, 그리고 사람 십만 명을 사로잡았다.
 22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살해당하여 쓰러졌다. 그들은 유배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다.

므나세 반쪽 지파의 자손

- 23 므나세 반쪽 지파의 자손들은 바산에서 바알 헤르몬과 스니르와 헤르몬 산에 이르는 땅에 살았다. 그들은 수가 많았다.
 24 그들 집안의 우두머리들은 이리하다. 곧 에페르, 이스이, 엘리엘, 아즈리엘, 이르므야, 호다우야, 야흐디엘이다. 그들은 힘센 용사로서 각 집안의 이름난 우두머리다.
 25 그러나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멸망시키신 그 땅 민족들의 신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질렀다.
 26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아 임금 풀의 마음과 아시리아 임금 티글랏 필에세르의 마음을 부추기셔서, 르우벤인과 가드인과 므나세 반쪽 지파를 유배 보내, 할라, 하보르, 하라 그리고 고잔 강으로 데려가게 하셨다. 그들은 오늘날까지 거기에서 살고 있다.

레위의 자손

- 27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크핫, 므라리이다.
 28 크핫의 아들은 아므람, 이츠하르, 헤브론, 우찌엘이다.
 29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 모세, 미르얌이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 아비후, 엘야자르, 이타마르이다.
 30 엘야자르는 피느하스를 낳고 피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았다.

- 31 아비수이는 부기를 낳고 부기는 우찌를 낳았다.
- 32 우찌는 즈라흐야를 낳고 즈라흐야는 므라웃을 낳았다.
- 33 므라웃은 아마르야를 낳고 아마르야는 아히뜰을 낳았다.
- 34 아히뜰은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히마아츠를 낳았다.
- 35 아히마아츠는 아자르야를 낳고 아자르야는 요하난을 낳았다.
- 36 요하난은 아자르야를 낳았는데, 이 아자르야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주님의 집에서 사제로 봉직한 사람이다.
- 37 아자르야는 아마르야를 낳고 아마르야는 아히뜰을 낳았다.
- 38 아히뜰은 차독을 낳고 차독은 살툼을 낳았다.
- 39 살툼은 할기야를 낳고 할기야는 아자르야를 낳았다.
- 40 아자르야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차답을 낳았다.
- 41 주님께서 네부카드네자르를 시켜 유다와 예루살렘을 유배 보내실 때, 여호차답도 끌려갔다.

6 ¹ 레위의 아들은 게르숨, 크핫, 므라리이다.

- 2 게르숨의 아들들 이름은 리브니와 시므이이다.
- 3 크핫의 아들은 아르람, 이즈하르, 헤브론, 우찌엘이다.
- 4 므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이들이 가문에 따라 본 레위의 씨족들이다.
- 5 게르숨에게는 아들 리브니가 있었다. 리브니의 아들은 아핫, 아핫의 아들은 짐마,
- 6 짐마의 아들은 요아, 요아의 아들은 이포, 이포의 아들은 제라, 제라의 아들은 여아트라이이다.

- 7 크핫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크핫의 아들은 암미나답, 암미나답의 아들은 코라, 코라의 아들은 아씨르,
- 8 아씨르의 아들은 엘카나, 엘카나의 아들은 에브야삽, 에브야삽의 아들은 아씨르,
- 9 아씨르의 아들은 타핫, 타핫의 아들은 우리엘, 우리엘의 아들은 우찌야, 우찌야의 아들은 사울이다.
- 10 엘카나의 아들은 아파사이와 아허못이다.
- 11 아허못의 아들은 엘카나, 엘카나의 아들은 초파이, 초파이의 아들은 나합,
- 12 나합의 아들은 엘리압, 엘리압의 아들은 여로함, 여로함의 아들은 엘카나이다.
- 13 사무엘의 아들은 만이들 요엘과 들레 아들 아비야이다.
- 14 므라리의 아들은 마흘리, 마흘리의 아들은 리브니, 리브니의 아들은 시므이, 시므이의 아들은 우찌,
- 15 우찌의 아들은 시므아, 시므아의 아들은 하끼야, 하끼야의 아들은 아사야이다.
- 16 계약 궤가 주님의 집에 자리 잡은 뒤에 다윗이 그곳에서 부르는 성가를 책임자라고 임명한 사람들은 이러하다.
- 17 이들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주님의 집을 지을 때까지 성막, 곧 '만남의 천막' 앞에서 부르는 성가를 관장하였다. 그들은 절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다.
- 18 직무를 수행하는 이들과 그들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크핫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헤만은 성가 책임자였다. 헤만은 요엘의 아들,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
- 19 사무엘은 엘카나의 아들, 엘카나는 여로함의 아들,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 엘리엘은 토아의 아들,
- 20 토아는 촛의 아들, 촛은 엘카나의 아들, 엘카나는 마핫의 아들, 마हत은 아파사이의 아들,
- 21 아파사이는 엘카나의 아들, 엘카나는 요엘

의 아들, 요엘은 아자르아의 아들, 아자르
 아는 스바니아의 아들,
 22 스바니아는 타핫의 아들, 타हत은 아씨르의
 아들, 아씨르는 에브야삽의 아들, 에브야삽
 은 코라의 아들,
 23 코라는 이츠하르의 아들, 이츠하르는 크핫
 의 아들, 크हत은 레위의 아들, 레위는 이스
 라엘의 아들이다.
 24 헤만의 오른쪽에는 그의 동기 아삽이 섰다.
 아삽은 베레크야의 아들, 베레크야는 시므
 아의 아들,
 25 시므아는 미카엘의 아들, 미카엘은 바이세
 아의 아들, 바이세아는 말키아의 아들,
 26 말키아는 에트니의 아들, 에트니는 제라의
 아들, 제라는 아다아의 아들,
 27 아다아는 에탄의 아들, 에탄은 잠마의 아
 들, 잠마는 시므이의 아들,
 28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 야हत은 게르숨의 아
 들, 게르숨은 레위의 아들이다.
 29 왼쪽에는 그들의 형제인 므라리의 자손들
 이 섰다. 에탄은 키시의 아들, 키시는 압디
 의 아들, 압디는 말룩의 아들,
 30 말룩은 하사브아의 아들, 하사브아는 아마
 츠아의 아들, 아마츠아는 할키아의 아들,
 31 할키아는 암치의 아들, 암치는 바니의 아
 들, 바니는 세메르의 아들,
 32 세메르는 마홀리의 아들, 마홀리는 무시의
 아들, 무시는 므라리의 아들, 므라리는 레
 위의 아들이다.
 33 그들의 형제인 다른 레위인들에게는 성막,
 곧 하느님의 집에서 하는 모든 일이 맡겨
 졌다.
 34 그 가운데에서 번째 제단과 분향 제단에서
 제물을 살라 연기로 바치는 일, 지성소의
 모든 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는 일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하느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다 하였다.
 35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아론의 아들은

엘아자르, 엘아자르의 아들은 피느하스, 피
 느하스의 아들은 아비수아,
 36 아비수아의 아들은 부키, 부키의 아들은 우
 쩌, 우찌의 아들은 즈라호야,
 37 즈라호야의 아들은 므라웃, 므라웃의 아들
 은 아마랴야, 아마랴야의 아들은 아히툼,
 38 아히툼의 아들은 차독, 차독의 아들은 아히
 마야츠이다.
 39 그들이 자기 경계 안에서 천막을 치고 살
 던 지역은 이러하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
 크हत 씨족에게 첫 번째 몫이 돌아갔다.
 40 그래서 그들이 받은 곳은 유다 땅의 헤브
 론과 그 주변의 목초지였다.
 41 그러나 그 성읍에 딸린 들과 마을들은 여
 쉰네의 아들 칼렘에게 돌아갔다.
 42 아론의 자손에게는 도피 성읍, 곧 헤브론과
 리브나와 그 목초지, 아티르, 에스트모아와
 그 목초지,
 43 할레즈와 그 목초지, 드비르와 그 목초지,
 44 아산과 그 목초지, 벳 세메스와 그 목초지
 가 돌아갔다.
 45 베야민 지파의 지역에서도 게바와 그 목초
 지, 알레멧과 그 목초지, 아나툿과 그 목초
 지가 아론의 자손에게 돌아갔다. 씨족을 통
 틀어 그들이 받은 성읍은 모두 열세 성읍
 이다.
 46 크हत 자손들의 나머지 씨족들은 므나쎄 반
 쪽 지파에게서, 지파의 씨족별로 제비를 뽑
 아 열 성읍을 받았다.
 47 게르숨의 자손들은 씨족별로 이사카르와
 아세르와 납탈리 지파, 그리고 바산에 있
 는 므나쎄 지파에게서 열세 성읍을 받았
 다.
 48 므라리의 자손들은 씨족별로 제비를 뽑아
 르우벤과 가드와 즈블론 지파에게서 열두
 성읍을 받았다.
 49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
 들을 레위인들에게 주었다.

- 50 그리고 유다 지파와 시메온 지파와 베야민 지파도 제비를 뽑아 성읍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 51 크핫 자손들의 어떤 씨족들은 에프라임 지파에게서도 성읍 몇 개를 자기들의 영토로 받았다.
- 52 그들은 도피 성읍들을 받았는데, 에프라임 산악 지방의 스켄과 그 목초지, 게제르와 그 목초지,
- 53 요크므압과 그 목초지, 벳 호론과 그 목초지,
- 54 이얄론과 그 목초지, 갓 림몬과 그 목초지다.
- 55 그리고 므나쎄 반쪽 지파에게서도 아네르와 그 목초지, 발라암과 그 목초지가 크핫 자손들의 나머지 씨족들에게 돌아갔다.
- 56 게르솜의 자손들에게는 므나쎄 반쪽 지파의 씨족에게서, 바산에 있는 골란과 그 목초지, 아스타룻과 그 목초지가 돌아갔다.
- 57 이사카르 지파에게서는 케테스와 그 목초지, 다브랏과 그 목초지,
- 58 라못과 그 목초지, 아넬과 그 목초지가 돌아갔다.
- 59 아세르 지파에게서는 마살과 그 목초지, 압돈과 그 목초지,
- 60 후룩과 그 목초지, 르흠과 그 목초지가 돌아갔다.
- 61 그리고 납탈리 지파에게서는 갈릴래이에 있는 케테스와 그 목초지, 함몬과 그 목초지, 키르타임과 그 목초지가 돌아갔다.
- 62 므라리의 나머지 자손들에게는 즈블론 지파에게서 림몬과 그 목초지, 타보르와 그 목초지가 돌아갔다.
- 63 예리코 맞은편 요르단 강 건너 동쪽의 르우벤 지파에게서는 광야에 있는 베케르와 그 목초지, 아히츠와 그 목초지,
- 64 크데못과 그 목초지, 메피앗과 그 목초지가 돌아갔다.

- 65 가드 지파에게서는 길앗에 있는 라못과 그 목초지,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
- 66 헤스본과 그 목초지, 아제르와 그 목초지가 돌아갔다.

이사카르의 자손

- 7¹ 이사카르의 아들은 툴라, 푸아, 야습, 시므론, 이렇게 넷이다.
- 2 툴라의 아들은 우찌, 르파야, 여리엘, 야흐마이, 입삼, 스무엘인데, 이들은 툴라 집안의 우두머리였다. 디윗 시대에 그들 세대에 속한 힘센 용사들의 수는 이만 이천육백 명이었다.
- 3 우찌의 아들은 이즈라흐야이고, 이즈라흐야의 아들은 미키엘, 오바드야, 요엘, 이찌야인데, 이 다섯은 모두 우두머리였다.
- 4 그들에게는 아내와 자식이 많아서, 세대별로 집안별로 그들의 지휘를 받는 전투 부대 병사들은 삼만 육천 명이나 되었다.
- 5 이사카르의 모든 씨족에 속한 형제들은 힘센 용사로서, 팔만 칠천 명 모두 족보에 올랐다.

벤야민과 납탈리의 자손

- 6 벤야민의 아들은 벨라, 베케르, 여디아엘, 이렇게 셋이다.
- 7 벨라의 아들은 에츠본, 우찌, 우찌엘, 여리못, 이리, 이렇게 다섯이다. 이들은 힘센 용사이자 각 집안의 우두머리로서, 그들 족보에 오른 사람은 이만 이천삼십사 명이었다.
- 8 베케르의 아들은 즈미라, 요아스, 엘리에제르, 엘요에나이, 오프리, 여래못, 아비아, 아나툼, 알레멧이다. 이들이 모두 베케르의 아들들이다.
- 9 이들은 힘센 용사이자 각 집안의 우두머리로서, 세대별로 그들 족보에 오른 사람은 이만 이백 명이었다.
- 10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고, 빌한의 아들

은 여우스, 벤아민, 에훗, 크나아나, 제탄, 타르시스, 아히사하르이다.

- 11 이들이 모두 여디아셀의 자손으로서, 각 가문의 우두머리인 힘센 용사들까지 합하여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가 일만 칠천이 백 명이었다.
- 12 수팜과 후팜은 이르의 아들이고 후심은 아헤르의 아들이다.
- 13 납달리의 아들은 아히츠엘, 구니, 예체르, 샬롬이다. 이들은 발하가 낳은 아들들이다.

므낱세의 자손

- 14 므낱세의 아들은 그의 소실 아람 여자가 낳은 아스리엘이다. 그 여자는 길앗의 아버지 마키르도 낳았다.
- 15 마키르는 후팜과 수팜에게 아내를 얻어 주었다. 마키르의 누이 이름은 마야카이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출롭핫인데, 출롭핫에게는 딸들만 있었다.
- 16 마키르의 아내 마이카는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페레스라고 하였다. 페레스의 아우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은 울람과 레켄이다.
- 17 울람의 아들은 브단이다. 이들이 길앗의 자손들인데, 길앗은 마키르의 아들이고 마키르는 므낱세의 아들이다.
- 18 그의 누이 몰레켓은 이스훗, 아비에제르, 마홀라를 낳았다.
- 19 스미다의 아들은 아흐안, 세켄, 락히, 아니암이다.

에프라임의 자손

- 20 에프라임의 아들은 수델라, 수델라의 아들은 베렛, 베렛의 아들은 타핫, 타핫의 아들은 엘야다, 엘야다의 아들은 타핫이다.
- 21 타핫의 아들은 자밧, 자밧의 아들은 수델라이다. 그리고 예체르와 엘앗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땅의 토박이인 갓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가축을 약탈하려다가 살해되었다.

- 22 그들의 아버지 에프라임이 여러 날 동안 애통해하였으므로, 친척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였다.
- 23 그 뒤에 에프라임은 아내와 한자리에 들었다.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집안에 불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들의 이름을 브리아라고 하였다.
- 24 그의 딸은 세에라인데, 그 여자가 '아래 벳 호론'과 '위 벳 호론', 그리고 우? 세에라도 세웠다.
- 25 에게는 레파라는 아들이 있었다. 레파의 아들은 레셉, 레셉의 아들은 텔라, 텔라의 아들은 타한,
- 26 타한의 아들은 라단, 라단의 아들은 암미훗, 암미훗의 아들은 엘리사마,
- 27 엘리사마의 아들은 눈, 눈의 아들은 여호수아이다.
- 28 에프라임 자손들의 소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동쪽으로는 나아란, 서쪽으로는 게체르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 스켄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그리고 아야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까지다.
- 29 벳 스안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타야낙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므기또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 도르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은 므낱세 자손들의 손에 돌아갔다. 이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들이 살았다.

아세르트의 자손

- 30 아세르트의 아들은 임나, 이스와, 이스위, 브리아이고, 그들의 누이는 세라이다.
- 31 브리아의 아들은 헤베르와 말키엘인데, 이 말키엘이 비르자잇의 시조다.
- 32 헤베르는 아플렛, 소페르, 호담, 그리고 그들의 누이 수아를 낳았다.
- 33 아플렛의 아들은 파삭, 빔할, 아스왓이다.

이들이 아플렛의 아들들이다.

- 34 아플렛의 아우 소메르의 아들은 로가, 후빠, 이람이다.
- 35 소메르의 아우 헬렘의 아들은 초파, 임나, 셀레스, 아말이다.
- 36 초파의 아들은 수아, 하르네페르, 수알, 베리, 이므라,
- 37 베체르, 훗, 삼마, 실사, 이트란, 브에라이다.
- 38 에테르의 아들은 여푼네, 피스파, 아라이다.
- 39 울라의 아들은 아라, 한니엘, 리츠아이다.
- 40 이들은 모두 아세르의 자손들로서 각 집안의 우두머리고 선택된 힘센 용사들이며, 으뜸가는 수장들이다. 족보에 오른 사람으로서 출전할 수 있는 군사들의 수는 이만 육천 명이었다.

벤야민의 자손

- 8¹ 벤야민은 맏아들 벨라, 둘째 이스벨, 셋째 아흐라,
- 2 넷째 노하, 다섯째 라파를 낳았다.
- 3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따르, 게라, 아비훗,
- 4 아비수아, 나아만, 아호야,
- 5 게라, 스푸판, 후람이다.
- 6 에훗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이들은 게바에서 살던 각 가문의 우두머리로서 그 게바 주민들을 만나왔으므로 이주시켰는데,
- 7 나아만, 아히야, 게라이다. 그들을 이주시킨 게라가 우짜와 아히훗을 낳았다.
- 8 사하리임은 자기 아내 후심과 바이아를 내보낸 뒤, 모압 평야에서 아들들을 낳았다.
- 9 아내 호레스에게서 낳은 아들은 요밥, 치브야, 메사, 말캄,
- 10 여우즈, 사크야, 미르마이다. 이 아들들이 각 가문의 우두머리다.
- 11 사하리임은 후심에게서 아비툼과 엘파알을

낳았다.

- 12 엘파알의 아들은 에베르, 미스암, 세멧인데, 이 세멧이 오노와, 로드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을 세웠다.
- 13 브리아와 세마는 아알론에 사는 가문들의 우두머리로서 이들이 각 주민들을 쫓아냈다.
- 14 아흐요, 사삭, 여레뫼,
- 15 즈바드야, 아랏, 에테르,
- 16 미카엘, 이스파, 요하는 브리아의 아들들이다.
- 17 즈바드야, 므술람, 히즈키, 헤베르,
- 18 이스므라이, 이즐리아, 요밥은 엘파알의 아들들이다.
- 19 아킴, 지크리, 잡디,
- 20 엘리에나이, 킬르타이, 엘리엘,
- 21 아디아, 브라야, 시므랏은 시므이의 아들들이다.
- 22 이스판, 에베르, 엘리엘,
- 23 압돈, 지크리, 하난,
- 24 하난야, 엘람, 안토티야,
- 25 입드야, 프누엘은 사삭의 아들들이다.
- 26 삼스라이, 스하르야, 아탈야,
- 27 아이레스야, 엘리야, 지크리는 여로함의 아들들이다.
- 28 이들이 세대별로 본 각 가문의 우두머리다. 이 우두머리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 29 기브온의 시조는 기브온에 살았는데, 그의 아내 이름은 마야기이다.
- 30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고, 그 아래로 추르, 키스, 바알, 나담,
- 31 그도르, 아흐요, 제케르가 있었다.
- 32 미클롯은 심이를 낳았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을 마주 보며 함께 살았다.
- 33 네르는 키스를 낳고 키스는 사울을 낳았으며, 사울은 요나탄, 말키수아, 아비나담, 에스비알을 낳았다.
- 34 요나탄의 아들은 므립 바알이며, 므립 바알

은 미카를 낳았다.

- 35 미카의 아들은 피톤, 멜렉, 타레아, 아하즈이다.
- 36 아하즈는 여호아빠를 낳고 여호아빠는 알레멧, 아즈마헛, 지므리를 낳았으며, 지므리는 모차를 낳고,
- 37 모차는 빈아를 낳았다. 빈아의 아들은 라파이고 라파의 아들은 엘아사이며, 엘아사의 아들은 아셀이다.
- 38 아셀에게는 아들이 여섯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아즈리감, 보크루, 이스마엘, 스아르야, 오바드야, 하난이다. 이들이 모두 아세르의 아들들이다.
- 39 아세르의 아우인 에섹의 아들은 만아들 울람, 둘째 여우스, 셋째 엘리펠렛이다.
- 40 울람의 아들들은 활을 잘 쏘는 힘센 용사였는데, 그들에게는 백오십 명이나 되는 많은 아들과 손자가 있었다. 이들이 모두 벤아민의 자손이다.

유배에서 돌아온 예루살렘 주민

- 9** ¹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족보에 오르고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기록되었다. 유다는 배신한 탓으로 바빌론에 유배를 갔다.
- 2 그 뒤에 처음으로 자기들의 성읍에 있는 소유지에 돌아와 자리를 잡은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성전 막일꾼들이다.
 - 3 유다의 자손들과 벤아민의 자손들과 에프라임과 므나쎄의 자손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은 이들은 이러하다.
 - 4 우타이는 암미훗의 아들, 암미훗은 오프리의 아들, 오프리는 이므리의 아들, 이므리는 바니의 아들이다. 이들은 유다의 아들인 페레츠의 자손들이다.
 - 5 실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만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 자리를 잡았다.

- 6 제리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여우엘과 그들의 형제 육백구십 명이 자리를 잡았다.
- 7 벤아민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살루가 자리를 잡았는데, 그는 므술람의 아들이고 므술람은 호다우아의 아들이며, 호다우아는 스누아의 아들이다.
- 8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냐, 우찌의 아들이며 미크리의 손자인 엘라, 그리고 스파트야의 아들이고 르우엘의 손자이며 이브니아의 증손인 므술람도 자리를 잡았다.
- 9 그들 형제들은 세대별로 모두 구백오십육 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집안별로 본 각 집안의 우두머리다.
- 10 사제들 가운데에서는 여다야, 여호아립, 야킨,
- 11 아자르야가 자리를 잡았다. 아자르야는 힐키야의 아들, 힐키야는 므술람의 아들, 므술람은 차둑의 아들, 차둑은 므라웃의 아들, 므라웃은 하느님 집의 총감독 아히툼의 아들이다.
- 12 아디아는 여로함의 아들, 여로함은 파스후르의 아들, 파스후르는 말키야의 아들이다. 마사이는 아디엘의 아들, 아디엘은 야흐제리의 아들, 야흐제리는 므술람의 아들, 므술람은 므실레밋의 아들, 므실레밋은 임베르의 아들이다.
- 13 또 그들의 형제인 각 집안의 우두머리들을 비롯하여 하느님의 집에서 일을 맡아 할 유능한 장정들의 수는 천칠백육십 명이였다.
- 14 레위인들 가운데에서는 스마야가 자리를 잡았다. 그는 하숨의 아들이고 하숨은 아즈리감의 아들이며, 아즈리감은 하사브야의 아들이다. 이들은 므라리의 자손이다.
- 15 또 박바카르, 헤레스, 갈랄, 마탄야가 자리를 잡았는데, 마탄야는 미카의 아들이고 미카는 지크리의 아들이며, 지크리는 아삽의 아들이다.

- 16 오바드야도 자리를 잡았다. 그는 스마이의 아들이고 스마이는 갈랄의 아들이며, 갈랄은 여두톤의 아들이다. 베레크야는 아사의 아들이고, 아사는 느토파인들의 촌락에 살던 엘카나의 아들이다.
- 17 문지기들은 살룸, 아굽, 탈몬, 아히만과 그들의 형제들인데, 살룸이 그 우두머리였다.
- 18 살룸은 지금도 동쪽에 있는 '임금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다. 이들이 레위 자손들의 진영에 속한 문지기다.
- 19 코레의 아들이고 에브야삽의 손자이며 코라의 증손인 살룸과, 그 집안의 형제들, 곧 코라인들이 천막의 문지방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 그들의 조상들도 주님의 진영 입구를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 20 예전에는 엘야자르의 아들 피느하스가 그들의 총감독이었는데,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 21 므셀레므야의 아들 즈카르야는 만민의 천막 문지기였다.
- 22 문지방을 지키는 문지기로 뽑힌 이 사람들은 모두 이백이십이 명이며 촌락별로 족보에 올랐다. 그들에게 이 항구한 직무를 맡긴 이는 다윗과 사무엘 선견자다.
- 23 이렇게 그들과 그 자손들은 주님의 집, 곧 천막 집의 대문을 지키는 일을 맡았다.
- 24 이 문지기들은 동서남북 사방에 배치되었다.
- 25 촌락에 사는 그들의 형제들이 이레마다 번갈아 와서 그들을 도왔다.
- 26 그러나 이 수문장 넷은 상주하며 일을 하였다. 하느님의 집에 있는 방들과 창고들도 이 레위인들이 맡아 지켰다.
- 27 그들은 하느님의 집을 지키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일을 맡았으므로, 하느님의 집 둘레에서 밤을 지냈다.
- 28 그들 가운데에서 몇은 제사 기물을 맡아, 정해진 수에 따라 들어오고 정해진 수에

따라 내갔다.

- 29 또 그들 가운데 몇은 일반 기물과 모든 거룩한 기물, 고운 밀가루와 포도주와 기름, 유향과 향료를 맡았다.
- 30 그러나 향료를 섞는 일은 사제 자손들이 하였다.
- 31 레위인 마티트야는 코라 씨족 살룸의 맏아들로, 과자 굽는 임무를 맡았다.
- 32 크핫 자손들의 형제들 가운데 몇 사람은 안식일마다 빵을 두 줄로 차려 놓는 일을 맡았다.
- 33 또 레위 가문들의 우두머리로서 성가 책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밤낮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 집의 방에서 살며 다른 일은 맡지 않았다.
- 34 이들이 족보별로 본 레위 가문들의 우두머리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사울의 계보

- 35 기브온의 시조 여이엘은 기브온에 살았는데, 그의 아내 이름은 마야카이다.
- 36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고, 그 아래로 추르, 키스, 바알, 네르, 나담,
- 37 그도르, 아호요, 즈카르야, 미클롯이 있었다.
- 38 미클롯은 심이를 낳았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을 마주 보며 함께 살았다.
- 39 네르는 키스를 낳고 키스는 사울을 낳았으며, 사울은 요나탄, 말키수아, 아비나담, 에스비알을 낳았다.
- 40 요나탄의 아들은 므립 바알이며, 므립 바알은 마기를 낳았다.
- 41 미카의 아들은 피몬, 멜렉, 타흐레아, 아하즈이다.
- 42 아하즈는 아리를 낳고 아리는 알레멧, 아즈마렛, 지프리를 낳았으며, 지프리는 모차를 낳고,
- 43 모차는 빈이를 낳았다. 빈이의 아들은 르파

아이고 르파이의 아들은 엘사이이며, 엘아사의 아들은 아첼이다.

44 아첼에게는 아들이 여섯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아즈리감, 보크루, 이스마엘, 스아르야, 오바드야, 하난이다. 아들이 아첼의 아들들이다.

사울이 죽다

10 ¹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도망치다가, 길보아 산에서 살해되어 쓰러졌다.

2 필리스티아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 뒤에 바짝 따라붙어, 사울의 아들들인 요나탄과 이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쳐 죽였다.

3 사울 가까이에서 싸움이 격렬해졌다. 그러다가 적의 궁수들이 사울을 발견하였다. 사울은 그 궁수들에게 부상을 입었다.

4 사울이 자기 무기병에게 명령하였다. "칼을 뽑아 나를 찔러라. 그러지 않으면 할례 받지 않은 저자들이 와서 나를 희롱할 것이다." 그러나 무기병은 너무 두려워서 찌르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칼을 세우고 그 위에 었어졌다.

5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무기병도 칼 위에 었어져 죽었다.

6 그리하여 사울이 죽고, 또 그의 세 아들을 비롯하여 사울의 온 집안이 다 죽고 말았다.

7 군사들이 도망치고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고, 골짜기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두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러자 필리스티아인들이 거기에 와서 살았다.

8 그 이튿날 필리스티아인들이 와서 살해된 이들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9 그들은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거둔 다음, 필리스티아인들의 땅 곳곳

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저희 우상들과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알렸다.

10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의 갑옷을 자기들의 신전에 보관하고, 머리는 다곤 신전에 매달아 놓았다.

11 온 아베스 길앗은 필리스티아인들이 사울에게 한 모든 일을 전해 들었다.

12 그러자 그곳의 용사들이 모두 나섰다. 그들은 사울의 시신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거두어 아베스로 모셔다가, 그들의 뼈를 아베스에 있는 향염수나무 밑에 묻고 이레 동안 단식하였다.

사울이 죽은 이유

13 사울은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분부를 따르지 않아 주님을 배신하고, 영매를 찾아 문의하면서도,

14 주님께는 문의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를 죽게 하시고 이사이의 아들 다윗에게 나라를 넘겨주셨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다

11 ¹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으로 다윗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의 골육입니다.

2 전에 사울이 임금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전하신 이는 임금님이셨습니다. 또한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서,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가 될 것이다.' 하고 임금님께 말씀하셨습니다."

3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모두 헤브론으로 임금을 찾아가자, 다윗은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들은 사무엘을 통하여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다

- 4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예루살렘 곧 여부스로 갔다. 그 곳에는 그 땅의 주민 여부스족이 있었다.
- 5 여부스 주민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다윗은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다. 그곳이 바로 다윗 성이다.
- 6 그때에 다윗이 말하였다. "누구든지 제일 먼저 여부스족을 쳐 죽이는 자가 우두머리와 장수가 될 것이다." 그러자 츠루아의 아들 요압이 제일 먼저 올라가 우두머리가 되었다.
- 7 다윗은 그 산성에 살았다. 그리하여 그곳을 '다윗 성'이라고 하였다.
- 8 다윗은 밀로에서부터 한 바퀴 돌아가며 성을 쌓았는데, 성의 나머지 부분은 요압이 복구하였다.
- 9 다윗은 세력이 점점 커졌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다윗의 용사들

- 10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우두머리들은 이렇하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다윗이 임금이 되도록, 온 이스라엘과 함께 그의 왕권을 뒷받침해 준 이들이다.
- 11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명단은 이렇하다. 하크모니의 아들 야소브얌은 세 용사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그는 한 전투에서 삼백 명에게 창을 휘둘러 그들을 모조리 죽인 사람이다.
- 12 그다음으로 아호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아자르가 있었는데, 그도 세 용사 가운데 하나다.
- 13 필리스티아인들이 싸우려고 파스 담뭍에 모였을 때, 그는 다윗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 거기에는 보리가 무성한 밭 한 켠이

있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필리스티아인들을 피하여 달아나는데도,

- 14 그는 밭 한가운데에 버티고 서서, 그곳을 지키며 필리스티아인들을 쳐 죽였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큰 승리를 이루어 주셨다.
- 15 삼십 인의 우두머리 가운데에서 세 사람이 바위를 타고 아달람 동굴에 있는 다윗에게 내려갔는데, 필리스티아 군대는 르파임 골짜기에 잔을 치고 있었다.
- 16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필리스티아인들의 수비대는 베들레헴에 있었다.
- 17 다윗이 간절하게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저수 동굴에서 물을 가져다가 나에게 마시도록 해 주었으면!"
- 18 그러자 그 세 사람이 필리스티아인들의 진영을 뚫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저수 동굴에서 물을 길어 다윗에게 가져왔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기를 마다하고 주님께 부어 바치며
- 19 말하였다. "이 물을 마시는 것은 나의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목숨을 걸고 가져온 이 부하들의 피를 내가 어찌 마시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은 그 물을 마시기를 마다하였다. 그 세 용사가 바로 그런 일을 하였다.
- 20 요압의 아우 아비사이는 삼십 인 부대의 우두머리였다. 바로 그가 창을 휘둘러서 삼백 명을 찔러 죽였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세 사람 가운데에 들지 못하였다.
- 21 그는 삼십 인 가운데에서 큰 명성을 떨쳐 그들의 장수가 되었지만, 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 22 여호아다의 아들 브나야는 갑츠엘 출신으로 큰 공을 세운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는 모압의 두 전사를 쳐 죽이고, 또 눈 오는 날 저수 동굴 속으로 내려가 사자를 쳐 죽였다.
- 23 그리고 그는 키가 다섯 암마나 되는 이집

트인을 쳐 죽였다. 그 이집트인은 손에 베를 용두머리 같은 창을 들고 있었으나, 브나야는 막대기만 가지고 내려가 이집트인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찔러 죽였다.

24 여호아더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들을 하여 세 용사와 함께 이름을 날렸다.

25 그는 삼십 인 가운데에서 큰 명성을 떨쳤지만, 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다윗은 그를 호위대장으로 삼았다.

26 군대의 용사들은 이러하다. 요압의 아우 아사엘, 베들레헬 출신 도도의 아들 엘하난,

27 하롯 사람 삼못, 플론 사람 헬레즈,

28 트코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 아나롯 사람 아비에제르,

29 후사 사람 시브카이, 아호아 사람 일라이,

30 느도와 사람 마하리이, 느도와 사람 바아나의 아들 헬렛,

31 벤아민인의 자손들에게 속한 기브아 출신 리바이의 아들 이타이, 피르아톤 사람 브나야,

32 가아스 계곡 출신 후라이, 아라바 사람 아비엘,

33 바히툼 사람 아즈마웻, 사알본 사람 엘야흐바,

34 기존 사람 하셀, 하라르 사람 사개의 아들 요나단,

35 하라르 사람 사카르의 아들 아히암, 우르의 아들 엘리팔,

36 므케라 사람 헤페르, 플론 사람 아히야,

37 카르멜 사람 헤츠로, 예즈바이의 아들 나라이,

38 나탄의 동기 요엘, 하가르의 아들 밍하르,

39 암몬 사람 켈렉, 츠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병인 브에롯 사람 나허라이,

40 예테르 사람 이라, 예테르 사람 가렘,

41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 이هل라이의 아들 자밧,

42 르우벤인들의 우두머리로서 삼십 인 부대를 거느리던 르우벤 사람, 곧 시지의 아들 아디나,

43 마이카의 아들 하난, 메텐 사람 요사팻,

44 아스투롯 사람 우찌야, 아로에르 사람 호담의 아들인 사미와 여이엘,

45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 그의 아우 티츠 사람 요하,

46 마하우 사람 엘리엘, 엘나암의 아들 예리바이와 요사우야, 모압 사람 이트마,

47 엘리엘, 오벳, 초바 사람 야마시엘이다.

벤아민 지파에서 다윗을 따른 사람들

12 ¹ 다윗이 아직 키스의 아들 사울에게 포위되어 치클락에 있을 때, 다윗에게 간 사람들은 이러하다. 이들은 다른 용사들과 함께 다윗을 도와 싸운 사람들이다.

2 그들은 좌우 양손으로 돌팔매질도 하고 화살도 쏠 수 있는 궁수로서, 벤아민 출신 사울의 일족이다.

3 그들은 기브아 사람 스마이의 아들 아히에제르 우두머리와 요아스, 아즈마웻의 아들 여지엘과 켈렛, 브리카, 아나롯 사람 예후,

4 삼십 인 부대의 용사로서 그 삼십 인 부대를 지휘하는 기브온 사람 이스마야,

5 이르므야, 아하지엘, 요하난, 그데라 사람 요자팻,

6 엘우자이, 여리못, 브알야, 스마르야, 하룸 사람 스파트야,

7 코리안들이인 엘카나, 이씨야, 아자르엘, 요에제르, 야소브암,

8 그도르 출신 여호람의 아들인 요엘리와 즈바드야이다.

가드 지파에서 다윗을 따른 사람들

9 가드인들 가운데에서도 광야의 요새에 있는 다윗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힘센 용사들이며 방패와 창을 잘 다루는, 싸

움에 능한 군인이었다. 그들은 얼굴이 사자와 같고 빠르기는 산 위의 영양 같았다.

- 10 그들의 우두머리는 에제르, 둘째는 오바드야, 셋째는 엘리아,
 11 넷째는 미스만나, 다섯째는 이르브야,
 12 여섯째는 아티어, 일곱째는 엘리엘,
 13 여덟째는 요한, 아홉째는 엘자밧,
 14 열째는 에레미야, 열한째는 막비나이이다.
 15 이 가드의 자손들은 군대 우두머리들로서, 그들 가운데 가장 약한 이는 백 사람과 맞먹고 가장 힘이 센 이는 천 사람과 맞먹었다.
 16 어느 해 첫째 달 요르단 강 물이 온 강둑에 넘칠 때, 그들은 강을 건너가 골짜기에 사는 모든 사람을 쳐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쫓아냈다.

벤아민과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따른 사람들

- 17 벤아민과 유다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도 요새에 있는 다윗에게 간 사람들이 있었다.
 18 다윗이 나가서 그들을 맞으며 말하였다. "여러분이 좋은 마음으로 나를 도우러 왔다면, 나도 여러분과 한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여러분이 나를 배신하고 내 원수들에게 나를 넘긴다면,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보고 벌하실 것입니다."
 19 그때에 삼십 인 부대의 우두머리 아마사에게 영이 내렸다. "다윗 장군님, 우리는 장군님 부하입니다. 이사이의 아드님, 우리는 장군님 편입니다. 장군님의 하느님께서 장군님을 도우시니 평화에 평화를 누리시고 장군님을 돕는 이들도 평화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들을 부대의 우두머리로 받아들였다.

므나세 지파에서 다윗을 따른 사람들

- 20 므나세에서도 다윗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다. 다윗이 필리스티아인들과 함께 나

가서 사울과 싸우려고 할 때였다. 그러나 그때에 다윗은 필리스티아인들을 돕지 않았다. 필리스티아 제후들이 의논 끝에, "다윗은 우리 목을 들고 자기 주군 사울에게 넘어갈 것이다." 하면서 그를 멀리 보냈기 때문이다.

- 21 그래서 다윗이 치클락으로 돌아갈 때, 므나세의 친인 부대 우두머리들인 아드나흐, 요자밧, 여디아엘, 미키엘, 요자밧, 엘리후, 칠르타이가 므나세에서 다윗에게 넘어갔다.
 22 그들은 모두 힘센 용사로서 군대의 장수였기 때문에, 부대를 맡아 그를 도왔다.
 23 이렇게 사람들이 다윗을 도우려고 날마다 모여들어, 하느님의 군대와 같은 큰 군대를 이루었다.

다윗에게 힘세한 병력

- 24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왕권을 다윗에게 돌아가게 한 무장 병력의 수는 이러하다.
 25 유다의 자손들로서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병력 육천팔백 명.
 26 시메온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힘센 전쟁용사 칠천백 명.
 27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사천육백 명.
 28 이룬 집안의 영도자 여호아다와 그가 거느린 삼천칠백 명,
 29 그리고 젊고 힘센 용사 차독과 그 집안의 장수 스물두 명.
 30 사울의 일족인 벤아민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삼천 명. 그들 대부분은 그때까지 사울 집안에 충성을 바쳐 왔다.
 31 에프라임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이만 팔백 명. 그들은 힘센 용사로서 자기 집안에서 이름난 사람들이었다.
 32 므나세 반쪽 지파에서는 만 팔천 명. 그들은 지명을 받아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려 간 사람들이었다.

- 33 이사카르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우두머리 이백 명이 그들의 명령을 따르는 형제들을 모두 거느리고 갔다. 이들은 때를 분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들이었다.
- 34 즈불론에서는 전쟁에 나갈 수 있고 온갖 무기로 싸울 채비가 된 오만 명이 한마음으로 다윗을 도우러 갔다.
- 35 납탈리에서는 장수 천 명이 방패와 창을 든 삼만 칠천 명을 거느리고 갔다.
- 36 단에서는 싸울 채비가 된 이만 팔천육백 명.
- 37 아세르에서는 전쟁에 나갈 수 있고 싸울 채비가 된 병력 사만 명.
- 38 요르단 강 건너편에 있는 르우벤인, 가드인, 므나세 반쪽 지파에서 온갖 무기를 갖춘 십이만 명.
- 39 전투 대열을 갖춘 이 모든 군사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려는 한마음을 품고 헤브론으로 모여들었다. 그 밖에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두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는 데에 한마음이 되었다.
- 40 그들은 거기에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자기 형제들이 마련해 준 음식을 먹고 마셨다.
- 41 이사카르, 즈불론, 납탈리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이웃들이 말가루 양식, 무화과 과자, 진포도 과자, 포도주, 기름, 쇠고기, 양고기 등 먹을 것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 잔뜩 싣고 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기뻐하였던 것이다.

계약 궤를 옮기다

- 13** ¹ 다윗은 천인대장과 백인대장을 비롯 한 모든 지도자와 의논하고,
- ²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좋다면, 그리고 주 우리 하느님의 뜻이라면,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들과,

- 목초지가 있는 성읍들에서 그들과 함께 사는 사제들과 레위인들에게도 사람들을 보내어 우리에게 모여 오라고 합시다.
- ³ 그런 다음에 우리 하느님의 궤를 도로 모셔 옵시다. 사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그 궤를 찾지 않았습니까."
- ⁴ 온 백성이 보기에 이 일이 옳았으므로 회중은 모두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
- ⁵ 다윗은 하느님의 궤를 키르얏 여아림에서 옮겨 오려고, 이집트 시호르에서 하맛 어귀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 ⁶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커룹들 위에 좌정하신 주 하느님의 궤를 모셔 오려고, 바알라곤 유다의 키르얏 여아림으로 올라갔다. 그 궤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렸다.
- ⁷ 그들은 하느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내갔다. 우짜와 아흐요가 그 수레를 몰았다.
- ⁸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비파와 수금과 손북과 자바라와 나팔 소리에 맞추어 노래하며, 하느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 ⁹ 그들이 키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였다. 소들이 비틀거리는 바람에 우짜가 손을 뻗어 궤를 붙들었다.
- ¹⁰ 그러자 우짜를 향하여 주님의 분노가 타올랐다. 우짜가 궤에 손을 뻗었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치시니, 그는 거기 하느님 앞에서 죽었다.
- ¹¹ 다윗은 주님께서 우짜를 그렇게 내리치신 일 때문에 화가 났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페레즈 우짜라고 하였는데, 그곳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린다.
- ¹² 그날 다윗은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이래서야 어떻게 하느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겨 갈 수 있었는가?"
- ¹³ 그래서 다윗은 그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가져가지 않고, 갓 사람 오벧 에돔의 집으로 옮겼다.

- 14 하느님의 궤가 그 집에서 오벳 에돔의 집 안 사람들과 함께 석 달을 머무르는 동안, 주님께서서는 오벳 에돔의 집안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 위에 복을 내리셨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자리 잡다

- 14 ¹ 티로 임금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함께 향나무와 석수와 목수들을 보내어, 다윗에게 궁을 지어 주게 하였다.
- 2 그리하여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튼튼히 세우시고,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왕권을 크게 높여 주신 것을 알게 되었다.
- 3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아내들을 또 맞아들어 아들딸들을 더 낳았다.
- 4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 소밌, 나탄, 솔로몬,
- 5 입하르, 엘리수아, 엘펠렛,
- 6 노가, 네벵, 아피아,
- 7 엘리사마, 브엘야다, 엘리펠렛이다.

다윗이 필리스티인들과 싸워 이기다

- 8 필리스티아인들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를 부어 그를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는 소식을 들었다. 필리스티아인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모두 올라오자, 다윗은 그 보고를 듣고 그들 앞으로 나갔다.
- 9 그때에 필리스티아인들은 이미 르파임 골짜기로 와서 그곳을 공격하고 있었다.
- 10 다윗이 하느님께 "필리스티아인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고 여쭙어 보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 11 그래서 다윗은 바알 프라침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그들을 쳐부순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큰물로 무너뜨리듯, 하느님께서서는 내

손으로 원수를 무너뜨리셨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바알 프라침이라 하였다.

- 12 필리스티아인들이 그곳에 자기 신상들을 버리고 갔으므로, 다윗은 그것들을 불에 태워 버리라고 분부하였다.
- 13 필리스티아인들이 다시 그 골짜기를 공격하였다.
- 14 다윗이 다시 하느님께 여쭙어 보자, 하느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그들을 쫓아 바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밭삼 향나무 숲 맞은쪽에서 그들에게 다가가라.
- 15 밭삼 향나무 꼭대기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에 나가서 싸워라. 하느님이 앞장서 나가 필리스티아인들의 군대를 칠 것이다."
- 16 다윗은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기브온에서 게제르까지 필리스티아 군대를 쳤다.
- 17 다윗의 명성이 모든 나라에 퍼져 나갔으며, 주님께서서는 모든 민족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계약 궤를 옮길 준비를 하다

- 15 ¹ 다윗은 다윗 성에 자기가 살 궁을 지었다. 또 하느님의 궤를 모실 곳을 마련하고 천막을 친 다음,
- 2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인들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의 궤를 뭘 수 없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선택하시어, 그들이 영원히 주님의 궤를 메게 하셨고 당신을 위하여 봉사하게 하셨다."
- 3 다윗은 자기가 마련한 곳에 주님의 궤를 모셔 오려고,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았다.
- 4 다윗이 모이들인 이룬의 자손과 레위인들은 이러하다.
- 5 크핫의 자손으로는 우리엘 수령과 그의 형

- 제 백이십 명,
 6 므라리의 자손으로는 아시아 수령과 그의 형제 이백이십 명,
 7 게르솜의 자손으로는 요엘 수령과 그의 형제 백삼십 명,
 8 엘리차판의 자손으로는 스미야 수령과 그의 형제 이백 명,
 9 헤브론의 자손으로는 엘리엘 수령과 그의 형제 여든 명,
 10 우찌엘의 자손으로는 암미나답 수령과 그의 형제 백십이 명이다.
 11 다윗은 차독 사제와 에브야타르 사제, 레위인들인 우리엘, 아시아, 요엘, 스미야, 엘리엘, 암미나답을 불러,
 12 이렇게 일렀다. "그대들은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니, 형제들과 함께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궤를 내가 마련해 놓은 곳으로 모셔 오시오.
 13 지난번에는 그대들이 그 궤를 베지 않았기 때문에, 주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를 내리치셨소. 우리가 그 궤를 법규대로 다루지 않은 탓이오."
 14 그래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궤를 모셔 오려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였다.
 15 레위의 자손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느님의 궤를 채에 꿰어 어깨에 메었다.
 16 다윗은 레위인 수령들에게 일러, 그들 형제 가운데에서 성가 책임자들을 임명하게 하고, 수금과 비파와 자바라 같은 악기를 연주하여 흥겨운 소리를 드높이게 하였다.
 17 레위인들은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동기 가운데에서 베레크야의 아들 아삽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인 므라리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쿠시아의 아들 에탄을 임명하였다.
 18 그들과 더불어, 두 번째 서열에 속한 형제

- 들로서 즈카르야, 벤, 아야ziel, 스미라못, 여히엘, 운니, 엘리압, 브나야, 마야세야, 마티트야, 엘리플레후, 미크네야, 그리고 문지기들인 오벳 에돔과 여이엘이 임명되었다.
 19 성가 책임자들인 헤만, 아삽, 에탄은 청동 자바라를 치고,
 20 즈카르야, 아ziel, 스미라못, 여히엘, 운니, 엘리압, 마야세야, 브나야는 알라뭇에 맞추어 수금을 뜯었으며,
 21 마티트야, 엘리플레후, 미크네야, 오벳 에돔, 여이엘, 아자즈야는 스미닛에 맞추어 비파를 탔다.
 22 레위인들의 음악 감독 크난야가 음악을 이끌었다. 그가 음악을 잘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23 베레크야와 엘카나는 궤를 지키는 문지기였다.
 24 사제들 가운데 스반야, 요사팻, 느탄엘, 아마사이, 즈카르야, 브나야, 엘리에제르는 하느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나팔수였다. 오벳 에돔과 여히야도 궤를 지키는 문지기였다.

계약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다

- 25 다윗과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천인대장들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주님의 계약 궤를 모셔 오려고, 기뻐하며 그곳으로 갔다.
 26 하느님께서 주님의 계약 궤를 멘 레위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황소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제물로 바쳤다.
 27 다윗과 궤를 멘 모든 레위인과 성가 책임자들과 음악 감독 크난야는 아마포 겹옷을 입고 있었다. 다윗은 또 그 위에 아마포 에פק을 걸쳤다.
 28 온 이스라엘은 합성을 울리고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자바라를 치고 수금과 비파를 타면서 주님의 계약 궤를 모시고 올라

갔다.

- 29 주님의 계약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갈 때, 다윗 임금이 경총경총 뛰며 춤추는 것을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려다보고, 속으로 그를 비웃었다.

16 1 그들은 다윗이 미리 쳐 둔 천막 안에 하느님의 궤를 옮겨 놓았다. 그리고 나서 하느님 앞에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쳤다.

- 2 다윗은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다 바친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였다.
- 3 그는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남너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대추야자 과자와 건포도 과자를 나누어 주었다.
- 4 다윗은 주님의 궤 앞에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기리고 찬송하며 찬양할 봉직자들을 레위인들 가운데서 임명하였다.
- 5 그들의 우두머리는 아삽이고 둘째는 즈카르 아이며, 그다음이 여이엘, 스미라못, 여히엘, 마티ತ್야, 엘리압, 브나야, 오벳 에돔, 여이엘이다. 이들은 수금과 비파를 타고 아삽은 자바라를 울렸다.
- 6 브나야 사제와 아히지엘 사제는 하느님의 계약 궤 앞에서 정해진 때마다 나팔을 불었다.
- 7 그날에 다윗은 처음으로 아삽과 그 형제들을 시켜 주님을 찬송하게 하였다.

감사 찬양

- 8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을 받들어 불러라. 그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려라.
- 9 그분께 노래하여라. 그분께 찬미 노래 불러라. 그 모든 기적을 이야기하여라.
- 10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의 마음은 기뻐하여라.
- 11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여라.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12 그분께서 이루신 기적들을, 그 이적들과 그 입으로 내리신 판결들을 기억하여라.

13 그분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그분께 뽑힌 아삽의 자손들이!

14 그분은 주 우리의 하느님 그분의 판결들이 온 세상에 미친다.

15 그분의 계약을 영원히, 명령하신 말씀을 천대에 이르도록 기억하여라.

16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이며 이사야에게 하신 맹세다.

17 이를 야곱에게 법규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계약으로 세우셨다.

18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 상속의 몫으로 주노라."

19 그들이 수가 몇 안 되는 작은 무리로 그곳에서 나그네 되어

20 이 겨레에게서 저 겨레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닐 때

21 아무도 그들을 억누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임금들을 꾸짖으셨다.

22 "나의 기름부음받은이들을 건드리지 말고 나의 예언자들을 괴롭히지 마라."

23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24 전하여라, 겨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들을.

25 주님은 위대하시고 드높이 찬양받으실 분, 모든 신들 위에 경외로우신 분이시다.

26 민족들의 신들은 모두 헛것이어도 주님께 서는 하늘을 만드셨네.

27 업위와 존귀가 그분 앞에, 권능과 기쁨이 그분 처소에 있네.

28 주님께 드러라, 못 민족의 가문들이. 주님께 드러라, 영광과 권능을.

29 주님께 드러라, 그 이름의 영광을. 제물을 들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거룩한 처림을 하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 30 온 세상이, 그분 앞에서 무서워 떨어라. 정녕 누리는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는다.
- 31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주님은 임금님이시다." 하고 겨레들에게 말하여라.
- 32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치고 들과 거기 있는 것들도 모두 기뻐 뛰어라.
- 33 숲의 나무들도 환호하여라.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그분께서 오신다,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께서 오신다.
- 34 주님을 찬송하여라, 선하신 분이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35 너희는 말하여라. "저희 구원의 하느님, 저희를 구원해 주소서. 민족들에게서 저희를 모아들이시고 구해 주소서. 저희가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당신을 찬양하여 영광으로 삼으리다."
- 36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찬미받으소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러자 온 백성은 "아멘!" 하고 주님을 찬양하였다.

계약 궤와 성막 앞에서 직무를 수행할 사람들

- 37 다윗은 아삽과 그의 형제들이 주님의 계약 궤 앞에 남아, 그 궤 앞에서 그날그날의 직무를 정해진 때마다 수행하게 하였다.
- 38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예순여덟 명도 같은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여두톤의 아들 오벳 에돔과 호서는 문지기였다.
- 39 차독 사제와 그의 형제 사제들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주님의 성막 앞에 남아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 40 그 직무는 번제 제단 위에서 아침저녁으로 정해진 때마다 주님께 번제물을 바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율법에 쓰인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었다.
- 41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톤, 그리고 지명을 받아 뽑힌 나머지 사람들이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하며 주님을 찬송하

- 게 하였다.
- 42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톤은 나팔과 자바라를 비롯하여, 하느님을 찬양하는 악기들을 연주하게 하였다. 그리고 문을 지키는 일은 여두톤의 아들들이 맡았다.
- 43 그러자 온 백성은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안을 축복하려고 궁으로 돌아갔다.

나탄이 하느님의 약속을 다윗에게 알리다

- 17** ¹ 다윗이 자기 궁에 자리 잡았을 때다. 다윗이 나탄 예언자에게 말하였다.
- "보시오, 나는 항백나무 궁에 사는데, 주님의 계약 궤는 천막 아래에 있소."
- 2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무엇이든 마음 내키시는 대로 하십시오."
- 3 그런데 그날 밤, 하느님의 말씀이 나탄에게 내렸다.
- 4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내가 살 집을 짓지 못한다.'
- 5 나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어떤 집에서도 산 적이 없다. 천막에서 천막으로, 성막에서 성막으로 옮겨 다니며 지내 왔다.
- 6 내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옮겨 다니던 그 모든 곳에서, 내 백성을 돌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어느 판관에게, 어찌하여 나에게 항백나무 집을 지어 주지 않느냐고 한마디라도 말한 적이 있느냐?"
- 7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양 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웠다.
- 8 또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의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물리쳤다. 나는 너의 이름을 세상 위인들의 이름처럼

만들어 주겠다.

- 9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곳에 그들을 심어 그들이 제자리에서 살게 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전처럼, 불의한 자들이 그들을 억누르지 않을 것이다.
- 10 곧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판관을 임명하던 때와는 달리, 너의 모든 원수를 굴복시키겠다. 더 나아가 주님이 너에게 한 집안을 일으켜 줄 것을 선언한다.
- 11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에게 가게 되면, 나는 네 아들들 가운데에서 네 뒤를 이을 후손을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 12 바로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사람이다. 나는 그의 왕좌를 영원히 튼튼하게 하겠다.
- 13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일찍이 너보다 앞서 있던 자에게서 내 자애를 거둔 것과는 달리, 그에게서는 내 자애를 거두지 않았다.
- 14 내 집안과 내 나라 안에서 그를 영원히 세우라니, 그의 왕좌는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 15 나탄은 이 모든 말씀과 환시를 다윗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다윗의 감사 기도

- 16 다윗 암금이 주님 앞에 나아가 앉아 이뢰었다. "주 하느님, 제가 누구이기에, 또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 17 하느님, 당신 눈에는 이것도 부족하게 보이셨는지, 당신 종의 집안에 일어날 먼 장래 일까지도 알려 주셨습니까. 주 하느님, 또한 당신께서는 저를 존귀한 사람으로 보아 주셨습니까.

- 18 당신 종에게 베푸신 이 영광에 이 다윗이 무엇을 더 보태겠습니까? 당신께서는 당신 종을 알고 계십니다.
- 19 주님, 주님께서는 당신 종을 위하여 당신 뜻대로 이 위대한 일들을 모두 이루시고, 이 위대한 일들을 모두 알려 주셨습니다.
- 20 그러므로 주님,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저희 귀로 들어온 그대로, 당신 말고는 다른 하느님이 없습니다.
- 21 이 세상 어느 민족이 당신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 건져 내시어 당신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이집트에서 건져 내신 당신 백성 앞에서 다른 민족들을 내쫓으시어, 그 위대하고 두려운 업적으로 당신의 명성을 떨치셨습니다.
- 22 또한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 당신 친히 그들의 하느님이 되셨습니다.
- 23 그러니 이제 주님, 당신 종과 그 집안을 두고 하신 말씀을 영원히 굳건하게 하시고,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 24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영원히 굳건하고 위대하게 되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느님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하느님 이시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당신 종 다윗의 집안도 당신 앞에서 튼튼해질 것입니다.
- 25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당신 종의 귀를 열어 주시며, 당신께서 이 종에게 한 집안을 세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 종은 당신 앞에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 26 이제 주님, 당신은 하느님이십니다. 당신 종에게 이 좋은 일을 알려 주셨으니,
- 27 이제 당신 종의 집안에 가까이 복을 내리시어, 당신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복을 내리신 분은 당신이십니다.

영원히 찬미받으소서."

다윗이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다

- 18** ¹ 그 뒤에 다윗은 필리스티아인들을 쳐서 굴복시키고,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갖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을 빼앗았다.
- ² 그가 또 모압을 치자, 모압은 다윗의 신하가 되어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
- ³ 다윗은 하맛 쪽에 있는 초바 임금 하닷에게 트가 유프라테스 강 가에 자기 세력을 굳히러 갈 때 그를 쳐서,
- ⁴ 병거 천 대와 기병 칠천과 보병 이만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나서 병거 백 대를 끌 말만 남겨 놓고, 나머지 말은 모두 뒷다리 힘줄을 끊어 버렸다.
- ⁵ 다마스쿠스의 아람인들이 초바 임금 하닷에게 제를 도우러 오자, 다윗은 아람인 이만 이천 명을 쳐 죽이고,
- ⁶ 다마스쿠스의 아람인들 가운데에 수비대를 두었다. 그리하여 아람인들도 다윗의 신하가 되어 조공을 바쳤다. 주님께서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도와주셨다.
- ⁷ 다윗은 하닷에게르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 방패들을 거두어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 ⁸ 또한 다윗은 하닷에게르의 성읍 탐합과 쿤에서 매우 많은 청동을 거두었다. 그것으로 나중에 솔로몬이 청동 바다와 기둥들과 청동 기물들을 만들었다.
- ⁹ 하맛 임금 토우는 다윗이 하닷에게르의 군대를 모두 쳐부수었다는 소식을 듣고,
- ¹⁰ 자기 아들 하도람을 다윗 임금에게 보내어 문안하고, 다윗이 하닷에게르와 싸워 그를 쳐부순 것을 축하하였다. 토우는 하닷에게르와 전쟁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하도람과 함께 은갖 금과 은과 청동 기물들을 보내왔다.
- ¹¹ 그래서 다윗 임금은 이것들도 애돔, 모압,

- 암몬의 자손들, 필리스티아인들, 아말렉, 이 모든 민족들에게서 거둔 은과 금과 함께 주님께 바쳤다.
- ¹² 츠루아의 아들 이비사이가 '소금 골짜기'에서 애돔인 만 팔천 명을 쳐 죽였다.
- ¹³ 그가 애돔에 수비대를 두자, 애돔 전체가 다윗의 신하가 되었다. 주님께서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도와주셨다.

다윗의 관료들

- ¹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모든 백성에게 공정과 정의를 베풀었다.
- ¹⁵ 츠루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 지휘관이었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관이었다.
- ¹⁶ 아히툼의 아들 차독과 에브야타르의 아들 이비멜렉은 사제였고 사우시는 서기관이었다.
- ¹⁷ 여호아다의 아들 브나야는 크렛족과 펠렛족을 지휘하였다. 다윗의 아들들은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고관들이었다.

다윗이 암몬과 아람을 쳐부수다

- 19** ¹ 그 뒤에 암몬 자손들의 임금 나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 ² 다윗은 '하늘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자애를 베풀었으니, 나도 그의 아들 하늘에게 자애를 베풀어야겠다.'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사절들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 대한 조의를 표하고자 하였다. 다윗의 신하들이 하늘에게 조의를 표하려고 암몬 자손들의 땅에 들어가자,
- ³ 암몬 자손의 장수들이 하늘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조문 사절들을 보냈다 해서, 임금님께서서는 그가 부왕께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보십니까? 이 땅을 살살이 살피서 뒤엎으려고 그의 신하들이 염탐하러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 4 그래서 하늘은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수염을 깎아 버리고, 예복도 엉덩이 부분까지 절반씩 잘라 낸 뒤에 돌려보냈다.
- 5 그들이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이들에 관하여 다윗에게 보고하였다. 임금은 그들이 심한 모욕을 당하였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그대들의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예리코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시오." 하고 말하였다.
- 6 암몬 자손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것을 알았다. 그래서 하늘과 암몬 자손들은 은 천 탈렌트를 보내어, 이람 나하림과 이람 마이카와 초바에서 병거와 기병들을 고용하였다.
- 7 또 병거 삼만 이천 대, 그리고 마이카 임금과 그의 군대도 고용하였다. 그들은 메드바 앞에 와서 진을 쳤다. 암몬 자손들도 싸우려고 저지 성읍들에서 모여 왔다.
- 8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용사들로 이루어진 부대 전체를 요압과 함께 보냈다.
- 9 그러자 암몬 자손들이 밖으로 나와 성읍 어귀에서 전열을 갖추고, 그들을 도우러 온 임금들도 따로 들관에 전열을 갖추었다.
- 10 요압은 전선이 자신을 상대로 앞뒤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병 가운데에서 일부를 골라 아람인들에게 맞서 전열을 갖추게 하였다.
- 11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동생 아비사이의 손에 맡겨, 암몬 자손들에게 맞서 전열을 갖추게 하였다.
- 12 그런 다음에 요압이 말하였다. "만일 아람인들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도와야 한다. 암몬 자손들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
- 13 용기를 내어라. 우리 백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용기를 내자. 주님께서는 당신 보시기에 좋은 일을 이루실 것이다."
- 14 그러고 나서 요압과 그의 군대가 싸우러

- 아람인들 앞으로 나아가니, 아람인들은 요압 앞에서 도망쳤다.
- 15 아람인들이 도망치는 것을 본 암몬 자손들도 그의 아우 아비사이 앞에서 도망쳐 성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 16 아람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것을 보고 사자들을 보내어, 하닷에게르 군대의 장수 소팍의 지휘 아래 강 건너에 있는 아람인들을 출전시켰다.
- 17 이 소식을 들은 다윗도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여 요르단을 건너가서, 그들을 향하여 전열을 갖추었다. 다윗이 아람인들에게 맞서 전열을 갖추니, 그들이 그와 싸웠다.
- 18 그러다가 아람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쳤다. 다윗은 아람인들의 병거병 칠천 명과 보병 사만 명을 죽이고, 그 군대의 장수 소팍도 죽였다.
- 19 하닷에게르의 신하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것을 보고, 다윗과 화친한 뒤에 다윗을 섬겼다. 그리고 아람인들은 더 이상 암몬 자손들을 도우려 하지 않았다.

다윗이 라뻘을 점령하다

- 20 ¹ 해가 바뀌어 임금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요압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 암몬 자손들의 땅을 짓밟으며 라뻘까지 가서 그곳을 포위하였다. 그때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요압은 마침내 라뻘을 쳐서 무너뜨렸다.
- 2 다윗은 그들 임금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겨 자기 가졌는데, 그 무게를 달아 보니 금한 탈렌트나 되었고 거기에는 값진 보석들이 박혀 있었다. 이제 그것은 다윗의 머리에 얹혀졌다. 다윗은 그 성읍을 털어 아주 많은 전리품을 가져오게 하였다.
- 3 그는 또 그곳의 백성을 데려다가 돌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을 시켰다. 다윗은 암몬 자

손들의 성읍마다 이렇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다윗과 모든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필리스티아 기인과 싸워 이기다

- 4 그 뒤에 게제르에서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움이 일어났다. 그때에 후사 사람 시브카이와 트라임족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인 시파이를 쳐 죽이자, 필리스티아인들이 굴복하였다.
- 5 필리스티아인들과 다시 싸움이 일어났다. 야이르의 아들 엘하난이 갓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쳐 죽였는데, 라흐미의 창대는 베를 용두머리 같았다.
- 6 갓에서도 싸움이 일어났다. 거기에는 거인이 하나 있었는데, 손가락 발가락이 여섯 개씩 스물넷이었다. 그도 트라임의 후손이었다.
- 7 그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욕을 퍼붓자,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 요나탄이 그를 쳐 죽였다.
- 8 갓에 살던 이 트라임의 후손들은 다윗과 그 부하들의 손에 쓰러졌다.

인구 조사와 흑사병

- 21 ¹ 사탄이 이스라엘을 거슬러 일어나,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다윗을 부추겼다.
- 2 그리하여 다윗은 요압과 군대의 장수들에게 말하였다. "자, 브에르 세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여, 그들의 수를 알 수 있도록 나에게 보고하십시오."
- 3 그러나 요압이 아뢰었다.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지금보다 백 배나 불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그들은 모두 임금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임금님께서서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요구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려 하십니까?"
- 4 그러나 임금의 말이 요압을 위압하였다. 그리하여 요압은 물러 나와 온 이스라엘을 돌

- 아다닌 다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 5 요압이 조사한 백성의 수를 다윗에게 보고하였는데, 온 이스라엘에서 칼을 다룰 수 있는 장정이 백십만 명, 유대에서 칼을 다룰 수 있는 장정이 사십칠만 명이었다.
- 6 그러나 요압은 임금의 명령이 역겨워 레위와 벤야민 지파는 그들 가운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 7 이 일이 하느님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다.
- 8 그러자 다윗이 하느님께 말씀드렸다. "제가 이런 일을 하여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 종의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제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 9 주님께서 다윗의 환사가인 가드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 10 "다윗에게 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일러라.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내놓을 터이니, 그 가운데에서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해 주겠다.'"
- 11 가드가 다윗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택하여라.'
- 12 세 해 동안 기근이 드는 것이냐? 아니면 원수들의 칼이 너를 덮쳐 석 달 동안 네가 적들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것이냐? 아니면 사흘 동안 이 나라에 주님의 칼, 곧 흑사병이 퍼져, 주님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온 지역을 파멸시키는 것이냐?' 저를 보내신 분께 무엇이라고 회답해야 할지 지금 결정해 주십시오."
- 13 그러자 다윗이 가드에게 말하였다. "괴롭기 그지없으려. 그러나 주님의 자비가 그지없이 크시니, 사람 손에 당하는 것보다 주님 손에 당하는 것이 낫겠소."
- 14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흑사병을 내리시니, 이스라엘에서 칠만 명이 쓰러졌다.

- 15 하느님께서서는 예루살렘을 파멸시키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그러나 천사가 그곳을 파멸시키려고 할 때, 주님께서서 보시고 계앙을 내리신 것을 후회하시며 파멸의 천사에게 이르셨다. "이제 됐다. 손을 거두어라." 그때에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있었다.
- 16 다윗이 눈을 들어 보니, 주님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뻗치고 있었다. 다윗은 원로들과 함께 자루옷을 입은 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 17 다윗이 하느님께 아뢰었다. "백성의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한 것은 제가 아닙니까? 죄를 짓고 이토록 큰 악을 저지른 자는 바로 저입니다. 그러나 주 저의 하느님, 이 양들이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발 당신 손으로 저와 제 아버지의 집안을 치시고 당신 백성에게서는 이 재난을 거두어 주십시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세우다

- 18 주님의 천사가 가드를 시켜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주님을 위한 제단을 세우야 한다고 말하게 하였다.
- 19 가드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 말에 따라 다윗이 그곳에 올라갔다.
- 20 그때에 밀을 타작하던 오르난이 몸을 돌리다가 천사를 보고서는, 네 아들과 함께 숨었다.
- 21 그러나 다윗이 오르난에게 다가가자, 오르난은 땀을 흘리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였다.
- 22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하였다.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려 하니 타작마당을 나에게 주시오. 충분한 값을 줄 터이니 그것을 나

에게 주시오. 그러면 이 재난이 백성에게서 돌아설 것이요."

- 23 그러자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그냥 가지십시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여기 번제물로 바칠 소와, 땀감으로 쓸 탈곡기와, 곡식 제물로 바칠 밀도 드리겠습니다. 모두 드립니다."
- 24 그러나 다윗 임금은 오르난에게 "아니오. 충분한 돈을 내고 그것을 사야겠소. 나는 주님께 바치려고 당신 것을 차지하지 않겠소. 또 거저 얻은 것을 번제물로 바치지 않겠소." 하고 말하였다.
- 25 다윗은 그 터 값으로 오르난에게 금 육백 세켈을 주었다.
- 26 그러고 나서 다윗은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치며, 주님께 호소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서는 하늘에서 번제 제단 위로 불을 내리시어 그에게 응답하였다.
- 27 그런 다음, 주님께서 천사에게 분부하시어 칼을 칼집에 도로 넣게 하였다.
- 28 그때에 다윗은 주님께서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자기에게 응답하신 것을 보고, 거기에서 제물을 바쳤다.
- 29 그때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주님의 성막과 번제 제단이 기브온에 있었으나,
- 30 다윗은 주님의 천사의 같이 무서워 하느님께 문의하러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다.

22

¹ 그래서 다윗이 말하였다. "이곳이 바로 주 하느님의 집이며 이스라엘의 번제 제단이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다

- 2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불러 모으라고 분부한 다음, 그들을 채석공으

로 임명하여 하느님의 집을 지을 네모난 돌을 떠내게 하였다.

3 다윗은 또 대문쪽에 쓸 못과 꺾쇠를 만들 쇠를 많이 준비하고, 청동은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하였다.

4 향백나무도 수없이 준비하였다. 시돈인들과 티로인들이 다윗에게 향백나무를 많이 가져왔던 것이다.

5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 아들 솔로몬은 나이도 어리고 연약한데, 주님께 지어 바칠 집은 아주 웅장하고 그 명성과 영화를 온 세상에 떨쳐야 하니, 내가 집 지을 준비를 해 두어야 하겠다.'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였다.

6 그런 다음에 그는 아들을 불러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위한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였다.

7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이아, 나는 늘 주 내 하느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었다.

8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너는 사람의 피를 많이 흘리고 큰 전쟁들을 벌였으므로,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짓지 못한다. 너는 내 앞에서 너무 많은 피를 땅에 흘렸다.

9 이제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터인데, 그는 평온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적으로부터 그를 평온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이름이 솔로몬이 될 것이다. 나는 그가 살아 있는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와 안정을 베풀겠다.

10 그가 바로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지을 사람이다.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라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에 그의 왕좌를 영원히 튼튼하게 하겠다.'

11 이제 내 아들이아,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어, 주 너의 하느님께서 너를 두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집을 짓는 일에 성공하기를

바란다.

12 다만 주님께서 너에게 분별력과 슬기를 주시어, 그분께서 너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실 때, 네가 주 너의 하느님의 율법을 지키기를 바란다.

13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두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정과 법규를 명심하여 지키면 성공할 것이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당황하지도 마라.

14 내가 애써 주님의 집을 위하여 금 십만 탈렌트, 은 백만 탈렌트를 준비하고, 청동과 쇠는 너무 많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였다. 또 나무와 돌도 준비하였는데, 여기에 네가 더 보태야 할 것이다.

15 너에게는 많은 일꾼이 있다. 채석공과 석수와 목수, 그 밖에도 갖가지 일에 뛰어난 온갖 장인들이 있다.

16 금과 은, 청동과 쇠도 수없이 많다. 그러니 어서 일을 시작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하실 것이다."

17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대신에게 자기 아들 솔로몬을 도와주라고 명령하였다.

18 "주 그대들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사방으로부터 그대들을 평온하게 해 주지 않으셨소? 그분께서는 과연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어, 이 땅이 주님과 그분의 백성 앞에 굴복하게 되었소

19 그러니 이제 그대들은 마음과 목숨을 바쳐 주 그대들의 하느님을 찾고, 어서 주 하느님의 성소를 지으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짓는 그 집으로 주님의 계약 궤와 하느님의 거룩한 기물들을 옮기시오."

레위인들의 조직

23 ¹ 다윗은 늙고 나이가 다 차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 2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대신과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다.
- 3 레위인으로서 서른 살 이상 되는 사람들을 세어 보니, 전체 장정의 수가 삼만 팔천이었다.
- 4 그 가운데에서 이만 사천 명이 주님의 성전 일을 책임지고, 육천 명은 행정과 재판을,
- 5 사천 명은 문자기 일을, 사천 명은 다윗이 만든 찬양 악기들에 맞추어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책임졌다.
- 6 다윗은 레위의 자손들을 게르손 반과 크핫 반과 므라리 반으로 나누었다.
- 7 게르손 반에는 라단과 시므이가 있었다.
- 8 라단의 아들은 여히엘 우두머리, 제탐, 요엘, 이렇게 셋이다.
- 9 시므이의 아들은 슬로못, 하지엘, 하란, 이렇게 셋인데, 이들이 라단 가문의 우두머리였다.
- 10 시므이의 아들은 야핫, 지자, 여우츠, 브리아로서, 이들이 시므이의 네 아들이다.
- 11 야핫이 우두머리고 지자가 둘째였다. 그런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않아서 함께 한집안으로 등록되었다.
- 12 크핫의 아들은 아므람, 이즈하르, 헤브론, 우찌엘, 이렇게 넷이다.
- 13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이다. 아론은 성별되어, 영원히 그와 그의 자손들이 가장 거룩한 것을 봉헌하고 주님 앞에서 향을 피우며, 영원히 그분의 시중을 들고 그분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일을 맡았다.
- 14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의 명단에 올랐다.
- 15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제르이다.
- 16 게르솜 자손들의 우두머리는 스부엘이고,
- 17 엘리에제르 자손들의 우두머리는 르하브야였다. 엘리에제르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었지만 르하브야에게는 아들이 아주 많았다.
- 18 이즈하르 자손들의 우두머리는 슬로밋이었다.
- 19 헤브론 자손들의 우두머리는 여리야, 둘째는 아마랴, 셋째는 아히ziel, 넷째는 여카므암이었다.
- 20 우찌엘 자손들의 우두머리는 미카이고 둘째는 이찌야였다.
- 21 므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이고, 마흘리의 아들은 엘야자르와 키스이다.
- 22 엘야자르는 아들 없이 딸들만 두고 죽었다. 그래서 그들의 일족 키스의 아들들이 그에게 장가들었다.
- 23 무시의 아들은 마흘리, 에데르, 여레못, 이렇게 셋이다.
- 24 이들이 집안과 집안의 우두머리별로 본 레위의 자손들이다. 그들은 모두 그 수대로 이름이 등록된 스무 살 이상의 사람들로, 주님 집의 일을 맡아 하였다.
- 25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평온하게 해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계시길 것이다.
- 26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더 이상 성막과 거기에 쓰는 모든 기물을 나를 필요가 없다."
- 27 다윗의 이 마지막 말에 따라 이렇게 스무 살 이상 되는 레위인들의 수가 헤아려졌다.
- 28 그들의 임무는 아론의 자손들을 도와, 주님의 집 안팎 뜰과 방들을 보살피고 거룩한 것을 모두 깨끗이 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를 돌보는 것이었다.
- 29 또 제사상에 차려 놓는 빵, 곡식 제물로 바치는 밀가루, 누룩 없는 과자, 구운 예물과 반죽한 예물을 마련하고, 양과 크기를 채는 모든 일도 맡았다.
- 30 그리고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서서 주님께 찬송과 찬양을 드리고 저녁에도 그렇게 하였다.
- 31 또한 안식일과 초하룻날과 축일에 주님께 번제물을 바칠 적마다, 법규에 따라 정해

진 때에 주님 앞에 바치는 일을 맡았다.

- 32 그들은 이렇게 만남의 천막과 성소를 보살 피는 임무를 맡았으며, 자기들의 형제인 아론의 자손들을 도와 주님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를 돌보는 임무도 맡았다.

사제단 조직

- 24** 1 아론 자손들의 조는 이러하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 아비후, 엘아자르, 이타마르이다.
- 2 나답과 아비후는 아들을 남기지 않고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래서 엘아자르와 이타마르만 사제가 되었다.
- 3 다윗은 엘아자르의 자손 차독과 이타마르의 자손 아히멜렉과 함께 사제들을 나누어 등록시키고 봉직하게 하였다.
- 4 그런데 우두머리가 될 만한 장정들은 이타마르의 자손들보다 엘아자르의 자손들 가운데 더 많았다. 그래서 엘아자르의 자손들은 열여섯 집안의 우두머리들에 따라, 이타마르의 자손들은 여덟 집안의 우두머리들에 따라 나누었다.
- 5 엘아자르의 자손들과 이타마르의 자손들 가운데에는 성소의 일을 맡은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 그 자손들을 똑같이 나누었다.
- 6 레위인 느탄엘의 아들 스미야 서기관이 임금과 대신들과 차독 사제, 에브야타르의 아들 아히멜렉, 그리고 사제 가문과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들 앞에서, 이타마르 자손들의 집안 하나를 뽑을 때마다 엘아자르 자손들의 집안 둘을 뽑아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 7 첫 번째 제비는 여호아립에게 뽑혔다. 두 번째는 여디아에게,
- 8 세 번째는 하림에게, 네 번째는 스오람에게,
- 9 다섯 번째는 말기야에게, 여섯 번째는 미아

- 민에게,
- 10 일곱 번째는 코츠에게, 여덟 번째는 이비야에게,
- 11 아홉 번째는 예수아에게, 열 번째는 스칸야에게,
- 12 열한 번째는 엘아십에게, 열두 번째는 아킴에게,
- 13 열세 번째는 후파에게, 열네 번째는 에세브압에게,
- 14 열다섯 번째는 빌가에게, 열여섯 번째는 임메르에게,
- 15 열일곱 번째는 헤지르에게, 열여덟 번째는 피체츠에게,
- 16 열아홉 번째는 프타흐야에게, 스무 번째는 에체키엘에게,
- 17 스물한 번째는 아킨에게, 스물두 번째는 가물에게,
- 18 스물세 번째는 들라야에게, 스물네 번째는 미아즈야에게 뽑혔다.
- 19 그들은 이렇게 등록되어, 주님의 집에 들어가 그들의 조상 아론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세운 법규에 따라 봉직하였다.

나머지 레위인들의 조직

- 20 나머지 레위의 자손들. 아브람의 자손 수바엘과 수비엘의 자손 에흐드야,
- 21 르하브야 가문에서 르하브야의 자손 이찌야 우두머리,
- 22 이츠하르 가문에서 슬로못, 슬로못 자손 야핫,
- 23 헤브론의 자손 여리야, 들째 아마르야, 셋째 야하지엘, 넷째 여카브암,
- 24 우찌엘의 자손 미카, 미카의 자손 사미르,
- 25 미카의 아우 이찌야, 이찌야의 자손 즈카르야,
- 26 므라리의 자손 마홀리와 무시, 야마지아의 자손 브노,

- 27 프라리의 자손으로 야이지야 가문에서 브노, 소함, 자쿠르, 이브리,
 28 마흘리 가문에서 아들이 없는 엘야자르,
 29 키스 가문에서 키스의 자손 여라흐므엘,
 30 무사의 자손 마흘리, 에데르, 여러못. 이상이 집안별로 본 레위의 자손들이다.
 31 이들도 자기 형제들인 아론의 자손들과 마찬가지로 다윗 임금과 차독과 아히멜렉, 사제 가문과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들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가문의 우두머리나 가장 어린 형제나 마찬가지로 제비를 뽑았다.

성전의 성대

- 25** 1 다윗과 예배 책임자들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톤의 자손들을 뽑아, 그들에게 비파와 수금과 자바라를 연주하며 예언하는 일을 맡겼다.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의 수는 이러하다.
 2 아삽의 아들은 자쿠르, 요셉, 느탄야, 아사르엘리아다. 이 아삽의 아들들은 임금의 지시에 따라 예언하는 아삽의 지휘 아래에 있었다.
 3 여두톤의 가문에서는 여두톤의 아들들인 그달야, 츠리, 여사야, 시므이, 하사브야, 마티트야, 이렇게 여섯이다. 이들은 비파에 맞추어 주님께 찬송과 찬양을 드리며 예언하는 아버지 여두톤의 지휘 아래에 있었다.
 4 헤만 가문에서는 헤만의 아들들인 부기야, 마탄야, 우찌엘, 스부엘, 여러못, 하난야, 하나니, 엘리아타, 기말티, 로맘티 에제르, 요스브카사, 말로티, 호티르, 마하지웃이다.
 5 이들이 모두 임금의 환사가 헤만의 아들들이다. 하느님께서서는 헤만을 높여 주시겠다는 당신의 말씀대로, 그에게 아들 열넷과 딸 셋을 주셨다.
 6 이들은 모두 임금과 아삽과 여두톤과 헤만의 지휘 아래 하느님의 집에서 거행되는 예배 때에,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자바라와 수

- 금과 비파를 연주하며 주님의 집에서 노래를 불렀다.
 7 이들과 그 형제들은 교육을 받아 주님께 노래하는 일에 숙달된 이들로서 그 수는 이백 팔십팔 명이었다.
 8 그들은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스승이나 제자나 마찬가지로 제비를 뽑아 임무를 맡았다.
 9 첫 번째 제비는 아삽 가문의 요셉에게 뽑혔다. 두 번째는 그달야와 그의 형제와 아들, 열두 명에게
 10 세 번째는 자쿠르와 그의 아들과 형제, 열두 명에게
 11 네 번째는 이츠리와 그의 아들과 형제, 열두 명에게
 12 다섯 번째는 느탄야와 그의 아들과 형제, 열두 명에게
 13 여섯 번째는 부기야와 그의 아들과 형제, 열두 명에게
 14 일곱 번째는 여사르엘리아와 그의 아들과 형제, 열두 명에게
 15 여덟 번째는 여사야와 그의 아들과 형제, 열두 명에게
 16 아홉 번째는 마탄야와 그의 아들과 형제, 열두 명에게
 17 열 번째는 시므이와 그의 아들과 형제, 열두 명에게
 18 열한 번째는 아사르엘과 그의 아들과 형제, 열두 명에게
 19 열두 번째는 하사브야와 그의 아들과 형제, 열두 명에게
 20 열세 번째는 수비엘과 그의 아들과 형제, 열두 명에게
 21 열네 번째는 마티트야와 그의 아들과 형제, 열두 명에게
 22 열다섯 번째는 여러못과 그의 아들과 형제, 열두 명에게
 23 열여섯 번째는 하난야와 그의 아들과 형제,

- 열두 명에게
- 24 열일곱 번째는 요스브카시와 그의 아들과 형제, 열두 명에게
- 25 열여덟 번째는 하나니와 그의 아들과 형제, 열두 명에게
- 26 열아홉 번째는 말로티와 그의 아들과 형제, 열두 명에게
- 27 스무 번째는 엘리아타와 그의 아들과 형제, 열두 명에게
- 28 스물한 번째는 호티르와 그의 아들과 형제, 열두 명에게
- 29 스물두 번째는 기팔티와 그의 아들과 형제, 열두 명에게
- 30 스물세 번째는 마하지웃과 그의 아들과 형제, 열두 명에게
- 31 스물네 번째는 로맘티 에제르와 그의 아들과 형제, 열두 명에게 뽑혔다.

성전 문지기

- 26** 1 문지기의 조는 이러하다. 코라 가문에서는 아삽의 자손인 코페의 아들 므셀레므야,
- 2 그의 아들로 맏아들 즈카르야, 둘째 여디아엘, 셋째 즈바드야, 넷째 야트니엘,
- 3 다섯째 엘람, 여섯째 여호한, 일곱째 엘여호나이다.
- 4 오벳 에돔의 아들은 맏아들 스마야, 둘째 여호자밧, 셋째 요아, 넷째 사카르, 다섯째 느탄엘,
- 5 여섯째 암미엘, 일곱째 이사카르, 여덟째 프울르티이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다.
- 6 그의 아들 스마야에게도 아들들이 태어났다. 그들은 유능한 용사였으므로 각 집안을 거느리게 되었다.
- 7 스마야의 아들은 오트니, 르파엘, 오벳, 엘자밧이다. 그리고 엘자밧의 동기 엘리후와 스마크야는 유능한 인물들이었다.

- 8 이들이 모두 오벳 에돔의 자손이다. 그들과 그 아들과 형제들은 맡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오벳 에돔 집안에 딸린 사람은 모두 예수두 명이다.
- 9 므셀레므야의 아들과 형제들도 유능한 인물로서, 모두 열여덟 명이다.
- 10 므라리의 자손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었다. 우두머리인 시므리는 맏아들이 아니었으나, 아버지가 우두머리로 삼았다.
- 11 둘째는 힐기야, 셋째는 트발야, 넷째는 즈카르야이다. 호사의 아들과 형제는 모두 열여섯 명이다.
- 12 장정들을 거느린 우두머리에 따라 이렇게 나뉜 문지기들의 조가, 그들의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집에서 봉직하는 일을 맡았다.
- 13 그들은 집안이 작든 크든 제비를 뽑아 각 문을 맡았다.
- 14 동쪽 문의 제비는 셀레므야에게 뽑혔다. 그의 아들 즈카르야는 현명한 고문이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니 북쪽 문이 나왔다.
- 15 오벳 에돔에게는 남쪽 문이, 그의 아들들에게는 공간이 나왔다.
- 16 수빔과 호사에게는 서쪽 문과 함께 오르막길가에 있는 살렛켓 문이 나왔다. 모든 경비는 언제되어 이루어졌다.
- 17 레위인들이 동쪽 문에 여섯, 북쪽 문에 날마다 넷, 남쪽 문에 날마다 넷, 공간에 둘씩 배치되었다.
- 18 또 서쪽 파르바르의 경비의 길에 넷, 파르바르 안에 둘이 배치되었다.
- 19 이들이 코라 자손과 므라리 자손의 문지기 조다.

성전 창고 관리인과 일반 행정관

- 20 레위인들 가운데 다른 형제들은 하느님의 집 창고와 성물 창고를 맡았다.

- 21 라단의 자손, 곧 라단에게 딸린 게르손인들의 자손이며, 라단 가문의 우두머리들인 게르손 사람 여히엘리,
- 22 여히엘리의 아들 제탐, 그의 아우 요엘이 주님의 집 창고를 맡았다.
- 23 아므람, 이츠하르, 헤브론, 우찌엘 가문에 사는,
- 24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스부엘이 창고의 총관리인이 되었다.
- 25 엘리에제르 계보에 따른 스부엘의 형제들은 엘리에제르의 아들 르하브야, 르하브야의 아들 여사야, 여사야의 아들 요람, 요람의 아들 지크리, 지크리의 아들 슬로밋이다.
- 26 이 슬로밋이 형제들과 함께, 다윗 임금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 그리고 천인대장과 백인대장 등 군대의 장수들이 성별하여 바친 성물을 보관하는 모든 창고를 맡았다.
- 27 그들은 주님의 집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쟁에서 가져온 전리품 일부를 성별하여 바쳤다.
- 28 사무엘 선견자, 키스의 아들 사울,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 츠루아의 아들 요압이 성별하여 바친 것도 모두 슬로밋과 그 형제들이 관리하였다.
- 29 이츠하르 가문에서는 크냐아가 아들들과 함께 관리이자 판관으로서 이스라엘의 일 반 행정을 맡았다.
- 30 헤브론 가문에서는 하사브와와 그의 유능한 형제, 천칠백 명이 요르단 서쪽의 이스라엘을 관리하며, 주님의 모든 일과 임금을 섬기는 일을 맡아 하였다.
- 31 헤브론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리아였다. 또 다윗의 통치 제사십년에 헤브론의 족보와 가문을 조사하다가 길앗 아제르에 용사들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 32 여리아의 형제들 가운데에는 유능한 인물 이천칠백 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가문들의

우두머리였다. 다윗 임금은 그들을 르우벤인과 가드인과 므낫세 반쪽 지파의 관리자로 세워 하느님의 모든 일과 임금의 일을 맡아 하게 하였다.

군대 조직

- 27 ¹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자기 조에 맡겨진 모든 일을 하며 임금을 섬기던, 각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인대장과 백인대장과 관리의 수는 이러하다. 그들은 한 해에 한 달씩 번을 들며 맡은 일을 하였는데, 한 조는 이만 사천 명이였다.
- 2 첫째 달에 복무하는 첫째 조는 잡디엘의 아들 야소브암이 지휘하였다. 그의 조는 이만 사천 명이였다.
- 3 그는 페레츠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에 복무하는 모든 군대 장수의 우두머리였다.
- 4 둘째 달에 복무하는 조는 아호아 사람 도다가 지휘하였고 그 조의 대표는 미를롯이였다. 그의 조도 이만 사천 명이였다.
- 5 셋째 달에 복무하는 셋째 군대의 장수는 여호야다 수석 사제의 아들이자 우두머리인 브나야였다. 그의 조도 이만 사천 명이였다.
- 6 브나야는 삼십 인 용사 가운데 하나로서 삼십 인 부대를 지휘하였다. 그의 아들 암미자밧도 그의 조에 속하였다.
- 7 넷째 달에 복무하는 넷째 조의 장수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었는데, 그의 아들 즈바드야가 그 뒤를 이었다. 그의 조도 이만 사천 명이였다.
- 8 다섯째 달에 복무하는 다섯째 조의 장수는 제라 사람 삼훗이였다. 그의 조도 이만 사천 명이였다.
- 9 여섯째 달에 복무하는 여섯째 조의 장수는 트코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였다. 그의 조도 이만 사천 명이였다.
- 10 일곱째 달에 복무하는 일곱째 조의 장수는 에프라임의 자손인 플론 사람 헬레즈였다.

그의 조도 이만 사천 명이였다.

- 11 여덟째 달에 복무하는 여덟째 조의 장수는 제라 가문의 후사 사람 시브카이였다. 그의 조도 이만 사천 명이였다.
- 12 아홉째 달에 복무하는 아홉째 조의 장수는 벤아민 가문의 아나툿 사람 아비에제르였다. 그의 조도 이만 사천 명이였다.
- 13 열째 달에 복무하는 열째 조의 장수는 제라 가문의 느토와 사람 마하리야였다. 그의 조도 이만 사천 명이였다.
- 14 열한째 달에 복무하는 열한째 조의 장수는 에프라임의 자손인 피르야톤 사람 브나야였다. 그의 조도 이만 사천 명이였다.
- 15 열두째 달에 복무하는 열두째 조의 장수는 오토나엘 가문의 느토와 사람 헬다이였다. 그의 조도 이만 사천 명이였다.

각 지파의 영도자

- 16 이스라엘 각 지파를 이끌던 사람들은 이러하다. 르우벤 지파의 영도자는 지크리의 아들 엘라에제르, 시메온 지파는 마야카의 아들 스푸트야,
- 17 레위 지파는 크무엘의 아들 하사브야, 아론 지파는 차독,
- 18 유다 지파는 다윗의 형 엘리후, 이사카르 지파는 미카엘의 아들 오프리,
- 19 즈블론 지파는 오바드야의 아들 이스마야, 납탈리 지파는 아즈리엘의 아들 여리못,
- 20 에프라임 지파는 아자즈야의 아들 호세야, 므나세 반쪽 지파는 프다야의 아들 요엘,
- 21 길앗에 있는 므나세의 다른 반쪽 지파는 즈카랴의 아들 이도, 벤아민 지파는 아브네르의 아들 아야시엘,
- 22 단 지파는 여로함의 아들 아자르엘이 영도자였다. 이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였다.
- 23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므로, 다윗은 스무

살 이하는 수를 세지 않았다.

- 24 츠루아의 아들 요압은 인구 조사를 시작해 놓고는 끝내지 못하였다. 이 인구 조사 때 문에 이스라엘 위로 진노가 내렸던 것이다. 그래서 인구수는 다윗 임금의 실록에 오르지 못하였다.

다윗 왕실의 재산 관리인

- 25 임금의 창고는 아디엘의 아들 아즈마웨이, 들녘과 성읍, 마을과 탑에 있는 창고들은 우찌야의 아들 요나탄이 관리하였다.
- 26 땅을 갈며 밭에서 일하는 이들은 클롬의 아들 에즈리가 관리하였다.
- 27 포도밭은 라마 사람 시므이가, 포도밭의 포도주 창고는 스펜 사람 잡다가 관리하였다.
- 28 평원 지대에 있는 올리브 나무와 돌무화과 나무는 게데르 사람 바알 하난이, 기름 창고는 요아스가 관리하였다.
- 29 사론에서 기르는 소 때는 사론 사람 시트라이가, 골짜기에 있는 소 때는 아들라이의 아들 사팻이 관리하였다.
- 30 낙타는 이스마엘 사람 오빌이, 나귀는 메로눓 사람 예호드야가 관리하였다.
- 31 양 때는 하가르 사람 아지즈가 관리하였다. 이들이 모두 다윗 왕실의 재산 관리인이었다.

다윗의 측근

- 32 다윗의 삼촌 요나탄은 슬기로운 고문이자 서기관이었고, 헤르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을 돌보았다.
- 33 아히토펬은 임금의 고문이고, 에렉 사람 후사이는 임금의 벗이었다.
- 34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는 에브야타르와 함께 아히토펬의 뒤를 이었다. 요압은 임금의 군대 장수였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당부하다

- 1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 곧 각 지파

28 의 지도자, 임금을 섬기는 각 조의 장수, 천인대장들과 백인대장들, 임금의 모든 재산과 가축을 돌보는 관리인들, 왕자들과 함께 내시들과 용사들, 그리고 그 밖의 모든 힘센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불러 들였다.

2 그런 다음에 다윗 임금은 일어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형제와 백성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시오. 나는 주님의 계약 껍, 곧 우리 하느님의 발판을 모실 집을 짓겠다는 마음을 품고 건축 준비를 해 왔소.

3 그러나 하느님께서 나에게 '너는 전사였고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짓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셨소.

4 그러나 이미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내 아버지의 온 집안에서 나를 선택하시어, 영원히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게 하셨소. 주님께서 유다를 영도자로 뽑으신 다음, 유다 집안에서 내 아버지의 집안을, 내 아버지의 아들들 가운데에서는 나를 좋아하시어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신 것이오.

5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많은 아들을 주셨는데, 그 모든 아들 가운데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선택하시어, 주님 나라의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소.

6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 아들 솔로몬이 나의 집을 짓고 나의 딸을 만들 것이다. 내가 장님 그를 선택하여 내 아들로 삼겠다.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

7 그가 지금처럼 나의 계명과 법규를 굳게 지키면,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튼튼하게 해주겠다.'

8 이제 여러분은 온 이스라엘, 곧 주님의 회중이 보고 우리 하느님께서 들으시는 가운데, 주 여러분의 하느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탐구하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다음 자손들에게 영원히 상속할 수 있을 것이오."

9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느님을 바로 알고, 한결같은 마음과 기꺼운 마음으로 그분을 섬겨라. 주님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께서 너를 만나 주시고, 내가 그분을 버리면 너를 영영 저버리실 것이다.

10 자, 보아라. 주님께서 이제 성소로 쓰일 집을 지으라고 너를 선택하셨다. 힘을 내어 일을 해 나가라."

11 그러고 나서 다윗은 현관과 거기에 이어지는 건물과 창고와 옥상 방과 인쪽 방들과 속죄소의 모형틀을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

12 그 밖에 마음에 떠오른 모든 것의 모형틀 주었다. 그 모형틀은 주님의 집 뜰과 들레의 모든 방, 하느님의 집 창고와 성물 창고에 관한 것이었다.

13 또 사제와 레위인들의 조, 주님의 집에서 예배드리게 모든 일, 주님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에 쓸 모든 기물에 관해서도 알려 주었다.

14 또 각 예배에 쓸 온갖 금 기물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금의 무게와, 각 예배에 쓸 온갖 은 기물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은의 무게,

15 금 등잔대들과 금 등잔들의 무게, 각 등잔대와 그 등잔들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금의 무게, 그리고 은 등잔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등잔대들과 등잔들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은의 무게를, 각 등잔대의 용도에 따라 알려 주었다.

16 빵을 차려 놓는 제사상들도 그 하나하나를 만드는 데에 필요한 금의 무게와, 은 제사상들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은의 무게를 알려 주었다.

17 또 갈고리와 쟁반과 잔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순금에 대해서도 알려 주고, 금 대접들도 각 대접의 무게대로, 은 대접들도 각

대집의 무게대로 알려 주었다.

- 18 그리고 분향 제단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정련된 금의 무게를 알려 주고, 날개를 펴서 주님의 계약 껍을 덮을 금 컵들의 수를 모형을 주었다.
- 19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손으로 쓰여진 기록에 들어 있다. 그분께서는 나에게 이 모형의 온갖 세부 사항을 분명히 알려 주었다."
- 20 그리고 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힘과 용기를 내어 일을 해 나가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당황하지도 마라. 주 하느님이신 나의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주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 21 더구나 하느님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에 관한 모든 일을 하려고 사제들과 레위인들의 각 조가 대기하고 있다. 또 무슨 일을 하건 온갖 일에 숨겨 좋은 지원자들이 모두 너를 기꺼이 도울 것이며, 지도자들과 온 백성이 너의 말대로 할 것이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예물

- 29** ¹ 다윗 임금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신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한데, 이 일은 너무 크오. 이 성전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 하느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오.
- 2 나는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내 하느님의 집을 지을 준비를 하였소. 금 기물을 만들 금과 은 기물을 만들 은과 청동 기물을 만들 청동, 철 기물을 만들 철과 목재 기물을 만들 목재, 그리고 마노 보석과 보석을 박을 틀과 석류석과 색깔의 돌, 그 밖의 온갖 보석과 대리석을 넉넉히 준비하였소.
 - 3 더구나 나는 내 하느님의 집을 향한 애정 때문에, 거룩한 집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보다가, 내가 재산으로 가진 금과 은

- 도 내 하느님의 집을 위하여 내놓았소.
- 4 오피르에서 들어온 금 삼천 탈렌트, 이 집의 벽을 입힐 정련된 은 칠천 탈렌트요.
- 5 그리하여 그것들이 금 기물을 만들 금과 은 기물을 만들 은으로, 그리고 장인들의 손으로 만드는 모든 일에 쓰이게 하였소. 오늘 누가 주님께 기꺼이 예물을 바치겠소?"
- 6 그러자 각 기물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 천인대장들과 백인대장들, 왕실 업무 관리인들이 예물을 바쳤다.
- 7 그들은 하느님의 집을 짓는 일에 쓰라고 금 오천 탈렌트, 금화 만 다릭, 은 만 탈렌트, 청동 만 팔천 탈렌트, 철 십만 탈렌트를 바쳤다.
- 8 보석이 있는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이 관리하는 주님의 집 창고에 가져다 바쳤다.
- 9 이렇게 그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바쳤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백성은 기뻐하였다. 다윗 임금도 크게 기뻐하였다.

다윗이 주님을 찬미하다

- 10 다윗은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 주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저희 조상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미받으소서.
- 11 주님, 위대함과 권능과 영화와 영예와 위엄이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정녕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고, 나라도 당신의 것입니다. 또한 당신께서는 으뜸으로서 만물 위에 드높으십니다.
- 12 부와 영광이 당신에게서 나옵니다. 당신께서는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당신의 손에 힘과 권능이 있으니, 바로 당신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위대함과 능력을 얻습니다.
- 13 저희의 하느님, 저희는 지금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 14 제가 무엇이며 제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 같은 예물을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은 당신에게서 오기에, 저희가 당신 손에서 받아 당신께 바쳤을 따름입니다.

- 15 당신 앞에서 저희는 저희의 모든 조상처럼 이방인이고 거류민입니다. 저희의 나날은 이 땅 위에서 그림자와 같고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 16 주 저희 하느님,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한 집을 지어 드리려고 저희가 준비한 이 많은 것은 다 당신 손에서 받은 것으로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 17 저의 하느님, 저는 당신께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정직함을 좋아하시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예물을 바쳤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당신 백성도 당신께 예물을 바치는 것을 보니 기뻐합니다.
- 18 저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 당신 백성이 마음에 품은 이 같은 생각을 그들이 언제까지나 지나게 해 주시고, 당신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해 주십시오.
- 19 제 아들 솔로몬에게 한결같은 마음을 주시어, 그가 당신의 계명과 법령과 규정을 지키며 그 모든 것을 실천하고, 제가 준비한 성전을 짓게 해 주십시오."
- 20 그리고 나서 다윗은 온 회중에게 "주 여러분의 하느님을 찬미하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온 회중이 자기 조상들의 하느님이신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과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다.

솔로몬을 임금으로 세우다

- 21 그다음 날 그들은 주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주님께 번제물을 바쳤다. 수소 천 마리와 숫양 천 마리와 어린 양 천 마리와 제주를 바치고, 또 수많은 희생 제물을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친 것이다.
- 22 그날에 그들은 주님 앞에서 크게 기뻐하며

먹고 마셨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임금으로 세웠다. 그들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께 속한 영도자로 세우고, 차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사제로 세웠다.

- 23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주님의 어좌에 올라 임금이 되었다. 그가 하는 일은 다 잘되었고 온 이스라엘은 그의 말을 들었다.
- 24 모든 지도자와 용사와 다윗 임금의 다른 모든 아들도 솔로몬 임금에게 복종을 서약하였다.
- 25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가운데 솔로몬을 높이시고, 그 앞의 어떤 이스라엘 임금도 지나지 못한 왕권의 위엄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

다윗 통치의 요약

- 26 이사이의 아들 다윗은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 27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마흔 해이다. 그는 헤브론에서 일곱 해, 예루살렘에서 서른세 해를 다스렸다.
- 28 그가 부와 영광을 누리며 장수하여 나이를 다 채우고 죽으니,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 29 다윗 임금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무엘 선견자의 기록과 나탄 예언자의 기록과 가드 환시가의 기록에 쓰여 있는데,
- 30 거기에는 그의 모든 통치와 무용, 그리고 그와 이스라엘과 세상의 모든 나라가 겪은 사건들도 실려 있다.

구약성경 - 14

역사서 - 9

역대기 하

총 36 장

총 822 절

[구약성경]-[역대기 하]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다

- 1** ¹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자기 왕위를 툇튼히 하였다.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크게 높여 주셨다.
- 2**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을 불렀다. 천인대장들과 백인대장들과 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불렀다.
- 3**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갔다. 그곳에는 주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하나님의 만납의 천막이 있었다.
- 4** 그러나 하나님의 궤는 다윗이 키르얏 여아림에서 가져다가, 예루살렘에 천막을 치고 준비한 곳으로 올려다 모셨다.
- 5** 후르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브살렘이 만든 청동 제단은 주님의 성막 앞에 있었다. 솔로몬은 회중과 함께 그곳에서 주님께 문의하였다.
- 6** 솔로몬은 그곳 주님 앞, 곧 만납의 천막 앞에 있는 청동 제단으로 올라가 그 위에서 번제물 천 마리를 바쳤다.
- 7**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다.
- 8**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하였다. "당신께서는 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자애를 베푸시고, 그 뒤를 이어 저를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 9** 주 하나님, 당신께서 저를 땅의 먼지처럼 많은 백성의 임금으로 세우셨으니, 이제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 10** 이제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어, 이 백성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누가 이렇게 큰 당신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 11**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대 마음을 품고 부와 재물과 영광을 청하지도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내가 너를 임금으로 세워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청하였으니,
- 12**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겠다. 거기에도 또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너와 같은 임금은 네 앞에도 없었고, 네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 13**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을 떠나, 곧 만납의 천막 앞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의 부귀영화

- 14** 솔로몬이 병거와 군마를 사 모았다. 그리하여 그는 병거 천사백 대, 군마 만 이천 마리를 거느리게 되었다. 그는 그것들을 병거대 주둔 성과 임금 가까이 예루살렘에 배치하였다.
- 15** 임금 덕분에 예루살렘에서는 은과 금이 돌처럼 흔해졌고, 향백나무는 평원 지대의 들무화과나무만큼이나 많아졌다.
- 16** 솔로몬의 말들은 이집트와 크웨에서 들어왔는데, 임금의 무역상들이 크웨에서 시세대로 사들였다.
- 17** 병거는 한 대에 은 육백 세켈, 말은 한 마리에 은 백오십 세켈을 주고 이집트에서 들어왔다가, 임금의 무역상들을 통하여 히타이트의 모든 임금과 아람 임금들에게 되팔았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다

- 18** 솔로몬은 주님의 이름을 위한 집과 자기 왕궁을 짓기로 작정하였다.

- 2** ¹ 그는 집꾼 칠만 명, 산에서 돌을 떠내는 사람 팔만 명, 그들을 감독할 사람 삼천육백 명을 징발하였다.

- 2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티로 임금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청하였다. "내 아버지께서 사실 집을 지으실 때에 임금님께서 향백나무를 보내 주셨습니다.
- 3 이제 나는 주 내 하느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지어 주님께 봉헌하고자 합니다. 그곳에 계신 그분 앞에서 향기로운 향을 피우고 늘 두 줄로 빵을 차려 바치며, 아침과 저녁, 안식일과 초하룻날, 주 우리 하느님의 축일마다 번제물을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영원히 지켜야 할 일입니다.
- 4 우리 하느님께서서는 어떤 신보다 크신 분이시므로, 내가 지을 하느님의 집도 커야 합니다.
- 5 저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도 그분을 모실 수 없는데, 누가 그분께 집을 지어 드릴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 내가 무엇이기에 그분께 집을 지어 드릴 수 있었습니까? 다만 그분 앞에 향이나 피워 올리려는 것뿐입니다.
- 6 그러니 임금님께서서는, 금은과 청동과 철을 다루고, 자홍과 다홍과 자주 색 천을 짜며, 조각도 할 줄 아는 기술자를 한 사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나의 기술자들을 데리고 일할 것입니다. 그들은 내 아버지 다윗께서 준비해 놓으신 아들입니다.
- 7 또 레바논에서 나는 향백나무와 방백나무와 자단나무도 보내 주십시오. 나는 임금님의 종들이 레바논에서 나무를 잘 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임금님의 그 종들과 함께 내 종들이,
- 8 나무를 많이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으려는 하느님의 집은 크고 웅장합니다.
- 9 임금님의 종들, 곧 나무를 베는 벌목꾼들에게는 빵은 밀 이만 코르와 보리 이만 코르, 포도주 이만 바트 기름 이만 바트를 주겠습니다."
- 10 그러자 티로 임금 히람은 솔로몬에게 편지

를 보내어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앉히셨습니다."

- 11 히람은 또 이렇게 썼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서는 찬미받으소서. 그분께서는 다윗 임금에게 슬기와 분별력을 갖춘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어, 주님을 위한 집과 자기 왕국을 위한 궁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 12 이제 내가 분별력을 갖춘 기술자 후람 아바를 보냅니다.
- 13 그는 단 출신 여자의 아들이로서, 아버지는 티로 사람입니다. 그는 금은과 청동과 철과 돌과 나무를 다루고, 자홍과 자주 색 천과 아마포와 다홍색 천을 짜며, 온갖 종류의 조각을 할 줄 압니다. 그는 임금님의 기술자들과 나의 주군이신 임금님의 아버지 다윗의 기술자들을 데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온갖 계획을 실천할 것입니다.
- 14 이제 임금님께서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들에게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15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께서 필요하신 만큼 레바논에서 나무를 베어 뗏목으로 엮어서 바다로 아포까지 가져가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임금님께서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올려 가십시오."
- 16 솔로몬은 전에 자기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의 인구를 조사한 것에 이어서, 다시 그들의 인구를 조사하였다. 그랬더니 그 수가 십오만 삼천육백 명이었다.
- 17 그들 가운데 칠만 명은 짐꾼으로 뽑고 팔만 명은 산에서 돌을 떼내게 하였다. 그리고 삼천육백 명은 그 일꾼들을 부리게 하였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다

- 3** ¹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주님의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곳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으로서, 본디 어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는데 다윗이 잡티로 잡아 놓았다.
- ² 솔로몬이 집을 짓기 시작한 때는, 그의 통치사 년째 되던 해 둘째 달 초이튿날이었다.
- ³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집 규모는 이러하다. 옛날 척도로 그 길이는 예순 암마이고 너비는 스무 암마이다.
- ⁴ 앞에 있는 현관의 길이는 그 집의 너비와 같이 스무 암마이고 높이는 백이십 암마인데, 현관 안벽은 순금으로 입혔다.
- ⁵ 솔로몬은 집의 본관 안벽에 방백나무 판자를 대고 질 좋은 금을 입혔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사슬을 새겼다.
- ⁶ 그는 보석으로 그 집을 아름답게 꾸몄다. 금은 파르와임에서 들어온 것이었다.
- ⁷ 그는 그 집의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을 금으로 입히고 벽에는 커튼들을 새겼다.
- ⁸ 그는 또 지성소를 지었는데, 그 길이는 집의 너비와 같이 스무 암마이고 너비도 스무 암마이다. 그는 그곳에 육백 탈렌트나 되는 질 좋은 금을 입혔다.
- ⁹ 금 못의 무게만도 천 세켈이나 되었다. 옥상방들도 금을 입혔다.
- ¹⁰ 그는 지성소에 커튼 상 둘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금으로 입혔다.
- ¹¹ 두 커튼의 날개 길이를 합하면 스무 암마였다. 한 커튼의 한쪽 날개는 다섯 암마인데 그 끝이 집의 벽에 닿고, 역시 다섯 암마 되는 다른 쪽 날개는 다른 커튼의 날개에 닿았다.
- ¹² 이 커튼의 한쪽 날개도 다섯 암마인데 그 끝이 집의 벽에 닿고, 역시 다섯 암마 되는 다른 쪽 날개는 다른 커튼의 날개에 닿았다.
- ¹³ 그래서 이 커튼들이 날개를 펼친 것이 스

무 암마였다. 커튼들은 얼굴을 집 쪽으로 향하고 서 있었다.

- ¹⁴ 그는 자주와 자홍과 다홍 실과 아마포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커튼들을 수놓았다.

두 기둥

- ¹⁵ 하나님의 집 앞에는 높이가 서른다섯 암마 되는 기둥을 둘 세우고, 그 꼭대기에 다섯 암마 되는 기둥머리를 얹었다.
- ¹⁶ 그는 목걸이 모양의 사슬을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르고, 석류 백 개를 만들어 그 사슬에 달았다.
- ¹⁷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 앞에 기둥들을 세웠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세웠다.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아킨이라 하고 왼쪽 기둥의 이름은 보이즈라 하였다.

성전 기틀

- 4** ¹ 솔로몬은 청동 제단을 만들었는데, 길이가 스무 암마, 너비가 스무 암마, 높이가 열 암마였다.
- ² 그다음에 그는 청동을 부어 바다 모형을 만들었다. 이 둥근 바다는 한 가장자리에서 다른 가장자리까지 지름이 열 암마, 높이가 다섯 암마, 둘레가 서른 암마였다.
- ³ 그 아래에 빙 둘러 돌아가면서, 열 암마 되는 황소 상들이 바다를 둘러쌌다. 이 황소들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만든 것이다.
- ⁴ 이렇게 바다는 황소 열두 마리 위에 얹혀 있었는데, 세 마리는 북쪽을, 세 마리는 서쪽을, 세 마리는 남쪽을, 세 마리는 동쪽을 바라보았다. 바다는 황소들 위에 올려져 있고 황소들은 모두 엉덩이를 안쪽으로 향하였다.
- ⁵ 바다의 두께는 한 테파이며, 그 가장자리는 나리꽃 모양으로 된 잔의 가장자리처럼 만

들어졌다. 이 바다는 물 삼천 밧을 담을 수 있었다.

6 솔로몬은 씻을 물을 담는 물두멍 열 개를 만들어 다섯은 오른쪽에, 다섯은 왼쪽에 두었다. 이 물두멍에서 번제물로 바칠 것들을 씻었다. 그러나 바다에 담긴 물은 사제들이 몸을 씻는 데에 썼다.

7 그는 또 금 등잔대를 규격대로 열 개 만들어 다섯은 성소 오른쪽에, 다섯은 왼쪽에 두었다.

8 또 상 열 개를 만들어 다섯은 성소 오른쪽에, 다섯은 왼쪽에 놓았다. 그리고 금 쟁반을 백 개 만들었다.

9 그는 또 사제들의 뜰과 큰 뜰을 만든 다음, 그 큰 뜰 때문에 문짝들을 만들어 달고 청동을 입혔다.

10 바다는 성전의 오른쪽 남동쪽에 두었다.

11 후람은 뱀비와 삽과 대접을 만들었다. 이렇게 후람은 솔로몬 임금의 하느님의 집에다 해 놓으라고 시킨 일을 마쳤다.

12 두 개의 기둥과 기둥 꼭대기의 둥근 기둥머리, 그 기둥 꼭대기의 둥근 두 기둥머리에 씌운 두 그물,

13 그 두 그물에 달린 석류들, 곧 기둥 꼭대기의 둥근 두 기둥머리에 씌운 각 그물에 두 줄로 매단 석류 사백 개를 만들었다.

14 또 받침대들을 만들고 그 받침대 위에 엷을 물두멍들도 만들었다.

15 모형 바다 하나와 그것을 받칠 황소 열두 마리,

16 뱀비와 삽과 고기 갈고리 등, 주님의 집에서 쓸 모든 기물을 후람 아버지는 솔로몬 임금을 위하여 광택을 낸 청동으로 만들었다.

17 임금은 요르단 평야 수컷과 츠레다 사이의 진흙 바다에서 그것들을 부어 만들었다.

18 솔로몬은 이 모든 기물을 아주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청동의 무게는 아무도 모른다.

19 솔로몬은 또 하느님의 집에서 쓸 온갖 기물을 만들었다. 이 기물들은 금 제단과 제사 빵을 차려 놓는 상,

20 안쪽 성소 앞에 법규대로 불을 켜 놓을 수도 높은 금 등잔대와 등잔,

21 금으로, 곧 순도가 아주 높은 금으로 만든 꽃 장식과 등잔과 부집게,

22 순도 높은 금 불뚱 기워와 쟁반과 향 접시와 불뚱 접시였다. 그리고 하느님의 집 입구 지성소의 안쪽 문과 그 집의 본관 문도 금으로 만들었다.

5 ¹ 이렇게 하여 솔로몬이 주님의 집을 위하여 해야 할 모든 일이 끝났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봉헌한 물건들, 그리고 은과 금과 모든 기물을 가져다가 하느님의 집 창고에 넣어 두었다.

계약 깨를 성전에 모사다

2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주님의 계약 깨를 시온, 곧 다윗 성에서 모셔 올라오려고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각 가문 대표인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였다.

3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일곱째 달의 축제 때에 임금 앞으로 모였다.

4 이스라엘의 모든 원로가 도착하자 레위인들이 깨를 메었다.

5 그들은 깨를 비롯하여 만민의 천막과 그 천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물들도 모두 가지고 올라갔는데, 사제와 레위인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올라갔다.

6 솔로몬 임금과 그 앞에 모여든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깨 앞에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이 많은 양과 황소를 잡아 버렸다.

7 그리고 나서 사제들이 주님의 계약 깨를 제자리에, 곧 주님의 집 안쪽 성소인 지성소

- 안 두 커룹의 날개 아래에 들어다 놓았다.
- 8 커룹들은 궤가 있는 자리 위에 날개를 펼쳐 궤와 채를 덮었다.
- 9 그 채들은 궤에 붙어 있는 그 끝이 안쪽 성소 앞에서 보일 정도로 길었다. 그러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들은 오늘날까지 그곳에 남아 있다.
- 10 궤 안에는 두 개의 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신 호렘에서 모세가 넣어 둔 것이다.
- 11 사제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였다. — 거기에 있는 사제들은 모두 조에 관계없이 정결 예식을 마친 상태였다.
- 12 그리고 레위인 성가대, 곧 아삽과 헤만과 여두룬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모두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서, 자바라와 수금과 비파를 들고 제단 동쪽에 늘어서 있었다. 그들 곁에 나팔수 사제 백이십 명도 함께 서 있었다.
- 13 나팔수들과 성가대는 한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였다. 쇠 나팔과 자바라와 그 밖의 악기에 맞추어 "정녕 주님께서는 신하시고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드높일 때 — 구름이 그 집, 곧 주님의 집에 가득 찼다.
- 14 사제들은 그 구름 때문에 서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주님의 영광이 하느님의 집에 가득 찼던 것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다

- 6 ¹ 그때 솔로몬이 말하였다. "주님께서서는 길은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 ² 그런데 제가 당신을 위하여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당신께서 영원히 머무르실 곳입니다."
- ³ 임금은 얼굴을 돌려, 모여 서 있는 이스라엘

- 온 회중에게 축복하고 나서
- 4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손수 실현해 주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서는 찬미받으소서!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5 '나는 내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날부터,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서도 내 이름이 머무를 집을 지을 성읍을 선택한 적이 없고, 어느 누구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도자로 선택한 적이 없다.
- 6 다만 내 이름이 머무를 예루살렘을 선택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윗을 선택하였다.'
- 7 나의 아버지 다윗께서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으셨소.
- 8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었으니,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은 잘한 일이다.
- 9 그러나 너는 그 집을 짓지 못한다. 네 몸에서 태어날 너의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한 그 집을 지을 것이다.'
- 10 이제 주님께서서는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셨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좌에 올랐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지었소.
- 11 또한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맺으신 계약이 들어 있는 채를 여기에 모셨소."

솔로몬의 기도

- 12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두 손을 펼쳤다.
- 13 솔로몬은 일찍이 청동으로 길이 다섯 암마, 너비 다섯 암마, 높이 세 암마 되는 대를 만들어 뜰 가운데에 놓았는데, 거기에 올라

가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펼치고서,
 14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하늘과 땅 그 어디에도 당신 같은 하느님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당신 앞에서 걷는 종들에게 당신은 계약을 지키시고 자애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15 또한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 제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친히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처럼 손수 실현해 주신 것입니다.
 16 그러나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의 종 제 아버지 다윗에게, '네가 내 앞에서 걸은 것처럼 네 자손들도 내 율법에 따라 걸으며 제 길을 지켜 나가기만 하면, 네 자손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지켜 주십시오.
 17 그러므로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18 그러나 어찌 하느님께서 사람과 함께 땅 위에 계시겠습니까? 저 하늘, 하늘 위의 하늘도 당신을 모시지 못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집이야 오죽하겠습니까?
 19 그러나 주 저의 하느님, 당신 종의 기도와 간청을 돌아보시어, 당신 종이 당신 앞에서 드리는 이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20 그리하여 당신의 눈을 뜨시고 낮이나 밤이나 이 집을, 곧 당신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겠다고 하신 이곳을 살피시어, 당신 종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21 또한 당신 종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간구를 들어 주십시오. 부디 당신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어 주십시오.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22 누구든지 이웃에게 죄를 짓고 자신에게 저주를 씌우는 맹세를 하게 되어, 이 집에 있는 당신 제단 앞에 와서 맹세하면,
 23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동하시어, 당신 종들에게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그리하여 죄 있는 자에게는 그 죄값을 돌리시어 그의 행실에 따라 그 머리 위로 앉으시고, 의로운 자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리시어 그 의로움에 따라 그에게 갚아 주십시오.
 24 당신 백성 이스라엘이 당신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하였다가도, 당신께 돌아와 이 집에서 당신의 이름을 고백하며 당신께 기도하고 간청하면,
 25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어, 그들과 그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26 그들이 당신께 죄를 지어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도, 당신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므로, 그들이 이 집을 향하여 기도하며 당신의 이름을 고백하고 자기 죄에서 돌아서면,
 27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당신 종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 장년 당신께서는 그들이 걸어야 할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 그리고 당신 백성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신 당신의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28 이 땅에 기근이 들 때, 흑사병과 마름병과 감부깃병이 돌거나 폐뚜기 폐와 누리 폐가 설칠 때, 적이 성읍을 포위할 때, 온갖 환난과 온갖 질병이 번질 때,
 29 당신 백성 이스라엘이 개인으로나 전체로나 저마다 고통과 슬픔을 느끼며, 이 집을 향하여 두 손을 펼치고 무엇이나 기도하고 간청하면,
 30 당신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당신께서는 사람의 따

음을 아시니, 그 모든 행실에 따라 갚아 주십시오. 당신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31 그렇게 해 주시면 그들은 당신께서 저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 사는 동안 언제나 당신을 경외하며, 당신의 길을 따라 걸을 것입니다.

32 또한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당신의 위대한 이름과 당신의 강한 손과 당신의 뻗은 팔 때문에 먼 땅에서 찾아와 이 집을 향하여 기도하면,

33 당신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당신께 호소하는 것은 무엇이나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의 이름을 알아 모시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당신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가 지은 이 집이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34 당신 백성이 적과 싸우러 나갈 때, 당신께서 그들을 어느 길로 보내시든지, 그들이 당신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제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이 집을 향하여 당신께 기도하면,

35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청을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보아 주십시오.

36 죄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 백성도 당신께 죄를 지어, 당신께서 그들에게 화를 내시고 그들을 적에게 넘기시면, 그들은 멀거나 가까운 땅에 사로잡혀 가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37 그러나 사로잡혀 간 땅에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뉘쓸 짓을 하고 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며, 그 유배살이하던 땅에서 당신께 간청하면,

38 그들이 유배살이하던 땅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회개하고, 당신께서 그

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당신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제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이 집을 향하여 기도하면,

39 당신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청을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보아 주십시오. 또한 당신께 죄를 지은 당신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40 이제 저의 하느님, 당신의 눈을 뜨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41 주 하느님, 이제 일어나시어 당신의 안식처로 드십시오. 당신 권능의 궤와 함께 드십시오. 주 하느님, 당신 사제들이 구원으로 옷 입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행복을 누리며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42 주 하느님, 당신의 기쁨부음받은이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시고 당신의 종 다윗에게 배푸신 자애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솔로몬이 성전 봉헌 축제를 지나다

7 ¹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삼키고,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집에 가득 찼다.

2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집에 가득 찼으므로, 사제들은 주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

3 이렇게 불이 내려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집에 머무르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돌을 깐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며 "정녕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하고 외쳤다.

4 그런 다음, 임금과 온 백성이 주님 앞에 희생 제물을 바쳤다.

5 솔로몬 임금은 황소 이만 이천 마리와 양 십이만 마리를 희생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임금과 온 백성이 하느님의 집을 봉헌하였다.

- 6 사제들은 자기 자리에 늘어서고, 레위인들도 주님을 찬양하는 악기들을 들고 섰다. 그 악기들은 다윗 임금이 레위인들을 시켜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하며 찬양할 때에 주님께 찬송하려고 만든 것이다. 또 레위인들 맞은쪽에서 사제들이 쇠 나팔을 부는 동안, 온 이스라엘은 서 있었다.
- 7 솔로몬은 주님의 집 앞에 있는 뜰 한가운데를 성별하고, 그곳에서 번제물과 친교 제물의 굳기름을 비쳤다. 솔로몬이 만든 청동제단에는 그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굳기름을 다 담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 8 그때에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곧 하맛 어귀에서 '이집트 마른내'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모여든 대단히 큰 회중과 함께 이레 동안 축제를 지냈다.
- 9 그들은 여드레째 되는 날에 거룩한 집회를 열었다. 그것은 이레 동안 제단을 봉헌하고 이레 동안 축제를 지낸 다음이었다.
- 10 일곱째 달 스무사흘날에 솔로몬은 백성을 자기들 천막으로 돌려보냈다. 그들은 주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에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시다

- 11 솔로몬은 이렇게 주님의 집과 왕궁을 다 짓고, 주님의 집과 자기 집에 관하여 마음에 떠오른 것을 모두 훌륭하게 이루었다.
- 12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나의 것으로 선택하여 제사의 집으로 삼았다.
- 13 내가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게 하거나, 메뚜기에게 명령하여 땅을 삼키게 하거나, 내 백성 가운데에 흑사병을 보낼 때,
- 14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신들을 낮추고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

- 15 이제 내가 눈을 뜨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겠다.
- 16 내가 이제 이 집을 선택하여 성별하고 이곳에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이 언제나 이곳에 있을 것이다.
- 17 내가 네 아버지 다윗이 걸은 것처럼 내 앞에서 걸으며,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실천하고 내 규정과 법규를 따르면,
- 18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네 자손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계약한 대로 너의 왕좌를 세워 주겠다.
- 19 그러나 너희 마음이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내놓은 계명과 규정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그들을 섬기고 경배하면,
- 20 나는 내가 준 땅에서 너희를 뽑아 버리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별한 이 집을 내 앞에서 내버려,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속담거리와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리겠다.
- 21 그러면 한때 존귀하던 이 집을 보고, 지나는 사람마다 몹시 놀라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어찌하여 주님이 이 땅과 이 집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 22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할 것이다. '그들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신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이신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끌어들이어 예배하고 섬겼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던데요.'"

솔로몬의 업적

- 8 ¹ 솔로몬은 스무 해 동안 주님의 집과 자기 집을 짓고 나서,
- 2 히람에게서 받은 성읍들을 재건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게 하였다.

- 3 솔로몬은 또 하맛 초바로 가서 그곳을 점령 하였다.
- 4 그리고 광야에 있는 타드모르와 하맛에 세운 양곡 저장 성읍들을 모두 재건하였다.
- 5 그는 또 '위 벧 호론'과 '아래 벧 호론'에 성벽을 쌓고 성문과 빗장들을 달아, 요새 성읍으로 세웠다.
- 6 또 솔로몬은 바알랏과, 자기의 모든 양곡 저장 성읍, 모든 병거대 주둔 성읍과 기병대 주둔 성읍을 세웠다. 그 밖에도 솔로몬은 에루살렘과 레비논을 비롯하여 자기가 다스리는 온 영토 안에 세우고 싶어 하던 것을 다 세웠다.
- 7 이스라엘 출신이 아닌 히타이트족, 아모리족,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모든 백성,
- 8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멸시키지 않아서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역에 동원시켰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이다.
- 9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아무도 노예로 삼아 자기 일을 시키지 않았다. 그들은 군사와 장수와 군관, 그리고 병거대와 기마대의 장수들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 10 또 솔로몬 임금의 지방관들로서 백성을 관리하던 이백오십 명이 있었다.
- 11 솔로몬은 파라오의 딸이 살 집을 짓고 그 여자를 다윗 성에서 그리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는 '이스라엘 임금 다윗의 집을 비롯하여 주님의 궤를 모셔 들인 곳은 거룩하니, 내 아내가 거기에 살아서는 안 된다.' 하고 생각한 것이다.
- 12 그때에 솔로몬은 하느님의 집 현관 앞에 세운 주님의 제단 위에서 주님께 번제물을 바쳤다.
- 13 그는 안식일과 초하룻날과 해마다 맞는 세

축일, 곧 무교절과 주간절과 초막절에 모세의 계명에 따라 정해진 그날의 번제물을 바쳤다.

- 14 그리고 그는 자기 아버지 다윗이 정한 법대로 조를 짜서 사제들을 봉직하게 하고, 레위인들에게도 그 직책에 따라 날마다 찬양하는 일과 사제들을 시중드는 일을 하게 하였다. 문지기들도 조를 짜서 문마다 배치시켰다. 하느님의 사람 다윗이 그렇게 명령해 두었던 것이다.
- 15 그리고하여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창고 관리에 이르기까지 온갖 일과 관련하여 임금이 내린 명령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았다.
- 16 이렇게 솔로몬의 일은 주님의 집 기초를 놓은 날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모두 잘 진행되어, 주님의 집이 마침내 완성되었다.

솔로몬의 무역 활동

- 17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즈온 게베르와 엘랏으로 갔다.
- 18 그때에 히람이 자기 종들을 시켜 상선대와 바다에 익숙한 종들을 솔로몬에게 보내니,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피르로 가서 금 사백오십 탈렌트를 실어 와 솔로몬 임금에게 바쳤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다

- 9¹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까다로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해 보려고 예루살렘에 왔다. 여왕은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왔다. 여왕은 솔로몬에게 와서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을 모두 물어보았다.
- 2 솔로몬은 여왕의 물음에 다 대답하였다. 솔로몬이 풀어서 여왕에게 답변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 3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지켜보고 그 가지는 집을 보았다.

- 4 또 식탁에 오르는 음식과 신하들이 앉은 모습, 시종들이 시종드는 모습과 그들의 복장, 헌작 시종들과 그들의 복장, 그리고 주님의 집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넋을 잃었다.
- 5 여왕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내가 임금님의 업적과 지혜에 관하여 내 나라에서 들은 소문은 과연 사실이군요."
- 6 내가 여기에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 직접 보니, 내가 전해 들은 것은 임금님의 그 큰 지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임금님은 내가 소문으로 들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 7 임금님의 부하들이야말로 행복합니다. 언제나 임금님 앞에 서서 임금님의 지혜를 듣는 이 신하들이야말로 행복합니다.
- 8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서 임금님이 마음에 드시어, 하느님을 위하여 임금님을 그분의 어좌에 올려놓으셨으니,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서는 찬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임금님의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영원히 굳게 세우시려고, 임금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세워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게 하셨습니다."
- 9 그리고 나서 여왕은 금 백이십 탈렌트와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임금에게 주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 임금에게 준 것만큼 많은 향료는 다시 없었다.
- 10 오피르에서 금을 실어 오던 히람의 종들과 솔로몬의 종들도 자단나무와 보석을 실어 왔다.
- 11 임금은 이 자단나무로 주님의 집과 왕궁의 층계를 만들고, 노래하는 이들이 쓸 비파와 수금도 만들었다. 그와 같은 자단 목재는 일찍이 유다 땅에서 본 적이 없었다.
- 12 솔로몬 임금은 스바 여왕이 자기에게 가져온 것 이상으로, 여왕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청하는 대로 다 주었다. 여왕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솔로몬의 영화

- 13 한 해 동안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는 육백육십육 탈렌트였다.
- 14 상인들과 무역상들이 들어온 것과, 아라비아의 모든 임금과 국내의 지방관들이 솔로몬에게 가져온 금과 은을 빼고도 그러하였다.
- 15 솔로몬 임금은 금을 두드려 큰 방패를 이백 개 만들었는데, 큰 방패 하나에 두드린 금 육백 세켈이 들었다.
- 16 또 금을 두드려 작은 방패를 삼백 개 만들었는데, 작은 방패 하나에 금 삼백 세켈이 들었다. 임금은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수풀 궁'에 두었다.
- 17 임금은 상자로 큰 왕좌를 만들고 그것을 순금으로 입혔다.
- 18 그 왕좌에는 층계가 여섯 개 있었는데, 왕좌의 발판은 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왕좌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그 팔걸이 옆에는 사자가 두 마리 세워져 있었다.
- 19 여섯 층계 양쪽에도 사자가 열두 마리 세워져 있었다.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는 만들지 못하였다.
- 20 솔로몬 임금이 마시는 데에 쓰는 그릇은 모두 금으로 만들고, '레바논 수풀 궁'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으로 만들었다. 은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에 은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도 않았다.
- 21 임금의 상전대는 히람의 종들과 함께 타르시스로 갔다. 이 타르시스 상전대가 세 해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 원숭이와 공작 새들을 실어 왔다.
- 22 솔로몬 임금은 부와 지혜에서 세상의 어느 임금보다 뛰어났다.
- 23 그리하여 세상 임금들이 모두 하느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넣어 주신 지혜를 들으려

고 그를 찾아왔다.

- 24 그들은 저마다 은 기물과 금 기물, 옷과 무기, 향료와 말과 노새들을 예물로 가져왔는데, 그런 일이 해마다 그치지 않았다.

솔로몬의 병거대

- 25 솔로몬에게는 말과 병거를 두는 마구간이 사천 칸이나 있었다. 군마는 이천 마리나 되었는데, 그는 그것들을 병거대 주둔 성과 임금 가까이 예루살렘에 배치하였다.
- 26 그는 유프라테스 강에서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임금을 다스렸다.
- 27 솔로몬 임금 덕분에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돌처럼 흔해졌고, 향백나무는 평원 지대의 돌무화과나무만큼이나 많이졌다.
- 28 또 이집트에서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에서 솔로몬에게 말들을 들여왔다.

솔로몬이 죽다

- 29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탄 예언자의 기록과 실로 사람 아히아이의 예언서에, 그리고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에 관한 이도 환시가의 환시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 30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마흔 해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 31 그러고 나서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히고, 그의 아들 르하브암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부족 지파들이 반기를 든다

- 10 ¹ 르하브암은 스켄으로 갔다. 온 이스라엘이 스켄에 모여 그를 임금으로 세우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 2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은 솔로몬 임금을 꾀하여 이집트로 달아나 있다가 거기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예로보암은 이집트

에서 돌아왔다.

- 3 사람들이 심부름꾼을 보내어 그를 불러내니, 예로보암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르하브암에게 가서 말하였다.
- 4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명을 힘겹게 하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지우신 힘겨운 일과 무거운 명을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 5 그러자 르하브암은 그들에게 "사흘 뒤에 다시 나에게 오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에 백성은 돌아갔다.
- 6 르하브암 임금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 있을 때에 그를 받들던 원로들을 불러, "저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의견을 듣고 싶소." 하고 의논하였다.
- 7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저 백성을 좋게 대하시고 저들을 기쁘게 하시며, 저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대답하시면, 저 백성이 언제나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 8 그러나 임금은 원로들이 내놓은 의견을 버리고, 그 대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이들로서 자기를 받드는 자들과 의논하면서,
- 9 그들에게 물었다. "나에게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우신 명을 가볍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저 백성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그대들의 의견을 듣고 싶소."
- 10 그러자 임금과 함께 자란 젊은이들이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매우신 명에가 무거우니 그것을 가볍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저 백성에게 임금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소.'
- 11 내 아버지께서 그대들에게 무거운 명을 매우셨는데, 나는 그대들의 명을 더 무겁게 하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그대들을

가족 채적으로 징벌하셨지만, 나는 같고리 채적으로 할 것이오."

- 12 임금이 사흘 뒤에 다시 오라고 이른 대로, 예로보암은 온 백성과 함께 사흘째 되는 날에 르하브암에게 갔다.
- 13 르하브암 임금은 원로들의 의견을 버리고 그들에게 거칠게 대답하였다.
- 14 그는 젊은이들의 의견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께서 그대들의 명애를 무겁게 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더 힘겹게 하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그대들을 가족 채적으로 징벌하셨지만, 나는 같고리 채적으로 할 것이오."
- 15 임금이 이처럼 백성의 말을 들어 주지 않은 것은, 하느님께서 일을 그렇게 돌리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서 실로 사람 아히아를 통하여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일을 그렇게 하신 것이다.
- 16 임금이 자기들의 말을 들어 주지 않자, 온 이스라엘은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뭘이 무엇이냐? 이사이의 아들에게서는 받을 상속 재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네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모두 자기 천막으로 돌아갔다.
- 17 그러나 유다의 성읍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르하브암이 다스리게 되었다.
- 18 르하브암 임금이 부역 감득 하도람을 보내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돌을 던져 그를 죽여 버렸다. 그러자 르하브암 임금은 서둘러 병거에 올라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쳤다.
- 19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집안에 반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남과 북이 갈라진다

11 1 르하브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유다와 벤야민 집안에 동원령을 내려 정병 십팔만을 모았다. 이스라엘과 싸워 르하브암의 왕권을 되찾으려는 것이었다.

- 2 그런데 하느님의 사람 스마아에게 주님의 말씀이 내렸다.
- 3 "유다 임금, 솔로몬의 아들 르하브암과, 유다와 벤야민에 있는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라.
- 4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 형제들에게 올라가 그들과 싸우서는 안 된다. 저마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된 것은 나의 뜻이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로보암을 치러 가지 않고 돌아섰다.

르하브암이 요새를 만든다

- 5 르하브암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에 요새 성읍들을 세웠다.
- 6 그가 세운 성읍들은 베들레헴, 예탐, 트코아,
- 7 벧 추르, 소코, 아둘람,
- 8 갓, 마레사, 지프,
- 9 아도라임, 라기스, 아제카,
- 10 초르아, 아랄론, 헤브론이다. 이곳들이 그가 유다와 벤야민에 세운 요새 성읍이다.
- 11 그는 요새들을 튼튼하게 만든 다음, 거기에 지휘관들을 배치하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장해 두었다.
- 12 또 그 모든 성읍에 큰 방패와 창을 갖추어 놓고 그곳들을 매우 튼튼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유다와 벤야민이 그의 지배 아래 남게 되었다.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르하브암에게 오다

- 13 온 이스라엘에 있던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저마다 살던 고장을 모두 버리고 르하브암에게 넘어왔다.
- 14 레위인들은 목초지와 소유지를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왔다. 예로보암이 자기 아들과 함께, 그들을 주님의 사제직에서

내쫓고,

- 15 산당들을 위하여, 그리고 염소 귀신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을 위하여 직접 사제들을 세웠기 때문이다.
- 16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찾기로 결심한 사 람들이, 레위인들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와서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쳤다.
- 17 그렇게 하여 그들이 세 해 동안 유다 왕국을 튼튼하게 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하브암을 뒷받침하게 되었다. 르하브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라 걸은 것이 세 해 동안이었기 때문이다.

르하브암의 가족

- 18 르하브암은 마할랏을 아내로 맞았다. 마할랏은 다윗의 아들 여러못이 이사이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히일에게서 낳은 딸이다.
- 19 마할랏이 르하브암에게 낳아 준 아들은 여우스, 스마랏야, 자함이다.
- 20 르하브암은 마할랏 다음으로 다시 아비살롬의 딸 마이카를 아내로 맞았는데, 마이카는 그에게 아비아, 아타이, 지자, 슬로밋을 낳아 주었다.
- 21 르하브암은 아내 열여덟 명과 소실 예순 명을 거느리고 아들 스물여덟 명과 딸 예순 명을 두었지만, 아비살롬의 딸 마이카를 어떤 아내나 소실보다 더 사랑하였다.
- 22 르하브암은 마이카의 아들 아비아를 임금으로 만들려고, 그를 형제들 가운데에서 으뜸으로 첫자리에 세웠다.
- 23 르하브암은 슬기롭게 일을 처리하여, 여러 이들에게 유다와 벤야민 온 지역과 모든 요새 성읍을 나누어 맡긴 다음, 양식을 넉넉하게 대 주고 아내도 많이 구해 주었다.

이집트 임금 시삭이 유다를 침략하다

- 12 ¹ 르하브암은 왕권이 튼튼해지고 힘이 커지자, 주님의 율법을 저버렸다. 온 이스라엘도 그를 따랐다.
- 2 그들이 주님을 배신하였으므로, 르하브암 임금 제오년에 이집트 임금 시삭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 3 병거 천이백 대와 기병 육만,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리비아군과 수키군과 에티오피아군이 그와 함께 이집트에서 올라왔다.
- 4 그가 유다의 요새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왔을 때,
- 5 스마야 예언자가 르하브암에게, 그리고 시삭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다의 장수들에게 나아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저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저버려 시삭의 손에 넘긴다.'"
- 6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수들과 임금은 자신들을 낮추며, "주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 7 주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보시고, 스마야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그들이 자신들을 낮추었으니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지는 않고, 가까스로 난을 피하게 해주겠다. 나는 시삭을 시켜 내 분노를 예루살렘에 다 쏟지는 않겠다.
- 8 그러나 그들을 시삭의 종이 되게 하여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의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하겠다."
- 9 이집트 임금 시삭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주님의 집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가져갔다. 모조리 가져가 버렸다. 또한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도 가져갔다.
- 10 그러자 르하브암 임금은 금 방패 대신 청동 방패들을 만들어, 왕궁 대문을 지키는 호위대 장수들의 손에 맡겼다.
- 11 임금이 주님의 집에 들어갈 때마다, 호위병들은 그 청동 방패를 들고 들어갔다다 다시 호위대실로 가져다 두곤 하였다.

12 르하브암이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서 진노를 거두시어 그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으며, 유다도 형편이 좋아졌다.

르하브암의 유다 통치

- 13 르하브암 임금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세력을 굳히고 다스렸다. 르하브암은 마흔한 살에 임금이 되어,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선택하신 도성 예루살렘에서 열일곱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미인데 임문 여자였다.
- 14 르하브암은 주님을 찾기로 마음을 굳히지 않아 악을 저지르게 되었다.
- 15 르하브암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마야 예언자와 이도 환시가의 기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르하브암과 예로보암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다.
- 16 르하브암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 성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비야의 유다 통치

- 13 ¹ 예로보암 임금 제십팔년에 아비야가 유다의 임금이 되어,
- 2 예루살렘에서 세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카야인데 기브야 출신 우리엘의 딸이었다. 아비야와 예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 3 아비야는 전투에 능한 정예에 용사 사십만을 이끌고 싸우러 나갔고, 그에게 맞서 예로보암은 정예에 용사 팔십만을 거느리고 전열을 갖추었다.
- 4 그때에 아비야가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있는 츠마림 산 위에 서서 말하였다. "예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은 내 말을 들어라.
- 5 너희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소금 계

약으로,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권을 영원히 주신 것을 알지 않느냐?

- 6 그런데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이 일어나 자기 주군에게 반역하였다.
- 7 그래서 건달들과 무뢰한들이 그에게 몰려들어, 솔로몬의 아들 르하브암에게 맞섰다. 그 때에 르하브암은 아직 젊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에게 맞설 힘이 없었다.
- 8 지금 너희는 수많은 무리를 이루고, 예로보암이 신이라고 만들어 준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해서, 다윗 자손들의 손에 맡겨진 주님의 나라에 맞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 9 너희는 아론의 자손들인 주님의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쫓아내고, 다른 나라 민족들처럼 너희 스스로 사제들을 만들지 않았느냐? 수송아지 한 마리나 숫양 일곱 마리를 끌고 오는 자마다 사제 직무를 맡는다면, 신이 아닌 것들의 사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 10 그러나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하느님이 사기에 그분을 저버리지 않았다. 주님을 섬기는 사제들은 아론의 자손들이며, 레위인들이 그들을 돕는다.
- 11 그들은 날마다 아침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물을 살라 바치고 향기로운 향을 피우며, 정결한 상 위에 빵을 차려 놓는다. 금 등잔대에는 저녁마다 등불을 켜 놓는다. 우리는 이렇게 주 우리 하느님의 명령을 지키지만, 너희는 그분을 저버렸다.
- 12 보라, 우리 선두에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의 사제들이 너희를 공격하라는 전투 나팔을 불려고 서 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과 싸우려 하지 마라. 너희는 이기지 못한다."
- 13 그러나 예로보암은 이미 복병을 유다군 뒤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군은

유다군 뒤에 복병을 숨겨 두고 그들과 정면에서 맞섰다.

- 14 유다군이 돌아보니, 전투가 앞뒤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었다. 사제들이 쇠 나팔을 불자,
- 15 유다군은 함성을 올렸다. 유다군이 함성을 올릴 때, 하느님께서 아비아와 유다 앞에서 예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치시니,
- 16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다 앞에서 도망쳤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군을 유다군의 손에 넘겨주시어,
- 17 아비아와 그의 군대가 적들을 크게 무찔렀다. 이스라엘에서 쓰러져 죽은 정예 군사는 오십만이나 되었다.
- 18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굴욕을 당하고 유다 자손들이 이기게 된 것은, 유다 자손들이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께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 19 아비아는 예로보암을 뒤쫓아 가서, 그의 성읍들, 곧 베델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여사나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 에프론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을 점령하였다.
- 20 예로보암은 아비아 생전에 힘을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주님께서 그를 치시니 그가 죽고 말았다.
- 21 그러나 아비아는 세력이 커졌다. 그는 아내 열벳을 거느리고 아들 스물둘과 딸 열여섯을 두었다.
- 22 아비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걸어간 길과 그의 언행은 이또 예언자의 주석서에 쓰여 있다.

아사의 유다 통치

- 23 아비아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 성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사 시대 십 년 동안 나라는 평온하였다.

14 ¹ 아사는 주 자기 하느님의 눈에 드는 좋은 일과 옳은 일을 하였다.

- 2 그는 이교 제단들과 산당들을 없애 버리고 기념 기둥들을 깨뜨렸으며, 아세라 목상들을 토막 냈다.
- 3 그리고 유다 백성에게 주 자기 조상들의 하느님을 찾으며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였다.
- 4 또한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들과 분향 제단들을 없애 버렸다. 그리하여 그가 다스리는 동안 왕국이 평온하였다.
- 5 나라가 이렇게 평온해지자, 그는 유다에 요새 성읍들을 지었다. 또 주님께서 그에게 안정을 주시어, 그는 여러 해 동안 전쟁을 겪지 않았다.
- 6 그는 유다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성읍들을 다시 세우시다. 성벽과 탑으로 둘러쌓고 성문과 빔장을 만들어 답시다. 우리가 주 우리 하느님을 찾았으므로 이 나라가 아직도 우리 앞에 남아 있는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찾자 그분께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평온하게 해 주셨소." 그래서 그들은 성읍들을 세우기 시작하여 일을 잘 마쳤다.
- 7 아사에게는 큰 방패와 창을 든 유다 출신 군사 삼십만이 있었고, 작은 방패를 들고 활로 무장한 베아민 출신 군사 이십팔만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힘센 용사였다.
- 8 그즈음에 에티오피아 사람 제라가 군사 백만과 병거 삼백 대를 이끌고 그들을 치러 나와 마레사까지 다다랐다.
- 9 아사도 그에게 맞서려고 나가 마레사의 츠파타 골짜기에서 전열을 갖추었다.
- 10 아사가 주 자기 하느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강자와 약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 당신처럼 도와줄 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 저희 하느님, 저희가 당신께 의지하여 당신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치러 나왔으니,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당신께서 저희

의 하느님이시니, 아무도 당신을 당해 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 11 주님께서 아사와 유다 백성 앞에서 에티오피아인들을 치시니, 에티오피아인들이 도망쳤다.
- 12 아사와 그의 군대는 그라르까지 에티오피아인들을 쫓아갔다. 에티오피아인들은 쓰러져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과 그분의 군대 앞에서 패배하였고, 유다군은 아주 많은 전리품을 거두었다.
- 13 그리고 그라르 주변의 모든 성읍 주민들이 주님께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유다군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노획하였다. 그곳에는 노획 거리가 많았던 것이다.
- 14 그들은 가축 치는 자들의 찬막도 쳐서 많은 양과 낙타를 끌고 나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사의 개혁

- 15** ¹ 그때에 하느님의 영이 오렛의 아들 아자르야에게 내리니,
- 2 아자르야가 아사 앞에 나아가 말하였다. "아사 임금님과 온 유다와 벤야민은 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분께서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그분을 찾으면 그분께서도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도 여러분을 버리실 것입니다.
 - 3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하느님도, 가르치는 사제도, 율법도 없이 지내 왔습니다.
 - 4 그런데도 그들이 곤경 가운데에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돌아와 그분을 찾으면, 그분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 5 그때에는 온 땅에 큰 소동이 벌어져, 사람들이 평안히 나들이도 못 하였습시다.
 - 6 민족이 민족을, 성읍이 성읍을 쳐부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온갖 재난으로 그들을 혼란

에 빠뜨리셨기 때문입니다.

- 7 그러나 여러분은 용기를 내시고 여러분의 손에 힘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에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
- 8 아사는 이 말, 곧 오렛 예언자의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유다와 벤야민 온 지방에서, 그리고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서 점령한 성읍들의 힘오스러운 것들을 없애 버렸다. 그런 다음, 주님의 집 현관에 있는 주님의 제단을 보수하였다.
- 9 그는 또 온 유다와 벤야민 백성, 그리고 에프라임과 므나세와 시메온에서 넘어와 그들 곁에서 나그네살이하는 이들을 불러 모았다. 주 아사의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떨어져 나와 그에게 넘어왔던 것이다.
- 10 그들은 아사 통치 제삼오년 셋째 달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 11 그날에 그들은 자기들이 가져온 전리품 가운데 소 칠백 마리와 양 칠천 마리를 주님께 희생 제물로 잡아 바치며,
- 12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을 찾겠다는 계약을 맺었다.
- 13 그리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찾지 않는 자는 낮은 사람 높은 사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죽이기로 하였다.
- 14 그들은 고향 소리와 합성과 쇠 나팔과 뿔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주님께 맹세하였다.
- 15 온 유다 백성이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찾자 그분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맹세를 두고 기뻐하였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평온하게 해 주셨다.
- 16 아사 임금은 자기 어머니 마야카마저 아세라를 위하여 역겨운 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그는 그 역겨운 상을 잘라 내고 조각내어 '키드론

골짜기'에서 불살라 버렸다.

- 17 산당들은 이스라엘에서 없애 버리지 않았지만, 아사의 마음은 살아 있는 동안 내내 주님께 한결같았다.
- 18 그는 아버지와 자기가 봉헌한 예물, 곧 은과 금과 기물들을 하느님의 집에 들여놓았다.
- 19 그 뒤에 아사 통치 제삼십오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아사가 아람의 도움을 청하다

- 16 ¹ 아사 통치 제삼십육년에 이스라엘 임금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아무도 유다 임금 아사와 왕대하지 못하게 하려고 라마를 세웠다.
- 2 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집과 왕궁 창고에서 은과 금을 꺼내어,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람 임금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 3 "나와 임금님 사이에, 나의 아버지와 임금님의 아버지 사이에 맺은 계약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임금님에게 은과 금을 보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임금 바아사와 맺으신 계약을 파기하시어, 그를 나에게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 4 벤 하닷은 아사 임금의 말을 듣고, 군대의 장수들을 그에게 보내어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치게 하였다. 그들은 이온, 단, 아벨 마임, 납탈리의 모든 양곡 저장 성읍을 쳐부수었다.
- 5 이 소식을 들은 바아사는 라마를 세우다 말고 공사를 그만두었다.
- 6 그러자 아사 임금은 유다인을 모두 데려다가, 바아사가 라마를 세우는 데에 쓰던 돌과 목재를 옮기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로 게바와 미츠폴을 세웠다.

하느니 선견자의 예언

- 7 그때에 하느니 선견자가 유다 임금 아사에

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아람 임금에게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아람 임금의 군대가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 8 에티오피아인들과 리비아인들도 엄청나게 많은 병자와 군마를 갖춘 대군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 주님께 의지하셨으므로,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 9 주님께서서는 당신께 한결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온 세상을 두루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 이번 일에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서는 전쟁을 치르셔야 합니다."
- 10 그러자 아사는 선견자에게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그 일로 그렇게 성이 났던 것이다. 그때에 아사는 백성 가운데에서 다른 이들도 괴롭혔다.

아사가 죽다

- 11 아사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 12 아사는 통치 제삼십구년에 발에 병이 났는데, 그 병이 매우 깊어졌다. 그렇게 아픈데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않고 의사들을 찾았다.
- 13 그리하여 아사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 들었다. 임금이 된 지 사십일 년째 되던 해에 죽은 것이다.
- 14 사람들은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윗 성에 깎아 놓은 무덤에 그를 묻었다. 그들은 항제조술에 따라 만든 온갖 향료로 가득 채운 침상에 그를 눕히고, 그를 위하여 아주 큰 불을 켜 놓았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임금이 되다

- 17 ¹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 뒤를 이

- 어 임금이 되었다. 여호사팻은 이스라엘에 맞서 자신을 튼튼하게 하였다.
- 2 그는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에 군대를 배치하고, 유다 땅과, 자기 아버지 아사가 점령한 예프라임의 성읍들에 수비대를 두었다.
- 3 여호사팻이 자기 조상 다윗이 처음에 걷던 길을 따라 걷고 바알을 찾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셨다.
- 4 그는 자기 아버지의 하느님을 찾고 그분의 계명에 따라 걸었으며, 이스라엘의 행동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다.
- 5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의 손에서 나라를 튼튼하게 해 주셨다. 온 유다가 여호사팻에게 선물을 바치니, 그의 부와 영광이 대단하였다.
- 6 그는 용기를 내어 주님의 길을 걸으며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없애 버렸다.
- 7 그는 임금이 된 지 삼 년째 되던 해에 대신들, 곧 벤 허일, 오바드야, 즈카르야, 느탄엘, 미카야를 유다 성읍들에 보내어 백성을 가르치게 하였다.
- 8 또 그들과 함께 레위인들, 곧 스마야, 느탄야, 즈바드야, 아시엘, 스미라못, 요나탄, 아도니아, 토비아, 톱 아도니아를 엘리사마 사제와 여호람 사제와 더불어 보냈다.
- 9 그들은 주님의 율법서를 가지고 유다에서 백성을 가르쳤다. 유다의 모든 성읍을 돌며 백성들을 가르친 것이다.

여호사팻의 업적

- 10 유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주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여호사팻에게 싸움을 걸지 못하였다.
- 11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여호사팻에게 선물을 가져오기도 하고 은을 예물로 가져오기도 하였다. 아라비아인들도 그에게 작은 가죽들을 끌고 왔는데, 숫양 칠천칠백 마리와

- 숫염소 칠천칠백 마리였다.
- 12 여호사팻은 세력이 점점 커졌다. 그는 유다에 요새와 양곡 저장 성읍들을 세웠다.
- 13 이렇게 그는 유다의 성읍들에 많은 일을 하고, 예루살렘에는 전사들, 그것도 용사들을 배치하였다.
- 14 그들을 집안별로 사열한 수는 이러하다. 유다 집안에서는 천인대장 아드나 장수와 그의 용사 삼십만,
- 15 그 밑에 천인대장 여호하난 장수와 그의 부하 이십팔만,
- 16 그 밑에 주님을 위하여 자원한 지크리의 아들 아미스야와 그의 용사 이십만,
- 17 벤야민 집안에서는 용사 엘아다와 그가 거느린, 활과 작은 방패로 무장한 그의 부하 이십만,
- 18 그 밑에 여호사팻과 그의 무장 군사 십팔 만이었다.
- 19 이들이 임금을 모시는 군사였다. 임금은 그 밖에도 온 유다의 요새 성읍들에 군사들을 배치하였다.

이스라엘 임금 아합이 라못 길앗 탈환을 꾀하다

- 18 ¹ 여호사팻은 큰 부와 영광을 얻었다. 그리고 아합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
- 2 몇 해가 지나서 여호사팻이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에게 내려가니, 아합이 그와 그의 수행원들을 대접하려고 많은 양과 소를 잡았다. 아합은 그를 부추겨 라못 길앗을 치러 올라가려고 하였던 것이다.
- 3 이스라엘 임금 아합이 유다 임금 여호사팻에게 물었다. "나와 함께 라못 길앗으로 가시겠습니까?" 여호사팻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나 임금님이나, 내 백성이나 임금님 백성이나 다 한편이니, 전쟁에서도 우리는 임금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 4 그리고 나서 여호사팻은, "그러나 먼저 주님의 뜻을 문의하시지요." 하고 이스라엘 임금

에게 말하였다.

- 5 그러자 이스라엘 임금은 예언자 사백 명을 모아 놓고 물었다. "우리가 라못 길앗으로 싸우러 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그들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곳을 임금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 6 그러나 여호사밧이 물었다. "우리가 문의할 만한 주님의 다른 예언자는 더 없습니까?"
- 7 이스라엘 임금이 여호사밧에게 대답하였다. "주님의 뜻을 문의해 줄 이가 한 사람 더 있기는 합니다. 이블라의 아들 미카야인데,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내 일을 두고 좋게 예언하지 않고 언제나 나쁘게만 예언합니다." 여호사밧이 말하였다. "임금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 8 그러자 이스라엘 임금은 내시 하나를 불러, "이블라의 아들 미카야를 빨리 데려오너라." 하고 일렀다.
- 9 그때에 정장을 한 이스라엘 임금과 유다 임금 여호사밧은 사미리아 성문 어귀의 타작 마당에 마련된 왕좌에 앉아 있었고, 그들 앞에서는 모든 예언자가 예언하고 있었다.
- 10 크나야의 아들 치드키야는 쇠로 뿔들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뿔들로 이람인들을 들이받아 마침내 전멸시킬 것이다.'"
- 11 그러자 다른 예언자들도 모두 같은 예언을 하며 말하였다. "라못 길앗으로 올라가 승리를 거두십시오. 주님께서 그곳을 임금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미카야가 아합의 패잔을 예언하다

- 12 미카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였다. "예언자들이 임금님께 한결같이 좋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언자께서도 그들처럼 좋게 말씀하십시오."

- 13 그러나 미카야는, "주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나는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할 따름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 14 그가 임금 앞에 나아가자 임금이 물었다. "미카야, 우리가 라못 길앗으로 싸우러 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미카야가 대답하였다.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십시오. 그곳이 두 분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 15 그러나 임금은 그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진실만을 말하라고 몇 번이나 맹세를 시켜야 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 16 그러자 미카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떼처럼 이 산 저 산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주인이 없으니, 저마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 17 이스라엘 임금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자는 내 일을 두고 좋게 예언하지 않고 나쁘게만 예언합니다."
- 18 미카야가 말하였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주님께서 여좌에 앉으시고 하늘의 온 군대가 그분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있었습니다."
- 19 그런데 주님께서 '누가 이스라엘 임금 아합을 피어내어, 그를 라못 길앗으로 올라가서 쓰러지게 하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저마다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을 내놓는데,
- 20 어떤 영이 주님 앞에 나서서 '제가 아합을 피어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에게 '어떻게 그를 피어 내겠느냐?' 하고 물으시자,
- 21 그는 '제가 나가 아합의 모든 예언자의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그를 피어

내어라. 성공할 것이다. 가서 그렇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 22 그러나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임금님의 이 예언자들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제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 23 그러자 크나야나의 아들 치드키야가 미카아에게 다가가서 뺨을 치며 말하였다. "주님의 영이 나를 떠나 어느 길로 너에게 건너가서 말씀하셨다는 것이냐?"
- 24 미카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골방으로 들어가 숨는 날에 알게 될 것이다."
- 25 그러자 이스라엘 임금은 말하였다. "미카야를 붙잡아 아몬 성주와 요아스 왕자에게 끌고 가라.
- 26 그리고 이 임금이 이렇게 말한다고 전하여라.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이자를 감옥에 가두고 빵과 물을 조금씩만 주어라.'"
- 27 미카야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무사히 돌아오시기만 한다면,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민족들아, 모두 들어라."

이스라엘 임금이 리못 길앗에서 전사하다

- 28 이스라엘 임금과 유다 임금 여호사밧은 라못 길앗으로 올라갔다.
- 29 이스라엘 임금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에 나갈 터이니, 임금님은 그대로 정장을 하십시오." 이스라엘 임금이 변장을 하고 나자, 그들은 함께 싸움터로 나갔다.
- 30 이람 임금은 그의 병거대 장수들에게 명령하였다. "낮은 자든 높은 자든 누구하고도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임금하고만 싸워라."
- 31 병거대 장수들은 여호사밧을 보고, "저자가

이스라엘 임금이다." 하며, 그와 싸우려고 돌아섰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자, 주님께서 그를 도우시어 그들을 그에게서 유인해 내셨다.

- 32 병거대 장수들은 그가 이스라엘 임금이 아남을 알아보고서, 그를 쫓다가 돌아섰다.
- 33 그런데 어떤 병사가 무턱대고 쏜 화살이 이스라엘 임금을 맞추었다. 화살이 갑옷 가슴막이의 이음새에 꽂히자, 임금은 자기 병거를 모는 부하에게 말하였다. "병거를 돌려 싸움터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
- 34 그러나 그날 싸움이 격렬해져서, 임금은 아람군을 마주 보며 병거 위에서 부축을 받고 저녁때까지 서 있다가 해질 무렵에 죽었다.

예후 선견자가 여호사밧을 비판하다

- 19 ¹ 유다 임금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 2 그러자 하냐니의 아들 예후 선견자가 나가 여호사밧 임금을 맞으며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그렇게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셔야 합니까? 이 일 때문에 주님의 진노가 임금님께 내릴 것입니다.
- 3 그렇지만 임금님께서 좋은 일도 하셨습니다. 아세라 목상들을 이 나라에서 쓸어버리시고, 주님을 찾기로 마음을 굳히신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개혁

- 4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가, 다시 브에르 세바에서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를 돌아다니며 그들을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께 돌아오게 하였다.
- 5 그는 유다 전역의 모든 요새 성읍에 일일이 관관들을 세우고,

- 6 그 관관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맡은 일을 조심해서 하시오. 사람을 대신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대신해서 판결하기 때문이요. 그대들이 판결을 내릴 때에 그분께서 그대들과 함께 계시실 것이요.
- 7 이제 그대들이 주님을 경외하기를 바라오. 명심하여 일하시오. 주 우리 하느님께는 불의나 차별이나 수뢰가 있을 수 없소."
- 8 여호사팻은 예루살렘에도 레위인들과 사제들과, 이스라엘 가문의 우두머리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세워, 주님을 대신해서 판결을 내리고 송사를 해결하게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 9 여호사팻은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주님을 경외하며 성실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맡은 일을 하시오.
- 10 어느 성읍에서든지, 살인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규정이나 법규와 관련된 송사가 형제들에게서 올라오면, 그들에게 경고하여 주님께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분의 진노가 그대들과 형제들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게 경고해야 그대들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될 것이요.
- 11 주님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우두머리 사제 아마르야가 그대들을 지휘하고, 임금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유다 집안의 영도자, 이스라엘의 아들 즈브드야가 지휘할 것이요. 레위인들은 관리자로서 그대들을 도울 것이요. 용기를 내어 맡은 일을 하시오. 주님께서 선한 이와 함께 계시어 주실 것이요."

여호사팻이 암몬과 싸워 이기다

- 20** ¹ 그 뒤에 모압 자손들과 암몬 자손들이 그 땅의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팻에게 싸움을 걸어왔다.
- ² 전령들이 와서 여호사팻에게 보고하였다. "큰 무리가 바다 건너 애돔에서 임금님을 치

러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차촌 타마르, 곧 엔 겐디에 있습니다."

- ³ 여호사팻은 두려워서 주님께 문의하기로 작정한 다음, 온 유다에 단식을 선포하였다.
- ⁴ 그러자 유다 백성이 주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모여들었다.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님을 찾으려고 온 것이다.
- ⁵ 여호사팻은 주님의 집 새 뜰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에 서서,
- ⁶ 이렇게 말하였다.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당신은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아니십니까? 또 당신은 민족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당신의 손에 힘과 권능이 있기에 아무도 당신께 맞서지 못합니다.
- ⁷ 저희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이 땅의 주민들을 당신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당신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곳을 영원히 주지 않으셨습니까?
- ⁸ 그리하여 그들은 이곳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한 성소를 당신께 지어 바치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 ⁹ '저희에게 심판의 칼이나 흑사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앙이 닥친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 집과 당신 앞에 서겠습니다. 이 집에 당신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곤경 속에서 당신께 부르짖으면, 당신께서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 ¹⁰ 이제 저 암몬 자손들과 모압과 세이르 산 주민들을 보십시오. 당신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에 그들에게 쳐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비켜 갔습니다.
- ¹¹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은 당신께서 저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신 당신의 소유지에서 저희를 쫓아내려고 왔습니다. 저희에게 앙갚음하려는 것입니다.

- 12 그러니 저희 하느님, 그들을 심판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저희를 치러 온 저 큰 무리를 대적할 힘이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저희는 여쩔할 바를 몰라 당신만 바라볼 뿐입니다."
- 13 온 유다 백성은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있었다.
- 14 그때에 회중 가운데에 있는 아히사멜에게 주님의 영이 내렸다. 그의 아버지는 즈카르야이고 할아버지는 브나야이며, 증조부는 여이엘이고 고조부는 레위인으로 아삽의 자손인 미탄야이다.
- 15 아히사멜이 말하였다. "온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여호사밧 임금님, 제 말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큰 무리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당황하지도 마라. 이 전쟁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이다.'
- 16 내일 그들과 맞서러 내려가라. 그들이 치츠 오르막길로 올라오면 너희는 여루엘 광야 맞은쪽 마른내 끝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 17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제 자리를 지키고 서서, 주님이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것을 보기만 하여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도 당황하지도 마라. 내일 그들에게 맞서러 나가라. 주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 18 여호사밧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였다.
- 19 그러자 크핫 자손과 코라 자손 레위인들이 일어나, 아주 큰 소리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 20 그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트코아 광야로 나갔다. 그들이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일어나 말하였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주 여러분의 하느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굳건해질

- 것이오. 그분의 예언자들을 믿으시오. 그러면 성공할 것이오."
- 21 그러고 나서 여호사밧은 백성과 의논한 다음, 거룩한 예복을 입고 주님께 노래와 찬양을 드릴 이들을 내세웠다. 그리하여 이들이 군대 앞에 서서 나가며 노래하게 하였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22 그들이 이렇게 환호와 찬양의 노래를 시작하였을 때, 주님께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들과 모압과 세이르 산 주민들에게 복병을 보내시니, 그들이 패배하였다.
- 23 그러자 암몬 자손들과 모압이 세이르 산 주민들에게 맞서 일어나,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켰다. 암몬 자손들과 모압은 세이르 산 주민들을 다 죽인 다음, 이번에는 동료 들끼리 서로 쳐 죽였다.
- 24 유다 사람들이 광야의 땅대에 이르러 무리를 바라보니, 주검들만 땅에 쓰러져 있고 살아남은 자는 하나도 없었다.
- 25 여호사밧은 백성과 함께 가서 전리품들을 거두었다. 그들은 많은 가죽과 물품과 옷과 값비싼 기물을 발견하고서는 옮길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노획하였다. 전리품이 너무 많아 그것들을 거두는 데에 사흘이나 걸렸다.
- 26 나흘째 되는 날, 그들은 '브라카 골짜기'에 모였다. 거기에서 그들이 주님을 찬미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그 곳의 이름을 '브라카 골짜기'라고 한다.
- 27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앞세우고,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원수들을 이기는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다.
- 28 그들은 수금과 비파와 쇠 나팔을 연주하며 예루살렘에 들어와, 주님의 집으로 나아갔다.
- 29 세상의 모든 나라가 주님께서 친히 이스라

엘의 원수들과 싸우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는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 30 이제 여호사밧의 왕국은 안정되었다. 그의 하느님께서 사방으로부터 평온하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여호사밧의 통치가 끝나다

- 31 여호사밧은 이렇게 유다를 다스렸다. 그는 서른다섯 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스물다섯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주비인데 실히의 딸이었다.
- 32 그는 자기 아버지 아사가 걷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따라 걸어,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 33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아, 백성은 여전히 자기 조상들의 하느님께 마음을 굳게 두지 않았다.
- 34 여호사밧의 나머지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실린, 하니니의 아들 예후의 기록에 쓰여 있다.
- 35 그 뒤에 유다 임금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임금 아하즈야와 동맹을 맺었는데, 아하즈야는 악을 저지르는 자였다.
- 36 여호사밧은 타르시스로 가는 상선들을 만드는데 아하즈야와 동맹을 맺고, 예즈온 계베르에서 상선들을 만들었다.
- 37 그러자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제르가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예언하였다. "임금님께서 아하즈야와 동맹을 맺으셨기 때문에, 임금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주님께서 파괴하셨습니다." 그 말대로 상선들이 부서져 타르시스로 갈 수 없게 되었다.

21 1 여호사밧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 성에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여호람의 유다 통치

- 2 여호람에게는 같은 여호사밧의 아들인 아우들이 있었는데, 아자르야, 여히엘, 즈카르야, 아자르야, 미카엘, 스파트야이다. 이들이 모두 이스라엘 임금 여호사밧의 아들이다.
- 3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에게 유다의 요세 성읍과 더불어 은과 금과 보화 등 많은 선물을 주었다. 그러나 왕권은 여호람에게 넘겨주었으니, 그가 받아들여왔기 때문이다.
- 4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의 왕위에 올라 자리를 굳힌 다음, 아우들을 모두 칼로 쳐 죽이고 이스라엘의 대신들도 더러 죽였다.
- 5 여호람은 서른두 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여덟 해 동안 다스렸다.
- 6 여호람은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에, 아합 집안이 하던 대로 이스라엘 임금들의 길을 따라 걸어,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것을 저질렀다.
- 7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윗과 맺으신 계약 때문에, 또 일찍이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영원히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집안을 멸망시키려고 하지는 않으셨다.
- 8 여호람 시대에 에돔은 유다의 지배에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들의 임금을 세웠다.
- 9 그러자 여호람은 자기 장수들과 모든 병거대를 이끌고 그곳으로 건너갔다. 여호람은 밤에 일어나 자기와 병거대 대장들을 포위한 에돔군을 쳤다.
- 10 에돔은 유다의 지배에 반란을 일으켜 오늘에 이르렀는데, 리브나야 유다의 지배에 반란을 일으킨 것도 그때다. 여호람이 자기 조상들의 하느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 11 그는 또 유다 산악 지방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들이 불륜을 저지르게 하고 유다를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
- 12 그래서 엘리야 예언자가 그에게 이런 글을 보냈다. "임금님의 조상 다윗의 하느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아버지 여호사팻과 유다 임금 아사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 13 이스라엘 임금들의 길을 따라 걸었다. 너는 또 아합 집안이 그러하였듯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불륜을 저지르게 하고, 너보다 착한 네 아버지 집안의 아우들마저 살해하였다.
- 14 그러므로 이제 주님이 네 백성과 네 자식들과 아내들, 그리고 네 모든 재산을 큰 재난으로 치겠다.
- 15 그리고 너 자신은 창자에 생긴 병으로 중병을 앓게 되고 마침내 그 병 때문에 나날이 창자가 빠져나올 것이다."
- 16 주님께서서는 여호람을 거슬러 펠리스티아인들의 적개심과, 에티오피아인들 곁에 사는 아라비아인들의 적개심을 불러일으켰다.
- 17 그들은 유다로 올라와 공격한 끝에 왕궁에 있는 모든 재산을 가져가고 임금의 아들과 과 여자들도 데려갔다. 그에게 남은 아들이라고는 막내아들 여호아히즈뿐이었다.
- 18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다음, 주님께서 여호람을 치시어 창자에 불치병이 들게 하셨다.
- 19 세월이 흘러 두 해가 지날 무렵, 그는 이 병으로 창자가 빠져나와 큰 고통 속에서 죽었다. 그러나 백성은 그의 조상들에게 해 준 것과는 달리 그를 위해서는 불을 켜 놓지 않았다.
- 20 여호람은 서른두 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여덟 해를 다스리고, 애석해하는 이 없이 가고 말았다. 사람들은 그를 다윗 성에 묻기는 하였으나 임금들의 무덤에 묻지는 않았다.

아하즈야의 유다 통치

22 ¹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즈야를 그 뒤를 이어 임금으로 세웠다. 아하즈야의 형들은 아라비아인들과 함께 진영에 쳐들어온 악달에게 학

살당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여호람의 아들 아하즈야가 유다의 임금이 되어 다스렸다.

- 2 아하즈야는 마흔두 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한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탈아인데 오므리의 손녀였다.
- 3 어머니가 고문관이 되어 악을 저지르게 하였기 때문에, 아하즈야도 아합 집안의 길을 따라 걸었다.
- 4 아버지가 죽은 뒤에 아합 집안 사람들이 그의 고문관이 되었으므로, 그는 그 집안처럼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러 망하고 말았다.
- 5 그는 그들의 조언에 따라 이스라엘 임금,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아람 임금 하자엘과 싸우려고 라못 길앗으로 갔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람인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혔다.
- 6 요람은 라마에서 아람 임금 하자엘과 싸울 때에 아람인들에게 입은 부상을 치료하려고 이즈르엘로 돌아갔다. 이렇게 아합의 아들 요람이 아팠으므로, 유다 임금 여호람의 아들 아하즈야가 그를 보려고 이즈르엘로 내려갔다.
- 7 아하즈야가 요람에게 가서 패망하게 된 것은 하느님의 뜻이었다. 아하즈야가 도착하여 요람과 함께 남사의 손자 예후를 만나러 나갔다. 이 예후는 주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제거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신 자였다.
- 8 예후는 아합 집안에 내린 심판을 수행하는 가운데, 유다의 대신들과 아하즈야를 시중드는 그 형제들의 아들들을 발견하고서 그들까지 살해하였다.
- 9 그리고 나서 예후가 아하즈야를 찾자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숨어 있던 아하즈야를 잡아 예후에게 끌고 갔다. 그들은 아하즈야를 죽인 다음, "그래도 그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은 여호사팻의 손자이다!" 하며, 그를 묻어 주었다. 그리고 나니, 아하즈야의 집안에는 나라를 다스릴 힘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탈아의 유다 통치

- 10 아하즈야의 어머니 이탈아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서는, 유다 집안의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 11 그러자 임금의 딸 여호세바가 살해될 왕자들 가운데에서 아하즈야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데려다 놓았다. 여호람 임금의 딸이며 여호야다 사제의 아내인 여호세바가 이렇게 이탈아에게서 요아스를 숨겨, 이탈아가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여호세바는 아하즈야의 누이였던 것이다.
- 12 이탈아가 나라를 다스리는 여섯 해 동안, 요아스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숨어 지냈다.

- 23** 1 칠 년째 되던 해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인대장들, 곧 여로합의 아들 아자르야,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 오벳의 아들 아자르야, 아타이의 아들 마아세야, 지크리의 아들 엘리사팻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 2 그들은 유다 땅을 돌아다니며,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였다.
- 3 그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집에서 임금을 계약을 맺자, 여호야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왕자님께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들을 두고 말씀하신 대로 이분께서 임금이 되셔야 합니다.
- 4 여러분이 할 일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안식일 당번인 사제들과 레위인들의 삼분의 일은 문지방을 지키고,
- 5 다른 삼분의 일은 왕궁을, 나머지 삼분의 일은 '초석 대문'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다른 모든 백성은 주님의 집 뜰에 모이십시오.

- 6 사제들과 그들을 시종드는 레위인들 말고는 아무도 주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지만, 다른 모든 백성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 7 레위인들은 저마다 무기를 손에 들고 임금을 에워싸십시오. 이 집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죽어야 합니다. 임금님께서 들어 오고 나가실 때에도 곁에 있어야 합니다."
- 8 레위인들과 온 유다 사람들은 여호야다 사제가 명령한 대로 다 하였다. 여호야다 사제가 군무조들을 해산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저마다 안식일 당번인 부하들뿐만 아니라 안식일 비번인 부하들까지 데려왔다.
- 9 여호야다 사제는 하나님의 집에 보관된 다윗 임금의 창과 작은 방패와 그 밖의 작은 병기를 백인대장들에게 내 주었다.
- 10 그는 또 저마다 제 병기를 손에 든 백성을 모두 주님의 집 남쪽에서 북쪽까지 제단과 주님의 집에 배치하여, 임금을 에워싸게 하였다.
- 11 그때에 사람들이 왕자를 데리고 나와, 왕관을 씌우고 증언서를 주면서 그를 임금으로 세웠다.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왕자에게 기름을 붓고,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 12 백성이 뛰어다니는 소리와 임금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은 이탈아가 백성이 모인 주님의 집으로 가서
- 13 보니, 임금이 입구에 있는 그의 기둥 곁에서 있고 대신들과 나팔수들이 임금을 모시고 서 있었다. 또 온 나라 백성이 기뻐하는 가운데 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성가 책임자들이 악기에 맞추어 찬양 노래를 이끌고 있었다. 그래서 이탈아는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 하고 외쳤다.
- 14 그때에 여호야다 사제가 군대를 거느린 백인대장들을 이끌고 나와 그들에게 분부하

었다.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시오. 그를 따르는 자가 있거든 칼로 쳐 죽이시오." 여호야다 사제는 이미 "주님의 집에서 그 여자를 죽이지 마라." 하고 말해 두었던 것이다.

15 그들은 그 여자를 체포하였다. 그리고 나서 아탈야가 왕궁의 '말 문' 입구에 들어서자, 거기에서 그 여자를 죽였다.

여호야다 사제의 개혁

16 여호야다는 자신과 온 백성과 임금 사이에 계약을 맺고, 주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였다.

17 그 뒤에 온 백성이 바알 신전에 몰려가 그 것을 허물고, 바알 제단들과 그 상들을 부수었다. 그들은 또 바알의 사제 마탄을 제단 앞에서 죽였다.

18 여호야다는 주님의 집 관리를 레위인 사제들의 손에 맡겼다. 이 레위인 사제들에게 다윗은 모세의 법에 쓰인 대로 주님의 집에서 임무를 맡아 주님께 번제물을 바치고, 또 자기 지시에 따라 기뻐 노래하며 그 일을 하게 하였던 것이다.

19 여호야다는 또 주님의 집 문마다 문지기들을 세워, 어떤 경우로든 부정하게 된 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20 그런 다음에 그는 백인대장들과 귀족들과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들과 온 나라 백성을 데려왔다. 그리고 그가 주님의 집에서 임금을 모시고 내려오자, 그들은 '잇대문'을 거쳐 왕궁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임금을 왕좌에 앉혔다.

21 그래서 온 나라 백성이 기뻐하였다. 아탈야가 칼에 맞아 죽은 뒤로 도성은 평온해졌다.

루살렘에서 마흔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치브아인데 브에르 세바 출신이었다.

2 요아스는 여호야다 사제가 살아 있는 동안 내내,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3 여호야다가 그에게 두 아내를 얻어 주어, 그가 그들에게서 아들딸들을 얻었다.

4 얼마 뒤에 요아스는 주님의 집을 고칠 마음이 들어서,

5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그들에게 분부하였다. "해마다 그대들 하느님의 집을 보수하려 하니, 유디의 성읍들에 나가 온 이스라엘에서 서둘러 돈을 거두어 오시오." 그러나 레위인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6 그래서 요아스는 여호야다 수석 사제를 불러 놓고, "어찌하여 수석 사제께서는, 주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증거의 천막을 위하여 부과한 세금을 유디와 예루살렘에서 거두어들이라고 레위인들을 독촉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7 시악한 여자 아탈야와 그의 아들들이 하느님의 집을 부수고 들어가, 주님의 집에 있는 거룩한 것을 모두 바알들을 위하여 써 버렸던 것이다.

8 임금은 분부를 내려, 궤를 하나 만들어서 주님의 집 문 밖에 두게 하였다.

9 그리고 나서 유디와 예루살렘에 선포하여, 하느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부과한 세금을 주님을 위하여 가져오게 하였다.

10 모든 지도자와 온 백성이 기쁘게 돈을 가져와, 궤가 가득 찰 때까지 거기에 넣었다.

11 레위인들이 그 궤를 임금의 관리들에게 가져가 그 궤에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그때마다 임금의 서기관과 수석 사제의 관리가 와서 궤를 비우고 돈을 가져갔다. 그런 다음에 레위인들이 다시 궤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그들은 이 일을 날마다 거듭하

요아스의 유다 통치

24 ¹ 요아스는 일곱 살에 임금이 되어 예

여 많은 돈을 모았다.

- 12 임금과 여호아다스는 그 돈을 주님의 집 보수를 맡은 이들에게 주고, 그 돈으로 그들이 석수들과 목수들을 고용하여 주님의 집을 고치게 하였다. 또한 쇠와 청동을 다루는 일꾼들을 고용하여 주님의 집을 보수하게 하였다.
- 13 일을 맡은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여 보수 공사가 그들의 손에서 잘 진행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집을 원래대로 복구시켜 견고하게 만들었다.
- 14 그들이 일을 마치고 임금과 여호아다에게 남은 돈을 가져오니, 임금은 그것으로 주님의 집을 위한 기물들, 곧 예배와 번제물을 바칠 때 쓰는 기물들과 대접들과 금은 기물들을 만들게 하였다. 여호아다가 살아 있는 동안 내내 주님의 집에서는 늘 번제물이 바쳐졌다.
- 15 여호아다는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죽을 때에 그의 나이는 백서른 살이었다.
- 16 그는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하느님과 그분의 집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임금들과 함께 다윗 성에 묻었다.

요아스의 변절과 즈카르야의 살해

- 17 여호아다가 죽은 다음, 유다의 대신들이 와서 임금에게 경배하자, 그때부터 임금은 그들의 말을 듣게 되었다.
- 18 그들은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의 집을 저버리고, 아제라 목상과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 이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내렸다.
- 19 주님께서는 그들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이 예언자들이 그들을 거슬러 증언하였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 20 그때에 여호아다 사제의 아들 즈카르야가

하느님의 영에 사로잡혀,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렇게 해서는 너희가 잘될 리 없다. 너희가 주님을 저버렸으니 주님도 너희를 저버렸다.'" "

- 21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거슬러 음모를 꾸미고, 임금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집 뜰에서 그에게 돌을 던져 죽였다.
- 22 요아스 임금은 이렇게 즈카르야의 아버지 여호아다가 자기에게 바친 충성을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즈카르야는 죽으면서, "주님께서 보고 갚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람의 침입과 유다 임금 요아스의 죽음

- 23 그해가 끝나갈 무렵,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올라왔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들어와 백성 가운데에서 관리들을 모두 죽이고, 모든 전리품을 다마스쿠스 임금에게 보냈다.
- 24 아람 군대는 얼마 안 되는 수로 쳐들어왔지만, 유다 백성이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을 저버렸으므로, 주님께서는 그토록 많은 군사를 아람 군대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그들은 요아스에게 내리친 판결을 집행하였다.
- 25 아람 군대는 요아스에게 심한 상처를 입히고 물러갔다. 그러자 요아스가 여호아다 사제의 아들을 죽인 일 때문에, 그의 신하들이 모반을 일으켜 그를 침상에서 살해하였다. 요아스는 이렇게 죽고 말았다. 사람들은 그를 다윗 성에 묻기는 하였지만, 임금들의 무덤에는 묻지 않았다.
- 26 그를 거슬러 모반을 일으킨 사람들은, 암몬 여자 시므앗의 아들 자벳과 모압 여자 시므릿의 아들 여호자벳이었다.
- 27 요아스의 아들들 이야기와 요아스에 관한

많은 신탁, 그리고 하느님의 집을 재건한 일들은 '임금들의 실록 주석서'에 쓰여 있다. 그의 아들 아마츠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마츠야의 유다 통치

- 25 ¹ 아마츠야는 스물다섯 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스물아홉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아판 인데 예루살렘 출신이었다.
- ² 그는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다.
- ³ 그는 자기 왕권이 튼튼해지자 부왕을 시해한 신하들을 죽였다.
- ⁴ 그러나 모세의 율법서에 쓰인 대로, 그들의 자손들은 죽이지 않았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처형되어서도 안 되고, 아들이 아버지 때문에 처형되어서도 안 된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죄에 따라 처형되어야 한다." 하고 명령하셨다.

아마츠야가 애들과 싸워 이긴다

- ⁵ 아마츠야는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런 다음에 온 유대와 벤야민 사람들을 집안 별로 세워, 천인대장들과 백인대장들의 지휘 아래 두었다. 그가 스무 살 이상 된 사람들을 사열하여 보니, 삼십만 명이었다. 이들은 창과 큰 방패로 무장하여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정병이었다.
- ⁶ 그는 또 은 백 탈렌트를 주고 이스라엘에서 용사 삼만 명을 고용하였다.
- ⁷ 그러나 하느님의 사람 하나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나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스라엘, 곧 에프라임의 모든 자손과는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 ⁸ 차라리 유다군만 데리고 가서서, 용감하게 싸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임

금님을 원수 앞에서 넘어뜨리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도와주실 수도 있고 넘어뜨리실 수도 있는 능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 ⁹ 그러자 아마츠야가 하느님의 사람에게 물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를 고용하느라고 지불한 백 탈렌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느님의 사람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임금님께 주실 수 있습니다."
- ¹⁰ 그래서 아마츠야는 에프라임에서 데려온 군대를 갈라내어, 제 고향으로 가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유다 백성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그리고 크게 화가 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 ¹¹ 아마츠야는 용기를 내어 군대를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로 가서, 세이르의 자손 만 명을 쳐 죽였다.
- ¹² 유다의 자손들은 또 만 명을 산 채로 붙잡아 바위 꼭대기로 끌고 갔다. 그들을 바위 꼭대기에서 내던지니, 모두 몸이 으스러졌다.
- ¹³ 그러는 사이에 아마츠야가 전투에 데려가지 않고 돌려보낸 부대의 병사들이, 사마리아에서 뱃 호론에 이르기까지 유다의 성읍들을 공격하여, 주민들을 삼천 명이나 죽이고 물건을 많이 약탈하였다.

아마츠야가 애들 신들을 삼킨다

- ¹⁴ 아마츠야는 애들인들을 치고 돌아온 다음, 세이르 자손들의 신상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내세우고, 그 앞에서 예배하며 향을 피웠다.
- ¹⁵ 그러자 주님께서 아마츠야에게 노하시어, 예언자를 한 사람 보내셨다. 예언자가 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 자기 백성을 임금님의 손에서 구해 내지도 못한, 다른 백성의 신들을 찾으십니까?"
- ¹⁶ 예언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임금

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너를 임금의 고문관으로 임명하더라도 했던 말이나? 닥쳐라. 네가 어찌자고 맞아 죽으려 하나?" 그러자 예언자는 하던 말을 그치고, 대신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고도 제 조언을 듣지 않으시는 것을 보니, 하느님께서 임금을 멸망시키 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아미츠야가 북왕국에 싸움을 걸어 회를 자초하다

17 유다 임금 아마츠야는 사람들과 의논한 다음, 예후의 손자이며 여호아하즈의 아들인,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자, 우리 한번 겨루어 보자!"

18 그러나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는 유다 임금 아마츠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대답하였다. "레바논의 엉경퀴가 레바논의 향백나무에게 '그대의 딸을 내 아들에게 아내로 주오.' 하고 전갈을 보냈다. 그러자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엉경퀴를 밟아 버렸다.

19 그대는 애들을 쳐부수었다고 말하며 마음이 우쭐해져 오만하게 구는데, 그냥 집에 나 머물러 있어라. 어찌하여 재앙을 일으켜 그대 자신과 유다를 함께 쓰러뜨리려 하는가?"

20 그러나 아마츠야는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는 하느님의 뜻이었다. 유다 사람들이 애들의 신들을 찾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들을 적의 손에 넘기시려는 것이었다.

21 그리하여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가 올라와, 유다에 속한 벧 세메스에서 유다 임금 아마츠야와 겨루었다.

22 유다군은 이스라엘군에게 패배하여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다.

23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는 아하즈야의 손자이며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임금 아마츠야를 벧 세메스에서 사로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에프라임 성문'에서 '모퉁이 성문'까지, 예루살렘 성벽 사백 암마를 무너뜨렸다.

24 그는 하느님의 집 안에서 오벧 애들이 맡고 있던 모든 금과 은과 기물, 그리고 왕궁의 보물들을 빼앗고, 인질까지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유다 임금 아마츠야가 죽다

25 유다 임금 요아스의 아들 아마츠야는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하즈의 아들 여호아스가 죽은 뒤에도 열다섯 해를 더 살았다.

26 아마츠야의 나머지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27 아마츠야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선 그때부터 예루살렘에서 그를 거슬러 모반이 일어났다. 그래서 아마츠야가 라기스로 도망쳤지만, 모반자들은 그의 뒤를 쫓아 라기스까지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그를 죽였다.

28 그리고 아마츠야를 말에 싣고 와서,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었다.

우찌야의 유다 통치

26 ¹ 유다의 모든 백성이 나이 열여섯 살인 우찌야를 데려다가, 그의 아버지 아마츠야의 뒤를 이어 임금으로 새웠다.

2 아마츠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든 뒤에, 우찌야는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다.

3 우찌야는 열여섯 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천두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콜야인데 예루살렘 출신이었다.

4 그는 자기 아버지 아마츠야가 하던 그대로,

-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 5 우찌야는, 하느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 준 츠카르야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하느님을 찾았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찾는 동안, 하느님께서는 그가 성공하도록 해 주셨다.
- 6 우찌야는 출동하여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워서, 갓의 성벽과 야브네의 성벽과 아스돗의 성벽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나서 아스돗을 비롯하여 필리스티아인들의 지역에 성읍들을 세웠다.
- 7 하느님께서서는 우찌야가 필리스티아인들과 구르 바일에 사는 아라비아인들과 므운인들을 칠 때에 도와주셨다.
- 8 그러자 암몬인들이 우찌야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의 명성이 이집트 국경까지 퍼져 나갔다. 그만큼 그의 세력이 커진 것이다.
- 9 우찌야는 에루살렘의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굽이'에 탑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튼튼하게 하였다.
- 10 그는 평원 지대와 평야에 많은 기축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광야에 탑들을 세우고 저수 동굴을 많이 팠다. 신약 지방과 기름진 땅에는 농부들과 포도밭 일꾼들을 두었다. 그는 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 11 우찌야에게는 출전 준비가 된 전투 병력이 있었는데, 서기관 여이엘과 행정관 마아세야가 사멸한 수에 따라 부대가 편성되었다. 그 전투 병력은 임금의 장수들 가운데 하나인 하난아의 지휘 아래에 있었다.
- 12 용사 가문들의 우두머리 수는 모두 이천육백 명이었다.
- 13 그들의 지휘 아래 놓인 군사들은 임금을 도와 적을 무찌를 막강한 전투 병력으로, 삼십만 칠천오백 명이었다.
- 14 우찌야는 전군에 작은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팔뚝들을 마련해 주었다.
- 15 그는 또 솜씨 좋은 장인들이 고안해 낸 것으로 화살과 큰 돌을 쏘는 무기를 만들어

탑과 성 모퉁이마다 배치하였다. 그러자 그의 명성이 널리 퍼져 나갔다. 그가 이처럼 강하게 되기까지는 놀라운 도우심이 있었다.

우찌야가 벌을 받다

- 16 그러나 우찌야는 강해지면서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패악한 짓을 저지르게 되었다. 그는 주 자기 하느님을 배신하여, 분향 제단 위에서 향을 피우려고 주님의 성전에 들어간 것이다.
- 17 그때에 아자르야 사제가 주님의 용감한 사제 여든 명과 함께 뒤따라 들어가,
- 18 우찌야 임금을 가로막고 서서 그에게 말하였다. "우찌야 임금님, 주님께 향을 피우는 일은 임금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향을 피우도록 성별된 아론의 자손 사제들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러니 성소에서 나가 주십시오. 임금님께서서는 하느님을 배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하느님께 영광을 받지도 못하실 것입니다."
- 19 그러자 손에 향로를 들고 향을 피우려던 우찌야가 회를 냈다. 그가 사제들에게 화를 내는 순간, 주님의 집 분향 제단 곁에 있는 사제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 20 아자르야 수석 사제와 모든 사제가 그를 돌아보다가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발견하고, 재빨리 그를 그곳에서 내몰았다. 우찌야 자신도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주님께서 그를 치신 것이다.
- 21 우찌야 임금은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았다. 그리고 주님의 집에서 내쫓긴 몸이었으므로, 별궁에서 살았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탐이 왕궁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 22 우찌야의 나머지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써 두었다.

23 우찌아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사람들은 그가 나병 환자였다고 해서 그를 왕실 묘지에 떨어진 타에 조상들과 함께 묻었다. 그의 아들 요탐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요탐의 유다 통치

27 ¹ 요탐은 스물다섯 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열여섯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인데 차독의 딸이었다.

2 그는 자기 아버지 우찌아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다만 아버지와는 달리 주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백성은 여전히 타락해 있었다.

3 요탐은 주님의 집 '잇대문'을 세웠다. 그리고 오패의 성벽 위에 많은 것을 지었으며,

4 유다의 산악 지방에 성읍들을 세우고, 산림 지대에 성채들과 탑들을 세웠다.

5 그는 또 암몬 자손들의 임금과 싸워 이겼다. 그해에 암몬 자손들은 그에게 은 백 탈렌트와 밀 만 코르와 보리 만 코르를 바쳤다. 암몬 자손들은 두 번째 해에도, 세 번째 해에도 같은 양을 가져왔다.

6 요탐은 이렇게 강해졌는데, 주 자기 하느님 앞에서 제 길을 굳건하게 지켰기 때문이다.

7 요탐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수행한 모든 전쟁과 그가 걸어간 길에 관해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8 그는 스물다섯 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열여섯 해 동안 다스렸다.

9 요탐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 성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하즈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하즈의 유다 통치

28 ¹ 아하즈는 스무 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열여섯 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자기 조상 다윗과는 달리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지 않고,

2 이스라엘 임금들의 길을 따라 걸으며, 바알들을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기까지 하였다.

3 그는 '벤 힌눔 골짜기'에서 향을 피우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역겨운 짓을 따라, 자기 아들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4 그는 산당과 언덕과 온갖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유다가 아람과 이스라엘에게 패배하다

5 그래서 주 그의 하느님께서서는 아하즈를 아람 임금의 손에 넘기셨다. 아람인들은 그를 쳐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다. 또 이스라엘 임금의 손에도 그를 넘기시니, 이스라엘 임금이 그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6 르말야의 아들 베카는 유다에서 단 하루에 십이만 명을 죽였는데, 그들은 모두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들이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7 그리고 에프라임의 용사 지크리는 마이세야 왕자와 아즈리감 궁내 대신과 임금 다음 서열인 엘카니를 죽였다.

8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 자기들의 형제 가운데에서 여자들과 그 아들딸들을 포함하여 이십만 명을 사로잡고, 전리품도 많이 거두어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이스라엘이 유다의 포로들을 돌려보내다

9 그때에 사마리아에는 오렛이라고 하는 주님의 예언자가 있었다. 그가 사마리아로 들어오는 군대 앞에 나가 말하였다. "주 여러분의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늘까지 닿는 분노를 터

뜨리며 그들을 학살하였습니다.

- 10 더구나 이제 유다 자손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남종과 여종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까?
- 11 이제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형제들 가운데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들을 돌려보내십시오. 주님의 타오르는 분노가 이미 여러분에게 내렸습니니다."
- 12 에프라임 자손들의 우두머리들 가운데에서도 여호하난의 아들 아자르야, 므실레못의 아들 베레키야, 살룸의 아들 여히즈기야, 하들라이의 아들 아마사가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가로막으며,
- 13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포로들을 이곳에 끌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죄가 되는 일을 우리에게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그런 행위는 우리 죄악과 허물에 또 다른 죄를 보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허물이 이미 많고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진노가 큼니다."
- 14 그러자 군사들이 포로들과 노획품을 대신들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에게 넘기고,
- 15 지명을 받은 사람들이 나서서 포로들을 돌보는 일을 맡았다. 그들은 전리품에서 옷을 가져다가 벌거벗은 이들에게 모두 입혀 주었다. 이렇게 그들은 포로들에게 옷을 입혀 주고 신을 신겨 주었으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기름을 발라 주었다. 그리고 걷지 못하는 이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야자나무 성읍' 예리코에 있는 그들의 형제들에게 데려다 준 다음,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아하즈가 아시리아에 구원을 청하다

- 16 그때에 아하즈 임금의 사신을 보내어 아시리아 임금들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 17 애돔인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포로들

을 끌고 갔기 때문이다.

- 18 팔리스티아인들도 평원 지대와 유다 남부의 성읍들을 공격하여 벳 세메스, 아얄론, 그데롯, 소코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 탐나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 김조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을 점령하고 그곳에 자리 잡았다.
- 19 이스라엘 임금 아하즈가 유다에서 멋대로 행동하면서 주님을 배신하였으므로, 주님께서 유다를 낮추셨던 것이다.
- 20 그리하여 아시리아 임금 티글랏 필에세르가 아하즈에게 왔지만, 힘을 보태 주기는 커녕 오히려 아하즈를 포위해 버렸다.
- 21 그래서 아하즈가 주님의 집과 왕궁과 대신들의 집에서 재물을 빼앗아 아시리아 임금에게 주었으나, 그는 아하즈를 도와주지 않았다.

아하즈의 죄

- 22 아하즈 임금은 이렇게 곤경에 빠졌을 때에도 줄곧 주님을 배신하였다.
- 23 그는 자기를 친 다마스쿠스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며, "아람 임금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와주었으니, 나도 이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면 이 신들이 나를 도와주겠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신들이 오히려 아하즈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다.
- 24 아하즈는 또 하느님의 집 기물들을 모았다. 그는 하느님의 집 기물들을 떼어 내고 이 주님의 집 문들을 잠가 버렸다. 그리고 나서 멋대로 예루살렘 모퉁이마다 제단을 만들었다.
- 25 또 유다의 성읍마다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워, 자기 조상들의 하느님이신 주님의 회를 돌우었다.
- 26 아하즈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걸어간 모든 길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 27 아하즈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사람

들은 그를 이스라엘 임금들의 무덤에 매장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안에 묻었다. 그의 아들 히즈기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히즈기야의 유다 통치

- 29** ¹ 히즈기야는 스물다섯 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스물아홉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아인데 즈카르야의 딸이었다.
- ² 그는 자기 조상 다윗이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성전을 정화하다

- ³ 히즈기야는 임금이 되던 첫째 첫째 달에, 주님의 집 문들을 열고 보수하였다.
- ⁴ 그는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오라고 하여 동쪽 광장에 모은 다음,
- ⁵ 그들에게 말하였다. "레위인들은 내 말을 들으시오. 그대들은 이제 자신들을 먼저 거룩하게 하고, 그대들 조상들의 하느님이신 주님의 집을 거룩하게 하시오. 그리고 성소에서 부정한 것을 끌어내시오.
- ⁶ 우리 선조들은 배신하여, 주 우리 하느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그분을 저버렸으며, 주님의 거처에서 자기들의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렸소.
- ⁷ 그들은 또 주님의 집 현관문들을 잠가 버리고 등불을 꺼 버렸으며,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향도 피우지 않고 번제물도 바치지 않았소.
- ⁸ 그래서 주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린 것이요. 그대들이 눈으로 보았듯이 그분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 거리가 되게 하셨소.
- ⁹ 우리 조상들이 칼에 맞아 쓰러지고, 우리 아들딸들과 아내들이 잡혀간 것은 바로 그 때문이요.

- ¹⁰ 이제 나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당신의 타오르는 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시기를 바라며 그분과 계약을 맺기로 결심하였소.
- ¹¹ 이제 내 아들들이여, 게으름을 피우지 마시오. 그대들이 당신 앞에서 서서 시중들도록, 이렇게 당신의 시종이 되어 당신께 향을 피우도록 주님께서 그대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요."
- ¹² 그러자 레위인들이 나섰는데, 크핫의 자손에서는 아마사이의 아들 마합과 이자르야의 아들 요엘이, 므리리의 자손에서는 압디의 아들 키스와 여할렐엘의 아들 이자르야가, 게르손인들 가운데에서는 짐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네티,
- ¹³ 엘리차판의 자손에서는 시므리와 여이엘이, 아삽의 자손에서는 즈카르야와 마탄야가,
- ¹⁴ 헤만 of 자손에서는 여히엘과 시므이가, 그리고 여두둔의 자손에서는 스마야와 우찌엘이 나섰다.
- ¹⁵ 그들은 형제들을 모아 자신들을 거룩하게 한 다음, 임금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집에 들어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곳을 정화하였다.
- ¹⁶ 사제들은 주님의 집을 정화하려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주님의 성전 안에서 부정한 것을 발견하는 대로 모두 주님의 집 뜰로 끌어내면, 레위인들이 그것들을 가져다가 '키드론 골짜기'에 내다 버렸다.
- ¹⁷ 그들은 거룩하게 하는 일을 첫째 달 초하룻날에 시작하여, 그 달 초여드렛날에 주님의 집 현관에 이르렀다. 그리고 다시 여드레 동안 주님의 집을 거룩하게 하고, 첫째 달 열셋째날에 일을 마쳤다.
- ¹⁸ 그러고 나서 그들은 히즈기야 임금에게 들어가서 말하였다. "저희가 주님의 집을 모두 정화하였습니다. 번제 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 빵을 차려 놓는 제사상과 거

기에 딸린 모든 기물도 정화하였습니다.

- 19 또 아하즈 임금님께서 왕위에 계실 때에 하느님을 배신하여 치위 버리신 모든 기물을 다시 마련하고 성별하였습니다. 보십시오, 그 기물들이 주님의 제단 앞에 있습니다."
- 20 다음 날 아침 히즈키야 임금은 일찍 일어나서 성읍의 대신들을 불러 모아 주님의 집으로 올라갔다.
- 21 그들이 황소 일곱 마리, 숫양 일곱 마리, 어린 양 일곱 마리, 그리고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한 속죄 제물로 숫염소 일곱 마리를 가져오니, 임금은 아론의 자손 사제들에게 그것들을 주님의 제단 위에서 바치게 하였다.
- 22 사람들이 소를 잡고, 사제들은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렸다. 또 숫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어린 양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렸다.
- 23 그리고 속죄 제물인 숫염소를 임금과 회중 앞으로 가까이 끌어와, 그들이 그 위에 손을 얹자,
- 24 사제들은 온 이스라엘의 죄를 벗겨 주기 위해서, 그 염소를 잡아 그 피를 제단 위에서 속죄 제물로 바쳤다. 임금이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하였던 것이다.
- 25 그는 또 다윗과 임금의 선전자 것과 나탄 예언자의 명령에 따라 자바라와 수금과 비파를 든 레위인들을 주님의 집에 배치하였다. 이 명령은 주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내리신 것이다.
- 26 레위인들은 다윗의 악기를 들고 사제들은 쇠 나팔을 들고 섰다.
- 27 그러자 히즈키야는 번제물을 제단 위에서 바치라고 분부하였다. 번제물을 바치기 시작하자,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도 시작되고, 이스라엘 임금 다윗의 악기들에 맞추어 나

팔 소리도 울려 퍼졌다.

- 28 온 회중은 경배를 드리고 성가대는 노래를 부르고 나팔수들은 나팔을 불었다. 번제물을 다 바칠 때까지 모두 이렇게 하였다.
- 29 번제물을 다 바치고 나서, 임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엎드려 경배하였다.
- 30 그런 다음에 히즈키야 임금과 대신들이 레위인들에게 다윗과 아삽 선전자가 지은 노랫말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이르니, 레위인들은 몹시 기뻐하며 찬양하고 무릎 꿇어 경배하였다.
- 31 히즈키야가 다시 말하였다. "이제 그대들은 주님을 위하여 자신들을 성별하였소. 가까이 다가와 희생 제물과 감사 제물을 주님의 집에 바치시오." 그러자 회중이 희생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 오고, 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람마다 번제물을 가져왔다.
- 32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는 황소가 일흔 마리, 숫양이 백 마리, 어린 양이 이백 마리였다. 이것을 모두 주님께 번제물로 바쳤다.
- 33 거룩한 예물은 황소 육백 마리와 양 삼천 마리였다.
- 34 그런데 사제의 수가 적어서 그 번제물의 가죽을 다 벗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른 사제들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그 일을 마칠 때까지, 형제들인 레위인들이 그들을 도왔다.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는, 레위인들이 사제들보다 더 열심이었던 것이다.
- 35 번제물도 많았지만, 친교 제물의 굳기름도 있었고 번제물에 곁들이는 제주도 있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었다.
- 36 히즈키야와 온 백성은 하느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친히 일을 그렇게 해 주셨으므로 기뻐하였다. 더구나 그 일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파스가 축제를 준비하다

- 30** ¹ 히즈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예프라임과 므나세에는 편지를 써 보내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와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기리는 파스가 축제를 지내라고 하였다.
- ² 임금이 대신들과 예루살렘의 온 회중과 의논하여 두 번째 달에 파스가 축제를 지내기로 한 것이다.
- ³ 그들이 제때에 파스가 축제를 지내지 못한 것은 자신들을 거룩하게 한 사제들의 수가 충분하지 못한 데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 ⁴ 임금이 보기에, 그리고 온 회중이 보기에 그 계획이 옳았으므로,
- ⁵ 임금은 브에르 세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에,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기리는 파스가 축제를 예루살렘으로 와서 지낼 것을 선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때에는 율법에 쓰인 대로 파스가 축제를 지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 ⁶ 그리하여 보발꾼들이 임금과 대신들에게서 편지를 받아들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돌아다니며, 임금이 명령한 대로 이렇게 전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아오시오. 그레야 주님께서도 아시리아 임금들의 손아귀에서 살아남은 여러분에게 돌아오실 것이요.
- ⁷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들이나 형제들과 같이 사는 안 되오. 그들이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을 배신하였으므로, 여러분이 보다시피 그분께서는 그들을 놀람 거리로 만드셨소.
- ⁸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목을 뺏뺏하게 하지 말고 주님께 손을 내미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영원히 성별하신 그분의

성소로 와서 주 여러분의 하느님을 섬기시오. 그레야만 그분께서 당신의 타오르는 분노를 여러분에게서 돌리실 것이요.

- ⁹ 여러분이 주님께 돌아오면, 여러분의 형제들과 자식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자들에게 동정을 얻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요. 주 여러분의 하느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그분께 돌아오면 여러분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실 것이요."
- ¹⁰ 보발꾼들이 브블룬에 이르기까지 예프라임과 므나세 지방의 이 성읍 저 성읍을 두루 다녔지만, 사람들은 보발꾼들을 비웃고 놀려댔다.
- ¹¹ 다만 아세르와 므나세와 브블룬에서 몇몇 사람이 자신들을 낮추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 ¹² 유다에도 하느님의 손길이 미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임금과 대신들이 내린 명령을 수행하도록 한 마음을 주셨다.

파스가 축제를 성대히 지나다

- ¹³ 둘째 달에 많은 백성이 무교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으로 모여 왔다. 아주 큰 회중이었다.
- ¹⁴ 그들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들을 치우고 분향 단들도 모두 치워, '키드론 골짜기'에 내다 버렸다.
- ¹⁵ 그리고 둘째 달 열나흘날에 파스가 양을 잡았다.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며 자신들을 거룩하게 한 다음, 주님의 집으로 반제물들을 가져왔다.
- ¹⁶ 그들은 하느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따라 법규로 정해진 자리에 섰다. 사제들은 레위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렸다.
- ¹⁷ 그런데 회중 가운데에는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부정함 탓으로 주님께 파스가 양

을 봉헌하지 못하는 모든 이를 위하여 파스카 양을 잡는 일을 맡았다.

- 18 그러나 많은 백성, 주로 에프라임과 므나세와 이사카르와 즈블론에서 온 사람들이, 율법에 쓰인 대로 하지 않고 정결하지 못한 몸으로 파스카 양을 먹었다. 그래서 히즈기야는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였다. "선하신 주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19 이들은 성소의 정결 예식을 따르지 않았지만, 저마다 하느님을, 주 자기 조상들의 하느님을 찾기로 마음을 굳힌 사람들입니다."
- 20 주님께서 히즈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이 화를 입지 않게 해 주셨다.
- 21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크게 기뻐하며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냈다. 레위인들과 사제들은 주님을 위하여 웅장한 소리를 내는 악기를 들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였다.
- 22 히즈기야는 능숙한 솜씨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레위인에게 격려의 말을 해 주었다. 이렇게 그들은 친교 제물을 바치고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을 찬송하며, 이레 동안 축제 제물을 나누어 먹었다.
- 23 그런 다음에 온 회중이 또다시 이레 동안 축제를 지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이레 동안 축제를 기쁘게 지냈다.
- 24 유다 임금 히즈기야가 회중에게 황소 천 마리와 양 칠천 마리를 내놓고, 대신들도 회중에게 황소 천 마리와 양 만 마리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때에 많은 사제들이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 25 유다의 온 회중을 비롯하여 사제들과 레위인들,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 이스라엘 땅에서 넘어온 이방인들, 유다에 사는 거류민들도 함께 기뻐하였다.
- 26 이렇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넘쳤으니, 이

스라엘의 임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 이래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일은 없었다.

- 27 레위인 사제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자, 그 축복하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다. 그들의 기도도 그분의 거룩한 처소 하늘까지 이르렀다.

히즈기야의 종교 개혁

31 ¹ 이 모든 일이 끝나자 거기에 있던 온 이스라엘이 유다의 성읍들로 나가, 기념 기둥들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들을 토막 내었으며, 온 유다와 벤야민과 에프라임과 므나세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무너뜨려 모조리 없애 버렸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저마다 자기 소유지가 있는 성읍으로 돌아갔다.

- 2 히즈기야는 조에 따라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다시 배치하였다. 그리고 나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저마다 조에 따라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치는 임무를 맡아, 주님 진영의 문에서 시중두고 찬송과 찬양을 드리는 일을 하게 하였다.
- 3 임금이 자기 소유에서 내놓은 것은 번제물로 바칠 가축이었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쓰인 대로 아침저녁으로 바치는 번제물, 안식일과 초하룻날과 축일에 바치는 번제물이었다.
- 4 히즈기야는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뭇을 바치라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분부하였다.
- 5 그 분부가 전해지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곡식의 말뭉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 그 밖에 들에서 나는 모든 소출을 많이 내놓았다. 또 모든 것의 십일조도 많이 가져왔다.
- 6 유다 성읍들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자손들도 소와 양의 십일조와, 주 자기의 하느님께 바친 거룩한 예물의 십일조

- 를 가져와서 여러 더미로 쌓아 놓았다.
- 7 그들은 셋째 달에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쳤다.
- 8 히즈키야와 대신들이 와서 이 더미들을 보고는, 주님을 찬미하고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였다.
- 9 히즈키야 임금의 사제들과 레위인들에게 그 더미에 관하여 묻자,
- 10 차독 집안의 아자르야 수석 사제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사람들이 주님의 집에 예물을 가져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배를 리 먹고도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복을 내리시어 이토록 많이 남아 쌓인 것입니다."
- 11 히즈키야가 주님의 집에 방들을 마련하려고 분부하자,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 12 그러고 나서 예물과 십일조와 거룩한 예물들을 정확하게 그곳으로 가져갔다. 이 일의 책임자는 레위인 코난이었고, 부책임자는 그의 아우 시므이였다.
- 13 코난이와 그의 아우 시므이를 도와 그 일을 감독한 이들은 여히엘, 아자르야, 나훔, 아시엘, 예리못, 요자밧, 엘리엘, 이스마르야, 미훗, 브나야였다. 이들은 히즈키야 임금과 하느님의 집 책임자 아자르야에게 임명을 받았다.
- 14 또 동쪽 문을 지키는 문지기, 레위인 임나의 아들 코레는 하느님께 바치는 자원 예물을 받아서, 주님께 바칠 예물과 가장 거룩한 것을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았다.
- 15 그를 도와 일한 이들은 에덴, 민아민, 여호수아, 스미야, 아마르야, 스킨이었는데, 그들은 사제들의 성읍들에서, 그 형제들에게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조에 따라 정확하게 뭇을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았다.
- 16 그것은 세 살 이상의 남자들로 족보에 올라, 주님의 집에 들어가 그날그날의 임무를, 곧 조에 따라 맡겨진 직책대로 자기

-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 외에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일이었다.
- 17 사제들은 집안에 따라 등록되고, 레위인들은 스무 살 이상부터 직책과 조에 따라 등록되었다.
- 18 그들과 함께 어린아이와 아내와 아들딸 등 모든 무리가 족보에 올랐다. 이들도 거룩한 것을 충실히 다루어야 했기 때문이다.
- 19 사제 성읍에 딸린 들에 사는 아론의 자손 사제들 경우에는, 성읍마다 따로 지명된 사람들이 사제 가문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오른 모든 레위인에게 뭇을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았다.
- 20 히즈키야는 이런 일을 온 유다에서 하였다. 그는 주 자기 하느님 앞에서 착하고 바르고 진실한 일을 하였다.
- 21 그는 하느님의 집과 관련된 일인든 율법이나 계명과 관련된 일인든, 자기가 시작한 모든 일에서 하느님을 찾으며 마음을 다하여 그 일을 수행하였다. 그래서 그는 성공을 거두었다.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위협하다

- 32¹ 이렇게 일을 충실히 이루어 놓은 다음이었다. 아시리아 임금 산헤림이 쳐들어왔다. 그는 유다에 쳐들어와서 요새 성읍들을 점령할 생각으로 잔을 쳤다.
- 2 히즈키야는 산헤림이 와서 결국 예루살렘을 공격하리라는 것을 알고,
- 3 대신들과 용사들과 함께 의논한 뒤, 도성 밖에 있는 샘들의 물줄기를 막기로 하였다. 그들이 임금을 지지하자,
- 4 많은 백성이 모여 모든 샘과, 이 땅에 흐르는 시냇물을 막았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시리아 임금들이 와서 어찌 많은 물을 얻게 내버려 두겠는가?" 하고 말하였다.
- 5 히즈키야는 용기를 내어 허물어진 성벽들을 모두 쌓고 담들을 높였으며, 성 밖에 또 다

른 성벽을 쌓았다. 그는 다윗 성 안에 있는 밀로 궁을 보수하고 표창과 작은 방패도 넉넉하게 만들었다.

6 이어서 군대를 통솔할 전투 지휘관들을 임명한 다음, 그들을 성문 광장에 모아 놓고 격려하며 말하였다.

7 "힘과 용기를 내어라. 아시리아 임금과 그가 거느린 모든 무리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당황하지도 마라. 그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8 그에게는 살로 된 팔뚝이 없지만, 우리에게 주 우리 하느님께서 계시어 우리를 도와 주시고 우리 대신 싸워 주신다." 백성은 유다 임금 히즈기아의 말을 듣고 안심하였다.

9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아시리아 임금 산헤립이 전 병력을 거느리고 라키스를 공격하면서, 부하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유다 임금 히즈기아와 예루살렘의 모든 유다인에게 말하였다.

10 "아시리아 임금 산헤립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을 믿고 예루살렘의 포위를 견디겠다는 것이냐?

11 히즈기아가 '주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를 아시리아 임금의 손아귀에서 구해 내실 것이다.' 하면서, 너희를 잘못 이끌어 굶주리고 목말라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12 바로 이 히즈기아가 자기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치워 버리고,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고 그 위에서 향을 피워 올려라.' 하고 말하지 않았느냐?

13 나와 내 조상들이 세상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세상 민족들의 신들이 과연 너희 나라를 내 손에서 구해 낼 수 있었느냐?

14 내 조상들이 전멸시킨 민족들의 신들 가운데 어느 신이 제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 내었기에, 너희 하느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 낼 수 있다는 것이냐?

15 그러니 이제 너희는 히즈기아가 너희를 속이거나 이런 식으로 잘못 이끌게 하지 마라. 그를 믿지 마라. 어떤 민족, 어떤 나라의 신도 제 백성을 내 손에서, 그리고 내 조상들의 손에서 구해 낼 수 없었는데, 너희 하느님이라고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 내겠느냐?"

16 산헤립의 부하들은 계속해서 주 하느님과 그분의 종 히즈기아를 헐뜯는 말을 하였다.

17 또한 산헤립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편지를 이렇게 써 보냈다. "저희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 내지 못한 세상 민족들의 신들처럼, 히즈기아의 하느님도 제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 내지 못한 것이다."

18 그들은 성벽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백성에게 유다 말로 크게 소리쳤다. 백성을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하여 도성을 함락시키려는 속셈이었다.

19 그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세상 민족들의 신들을 두고 말하듯, 예루살렘의 하느님을 두고도 그렇게 하였다.

20 히즈기아 임금과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다.

21 그러자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아시리아 임금의 진영에 있는 모든 용사와 지휘관과 장수를 쓸어버리게 하였다. 그리하여 아시리아 임금이 수치를 안고 제 나라로 돌아가 자기 신의 신전에 들어가자, 거기에서 천자식 맞이 그를 칼로 쳐서 쓰러뜨렸다.

22 이처럼 주님께서 히즈기아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아시리아 임금 산헤립과 모든 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나서 사방으로부터 평온하게 해 주셨다.

23 그러자 많은 이가 예루살렘으로 주님께 예물을 가져오고, 유다 임금 히즈기아에게도

보화를 가져왔다. 그때부터 히즈기야는 모든 민족들 앞에서 들어 높여졌다.

히즈기야의 병과 교만

- 24 그 무렵에 히즈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가 주님께 기도하자,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표징을 주셨다.
- 25 그러나 마음이 교만해진 히즈기야는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의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렸다.
- 26 히즈기야는 마음이 교만하였던 것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자신을 낮추었다. 그래서 히즈기야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닥치지 않았다.

히즈기야의 부와 영광

- 27 히즈기야는 대단한 부와 영광을 누렸다. 그는 은과 금과 보석과 향료와 작은 방패와 온갖 값진 기물들을 보관할 창고들을 지었다.
- 28 또 수확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저장할 곳집들과, 온갖 가축 우리와 양 우리들도 지었다.
- 29 그는 성읍들을 짓고 양과 소도 많이 가지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그에게 주셨던 것이다.
- 30 기혼 생의 위쪽 물줄기를 막아 다윗 성 서쪽 밑으로 돌려 끌어들이는 것도 바로 히즈기야이다. 히즈기야는 하는 일마다 성공하였다.
- 31 이 나라에서 일어난 표징을 알아보려 바빌론 대신들이 그에게 사절단을 보냈을 때에도, 하느님께서 히즈기야를 시험하시고 그의 마음을 다 알아보시려고 그가 하는 대로 두셨다.

히즈기야가 죽다

- 32 히즈기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충직한 행

실은 아모즈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의 환시록에, 유다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 33 히즈기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사 람들은 그를 다윗 자손들의 무덤으로 가는 오르막에 묻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의 죽음에 경의를 표하였다. 그의 아들 므나세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므나세의 유다 통치

- 33¹ 므나세는 열두 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쉰다섯 해 동안 다스 려다.
- 2 므나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역겨운 짓을 따라,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 3 그는 자기 아버지 히즈기야가 무너뜨린 산 당들을 다시 짓고, 비알 제단들을 세웠다. 또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군대를 경배하고 섬겼다.
- 4 그리고 주님께서 일찍이 "예루살렘에 나의 이름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집 안에도 제단들을 세웠다.
- 5 그는 주님의 집 두 뜰에 하늘의 모든 군대를 위하여 제단들을 지었다.
- 6 그는 또 '벤 힌놈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고 요술과 마술과 주술을 하였으며, 영매와 점쟁이들을 두었다. 이렇게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많이 저질러 주님의 분노를 돋우었다.
- 7 그는 자기가 세겨 만든 우상을 하느님의 집 안에 세웠다. 이 집을 두고 하느님께서 일찍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집,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선택한 이 예루살렘에 나의 이름을 영원히 둔다.
- 8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 나의 종 모세를 통하여 내린 모든 율법과 규정과

법규를 명심하여 지키기만 하면, 다시는 네가 너희 조상들에게 지칭해 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몰아내지 않았다."

9 그러나 므나세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잘못 이끌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보다 더 악한 짓을 저지르게 하였다.

므나세가 회개하다

10 주님께서 므나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주의 기용이지 않았다.

11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아시리아 임금 군대의 장수들을 끌어들이시자, 그 장수들은 므나세를 갈고리로 잡아서 청동 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12 이렇게 곤경에 빠진 므나세는 주 자기 하나님께 자비를 간청하였다.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껏 낮추고

13 그분께 기도를 드리니, 그분께서는 그의 호소를 받아 주시고 그의 간청을 들어 주시어,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그제서야 므나세는 주님께서 하느님이심을 알게 되었다.

14 이런 일이 있고 난 뒤, 므나세는 기혼 셋째 서쪽 골짜기에서 '물고기 문' 입구에 이르기까지, 오펠을 돌아가며 다윗 성의 외곽 성벽을 쌓고 그 성벽을 매우 높이 올렸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에 군대의 장수들을 배치하였다.

15 그는 주님의 집에서 낮은 신들과 우상을 치우고, 주님의 집이 있는 산과 예루살렘에 자기가 세운 제단들을 모두 성 밖으로 던져 버렸다.

16 그리고 나서 주님의 제단을 수리하고 그 위에서 친교 제물과 감사 제물을 바친 다음,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섬기라고 유다 백성에게 분부하였다.

17 그러나 백성은 주 저희 하느님께 제물을

바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산당에서 바쳤다.

므나세가 죽다

18 므나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하느님께 드린 기도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이름으로 환시자들이 그에게 한 말들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들어 있다.

19 그의 기도와 그분께서 그의 호소를 받아 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배신, 그리고 그가 자신을 낮추기 전에 산당들을 짓고 아세라 목상들과 조각 신상들을 세운 장소에 관해서는 환시자들의 기록에 쓰여 있다.

20 므나세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사람들은 그를 그의 궁전에 묻었다. 그의 아들 아몬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몬의 유다 통치

21 아몬은 스물두 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두 해 동안 다스렸다.

22 그는 자기 아버지 므나세가 하던 대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아몬은 자기 아버지 므나세가 만든 온갖 조각 신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것들을 섬겼다.

23 그러면서 그는 자기 아버지 므나세가 자신을 낮춘 것처럼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24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그를 거슬러 모반하고 궁전 안에서 그를 죽였다.

25 그러나 나라 백성이 아몬 임금을 거슬러 모반한 자들을 모두 쳐 죽이고, 그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요시아를 임금으로 세웠다.

요시아의 등극과 종교 개혁

34¹ 요시아는 여덟 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서른한 해 동안 다스

- 렸다.
- 2 그는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으며, 자기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 걸어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았다.
- 3 그의 통치 제팔년에, 그는 아직 어린 몸으로 조상 다윗의 하느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또 제십이년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조각 신상과 주조 신상들을 치우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화하기 시작하였다.
- 4 요시아 앞에서 사람들은 비알 제단들을 무너뜨리고 제단 위에 있는 분향 단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과 조각 신상과 주조 신상들을 깨부수어 가루로 만들고서는, 그 가루를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던 자들의 무덤 위에 뿌렸다.
- 5 요시아는 또 사제들의 뼈를 그 제단 위에서 태웠다. 이렇게 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화하였다.
- 6 므나쎄와 에프라임과 시메온, 납탈리에 이르기까지 성읍들의 광장에서,
- 7 곧 온 이스라엘 땅에서 그는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목상과 조각 신상들을 깨뜨려 가루로 만들고 분향 단들을 부순 다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울림사를 발견하다

- 8 요시아는 나라와 하느님의 집을 정화한 다음, 그의 통치 제십팔년에 아꼴야의 아들 사판과 마야쎄야 성주와 요아하즈의 아들 요아 기록관을 보내어, 주 자기 하느님의 집을 보수하게 하였다.
- 9 그들은 할기야 대사제에게 가서, 하느님의 집으로 들어온 돈을 그에게 내놓았다. 그 돈은 므나쎄와 에프라임,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지역의 모든 주민에게서, 또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하느님의 집 문지방을 지키는 레위인들이 모은 것이다.

- 10 그들은 그 돈을 주님의 집 보수 공사를 책임진 일꾼들의 손에 넘겨주고, 다시 그것을 주님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집을 고치고 보수하게 하였다.
- 11 또 목수와 석수에게 주어, 유다의 임금이 폐가로 만들어 버린 건물들을 고치는데 쓸 깎은 돌과 도리와 들보 재목을 사게 하였다.
- 12 그 사람들은 일을 성실하게 하였다. 그들을 지휘할 사람으로 레위인들이 임명되었는데, 므라리의 자손 아합과 오바드야, 크핫의 자손 즈카르야와 므슬람이다. 약기를 잘 다루는 나머지 레위인들은 모두,
- 13 짐꾼들을 감독하고, 각종 작업을 하는 일꾼들을 지휘하였다. 몇몇 레위인은 서기관, 행정관, 문지기 일을 맡았다.
- 14 사람들이 주님의 집에 들어온 돈을 꺼내고 있는데, 할기야 사제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주님의 율림서를 발견하였다.
- 15 할기야는 사판 서기관에게, "내가 주님의 집에서 율림서를 발견하였소" 하면서, 그 책을 사판에게 주었다.
- 16 사판은 그 책을 가지고 임금에게 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임금님의 신하들은 맡은 일을 다 잘하고 있습니다.
- 17 그들은 주님의 집에 있는 돈을 쏟아 내어, 감독들의 손에, 그리고 일꾼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 18 그러고 나서 사판 서기관은 임금에게, "그런데 할기야 사제가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었습니다." 하며, 임금 앞에서 그것을 소리 내어 읽었다.
- 19 그 율림의 말씀을 듣고 임금은 자기 옷을 찢었다.
- 20 임금은 할기야, 사판의 아들 아히캄, 미가의 아들 압둔, 사판 서기관, 그리고 임금의 시종 아시아에게 명령하였다.
- 21 "가서 이번에 발견된 이 책의 말씀을 두고,

나를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나머지 백성을 위하여 주님께 문의하여 주시오. 우리 조상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책에 쓰여 있는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쏟아진 주님의 진노가 크오."

- 22 할기야는 임금이 보낸 이들과 함께 홀다 여예언자에게 갔다. 홀다는 하스라의 손자이며 특삭의 아들인 살룸 예복 담당관의 아내였다. 홀다는 예루살렘 신사거처에 살고 있었다. 그들이 홀다에게 이 일에 관하여 묻자,
- 23 홀다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스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나에게 보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 24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제 내가 이곳과 이곳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유다 임금 앞에서 읽은 책에 쓰인 저주들을 모두 내리겠다.
- 25 그들이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워, 자기들 손으로 저지른 그 모든 짓으로 나의 화를 돋우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진노가 이곳에 쏟아질 터인데, 그 진노는 꺼지지 않을 것이다.'
- 26 그리고 주님께 문의하라고 여러분을 보낸 유다 임금님께 이 말도 전하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스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들은 말에 관한 것이다.
- 27 이곳과 이곳 주민들을 두고 한 말을 듣고, 내가 마음이 유순해져 하스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다. 곧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다. 또 네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래서 나도 네 말을 잘 들어 주었다. 주님의 말이다.
- 28 이제 내가 너를 네 조상들 곁으로 불러들일 때, 너는 평화로이 네 무덤에 묻히고, 내가 이곳과 이곳 주민들에게 내릴 모든 재앙을 네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을 임금에게 전하였다.

요시야가 계약 책을 봉독하고 계약을 맺다

- 29 임금은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원로를 소집하였다.
- 30 임금은 모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 사제들과 레위인들, 높은 자에서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과 함께 주님의 집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주님의 집에서 발견된 계약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그들에게 들려주었다.
- 31 그런 다음에 임금은 자기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라 걸으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분의 계명과 법령과 규정을 지켜, 그 책에 쓰여 있는 계약의 말씀을 실천하기로 주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
- 32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 계약에 참여시켰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스라, 곧 저희 조상들의 하스라님의 계약을 따르게 되었다.
- 33 요시야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한 모든 지역에서 역겨운 것들을 모두 없애 버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 저희 하스라님을 섬기게 하였다. 그래서 그가 살아 있는 동안 내내 사람들은 주 저희 조상들의 하스라님을 따르는 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요시야가 파스가 축제를 지내다

- 35 ¹ 요시야는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기리는 파스가 축제를 지냈다. 첫째 달 열사흘날에 사람들은 파스가 양을 잡았다.
- 2 요시야는 사제들에게 임무를 맡기고 주님의 집에서 맡은 일을 잘하라고 격려했다.
- 3 그는 또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그리고 주님께 성별된 레위인들에게 일렀다. "거룩한 케를 이스라엘 임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주님의 집 안에 그냥 두시오. 더 이상

그 께를 어깨에 메고 옮길 필요가 없소. 그 대들은 이제 주 그대들의 하느님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시오.

4 그대들은 이스라엘 임금 다윗의 칙령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칙명에 따라 그대들 조상들의 집안별로, 그리고 조별로 준비를 하시오.

5 그리고 나서 그대들의 형제들인 백성의 집안 갈래에 따라, 레위 집안의 조에 따라 성소에 자리를 잡으시오.

6 그런 다음에 파스카 양을 잡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며,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어, 모든 일을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게 하시오."

7 요시아는 참석한 모든 백성이 파스카 제물로 쓸 수 있도록 어린 양과 새끼 염소 삼만 마리에다 황소 삼천 마리를 기부하였다. 이것은 임금의 개인 재산에서 나온 것이다.

8 대신들도 자진해서 백성과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위하여 기부하고, 하느님의 성전 책임자들이 할키야와 즈카르야와 여히엘도 사제들이 파스카 제물로 쓸 수 있도록 어린 양과 새끼 염소 이천육백 마리에다 황소 삼백 마리를 내놓았다.

9 레위인들의 지도자들인 코난야, 그리고 그의 동기 스미야와 느탄엘, 하사브야, 여이엘, 요자밧도 레위인들이 파스카 제물로 쓸 수 있도록 어린 양과 새끼 염소 오천 마리에다 황소 오백 마리를 기부하였다.

10 예배가 준비되었을 때, 임금의 명령에 따라 사제들은 자기 자리에 서고 레위인들은 조에 따라 자리를 잡았다.

11 사람들이 파스카 양을 잡자, 사제들은 그 피를 받아 뿌리고 레위인들은 가죽을 벗겼다.

12 그리고 나서 레위인들은 번제물을 따로 떼어 백성의 집안 갈래에 따라 나누어 주고, 모세의 책에 쓰인 대로 주님께 바치게 하

였다. 황소도 그렇게 하였다.

- 13 그들은 법규대로 파스카 양을 불에 굽고, 나머지 거룩한 제물은 냄비와 솥과 단지에 넣고 삶아서, 뛰어다니며 온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다.
- 14 그런 다음에야 자신들과 사제들의 몫을 준비하였다. 이룬의 자손 사제들은 번제물과 굳기름을 밤까지 바쳐야 했으므로, 레위인들이 자신들과 이룬의 자손 사제들의 몫을 준비하였던 것이다.
- 15 아삽 자손의 성가대는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임금의 환시가 여두툰의 명령에 따라 제 위치에 서고, 문지기들도 저마다 책임을 맡은 대문에서 서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일지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의 형제 레위인들이 그들의 몫을 준비해 주었기 때문이다.
- 16 이렇게 그날 주님의 예배가 모두 준비되어, 요시아 임금의 명령대로 파스카 축제를 지내고 주님의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바칠 수 있었다.
- 17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때에 파스카 축제를 지내고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냈다.
- 18 사무엘 예언자 시대 이래 이스라엘에서 파스카 축제를 그처럼 지낸 적이 없었다. 어떤 이스라엘 임금도 요시아가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거기에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과 에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지낸 것과 같은 파스카 축제는 지낸 적이 없었다.
- 19 요시아 통치 제십팔년에 그렇게 파스카 축제를 지낸 것이다.

요시아가 죽다

- 20 이런 일이 모두 일어난 다음, 곧 요시아가 주님의 집을 다시 정비한 뒤에, 이집트 임금 느코가 유프라테스 강 기에 있는 카르 크미스에서 싸우려고 올라왔다. 요시아가

그에게 맞서 싸우러 나가자,

- 21 그가 요시아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유다 임금이며, 그대가 나와 무슨 상관인가? 나는 오늘 그대를 치러 온 것이 아니라, 나와 싸움을 벌이는 왕실을 치러 온 것이오. 하느님께서 나에게 서두르라고 하셨소. 그러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거스르지 마시오. 그러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그대를 멸망시키실 것이오."
- 22 그러나 요시아는 그에게서 물러서지 않고, 그와 싸우려고 변장까지 하였다. 이렇게 요시아는 하느님의 입에서 나온 느코의 말을 듣지 않고, 그와 싸우려고 므기또 평원으로 진군하였다.
- 23 그때에 궁수들이 요시아 임금을 쏘아 맞혔다. 임금은 부하들에게 일었다. "나를 여기에서 옮겨라. 내가 크게 다쳤다."
- 24 그의 부하들은 그를 병거에서 옮겨 그의 두 번째 병거에 태우고는 예루살렘으로 데려갔다. 그러나 요시아는 죽고 말았다. 요시아가 자기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자,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 25 예레미야도 요시아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다. 그래서 요시아를 애도할 때에는 오늘 날까지도 노래하는 남녀들이 모두 그 애가를 부른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이스라엘의 규정으로 삼았다. 그 애가는 애가 집에 실려 있다.
- 26 요시아의 나머지 행적과 주님의 율법에 쓰인 대로 한 그의 충직한 행실과
- 27 그의 업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여호아하즈의 유다 통치

36 ¹ 나라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즈를 데려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아버지 뒤를 이어 임금으로 세웠다.

- 2 여호아하즈는 스물세 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 3 그런데 이집트 임금이 그를 예루살렘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 나라에 은 백 탈렌트와 금 한 탈렌트를 배상금으로 바치게 하였다.
- 4 그리고 나서 이집트 임금은 여호아하즈의 형제인 엘야킴을 유다와 예루살렘의 임금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킴으로 바꾸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느코는 그의 형제인 여호아하즈를 잡아 이집트로 데려갔다.

여호야킴의 유다 통치

- 5 여호야킴은 스물다섯 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열한 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자기 하느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 6 그때에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올라와서 그를 청동 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 7 네부카드네자르는 주님의 집 기물들도 일부 바빌론으로 가져가 바빌론에 있는 자기 궁전에 두었다.
- 8 여호야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저지른 역겨운 짓들과 그에게 일어난 일은 이스라엘과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 9 여호야킨은 여덟 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 10 해가 바뀔 때에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 주님 집의 값진 기물들과 함께 여호야킨을 바빌론으로 데려가 버렸다. 그리고 그의 삼촌 치드키야를 유다와 예루살렘의 임금으로 세웠다.

치드키야의 유다 통치

- 11 치드키야는 스물한 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열한 해 동안 다스렸다.

- 12 치드키야는 주 자기 하느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예언자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았다.
- 13 또한 하느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한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에게 반역하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돌아가는 대신에 제 목을 뺏뺏하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하였다.
- 14 모든 지도 사제와 백성도 이방인들의 온갖 역겨운 짓을 따라 주님을 크게 배신하고, 주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에서 성별하신 주님의 집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 15 주 그들 조상들의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백성과 당신의 처소를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당신의 사자들을 줄곧 그들에게 보내셨다.
- 16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였으며, 그분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님의 진노가 당신 백성을 향하여 타올라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다.

유다의 멸망과 상전외의 파괴

- 17 그리하여 그분께서 칼데아인들의 임금을 그들에게 올려 보내시어, 그들 성소의 집에서 젊은이들을 칼로 쳐 죽이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젊은이도 처녀도, 나이 든 이도 노약한 이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모두 그 임금의 손에 넘기셨다.
- 18 칼데아 임금은 하느님 집의 크고 작은 모든 기물과 주님 집의 보물과 임금과 대신들의 보물을 모조리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 19 그들은 하느님의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었으며, 궁들을 모두 불에 태우고 값진 기물을 모조리 파괴하였다.
- 20 그리고 칼데아 임금은 칼을 피하여 살아남은 자들을 바빌론으로 유배시켜, 그와 그 자손들의 종이 되게 하였는데, 이는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 21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땅은 밀린 안식년을 다 갚을 때까지 줄곧 황폐해진 채 안식년을 지내며 일흔 해를 채울 것이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칙령

- 22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제1년이었다. 주님께서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하여 키루스는 온 나라에 어명을 내리고 칙서도 반포하였다.
- 23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이렇게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당신을 위한 집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맡기셨다. 나는 너희 가운데 그분 백성에 속한 이들에게는 누구나 주 그들의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올라가게 하여라."

구약성경 - 15

역사서 - 10

에즈라기

총 10 장

총 280 절

[구약성경]-[에즈라기]

바빌론 유배가 끝나다

1 ¹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제일년이였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하여 키루스는 온 나라에 어명을 내리고 칙서도 반포하였다.

2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이렇게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당신을 위한 집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맡기셨다.

3 나는 너희 가운데 그분 백성에 속한 이들에게는 누구나 그들의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이제 그들이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집을 짓게 하여라.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느님이시다.

4 이 백성의 남은 자들이 머무르고 있는 모든 지방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느님의 집을 위한 자원 예물과 함께, 은과 금과 물품과 짐승으로 그들 모두를 후원하여라."

5 그리하여 유다와 벤야민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사제들과 레위인들,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 계신 주님의 집을 짓도록 하느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신 이들이 모두 떠날 채비를 하였다.

6 그러자 이웃 사람들은 저마다 온갖 자원 예물 외에도, 은 가물과 금과 물품과 짐승, 그리고 값진 선물로 그들을 도와주었다.

7 키루스 임금은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에서 가져다가 자기 신전에 두었던 주님의 집 가물들을 꺼내 오게 하였다.

8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채무상 미트르닷을 시켜 그것들을 꺼내 오게 한 다음, 날날이 세어 유다 제후 세스바차르에게 넘겨주도록

하였다.

- 9 그 품목은 이러하다. 금 접시가 서른 개, 은 접시가 천 개, 칼이 스물아홉 자루,
10 금 대접이 서른 개, 이금 은 대접이 사백열 개, 그 밖에 다른 가물이 천 개였다.
11 그리하여 금 가물과 은 가물은 모두 오천 사백 개였다. 세스바차르는 유배자들을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오면서, 이 가물들을 모두 가지고 왔다.

돌아온 유배자들

2 ¹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간 유배자들 가운데 포로살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올라온 지방민은 이러하다. 이들은 예루살렘과 유다로, 곧 저마다 제 성읍으로 돌아온 이들이다.

2 이들은 즈루빠벨, 예수아, 느헤미야, 스라야, 르엘랴야, 모르도카이, 빌산, 미스파르, 비그와이, 르훔, 바야나와 함께 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

3 파르오스의 자손이 이천백칠십이 명,

4 스파트아의 자손이 삼백칠십이 명,

5 아라의 자손이 칠백칠십오 명,

6 파찰 모압의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의 자손이 이천팔백십이 명,

7 엘람의 자손이 천이백오십사 명,

8 자투의 자손이 구백사십오 명,

9 자카이의 자손이 칠백육십 명,

10 바니의 자손이 육백사십이 명,

11 베비아의 자손이 육백이십삼 명,

12 아즈갓의 자손이 천이백이십이 명,

13 아도니캄의 자손이 육백육십육 명,

14 비그와이의 자손이 이천오십육 명,

15 아딘의 자손이 사백오십사 명,

16 아테르 곧 히즈키야의 자손이 구십팔 명,

17 베차이의 자손이 삼백이십삼 명,

18 요라의 자손이 백십이 명,

- 19 하숨의 자손이 이백이십삼 명,
 20 기빠르의 자손이 구십오 명,
 21 베들레헴의 자손이 백이십삼 명,
 22 느토와 사람이 오십육 명,
 23 아나돗 사람이 백이십팔 명,
 24 아즈마?의 자손이 사십이 명,
 25 키르얏 여아림과 크피라와 브에롯의 자손
 이 칠백사십삼 명,
 26 라마와 게바의 자손이 육백이십일 명,
 27 미크마스 사람이 백이십이 명,
 28 베텔과 아이 사람이 이백이십삼 명,
 29 느보의 자손이 오십이 명,
 30 막비스의 자손이 백오십육 명,
 31 다른 엘람의 자손이 천이백오십사 명,
 32 하림의 자손이 삼백이십 명,
 33 로드와 하닷과 오노의 자손이 칠백이십오
 명,
 34 예리코의 자손이 삼백사십오 명,
 35 스니아의 자손이 삼천육백삼십 명이였다.
 36 사제는, 예수아 집안 여다야의 자손이 구백
 칠십삼 명,
 37 임베르의 자손이 천오십이 명,
 38 파스후르의 자손이 천이백사십칠 명,
 39 하림의 자손이 천십칠 명이였다.
 40 레위인은, 호다우야의 자손들인 예수아와
 카드미엘의 자손 칠십사 명이였다.
 41 성가대는, 아삽의 자손 백이십팔 명이였다.
 42 문자기는, 살툼의 자손, 아테르의 자손, 탈
 몬의 자손, 아쿱의 자손, 하티타의 자손,
 소바이의 자손으로 모두 백삼십구 명이였
 다.
 43 성전 막일꾼은, 치하의 자손, 하수파의 자
 손, 타바옷의 자손,
 44 케로스스의 자손, 시야하의 자손, 파돈의 자
 손,
 45 르바냐의 자손, 하가바의 자손, 아쿱의 자
 손,
 46 하갑의 자손, 사물라이의 자손, 하난의 자
 손
 47 기멜의 자손, 가하르의 자손, 르아이의 자
 손,
 48 르친의 자손, 느코다의 자손, 가짚의 자손,
 49 우짜의 자손, 파제이의 자손, 베사이의 자
 손,
 50 아스나의 자손, 므운의 자손, 느푸심의 자
 손,
 51 박복의 자손, 하쿠파의 자손, 하르후르의
 자손,
 52 바츨롯의 자손, 므히다의 자손, 하르사의
 자손,
 53 바르코스스의 자손, 시스라의 자손, 테마호의
 자손,
 54 느치아의 자손, 하티파의 자손들이였다.
 55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은, 소타이의 자손,
 소페렛의 자손, 프루다의 자손,
 56 아알라의 자손, 다르곤의 자손, 기멜의 자
 손,
 57 스파트야의 자손, 하릴의 자손, 포케렛 츠
 비임의 자손, 야미의 자손들이였다.
 58 상전 막일꾼과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은 모
 두 삼백구십이 명이였다.
 59 자기들의 집안과 종족, 그리고 자신들이 이
 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면서
 도, 텔 멜라, 텔 하르사, 크롬, 아판, 임베
 르에서 올라온 이들은 다음과 같다.
 60 곧 들라야의 자손, 토비아의 자손, 느코다
 의 자손 육백오십이 명이였다.
 61 이 밖에 사제들의 자손 가운데에는, 호비아
 의 자손, 코츠의 자손, 바르질라이의 자손
 들도 있었다. 바르질라이는 길앗 사람 바르
 질라이의 딸 가운데 하나를 아내로 맞이들
 이면서 그 이튿까지 받았다.
 62 이들은 족보를 뒤져 보았지만 이름이 들어
 있지 않아, 사제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제외
 되었다.
 63 총독은 그들에게, 우림과 톱땀으로 판결을

내릴 사제가 나설 때까지 가장 거룩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 64 온 회중의 수는 사만 이천삼백육십 명이였다.
- 65 이 밖에도 그들의 남녀 종이 칠천삼백삼십 칠 명 있었고, 남녀 음악가가 이백 명 있었다.
- 66 그들의 말은 칠백삼십육 마리, 노새는 이백 사십오 마리,
- 67 낙타는 사백삼십오 마리, 나귀는 육천칠백 이십 마리였다.
- 68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집에 다다랐을 때, 각 기문의 우두머리들 가운데 몇 사람이 하느님의 집을 제자리에 세우는 데에 쓸 자원 예물을 바쳤다.
- 69 저마다 힘닿는 대로 공사 금고에 바치니, 금화가 육만 천 드라크마, 은화가 오천 미나, 사제 예복이 백 벌이나 되었다.
- 70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백성 일부는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았다. 성가대와 문지기들과 성전 막일꾼들은 저마다 제 성읍에,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도 제 성읍에 자리를 잡았다.

다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다

- 3¹ 일곱째 달이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저마다 제 성읍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가 되자, 백성이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 2 여호차다의 아들 예수아가 일가 사제들과 스알티엘의 아들 즈루빠벨과 그의 형제들과 함께 나서서, 하느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쓰인 대로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번제물을 올릴 제단을 쌓았다.
- 3 그들은 그 땅의 백성들을 무서워하였기 때문에, 옛 자리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주님께 번제물을, 곧 아침저녁으로 번제물을 올렸다.

4 또 그들은 율법에 쓰인 대로 초막절을 지내면서, 그날그날 정해진 횡수대로 날마다 번제물을 바쳤다.

5 그 뒤로 그들은 일일 번제물 외에, 초하룻날과 주님의 모든 거룩한 축일에 드리는 제물, 그리고 주님께 자원 예물로 드리는 모든 이의 제물을 바쳤다.

6 그들은 일곱째 달 초하룻날부터 주님께 번제물을 올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이지 않았다.

7 그래서 그들은 석수들과 목수들에게는 돈을 주어 일을 시키고, 시돈인들과 티로인들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어,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가 그들에게 허가한 대로, 레바논에서 향백나무를 베어 바닷길로 야포까지 가져오게 하였다.

성전을 짓기 시작하다

8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으로 돌아온 이듬해 둘째 달에, 스알티엘의 아들 즈루빠벨과 여호차다의 아들 예수아는 나머지 동포들, 곧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포로살이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이와 함께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스무 살 이상 된 레위인들을 주님의 집 감독으로 세웠다.

9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친족, 그리고 카드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의 아들들이, 레위인 헤나닷의 아들, 손자, 친족들과 함께 하느님의 집을 건축하는 이들의 감독으로 나섰다.

10 집 짓는 이들이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예복을 입은 사제들은 나팔을 들고, 아삽의 자손 레위인들은 자바라를 들고, 이스라엘 임금 다윗이 지시한 대로 주님을 찬양하려고 제자리에 섰다.

11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면서, 이렇게 서로 화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어지시

다. 주님의 자애는 이스라엘에 영원하시다." 온 백성은 주님의 집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크게 환호하였다.

- 12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옛집을 보았던 많은 노인들은, 자기들의 눈앞에서 이 주님의 집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목 놓아 울었다. 그러는가 하면 다른 많은 이들은 기뻐하며 목청껏 환호성을 올렸다.
- 13 그래서 백성이 지르는 기쁨의 환호성과 울음소리를 구별할 수가 없었다. 백성이 하도 크게 환호성을 질러서,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성전 건축이 방해됨 받다

- 4 ¹ 돌아온 유배자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다는 말을 유대와 펜야민인의 적들이 듣고,
- 2 즈루빠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게 해 주시오. 아시리아 임금 예사르하똔이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올라온 날부터,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느님을 찾고 그분께 제사를 드려 왔소."
- 3 즈루빠벨과 예수아와 나머지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 함께 우리 하느님을 위한 집을 지을 수는 없소.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위한 집을 짓는 것은 우리만의 일이오."
- 4 그러자 그 지방 백성은 그 집을 짓지 못하도록 유다 백성의 기를 꺾고 겁을 주었다.
- 5 그들은 또 고문관들을 매수하여, 페르시아 임금 다리우스가 통치할 때까지, 곧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통치 기간 내내, 유대인들의 계획을 좌절시켰다.

방해가 계속되다

- 6 크세르크세스의 통치 때에는, 그의 통치가 시작되자마자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 7 아르타크세르크세스 때에도 비슬람과 미트르닷과 타브엘과 그의 나머지 동료들이 페르시아 임금 아르타크세르크세스에게 글을 올렸다. 그 서신은 아람 말로 쓰였고 번역도 되었다. 아람 말.
- 8 지방 장관 르흠과 서기관 심사이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고발하는 장계를 아르타크세르크세스에게 올렸다.
- 9 "지방 장관 르흠, 서기관 심사이와 나머지 동료들, 판관들, 사절들, 관리들, 감독관들, 에렉인들, 바빌론인들, 수사인 곧 엘람인들,
- 10 그리고 위대하고 고귀하신 아스나파르께서 사마리아 성읍과 그 밖의 나머지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에 이주시켜 살게 하신 나머지 민족들이 상소합니다." 이제,
- 11 그들이 임금에게 보낸 장계의 사본은 이러하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님께. 임금님의 종들, 곧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인사드립니다. 이제,
- 12 임금님께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임금님 곁을 떠나 저희가 있는 곳으로 올라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반역과 사약의 도성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성벽 쌓는 일을 끝내 가고,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 13 그러니 이제 임금님께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곧 그들이 이 도성을 다시 짓고 성벽 쌓는 일을 끝내고 나면, 조공도 관세도 세금도 바치지 않아, 왕실 수입에 손실을 끼치리라는 것입니다.
- 14 궁궐의 소금을 나누어 먹은 저희가 임금님의 수치를 보고만 있는 것이 합당하지 않기에, 이렇게 글월을 보내어 임금님께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 15 그러니 선왕들의 실록을 살펴보십시오. 이 도성이 반역의 도성으로 여러 임금과 여러 지방에 손실을 끼쳤고, 그 안에서는 예로부터 반란이 일어나곤 하였으며, 또 그 때문에 이 도성이 폐허가 되었음을 그 실록에서 보아 아사게 될 것입니다.
- 16 그래서 이 도성이 다시 지어지고 성벽 쌓는 일이 끝나게 되면,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이 더 이상 임금님 차지가 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저희가 임금님께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 17 그러자 임금이 칙령을 보냈다. "지방 장관 르흠, 서기관 심사이, 그리고 사마리아와 나머지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에 사는 다른 동료들도 평안하기를 빈다. 이제,
- 18 그대들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가 내 앞에서 분명하게 낭독되었다.
- 19 그래서 내가 명령을 내려 살펴보게 하니, 과연 그 도성은 예로부터 여러 임금을 거슬러 봉기하였으며, 그 안에서 반역과 반란이 거듭 일어났음이 드러났다.
- 20 더구나 예루살렘에는 일찍이 강력한 임금들이 있어,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 전체를 장악하고, 조공과 관세와 세금을 거두어들이곤 하였다.
- 21 그러므로 그대들은 명령을 내려 그자들의 작업을 중지시키고, 내가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 도성을 다시 짓지 못하게 하여라.
- 22 그러나 이 일을 소홀히 다루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피해가 커져서 왕실에 손실을 끼쳐서야 되겠느냐?"
- 23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이 보낸 편지 사본이 르흠과 심사이 서기관과 동료들 앞에서 낭독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에게 가서, 무력과 강압으로 작업을 중지시켰다.
- 24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 공사는 페르시아 임금 다리우스 통치 체이던

까지 중지되었다.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다

- 5¹ 그때에 가까이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즈카르야 예언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느님 이름으로 예언하였다.
- 2 그러자 스알티엘의 아들 즈루뻬멜과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아가 나서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을 다시 짓기 시작하였다. 그들 곁에서는 하느님의 예언자들이 그들을 도왔다.
- 3 바로 그때에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관 타르나이가 스타르 보즈나리와 동료들을 거느리고 그들에게 와서 물었다. "누가 이 집을 다시 지으라고, 이 건축물을 완성하라고 그대들에게 명령을 내렸소?"
- 4 그들은 또 이렇게 물었다. "이 건물을 짓는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이오?"
- 5 그러나 하느님께서 유대인들의 원로들을 굽어보셨으므로, 다리우스에게 보고가 올라가고 이 일에 관한 답신이 올 때까지, 그들은 작업을 중지시키지 못하였다.
- 6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관 타르나이가 스타르 보즈나리와 동료들, 그리고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의 관리들과 함께 다리우스 임금에게 올린 장계의 사본이다.
- 7 그들이 임금에게 올린 보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다리우스 임금님께 온전한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 8 임금님께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유다 지방에 가서 위대한 하느님의 집을 보았습니다. 그 집은 다듬은 돌로 짓고, 벽을 나무로 입히고 있었습니다. 이 작업은 빈틈없이 실행되고, 원로들의 관리 아래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 9 그래서 저희는 그 원로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집을 다시 지으라고, 이 건축물

을 완성하라고 누가 그대들에게 명령을 내렸소?’

- 10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임금님께 알려 드리려고 그들의 이름도 물었습니다.
- 11 그들이 저희에게 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하늘과 땅을 내신 하느님의 종들입니다. 저희는 오래 전에 지어졌던 집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이 집은 이스라엘의 어떤 큰 임금님께서 지어 완공하신 것입니다.
- 12 그런데 저희 조상들이 하늘의 하느님을 진노하시게 만들어,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을 칼데아인들의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손에 넘겨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집을 허물고 백성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 13 그러나 바빌론 임금 키루스 제일년에, 키루스 임금님께서서는 이 하느님의 집을 짓도록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 14 그뿐만 아니라, 하느님 집의 금은 기물들을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꺼내어 바빌론 신전으로 가져갔는데, 키루스 임금님께서 그것들을 바빌론 신전에서 꺼내시고, 지방관으로 임명하신 세스바차르라는 이에게 넘겨주셨습니다.
- 15 그러면서 세스바차르에게, 그 기물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또 하느님의 집을 제자리에 다시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16 그리하여 이 세스바차르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 집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어 왔지만 아직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 17 그러니 이제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하느님의 집을 다시 지으라고 키루스 임금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는지, 바빌론에 있는 왕실 문서고를 살펴볼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임

금님의 뜻을 저희에게 내려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키루스의 칙령이 발간되다

6¹ 이에 다리우스 임금이 명령을 내려, 바빌론에서 귀중품을 보관하는 문서고를 살펴보게 하였다.

2 그러나 두루마리 하나가 발견된 곳은 메디아 지방에 있는 엑바타나 성이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비망록.

3 키루스 임금 제일년에, 키루스 임금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에 관하여 칙령을 내리시다. 희생 제물을 바치던 바로 그곳에 기초를 높이 세우고 집을 다시 짓되, 높이도 예순 암마, 너비도 예순 암마로 하여라.

4 다듬은 돌은 세 겹으로, 나무는 한 겹으로 쌓아라. 비용은 왕실에서 내어 주어라.

5 그뿐만 아니라,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꺼내어 바빌론으로 가져온 하느님 집의 금은 기물들을 되돌려 주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고, 하느님의 집 안 제자리에 두게 하여라."

다리우스 임금의 명령

6 "이제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관 타트나이와 스타르 보즈나이와 그 동료들, 그리고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의 관리들은 그곳 일을 방해하지 마라.

7 그 하느님의 집 공사가 계속되게 하여라. 유대인들의 지방관과 유대인들의 원로들이 그 하느님의 집을 제자리에 다시 짓게 하여라.

8 이제 그 하느님의 집을 다시 짓도록 그대들이 유대인들의 원로들을 도와서 해야 할 일에 관하여, 내가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 왕실 재산 곧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에서 받는 조공에서, 지체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어김없이 비용을 내어 주어라.

- 9 하늘의 하느님께 바치는 번제에 필요한 황소와 숫양과 어린 양, 그리고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 등 예루살렘 사제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날마다 틀림없이 대어 주어야.
- 10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하느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면서, 임금과 왕자들이 잘 살도록 기도하게 하여라.
- 11 나는 또한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 누구든지 이 칙령을 어기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어 세우고 그자를 그 위에 못 박아 매달아라. 그 죄에 대한 벌로 그 집은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라.
- 12 어떤 임금이든 민족이든 손을 대어 이 칙령을 어기거나,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느님의 집을 허물면, 당신의 이름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신 하느님께서 그들을 거꾸러뜨리실 것이다. 나 다리우스가 명령을 내리니 어김없이 시행하여라."

성전 준공과 봉헌

- 13 그래서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관 타트나이와 스타르 보즈나이와 그 동료들은 다리우스가 내려 보낸 지시대로 어김없이 시행하였다.
- 14 유다의 원로들은 하카이 예언자와 이포의 아들 즈카르야가 선포하는 예언에 힘입어 건축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명령과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와 다리우스와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의 명령에 따라 건축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
- 15 그리하여 이 집이 완공된 것은 다리우스 임금의 통치 제육년 아다르 달 초사흘날이었다.
- 16 이스라엘 자손들, 곧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돌아온 나머지 유배자들은 기뻐하며 하느님의 집 봉헌식을 올렸다.

- 17 이 하느님의 집 봉헌식에는 황소 백 마리와 숫양 이백 마리와 어린 양 사백 마리를 바치고,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 이스라엘의 지파 수에 따라 숫염소 열두 마리를 바쳤다.
- 18 그런 다음 모세의 책에 쓰인 대로, 사제들을 저마다 번별로 세우고 레위인들을 저마다 조별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느님을 섬기도록 하였다.

파스가 축제를 지내다

- 19 돌아온 유배자들은 첫해 달 열나흘날에 파스가 축제를 지냈다.
- 20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일제히 자신을 정결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정결하게 되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돌아온 모든 유배자와 동료 사제들과 자기들이 먹을 파스가 제물을 잡았다.
- 21 그러자 유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공경하기 위하여 그 지방 민족들의 부정을 떨쳐 버린 모든 이와 함께 그것을 먹었다.
- 22 그리고 이례 동안 무교절을 즐겁게 지냈다. 주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아시리아 임금의 마음을 돌리시어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집을 짓도록 그들을 도와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에즈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다

- 7¹ 이러한 일이 있은 뒤였다. 페르시아 임금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다스리던 때, 에즈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에즈라는 스라야의 아들, 스라야는 아자르야의 아들, 아자르야는 할키아의 아들,
- 2 할키야는 살롬의 아들, 살롬은 차독의 아들, 차독은 아히툼의 아들,
- 3 아히툼은 아마르야의 아들, 아마르야는 아자르야의 아들, 아자르야는 므라못의 아들,

- 4 므라웃은 즈라흐아의 아들, 즈라흐아는 우찌의 아들, 우찌는 부키의 아들,
 5 부키는 아비수아의 아들, 아비수아는 피느하스의 아들, 피느하스는 엘야자르의 아들, 엘야자르는 아론 수석 사제의 아들이다.
 6 이 에즈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는데,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다. 주 그의 하느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 주셨으므로, 임금은 그의 청을 다 들어주었다.
 7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 제칠년에 이스라엘 자손들, 사제들, 레위인들, 성가대, 문지기들, 성전 막일꾼들 가운데 일부도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8 에즈라는 그 임금 제칠년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에 다다랐다.
 9 그는 첫째 달 초하룻날에 바빌론에서 여행을 시작하여, 그의 하느님의 너그러우신 손길이 그를 보살피 주셨으므로, 다섯째 달 초하룻날에 예루살렘에 다다를 수 있었다.
 10 에즈라는 주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규정과 법을 가르치기로 마음을 굳혔던 것이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이 칙령을 내리다

- 11 다음은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이 사제이며 율법 학자, 곧 주님의 계명과 이스라엘에 내린 규정에 통달한 학자 에즈라에게 준 서신의 사본이다.
 12 "임금들의 임금인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하늘의 하느님께서 내리신 법의 학자인 에즈라 사제에게. 평화! 이제,
 13 나는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 내 왕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사제들과 레위인들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대와 함께 가도 좋다.
 14 임금과 그의 일곱 고문관이 그대를 보내는 것이니, 그대 손에 있는 하느님의 법에 따

라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떠한지 살펴보아라.

- 15 또한 그대는 임금과 그의 고문관들이 예루살렘에 당신 거처를 마련하신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자원으로 바치는 은과 금을 가지고 가거라.
 16 그뿐 아니라 그대가 바빌론 온 지방에서 얻을 은과 금을 비롯하여, 그대의 백성과 사제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들의 하느님 집에 바칠 자원 예물도 가지고 가거라.
 17 그 돈으로 어김없이 황소와 숫양과 어린양, 그리고 그것들에 결들일 곡식 채물과 제주를 사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대들의 하느님 집 제단에서 바쳐라.
 18 나머지 은과 금은 그대들의 하느님 뜻에 따라 그대와 그대의 동료들이 좋게 여기는 대로 써라.
 19 그대 하느님의 집 전례에 쓰라고 그대에게 맡겨진 기물들은 예루살렘의 하느님 앞에 차려 놓아라.
 20 그대가 모든 것을 마련해 놓아야 하는 그대의 하느님 집에 이 밖에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왕실 재정에서 마련하여라.
 21 이제 나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이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의 모든 재무관에게 명령을 내린다. 하늘의 하느님께서 내리신 법의 학자인 에즈라 사제가 그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김없이 해 주어라.
 22 은은 백 탈렌트까지, 밀은 백 코르까지, 포도주는 백 뱃까지, 기름도 백 뱃까지, 소금은 제한 없이 주어라.
 23 하늘의 하느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의 하느님 집을 위해 빈틈없이 수행하여, 임금의 왕국과 왕자들에게 진노가 내리는 일이 없게 하여라.
 24 우리는 또한 어떤 사제들이나 레위인들이나 성가대나 문지기들이나 성전 막일꾼들이나 이 하느님의 집 종들에게 조공이나

관세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그대들에게 알리는 바이다.

- 25 **에즈라**, 그대는 그대 손에 있는 하느님의 지혜에 따라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의 온 백성, 곧 그대의 하느님 법을 아는 모든 이의 재판관을 맡아볼 수 있는 판관들과 행정관들을 세워라. 법을 모르는 이들은 그대들이 가르쳐라.
- 26 그대의 하느님 법과 임금의 법을 따르려 하지 않는 자는 누구에게나 어김없이 법규를 적용하여, 사형이나 추방형, 재산 몰수형이나 징역형에 처하여라."

에즈라가 하느님을 찬양하다

- 27 주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서는 찬미받으소서. 그분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임금의 마음에 담아 주셨다.
- 28 또한 그분께서는 임금과 그의 고문관들과 임금의 모든 권세 있는 고관들 앞에서 당신의 자애를 나에게 베풀셨다. 주 내 하느님의 손길이 이처럼 나를 보살피 주시므로, 나는 용기를 내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올라갈 우두머리들을 모았다.

에즈라와 함께 돌아온 이들

- 8 ¹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이 다스릴 때, 나와 함께 바빌론에서 올라온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다.
- 2 피느허스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게르숨, 이타마르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다니엘,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스칸야의 아들 하투스,
- 3 파르오스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즈카르야, 그리고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백오십 명,
- 4 파핫 모압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즈라흐야의 아들 엘요에나이, 그리고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이백 명,

- 5 자투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아하지엘의 아들 스칸야, 그리고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삼백 명,
- 6 아딘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요나탄의 아들 에벳, 그리고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오십 명,
- 7 엘람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아탈야의 아들 여사야, 그리고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칠십 명,
- 8 스파트아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미카엘의 아들 즈바드야, 그리고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팔십 명,
- 9 요압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여히엘의 아들 오바드야, 그리고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이백십팔 명,
- 10 바니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요시프야의 아들 슬로밋, 그리고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백육십 명,
- 11 베바이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베바이의 아들 즈카르야, 그리고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이십팔 명,
- 12 아즈갓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카탄의 아들 요하난, 그리고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백십 명,
- 13 아도니캄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작은아들들, 곧 엘리펠렛, 여이엘, 스마야, 그리고 그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 육십 명,
- 14 비그와이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우타이와 자쿠르, 그리고 그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 칠십 명이였다.

상전 일꾼들을 모집하다

- 15 나는 이들을 아히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은 다음, 그곳에서 사흘 동안 아영하였다. 내가 백성과 사제들을 살펴보니 레위의 자손은 그곳에 하나도 없었다.
- 16 그래서 나는 엘리에제르, 아리엘, 스마야, 엘나탄, 아람, 엘나탄, 나탄, 즈카르야, 므

술람 등 우두머리들과, 요아립과 엘나탄 등 슬기로운 이들을 불러,

- 17 카시프아라는 곳의 우두머리 이포에게 보냈다. 나는 그들에게, 카시프아라는 곳에 있는 이포와 성전 막일꾼인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우리 하느님의 집 일꾼들을 데려오도록 당부하였다.
- 18 그랬더니 우리 하느님의 너그러우신 손길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레위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손자인 마솔리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세레브아라는 현명한 사람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십팔 명을 우리에게 데려왔다.
- 19 또 하사브야와 함께 므라리의 자손 이사야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스무 명,
- 20 이 밖에도 일찍이 다윗과 제후들이 레위인들을 도우라고 붙여 준 성전 막일꾼 이백 이십 명을 데려왔다. 이들은 모두 명부에 올려졌다.

에즈라가 단식하며 도움을 청하다

- 21 나는 그곳 아허와 강 가에서, 아이들과 모든 재산을 거느리고 떠나는 우리에게 안전한 여행을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의 하느님 앞에서 고행하며 단식하자고 말하였다.
- 22 우리가 임금에게, "우리 하느님의 너그러우신 손길은 그분을 찾는 모든 이를 보살펴 주십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저버리는 모든 이에게는 그분께서 호된 분노를 내리십니다." 하고 말한 바가 있어서, 여행하는 동안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보호해 줄 보병과 기병을 그에게 청하기가 부끄러웠던 것이다.
- 23 그래서 우리는 단식하며 이 일 때문에 우리 하느님께 탄원하였다. 그러자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성전에 바치는 예물

- 24 나는 사제장들 가운데에서 열둘, 곧 세레브

야와 하사브야, 그리고 그들의 형제 가운데에서 열 명을 따로 뽑은 다음,

- 25 은과 금과 기물들을 달아 그들에게 맡겼다. 그것은 임금과 그의 고문관들과 고관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인이 우리 하느님의 집에 예물로 바친 것이었다.
- 26 내가 무계를 달아 그들 손에 맡긴 것은 은 육백오십 탈렌트, 백 탈렌트에 해당하는 은 기물들, 금 백 탈렌트,
- 27 천 다락에 해당하는 금 대접 스무 개, 그리고 금처럼 귀하고 빛나는 고급 청동 기물들이었다.
- 28 그러고 나서 나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주님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기물들도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은과 금은 여러분 조상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바치는 자원 예물입니다.
- 29 그러니 이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집 창고에서 사제장들과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각 가문의 어른들 앞에서 달아 넘겨 줄 때까지, 잘 간수하여 지키십시오."
- 30 그래서 그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하느님의 집으로 가져가려고 달아 놓은 은과 금과 기물들을 넘겨받았다.

에즈라가 예루살렘에 다다르다

- 31 우리는 첫째 달 열이튿날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아허와 강을 떠났다. 하느님의 손길이 우리를 보살펴 주셨다. 그분께서는 여행하는 동안 원수들과 매복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신 것이다.
- 32 마침내 우리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사흘 동안 쉬었다.
- 33 나흘째 되는 날에 우리는 우리 하느님의 집에서 우리아의 아들 트레못 사제에게 은과 금과 기물들을 달아 넘겨주었는데, 그 곁에는 피느하스의 아들 엘야저트, 또 그 곁에는 레위인들인 예수아의 아들 요자밧

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드야가 있었다.

- 34 그것들을 하나하나 세어 무게를 달고 그 무게를 적어 두었다. 그때에,
- 35 포로살이를 마치고 돌아온 유배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번제물을 바쳤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황소 열두 마리, 숫양 아흔여섯 마리, 어린 양 일흔일곱 마리, 속죄 제물로 숫염소 열두 마리,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번제물로 바쳤다.
- 36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임금의 총독들과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관들에게 어명을 전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백성과 하느님의 집을 후원하였다.

유대인과 이민족 사이의 혼인

- 9¹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이었다. 수령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사제들과 레위인들까지 이 지방 백성들과 갈라서지 않고, 가나안족, 히타이트족, 프리즈족, 여부스족, 암몬족, 모압족, 이집트족, 아모리족의 역겨운 짓을 따라 합니다.
- 2 그들의 딸을 아내로, 또 며느리로 맞아들입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씨가 이 지방 백성들과 섞이는데, 수령들과 관리들이 이 배신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 3 나는 이 말을 듣고 내 의복과 겹옷까지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고는 낫을 잃고 앉아 있었다.
- 4 그러자 이스라엘의 하느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돌아온 유배자들의 이 배신 때문에 모두 나에게 몰려왔다. 나는 저녁 제사 때까지 낫을 잃고 앉아 있었다.

예조의 기도

- 5 저녁 제사 때에 나는 단식을 그치고 일어나서, 의복과 겹옷은 찢어진 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펼치, 주 나의 하느님께

- 6 말씀드렸다. "저의 하느님,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저의 하느님, 당신께 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저희 죄악은 머리 위로 붙어났고, 저희 잘못은 하늘까지 커졌습니다.
- 7 저희 조상 때부터 이 날까지 저희는 큰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죄악 때문에 오늘 이처럼, 임금들과 사제들과 더불어 저희가 여러 나라 임금들과 칼에 넘겨지고, 포로살이와 약탈과 부끄러운 일을 당하도록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 8 그러나 이제 잠깐이나마 주 하느님께서 은혜를 내리시어, 저희에게 생존자를 남겨 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곳에 저희를 위하여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저희 눈을 비추시고, 종살이하는 저희를 조금이나마 되살려 주셨습니다.
- 9 정녕 저희는 종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종살이하는 저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페르시아 임금들 앞에서 저희에게 자애를 베푸시어 저희를 되살리셔서, 하느님의 집을 다시 세우고 그 폐허를 일으키도록 해 주셨고, 유대와 예루살렘에 다시 성벽을 쌓게 해 주셨습니다.
- 10 이러한 일이 있고 난 지금, 하느님께 저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까? 저희는 당신의 계명들을 저버렸습니다.
- 11 이 계명들은 당신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그 지방 백성들의 더러운 짓과 역겨운 짓으로 더럽혀진 곳이다. 그들은 부정한 상태에서 그 땅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역겨운 짓으로 가득 채웠다.
- 12 그러니 너희는 이제 너희 딸을 그들에게 시집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지 마라. 결코 그들이 누리는 평

화와 인성을 좇아서 안 된다. 그래야 너희가 강해지고 그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손들에게 그 땅을 영원히 물려주게 될 것이다.'

- 13 저희가 겪은 것은 모두 저희의 악한 행실과 저희의 큰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하느님, 당신께서는 저희 죄악에 비하여 가벼운 벌을 내리셔서, 저희에게 생존자를 남기셨습니다.
- 14 그런데도 저희가 당신의 계명들을 어기고, 역겨운 짓을 저지르는 이런 백성들과 통혼하였으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께서 남은 자도 생존자도 하나 없이 저희를 몰살시켜 버리실 정도로 저희에게 진노하지 않으실 수가 있었습니까?
- 15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가운데에서 오늘날 이처럼 생존자가 남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잘못된 채 당신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는 저희 잘못을 지닌 채 당신 앞에 있습니다."

백성의 반응

- 10 ¹ 에즈라가 하느님의 집 앞에 쓰러져 울면서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남자 여자 어린이 할 것 없이 매우 큰 무리가 에즈라에게 물려들었다. 이 백성도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 2 그러는 가운데 엘람의 자손으로 여히엘의 아들이 스칸이가 에즈라에게 말하였다. "저희는 저희 하느님을 배신하고, 이 지방 백성인 이민족 여자와 혼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 희망은 있습니다.
- 3 그러니 이제 나라와 우리 하느님의 계명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의 권고에 따라, 그 여자와들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모두 내보내기로 우리 하느님과 계약을 맺읍시다. 율법에 따라 이루어지게 합시다.

- 4 일어나십시오. 이 일은 나라가 맡으셔야 합니다. 저희가 나라와 함께 있으니, 힘을 내어 실행에 옮기십시오."
- 5 그러자 에즈라가 일어나서 사제장들과 레위인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실행하겠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다. 사람들은 그대로 맹세하였다.
- 6 그제야 에즈라는 하느님의 집 앞에서 물러나와, 엘야십의 아들 여호호난의 방으로 갔다. 에즈라는 그곳에서 밤을 지내며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돌아온 유배자들의 배신을 너무나 슬퍼하였기 때문이다.

이민족 아내들을 내보내기로 하다

- 7 돌아온 유배자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포고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렸다.
- 8 누구든지 사흘 안에 오지 않으면, 수령들과 원로들의 결정에 따라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돌아온 유배자들의 회중에서 내쫓긴다는 것이었다.
- 9 그러자 유다와 벤야민 사람들이 모두 사흘 안에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때는 아홉째 달 스무날이었다. 온 백성은 하느님의 집 광장에 앉아, 일이 이렇게 된 데다 겨울비까지 내리자 몸을 떨고 있었다.
- 10 그런 가운데 에즈라 사제가 나서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배신하여 이민족 여자와들 혼인하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에 잘못을 더 보였습니다.
- 11 이제 주 여러분 조상들의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고 그분의 뜻을 실행하십시오. 이 지방 백성들, 그리고 이민족 아내들과 갈라서십시오."
- 12 그러자 온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울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하

신 대로 하겠습니까.

- 13 그러나 백성의 수가 많고 때가 장마철이어서, 이렇게 바깥에 서 있을 힘이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가운데 많은 이가 이 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처리될 문제가 아닙니다.
- 14 그러니 이 일로 내린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멀어질 때까지, 우리 수령들이 온 회중을 위해 나서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성읍마다 이민족 여자와 혼인한 이들은 모두 정해진 때에, 각 성읍의 원로들과 판관들과 함께 오도록 해 주십시오."
- 15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탄과 티크와의 아들 야흐즈야만이 반대하였고, 므술람과 레위인 사브타이가 그들에게 동조하였을 뿐이다.
- 16 돌아온 유배자들은 그렇게 실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에즈라 사제는 각 집안의 대표로 가문의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을 모두 지명하여 뽑았다. 이들은 열째 달 초하룻날에 그 일을 조사하려고 자리를 잡았다.
- 17 그리고 첫째 달 초하룻날에 이민족 여자와 혼인한 모든 남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민족 여자와 혼인한 남자들

- 18 사제들의 자손 가운데에서 이민족 여자와 혼인한 이는 다음과 같다.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이와 그 형제들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마야세야, 엘리에제르, 야립, 그달야였다.
- 19 그들은 아내를 내보내겠다고 서약하고, 자기들의 잘못에 대한 보상 제물로 숫양 한 마리를 바쳤다.
- 20 임베르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니와 즈바드야,
- 21 하림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마흐세야, 엘리야, 스마야, 여히엘, 우찌야,

- 22 파스후르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엘요에나 이, 마야세야, 이스마엘, 느탄엘, 요자밧, 엘야사였다.
- 23 레위인들 가운데에서는 요자밧, 시므이, 클리타라고도 하는 켈리아, 프타흐야, 유다, 엘리에제르였다.
- 24 성가대 가운데에서는 엘야십, 문지기들 가운데에서는 살룸, 텔렘, 우리였다.
- 25 이스라엘 사람으로 파르오스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라마야, 이찌야, 말기야, 미야민, 엘야자르, 말기야, 브냐야,
- 26 엘람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마탄야, 즈카르야, 여히엘, 압디, 여레못, 엘리아,
- 27 자투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엘요에나 이, 엘야십, 마탄야, 여레못, 자밧, 아지자,
- 28 베비아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여호하난, 하난야, 자빠이, 아틀라이,
- 29 바니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므술람, 말룩, 아다야, 아숨, 스알, 여레못,
- 30 파핫 모양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아드나, 클랄, 브냐야, 마야세야, 마탄야, 브찰엘, 빈누이, 므나세,
- 31 하림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엘리에제르, 이찌야, 말기야, 스마야, 시메온,
- 32 벤야민, 말룩, 스마르야,
- 33 하숨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마트나이, 마타타, 자밧, 엘리렐렐, 여레미야, 므나세, 시므이,
- 34 바니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마아다이, 아므람, 우엘,
- 35 브냐야, 베드야, 클루히,
- 36 완야, 프레못, 엘야십,
- 37 마탄야, 마트나이, 아바사이,
- 38 빈누이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시므이,
- 39 셀레므야, 나탄, 아다야,
- 40 마크넛바이, 사사이, 사라이,
- 41 아자르엘, 셀레므야, 스파르야,
- 42 살룸, 아피르야, 요셀,

- 43 느보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여이엘, 마티
트야, 자밧, 즈비나, 아다이, 요엘, 브나야
였다.
- 44 이들은 모두 이민족 여자와 혼인하였다가,
아내와 자식들을 떠나보낸 사람들이다.

구약성경 - 16

역사서 - 11

느헤미야기

총 13 장

총 405 절

[구약성경-느헤미야기]

느헤미야가 유다로부터 슬픈 소식을 듣다

- 1 ¹ 하칼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 제이 십년 키슬레우 달, 내가 수사 왕성에 있을 때,
- 2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몇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왔다. 나는 포로살이를 모면하고 살아남은 유다인들과 예루살렘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 3 그러자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포로살이를 모면하고 그 지방에 남은 이들은 큰 불행과 수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 4 나는 이 말을 듣고 주저앉아 울며 여러 날을 슬퍼하였다. 그리고 단삭하면서 하늘의 하느님 앞에서 기도하며,
- 5 이렇게 아뢰었다. "아, 주 하늘의 하느님, 위대하고 경외로우신 하느님,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과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 계약을 지키시고 자애를 베푸시는 분!
- 6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뜨시어 당신의 이 종이 올리는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이제 저는 밤낮으로 당신의 종들이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당신 앞에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 곧 저희가 저지른 죄를 고백합니다. 저와 제 집안이 죄를 지었습니다.
- 7 저희가 정녕 당신께 못되게 굴었습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정과 법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 8 당신의 종 모세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너희가 배신하면, 나도 너희를 민족들 사이로 흩어 버리겠다.
- 9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너희 가운데 쫓겨 간 이들이 하늘 끝에 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 모아, 내 이름을 머무르게 하려고 선택한 곳으로 데려오겠다.'

- 10 그들은 당신의 종들,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께서 큰 힘과 강한 손으로 그들을 구해 내셨습니다.
- 11 아, 주님! 당신 이름을 기꺼이 경외하는 당신 종의 기도와 당신 종들의 기도에 제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의 이 종이 오늘 뜻을 이루게 해 주시고, 저 사람 앞에서 저를 가없이 여겨 주십시오." 그때에 나는 임금의 헌작 시종이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오다

- 2 ¹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 제이십년 니산 달, 내가 술 시중 담당이었을 때, 나는 술을 가져다가 임금님께 올렸다. 그런데 내가 이제까지 임금님 앞에서 슬퍼한 적이 없기 때문에,
- 2 임금님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어째서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느냐? 네가 아픈 것 같지는 않으니, 마음의 슬픔일 수밖에 없겠구나." 나는 크게 두려워하면서,
- 3 임금님께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도성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에 타 버렸는데, 제가 어찌 슬픈 얼굴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4 그러자 임금님께서 나에게,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물으시기에, 나는 하늘의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고,
- 5 임금님께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그리고 이 종이 곱게 보아 주신다면, 저를 유다로, 제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도성으로 보내 주셔서, 그 도성을 다시 세우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6 그때에 왕비께서도 옆에 계셨는데, 임금님께서 "얼마 동안 가 있어야 하느냐? 언제면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

다. 임금님께서 이렇게 나를 보내시는 것을 좋게 여기셨으므로, 나는 임금님께 기간을 말씀드렸다.

7 나는 또 임금님께 이터였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관들에게 가는 서신 몇 통을 저에게 내리게 하시어, 제가 유다에 다다를 때까지 그들이 저를 통과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8 또 왕실 숲지기 아삽에게도 서신을 내리시어, 하느님의 집 곁 성채의 문과 도성의 벽, 그리고 제가 들어가 살 집에 필요한 목재를 대게 해 주십시오." 내 하느님의 너그러우신 손길이 나를 보살펴 주셨으므로, 임금님께서서는 내 청을 들어주셨다.

9 나는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관들에게 갈 때마다 임금의 서신을 내놓았다. 임금님께서서는 나에게 보병과 기병 장교들도 딸려 보내 주셨다.

10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형편을 좋게 하러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관료 토비아가 몹시 언짢아하였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둘러보다

11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사흘을 머물렀다.

12 그런 다음 나는 밤에 일어나 몇 사람만 데리고 나왔다. 나의 하느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하도록 하셨는지, 나는 그 때까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짐승은 내가 타는 것만 끌고 나왔다.

13 이렇게 나는 밤에 '계곡 문'으로 나가, '용샘'을 지나 '거름 문'까지 가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불에 탄 성문들을 살펴본다.

14 나는 계속해서 '샘 문'과 '임금 못'으로 갔는데, 내가 탄 짐승이 더 나아갈 길이 없었다.

15 나는 그 밤에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펴본 다음, 돌아서서 '골짜기 문'으로 되돌아왔다.

16 관리들은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때까지 나는 유다인들이나 사제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앞으로 일을 맡을 나머지 사람들에게나 아무것도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성벽 복구를 결정하다

17 나는 비로소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우리는 불행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에 타 버렸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합시다."

18 나는 또 내 하느님의 손길이 나를 너그러우게 보살펴 주신 일과, 임금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성벽 쌓기를 시작합시다." 하면서, 이 좋은 일에 용감히 착수하였다.

19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관료 토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는,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임금님께 반역하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20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뜻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이요,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요, 예루살렘에는 당신들에게 돌아갈 몫도 권리도 연고도 없소."

직업 책임자들의 명단

3

1 대사제 엘야십이 형제 사제들과 함께 나서서 '양 문'을 세워 봉헌하였다. 또 문짝들을 달고 '백인 탑'까지, 그리고 '하난넬 탑'까지 이르는 구간을 봉헌하였다.

- 2 그 옆은 에리코 사람들이 쌓았고, 그 옆은 이므리의 아들 자쿠르가 쌓았다.
- 3 '물고기 문'은 스나이의 자손들이 세웠다. 그들은 문틀을 짜고 문짝과 빗장한테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 4 그 옆은 코츠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므레못이 손질하였고, 그 옆은 므세자브엘의 손자이며 베레코아의 아들인 므술람이 손질하였으며, 그 옆은 바야나의 아들 차독이 손질하였다.
- 5 그 옆은 트코아 사람들이 손질하였는데, 그곳 유력자들은 저희 상전들의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
- 6 '옛 문'은 파세이의 아들 요아다와 브소드야의 아들 므술람이 손질하였다. 그들은 문틀을 짜고 문짝과 빗장한테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 7 그 옆은 기브온 사람 므라트야가 메로돗 사람 아둔, 그리고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관 직속의 기브온 사람들과 미즈파 사람들과 함께 손질하였다.
- 8 그 옆은 세공장이 가운데 하나인, 하르하야의 아들 우찌엘이 손질하였고, 그 옆은 향료 제조업자 가운데 하나인, 하난야가 손질하였다. 그들은 '넓은 성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보수하였다.
- 9 그 옆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 담당관, 후르의 아들 르파야가 손질하였고,
- 10 그 옆은 하루팜의 아들 여다야의 집 앞으로 그 자신이 손질하였으며, 그 옆은 하사브느야의 아들 하루스가 손질하였다.
- 11 들깨 부분은 '가마 탑'을 포함해서 하림의 아들 말키야와 파핫 모압의 아들 하습이 손질하였다.
- 12 그 옆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 담당관, 로헤스의 아들 살룸이 자기 딸들과 함께 손질하였다.
- 13 '계곡 문'은 하늘과 자노아 주민들이 손질

- 하였다. 그들은 성문을 만들고 문짝과 빗장한테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또 '거름 문'까지 성벽 천 암미를 손질하였다.
- 14 '거름 문'은 벧 케렘 구역 담당관, 레캅의 아들 말키야가 손질하였다. 그는 성문을 만들고 문짝과 빗장한테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 15 '새문'은 미즈파 구역 담당관, 콜 호제의 아들 살룸이 손질하였다. 그는 성문을 만들고 지붕을 얹은 다음, 문짝과 빗장한테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그는 또 '임금 동산' 옆 '셀라 못' 가의 성벽을 다윗 성에서 내려가는 층계까지 손질하였다.
- 16 그다음은 다윗의 묘지 앞과 인공 못과 '용사들의 집'에 이르기까지, 벧 추르의 반쪽 구역 담당관, 아즈부아의 아들 느헤미야가 손질하였다.
- 17 그다음은 레위인들이 손질하였는데, 먼저 바나의 아들 르훔이 하고, 그 옆은 크일라의 반쪽 구역 담당관 하사브야가 자기 구역의 뿔으로 손질하였다.
- 18 그다음은 크일라의 다른 반쪽 구역 담당관, 해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친족들과 함께 손질하였다.
- 19 그 옆으로는 미즈파 담당관, 예수아의 아들 에제르가 성 굽이에 있는 병기고 오르막 맞은쪽의 들깨 부분을 손질하였다.
- 20 그다음은 자베이의 아들 바룩이 성 굽이에서 대사제 엘아십의 집 문까지 이르는 들깨 부분을 손질하였고,
- 21 그다음은 코츠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므레못이 엘아십의 집 문에서 그 집 끝까지 이르는 들깨 부분을 손질하였다.
- 22 그다음은 인근 지역에 사는 사제들이 손질하였고,
- 23 그다음은 벤야민과 하습의 집 앞으로 그들이 자신이 손질하였으며, 그다음은 아남아의 손자이며 마이세아의 아들인 아자르아의

집 곁으로 그 자신이 손질하였다.

- 24 그다음은 헤나뎃의 아들 빈누이가 아자르
아의 집에서 성 굽이와 모퉁이까지 이르는
둘째 부분을 손질하였다.
- 25 우자이의 아들 팔랄은 성 굽이와, 경비대
뜰 쪽 윗궁궐의 도드라진 탑의 맞은쪽을
손질하였다. 그다음은 파르오스의 아들 프
다야가
- 26 오펜에 사는 성전 막일꾼들과 함께 동쪽 '물
문' 앞과 도드라진 탑까지 손질하였다.
- 27 그다음은 트코야 사람들이 도드라진 큰 탑
맞은쪽에서 오펜 성벽까지 이르는 둘째 부
분을 손질하였다.
- 28 '말 문' 위쪽으로는 사제들이 저마다 제집
앞을 손질하였다.
- 29 그다음은 임베르의 아들 차독이 자기 집
앞을 손질하고, 그다음은 동문 문지기, 스
칸야의 아들 스마야가 손질하였다.
- 30 그다음은 셀레르야의 아들 아난야와 찰랍
의 여섯째 아들 하늘이 두 번째 부분을 손
질하고, 그다음은 베레크야의 아들 므슬람
이 자기 방 앞을 손질하였다.
- 31 그다음은 세공장이 가운데 하나인 말키야
가 성전 막일꾼들과 상인들의 숙소까지,
그리고 '점호 문' 앞과 성 모퉁이 누각까
지 손질하였다.
- 32 그리고 성 모퉁이 누각과 '양 문' 사이의
세공장이들과 상인들이 손질하였다.

방허를 둘러쳐서 일을 계속하다

- 33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화를 내며 몹시 분개하였
다. 그는 유대인들을 비롯하여,
- 34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
였다. "힘도 없는 유대인들이 무얼 한다는
거지? 성벽을 보수하고 제사를 바치겠
다?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것인가? 불
타 버린 돌들을 먼지 더미에서 꺼내 쓰겠

다는 말인가?"

- 35 암몬 사람 토비야가 옆에 있다가, "저들이
아무리 성을 쌓아 보아야,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저들의 돌 성벽은 무너지고 말
거야." 하고 거들었다.
- 36 "저희 하느님, 들어 주십시오. 저희가 멸시
를 받고 있습니다. 저들의 조롱이 저들 머
리 위로 되돌아가게 하시고, 저들이 노획물
되어 유배의 땅으로 끌려가게 해 주십시오.
- 37 저들의 죄를 덮어 주지 마시고, 저들의 죄
악을 당신 앞에서 씻어 내지 마십시오. 저
들은 성을 쌓는 이들에게 모욕을 퍼붓고
있습니다."
- 38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여, 성벽 전체
를 절반 높이까지 올릴 수 있었다. 백성은
한마음으로 이 일을 하였다.

4¹ 예루살렘 성벽이 새로 올라가고 무
너진 곳은 매워지기 시작한다는 소
식을 듣고, 산발랏과 토비야와 아라비아인
들과 암몬인들과 아스돗인들이 크게 화를
내었다.

- 2 그리고 예루살렘을 쳐서 혼란에 빠뜨리려
가자고 다 함께 모의하였다.
- 3 우리는 우리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는 한편,
그들을 살피도록 밤낮으로 경비를 세웠다.
- 4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짐꾼
의 힘은 다해 가는데 잔해들은 많지만 하구
나.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을 쌓지 못하리
라."
- 5 게다가 우리의 적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
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
에, 우리가 저들 사이로 쳐들어가서 저들을
죽이고 일을 중단시켜 버립시다."
- 6 그들 곁에 사는 유대인들이 여남은 번이나
와서, 그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꾸미는 계획
을 모두 말해 주었다.
- 7 그래서 나는 백성을 갈과 창과 활로 무장시

켜, 씨족별로 성벽 뒤 낮은 빈 터에 배치하였다.

8 나는 두루 살펴보고 난 다음에 앞으로 나가,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에게 말하였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위대하고 경외로우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형제들과 아들딸들과 아내, 그리고 여러분의 집을 위하여 싸우십시오."

9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책략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하느님께서 그것을 좌절시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가 저마다 맡은 일을 다시 하였다.

10 그날부터 나의 부하들 가운데에서 반은 일을 하고,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하였다. 그리고 수령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의 온 집안 뒤에 자리를 잡았다.

11 짐을 져서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12 또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성벽을 쌓았다. 나팔수는 내 곁에 있게 하였다.

13 그리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에게 일러두었다. "할 일은 많고 지역은 넓기 때문에, 우리는 성벽을 따라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14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소리 나는 곳으로 우리에게 모여 오십시오.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입니다."

15 우리는 이렇게 반수는 창을 잡고,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나올 때까지 일을 하였다.

16 그때에 나는 백성에게 일렀다. "저마다 자기 종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묵으면서, 밤에는 우리를 위해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하십시오."

17 나도 내 형제들도, 내 수하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그 누

구도 옷을 벗거나 오른손에서 무기를 놓는 일이 없었다.

느헤미야가 사회의 불의에 개입하다

5¹ 그런데 많은 사람이 저희 아내들과 함께 다른 유대인 동포들 때문에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2 "우리 아들딸들, 게다가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먹고 살려면 곡식을 가져와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3 "가근이 들어 곡식을 얻으려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짐도 저당 잡혀야 하네." 하는 이들도 있고,

4 또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임금에게 낼 세금 때문에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었네.

5 그렇지만 저 동포들의 몸이나 우리 몸이나, 저들의 아들들이나 우리 아들들이나 똑같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는 아들딸들을 종으로 짓밟히게 해야 하다니! 우리 딸들 가운데에는 벌써 짓밟힌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에게 손쓸 힘이 없고, 우리 밭과 포도원은 남한테 넘어 가고 말았네."

6 나는 그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이런 말들을 듣고 매우 화가 났다.

7 나는 마음속으로 꿈곰이 생각한 다음, 귀족들과 관리들을 나무라며, "여러분은 서로 돈놀이를 하고 있군요." 하고 말하였다. 나는 그들의 일 때문에 큰 집회를 열고,

8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민족들에게 팔려 간 유대인 동포들을 우리 힘이 닿는 대로 도로 사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포들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더러 도로 사 오라는 말입니까?" 그들이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을 보고,

9 나는 말을 이었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원수인 이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지니고 걸어가야 하지 않았습니까?

- 10 나도, 내 형제들도, 내 부하들도 그들에게 돈과 곡식을 꾸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자 받는 일을 그만둡시다.
- 11 여러분은 오늘 당장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과 집을 돌려주고, 돈과 곡식과 헛포도주와 헛기름을 꾸어 주고 받은 이자도 돌려주십시오."
- 12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돌려주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제들을 불러, 그들에게서 이 약속대로 하겠다는 서약을 받게 하였다.
- 13 그리고 나는 내 옷자락을 털며 말하였다.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두 그의 집과 재산을 멀리 털어 버리실 것이다. 그런 자는 이렇게 털려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회중은 "아멘!" 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그 약속대로 하였다.

욕심 없는 느헤미야

- 14 내가 유다 땅에서 그들의 지방관으로 임명을 받은 날부터, 곧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 제이십년부터 제삼십이년까지 열두 해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은 지방관의 녹을 받지 않았다.
- 15 나의 선임 지방관들은 백성에게 짐을 무겁게 지우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은 마흔 세겔을 거두어들였다. 그들의 부하들까지 백성에게 상전 노릇을 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 16 또한 나는 이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쏟고서, 밭뚫기 하나 사들이지 않았다. 내 부하들도 모두 그 일을 위해 모여들었다.

- 17 내 식탁에는 유대인들과 관리들 백오십 명, 거기에는 이웃 여러 나라에서 우리를 찾아 온 이들이 자리를 같이하였다.
- 18 그래서 하루에 황소 한 마리와 골라 뽑은 양 여섯 마리를 잡고, 날짐승들도 잡아야 했다. 그리고 열흘마다 온갖 포도주도 풍족하게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나는 지방관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 백성의 짐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다.
- 19 "저의 하느님, 제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한 모든 일을 좋게 기억해 주십시오."

느헤미야에 대한 음모

- 6¹ 마침내 내가 성벽을 다 쌓아, 허물어진 곳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는 소식이 산발랏과 토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밖의 우리 원수들 귀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내가 성문에 문짝을 만들어 달지 못하였다.
- 2 산발랏과 게셈은, "오노 들만에 있는 크피림으로 오시오, 거기에서 함께 만납시다."라는 전갈을 보내왔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해치려는 흥계를 꾸미고 있었다.
- 3 그래서 나는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소. 어찌 나더러 일을 버려 둔 채 당신들한테로 내려가서, 이 일이 중단되게 하라는 말이요?"
- 4 그들은 같은 전갈을 네 번이나 보내왔지만, 나는 같은 말로 회답하였다.
- 5 산발랏은 자기 종을 시켜 다섯 번째로 같은 전갈을 나에게 보내왔다. 그의 손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가 들려 있었는데,
- 6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미 여러 민족 사이에 소문이 나 있고, 가스무도 같은 말을 하고 있소. 당신과 유대인들이 반란을 꾸민다는 것이요.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고, 또 이 소문에 따르면, 당

신은 그들의 임금이 되려 하고 있으며,
 7 '유다에 임금이 계시다!' 하고 예루살렘에서 선포하며 당신을 추대할 예언자들도 당신이 이미 내세웠다는 것이요 이제 이 소문대로 임금님께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오시오. 우리 함께 만납시다."
 8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전갈을 보냈다. "당신이 하는 말들은 사실이 아니요. 당신이 마음대로 꾸며 낸 것이요."
 9 그들은 모두, "저들이 일에서 손을 놓고, 그 일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겁을 주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제 손에 힘을 주십시오!"
 10 나는 들리아의 아들이며 므헤타브엘의 손자인 스마야의 집으로 갔다. 외출할 수 없는 몸이었던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하느님의 집에서, 성전 안에서 우리 함께 만납시다. 그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터이니 성전 문들을 닫아갑시다. 그들은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옵니다."
 11 내가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이 달아나면 되겠소?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성전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겠소? 나는 가지 않으려오."
 12 나는 하느님께서 그를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토비아와 산발랏이 그를 매수하였기 때문에, 그는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13 그를 매수한 것은, 내가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그렇게 행동하여 죄를 짓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나의 명예를 떨어뜨려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고자 하였다.
 14 "저의 하느님, 이런 짓을 저지른 토비아와 산발랏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겁을 주려 하였던 여예언자 노아드야와 그 밖의 예언자들도 기억하십시오."

15 성벽 공사는 오십이 일 만인 엘룰 달 스무닷셋날에 끝났다.
 16 우리의 모든 원수가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이 이것을 보았다. 이 일이 그들의 눈에 매우 놀랍게만 보였다. 그제야 그들은 이 일이 우리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다.
 17 그 무렵 유다의 귀족들이 토비아에게 편지를 자주 보내고, 토비아에게서도 그들에게 편지가 가곤 하였다.
 18 사실 토비아가 아라의 아들 스칸아의 시위인 데다, 그의 아들 여호하논이 베레크아의 아들 므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유다에는 그와 동맹을 맺은 이들이 많았다.
 19 그들은 내 앞에서 그를 칭찬하고, 내가 한 말을 그에게 일러바치곤 하였다. 그래서 토비아는 나에게 겁을 주려고 여러 번 편지를 보낸 것이다.

예루살렘에 경비를 세우다

7 ¹ 성벽 공사가 끝나자 나는 성문을 만 들어 달았다. 문지기들과 성가대와 레위인들도 임명되었다.
 2 나는 내 동기 하니니와 성체 지휘관 하난야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난야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달리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였다.
 3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고, 문지기들이 지켜 선 가운데 문을 닫아끼시오. 예루살렘 주민들을 경비로 세우는데, 일부는 저마다 지정된 초소에, 일부는 제집 앞에 서게 하시오."
 4 도성은 넓고 컸지만 그 인의 백성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래서 집들도 아직 지어지지 않은 채였다.

- 5 나의 하느님께서, 귀족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집안별로 등록시키도록 내 마음을 움직이셨
다. 마침 나는 일차로 올라온 이들의 집안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 6 바벨론 임금 네부카드네צר가 사로잡아 간
유배자들 가운데 포로살이를 마치고 고향으
로 올라온 지방민은 이러하다. 이들은 예루
살렘과 유다로, 곧 저마다 제 성읍으로 돌아
온 이들이다.
- 7 이들은 즈루빠벨, 예수아, 느헤미야, 아자르
야, 라이므야, 나하마니, 모르도카이, 빌산,
미스켓, 비그와이, 느훔, 바나나와 함께
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
- 8 파르오스의 자손이 이천백칠십이 명,
9 스파트아의 자손이 삼백칠십이 명,
10 아리의 자손이 육백오십이 명,
11 파핫 모압의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의 자
손이 이천팔백십팔 명,
12 엘람의 자손이 천이백오십사 명,
13 자투의 자손이 팔백사십오 명,
14 자카이의 자손이 칠백육십 명,
15 빈누이의 자손이 육백사십팔 명,
16 베바이의 자손이 육백이십팔 명,
17 아즈갓의 자손이 이천삼백이십이 명,
18 아도니캄의 자손이 육백육십칠 명,
19 비그와이의 자손이 이천육십칠 명,
20 아딘의 자손이 육백오십오 명,
21 아테르 곧 히즈키아의 자손이 구십팔 명,
22 하숨의 자손이 삼백이십팔 명,
23 베차이의 자손이 삼백이십사 명,
24 하림의 자손이 백십이 명,
25 기브온의 자손이 구십오 명,
26 베들레헬과 느도파 사람이 백팔십팔 명,
27 아나돗 사람이 백이십팔 명,
28 뱃 아즈마? 사람이 사십이 명,
29 키르얏 여아림과 크피라와 브에롯 사람이
칠백사십삼 명,
30 라마와 계바 사람이 육백이십일 명,
31 미크마스 사람이 백이십이 명,
32 베텔과 아이 사람이 백이십삼 명,
33 다른 느보 사람이 오십이 명,
34 다른 엘람의 자손이 천이백오십사 명,
35 하림의 자손이 삼백이십 명,
36 예리코의 자손이 삼백사십오 명,
37 로드와 하닷과 오노의 자손이 칠백이십일
명,
38 스나이의 자손이 삼천구백삼십 명이었다.
39 사제는, 예수아 집안 여다야의 자손이 구백
칠십삼 명,
40 임메르의 자손이 천오십이 명,
41 파스후르의 자손이 천이백사십칠 명,
42 하림의 자손이 천십칠 명이었다.
43 레위인은, 호다우야의 자손들인 예수아와
카드미엘의 자손 칠십사 명이였다.
44 상가데는, 아삽의 자손 백사십팔 명이였다.
45 문지기는, 살롬의 자손, 아테르의 자손, 탈
몬의 자손, 아굽의 자손, 하티타의 자손,
쇼바이의 자손 백삼십팔 명이였다.
46 성전 막일꾼은, 치하의 자손, 하수파의 자
손, 타바웃의 자손,
47 케로스의 자손, 시아의 자손, 파돈의 자손,
48 르바나의 자손, 하가베의 자손, 살미아의
자손,
49 하난의 자손, 기멜의 자손, 가허르의 자손,
50 르아야의 자손, 르친의 자손, 느쿰다의 자
손,
51 기째의 자손, 우짜의 자손, 파세이의 자손,
52 베사이의 자손, 므운의 자손, 느푸심의 자
손,
53 박복의 자손, 하쿠파의 자손, 하르후르의
자손,
54 바출릿의 자손, 므히다의 자손, 하르사의
자손,
55 바르코스의 자손, 시스라의 자손, 테마흐의
자손,

- 56 느치아의 자손, 히티파의 자손이었다.
- 57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은, 소타이의 자손, 소페렛의 자손, 프리다의 자손,
- 58 아일라의 자손, 다르콘의 자손, 기멜의 자손,
- 59 스파트아의 자손, 하틸의 자손, 포케렛 츠바임의 자손, 아몬의 자손이었다.
- 60 성전 막일꾼과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은 모두 삼백구십이 명이었다.
- 61 자기들의 집안과 종족, 그리고 자신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면서도, 텔 멜라, 텔 허르사, 크룹, 아똘, 임베르에서 올라온 이들은 다음과 같다.
- 62 곧 들라이의 자손, 토비아의 자손, 느코다의 자손 육백사십이 명이었다.
- 63 이 밖에 사제들 가운데에는, 호바아의 자손, 코츠의 자손, 바르질라이의 자손들도 있었다. 바르질라이는 길앗 사람 바르질라이의 딸 가운데 하나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이름까지 받았다.
- 64 이들은 족보를 뒤져 보았지만 이름이 들어 있지 않아, 사제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제외되었다.
- 65 총독은 그들에게, 우림과 톨뎀으로 판결을 내릴 사제가 나설 때까지 가장 거룩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 66 온 회중의 수는 사만 이천삼백육십 명이었다.
- 67 이 밖에도 그들의 남녀 종이 칠천삼백삼십칠 명 있었고, 남녀 성가대가 이백사십오 명 있었다.
- 68 낙타는 사백삼십오 마리, 나귀는 육천칠백이십 마리였다.
- 69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 가운데에서 공사에 쓸 기금을 바친 이들이 있었다. 총독도 금화 천 δρα크마와 쟁반 신 개, 사제 예복 오백삼십 벌을 금고에 기부하였다.
- 70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공사 금고에 바친

것은 금화가 이만 δρα크마, 은이 이천이백 마나였다.

- 71 나머지 백성이 바친 것은 금화가 이만 δρα크마, 은화가 이천 마나, 사제 예복이 예순일곱 벌이었다.

울뱀을 봉독하다

- 72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문지기들과 성가대와 백성 일부와 성전 막일꾼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저마다 제 성읍에 자리를 잡았다. 일곱째 달이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저마다 제 성읍에 살고 있었다.

8 ¹ 그때에 온 백성이 일제히 '물 문' 앞 광장에 모여, 울뱀 학자 에즈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울뱀서를 가져오도록 청하였다.

- 2 에즈라 사제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이로 이루어진 회중 앞에 울뱀서를 가져왔다. 때는 일곱째 달 초 하룻날이었다.
- 3 그는 '물 문' 앞 광장에서, 해 뜰 때부터 한 낮이 되기까지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수 있는 이들에게 그것을 읽어 주었다. 백성은 모두 울뱀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 4 울뱀 학자 에즈라는 이 일에 쓰려고 만든 나무 단 위에 섰다. 그 곁에는 마티트야, 세마, 야나야, 우리야, 할키야, 마아세야가 오른쪽에, 프다야, 미사엘, 말키야, 하숨, 하스바파나, 즈카르야, 므슬람이 왼쪽에 섰다.
- 5 에즈라는 온 백성보다 높은 곳에 자리를 잡았으므로,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책을 폈다. 그가 책을 펴자 온 백성이 일어섰다.
- 6 에즈라가 위대하신 주 하느님을 찬양하자, 온 백성은 손을 쳐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 그런 다음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 7 그러자 예수아, 바니, 세레브야, 아민, 아룹,

사브타이, 호디아, 마아세야, 클리타, 아자르야, 요자밧, 하난, 플라야 등 레위인들이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었다. 백성은 그 대로서 있었다.

- 8 그들은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번역하고 설명하면서 읽어 주었다. 그래서 백성은 읽어 준 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 9 느헤미야 총독과 율법 학자며 사제인 에즈라와 백성을 가르치던 레위인들이 온 백성에게 타일렀다. "오늘은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울지도 마십시오."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 백성이 울었기 때문이다.
- 10 에즈라가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단 술을 마시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께 거룩한 날이니, 미처 마련하지 못한 이에게는 그의 몫을 보내 주십시오. 주님께서 배부시는 기쁨이 바로 여러분의 힘이니, 서러워하지들 마십시오." 레위인들도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서러워하지들 마십시오." 하며 온 백성을 진정시켰다.
- 12 온 백성은 자기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알아 들었으므로, 가서 먹고 마시고 몫을 나누어 보내며 크게 기뻐하였다.

초막절을 지나다

- 13 이튿날 온 백성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율법 학자 에즈라에게 모여 왔다.
- 14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율법에, 일곱째 달 축제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고 쓰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 15 또한 "산으로 나가서 올리브 나무 가지, 소나무 가지, 도금양나무 가지, 야자나무 가지, 그 밖에 잎이 무성한 가지를 꺾어다가, 쓰여 있는 대로 초막을 만들어라." 하는 말

을 그들이 사는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울려 퍼지게 하라고 쓰인 것을 발견하였다.

- 16 그래서 백성은 나가서 나뭇가지들을 꺾어다가 저마다 제집 옥상이나 뜰, 하나님의 집 뜰이나 '물 문' 광장이나 '에프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만들었다.
- 17 온 회중, 곧 포로살이를 마치고 돌아온 이들은 이렇게 초막을 만들고 그 안에서 지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해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 기쁨이 매우 컸다.
- 18 에즈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서를 읽어 주었다. 사람들은 이레 동안 축제를 지내고,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법규대로 거룩한 집회를 열었다.

참회 기도

- 9 ¹ 그달 스무나흘날,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루옷을 입고 흠을 뒤집어쓴 채, 단식하러 모여들었다.
- 2 이스라엘의 후예들은 모든 이방인과 갈라선 뒤, 제자리에 서서 자기들의 잘못과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였다.
- 3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 하루의 사분의 일은 주 저희 하나님의 율법서를 읽고, 또 사분의 일은 죄를 고백하고 주 저희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 4 레위인들의 단 위에는 예수아, 바니, 카드미엘, 스반야, 분니, 세레브야, 바니, 크나니가 서서 주 저희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 5 레위인들인 예수아, 카드미엘, 바니, 하사브냐, 세레브야, 호디아, 스반야, 프타호야가, "일어나 주 여러분의 하나님을 찬미하십시오." 하고 외쳤다. "모든 찬양과 찬미 위에 드높으신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미받으소서.
- 6 당신은 주님 당신 홀로 주님이십니다. 당신

께서 하늘을, 하늘 위의 하늘과 그 군대를,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당신께 하늘의 군대가 경배합니다.

7 당신은 아브람을 선택하시어 칼데아의 우르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신 주 하느님이십니다.

8 그의 마음이 당신 앞에서 진실함을 보시고 가나안족, 히타이트족, 아모리족, 프리즈족, 여부스족, 기르가스족의 땅을 그에게 주시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주시기로 그와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의로우시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9 당신께서는 저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겪는 고난을 보셨고 갈대 바다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 주셨습니다.

10 저희 조상들을 거만하게 다루는 것을 아시고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그 땅의 온 백성을 거슬러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시어 떨치신 명성 오늘에 이릅니다.

11 그들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게 하시고 뒤쫓는 자들을 깊은 바다에 내던지시어 거센 물 속에 돌처럼 잠기게 하셨습니다.

12 낮에는 구름 가동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밤에는 불가동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13 사나이 산 위로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바른 법규와 진실한 율법과 좋은 규정과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14 당신의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려 주시고 당신 중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계명과 규정과 율법을 내리셨습니다.

15 그들의 굶주림을 보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셨고 그들의 목마름을 보시고 비위에 서 물을 터뜨리셨습니다. 당신 손을 들어

맹세하시며 주겠다 하신 그 땅을 들어가 차지하라고 그들에게 이르셨습니다.

16 그러나 그들, 저희 조상들은 거만하게 굴고 목을 뻗뻗이 하면서 당신의 계명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17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당신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일으킨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을 뻗뻗이 하고 이집트의 종살이로 돌아가려고 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용서의 하느님 너그럽고 자비하신 분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많으신 분! 당신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18 그들이 수송이지 상을 만들고서 '이것이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의 하느님이다.' 하며 큰 불경을 저질렀을 때에도

19 당신께서는 크신 재비로 그들을 광야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가동이 떠나지 않고 그들을 길로 이끌며 밤에는 불가동이 그들이 가는 길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20 당신의 선한 영을 내리시어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만나를 끊지 않으셨으며 그들의 목마름을 보시고 물을 주셨습니다.

21 사막에서 사십 년 동안 그들을 부양하시어 그들에게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옷은 해치지 않고 발은 부르뜨지 않았습니다.

22 그들에게 나라들과 민족들을 주시고 그것들을 나누어 변방으로 삼게 하시니 그들이 시혼의 땅인 헤스본 임금의 땅과 바산 임금 옥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23 당신께서는 그들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불어나게 하시고 가서 차지하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이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오셨습니다.

24 그리하여 그 자손들이 들어와 이 땅을 차

지하였습니다. 당신께서는 그들 앞에서 이 땅에 살던 가나안인들을 굴복시키시어 그들의 손에 넘기시고 임금들과 이 땅의 민족들을 그들이 좋을 대로 하게 하셨습니다.

25 그들은 요새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한 집들과 비위에 판 저수 동굴과 포도밭과 올리브 밭과 수많은 과일나무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들은 배불리 먹어 살이 찌고 당신의 큰 선하심 속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26 그러나 그들은 당신을 거역하고 반역하였으며 당신의 율법을 등 뒤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당신께 돌아가라고 경고하는 당신의 예언자들을 죽여 큰 불경을 저질렀습니다.

27 그리하여 당신께서는 그들을 적의 손에 넘기시어 억압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곤경 중에 당신께 부르짖으면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구원자들을 보내시어 그들을 적의 손에서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28 그러나 안병을 누리게 되면 그들은 다시 당신 앞에서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하여 당신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내버리시어 그 지배를 받게 되면 그들은 다시 당신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당신 자비에 따라 그들을 여러 번 구해 주셨습니다.

29 당신의 율법으로 돌아가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거만하게 굴며 당신 계명에 복종하지 않고 실천해야 사람이 살 수 있는 당신의 법규를 거슬러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고집을 부리고 목을 뺏뺏이 하며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30 당신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참아 주시고 당신 영으로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 당신께서는 그들을 못

나라 민족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31 그러나 당신의 크신 자비로 그들을 멸망시키지도, 그들을 내버려 두지도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너그럽고 자비하신 하느님이십니다.

32 이제 저희 하느님, 위대하신 하느님 용사이시며 두려우신 분 계약과 자애를 지켜 주시는 분! 아시아아 임금들 사대부터 오늘 날까지 저희에게 닥친 온갖 고난을, 저희 임금들과 수령들, 사제들과 예언자들 저희 조상들과 당신의 온 백성에게 닥친 온갖 고난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33 이 모든 것이 저희에게 들이닥쳤지만 당신께서는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께서는 진실하게 처리하셨고 저희는 악하게 행동하였습니다.

34 저희 임금들과 수령들과 사제들과 조상들이 당신의 율법을 실천하지 않았고 당신 계명과 당신께서 내리신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35 그들은 자기들의 나라에서 당신께서 배푸신 큰 복을 누리면서도, 당신께서 그들 앞에 펼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에 살면서도, 당신을 섬기지 않고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36 보십시오, 저희는 이제 종입니다. 당신께서 그 열매와 좋은 곡식을 먹으라고 저희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 보십시오, 이 땅에서 저희는 종이 되었습니다.

37 이 땅의 풍성한 소출은 저희 죄 때문에 당신께서 저희 위에 세우신 임금들에게 갑니다. 그들은 저희 몸뚱이도 저희 가족도 마음대로 부립니다. 저희는 큰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맹약을 맺고 사망하다

10 ¹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는 맹약을

맺고 그것을 기록하였다. 밀봉한 그 문서에는 우리의 수령들과 레위인들과 사제들이 서명하였다.

- 2 밀봉한 그 문서에 서명한 이는 하칼야의 아들 느헤미야 총독, 치드키야,
- 3 스리아, 아자르야, 이르브야,
- 4 파스후르, 아마르야, 말기야,
- 5 하투스, 스반야, 말룩,
- 6 하림, 므레못, 오바드야,
- 7 다니엘, 긴스톤, 바룩,
- 8 므술람, 아비아, 미아민,
- 9 마이즈야, 빌가이, 스마아인데, 이들은 사제들이다.
- 10 레위인으로는 아잔야의 아들 예수아, 헤나닷의 자손 빈누이, 카드미엘,
- 11 그리고 그들의 동료 스반야, 호디아, 클리타, 플라야, 하난,
- 12 미카, 르흠, 하사브야,
- 13 자쿠르, 세레브야, 스반야,
- 14 호디아, 바니, 브니누이다.
- 15 백성의 수령으로는 파로스, 파핫 모압, 엘람, 자투, 바니,
- 16 분니, 아즈갓, 베바이,
- 17 아도니아, 비그와이, 아딘,
- 18 아테르, 히즈키야, 아쭈르,
- 19 호디아, 하숨, 베차이,
- 20 하림, 아나투스, 네바이,
- 21 막피아스, 므술람, 헤지르,
- 22 므세자브엘, 차둑, 아쭈야,
- 23 플라트야, 하난, 아나야,
- 24 호세야, 하난야, 하숨,
- 25 로헤스, 필하, 소백,
- 26 르흠, 하사브나, 미아세야,
- 27 아히야, 하난, 아난,
- 28 말룩, 하림, 바야니아다.

맹약의 규정

29 이 밖의 백성, 곧 사제, 레위인, 문지기, 성

가대, 성전 막일꾼과, 하느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지방 백성들과 갈라선 모든 이와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딸들, 그리고 알자들을 줄 아는 모든 이가

- 30 유력자인 저희 형제들을 지지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하느님의 율법에 따라 걷고, 주 우리 하느님의 모든 계명과 그분의 법규들과 규정들을 지키고 실천하며, 어기면 저주를 받았다고 맹세하였다.
- 31 "우리는 이 지방 백성들에게 우리 딸들을 주지 않고, 그들의 딸들을 우리 아들들의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는다.
- 32 우리는 이 지방 백성들이 안식일에 상품이나 온갖 곡식을 팔려고 가져오더라도, 안식일이나 축일에는 사지 않는다. 우리는 일곱째 해마다 소출과 온갖 종류의 채권을 포기한다."
- 33 우리는 또한 이러한 규례를 정하였다. "우리는 우리 하느님 집의 전례를 위하여 해마다 삼분의 일 세겔씩 바친다.
- 34 이는 두 줄로 차려 놓는 빵, 일일 곡식 제물, 일일 번제물, 안식일 제물, 초하룻날 제물, 축일 제물, 거룩한 예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는 속죄 예물, 그리고 우리 하느님의 집에서 하는 모든 일을 위한 것이다."
- 35 사제, 레위인, 백성 구별 없이 우리는 집안 별로 제비를 뽑아, 해마다 정해진 때에 우리 하느님의 집에 장작을 봉헌할 순서를 결정하였다. 이는 율법에 쓰인 대로, 주 우리 하느님의 제단 위에서 사를 장작이다.
- 36 그리고 우리는 밭에서 나는 만물과 모든 나무에서 나는 온갖 열매의 만물을 해마다 주님의 집에서 바치고,
- 37 율법에 쓰인 대로, 우리의 만아들과 짐승의 만배, 곧 큰 가축과 작은 가축의 만배를 우리 하느님의 집에, 우리 하느님의 집에서

봉직하는 사제들에게 바치기로 하였다.

- 38 우리는 또 반죽과 들어 올려 바치는 예물, 모든 나무 열매, 헛포도주와 헛기름의 만물을 우리 하느님 집의 여러 방으로 가져 가서 사제들에게 바치고, 우리 밭에서 나는 소출 가운데 십분의 일을 레위인들에게 바친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성읍마다 돌아다니며 십일조를 거두는 이들이 바로 레위인들이다.
- 39 레위인들이 십일조를 거둘 때, 아론의 자손 사제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다닌다. 레위인들은 거두어들이는 십일조에서 다시 십일조를 떼어 우리 하느님의 집으로, 창고의 여러 방으로 가지고 올라간다.
- 40 그 방들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레위의 자손들이 곡식과 헛포도주와 헛기름 예물을 가져다 놓는 곳이다. 또 그곳에는 성소의 기물들을 두기도 하고, 당번 사제들과 문지기들과 성가대가 머무르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하느님의 집을 그냥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은 아들

- 11 ¹ 백성의 수령들은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제비로 열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를 뽑아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게 하고, 이혼은 다른 성읍들에서 살게 하였다.
- 2 그리하여 백성은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겠다고 자원한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였다.
- 3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은 지방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다. 유다의 성읍들에는 이스라엘 백성, 사제, 레위인, 성전 막일꾼,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들이 저마다 성읍에 있는 제 소유지에 자리를 잡았다.
- 4 유다의 자손들과 벤야민의 자손들 가운데 일부가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았다. 유다의 자손으로는 아타야가 있었는데, 아타야는

우찌아의 아들, 우찌야는 즈카르아의 아들, 즈카르아는 아마르아의 아들, 아마르아는 스파르아의 아들, 스파르아는 마할랄엘의 아들, 마할랄엘은 페레츠의 자손이다.

- 5 그리고 마아세야가 있었는데, 마아세야는 바룩의 아들, 바룩은 콜 호제의 아들, 콜 호제는 하자아의 아들, 하자아는 아다아의 아들, 아다아는 요아킴의 아들, 요아킴은 실로 사람 즈카르아의 아들이다.
- 6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은 페레츠의 자손들은 모두 사백육십팔 명으로, 저마다 용사들이었다.
- 7 벤야민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먼저 살루가 있었는데, 살루는 므술람의 아들, 므술람은 요렛의 아들, 요렛은 프다아의 아들, 프다아는 콜라아의 아들, 콜라아는 마아세야의 아들, 마아세야는 이터엘의 아들, 이터엘은 이사야의 아들이다.
- 8 그다음으로 가비야와 살리아가 있었다. 이들은 모두 합하여 구백이십팔 명이였다.
- 9 지크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관이었고, 스누이의 아들 유다는 이 도성의 부책임자였다.
- 10 사제들 가운데는 여호아킴의 아들 여다야, 야긴,
- 11 스리아가 있었다. 스리아는 힐기아의 아들, 힐기아는 므술람의 아들, 므술람은 차독의 아들, 차독은 므라웃의 아들, 므라웃은 하느님 집의 총감독이었던 아히툼의 아들이다.
- 12 하느님의 집 일을 맡아본 그들의 친족까지 모두 팔백이십이 명이였다. 또 아다야가 있었는데, 아다야는 여로함의 아들, 여로함은 플랄아의 아들, 플랄아는 암치의 아들, 암치는 즈카르아의 아들, 즈카르아는 파스후르의 아들, 파스후르는 말기아의 아들이다.
- 13 그리고 그의 친족으로서 각 기문의 우두머리들까지 모두 이백사십이 명이였다. 또 아

마스사이가 있었는데, 아파스사이는 아자르엘의 아들, 아자르엘은 아흐자이의 아들, 아흐자이는 므실레못의 아들, 므실레못은 임페르의 아들이다.

14 용맹한 군사들이었던 그의 친족까지 모두 백이십팔 명이었고, 그들의 감독관은 하끄 돌립의 아들 잡디엘이었다.

15 레위인 가운데는 스마야가 있었는데, 스마야는 하숨의 아들, 하숨은 아즈리감의 아들, 아즈리감은 하사브야의 아들, 하사브야는 분니의 아들이다.

16 또 레위인 우두머리로는 사브타이와 요자빋이 있었는데, 이들은 하느님 집의 바깥 일을 맡았다.

17 그리고 마탄야가 있었는데, 마탄야는 미카의 아들, 미카는 잡디의 아들, 잡디는 기도 할 때에 찬미가를 선창하는 지휘자였던 아삽의 아들이다. 이 밖에 동료들 가운데에서 부책임자였던 박부크야가 있었고, 또 압다가 있었는데, 압다는 삼무이의 아들, 삼무이는 갈랄의 아들, 갈랄은 여두톤의 아들이다.

18 거룩한 도성에 자리를 잡은 레위인들은 모두 이백팔십사 명이었다.

19 문지기는 아랍과 탈몬과 대문들을 지키는 그들의 동료들까지 모두 백칠십이 명이였다.

20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저마다 유다의 각 성읍에 있는 제 소 유지에서 살았다.

21 그러나 성전 막일꾼들은 오랜만에 자리를 잡았고, 치하와 기스파가 이 성전 막일꾼들을 거느렸다.

예루살렘 주민에 대한 보충 설명

22 예루살렘에 있는 레위인들의 감독관은 우찌었는데, 우찌는 바니의 아들, 바니는 하사브야의 아들, 하사브야는 마탄야의 아들,

마탄야는 아삽의 자손 미카의 아들이다. 이들은 하느님의 집에서 일을 맡은 성가대였다.

23 이 성가대와 관련해서는 임금의 명령이 내려져 있었고, 날마다 정해진 보수가 있었다.

24 그리고 유다의 아들 제라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인 므세자브엘의 아들 프타흐야가 임금 곁에서 백성의 모든 일을 맡아보았다.

예루살렘 밖에 자를 잡은 이들

25 들판이 딸린 촌락들로 말하면, 유다의 자손들 가운데 일부가 키르앗 아르바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 디분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여갑츠엘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에 자리를 잡고,

26 또 예수아, 몰라다, 벧 펠렛,

27 하차르 수알, 브에르 세바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

28 치클락, 므크나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

29 엔 림몬, 초르야, 아르뭇,

30 자노아, 아들람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 라키스와 거기에 딸린 들판, 아제키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에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그들은 브에르 세바에서 힌놈 골짜기까지 차지하고 살게 되었다.

31 벤야민의 자손들은 게바에서 시작하여, 미크마스, 아야, 베델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32 야나롯, 늪, 아난야,

33 하초르, 라마, 기타임,

34 하딛, 츠보임, 느발랏,

35 로드, 오노, 그리고 '세공장이 골짜기'에 자리를 잡았다.

36 유다에 있던 레위인들의 몇몇 무리는 벤야민으로 자리를 옮겼다.

즈루빠벨과 귀향한 사제들과 레위인

12 ¹ 스알티엘의 아들 즈루빠벨과 예수아

- 와 함께 올라온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이러하다. 스리야, 이르므야, 에즈라,
 2 아파르야, 말룩, 하투스,
 3 스간야, 르흠, 프레못,
 4 이또, 긴스토이, 아비야,
 5 미야민, 마야드야, 발가,
 6 스마야, 여호야립, 여다야,
 7 살루, 아목, 할기야, 여다야이다. 이들은 예수아 때, 사제들의 우두머리들과 그 동료들이다.
 8 레위인은 예수아, 빈누이, 카드미엘, 세레브야, 유다, 그리고 자기 동료들과 함께 찬미가를 맡은 미탄야이다.
 9 박부크야와 운나는 동료들과 함께 그들 맞은쪽에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다대제 예수이의 자손들

- 10 예수이는 요아킴을 낳고, 요아킴은 엘야십을 낳고, 엘야십은 요아다를 낳고,
 11 요아다는 요나탄을 낳고, 요나탄은 아뜨아를 낳았다.

사제 가문의 우두머리들

- 12 요아킴 때 각 가문의 우두머리 사제들은 이러하다. 스리야 집안에서는 므리야, 이르므야 집안에서는 하난야,
 13 에즈라 집안에서는 므술람, 아파르야 집안에서는 여호하난,
 14 말룩 집안에서는 요나탄, 스반야 집안에서는 요셉,
 15 하림 집안에서는 아드나, 프라우트 집안에서는 헬카이,
 16 이또 집안에서는 즈카르야, 긴스톤 집안에서는 므술람,
 17 아비야 집안에서는 지크리, 민야민 집안에서는; 모야드야 집안에서는 필타이,
 18 발가 집안에서는 삼무야, 스마야 집안에서는 요나탄,
 19 여호야립 집안에서는 마트나이, 여다야 집

안에서는 우찌,

- 20 살라이 집안에서는 칼라이, 아목 집안에서는 에베르,
 21 할기야 집안에서는 하사브야, 여다야 집안에서는 느탄엘이었다.

레위인들

- 22 엘야십, 요아다, 요하난, 아뜨아 때 각 가문의 우두머리인 레위인들의 이름은 사제들의 이름과 함께 페르시아인 다리우스의 통치 때까지의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23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 이름은 엘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의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24 레위인들의 우두머리들은 하사브야, 세레브야, 카드미엘의 아들 예수아였는데, 그들 맞은쪽에서는 동료들이 반별로 하느님의 사람 다윗이 지시하였던 대로 찬양가와 찬송가를 불렀다.
 25 미탄야, 박부크야, 오바드야, 므술람, 탈몬, 아굽은 문지기였다. 이들은 각 문에 딸린 창고들을 지켰다.
 26 이들은 여호차닥의 손자이며 예수이의 아들인 요아킴, 지방관 느헤미야, 그리고 사제이며 율법 학자인 에즈라 때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다

- 27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할 때, 사람들은 레위인들을 곳곳에서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자비리와 수금과 비파에 맞추어 감사와 노래로 봉헌식을 기쁘게 올리려는 것이었다.
 28 그리하여 성가대가 모여들었는데, 예루살렘 주변 일대와 느드파인들의 촌락들,
 29 뱃길갈, 게비와 아즈파? 들판에서 왔다. 성가대는 예루살렘 주변에 촌락들을 세우고 살았던 것이다.
 30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자신들을 정결하게

한 다음,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였다.

31 나는 유다의 수령들을 성벽 위로 올라오게 하고, 큰 찬양대 둘을 세운 다음, 한 찬양대를 '거름 문'을 향하여 성벽을 타고 오른쪽으로 행진하게 하였다.

32 그 뒤를 호시아와 유다 수령들의 절반이 따르고,

33 아자르야, 에즈라, 므술람,

34 유다, 벤야민, 스마야, 이르므야,

35 그리고 나팔을 든 젊은 사제 몇 명과 즈카르야가 따랐다. 즈카르야는 요나탄의 아들, 요나탄은 스마야의 아들, 스마야는 마탄야의 아들, 마탄야는 미카야의 아들, 미카야는 자쿠르의 아들, 자쿠르는 아삽의 아들이다.

36 그다음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들을 들고 즈카르야의 동료인 스마야, 아자르엘, 말랄라이, 길랄라이, 마이이, 느탄엘, 유다, 그리고 하나니가 따랐다. 에즈라는 그들 앞에 있었다.

37 '샘 문'에서 그들은 곧바로 성벽 층계를 통하여 다윗 성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 궁위를 지나 동쪽 '물 문'에 이르렀다.

38 둘째 찬양대는 왼쪽으로 갔다. 나는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성벽 위로 그 뒤를 따라, '가마 탑' 위로 '넓은 성벽'까지 갔다.

39 그리고 '에프라임 문' 위를 지나, '옛 문'과 '물고기 문' 위, 그리고 '하난엘 탑'과 '백인 탑'으로 해서 '양 문'에 이르러, '경비대 문'에서 멈추었다.

40 두 찬양대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멈추었다. 관리들 절반이 나와 함께 있었고,

41 사제로서는 엘야킴, 마아세야, 민야민, 미카야, 엘요에나이, 즈카르야, 하난야가 나팔을 들고 있었으며,

42 또 마아세야, 스마야, 엘야자르, 우찌, 여호하난, 말키야, 엘람, 에제르가 있었다.

성가대는 지휘자인 이즈라히와 함께 악기에 맞추어 노래하였다.

43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들을 바치며 기뻐하였다. 하느님께서 큰 기쁨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자들과 아이들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백성이 사제들과 레위인을 후원하다

44 그날, 예물과 만물과 십일조를 보관하는 방들을 맡은 사람들이 임명되었다. 이는 율법에 정해진 대로 사제들과 레위인들의 몫을 각 성읍에 딸린 밭에서 거두어 그곳에 모아 놓으려는 것이었다. 유대인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보고 기뻐하였기 때문이다.

45 그들은 하느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 예식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다. 성가대와 문지기들도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시한 대로 하였다.

46 옛날 다윗과 아삽 때에도 성가대의 우두머리가 있었고, 하느님께 찬미와 찬송을 드리는 노래가 있었던 것이다.

47 즈루뻬멜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성가대와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몫을 주었다. 백성은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거룩한 몫을 떼어 놓았고, 레위인들은 아론의 자손들에게 돌아갈 거룩한 몫을 떼어 놓았다.

이영인들을 분리하다

13 ¹ 그날 사람들은 모세의 책을 백성에게 읽어 주었다. 거기에서 이러한 사실이 쓰여 있음을 발견하였다. 곧 모압인과 모압인은 하느님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데,

2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맞이하기는커녕, 그들을 저주하

려고 발라임을 고용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하느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다.

3 백성은 이 울분을 듣고 이스라엘에서 모든 이방 무리를 분리시켰다.

느헤미야의 개혁

4 이 일이 있기 전이었다. 엘야십 사제가 우리 하느님 집의 방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임명되었는데, 토비아와 가까운 인척이었으므로,

5 그는 토비아에게 큰 방을 차려 주었다. 그 방은 전에 곡식 제물과 유향과 기물들, 레위인들과 성가대와 문지기들을 위하여 지정된 십일조를 거두어들이는 곡식과 햇포도주와 햇기름, 그리고 사제들을 위한 예물을 두는 곳이었다.

6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에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다. 나는 바빌론 임금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제삼십이년에 임금님을 뵈러 갔다가, 얼마 지나서 임금님께 말미를 청하여

7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야, 엘야십이 하느님의 집 뜰에 있는 방을 토비아에게 차려 주는 악행을 저지른 것을 발견하였다.

8 나는 몹시 화가 나서 토비아의 집 세간을 모두 방 밖으로 내던지고,

9 방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런 다음에 하느님의 집 기물들과 곡식 제물과 향료를 도로 가져다 두게 하였다.

10 나는 또 레위인들의 몫이 분배되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맡은 일을 해야 할 레위인들과 성가대는 저마다 제 말이 있는 곳으로 달아나 버렸다.

11 나는 "어찌하고 우리 하느님의 집을 이렇게 버려두었소?" 하며 관리들을 꾸짖고서는, 레위인들과 성가대를 다시 불러 모아 제자리에 세웠다.

12 그러자 모든 유대인이 곡식과 햇포도주와

햇기름의 십일조를 창고로 가져왔다.

13 나는 셀레미야 사제와 차둑 서기관과 레위인 프다야를 창고 책임자로, 그리고 마탄야의 손자이며 자쿠르의 아들인 하난을 조수로 임명하였다. 그들은 진실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래서 동료들에게 몫을 분배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긴 것이다.

14 "저의 하느님, 이 일을 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 하느님의 집과 그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제가 한 이 덕행을 지워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15 그때에 나는 유다 지방에서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술틀을 밟고 곡식 더미를 날다다가 나귀에 실으며, 안식일인데도 포도주와 포도송이와 무화과와 그 밖의 온갖 짐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하여 나는 안식일에 식물을 팔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16 예루살렘에 사는 티로인들도 물고기와 온갖 상품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자손들에게 팔았다.

17 그래서 나는 유다의 귀족들을 꾸짖으며 말하였다. "여러분은 어찌하고 안식일을 더럽히며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소?"

18 여러분의 조상들이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와 이 도성에 이 모든 제앙을 내리신 게 아니요? 여러분까지 안식일을 더럽혀, 이스라엘에 하느님의 진노를 더 많이 끌어들이고 있소."

19 안식일이 되기 전 예루살렘의 성문들에 그림자가 드리우자, 나는 문들을 단도록 지시하고, 또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열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고서는 내 부하들 가운데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 짐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20 그 뒤에도 상인들과 갖가지 물건을 파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 밤을 지내는 일이 한두 번 있었다.

- 21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경고하며 말하였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성 앞에서 밤을 지내오? 다시 또 그런다면, 내가 그대들에게 손을 댈 것이오." 그때부터 그들은 안식일에 나타나지 않았다.
- 22 나는 레위인들에게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들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지시하였다. "저의 하느님, 이것도 저를 위하여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저를 기없이 여겨 주십시오."
- 23 그때에 나는 또 아스돗, 암몬, 모압 여자와 혼인한 유대인들을 보았다.
- 24 그 자녀들의 절반이 아스돗 말을 하는데, 유다 말은 할 줄도 모르는 채 이민족 저민족 말을 하였다.
- 25 나는 그들을 꾸짖고 저주하였으며, 그 사람들 가운데 몇몇을 때리기도 하고 머리털을 뽑기도 하였다. 그리고 나서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였다. "당산들은 이방인의 아들에게 딸을 주어서는 안 되오. 그들의 딸을 아들이나 자기의 아내로 데려와서도 안 되오."
- 26 이스라엘 임금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그런 여자들 때문이 아니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그만한 임금이 없었소. 그는 자기의 하느님께 사랑을 받았고, 하느님께서 그를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셨소. 그러한 그를 이민족 여자들이 죄짓게 한 것이오.
- 27 그런데 우리도 당신네 말을 듣고, 이민족 여자들과 혼인하여 이렇게 큰 악을 저지르며 우리 하느님을 배신하라는 말이요?"
- 28 엘아십 대사제의 아들 요아다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였다. 그래서 나는 그를 내게서 멀리 쫓아 버렸다.
- 29 "저의 하느님, 사제직뿐만 아니라 사제들과

레위인들의 계약을 더럽힌 저들을 기억하십시오."

- 30 나는 이렇게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모든 낯선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한 다음, 임무를 확정하여 저마다 제 일을 하게 하였다.
- 31 또 정해진 때에 바치는 장작의 봉헌과 만물도 확정하였다. "저의 하느님, 저를 좋게 기억해 주십시오."

구약성경 - 17

역사서 - 12

토 빛 기

총 14 장

총 242 절

[구약성경]-[토빗기]

마음

1 ¹ 토빗의 이야기를 적은 책. 토빗은 납탈리 지파에 속한 아시엘의 후손으로서 토비엘의 아들이고, 토비엘은 하난엘의 아들, 하난엘은 아두엘의 아들, 아두엘은 가비엘의 아들, 가비엘은 라파엘의 아들, 라파엘은 라구엘의 아들이다.

2 토빗은 아시리아인들의 임금 살만에세르 시대에 티스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 티스베는 갈릴레아 고지대 납탈리 지방의 케데스 남쪽, 곧 하초르 위 해 지는 쪽에, 그리고 포고르에서는 북쪽에 자리 잡은 곳이다.

고향에서 살 때의 토빗

3 나 토빗은 평생토록 진리와 선행의 길을 걸어왔다. 나는 나와 함께 아시리아인들의 땅 니네베로 유배 온 친척들과 내 민족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었다.

4 내가 아직 젊은 나이로 이스라엘 땅 내 고향에 살 때, 나의 조상 납탈리의 온 지파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나갔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성읍 가운데에서 선택되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제물을 바치는 곳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처로 봉헌된 성전이 모든 세대를 위하여 영원히 세워져 있었다.

5 나의 친척들은 모두 내 조상 납탈리 집안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임금 예로보암이 단에 만들어 세운 송아지에게 제물을 바치고, 갈릴레아의 모든 산 위에서도 제물을 바치곤 하였다.

6 그러나 나만은 축제 때에,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영원한 규정에 쓰인 대로 자주 예루살렘으로 갔다. 나는 그때마다 만물과 만배와 가축의 십분의 일과 그해에 처음 깎은 양털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서둘러 가서,

7 이론의 자손 사제들에게 주어 제단에 바치게 하였다. 또 밀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석류와 무화과와 다른 과일들의 십분의 일을 예루살렘에서 봉직하는 레위의 자손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여섯 해 동안 해마다 또 다른 십분의 일을 돈으로 환산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서 썼다.

8 세 번째 십분의 일은 고아들과 과부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곁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나는 세 해마다 그 십분의 일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고, 그것과 관련하여 모세의 법에 쓰인 규정에 따라, 또 우리 아버지 토비엘의 어머니신 드보라께서 내리신 지시에 따라 그들과 함께 먹었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고아로 남겨 두신 채 일찍 돌아가셨던 것이다.

9 어른이 되자 나는 우리 일가에서 아내를 맞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토비아라고 하였다.

유배지의 토빗

10 나는 포로가 되어 아시리아로 왔다. 포로가 되어 니네베로 끌려온 것이다. 이곳에서 내 친척과 동족들은 모두 이민족들의 음식을 먹었다.

11 그러나 나는 스스로 조심하여 이민족들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

12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을 잊지 않았으므로,

13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내가 살만에세르에게서 호의와 귀염을 받도록 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임금에게 필요한 모든 물품을 사들이는 직책을 맡게 되었다.

14 임금이 죽을 때까지, 나는 메디아로 가서 임금을 위한 물품을 사 오곤 하였다. 그때에 나는 메디아 땅에서 가브리의 동기가 바엘에게 은 열 탈렌트가 든 자루들을 맡겨 두었다.

- 15 그런데 살만에세르가 죽고 그의 아들 산헤림이 뒤를 이어 임금이 되자 메디아로 가는 길들이 가로막혀, 나는 더 이상 메디아로 갈 수가 없었다.
- 16 살만에세르 시대에 나는 내 친척과 동족들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었다.
- 17 배고픈 이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이들에게는 입을 것을 주었으며, 내 백성 가운데 누가 죽어서 내네베 성 밖에 던져져 있는 것을 보면 그를 물어 주었다.
- 18 산헤림이 저지른 신성 모독 때문에 하늘의 임금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적에, 그가 유다에서 도망쳐 나와 죽인 이들도 나는 물어 주었다. 산헤림이 분노를 터뜨리며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그들의 주검을 훔쳐 내어 물어 주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주검들을 산헤림이 찾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 19 그때에 내네베 주민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임금에게 가서 내가 죽은 이들을 묻고 있다고 알렸다. 그래서 나는 몸을 숨겼다. 임금이 내 일을 알뿐더러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두려운 나머지 달아난 것이다.
- 20 그러자 나의 모든 재산이 몰수되었다. 내 아내 안나와 아들 토비아 외에도 하나도 남지 않고 모조리 임금의 차지가 되어 버렸다.
- 21 그러나 마흔 날도 지나지 않아 산헤림의 아들 둘이 그를 죽이고 아리랏 산으로 달아났다. 그의 다른 아들 에스르 하똘이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는데, 그가 나의 동기 하나넬의 아들 아키카르에게 나라의 모든 재정을 맡겼다. 그래서 아키카르가 모든 행정에 관한 권한을 쥐게 되었다.
- 22 그러자 아키카르가 나를 위하여 간청을 드려 나는 내네베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 사실 아키카르는 아시아리인들의 임금 산헤

림의 현직 시종장이고 옥새 책임관이었으며 행정관이요 재정관이었다. 에스르 하똘이 아키카르를 다시 임명한 것이다. 아키카르는 나의 조카로서 가까운 친족이었다.

눈이 멀게 된 토빗

- 2 ¹ 에스르 하똘 시대에 나는 집으로 돌아와 내 아내 안나와 아들 토비아를 되찾게 되었다. 우리의 축제인 오순절 곧 주간절에 나를 위하여 잔치가 벌어져, 나는 음식을 먹으려고 자리에 앉았다.
- 2 내 앞에 상이 놓이고 요리가 풍성하게 차려졌다. 그때에 내가 아들 토비아에게 말하였다. "애야, 가서 내네베로 끌려온 우리 동포들 가운데에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잊지 않는 가난한 이들을 보는 대로 데려오너라. 내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 그런다. 애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 3 그래서 토비아야가 우리 동포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찾으러 나갔다. 그가 돌아와서 "아버지!" 하고 불렀다. 내가 "애야, 나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하자 그가 계속 말하였다. "아버지, 누가 우리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살해하여 장터에 던져 버렸습니다. 목졸려 죽은 채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 4 나는 잔치 음식을 맛보지도 않고 그대로 둔 채 벌떡 일어나 그 주검을 광장에서 날라다가, 해가 진 다음에 묻으려고 어떤 방에 놓아두었다.
- 5 그런 다음 집에 돌아와서 몸을 씻고 슬픔에 찌인 채 음식을 먹었다.
- 6 그때에 아모스 예언자가 베텔을 두고 한 말씀이 생각났다. "너희의 축제들은 슬픔으로, 너희의 모든 노래는 애가로 바뀌리라."
- 7 나는 울었다. 그리고 해가 진 다음에 나가서 땅을 파고 그를 묻어 주었다.
- 8 이웃들은 나를 비웃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이제는 두렵지가 않은 모양이지?"

전에도 저런 일 때문에 사형감으로 수배되어 달아난 적이 있는데, 또 저렇게 죽은 이들을 묻는다면."

- 9 그날 밤 나는 몸을 씻고 내 집 마당에 들어가 담 앞에서 잠을 잤는데, 무더워서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 10 내 머리 위 담에 참새들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하였다. 그때에 뜨거운 참새 똥이 내 두 눈에 떨어지더니 하얀 막이 생기는 것이었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려고 여러 의사에게 가 보았지만, 그들이 약을 바르면 비를수록 그 하얀 막 때문에 눈이 더 멀어졌다. 그러더니 마침내는 아주 멀어 버렸다. 나는 네 해 동안 시력을 잃은 채 지냈다. 내 친척들이 모두 나 때문에 슬퍼하고, 아카카르는 엘리아미스로 갈 때까지 나를 두 해 동안 돌보아 주었다.
- 11 그때에 내 아내 안나는 여자들이 하는 일에 품을 팔았다.
- 12 아내가 물건을 만들어 주인들에게 보내면 주인들이 품삯을 주곤 하였다. 디스트로스 달 초이렛날에 아내는 자기가 찢던 옷감을 잘라서 주인들에게 보냈다. 그러자 그들은 품삯을 다 줄 뿐만 아니라 집에서 쓰라고 새끼 염소 한 마리도 주었다.
- 13 내가 있는 곳으로 아내가 들어올 때에 그 새끼 염소가 울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내가 아내를 불러 말하였다. "그 새끼 염소는 어디서 난 거요? 혹시 훔친 것 아니요? 주인들한테 돌려주시요. 우리에게는 훔친 것을 먹을 권리가 없소."
- 14 아내가 나에게 "이것은 품삯 외에 선물로 받은 것이예요." 하고 말하였지만, 나는 아내를 믿지 못하여 그 새끼 염소를 주인들에게 돌려주라고 다시 말하면서, 그 일로 아내에게 얼굴을 붉혔다. 그러자 아내가 말하였다. "당신의 그 자선들로 얻은 게 뭐죠? 당신의 그 선행들로 얻은 게 뭐죠?"

그것으로 당신이 무엇을 얻었는지 다들 알고 있어요."

토빛의 기도

- 3 ¹ 나는 마음이 몹시 괴로워 탄식하며 울었다. 그리고 탄식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 2 "주님, 당신께서는 의로우십니다. 당신께서 하신 일은 모두 의롭고 당신의 길은 다 자비와 진리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 3 이제 주님,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살펴보아 주소서. 저의 죄로, 저와 제 조상들이 알지 못하고 저지른 잘못으로 저를 벌하지 마소서. 그들은 당신께 죄를 짓고
- 4 당신의 계명들을 따르지 않았습시다. 그래서 당신께서는 저희를 악탈과 유배와 죽음에 넘기시고 당신께서 저희를 흠으신 모든 민족들에게 이아깃거리와 조롱거리와 우셋거리로 넘기셨습니다.
- 5 저의 죄에 따라 저를 다루실 적에 내리신 당신의 그 많은 판결들은 다 참되십니다. 저희는 당신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고 당신 앞에서 참되게 건지 않았습시다.
- 6 이제 당신께서 좋으실 대로 저를 다루시고 명령을 내리시어 제 목숨을 앗아 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가 이 땅에서 벗어나 흠이 되게 하소서. 저에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당치 않은 모욕의 말을 들어야 하고 슬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 명령을 내리시어 제가 이 곤궁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제가 이곳에서 벗어나 영원한 곳으로 들게 하소서. 주님, 저에게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지 마소서. 살아서 많은 곤궁을 겪고 모욕의 말을 듣는 것보다 죽는 것이 저에게는 더 낫습니다."

불운한 사라

- 7 바로 그날, 미디어의 액바타나에 사는 라구엘의 딸 사라도 자기 아버지의 여종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서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 8 사라는 일곱 남자에게 시집을 갔지만, 신부와 관련된 관습에 따라 신랑이 사라와 한 몸이 되기도 전에, 아스모대오스라는 악귀가 그 남편들을 죽여 버렸다. 그래서 그 여종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하였던 것이다. "당신 남편들을 죽이는 자는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은 이미 일곱 남자에게 시집을 갔지만 그들 가운데에서 누구의 이름도 받지 못했어요.
- 9 그런데 당신 남편들이 죽었으면 죽었지 우리는 왜 때려요? 남편들이나 따라가지. 그래야 우리가 당신의 아들이나 딸을 영영 보지 않게 되죠."
- 10 그날 사라는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여 울면서, 자기 아버지 집의 위층 방으로 올라가 목을 때리고 하였다. 그러나 생각을 다시 하고서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였다. "사람들이 '당신에게는 사랑하는 외동딸밖에 없었는데 그 애가 불행을 못 이겨 목을 매고 말았구려.' 하면서, 내 아버지를 모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만일 그렇게 되면 늙으신 아버지께서 나 때문에 슬퍼하시며 저승으로 내려가시게 되겠지. 목을 매는 것 보다는, 평생 모욕하는 말을 듣지 않도록 죽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낫겠다."

사라의 기도

- 11 그러면서 사라는 창 쪽으로 양팔을 벌리고 기도하였다. "자비하신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당신의 이름은 영원히 찬미받으소서. 당신께서 하신 모든 일이 당신을 영원히 찬미하게 하소서.
- 12 이제 저는 당신께 제 얼굴과 눈을 들어 올

립니다.

- 13 분부를 내리시어 제가 이 땅에서 벗어나 다시는 모욕하는 말을 듣지 않게 하소서.
- 14 주님,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제가 남자에게 조금도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함을,
- 15 제가 이 유배의 땅에서 제 이름이나 제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힌 적이 없음을. 저는 제 아버지에게 하나뿐인 자식입니다. 제 아버지에게는 대를 이을 다른 아이가 없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저를 아내로 맞이할 가까운 친족도 일가붙이도 없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을 일곱이나 잃었습니다. 제가 더 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제 목숨을 거두는 것이 당신의 뜻이 아니라면 저를 모욕하는 저 말이라도 들어 보소서."

기도의 응답

- 16 바로 그때에 그 두 사람의 기도가 영광스러운 하느님 앞에 다다랐다.
- 17 그래서 라파엘이 두 사람을 고쳐 주도록 파견되었다. 곧 토빗에게는 그의 눈에서 하얀 막을 벗겨 그 눈으로 하느님의 빛을 보게 해 주는 것이고, 라구엘의 딸 사라에게는 토빗의 아들 토비아의 아내가 되게 해 주고 또 아스모대오스라는 악귀를 내쫓아 주는 것이었다.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하는 그 누구보다도 토비아가 사라를 차지할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때에 토빗이 마당에서 집으로 들어가고, 라구엘의 딸 사라도 위층 방에서 내려갔다.

토빗의 유언

- 4¹ 그날 토빗은 전에 미디어의 라게스에 사는 가비엘에게 맡겨 둔 돈이 생각나서,
- 2 '자, 내가 죽음을 간청하였으니, 죽기 전에 내 아들 토비아를 불러 이 돈 이야기를 어

찌 하지 않을 수 있으랴?'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였다.

3 그리하여 자기 아들 토비아를 불렀다. 그가 오자 이렇게 말하였다. "니를 잘 물어 다오. 그리고 네 어머니를 공경하고 어머니가 살아 있는 동안 내내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네 어머니가 좋아하는 일을 해 드리고 무슨 일로든 어머니 마음을 슬프게 하지 마라.

4 애야, 내가 배 속에 있을 때에 네 어머니가 너 때문에 겪은 그 많은 위험을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네 어머니가 죽거든 나와 나란히 같은 무덤에 묻어 다오.

5 애야, 평생토록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죄를 짓거나 주님의 계명을 어기려는 뜻을 품지 마라. 평생토록 선행을 하고 불의한 길은 걸지 마라.

6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을 거둔다. 의로운 일을 하는 모든 이에게

7 내가 가진 것에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고 자선을 베풀 때에는 아끼워하지 마라. 누구든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 그 래야 하느님께서도 너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실 것이다.

8 내가 가진 만큼, 많으면 많은 대로 자선을 베풀어라. 내가 가진 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자선을 베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9 내가 곤궁에 빠지게 되는 날을 위하여 좋은 보물을 쌓아 두는 것이다.

10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 주고 암흑에 빠져 들지 않게 해 준다.

11 사실 자선을 베푸는 모든 이에게는 그 자선이 자극히 높으신 분 앞에 바치는 훌륭한 예물이 된다.

12 애야, 어떠한 간음도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 하여라. 무엇보다 먼저 네 조상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아내를 맞이들이고, 네 아버지 부족 밖의 낯선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우리는 예언자들의 자손이다. 애야, 우리의 옛 조상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생각해 보아라. 그분들은 모두 자기 친족 가운데에서 부인을 맞이하여, 자녀들로 복을 받으셨다. 이제 그 후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13 그러니 이제 애야, 네 동포들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네 동포들에 대하여, 네 겨레의 아들딸들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교만한 생각을 품고서는, 그들 가운데에서 네 아내를 맞이들이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교만은 파멸과 큰 혼란을 가져온다. 또 나태는 손실과 큰 곤궁을 가져온다. 나태는 굶주림의 어머니다.

14 누가 네 일을 해 주었든지 그의 품삯을 다 음 날까지 쥐고 있지 말고 바로 내주어라. 네가 하느님을 섬기면 보상을 받는다. 애야, 무슨 일이든 조심해서 하고, 어떠한 행동이든 교육을 받은 사람답게 하여라.

15 네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술은 취하도록 마시지 말고, 취한 채 너의 길을 걷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16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헐벗은 이들에게 입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너에게 남는 것은 다 자선으로 베풀고, 자선을 베풀 때에는 아끼워하지 마라.

17 의인들의 무덤에는 빵을 풍성하게 내놓되 죄인들에게는 주지 마라.

18 현명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조언을 구하고, 유익한 것이면 무슨 조언이든지 소홀히 여기지 마라.

19 언제나 주 너의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그리고 너의 길을 올바르게 해 주십시오, 너의 길과 뜻이 성공을 거두게 해 주십시오 그분께 간청하여라. 어떠한 민족도 스스로 제 뜻을 이루지는 못한다.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또한 달리 원하시면 저승 밑바닥으로 내던지기도

하신다. 그러니 이제 애야, 이 분부를 늘 기억하고 네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라.

- 20 애야, 이제 내가 전에 미디어의 라게스에 사는 가브리의 아들 가비엘에게 은 열 탈렌트를 맡겨 둔 일이 있음을 알려 준다.
- 21 그러니 애야, 우리가 가난하게 되었다고 해서 두려운 생각을 품지 마라. 내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모든 죄악을 피하며 주 너의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면, 큰 재산을 얻을 것이다."

토비아의 길잡이 라파엘 천사

5

- 1 그러자 토비아가 자기 아버지 토빗에게 대답하였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 2 그렇지만 그분이 저를 모르고 저도 그분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그분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분이 저를 알아보고 저를 믿고서는 그 돈을 저에게 줄 수 있게, 제가 무슨 증표라도 그분에게 내놓아야 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미디어로 가려면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도 저는 모릅니다."
- 3 토빗이 자기 아들 토비아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각각 증서에 서명을 하고, 그 증서를 둘로 나누어 하나는 내가 갖고, 하나는 내가 돈과 함께 두었다. 내가 그 돈을 맡겨 둔 지가 벌써 스무 해나 되었다. 그러니 이제 애야, 믿을 만한 사람을 하나 구해서 같이 가거라. 품삯은 내가 돌아올 때에 주도록 하자. 가서 그에게 돈을 받아 오너라."
- 4 그리하여 토비아는 자기와 함께 미디어로 갈 사람, 길을 익히 아는 사람을 구하러 밖으로 나갔다. 밖으로 나간 토비아는 바로 자기 앞에서 있는 라파엘 천사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그가 하느님의 천사인 줄은 알지 못하였다.
- 5 토비아가 "젊은이, 어디에서 오셨소?" 하고

물자, 라파엘이 "나는 당신의 동포, 이스라엘 자손인데 여기에서 일하러 왔소." 하고 대답하였다. 토비아가 다시 "미디어로 가는 길을 잘 아시오?" 하고 물자,

- 6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나는 거기에 많이 가 보았소. 그래서 모든 길을 익히 잘 알고 있도오. 미디어에 자주 갔는데, 그때마다 미디어의 라게스에 사는 우리 동포 가비엘의 집에서 묵곤 하였소. 엑바타나에서 라게스까지는 꼬박 이틀 길이라오. 라게스는 산악 지방에 있고 엑바타나는 평야 지대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이오."
- 7 토비아가 라파엘에게 말하였다. "젊은이, 내가 집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사정 이야기를 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오. 꼭 나와 함께 가 주시오. 물론 품삯을 드리겠소."
- 8 라파엘은 "좋소, 기다리지요. 오래 걸리지만 마시오." 하고 말하였다.
- 9 토비아는 집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토빗에게, "우리의 동포,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며 사정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자 토빗이 말하였다. "애야, 그 사람을 불러오너라. 그의 집안이 어떠한고 그가 무슨 지파 출신이며, 너와 함께 갈 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아야겠다."
- 10 토비아는 밖으로 나가 라파엘을 불러, "젊은이, 아버지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라파엘이 토빗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자, 토빗이 먼저 그에게 인사하였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하고 답례하는 라파엘에게 다시 말하였다. "나에게 무슨 기뻐할 일이 남아 있었소? 나는 두 눈이 먼 사람으로 하늘의 빛을 볼 수도 없도오. 더 이상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죽은 아들처럼 암흑에 잠겨 있을 뿐이오. 살아 있으면서도 죽은 아들 사이에 있는 것이라오. 사람들의 소리는 들지만 그들을 보지는 못한다오." 라파엘이 말

하였다. "용기를 내십시오. 머지않아 하느님께서 고쳐 주실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토빗이 라파엘에게 "내 아들 토비아가 메디아로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면서 그를 인도해 줄 수 있겠소? 형제여, 품삯은 물론 주겠소." 하자, 라파엘이 대답하였다.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길을 모두 잘 압니다. 메디아에 많이 가 보았고 그곳의 온 평야 지대를 가로질러 다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산악 지방과 길도 다 알고 있습니다."

11 토빗이 "형제여, 그대는 어느 가문에 속하오? 어느 지파 출신이오? 형제여, 나에게 말해 보시오." 하자,

12 라파엘이 "지파는 알아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토빗이 다시 "형제여, 나는 그대가 누구의 아들이고 그대의 이름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다고." 하니,

13 라파엘이 "저는 어르신의 동포로서 대하난 아이의 아들 아자르아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4 이에 토빗이 말하였다. "잘 오셨소 형제여, 하느님의 구원을 받기 바라오. 그리고 형제여, 내가 그대의 가문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알고 보니 그대는 동포일 뿐만 아니라 훌륭하고 좋은 집안 출신이구려. 나는 대세멜리아의 두 아들 하난아와 나탄을 전부터 알고 있소. 그들은 나와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곤 하였소. 그들은 빛나간 적이 없는 이들이었소. 그대의 친족들은 좋은 사람들이고 그대는 근본이 좋은 사람이오. 잘 오셨소."

15 토빗이 계속해서 말하였다. "나는 그대에게 하루 품삯으로 한 드라크마를 주고, 그대와 내 아들이 쓰는 경비도 대겠소. 그러니 내 아들과 함께 가 주시오.

16 품삯에다 더 없어 주겠소." 그러자 라파엘이 대답하였다. "그와 함께 가겠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떠나갔다가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터이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행길은 안전합니다."

17 토빗은 라파엘에게 "형제여, 복을 받으시오." 하고 말한 다음, 자기 아들을 불러 말하였다. "애야, 길 떠날 채비를 하고 너의 동포인 이 사람과 함께 가거라.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서 너희를 그곳까지 무사히 인도하시고, 너희를 건강한 몸으로 나에게 데려다 주시기를 빈다. 애야, 또 그분의 천사께서 너희가 안전하도록 동행해 주시기를 빈다." 토비아는 길을 떠나려고 집을 나서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었다. 토빗은 그에게 "건강한 몸으로 다녀오라." 하고 말하였다.

18 그때에 그의 어머니가 울면서 토빗에게 말하였다. "어찌자고 내 아이를 보내십니까? 우리 앞에서 들고 나고 하는 이 아이는 우리 손에 들린 지팡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19 돈에 돈을 쌓지 마십시오. 그 돈일랑 우리 아이의 몸값으로 여겨 버립시다.

20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림,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21 그러자 토빗이 대답하였다.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아이는 건강한 몸으로 갔다가 건강한 몸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요. 이 아이가 건강한 몸으로 당신에게 돌아오는 날을 당신 눈으로 볼 것이요. 그러니 여보, 걱정하지 말고 이 사람들 때문에 염려도 하지 마시오.

22 선하신 천사께서 토비아와 함께 가실 터이니, 이 아이는 여행을 잘 마치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것이요."

6

¹ 그러자 그 여자는 울음을 그쳤다.

이상한 물고기를 잡다

2 그리하여 그 청년 토비아는 천사와 함께 집을 나갔다. 그 집 개도 청년을 따라 집을 나서서 그들과 함께 떠났다. 그 두 사람은 길을 가다가 첫째 날 밤이 되자, 티그리스 강에서 아영하기로 하였다.

3 청년은 발을 씻으려고 티그리스 강으로 내려갔다. 그때에 커다란 물고기가 물에서 뛰어올라 청년의 발을 삼키려고 하였다. 청년이 소리를 지르자,

4 천사가 그에게 "그 물고기를 붙잡고 놓치지 마시오." 하고 말하였다. 청년은 물고기를 붙들어 물로 가지고 올라왔다.

5 그러자 천사가 말하였다. "물고기의 배를 갈라 쓸개와 염통과 간을 빼내어 잘 건조하고 내장은 버리시오. 그 쓸개와 염통과 간은 효험이 좋은 약이로오."

6 청년은 물고기의 배를 갈라 쓸개와 염통과 간을 따로 모아 놓고 나서, 고기의 일부는 구워 먹고 나머지는 소금에 절여 두었다. 그 두 사람은 함께 길을 걸어 마침내 메디아에 가까이 이르렀다.

7 그때에 청년이 천사에게 "아자르야 형제, 그 물고기의 염통과 간, 그리고 쓸개가 도대체 무슨 약이 된다는 말이오?" 하고 묻자,

8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물고기의 염통과 간은 마귀나 악령에 시달리는 남자나 여자 앞에서 태워 연기를 피우면, 그 시달림이 깨끗이 사라져서 더 이상 남아 있지 않게 된다오."

라파엘이 토비아에게 사리와 혼인하라고 권유하다

9 쓸개는 하얀 막이 생긴 사람 눈에 바르고 그 눈 위로, 하얀 막 위로 입김을 불면 눈이 좋아진다고오."

10 토비아야 메디아에 들어서서 이미 액바타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11 라파엘이 "토비아 형제!" 하고 청년을 부

르자 그가 "왜 그러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라파엘이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밤을 라구엘의 집에서 묵어야 하는데, 그 사람은 그대의 친족이오. 그리고 그에게는 사라는 딸이 있소."

12 이 사라 말고는 그에게 아들도 없고 딸도 없소. 그대는 사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 만큼 다른 모든 사람에게 앞서 그 여자를 차지할 자격이 있고, 그 아버지의 재산도 물려받을 권리가 있소. 그 처녀는 현명하고 용감하며 대단히 아름답소. 그 아버지도 훌륭한 분이오."

13 라파엘이 계속 말하였다. "그대는 사리를 아내로 맞아들일 권리가 있소. 그러니 형제여, 내 말을 들으시오. 사리를 그대의 신부로 맞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오늘 밤에 그 처녀의 일을 그 아버지와 상의하겠소. 우리가 라게스에서 돌아오는 대로 혼인식을 올립시다. 라구엘이 사리를 그대에게 주기를 마다하거나 결코 다른 남자와 약혼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소. 만일 그러했다가는 모세의 책에 있는 법령에 따라 사형을 당할 것이오. 사실 라구엘도 그대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앞서 자기 딸을 아내로 맞아들일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소. 그러니 이제 형제여, 내 말을 들으시오. 오늘 밤에 그 처녀의 일을 상의하여 그대와 그 처녀의 약혼식을 올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라게스에서 돌아오면, 그 여자를 그대의 집으로 데려갑시다."

14 그때에 토비아야 라파엘에게 대답하였다. "아자르야 형제, 내가 듣기로 그 여자는 이미 일곱 남자와 혼인하였는데 그들이 다 신방에서 죽었소. 그들이 그 여자 방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밤으로 죽는 것이오. 그리고 마귀가 그들을 죽였다는 말도 들었소."

15 마귀가 그 여자는 해치지 않고 그에게 다

가카려는 남자만 죽이는 것이요. 그러니 아버지께는 자식이 나뉘어 없는데 내가 죽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 때문에 괴로워하며 무덤으로 내려가시게 되지만 앓을까 두렵소. 게다가 그분들을 물어 드릴 다른 아들도 없소."

- 16 그러나 라파엘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의 아버지께서 당신의 집안에서 아내를 맞아 들어라고 그대에게 분부하셨는데, 그대는 아버지의 그 분부를 기억하고 있지 않소? 그러니 이제 형제여, 내 말을 들으시오. 마귀는 걱정하지 말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시오. 나는 그 여자가 오늘 밤으로 그대의 아내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소.
- 17 그대가 신방에 들어가면 그 물고기의 간과 염통을 조금 꺼내어 향의 잿불에다가 올려 놓으시오. 그러면 냄새가 퍼질 것이요.
- 18 마귀는 그 냄새를 맡고 달아나서 다시는 결코 그 여자 곁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그대는 그 여자와 동침하려고 할 때, 먼저 들어서 함께 일어나 하늘의 주님께 기도하며 그대들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간청하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 여자는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그대의 아내로 정해졌소. 그대가 이렇게 그 여자를 구해 내면 그 여자는 그대를 따라나설 것이요. 그대가 그 여자에게서 자녀들을 얻고 그들이 그대에게 동기들처럼 되리라고 나는 생각하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오." 토비아는 라파엘의 말을 듣고 사라가 자기 아버지 집안의 후손으로 자기에게 친족 누이가 된다는 것을 알자, 그 여자를 매우 사랑하게 되고 그 여자에게 마음이 끌리게 되었다.

라구엘이 토비아를 맞이하다

- 7 ¹ 엑바타니아에 들어서자 토비아는 라파엘에게, "아자르야 형제, 나를 곧장

우리 친족 라구엘에게 데려다 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는 토비아를 라구엘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들은 마당 문 곁에 앉아 있는 라구엘을 보고 먼저 인사하였다. 라구엘은 "형제들, 기쁨이 충만하기를 비오! 건강히들 잘 오셨소." 하고 답례한 다음, 그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 2 그리고 자기 아내 아드나에게 "저 젊은이가 어쩌면 저렇게 내 친족 토빗과 닮았을까?" 하고 말하였다.
- 3 그래서 아드나가 그들에게 "형제들, 어디에서 오셨지요?" 하고 묻자, "저희는 니네베로 유배 온 납탈리 자손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였다.
- 4 아드나가 다시 "그러면 우리 친족 토빗을 아세요?" 하고 물으니, 그들이 "그분을 압니다." 하였다. "그분 건강하세요?"라는 아드나의 물음에,
- 5 그들은 "건강히 살아 계십니다." 하고 다시 대답하였다. 이어서 토비아는 "그분은 제 아버지입니다." 하자,
- 6 라구엘이 벌떡 일어나 토비아에게 입을 맞추고 올었다.
- 7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에게 복이 내리기를 빈다. 네 아버지는 훌륭하고 선하신 분이다. 그렇게 의롭고 자선을 많이 하는 이가 눈이 멀다니, 정말 끔찍한 불행이로구나!" 그리고 나서 자기 친족 토비아의 목을 껴안고 올었다.
- 8 그의 아내 아드나도 토빗을 생각하며 울고 그들의 딸 사라도 올었다.

토비아와 사라가 혼인하다

- 9 라구엘은 양 떼 가운데에서 숫양 한 마리를 잡고, 그들을 따뜻이 맞이하였다. 그들이 몸과 손을 씻고 저녁을 먹으며 식탁에 앉았을 때에 토비아는 라파엘에게, "아자르야 형제, 내 친족 누이 사라를 나에게 주라고 라구엘

에게 말씀드리시오." 하고 말하였다.

- 10 라구엘이 우연히 이 말을 듣고 청년에게 말하였다. "오늘 밤은 먹고 마시며 즐겁게 지내라. 형제야, 내 딸 사리를 아내로 맞이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나도 사리를 너 말고 다른 남자에게 줄 권리가 없다. 내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야, 너에게 사실을 알려 주어야겠다.
- 11 나는 벌써 사리를 우리 동포 일곱 남자에게 차례로 주었지만, 사리가 있는 방에 들어가는 그 밤으로 다 죽어 버렸다. 그러니 애야, 지금은 그냥 먹고 마셔라.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그러나 토비아는 말하였다. "제 일을 결정지어 주시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그러자 라구엘이 말하였다. "그렇게 하라. 모세의 책에 있는 규정에 따라 사라는 네 사람이다. 하늘에서도 사라는 네 사람이라고 이미 판결이 내려졌다. 너의 이 친족 누이를 아내로 맞이하여라. 이제부터 너는 사리의 오라비고 사리는 너의 누이다. 오늘부터 사라는 영원히 네 사람이다. 그리고 애야, 오늘 밤에 하늘의 주님께서 너희를 잘 보살피시고, 너희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풀어 주시기를 빈다."
- 12 그리고 나서 라구엘은 자기 딸 사리를 불렀다. 사라가 오자 라구엘은 그 손을 잡고 토비아에게 넘겨주며 말하였다. "울법에 따라 사리를 아내로 맞이하여라. 모세의 책에 쓰인 규정에 따라 사라는 네 아내다. 그러니 내가 말아서 네 아버지께 잘 데려가거라. 하늘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번영과 평화를 베풀어 주시기를 빈다."
- 13 라구엘은 다시 사리의 어머니를 불러서 쓸 것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그리고 모세 율법의 규정에 따라 사리를 토비아에게 아내로 준다는 혼인 계약서를 썼다.

- 14 그리고 나서 그들은 먹고 마시기 시작하였다.
- 15 라구엘은 자기 아내 아드니를 불러, "여보, 다른 방을 준비해서 사리를 그리로 데려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 16 아드나는 가서 라구엘이 말한 대로 그 방에 잠자리를 차려 놓은 다음, 사리를 그리로 데려갔다. 그리고 사라 때문에 울다가 눈물을 닦고 그에게 말하였다.
- 17 "애야, 용기를 내어라. 하늘의 주님께서 너의 그 슬픔 대신에 이제는 기쁨을 주실 것이다. 애야, 용기를 내어라." 그리고 나서 아드나는 방을 나갔다.

마귀를 물리치다

- 8¹ 그들은 다 먹고 마시고 나서 잠자리에 들려고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젊은이를 데리고 가서 그 방으로 들여보냈다.
- 2 그때에 토비아는 라파엘의 말을 기억하고,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자루에서 물고기의 간과 염통을 꺼내어 향의 잿불에 올려놓았다.
- 3 그러자 물고기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였던지 마귀는 이집트 끝 지방까지 도망쳐 갔다. 그러나 라파엘은 쫓아가서 곧바로 그의 손과 발을 묶어 버렸다.
- 4 부모가 방에서 나가 문을 닫자 토비아는 침상에서 일어나 사라에게 말하였다. "여보, 일어나구려.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간청합니다."
- 5 사라가 일어나자 그들은 기도하며 자기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청하였다. 토비아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당신의 이름은 대대로 영원히 찬미받으소서. 하늘과 당신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영원히 찬미하게

- 하소서.
- 6 당신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협력자며 협조자로 아내 하와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둘에게서 인류가 나왔습니다. 당신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와 닮은 협력자를 우리가 만들어 주자.' 하셨습니다.
- 7 이제 저는 욕정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저의 이 친족 누이를 아내로 맞아드립니다. 저와 이 여자가 자비를 얻어 함께 해로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 8 그들은 "아멘, 아멘." 하고 함께 말하였다.
- 9 그리고 나서 그날 밤 잠을 잤다. 라구엘은 밤중에 일어나 하인들을 불러 함께 나가서 무덤을 뚫다.
- 10 '신랑은 죽고 우리는 또 비웃음 거리와 우썬거리가 되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 11 무덤을 다 파고 나서 집으로 돌아온 라구엘은 자기 아내를 불러
- 12 이렇게 말하였다. "하녀 하나를 들여보내어 신랑이 살아 있는지 보라고 하구려. 그가 죽었으면 아무도 모르게 그를 묻어 버립시다."
- 13 그들은 하녀를 들여보내면서 등불을 켜고 방문을 열었다. 하녀가 들어가 보니 둘은 함께 깊이 잠들어 있었다.
- 14 하녀는 밖으로 나와서 신랑이 살아 있을뿐 더러 잘못된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 15 그러자 그들은 하늘의 하느님을 찬미하며 말하였다. "하느님, 온갖 순수한 찬미로 찬미받으소서. 모두 당신을 영원히 찬미하게 하소서.
- 16 저를 기쁘게 해 주셨으니 찬미받으소서. 제가 염려하던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께서 그 크신 자비로 저희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 17 저 두 외자식을 기없이 여기셨으니 찬미받으소서. 주님, 저들에게 계속 자비와 구원을 베푸시고 저들이 기쁨과 자비를 누리며 일생을 마치게 해 주소서."
- 18 그리고 나서 라구엘은 하인들에게 동이 트기 전에 무덤을 메우라고 분부하였다.

혼인 잔치를 벌이다

- 19 라구엘은 아내에게 빵을 많이 장만하라고 이른 다음, 가축 떼가 있는 곳으로 가서 황소 두 마리와 숫양 네 마리를 끌고 와서는, 그것들을 잡으라고 분부하였다. 그리하여 잔치 준비가 시작되었다.
- 20 라구엘은 또 토비아를 불러 말하였다. "너는 열나흘 동안 이곳을 뜨지 말고 여기에 머무르면서 나와 함께 먹고 마셔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괴로움에 시달려 온 내 딸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한다.
- 21 내가 가진 것에서 먼저 절반을 받고 네 아버지께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거라. 나머지 절반은 나와 내 아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 차지가 될 것이다. 애야, 용기를 내어라. 나는 네 아버지고 아드나는 네 어머니다. 우리는 너와 네 아내 곁에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애야, 용기를 내어라."

라파엘이 돈을 찾아오다

- 9¹ 그때에 토비아가 라파엘을 불러 말하였다.
- 2 "아자르야 형제, 낙타 두 마리와 함께 하인 네 사람을 데리고 라게스로 가시오. 가버엘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 증서를 내주고 돈을 받으시오.
- 3 그리고 그분을 이 혼인 잔치에 모시고 오시오.
- 4 그대가 알다시피 아버지께서는 날수를 세고 계실 것이요, 내가 하루라도 늦어지면 아버

지는 몹시 근심하실 것이요. 그대도 라구엘께서 맹세하시는 것을 보지 않았소. 나는 그분의 맹세를 깰 수가 없도오."

- 5 그러하여 라파엘은 낙타 두 마리와 함께 하인 네 사람을 데리고, 메디아의 라게스로 가 가비엘의 집에서 묵었다. 라파엘은 가비엘에게 그 증서를 내주고, 토빗의 아들 토비아가 아내를 맞이할인 이야기며 그가 가비엘을 혼인 잔치에 초대한다는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가비엘은 일어나, 봉인된 돈주머니들을 라파엘 앞에서 헤아린 다음 낙타에 실었다.
- 6 이튿날 아침 그 두 사람은 일찍 일어나 혼인 잔치에 갔다. 그들이 라구엘의 집에 들어가 보니 토비아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토비아가 벌떡 일어나 가비엘에게 인사하자, 가비엘은 눈물을 흘리며 토비아를 이렇게 축복하였다. "홀륭하고 선하며 의롭고 자신을 많이 하는 네 아버지처럼 홀륭하고 선한 아들이! 주님께서 너와 너의 아내, 그리고 네 장인과 장모에게 하늘의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내 사촌 토빗과 똑같은 아들을 보게 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토빗과 안나가 아들 때문에 근심하다

- 10 ¹ 한번 토빗은 토비아가 가는 데에 며칠이 걸리고 오는 데에 며칠이 걸리는지 날마다 헤아리고 있었다. 그런데 날수가 다 차도 토비아가 돌아오지 않자,
- 2 토빗은 "혹시 애가 그곳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가비엘이 이미 죽어서 돈을 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 3 근심하기 시작하였다.
- 4 그의 아내 안나는 "내 아이는 벌써 죽어서 이 세상에 없어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자기 아들 때문에 울고 통곡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 5 "아이고 애야, 내가 어찌자고 너를 떠나보냈

단 말이나? 내 눈에 빛인 너를!"

- 6 그러자 토빗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여보, 조용히 하고 걱정하지 말아요. 그 애는 잘 있소. 아마도 그곳에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나 보오. 토비아와 함께 간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인 데다가 우리 동포 가운데 한 사람이오. 그러니 여보, 그 애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요. 곧 돌아올 거요."

토비아가 악비타나에서 출발하다

- 7 그러나 안나는 "당신이나 조용히 하고 나를 속이지 말아요. 내 아이는 죽었어오" 하고 대꾸하였다. 안나는 날마다 밖으로 달려 나가 아들이 떠난 길을 살펴보고,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해가 지면 집으로 들어와 밤새도록 통곡하며 우느라고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라구엘이 자기 딸을 위하여 배풀겠다고 맹세한 열니홀 동안의 잔치가 끝나자, 토비아가 라구엘에게 가서 말하였다. "저를 보내 주십시오.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실 줄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니 이제 아버지, 부디 저를 보내 주십시오. 저의 아버지께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제가 아버지를 두고 떠나올 때의 사정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 8 라구엘이 토비아에게, "조금 더 머물러라, 애야. 나와 함께 조금 더 머물러라. 네 아버지 토빗께는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네 소식을 전하게 하라." 하고 말하였다.
- 9 그러나 토비아는 "정말 안 됩니다. 부디 저를 바로 제 아버지께 보내 주십시오" 하였다.
- 10 그러자 라구엘은 곧바로 토비아에게 그의 아내 사리와 함께 남종과 여종, 소와 양, 낙타와 낙타, 옷과 돈과 기물 등 자기 가진 모든 것의 절반을 내주었다.
- 11 그리고 건강히 지낸 토비아 일행을 떠나보

내면서 그를 껴안고 이렇게 말하였다. "애야, 건강하여라. 건강히 잘 가거라. 하늘의 주님께서 너희를, 네 아내 사라를 잘 보살피 주시어, 내가 죽기 전에 너희 자녀들을 보게 되기를 바란다."

- 12 이어서 자기 딸 사라에게도 말하였다. "네 시아버지께 가거라. 이제 그분들은 너를 낳은 우리처럼 네 부모님이시다. 애야, 평안히 가거라.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너에 관하여 좋은 평판을 듣기를 바란다." 그는 이렇게 작별하고 그들을 떠나보냈다. 그때에 아드나도 토비아에게 말하였다. "내 자식이며 내가 사랑하는 친족아, 주님께서 너를 무사히 돌아가게 해 주시기를 빈다. 그리고 내가 오래 살아서 죽기 전에 너와 내 딸 사라의 자녀들을 보게 되기를 바란다. 주님 앞에서 내 딸을 너에게 맡긴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내내 사라를 슬프게 하지 마라. 애야, 평안히 가거라. 이제부터 나는 네 어머니고 사라는 누이다.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내내 그분 안에서 모두 잘되기를 빈다." 그리고 나서 아드나는 그 둘에게 입을 맞추고 건강을 빌며 떠나보냈다.
- 13 토비아는 건강한 몸과 기쁜 마음으로 라구엘에게서 떠나가며, 자기 여행을 잘 이끌어 주신 하늘과 땅의 주님, 만물의 임금님을 찬미하였다. 라구엘은 또 토비아에게 이 말도 하였다.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 너의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 내내 그분들을 공경하기 바란다."

토빗이 시력을 도왔다

- 11 그들이 니네베 맞은쪽에 있는 카세린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 2 라파엘이 말하였다. "우리가 그대 아버지를 두고 떠날 때의 사정을 그대는 잘 알고 있습니다.
- 3 우리가 그대의 아내보다 먼저 달려가서 그

가 뒤따라오는 동안에 집을 정돈합시다."

- 4 그렇게 하여 그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갈 때에 라파엘이 토비아에게, "쓸개를 가지고 가시오" 하였다. 그들 뒤에는 개도 따라가고 있었다.
- 5 한편 안나는 자리를 잡고서 자기 아들이 돌아올 길을 살펴보고 있었다.
- 6 그러다가 토비아가 오는 것을 알아보고 토비아의 아버지에게, "봐요. 당신 아들이 와요. 함께 갔던 사람도 오네요." 하고 말하였다.
- 7 토비아가 아버지에게 가까이 이르기 전에 라파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잘 알고 있소. 저분은 꼭 눈을 뜨실 것이요.
- 8 물고기 쓸개를 저분 눈에 발라 드리시오. 그 약은 눈의 하얀 막이 오그라들다가 벗겨지게 할 것이요. 그러면 그대의 아버지께서 시력을 되찾아 빛을 보게 될 것이요."
- 9 안나는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껴안고, "애야, 내가 너를 다시 보게 되다니! 이제는 죽어도 괜찮다." 하면서 울었다.
- 10 토빗도 일어서서 다리를 비틀거리며 마당 문을 나섰다. 토비아가 그에게 마주 갔다.
- 11 물고기 쓸개를 손에 든 토비아는 아버지를 붙들고 그 눈에 입김을 불고 나서, "아버지, 용기를 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 12 이어서 그 약을 아버지에게 바르코서는 잠시 그대로 두었다.
- 13 아득고 토비아는 양손으로 아버지의 눈가에서부터 하얀 막을 벗겨 내었다. 그러자 토빗이 아들의 목을 껴안고
- 14 울면서 "애야, 내가 보이는구나, 내 눈에 빛이 내!"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찬미받으소서. 그분의 위대한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 모두 찬미받으소서. 그분의 위대한 이름 언제나 우리 위에 머무르소서. 그분의 천사들 모두 영원히 찬미받으소서.

그분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셨지만 내가 이제 내 아들 토비아를 볼 수 있게 되었다."

- 15 기쁨에 넘친 토비아는 소리 높여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여행을 잘 마치고 돈을 가져온 것과 라파엘의 딸 사라를 어떻게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또 그 사라도 오고 있는데 나네베 성문 가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 16 기쁨에 넘친 토빗은 하느님을 찬미하며 머리를 맞으러 나네베 성문으로 갔다. 나네베 사람들은 토빗이 오는데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는 사람 없이 힘차게 걸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 17 그때에 토빗은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눈을 뜨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들 앞에서 밝혔다. 이어서 자기 아들 토비아의 아내인 사라에게 다가가 그를 축복하며 말하였다. "애야, 잘 왔다. 애야, 너를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신 너의 하느님께서 찬미받으시기를 빈다. 너의 아버지께서 복을 받으시고 내 아들 토비아도 복을 받고, 그리고 애야, 너도 복을 받기를 빈다. 축복 속에 기뻐하며 네 집으로 어서 들어가거라. 애야, 들어가거라." 그날 나네베에 사는 유대인들도 모두 기뻐하였다.
- 18 토빗의 조카들인 아키카르와 나답도 기뻐하며 토빗에게 왔다.

라파엘이 정체를 밝힌다

- 12 ¹ 혼인 잔치가 끝나자 토빗은 자기 아들 토비아를 불러 말하였다. "애야, 너와 함께 갔던 사람에게 품삯을 주고 또 품삯 외에 더 없어 주도록 배려하여라."
- ² 토비아가 물었다. "아버지, 그 사람에게 품삯을 얼마나 주면 되겠습니까? 그가 저와 함께 가져온 재물의 절반을 주어도 저는 아

깝지 않습니다.

- ³ 저를 건강한 몸으로 다시 데려오고 제 아내를 고쳐 주었으며, 저와 함께 돈을 가져오고 또 아버지를 고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에게 품삯을 얼마나 더 주어야 하겠습니까?"
- ⁴ 그러자 토빗이 아들에게 "애야,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온 모든 것의 절반을 받아 마땅하다." 하고 대답하였다.
- ⁵ 그리하여 토비아는 라파엘을 불러, "그대가 가지고 온 모든 것의 절반을 품삯으로 받고 안녕히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 ⁶ 그때에 라파엘이 그 두 사람을 은밀히 불러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잘해 주셨으니, 살아 있는 모든 이 앞에서 그분을 찬미하고 찬양하여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미하고 찬송하여라. 하느님께서 하신 일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그분을 찬양하기를 게을리 하지 마라.
- ⁷ 임금의 비밀은 감추는 것이 좋고, 하느님의 업적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드러내어 밝히는 것이 좋다. 선을 행하여라. 그러면 악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다.
- ⁸ 진실한 기도와 의로운 자선은 부정한 재물보다 낫다. 금을 쌓아 두는 것보다 자선을 베푸는 것이 낫다.
- ⁹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 주고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 준다. 자선을 베푸는 이들은 충만한 삶을 누린다.
- ¹⁰ 그러나 죄와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은 바로 저희 자신에게 원수가 된다.
- ¹¹ 나는 이제 너희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진실을 모두 밝히겠다. 나는 이미 너희에게 '임금의 비밀은 감추는 것이 좋고, 하느님의 업적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러내는 것이 좋다.' 하고 분명히 밝혔다.
- ¹² 자 이제 보라, 너와 사라가 기도할 때에 너희의 기도를 영광스러운 주님 앞으로 전해

- 드린 이가 바로 나다. 내가 죽은 이들을 물어 줄 때에도 그러하였다.
- 13 그리고 내가 주저하지 않고 잔치 음식을 놓아둔 채 일어나 가서 죽은 이를 매장해 줄 때,
- 14 너를 시험하도록 파견된 자도 나였다. 또 하느님께서 나를 파견하시어 너와 네 며느리 사라를 고쳐 주게 하였다.
- 15 나는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대가하고 또 그분 앞으로 들어가는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인 라파엘이다."
- 16 그러자 충격을 받은 그 두 사람은 얼굴을 땅에 대고 두려워하였다.
- 17 라파엘이 그들에게 계속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느님을 영원히 찬미하여라.
- 18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그것은 내 호의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 날마다 그분을 찬미하고 찬송하여라.
- 19 너희가 본 대로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너희는 환시를 보았을 뿐이다.
- 20 이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자, 나는 나를 파견하신 분께 올라간다. 너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기록해 두어라." 그리고 나서 라파엘은 올라갔다.
- 21 그제야 일어선 그들은 더 이상 라파엘을 보지 못하였다.
- 22 그들은 하느님의 천사가 자기들에게 나타난 동안에 하느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두고 그분을 찬미하고 찬송하였으며 또 찬양하였다.
- 2 그분께서는 벌을 내리기도 하시지만 자비를 베풀기도 하시고 땅속 가장 깊은 곳 저승으로 내려가게도 하시지만 그 무서운 파멸에서 올라오게도 하신다. 그분의 손을 벗어날 자 아무도 없다.
- 3 이스라엘 자손들이 민족들 앞에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너희를 그들 사이에 흠으셨지만
- 4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위대함을 너희에게 드러내셨다. 살아 있는 모든 것 앞에서 그분을 높이 받들어라. 그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하느님이시고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 5 그분께서는 너희의 불의 때문에 벌을 내리시지만 너희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너희가 흠어져 사는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희를 모아들이시리라.
- 6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분께 돌아와 그분 앞에서 진리를 실천하면 그분께서도 너희에게 돌아오시어 다시는 너희에게서 당신 얼굴을 감추지 않으시리라. 이제 그분께서 너희에게 해 주신 것들을 보고 소리 높여 그분을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주님을 찬미하고 영원하신 임금님을 높이 받들어라. 나는 이 유배의 땅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죄 많은 민족에게 그분의 권능과 위대함을 드러낸다. 죄인들아, 돌아와 그분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여라. 그분께서 너희를 받아들이시어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실지 누가 알겠느냐?
- 7 나는 내 하느님을, 나의 영혼은 하늘의 임금님을 높이 받들며 그분의 위대함을 즐거이 알린다.
- 8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그분께 말씀을 올리고 그분을 찬양하여라.
- 9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아 그분께서는 네 자녀들의 행실 때문에 벌을 내리시지만 다시 의인들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토빗의 찬미가

13

1 그때에 토빗이 말하였다. "영원히 살아 계신 하느님께서 찬미받으소서. 그분의 나라도 찬미받으소서.

- 10 예루살렘아, 주님을 올바로 찬양하여라. 영원하신 임금님을 찬미하여라. 네 성소가 다시 기쁨 속에 지어지리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대대로 영원히 모든 유배자를 네 안에서 기쁘게 하시고 고통 받는 모든 이를 네 안에서 사랑하시기를 빈다.
- 11 밝은 빛 하나가 세상 끝 모든 곳까지 비추리니 저마다 하늘의 임금님께 바칠 예물을 손에 들고 멀리서 많은 민족이 너에게, 세상 끝 모든 주민이 너의 거룩한 이름을 향하여 오리라. 모든 세대 사람들이 네 안에서 흥겨운 찬미를 바치리라. 선택받은 도성의 이름은 대대로 영원하리라.
- 12 너를 두고 가혹한 말을 하는 자들은 모두 저주를 받으리라. 너를 파괴하고 네 성벽을 허무는 자들, 네 탑들을 무너뜨리고 네 집들을 불사르는 자들은 모두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를 두려워하는 이들은 모두 영원히 복을 받으리라.
- 13 예루살렘아, 가서 의인들의 자녀들을 두고 기뻐하여라. 그들이 모두 한데 모여서 영원하신 주님을 찬미하리라.
- 14 행복하여라, 너를 사랑하는 이들! 행복하여라, 너의 평화를 기뻐하는 이들! 행복하여라, 네가 받은 온갖 징벌 때문에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네 안에서 기뻐하며 영원히 너의 모든 기쁨을 보리라.
- 15 내 영혼아, 주님을, 위대하신 임금님을 찬미하여라.
- 16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고 그 도성에 그분의 집이 다시 세워져 영원히 서 있으리라. 내 후손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너의 영광을 보고 하늘의 임금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나 얼마나 행복하리오? 예루살렘의 성문들은 청옥과 취옥으로, 성벽은 모두 보석으로 만들어지고 예루살렘의 탑들은 금으로, 그 성기둥들은 순금으로 만들어지며
- 17 예루살렘의 거리들은 홍옥과 오피르의 돌

로 포장되리라.

- 18 또 예루살렘의 성문들은 기쁨의 찬가를 부르고 그곳의 집들은 모두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서는 찬미받으소서.' 하고 말하리라. 또 복을 받은 이들은 거룩한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미하리라."

토빗의 유언과 죽음

- 14 ¹ 토빗의 찬양 노래는 이렇게 끝난다. 토빗은 백열두 살에 평화로이 죽어 장엄한 장례식과 함께 니네베에 묻혔다.
- 2 그가 시력을 잃은 것은 예순두 살 때였는데, 시력을 되찾은 뒤에도 그는 자선을 베풀었다. 또 줄곧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분의 위대함을 찬양하며 부유하게 살았다.
- 3 토빗은 죽을 때가 되자 자기 아들 토비아를 불러 이렇게 분부하였다. "얘야, 네 자식들을 데리고
- 4 서둘러 메디아로 피신하여라. 나훔이 니네베를 두고 선포한 하느님의 말씀을 나는 믿는다.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시리아와 니네베에 그대로 실현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파견하신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한 말씀이 모두 실현될 것이다. 그 말씀들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제때에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 아시리아나 바빌론보다 메디아가 더 안전하다.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그대로 실행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는 알고 또 믿는다. 그 말씀들은 하나도 어김이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사는 우리의 동포들은 모두 그 좋은 땅에서 쫓겨나 흩어지고 유배를 갈 것이다. 이스라엘의 온 땅이 황무지가 될뿐더러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까지 황무지가 되고, 하느님의 집은 불에 탄 채 얼마 동안 슬픔에 잠겨 있을 것이다.
- 5 그렇지만 하느님께서서는 다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

실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하느님의 집을 다시 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집은 정해진 때가 다 찰 때까지 첫 번째 집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 뒤에 모두 유배에서 돌아가 예루살렘을 화려하게 재건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말한 대로 하느님의 집도 세워질 것이다.

6 온 세상에 사는 민족들도 모두 마음을 돌려 하느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것이다. 그리고 모두 자기들을 속여 잘못된 길로 이끈 우상들을 버리고,

7 의로운 일을 하며 영원하신 하느님을 찬미할 것이다. 그날에 구원을 받고 하느님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한데 모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아브라함의 땅에서 영원히 안심하고 살 것이다. 하느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들은 기뻐하고, 죄와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은 온 세상에서 없어질 것이다.

8 이제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다.

9 하느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여라. 너희 자식들도 잘 타일러서, 의로운 일을 하고 자선을 베풀게 하여라. 언제나 진심으로, 그리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미하게 하여라. 얘야, 이제 너는 니네베에 머무르지 말고 이곳을 떠나라.

10 언제가 되든 너의 어머니를 내 곁에 묻게 되면, 그날 밤도 이 성읍의 경계 안에서는 지나지 마라. 내가 보니 이곳에는 온갖 불의와 온갖 사기가 판을 치는데도,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얘야, 나답이 자기를 키워 준 아키카르에게 한 짓을 보아라. 아키카르가 산 채로 땅속에 들어가야 하지 않았더냐?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 파렴치한 행위를 나답에게 직접 되갚으셨다. 그리하여 아키카르는 빛을 보고, 나답은 아키카르를 죽이려고 꾀하였기 때문

에 영원한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아키카르는 자선을 베풀 덕분에 나답이 쳐 놓은 죽음의 올무에서 빠져나오고, 오히려 나답이 그 죽음의 올무에 걸려 파멸하였다.

11 그러니 얘들아, 자선이 무엇을 가져오는지 보아라. 그리고 불의가 무엇을 가져오는지 보아라. 죽음뿐이다. 이제 내 숨이 끊어지려고 하는구나." 사람들이 토빗을 침상에 눕히자 그가 죽었다. 그리고 장엄한 장례식과 함께 묻혔다.

맺음말

12 그 뒤에 어머니가 죽자 토비아는 어머니를 아버지 곁에 묻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메디아로 가 엑바타나에서 장인 라구엘과 살았다.

13 그는 늙은 처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잘 모시다가, 메디아의 엑바타나에 그들을 묻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 아버지 토빗만이 아니라 라구엘의 재산까지 물려받았다.

14 토비아는 영예롭게 살다가 백열일곱 살에 죽었다.

15 그는 죽기 전에 니네베가 멸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메디아 임금 키아카레스가 니네베에서 포로로 잡은 자들이 메디아로 끌려오는 광경을 보았다. 그리고 하느님께서서 니네베와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하신 모든 일을 두고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이렇게 토비아는 죽기 전에 니네베를 두고 기뻐하며 영원무궁하신 주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구약성경 - 18

역사서 - 13

유 뜻 기

총 16 장

총 340 절

[구약성경]-[유딧기]

네부카드네자르가 메디아 임금 아르팍삿을 쳐부수다

- 1** ¹ 대성을 니네베에서 아시리아인들을 다스리던 네부카드네자르 임금 제십 이년의 일이다. 그때에 아르팍삿은 액바타 나에서 메디아인들을 다스리고 있었다.
- 2** 그가 액바타나 돌레에 너비가 세 페키스고 길이가 여섯 페키스로 다듬은 돌로 성벽을 쌓았는데, 성벽의 높이는 일흔 페키스고 너비는 십 페키스로 하였다.
- 3** 그리고 성문마다 예순 페키스 너비로 기초를 놓고 높이가 백 페키스 되는 탑을 세웠다.
- 4** 성문들은 자기의 부대들이 한꺼번에 나가고 보병들이 거기에서 정렬할 수 있도록, 높이가 일흔 페키스고 너비가 마흔 페키스가 되게 만들었다.
- 5** 그때에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아르팍삿 임금과 대평야에서 전쟁을 벌였다. 그것은 라가우 경계 안에 있는 평야였다.
- 6** 그리하여 산악 지방에 사는 모든 주민,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와 히다스페스 강 가, 그리고 엘람인들의 임금 아르옥에게 소속된 평야에 사는 모든 주민이 아르팍삿에게 모여들었다. 그리고 아주 많은 민족들이 켈레웃인들과 싸우려고 집결하였다.
- 7** 그러자 아시리아인들의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사절들을 파견하였다. 페르시아의 모든 주민과 서쪽 지방의 모든 주민, 곧 킬리키아, 다마스쿠스, 레바논, 안티레바논의 주민들, 해안 지방의 모든 주민,
- 8** 카르멜, 길앗, 갈릴래아 고지대, 이즈르엘 대평야의 민족들,
- 9** 사마리아와 그곳에 딸린 성읍들,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요르단 건너편 지역, 바타네, 켈루스, 카데스, '이집트 강', 타호판헤스, 라메세스, 온 고센 땅의 모든 주민,

- 10** 타니스와 멍피스 너머의 주민들에게까지, 그리고 에티오피아 경계선에 이르는 이집트의 모든 주민에게 사절들을 파견하였다.
- 11** 그러나 이 지방의 주민들은 모두 아시리아인들의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말을 무시하고, 그의 편으로 전쟁에 가담하지 않았다. 네부카드네자르를 한낱 필부로 여겨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절들을 망신스럽게도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 12** 네부카드네자르는 이 온 지방에 몹시 화를 내었다. 그러면서 킬리키아와 다마스쿠스와 시리아의 온 영토에 보복을 하고, 또 모압 땅의 모든 주민, 암몬 자손들, 온 유다 주민, 두 바다의 경계에 이르는 이집트의 모든 주민을 자기 칼로 쳐단하겠다고, 자기의 왕좌와 왕국을 걸어 맹세하였다.
- 13** 그리하여 네부카드네자르는 제십찰년에 자기 군대와 함께 전열을 갖추고 아르팍삿 임금과 맞섰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그는 아르팍삿의 온 군대와 그 온 기병대와 병거대를 패주시켰다.
- 14** 그리하여 네부카드네자르는 아르팍삿의 성읍들을 차지하고, 액바타나까지 이르러 그곳의 탑들을 점령하고 시장들을 약탈하여, 액바타나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어 버렸다.
- 15** 또 아르팍삿을 라가우 산악 지방에서 사로잡고서는 자기 창으로 내리 찢러, 그를 완전히 파멸시켜 버렸다.
- 16** 그리고 나서 자기의 연합 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귀국하였다. 그것은 광장히 많은 전사들의 무리였다. 네부카드네자르는 자기 군대와 함께 백스무 날 동안 쉬며 잔치를 벌였다.

홀로페르네스가 사쪽 지방을 토벌하다

- 2** ¹ 제십팔년 첫째 달 스무이튿날 아시리아인들의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왕궁에서는 그가 전에 말한 대로 그 온 지

방에 보복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

2 네부카드네자르는 신하들과 귀족들을 모두 불러 자기의 비밀 계획을 그들에게 내놓고, 그 지방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3 그래서 그들은 그가 내린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처형하기로 결정하였다.

4 회의가 끝나자, 아시리아인들의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는 자기 다음으로 가장 높은 군대의 대장군 홀로페르네스를 불러 말하였다.

5 "온 세상의 주인인 대왕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내 앞에서 물러가, 힘이 세다고 자신하는 보병 십이만과 만 이천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6 내가 내린 명령에 불복한 서쪽 지방 전역을 치러 진군하여라.

7 그들에게 항복하라고 일러라. 분노에 찬 내가 그들에게 진군하여 그 지방의 땅을 모조리 내 군사들의 발로 짓밟고, 그곳을 내 군사들에게 넘겨 약탈하게 하겠다.

8 그들의 부상자들이 그곳의 골짜기와 마른내를 가득 채우고, 물 많은 강은 죽은 자들로 가득할 것이다.

9 또한 나는 그들을 사로잡아 온 세상 끝까지 끌고 갈 것이다.

10 너는 진군하여 나보다 앞서서 그들의 영토를 다 점령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굴복할 터이니, 내가 가서 처벌하는 날까지 그들을 지키고 있어야.

11 내가 점령한 지방 어디에서건 불복하는 자들은 기차 없이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여라.

12 내 목숨과 내 왕국의 힘을 걸고 말하는데, 나는 한번 말한 것은 내 손으로 이루고야 만다.

13 너는 내 주군의 명령을 하나도 어기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정확히 완수하여라. 그것을 지체 없이 실행하여라."

14 홀로페르네스는 자기 주군 앞에서 물러나

와, 아시리아 군대의 상장군들과 장수들과 장교들을 모두 소집하였다.

15 이어서 자기 주군이 분부한 대로 전투병으로 선발된 군사 십이만과 활 쓰는 기병 만 이천을 헤아려서,

16 전투 부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배열하였다.

17 그리고 물자를 나를 나타와 나귀와 노새를 아주 많이 모으고, 군량으로 쓸 양과 소와 염소도 수없이 많이 모았다.

18 또 모든 군사에게 나누어 줄 충분한 양식과 왕궁에 있던 금과 은도 아주 많이 준비하였다.

19 그리하여 홀로페르네스와 그의 온 군대는 네부카드네자르 임금보다 먼저 가서, 병거대와 기병대와 정예 보병대로 서쪽 지방의 땅을 모조리 뒤덮으려고 진군하였다.

20 그 밖에도 메뚜기 떼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잡다한 무리가 그들과 함께 나섰다. 그들은 너무 많아서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21 그들은 니네베를 떠나 사흘 동안 백틸렛 평야를 향하여 행군하였다. 그리고 칼리키아 고지대 북쪽에 있는 산 옆에 백틸렛을 마주하고 진을 쳤다.

22 거기에서 홀로페르네스는 자기의 온 군대, 보병대와 기병대와 병거대를 이끌고 산악 지방으로 가서,

23 푸트와 루드를 쳐부수고, 켈레아 남쪽의 사막 가장자리에 사는 라시스의 자손들과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모두 약탈하였다.

24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메소포타미아를 가로지르면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아브로나 계곡 위에 있는 모든 요새 성읍을 파괴하였다.

25 이어서 칼리키아 지역을 점령하고 자기에게 대항하는 자들을 모두 쳐 죽인 다음, 아라비아를 마주 보는 야렛의 남쪽 경계까지

지 진격하였다.

26 그리고 미디안의 자손들을 모조리 포위하여, 그들의 천막들을 불사르고 양 떼를 약탈하였다.

27 또 밀을 수확할 때에 다마스쿠스 평야로 내려가서, 그들의 밭을 모조리 불사르고 양들과 소들을 죽여 버렸으며, 그들의 성읍들을 노략하고 들을 황폐하게 만들고 젊은이들은 모두 칼로 쳐 죽였다.

28 그리하여 해안 지방의 주민들 곧 시돈과 티로에 사는 자들, 수르와 오키나의 주민들, 암니아의 모든 주민이 그에 대한 공포와 전율에 사로잡혔다. 아스돗과 아스클론의 주민들도 그를 몹시 무서워하였다.

해안 지방의 민족들이 굴복하다

3¹ 그리하여 그들은 홀로페르네스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화찬을 청하게 하였다.

2 "네부카드네자르 대왕의 종들이 저희는 이렇게 장군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저희를 좋으실 대로 처분하십시오.

3 저희의 집과 모든 땅, 모든 밀밭, 양들과 소들, 그리고 저희의 모든 천막이 장군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들을 좋으실 대로 다루십시오.

4 저희의 성읍들은 물론 그 주민들도 장군님의 종들이니, 오셔서 보기에 좋으실 대로 처리하십시오."

5 그 사람들이 홀로페르네스에게 가서 이러한 말을 전하자,

6 그는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해안 지방으로 내려가서, 요새 성읍들에 주둔군을 배치하고 그곳 주민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뽑아 보충병으로 삼았다.

7 그들과 이웃 주민들이 모두 화관을 쓰고 손북에 맞추어 춤을 추며 그를 맞이하였다.

8 홀로페르네스는 그들의 모든 신전을 부수고

그들의 신성한 수풀들을 베어 버렸다. 그는 세상의 신들을 모두 없애 버리라는 임무를 받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민족들이 네부카드네자르만 섬기고, 말이 다른 종족들과 부족들이 모두 그를 신으로 받들어 부르게 하려는 것이었다.

홀로페르네스가 유다 땅에 다다르다

9 그리고 나서 홀로페르네스는 유다의 가파른 산비탈과 마주한 도탄 결의 이즈르엘로 가서,

10 게바와 스키토폴리스 사이에 진을 쳤다. 그리고 자기 군대의 물자를 모두 모으기 위하여 웅근 한 달을 그곳에 머물렀다.

유대인들이 항전을 준비하다

4¹ 유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시리아인들의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대장군 홀로페르네스가 민족들에게 한 모든 일, 그리고 그 신전들을 모조리 약탈하고 파괴한 일을 전해 들었다.

2 그러자 그들은 홀로페르네스를 몹시 두려워하며, 예루살렘과 자기들의 하느님이신 주님의 성전을 두고 걱정하였다.

3 그들이 최근야야 유배에서 돌아오고 또 얼마 전야야 유다의 모든 백성이 한데 모여, 더럽혀졌던 기물과 제단과 하느님의 집을 축성하였기 때문이다.

4 그리하여 그들은 사마리아, 코나, 벳 호론, 벨마인, 에리코의 모든 지역, 그리고 코바, 하초르, 살렘 계곡으로 전령을 보내어,

5 곧바로 높은 산꼭대기를 모두 점령하고, 지역 안에 있는 마을들에 성을 쌓으며 전쟁 준비로 양식을 저장하게 하였다. 마침 그들의 들판은 수확이 막 끝난 뒤였다.

6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봉직하던 여호야킴 대사제는 배틀리아, 그리고 도탄 옆의 평야 맞은쪽에 있는 이즈르엘과 마주한 배토메스타

- 임 주민들에게 서신을 보내어,
 7 산악 지방의 고갯길들을 지키라고 하였다. 그것들은 유다로 들어가는 관문으로서, 그 길목이 겨우 두 사람이 지날 정도로 좁아 올라오는 자들을 쉽게 막을 수 있는 곳이었다.
 8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야킴 대사제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원로단이 지시한 대로 하였다.

유대인들이 참회하며 기도하다

- 9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두 하느님께 아주 간절히 부르짖고 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고행하였다.
 10 그들은 물론 그들의 아내들과 아이들, 짐승, 모든 이방인, 삼꾼, 팔려 온 종까지 허리에 자루옷을 들렀다.
 11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는 성전 앞에 엎드려 머리에 재를 뿌리고, 주님 앞에 자기들의 자루옷을 펼쳐 놓고,
 12 제단도 자루옷으로 들렀다.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잡혀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자들이 끌려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상속받은 성읍들이 파괴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소가 더럽혀져 치욕스럽게도 이민족들의 비웃음 거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마음을 모아 간절히 부르짖었다.
 13 주님께서서는 그들의 소리를 귀여겨들어 주시고 그들의 곤경을 눈여겨보아 주셨다. 백성이 온 유다 땅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잔능하신 주님의 성소 앞에서 여러 날 단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14 여호야킴 대사제와 주님을 모시는 모든 사제와 주님을 시종드는 이들은 허리에 자루옷을 두르고, 일일 번제물과 백성의 서원제물과 자원 제물을 바쳤다.

- 15 그들은 머리쓰개에 재를 뿌린 채, 온 이스라엘 집안을 은혜로이 돌보아 주십시오, 힘을 다하여 주님께 부르짖었다.

홀로페르네스가 회의를 소집하다

- 5 ¹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산악 지방의 통행로들을 폐쇄하였을 뿐만 아니라 높은 산봉우리마다 성을 쌓고 평야에는 장애물을 설치하였다는 사실이, 아시리아 군대의 대장군 홀로페르네스에게 보고되었다.
 2 그러자 그는 화가 잔뜩 나서, 모압의 모든 제후와 암몬의 장수들과 해안 지방의 모든 총독을 불러 놓고,
 3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의 자손들아, 저 산악 지방에 사는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저들이 사는 성읍들이 어떠한지, 저들의 군대가 얼마나 크지, 저들의 능력과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저들을 다스리고 군대를 지휘하는 임금이 누구인지 말해 보아라.
 4 이 서쪽 지방의 모든 주민 가운데에서 왜 저들만 나를 맞으러 오기를 거부하느냐?"

아기오르가 이스라엘인들에 관하여 말하다

- 5 모든 암몬인의 수령인 아기오르가 대답하였다. "주인님께서서는 이 종이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님께서 계시는 이 부근 산악 지방에 사는 저 백성에 관하여 진실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이 종의 입에서는 거짓이 하나도 흘러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6 저 백성은 칼데아인들의 후손입니다.
 7 그들은 칼데아 땅에서 살던 조상들의 신들을 따르기가 싫어서, 한때 메소포타미아에서 산 적도 있습니다.
 8 그들이 조상들의 길을 버리고 하늘의 하느님, 자기들이 알게 된 하느님을 경배하였으므로, 조상들의 신들 앞에서 쫓겨나 메소포

타미아로 달아난 뒤에 오랫동안 거기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9 그런데 그들의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사는 곳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기에 자리 잡고 번성하여 금과 은, 그리고 아주 많은 가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0 그 뒤에 기근이 온 가나안 땅을 뒤덮자 그들은 이집트로 내려가, 먹고 살 수 있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겨레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로 불어났습니다.

11 그러자 이집트 임금이 그들에게 적대심을 품고 나서서, 교묘한 방식으로 벽돌을 만드는 노역을 시키며 그들을 억누르고 또 종으로 삼았습니다.

12 그래서 그들이 저희 하느님께 부르짖자, 그분께서는 손쓸 길 없는 여러 가지 재앙으로 온 이집트 땅을 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13 하느님께서서는 또 그들 앞에 놓인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시고,

14 시나이와 카데스 바르네아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주민들을 모두 내쫓고,

15 아모리인들의 땅에 자리를 잡고서는 헤스 본인들을 자기들의 힘으로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요르단을 건너서 저 산악 지방을 모두 차지하였습니다.

16 그들은 가나안인, 프리즈인, 여부스인, 스켄인, 그리고 모든 기르가스인을 내쫓고 저곳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17 그들이 저희 하느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한, 불의를 미워하시는 하느님께서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번영하였습니다.

18 그러나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길에서 벗어나자, 그들은 많은 전투에서 무참히 패배

하고 이국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그들의 성읍들은 적군에게 빼앗겼습니다.

19 그러나 이제 자기들의 하느님께 되돌아간 그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곳에서 돌아와, 자기들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을 되찾고 황폐해진 저 산악 지방에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20 그러나 이제 저의 상전이신 주인님! 만일 저 백성이 잘못하여 자기들의 하느님께 죄를 지었고, 몰락의 원인이 되는 그 죄를 우리가 그들에게서 찾아낸다면, 올라가서 그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21 그러나 저 민족에게 죄과가 없으면, 주인님께서서는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주님, 그들의 하느님께서서 그들을 보호하시어 우리가 온 세상의 우썬거리가 될 것입니다."

야기오르가 반대에 부딪히다

22 야기오르가 이 말을 마치자 천막 둘째에 빙 둘러서 있던 사람들이 모두 웅성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홀로페르네스의 지휘관들과 해안 지방과 모압의 주민들은 일제히 야기오르를 처단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23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격렬한 전투를 벌일 힘도 능력도 없는 백성입니다.

24 그러나 저희의 상전이신 홀로페르네스 님, 올라갑시다. 그들은 대장군님 휘하 온 군대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홀로페르네스가 대답하다

6¹ 회의장 둘째에 선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그치자, 아시리아 군대의 대장군 홀로페르네스가 온 외국인 무리 앞에서 야기오르와 모압의 모든 자손에게 말

하였다.

- 2 "네가 무엇이기에 에프라임의 품팔이꾼들을 데리고 오늘 이처럼 우리에게 예언을 한답시고, 저 이스라엘 종족의 하느님이 저들을 보호할 터이니 저들과 전쟁을 하지 말라고 말하느냐? 네부카드네자르 말고 신이 또 어디 있던 말이나? 바로 그분께서 이제 당신의 병력을 보내시어 저들을 이 땅에서 전멸시키실 터인즉, 저들의 하느님이 저들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 3 그리고 그분의 종인 우리는 저들을 단 한 사람인 양 처부술 것이다. 저들은 우리 기병대의 위력을 당해 내지 못할 것이다.
- 4 우리는 기병대로 저들을 휩쓸어 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저들의 산은 저들의 피로 젖고 평야는 저들의 시체로 가득 차리니, 저들의 발자국마저 우리 앞에서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저들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온 세상의 주인이신 네부카드네자르 임금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께서 한번 하신 말씀은 하나도 헛것이 되지 않는다.
- 5 너, 암몬 출신의 품팔이꾼 아키오르야, 너의 불의가 드러난 이 날에 그러한 말을 한 너는, 오늘부터 내가 이집트에서 나온 저 종족에게 보복할 때까지 더 이상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 6 내가 돌아올 때에 내 군대의 칼과 내 시종들의 창이 네 옆구리를 꿰뚫어, 너는 저들의 부상자들 사이에 쓰러질 것이다.
- 7 이제 내 종들이 너를 저 산악 지방으로 끌고 가서 그 길목 곁의 한 성읍에 내버릴 것이다.
- 8 그러면 내가 저들과 함께 전멸할 때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 9 내가 정녕 저들이 점령되지 않으리라는 희망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렇게 얼굴을 떨굴 필요가 없다. 내가 한번 한 말은 하나도 어김이 없다."

아키오르가 유다 진영으로 남았다

- 10 홀로페르네스는 자기 천막에서 시종드는 종들에게, 아키오르를 붙잡아 배틀리아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넘기고 분부하였다.
- 11 홀로페르네스의 종들은 아키오르를 붙잡아 진영 밖 평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그들은 평지를 가로질러 산악 지방으로 올라가 배틀리아 밑에 있는 샘터에 다다랐다.
- 12 산꼭대기에 있는 성읍 사람들이 그들을 보자 무기를 들고 산꼭대기에 있는 그 성읍에서 나왔다. 또 돌팔매질하는 사람들은 모두 돌을 던져 그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막았다.
- 13 그들은 산 아래로 들어가 아키오르를 묶어서, 그곳 산말치에 던져 둔 채 저희 주인에게 돌아갔다.
- 14 성읍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키오르를 보고서는 결박을 풀고 그를 배틀리아로 데려갔다. 그리고 그를 성읍의 수장들 앞에 세웠다.
- 15 그때의 수장들은 사메온 지파 출신 미카의 아들 우찌야, 오토니엘의 아들 카브리스, 말키엘의 아들 카르미였다.
- 16 그들은 성읍의 원로들을 모두 소집하였다. 그러자 모든 젊은이와 여자들까지 회의장으로 달려갔다. 사람들이 아키오르를 온 백성 한가운데에 세우자, 우찌야가 그에게 어떻게 된 일이나고 물었다.
- 17 아키오르는 홀로페르네스가 회의를 언일과, 자기가 아시리아인들의 수장들 한가운데에서 한 말이며, 홀로페르네스가 이스라엘 집안을 두고 거만하게 지껄인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 18 그러자 백성은 엎드려 하느님께 경배하며 부르짖었다.
- 19 "주 하늘의 하느님, 저들의 교만을 내려다

보십시오. 그리고 비참하게 된 저희 겨레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오늘, 당신께 봉헌된 이들의 얼굴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 20 그리고 나서 그들은 아키오르를 위로하며 크게 칭송하였다.
- 21 우찌아는 아키오르를 회의장에서 데리고 나가 자기 집으로 가서 원로들을 위하여 술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 밤을 새우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였다.

홀로페르네스가 배틀리아를 포위하다

- 7¹ 이튿날 홀로페르네스는 전 군대와 보충 부대로 편입된 모든 병사에게, 잔을 건어 배틀리아로 출발하면서 산악 지방으로 올라가는 길목들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라고 명령하였다.
- 2 그날에 전사들이 모두 잔을 건어 출발하였다. 그들 군대의 병력은 보병이 십칠만, 기병이 만 이천이었으며, 그 밖에도 물자와 또 그것을 나르는 보졸들이 있었다. 그것은 아주 큰 무리였다.
- 3 그들은 배틀리아 근처 넓은 계곡의 썸 옆에 잔을 쳤다. 그 잔의 너비는 도탄을 넘어 벨바임까지 이르고, 길이는 배틀리아에서 이즈르엘 맞은쪽에 있는 키아몬까지 이르렀다.
- 4 그들의 무리를 본 이스라엘 자손들은 깜짝 놀라 서로 말하였다. "이제 저자들이 온 땅을 먹어 치워 버리겠구나. 어떠한 높은 산도 어떠한 골짜기도 어떠한 언덕도 저들의 무개를 견디어 내지 못하겠구나."
- 5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병기를 들고 탐마다 불을 피우고서는, 그날 밤을 새우며 땅을 보았다.
- 6 이튿날 되는 날, 홀로페르네스는 배틀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온 기병대를 이끌고 나왔다.
- 7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성읍으로 가는 길목들을 살펴보고 썸들을 돌아본 다음에

그것들을 점령하고 나서, 군사들의 초소를 세워 놓고 자기의 병사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 8 그때에 에사우 자손들의 모든 수장과 모압 백성의 모든 수령과 해안 지방의 장수들이 홀로페르네스에게 가서 말하였다.
- 9 "주인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어, 주인님의 군대가 손실을 입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 10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백성은 자기들이 가진 창이 아니라, 자기들이 사는 산들이 높은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산들의 꼭대기로 오르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 11 그러니 이제 주인님, 대열을 갖추고 싸우는 전투에서 하듯이 그들과 전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주인님의 병사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 12 주인님께서 진영에 머무르시면서, 주인님의 군대에 속한 이들은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아껴 두십시오. 그리고 주인님의 종들을 시켜 저 산밭치에서 흘러나오는 썸을 장악하게만 하십시오.
- 13 배틀리아의 모든 주민이 저 썸에서 물을 길어 먹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목말라 죽게 되어 마침내 자기들의 성읍을 넘길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와 저희 병사들은 부근의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 거기에 잔을 치고, 저 성읍에서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도록 지키겠습니다.
- 14 그들은 물론 여자들과 아이들도 굶주림으로 쇠약해져서, 칼이 그들에게 닿기도 전에 자기들이 사는 길거리에 쓰러져 널릴 것입니다.
- 15 이렇게 하면 그들이 주인님을 평화롭게 맞이하지 않고 반역한 죄에 대하여 혹독한 보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6 그들의 말이 홀로페르네스와 그의 모든 시

종의 마음에 들어, 홀로페르네스는 그들이 말한 대로 하라고 명령하였다.

- 17 그리하여 암몬 자손들의 군대는 아시리아인 천오백 명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 계곡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물길과 샘들을 점령하였다.
- 18 에사우의 자손들과 암몬 자손들도 올라가서 도탄 맞은쪽 산악 지방에 진을 쳤다. 그리고 자기들 가운데 일부를 남쪽과 동쪽으로, 곧 에그레벨 맞은쪽으로 보냈다. 에그레벨은 모크무르 마른내 위의 쿠스 부근에 있었다. 아시리아인들의 나머지 군대는 평야에 진을 쳐 온 땅을 뒤덮었다. 그들의 천막과 물자가 수없이 펼쳐져 아주 큰 무리를 이루었던 것이다.
- 19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 저희 하느님께 부르짖었다. 적군들이 모두 자기들을 포위하여 그들에게서 빠져나갈 방도가 없어, 용기를 잃고 말았던 것이다.
- 20 아시리아의 온 군대, 그들의 보병대와 병거대와 기병대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삼십사일 동안 에워쌌다. 마참내 베틀리아의 모든 주민이 물을 받아 놓은 그릇마다 물이 떨어지고,
- 21 저수 동굴은 바닥이 났다. 마실 물을 일정 양만 배급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단 하루도 물을 실컷 마실 수 없었다.
- 22 아이들은 생기를 잃고 여자들과 젊은이들은 목이 말라 기력을 잃어, 성읍의 길거리와 성문 통로에 쓰러졌다. 이제 그들은 힘이 하나도 없었다.
- 23 그러자 젊은이,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온 백성이 우찌야와 성읍의 모든 수장에게 물려들어, 원로들이 다 있는 앞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 24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사이를 판가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시리아인들과 화친을 맺지 않아 우리에게 큰 불의를 저

질렀습니다.

- 25 이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고 기운이 다 빠져서 그들 앞에 쓰러져 날리도록, 하느님께서서 우리를 그들 손에 팔아넘기셨습니다.
- 26 그러나 저들을 불러들여, 이 온 성읍을 홀로페르네스의 병사들, 그의 모든 군대의 전리품으로 넘기십시오.
- 27 우리에게서 그들의 노획물이 되는 편이 낫습니다. 우리는 정말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목숨은 부지할뿐더러, 우리 아이들이 죽어 가는 모습을, 아내와 자식들의 목숨이 끊어지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 28 우리는 하늘과 땅의 이름으로, 또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에 따라 우리에게 보복하시는 우리의 하느님, 우리 조상들의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바로 오늘 실행해 주십시오."
- 29 온 회중 가운데에서 큰 울음소리가 일제히 터져 나왔다. 그리고 그들은 주 하느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 30 그때에 우찌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들이여, 용기를 내십시오. 닷새만 더 견디어 냅시다. 그동안에 주 우리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비를 다시 우리에게 돌리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마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 31 만일 닷새가 지나도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의 말대로 하겠습니까."
- 32 그러고 나서 우찌야는 백성을 해산시켜 저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서 성읍의 성벽과 탑으로 올라갔다. 성읍은 침울한 분위기 속에 가려앉았다.

유딧이 나사다

- 8** ¹ 그때에 유딧이 이 소식을 들었다. 유딧은 므라리의 딸이고, 므라리는 우츠의 아들, 우츠는 요셉의 아들, 요셉은 우찌엘의 아들, 우찌엘은 할리아의 아들, 할리아는 하난아의 아들, 하난아는 기드온의 아들, 기드온은 라파인의 아들, 라파인은 아히툼의 아들, 아히툼은 엘리야의 아들, 엘리야는 할리아의 아들, 할리아는 엘리압의 아들, 엘리압은 느탄엘의 아들, 느탄엘은 슬루미엘의 아들, 슬루미엘은 추리사파이의 아들, 추리사파이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 2** 유딧의 남편은 므나세라는 사람으로 유딧과 같은 지파, 같은 가문 출신이었는데 보리를 수확할 때에 죽었다.
- 3** 들에서 보릿단을 묶는 이들을 감독하고 있던 그는 뜨거운 열기가 머리를 덮치는 바람에 자리에 누웠다가, 자기가 살던 성읍 베들리야에서 죽었다. 그리하여 도탄과 발라몬 사이에 있는 들에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 4** 유딧은 세 해 너댓 달 동안 자기 집에서 과부 생활을 하였다.
- 5** 그는 자기 집 옥상에 천막을 치고 살면서 허리에 자루옷을 두르고 과부 옷을 입었던 것이다.
- 6** 그리고 과부 생활을 하는 동안, 안식일 전날과 안식일, 그믐날과 초하룻날, 이스라엘 집안의 축제일과 경축일 말고는 하루도 빠짐 없이 단식하였다.
- 7** 유딧은 용모가 아름답고 모습이 무척 어여뻐다. 그의 남편 므나세가 금과 은, 남종과 여종, 가축과 밭을 남겼는데, 유딧은 그것들을 계속 소유하였다.
- 8** 유딧에 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자는 하나도 없었다. 그가 하느님을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 9** 유딧은 백성이 물이 부족하여 용기를 잃고

수장에게 한 그 좋지 않은 말을 들었다. 그리고 우찌야가 닷새 뒤에 성읍을 아시리아인들에게 넘기겠다고 맹세하면서 백성에게 한 말도 다 들었다.

- 10** 그리하여 유딧은 자기의 온 재산을 관리하는 시녀를 보내어, 성읍의 원로 우찌야와 카브리스와 카르미스를 모셔 오게 하였다.
- 11** 그들이 오자 유딧이 말하였다. "베들리야 주민들의 수장님들,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백성 앞에서 하신 말씀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닷새 안에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지 않으시면 이 성읍을 적군들에게 넘기시겠다고 여러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여 여러분은 하느님과 여러분 사이에 맹세를 내거신 것입니다.
- 12** 도대체 여러분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오늘 하느님을 시험하시고, 사람에게 지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느님의 자리에 서시는 것입니까?
- 13** 지금 여러분은 전능하신 주님을 시험해 보시지만, 끝내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실 것입니다.
- 14** 여러분은 사람 마음의 깊은 곳을 찾아내지도 못하시고, 그 속생각들을 알아차리지도 못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을 세밀히 살펴보고 그분의 생각을 알아내시며 그분의 계획을 헤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안 됩니다, 형제 여러분. 주 우리 하느님을 노엽게 해드리지 마십시오.
- 15** 하느님께서 닷새 안에 우리를 도우실 뜻이 있으시더라도, 당신께서 원하시는 때에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권능을, 또 적군들 앞에서 우리를 전멸시키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 16** 주 우리 하느님의 뜻을 담보로 잡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사람을 달리 협박할

- 수 있는 대상이 아니시고, 인간과 달리 부추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 17 그러나 하느님에게서 구원이 오기를 고대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분께 간청합니다. 당신 마음에 드시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 주실 것입니다.
- 18 사실 우리 세대에는 우리의 어느 자파, 어느 가문에서도, 또 어느 씨족, 어느 성읍에서도, 이전처럼 손으로 만든 신들에게 경배하는 일이 일어난 적이 없고 오늘날에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 19 바로 그 일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살육과 약탈을 당하고, 우리의 적들 앞에서 무참히 파멸하였습니다.
- 20 그러나 우리는 그분 말고는 다른 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나 우리 겨레 가운데 아무도 업신여기지 않으시리라 우리들은 희망할 수가 있습니다.
- 21 그렇지만 우리가 함락되는 날에는 온 유다도 넘어가고 우리의 성소도 약탈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서는 성소가 더럽혀진 그 잘못을 우리 자신의 피로 갚게 하실 것입니다.
- 22 그분께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종살이를 하든지, 그곳의 이민족들 사이에서 동포들이 학살당하고 온 나라가 유배로 끌려가고 상속 토지가 황폐해지는 일이 우리에게 들이닥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를 종으로 사들이는 자들 앞에서 조롱거리와 우썬거리가 될 것입니다.
- 23 그리고 우리는 종살이를 하면서 아무런 은혜도 입지 못할 것입니다. 주 우리 하느님께서서는 그것을 치욕으로 돌려 놓으실 것입니다.
- 24 그러나 이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동포들에게 모범을 보입니다. 그들의 목숨이 우리에게 달려 있고, 성소가, 하느님의 집과 제단이 우리에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 25 모든 것이 그러하다라도 주 우리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도 시험하고 계십니다.
- 26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이시악을 어떻게 시험하셨는지, 그리고 야곱이 시리아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외숙 라반의 양 떼를 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 27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시려고 그들에게 불같은 시련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냥 보복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가까운 이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채찍질하시는 것입니다."
- 28 그때에 우찌아가 유딧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한 말은 진심에서 우리나라의 것이니, 그대의 말을 반박할 자 아무도 없소.
- 29 그대의 지혜가 오늘날 드러난 것이 아니오. 그대의 생애가 시작될 때부터 온 백성이 그대의 슬기를, 또 그대의 마음씨가 얼마나 고운지를 다 알아 왔소.
- 30 이 백성은 너무 목이 말라 우리가 자기들에게 약속한 것을 실행하도록, 또 우리가 어길 수 없는 맹세를 하도록 강요한 것이오.
- 31 그대는 신심 깊은 여인이니 이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저수 동굴들이 가득 차게 비를 내려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오."
- 32 유딧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는 대대로 우리 겨레의 자손들에게 남을 일을 하려고 합니다.
- 33 오늘 밤 여러분은 성문 곁에서 계십시오. 그러면 저는 시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읍을 적군들에게 남기겠다고 말씀하신 그 날짜 안에, 주님께서서는 제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하실

것입니다.

- 34 그러나 제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알아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려는 일이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 35 우찌야와 다른 수장들이 유딧에게 말하였다. "평안히 가시오. 주 하느님께서 우리 적군들에게 보복하시기 위하여 그대 앞에서 가시기를 비오."
- 36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 초막을 떠나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다.

유딧기 기도하다

- 9¹ 유딧은 얼굴을 바다에 대고 엎드려 머리에 재를 뿌리고, 속에 입고 있던 자루옷을 드러내었다.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에서 저녁 향을 피워 올리는 시간이었다. 유딧이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었다.
- 2 "저의 조상 사메온의 하느님이신 주님, 당신께서는 이민족에게 보복하라고 사메온의 손에 칼을 들려 주셨습니다. 처녀의 아랫도리를 풀어 부정하게 만들고, 그 허벅지를 드러내어 욕을 보이고, 태를 더럽혀 모욕을 준 이민족 말입니다. 당신께서 '그렇게 해서 안 된다.' 하셨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고야 말았습니다.
- 3 그리하여 당신께서는 그들의 수장들을 학살당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 이민족의 속임수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 침상을 다른 속임수로 피에 물들게 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종들을 제후들과 함께 치시고, 제후들을 그 옥좌와 함께 치셨습니다.
- 4 그들의 아내들을 끌려가게 하시고, 그들의 딸들을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곧 당신을 위한 열성으로 불타고 자기들의 피가 부정하게 되는 것을 혐오하여 당신께 도움을 간청한

자녀들이, 그들에게서 뺏은 모든 노획물을 나누어 가지게 하셨습니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이 과부의 말씀을 귀담아들어 주십시오.

- 5 그때의 일, 그 앞의 일과 그 뒤의 일은 모두 당신께서 하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현재와 미래를 계획하셨습니다. 당신께서 뜻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 6 당신께서 원하기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앞으로 나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당신의 모든 길은 미리 준비되어 있고 당신의 판결은 선견으로 이루어집니다.
- 7 그런데 저 아시리아인들은 무력이 넘쳐나, 말과 기병으로 우쭐대고 보병의 위세로 뽐내며, 방패와 창과 활과 투석기에 희망을 겁니다. 저들은 당신께서 전쟁을 쳐 없애 버리시는 주님이심을 모릅니다.
- 8 당신의 이름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의 권세로 그들의 힘을 부수시고 당신의 진노로 그들의 세력을 꺾으십시오. 저들은 당신의 성소를 더럽히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머물러 있는 천막을 부정하게 만들며, 당신 제단의 뿔을 칼로 내리치려고 합니다.
- 9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그들의 머리 위로 당신의 분노를 쏟아 부으십시오. 뜻한 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이 과부의 손에 주십시오.
- 10 제 입술의 속임수로 종을 수장과 함께, 수장을 시종과 함께 치십시오. 저들의 오만을 이 여자의 손으로 깨뜨리십시오.
- 11 당신의 능력은 수에 달려 있지 않고 당신의 위력은 힘센 자들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오히려 미천한 이들의 하느님, 비천한 이들의 구조자, 약한 이들의 보호자, 버림받은 이들의 옹호자, 희망 없는 이들의 구원자이십니다.
- 12 제 조상의 하느님, 당신의 상속 재산 이스라엘의 하느님, 하늘과 땅의 주님, 물의 창

조주님,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조물의 임금님, 부디, 부디 저의 기도를 귀담아들어 주십시오.

- 13 당신의 계약과 당신의 거룩한 집, 시온 산, 그리고 당신 자녀들이 소유한 집에 잔혹한 짓을 저지르려는 자들에게, 저의 말과 속임수가 상처와 타격을 입히게 해 주십시오.
- 14 그리하여 당신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지니신 하느님으로서, 당신말고는 이스라엘 겨레를 보호하실 분이 없음을, 당신의 온 백성과 모든 지파가 깨달아 알게 하십시오."

유딧이 적진으로 가다

- 10 ¹ 유딧은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부르짖으면서 이 모든 말씀을 다 아뢰었다.
- 2 그리고 나서 앞드려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사녀를 불러, 자기가 안식일과 축제일을 지내던 집으로 함께 내려갔다.
- 3 유딧은 속에 입고 있던 자루옷을 벗고 과부 옷도 차웠다. 그리고 물로 몸을 씻고 값비싼 향유를 바른 다음, 머리를 빗고 머리띠를 두르고서 자기 남편 므나쎄가 살아 있을 때에 입던 화사한 옷을 차려입었다.
- 4 또 발에는 신발을 신고 발찌를 두른 다음, 팔찌와 반지와 귀걸이와 그 밖의 모든 패물을 찼다. 이렇게 유딧은 자기를 보는 모든 남자의 눈을 호리려고 한껏 몸치장을 하였다.
- 5 그리고 나서 유딧은 포도주가 든 가죽 부대와 올리브 기름 단지를 사녀에게 주었다. 또 가죽 자루에 볶은 밀과 건포도 과자와 정결한 빵을 가득 넣고, 그릇들을 모두 싸서 그 사녀에게 주어 나르게 하였다.
- 6 그들은 배틀리아 성문으로 나가, 성읍의 원로 카브리스와 카르미스를 데리고 서 있는 우짜야를 만났다.

7 그들은 유딧의 얼굴이 바뀌고 복장도 달라진 것을 보고서는, 그의 아름다움에 몹시 경탄하며 그에게 말하였다.

- 8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영예를 위한 그대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비오." 유딧은 하느님께 경배하고 나서,
- 9 그들에게 말하였다. "성문을 열라고 명령하십시오. 제가 나가서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딧이 말한 대로 젊은이들에게 성문을 열어 주라고 명령하였다.
- 10 그들이 그대로 하자 유딧이 나갔다. 그와 함께 그의 허너도 나갔다. 성읍의 남자들은 유딧이 산을 내려가 계곡을 지나서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았다.
- 11 그 여자들은 계곡에서 곧바로 나아가다가 아시리아인들의 전초병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 12 그들이 유딧을 데려다가 물었다. "당신은 어느 편이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거요?" 유딧이 대답하였다. "저는 히브리 여자인데, 히브리인들이 곧 여러분에게 넘겨져 먹혀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도망쳐 나오는 길입니다.
- 13 저는 여러분 군대의 대장군 홀로페르네스님 앞으로 가서 사실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또 그분의 부하들이 잡히거나 살해되어 한 사람이라도 목숨을 잃는 일 없이, 산악 지방으로 올라가서 그곳을 전부 정복할 수 있는 길을 그분 앞에서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 14 그 사람들은 유딧의 말을 들으면서 그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크게 경탄하며 유딧에게 말하였다.
- 15 "당신은 우리 주인님 앞으로 서둘러 내려오는 바람에 목숨을 구하였소. 그러니 그

분의 천막으로 어서 가시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당신을 호위하여 그분의 손에 넘겨 드릴 것이오.

- 16 그분 앞에 서거든 마음속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말씀하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잘해 주실 것이오."
- 17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에서 백 명을 뽑아 유딧과 그의 사녀에게 붙여 주어, 홀로페르네스의 천막으로 인도하게 하였다.
- 18 온 진영에 소동이 벌어졌다. 유딧이 도착한다는 소문이 군사들의 천막 사이로 퍼졌기 때문이다. 유딧은 홀로페르네스에게 자기에 관하여 보고가 될 때까지 그의 천막 밖에서 있었는데, 군사들이 와서 그를 에워쌌다.
- 19 그들은 유딧의 아름다움에 경탄하고 또 유딧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관해서도 경탄하며, 서로 말하였다. "이런 여자들이 있는 저 백성을 누가 알잡아 볼 수 있겠는가? 저 백성 가운데에서 남자를 하나라도 살려 두는 것은 좋지 않다. 그들을 내버려 두면 온 세상을 속여 먹을 수도 있겠다."
- 20 이윽고 홀로페르네스의 호위병들과 모든 시종이 나와 유딧을 천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 21 홀로페르네스는 자주색 천과 금과 취옥과 다른 보석들로 짜 만든 단집 아래에 놓인 침상에서 쉬고 있었다.
- 22 유딧에 관한 보고를 들은 홀로페르네스는 은으로 된 등들을 앞세우고, 천막 앞방으로 나왔다.
- 23 유딧이 홀로페르네스와 그의 시종들 앞으로 가자, 모두 그 미모에 경탄하였다. 유딧은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홀로페르네스에게 절하였다. 이어서 그의 종들이 유딧을 일으켜 세웠다.

- 11 ¹ 홀로페르네스가 유딧에게 말하였다. "여인아, 용기를 내어라. 마음속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온 세상의 임금 네부카드네자르 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은 아무도 해친 적이 없다.
- ² 이번에도 저 산악 지방에 사는 너의 백성이 나를 떨사하지 않았으면, 그들에게 창을 겨누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다.
- ³ 그러면 이제 네가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서 도망쳐 나와 우리에게 왔는지 말해 보아라. 아무튼 너는 안전한 곳을 찾아 이리 온 것이다. 용기를 내어라. 오늘 밤은 물론 앞으로도 너는 안전하다.
- ⁴ 너에게 해를 끼칠 자 하나도 없다. 오히려 나의 주군이신 네부카드네자르 임금님의 종들에게 하듯, 너에게도 모두 잘해 줄 것이다."
- ⁵ 유딧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여종의 말씀을 받아 주시고, 이 하녀가 주인님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밤 저의 주인님께 거짓은 하나도 이르지 않겠습니다.
- ⁶ 이 하녀의 말씀대로만 하시면 하느님께서는 주인님의 일을 완전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인님께서는 계획하신 일에서 하나도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 ⁷ 온 세상의 임금이신 네부카드네자르 님의 목숨을 걸고, 또 모든 생물을 관장하라고 주인님을 파견하신 그분의 능력을 걸고 말씀 올립니다. 주인님 덕분에, 사람들만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들짐승과 짐승과 하늘의 새들까지 주인님의 힘 덕분에 네부카드네자르 님과 그분의 온 집안 밑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 ⁸ 저희는 주인님께서 가지신 지혜와 주인님의 영이 지니신 수완에 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서 주인님 홀로 훌륭하시

고 식전이 출중하실뿐더러 전술에도 뛰어나 사다는 것을 온 세상이 잘 알고 있습니다.

9 주인님께서 소집하신 회의에서 아키오르가 한 말을 저희도 들었습니다. 배틀리아의 남자들이 그의 목숨을 살려 주자, 자기가 주인님 곁에서 지껄인 말을 모두 그들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10 그러니 저의 상전이신 주인님! 그의 말을 그냥 넘겨 버리지 마십시오. 그의 말은 참 말이니 마음에 새겨 두십시오. 사실 저희 겨레는 하느님께 죄를 짓지 않는 한, 징벌을 당하지도 않고 칼에 압도되지도 않습니다.

11 그러나 그들이 옳지 않은 일을 할 때마다 하느님을 노엽게 하며 짓는 죄가 그들을 덮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인님께서서는 좌절하거나 실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죽음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12 그들은 양식이 떨어지고 물도 거의 다 바닥났기 때문에, 짐집승들에게 손을 대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먹지 말라고 법으로 금지하신 것들까지 모두 먹기로 계획하였습니다.

13 그뿐 아니라 하느님께 봉헌한 다음 예루살렘에서, 곧 저희 하느님 앞에서 봉직하는 사제들을 위하여 떼어 놓은 곡식의 만물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의 십일조로서, 일반 백성은 그 누구도 손으로 만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것들을 먹기로 결심하였습니다.

14 그들은 또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러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로단의 허락을 받아 오라고 사람들을 그리로 보냈습니다.

15 그 답이 오는 대로 그들은 그것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로 그들은 주인님께 넘겨져 멸망할 것입니다.

16 이 여중은 이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온 세상 사람

들이 듣기만 하여도 깜짝 놀랄 일을 주인님과 함께 하도록 하느님께서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17 이 여중은 신심이 깊은 사람으로서, 밤이나 낮이나 하늘의 하느님께 예배합니다. 이제 저의 주인님, 저는 주인님 곁에 머무르겠습니다. 다만 밤에는 이 여중이 골짜기로 나가서 하느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언제 그 죄를 저지르지 그때에 하느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18 그러면 제가 와서 알려 드릴 터이니 온 군대를 이끌고 나가십시오. 그들 가운데에서 주인님께 맞설 자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19 주인님께서 유다 한복판을 지나 예루살렘 앞에 다다를 때까지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주인님께서 앉으실 옥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인님께서서는 그들을 목자 없는 양들처럼 물게 되시고, 주인님 앞에서는 개조차 짚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저의 선견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시고 알려 주신 것으로서, 저는 이를 주인님께 알려 드리라고 보내졌습니다."

20 유딧의 말이 홀로페르네스와 그의 모든 시종의 마음에 들었다. 그들은 그의 지혜에 경탄하면서 말하였다.

21 "세상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저토록 얼굴이 아름답고 슬기롭게 말하는 여자는 다시 없을 것이다."

22 그때에 홀로페르네스가 유딧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손에는 힘을 주시고 나의 주군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을 가져다주시려고 너를 저 백성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하느님께서서는 참 잘하셨다.

23 너는 용모가 아리따울 뿐만 아니라 말도 훌륭히 잘하는구나. 네가 말한 대로 하면, 너의 하느님은 나의 하느님이 되시고, 또 너는 네부카드네자르 임금님의 왕궁에 살

면서 온 세상에 명성을 떨치게 될 것이다."

유딧이 적진에서 지나다

- 12** ¹ 홀로페르네스는 자기의 은그릇들을 간수하는 곳으로 유딧을 인도하라고 분부하였다. 그리고 자기 요리에서 달어가 유딧에게 상을 차려 주고, 자기 포도주도 마시게 해 주라고 명령하였다.
- ² 그러나 유딧은 "저는 그것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져온 것을 먹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 ³ 그러자 홀로페르네스가 유딧에게 물었다. "네가 준비한 양식이 떨어지면, 그것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구해다가 너에게 줄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는 네 종족 출신이 한 사람도 없다."
- ⁴ 유딧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주인님, 주인님의 목숨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일을 제 손을 통하여 이루실 때까지, 이 여종이 준비한 양식이 다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 ⁵ 그러자 홀로페르네스의 시종들이 유딧을 천막 안으로 인도하였다. 유딧은 한밤중까지 잠을 자고 새벽녘에 일어나,
- ⁶ 홀로페르네스에게 사람을 보내어, "주인님께서는 이 여종이 기도하러 나갈 수 있게 허락하도록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 ⁷ 홀로페르네스는 유딧을 막지 말라고 호위병들에게 명령하였다. 이렇게 유딧은 그 진영에 사흘을 머물렀다. 그러면서 밤에는 베들리아 골짜기로 나가 진영에 있는 샘에서 몸을 씻었다.
- ⁸ 물에서 올라와서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자기의 길을 이끄시어 자기 백성이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십사고 간청하였다.

⁹ 그리고 나서 정결한 몸으로 천막에 들어가, 저녁에 음식을 가져올 때까지 그 안에서 지냈다.

홀로페르네스가 유딧을 남보다

- ¹⁰ 나흘째 되는 날에 홀로페르네스는 자기의 종들만을 위한 연회를 열었는데, 장교들은 한 사람도 부르지 않았다.
- ¹¹ 그리고 자기의 모든 개인 용무를 관리하는 내시 바고아스에게 말하였다. "가서 내가 돌보는 히브리 여자더러 우리에게 와서 함께 먹고 마시자고 설득하여라.
- ¹² 저런 여자와 놀아 보지도 않고 그대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다. 우리가 자기를 피어내지 않으면 저 여자가 우리를 바웃을 것이다."
- ¹³ 그리하여 홀로페르네스 앞에서 물러 나온 바고아스는 유딧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아름다운 처녀는 주저하지 말고 내 주인님께로 가서, 그분 앞에서 영광을 누리며 우리와 함께 즐겁게 술을 마시도록 하시오. 그러면서 오늘은 네부카드네자르님의 왕궁에서 시중을 드는 아시리아 여자 처럼 되시오."
- ¹⁴ 유딧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무엇이기 저의 주인님을 거절하겠습니까? 그분의 눈에 드는 것은 무엇이든지 곧바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죽는 날까지 저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 ¹⁵ 유딧은 일어나 옷을 차려입고 온갖 여성 장신구로 치장을 하였으며, 유딧의 여종은 먼저 가서 홀로페르네스 앞 바닥에 그가 앉을 양기죽을 깔아 놓았다. 그 기죽은 식사할 때에 기대어 앉기도 하면서 날마다 쓰라고 바고아스가 준 것이었다.
- ¹⁶ 이윽고 유딧이 들어가 앉았다. 그러자 유딧 때문에 홀로페르네스의 마음은 들뜨고 정신은 아득해졌다. 그는 유딧과 동침하고픈

-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혀, 그를 처음 본 날부터 유혹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다.
- 17 홀로페르네스가 유딧에게, "자, 술을 마시며 우리와 함께 즐겨라." 하고 말하자,
- 18 유딧이 대답하였다. "저의 주인님, 그럼 마시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이후 오늘 저의 삶이 다른 어느 날보다도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 19 그러고 나서 유딧은 자기 여종이 준비한 것을 받아 먹고 마셨다.
- 20 홀로페르네스는 유딧 때문에 기뻐하면서 포도주를 무척 많이 마셨다. 그가 태어난 뒤로 그렇게 마신 적이 단 하루도 없었다.

유딧이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다

- 13** 1 저녁때가 되자 홀로페르네스의 종들이 서둘러 물러갔다. 천막을 밖에서 잠근 바고아스가 시종들까지 자기 주인 앞에서 내보내니, 그들도 잠자리에 들었다. 사실 연회를 오래 끝냈기 때문에 모두 지쳐 있었다.
- 2 천막에는 유딧만 혼자 남았다. 홀로페르네스는 술에 잔뜩 취하여 자기 침상 위에 쓰러져 있었다.
- 3 유딧은 여종에게 침실 밖에 서서 다른 날처럼 자기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라고 미리 일러두었다. 기도하러 나가겠다고 말하였던 것이다. 바고아스에게도 같은 말을 해 두었다.
- 4 모든 사람이 홀로페르네스 앞에서 물러가고, 침실에는 낮은 자에서 높은 자까지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때에 유딧은 홀로페르네스의 침상 곁에 서서 마음속으로 말하였다. '모든 권세의 하느님이신 주님, 이 시간 예루살렘의 영예를 위하여 제 손이 하는 일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 5 바로 지금이 당신의 상수 재산에 도움을 베풀고, 저희를 치러 일어난 적군들을 멸망시키려는 저의 계획을 실행할 때입니다.'

- 6 이어서 유딧은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맡에 있는 침대 기둥으로 가서 그의 칼을 집어 내렸다.
- 7 그리고 침상으로 다가가 그의 머리털을 잡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오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고 말한 다음,
- 8 힘을 다하여 그의 목덜미를 두 번 내리쳐서 머리를 잘라 내었다.
- 9 그러고 나서 그의 몸뚱이를 침상에서 굴러 버리고, 단집을 기둥에서 뽑아 내렸다. 잠시 뒤에 유딧은 밖으로 나가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자기 시녀에게 넘겼다.

유딧이 배틀리로 돌아가다

- 10 여종은 그것을 자기의 음식 자루에 집어넣었다. 그 두 사람은 기도하러 다닐 때처럼 함께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진영을 가로지른 다음에 그곳의 골짜기를 돌아서 배틀리아 산으로 올라가 마침내 그곳 성문에 다다랐다.
- 11 유딧은 멀리서 성문의 파수꾼들에게 말하였다. "여십시오. 성문을 여십시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우리의 하느님께서 오늘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이스라엘에 당신의 힘을, 적군들을 향하여 당신의 능력을 펼치셨습니다."
- 12 성읍 사람들은 유딧의 목소리를 듣고서, 서둘러 성문으로 내려가며 성읍의 원로들을 불러 모았다.
- 13 유딧이 돌아왔다는 것이 너무나 뜻밖이어서 이이에서 어른까지 모두 달려왔다. 그들은 성문을 열고 유딧과 그의 여종을 맞이하였다. 그리고 불을 피워 밝게 하고서는 그 여자들을 돌려보냈다.
- 14 그러자 유딧이 그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다. "하느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느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집안에서 당신의 자비를 거두지 않

으시고, 바로 이 밤에 제 손을 통하여 적군들을 쳐부수셨습니다."

- 15 유딧은 자루에서 머리를 꺼내어 그들에게 보여 주면서 다시 말하였다. "보십시오, 아시리아 군대의 대장군 홀로페르네스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집인데, 홀로페르네스가 잔뜩 취하여 그 아래에 누워 있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여자의 손으로 그를 치셨습니다.
- 16 제가 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저를 지켜 주신, 살아 계신 주님을 경고 말씀합니다. 저의 얼굴이 그를 유혹하여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가 저에게 죄를 저질러 저를 부정하게 만들거나 수치스럽게 만든 것은 결코 아닙니다."
- 17 온 백성은 대단히 놀라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일제히 말하였다. "오늘 당신 백성의 적군들을 섬멸하신 저희의 하나님께 서는 찬미받으소서."
- 18 이어서 우짜야가 유딧에게 말하였다. "딸이여, 그대는 이 세상 모든 여인 가운데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은 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적군 수장의 머리를 치도록 그대를 이끌어 주신 주 하나님께서 찬미받으시기를 바라오.
- 19 그대의 희망이 하나님의 힘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오.
- 20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어 그대가 영원한 영광을 얻고, 그대에게 좋은 상이 내리기를 비오, 우리 겨레가 비참하게 되었을 때, 그대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걸어, 우리에게 닦친 파멸을 물리쳤소." 그러자 온 백성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

14 ¹ 유딧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이 머리를 가져다가 여러분의 성기위에 걸어 놓으십시오.

2 그리고 동이 뜨고 해가 땅 위에 솟아오르면 여러분은 저마다 무기를 들고, 건장한 남자들은 모두 성읍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들에게 대장을 앞세워 아시리아인들의 전초를 향하여 평야로 내려가는 척하십시오. 그러나 내려가지는 마십시오.

3 아시리아인들은 병기를 들고 진영으로 가서 아시리아 군대의 장수들을 깨울 것입니다. 장수들은 홀로페르네스의 천막으로 달려가지만 그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여러분 앞에서 달아날 것입니다.

4 여러분과 이스라엘 온 영토에 사는 주민들은 모두 그들을 쫓아가 그 자리에서 쳐 죽이십시오.

5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암몬 사람 아키오르를 불러 주십시오. 그래서 그에게 이사가 이스라엘 집안을 알보고 또 자기를 우리에게 보내어 죽게 하려고 한 홀로페르네스임을 확인하게 합시다."

6 그래서 그들은 아키오르를 우짜야의 집에서 불러내었다. 그가 와서 백성의 화중 가운데 어떤 사람 손에 들린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보더니, 기절하여 앞으로 쓰러졌다.

7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 세우자, 그는 유딧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절하고 나서 말하였다. "당신께서는 유다의 모든 천막에서, 또 모든 민족들에게서 찬미를 받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듣는 이들은 모두 무서워 떨 것입니다.

8 요사이 당신께서 하신 일을 이제 저에게 알려 주십시오." 그리하여 유딧은 백성 한가운데 서서, 자기가 떠나던 날부터 그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한 때까지 자기가 한 모든

일을 알려 주었다.

- 9 유딧이 이야기를 마치자 백성은 크게 소리를 질러 성읍에 환성이 울려 퍼지게 하였다.
- 10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하신 일을 모두 본 아키오르는 하느님을 깊이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집안에 합류하여 오늘날까지 이른다.

아시리아인들이 혼란에 빠졌다

- 11 동이 트자 사람들이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성벽에 걸어 놓았다. 그리고 남자들은 모두 무기를 들고 부대별로 산악 지방 길목을 향하여 나갔다.
- 12 그들을 본 아시리아인들은 저희 상관들에게 전갈을 보내고, 이 상관들은 장수들과 천인대장들, 그리고 다른 모든 수장들에게 갔다.
- 13 그들은 또 홀로페르네스의 천막으로 가서, 그의 모든 개인 용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주인님을 깨우시오. 저 종들이 아주 전멸하려고 감히 우리에게 내려와 싸움을 걸고 있소."
- 14 그리하여 바고아스가 안으로 들어가 천막의 휘장 앞에서 손바닥을 쳤다. 홀로페르네스가 유딧과 함께 자고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 15 아무도 듣는 것 같지 않아 휘장을 열고 침실로 들어가 보니, 홀로페르네스는 머리가 없는 시체로 침대 발판에 누워져 있었다.
- 16 바고아스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울고 불고 크게 통곡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
- 17 그리고 나서 유딧이 머무르는 천막으로 갔다. 그 여자가 보이지 않자 사람들에게 달려나가 외쳤다.
- 18 "저 종들이 반역을 일으켰소. 히브리 여자 하나가 내부카드네자르 임금님의 집안에 수치를 주었소. 보시오, 홀로페르네스님께

서 머리가 없이 바닥에 쓰러져 계시오."

- 19 아시리아 군대의 수장들은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의 겹옷을 찢었다. 커다란 충격을 받은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 매우 큰 통곡 소리가 진영에서 터져 나왔다.

아시리아 군대가 달아나다

- 15 ¹ 천막에 있던 자들도 이 사건 이야기를 듣고서는 깜짝 놀랐다.
- 2 그리하여 공포와 전율에 사로잡힌 그들은, 열 사람을 기다릴 사이도 없이 한꺼번에 달려 나가 산길과 들길로 달치는 대로 달아났다.
- 3 산악 지방에서 배틀리아를 둘러싸고 진을 친 자들도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들, 군인들이 모두 그들을 향하여 돌진하였다.
- 4 우짜야는 배토크스타임, 코바, 콜라를 비롯하여 유다 전역에 사람들을 보내어, 그때까지 일어난 일을 알리고 모두 적들에게 돌진하여 그들을 몰살시키라고 하였다.
- 5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말을 듣고 일제히 적들에게 달려들어 코바까지 쫓아가며 그들을 쳐 죽였다. 예루살렘과 온 산악 지방 사람들도 적군들의 진지에서 일어난 일을 전해 듣고 나왔다. 또 길앗과 갈릴래아 사람들도 다 마스쿠스와 그 경계선을 넘어갈 때까지 그들을 쫓아가면서, 양옆으로 공격하여 그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 6 배틀리아의 나머지 주민들은 아시리아의 진영에 달려들어 가 악탈을 하여 크게 부유해졌다.
- 7 그리고도 남은 것은 적군을 쳐 죽이고 돌아오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하였다. 산악 지방과 평야의 마을과 동네들도 많은 노획물을 손에 넣었다. 노획할 것이 그처럼 아주 많았던 것이다.

유딧이 칭송을 받다

- 8 여호아킴 대사제와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로단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하신 좋은 일을 보고 또 유딧을 만나 인사하려고 왔다.
- 9 그들은 유딧의 집에 들어가 모두 이렇게 말하면서, 일제히 유딧을 축복하였다. "그대는 예루살렘의 영예고 이스라엘의 큰 영광이며 우리 겨레의 큰 자랑이오.
- 10 그대는 이 모든 일을 그대의 손으로 이루었소. 그대는 이스라엘에 좋은 일을 하였소. 하느님께서도 그 일을 기쁘게 여기신다오. 그대가 전능하신 주님께 영원히 복을 받기 바라오." 그러자 온 백성이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
- 11 온 백성은 적의 진영을 서른 날 동안 노획하였다. 그런 다음 홀로페르네스의 친막과 그의 모든 은 기물과 침상들과 그릇들, 그리고 그의 모든 가구를 유딧에게 주었다. 유딧은 그것들을 받아 자기의 노새에 싣고 수레들을 준비하여 거기에도 쌓았다.
- 12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가 유딧을 보러 달려와서 그를 축복하고,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유딧을 위하여 춤을 추었다. 유딧은 일이 무성한 가지들을 가져다가 자기와 함께 있는 여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 13 또 유딧은 함께 있던 이들과 올리브 가지로 관을 만들어 썼다. 그런 다음에 유딧은 춤추는 모든 여자를 인도하며 온 백성의 앞장을 섰다. 무장을 갖춘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화관을 쓰고 입으로는 찬양기를 부르며 그들을 뒤따랐다.
- 14 그때에 유딧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감사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온 백성도 이 찬양기를 큰 소리로 따라 불렀다.

유딧의 찬양가

- 16 ¹ 유딧이 이렇게 노래하였다. "손복

- 치며 나의 하느님께 바치는 노래를 시작하여라. 자비라 치며 나의 주님께 노래를 불러라. 시편과 찬양 노래를 지어 바치고 그분을 높이 받들며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
- 2 주님은 전쟁을 쳐 없애 버리시는 하느님, 그분께서 백성 가운데에 당신의 진을 치시고 뒤쫓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구하셨다.
- 3 아시리아가 북녘 산에서 내려왔다. 무수한 군대를 거느리고 내려왔다. 그 무리들이 골짜기들을 메우고 기병대는 언덕들을 뒤덮었다.
- 4 그는 내 영토를 불태우고 나의 젊은이들을 칼로 치고 나의 젖먹이들을 땅바닥에 내던지고 내 어린것들을 노획물로 삼고 나의 처녀들을 전리품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 5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자의 손으로 물리치셨다.
- 6 그들의 영웅이 젊은이들 손에 쓰러진 것도 아니고 장사들이 그를 쳐 죽인 것도 아니며 키 큰 거인들이 그에게 달려든 것도 아니다. 므라리의 딸 유딧이 미모로 그를 꺾을 수 있게 만든 것이다.
- 7 유딧은 이스라엘에서 고통을 겪는 이들을 끌어올리려고 과부 옷을 벗었다. 얼굴에 향유를 바르고
- 8 머리를 띠로 동이고 아마포 옷을 입고 그를 유혹하였다.
- 9 유딧의 신발이 그의 눈을 호리고 유딧의 아름다움이 그의 낚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칼이 그의 목을 베어 버렸다.
- 10 페르시아인들이 유딧의 담력에 떨고 메디아인들이 유딧의 용기에 깜짝 놀랐다.
- 11 그때에 압박받던 내 백성이 함성을 지르고 언약한 내 백성이 고향을 치자 적들이 무서워 몸서리치고 소리를 높이자 적들이 거꾸러졌다.
- 12 계집종들의 자식들까지 그들을 무찌르고 도망자들의 아이들을 다루듯 그들에게 상

- 처를 입혔다. 그들은 주 내 하느님의 군대 앞에서 멸망하였다.
- 13 나는 내 하느님께 새로운 노래를 부르리라. 주님, 당신은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임이 놀라우신 분,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 14 당신께서 말씀하시자 생겨났으니 모든 조물은 당신을 섬겨야 합니다. 당신께서 영을 보내시니 그것들이 지어졌습니다. 당신의 목소리에 거역할 자 하나도 없습니다.
- 15 산들이 그 밑바닥부터 바다와 함께 뒤흔들리고 바위들이 당신 앞에서 밀초처럼 녹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그들을 당신께서는 가없이 여기십니다.
- 16 향기로 바치는 희생 제물도 모두 별것 아니고 당신께 번제물로 바치는 굳기름도 모두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언제나 위대합니다.
- 17 불행하여라, 내 겨레를 치러 일어나는 민족들! 전능하신 주님께서 심판 날에 그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그들의 몸속으로 불과 벌레를 보내시면 그들은 고통 속에서 영원히 통곡할 것이다."
- 21 이 기간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은 저마다 제 상속 재산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유딧도 배틀리아로 가 자기 소유지에서 살았다. 그는 여생 동안 온 나라에서 존경을 받았다.
- 22 유딧을 탐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의 남편 므나세가 죽어서 선조들 곁으로 간 때부터 유딧이 살아 있는 동안 내내, 어떠한 남자도 유딧과 관계하지 못하였다.
- 23 유딧은 점점 더 큰 명예를 얻으며 자기 남편의 집에서 나이를 더해 가, 백다섯 살까지 살았다. 그는 자기의 시녀에게 자유를 주기도 하였다. 그 뒤에 배틀리아에서 죽어 자기 남편 므나세의 동굴 묘지에 함께 묻혔다.
- 24 이스라엘 집안은 이제 동안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유딧은 또 죽기 전에 자기 재산을 남편 므나세의 모든 근친과 친정의 근친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 25 유딧이 살아 있을 때는 물론 그가 죽은 뒤에도 오랫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협하는 자가 더 이상 없었다.

예루살렘에서 승리의 축제를 거행하다

- 18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들은 하느님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백성은 자신들을 정화하고 나서 번제물과 자원 예물과 다른 예물들을 바쳤다.
- 19 유딧은 백성이 자기에게 준 홀로페르네스의 기물을 모두 하느님께 봉헌하였다. 그리고 자기가 홀로페르네스의 침실에서 가져온 단집을 하느님께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
- 20 백성은 석 달 동안 예루살렘의 성소 앞에서 축제를 벌였는데, 유딧도 그들과 함께 머물렀다.

구약성경 - 19

역사서 - 14

에스테르기

총 10 장

총 273 절

【구약성경 - [에스테르]】

모르도카이 꿈

- 1** ¹⁻¹ 크세르크세스 대왕 통치 제이년
니산 달 초하룻날 모르도카이가
꿈을 꾸었다. 그는 벤아민 지파 출신으로,
그의 아버지는 아이르, 할아버지는 시르
이, 증조부는 키스였다.
- 1-2** 수사 성읍에 사는 유대인인 그는 왕궁에
서 봉직하는 사람으로 중요한 인물
이었는데,
- 1-3** 바벨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유다 임금
여콘야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잡아 온 포
로들 가운데 하나였다.
- 1-4** 그가 꾸은 꿈은 이러하다. 소리와 소음, 천
둥과 지진, 소동이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 1-5** 그때 거대한 용 두 마리가 서로 싸울 태
세를 갖추고 다가오며 크게 으르렁거렸다.
- 1-6** 그들이 으르렁거리자 모든 민족들이 의로
운 민족을 치려고 전쟁을 준비하였다.
- 1-7** 그 때는 어둠과 암흑의 날이었으며, 환난
과 공군, 재난과 대소동이 땅 위에서 일
어나고 있었다.
- 1-8** 의로운 민족 전체는 자신의 불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혼란에 빠져 이제는 멸망할
것을 각오한 채,
- 1-9** 하느님께 부르짖었다. 그러자 마치 작은
샘에서처럼, 그들의 부르짖음에서 물 많
은 큰 강이 생겨났다.
- 1-10** 빛과 해가 솟아오르고, 비천한 이들이 들
어 높여져 존대받던 이들을 집어삼켜 버
렸다.
- 1-11** 이러한 꿈과 하느님께서 실행하시려고
결정하신 비를 본 모르도카이는 잠에서
깨어나 이를 마음에 간직할 채, 밤늦도
록 모든 것을 날날이 이해하려고 애썼
다.

임금에 대한 음모

- 1-12** 모르도카이는, 임금의 내시로서 어전을
지키는 가바타와 타라 두 사람과 함께
궁에서 쉬고 있었다.
- 1-13** 그때 그는 그들의 계획을 엿듣고서 그
의도를 조사한 끝에, 그들이 크세르크세
스 임금을 해치려 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임금에게 이들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 1-14** 임금이 두 내시를 신문하여 그들이 자백
하자, 그들은 형장으로 끌려 나갔다.
- 1-15** 임금은 이 사건을 잊지 않도록 기록하게
하였으며 모르도카이도 이 사건을 기록
하였다.
- 1-16** 그리고 나서 임금은 모르도카이에게 궁
전에서 봉직하도록 명령하고 이
일에 대하여 선물을 하사하였다.
- 1-17** 그런데 어전에서 존대받는 이로 부계 사
람 함므다타의 아들 하만이 있었는데,
그는 임금의 두 내시 일 때문에 모르도
카이와 그의 민족에게 해를 입하려고 꾀
하였다.

크세르크세스 임금이 잔치를 베푼다

- 1** ¹ 크세르크세스 시대의 일이다. 이 크세
르크세스는 인도에서 에
티오피아까지 이르는 백이십칠
개 주를 다스리고 있었다.
- 2** 크세르크세스 임금이 수사 왕성에 있는 그
의 왕좌에 앉아 있던 때이다.
- 3** 그는 통치 제삼년에 대신들과 시종들을 위
하여 잔치를 베푼다. 페르시아와 메디아
군대 장수들과 각 주의 귀족들과 대신들이
그 앞에 모여들었다.
- 4** 임금은 백팔십 일이라는 오랜 시일에 걸쳐
자기 왕국의 영화로운 부와 자기 권세의 눈
부신 영광을 자랑해 보였다.

- 5 이 기간이 끝나자 임금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수사 왕성에 있는 모든 백성을 위하여 대궐 정원 앞뜰에서 이레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 6 하얀 무명과 생목과 자주색 모직이 아미와 자홍색 끈으로 은 막대와 대리석 기둥에 매여 있고 석고와 대리석과 자개와 흑옥으로 된 바닥에는 금과 은으로 된 평상들이 있었다.
- 7 그리고 임금은 금잔으로 술을 마시게 하였는데, 잔은 제각기 다른 모양이었고 술은 임금에게 걸맞게 낙낙하였다.
- 8 그러나 어명에 따라,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하지는 않았다. 저마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임금이 왕실의 모든 집사에게 분부를 내렸던 것이다.
- 9 한편 와스티 왕비도 크세르크세스 임금의 궁궐에서 부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다.

와스티 왕비가 폐우되다

- 10 일곱째 날 술로 기분이 좋아진 크세르크세스 임금은 므후판, 비즈타, 하르보나, 빅타, 아박타, 제타르, 카르카스 등 자신을 섬기는 일곱 내사에게 명령하여,
- 11 와스티 왕비에게 왕관을 씌워 어전으로 데려오게 하였다. 그의 용모가 어여쁘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백성들과 고관들에게 보여 주려는 것이었다.
- 12 그런데 와스티 왕비는 내사들을 통하여 전달된 임금의 분부를 받들어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임금은 몹시 격분하여 속에서 분노가 타올랐다.
- 13 그래서 임금은 절기를 아는 현인들에게 문의하였다. 임금의 일은 모두 이렇게 어명과 관례에 관한 전문가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관례였다.
- 14 그의 곁에는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일곱 대신인 카르스나, 세타르, 아드마타, 타르시

스, 베레스, 마르스나, 므무칸이 있었다. 이들은 임금의 측근으로서 왕국에서 첫째가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 15 "내사들을 통하여 전달된 이 크세르크세스 임금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법대로 하자면 와스티 왕비를 어떻게 해야 하겠소?" 하고 임금이 물었다.
- 16 그러자 므무칸이 임금과 대신들 앞에서 말하였다. "와스티 왕비는 임금남편이 아니라, 크세르크세스 임금님의 모든 주에 살고 있는 대신들과 백성들 모두에게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 17 이는 왕비의 일이 모든 부녀자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크세르크세스 임금님이 와스티 왕비를 어전으로 데려오도록 명령하셨는데도 왕비는 나오지 않았다.' 하면서, 제 남편들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18 바로 오늘부터 왕비의 일을 들은 페르시아와 메디아 대신들의 부인들이 임금님의 대신들에게 대거러해 나갈 터이니, 경멸과 분노가 넘칠 것입니다.
- 19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왕명을 선포하시고 철회할 수 없도록 페르시아와 메디아 법령에 기록하게 하시어, 와스티가 더 이상 크세르크세스 임금님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시고, 왕비의 자리는 그보다 나은 여인에게 주십시오.
- 20 임금님께서 온 왕국에 내리신 명령을 듣게 되면, 이 명령은 엄중한 것이니, 모든 부녀자들이 위아래 할 것 없이 남편을 공경할 것입니다."
- 21 이 제안이 임금과 대신들의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임금은 므무칸의 말대로 실행하였다.
- 22 모든 남자는 제 집안을 다스려야 하고 자기 민족의 말을 해야 한다는 조서를 임금에게 속한 모든 주에, 각 주의 글과 각 민

족의 말로 써서 내려 보냈다.

에스테르가 왕비가 되다

- 2** ¹ 이런 일들이 있는 뒤, 크세르크세스 임금에 분노가 가리얏자, 와스티와 그의 행동과 그에게 내린 결정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 2** 그러자 임금을 모시는 젊은 사중들이 여쭙었다. "임금님을 위하여 용모가 어여쁜 젊은 처녀들을 찾아내게 하십시오.
- 3** 임금님께서는 왕국의 각 주에 책임관들을 세우시고, 용모가 어여쁜 젊은 처녀들을 수사 왕성의 후궁에 모아들이게 하시어, 궁녀들의 관리인인 임금님의 내시 헤게의 관할 아래 두시고 몸단장을 시키게 하신 다음,
- 4** 임금님 눈에 드는 처녀를 와스티 대신 왕비로 삼으심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은 그 말이 마음에 들어 그렇게 하였다.
- 5** 그때 수사 왕성에 유다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모르도카이이고 벤아민 지파 사람으로, 그의 아버지는 야이르, 할아버지는 시므이, 증조부는 키스였다.
- 6** 그는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사람으로서,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잡아 온 유다 임금 여콘아와 함께 포로로 잡혀 온 이들과 함께 하나였다.
- 7** 그는 자기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테르를 맡아 키우고 있었다. 그에게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처녀는 모습이 아름답고 용모가 어여웠다. 에스테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자 모르도카이는 그를 자기 딸로 맞아들였다.
- 8** 임금의 분부와 어명이 공포되어, 수많은 처녀들이 수사 왕성으로 헤게의 관할 아래 모아 들여질 때, 에스테르도 왕궁으로 들어가 궁녀들의 관리인인 헤게의 관할 아래 있게 되었다.
- 9** 이 처녀는 그의 눈에 들어 총애를 받았다.

헤게는 서둘러 그에게 몸단장에 쓰는 것들과 음식을 주고, 왕궁에서 뽑힌 시녀 일곱을 배정하여 그와 시녀들을 후궁에서 가장 좋은 방으로 옮겨 주었다.

- 10** 그런데 에스테르는 자기의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않았다. 모르도카이가 밝히지 말라고 그에게 명하였기 때문이다.
- 11** 모르도카이는 에스테르가 잘 있는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후궁 뜰 앞을 서성거렸다.
- 12** 처녀들은 후궁 여인들의 규정에 따라 열두 달이 지나면 각자 크세르크세스 임금에게 차례대로 나아가게 되는데, 여섯 달 동안은 몰약 향유로, 나머지 여섯 달 동안은 발삼과 여성용 화장품으로 몸을 다듬었다. 이 기간이 끝나
- 13** 처녀가 임금에게 들어갈 때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갖추어져 후궁에서 왕궁으로 보내졌다.
- 14** 저녁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돌아오는데, 이때는 내명부들을 관리하는 임금의 내시 사아스가즈 관할 아래 다른 후궁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임금이 그를 좋아하여 직접 호명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임금에게 나아가지 못하였다.
- 15** 마침내 아비하일의 딸로서 사촌 모르도카이의 양녀가 된 에스테르가 임금에게 나아가 갈 차례가 되었다. 그런데 그는 궁녀들을 관리하는 임금의 내시 헤게가 정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에스테르는 그를 보는 모든 이들의 귀여움을 받았다.
- 16** 이렇게 에스테르는 궁궐로 크세르크세스 임금에게 불러 가게 되었는데, 그의 통치 제칠년 열째 달인 테벳 달이었다.
- 17** 임금은 다른 어떤 여자보다도 에스테르를 사랑하게 되어, 그는 모든 처녀들보다 임금의 귀여움과 총애를 더 많이 받았다. 임금은 에스테르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그

를 와스티 대신 왕비로 삼았다.

- 18 임금은 대신들과 시종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에스테르의 잔치'를 벌이고, 모든 주에 면세를 베풀며 임금답게 풍성한 선물을 내렸다.

모르도카이가 역적 모의를 밝혀내다

- 19 처녀들이 두 번째로 모집될 때, 모르도카이는 궁궐 대문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 20 에스테르는 모르도카이가 명한 대로 자기의 혈통과 민족을 밝히지 않았다. 모르도카이의 양육을 받을 때처럼 에스테르는 그가 말한 대로 하였다.
- 21 모르도카이가 궁궐 대문에서 근무하고 있을 그때에, 어전지기를 가운데 빅탄과 테레스라는 임금의 내시 둘이 불만을 품고, 크세르크세스 임금을 해치려 꾀하였다.
- 22 이 일이 모르도카이에게 알려져 그는 에스테르 왕비에게 알리고, 에스테르는 이를 모르도카이의 이름으로 임금에게 고하였다.
- 23 이 사건이 조사되어 사실로 드러나자 그 두 사람은 말뚝에 매달리게 되었다. 이 일은 임금 앞에서 궁중 일지에 기록되었다.

새 재상 하만과 모르도카이가 갈등을 빚다

- 3¹ 이런 일들이 있은 뒤, 크세르크세스 임금은 아각 사람 함다타의 아들 하만을 중용하였는데, 그를 들어 올려 자기 곁에 있는 모든 대신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혔다.
- 2 궁궐 대문에서 근무하는 임금의 모든 시종들이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하였으니, 임금이 그렇게 명령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르도카이는 무릎을 꿇으려고도 절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 3 그러자 궁궐 대문에서 근무하는 임금의 시종들이 모르도카이에게, "자네는 왜 임금님의 명령을 거역하는가?" 하고 말하였다.

- 4 그들이 그에게 날마다 권하였지만 모르도카이는 끝내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는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모르도카이의 말이 얼마나 오래가는지 보려고 하만에게 보고하였다.
- 5 하만은 모르도카이가 무릎을 꿇지도 절을 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노기로 가득 찼다.
- 6 그러나 모르도카이 하나만 해치우는 것으로는 눈에 차지 않았다. 모르도카이가 어느 민족인지가 자기에게 보고되자, 하만은 크세르크세스 왕국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몰살하려고 꾀하였다.

하만이 유대인 몰살을 꾀하다

- 7 크세르크세스 임금 제십이년 첫째 달인 니산 달에 하만이 자기 앞에서 푸르 곧 주사위를 각 날과 각 달에 따라 던지게 하니, 열두째 달인 아다르 달이 나왔다.
- 8 그래서 하만은 크세르크세스 임금에게 말하였다. "임금님 왕국의 모든 주에는 민족들 사이에 흠어져 있으면서도 저희들끼리만 떨어져 사는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법은 다른 모든 민족들의 법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임금님의 법마저도 그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을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임금님께 합당치 못합니다.
- 9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그들을 절멸시키라는 글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일반 탈렌트를 달아서 행정관들 손에 넘겨 내탕고에 들여놓게 하겠습니다."
- 10 그러자 임금은 인장 반지를 손에서 빼어, 아각 사람 함다타의 아들, 유대인들의 적 하만에게 건네주었다.
- 11 그리고 임금은 하만에게 말하였다. "은은 그대 차지요 이 민족도 그대가 좋을 대로 처리하시오."
- 12 그리하여 첫째 달 열사흘날에 임금의 서기들이 불러 가 모든 것을 하만이 명령하는

대로 써서, 임금의 총독들과 각 주를 관장하는 지방관들과 각 민족의 대신들에게 보내는 문서를 각 주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작성하였다. 그 문서는 크세르크세스 임금의 이름으로 작성되어 임금의 반지로 봉인되었다.

- 13 그런 다음 파발꾼들 편으로 임금의 각 주에 서신이 발송되었다. 아이와 여자 할 것 없이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대인들을 열두째 달인 아다르 달 열사흘 날 한달에 파멸시키고 죽여서 절멸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라는 것이었다. (13-1) 그 서신의 사본은 이러하다. "크세르크세스 대왕이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는 백이십칠 개 주의 제후들과 그 이하 지방관들에게 이 글을 써 보냅니다. (13-2) 과인은 수많은 민족들을 지배하고 온 세계를 통치하게 되었지만, 권력의 오만함으로 방자하게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항상 더욱 온화하고 관대하게 다스려, 신민들의 삶을 모든 면에서 어떠한 소란도 없이 안정시키고, 왕국을 그 경계선 끝까지 평온하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모든 사람이 열망하는 평화를 회복하라 결심한 바 있습니다. (13-3)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하면 완수할 수 있는지를 과인의 자문관들에게 문의하였더니, 우리 가운데 두드러지게 사려가 깊고 변함없는 호의로 항구한 충성심을 보여 주며 왕궁에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하만이, (13-4) 적대적인 백성 하나가 이 땅의 모든 부족들 사이에 섞여 살고 있는데, 자기들의 법으로 모든 민족들을 거스르고 임금들의 명령을 끊임없이 배척하여, 우리가 흠잡을 데 없이 수행하고 있는 통치가 정립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13-5) 이제 우리는, 이 백성이 혼자서 유별나게 모든 사람과 끊임없이

적대 관계를 이루면서 자기네 법에 따라 기이한 생활 방식으로 떨어져 살며, 우리 일에 나쁜 감정을 품고 극악한 짓들을 저질러, 왕국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3-6) 그래서 과인은 이렇게 명하는 바입니다. 국사를 관장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에게서 제이의 아버지인 하만이 여러분들에게 보낸 문서에 명기된 자들을, 금년 열두째 달인 아다르 달 열사흘날에, 여자와 아이들을 막론하고 모두 인정사정 전혀 불 것 없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로 뿌리째 절멸시켜, (13-7) 예나 지금이나 적대적인 자들이 단 하루에 저승으로 세차게 떨어져서, 앞으로 우리의 국사가 안정과 안녕 속에 수행될 수 있게 하십시오."

- 14 그리고 이 문서의 사본이 각 주에 법령으로 선포되고 모든 민족들에게 공포되어 그 날에 대비하게 하였다.
- 15 파발꾼들은 임금의 분부를 받고 급히 달려나갔다. 어명은 수사 왕성에도 선포되었다. 임금과 하만은 술자리를 가졌지만, 수사 성읍은 혼란에 빠졌다.

모르도카이 에스테르의 개입을 요구하다

- 4 ¹ 모르도카이는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모두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모르도카이는 제 옷을 찢고 자루옷을 입은 다음 재를 뒤집어쓰고, 성읍 한가운데로 가서 대성통곡을 하였다.
- 2 그는 궁궐 대문까지 와서 멈추었다. 자루옷을 입고서는 궁궐 대문을 들어설 수 없었기 때문이다.
- 3 각 주에서도 임금의 분부와 어명이 도착한 곳마다 유대인들은 단식하고, 울고 탄식하며 크게 통곡하였다. 많은 이들이 자루옷을 입고 재 위에 드러누웠다.
- 4 에스테르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와서 에스테

르에게 이 일을 알리자, 왕비는 경악하여 마지않았다. 이어 모르도카이에게 옷가지들을 보내어 자루옷을 벗고 갈아입으라고 하였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5 에스테르는 자기 시중을 들도록 임금이 지명해 준 내시들 가운데 하나인 하탁을 불러, 모르도카이에게 가서 무슨 일이며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6 하탁이 궁궐 때문 앞 성읍 광장에 있는 모르도카이에게로 갔다.

7 모르도카이는 자기가 겪은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들을 절멸시키는 대가로 내탕고에 내놓겠다고 장담한 은전의 정확한 액수까지 밝혔다.

8 그리고 그들을 몰살시키도록 수사에 반포된 칙명서의 사본을 그에게 주면서, 에스테르에게 보여 사정을 알리게 하였다. 또한 임금에게 나아가 자비를 간청하고 자기 민족을 위하여 사정하라는 당부를 에스테르에게 전하게 하였다.

8-1 "왕비는 나의 손에서 자랄 당시의 비천하였던 날들을 생각해 보시오. 임금 다음가는 제이인자 하만이 우리에게 죽음을 선고하였으니, 하나님께 간청하고 임금님께 우리 사정을 말씀드려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하십시오."

9 하탁이 돌아와 에스테르에게 모르도카이의 말을 전하였다.

10 에스테르는 하탁과 이야기하고 나서 모르도카이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였다.

11 "임금님의 모든 시종과 임금님께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로 임금님께 나아간 자에게는 남자든 여자든 오직 한 가지 법 규만이 있으니, 곧 사형입니다. 오직 임금님이 황금 왕홀을 내밀어 주셔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삼십 일 동안이나 임금님께 들도록 부름을 받지 못

한 형편입니다."

12 에스테르의 이 말이 모르도카이에게 전달되자,

13 모르도카이는 에스테르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일렀다. "왕궁에 있다고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왕비만 살아남으리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마시오.

14 그대가 이런 때에 정녕 침묵을 지키다면, 유대인들을 위한 해방과 구원은 다른 데서 일어날 것이오. 그러나 그대와 그대의 아버지 집안은 절멸하게 될 것이오. 누가 알겠소? 지금과 같은 때를 위하여 그대가 왕비 자리에까지 이르렀는지."

15 그러자 에스테르는 모르도카이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일렀다.

16 "가서 수사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 저를 위하여 함께 단식해 주십시오. 사흘 동안 밤이고 낮이고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로 저의 시녀들과 함께 단식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법을 거스르는 것이긴 하지만,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 죽게 되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17 모르도카이는 물러가서 에스테르가 자기에게 부탁한 것을 모두 실행하였다.

모르도카이의 기도

17-1 그리고 주님의 모든 업적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드렸다.

17-2 "주님, 주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임금님! 모든 것이 당신의 권능 안에 있으며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구하고자 하시면 당신을 거스를 자 없습니다.

17-3 당신께서 하늘과 땅, 하늘 아래 놀라운 것들을 모두 만드셨습니다.

17-4 당신은 만물의 주님, 주님이신 당신께 맞설 자 없습니다.

17-5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방자한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음은

제가 고만해서도 오만해서도 명예를 좋아해서도 아님을 주님,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17-6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의 발바닥이라도 가까이 입 맞추었으오리다.

17-7 제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인간의 영광을 하느님의 영광 위에 두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주님이신 당신 말고는 아무에게도 무릎 꿇고 절하지 않으리니 제가 이렇게 함은 고만 때문이 아닙니다.

17-8 이제 주 하느님, 임금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당신의 백성을 돌보아 주소서! 저희를 멸망시키려 눈독을 들이고 예로부터 내려오는 당신의 재산을 파멸시키려 저들이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17-9 이집트 땅에서부터 당신 자신을 위하여 속량하신 당신의 몫을 업신여기지 마소서.

17-10 저의 간청을 들으시어 당신의 가산을 기없이 여기시고 저희의 슬픔을 잔치로 바꾸어 주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살아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오리다. 주님, 당신을 찬미하는 이들의 입을 없애 버리지 마소서."

17-11 온 이스라엘도 함꼐 외쳤다. 죽음이 그들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에스테르의 기도

17-12 에스테르 왕비도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주님께 피신처를 구하였다.

17-13 그는 화려한 의복을 벗고 고녀와 슬픔의 의복을 입었다. 값진 향료 대신 채와 오물을 머리에 뒤집어쓰고, 자기 몸을 거칠게 다루었으며, 즐겨 치장하던 온몸을 헝클어진 머리칼로 덮었다.

17-14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다. "저의 주님, 저희의 임금님 당신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외로운 저를 도와주소서. 당신 말고는 도와줄 이가 없는데

17-15 이 몸은 위험에 닥쳐 있습니다.

17-16 저는 날 때부터 저의 가문에서 들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저희 이스라엘을 모든 조상들 가운데에서 저희 선조들을 영원한 재산으로 받아들이시고 약속하신 바를 채워 주셨음을 들었습니다.

17-17 그러나 이제, 저희는 당신 앞에 죄를 지었고 당신께서는 저희를 원수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17-18 저희가 그들의 신들을 숭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의로우십니다.

17-19 그러나 이제 그들은 저희의 쓰러진 종살이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네 신상들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17-20 이는 당신 입에서 나온 규정을 폐기하고 당신 재산을 없애 버리며 당신을 찬미하는 이들의 입을 틀어막고 당신 집의 영광과 당신 제단을 치위 버리려는 것이며

17-21 다른 민족들이 입을 열어 헛된 우상들을 찬양하고 살덩어리뿐인 임금을 영원히 찬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7-22 주님, 당신의 왕홀을 존재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넘기지 마소서. 저희의 몰락을 그들이 비롯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흥계를 그들 자신에게로 되썩우시어 저희를 거슬러 이 일을 시작한 자를 그 본보기로 삼으소서.

17-23 기억하소서, 주님, 저희 고난의 때에 당신 자신을 알리소서. 저에게 용기를 주소서, 신들의 임금님, 모든 권세의 지배자시여!

- 17-24 사자 앞에 나설 때 잘 조화된 말을 제 입에 담아 주시고 그의 마음을 저희에게 대적하는 자에 대한 미움으로 바꾸시어 그 적대자와 동조자들이 끝장나게 하소서.
- 17-25 당신 손으로 저희를 구하시고 주님, 당신밖에 없는 외로운 저를 도우소서.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 17-26 제가 무법자들의 영광과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모든 이민족들의 잠자리를 경멸함을 알고 계십니다.
- 17-27 당신께서는 저의 곤경을 아십니다. 제가 공식 석상에 나가는 날 머리에 쓰는 제 위엄의 상징을 경멸함을 아십니다. 저는 그것을 개집처럼 경멸하여 쉬는 날에는 쓰지도 않습니다.
- 17-28 당신의 여종은 하만의 식탁에서 함께 먹지 않았고 임금의 연회를 영예롭게 하지도 않았으며 신들에게 바친 술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 17-29 또한 당신의 여종은 여기로 옮기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아니고서는 기뻐한 적이 없습니다. 주 아브라함의 하느님!
- 17-30 만물 위에 권능을 펼치시는 하느님 절망에 빠진 이들의 소리를 귀여겨들으시어 악인들의 손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또한 이 두려움에서 저를 구하소서."

에스테르가 임금 앞에 나아가다

- 5¹ 사흘째 되는 날, 에스테르는 왕비의 정장을 하고서 왕궁을 마주 보고 그 앞뜰에 섰다. 임금은 궁궐 안 왕좌에 대문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다.
- 2 에스테르 왕비가 뜰에서 있는 것을 임금이 보고 그를 귀엽게 여겼다. 그래서 임금이 자기 손에 든 황금 왕홀을 그에게 내밀자, 에스테르는 가서 왕홀 끝에 손을 대었다.

- 1-1 사흘째 되는 날, 기도를 마친 에스테르는 기도복을 벗고 화려한 옷을 입었다.
- 1-2 그는 호화롭게 차려입고서, 모든 것을 보시는 구원자 하느님께 간청한 뒤, 두 시녀를 데리고 나섰다.
- 1-3 그리고 기운이 없는 듯 한 시녀에게 몸을 기대자,
- 1-4 다른 시녀가 그의 옷자락을 받쳐 들고 뒤를 따랐다.
- 1-5 홍조를 띤 에스테르는 지극히 아름다웠다. 그의 얼굴은 사랑받는 여인처럼 화사했지만, 마음은 두려움으로 조여들었다.
- 1-6 에스테르는 문들을 모두 지나서 임금 앞에 섰다. 임금은 온통 금과 보석으로 번쩍이는 이리로 성장하고 자기 왕국의 왕좌에 앉아 있었는데, 그는 보기에도 두려운 모습이었다.
- 1-7 그가 영광으로 빛나는 얼굴을 들고 지극히 노여운 눈으로 쳐다보자, 왕비는 실신하여 쓰러지면서 책방한 얼굴로, 앞서 가는 시녀의 머리에 몸을 기대었다.
- 1-8 그때 하느님께서 임금의 영을 부드럽게 바꾸어 놓으시자, 임금은 깜짝 놀라 왕좌에서 벌떡 일어나 왕비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그를 팔에 안았다. 그러고서는 다정한 말로 위로하며
- 1-9 말하였다. "에스테르, 웬일이요? 나는 당신의 오라버니요. 안심하오.
- 1-10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요. 우리의 범규는 평민들을 위한 것이니."
- 1-11 다가오시오."
- 1-12 그러고는 황금 왕홀을 들어 에스테르의 목에 댄 다음 그를 껴안아 입 맞추고 말하였다. "나에게 말해 보오."
- 1-13 에스테르가 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 저에게는 임금님이 하느님의 친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영광에 대한 두려움으로 저의 마음은 혼란에 빠졌

습니다.

- 1-14 임금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임금님, 또한 임금님의 얼굴은 인자하심으로 충만합니다."
- 1-15 에스테르는 이렇게 말하다가 실신하여 쓰러졌다.
- 1-16 그러자 임금은 깜짝 놀라고 그의 시종들은 모두 왕비를 위로하였다.
- 3 임금이 그에게 말하였다. "에스테르 왕비, 무슨 일이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यो? 왕국의 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소."
- 4 그러자 에스테르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제가 하만을 위하여 마련한 연회에 임금님께서 오늘 그와 함께 와 주셨으면 합니다."
- 5 이에 임금은 "에스테르의 말대로 할 터이니 하만을 곧바로 데려오나라." 하고 분부를 내렸다. 이렇게 해서 임금과 하만은 에스테르가 마련한 연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 6 술을 마시면서 임금이 에스테르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यो? 그대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यो? 왕국의 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소."
- 7 에스테르가 대답하였다. "저의 소청과 저의 소원을 말하라 하십니까?"
- 8 제가 임금님의 눈에 들어, 임금님께서 기꺼이 저의 소청을 들어주시고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면, 제가 마련하는 연회에 임금님께서 하만과 함께 다시 와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내일 임금님의 분부대로 하겠습시다."
- 9 그날 하만은 기쁘고 흐뭇한 마음으로 자리를 물러 나왔다. 그런데 하만이 궁궐 대문에서 모르도카이틀 보았는데, 그가 자기 앞에서 일어서지도 않고 경의도 표하지 않자, 하만은 모르도카이에 대한 노기로 가득 찼다.

교만한 하만이 복수심에 불타

- 10 그러나 하만은 꼭 참고 집에 돌아가 친구들과 자기 아내 제레스를 불러오게 하였다.
- 11 하만은 그들에게 자기의 막대한 재산과 자식이 많은 것을 자랑하고, 임금이 자기를 영예롭게 해 준 모든 것이며 임금의 모든 대신과 시종들보다 높은 지위에 올려 준 것을 자랑스케 이야기하였다.
- 12 그리고 덧붙여 말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에스테르 왕비는 손수 마련한 연회에 나만 임금님과 함께 오도록 했다고. 게다가 나는 내일도 임금님과 함께 그분께 초대를 받았소."
- 13 그렇지만 유대인 모르도카이가 궁궐 대문에서 근무하는 것을 보는 한, 이 모든 것이 내게는 만족스럽지 않소."
- 14 그러자 그의 아내 제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이 말하였다. "높이 선 자찌리 말뚝을 만들어, 내일 아침에 임금님께 말씀드려서 모르도카이를 거기에 매달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임금님과 함께 기쁘게 연회에 가십시오." 이 제안이 하만의 마음에 들어 말뚝을 만들게 하였다.

모르도카이가 영광을 본다

- 6¹ 그날 밤 임금은 잠이 오지 않아 주요 사건을 기록하는 일지를 가져와서 읽게 하였다.
- 2 그러자 어전지기들 가운데 크세르크세스 임금을 해치려 꾀하였던, 박탄과 테레스라는 임금의 내시 둘을 모르도카이가 고발하였다는 기록이 발견되었다.
- 3 "이 일로 해서 모르도카이에게 무슨 영예와 영광이 베풀어졌느냐?" 하고 임금이 묻자, 임금을 모시는 젊은 시종들이 "그에게 아무 것도 베풀어지지 않았습시다." 하고 대답하였다.
- 4 그러자 임금은 "뜰에 누가 있느냐?" 하고

물었다. 때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말뚝에 모르도카이를 매달기 위하여 임금께 청하려고 왕궁 바깥뜰에 들어섰다.

5 그래서 임금의 젊은 시종들이 그에게 "하만이 뜰에서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임금이 "들어오게 하여라." 하고 분부하였다.

6 하만이 들어서자 임금이 그에게 "임금이 영예롭게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어야 하겠소?" 하고 묻자, 하만은 '임금님께서 나 말고 누구에게 영예를 베풀고 싶어하시라?' 하고 속으로 생각하였다.

7 그래서 하만은 임금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영예롭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8 임금님께서 입으시던 어의와 임금님께서 타시던 말을 내오게 하시어 그 말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게 하신 다음,

9 의복과 말을 임금님의 가장 고귀한 대신의 손에 들려 보내시어, 임금님께서 영예롭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임하고 그 말에 태워 성읍 광장을 돌게 하면서, '임금님께서 영예롭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고 그 앞에서 외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0 그러자 임금이 하만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말한 대로, 어서 그 의복과 말을 내어다가 궁궐 대문에서 근무하는 유대인 모르도카이에게 그렇게 실행하시오. 그대가 말한 것 가운데에서 하나도 빼뜨리지 마시오."

11 그래서 하만은 그 의복과 말을 내어다가, 모르도카이에게 의복을 입히고 그를 말에 태워 성읍 광장을 돌게 하면서, "임금님께서 영예롭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고 그 앞에서 외쳤다.

12 그런 다음 모르도카이는 궁궐 대문으로 돌아가고, 하만은 슬퍼하면서 머리를 감싼 채 급히 자기 집으로 갔다.

13 하만은 아내 제레스와 자기의 모든 친구들에게 자기가 당한 일을 죄다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의 고문들과 아내 제레스가 말하였다. "모르도카이가 유다족 출신이라면, 이제 그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한 대감은 그에게 대적할 수 없을뿐더러, 그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만이 몰락하다

14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임금의 내시들이 들어와서 에스테르가 마련한 연회에 하만을 급히 데리고 갔다.

7¹ 그리하여 임금과 하만은 에스테르 왕비의 연회에 함께 갔다.

2 임금은 이 둘째 날에도 술을 마시면서 에스테르에게 말하였다. "에스테르 왕비,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오? 그대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오? 왕국의 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소."

3 그러자 에스테르 왕비가 대답하였다. "아, 임금님, 제가 임금님의 눈에 들고 또한 임금님도 좋으시다면, 제 목숨을 살려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소청입니다. 아울러서 제 민족을 살려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4 사실 저와 제 민족은 파멸되고 죽음을 당하고 절멸되도록 이미 팔려 나간 몸들입니다. 만일 저희가 남종과 여종으로 팔려 나갔다고만 해도 저는 입을 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임금님을 성가시게 해 드릴 만큼 큰 위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 크세르크세스 임금이 에스테르 왕비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그자가 누구요?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은 그자가 어디 있소?"

6 에스테르가 "그 적과 원수는 이 사악한 하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하만은 임금과 왕비 앞에서 경악하였다.

7 임금은 격분하여 술자리를 차고 일어나 대궐 정원으로 나갔다. 하만은 에스테르 왕비

- 에게 목숨을 살려 달라고 애원하려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자기에게 다쳐올 불운을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 8 임금이 대궐 정원에서 연회석으로 돌아왔을 때, 하만은 에스테르가 있는 평상 위에 쓰러져 있었다. 이에 임금이 말하였다. "이자는 내가 집에 있는데도 왕비를 폭행하려 하는가?" 임금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의 얼굴이 가려졌다.
- 9 내시들 가운데 하나인 하르보나가 임금 앞에서 말하였다. "마침 말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임금을 위하여 유익한 보고를 한 적이 있는 모르도카이를 노려 하만이 마련한 것인데, 하만의 집에 서 있으며 높이는 선 자가 됩니다." 그러자 임금이 "그자를 그 위에 매달아라." 하고 명령하였다.
- 10 사람들은, 하만이 모르도카이를 노려서 세운 바로 그 말뚝에 그를 매달았다. 그제야 임금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8 ¹ 그날 크세르크세스 임금은 에스테르 왕비에게 유대인들의 적 하만의 집을 하사하였다. 그리고 모르도카이는 어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에스테르가 자기와 그의 관계를 밝혔기 때문이다.

- 2 또한 임금은 하만에게서 회수한 인장 반지를 빼어 모르도카이에게 주고, 에스테르는 모르도카이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였다.

유대인들을 위한 칙령이 내린다

- 3 에스테르는 다시 임금 앞에 나아가 말하였다. 그는 임금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아각 사람 하만이 만들어 낸 제앙과 유대인들을 없애려고 꾸며 낸 음모를 제거해 달라고 애원하였다.
- 4 임금이 에스테르에게 황금 왕홀을 내밀자 에스테르는 일어나 임금 앞에 서서

- 5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제가 임금님의 눈에 들고 이 일이 임금님께 옮겨 여겨지며 제가 임금님 보시기에 좋다면, 아각 사람 함므다타의 아들 하만의 음모, 곧 그가 임금님의 모든 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절멸시키려고 써 보낸 칙령을 취소하는 명령을 작성하게 해 주십시오.
- 6 제 민족에게 다쳐온 이 제앙을 제가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 친척들의 몰락을 제가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 7 크세르크세스 임금이 에스테르 왕비와 유대인 모르도카이에게 말하였다. "자, 보시오, 나는 하만의 집을 에스테르에게 하사하였고, 더군다나 그자는 유대인들을 해치려 하였기 때문에 말뚝에 매달았소.
- 8 이제 그대들은 유대인들에 관하여 그대들에게 좋을 대로 임금의 이름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임금의 인장 반지로 봉인하십시오. 임금의 이름으로 작성되고 임금의 인장 반지로 봉인된 문서는 취소할 수 없소."
- 9 이어 바로 그 시간, 셋째 달인 시완 달 스무 사흘날 임금의 서기들이 소집되어,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는 백이십칠 개 주에 있는 유대인들과 총독들과 지방관들과 주의 대신들에게 보내는 문서들이, 각 주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글과 말로 모르도카이가 명령하는 대로 작성되었다.
- 10 이렇게 그는 크세르크세스 임금의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임금의 인장 반지로 봉인하여, 서신들을 말 탄 파발꾼들 곧 혈통 좋은 종마 태생인 왕실 역마를 탄 사람들 손에 들려 발송하였다.
- 11 이로써 임금은 각 도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한데 모여서 자기들의 목숨을 지키도록 봉기하고, 그들에게 대적하는 민족과 각 주의 무장한 무리들을 어린이와 여자

- 할 것 없이 파멸시키고 죽여서 절멸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도록 율허하였다.
- 12 그리고 이 일은 크세르크세스 임금의 모든 주에서 열두째 달인 아다르 달 열사흘날 한달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 12-1 아래의 글은 그 서신의 사본이다. "크세르크세스 대왕이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는 백이십칠 개 주의 제후들과 우리의 일을 염려하는 이들에게 인사합니다.
- 12-2은인들에게서 최고의 은혜를 입어 너무나 자주 영광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더욱 높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 12-3이들은 우리의 신민들을 해치려 꾀할 뿐만 아니라, 과다한 행운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네 은인들에 대하여 음모를 꾸미려 듭니다.
- 12-4이들은 사람들에게서 감사하는 마음을 없애 버릴 뿐만 아니라, 선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자들의 아첨으로 우쭐해져서, 항상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느님의 정의, 악을 징벌하시는 정의를 피할 수 있으리라 여깁니다.
- 12-5흔히 권좌에 앉게 된 많은 이들이 친구들에게 국사를 관장하도록 위임하고 그들의 권유를 따르다가 무죄한 이들의 죄에 대한 공범이 되어 구제할 길 없는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 12-6그 친구들이 악의에 찬 속임수로 통치자들의 순수한 선의를 음흉스레 기만하기 때문입니다.
- 12-7우리에게 전해지는 매우 오래된 역사적 사건들이 아니더라도, 바로 여러분 곁에서 일어난 사건, 곧 가당치 않게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의 간악한 행실의 결과에 주의를 기울일 때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 12-8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평화로운 왕국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도록 유념할 것입니다.
- 12-9이는 개혁을 추진하고 우리에게 검토하도록 제기되는 사항들을 더욱 관대한 처사로 판단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입니다.
- 12-10사실 페르시아와는 혈통이 전혀 다르고 우리 페르시아인들의 선함과도 거리가 먼 마케도니아 사람, 함므다타의 아들 하만은 우리들에게서 손님으로 환대를 받았습시다.
- 12-11그는 우리가 모든 민족들에 대하여 지니는 박애 정신의 혜택을 입어, 결국 우리의 아버지로 선포되고 왕좌의 제이 인자가 되어, 모든 이들이 그에게 계속 없도록 절하게까지 되었습니다.
- 12-12그런데도 그자는 자기의 교만을 자제하지 못하고 우리에게서 왕권과 생명을 앗아 가려고 꾀하였습니다.
- 12-13그리고 계교에 찬 교활한 속임수로, 우리의 구원자이며 한결같은 은인 모르도카이와 우리 왕위의 흠 없는 동반자 에스테르를 그들의 동족 전체와 함께 파멸시키도록 요구하였습니다.
- 12-14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고립시켜 페르시아인들의 주권을 마케도니아인들에게 넘겨주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 12-15그러나 우리는 이 악랄하기 짝이 없는 죄인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구렁으로 내던져진 유대인들은 범법자들이 아니라 대단히 올바른 법규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임을 압니다.
- 12-16이들은 가장 높으시고 더없이 위대하시며 항상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위하여 우리의 왕국을 최선의 상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 12-17그러므로 여러분은 함므다타의 아들 하만이 발송한 서신의 내용대로 실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12-18 만물의 지배자 하느님께서 지체 없이 그에게 합당한 징벌을 내리시어, 이 모든 것을 꾸며 낸 자가 가족 전체와 함께 수사 성문 가에서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 12-19 여러분은 이 서신의 사본을 각처에 공개적으로 내걸어 유대인들이 자기네 관습을 따를 수 있게 하고,
- 12-20 열두째 달인 아다르 달 열사흘날에 곤경에 처한 자신들에게 손을 대는 자들을 바로 그날 격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12-21 만물의 통치자 하느님께서 이날을, 선택된 민족을 위하여 파멸 대신 환희의 날로 만드셨습니다.
- 12-22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날을 여러분의 기념 축일들 가운데 특별한 날로 정하여 온갖 잔치를 벌여 경축하십시오.
- 12-23 그리하여 오늘 이후로 이날이 우리와 선의의 페르시아인들에게는 구원을, 우리를 거슬러 역적 모의를 한 자들에게는 멸망을 기억하는 날이 되게 하십시오.
- 12-24 어떤 도시든 시골이든 이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곳은 모두 무자비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나다닐 수 없는 곳이 될 뿐만 아니라, 아수와 새들에게도 지극한 미움의 대상으로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 13 이 문서의 사본이 각 주에서 어명으로 공포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져서, 유대인들이 자기네 원수들에게 복수하도록 이날에 대비하게 하였다.
- 14 왕실 역마를 탄 파발꾼들이 임금의 분부에 따라 급히 서둘러 떠났다. 이 어명은 수사 왕성에도 공포되었다.
- 15 모르도카이는 자주색 모직과 하얀 천으로

된 왕실 의복에 커다란 금관을 쓰고 아파와 자홍색 양모로 된 겹옷을 입고 어전에서 물러 나왔다. 수사 성읍은 환호하며 기뻐하였다.

- 16 이는 유대인들에게 광명과 기쁨, 즐거움과 영예가 되었다.
- 17 그리고 모든 주와 모든 도시, 임금의 분부와 어명이 당도한 곳에서는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으며, 그날은 잔치와 경축의 날이 되었다. 그 땅의 민족들 가운데에서 많은 이들이 유대인으로 자처하였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승리하고 복수하다

- 9¹ 임금의 분부와 그의 어명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던 열두째 달인 아다르 달 열사흘날, 유대인의 원수들이 그들을 제압하리라 기대하던 그날에, 도리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압하게 되었다.
- 2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해를 입히려고 꾀하는 자들을 해치우기 위하여, 크세르크세스 임금에게 속하는 모든 주에서 각기 도시별로 모였다. 모든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에게 맞서지 못하였다.
- 3 각 주의 대신들과 총독들과 지방관들은 물론 임금의 행정관들이 모르도카이를 두려워한 까닭에 모두 유대인들을 지지하였다.
- 4 이는 모르도카이가 왕실에서 막강해지고 그의 명성이 모든 주에 퍼져 나갔기 때문이다. 사실 모르도카이라는 사람은 점점 더 막강해져 갔다.
- 5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네 원수들을 모두 칼로 내리치고 죽이고 절멸시켰으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마음대로 처리하였다.
- 6 유대인들은 수사 왕성에서 오백 명을 죽여

- 없었다.
- 7 또한 파르산다타와 달폰과 아스파타,
8 포라타와 아달아와 아리다타,
9 파르마스타와 아리사이와 아리다리와 와이 자타,
10 곧 함므다타의 아들, 유대인들의 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다. 그러나 재물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 11 수사 왕성에서 살해된 자들의 수가 그날로 임금에게 보고되자,
12 임금이 에스테르 왕비에게 말하였다. "유대인들은 수사 왕성에서만도 오백 명과 하만의 열 아들을 죽여 없앴소. 그러나 임금의 나머지 속주들에서는 어땠겠소?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었오? 그대에게 이루어질 것이오, 그대의 또 다른 소원이 무엇이었오? 그대에게 채워질 것이오."
- 13 그러자 에스테르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수사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어명에 따라 행한 것처럼 내일도 실행할 수 있도록 윤허해 주시고, 하만의 열 아들을 말뚝에 매달게 해 주십시오."
- 14 임금이 그렇게 하도록 분부하자, 수사에 어명이 공포되고 하만의 열 아들은 나무에 매달렸다.
- 15 수사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다르 달 열나흘 날에도 다시 모여 수사에서 삼백 명을 죽였다. 그러나 재물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 16 임금의 속주에 사는 나머지 유대인들도 한데 모여서 자기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봉기하여, 자기네 원수들에게서 평안을 되찾았다. 그들은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 가운데서 칠만 오천 명을 죽였다. 그러나 재물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 17 이는 아다르 달 열사흘날에 일어난 일이다. 그들은 열나흘날에는 쉬면서 그날을 잔치와 기쁨의 날로 지냈다.
- 18 수사에 있는 유대인들은 열사흘날과 열나

흘날에 모였기 때문에 열닷셋날에는 쉬면서 그날을 잔치와 기쁨의 날로 지냈다.

- 19 성벽이 없는 마을에 사는 시골 유대인들은 아다르 달 열나흘날을 기쁨과 잔치와 경축의 날로 지내면서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었다. (19-1) 그러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아다르 달 열닷셋날에 이웃들에게 음식을 보내며 그날을 기쁘고 좋은 날로 지냈다.
- 20 모르도카이는 이 일을 기록하고, 임금의 모든 속주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가까이 있던 멀리 있던 서신을 보내어,

푸림절을 제정하다

- 21 그들이 해마다 아다르 달 열나흘날과 열닷셋날을 축일로 지내도록 확정하였다.
- 22 이날은 유대인들이 원수들에게서 평안을 되찾은 날이고, 이 달에 근심이 기쁨으로, 애도가 경축의 날로 바뀌었으니, 이날을 잔치와 기쁨의 날로 지내면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가난한 이들에게 선물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 23 고려하여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미 실행하기도 하고 모르도카이가 써 보내기도 한 바를 풍속으로 받아들였다.
- 24 아카 사람 함므다타의 아들, 모든 유대인들의 적 하만이 유대인들을 절멸시키려는 음모를 꾸며,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절멸시키려 푸르 곧 주사위를 던졌었다.
- 25 그런데 이 일이 임금에게 보고되자, 임금은 서면으로, 하만이 유대인들을 없애려고 꾸민 그 악한 음모가 그 자신에게 되썩워지고 그와 그의 아들들을 말뚝에 매달도록 분부하였던 것이다.
- 26 그래서 이날들을 푸르라는 말에 따라 푸림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모르도카이가 보낸 서한의 말과 자신들이 이와 관련하여 직접 보고 겪은 것 때문에,

- 27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후손들 그리고 그들에게 귀화한 모든 이들에게, 해마다 이 두 날을 쓰여진 대로 그리고 정해진 때에 따라 축일로 지내도록, 거스를 수 없는 규정으로 확정 짓고 풍속으로 받아들였다.
- 28 이남들은 모든 세대에 걸쳐 각 가문과 각 주와 각 도시에서 기념하여 지내게 되었으며, 이 푸림절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 기억은 후손들 사이에서 결코 끊이지 않게 된 것이다.
- 29 아비하일의 딸 에스테르 왕비와 유대인 모르도카이이는 이 두 번째 푸림에 관한 서한의 내용을 의무로 확정 짓고자 모든 권한을 다하여 글을 써서,
- 30 그 서신들을 크세르크세스 왕국의 백이십칠 개 주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평화와 진실의 말과 함께 보냈다.
- 31 이는 유대인 모르도카이와 에스테르 왕비가 그들에게 확정하여 준 대로, 그리고 그들이 단식과 통곡과 관련해서 그들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확정한 대로, 정해진 때에 이 푸림절을 지내도록 재차 확정하는 것이었다.
- 32 이렇게 에스테르의 명령에 따라 푸림절 규정이 확정되었고, 또 이것은 책에 기록되었다.

모르도카이가 위대한 인물이 되다

- 10 ¹ 크세르크세스 임금은 육지와 바다의 섬들에 조공을 부과하였다.
- 2 그의 강력하고 막강한 업적과 임금이 중용한 모르도카이의 위대함에 관한 자세한 사항들은 실제로 메디아와 페르시아 임금들의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 3 사실, 유대인 모르도카이이는 크세르크세스 임금 다음가는 제1인자였으며, 자기 백성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 동족 전체의 평화를 역설하여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동포들에게서 사랑을 받았다.

모르도카이가 꿈의 해석

- 3-1 모르도카이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모든 일은 하느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 3-2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내가 본 꿈을 기억해 보면 그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지지 않았다.
- 3-3 강이 된 그 조그만 샘, 거기에는 빛과 해와 많은 물이 있었는데, 그 강은 임금님께서 결혼하여 왕비로 삼으신 에스테르이다.
- 3-4 두 마리 용은 나와 하반이다.
- 3-5 민족들은 유대인들의 이름을 말살하려고 결탁한 자들이다.
- 3-6 나의 민족, 그것은 이스라엘 곧 하느님께 부르짖어 구원된 사람들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모든 악에서 건져 주셨다. 하느님께서는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일어난 적이 없는 커다란 표징과 기적들을 일으키셨다.
- 3-7 이는 그분께서 두 가지 운명을 만드시어, 하나는 하느님의 백성에게, 다른 하나는 모든 이민족들에게 정해 놓으신 까닭이다.
- 3-8 그래서 심판의 시간, 그때와 그날에 이 두 가지 운명이 하느님 앞에 그리고 모든 민족들 사이에 나타나자,
- 3-9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당신 재산의 정당함을 밝히셨다.
- 3-10 그러므로 아다르 달의 이남, 곧 이달 열 나흘날과 열닷셋날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대대로 영원히 하느님 앞에서 모임을 갖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내는 날이 될 것이다."

불임 말

- 3-11 프톨레마이오스와 클레오파트라의 동치 제사년에, 스스로 사제이며 레위 집안

사람이라고 말하는 도시테오스와 그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가 푸림 축일에 관한 위의 서신을 가져왔다. 그들은 서신이 틀림없는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하나인 프톨레마이오스의 아들 리시마코스가 번역하였다고 말하였다.

구약성경 - 20

역사서 - 15

마카베오기상

총 16 장

총 924 절

[구약성경]-[마카베오기 상권]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그 후계자들

1 ¹ 키팀 땅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으로, 필리포스의 아들인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인들과 메디아인들의 임금 다리우스를 쳐부순 다음, 그 대신 왕위에 올랐다. 그 이전에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를 다스리고 있었다.

2 그는 많은 전쟁을 치르고 요새들을 점령하고 세상의 임금들을 죽였다.

3 알렉산드로스는 땅 끝까지 진격하여 많은 민족에게서 전리품을 차지하였다. 세상이 그 앞에서 평온해지니 그는 마음이 우쭐하고 오만해졌다.

4 그가 막강한 군대를 모아 여러 지방과 민족과 통치자를 굴복시키자, 그들은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5 그 뒤에 알렉산드로스는 앓아 눕게 되자 죽음이 닥친 것을 알고는,

6 젊은 시절부터 함께 자란 대장군들을 불러, 죽기 전에 자기 나라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7 알렉산드로스는 열두 해를 다스리고 죽었다.

8 그의 장군들은 저마다 자기 영토를 다스렸다.

9 그들은 그가 죽은 뒤에 모두 왕관을 쓰고, 그들의 자손들도 그 뒤를 이어 오랫동안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세상을 악으로 가득 채웠다.

유대인들이 이민족의 풍습을 따르다

10 그들에게서 죄의 뿌리가 나왔는데, 그가 안티오코스 임금의 아들로서 로마에 인질로 잡혀갔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이다. 그는 그리스 왕국 백삼십칠년에 임금이 되었다.

11 그 무렵에 이스라엘에서 변절자들이 생겨 많은 이들을 이러한 말로 피었다. "자, 가

서 우리 주변의 민족들과 계약을 맺읍시다. 그들을 멀리하고 지내는 동안에 우리는 제 난관 슬하게 당했을 뿐이오."

12 이 말이 마음에 들어,

13 백성 가운데 몇 사람이 임금에게 기꺼이 나아가자, 그는 그들에게 이민족들의 규정을 따라도 좋다는 허락을 내렸다.

14 그리하여 그들은 이민족들의 풍습에 따라 예루살렘에 경기장을 세우고,

15 할례 받은 흔적을 없애고 거룩한 계약을 저버렸다. 이렇게 그들은 이민족들과 한통속이 되어 악을 저지르는 데에 열중하였다.

안티오코스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차다

16 안티오코스는 자기 왕국이 튼튼해지자, 이집트 땅까지 지배하여 두 나라의 임금이 되려고 작정하였다.

17 그는 강력한 군대와 병거와 코끼리, 그리고 큰 함대를 이끌고 이집트로 쳐들어갔다.

18 그가 이집트 임금 프톨레마이오스와 전투를 벌이자, 프톨레마이오스는 그 앞에서 몸을 돌려 달아나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어 쓰러졌다.

19 안티오코스는 이집트 땅의 요새 성읍들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전리품을 거두었다.

20 백삼십삼년에 이집트를 쳐부순고 돌아가면서, 안티오코스는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21 그는 거드럭거리며 성소에 들어가 금 제단, 등잔과 그것에 딸린 모든 기물,

22 제사상과 잔, 대접과 금항로, 휘장과 관을 내오고, 성전 정면에 썩어져 있던 금장식을 모두 벗겨 냈다.

23 또 은과 금, 값진 기물들과 값속이 간직되어 있던 보물들을 찾아냈다.

24 그는 마구 살육을 저지르고 오만불손한 말을 한 다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나

라로 돌아갔다.

- 25 이스라엘 곳곳에는 큰 슬픔이 일어
 26 지도자들과 원로들은 탄식하고 처녀 총각들은 기운을 잃었으며 여인들의 이름다움은 사라져 갔다.
 27 신랑들은 모두 탄식을 쏟고 신방에 앉아 있는 신부들은 슬픔에 잠겼다.
 28 땅도 그 주민들 때문에 떨고 야곱의 온 집안은 수치로 뒤덮였다.

인티오코스가 유대인들을 박해하다

- 29 아테 뒤 임금이 유대의 성읍들에 조공 징수관을 파견하니, 그자가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30 그가 평화로운 말로 주민들을 속이자 그들은 그를 믿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그 도성을 습격하여 큰 타격을 입히고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죽였다.
 31 또한 이 도성을 약탈한 다음 불을 지르고 집들과 주위의 성벽을 허물었다.
 32 그의 군대는 또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고 가축을 빼앗았다.
 33 그러고 나서 그들은 튼튼한 성벽을 높이 쌓고 견고한 탑을 세워 다윗 성을 재건하고, 자기들의 성채로 삼았다.
 34 그리고 죄 많은 족속과 변절자들을 그 안에 배치시켰다. 이들은 거기에 굳게 자리 잡은 뒤,
 35 무기와 양식을 저장하고 예루살렘에서 거둔 전리품을 쌓아 두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큰 위협이 되었다.
 36 그곳은 성소를 위협하는 복병이 되고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흉악한 원수가 되었다.
 37 그들은 성소 둘레에서 무고한 피를 흘려 성소를 더럽혔다.
 38 그들 때문에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달아나 예루살렘이 이민족들의 거처가 되고 제고장 사람들에게 낯선 곳이 되어 버렸다. 예

루살렘의 자녀들이 제 땅을 버리고 떠나갔다.

- 39 예루살렘 성소는 광아처럼 황폐해지고 축제일은 슬픔으로 변하였으며 안식일은 조롱거리가 되고 그 명에는 치욕이 되어 버렸다.
 40 그 수치는 이제 지난날의 영광만큼이나 커지고 그 고고함은 슬픔으로 바뀌었다.

인티오코스가 유대교를 박해하다

- 41 임금은 온 왕국에 칙령을 내려, 모두 한 백성이 되고
 42 자기 민족만의 고유한 관습을 버리게 하였다. 이민족들은 모두 임금의 말을 받아들였다.
 43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이들이 임금의 종교를 좋아하여,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안식일을 더럽혔다.
 44 임금은 사신들을 보내어 예루살렘과 유대의 성읍들에 이러한 칙서를 내렸다. 유대인들이 자기 고장에 낯선 관습을 따르게 할 것.
 45 성소에서 번제물과 희생 제물과 제주를 바치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과 축제를 더럽힐 것.
 46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47 이교 제단과 신전과 우상을 만들고, 돼지와 부정한 짐승을 희생 제물로 바칠 것.
 48 그들의 아들들을 할례 받지 못하게 하고, 온갖 부정한 것과 속된 것으로 그들 자신을 혐오스럽게 만들도록 할 것.
 49 그리하여 율법을 잊고 모든 규정을 바꾸게 할 것.
 50 임금의 말대로 하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
 51 임금은 자기의 온 왕국에 이렇게 모든 칙령을 내리고, 온 백성을 감시할 감독관들을 세웠다. 또 유대의 성읍들에는 각 성읍

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하였다.

- 52 백성 가운데 많은 이들이 저마다 율법을 저버리고 감독관들에게 동조하여, 이 땅에서 나쁜 것들을 저질렀다.
- 53 감독관들은 이스라엘인들이 숨을 곳을 찾아 온갖 피난처로 떠나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 54 백사십오년 키슬레우 달 열닷셋날, 안티오코스는 번째 제단 위에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을 세웠다. 이어서 사람들이 주변의 유다 성읍들에 제단을 세우고,
- 55 집 대문이나 거리에서 향을 피웠다.
- 56 율법서는 발견되는 대로 찢어 불태워 버렸다.
- 57 계약의 책을 가지고 있다가 들키거나 율법을 따르는 이는 누구든지 왕명에 따라 사형에 처하였다.
- 58 그들은 이렇게 모든 성읍에서 달마다 눈에 띄는 대로 이스라엘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곤 하였다.
- 59 매달 스무닷셋날에는 번째 제단 위에 있는 단에서 희생 제물을 바쳤다.
- 60 제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푼 부인들은 왕명에 따라 사형에 처하고,
- 61 그 젓먹이들은 그들의 목에 매달았다. 그들의 집안 사람들과 또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푼 이들까지 매달았다.
- 62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이들도 많았다.
- 63 그들은 음식으로 더럽혀지거나 거룩한 계약을 모독하느니 차라리 죽기로 작정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 갔다.
- 64 크나큰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내린 것이다.

마타티아스와 그의 다섯 아들

2 ¹ 그 무렵에 요아킴 가문의 사제로서, 사메온의 손자이며 요하난의 아들인 마타티아스가 예루살렘을 떠나 모데인에 자

리를 잡았다.

- 2 그에게는 아들이 다섯 있었는데, 가디라고 하는 요하난,
- 3 타찌라고 하는 시몬,
- 4 마카베오라고 하는 유다,
- 5 하우이란이라고 하는 엘아자르, 그리고 아푸스라고 하는 요나탄이다.
- 6 마타티아스는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 7 이렇게 말하였다. "아! 슬프다. 나는 왜 태어나서 내 백성이 망하고 거룩한 도성이 망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가? 사람들은 그곳이 원수들 손에 넘어가고 성소가 이민족들 손에 넘어갈 때 그냥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네.
- 8 성전은 불품없는 남자처럼 되고
- 9 영광스러운 기물들은 노략질을 당하여 빼앗겼네. 그곳의 어린이들은 거리에서 학살당하고 젊은이들은 적군의 칼에 쓰러졌네.
- 10 이 나라를 나누어 먹지 않은 민족이 어디 있는가? 이 나라의 제물을 약탈하지 않은 민족이 어디 있는가?
- 11 이 나라의 모든 장식을 앗아 가 버렸네. 자유의 몸이 노예가 되어 버렸네.
- 12 보라, 우리의 거룩한 곳, 우리의 이름다움 이요 영광이던 곳이 폐허가 되었네. 이민족들이 그곳을 더럽혀 버렸네.
- 13 우리가 더 살아 무엇하리오?"
- 14 마타티아스와 그 아들들은 저마다 제 옷을 찢은 다음 자루옷을 두르고 크게 슬퍼하였다.

마타티아스가 이민족들의 제사를 거부하다

- 15 배교를 강요하는 임금의 관리들이 모데인에서도 제물을 바치게 하려고 그 성읍으로 갔다.
- 16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이 그 관리들 편에 가담하였지만 마타티아스와 그 아들들은

한테 뭉쳤다.

- 17 그러자 임금의 관리들이 마타티아스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이 성읍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존경을 받는 큰사람이며 아들들과 형제들에게도 지지를 받고 있소.
- 18 모든 민족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처럼, 당신도 앞장서서 왕명을 따르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아들들은 임금님의 벗이 될 뿐만 아니라, 은과 금과 많은 선물로 부귀를 누릴 것이오."
- 19 그러나 마타티아스는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임금의 왕국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그에게 복종하여, 저마다 자기 조상들의 종교를 버리고 그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 20 나와 내 아들들과 형제들은 우리 조상들의 계약을 따를 것이오.
- 21 우리가 율법과 규정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소.
- 22 우리는 임금의 말을 따르지도 않고 우리의 종교에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겠소."
- 23 그가 이 말을 마쳤을 때, 어떤 유다 남자가 나오더니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왕명에 따라 모데인 제단 위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려고 하였다.
- 24 그것을 본 마타티아스는 열정이 타오르고 심장이 떨리고 의분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달려가 제단 위에서 그자를 쳐 죽였다.
- 25 그때에 그는 제물을 바치라고 강요하는 임금의 신하도 죽이고 제단도 헐어 버렸다.
- 26 이렇게 그는 전에 피느흐스가 살루의 아들 지프리에게 한 것처럼, 율법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다.
- 27 그러고 나서 마타티아스는 그 성읍에서 "율법에 대한 열정이 뜨겁고 계약을 지지하는 이는 모두 나를 따라나서시오"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 28 그리고 그와 그의 아들들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성읍에 남겨 둔 채 산으로 달아났다.

마타티아스의 투쟁

- 29 그때에 정의와 공정을 추구하는 많은 이들이 광야로 내려가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 30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아들과 아내, 그리고 가족까지 그렇게 하였다. 불행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 31 왕명을 거역한 이들이 광야의 피신처로 내려갔다는 보고가 예루살렘의 다윗 성에 있던 임금의 신하들과 군사들에게 들어갔다.
- 32 그래서 큰 군대가 그들 뒤를 쫓아 나섰다. 그들을 따라잡은 그 군대는 맞은쪽에 진을 치고 안식일에 그들을 공격할 준비를 갖추었다.
- 33 그러고는 그들에게 "자, 이제 그만 나와서 임금님 말씀대로 하여라. 그래야 살 수 있다." 하고 말하였다.
- 34 그러나 그들은 "우리는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임금의 말대로 하여 안식일을 더럽히지도 않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 35 그러자 곧 그들에게 공격이 퍼부어졌다.
- 36 그러나 그들은 대항하지 않았다. 돌을 던지지도 않고 자기들의 피신처를 봉쇄하지도 않고,
- 37 "우리는 모두 깨끗한 채로 죽겠다. 너희가 우리를 부당하게 죽였다는 것을 하늘과 땅이 증언해 줄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 38 이렇게 그들은 안식일에 공격을 받아 아내와 자녀와 가족과 더불어 죽어 갔다. 죽어 가는 이는 천 명이나 되었다.
- 39 마타티아스와 그의 벗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 40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이 형제들이 한 것처럼 한다면, 우리가 모두 목숨과 규정을 지키기 위하여 이민족들과 싸우지 않는다"

면, 이제 곧 그들은 이 땅에서 우리를 몰살 시킬 것이다."

- 41 그날에 그들은 이렇게 결의하였다. "안식일에 우리를 공격해 오는 자가 있으면, 그가 누구든 맞서 싸우자. 그래야 피신처에서 죽어 간 형제들처럼 우리가 모두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 42 그때에 한 무리의 하시드인들이 그들과 합류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용맹한 전사들이며 모두 율법에 헌신하는 이들이었다.
- 43 재난을 피하여 달아난 이들도 모두 그들과 합세하여 그들을 지지하였다.
- 44 그들은 군대를 조직하여, 분노를 터뜨리며 죄인들을 처부수고 격분을 터뜨리며 무도한 자들을 처부수었다. 살아남은 자들은 목숨을 구하려고 이민족들에게 달아났다.
- 45 마티티아스와 그의 벗들은 그 일대를 돌아다니며 제단들을 헐어 버리고,
- 46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할례를 받지 않은 아이들을 찾아내어 모두 강제로 할례를 빼돌렸다.
- 47 그들은 또 교만한 자들을 쫓아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다 잘되어 갔다.
- 48 그들은 이민족들의 손과 임금들의 손에서 율법을 되찾고, 죄인에게 승리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마티티아스의 유언과 죽음

- 49 마티티아스는 죽을 날이 다가오자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지금은 교만과 냉소가 득세하고 있다. 멸망의 때며 격렬한 분노의 때다.
- 50 애들이아, 이제 너희는 율법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고 우리 조상들의 계약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라.
- 51 우리 조상들이 그들 세대에 하였던 일들을 기억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큰 영광과 영원한 이름을 얻을 것이다.

- 52 아브라함은 시런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 그것이 그의 의로움으로 인정받지 않았느냐?
- 53 요셉은 어려운 때에도 계명을 지켜 이집트의 주인이 되었고
- 54 우리 조상 피느하스는 불타는 열성 덕분에 영원한 사제직의 계약을 받았다.
- 55 여호수아는 명령을 원수하여 이스라엘의 판관이 되었고
- 56 칼렘은 회중 앞에서 증언하여 이 땅에서 상속 재산을 받았다.
- 57 다윗은 충실한 덕분에 영원한 왕좌를 차지하였고
- 58 엘리야는 율법에 대한 불타는 열성 덕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 59 하난이와 아자리아와 미사엘은 믿음으로 불에서 구조되었고
- 60 다니엘은 무죄한 덕분에 사자들의 입에서 구출되었다.
- 61 그러므로 너희는 대대로 명심하여라. 그분께 희망을 두는 이는 아무도 약해지지 않는다.
- 62 죄 많은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의 영광은 거름 더미와 구더기로 변한다.
- 63 그는 오늘 높이 올라가도 내일이면 찾아볼 수 없다. 정녕 그는 먼지로 돌아가고 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 64 애들이아, 용감히 행동하고 율법을 굳게 지켜라. 정녕 율법으로 너희는 영광을 받을 것이다.
- 65 나는 너희 형 시메온이 분별력 있는 사람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언제나 그의 말을 들어라. 그는 너희에게 아버지 노릇을 할 것이다.
- 66 젊어서부터 힘센 용사였던 유다 마카베오는 군대의 장수가 되어, 이방 민족들과 맞서 싸워라.
- 67 너희는 율법을 지키는 이들을 모두 모아

너희 겨레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

- 68 이민족들에게 복수를 하고 율법이 명령하는 것을 잘 지켜라."
 69 마티타이스는 그들에게 축복하고 자기 조상들 곁으로 갔다.
 70 그는 백사십육년에 죽어 모데인에 있는 자기 조상들 무덤에 묻혔다. 온 이스라엘이 그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였다.

유다 마카베오에 대한 찬사

- 3¹ 마카베오라고 불리는 그의 아들 유다가 그 뒤를 이었다.
 2 유다의 모든 형제와 아버지에게 합세하였던 이들이 모두 그를 도와 기쁘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쟁을 하였다.
 3 그는 자기 백성의 영광을 널리 떨쳤다. 거인처럼 가슴팍이 갑옷을 입고 무기를 허리에 차고 전투할 때마다 칼을 휘두르며 진영을 보호하였다.
 4 그는 사자처럼 활약하였으니 먹이를 보고 으르렁거리는 힘센 사자 같았다.
 5 그는 무도한 자들을 찾아 내쫓고 자기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불살라 버렸다.
 6 무도한 자들은 그가 두려워 움츠러들고 무법을 일삼던 자들은 모두 어쩔 줄 몰라 하였다. 그의 손으로 구원이 순조로이 이루어졌다.
 7 그는 많은 임금에게 쓴맛을 보게 하였지만 그 위엄은 야곱을 기쁘게 하였다. 사람들은 영원토록 그를 기억하며 기릴 것이다.
 8 그는 유다의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그곳에서 사악한 자들을 몰살시켜 이스라엘에서 진노를 돌려놓았다.
 9 그는 땅 끝까지 이름을 떨치고 멸망해 가는 이들을 한데 모았다.

유다 마카베오의 첫 승리

- 10 아폴로니우스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이

민족들과 일부 사마리아인들을 모아 큰 군대를 조직하였다.

- 11 이를 알고 유다가 마주 나가 그를 쳐서 죽여 버렸다. 그 밖에도 많은 적군이 부상하여 쓰러지고 나머지는 달아났다.
 12 유다인들은 그들에게서 전리품을 거두었는데, 아폴로니우스의 칼은 유다가 차지하여 평생 그 칼을 가지고 싸웠다.
 13 유다가 한 때의 군사와 자기에게 충실한 이들의 무리를 한데 모아 전쟁에 나섰다. 말을 듣고 시리아 군대의 장수 세론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내 이름을 떨치고 이 왕국에서 영광을 누리야지. 임금님의 말씀에 비웃는 유다와 그의 병사들을 무찔러야지."
 15 사악한 자들로 이루어진 강력한 군대도 그를 도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수하려고 그와 합세하여 함께 올라왔다.
 16 세론이 뱃 호른 오르막길에 가까이 왔을 때, 유다는 얼마 되지 않는 군사를 거느리고 그를 맞아 싸우러 나갔다.
 17 이들이 자기들을 치러 오는 군대를 보고 유다에게 말하였다. "얼마 되지 않는 우리가 저렇게 많고 강한 자들과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18 그러자 유다가 대답하였다. "적은 수로도 많은 수를 쉽게 막을 수 있다. 하늘이 구하려고 할 때에는 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19 전쟁의 승리는 군대의 크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에 달려 있다.
 20 저들이 방자하고 무도하게 우리와 우리 아내와 아이들을 없애 버리고 약탈하려고 덤벼들지만,
 21 우리는 우리의 목숨과 관습을 지키려고 싸우는 것이다.
 22 그분께서 친히 우리 앞에서 저들을 무너뜨리실 것이니, 너희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

라."

- 23 유다가 말을 마치고 세론과 그의 군대를 급습하자, 그들은 유다 앞에서 무너졌다.
- 24 유다는 벧 호론 내리막길을 달려 들판까지 뒤쫓아 갔는데, 그들 가운데 팔백 명이 쓰러지고 나머지는 필리스티아 땅으로 달아났다.
- 25 그러자 사람들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였고, 주변의 민족들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 26 유다의 명성은 임금에게까지 알려지고, 민족들마다 그가 한 전투들을 두고 이야기하였다.

안티오코스 페르시아를 떠나 리시ias를 섬에 임명하다

- 27 안티오코스는 이러한 사실을 듣고 몹시 화가 나, 사람들을 보내어 나라의 모든 부대를 소집하고 매우 강력한 군대를 조직하였다.
- 28 그리고 자기 금고를 열어 군사들에게 일년 치 봉급을 주며, 모든 사배에 대비하라고 명령하였다.
- 29 그러나 그는 국고에 돈이 떨어지고, 자기가 예로부터 내려오던 관습을 없애 버림으로써 이 땅에 일어난 내란과 제양 때문에, 이 지방에서 올라오는 조공조차 적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30 그리하여 그는 이전의 임금들보다 경비와 선물을 아끼지 않고 넉넉히 주어 오다가, 이제는 그렇게 할 돈이 없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었다.
- 31 크게 당황한 그는, 페르시아로 가 그곳 여러 지방에서 조공을 거두고 많은 돈을 모아 오기로 결심하였다.
- 32 그는 탁월한 인물인 왕족인 리시ias에게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집트 경계에 이르기까지 임금의 행정을 맡겼다.
- 33 그리고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자기 아들

안티오코스를 맡아 기르게 하였다.

- 34 또한 그에게 군대의 절반과 코끼리들을 주면서, 자기가 하려고 했던 모든 일에 관하여 지시를 내렸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에 관해서는,
- 35 그들에게 군대를 보내어 이스라엘의 병력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을 없애 버리고, 그곳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마저 지워 버리라고 하였다.
- 36 그리고 그들의 온 영토에 외국인들을 이주시켜 그들의 땅을 나누어 주라고 하였다.
- 37 그러고 나서 임금은 백사십칠년에 군대의 나머지 절반을 이끌고, 왕도인 안티오키아를 떠나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다음 내륙 지방들을 가로질러 진군하였다.

리시ias가 유다를 차려고 군대를 보내다

- 38 리시ias는 도리메네스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 그리고 니카노르와 고르기아스를 뽑았는데, 이들은 임금의 벗들 가운데에서도 유력한 사람들이었다.
- 39 그는 보병 사만과 기병 칠천과 함께 그들을 유다 땅으로 보내면서 임금의 명령대로 그곳을 쳐부수라고 하였다.
- 40 그들은 모든 군대를 이끌고 진군하여 평야 지대에 있는 엠마오 부근에 진을 쳤다.
- 41 그러자 그 지방의 상인들이 이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인들을 노예로 사려고, 아주 많은 은과 금과 족쇄들을 가지고 그들의 진영으로 갔다. 시리아 군대와 필리스티아인들 명의 군대도 그들과 합세하였다.
- 42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불행이 더욱 커져 자기들의 영토 안에 군대가 진을 치는 것을 보았다. 또한 그들은 백성을 파멸시키고 몰살시키려는 임금의 명령이 내려졌음을 알고는,
- 43 서로 "우리 백성을 폐허에서 일으키고 우리 백성과 성소를 위하여 싸우자." 하고

말하였다.

- 44 그래서 회중이 모여 전쟁을 준비하고 기도를 드리며 자애와 자비를 청하였다.
- 45 예루살렘은 광아터런 인적이 없고 그 자녀들 가운데 드나드는 이가 아무도 없다. 성소는 짓밟히고 성채는 외국인들에게 점령되어 이민족들의 거처가 되었다. 아굽에게서 기쁨이 사라지고 파리 소리와 비파 소리도 끊어졌다.

유대인들이 미츠파에 모이다

- 46 그들은 함께 모여 예루살렘 맞은쪽에 있는 미츠파로 갔다. 전에 이스라엘의 기도소가 미츠파에 있었기 때문이다.
- 47 그들은 그날 단식하고 자루옷을 들렀다. 또 머리에 재를 뿌리고 옷을 찢었다.
- 48 그러고 나서 이민족들이 거짓 신들의 상에게 물어보곤 하는 것을 자기들도 알아보려고 율법서를 폈다.
- 49 그들은 사제 옷과 만물과 십일조도 가져왔다. 또 서약일을 다 채운 나지르인들을 불러다 놓고,
- 50 하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이들을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며 어디로 데려가야 합니까?"
- 51 당신의 성소는 짓밟히고 더럽혀졌으며, 당신의 사제들은 모욕을 당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 52 이민족들이 저희를 없애 버리려고 한테 모였습니다. 당신께서는 그들이 저희에게 맞서 무슨 계락을 짜고 있는지 아십니까.
- 53 당신께서 저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희가 그들을 어찌 당해 낼 수 있겠습니까?"
- 54 그들은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쳤다.
- 55 그런 다음 유다는 천인대장과 백인대장, 오십인대장과 십인대장들을 임명하여 백성을 지휘하게 하였다.
- 56 그리고 율법에 따라, 집을 짓던 이들이나

갖 장가든 사람들, 포도밭에서 포도나무를 심던 이들이나 겁 많은 자들은 저마다 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

- 57 그러고 나서 군대는 진군하여 엠마오 남쪽에 진을 쳤다.
- 58 그때에 유다가 말하였다. "무장을 갖추고 용사가 되어라. 아침 일찍 이민족들과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들은 우리와 우리 성소를 없애 버리려고 모여 있다.
- 59 우리 민족과 성소가 잘못되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싸우다가 죽는 것이 낫다.
- 60 하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유다가 엠마오에서 승리하다

- 4¹ 고르기아스는 보병 오천과 정예 기병 일천을 데리고 나섰는데 그 부대는 밤중에 출발하였다.
- 2 유대인들의 진지에 들이닥쳐 그들을 급습하려는 것이었다. 성채에서 몇 사람이 나와 고르기아스를 안내하였다.
- 3 이 소식을 들은 유다도 군사들을 이끌고 엠마오에 있는 임금의 군대를 치려고 출발하였다.
- 4 적의 병사들이 아직도 진지 밖에 흩어져 있을 때에 치려는 것이었다.
- 5 고르기아스는 밤중에 유다의 진지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는, "이자들이 우리를 피해 달아났구나." 하며 산으로 그들을 찾아 나섰다.
- 6 날이 썰 무렵에 유다가 병사 삼천과 함께 들뜬에 나타났다. 그러나 그들은 바라는 만큼 갑옷과 칼을 갖추지 못하였다.
- 7 그들이 보니 이민족들의 진지는 방비가 튼튼하였고 그 둘레를 기병대가 에워싸고 있었다. 더구나 그자들은 전투에 익숙한 자들이었다.
- 8 그때에 유다는 자기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

하였다. "저들의 수가 많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저들의 공격을 겁내지 마라.

9 파라오가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 왔을 때, 우리 조상들이 홍해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상기하여라.

10 이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자. 그리하여 그 분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어 조상들의 계약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저 잔지를 쳐부수어 주시게 하라.

11 또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모든 민족이 알게 하자."

12 그 외국인들은 눈을 들어 맞은쪽에서 오는 그들을 보고,

13 싸우려고 잔지에서 나왔다. 유다의 군사들도 나팔을 불고

14 맞서 싸웠다. 그리고 그 이민족들을 쳐부수었다. 이민족들은 들판으로 달아나고,

15 뒤에 있던 자들은 모두 칼에 맞아 쓰러졌다. 유다의 군사들은 가자라까지, 그리고 이두메아 평야와 이스트돗과 얌니아까지 추격하여 그들 가운데 삼천 명을 쓰러뜨렸다.

16 그러고 나서 유다와 그의 군대는 그들을 뒤쫓는 것을 그만두고 돌아왔다.

17 유다가 백성에게 일렀다. "우리가 치를 전투가 더 남아 있으니 전리품에 욕심을 내지 마라.

18 고르기아스와 그 군대가 우리 가까이 저 산속에 있다. 지금은 적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 그 뒤에 마음껏 전리품을 차지하여라."

19 유다가 이 말을 마칠 즈음, 산 위에서 적의 한 부대가 이쪽을 살피고 있었다.

20 그들은 저희 편이 패주하고 유다인들이 진지를 불태우는 것을 보았다. 피어오르는 연기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 주었던 것이다.

21 사태를 파악한 적들은 몹시 겁을 내었다.

게다가 유다의 군대가 들판에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22 모두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으로 달아났다.

23 유다는 다시 가서 적진을 털고 많은 금과 은, 보라색 천과 자홍색 천, 그리고 그 밖에도 많은 재물을 거두어들였다.

24 그들은 돌아오면서 하늘을 향하여 찬미가를 부르며,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하고 찬양하였다.

25 이렇게 그날 이스라엘에 큰 구원이 베풀어졌다.

26 목숨을 구한 외국인들은 리시아스에게 가서,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모두 보고하였다.

27 보고를 들은 리시아스는 충격을 받고 낙담하였다. 이스라엘에서 자기가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임금이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리시아스를 물리치다

28 이듬해에 그는 유다인들을 제압하려고 정예 보병 육만과 기병 오천을 소집하였다.

29 그들이 이두메아로 들어가서 벧 추르에 진을 치자, 유다는 보병 일만으로 그들에게 맞섰다.

30 그는 적군이 강한 것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께서는 찬미받으소서. 당신께서는 당신 종 다윗의 손으로 거인의 공격을 물리치시고, 사울의 아들 요나탄과 그 무기 당번의 손에 필리스티아인들의 진영을 남기셨습니다.

31 저 진영을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고, 저들이 자기들의 보병과 기병을 수척스럽게 여기도록 해 주십시오.

32 저들을 겁에 질리게 하시고 저들의 만용을 꺾으시며 저들이 파멸을 당하여 떨게 해 주십시오.

33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의 칼도 저들을 내리

치십시오. 당신 이름을 아는 모든 이가 찬미가로 당신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 34 그리고 나서 양쪽이 맞서 싸우니, 리시아스의 군대에서 오천 명이 쓰러졌다. 유다인들의 반대편이 그렇게 쓰러진 것이다.
- 35 리시아스는, 자기 부대가 패주한 반면 유다의 부대는 사기가 올라, 죽든 살든 용감히 싸울 준비가 된 것을 보고, 안티오키아로 퇴각하였다. 그리고 유다 땅에 다시 쳐들어 오려고 더 많은 용병을 모집하였다.

성전을 정화하고 다시 봉헌하다

- 36 유다와 그 형제들은 "이제 우리 적을 무찔렀으니 올라가서 성소를 정화하고 봉헌합시다." 하고 말하였다.
- 37 그래서 온 군대가 모여 시온 산으로 올라갔다.
- 38 올라가 보니, 성소는 황폐해졌고 제단은 더럽혀졌으며, 대문들은 타 버렸고 뜰은 숲이나 산처럼 잡초가 우거져 있었다. 그곳의 방들도 부서져 있었다.
- 39 그들은 옷을 찢고 크게 통곡하며, 머리에 재를 뿌리고 나서
- 40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리고 나팔 소리를 신호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
- 41 그 뒤에 유다는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성소를 정화할 때까지 성채 안에 있는 자들을 공격하게 하였다.
- 42 그리고 흠이 없고 율법에 헌신하는 사제들을 뽑아,
- 43 성소를 정화하고 더럽혀진 돌들을 부정한 곳으로 치우게 하였다.
- 44 그들이 더럽혀진 번제 제단을 어떻게 할까 논의하는데,
- 45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이민족들이 제단을 부정하게 만든 일로 자기들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헐어 버리자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제단을 헐어 버렸다.

46 그리고 예언자가 와서 말해 줄 때까지, 그 돌들을 성전 산 적당한 곳에 쌓아 두기로 하였다.

47 이어서 율법에 따라, 다듬지 않은 돌들을 가져다가 이전의 제단과 같은 제단을 새로 쌓았다.

48 그리고 성소와 성전 내부를 복구하고 뜰을 축성하였다.

49 그들은 또 거룩한 기물들을 새로 만들고 등잔대와 분향 제단과 상을 성전 안에 들여다 놓았다.

50 그리고 나서 제단 위에서 향을 피우고 등잔대의 등에 불을 붙이니, 등불이 성전 안을 비추었다.

51 또 상 위에는 빵을 차려 놓고 휘장을 쳤다. 이렇게 그들은 시작한 일을 모두 마쳤다.

52 그들은 백사십팔년 아홉째 달, 곧 키슬레우 달 스무닷셋날 아침 일찍 일어나,

53 새로 만든 번제 제단 위에서 율법에 따라 희생 제물을 바쳤다.

54 이민족들이 제단을 더럽혔던 바로 그때 그날, 그들은 노래를 하고 수금과 비파와 자바리를 연주하며 그 제단을 다시 봉헌한 것이다.

55 온 백성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자기들을 성공의 길로 이끌어 주신 하늘을 찬양하였다.

56 그들은 여드레 동안 제단 봉헌을 경축하였는데, 기쁜 마음으로 번제물을 바치고 친교 제물과 감사 제물을 드렸다.

57 또 성전 앞면을 금관과 방패로 장식하고 대문을 새로 만들었으며, 방에도 모두 문을 달았다.

58 백성은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하여 이민족들이 남긴 치욕의 흔적이 사라졌다.

59 유다와 그의 형제들과 이스라엘 온 회중은 해마다 그때가 돌아오면, 키슬레우 달 스무닷셋날부터 여드레 동안 제단 봉헌 축일로

기쁘고 즐겁게 지내기로 결정하였다.
 60 그들은 또 시온 산 둘레에 높은 성벽을 쌓고 튼튼한 탑을 세워, 이민족들이 전에 한 것처럼 그곳을 짓밟지 못하게 하였다.
 61 유다는 그곳을 지킬 군대도 배치하였다. 그리고 나서 벧 추르의 수비를 강화하여 백성에게 이두메아쪽 요새를 마련해 주었다.

유다가 이두메아인들과 암몬인들과 싸우다

5 1 주변 민족들은 이전처럼 제단이 복고되고 성소가 봉헌되었다는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났다.
 2 그래서 그들은 저희 가운데에 사는 아굽의 후손들을 없애기로 작정하고, 그 백성을 죽이고 제거하기 시작하였다.
 3 유다는 이스라엘인들을 포위한 이두메아의 에사우 자손들과 아카라바테네에서 싸워, 그들에게 큰 타격을 입히고 굴복시킨 다음 전리품을 빼앗았다.
 4 그리고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울가미와 덫을 썩어온 하던 브온 자손들의 악행을 기억하고는,
 5 그들을 여러 탑에 가두고 에워쌌다. 유다는 그들을 완전히 없애 버리기로 맹세하고 탑과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모두 불태워 버렸다.
 6 그가 또 암몬 자손들에게 건너가 보니, 거기에는 강한 군대와 수많은 백성이 있었다. 그들의 지휘관은 티모테오스였다.
 7 유다는 그들과 여러 번 맞서 싸웠는데 그들은 그때마다 그 안에서 무너졌다. 이렇게 유다는 그들을 쳐부수었다.
 8 그는 또 아제르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도 점령하고 유다로 돌아왔다.

길앗과 갈릴래아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다

9 길앗의 이민족들은 저희 영토 안에 사는 이스라엘인들을 없애 버리려고 집결하였다. 이

스라엘인들은 다테마 요새로 달아나,
 10 유다와 그의 형제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냈다. "우리 주위의 이민족들이 우리를 없애 버리려고 집결하였습니다.
 11 그들은 우리가 피신해 있는 이 요새에 쳐들어와 점령할 준비를 하는데, 티모테오스가 그 군대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12 그러니 어서 와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벌써 많은 이들이 쓰러지고,
 13 툵에 있던 우리 형제들도 모조리 살해되었습니다. 이민족들은 우리 형제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잡아가고 재산을 빼앗아 갔으며, 그곳에서 장정을 천 명쯤 죽였습니다."
 14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 갈릴래아에서 다른 전령들이 옷이 찢어진 채 도착하여 이렇게 보고하였다.
 15 "프톨레마이오스와 티로와 시돈에서 온 자들과, '이민족들의 갈릴래아' 전 주민이 우리를 몰살하려고 집결하였습니다."
 16 유다는 백성과 함께 이 보고를 듣고 큰 집회를 소집하여, 적에게 공격을 받아 고통을 겪는 동포들을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하였다.
 17 유다가 자기 형 시몬에게 말하였다. "형님은 병사들을 골라 갈릴래아로 가서 동포들을 구해 내십시오. 나는 동생 요나탄과 길앗으로 가겠습니다."
 18 그리고 그는 유다 땅을 지키기 위하여, 즈카르야의 아들 요셉과 백성의 지도자 아자르야에게 나머지 군대를 맡겨 그곳에 남겨 놓았다.
 19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이 백성 곁에 있어라.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이민족들과 싸우려고 하지 마라."
 20 갈릴래아로 가는 시몬에게는 병사 삼천이 배당되고, 길앗으로 가는 유다에게는 병사 팔천이 배당되었다.

길앗과 길발라이아 유대인들을 구출하다

- 21 시몬은 갈릴래이로 가서 이민족들과 여러 차례 맞서 싸웠다. 이민족들이 그 앞에서 무너지자,
- 22 그는 프톨레마이오스 성문까지 뒤쫓아 갔다. 이민족들의 병사가 삼천 명쯤 쓰러지고, 시몬은 그들에게서 전리품을 거두었다.
- 23 그는 갈릴래이와 아르바티에 살던 동포들, 그리고 그 아내들과 아이들과 모든 재산을 되찾고, 크게 기뻐하며 그들을 유다 땅으로 데려왔다.
- 24 유다 마카베오와 그의 동생 요나탄은 요르단을 건너 다음, 광야에서 사할 길을 진군하였다.
- 25 그곳에서 그들은 나바테아인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유다의 군대를 평화롭게 맞이하면서 길앗의 유다 동포들에게 일어난 일을 낱말이 일러 주었다.
- 26 큰 요새 성읍들이 보소라, 보소르, 알레마, 카스포, 마켓, 카르나임에 동포들이 많이 갇혀 있고,
- 27 길앗의 나머지 성읍들에도 더러 갇혀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적들은 그 이튿날 요새들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단 하루에 이들을 모두 없애 버리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 28 그러자 유다와 그의 군대는 제빨리 방향을 돌려, 광야를 가로질러 보소라로 가서 그 성읍을 점령하였다. 거기에서 그는 남자들을 모조리 칼로 쳐 죽이고 전리품을 모두 거둔 다음에 그 성읍을 불태워 버렸다.
- 29 그러고 나서 밤중에 군대를 이끌고 그곳을 떠나 다테마 요새에 이르는 곳까지 갔다.
- 30 그들이 아침에 눈을 들어 보니, 수없이 많은 무리가 요새를 점령하려고 사다리와 공격 기구를 들고 쳐들어가는 것이었다.
- 31 유다는 싸움이 이미 시작되어, 성읍에서 지르는 함성이 나팔 소리와 고함 소리와 함

께 하늘까지 치솟는 것을 보고,

- 32 자기 군대의 병사들에게 "오늘 우리 동포들을 위하여 싸워라!" 하고 격려했다.
- 33 그들은 세 부대로 나누어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기도를 올리며 적의 뒤쪽으로 진군하였다.
- 34 티모테오스의 군대가 마카베오를 보고서는 그 앞에서 달아나자, 마카베오가 그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그날에 적군의 병사가 팔천쯤 쓰러졌다.
- 35 유다는 마이파로 방향을 돌려, 그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그곳의 남자들을 모두 죽였다. 그리고 전리품을 거둔 다음에 그곳을 불태워 버렸다.
- 36 그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카스포와 마켓과 보소르와 길앗의 나머지 성읍들도 점령하였다.
- 37 이러한 일이 있던 뒤, 티모테오스는 다른 군대를 모아 강 건너 리본 맞은쪽에 진을 쳤다.
- 38 유다가 사람들을 보내어 적진을 살펴보게 하였더니, 그들이 이렇게 보고하였다. "우리 주위의 모든 이민족들이 티모테오스와 합세하여 매우 큰 군대를 조직하였습니다.
- 39 그는 자기 군대를 돕게 하려고 아라비아인까지 용병으로 고용하여 강 건너에 진을 치고, 당신과 싸우려고 진격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그들과 싸우러 나갔다.
- 40 유다와 그의 군대가 강으로 다가가고 있을 때, 티모테오스는 자기 군대의 장수들에게 말하였다. "유다가 먼저 우리 쪽으로 건너 오면 우리는 그를 당해 내지 못하여, 그가 틀림없이 우리를 이길 것이다.
- 41 그러나 그가 접을 먹고 강 건너에 진을 치면, 우리가 그에게로 건너가 그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 42 유다는 강에 다가가 군대의 장교들을 강가

에 배치하고 나서, "이무도 잔을 치지 못하게 하여라. 모두 나가 싸워야 한다."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43 이어서 유다가 적군을 치러 먼저 강을 건너자 모두 그의 뒤를 따라 간났다. 그들 앞에서 이민족들은 무너져 무기를 내던지고 카르나임에 있는 신전으로 달아났다.

44 유다의 군대는 그 성읍을 점령하고 신전과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불태워 버렸다. 이렇게 해서 카르나임이 굴복하여 더 이상 유다에게 맞설 수 없게 되었다.

45 유다는 길앗의 모든 이스라엘인을 낮은 사람에서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아내와 아이들과 재산을 모아 매우 큰 집단을 이루고 유다 땅으로 들어왔다.

46 그들이 에프론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길목에 있는 크고 튼튼한 요새 성읍이었다. 그리고 그 성읍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들어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로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

47 그러나 그 성읍 주민들은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돌로 성문을 막아 버렸다.

48 유다가 그들에게 평화의 말을 전하였다. "우리는 우리 땅으로 가기 위하여 여러분의 땅을 지나려고 합니다. 우리는 결코 여러분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걸어서 지나가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문을 열어 주려고 하지 않았다.

49 유다는 군대에 알려 저마다 서 있는 곳에 잔을 치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50 군대의 병사들이 잔을 치고 그날 밤낮을 꼬박 싸운 끝에, 그 성읍이 유다의 손에 넘어갔다.

51 그는 남자들을 모두 칼로 쳐 죽이고 성읍을 완전히 무너뜨린 다음, 전리품을 거두고는 죽은 자들을 밟으며 그 성읍을 지나갔다.

52 그들은 요르단을 건너 벧 스안 맞은쪽 큰

평야에 이르렀다.

53 유다는 길을 가는 동안 내내 낙오자들을 모으고 백성을 격려하면서, 마침내 유다 땅에 이르렀다.

54 그들은 기쁘고 즐겁게 시온 산으로 올라가 번제물을 바쳤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쓰러지지 않고 무사히 돌아왔기 때문이다.

요셉과 아자르야가 암니아에서 패배하다

55 유다와 요나탄이 길앗 땅에 있고, 그의 형 사몬이 프톨레마이스 맞은쪽 갈릴레아 땅에 있을 때였다.

56 즈카르야의 아들 요셉, 그리고 그와 함께 군대를 지휘하던 아자르야는 마카베오 형제들의 용맹과 전공을 전해 듣고

57 말하였다. "우리도 나가 주위의 이민족들과 싸워서 우리 이름을 떨칩시다."

58 그리하여 그들은 저희 군대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암니아로 진군하였다.

59 그러자 고르기아스와 그의 병사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맞아 싸웠다.

60 그 결과 요셉과 아자르야는 패배하여 유다 경계까지 쫓기게 되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천 명가량이 쓰러졌다.

61 이 백성이 크게 패배한 것은, 자기들도 용맹을 떨치려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62 사실 그들은 하느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들의 후손이 아니었다.

유다가 이두매아와 필라스티아에서 승리를 거두다

63 유다리는 인물과 그의 형제들은, 그 이름을 들은 온 이스라엘과 모든 이민족들 앞에서 크게 존경을 받았다.

64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들을 칭송하였다.

65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더 나아가 남쪽 땅에 있는 예사우의 자손들과 싸워, 헤브론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을 쳐부수고 요새들을 허물며 둘레에 있는 탑들을 불태워 버

렸다.

- 66 유다는 필리스티아인들 땅으로 더 나아가 마레사를 지나갔다.
- 67 그날 용맹을 떨치려 한 사제들이 싸우다가 쓰러졌다. 그들이 무모하게 싸우러 나갔기 때문이다.
- 68 유다는 필리스티아인들의 땅 아스돗으로 방향을 돌렸다. 거기에서 유다는 그들의 제단을 헐고 신상들을 불태워 버렸다. 그리고 여러 성읍에서 전리품을 거두어 가지고 유다 땅으로 돌아왔다.

안티오코스 에피피네스가 죽다

- 6 ¹ 안티오코스 임금은 내륙의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다가, 페르시아에 있는 엘라미스라는 성읍이 은과 금이 많기로 유명하다는 말을 들었다.
- 2 그 성읍의 신전은 무척 부유하였다. 거기에는 마케도니아 임금 필리포스의 아들로써 그리스의 첫 임금이 된 알렉산드로스가 남겨 놓은 금 방패와 가슴받이 갑옷과 무기도 있었다.
- 3 안티오코스는 그 성읍으로 가서 그곳을 점령하고 약탈하려 하였으나, 그 계획이 성읍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바람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 4 그들이 그와 맞서 싸우니 오히려 그가 달아나게 되었다. 그는 크게 실망하며 그곳을 떠나 바빌론으로 향하였다.
- 5 그런데 어떤 사람이 페르시아로 안티오코스를 찾아와서, 유다 땅으로 갔던 군대가 패배하였다고 보고하였다.
- 6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앞장서 나아갔던 리시아스가 유다인들 앞에서 패배하여 도망치고, 유다인들이 아군을 무찌르고 빼앗은 무기와 병사와 많은 전리품으로 더욱 강력해졌다는 것이다.
- 7 또 유다인들이 안티오코스가 예루살렘 제단

위에 세웠던 역겨운 것을 부수어 버리고, 성소 둘레에 전처럼 높은 성벽을 쌓았으며, 그의 성읍인 벳 추르에도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다.

- 8 이 말을 들은 임금은 깜짝 놀라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던 대로 일이 되지 않아 실망한 나머지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웠다.
- 9 그는 계속되는 큰 실망 때문에 오랫동안 누워 있다가 마침내 죽음이 닥친 것을 느꼈다.
- 10 그래서 그는 자기 벗들을 모두 불러 놓고 말하였다. "내 눈에서는 잠이 멀어지고 마음은 근심으로 무너져 내렸는데,
- 11 나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네. '도대체 내가 이 무슨 역경에 빠졌단 말인가? 내가 이 무슨 몰살에 휘말렸단 말인가? 권력을 떨칠 때에는 나도 쓸모 있고 사랑받는 사람이었는데 …….'
- 12 내가 예루살렘에 끼친 불행이 이제 생각나네. 그곳에 있는 금은 기물들을 다 빼앗았을뿐더러, 까닭 없이 유다 주민들을 없애 버리려고 군대를 보냈던 거야.
- 13 그 때문에 나에게 불행이 닥쳤음을 깨달았네. 이제 나는 큰 실망을 안고 이국 땅에서 죽어 가네."
- 14 그는 자기의 벗들 가운데 하나인 필리포스를 불러 그에게 온 왕국을 맡겼다.
- 15 그리고 왕관과 자기 옷과 인장 반지를 주면서, 자기 아들 안티오코스를 잘 이끌고 키워 임금이 되게 해 달라고 하였다.
- 16 안티오코스 임금은 그곳에서 백사십구년에 죽었다.
- 17 리시아스는 임금이 죽은 것을 알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키워 온 안티오코스 왕자를 그 뒤를 이어 임금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에우파토르라고 하였다.

예루살렘 성채를 포위하다

- 18 한편 성채에 있던 자들은 성소 주변에서 이스라엘인들을 가로막고, 온갖 못된 짓을 꾀하며 이민족들을 지원하였다.
- 19 그래서 그들을 없애 버리기로 작정한 유다는 그들을 포위하려고 온 백성을 불러 모았다.
- 20 이렇게 백오십년에 유대인들은 함께 모여 그들을 포위하였다. 유다는 투석기와 다른 공격 기구들을 만들었다.
- 21 그런데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포위망을 뚫고 나가자, 이스라엘에서도 몇몇 사악한 자들이 그들과 합류하여,
- 22 임금에게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서는 언제까지 정의의 실행을 미루시면서 저희 형제들의 원수를 갚아 주지 않으려 하십니까?"
- 23 저희는 임금님의 아버지를 가까이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왔으며 그분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 24 그 때문에 저희 동족이 성채를 포위하고 저희와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저희를 타치는 대로 죽이고 저희 재산을 강탈하였습니다.
- 25 그들은 저희뿐 아니라 자기들과 경계를 이루는 모든 지역에게도 손을 뻗었습니다.
- 26 보십시오, 오늘도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채를 점령하려고 진을 쳤습니다. 또한 성소와 벧 추르도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 27 서둘러서 그들을 먼저 막지 않으면, 그들은 이보다 더 큰 일을 저지를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임금님께서도 그들을 제지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벧 즈카리아의 전투

- 28 이 말을 듣고 임금은 화가 나서, 자기의 벗인 군대 장수들과 기병대 장수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 29 다른 여러 나라와 바다의 여러 섬에서도

- 용병들이 그에게 왔다.
- 30 그의 군대 수는 보병 삼만, 기병 이만, 그리고 전투에 익숙한 코끼리가 서른두 마리였다.
- 31 이들은 이두메이를 지나 벧 추르를 향하여 진을 치고 여러 날 동안 싸우며 공격 기구들을 만들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나가서 그 기구들을 불태우며 용감하게 싸웠다.
- 32 유다는 성채를 떠나 임금의 진영 맞은쪽 벧 즈카리아에 진을 쳤다.
- 33 그러자 임금은 아침 일찍 일어나 급히 군대를 이끌고 벧 즈카리아로 가는 길을 따라 진군하였다. 그의 군대는 전투 대열을 갖추고 나팔을 불었다.
- 34 또 코끼리들을 잘 싸우게 하려고 포도즙과 오디 즙을 보여 자극시키고 나서,
- 35 그 짐승들을 전열에 나누어 배치하였다. 그들은 코끼리마다, 쇠사슬 갑옷으로 무장하고 머리에는 청동 투구를 쓴 보병 천 명을 배열시켰으며, 또 코끼리마다 정예 기병 오백 명도 배치하였다.
- 36 코끼리가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병들이 먼저 가 있었고, 코끼리가 이동하면 함께 이동하여 코끼리를 떠나는 일이 없었다.
- 37 코끼리 등에는 단단한 나무 탑을 얹어 덮고, 그것들을 특별한 기구로 고정시켰다. 나무 탑에는 전투를 벌이는 군대의 병사 네 명과 인도 사람 하나가 타고 있었다.
- 38 임금은 나머지 기병들을 군대의 양 날개 이쪽저쪽에 배열하여, 전열의 보호를 받으며 적을 혼란시키게 하였다.
- 39 태양이 금과 구리로 된 방패들을 비추니, 타오르는 햇불처럼 산들이 번쩍었다.
- 40 임금의 군대가 일하는 높은 산에, 일부는 평지에 퍼져 당당하고 질서 정연하게 전진하였다.
- 41 그 수많은 군사의 곱합 소리와 행진 소리, 그리고 무기가 부딪치는 소리를 듣고 사람

들은 모두 떨었다. 그 군대는 실로 매우 크고 강하였다.

- 42 그러나 유다와 그의 군대가 다가 싸우자, 임금의 군대에서 병사 육백 명이 쓰러졌다.
- 43 하우아탄이라고 하는 엘아자르는, 코끼리들 가운데 임금의 갑옷으로 무장하고 다른 어느 코끼리보다 큰 코끼리를 보고, 거기에 임금이 타고 있으리라 여겼다.
- 44 그는 자기 백성을 구하고 제 이름을 영원히 남기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로 하였다.
- 45 그가 용감하게 전열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자들을 쳐 죽이자, 적이 양쪽으로 갈라졌다.
- 46 그는 코끼리 아래로 들어가 그것을 밑에서 찢러 죽였다. 그러나 코끼리가 자기를 덮치며 땅에 쓰러지는 바람에 그도 그 자리에서 죽었다.
- 47 유다인들은 임금의 군대가 강력하고 그 사기가 높은 것을 보고 그들에게서 물러났다.

벧 추르가 점령하고 시온이 포위되다

- 48 임금의 군대 일부는 유다인들을 쫓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임금 자신은 유다 땅과 시온 산을 향하여 진을 쳤다.
- 49 그때에 그가 벧 추르 주민들과 화친을 맺자 그들이 성읍에서 나왔다. 이 땅에서 안식년을 지내느라고 양식이 없어서 더 이상 포위를 버티어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 50 임금은 벧 추르를 점령하고 그곳을 지킬 수비대를 두었다.
- 51 그리고 여러 날 성소 앞에 진을 치고 그곳에 공격 탐들과 공격 기구들, 곧 분화기와 투석기, 그리고 화살을 쏘는 기구와 돌팔매 도구를 가져다 놓았다.
- 52 유다인들도 공격 기구들에 대항하는 기구들을 만들어 여러 날 싸웠다.
- 53 그런데 그해는 일곱째 해인 데다가, 이민족들에게서 유다로 피난 온 이들이 남은 저

장 식량까지 다 먹어 버렸기 때문에, 곳간에는 양식이 떨어졌다.

- 54 그리하여 굶주림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저마다 제집으로 흩어져 가고 성소에는 몇 사람만 남았다.

안티오코스가 화친을 제안하다

- 55 한편 리시아스는 이러한 보고를 들었다. 안티오코스 임금이 죽기 전에 필리포스에게 자기 아들 안티오코스를 키워 임금으로 세우라고 분부하였는데,
- 56 이 필리포스가 임금과 함께 출정하였던 군대를 이끌고 페르시아와 미디어에서 돌아와 정권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 57 그래서 리시아스는 급히 철군하기로 작정하고 임금과 군대 지휘관들과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양식도 얼마 남지 않았을뿐더러, 우리가 포위하고 있는 저곳은 매우 튼튼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나라 일까지 수습해야 합니다.
- 58 그러니 이제 저 사람들과 화해하고, 그들과 또 그들의 온 민족과 화친을 맺읍시다.
- 59 그리고 그들이 전처럼 자기들의 관습대로 살아가도록 해 줍시다. 우리가 저들의 율법을 폐기하였기 때문에, 저들이 화가 나서 이 모든 일을 한 것입니다."
- 60 이 제안이 임금과 장수들의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임금은 유다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화친을 제안하고, 유다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 61 그리고 임금과 장수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자 마침내 그들이 요새에서 나왔다.
- 62 그러나 임금은 시온 산으로 들어가 그곳의 요새를 보고는, 자기가 맹세한 약속을 저버리고 그 들레의 성벽을 헐어 버리라고 명령하였다.
- 63 그리고 서둘러 그곳을 떠나 안티오키아로

들어왔다. 그는 필리포스가 그 성읍을 장악한 것을 보고, 그와 싸워 무력으로 그 성읍을 점령하였다.

데메트리오스 일세가 왕위에 오르다

- 7 ¹ 백오십일년에 셀레우코스의 아들 데메트리오스가 로마에서 빠져나와, 얼마 되지 않는 병사들과 함께 바닷가 성읍으로 가 그곳에서 왕위에 올랐다.
- 2 그가 자기 조상들의 왕궁으로 들어갈 때, 군사들이 안티오코스와 리시아스를 잡아 그에게 데려가려고 하였다.
- 3 그러나 그가 이 사실을 알고, "나에게 그들의 얼굴을 보이지 마라." 하고 말하자,
- 4 군사들이 그들을 죽여 버렸다. 그리하여 데메트리오스가 왕좌에 앉게 되었다.
- 5 이스라엘에서 무도한 자들과 사악한 자들이 모두 그에게로 갔는데, 대사제직을 탐내는 알키모스가 그들을 이끌고 있었다.
- 6 그들은 임금에게 백성을 고발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임금님의 벗들을 모두 죽이고, 저희를 고향 땅에서 쫓아내어 흩어 버렸습니다.
- 7 그러니 이제 임금님께서 신임하시는 사람을 하나 보내시어, 그가 가서 유다가 저희와 임금님의 영토에 끼친 모든 파괴의 참상을 보고, 그들과 그 동조자들을 모두 벌하게 해주십시오."

바키데스가 유다를 공격하다

- 8 임금은 자기의 벗들 가운데에서 바키데스를 뽑았는데, 그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으로서 나라의 큰 인물이며 임금에게 충실한 사람이었다.
- 9 임금은 자기가 대사제로 세운 사악한 알키모스와 함께 그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복하라고 명령하였다.
- 10 그들은 대군을 거느리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왔다. 바키데스는 유다와 그의 형제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거짓으로 평화의 말을 전하였다.

- 11 그러나 유다인들은 그들이 대군을 거느리고 온 것을 보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 12 그런데 한 무리의 율법 학자들이 알키모스와 바키데스에게 모여 가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13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그들과 평화를 모색한 사람들이 바로 이 하시드인들이다.
- 14 그들은 '이론의 후손인 사제 한 사람이 군대와 함께 왔으니, 그가 우리를 해칠 리 없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 15 알키모스는 그들에게 평화의 말을 건네며, "우리는 당신들에게도 또 당신들의 벗들에게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하고 맹세하였다.
- 16 그래서 그들은 알키모스를 믿었으나, 알키모스는 그들 가운데 예순 명을 붙잡아 단 하루에 죽여 버렸다. 이는 기록된 말씀 그대로였다.
- 17 "당신께 충실한 아들의 살과 피가 예루살렘 주변에 쏟아졌어도 그들을 묻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 18 그러자 온 백성이 그들 때문에 두려움과 전율에 사로잡혀 이렇게 말하였다. "저들에게는 진실도 공정도 없다. 저들은 자 그들이 한 협약과 서약까지 어겼다."
- 19 바키데스는 예루살렘을 떠나 벧 자이에 진을 쳤다. 그는 병사들을 보내어 자기에게 넘어온 많은 이탈자들과 일부 백성을 잡아 죽이고 큰 우물에 던져 버렸다.
- 20 그러고 나서 이 고장을 알키모스에게 맡긴 다음, 그를 도울 군대를 남겨 두고 임금에게 돌아갔다.
- 21 알키모스가 대사제직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 쓰자,
 22 동족을 괴롭히는 자들이 모두 그에게 모여 들었다. 그들은 유다 땅을 장악하고 이스라엘에 큰 타격을 입혔다.
 23 유다는 알키모스와 그의 일당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저지르는 온갖 악행을 보았다. 그것은 이민족들이 저지른 것보다 더 심하였다.
 24 그래서 유다는 온 유다 영토를 두루 다니면서 이탈자들에게 보복하고, 그들이 이 지방을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였다.
 25 알키모스는 유다와 그의 군사들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맞설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임금에게 가서 그들을 두고 악의에 찬 고발을 하였다.

니카노르가 유다 땅으로 파견되다

- 26 임금은 자기의 훌륭한 장수들 가운데 하나인 니카노르를 보내며,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켜 버리라고 명령하였다. 니카노르는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였다.
 27 그리하여 그는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유다와 그의 형제들에게 거짓으로 평화의 말을 전하였다.
 28 "우리 싸우지 맙시다. 나는 당신들과 평화롭게 만나기 위하여 병사 몇 명만 데리고 왔습니다."
 29 그리하여 니카노르가 유다에게 가서 서로 평화롭게 인사하였다. 그러나 적들은 유다를 납치해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30 유다는 니카노르가 속임수를 품고 자기에게 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두려워 다시는 그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
 31 니카노르도 자기 계획이 탄로난 것을 알고 카파르살라마 부근으로 나가 유다에게 맞서 싸웠다.
 32 니카노르 편에서 병사 오백 명가량이 죽고, 나머지는 다윗 성으로 달아났다.

- 33 이러한 일이 있는 뒤에 니카노르는 시온 산으로 올라갔다. 몇몇 사제들이 성소에서 나와 백성의 원로 몇 사람과 함께 그에게 평화롭게 인사하고, 임금을 위하여 바치는 번제물을 보여 주었다.
 34 그러나 그는 그들을 비웃고 놀리고 모욕하면서 거만하게 말하였다.
 35 그러고 나서 화를 내며 맹세하였다. "만일 유다와 그의 군대를 당장 내 손에 넘겨주지 않으면,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에 이 집을 불태워 버리겠다." 그러고는 더 크게 화를 내며 나갔다.
 36 사제들은 안으로 들어가 제단과 성전 앞에서 울며 말하였다.
 37 "당신께서는 이 집을 선택하시어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고 당신 백성이 기도하고 간청하는 집이 되게 하셨습니다.
 38 저자와 그 군대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저들을 칼로 쓰러뜨려 주십시오. 저들이 저지른 불경을 잊지 마시고 저들을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이 니카노르를 무찌른다

- 39 니카노르가 예루살렘에서 나와 벳 호론에 잔을 치자, 시리아 군대가 그와 합류하였다.
 40 유다도 병사 삼천 명과 함께 하다사에 진을 쳤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41 "임금이 보낸 자들이 불경을 저질렀을 때, 당신의 천사가 나와서 그들 가운데 십팔만 오천 명을 쳐 죽였습니다.
 42 오늘도 저희 앞에서 저 군대를 치시어, 니카노르가 당신 성소를 두고 악한 말을 하였음을 살아남은 자들이 알게 하시고, 그의 악행에 따라 그를 심판하여 주십시오."
 43 아다르 달 열사흘날에 양쪽 군대가 맞서 싸웠는데, 니카노르의 군대가 패배하고 니카노르 자신은 그 전투에서 가장 먼저 쓰

리켰다.

- 44 니카노르가 쓰러진 것을 본 그의 군대는 무기를 내던지고 달아났다.
- 45 유다인들은 신호 나팔을 불며 그들을 뒤쫓아, 하다사에서 가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룻길을 추격하였다.
- 46 게다가 주변의 모든 유다 마을에서 사람들이 나와 그들을 막았으므로, 그들은 다시 유다의 군대 쪽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칼에 맞아 쓰러져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 47 유다의 군대는 전리품과 노획물을 거둔 다음, 니카노르의 머리와 거만하게 내쫓던 그의 오른손을 잘라 가지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 밖에 걸어 놓았다.
- 48 백성은 몹시 기뻐하며 그날을 큰 기쁨의 날로 경축하였다.
- 49 그리고 해마다 아다르 달 열사흘날을 경축일로 지내기로 결정하였다.
- 50 유다 땅은 한동안 평온하였다.

로마인들에 관한 찬사

- 8¹ 유다는 로마인들의 명성을 들었다. 그들은 대단히 강력하면서도, 저희 편에 서는 이들은 누구에게나 호의를 베풀고, 저희에게 다가오는 이들은 누구와도 우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었다.
- 2 그들은 정말 대단히 강하다는 것이었다. 유다는 또 그들이 갈리아인들과 용감하게 싸워 그들을 정복하고 조공을 바치게 하였으며,
- 3 에스파냐 지방에서 그곳의 은광과 금광을 점령하려고 싸웠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 4 로마인들은 그 지방이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었지만, 계획대로 끈기 있게 그곳을 모두 장악하였다. 그리고 세상 끝에서 쳐들어온 임금들을 무찌르고 그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다른 임금들은 그들에게 해마다 조공

을 바쳤다.

- 5 그들은 또 키팀 임금 필리포스와 페르세우스를 비롯하여 자기들에게 반항하는 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정복하였다.
- 6 그리고 코끼리 백이십 마리와 기병대와 병거대와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그들과 싸우러 온 아시아 임금 대안티오코스도 쳐부수었다.
- 7 그들은 안티오코스를 사로잡아 그와 그의 뒤를 잇는 임금들이 많은 조공과 인질을 바치게 하였다.
- 8 그뿐 아니라 인도, 메디아, 리디아 등 가장 좋은 지방을 안티오코스에게서 빼앗아 에우메네스 임금에게 주었다.
- 9 이렇게 되자 그리스인들이 가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였는데,
- 10 로마인들이 그 일을 알고 장수 하나를 그곳에 보내어 그리스인들과 싸우게 하였다. 많은 그리스인들이 부상을 입고 쓰러졌으며,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은 포로로 잡혀갔다. 로마인들은 그들을 약탈하고 그 땅을 정복하여 요새들을 부수어 버렸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다.
- 11 로마인들은 자기들에게 대항하는 그 밖의 나라와 섬들도 모두 멸망시키고 그 주민들을 노예로 만들었다.
- 12 그러나 자기들의 벗들이나 자기들에게 의지하는 이들과는 우호 관계를 유지하였다. 로마인들이 이렇게 멀고 가까운 곳의 임금들을 정복하니, 그들의 이름을 듣는 이는 누구나 그들을 두려워하였다.
- 13 그들이 도와서 임금으로 만들려고 작정하거만 하면 누구든지 임금이 되었고, 그들이 작정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물러나게 되었다. 이렇듯 그들의 위세가 드높았다.
- 14 그럼에도 로마인들은 아무도 왕관을 쓰지 않고, 위엄 있게 보이려고 자주씩 찬을 두

르지 않았다.

- 15 그들은 원로원을 세워, 삼백이십 명의 의원들이 날마다 백성의 문제를 끊임없이 논의하여 잘 다스리게 하였다.
- 16 또 해마다 한 사람을 뽑아 백성을 다스리고 온 나라를 통치하게 하였다. 백성은 모두 그 한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들 가운데에는 시기나 질투가 없었다.

유다인들이 로마와 우호 동맹을 맺다

- 17 유다는, 아코츠의 손자이며 요한의 아들이 에우플레모스와 엘자르의 아들 아손을 뽑아 로마로 보내어, 우호 동맹을 맺게 하였다.
- 18 그리스인들의 왕국이 이스라엘인들을 완전히 노예로 부리는 것을 보고, 그 땅에서 벗어나려는 것이었다.
- 19 그들은 아주 긴 여행 끝에 로마에 도착하여 원로원으로 들어가 이렇게 말하였다.
- 20 "우리는 마카베오라고 하는 유다와 그의 형제들과 유다 땅의 백성이 보내서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여러분과 평화 동맹을 맺어, 우리가 여러분의 우호 동맹국으로 등록되게 해 주십시오는 것입니다."
- 21 이 제안이 그들의 마음에 들었다.

- 22 그들은 청동 탁자에서 편지를 쓴 다음 에루살렘으로 보내어 평화 동맹의 기념으로 그곳에 보관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그 사본이다.
- 23 "로마인과 유다 민족이 바다와 육지에서 영원히 번영하고, 이 두 민족에게는 전쟁이나 외침이 없기를 바란다.
- 24 로마나 로마인들이 지배하는 동맹국 가운데 어느 나라에서든 먼저 전쟁이 일어날 경우,
- 25 유다 민족은 제때에 마음을 다하여 참전해야 하고,
- 26 로마의 결정에 따라, 적에게 곡식과 무기와

돈과 선박을 제공하거나 보급해서는 안 된다. 유다 민족은 대가 없이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

- 27 마찬가지로 유다 민족에게 먼저 전쟁이 일어날 경우, 로마인들은 제때에 기꺼이 참전해야 하며,
- 28 로마의 결정에 따라, 적군에게 곡식과 무기와 돈과 선박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로마인들은 이 규정을 거짓 없이 지켜야 한다.
- 29 이러한 내용으로 로마인들은 유다 백성과 조약을 맺는다.
- 30 앞으로 여기에 무엇을 첨가하거나 삭제하려고 할 때에는 양쪽의 합의에 따라 해야 하며, 그 경우 첨가나 삭제가 효력을 갖는다.
- 31 우리 로마인들은 데메트리오스 임금이 유다인들에게 저지른 악행에 관하여 그에게 이러한 편지를 썼다. '어찌하여 그대는 우리의 벗이며 우리와 동맹을 맺은 유다인들에게 땅을 씌워 무겁게 하였소?'
- 32 그들이 또다시 그대를 고발하며 탄원해 오면, 우리는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바다에서든 육지에서든 그대와 싸울 것이오."

유다 마카베오가 배소에서 전사하다

- 9¹ 데메트리오스는 니카노르와 그의 군사들이 전장에서 쓰러졌다는 보고를 받고, 우익군과 더불어 바키테스와 알키모스를 다시 유다 땅으로 보냈다.
- 2 그들은 길갈로 가는 길로 행군하여 아르벨라의 매살롯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곳을 점령하여 많은 사람을 죽였다.
- 3 백오십이던 첫째 달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을 쳤다가,
- 4 보병 이만과 기병 이천을 거느리고 그곳을 떠나 베렛으로 행군하였다.
- 5 그때에 유다는 이미 정병 삼천을 이끌고 엘라사에 진을 치고 있었다.

- 6 그런데 그들은 적군의 수가 많은 것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많은 병사가 진지를 이탈하고 팔백 명만 남았다.
- 7 유다는 싸움이 임박하였는데 자기 군대가 흩어지는 것을 보고, 군사들을 다시 모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 8 그는 낙담하였지만, "일어나 적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는 그들을 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남은 이들에게 말하였다.
- 9 그러자 그들이 유대를 말리며 말하였다. "우리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우리의 목숨을 구하고, 나중에 우리 동포들과 함께 다시 와서 싸우시다. 우리는 수가 적습니다."
- 10 그러나 유다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들 앞에서 달아나다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죽어야 할 때가 닥쳤다면, 동포들을 위해서 용감하게 죽어 우리의 명예에 오점을 남기지 말자."
- 11 그때에 적군이 진지를 떠나 유대인들과 맞섰다. 적의 기병대는 두 편으로 나뉘었는데, 투석병들과 궁수들이 군대의 선봉에 서고, 강력한 돌격대도 모두 앞에 나섰다.
- 12 바키테스는 우익군에 있었다. 적의 양 전열이 나팔을 불며 진격해 오자, 유대의 병사들도 나팔을 불었다.
- 13 양쪽 군대에서 터지는 함성으로 땅이 흔들리고, 전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었다.
- 14 유다는 바키테스와 그 군대의 주력 부대가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고, 담력과 용기가 있는 모든 군사와 함께 진격하여,
- 15 적군의 오른쪽 부대를 무너뜨리고 아스돗 산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다.
- 16 좌익군은 우익군이 무너진 것을 보고, 발길을 돌려 유대와 그의 병사들을 바짝 뒤쫓았다.

- 17 싸움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여기저기에서 많은 이가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 18 유다도 쓰러졌다. 그러자 남은 병사들이 달아났다.
- 19 요나탄과 시몬은 자기들의 형제 유다의 주검을 거두어, 모데인에 있는 조상들의 무덤에 묻고,
- 20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온 이스라엘도 크게 통곡하고 여러 날을 슬퍼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 21 "이스라엘을 구한 분이, 그 용맹한 분이 어찌다 쓰러졌는가?"
- 22 유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이끈 전쟁과 그의 용맹, 그리고 그의 위대함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 많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요나탄이 유다의 후계자가 되다

- 23 유다가 죽은 뒤, 온 이스라엘 영토에서는 무도한 자들이 머리를 치켜들고, 불의를 일삼는 자들이 모두 일어났다.
- 24 더구나 그때에 큰 기근까지 들어 온 지방이 그들에게 넘어가고 말았다.
- 25 바키테스는 사악한 자들을 뽑아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다.
- 26 그들이 유다의 밧들을 샅살이 찾아내어 바키테스에게 끌고 가자, 바키테스는 그들에게 보복하고 그들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 27 그것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끊긴 이래 일찍이 없었던 큰 재난이었다.
- 28 유다의 밧들이 모두 모여 요나탄에게 말하였다.
- 29 "당신의 형 유다가 죽은 뒤로는, 적들과 바키테스와 우리 민족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유다처럼 맞설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 30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의 후계자로 당신을 뽑아 우리의 지도자로 삼고 우리의 전쟁을 지휘하게 하였습니다."
- 31 그때부터 요나탄은 지휘권을 받아 자기 형

유다의 후계자가 되었다.

요나탄과 바키데스의 전투

- 32 바키데스는 이 사실을 알고 요나탄을 죽이려 하였다.
- 33 그러나 요나탄과 그의 형 시몬과 그의 모든 군사는 그것을 알고, 트코아 광야로 달아나 아스파르 못가에 진을 쳤다.
- 34 바키데스도 안식일에 그 사실을 알고서 진군을 이끌고 요르단을 건넜다.
- 35 요나탄은 보급대의 책임자인 형 요한을 보내어 자기의 벗들이 나바태어인들에게 많은 양의 짐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 36 그런데 메드바의 암브리 자손들이 나와 요한을 붙잡고 그가 가진 모든 것도 함께 빼앗아 가 버렸다.
- 37 이러한 일이 일어난 뒤, 사람들이 요나탄과 그의 형 시몬에게 보고하였다. "암브리의 자손들이 큰 혼인 잔치를 벌이는데, 가나안 대귀족의 딸인 신부를 데리고 큰 대렬을 지어 나다뻑에서 오고 있습니다."
- 38 그들은 자기들의 형 요한의 참혹한 죽음을 생각하며 산으로 올라가서 매복하였다.
- 39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많은 짐을 진 소란스러운 행렬이 오는데, 신랑과 그의 벗들과 형제들이 그 행렬을 맞이하려 손뼉을 치는 사람들과 악대와 무기를 든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나왔다.
- 40 그때에 요나탄 형제가 매복해 있던 자리에서 나가 그들을 죽였다.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어 쓰러지고 살아남은 자들은 산으로 달아났다. 요나탄 형제는 그들의 물건을 모두 차지하였다.
- 41 그리하여 혼인 잔치는 슬픔으로 변하고 그들의 악대 소리는 통곡으로 변하였다.
- 42 이렇게 요나탄 형제는 형의 참혹한 죽음을 복수하고 나서 요르단 습지로 돌아갔다.
- 43 보고를 받은 바키데스는 안식일에 큰 군대

를 거느리고 요르단 강가로 나왔다.

- 44 그때에 요나탄이 자기 군사들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싸우자. 정녕 오늘은 어찌와도 그제와도 같지 않다."
- 45 지금 우리는 앞뒤로 싸워야 한다. 이쪽은 요르단 강물이, 저쪽은 습지와 담불이 가로막아 비켜 나갈 곳이 없다.
- 46 그러니 이제 하늘을 향해 소리쳐 적들의 손에서 구해 달라고 하여라."
- 47 싸움이 시작되자 요나탄은 바키데스를 치려고 손을 뻗었다. 그러나 바키데스는 그를 피하여 뒤로 물러섰다.
- 48 요나탄과 그의 군사들은 요르단 강에 뛰어 들어 건너편으로 헤엄쳐 갔다. 그러나 적군은 그들을 뒤따라 요르단을 건너지 않았다.
- 49 그날에 바키데스 쪽에서 천 명가량이 쓰러졌다.
- 50 바키데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유다에 있는 성읍들, 곧 예리코의 요새와 엠마오, 벳 호론, 베텔, 탐나, 파라톤, 태폰을 높은 성벽과 성문과 빗장으로 튼튼하게 하였다.
- 51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그곳에 수비대를 배치하였다.
- 52 또한 그는 벳 추르 성읍과 가자라와 예루살렘 성채를 튼튼하게 한 뒤, 군대를 배치하고 양식을 쌓아 두었다.
- 53 그리고 그 지방 지도자들의 아들들을 인질로 잡아다가, 예루살렘 성채의 감옥에 가두었다.

알키모스가 죽다

- 54 백오십삼년 둘째 달에 알키모스는 성소 안뜰의 벽을 헐어 버리라고 명령하였다. 예언자들의 업적까지 없애 버리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것을 헐기 시작하였다.
- 55 그때에 알키모스가 갑자기 쓰러져 작업이 중단되었다. 그는 입이 막히고 굳어져 더 이상 말 한마디 못 하고, 집안일에 관해서

조차 지시를 내릴 수 없게 되었다.

- 56 마침내 알키모스는 큰 고통 속에서 죽어 갔다.
- 57 알키모스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고 바키테스는 임금에게 돌아갔다. 그리하여 두 해 동안 유다 땅이 평온하였다.

바키테스가 벳 바시에서 패배하고 유다를 떠나다

- 58 무도한 자들이 모두 모여 논의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요나탄과 그의 군사들은 평온하고 안전하게 지내고 있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바키테스를 다시 끌어들이, 그가 저들을 하룻밤 사이에 모두 잡아가게 합시다."
- 59 그리고 나서 그들은 바키테스에게 가서 함께 모의하였다.
- 60 바키테스는 대군을 이끌고 떠나면서 유다에 있는 모든 동맹자에게 비밀리에 편지를 보내어, 요나탄과 그의 군사들을 다 잡으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음모가 알려져 실패하였다.
- 61 그러자 요나탄과 그의 군사들은 이 악행을 주도한 유다 지방 사람들을 쉰 명기량 잡아 죽였다.
- 62 요나탄은 시몬과 자기 군사들과 함께 광야에 있는 벳 바시로 나갔다. 그는 그 성읍의 허물어진 태를 고치고 그곳을 견고하게 하였다.
- 63 이를 안 바키테스는 모든 군대를 소집하고 유다 땅의 동조자들에게도 명령을 내렸다.
- 64 그는 진군하여 벳 바시를 향하여 진을 치고 여러 날 그곳을 치면서 공격 기구들을 만들었다.
- 65 요나탄은 그 성읍에 형 시몬을 남겨 두고 성 밖으로 나갔다. 그때에 그는 몇 사람만 데리고 가서,
- 66 오도메리와 그의 형제들, 그리고 숙영지에 있는 파시론의 자손들을 쳤다. 그들도 공

- 격하기 시작하며 병력을 이끌고 올라갔다.
- 67 그 틈에 시몬과 그의 군사들이 성읍에서 나와 공격 기구들을 불살라 버리고,
- 68 바키테스와 싸웠다. 마침내 바키테스가 무너졌다. 그는 자기의 원정 계획이 허사로 돌아가자 크게 낙담하였다.
- 69 그래서 이 지방으로 진격하기를 권유한 무도한 자들에게 몹시 화를 내며 그들을 많이 죽였다. 그리고 나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 70 요나탄은 그 사실을 알고 그에게 사절을 보내어, 화친을 맺고 포로들을 남겨 달라고 하였다.
- 71 바키테스는 이를 받아들여 그의 말대로 하였다. 그는 일생 동안 내내 요나탄을 해치려 하지 않았다고 맹세하고,
- 72 전에 유다 땅에서 잡아간 포로들을 요나탄에게 넘겨주었다. 그 뒤에 바키테스는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다시는 유다인들의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
- 73 드디어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멈추었다. 미크마스에 자리를 잡고 백성을 다스리기 시작한 요나탄은 이스라엘에서 사악한 자들을 없애 버렸다.

일렉산드로스가 요나탄을 다시제로 임명하다

- 10** ¹ 백육십년에 안티오코스의 아들 알렉산드로스 에피파네스가 프톨레마이스에 상륙하여 그곳을 점령하였다.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자 그는 그곳에서 왕위에 올랐다.
- 2 그 소식을 들은 데메트리오스 임금은 매우 큰 군대를 모아 그에게 맞서 싸우려고 나섰다.
 - 3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요나탄에게 높은 지위를 약속하는 평화의 말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 4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던 것이다. '요

- 나탄이 우리를 치려고 알렉산드로스와 화친을 맺기 전에, 우리가 먼저 유대인들과 화친을 맺자.
- 5 자기 신과 자기의 형제와 민족에게 우리가 저지른 온갖 악행을 요나탄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 6 그래서 데메트리오스는 요나탄에게, 자기의 동맹자가 되어 군대를 모으고 무장시키는 권한을 주었다. 그리고 성채에 기둔 인질들을 요나탄에게 넘겨주라고 명령하였다.
- 7 요나탄은 예루살렘에 와서 온 백성과 성채의 군사들이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그 편지를 읽었다.
- 8 임금이 요나탄에게 군대를 모으는 권한을 주었다는 말을 듣고, 성채의 군사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 9 그래서 요나탄에게 인질들을 넘겨주고, 요나탄은 그들을 그 부모들에게 돌려보냈다.
- 10 요나탄은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은 뒤, 이 도성을 보수하고 재건하기 시작하였다.
- 11 그는 작업을 하는 일꾼들에게 성벽을 쌓고 시온 산을 네모진 돌로 둘러쌓아 요새로 만들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 12 그러자 바키테스가 지은 요새들에 있던 이 민족들이 달아났다.
- 13 그들은 저마다 제자리를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다.
- 14 그러나 벧 추르에만은 율법과 계명을 저버린 자들이 일부 남아 있었다. 그곳이 피신처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 15 알렉산드로스 임금은 데메트리오스가 요나탄에게 편지를 보내어 약속한 것들을 다 들었다. 아울러 요나탄과 그 형제들이 이끈 전쟁과 그들의 용맹, 또 그들이 겪은 여러 가지 고난에 관해서도 들었다.
- 16 그래서 그는 "이러한 인물을 어디서 또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제 그를 우리의

- 벗이며 동맹자로 만들자." 하고 말하였다.
- 17 임금은 그에게 편지를 써서 이러한 말을 전하였다.
- 18 "알렉산드로스 임금이 요나탄 형제에게 인사합니다.
- 19 우리는 귀하가 대단히 강력한 인물로서 우리의 벗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20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귀하를 귀 민족의 대사제로 임명하고, 임금의 벗이라는 칭호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편이 되어 우리와 우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는 그에게 자주색 옷과 금관을 보냈다.
- 21 이렇게 하여 요나탄은 백육십년 일곱째 달 초막절에 거룩한 사제 옷을 입었다. 그리고 그는 군대를 모으고 많은 무기를 마련하였다.

데메트리오스 임금이 새로운 재인을 하다

- 22 데메트리오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속이 상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 23 "알렉산드로스가 자기 기반을 튼튼히 하려고 우리보다 앞서 유대인들과 우호 관계를 다졌는데,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말인가?
- 24 나도 그들에게 격려의 말로 편지를 써서 높은 지위와 선물을 약속하고 그들의 협조를 받아야 하겠다."
- 25 그러고는 이러한 말을 써서 보냈다. "데메트리오스 임금이 유대 민족에게 인사합니다.
- 26 여러분이 우리와 맺은 계약을 지키고 우호 관계를 유지하여, 우리의 원수들 편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기뻐하였습니다.
- 27 앞으로도 계속 신의를 지켜 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에게 보여 준 호의에 꼭 보답하

겠습니다.

- 28 우리는 여러분에게 많은 세금을 면제해 주고 선물도 주겠습니다.
- 29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고, 모든 유대인에게 조공과 소금 세와 왕관 세를 면제해 줍니다.
- 30 또 나에게 바쳐야 하는 곡식의 삼분의 일 세와 나무 열매의 이분의 일 세를 오늘부터 면제합니다. 그리하여 유다 땅에서, 그리고 사마리아와 갈릴래이에서 유다에 편입된 세 지역에서, 오늘부터 영원히 그 세금들을 거두지 않겠습니다.
- 31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으로 인정하고 그 주변 지역과 함께 십일조와 조세를 면제합니다.
- 32 나는 예루살렘 성채의 지배권을 포기하고 대사제에게 넘겨줍니다. 그는 성채를 지킬 사람들을 뽑아 그곳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 33 또한 나는 유다 땅에서 나의 왕국 곳곳에 포로로 끌려온 모든 유대인을 몸값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풀어 줄뿐더러, 그들의 가족에 대해서도 세금을 받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 34 모든 축제일과 안식일, 초하룻날과 축일, 그리고 축제 전 사흘과 축제 후 사흘, 이 모든 날을 내 왕국에 사는 모든 유대인이 공공 의무와 세금을 면제받는 날로 삼겠습니다.
- 35 어느 누구도 이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유대인에게 세금을 강요하거나 그들을 괴롭힐 권리가 없습니다.
- 36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삼만 명이 임금의 군대에 편입되어, 임금의 모든 군사와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 37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임금의 큰 요새에 배치되고, 어떤 이들은 왕국에서 신임 받는 자리에 배치될 것입니다. 그들의 상관과 지휘관들도 그들 가운데에서 나올 것

이며, 또 그들은 임금이 유다 땅에 명령을 내린 대로 자기들의 법에 따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 38 사마리아 지방에서 유다에 편입된 세 지역은 유다와 합쳐지고 한 통치자에게 속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대사제 말고는 다른 어떤 권력자에게 복종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 39 나는 프톨레마이스와 그 인접 지역을 예루살렘 성소에 선물로 주어, 성소의 경비를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 40 여기에 덧붙여 나도 해마다 적절한 곳에서 거둔 임금의 수입 가운데에서 은 만 오천 세켈을 주겠습니다.
- 41 관리들이 처음 몇 해 동안 주다가 나중에는 주지 않던 모든 추가 보조금도 지금부터는 성전 비용으로 다시 내줄 것입니다.
- 42 거기에다 해마다 성소 수입에서 받아 오던 은 오천 세켈도 면제합니다. 그것은 그곳에서 봉직하는 사제들의 뭉기 때문입니다.
- 43 임금에게 빚을 졌거나 그 밖에 온갖 다른 사정으로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 경내 어디로든 달아난 자는 누구나 사면되고, 내 왕국에 있는 제 소유물도 다 되돌려 받을 것입니다.
- 44 성소 건물을 보수하고 재건하는 경비는 임금의 수입에서 충당할 것입니다.
- 45 또한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고 그 둘레를 튼튼히 하는 경비도 임금의 수입에서 충당하며, 유다 땅의 다른 성벽들을 보수하는 비용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데메트리오스가 죽다

- 46 요나탄과 백성은 이 말을 듣고 아무도 그것을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데메트리오스가 이스라엘에서 저지른 엄청난 악행과 자기들을 몹시 괴롭힌 일을 기억하였기 때문이다.

- 47 그러나 자기들에게 먼저 평화의 말을 해 온 알렉산드로스에게는 호감을 가지고 언제나 그와 동맹 관계를 유지하였다.
- 48 그때에 알렉산드로스 임금은 대군을 모아 데메트리오스에게 맞서 진을 쳤다.
- 49 두 임금이 교전한 끝에 알렉산드로스의 군대가 달아나자, 데메트리오스가 그를 추격하여 그의 군사들을 무찌르고
- 50 해가 질 때까지 치열한 전투를 벌였지만 데메트리오스는 그날 전사하고야 말았다.

알렉산드로스가 프톨레마이오스와 맹약을 맺다

- 51 알렉산드로스는 이집트 임금 프톨레마이오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러한 말을 전하였다.
- 52 "내가 이제 나의 왕국으로 돌아와서, 조상들의 왕좌에 오르고 통치권을 잡았습니다. 데메트리오스를 무찌르고 우리 영토를 되찾은 것입니다.
- 53 나는 그와 전쟁을 벌였는데, 그와 그의 군대가 우리에게 패배하여, 우리가 그의 왕좌에 앉게 되었습니다.
- 54 그러나 이제 우리 서로 우호 관계를 맺읍시다. 따님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위가 되어, 임금님의 품위에 맞는 선물을 임금님과 따님에게 드리겠습니다."
- 55 그러자 프톨레마이오스 임금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 그 왕좌에 앉게 된 날이야말로 복된 날입니다.
- 56 이제 나는 임금님이 편지에 쓴 대로 하겠으니, 우리가 상견례를 하계 프톨레마이오스에서 만납시다. 나는 제안대로 임금님의 장인이 되겠습니다."
- 57 그 뒤 프톨레마이오스는 백육십이년에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데리고 이집트에서 나와 프톨레마이오스로 갔다.
- 58 알렉산드로스 임금이 그를 영접하였다. 프

톨레마이오스는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알렉산드로스에게 넘겨주고, 임금들이 하는 대로 프톨레마이오스에서 매우 호화로운 혼인 잔치를 벌였다.

알렉산드로스가 요나탄과 맹약을 맺다

- 59 알렉산드로스 임금은 요나탄에게 자기를 만나러 오라고 편지를 썼다.
- 60 그래서 요나탄은 화려한 행렬을 이끌고 프톨레마이오스로 가서, 그 두 임금을 만나 은과 금을 주고 그들의 벗들에게도 많은 예물을 주어 호감을 샀다.
- 61 그때에 이스라엘에서 간악한 자들, 곧 변절자들이 몰려가서 그를 고발하였지만, 임금은 그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 62 임금은 오히려 요나탄의 옷을 벗기고 자주색 옷을 입혀 주라고 명령하였다. 부하들이 그대로 실행하자,
- 63 임금은 그를 제 곁에 앉히고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분을 모시고 성읍 한복판으로 가서, 아무도 어떤 문제든 이분을 고발하거나 어떤 구실로든 이분을 괴롭히지 말라고 선포하여라."
- 64 요나탄을 고발한 자들은, 그렇게 선포되는 대로 그가 영광을 차지하고 자주색 옷을 입은 것을 보고는 모두 달아났다.
- 65 그러자 임금은 그를 영광스럽게 하여 첫째 가는 벗들 가운데 하나로 등록시키고, 그를 총독으로 또 지방 장관으로 세웠다.
- 66 요나탄은 기뻐하며 평화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나탄이 아폴로니우스와 싸우다

- 67 백육십이년에 데메트리오스의 아들 데메트리오스가 크레타에서 나와, 자기 조상들의 땅으로 들어갔다.
- 68 알렉산드로스 임금은 이 소식을 듣고 몹시 걱정하며 안티오키아로 들어갔다.
- 69 데메트리오스가 아폴로니우스를 코알레 시

리아의 총독으로 세웠다. 아폴로니우스는 대군을 모아 암니아에 진을 치고, 대사제 요나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러한 말을 전하였다.

70 "오로지 그대만 우리에게 저항하고 있소. 그대 때문에 내가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소. 어찌하여 그대는 그 산속에서 우리에게 위세를 부리는 것이오?"

71 지금이라도 그대의 군대를 믿는다면 우리가 있는 평야로 내려오시오. 거기에서 서로 겨루어 봅시다. 성읍들의 군대는 내 편이오.

72 내가 누구인지, 우리를 돕는 나머지 사람들이 누구인지 물어보시오. 그대의 조상들이 저희 땅에서 두 번이나 패주하였기 때문에, 그대들도 우리에게 맞설 수 없다고 사람들이 말해 줄 것이오.

73 평야에서는 그대가 이처럼 많은 기병과 군대와 겨룰 수 없소. 이곳에는 돌도 자갈도 없고 달아날 데도 없소."

74 요나탄은 아폴로니우스의 말을 듣고 분이 치밀어, 군사 만 명을 뽑아 예루살렘에서 나왔다. 그의 형 시몬도 그를 도우려고 합세하였다.

75 요나탄이 야포 앞에 진을 쳤지만, 아폴로니우스의 주둔군이 야포에 있었으므로 그 성읍 주민들은 그에게 성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요나탄의 군대가 그곳을 공격하자,

76 성읍 주민들이 두려워서 성문을 열어 주었다. 그리하여 요나탄이 야포를 점령하였다.

77 아폴로니우스는 이 소식을 듣고 기병 삼천과 큰 군대를 집합시켜, 그곳을 그냥 지나치는 척하며 아스돗으로 갔다. 그는 또한 자기의 수많은 기병대를 믿었으므로 평야로 진군하였다.

78 그러자 요나탄이 그를 뒤쫓아 아스돗까지 갔다. 거기에서 양쪽 군대가 맞서 싸웠다.

79 아폴로니우스는 기병 천 명을 미리 후방에

숨겨 두었지만,

80 요나탄은 자기 뒤에 복병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적군은 요나탄의 군대를 포위하고 그의 병사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활을 쏘아댔다.

81 그러나 병사들은 요나탄이 명령한 대로 쫓겨 버티었다. 마침내 적의 군마들이 지치게 되었다.

82 이렇게 적의 기병대가 지쳐 있었으므로, 시몬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적의 전열과 맞서 싸우자, 적군은 시몬에게 패배하여 달아났다.

83 기병대도 평야에 뿔뿔이 흩어져, 목숨을 구하려고 아스돗으로 달아나 저희 신전인 벧다곤으로 들어갔다.

84 요나탄은 아스돗과 그 주변 성읍들을 불태우고 거기에서 전리품을 거둔 다음, 다곤 신전과 그곳으로 피신한 자들을 불로 태워 버렸다.

85 그리하여 칼에 맞아 쓰러진 자와 불에 타 죽은 자가 팔천 명가량 되었다.

86 요나탄은 그곳을 떠나 아스클론을 향하여 진을 쳤다. 그러자 그 성읍 주민들이 나와 그를 성대하게 맞이하였다.

87 요나탄은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군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88 알렉산드로스 임금에 그 소식을 듣고 요나탄을 더욱 영예롭게 하였다.

89 그는 관습상 임금의 친족에게만 주는 금 줍쇠를 요나탄에게 보내고, 예크론과 거기에 딸린 모든 지역을 그의 몫으로 내주었다.

데메트리오스와 프톨레마이오스가 동맹을 맺다

11 ¹ 이집트 임금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군대와 수많은 배를 한테 모아, 알렉산드로스의 왕국을 속임수로 점령하여 자기 왕국에 합병시키려고 하였다.

- 2 그가 평화의 말을 하며 시리아로 나아가니, 그곳 성읍 주민들이 성문을 열고 그를 맞이 하였다. 그가 자기의 장인이므로 그를 맞이 하라고 알렉산드로스 임금의 명령하였던 것이다.
- 3 프톨레마이오스는 성읍에 들어갈 때마다 각 성읍에 주둔군을 배치하였다.
- 4 그가 아스돗에 가까이 이르자, 사람들은 불에 타 버린 다곤 신전, 폐허가 된 아스돗과 그 주변, 내던져진 주검들과 요나탄이 전쟁에서 불태워 죽인 주검들을 그에게 보여 주었다. 그가 가는 길에 그 주검들을 쌓아 놓았던 것이다.
- 5 그들은 임금에게 요나탄이 한 일들을 낱낱이 일러바치며 그를 비난하였다. 그러나 임금의 잡자코 있었다.
- 6 요나탄은 아포에서 임금을 성대하게 맞았는데, 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그날 밤을 거기에서 묵었다.
- 7 요나탄은 임금과 함께 엘레우테로스라고 불리는 강까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 8 프톨레마이오스 임금은 바다가의 셀레우키아에 이르기까지 해안 성읍들을 차지한 뒤, 알렉산드로스를 치려고 사악한 음모를 꾸며 나아갔다.
- 9 그리고 데메트리오스 임금에게 사신을 보내어 말하였다. "우리 서로 계약을 맺읍시다. 알렉산드로스가 데리고 있는 내 딸을 임금 남에게 주겠습니다. 임금님의 부왕이 차지하였던 왕국을 다스리십시오.
- 10 알렉산드로스가 나를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딸을 준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 11 프톨레마이오스는 알렉산드로스의 왕국을 탐내어 이렇게 그를 비난하였다.
- 12 그리고 나서 자기 딸을 데려다가 데메트리오스에게 주었다. 그러자 알렉산드로스와 사이가 멀어지고 그 둘의 적개심이 드러나

게 되었다.

- 13 그 뒤에 프톨레마이오스는 안티오키아로 들어가 아시아의 왕관을 썼다. 이렇게 하여 그는 이집트와 아시아의 왕관을 둘 다 머리에 쓰게 되었다.

알렉산드로스와 프톨레마이오스가 죽다

- 14 칼리키아 사람들이 일으킨 반란 때문에 그곳에 가 있던 알렉산드로스 임금은,
- 15 이 소식을 듣고 프톨레마이오스와 싸우러 진군하였다. 프톨레마이오스도 강력한 병력을 이끌고 나와 알렉산드로스에게 맞서 그를 패주시켰다.
- 16 알렉산드로스는 피신처를 찾아 아라비아로 달아났다. 이렇게 하여 프톨레마이오스 임금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내었다.
- 17 그때에 아라비아 사람 잡디엘이 알렉산드로스의 목을 베어 프톨레마이오스에게 보냈다.
- 18 그러나 사흘 뒤, 프톨레마이오스 임금도 죽고 요새에 있던 그의 부하들도 그곳 주민들에게 살해되었다.
- 19 그리하여 데메트리오스가 백육십칠년에 임금이 되었다.

요나탄이 데메트리오스와 동맹을 맺다

- 20 그 무렵에 요나탄은 예루살렘의 성채를 공격하려고, 유다인들을 소집하고 그곳을 공격할 무기를 많이 만들었다.
- 21 그런데 제 민족을 미워하는 변절자 몇이 임금에게 가서, 요나탄이 성채를 포위하였다고 보고하였다.
- 22 그 보고를 들은 임금은 화를 내었다. 그는 보고를 듣자마자 출정하여 프톨레마이오스로 갔다. 그리고 요나탄에게 포위를 풀고, 되도록 빨리 프톨레마이오스에서 만나 상의하자고 편지를 썼다.
- 23 그러나 요나탄은 그러한 제의를 듣고도 포위를 계속하라고 명령하는 한편, 스스로 위

- 힘을 감수하기로 하고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사제들을 뽑아,
- 24 은과 금과 옷, 그 밖에도 많은 선물을 가지고 프톨레마이스로 임금을 찾아가다. 그러자 그는 임금의 호감을 샀다.
- 25 그 때에 백성 가운데 간악한 자들 몇이 그를 고발하였다.
- 26 그러나 임금은 선왕들이 한 것처럼 그를 대하고, 자기의 모든 벗 앞에서 그를 높여 주었다.
- 27 임금은 또 그의 대사제직과 이전의 명예로운 직책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고, 그를 첫째가는 벗들 가운데 하나로 삼았다.
- 28 그러자 요나탄은 유다는 물론 사마리아의 세 구역에서 걷는 세금도 면제해 달라고 임금에게 청하면서, 그 대신에 삼백 탈렌트를 바치겠다고 약속하였다.
- 29 임금은 그 청을 받아들이고 이 모든 일과 관련하여 요나탄에게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써 주었다.
- 30 "데메트리오스 임금이 요나탄 형제와 유다 민족에게 인사합니다.
- 31 우리가 여러분에 관하여 우리 친족 라스테네스에게 써 보낸 편지의 사본을 당신들에게도 써 보내니 받아 보십시오.
- 32 '데메트리오스 임금이 아버지 라스테네스에게 인사드립니다.
- 33 우리의 벗이며 우리에게 의무를 다하는 유다 민족이 선의를 보이기 때문에, 그들을 잘 대해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34 우리는 유다의 영토와 이페레마, 로드, 라마뎀 세 지역을 그들의 땅으로 인정합니다. 이 세 지역은 그 주변 모든 지방과 더불어 사마리아에서 유다에 편입된 곳으로, 전에는 임금이 해마다 그 땅의 소출과 과일에 대하여 세를 거두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에게 바치는 이 세금을 예루살렘에서 희생 제사를 지내는 모든 이에게 면

제합니다.

- 35 또 그들이 십일조에서 우리에게 바치는 다른 조세들과 그 밖의 세금들, 그리고 염전세와 왕관세 등이 모든 것도 이제부터 그들에게 면제합니다.
- 36 이 결정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지금부터 영원히 취소될 수 없습니다.
- 37 이제 이 편지의 사본을 만들어 요나탄에게 주어서, 거룩한 산 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게 배려해 주십시오."

트로폰이 흥계를 꾸민다

- 38 데메트리오스 임금은 자기의 통치 아래 나라가 평온하고 아무도 자기에게 맞서지 않는 것을 보고는, 다른 나라 섬들에서 모집해 온 외인부대만 남기고, 모든 군대를 해산시켜 저마다 제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런데 선왕들을 모셨던 군대는 모두 그를 미워하였다.
- 39 그러자 전에 알렉산드로스의 부하였던 트로폰이 모든 군대가 데메트리오스에게 불평한다는 것을 알고, 알렉산드로스의 어린 아들 안티오코스를 키우고 있는 아라비아 사람 이말쿠에에게 갔다.
- 40 그리고 안티오코스에게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 임금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자기에게 넘겨 달라고 이말쿠에에게 강력히 요청하였다. 그러면서 데메트리오스가 해 온 모든 일과 그의 군대가 그를 미워한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다.

요나탄이 데메트리오스를 도와준다

- 41 요나탄은 데메트리오스 임금에게 사람을 보내어, 예루살렘 성채의 군대와 다른 요새들의 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그들이 줄곧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42 그러자 데메트리오스가 사람을 보내어 요

나탄에게 이러한 말을 전하였다. "나는 귀하와 귀하의 민족을 위하여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적절한 시기가 오면 귀하와 귀하의 민족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

- 43 그런데 지금 나의 모든 군대가 반란을 일으켰으니, 나와 함께 싸워 줄 병사들을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까."
- 44 그래서 요나탄은 용맹한 병사 삼천 명을 안티오키아로 그에게 보냈다. 그들이 오자 임금은 그들의 도착을 반겼다.
- 45 그 성읍 주민들은 임금을 없애려고 성읍 한복판에 십이만 명이 모였다.
- 46 그리고 임금이 대궐로 달아나자 성읍의 큰 길들을 차지하고 전투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 47 임금은 도와 달라고 유대인들을 불렀다. 그러자 모든 유대인이 바로 그에게 집결하였다가 성읍으로 흩어져 나가, 그날로 그곳 주민 십만 명을 죽이고
- 48 성읍에 불을 질렀다. 그들은 그날 많은 전리품을 거두고 임금도 구하였다.
- 49 유대인들이 저희 뜻대로 성읍을 장악한 것을 보고 사기를 잃은 성읍 주민들은 임금에게 이렇게 간청하며 부르짖었다.
- 50 "저희와 화해해 주십시오. 유대인들이 저희와 성읍을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 51 그러고 나서 그들은 무기를 던지고 화친을 맺었다. 유대인들은 임금과 왕국의 모든 사람 앞에서 영예를 얻고 온 왕국에 이름을 떨친 다음,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 52 이렇게 하여 데메트리오스 임금은 자기 왕좌에 다시 앉게 되고, 나라는 그의 통치 아래 평온해졌다.
- 53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한 모든 약속을 어겨 요나탄과 사이가 나빠졌다. 데메트리오스

는 요나탄이 자기에게 배운 호의에 보답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몹시 괴롭혔다.

요나탄이 트리포와 동맹을 맺다

- 54 이러한 일이 있는 뒤, 트리포가 나이 어린 안티오크스와 함께 돌아왔다. 안티오크스는 임금이 되어 왕관을 썼다.
- 55 데메트리오스가 해산시킨 모든 군사가 안티오크스에게 모여들어 데메트리오스와 맞서 싸우니, 그가 궤배하여 달아났다.
- 56 트리포는 코끼리들을 차지하고 안티오키아를 점령하였다.
- 57 그 뒤에 나이 어린 안티오크스가 요나탄에게 이러한 편지를 썼다. "나는 귀하의 대사제직을 인정하고 귀하를 네 지역의 통치자로 임명하며 임금의 벼들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겠습니다."
- 58 그리고 요나탄에게 금 그릇과 식기들을 보내고, 황금 잔으로 마실 수 있는 권리와 자주색 옷을 입고 금 쥘쇠를 찰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 59 그리고 그의 형 시몬을 '티로의 사닥다리 길'에서 이집트 국경까지 이르는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하였다.
- 60 요나탄은 길을 떠나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과 성읍들을 돌아다녔다. 그러자 시리아의 모든 군대가 그에게 모여 와 동맹군이 되었다. 그가 아스클론에 가서 그 성읍 주민들이 그를 성대하게 맞이하였다.
- 61 거기에서 다시 가자로 갔는데 그곳 주민들은 성문을 닫아 버렸다. 그래서 요나탄은 그곳을 포위한 다음, 그 주변 마을들을 불태우고 약탈하였다.
- 62 가자의 주민들이 요나탄에게 탄원하였으므로, 요나탄은 그들과 화해하고 그곳 우두머리들의 아들들을 인질로 잡아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그리고 나서 그 지방을 지나 다마스쿠스까지 갔다.

요나탄이 데메트리오스와 싸우다

- 63 그때에 요나탄은 데메트리오스의 장수들이 자기의 직위를 박탈하려고 큰 군대를 이끌고 갈릴래이의 카테스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 64 요나탄은 자기 형 시몬을 나라 안에 남겨 두고 그들과 싸우러 나섰다.
- 65 시몬은 벧 추르를 향하여 진을 치고 여러 날 그곳을 공격하며 봉쇄하였다.
- 66 이윽고 그들이 그에게 화해하자고 탄원하였으므로 그는 그 제의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내쫓아 그 성읍을 차지하고 주둔군을 배치하였다.
- 67 요나탄과 그의 군대는 겐네사렛 호숫가에 진을 치고, 아침 일찍 하초르 평야로 진군하였다.
- 68 그러자 이민족들의 군대가 평야에서 그를 맞아 싸웠는데, 그들은 산에 북병을 숨겨 두고 요나탄과 정면으로 맞섰다.
- 69 북병들이 매복 장소에서 튀어나와 싸움에 가담하자,
- 70 요나탄의 군사들이 모두 달아나고, 압살롬의 아들 마타티아스와 칼피의 아들 유다 말고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그들은 군대의 장수였다.
- 71 요나탄은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뿌리며 기도하였다.
- 72 그러고 나서 적군과 싸우러 돌아가 그들을 무찌르자 그들이 달아났다.
- 73 달아났던 요나탄의 군사들이 그 광경을 보고 돌아와, 적의 진영이 자리 잡은 카테스까지 그와 함께 추격하여 그곳에 진을 쳤다.
- 74 그날에 이민족들의 군대에서 죽은 사람이 삼천 명가량 되었다. 요나탄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나탄이 로마와 맺은 동맹을 강화하다

- 12 ¹ 요나탄은 좋은 때가 온 것을 보고 로마인들과 우호 관계를 다지고 세롭게 하려고 사람들을 뽑아 로마로 보냈다.
- ² 같은 목적으로 스파르타와 그 밖의 다른 곳에도 편지를 보냈다.
- ³ 로마로 간 사람들은 원로원에 들어가, "여러분과 전에 맺은 우호 동맹을 새롭게 하고자 대사제 요나탄과 유다 민족이 우리를 보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 ⁴ 로마인들은 각 지역의 관리들에게 보여 줄 편지를 써 주어, 그들이 평화로이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었다.

요나탄이 스파르타인들에게 보낸 편지

- 5 다음은 요나탄이 스파르타인들에게 써 보낸 편지의 사본이다.
- 6 "대사제인 요나탄과 민족의 원로단과 사제들과 그 밖의 유다 주민들이 스파르타의 형제들에게 인사합니다.
- 7 전에 여러분의 임금이었다던 아리오스가 대사제 오니아스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동봉하는 그 편지의 사본에 보면 여러분은 우리의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 8 오니아스는 사절을 성대히 맞이하고, 우호 동맹을 밝힌 편지를 받았습시다.
- 9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책에서 격려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필요 없지만,
- 10 여러분과 사이가 나빠지지 않도록 형제 관계와 우호 관계를 새롭게 하고자, 이제 여러분에게 사절을 보냅니다. 사실 여러분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낸 지도 꽤 오래되었습시다.
- 11 우리는 축제일이나 그 밖의 적절한 날에 희생 제물을 바치거나 기도를 드리면서 늘 여러분을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형제들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고 합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 12 우리는 여러분이 누리는 영광을 기뻐합니다.
- 13 그동안 우리는 많은 고난과 전쟁을 겪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임금들이 우리를 공격한 것입니다.
- 14 그렇지만 그러한 전쟁으로 여러분과 그 밖의 다른 동맹국들, 그리고 우리의 벗들을 상가시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 15 우리는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적들에게서 구출되고 적들은 우리에게 굴복하였습니다.
- 16 그리하여 우리는 전에 맺은 우호 동맹을 새롭게 하려고, 안티오코스의 아들 누메니오스와 야손의 아들 안티파테르를 뽑아 로마인들에게 보냈습니다.
- 17 우리는 또 그들에게, 여러분에게도 가서 인사하고 형제 관계를 새롭게 하는 우리의 편지를 전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 18 그러니 부디 우리에게 이 일에 대한 회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19 이것은 그들이 오니아스에게 보낸 편지의 사본이다.
- 20 "스파르타 임금 아리오스가 오니아스 대사제에게 인사합니다.
- 21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스파르타인과 유대인은 형제로서 둘 다 아브라함의 후예라는 사실이 어떤 문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 22 이제 우리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이 평화로이 지내는지 글로 써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23 우리는 여러분의 가족과 재산이 우리 것이고, 우리 것이 여러분 것이라는 사실을 글로 적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하라고 사절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 24 요나탄은 데메트리오스의 장수들이 전보다 더 큰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공격하려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 25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 하맛 지방에서 그들에게 맞섰다. 이렇게 요나탄은 그들에게 자기 나라를 쳐들어올 기회를 주지 않았다.
- 26 요나탄이 정탐꾼들을 적진에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 적들이 그날 밤에 습격할 태세를 갖추었다고 보고하였다.
- 27 해가 지자 요나탄은 자기 군사들에게 자지 말고 무장을 한 채, 밤새도록 싸울 준비를 갖추고 있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나서 진영 둘레에 전초병들을 세워 놓았다.
- 28 적군은 요나탄과 그의 군사들이 싸울 준비를 갖추었다는 보고를 듣고, 겁에 질려 마음이 좋아들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진영에 불을 피워 놓고 후퇴하였다.
- 29 그러나 요나탄과 그의 군사들은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아침까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 30 요나탄은 뒤늦게 그들을 뒤쫓았지만 따라잡지 못하였다. 그들이 이미 엘레우테로스를 건너가 버렸던 것이다.
- 31 그래서 요나탄은 자밧인이라고 불리는 아라비아인들에게 방향을 돌려, 그들을 치고 잔리품을 빼앗았다.
- 32 그리고 나서 진지를 거두어 다마스쿠스로 가서 그 부근 온 지방을 두루 다녔다.
- 33 사몬도 길을 떠나 이스클론과 그 근처 요새들까지 진군하였다가, 방향을 돌려 야포로 가서 그곳을 불시에 점령하였다.
- 34 사람들이 그 요새를 데메트리오스의 군사들에게 넘기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사몬은 주둔군을 배치하여 그곳을 지키게 하였다.
- 35 요나탄은 돌아와 백성의 원로들을 모아 그들과 논의한 다음, 유대에 요새들을 짓고,

- 36 예루살렘의 성벽을 더 높이 올리며, 성채와 도성 사이에 높은 벽을 세워 성채를 도성에서 갈라놓기로 결정하였다. 성채를 고립시켜서, 주둔군이 사고파는 일을 못 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 37 그리하여 사람들이 도성을 재건하려고 모여들었다. 동쪽 계곡의 성벽 일부도 무너졌기 때문에, 요나탄은 카케나타라고 불리는 이 구역도 복구하였다.
- 38 시몬도 세펠라에 있는 하디다를 재건하고 그곳을 튼튼히 한 다음 성문과 빗장을 달았다.

요나탄이 불잡하다

- 39 트리폰은 아시아의 임금에 되어 왕관을 쓰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티오코스 임금까지 없애려고 시도하였다.
- 40 그러나 그는 요나탄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자기를 공격하리라는 두려운 생각이 들어, 그를 잡아 죽일 방법을 찾으며 뱃스안으로 떠나갔다.
- 41 요나탄은 정병 사만으로 전열을 갖추고 트리폰에게 맞서 싸우려고 뱃스안으로 진군하였다.
- 42 요나탄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온 것을 보고, 트리폰은 그에게 손을 대기가 두려웠다.
- 43 그래서 그는 요나탄을 성대하게 맞이하여 자기의 모든 벗에게 소개하고 그에게 선물을 주었다. 또 자신에게 복종하듯 요나탄에게도 복종하라고 벗들과 군사들에게 명령하였다.
- 44 그리고 나서 요나탄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귀하는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 모든 군대를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 45 그러니 이제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약간의 군사만을 골라 귀하를 호위하게 하십

- 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프톨레마이스로 갑시다. 나는 귀하에게 그 성읍과 나머지 요새들, 또 나머지 군사들과 모든 관리들을 넘겨주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리하려고 내가 온 것입니다."
- 46 요나탄은 그를 믿고 그가 말한 대로 하였다. 그래서 군사들을 돌려보내니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갔다.
- 47 요나탄 곁에는 삼천 명이 남았는데, 그나마 이천 명은 갈릴래이에 남겨 두고 천 명만 데리고 갔다.
- 48 요나탄이 프톨레마이시에 들어가자 그곳 주민들이 성문을 잠그고 그를 붙잡았다. 그리고 그와 함께 들어온 모든 군사를 칼로 찢어 죽였다.
- 49 트리폰은 요나탄의 군사들을 전멸시키려고 보병대와 기병대를 갈릴래이의 큰 평야로 보냈다.
- 50 그러나 요나탄의 군대는 요나탄이 잡혀 군사들과 함께 살해된 줄 알고는, 서로 격려하면서 한데 뭉쳐 전투 태세를 갖추고 앞으로 나아갔다.
- 51 뒤쫓아 간 자들은 요나탄의 군대가 목숨을 걸고 싸우려는 것을 보고 되돌아갔다.
- 52 그래서 요나탄의 군대는 모두 평화로이 유다 땅으로 가, 요나탄과 그 군사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온 이스라엘도 그들의 죽음을 크게 애도하였다.
- 53 그러자 그들 주변의 모든 이민족들이, "그들은 우두머리도 없고 도울 이도 없으니, 지금 그들을 공격하여 사람들이 아예 그들을 기억조차 못하게 하자." 하며 그들을 치려고 하였다.

시몬이 요나탄의 뒤를 잇다

- 13¹ 시몬은 트리폰이 유다 땅에 침입하여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큰 군대를 모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 2 그리고 백성이 공포에 떠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그들을 모아
- 3 격려하며 말하였다. "나와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집안이 율법과 성소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겪은 전쟁과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 4 그러한 일들 때문에 내 형제들이 모두 이스라엘을 위하여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 5 나는 내 형제들보다 나를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나는 어떠한 고난의 때에도 내 목숨을 결코 아끼지 않겠습니다.
- 6 모든 이민족들이 악의에 차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모였습시다. 나는 반드시 내 민족과 성소와 여러분의 아내와 자식들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 7 이 말을 듣고 백성의 사기가 되살아났다.
- 8 그래서 그들은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유다와 당신의 아우 요나탄 대신에 이제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 9 우리의 전쟁을 맡아 싸워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까."
- 10 시몬은 전사들을 모두 모아, 서둘러 예루살렘의 성벽을 수축하는 일을 끝내고 그 둘레를 튼튼히 하였다.
- 11 그리고 강력한 군대와 함께 압살롬의 아들 요나탄을 야포로 보내어, 그곳에 있는 자들을 내쫓고 거기에 머무르게 하였다.

요나탄의 최후

- 12 마침내 트리폰은 유다 땅을 침입하려고, 큰 군대를 이끌고 프톨레마이오스에서 떠났다. 요나탄도 감시를 받으며 그와 함께 갔다.
- 13 시몬은 평야 맞은쪽 하디다에 진을 쳤다.
- 14 트리폰은 시몬이 그의 아우 요나탄 대신에 나서서 자기와 전쟁을 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사절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

다.

- 15 "우리는 그대의 아우 요나탄을 잡아 두고 있는데, 이는 그가 직책상 임금의 금고에 바쳐야 할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오.
- 16 그러니 지금은 백 탈렌트를 보내시오. 그리고 그가 풀려난 뒤에 우리를 배반하지 못하도록, 그의 아들 둘을 인질로 보내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를 풀어 주겠소."
- 17 시몬은 그들의 말이 속임수라는 것을 알았지만, 백성에게 큰 원망을 사지 않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돈과 함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 18 백성이 "시몬이 트리폰에게 돈과 아이들을 보내지 않아 요나탄이 죽었다." 하고 원망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 19 그래서 시몬은 그들에게 아이들과 백 탈렌트를 보냈다. 그러나 트리폰은 시몬을 속이고 요나탄을 풀어 주지 않았다.
- 20 그 뒤에 트리폰은 유다 지방을 침입하여 멸망시키려고 진격하였다. 그는 아도라로 가는 길을 돌아 진군하였다. 그러나 시몬과 그의 군대는 트리폰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 그에게 맞서 싸웠다.
- 21 그때 성채에 있는 자들이 트리폰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광야를 거쳐 자기들에게 오라고 하면서 양식도 보내 달라고 독촉하였다.
- 22 트리폰은 모든 기병대에게 떠날 준비를 시켰다. 그러나 그날 밤 아주 많은 눈이 내려, 그 눈 때문에 트리폰은 성채에 가지 못하고 대신 길앗 지방으로 떠나갔다.
- 23 그리고 바스카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요나탄을 죽였다. 요나탄은 그곳에 묻혔다.
- 24 그 뒤에 트리폰은 발길을 돌려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요나탄을 장사 지나다

- 25 시몬은 사람들을 보내어 자기 아우 요나탄의 유골을 거두어다가 조상들의 성읍 모데

인에 물었다.

- 26 온 이스라엘은 큰 소리로 통곡하며 여러 날 동안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 27 시몬은 또 앞뒤를 맴돈하게 간 돌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의 무덤 위에 기념비를 높이 세워 멀리서도 눈에 띄게 하였다.
- 28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네 형제들을 기념하는 피라미드 일곱 개를 서로 마주 보게 세웠다.
- 29 또 그 곁에 구조물을 공들여 만들고 큰 기둥들로 둘러싼 다음, 기둥마다 영원한 기념물로서 무장 일체를 엮고 그 옆에 배들을 조각해 놓았다. 그리하여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이가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였다.
- 30 이것이 바로 시몬이 모데인에 만들어 놓은 무덤인데,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다.

시몬이 데메트리오스와 동맹을 맺다

- 31 트리폰은 나이 어린 안티오코스 임금에 배반하고 그를 죽였다.
- 32 그리고는 그 대신 자기가 임금이 되어 아시아의 왕관을 썼다. 그리고 그 땅에 큰 제앙을 불러들였다.
- 33 한편 시몬은 유다에 요새들을 지어 그곳을 높은 탑과 큰 성벽으로 둘러치고 성문과 빗장으로 튼튼히 한 다음, 그 안에 양식을 저장하였다.
- 34 시몬은 또 사람들을 뽑아 데메트리오스 임금에게 보내어 유다 지방의 세금을 면제해 달라고 청하였다. 트리폰이 한 짓이라고는 모두 노략질뿐이었기 때문이다.
- 35 그래서 데메트리오스 임금은 이러한 편지를 써 보냈다.
- 36 "데메트리오스 임금이 대사제이며 임금의 벗인 시몬과 원로들과 유다 민족에게 인사합니다.
- 37 귀하가 보낸 금관과 아자나무 가지는 잘 받았습시다. 우리는 가까이 여러분과 굳건

한 화친을 맺고, 여러분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도록 관리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겠습니다.

- 38 우리가 여러분에게 허가한 것은 무엇이든 유효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세운 요새들도 여러분 차지입니다.
- 39 여러분이 이 날까지 저지른 어떠한 실수나 잘못도 우리는 용서하고, 여러분이 우리에게 내야 하는 왕관 세도 면제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던 다른 세금이 있다면, 그것도 이제 더 이상 낼 필요가 없습니다.
- 40 여러분 가운데 우리 친위대에 들어올 만한 사람이 있으면 들어오십시오,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 41 백칠십년에 이스라엘은 이민족들의 멍에에서 벗어났다.
- 42 백성은 모든 문서와 계약서에 '유다인들의 총독이며 지도자인 시몬 대사제 제1년'이라고 쓰기 시작하였다.

시몬이 가자리를 점령하다

- 43 그 무렵 시몬은 가자리를 향하여 진을 치고 그곳 둘레에 부대들을 배치하였다. 그는 공격 기구를 만들어 성읍 가까이에 끌어다 놓고, 탑 하나를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 44 공격 기구에 타고 있던 군사들이 그 성읍으로 뛰어들자, 그곳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 45 성읍 주민들은 옷을 찢고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성벽 위로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치며 시몬에게 화해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 46 "우리를 우리 악행에 따라 대하지 마시고 당신의 자비로 대하여 주십시오."
- 47 그래서 시몬은 그들과 합의한 다음에 성읍을 멈추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성읍에서 쫓아내고, 우상들이 있던 집들을 정화한 다음, 찬미와 감사 노래를 부르며 그 안으로

들어갔다.

- 48 또한 그는 성읍에서 온갖 부정한 것을 몰아내고, 율법을 지키는 이들을 거기에 살게 하였으며, 그곳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자기가 살 집을 그 안에 지었다.

예루살렘 성채를 점령하다

- 49 예루살렘 성채에 있는 자들은 유다 지방을 오가면서 물건을 사고팔지 못하였기 때문에, 배가 몹시 고파 많은 자들이 굶어 죽었다.
- 50 그들이 시몬에게 화해해 달라고 부르짖자, 시몬은 그 청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나서 시몬은 그들을 그곳에서 쫓아낸 다음, 부정한 것을 치우고 성채를 정화하였다.
- 51 백칠십일년 둘째 달 스무하늘날에 유대인들은 아자나무 가지를 들고서 찬미를 드리고, 비파와 자바라와 수금에 맞추어 찬미가와 노래를 부르며 그 안으로 들어갔다. 큰 적이 망하여 이스라엘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다.
- 52 시몬은 해마다 이날을 기뻐하며 지내도록 결정하였다. 그리고 성채 옆에 있는 성전 언덕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자기 군사들과 함께 살았다.
- 53 시몬은 자기 아들 요한이 어른이 된 것을 보고, 그를 모든 군대의 장수로 삼았다. 요한은 가자라에서 살았다.

데메트리오스가 불잡하다

- 14 ¹ 백칠십이년에 데메트리오스 임금은 트리폰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은 다음, 도움을 얻으러 메디아로 갔다.
- 2 그러나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임금 아르사케스는 데메트리오스가 자기 영토에 들어왔다는 보고를 듣고, 그를 사로잡으라고 장수 하나를 보냈다.
- 3 그 장수는 가서 데메트리오스의 군대를 치

고 그를 잡아 아르사케스에게 데려갔다. 그리고 아르사케스는 데메트리오스를 감금해 버렸다.

시몬의 영광

- 4 유다 땅은 시몬이 다스리는 동안 내내 평온하였다. 그는 자기 민족의 행복을 추구하고 그의 권위와 영광은 언제나 그들의 마음에 들었다.
- 5 그는 아포 항구를 점령하고 바다의 여러 섬으로 가는 길을 터놓아 그 영광이 더욱더 빛났다.
- 6 그는 자기 민족의 경계를 넓히고 유다 지방을 장악하였다.
- 7 많은 포로를 데려오고 가자라와 벧 추르와 성채를 차지하여 그곳에서 부정한 것들을 몰아내었다. 그에게 대항할 자 아무도 없었다.
- 8 백성은 평화로이 제 땅을 일구고 땅은 소출을 내었으며 들판의 나무들도 열매를 맺었다.
- 9 노인들은 거리에 나와 앉아 모두 함께 좋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젊은이들은 화려한 군복을 입었다.
- 10 시몬이 성읍마다 양식을 공급하고 방어 무기들을 설치하니 그 명성이 땅 끝까지 자자하였다.
- 11 그가 이 땅에 평화를 이루자 이스라엘은 크게 기뻐하였다.
- 12 저마다 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았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 아무도 없고
- 13 이 땅에 남아 그들과 싸울 자 아무도 없었다. 그 시절에는 임금들까지도 패망하였다.
- 14 시몬은 백성 가운데 기뻐한 모든 이에게 힘을 북돋아 주고 스스로 율법을 따르면서 무도한 자들과 악한 자들을 모두 쫓아내었다.
- 15 그는 또 성소를 영광스럽게 꾸미고 성전

기물들을 많이 갖추어 놓았다.

로마와 스파르타와 맺은 동맹의 갱신

- 16 요나탄이 죽었다는 소식이 로마는 물론 스파르타에게까지 전해지자 사람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 17 그러나 그의 형 시몬이 요나탄 대신에 대사제가 되어, 그 지방과 그곳의 성읍들을 다스린다는 소식을 듣고,
- 18 로마인들은 자기들이 시몬의 동생 유다와 요나탄과 맺었던 우호 동맹을 갱신한다는 문서를 동판에 새겨 그에게 보냈다.
- 19 그 문서는 예루살렘에 모인 회중 앞에서 낭독되었다.
- 20 이것은 스파르타 사람들이 보내 온 편지의 사본이다. "스파르타의 통치자들과 시민들이 형제들이인 시몬 대사제와 원로들과 사제들과 그 밖의 유다 백성에게 인사합니다.
- 21 여러분이 우리 백성에게 보낸 사절들은 우리에게 여러분의 영광과 영예를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도착을 반겼습니다.
- 22 그리고 그들이 백성의 모임에서 한 말에 따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유다의 사절인 안티오코스스의 아들 누메니오스와 야손의 아들 안티파테르는, 우리와 맺은 우호 관계를 갱신하려고 우리에게 왔다.
- 23 우리 백성은 기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성대히 맞아들이고, 그들의 말을 기록한 것을 문서고에 넣어 스파르타 백성이 기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스파르타 백성은 그 사본 하나를 시몬 대사제에게도 써 보낸다.'
- 24 그 뒤에 시몬은 로마인들과 맺은 동맹을 재확인하려고, 무게가 천 마나 되는 큰 금 방패와 함께 누메니오스를 로마로 보냈다.

시몬에 대한 찬사

- 25 이 이야기를 듣고 유다 백성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시몬과 그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 26 그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 집안은 굳건히 서서 이스라엘의 적들과 싸워 자유를 쟁취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동판에 다 그 내용을 써서 시온 산 기둥에 붙여 놓았다.
- 27 이것이 그 문서의 사본이다. "백철십이년, 시몬 대사제 제삼년 엘룰 달 열여드렛날 아사라멜에서,
- 28 사제들과 백성, 민족의 우두머리들과 나라의 원로들이 큰 모임을 연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공포되었다.
- 29 '이 나라에 전쟁이 자주 일어났는데, 요아립의 자손인 마타티아스의 아들 시몬과 그 형제들은 성소와 율법을 지키려고 위험을 무릅쓰며 민족의 적들에게 맞서 싸워, 이 민족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하였다.
- 30 요나탄은 이 민족을 하나로 모으고 대사제가 되었다가, 제 겨레 곁으로 갔다.
- 31 그러자 원수들이 이 나라를 침입하여 멸망시키고 성소에 손을 대기로 작정하였다.
- 32 그때에 시몬이 일어나 민족을 위하여 싸웠으며, 많은 재산을 들어 민족의 병사들을 무장시키고 그들에게 보급을 주었다.
- 33 또한 그는 유다의 성읍들과 유다 국경의 뱃 추르를 튼튼히 하였다. 뱃 추르는 전에 적들의 무기가 있던 곳인데, 시몬이 그곳에 유다의 주둔군을 배치하였다.
- 34 그는 바닷가의 야포와, 전에 적들이 살던 아스돗과 경계를 이루는 가지라도 튼튼히 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유다인을 살게 하고, 그 성읍들을 재건하는 데에 필요한 것을 모두 마련해 주었다.
- 35 그리하여 백성은 시몬의 충성심과, 자기 민족을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그의 결의를 보고, 그를 자기들의 지도자와 대사제로 모셨다.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민족을 위하여 의롭게 충성을 다하고, 자기 백성을 들어

- 높이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 36 그때에 그의 지휘 아래 이민족들을 이 지방에서 몰아내는 일이 성공을 거두었다. 예루살렘의 다윗 성에 사는 자들까지 몰아냈는데, 그들은 성채를 세운 다음 거기에서 수시로 나와 성소 주변을 더럽히고 그 깨끗함에 큰 손상을 입히곤 하던 자들이다.
- 37 시몬은 유다인들을 그곳에 살게 하고 이 지방과 이 도성의 안전을 위하여 그곳을 튼튼히 하였으며, 예루살렘의 성벽을 높이 쌓아 올렸다.
- 38 이러한 일로 데메트리오스 임금은 시몬을 대사제로 인정해 주었다.
- 39 그리고 그를 임금의 벗들 가운데 하나로 삼고 대단히 영광스럽게 해 주었다.
- 40 임금은 로마인들이 유다인들을 자기들의 벗이고 동맹자며 형제라고 부른다는 사실과 시몬의 사절들을 성대히 맞아들었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다.
- 41 또한 유다인들과 사제들은 이러한 내용에 동의하였다. '참된 예언자가 나올 때까지 시몬이 계속 그들의 지도자와 대사제가 된다.
- 42 그는 백성의 총독과 성소의 책임자가 되어, 업무를 담당할 이들과 이 지방과 무기와 요새를 관리할 이들을 임명할 권리를 갖는다.
- 43 시몬은 성소의 책임자가 되어, 모든 이는 그에게 복종하고 이 지방의 모든 문서는 그의 이름으로 작성한다. 그는 자주색 옷을 입고 금 침쇠를 찬다.'
- 44 백성이나 사제들 가운데 아무도 이 결정을 어느 하나라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가 한 말을 반대하거나, 이 지방에서 그의 허락 없이 회의를 소집하거나, 자주색 옷을 입거나 금 침쇠를 차서는 안 된다.
- 45 이 결정을 어기거나 이 가운데 하나라도 거부하는 자는 누구든지 벌을 받는다."

- 46 온 백성은 시몬에게 이러한 결정에 따라 행동할 권리를 주는 데에 동의하였다.
- 47 시몬도 이를 받아들여 대사제가 되고 유다인들과 사제들의 총독과 영주가 되어 온 백성의 영도자가 되기로 하였다.
- 48 그리하여 그들은 이 문서를 동판에 새겨 성소 경내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 두기로 하였다.
- 49 또한 그 사본도 보고에 넣어 두어 언제든 지 시몬과 그의 아들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안티오코스가 유다인들에게 보낸 편지

- 15 ¹ 데메트리오스 임금의 아들 안티오코스가 바다의 섬에서, 유다인들의 사제이며 영주인 시몬과 온 민족에게 편지를 보냈다.
- 2 그 내용은 이러하다. "안티오코스 임금이 대사제이며 영주인 시몬과 유다 민족에게 인사합니다.
- 3 몇몇 간악한 자들이 내 조상들의 왕국을 차지하였으므로, 나는 왕국을 되찾아 전과 같이 재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많은 용병을 모집하고 군함들을 마련하였습니다.
- 4 이제 나는 우리 나라에 상륙하여, 나라를 파괴하고 내 왕국의 많은 성읍을 황폐하게 만든 자들을 치러 가려고 합니다.
- 5 그러므로 이제 나는 선왕들이 귀하에게 허락한 모든 면세 조치를 인정하며, 그 밖에 허락한 모든 특전도 인정합니다.
- 6 나는 귀하가 화폐를 주조하여 귀하의 지방에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7 예루살렘과 그 성소는 자유 구역입니다. 귀하가 마련한 모든 무기와 귀하가 세워 지금 차지하고 있는 요새들은 그대로 귀하의 것입니다.
- 8 귀하가 임금에게 갚을 현재와 미래의 모든 빚을 이제부터 영원히 면제합니다.

9 우리가 왕국을 되찾으면, 귀하와 귀하의 민족과 성전에 큰 영광을 돌릴 것이니, 여러분의 명예가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안티오코스가 트리포를 공격하다

10 백칠십사년에 안티오코스는 자기 조상들의 땅으로 진군하였다. 모든 군사가 그를 따라나서서, 트리폰 쪽에 남은 병사는 얼마 되지 않았다.

11 안티오코스 임금이 트리포를 뒤쫓자, 트리포는 바닷가의 도로로 달아났다.

12 그는 자기에게 재앙이 겹쳐 군사들이 자기를 떠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13 안티오코스는 도르를 향하여 진을 쳤는데, 병사 십이만과 기병 팔천이 그와 함께 있었다.

14 그는 성읍을 포위하고 바다에서는 군함들이 그곳을 에워쌌다. 이렇게 땅과 바다에서 그곳을 봉쇄하고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게 하였다.

로마인들이 보낸 편지

15 한편 누메니오스와 그의 일행은 여러 임금과 여러 나라로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로마에서 돌아왔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로마인들의 집정관 루키우스가 프톨레마이오스 임금에게 인사합니다.

16 유다인들의 사절들이 우리의 벗이며 동맹자로서 옛 우호 동맹을 갱신하려고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시몬 대사제와 유다 백성이 보낸 이들로써,

17 천 미나 되는 금 방패를 가져왔습니다.

18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임금과 여러 나라로 편지를 써서, 유다인들에게 해를 입히지 말고 그들이나 그들의 성읍들이나 지방과 싸우지 말며, 그들을 공격하는 적들을 도와 함께 싸우지도 말라고 당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9 또 우리는 그들의 방패를 받는 것이 좋고 여겼습니다.

20 그러므로 간악한 자들이 더러 자기 지방에서 여러분에게 도망쳐 가면, 그들을 시몬 대사제에게 넘겨 그가 그들을 유다인들의 법대로 처벌하게 해 주십시오."

21 집정관은 이러한 편지를 데메트리오스 임금을 비롯하여 아탈로스, 아리아라테스, 아르사케스에게 쓰고,

22 또 삼프사케스, 스파르타, 델로스, 민도스, 시키온, 카리스, 사모스, 팜펠리아, 리키아, 할리카르나소스, 로도스, 파셀리스, 코스, 시데, 아르왓, 고르티나, 크니도스, 키프로스, 키레네 등 모든 나라에 써 보냈다.

23 그리고 그 사본을 시몬 대사제에게도 써 보냈다.

24 안티오코스 임금은 두 번째로 도르를 향하여 진을 치고, 계속해서 군사들을 그곳에 투입하였다. 또 공격 기구들을 만들고 트리포를 에워싸서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였다.

안티오코스가 시몬을 배신하다

25 한편 시몬은 안티오코스를 도와 싸울 정병이천 명과 은과 금과 많은 무기를 보냈다.

26 그러나 그는 이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전에 자기가 시몬과 맺은 모든 협약을 깨뜨려 그와 사이가 나빠졌다.

27 안티오코스는 자기의 벗들 가운데 하나인 아테노비오스를 시몬에게 보내어 이러한 말을 전하였다. "당신들이 아포와 가져라와 예루살렘의 성채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곳들은 내 왕국의 성읍이요,

28 당신들은 그 영토를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 큰 해를 끼쳤으며, 내 왕국의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소.

29 그러니 이제 당신들이 점령한 성읍들을 돌려주시요. 또 유다 영토를 빼고, 당신들이

- 차지한 지역에서 거둔 세금을 내놓으시오.
- 30 아니면 그 대신에 당신이 저지른 파괴의 대가로 은 오백 탈렌트를 바치고, 성읍들의 세금으로 오백 탈렌트를 더 내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서 당신들과 싸우겠소."
- 31 임금의 벗 아테노비오스는 예루살렘에 와서, 시몬의 영화와 금은 기물을 넣은 진열장과 수많은 시중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가 시몬에게 안티오코스 임금의 말을 전하자,
- 32 시몬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외국 땅을 빼앗거나 외국인의 재산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적들이 한때 부당하게 가로챈 우리 조상들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였을 따름이오.
- 33 이제 기회가 와서 우리가 조상들의 상속 재산을 굳게 지키게 되었소.
- 34 당신이 요구하는 야포와 가지라 주민들은 이 백성과 우리 지방에 큰 해를 끼쳤소. 그렇지만 우리는 이 두 성읍 대신에 백 탈렌트를 내겠소."
- 35 아테노비오스는 시몬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 36 화를 내며 임금에게 돌아갔다. 그가 시몬의 말을 전하고 시몬의 영화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보고하니, 임금은 크게 분노하였다.

켄데베오스가 유다를 침략하다

- 37 트리폰은 배를 타고 오르토시아로 달아났다.
- 38 그러자 임금은 켄데베오스를 해안 지역의 수장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보병대와 기병대를 주었다.
- 39 그리고 켄데베오스에게 유다를 향하여 진을 친 다음, 키드론을 세워 성문을 튼튼히 하고 유다 백성과 싸우라고 명령하였다.

그러고 나서 임금 자신은 트리폰을 뒤쫓았다.

- 40 켄데베오스는 암니아로 와서 백성을 괴롭히고, 유다 땅에 침입하여 백성을 사로잡고 살해하기 시작하였다.
- 41 그는 임금이 명령한 대로 키드론을 요새로 세우고 그곳에 기병들과 군사들을 배치하여, 그들이 거기에서 나와 유다의 길들을 정찰하게 하였다.

시몬의 아들들이 켄데베오스를 내쫓다

- 16 ¹ 요한은 가저라에서 올라와, 자기 아버지 시몬에게 켄데베오스가 저지른 일들을 알렸다.
- 2 그러자 시몬이 위로 두 아들 유다와 요한을 불러 말하였다. "나와 내 형제와 내 아버지 집안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의 전쟁을 이끌어 왔는데, 일이 잘되어 우리는 여러 번 이스라엘을 구하였다.
- 3 그러나 이제 나는 늙고 너희는 자비를 입어 어른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나와 내 동생의 뒤를 이어, 나가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싸워라. 하늘이 너희를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 4 요한은 이 지방에서 병사와 기병 이만 명을 뽑았다. 그들은 켄데베오스를 치러 나가 그날 밤에 모데인에서 묵고,
- 5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평야로 나갔다. 그때에 보병과 기병으로 이루어진 큰 군대가 그들에게 다가오는데, 적과 그들 사이에는 시내가 하나 있었다.
- 6 요한과 그의 군사들은 적들을 마주하고 전열을 갖추었다. 그는 군사들이 시내를 건너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먼저 건넜다. 그러자 병사들도 그를 보고 뒤따라 건넜다.
- 7 요한은 군사들을 나누어 보병들 가운데에 기병들을 배치하였다. 적의 기병이 매우 많았기 때문이다.

- 8 이윽고 유대인들이 나팔을 불었다. 켈데베오스와 그의 군대는 패주하고 그 가운데 많은 군사가 부상을 입고 쓰러졌으며 나머지는 요새로 달아났다.
- 9 그때에 요한의 동기 유다도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요한은 계속 적들을 뒤쫓았다. 켈데베오스는 마침내 자기가 요새로 세운 키드론까지 쫓겨 갔다.
- 10 그들은 아스돗 들녘의 여러 탑으로 달아났는데, 요한이 그곳을 불태워 병사들이 이만 명기약 죽었다. 그 뒤에 요한은 평화로이 유다로 돌아왔다.

사몬과 그의 아들들이 살해되다

- 11 그 무렵에 아부보스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가 예리코 평야의 장수로 임명되었는데, 그는 많은 은과 금을 가지고 있었다.
- 12 그가 대사제의 사위였기 때문이다.
- 13 그런데 그는 마음이 교만해져 유다 지방을 차지하려고, 사몬과 그의 아들들을 없애 버릴 흥계를 꾸몄다.
- 14 사몬은 이 지방의 성읍들을 방문하며 민생을 보살피고 있었다. 백칠십칠년 열한 번째 달, 곧 스닷 달에 그는 자기 아들 마타티아스와 유다를 데리고 예리코로 내려갔다.
- 15 아부보스의 아들은 흥계를 써서, 자기가 세운 독이라는 작은 요새로 그들을 맞이하여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그는 그곳에 병사들을 숨겨 두었다.
- 16 사몬과 그의 아들들이 술에 취하자, 프톨레마이오스와 그의 군사들이 일어나 무기를 들고 연회장에 있는 사몬을 덮쳐 그와 그의 아들들과 중 몇 사람을 죽였다.
- 17 그는 이렇게 큰 반역을 저질러 선을 악으로 갚았다.
- 18 그 뒤에 프톨레마이오스는 이 사실을 적어 임금에게 보내며, 자기를 도울 군사들을 보내고 성읍들과 유다 지방을 자기에게 넘겨

- 달라고 하였다.
- 19 그는 또 요한을 없애려고 가지리에 다른 군사들을 보냈다. 그리고 천인대장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은과 금과 선물을 줄 터이니 자기에게 오라고 하였다.
- 20 그는 또 예루살렘과 성전이 있는 산을 점령하려고 그곳에도 다른 군사들을 보냈다.
- 21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앞질러 가지리에 달려가, 요한에게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프톨레마이오스가 당신마저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 22 이 말을 들은 요한은 깜짝 놀랐다. 그리고 자기를 없애러 온 병사들을 잡아 죽였다. 그들이 자기를 없애려고 한 사실을 미리 알았기 때문이다.
- 23 요한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이끈 전쟁과 그가 보여 준 용맹, 그리고 그가 성벽을 복구한 일이며 그 밖의 업적들은,
- 24 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사제가 되었을 때부터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구약성경 - 21

역사서 - 16

마가베오기하

총 15 장

총 555 절

[구약성경-마카베오기 하권]

이집트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첫째 편지

- 1 ¹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에 사는 유대인 형제들이 이집트에 사는 유대인 형제들에게 인사드리며 찬평화를 바랍니다.
- 2 ²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충실한 종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당신의 계약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3 ³ 또한 여러분 모두에게 당신을 섬기고 큰 정성과 기꺼운 영으로 당신의 뜻을 실천하려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라며,
- 4 ⁴ 당신의 율법과 계명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5 ⁵ 그뿐 아니라 그분께서 여러분의 간청을 들어 주시고 여러분과 화해하시어, 역경에 빠졌을 때에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 6 ⁶ 지금도 우리는 이곳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 7 ⁷ 백옥십구년 데메트리오스가 다스리던 때에 우리 유대인들은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것은 아손과 그의 일당이 거룩한 땅과 나라에서 떨어져 나간 뒤 몇 해 동안 우리가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 8 ⁸ 그들은 성전 대문을 불사르고 죄 없는 이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님께 간청하자 그분께서 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 제물과 고운 밀가루를 바치고 등불을 켜고 빵을 차려 놓았습니다.
- 9 ⁹ 이제 여러분이 키슬레우 달에 초막절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집트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둘째 편지

- 10 ¹⁰ 백팔십팔년. 예루살렘과 유다에 사는 사람들과 원로단과 유다가 프톨레마이오스 임

금의 스승이며 기름부음 받은 사제 가문 출신인 아리스토틀로스 님과 이집트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인사드리며 건강을 빕니다.

- 11 ¹¹ 우리를 큰 위협에서 구원하시어 임금에게 맞서게 해 주신 하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 12 ¹² 그분께서는 과연 거룩한 도성에 맞서 진을 친 자들을 몰아내셨습니다.
- 13 ¹³ 아무도 당해 낼 수 없을 듯한 군대를 그 수령이 이끌고 페르시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내내아 여신의 사제들이 꾸민 속임수로 내내아 신전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 14 ¹⁴ 그때에 안티오코스는 그 여신과 혼인한다는 구실로 벗들과 함께 그곳에 갔었습니다. 그는 혼인 자참금 명목으로 그곳의 많은 보화를 차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 15 ¹⁵ 내내아 신전의 사제들이 그것들을 늘어놓자, 안티오코스는 부하 몇을 데리고 성소 경내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들어서자마자 사제들이 신전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 16 ¹⁶ 그리고 천장에서 비밀 문을 열고 벽처럼 돌을 내리던져 그 수령과 부하들을 쓰러뜨린 다음, 사지를 찢고 머리는 잘라 밖에 있는 자들에게 내던졌습니다.
- 17 ¹⁷ 사악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신 우리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일에서 찬미받으소서!
- 18 ¹⁸ 우리는 키슬레우 달 스무닷새날에 성전 정결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알려 여러분도 초막절과 불의 축제를 지내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은 느헤미아가 성전과 제단을 세우고 희생 제물을 바칠 때에 나타난 것입니다.
- 19 ¹⁹ 우리 조상들이 페르시아로 끌려갈 때, 당시의 경건한 사제들이 몰래 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물 없는 저수 동굴 깊숙한 곳에 감추어 놓고, 아무도 그곳을 알아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 20 오랜 세월이 흘러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알맞은 때가 되자, 페르시아 임금의 명을 받고 파견된 느헤미아가 그 불을 감추어 둔 사제들의 후손들을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 21 그러나 그들이 불을 찾지 못하고 진한 액체만 있었다고 우리에게 보고하자, 느헤미야는 그것을 떠 오라고 분부하였습니다. 희생 제물을 바칠 준비가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사제들에게 나무와 그 위에 놓인 것에 그 액체를 뿌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 22 그대로 한 다음에 시간이 흐르자, 그 때까지 구름에 가렸던 해가 비치면서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두 놀랐습니다.
- 23 희생 제물이 타는 동안 사제들은 기도를 바쳤는데, 사제들뿐 아니라 모든 이도 함께하였습니다. 요나탄이 선창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따라 화답을 하였습니다.
- 24 그 기도는 이러하였습니다. "주님, 주 하느님, 만물의 창조자, 경외로우시고 강하시며 의로우시고 자비하신 분, 홀로 임금이시며 선하신 분,
- 25 홀로 아낌없이 베푸시는 분, 홀로 의로우시고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분, 이스라엘을 모든 불행에서 구해 주시는 분, 저희 조상들을 선택하시어 거룩하게 하신 분,
- 26 당신의 백성인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치는 이 희생 제물을 받으시고, 당신의 이 몫을 지켜 주시며 거룩하게 해 주소서.
- 27 흠어진 저희 겨레를 한데 모으시고 이민족들 사이에서 종살이하는 이들을 해방시켜 주시며 배척받고 멸시받는 이들을 굶어보시어, 당신께서 저희 하느님이심을 이민족들이 알게 해 주소서.
- 28 저희를 억누르며 오만하게 으스대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소서.
- 29 모세가 말한 대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 거룩한 곳에 뿌리내리게 해 주소서."
- 30 이어서 사제들이 찬미가를 불렀습니다.
- 31 희생 제물이 다 탄 뒤에 느헤미야는 나머지 액체를 커다란 돌들 위에 쏟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 32 그대로 하니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제단에서 빛이 비치 오자 그 불길은 사그라졌습니다.
- 33 이 일이 널리 알려져, 유배살이로 끌려가던 사제들이 불을 숨겨 놓은 곳에서 액체가 나와 느헤미야와 그 동료들이 그 액체로 희생 제물을 살라 바쳤다는 사실이 페르시아인들의 임금에게도 보고되었습니다.
- 34 임금은 그 일을 확인한 다음, 그곳에 담을 치고 거룩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 35 그러고 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들에게 거기에서 얻은 많은 수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 36 느헤미야와 그 동료들은 그 액체를 '밧타라'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정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프타'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 2 ¹ 우리의 문헌에는 예레미야 예언자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는 앞에서 말한 그 불을 조금 가져가라고 유배자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 2 그리고 예언자는 유배자들에게 율법을 준 다음, 주님의 계명을 잊지 말고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들과 그 장식물을 보면서 생각만 으러라도 현혹되지 말라고 지시하였습니다.
- 3 그 밖에도 비슷한 말로, 그들의 마음에서 율법이 떠나지 않게 하라고 타이렸습니다.
- 4 같은 문헌에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신탁을 받고 나서 사람들에게 천막과 계약 껍을 들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올라가 하느님의 상속 재산을 본 그 산으로 갔

- 습니다.
- 5 거기에 가서 예레미야는 동굴 집을 발견하고 천막과 계약 궤와 분향 제단을 그곳에 안치하고 나서 입구를 막아 버렸습니다.
- 6 그를 따라간 몇 사람이 길을 표시해 두려고 다가갔지만 그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 7 예레미야가 그것을 알고 그들을 꾸짖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장소는 하느님께서 백성을 다시 한테 모으시어 자비를 보이실 때까지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어야 한다.
- 8 그때에 가서야 주님께서는 저 물건들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리고 모세 위에 나타났듯이, 솔로몬이 그 장소가 특별히 성화되도록 청하였을 때에 나타났듯이, 주님의 영광과 구름도 나타날 것이다."
- 9 또 지혜를 갖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완공하면서 희생 제물을 바친 이야기도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 10 모세가 주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희생 제물을 태운 것처럼, 솔로몬이 기도하였을 때에도 불이 내려와 번 제물을 살랐습니다.
- 11 모세는 "속죄 제물을 사람들이 먹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 살라 버린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 12 솔로몬도 같은 모양으로 여드레 동안 축제를 지냈습니다.
- 13 위의 문헌과 느헤미야의 회고록에는 이러한 일들과 함께, 느헤미야가 도서관을 세우고 임금과 예언자들에 관한 책들과 다윗의 책들, 그리고 자원 예물에 관한 임금들의 편지를 모아들였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 14 유다도 우리에게 닥친 전쟁 때문에 흩어진 책들을 모두 모아들였는데, 그 책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 15 필요하시다면 그것들을 가져갈 사람들을

보내십시오.

- 16 우리는 정결 예식을 거행하려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도 이 축제를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 17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고, 모든 이에게 상속 재산과 왕권과 사제직과 거룩한 예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 18 이는 그분께서 율법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곧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를 하늘 아래 온 땅에서 거룩한 곳으로 모아들이시리라고 희망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큰 불행에서 건져 주시고 이곳을 정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지의 무덤

- 19 유다 마카베오와 그 형제들의 이야기, 대성전의 정화와 제단의 봉헌,
- 20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그의 아들 에우파토르와 치른 여러 전쟁,
- 21 유다교를 위하여 용감하게 싸운 영웅들에게 하늘에서 내린 현시들, 그리고 그 덕분에 그들이 얼마 되지 않은 수로 이 땅 전체를 차지하고 아만스러운 무리들을 몰아내어,
- 22 온 세상에 이름난 성전을 되찾고 이 도성을 해방시켰으며, 폐기되어 가던 법을 다시 확립한 이야기, 이렇게 주님께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그들을 대해 주신 이야기를
- 23 키레네의 아손이 다섯 권의 책으로 펴냈다. 우리는 이것을 한 권의 책으로 요약하려고 한다.
- 24 사실 통계 숫자가 너무 많고 자료가 방대하여 이 역사 이야기에 몰입하려는 이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여겨,
- 25 우리는 이 책을 읽으려는 이들에게 즐거움

을 주고 외우려는 이들에게 편의를 주며 모든 독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26 요약하는 고역을 맡은 우리에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일은 땀을 쏟게 하고 잠을 빼앗아 갔다.

27 그것은 잔치를 준비하여 손님들을 흡족하게 해 주는 일이 수월하지 않은 것과는 같다. 그런데도 우리는 많은 이가 고마움을 느끼도록 이 고역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한다.

28 모든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저자에게 맡기고, 우리는 즐거리를 요약하는 일에만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

29 새 집을 짓는 건축가는 집 전체를 살펴야 하지만, 칠하는 일과 꾸미는 일을 맡은 이는 장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30 어떤 사건으로 들어가서 그 일을 두루 살펴보고 각 부분을 자세히 다루는 것은 원역사가 할 일이다.

31 그러나 이야기를 다시 편집하는 이에게는 간결한 표현을 쓰고 사건의 세밀한 내용은 생략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32 이상 말한 것에 덧붙일 필요 없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자. 역사를 요약한다고 하면서 그 역사의 머리말을 길게 늘어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시몬이 번역하다

3¹ 오니아스 대사제가 경건하게 살고 악을 미워한 덕분에, 거룩한 도성에서는 사람들이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다.

2 그때에는 임금들까지도 성소를 존중하고 최상의 선물을 보내면서 성전을 영화롭게 하였다.

3 아시아의 임금 셀레우코스도 희생 제물을 바치는 예식에 드는 모든 비용을 자기 수입에서 지불하였다.

4 벤야민 가문 출신으로 성전의 관리 책임자였던 시몬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도성의 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대사제와 의견 대립을 보였다.

5 그는 오니아스를 꺾을 수 없었으므로, 그때에 코알레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총독으로 있던, 트라세오스의 아들 아폴로니우스에게 가서,

6 예루살렘의 금고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가득 차 있어 그 액수를 헤아릴 수 없는데, 그 돈은 희생 제물에 드는 비용이 아니므로 임금의 권한 아래 둘 수 있다고 일러바쳤다.

헬리오도로스가 성전의 재물을 탈취하려 오다

7 아폴로니우스는 임금을 만나 자기가 들은 대로 그 돈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임금은 행정을 책임진 헬리오도로스를 뽑아 파견하며, 앞에서 말한 그 돈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8 헬리오도로스는 곧 여행을 시작하였다. 그 여행은 코알레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성읍들을 시찰하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임금의 계획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9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도성의 대사제에게 영접을 받은 그는 자기가 들은 정보를 제시하며 무슨 이유로 이곳에 왔는지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 그대로인지 물었다.

10 대사제는 금고의 돈이 일부는 과부와 고아들을 위한 기금이고,

11 일부는 토비아의 이들로써 높은 지위에 있는 히르카노스의 기금이며, 또 사악한 시몬이 거짓으로 보고한 것과는 달리 그 돈은 다해서 은 사백 탈렌트와 금 이백 탈렌트 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12 그리고 성소의 거룩함과 온 세상이 존중하는 성전의 위엄과 그 불기침성을 믿는 이들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대사제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동요하다

13 그러나 임금의 명령을 받은 헬리오도로스는 그 돈이 반드시 임금의 금고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14 그리고 나서 그는 날을 잡아 그 기금을 조사하러 들어갔다. 그러자 온 도성이 적지 않은 근심에 잠겼다.

15 사제들은 사제 옷을 입고 제단 앞에 엎드려서 하늘을 향하여, 기금에 관한 법을 내리신 분께, 돈을 맡긴 이들을 위하여 그 기금을 안전하게 지켜 주십시오 간청하였다.

16 대사제의 모습을 보는 이마다 마음이 괴로웠으니, 표정과 안색의 변화가 영혼의 근심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17 공포에 사로잡힌 그는 몸을 부들부들 떨며, 자기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마음의 고통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18 사람들도 무리를 지어 집 밖으로 뛰어나와 함께 탄원하였다. 성소가 곧 모독을 당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19 젖기름 밀로 차루옷을 두른 여자들이 길을 매웠다. 집 안에 갇혀 있던 처녀들은 더러는 성문으로, 더러는 성벽으로 함께 뛰어가고 또 더러는 창문으로 내다보며,

20 모두 손을 하늘로 쳐들고 탄원 기도를 바쳤다.

21 군중이 온통 뒤섞여 엎드려 있는 광경과 큰 근심에 잠겨 불안에 떨고 있는 대사제의 모습은 애처로웠다.

22 그들은 돈을 맡긴 이들을 위하여 그것을 안전하고 온전하게 지켜 주십시오 전능하신 주님께 간청하였다.

23 한편 헬리오도로스는 결정된 대로 실행하려고 하였다.

헬리오도로스에게 장발이 나다

24 헬리오도로스가 호위병들과 함께 금고에 다가갔을 때, 영들과 모든 권세의 지배자께서 장엄한 현현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그와 함께 당돌하게 들어선 자들이 이 하느님의 힘에 놀라 넋을 잃고 겁에 질려 버렸다.

25 휘황찬란하게 무장한 말이 무시무시한 기사를 태우고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이다. 그 말은 헬리오도로스에게 맹렬히 돌진하여 앞발로 그를 공격하였다. 그 말을 타고 나타난 기사는 황금 갑옷을 입고 있었다.

26 그리고 다른 두 젊은이도 나타났는데, 그들은 아주 건장하고 출중한 미남이었으며 눈부신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헬리오도로스 양쪽에 한 사람씩 서서 채찍으로 그를 쉴 새 없이 때려 그에게 많은 상처를 입혔다.

27 그러자 갑자기 그가 쓰러지고 짙은 어둠이 그를 덮었다. 사람들이 그를 들것에 올려놓았다.

28 그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조금 전에 그 많은 수행원과 그 모든 호위병을 거느리고 앞에서 말한 금고에 들어갔다가 이제는 자기 몸도 가눌 수 없게 된 그를 옮겨 갔다. 모두 하느님의 권능을 똑똑히 깨달았던 것이다.

29 헬리오도로스가 하느님의 힘 때문에 말도 못하고 회복될 희망을 모두 잃어버린 채 넘어져 있을 때,

30 유대인들은 당신의 성소를 영광스럽게 해주신 주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하였던 성전은 전능하신 주님의 현현 덕분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 31 그러자 헬리오도로스의 동료 몇이 급히 오니아스에게 가서, 거의 마지막 숨을 넘기며 죽어 가는 그의 목숨을 살려 주시도록 지극히 높으신 분께 간청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 32 대사제는 유대인들이 헬리오도로스에게 무슨 악랄한 짓을 한 것으로 임금이 생각할까 두려워,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바쳤다.
- 33 대사제가 속죄 제물을 드릴 때, 그 젊은이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헬리오도로스에게 다시 나타나 그 앞에 서서 말하였다. "오니아스 대사제에게 깊이 감사하여라. 주님께서 그를 보아 네 목숨을 살려 주셨다."
- 34 하늘로부터 벌을 받았던 너는 이제 모든 이에게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알리라." 이 말을 하고 그들은 사라졌다.

헬리오도로스가 회개하다

- 35 헬리오도로스는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 목숨을 살려 주신 그분께 장엄한 서원을 한 다음, 오니아스와 작별하고 나서 군대를 이끌고 임금에게 돌아갔다.
- 36 그는 모든 이에게 자기가 본 대로 지극히 위대하신 하느님의 일들을 증언하였다.
- 37 임금이 헬리오도로스에게 예루살렘에 다시 한 번 사람을 파견하려면 누가 좋겠느냐고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 38 "임금님께 맞서는 자나 정권에 반기를 드는 자가 있으면 그를 거기에 보내십시오. 설령 살아 나오다 하여도 호되게 채찍질을 당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곳 주변에는 정말 하느님의 어떤 힘이 있습니다."
- 39 하늘에 거처가 있는 그분께서 친히 그곳을 지켜보고 도와주시며, 악한 짓을 하러 그곳에 다가가려는 자들은 내리쳐 없애 버리십니다."
- 40 헬리오도로스와 금고 수호에 관한 이야기

는 이렇게 끝났다.

오니아스가 셀레우코스에게 시문을 고발하다

- 4 ¹ 앞에서 말한 대로 시문은 금고와 조국에 해를 끼치는 밀고를 하더니, 이제는 헬리오도로스를 부추겨 그 불행한 일을 불러들인 장본인이 오니아스라고 모함하였다.
- 2 무엄하게도 이 도성의 은인이고 동족의 보호자이며 열렬한 법의 수호자인 그를 정권에 반기를 든 자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 3 오니아스에 대한 시문의 적개심이 점점 커져 시문의 심복 하나가 살인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 4 오니아스는 분쟁이 심각해지고, 메네스테우스의 아들이며 코일레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총독인 아폴로니우스가 시문의 사악함을 부추기고 있는 것을 보고
- 5 임금을 찾아갔다. 이는 자기 동족을 고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온 백성의 안녕을 수호하기 위해서였다.
- 6 그는 임금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 지방 행정이 평화롭게 이루어질 수 없으며, 시문은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아손이 오니아스의 재리를 차지하고 그리스 문화를 끌어들이다

- 7 셀레우코스가 생을 마감하고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안티오코스가 왕좌를 이어받았을 때, 오니아스의 동생 아손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사제직을 차지하였다.
- 8 아손은 임금을 알현하는 자리에서, 은 삼백 육십 탈렌트와 또 다른 수입에서 팔십 탈렌트를 바치겠다고 약속하였다.
- 9 그것에 덧붙여, 자기의 권한으로 체육관과 청년 학교를 설립하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안티오키아 시민으로 등록하도록 임금이 승낙해 준다면, 백오십 탈렌트를 더 바치겠다

고 언약하였다.

- 10 임금의 허락을 받은 아손은 그 직위에 오르자마자 동족의 생활 방식을 그리스식으로 바꾸었다.
- 11 그는 유대인들이 에우플레모스의 아버지 요한을 통하여 다른 임금들에게서 얻은 특전들을 폐기시켰다. 요한은 전에 로마인들과 우호 동맹을 맺기 위하여 사신으로 갔던 사람이다. 아손은 법에 맞는 생활양식을 없애 버리고 법에 어긋나는 새 관습들을 끌어들이었다.
- 12 그는 신이 나서 성채 바로 밑에 체육관을 세우고 가장 뛰어난 청년들에게 그리스식 모자를 쓰게 하였다.
- 13 이렇게 사악한 사이비 대사제 아손의 극심한 패륜으로, 그리스화와 이국 풍습의 도입이 극에 달하였다.
- 14 그리하여 사제들은 제단에서 봉사하는 일에 열성이 없어져, 성전을 경시하고 희생 제물 바치는 일을 소홀히 하였다. 장이 울리기가 바쁘게 그들은 레슬링 경기장으로 달려가 법에 어긋나는 경기에 참여하였다.
- 15 그들은 이렇게 조상들이 명예롭게 여긴 것을 멸시하고, 그리스인들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을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였다.
- 16 바로 그 때문에 무서운 재앙이 그들에게 닥쳤다. 그들이 그리스인들의 생활 풍습을 열심히 따르고 모든 면에서 저들과 같아지려 하였지만, 그리스인들은 그들을 적대시하고 억압하였던 것이다.
- 17 사실 하느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다. 다음 시대가 그 사실을 밝혀 줄 것이다.
- 18 네 해마다 티로에서 열리는 경기에 임금이 참관하였는데,
- 19 비열한 아손은 예루살렘의 안티오키아 시민들을 대표하는 사절들을 뽑아 파견하면서, 헤라클레스 신에게 희생 제물을 바칠

비용으로 은 삼백 드라크마도 가져가게 하였다. 그러나 그 돈을 가져가는 이들은 그 돈을 희생 제물의 비용으로 쓰는 일이 합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데에 써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 20 그리하여 그 돈을 보낸 자는 헤라클레스 신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는 데에 쓰라고 하였지만, 그것을 가져가는 이들의 결정에 따라 삼단 노를 갖춘 군선을 만드는 데에 사용되었다.
- 21 메네스테우스의 아들 아폴로니우스가 필로메토르 임금의 즉위식에 참석하도록 이집트로 파견되었을 때, 안티오쿠스는 필로메토르가 자기의 정권에 적대감을 품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자기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하여 아포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 22 그는 아손과 이 도성 주민들이 햇불과 환성으로 성대하게 환영하는 가운데 이곳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나서 그는 군대를 이끌고 페니키아로 진군하였다.

메벨라오스가 대사제가 되다

- 23 세 해 뒤에 아손은 앞에서 말한 시몬의 동생 메벨라오스를 보내어, 임금에게 돈을 가져가고 몇 가지 필요한 일에 관하여 결정을 받아 오게 하였다.
- 24 그런데 메벨라오스는 임금에게 인도되자 자신을 권위 있는 것처럼 내세우고, 아손보다 은 삼백 탈렌트를 더 바쳐 대사제직을 확보하였다.
- 25 그는 어명을 받고 돌아왔지만 대사제직을 맡을 자격이 없는 자였다. 잔인한 폭군의 기질과 사나운 야수처럼 포악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 26 그리하여 친동기마저 몰아낸 아손은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물려서 도망자가 되어 암몬 지방으로 쫓겨가게 되었다.

- 27 메벨라오스는 대사제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임금에게 약속한 돈을 제대로 바치지 않았다.
- 28 그래서 성체의 장수인 소스트라토스가 그 돈을 바치라고 독촉하였다.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그의 책임이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그 사건 때문에 임금에게 불러 갔다.
- 29 그래서 메벨라오스는 자기 동기 리시마코스를 대사제 대리로 앉히고, 소스트라토스는 키프로스군을 통솔하는 크라테스를 대리로 앉혔다.

오니아가 피살되다

- 30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타르수스와 팔루스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읍이 임금의 후궁 안티오키스에게 선물로 넘겨진 것을 알고 폭동을 일으켰다.
- 31 그래서 임금은 고관들 가운데 하나인 안드로니코스를 대리로 세워 두고 사태를 수습하러 급히 그리로 갔다.
- 32 그러자 메벨라오스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여, 성전의 금 기물들을 몇 개 훔쳐서 안드로니코스에게 바쳤다. 그는 이미 티로와 그 주변 여러 성읍에 다른 기물들을 팔아먹은 적이 있었다.
- 33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 오니아스는 안티오키아 근처에 있는 다프네리는 신성 도피처로 들어가 그를 비난하였다.
- 34 그래서 메벨라오스는 안드로니코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오니아스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안드로니코스는 오니아스를 찾아가 속임수로 그를 안심시키고 약속하며 맹세까지 하였다. 그래도 계속해서 의심하는 오니아스를 설득하여 신성 도피처에서 나오게 한 다음, 정의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바로 죽여 버렸다.
- 35 그가 불의하게 살해당한 일 때문에 유대인

뿐만 아니라 이민족들도 분개하고 슬퍼하였다.

- 36 임금이 킬리키아 지역에서 돌아오자, 그 성읍의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사건을 개탄하는 그리스인들이 오니아스가 피살된 사건을 호소하였다.
- 37 안티오키스는 마음 깊이 애도하고 측은하게 여겼으며, 죽은 이의 슬기와 고상한 품행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 38 분노에 휩싸인 안티오키스는 안드로니코스의 자주색 옷을 벗기고 다른 옷까지 찢어 버린 다음, 그가 오니아스에게 못할 짓을 저지른 바로 그곳까지 온 성읍을 가로질러 끌고 가서 그를 죽여 버렸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셨다.

군중이 폭동을 일으켜 리시마코스를 죽이다

- 39 이 도성에서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절도 사건이 자주 일어났는데, 그것은 메벨라오스의 동조 아래 리시마코스가 저지른 것이었다. 이미 많은 금 기물이 없어졌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자 군중이 리시마코스를 치려고 몰려들었다.
- 40 군중이 분노에 차서 들고일어나자, 리시마코스는 삼천 명가량을 무장시키고, 나이는 많지만 별로 사려 깊지 못한 하우라노스라는 자를 앞장 세워, 그들에게 악랄한 공격을 퍼붓기 시작하였다.
- 41 그러자 그들은 리시마코스가 공격해 오는 것을 알고서 어떤 이들은 돌을 집고, 어떤 이들은 몽둥이를 들고, 또 어떤 이들은 곁에 있는 재를 옮겨쥐고, 리시마코스의 부하들에게 닥치는 대로 마구 던졌다.
- 42 그 결과 그들은 많은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고 더러는 죽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내쫓아 도망가게 하였다. 그리고 성전 절도범은 금고 곁에서 죽여 버렸다.

메벨라오스의 약행

- 43 이 일로 사람들이 메벨라오스를 고발하였다.
- 44 임금이 티로에 도착하였을 때, 원로단에서 파견된 세 사람이 임금에게 이 사건을 아뢰었다.
- 45 이미 진 것이나 마찬가지로인 메벨라오스는 도리메네스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에게 임금을 설득시켜 달라면서 많은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 46 그리하여 프톨레마이오스는 바람을 쐬려 나가는 체하면서 임금을 회랑으로 데리고 나가, 그의 마음을 돌리게 하였다.
- 47 임금은 그 모든 악의 원인이었던 메벨라오스에 대한 고발을 기각하고, 오히려 그 불운한 사람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들은 스키타이인들 앞에서 변론하였더라도 무죄로 풀려났을 사람들이었다.
- 48 그들은 이 도성과 대중과 거룩한 기물들을 위하여 변론하였다가 느닷없이 부당한 벌을 받게 된 것이다.
- 49 그래서 티로 사람들까지도 이 불의한 처사에 혐오감을 드러내며, 그들의 장례를 성대하게 지내 주었다.
- 50 그러나 메벨라오스는 권력자들의 탐욕 덕분에 대사제직을 유지하면서, 줄곧 악에 집착하여 동족을 반역하는 원흉이 되었다.

기병대의 발현

- 5 ¹ 그 무렵에 안티오코스가 제이차 이 집트 원정을 시도하였다.
- 2 그런데 금실로 짠 옷을 입고 창으로 무장한 기병들이 무리를 지어 나타나, 거의 사십 일 동안 온 도성 상공에서 이리저리 치달는 일이 일어났다.
- 3 칼을 빼 든 그 기병대들은 전열을 갖추고 서로 공격과 반격을 되풀이하였는데, 방패들이 휘둘리고 창날들이 숲을 이루며 화살

- 들이 훑날리고, 금장식 마구들이 번쩍이고 온갖 종류의 갑옷이 번쩍었다.
- 4 이 발현을 본 이들은 그것이 모두 좋은 징조이기를 바랐다.

아손의 최후

- 5 그때에 안티오코스가 죽었다는 헛소문이 떠돌았다. 그러자 아손은 천 명이 넘는 군대를 이끌고 갑자기 이 도성에 공격을 퍼부었다. 성벽을 지키던 군사들이 쫓겨 가고 마침내 도성이 함락될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메벨라오스는 성채로 달아났다.
- 6 아손은 자기 동족을 무자비하게 학살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동포들을 희생시켜 얻은 성공이 가장 큰 불행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승리가 적군을 누르고 얻은 것이지 동족을 누르고 얻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 7 그러나 그는 대사제직을 차지하지 못하고, 마침내 모반 때문에 수치를 당한 채 다시 암몬 땅으로 달아나고 말았다.
- 8 그리고 나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는 아라비아인들의 통치자 아레타스에게 감금되었다가, 모든 이에게 쫓겨 이 성읍 저 성읍으로 도망다녔으며, 법을 배신한 자로 미움을 받고 조국과 동족을 박해한 자로 혐오를 받다가 이집트로 쫓겨났다.
- 9 수많은 사람을 조국에서 추방하였던 그는 라케데모니아인들에게 건너가서 조상이 같다는 사실에 호소하며 피난처를 구해 보려고 하였으나 이국 땅에서 죽고 말았다.
- 10 많은 사람을 물어 주지 않고 내던져 버렸던 그가 죽자, 아무도 곡해 주지 않았고 어떠한 장례식도 치러 주지 않았다. 이렇게 그는 조상의 무덤에 함께 묻히지 못하였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정을 도둑하다

- 11 이 일에 관한 보고가 임금에게 들어가자

그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아수처럼 격분한 마음으로 이집트에서 돌아와 이 도성을 무력으로 점령해 버렸다.

- 12 그리고 나서 걸리는 사람마다 사정없이 칼로 쳐 죽이고 집으로 들어간 이들도 학살하라고 군사들에게 명령하였다.
- 13 그리하여 젊은이와 늙은이를 살해하고, 여자와 아이를 도륙하고, 처녀와 젖먹이를 살육하는 일이 자행되었다.
- 14 단 사흘 만에 팔만 명이 살해되고 사만 명이 백병전으로 죽었다. 노예로 팔려 간 사람도 살육당한 사람만큼 많았다.
- 15 임금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법과 조국의 배반자가 된 메벨라오스의 인도를 받아 무엄하게 온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갔다.
- 16 그는 거룩한 가물들에 부정한 손을 대고, 다른 임금들이 그곳의 발전과 영광과 영예를 위하여 바친 예물들을 더러운 손으로 훔쳐 갔다.
- 17 안티오코스는 이 도성에 사는 이들의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잠시 이곳을 소홀히 하게 된 것을 모르고 교만한 생각을 품고 있었다.
- 18 그들이 그토록 많은 죄악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셀레우코스 임금이 보내어 금고를 점검하러 왔던 헬리오도로스처럼, 안티오코스도 안으로 들어섰다가 바로 체찍질을 당하여 그런 방자한 짓을 못 하게 내몰렸을 것이다.
- 19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곳을 위하여 백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하여 이곳을 선택하신 것이다.
- 20 그래서 이곳은 백성의 불행을 함께 겪고 나중에 혜택도 함께 누렸다. 진능하신 분의 진노로 버림받은 이곳은 위대하신 주님과 화해하게 되었을 때, 다시 그 모든 영

광을 되찾았다.

안티오코스가 보낸 자들이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학살하다

- 21 이렇게 하여 안티오코스는 성전에서 천팔백 탈렌트를 실어 내어 안티오키아로 급히 들어갔다. 그는 오만하게도 물에다 배를 띄우고 바다를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만큼 의기양양하였던 것이다.
- 22 그는 백성을 억압할 감독관들을 남겨 두었다. 예루살렘에는 임명자인 자기보다 더 야만스러운 성격을 지닌 프리기아 출신 필리포스를 임명하고,
- 23 그리짐에는 안드로니코스를 임명하였다. 이들 말고도 메벨라오스를 임명하였는데, 그는 어느 누구보다 더 포악하게 동족을 지배하였다. 유대인들에게 적대감을 품고 있는
- 24 안티오코스는 미시아의 수령 아폴로니우스를 군사 이만 이천 명과 함께 보내며, 장정들을 모조리 학살하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노예로 팔라고 명령하였다.
- 25 아폴로니우스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평화로운 사람인 체하며 거룩한 안식일까지 기다렸다가, 그날에 유대인들이 일하지 않는 것을 보고 부하들에게 무장 행렬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 26 그리고 나서 그는 이 광경을 보러 나온 이들을 모두 학살하고, 무장한 병사들과 함께 이 도성으로 달려 들어와 또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
- 27 그때에 마카베오라고 하는 유다가 아홉 명 가량의 사람들과 함께 광야로 물러갔다. 유다는 그곳에서 동지들과 함께 들짐승처럼 살며, 몸을 부정하게 하지 않으려고 줄곧 들에 나는 것만 먹고 살았다.

이교 예식을 강요하다

- 6¹ 그 뒤에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임금

은 아테네의 원로 한 사람을 보내어, 유대인들이 조상들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도록 강요하였다.

- 2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것을 올림포스의 제우스 신전이라고 부르게 하였으며, 그리짐에 있는 성전은 그곳에 사는 이들이 하는 대로 나그네의 수호신 제우스의 신전이라고 부르게 하였다.
- 3 이렇게 악은 혹독하고 극도로 가혹하게 맹위를 떨쳤다.
- 4 성전은 이민족들의 방탕과 향락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성전 경내에서 창녀들과 놀아나고 여자들과 잠자리를 같이하였다. 그리고 부당한 것들을 끌어들이었다.
- 5 제단은 법으로 금지된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찼다.
- 6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낼 수도 없고 조상 때부터 전해오는 축일도 지킬 수 없었으며,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할 수조차 없었다.
- 7 게다가 달마다 임금의 생일이 되면 끌려가서 지독한 강요를 받아 이교 제사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 또 디오니소스 축일이 되면, 담쟁이덩굴로 엮은 관을 쓰고 디오니소스를 찬양하는 행렬을 하도록 강요받았다.
- 8 프톨레마이스 시민들의 제안으로 이웃 그리스 성읍들에도 칙령이 반포되었다. 그 칙령은 유대인들을 탄압하는 똑같은 정책을 써서 이교 제사에 참석하게 하고
- 9 관습을 그리스식으로 바꾸기를 거부하는 이들을 죽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환난이 닥친 것을 누구나 알게 되었다.
- 10 어떤 여자 들은 아들에게 할례를 빼돌렸다고 해서 끌려 나왔다. 그 여자들은 아기를 가슴에 매단 채 성읍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니다가, 성벽 위에서 아래로 내던져졌다.
- 11 다른 이들은 근처 동굴에 모여서 몰래 일곱째 날을 지내다가 필리포스에게 고발되어 한꺼번에 화형을 당하였다. 그들은 성

스러운 날을 존중하여, 자신들을 방어하는 일조차 삼갔던 것이다.

자자의 권고

- 12 나는 이 책을 읽는 이들이 이러한 고난에 좌절하지 말고, 이 징벌을 우리 민족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교육시키려는 것으로 여기도록 권고한다.
- 13 사악한 자들을 오래 버려두시지 않고 바로 벌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자극히 인지하시다는 표지다.
- 14 주님께서는 이와 달리 다른 민족들에게는 그들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벌을 내리시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신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달리 다루시기로 결정하셨다.
- 15 나중에 우리의 죄가 절정에 달하여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복하시는 일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다.
- 16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서 자비를 거두지 않으신다. 고난으로 당신의 백성을 교육하시는 것이지 저버리시는 것이 아니다.
- 17 이것으로 이러한 사실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다. 이제 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

엘야저의 순교

- 18 매우 뛰어난 율법 학자들 가운데 엘야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이미 나이도 많고 풍채도 훌륭하였다. 그러한 그에게 사람들이 강제로 입을 벌리고 돼지고기를 먹이려 하였다.
- 19 그러나 그는 더럽혀진 삶보다는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는 것이 낫다고 여겨, 자진해서 형틀로 나아가며
- 20 돼지고기를 뱉어 버렸다. 이것이 바로 목숨이 아껴워도 법에 어긋나는 음식은 맛보는 일조차 거부하는 용기를 지닌 모든 이가 걸어야 하는 길이다.

- 21 법에 어긋나는 이교 제사의 책임자들이 전부터 엘아자르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따로 데리고 가, 그가 먹어도 괜찮은 고기를 직접 준비하여 가지고 와서 임금의 명령대로 이교 제사 음식을 먹는 체하라고 권하였다.
- 22 그렇게 하여 엘아자르가 죽음을 면하고, 그들과 맺어 온 오랜 우정을 생각하여 관대한 처분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
- 23 그러나 그는 자기의 생애, 많은 나이에서 오는 위엄, 영예롭게 얻은 백발, 어릴 때부터 보여 온 훌륭한 처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법에 합당하게 고결한 결정을 내린 다음, 자기를 바로 저승으로 보내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 24 "우리 나이에는 그런 가장된 행동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젊은이가 이혼 살이나 된 엘아자르가 이민족들의 종교로 넘어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 25 또한 조금이라도 더 살아 보려고 내가 취한 가장된 행동을 보고 그들은 나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지고, 이 늙은이에게는 오욕과 치욕만 남을 것입니다.
- 26 그리고 내가 지금은 인간의 벌을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살아서나 죽어서나 전능하신 분의 손길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 27 그러므로 이제 나는 이 삶을 하직하여 늙은 나이에 맞맞은 내 자신을 보여 주려고 합니다.
- 28 또 나는 숭고하고 거룩한 법을 위하여 어떻게 기꺼이 그리고 고결하게 훌륭한 죽음을 맞이하는지 그 모범을 젊은이들에게 남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바로 형들로 갔다.
- 29 조금 전까지도 그에게 호의를 베풀던 자들은 그가 한 말을 미친 소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고 악의를 품었다.

- 30 그는 매를 맞아 죽어 가면서도 신음 중에 큰 소리로 말하였다. "거룩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는, 내가 죽음을 면할 수 있었지만, 몸으로는 체적질을 당하여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마음으로는 당신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이 고난을 달게 받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니다."
- 31 이렇게 그는 젊은이들뿐 아니라 온 민족에게 자기의 죽음을 고결함의 모범과 덕의 귀감으로 남기고 죽었다.

한 어머니와 일곱 아들의 순교

- 7¹ 그때에 어떤 일곱 형제가 어머니와 함께 체포되어 채찍과 가죽 끈으로 고초를 당하며, 법으로 금지된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강요를 임금에게서 받은 일이 있었다.
- 2 그들 가운데 하나가 대변자가 되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를 심문하여 무엇을 알아내려 하시오? 우리는 조상들의 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소."
- 3 그러자 임금은 화가 나서 냄비와 술을 불에 달구라고 명령하였다.
- 4 그것들이 바로 달구어졌을 때, 남은 형제들과 어머니가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그 대변자의 혀를 잘라 내고 머리 가죽을 벗기고 손발을 자르라고 지시하였다.
- 5 그리고 완전히 불구가 되었지만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그를 불 걸로 옮겨 냄비에 집어넣으라고 명령하였다. 냄비에서 연기가 멀리 퍼져 나갈 때, 나머지 형제들은 고결하게 죽자고 어머니와 함께 서로 격려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 6 "모세께서 백성에게 경고하시는 노래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가없이 여기시리라.' 하고 분명히 밝히신 것처럼, 주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7 첫째가 이런 식으로 죽자 그들은 둘째를 조롱하려고 끌어내었다. 그들은 머리 가죽을 머리카락째 벗겨 내고 물었다. "네 몸의 사지가 잘려 나가는 형벌을 받기 전에 이것을 먹겠느냐?"

8 그는 조상들의 언어로 "먹지 않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도 첫째처럼 고문을 당한 끝에,

9 마지막 숨을 거두며 말하였다. "이 사악한 인간, 당신은 우리를 이승에서 몰아내지만, 온 세상의 임금님께서서는 당신의 법을 위하여 죽은 우리를 일으키시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이오."

10 그다음에는 셋째가 조롱을 당하였다. 그는 혀를 내밀라는 말을 듣자 바로 혀를 내밀고 손까지 용감하게 내뻗으며,

11 고결하게 말하였다. "이 지체들을 하늘에서 받았지만, 그분의 법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것들까지도 하찮게 여기오. 그러나 그분에게서 다시 받으리라고 희망하오."

12 그러자 임금은 물론 그와 함께 있던 자들까지 고통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그 젊은이의 기개에 놀랐다.

13 셋째가 죽은 다음에 그들은 넷째도 같은 식으로 괴롭히며 고문하였다.

14 그는 죽는 순간이 되자 이렇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리라는 희망을 간직하고, 사람들의 손에 죽는 것이 더 낫소. 그러나 당신은 부활하여 생명을 누릴 가망이 없소."

15 그다음에는 다섯째가 끌려 나와 고초를 당하였다.

16 그는 임금을 바라보며 말하였다. "당신도 죽을 몸인데 사람들에게 권력을 휘두르며 당신 마음대로 하고 있소. 그러나 우리 민족이 하느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는 마시오.

17 두고 보시오. 그분의 위대한 능력이 어떻게

당신과 당신 후손을 괴롭히는지 당신이 보게 될 것이오."

18 그다음에 그들은 여섯째를 끌어내었다. 그는 죽을 때가 되자 이렇게 말하였다. "헛된 생각을 하지 마시오. 우리는 지금 우리 하느님께 죄를 지은 탓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소.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것이오.

19 그러나 감히 하느님과 싸우려 한 당신이 벌을 받지 않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마시오."

20 특별히 그 어머니는 오래 기억될 놀라운 사람이었다. 그는 일곱 아들이 단 하루에 죽어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주님께 희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용감하게 견디어 냈다.

21 그는 조상들의 언어로 아들 하나하나를 격려하였다. 고결한 정신으로 가득 찬 그는 여자다운 생각을 남자다운 용기로 북돋우며 그들에게 말하였다.

22 "너희가 어떻게 내 배 속에 생기게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준 것은 내가 아니며, 너희 몸의 각 부분을 제자리에 붙여 준 것도 내가 아니다.

23 그러므로 사람이 생겨날 때 그를 빚어 내시고 만물이 생겨날 때 그것을 마련해 내신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자비로이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너희가 지금 그분의 법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다."

24 안티오코스는 자기가 무시당하였다고 생각하며, 그 여자의 말투가 자기를 비난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스러워 하였다. 막 내아들은 아직 살아 있었다. 임금은 그에게 조상들의 관습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부자로 만들어 주고 행복하게 해 주며 벗으로 삼고 관직까지 주겠다고 하면서, 말로 타이르려만 아니라 약속하며 맹세까지 하

- 였다.
- 25 그러나 그 젊은이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그 어머니를 가까이 불러 소년에게 충고하여 목숨을 구하게 하라고 강권하였다.
- 26 임금이 즐기차게 강권하자 어머니는 아들을 설득해 보겠다고 하였다.
- 27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에게 몸을 기울이고 그 잔인한 폭군을 바웃으며 조상들의 언어로 이렇게 말하였다. "아들아, 나를 불쌍히 여겨 다오. 나는 아홉 달 동안 너를 배속에 품고 다녔고 너에게 세 해 동안 젖을 먹였으며, 네가 이 나이에 이르도록 기르고 키우고 보살피어 왔다.
- 28 애야, 너에게 당부한다. 하늘과 땅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미 있는 것에서 그것들을 만들지 않으셨음을 깨달아라. 사람들이 생겨난 것도 마찬가지다.
- 29 이 박해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죽음을 받아들여라. 그때야 내가 그분의 자비로 네 형들과 함께 너를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 30 어머니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젊은이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오? 나는 임금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겠소. 모세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주어진 법에만 순종할 뿐이오.
- 31 히브리인들을 거슬러 온갖 불행을 꾸며 낸 당신은 결코 하느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오.
- 32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소.
- 33 살아 계신 주님께서는 꾸짖고 가르치시려고 우리에게 잠시 화를 내시지만, 당신의 종들과 다시 화해하실 것이오.
- 34 그러나 당신은 악랄하고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더러운 자요. 그러니 하늘의 자녀들을

- 치려고 손을 들고 헛된 희망에 부풀어 공연히 우쭐대지 마시오.
- 35 당신은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전능하신 하느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오.
- 36 우리 형제들은 잠시 고통을 겪고 나서 하느님의 계약 덕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소. 그러나 당신은 주님의 심판을 받아 그 교만에 마땅한 벌을 짊어질 것이오.
- 37 나는 형들과 마찬가지로 조상들의 법을 위하여 몸도 목숨도 내놓았소.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우리 민족에게는 어서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에게는 시련과 재앙을 내리시어 그분만이 하느님이심을 고백하게 해 주시기를 간청하오.
- 38 또한 우리 온 민족에게 정당하게 내렸던 전능하신 분의 분노가 나와 내 형제들을 통하여 끝나기를 간청하고 있소."
- 39 화가 치밀어 오른 임금은 다른 어느 형제보다 그를 더 지독하게 다루었다. 모욕에 찬 그의 말에 격분하였던 것이다.
- 40 그리하여 그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더럽혀지지 않은 채 죽어 갔다.
- 41 마지막으로 그 어머니도 아들들의 뒤를 이어 죽었다.
- 42 이교 제사를 거부한 이야기와 극심한 고문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자.

유다 마카베오가 항전하다

- 8¹ 마카베오라고 하는 유다와 그의 동지들은 여러 마을에 몰래 들어가, 친족들을 불러내고 유다교에 충실하게 살아 온 이들을 소집하여 육천 명가량 모았다.
- 2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억압당하는 이 백성을 굽어보시고, 사악한 사람들에게 더럽혀진 성전을 가없이 여겨 주심사로 주님께 간청하였다.
- 3 또한 파괴되어 거의 무너져 가는 이 도성에 자비를 베푸시고, 죽은 이들의 피가 당신께

-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어 주시며,
 4 무죄한 아이들이 당한 무도한 학살과 당신의 이름이 받은 모독을 기억하시고, 악에 대한 당신의 혐오감을 드러내시기를 간청하였다.
 5 마카베오가 군대를 조직하자마자 이민족들이 그를 당해 내지 못하게 되었으니, 백성에 대한 주님의 분노가 자비로 바뀐 것이다.
 6 그는 성읍과 마을들을 급습하여 불을 지르고 요충지들을 차지하였으며 적지 않은 적군을 패주시켰다.
 7 그러한 공격에는 가장 유리한 밤을 이용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용맹에 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 나갔다.

니카노르와 고르기아스를 물리치다

- 8 마카베오가 조금씩 기반을 확보하고 더욱 자주 성공을 거두며 세력을 넓혀 가는 것을 보고, 필리포스는 코일레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총독인 프톨레마이오스에게 편지를 써서 임금의 일을 도우러 와 달라고 하였다.
 9 프톨레마이오스는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그 즉시 파트로클로스의 아들이며 임금의 첫째가는 벗들 가운데 하나인 니카노르를 뽑아, 모든 민족들에게서 소집된 병사 이만여 명의 지휘관으로 세위 파견하였다. 프톨레마이오스는 또 그에게 장수로서 군대 경험 많은 고르기아스를 붙여 주었다.
 10 니카노르는 유대인 포로들을 팔아서, 임금이 로마인들에게 바쳐야 할 조공 이전 탈렌트를 장만하려고 작정하였다.
 11 그래서 그는 곧바로 해안 성읍들에 사람을 파견하여 유대인 노예들을 사라고 하면서, 노예 아흔 명을 한 탈렌트에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는 전능하신 분께서 자기에게 내리시려는 징벌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12 니카노르가 쳐들어온다는 보고가 유다에게

- 들어오자, 유다는 병사들에게 적군의 침입을 알려 주었다.
 13 비겁한 자들과 하느님의 정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도망쳐 다른 곳으로 가 버렸다.
 14 그러나 다른 이들은 자기들에게 남아 있는 것들을 모두 팔았다. 그러면서 사악한 니카노르가 싸우기도 전에 노예로 팔아넘긴 이들을 구해 달라고 주님께 간청하였다.
 15 그들은 자기들을 보아서가 아니더라도, 당신께서 자기 조상들과 맺으신 계약들을 보아서, 그리고 자기들이 당신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린다는 사실을 생각하시어 그렇게 해 주십시오고 간청하였다.
 16 마카베오는 수가 육천 명 되는 군사들을 모아 놓고 적들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또 불의하게 그들을 공격해 오는 이민족들의 대군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히 싸우라고 격려했다.
 17 또 이민족들이 무도하게 성소를 유린한 행위, 수치를 당한 이 도성의 이름, 그리고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생활양식의 파괴를 눈앞에 생생히 떠올리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18 그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저들은 무기와 무용을 믿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느님을 믿는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자들은 물론 온 세상까지도 눈짓 한 번으로 쳐부수실 수 있는 분이시다."
 19 이어서 그는 선조들이 도움을 받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곧 산헤립 시대에 적군 십팔만 오천 명이 패망할 때의 이야기,
 20 유대인들이 전체 병력 팔천 명으로 마케도니아인 사천 명과 함께 바빌론에서 갈라티아인들과 싸울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마케도니아인들이 곤경에 빠지자, 유다 군대 팔천 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도움을 받아 갈라티아 군대 십이만 명이 전멸시키고 많은 전리품을 거두었던 것이다.

- 21 유다는 이러한 말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법과 조국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군대를 네 부대로 나누었다.
- 22 또 자기 형제 시몬과 요셉과 요나탄을 각 부대의 지휘관으로 임명하고, 저마다 천오백 명씩 거느리게 하였다.
- 23 이어서 엘이아저르에게 큰 소리로 성서를 봉독하게 한 다음, '하느님의 도우심'이라는 표어를 정하고, 그 자신이 제일 부대의 지휘관이 되어 니카노르와 교전하였다.
- 24 전능하신 분께서 그들의 동맹군이 되어 주셨으므로, 그들은 적군 구천 명 이상을 쳐 죽이고 니카노르 군대의 대부분에게 부상을 입혀, 불구자가 된 그자들이 모두 달아나게 만들었다.
- 25 유다의 군대는 자기들을 사려고 왔던 자들의 돈도 차지하였다. 그들은 적군을 꽤 멀리까지 추격하다가 시간이 늦어져 그만두었다.
- 26 인식일 전날이었으므로 적군을 계속 쫓아 갈 수 없었던 것이다.
- 27 그들은 적군의 무기를 거두고 노획품을 차지한 다음, 자기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시작하시어 그날에 구원을 내리신 주님께 열렬한 찬미와 감사를 드리면서 인식일을 지켰다.
- 28 인식일이 지난 뒤에 그들은 고문을 당한 이들과 과부들과 고아들에게 노획품의 일부를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과 자기 자녀들의 몫으로 나누어 가졌다.
- 29 이렇게 하고 나서 그들은 다 함께 자비하신 주님께 탄원하며,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과 완전히 화해하여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티모테오스와 바키테스를 쳐 이기다

- 30 유다인들은 티모테오스와 바키테스의 군대

와 전투를 벌여, 이만 명 이상을 죽이고 매우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요새들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많은 노획물을 똑같이 갈라, 반은 자기들이 가지고 나머지는 고문을 당한 이들과 고아들과 과부들뿐 아니라 노인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 31 그들은 적군의 무기를 거두어 적당한 곳에 모두 조심스럽게 쌓아 두고, 나머지 전리품은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
- 32 그들은 또 티모테오스 군대의 수장을 죽였는데, 그는 극악무도한 사람으로서 유다인들이 많이 괴롭혔다.
- 33 그리고 고향 땅에서 승전 축제를 지낼 때, 거룩한 대문들을 불태운 칼리스테네스 일당을 화형에 처하였다. 칼리스테네스는 오두막으로 달아났다가 그 불경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른 것이다.

니카노르가 굴복하다

- 34 유다인들을 사려고 천 명이나 되는 상인까지 데려온 악독한 니카노르는,
- 35 그가 가장 미천하다고 여겼지만 주님의 도움을 받은 이들에게 굴욕을 당하였다. 그는 호화로운 옷을 벗고, 달아나는 노예처럼 혼자서 내륙 지방을 가로질러 안티오키아에 다다랐다. 그가 기껏 이루어 낸 일이라고는 자기 군대를 파멸시킨 것밖에 없었다.
- 36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포로들을 잡아 로마인들에게 바칠 조공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던 그가, 유다인들은 수호자를 모시고 그분께서 명령하신 법을 따르기 때문에 결코 침해할 수 없는 민족이라고 선언하게 되었다.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가 비참한 최후를 맞다

- 9¹ 그 무렵 안티오크스는 불명예스럽게 페르시아 지방에서 철수하게 되었다.

2 그는 페르세폴리스라는 곳으로 들어가 신전을 약탈하고 그 성읍을 장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일어나 무기를 들고 대항하자, 안티오코스는 주민들에게 쫓겨 수치스러운 퇴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3 그가 액바타나에 있을 때, 니카노르와 티모테오스의 군대에 일어난 일이 보고되었다.

4 화가 치밀어 오른 그는 자기를 패주시킨 자들에게 받은 피해에 대한 화풀이를 유대인들에게 하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쉬지 말고 병거를 몰라고 병거병에게 지시하였다. 그러나 하늘의 심판이 그와 함께 가고 있었다. 그는 거만을 떨며, "내가 예루살렘에 다다르지만 하면 그곳을 유대인들의 공동묘지로 만들겠다." 하고 말하였다.

5 그러나 모든 것을 보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치명타를 그에게 가하셨다. 그 말을 끝내자마자 그는 내장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속으로 지독한 고통을 겪게 되었다.

6 괴이한 형벌을 수없이 가하여 다른 이들의 내장에 고통을 준 그에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7 그러나 그는 오만함을 조금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거만해져서 유대인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더 빨리 가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다가 내달리는 병거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너무 세게 떨어져 몸의 뼈마디가 모두 어긋났다.

8 조금 전까지 초인적 교만으로 바다 물결에 명령할 수 있다고 여기고 산들의 높이를 짚 수 있다고 생각하던 그가, 이제는 땅바닥에 떨어져 들것에 실려 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이에게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

9 이 사악한 자의 눈에서는 구더기들이 기어나오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살아 있기는

하지만 살은 썩어 문드러져 갔다. 그 썩는 냄새가 온 군대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10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늘의 별까지 딸 수 있다고 여기던 그였지만, 이제는 냄새 때문에 아무도 그를 옮길 수조차 없게 된 것이다.

11 마침내 그가 꺾인 그는 거만함을 거의 다 버리고, 하나님의 채찍질로 점점 심해지는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얻기 시작하였다.

12 자기도 제 몸에서 나는 냄새를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자기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13 그리고 그 더러운 자는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실 리 없는 주님께 맹세하며,

14 자기가 빨리 가서 무너뜨려 공동묘지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한 거룩한 도성에 자유를 선포하고,

15 묻어 줄 가치조차 없다고 여겨 아이들과 함께 들짐승과 새들의 먹이로 던져 버리겠다고 하던 유대인들을 모두 아테네인들과 똑같이 대우하고,

16 전에 자기가 노략질하였던 거룩한 성전은 가장 좋은 예물로 꾸미고 모든 거룩한 기물을 몇 갑절로 되돌려 주며 희생 제물을 마련하는 비용을 자기 수입에서 지불하고,

17 그뿐만 아니라 자신도 유대인이 되어,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나 가서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겠다고 하였다.

18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그에게 내려 고통이 조금도 그치지 않자, 그는 희망을 포기하고 유대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탄원 형식의 편지를 썼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19 "임금이며 장수인 안티오코스가 훌륭한 유대 시민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며 건강과 번영을 바랍니다.

- 20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지내고 여러분의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하늘에 희망을 두는 나로서는 하나님께 크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 21 나는 지금 병상에 누워 여러분이 나에게 보여 준 호의를 애정 어린 마음으로 회상하고 있습니다. 나는 페르시아 지방에서 돌아오는 길에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이를 위한 공공의 안전을 생각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 22 나는 이 병에서 회복되리라는 큰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처지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 23 나는 부왕께서 저 위쪽 지방으로 원정을 가실 때에 후계자를 지명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 24 그것은 예기치 못한 사태가 일어나거나 불길한 소식이 전해졌을 때, 나라의 백성들이 누구에게 국사가 맡겨졌는지를 알고서 중요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 25 그뿐만 아니라 나는 인접한 나라의 통치자들과 내 왕국의 이웃들이 기회를 엿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저 위쪽 지역으로 서둘러 떠날 때에 내 아들 안티오코스를 왕위 계승자로 임명하였습니다. 나는 그를 여러분 대다수에게 자주 말하고 부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쓴 내용을 내 아들에게도 써 보였습니다.
- 26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간청합니다. 여러분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받은 혜택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 지금의 호의를 나와 내 아들에게 계속해서 보여 주십시오.
- 27 그가 내 정책을 이어받아 여러분을 친절하고 관대하게 대하여 줄 것으로 나는 확신합니다."
- 28 이렇게 하여 살인자이며 신성 모독자인 그

는 다른 이들에게 기한 것과 같은 극도의 고통을 겪으며 이국의 산속에서 매우 비참한 죽음으로 삶을 마쳤다.

- 29 그 주검은 그의 친구 필리포스가 거두어 갔다. 그런데 필리포스는 그의 아들 안티오코스를 두려워하여 이집트로 프톨레마이오스 필로메토르에게 갔다.

예루살렘과 성전을 정화하다

- 10 ¹ 마카베오와 그의 군사들은 주님의 인도를 받아 성전과 도성을 탈환하고,
- 2 이민족들이 광장에 만들어 놓은 제단들과 성역들을 헐어 버렸다.
- 3 그리고 나서 성전을 정화하고 다른 제단을 쌓은 다음, 부싷돌로 불을 피워 그 불로 이태 만에 희생 제물을 바쳤으며, 향을 피우고 등불을 켜고 제사 빵을 차려 놓았다.
- 4 그렇게 하고 나서 그들은 땅에 엎드려 주님께 다시는 그러한 환난을 겪지 않게 해 주십시오 간청하였다. 그들이 후시 죄를 짓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마땅한 벌을 받을 망정 그분을 모독하는 야만스러운 이교도들에게는 넘어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간청하였다.
- 5 그리고 이민족들이 성전을 더럽힌 바로 그 날에 성전을 정화하였다. 때는 같은 달, 곧 키슬레우 달 스무닷새날이었다.
- 6 그들은 여드레 동안 그 축제를 초막절과 같은 방식으로 기쁘게 지냈다.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자기들이 이 초막 축제 동안 산과 동굴에서 들짐승처럼 살던 일을 기억하였다.
- 7 그렇게 하여 그들은 나뭇잎으로 장식한 지팡이와 아름다운 나뭇가지와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서, 당신의 거처를 정화하도록 잘 이끌어 주신 그분께 찬미가를 올렸다.
- 8 그리고 나서 온 유대 민족이 해마다 같은

날에 축제를 지내기로 공적인 결의에 따라 정한 법령을 공포하였다.

프톨레마이오스 마크론이 지살하다

- 9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안티오코스의 딸로는 이라하였다.
- 10 이제는 이 사악한 자의 아들인 안티오코스 에우파토르 치하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여러 전쟁이 가져온 환난에 관하여 간단히 이야기하고자 한다.
- 11 에우파토르는 왕권을 이어받자 리시아스라는 자에게 행정을 맡기고 코일레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최고 총독으로 삼았다.
- 12 그전에, 마크론이라고 하는 프톨레마이오스는 유대인들이 겪은 불의를 생각하여, 앞장 서서 그들에게 의로움을 베풀었으며 그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 13 그래서 임금의 벗들이 에우파토르에게 그를 고발하였다. 더구나 그는 필로메토르에게서 위임받은 키프로스를 포기하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넘어간 일 때문에 사방에서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어 온 터였다. 그렇게 되자 그는 자기의 영예로운 직무를 명예롭게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독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대인들이 이두매이인들을 물리치다

- 14 고르기아스는 이 지방의 총독이 되어 용병 부대를 두고 기회 있을 때마다 유대인들을 공격하였다.
- 15 그와 동시에 요새들을 장악하고 있던 이두매이인들도 유대인들을 괴롭히곤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자들을 받아들이면서 줄곧 유대인들을 공격하려고 하였다.
- 16 마카베오와 그의 군사들은 기도를 드리며 주님께 자기들의 동맹군이 되어 주심사고 간청한 다음, 이두매아 요새들을 향하여 돌진하였다.

- 17 맹렬히 공격한 끝에 그곳들을 모두 장악하고, 성벽 위에서 싸우는 자들을 물리쳤으며 마주치는 자마다 살해하였다. 그리하여 이만여 명의 적군을 죽였다.
- 18 그때에 적어도 구천 명이나 되는 적군이, 포위 공격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춘 두 개의 튼튼한 탑으로 달아났다.
- 19 마카베오는 시몬과 요셉에다 자캐오와 그의 군사들까지 충분히 남겨 두어 그 두 탑을 포위하게 하고, 자기는 더 긴박한 곳으로 떠났다.
- 20 그러나 시몬의 군사들은 돈을 좋아하는 나머지, 탑에 있는 어떤 자들에게 매수를 당하여, 칠만 드라크마를 받고 몇 사람을 빠져 나가게 하였다.
- 21 마카베오는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 놓은 다음, 적들을 풀어 주어 자기들과 싸우게 한 것은 돈을 받고 형제들을 팔아넘긴 행위라고 단죄하였다.
- 22 그러고 나서 반역을 저지른 그자들을 죽이고 곧바로 그 두 탑을 점령하였다.
- 23 작전마다 성공을 거둔 그는 그 두 요새에서 이만여 명을 섬멸하였다.

티모테오스를 물리치다

- 24 전에 유대인들에게 패배한 적이 있는 티모테오스는 막강한 용병부대를 모으고 적지 않은 아시아의 기병대를 모집한 다음, 유대를 공격하여 점령하려고 왔다.
- 25 티모테오스가 다가오자, 마카베오와 그의 군사들은 머리에 흙을 뿌리고 허리에 자루 옷을 두르고서 하느님께 탄원하였다.
- 26 제단 발치에 엎드린 그들은 하느님께 자기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율법서에 명시된 대로 자기 원수들에게는 원수가 되어 주시고 적들에게는 적이 되어 주심사고 간청하였다.

- 27 그들은 기도를 마친 뒤에 무기를 들고 도성에서 꽤 먼 거리까지 진군하여 적군에게 가까워지자 멈추었다.
- 28 양쪽 군대는 동이 트자마자 교전하였다. 한쪽은 성공과 승리의 보증으로 용맹뿐 아니라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한쪽은 광분에 이끌려 싸울 따름이었다.
- 29 전투가 격렬해졌을 때, 하늘에서 위풍당당한 사람 다섯이 금 재갈을 물린 말을 타고 적군에게 나타나, 유대인들을 이끌어 나아갔다.
- 30 그들 가운데 둘이 마카베오 양쪽에 서서, 그가 부상을 입지 않도록 자기들의 무장으로 보호해 주었다. 그들이 적군에게 활을 쏘고 벼락을 내리치자, 얼이 빠지고 눈이 먼 적군은 극심한 혼란으로 흩어졌다.
- 31 그리하여 보병 이만 오백 명과 기병 육백 명이 살해되었다.
- 32 티모테오스 자신은 제세르라는 아주 튼튼히 방비된 요새로 달아났다. 그곳은 케레이스의 지휘 아래에 있었다.
- 33 마카베오와 그의 군사들은 기뻐하며 나흘 동안 그 요새를 포위하였다.
- 34 그 안에 있던 자들은 그곳이 견고함만 믿고, 지독한 말로 하느님을 모독하며 무례한 말을 지껄어 댔다.
- 35 다섯째 날 새벽에 마카베오 군대의 젊은이 스무 명이,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에 분노가 불처럼 타올라 용감하게 성벽을 공격하고, 마주치는 자마다 맹렬하게 쳐 죽였다.
- 36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로 뒤쪽으로 돌아 성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올라가서 탑들에 불을 지른 다음 따로 불을 피워, 하느님을 모독한 자들을 산 채로 태워 죽였다. 또 다른 이들은 성문들을 부수고 나머지 부대들 들 어오게 하여 그 성읍을 함락시켰다.
- 37 그들은 웅덩이 속에 숨어 있는 티모테오스

와 그의 동기 케레이스, 그리고 이폴로파네스도 죽었다.

- 38 이 일을 마친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의 찬미가를 부르며 그분을 찬양하였다.

리시아스를 몰라다

- 11¹ 그 뒤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임금의 후견인이며 친척으로서 행정을 맡은 리시아스가 이 사건 때문에 몹시 속이 상하여,
- 2 보병 약 팔만 명과 온 기병대를 소집하여 유대인들에게 진군해 왔다. 그는 이 도성을 그리스인들의 거주지로 만들어,
- 3 이교도들의 신전처럼 성전에도 세금을 부과하고 해마다 대사제직을 돈을 받고 팔 작정이었다.
- 4 그는 하느님의 권능을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보병 수만 명과 기병 수천 명과 코끼리 여든 마리로 기세가 등등해 있었다.
- 5 이렇게 그는 유대에 진입하여, 예루살렘에서 다섯 스킴이노스쯤 떨어진 곳에 튼튼하게 방비되어 있는 벧 추르로 다가가 그곳을 압박해 들어갔다.
- 6 마카베오와 그의 군사들은 리시아스가 그 요새를 포위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주님께 서 훌륭한 찬사를 보내시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라고 온 백성과 더불어 탄식과 눈물로 애원하였다.
- 7 그리고 나서 마카베오는 자기가 먼저 무장을 한 다음, 어떠한 위험이라도 무릅쓰고 자기와 함께 형제들을 도우러 가자고 다른 이들에게 권유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다 함께 열렬한 마음으로 돌진해 갔다.
- 8 그들이 아직 예루살렘 근처에 있을 때, 말을 탄 기사가 흰옷을 입고 황금 무기를 휘두르며 그들 앞에 나타났다.
- 9 그러자 모든 이가 다 함께 자비하신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사기가 충천하여, 사람 뿐만 아니라 가장 사나운 짐승과 쇠로 만든 생벽까지도 쳐부술 준비를 갖추었다.

- 10 이렇게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셨으므로,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 동맹군과 함께 전투 대열을 갖추고 나아갔다.
- 11 그리고 사자처럼 적들에게 뛰어들어 보병만 천 명과 기병 천육백 명을 쓰러뜨렸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모두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 12 그들은 거의 다 상처를 입고 알몸으로 빠져나가 목숨을 건졌다. 리시阿斯 자신도 수척스럽게 달아나 목숨을 건졌다.

리시阿斯의 화친 제안을 받아들이다

- 13 리시阿斯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기가 당한 패배를 곰곰이 생각한 끝에, 히브리인들은 능력을 지니신 하느님을 동맹군으로 모시기 때문에 싸워 이길 수 없는 민족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절을 보내어,
- 14 모든 일을 정당하게 처리하자고 설득하면서, 자기가 임금을 설득하여 반드시 그들과 벗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하였다.
- 15 마카베오는 민족의 이익을 생각하여 리시阿斯가 제안한 모든 사항에 동의하였다. 마카베오가 유대인들에 관하여 리시阿斯에게 문서로 요구한 것을 임금이 모두 승인하였기 때문이다.

리시阿斯가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

- 16 유대인들에게 써 보낸 리시阿斯의 편지 내용은 이러하였다. "리시阿斯가 유다 백성에게 인사합니다.
- 17 여러분이 파견한 요한과 압살롬은 여러분이 서명한 문서를 내놓으면서, 그 안에 제시된 여러 가지 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 18 그래서 나는 임금님께 울려야 할 사항을 모두 알려 드렸고, 임금님께서서는 가능한

것은 무엇이나 다 승인하였습니다.

- 19 여러분이 정부에 계속 호의를 보이면, 나도 앞으로 여러분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20 세무 사항에 관해서는 이 사람들과 또 내가 파견하는 이들이 여러분에게 가서 상의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 21 안녕히 계십시오." 백사십팔년 디오스 코린티오스 달 스무하늘날.

안티오코스 임금이 리시阿斯에게 보낸 편지

- 22 임금의 편지는 이러한 내용이었다. "안티오코스 임금이 리시阿斯 형제에게 인사합니다.
- 23 우리의 부왕께서 신들의 반열에 드신 이때, 우리 왕국의 신민들은 아무런 동요 없이 저마다 생업에 전념하기를 바랍니다.
- 24 우리는 유대인들이 부왕의 정책과 달리 그리스식 관습에 동의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활양식을 선호하여, 자기들의 관습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 25 우리는 이 민족도 동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전을 그들에게 돌려주고, 그들이 선조들의 관습에 따라 살도록 허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26 그러니 귀하는 사람을 보내어 그들과 화친을 맺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우리의 시책을 보고 저마다 즐겁고 기쁘게 생업에 종사하기를 바랍니다."

임금이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

- 27 우리 민족에게 보낸 임금의 편지는 이러하였다. "안티오코스 임금이 유대인들의 원로단과 그 밖의 다른 유대인들에게 인사합니다.
- 28 여러분이 안녕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도 건강합니다.
- 29 메멜라오스는 여러분이 고향에 들어가 자기 생업에 종사하기를 바란다

알려 주었습니다.

- 30 크산티코스 달 삼십일까지 돌아가는 이들에게는 화친과 안전을 보장합니다.
- 31 유대인들은 전과 같이 고유한 음식 규정과 율법을 지켜도 됩니다. 또한 모르고 저지른 잘못 때문에 그들 가운데 누구도 어떠한 형태로든 고초를 겪지 않을 것입니다.
- 32 나는 여러분을 격려하려고 메넬라오스를 보냅니다.
- 33 인경히 계십시오." 백사십팔년 크산티코스 달 열닷셋날.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

- 34 로마인들도 이러한 편지를 유대인들에게 보냈다. "로마의 사절 퀸투스 엠미우스와 티투스 마니우스가 유다 백성에게 인사합니다.
- 35 임금의 친족인 리시아스가 여러분에게 승인해 준 사항들에 우리도 동의합니다.
- 36 그러나 그가 임금에게 보고하겠다고 결정한 일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깊이 생각한 뒤에 바로 사람을 보내 주십시오. 우리가 안티오키아로 가는 중이니 거기에서 여러분에게 유리한 제안을 내놓겠습니다.
- 37 그러니 지체 없이 사람들을 보내어 여러분의 뜻이 어떠한지 알려 주십시오.
- 38 여러분의 건강을 바랍니다." 백사십팔년 크산티코스 달 열닷셋날.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인 지방 총독들

- 12 ¹ 이러한 협정이 체결된 뒤에 리시아스는 임금에게 돌아가고, 유대인들은 다시 농사를 짓게 되었다.
- 2 그러나 지방 총독들이 티모테오스, 겐네오스의 아들 아폴로니우스, 헤로니모스, 데모폰, 그리고 키프로스 부대의 장수 나카노르는 유대인들이 안정을 누리며 조용히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야포인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다

- 3 야포인들은 다음과 같이 무도한 짓을 저질렀다. 그들은 자기들과 함께 사는 유대인들을 초청하여 미리 준비해 놓은 배에 여자들과 아이들과 함께 타게 하였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악의도 품지 않은 듯 가장하였다.
- 4 그 일은 그 성읍의 공적인 결의에 따라 이루어졌다. 유대인들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였으므로 야포인들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조금도 의심을 품지 않았다. 그러나 야포인들은 그들을 바다로 태우고 나가 그들 가운데 이백여 명이 빠져 죽었다.

유다가 야포와 암니아 주민들에게 보복하다

- 5 유다는 동족에게 이토록 잔인한 짓이 저질러졌다는 보고를 받고 자기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 6 그는 의로운 심판관이신 하느님께 호소하고 나서, 동포들을 살해한 자들을 공격하였다. 밤중에 그는 부두에 불을 지르고 배들을 불태워 버리고 그곳으로 피신한 자들을 칼로 찢어 죽였다.
- 7 그러나 그곳의 성문이 닫혔으므로, 나중에 다시 와서 야포 시민들을 섬멸해 버리겠다고 생각하며 철수하였다.
- 8 유다는 암니아 주민들도 저희와 함께 사는 유대인들에게 같은 짓을 저지르려 한다는 보고를 받고,
- 9 밤중에 암니아인들을 습격하여 부두와 함대를 불태워 버렸다. 그 타오르는 불빛을 이백사십 스타디온이나 떨어진 예루살렘에서도 볼 수 있었다.

아라비아인들과 화친을 맺다

- 10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티모테오스를 치려고 행군을 계속하여 이훙 스타디온을 갔을 때였다. 오천 명이 넘는 아라비아인들이 기병 오백 명과 함께 유다를 기습하였다.

- 11 유다와 그의 군사들은 격전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패배를 당한 그 유목민들은 가축을 내어 주고, 그 밖의 여러 방법으로 유다인들을 돕겠다고 약속 하며 유다에게 화친을 청하였다.
- 12 유다는 그들이 여러모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여 그들과 화평을 이루는 데 동의하였다. 이렇게 화친을 맺은 그들은 저희 천막으로 돌아갔다.

카스뵤를 함락하다

- 13 그 뒤에 유다는 흙 보루와 성벽으로 견고하게 방비된 한 성읍을 공격하였다. 온갖 민족이 섞여 사는 그곳의 이름은 카스뵤이었다.
- 14 그 안에 있는 자들은 튼튼한 성벽과 비축해 둔 양식을 믿고, 유다와 그의 군사들에게 몹시 무례한 행동을 하며 모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지껄여 댔다.
- 15 유다와 그의 군사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성벽 분쇄기와 공격 기구도 없이 에리코를 함락시키신 온 세상의 위대하신 지배자에게 간청을 올리고 나서, 성벽을 향하여 맹렬히 돌진하였다.
- 16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성읍을 점령한 그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리하여 너비가 두 스타디온이나 되는 부근 호수가 흘러드는 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다.

티모테오스를 쳐 이기다

- 17 유다인들은 거기에서 칠백오십 스타디온을 가서, 톱인이라고도 하는 유다인들이 사는 카락스에 이르렀다.
- 18 그들은 티모테오스가 그곳에서 아무 짓도 하지 않고 죽시 떠난 뒤였기 때문에 그를 잡지 못하였다. 그러나 티모테오스는 한 곳에 매우 강력한 주둔군을 남겨 두었다.

- 19 마카베오 휘하의 지휘관 도시테오스와 소시파테르는 그곳으로 나가, 티모테오스가 요새에 남겨 둔 만 명이 넘는 병사들을 전멸시켰다.
- 20 한편 마카베오는 자기 군대를 여러 부대로 나누어 그 부대들을 지휘할 사람들을 세우고, 보병 십이만 명과 기병 이천오백 명을 거느린 티모테오스를 서둘러 쫓아갔다.
- 21 유다가 다가온다는 보고를 받고 티모테오스는 여지들과 아이들과 다른 짐들까지 카르나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미리 보냈다. 그 지방은 통로가 모두 좁아서 포위하기도 어렵고 다가가기도 어려운 곳이었다.
- 22 그러나 유다의 선봉 부대가 나타나자 적군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모든 것을 보시는 분도 그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군은 서둘러 달아나다가 저희끼리 부상을 입히기도 하고 칼 끝에 찔리기도 하였다.
- 23 유다는 아주 맹렬히 추격하여 그 악한들을 칼로 쳐서 삼만 명가량 죽였다.
- 24 티모테오스 자신은 도시테오스와 소시파테르의 군사들에게 붙잡혔다. 그러나 그는 그들 대부분의 부모와 형제들이 자기 밑에 붙잡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가, 매우 교묘한 말로 자신을 산 채로 풀어 주도록 요청하였다.
- 25 티모테오스가 갖은 말로 그 사람들을 무사히 돌려보내겠다고 확실히 맹세하였으므로, 유다인들은 저희 동포들을 구하려고 그를 놓아주었다.

유다가 계속하여 승리하다

- 26 그 뒤에 유다는 카르나임과 아타르가티스 신전으로 진군하여, 그곳에서 적 이만 오천 명을 죽였다.
- 27 이렇게 그들을 쳐 이겨 부순 다음, 온갖 민

족이 사는 견고한 성읍 에프론으로 행군하였다. 그 성벽 앞에는 건장한 젊은이들이 배치되어 그곳을 든든하게 지켰으며, 또 거기에는 많은 전쟁 기구와 투석기가 갖추어져 있었다.

- 28 그러나 유다인들은 어떠한 적군의 병력도 큰 힘으로 부수어 버리시는 지배자에게 간청을 올리고 나서 그 성읍을 장악하고, 그 안에 있는 이만 오천 명가량을 쓰러뜨렸다.
- 29 유다인들은 다시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에서 육백 스타디온 떨어진 스키토폴리스로 서둘러 이동하였다.
- 30 그러나 그곳에 사는 유다인들은 스키토폴리스인들이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불행할 때에도 친절히 대해 주었다고 증언하였다.
- 31 그래서 유다인들은 그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도 자기 민족에게 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그리고 나서 주간절 축제가 가까웠을 때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 32 오순절이라고 하는 축제를 지낸 다음, 그들은 이두메이의 총독 고르기아스를 치려고 서둘러 떠나갔다.
- 33 고르기아스는 보병 삼천 명과 기병 사백 명을 거느리고 나왔다.
- 34 교전하는 동안에 몇몇 유다인이 쓰러졌다.
- 35 바케노르의 군사 가운데 도시테오스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건장한 기병이었다. 그가 고르기아스를 잡고 그의 갑옷을 힘껏 끌어당겼다. 저주받은 그자를 사로잡고 싶었던 것이다. 그때에 트라케 기병 하나가 도시테오스를 덮치며 그 어깨를 칼로 내리쳤다. 그 사이에 고르기아스는 마레사로 달아났다.
- 36 에즈리와 그의 군사들이 오랜 싸움 끝에 몹시 지쳤으므로, 유다는 주님께 자기들의 동맹군이며 전투의 지휘자로 나타나 주십사고 간청하였다.

- 37 그리고 나서 조상들의 언어로 찬미가를 부르고 합성을 지르며 고르기아스의 군대를 기습하여 패주시켰다.

전사자들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바치다

- 38 그 뒤에 유다는 군대를 모아 아들람 성으로 갔다. 일곱째 날이 다가오자 그들은 관습대로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곳에서 안식일을 지냈다.
- 39 다음 날, 장사 지내는 일이 시급해졌으므로, 유다와 그의 군사들은 전사자들의 주검을 거두어 조상들의 무덤에 친족들과 나란히 묻어 주려고 갔다.
- 40 그런데 죽은 자들마다 그 옷 속에서 율법으로 유다인들에게 금지된 얄니아 우상들의 पै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전사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사실이 모든 이에게 분명히 드러났다.
- 41 그들은 모두 숨겨진 일들을 드러내시는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님의 방식을 찬양하였다.
- 42 또 그렇게 저질러진 죄를 완전히 용서해 달라고 탄원하며 간청하였다. 고결한 유다는 백성에게, 전사자들의 죄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눈으로 보았으니 죄를 멀리하라고 권고하였다.
- 43 그런 다음 각 사람에게서 모금을 하여 속죄의 제물을 바쳐 달라고 은 이천 드라크마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그는 부활을 생각하며 그토록 훌륭하고 숭고한 일을 하였다.
- 44 그가 전사자들이 부활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면,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쓸모없고 어리석은 일이었을 것이다.
- 45 그러나 경건하게 잠든 이들에게는 훌륭한 상이 마련되어 있다고 내다보았으니, 참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생각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죽은 이들을 위하여 속죄를 한 것은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안티오코스 에우파토르가 유다를 침략하다

13 ¹ 백사십구년에 유다와 그의 군사들은 안티오코스 에우파토르가 군대를 거느리고 유다 땅에 쳐들어오는데,
² 그의 후견인이며 행정을 맡은 리시아스도 함께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저마다 보병 십만만 명, 기병 오천삼백 명, 코끼리 스물두 마리, 낫으로 무장한 병거 삼백 대로 이루어진 그리스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것이었다.

메발라오스가 죽다

³ 그때에 메발라오스도 그리스 군대와 어울려 매우 교활한 말로 안티오코스를 부추겼다. 그것은 조국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사 제직에 제임명되려는 속셈에서 한 일이었다.
⁴ 그러나 임금들의 임금이신 분께서는 안티오코스가 이 악한에게 분노를 터뜨리게 하셨다. 그리하여 메발라오스가 모든 환년의 원인이었다는 리시아스의 말을 들은 안티오코스는, 그자를 베로이아로 끌고 가서 그쪽 지방의 관습에 따라 처형하라고 명령하였다.
⁵ 거기에는 높이가 원 페키스 되는 탑이 있었는데, 그 탑은 재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위에 둘러쳐진 난간은 어떠한 방향에서든 재 속으로 가파르게 기울어져 있었다.
⁶ 성물을 훔치는 죄나 그 밖의 가증스러운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들은 모두 그 속으로 밀어 떨어뜨려 죽었다.
⁷ 변절자 메발라오스도 땅에 묻히지 못하고 그러한 운명 속에 죽게 되었는데,
⁸ 그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거룩한 불과 재가 있는 제단에 대하여 많은 죄를 지었으므로, 재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⁹ 임금은 자기 아버지 때보다 더 악랄하게 유대인들을 다루겠다는 야만스러운 생각을 해 오고 있었다.
¹⁰ 이 보고를 받은 유다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바로 지금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고 밤낮으로 주님께 탄원하라고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¹¹ 그들이 율법과 조국과 거룩한 성전을 곧 빼앗기게 되었던 것이다. 유다는 또 최근 에야 잠시 숨을 돌리게 된 이 백성이 하느님을 모독하는 이교도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해 주시도록 탄원하라고 하였다.
¹² 사람들은 다 함께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사흘 동안 눈물을 흘리고 단식하며 땅에 엎드려 자비하신 주님께 끊임없이 간청하였다. 유다는 그들을 격려하며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¹³ 원로들과 따로 의논한 뒤에, 유다는 임금의 군대가 유다 땅에 쳐들어와서 도성을 점령하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나가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결관을 내기로 결심하였다.
¹⁴ 그리고 그 결과를 온 세상의 창조주께 맡기고, 군사들에게 법과 성전과 도성과 조국과 생활양식을 위하여 죽기까지 고결하게 싸우라고 격려한 다음, 모데인 근처에 진을 쳤다.
¹⁵ 그는 '하느님의 승리'라는 표어를 군사들에게 정해 준 다음,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로 이루어진 정병을 데리고 밤중에 임금의 처소를 습격하여, 적진에서 이천 명가량을 죽이고 선봉 코끼리와 그 위에 타고 있는 병사도 찢려 죽였다.
¹⁶ 마침내 그들은 적진을 공포와 혼란으로 몰아넣고 승리를 거둔 다음에 철수하였다.
¹⁷ 유다가 그 일을 끝낸 것은 날이 밝아 올 무렵이었다. 그것은 그를 도와주신 주님의 보호 덕분이었다.

유다가 안티오코스 에우파토르의 군대를 쳐부수다

유대인들이 안티오코스와 협정을 맺다

- 18 임금은 유대인들이 대답하라는 것을 체협 하였으므로, 전략을 써서 그들의 거점들을 점령하려고 시도하였다.
- 19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튼튼한 요새 벳 추르로 진격하였으나 격퇴되고, 다시 공격 하였지만 패배하였다.
- 20 그때에 유다는 성안에 있는 이들에게 필수 품을 들여보내 주었다.
- 21 그런데 유대인들의 군대에 속한 로도코스 라는 자가 적군에게 비밀을 누설하였다가 발각되어 붙잡히고 감옥에 갇혔다.
- 22 임금은 다시 벳 추르 주민들과 교섭을 벌 여 화친을 맺은 다음 거기에서 물러갔다.
- 23 그리고 나서 또 유대와 그의 군사들을 공격하였으나 상황이 악화되었다. 그뿐 아니라 자기가 행정을 맡긴 필리포스가 안티오 키아에서 반역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당황 하여, 유대인들을 불러 그들에게 양보하고 그들의 모든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맹세 하였다. 그들이 동의하자, 그는 희생 제물을 바쳐 성전에 경의를 표하고 그곳에 선 심을 빼꼐었다.
- 24 또 마카베오를 받아들이고, 헤게모니테스를 프톨레마이스에서 게라에 이르는 지역의 총독으로 세운 뒤,
- 25 프톨레마이스로 갔다. 그러나 프톨레마이스 주민들은 그 조약에 화가 나 있었다. 사실 그들은 너무나 분개하여 그 협정을 폐기시키려고 하였다.
- 26 그래서 리시아스가 연단에 올라 최선을 다 하여 설명한 끝에 그들을 설득하고 진정시켰다. 그는 이렇게 하여 그들의 호감을 사고 나서 안티오키아로 갔다. 임금의 출정과 철수는 이렇게 이루어졌다.

알키모스가 데메트리오스를 꺾어 대사제직을 얻다

- 14¹ 세 해 뒤에 유대와 그의 군사들에게

보고가 들어왔다. 셀레우코스의 아들 데메트리오스가 강력한 군대와 함대를 이끌고 트리폴리스 항구로 들어와,

- 2 안티오코스와 그의 후견인 리시아스를 살해하고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는 것이다.
- 3 그때에 알키모스라는 자가 있었는데, 전에 대사제로 있으면서 항쟁이 일어났을 적에 스스로 자신을 부장하게 만든 자다. 그는 어떠한 일을 하여도 구제되거나 다시 거룩한 제단에 접근할 수 없음을 깨닫고,
- 4 백오십일년경에 데메트리오스 임금에게 가서 금관과 아자나무 가지, 또 거기에다 관례적으로 성전에 봉헌하는 올리브 나무 가지를 바쳤다. 그리고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 5 그러나 데메트리오스가 그를 의회에 초청하여 유대인들의 태도와 생각이 어떠한지 묻자, 알키모스는 자기의 어리석기 짝이 없는 계획을 추진할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답하였다.
- 6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마카베오가 이끄는 하시드인이라는 자들이 전쟁을 일삼고 폭동을 일으켜 왕국이 안정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 7 그래서 저도 선조들의 영에, 다시 말하자면 대사제직을 빼앗기고 지금 이곳에 온 것입니다.
- 8 그 이유는 첫째로 임금님의 이익을 진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이고, 둘째로 제 동포들에 관해서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온 민족은 앞에서 말씀드린 자들의 어리석음으로 적지 않은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 9 임금님, 임금님께서서 이러한 사정을 자세히 아셨으니, 모든 이에게 보여 주신 그 인자한 관용으로 저희 지방과 곤경에 빠진 저희 백성을 생각해 주십시오.
- 10 유다가 살아 있는 한 이 나라는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 11 알키모스가 이러한 말을 마치자마자, 유다에게 적의를 품고 있던 임금의 나머지 벗들도 데메트리오스의 회를 부추겼다.
- 12 데메트리오스는 곧바로 크기리 부대의 장수 니카노르를 유다 지방 총독으로 임명하여 파견하면서,
- 13 유다를 살해하고 그의 부하들을 해산시킨 다음, 알키모스를 그 대성전의 대사제로 세우라는 명령을 내렸다.
- 14 유다를 피하여 달아났던 유다 지방의 이교도들은 유다인들의 불행과 재난이 곧 자기들의 번영이라고 생각하며, 때를 지어 니카노르와 합세하였다.

유다와 니카노르와 조약을 맺다

- 15 유다인들은 니카노르가 올뿐더러 이교도들까지 그와 합세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머리에 흙을 뿌리고, 당신의 백성을 영원히 세워 주시고 친히 나타나시어 당신의 뜻인 이 백성을 언제나 도와주시는 하느님께 간구하였다.
- 16 그리고 나서 지도자가 명령을 내리자, 그들은 바로 그곳을 떠나 데사우리는 마을에서 적군과 마주쳤다.
- 17 유다의 형 사몬은 니카노르와 맞서 싸우게 되었는데, 적군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바람에 천천히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 18 그러나 니카노르는 유다와 그의 병사들이 용감하고 조국을 위하여 맹렬히 싸운다는 말을 듣고, 혈전으로 결판대기를 꺼졌다.
- 19 그래서 그는 포시도니오스와 테오도토스와 마티티아스를 파견하여 유다인들과 화친을 맺게 하였다.
- 20 지도자가 이 일을 충분히 검토하여 병사들에게 알려 주자,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조약에 동의하였다.
- 21 양쪽 지도자들은 단독으로 만날 날을 정하였다. 양쪽에서 수레가 한 대씩 나와 자리

- 를 마련하였다.
- 22 유다는 적군이 갑자기 배신할 것에 대비하여 적절한 장소에 무장한 병사들을 준비시켜 두었다. 그러나 회담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 23 니카노르는 예루살렘에서 지내면서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으며, 제 주변에 빠지어 모여들었던 무리도 해산시켰다.
- 24 그리고 유다를 언제나 자기 앞에 있게 하였다. 이 사람에게 마음이 끌렸던 것이다.
- 25 그는 또 유다에게 혼인하여 자녀를 낳아라고 권고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혼인하여 자리를 잡고 평범한 삶을 살아갔다.

알키모스의 모략으로 유다와 니카노르가 갈라지다

- 26 니카노르와 유다가 서로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 알키모스는 그들이 맺은 조약서를 들고 데메트리오스 임금에게 가서, 니카노르가 나라의 반역자인 유다를 후계자로 삼았으니 국책에 반대되는 일을 꾸민 것이라고 말하였다.
- 27 임금은 화가 났다. 이 간악한 자의 중상모략에 넘어가 흥분한 그는 니카노르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 조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마카베오를 결박하여 안티오키아로 즉시 보내라고 명령하였다.
- 28 이 명령이 니카노르에게 전해지자, 그는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과 맺은 협약을 무효로 하게 된 데에 당황하고 슬퍼하였다.
- 29 그러나 임금을 거역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계락을 써서 그 명령을 이행할 기회를 엿보았다.
- 30 그런데 마카베오는 니카노르가 자기를 전보다 냉정하게 대하고 일상의 만남에서도 전보다 거칠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서, 그렇게 냉정한 태도에는 별로 좋지 않은 까닭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적지 않은 수의 군사들을 모아서 니카노르를 피하여 숨어 버렸다.

31 마카베오가 자기를 감쪽같이 속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니카노르는 거룩한 대성전에 가서, 일상의 제물을 바치고 있는 사제들에게 유다를 넘기라고 명령하였다.

32 그러나 사제들은 맹세를 하며 니카노르가 찾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였다.

33 그러자 니카노르는 성전을 향하여 오른손을 쳐들고 이렇게 맹세하였다. "너희가 유다를 결박하여 넘기지 않으면, 나는 이 하나님의 성역을 땅바닥까지 무너뜨리고 제단을 허문 다음, 여기에 디오니소스를 위하여 찬란한 신전을 짓겠다."

34 이러한 말을 하고 그는 떠났다. 그러자 사제들은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쳐들고 우리 민족의 항구하신 보호자께 탄원하였다.

35 "주님, 당신께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분이신데도, 당신께서 머무르실 성전이 저희 가운데에 있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36 그러나 이제 거룩하신 분, 모든 거룩함의 근원이신 주님, 정화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집이 영원히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켜 주십시오."

라지스가 유다교를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다

37 예루살렘의 원로들 가운데 라지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니카노르에게 고발되었다. 그는 동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평판이 아주 좋고 인정이 많아 '유대인들의 아버지'라고 불렸다.

38 전에 항쟁이 일어났을 때, 그는 유다교를 고수한다는 고발을 당하였다. 그는 신변과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유다교에 모든 열성을 바쳤던 것이다.

39 니카노르는 유대인들에 대한 적개심을 분명히 보여 주려고, 오백 명이 넘는 군사들

보내어 그를 체포하게 하였다.

40 그를 체포하면 유대인들이 타격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41 탑을 막 점령하려고 할 즈음 병사들은 안뜰 문을 밀치면서, 불을 가져다가 그 집문들을 태워 버리라고 소리쳤다. 이렇게 사방으로 포위당하자 라지스는 자기 칼 위로 뛰어갔다.

42 악한들의 손에 넘어가 자기의 고귀한 혈통에 합당하지 않은 치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고귀하게 죽으려는 것이었다.

43 그러나 라지스는 전투의 열기 때문에 급소를 맞추지 못하였다. 그때에 여러 문에서 군사들이 밀려들자, 그는 용감히 벽으로 뛰어 올라가 군사들 위로 대담하게 몸을 던졌다.

44 그들이 재빨리 물러서는 바람에 공간이 생겨, 라지스는 그 빈자리 한복판에 떨어졌다.

45 그런데도 죽지 않고 분노로 불타서 몸을 일으켰다. 피가 솟아나고 상처가 심한데도, 군사들을 헤치고 달려가 가파른 바위 위에 올라섰다.

46 그리고 피가 다 쏟아지자, 자기 창자를 뽑아내어 양손에 움켜쥐고 군사들에게 내던지며, 생명과 목숨의 주인이신 분께 그것을 돌려주십시오고 탄원하였다. 그는 이렇게 죽어 갔다.

니카노르가 하나님을 모독하다

15 ¹ 니카노르는 유대와 그의 군사들이 사마리아 지방에 있다는 보고를 받고, 가장 안전하게 그들을 안식일에 공격하리라고 결심하였다.

2 그때에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라다니던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그렇게 잔인하고 야만스러운 학살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만물을 지켜보시는 분께서 다른 날보다 명예롭고

거룩하게 하신 그날을 존중하십시오."

- 3 그러자 그 악독한 자는 안식일을 지내라고 지시한 지배자가 과연 하늘에 있느냐고 물었다.
- 4 그들은 "일곱째 날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분은 살아 계시는 주님, 하늘에 계신 지배자 바로 그분이십니다." 하고 선언하였다.
- 5 그러자 니카노르가 말하였다. "지상에서는 나도 지배자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무기를 들고 임금님의 일을 이행하라고 지시한다." 그러나 니카노르는 자기의 흉악한 계획을 이행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유다가 부하들을 격려하고 꿈에 본 영상을 설명하다

- 6 극도의 교만으로 거들떠거리리는 니카노르는 유대와 그의 군사들에 대한 공공 승전비를 세우겠다고 결정하였다.
- 7 그러나 마카베오는 주님께 도움을 받으리라는 큰 희망과 향구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 8 그래서 자기 군사들에게, 전에 하늘에서 내린 도우심을 명심하여 이민족들의 공격을 겁내지 말고, 이번에도 전능하신 분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으로 기대하라고 격려했다.
- 9 그는 율법서와 예언서의 말씀으로 그들의 용기를 북돋우고, 또 지금까지 이겨 온 전투들을 상기시켜 그들의 사기를 드높였다.
- 10 이렇게 유다는 사기를 북돋아 주고 나서, 지시를 내림과 동시에 이교도들의 배신과 서약 위반을 지적하였다.
- 11 이렇게 그는 군사 하나하나를 방패와 창보대는 훌륭한 격려의 말로 무장시켰다. 그리고 아주 믿을 만한 꿈을 이야기해 주어 그들을 모두 기쁘게 하였다.
- 12 그가 본 영상은 이러하였다. 대사제였던 오니아스가 나타나 두 손을 쳐들고 유대인들의 온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 그는 고귀하고 선량한 사람으로서, 행동이

짐잡고 태도가 온유하며 언변이 뛰어날 뿐 아니라 어릴 때부터 모든 덕을 열심히 실천해 온 사람이었다.

- 13 이어서 위엄에 찬 백발 노인이 같은 방식으로 나타났는데, 놀랍고 아주 장엄한 품위가 그를 감싸고 있었다.
- 14 그때에 오니아스가 이렇게 말하였다. "동족을 사랑하시는 이분은 하느님의 예언자 예레미야로서, 백성과 거룩한 도성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 15 예레미야는 오른손을 내밀어 유다에게 금칼을 주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 16 "하느님의 선물인 이 거룩한 칼을 받아라. 그리고 이 칼로 적들을 물리쳐라."

유대인들이 니카노르를 쳐 이다

- 17 유다의 말은 매우 고귀하고 강렬하여, 젊은 이들의 용기를 불리일으키고 마음을 용감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 말에 힘이 솟은 그들은 전열을 갖추어 싸우는 대신에 용감히 돌진하여 아주 용맹한 백병전으로 결판을 내리라고 작정하였다. 도성과 거룩한 기물들과 성전이 위협에 빠졌기 때문이다.
- 18 그들에게는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형제들과 친척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성별된 성전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고 또 으뜸가는 것이었다.
- 19 도성에 남아 있던 아들도 들뜬에서 벌어진 전투를 염려하며 매우 불안해하였다.
- 20 사람들은 모두 다가오는 결전을 기다리고 있었다. 적군이 이미 가까이 다가와 병사들은 전열을 갖추고, 코끼리들은 유리한 지점에, 또 기병들은 양쪽으로 배치되었다.
- 21 눈앞의 대군과 갖가지 무장과 사나운 코끼리들을 본 마카베오는,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쳐들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께 탄원하였다. 승리는 그분의 결정에 따라 합당

- 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무기로 얻는 것이 아님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 22 그는 이렇게 탄원하였다. "주님, 당신께서는 유다 임금 히즈키야 때에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산헤립의 군대에서 십팔만 오천 명가량을 죽이셨습니다.
- 23 하늘의 지배자님, 이제 다시 선한 천사를 보내시어 저희 앞에 서서 공포와 전율을 일으키게 해 주십시오.
- 24 당신을 모독하며 당신의 거룩한 백성에게 다가오는 자들을 당신의 위대하신 팔로 무찔러 주십시오." 이러한 말로 그는 기도를 마쳤다.
- 25 니카노르와 그의 군사들은 나팔을 불고 전투기를 부르며 진격해 왔다.
- 26 그러나 유다와 그의 군사들은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하면서 적군에게 맞서 싸웠다.
- 27 손으로는 싸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은 삼만 오천 명이 넘는 적군을 쓰러뜨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 모습을 드러내 주신 것을 크게 기뻐하였다.
- 28 전투가 끝난 다음,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던 유대인들은 니카노르가 갑옷을 다 입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 29 그래서 그들은 환성을 지르고 기뻐 뛰며 조상들의 언어로 지배자이신 주님을 찬양하였다.
- 30 몸과 마음을 다하여 겨레 수호에 앞장서고 젊은 시절부터 동족에게 애정을 지녀 온 유다는, 니카노르의 머리와 한쪽 팔을 어깨까지 잘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라고 명령하였다.
- 31 이곳에 도착한 그는 동족을 불러 모으고 사제들을 제단 앞에 세운 다음, 사람들을 보내어 성체에 있는 자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 32 그리고 그들에게 그 부정한 니카노르의 머

리와 하느님을 모독하던 그 손을 보여 주었다. 그자는 전능하신 분의 거룩한 집을 거슬러 그 손을 뻗치며 거만을 떨었던 것이다.

- 33 유다는 그 사악한 니카노르의 혀를 잘라낸 다음, 그것을 조각내어 새들에게 주고 그가 저지른 어리석음의 대가를 성전 맞은 쪽에 매달아 놓으라고 일었다.
- 34 사람들은 모두 하늘을 우러러 당신을 드러내신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였다. "당신의 거처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켜 주신 분께서는 찬양받으소서!"
- 35 유다는 니카노르의 머리를 성체에 매달아,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도우심을 드러내는 확실하고 분명한 표징이 되게 하였다.
- 36 그들은 모두 이날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말고 기념일로 지내자고 공적인 결의에 따라 정하였다. 그날은 열두 번째 달, 아람 말로는 아다르 달 열사흘날이며 모르도카이의 날 하루 전 날이었다.

맺음말

- 37 니카노르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끝난다. 그리고 그때부터 히브리인들이 이 도성을 장악하게 되었다. 나도 여기에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한다.
- 38 이 글이 좋고 훌륭하게 되었으면 내가 바라던 것이고, 보잘것없이 변변치 않게 되더라도 나오시는 최선을 다한 것이다.
- 39 포도주만 마시는 것이 해롭듯이 물만 마시는 것도 해롭다. 그러나 물을 섞은 포도주는 달콤한 기쁨을 자아낸다. 이와 마찬가지로 잘 짜여진 이야기는 그 글을 읽는 이들의 귀를 즐겁게 한다. 여기가 끝이다.

구약성경 - 22

시서와지혜 - 1

요 기

총 42 장

총 1,071 절

[구약성경-읍기]

마말

읍의 사탄

읍과 그의 가족

- 1 ¹ 우츠라는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읍이었다. 그 사람은 흠 없고 울곧으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이였다.
- 2 그에게는 아들 일곱과 딸 셋이 있었다.
- 3 그의 재산은, 양이 칠천 마리, 낙타가 삼천 마리, 겨릿소가 오백 마리, 암나귀가 오백 마리나 되었고, 종들도 매우 많았다. 그 사람은 동방인들 가운데 가장 큰 부자였다.
- 4 그의 아들들은 번갈아 가며 정해진 날에 제 집에서 잔치를 차려, 세 누이도 불러다가 함께 먹고 마시곤 하였다.
- 5 이런 잔칫날들이 한 차례 돌고 나면, 읍은 그들을 불러다가 정결하게 하였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 하나하나를 위하여 번제물을 바쳤다. 읍은 '혹사나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마음속으로 하느님을 저주하였는지도 모르지.' 하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읍은 늘 이렇게 하였다.

천상 아전

- 6 하루는 하느님의 아들들이 모여 와 주님 앞에 섰다. 사탄도 그들과 함께 왔다.
- 7 주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디에서 오는 길이나?" 사탄이 주님께 "땅을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 8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 읍을 눈여겨보았느냐? 그와 같이 흠 없고 울곧으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땅 위에 다시 없다."

9 이에 사탄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읍이 까닭 없이 하느님을 경외하겠습니까?"

10 당신께서 몸소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방으로 울타리 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내리셔서, 그의 재산이 땅 위에 넘쳐 나지 않습니까?

11 그렇지만 당신께서 손을 피시어 그의 모든 소유를 쳐 보십시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을 눈앞에서 저주할 것입니다."

12 그러자 주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셨다. "좋다, 그의 모든 소유를 네 손에 넘긴다. 다만 그에게는 손을 대지 마라." 이에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첫째 사탄

13 하루는 읍의 아들딸들이 만형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있었다.

14 그런데 심부름꾼 하나가 읍에게 와서 이뢰었다. "소들은 밭을 갈고 암나귀들은 그 부근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15 그런데 스바인들이 들이닥쳐 그것들을 약탈하고 머슴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 이렇게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16 그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다른 이가 와서 이뢰었다. "하느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 떼와 머슴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 이렇게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17 그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이가 와서 이뢰었다. "칼데아인들이 세 무리를 지어 낙타들을 덮쳐 약탈하고 머슴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 이렇게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18 그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이가 와서 이뢰었다. "나리의 아드님들과 따님들이 큰아드님 댁에서 먹고 마시고 있었습

니다.

- 19 그런데 사막 건너편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 그 집 네 모서리를 치자, 자체분들 위로 집이 무너져 내려 모두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 이렇게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 20 그러자 읍이 일어나 겹옷을 찢고 머리를 깎았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 21 말하였다. " 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이 몸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 22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읍은 죄를 짓지 않고 하느님께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찬상 아전

- 2 ¹ 하루는 하느님의 아들들이 모여 와 주님 앞에 섰다. 사탄도 그들과 함께 와서 주님 앞에 섰다.
- 2 주님께서 사탄에게 물었다. " 너는 어디에서 오는 길이나?" 사탄이 주님께 " 땅을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 3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 너는 나의 종 읍을 눈여겨보았느냐? 그와 같이 흠 없고 울퉁으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땅 위에 다시 없다. 그는 아직도 자기의 흠 없는 마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 너는 까닭 없이 그를 파멸시키도록 나를 부추긴 것이다."
- 4 이에 사탄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 가족은 가족으로! 사람이란 제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놓기 마련입니다.
- 5 그렇지만 당신께서 손을 펴서 그의 뼈와 그의 살을 쳐 보십시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을 눈앞에서 저주할 것입니다."
- 6 그러자 주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셨다. " 좋다, 그를 네 손에 넘긴다. 다만 그의 목숨만

은 남겨 두어라."

새로운 시련

- 7 이에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 나와, 읍을 말바다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고약한 부스럼으로 찼다.
- 8 읍은 질그릇 조각으로 제 몸을 긁으며 잣더미 속에 앉아 있었다.
- 9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그 흠 없는 마음을 굳게 지키려 하나요? 하느님을 저주하고 죽어 버려요."
- 10 그러자 읍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 당신은 미련한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는다면, 나쁜 것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소?"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읍은 제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세 친구의 방문

- 11 읍의 세 친구가 그에게 닥친 이 모든 불행에 대하여 듣고, 저마다 제고장을 떠나왔다. 그들은 테만 사람 엘리파즈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초바르였다. 그들은 읍에게 가서 그를 위안하고 위로하기로 서로 약속하였다.
- 12 그들이 멀리서 눈을 들었을 때 그를 알아볼 수조차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목 놓아 울며, 저마다 겹옷을 찢고 먼지를 위로 날려 머리에 뿌렸다.
- 13 그들은 이제 동안 밤낮으로 그와 함께 말바다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의 고통이 너무도 큰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읍과 친구들의 대화

읍의 독백

생일을 자주하는 음

- 3** ¹ 마침내 음이 입을 열어 제 생일을 자주하였다.
- ² 음이 말하기 시작하였다.
- ³ 차라리 없어져 버려라, 내가 태어난 날, "사내아이를 배었네!" 하고 말하던 밤!
- ⁴ 그날은 차라리 암흑이 되어 버려 위에서 하느님께서 찾지 않으시고 빛이 밝혀 주지도 않았으면.
- ⁵ 어둠과 암흑이 그날을 차지하여 구름이 그 위로 내려앉고 일식이 그날을 소스라치게 하였으면.
- ⁶ 그 밤은 흑암이 잡아켜어 한 해 어느 날에도 끼이지 말고 달수에도 들지 않았으면.
- ⁷ 정녕 그 밤은 불임의 밤이 되어 환호 소리 찾아들지 않았으면.
- ⁸ 날에다 술법을 부리는 자들, 레비아탄을 깨우는 데 능숙한 자들은 그 밤을 저주하여라.
- ⁹ 그 밤은 새벽 별들도 어둠으로 남아 빛을 기다려도 부질없고 여명의 햇살을 보지도 않았으면.
- ¹⁰ 그 밤이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않아 내 눈에서 고통을 감추지 못하였구나.

차라리 죽었다리면

- ¹¹ 어찌하여 내가 태중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숨지지 않았던가?
- ¹² 어찌하여 무릎은 나를 받아 났던가? 젖은 왜 있어서 내가 빨았던가?
- ¹³ 나 지금 누워 쉬고 있을 터인데, 잠들어 안식을 누리고 있을 터인데.
- ¹⁴ 임금들과 나라의 고관들, 폐허를 제집으로 지은 자들과 함께 있을 터인데.
- ¹⁵ 또 금을 소유한 제후들, 제집을 은으로 가득 채운 자들과 함께 있을 터인데.
- ¹⁶ 파문된 유산이처럼, 빛을 보지 못한 아기를 처럼 나 지금 있지 않을 터인데.

- ¹⁷ 그곳은 악인들이 소란을 멈추는 곳. 힘 다한 이들이 안식을 누리는 곳.
- ¹⁸ 포로들이 함께 평온히 지내며 감독관의 호령도 들리지 않는 곳.
- ¹⁹ 낮은 이나 높은 이나 똑같고 좋은 제 주인에게서 풀려나는 곳.

왜 하느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가

- ²⁰ 어찌하여 그분께서는 고생하는 이에게 빛을 주시고 영혼이 쓰러린 이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 ²¹ 그들은 죽음을 기다리지만, 숨겨진 보물보다 더 찾아 헤매지만 오지 않는구나.
- ²² 그들이 무덤을 얻으면 환호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련만.
- ²³ 어찌하여 앞길이 보이지 않는 사내에게 하느님께서 사망을 에워싸 버리시고는 생명을 주시는가?
- ²⁴ 이제 탄식이 내 음식이 되고 신음이 물처럼 쏟아지는구나.
- ²⁵ 두려워 떨던 것이 나에게 닥치고 무서워하던 것이 나에게 들이쳐
- ²⁶ 나는 편치 않고 쉬지도 못하며 안식을 누리지도 못하고 혼란하기만 하구나.

엘리파스의 첫째 답변

- 4** ¹ 테만 사람 엘리파스가 말을 받았다.

질망에 빠진 음

- ² 한바더 하면 자네는 언짢아하겠지? 그러나 누가 말하지 않을 수 있겠나?
- ³ 여보게, 자네는 많은 이를 타이르고 맥 풀린 손들에 힘을 불어넣어 주었으며
- ⁴ 자네의 말은 비틀거리는 이를 일으켜 세웠고 또 자네는 꺾인 무릎에 힘을 돋우어 주기도 하였지.
- ⁵ 그런데 불행이 들이닥치자 자네가 기운을 잃고 불운과 맞부딪치자 질겁을 하는군.

- 6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자네가 믿는 바 아닌가? 흠 없는 삶이야말로 자네가 바라는 바 아닌가?

인피응보

- 7 생각해 보게나, 죄 없는 이 누가 멸망하였는가? 올곧은 이들이 근절된 적이 어디 있는가?
8 내가 본 바로는 말을 갈아 불의를 심은 자와 재앙을 뿌린 자는 그것을 거두기 마련이라네.
9 그들은 하느님의 입김으로 스러지고 그분 분노의 바람으로 끝장난다네.
10 사자의 포효, 새끼 사자의 울부짖음도 그치고 힘센 사자의 이빨도 부러진다네.
11 수사자는 사냥 거리 없어 스러져 가고 암사자의 새끼들은 흩어져 버린다네.

밤의 환시

- 12 한마디 말이 내게 남몰래 다다르고 그 속삭임이 내 귓가에 들렸다네.
13 밤의 환시 때문에 생각에 잠겼을 때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14 공포와 전율이 나를 덮쳐 내 뼈마디가 온통 떨리는데
15 어떤 입김이 내 얼굴을 스치자 내 몸의 털이 곤두섰다네.
16 누군가 서 있는데 나는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없었지. 그러나 그 형상은 내 눈앞에 있었고 나는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네.

죽음 인생의 의로움

- 17 " 인간이 하느님보다 의로울 수 있오라? 사람이 제 창조주보다 결백할 수 있오라?
18 그분께서는 당신 종들도 믿지 않으시고 당신 천사들의 잘못조차 꾸짖으시는데
19 하물며 토담집에 사는 자들 먼지에 그 바탕을 둔 자들이야! 그들은 좀 벌레처럼 으

스러져 버린다.

- 20 하루해를 넘기지 못하고 부스러져 눈길을 끌 새도 없이 영원히 스러진다.
21 그들의 천막 끈이 이미 끊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들은 지해도 없이 죽어 간다."

불행의 근원

- 5 ¹ 자, 불러 보게나. 자네에게 대답할 이 누가 있는지? 거룩한 이들 가운데 누구에게 하소연하려나?
2 장님 미련한 자는 역정 내다가 죽고 우둔한 자는 흥분하다가 숨진다네.
3 나도 미련한 자가 뿌리내리는 것을 보았네 만 그의 집안은 삼시간에 뿌리가 뽑히더군.
4 그의 지식들은 구원에서 멀리 떨어진 채 성문에서 짓밟혀도 도와줄 이 없었다네.
5 그가 거둔 것은 배고픈 자가 먹어 치우고 심지어 가시나무 울타리 친 것조차 빼앗기며 그들의 재산은 닳아 채어 가 버렸다네.
6 환난이 흠에서 나올 리 없고 재앙이 땅에서 솟을 리 없다네.
7 무릇 사람이란 재앙을 위해 태어나니 불꽃이 위로 치솟는 것과 같다네.

하느님께 호소함

- 8 그렇지만 나라면 하느님께 호소하고 내 일을 하느님께 맡겨 드리겠네.
9 그분은 헤아릴 수 없는 위엄을, 셀 수 없는 기적을 이루시는 분.
10 땅에 비를 내리시고 들에 물을 보내시는 분.
11 비천한 이들을 높은 곳에 올려놓으시니 슬피하는 이들이 큰 행복을 얻는다네.
12 그분께서 교활한 자들의 계획을 꺾으시니 그들의 손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13 그분께서 슬기롭다는 자들을 그들의 피로 붙잡으시니 간사한 자들의 의도가 좌절된

다네.

- 14 그들은 낮에도 어둠에 부딪히고 한낮에도 밤중인 양 더듬거린다네.
 15 그러나 그분께서는 칼에서, 저들의 입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가난한 이를 구하신다네.
 16 그래서 약한 이에게 희망이 주어지고 불의는 제 입을 다물게 된다네.
 17 여보게, 하느님께서 꾸짖으시는 이는 얼마나 행복한가!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물리치지 말게나.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

- 18 그분께서는 아프게 하시지만 상처를 싸매 주시고 때리시지만 손수 치유해 주신다네.
 19 그분께서 여섯 가지 곤경에서 자네를 건져 내시니 일곱 번째에는 악이 자네를 건드리지도 못할 것이네.
 20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 때 칼에서 자네를 구하실 것이네.
 21 자네는 허의 채찍에서 보호를 받고 멸망이 닥친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네.
 22 또 멸망과 굶주림을 바웃고 야수도 두렵지 않을 것이네.
 23 자네는 들판의 돌맹이들과 계약을 맺고 들 짐승은 자네와 화평을 이룰 것이네.
 24 그러면 자네 천막이 평화로움을 알게 되고 자네 목장을 살펴봐도 탈이 없을 것이네.
 25 또한 알게 될 것이네, 자네 자녀들이 많음을, 자네 후손들이 땅의 풀과 같음을.
 26 그런 다음 자네는 제철이 되어 곡식 단이 쌓이듯 수명을 다하고 무덤에 들어갈 것이네.
 27 여보게, 이것이 우리가 밝혀낸 것으로 사실이 그러하니 자네도 귀담이듣고 알아 두게나.

음의 첫째 담론

6 ¹ 음이 말을 받았다.

전능하신 분의 화살

- 2 아, 누가 제발 나의 원통함을 저울질해 보고 나의 불행도 함께 저울판에 달아 보았으면!
 3 그것이 이제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우니 내 말이 갈피를 못 잡는구려.
 4 전능하신 분의 화살이 내 몸에 박혀 내 영이 그 독을 마시고 하느님에 대한 공포가 나를 덮치는구려.
 5 풀이 있는데 들나귀가 울겠는가? 풀이 있는데 소가 부르짖겠는가?
 6 간이 맞지 않은 것을 소금 없이 어찌 먹겠으며 달걀 흰자위가 무슨 맛이 있었는가?
 7 내 목구멍은 그것들이 닿는 것조차 마다하니 나에게 구역질 나는 음식이라네.

죽음보다 다한 고통

- 8 아,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느님께서 내 소망을 채워 주신다면!
 9 하느님께서 결심하시어 나를 으스러뜨리시고 당신 손을 내뻗으시어 나를 자르신다면!
 10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으니 이것이 내게 위로가 되어 모진 고통 속에서도 기뻐 뛰려마는.
 11 내게 무슨 힘이 있어 더 견디어 내고 내가 얼마나 산다고 더 참으란 말인가?
 12 내 힘이 바위의 힘이고 내 삶이 못쇠란 말인가?
 13 진정 나는 의지할 데 없고 도움은 내게서 멀리 사라져 버렸다네.

살모없는 우정

- 14 절망에 빠진 이는 친구에게서 동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네. 그가 전능하신 분에 대한 경외심을 저버린다 하여도 말일세.
 15 그러나 내 형제들은 개울처럼 나를 배신하였다네, 물이 넘쳐흐르던 개울 바닥처럼.
 16 그 물은 얼음 조각으로 더럽혀져 있고 그

위로 눈이 내리며 자취를 감춘다네.

- 17 그러다가 더운 철이 오면 물은 없어지고 날이 뜨거워지면 그 자리에서 스러져 버리지.
- 18 대상들이 제 길에서 벗어나 광야로 나섰다가 사라져 버린다네.
- 19 테마의 대상들이 살피고 스비의 상인들이 고대하건만
- 20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좌절하고 개울까지 갔다가 낙담한다네.
- 21 자, 이렇듯 자네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버렸네. 무서운 모습을 보더니 두려워 떠는구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나

- 22 내가 이렇게 말하기라도 했던 말인가? "내게 좀 주게나. 나를 위해 자네들 재산에서 좀 갚아 주게나.
- 23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해 주고 난폭한 자들의 손에서 나를 빼내 주게!" 하고 말일세.
- 24 나를 가르쳐 보게나, 내가 입을 다물겠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깨우쳐 보게나.
- 25 바른말이 어떻게 속을 상하게 할 수 있나? 자네들은 무엇을 탓하고 있나?
- 26 자네들은 남의 말을 탓할 생각만 하는가? 절망에 빠진 이의 이야기는 바람에 날려도 종단 말인가?
- 27 자네들은 심지어 고아를 놓고서 재미를 뽀고 친구를 놓고서 흥정하는구려.
- 28 자, 이제 제발 나를 좀 돌아보게나. 자네들 얼굴에 대고 거짓말은 결코 하지 않겠네.
- 29 생각을 돌리게나. 불의가 있어서는 안 되지! 생각을 돌리게. 나는 아직도 정당하다네.
- 30 내 입술에 불의가 묻어 있다는 말인가? 내 입속이 파멸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인가?

인생은 고역

- 7 ¹ 인생은 땅 위에서 고역이요 그 나날은 날뽀팍이의 나날과 같지 않은가?
- 2 그늘을 에타게 바리는 종, 샅을 고대하는 품 팔이꾼과 같지 않은가?
- 3 그렇게 나도 허망한 달들을 물려받고 고통의 밤들을 나누어 받았네.
- 4 누우면 '언제나 일어나려나?' 생각하지만 저녁은 깊어 가고 새벽까지 뒤척거리기만 한다네.
- 5 내 살은 구더기와 흙먼지로 뒤덮이고 내 살 갖은 갈라지고 굶어 흐른다네.
- 6 나의 나날은 베들의 북보다 빠르게 희망도 없이 사라져 가는구려.

음의 탄원 기도

- 7 기억해 주십시오, 제 목숨이 한낱 입김일 뿐임을. 제 눈은 더 이상 행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 8 저를 바라보던 이의 눈은 저를 보지 못하고 당신의 눈이 저를 찾는다 하여도 저는 이미 없을 것입니다.
- 9 구름이 사라져 가 버리듯 저승으로 내려간 이는 올라오지 못합니다.
- 10 다시는 제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가 있던 자리도 그를 다시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 11 그래서 이 몸은 입을 다물지 않겠습니다. 제 영의 곤경 속에서 토로하고 제 영혼의 쓰러짐 속에서 탄식하겠습니다.
- 12 제가 바다입니까? 제가 용입니까? 당신께서 저에게 파수꾼을 세우시디나.
- 13 '잠자리나마 나를 위로하고 침상이나마 내 탄식을 달여 주겠지.' 생각하지만
- 14 당신께서는 꿈으로 저를 공포에 떨게 하고 환시로 저를 소스려치게 하십니다.
- 15 제 영혼은 이런 고통보다는 숨이 막혀 버리기를,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 16 저는 싫습니다. 제가 영원히 살 것도 아니

지 않습니까?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제가 살날은 한낱 입김일 뿐입니다.

- 17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는 그를 대단히 여기시고 그에게 마음을 기울이십니까?
- 18 아침마다 그를 살피시고 순간마다 그를 시험하십니까?
- 19 언제든 제게서 눈을 돌리시렵니까? 침이라도 삼키게 저를 놓아주시렵니까?
- 20 사람을 감시하시는 분이시여 제가 잘못했다 하여도 당신께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저를 당신의 과녁으로 삼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제가 당신께 짐이 되었습니까?
- 21 어찌하여 저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저의 죄악을 그냥 넘겨 버리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제 먼지 위에 누우면 당신께서 찾으셔도 저는 이미 없을 것입니다.

발딛의 첫째 답론

8 ¹ 수아 사람 발딛이 말을 받았다.

하느님의 정의

- 2 자네는 언제까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나? 자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나운 바람 같기만 하구려.
- 3 아무려면 하느님께서 공정을 왜곡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정의를 왜곡하시겠나?
- 4 자네 아들들이 그분께 죄를 지었다면 그분께서는 그들을 그 죄과의 손에 넘기신 것이네.
- 5 그러나 자네가 하느님을 찾고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한다면,
- 6 자네가 결백하고 옳다면 이제 그분께서는 자네를 위해 일어나시어 자네 소유를 정당하게 되돌려 주실 것이네.
- 7 자네의 시작은 보잘것없었지만 자네의 앞날

은 크게 번창할 것이네.

선조들의 증언

- 8 자, 지난 세대에 물어보고 그 조상들이 터득한 것에 유의하게나.
- 9 우리는 어제 갓 태어난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의 인생은 땅 위에서 그림자일 뿐.
- 10 그분들이야말로 자네를 가르치고 일러 주며 스스로 깨달은 것에서 말씀을 이끌어 내지 않는가?

악인의 운명

- 11 습지가 없는데 왕골이 솟아나고 물이 없는데 갈대가 자라겠는가?
- 12 아직 어린씩이라 벨 때가 아닌데도 그것들은 온갖 풀보다 먼저 말라 버릴 것이네.
- 13 하느님을 잊은 모든 자의 같이 이터하고 불경스런 자의 소망은 무너져 버린다네.
- 14 그의 자신감은 꺾이고 그의 신뢰는 거미집이라네.
- 15 제집에 의지하지만 서 있지 못하고 그것들 붙들지만 지탱하지 못한다네.
- 16 그는 햇빛 아래 생기가 넘치고 정원에는 그의 썩이 돌아난다네.
- 17 돌무더기 주위로 그 뿌리가 감기고 바위 틈새를 파고든다네.
- 18 그러나 그를 그 자리에서 뜯어내 버리면 그 자리조차 " 난 너를 본 적이 없어!" 하고 모른 채하리.
- 19 보게나, 이것이 그의 행복한 운명이라네. 그런 뒤 흙에서는 다른 썩이 솟아 나오지.

행복의 약속

- 20 보게나, 하느님께서서 흠 없는 이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잡아 주지 않으신다네.
- 21 그분께서는 여전히 자네 입을 웃음으로, 자네 입술을 환호로 채워 주실 것이네.
- 22 자네를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로 옷 입고

악인들의 천막은 간곳없이 될 것이네.

음의 둘째 답문

9 ¹ 음이 말을 받았다.

하느님의 묵단

- ² 물론 나도 그런 줄은 알고 있네. 사람이 하느님 앞에서 어찌 의롭다 하겠는가?
- ³ 하느님과 소송을 벌인다 한들 천에 하나라도 그분께 답변하지 못할 것이네.
- ⁴ 지혜가 충만하시고 능력이 넘치시는 분, 누가 그분과 겨루어서 무사하리오?
- ⁵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산들을 옮기시고 분노하시어 그것들을 뒤엎으시는 분.
- ⁶ 땅을 바다께 뒤흔드시어 그 기둥들을 요동치게 하시는 분.
- ⁷ 해에게 숫지 말라 명령하시고 별들을 봉해 버리시는 분.
- ⁸ 당신 혼자 하늘을 펼치시고? 바다의 등을 밟으시는 분.
- ⁹ 큰곰자리와 오리온자리, 묘성과 남녘의 별자리들을 만드신 분.
- ¹⁰ 측량할 수 없는 위업들과 헤아릴 수 없는 기적들을 이루시는 분.
- ¹¹ 그분께서 내 앞을 지나가셔도 나는 보지 못하고 지나치셔도 나는 그분을 알아채지 못하네.
- ¹² 그분께서 잡아채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누가 그분께 " 왜 그러십니까?" 할 수 있겠나?
- ¹³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니 라합의 협조자들이 그분께 굴복한다네.

가장 강하신 분의 행동

- ¹⁴ 그런데 내가 어찌 그분께 답변할 수 있으며 그분께 대꾸할 말을 고를 수 있겠나?
- ¹⁵ 내가 의롭다 하여도 답변할 말이 없어 내

고소인에게 자비를 구해야 할 것이네.

- ¹⁶ 내가 불러 그분께서 대답하신다 해도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시리라고는 믿지 않네.
- ¹⁷ 그분께서는 나를 폭풍으로 짓치시고 까닭 없이 나에게 상처를 더하신다네.
- ¹⁸ 숨 돌릴 틈조차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쓰라림으로 나를 배불리신다네.
- ¹⁹ 힘으로 해 보려니 그분은 막강하신 분. 법으로 해 보려니 누가 나를 소환해 주겠나?
- ²⁰ 내가 의롭다 하여도 내 입이 나를 단죄하고 내가 흠 없다 하여도 나를 그릇되다 할 것이네.
- ²¹ 나는 흠이 없네! 나는 내 목숨에 관심 없고 내 생명을 멸시한다네.
- ²² 결국은 마찬가지! 그래서 내 말인즉 흠이 없건 탓이 있건 그분께서는 멸하신다네.
- ²³ 재앙이 갑작스레 죽음을 불러일으켜도 그분께서는 무죄한 이들의 절망을 비웃으신다네.
- ²⁴ 세상은 악인의 손에 넘겨지고 그분께서는 판관들의 얼굴을 가려 버리셨네. 그분이 아니시라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냉담하신 하느님

- ²⁵ 저의 날들은 파발꾼보다 빨리 지나가고 행복을 보지도 못한 채 달아납니다.
- ²⁶ 갈대베처럼 흘러가고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아갑니다.
- ²⁷ ' 탄식을 잊고 슬픈 얼굴을 지워 쾌활해지리라.' 생각하여도
- ²⁸ 저의 모든 고통이 두렵기만 한데 당신께서 저를 죄 없다 않으실 것을 저는 압니다.
- ²⁹ 저는 어차피 단죄받을 몸, 어찌 공연히 고생해야 한단 말입니까?
- ³⁰ 눈으로 제 몸을 씻고 잣물로 제 손을 깨끗이 한다 해도
- ³¹ 당신께서는 저를 시궁창에 빠뜨리시어 제 옷마저 저를 역겨워할 것입니다.

- 32 그분은 나 같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나 그분께 답변할 수 없고 우리는 함께 범정으로 갈 수 없네.
- 33 우리 둘 위에 손을 얹을 심판자가 우리 사이에는 없네.
- 34 그분께서 당신 매를 내게서 거두시고 그분에 대한 공포가 나를 더 이상 덮치지 않는다면
- 35 나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으려만! 그러나 나로서는 어쩔 수 없거려.

당신의 작품을 멸시하시는 하나님

- 10 ¹ 나는 내 생명이 메스꺼워? 내 위에 탄식을 쏟아 놓으며 내 영혼의 쓰라림 속에서 토로하리라.
- 2 나 하나님께 말씀드리리라. "저를 단죄하지 마십시오. 왜 저와 다투시는지 알려 주십시오."
- 3 학대하시는 것이 당신께는 좋습니까? 악인들의 책락에는 빛을 주시면서 당신 손의 작품을 멸시하시는 것이 좋습니까?
- 4 당신께서는 살덩이의 눈을 지니셨습니까? 당신께서는 사람이 보듯 보십니까?
- 5 당신의 날도 사람의 날과 같습니까? 당신의 해도 인간의 세월과 같습니까?
- 6 그래서 저의 죄를 찾으시고 저의 허물을 들추어내십니까?
- 7 당신께서는 저에게 죄가 없음을, 저를 당신 손에서 빼낼 사람이 없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 8 당신께서는 손수 저를 빗어 만드시고서는 이제 생각을 바꾸시어 저를 파멸시키려 하십니다.
- 9 당신께서 저를 진흙처럼 빗어 만드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저를 먼지로 되돌리려 하십니다.
- 10 당신께서 저를 우유처럼 부으시어 치즈처럼 굳히지 않으셨습니까?

- 11 살갓과 살로 저를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저를 엮으셨습니다.
- 12 당신께서는 저에게 생명과 자애를 베푸시고 저를 보살피시어 제 목숨을 지켜 주셨습니다."

매정하신 하나님

- 13 " 그러나 당신께서는 이런 것들을 마음에 숨기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속셈임을 저는 압니다.
- 14 제가 죄를 지으면 당신께서는 지켜보시다가 저를 그 죄에서 풀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 15 제가 유죄라면 저에게는 불행이고 무죄라 해도 머리를 들 수 없을 것입니다. 수치로 가득한 저는 저의 비참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 16 제 머리가 들렸다 하면 당신께서는 사자처럼 저를 뒤쫓으시고 저를 거슬러 줄곧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보여 주십니다.
- 17 당신께서는 저를 거슬러 증인들을 새로 세우시고 저를 향한 당신의 원한을 키우시며 저를 칠 군대를 계속 바꾸어 가며 보내십니다.
- 18 어찌하여 저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제가 죽어 버렸다면 어떤 눈도 저를 보지 못했을 것일!
- 19 그랬다면 제가 없었던 것처럼 되어 어머니 배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을 것일!
- 20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이제 살날이 조금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이나마 생기를 되찾게 저를 놓아주십시오.
- 21 제가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어둠과 암흑의 땅으로 가기 전에.
- 22 칠혹같이 캄캄한 땅, 혼란과 암흑만 있고 빛마저 칠혹 같은 곳으로 가기 전에 말입니다."

초바르의 첫째 답론

11 ¹ 나야마 사람 초바르가 말을 받았다.

읍의 죄악

- ² 말을 많이 한다고 대답 없이 넘어갈 수 있으며 말을 잘한다고 의롭다 할 수 있으리오?
- ³ 자네의 수다스러운 말이 사람들을 침묵하게 할 수 있나? 자네가 조롱하는데 아무도 편안하지 않을 수 있나?
- ⁴ 자네는 " 저의 신조는 순수하고 저는 당신의 눈에 결백합니다." 하네만
- ⁵ 제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 자네를 거슬러 당신 입술을 여시오
- ⁶ 자네에게 지혜의 비밀을 알려 주신다면! 깨달음에는 양면이 있는 법이라네. 하느님께서 자네 죄를 조금이나마 잊기로 하셨음을 알기나 하케.

하느님의 신비

- ⁷ 자네가 하느님의 신비를 찾아내고 전능하신분의 한계까지도 찾아냈단 말인가?
- ⁸ 그것이 하늘보다 높은데 자네가 어찌하겠는가? 저승보다 깊은데 자네가 어찌 알겠는가?
- ⁹ 그 길이는 땅보다 길고 넓이는 바다보다 넓다네.
- ¹⁰ 그분께서 지나가며 가두시고 심판하러 불러 모으시면 그 누가 막으리오?
- ¹¹ 정녕 그분께서는 거짓된 인간들을 아시는데 그들의 죄악을 보시면서 알아내지 못하신단 말인가?
- ¹² 미련한 사람이 깨치게 되는 것은 들나귀 새끼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과 같다네.

새로운 삶

- ¹³ 자네가 마음을 흔케 하고 그분을 향하여 손을 펼친다면.

- ¹⁴ 자네 손에 죄악이 있다면 멀리 치워 버리고 자네 천막에 불의가 머무르지 못하도록 하게나.
- ¹⁵ 그러면 자네는 거리낌 없이 얼굴을 들 수 있고 안전하게 되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네.
- ¹⁶ 또 자네는 고통을 잊고 그것을 흘러간 물처럼 되돌아볼 수 있겠지.
- ¹⁷ 자네 생애는 대낮보다 밝게 일어서고 어둠더라도 아침처럼 될 것일세.
- ¹⁸ 희망이 있기에 자네는 신뢰할 수 있으며 둘러보고서는 안심하고 자리에 들 것이네.
- ¹⁹ 자네가 누우면 무섭게 하는 자 없고 많은 이가 자네 비위를 맞추려 할 것일세.
- ²⁰ 그러나 악인들의 눈은 스러져 가고 그들에게는 도피처가 없어진다네. 그들의 희망은 마지막 숨을 내뿜는 것뿐이라네.

읍의 셋째 답론

12 ¹ 읍이 말을 받았다.

경험의 증인

- ² 참으로 자네들은 유식한 백성이네. 자네들이 죽으면 지해도 함께 죽겠구려.
- ³ 나도 자네들처럼 이성이 있고 자네들에게 뒤떨어지지 않네. 누가 그런 것들을 모르겠나?
- ⁴ 제 친구의 웃음거리, 내가 그 꼴이 되었구려. 하느님을 부르면 그분께서 응답해 주시곤 하였지. 그렇듯 의롭고 흠 없던 내가 이제는 웃음거리가 되었구려.
- ⁵ 편안한 자의 생각에는 고통에 수치가 따르는 것이 타당하겠지. 말이 비틀거리는 자들에게 예정된 수치 말일세.
- ⁶ 폭력배들의 천막은 평안하고 하느님을 노하시게 하는 자들은 태평이라네. 하느님을 제 손에 들고 다니는 자들 말일세.

- 7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게나. 그것들이 자네를 가르칠 걸세. 하늘의 새들에게 물어보게나. 그것들이 자네에게 알려 줄 걸세.
- 8 아니면 땅에다 대고 말해 보게. 그것이 자네를 가르치고 바다의 물고기들도 자네에게 이야기해 줄 걸세.
- 9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누가 모르겠나? 주님의 손이 그것을 이루셨음을,
- 10 그분의 손에 모든 생물의 목숨과 모든 육체의 숨결이 달려 있음은.
- 11 입이 음식 맛을 보듯 귀가 말을 식별하지 않는가?
- 12 백발에 지혜가 있고 장수에 슬기가 있든다 해도
- 13 오직 그분께만 지혜와 능력이 있고 경륜과 슬기도 그분만의 것이라네.

절대 통치자이신 하나님

- 14 그분께서 부수시면 아무도 세우지 못하고? 그분께서 가두시면 아무도 풀려나지 못한 다네.
- 15 그분께서 물을 막으시면 메말라 버리고 내 보내시면 땅을 뒤집어 버린다네.
- 16 오직 그분께만 권력과 성취가 있고 해매는 자와 해매게 하는 자도 그분께 속한다네.
- 17 그분은 자문관들을 맨발로 끌어가시고 판관들을 바보로 만드는 분.
- 18 임금들의 띠를 푸시고 그 허리를 포승으로 묶으시는 분.
- 19 사제들을 맨발로 끌어가시고 권세가들을 넘어뜨리시는 분.
- 20 신뢰받는 이들에게서 언변을 앗아 버리시고 노인들에게서 판단력을 거두어 버리시는 분.
- 21 귀족들에게 수치를 쏟아 부으시고 힘센 자들의 허리띠를 풀어 버리시는 분.
- 22 어둠에서부터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암흑을 빛 속으로 끌어내시는 분.

- 23 민족들을 흥하게도 망하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뺏어 나가게도 흠어지게도 하시는 분.
- 24 나라 백성의 수령들에게서 지각을 앗아 버리시고 그들을 길 없는 광야에서 헤매게 하시는 분.
- 25 그래서 그들은 빛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고 그분께서는 그들을 술취한 자같이 해매게 하신다네.

음의 항변과 결심

- 13 **1** 여보게들, 이 모든 것을 내 눈이 보았고 내 귀가 들어 이해하였다네.
- 2 자네들이 아는 만큼은 나도 알고 있으니 자네들에게 결코 뒤떨어지지 않네그러.
- 3 나는 전능하신 분께 어쭙고 하느님께 항변하고 싶을 따름이네.
- 4 그러나 자네들은 거짓을 꾸며 내는 자들, 모두 돌팔이 의사들일세.
- 5 아, 자네들이 제발 입을 다문다면! 그것이 자네들에게 지혜로운 처사가 되련마는.
- 6 이제 나의 논증을 듣고 내 입술이 하는 변론에 유의하게나.
- 7 자네들은 하느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고 그분을 위하여 허위를 말하려나?
- 8 자네들은 하느님 편을 들어 그분을 변론하려는가?
- 9 그분께서 자네들을 신문하시면 좋겠는가? 사람을 속이듯 그분을 속일 수 있겠나?
- 10 자네들이 몰래 편을 든다면 그분께서는 기필코 자네들을 꾸짖으실 것일세.
- 11 그분의 엄위가 자네들을 놀라게 하고 그분에 대한 공포가 자네들을 덮치지 않았는가?
- 12 자네들의 금언은 재와 같은 격언이요 자네들의 답변은 진흙 같은 답변일세.
- 13 입 다물고 나를 놓아두게나, 내가 말 좀 하게. 내게 무슨 일이든 일어나라지.
- 14 나는 내 몸을 내 이로 물어 나르고 내 목

숨을 내 손바닥에 내놓을 것이네.

- 15 그분께서 나를 죽이려 하신다면 나는 가망이 없네. 다만 그분 앞에서 내 길을 변호하고 싶을 뿐.
- 16 정녕 이것이 나에게는 도움이 되겠지. 불경스런 자는 그분 앞에 들 수도 없기 때문일세.
- 17 제발 내 말을 들어 보게나. 내 진술을 자네 들 귀로 말일세.
- 18 자 보게, 나는 소송을 준비하였네. 내가 정당함을 나는 알고 있다네.
- 19 나와 소송을 벌일 자 누구인가? 있다면 나 이제 입을 다물고 죽어 가겠네.

숨어 계신 하나님께 올리는 탄원

- 20 저에게 이 두 가지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 앞에서 숨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 21 당신의 손을 제게서 멀리 치우시고 당신에 대한 공포가 저를 덮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 22 그러시고는 부르십시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퇴겠으니 저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 23 얼마나 많습니까, 저의 죄와 허물이? 저의 악행과 죄를 저에게 알려 주십시오.
- 24 어찌하여 당신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당신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 25 바람에 날리는 잎사귀를 소스라치게 하시고 메마른 지푸라기를 뒤쫓으시렵니까?
- 26 제가 쓰러린 일들을 당하게 결정하시고 젊은 시절의 짓값을 거두게 하시렵니까?
- 27 제 발에 차꼬를 채우시고 저의 길을 모두 지켜보시며 저의 말바닥에 표를 새기시렵니까?
- 28 이 몸은 썩은 것처럼, 쪼먹은 옷처럼 부스러져 갑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죽음

- 14** ¹ 사람이란 여인에게서 난 몸, 수명은 짧고 혼란만 가득합니다.
- 2 꽃처럼 솟아났다 시들고 그림자처럼 사라져 오래가지 못합니다.
 - 3 바로 이런 존재에게 당신께서는 눈을 부릅뜨시고 손수 저를 법정으로 끌고 가십니다.
 - 4 그 누가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 5 진정 그의 날들은 정해졌고 그의 달수는 당신께 달려 있으며 당신께서 그의 경계를 지으시어 그가 넘지 못합니다.
 - 6 그러니 그에게서 눈을 돌리십시오, 그가 될 수 있게, 날뿔팔이처럼 자기의 날을 즐길 수 있게.
 - 7 나무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잘린다 해도 움이 트고 싹이 그치지 않습니다.
 - 8 그 뿌리가 땅속에서 늙는다 해도 그 그루터기가 흙 속에서 죽는다 해도
 - 9 물기를 느끼면 싹이 트고 목욕처럼 가지를 뻗습니다.
 - 10 그렇지만 인간은 죽어서 힘없이 늙습니다.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습니까?
 - 11 바다에서 물이 빠져나가고 강이 말라 메마르듯
 - 12 사람도 누우면 일어서지 못하고 하늘이 다 할 때까지 일어나지도, 잠에서 깨어나지도 못합니다.
 - 13 아, 당신께서 저를 저승에다 감추시고 당신의 진노가 그칠 때까지 숨겨 두신다면! 저를 위한 때를 정하시어 저를 다시 기억해 주신다면!
 - 14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제 고역의 나날에 저는 고대합니다, 제 해방의 때가 오기까지.
 - 15 당신께서 부르시면 제가 대답하련마는. 당신 손의 작품을 당신께서 그리워하신다면 아!

- 16 그러면 당신께서는 저의 발걸음을 세시고
저의 허물을 살피지 않으시련마는.
- 17 저의 악행은 자루에 봉해지고 당신께서는
저의 죄 위에도 칠을 하시련마는.
- 18 그러나 산도 무너져 내리고 바위도 제자리
에서 밀려나듯,
- 19 물이 돌을 부수고 큰비가 땅의 흙을 씻어
가듯 당신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꺾으십니
다.
- 20 그를 완전히 제압하시니 그는 떠나갑니다.
그의 얼굴을 일그러뜨리신 채 내쫓으십니
다.
- 21 그의 아들들이 영광을 누리려 그는 알지
못하고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깨닫지 못
합니다.
- 22 다만 그의 몸은 자기의 아픔만을 느끼고
그의 영은 자신만을 애통해합니다.

엘리파스의 둘째 답변

15 ¹ 테만 사람 엘리파스가 말을 받았다.

결백하지 못한 인간

- 2 현인이 바람 같은 지식으로 대답하고 제 배
를 싹바람으로 채워야 되겠는가?
- 3 어찌 쓸데없는 이야기와 소용없는 말로 논
쟁하겠는가?
- 4 자네야말로 경외심을 깨뜨리고 하느님 앞에
서 목상을 방해하는구려.
- 5 정녕 자네는 자네 죄가 가르치는 대로 말하
고 교활한 자들의 언어를 골라내는구려.
- 6 자네 입이 자네를 단죄하지, 내가 아닐세.
자네 입술이 자네를 거슬러 증언하고 있다
네.
- 7 자네가 첫째로 태어난 사람이기라도 하며
언덕보다 먼저 생겨나기라도 하였단 말인
가?
- 8 자네가 하느님의 회의를 엿듣기라도 하였으

- 며 지혜를 독차지하기라도 하였단 말인가?
- 9 우리가 모르는 무엇을 자네가 알고 있나?
우리에게는 없는 깨우침을 얻기라도 하였단
말인가?
- 10 우리 가운데에는 백발이 성성하시고 자네
부친보다도 훨씬 연로하신 분이 계시다네.
- 11 자네는 하느님의 위로와 부드러운 말만으
로는 모자란단 말인가?
- 12 어찌하여 자네 마음이 자네를 앗아 가 버
렸나? 어찌하여 눈을 치켜뜨고 있는가?
- 13 그러면서 자네의 그 격분을 어찌 하느님께
터뜨리고 입으로는 말을 함부로 토해 내는
가?
- 14 사람이 무엇이기에 결백할 수 있으며 여인
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다 하리오?
- 15 그분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들도 믿지 않
으시고 하늘도 그분 눈에는 순결하지 못한
데
- 16 하물며 역겹고 타락하여 불의를 물 마시듯
저지르는 인간이야!

악인의 운명

- 17 자네에게 일러 줄 테니 듣게나. 내가 본 것
을 이야기해 주겠네.
- 18 현인들이 선포한 것, 그들 조상에게서 받아
숨기지 않은 것일세.
- 19 땅은 오직 그들에게만 주어지고 낯선 자는
그 가운데를 지나간 적이 없었지.
- 20 악인은 일생 동안 공포에 시달리는 법, 난
폭한 자에게 주어진 그 햇수 동안 말일세.
- 21 무서운 소리가 그의 귓가에 울리고 태평스
러울 때도 폭력배가 그를 덮친다네.
- 22 그는 어둠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도 못하
고 칼에 맞을 운명이라네.
- 23 그는 " 어디 있나?" 하면서 먹을 것을 찾
아 헤매며 어둠의 날이 이미 그의 곁에 마
련되었음을 깨닫는다네.
- 24 불안과 초조가 그를 소스라치게 하고 공격

- 태세를 갖춘 임금처럼 그를 압도한다네.
- 25 그가 하느님을 거슬러 손을 내뻗고 전능하신 분께 으스대었기 때문이지.
- 26 그는 목을 세우고 돌기가 단단한 방패를 들고서 그분께 달려들었지.
- 27 제 얼굴을 기쁨기로 뒤덮고 허리를 비젯살로 둘러쳤지.
- 28 그는 패허가 된 성읍에,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이 돌무더기의 차지가 된 집에 살았지.
- 29 그는 부자가 되지도 못하고 그의 재산은 일지도, 그의 소유는 땅에서 불어나지도 못한다네.
- 30 그는 어둠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의 새끼는 불길에 타 버리며 그분의 입김에 쓸려 가 버린다네.
- 31 그는 헛것을 믿어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하리니 그의 보상이 헛되기 때문이라네.
- 32 그는 때가 되기도 전에 끝나 버리고 그의 일사귀들은 푸르지 못하네.
- 33 그는 포도나무 줄기처럼 설익은 열매를 떨어뜨리고 올리브 나무처럼 꽃을 흘려 버릴 것이네.
- 34 불경스런 자들의 무리는 이렇듯 썩어 마르고 뇌물을 좋아하는 자들의 천막은 불이 집어삼켜 버린다네.
- 35 재앙을 잉태하여 불행만 낳으니 그들의 모태는 속입수만 마련할 뿐이라네.

읍의 낮새 담론

16 ¹ 읍이 말을 받았다.

쓸모없는 위로자들

- 2 그런 것들은 내가 이미 많이 들어 왔네. 자네들은 모두 쓸모없는 위로자들이구려.
- 3 그 공허한 말에는 끝도 없는가? 무엇이 자네 마음을 상하게 했기에 그렇게 대답하는가?

- 4 자네들이 내 처지에 있다면 나도 자네들처럼 말할 수 있지. 자네들에게 좋은 말을 늘어놓으면서 자네들이 불쌍하다고 머리를 짓고
- 5 내 입으로 자네들의 기운을 북돋우며 내 입술의 연민은 슬픔을 줄여 줄 수 있지.

하느님의 과녁이 된 몸

- 6 내가 말을 해도 이 아픔이 줄지 않는구려. 그렇다고 말을 멈춘들 내게서 무엇이 덜어지겠는가?
- 7 이제 그분께서는 나를 탈진시키셨네. — 당신께서는 저의 온 집안을 파멸시키셨습니다.
- 8 당신께서 저를 움켜쥐시니 그 사실이 저의 반대 증인이 되고 저의 수척함마저 저를 거슬러 일어나 제 얼굴에 대고 증언합니다.—
- 9 그분의 진노가 나를 짓찧으며 뒤쫓는구려. 그분께서 내게 이를 가지고 내 원수이신 분께서 내게 날카로운 눈길을 보내시네.
- 10 사람들은 나에게 입을 마구 놀리고 조롱으로 내 뺨을 치며 나를 거슬러 떼지어 모여 드는데
- 11 하느님께서서는 나를 악당에게 남기시고 악인들의 손에다 내던지셨네.
- 12 편안하게 살던 나를 깨뜨리시고 달미를 붙잡아 나를 부수시며 당신의 과녁으로 삼으셨네.
- 13 그분의 화살들은 나를 에워싸고 그분께서는 무자비하게 내 간장을 꿰뚫으시며 내 쓸개를 땅에다 내동댕이치신다네.
- 14 나를 갈기갈기 찢으시며 전사처럼 달려드시니
- 15 나는 자루옷을 내 맨살 위에 꿰매고 내 뺨을 먼지 속에도 박고 있네.
- 16 내 얼굴은 통곡으로 별경계 달아오르고 내 눈꺼풀 위에는 암흑이 자리 잡고 있다네.
- 17 내 손에 폭력이란 없고 내 기도는 순수하건만!

하늘에 계신 증인

- 18 땅이여, 내 피를 덮지 말아 다오 내 부르
짓음이 쉼 곳도 나타나지 말아 다오
- 19 지금도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시네. 나의
보증인은 저 높은 곳에 계시네.
- 20 내 친구들이 나를 빈정거리니 나는 하느님
을 향하여 눈물짓는대네.
- 21 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시비를 가리시듯
그분께서 한 인생을 위하여 하느님과 논쟁
해 주신다면!
- 22 내게 정해진 그 몇 해가 이제 다 되어 나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기 때문이라네.

- 17 ¹ 제 영은 산산이 부서지고? 제 수명은
다혜 가니 저에게 남은 것은 무덤뿐.
- 2 진정 제 들레에는 비웃음만 있으니 제 눈은
그들의 적대 행위를 지켜볼 뿐입니다.
- 3 제발 저를 위하여 당신 곁에 보증을 세워
주십시오, 저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 줄 이
누가 있습니까?
- 4 당신께서 저들의 마음을 깨치지 못하게 하
셨으니 그들이 우쭐대지도 못하게 해 주십
시오.
- 5 그들은 ' 자기 아들들의 눈이 멀어 가는데
뭇을 받아 가라고 친구들을 청하는 자와
같습니다.

사람들의 웃음거리

- 6 나는 백성의 이야깃거리로 내세워져 사람들
이 얼굴에 침 뱉는 신세가 되었네.
- 7 내 눈은 상심으로 흐려지고 사지는 모두 그
림자처럼 되어 버렸네.
- 8 울곧은 이들은 이것을 보며 질겁하고 무죄
한 이는 불경스러운 자에게 격분하네.
- 9 그러나 의인은 제 길을 굳게 지키고 손이
결백한 이는 함을 더한다네.
- 10 그렇지만 자네들 모두 돌아와 보게나. 나는
자네들 가운데에서 현인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네.

- 11 나의 날들은 흘러가 버렸고 나의 계획들도,
내 마음의 소망들도 찢겨졌다네.
- 12 저들은 밤을 낮이라 하고 어둠 앞에서 빛
이 가까웠다 하건만
- 13 나 무엇을 더 바라리오? 저승이 나의 집이
요 암흑 속에 잠자리를 피는데,
- 14 구덩이에게 " 당신은 나의 아버지!", 구더
기에게 " 나의 어머니, 나의 누이!"라 부
르는데
- 15 도대체 어디에 내 희망이 있으리오? 나의
희망? 누가 그것을 볼 수 있으리오?
- 16 그것이 나와 더불어 저승의 빛장을 향하여
내려가겠는가? 아니면 나와 함께 먼지 속
에서 안식을 얻겠는가?

빛대의 둘째 답론

- 18 ¹ 수아 사람 빛대이 말을 받았다.
음에 대한 반안
- 2 자네들은 언제면 이런 식의 말에 끝을 내려
나? 잘 생각해 보게나. 그리고 나서 우리
이야기하세.
- 3 어찌하여 우리가 짐승처럼 여겨지며 자네
눈에 명칭하게 보인단 말인가?
- 4 제 분에 못 이겨 자신을 짓밟는 자네 때문
에 땅은 황폐하게 되고 바위는 제자리에서
떨러야 한단 말인가?

악인의 운명

- 5 정녕 악인들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타오
르지 않네.
- 6 그 천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를 비추던
등불은 꺼져 버리지.
- 7 그의 힘찬 걸음걸이는 좁아지고 그는 자기
피에 넘어간다네.
- 8 그는 제 발로 그물에 걸려들고 함정 위를
걸어가며

- 9 울카미가 그의 뒤꿈치를 움켜쥐고 그 위로 덮이 조여 오네.
- 10 땅에는 그를 움아엘 밧줄이, 길 위에는 울 무가 숨겨져 있네.
- 11 공포가 사망에서 그를 덮치고 걸음마다 그를 뒤쫓는다네.
- 12 그의 기력이 배말라 가 그가 넘어지면 바로 멸망이라네.
- 13 그의 살갓은 질병으로 문드러지고 죽음의 만자식이 그의 사지를 감어먹지.
- 14 그는 자기가 믿던 천막에서 뿔혀 공포의 임금에게 끌려가네.
- 15 그의 것이라고는 무엇 하나 천막 안에 남아 있지 않고 그의 소유지에는 유행이 뿌려진다네.
- 16 밑에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의 줄기가 사들며
- 17 그에 대한 기억은 땅에서 사라지고 그의 이름은 거리에서 자취를 감추네.
- 18 그는 빛에서 어둠으로 내몰리고 세상에서 내쫓기어
- 19 그에게는 제 겨레 가운데 자손도 후손도 없고 그의 처처에는 살아남은 자 하나도 없네.
- 20 그의 날을 보고 서녘 사람들이 질겁하고 동녘 사람들이 몹서리치네.
- 21 정녕 불의한 자의 집안이 이러하고 하느님을 모르는 자의 처소가 그러하다네.

읍의 다섯째 답본

19 ¹ 읍이 말을 받았다.

자네들은 언제까지 그러려나

- 2 자네들은 언제까지 나를 슬프게 하고 언제까지 나를 말로 짓부수려나?
- 3 자네들은 이미 열 번이나 나를 모욕하고 괴롭히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는구려.

- 4 내가 참으로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잘못은 내 문제일세.
- 5 자네들은 참으로 내게 허세를 부리며 내 수치를 밝혀내려는가?
- 6 그렇지만 알아 두게나, 하느님께서 나를 학대하시고 나에게 당신의 그물을 덮어씌우셨음.

원수가 되어 버린 하느님

- 7 " 폭력이야!" 소리쳐도 대답이 없고 호소해 보아도 법이 없네그러.
- 8 내가 자랄 수 없게 그분께서 내 길에 담을 쌓으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깔아 놓으셨네.
- 9 나에게서 명예를 빼앗으시고 내 머리의 관을 치워 버리셨다네.
- 10 사망에서 나를 때려 부수시니 나는 죽어 가네. 그분께서 나의 희망을 나무처럼 뽑아 버리셨다네.
- 11 내 위에 당신의 분노를 태우시고 나를 당신의 원수처럼 여기시니
- 12 그분의 군대가 함께 몰려와 나를 치려고 길을 닦고 내 천막 둘레에 잔을 쳤다네.

소외와 고통

- 13 내 형제들은 내게서 멀어지고 내 친구들은 남이 되어 버렸다네.
- 14 친척과 친자들은 떨어져 나가고 집안 식객들은 나를 잊었으며
- 15 계집종들은 나를 낫선 자로 여기니 저들 눈에 나는 이방인이 되었다네.
- 16 중을 부르건만 대답조차 하지 않아 이 입으로 그에게 애걸해야만 하네.
- 17 내 입김은 아내에게 메스껍고 내 몸의 자식들에게도 나는 악취를 풍긴다네.
- 18 어린것들조차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 서려고만 해도 나를 두고 비아냥거리네.
- 19 내게 가까운 동아리도 모두 나를 역겨워하고 내가 사랑하던 자들도 내게 등을 돌리는구려.

- 20 내 뼈는 살가죽에 달라붙고 나는 겨우 잇몸으로 연명한다네.
- 21 여보게, 나의 벗들이여, 날 붙잡히 여기게나, 붙잡히 여기게나. 하느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네.
- 22 자네들은 어찌하여 하느님처럼 나를 몰아붙이는가? 내 살덩이만으로는 배가 부르지 않단 말인가?

영원한 기록

- 23 아, 제발 누가 나의 이야기를 적어 두었으면! 제발 누가 비석에다 기록해 주었으면!
- 24 첩필과 납으로 바위에다 영원히 새겨 주었으면!

살아 계신 구원자

- 25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네, 나의 구원자께서 살아 계심을. 그분께서는 마침내 먼지 위에서 일어서시리라.
- 26 내 살갓이 이토록 벗겨진 뒤에라도 이내 몸으로 나는 하느님을 보리라.
- 27 내가 기어이 뵈고자 하는 분, 내 눈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을 보리라. 속에서 내 간장이 녹아 내리는구나.

친구들에게 하는 경고

- 28 자네들은 " 그자를 어떻게 몰아붙일까? 문제의 근원은 그에게 있지." 하고 말들 하네만
- 29 칼을 두려워하게. 자네들의 격분은 칼 맞을 죄악이라네. 심판이 있음을 알아 두게나.

초바르의 물새 답론

20 ¹ 나이며 사람 초바르가 말을 받았다.

이성적 대답

- 2 내 생각이 이렇게 대답하라 재촉하니 내가 서두를 수밖에 없구려.

- 3 나를 모욕하는 질책을 들으면서도 내 정신은 나에게 이성적으로 대답해 주네.

악인의 운명

- 4 이런 짓쯤은 자네도 예전부터 알고 있지 않나? 땅 위에 사람이 세워졌을 때부터
- 5 악인들의 환성은 얼마 가지 못하고 불경한 자의 기쁨은 한순간뿐임을.
- 6 그의 높이가 하늘까지 이르고 머리가 구름까지 닿는다 해도
- 7 그는 제 모퉁처럼 영원히 사라져 버려 그를 보던 이들은 " 그가 어디 있지?" 하고 말한다네.
- 8 그는 아무도 찾을 수 없게 날아가 버리고 밤의 환영처럼 쫓겨나 버려
- 9 그를 바라보던 눈은 더 이상 그를 볼 수 없고 그가 있던 자리도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하지.
- 10 그의 자식들은 가난한 이들의 비위를 맞추고 스스로 제 재산을 내놓아야 하며
- 11 한때 짧은 기력으로 가득 찼던 그의 뼈도 그와 함께 먼지 위에 드러눕고 만다네.
- 12 악이 입에 달콤하여 제 혀 밑에 그것을 감추고
- 13 아가워서 내놓지 않은 채 입속에 붙들고 있다 해도
- 14 그의 음식은 내장 속에서 썩어 배 속에서 살무사의 독으로 변한다네.
- 15 그는 집어삼켰던 재물을 토해 내야 하니 하느님께서 그것을 그의 배 속에서 밀어내시기 때문이지.
- 16 그는 살무사의 독기를 빨고 독사의 혀가 그를 죽여
- 17 그는 풀과 젖이 흐르는 개울과 사내와 강을 바라보지 못하지.
- 18 애써 벌어들인 것을 삼키지 못한 채 되돌려야 하고 장사로 얻은 재화를 누리지 못하니

- 19 그가 가난한 이들을 짓밟아 내버리고 제가 짓지도 않은 짐을 강탈하였기 때문일세.
- 20 그의 배 속은 만족을 모르니 그는 제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네.
- 21 그의 게걸스러움에 남아나는 것 없으니 그의 번영도 오래가지 못한다네.
- 22 그는 더할 나위 없는 풍요 속에서도 궁핍해지고 고통 받는 이들의 손이 모두 그를 덮치며
- 23 그분께서는 그의 배를 채우시러 당신 진노의 불길을 그에게 보내시고 그 위에 병기들의 비를 내리신다네.
- 24 그가 쇠 무기를 피하면 구리 화살이 그를 꿰뚫고
- 25 빼내려 하지만 그것은 등을 뚫고 나오며 시퍼런 칼끝은 그의 쓸개를 꿰뜨르니 전율이 그를 엄습한다네.
- 26 온갖 암흑이 그의 보물을 기다리고 아무도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삼키며 그의 천막에 살아남은 자까지 살라 버린다네.
- 27 하늘은 그의 죄악을 드러내고 땅은 그를 거슬러 일어선다네.
- 28 그의 집을 홍수가, 그분 진노의 날에 격류가 휩쓸어 가 버리지.
- 29 이것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받을 운명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것으로 선언하신 상속 재산일세.

읍의 여섯째 단본

21 ¹ 읍이 말을 받았다.

호의적인 경칭

- 2 내 말을 귀담아들게나. 그것이 바로 자네들이 나를 위로하는 것이네.
- 3 참아 주게나, 내가 말을 하게. 내 말이 끝난 뒤에 바웃어도 좋네.
- 4 내가 사람을 원망한다는 말인가? 내가 어찌

- 조급하지 않을 수 있겠나?
- 5 나를 쳐다보게. 놀라서 손을 입에 갖다 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네.
- 6 나는 생각만 해도 소스라치고 전율이 내 몸을 사로잡는다네.

악인들의 성공

- 7 어찌서 악인들은 오래 살며 늙어서조차 힘이 더하는가?
- 8 자식들은 그들 앞에서, 후손들은 그들 눈앞에서 든든히 자리를 잡지.
- 9 그들의 집은 평안하여 무서워할 일이 없고 하나님의 회초리는 그들 위에 내리지도 않아
- 10 그들의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배게 하고 그들의 암소는 유산하는 일 없이 새끼를 낳지.
- 11 아이들을 양 떼처럼 풀어 놓으면 그 어린 것들이 마구 뛰어논다네.
- 12 손북과 비파에 맞추어 목청 돋우고 피리 소리에 흥겨워하며
- 13 행복 속에 나날을 보내다가 편안히 저승으로 내려간다네.
- 14 그런데도 하나님께 이런 소리나 한다네. "우리 앞에서 비키십시오. 당신의 길을 안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는 내키지 않습니다.
- 15 전능하신 분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며 무슨 이득이 있다고 그에게 매달리오?"
- 16 그렇지만 그들의 행운은 그들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지. 악인들의 뜻은 나와는 거리가 멀다네.

별받지 않는 악인들

- 17 악인들의 등불이 얼마나 자주 꺼지던가? 받아 마땅한 파멸이 얼마나 자주 그들을 덮치던가? 그분께서 진노하시어 고통을 내리시던가?
- 18 그들이 바람 앞의 검불과 같고 폭풍이 휩

슬어 가는 지푸라기와 같은 적이 있는가?

- 19 " 하느님께서는 그를 위한 재난을 그 자식들에게 내리려 간직하신다." 하네만 그가 깨닫도록 직접 그에게 갔으셔야.
- 20 그의 눈이 자기의 멸망을 보고 그 자신이 전능하신 분의 분노를 마셔야지.
- 21 그의 달수가 다하여 죽은 뒤에는 제 집안이 무슨 근심거리가 되겠나?
- 22 그러나 높은 이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누가 하느님께 지식을 배울 수 있겠는가?
- 23 어떤 이는 혈기 넘치는 가운데 무척이나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죽어 가지.
- 24 옆구리는 굳기름으로 가득하고 뺨골은 아직도 싱싱한 채 말일세.
- 25 그러나 어떤 이는 영혼의 쓰라림 속에 죽어 가지. 행복을 맛보지도 못한 채 말일세.
- 26 그러면서도 둘 다 먼지 위에 드러누우면 구더기들이 그들을 덮어 버리지.
- 27 그래, 나는 자네들의 생각을 알고 있네, 나를 해치려 꾸미는 그 속셈을 말일세.
- 28 자네들은 " 귀족의 집이 어디 있나? 악인들이 살던 천막이 어디 있나?" 하네만
- 29 길손들에게 물어보지 않았나? 그들의 증언을 자네들도 부인하지는 못할 걸세.
- 30 악한은 멸망의 날에 제외되고 진노의 날에 구제됨을.
- 31 누가 눈앞에서 그의 행적을 밝혀내고 누가 그가 행한 것을 되갚으리오?
- 32 그가 묘지로 들러 가면 묘지가 그 무덤을 보살피고
- 33 계곡의 흙더미는 그를 부드럽게 덮어 주지. 모든 사람이 그의 뒤를 따르고 그를 앞서간 자들도 무수하다네.
- 34 그런데도 어떻게 자네들은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하는가? 자네들의 대답에는 배신밖에 남아 있지 않네.

엘보파즈의 셋째 답론

22¹ 태만 사람 엘리파즈가 말을 받았다.

인간은 하느님께 무익한 존재

- 2 사람이 하느님께 유익할 수 있는가? 아니지, 슬기로운 자도 자신에게만 유익하다네.
- 3 자네가 의롭다 하여 전능하신 분께 무슨 낙이 되며? 자네가 흠 없는 길을 걷는다 하여 그분께 무슨 득이 되겠나?
- 4 하느님께서 자네의 경외심 때문에 자네를 꾸짖으시겠나? 자네와 함께 법정으로 가시겠나?

읍의 죄악

- 5 자네의 악이 크지 않은가? 자네의 죄악에 끝이 없지 않은가?
- 6 자네가 껍닭 없이 형제들에게 담보를 강요하고 험벗은 이들의 옷을 벗겼기 때문일세.
- 7 자네는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지 않았고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거절하였네.
- 8 세상은 주먹이 센 자에게 속하고 특권을 누리는 자가 차지하지.
- 9 자네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내쫓고 고아들의 팔을 부러뜨렸네.
- 10 그래서 그물이 자네 주위를 둘러치고 공포가 갑자기 자네를 소스라치게 한다네.
- 11 자네는 어둠을 보지 못하는가? 자네를 뒤덮으려는 저 큰 물울?

읍의 회오적 태도

- 12 하느님께서는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 않나? 별들의 끝을 보게, 얼마나 높은지.
- 13 그런데 자네는 이렇게 말하는군. " 하느님께서 무얼 아시리오? 먹구름을 꿰뚫어 심판하시겠는가?"
- 14 구름이 그분을 덮어서 보지 못하시는 채 하늘가를 돌아다니실 뿐이라네."
- 15 자네는 그 옛길을 따라가려는가? 사악한 인간들이 걸어간 그 길을?

- 16 때가 되기도 전에 잡아채이고 그 터전이 강물에 휩쓸린 그들 말일세.
- 17 그들은 하느님께 " 우리 앞에서 비키십시오 오,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무얼 할 수 있으리오?" 하였지만
- 18 그들의 잡은 것은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 분은 바로 그분이지. 그렇지만 악인들의 뜻은 나와는 거리가 멀다네.
- 19 의인들은 보고 즐거워하며 무죄한 이는 그들을 비롯네.
- 20 " 정녕 우리의 적은 멸망하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불이 삼켜 버렸다네."

하하의 열매

- 21 자, 이제 그분과 화해하여 평화를 되찾게. 그러면 자네에게 행복이 찾아올 것일세.
- 22 그분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두게.
- 23 자네가 전능하신 분께 돌아오면 회복될 것세. 자네 천막에서 불의를 치워 버린다면 말일세.
- 24 먼지 위로 금을 내던져 버리게. 오피르의 순금까지도 개울의 돌들 사이로 말이네.
- 25 그러면 전능하신 분께서 자네의 금이 되시고 자네에게 최상품의 은이 되실 것이네.
- 26 그러면 전능하신 분께서 자네의 기쁨이 되시고 자네는 하느님께 얼굴을 들게 될 것일세.
- 27 자네가 그분께 기도하면 들어 주셔서 자네의 서원들을 채우게 될 것세.
- 28 자네가 일을 결정하면 이루어지고 자네의 길에 광명이 비칠 것이네.
- 29 사람들이 내리눌리던 자네는 " 일어서게." 하고 그분께서는 가가 꺾인 이들을 구해 주신다네.
- 30 그분께서는 무죄하지 않은 이도 구원하시리니 자네 손의 결백함 덕분에 그는 구원될 것이네.

읍의 일곱째 답론

23 ¹ 읍이 말을 받았다.

하느님의 부재

- 2 오늘도 나의 탄식은 쓰디쓰고 신음을 막는 내 손은 무겁기만 하구려.
- 3 아, 그분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기만 하면 그분의 처처까지 찾아가련마는.
- 4 그분 앞에 소송물을 펼쳐 놓고 내 입을 변론으로 가득 채우련마는.
- 5 그분께서 나에게 어떤 답변을 하시는지 알아듣고 그분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련마는.
- 6 그분께서는 그 큰 힘으로 나와 대결하시려나? 아니, 나에게 관심이라도 두기만 하신다면.
- 7 그러면 올곧은 이는 그분과 소송할 수 있고 나는 내 재판관에게서 영원히 풀려나련마는.
- 8 그런데 동넙으로 가도 그분께서는 계시지 않고 서넙으로 가도 그분을 찾아낼 수가 없구려.
- 9 북넙에서 일하시나 하건만 눈에 띄이지 않으시고 남넙으로 방향을 바꾸셨나 하건만 뵈을 수가 없구려.

하느님의 환주

- 10 그분께서는 내 길을 알고 계시니 나를 시금해 보시면 내가 순금으로 나오련마는.
- 11 내 발은 그분의 발자취를 놓치지 않았고 나는 그분의 길을 지켜 밟아가지 않았네.
- 12 그분 입술에서 나온 계명을 벗어나지 않았고 내 결정보다 그분 입에서 나온 말씀을 더 소중히 간직하였네.
- 13 그러나 그분은 유일하신 분, 누가 그분을 말할 수 있으리오? 그분께서 원하시면 해내고야 마시거늘.
- 14 나에게 대해 결정하신 바를 마무리하시리니

이런 일들이 그분께는 많기도 하다네.

- 15 그러나 그분 앞에서 내가 소스라치고 생각만 해도 그분을 무서워할 수밖에.
- 16 하느님께서 내 마음을 여러게 만드시고 전능하신 분께서는 나를 소스라치게 하신다네.
- 17 정녕 나는 어둠 앞에서 멀랑해 가고 내 앞에는 암흑만 뒤덮여 있을 따름이네.

사회의 불의

- 24** 1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시간이 없단 말인가? 어찌하여 그분을 아는 이들이 그분의 날을 보지 못하는가?
- 2 사람들은 경계선을 밀어내고 가축 때를 빼앗아 기르며
- 3 고아들의 나귀를 끌어가고 과부의 소를 담보로 잡는데.
- 4 가난한 이들을 길에서 내쫓으니 이 땅의 가련한 이들은 죄다 숨을 수밖에.
- 5 그들은 광야의 들나귀처럼 먹이를 찾아서 일허러 나가네. 그들에게는 사막이 자식들을 위한 양식이 있는 곳.
- 6 그들은 들에서 풀을 거두어들이고 악인의 포도밭에서 남은 것을 따 들이네.
- 7 알몸으로 밤을 지새네, 옷도 없이, 추위에 덮을 것도 없이.
- 8 산의 쪽우로 흠뻑 젖은 채 피할 데 없어 바위에 매달리네.
- 9 그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을 젓기슴에서 빼앗아 가고 가련한 이가 위에 걸친 것을 담보로 잡는다네.
- 10 그들은 알몸으로 옷도 없이 돌아다니고? 굶주린 채 곡식 단을 나르며
- 11 돌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고 목마른 채 포도 확을 밟는다네.
- 12 성읍에서는 사람들이 신음하고 치명상을 입은 이들이 도움을 빌건만 하느님께서 이 부당함에 관심도 두지 않으시는구려.

빛의 적들

- 13 이들은 빛의 적이 된 자들, 광명의 길에 익숙하지도 않고 그 행로에 머무르지도 않는다네.
- 14 살인자는 새벽같이 일어나 가련한 이와 가난한 이를 살해하고 밤에는 도둑처럼 된다네.
- 15 땅거미가 지기를 노리는 간음자의 눈, '어떤 눈도 나를 못 보리라.' 생각하며 얼굴에 가리개를 쓰네.
- 16 도둑은 어둠 속에서 남의 집에 침입하고 낮에는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니 빛을 알지 못한다네.
- 17 자들 모두에게는 아침도 암흑이니 암흑의 공포에 익숙하기 때문이네.

악인의 운명

- 18 그는 삼시간에 물 위로 떠내려가고 그의 토지는 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 그는 포도밭 가는 길에 들어서지도 못하네.
- 19 기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빼앗아 가듯 저승도 죄자는 자들을 채 가 버리네.
- 20 모태초차 그를 잇고 구더기가 그를 빨아 먹네. 아무도 그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리니 불의가 나무처럼 부러지네.
- 21 그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착취하고 과부에게 선행이라고는 배푼 적이 없기 때문이지.
- 22 그분께서 힘 있는 자들을 당신 권능으로 오래 살게 하시어 그가 번창한다 해도 제 생명에는 자신이 없다네.
- 23 그를 편안하게 하시어 그가 힘을 얻고 그분의 눈이 그의 길을 살피시어
- 24 이런 자들이 높아진다 해도 조금 뒤에는 이미 없어지고 땅에 떨어져 풀처럼 오그라들며 이삭 끝처럼 메말라 가네.
- 25 그렇지 않은가? 그렇다면 누가 나를 거짓말쟁이라 하고 누가 내 말을 무효로 만들

수 있겠는가?

빌닷의 셋째 담론

25 ¹ 수아 사람 빌닷이 말을 받았다.

하느님의 통치권

- ² 그분께서는 주권과 공포가 있네, 당신의 높은 곳에 평화를 이루시는 분.
- ³ 그분의 군대를 셀 수 있으랴? 누구 위에 그분 빛이 떠오르지 않으랴?
- ⁴ 하느님 앞에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리오?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결백하다 하리오?
- ⁵ 보게나, 달도 밝지 않고 별들도 그분 눈에는 밝지 않건만
- ⁶ 하물며 벌레 같은 사람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

음의 아홉째 담론

26 ¹ 음이 말을 받았다.

빌닷에게 하는 대답

- ² 자네는 힘없는 이를 잘도 도와주고 맥없는 팔을 잘도 붙들어 주는군.
- ³ 지혜가 없는 이에게 잘도 충고하고 슬기를 꾀도 많이 깨우쳐 주는군.
- ⁴ 자네는 누구에게 말을 늘어놓는가? 자네에게서 나오는 것은 누구의 숨결인가?

하느님의 초월성

- ⁵ 그림자들이 몹서리치네, 물 밑에서 그 주민들과 함께.
- ⁶ 그분 앞에서는 저승도 벌거숭이 멸망의 나라도 가릴 것이 없네.
- ⁷ 북녘을 허공 위에 펼치시고 땅을 허무 위에 매다신 분.
- ⁸ 그분께서 물을 당신의 구름으로 싸매시니 구름 덩이가 그 물 밑에서 터지지 않네.

- ⁹ 어좌 위에 당신의 구름 덩이를 퍼시어 그 겉모양을 가리신 분.
- ¹⁰ 빛이 어둠과 만나는 곳까지 물의 겉면에 둥근 경계를 지으셨네.
- ¹¹ 그분의 꾸지람에 하늘의 기둥들이 뒤흔들리며 놀라네.
- ¹² 당신 힘으로 바다를 놀라게 하시고 당신 통찰로 라합을 쳐부수셨네.
- ¹³ 그분의 바람으로 하늘은 맑아지고 그분의 손은 '도망치는 뱀'을 꺾으셨네.
- ¹⁴ 이것들은 그분 길의 한 조각일 뿐, 그분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작은 속삭임만 듣고 있나? 그러니 그분 권능의 천둥소리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나?

음의 아홉째 담론의 계속

27 ¹ 음이 말을 계속하였다.

무고 선언

- ² 나의 권리를 박탈하신 하느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내 영을 쓰러리게 하신 전능하신 분께서 살아 계시는 한
- ³ 나에게 목숨이 붙어 있는 한 하느님의 숨이 내 코에 있는 한
- ⁴ 맹세코 내 입술은 허위를 말하지 않고 내 혀는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으리라.
- ⁵ 나는 결단코 자네들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네. 죽기까지 나의 흠 없음을 포기하지 않겠네.
- ⁶ 나의 정당함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며 내 양심은 내 생애 어떤 날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리라.
- ⁷ 나의 적은 악인처럼, 나의 적대자는 불의한 자처럼 되어라.
- ⁸ 불경한 자가 잘려 나가면 무슨 희망을 가지랴? 하느님께서 그의 목숨을 빼내 가 버리시면?

- 9 재앙이 그에게 닥쳤을 때 하느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는가?
10 아니면 전능하신 분께서 그의 즐거움이 되시겠는가? 그가 계속하여 하느님을 부르짖는가?

악인의 운명

- 11 나는 자네들에게 하느님의 권능을 가르쳐 주고 전능하신 분께 있는 것을 감추지 않겠네.
12 자, 자네들도 모두 보지 않았나? 그런데 어찌하여 헛된 생각에 빠져들었나?
13 이것이 악한 인간이 하느님에게서 받을 운명이요 난폭한 자들이 전능하신 분에게서 받을 상속 재산일세.
14 그의 지식들이 많다 해도 칼에 맞고 그의 후손들은 양식을 배불리 먹지 못하네.
15 생존자들은 흑사병으로 묻히고 그 과부들은 곡을 하지도 못하지.
16 그가 은을 흙가루처럼 쌓아 올리고 옷을 흙더미처럼 쌓아 둔다 하여도,
17 그가 그렇게 쌓아 둔다 하여도 의인이 그 것을 입고 무죄한 자가 그 은을 나누어 가지네.
18 그는 좀 벌레처럼 재집을 지은 것이지. 파수꾼이 만든 초막처럼 말일세.
19 부자로 잠자리에 들지만 그것이 마지막 눈을 뜨면 이미 아무것도 없지.
20 공포가 홍수처럼 그를 덮치고 밤에는 폭풍이 그를 휩쓸어 가 버리네.
21 셋바람이 그를 불어 올리니 그는 사라져 가네. 셋바람이 그를 그 자리에서 날려 버린다네.
22 그에게 사정없이 몰아치니 그 손에서 달아나려고 바둥댈 뿐.
23 사람들은 그를 보며 손바닥을 쳐 대고 휘파람 소리 내며 그를 그 자리에서 내쫓는다네.

지혜 찬가

인간의 채광 기술

- 28 ¹ 정녕 은에는 산지가 있고? 금에는 채련하는 곳이 있다네.
2 쇠는 땅에서 얻어지고 구리는 바위를 녹여 붓는다네.
3 어둠에 경계를 두고 막장 속마다 찾는데, 암흑과 흑암 속의 돌을.
4 인가에서 먼 곳에, 사람 발에 잊혀진 곳에 강도를 파 사람들에게서 떨어진 채 매달려 흔들거리네.
5 땅에서는 양식이 솟아나지만 그 밑은 불로 뒤집힌다네.
6 그곳의 돌은 청옥의 자리 흙가루는 금을 품고 있다네.
7 그 길은 어떤 땀금도 알지 못하고 어떤 배의 눈도 본 적이 없으며
8 야수들도 디더 본 적이 없고 사자도 그 위를 밟아 본 적이 없네.
9 단단한 암석에 손을 대어 산들을 뿌리째 파헤치네.
10 바위에 강로를 뚫어 그의 눈은 온갖 보석을 확인하고
11 물줄기를 흐르지 않게 막고서는 숨겨진 것들을 밝은 데로 가져온다네.

돈으로 살 수 없는 지혜의 가치

- 12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리오? 슬기의 자리는 어디리오?
13 사람은 그것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고 생물들의 땅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네.
14 대양도 "나에게는 그것이 없어." 하고 바다도 "그것은 내 곁에 없어." 한다네.
15 금 덩어리로도 얻을 수 없고 그 값은 은으로도 쟈 수 없으며
16 오피르의 순금으로도 살 수 없고 값진 마

노나 청옥으로도 안 되네.

- 17 금과 유리도 그와 같을 수 없고 진금 그릇
들과도 바꿀 수 없으며
- 18 산호와 수정도 말할 나위 없으니 지혜의
값어치는 진주보다 더하네.
- 19 에티오피아의 황옥도 그와 같을 수 없으며
순금으로도 그것을 살 수 없대네.

지혜를 홀로 아시는 하느님

- 20 지혜가 어디에서 오리오? 슬기의 자리는
어디리오?
- 21 모든 생물의 눈에 감추어져 있고 하늘의
새들에게도 숨겨져 있다네.
- 22 멸망의 나라와 죽음도 " 우리 귀로 그에
대한 풍문은 들었지." 한대네.
- 23 하느님께서 지혜에 이르는 길을 식별해 내
시고 그 자리를 알고 계시니
- 24 그분께서는 땅 끝까지 살피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이지.
- 25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양을 결정하
실 때
- 26 비의 법칙과 뇌성 번개의 길을 정하실 때
- 27 그분께서 지혜를 보고 헤아리셨으며 그를
세우고 살피셨대네.

사람을 위한 지혜

- 28 그러고서는 사람에게 말씀하셨네. " 보아
라, 주님을 경외함이 곧 지혜며 악을 피함
이 슬기다."

읍의 독백

29 ¹ 읍이 말을 계속하였다.

예전의 행복

- 2 아, 지난 세월 같았으면! 하느님께서 나를
보살피시던 날들.
- 3 그분의 등불이 내 머리 위를 비추고 그분
빛으로 내가 어둠 속을 걷던 시절.

- 4 내 나이 한창이었고 하느님의 우정이 내 천
막을 감싸던 때.
- 5 전능하신 분께서 아직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아이들이 내 둘레에 있던 때.
- 6 내가 유유로 발을 씻고 바위는 내게 기름을
사내처럼 흘려 주던 시절.
- 7 내가 성문에 나가 광장에 자리를 잡으면
- 8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물러서고 늙은이들은
몸을 일으켜 세웠지.
- 9 고관들은 말을 삼가고 손을 입에 갖다 대었
으며
- 10 귀족들은 소리를 죽이고 그들의 혀는 입천
장에 붙었지.
- 11 귀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복되다 말하며 눈
은 나를 보고 기리며 증언하였지.
- 12 하소연하는 가련한 이와 도와줄 이 없는
고아를 내가 구해 주었기 때문이네.
- 13 죽어 가는 이의 축복이 나에게 쏟아지고
나는 과부의 슬픈 마음을 환호하게 하였
지.
- 14 나는 정의로 옷 입고 정의는 나로 옷 입었
으며 나의 공정은 겉옷이요 터번과도 같았
지.
- 15 나는 눈먼 이에게 눈이 되고 다리저는 이
에게 다리가 되어 주었지.
- 16 가난한 이들에게는 아버지였고 알지 못하
는 이의 소송도 살렸으며
- 17 불의한 자의 이를 부수고 그 입에서 약탈
물을 내뱉게 하였지.
- 18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였지. ' 내 보금
자리에서 눈을 감고 내가 살 날을 모래알
처럼 많게 하리라.
- 19 내 뿌리는 물가로 뻗어 내 가지에서는 이
슬이 밤을 새우리라.
- 20 내 명예는 나와 함께 늘 새롭고 내 손의
활은 젊음을 유지하리라.'
- 21 사람들은 기대에 차 내 말을 듣고 나의 권
고에 묵묵히 귀 기울였으며

- 22 내 이야기에 사람들은 두말하지 않았고 내 말은 그들 위로 방울져 흘렀지.
- 23 그들은 나를 비처럼 고대하였고 봄비를 향 하듯 입을 벌렸지.
- 24 내가 웃으면 그들은 황송하여 믿기지 않아 하였고 내 얼굴빛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하였지.
- 25 나는 그들의 길을 선택해 주고 으뜸으로 좌정하였으며 군대를 거느린 임금처럼 자리 잡고 앉아 애도하는 이들을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지.

지금의 불행

- 30** ¹ 그러나 이제는 나를 바웃네, 나보다 나이 어린 자들이. 나는 그 아비들을 내 양 떼를 지키는 개들과도 얹히려 하지 않았을 터인데.
- 2 그들에게서 혈기가 빠져나가 버렸는데 그들의 힘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 3 가난과 굶주림으로 바싹 아원 채 메마른 땅을, 황폐하고 황량한 광야를 갈아 먹는 그들.
- 4 덩불 가에서 째나물을 캐고 싸리나무 뿌리가 그들의 양식이라네.
- 5 그들은 무리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은 그들에게 도둑인 양 소리 지르지.
- 6 그들은 골짜기의 벼랑에, 땅굴과 바위에 살아가야 하는 자들.
- 7 덩불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췌기풀 밑으로 때지어 모여드는
- 8 어리석고 이름도 없는 종자들이 이 땅에서 회초리로 쫓겨난 자들이라네.
- 9 그러나 이제는 내가 조롱의 노랫거리가 되고 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었네.
- 10 그들은 나를 역겨워하며 내게서 멀어지고 내 얼굴에다 서슴지 않고 침을 뱉는구려.
- 11 그분께서 내 울타리를 헤택하시고 나를 괴롭히시니 그들이 내 안에서 방자하게 구는구

- 려.
- 12 오른쪽에서 떼거리가 들고일어나 나를 몰아내고 나를 거슬러 멸망의 길을 뚫는데.
- 13 내 길을 망가뜨리며 나의 파멸을 부추겨도 저들을 거슬러 나를 도울 이 없어
- 14 돌과구로 들이닥치듯 쳐들어오고 패허가 운데로 밀려드네.
- 15 확 트인 공포가 내게 밀어닥쳐 내 위엄은 바람처럼 쫓겨 가고 행복은 구름처럼 흘러가 버렸네.
- 16 이제 내 닢은 빠져 버리고 고통의 나날만 이 나를 사로잡는구려.
- 17 밤은 내 뼈를 깎아 내고 나를 갹아먹는 고통은 잠들지 않네.
- 18 엄청난 힘으로 내 웃은 주그러지고 그분께서는 웃옷의 웃깃처럼 나를 졸라매시네.
- 19 그분께서 나를 진창에다 내던지시니 나는 만지와 채처럼 되고 말았네.
- 20 제가 부르짖어도 당신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줄곧 서 있어도 당신께서는 저에게 눈길을 주지 않으십니다.
- 21 무차비하게도 변하신 당신, 당신 손의 그 원력으로 저를 핍박하십니다.
- 22 저를 바람에 실어 보내시고 폭풍 속에 내 팽개치셨습니다.
- 23 당신께서 저를 죽음으로, 산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곳으로 몰고 가심을 저는 압니다.
- 24 그러나 패허 데미 속에서 누가 손을 내뻗지 않으며 재난 속에서 누가 부르짖지 않으랴?
- 25 나는 삶이 괴로운 이를 위하여 울지 않았단가? 내 영혼은 가난한 이를 위하여 슬퍼하지 않았단가?
- 26 그렇건만 선을 기다렸는데 악이 닥쳐오고 빛을 바랐는데 어둠이 닥쳐오는구려.
- 27 속은 쉴 새 없이 끓어오르고 고통의 나날은 다가오네.
- 28 나는 햇벌도 없는데 까맣게 탄 채 돌아다

니고 회중 가운데 일어서서 도움을 빌어야 하네.

- 29 나는 승냥이들의 형제요 타조들의 벗이 된 채
- 30 살갓은 까맣게 벗겨지고 뼈는 열기로 타오르네.
- 31 내 비파는 애도의 소리가 되고 내 피리는 곡하는 이들의 소리가 되었네.

두고 선언

31

¹ 나는 내 눈과 계약을 맺었는데 어찌 젊은 여자에게 눈길을 보내리오?

- 2 위의 하느님께서서 오는 뿔이 무엇이고 높은 곳의 전능하신 분에게서 오는 상속 재산이 무엇인가?
- 3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 나쁜 짓 하는 자들에게는 재난이 아닌가?
- 4 그분께서 내 길을 보시고 내 발걸음을 낱알이 세지 않으시는가?
- 5 내가 만일 거짓 속에 걸어왔고 남을 속이려고 내 발이 서둘렀다면
- 6 나를 바른 저울판에 달아 보시라지. 그러면 하느님께서 내가 흠 없음을 알게 되실 것이네.
- 7 만일 내 발걸음이 길에서 벗어나고 내 마음이 눈을 따라다녔으며 내 손에 얼룩이 묻어 있다면
- 8 내가 뿌린 것을 남이 먹고 내 농작물은 뿌리째 뽑혀도 괜찮네.
- 9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끌리어 내가 이웃의 문을 엿보았다면
- 10 내 아내가 남을 위해 땃돌을 돌리고 다른 이들이 그 여자를 범해도 괜찮네.
- 11 그것은 추행이요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이기 때문일세.
- 12 그것은 멸망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삼켜 버리는 불 내 모든 소출을 뿌리째 없애 버릴 것이네.

- 13 남종과 여종이 내게 불평할 때 내가 만일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였다면
- 14 하느님께서 일어나실 때 내가 무엇을 하고 그분께서 신문하실 때 내가 무어라 대답하리오?
- 15 어머니 배에서 나를 만드신 분이 그도 만드시고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모태에서 지어 내지 않으셨던가?
- 16 내가 만일 가난한 사람들의 소망을 물리치고 과부의 눈을 흐리게 하였다면
- 17 내 빵 조각을 나 혼자 먹고 고아는 그것을 얻어먹지 못하였다면
- 18 — 내 어릴 때부터 그는 내가 아버지인 양 내 곁에서 자랐고 내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나는 그 여자를 이끌었지. —
- 19 내가 만일 햇빛은 채 버려진 이, 덮을 것도 없는 가련한 이를 보았는데
- 20 그의 허리가 나를 축복하지 않고 그가 내 양털로 따뜻해지지 않았다면
- 21 성문에서 지지를 받으리라 여기며 내가 고아에게 손을 휘둘렀다면
- 22 내 어깨가 죽지에서 떨어져 나가고 내 팔이 팔꿈치에서 부러져도 괜찮네.
- 23 하느님의 파멸이 나에게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분의 엄위를 내가 견디어 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일세.
- 24 내가 만일 황금에다 내 신뢰를 두고 순금을 나의 믿음이라고 불렀다면
- 25 내가 만일 재산이 많다고, 내 손이 큰일을 이루었다고 기뻐하였다면
- 26 내가 만일 빛이 환하게 비추는 것이냐? 달이 휘영청 떠가는 것을 쳐다보며
- 27 내 마음이 남몰래 유혹을 받아 손으로 입맞춤을 보냈다면
- 28 이 또한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이니 위에 계시는 하느님을 배신하는 일이기 때문일세.
- 29 내가 만일 원수의 불운을 기뻐하고 그에게

불행이 내리는 것을 즐거워하였다면

30 — 나는 저주로 그의 생명을 요구하여 내 입이 죄짓도록 버려둔 적이 없네. —

31 " 그의 고기를 배불리 먹지 않은 자 누가 있으리오!" 하고 내 천막의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다면

32 — 나는 언제나 길손에게 문을 열어 놓아 나그네가 밖에서 밤을 새운 일이 없네. —

33 내가 만일 내 죄악을 가슴속에 숨겨 사람들이 하듯 내 잘못을 감추었다면

34 내가 만일 큰 군중을 두려워하고 여러 가문의 경멸을 무서워하여 잘못을 감추려 입 다물고 문을 나서지 않았다면…….

마지막 도전

35 아, 제발 누가 내 말을 들어 주었으면! 여기 내 서명이 있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대답하실 차례! 나의 고소인이 쓴 고소장은 어디 있는가?

36 나 그것을 반드시 내 등에 지고 다니며 먼 류관처럼 그것을 두르려만.

37 그분께 내 발걸음을 날같이 밝히고 나 제 후처럼 그분께 다가가려만.

38 만일 내 말이 나를 거슬러 울부짖고 그 이랑들도 함께 울어 댔다면

39 내가 만일 값을 치르지 않고 그 수확을 빼앗으며 그 주인들을 상심하게 하였다면

40 밀 대신 영경루가 나오고 보리 대신 잡초가 자라도 괜찮네. 이로써 읍의 말은 끝난다.

엘리후의 연설

32 ¹ 마침내 이 세 사람은 읍에게 대답하기를 멈추었다. 그가 자신을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² 그러자 람 가문 출신의 부즈 사람, 바라크엘

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었다. 읍이 스스로 하느님보다 의롭다고 주장하므로 화를 낸 것이다.

³ 그는 세 친구에게도 화를 내었다. 그들이 대답할 말도 찾지 못하면서 읍을 단죄하였기 때문이다.

⁴ 그러나 엘리후는 그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읍에게 말할 기회를 기다렸다.

엘리후의 첫째 답변

지혜와 연륜

⁵ 엘리후는 그 세 사람이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낸 것이다.

⁶ 그리하여 부즈 사람 바라크엘의 아들 엘리후가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저는 나이가 어리고 여러분은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제 소견을 여쭙기가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⁷ 저는 ' 나이가 말을 하고 연륜이 지혜를 가르쳐야지.' 생각하였습니다.

⁸ 그렇지만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사람을 깨우치는 것이더군요.

⁹ 연만하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요 연로하다고 올바른 것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¹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 들어 보십시오. 저도 제 소견을 여쭙겠습니다.

¹¹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고르시는 동안 여러분의 이론을 귀여겨들었습니다.

¹² 저는 여러분에게 주의를 기울였는데 보십시오, 아무도 읍에게 논박하지 못하고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그에게 응수하지 못하십니다.

¹³ " 우리는 지혜를 발견했어.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를 물리치셔야지."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¹⁴ 그가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기에 저는 그에게 여러분의 언설로 대답하지 않으렵니

다.

- 15 그들은 당황하여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말문이 막혀 버렸네.
- 16 그들이 말을 못하고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서 있는데 나도 기다려야 하나?
- 17 이제는 나도 내 뱃속으로 대답하리라. 나도 내 의견을 제시하리라.
- 18 나는 하고픈 말로 가득하고 속에서는 영이 말하고과 나를 다그찬다네.
- 19 내 속은 바람구멍 없는 술통 같고 새 술 부대처럼 터져 버리려 하네.
- 20 속이 후련하게 말을 해야지. 입술을 열고 대답해야지.
- 21 어떤 인간의 편도 들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도 아첨하지 않으리라.
- 22 나는 아첨할 줄 모른다네. 그랬다가는 나를 만드신 분께서 나를 당장 앗아 가시리라.

읍에게 맞사다

- 33** ¹ 그렇지만 이제 읍이시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 2 자, 이제 제가 입을 열고 제 입의 혀로 이야기 하렵니다.
 - 3 제 말은 마음의 정직함에서 나옵니다. 제 입술로 아는 것을 솔직히 토로하렵니다.
 - 4 하느님의 영이 저를 만드시고 진논하신 분의 입김이 제게 생명을 주셨답니다.
 - 5 할 수만 있다면 제게 대답해 보십시오. 체비를 하고 저에게 맞서 보십시오.
 - 6 자, 하느님께는 저도 당신과 같은 몸, 저 또한 진흙으로 빚어진 몸이랍니다.
 - 7 저에 대한 공포가 당신을 덮치거나 저에 대한 압박감이 당신을 짓누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읍의 잘못

- 8 그렇지만 당신은 제 귀에다 이야기하시어

저는 당신의 말소리를 들었습니다.

- 9 " 나는 결박하여 잘못이 없고 순결하여 죄가 없네.
- 10 그런데도 그분께서는 내게서 구실을 찾아 내시어 나를 당신의 원수로 여기시네.
- 11 내 발에 차꼬를 채우시고 나의 길을 모두 지켜보시네."
- 12 저는 이 점에서 당신이 옳지 못하다고 대답합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은 위대하십니다.
- 13 어찌하여 당신은 그분과 싸우십니까? 그분께서 사람의 말에 날날이 대답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 14 하느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두 번 말씀하십니다, 다만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할 뿐.
- 15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자리 위에서 잠 들었을 때 꿈과 밤의 환상 속에서
- 16 그분께서는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환영으로 그들을 질겁하게 하십니다.
- 17 그것은 사람을 제 행실에서 떼어 놓고 인간에게서 교만을 잘라 내 버리시려는 것입니다.
- 18 이렇게 그의 목숨을 구렁에서 보호하시고 그의 생명이 수로를 건너지 않게 하신답니다.
- 19 그는 잡자리에서 고통을 당하고 뼈마디가 끊임없이 쭈시는 형벌을 받아
- 20 그의 생명은 음식을 지겨워하고 그의 목숨은 바라던 요리도 싫어하게 된답니다.
- 21 그의 살은 말라 마침내 불 수조차 없고 보이지 않던 그의 뼈들은 앙상하게 드러난답니다.
- 22 그리하여 그의 목숨은 구렁에, 그의 생명은 죽음의 사자에게 다가갑니다.

중개자와 하느님의 구원

- 23 사람에게 바른 것을 알려 주려고? 그 옆의

- 천사가, 천 명 가운데 한 중개자가
- 24 그를 붙잡히 여겨 " 그가 구령으로 내려가 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를 위한 숙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면
- 25 그의 삶은 젊음의 탄력을 되찾고 한창이던 때로 돌아간답니다.
- 26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를 받아들이시어 그는 환호하며 그분의 얼굴을 뵈고 그 분께서는 사람에게 그의 의로움을 되찾아 주신답니다.
- 27 그러면 그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며 말할 것입니다. " 내가 죄를 짓고 바른 것을 왜 곡하였지만 그에 마땅한 벌을 받지 않았네.
- 28 그분께서 구령으로 떨어지는 내 목숨을 구하시어 내 생명이 빛을 즐기 바라보네."
- 29 자, 이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사람에게 두 번 세 번 그렇게 해 주시니
- 30 그의 목숨을 구령에서 되돌리시고 그를 생

읍기에 다시 맞다

- 명의 빛으로 비추시려는 것입니다.
- 31 읍이시여, 주의를 기울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으니 잠잠히 계십시오.
- 32 하실 말이 있거든 제게 대답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저도 당신이 정당함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 33 없거든 당신이 제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께 지혜를 가르쳐 드리겠으니 잠잠히 계십시오.

엘리후의 둘째 답변

34 ¹ 엘리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읍의 오류

- 2 현인들이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 유식한 이들이여, 저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 3 입이 음식 맛을 보듯 귀는 말을 식별합니다.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우리 가려보고

- 4 무엇이 좋은 것인지 알아봅시다.
- 5 읍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권리를 박탈하셨네.
- 6 올바른데도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잘못이 없는데도 화살 맞은 내 상처는 아물지 않네."
- 7 비꼬기를 물 마시듯 하는 읍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 8 그는 나쁜 짓 하는 자들과 한해 되어 다니고 악한 사내들과 어울려 돌아다니며
- 9 " 하나님과 잘 지내 봐야 사람에게는 이득이 없는 법!" 하고 말합니다.

잔능하신 분의 정의

- 10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들이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분께서는 불의를 저지르지 않으십니다.
- 11 그분께서는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되갚으시고 인간을 그 길에 따라 대하십니다.
- 12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잔능하신 분께서는 올바른 것을 왜곡하지 않으십니다.
- 13 누가 그분께 세상을 맡겼습니까? 누가 온 누리를 세웠습니까?
- 14 당신의 영을 되돌리시고 당신의 입감을 도로 거두시면
- 15 모든 육체는 다 죽어 가고 사람은 티끌로 돌아간답니다.

의로운 통치

- 16 분별력이 있다면 이 말을 들으십시오. 제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 17 올바른 것을 미워하는 자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당신은 의롭고 강하신 분을 단죄하려 합니까?
- 18 임금에게 " 쓸모없는 자!", 귀족들에게 " 악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 19 제후들이라 해서 편들지 않으시고 부자라

해서 가난한 이보다 우대하지 않으시는 분
을? 그들이 모두 그분 손의 작품이 아닙니
까?

- 20 한밤중 그들은 한순간에 죽어 가고 백성은
혼란에 빠져 사라지며 강자는 제거되는데
인간의 손이 하는 일이 아니랍니다.
- 21 그분의 눈은 사람의 길 위에 있어 그의 걸
음을 낱알이 보십니다.
- 22 나쁜 짓 하는 자들이 숨을 수 있는 어떤
어둠도 어떤 암흑도 없습니다.
- 23 하느님께 심판관으로 가는 시간을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 24 강호들을 문초할 필요도 없이 꺾으시고 그
들 대신 다른 이들을 세우십니다.
- 25 이렇게 그들의 행실을 알고 계시어 밤중에
뒤엎으시니 그들은 파멸됩니다.
- 26 악인들이기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
을 처벌하십니다.
- 27 그들이 그분 뒤를 따르려 하지 않고 그분
의 길은 하나도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 28 억눌린 이의 울부짖음이 그분께 다다르게
하니 그분께서는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
을 들으십니다.
- 29 그분께서 침묵을 지키신다고 누가 그분을
단죄하며 그분께서 얼굴을 감추시면 누가
그분을 보겠습니까? 그러나 그분께서는 민
족 위에, 모든 사람 위에 계시니
- 30 불경스런 인간은 다스리지 못하고 백성에게
울가미를 놓지 못합니다.

읍의 반항

- 31 누가 하느님께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합시
다. "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과오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 32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당신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불의를 저질렀다면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 33 당신 생각에는 그분께서 그 불의를 응징하

셔야 합니까? 당신이 단순히 그를 싫어하
기 때문에? 당신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제
가 아닙니다.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말씀
해 보십시오.

- 34 지각 있는 사람들은 저에게 말할 것입니다.
제 말을 들은 지혜로운 사람도 마찬가지입
니다.
- 35 " 읍은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는군. 그의 말
은 현명하지 못해."
- 36 아, 읍이 철저히 조사를 받는다면! 간악한
사람들 사이에서나 듣는 대답을 하니
- 37 그가 자기의 죄악에다 반항 죄를 더하고
우리 사이에서 손바닥을 쳐 대며 하느님을
거역하는 말을 더해 가기 때문입니다.

엘리후의 셋째 답문

35 ¹ 엘리후가 말을 계속하였다.

하느님의 초연성

- 2 " 나는 하느님보다 의롭다." 하고 말하는
것을 당신은 옳은 일이라고 여기십니까?
- 3 " 당신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죄짓지 않
는다고 저에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하
는 것을?
- 4 제가 당신께 대답하겠습니다. 당신 곁에 있
는 친구 분들에게도 대답하겠습니다.
- 5 하늘을 우러러보십시오. 당신보다 높이 떠
있는 구름을 쳐다보십시오.
- 6 당신이 죄지었다 한들 그분께 무슨 해를 끼
치며 당신의 죄악이 많다 한들 그분께 무엇
을 어찌하겠습니까?
- 7 당신이 의롭다 한들 그분께 무엇을 드리며
그분께서는 당신 손에서 무엇을 얻으시겠습
니까?
- 8 당신의 불의는 당신 같은 인간에게나 해당
되고 당신의 정의는 사람에게나 해당됩니
다.

하느님의 지고한 정의

- 9 과중한 억압 때문에 울부짖고 강자들의 폭력 때문에 부르짖으면서도
- 10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느님께서서는 어디 계신가? 밤에도 노래 부르게 하시는 분,
- 11 우리를 들의 짐승보다 더 많이 깨우치시고 하늘의 새보다 슬기롭게 해 주시는 분께서는 어디 계신가?"
- 12 그렇게 울부짖어도 그분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시니 악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 13 진정 하느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함은, 전능하신 분께서 보지 않으신다 함은 거짓입니다.
- 14 당신을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지만 당신의 송사는 이미 그분 앞에 있으니 기다리십시오.
- 15 그러나 그분의 진노가 아직 아무것도 별하지 않고 그분께서는 죄악을 별로 아는 체도 않으시는데
- 16 읊은 쓸데없이 입을 열어 분별없이 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넷째 단론

36 1 엘리후가 말을 계속하였다.

하느님의 교육

- 2 당신께 알려 드릴 터이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느님을 대신하여 드릴 말씀이 아직 있습니다.
- 3 저는 먼 곳에서 지식을 구해 와 저를 지으신 분의 의로움을 밝히겠습니다.
- 4 참으로 제 말은 거짓이 아니며 당신 곁의 이 몸은 완전한 지식을 갖추었습니다.
- 5 사실 하느님은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아무도 업신여기지 않으시고 분별력이 뛰어난 분이십니다.

- 6 악인은 살려 두지 않으시고 가련한 이들의 권리는 보장하십니다.
- 7 의인에게서 당신의 눈을 떼지 않으시고 늘 임금들과 함께 왕좌에 앉게 하시어? 그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 8 그러나 그들이 사슬에 묶이고 고통의 굴레에 얽매이면
- 9 그들이 저지른 것을 알려 주십니다, 그들의 죄악들을, 또 교만하게 행동하였음을.
- 10 교훈을 듣도록 그들의 귀를 열어 주시고 악행에서 돌아서라고 명령하십니다.
- 11 그들이 순종하여 그분을 섬기면 자기의 나날을 행복 속에서, 자기의 해들을 즐거움 속에서 마칩니다.
- 12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의 수로를 건너게 되고 깨달음 없이 숨을 거두게 됩니다.
- 13 마음이 불경스러운 자들은 화를 풀어 그분께서 그들을 엄매시어도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 14 그들의 목숨은 한창때에, 그들의 생명은 수치 속에 더해 갑니다.
- 15 그러나 그분께서는 가련한 이를 그 고통으로 구하시고 재앙으로 그 귀를 열어 주십니다.

음에 대한 경고

- 16 그분께서는 당신도 재난의 아귀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거칠 것 없이 넓은 곳으로 당신의 아늑한 식탁은 기름진 음식으로 채워졌습니다.
- 17 그러나 당신은 악인에 대한 심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심판과 재판이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 18 진노가 넘친다 하여 반항으로 이끌리지도, 숙전이 넉넉하다고 하여 현혹되지도 말아야 합니다.
- 19 어려움도 온갖 애씀도 없이 얻은 당신의

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20 밤을 갈망하지 마십시오. 백성들이 제자리에서 사라지는 때입니다.
- 21 조심하여 악행으로 기울지 마십시오. 그것을 고통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군요.
- 22 보십시오, 하느님은 당신 권능으로 송고하신 분. 누가 그분 같은 스승이 될 수 있습니까?
- 23 누가 그분께 길을 지시하였으며 누가 "당신은 불의를 저질렀소" 하고 말하였습니까?
- 24 명심하여 그분의 업적을 칭송하십시오, 사람들이 노래한 그 업적을.
- 25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아 왔고 인간이면 그것을 멀리서도 볼 수 있습니다.

기울의 주님

- 26 보십시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이 위대하시고? 그분의 햇수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 27 그분께서 물기를 뽑아 올리시니 안개에서 비가 갈라진답니다.
- 28 구름이 흘러내리면 수많은 사람들 위로 떨어잡니다.
- 29 진정 누가 구름의 넓이를, 그분 거처의 뇌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 30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당신 들레에 빛을 퍼뜨리시고 바다의 밑바닥을 덮으십니다.
- 31 이것들로 민족들을 다스리시며 양식을 풍성히 베푸십니다.
- 32 당신 손바닥에 빛을 채우시어 표적을 향하여 내던지십니다.
- 33 천둥은 그분의 현존을 선포합니다. 그분은 불의를 거슬러 분노를 터뜨리시는 분이십니다.

겨울의 주님

37 ¹ 이 때문에 나의 심장은 떨다 못해

제자리에서 튕겨 내려 하는군요.

- 2 그분의 그분의 커다란 소리를 귀담아들으십시오, 그분 입에서 터져 나오는 포효를.
- 3 그분께서는 그것을 온 하늘 아래로 울려 퍼지게 하시고 당신의 빛을 세상 가장자리까지 비치게 하십니다.
- 4 그 빛에 이어 소리가 터지니 당신의 장엄한 소리로 울리시는 찬동입니다. 그분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번개들이 멈추지 않습니다.
- 5 하느님은 당신의 소리로 신비로이 찬동하게 하시는 분,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 6 그분께서는 눈에게 "땅에 내려라." 명령하시고 큰비에게는 "세차게 내려라." 명령하십니다.
- 7 모든 사람의 일손을 막으시니 모든 인간이 그분의 일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 8 그러면 짐승들은 은신처로 들어가 보금자리에 몸을 누입니다.
- 9 폭풍은 곳집에서 불어오고 추위는 북풍과 함께 옵니다.
- 10 하느님의 입김에서 얼음이 나오고 넓은 들은 얼어서 단단하게 됩니다.
- 11 그분께서는 먹구름을 물기로 가득 채우시고 번개 구름에서 빛을 흩으십니다.
- 12 그것들은 사람 사는 세상 어디든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일을 이루려고 그분의 지휘에 따라 그 들레를 돕니다.
- 13 형벌을 위해서건, 당신의 땅을 위해서건 은혜를 위해서건 그분께서는 그것을 들어맞게 하십니다.

여름의 주님

- 14 읊이시어, 이것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잠깐 멈추고 하느님의 놀라운 업적을 살펴보십시오.
- 15 하느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통솔하시는지, 당신 구름에서 어떻게 빛을 번쩍이게 하시

는지 당신은 아십니까?

- 16 구름이 어떻게 두들길 때 있는지 아십니까? 완전한 지식을 갖추신 분의 신비로운 업적을 당신은 아십니까?
- 17 남풍으로 땅이 숨죽일 때 자기 옷조차도 뜨겁게 느끼시는 당신이
- 18 그분과 함께 하늘을 피할 수 있던 말입니까? 부어 만든 거울처럼 단단한 저 하늘을?
- 19 그분께 무어라 말씀드려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보십시오. 우리가 어두워서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는 처지가 아닙니까?
- 20 제가 이야기하고 싶다고 그분께 여쭙어야 하겠습니까? 대관절 누가 파멸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던 말입니까?

하느님의 광채

- 21 이제 바람이 불어 하늘을 맑게 하고 거기에 빛이 밝게 비추면 사람들은 그것을 똑바로 볼 수 없습니다.
- 22 북녘에서 금 빛살이 솟아오르니 두려운 위엄이 하느님을 둘러싼답니다.
- 23 잔능하신 분, 우리는 그분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권능과 공정이 뛰어나신 분, 정의가 넘치시는 분, 그분께서는 억누르지 않으십니다.
- 24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을 경외합니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첫째 말씀

38

1 주님께서 음에게 폭풍 속에서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냐

2 내가 누구냐 지각없는 말로 내 뜻을 어둡게

하는 이지는 누구냐?

- 3 새내답게 네 허리를 동여매어라. 너에게 물을 터이니 대답하여라.

땅의 주재자

- 4 내가 땅을 세울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그렇게 잘 알거든 말해 보아라.
- 5 누가 그 치수를 정하였느냐? 너는 알지 않느냐? 또 누가 그 위에 줄을 쳤느냐?
- 6 그 주춧돌은 어디에 박혔느냐? 또 누가 그 모퉁잇돌을 놓았느냐?
- 7 아침 별들이 함께 환성을 지르고 하느님의 아들이들이 모두 환호할 때에 말이다.

바다의 주재자

- 8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그것이 모퉁에서 솟구쳐 나올 때,
- 9 내가 구름을 그 옷으로, 먹구름을 그 포대기로 삼을 때,
- 10 내가 그 위에다 경계를 긋고 빗장과 대문을 세우며
- 11 " 여기까지는 와도 되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너의 도도한 파도는 여기에서 멈추어야 한다." 할 때에 말이다.
- 12 너는 평생에 아침에게 명령해 본 적이 있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지시해 본 적이 있느냐?
- 13 그래서 새벽이 땅의 가장자리를 붙잡아 흔들어 악인들이 거기에서 털러 떨어지게 말이다.
- 14 땅은 도장 찍힌 찰흙처럼 형상을 드러내고 옷과 같이 그 모습을 나타낸다.
- 15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빛이 거부되고 들어올린 팔은 꺾인다.
- 16 너는 바다의 원천까지 가 보고 심연의 밑바닥을 걸어 보았느냐?
- 17 죽음의 대문이 내게 드러난 적이 있으며 암흑의 대문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 18 너는 땅이 얼마나 넓은지 이해할 수 있는

나? 내가 이 모든 것을 알거든 말해 보아라.

빛과 어둠의 주재자

- 19 빛이 머무르는 곳으로 가는 길은 어디 있느냐? 또 어둠의 자리는 어디 있느냐?
- 20 내가 그것들을 제 영토로 데려갈 수 있느냐? 그것들의 집에 이르는 길을 알고 있느냐?
- 21 그때 이미 내가 태어나 이제 오래 살았으니 너는 알지 않느냐?

기후의 주재자

- 22 너는 눈 공간에 들어간 적이 있으며 우박 공간을 본 적이 있느냐?
- 23 내가 환난의 때와 동란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저장해 둔 것들을?
- 24 빛이 갈라지는 길은 어디 있느냐? 셋바람이 땅 위에서 흠어지는 그 길은?
- 25 누가 큰비를 위하여 수로를 깎아 뚫으며 뇌성 번개를 위하여 길을 놓았느냐?
- 26 인간이 없는 땅,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비가 내리고
- 27 황폐하고 황량한 광야를 흠뻑 적시며 풀밭에 짙이 트게 하려고 누가 길을 놓았느냐?
- 28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또 누가 이슬방울들을 낳았느냐?
- 29 누구의 모태에서 얼음이 나왔느냐? 또 하늘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 30 물이 돌처럼 단단해지고 심연의 표면이 얼어붙을 때에 말이다.

하늘의 주재자

- 31 너는 묘성을 끈으로 묶을 수 있느냐? 또 오로온자리를 매단 밧줄을 풀 수 있느냐?
- 32 너는 별자리들을 제시간에 이끌어 내고 큰곰자리를 그 아기별들과 함께 인도할 수 있느냐?
- 33 너는 하늘의 법칙들을 아느냐? 또 내가 땅

에 대한 그의 지배를 확정할 수 있느냐?

- 34 너는 구름에게 호령하여 큰물이 너를 뒤덮게 할 수 있느냐?
- 35 내가 번개들을 내보내서 그것들이 제 길을 가며 너에게 " 예, 알았습니다." 하고 말하느냐?
- 36 누가 따오기에게 지혜를 내렸느냐? 또 누가 수탉에게 슬기를 주었느냐?
- 37 누가 구름들을 지혜로 헤아릴 수 있느냐? 또 누가 하늘의 물통을 기울일 수 있느냐?
- 38 먼지가 덩어리로 굳어지고 흙덩이들이 서로 달라붙을 때에 말이다.

동물 세계의 주재자

- 39 너는 암사자에게 먹이를 사냥해 줄 수 있으며 힘센 사자의 식욕을 채워 줄 수 있느냐?
- 40 그것들이 보금자리 속에 웅크리고 있거나 덤불 속에 숨어 기다리고 있을 때에 말이다.
- 41 누가 까마귀에게 먹이를 장만해 주느냐? 새끼들이 하느님에게 아우성치며 먹을 것이 없이 헤매 돌아다닐 때에 말이다.

- 39** ¹ 너는 비취 산양이 해산하는 시간을 알며 사슴이 산고를 치르는 것을 살펴보았느냐?
- 2 너는 그것들이 만삭이 되는 때를 셈할 수 있으며 해산하는 시간을 알 수 있느냐?
 - 3 그것들이 몸을 구부려 새끼들을 낳고 배 속에 든 것들을 내보내면
 - 4 그 어린것들은 들판에서 튼튼하게 자라 떠나가서는 어미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 5 누가 들나귀를 자유롭게 놓아주었느냐? 들나귀의 굴레를 누가 풀어 주었느냐?
 - 6 내가 광야를 그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의 거처로 삼아 주었다.
 - 7 그것은 성읍의 소란을 비웃고 물이꾼의 고

- 힘을 듣는 일 없이
- 8 제 목초지인 산들을 기웃거리며 온갖 풀을 찾아다닌다.
- 9 들소가 너를 섬기려 하겠느냐? 네 구유 옆에서 밤을 지내겠느냐?
- 10 너는 밧줄로 들소를 고랑에다 맬 수 있느냐? 그것이 네 뒤를 따라 골짜기를 갈겠느냐?
- 11 그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으며 네 일을 그것에게 맡길 수 있느냐?
- 12 너는 그것이 돌아오리라고, 네 곡식을 타작 마당으로 모아들이리라고 믿느냐?
- 13 타조가 날개를 즐겁게 푸덕댄다고 과연 그것이 황새의 것이며 털이 될 수 있느냐?
- 14 타조는 땅에 알을 낳아 놓고 흙 위에서 따듯해지라고 버려두고서는
- 15 그것을 발이 뭉개는지, 들짐승이 짓밟는지 잊어버리고 만다.
- 16 새끼들을 제 것이 아닌 양 거칠게 다루고 제 노고가 허사 됨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니
- 17 하느님께서 그것에게 지혜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슬기를 나누어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 18 그러나 그것은 날개를 높이 칠 때면 말과 기수를 우습게 여긴다.
- 19 너는 말에게 힘을 넣어 줄 수 있느냐? 그 목을 갈기로 입힐 수 있느냐?
- 20 너는 말을 메뚜기처럼 뛰게 할 수 있느냐? 거만한 콧김으로 공포를 자아내는 그런 말을?
- 21 그것은 골짜기에서 기본 좋게 땅을 차다가 적의 무기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간다.
- 22 두려움을 바웃으며 당황하지 않고 칼 앞에서도 돌아서지 않는다.
- 23 그 위에서는 화살 통이 덩그렁거리고 창과 표창이 번뜩거리지만
- 24 흥분과 광포로 땅을 집어삼킬 듯 뿔 나팔 소리에도 멈추어 서지 않는다.

- 25 뿔 나팔이 울릴 때마다 " 히힃!" 하고 외치며 멀리서도 전투의 냄새를 맡고 장수들의 우레 같은 고향과 함성을 듣는다.
- 26 네 슬기로 매가 날아오르고 남녘을 향해 그 날개를 퍼느냐?
- 27 또 네 명령에 따라 독수리가 치솟고 높은 곳에 등지를 트느냐?
- 28 그것은 바위 위에 살며 밤을 지내니 바위 벼랑 끝이 그의 성채다.
- 29 거기에서 먹이를 찾아 살피고 그 눈은 멀리까지 바라본다.
- 30 그 새끼들은 피를 들이켜고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있다.

주님의 꾸짖으심

40

- 1 주님께서 읍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2 불평꾼이 전능하신 분과 논쟁하려는가? 하느님을 비난하는 자는 응답하여야.

읍의 첫째 답변

유구무언

- 3 그러자 읍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4 저는 보잘것없는 몸, 당신께 무어라 대답하겠습니까? 손을 제 입에 갖다 델 뿐입니다.
5 한 번 말씀드렸으니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 말씀드렸으니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둘째 말씀

- 6 그러자 주님께서 읍에게 폭풍 속에서 말씀하셨다.

주님의 꾸짖으심

- 7 사내답게 허리를 동여매어라. 너에게 물을 타이니 대답하여라.
8 네가 나의 공의마저 깨뜨리려느냐? 너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나를 단죄하려느냐?
9 네가 하느님 같은 팔을 지녔으며 그와 같은 소리로 천둥 칠 수 있느냐?

- 10 존귀와 엄위로 꾸미고 존엄과 영화로 옷을 입어 보아라.
- 11 너의 그 격렬한 분노를 쏟아 부어라. 교만한 자는 누구든 살려 그를 낮추어 보아라.
- 12 교만한 자는 누구든 살려 그를 꺾고 악인들은 그 자리에서 짓밟아 보아라.
- 13 그들을 모두 흙 속에 숨기고 숨진 곳에서 그들의 얼굴을 염포로 묶어 보아라.
- 14 그러면 나도 너를 인정하리니 너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브헤문

- 15 보아라, 내가 너를 만들 때 함께 만든 브헤 못을! 그것은 소처럼 풀을 뜯고 있다.
- 16 보아라, 그 허리의 힘은, 그 배의 근육을.
- 17 꼬리는 삼나무처럼 쪽 뺨고 허벅지의 힘줄들은 얽혀 있으며
- 18 빠는 구리 통 같고 갈비는 쇠 방망이 같다.
- 19 그것은 하나님의 첫 작품 동료들의 우두머리로 만들어졌다.
- 20 그에게 소출을 바치니 들의 모든 짐승이 곁에서 뛰는다.
- 21 그것은 언나무 밑 갈대와 늪으로 된 은신처에 얽혀 있다.
- 22 산들이 언나무는 그것을 그들로 가려 주고 냇가의 버드나무는 그것을 에워싸 준다.
- 23 보아라, 강물이 소용돌이쳐도 그는 질겁하지 않고 요르단 강이 제 입까지 솟구쳐와도 태연하다.
- 24 그것이 눈을 뜨고 있는데 잡을 수 있으며 울카미로 그 코를 쫓 수 있겠느냐?

레비아탄

- 25 너는 갈고리로 레비아탄을 낚을 수 있으며 줄로 그 혀를 내리누를 수 있느냐?
- 26 너는 골풀로 그 코를 쫓을 수 있으며 고리로 턱을 깨뜨릴 수 있느냐?
- 27 그것이 너에게 애걸복걸하며 네게 유순하게 말을 하겠느냐?

- 28 나는 그것과 계약을 맺어 평생 종으로 부릴 수 있느냐?
- 29 너는 그것을 새처럼 노리개로 삼을 수 있으며 네 계집아이들을 위하여 끈으로 묶을 수 있느냐?
- 30 상인들이 그것을 놓고 흥정을 벌이고 장사꾼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느냐?
- 31 너는 그 살가죽을 창으로, 그 머리를 온통 물고기 작살로 채울 수 있느냐?
- 32 손을 그 위에 얹어라도 보아라. 그것과 싸울 생각을 하면 다시는 손도 대지 못한다.

- 41** ¹ 보아라, 사람이 그것을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은 환상일 뿐 보기만 해도 놀라 넘어진다.
- 2 그것을 흥분시킬 만큼 대담한 자 없는데 하물며 그 누가 내 앞에 나설 수 있느냐?
 - 3 하늘 아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값으로 고 외치며 나에게 맞서는 자가 누구냐?
 - 4 그것의 다리 이야기를 어찌 빼놓을 수 있겠느냐? 그 힘과 빼어난 모습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 5 누가 그것의 걸음을 벗길 수 있느냐? 누가 그 겹 갑옷을 깨뜨릴 수 있느냐?
 - 6 그 이빨 들레에는 공포가 서려 있는데 누가 그 입을 열어젖힐 수 있느냐?
 - 7 그 등은 방패들이 늘어진 줄 같은데 단단한 봉인으로 닫혀 있고
 - 8 하나하나 맞닿아 그 사이로 바람조차 스며들지 못한다.
 - 9 그것들은 서로 굳게 붙고 꼭 끼어 있어 떨어지지 않는다.
 - 10 그것의 체체는 빛을 뿜고 눈은 여명의 햇살 같다.
 - 11 입에서는 횃불들이 뿜어 나오고 불꽃들이 튀어나오며
 - 12 콧구멍에서는 골풀을 때어 김을 내뿜는 단 지처럼 연기가 쏟아진다.

- 13 그 입김은 숯불을 타오르게 하고 입에서는 불길기 치솟으며
- 14 목에는 힘이 서려 있어 그 앞에서는 공포가 날뛴다.
- 15 그것의 주름진 살들은 굳게 붙어 주조된 듯 움직이지 않는다.
- 16 심장은 돌처럼 단단하고 언자매 아래쪽처럼 튼튼하니
- 17 그것이 일어서면 영웅들도 무서워하고 경악하여 났을 잃는다.
- 18 칼로 찌른다 해도 소용없고 창과 화살과 표창도 마찬가지다.
- 19 그것은 쇠를 지푸라기로, 구리를 썩은 나무로 여기니
- 20 화살도 그것을 달아나게 할 수 없고 팔뚝 돌들은 그것에게 겨와 마찬가지다.
- 21 몽둥이를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표창이 날아드는 소리에도 코웃음칠 뿐.
- 22 뱀가죽은 날카로운 질그릇 조각들과 같이 진흙 위에 타작기처럼 자국을 늘어놓는다.
- 23 그것은 해삼을 가미솔처럼 꿩고개 하고 바다를 고약 끓이는 냄비같이 만들며
- 24 빛나는 길을 뒤로 남기며 나아가니 큰 물이 백발처럼 여겨진다.
- 25 땅 위에 그와 같은 것이 없으니 그것은 무서움을 모르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 26 높은 자들을 모두 내려다보니 그것은 모든 오만한 자들 위에 군림하는 임금이다.

읍의 둘째 답변

42 1 그러자 읍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하느님의 체험과 고백

- 2 저는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당신께는 어떠한 계획도 불가능하지 않음을!
- 3 당신께서는 " 지각없이 내 뜻을 가리는 이

자는 누구냐?"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로워 알지 못하는 일들을 저는 이해하지도 못한 채 지냈었습니다.

- 4 당신께서는 " 이제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너에게 물을 터이니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 5 당신에 대하여 귀로만 들어 왔던 이 몸,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뵈었습니다.

맺음말

친구에게 내는 심판

- 6 그래서 저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만지와 잣다미에 앉아 참회합니다.
- 7 읍에게 이 말씀을 하신 다음, 주님께서서는 테만 사람 엘리파즈에게 말씀하셨다. "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내 분노가 타오르니, 너희가 나의 종 읍처럼 나에게 올바른 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8 이제 너희는 수소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가지고 나의 종 읍에게 가서, 너희 자신을 위하여 번제물을 바쳐라. 나의 종 읍이 너희를 위하여 간청하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주어, 너희의 어리석음대로 너희를 대하지 않겠다. 이 모든 것은 너희가 나의 종 읍처럼 나에게 올바른 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9 그러자 테만 사람 엘리파즈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초바르가 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니, 주님께서 읍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읍의 회복

- 10 읍이 제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자, 주님께서서는 그의 운명을 되돌리셨다. 주님께서서는 읍이 전에 소유하였던 것을 갑절로 더해 주셨다.
- 11 그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옛 친구들이 모두 그의 집에 와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들이닥치게 하셨던 모든 불행에 대하여 그를 동정하고 위로하며, 저마다 은전 하나와 금 고리 하나를 그에게 주었다.

- 12 주님께서서는 욥의 여생에 지난날보다 더 큰 복을 내리시어, 그는 양 만사천 마리와 낙타 육천 마리, 겨릿소 천 마리와 암나귀 천 마리를 소유하게 되었다.
- 13 또한 그는 아들 일곱과 딸 셋을 얻었다.
- 14 그는 첫째 딸을 여미마, 둘째 딸을 크치아, 셋째 딸을 케렌 하푹이라 불렀다.
- 15 세상 어디에서도 욥의 딸들만큼 아리따운 여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에게도 남자 형제들과 같이 유산을 물려주었다.
- 16 그 뒤 욥은 백사십 년을 살면서, 사 대에 걸쳐 자식과 손자들을 보았다.
- 17 이렇게 욥은 늙그막까지 수를 다하고 죽었다.

구약성경 - 23

시서와지혜 - 2

시편

총 150 장

총 2,530 절

[구약성경]-[시편]

- 1** ¹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²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³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에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되리라.
⁴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아라.
⁵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 때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감히 서지 못하리라.
⁶ 의인들의 길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악인들의 길은 멸망에 이르기 때문일세.

- 2** ¹ 어찌하여 민족들이 슬렁거리며 겨레들이 헛일을 꾸미는가?
² 주님을 거슬러, 그분의 기름부음받은이를 거슬러 세상의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며 군주들이 함께 음모를 꾸미는구나.
³ "저들의 오락줄을 끊어 버리고 저들의 사슬을 벗어 던져 버리자."
⁴ 하늘에 좌정하신 분께서 웃으신다.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⁵ 마침내 진노하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분노하시어 그들을 놀라게 하시리라.
⁶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가 나의 임금을 세웠노라!"
⁷ 주님의 결정을 나는 선포하리라.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⁸ 나에게 청하여라. 내가 민족들을 너의 재산으로, 땅 끝까지 너의 소유로 주리라.
⁹ 너는 그들을 최 지팡이로 쳐부수고 옹기장이 그릇처럼 바수리라."
¹⁰ 자, 이제 임금들아, 깨달아라. 세상의 통치

자들아, 징계를 받아들여라.

- ¹¹ 경외하며 주님을 섬기고 떨며 그분의 발에 입 맞추어라.
¹² 그러지 않으면 그분께서 노하시어 너희가 도중에 멸망하리니 자칫하면 그분의 진노가 타오르기 때문이다. 행복하여라, 그분께 피신하는 이들 모두!

- 3** ¹ [시편. 다윗. 그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서 달아날 때]
² 주님, 저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저를 거슬러 일어나는 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³ "하느님께서 저자를 구원하실 성실이나?" 저를 빈정대는 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⁴ 그러나 주님, 당신은 저를 애위하신 방패, 저의 영광, 저의 머리를 들어 올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⁵ 내가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으면?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응답해 주시네.
⁶ 나 자리에 누워 잠들었다 깨어남은 주님께서 나를 받쳐 주시기 때문이니
⁷ 나를 거슬러 들리신 수많은 무리 앞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⁸ 일어나소서, 주님. 저를 구하소서, 저의 하느님. 정녕 당신께서는 제 모든 원수들의 턱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수십니다.
⁹ 주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당신 백성 위에 당신의 복을 내려 주소서.

- 4** ¹ [지휘자에게. 현악기와 더불어. 시편. 다윗]
² 제 의로움을 지켜 주시는 하느님 제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소서. 곤경에서 저를 끌어내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제 기도를 들으소서.
³ 사람들아, 언제까지 내 명예를 짓밟고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을 찾아다니려 하느냐?

- 4 주님께서는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기적을 베푸심을 알아라.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들어 주신다.
- 5 너희는 무서워 떨어라, 죄짓지 마라. 잠자리에서도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잠잠하여라.
- 6 의로운 희생 제물을 봉헌하며 주님을 신뢰하여라.
- 7 많은 이가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 주랴?"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의 빛을 비추소서.
- 8 저들이 곡식과 햇포도주로 푸짐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당신께서는 제 마음에 베푸셨 습니다.
- 9 주님, 당신만이 저를 평안히 살게 하시니 저는 평화로이 자리에 누워 잠이 듭니다.

5 ¹ [지휘자에게. 피리에 맞추어. 시편. 다윗]

- 2 주님, 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소서. 제 탄식을 살피 들어 주소서.
- 3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제가 외치는 소리를 귀여겨들으소서. 당신께 기도드립니다.
- 4 주님, 아침에 제 목소리 들어 주시겠기에 아침부터 당신께 청을 올리고 애뜻이 기다립니다.
- 5 당신은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느님이 아니시기에 악인은 당신 앞에 머물지 못하고
- 6 거만한 자들은 당신 눈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당신께서는 나쁜 짓 하는 자들을 모두 미워하시고
- 7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십니다. 피에 주린 자와 사기 치는 자를 주님께서는 역겨워하십니다.
- 8 그러나 저는 당신의 크신 자애에 힘입어 당신 집으로 들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거룩한 궁전을 향하여 경배드립니다.
- 9 주님, 저의 원수들 때문이니 당신의 정의로 저를 이끄소서. 제 앞에 당신의 길을 바르게

놓아 주소서.

- 10 그들 입에는 진실이 없고 그들 속에는 흉계만이 들어 있으며 그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 혀는 아침하기 때문입니다.
- 11 하느님, 그들이 짓값을 받게 하소서. 자기들의 음모에 빠지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이 많으니 그들을 내치소서. 정녕 그들이 당신을 기억하였습니다.
- 12 그러나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은 모두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환호하리이다. 당신 이름 사랑하는 이들은 당신께서 감싸 주시니 그들은 당신 안에서 기뻐하리이다.
- 13 주님, 당신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내리시고 큰 방혜 같은 호의로 그를 덮어 주십니다.

6 ¹ [지휘자에게. 현악기와 더불어 제8도로. 시편. 다윗]

- 2 주님, 당신의 진노로 저를 벌하지 마소서. 당신의 분노로 저를 징벌하지 마소서.
- 3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는 쇠약한 몸입니다. 저를 고쳐 주소서, 주님, 제 뼈들이 떨고 있습니다.
- 4 제 영혼이 몹시도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당신께서는 언제까지나 …… ?
- 5 돌아오소서, 주님, 제 목숨을 건져 주소서. 당신의 자애로 저를 구원하소서.
- 6 죽으면 아무도 당신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저승에서 누가 당신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까?
- 7 저는 탄식으로 기진하고 밤마다 울음으로 잠자리를 적시며 눈물로 제 침상을 물들입니다.
- 8 저의 눈은 시름으로 멀어지고 저의 모든 적들 때문에 어두워집니다.
- 9 내게서 모두 물러들 가라, 나쁜 짓 하는 자들아. 주님께서 나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신다.
- 10 주님께서 나의 간청을 들어 주시고 주님께

서 나의 기도를 받아들이다.

- 11 내 원수들은 모두 부끄러워 몹시 떨리라.
부끄러워하며 순식간에 물러가리라.

7 ¹ [사까온. 다윗. 그가 베아민 사람 쿠스 일로 주님께 부른 노래]

- 2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 피신하니 뒤쫓는 모든 자들에게서 저를 구하소서, 저를 구해 주소서.
- 3 아무도 구해 주는 이 없이 사자처럼 이 몸 물어 가지도 끌어가지도 맡게 하소서.
- 4 주 저의 하느님 만일 제가 그런 짓을 했다면 만일 제 손에 불의가 있다면
- 5 만일 제가 친구에게 악을 저지르고 원수를 빈털터리 되게 강탈했다면
- 6 원수가 저를 뒤쫓아 붙잡고 제 목숨을 땅에 다 짓밟으며 제 명에 흥먼지 속에 뒹굴게 하소서.
- 7 주님, 진노하며 일어나소서. 제 원수들의 광포에 맞서 몸을 일으키소서. 깨어나 저에게 다가오소서. 당신께서는 심판을 내리곤 하셨습니다.
- 8 겨레들이 무리 지어 당신 주위에 둘러서게 하소서. 그 위 높은 곳에 앉으소서.
- 9 주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주님, 저의 의로움에 따라, 저의 결백함에 따라 저의 권리를 되찾아 주소서.
- 10 이제 악인들의 죄악은 다하고 의인은 당신께서 굳세게 하소서. 마음과 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 하느님께서서는 의로우시다.
- 11 나의 방패가 하느님께 있으니 그분은 마음 바른 이들을 구하시는 분.
- 12 하느님은 의로우신 심판자 날마다 위협하시는 하느님이시다.
- 13 그런데도 악인은 여전히 칼을 갈고 활을 당기어 겨누는구나.
- 14 이는 자신에게 살생의 무기를 들어대고 자기 화살을 불화살로 만드는 것.

- 15 보라, 죄악을 잉태한 자가 재앙을 임신하여 거짓을 낳는구나.

- 16 함정을 깊숙이 파 놓고서는 제가 만든 구렁에 빠진다.

- 17 제가 꾸민 재앙이 제 머리 위로 되돌아오고 제가 휘두른 폭행이 제 정수리로 떨어진다.

- 18 나는 주님을 찬송하리라, 그분의 의로움에 따라.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에 찬미 노래 바치리라.

8 ¹ [지휘자에게. 기딯에 맞추어. 시편. 다윗]

- 2 주 저희의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존엄하십니까! 하늘 위에 당신의 엄위를 세우셨습니다.

- 3 당신의 적들을 물리치시고 대항하는 자와 항거하는 자를 멸하시려 야기와 짓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당신께서는 요새를 지으셨습니다.

- 4 우러러 당신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당신 손가락의 작품들을 당신께서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 5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 6 신들보다 조금만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 7 당신 손의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 8 저 모든 양 떼와 소 떼 들짐승들하며

- 9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 물속 길을 다니는 것들입니다.

- 10 주 저희의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존엄하십니까!

9 ¹ [지휘자에게. 알뫼 라벤. 시편. 다윗]

- 2 주님, 제 마음 다하여 찬송하며 당신의 기적들을 낱알이 이야기하렵니다.
- 3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저는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신 이름에 찬미 노래 바칩니다.
- 4 제 원수들이 뒤로 물러가고 당신 앞에서 비틀거리며 쓰러져 갔으니
- 5 당신께서 제 권리와 이익을 되찾아 주시고 정의의 판관으로 어좌에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 6 당신께서는 민족들을 꾸짖으시고 악인을 멸하셨으며 그들의 이름을 영영 지워 버리셨습니다.
- 7 원수들은 영원히 패허 속으로 사라져 가고 그들의 성읍들은 당신께서 짓부수어 버리시어 그들에 대한 기억마저 사라졌습니다.
- 8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원히 좌정하여 계시고 심판하시려 어좌를 든든히 하셨습니다.
- 9 그분께서 누리를 의복게 심판하시고 겨레들을 울바로 다스리시네.
- 10 주님께서는 억눌린 이에게 피신처, 환난 때에 피신처가 되어 주시네.
- 11 당신 이름을 아는 이들이 당신을 신뢰하니 주님, 당신을 찾는 이들을 아니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 12 너희는 시온에 좌정하신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그분의 업적을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 13 피 깊음하시는 분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가련한 이들의 울부짖음을 아니 잊으신다.
- 14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당하는 고통을 굽어보시어 저를 죽음의 성문에서 끌어 올려 주소서.
- 15 그러면 저는 당신의 찬양편을 행적을 낱알이 이야기하고 딸 시온의 성문에서 당신의 구원으로 환호하오리다.
- 16 민족들은 자기들이 파 놓은 함정에 빠지고

자기들이 숨겨 놓은 그물에 제 발이 걸리네.

- 17 주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어 심판하시니 악인은 자기 손이 한 일에 걸려드네.
- 18 악인들은 저승으로 물러가라. 하느님을 잊은 민족들은 모두 물러가라.
- 19 그러나 가난한 이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가련한 이들의 희망은 영원토록 헛되지 않으리라.
- 20 주님, 일어나소서. 인간이 우줄대지 못하게 하소서. 민족들이 당신 앞에서 심판받게 하소서.
- 21 주님, 민족들을 공포에 떨게 하시어 그들이 인간일 뿐임을 깨닫게 하소서.

10 ¹ 주님,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십니까? 어찌하여 환난의 때에 숨어 계십니까?

- 2 가련한 이는 악인의 교만으로 애가 타고 그들이 꾸며 낸 흉계에 빠져 듭니다.
- 3 악인은 제 탐욕을 뽐내고 강도는 악담하며 주님을 업신여깁니다.
- 4 악인이 콧대를 높여 " 하느님은 별하지 않는다. 하느님은 없다!" 하니 이것이 그의 생각 전부입니다.
- 5 그의 길은 언제나 성공에 이르고 당신의 심판은 높이 있어 그에게 미치지 않으니 그는 자기 반대자들을 모두 조롱하며
- 6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제앙을 모르는 그자
- 7 저주받을 파릇합니다. 그 입은 사기와 억압으로 가득 차 있고 그 헛바다 밑에는 제앙과 환난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 8 마을 으스스한 곳에 숨어 앉아 죄 없는 사람을 몰래 죽이려 그의 눈은 힘없는 이를 살핍니다.
- 9 그는 덤불 속의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노립니다. 가련한 이를 잡아채려 노리다가 그

물로 끌어당겨 잡아챱니다.

- 10 이렇듯 가련한 이는 두들겨 맞아 쓰러지고
힘없는 이들은 그의 폭력에 넘어잡니다.
- 11 악인은 제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 하느님
은 잇고 있다.' ' 얼굴을 감추어 영영 보지
않는다.'
- 12 주님, 일어나소서. 하느님, 손을 쳐드소서.
가련한 이들을 잊지 마소서.
- 13 악인이 어찌 하느님을 업신여기며 당신께
서는 별하지 않으신다고 마음속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 14 당신께서는 정녕 재앙과 재난을 보시고 손
수 쳐리하시려 살피고 계십니다. 힘없는
이, 당신께 몸을 맡기고 당신께서는 고아에
게 친히 보호자가 되십니다.
- 15 죄인과 악인의 팔을 부러뜨리소서. 그의 죄
악을 징벌하시면 죄악이 지취를 감추리이
다.
- 16 주님은 영영세제 임금이시니 민족들이 그
분 땅에서 없어지리라.
- 17 주님, 당신께서는 가난한 이들의 소원을 들
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며 당신
의 귀를 기울여 주시니
- 18 고아와 억눌린 이의 권리를 되찾아 주시고
다시는 세상의 인간이 울러대지 못하게 하
시려는 것입니다.

- 11 ¹ [지휘자에게. 다윗 주님께 나 피신
하는데 너희는 어찌 나에게 말하는
냐? " 새처럼 산으로 도망쳐라.
2 보라,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메겨 마음 바른 이들을 어둠 속에서 쏘려
한다.
3 바탕까지 허물어지는데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오라?"
4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궁전에 계시고
주님의 옥좌는 하늘에 있어 그분 눈은 살피
시고 그분 눈동자는 사람들을 가려내신다.

- 5 주님께서 의인도 악인도 가려내시고 그분
의 얼은 폭행을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신다.
6 그분께서 악인들 위에 불과 유희의 비를 그
물처럼 내리시어 타는 듯한 바람이 그들 잔
의 뚝이 되리라.
7 주님께서 의로우시어 의로운 일들을 사랑
하시니 올곧은 이는 그분의 얼굴을 뵈게 되
리라.

- 12 ¹ [지휘자에게. 제8도로. 시편. 다윗
² 주님, 구원을 베푸소서. 충실한 이는
없어지고 진실한 이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3 저마다 제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고 간사한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4 주님께서 간사한 모든 입술과 허황된 것
을 말하는 혀를 잘라 버리시리라.
5 그들은 " 혀로 우리가 힘을 떨치고 입술이
우리에게 있는데 누가 우리의 주인이랴?"
하는구나.
6 " 가련한 이들에 대한 꾀박과 가난한 이들
의 믿음 때문에 이제 내가 일어시리라." 주
님께서 이르신다. " 그가 갈망하는 대로 나
그를 구원으로 이끌리라."
7 주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 흙 도가니 속에
서? 일곱 번이나 정제된 순은이어라.
8 주님, 당신께서 저희를 지켜 주시고 저희를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호하소서.
9 악인들이 사망으로 쏘다니고 사람들 사이에
서 아비함이 판을 칠자라도.

- 13 ¹ [지휘자에게. 시편. 다윗
² 주님, 언제까지 마냥 저를 잊고 계
시렵니까? 언제까지 당신의 얼굴을 제게서 감
추시렵니까?
3 언제까지 고통을 제 영혼에, 번민을 제 마음
에 날마다 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원수가
제 위에서 우쭐거리야 합니까?

- 4 살펴보소서, 자에게 대답하소서, 주 저의 하느님.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제 눈을 비추소서.
- 5 제 원수가 "나 그자를 이겼다." 하지 못하게, 제가 흔들려 저의 적들이 날뛰지 못하게 하소서.
- 6 저는 당신 자애에 의지하며 제 마음 당신의 구원으로 기뻐 뛰리이다. 제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주님께 노래하오리다.

- 14** ¹ [지휘자에게. 다윗] 어리석은 자 마음속으로 '하느님은 없다.' 말하네. 모두 타락하여 악행을 일삼고 착한 일 하는 이가 없구나.
- ²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들을 굽어 살피신다. 그 누가 깨달음 있어 하느님을 찾는지 보시려고.
- ³ 모두 뱃나가 온통 썩어 버려 착한 일 하는 이가 없구나. 하나도 없구나.
- ⁴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는가? 나쁜 짓 하는 모든 자들 내 백성을 빵 먹듯 집어삼키는 저들 주님을 부르지 않는 저들.
- ⁵ 거기에서 그들은 겁에 질려 소스라치리니 하느님께서 의인의 무리와 함께 계시기 때 문이다.
- ⁶ 가련한 이의 뜻을 너희가 수치스럽게 만들지만 주님께서 그의 피신처이시다.
- ⁷ 아, 시온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배풀어졌으면! 주님께서 당신 백성의 운명을 되돌리실 때 아굽이 기뻐하고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리라.

- 15** ¹ [시편. 다윗] 주님, 누가 당신 천막에 머물 수 있습니까? 누가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지낼 수 있습니까?
- ² 흠 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하며 마음속으로 진실을 말하는 이,
- ³ 혀로 비방하러 쏘다니지 않고 제 친구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며 제 이웃에게 모욕을 주지 않는 이라네.

- ⁴ 그는 악인을 업신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한다네. 손해나는 맹세라도 그는 바꾸지 않고
- ⁵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놓지 않으며 무죄한 이에게 해되는 뇌물을 받지 않는다네. 이를 실행하는 이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 16** ¹ [막탐. 다윗]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합니다.
- ² 주님께 아뢰입니다. "당신은 저의 주님. 저의 행복 당신밖에 없습니다."
- ³ 이 땅에 있는 거룩한 이들과 위대한 이들에게 저의 온 마음이 쏟힙니다.
- ⁴ 다른 신들을 붙잡는 자들의 고통이 크기에? 저는 그 신들에게 피의 제사를 바치지 않으며 그 이름들을 제 입술에 올리지도 않습니다.
- ⁵ 제가 받을 몫이며 제가 마실 잔이신 주님 당신께서 저의 제비를 쥐고 계십니다.
- ⁶ 저의 차지로 좋은 땅 위에 측량줄 내리시니 저의 재산에 제 마음 흐뭇합니다.
- ⁷ 저를 타일러 주시는 주님을 찬미하니 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일깨웁니다.
- ⁸ 언제나 주님을 제 앞에 모시어 당신께서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 ⁹ 그러기에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이 뛰놀며 제 육신마저 편안히 쉬리이다.
- ¹⁰ 당신께서는 제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는 구렁을 아니 보게 하십니다.
- ¹¹ 당신께서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니 당신 면전에서 넘치는 기쁨을,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을 누리리이다.

- 17** ¹ [기도. 다윗] 주님, 의로운 사언을 들어 보소서. 제 부르짖음을 귀여겨

들으소서. 거짓 없는 입술로 드리는 제 기도
 도에 귀 기울여 주소서.

2 당신 앞에서 저에게 승소 판결이 내려지게
 하소서. 당신 눈으로 올바른 것을 보아 주
 소서.

3 당신께서 제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중에도
 깨어 보시며 저를 달구어 보셔도 부정을 찾
 지 못하시리이다. 저의 입은

4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저는 당신
 입술에서 나온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계명의 길을

5 저는 깨끗이 걷고 당신 길에서 제 발걸음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6 하느님, 당신께서 제게 응답해 주시겠기에
 제가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당신의 귀를 기
 울이시어 제 말씀을 들어 주소서.

7 당신 자애의 기적을 배부소서. 당신 오른쪽
 으로 피신하는 이들을 적에게서 구해 주시
 는 분이시여!

8 당신 눈동자처럼 저를 보호하소서. 당신 날
 개 그늘에 저를 숨겨 주소서,

9 저를 억누르는 악인들에게서 저를 미친 듯
 에워싼 원수들에게서.

10 그들의 마음은 비계로 닫혀 있고 그들의
 입은 오만을 내뿜습니다.

11 그들은 이제 달려들어 저를 둘러싸고서 땅
 바다에 넘어뜨리려 노려봅니다.

12 그 모습 사자처럼 약탈하려 노립니다. 으스
 한 곳에 도사린 힘센 사자 같습니다.

13 주님, 일어나소서. 다가가 그를 내던지소
 서. 악인에게서 제 영혼을 당신 칼로 구해
 주소서.

14 주님, 당신의 손으로 저 사내들에게서, 세
 상살이를 제 뿔로 삼는 사내들에게서 저
 를 구해 주소서. 당신께서 숨겨 놓으신 별
 로 그들의 배를 채우시어 아들들도 배불리
 고 나머지는 자기네 어린것들에게

15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을 뵈고 깨어날

때 당신 모습으로 흠족하리이다.

18 ¹ [지휘자에게. 주님의 종 다윗. 주님
 께서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아귀와
 사울의 손에서 그를 건져 주신 날, 그가 이
 노래로 주님께 이뤘었다.

2 그는 말하였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의 힘이시여.

3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저의 하느님, 이 몸 피신하는 저의 바위 저
 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채이십니다.

4 찬양받으실 주님을 불렀을 때 나는 원수들
 에게서 구원되었네.

5 죽음의 오랏줄이 나를 두르고 멸망의 급류
 가 나를 들어켰으며

6 저승의 오랏줄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울가
 미가 나를 덮쳤네.

7 이 곤경 중에 내가 주님을 부르고 내 하느
 님께 도움을 청하였더니 당신 궁전에서 내
 목소리 들으셨네. 도움 청하는 내 소리 그
 분 귀에 다다랐네.

8 이에 땅이 흔들리며 떨고 산의 뿌리까지 소
 스러져 흔들렸으니 그분께서 진노하신 까닭
 이네.

9 그분 코에서는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는 삼
 킬 듯 불길이 치솟았으며 그분에게서 숯불
 이 타올랐네.

10 그분께서 하늘을 기울여 내려오시니 먹구
 림이 그분 발밑을 뒤덮었네.

11 커름 위에 올라 날아가지고 바람 날개 타
 고 떠가셨네.

12 어둠을 가리게 삼아 당신 주위에 둘러치시
 고 시커먼 비구름과 짙은 구름을 덮개로
 삼으셨네.

13 그분 앞의 빛에서 뿔이 나오는 것 우박과
 불타는 솟덩이들이었네.

14 주님께서 하늘에 우렛소리 내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당신 소리 울려 퍼지게 하

셨네. 우박과 불타는 숯덩이들을 내리셨네.
 15 당신 화살들을 쏘시어 그들을 흠으시고 수 많은 번개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네.
 16 바다의 밀바닥이 보이고 땅의 기초가 드러났네. 주님, 당신의 질타로, 당신 노호의 숨결로 그리되었습니다.
 17 그분께서 높은 데에서 손을 뻗쳐 나를 붙잡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끌어내셨네.
 18 나의 힘센 원수에게서, 나보다 강한 적들에게서 나를 구하셨네.
 19 환난의 날에 그들이 나를 덮쳤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의지가 되어 주셨네.
 20 넓은 곳으로 이끌어 내시어 나를 구하셨으니? 내가 그분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네.
 21 주님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나에게 행하시고 내 손의 결백함에 따라 나에게 갚아 주셨으니
 22 내가 주님의 길을 지키고 나의 하느님을 배반하지 않았으며
 23 그분의 모든 법규를 내 앞에 두고 그분의 규범을 내게서 물리치지 않았기 때문이네.
 24 나 그분께 결백하게 지내 왔고 죄에 떨어질까 조심하였네.
 25 주님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나에게 갚아 주셨네. 그분 앞에서 지켜 온 내 손의 결백함에 따라 갚아 주셨네.
 26 당신께서는 충실한 이에게는 충실하신 분으로, 결백한 사람에게는 결백하신 분으로 당신을 나타내시고
 27 깨끗한 이에게는 깨끗하신 분으로 그를 대하시지만 그릇된 자에게는 비뚤어지신 분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28 정녕 당신께서는 거련한 백성은 구원하시지만 거만한 눈들은 끌어내리십니다.
 29 주님, 정녕 당신께서 저의 등불을 밝히십니다. 저의 하느님께서 저의 어둠을 밝혀 주십니다.
 30 정녕 당신의 도우심으로 제가 무리 속에

뛰어 들고 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31 하느님의 길은 결백하고 주님의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께서는 당신께 피신하는 모든 이에게 방패가 되신다.
 32 장녕 주님 말고 그 누가 하느님이며 우리 하느님 말고 그 누가 반석이 되어 주겠는가?
 33 하느님께서 나에게 힘을 매어 주시고 나의 길을 온전하게 놓아 주셨네.
 34 내 발을 암수슴 같게 하시고 높은 곳에 나를 세워 주셨으며
 35 내 손에 전투를 익혀 주시고 내 팔이 청동 활을 당기게 하셨네.
 36 당신께서는 구원의 방패를 제게 주시고 당신 오른손으로 저를 받쳐 주시며 손수 보살피시어 저를 크게 만드셨습니다.
 37 제 발걸음 닿는 곳을 넓히시어 제 발목이 흔들리지 않았습시다.
 38 저는 제 원수들을 뒤쫓아 붙잡고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았습시다.
 39 제가 그들을 내리치자 그들은 일어서지 못하고 제 발아래 쓰러졌습니다.
 40 당신께서는 저에게 싸울 힘을 매어 주시어 저에게 맞서 일어난 자들을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41 제 원수들을 달아나게 하시고 저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가 멸망시키게 하셨습니다.
 42 그들은 도와 달라 외쳤으나 도와주는 이 없었고 주님께 청하였으나 그들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43 저는 그들을 바람 앞의 먼지처럼 갈아 부수고 오물처럼 밖으로 쏟아 버렸습니다.
 44 당신께서 저를 백성의 다툼에서 구하시어 민족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으니 제가 알지 못하던 백성이 저를 삼키고
 45 제 말을 듣자마자 저에게 복종하며 이방인들이 저에게 이양 부렸습니다.

- 46 이방인들이 기진맥진하여 그들의 성곽에서
떨며 나왔습니다.
- 47 주님께서는 살아 계시다!?! 나의 반석께서
는 찬미 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하느님께서
는 드높으시다.
- 48 하느님께서 내 왼수를 잡아 주시고 백성들
을 내 발아래 굴복시키셨다.
- 49 당신께서는 제 왼수들에게서 저를 구하시
고 저를 거슬러 일어난 자들에게서 들어
높이셨으며 포악한 자에게서 해방시켜 주
셨습니다.
- 50 그러기에 주님, 제가 민족들 앞에서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 이름에 찬미 노래 바칩니다.
- 51 주님께서는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을 베푸
시고 당신의 기름부음받은이 다윗과 그 후
손에게 영원토록 자애를 베푸신다.

19

[지휘자에게. 시편. 다윗]

- 2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창공은 그분 손의 숨쉴을 알리네.
- 3 낮은 낮에게 말을 건네고 밤은 밤에게 지식
을 전하네.
- 4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으며 그들 목소리조
차 들리지 않지만
- 5 그 소리는 온 땅으로, 그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 나가네. 그곳에 해를 위하여 찬막을 처
주시니
- 6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방 같고 용사처럼
길을 달리며 좋아하네.
- 7 하늘 끝에서 나와 다시 끝으로 돌아가니 아
무것도 그 열기 앞에서 숨을 수 없네.
- 8 주님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생기를 듣게 하
고 주님의 법은 참되어 어수룩한 이를 즐기
롭게 하네.
- 9 주님의 규정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
고 주님의 계명은 맑아서 눈에 빛을 주네.
- 10 주님을 경외함은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
고 주님의 법규들은 진실이니 모두가 의를

네.

- 11 금보다, 많은 순금보다? 더욱 보배로우며
꿀보다 생청보다? 더욱 달다네.
- 12 당신의 종도 이에 주의를 기울이니 이를
지키면 큰 상금을 받으리이다.
- 13 뜻 아니한 허물을 누가 알겠습니까? 숨겨
진 잘못에서 저를 깨끗이 해 주소서.
- 14 또 오만한 자들에게서 당신 종을 보호하소
서, 그들이 제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소
서, 그러면 제가 결백해지고 커다란 죄악에
서 깨끗해지리이다.
- 15 주님, 저의 반석, 저의 구원자시여 당신 앞
에 드리는 제 입의 말씀과 제 마음의 생각
이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20

[지휘자에게. 시편. 다윗]

- 2 환난의 날에 주님께서 당신께 응답
하시고 아픔의 하느님 이름이 당신을 보호
하시기를 바랍니다.
- 3 성소에서 당신께 도움을 보내시고 시온에서
당신을 받쳐 주시며
- 4 당신의 모든 제물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번
제를 즐거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5 당신 마음이 바라는 대로 당신께 베푸시고
당신의 모든 소망을 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 6 우리가 당신 구원에 환호하며 우리 하느님
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들리니? 주님께서
당신 소원을 모두 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 7 나는 이제 안다네, 주님께서 당신의 기름부
음받은이에게 구원을 베푸심을. 그분께서
당신의 거룩한 하늘에서 당신 오른손의 구
원 위엄으로 그에게 응답하시리라.
- 8 이들은 병거를, 저들은 기마를 믿지만 우리
는 우리 하느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네.
- 9 그들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는 일어나
굳건히 서 있으리라.
- 10 주님, 임금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저희가
부르짖는 날 저희에게 응답하소서.

- 21** ¹ [지휘자에게. 시편. 다윗]
² 주님, 임금이 당신의 힘으로 기뻐합니다. 당신의 구원으로 그가 얼마나 크게 즐거워합니까!
- ³ 당신께서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입술의 소망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 ⁴ 그를 은혜로운 복으로 맞으시고 그의 머리에 순금의 왕관을 씌우셨습니다.
- ⁵ 그가 당신께 생명을 빌었더니 영영세한 긴 날을 그에게 배부셨습니다.
- ⁶ 당신의 구원으로 그 영광이 크며 당신께서 그에게 존귀와 영화를 내리십니다.
- ⁷ 그를 영원한 복으로 만드시고 당신 앞에서 기쁨으로 흥겹게 하십니다.
- ⁸ 임금이 주님을 신뢰하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애 안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 ⁹ 당신 손이 원수들을 모두 찾아내시리이다. 당신 오른손이 적들을 찾아내시리이다.
- ¹⁰ 당신 얼굴이 드러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불기머처럼 만드시리이다. 그들을 당신 분노로 없애고 불이 그들을 삼켜 버리게 하시리이다.
- ¹¹ 당신께서 그들의 자손을 땅에서, 그들의 후손을 사람들 사이에서 멸하시리이다.
- ¹² 그들이 당신께 불행을 쏟으려 할지라도, 홍계를 꾸짖더라도 그들은 성사시키지 못하리이다.
- ¹³ 당신께서 그들을 도망치게 하시고 당신 활로 그들의 얼굴을 겨누시겠기 때문입니다.
- ¹⁴ 주님, 당신의 힘을 떨치며 일어나소서. 저희가 당신의 권능을 노래하며 찬미하오리다.

- 22** ¹ [지휘자에게. '새벽 암사슴' 가락으로. 시편. 다윗]
²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 버리셨습니까? 소리쳐 부르건만 구원은 멀리 있습니다.
- ³ 저의 하느님, 온종일 외치건만 당신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저는 밤에도 잠자코 있을 수 없습니다.
- ⁴ 그러나 당신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 위에 좌정하신 분.
- ⁵ 저희 선조들은 당신을 신뢰하였습니다. 신뢰하였기에 당신께서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 ⁶ 당신께 부르짖어 구원을 받고 당신을 신뢰하여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 ⁷ 그러나 저는 인간이 아닌 구더기 사람들의 우셋거리, 백성의 조롱거리.
- ⁸ 저를 보는 자마다 저를 비웃고 입술을 비죽거리며 머리를 흔들어 답니다.
- ⁹ " 주님께 맡겼으니 그분께서 그자를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그분께서 구해 내시겠지."
- ¹⁰ 그러나 당신은 저를 어머니 배 속에서 이끌어 내신 분 어머니 젖가슴에 저를 평화로운 이 안겨 주신 분.
- ¹¹ 저는 모태에서부터 당신께 맡겨졌고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 ¹² 제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환난이 다가오는데 도와줄 이 없습니다.
- ¹³ 수많은 수소들이 저를 에워싸고 바산의 황소들이 저를 둘러싸
- ¹⁴ 약탈하고 포효하는 사자처럼 저를 향하여 입을 벌립니다.
- ¹⁵ 저는 물처럼 앞질러지고 제 배는 다 어그러졌으며 제 마음은 밀초같이 되어 속에서 녹아내립니다.
- ¹⁶ 저의 힘은 옹기 조각처럼 마르고 저의 혀는 입속에 들러붙었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죽음의 흠에 얹하셨습니다.
- ¹⁷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저를 둘러싸 제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 18 제 뼈는 날날이 썩 수 있게 되었는데 그들은 저를 보며 좋아라 합니다.
- 19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습니다.
- 20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는 멀리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시여, 어서 저를 도우소서.
- 21 저의 생명을 칼에서, 저의 목숨을 개들의 발에서 구하소서.
- 22 사자의 입에서, 들소들의 뿔에서 저를 살려 내소서. 당신께서는 저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 23 저는 당신 이름을 제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 24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이여, 주님께 영광드려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이여,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 25 그분께서는 가련한 이의 가없음을 업신여기지도 싫어하지도 않으시고 그에게서 당신 얼굴을 감추지도 않으시며 그가 당신께 도움 청할 때 들어 주신다.
- 26 큰 모임에서 드리는 나의 찬양도 그분에게서 오는 것이니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 앞에서 나의 서원을 채우리라.
- 27 가난한 이들은 배불리 먹고? 그분을 찾는 이들은 주님을 찬양하리라. 너희 마음 길이 살리라!
- 28 세상 끝이 모두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고 민족들의 모든 가문이 그분 앞에 경배하리니
- 29 주님께 왕권이 있고 민족들의 지배자시기 때문이다.
- 30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 오직 그분께 경배하고 흠으로 내려가는 모든 이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내 영혼은 그분을 위하여 살고
- 31 후손은 그분을 섬기리라. 장차 올 세대에게 주님의 이야기가 전해져

- 32 그들은 태어날 백성에게 그분의 의로움을 알리리니 주님께서 이를 행하셨기 때문이다.

23 ¹ [시편. 다윗]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으라.

- 2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 3 내 영혼에 생기를 돋우어 주시고 바른길로 나를 끌어 주시니 당신의 이름 때문이여라.
- 4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제 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가 저에게 위안을 줍니다.
- 5 당신께서 저의 원수들 앞에서 저에게 상을 차려 주시고 제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저의 술잔도 가득합니다.
- 6 저의 한평생 모든 날에 호의와 자애만이 저를 따르리니 저는 일생토록 주님의 집에 사오리다.

24 ¹ [시편. 다윗] 주님 것이라네, 세상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 2 그분께서 물 위에 그것을 세우시고 강 위에 그것을 굳히신 까닭일세.
- 3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으랴?
- 4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한 이 옳지 않은 것에 정신을 쏟지 않는 이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이라네.
- 5 그는 주님께 복을 받고 자기 구원의 하느님께 의로움을 인정받으리라.
- 6 이들이 그분을 찾는 이들의 세대, 그분 얼굴을 찾는 이들의 세대 야곱이라네.
- 7 성문들이여, 머리를 들어라. 오랜 문들이여,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께서 들어가신다.
- 8 누가 영광의 임금이신가? 힘세고 용맹하신

주님, 싸움에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 9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께서 들어가신다.
10 누가 영광의 임금이신가? 만군의 주님 그분께서 영광의 임금이시다.

25 ¹ [다윗] 주님, 당신께 제 영혼을 들어 올립니다.

- 2 저의 하느님 당신께 의지하니 제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제 원수들이 저를 두고 기뻐 날뛰지 못하게 하소서.
3 당신께 바라는 이들은 아무도 수치를 당하지 않으나 까닭 없이 배신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4 주님, 당신의 길을 제게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제게 가르쳐 주소서.
5 당신의 진리 위를 걷게 하시고 저를 가르쳐소서. 당신께서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니 날마다 당신께 바랍니다.
6 기억하소서, 주님, 먼 옛날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자애를.
7 제 젊은 시절의 죄악과 저의 잘못된 기억하지 마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선하심을 생각하시어 저를 기억하여 주소서.
8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다.
9 가련한 이들이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가련한 이들에게 당신 길을 가르치신다.
10 당신의 계약과 법규를 지키는 이들에게 주님의 길은 모두 자애와 진실이라네.
11 주님, 저의 죄가 크니 당신 이름 생각하시어 용서하소서.
12 주님을 경외하는 이 누구인가? 그가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리라.
13 그의 영혼은 행복 속에 머물고 그의 후손은 땅을 차지하리라.
14 주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과 사귀

시고 당신 계약을 그들에게 알려 주신다.

- 15 내 발을 그물에서 빼내 주시라니 내 눈은 언제나 주님을 향해 있네.
16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외롭고 가련한 몸입니다.
17 제 마음의 곤경을 풀어 주시고 저를 고난에서 빼내 주소서.
18 저의 비참과 고생을 보시고 저의 죄악을 모두 없애 하소서.
19 저의 원수들을 보소서, 많기도 한 그들. 저를 모질게도 미워합니다.
20 제 영혼을 지키시고 저를 구원하소서. 당신께 피신하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21 당신께 바라니 결백함과 옳음은 저를 지키게 하소서.
22 하느님, 모든 곤경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소서.

26 ¹ [다윗] 주님, 제 권리를 되찾아 주소서. 저는 결백하게 살아왔고 주님께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았습니니다.

- 2 주님, 저를 시험하시고 살펴보시며 제 속과 마음을 달구어 보소서.
3 정녕 당신 자애가 제 눈앞에 있었고 당신 진실에 따라 제가 걸어왔습니다.
4 저는 옳지 않은 자들과 함께 앉지 않았고 음흉한 자들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니다.
5 악인들의 모임을 싫어하고 무도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않았습니니다.
6 주님, 결백함으로 제 손을 씻고 당신 제단을 뉘니다.
7 큰 소리로 감사 노래 부르고 당신의 기적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8 주님, 저는 당신께서 계시는 집과 당신 영광이 깃드는 곳을 사랑합니다.
9 제 영혼을 죄인들과 함께, 제 생명을 살인자들과 함께 거두지 마소서.
10 그들의 두 손에는 부정이, 그들의 오른손에

는 뇌물이 가득합니다.

- 11 그러나 저는 결백하게 살아가니 저를 구하소서, 지비를 배푸소서.
12 제 발은 올바른 곳에 서 있습니다. 예배 모임에서 저는 주님을 찬미하오리다.

27 ¹ [다윗]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라?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라?

- 2 악인들이 내 몸을 집어삼키려 달려들지라도 내 적이요 원수인 그들은 비틀거리다 쓰러지리라.
3 나를 거슬러 군대가 진을 친다 하여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나를 거슬러 전쟁이 일어난다 하여도 그럴지라도 나는 안심하리라.
4 주님께 칭하는 것이 하나 있어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러러보고 그분 궁전을 눈여겨보는 것이라네.
5 환난의 날에 그분께서 나를 당신 초막에 숨기시고 당신 천막 은밀한 곳에 감추시며 바위 위로 나를 들어 올리시리라.
6 나를 둘러싼 원수들 위로 이제 내 머리를 치켜들어 나 그분의 천막에서 환호의 희생 제물을 봉헌하고 주님께 노래하며 찬미드리리라.
7 들으소서, 주님, 제가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지비를 배푸시어 제게 응답하소서.
8 "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신 당신을 제가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습니다.
9 당신 얼굴을 제게서 감추지 마시고 분노하며 당신 종을 물리치지 마소서. 당신은 저의 도움이사십니다. 제 구원의 하느님 저를 내쫓지 마소서, 저를 버리지 마소서.
10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받아 주시리라.

11 주님, 당신의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저의 원수들 때문이니 바른길로 저를 인도하소서.

- 12 제 적들의 탐욕에 저를 넘기지 마소서. 거짓 증인들이 저를 거슬러 일어나 폭력을 내뿜습니다.
13 그러나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신하심을 보리라 믿습니다.
14 주님께 바라라. 네 마음 굳세고 꾀뚫여져라. 주님께 바라라.

28 ¹ [다윗] 주님, 당신께 제가 부르짖습니다. 저의 반석이시여, 제 앞에 말없이 계시지 마소서. 당신께서 제 앞에서 침묵하시어 제가 구렁으로 내려가는 이들과처럼 되지 않게 하소서.

- 2 당신께 도움을 청할 때 당신의 지성소 향해 제 두 손 들어 올릴 때 간청하는 저의 소리를 들으소서.
3 저를 죄인들과 함께, 나쁜 짓 하는 자들과 함께 잡아채지 마소서. 그들은 자기 이웃들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4 그들의 행동대로, 그들의 악한 행실대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 손의 소행대로 그들에게 갚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되돌리소서.
5 그들이 주님의 업적과 주님 손이 이루신 위업에 마음 쓰지 않으니 그들을 허물어뜨려 다시는 일으키지 않으시리라.
6 주님께서는 찬미 받으시라니 내가 간청하는 소리를 들어 주신 까닭이라네.
7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 내 마음 그분께 의지하여 도움을 받았으니 내 마음 기쁨 뛰놀며 나의 노래로 그분을 찬송하리라.
8 주님은 당신 백성에게 힘이시며 당신의 기쁨부음받은이에게 구원의 요새이시다.
9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 소유에 강복하소서. 그들의 목자 되시어 그들을 영원히

이끄소서.

- 29** ¹ [시편. 다윗]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러라.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드러라.
- ² 그 이름의 영광을 주님께 드러라. 거룩한 차림 하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 ³ 주님의 소리가 물 위에 머물고? 영광의 하느님께서 찬등 치시네. 주님께서 크나큰 물 위에 계시네.
- ⁴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여라.
- ⁵ 주님의 소리가 향백나무들을 부러뜨리네. 주님께서 레바논의 향백나무들을 부러뜨리시네.
- ⁶ 레바논을 송아지처럼, 시르온을 들송아지처럼 뛰게 하시네.
- ⁷ 주님의 소리가 불꽃을 내뿜으며
- ⁸ 주님의 소리가 사막을 뒤흔드네. 주님께서 카데스 사막을 뒤흔드시네.
- ⁹ 주님의 소리가 암사슴들을 몹서리치게 하고 숲들을 별거숭이로 만드니 그분 궁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이여!"
- ¹⁰ 주님께서 큰 물 위에 좌정하셨네. 주님께서 영원하신 임금님으로 좌정하셨네.
- ¹¹ 주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권능을 주시리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평화로 강복하시리라.

- 30** ¹ [시편. 성전 봉헌 노래. 다윗]
- ² 주님, 제가 당신을 높이 기뻐합니다. 당신께서는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두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 ³ 주 저의 하느님 제가 당신께 애원하자 저를 낮게 하셨습니다.
- ⁴ 주님, 당신께서 제 목숨을 저승에서 건지시고 저를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습니다.

- ⁵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주님께 충실한 이 돌아. 거룩하신 그 이름을 찬송하여라.
- ⁶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 가니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환호하게 되리라.
- ⁷ 평안할 때 저는 말하였습니다. "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 ⁸ 주님, 당신 호의로 저를 튼튼한 산성에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얼굴을 감추시자 저는 겁에 질렸습니다.
- ⁹ 주님, 제가 당신께 부르짖고 저의 주인이신 당신께 자비를 간청하였습니다.
- ¹⁰ " 제 피가, 제가 구렁으로 떨어지는 것이 무슨 이득이 됩니까? 먼지가 당신을 찬송 수 있으며 당신의 진실을 알릴 수 있습니까?"
- ¹¹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소서."
- ¹² 당신께서는 저의 비탄을 흠으로 바꾸시고 저의 자루웃 푸시어 저를 기쁨으로 띠 두르셨습니다.
- ¹³ 이에 제 영혼이 당신을 노래하며 잠잠하지 않으리다. 주 저의 하느님, 제가 당신을 영원히 찬송하오리다.

- 31** ¹ [지휘자에게. 시편. 다윗]
- ² 주님, 제가 당신께 피산하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구하소서.
- ³ 제게 당신의 귀를 기울이시고 어서 저를 구하소서.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채 되소서.
- ⁴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채이시니 당신 이름 생각하시어 저를 이끌고 인도하소서.
- ⁵ 그들이 숨겨 놓은 그물에서 저를 빼내소서. 당신은 저의 피산처이십니다.
- ⁶ 제 목숨을 당신 손에 맡기니 주 진실하신 하느님, 당신께서 저를 구원하시리이다.

- 7 저는 허황된 상상 섬기는 자들을 미워하고 오로지 주님만 신뢰합니다.
- 8 당신의 자애로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당신께서 저의 가련함을 굽어보시어 제 영혼의 곤경을 살피어 아시고
- 9 저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며 제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 10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가 짓눌립니다. 제 눈이 시름에 짓무르고 저의 넋과 몸도 그러합니다.
- 11 정녕 저의 생명은 근심으로, 저의 세월은 한숨으로 다해 가며 저의 죄로 가력은 빠지고 저의 뼈들은 쇠약해졌습니다.
- 12 제 모든 원수들 때문에 저는 조롱거리가 되고 이웃들에게는 놀라움이, 저를 아는 이들에게는 무서움이 되어 길에서 보는 이마다 저를 피해 갑니다.
- 13 저는 죽은 사람처럼 마음에서 잊혀지고 깨진 그릇처럼 되었습니다.
- 14 정녕 저는 많은 이들의 비방을 듣습니다. 사방에서 공포가 밀려듭니다. 저를 거슬러 그들이 함께 모의하여 제 목숨 빼앗을 계교를 꾸밉니다.
- 15 그러나 주님, 저는 당신을 신뢰하며 "당신은 저의 하느님!" 하고 이릅니다.
- 16 당신 손에 제 운명이 달렸으니 제 원수들과 박해자들의 손에서 저를 구원하소서.
- 17 당신 얼굴을 당신 종 위에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 18 주님,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악인들이나 수치를 당하여 말없이 저승으로 사라지게 하소서.
- 19 거만하여 업신여기고 의인을 거슬러 파렴치하게 지껄이는 거짓된 입술들을 잠잠하게 하소서.
- 20 얼마나 크십니까!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이,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에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를

베푸십니다.

- 21 당신 앞의 피신처에 그들을 감추시어 사람들의 음모에서 구해 내시고 당신 거처 안에 숨기시어 사나운 입술들의 공격에서 구해 내십니다.
- 22 포위된 성읍에서 내게 당신 자애의 기적을 베푸셨으니 주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 23 질겁한 나머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당신 눈앞에서 잘려 나갔습니다." ? 그러나 당신께 도움 청할 때? 당신께서는 애원하는 저의 소리를 들어 주셨습니다.
- 24 주님께 충실한 이들이,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께서는 진실한 이들은 지켜 주시나 거만하게 구는 자에게는 호되게 갚으신다.
- 25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이 힘을 내어 마음을 굳세게 가져라.

32

- ¹ [다윗. 마스크일]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고 잘못이 덮여진 이!
- 2 행복하여라, 주님께서 허물을 헤아리지 않고 시고 그 열에 거짓이 없는 사람!
- 3 제가 입 밖에 내지 않으려 하였더니 나날이 신음 속에 저의 뼈들이 말라 들었습니다.
- 4 낮이고 밤이고 당신 손이 저를 짓누르신 까닭입니다. 저의 기운은 여름날 한더위에 다 빠져 버렸습니다.
- 5 제 잘못을 당신께 자백하며 제 허물을 감추지 않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자 제 허물과 잘못을 당신께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 6 그러므로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모두 곤경의 때에 기도드립니다. 큰물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하리이다.
- 7 당신은 저의 피신처. 곤경에서 저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환호로 저를 에워싸십니다.
- 8 나 너를 이끌어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고 너를 눈여겨보며 타이르리라.

- 9 지각없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마라. 재갈과 고삐라야 그 극성을 꺾는다. 그러지 않으면 네게 가까이 오지 않는다.
- 10 악인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신뢰하는 이는 자애가 에워싸리라.
- 11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마음 바른 이들이, 모두 환호하여라.

- 33** 1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울곧은 이들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 2 비파로 주님을 찬송하며 열 줄 수금으로 그분께 찬미 노래 불러라.
- 3 그분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환성과 함께 고운 가락 내어라.
- 4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분의 행적은 모두 진실하다.
- 5 그분은 정의와 공정을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자애가 땅에 가득하네.
- 6 주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그분의 입김으로 그 모든 군대가 만들어졌네.
- 7 그분께서는 제방으로 모으듯 바다물을 모으시고 대양을 곳집에다 넣으신다.
- 8 온 땅이 주님을 경외하고 세상에 사는 이들이 모두 그분을 두려워하리니
- 9 그분께서 말씀하시자 이루어졌고 그분께서 명령하시자 생겨났기 때문이네.
- 10 주님께서 민족들의 결의를 꺾으시고 백성들의 계획을 좌절시키신다.
- 11 주님의 결의는 영원히, 그분 마음의 계획들은 대대로 이어진다.
- 12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께서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13 주님께서 하늘에서 살피시며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신다.
- 14 당신 머무시는 곳에서 굽어보신다,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을.
- 15 그들의 마음을 다 빚으시고 그들의 모든

- 행위를 헤아리시는 분이시다.
- 16 병력이 많다고 임금이 승리하지 못하며 군력이 세다고 용사가 제 몸을 살리지 못하네.
- 17 기마로 승리한다 함은 환상이며 그 힘이 세다고 구원을 이루지 못하네.
- 18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 19 그들의 목숨을 죽음에서 구하시고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기 위함이라네.
- 20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기다리니 그분은 우리의 도움, 우리의 방패이시다.
- 21 그분 안에서 우리 마음이 기뻐하고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신뢰하네.
- 22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저희 위에 당신의 자애를 베푸소서.

- 34** 1 [다윗. 그가 아비멜렉 앞에서 정신이 나간 채하여 아비멜렉이 내쫓자 그가 떠나갈 때에]
- 2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라. 내 입에 늘 그분에 대한 찬양이 있으리라.
- 3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리니 가난한 이들은 듣고서 기뻐하여라.
- 4 너희는 나와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우리 다 함께 그분 이름을 높이 기리자.
- 5 주님을 찾았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 6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에 넘치고 너희 얼굴에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 7 여기 가련한 이가 부르짖자 주님께서 들으시어 모든 곤경에서 그를 구원하셨네.
- 8 주님의 천사가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 들레에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해 준다.
- 9 너희는 맛보고 눈여겨보아라,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행복하여라, 그분께 피신하는 사람!

- 10 주님을 경외하여라, 그분의 거룩한 이들과.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아쉬움이 없으리라.
- 11 사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는 좋은 것 하나도 모자라지 않으리라.
- 12 아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너희에게 주님 경외함을 가르쳐 주마.
- 13 생명을 갈망하고 좋은 것 보려고 장수를 바라는 이는 누구인가?
- 14 네 혀는 악을, 네 입술은 거짓된 말을 조심하여라.
- 15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찾고 또 추구하여라.
- 16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 17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맞서 사니 그들에 대한 기억을 세상에서 없애시기 위함이라네.
- 18 그들이 울부짖자 주님께서 들으시어 모든 곤경에서 구해 주셨네.
- 19 주님께서서는 마음이 부서진 이들에게 가까이 계시고 낮이 짓밟힌 이들을 구원해 주신다.
- 20 의인의 불행이 많을지라도 주님께서서는 그 모든 것에서 그를 구하시리라.
- 21 그의 뼈들을 모두 지켜 주사니 그 가운데 하나도 부러지지 않으리라.
- 22 악인은 불행으로 죽고 의인을 미워하는 자들은 짓밟을 받으리라.
- 23 주님께서 당신 종들의 목숨을 건져 주시니 그분께 피신하는 이는 아무도 짓밟을 받지 않으리라.

35 ¹ [다윗] 주님, 저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저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소서.

² 둥근 방패 긴 방패 잡으시고 저를 도우러 일어나소서.

³ 저를 뒤쫓는 자들에게 맞서시어 창을 빼들고 길을 막으소서. "니는 너의 구원이다." 제 영혼에게 말씀주소서.

⁴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워하리라. 내 불행을 꾸미는 자들은 뒤로 물러나 창피를 느끼리라.

⁵ 그들은 바람 앞의 겨처럼 되고 주님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리라.

⁶ 그들의 길은 어둡고 미끄러우며 주님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으리라.

⁷ 그들이 까닭 없이 내게 몰래 그물을 치고 까닭 없이 내게 구렁을 파 놓은 탓이라네.

⁸ 파멸이 불시에 그들을 덮치고 그들은 자기들이 몰래 쳐 놓은 그물에 걸려 파멸에 떨어지리라.

⁹ 그러나 내 영혼은 주님 안에서 기뻐 뛰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즐거워하며

¹⁰ 내 모든 지체는 아뢰리라. "주님, 누가 당신과 같습니까? 당신께서는 가련한 이를 그보다 힘센 자에게서, 가련한 이와 불쌍한 이를 악탈자에게서 구해 주십니다."

¹¹ 사악한 증인들이 일어나 제가 모르는 일을 저에게 묻습니다.

¹² 그들이 제게 선을 악으로 갚으니 저는 외로운 홀몸입니다.

¹³ 그러나 저는 그들이 아팠을 때 자루옷을 제 의복으로 삼고 단식으로 고행하였으며 기도로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¹⁴ 저는 그들이 저의 친구인 양, 형제인 양 제가 어머니 상을 당한 양 애처롭게 몸을 구부린 채 돌아다녔습니다.

¹⁵ 그러나 제가 비틀거릴 때 그들은 기뻐하며 모여들었습니다. 저를 거슬러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르는데 저를 치고 잡아 찢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¹⁶ 이비하게 비아냥거리며 저를 거슬러 이를 갈았습니다.

¹⁷ 주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제 영

혼을 그들이 꾸민 파멸에서, 제 목숨을 사자들에게서 건져 주소서.

- 18 저는 큰 모임에서 당신을 찬송하며 수많은 백성 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 19 음흉한 제 원수들이 저를 두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까닭 없이 저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 20 그들은 평화를 말하지 않을뿐더러 이 땅의 온순한 이들을 거슬러 간계를 꾸밍니다.
- 21 저를 거슬러 한껏 입을 벌려 " 옹거니, 우리 눈으로 보았지!" 합니다.
- 22 당신께서 보셨습니다. 주님, 잠자코 계시지 마소서. 주님, 제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 23 저의 권리를 위하여 깨어 일어나소서. 저의 하느님, 저의 주님, 제 송사를 위하여 일어나소서.
- 24 당신의 의로움에 따라 제 권리를 되찾아 주소서, 주 저의 하느님. 그들이 저를 두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 25 " 옹거니, 우리 소원대로 되었구나!" 그들이 마음속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 우리가 그를 잡아삼켜 버렸다!" 그들이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 26 저의 불행을 기뻐하는 자들은 모두 다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게 하소서. 저를 두고 우쭐대는 자들은 수치와 모욕으로 옷 입게 하소서.
- 27 제 의로움을 좋아하는 이들은 환호하고 즐거워하며 언제나 말하게 하소서. " 당신 종의 평화를 좋아하시는 주님께서서는 위대하시다!"
- 28 저의 혀도 당신의 의로움을, 당신 찬양을 날마다 전하오리다.

36 1 [지휘자에게. 주님의 종 다윗]
2 악인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죄악을 즐긴다. 그의 눈에는 하느님을 무시위하는 빛이 없다.

- 3 그는 오히려 죄 거리를 찾아내고 미움을 일삼으며 자기 눈앞을 잘 닦아 놓았다.
- 4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와 간계. 그는 슬기롭고 착하게 행동하기를 그만두었다.
- 5 그는 잠자리에서 죄를 꾸미고 좋지 않은 길에 서서 악을 물리치지 않는다.
- 6 주님, 당신의 자애는 하늘에 있으며 당신의 성실은 구름까지 닿습니다.
- 7 주님, 당신의 정의는 드높은 산줄기 같고 당신의 공정은 깊은 바다 속 같아 당신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도와주십니다.
- 8 하느님, 당신의 자애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신들과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합니다.
- 9 그들은 당신 집의 기름기로 흠뻑 취하고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당신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 10 장영 당신께서는 생명의 샘이 있고 당신 빛으로 저희는 빛을 봅니다.
- 11 당신을 아는 이들에게 당신의 자애를, 마음 바른 이들에게 당신의 의로움을 늘 배부소서.
- 12 거만한 발길이 제게 닿지 않게, 악인들의 손이 저를 내쫓지 않게 하소서.
- 13 그러면 나쁜 짓 하는 자들은 넘어지고 쓰러져 일어서지 못하리이다.

37 1 [다윗] 너는 악을 저지르는 자들 때문에 격분하지 말고 불의를 일삼는 자들 때문에 흥분하지 마라.

2 그들은 풀처럼 삼시간에 스러지고 푸성귀처럼 시들어 버린다.

3 주님을 신뢰하며 선을 행하고 이 땅에 살며 신의를 지켜라.

4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여라. 그분께서 네 마음이 청하는 바를 주시리라.

5 네 길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께서 몸소 해 주시리라.

6 빛처럼 네 정의를 떠오르게 하시며 대낮처럼 네 공정을 밝히시리라.

7 주님 앞에 고요히 머물며 그분을 고대하여라. 제 길에서 성공을 거두는 자 때문에, 음모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 때문에 격분하지 마라.

8 노여움을 그치고 성을 가라앉혀라. 격분하지 마라. 악을 저지를 뿐이다.

9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주님께 희망을 두는 이들은 땅을 차지하리니.

10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악인은 없어지리라. 그가 있던 자리를 살펴보아도 그는 이미 없으리라.

11 그러나 가난한 이들은 땅을 차지하고 큰 평화로 즐거움을 누리리라.

12 악인이 의인을 거슬러 계교를 꾸미며 그를 향해 이를 가는구나.

13 주님께서 악인을 바웃오시니 그의 날이 다 기움을 보시기 때문이다.

14 악인들이 칼을 빼들고 활을 당겨 가련한 이와 불쌍한 이를 쓰러뜨리고 옳은 길 걷는 이들을 죽이려 하는구나.

15 그러나 그들의 칼은 자기들 가슴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라.

16 의인이 가진 적은 것이 악인들의 많은 재산보다 낫다.

17 악인들의 팔은 부러지지만 의인들은 주님께서 받쳐 주신다.

18 주님께서 흠 없는 이들의 나날을 아시니 그들의 소유는 길이길이 남으리라.

19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기근 때에도 굶주리지 않으리라.

20 그러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주님의 원수들은? 초원의 화사함처럼 사라지리라. 연기 속에 사라지리라.

21 악인은 꾸기만 하고 값지 않으나 의인은 너그럽게 베푼다.

22 그분의 복을 받은 이들은 땅을 차지하고

그분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뿌리째 뽑히리라.

23 주님께서 사람의 발걸음을 굳건히 하시며 그의 길을 마음에 들어 하시리라.

24 그는 비틀거리려도 쓰러지지 않으리니 주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주시기 때문이다.

25 어리던 내가 이제 늙었는데 의인이 버림을 받음도, 그 자손이 빵을 구걸함도 보지 못하였다.

26 그는 늘 너그럽게 빌려 주어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27 너는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여라. 그러면 길이 살리라.

28 주님께서 올바른 것을 사랑하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지만 악인들의 자손은 뿌리째 뽑히리라.

29 의인들은 땅을 차지하여 언제까지나 그 위에 살리라.

30 의인의 입은 지혜를 자아내고 그의 혀는 올바른 것을 말한다.

31 자기 하느님의 가르침이 그의 마음에 있어 그 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32 악인은 의인을 엿보며 그를 죽이려 피하지만

33 주님께서 그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심판 때에 그를 단죄하지 않으시리라.

34 너는 주님께 바라고 그분의 길을 따라라. 그분께서 너를 들어 올려 땅을 차지하게 하시니 너는 악인들이 뿌리째 뽑힘을 즐기 보리라.

35 나는 악인이 폭력을 휘두르며 푸른 월계수처럼 뻗어 감을 보았다.

36 그러나 그는 지나자마자 이내 사라져 나 그를 찾아보았으나 눈에 띄지 않았다.

37 흠 없는 이를 지켜보고 올곧은 이를 살펴 보아라. 평화로운 이에게는 후손이 이어지리라.

- 38 죄인들은 모두 멸망하고 악인들의 후손은 뿌리째 뽑히리라.
- 39 의인들의 구원은 주님에게서 오고 그분께서는 곤경의 때에 그들의 피신처가 되어 주신다.
- 40 주님께서 그들을 도와 구하시고 악인들에게서 빼내어 구원하시니 그분께 몸을 피한 까닭이다.

- 38** ¹ [시편. 다윗. 기념으로]
- ² 주님, 당신 진노로 저를 꾸짖지 마소서. 당신 분노로 저를 벌하지 마소서.
- 3 당신의 화살들이 제게 내리 쏟아지고 당신의 손이 저를 누릅니다.
- 4 당신의 노여움으로 제 살은 성한 데 없고 저의 죄로 제 뼈는 온전한 데 없습니다.
- 5 저의 죄악들이 제 머리 위로 넘쳐 흐르고 무거운 짐처럼 저에게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 6 저의 미련함 때문에 제 상처는 냄새 피우며 썩어 갑니다.
- 7 저는 더없이 꺾이고 무너져 온종일 슬피 떠돌아다닙니다.
- 8 저의 허리는 염증으로 가득하고 저의 살은 성한 데 없습니다.
- 9 저는 쇠약해지고 더없이 으스러져 끄끙 앓는 제 심장에서 산음 소리 흘러나옵니다.
- 10 주님, 당신 앞에 저의 소원 펼쳐져 있고 저의 탄식 당신께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 11 제 심장은 팔딱거리고 기운도 체게서 사라졌으며 저의 눈조차 빛을 잃었습니다.
- 12 제 동무들과 이웃들은 저의 재앙을 보고 물러서 있으며 제 친척들도 멀찍이 서 있습니다.
- 13 제 목숨을 노리는 자들은 덮을 놓고 제 불행을 피하는 자들은 파멸을 이야기하며 온종일 간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 14 그러나 저는 귀머거리처럼 듣지 못하고 병어리처럼 입을 열지 못합니다.

- 15 저는 듣지 못하고 입으로 대꾸도 못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 16 그러나 주님, 저는 당신께 바랍니다. 주의 하느님, 당신께서 대답해 주시리이다.
- 17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 그들이 나를 두고 기뻐하는 일이 없고 내 발이 흔들릴 때 내게 우쭐대는 일이 없었으면.'
- 18 저는 곧 넘어질 지경이며 저의 고통은 늘 제 앞에 있습니다.
- 19 정녕 저는 제 죄악을 고백하며 저의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 20 제게 까닭 없이 대적하는 자들은 기세등등하고 저를 부당하게 미워하는 자들은 그 수도 많습니다.
- 21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 제가 선을 추구한다고 저를 공격합니다.
- 22 주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저의 하느님, 제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 23 주님, 저의 구원이시여 어서 저를 도우소서.

- 39** ¹ [지휘자에게. 여두툼. 시편. 다윗]
- ² 나는 말하였네. " 내 혀로 죄짓지 않도록 나는 내 길을 지키리라. 악인이 내 앞에 있는 동안? 내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 3 나는 행복에서 멀리 떨어진 채 병어리 되어 말없이 잠자코 있었네. 그러나 내 아픔이 솟구쳐 오르고
- 4 내 마음이 속에서 달아오르며 탄식으로 울화가 치밀어 내 혀로 말하였네.
- 5 " 주님, 제 끝을 알려 주소서. 제가 살 날이 얼마인지 알려 주소서. 그러면 저 자신이 얼마나 덧없는지 알게 되리이다.
- 6 보소서, 당신께서는 제가 살 날들을 몇 뼘 길이로 정하시어 제 수명 당신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모두 한낱 입김으로서 있을 뿐.

- 7 인간은 한낱 그림자로 지나가는데 부질없이 소란만 피우며 썩어 늙는다. 누가 그것들을 거두어 갈지 알지도 못한 채.
- 8 그러나 이제 주님, 제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저의 희망은 오직 당신께 있습니다.
- 9 저의 모든 죄악에서 저를 구하여 주소서. 미련한 자의 놀림감으로 저를 내주지 마소서.
- 10 당신께서 하신 일하기에 저는 병어리 되어 제 입을 열지 않습니다.
- 11 당신의 제앙을 제게서 거두소서. 당신 손이 내리치시니 저는 시들어 갑니다.
- 12 당신께서는 짓밟으셨으므로 인간을 벌하시어 좀 벌레처럼 그의 보배를 사그라뜨리시니 사랑은 모두 한낱 입김일 따름입니다.
- 13 제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 제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소서. 제 울음에 잠자코 계시지 마소서. 저는 당신 집에 사는 이방인, 제 조상들처럼 거류민일 따름입니다.
- 14 제게서 눈을 돌리소서. 제가 떠나가 없어지기 전에 생기를 되찾으리이다."

40 ¹ [지휘자에게. 다윗. 시편]

- ² 주님께 바라고 바랐더니 나에게 몸을 굽히시고 내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어
- 3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오물 진창에서 들어 올리셨네. 반석 위에 내 발을 세우시고 내 발걸음을 든든하게 하셨네.
- 4 내 입에 새로운 노래를, 우리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담아 주셨네. 많은 이들은 보고 두려워하며 주님을 신뢰하여라.
- 5 행복하여라, 주님께 신뢰를 두며 오만한 자들과 거짓된 변절자들에게 돌아서지 않는 사람!
- 6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기적과 계획들을 많이도 행하셨으니 그 누구도 당신께 견줄 수 없습니다. 제가 알리고 말하려 해도 헤아리기에겐 그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 7 당신께서는 희생과 제물을 기꺼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의 귀를 열어 주셨습니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당신께서는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 8 그리하여 제가 이터었습니다. "보소서, 제가 왔습니다. 두루마리에 저에 대하여 쓰여 있습니다.
- 9 저의 하느님, 저는 당신의 뜻을 즐겨 이룹니다. 제 가슴속에는 당신의 가르침이 새겨져 있습니다."
- 10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합니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 11 당신 정의를 제 마음속에 감추어 두지 않고 당신의 성실과 구원을 이야기하며 당신의 자애와 진실을 큰 모임에서 숨기지 않습니다.
- 12 주님, 당신께서는 제게 당신의 자비를 거절하지 않으시니 당신의 자애와 진실이 항상 저를 지켜 주리이다.
- 13 셀 수조차 없는 불행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제 죄악들이 저를 사로잡아 더 이상 볼 수도 없습니다. 제 머리키락보다도 많아 저는 용기를 잃었습니다.
- 14 주님, 저를 가까이 구하여 주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15 제 목숨을 잡아채려 노리는 자들은 모두 다 부끄러워하며 수치를 당하고 제 불행을 즐기는 자들은 뒤로 물러나 치욕을 느끼게 하소서.
- 16 " 옹거니!" 하며 저를 놀려 대는 자들은 부끄러워 몸이 굳어지게 하소서.
- 17 그러나 당신을 찾는 이들은 모두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당신 구원을 사랑하는 이들은 항상? "주님께서는 위대하시다." 이되게 하소서.
- 18 나는 가련하고 불행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네. 저의 도움, 저의 구원은 당

신이시니 저의 하느님, 자제하지 마소서.

- 41** ¹ [지휘자에게. 시편. 다윗]
- ² 행복하여라, 가련한 이를 돌보아 주는 이! 불행의 날에 주님께서 그를 구하시리라.
- ³ 주님께서 그를 보살피고 살려 주시어 그가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를 원수들의 탐욕에 내주지 않으시리라.
- ⁴ 주님께서 그를 병상에서 받쳐 주시고 그가 아플 때 모든 고통을 없애시리라.
- ⁵ 저는 아뢰었습니다. "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를 고쳐 주소서.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 ⁶ 제 원수들이 저에게 몹쓸 말을 합니다. " 저자가 언제 죽어 그 이름이 사라질까?"
- ⁷ 찾아와서는 거짓을 이야기하며 속으로는 못된 것을 모아서 밖에 나가 이야기합니다.
- ⁸ 저를 미워하는 자들이 다 함께 저를 거슬러 수군대며 저에게 해로운 일을 꾸밉니다.
- ⁹ " 불운한 일이 그를 덮쳐 드러누운 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어 버려라." 합니다.
- ¹⁰ 제가 믿어 온 친한 벗마저, 제 빵을 먹던 그마저 발꿈치를 치켜들며 저에게 대들니다.
- ¹¹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저를 일으키소서. 제가 그들에게 앙갚음하오리라.
- ¹² 제 원수가 저를 두고 환호하지 않는다면 당신께서 저를 좋아하심을 제가 알게 되리이다.
- ¹³ 당신께서는 제가 온전하도록 불드시고 저를 당신 면전에 영원히 세워 주십니다.
- ¹⁴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찬미받으소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아멘, 아멘!

42 ¹ [지휘자에게. 미스킬. 코라의 자손

들

- ² 암시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이토록 그리워합니다.
- ³ 제 영혼이 하느님을, 제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합니다. 그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나 가서 보을 수 있었습니까?
- ⁴ 사람들이 제게 온종일 " 네 하느님은 어디 계시느냐?" 빈정거리니 낮에도 밤에도 제 눈물이 저의 음식이 됩니다.
- ⁵ 영광스러우신 분의 초막, 하느님의 집까지 환호와 찬미 소리 드높이 축제의 무리와 함께 행진하던 일들이 되새기며 저의 영혼이 북받쳐 오릅니다.
- ⁶ 내 영혼아, 어찌하여 녹아 내리며 내 안에서 신음하느냐? 하느님께 바라라. 나 그분을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의 구원,
- ⁷ 나의 하느님을. 제 영혼이 안에서 녹아 내리며 요르단 땅과 헤르몬과 미츠아르 산에서 당신을 생각합니다.
- ⁸ 당신의 폭포 소리에 따라 너울이 너울을 부릅니다. 당신의 파도와 물결이 모두 제 위로 지나갔습니다.
- ⁹ 낮 동안 주님께서 당신 자애를 베푸시면 나는 밤에 그분께 노래를, 내 생명의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네.
- ¹⁰ 내 반석이신 하느님께 말씀드렸네. " 어찌하여 저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제가 원수의 핏박 속에 슬피 걸어가야 합니까?"
- ¹¹ 적들이 ' 네 하느님은 어디 계시느냐?' 온종일 제게 빈정대면서 제 뼈들이 으스러지도록 저를 모욕합니다."
- ¹² 내 영혼아, 어찌하여 녹아 내리며 어찌하여 내 안에서 신음하느냐? 하느님께 바라라. 나 그분을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의 구원, 나의 하느님을.

43 ¹ 하느님, 제 권리를 되찾아 주소서. 충실치 못한 백성을 거슬러 제 소승

- 을 이끌어 주소서. 거짓되고 불의한 자에게서 저를 구주소서.
- 2 당신은 제 피신처 하느님이시건만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제가 원수의 팽박 속에 슬피 걸어가야 합니까?
- 3 당신의 빛과 당신의 진실을 보내소서. 그들이 저를 인도하게 주소서. 그들이 저를 당신의 거룩한 산으로, 당신의 거처로 데려가게 주소서.
- 4 그러면 저는 하느님의 제단으로, 제 기쁨과 즐거움이신 하느님께 나아가오리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비파 타며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 5 내 영혼아, 어찌하여 녹아 내리며 어찌하여 내 안에서 신음하느냐? 하느님께 바라다. 나 그분을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의 구원, 나의 하느님을.

44 ¹ [지휘자에게. 코라의 자손들. 마스 킵]

- 2 하느님, 저희 귀로 들었습니다. 저희 조상들이 저희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 시대에 당신께서 업적을 이루셨습니다. 그 옛날에
- 3 당신께서 손수 이루셨습니다. 당신께서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조상들을 심으셨으며 겨레들을 멸망시키시고 조상들을 뺏어 가게 하셨습니다.
- 4 정녕 저희 조상들은 자기들의 칼로 땅을 차지하지도 않았고 자기들의 팔로 승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당신의 오른손과 당신의 팔, 당신 얼굴의 빛이 이루어 주셨으니 당신께서 그들을 좋아하셨기 때문입니다.
- 5 하느님, 당신께서 바로 저의 임금님이십니다.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 6 저희는 당신 힘으로 적들을 물리치고 저희에게 항거하는 자들을 당신 이름으로 짓밟습니다.
- 7 정녕 저는 제 화살을 믿지 않습니다. 제 칼

- 이 저를 구원하지도 않습니다.
- 8 오직 당신께서 저희를 적들에게서 구하시고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망신을 주셨습니까.
- 9 저희가 날마다 하느님을 찬양하고 줄곧 당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 10 그러나 당신께서는 저희를 버리셨습니다. 저희를 치욕으로 덮으시고 저희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않으셨습니다.
- 11 당신께서 저희를 적 앞에서 물러나게 하시어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노략질하였습니까.
- 12 당신께서 저희를 잡아먹힐 양들처럼 넘겨 버리시고 저희를 민족들 사이에 흠으셨습니다.
- 13 당신께서 당신 백성을 헐값에 파시어 그 값으로 이익을 남기지도 않으셨습니다.
- 14 당신께서 저희를 이웃들에게 우쭐거리로, 주위 사람들에겐 바웃음과 놀림거리로 내놓으셨습니다.
- 15 당신께서 저희를 민족들의 이야깃거리로, 겨레들의 조소 거리로 내놓으셨습니다.
- 16 온종일 저의 치욕이 제 앞에 있고 창피가 제 얼굴을 덮으니
- 17 능욕자와 모독자의 시끄러운 소리, 원수와 복수자의 얼굴 탓입니다.
- 18 이 모든 것이 저희를 덮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당신을 잊지도 않고 당신의 계약에 불충하지도 않았습니다.
- 19 저희 마음은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저희 발걸음은 당신의 길을 벗어나지도 않았습니다.
- 20 그런데도 당신께서는 저희를 부수시어 승냥이들이나 사는 곳으로 만드시고 저희 위를 암흑으로 덮으셨습니다.
- 21 저희가 만일 저희 하느님의 이름을 잊고 낮은 신에게 저희 손을 펼쳤다면
- 22 하느님께서서는 마음속에 숨겨진 것도 아시

는데 그런 것을 알아채지 못하실 리 있겠 습니까?

- 23 그러나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 며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 24 깨어나소서, 주님,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잠을 깨소서, 저희를 영영 버리지 마소서!
- 25 어찌하여 당신 얼굴을 감추십니까? 어찌하 여 저희의 가련함과 핍박을 잊으십니까?
- 26 정녕 저희 영혼은 먼지 속에 쓰러져 있으 며 저희 배는 땅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 27 저희를 도우러 일어나소서. 당신 자애를 생 각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소서.

45 ¹ [지휘자에게. 나리꽃 가락으로. 코라 의 자손들. 마스킬. 사랑 노래]

- 2 아름다운 말이 제 마음에 넘쳐흘러 임금님 께 제 노래를 읊어 드립니다. 제 혀는 능숙 한 서기의 붓입니다.
- 3 당신께서는 어떤 사람보다 수려하시며 당신 의 입술은 우아함을 머금어 하느님께서 당 신에게 영원히 강복하셨습니다.
- 4 오, 용사시여, 허리에 칼을 차소서. 당신의 업위와 영화를 입으소서.
- 5 당신의 영화와 함께 나아가 이루소서, 진실 과 자비와 정의를! 당신의 오른팔이 당신께 무서운 일들을 가르치리이다.
- 6 임금님의 화살은 날카롭게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고 민족들은 당신 발 아래 쓰러집니다.
- 7 오, 하느님 같은 분! 당신의 왕좌는 영원 무궁하며 당신의 왕홀은 공정의 홀입니다.
- 8 당신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 시기에 하느님께서, 당신의 하느님께서 기쁨 의 기쁨을 당신 동료들에 앞서 당신에게 부 어 주셨습니다.
- 9 몰약과 침향과 계피로 당신 옷들이 모두 향 기로우며 상아궁에서 흘러나오는 현악 소리 가 당신을 즐겁게 합니다.
- 10 제왕의 딸들이 당신의 사랑을 받는 여인들

사이에 있으며 왕비는 오피르의 황금으로 단장하고 당신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 11 들어라, 딸아, 보고 네 귀를 기울여라.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안을 잊어버려라.
- 12 임금님이 너의 아름다움을 열망하시리니 그분께서 너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그분 앞에 엎드려라.
- 13 티로의 딸이 선물을 가져오고 백성 가운데 부자들이 네게 경배하는구나.
- 14 한껏 화사하게 꾸민 임금님 딸이 금실로 수놓은 옷에 싸여 안으로 드는구나.
- 15 오색 옷으로 단장하여 임금님께 인도되고 처녀들이 그 뒤를 따르며 동무들이 그에게 안내되는구나.
- 16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어 그들은 왕궁 으로 들어가는구나.
- 17 당신 아들들이 조상들의 뒤를 이으니 당 신께서 그들을 온 땅의 제후로 삼으시리이 다.
- 18 저는 당신 이름을 세세 대대에 알리리니 백성들이 당신을 영원무궁토록 찬송하리이 다.

46 ¹ [지휘자에게. 코라의 자손들. 알 알 라뭇. 노래]

- 2 하느님께서 우리의 피신처와 힘이 되시어 어려울 때마다 늘 도우셨기에
- 3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네, 땅이 뒤흔들린다 해도 산들이 바다 깊은 곳으로 빠져 든다 해도
- 4 바닷물이 우짚으며 소용돌이치고 그 위력에 산들이 떠다 해도
- 5 강이 있어 그 줄기들이 하느님의 도성을, 지 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처를 즐겁게 하 네.
- 6 하느님께서 그 안에 계시니 흔들리지 않네. 하느님께서 동틀 녘에 구해 주시네.
- 7 민족들이 우짚으며 나라들이 동요하지만 그

- 분께서 큰 소리 내시니 땅이 녹아 흐르네.
- 8 만군의 주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아굽의 하느님께서서 우리의 산성이시네.
- 9 와서 보이라, 주님의 업적을 세상에 놀라운 일을 이루신 그분의 업적을!
- 10 그분께서 세상 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부러뜨리시며 병거를 불에 살라 버리시네.
- 11 "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아라. 나는 민족들 위에 드높이 있노라, 세상 위에 드높이 있노라!"
- 12 만군의 주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아굽의 하느님께서서 우리의 산성이시네.

- 47 1 [지휘자에게. 코라의 자손들. 시편]
2 모든 민족들이여,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 3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의 위대하신 임금이시다.
- 4 민족들을 우리 밑에, 겨레들을 우리 발아래 굴복시키셨네.
- 5 우리에게 골라 주셨네, 우리 상속의 땅을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굽의 사랑을.
- 6 하느님께서서 환호 소리와 함께 오르신다. 주님께서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오르신다.
- 7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 8 하느님께서서 온 누리의 임금이니 찬미가를 불러라.
- 9 하느님께서서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께서서 당신의 거룩한 여좌에 앉으신다.
- 10 못 민족의 귀족들이 아브라함의 하느님 백성이 되어 모여 온다. 세상의 방패들이 하느님의 것이니 그분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어라.

- 48 1 [노래. 시편. 코라의 자손들]
2 주님은 위대하시고 드높이 찬양받으

- 실 분이시다, 우리 하느님의 도성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 3 아름답게 솟아오른 그 산은 온 누리의 기쁨이요, 복녘의 맨 끝 시온 산은? 대왕님의 도읍이라네.
- 4 하느님께서서 그 궁궐 안에 계시며 당신을 성채로 드러내신다.
- 5 보라, 임금들이 모여 와 함께 들어왔다.
- 6 그들은 보자마자 질겁하고 깜짝 놀라 허둥대며 달아났다.
- 7 거기에서 전율이 그들을 덮쳤네,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처럼
- 8 타르시스의 배들을 들부수는 쇠바람처럼.
- 9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가 보았네, 만군의 주님의 도성에서 우리 하느님의 도성에서. 하느님께서서 이를 영원히 굳히셨네.
- 10 하느님, 저희가 당신 궁전에서 당신의 자애를 생각합니다.
- 11 하느님, 당신 이룸처럼 당신을 찬양하는 소리 세상 끝까지 울려 퍼집니다. 당신의 오른손이 의로움으로 기뻐합니다.
- 12 당신의 심판으로 시온 산은 즐거워하고 유다의 딸들은 기뻐 뛰게 하소서.
- 13 너희는 시온을 두루 돌며 그 탑들을 세어 보이라.
- 14 장차 올 세대에게 일러 줄 수 있도록 그 성루를 살피고 그 궁궐들을 돌아다녀 보이라.
- 15 이분께서 하느님이시다. 영원무궁토록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이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알 못.

- 49 1 [지휘자에게. 코라의 자손들. 시편]
2 모든 백성들이여, 이것을 들어라. 세상에 사는 모든 이들이여, 귀여져들여라.
- 3 천한 사람도 귀한 사람도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다 함께 들어라.
- 4 내 입이 지혜를 말하리니 내 마음의 생각은

- 슬기롭다.
- 5 나는 잠언에 귀 기울이고 비파 타며 수수께끼를 풀리라.
- 6 나를 뒤쫓는 자들의 악행이 나를 에워쌀 때 그 불행의 날에 내가 왜 두려워하랴?
- 7 자기 재산을 믿으며 재물이 많음을 자랑하는 그들.
- 8 사람이 사람을 결코 구원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제 몸값을 치를 수도 없다.
- 9 그 영혼의 값이 너무나 비싸 언제나 모자란다,
- 10 그가 영원히 살기에는 구렁을 아니 보기에
는.
- 11 정녕 그는 본다, 지혜로운 이들의 죽음을, 어리석은 자도 미혹한 자도 함께 사라짐을, 그들의 재산을 남들에게 남겨 둔 채로!
- 12 그들이 속으로는 자기 집이 영원하고 자기 거처가 대대로 이어지리라 생각하며 땅을 제 이름 따라 부르지만
- 13 사람은 영화 속에 오래가지 못하여 도살되는 짐승과 같다.
- 14 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을 따르며 그 말을 좋아하는 자들의 운명이다.
- 15 그들은 양들처럼 저승에 버려져 죽음이 그들의 목자 되리라. 아침에는 울퉁은 이들이 그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은 저마다 자기 처소에서 멀리 떨어진 채 그 모습이 썩어 저승으로 사라지리라.
- 16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저승의 손에서 나를 기어올라 빼내시리라.
- 17 누가 부자가 된다 하여도, 제집의 영광을 드높인다 하여도 불안해하지 마라.
- 18 죽을 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으며 그의 영광도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 19 그가 비록 생전에 스스로에게 " 내가 잘한다고 사람들이 널 칭찬한다." 말할지라도

- 20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모인 데로 가서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라.
- 21 영화 속에 있으면서도 지각없는 사람은 도살되는 짐승과 같다.

- 50** ¹ [시편. 아삽]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땅을 부르시네.
- ² 더없이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광채와 함께 나타나시네.
- ³ 우리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아니 오시니 그분 앞에 불이 삼킬 듯 타오르고 그분 들레에는 엄청난 폭풍이 이네.
- ⁴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심판하시려 저 위 하늘과 땅을 부르시네.
- ⁵ " 나에게 모여라, 내게 충실한 자들이 제사로 나와 제약을 맺은 자들아!"
- ⁶ 하늘이 그분의 의로움을 알리네, 하나님, 그분께서 심판자이심.
- ⁷ "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아, 나 너를 거슬러 증언하노라. 나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 ⁸ 너의 제사 때문에 너를 벌하려는 것이 아니니 너의 번제야 늘 내 앞에 있다.
- ⁹ 나는 네 집에 있는 수소도, 네 우리에 있는 숫염소도 받지 않는다.
- ¹⁰ 숲 속의 모든 동물이며 수천 산들의 짐승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 ¹¹ 나는 산의 새들을 모두 안다. 들에서 움직이는 생물들도 내게 속한 것들이다.
- ¹² 나 비록 배고프다 하여도 내게 말하지 않으니 누리와 그를 채운 것들이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 ¹³ 내가 황소의 고기를 먹고 숫염소의 피를 마시더라도 한단 말이나?
- ¹⁴ 하나님에게 찬양 제물을 바치고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네 서원을 채워 드려라.
- ¹⁵ 그리고 불행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나 너를

구하여 주고 너는 나를 공경하라라."

- 16 악인에게는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어찌하여 내 계명들을 늘어놓으며 내 계약을 네 입에 올리느냐?
17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말을 뒤로 뺑개치는 나이거늘.
18 너는 도둑을 보면 함께 뛰고 간음하는 자들과 한패가 된다.
19 너는 입을 놀려 악행을 저지르고 네 입술은 간계를 엮는다.
20 너는 앉아서 네 형제를 거슬러 말하고 네 어머니의 아들에게 모욕을 준다.
21 네가 이런 짓들을 해 왔어도 잠잠히 있었더니 내가 너와 똑같은 줄로 여기는구나. 나 너를 벌하라라. 네 눈앞에 네 행실을 펼쳐 놓으리라.
22 이를 알아들여라, 하느님을 잊은 자들아. 그러지 않으면 내가 잡아 찢어도 구해 줄 자 없으리라.
23 찬양 제물을 바치는 이가 나를 공경하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이에게 하느님의 구원을 보여 주리라."

51 ¹ [지휘자에게. 시편. 다윗.

- ² 그가 밧 세바와 정을 통한 뒤 예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3 하느님, 당신 자비에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의 죄악을 지워 주소서.
4 저의 죄에서 저를 말끔히 씻으시고 저의 잘못에서 저를 깨끗이 하소서.
5 저의 죄악을 제가 알고 있으며 저의 잘못이 늘 제 앞에 있습니다.
6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에 악한 짓을 제가 하였기에 판결을 내리시더라도 당신께서는 의로우시고 심판을 내리시더라도 당신께서는 결백하시리이다.

- 7 정녕 저는 죄 중에 태어났고 허물 중에 제 어머니가 저를 배었습니다.
8 그러나 당신께서는 가슴속의 진실을 기뻐하시고 남모르게 지혜를 제게 가르치십니다.
9 우솔초로 제 죄를 없애 주소서. 제가 깨끗해 지리이다. 저를 씻어 주소서. 눈보다 더 희어 지리이다.
10 기쁨과 즐거움을 제가 맛보게 해 주소서. 당신께서 부수셨던 뼈들이 기뻐 뛰리이다.
11 저의 허물에서 당신 얼굴을 가리시고 저의 모든 죄를 지워 주소서.
12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 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
13 당신 면전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14 당신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 주소서.
15 제가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이다.
16 죽음의 형벌에서 저를 구하소서, 하느님, 제 구원의 하느님. 제 허가 당신의 의로움에 환호하오리다.
17 주님, 제 입술을 열어 주소서. 제 입이 당신의 찬양을 널리 전하오리다.
18 당신께서는 제사를 즐기지 않으시기에 제가 번제를 드려도 당신 마음에 들지 않으시리이다.
19 하느님께 맞갖은 제물은 부서진 영. 부서지고 꺾인 마음을 하느님, 당신께서는 업신여기지 않으십니다.
20 당신의 호의로 시온에 선을 베푸시어 예루살렘의 성을 쌓아 주소서.
21 그때에 당신께서 의로운 희생 제물을, 번제와 전번제를 즐기시리이다. 그때에 사람들이 당신 제단 위에서 수소들을 봉헌하리이다.

52 ¹ [지휘자에게. 마스킬. 다윗.

- 2 에돔 사람 도엑이 사울에게 와서 "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들어 갔습니다." 하고 알렸을 때]
- 3 하느님의 자애가 한결같은데 권세가야, 너는 어찌하여 악을 자랑하느냐?
- 4 거짓을 일삼는 자야 너는 파멸을 꾸미고 네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구나.
- 5 너는 선보다 악을, ?의로움을 말하기보다 속임수를 더 사랑하는구나.
- 6 거짓을 꾸미는 혀야 너는 온갖 멸망의 언사를 사랑하는구나.
- 7 그러나 하느님께서 너를 영영 허물어뜨리시며 너를 천막에서 잡아채고 끌어내시어 생명의 땅에서 너를 없애 버리시리라.
- 8 의인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그를 비웃으리라.
- 9 보라 하느님을 제 피신처로 삼지 않고 자기의 큰 재산만을 믿으며 ?악행으로 제가 강하다고 여기던 사람!
- 10 그러나 나는 하느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 같아라.?영영세세?나는 하느님의 자애에 의지하네.
- 11 제가 당신을 영원히 찬송하니 당신께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께 충실한 이들 앞에서 좋으신 당신 이름에 희망을 둡니다.

53 ¹ [지휘자에게. 알 마할랏. 마스크. 다윗]

- 2 어리석은 자 마음속으로 ' 하느님은 없다.' 말하네. 모두 타락하여 불의를 일삼고 착한 일 하는 이가 없구나.
- 3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사람들을 굽어 살피신다, 그 누가 깨달음 있어 하느님을 찾는지 보시려고
- 4 모두 뱃나가 온통 썩어 버려 착한 일 하는 이가 없구나. 하나도 없구나.
- 5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는가? 나쁜 짓 하는 자들 내 백성을 뺨 먹듯 집어삼키는 저들 하느님을 부르지 않는 저들.

- 6 거기에서, 겁낼 것이 없던 그곳에서 그들은 겁에 질려 소스라치리니 너를 포위한 자들의 뼈를 하느님께서 흡으시겠기 때문이다. 네가 그들에게 칭회를 주리니 하느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겠기 때문이다.
- 7 아, 시온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배풀어졌으면!
- 8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의 운명을 되돌리실 때
- 9 야곱이 기뻐하고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리라.

54 ¹ [지휘자에게. 현악기와 더불어. 마스크. 다윗.]

- 2 지프인들이 사울에게 와서 " 다윗이 우리 가운데에 숨어 있습니다." 하고 아뢰었을 때]
- 3 하느님, 당신의 이름으로 저를 구하시고 당신의 권능으로 제 권리를 되찾아 주소서.
- 4 하느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제 입의 말씀에 귀 기울이소서.
- 5 이방인들이 저를 거슬러 일어나고 포악한 자들이 제 생명을 노리기 때문이니 그들은 하느님을 자기 눈앞에 모시지도 않습니다.
- 6 보라,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은 내 생명을 받쳐 주시는 분이시다.
- 7 저의 적에게 악이 되돌아가게 하소서. 당신의 진실로 그들을 멸망시키소서.
- 8 제가 기꺼이 당신께 제물을 바치오리라. 주님, 당신의 좋으신 이름을 찬송하오리라.
- 9 당신의 그 이름이 저를 구원하시어 제 눈이 원수들을 내려다보겠기 때문입니다.

55 ¹ [지휘자에게. 현악기와 더불어. 마스크. 다윗]

- 2 하느님, 제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저의 간청을 외면하지 마소서.
- 3 제게 주의를 기울이지어 응답해 주소서. 제가 절망 속에 헤매며 신음하니

- 4 원수의 고탐 소리 때문이며 악인의 억압 때문입니다. 그들이 저에게 환난을 들뜨우며 저를 모질게 공격합니다.
- 5 제 마음이 속에서 뒤틀리고 죽음의 공포가 제 위로 떨어집니다.
- 6 두려움과 떨림이 저를 덮치고 전율이 저를 휘감습니다.
- 7 제가 생각합니다. '아,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를 지녔다면 날아가 쉬련마는.
- 8 정녕 멀리 달아나 광야에 머물련마는.
- 9 폭풍의 세찬 바람 피하여 은신처로 서둘러 가련마는.'
- 10 주님, 영클어 버리소서. 그들의 말을 갈라 버리소서. 성인의 폭력과 분쟁을 제가 봅니다.
- 11 그들은 낮이고 밤이고 성벽 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 안에 환난과 재앙이,
- 12 그 안에 파멸이 있으며 억압과 사기가 그 광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 13 원수가 저를 모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제가 참았을 것입니다. 저를 미워하는 자가 제 위에서 거드름을 피운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제가 그를 피해 숨었을 것입니다.
- 14 그러나 그것은 너, 내 동배 내 벗이며 내 동무인 너.
- 15 정답게 어울리던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떠들썩한 군중 속을 함께 거닐던 우리.
- 16 파멸이 그들 위로 내려라! 그들은 산 채로 저승으로 내려가리니 그들 공간에, 그들 속에 악만 있기 때문이다.
- 17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나를 구하여 주시리라.
- 18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나는 탄식하며 신음하네. 그러면 그분께서 내 목소리 들으시고
- 19 나를 거슬러 일어난 싸움에서 나를 평화로 이끌어 구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

적하여 늘어섰기 때문이네.

- 20 먼 옛날부터 좌정하여 계신 분 하나님께서 들으시어 그들에게 응답하시리라.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네.
- 21 그는 친구들에게 손을 대어 자기의 계약을 파기하네.
- 22 그의 입은 바티보다 부드러우나 마음에는 싸움만이 도사리고 그의 말은 기름보다 매끄러우나 실은 뼈에 든 칼이라네.
- 23 네 근심을 주님께 맡겨라. 그분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의인이 흔들림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리라.
- 24 하나님, 당신께서는 저들을 깊은 구렁 속으로 빠져들게 하시리이다. 피에 주된 자와 사기 치는 자들 그들은 일생의 반도 채우지 못하지만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56

- 1 [지휘자에게. 알 요나트 엘렘 르호킴. 다윗. 믹담.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그를 갓에서 붙잡았을 때]
- 2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사람들이 저를 짓밟고 온종일 몰아치며 억누릅니다.
- 3 저의 적들이 온종일 짓밟습니다. 정녕 저를 몰아치는 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지고하신 분이시여!
- 4 제가 무서워 떠는 날 저는 당신께 의지합니다.
- 5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않으니 살덩이가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 6 그들은 온종일 제 말에 트집을 잡으며 그들의 모든 생각은 저를 해치려는 것뿐입니다.
- 7 함께 모여 엿뵙니다. 저의 목숨을 노리면서 그들이 제 발자국을 살핍니다.
- 8 이런 좌악에도 그들에게 구원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진노로 저 무리를 쓰러뜨리소서.
- 9 저는 뜨내기, 당신께서 적어 두셨습니다. 제

눈물을 당신 부대에 담으소서. 당신 책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 10 그때, 제가 부르짖는 그날 제 원수들이 뒤로 물러가리이다. 하느님께서 제 편이심을 저는 압니다.
- 11 하느님 안에서 나는 말씀을 찬양하네. 주님 안에서 내가 말씀을 찬양하네.
- 12 하느님께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 13 하느님, 제가 당신께 드린 서원들이 있으니 감사의 제사로 당신께 채워 드리오리다.
- 14 당신께서 제 목숨을 죽음에서 건지시어 제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해 주셨으니 하느님 앞에서, 생명의 빛 속에서 걸어가도록 하십시오.

- 57** ¹ [지휘자에게. 알 타스헛. 다윗. 믹탐.]
- 1 망쳤을 때
- 2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 영혼이 당신께 피신합니다. 재앙이 지나갈 그때까지 당신 날개 그들로 제가 피신합니다.
- 3 나는 하느님께, 지극히 높으신 분께 부르짖네. 나를 위하시는 하느님께.
- 4 하늘에서 보내시어 나를 구하시고 나를 짓밟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리라. 하느님께서 당신 자애와 당신 진실을 보내시리라.
- 5 저는 사자들 가운데에, 사람을 잡아삼키려는 것들 가운데에 누워 있습니다.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 6 하느님, 하늘 높이 일어나소서. 당신의 영광은 땅 위에 떨치소서.
- 7 그들이 제 걸음마다 그물을 쳐 놓아 제 영혼이 꺾였습니다. 그들이 제 앞에 구덩이를 파 놓았으나 그들 자신이 그 가운데로 빠져 들었습니다.

- 8 제 마음 든든합니다, 하느님. 제 마음 든든합니다. 제가 노래하며 찬미합니다.
- 9 깨어나라, 나의 영혼아. 깨어나라, 수금아, 비파야. 나는 새벽을 깨우리라.
- 10 주님, 제가 백성들 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송하고 겨레들 가운데에서 당신을 노래하리니
- 11 당신의 자애가 하늘까지, 당신의 진실이 구름까지 닿도록 크기 때문입니다.
- 12 하느님, 하늘 높이 일어나소서. 당신의 영광은 땅 위에 떨치소서.

- 58** ¹ [지휘자에게. 알 타스헛. 다윗. 믹탐.]
- 2 오, 신들아, 너희가 진실로 정의를 말하며 올바르게 사람들을 심판하느냐?
- 3 너희는 오히려 마음속으로 불의를 지어내고 너희 손의 폭력을 땅 위에 퍼뜨리는구나.
- 4 악인들은 어미 배에서부터 변질하고 거짓말쟁이들은 어미 품에서부터 낫나간다.
- 5 그들은 뱀과 같은 독을 지녔다. 제 귀를 틀어막아 귀먹은 독사처럼.
- 6 능숙하게 주문을 외우는 주술사의 목소리를, 요술사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독사처럼.
- 7 하느님, 그들 입 안의 이를 부수소서. 주님, 사자들의 이빨을 부러뜨리소서.
- 8 흘러내리는 물처럼 그들은 사라지고 그들이 화살을 당간다 해도 무디어지게 하소서.
- 9 녹아내리는 달팽이처럼, 햇빛을 못 보는, 유산된 태아처럼 되게 하소서.
- 10 가시나무 불이 너희 숲을 뜨겁게 하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날로든 태워서든 그 안의 것을 없애 버리시리라.
- 11 의인은 복수를 보며 기뻐하고 악인의 피에 자기 발을 씻으리라.
- 12 그리하여 사람들이 말하리라. " 과연 의인에게는 결실이 있구나. 과연 세상에는 심판하시는 하느님께서 계시는구나."

- 59** ¹ [지휘자에게. 알 타스헛. 믹탐. 다윗.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집을 감시할 때]
- ² 저의 하느님, 제 원수들에게서 저를 구하소서. 제 적들에게서 저를 보호하소서.
- ³ 나쁜 짓 하는 자들에게서 저를 구하시고 피에 주린 자들에게서 저를 구원하소서.
- ⁴ 보소서, 그들이 제 목숨을 엿보며 힘센 자들이 저를 공격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잘못이 없고 죄가 없는데도,
- ⁵ 제 탓이 없는데도 그들은 달려와 늘어섰습니다. 깨어나 오시어 저를 보소서.
- ⁶ 당신은 주 만군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하느님. 일어나시어 민족들을 모두 벌하소서. 사악한 변절자 그 누구에게도 동정을 베풀지 마소서.
- ⁷ 그들은 저녁이면 돌아와 개처럼 짚어 대며 성안을 돌아다닙니다.
- ⁸ 보소서, 그들은 입으로 거품을 내뿜고 입술에는 칼을 물고서 말합니다. "대관절 누가 듣는단 말이나?"
- ⁹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는 그들을 바웃오시며 민족들을 모두 냉소하십니다.
- ¹⁰ 저의 힘이시여, 당신만을 바랍니다. 하느님, 당신께서 저의 성체이시기 때문입니다.
- ¹¹ 나의 자애로우신 하느님께서 나에게 마주 오시리라. 하느님께서 내가 적대자들을 내려다보게 하시리라.
- ¹² 제 백성이 있지 않도록 그들을 죽이지 마소서. 저희의 방패이신 주님 당신 힘으로 그들을 흩어 버리고 쓰러뜨리소서.
- ¹³ 그들 입술에서 나온 말은 그들 입이 저지른 죄니 자기들의 교만에 걸려들게 하소서. 저주와 거짓말을 늘어놓았으니
- ¹⁴ 그들을 진노로 없애소서,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소서. 하느님께서 아픔을 다스리십시 세상 끝까지 알려지리이다.

- ¹⁵ 그들은 저녁이면 돌아와 개처럼 짚어 대며 성안을 돌아다닙니다.
- ¹⁶ 먹을 것을 찾아 이리저리 쫓다니다 배를 채우지 못하면 거기서 밤을 새웁니다.
- ¹⁷ 그러나 저는 당신의 힘을 노래하오리다. 아침에 당신의 자애에 환호하오리다. 당신께서 저에게 성체가, 제 곤경의 날에 피신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 ¹⁸ 하느님, 당신은 저의 성체, 저의 자애로우신 하느님이시니 저의 힘이시여, 당신께 노래하오리다.

- 60** ¹ [지휘자에게. 알 수산 애돏. 믹탐. 다윗. 교훈을 위하여.]
- ² 그가 아람 나하리임과 초베의 아람인과 전쟁할 당시 요압이 돌아와 '소금 골짜기'에서 애돏족 만 이천 명을 쳤을 때
- ³ 하느님, 당신께서 저희를 버리시고 저희를 부수셨습니다. 당신께서 분노를 터뜨리셨습니다. 저희를 회복시켜 주소서.
- ⁴ 당신께서 땅을 뒤흔드시어 갈라놓으셨습니다. 그 갈라진 틈들을 매워 주소서. 흔들립니다.
- ⁵ 당신 백성에게 고생을 겪게 하시고 저희에게 어지럼 이는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 ⁶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깃발을 올리시어 활 앞에서 지레 도망치게 하셨습니다.
- ⁷ 당신의 사랑받는 이들이 구원되도록 당신의 오른팔로 도우시고 저희에게 응답하소서.
- ⁸ 하느님께서 당신 성소에서 말씀하셨다. "나는 기뻐하며 스켄을 나누고 수컷 골짜기를 축량하리라.
- ⁹ 길앗도 내 것, 므나쎄도 내 것 에프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 유다는 내 왕
- ¹⁰ 모압은 내 대야. 애돏 위에 내 신발을 던지고 필리스티아 위로 승리의 환성을 올리리라."
- ¹¹ 누가 나를 견고한 성읍으로 데려가리오?

누가 나를 애덤까지 이끌어 주리오?

- 12 하느님, 당신께서 저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느님, 당신께서는 저희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않으십니다.
- 13 저희를 적에게서 구원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 14 하느님과 함께 우리가 큰일을 이루리라. 그분께서 우리 원수들을 짓밟으시리라.

- 61** 1 [지휘자에게. 현악기로 다윗]
- 2 하느님, 제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제 기도를 귀여겨들어 주소서.
- 3 땅 끝에서 기진한 마음으로 당신을 부르니다. 저로서는 못 오를 바위 위로 저를 이끌어 주소서.
- 4 당신께서는 저에게 피신처, 원수 앞에서 굳건한 탑이 되셨습니다.
- 5 저는 당신의 찬막 안에 같이 머물고 당신의 날개 그늘에 피신하고 싶습니다.
- 6 하느님, 당신께서 저의 서원들을 들으시어 당신 이름 경외하는 이들의 재산을 제게 주셨습니다.
- 7 임금의 날들에 날들을 보태시어 그의 헛수 여러 세대와 갈게 하소서.
- 8 하느님 앞에서 그를 영원히 왕좌에 앉히시고 자애와 진실을 그에게 나누어 주시어 그를 수호하게 하소서.
- 9 그리하여 저는 당신 이름을 언제나 노래하오리다. 저의 서원들을 낱알이 채우오리다.

- 62** 1 [지휘자에게. 여두툰의 가락으로. 시편. 다윗]
- 2 내 영혼은 오직 하느님을 향해 말없이 기다리니 그분에게서 나의 구원이 오기 때문이네.
- 3 그분만이 내 바위, 내 구원, 내 성채.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다.
- 4 너희 모두는 언제까지나 한 사람에게 달려

들어 그를 무너뜨리려 하느냐? 기우는 벽, 넘어지는 담처럼.

- 5 진정 그들은 높은 곳에서 그를 떨어뜨리려 피하며 거짓을 좋아하는구나. 그들은 입으로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는구나.
- 6 내 영혼아, 오직 하느님을 향해 말없이 기다려라, 그분에게서 나의 희망이 오느니!
- 7 그분만이 내 바위, 내 구원, 내 성채.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다.
- 8 내 도움과 내 영광이 하느님께 있으며 내 견고한 바위와 피신처가 하느님 안에 있네.
- 9 백성아, 늘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 앞에 너희 마음 쏟아 놓아라. 하느님께서 우리의 피신처이시다.
- 10 진정 사람이란 숨결일 따름 인간이란 거짓일 따름. 그들을 모두 저울판 위에 올려 놓아도 숨결보다 가볍다.
- 11 너희는 강압에 의지하지 말고 강탈에 헛된 희망 두지 마라. 재산이 는다 하여 거기에 마음 두지 마라.
- 12 하느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바 내가 들은 것은 이 두 가지. 능력이 하느님께 있다는 것.
- 13 그리고 주님, 당신께는 자애가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십니다.

- 63** 1 [시편. 다윗. 그가 유다 광야에 있을 때]
- 2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당신을 찾습니다.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합니다. 물기 없이 마르고 매마른 땅에서 이 몸이 당신을 애타게 그립니다.
- 3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이렇듯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봅니다.
- 4 당신의 자애가 생명보다 낮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합니다.
- 5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

- 름 부르며 저의 두 손 들어 올리오리라.
- 6 제 영혼이 비계와 기름을 먹은 듯 배불러 환호하는 입술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합니다.
- 7 제가 잠자리에서 당신을 생각하고 야경 때에도 당신을 두고 묵상합니다.
- 8 정녕 당신께서 제게 도움이 되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 아래서 제가 환호합니다.
- 9 제 영혼이 당신께 매달리면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들어 주십니다.
- 10 그러나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은 멸망으로,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리라.
- 11 칼날에 내맡겨져 어우들의 몫이나 되리라.
- 12 그러나 임금은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는 이들은 모두 자랑스러워하리라. 정녕 거짓을 말하는 입은 틀어막히리라.

- 64 ¹ [지휘자에게. 시편. 다윗]
- ² 하느님, 비탄 속에서 부르짖는 제 소리를 들으소서. 원수에 대한 두려움에서 제 생명을 지켜 주소서.
- 3 악한 자들의 음모에서, 나쁜 짓 하는 자들의 폭동에서 저를 숨겨 주소서.
- 4 그들은 칼처럼 혀를 버리고 독한 말을 화살처럼 시위에 매겨
- 5 무죄한 이를 숨어서 쏘려 합니다. 느닷없이 그를 쏘고서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 6 그들은 악한 일을 단단히 꾸며 내어 닦을 놓자 모의하고저는 누가 자기들을 보라고 말해 댁니다.
- 7 불의한 것을 생각해 내고는 말합니다. "우리는 준비가 다 됐다. 계획이 세워졌다." 사람의 속과 마음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 8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들을 화살로 쏘시리니 그들은 순식간에 상처를 입으리라.
- 9 그분께서 그들을 자기네 혀로 망하게 하시리니 그들을 보는 이마다 머리를 흔들리라.

- 10 이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느님께서서하신 일을 전하며 그분의 업적을 깨달으리라.
- 11 의인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그분께 피신하고 마음 바른 이들은 모두 자랑스러워하리라.

- 65 ¹ [지휘자에게. 시편. 다윗. 노래]
- ² 하느님, 시온에서 당신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당신께 서원이 채워집니다,
- 3 기도를 들어 주시는 분 당신께. 당신께로 모든 사람이 모여 오니
- 4 죄악 때문입니다. 저희의 죄가 저희에게는 너무나 무겁지만 당신께서는 그것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 5 행복합니다, 당신께서 뽑아 가까이 오도록 하신 이! 그는 당신의 뜰 안에 머물리이다. 저희도 당신 집의 좋은 것을, 거룩한 당신 궁전의 좋은 것을 누리리이다.
- 6 저희 구원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정의의 놀라운 행적으로 저희에게 응답하십니다. 당신은 세상 모든 끝과 머나먼 바다의 희망이십니다.
- 7 당신은 권능으로 허리에 띠 두르시어 산들을 당신 힘으로 세우신 분.
- 8 바다의 노호를, 그 파도의 노호를, 민족들의 소리를 가라앉히시는 분.
- 9 땅 끝에 사는 이들이 당신 표징들을 보고 놀라워하리이다. 당신께서 동녘과 서녘 끝을 환호하게 하십니다.
- 10 당신께서는 땅을 찾아오셔서 물로 넘치게 하시어 더없이 풍요롭게 하십니다. 하느님의 개울은 물로 가득하고 당신께서는 곡식을 장만하십니다. 정녕 당신께서 이렇게 마련해 주십니다.
- 11 그 고랑에 물을 대시고 두둑을 고르시며 비로 부드럽게 하시어 새싹들에게 강복하십니다.

- 12 당신의 선하심으로 한 해를 꾸미시어 당신께서 가시는 길마다 기쁨이 방울져 흐릅니다.
- 13 사막의 풀밭에도 방울져 흐르고 언덕들은 기쁨으로 띠 두릅니다.
- 14 목장들은 양 떼로 옷 입고 골짜기들은 곡식으로 뒤덮여 저들이 환성을 울리며 노래합니다.

- 66** ¹ [지휘자에게. 노래. 시편] 온 세상이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 2 그 이름의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러라.
- 3 하느님께 아뢰어라. "당신께서 하신 일들 얼마나 경외롭습니까! 당신의 크신 능력에 원수들도 당신께 굴복거립니다.
- 4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께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 5 너희는 와서 보아라, 하느님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이루신 그 행적 경외로워라.
- 6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시어 맨발로 건너 갔다네. 거기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기뻐하네.
- 7 그분께서 당신 권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분의 두 눈은 민족들을 바라보시니 반항자들은 대들지 마라.
- 8 백성들아, 우리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 울려 퍼지게 하여라.
- 9 그분께서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 발이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 10 하느님, 당신께서 저희를 시험하시고 은을 단련하듯 저희를 단련하셨습니다.
- 11 저희를 그물에 걸려들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저희 허리에 지우셨습니다.
- 12 사람들이 저희 머리 위를 밟고 가게 하시어 저희는 불과 물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저희를 넓은 곳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 13 저는 번제물을 가지고 당신 집으로 들어가 당신께 저의 사원을 채우오리다.
- 14 곤경 중에 제 입술이 말씀드리고 제 입이 아뢰었던 것을 채우오리다.
- 15 솥양을 태우는 향연과 더불어 기쁨진 번제물을 당신께 봉헌하오리다. 소와 염소들을 바치오리다.
- 16 하느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이 와서 들어라. 그분께서 내게 하신 일을 내가 들려주리라.
- 17 그분께 내가 입을 열어 부르짖었지만 내 입술 밑에는 이미 찬미 노래가 있었네.
- 18 만일 내 마음속에 죄악이 들어 있었다면 주님께서 들어 주지 않으셨으리라.
- 19 그러나 정녕 하느님께서는 들으셨네. 내 기도 소리를 새겨들으셨네.
- 20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내게서 당신 자애를 거두지 않으신 하느님께서서는 찬미 받으소서.

- 67** ¹ [지휘자에게. 현악기와 더불어. 시편. 노래]
- 2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강복하시리라. 당신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리라.
- 3 그리하여 세상에 당신의 길이, 만민에게 당신의 구원이 알려지게 하소서.
- 4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민족들 모두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5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니 당신께서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겨레들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 6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민족들이 모두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7 땅이 제 소출을 내주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강복하셨네.
- 8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강복하시리라. 세상 모든 끝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68 ¹ [지휘자에게. 다윗. 시편. 노래]
²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그분의 적들이 흩어지고 원수들이 그 앞에서 도망친다.
³ 연기가 흠날랴듯 그들은 흠날려 가고 초가 불 앞에서 녹아내리랴듯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해 간다.
⁴ 그러나 의인들은 기뻐하며 뛰리라. 하나님 앞에서 기쁨 속에 즐거워하리라.
⁵ 너희는 하나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에 찬미 노래 불러라. 구름 타고 달리시는 분께 길을 닦아 드러라. 그 이름 주님이시다. 그분 앞에서 기뻐 춤추어라.
⁶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보호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거처에 계시다.
⁷ 하나님은 외로운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사모잡힌 이들을 행복으로 이끌어 내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반항자들은 불모지에 머무른다.
⁸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 백성에 앞서 나아가실 제 당신께서 사막을 행진하실 제
⁹ 땅이 뒤흔들리고 하늘마저 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나이의 그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¹⁰ 하나님, 당신께서는 넉넉한 비를 뿌리시어 매마른 당신 상속의 땅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¹¹ 당신의 무리가 그 위에 살고 있으니 하나님, 당신께서 가련한 이를 위하여 호의로 마련하신 것입니다.
¹² 주님께서 말씀을 내리시니 기쁜 소식 전하는 이들이 대군을 이루네.
¹³ 군대를 이끈 임금이 도망가는구나, 도망가는구나. 규중 여인도 전리품을 나누네.
¹⁴ 너희는 가축 우리 사이에서 쉬고 싶으냐? 비둘기의 날개는 은으로, 그 깃들은 푸른 빛이 도는 금으로 뒤덮였네.
¹⁵ 전능하신 분께서 거기에서 임금들을 흠으

실 제 찰몬에는 눈이 왔네.
¹⁶ 바산의 산은 드높은 산이요 바산의 산은 여러 봉우리 거느린 산이라네.
¹⁷ 여러 봉우리 거느린 산들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거처하시기로 하신 그 산을 어찌하여 즐겨보느냐? 정녕 주님께서 거기에 영원히 머무시리라.
¹⁸ 하나님의 수레는 수만 수천. 주님께서 오신다, 시나이에서 성소로.
¹⁹ 주 하나님으로 좌정하시려고 당신께서는 포로들을 거느리시고 높은 데로 오르셨으며? 사람들에게서, 심지어 반항자들에게서도 에물을 받으셨습니다.
²⁰ 주님께서는 나날이 찬미받으소서. 우리 위하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다.
²¹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주 하나님께는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네.
²²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수시리라, 당신 원수들의 머리를, 죄 속에 걸어가는 자의 더부룩한 정수리를.
²³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바산에서 데려오리라. 바다 깊은 곳에서 데려오리라.
²⁴ 내가 피에다 발을 씻고 네 개들의 혀도 원수들에게서 제 목을 차지하게 하려는 것이다."
²⁵ 하나님, 사람들이 당신의 행렬을 보았니다, 저의 하나님이시며 저의 임금인 당신께서 성소로 드시는 행렬을.
²⁶ 기인들이 앞서 가고 악수들이 뒤따르며 그 가운데에서는 처녀들이 손북을 치는구나.
²⁷ 축제의 모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여라. 이스라엘의 원천에서 주님을 찬미하여라.
²⁸ 거기에는 작지만 그들의 지배자인 벤아민이, 유대의 으뜸들이 무리 지어 있고 즈불론의 으뜸들과 납탈리의 으뜸들이 있네.
²⁹ 하나님, 당신의 관능을 베푸소서. 하나님,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 보이소서, 우리 위하여 이루신 당신의 권능을.

- 30 예루살렘에 있는 당신의 궁궐을 위하여 임금이 당신께 조공을 가져오게 하소서.
- 31 꾸짖으소서, 갈대밭의 맹수를 수소들의 무리를 백성들의 송아지들도 함께, 은덩이를 짓밟으시는 분께서 전쟁을 좋아하는 백성들을 흠어 버리시네.
- 32 이집트에서 우두머리들이 오고 에티오피아는 서둘러 하느님께 선물을 가져오네.
- 33 세상의 나라들이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 34 하늘을, 태초의 하늘을 타고 달리시는 분께. 보라, 그분께서 소리를 높이시니 우렁찬 소리라네.
- 35 하느님께 권능을 드러라. 이스라엘 위에는 그분의 존엄이 있고 그분의 권능은 구름 위에 있네.
- 36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성소에서 경외로우시다.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백성에게 권능과 힘을 주시네. 하느님께서서는 찬미받으소서.

69 ¹ [지휘자에게. 나리꽃 가락으로. 다윗]

- 2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목까지 물이 들어왔습니다.
- 3 깊은 수렁 속에 빠져 발 디딜 데가 없습니다.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 물살이 저를 짓칩니다.
- 4 소리 지르느라 지치고 저의 목도 쉬었습니다. 저의 하느님을 고대하느라 제 두 눈마저 흐려졌습니다.
- 5 저를 까닭 없이 미워하는 자들이 제 머리카락보다 더 많습니다. 저를 파멸시키려는 자들, 음흉한 제 원수들이 힘도 씁니다. 제가 빼앗지도 않았는데 물어내라 합니다.
- 6 하느님, 당신께서는 저의 어리석음을 아시며 당신께서는 저의 죄악들이 숨겨져 있지 않습

니다.

- 7 주 만군의 주님 당신께 바라는 이들이 저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을 찾는 이들이 저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 8 당신 때문에 제가 모욕을 당하고 수치가 제 얼굴을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 9 저는 제 형제들에게 남이 되었고 제 어머니의 소생들에게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 10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불태우고 당신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제 위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 11 제가 단식하며 눈물을 흘린 것이 저에게는 우셋거리가 되었습니다.
- 12 자루옷을 의복으로 삼은 제가 저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 13 성문 기에 앉은 자들은 저를 헐뜯어 대고 주정꾼들은 조롱의 노래들을 부릅니다.
- 14 그러나 주님, 당신 마음에 드시는 때에 저의 기도가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하느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당신 구원의 진실로 세계 응답하소서.
- 15 진창에서 저를 구출하소서, 제가 빠져 들지 않도록. 제 원수들에게서, 물속 깊은 데에서 제가 구출되게 하소서.
- 16 물살이 저를 짓치지 못하고 깊은 물이 저를 집어삼키지 못하며 심연이 저를 삼켜 그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소서.
- 17 주님, 당신의 자애가 너그러우시니 저에게 응답하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를 돌아보소서.
- 18 당신 종에게서 얼굴을 감추지 마소서. 제가 곤경 속에 있으니 어서 저에게 응답하소서.
- 19 세계 가까이 오시어 저를 구해 내소서. 제 원수들을 보시고 저를 구원하소서.
- 20 당신께서는 제가 당하는 모욕을, 제가 당하는 창피와 수치를 아십니다. 저의 적들이 모두 당신 앞에 있습니다.

- 21 모욕이 제 마음을 비수어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동정을 바랐건만 허시였고 위로 해 줄 이들을 바랐건만 찾지 못하였습니다.
- 22 그들은 저에게 음식으로 독을 주고 목말라 할 때 초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 23 그들의 식탁이 그들 앞에서 텅이 되고 태평스러운 그들에게 올라가미가 되게 하소서.
- 24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 보지 못하고 그들의 허리는 늘 휘청거리게 하소서.
- 25 그들 위에 당신의 분노를 쏟아 부으소서. 당신 진노의 불길어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 26 그들이 사는 곳은 황폐해지고 그들의 천막에는 사는 이가 없게 하소서.
- 27 그들은 당신께서 때리신 이들을 뒤쫓고 당신께서 치신 이들의 상처를 헤아립니다.
- 28 그들의 죄에다 죄를 더하소서. 그들이 당신 구원에 들지 못하게 하소서.
- 29 그들이 생명의 책에서 지워지고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 30 저는 가련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느님, 저를 도우시어 보호하소서.
- 31 나는 하느님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리라. 송가로 그분을 칭송하리라.
- 32 이것이 주님께는 더 좋는데, 수소들보다 빨 달리고 굵 갈라진 황소들보다.
- 33 가난한 이들이 이를 보고 즐거워하리라. 하느님을 찾는 이들이야, 너희 마음 기운 차려라.
- 34 주님께서는 불쌍한 이들의 소리를 들어 주시고 사로잡힌 당신 백성을 떨시하지 않으신다.
- 35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과 땅아 물과 그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아.
- 36 하느님께서서는 시온을 구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세우신다. 그들이 거기에 머물며 그곳을 차지하고
- 37 그분 종들의 후손이 그 땅을 상속하여 그

분 이름을 사랑하는 이들이 그곳에서 살아 가리라.

- 70 ¹ [지휘자에게. 다윗. 기념으로]
- ² 하느님, 어서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³ 제 목숨을 노리는 자들은 부끄러워하며 수치를 당하고 제 불행을 즐기는 자들은 뒤로 물러나 치욕을 느끼게 하소서.
- ⁴ " 옮겨!" 하며 놀려 대는 자들은? 부끄러워 되돌아가게 하소서.
- ⁵ 그러나 당신을 찾는 이들은? 모두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당신 구원을 사랑하는 이들은 언제나 이롭게 하소서. " 하느님께서서 위대하시다."
- ⁶ 저는 가련하고 불쌍하니 하느님, 어서 제게 오소서. 저의 도움, 저의 구원은 당신이시니 주님, 저해하지 마소서.

- 71 ¹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니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 ² 당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구출하소서, 저를 구원하소서. 저에게 당신의 귀를 기울이소서, 저를 구하소서.
- ³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할 산성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곽이십니다.
- ⁴ 저의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악인의 손에서 불의한 자와 폭력을 일삼는 자의 손아귀에서.
- ⁵ 주 하느님, 당신만이 저의 희망이시고 제 어릴 때부터 저의 신뢰이십니다.
- ⁶ 저는 태중에서부터 당신께 의지해 왔고 제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보호자 사니 저의 찬양이 언제나 당신께 향합니다.
- ⁷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기적과 같았으며 당신은 저의 굳센 피신처이셨습니다.
- ⁸ 저의 입은 온종일 당신 찬양으로, 당신 영광

의 찬미로 가득 찼습니다.

- 9 그를 내던지지 마소서, 다 늙어 버린 이때에. 저의 기운 다한 지금 저를 버리지 마소서.
- 10 제 원수들이 저를 헐뜯고 제 목숨 노리는 자들이 함께 모의합니다.
- 11 " 하느님께서 그자를 버리셨다. 구해 줄 사람 없으니 너희는 쫓아가 붙잡아라." 합니다.
- 12 하느님, 계께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저의 하느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13 저를 적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사라지게 하소서. 저의 불행을 피하는 자들이 모욕과 수치로 뒤덮이게 하소서.
- 14 그러나 저는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그 모든 찬양에 찬양을 더하오리다.
- 15 저의 입은 당신의 의로움을, 당신 구원의 행적을 온종일 이야기하리니 저로서는 그 수를 이루 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16 저는 주 하느님의 위업을 찬송하며 들어가 오로지 당신의 의로움만을 기리렵니다.
- 17 하느님, 당신께서는 제 어릴 때부터 저를 가르쳐 오셨고 저는 이제껏 당신의 기적들을 전하여 왔습니다.
- 18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하느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제가 당신 팔의 능력을, 당신의 위력을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전할 때까지.
- 19 하느님, 당신의 의로움은 하늘까지 닿습니다. 위대한 일들을 하신 당신 하느님, 누가 당신과 같겠습니까?
- 20 당신께서는 저에게 많은 곤경과 불행을 겪게 하셨지만 저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땅속 깊은 물에서? 저를 다시 끌어 올리셨습니다.
- 21 저의 명성을 더해 주시고 저를 다시 위로해 주소서.
- 22 저의 하느님, 저 또한 수금으로 당신의 진

실을 찬송하오리다. 비파 타며 당신께 노래하오리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여!

- 23 제가 당신께 노래할 때 제 입술이 기뻐 뛰고 당신께서 구하신 제 영혼도 그러하리이다.
- 24 저의 혀도 온종일 당신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리니 저의 불행을 피하던 자들이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기 때문입니다.

72 ¹ [솔로몬]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왕자에게 베푸소서.

- 2 그가 당신의 백성을 정의로, 당신의 기뻐한 이들을 공정으로 통치하게 하소서.
- 3 산들은 백성에게 평화를, 언덕들은 정의를 가져오게 하소서.
- 4 그가 백성 가운데 기뻐한 이들의 권리를 보살피고 불쌍한 이들에게 도움을 베풀며 폭행하는 자를 쳐부수게 하소서.
- 5 세세 대대로 해처럼 달처럼 살게 하소서.
- 6 그가 풀밭 위의 비처럼, 땅을 적시는 소나기처럼 내려오게 하소서.
- 7 그의 시대에 정의가, 큰 평화가 꽃피게 하소서,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 8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 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9 적들은 그 앞에 엎드리고 그의 원수들은 먼지를 핥게 하소서.
- 10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 오고 세비와 스비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 11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 12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기뻐한 이를 구원합니다.
- 13 그는 약한 이와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줍니다.
- 14 그가 억압과 폭행에서 그들의 목숨을 구하

라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에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 15 그가 오래도록 살아 사람들이 그에게 세바의 황금을 바치고 그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나날이 그를 축복하게 하소서.
- 16 땅에 곡식이 풍성하여 산봉우리 위에까지 남치고 그 열매 레바논 같게 하소서. 사람들은 성읍마다 밭의 풀처럼 피어나게 하소서.
- 17 그의 이름이 영원하며 해가 비치는 한 그의 이름도 솟아오르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고 그를 찬송하게 하소서.
- 18 주 하느님,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리라, 그분 홀로 기적들을 일으키신다.
- 19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은 영원히 찬미 받으시리라. 그분의 영광은 온 누리에 가득하리라. 아멘, 아멘!
- 20 이사이의 아들 다윗의 기도는 여기에서 끝난다.

- 73** ¹ [시편. 아삽] 정녕 하느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올바른 이에게! 하느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마음이 깨끗한 이들에게!
- 2 그러나 나는 허미터면 발이 미끄러지고 걸음을 헛다닐 뻔하였으니
- 3 내가 어리석은 자들을 시새우고 악인들의 평안함을 보았기 때문이네.
- 4 그들에게 아픔이라고는 없으며 그들의 몸은 건강하고 기쁨졌네.
- 5 인간의 괴로움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다른 사람들처럼 고통을 당하지도 않네.
- 6 그래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며 폭행이 옷처럼 그들을 덮었네.
- 7 그들의 눈은 비계로 불거져 나오고 그들의 마음에서는 온갖 환상이 흘러나오네.
- 8 그들은 비웃으며 실습곳게 이야기하고 거만

하게 으러대며 이야기하네.

- 9 하늘을 향해 자기네 입을 열어젖히고 그들의 혀는 땅을 휩쓸고 다니네.
- 10 그래서 내 백성이 그들에게 몸을 돌려 저들의 말을 물 마시듯 들어켜네.
- 11 그들은 말하네. "하느님이 어찌 알 리 있으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어찌 알아채 리오?"
- 12 보라, 바로 이들이 악인들! 언제까지나 걱정 없이 재산을 늘려 가네.
- 13 정녕 나는 헛되이 마음을 깨끗이 보존하고 결백으로 내 두 손을 씻었던 말인가?
- 14 날마다 고통이나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이나 받으려고?
- 15 "나도 그렇게 말하리라." 생각하였지만 그것은 당신 아들들의 모임을 배신하는 것.
- 16 깊이 생각하여 이를 알아들으려 하였으나 그것은 제 눈에 괴로움뿐이었습니다.
- 17 그러나 마침내 하느님의 성전에 들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 18 정녕 당신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운 길에 세우시고 그들을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 19 그들이 얼마나 순식간에 멸망해 버리는지! 그들은 없어지고 공포로 사라져 갑니다.
- 20 잠에서 깨어났을 때의 덧없는 꿈처럼 주님께서는 일어나실 때 그들의 모습을 업신여기십니다.
- 21 그렇건만 제 마음이 쓰러리고 제 속이 복받쳤을 때
- 22 저는 멍탕구리, 알아들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당신 앞에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 23 그러나 저는 늘 당신과 함께 있어 당신께서 제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 24 당신의 뜻에 따라 저를 이끄시다가 훗날 저를 영광으로 받으시리라.
- 25 저를 위하여 누가 하늘에 제시니까? 당신

과 함께라면 이 세상에서 바랄 것이 없습니다.

- 26 제 몸과 제 마음이 스러질지라도 제 마음의 반석, 제 뭇은 영원히 하느님이십니다.
- 27 이제 보소서, 당신에게서 멀어진 자들은 멸망합니다. 당신을 배신한 자를 당신께서는 없애 버리십니다.
- 28 그러나 저는, 하느님께 가까이 있음이 저에게는 좋습니다. 저는 주 하느님을 제 피신처로 삼아 당신의 모든 업적을 알리렵니다.

- 74** ¹ [마스킬. 아삽] 하느님, 어찌하여 마냥 버려두십니까? 어찌하여 당신 목장의 양 떼에게 분노를 태우십니까?
- ² 기억하소서, 당신께서 애초부터 마련하시어 당신 소유의 지파로 구원하신 무리를 당신 거처로 삼으신 시온 산을!
- ³ 당신 발걸음을 들어 옮기소서, 이 영원한 폐허로! 성전에서 원수가 모든 것을 파괴하였습니다.
- ⁴ 당신 적들이 당신의 성소 한가운데에서 소리소리 지르고 자기네 깃발을 성소의 표지로 세웠습니다.
- ⁵ 마치 나무 숲에서 도끼를 휘두르는 자와 같았습니다.
- ⁶ 그렇게 그들은 그 모든 장식들을 도끼와 망치로 때려 부수었습니다.
- ⁷ 당신의 성전을 불로 태우고 당신 이름의 거처를 땅에다 뒤엎어 더럽히며
- ⁸ 마음속으로 말하였습니다. '전부 없애 버리자. 하느님의 성소들을 이 땅에서 모두 불살라 버리자!'
- ⁹ 이제 저희의 표지는 볼 수 없고 예언자도 더 이상 없으며 언제까지일지 아는 이도 저희 가운데에는 없습니다.
- ¹⁰ 하느님, 언제까지나 적이 칼보아도 됩니까? 원수가 당신 이름을 끊임없이 업신여겨도 됩니까?

- ¹¹ 어찌하여 당신 손을 사리십니까? 어찌하여 당신 오른팔을 품에 넣고 계십니까?
- ¹² 그러나 하느님은 예로부터 저의 임금님 세상 한가운데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
- ¹³ 당신께서는 바다를 당신 힘으로 뒤흔드시고 물 위에서 용들의 머리를 부수셨습니다.
- ¹⁴ 레비아탄의 머리들을 깨뜨리시어 바다의 상어들에게 먹이로 주셨습니다.
- ¹⁵ 썰과 개울을 터뜨리시고 물 많은 강들을 말리셨습니다.
- ¹⁶ 낮도 당신의 것, 밤도 당신의 것. 당신께서 빛과 해를 세우셨습니다.
- ¹⁷ 당신께서는 땅의 경계를 모두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습니다.
- ¹⁸ 주님, 이를 생각하소서. 적이 깔뽀니다. 어리석은 백성이 당신 이름을 업신여깁니다.
- ¹⁹ 당신 비둘기의 목숨을 들짐승에게 내주지 마소서. 당신의 가련한 이들의 생명을 끝내 잊지 마소서.
- ²⁰ 당신의 계약을 돌아보소서! 나리의 구석구석이 폭행의 소굴로 가득 찼습니다.
- ²¹ 억눌린 이가 수치를 느끼며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가련한 이와 불쌍한 이가 당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 ²² 일어나소서, 하느님. 당신의 소송을 친히 이끄소서. 생각하소서, 어리석은 자가 날마다 당신을 깔보고 있음.
- ²³ 당신 적들의 외침을, 점점 커지는 항거자들의 이우성을 잊지 마소서.

- 75** ¹ [지휘자에게. 알 타스헛. 시편. 아삽. 노래]
- ² 저희가 당신을 찬송합니다, 하느님, 찬송합니다. 당신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당신의 기적들을 이야기합니다.
- ³ " 내가 정한 때가 오면 나는 올바르게 심판하리라.
- ⁴ 땅이며 그 모든 주민이 뒤흔들려도 내가 세

- 운 그 기둥들은 굳건히 서 있다.
- 5 거만한 자들에게 내가 말하였다. ' 거만하게 굴지 마라.' 악인들에게 내가 말하였다. ' 뿔을 쳐들지 마라.' "
- 6 너희 뿔을 높이 쳐들지 마라. 고개를 치켜들고 무례하게 말하지 마라.
- 7 해 뜨는 데서도 해 지는 데서도 아니요 산 속 광야에서도 오는 게 아니니.
- 8 오직 하느님만이 심판자, 어떤 이는 낮추시고 어떤 이는 높이신다.
- 9 실상 주님의 손에 잔이 들려 있으니 향료 가득한 거품 이는 술이라네. 그 잔에서 따르시니 그들은 찌꺼기까지 훑아 마시리라. 세상의 모든 악인들이 마셔야 하리라.
- 10 그러나 나는 끝없이 기뻐 춤추며 야곱의 하느님께 노래하리라.
- 11 " 내가 악인들의 뿔을 모두 꺾으리니 의인의 뿔은 드높여지리라."

- 76** ¹ [지휘자에게. 현악기와 더불어. 시편. 아삽. 노래]
- 2 하느님께서 유다에 널리 알려지셨네. 이스라엘에 그 이름 위대하시네.
- 3 살렘에 그분의 초막이, 시온에 그분의 거처가 마련되었네.
- 4 거기에서 불화살들을,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를 그분께서 들부수셨네.
- 5 당신은 영광스러운 분 전리품의 산들보다도 뛰어나신 분!
- 6 심장이 강한 자들도 가진 것 빼앗긴 채 잠에 떨어졌습니다. 역전의 용사들도 모두 손을 놀릴 수 없었습니다.
- 7 야곱의 하느님, 당신의 호령에 수레도 말도 까무러쳤습니다.
- 8 당신은 경외로우신 분 당신께서 진노하실 때 누가 당신 앞에서 있었습니까?
- 9 당신께서 하늘로부터 심판을 선포하시니 땅이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 10 세상의 가난한 이들을 모두 구하시려 하느님께서 심판하러 일어나실 때.
- 11 사람의 분노마저 당신을 찬송하고 그 분노의 나머지로 당신께서는 떠 두르십니다.
- 12 주 너희 하느님께 서원하고 채워 드러라, 그분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이. 두려움이신 그분께 예물을 바쳐라.
- 13 그분은 제후들의 일을 꺾으시는 분, 세상 임금들에게 경외로우신 분이시다.

- 77** ¹ [지휘자에게. 여두둔에 따라. 아삽. 시편]
- 2 내게 귀를 기울이시라고 나 소리 높여 하느님께, 나 소리 높여 하느님께 부르짖네.
- 3 곤경의 날에 내가 주님을 찾네. 밤에도 내 손을 벌리지만 지칠 줄 모르고 내 영혼은 위로도 마다하네.
- 4 하느님을 생각하니 한숨만 나오고 생각을 거듭할수록 내 열이 아득해지네.
- 5 당신께서 제 눈꺼풀을 붙잡으시니 불안하여 말도 채 못합니다.
- 6 저는 그 먼 옛날을 회상하고 아득히 먼 시절을 생각합니다.
- 7 밤새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묵상하며 정신을 가다듬어 헤아려 봅니다.
- 8 " 주님께서 영원히 버리시어 더 이상 호의를 배풀지 않으시려나?
- 9 당신 자애를 거두시고 당신 말씀을 영영 그쳐 버리셨나?
- 10 하느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을 잊으셨나? 분노로 당신 자비를 거두셨나?"
- 11 제가 말합니다. " 이것이 나의 아픔이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팔이 변해 버리신 것이!"
- 12 저는 주님의 업적을 생각합니다. 예전의 당신 기적을 생각합니다.
- 13 당신의 모든 행적을 되새기고 당신께서 하신 일들을 묵상합니다.

- 14 하느님, 당신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느님처럼 위대한 신이 누가 또 있습니까?
- 15 당신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느님 백성들 사이에 당신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 16 당신 팔로 당신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을.
- 17 하느님, 물들이 당신을 보았습니다. 물들이 당신을 보고 요동치며 해심마저 떨었습니다.
- 18 비구름은 물을 퍼붓고 먹구름은 소리를 지르며 당신의 화살들도 훑아냈습니다.
- 19 회오리바람 속에 당신의 천둥소리 나고 번개가 누리를 비추자 땅이 떨며 뒤흔들렸습니다.
- 20 당신의 길이 바다를, 당신의 행로가 큰 물을 가로질렀지만 당신의 발자국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 21 당신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당신 백성을 양 떼처럼 이끌었습니다.

- 78** ¹ [마스킬. 아삽] 내 백성아, 나의 가르침을 들어라. 내 입이 하는 말에 너희 귀를 기울여라.
- 2 내가 입을 열어 격언을, 예로부터 내려오는 금언들을 말하리라.
- 3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을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을.
- 4 우리가 그 자손들에게 숨기지 않고 미래의 세대에게 들려주려 한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권능을 그분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 5 그분께서 아굽에 법을 정하시고 이스라엘에 가르침을 세우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것으로서 이를 그 자손들에게 알리려 하심이다.
- 6 미래의 세대, 장차 태어날 자손들이 알아듣고서 그들도 일어나 제 자손들에게 들려주게 하시려는 것이다.

- 7 이들이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하느님의 업적을 잊지 않으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어
- 8 고집 부리고 반항하는 세대였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되지 말라 하심이다. 그 세대는 마음을 확고히 하지 않고 그들의 정신은 하느님께 신실하지 않았다.
- 9 에프라임의 자손들, 활로 무장한 그들이 전투의 날에 등을 돌렸다.
- 10 그들은 하느님의 계약을 지키지 않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간기를 마다하였다.
- 11 그리고 잊어버렸다, 그분의 위업을 그들에게 보여 주신 기적들을.
- 12 그분께서는 그들의 조상들 앞에서 이적을 일으키셨다, 이집트 땅 초안 평야에서.
- 13 바다를 가르시어 그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물을 독처럼 새우셨다.
- 14 낮에는 구름으로, 밤이면 불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 15 사막에서 비위들을 쫓게시어 심연에서처럼 흡족히 물을 마시게 하셨다.
- 16 돌덩이에서 시내들이 솟게 하시어 강처럼 물이 흘러내리게 하셨다.
- 17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그분께 죄를 짓고 사막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 반항하였다.
- 18 마음속으로 하느님을 시험하며 제 욕심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였다.
- 19 하느님을 거슬러 말하였다. "하느님! 신들 광야에다 상을 차려 내실 수 있오라?"
- 20 보라, 비위를 치시니 물이 흐르고 시냇물이 넘쳐흘렀지만 빵까지 주실 수 있오라? 당신 백성에게 고기를 장만해 주실 수 있오라?"
- 21 이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격노하시니 아굽을 거슬러 불길이 타오르고 이스라엘을 거슬러 분노가 솟아올랐다.
- 22 그들이 하느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도우심에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23 그러나 그분께서는 위의 구름에 명령하시

- 고 하늘의 문들을 여시어
 24 그들 위에 만나를 비처럼 내려 먹게 하시고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 25 천사들의 빵을 사람이 먹었다. 그들에게 음식을 배부르도록 보내셨다.
- 26 하늘에서 셋바람을 일으키시고 당신 힘으로 마파람을 몰아오시어
 27 그들 위에 고기를 먼지처럼, 날짐승을 바다의 모래처럼 내리셨다.
- 28 당신의 진영 한가운데에, 당신의 거처 둘레에 떨어지게 하시어
 29 그들이 실컷 먹고 배불렀으니 그들의 욕심을 채워 주신 것이다.
- 30 그러나 그들은 입에 먹을 것이 들어 있는 데도 욕심을 멀리하지 않았다.
- 31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을 거슬러 치솟아 그들 가운데 건장한 사나이들을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거꾸러뜨리셨다.
- 32 이 모든 것을 보고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그분의 기적들을 믿지 않았다.
- 33 이에 그분께서는 그들의 날수를 단숨에, 그들의 햇수를 공포 속에 스러지게 하셨다.
- 34 그들을 죽이실 제야 그들은 그분을 찾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아
 35 하나님께서 그들의 바위이심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셨다.
- 36 그러나 그들은 입으로 그분을 속이고 혀로 그분께 거짓말하였다.
- 37 그들은 그분께 마음을 확고히 하지 않고 그분 계약에 신실하지 않았다.
- 38 그러나 그분께서는 저버하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당신 분노를 거듭 일으키시고 당신 진노를 결코 터뜨리지 않으셨다.
- 39 그들이 한낱 살덩어리임을,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다.
- 40 그들이 광야에서 몇 번이나 그분께 반항하였고 황야에서 몇 번이나 그분을 괴롭혔던가!
 41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슬프게 하였다.
- 42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다, 그분의 손을 자기를 적에게서 구하신 그날을
 43 이집트에서 일으킨 그분의 표징들을 초안 평야에서 당신의 이적들을 일으킨 그날을.
- 44 자들의 강을 피로 바꾸시니 저들이 그 시내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였다.
- 45 등에 떼를 보내시어 저들을 뜯어 먹게 하시고 개구리 떼를 보내시어 저들을 망하게 하셨다.
- 46 저들의 수확을 때꾸기 떼에게, 저들의 소출을 누리 떼에게 나누셨다.
- 47 우박으로 저들의 포도나무를, 서리로 저들의 돌무화과나무를 죽이셨다.
- 48 저들의 가축을 우박에게, 저들의 양 떼를 번개에게 넘기셨다.
- 49 저들에게 당신 분노의 열기를, 격분과 격노와 환난을, 재앙의 천사 무리를 보내셨다.
- 50 당신 분노의 길을 닦으시어 저들의 목숨을 죽음에서 구하지 않으시고 저들의 생명을 흑사병에게 넘기셨다.
- 51 이집트의 모든 만이들을, 함의 천막 속 저들 정력의 첫 소생을 치셨다.
- 52 당신 백성을 양 떼처럼 이끌어 내시어 광야에서 그들을 가축 떼처럼 인도하셨다.
- 53 안전하게 이끄시니 그들은 무서워하지 않았고 그들의 적들은 바다가 뒤덮어 버렸다.
- 54 그들을 당신의 거룩한 영토로, 당신 오른팔이 마련하신 이 산으로 데려오셨다.
- 55 그들 앞에서 민족들을 쫓아내시어 그 땅을 제비 뽑아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그 천막에 살게 하셨다.
- 56 그러나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시

힘하고 그분께 반항하며 그분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

- 57 그들의 조상들처럼 배신하고 배반하여 뒤틀린 활처럼 되어 버렸다.
- 58 자기네 산당으로 그분을 언짢으시게 하고 자기네 우상으로 그분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 59 하느님께서서는 들으시고 격노하시어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시고
- 60 실로의 거처를, 사람들 사이에 치셨던 그 장막을 내버리셨다.
- 61 당신의 힘을 적에게 사로잡히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적의 손에 내주셨다.
- 62 당신 백성을 칼에 넘기시고 당신 소유에게 격노하셨다.
- 63 그들의 젊은이들은 불이 삼켜 버리고 처녀들에게는 사랑 노래 들리지 않았다.
- 64 그들의 사제들은 칼에 쓰러지고 과부들은 곡을 하지도 못하였다.
- 65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잠자던 사람처럼, 술로 달아오른 용사처럼 깨어나셨다.
- 66 당신 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수치를 안겨 주셨다.
- 67 그러나 요셉의 천막을 버리시고 에프라임 지파를 뽑지 않으셨다.
- 68 오히려 유다 지파를,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뽑으셨다.
- 69 당신 성전을 드높은 하늘처럼, 영원히 굳게 세우신 땅처럼 지으셨다.
- 70 당신 종 다윗을 뽑으시고 그를 양 우리에서 이끌어 내셨다.
- 71 어미 양을 치던 그를 데려오시어 당신의 백성 아굽을, 당신의 소유 이스라엘을 양처럼 돌보게 하시니
- 72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슬기로운 손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소유의 땅으로 쳐들어와 당신의 거룩한 궁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 2 당신 종들의 주검을 하늘의 새들에게 먹이로 내주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의 살을 들짐승들에게 주었습니다.
- 3 그들의 피를 물처럼 예루살렘 주변에 쏟아 부었던만큼 물어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 4 저희는 이웃들에게 우쭐거리가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바웃음과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 5 주님, 언제까지나 마냥 진노하시렵니까? 언제까지나 당신의 걱정을 불처럼 태우시렵니까?
- 6 당신의 분노를 쏟아 부으소서, 당신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당신 이름을 받들어 부르지 않는 나라들 위에.
- 7 그들이 아굽을 집어삼키고 그 사는 곳을 부수었습니다.
- 8 선조들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소서. 당신 자비가 어서 저희에게 미치게 하소서. 저희가 이토록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 9 당신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도우소서, 저희 구원의 하느님. 당신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하시고 저희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 10 "저들의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민족들이 이렇게 말해서야 어찌 되겠습니까? 당신 종들이 흘린 피의 복수가 저희 눈앞에서 민족들에게 드러나게 하소서.
- 11 포로들의 탄식이 당신께 이르게 하소서. 죽음에 놓인 이들을 당신 팔의 힘으로 보호 하소서.
- 12 저희 이웃들의 품에다 일곱 배로 갚으소서, 주님, 저들이 당신께 드린 그 모욕을.
- 13 그러나 저희는 당신의 백성 당신 목장의 양 떼. 저희는 끝없이 당신을 찬송하고 대대로 당신에 대한 찬양을 전하오리다.

80 ¹ [지휘자에게. 나리꽃 가락으로. 증언. 아삽. 시편]

²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요셉을 양 떼처럼 이끄시는 분이시여. 커룹들 위에 좌정하신 분이시여 광채와 함께 나타나소서,

³ 에프라임과 벤야민과 므나세 앞으로! 당신의 권능을 깨우시어 저희를 도우러 오소서.

⁴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⁵ 주 만군의 하느님 당신 백성의 기도에도 아랑곳없이 언제까지나 노여워하시렵니까?

⁶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가득히 마시게 하셨습니다.

⁷ 당신께서 저희를 이웃들의 싸움 거리로 만드시어 원수들이 저희를 비웃습니다.

⁸ 만군의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⁹ 당신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하나를 뽑아 오시어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¹⁰ 당신께서 자리를 마련하시니 뿌리를 내려 땅을 채웠습니다.

¹¹ 산들이 그 그늘로 덮이고 들은 행백나무들이 그 가지들로 덮였습니다.

¹² 그 줄기들은 바다까지, 그 햇순들은 강까지 뻗었습니다.

¹³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그 울타리들을 부수시어 길 가는 사람마다 그것을 잡아 꺾게 하셨습니까?

¹⁴ 숲에서 나온 멧돼지가 먹어 치우고 들짐승이 뜯어 먹습니다.

¹⁵ 만군의 하느님, 제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¹⁶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를 당신 위해 키우신 아들들.

¹⁷ 그 가지는 불에 타고 꺾었습니다. 그들은

당신 얼굴의 질척으로 멸망해 갑니다.

¹⁸ 당신 오른쪽에 있는 사람 위에, 당신 위해 키우신 인간의 아들 위에 당신의 손을 얹어 주소서.

¹⁹ 저희가 당신에게서 떠나가지 않으리이다. 저희를 살려 주소서. 저희가 당신 이름을 받들어 부르리이다.

²⁰ 주 만군의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81 ¹ [지휘자에게. 기딯에 맞추어. 아삽.]
² 환호하여라, 우리의 힘이신 하느님께! 환성을 올려라, 야곱의 하느님께!

³ 노랫소리 울리며 손뼉을 쳐라. 수금과 더불어 고운 가락 내는 비파를 타라.

⁴ 나팔을 불어라, 초승에 보름에, 우리의 축제 날에.

⁵ 이것이 이스라엘의 규정이고 야곱의 하느님의 법규라네.

⁶ 이집트 땅을 거슬러 그분께서 나아가실 제 요셉에게 법으로 세우셨네. 전에는 모르던 말씀을 나는 들었네.

⁷ "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풀어 주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내려 주었다.

⁸ 곤경 속에서 내가 부르짖자 나 너를 구하였고 천둥 구름 속에서 너에게 대답하였으며 프리바의 샘에서 너를 시험하였노라.

⁹ 들어라 내 백성아, 나 네게 증언하노라. 이스라엘아, 부디 내 말을 들어라.

¹⁰ 너에게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너는 낮은 신을 경배해서는 아니 된다.

¹¹ 내가 주님, 너희의 하느님이다. 너를 이집트 땅에서 끌어 올린 이다. 네 입을 한껏 벌려라, 내가 채워 주리라.

¹² 그러나 내 백성은 말을 듣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나를 따르려 하지 않았다.

¹³ 그래서 내가 고집 센 그들의 마음을 내버

려 두어 그들은 제멋대로 걸어갔다.

- 14 내 백성이 내 말을 듣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이 내 길을 걷기만 한다면
15 나 그들의 원수들을 당장 꺾으려만는 그들의 적들에게 내 손을 돌리려만는.
16 그들이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아침을 받고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려만는.
17 나 그들에게 기쁜 참밀을 먹게 하고 바위의 꿀로 그들을 배부르게 하려만는."

82

1 [시편. 아삽]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에서 일어서시어 그 신들 가운데

- 에서 심판하신다.
2 " 너희는 언제까지 불의하게 심판하며 악인들의 편을 들려느냐?
3 약한 이와 고아의 권리를 되찾아 주고 불쌍한 이와 가련한 이에게 정의를 베풀어라.
4 약한 이와 불쌍한 이를 도와주고 악인들의 손에서 구해 내어라."
5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세상의 기초들이 모두 흔들린다.
6 "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며 모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다.
7 그러나 너희는 사람들처럼 죽으리라. 여느 대관들처럼 쓰러지리라."
8 일어나소서,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소서. 당신께서는 모든 민족들을 차지하고 계십니다.

83

1 [노래. 시편. 아삽]

- 2 하나님, 잠잠히 계시지 마소서. 말없이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하나님.
3 보소서, 당신의 적들이 소란을 피우고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치켜듭니다.
4 당신의 백성을 거슬러 음모를 꾸미고 당신께 보호받는 이들을 거슬러 모의합니다.
5 그들은 말합니다. " 자, 저들 민족을 없애 버려 이스라엘의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 6 그들은 한마음으로 흉계를 꾸미고 당신을 거슬러 동맹을 맺습니다.
7 에돔의 천막들과 이스마엘인들 모압과 하가르인들
8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 필리스티아와 티로의 주민들도 함께.
9 아시리아까지 그들과 합세하여 롯의 자손들에게 팔을 뻗쳐 거둡니다.
10 미디안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하소서. 키손 천에서 시스라와 아벳에게 하신 것처럼.
11 이들은 엔 도르에서 전멸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습니다.
12 그들의 수령들을 오렙과 즈엡처럼, 그들의 제후들을 제비와 찰문나처럼 만드소서.
13 그들은 말합니다. " 하나님의 목장들을 우리가 차지하자."
14 저의 하나님, 그들을 방랑초처럼, 바람 앞의 지푸라기처럼 만드소서.
15 숲을 태우는 불처럼, 신들을 사르는 불길처럼 만드소서.
16 그렇게 당신의 태풍으로 그들을 뒤쫓으시고 당신의 폭풍으로 그들을 놀라게 하소서.
17 주님, 그들의 얼굴을 수치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18 그들이 내내 부끄러워하고 놀라 얼굴을 붉히며 멸망해 가게 하소서.
19 그래서 당신의 이름 주님이심을 당신 홀로 온 세상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심을 그들이 깨닫게 하소서.

84

1 [지휘자에게. 기탄에 맞추어. 코라의 자손들. 시편]

- 2 만군의 주님 당신의 거처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3 주님의 앞뜰을 그리워하며 이 몸은 여위어 갑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제 마

- 음과 제 몸이 환성을 지릅니다.
- 4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당신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마련하고 제비도 제 둥지가 있어 그곳에 새끼들을 칩니다.
- 5 행복합니다, 당신의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늘 당신을 찬양하리니.
- 6 행복합니다, 마음속으로 순례의 길을 생각할 때 당신께 힘을 얻는 사람들!
- 7 그들은 비가 계곡을 지나며 샘물을 솟게 하고 봄비는 축복으로 덮어 줍니다.
- 8 그들은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 시온의 하느님 앞에 나옵니다.
- 9 주 만군의 하느님, 제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느님, 귀를 기울여 주소서.
- 10 하느님, 저희의 방해를 보소서. 당신의 기쁨부음받은이의 얼굴을 굽어보소서.
- 11 장님 당신 앞뜰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천 날보다 더 좋습니다. 저의 하느님 집 문간에 서 있기가 악인의 천막 안에 살기보다 더 좋습니다.
- 12 장님 주 하느님은 태양이고 방패이시며 주님께서는 은총과 영광을 베푸십니다. 흠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 13 만군의 주님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85

- 1 [지휘자에게. 코라의 자손들. 시편]
- 2 주님, 당신께서는 당신 땅을 어여뵈여가시어 야곱의 운명을 되돌리셨습니다.
- 3 당신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잘못을 덮어 주셨습니다.
- 4 당신의 격분을 말씀히 거두시고 당신 분노의 열기를 돌리셨습니다.
- 5 저희 구원의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키소서. 저희에 대한 노여움을 푸소서.
- 6 끝끝내 저희에게 진노하십니까? 당신 분노를 대대로 뺏치시겠습니까?

- 7 저희를 다시 살리시어 당신 백성이 당신 안에서 기뻐하게 하지 않으시렵니까?
- 8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이시고 저희에게 당신 구원을 베푸소서.
- 9 하느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는 듣고자 하네.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당신께 충실한 이들에게?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들은 다시 우매함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 10 장님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구원이 가까우니 우리 땅에 영광이 머무르리라.
- 11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추리라.
- 12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13 주님께서도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그 열매를 내어 주리라.
- 14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께서는 그 길 위에 걸음을 내디디시리라.

86

- 1 [기도. 다윗. 주님, 귀를 기울이시어 제게 응답하소서. 가련하고 불쌍한 이 몸입니다.]
- 2 제 영혼을 지켜 주소서. 당신께 충실한 이 몸입니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신뢰하는 이 종을 구해 주소서.
- 3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으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4 당신께 제 영혼을 들어 올리니 주님, 당신 종의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 5 주님, 당신은 어지시고 가까이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크십니다.
- 6 주님, 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제 애원하는 소리를 귀여겨들으소서.
- 7 당신께서 제게 응답해 주시리니 곤경의 날 제가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 8 주님, 산들 가운데 당신 같은 이 없습니다. 당신의 업적 같은 것이 없습니다.

- 9 주님,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민족들이 와서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 이름에 영광을 드리
리이다.
- 10 당신은 위대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이시니 당신 홀로 하느님이십니다.
- 11 주님, 세계 당신의 길을 가르치소서. 제가
당신의 진실 안에 걸으리이다. 당신 이름
을 경외하도록 제 마음을 모아 주소서.
- 12 주 저의 하느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
송하며 영원토록 당신 이름에 영광을 드리
렵니다.
- 13 저에 대한 당신의 자애가 크시고 제 영혼
을 깊은 저승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 14 하느님, 오만한 자들이 저를 거슬러 일어나
고 포악한 자들의 무리가 제 목숨을 노립
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기들 앞에 모시지
않습니다.
- 15 그러나 주님, 당신은 예비하시고 너그러우
신 하느님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십니다.
- 16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의
힘을 당신 종에게 주시고 당신 여종의 아
들을 구하소서.
- 17 저에게 어지심의 표징을 보이소서. 저를 미
워하는 자들이 이를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주님, 당신께서 저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 87** 1 [코라의 자손들. 시편. 노래] 거룩한
산 위에 세워진 그 타전,
2 주님께서 아랍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성
문들을 사랑하시니
3 하느님의 도성이 너를 두고 영광스러운 일
들이 일컬어지는구나.
4 나는 라합과 바벨론도 나를 아는 자들로 셈
한다. 보라, 필리스티아와 티로도 에티오피
아와 함께 " 이자는 거기에서 태어났다."
일컬어진다.

- 5 시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는구나. "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곳에서 태어났으며 지
극히 높으신 분께서 몸소 이를 굳게 세우셨
다."
6 주님께서 백성들을 기록하며 헤아리신다. "
이자는 거기에서 태어났노라."
7 노래하는 이들도 춤추는 이들도 말하는구나.
" 나의 모든 샘이 네 안에 있네."

88

- 1 [노래. 시편. 코라의 자손들. 지휘자
에게. 알 마랄랏 르안논. 미스킬. 제
라 사람 해단]
- 2 주님, 제 구원의 하느님 낮 동안 당신께 부
르짖고 밤에도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 3 제 기도가 당신 앞까지 이르게 하소서. 제
울부짖음에 당신의 귀를 기울이소서.
- 4 제 영혼은 불행으로 가득 차고 제 목숨은
저승에 다다랐습니다.
- 5 저는 구렁으로 내려가는 이들과 함께 헤아
려지고 기운이 다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 6 저는 죽은 이들 사이에 버려져 마치 무덤에
누워 있는 살해된 자들과 같습니다. 당신께
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어 당신의 손길
에서 떨어져 나간 저들처럼 되었습니다.
- 7 당신께서 저를 깊은 구렁 속에, 어둡고 깊숙
한 곳에 집어넣으셨습니다.
- 8 당신의 분노로 저를 내리누르시고 당신의
그 모든 파도로 저를 짓누르십니다.
- 9 당신께서 벗들을 제게서 멀어지게 하시고
저를 그들의 혐오 거리로 만드셨으니 저는
간헐 몸, 나갈 수도 없습니다.
- 10 제 눈은 고통으로 흐려졌습니다. 주님, 저
는 온종일 당신을 부르며 당신께 제 두 손
을 펴 듭니다.
- 11 죽은 이들에게 당신께서 기적을 이루시겠
습니까? 그림자들이 당신을 찬송하려 일어
서겠습니까?
- 12 무덤에서 당신의 자애가, 멸망의 나라에서

당신의 성실이 일컬어지겠습니까?

- 13 어둠에서 당신의 기적이, 땅각의 나라에서 당신의 의로움이 알려지겠습니까?
- 14 그러나 주님, 저는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아침에 저의 기도가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 15 주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당신 얼굴을 제게서 감추십니까?
- 16 어려서부터 저는 가련하고 죽어 가는 몸 당신에 대한 무서움을 짊어진 채 어쩔 줄 몰라 합니다.
- 17 당신의 진노가 저를 휩쓸어 지나가고 당신에 대한 공포가 저를 부서뜨립니다.
- 18 그들이 날마다 물처럼 저를 에워싸고 저를 빙 둘러 가두었습니다.
- 19 당신께서 벗과 이웃을 제게서 멀어지게 하시어 어둠만이 저의 벗이 되었습니다.

89

¹ [마스길, 제라 사람 에덴

- ² 저는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제 입으로 당신의 성실을 대대로 전하오리다.
- 3 정녕 제가 아뢰이다. " 주님께서는 자애를 영원히 세우시고 성실을 하늘에 굳건히 하셨습니다."
- 4 " 나는 내가 뽑은 이와 계약을 맺고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였노라.
- 5 영원토록 네 후손을 굳건히 하고 대대로 이어질 네 왕좌를 세우노라."
- 6 주님, 하늘은 당신의 기적을, 거룩한 이들의 모임은 당신의 성실을 찬송합니다.
- 7 정녕 구름 위에서 누가 주님과 견줄 수 있으며 신들 가운데 누가 주님과 비슷하겠습니까?
- 8 거룩한 이들의 모임에서 더없이 경외로우신 하느님 당신 주위에 두려움을 일으키시는 분
- 9 주 만군의 하느님 누가 당신같이 능하겠습

니까, 주님! 당신의 성실이 당신 주위에 가득합니다.

- 10 당신께서는 오만한 바다를 다스리시고 파도가 솟구칠 때 그것을 잠잠케 하십니다.
- 11 당신께서는 리합을 죽은 몸뚱이처럼 짓밟으시고 당신의 그 힘찬 팔로 당신 원수들을 흠으셨습니다.
- 12 하늘도 당신의 것, 땅도 당신의 것 누리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도 당신께서 지으셨습니다.
- 13 북녘과 남녘을 당신께서 만드시니 타보르와 헤르몬이 당신 이름에 환호합니다.
- 14 당신께서는 힘센 팔을 지나셨고 당신 손은 굳세시며 당신 오른팔은 우뚝하십니다.
- 15 정의와 공정이 당신 어좌의 바탕 자애와 진실이 당신 앞에 서서 갑니다.
- 16 행복합니다, 축제의 환호를 아는 백성! 주님, 그들은 당신 얼굴의 빛 속을 걷습니다.
- 17 그들은 날마다 당신 이름으로 기뻐하고 당신 정의로 일어섭니다.
- 18 정녕 당신은 그들 힘의 영광이시며 당신 호의로 저희의 땀을 쳐들어 주십니다.
- 19 저희의 방패는 주님의 것 저희의 임금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것.
- 20 예전에 당신께서 발현하여 말씀하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 내가 영웅에게 왕권을 씌우고 백성 가운데에서 뽑힌 이를 들어 높였노라.
- 21 나의 종 다윗을 찾아내어 그에게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노라.
- 22 내 손이 그를 붙잡아 주고 내 팔도 그를 굳세게 하리니
- 23 어떤 원수도 그를 덮치지 못하고 어떤 악한도 그를 누르지 못하리라.
- 24 내가 그의 면전에서 그의 적들을 짓부수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때려 부수리라.
- 25 나의 성실과 자애가 그와 함께 있어 나의 이름으로 그의 땀이 쳐들리리라.

- 26 내가 그의 손을 바다 위에, 그의 팔을 강 위에 놓으리라.
- 27 그는 나를 불러 '당신은 저의 아버지 저의 하느님, 제 구원의 바위이십니다.' 하리라.
- 28 나도 그를 만아들로, 세상 임금들 가운데 으뜸으로 세우리라.
- 29 내가 영원토록 그에게 내 자애를 보존하여 그와 맺은 내 계약이 변함없으리라.
- 30 내가 그의 후손들을 같이같이, 그의 왕좌를 하늘의 날수만큼 이어지게 하리라.
- 31 그의 자손들이 내 가르침을 저버리거나 내 법규를 따라 걷지 않는다면
- 32 내 규범을 더럽히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 33 나는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매로 그들의 잘못을 벌하리라.
- 34 그러나 그에 대한 내 자애를 깨뜨리지 않고 내 성실을 거두지 않으리라.
- 35 내 계약을 더럽히지 않고 내 입술에서 나간 바를 바꾸지 않으리라.
- 36 나의 거룩함을 걸고 이 하나를 맹세하였노라. 나는 결코 다윗을 속이지 않으리라.
- 37 그의 후손들은 영원히 존속하고 그의 왕좌는 태양같이 내 앞에 있으리라.
- 38 구름 사이에 자리 잡은 충실한 증인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달과 같으리라."
- 39 그러나 당신께서는 버리고 물리치셨습니다. 당신의 기름부음받은이에게 진노하셨습니다.
- 40 당신 종과 맺으신 계약을 파기하시고 그의 왕권을 땅바닥에 내던져 더럽히셨으며
- 41 그의 성벽들을 모두 헐어 버리시고 그의 성채들을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 42 길 가는 사람마다 그를 약탈하여 그는 이 옷들에게 우젓거리가 되었습니다.
- 43 당신께서 그의 적들의 오른팔을 높이시고 그의 원수들을 모두 기쁘게 하셨습니다.
- 44 정녕 당신께서 그의 칼을 적 앞에서 되돌

- 리시고 전투 중에 그를 일으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 45 그의 영광에 끝을 내시고 그의 왕좌를 땅바닥에 내던지셨으며
- 46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적으로 덮으셨습니다.
- 47 주님, 언제까지나 영영 숨어 계시렵니까? 언제까지나 당신의 진노를 불태우시렵니까?
- 48 기억하소서, 제 인생이 얼마나 덧없었는지를 당신께서 모든 사람을 얼마나 헛되이 창조하셨는지를.
- 49 누가 영원히 살아 죽음을 아니 보겠습니까? 누가 저승의 손에서 자기 영혼을 빼내겠습니까?
- 50 주님, 그 옛날 당신의 자애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성실을 걸고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자애가.
- 51 주님, 기억하소서, 당신 종들이 당하는 모욕을 수많은 백성을 모두 제 품에 품어아 함을.
- 52 주님, 당신 원수들이 업신여깁니다. 당신 기름부음받은이의 발자국을 업신여깁니다.
- 53 주님께서서는 영원히 찬미받으소서. 아멘, 아멘!

- 90 ¹ [기도, 하느님의 사람 모세] 주님, 당신께서는 대대로 저희에게 안식처가 되셨습니다.
- 2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이며 누리가 나기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느님이십니다.
- 3 당신께서는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여, 돌아가라."
- 4 정녕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야경의 한때와도 같습니다.
- 5 당신께서 그들을 쓸어 내시면 그들은 아침 잠과도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도 같습니다.

- 6 아침에 돌아왔다 사라져 갑니다.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립니다.
- 7 정녕 저희는 당신의 진노로 스러져 가고 당신의 분노로 소스라칩니다.
- 8 당신께서는 저희의 잘못을 당신 앞에, 저희의 감추어진 죄를 당신 얼굴의 빛 앞에 드러내십니다.
- 9 정녕 저희의 모든 날이 당신의 노여움으로 없어져 가니 저희의 세월을 한숨처럼 보냅니다.
- 10 저희의 햇수는 칠십 년 근력이 좋으면 팔십 년. 그 가운데 자랑거리라 해도 고생과 고통이며 어느새 지나쳐 버리니, 저희는 나는 듯 사라집니다.
- 11 누가 당신 진노의 위력을, 누가 당신 노여움의 위세를 알겠습니까?
- 12 저희의 날수를 셀 줄 알도록 가르치소서. 저희가 슬기로운 마음을 얻으리이다.
- 13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14 아침에 당신의 자애로 저희를 배불리소서. 저희의 모든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 15 저희를 내리누르신 그 날수만큼, 저희가 불행을 겪었던 그 햇수만큼 저희를 기쁘게 하소서.
- 16 당신께서 하신 일이 당신 종들에게, 당신의 영광이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나게 하소서.
- 17 주 저희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이 저희에게 잘 되게 하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소서.

- 91** ¹ 자극히 높으신 분의 보호 속에 사는 이,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머무는 이는
- ² 주님께 이뢰어라. " 나의 피신처, 나의 산성 이신 나의 하느님, 나 그분을 신뢰하네."

- ³ 그분께서 새잡이의 그물에서 위험한 흑사병에서 너를 구하여 주시리라.
- ⁴ 당신 것으로 너를 덮으시어 내가 그분 날개 밑으로 피신하리라. 그분의 진실은 큰 방패와 갑옷이리다.
- ⁵ 너는 무서워하지 않으리라, 밤의 공포도 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 ⁶ 어둠 속에 돌아다니는 흑사병도 한낮에 창궐하는 괴질도.
- ⁷ 네 곁에서 천 명이, 네 오른쪽에서 만 명이 쓰러져도 너에게는 닥쳐오지 않으리라.
- ⁸ 오히려 네 눈으로 바라보리라. 악인들이 벌 받음을 너는 보리라.
- ⁹ 이는 내가 주님을 너의 피신처로, 자극히 높으신 분을 너의 안식처로 삼았기 때문이다.
- ¹⁰ 너에게는 불행이 닥치지 않고 재앙도 네 천막에는 다가오지 않으리라.
- ¹¹ 그분께서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 ¹² 행어 네 발이 돌에 치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
- ¹³ 너는 사자와 독사 위를 거닐고 힘센 사자와 용을 짓밟으리라.
- ¹⁴ " 그가 나를 따르기에 나 그를 구하여 주고 그가 내 이름을 알기에 나 그를 들어 높이리라.
- ¹⁵ 그가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환난 가운데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며 그를 해방하여 영예롭게 하리라.
- ¹⁶ 내가 그를 오래 살게 하여 흠족케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 주리라."

92 ¹ [시편. 노래. 안식일]

- ² 주님을 찬송함이 좋기도 합니다, 자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당신 이름에 찬미 노래 부름이 좋기도 합니다.
- ³ 아침에는 당신의 자애를, 밤에는 당신의 성실을 알람이 좋기도 합니다,

- 4 삼현금과 수금에 맞추어 비파 가락에 맞추어.
- 5 주님, 당신께서 하신 일로 저를 기쁘게 하셨으니 당신 손의 업적에 제가 환호합니다.
- 6 주님, 당신의 업적은 얼마나 위대하며 당신의 생각들은 얼마나 깊습니까!
- 7 미옥한 사람은 알지 못하고 미련한 자는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 8 악인들이 풀처럼 돌아나고 나쁜 짓 하는 자들이 모두 피어날지라도 영영 멸망하기 위함입니다.
- 9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는 영원히 높이 계십니다.
- 10 주님, 정녕 당신의 원수들이, 정녕 당신의 원수들이 사라집니다. 나쁜 짓 하는 자들이 모두 흩어집니다.
- 11 당신께서는 저의 뺨을 들소의 뺨처럼 치켜들어 주시고 신선한 향유를 저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 12 제 눈은 적들을 내려다보고 제 귀는 저를 대적하던 악한들의 소식을 즐거이 듣습니다.
- 13 의인은 아자나무처럼 돌아나고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 자라리라.
- 14 주님의 집에 심겨 우리 하느님의 앞뜰에서 돌아나리라.
- 15 늙어서도 열매 맺으며 수액이 많고 싱싱하리라.
- 16 주님께서 울곤오심을 알리기 위함이라네. 나의 반석이신 그분께는 불의가 없대네.

- 93** 1 주님은 임금이시다. 존엄을 차려입으셨다. 주님께서 차려입으시고 권능으로 떠 두르시니 정녕 누리가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는다.
- 2 당신의 어좌는 예로부터 굳게 세워져 있고 당신께서는 영원으로부터 계십니다.
- 3 주님, 강물들이 높입니다, 강물들이 목소리

를 높입니다, 강물들이 부딪치는 소리를 높입니다.

- 4 큰 물의 소리보다, 바다의 파도보다 엄위하십니다. 높은 데에 계시는 주님께서서는 엄위하십니다.
- 5 당신의 법은 실로 참되며 당신의 집에는 거룩함이 어울립니다. 주님, 길이길이 그러하리이다.

- 94** 1 보복하시는 하느님, 주님 보복하시는 하느님, 나타나소서.
- 2 세상의 심판자시여, 일어나소서. 거만한 자들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소서.
- 3 주님, 언제까지나 악인들이, 언제까지나 악인들이 기뻐 뛰리이까?
- 4 나쁜 짓 하는 자들이 모두 지겨워 대고 뻔뻔스레 말하며 뽐냅니다.
- 5 주님, 그들이 당신 백성을 짓밟고 당신 소유를 억누릅니다.
- 6 과부와 이방인을 살해하고 고아들을 학살합니다.
- 7 그들은 말합니다. " 주님은 보지 않는다. 야곱의 하느님은 깨닫지 못한다."
- 8 백성 가운데 미옥한 자들아, 깨달아라. 미련한 자들아, 언제 알아들으려느냐?
- 9 귀를 심으신 분께서 듣지 못하신단 말이나? 눈을 빚으신 분께서 보지 못하신단 말이나?
- 10 민족들을 징계하시는 분께서 벌하지 않으신단 말이나?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분께서 지식이 없단 말이나?
- 11 주님께서서는 알고 계시다, 사람들의 생각을, 그들은 입김일 뿐임을.
- 12 주님, 행복합니다, 당신께서 징계하시고 당신 법으로 가르치시는 사람!
- 13 악인이 떨어질 구덩이가 파질 때까지 불행의 날에도 그에게 평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 14 정녕 주님께서서는 당신 백성을 물리치지 않

으시고 당신 소유를 저버리지 않으신다.

- 15 정녕 재판이 정의로 돌아오리니 마음 바른 이들이 모두 이를 따르리라.
- 16 누가 나를 위하여 악한을 거슬러 일어서리오? 누가 나를 위하여 나쁜 짓 하는 자들에게 맞서리오?
- 17 주님께서 내게 도움을 주지 않으셨다면 자칫 내 영혼은 침묵의 땅속에 드러누웠으리라.
- 18 " 내 다리가 휘청거린다." 생각하였을 제 주님, 당신의 자애가 저를 받쳐 주었습니다.
- 19 제 속에 수많은 걱정들이 쌓여 갈 제 당신의 위로가 제 영혼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 20 법규를 거슬러 재앙을 빚어 내는 파멸의 권좌가 당신과 어울릴 수 있었습니까?
- 21 그들은 의로운 이의 목숨을 뺏으려 달려들고 무죄한 이를 단죄하여 피 흘리게 합니다.
- 22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에게 산성이 되시고 나의 하느님께서는 내 피신처인 반석이 되셨다.
- 23 그분께서는 그들의 죄악에 따라 되갚으시고 그들의 악함으로 멸망시키시리라. 주 우리 하느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시리라.

- 95 ¹ 와서 주님께 환호하세. 우리 구원의 비위 앞에서 환성 올리세.
- 2 감사드리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 3 주님은 위대하신 하느님 모든 신들 위에 위대하신 임금님.
- 4 땅 깊은 곳들도 그분 손안에 있고 산봉우리들도 그분 것이네.
- 5 바다도 그분 것, 몸소 만드셨네. 마른땅도 그분 손수 빚으시었네.
- 6 들어가 몸을 굽혀 경배드리세. 우리를 만드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 7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수 이끄시는 양 떼로세. 아,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 8 "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프리바이에서처럼 광야에서, 마씨의 그날처럼.
- 9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나를 떠보았다.
- 10 사십 년 동안 그 세대에 진저리가 나서 나는 말하였노라. ' 마음이 뱀나간 백성이다. 그들은 내 길을 깨닫지 못하였다.'
- 11 그리하여 나는 분노하며 맹세하였노라. ' 그들은 내 안식처에 들지 못하리라. "

- 96 ¹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 2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을 찬미하여라.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 3 전하여라, 겨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들을.
- 4 주님은 위대하시고 드높이 찬양받으실 분 모든 신들 위에 경외로우신 분이시다.
- 5 민족들의 신들은 모두 헛것이어도 주님께서는 하늘을 만드셨네.
- 6 엄위와 존귀가 그분 앞에, 권능과 영화가 그분 성소에 있네.
- 7 주님께 드러라, 모든 민족의 기문들아. 주님께 드러라, 영광과 권능을.
- 8 주님께 드러라, 그 이름의 영광을. 제물을 들고 그분 앞뜰로 들어가라.
- 9 거룩한 차림을 하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세상아, 그분 앞에서 무서워 떨어라.
- 10 겨레들에게 말하여라. " 주님은 임금입니다. 정녕 우리는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고 그분께서는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십니다."
- 11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쳐라.
- 12 들과 거기 있는 것들도 모두 기뻐 뛰고 숲

의 나무들도 모두 환호하여라.

- 13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그분께서 오신다,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께서 오신다. 그분께서 누리를 의롭게, 민족들을 성실하게 다스리시리라.

97 1 주님은 임금이시다. 땅은 즐거워하고 수많은 섬들도 기뻐하여라.

- 2 구름과 먹구름이 그분을 둘러싸고 정의와 공정이 그분 어좌의 바탕이라네.
3 불길에 그분을 앞서 가며 주위의 그분 적들을 사르는구나.
4 그분의 번개가 누리를 비추니 땅이 보고 무서워 떠는구나.
5 주님 앞에서 산들이 밀초처럼 녹아내리네, 주님 앞에서 온 땅이.
6 하늘은 그분의 의로움을 알리고 모든 백성은 그분의 영광을 보네.
7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누구나 부끄러워하리라, 헛것으로 으쓱대는 자들은 누구나. 모든 산들이 그분께 경배하네.
8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니 주님, 당신의 법규 때문입니다.
9 주님, 당신은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이신 분이시며 모든 산들 위에 지극히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10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악을 미워하여라. 그분께서 당신께 충실한 이들의 목숨을 지키시고 악인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출해 주신다.
11 의인에게는 빛이, 마음 바른 이들에게는 기쁨이 뿌려진다.
12 의인들과, 주님 안에서 기뻐하여라. 거룩하신 그 이름을 찬송하여라.

98 1 [시편]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그분께서 기적들을 일으켰다. 그분의 오른손이, 그분의 거룩한 팔

이 승리를 가져오셨다.

- 2 주님께서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의 구원을 알리셨다. 당신의 정의를 드러내 보이셨다.
3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의 자애와 성실을 기억하셨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세상 끝들이 모두 보았다.
4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5 비파와 함께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와 노랫가락과 함께.
6 나팔과 뿔 나팔 소리와 함께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7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은 소리쳐라.
8 강들은 손뼉 치고 산들도 함께 환호하여라.
9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께서 오신다. 그분께서 누리를 의롭게,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시리라.

99 1 주님은 임금이시다. 백성들이 떠는구나. 커튼들 위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리는구나.

- 2 주님께서서는 시온에서 위대하시고 모든 백성들 위에 드높으시다.
3 당신의 거룩하고 경외로우신 이름을 그들은 찬송하리니 그 이름 거룩하십니다.
4 임금의 권능은 공정을 사랑함이니 당신께서 공의를 굳히셨습니다. 아담에 공정과 정의를 당신께서 베푸셨습니다.
5 주 우리 하느님을 높이 받들어라. 그분의 팔관 앞에 엎드려라. 그분께서는 거룩하시다.
6 모세와 이룬은 그분 사제들 가운데에, 사무엘은 그분 이름을 부르는 이들 가운데에 있네.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자 그들에게 친히 응답하셨네.
7 구름 기둥 안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자 그들은 그분의 법과 그분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켰네.

- 8 주 저희 하느님,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응답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용서하시는 하느님. 그러나 그들의 악행은 응징하셨습니다.
- 9 주 우리 하느님을 높이 받들어라. 그분의 거룩한 산을 향하여 엎드려라. 주 우리 하느님께서는 거룩하시다.

- 100** ¹ [감사를 위한 시편]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올려라.
- 2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 3 너희는 알아라, 주님께서 하느님이심을.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이여라.
- 4 감사드리며 그분 문으로 들어가라. 찬양드리며 그분 앞뜰로 들어가라. 그분을 찬송하며 그 이름을 찬미하여라.
- 5 주님께서서는 선하시고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며 그분의 성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 101** ¹ [다윗. 시편] 자애와 공정을 제가 노래하오리다. 주님, 당신께 찬미 노래 부르오리다.
- 2 흠 없는 길에 뜻을 두리니 언제 저에게 오시렵니까? 저의 집 안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걷고
- 3 불의한 일을 저의 눈앞에 두지 않으리다. 죄짓는 일을 제가 미워하여 그런 것 저에게 붙어 있지 않으리이다.
- 4 그릇된 마음 제게서 멀리 떨어지고 악한 것을 제가 알지 않으리이다.
- 5 자기 이웃을 몰래 헐뜯는 자 그런 자를 저는 없애고 거만한 눈과 오만한 마음 그런 것을 저는 참지 않으리다.
- 6 저의 눈은 나라 안의 진실된 이들 위에 머물러 그들이 제 곁에 살고 흠 없는 길을 걷는 이 그런 이가 저에게 시중을 들리이다.

- 7 사기를 하는 자 저의 집 안에 살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 저의 눈앞에 서지 못하리이다.
- 8 나라의 모든 악인들을 아침마다 없애리니 나쁜 짓 하는 자들을 모두 주님의 성읍에서 잘라 내기 위함입니다.

- 102** ¹ [낙담하여 주님 앞에 근심을 쏟아 붓는 가련한 이의 기도]
- 2 주님, 제 기도를 들으소서. 제 부르짖음이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 3 제 곤경의 날에 당신 얼굴을 제게서 감추지 마소서. 제게 당신의 귀를 기울이소서. 제가 부르짖는 날 어서 대답하소서.
- 4 저의 세월 연기 속에 스러져 가고 저의 뼈들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 5 음식을 먹는 것도 저는 잊어 제 마음 풀처럼 배어져 메말라 가고
- 6 탄식 소리로 제 뼈가 살가죽에 붙었습니다.
- 7 저는 광야의 까마귀와 같아지고 패허의 부엉이처럼 되었습니다.
- 8 저는 잠 못 이루어? 자붕 위의 외로운 새처럼 되었습니다.
- 9 온종일 원수들이 저를 모욕하고 미친 듯 제게 날뛰는 자들이 저를 저주합니다.
- 10 저는 재를 뺨처럼 먹고 마실 것에 제 눈물을 섞으니
- 11 당신의 분노와 진노 때문이며 당신께서 저를 들어 내던지신 까닭입니다.
- 12 저의 세월 기울어 가는 그림자 같고 저는 풀처럼 메말라 갑니다.
- 13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는 영원히 좌절하여 계시고 당신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릅니다.
- 14 당신께서는 일어나시어 시온을 기없이 여기시리니 그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에 정하신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 15 정녕 당신의 종들은 시온의 돌들을 좋아하

고 그 흠을 가여워합니다.

- 16 민족들이 주님의 이름을, 세상 모든 임금들이 당신의 영광을 경외하리이다.
- 17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시고 당신 영광 속에 나타나시어
- 18 헐벗은 이들의 기도에 몸을 돌리시고 그들의 기도를 업신여기지 않으시리라.
- 19 오는 세대를 위하여 이것이 글로 쓰여져 다시 창조될 백성이 주님을 찬양하리라.
- 20 주님께서 드높은 당신 성소에서 내려다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굽어보시라니
- 21 포로의 신음을 들으시고 죽음에 붙여진 이들을 풀어 주시기 위함이며
- 22 시온에서 주님의 이름을, 예루살렘에서 그 찬양을 전하기 위함아네,
- 23 백성들과 나라들이 함께 주님을 섬기려 모여들 때에.
- 24 그분께서 내 힘을 도중에 꺾으시고 내 세월을 짧게 하시어
- 25 내가 아뢰었네. " 저의 하느님 제 생의 한 가운데에서 저를 잡아채지 마소서. 당신의 햇수는 대대로 이어잡니다.
- 26 예전에 당신께서는 땅을 세우셨습니다. 하늘도 당신 손의 작품입니다.
- 27 그것들은 사라져 가도 당신께서는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닳아 없어 잡니다. 당신께서 그것들을 옷가지처럼 바꾸시니 그것들은 지나가 버립니다.
- 28 그러나 당신은 언제나 같은 분 당신의 햇수는 끝이 없습니다.
- 29 당신 종들의 자손은 편안히 살아가고 그들의 후손은 당신 앞에 굳게 서 있으리이다."

103 ¹ [다윗]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들이,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하여라.

²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께서 해 주신 일 하나도 잊지 마라.

³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낮게 하시는 분.

⁴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로 관을 씌워 주시는 분.

⁵ 그분께서 네 한평생을 복으로 채워 주시어 네 젊음이 독수리처럼 새로워지는구나.

⁶ 주님께서는 정의를 실천하시고 억눌린 이들 모두에게 공정을 베푸신다.

⁷ 당신의 길을 모세에게, 당신의 업적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리셨다.

⁸ 주님께서는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신다.

⁹ 끝까지 따지지 않으시고 끝내 화를 품지 않으시며

¹⁰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우리에게 갚지 않으신다.

¹¹ 오히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그분의 자애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에 굳세다.

¹² 해 뜨는 데가 해 지는 데서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우리에게서 멀리하신다.

¹³ 아버지가 자식들을 가없이 여기듯 주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가없이 여기시니

¹⁴ 우리의 됴됨이를 아시고 우리가 티끌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¹⁵ 사람이란 그 세월 풀과 같아 들의 꽃처럼 피어나지만

¹⁶ 바람이 그를 스치면 이내 사라져 그 있던 자리조차 알아내지 못한다.

¹⁷ 그러나 주님의 자애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에 머무르고 당신의 의로움은 대대에 이르리라,

¹⁸ 당신의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의 규정을 기억하여 실천하는 이들에게.

¹⁹ 주님께서는 하늘에 당신 어좌를 든든히 세우시고 그분의 왕권은 만물을 다스리신다.

²⁰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의 천사들이 그분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 말씀을 실천하는
힘센 용사들이.

- 21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들이
그분 뜻을 실천하는 신하들이.
22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의 모든 조물들이,
그분 왕국의 모든 곳에서. 내 영혼아, 주님
을 찬미하여라.

- 104 ¹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지극히 위
대하십니다. 고귀와 영화를 입으시고
2 빛을 겹옷처럼 두르셨습니다. 하늘을 차일처
럼 펼치시고
3 물 위에 당신의 거처를 세우시는 분. 구름을
당신 수레로 삼으시고 바람 날개 타고 다니
시는 분.
4 바람을 당신 사자로 삼으시고 타오르는 불
을 당신 사종으로 삼으시는 분.
5 그분께서 기초 위에 땅을 든든히 세우시어
영영세세 흔들리지 않는다.
6 당신께서 대양을 그 위에 옷처럼 덮으시어
산 위까지 물이 차 있었습니다.
7 당신의 꾸짖으심에 물이 도망치고 당신의
천둥소리에 놀라 달아났습니다.
8 당신께서 마련하신 자리로 산들은 솟아오르
고 계곡들은 내려앉았습니다.
9 당신께서 경계를 두시니 물이 넘지 않고 땅
을 덮치려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10 골짜기마다 샘을 터뜨리시니 산과 산 사이
로 흘러내려
11 들짐승들이 모두 마시고 들나귀들도 목마
름을 풀니다.
12 그 곁에 하늘의 새들이 살아 나뭇가지 사
이에서 지저귀십니다.
13 당신의 거처에서 산에 물을 대시니 당신께
서 내신 열매로 땅이 배부릅니다.
14 가축들을 위하여 풀이 나게 하시고 사람들
이 가꾸도록 나무를 들게 하시어 땅에서

빵을,

- 15 인간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술을 얻게 하
시고 기름으로 얼굴을 윤기나게 하십니다.
또 인간의 마음에 생기를 돋우는 빵을 주
십니다.
16 주님의 나무들, 몸소 심으신 레바논의 향백
나무들이 한껏 물을 마시니
17 거기에 새들이 깃들이고 황새는 전나무에
둥지를 트네.
18 높은 산들은 산양들의 차지 바위들은 오소
리들의 은신처.
19 그분께서 시간을 정하도록 달을 만드시고
제가 질 곳을 아는 해를 만드셨네.
20 당신께서 아들을 드리우시면 밤이 되어 숲
의 온갖 짐승들이 우글거립니다.
21 사자들은 사냥 거리 찾아 울부짖으며 하느
님께 제 먹이를 청합니다.
22 해가 뜨면 물러나서 제 보금자리로 들어가
고
23 사람은 일하러, 저녁까지 노동하러 나옵니
다.
24 주님, 당신의 업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당신 슬기로 이루시어 세상
이 당신의 조물들로 가득합니다.
25 저 크고 넓은 바다에는 수없이 많은 동물
들이, 크고 작은 생물들이 우글거립니다.
26 그곳에 배들이 돌아다니고 당신께서 만드
신 레비아탄이 노닙니다.
27 이 모든 것들이 당신께 바랍니다, 제때에
먹이를 주시기를.
28 당신께서 그들에게 주시면 그들은 모이들
이고 당신 손을 벌리시면 그들은 좋은 것
으로 배불립니다.
29 당신의 얼굴을 감추시면 그들은 소스리치
고 당신께서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갑니다.
30 당신의 숨을 내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당신께서는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하십니다.

- 31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리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업적으로 기뻐하시리라.
- 32 땅을 굽어보시니 뒤흘들리고 산들을 건드리시니 언기 내뿜네.
- 33 나는 주님께 노래하리라, 내가 사는 한. 나의 하느님께 찬미 노래 부르리라, 내가 있는 한.
- 34 내 노래가 그분 마음에 들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네.
- 35 죄인들은 이 땅에서 없어져라. 악인들은 더 이상 남아 있지 마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할렐루야!

- 105** 1 찬송하여라, 그 이름을 받들어 불러라. 그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려라.
- 2 그분께 노래하여라, 그분께 찬미 노래 불러라. 그 모든 기적을 이야기하여라.
- 3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의 마음은 기뻐하여라.
- 4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여라.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 5 그분께서 이루신 기적들을, 그 이적들과 그 입으로 내리신 판결들을 기억하여라.
- 6 그분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분께 뽑힌 아굽의 자손들이!
- 7 그분은 주 우리 하느님 그분의 판결들이 온 세상에 미친다.
- 8 당신의 계약을 영원히, 명령하신 말씀을 천대에 이르도록 기억하시니
- 9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이며 이사악에게 내리신 맹세이다.
- 10 이를 아굽에게 법규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계약으로 세우셨다.
- 11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 상속의 몫으로 주노라."
- 12 그들이 수가 몇 안 되는 작은 무리로? 그곳에서 나그네 되어

- 13 이 겨레에게서 저 겨레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닐 때
- 14 아무도 그들을 억누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임금들을 꾸짖으셨다.
- 15 " 나의 기름부음받은이들을 건드리지 말고 나의 예언자들을 괴롭히지 마라."
- 16 땅에 기근을 불러일으키시고 모든 양식을 끊으셨을 때
- 17 한 사람을 그들 앞에 보내셨으니 종으로 팔린 요셉이다.
- 18 사람들이 족쇄를 그의 발에 채우고 쇠사를 그의 목에 감았다.
- 19 마침내 그의 말이 들어맞아 주님 말씀이 그를 증명해 주시니
- 20 임금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풀어 주고 민족들을 다스리는 이가 그를 놓아 주었다.
- 21 그를 자기 집의 주인으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는 이로 세워
- 22 신하들을 마음대로 가르치고 원로들을 슬기롭게 만들도록 하였다.
- 23 그러자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와 아굽이 함족의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
- 24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크게 불어나게 하시어 그들의 적들보다 강하게 만드셨다.
- 25 저들의 마음을 바꾸시어 당신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고 당신 종들에게 간계를 부리게 하셨다.
- 26 그분께서 당신의 종 모세와 몸소 뽑으신 아론을 보내시니
- 27 이들이 저들 가운데에서 그분의 표징들을, 함족의 땅에서 이적들을 일으켰다.
- 28 어둠을 보내시어 캄캄하게 만드셨어도 저들은 그 말씀을 거역하였다.
- 29 저들의 물을 피로 바꾸시어 물고기들을 죽게 하셨다.
- 30 임금들의 방에 이르기까지 저들의 땅이 개구리 떼로 들끓었다.
- 31 그분께서 말씀하시자 등에 떼가 모여들고

32 저들의 온 영토에 모기 떼가 모여들었다.
 비 대신 우박을, 타오르는 불을 저들 땅에 내리시고
 33 저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 영토 안의 나무들을 부러뜨리셨다.
 34 그분께서 말씀하시자 메뚜기 떼가, 누리 떼가 수도 없이 몰려와
 35 저들 땅의 풀을 모조리 먹어 버리고 들판의 열매를 먹어 버렸다.
 36 저들 땅 안의 모든 만이들을, 저들 모든 정력의 첫 소생을 치셨다.
 37 그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 그분 지파들에는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었다.
 38 그들이 떠나갈 때 이집트가 기뻐하였으니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저들을 엄습한 까닭이다.
 39 덮개 삼아 구름을, 밤을 밝히도록 불을 펼쳐 놓으셨다.
 40 그들이 청하자 메추라기 떼를 불러오시고 하늘의 빵으로 그들을 배불리셨다.
 41 비위를 여시자 물이 솟아나와 사막에 강처럼 흘렀다.
 42 당신의 거룩하신 말씀을, 당신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까닭이다.
 43 당신 백성을 기쁨 속에, 당신께 뻗힌 이들을 환호 속에 이끌어 내셨다.
 44 겨레들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어 민족들이 애써 얻은 바를 그들이 차지하였으니
 45 그들이 당신의 법규를 지키고 당신의 법을 따르게 하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106 ¹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여라, 선하신 분이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다.

² 누가 주님의 위업을 말할 수 있으며 그 모든 찬양을 전할 수 있으리오?

³ 행복하여라, 공정을 지키는 이들 언제나 정

의를 실천하는 이들!

⁴ 주님, 당신 백성에 대한 호의로 저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구원과 함께 저를 찾아오시어

⁵ 제가 당신께 뻗힌 이들의 행복을 보고 당신 민족의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당신 소유와 함께 자랑으로 여기게 하소서.

⁶ 저희 조상들처럼 저희도 죄를 지었습니다. 불의를 저지르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⁷ 저희 조상들은 이집트에서 당신의 기적들을 깨닫지 못하고 당신의 크신 자애를 기억하지 않았으며 바닷가에서, 갈대 바다에서 당신을 기억하였습니다.

⁸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 이름 때문에 그들을 구하셨으니 당신 위업을 알리시려는 것이었다.

⁹ 갈대 바다를 꾸짖으시어 물이 마르자 그들이 깊은 바다를 사막인 양 걸어가게 하셨다.

¹⁰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하시고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 내셨다.

¹¹ 물이 그들의 적들을 덮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¹² 이에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믿어 그분께 찬양 노래를 불렀다.

¹³ 그들은 그분의 업적을 빨리도 잊어 그분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았으며

¹⁴ 사막에서 탐욕을 부리고 광야에서 하느님을 시험하였다.

¹⁵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으나 질병도 그들에게 보내셨다.

¹⁶ 그들은 진영에서 모세를, 주님의 거룩한 사람 이론을 시기하였다.

¹⁷ 이에 땅이 갈라져 다란을 삼키고 아비람의 무리를 덮쳤으며

¹⁸ 불이 그 무리 가운데에서 일어나 불꽃이 악인들을 살다 버렸다.

¹⁹ 그들은 호렘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쇠를 부어 만든 상에 경배하였다.

²⁰ 그들의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과 바꾸

었다.

- 21 그들은 하느님을 잊었다, 자기들을 구하신 분을 이집트에서 위대한 일들을 하신 분을
- 22 함축 땅에서 이루신 기적들을 갈대 바다에서 이루신 두려운 일들을.
- 23 당신께서 뽑으신 모세가 아니라면 그들을 없애 버리겠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분노를 터뜨리시는 그분 앞을 막아졌으니 그분의 진노를 파멸에서 돌리기 위함이었다.
- 24 그러나 그들은 탐스런 땅을 업신여기며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 25 자기네 천막 안에서 두들대며 주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
- 26 이에 그분께서 손을 드시어 그들을 사막에서 쓰러뜨리려 하셨다.
- 27 그들의 후손을 민족들 사이에 쓰러뜨리려, 그들을 여러 나라로 흩어 버리려 하셨다.
- 28 그들은 프오르의 비알에게 굴종하여 죽은 것에게 바친 제물을 먹었다.
- 29 그들의 행위로 그분을 언짢으시게 하여 그들에게 재앙이 들이닥쳤다.
- 30 피느하스가 일어서서 법대로 다스리자 재앙이 멈추었으니
- 31 이것이 그에게 세세에 영원히 의로움으로 씌어졌다.
- 32 그들이 므리바 샘에서 그분을 노엽게 하여 그들 때문에 모세가 화를 입게 되었으니
- 33 그들이 그의 감정을 상하게 하자 그가 제 입술을 함부로 놀렸기 때문이다.
- 34 그들이 주님께서 없애라 하신 백성들을 없애지 않고
- 35 그 민족들과 어울리면서 저들의 행실을 배우고
- 36 저들의 우상들을 섬기니 저들이 그들에게 닳아 되었다.
- 37 자기네 아들과 딸들을 마귀들에게 바치며
- 38 무죄한 피를 흘려 그 땅을 더럽혔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바친 자기네 아들과 딸들

의 피로 더럽혔다.

- 39 그들은 자기네 행실로 더러워지고 자기네 행위로 불문을 저질렀다.
- 40 주님의 분노가 당신 백성을 거슬러 타오르고 당신의 소유를 혐오하게 되었다.
- 41 그들을 민족들의 손에 넘기시니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리고
- 42 원수들이 그들을 억눌러 그 손 아래 그들이 꺾였다.
- 43 몇 번이나 그들을 구출해 주셨건만 그들은 저희 뜻만을 좇아 거역하여 자기들의 죄악 탓으로 허물어졌다.
- 44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외침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곤경을 보셨다.
- 45 그들을 위하여 당신 계약을 기억하시고 크신 자애로 후회하시어
- 46 그들을 사로잡아 간 모든 이들에게서 그들이 동정을 얻게 하셨다.
- 47 주 저희 하느님, 저희를 구하소서. 민족들에게서 저희를 모아들이소서. 저희가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당신을 찬양하여 영광으로 삼으오리라.
- 48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서는 찬미받으소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온 백성은 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107 ¹ 주님을 찬송하여라, 선하신 분이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2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께 구원받은 이들 그분께서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이들
- 3 못 나라에서,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에서, 북녘과 남녘에서 모아들이신 이들은 말하여라.
- 4 그들은 사막과 광야에서 헤매며 사람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였다.
- 5 주리고 목까지 말라 목숨이 다하여 갔다.
- 6 이 곤경 속에서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자 난관에서 그들을 구해 주셨다.

- 7 그들이 옳은 길로 걷게 하시어 사람 사는 성읍으로 가게 하셨다.
- 8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을 위한 그 기적들을.
- 9 그분께서는 목마른 이에게 물을 먹이시고 배고픈 이를 좋은 것으로 채우셨다.
- 10 비참과 쇠사슬에 묶인 채 어둡고 캄캄한 곳에 앉아 있던 그들.
- 11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극히 높으신분의 뜻을 업신여긴 탓이다.
- 12 그분께서 고통으로 그들의 마음을 꺾으시니 그들은 도와주는 이 없이 비틀거렸다.
- 13 이 곤경 속에서 그들이 주님께 소리치자 난관에서 그들을 구하셨다.
- 14 그들을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사슬을 끊어 주셨다.
- 15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을 위한 그 기적들을.
- 16 그분께서 청동 문을 부수시고 쇠 빗장을 부러뜨리셨다.
- 17 사악의 길로 어리석게 된 자들 자기들의 죄로 괴로움을 겪었다.
- 18 그들의 목은 어떤 음식도 싫어하여 그들은 죽음의 문까지 다다랐다.
- 19 이 곤경 속에서 그들이 주님께 소리치자 난관에서 그들을 구하셨다.
- 20 당신 말씀을 보내시어 그들을 낮게 하시고 구렁에서 구해 내셨다.
- 21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을 위한 그 기적들을.
- 22 감사의 제물을 올리며 환호 속에 그분의 일들을 전하여라.
- 23 배를 타고 항해하던 이들 큰 물에서 장사하던 이들.
- 24 그들이 주님의 일을 보았다, 깊은 바다에서 그분의 기적들을.
- 25 그분께서 명령하시어 사나운 바람을 일으키시자 그것이 파도들을 치솟게 하셨다.
- 26 그들이 하늘로 솟았다가 해심으로 떨어지니 그들 마음이 괴로움으로 녹아 내렸다.
- 27 술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흔들거리니 그들의 온갖 재주도 엉클어져 버렸다.
- 28 이 곤경 속에서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자 난관에서 그들을 빼내 주셨다.
- 29 광풍을 순풍으로 가리았하시니 파도가 잔잔해졌다.
- 30 바다가 잠잠해져 그들은 기뻐하고 그분께서는 그들을 원하는 항구로 인도해 주셨다.
- 31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을 위한 그 기적들을.
- 32 백성의 모임에서 그분을 높이 기리고 원로들의 집회에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 33 그분께서 강들을 사막으로, 샘들이 솟는 곳을 메마른 곳으로 만드시고
- 34 기름진 땅을 소금 땅으로 만드시니 거기 사는 사람들의 악함 때문이다.
- 35 그분께서 사막을 호수로, 마른땅을 샘들이 솟는 곳으로 만드시어
- 36 주된 이들을 그곳에 살게 하시니 그들이 사람 사는 성읍을 일으켰다.
- 37 밭에 씨 뿌리고 포도원에 나무 심어 소출을 거두어들였다.
- 38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어 그들이 크게 늘어나고 그들의 가족들도 줄지 않게 하셨다.
- 39 그러나 곤궁과 불행과 근심으로 그들은 수가 줄고 쇠잔해졌다.
- 40 그분께서 수령들에게 경멸을 퍼부으시고 길 없는 황무지를 헤매게 하셨다.
- 41 그러나 불쌍한 이는 비참에서 들어 올리고 그 가족들을 양 떼처럼 많게 하셨다.
- 42 울곤은 이들이 보고 기뻐하며 모든 불의는 그 입을 다문다.
- 43 누가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는가? 이를 마음에 간직하여 주님의 자애를 깨달아라.

- 2 제 마음 든든합니다, 하느님. 제가 노래하며 찬미합니다. 깨어나라, 나의 영혼아.
- 3 깨어나라, 수금아, 비파야. 나는 새벽을 깨우리라.
- 4 주님, 제가 백성들 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송하고 겨레들 가운데에서 당신을 노래하리니
- 5 당신의 자애가 하늘보다 크시고 당신의 진실이 구름까지 닿도록 크시기 때문입니다.
- 6 하느님, 하늘 높이 일어나소서. 당신의 영광은 땅 위에 떨치소서.
- 7 당신의 사랑받는 이들이 구원되도록 당신의 오른팔로 도우시고 저에게 응답하소서.
- 8 하느님께서 당신 성소에서 말씀하셨다. "나는 기뻐하며 스켄을 나누고 수곳 골짜기를 추량하리라.
- 9 길앗도 내 것, 므나쎄도 내 것 에프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 유다는 내 왕
- 10 모압은 내 대야. 에돔 위에 내 신발을 던지고 필리스티아 위로 승리의 환성을 올리노라."
- 11 누가 나를 견고한 성읍으로 데려가리오? 누가 나를 에돔까지 이끌어 주리오?
- 12 하느님, 당신께서 저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느님, 당신께서는 저희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않으십니다.
- 13 저희를 적에게서 구원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 14 하느님과 함께 우리가 큰일을 이루리라. 그분께서 우리 원수들을 짓밟으시리라.

109

1 [지휘자에게. 다윗. 시편]

- 2 제 찬양의 하느님, 잠잠히 계시지 마소서. 그들이 저를 거슬러 사악한 입과 음험한 입을 벌려 거짓된 혀로 제게 말합니다.
- 3 미움의 말로 저를 에워싸고 껍닭 없이 저를 공격하며
- 4 제 사랑의 대가로 저를 적대합니다. 그러나

- 저는 오직 기도드릴 뿐.
- 5 그들은 제게 선을 악으로, 제 사랑을 마음으로 갚습니다.
- 6 그를 거슬러 악인을 세우소서. 고발자가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 7 그가 재판받으면 죄인으로 나오고 그의 기도는 죄가 되며
- 8 그의 살날들은 줄어들고 그의 직책은 남이 넘겨받게 하소서.
- 9 그의 자식들은 고아가,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소서.
- 10 그의 자식들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빌어먹고 자기네 폐허에서 쫓겨나게 하소서.
- 11 빗쟁이가 그의 것을 모조리 잡아채고 남들이 그의 벌이를 빼앗으며
- 12 그에게 자애를 품는 이 없고 그의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 없으며
- 13 그의 후손은 끊어지고 다음 세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 14 그 조상들의 죄악이 주님께 기억되고 그 어머니의 죄가 지워지지 않게 하소서.
- 15 그것들이 늘 주님 앞에 있어 그들에 대한 기억마저 땅에서 없어지게 하소서.
- 16 그가 자애를 베풀 생각은 않고 가련한 이와 불쌍한 이, 마음이 꺾인 이를 죽이려 뒤쫓기 때문입니다.
- 17 그가 저주를 사랑하였으니 저주가 그에게 내리고 축복을 좋아하지 않았으니 축복이 그에게서 멀어지게 하소서.
- 18 그가 저주를 걸듯처럼 입었으니 저주가 물처럼 그의 몸속으로, 기름처럼 그의 뺨속으로 스며들고
- 19 그를 덮고 있는 옷처럼, 그가 늘 매고 있는 허리띠처럼 되게 하소서.
- 20 이것이 저를 적대하는 자들이 저를 거슬러 악한 것을 말하는 자들이 주님에게서 받는 대가가 되게 하소서.
- 21 그러나 하느님, 당신은 저의 주님. 당신 이

를 생각하시고 저를 위하여 행하소서. 당신의 자애가 선하시니 저를 구하소서.

- 22 저는 기련하고 불쌍하며 제 마음은 속에서 구멍이 뚫렸습니다.
- 23 저는 기우는 그림자처럼 스러져 가고 매뚜기처럼 쫓겨납니다.
- 24 저의 무릎은 단식으로 후들거리고 저의 살은 기름기 없이 말라 갑니다.
- 25 진정 저는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저를 보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니다.
- 26 저를 도우소서, 주 저의 하느님. 당신 자애에 따라 저를 구원하소서.
- 27 그래서 그들이 깨닫게 하소서, 그것이 당신의 손임을, 주님, 당신께서 이를 행하셨을.
- 28 그들은 저주하지만 당신께서는 복을 내리시고 저의 적들은 창피를 당하지만 당신 좋은 기뻐하게 하소서.
- 29 저를 적대하는 자들은 수지로 옷 입고 창피를 덧옷처럼 덮게 하소서.
- 30 너는 주님을 내 입으로 한껏 찬송하고 많은 이들 가운데에서 그분을 찬양하리니
- 31 불쌍한 이의 오른쪽에 서시어 그를 판단들에게서 구원하시기 때문일세.

- 110 ¹ [다윗. 시편] 주님께서 내 주군께 하신 말씀.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 2 주님께서 당신 권능의 왕홀을 시온으로부터 뻗쳐 주시리니 당신께서는 원수들 가운데에서 다스리소서.
- 3 당신 진군의 날에 당신 백성이 자원하리이다. 거룩한 치장 속에 새벽의 품에서부터 젊음의 이슬이 당신의 것.
- 4 주님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않으시리이다. "너는 맬키체택과 같이 영원한 사제다."

- 5 주님께서 당신의 오른쪽에 계시어 진노의 날에 임금들을 쳐부수시리이다.
- 6 그분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시어 온통 주검들로 채우시고 넓은 들 위에서 머리를 쳐부수시리이다.
- 7 주님께서는 길가 시내에서 물을 마시고 머리를 치켜드시리이다.

- 111 ¹ 할렐루야!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송하라, 올곧은 이들의 모임에서, 집회에서.
- 2 주님께서 하신 일들 크기도 하시어 그것들을 좋아하는 이들이 모두 깨우친다.
- 3 그분의 업적은 엄위와 존귀 그분의 의로움은 영원히 존속한다.
- 4 당신의 기적들을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님께서는 너그러우시고 자비하시다.
- 5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당신의 계약을 언제나 기억하신다.
- 6 그 하신 일들의 위력을 당신 백성에게 알리시니 그들에게 민족들의 소유를 주시기 위함이다.
- 7 그 손이 하신 일들은 진실과 공정, 그 계명들은 모두 진실하고
- 8 영원무궁토록 견고하며 진실되고 바르게 이루어졌다.
- 9 당신 백성에게 구원을 보내시고 당신 계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 거룩하고 경외로우시다.
- 10 지혜의 근원은 주님을 경외함이니 그것들을 행하는 이들은 빼어난 슬기를 얻으리라. 그분에 대한 찬양은 영원히 존속한다.

- 112 ¹ 할렐루야!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들로 큰 즐거움을 삼는 이!
- 2 그의 후손은 땅에서 융성하고 올곧은 이들의 세대는 복을 받으리라.

- 3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그의 의로움은 길이 존속하리라.
- 4 울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그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며 의롭다네.
- 5 잘되리라, 관대하게 꾸어 주고 제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이!
- 6 정녕 그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의인은 영원한 기억으로 남으리라.
- 7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마음은 주님을 굳게 신뢰하네.
- 8 그의 마음 굳세어 두려워하지 않네, 자기 적들을 내려다볼 때까지.
- 9 불쌍한 이들에게 후하게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길이 존속하고 그의 뿔은 영광 속에 치켜들리리라.
- 10 악인은 이를 보며 울화를 터뜨리고 이를 갈며 스러지는구나. 악인들의 욕망은 허사가 되는구나.

- 113** 1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주님의 종들이.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들.
- 2 주님의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 3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때까지 주님의 이름은 찬양받으소서.
- 4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들 위에 높으시고 그분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다.
- 5 누가 우리 하느님이신 주님과 같으랴? 드높은 곳에 좌정하신 분
- 6 하늘과 땅을 굽어보시는 분
- 7 억눌린 이를 만지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불쌍한 이를 거름에서 들어 올리시는 분.
- 8 그를 귀족들과, 당신 백성의 귀족들과 한자리에 앉히시기 위함이다.
- 9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도 집 안에서 살며 여러 아들 두고 기뻐하는 어머니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 114** 1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굽 집안이 이상한 말을 하는 민족을 떠나올 때
- 2 유다는 그분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왕국이 되었는데.
- 3 바다가 보고 달아났으며 요르단이 뒤로 돌아섰네.
- 4 산들은 솟아들처럼, 언덕들은 어린 양들처럼 경충경충 뛰었네.
- 5 바다야, 어찌 도망치느냐? 요르단야, 어찌 뒤로 돌아서느냐?
- 6 산들아, 너희가 솟아들처럼, 언덕들아, 너희가 어린 양들처럼 경충경충 뛰다니?
- 7 땅아, 주님 앞에서 떨어라, 아굽의 하느님 앞에서.
- 8 그분께서는 비위를 못으로, 차들을 물 솟는 샘으로 바꾸시네.

- 115** 1 주님, 저희에게가 아니라? 저희에게가 아니라 오직 당신 이름에 영광을 돌리소서. 당신의 자애와 당신의 진실 때문입니다.
- 2 "저들의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민족들이 이렇게 말해서야 어찌 되겠습니까?
- 3 그러나 우리 하느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며 뜻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다 이루셨네.
- 4 저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 사람 손의 작품이라네.
- 5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 6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네.
- 7 그들의 손은 만지지 못하고 그들의 발은 걸지 못하며 그들의 목구멍으로는 소리 내지 못하네.
- 8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도 신뢰하는 자들도 모두 그것들과 같네.
- 9 이스라엘아, 주님을 신뢰하여라! 주님은 도

움이며 방해이다.

- 10 이론의 집안아, 주님을 신뢰하여라! 주님은 도우며 방해이다.
- 11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과, 주님을 신뢰하여라! 주님은 도우며 방해이다.
- 12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어 복을 내리시리라. 이스라엘 집안에 복을 내리시고 아론 집안에 복을 내리시리라.
- 13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낮은 사람들에게도 높은 사람들에게도 복을 내리시리라.
- 14 주님께서 너희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시리라.
- 15 너희는 주님께 복을 받으리라,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께.
- 16 하늘은 주님의 하늘 땅은 사람들에게 주셨네.
- 17 주님을 찬양하는 이들은 죽은 이들도 아니요 침묵의 땅으로 내려간 이들도 아니네.
- 18 우리는 주님을 찬미하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할렐루야!

116 ¹ 내 애원의 소리를 들어 주시니
주님을 사랑하네.

- 2 내게 당신의 귀를 기울이셨으니 내 한평생 그분을 부르리라.
- 3 죽음의 울가미가 나를 애우고 저승의 공포가 나를 덮쳐 나는 고난과 근심에 사로잡혔네.
- 4 이에 나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불렀네. "아, 주님 제 목숨을 살려 주소서."
- 5 주님은 너그럽고 의로우시며 우리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
- 6 주님은 소박한 이들을 지켜 주시는 분 가엾은 나를 구해 주셨네.
- 7 내 영혼아, 주님께서 너에게 잘해 주셨으니 평온으로 돌아가라.
- 8 정녕 당신께서는 제 목숨을 죽음에서, 제 눈을 눈물에서, 제 발을 넘어짐에서 구하셨습

니다.

- 9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산 이들의 땅에서.
- 10 "내가 모진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되뇌면서도 나는 믿었네.
- 11 내가 질겁하여 말하였네.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
- 12 나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오?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 13 구원의 잔을 들고서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네.
- 14 주님께 나의 사원들을 채워 드리리라, 그분의 모든 백성 앞에서.
- 15 당신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의 눈에 는 소중한게.
- 16 아, 주님 저는 정녕 당신의 종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 당신께서 저의 사슬을 풀어 주셨습니다.
- 17 당신께 감사의 제물을 바치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릅니다.
- 18 주님께 나의 사원들을 채워 드리리라, 그분의 모든 백성 앞에서
- 19 주님의 집 앞뜰에서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할렐루야!

- 117** ¹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미하여라, 모든 겨레들이.
- 2 그분의 사랑 우리 위에 굳건하고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여라. 할렐루야!

- 118** ¹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은 분이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2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3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4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5 곤경 속에서 내가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이끄셨네.
 6 주님께서 나를 위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7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나는 내리다보리라.
 8 주님께 피신함이 더 낫네, 사람을 만기보다.
 9 주님께 피신함이 더 낫네, 제후들을 만기보다.
 10 온갖 민족들이 나를 에워쌌어도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무찔렀네.
 11 나를 에우고 또 에워쌌어도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무찔렀네.
 12 별 떼처럼 나를 에워쌌어도 그들은 가시덤불의 불처럼 꺼지고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무찔렀네.
 13 나를 쓰러뜨리려 그렇게 밀쳤어도 주님께서서는 나를 도우셨네.
 14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군병, 나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네.
 15 의인들의 천막에서는? 기쁨과 구원의 환호 소리 터지네. "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16 주님의 오른손이 드높이 들리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17 나는 정녕 죽지 않고 살리라.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18 주님께서 나를 그토록 벌하셨어도 죽음에 내버리지는 않으셨네.
 19 내게 열이라, 정의의 문을. 그리로 들어가서 나 주님을 찬송하리라.
 20 이것이 주님의 문이니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네.
 21 제가 당신을 찬송하니 당신께서 제게 응답하시고 제게 구원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22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 23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24 이날은 주님께서 만드신 날 우리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25 아, 주님, 구원을 베푸소서. 아, 주님, 번영을 베푸소서.
 26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네.
 27 주님은 하느님 우리를 비추시네. 제단의 뿔에 닿기까지 축제 제물을 줄로 묶어라.
 28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찬송합니다. 저의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뻐합니다.
 29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30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119** ¹ 행복하여라, 그 길이 온전한 이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걷는 이들!
 2 행복하여라, 그분의 법을 따르는 이들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찾는 이들!
 3 불의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그분의 길을 걷는 이들!
 4 당신께서는 규정을 내리시어 열심히 지키게 하셨습니다.
 5 아, 당신 법령을 지킬 수 있도록 저의 길이 굳건하였으면!
 6 그러면 당신의 모든 계명을 바라보며 제가 부끄럽지 않으리이다.
 7 제가 의로운 법규를 배울 때에 당신을 올곧은 마음으로 찬송하오리다.
 8 당신 규범을 지키오리다. 저를 아주 버리지 마소서.
 9 젊은이가 무엇으로 제 길을 깨끗이 보존하겠습니까?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10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 계명을 떠나 해매지 않게 하소서.
 11 당신께 죄짓지 않으려고 마음속에 당신 말씀을 간직합니다.
 12 주님, 당신께서는 찬미받으소서. 제게 당신

- 규범을 가르치소서.
- 13 당신 입에서 나온 모든 법규를 제 입술로 이야기합니다.
- 14 온갖 재산을 얻은 듯 당신 법의 길로 제가 기뻐합니다.
- 15 당신 규범을 묵상하고 당신 길을 바라보오리다.
- 16 당신 규범으로 제가 기꺼워하고 당신 말씀을 잊지 않으오리다.
- 17 당신 종에게 선을 베푸소서. 제가 살아 당신 말씀을 지키오리다.
- 18 제 눈을 열어 주소서. 당신 가르침의 기적들을 제가 바라보오리다.
- 19 저는 이 땅에서 이방인일 뿐 제게서 당신 계명을 감추지 마소서.
- 20 당신의 법규를 늘 열망하여 제 영혼이 갈망으로 지칩니다.
- 21 당신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꾸짖으시니 당신 계명을 떠나 해매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 22 모욕과 멸시를 저에게서 치우소서. 저는 당신의 법을 따랐습니다.
- 23 권세자들이 모여 앉아 저를 거슬러 말하여도 당신 종은 당신의 법령을 묵상합니다.
- 24 당신 법이 저의 즐거움이며 저의 조언자입니다.
- 25 제 영혼이 흠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저를 살려 주소서.
- 26 저의 길을 말씀드리자 당신께서는 제게 응답하셨습니다. 당신의 법령을 저에게 가르치소서.
- 27 당신 규정의 길을 제게 깨우쳐 주소서. 당신의 기적들을 묵상하오리다.
- 28 제 영혼이 시름으로 녹아 내립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저를 일으키소서.
- 29 거짓의 길을 제게서 멀리하시고 당신 가르침으로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30 성실의 길을 제가 택하고 당신 법규를 제 앞에 세웠습니다.
- 31 주님, 당신의 법에 매달리니 제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 32 당신께서 제 마음을 넓혀 주셨기에 당신 계명의 길을 달립니다.
- 33 주님, 당신 법령의 길을 저에게 가르치소서. 제가 이를 끝까지 따르오리다.
- 34 저를 깨우치소서. 당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마음을 다하여 지키오리다.
- 35 당신 계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제가 이것을 좋아합니다.
- 36 제 마음을 잊속이 아니라 당신 법으로 기우게 하소서.
- 37 헛된 것을 보지 않게 제 눈을 돌려 주시고 당신의 길을 따르게 하시어 저를 살려 주소서.
- 38 당신을 경외하도록 당신 종에게 당신의 말씀을 이루소서.
- 39 당신의 법규가 좋으니 제가 무서워하는 모욕을 치워 주소서.
- 40 보소서, 당신의 규정을 애타게 그리니 당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살려 주소서.
- 41 주님,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 구원이, 당신 자애가 저에게 다다르게 하소서.
- 42 그러면 저를 모욕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으리니 제가 당신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 43 당신 법규에 희망을 두니 제 입에서 진리의 말씀을 결코 거두지 마소서.
- 44 저는 항상 당신의 가르침을? 같이같이 지키오리다.
- 45 당신 규정을 찾으니 저는 넓은 곳을 걸으오리다.
- 46 당신 법을 임금들 앞에서 이야기하며 부끄러워하지 않으오리다.
- 47 저는 당신 계명으로 기꺼워하고 그것을 사랑합니다.
- 48 사랑하는 당신 계명을 향해 제 두 손 쳐들

- 고 당신의 법령을 묵상합니다.
- 49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당신께서 그것에 희망을 두게 하셨습니다.
- 50 당신 말씀이 저를 살리신다는 것 이것이 고통 가운데 제 위로입니다.
- 51 교만한 자들이 저를 마구 조롱하여도 당신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 52 예로부터 내려오는 당신 계명을 기억하며 주님, 저는 위안을 받습니다.
- 53 악인들 때문에 제가 노여움에 사로잡히니 그들은 당신의 가르침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 54 당신의 법령이 제게 노래가 되었습니다, 나 그네살이하는 이 집에서.
- 55 주님, 밤에 당신 이름을 기억하며 당신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 56 제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의 규범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 57 주님은 저의 뿔이시니? 저는 당신 말씀을 지키기로 약속하였습니다.
- 58 제 마음 다하여 당신 자비를 애원하니 당신 말씀대로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59 제 길을 되돌아보고 제 발길을 당신 법으로 돌립니다.
- 60 당신 계명을 지키려 저는 지체하지 않고 서두릅니다.
- 61 죄인들의 올라미가 저를 휘감아도 저는 당신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 62 당신의 의로운 법규 때문에 한밤중에도 당신을 찬송하러 일어납니다.
- 63 저는 당신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의, 당신의 규정을 지키는 모든 이들의 벗입니다.
- 64 주님, 당신의 자애가 땅에 가득합니다. 당신의 법령을 저에게 가르치소서.
- 65 주님,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 종에게 잘해 주셨습니다.
- 66 당신의 계명을 믿으니 울버른 깨달음과 지식은 제게 가르치소서.
- 67 고통을 겪기 전에는 제가 그르쳤으나 이제는 당신 말씀을 따릅니다.
- 68 당신은 선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분 당신의 법령을 제게 가르치소서.
- 69 교만한 자들이 제게 거짓을 꾸미나 저는 제 마음 다하여 당신 규정을 따릅니다.
- 70 저들의 마음은 비겟살처럼 무디나 저는 당신의 가르침으로 기꺼워합니다.
- 71 제가 고통을 겪은 것은 좋은 일이니 당신의 법령을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 72 저에게는 당신 입에서 나온 가르침이 좋습니다. 수천의 금과 은보다 좋습니다.
- 73 당신의 두 손이 저를 지어 굳게 세우셨으니 저를 깨우치소서. 당신의 계명을 배우 오리다.
- 74 제가 당신 말씀에 희망을 두니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이 저를 보고 기뻐합니다.
- 75 주님, 당신의 법규가 의로움을 제가 압니다. 성실하시기에 저에게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 76 당신 종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당신의 자애가 저를 위로하게 하소서.
- 77 당신의 자비가 제게 다다르게 하소서. 그러면 제가 살리니 당신의 가르침이 저의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 78 까닭 없이 저를 억누르니 교만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그러나 저는 당신의 규정을 묵상합니다.
- 79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과 당신 법을 아는 이들이 제게 돌아오게 하소서.
- 80 제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당신 법령 안에서 제 마음 흠 없게 하소서.
- 81 제 영혼이 당신 구원을 기다리다 지칩니다. 당신 말씀에 희망을 둡니다.
- 82 제 눈이 당신 말씀을 기다리다 지쳐 제가 이쁩니다. 언제 저를 위로하시렵니까?
- 83 저는 언기 속의 가죽 부대 같으나 당신의 법령을 아니 잊었습니다.

- 84 당신 종의 살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를 뒤쫓는 자들에게 언제 심판을 내리시렵니까?
- 85 교만한 자들이 제게 구령을 뺏았습니다, 당신의 가르침대로 따르지 않는 자들이.
- 86 당신의 모든 계명은 참되건만 그들은 까닭 없이 저를 뒤쫓으니 저를 도우소서.
- 87 그들이 이 세상에서 저를 없애려고 하였지만 저는 당신의 규정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 88 당신 자애에 따라 저를 살려 주소서. 당신 입에서 나온 법을 지키오리다.
- 89 주님께서서는 영원하시고 당신 말씀은 하늘에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 90 당신의 성실은 대대로 이어지고 당신께서 땅을 굳게 세우시니 그 땅이 서 있습니다.
- 91 이들이 당신 법규에 따라 오늘까지 서 있으니 만물이 당신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 92 당신의 가르침이 제 즐거움이 아니었던들 저는 고통 속에서 사라졌으리다.
- 93 영원토록 당신 규정을 잊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그것으로 저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 94 저는 당신의 것, 저를 구하소서. 당신 규정을 찾습니다.
- 95 악인들이 저를 없애려고 노리지만 저는 당신 법을 명심합니다.
- 96 완전한 것에서도 다 끝을 보았지만 당신 계명은 한없이 넓습니다.
- 97 제가 당신의 가르침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온종일 그것을 묵상합니다.
- 98 당신의 계명이 저를 원수들보다 슬기롭게 만들었으니 그것이 영원히 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 99 제가 어떤 스승보다도 지혜로우니 당신 법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 100 제가 노인들보다 현명하니 당신 규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 101 온갖 악한 길에서 제 발길을 돌리니 당신 말씀을 지키려 합니다.
- 102 제가 당신 법규에서 어긋나지 않으니 당신께서 저를 가르치신 까닭입니다.
- 103 당신 말씀이 제 혀에 얼마나 감미롭습니까! 그 말씀 제 입에 꿀보다도 단다.
- 104 당신의 규정으로 제가 현명하게 되어 거짓된 모든 길을 제가 미워합니다.
- 105 당신 말씀은 제 발에 등불, 저의 길에 빛입니다.
- 106 제가 맹세하고 실천하니 당신의 의로운 법규를 지키기 위합니다.
- 107 저는 몹시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 말씀대로 저를 살려 주소서.
- 108 주님, 제 입의 찬미 제물이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당신 법규들을 제게 가르치소서.
- 109 제 목숨이 늘 위험 속에 있으나 당신의 가르침을 잊지 않습니다.
- 110 악인들이 제게 그물을 쳐 놓았으나 저는 당신 규정을 벗어나 헤매지 않습니다.
- 111 당신 법이 영원히 저의 재산이니 그것이 제 마음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 112 당신의 법령을 실천하려 제 마음을 기울입니다, 영원토록 다할 때까지.
- 113 저는 변덕쟁이들을 미워하고 당신의 가르침을 사랑합니다.
- 114 당신은 저의 피신처, 저의 방패 저는 당신 말씀에 희망을 둡니다.
- 115 내게서 물러가라,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나는 내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리라.
- 116 당신 말씀대로 저를 붙들어 주소서. 제가 살리이다. 제 희망 때문에 제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 117 저를 붙드소서. 제가 구원되어 당신의 법령을 늘 살피리이다.
- 118 당신 법령에서 뱃간 자들은 당신께서는 모두 업신여기시니 그들의 행실이 거짓된 속임수이기 때문입니다.

- 119 당신께서는 세상의 악인들을 모두 찌꺼기로 여기시니 저는 당신의 법을 사랑합니다.
- 120 당신이 무서워 제 살이 떨리며 제가 당신의 법규를 경외합니다.
- 121 저는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였습니다. 저를 억누르는 자들에게 남기지 마소서.
- 122 당신 종이 잘되도록 보증하시어 교만한 자들이 저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소서.
- 123 당신의 구원을 기다리다, 당신의 의로운 말씀을 기다리다 제 눈이 지칩니다.
- 124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 종에게 행하시고 당신의 법령을 저에게 가르치소서.
- 125 저는 당신의 종, 저를 깨우치소서. 당신의 법을 깨달으리이다.
- 126 저들이 당신의 가르침을 깨뜨렸으니 이제 주님께서 행하실 시간입니다.
- 127 저는 당신 계명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 128 저는 당신의 모든 규정에 따라 바르게 걸으며 거짓된 길을 모두 미워합니다.
- 129 당신 법이 놀랍기에 제 영혼이 그것을 따릅니다.
- 130 당신의 말씀이 열리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이들을 깨우쳐 줍니다.
- 131 당신의 계명을 열망하기에 저는 입을 벌리고 혈떡입니다.
- 132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 이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신 권리에 따라.
- 133 당신 말씀으로 제 발걸음을 굳건히 하시고 어떠한 불의도 저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소서.
- 134 사람들의 억압에서 저를 구출하소서. 당신의 규정을 지키오리다.
- 135 당신 얼굴이 당신 종 위에 빛나게 하시고 당신의 법령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 136 사람들이 당신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기에
- 제 눈에서 눈물이 사내 되어 흐릅니다.
- 137 주님, 당신께서는 의로우시고 당신의 법규는 바릅니다.
- 138 당신 법을 정의로, 크나큰 성실로 내려 주셨습니다.
- 139 제 열정이 저를 불사르니 저의 적들이 당신 말씀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 140 당신 말씀은 지극히 순수하니 당신 종이 이를 사랑합니다.
- 141 제가 하찮고 멸시당하지만 당신의 규정을 잊지 않습니다.
- 142 당신의 정의는 영원한 정의 당신의 가르침은 진실입니다.
- 143 곤경과 역경이 제게 닥쳤어도 당신 계명이 제 기쁨입니다.
- 144 당신 법은 영원히 의로우니 저를 깨우치소서. 제가 살리이다.
- 145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으니, 주님, 저에게 대답하소서. 당신의 법령을 따르오리다.
- 146 당신께 부르짖으니 저를 구하소서. 당신의 법을 지키오리다.
- 147 새벽부터 일어나 도움을 청하며 당신 말씀에 희망을 둡니다.
- 148 제 눈이 야경꾼보다 먼저 깨어 있음은 당신 말씀을 묵상하기 위함입니다.
- 149 당신 자애에 따라 제 소리를 들으소서. 주님, 당신 법규에 따라 저를 살리소서.
- 150 부정을 뒤쫓는 자들이 다가왔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에서 멀리 있는 저들이.
- 151 주님, 당신께서는 가까이 계시며 당신의 계명은 모두 진실입니다.
- 152 제가 일찍부터 당신의 법을 아니 당신께서 그것을 영원히 세우신 까닭입니다.
- 153 당신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으니 제 가련함을 보시어 저를 구원하소서.
- 154 제 소송을 이끄시어 저를 구해 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저를 살리소서.
- 155 악인들에게는 구원이 멀리 있으니 당신의

법령을 따르지 않은 탓입니다.

- 156 주님, 당신 재비가 크시니 당신 법규대로 저를 살리소서.
- 157 저를 뒤쫓는 자들과 억누르는 자들이 많으나 저는 당신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았 습니다.
- 158 저는 배신자들을 보며 역겨워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저들을.
- 159 보소서, 저는 당신 규정을 사랑합니다. 주 님, 당신 자애에 따라 저를 살리소서.
- 160 당신 말씀을 한마디로 진실이며 당신의 의로운 법규는 영원합니다.
- 161 권세자들이 저를 까닭 없이 박해하나 제 마음은 당신 말씀을 무서워합니다.
- 162 크나큰 전리품을 발견한 이처럼 저는 당 신의 말씀으로 기뻐합니다.
- 163 저는 거짓을 미워하고 지켜워하나 당신의 가르침은 사랑합니다.
- 164 하루에도 일곱 번 당신을 찬양하니 당신 의 의로운 법규 때문입니다.
- 165 당신의 가르침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큰 평화가 있고 무엇 하나 거칠 것이 없습니 다.
- 166 주님, 저는 당신의 구원을 바라며 당신의 계명을 실천합니다.
- 167 제 영혼은 당신의 법을 지키며 그것을 더 없이 사랑합니다.
- 168 제가 당신의 규정과 법을 지키니 당신의 모든 길이 제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 169 주님, 제 부르짖음이 당신 앞에 다다르게 하소서.? 당신 말씀대로 저를 깨우치소서.
- 170 제 간청이 당신 앞에 이르게 하소서. 당신 말씀대로 저를 구해 주소서.
- 171 저에게 당신의 법령을 가르쳐 주셨기에 제 입술이 찬양을 쏟아 냅니다.
- 172 당신의 계명이 모두 의롭기에 제 혀가 당 신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 173 제가 당신의 규정을 선택하였으니 저를

도우리 당신 손을 피소서.

- 174 주님, 당신의 구원을 애타게 그리는 이 몸 당신의 가르침이 제 즐거움입니다.
- 175 제가 살아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의 법규 가 저를 돕게 하소서.
- 176 길 잃은 양처럼 헤매니 당신의 종을 찾으 소서. 당신의 계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120 ¹ [순례의 노래] 궁궐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자 나에게 응답하셨네.

- 2 " 주님, 거저된 입술에서 속임수 혀에서 제 목숨을 구하소서."
- 3 속임수 혀야 너 무엇을 받으랴? 너 무엇을 더 받으랴?
- 4 전사의 날카로운 화살들을 싸리나무 숲불과 함께 받으리라.
- 5 아, 내 신세여! 메섹에서 나그네살이하고 케다르의 천막들 사이에서 지내야 했으니.
- 6 나는 평화를 미워하는 자들과? 너무나 오래 지냈구나.
- 7 내가 평화를 비라고 이야기하면 저들은 전 쟁만을 피하였네.

121 ¹ [순례의 노래]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드네. 내 도움은 어디서 오리오?

- 2 내 도움은 주님에게서 오리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 3 그분께서는 네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시 고 너를 지키시는 그분께서는 줄지도 않으 신다.
- 4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께서는 줄지도 않으시고 잠들지도 않으신다.
- 5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너의 그늘 네 오른쪽에 계시다.
- 6 낮에는 해도, 밤에는 달도 너를 해치지 않으 리라.
- 7 주님께서 모든 악에서 너를 지키시고 네 생 명을 지키신다.

8 나거나 들거나 주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이
제부터 영원까지.

122 ¹ [순례의 노래. 다윗] " 주님의 집으
로 가세!" 사람들이 나에게 이를
제 나는 기뻐네.

2 예루살렘아, 네 성문에 이미 우리 발이 서
있구나.

3 예루살렘은 도성으로 세워져 견고하게 짜여
졌네.

4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는구나, 주님의 지파
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송함은 이스라엘을
위한 법이라네.

5 그곳에 재판하는 왕좌가, 다윗 집안의 왕좌
가 놓여 있네.

6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빌어라. " 너를
사랑하는 이들은 평안하여라.

7 네 성안에 평화가, 네 궁궐 안에 평안이 있
으리라."

8 내 형제들과 벗들을 위하여 나는 이르네. "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9 주 우리 하느님의 집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나는 기원하네.

123 ¹ [순례의 노래] 하늘에 좌정하신 분
이시여 당신께 저의 눈을 듭니다.

2 보소서, 종들의 눈이 제 상전의 손을 향하듯
몸중의 눈이 제 여주인의 손을 향하듯 그렇
게 저희의 눈이 주 저희 하느님을 우리릅니
다,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3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
주소서. 저희가 멸시만 실컷 받았습시다.

4 거만한 자들의 조롱을 교만한 자들의 멸시
를 저희 영혼이 실컷 받았습시다.

124 ¹ [순례의 노래. 다윗] 이스라엘은 이
렇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
하지 않으셨던들,

2 사람들이 우리를 거슬러 일어났을 때 주님
께서 우리를 위하지 않으셨던들,

3 우리를 거슬러 저들의 분노가 타올랐을 때
우리를 산 채로 삼켜 버렸으리라.

4 물살이 우리를 뒤덮고 급류가 우리 목 위로
넘쳐흘렀으리라.

5 거품 뿜는 물살이 우리 목 위로 넘쳐흘렀으
리라.

6 우리를 저들 이빨의 먹이로 내주지 않으신
주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7 우리는 사냥칸의 그물에서 채처럼 벗어났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벗어났네.

8 우리의 도우심은 주님 이름에 있으니 하늘
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네.

125 ¹ [순례의 노래] 주님을 신뢰하는 이
들은 시온 산 같아 흔들리지 아니하
고 영원히 서 있으리라.

2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감싸고 계시다, 이제부터 영원
까지.

3 의인들이 나누어 받은 땅 위에 사악의 왕홀
이 내리누르지 못하리니 의인들이 죄악에다
손을 내밀지 않게 되리라.

4 주님, 착한 아들에게, 마음 바른 아들에게
선을 베푸소서.

5 그러나 비뚤어진 길로 벗어난 자들은 주님
께서 악인들과 함께 물리치시리라. 이스라
엘에 평화가 있기를!

126 ¹ [순례의 노래] 주님께서 시온의 운
명을 되돌리실 제 우리는 마치 꿈꾸
는 이들 같았네.

2 그때 우리 입은 웃음으로, 우리 혀는 환성으
로 가득하였네.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
주님께서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3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4 주님, 저희의 운명을 네경 땅 사냇물처럼 되
돌리소서.
5 눈물로 씨 뿌리던 이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6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이 곡식 단 들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127** ¹ [순례의 노래. 솔로몬] 주님께서 집
을 지어 주지 않으시면 그 짓은 이
들의 수고가 헛되리라. 주님께서 성읍을 지
켜 주지 않으시면 그 지키는 이의 파수가
헛되리라.
2 일찍 일어남도 늦게 자리에 눕도 고난의 빵
을 먹음도 너희에게 헛되리라. 당신께서 사
랑하시는 아에게는 ? 잘 때에 그만침을 주신
다.
3 보라, 아들들은 주님의 선물이요 몸의 소생
은 그분의 상급이다.
4 젊어서 얻은 아들들은? 전사의 손에 들린
화살들 같구나.
5 행복하여라, 제 화살 통을 그들로 채운 사
람! ? 성문에서 적들과 말할 때 수치를 당하
지 않으리라.

- 128** ¹ [순례의 노래]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 모두 그분의 길을 걷는
이 모두!
2 네 손으로 밭어들이던 것을 내가 먹으리니 너
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이 있어라.
3 네 집 안방에는 아내가 풍성한 포도나무 같
고 네 밥상 둘레에는 아들들이 올리브 나무
했순들 같구나.
4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5 주님께서서는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어
네 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6 네 아들의 아들들을 보게 하시리라. 이스라
엘에 평화가 있기를!

- 129** ¹ [순례의 노래]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젊어서부터 그들은
나를 많이도 괴롭혔네.
2 내가 젊어서부터 그들은 나를 많이도 괴롭
혔네. 그러나 나를 이겨 내지는 못하였네.
3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고랑을 길게
내었네.
4 주님은 의로우신 분 악인들의 밭줄을 자르
셨다.
5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모두 부끄러워하며
뒤로 물러가리라.
6 그들은 지붕 위의 풀처럼 되리라. 뽑기도 전
에 시들어 버리고
7 낫질하는 이의 손도, 거두는 이의 품도 채우
지 못하는 풀처럼 되리라.
8 지나가는 이들은 아무도 " 주님의 복이 너
희에게 있기를!" 하고 말하지 마라.?" 우리
는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 130** ¹ [순례의 노래] 주님, 깊은 곳에서 당
신께 부르짖습니다.
2 주님, 제 소리를 들으소서. 제가 애원하는
소리에 당신의 귀를 기울이소서.
3 주님, 당신께서 죄악을 살피신다면 주님, 누
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4 그러나 당신께는 용서가 있으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5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6 파수꾼들이 아침을 기다리기보다 파수꾼들
이 아침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7 이스라엘아, 주님을 고대하여라,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으니.
8 바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
서 구원하시리라.

- 131** ¹ [순례의 노래. 다윗] 주님, 제 마음

은 오만하지 않고 제 눈은 높지 않습니다.
저는 거창한 것을 떠나나서지도 주재님께
늘라온 것을 찾아 나서지도 않습니다.

- 2 오히려 저는 제 영혼을 가다듬고 가리왔혔
습니다. 어미 품에 안긴 젖 뎀 아기 같습니
다. 저에게 제 영혼은 젖 뎀 아기 같습니다.
3 이스라엘아, 주님을 고대하여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132 ¹ [순례의 노래] 주님,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노고를 기억하십시오.

- 2 그가 어떻게 주님께 맹세하고 야곱의 장사
께 서원하였는지를.
3 " 내 집 천막에 들지 않으리라. 내 침상에
오르지 않으리라.
4 내 눈에 잠도, 내 눈가에 졸음도 허락하지
않으리라,
5 내가 주님께 자리를, 야곱의 장사께 거처를
찾아 드릴 때까지."
6 보라, 우리는 에브라타에서 그것을 듣고 야
아르의 들에서 그것을 찾았네.
7 우리 그분 거처로 들어가 그분의 발판 앞에
엎드리세.
8 주님, 일어나시어 당신의 안식처로 드소서.
당신께서, 당신 권능의 궤와 함께 드소서.
9 당신의 사제들은 의로움으로 옷 입고 당신
께 충실한 이들은 환호하게 하소서.
10 당신의 종 다윗을 보시어 당신의 기름부음
받은이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소서.
11 주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돌키지
않으실 진실이라네. " 나는 네 몸의 소생
을 네 왕좌에 앉히리라.
12 네 아들들이 내 계약을, 그들에게 가르칠
내 법을 지킨다면 그들의 아들들도 같이길
이 네 왕좌에 앉으리라."
13 정녕 주님께서서는 시온을 선택하시고 당신
처소로 원하셨네.
14 " 이는 길이길이 내 안식처 내가 이를 원

하였으니 나 여기에서 지내리라.

- 15 그 양식에 내가 풍성히 복을 내려 그 불쌍
한 이들을 빵으로 배부리리라.
16 그 사제들을 내가 구원으로 옷 입히리니
그 충실한 이들이 춤추며 환호하리라.
17 그곳에서 내가 다윗에게 뿌이 든게 하고
나의 기름부음받은이에게 등불을 갖추어
주리라.
18 그의 원수들은 내가 수치로 옷 입히지만
그의 머리 위에는 왕관이 맞나니라."

133 ¹ [순례의 노래. 다윗] 보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형제들이 함
께 사는 것이!

- 2 머리 위의 좋은 기름 같아라. 수염 위로, 아
론의 수염 위로 흘러내리는, 그의 옷깃 위에
흘러내리는 기름 같아라.
3 시온의 산들 위에 흘러내리는 헤르몬의 이
슬 같아라. 주님께서 그곳에 복을 내리시니
영원한 생명이어라.

134 ¹ [순례의 노래] 이제 주님을 찬미하
여라, 주님의 모든 종들이 밤 시간
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이들과.

- 2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님을 찬미하여
라.
3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
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135 ¹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
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종들과.

- 2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이들과. 우리 하느님의
집 앞뜰에서 서 있는 이들과.
3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서서는 좋으시다.
그 이름에 찬미 노래 불러라, 그 이름 감미
로우시다.
4 주님께서 야곱을 당신 것으로, 이스라엘을
당신 소유로 선택하셨다.

- 5 정녕 나는 아네, 주님께서 위대하심을 우리 주님께서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심을.
- 6 주님께서서는 마음에 드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해심에서도 이루신다.
- 7 땅 끝에서 구름을 올라오게 하시는 분. 번개로 비를 만드시고 바람을 그 곳집에서 끌어 내시는 분.
- 8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의 만배들을 치신 분.
- 9 파라오와 그의 모든 종들을 거슬러 이집트야, 네 한가운데로 표징과 기적들을 보내셨다.
- 10 수많은 민족들을 치시고 힘 있는 임금들을 죽이신 분.
- 11 아모리 임금 시혼과 바산 임금 옥과 가나안의 모든 왕국들을.
- 12 이들의 땅을 재산으로 주셨다.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재산으로 주셨다.
- 13 주님, 당신의 이름은 영원하시고 주님, 당신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릅니다.
- 14 주님께서서는 당신 백성의 권리를 되찾아 주시고 당신 종들을 가없이 여기시기 때문일세.
- 15 민족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 사람의 손이 만들어 낸 것들.
- 16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 17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 입에는 숨조차 없으니
- 18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도 신뢰하는 자들도 모두 그것들과 같대네.
- 19 이스라엘 집안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아론 집안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 20 레위 집안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과, 주님을 찬미하여라.
- 21 예루살렘에 거주하시는 분 주님께서서는 시온에서 찬미받으소서. 할렐루야!

- 136 ¹ 주님을 찬송하여라, 종으신 분이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2 신들의 신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3 주님들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4 홀로 큰 기적들을 일으키신 분을.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5 슬기로 하늘을 만드신 분을.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6 땅을 물 위에 펼쳐 놓으신 분을.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7 커다란 빛들을 만드신 분을.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8 낮을 다스리라 해를 만드신 분을.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9 밤을 다스리라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을.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10 이집트의 만배들을 치신 분을.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11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에서 이끌어 내신 분을.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12 강한 손과 뻗은 팔로.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13 갈대 바다를 둘로 가르신 분을.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14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15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갈대 바다에 처넣으셨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16 사막에서 당신 백성을 인도하신 분을.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17 큰 임금들을 치신 분을.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18 뛰어난 임금들을 죽이셨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19 아모리 임금 시혼을.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

시다.

- 20 바산 임금 옥을 죽이셨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21 이들의 땅을 상속 재산으로 주셨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22 당신 종 이스라엘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셨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23 우리가 비천할 때 우리를 기억하셨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24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25 모든 육신에게 빵을 주시는 분을.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26 하늘의 하느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137 ¹ 바빌론 강 기슭 거기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우네.

- 2 거기 버드나무에 우리 비파를 걸었네.
- 3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노래를 부르라, 우리의 압제자들이 흥을 돋우라 하는구나. "자, 시온의 노래를 한가락 우리에게 불러 보아라."
- 4 우리 어찌 주님의 노래를 남의 나라 땅에서 부를 수 있오라?
- 5 예루살렘아, 내가 만일 너를 잇는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 버리리라.
- 6 내가 만일 너를 생각 않는다면 내가 만일 예루살렘을 내 가장 큰 기쁨 위에 두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 버리리라.
- 7 주님, 애들의 자손들을 거슬러? 예루살렘의 그날을 생각하소서. 저들은 말하였습니다. "허물어라, 허물어라, 그 말바닥까지!"
- 8 바빌론아, 너 파괴자야! 행복하여라,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에게 되갚는 이!
- 9 행복하여라, 네 어린것들을 붙잡아 비유에다 매어치는 이!

138 ¹ [다윗]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합니다. 신들 앞에서 당신께 찬미 노래 부릅니다.

- 2 당신의 거룩한 궁전을 향해 엎드려 당신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당신의 자애와 당신의 진실 때문이며 당신의 이름과 말씀을 만물 위로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 3 제가 부르짖던 날 제게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만드시어 제 영혼에 힘이 솟았습니다.
- 4 주님, 당신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들을 때 세상 임금들이 모두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5 주님의 영광이 크시니 주님의 길을 노래하게 하소서.
- 6 주님께서는 높으셔도 비천한 이를 굽어보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서도 알아보신다.
- 7 제가 비록 곤경 속을 걷는다 해도 당신께서는 제 원수들의 분노를 거슬러 저를 살리십니다. 당신 손을 뻗치시어 당신 오른손으로 저를 구하십니다.
- 8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주님, 당신의 자애는 영원하십니다. 당신 손이 빛으신 것들을 저버리지 마소서.

139 ¹ [지휘자에게. 다윗. 시편]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살펴보시어 아십니다.

- 2 제가 앉거나 서거나 당신께서는 아시고 제 생각을 멀리서도 알아채십니다.
- 3 제가 길을 가도 누워 있어도 당신께서는 헤아리시고 당신께서는 저의 모든 길이 익숙합니다.
- 4 정녕 말이 제 혀에 오르기도 전에 주님, 이미 당신께서는 모두 아십니다.
- 5 뒤에서도 앞에서도 저를 에워싸시고 제 위에 당신 손을 얹으십니다.
- 6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한 당신의 예지 너무 높아 저로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 7 당신 얼굴을 피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 얼굴 피해 어디로 달아나겠습니까?
- 8 제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당신 계시고 저승에 잠자리를 펴도 거기에 또한 계십니다.
- 9 제가 새벽놀이의 날개를 달아 바다 맨 끝에 자리 잡는다 해도
- 10 거기에서도 당신 손이 저를 이끄시고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잡으십니다.
- 11 " 어둠이 나를 뒤덮고 내 주위의 빛이 밤이 되었으면!" 하여도
- 12 암흑인 듯 광명인 듯 어둠도 당신께는 어둡지 않고 밤도 낮처럼 밝습니다.
- 13 정녕 당신께서는 제 속을 만드시고 제 어머니 배 속에서 저를 엮으셨습니다.
- 14 제가 오묘하게 지어졌으니 당신을 찬송합니다. 당신의 조물들은 경이로울 뿐, 제 영혼이 이를 잘 압니다.
- 15 제가 남몰래 만들어질 때 제가 땅 깊은 곳에서 찢어질 때 제 뼈대는 당신께 감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 16 제가 아직 태어날 때 당신 두 눈이 보셨고 이미 정해진 날 가운데 아직 하나도 시작하지 않았을 때 당신 책에 그 모든 것이 쓰여졌습니다.
- 17 하느님, 당신의 생각들이 제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들을 다 합치면 얼마나 웅장합니까?
- 18 세어 보자니 모래보다 많고 끝까지 닿았다 해도 저는 여전히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 19 오, 하느님, 당신께서 죄인을 죽이신다면! 피에 주린 사내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 20 이들은 당신을 두고 음흉하게 이야기하며 사악하게 당신을 거슬러 일어섭니다.
- 21 주님,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가 미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당신을 기억하는 자들을 제가 업신여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 22 더할 수 없는 미움으로 그들을 미워합니다. 그들은 저에게 원수가 되었습니다.
- 23 하느님, 저를 살펴보시어 제 마음을 알아주소서. 저를 꿰뚫어 보시어 제 생각을 알아주소서.
- 24 제게 고통의 길이 있는지 보시어 저를 영원의 길로 이끄소서.

- 140 ¹ [지휘자에게. 시편. 다윗]
- ² 주님, 악한 사람에게서 저를 구하소서. 포악한 사내에게서 저를 보호하소서.
- 3 저들은 미음속으로 악을 피하고 날마다 싸움을 일으킵니다.
- 4 뱀처럼 혀를 버리고 살무사의 독을 입술 밑에 품습니다.
- 5 주님, 악인의 손에서 저를 지키소서. 포악한 사내에게서 저를 보호하소서. 저들이 제 발걸음을 잡아 밀어뜨리려 꾀합니다.
- 6 거만한 자들이 닳을 숨겨 두고 그물처럼 줄을 펼쳐 놓았으며 저를 잡으려 길 옆에 울가미를 놓았습니다.
- 7 제가 주님께 이웁니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 주님, 제 애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 8 주 하느님, 제 구원의 힘이시어 당신께서는 전투의 날에 제 머리를 감싸 주셨습니다.
- 9 주님, 악인의 탐욕을 채워 주지 마시고 그의 음모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소서.
- 10 저를 둘러싼 자들이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하소서. 저들 입술의 제앙이 저들을 달치게 하소서.
- 11 저들 위에 숯불이 내리고 저들이 금류에 떨어져 일어서지 못하게 하소서.
- 12 험담꾼은 이 세상에서 오래가지 못하고 포악한 사내는 악이 쫓아가 넘어뜨리게 하소서.
- 13 저는 압니다, 주님께서 가련한 이에게 정의를 베푸시고; 불쌍한 이에게 권리를 되찾아 주심을.

14 장년 의인들은 당신 이름을 찬송하고 올곧은 이들은 당신 앞에서 살리이다.

- 141 ¹ [시편. 다윗] 주님, 당신께 부르짖으니 어서 저에게 오소서. 제가 당신께 부르짖을 때 제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 2 저의 기도 당신 면전의 분향으로 여기시고 저의 손 들어 올리니 저녁 제물로 여겨 주소서.
- 3 주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제 입술의 문을 지켜 주소서.
- 4 제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나쁜 짓 하는 사내들과 함께 불의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하소서. 저들의 진미를 즐기지 않으오리다.
- 5 의인이 자애로 저를 때려도 저를 벌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머릿기름, 제 머리가 마다하지 않으오리다. 저들의 악행을 거슬러 저는 늘 기도드립니다.
- 6 저들이 심판자들의 손에 떨어지면 제 말이 얼마나 좋은지 들어 알리이다.
- 7 누가 밭을 갈아 땅을 파헤쳤을 때처럼 저들의 뼈가 저승 어귀에 흩어지리이다.
- 8 장년 주 하느님, 제 눈이 당신을 향합니다. 제가 당신께 피신합니다. 제 영혼을 쏟아 버리지 마소서.
- 9 저들이 쳐 놓은 덫에서, 나쁜 짓 하는 자들의 올가미에서 저를 지키소서.
- 10 제가 탈 없이 지나가는 동안 악인들은 자기들이 파 놓은 함정에 빠지게 하소서.

- 142 ¹ [마스킬. 다윗. 그가 굴에 있을 때 드린 기도]
- 2 큰 소리로 나 주님께 부르짖네. 큰 소리로 나 주님께 간청하네.
- 3 그분 앞에 내 근심을 쏟아 붓고 내 곤경을 그분 앞에 알리네.
- 4 제 일이 아득해질 때 당신께서는 저의 행로를 아십니다. 제가 다니는 길에 저들이 밧을

숨겨 놓았습니다.

- 5 오른쪽을 살피소서. 그리고 보소서. 저를 돌보아 주는 이 아무도 없습니다. 도망갈 곳 더 이상 없는데 제 목숨 걱정해 주는 이 아무도 없습니다.
- 6 주님, 당신께 부르짖으며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저의 피신처 산 이들의 땅에서 저의 몫이십니다."
- 7 제 울부짖음을 귀여겨들으소서. 저는 너무나 허약하게 되었습니다. 뒤쫓는 자들에게서 저를 구하소서. 그들이 저보다 드뭅니다.
- 8 제가 당신 이름을 찬송하도록 감옥에서 저를 빼내 주소서. 당신께서 제게 선을 베푸실 때 의인들이 저를 둘러싸리이다.

- 143 ¹ [시편. 다윗] 주님, 제 기도를 들으소서. 제 애원에 귀를 기울이소서. 당신의 성실함으로, 당신의 의로움으로 제게 응답하소서.
- 2 당신의 종과 함께 법정으로 들지 마소서. 산이는 누구도 당신 앞에서 의로울 수 없습니다.
- 3 원수가 저를 뒤쫓아 제 생명을 땅에다 짓밟고 영원히 죽은 이들처럼 저를 어둠 속에 살게 합니다.
- 4 제 일이 속에서 아득해지고 제 마음이 안에서 얼어붙습니다.
- 5 제가 옛날을 회상하며 당신의 모든 업적을 묵상하고 당신 손이 이루신 일을 되새깁니다.
- 6 저의 두 손 당신을 향하여 펼치고 저의 영혼 메마른 땅처럼 당신께 향합니다.
- 7 어서 저에게 응답하소서, 주님. 제 일이 다하여 갑니다. 당신 얼굴을 제게서 감추지 마소서. 제가 구렁으로 내려가는 이들과 같아 지리이다.
- 8 당신을 신뢰하니 아침에 당신의 자애를 입게 하소서. 당신께 제 영혼을 들어 올리니

걸어야 할 길 제게 알려 주소서.

- 9 원수들에게서 저를 구하소서, 주님. 당신께 피신합니다.
- 10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의 뜻 따르도록 저를 가르치소서. 당신의 선하신 영이 저를 바른길로 인도하게 하소서.
- 11 주님, 당신 이름을 보시어 저를 살리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제 영혼을 곤경에서 이끌어 내소서.
- 12 당신의 자애로 제 원수들을 멸하시고 제 영혼을 괴롭히는 자들을 모두 없애소서.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144 ¹ [다윗] 나의 반석이신 주님께서서 찬미받으소서. 내 손에 전투를, 내 손가락에 전쟁을 가르치시는 분.

- 2 나의 힘, 내 산성 내 성채, 나를 구하시는 분 내 방패, 내가 피신하는 분 민족들을 내 밑에 굴복시키시는 분.
- 3 주님, 사람이 무엇입니까? 당신께서 이토록 알려주시다니! 인간이 무엇입니까? 당신께서 이토록 헤아려 주시다니!
- 4 사람이란 한낱 숨결과도 같은 것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 5 주님, 당신 하늘을 기울여 내려오소서. 산들을 건드리소서. 연기 뿜으리이다.
- 6 번개를 치시어 저들을 흠으소서. 당신 화살들을 보내시어 저들을 혼란에 빠뜨리소서.
- 7 높은 데에서 당신 손을 내뻗으시어 큰 물에서, 이방인들의 손에서 저를 구하소서, 저를 구출하소서.
- 8 저들의 입은 거짓을 말합니다. 저들의 오른손은 간계의 오른손입니다.
- 9 하느님, 제가 당신께 새로운 노래를 부르오리다. 열 줄 수금으로 당신께 찬미 노래 부르오리다.
- 10 당신은 임금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 당신 종 다윗을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악독한

칼에서

- 11 저를 구하소서. 이방인들의 손에서 저를 구출하소서. 저들의 입은 거짓을 말합니다. 저들의 오른손은 간계의 오른손입니다.
- 12 우리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무성히 자라는 초목 같고 우리 딸들은 궁전 양식으로 다 들어진 모퉁이 기둥 같으리라.
- 13 우리 곳집들은 그득하여 갖가지 곡식을 대어 주리라. 우리 양 떼는 천 배로, 들에서 만 배로 불어나고
- 14 우리 소들은 살이 찌리라. 더 이상 성벽이 쯤리는 일도 사람들이 끌려가는 일도 없고 광장에서는 울부짖는 일도 없으리라.
- 15 행복하여라, 이렇게 되는 백성!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백성!

145 ¹ [찬양가. 다윗]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당신을 들어 높입니다. 영영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합니다.

- 2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 3 주님은 위대하시고 드높이 찬양받으실 분 그 위대하심은 헤아릴 길 없으리라.
- 4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 당신 업적을 기리고 당신 위업을 전하리이다.
- 5 사람들은 당신 업위의 찬란한 영광을 이야기하고 저는 당신의 기적들을 노래하리이다.
- 6 사람들은 당신의 경외로운 일들의 위력을 말하고 저는 당신의 위대하신 일들을 선포하리이다.
- 7 사람들은 당신이 당신의 크신 선을 기억하고 알리며 당신의 의로움에 환호하리이다.
- 8 주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하신 분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크신 분.
- 9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신 분 그 자비 당신의 모든 조물 위에 미치네.
- 10 주님, 당신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합니다.

- 11 당신 나라의 영광을 말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 12 사람들에게 당신을 위업과 당신 나라의 존귀한 영광을 알리기 위하여.
- 13 당신의 나라는 영원무궁한 나라 당신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미칩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말씀에 참되시고 당신의 모든 조물에게 성실하시다.
- 14 주님께서는 넘어서는 이 누구나 볼드시고 꺾인 이 누구나 일으켜 세우신다.
- 15 모든 눈이 당신께 바라고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때에 주십니다.
- 16 당신의 손을 벌리시어 모든 생물을 호의로 배부리십니다.
- 17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고 모든 행동에서 성실하시다.
- 18 주님께서는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당신을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다.
- 19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의 뜻을 채우시고 그들의 애원을 들으시어 구해 주신다.
- 20 주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모두 보호하시고 죄인들을 모두 멸하신다.
- 21 내 입은 주님에 대한 찬양을 이야기하고 모든 육신은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하리라, 영영세세.

- 146** ¹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2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가 사는 한. 나의 하느님께 찬미 노래 하리라, 내가 있는 한.
- 3 너희는 제후들을 믿지 마라, 구원을 주지 못하는 인간을.
- 4 그 일이 나기면 흠으로 돌아가고 그날로 그의 모든 계획도 사라진다.
- 5 행복하여라, 아픔의 하느님을 도움으로 삼는 이 자기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두는

- 이!
- 6 그분은 하늘과 땅을, 바다와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다.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 7 억눌린 이들에게 올바른 일을 하시며 굶주린 이들에게 빵을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께서서는 불잡힌 이들을 풀어 주시고
- 8 주님께서는 눈먼 이들의 눈을 열어 주시며 주님께서서는 꺾인 이들을 일으켜 세우신다. 주님께서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 9 주님께서서는 이방인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신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꺾어 버리신다.
- 10 주님께서서는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 147** ¹ 할렐루야! 좋기도 하여라, 우리 하느님께 찬미 노래 부름이. 즐겁기도 하여라, 그분께 어울리는 찬양을 드림이.
- 2 주님께서는 에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흠어진 이들을 모으신다.
- 3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신다.
- 4 별들의 수를 정하시고 날달이 그 이름을 지어 주신다.
- 5 우리 주님께서는 위대하시고 권능이 충만하시며 그 지혜는 헤아릴 길 없으시다.
- 6 주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을 일으키시고 악인들을 땅바닥까지 낮추신다.
- 7 주님께 감사 노래 불러라. 우리 하느님께 비파 타며 찬미 노래 불러라.
- 8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비를 마련하시어 산에 풀이 돋게 하시니 분.
- 9 가축에게도, 우짖는 까마귀 새끼들에게도 먹이를 주시는 분.
- 10 그분께서는 준미의 힘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장정의 다리를 반기지 않으신다.
- 11 주님께서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당신

- 자애에 희망을 두는 이들을 좋아하신다.
- 12 예루살렘아, 주님을 기려라.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 13 네 성문들의 빗장을 튼튼하게 하시고 네 안에 있는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 14 네 강토에 평화를 가져다주시고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 15 당신 명령을 세상에 보내시니 그 말씀 날래게 달려간다.
- 16 눈을 양털처럼 내리시고 서리를 재처럼 흘으신다.
- 17 얼음을 빵 부스리기처럼 내던지시니 그 추위 앞에 누가 서 있을 수 있으랴?
- 18 당신 말씀 보내시어 저들을 녹게 하시고 당신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이 흐른다.
- 19 당신의 말씀을 야곱에게 알리시고 당신의 규칙과 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알리신다.
- 20 어떤 민족에게도 이같이 아니 하였으니 그들은 계명을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 148** 1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로부터.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데에서.
- 2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들아.
- 3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반짝이는 모든 별들아.
- 4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의 하늘아 하늘 위에 있는 물들아.
- 5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명령하시자 저들이 창조되었다.
- 6 그분께서 저들을 세세에 영원히 세워 놓으시고 법칙을 주시니 아무도 벗어나지 않는다.
- 7 주님을 찬미하여라, 땅으로부터. 용들과 깊은 모든 바다들아
- 8 불이며 우박, 눈이며 안개 그분 말씀을 수행하는 거센 바람아

- 9 산들과 모든 언덕들? 과알나무와 모든 향백나무들아
- 10 들짐승과 모든 짐짐승 길짐승과 날짐승들아
- 11 세상 임금들과 모든 민족들 고관들과 세상의 모든 판관들아
- 12 총각들과 처녀들도 노인들과 아이들도 함께
- 13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분 이름 홀로 높으시다. 그분의 엄위 땅과 하늘에 가득하고
- 14 그분께서 당신 백성 위하여 뿔을 세우셨으니 당신께 충실한 모든 이에게, 당신께 가까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찬양 노래 이어라. 할렐루야!

- 149** 1 할렐루야!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충실한 이들의 모임에서 찬양 노래 불러라.
- 2 이스라엘은 자기들 지으신 분 안에서 기뻐하고 시온의 아들들은 자기네 임금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 3 춤추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손북과 비파로 찬미 노래 드려라.
- 4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좋아하시고 가난한 이들을 구원으로 꾸미신다.
- 5 충실한 이들은 영광 속에 기뻐 뛰며 자기들의 자리에서 환호하여라.
- 6 그들의 목에는 하느님의 찬송이, 그들의 손에는 쌍날칼이 있으리라.
- 7 민족들에게 복수를, 겨레들에게 징벌을 내리고
- 8 저들의 임금들을 사슬로 묶으며 저들의 귀족들을 족쇄로 채워
- 9 쓰여진 대로 저들에게 심판을 내리기 위하여. 할렐루야!

- 150** ¹ 할렐루야!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성소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웅대한 창공에서.
- ²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위엄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기없는 위대함으로.
- ³ 주님을 찬양하여라, 뿔 나팔 불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수금과 비파로.
- ⁴ 주님을 찬양하여라, 손북과 춤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현악기와 피리로.
- ⁵ 주님을 찬양하여라, 낭랑한 자바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우렁찬 자바라로.
- ⁶ 숨쉬는 것 모두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구약성경 - 24

시서와지혜 - 3

잠 언

총 31 장

총 915 절

[구약성경]-[잠언]

표제

1 ¹ 이스라엘 임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

목적

- ² 이 잠언은 지혜와 교훈을 터득하고 예지의 말씀을 이해하며
- ³ 현철한 교훈과 정의와 공정과 정직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 ⁴ 또한 어수룩한 이들에게 영리함을,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현명함을 베풀려는 것이니
- ⁵ 지혜로운 이는 이것을 들어 견문을 더하고 슬기로운 이는 지도력을 얻으라.
- ⁶ 그러면 잠언과 비유, 현인들의 말씀과 수수께끼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 ⁷ 주님을 경외함은 지식의 근원이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업신여긴다.

부도의 교훈을 들어라

- ⁸ 내 아들이야, 아버지의 교훈을 들어라.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마라.
- ⁹ 그것들은 네 머리에 우아한 화관이며 네 목에 목걸이다.

니쁜 친구들을 조심하여라

- ¹⁰ 내 아들이야, 죄인들이 너를 유혹하여도 따라가지 마라.
- ¹¹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가자! 숨어서 남을 기다렸다가 그 피를 쏟고 매복하였다가 이유를 찾지 말고 죄 없는 이를 덮치자.
- ¹² 저승처럼 그들을 산 채로 집어삼키자. 구렁으로 내려가는 이들을 삼키듯 통째로 삼켜 버리자.
- ¹³ 우리는 온갖 값진 재물을 찾아내어 우리 집을 약탈물로 그득 채우게 될 것이다.
- ¹⁴ 너도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돈 자루는

우리 모두 하나만 두자."

- ¹⁵ 내 아들이야, 그들이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길을 가지 마라. 그들의 행로에 발을 들여놓지 마라.
- ¹⁶ 그들의 발은 악을 저지르려 줄달음치고 남의 피를 쏟으려고 서두른다.
- ¹⁷ 무슨 날짐승이든 그 눈앞에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된 일이지만
- ¹⁸ 그들은 제 피를 쏟으려고 숨어서 기다리고 제 목숨을 잃으려고 매복하는 꼴이다.
- ¹⁹ 부정한 이득을 뒤쫓는 자의 길은 다 이리하니 그 이득이 그들의 목숨을 앗아 가 버린다.

지혜의 간절한 호소

- ²⁰ 지혜가 바깥에서 외치고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인다.
- ²¹ 법석대는 거리 모퉁이에서 소리치고 성문 어귀에서 말을 한다.
- ²² "어리석은 자들이야, 언제까지 어리석음을 사랑하려느냐? 언제까지 빈정꾼들은 빈정대기를 좋아하고 우둔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려는가?"
- ²³ 내 훈계를 들으러 돌아오너라. 그러면 너희에게 내 영을 부어 주어 내 말을 알아듣게 해 주리라.
- ²⁴ 내가 불렀건만 너희는 들으려 하지 않고 손을 내밀었건만 아무도 아랑곳하지 않았기에
- ²⁵ 나의 모든 충고를 저버리고 나의 훈계를 원하지 않았기에
- ²⁶ 나도 너희가 불행할 때 웃고 파멸을 당할 때 비웃으리라.
- ²⁷ 파멸이 너희에게 폭풍처럼 닥치고 불운이 너희에게 태풍처럼 들이치며 곤경과 재앙이 너희 위로 닥칠 때 나는 그렇게 하리라.
- ²⁸ 그때 그들이 나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나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리라.

라.

- 29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님을 경외하려 하지 않았기에
- 30 나의 충고를 원하지 않고 나의 모든 훈계를 업신여겼기에
- 31 그들은 제 행실의 열매를 먹고 자기들이 꾸며 낸 것으로 배부르리라.
- 32 어리석은 자들의 배반은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고 우둔한 자들의 망심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 33 그러나 내 말을 듣는 이는 편안히 살고 불행해질 걱정 없이 평온히 지내리라.

지혜는 감추어진 보물

- 2¹ 내 아들이야, 네가 만일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계명을 네 안에 간직한다면
- 2 지혜에 네 귀를 기울이고 슬기에 네 마음을 모은다면
- 3 그래, 네가 예지를 부르고 슬기를 향해 네 목소리를 높인다면
- 4 내가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물을 찾듯 그것을 찾는다면
- 5 그때에 너는 주님 경외함을 깨닫고 하느님을 아는 지식을 찾아 얻으리라.
- 6 주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그분 입에서는 지식과 슬기가 나온다.
- 7 그분께서는 울퉁은 이들에게 주실 도움을 간직하고 계시며 결백하게 걸어가는 이들에게 방해가 되어 주신다.
- 8 그분께서는 공정의 길을 지켜 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의 앞길을 보살피신다.
- 9 그때에 너는 정의와 공정과 정직을,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되리라.

지혜는 보호자

- 10 그러면 지혜가 네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지식이 네 영혼에 감미로우리라.

- 11 현명함이 너를 보살피고 슬기가 너를 지켜
- 12 악의 길에서, 시악한 것을 말하는 자에게서 너를 구해 주리라.
- 13 그들은 어둠의 길을 걸으려고 바른 행로를 저버린 자들
- 14 악행을 즐겨 하고 시악한 것을 기뻐하는 자들
- 15 그 길이 빛나가고 그 행로가 엇나간 자들이다.
- 16 또 슬기는 너를 낮은 여자에게서, 매끄러운 말을 하는 낮모르는 여자에게서 구해 준다.
- 17 그런 여자는 제 젊은 시절의 친구를 버리고 자기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잊은 자다.
- 18 그 여자의 집은 죽음 속으로 빠져 들고 그 길은 죽은 자들에게 이른다.
- 19 그 여자에게 가는 자들은 모두 돌아오지 못하고 더 이상 생명의 길에 이르지 못한다.
- 20 그러니 너는 선인들의 길을 걷고 의인들의 행로를 따라야 한다.
- 21 울퉁은 이들은 이 땅에서 살고 흠 없는 이들은 이곳에 남아 있겠지만
- 22 악인들은 이 땅에서 잘려 나가고 배신자들은 이곳에서 뽑혀 나갈 것이다.

주님을 경외함과 지혜

- 3¹ 내 아들이야, 너는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너의 마음에 내 계명을 지키게 하여라.
- 2 그것들이 너에게 장수와 수명을, 그리고 행복을 더해 주리라.
- 3 자애와 진실이 너를 떠나지 않도록 하여라. 그것들을 네 목에 묶고 네 마음속에 새겨 두어라.
- 4 그러면 내가 하느님과 사람 앞에서 호의와 호평을 받으리라.
- 5 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너의 예지에는 의지하지 마라.

- 6 어떠한 길을 걷든 그분을 알아 모셔라. 그분께서 내 앞길을 곧게 해 주시리라.
- 7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 8 그것이 네 몸에 악이 되고 네 뼈에 활력소가 되리라.
- 9 네 재물과 네 모든 소출의 만물로 주님께 영광을 드려라.
- 10 그러면 네 공간은 그득 차고 네 술통은 포도즙으로 넘치리라.
- 11 내 아들이아, 주님의 교훈을 물리치지 말고 그분의 훈계를 언짢게 여기지 마라.
- 12 아버지가 아끼는 아들을 꾸짖듯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꾸짖으신다.

지혜는 생명의 나무

- 13 행복하여라, 지혜를 찾은 사람! 행복하여라, 슬기를 얻은 사람!
- 14 지혜의 소득은 은보다 낫고 그 소출은 순금보다 낫다.
- 15 지혜는 산호보다 값진 것 네 모든 귀중품도 그것에 비길 수 없다.
- 16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그 왼손에는 부와 영광이 들려 있다.
- 17 지혜의 길은 감미로운 길이고 그 모든 앞길에는 평화가 깃들여 있다.
- 18 지혜는 붙잡는 이에게 생명의 나무 그것을 붙드는 이들은 행복하다.
- 19 주님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시고 슬기로 하늘을 굳히셨다.
- 20 그분의 지식으로 심연이 열리고 구름이 이슬을 내린다.

주님은 너의 의지

- 21 내 아들이아, 신중함과 현명함이 네 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라.
- 22 그것들이 네 영혼에 생명이 되고 네 목에 아리따움이 되리라.
- 23 그러면 너는 안심하고 길을 걸으며 네 발

은 어디에도 부딪치지 않으리라.

- 24 내가 누워도 무서워할 것이 없고 누우면 곧 단잠을 자게 되리라.
- 25 갑작스러운 공포 앞에서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파멸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 26 주님께서 너의 의지가 되어서 네 발이 뒹에 걸리지 않게 지켜 주시리라.

이웃 사랑

- 27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도와야 할 이에게 선행을 거절하지 마라.
- 28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네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게, 내일 줄 테니." 하지 마라.
- 29 이웃이 네 곁에서 안심하고 사는데 그에게 해가 되는 악을 지어내지 마라.
- 30 너에게 악을 끼치지 않았으면 어떤 사람하고도 공연히 다투지 마라.
- 31 포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길은 어떤 것이든 선택하지 마라.
- 32 주님께서는 비뚤어진 자를 역겨워하시고 올곧은 아들을 가까이하신다.
- 33 주님께서는 악인의 집에 저주를 내리시고 의인이 사는 곳에는 복을 내리신다.
- 34 그분께서는 빈정대는 자들에게 빈정대시지만 가련한 이들에게는 호의를 베푸신다.
- 35 지혜로운 이들은 영광을 물려받고 우둔한 자들은 수치를 짊어진다.

지혜는 귀중한 재산

- 4¹ 아들이아, 아버지의 교훈을 들어라. 귀를 기울여 예지를 얻어라.
- 2 내가 너희에게 유익한 지침을 주었으니 내 가르침을 저버리지 마라.
- 3 나도 내 아버지에게 좋은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가 애지중지하는 외아들이었다.
- 4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 5 지혜를 얻고 예지를 얻어라.? 내가 한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마라.
- 6 지혜를 저버리지 마라. 그것이 너를 보호해 주리라.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것이 너를 지켜 주리라.
- 7 지혜를 얻어라. 이것이 곧 지혜의 시작이다. 내가 가진 것을 다하여 예지를 얻어라.
- 8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너를 높여 주리라. 지혜를 품으면 그것이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 9 그것이 아름다운 화환을 네 머리에 씌워 주고 화려한 관을 너에게 가져다주리라."

한인의 교육은 생명의 길잡이

- 10 내 아들이, 들어라. 내 말을 받아들여라. 그것이 내게 수명을 더해 주리라.
- 11 내가 너에게 지혜의 길을 가르치고 너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었으니
- 12 내가 걸을 때 앞길이 막히지 않고 내가 뛰더라도 비틀거리지 않으리라.
- 13 교훈을 놓치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것이 네 생명이니 잘 지켜라.
- 14 악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말고 악한들의 행로를 걷지 마라.
- 15 그런 길은 피하여 발을 들여놓지 말고 발길을 돌려 비켜 가거라.
- 16 그들은 악을 저지르지 않고는 잠들지 못하고 남을 쓰러트리지 않으면 잠을 설친다.
- 17 그들은 불의의 빵을 먹고 폭력의 술을 마신다.
- 18 의인들의 길은 동틀 녘의 빛과 같아 한낮이 될 때까지 점점 밝아지지만
- 19 악인들의 길은 암흑과 같아 어디에 걸려 비틀거리는데도 모른다.
- 20 내 아들이,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 21 그것이 네 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네 마음 한가운데에 간직하여라.

- 22 내 말은 그것을 찾아 얻는 이에게 생명이 되고 그의 온몸에 활력이 되어 준다.
- 23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 24 거짓된 말을 치워 버리고 비방하는 말을 멀리하여라.
- 25 눈은 똑바로 앞을 바라보고 눈길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 26 바른길을 걸어라. 내가 가는 길이 모두 튼튼하리라.
- 27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말고 악에서 발길을 돌려라.

낮선 여자를 조심하여라

- 5¹ 내 아들이,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 슬기에 귀를 기울여라.
- 2 그러면 내가 현명함을 간직하고 네 입술이 지식을 보존하리라.
- 3 정녕 낮선 여자의 입술은 꿀을 흘리고 그 입속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 4 그 끝은 썩은썩은처럼 쓰디쓰고 쌍날칼처럼 날카롭다.
- 5 그 여자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 걸음은 저승을 향한다.
- 6 그 여자는 생명의 길에 뜻을 두지 않으니 제 앞길이 흔들림을 깨닫지도 못한다.
- 7 그러니 이제, 아들이야, 내 말을 들어라. 내가 하는 말에서 벗어나지 마라.
- 8 그 여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걷고 그 집 문에 가까이 가지 마라.
- 9 다른 이들에게 네 명예를 넘겨주고 네 세월을 난폭한 자에게 빼앗기며
- 10 낮선 자들이 네 재산으로 배를 불리고 네 노고의 결실이 낮토르는 자의 집으로 가게 된다.
- 11 마침내 몸과 살이 스러지는 지경에 이르러 너는 통곡하면서
- 12 한탄하게 되리라. "어찌자고 내가 교훈을

싫어하고 내 마음이 혼계를 업신여겼단 말인가?

- 13 스승님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선생님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14 회중과 공동체 한가운데에서 하마터면 처참한 불행에 빠질 뻔하였구나."

젊은 시절의 아내

- 15 네 저수 동굴에서 물을 마시고 네 샘에서 솟는 물을 마셔라.
16 네 샘물이 비같이 흘러 버리고 그 물줄기가 거리로 흘러서야 되겠느냐?
17 그것은 너 혼자만의 것 네 곁에 있는 낮은 자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
18 네 샘터가 복을 받도록 하고 네 젊은 시절의 아내를 두고 즐거워하야라.
19 그 여자는 너의 사랑스러운 암사슴, 우아한 영양 너는 언제나 그의 가슴에서 흡족해하고 늘 그 사랑에 흠뻑 취하야라.
20 그런데 내 아들이, 너는 어찌 낮은 여자에게 흠뻑 취하고 낮은 여자의 가슴을 껴안으려 드느냐?
21 사람의 길은 주님 눈앞에 펼쳐져 있고 그 분께서는 그의 모든 행로를 지켜보신다.
22 악인은 제 악행에 붙잡히고 제 죄의 밧줄에 얽매인다.
23 그는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아 죽게 되고 너무 어리석어 길을 잃게 된다.

보증의 위험

- 6 ¹ 내 아들이, 내가 이웃의 보증을 썼다면 내가 낮은 이의 담보를 썼다면
2 너는 내가 한 말에 달려들고 내가 한 말에 붙잡힌 것이다.
3 내 아들이, 내가 이웃의 손에 걸려든 것이니 이제 이렇게 하여 거기에서 벗어나라. 네 이웃에게 가서 없으려 즐라 대어라.
4 잠도 자지 말고 졸지도 마라.

- 5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산양처럼, 새잡이의 손에서 벗어나는 새처럼 너도 벗어나라.

게으름뱅이와 개미

- 6 너 게으름뱅이야, 개미에게 가서 그 사는 모습을 보고 지혜로워져라.
7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감독도 지도자도 없이
8 여름에 양식을 장만하고 수확 철에 먹이를 모아들인다.
9 너 게으름뱅이야, 언제까지 누워만 있으려느냐? 언제나 잠에서 깨어나려느냐?
10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눈을 붙이자. 손을 놓고 조금만 더 누워 있자!" 하면
11 가난이 부랑자처럼, 빈곤이 무장한 군사처럼 너에게 들이닥친다.

사악한 사람의 운명

- 12 쓸모없는 인간과 간악한 사람은 입에 거품을 담고 돌아다닌다.
13 눈을 찡긍대며 발로 말하고 손가락으로 신호를 한다.
14 그의 마음에는 사악이 자리 잡아 악을 꾸미고 언제나 싸움만 일으킨다.
15 그래서 갑자기 재앙이 들이닥쳐 순식간에 망하면 구제할 길이 없다.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 16 이 여섯 가지를 주님께서 미워하시고 이 일곱 가지를 그분께서 역겨워하신다.
17 거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
18 간악한 계획을 꾸미는 마음 악한 일을 하려고 서둘러 달려가는 두 발
19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짓 증인 형제들 사이에 싸움을 일으키는 자다.

긴통에 관한 경고

- 20 내 아들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어머니

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마라.

- 21 그것들을 언제나 네 마음에 새겨 두고 네 목에 감아 두어라.
- 22 그것이 네가 길을 다닐 때 너를 인도하고 잠잘 때 너를 지켜 주며 깨어나면 너에게 말뱃이 되어 주리라.
- 23 계명은 등불이고 가르침은 빛이며 교훈이 담긴 훈계는 생명의 길이다.
- 24 그것들이 너를 악한 여자에게서, 낮모르는 여자의 아양 떠는 혀에서 지켜 주리라.
- 25 너는 마음속으로 그런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 그 눈짓에 걸려들지 마라.
- 26 창녀는 빵 한 덩어리만 되지만 남의 아내 는 귀중한 생명을 노린다.
- 27 누가 불을 품에 안고 다니는데 옷을 태우 지 않을 수 있겠느냐?
- 28 누가 솥틀 위를 걸어가는데 발을 데지 않을 수 있겠느냐?
- 29 체 이웃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가 그러하다. 그 여자를 건드리는 자는 누구도 벌을 면 하지 못한다.
- 30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남의 것을 훔친 도둑도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 31 붙잡히면 그는 일곱 갑절로 갚아야 하고 심하면 집에 있는 재산을 모조리 내놓아야 한다.
- 32 남의 여자와 간통하는 자는 지각없는 자 자신을 망치려는 자만 그런 짓을 한다.
- 33 배를 맞고 치욕을 당하여 그 수치가 지워 지지 않는다.
- 34 그 남편은 질투로 격분하여 복수하는 날에 조금도 사정을 보지 않는다.
- 35 그는 어떠한 보상도 거들떠보지 않고 아무 리 많은 선물을 준다 해도 받으려 하지 않는다.

지혜를 받아들이라

7 ¹ 내 아들이,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

을 마음에 간직하여라.

- 2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살리라. 내 가르침 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 3 그것들을 네 손가락에 묶고 네 마음속에 새 겨 두어라.
- 4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 라 하고 예지를 친지라 불러라.

간음부의 유혹

- 5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낯선 여자에게서, 매 끄러운 말을 하는 낮모르는 여자에게서 지켜 주리라.
- 6 내 집 창문에 기대어 창살 사이로 내다보다 가
- 7 어수룩한 자들 속에서 누군가를 보게 되었다. 청년들 속에서 지각없는 젊은이 하나를 지켜보게 되었다.
- 8 그는 그 여자가 사는 거리 모퉁이 쪽으로 길을 건너 그 집을 향해 걸어간다.
- 9 날 저물녘 어스름 속에, 한밤의 어둠 속에 걸어간다.
- 10 보아라, 여자가 창녀 옷을 입고서 교활한 마음을 품고 그에게 마주 온다.
- 11 여자는 안절부절못하고 그 밝은 집 안에 붙어 있지 못한다.
- 12 한 번은 거리에 갔다가 한 번은 광장에 가고 길목마다 지켜 산다.
- 13 이제 그 젊은이를 붙잡아 입 맞추고 뽀뽀스러운 얼굴로 말한다.
- 14 "내가 친교 재물을 바쳐야 했는데? 오늘 그 서원을 채웠답니다.
- 15 그래서 내가 당신을 맞으러 나와 당신 얼굴을 찾다가 이제야 찾아냈어요.
- 16 내 침상에 달걀을 깔았는데 화려한 이집트 산 아마포랍니다.
- 17 잠자리에 몰약과 침향과 육계향도 뿌렸어요.
- 18 자, 우리 아침까지 애정에 취해 봐요. 사랑

을 즐겨 봐요.

- 19 남편은 집에 없어요. 멀리 길을 떠났거든요.
- 20 돈 자루를 가져갔으니 보름날이나 집에 돌아올 거예요."
- 21 이렇게 갖가지 달콤한 말로 피고 매끄러운 입술로 유혹하니
- 22 그가 선뜻 그 여자 뒤를 따라가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고 벌받으러 죄사슬에 묶여 가는 미련한 자와 같다.
- 23 화살이 간장을 꿰뚫을 때까지 목숨을 잃을 줄도 모르는 채 그물 속으로 재빨리 날아드는 새와 같다.
- 24 아들들이야,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라.
- 25 네 마음이 그런 여자의 길로 빠져 들지 않게 하여라. 그런 여자의 행로로 들어서지 마라.
- 26 그런 여자가 쓰러뜨려 희생된 자들이 많고 힘센 자들도 모두 그에게 살해되었다.
- 27 그 집은 저승으로 가는 길이라 죽음의 안방으로 내려가게 된다.

지혜가 부른다

- 8** ¹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슬기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 2 지혜가 언덕 위, 거리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네거리에서 있다.
 - 3 성읍 어귀 성문 곁에서, 여러 대문간에서 외친다.
 - 4 "사람들이야, 내가 너희를 부른다. 너희 인간들에게 내 목소리를 높인다.
 - 5 어리석은 이들이야, 영리함을 터득하여라. 우둔한 이들이야, 마음을 깨쳐라.
 - 6 들어라, 나는 고귀한 것들을 말하고 내 입술에서는 올바른 것들이 흘러나온다.
 - 7 내 입은 진실을 말하고 내 입술은 불의를 역겨워한다.

- 8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의로울 뿐 거기에는 교활한 것도 음흉한 것도 없다.
- 9 그 모든 말이 깨닫는 이에게는 옳고 지식을 찾는 이에게는 바르다.
- 10 너희는 은이 아니라 내 교훈을 받고 순수한 금이 아니라 지식을 받아라.
- 11 지혜는 산호보다 낮고 온갖 귀중품도 그것에 비길 수 없다."

지혜의 자기 소개

- 12 "나 지혜는 영리함과 함께 살며 지식과 현명함을 얻었다.
- 13 주님을 경외함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의 길을, 사악한 입을 미워한다.
- 14 나에게서는 조언과 통찰이 있다. 나는 곧 예지이며 나에게서는 힘이 있다.
- 15 내 도움으로 임금들이 통치하고 군주들이 의로운 명령을 내린다.
- 16 내 도움으로 제후들이 다스린다. 의롭게 판결하는 수령들도 모두 마찬가지로.
- 17 나를 사랑하는 이들은 나는 사랑해 주고 나를 찾는 이들은 나는 만나 준다.
- 18 나에게서는 부와 영예가 있고 오래고 존귀한 재산과 번영도 있다.
- 19 내 열매는 금보다 순금보다 낮고 내 소출은 순수한 은보다 낫다.
- 20 나는 정의의 길을, 공정의 길 한가운데를 걷는다.
- 21 그리하여 나는 나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그들의 보물 곳간을 채워 준다."

지혜와 창조

- 22 "주님께서서는 그 옛날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당신의 첫 작품으로 나를 지으셨다.
- 23 나는 한처음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영원에서 서부터 모습을 갖추어졌다.
- 24 심연이 생기기 전에, 물 많은 샘들이 생기

기 전에 나는 태어났다.

- 25 산들이 자리 잡기 전에, 언덕들이 생기기 전에 나는 태어났다.
- 26 그분께서 땅과 들을, 누리의 첫 흙을 만드시기 전이다.
- 27 그분께서 하늘을 세우실 때, 심연 위에 테두리를 정하실 때 나 거기 있었다.
- 28 그분께서 위의 구름을 굳히시고 심연의 샘들을 숨겨지게 하실 때,
- 29 물이 그분의 명령을 어기지 않도록 바다에 경계를 두실 때, 그분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
- 30 나는 그분 곁에서 사랑받는 아이였다. 나는 날마다 그분께 즐거움이었고? 언제나 그분 앞에서 뛰놀았다.
- 31 나는 그분께서 지으신 땅 위에서 뛰놀며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지혜의 말씀을 듣는 이의 행복

- 32 "그러니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들어라. 행복하여라, 내 길을 따르는 이들!
- 33 내 교훈을 들어 지혜로워지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 34 행복하여라, 내 말을 듣는 사람! 날마다 내 집 문을 살피고 내 대문 기둥을 지키는 사람!
- 35 나를 얻는 이는 생명을 얻고 주님께에서 충애를 받는다.
- 36 그러나 나를 농치는 자는 제 목숨을 해치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모두 죽음을 사랑한다."

'지혜'라는 여인의 초대

- 9 ¹ 지혜가 일곱 기둥을 깎아 자기 집을 지었다.
- 2 짐승을 잡고 술에 향료를 섞고 상을 차렸다.
- 3 이제 시녀들을 보내어 성읍 언덕 위에서 외치게 한다.

- 4 "어리석은 이는 누구나 이리로 들어와라!" 지각없는 이에게 지혜가 말한다.
- 5 "너희는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술을 마셔라.
- 6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아라. 예지의 길을 걸 어라."

현인과 빈정꾼

- 7 빈정꾼을 꾸짖는 이는 수치만 당하고 악인을 나무라는 이는 오점만 남긴다.
- 8 빈정꾼을 나무라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하리라. 지혜로운 이를 나무라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 9 지혜로운 이에게 주어라. 그가 더 지혜로워지리라. 의로운 이를 가르쳐라. 그가 전문을 더하리라.
- 10 지혜의 시작은 주님을 경외함이며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곧 예지다.
- 11 장영 나로 말미암아 네가 살 날이 많아지고 너의 수명이 더해진다.
- 12 네가 지혜롭다면 너를 위해 지혜로운 것이다. 네가 빈정대면 너 혼자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우둔함'이라는 여자의 초대

- 13 우둔함이라는 여자는 안절부절못하고 어리석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 14 그 여자는 자기 집 때문에, 성읍 언덕에 자리 잡고 앉아
- 15 길을 가는 이들을, 제 길을 똑바로 가는 이들을 부른다.
- 16 "어리석은 이는 누구나 이리로 들어와라!" 지각없는 이에게 우둔함이 말한다.
- 17 "흠친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더 맛있다!"
- 18 그러나 어리석은 이는 그곳에 죽은 자들만 있음을, 그 여자의 손님이 저승 깊은 곳에 있음을 알지 못한다.

솔로몬의 첫째 집안집

- 10** ¹ 솔로몬의 잠언. 지혜로운 이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우둔한 이들은 어머니의 근심거리가 된다.
- ² 불의하게 모든 보화는 소용이 없지만 정의는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 준다.
- ³ 주님께서는 의인의 갈망은 채워 주시고 악인의 욕망은 물리치신다.
- ⁴ 게으른 손바닥은 가난을 지어 내고 부지런한 이의 손은 부를 가져온다.
- ⁵ 여름에 모아들이는 이는 사려 깊은 이들과 수확 철에 잠만 자는 자는 수척스러운 이이다.
- ⁶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내리지만 악인의 입은 폭력을 감추고 있다.
- ⁷ 의인은 칭송을 받으며 기억되지만 악인의 이름은 썩어 버린다.
- ⁸ 마음이 지혜로운 이는 계명을 받아들이지만 미련한 말을 하는 자는 멸망에 이른다.
- ⁹ 흙 없이 걷는 이는 안전하게 걸어가지만 비뚤어진 길을 가는 자는 드러나기 마련이다.
- ¹⁰ 눈을 찡긍대는 자는 고통을 가져오고 미련한 말을 하는 자는 멸망에 이른다.
- ¹¹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폭력을 감추고 있다.
- ¹² 미움은 싸움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 준다.
- ¹³ 슬기로운 이의 입술에는 지혜가 어리지만 지각없는 자의 등에는 똥등이가 어울린다.
- ¹⁴ 지혜로운 이들은 지식을 간직하지만 미련한 자의 입은 몰락을 불러들인다.
- ¹⁵ 부유한 자의 재산은 그에게 견고한 성읍이 되고 빈곤한 자의 가난은 그에게 몰락을 가져온다.
- ¹⁶ 의인의 소득은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악에 이른다.
- ¹⁷ 교훈을 지키는 이는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가지만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남을 방황하

- 게 한다.
- ¹⁸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고 험담을 내뱉는 자는 우둔한 자다.
- ¹⁹ 말이 많은 데에는 허물이 있기 마련 입술을 조심하는 이는 사려 깊은 사람이다.
- ²⁰ 의인의 혀는 순수한 은과 같지만 악인의 마음은 별 가치가 없다.
- ²¹ 의인의 입술은 많은 이를 먹여 살리지만 미련한 자들은 지각이 없어 죽어 간다.
- ²² 주님의 복은 부를 가져오지만 사람의 노고는 보탬이 되지 않는다.
- ²³ 우둔한 자는 부정한 짓을 즐기고 슬기로운 이는 지혜를 즐긴다.
- ²⁴ 악인에게는 무서워하는 일이 닥치고 의인에게는 바라는 일이 이루어진다.
- ²⁵ 폭풍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토대 위에 서 있다.
- ²⁶ 게으름뱅이는 심부름시키는 사람에게 이에 식초요 눈에 연기와 같다.
- ²⁷ 주님을 경외함은 살날을 더해 주지만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
- ²⁸ 의인들의 희망은 기쁨을 가져오지만 악인의 기대는 무너지고 만다.
- ²⁹ 주님의 길은 흙 없는 이에게는 요새가 되지만 나쁜 짓 하는 자에게는 몰락이 된다.
- ³⁰ 의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지만 악인은 이 땅에서 살지 못한다.
- ³¹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놓지만 사악한 혀는 잘려 나간다.
- ³² 의인의 입술은 남이 찬성할 말을 알지만 악인의 입은 사악함을 알 뿐이다.

- 11** ¹ 속임수 저울은 주님께서 역겨워하시고 정확한 추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다.
- ² 오만이 오면 수치도 오지만 겸손한 이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 ³ 울퉁은 이들의 흠 없음은 그들을 잘 이끌어

- 주지만 배신자들의 패륜은 그들을 멸망시킨다.
- 4 재물은 진노의 날에 소용이 없지만 의로움은 죽음에서 구해 준다.
- 5 흠 없는 이의 의로움은 그의 앞길을 고르게 해 주지만 악인은 자기의 악함으로 넘어지고 만다.
- 6 울곧은 이들의 의로움은 그들을 구해 주지만 배신자들은 자기들의 욕망에 걸려들고 만다.
- 7 죽음과 함께 악인의 기대는 사라지고 사악한 희망도 사라진다.
- 8 의인은 곤경에서 구출되고 그 대신 악인이 빠져 든다.
- 9 무도한 자는 입으로 이웃을 망치지만 의인은 자기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
- 10 의인들의 행복에 마음이 즐거워하고 악인들의 멸망에 환성이 터진다.
- 11 성읍은 의인들의 축복으로 일어서고 악인들의 입으로 허물어진다.
- 12 지각없는 자는 이웃을 바웃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침묵을 지킨다.
- 13 중상하고 다니는 자는 비밀을 누설하지만 마음이 신실한 이는 말을 덮어 둔다.
- 14 지도력이 없으면 백성이 쓰러지고 조언자가 많으면 안전하다.
- 15 낮은 이의 보증을 서면 고생하지만 담보 서기를 싫어하면 탈이 없다.
- 16 품위 있는 여자는 존경을 받고 억척스러운 남자는 재산을 얻는다.
- 17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이롭게 하고 무자비한 자는 제 몸을 해친다.
- 18 악인은 헛소득을 얻어 내지만 의로움을 심는 이는 확실한 보상을 받는다.
- 19 의로움으로 확고한 이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뒤쫓는 자는 죽음에 이른다.
- 20 마음이 뱃나간 자들은 주님께서 역겨워하시고 흠 없는 길을 걷는 이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 21 악한은 결코 벌을 피할 수 없지만 의인들의 후손은 구원을 받는다.
- 22 예쁘지만 무식한 여자는 멧돼지 코에 금고리 격이다.
- 23 의인들의 희망은 좋은 것만 가져오지만 악인들의 소망은 분노를 가져올 뿐이다.
- 24 후하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 많이 받는 이가 있고 당연한 것마저 아끼는데도 궁핍해지는 이가 있다.
- 25 축복해 주는 이는 자기도 흠족해지고 마실 물을 주는 이는 자신도 흠뻑 마시게 된다.
- 26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지만 그것을 내다 파는 이의 머리 위에는 복이 내린다.
- 27 선을 추구하는 이는 호감을 사지만 악을 뒤쫓는 자에게는 악이 닥친다.
- 28 자기 재산에 의지하는 자는 넘어지지만 의인은 나뭇잎처럼 번성한다.
- 29 제 집안을 괴롭히는 자는 바람만 물려받고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이의 종이 된다.
- 30 의로운 이의 결실은 생명의 나무이고 지혜로운 이는 사람들을 사로잡는다.
- 31 의인이 세상에서 값음을 받는데 악인과 죄인이야 오죽하랴!

12 ¹ 사랑하는 이는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혼계를 싫어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 2 착한 이는 주님에게서 총애를 받고 교활한 자는 단죄를 받는다.
- 3 사람은 불의로 확고히 설 수 없지만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 4 훌륭한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지만 수치스러운 여자는 남편 뼈의 염증과 같다.
- 5 의인들의 생각은 올바름뿐이고 악인들의 의향은 속임수뿐이다.

- 6 악인들의 말은 사람을 잡는 매복이지만 울
골은 이들의 입은 사람을 구한다.
- 7 악인들이 몰락하면 끝장이지만 의인들의 집
은 그대로 서 있다.
- 8 사람은 그 식견에 따라 칭찬을 받고 마음이
비뚤어진 자는 멸시를 받는다.
- 9 먹을거리 없이 갈난 채하는 것보다 볼품없
지만 종을 거느린 자가 낫다.
- 10 의인은 제 가축의 욕구까지 알지만 악인은
그 자비마저 잔인하다.
- 11 제 땅을 가꾸는 이는 양식이 넉넉하지만
헛것을 뒤쫓는 자는 지각이 없다.
- 12 악인은 악한들의 포획물을 탐내지만 의인
의 뿌리는 열매를 내준다.
- 13 입술이 저지르는 잘못에는 해로운 울기미
가 놓여 있지만 의인은 궁지에서 벗어난다.
- 14 사람은 제 입이 맺는 열매 덕에 좋은 것으
로 배부르고 인간은 제 손이 한 행실에 따
라 되돌려 받는다.
- 15 미련한 자는 제 길이 바르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이는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 16 미련한 자는 불쾌함을 바로 드러내지만 영
리한 이는 모욕을 덮어 둔다.
- 17 바른 것을 말하는 이는 진실을 밝히지만
거짓 증인은 허위만 퍼뜨린다.
- 18 난도질하듯 함부로 지껄이는 자들도 있지
만 지혜로운 이들의 혀는 이품을 낮게 한
다.
- 19 진실한 입술은 길이 남지만 거짓된 혀는
한순간뿐이다.
- 20 악을 꾸미는 자들의 마음에는 속임수가 들
어 있지만 평화를 권유하는 이들에게는 기
쁨이 있다.
- 21 의인은 아무런 환난도 당하지 않지만 악인
은 불행으로 가득하게 된다.
- 22 거짓된 입술은 주님께서 역겨워하시고 진
실을 행하는 이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 23 영리한 사람은 지식을 덮어 두지만 우둔한

자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외쳐 낸다.

- 24 부지런한 이의 손은 남을 다스리지만 게으
른 자는 강제 노동을 하게 된다.
- 25 마음속의 근심은 사람을 짓누르지만 좋은
말 한마디가 그를 기쁘게 한다.
- 26 의인은 이웃에게 길을 알려 주지만? 악인
의 길은 자신까지도 방황하게 한다.
- 27 게으른 자는 제가 사양한 것도 굶지 않지
만 부지런한 사람은 귀중한 재산을 얻는다.
- 28 의로움의 길에는 생명이 있지만 악인의 행
로는 죽음에 이른다.

13 ¹ 지혜로운 이들은 교훈을 사랑하지만
빈정꾼은 꾸지람을 들으려 하지 않
는다.

- 2 사람은 제 입이 맺는 열매 덕에 좋은 것을
먹게 되지만 배신자들의 욕망은 폭행으로
치닫는다.
- 3 입을 조심하는 이는 제 목숨을 보존하지만
입술을 열어젖히는 자에게는 파멸이 온다.
- 4 아무리 비랄지라도 게으름뱅이의 갈망은 헛
되지만 부지런한 이의 갈망은 충족된다.
- 5 의인은 거짓된 말을 미워하지만 악인은 역
겹고 파렴치하게 행동한다.
- 6 정의는 사람의 길을 흠 없이 지켜 주지만
불의는 죄악으로 빠져 든다.
- 7 부자인 채하나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가
난한 채하나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 8 재산은 사람의 목숨을 보장해 주지만 가난
한 이는 협박을 들을 일도 없다.
- 9 의인들의 빛은 흥겹게 빛나지만 악인들의
등불은 사위어 간다.
- 10 오만은 싸움만 일으키지만 충고를 듣는 이
들에게는 지혜가 있다.
- 11 거저 얻은 재물은 줄어들고 조금씩 모으는
재물은 늘어 간다.
- 12 이루어지지 않은 희망은 마음을 아프게 하
지만 이루어진 소망은 생명의 나무가 된다.

- 13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는 멸망하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이는 보상받는다.
- 14 현인의 가르침은 생명의 샘이라 죽음의 올가미에서 벗어나게 한다.
- 15 좋은 식견은 호의를 불러오지만 배신자들의 길은 파멸에 이른다.
- 16 영리한 이는 누구나 지식으로 행동하지만 우둔한 자는 어리석음을 퍼뜨린다.
- 17 약한 사신은 스스로 불행에 빠져 들지만 충실한 사절은 치유를 가져온다.
- 18 교훈을 저버리는 자는 빈곤과 수치가 닥치지만 훈계를 지키는 이는 존경을 받는다.
- 19 이루어진 소망은 영혼에 감미롭건만 우둔한 자들은 악에서 멀어지기를 싫어한다.
- 20 지혜로운 아들과 어울리는 이는 지혜로워지고 우둔한 자들과 사귀는 자는 해를 입는다.
- 21 죄인들에게는 불행이 따르지만 의인들에게는 행복이 뒤따른다.
- 22 착한 이의 유산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만 죄인의 재산은 의인의 몫으로 보존된다.
- 23 높은 자들의 개간지는 많은 양식을 거두지만 불의에 휩쓸려 사라질 수 있다.
- 24 배를 아끼는 이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 자식을 사랑하는 이는 벌로 다스린다.
- 25 의인은 배불리 먹지만 악인의 배는 허기가 진다.
- 14 ¹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짓고 미련한 여자는 제 손으로 집을 허문다.
- 2 바른길을 걷는 이는 주님을 경외하고 그릇된 길을 걷는 자는 주님을 업신여긴다.
- 3 미련한 자의 입에서는 교만이 쏘락지만 지혜로운 이의 입술은 그를 지켜 준다.
- 4 소가 없으면 구유는 말끔하지만 황소의 힘을 빌려야 소출이 많아진다.
- 5 진실한 증인은 거짓을 말하지 않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말만 내뱉는다.
- 6 빈정꾼은 지혜를 찾아도 얻지 못하지만 슬기로운 이에게는 지식이 쉽게 온다.
- 7 우둔한 사람 앞에서 떠나간다. 거기에서는 지식의 말을 배우지 못한다.
- 8 영리한 이의 지혜는 갈 길을 깨닫게 하지만 우둔한 자의 미련함은 속임수일 따름이다.
- 9 미련한 자들은 속죄 제물을 바우지만? 올곧은 이들은 은혜를 입는다.
- 10 마음만이 제 자신의 아픔을 알고 그 기쁨도 다른 사람은 나누지 못한다.
- 11 악인들의 집은 무너지고 올곧은 이들의 거처는 번성한다.
- 12 사람에게는 바른길로 보여도 끝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 13 웃으면서도 마음은 괴롭고 기쁨이 근심으로 끝나기도 한다.
- 14 마음이 뱀나간 자도 제 행실의 결과로 채워지고 착한 사람도 제 행동의 결과로 채워진다.
- 15 어수룩한 자는 아무 말이나 믿지만 영리한 이는 제 발걸음을 살핀다.
- 16 지혜로운 이는 조심해서 악을 피하지만 우둔한 자는 마음 놓고 굳게 믿는다.
- 17 화를 잘 내는 자는 미련한 짓을 하고 음흉한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
- 18 어리석은 자들은 미련함을 제 몫으로 삼지만 영리한 이들은 지식으로 꾸며진다.
- 19 악한들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악인들은 의인의 문 앞에 엎드린다.
- 20 빈곤한 이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지만 부유한 자에게는 많은 친구가 따른다.
- 21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짓는 사람이고 가난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는 행복한 사람이다.
- 22 악을 꾸미는 자들은 반드시 길을 잃게 되지만 선을 꾸미는 이들에게는 자애와 진실이 따른다.
- 23 모든 노고에는 이득이 생기는 법이지만 입

술만 늘리면 궁핍해질 뿐이다.

- 24 지혜로운 이들의 면류관은 부유함이고 우둔한 자들의 화관은 미련함이다.
- 25 진실한 증인은 여러 목숨을 구하지만 거짓 말을 퍼뜨리는 자는 속임수만 일삼는다.
- 26 주님을 경외함에 확고한 안전이 있으니 자손들에게도 피신처가 된다.
- 27 주님을 경외함은 생명의 샘이니 죽음의 올가미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
- 28 백성이 많은 것은 임금의 영광이고 국민이 적은 것은 제후의 멸망이다.
- 29 분노에 더딘 이는 매우 슬기로운 사람이지만 성을 잘 내는 자는 제 미련함만 드러낸다.
- 30 평온한 마음은 몸의 생명이고 질투는 뼈의 염증이다.
- 31 악한 이를 억누름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고 불쌍한 이를 동정함은 그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 32 악인은 제 악함 때문에 망하지만 의인은 죽음에서도 피신처를 얻는다.
- 33 지혜는 슬기로운 마음에 깃들지만 우둔한 자의 마음속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 34 정의는 나라를 드높이지만 죄악은 민족의 치욕이 된다.
- 35 임금의 총애는 사려 깊은 종에게 내리고 그의 진노는 수치스러운 자에게 내린다.

15

- 1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불쾌한 말은 화를 돋운다.
- 2 지혜로운 이들의 혀는 지식을 배풀지만 우둔한 자들의 입은 미련함을 내뿜는다.
- 3 주님의 눈은 어디에나 계시어 악인도 선인도 살피신다.
- 4 원기를 회복시켜 주는 혀는 생명의 나무지만 사악한 혀는 정신을 파탄시킨다.
- 5 미련한 자는 아버지의 교훈을 업신여기지만 그 훈계를 지키는 이는 영리해진다.

- 6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쌓이지만 악인의 소득에는 불행만 따른다.
- 7 지혜로운 이들의 입술은 지식을 전하지만 우둔한 자들의 마음은 바르지 않다.
- 8 악인들의 제물은 주님께서 역겨워하시고 올곧은 이들의 기도는 주님께서 기꺼워하신다.
- 9 악인의 길은 주님께서 역겨워하시고 의로움을 추구하는 이는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 10 길을 저버리는 자는 엄한 징벌을 받고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죽게 된다.
- 11 저승도 멸망의 나라도 주님 앞에 놓여 있는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야!
- 12 빈정꾼은 훈계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지혜로운 이에게는 다가가지도 않는다.
- 13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이 괴로우면 기가 꺾인다.
- 14 슬기로운 마음은 지식을 찾고 우둔한 자의 입은 미련함을 일삼는다.
- 15 가난한 이의 날은 언제나 불행하지만 흥겨운 마음은 늘 잔치와 같다.
- 16 주님을 경외하며 가진 적은 것이 불안 속의 많은 보화보다 낫다.
- 17 사랑 어린 푸성귀 음식이 마음 섞인 살진 황소 고기보다 낫다.
- 18 성을 잘 내는 사람은 싸움을 일으키고 분노에 더딘 이는 다툼을 가라앉힌다.
- 19 게으름뱅이의 길은 가시밭 같지만 올곧은 이들의 앞길은 잘 닦여 있다.
- 20 지혜로운 이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우둔한 자는 어머니를 업신여긴다.
- 21 지각없는 자는 미련함을 즐기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똑바로 걸어간다.
- 22 의논이 없으면 계획이 실패하고 조언자가 많으면 계획이 성공한다.
- 23 사람은 자기의 올바른 대답으로 기쁨을 얻으니 알맞은 때에 나오는 말이 얼마나 좋으나!
- 24 사려 깊은 이는 위로 난 생명의 길을 걸어

아래에 있는 저승을 벗어나나.

- 25 주님께서서는 교만한 자의 집은 허무시지만 과부의 경계는 꼭바로 세워 주신다.
- 26 악인의 계획은 주님께서 역겨워하시지만 상냥한 말은 주님께서 좋아하신다.
- 27 부정한 이득을 쟁기는 자는 집안을 어지럽히지만 뇌물을 싫어하는 이는 잘살게 된다.
- 28 의인의 마음은 대답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입은 악한 것을 내뱉는다.
- 29 주님께서서는 악인들을 멀리하시고 의인들의 기도는 들어 주신다.
- 30 반짝이는 눈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좋은 소식은 뼈마디에 생기를 준다.
- 31 생명이 담긴 훈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이들 사이에 자리를 잡는다.
- 32 교훈을 저버리는 자는 자신을 업신여기는 자고 훈계를 듣는 이는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다.
- 33 지혜의 교훈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영광에 앞서 겸손이 있다.

16 ¹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혀의 대답은 주님께서서 온다.

- 2 사람의 길이 제 눈에는 모두 결백해 보여도 영을 살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 3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겨라.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 4 주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제 목적대로 만드셨으니 악인까지도 재앙의 날을 위하여 만드셨다.
- 5 주님께서서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역겨워하시니 그런 자는 결코 벌을 면하지 못한다.
- 6 자애와 진실로 죄가 덮이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악이 멀어진다.
- 7 사람의 길이 주님 마음에 들면 원수들도 그와 화목하게 해 주신다.
- 8 정의로 가진 적은 것이 불의로 얻은 많은 소득보다 낫다.

- 9 인간이 마음으로 앞길을 계획하여도 그의 발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 10 임금의 입술에는 신약이 있어 판결할 때에 그 입이 그르치지 않는다.
- 11 올바른 저울과 저울판은 주님의 것이고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그분의 소관이다.
- 12 임금은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역겨워하니 정의로 왕좌가 굳건해지기 때문이다.
- 13 임금은 의로운 혀를 기뻐하고 바른 것을 말하는 이를 사랑한다.
- 14 임금의 분노는 죽음의 사자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가리킨다.
- 15 임금의 얼굴이 빛날 때 생명이 보장되고 그의 호의는 봄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 16 지혜를 얻는 것은 금보다 좋고 예지를 얻는 것은 은보다 낫다.
- 17 울퉁은 이들의 길은 악을 파하는 것이니 제 갈 길을 지키는 이는 목숨을 보존한다.
- 18 파멸에 앞서 교만이 있고 멸망에 앞서 오만한 정신이 있다.
- 19 가난한 이들과 겸허하게 지내는 것이 거만한 자들과 노획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 20 말씀에 유의하는 이는 좋은 것을 얻고 주님을 신뢰하는 이는 행복해진다.
- 21 마음이 지혜로운 이는 슬기로운 이라 불리고 부드러운 혀는 말씀씨를 더해 준다.
- 22 식견은 그것을 지닌 이에게 생명의 썸이 되지만 미련한 자들의 교훈은 미련할 뿐이다.
- 23 지혜로운 마음은 입을 사려 깊게 하고 입술에 말씀씨를 더해 준다.
- 24 상냥한 말은 꿀 송이 목에 달콤하고 몸이 생기를 준다.
- 25 사람에게는 바른길로 보여도 끝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 26 일꾼을 일하게 하는 것은 배고픈 입이 일하라고 그를 몰아세운다.
- 27 쓸모없는 사람은 재앙을 엮어 내고 그의

입술은 거센 불길과 같다.

- 28 사악한 사람은 싸움을 일으키고 증상꾼은 친구들을 갈라놓는다.
- 29 포악한 사람은 제 이웃을 피어 좋지 않은 길을 걷게 한다.
- 30 눈짓하는 자는 사악한 짓을 꾸미는 사람이고 입술을 굳게 다무는 자는 악한 짓을 끝낸 사람이다.
- 31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 의로운 길에서 얻어진다.
- 32 분노에 더딘 이는 용사보다 낮고 자신을 다스리는 이는 성을 정복한 자보다 낮다.
- 33 제비는 옷 쪽에 던져지지만 결정은 온전히 주님께에서만 온다.

- 17 ¹ 편안하게 먹는 마른 빵 한 조각이 불화 섞인 잔치 음식으로 가득한 집보다 낫다.
- 2 사려 깊은 종은 주인의 수치스러운 아들을 다스리고 그 형제들 사이에서 유산을 나누어 받는다.
- 3 은에는 도가니, 금에는 용광로 그러나 마음을 시험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 4 악행을 하는 자는 해로운 입술에 주의를 기울이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독한 혀에 귀를 기울인다.
- 5 가난한 이를 바웃는 자는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자 남의 불행을 즐기는 자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 6 손자들은 노인의 화관이고 아버지는 아들들의 영광이다.
- 7 어리석은 자에게는 빼어난 딸이 어울리지 않고 고귀한 이에게는 거짓된 딸이 더욱 어울리지 않는다.
- 8 뇌물을 주는 자의 눈에는 그것이 요술 보석 같아 그가 몸을 돌리는 곳마다 안 되는 일이 없다.
- 9 잘못을 덮어 주는 이는 사랑을 키우고 그

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구를 멀어지게 한다.

- 10 우둔한 자를 백 번 때리는 것보다 슬기로운 이를 한 번 꾸짖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 11 악인은 반란만을 피하다가 잔인한 사신의 방문을 받는다.
- 12 새끼 잃은 암곰과 마주칠지언정 미련함을 고집하는 바보는 만나지 마라.
- 13 선을 악으로 갚는 자 그의 집에서는 악이 떠나가지 않는다.
- 14 싸움의 시작은 물꼬를 트는 것 다름이 일어나기 전에 그만두어라.
- 15 악인을 무죄라 하는 자, 의인을 유죄라 하는 자 주님께서는 둘 다 역겨워하신다.
- 16 지혜를 산다 해도 깨달음이 없으니 우둔한 자의 손에 돈이 있다 한들 무엇하랴?
- 17 친구란 언제나 사랑해 주는 사람이고 형제란 어려울 때 도우려고 태어난 사람이다.
- 18 담보를 서 주는 자, 이웃의 보증을 서는 자는 지각없는 사람이다.
- 19 싸움을 사랑하는 자는 죄악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기 대문을 높이는 자는 파멸을 찾는 사람이다.
- 20 마음이 났간 자는 행복을 얻을 수 없고 허가 비틀린 자는 불행 속에 빠진다.
- 21 우둔한 자를 낳은 이에게는 근심뿐이고 어리석은 자의 아버지에게는 기쁨이 없다.
- 22 즐거운 마음은 건강을 좋게 하고 기가 꺾인 정신은 뼈를 말린다.
- 23 악인은 품속에 감춘 뇌물을 받고 올버튼 길을 그르친다.
- 24 슬기로운 이는 제 앞에 지혜를 두고 살지만 우둔한 자의 눈은 땅 끝에 가 있다.
- 25 우둔한 자식은 아버지의 상심 거리고 어머니에게 비탄 거러다.
- 26 의인을 처벌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고 고귀한 이를 때리는 것은 옳지 않다.

- 27 말을 삼키는 이는 지식을 갖춘 사람이고
정신이 냉철한 이는 슬기를 지닌 사람이다.
- 28 미련한 자도 잠잠하면 지혜로워 보이고 입
술을 닫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인다.

18 ¹ 외투이는 제 욕심만 채우려 하고 충
고하기만 하면 화를 낸다.

- 2 우둔한 자는 슬기를 좋아하지 않고 제 생각
을 내세우기만 좋아한다.
- 3 악인이 오면 멸시도 오고 수치와 함께 치욕
도 온다.
- 4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이고 지혜
의 원천은 쏟아져 흐르는 시냇물이다.
- 5 재판에서 의인을 억누르려고 악인을 두둔하
는 것은 좋지 않다.
- 6 우둔한 자의 입술은 싸움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주먹질을 부른다.
- 7 우둔한 자의 입은 그를 파멸시키고 입술은
그를 울이맨다.
- 8 중상공의 말은 맛난 음식과 같아 배 속 깊
은 곳까지 내려간다.
- 9 제 일을 깨울리하는 자는 파괴자의 형제다.
- 10 주님의 이름은 건고한 성당 의인은 그곳으
로 달려가 안전하게 된다.
- 11 부유한 자는 재산이 건고한 성읍이 되고
높은 성벽이 되리라 생각한다.
- 12 파멸에 앞서 마음의 오만이 있고 영광에
앞서 겸손이 있다.
- 13 다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것은 미련함이고
수치이다.
- 14 사람의 정신은 제 병을 참아 내지만 기가
꺾인 정신은 누가 견디어 내랴?
- 15 슬기로운 마음은 지식을 구하고 지혜로운
이들의 귀는 예지를 찾는다.
- 16 선물은 길을 넓혀 주고 높은 사람들 앞으
로 이끌어 준다.
- 17 소송에서 먼저 말하는 자가 옳아 보여도

- 상대편이 와서 그에게 따질 때까지만이다.
- 18 제비가 분쟁을 끝내고 새도자들 사이를 판
가름한다.
- 19 배반당한 형제는 건고한 성읍보다 더하고
분쟁은 대결 문의 빗장과 같다.
- 20 사람은 제 입이 맺는 열매로 배를 채우고
제 입술이 내는 소출로 배부르게 된다.
- 21 혀에 죽음과 삶이 달려 있으니? 혀를 사랑
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 22 아내를 얻은 이는 행복을 얻었고 주님에게
서 호의를 입었다.
- 23 가난한 이는 간곡하게 청하고 부유한 자는
거칠게 대답한다.
- 24 서로 해나 끼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형제보다 더 가까운 벗이 있다.

19 ¹ 그릇된 입술을 가진 우둔한 자보다
가난해도 흠 없이 걷는 이가 낫다.

- 2 지식이 없는 욕망은 좋지 않고 밭길음을 서
두르는 자는 길을 그르친다.
- 3 사람은 미련하여 길을 망치고서도 마음속으
로는 도리어 주님께 화를 낸다.
- 4 부유하면 친구가 많아지고 궁핍하면 있던
벗도 떨어져 나간다.
- 5 거짓 증인은 발을 면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자는 빠져나가지 못한다.
- 6 권세자에게는 비위를 맞추는 자가 많고 선
물을 주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친구다.
- 7 빈곤하면 형제들은 모두 미워하고 친구들은
더욱 멀어진다. 남의 말만 따르는 자는 얻는
것이 없다.
- 8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이는 자신을 사랑
하고 슬기를 간직하는 이는 좋은 것을 얻는
다.
- 9 거짓 증인은 발을 면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자는 멸망한다.
- 10 호사하는 것은 우둔한 자에게 어울리지 않
고 재후들을 다스리는 것은 종에게 더욱

어울리지 않는다.

- 11 사람을 관대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의 식견이고 남의 허물을 너그럽게 보여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다.
- 12 임금의 분노는 사자의 으르렁거림 같고 그의 호의는 풀밭의 이슬과 같다.
- 13 우둔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제양이고 아내가 투덜거리는 것은 끊임없는 낙숫물과 같다.
- 14 집과 재산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지만 사려 깊은 아내는 주님에게서 온다.
- 15 게으르면 깊은 잠에만 빠지고 나타하면 배를 굶는다.
- 16 계명을 지키는 이는 제 목숨을 지키지만 제 길을 업신여기는 자는 죽는다.
- 17 가난한 이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주님께 꾸어 드리는 이 그분께서 그의 선행을 갚아 주신다.
- 18 아직 희망이 있을 때 자식을 벌하여라. 그러나 죽일 생각까지는 쫓지 마라.
- 19 화를 잘 내는 자는 벌을 받는다. 네가 그를 구해 주려 하면 화를 돈을 뵈인다.
- 20 충고를 듣고 교훈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마침내 지혜로워진다.
- 21 사람의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들어 있어도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의 뜻뿐이다.
- 22 사람에게서 바랄 것은 신의다. 거짓말쟁이 보다는 빈곤한 이가 낫다.
- 23 주님을 경외함은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어 주어 그는 흠족히 밤을 지내며 환난을 겪지 않는다.
- 24 게으름뱅이는 손을 그릇 속에 넣고서도 입으로 가져가려 하지 않는다.
- 25 빈정꾼을 때리면 어수룩한 자도 깨닫고 슬기로운 이를 훈계하면 그가 지식을 얻는다.
- 26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내쫓는 자는 수치스럽고 파렴치한 자식이다.
- 27 내 아들이, 지식의 말씀에서 벗어나 해매려

거든 교훈 듣기를 그만두어도 좋다.

- 28 쓸모없는 증인은 법을 멸시하고 악인들의 입은 부정을 집어삼킨다.
- 29 빈정꾼들에게는 형벌이, 우둔한 자들의 등에는 매가 마련되어 있다.

20 ¹ 술은 빈정꾼, 독주는 소란꾼 그것에 취하는 자 모두 지혜롭지 못하다.

- 2 임금이 일으키는 공포는 사자의 으르렁거림 같아 그의 노여움을 사는 자는 목숨을 잃는다.
- 3 분쟁을 멀리하는 것은 사람에게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미련한 자는 모두 싸움에 뛰어들다.
- 4 게으름뱅이는 제철에 밭을 갈지 않고 수확철에 소출을 찾지만 아무것도 없다.
- 5 사람 마음속의 뜻은 깊은 물과 같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어 올린다.
- 6 많은 사람이 저마다 제 신의를 외치지만 성실한 사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오라?
- 7 흠 없이 걷는 사람은 의로운 이! 행복하여라, 그의 뒤를 잇는 자손들!
- 8 재판석에 좌정한 임금은 제 눈으로 모든 악을 가려낸다.
- 9 "나는 내 마음을 깨끗이 보존하여 죄 없이 결백하다." 고 누가 말하라?
- 10 서로 다른 저울추와 서로 다른 뒷박 주님께서는 이 둘을 역겨워하신다.
- 11 아이도 이미 그 행동거지로 제 행실이 결백한지 울곧는지 드러낸다.
- 12 듣는 귀와 보는 눈이 둘도 주님에게서 만드셨다.
- 13 잠을 좋아하지 마라. 가난해진다. 눈을 뜨고 있어라. 양식이 풍부해진다.
- 14 물건을 사는 이는 "나쁘다, 나쁘다!" 하지만 돌아가서는 자랑한다.
- 15 금이 있고 산호가 많다 하여도 더욱 값진 것은 지식의 입술이다.

- 16 낮선 이가 보증을 서면 그의 옷을 저당 잡아라. 낮모르는 자이므로 그것을 담보로 삼아야 한다.
- 17 속임수로 뺏은 빵은 달콤하지만 뒷날 그 입은 자갈로 가득 찬다.
- 18 계획은 협의로 이루어진다. 전쟁은 현명한 지휘로 수행하여야.
- 19 중상하고 돌아다니는 자는 비밀을 폭로하는 사람이니 수다스러운 자와는 사귀지 마라.
- 20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어둠의 시간에 그의 등불이 꺼진다.
- 21 처음부터 빨리 얻은 재산은 나중에 복이 되지 않는다.
- 22 "내가 악을 되갚겠다." 하지 말고 주님께 바라라. 그분께서 너를 도와주신다.
- 23 서로 다른 저울추는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것이고 속임수 저울판은 좋지 않은 것이다.
- 24 사람의 발걸음은 주님께 달려 있으니 인간이 어찌 제 길을 깨닫겠는가?
- 25 "봉헌물!" 하고 경솔하게 말하는 사람에게 울개미 그는 서원한 뒤에 마음이 쓰이게 된다.
- 26 지혜로운 임금은 악인들을 가려내고 그들 위로 탈곡기 바퀴를 굴린다.
- 27 인간의 영은 주님의 등불 그것은 배 속 온갖 깊은 곳까지 살판다.
- 28 자애와 진실이 임금을 지켜 주고 정의가 그의 왕좌를 받쳐 준다.
- 29 젊은이의 자랑은 힘이고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다.
- 30 깊은 상처는 악을 씻고 매질은 배 속 깊은 곳을 씻는다.
- 2 사람의 길이 제 눈에는 모두 바르게 보여도?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 3 정의와 공정을 실천함? 주님께는 제물보다 낫다.
- 4 거만한 눈과 오만한 마음 그리고 악인들의 개간지는 죄악일 뿐이다.
- 5 부지런한 이의 계획은 반드시 이익을 남기지만 조급한 자는 모두 궁핍만 겪게 된다.
- 6 속임수 혀로 보화를 장만함은 죽음을 찾는 자들의 덧없는 환상일 뿐이다.
- 7 악인들의 폭력은 그들 자신을 휩쓸어 가니 그들이 공정의 실천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 8 죄를 지은 사람의 길은 비뚤어져 있지만 결백한 이의 행실은 바르다.
- 9 다투기 좋아하는 아내와 한집에 사는 것보다 옥상 한구석에서 사는 것이 낫다.
- 10 악인의 영혼은 악만 갈망하고 그의 눈에는 제 이웃도 가없지 않다.
- 11 빈정꾼이 벌받으면 어수룩한 자가 지혜로워지고 지혜로운 이가 지도를 받으면 지식을 얻는다.
- 12 의인은 악인의 집을 살피고 악인을 불행에 빠지게 한다.
- 13 빈곤한 이의 울부짖음에 귀를 막는 자는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대답을 얻지 못한다.
- 14 몰래 주는 선물은 화를 누그러뜨리고 품속에 감춘 뇌물은 거센 분노를 가라앉힌다.
- 15 공정을 실천하는 것을 의인은 기뻐하고 나쁜 짓 하는 자들은 무서워한다.
- 16 지성의 길에서 벗어나 헤매는 사람은 죽은 자들의 모임에 자리를 잡는다.
- 17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궁핍한 사람이 되고 술과 기쁨을 좋아하는 자는 부자가 되지 못한다.
- 18 악인은 의인을 구하는 몸값이 되고 배신자는 울퉁은 이들을 구하는 몸값이 된다.
- 19 다투기 좋아하고 성 잘 내는 아내와 사는

21 ¹ 임금의 마음은 주님 손안에 있는 물줄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신다.

- 것보다 황량한 땅에서 사는 것이 낫다.
- 20 지혜로운 이의 거처에는 값진 보화와 기름이 있지만 우둔한 인간은 그것을 탕진해 버린다.
- 21 의로움과 신의를 추구하는 이는 생명과 명예를 얻는다.
- 22 지혜로운 이 하나가 용사들이 지키는 성읍에 쳐 올라가 그들이 믿는 요새를 허물어뜨린다.
- 23 입과 혀를 지키는 이는 곤경에서 제 목숨을 지킨다.
- 24 거만 불손한 자의 이름은 '빈정꾼' 그는 교만 방자하게 행동한다.
- 25 게으름뱅이의 욕심은 그를 죽이니 그의 손이 일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 26 그는 언제나 욕심을 부리지만 의인은 배플고서 아끼워하지 않는다.
- 27 악인들의 제사는 그렇지 않아도 역겨운데 하물며 부정한 속셈으로 바치는 것이야!
- 28 거짓 증인은 멸망하지만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까지나 말할 수 있다.
- 29 악한 사람은 뻔뻔스러운 얼굴을 하지만 울곧은 이는 제 길을 잘 살핀다.
- 30 어떤 지해도 어떤 슬기도 어떤 조연도 주님 앞에서는 가치가 없다.
- 31 전시에 대비해서 병마를 준비하더라도 승리는 주님께 달려 있다.

- 22** 1 이름은 큰 재산보다 값지고 명성은 은보다 금보다 낫다.
- 2 서로 마주치는 부자와 가난한 이 이들을 모두 지으신 분은 주님이시다.
- 3 영리한 이는 재앙을 보면 몸을 숨기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대로 가다가 화를 입는다.
- 4 겸손과 주님을 경외함에 따른 보상은 부와 명예와 생명이다.
- 5 뱃간자 자의 길에는 가시덤불과 닳이 있어 제 목숨을 지키려는 이는 그것들을 멀리한

- 다.
- 6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 7 부자는 가난한 이들을 다스리고 빛진 이는 빛 준 사람의 종이 된다.
- 8 불의의 씨를 뿌리는 자는 재난을 거두어들이고 그 교만의 기세도 사그라진다.
- 9 어진 눈길을 지닌 이는 복을 받으리니 제 양식을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 10 빈정꾼을 내쫓아라. 싸움도 없어지고 다툼과 수치도 그친다.
- 11 깨끗한 마음을 사랑하고 친절하게 말하는 이는 임금의 벗이 된다.
- 12 주님의 눈은 지식을 지켜 주시고 배신자의 말을 뒤엎으신다.
- 13 게으름뱅이는 "밖에 사자가 있어! 갈거리에 나가면 난 찢겨 죽어!" 하고 말한다.
- 14 낮은 여자들의 입은 깊은 구렁 주님의 분노를 산 자는 거기에 빠진다.
- 15 아이의 마음에 자리 잡은 미련함은 교훈의 매가 치워 준다.
- 16 자기의 재산을 늘리려고 빈곤한 이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갖다 바치는 자는 궁핍해지기 마련이다.

현인들의 첫째 잠언집

- 17 귀를 기울여 현인들의 말씀을 듣고 나의 지식에 마음을 쏟아라.
- 18 그것들을 가슴에 간직하고 다 말할 수 있게 준비를 갖추는 것은 호뭇한 일이다.
- 19 네가 주님을 신뢰하도록 내가 오늘 너에게, 바로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 20 내가 너에게 충고와 지식이 담긴 서른 가지 잠언을 써 주지 않았느냐?
- 21 그것은 너에게 진리의 말씀을 참되게 가르

쳐 너를 보낸 이들에게 내가 진실한 대답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 22 빈곤한 이를 강탈하지 마라. 그가 빈곤하지 않느냐? 성문에서 가난한 이를 억누르지 마라.
- 23 주님께서 그들의 송사를 떠맡으시고? 그 악탈자들의 목숨을 약탈하신다.
- 24 화를 잘 내는 자와 사귀지 말고 성을 잘 내는 사람과 다니지 마라.
- 25 네가 그의 길에 익숙해져 너 스스로 올라미를 써서는 안 된다.
- 26 너는 담보 서는 이들 가운데에, 빚보증 서는 이들 가운데에 끼지 마라.
- 27 네가 갚을 길이 없을 때 네 밭의 잠자리까지 빼앗기려 하느냐?
- 28 네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옛 경계선을 밀어내지 마라.
- 29 너는 제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런 이는 임금을 들 삼키고 허찮은 이들은 삼키지 않는다.

23 1 군주와 식사하는 자리에 앉게 되면 네 앞에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라.

- 2 배가 몹시 고프면 네 목구멍에 칼을 세워 두어라.
- 3 그의 진수성찬을 탐내지 마라.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음식이다.
- 4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너의 예지를 포기하지 마라.
- 5 네 눈길이 재물을 향해 날아가려 하면 그것은 바로 없어지고 만다. 날개를 달아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 6 눈길 사나운 자의 빵을 먹지 말고 그의 진수성찬을 탐내지 마라.
- 7 그는 속으로 계산하는 그런 자이니 말로는 "먹고 마시게!" 하면서도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않다.
- 8 너는 먹은 것을 토해 내야 하고 네가 한 잔

사도 소용이 없어진다.

- 9 우둔한 자의 귀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식견 높은 너의 말을 업신여길 뿐이다.
- 10 옛 경계선을 밀어내지 말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마라.
- 11 그들의 후견인은 강력하신 분 그분께서 너에게 맞서 그들의 송사를 떠맡으신다.
- 12 네 마음이 교훈을 향하도록 이끌고 네 귀가 지식의 말씀을 향하도록 인도하여야.
- 13 아이를 훈육하는 데에 주저하지 마라. 때로 때려도 죽지는 않는다.
- 14 아이를 때로 때리는 것은 그의 목숨을 저승에서 구해 내는 일이다.

부성적 충고

- 15 내 아들이아,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도 기뻐하고
- 16 너의 입술이 올바른 것을 말하면 내 속도 즐거워한다.
- 17 너의 마음은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을 열심히 경외하여라.
- 18 그레야 미래가 있고 너의 희망이 끊기지 않는다.
- 19 내 아들이아, 너는 잘 듣고 지혜로워져 너의 마음을 바른길로 이끌어라.
- 20 술을 폭음하는 자들과 고기를 폭식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마라.
- 21 폭음가와 폭식가는 가난해지고 늘 술에 취하면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 22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어머니가 늙었다고 업신여기지 마라.
- 23 진실을 구하되 팔아넘기지 마라. 지혜와 교훈과 예지도 그리하여라.
- 24 의로운 이의 아버지는 몹시 즐거워하고 지혜로운 이를 낳은 아버지는 기뻐한다.
- 25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뻐하고 너를 낳은 여인이 즐거워하게 하여라.
- 26 내 아들이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너의

눈이 내 길을 즐겨 바라보게 하여라.

- 27 창녀는 깊은 구렁이고 낯선 여자는 좁은 우물이다.
28 그런 여자도 강도처럼 숨어 기다리다가 사람들 사이에 배신자를 늘린다.

주정꾼의 모습

- 29 누가 비탄에 젖어 있느냐? 누가 애통해하느냐? 누가 싸움질하였느냐? 누가 원망하느냐? 누가 까닭 없이 상처를 입었느냐? 누가 슬픔에 잠긴 눈을 하고 있느냐?
30 늦도록 술자리를 뜰 줄 모르는 자들 혼합주를 맛보려 온 자들이다.
31 빛깔이 좋다고 술을 들여다보지 마라. 그것이 잔 속에서 광채를 낸다 해도, 목구멍에 매끄럽게 넘어간다 해도 그러지 마라.
32 결국은 뱀처럼 물고 살무사처럼 독을 쓴다.
33 네 눈은 이상한 것들을 보게 되고 네 마음은 괴상한 소리를 지껄이게 된다.
34 너는 바다 한가운데에 누운 자와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와 같아진다.
35 "사람들이 날 때려도 난 아프지 않아. 사람들이 날 쳐도 난 아무렇지 않아. 언제면 술이 깨지? 그러면 다시 술을 찾아 나서야 지!" 하고 말한다.

현인들의 다른 말씀

- 24 ¹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어울려라 하지 마라.
2 그들 마음은 폭력을 피하고 그들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
3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슬기로 튼튼해진다.
4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 찬다.
5 지혜로운 남자는 힘센 자보다 강하고 지식을 갖춘 사람은 장사보다 굳세다.
6 전쟁은 현명한 지휘로 수행해야 하고 승리는 조언자들이 많아야 거둘 수 있다.

7 지혜는 미련한 자에게 너무나 높아 그는 성문 광장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

8 악행을 저지르려고 궁리하는 자를 음모꾼이라 부른다.

9 미련한 자는 죄악만 꾸며 낸다. 빈정꾼은 사람들이 역겨워한다.

10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면 너의 힘도 줄어든다.

11 죽음에 사로잡힌 이들을 구해 내고 학살에 걸려드는 이들을 빼내어라.

12 "이봐, 우리는 그걸 몰랐어." 하고 내가 말하여도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알아보시지 않느냐 영혼을 지켜보시는 분께서 아시고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신다.

13 내 아들이, 꿀은 좋은 것이니 먹어라. 송이 꿀도 입에 달다.

14 지혜도 네 영혼에 그러함을 알아라. 네가 그것을 얻으면 미래가 있고? 네 희망이 풀리지 않는다.

15 나는 악인처럼 의인의 보금자리를 노리지 말고 그의 안식처를 망쳐 놓지 마라.

16 의인은 일곱 번 쓰러져도 일어나지만 악인은 불행 속으로 넘어지기 때문이다.

17 네 원수가 쓰러졌다고 기뻐하지 말고 그가 넘어졌다고 마음속으로 즐거워하지 마라.

18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시어 그에게 내리신 노여움을 돌이키신다.

19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격분하지 말고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20 악한 자에게는 미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만다.

21 내 아들이, 주님과 임금을 경외하고 너와 생각이 다른 자들과는 사귀지 마라.

22 그분들이 내리시는 재앙은 갑자기 들이닥치는 법 그 두 분이 일으키시는 멸망을 누가 알겠는가?

현인들의 둘째 집언집

- 23 이 또한 현인들의 말씀이다. 재판할 때에 한쪽을 편드는 것은 좋지 않다.
- 24 악인에게 "너는 무죄다!" 말하는 자 백성들이 그를 저주하고 민족들이 그에게 악담한다.
- 25 그러나 공정하게 판결하는 이들은 잘 지내며 좋은 복을 받는다.
- 26 올바른 대답을 하는 이는 입술을 맞추어 주는 이와 같다.
- 27 비갈일을 정리하고 발일을 준비한 다음 집을 지어라.
- 28 까닭 없이 이웃을 해치는 증인이 되지 마라. 네 입술로 남을 속이지 마라.
- 29 "그가 나에게 한 것처럼 나도 그에게 하여 그 사람이 한 행실대로 갚겠다." 하지 마라.

게으름뱅이

- 30 내가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각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갔는데
- 31 보아라, 온통 엉킴귀가 우거지고 전부 썩기 풀이 뒤덮였으며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 32 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보며 교훈을 얻었다.
- 33 "'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눈을 붙이자. 손을 놓고 조금만 더 누워 있자!' 하면서
- 34 가난이 부랑자처럼, 빈곤이 무장한 군사처럼 너에게 들이닥친다."

솔로몬의 둘째 집안집

- ㄷ** 1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으로서 유다 임금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수집한 것이다.
- 2 일을 숨기는 것은 하느님의 영광이고 일을 밝히는 것은 임금의 영광이다.

- 3 하늘이 높고 땅이 깊은 것처럼 임금의 마음도 헤아릴 길 없다.
- 4 은에서 불순물을 없애야 은장이가 쓸 재료가 나온다.
- 5 임금 앞에서 악인을 없애야 왕좌가 정의로 굳건해진다.
- 6 임금 앞에서 잘난 체하지 말고 지체 높은 이들 자리에 서지 마라.
- 7 "이리 올라오게!" 하는 말을 듣는 것이 귀족들 앞에서 하대받는 것보다 낫다. 네 눈으로 보았다 해서
- 8 성급히 법정에 나서지 마라. 네 이웃이 너를 부끄럽게 하면 결국 어찌 하려느냐?
- 9 이웃과 다툴 일이 있으면 다투되 남의 비밀은 들추지 마라.
- 10 그것을 들은 이가 너를 꾸짖고 너를 두고 하는 험담이 그치지 않는다.
- 11 알맞게 표현된 말은 은 쟁반에 담긴 황금 사과와 같다.
- 12 들을 줄 아는 귀에 지혜로운 훈계자는 금 고리요 순금 장식과 같다.
- 13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 수확 때의 시원한 열매와 같아 그 주인의 생기를 돋우어 준다.
- 14 거짓 선물을 자랑하는 자는 구름과 바람은 있으나 비가 없는 것과 같다.
- 15 끈기는 판관을 설득하고 부드러운 혀는 뼈를 부순다.
- 16 꿀을 발견하더라도 적당히 먹어라. 질려서 뱀어 버리게 된다.
- 17 이웃집이라고 너무 자주 드나들지 마라. 질려서 너를 미워하게 된다.
- 18 이웃에게 해로운 거짓 증언을 하는 자는 방망이와 칼과 날카로운 화살과 같다.
- 19 환난을 당할 때에 배신자를 믿는 것은 부사지는 이요 비틀거리는 발과 같다.
- 20 마음이 아픈 이에게 노래를 불러 대는 자는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자와 같고 상처

에 식초를 끼얹는 자와 같다.

- 21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팔라하거든 물을 주어라.
- 22 그것은 숯불을 그의 머리에 놓는 셈이다. 주님께서 너에게 그 일을 보상에 주시리라.
- 23 북풍이 비를 몰고 오듯 숨어 헐뜯는 혀는 성난 얼굴을 몰고 온다.
- 24 다투기 좋아하는 아내와 한집에 사는 것보다 옥상 한구석에서 사는 것이 낫다.
- 25 먼 땅에서 온 기쁜 소식은 타는 목에 시원한 물과 같다.
- 26 악인 앞에서 흔들리는 의인은 흐려진 샘물이며 못 쓰게 된 우물과 같다.
- 27 꿀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듯 명예에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좋지 않다.
- 28 정신에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파괴되어 성벽이 없는 성읍과 같다.

우둔한 자

- 26 ¹ 여름에 눈처럼, 수확 철에 비처럼 우둔한 자에게는 명예가 맞지 않는다.
- 2 참새가 떠돌듯, 제비가 날아다니듯 까닭 없는 저주는 들어맞지 않는다.
- 3 말에게는 채찍, 나귀에게는 재갈 우둔한 자의 등에는 매.
- 4 우둔한 자에게 그 어리석음에 맞추어 대답하지 마라. 너도 그와 비슷해진다.
- 5 우둔한 자에게 그 어리석음에 맞추어 대답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안다.
- 6 우둔한 자 편에 소식을 전하는 자는 제 다리를 잘라 내거나 폭력을 삼키는 자와 같다.
- 7 우둔한 자의 입에 담긴 잠언은 절름거리는 이의 다리와 같다.
- 8 우둔한 자에게 명예를 부여하는 것은 투석기에 돌을 붙들어 매는 격이다.
- 9 우둔한 자의 입에 담긴 잠언은 술취한 자의

손에 놓인 엉덩퀴와 같다.

- 10 지나가는 우둔한 자나 주정꾼을 고용하는 사람은 다치는 대로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는 궁수와 같다.
- 11 자기가 게은 대로 되돌아가는 개처럼 우둔한 자는 제 어리석음을 되풀이한다.
- 12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보다는 우둔한 자가 더 희망이 있다.

게으름뱅이

- 13 게으름뱅이는 "거리에 사자가 있어! 길거리에서 사자가 있어!" 하고 말한다.
- 14 문짝이 들쭉꾸에 달려 돌아가듯 게으름뱅이는 잠자리에서만 뒹군다.
- 15 게으름뱅이는 손을 그릇 속에 넣고서도 입으로 가져가기조차 힘들어한다.
- 16 게으름뱅이는 재치 있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가 더 지혜로운 줄 안다.
- 17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싸움에 흥분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아당기는 자와 같다.
- 18 불화살과 사람 죽이는 화살을 미친 듯이 쏘아 대는 자,
- 19 이웃을 속이고서는 "그냥 장난삼아 그랬어!" 하는 사람도 그와 같다.
- 20 장작이 다하면 불이 꺼지듯 중상꾼이 없으면 다툼도 그친다.
- 21 숯이 숯불을, 장작이 불길을 일으키듯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은 싸움을 일으킨다.
- 22 중상꾼의 말은 맛난 음식과 같아 배 속 깊은 곳까지 내려간다.
- 23 악한 마음에 매끄러운 입술은 결만 매끈하게 칠한 질그릇 같다.
- 24 앙심을 품은 자는 입술로는 시치미를 떼면서 속으로는 속임수를 품는다.
- 25 목소리를 다정하게 해도 그를 믿지 마라. 마음속에는 역겨운 것이 일곱 가지나 들어

있다.

- 26 미움을 기만으로 덮는다 해도 그 악의는 화중에게 드러나고야 만다.
- 27 구렁을 파는 자는 제가 그곳에 빠지고 돌을 굴리는 자는 제가 그것에 치인다.
- 28 거짓된 혀는 자기가 회생시킨 자들을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파멸을 만들어 낸다.

- 27** ¹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사 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 ² 네 입이 아니라 남이 너를 칭찬하고 네 입술이 아니라 다른 이가 너를 칭찬하게 하여라.
- ³ 돌이 무겁고 모래가 묵직하지만 미련한 자가 일으키는 불쾌감은 이 둘보다 무겁다.
- ⁴ 분노가 잔인하고 격분이 흉수 같다 해도 질투를 누가 당해 낼 수 있느냐?
- ⁵ 솔직한 훈계가 숨은 사랑보다 낫다.
- ⁶ 사랑하는 이의 폐는 신실하고 미워하는 자의 입맞춤은 헤프다.
- ⁷ 배부른 자는 꼴도 짓밟아 버리지만 배고픈 자에게는 쓴 것도 모두 달다.
- ⁸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은 등지를 잃고 떠도는 새와 같다.
- ⁹ 향유와 향이 마음을 기쁘게 하듯 친구의 다정함은 기운을 돋우어 준다.
- ¹⁰ 네 친구와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고 불행할 때 형제의 집으로 가지 마라.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 ¹¹ 내 아들이, 지혜롭게 되어 내 마음을 기쁘게 해 다오. 그러면 나를 비웃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 ¹² 영리한 이는 재앙을 보면 몸을 숨기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대로 가다가 화를 입는다.
- ¹³ 낯선 이가 보증을 서면 그의 옷을 저당 잡아라. 낯모르는 자이므로 그것을 담보로 삼아야 한다.

- ¹⁴ 이른 아침부터 이웃에게 큰 소리로 축복하면 그 축복이 저주로 여겨진다.
- ¹⁵ 폭우가 쏟아지는 날의 끊임없는 낙수물은 두덜거리는 아내와 비슷하다.
- ¹⁶ 그 여자를 막는 것은 바람을 막는 것과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잡는 것과 같다.
- ¹⁷ 쇠는 쇠로 다듬어지고 사람은 이웃의 얼굴로 다듬어진다.
- ¹⁸ 무화과나무를 돌보는 이는 그 열매를 먹고 자기 주인을 보살피는 이는 존경을 받는다.
- ¹⁹ 물이 얼굴을 비추듯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을 비춘다.
- ²⁰ 저승과 멸망의 나라가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의 눈도 만족할 줄 모른다.
- ²¹ 은에는 도가니, 금에는 용광로 사람은 그가 받는 칭찬으로 가려진다.
- ²² 미련한 자는 절구에 넣고 곡식과 함께 찼어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

농사에 대한 권고

- ²³ 네 양 떼가 어떤지를 잘 살피고 가축 떼에게 관심을 기울여라.
- ²⁴ 재물은 같이 남지 않고 왕관도 대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 ²⁵ 풀이 스러지고 다시 새 풀이 돌아나 산에서 목초를 거두어들이고 나면
- ²⁶ 새끼 양들은 네 옷을 장만해 주고 솟염소들은 발을 살 돈이 된다.
- ²⁷ 염소젖은 넉넉하여 네 양식이 되고 네 집인의 양식과 네 여종들의 생계가 되어 준다.

- 28** ¹ 악인은 쫓는 자가 없어도 달아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당당하다.
- ²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면 우두머리가 많아지지만 슬기롭고 올바름을 이는 사람이 다스리면 나라가 오래간다.
- ³ 자기도 가난하면서 빈곤한 이들을 억누르는

- 사람은 양식을 남김없이 쓸어 가는 호우와 같다.
- 4 울ঝ을 저버리는 자들은 악인을 찬양하지만 울ঝ을 지키는 이들은 그런 자에게 맞선다.
- 5 악한 사람들은 바른 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을 찾는 이들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
- 6 그릇된 길을 걷는 부자보다 가난해도 흠 없이 걷는 이가 낫다.
- 7 슬기로운 자식은 울ঝ을 준수하지만 폭삭아들과 사귀는 자는 아버지를 욕되게 한다.
- 8 변리와 이자로 재산을 불리는 자는 빈민을 불쌍히 여기는 이를 위해 그것을 쌓는 것이다.
- 9 울ঝ을 들지 않고 귀를 돌리는 자는 그 기도마저 역겹다.
- 10 울궤은 이들을 나쁜 길로 유혹하는 자는 제 구렁에 자기가 빠지지만 흠 없는 이들은 좋은 것을 상속받는다.
- 11 부자가 제 눈에는 지혜롭게 보어도 가난하지만 슬기로운 이는 그를 꿰뚫어 본다.
- 12 의인들이 승리하면 그 영광이 크지만 악인들이 일어서면 사람들이 숨어 버린다.
- 13 자기 잘못을 감추는 자는 성공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고백하고 끊어 버리는 이는 자비를 얻는다.
- 14 행복하여라, 늘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 그러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자는 불행에 빠진다.
- 15 가난한 백성을 사약하게 다스리는 자는 포효하는 사자와 달치는 곰과 같다.
- 16 슬기가 모자라는 제후가 억압은 많이 한다.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이는 오래 산다.
- 17 살인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구렁에 이르기까지 도망다닌다. 아무도 그를 붙들지 마라.
- 18 온전하게 걷는 이는 구원을 받고 그릇된 길을 걷는 자는 구렁에 빠진다.
- 19 자기 땅을 가꾸는 이는 양식으로 배부르고

헛것을 좇는 자는 가난으로 배부른다.

- 20 성실한 사람은 많은 복을 받지만 부자가 되려고 서두르는 자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 21 한쪽을 편드는 것은 좋지 않다. 사람은 뺨한 조각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한다.
- 22 눈길이 탐욕스러운 사람은 재물 모으기에 급급하지만 빈곤이 자기에게 들이닥치리라는 것은 깨닫지 못한다.
- 23 남을 혼계해 주는 이가 결국은 아첨하는 자보다 더 큰 호의를 얻는다.
- 24 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강탈하고도 "죄 없다!" 하는 자 그는 살인자와 한통속이다.
- 25 욕심 많은 자는 싸움을 일으키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이는 풍요를 누린다.
- 26 제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우둔한 자이지만 지혜 속에 걷는 이는 구원을 받는다.
- 27 가난한 자에게 주는 이는 모자람이 없지만 못 본 체하는 자는 많은 저주를 받는다.
- 28 악인들이 일어서면 사람들이 숨어 버리고 그들이 멸망하면 의인들이 많아진다.

29 ¹ 혼계를 자주 듣고도 목을 뺏뺏이 세우는 사람은 줄지에 파멸하여 구제될 가망이 없다.

- 2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기뻐하지만 악인의 통치 밑에서는 백성이 탄식한다.
- 3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창녀들에게 드나드는 자는 재산을 탕진한다.
- 4 공정으로 다스리는 임금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지만 무거운 세금을 강요하는 자는 나라를 망친다.
- 5 이웃에게 아첨하는 사람은 그의 발걸음에 그물을 치는 자다.
- 6 악한 사람은 자기 죄악으로 울가미에 걸리지만 의인은 환호하고 기뻐한다.
- 7 의인은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알지만 악인

- 은 그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 8 빈정대는 사람들은 성음을 들뜨게 하지만 지혜로운 이들은 화를 누그러뜨린다.
- 9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다투게 되면 미련한 사람은 흥분하여 비웃어 대며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 10 파에 주된 자들은 흠 없는 이를 미워하지만 울퉁은 이들은 그의 목숨을 돌본다.
- 11 우둔한 자는 화를 있는 대로 다 터뜨리지만 지혜로운 이는 화를 가만히 가라앉힌다.
- 12 통치자가 거짓된 말에 귀 기울이면 신하들이 모두 사악해진다.
- 13 서로 마주치는 가난한 이와 학대하는 사람 그 두 사람 눈에 빛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 14 임금이 가난한 이들을 진실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좌는 길이 굳건해진다.
- 15 회초리와 꾸짖음은 지혜를 가져오지만 내 버려진 아이는 제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
- 16 악인들이 많아지면 죄악도 많아지지만 의인들은 그들의 몰락을 보게 된다.
- 17 자식을 징계하여라.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네 영혼에 기쁨을 가져다주리라.
- 18 예언이 없으면 백성이 문란해지지만 율법을 지키는 이는 행복하다.
- 19 말로는 좋을 길들이지 못하니 아이들으면 서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 20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보다는 우둔한 자가 더 희망이 있다.
- 21 종을 어려서부터 응석반으로 기른 자는 결국 곤욕을 치르게 된다.
- 22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싸움을 일으키고 성을 잘 내는 자는 죄를 많이 짓는다.
- 23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고 마음이 겸손하면 존경을 받는다.
- 24 도둑과 장물을 나누는 자는 제 목숨을 미워하는 자 그는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실토하지 않는다.

- 25 사람을 무서워하면 그것이 울가미가 되지만 주님을 신뢰하면 안전해진다.
- 26 많은 이가 통치자의 환심을 사려 하지만 사람의 권리는 주님에게서 온다.
- 27 의인은 불의한 사람을 역겨워하고 악인은 길이 울퉁은 이를 역겨워한다.

아구르의 잠언

- 30 ¹ 마짜 사람 야케의 아들 아구르의 말. 그 사람이 이티엘에게 하고, 또 이티엘과 우칼에게 한 담화.
- 2 정녕 나는 어느 사람보다 명칭하였고 나에게는 인간의 예지가 없었다.
- 3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치지 못하였다.
- 4 누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느냐? 누가 채손바닥에 바람을 모았느냐? 누가 겉옷으로 물을 감았느냐? 누가 세상 끝들을 새웠느냐? 그의 이름이 무엇이나?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정녕 너는 그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 5 하느님의 말씀은 모두 순수하고 그분께서는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 6 그분의 말씀에 아무것도 보태지 마라. 그랬다가는 그분께서 너를 꾸짖으시고 너는 거짓말쟁이가 된다.
- 7 저는 당신께 두 가지를 간청합니다.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 8 허위와 거짓말을 제게서 멀리하여 주십시오.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저에게 정해진 양식만 허락해 주십시오.
- 9 그러지 않으면 제가 배부른 뒤에 불신자가 되어 "주님이 누구냐?" 하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가난하게 되어 도둑질하고 저의 하느님 이름을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 10 주인에게 그의 종을 헐뜯지 마라. 그 종이

너를 저주하여 내가 짓값을 받게 된다.

- 11 아버지를 저주하고 어머니에게 축복하지 않는 세대
 12 스스로 깨끗한 채하면서도 제 밑은 씻지 않는 세대
 13 눈은 대단히 높고 눈썹은 치켜 올린 세대
 14 이는 단도요 이빨은 칼인 세대 이런 세대가 나라의 가난한 이들을, 이 땅의 불쌍한 이들을 잡아삼킨다.

수 잠언

- 15 거머리에게는 딸이 둘 있는데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고 보챈다. 배부를 줄 모르는 것이 셋, "충분하다!" 할 줄 모르는 것이 넷 있으니
 16 저승과 임신 못하는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충분하다!" 할 줄 모르는 불이다.
 17 아버지를 비웃고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하찮게 여기는 눈은 개울의 까마귀들이 쪼아 내고 독수리 새끼들이 쪼아 먹는다.
 18 나에게 너무 이상한 것이 셋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넷 있으니
 19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길 바위 위를 기어 다니는 뱀의 길 바다 가운데를 떠다니는 배의 길 젊은 여자를 거처 가는 사내의 길이다.
 20 간음하는 여자의 길도 이와 같아 먹은 뒤에 입을 닦고서는 "나는 나쁜 짓 안 했어!" 하고 말한다.
 21 이 셋 밑에서 땅이 몸서리치고 이 넷 밑에서 땅이 건디어 내지 못하니
 22 임금이 된 종과 음식으로 배부른 바보 밑에서,
 23 또 미움을 받다 혼인하게 된 여자와 안주인 자리를 차지한 여중 밑에서이다.
 24 세상에서 가장 작으면서도 더없이 지혜로운 것이 넷 있다.

- 25 힘없는 족속이지만 여름 동안 먹이를 장만하는 개미
 26 힘이 세지 않은 종자이지만 바위에 집을 마련하는 오소리
 27 임금이 없지만 모두 질서 정연하게 나아가는 메뚜기
 28 사람 손으로 잡을 수 있지만 임금의 궁궐에 사는 도마뱀이다.
 29 발걸음이 당당한 것이 셋, 당당하게 걸어다니는 것이 넷 있으니
 30 짐승 가운데 용사로서 어떤 것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사자
 31 의젓한 수탉과 숫염소 그리고 자기 백성 앞에 선 임금이다.
 32 내가 만일 잘난 체하며 바보짓을 하고 나서 잘 생각해 보았다면 손으로 입을 가려라.
 33 우유를 누르면 버터가 나오고 코를 누르면 피가 나오고 화를 누르면 싸움이 나온다.

르무엘의 잠언

- 31 ¹ 마짜 임금 르무엘의 말로서 그의 어머니가 가르친 것.
 2 아, 내 아들이! 아, 내 몸에서 난 아들이! 아, 내가 서원하여 얻은 아들이!
 3 여자들에게 네 정력을 쏟지 마라. 임금을 파멸시키는 자들에게 네 길을 맡기지 마라.
 4 르무엘아! 임금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술을 마시는 것은 임금에게 어울리지 않고 독주를 탐하는 것은 군주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5 술을 마시면 법을 잊어버리고 고통 받는 모든 이의 권리를 해치게 된다.
 6 독주는 죽어 가는 이에게, 술은 상심한 이에 게 주어라.
 7 그것을 마시면 가난을 잊고 괴로움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리라.
 8 너는 병어리들을 위하여, 버림받은 모든 이

들의 권리를 위하여 입을 열어라.

- 9 입을 열어 의로운 재판을 하고 가난한 이와
불쌍한 이의 권리를 지켜 주어라.

훌륭한 아내

- 10 훌륭한 아내를 누가 얻으리오? 그 가치는
산호보다 높다.
- 11 남편은 그를 마음으로 신뢰하고 소득이 모
자라지 않는다.
- 12 그 아내는 한평생 남편에게 해 끼치는 일
없이 잘해 준다.
- 13 양모와 아버를 구해다가 제 손으로 즐거이
일하고
- 14 마치 상인의 배처럼 멀리서 양식을 마련해
온다.
- 15 아직 어두울 때 일어나 식구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고 여종들에게 분부를 내린다.
- 16 밭을 봐 두었다가 사들이고 자기가 번 돈
으로 포도밭을 사서 가꾼다.
- 17 허리를 단단히 동이고 힘센 팔로 일을 하
며
- 18 밭이가 좋으리라는 것을 알기에 밤에도 등
불을 끄지 않는다.
- 19 한 손으로는 물레질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
을 잣는다.
- 20 가난한 이에게 손을 펼치고 불쌍한 이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준다.
- 21 온 집안이 진홍색 양모로 옷을 해 입으니
그 집안은 거울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 22 손수 덮개를 만들고 아마포와 자홍색 천으
로 옷을 지어 입는다.
- 23 그 남편은 성문에서 지방 원로들과 함께
앉을 때 존경을 받는다.
- 24 그 아내는 아마 속옷을 만들어 팔고 띠를
만들어 장사꾼에게 넘긴다.
- 25 힘과 위엄이 그 아내의 옷 앞날을 흐뭇하
게 바라본다.

- 26 입을 열면 지혜이고 자상한 가르침이 그
입술에 배어 있다.

- 27 집안일을 두루 보살피고 놀고 먹는 일이
없다.

- 28 아들이 일어나 그를 기리고 남편도 그를
칭송한다.

- 29 "훌륭한 일을 한 여인들이 많지만 당신은
그 모든 이보다 뛰어나오."

- 30 우아함은 거짓이고 아름다움은 헛것이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칭송을 받는다.

- 31 그 손이 거둔 결실을 그에게 돌리고 그가
한 일을 성문에서 칭송하여라.

구약성경 - 25

시서와지혜 - 4

코 헬 렛

총 12 장

총 222 절

[구약성경] - [코헬렛]

표제

1 ¹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의 임금인 코헬렛의 말이다.

주제

2 허무로다, 허무! 코헬렛이 말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주말

3 태양 아래에서 애쓰는 모든 노고가 사람에게 무슨 보람이 있느냐?

4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땅은 영원히 그대로다.

5 태양은 뜨고 지지만 떠올랐던 그곳으로 서둘러 간다.

6 남쪽으로 불다 북쪽으로 도는 바람은 돌고 돌려 가지만 제자리로 되돌아온다.

7 강물이 모두 바다로 흘러드는데 바다는 가득 차지 않는다. 강물은 흘러드는 그곳으로 계속 흘러든다.

8 온갖 말로 애써 말하지만 아무도 다 말하지 못한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못한다.

9 있던 것은 다시 있을 것이고 이루어진 것은 다시 이루어질 것이니 태양 아래 새로운 것 이란 없다.

10 "이걸 보아라, 새로운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 이전 옛 시대에 이미 있던 것이다.

11 아무도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듯 장차 일 어날 일도 마찬가지로. 그 일도 기억하지 않으리니 그 후에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다.

임금의 고백

12 나 코헬렛은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임금이었다.

13 나는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지혜로 살펴 깨치려고 내 마음을 쏟았다. 그러나 이는 인간의 아들이 고생하도록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괴로운 작업이다.

14 나는 태양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았는데 보라, 이 모든 것이 허무요 바람을 잡는 일이다.

15 구부러진 것은 똑바로 될 수 없고 없는 것은 헤아려질 수 없다.

16 나는 속으로 말하였다. '보라, 나는 내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던 모든 분들보다 지혜를 크게 하고 더하였으며 내 마음은 수많은 지혜와 지식을 익혔다.'

17 나는 지혜와 지식, 우둔과 우매를 깨치려고 내 마음을 쏟았다. 그러나 이 또한 바람을 붙잡는 일임을 깨달았다.

18 지혜가 많으면 걱정도 많고 지식을 늘리면 근심도 늘기 때문이다.

2 ¹ 나는 나 자신에게 말하였다. "자, 이제 너를 즐거움으로 시험해 보리니 행복을 누리 보아라!" 그러나 보라, 이 또한 허무였다.

2 웃음에 대하여 나는 말하였다. "어리석은 짓!" 또 즐거움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것이 무얼 할 수 있으리오?"

3 나는 인간의 아들이 한정된 생애 동안 하늘 아래에서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무엇이 좋은지 깨치기까지 내 마음이 지혜로 모든 것을 이끌게 하면서 슬로 이 몸에 생기를 돌우어 우매함을 알아보리라고 속으로 작정 하였다.

4 나는 큰 공사를 벌였다. 나를 위하여 궁궐들을 짓고 포도밭들을 일구었으며

5 나를 위하여 정원과 공원을 만들어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를 심었다.

6 또한 나를 위하여 못을 만들었으니 무성히 자라는 나무숲에 물을 대려는 것이었다.

- 7 나는 남종들과 여종들을 사들였고 씨종들도 소유하고 있었으며 나에게서 나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던 모든 분들보다 더 많은 기축들, 소 떼와 양 떼가 있었다.
- 8 나는 또 나를 위하여 은과 금, 임금들의 소유물과 영토를 모아들었다. 나를 위하여 남녀 소리꾼들과 인간의 아들들의 즐거움인 궁녀들을 더 많이 두었다.
- 9 나는 나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던 모든 분들보다 더 크고 부유하게 되었으며 나의 지혜 또한 내 앞에서 있었다.
- 10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나 뿌리치지 않았고 내 마음에게 어떠한 즐거움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렇다, 내 마음은 나의 모든 노고에서 즐거움을 얻었으니 그것이 나의 모든 노고에 대한 몫이었다.
- 11 그러고 나서 내 손이 이룬 그 모든 위업과 일하면서 애쓴 노고를 돌아켜 보았다. 그러나 보라, 이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일. 태양 아래에서는 아무 보람이 없다.

실망스런 결과

- 12 임금의 뒤를 잇는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오? 선왕이 이미 이룩한 것밖에는! 지혜와 우둔과 우매를 돌아켜 보았을 때
- 13 나는 어둠보다는 빛이 더 쓸모 있듯 우매 함보다는 지혜가 더 쓸모 있음을 보았다.
- 14 지혜로운 이의 눈은 제 앞을 보지만 어리석은 자는 어둠 속을 걷는다. 그러나 둘 다 같은 운명을 겪게 됨을 나는 또한 알았다.
- 15 그래서 나는 속으로 말하였다. '어리석은 자의 운명을 나도 겪을 터인데 그렇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그토록 지혜를 추구하였던가?' 그래서 이 또한 허무라고 속으로 말하였다.
- 16 지혜로운 이에 대해서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건 영원한 기억이란 없으니 앞으로 올

날에는 모든 것이 잊혀지는 법. 아, 정녕 지혜로운 이도 어리석은 자와 함께 죽어 가지 않는가!

- 17 그래서 나는 삶을 싫어하게 되었다. 태양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이 좋지 않기 때문이며 이 모든 것이 허무요 바람을 잡는 일이기 때문이다.
- 18 나는 또 태양 아래에서 내가 애써 얻었던 만 내 뒤에 오는 인간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내 모든 노고의 결실을 싫어하게 되었다.
- 19 그가 지혜로운 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 누가 알리오? 그러면서도 내가 태양 아래에서 지혜를 짜내며 애쓴 노고의 결실을 그가 차지하게 되리니 이 또한 허무이다.
- 20 그래서 태양 아래에서 애쓴 그 모든 노고에 대하여 내 마음은 절망하기에 이르렀다.
- 21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가지고 애쓰고서는 애쓰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제 몫을 넘겨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또한 허무요 커다란 불행이다.
- 22 그렇다, 태양 아래에서 애쓰는 그 모든 노고와 노심으로 인간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 23 그의 나날은 근심이요 그의 일은 걱정이며 밤에도 그의 마음은 쉴 줄을 모르니 이 또한 허무이다.
- 24 자기의 노고로 먹고 마시며 스스로 행복을 느끼는 것보다 인간에게 더 좋은 것은 없다. 이 또한 하느님의 손에서 오는 것임을 나는 보았다.
- 25 그분을 떠나서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으랴?
- 26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마음에 드는 인간에게 지혜와 지식과 즐거움을 내리시고 죄인에게는 모으고 쌓는 일을 주시어 결국 당신 마음에 드는 이에겐 남기도록 하신다. 이 또한 허무요 바람을 잡는 일이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 3** ¹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 ²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긴 것을 뽑을 때가 있다.
- ³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부술 때가 있고 지을 때가 있다.
- 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피할 때가 있고 기뻐 될 때가 있다.
- ⁵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가 있으며 꺼안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다.
- ⁶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간직할 때가 있고 던져 버릴 때가 있다.
- ⁷ 찢을 때가 있고 꿰매 때가 있으며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 ⁸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의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다.
- ⁹ 그러니 일하는 사람에게 그 애쓴 보람이 무엇이겠는가?
- ¹⁰ 나는 인간의 아이들이 고생하도록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일을 보았다.
- ¹¹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도록 만드셨다. 또한 그들 마음속에 시간 의식도 심어 주셨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시작에서 종말까지 하시는 일을 인간은 깨닫지 못한다.
- ¹² 인간에게는 살아 있는 동안 즐기며 행복을 마련하는 것밖에는 좋은 것이 없음을 나는 알았다.
- ¹³ 모든 인간이 자기의 온갖 노고로 먹고 마시며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느님의 선물이다.
- ¹⁴ 나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영원히 지속됨을 알았다. 거기에 더 보탬 것도 없고 거기에서 더 뺄 것도 없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시니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 ¹⁵ 있는 것은 이미 있었고 있을 것도 이미 있

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서는 사라진 것을 찾아내신다.

정의와 응보

- ¹⁶ 나는 또 태양 아래에서 보았다, 공정의 자리에 불의가 있음, 정의의 자리에 불의가 있음.
- ¹⁷ 나는 속으로 말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느님께서서는 심판하시니 모든 일과 모든 행동에 때가 있기 때문이다.'
- ¹⁸ 나는 인간의 아들들에 관하여 속으로 생각하였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어 그들 자신이 다만 짐승일 뿐임을 깨닫게 하신다고
- ¹⁹ 사실 인간의 아들들의 운명이나 짐승의 운명이나 마찬가지다. 짐승이 죽는 것처럼 인간도 죽으며 모두 같은 목숨을 지냈다. 인간이 짐승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 모든 것이 허무이기 때문이다.
- ²⁰ 모두 한곳으로 가는 것. 모두 흙으로 이루어졌고 모두 흙으로 되돌아간다.
- ²¹ 인간의 아들들의 목숨이 위로 올라가는지 짐승의 목숨이 땅 아래로 내려가는지 누가 알리오?
- ²² 그래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움을 느끼는 것밖에는 좋은 것이 없음을 깨달았다. 이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죽은 다음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누가 그를 이끌어 줄 수 있으리오?

역압받는 이들의 눈물

- 4** ¹ 나는 또 태양 아래에서 자행되는 모든 역압을 보았다. 보라, 역압받는 이들의 눈물을! 그러나 그들에게는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 그 역압자들의 손에서 폭력이 쏟아진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

살보다 죽음

- 2 그래서 나는 이미 오래전에 죽은 고인들이 아직 살아 있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하였다.
- 3 그리고 이 둘보다 더 행복하기로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 태양 아래에서 진행되는 악한 일을 보지 않은 이라고 말하였다.

일과 허무

- 4 그리고 나는 모든 노고와 일의 성공이 서로 남을 시기한 결과일 뿐임을 깨달았다. 이 또한 허무요 바람을 잡는 일이다.
- 5 어리석은 자는 두 손을 놓고 놀다 제 살을 뜯어 먹는다.
- 6 평온으로 가득한 한 손이 노고와 바람 잡는 일로 가득한 두 손보다 낫다.

혼자보다는 둘

- 7 나는 또 태양 아래에서 허무를 보았다.
- 8 어떤 사람이 동무도 없이 혼자 있다. 그에게는 아들도 형제도 없다. 그의 노고에는 끝이 없고 그의 눈은 부에 만족할 줄 모른다. "나는 누구를 위하여 애쓰며 나 자신에게 좋은 것을 마다하는가?" 이 또한 허무요 불행한 일이다.
- 9 혼자보다는 둘이 나오니 자신들의 노고에 대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
- 10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켜 준다. 그러나 외톨이가 넘어지면 그에게는 불행! 그를 일으켜 줄 다른 사람이 없다.
- 11 또한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지지만 외톨이는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겠는가?
- 12 누가 하나를 공격하면 둘이서 그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으로 꼬인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권력의 무상함

- 13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가 더 이상 조언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늙고 어리석은

임금보다 낫다.

- 14 젊은이가 설사 임금의 통치 때에 빈곤하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감옥에서 나와 임금이 된다.
- 15 나는 태양 아래에서 돌아다니는 산 이들이 모두 늙은 임금 대신 왕좌에 오르는 이 젊은 후계자와 함께함을 보았다.
- 16 누구든 선두에 선 이에게는 끝없이 많은 백성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다음 세대 사람들은 그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 이 또한 허무요 바람을 붙잡는 일이다.

종교적 권고

- 17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네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말씀을 들으러 다가가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이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낫다. 그들은 악을 저지르면서도 알지 못한다.

5

- 1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드리려 네 입으로 서두르지 말고 네 마음은 담비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너의 말은 모름지기 적어야 한다.
- 2 일이 많으면 꿈을 꾸게 되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나온다.
- 3 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 지체하지 말고 그것을 채워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좋아하지 않으시니 네가 서원한 바를 채워라.
- 4 서원을 하고 채우지 않는 것보다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 5 너의 입으로 네 몸을 죄짓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것이 실수였다고 말하지 마라. 네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 네 손이 이룬 바를 파멸시키셔야 되겠느냐?
- 6 정녕 꿈이 많은 곳에 허무가 있고 말도 많

다. 그러니 너는 하느님을 경외하여라.

불가피한 권력과 남용

⁷ 국가 안에서 가난한 이에 대한 억압과 공정과 정의가 유린됨을 본다 하더라도 너는 그러한 일에 놀라지 마라. 상급자를 그 위의 상급자가 살고 이들 위에 또 상급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⁸ 모든 것이 이러한데도 농경지를 돌보는 임금이 있음은 나라에 유익하다.

자들과 그 위험

⁹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큰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수확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이 또한 허무이다.

¹⁰ 재산이 많으면 그것을 먹어 치우는 자들도 많다.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밖에 그 주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¹¹ 적게 먹든 많이 먹든 노동자의 잠은 달콤하다. 그러나 부자의 배부름은 잠을 못 이루게 한다.

¹² 고통스러운 불행이 있으니 나는 태양 아래에서 보았다. 부자가 간직하던 재산이 그의 불행이 되는 것을.

¹³ 좋지 못한 사업으로 그 재산이 없어지면 부자가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¹⁴ 어머니 배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알몸으로 되돌아간다. 제 노고의 대가로 손에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전혀 지니지 못한 채.

¹⁵ 이 또한 고통스런 불행이다. 그가 온 것처럼 그는 그렇게 되돌아간다. 그러니 그가 애쓴 보람이 무엇이라? 바람일 뿐!

¹⁶ 그뿐만 아니라 그는 평생 어둠 속에서 먹으며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

¹⁷ 보라, 하느님께서 주신 한정된 생애 동안 하늘 아래에서 애쓰는 온갖 노고로 먹고 마시며 행복을 누리려는 것이 유쾌하고 좋은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이 그의 몫이다.

¹⁸ 또한 하느님께서 부와 재화를 베푸시어 그 것으로 먹고 자기 몫을 거두며 제 노고로 즐거움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모든 인간. 이것이 하느님의 선물이다.

¹⁹ 정녕 하느님께서 그를 제 마음의 즐거움에 만 몰두하게 하시니 그는 제 인생의 날수에 대하여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6 ¹ 태양 아래에서 내가 본 불행이 있는데 그것이 인간을 무겁게 짓누른다.

² 하느님께서 부와 재물과 영화를 베푸시어 원하는 대로 아쉬움 없이 가진 사람이 있는데 하느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니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된다. 이는 허무요 고통스런 아픔이다.

장수와 그 상

³ 사람이 자식을 백 명이나 낳고 그의 수명이 다하도록 오랜 세월을 산다 하여도 그의 갈망이 행복으로 채워지지 않고 또한 그가 제대로 묻히지 못한다면 내가 말하건대, 그보다 나은 유산아가 더 낫다.

⁴ 이 아기는 허무 속에 왔다가 어둠 속으로 돌아가 그 이름이 어둠 속에 묻힌다.

⁵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이 아기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안식을 누린다.

⁶ 그가 천 년을 두 번 산다 하더라도 행복을 누리지는 못하는 법. 모두 한곳으로 가지 않는가?

만족할 수 있는 인생

⁷ 인간의 온갖 노고는 제 입을 위한 것이지만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다.

⁸ 장년 지혜로운 이가 어리석은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라? 인생살이를 아는 가난한 이가 나은 것이 무엇이라?

9 눈에 보이는 것이 욕망을 뒤쫓는 것보다 낫다. 그러나 이 또한 허무요 바람을 잡는 일이다.

운명과 무력한 인간

- 10 존재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그 이름으로 불렸고 인간이 어떻게 될지도 이미 알려져 있다. 그는 자기보다 힘센 분과 따질 수가 없다.
- 11 말이 많으면 허무도 커지는데 인간에게 좋을 것이 무엇이라?
- 12 인간이 살아 있는 동안 그림자처럼 보내야 하는 허무하고 한정된 생애에서 그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리오? 인간이 죽은 다음 태양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려 주리오?

행복의 상대성

- 7 ¹ 명성이 값진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
- 2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거기에 모든 인간의 종말이 있으니 산 이는 이를 마음에 새길 일이다.
- 3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얼굴은 애처로워도 마음은 편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 4 지혜로운 이들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잔칫집에 있다.
- 5 지혜로운 이의 꾸지람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칭송을 듣는 것보다 낫다.
- 6 어리석은 자의 웃음은 술 밑에서 타는 가지 나무 소리 같으니 이 또한 허무이다.
- 7 억압은 지혜로운 이를 우둔하게 만들고 뇌물은 마음을 파멸시킨다.
- 8 일의 끝이 그 시작보다 낫고 인내가 자만보다 낫다.
- 9 마음속으로 성급하게 화내지 마라. 화는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자리 잡는다.
- 10 "어찌해서 옛날이 지금보다 좋았는가?" 묻지

마라.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 11 지혜는 상속 재산처럼 좋은 것 태양 아래 사는 이들에게 득이 된다.
- 12 지혜의 그늘에 있는 것은 돈의 그늘에 있는 것과 같다. 지식이 좋은 점은 그 지혜가 소유자의 생명을 보존하여 준다는 것이다.
- 13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아라. 그분께서 구부리신 것을 누가 똑바로 할 수 있오라?
- 14 행복한 날에는 행복하게 지나라. 불행한 날에는, 이 또한 행복한 날처럼 하느님께서 만드셨음을 생각하여라.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인간은 알지 못한다.

중용

- 15 내 허무한 생애 중에 나는 이 모든 것을 보았다. 의롭지만 죽어 가는 의인이 있고 사악하지만 오래 사는 악인이 있다.
- 16 너는 너무 의롭게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로이 행동하지 마라. 어찌하여 너는 너 자신을 파멸시키려 하느냐?
- 17 너는 너무 악하게 되지 말고 바보가 되지 마라. 어찌하여 네 시간이 되기 전에 죽으려 하느냐?
- 18 하나를 붙잡고 있으면서 다른 하나에서도 네 손을 떼지 않는 것이 좋다. 정녕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는 그 둘 다에서 성공을 거둔다.
- 19 지혜는 지혜로운 이를 성안에 있는 열 명의 권세가보다 더 힘있게 만든다.
- 20 죄를 짓지 않고 선만을 행하는 의로운 인간이란 이 세상에 없다.
- 21 사람들이 말하는 온갖 이야기에 네 마음을 두지 마라. 그러지 않으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게 되리라.
- 22 너도 다른 이들을 여러 번 저주했음을 너 자신이 알고 있다.

인간에게서 찾을 수 없는 지혜

- 23 나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보았다. "나는 지혜롭게 되리라." 말하여 보았지만 그것은 내게서 멀리 있었다.
- 24 존재하는 것은 멀리 있으며 심오하고 심오하니 누가 그것을 찾을 수 있으리오?
- 25 나는 마음을 다하여 지혜와 사리를 알고 찾고 구하며 과연 사악함은 우둔한 것인지 우매함은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아보기로 작정하였다.
- 26 그리하여 나는 여지란 죽음보다 쓰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그는 울까미, 그 마음은 그물 그 손은 굴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이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있지만 죄인은 그에게 붙잡히고 만다.
- 27 코헬렛의 말이다. 보아라, 결과를 얻으려고 하나하나 더듬어 내가 찾아낸 바를.
- 28 내 영이 졸곧 찾아보았지만 나는 찾아내지 못하였다. 나는 천 명 가운데 남자 하나를 찾아내었지만 그 모든 이들 가운데에서 여자는 하나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 29 다만 이것을 보아라, 내가 찾아낸 바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울곧게 만드셨지만 그들은 온갖 재주를 부린다는 것이다.

군주와 현인

- 8 ¹ 누가 지혜로운 이와 같은가?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알 수 있는가? 인간의 지혜는 그 얼굴을 빛나게 하고 굳은 얼굴을 변화시킨다.
- 2 임금의 명령을 준수하여라. 그것은 하나님의 서약 때문이다.
- 3 그의 면전에서 경솔하게 물러나지 말고 나쁜 일에 들어서지 마라.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 4 임금의 말은 권능을 지닌 것 "무엇을 하십니까?" 하고 누가 그에게 말할 수 있었느냐?

- 5 명령을 지키는 이는 나쁜 일을 겪지 않고 지혜로운 이의 마음은 때와 심판을 안다.
- 6 모든 일에는 때와 심판이 있다 하여도 인간의 불행이 그를 무겁게 짓누른다.
- 7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이가 없다. 또 어떻게 일어날지 누가 그에게 알려 주리오?
- 8 바람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지닌 인간도 죽는 날에 대한 재량권을 지닌 이도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벗어날 수 없고 죄악은 그 죄인을 살려 내지 못한다.
- 9 나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인간이 다른 인간을 해롭게 다스리는 동안 태양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내 마음을 두었다.

채우지지 않는 정의

- 10 나는 또 악인들이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성소에 들락거려다 떠나가고 성읍 사람들은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을 잊어버린다. 이 또한 허무이다.
- 11 악한 행동에 대한 판결이 곧바로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아들들의 마음은 악을 저지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 12 악인이 백 번 악을 저지르면서도 오래 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그분 앞에서 경외심을 가지므로 잘되리라는 것도 알고 있다.
- 13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잘되지 않을뿐더러 그림자 같아 오래 살지 못함도 알고 있다.
- 14 땅 위에서 진행되는 허무한 일이 있다. 악인들의 행동에 마땅한 바를 겪는 의인들이 있고 의인들의 행동에 마땅한 바를 누리려는 악인들이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 또한 허무라고 말한다.
- 15 그래서 나는 즐거움을 찬미하게 되었다. 태양 아래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인간에게 더 좋은 것은 없다. 이것이 하느

남께서 태양 아래에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생애 동안에도 속에서 그가 함께할 수 있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사

- 16 내가 지혜를 알려고 또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살피려고 낮에도 밤에도 잠 못 이루면서 내 마음을 쏟았을 때
- 17 나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과 관련하여 태양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인간은 파악할 수 없음을 보았다. 인간은 찾으려 애를 쓰지만 파악하지 못한다. 지혜로운 이가 실사 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는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다.

모두 같은 운명

- 9 ¹ 그렇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두어 고찰해 보았는데 의인들도 지혜로운 이들도 그들의 행동도 하느님의 손안에 있었다. 사랑도 미움도 인간은 알지 못한다.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이 허무일 뿐.
- 2 모두 같은 운명이다. 의인도 악인도 착한 이도 깨끗한 이도 더러운 이도 재물을 바치는 이도 재물을 바치지 않는 이도 마찬가지다. 착한 이나 죄인이나 맹세하는 이나 맹세를 꺼려하는 이나 매한가지다.
- 3 모두 같은 운명이라는 것 이것이 태양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악이다. 인간의 아들들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하고 살아 있는 동안 그들 마음속에는 우둔함이 자리한다. 그런 다음 죽은 이들에게로 간다.
- 4 그렇다, 산 이들에 속한 모든 이에게는 희망이 있으니 살아 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 5 산 이들은 자기들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라도 알지만 죽은 이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보상이 없으니 그들에 대한 기억은 잊혀지기 때문이다.

- 6 그들의 사랑도 미움도 그들의 질투도 사라져 버린다. 태양 아래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그들을 위한 몫은 이제 영원히 없는 것이다.

인생을 즐겨라

- 7 그러니 너는 기뻐하며 빵을 먹고 기분 좋게 술을 마셔라. 하느님께서 이미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신다.
- 8 네 웃은 항상 깨끗하고 네 머리에는 향유가 모자라지 않게 하여라.
- 9 태양 아래에서 너의 허무한 모든 날에, 하느님께서 베푸신 네 허무한 인생의 모든 날에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인생을 즐겨라. 이것이 네 인생과 태양 아래에서 애쓰는 너의 노고에 대한 몫이다.
- 10 내가 힘껏 해야 할 바로서 손에 닿는 것은 무엇이나 하여라. 내가 가야 하는 저승에는 일도 계산도 지식도 지혜도 없기 때문이다.

시간과 운명

- 11 나는 또 태양 아래에서 보았다. 경주가 빠른 이들에게 달려 있지 않고 전쟁이 전 사들에게 달려 있지 않음을. 또한 음식이 지혜로운 이들에게 달려 있지 않고 재물이 슬기로운 이들에게 달려 있지 않으며 호의가 유식한 이들에게 달려 있지 않음을. 모두 정해진 때와 우연에 맞추기 때문이다.
- 12 사실 인간은 자기의 때를 모른다. 몸쓸 그물에 붙잡히는 물고기들처럼 울기미에 붙잡히는 새들처럼 그렇게 인간의 아들들도 나쁜 때가 갑자기 그들을 덮치면 사로잡히고 만다.

인정받지 못하는 지혜

- 13 나는 태양 아래에서 이런 지혜도 보았는데 이는 내게 위대해 보였다.
- 14 사람이 얼마 살지 않는 조그만 성읍이 있었는데 막강한 임금이 거기로 진군해 와서

그곳을 포위하고 거대한 공격 보루를 구축하였다.

- 15 거기에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의 지혜로 성읍을 구수가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다.
- 16 그래서 나는 말하였다. "지혜는 힘보다 낫다." 그러나 가난한 이의 지혜는 멸시당하고 그의 말은 아무도 들어 주지 않는다.
- 17 지혜로운 이들의 조용한 말이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에 있는 군주의 호령보다 더 들을 가치가 있다.
- 18 지혜가 무기보다 낫고 죄인 하나가 큰 선을 망친다.

- 10 ¹ 죽은 파리 하나가 향유 제조자의 기름을 악취 풍기며 썩게 한다. 작은 어리석음이 지혜와 명예보다 더 무겁다.
- 2 지혜로운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어리석은 마음은 왼쪽에 있다.
- 3 어리석은 자는 길을 걸으면서도 지각이 모자라서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자신을 바보라고 말한다.

권력과 사회 질서의 혼란

- 4 군주가 네게 화를 내어도 자리를 뜨지 마라. 침착함은 큰 잘못도 막을 수 있다.
- 5 태양 아래에서 내가 악을 하나 보았는데 통치자 자신에게서 나오는 실책과 같은 것이다.
- 6 어리석은 자에게는 매우 높은 자리가 주어지고 부자들은 천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다.
- 7 종들은 말을 타고 가는데 귀족들은 종들처럼 맨땅 위를 걸어가는 것을 나는 보았다.

인간 활동의 위험

- 8 구덩이를 파는 자는 자신도 거기에 빠질 수 있고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릴 수 있

다.

- 9 돌을 부수는 자는 그 돌에 다칠 수 있고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 나무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
- 10 쇠가 무디어졌는데도 날을 갈지 않으면 힘을 더 들여야 한다. 그러나 지혜를 유용하게 쓰면 득이 된다.
- 11 주술을 걸기도 전에 뱀이 물면 뱀 주술사는 쓸모가 없다.

어리석은 자의 수다

- 12 지혜로운 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호감을 사지만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자신을 삼켜 버린다.
- 13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시작은 어리석음이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끝은 불행을 초래하는 우둔함이다.
- 14 미련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인간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 15 그가 죽은 뒤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려 주리오? 어리석은 자는 노고에 지쳐 성읍으로 가야 하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

임금과 권력

- 16 어린아이가 임금이 되어 다스리고 고관들이 아침부터 잔치를 벌이는 나라 너는 행한다.
- 17 귀족이 임금이 되어 다스리고 고관들이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힘을 얻기 위해서 제때에 음식을 먹는 나라 너는 행복하다.
- 18 못된 게으름 때문에 들보가 내려앉고 늘어진 두 손 때문에 집에 물이 샌다.
- 19 사람들은 즐기려고 음식을 장만한다. 술은 인생을 즐겁게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돈이 해결해 준다.
- 20 네 마음속으로라도 임금을 저주하지 말고 네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마라. 하늘의 새가 소리를 읊기고 날짐승이 말을 전한다.

불확실한 인생

- 11** ¹ 네 빵을 물 위에다 놓아 보내라. 많은 날이 지난 뒤에도 그것을 찾을 수 있으리라.
- ² 일곱 또는 여덟 몫으로 나누어라. 땅 위에서 무슨 불행이 일어날지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 ³ 구름이 가득 차면 땅 위로 비를 쏟는다. 남쪽에서든 북쪽에서든 나무가 쓰러지면 그 나무는 쓰러진 자리에 남아 있다.
- ⁴ 바람만 살피는 이는 씨를 뿌리지 못하고 구름만 바라보는 이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 ⁵ 바람의 길을 네가 알 수 없고 임산부의 배속에 든 몸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듯 그렇게 모든 것을 하시는 하느님의 일을 너는 알 수 없다.
- ⁶ 아침에 씨앗을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놀리지 마라. 이것이 성공할지 저것이 성공할지 아니면 둘이 하나같이 잘릴지 네가 모르기 때문이다.

젊음을 즐기라

- ⁷ 정녕 빛은 달콤한 것, 태양을 봄은 눈에 즐겁다. 그렇다, 사람이 많은 햇수를 살게 되어도
- ⁸ 그 모든 세월 동안 즐겨야 한다. 그러나 어둠의 날이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 오는 모든 것은 허무일 뿐.
- ⁹ 젊음이야, 네 젊은 시절에 즐기고 젊음의 날에 네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네 마음이 원하는 길을 걷고 네 눈이 이끄는 대로 가거라. 다만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께서 너를 심판으로 부르심을 알아라.
- ¹⁰ 네 마음에서 근심을 떨쳐 버리고 네 몸에서 고통을 흘려 버려라. 젊음도 청춘도 허무일 뿐이다.

늙음과 죽음

- 12** ¹ 젊음의 날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불행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이런 시절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하고 내가 말할 때가 오기 전에.
- ² 해와 빛,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고 비 온 뒤 구름이 다시 몰려오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여라.
- ³ 그때 집을 지키는 자들은 흐느적거리고 힘센 사내들은 등이 굽는다. 땀돌 가는 여종들은 수가 줄어 손을 놓고 창문으로 내다보던 여인들은 생기를 잃는다.
- ⁴ 길로 난 땀미탄이문은 닫히고 땀돌 소리는 줄어든다. 새들이 지저귀는 시간에 일어나지만 노랫소리는 모두 희미해진다.
- ⁵ 오르막을 두려워하게 되고 길에서도 무서움이 앞선다. 편도나무는 꽃이 한창이고 메뚜기는 살이 오르며 참양각초는 싹을 터뜨리는데 인간은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가야만 하고 거리에는 조각들이 돌아다닌다.
- ⁶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 그릇이 깨어지며 쉼에서 물동이가 부서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깨어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 ⁷ 먼지는 전에 있던 흙으로 되돌아가고 목숨은 그것을 주신 하느님께로 되돌아간다.

맺음말

- ⁸ 허무로다, 허무! 코헬렛이 말한다. 모든 것이 허무로다!

발문

- ⁹ 코헬렛은 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백성에게 슬기를 가르쳤으며 검토하고 연구하여 수많은 잠언들을 지어 내었다.
- ¹⁰ 코헬렛은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말을 찾으려 노력하였고 진리의 말을 바르게 기록하였다.
- ¹¹ 현인들의 말은 물이 막대기와 같고 잠언집

의 금언들은 잘 박힌 못과 같은 것. 이들은 모두 한 목자에게서 주어졌다.

- 12 내 아들이, 이 밖에도 조심해야 할 바가 있다. 책을 많이 만들어 내는 일에는 끝이 없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몸을 고달프게 한다.
- 13 마지막으로 결론을 들어 보자.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켜라. 이야말로 모든 인간에게 지당한 것이다.
- 14 하느님께서서는 좋은 나쁜 것 감추어진 온갖 것에 대하여 모든 행동을 심판하신다.

구약성경 - 26

시서와지혜 - 5

아 가

총 8 장

총 117 절

[구약성경]-[아가]

표제

1 ¹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사랑의 기쁨

- ² (여자)아, 제발 그이가 내게 입 맞춰 주었으면!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달콤하답니다.
- ³ 정녕 당신의 향유 내음은 싱그럽고 당신의 이름은 부어 놓은 향유랍니다. 그러기에 젊은 여자들이 당신을 사랑하지요.
- ⁴ 나를 당신에게 끌어 주세요, 우리 달려가요. 임금이 나를 내전으로 데려다 주셨네. (친구들) 우리는 당신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기리리다. 그들이 당신을 사랑함은 당연하지요.

잠자만 아름다운 포도원지기

- ⁵ (여자) 예루살렘 아가씨들이여 나 비록 가뭇하지만 어여쁘답니다, 캐다르의 천막처럼 솔로몬의 휘장처럼.
- ⁶ 내가 가무잡잡하다고 뻔히 보지 말아요. 햇볕에 그을렸을 뿐이니까요. 오라버니들이 나에게 꿀을 내며 나를 포도원지기로 만들어 내 포도밭은 지키지도 못하였답니다.

목지를 찾아

- ⁷ (여자) 내 영혼이 사랑하는 이여, 내게 알려주세요. 당신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계시는지 한낮에는 어디에서 양을 쉬게 하시는지. 그러면 나 당신 뱃들의 가축 사이를 헤매는 여자가 되지 않을 거예요.
- ⁸ (친구들) 여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여 그대가 만일 모르고 있다면 양 떼의 발자국을 따라가다 양치기들의 천막 곁에서 그대의 새끼 염소들이 풀을 뜯게 하오.

준미와 같은 그대

- ⁹ (남자) 나의 애인이여 나 그대를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준미에 비기리다.
- ¹⁰ 귀걸이 드리워진 그대의 뺨과 목걸이로 꾸며진 그대의 목이 어여쁘구려.
- ¹¹ 우리가 은구슬 박힌 금줄을 그대에게 만들어 주리다.

연인의 향기

- ¹² (여자) 임금이 잔칫상에 계시는 동안 나의 나르드는 향기를 피우네.
- ¹³ 나의 연인은 내게 몰약 주머니 내 가슴 사이에서 발을 지내네.
- ¹⁴ 나의 연인은 내게 엔 게디 포도밭의 해나꽃송이여라.

사랑의 화답

- ¹⁵ (남자) 정녕 그대는 아름답구려, 나의 애인이여. 정녕 그대는 아름답구려, 당신의 두눈은 비둘기라오.
- ¹⁶ (여자) 정녕 당신은 아름다워요, 나의 연인이여. 당신은 사랑스러워요, 우리의 잠자리도 푸르답니다.
- ¹⁷ 우리 집 들보는 향백나무 서까래는 전나무랍니다.

나리꽃 같은 그대, 사나나무 같은 당신

- 2** ¹ (여자) 나는 사론의 수선화,골짜기의 나리꽃이랍니다.
- ² (남자) 아카씨들 사이에 있는 나의 애인은 엉퀴귀 사이에 핀 나리꽃 같구나.
- ³ (여자) 젊은이들 사이에 있는 나의 연인은 숲 속 나무들 사이의 사나나무 같습니다. 그이의 그늘에 앉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 그이의 열매는 내 입에 달콤합니다.

만남과 포옹

- ⁴ (여자) 그이가 나를 연회장으로 이끌었는데 내 위에 걸린 그 깃발은 '사랑' 이랍니다.
- ⁵ 여러분, 진포도 과자로 내 생기를 돌우고 사

과로 내 기운을 북돋아 주세요 사랑에 겨워
않고 있는 몸이랍니다.

- 6 그의 왼팔은 내 머리 밑에 있고 그의
오른팔은 나를 껴안는답니다.
- 7 (남자) 예루살렘 아끼씨들이여 노루나 들사
슴을 걸고 그대들에게 애원하니 우리 사랑
을 방해하지도 깨우지도 말아 주오, 그 사랑
이 원할 때까지.

애인의 창기에서

- 8 (여자) 내 연인의 소리! 보श्य, 그이가 오
잖아요. 산을 뛰어오르고 언덕을 뛰어넘어
오잖아요.
- 9 나의 연인은 노루나 젊은 사슴 같습니다. 보
श्य, 그이가 우리 집 담장 앞에 서서 창틈
으로 기웃거리고 창살 틈으로 들여다본답니
다.
- 10 내 연인은 나에게 속삭이며 말했지요. "나
의 애인이여, 일어나오, 나의 아름다운 여
인이여, 이리 와 주오.
- 11 자, 이제 겨울은 지나고 잠마는 걸렸다고.
- 12 땅에는 꽃이 모습을 드러내고 노래의 계절
이 다가왔다고, 우리 땅에서는 뱀비둘기 소
리가 들려온다고.
- 13 무화과나무는 이른 열매를 맺어 가고 포도
나무 꽃송이들은 향기를 내뿜는다고. 나의
애인이여, 일어나오, 나의 아름다운 여인이
여, 이리 와 주오.
- 14 바위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 벼랑 속에 있
는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모습을 보게 해
주오, 그대의 목소리를 듣게 해 주오, 그대
의 목소리는 달콤하고 그대의 모습은 어여
쁘다오."

연인이여, 돌아오세요

- 15 (여자의 어머니) 애들아, 여우들을 잡아라,
저 작은 여우들을, 우리 포도밭을, 꽃이 한
창인 우리 포도밭을 망치는 저것들을.
- 16 (여자) 나의 연인은 나의 것, 나는 그의

것. 그는 나리꽃 사이에서 양을 치고 있
네.

- 17 날이 서늘해지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
에 나의 연인이여 베텔 산 위의 노루처럼,
젊은 사슴처럼 어서 돌아오세요.

애인을 찾아

3¹ (여자) 나는 잠자리에서 밤새도록
내가 사랑하는 이를 찾아다녔네. 그
이를 찾으려 하였건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네.

- 2 '나 일어나 성읍을 돌아다니리라. 거리와
광장마다 돌아다니며 내가 사랑하는 이를
찾으리라.' 그이를 찾으려 하였건만 찾아내
지 못하였네.

3 성읍을 돌아다니는 야경꾼들이 나를 보았네.
"내가 사랑하는 이를 보셨나요?"

- 4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를 찾았네. 나 그이를 붙잡고 놓지 않았
네,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하신 분
의 방으로 인도할 때까지.

5 (남자) 예루살렘 아끼씨들이여, 노루나 들사
슴을 걸고 그대들에게 애원하니 우리 사랑
을 방해하지도 깨우지도 말아 주오, 그 사랑
이 원할 때까지.

흔레 항별

- 6 (친구들) 언기 기둥처럼 광야에서 올라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몰약과 유향, 이국의
온갖 향료로 향기를 풍기며 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7 보라, 솔로몬의 가버를! 이스라엘 용사들
가운데에서 뽑힌 예순 명의 용사들이 호위
하네.

- 8 모두가 칼로 무장한 역전의 전사들 밤의 공
포에 대비하여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있
네.

9 솔로몬 임금은 자신을 위하여 레바논 나무

로 연을 만들었네.

- 10 기둥은 은으로, 등받이는 금으로 만들고 의자는 자홍포로 덮었으며 그 안은 예루살렘 아가씨들이 사랑스럽게 꾸몄네.
- 11 나와서 보아라, 시온 아가씨들아, 혼인날, 마음이 기쁜 날에 그 어머니가 면류관을 씌워 준 솔로몬 입을!

신부에 대한 찬가

- 4 ¹ (남자) 정녕 그대는 아름답구려, 나의 애인이여. 정녕 그대는 아름답구려. 너울 뒤로 얼보이는 그대의 두 눈은 비둘기라요. 그대의 머리채는 길앗 비탈을 내리닫는 염소 떼 같도요.
- 2 그대의 이는 털을 깎으려고 세척장에서 올라오는 양 떼 같도요. 모두 쌍둥이를 낳아 새끼를 잃은 것이 하나도 없구려.
- 3 진홍색 줄과 같은 그대의 입술, 그대의 입은 어여쁘기만 하오. 너울 뒤로 얼보이는 그대의 붉은 석류 조각 같도요.
- 4 다윗 탑 같은 그대의 목은 층층이 잘도 지어졌구려. 거기에는 천 개의 방패들이 달려 있는데 모두가 용사들의 원병배들이구려.
- 5 그대의 두 젖가슴은 나리꽃 사이에서 풀을 뜯는 한 쌍의 젊은 사슴, 쌍둥이 노루 같도요.
- 6 날이 서늘해지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에 나는 몰약 산으로, 유향 산으로 가리다.
- 7 나의 애인이여, 그대의 모든 것이 아름다울 뿐 그대에게 흠이라고는 하나도 없구려.

레비논을 떠나

- 8 (남자) 나와 함께 레비논에서, 나의 신부여, 나와 함께 레비논에서 떠날시다. 아마나 산 꼭대기에서, 스니르 산과 헤르몬 산 꼭대기에서, 사자 굴에서, 표범 산에서 내려갑시다.

신부에 대한 찬가

- 9 (남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는 내 마음을 사로잡았소. 한 번의 눈짓으로, 그대 목걸이 한 줄로 내 마음을 사로잡았소.
- 10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얼마나 더 달콤하고 그대의 향수 내음은 그 모든 향료보다 얼마나 더 향기로운지!
- 11 나의 신부여, 그대의 입술은 생청을 흘리고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오. 그대 옷의 향기는 레비논의 향기 같구려.

그대는 나의 정원

- 12 (남자) 그대는 단허진 정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는 단허진 정원, 봉혜진 우물.
- 13 그대의 새싹들은 석류나무 정원이라요. 맛갈스런 과일로 가득하고 거기에는 헤나와 나르드
- 14 나르드와 사프란 향초와 육계 향 온갖 향나무와 함께 몰약과 침향 온갖 최상의 향료도 있다오.
- 15 그대는 정원의 샘 생수가 솟는 우물 레비논에서 흘러내리는 시내라요.
- 16 (여자) 일어라, 복세비람아! 오너라, 마파람아! 불어라, 내 정원에, 온갖 향료들이 흘러내리게! 나의 연인이 자기 정원으로 와서 이 맛갈스런 과일들을 따 먹을 수 있도록!

- 5 ¹ (남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나의 정원으로 내가 왔소. 내 몰약과 발삼을 거두고 꿀이 든 내 꿀송이를 먹고 젖과 함께 내 포도주를 마신다오. (친구들) 먹어라, 벗들아. 마셔라, 사랑에 취하여라.

가버린 연인을 찾아

- 2 (여자) 나는 잠들었지만 내 마음은 깨어 있었지요. 들어 보셔요, 내 연인이 문을 두드

- 려요. "내게 문을 열어 주오, 나의 누이 나의 애인, 나의 비둘기, 나의 티 없는 이여! 내 머리는 이슬로, 내 머리채는 밤이슬로 흠뻑 젖었다오."
- 3 "웃을 이미 벗었는데 어찌 다시 입오리까? 발을 이미 씻었는데 어찌 다시 더럽히오리까?"
- 4 나의 연인이 문틈으로 손을 내밀자 내 가슴이 그이 때문에 두근거렸다.
- 5 나의 연인에게 문을 열어 주려고 일어났는데 내 손에서는 몰약이 뚝뚝 들고 손가락에서 녹아 흐르는 몰약이 문빗장 손잡이 위로 번졌다.
- 6 나의 연인에게 문을 열어 주었네. 그러나 나의 연인은 몸을 돌려 가 버렸다네. 그이가 떠나 버려 나는 낮이 나갔네. 그이를 찾으려 하였건만 찾아내지 못하고 그이를 불렀건만 대답이 없었네.
- 7 성읍을 돌아다니는 야경꾼들이 나를 보자 나를 때리고 상처 내었으며 성벽의 파수꾼들은 내 걸음을 빼앗았네.
- 8 예루살렘 아가씨들이여 그대들에게 애원하니 나의 연인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앓고 앓다고 제발 그이에게 말해 주어요.

그대 연인이 나는 게 무엇인가

- 9 (친구들) 그대 연인이 다른 연인보다 나는 게 무엇인가?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여. 그대 연인이 다른 연인보다 나는 게 무엇인가? 그대가 우리에게 그토록 애원하거.

나의 연인

- 10 (여자) 나의 연인은 눈부시게 하얗고 붉으며 만인 중에 뛰어난 사람이랍니다.
- 11 그이의 머리는 금 중에서도 순금. 그이의 머리채는 종려나무 가지 감기가 까마귀 같답니다.
- 12 그이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아 우유로 목욕하고 알맞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 13 그이의 뺨은 발삼 꽃밭 같아 향기로운 풀들이 탐을 이루고 그이의 입술은 몰약이 흘러 떨어지는 나리꽃이랍니다.
- 14 그이의 팔은 보석 박힌 금방망이. 그이의 몸통은 청옥으로 덮인 상아 조각이랍니다.
- 15 그이의 다리는 순금 받침대 위에 세워진 하얀 대리석 기둥. 그이의 모습은 레바논 같고 향백나무처럼 빼어나답니다.
- 16 그이의 입은 달콤하고 그이의 모든 것이 멋지답니다. 나의 연인은 이렇답니다, 내 벗은 이렇답니다, 예루살렘 아가씨들이여!

그대 연인은 어디로

- 6¹ (친구들) 그대 연인은 어디로 갔는가?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여. 그대 연인은 어디로 갔는가? 우리가 그대와 함께 그를 찾으리다.

나는 정원, 그이는 목자

- 2 (여자) 나의 연인은 자기 정원으로, 발삼 꽃밭으로 내려갔어요. 정원에서 양을 치며 나리꽃을 따려고 내려갔어요.
- 3 나는 내 연인의 것, 내 연인은 나의 것. 그이는 나리꽃 사이에서 양을 친답니다.

그대의 빼어난 아름다움

- 4 (남자) 나의 애인이여, 그대는 티르치처럼 아름답고 예루살렘처럼 어여빠 기를 든 군대처럼 두려움까지 자아낸다오.
- 5 내게서 당신의 눈을 돌려 주오, 나를 어지럽게 만드는구려. 그대의 머리채는 길앗을 내리달는 염소 떼 같다오.
- 6 그대의 이는 세척장에서 올라오는 어미 양 떼 같다오. 모두 쌍둥이를 낳아 새끼를 잃은 것이 하나도 없구려.
- 7 너울 뒤로 얼보이는 그대의 불은 석류 조각 같다오.

견줄 데 없는 애인

- 8 (남자) 왕비가 예수 명 후궁이 여든 명 궁녀는 수없이 많지만
9 나의 비둘기, 나의 티 없는 여인은 오직 하나 그 어머니의 오직 하나뿐인 딸 그 생모가 아끼는 딸. 그를 보고 아가씨들은 복되다 하고 왕비들과 후궁들은 칭송한다네.
10 (친구들) 새벽빛처럼 솟아오르고 달처럼 아름답으며 해처럼 밝히고 기를 든 군대처럼 두려움을 자아내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암미나딤과 만나

- 11 나는 대추야자나무 새싹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꽃을 피웠는지, 석류나무가 봉오리를 맺었는지 보려고 호두나무 정원으로 내려 갔네.
12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암미나딤의 병거에 올라타게 되었는데.

7 ¹ (친구들) 돌아와요, 돌아와요, 술람 밋이여. 돌아와요, 돌아와요, 우리가 그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너희는 어찌하여 술람밋이 두 줄 윤무를 추가라도 하는 듯 바라보느냐?

이름다운 애인

- 2 (남자) 오, 귀족 집 따님이여 샌들 속의 그대의 발은 어여쁘기도 하구려. 그대의 둥근 허벅지는 목갈이처럼 예술가의 작품이로.
3 그대의 배꼽은 동그란 잔 향긋한 술이 떨어지지 않으리라. 그대의 배는 나리꽃으로 둘러린 밀 더미.
4 그대의 두 젖가슴은 한 쌍의 젊은 사슴, 쌍둥이 노루 같도오.
5 그대의 목은 상아탑, 그대의 두 눈은 헤스본의 밤 라벨 성문 가에 있는 못, 그대의 코는 다마스쿠스 쪽을 살피는레바논 탑과 같구려.
6 그대의 머리는 카르멜 산 같고 그대의 드리워진 머리채는 자홍 실 같아 입금이 그 머리 단에 사로잡히고 말았도오.

- 7 정녕 이름답고 사랑스럽구려, 오, 사랑, 환희의 여인이여!
8 그대의 키는 야자나무 같고 그대의 젖가슴은 야자 송이 같구려.
9 그래서 나는 말하였도오. "나 야자나무에 올라 그 꽃송이를 붙잡으리라. 그대의 젖가슴은 포도송이, 그대 코의 숨결은 사과,
10 그대의 입은 좋은 포도주 같아라." (여자) 그대요, 나는 나의 연인에게 곧바로 흘러가는, 잠자는 이들의 입술로 흘러드는 포도주랍니다.
11 나는 내 연인의 것 그이는 나를 원한답니다.

들에서 사랑을

- 12 (여자) 오세요, 나의 연인이여 우리 함께 들로 나가요. 시골에서 밤을 지내요.
13 아침 일찍 포도밭으로 나가 포도나무 꽃이 피었는지 꽃망울이 열렸는지 석류나무 꽃이 망울졌는지 우리 보아요. 거기에서 나의 사랑을 당신에게 바치겠어요.
14 합환채는 향기를 내뿜고 우리 문간에는 온갖 맛갈스런 과일들이 있는데 햇것도 있고 묵은 것도 있어요. 나의 연인이여 이 모두 내가 당신을 위하여 간직해 온 것이랍니다.

당신이 오라버니면

- 8** ¹ (여자) 아, 당신이 내 어머니의 젖을 함께 빨던 오라버니 같다면! 거리에서 당신을 만날 때 누구의 경멸도 받지 않고 나 당신에게 입 맞출 수 있으련만.
2 나를 가르치시는 내 어머니의 집으로 당신을 이끌어 데려가련만. 당신에게 향료 섞인 술, 나의 석류주를 대접하련만.
3 그이의 왼팔은 내 머리 밑에 있고 그이의 오른팔은 나를 껴안는다면!
4 (남자) 예루살렘 아가씨들이여 그대들에게 애원하니 우리 사랑을 방해하지도 깨우지도

말아 주오, 그 사랑이 원할 때까지.

죽음처럼 강한 사랑

- 5** (친구들) 자기 연인에게 몸을 기댄 채 광야에서 올라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여자) 사과나무 아래에서 나는 당신을 깨웠지요. 거기에서 당신 어머니가 당신을 잉태하셨답니다. 거기에서 당신을 낳으신 분이 당신을 잉태하셨답니다.
- 6** 인정처럼 나를 당신의 가슴에, 인정처럼 나를 당신의 팔에 지니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정열은 저승처럼 억센 것. 그 열기는 불의 열기 더할 나위 없이 격렬한 불길입니다.
- 7** 큰 물도 사랑을 끌 수 없고 강물도 휩쓸어 가지 못한답니다. 누가 사랑을 사려고 제집의 온 재산을 내놓는다 해도 사람들이 그를 경멸할 뿐입니다.

어린 누이동생

- 8** (여자의 오빠들) "우리에게는 누이가 하나 있네, 조그만 누이. 아직 젖가슴도 없네. 누가 구혼이라도 하는 날이면 우리 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 9** 그 애가 성벽이라면 그 위에다 은으로 성가퀴를 세우고 그 애가 문이라면 향백나무 널빤지로 막아 버리련만."
- 10** (여자) 나는 성벽, 내 가슴은 탑과 같아요. 하지만 그이 앞에서는 화평을 청하는 여자입니다.

두 포도밭

- 11** (남자) 솔로몬에게는 비알 하문에 포도밭이 하나 있었네. 그는 그 포도밭을 소작인들에게 맡겨 수확의 대가로 저마다 은전 천 닢을 바치게 하였다네.
- 12** 나의 포도밭은 오직 나에게만 속한다오. 그 은전 천 닢은 솔로몬 당신의 것이고 이백 닢은 수확을 거둔 소작인들 것이시오.

둘만의 만남을 향하여

- 13** (남자) 정원에 있는 그대어 친구들이 그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구려. 나에게만 들려주오.
- 14** (여자) "나의 연인이여, 서두르세요. 노루처럼, 젊은 사슴처럼 되어 발삼 산 위로 서둘러 오세요."

구약성경 - 27

시서와지혜 - 6

지혜서

총 19 장

총 436 절

[구약성경] - [지혜서]

하느님을 찾고 악을 피하라

- 1** ¹ 세상의 통치자들이여, 정의를 사랑하여라. 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 2** 주님께서는 당신을 시험하지 않는 이들을 만나 주시고 당신을 불신하지 않는 이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다.
- 3** 비뚤어진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분의 권능을 시험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로 드러난다.
- 4** 지혜는 잔악한 영혼 안으로 들지 않고 죄에 얽매인 육신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 5** 가르침을 주는 거룩한 영은 거짓을 피해 가고 미련한 생각을 꺼려 떠나가 버리며 불의가 다가옴을 수치스러워한다.
- 6** 지혜는 다정한 영, 그러나 하느님을 모독하는 자는 그 말에 책임을 지게 한다. 하느님께서 그의 속생각을 다 아시고 그의 마음을 살살이 들여다보시며 그의 말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이다.
- 7** 온 세상에 충만한 주님의 영은 만물을 총괄하는 존재로서 사람이 하는 말을 다 안다.
- 8** 그러므로 불의한 것을 지껄이는 자는 반드시 탄로 나고 징계하는 정의가 그를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는다.
- 9** 간계를 꾸미는 악인은 신문을 받고 그가 말하는 소리가 주님께 다다라 그 악행으로 벌을 받는다.
- 10** 열성스러운 귀는 모든 것을 다 들으니 투덜거리는 소리도 그냥 넘기지 않는다.
- 11** 그러니 조심하여 쓸데없이 투덜거리지 말고 비방하지 않도록 혀를 잡도리하여라. 은밀히 하는 말도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고 거짓을 말하는 입은 영혼을 죽인다.
- 12** 그릇된 생활로 죽음을 불러들이지 말고 자기의 행위로 파멸을 끌어들이지 마라.

- 13** 하느님께서서는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고 산 이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 14** 하느님께서서는 만물을 존재하다고 창조하셨으니 세상의 피조물이 다 이롭고 그 안에 파멸의 독이 없으며 저승의 지배가 지상에 는 미치지 못한다.
- 15** 정의는 죽지 않는다.

악인들의 삶과 생각

- 16** 악인들은 행실과 말로 죽음을 불러내고 죽음을 친구로 여겨 그것을 열망하며 죽음과 계약을 맺는다. 그들은 죽음에 속한 자들이 되어 마땅하다.

- 2** ¹ 그들은 옳지 못한 생각으로 저희끼리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삶은 짧고 슬프다. 인생이 끝에 다다르면 묘약이 없고 우리가 알기로 저승에서 돌아온 자도 없다."
- 2**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몸, 뒷날 우리는 있지도 않았던 것처럼 될 것이다. 우리의 콧숨은 연기일 뿐이며 생각은 심장이 뛰면서 생기는 불꽃일 따름이다.
- 3** 불꽃이 꺼지면 몸은 재로 돌아가고 영은 가벼운 공기처럼 흩어져 버린다.
- 4** 우리의 이름은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고 우리가 한 일을 기억해 줄 자 하나도 없으니 우리의 삶은 구름의 흔적처럼 사라져가 버린다. 햇살에 쫓기고 햇볕에 버티지 못하는 안개처럼 흩어져 가 버린다.
- 5** 우리의 한평생은 지나가는 그림자이고 우리의 죽음에는 돌아올 길이 없다. 정녕 한번 봉인되면 아무도 되돌아오지 못한다.
- 6** 자 그러나, 앞에 있는 좋은 것들을 즐기고 젊을 때처럼 이 세상 것들을 실컷 쓰자.
- 7** 값비싼 포도주와 향료로 한껏 취하고 봄철의 꽃 한 송이도 놓치지 말자.
- 8** 장미가 시들기 전에 그 봉오리들로 화관을

만들어 쓰자.

- 9 어떠한 풀밭도 우리의 이 환락에서 빠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이것도 우리의 몫이고 저것도 우리의 차지니 어디에나 우리가 즐긴 표를 남기자.
- 10 가난한 의인을 억누르고 과부라고 보아주지 말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라고 존경할 것 없다.
- 11 약한 것은 스스로 쓸모없음을 드러내니 우리 힘이 의로움의 척도가 되게 하자.
- 12 의인에게 닳을 놓자. 그자는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자, 우리가 하는 일을 반대하며 율법을 어겨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나무라고 교육받은 대로 하지 않아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탓한다.
- 13 하느님을 아는 지식을 지녔다고 공언하며 자신을 주님의 자식이라고 부른다.
- 14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우리를 질책하니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짐이 된다.
- 15 정녕 그의 삶은 다른 이들과 다르고 그의 길은 유별나기만 하다.
- 16 그는 우리를 상스러운 자로 여기고 우리의 길을 부정한 것인 양 피한다. 의인들의 종말이 행복하다고 큰소리치고 하느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자랑한다.
- 17 그의 말이 정말인지 두고 보자. 그의 최후가 어찌될지 지켜보자.
- 18 의인이 정녕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하느님께서 그를 도우시어 적대자들의 손에서 그를 구해 주실 것이다.
- 19 그러나 그를 모욕과 고통으로 시험해 보자. 그러면 그가 정말 온유한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의 인내력을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20 자기 말로 하느님께서 돌보신다고 하니 그에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내리자."

의인들의 그릇된 생각

- 21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이 틀렸다. 그들의 악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것이다.
- 22 그들은 하느님의 신비로운 뜻을 알지 못하며 거룩한 삶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도 않고 흠 없는 영혼들이 받을 상급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 23 정녕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시고 당시 본성의 모습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
- 24 그러나 악마의 시기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와 죽음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맛보게 된다.

의인들의 운명

- 3¹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 2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 3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 4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 5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은 뒤 은혜를 크게 얻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당신께 맞갖은 이데움을 아셨기 때문이다.
- 6 그분께서는 용광로 속의 금처럼 그들을 시험하시고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여셨다.
- 7 그분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에 그들은 빛을 내고 그루터기들만 남은 밭의 불꽃처럼 퍼져 나갈 것이다.
- 8 그들은 민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지배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 9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

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은총과 자비가 주님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는 선택하신 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악인들의 운명

- 10 그러나 의인을 무시하고 주님을 거역한 악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것에 따라 벌을 받을 것이다.
- 11 지혜와 교훈을 업신여기는 자는 불쌍하다. 그들의 희망은 헛되고 노동은 벌이가 되지 않으며 그들의 작업은 결실이 없다.
- 12 그 아내들은 어리석고 자식들은 사악하며 후손들은 저주를 받는다.

자식 없는 의인과 자식 많은 악인

- 13 행복하여라, 자식을 낳지 못해도 정결한 여자! 죄 되는 잠자리에 들지 않은 여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찾아오실 때에 그는 결실을 볼 것이다.
- 14 제 손으로 무도한 짓을 저지르지 않고 주님께 악한 것을 생각해 내지 않는 고자도 행복하여라. 그는 자기의 믿음 덕분에 특별한 은총을 받고 주님의 성전에서 아주 흡족한 몫을 받을 것이다.
- 15 좋은 노력의 결과는 영광스럽고 예지의 뿌리는 소멸되지 않는다.
- 16 건염의 소생들은 크지 못하고 부정한 잠자리에서 생긴 자식들은 망하고 만다.
- 17 오래 산다 하여도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결국은 나이가 많음도 그들에게는 영에롭지 못하다.
- 18 일찍 죽는다 하여도 희망이 없고 심판 날에 아무 위안도 받지 못할 것이다.
- 19 불의한 족속의 끝은 이처럼 비참하다.

4 ¹ 자식이 없어도 덕이 있는 편이 더 낫다. 덕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덕에 대한 기억 속에 불사가 들

어 있기 때문이다.

- 2 덕이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본받고 없을 때에는 그것을 갈구한다. 고결한 상을 놓고 벌인 경기의 승리자, 덕은 영원의 세계에서 화관을 쓰고 행진한다.
- 3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자손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다. 그 사생아들은 아무도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여 바탕이 튼튼할 수가 없다.
- 4 잠시 줄기를 뺏는다 하여도 단단히 서 있지 못하여 바람에 흔들리다가 세찬 바람에 뿌리째 뽑히고 만다.
- 5 그 가지들은 자라키도 전에 꺾여 나가고 열매는 쓸모가 없다. 익지 않아 먹지 못하고 달리 쓸 데도 없다.
- 6 부정한 잠자리에서 생겨난 자식들은 재판 때에 부모가 저지른 죄악의 증인이 된다.

의인의 요절과 악인의 장수

- 7 의인은 때 이르게 죽더라도 안식을 얻는다.
- 8 영예로운 나이는 장수로 결정되지 않고 살이 온 햇수로 셈해지지 않는다.
- 9 사람에게는 예지가 곧 백발이고 티 없는 삶이 곧 원숙한 노년이다.
- 10 하느님 마음에 들어 그분께 사랑받던 그는 죄인들과 살다가 자리가 옮겨졌다.
- 11 악이 그의 이성을 변질시키거나 거짓이 그의 영혼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들어 올려진 것이다.
- 12 악의 마력은 좋은 것들을 무색하게 만들고 숫구치는 욕망은 순수한 정신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 13 짧은 생애 동안 완성에 다다른 그는 오랜 세월을 채운 셈이다.
- 14 주님께서는 그 영혼이 마음에 들어 그를 악의 한가운데에서 서둘러 데려가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 일을 마음에 두지도 않았다.

- 15 곧 은총과 자비가 주님께 선택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 당신의 거룩한 이들을 돌보신다는 것이다.
- 16 죽은 의인이 살아 있는 악인들을, 일찍 죽은 젊은이가 불의하게 오래 산 자들을 단죄한다.
- 17 그들은 현인의 죽음을 보면서도 주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바라셨는지, 그를 왜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셨는지 깨닫지 못한다.
- 18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냉소하지만 오히려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 19 그들은 나중에 수치스러운 송장이 되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영원히 치욕을 받을 것이다. 그분께서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는 그들을 바닥으로 내동댕이치시고 밀바탕부터 뒤흔드시어 그들은 완전히 쇠망한 채 고통을 받고 그들에 대한 기억마저 사라질 것이다.

십판대 앞에 선 의인과 악인

- 20 자기들의 죄가 날날이 헤아려질 때에 그들이 떨며 다가오면 그들의 죄악이 그들 면전에서 고발할 것이다.

- 5 ¹ 그때에 의인은 커다란 확신을 가지고 자기를 괴롭힌 자들 앞에, 자기의 노고를 경멸한 자들 앞에 나설 것이다.
- 2 악인들은 의인을 보고 극심한 공포로 떨며 그 뜻밖의 구원에 깜짝 놀랄 것이다.
- 3 그들은 후회하고 마음이 괴로워 신음하며 저희끼리 말할 것이다.
- 4 "저자는 우리가 한때 웃음거리로, 놀림감으로 삼던 자가 야난가? 우리는 어리석기도 하였구나! 우리는 그의 삶을 미친 짓이라고, 그의 죽음을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였지.
- 5 그런데 어떻게 하여 저자가 하느님의 아들 가운데 들고 거룩한 이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게 되었는가?

- 6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의 길을 벗어났고 정의의 빛이 우리를 비추지 않았으며 해가 우리 위로 떠오르지 않은 것이다.
- 7 우리는 불법과 파멸의 엉덩퀴에 말려든 채 인적 없는 광야를 걸어가며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 8 우리의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었으며 자랑스럽던 그 큰 재산이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었는가?
- 9 그 모든 것은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소문처럼 사라져 버렸다.
- 10 그것은 배가 높은 물결을 헤치고 갈 때와 같다. 한번 지나가면 자취를 찾을 수 없고 파도 속에 용골이 지난 흔적도 없다.
- 11 또 새가 창공을 날아갈 때와 같다. 그것이 지나간 자리는 다시 찾을 수 없다. 새는 것으로 가벼운 공기를 치고 그것을 가르며 세차게 날아올라 날갯짓으로 떠나지만 그 뒤에는 날아간 형적을 공기 중에서 찾을 수 없다.
- 12 또 화살이 표적을 향하여 날아갈 때와 같다. 공기가 갈라졌다 곧바로 다시 합쳐져 날아간 길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 13 우리도 이처럼 태어나자마자 사라져 버린 것. 남에게 보일 만한 덕의 형적조차 남기지 못하고 악으로 우리 자신을 소모하였을 뿐이다."
- 14 악인의 희망은 바람에 날리는 검불 같고 태풍에 흩날리는 가벼운 거품 같다. 그것은 바람 앞의 연기처럼 흩어지고 단 하루 머물렀던 손님에 대한 기억처럼 흘러가 버린다.

의인들이 받을 영광

- 15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히 산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상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그들을 보살피신다.

- 16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의 손에서 영화로운 왕관을 받고 아름다운 머리띠를 받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감싸 주시고 당신의 팔로 그들을 지켜 주실 것이다.
- 17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원수들을 징벌하시려고 당신의 열정을 갑옷으로 입으시고 온 피조물을 무장시키실 것이다.
- 18 또 정의를 가슴받이로 두르시고 어김없는 공정을 투구로 쓰시며
- 19 거룩함을 무적의 방패로 잡으시고
- 20 준엄한 진노를 갈아 칼로 만드실 것이다. 그러면 온 세상이 주님 편에 서서 미친 자들과 싸울 것이다.
- 21 잘 겨냥된 번개가 화살처럼 날아가는데 잘 당긴 활에서 튀어 나가듯 표적을 향해 구름에서 튀어 나가고
- 22 분노에 찬 우박들이 투석기에서처럼 쏟아지며 바닷물이 그들을 향해 몰아치고 강물이 그들을 가차 없이 덮칠 것이다.
- 23 거센 바람이 불어 다쳐 폭풍처럼 그들을 날려 버릴 것이다. 이처럼 불뱀 때문에 온 세상이 황폐해지고 악행 때문에 지배자들의 권좌가 뒤엎어질 것이다.

지혜를 찾아라

6

- 1 임금들아, 들아라. 그리고 깨달아라. 세상 끝까지 통치하는 자들아, 배워라.
- 2 많은 백성을 다스리고 수많은 민족을 자랑하는 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 3 너희의 권력은 주님께서 주셨고 통치권은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주셨다. 그분께서 너희가 하는 일들을 점검하시고 너희의 계획들을 검열하신다.
- 4 너희가 그분 나라의 신하들이면서도 올바르게 다스리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으며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 5 그분께서는 지체 없이 무서운 모습으로 너희에게 들이닥치실 것이다. 정녕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은 엄격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 6 미친한 이들은 자비로 용서를 받지만 권력자들은 엄하게 재판을 받을 것이다.
- 7 만물의 주님께서서는 누구 앞에서도 움츠러들지 않으시고 누가 위대하다고 하여 어려워하지도 않으신다. 작거나 크거나 다 그분께서 만드셨고 모두 똑같이 생각해 주신다.
- 8 그러나 세력가들은 엄정하게 심리하신다.
- 9 그러니 군주들아,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듣고 지혜를 배워 탈선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 10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것을 익힌 이들은 변호를 받을 것이다.
- 11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말을 갈망하고 갈구하면 가르침을 얻을 것이다.

지혜는 찾기 쉽다

- 12 지혜는 바래지 않고 늘 빛이 나서 그를 사랑하는 이들은 쉽게 알아보고 그를 찾는 이들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 13 지혜는 자기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미리 다가가 자기를 알아보게 해 준다.
- 14 지혜를 찾으러 일찍 일어나는 이는 수고할 필요도 없이 자기 집 문간에 앉아 있는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
- 15 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완전한 예지다. 지혜를 얻으려고 깨어 있는 이는 곧바로 근심이 없어진다.
- 16 지혜는 자기에게 맞갖은 이들을 스스로 찾아 돌아다니고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상냥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그들의 모든 생각 속에서 그들을 만나 준다.
- 17 지혜의 시작은 가르침을 받으려는 진실한 소망이다.
- 18 가르침을 받으려고 염원함은 지혜를 사랑

하는 것이고 지혜를 사랑함은 그 법을 지키는 것이며 법은 따름은 불멸을 보장받는 것이고

- 19 불멸은 하나님 가까이 있게 해 주는 것이다.
 20 그리하여 지혜를 향한 소망은 사람으로 이루어 준다.
 21 그러니 민족들을 다스리는 군주들이 너희가 왕좌와 왕홀을 즐기거든 지혜를 존중하여라. 그러면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다.

솔로몬이 알려 주는 지혜

- 22 이제 나는 지혜가 무엇이며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려 주겠다. 너희에게 어떠한 신비도 감추는 일 없이 지혜가 생겨난 시초부터 자취를 더듬으며 그에 대하여 이는 바를 분명하게 드러내는데 진리에서 벗어나지도 않고
 23 사람을 씹는 시기를 결코 길벗으로 삼지도 않았다. 시기는 지혜와 자리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다.
 24 현자가 많음은 세상의 구원이며 현명한 임금은 백성의 안경이다.
 25 그러니 내 말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라. 너희에게 득이 될 것이다.

솔로몬도 한낱 인간이었다

- 7 ¹ 나도 다른 모든 이와 마찬가지로 죽어야 할 인간으로서 흠으로 빚어진 첫 사람의 후손이다. 어머니 배 속에서 몸이 풀을 갖추었고
 2 한 남자의 씨와 잠자리의 쾌락을 통하여 열달 동안 피로 뭉쳐졌다.
 3 나도 태어나서는 같은 공기를 들이며 같은 땅에 떨어졌으며 첫 소리로 다른 모든 이와 마찬가지로 우는 것이었고
 4 포대기에 싸여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났다.
 5 입급도 모두 인생을 똑같이 시작한다.

- 6 삶의 시작도 끝도 모든 이에게 한가지다.

솔로몬은 지혜를 존중하였다

- 7 그래서 내가 기도하자 나에게 예지가 주어지고 간청을 올리자 지혜의 영이 나에게 왔다.
 8 나는 지혜를 왕홀과 왕좌보다 더 좋아하고 지혜에 비기면 많은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며
 9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석도 지혜와 견주지 않았다. 온 세상의 금도 지혜와 마주하면 한 줌의 모래이고 은도 지혜 앞에서는 진흙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10 나는 지혜를 건강이나 미모보다 더 사랑하고 빛보다 지혜를 갖기를 선호하였다. 지혜에서 끊임없이 광채가 나오기 때문이다.
 11 지혜와 함께 좋은 것이 다 나에게 왔다. 지혜의 손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산이 들려 있었다.
 12 지혜가 이끌고 왔으므로 나는 그 모든 것을 즐겼다. 그러나 그것들이 지혜의 소산임을 몰랐다.
 13 나는 욕심 없이 배웠으니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지혜가 지닌 많은 재산을 감추지 않는다.
 14 지혜는 사람들에게 한량없는 보물, 지혜를 얻은 이들은 그 가르침이 주는 선물들의 추천으로 하나님의 베푼 것이다.

모든 지식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지혜

- 15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의 뜻에 따라 말하고 내가 받은 것들에 맞춘 생각을 하게 해주시기를 빈다. 그분께서 바로 지혜의 인도자이시고 현인들의 지도자이시며
 16 우리 자신과 우리의 말이, 모든 예지와 일숨씨가 그분 손안에 있기 때문이다.
 17 바로 그분께서 만물에 관한 어김없는 지식을 주셔서 세계의 구조와 기본 요소들의 활동을 알게 해주셨다.

- 18 또 시간의 시작과 끝과 중간 동지 하지의
변경과 계절의 변화
- 19 해가 바뀌는 것과 별자리
- 20 짐승들의 본능과 야수들의 성질 영들의 힘
과 사람들의 생각 갖가지 식물과 그 뿌리
의 효험을 알게 해 주셨다.
- 21 그리하여 나는 감추어진 것도 드러난 것도
알게 되었으니

지혜의 본성

- 22 모든 것을 만든 장인인 지혜가 나를 가르
친 덕분이다. 지혜 안에 있는 정신은 명석
하고 거룩하며 유일하고 다양하고 섬세하
며 민첩하고 명료하고 청결하며 분명하고
손상될 수 없으며 선을 사랑하고 예리하며
- 23 자유롭고 자비롭고 인자하며 항구하고 확
고하고 평온하며 전능하고 모든 것을 살핀
다. 또 명석하고 깨끗하며 아주 섬세한 정
신들을 모두 통찰한다.
- 24 지혜는 어떠한 움직임보다 재빠르고 그 순
수함으로 모든 것을 통달하고 통찰한다.
- 25 지혜는 하느님 권능의 숨결이고 전능하신
분의 영광의 순전한 발산이어서 어떠한 오
점도 그 안으로 기어들지 못한다.
- 26 지혜는 영원한 빛의 광채이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활동의 티 없는 거울이며 하느님
선하심의 모상이다.
- 27 지혜는 혼자이면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
고 자신 안에 머무르면서 모든 것을 세롭
게 하며 대대로 거룩한 영혼들 안으로 들
어가 그들을 하느님의 빛과 예언자로 만든
다.
- 28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지혜와 함께 사는 사
람만 사랑하신다.
- 29 지혜는 해보다 아름답고 어떠한 별자리보
다 빼어나며 빛과 견주어 보아도 그보다
더 밝음을 알 수 있다.
- 30 밤은 빛을 밀어내지만 악은 지혜를 이겨

내지 못한다.

8¹ 지혜는 세상 끝에서 끝까지 힘차게
퍼져 가며 만물을 훌륭히 통솔한다.

지혜는 덕을 가르치는 스승

- 2 나는 지혜를 사랑하여 젊을 때부터 찾았으
며 그를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애를 썼다.
나는 그 아름다움 때문에 사랑에 빠졌다.
- 3 지혜는 하느님과 같이 살아 자기의 고귀한
태생을 빚었으며 만물의 주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였다.
- 4 지혜는 하느님의 지식을 전해 받아 하느님
께서 하실 일을 선택하는 이가 되었다.
- 5 살아가면서 많은 재산을 갖는 것이 바람직
하다면 모든 것을 이루는 지혜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 있겠는가?
- 6 예지가 능력이 있다면 만물을 지어 낸 장인
인 지혜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것이 어디
있겠는가?
- 7 누가 의로움을 사랑하는가? 지혜의 노고에
덕이 따른다. 장님 지혜는 절제와 예지를,
정의와 용기를 가르쳐 준다. 사람이 사는
태에 지혜보다 유익한 것은 없다.
- 8 누가 폭넓은 경험을 원하는가? 지혜는 과거
를 알고 미래를 예측하며 명언을 지어 내고
수수께끼를 풀 줄 알려 표징과 기적을, 시간
과 시대의 변천을 미리 안다.

삶의 반역자인 지혜

- 9 그래서 나는 지혜를 맞아들여 함께 살기로
작정하였다. 지혜가 나에게 좋은 조언자가
되고 근심스럽고 슬플 때에는 격려가 됨을
알았기 때문이다.
- 10 나는 지혜 덕분에 백성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고 젊으면서도 원로들에게 존경을 받으
며
- 11 재관할 때에는 예리하다고 인정받고 권력
자들은 나를 보고 경탄할 것이다.

- 12 내가 침묵하면 그들은 기다리고 말을 하면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길게 이야기하면 감탄하여 손을 입에 갖다 댈 것이다.
- 13 나는 지혜 덕분에 불사에 이르고 내 뒤에 오는 이들에게 영원한 기억을 남길 것이다.
- 14 나는 백성들을 통솔하고 민족들은 나에게 복종하며
- 15 무서운 군주들도 내 소문을 들으면 두려워할 것이다. 백성에게는 선한 모습을 보이고 전쟁에서는 용맹할 것이다.
- 16 또 집에 들어가면 지혜와 함께 편히 쉬리니 그와 함께 지내는 데에 마음 쓰라릴 일이 없고 그와 같이 사는 데에 괴로울 일이 없으며 기쁨과 즐거움만 있기 때문이다.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

- 17 나는 이러한 사실을 혼자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숙고한 끝에 지혜와 맺는 가족 관계에 불사가 있고
- 18 그와 맺는 우정에 온전한 환희가, 그가 손수 하는 일에 한량없이 많은 재산이, 그와 함께 쌓는 정분에 예지가, 그와 나누는 대화에 명성이 있음을 알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집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하고 돌아다녔다.
- 19 나는 재능을 타고났으며 훌륭한 영혼을 받은 아이였다.
- 20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훌륭한 영혼으로서 티 없는 육체 안으로 들어갔다.
- 21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달리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지혜가 누구의 선물인지 아는 것부터가 예지의 덕분이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호소하고 간청하며 마음을 다하여 이뤄졌다.

지혜를 청하는 기도

- 9 ¹ "조상들의 하나님, 자비의 주님! 당신께서는 만물을 당신의 말씀으로

만드시고

- 2 또 인간을 당신의 지혜로 빚으시어 당신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통치하게 하시고
- 3 세상을 거룩하고 의롭게 관리하며 올바른 영혼으로 판결을 내리도록 하셨습니다.
- 4 당신 어좌에 자리를 같이한 지혜를 저에게 주시고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저를 내쫓지 말아 주십시오.
- 5 장님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 연약하고 덧없는 인간으로서 재판과 법을 아주 조금밖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 6 사실 사람들 가운데 누가 완전하다 하더라도 당신에게서 오는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 7 당신께서는 저를 당신 백성의 임금으로, 당신 아들딸들의 재판관으로 뽑으셨습니다.
- 8 또 당신의 거룩한 산에 성전을 짓고 당신께서 거처하시는 성읍에 제단을 만들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신께서 처음부터 준비하신 거룩한 천막을 본뜬 것입니다.
- 9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아는 지혜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께서 세상을 만드실 적에도 지혜가 곁에 있었습니다. 지혜는 당신 눈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 계명에 따라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 10 거룩한 하늘에서 지혜를 파견하시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어좌에서 지혜를 보내시어 그가 제 곁에서 고생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 11 지혜는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기에 제가 일을 할 때에 저를 지혜롭게 이끌고 자기의 영광으로 저를 보호할 것입니다.
- 12 그러면 제가 하는 일이 당신께 받아들여지고 또 당신의 백성을 의롭게 재판하여 제 아버지의 왕좌에 앉은 자가 될 것입니다.
- 13 어떠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헤

아릴 수 있었습니까?

- 14 죽어야 할 인간의 생각은 보잘것없고 저희의 속마음은 변덕스럽습니다.
- 15 썩어 없어질 육신이 영혼을 무겁게 하고 흠으로 된 이 천막이 시름겨운 정신을 짓누릅니다.
- 16 저희는 세상 것도 거의 짐작하지 못하고 손에 닿는 것조차 거의 찾아내지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밝혀낸 자 어디 있었습니까?
- 17 당신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고 그 높은 곳에서 당신의 거룩한 영을 보내지 않으시면 누가 당신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까?
- 18 그러나 그렇게 해 주셨기에 세상 사람들의 길이 올바르게 되고 사람들이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으며 지혜로 구원을 받았습시다."

선조들을 이롭게 준 지혜

- 10 ¹ 세상에서 처음으로 빛어진 조상, 홀로 창조된 그를 지혜가 보호하고 그가 지은 죄에서 구해 주었으며
- 2 그에게 만물을 통치할 힘을 주었다.
- 3 그러나 불의한 자가 분노하며 지혜에게 등을 돌리더니 광분하여 제 동기를 살해한 탓에 죽어 없어지고 말았다.
- 4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홍수에 잠기자 지혜는 한 의인을 변변찮은 나뭇조각에 실어서 이끈 끝에 세상을 다시 구하였다.
- 5 악을 저지르기로 합심한 민족들이 혼란에 빠졌을 때 지혜는 한 의인을 가려내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도록 지켜 주고 자식에 대한 애정을 이기도록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 6 지혜는 악인들이 아주 멸망할 때에 의인 하나를 구해 내어 다섯 성읍에 떨어지는 불을 피하여 달아나게 해 주었다.
- 7 그들이 저지른 악의 증거가 아직도 남아 있으니 줄곧 연기가 피어오르는 황무지, 때가

되어도 익지 않는 열매를 매단 나무들, 만지 않는 영혼의 기념비로 서 있는 소금 기둥이다.

- 8 지혜를 무시한 그들은 선을 깨닫지 못하게 방해할 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이들에게 어리석음의 기념물까지 남겨 그들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9 그러나 지혜는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곤경에서 구해 내었다.
- 10 의인이 형의 분노를 피하여 달아날 때 지혜는 그를 바른길로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 주었으며 거룩한 것들을 알려 주었다. 고생하는 그를 번영하게 하고 그 노고의 결실이 불어나게 하였으며
- 11 착취자들이 탐욕을 부릴 때에 그 곁에 있어 주고 그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 12 또 그를 원수들에게서 지키고 매복한 적들에게서 보호하였으며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을 때에 그에게 승리를 주어 깊은 신심이 그 무엇보다도 강함을 깨닫게 해주었다.
- 13 의인이 팔려 갈 때에 지혜는 그를 버리지 않고 죄악에서 구해 내었으며
- 14 또 그와 함께 구덩이로 내려가고 사슬에 묶였을 때에 그를 저버리지 않았다. 마침내는 그에게 나라의 왕홀과 그를 지배하던 자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주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한 자들의 거짓을 밝히고 그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해 낸 지혜

- 15 거룩한 백성, 흠 없는 종족을 지혜는 압박자들의 나라에서 구해 내었다.
- 16 지혜는 주님을 섬기는 종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 기적과 표징들을 일으키며 무서운 임금들과 맞섰다.
- 17 거룩한 이들에게 그 노고에 맞는 상급을 주고 그들을 놀라운 길로 이끌었다. 낮에

는 그들에게 그들이 되어 주고 밤에는 별 빛이 되어 주었다.

- 18 또 그들을 향해 너머로 데려가고 깊은 물을 가로질러 인도하였다.
- 19 그들의 원수들을 물로 뒤덮었다가 깊은 바다 밑바닥에서 위로 내던져 버렸다.
- 20 그리하여 의인들이 악인들에게서 전리품을 거두고 나서 주님,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고 자기들을 지켜 주신 당신의 손을 한마음으로 찬양하였습니다.
- 21 지혜가 말 못하는 이들의 입을 열어 주고 아기들의 혀가 똑똑히 말하게 해 준 것입니다.

11 ¹ 지혜는 거룩한 예언자를 통하여 그들이 하는 일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 2 그들은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를 건너 인적 없는 곳에 천막을 쳤습니다.
- 3 그들은 적들과 맞서고 원수들을 물리쳤습니다.
- 4 목마른 그들이 당신께 간청하자 깎아지른 듯한 바위에서 물이, 단단한 돌에서 목마름을 풀어 주는 것이 나왔습니다.

나일 강의 물과 바위에서 나온 물

- 5 이렇게 그들의 원수들에게는 징벌의 도구가 되었던 바로 그것이 곤경에 빠진 그들에게는 득이 되었습니다.
- 6 샘물처럼 끊임없이 흐르던 강물이 피와 뒤엉켜 더럽혀지니
- 7 아기들을 죽이라는 명령에 대한 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뜻밖에도 물을 넉넉히 주셨습니다.
- 8 그때에 그들은 목마름을 겪고 당신께서 적대자들을 어떻게 징벌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 9 자비의 징계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그 시련

을 받으면서 진노의 심판을 받는 악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깨달았습니다.

- 10 당신께서는 자식들을 훈계하는 아버지처럼 그들을 시험하셨지만 저들은 사람을 단죄하는 엄격한 임금처럼 철저히 조사하셨습니다.
- 11 저들은 그들이 떠나고 없을 때에도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괴로움을 겪었으니
- 12 지난 일들을 생각하며 쏟아 내는 탄식과 함께 이중의 슬픔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 13 저들은 바로 자기들이 받는 징벌로 그들이 득을 보았다는 것을 듣고 주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 14 또 오래전에 내버려진 그들 조롱하며 물리쳤지만 일이 일어난 다음에는 그에게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들은 의인들과 다른 방식으로 목마름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신중한 징벌

- 15 바른길에서 지각없는 길짐승들과 불꽃없는 벌레들을 숭배하게 한 저들의 미련하고 불의한 생각에 대하여 당신께서는 벌을 내리시려고 지각없는 생물들을 떼 지어 보내셨습니다.
- 16 사람이 죄를 지은 바로 그것들로 징벌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 17 당신의 전능하신 손, 무형의 물질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손이 꿈의 무리나 사나운 자들을 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 18 새로 창조되어 알려지지 않은 포악한 야수들도, 입김 대신에 불을 뿜어 대는 야수들도, 악취 가득한 연기를 내뿜는 야수들도, 눈에서 무서운 불꽃을 내쫓는 야수들도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 19 이것들이 끼치는 해악이 저들을 몰살시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악을 일으키는

그 모습만으로도 저들을 전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 20 이것들이 아니더라도 저들은 정의에 쫓기고 당신 권능의 입김에 흠어져 한 번의 입김만으로도 고프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재고 헤아리고 달아서 처리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진노와 사랑

- 21 당신께서는 언제든지 막강한 힘을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당신 팔의 힘을 당해 낼 수 있었겠습니까?
- 22 온 세상에 당신 앞에서는 천칭의 조그마한 추 같고 이른 아침 땅에 떨어지는 이슬방울 같습니다.
- 23 그러나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에 모든 사람에게 자비하시고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그들의 죄를 보아 넘겨 주십니다.
- 24 당신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도 혐오하지 않으십니다. 당신께서 지어 내신 것을 싫어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 25 당신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면 무엇이 존속할 수 있었으며 당신께서 부르지 않으셨다면 무엇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겠습니까?
- 26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기에 당신께서는 모두 소중히 여기십니다.

12 ¹ 당신 불멸의 영이 만물 안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 ² 그러므로 주님, 당신께서는 탈선하는 자들을 조금씩 꾸짖으시고 그들이 무엇으로 죄를 지었는지 상기시키며 훈계하시어 그들이 악에서 벗어나 당신을 믿게 하십니다.

가나안인들에게 내린 하느님의 신중한 징벌

- ³ 당신의 거룩한 땅에 살던 옛 주민들,
- ⁴ 당신께서는 그들의 가증스러운 관습 때문에, 마술과 불경한 제사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셨습니다.
- ⁵ 아이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음복한다며 사람의 살과 피에다가 내장까지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광란의 의식이 한창 벌어질 때에 그 참가자들을
- ⁶ 힘없는 생명들을 살해한 그 부모들을 당신께서는 저희 조상들을 통하여 멸망시키시어
- ⁷ 모든 땅 가운데에서 당신께 가장 값진 이 땅이 하느님의 자녀들이 훌륭한 이주민을 받게 하셨습니다.
- ⁸ 그러나 저들도 인간이기에 당신께서는 소중히 여기시고 당신 군대의 선봉으로 말벌들을 보내시어 저들을 조금씩 멸망시키게 하셨습니다.
- ⁹ 당신께서는 싸움터에서 저 악인들을 의인들 손에 넘기실 수도, 무서운 야수나 엄중한 말 씀으로 단번에 파멸시키실 수도 있었습니다.
- ¹⁰ 그러나 당신께서는 조금씩 심판하시어 저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물론 당신께서는 저들이 근본부터 악하고 악을 타고났으며 그들의 사교방식이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 ¹¹ 사실 저들은 처음부터 저주받은 종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이 저지른 죄를 당신께서 용서하신 것은 누가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의 주권은 정의의 원천

- ¹² 누가 감히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당신의 심판에 반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신께서 만드신 민족들을 스스로 멸망시키신 일을 두고 누가 당신을 비난할 수 있었습니까? 누가 불의한 인간들의 변호인으로 당신과 맞설 수 있었습니까?

- 13 만물을 돌보시는 당신 말고는 하나님이 없 습니다. 그러니 당신께서는 불의하게 심판 하지 않으셨음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습니 다.
- 14 또 당신께서 징벌하신 자들을 두고 어떠한 임금이나 군주도 당신과 대결할 수 없습니 다.
- 15 당신께서는 의로우신 분으로 만물을 의롭 게 관리하시니 징벌을 받을 까닭이 없는 이를 단죄하는 것을 당신의 권능에 맞지 않는 일로 여기십니다.
- 16 당신의 힘이 정의의 원천입니다. 당신께서 는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을 지니고 계시므로 만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 17 정녕 당신의 완전한 권능이 불신을 받을 때에만 당신께서는 힘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이는 이들에게는 오만한 자세를 질책하 십니다.
- 18 당신께서는 힘의 주인이시므로 너그럽게 심판하시고 저희를 아주 관대하게 통솔하 십니다. 당신께서는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때에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관대함의 교훈

- 19 당신께서는 이렇게 하시어 의인은 인지해 야 힘을 당신 백성에게 가르치시고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희망 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안겨 주셨습니다.
- 20 당신 자녀들의 원수들로서 죽어 마땅한 자 들에게까지 악에서 벗어날 시간과 기회를 배부시며 그토록 주의와 배려를 다하여 처 벌하셨다면
- 21 당신의 자녀들은 얼마나 신중하게 심판하 셧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당신 께서는 맹세와 계약으로 좋은 약속들을 해 주셨습니다.
- 22 저희는 그냥 벌하시지만 저희의 원수들은 만 번을 더 책책질하시니 저희가 남을 심

판할 때에는 당신의 선하심을 잘 생각하고 심판을 받을 때에는 자비를 기대하라는 것 입니다.

관용 뒤의 엄벌

- 23 그러므로 어리석게도 불의하게 살아온 자 들에게 당신께서는 저들의 그 역겨운 것들 로 고통을 주셨습니다.
- 24 저들은 잘못된 길로 더욱더 빛나가 짐승 가운데에서도 가장 추하고 천한 것들을 신 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리석은 아이들처 럼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 25 그래서 당신께서는 철없는 아이들에게 하 시듯 저들에게 벌을 보내시어 저들을 조롱 하셨습니다.
- 26 그렇게 부드러운 질타를 받고도 혼계로 삼 지 않는 자들은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심 판을 받을 것입니다.
- 27 고통을 당하고 자기들이 신으로 여겼던 바 로 그것들로 징벌을 받아 그것들에게 화가 난 저들은 사실을 보고서야 자기들이 전에 알아 모시기를 거부하던 그분께서 참하느 남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 들은 가장 무거운 단죄를 받았습니다.

자연 승배의 아름다움

- 13 ¹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그 안에 들어 찬 사람들은 본디 모두 이듯하여 눈 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보면서도 존재하지 는 분을 보지 못하고 작품에 주의를 기울이 면서도 그것을 만든 장인을 알아보지 못하 였다.
- 2 오히려 불이나 바람이나 빠른 공기, 별들의 무리나 거친 물, 하늘의 빗물체들을 세상을 통치하는 신들로 여겼다.
- 3 그 아름다움을 보는 기쁨에서 그것들을 신 으로 생각하였다면 그 주님께서는 얼마나 홀륭하신지 그들은 알아야 한다. 아름다움

- 을 만드신 분께서 그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 4 또 그것들의 힘과 작용에 감탄하였다면 바로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만드신 분께서 얼마나 힘이 세신지 알아야 한다.
- 5 피조물의 웅대함과 아름다움으로 미루어 보아 그 창조자를 알 수 있다.
- 6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크게 탓할 수는 없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랐지만 그러는 가운데 빗나갔을지도 모른다.
- 7 그들은 그분의 업적을 줄곧 주의 깊게 탐구하다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도 아름다워 그 겉모양에 정신을 빼앗기고 마는 것이다.
- 8 그러나 그들이라고 용서받을 수는 없다.
- 9 세상을 연구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을 아는 힘이 있으면서 그들은 어찌하여 그것들의 주님을 더 일찍 찾아내지 못하였는가?

이상 승배의 야생새

- 10 생명 없는 것들에 희망을 거는 자들도 불쌍하다. 그들은 사람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 솜씨 좋게 다듬어진 금과 은, 동물들의 상, 또 옛적에 어떤 손이 다듬어 놓았다는 쓸모없는 돌을 신이라고 부른다.
- 11 목수를 보라. 그는 일하기 쉬운 나무를 톱으로 쳐서 능숙하게 꺾질을 다 벗겨 내고 능란하게 솜씨를 부려 살림에 쓸모 있는 기물을 만들어 낸다.
- 12 일하다가 남은 나뭇조각들은 음식을 만드는 데에 쓴다. 그리고 배불리 먹는다.
- 13 그러고도 쓸데없는 조각이 남는데 목수는 구부러지고 마디가 많은 그 나무토막을 가져다가 한가한 때에 정성을 들여 깎는다. 여가의 일거리로 그것을 손질하여 사람 모양으로 만들거나
- 14 불뿔하는 짐승과 비슷한 것으로 만들어 황토색을 입히고 그 위에다 다시 붉은색을

칠하여 거기에 있는 흠을 맡김히 없앤다.

- 15 그다음 그것에 맞는 집을 만들어 벽 속에 넣고 쇠로 고정시킨다.
- 16 목수는 그것이 떨어지지 않게 마음을 쓴다. 그 물건이 자신을 돌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녕 목상에 불과한 것으로 남이 도와주어야 한다.
- 17 그런데도 재산이나 혼인이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생명 없는 그것에 대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무력한 것에 대고 간강을 위하여 간청하고
- 18 죽은 것에 대고 생명을 위하여 청원한다. 무능하기 짝이 없는 것에 대고 도움을 탄원하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에 대고 여행을 위하여
- 19 또 생계와 일과 생업의 성공을 위하여 손에 능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에 대고 힘이 되어 주기를 빈다.

또 다른 이상 승배

- 14¹ 또 어떤 자는 항해를 준비하고 거친 파도를 헤쳐 가려고 하면서 자기를 데려다 줄 배보다 더 깨지기 쉬운 나뭇조각에 대고 바랍니다.
- 2 배는 이득을 바라는 마음이 고안해 내고 장인의 지혜가 만들어 낸 것입니다.
- 3 그러나 아버지, 그것을 조종하는 것은 당신의 섭리입니다. 당신께서 바다에 길을, 파도 속에 안전한 항로를 놓아 주셨습니다.
- 4 당신께서는 어떠한 위험에서도 구할 수 있음을 보여 주셔서 기술이 없는 이도 항해수 있게 하셨습니다.
- 5 당신께서는 당신 지혜의 업적이 허사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조그마한 나뭇조각에 목숨을 내맡긴 채 뗏목을 타고 물결을 헤치며 무서히 바다를 건넌다.
- 6 그래서 한처음에 오만한 거인들이 멸망할

때에도 세상의 희망이 뗏목에 몸을 피하여 당신 손의 인도 아래 새 세대의 씨를 세상에 남겼습니다.

7 그러하여 정의가 나온 그 나무는 복을 받으십니다.

8 그러나 사람 손으로 만든 우상은 물론 그것을 만든 자도 저주를 받는다. 그는 그것을 제작하였기 때문이고 그 썩어 없어질 것은 신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9 하느님께는 악인과 그의 악행이 똑같이 가증스러워

10 그 물건은 그것을 만든 자와 함께 징벌을 받을 것이다.

11 그러므로 이민족의 우상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들이 하느님의 창조물 사이에서 역겨운 것이 되고 사람들의 영혼에 올 가미가, 어리석은 이들의 발에 밟히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의 기원

12 우상들을 만들려는 생각이 간음의 시작이고 우상들을 고안해 내는 것이 삶의 타락이다.

13 그것들은 한처음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영원히 있을 것도 아니다.

14 우상들은 인간의 허영 때문에 세상에 들어왔으니 그것들이 얼마 못 가 끝장난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다.

15 때 이르게 자식을 잃고 슬픔에 잠긴 아비가 갑자기 빼앗긴 자식의 상을 만들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은 사람에게 지나지 않던 것을 신으로 공경하며 자기 권술에게 비밀 의식과 제사를 끌어들었다.

16 그 불경한 관습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굳어지고 법처럼 지켜졌으며 군주들의 명령으로 그 조각상들이 숭배를 받았다.

17 또 멀리 살아 군주를 눈앞에서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멀리에서 그 모습을 속으

로 그리며 자기들이 공경하는 그 임금의 상을 눈에 띄게 만들고서는 열성에 겨워 자리에 있지도 않은 자에게 마치 있는 것처럼 이침한다.

18 그리고 장인의 야심은 임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우상 숭배를 퍼뜨리도록 부추겼다.

19 그는 아마도 통치자의 환심을 사려고 숨썰다 부러서 그 닳은 모습을 더 아름답게 꾸렸을 것이다.

20 백성은 그 작품의 매력에 이끌려 얼마 전까지 인간으로 공경하던 자를 경배의 대상으로 여겼다.

21 이것이 인간에게 함정이 되어 불행이나 권력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하느님만 가질 수 있는 이름을 돌과 나뭇조각에 붙였다.

우상 숭배의 결과

22 하느님을 잘못 아는 것만으로는 모자라는지 그들은 무지 때문에 일어나는 격렬한 싸움 속에 살아가면서 그토록 커다란 여러 악을 평화라고 부른다.

23 아이들을 죽여 제사를 지내거나 비밀 의식을 거행하면서 또는 이상한 예식으로 광란의 향연을 벌이면서

24 자기들의 삶도 혼인도 더 이상 깨끗이 지키지 않고 음흉한 방식으로 서로 죽이고 간통을 하여 서로 괴롭힌다.

25 모든 것이 뒤엉켜 있다. 유행과 살인, 도둑질과 사기, 부패, 불신, 폭동, 위증

26 가치의 혼란, 배은망덕, 영혼의 부패, 성도 착, 혼인의 무질서, 간통과 방탕이 뒤엉켜 있다.

27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이 모든 악의 시작이고 원인이며 끝이다.

28 그 숭배자들은 미친 듯이 열광하거나 거짓 예언을 하고 불의하게 살아가거나 거침없이 거짓 증언을 한다.

- 29 생명 없는 우상들을 신뢰하기에 악한 맹세를 해 대면서도 해를 입으리라고는 생각하지도 않는다.
- 30 그러나 두 가지 이유로 그들에게 형벌이 내릴 것이다. 우상들에게 정신을 빼앗겨 하느님을 잘못 생각하였기 때문이고 거룩한 것을 무시하면서 거짓으로 불의한 맹세를 하였기 때문이다.
- 31 불의한 자들의 범죄를 언제나 뒤쫓는 것은 맹세할 때에 이름을 부르는 우상들의 힘이 아니라 죄를 저지르는 자들에게 내리는 징벌이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은 이스라엘

- 15** ¹ 저희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어지시고 진실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만물을 자비로 통솔하십니다.
- ² 저희가 죄를 짓더라도 당신의 권능을 알기에 저희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당신의 것으로 여겨짐을 알기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 ³ 당신을 앳은 온전한 정의이고 당신의 권능을 깨달음은 불사의 뿌리입니다.
- ⁴ 인간의 간악한 상상이 만들어 낸 작품도, 화공들의 보람 없는 노고도 저희를 피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색깔을 칠해 놓은 조각상일 따름입니다.
- ⁵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을 보지만 하여도 욕망이 일어 목숨이 없는 죽은 형상의 그 조각상을 갈구합니다.
- ⁶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갈구하는 자와 숭배하는 자는 악을 사랑하는 자들로 그들이 희망을 두는 그런 것들이나 어울리는 자들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의 야씨름

- ⁷ 용기장이가 부드러운 흙을 열심히 개어 우리에게 쓸모 있는 갖가지 그릇을 빚습니다.

같은 진흙을 가지고 깨끗한 일에 쓰일 기물도 반대되는 일에 쓰일 것도 다 같은 방식으로 빚어냅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어디에 쓰일지는 도공이 결정합니다.

- ⁸ 그러가 하면 부질없는 수고를 하며 같은 진흙으로 헛된 신을 빚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도공 자신도 얼마 전에 흙에서 온 자로서 빌린 제 영혼을 머지않아 돌려주어야 할 때가 되면 자기가 나온 그 흙으로 가야 합니다.
- ⁹ 그럼에도 그는 자기가 죽어야 하는 것도 자기의 삶이 짧다는 것도 염려하지 않고 금세공인이나 은세공인과 경쟁하고 청동세공인을 흉내내며 모조품들을 빚는 것을 영광스러운 일로 여깁니다.
- ¹⁰ 그의 마음은 타 버린 재이고 그의 희망은 흙보다도 가치가 없으며 그의 삶은 진흙보다도 불뎀이 없습니다.
- ¹¹ 자기를 빚으시고 활동하는 영혼을 불어넣으셨으며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 분은 알지도 못한 채
- ¹² 저희의 생명을 놀이로, 저희의 삶을 돈벌이 축제로 여기며 모든 것에서, 나쁜 것에서도 이득을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 ¹³ 같은 흙을 재료로 써서 깨지기 쉬운 그릇도 조각상도 제작하는 그는 자기가 죄를 짓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이집트인들의 야씨름

- ¹⁴ 그러나 당신의 백성을 억압한 원수들이 가장 어리석고 어린아이의 영혼보다 더 비참합니다.
- ¹⁵ 저들은 다른 민족들의 우상들까지 모두 신으로 여겼습니다. 앞을 보려고 눈을 쓸 일이 없고 공기를 들이마실 콧구멍이 없고 소리를 들을 귀가 없고 무엇을 느낄 손가락이 없으며 밟은 걸는 데에 쓸모가 없는 우상들을 말합니다.

- 16 그것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숨을 빌려 사는 자가 빚은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도 자기와 비슷한 신을 빚을 능력이 없습니다.
- 17 죽어야 할 인간이 사악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죽은 것뿐입니다. 자기가 경배하는 것들보다 그 자신이 더 낫습니다. 그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은 결코 그러하지 못합니다.
- 18 게다가 저들은 가장 가증스러운 동물들까지 숭배합니다. 우둔한 것으로 비교하자면 그것들이 다른 것들보다 더 심합니다.
- 19 그것들은 동물 가운데에서 탐낼 만큼 모습이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하느님께 받은 인정과 복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집트인들과 이스라엘인들: 해로운 동물들과 매추라기

- 16** ¹ 그래서 저들은 같은 동물들로 응분의 징벌을 받고 또 벌레 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 ² 그러나 당신의 백성에게는 당신께서 그 징벌과는 반대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식욕을 채워 주시려고 놀라운 맛이 나는 음식, 매추라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 ³ 저들은 음식을 몹시 바랐지만 당신께서 저들에게 보내신 생물들의 흉한 모습에 식욕이 완전히 가서 버렸습니다. 그러나 당신 백성은 어려움을 잠깐 겪은 뒤에 놀라운 맛이 나는 음식을 받았습니다.
- ⁴ 저 억압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야 했지만 당신의 백성에게는 원수들이 어떻게 고통을 받는지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였습니다.

해충들과 구리 뱀

- ⁵ 사나운 동물들이 무서운 기세로 당신 백성들에게 들이닥쳐 백성들이 그 구불거리는 뱀들에게 물려 죽어 갈 때 당신의 진노는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 ⁶ 그들은 경고의 표시로 잠깐 괴로움을 겪고 나서 당신 법의 계명을 상기시키는 구원의 표징을 받았습니다.
- ⁷ 눈을 돌린 이는 자기가 본 것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신 당신 덕분에 구원된 것입니다.
- ⁸ 이 일을 통해서도 당신께서는 저희의 원수들에게 모든 악에서 구해 내시는 분이 당신 이심을 확신시키셨습니다.
- ⁹ 저들은 매뚜기와 파리에게 물려 죽어 가는데 그 목숨을 살릴 약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그러한 것들로 징벌을 받아 마땅하였던 것입니다.
- ¹⁰ 그러나 독사의 이빨도 당신의 자녀들은 견디 못하였으니 당신의 자비가 도우려 내려와 그들을 고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 ¹¹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들은 이빨에 물렸다가 곧바로 구원되었습니다. 깊은 땅 각에 빠지지 말고 당신의 선행을 늘 염두에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 ¹² 그들을 낮게 해 준 것은 약초나 연고가 아닙니다. 주님, 그것은 모든 사람을 고쳐 주는 당신의 말씀입니다.
- ¹³ 당신은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권한을 가지신 분, 저승 문으로 내려 보내기도 하시고 끌어 올리기도 하십니다.
- ¹⁴ 사람은 자기의 악으로 남을 죽일 수는 있지만 한 번 나간 숨을 돌이킬 수도 없고 저승에 들어간 영혼을 풀어 줄 수도 없습니다.

우박과 만나

- ¹⁵ 아무도 당신 손을 피하여 달아날 수 없습니다.
- ¹⁶ 당신을 알아 모시기를 거부하는 악인들은 당신의 억센 팔에 채찍질을 당하고 이상한 비와 우박과 그치지 않는 폭우에 쫓기고

불에 타 죽었습니다.

- 17 더욱 놀라운 일은 모든 것을 꺼 버리는 물 속에서 불이 더 세차게 타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우주가 의인들 편에 서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 18 한때는 불길이 수그러져 악인들에게 보내진 동물들을 타 죽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악인들은 그 광경을 보고 하느님의 심판이 자기들을 쫓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 19 또 어떤 때에는 그 불길이 물 한가운데에서 어떤 불보다도 뜨겁게 타올라 불의한 땅의 소출을 망쳐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 20 그러나 당신의 백성은 당신께서 천사들의 음식으로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들의 노고 없이 미리 준비된 빵을 하늘에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빵은 갖가지 맛을 낼 수 있는 것, 모든 입맛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 21 당신의 양식은 자녀들을 향한 당신의 달콤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것을 받는 이의 소원을 채워 주고 저마다 원하는 대로 모양이 변하는 양식이었습니다.
- 22 그 눈과 얼음은 불을 견디어 내며 녹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박 속에서도 타오르고 빗 속에서도 반짝거리는 그 불이 원수들의 수확물은 망쳐 버렸지만
- 23 의인들은 먹고 살게 하려고 그 본연의 힘까지도 잊어버렸음을 알라는 뜻이었습니다.
- 24 피조물은 자기를 만드신 당신을 시중들며 불의한 자들을 징벌하는 데에는 그 힘이 팽팽해지고 당신을 신뢰하는 이들에게는 득이 되도록 그 힘이 느슨해집니다.
- 25 그래서 피조물은 그때에도 온갖 형태로 바뀌면서 궁핍한 이들의 바람에 따라 모든 이를 먹여 살리는 당신의 선물로 쓰였습니다.
- 26 그리하여 주님,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은 여러 가지

곡식이 아니라 당신을 믿는 이들을 돌보는 당신의 말씀임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 27 불에도 없어지지 않던 그것이 잠깐 비치는 햇살에 따뜻해지자 그냥 녹아 버린 것은
- 28 당신께 감사하기 위하여 해 뜨기 전에 일어나야 하고 동틀 녘에 당신께 기도해야 함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 29 고마움을 모르는 자의 희망은 겨울 서리처럼 녹아 버리고 쓸데없는 물처럼 흘러가 버립니다.

암흑과 불통

- 17 ¹ 당신의 판결들은 위대하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 들이지 않은 영혼들이 빛나간 것입니다.
- 2 저 무도한 자들은 자기들이 거룩한 민족을 잡고 있다고 여겼지만 저들 자신이 암흑의 포로요 긴 밤의 죄수로서 영원한 섭리에서 추방된 채 자기 집 자방 밑에 갇혔습니다.
- 3 저들은 자기들의 은밀한 죄가 망각의 어두운 휘장에 가리어 들이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지만 몹시 겁에 질리고 환영으로 혼란에 빠져 흩어져 갔습니다.
- 4 저들을 보호해 주던 구석진 곳도 더 이상 그들을 공포에서 지켜 주지 못하였습니다. 사방에서는 무서운 소리가 들려오는데 침울한 얼굴을 한 음침한 유령들까지 나타났습니다.
- 5 어떠한 불도 빛을 내기에 충분한 힘이 없었고 밝게 빛나던 별빛도 그 끽찍한 밤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 6 저절로 타오르는 무시무시한 불덩어리만 저들을 내리비쳤는데 그 광경이 사라지자 저들은 공포에 떨며 방금 본 것을 더 불길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 7 마술의 속임수도 소용이 없고 저들이 뿔내던 예지도 창피스럽게 면박만 받았습니다.
- 8 병든 영혼에게서 공포와 불안을 몰아내 주

- 겠다고 약속하던 자들 자신이 우스꽝스러운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 9 어떤 무서운 것이 저들을 두렵게 하지도 않았는데 별레가 지나가거나 갈짐승이 식육 움직이는 소리에도 겁을 먹고
- 10 하늘 보는 것을 피할 수 없는데도 그마저 마다하고 잔을 속에 죽어 갔습니다.
- 11 악이란 비열한 것으로서 제 입으로 자신을 단죄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늘 어려움을 더해 가지만 합니다.
- 12 두려움은 이성의 도움을 포기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 13 속으로 그 도움을 덜 기대할수록 고통을 초래하는 까닭을 모르는 편이 낫다고 여깁니다.
- 14 무기력한 자승의 후미진 곳에서 올라온 밤, 참으로 무기력한 그 밤에 저들은 모두 같은 잠에 빠졌습니다.
- 15 예기치 않던 공포가 갑자기 저들에게 들이닥쳐 때로는 기괴한 유령들에게 쫓기고 때로는 영혼의 자포자기로 몸이 마비되었습니다.
- 16 그때에 그곳에서 이렇게 쓰러진 자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꼼짝도 못하였습니다.
- 17 그가 농부이거나 목자이거나 광야에서 힘든 일을 하는 일꾼이거나 다 공포에 사로잡혀 피할 수 없는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 18 정녕 저들은 모두 같은 암흑의 사슬에 묶였던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소리에도 길게 뻗은 가지에서 들리는 아름다운 새소리에 도장단 맞추어 세차게 흐르는 물소리에도
- 19 굴러 떨어지는 바위들의 요란한 소리에도 뛰어다니는 동물들의 보이지 않는 달음질에도 아주 사나운 야수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에도 산골짜기에서 울려오는 메아리 소리에도 저들은 공포에 질려 몸이 마비되

어 버렸습니다.

- 20 온 세상이 밝은 빛을 받으며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제 일을 하였지만
- 21 저들에게만은 무거운 밤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밤은 저들을 삼켜 버릴 암흑의 표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들에게는 자신이 암흑보다 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18 ¹ 당신의 거룩한 이들에게는 아주 큰 빛이 비쳤습니다. 저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소리만 듣고서 그들은 고통을 받지 않으니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하였었습니다.

- 2 또 전에 학대를 받았으면서도 지금 자기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음을 고맙게 여기면서 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용서를 청하였습니다.
- 3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암흑 대신에 타오르는 불기둥을 전혀 모르는 여행길의 인도자로, 영광스러운 아주 길의 해돋이 않은 태양으로 주셨습니다.
- 4 그러나 저들은 빛을 빼앗기고 암흑 속에 갇혀 마땅한 자들로 울분이 지닌 불멸의 빛을 세상에 전해 줄 당신의 자녀들을 붙잡아 두었던 자들입니다.

민이들의 죽음과 광야에서의 죽음

- 5 저들이 거룩한 이들의 이야기들을 죽이려고 하였을 때 아이 하나만 버려졌다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는 저들을 벌하 시려고 저들의 수많은 아이를 없애시고 저들까지도 다 함께 거센 물로 파멸시키셨습니다.
- 6 그 밤이 저희 조상들에게는 벌써 예고되었으니 그들이 어떠한 맹세들을 믿어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용기를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 7 그리하여 당신의 백성은 의인들의 구원과

- 원수들의 파멸을 기대하였습니다.
- 8 과연 당신께서는 저희의 적들을 처벌하신 그 방법으로 저희를 당신께 부르시고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 9 선인들의 거룩한 자녀들은 몰래 희생 제물을 바치고 한마음으로 하느님의 법에 동의하였습니다. 그 법은 거룩한 이들이 모든 것을 다 같이, 성공도 위험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벌써 조상들의 찬미가들을 불렀습니다.
- 10 다른 쪽에서는 귀에 거슬리는 원수들의 절규가 메아리치고 자식을 잃고 통곡하는 애처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 11 저들은 종이건 주인이건 같은 징벌을 받고 평민이건 임금이건 같은 고통을 받았으며
- 12 모두 같은 모양으로 죽어 주검을 헤아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귀중하기 짝이 없는 저들의 소생들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여 그들을 묻어 줄 산 사람조차 충분하지 않았습다.
- 13 저들은 요술에 마음을 빼앗겨 아무것도 믿지 않았지만 자기들의 만이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 백성이 하느님의 자녀들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14 부드러운 정적이 만물을 뒤덮고 시간은 흘러 한밤중이 되었을 때
- 15 당신의 잔능한 말씀이 하늘의 왕좌에서 사나운 전사처럼 멸망의 땅 한가운데로 뛰어 내렸습니다.
- 16 그는 당신의 단호한 명령을 날카로운 칼처럼 차고 우뚝 서서 만물을 죽음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가 땅 위에 서니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 17 그러자 곧바로 무서운 꿈속에서 환상들이 나타나 저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예기치 않던 공포가 저들을 덮었습니다.
- 18 저들은 반죽음 상태로 여기저기 쓰러진 채 왜 그렇게 죽어 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 19 저들을 불안하게 한 그 꿈이 저들에게 앞일을 예고하여 저들이 그토록 고통을 받는 이유도 모르는 채 파멸하지 않게 한 것입니다.
- 20 의인들도 죽음을 겪었습니다. 광야에서 많은 이가 재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진노가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 21 흠 없는 사람 하나가 그들을 보호하는 투사로 뛰어들어 자기 직무의 방패 곧 기도와 속죄의 분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그 분노에 맞서서 재앙에 끝을 내고 자기가 당신의 종임을 드러내었습니다.
- 22 그가 그 격분을 이겨 낸 것은 육체의 힘도 아니고 무기들의 효력도 아니었습니다. 조상들에게 주어진 맹세와 계약을 상기시키면서 말씀으로 징벌자를 누그러뜨렸습니다.
- 23 사람들이 쓰러져 주검들이 이미 무더기로 쌓였을 때 그가 그 가운데에 서서 격노를 멈추게 하고 산 이들에게 가는 길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 24 발까지 닿는 그의 옷에는 온 우주가 그려져 있고 닉 줄로 박은 보석에는 조상들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그의 머리쓰개에는 당신의 위대함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 25 그것들을 보고 파괴자는 물러서면서 그것들을 두려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의인들은 진노를 겪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였던 것입니다.

두 민족이 바다에서 겪은 파멸과 구원

- 19¹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무지비한 분노가 끝까지 덮였습니다. 저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하느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 2 저들이 당신의 백성에게 떠나라고 허락하여 서둘러 내보내고 나서는 마음을 바꾸어 그들을 뒤쫓으리라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 3 저들은 한창 애도하다가 죽은 이들의 무덤

에서 통곡하다가 또 다른 미련한 결정을 짓고서 간청을 하며 쫓아 보면 그들을 도망자인 양 뒤쫓아 나섰습니다.

4 악인들에게 마땅한 숙명이 저들을 그 같은 극단으로 몰고 가면서 이미 일어난 일들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저들의 고통에 아직 남아 있는 징벌을 마저 채우게 하였습니다.

5 그리하여 당신의 백성은 경이로운 여행길을 체험하는 동안 저들은 이상한 죽음을 맞게 하였습니다.

6 당신의 명령에 따라 온 피조물의 본성이 저마다 새롭게 형성되어 당신의 자녀들이 해를 입지 않고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7 진영 위는 구름이 덮여 주고 물이 있던 곳에서는 마른땅이 나타나는 것이 보였으며 홍해는 장애물이 없는 길로, 거친 파도는 풀 많은 벌판으로 바뀌었습니다.

8 당신 손길의 보호를 받는 이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온 민족이 그곳을 건너갔습니다.

9 그들은 풀을 뜯는 말을 같았습니다. 또 어린 양들처럼 이리저리 뛰면서 주님, 자기들을 구해 내신 당신을 찬양하였습니다.

10 그들은 나그네살이 때에 겪은 일들을 생각하였습니다. 땅이 동물들을 내는 대신에 어떻게 모기들을 내놓았는지 강이 물고기 대신에 어떻게 수많은 개구리를 뱉어 내었는지 다시 생각하였습니다.

11 그 뒤 그들은 욕심에 이끌려 맞은 음식을 청하였을 때 새로운 종류의 새도 보았습니다.

12 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바다에서 메추라기들이 올라온 것입니다.

13 맹렬한 번개로 징조가 주어지 뒤에야 죄인들에게 징벌이 내렸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악행에 따라 응분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저들이 이방인들을 지독하게 미워하였기 때문입니다.

14 다른 자들은 자기들에게 온 낮은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저들은 자기들의 은인인 이방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15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자들도 이국인들을 적개심으로 대한 탓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6 그런데 저들은 자기들과 이미 권리를 공유하는 이들을 잔치를 베풀며 받아들이고서는 무서운 노역으로 못살게 굴었던 것입니다.

17 그리하여 의인의 문 곁에서 다른 자들이 겪은 것처럼 저들도 벌을 받아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짙은 암흑이 사방을 에워싸자 저들은 모두 제집 문마져 더듬어 찾아야 했습니다.

5장 14절 탈출과 자연

18 이렇게 자연의 근본 요소들 사이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금을 뜯을 때에 소리는 늘 같으면서도 음률의 성격이 음표에 따라 바뀌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 실제로 육지 동물들이 수중 동물로 변하고 해엄치는 동물들이 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20 불은 물속에서 제 힘을 더 드러내고 물은 불을 끄는 제 본성마저 잊어버렸습니다.

21 불꽃은 또 반대로 그 속에서 걸어 다니는 약한 동물들의 몸을 태우지도 않고 얼음처럼 쉬 녹는 성질의 천상 음식을 녹이지도 않았습니다.

미무리 찬송

22 주님, 당신께서는 모든 일에서 당신 백성을 들어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해 주셨으며 언제 어디에서나 그들을 도와주시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성경 - 28

시서와지혜 - 7

집 회 서

총 51 장

총 1,409 절

[구약성경]-[집회서]

마름

1¹ 율법과 예언서와 그 뒤를 이은 다른 글들을 통하여 위대한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많이 전해졌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을 그 교훈과 지혜와 관련하여 칭송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것들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배우기를 즐기며, 말과 글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할아버지 예수께서는 율법과 예언서와 다른 선조들의 글을 읽는 일에 오랫동안 전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충분한 소양을 갖추시고, 교훈과 지혜에 대한 글을 몸소 쓰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것은 배우기를 즐기는 사람들과 이 글에 친숙해진 사람들이 율법에 따른 생활을 하여 더욱 진보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호의를 가지고 이 글을 주의 깊게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성껏 번역하였지만 어떤 표현들은 제대로 옮길 수 없었다고 여겨지니 이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말 표현들을 다른 말로는 똑같이 옮길 수 없습니다. 이 글들뿐 아니라 율법서조차도 그리고 예언서와 나머지 글들도 원문과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에우에르케테스 임금 통치 삼십팔 년에 저는 이집트가 얼마 동안 머물면서, 적지 않은 교훈이 담긴 이 책의 사본을 발견하고, 정성껏 열심히 이 글을 반드시 번역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 책을 완성하여 내놓기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자며 온갖 지식을 다 기울였습니다. 저는 이국 땅에 살면서 배우기를 즐기고, 율법에 맞는 생활 습관을 익히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 책을 펴냅니다.

사리의 지혜

제 1 부 지혜와 금언들

지혜의 신비

- 1 모든 지혜는 주님에게서 오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다.
- 2 누가 바다의 모래와 빗방울과 영원의 날들을 셀 수 있으랴?
- 3 누가 하늘의 높이와 땅의 넓이를, 심연과 지혜를 헤아릴 수 있으랴?
- 4 지혜는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창조되었고 명철한 지각도 영원으로부터 창조되었다.
- 5 지혜의 근원은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이며 지혜의 길은 영원한 계명이다.
- 6 지혜의 뿌리가 누구에게 계시되었으며 지혜의 놀라운 업적을 누가 알았느냐?
- 7 지혜의 슬기가 누구에게 나타났으며 지혜의 풍부한 경험을 누가 이해하였느냐?
- 8 지극히 경외해야 할 지혜로운 이 한 분 계시니 당신의 옥좌에 앉으신 분이시다.
- 9 주님께서서는 지혜를 만드시고 알아보며 헤아리실 뿐 아니라 그것을 당신의 모든 일에,
- 10 모든 피조물에게 후한 마음으로 쏟아 부으셨으며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주님의 사랑은 영광스러운 지혜이며 그분께서는 당신을 보여 주실 이들에게 지혜를 배부하시어 당신을 알아보게 하신다.

주님을 경외함

- 11 주님을 경외함은 영광과 자랑이요 즐거움과 환희의 화관이다.
- 12 주님을 경외함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거움과 기쁨과 장수를 허락한다. 주님을 경외함은 주님에게서 오는 선물이며 실제로 그분께서는 사랑으로 길을 바로잡아 주신다.
- 13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끝이 좋고 죽음의 날에 복을 받으리라.

- 14 지혜의 시작은 주님을 경외함이며 지혜는 믿는 이들과 함께 모테에서 창조되었다.
- 15 지혜는 사람들 가운데에 영원한 기초를 세우고 그들의 자손들과 함께 존속하리라.
- 16 지혜의 충만은 주님을 경외함이며 지혜는 제 열매로 사람들을 취하게 한다.
- 17 지혜는 그들의 온 집을 보물로 가득 채우고 제 수확으로 곳간을 채워 준다.
- 18 지혜의 화관은 주님을 경외함이며 지혜는 평화와 건강을 꽃피운다. 경외심과 지혜를 다 평화를 위해 주어진 하느님의 선물로서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자랑거리를 더해 준다.
- 19 그분께서는 지혜를 알아보고 헤아리신다. 지혜는 슬기와 명철한 지식을 비처럼 쏟아 붓고 자신을 붙드는 이들의 영광을 들어 높인다.
- 20 지혜의 뿌리는 주님을 경외함이며 지혜의 가지는 오래 삶이다.
- 21 주님을 경외함은 죄를 멀리하게 하고 이 경외심이 머무는 곳에서는 모든 분노가 사라진다.

인내와 자제

- 22 불의한 격분은 정당화할 수 없으니 그 격분의 저울추가 그자의 파멸로 기울기 때문이다.
- 23 참을성 있는 사람이 때가 오기까지 견디면 나중에 그가 기쁨을 얻으리라.
- 24 때가 오기까지 자신의 말을 삼가면 수많은 입술이 그의 예지를 이야기하리라.

지혜와 바른 행동

- 25 지혜의 보고 안에는 현명한 격언이 있으나 죄인에게는 하느님을 섬기는 일이 역겨움이다.
- 26 지혜를 원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주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베푸시리라.
- 27 정녕 주님을 경외함은 지혜요 교훈이며 믿

음과 온유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 28 주님을 경외함에 불신감을 갖지 말고 두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지 마라.
- 29 사람들 앞에서 위선을 부리지 말고 네 입술을 조심하여라.
- 30 너 자신을 들어 높이지 마라. 떨어질까 두렵다. 네 영혼에게 불명예를 자초하지 마라. 주님께서 네 비밀을 폭로하시어 회중 한 가운데에서 너를 내던져 버리시리라. 네가 주님께 경외심을 갖고 나아가지 않았고 네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시련 속에서 주님을 경외함

- 2 ¹ 애야, 주님을 섬기러 나아갈 때 너 자신을 시련에 대비시켜라.
- 2 네 마음을 바로잡고 확고히 다지며 재난이 닥칠 때 허둥대지 마라.
- 3 주님께 매달려 떨어지지 마라. 네가 마지막에 번창하리라.
- 4 너에게 닥친 것은 무엇이나 받아들이고 처지가 바뀌어 비천해지더라도 참고 견뎌라.
- 5 금은 불로 단련되고 주님께 맞갖은 이들은 비천의 도가니에서 단련된다. 질병과 가난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여라.
- 6 그분을 믿어라, 그분께서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길을 바로잡고 그분께 희망을 두어라.
- 7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그분의 자비를 기다려라. 빛나가지 마라. 넘어질까 두렵다.
- 8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그분을 믿어라. 너희 상급을 결코 잃지 않으리라.
- 9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좋은 것들과 영원한 즐거움과 자비를 바라라. 그분의 보상은 기쁨을 결집인 영원한 선물이다.
- 10 지난 세대를 살펴보아라. 누가 주님을 믿고서 부끄러운 일을 당한 적이 있느냐? 누가 그분을 경외하면서 지내다가 버림받은 적이 있느냐? 누가 주님께 부르짖는데 소홀

히 하신 적이 있느냐?

- 11 주님께서는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재난의 때에 구해 주신다.
- 12 불행하여라, 비겁한 마음과 게으른 손, 두 길을 걷는 죄인!
- 13 불행하여라, 믿지 않는 까닭에 나약한 마음! 그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리라.
- 14 불행하여라, 인내심을 잃어버린 너희! 주님께서서 벌하러 오실 때 너희는 무엇을 하리오?
- 15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은 그분의 길을 지킨다.
- 16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찾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은 그분의 율법으로 만족한다.
- 17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마음을 가다듬어 그분 앞에서 스스로 자신들을 낮춘다.
- 18 "인간의 손에 내맡기지 말고 주님의 손에 자신을 내맡기자. 정녕 그분의 위엄이 크신 것처럼 그분의 자비도 크시다."

부도에 대한 의무

- 3** ¹ 애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라. 그 대로 실천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 2 주님께서 자녀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를 보장하셨다.
 - 3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 4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을 쌓는 이와 같다.
 - 5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 6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장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는 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한다.
 - 7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자신을 낳아 준 부모를 상전처럼 섬긴다.

- 8 말과 행동으로 네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그의 축복을 받으리라.
- 9 아버지의 축복은 자녀들의 집안을 튼튼하게 해 주고 어머니의 저주는 집안을 뿌리째 뽑는다.
- 10 아버지를 욕되게 하여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지 마라. 아버지의 치욕이 네게 영광이 될 수는 없다.
- 11 사람의 영광은 제 아버지의 명예에서 나오고 어머니가 불명예스러우면 그 자녀들은 비난거리가 된다.
- 12 애야, 네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 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 13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네 힘을 다하여라.
- 14 아버지에 대한 효행은 잊혀지지 않으니 네 죄를 상쇄할 여지를 마련해 주리라.
- 15 네가 재난을 당할 때 네가 기억되리니 네 죄가 따뜻한 날 서리처럼 녹아내리리라.
- 16 아버지를 버리는 자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자와 같고 자기 어머니를 화나게 하는 자는 주님께 저주를 받는다.

겸손

- 17 애야, 네 일을 온유하게 처리하여라. 그러면 선물하는 사람보다 네가 더 사랑을 받으리라.
- 18 네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더욱 낮추어라. 그러면 주님 앞에서 총애를 받으리라.
- 19 높고 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온유한 이들에게 당신의 신비를 보여 주신다.
- 20 정녕 주님의 권능은 크시고 겸손한 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 21 너에게 너무 어려운 것을 찾지 말고 네 힘에 부치는 것을 파고들지 마라.
- 22 너는 명령을 받은 일에만 전념하여라. 숨겨

진 일은 너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 23 네 일이 아닌 것에 간섭하지 마라. 내가 보는 그 일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다.
- 24 그들의 억측이 많은 이들을 빗나가게 하고 악의에 찬 망상이 그들의 생각을 흐트치게 한다.
- 25 눈동자가 없으면 빛을 보지 못한다. 이는 게 없으면 큰소리치지 마라.

자만심

- 26 고집 센 마음은 마지막에 불행을 겪고 위험을 즐기는 자는 그 위험으로 망하리라.
- 27 고집 센 마음은 고생으로 짓눌리고 죄인은 죄악에 죄악을 쌓으리라.
- 28 거만한 자의 재난에는 약이 없으니 악의 잡초가 그 안에 뿌리내렸기 때문이다.
- 29 현명한 마음은 격언을 되새긴다. 주의 깊은 귀는 지혜로운 이가 바라는 것이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자선

- 30 물은 타오르는 불을 끄고 자선은 죄를 없앤다.
- 31 은혜를 갚는 이는 앞날을 내다보는 것이니 그가 넘어질 때에 도움을 얻으리라.

4 ¹ 애야, 가난한 이의 살길을 막지 말고 궁핍한 눈들을 기다리게 하지 마라.

- 2 배고픈 사람을 서럽게 하지 말고 곤경에 빠진 사람을 화나게 하지 마라.
- 3 화난 마음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없는 이에게 베푸는 일을 마루지 마라.
- 4 재난을 당하여 호소하는 이를 물리치지 말고 가난한 이에게서 네 얼굴을 돌리지 마라.
- 5 애걸하는 이에게서 눈을 돌리지 말고 그에게 너를 저주할 발미를 주지 마라.
- 6 그가 비참한 삶 속에서 너를 저주하면 그를 만드신 분께서 그의 호소를 들어 주시리라.

- 7 회중이 너를 사랑하게 하고 웃어른에게 머리를 숙여라.
- 8 가난한 이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에게 평화의 인사를 상냥하게 건네어라.
- 9 억눌린 이를 억누르는 자의 손에서 구출하고 네가 심판을 내릴 때에는 심약해지지 마라.
- 10 고아들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고 그들의 어머니에게 남편 노릇을 해 주어라. 그러면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되고 그 분께서 네 어머니보다 더 너를 사랑해 주시리라.

교육자의 자세

- 11 지혜는 자신의 아들들을 키워 주고 자신을 찾는 이들을 보살피 준다.
- 12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고 이른 새벽부터 지혜를 찾는 이들은 기쁨에 넘치리라.
- 13 지혜를 볼드는 이는 영광을 상속받으리니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 14 지혜를 받드는 이들은 거룩하신 분을 섬기고 주님께서서 지혜를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신다.
- 15 지혜에 순종하는 이는 민족들을 다스리고 지혜에 귀 기울이는 이는 안전하게 살리라.
- 16 그가 지혜를 신뢰하면 지혜를 상속받고 그의 후손들도 지혜를 얻으리라.
- 17 지혜는 처음에 그와 더불어 가지밭길을 걷고 그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몰고 오리라. 지혜는 그를 신뢰할 때까지 자신의 규율로 그를 단련시키고 자신의 바른 규범으로 그를 시험하리라.
- 18 그러고 나서 지혜는 곧 돌아와 그를 즐겁게 하고 자신의 비밀을 보여 주리라.
- 19 그가 탈선하면 지혜는 그를 버리고 그를 파멸의 손아귀에 넘기리라.

비른 차선과 인격 존중

- 20 때를 살피고 악을 경계하여 너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여라.
- 21 죄로 이끄는 부끄러움도 있고 영광과 은총인 부끄러움도 있다.
- 22 자신에 대해 편견을 가지지 말고 너를 파멸로 이끄는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마라.
- 23 필요한 때에 말을 삼가지 말고 우아하게 보이려고 지혜를 감추지 마라.
- 24 말에서 지혜가, 말씨에서 교양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 25 진리를 거스르는 말을 하지 말고 네 무지를 부끄러워하여라.
- 26 죄의 고백을 수치스러워하지 말고 강물의 흐름을 거스르지 마라.
- 27 어리석은 자에게 굽실거리지 말고 통치자를 편파적으로 우대하지 마라.
- 28 진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싸워라. 주 하느님께서 네 편을 들어 싸워 주시리라.
- 29 오만하게 말하지 말고 게으르고 부주의하게 행동하지 마라.
- 30 네 집 안에서 사자처럼 굴지 말고 종들을 닮지 마라.
- 31 받아 내려고 손을 내밀지 말고 깊어야 할 때 손을 거두지 마라.

재산과 지만

- 5** ¹ 재산을 믿지 말고 "넉넉하다." 고 말하지 마라.
- 2 너 자신과 네 힘을 붙들지 말고 마음의 욕망을 따르지 마라.
 - 3 "누가 나를 억누르리오?" 하고 말하지 마라. 주님께서 기필코 징벌하시리라.
 - 4 "죄를 지었어도 내게 아무 일도 없었지 않은가?" 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분노에 더디시기 때문이다.
 - 5 속죄를 과신하지 마라. 죄에 죄를 쌓을 뿐이다.
 - 6 "그분의 인자함이 크사니 수많은 내 죄악이

속죄받으리라." 고 말하지 마라. 정녕 자비도 분노도 다 그분께 있고 그분의 진노가 죄인들 위에 머무르리라.

- 7 주님께 돌아가기를 미루지 말고 하루하루 늦추려 하지 마라. 정녕 주님의 분노가 갑자기 들이닥쳐 너는 징벌의 날에 완전히 망하리라.
- 8 부정함 재산을 믿지 마라. 정녕 재난의 날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리라.

확고한 신념

- 9 아무 바람에나 키질하지 말고 아무 길에나 들어서지 마라. 두 혀를 지닌 죄인의 짓이 그러하다.
- 10 네가 깨친 바를 굳게 지키고 네 말을 한결 같이 하여라.
- 11 듣기는 빨리하고 대답은 신중히 하여라.
- 12 네가 이해했거든 이웃에게 대답하여라. 그러지 못했거든 손을 입에 얹어라.
- 13 영광과 치욕은 말에 있고 인간의 혀는 파멸이 될 수도 있다.
- 14 중상꾼으로 불리지 않도록 하고 네 혀로 울가미를 놓지 마라. 부끄러움이 도둑에게 닥치고 얽한 단죄가 두 혀를 지닌 자에게 떨어지리라.
- 15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소홀히 하지 말고

- 6** ¹ 친구가 되어야지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고약한 평판은 치욕과 비난을 불러들인다. 두 혀를 지닌 죄인의 짓이 그러하다.
- 2 힘센 내가 황소처럼 찢기지 않도록 자신을 마음 내키는 대로 들어 높이지 마라.
 - 3 너는 내 일사귀를 먹어 치워 열매를 망치고 너 자신을 마른 장작같이 남겨 놓으리라.
 - 4 사악한 정신은 그 사람을 파괴하고 그를 원수들의 놀림감으로 만들리라.

- 5 부드러운 말씨는 친구들을 많게 하고 우아한 말은 장중한 인사를 많이 받게 한다.
- 6 너와 화목하게 지내는 친구들을 많이 만들되 조언자는 천 명 가운데 하나만을 골라라.
- 7 친구를 얻으려거든 시험해 보고 얻되 서둘러 그를 신뢰하지 마라.
- 8 제 좋을 때에만 친구가 되는 이가 있는데 그는 네 고난의 날에 함께 있어 주지 않으리라.
- 9 원수로 변하는 친구도 있으니 그는 너의 수치를스러운 말디툼을 폭로하리라.
- 10 식탁의 친교나 즐기는 친구도 있으니 그는 네 고난의 날에 함께 있어 주지 않으리라.
- 11 그는 네가 잘될 때에는 너 자신인 양 행세하고 네 종들에게 마구 명령해 대리라.
- 12 그러나 네가 비천하게 되면 그는 너를 배반하고 네 앞에서 자취를 감추리라.
- 13 원수들을 멀리하고 친구들도 조심하여라.
- 14 성실한 친구는 든든한 피난처로서 그를 얻으면 보물을 얻은 셈이다.
- 15 성실한 친구는 값으로 따질 수 없으니 어떤 저울로도 그의 가치를 달 수 없다.
- 16 성실한 친구는 생명을 살리는 명약이니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그런 친구를 얻으리라.
- 17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자신의 우정을 바르게 키워 나가니 이웃도 그의 본을 따라 그 대로 하리라.

지혜의 획득

- 18 애야, 젊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라. 그래야 백발이 되어서도 지혜를 찾으리라.
- 19 발 가는 사람처럼, 썩 뿌리는 사람처럼 지혜에 다가서서 지혜의 온갖 좋은 열매를 기대하여라. 정녕 지혜를 가꾸는 데는 적은 수고를 들이나 곧 지혜의 소출을 맛보리라.
- 20 무지한 자들에게 지혜는 얼마나 어려운가! 미련한 자는 지혜 안에 머무를 수 없다.

- 21 이런 지에게 지혜는 무거운 들들 같아서 이내 떨어뜨리지 않을 수 없다.
- 22 지혜는 이름 그대로 지혜이니 많은 이들에게 드러나지 않는다.
- 23 애야, 들어라, 내 의견을 받아들이고 내 충고를 거부하지 마라.
- 24 네 두 발을 지혜의 차꼬에 밀어 넣고 네 목을 지혜의 큰칼에 밀어 넣으라.
- 25 어깨를 낮추어 지혜를 깊어지고 지혜의 사슬을 귀찮게 여기지 마라.
- 26 목숨을 다 바쳐 지혜에 다가가서 온 힘을 다해 지혜의 길을 지켜라.
- 27 찾고 구하여라, 그러면 지혜가 너에게 알려지리라. 지혜를 얻으면 놓치지 마라.
- 28 마침내 너는 지혜의 안식을 찾고 지혜는 너에게 기쁨이 되어 주리라.
- 29 지혜의 차꼬는 너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되고 그의 큰칼은 영광의 옷이 되리라.
- 30 지혜의 멍에는 금장식이고 그의 사슬은 자주색 끈이다.
- 31 너는 지혜를 영광의 옷으로 입고 지혜를 기쁨의 왕관으로 쓰리라.
- 32 애야, 네가 원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마음을 쏟으면 현명하게 될 수 있다.
- 33 듣기를 좋아하면 이해를 얻고 귀를 기울이면 지혜롭게 되리라.
- 34 원로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 서라. 그들의 지혜에 너 자신을 맡겨라.
- 35 하느님에 관한 온갖 담화를 즐겨 듣고 지혜로운 금언이 너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여라.
- 36 지각 있는 이를 보거든 이른 새벽부터 그를 찾아다니며 너의 발에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거려라.
- 37 주님의 법령을 되새기고 언제나 그분의 계명을 묵상하여라. 그분께서 네 마음을 든든히 잠아 주시고 갈망하는 지혜를 너에게 주시리라.

갓지 권고

- 7** ¹ 악을 저지르지 마라. 그러면 악이 너를 결코 덮치지 못하리라.
- 2** 불의를 멀리하여라. 불의가 너를 비켜 가리라.
- 3** 불의의 고통에 씨를 뿌리지 마라. 그 수확을 일곱 배로 거둘까 두렵다.
- 4** 주님에게서 권력을 구하지 말고 임금에게서 영광의 자리를 구하지 마라.
- 5** 주님 앞에서 의로운 채하지 말고 임금 앞에서 지혜로운 채하지 마라.
- 6** 불의를 뿌리 뽑을 능력이 없으면 판판이 되려고 애쓰지 마라. 그러지 않으면 네가 권력가의 편을 들고 네 정직함에 손상을 입게 되리라.
- 7** 성읍의 대중에게 죄를 짓지 말고 너 자신이 군중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하여라.
- 8** 같은 죄를 두 번 짓지 마라. 정녕 단 한 번의 죄라도 벌을 면할 수 없으리라.
- 9** "하느님께서 나의 많은 선물을 살피시고 내가 그것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바치면 받아 주시리라." 하지 마라.
- 10** 기도할 때 소심해지지 말고 자선을 베푸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라.
- 11** 참담한 지경에 빠져 있는 사람을 비웃지 마라. 낮추고 높이시는 분께서 계시다.
- 12** 네 형제에게 거짓을 꾸미지 말고 친구에게도 그런 짓을 하지 마라.
- 13** 어떤 거짓말도 허러 들지 마라. 거짓말을 거듭하면 끝이 좋지 않다.
- 14** 원로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할 때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 15** 힘든 일을 싫어하지 말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창조하신 들일을 싫어하지 마라.
- 16** 너는 죄인들의 무리에 끼지 말고 그분의 진노는 미루어지지 않음을 기억하여라.
- 17** 너 자신을 한껏 낮추어라. 불경한 자에 대

한 벌은 불과 구더기다.

친구와 가족

- 18** 친구를 돈 때문에 바꾸지 말고 친형제를 오피르의 금과 바꾸지 마라.
- 19** 지혜롭고 착한 아내를 버리지 마라. 그의 아름다움은 금보다 뛰어나다.
- 20** 성실하게 일하는 종을 박대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는 품팔이꾼을 박대하지 마라.
- 21** 현명한 종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에게서 자유를 빼앗지 마라.
- 22** 가족이 있느냐? 잘 보살피라. 그 가족이 네게 이득이 되면 잘 간수하여라.
- 23** 자녀가 있느냐? 그들을 훈육하고 어릴 때부터 그들이 목을 숙이게 하여라.
- 24** 딸들이 있느냐? 그들의 몸을 잘 지키고 그들을 너무 너그럽게 대하지 마라.
- 25** 딸을 시집보내라. 그래야 큰일을 끝내게 되리라. 그러나 지각 있는 남자에게 딸을 주어라.
- 26** 마음에 드는 아내가 있느냐? 그를 버리지 마라. 미워하는 여자에게는 자신을 맡기지 마라.
- 27** 마음을 다해 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어머니의 산고를 잊지 마라.
- 28** 네가 그들에게서 태어났음을 기억하여라. 그들이 네게 베푼 것을 어떻게 그대로 되 갚겠느냐?

사제들

- 29** 온 정신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사제들을 존경하여라.
- 30** 너를 만드신 분을 온 힘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봉사자들을 버리지 마라.
- 31** 주님을 경외하고 사제를 영광스럽게 하여라.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제에게 제물을 바치고 첫 소출과 속죄 제물과 짐승의 어깨 부분을 바치며 성별 제물과 거룩한 것들의 만물을 바쳐라.

가난한 이와 억눌린 이

- 32 네 복이 완전해지도록 가난한 이에게 네 손길을 뻗어라.
- 33 살아 있는 모든 이에게 호의를 베풀고 죽은 이에 대한 호의를 거두지 마라.
- 34 우는 이들을 버려두지 말고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슬퍼하여라.
- 35 병자 방문을 주저하지 마라.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으리라.
- 36 모든 언행에서 너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여라. 그러면 결코 죄를 짓지 않으리라.

현명한 처세

- 8 ¹ 권세가와 겨루지 마라. 네가 그의 손아귀에 떨어질까 두렵다.
- 2 부자와 다투지 마라. 그가 너를 짓누를까 두렵다. 황금이 많은 이들을 파멸시키고 임금들의 마음을 현혹시켰기 때문이다.
- 3 말 많은 사람과 겨루지 말고 그의 불 위에 장작을 쌓지 마라.
- 4 못된 자와 놀지 마라. 네 조상들이 수치를 당하리라.
- 5 죄악에서 돌아서는 사람을 꾸짖지 말고 우리 모두 죄인임을 기억하여라.
- 6 늙은 사람을 멸시하지 마라. 우리들도 늙어간다. 죽은 이를 두고 기뻐하지 말고 우리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여라.
- 7 지혜로운 이들의 이야기를 경시하지 말고 그들의 금언을 되새겨라.

정승

- 8 정녕 그들에게서 규범을 익히고 높은 사람을 섬기는 법을 배우리라.
- 9 노인들의 이야기를 소홀히 하지 마라. 그들 또한 조상들에게 배웠고 이제는 네가 그들에게서 지각과 적절한 때에 대답하는 법을 배우리라.

현명함

- 10 죄인의 숯불을 지피지 마라. 그의 불꽃에 타게 될까 두렵다.
- 11 거만한 자 앞에서 일어서지 마라. 그가 말 꼬투리를 잡으려고 복병처럼 노리리라.
- 12 너보다 힘센 사람에게 꾸어 주지 마라. 꾸어 주었으면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하여라.
- 13 네 능력을 넘어 보증을 서지 마라. 보증을 썼으면 대신 값을 각오를 하여라.
- 14 판결을 걸어 소송하지 마라. 그는 명에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하리라.
- 15 무모한 자와 길을 가지 마라. 너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려 하고 그의 어리석음으로 너도 망할 것이다.
- 16 화 잘 내는 자와 다투지 말고 그와 함께 외진 길을 가지 마라. 피 흘림도 그의 눈에는 대수롭지 않아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할 곳에서 너를 던지리라.
- 17 미련한 자와 상의하지 마라. 그는 비밀을 지킬 줄 모른다.
- 18 모르는 사람 앞에서 비밀스러운 일을 하지 마라. 그가 무슨 일을 저지르지 모른다.
- 19 아무에게나 네 마음을 드러내지 말고 그가 너에게 호의를 거두지 않게 하여라.

여자들

- 9 ¹ 네 품의 아내를 질투하지 마라. 그에게 너를 해칠 생각을 알게을까 두렵다.
- 2 너 자신을 여자에게 넘겨주어 그가 네 능력 위에 올라서지 못하게 하여라.
- 3 창부를 만나지 마라. 그의 닳아 걸릴까 염려된다.
- 4 가녀와 계속해서 사귀지 마라. 그의 계략에 넘어갈 수도 있다.
- 5 계집을 유심히 바라보지 마라. 그와 함께 벌을 받을까 두렵다.

- 6 창녀들에게 네 마음을 주지 마라. 유산을 탕진할까 두렵다.
- 7 읍내 거리에서 두리번거리지 말고 그곳의 으스스한 데서 서성거리지 마라. 몸매 예쁜 여자에게서 눈을 돌리고 남의 아내의 아름다움을 유심히 바라보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여자의 아름다움에 홀려 그에 대한 욕정을 불처럼 태운다.
- 8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같이 앉지 말고 그와 술자리를 가지지 마라. 네 마음이 그에게 이끌려
- 9 피를 흘리며 파멸로 치달을까 두렵다.

인간관계

- 10 옛 친구를 버리지 마라. 새로 사귄 친구는 옛 친구만 못하다. 새 친구란 새 술과 같은 법 오래되어야 재 맛이 난다.
- 11 죄인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의 종말이 어떠한지 모른다.
- 12 불경한 자들의 성공을 반기지 말고 그들이 죽을 때까지도 의롭게 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여라.
- 13 죽일 권한을 지닌 사람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리라. 그에게 접근했을 때는 실수하지 마라. 그가 너의 생명을 앗아 갈지도 모른다. 너는 지금 울기미를 사이를, 성읍 방벽 위를 걷고 있음을 명심하여라.
- 14 힘 닿는 대로 이웃들에게 다가가 지혜로운 이들에게 의견을 물어라.
- 15 지각 있는 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언제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에 대해 말하여라.
- 16 의로운 사람들과 식사를 함께하고 주님 경외하는 일을 자랑으로 삼아라.
- 17 일은 장인의 솜씨로 칭찬받고 백성의 지혜로운 지도자는 그 말로 칭찬받으리라.
- 18 수다스러운 자는 자신의 성읍에서 두려움

이 되고 조심성 없는 자는 자신의 말로 미움을 받으리라.

통치

- 10 **1** 지혜로운 판관은 자신의 백성을 가르치고 지각 있는 자의 통치는 질서 있게 이루어진다.
- 2 그 판관에 그 관리들이요 그 성주에 그 주민들이다.
- 3 수양이 부족한 임금은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하고 성읍은 권력가들의 현명함으로 번영한다.
- 4 세상의 권력은 주님 손에 달려 있으니 그분께서는 때에 맞춰 적절한 인물을 세우시리라.
- 5 인간의 성공은 주님 손에 달려 있으니 그분께서는 율법 학자에게 당신의 영광을 부여하시리라.

오만에 대한 경계

- 6 이웃의 잘못에 일일이 화내지 말고 거만한 행동은 조금도 하지 마라.
- 7 오만은 주님과 사람 앞에서 혐오스럽고 불의는 둘 다에게 역겹다.
- 8 왕권은 민족에서 민족으로 넘겨지는데 불의와 폭력과 재물 때문에 그렇게 된다. 돈을 밝히는 자보다 더 무도한 자는 없으니 그런 자는 제 영혼조차 팔려고 내놓기 때문이다.
- 9 먼지와 재가 뿜낼 수 있는가? 인간의 오장육부는 살아 생전에 벌써 썩어 간다.
- 10 오랜 병은 의사를 비롯하고 오늘은 임금이어도 내일이면 죽으리라.
- 11 인간이 죽으면 갈짐승과 들짐승과 벌레들 차지가 된다.
- 12 인간의 오만은 주님을 저버리는 데서 시작되니 인간의 마음이 그를 지으신 분에게서 멀어진 것이다.
- 13 오만의 시작은 죄악이고 오만에 사로잡힌

자는 악취를 뽑어낸다. 이 때문에 주님께 서는 큰 재앙을 불러들이시어 그들을 완전히 파괴시키신다.

- 14 주님께서 통치자들의 권좌를 무너뜨리시고 그들의 자리에 양순한 이들을 앉히신다.
- 15 주님께서 이민족들의 뿌리를 뽑으시고 그들 대신 비천한 이들을 심으신다.
- 16 주님께서 이민족들의 주거지를 황폐하게 하시고 그곳을 땅의 기초까지 파괴하신다.
- 17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 일부를 뽑아내 멸망시키시고 그들에 대한 기억을 땅에서 지우신다.
- 18 오만은 사람들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고 격한 분노도 여자들에게서 난 자들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다.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들

- 19 어떤 후손이 영예로운가? 인간의 후손이다. 어떤 후손이 영예로운가?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이다. 어떤 후손이 치욕스러운가? 인간의 후손이다. 어떤 후손이 치욕스러운가?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다.
- 20 형제들 가운데에는 그 지도자가 영예롭고 주님의 눈에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이 영예롭다.
- 21 수용의 시작은 주님을 경외함이고 배척의 시작은 고집과 오만이다.
- 22 개종자와 이방인과 가난한 이 그들의 자랑거리는 주님을 경외함이다.
- 23 지각 있는 사람을 가난하다 하여 멸시하는 일은 의롭지 않고 죄 많은 인간을 존경하는 일은 합당하지 않다.
- 24 고관과 판관과 권력가는 존경을 받았으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주님을 경외하는 이보다는 높지 못하다.
- 25 자유민이 지혜로운 종을 섬겨도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불평하지 않으리라.

겸손과 정직

- 26 일할 때 재간을 부리지 말고 재난을 당할 때 허세를 부리지 마라.
- 27 온갖 것을 갖춘 노동자가 먹을 것도 없이 허세를 부리는 건달보다 낫다.
- 28 애야, 너 자신을 겸손하게 들어 높이되 너에게 걸맞게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하여라.
- 29 자신을 거슬러 범죄하는 자를 누가 옹호해 주겠느냐? 자신의 삶을 수치스럽게 하는 자를 누가 존경하겠느냐?
- 30 가난한 이는 자기 슬기로 존경받고 부유한 이는 자기 재물로 존경받는다.
- 31 가난하면서도 존경을 받는 이가 부유할 때는 얼마나 더 존경을 받았느냐? 부유하면서도 경멸을 받는 자가 가난할 때는 얼마나 더 경멸을 받았느냐?

외모에 속지 마라

- 11 ¹ 비천한 이의 지혜는 그의 머리를 들어 높이고 그를 높은 사람들 가운데에 앉힌다.
- 2 아름다운 외모를 보고 사람을 칭찬하지 말고 걸모습을 보고 그를 혐오하지 마라.
- 3 꿀벌은 날짐승 가운데 작지만 그가 만든 것은 단것 중에 으뜸이다.
- 4 좋은 옷을 입었다고 뽐내지 말고 영광을 받을 때 자신을 높이지 마라. 주님의 위엄은 놀랍고 그분의 위엄은 사람들 눈에 감추어져 있다.
- 5 수많은 군주들이 땅바닥에 앉아야 했고 생각지도 않은 이가 왕관을 썼다.
- 6 수많은 권력가들이 심한 모욕을 당하였고 영화로운 지위에 있던 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다.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여라

- 7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꾸짖지 마라. 먼저 생각해 보고 나서 질책하여라.
- 8 듣기 전에 대답하지 말고 남이 말하는 도중

에 기여하지 마라.

- 9 너와 상관없는 일로 다루지 말고 죄인들이 시비를 가릴 때 자리를 함께하지 마라.
- 10 애야, 너무 많은 일을 벌이지 마라. 일이 많으면 벌을 면하지 못한다. 추구한다고 다 얻을 수는 없고 달아나다고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 11 고생하고 애쓰며 서두르는 자가 있지만 그 립수록 부족한 것이 더 많이 생긴다.

오로지 주님을 신뢰하여라

- 12 행동이 굵뜨고 도움이 필요한 이가 있는데 그는 능력이 없어 가난에 파문한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인지하신 눈으로 굽어보시고 비천한 처지에서 들어 올리시며
- 13 그의 머리를 들어 높이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란다.
- 14 좋은 일과 낫은 일, 삶과 죽음 가난과 부, 이 모두가 주님에게서 온다.
- 15 지혜와 슬기와 율법에 대한 지식이 주님에게서 오고 애정도 선행의 길도 그분에게서 온다.
- 16 잘못과 어둠은 죄인들과 함께 창조되었고 악은 악을 과시하는 자들과 함께 자라난다.
- 17 주님의 선물은 경건한 이들 곁에 머물고 그분의 호의는 항구하게 성공으로 이끈다.
- 18 애를 쓰고 인색하게 굴어서 부유해지는 자가 있는데 그에게 돌아갈 몫은 이터하다.
- 19 그가 "나는 휴식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 나의 재산으로 먹고 즐기리라." 하지만 그는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남기고 죽기 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한다.
- 20 네가 맺은 계약에 충실하고 익숙해져 그 일을 하며 늙어 가라.
- 21 죄인의 사업에 탄복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 하며 네 일에 전념하여라. 주님 보시기에는 가난한 이를 순식간에 부자로 만드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 22 주님의 복은 경건한 이가 받는 상급이고 그분께서는 그의 번영을 삼시간에 이루어 주신다.
- 23 "무엇이 내게 필요한가? 이제 내게 무슨 재산이 더 있어야 하는가?" 하고 말하지 마라.
- 24 또 "내 가진 것이 충분하니 이제 어떤 피해가 내게 닥치리오?" 하고 말하지 마라.
- 25 행복할 때에는 불행을 잊고 불행할 때에는 행복을 잊는다.
- 26 주님께는 마지막 날 각자의 행실대로 보상 하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 27 순간의 불행은 영화를 잊게 하고 인간의 죽음은 그의 일들을 드러낸다.
- 28 죽기 전에는 아무도 행복하다고 하지 마라. 그의 자식들을 보고 그 사람을 알게 된다.

악인을 경계하여라

- 29 아무나 네 집 안에 끌어들이지 마라. 교활한 자는 간계가 많기 때문이다.
- 30 오만한 자의 마음은 새장 안에 있는 후림 새와 같으니 그는 염탐꾼처럼 약점을 노린다.
- 31 그는 선을 악으로 뒤집으려 숨어 기다리고 좋은 일에서도 결점을 찾는다.
- 32 불씨 하나가 숯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고 죄인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려고 숨어 기다린다.
- 33 악인을 경계하여라. 그가 악을 피하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으면 영원히 너에게 오점이 남으리라.
- 34 낯선 자를 집 안에 받아들이면 그가 너를 곤경에 빠뜨리고 너를 네 집안 사람들에게 낯설게 만들리라.

선행의 규칙

- 12 ¹ 선을 행할 때에는 누구에게 하는지를 알아라. 그래야 너의 선행에 고

마음이 돌아오리라.

- 2 경건한 이에게 선을 행하여라. 그러면 보상을 받으리라. 그에게서 보상을 받지 못하면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서 받으리라.
- 3 악행을 고집하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없다. 자선을 베풀지 않는 자도 마찬가지다.
- 4 경건한 이는 도와주고 죄인은 돕지 마라.
- 5 겸손한 이에게 선을 행하고 불경한 자를 돕지 마라. 불경한 자에게는 음식을 감추고 주지 마라. 그가 음식을 먹고 너를 제압할까 두렵다. 네가 그에게 한 모든 선행의 대가로 악행이 두 배로 너를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 6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죄인들을 미워하시고 불경한 자들에게 징벌로 되갚아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징벌의 날까지 그들을 지켜 보신다.
- 7 선한 이는 도와주고 죄인은 돕지 마라.

진실한 친구와 거짓 친구

- 8 행복할 때는 친구를 알아보기 힘들지만 불행할 때는 원수도 숨지 않는다.
- 9 행복하면 원수들이 슬퍼하고 불행하면 친구가 떨어져 나간다.
- 10 네 원수를 결코 믿지 마라. 그의 사악함은 구리를 녹슬게 하는 것과 같다.
- 11 원수가 비록 자신을 낮추고 굽혀 온다 할 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그를 경계하여라. 거울을 닦는 사람처럼 그를 대하고 마지막까지 녹슬게 하지 않느니 살펴보아라.
- 12 원수를 네 곁에 두지 마라. 그가 너를 쓰러뜨리고 네 자리를 차지할지 모른다. 그를 네 오른편에 앉히지 마라. 그가 네 지위를 노릴지도 모른다. 너는 마지막에야 내 말을 깨닫고 내 가르침이 마음에 사무치리라.
- 13 뱀에게 물린 미술사와 들짐승에게 가까이 간 자들을 모두 누가 동정하겠느냐?
- 14 그와 같이 죄인을 가까이한 자와 그의 죄악에 끼여든 자를 아무도 동정하지 않으리

라.

- 15 그는 잠시 네 곁에 서 있었지만 내가 비를 거릴 때는 너를 떠나리라.
- 16 원수는 입으로 달콤하게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너를 구렁에 처넣을 궁리를 한다. 원수는 그 눈에 눈물을 보이지만 기회만 잡으면 피 흘리는 일에 만족할 줄을 모르리라.
- 17 불행이 너에게 닥치면 네 앞에서 원수를 보게 되리라. 그는 너를 돕는 체하다가 발꿈치를 건너차 쓰러뜨리리라.
- 18 그러고 나서 그는 머리를 흔들고 손뼉을 치며 끊임없이 수군거리고 얼굴을 바꾸리라.

가만한 부자를 조심하여라

- 13 ¹ 역창을 만지는 자는 손을 더럽히고 거만한 자와 어울리는 자는 그를 닮는다.
- 2 네 힘에 부치는 짐을 들지 말고 너보다 힘세고 부유한 자와 어울리지 마라.
- 3 질그릇이 감히 가마솥과 어울릴 수 있겠느냐? 가마솥에 부딪치면 질그릇이 깨진다.
- 4 부자는 불의를 저지르고도 큰소리를 치지만 가난한 이는 불의를 당하고도 사과해야 한다.
- 5 부자는 내가 쓸모 있는 한 너를 이용하고 내가 궁핍해지면 너를 버린다.
- 6 그는 내게 무엇이 있는 한 너와 더불어 살면서 너를 우려먹고도 가책을 받지 않는다. 그는 내가 필요하면 너를 속이고 내게 웃음 지으며 희망을 주리라. 또 내게 친절한 말을 건네며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리라.
- 7 그는 음식으로 너를 부끄럽게 하고 두 번 세 번 너를 우려먹기까지 하다가 마침내는 너를 비웃으리라. 그다음에 너를 만나면 모른 체 지나치면서 너에게 머리를 흔들리라.

8 속지 않도록 조심하고 네 어리석음 때문에 비천하게 되지 않도록 하여라.

권력을 믿지 마라

9 권력가가 너를 초대하면 사양하여라. 그러면 너를 더 자주 초대하리라.

10 거절당하지 않도록 서두르지도 말고 잊혀지지 않도록 멀리 떨어지지도 마라.

11 그와 대등하게 말하기를 삼가고 그의 장황한 말을 믿지도 마라. 그가 너를 많은 말로 떠보고 웃음 지으며 너를 자세히 살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2 자기 말을 지키지 않는 자는 무자비하여 해를 끼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서슴지 않으리라.

13 스스로 너 자신을 지키고 매우 신중하게 대처하여라. 지금 너는 너의 파멸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14 네가 이 말을 잠결에 듣고 있다면 깨어나라. 네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 분께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청하여라.

부자와 가난한 이의 비교

15 모든 피조물은 저와 비슷한 존재를 사랑하고 모든 인간은 제 이웃을 사랑한다.

16 모든 생명체는 같은 종류와 어울리고 인간은 저를 닮은 자에게 집착한다.

17 능대가 어떻게 영광 친해지겠느냐? 것처럼 죄인도 경건한 이와 친해지지 못하리라.

18 히이애나와 개가 무슨 평화를 이루겠느냐? 또 부자와 빈곤한 이가 어찌 평화롭게 지내겠느냐?

19 광야에 사는 들나귀가 사자의 먹이인 것처럼 가난한 이도 부자의 희생물이 된다.

20 검은손이 거만한 자에게 역겨움인 것처럼 가난한 이도 부자에게 역겨움이다.

21 부자가 헛말을 디디면 친구들에게 부축을 받지만 궁핍한 이가 넘어지면 친구들에게 걸어차인다.

22 부자가 휘청거리면 많은 사람들이 도우려 하고 그가 허튼소리를 하는데도 그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궁핍한 이가 휘청거리면 그를 꾸짖고 지각 있는 말을 해도 그에게 설 자리를 주지 않는다.

23 부자가 말하면 모두 잠잠하고 그가 하는 말을 구름에까지 치켜 올린다. 가난한 이가 말하면 사람들은 "저자는 누구냐?" 하고 그가 비틀거리면 그를 밀어뜨린다.

24 부란 그것이 죄가 아닌 한 좋은 것이고 가난이란 불경한 자가 악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25 사람의 마음은 그의 얼굴을 좋게도 나쁘게도 바꿔 놓는다.

26 행복에 싸인 마음의 기운은 밝은 얼굴에 나타난다. 잠언은 힘써 생각한 끝에야 찾을 수 있다.

의인의 행복

14 ¹ 말로 실수하지 않고 죄의 고통으로 괴로워하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2 마음으로 자신을 단죄하지 않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탐욕과 인색

3 큰 재산은 소심한 사람에게 걸맞지 않다. 구두쇠에게 재물이 무슨 이익을 주겠느냐?

4 제 몸을 돌보지 않고 쌓기만 하는 자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 모으는 것이니 그의 재산으로 남들만 흥청거릴 뿐이다.

5 자신에게 악한 자가 누구에게 관대하겠느냐? 그는 자기 재산도 즐기지 못한다.

6 자신에게 인색한 자보다 더 악한 자는 없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사악함에 대한 보상이다.

7 그가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수로 한 것이니 마침내 그의 사악함이 드러나 고야 말리라.

- 8 인색한 눈을 가진 자는 악하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그들을 무시한다.
- 9 욕심이 많은 자의 눈은 제 뒤편으로 만족할 줄 모르고 몹쓸 불의는 영혼을 메마르게 한다.
- 10 구두쇠는 음식을 아끼워하여 그의 밥상에 는 음식이 모자란다.

자신의 올바른 사용

- 11 애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자신을 잘 보살피고 주님께 합당한 제물을 드려라.
- 12 죽음은 더디 오지 않고 저승의 계약은 너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 13 네가 죽기 전에 친구에게 잘해 주고 힘닿는 대로 그에게 관대하게 베풀어라.
- 14 그날의 행복을 마다하지 말고 바다던 행복의 뭍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라.
- 15 다른 사람에게 네 노고의 열매를 남기고 네 고생의 결실을 제비 뽑아 나눠 갖게 작정이나?
- 16 주고받으면서 스스로 즐겨라. 저승에서는 아무도 호사를 찾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 17 육신은 모두 의복처럼 낡아지는 법 영원한 법칙이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다.
- 18 무성한 나무의 잎사귀들이 어떤 것은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아나듯이 살과 피를 가진 인간 세대도 어떤 이는 죽고 어떤 이는 태어난다.
- 19 모든 행적은 쇠퇴하여 사라지고 그것을 이룬 자 역시 그 행적과 더불어 스러진다.

지혜로운 이의 행복

- 20 지혜에 전념하고 지각에 따라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 21 그는 마음속으로 지혜의 길을 숙고하고 지혜의 비밀을 명상한다.
- 22 사냥꾼처럼 지혜를 쫓아다니고 지혜가 다니는 길목에서 기다려라.
- 23 그는 지혜의 창을 통하여 들여다보고 지혜

의 문전에서 귀를 기울인다.

- 24 그는 지혜의 집 가까이 거처를 마련하고 지혜의 벽에 말뚝을 박는다.
- 25 그가 지혜 곁에 천막을 치니 좋은 거처에서 살리라.
- 26 그는 자녀들을 지혜의 보호 아래 두고 지혜의 나뭇가지 밑에 자리를 잡는다.
- 27 그는 지혜 아래에서 더위를 피하고 지혜의 영광 속에서 살리라.

인인이 받는 보상

- 15 ¹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이렇게 행하고 율법을 터득한 이는 지혜를 얻으리라.
- 2 지혜가 어머니처럼 그를 맞이하고 새싹처럼 그를 맞아들이리라.
- 3 지혜는 지각의 빵으로 그를 먹이고 이해의 물을 그에게 주리라.
- 4 그는 지혜에 기대어 쓰러지지 않으며 지혜를 붙잡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 5 지혜는 그를 이웃들보다 높이 들어 올리고 회중 가운데에서 그의 입을 열어 주리라.
- 6 그는 즐거움과 환희의 화관을 얻고 영원한 명성을 차지하리라.
- 7 지각없는 자들은 지혜를 터득하지 못하고 죄인들은 지혜를 알아보지 못하리라.
- 8 지혜는 오만과 멀리 떨어져 있고 거짓말쟁이들은 지혜를 생각지도 않으리라.
- 9 죄인의 입에는 찬미가 어울리지 않으니 주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10 찬미는 지혜에서 나와야 하리니 주님께서 그 찬미를 이끌어 내시리라.

인간의 자유

- 11 "주님 때문에 잘못에 떨어졌다." 고 하지 마라. 그분께서는 당신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
- 12 "그분께서 나를 빛나게 만드셨다." 고

하지 마라. 그분께서는 죄인이 필요하지 않다.

- 13 주님께서는 역겨운 것은 무엇이나 싫어하신다. 그런 것들은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
- 14 한처음에 인간을 만드신 분은 그분이시다. 그분께서는 인간을 제 의지의 손에 내맡기셨다.
- 15 내가 원하기만 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 충실하게 사는 것은 네 뜻에 달려 있다.
- 16 그분께서 네 앞에 물과 불을 놓으셨으니 손을 뻗어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라.
- 17 사람 앞에는 생명과 죽음이 있으니 어느 것이나 바라는 대로 받으리라.
- 18 참으로 주님의 지혜는 위대하니 그분께서는 능력이 넘치시고 모든 것을 보신다.
- 19 그분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굽어 보시고 사람의 행위를 낱알이 아신다.
- 20 그분께서는 아무에게도 불경하게 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죄를 지으라고 허락하신 적이 없다.

불경한 자들에 대한 자주

- 16** ¹ 쓸모없는 자식이 많기를 바라지 말고 불경한 아들들로 기뻐하지 마라.
- 2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불어나더라도 기뻐하지 마라.
 - 3 그들이 오래 살리라 믿지 말고 그들이 많다고 과신하지 마라. 너는 때 아닌 슬픔으로 괴로워할 것이고 그들의 갑작스런 죽음을 보게 되리라. 자녀 하나가 천 명보다 나을 수 있고 자식 없이 죽는 것이 불경한 자녀 여럿을 두는 것보다 나으리라.
 - 4 지각 있는 사람 하나로 한 도시가 번창하지 만 무도한 가문 하나로 그 도시가 황폐하게 되리라.
 - 5 내 눈으로 그런 일을 많이 보아 왔고 내 귀로 그보다 더한 일을 들어 왔다.

- 6 죄인들이 모인 자리에 불길이 타고르곤 반역하는 민족에게 진노가 타고르다.
- 7 그분께서는 자신들의 힘을 믿고 반역을 일으킨 고대의 거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
- 8 그분께서는 롯의 고장 사람들을 참아 주지 않으셨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오만 때문에 그분을 역겹게 한 탓이다.
- 9 그분께서는 자신들의 죄악으로 내쫓긴 멸망의 족속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완고한 민족들에게 이 모든 일을 하셨고 당신의 수많은 성도들에게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셨다.
- 10 이렇게 그분께서는 완고한 마음으로 뭉친 육십만 장정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체적을 드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때리고 치유하시면서 자비심과 규율로 사람들을 지켜 주셨다.
- 11 목이 뻣뻣한 자가 하나라도 있을 때 그가 벌받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이다. 사실 그분께서는 자비와 분노가 있으니 그분께서는 용서도 잘하시고 진노도 내리신다.
- 12 그분께서는 자비가 크신 만큼 질책도 많이 하신다. 그분께서는 사람을 제 행실에 따라 심판하신다.
- 13 죄인은 장물을 가지고 달아나지 못한다. 경건한 이의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 14 그분께서는 모든 자선에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누구나 제 행실에 따라 자기 몫을 얻는다.
- 15 주님께서는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파라도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어 당신의 위업이 하늘 아래 알려지게 하셨다.
- 16 그분의 자비가 모든 피조물에게 나타나고 그분께서 당신의 빛과 어둠을 아담에게 나누어 주셨다.

확실한 징벌

- 17 "내가 주님을 떠나 숨어 있으니 저 높은

곳에서 누가 나를 기억하리오? 내가 수많은 군중 속에 있으니 무수한 피조물 가운데 나는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하지 마라.

- 18 보라,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을! 심연과 땅이 그분의 오심으로 떨게 되리라. 과거와 현재의 온 세계가 그분의 뜻에 달려 있다.
- 19 그분께서 산과 땅의 기초를 내려다보시면 그것들이 다 함께 떨며 뒤흔들리리라.
- 20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이런 일을 생각지 않으니 누가 그분의 길을 깊이 헤아릴 수 있겠느냐?
- 21 폭풍이 사람 눈에 보이지 않듯이 그분의 위엄도 대부분 감추어져 있다.
- 22 "누가 의로운 위엄을 선포하리오? 누가 참고 기다리리오? 그분의 계약은 멀리 있고 모든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마지막에야 이루어지는데!"
- 23 이것은 분별없는 자의 생각이니 미련하고 헛된 길에 들어선 자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

제 2 부 하나님과 창조, 그리고 금언들

창조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

- 24 "야야, 내 말을 듣고 지식을 얻어라. 내 말에 너의 마음을 기울여라.
- 25 나는 교훈을 정확하게 알리고 지식을 명확하게 전한다.
- 26 주님께서는 한처음 당신의 작품들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것들을 지으실 때부터 제 자리를 각각 정해 놓으셨다.
- 27 그분께서는 당신의 작품들에게 영원한 질서를 주시고 제 영역을 세세 대대로 정해 놓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굶주리거나 지치지 않고 제구실을 그만두지도 않는다.
- 28 그들은 서로 부딪치는 일도 없고 그분의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지도 않으리라.

- 29 이렇게 정하신 후 주님께서는 땅을 굽어보시고 그곳을 당신의 좋은 것들로 채우셨다.
- 30 그분께서는 온갖 생물로 땅의 얼굴을 덮으셨으니 그 모든 것은 다시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인간의 위치

- 17 ¹ 주님께서 사람을 흙에서 창조하시고 그를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 2 그분께서는 정해진 날수와 시간을 그들에게 주시고 땅 위에 있는 것들을 다스릴 권한을 그들에게 주셨다.
- 3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처럼 그들에게 힘을 입히시고 당신 모습으로 그들을 만드셨다.
- 4 그분께서는 모든 생물 안에 그들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 놓으시고 그들을 들짐승과 날짐승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
- 5 그들은 주님의 다섯 가지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덧붙여 그분께서는 여섯 번째로 그들에게 지성을 나누어 주시고 일곱 번째로 그분의 능력들을 해석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다.
- 6 그분께서는 분별력과 혀와 눈을 주시고 귀와 마음을 주시어 깨닫게 하셨다.
- 7 그분께서는 지식과 이해력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선과 악을 보여 주셨다.
- 8 그분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당신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 주시어 당신의 위대한 업적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셨다.
- 9 그분의 위대한 업적을 선포하기 위하여
- 10 그들은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하리라.

계약과 율법

- 11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생명의 율법을 그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시어 지금 살아 있는 존재들이 죽을 몸임을 깨우쳐 주셨다.
- 12 그분께서는 그들과 영원한 계약을 맺으시고 당신의 판결을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 13 그들의 눈은 그분의 위대하신 영광을 보고 그들의 귀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소리를 들었다.
- 14 그분께서는 "온갖 불의를 조심하여라."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 각자에게 제 이웃에 대한 계명을 주셨다.

회개할 수 없는 하느님의 심판

- 15 그들의 길은 언제나 그분 앞에 드러나고 그분의 눈앞에서 감추어지지 않으리라.
- 16 그들의 길은 젊어서부터 악으로 기울어져 있으니 그들은 자기네 심장을 돌 대신 살로 바꿀 수 없었다.
- 17 온 땅의 민족들을 나누실 때 그분께서는 각 민족 위에 통치자를 세우셨으나 이스라엘 엘만은 주님의 몫이 되었다.
- 18 그분께서는 당신의 찾아들이인 이스라엘을 교훈으로 가르치고 사랑의 빛을 나누어 주시며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 19 이스라엘이 한 모든 일은 그분 앞에서 백일하에 드러나고 그분의 눈은 언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신다.
- 20 그들의 불의는 결코 그분 앞에서 숨겨지지 않고 그들의 온갖 죄악은 주님 앞에서 드러난다.
- 21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자하시고 당신의 피조물을 아시어 그들을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고 아껴 주셨다.
- 22 사람의 자선은 그분께는 인장과도 같아 그분께서는 인간의 선행을 눈동자처럼 보존해 주시고 인간의 자녀들을 회개하도록 하신다.

- 23 때가 지난 뒤 주님께서는 일어나시어 그들에게 되갚아 주시고 그들 머리 위에 벌을 내리시리라.
- 24 그러나 회개하는 이들에게는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인내심을 잃어버린 자들은 위로 하신다.

회개의 초대

- 25 주님께 돌아오고 죄악을 버려라. 그분 앞에서 기도하고 잘못을 줄여라.
- 26 지극히 높으신 분께 돌아오고 불의에서 돌아서라. 그분께서 너를 이끄시어 어둠에서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또 너는 그분께서 역겨워하시는 것을 혐오하여라.
- 27 살아서 감사하는 이들을 대신하여 누가 저승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 찬미를 드리겠느냐?
- 28 존재하지 않는 자처럼 죽은 이에께서는 찬양이 그치지만 건강하게 살아 있는 이는 주님께 찬미를 드리리라.
- 29 주님의 자비는 얼마나 크시며 당신께 돌아오는 이들에 대한 그분의 용서는 얼마나 크신가!
- 30 인간에게 온갖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아들은 불멸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 31 무엇이 태양보다 밝으랴? 그러나 태양도 어두워진다. 살과 피로 된 인간도 악을 피한다.
- 32 그분께서는 저 높은 하늘의 군대를 통솔하시지만 모든 인간은 먼지와 재일 뿐이다.

하느님의 위대하심

- 18 ¹ 영원히 살아 계시는 분께서 만물을 함께 창조하셨다.
- 2 주님 홀로 의로우신 분임이 드러나리라. 그분 같은 존재는 결코 없다.
- 3 그분께서는 당신의 손바닥 안에서 세상을

조종하시니 만물이 그분의 뜻을 따른다. 그분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만물의 임금이 되시고 만물 안에서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갈라놓으시기 때문이다.

- 4 그분께서는 아무에게도 당신의 업적을 알릴 수 있게 해 주지 않으셨으니 누가 그분의 위대한 업적을 헤아릴 수 있으랴?
- 5 누가 그분의 위대하신 권능을 측정하고 누가 그분의 자비를 낱알이 묘사할 수 있으랴?
- 6 주님의 놀라운 업적에서 뻗 수도 더할 수도 없고 그것을 헤아릴 수도 없다.
- 7 인간이 그 일을 끝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시작이고 중도에 그친다 해도 미궁에 빠지기 마련이다.

허유한 인간

- 8 인간은 무엇인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 그의 선함은 무엇이고 악함은 무엇인가?
- 9 인간의 수명은 기껏 백 년이지만 영면의 시간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다.
- 10 바다의 물 한 방울과 모래 한 알처럼 인간의 수명은 영원의 날수 안에서 불과 몇 해 일 뿐이다.
- 11 이 때문에 주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당신 자비를 쏟으신다.
- 12 그분께서는 그들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고 아시며 그런 까닭에 당신의 용서를 넘치도록 베푸신다.
- 13 인간의 자비는 제 이웃에게 미치지만 주님의 자비는 모든 생명체에 미친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꾸짖고 훈육하고 가르치시며 목자처럼 당신 양 떼를 돌아오게 하신다.
- 14 그분께서는 교훈을 받아들이는 이와 당신의 규정을 열심히 따르는 이들에게 자비를 보이신다.

너그러움

- 15 애야, 너의 선행에 비난을 섞지 말고 온갖 선물에 모진 말을 곁들이지 마라.
- 16 이슬이 불뿔더위를 가라앉히지 않느냐? 그처럼 말 한마디가 선물보다 낫다.
- 17 보라, 말 한마디가 좋은 선물을 능가하지 않느냐?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그 두 가지가 다 있다.
- 18 어리석고 너그럽지 못한 자는 남을 꾸짖고 인색한 자의 선물은 눈이 빠지게 만든다.

반성과 선견지명

- 19 말하기 전에 배우고 앎기 전에 몸조심하여라.
- 20 심판이 닥치기 전에 너 자신을 성찰하여라. 그러면 썸 바칠 때에 용서를 받으리라.
- 21 병들기 전에 너 자신을 낮추고 죄를 지었을 때에는 회개의 태도를 보여라.
- 22 서원을 제때에 채우기를 망설이지 말고 죽기까지 그 이행을 미루지 마라.
- 23 서원을 하기 전에 자신을 준비시켜 주님을 떠보는 인간처럼 되지 마라.
- 24 끝 날에 다칠 그분의 분노를, 그분께서 얼굴을 돌리며 징벌하실 때를 생각하여라.
- 25 배부를 때에는 굶주릴 때를, 부유한 시절에는 가난과 궁핍을 생각하여라.
- 26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은 흐르고 주님 앞에서 만물은 금세 지나간다.
- 27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면에서 용의주도하다. 죄악의 날들에도 그는 악행을 조심하리라.
- 28 지각 있는 이는 누구나 지혜를 알고 그것을 찾은 이에게 찬사를 보낸다.
- 29 지각 있게 말하는 이들은 스스로 지혜로워지고 적절한 격언들을 쏟아 놓는다. 유일하신 주님께 의지하는 것은 죽은 마음으로 죽은 자에게 매달리는 것보다 낫다.

자제

- 30 네 욕망을 따르지 말고 욕심을 절제하여라.

- 31 네 영혼이 욕망을 채우도록 내버려 두면 너는 원수들의 놀림감이 되리라.
- 32 온갖 사치로 흥청거리지 마라. 그 비용으로 궁핍해질까 두렵다.
- 33 네 지갑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끈 돈으로 잔치를 벌이다 거지가 되지 마라. 그것은 사실 자신의 생명을 거스르는 행동이다.

19 ¹ 주정뱅이 일꾼은 부자가 되지 못하고 작은 것을 무시하는 자는 조금씩 망하리라.

- 2 술과 여자는 지각 있는 이를 타락시킨다. 창너들과 놀아나는 자는 매우 무모하다.
- 3 부패와 구더기가 그 무모한 자를 차지하여 그의 영혼은 파멸에 이르리라.

수도의 위험

- 4 사람을 쉽게 믿는 자는 마음이 경박하다. 죄짓는 자는 자신을 거스르게 되리라.
- 5 악을 즐기는 자는 단죄받고 쾌락에 맞서는 이는 제 인생에 월계관을 씌우리라.
- 6 혀를 질계하는 이는 갈등 없이 살고 뜯소문을 싫어하는 이는 잘못을 덜 저지르리라.
- 7 절대로 말을 옮기지 마라. 아무것도 잃는 것이 없으리라.
- 8 친구와도 원수와도 이야기하지 마라. 죄가 되지 않는 한 내보이지 마라.
- 9 네 말을 들은 이가 너를 경계하고 때로는 너를 미워할 것이다.
- 10 어떤 말을 들었으면 죽을 때까지 묻어 두어라. 용기를 가져라. 그 말이 결코 터져 나오지는 않으리라.
- 11 어리석은 자는 들은 말 때문에 아이 낳는 여자처럼 진통을 겪으리라.
- 12 어리석은 자의 배 속에 든 말은 사람의 넓적다리에 박힌 화살과 같다.

돈소문을 믿지 마라

- 13 친구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런 일을 했다면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

- 14 이웃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을 했다면 다시는 거듭하지 않으리라.
- 15 친구에게 물어보아라. 그것은 대부분 중상일 수도 있다. 그러니 아무 말이나 다 믿지 마라.
- 16 사람은 생각 없이 실수할 수 있으니 누가 말로 죄를 지어 본 적이 없겠느냐?
- 17 이웃을 울러대기 전에 그에게 물어보아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에 맡겨라.

참지혜와 거짓 지혜

- 18 주님을 경외함은 수용의 시작이고 지혜는 그분의 사랑을 얻는다.
- 19 주님의 계명에 대한 지식은 생명의 가르침이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이들은 불멸의 나무에서 열매를 맛본다.
- 20 모든 지혜는 하느님을 경외함이니 모든 지혜 안에 율법의 실천과 그분의 전능하심에 대한 지식이 들어 있다.
- 21 어떤 종이 자기 주인에게 "나는 나리가 바라는 대로 하지 않겠소" 하고 말한다면 그런 종은 나중에 시킨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를 먹여 살리는 주인을 화나게 만든다.
- 22 악에 대한 지식은 지혜가 아니며 죄인들의 의견은 현명함이 되지 못한다.
- 23 약삭빠르고 역겨운 자가 있는가 하면 지혜가 모자라는 바보도 있다.
- 24 지식이 부족하지만 경건한 이가 학식은 넘치지만 율법을 어기는 자보다 더 낫다.
- 25 빈틈없이 약삭빠르면서 불의를 저지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재판에 이기려고 호의를 왜곡하는 자도 있다. 그러나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현자도 있다.
- 26 상복을 입고 굶질거리는 악인이 있는데 그의 측은 거짓으로 가득하다.

- 27 그는 얼굴을 숙이고 못 듣는 체하지만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하는 곳에서 너를 던치리라.
- 28 그는 힘이 모자라서 죄를 지을 수 없었다 해도 기회를 잡기만 하면 악을 저지르리라.
- 29 사람은 외모로 그 됨됨이를 알고 사려 깊은 사람은 얼굴을 대하면 알게 된다.
- 30 사람은 옷차림과 큰 웃음과 걸음걸이로 그 인품을 드러낸다.

침묵과 말

- 20 ¹ 때에 맞지 않는 꾸지람이 있고 침묵을 지키면서도 현명한 이가 있다.
- 2 성을 내는 것보다 꾸짖는 것이 얼마나 더 나은가?
- 3 자기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는 이는 수치를 면하리라.
- 4 폭력으로 정의를 실천하려는 자는 욕정에 사로잡힌 내시가 처녀를 범하려는 것과 같다.
- 5 침묵을 지키면서 지혜로워 보이는 이가 있는가 하면 말이 너무 많아 미움을 받는 자도 있다.
- 6 대답할 줄 몰라서 침묵을 지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말할 때를 알고 있어서 침묵을 지키는 이도 있다.
- 7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기다리며 침묵하지만 허풍쟁이와 바보는 때를 놓친다.
- 8 말 많은 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권위를 내세우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꾸지람을 들을 때 회개하는 태도를 보이면 얼마나 좋은가! 그러면 일부러 죄를 짓는 일이 없으리라.

역설

- 9 역경 중에 있는 사람에게 행운이 따를 수 있고 황제가 손실로 바뀔 수 있다.
- 10 이익이 안 되는 선물이 있는가 하면 두 배

로 값이아 할 선물도 있다.

- 11 영에 때문에 잃는 것이 있기도 하고 비천한 처지에서 머리를 드는 이도 있다.
- 12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사고 그것을 일곱 배로 값는 이가 있다.
- 13 지혜로운 이는 작은 것들로 스스로를 사랑받게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호의를 쏟아붓기만 한다.
- 14 미련한 자의 선물은 너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다. 억지로 내놓는 인색한 자의 선물도 이와 같으니 그의 눈은 일곱 갑절의 보상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 15 그는 적게 주면서 비난은 많이 하고 전령처럼 입을 열어 떠벌린다. 그는 오늘 돈을 꾸어 주고 내일 값으라고 조르니 이런 인간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산다.
- 16 어리석은 자가 "내게는 친구가 없고 내 착한 행실을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다." 고 말한다.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도 그를 헐뜯는다.
- 17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그를 놀려대는가? 사실 그가 가진 것은 정당하게 얻은 것이 아니며 그는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에는 무관심하다.

쓸모없는 말

- 18 갈바락에 미끄러지는 것이 말로 실수하는 것보다 낫다. 이처럼 악인들의 몰락은 갑자기 다가온다.
- 19 무례한 사람은 때에 맞지 않는 이야기와 같다. 무식한 자들이 그것을 끝없이 지껍인다.
- 20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온 격언은 무시당하는데 그가 그 격언을 제때에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 21 빈곤 때문에 범죄할 기회에서 멀어진 이가 있다. 그는 편안히 쉴 때에도 가책을 받지 않으리라.

- 22 수치심 때문에 제 목숨을 끊는 자가 있다. 그는 미련하게도 체면을 지키려다 목숨을 끊으리라.
- 23 수치심 때문에 친구에게 약속을 해 놓고 그를 공연히 원수로 만드는 자가 있다.

거짓말

- 24 거짓말은 인간에게 오점을 남긴다. 무식한 자들이 그것을 끝없이 지껄인다.
- 25 상습적인 거짓말쟁이보다는 도둑이 낫지만 둘 다 멸망을 상속받는다.
- 26 거짓말쟁이의 습성은 불명예로 이어지고 수치가 늘 그와 함께 있다.

격언

- 27 지혜로운 이는 작은 것으로 스스로를 높이고 현명한 사람은 고관들의 환심을 산다.
- 28 땅을 일구고 사는 이는 곡식 단을 높이 쌓고 고관들의 환심을 산 이는 부정한 행동도 용서받는다.
- 29 친절과 선물은 지혜로운 이들의 눈을 멀게 하고 입마개처럼 비난을 틀어막는다.
- 30 지혜가 숨겨져 있고 보물이 보이지 않으면 둘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 31 자신의 어리석음을 감추는 사람이 자신의 지혜를 감추는 사람보다 낫다.
- 32 주님을 줄곧 끈기 있게 찾는 것이 제 인생의 수레를 주인 없이 버려두는 것보다 낫다.

갇지 죄악

21

¹ **1** **애야,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지난날의 죄악에 대하여 용서를 빌어라.**

- 2 **뱀을 피하듯이 죄를 피하여라. 죄에 다가서면 그것이 너를 물 것이다. 죄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그것이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리라.**
- 3 **무법은 모두 쌍날칼과 같아 그 상처에는 약**

- 도 없다.**
- 4 **폭력과 거만함으로 재물이 고갈되듯 오만한 자의 집안도 그렇게 망하리라.**
- 5 **가난한 이의 기도는 그 입에서 곧장 그분의 귀에 전달되고 그분의 판결이 순식간에 내려진다.**
- 6 **꾸지람을 싫어하는 자는 죄인의 길을 걸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마음으로 늠름하다.**
- 7 **말을 잘하는 자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려 깊은 이는 그가 실수할 때 즉시 알아본다.**
- 8 **남의 돈으로 제집을 짓는 자는 제 무덤에 쌓을 돌을 모으는 자와 같다.**
- 9 **무법자의 모임은 삼베 조각 묶음과 같아 그들의 말로는 불꽃처럼 스러진다.**
- 10 **죄인들의 길은 편편한 돌로 깔려 있지만 그 끝에는 저승의 구렁텅이가 있다.**

지혜로운 이와 미련한 자

- 11 **율법을 지키는 이는 자신의 생각을 다스리고 주님을 경외함은 지혜로써 완성된다.**
- 12 **영리하지 못한 사람을 가르칠 수는 없다. 그러나 영리하면 쓰러림도 많이 겪는다.**
- 13 **지혜로운 이의 지식은 홍수처럼 불어나고 그의 충고는 생명의 샘과 같다.**
- 14 **어리석은 자의 속은 깨어진 그릇과 같아 어떤 지식도 담을 수 없다.**
- 15 **슬기로운 이가 지혜로운 말을 들으면 그것을 찬미하며 자기 말을 덧붙이지만 호사하는 자가 그 말을 들으면 그것이 싫어서 등을 돌린다.**
- 16 **어리석은 자의 말은 여행 중의 짐과 같고 지각 있는 이의 말은 기쁨이 된다.**
- 17 **현명한 이의 말은 모임에서 환영을 받고 그의 말을 사람들이 마음에 새겨듣는다.**
- 18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는 폐허가 된 집과 같고 지각없는 자에게 지식은 조리 없는 말과 같다.**

- 19 교훈은 분별없는 자에게 족쇄와 같고 오른 손에 채운 수갑과 같다.
- 20 어리석은 자는 웃을 때 큰 소리를 내지만 영리한 사람은 조용히 웃음을 짓는다.
- 21 교훈은 현명한 이에게 금장식 같고 오른 팔뚝에 찬 팔찌와 같다.
- 22 어리석은 자의 발걸음은 집 안으로 서둘러 내닫지만 경험 많은 사람은 문 앞에서 정중하게 기다린다.
- 23 미련한 자는 문간에서 집 안을 기웃거리지만 교양 있는 사람은 밖에서 기다린다.
- 24 문 곁에서 엿듣는 것은 교양 없는 인간의 짓이다. 현명한 사람은 그런 일을 불명으로 여긴다.
- 25 이방인들의 입술은 남들이 한 말을 되풀이 한다. 그러나 현명한 이들의 말은 균형 잡힌 저울이다.
- 26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그들의 입에 있지만 지혜로운 이들의 입은 그들의 마음에 있다.
- 27 불경스러운 자가 자신의 적대자를 저주할 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다.
- 28 비방하는 자는 자신을 더럽히고 이웃에게 미움을 받는다.

게으른 자

- 22** 1 게으른 자는 지저분한 돌맹이와 같아 모두 그의 불명예스러운 짓을 보고 비웃는다.
- 2 게으른 자는 거름 더미 같아 그를 만진 사람마다 손을 탄다.

못된 자녀

- 3 못 배운 자식은 그를 낳은 아버지에게 수치가 되고 그런 딸은 그에게 손실이 된다.
- 4 현명한 딸은 좋은 남편을 얻지만 수치스럽게 된 딸은 낳아 준 아버지에게 슬픔이 된다.

- 5 건방진 여자는 제 아버지와 남편을 부끄럽게 하고 그 둘에게 천시를 당한다.
- 6 때에 맞지 않은 말은 초상집에 풍악과 같지만 회초리와 훈육은 언제나 지혜로 통한다.
- 7 양식 걱정 없이 바르게 사는 자녀들은 제 부모의 비천한 가문을 감추어 준다.
- 8 오만하고 몰상식한 자녀들은 고상한 제 가문을 더럽힌다.

구제불능인 어리석은 자

- 9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는 사람은 옹기 조각을 붙이는 자와 같고 깊은 잠에 빠진 자를 깨우는 자와 같다.
- 10 어리석은 자에게 말하는 사람은 조는 자에게 말하는 자와 같다. 말이 끝나면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요?" 하고 묻는다.
- 11 죽은 이를 위하여 울어라. 빛을 떠났기 때 문이다. 어리석은 자를 위하여 울어라. 슬기를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은 이를 두고는 그리 슬퍼하지 마라. 쉬고 있기 때 문이다. 어리석은 자의 삶은 죽음보다 고약하다.
- 12 죽은 이에 대한 애도는 이제 동안 계속되지만 어리석은 자와 불경한 자의 일생은 모든 날이 초상 날이다.
- 13 미련한 자와 말이 많이 하지 말고 지각없는 자를 찾아가지 마라. 그가 알지도 못하면서 네 모든 것을 경멸하리라. 곤란을 겪지 않도록 그를 경계하고 그가 몸을 털 때 네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여라. 그를 피하여라. 그러면 평안을 얻고 그의 물지각 함에 진저리치는 일이 없으리라.
- 14 납보다 무거운 것이 무엇인가? 그 이름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무엇이라?
- 15 모래나 소금이나 췌덩어리를 지는 것이 지각없는 인간을 참아 내는 것보다 쉽다.
- 16 건물에 단단히 물려 있는 대들보는 지진에도 갈라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오랜 궁리

끝에 결정된 마음은

- 17 위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각 있는 생각으로 다져진 마음은 매끄러운 벽에 새겨진 장식과 같다.
- 18 높은 곳에 처 놓은 울타리는 바람을 견디어 내지 못한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생각을 지닌 소심한 마음은 온갖 두려움을 견디어 내지 못한다.

우정

- 19 눈을 찌르는 자는 눈물을 흘리게 하고 마음을 찌르는 자는 감정을 보이게 한다.
- 20 날짐승에게 돌을 던지는 자는 그들을 도망치게 하고 친구를 모욕하는 자는 우정을 깨뜨린다.
- 21 친구에게 칼을 뽑았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라. 우정을 돌이킬 길이 있기 때문이다.
- 22 친구를 거슬러 입을 놀렸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화해할 길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모욕과 오만, 비밀의 폭로와 비열한 공격 이런 것들에는 모든 친구가 도망간다.
- 23 이웃이 궁핍할 때 그의 신임을 얻어라. 그가 잘될 때 함께 배부르게 되리라. 시련을 당하는 이웃 곁에 머물러 있어라. 그가 유산을 상속받을 때 너도 한몫을 얻으리라. 사실 결만 보고 경멸해서도 안 되고 지각 없는 부자를 보고 경탄해서도 안 된다.
- 24 화덕에서 불이 일기 전에 김과 연기가 나 오듯이 피 흘림이 있기 전에 욕설이 먼저 있다.
- 25 나는 친구를 보호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그 앞에서 나 자신을 숨기지도 않는다.
- 26 그러나 그 친구 때문에 내게 불행이 닥친다면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은 누구나 그를 경계하게 되리라.

기도

- 27 누가 제 입에 파수꾼을 두고 제 입술에 단

단한 봉인을 처 입술로 말미암아 제가 실수하고 제 혀가 저를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까?

23 ¹ 제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주님 그들의 음모에 저를 넘기지 마시고 그들 때문에 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소서.

- 2 누가 제 생각에 채찍질을 하고 제 마음에 지혜로운 교훈을 내려 제 잘못을 그냥 두지 않고 저의 죄악을 그냥 넘기지 않도록 도와 주겠습니까?
- 3 그리하여 제 실수가 불어나거나 제 죄가 넘쳐 나지 않게 되어 적대자들 앞에서 제가 넘어지지 않고 제 원수가 넘어진 저를 보고 즐거워하지 않게 해 주겠습니까? 또 누가 당신의 자비에 대한 희망이 그들에게서 멀리 있도록 해 주겠습니까?
- 4 제 생명의 하느님이신 아버지 주님 저에게 오만한 눈길을 허락하지 마시고
- 5 제게서 욕망을 멀리하여 주소서.
- 6 식욕과 색욕이 저를 지배하지 말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욕정에 저를 넘기지 마소서.

맹세에 대한 가르침

- 7 애들이, 말에 대한 훈계를 들어라. 그것을 따르는 이는 결코 실수하지 않으리라.
- 8 죄인은 제 입술로 말미암아 붙잡히고 험담가와 오만한 자도 제 입술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리라.
- 9 네 입에 맹세하는 버릇을 들이지 말고 거룩하신 분의 이름을 습관적으로 부르지 마라.
- 10 끊임없이 문초를 당하는 종이 상처가 가지지 않듯 언제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하는 자도 결코 죄악에서 깨끗해지지 못하리라.
- 11 맹세를 많이 하는 사람은 범법으로 가득

차고 징벌의 채찍이 그 집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가 맹세를 어기면 죄악이 그와 함께 머물고 분별없이 맹세를 하면 죄가 갑절로 무거워지리라. 그가 헛맹세를 하면 의롭게 되지 못하리니 그의 집이 온갖 채양으로 가득 차기 때문이다.

상스러운 말

- 12 어떤 언사는 죽음과도 비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야곱의 유산 가운데에서는 발견되지 않기를 바란다. 경건한 이들은 그 모든 언사와 거리가 멀어 그들은 죄악에 빠져 들지 않으리라.
- 13 무식하고 상스러움에 네 입을 길들이지 마라. 죄스러운 말이 거기에 담긴다.
- 14 고관들과 자리를 함께할 때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억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 앞에서 너 자신을 잊은 채 습관대로 미련하게 굴지도 모른다. 그때에는 차다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네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리라.
- 15 상스러운 말을 습관적으로 쓰는 사람은 평생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한다.

간음하는 남자

- 16 두 부류의 사람이 죄악을 불어나게 하고 세 번째 부류는 진노를 불러들인다.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거운 욕정은 다 탈 때까지 꺼지지 않으리라. 세 살벌이와 음행을 저지르는 자는 그 불이 그를 태울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 17 음행을 저지르는 자에게는 온갖 음식이 달다. 죽을 때까지 그는 싫증 낼 줄을 모른다.
- 18 간음을 저지르는 남자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누가 나를 볼 수 있느냐? 어둠이 나를 감싸고 사방의 벽이 나를 숨겨 주니 아무도 나를 볼 수 없다. 그러니 무엇 때문에 내가 걱정하랴?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도 내 죄악들을 기억하지 못하시리라.'

- 19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이다. 그는 주님의 눈이 태양보다 만 배나 밝으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주님의 눈은 사람들의 온갖 행로를 지켜보시고 숨은 구석까지 낱알이 깨뜯어 보신다.
- 20 만물은 창조되기 전에 이미 그분께 알려졌고 창조가 끝난 후에도 그러하다.
- 21 이런 자는 성읍 거리에서 벌을 받고 뜻하지 않은 때에 달미를 잡히리라.

간음하는 여자

- 22 제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에게서 상속자를 낳은 여자도 마찬가지다.
- 23 첫째, 그 여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을 어기고 둘째, 제 남편을 거슬러 죄를 지었으며 셋째, 음행으로 간통죄를 짓고 다른 남자에게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이다.
- 24 이런 여자는 회중 앞에 끌려 나오게 되고 그 벌이 그 여자의 자식들에게 미치리라.
- 25 그 여자의 자식들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여자의 가지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 26 그 여자의 기억은 저주로 남게 되고 그 여자의 치욕은 결코 지워지지 않으리라.
- 27 후대의 사람들은 주님을 경외함보다 좋은 일이 없으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감미로운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리라.
- 28 하느님을 따르는 일은 커다란 영광이고 그분께 받아들여지는 일이 곧 장수하는 것이다.

제 3 부 지혜와 율법, 그리고 금언들

지혜의 찬미

24

1 지혜는 자신을 찬미하고 자신의 백성 한가운데에서 자랑하리라.

- 2 지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모임에서 입을 열고 자신의 군대 앞에서 자랑하리라.
- 3 "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입에서 나와 안개처럼 땅을 덮었다.
- 4 나는 높은 하늘에 거처를 정하고 구름 기둥 위에 내 자리를 정했다.
- 5 나 홀로 하늘의 궁창을 돌아다니고 심연의 바닥을 거닐었다.
- 6 바다의 파도와 온 땅을, 온 백성과 모든 민족들을 다스렸다.
- 7 나는 누구의 땅에 머물까 하고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안식처를 찾고 있었다.
- 8 그때 만물의 창조주께서 내게 명령을 내리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께서 내 천막을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야곱 안에 거처를 정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상속을 받아라.'
- 9 한참을 세기가 시작하기 전에 그분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영원에 이르기까지 사라지지 않으리라.
- 10 나는 거룩한 천막 안에서 그분을 섬겼으며 이렇게 시온에 자리 잡았다.
- 11 그분께서는 이처럼 사랑받는 도성에서 나를 쉬게 하셨다. 나의 권세는 예루살렘에 있다.
- 12 나는 영광스러운 백성 안에 뿌리를 내리고 나의 상속을 주님의 뿔 안에서 차지하게 되었다.
- 13 나는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 헤르몬 산에서 있는 삼나무처럼 자랐다.
- 14 나는 엔 게디의 아자나무처럼 예리코의 장미처럼 평원의 싱싱한 올리브 나무처럼 플라타너스처럼 자랐다.
- 15 나는 향기로운 계피와 낙타가시나무처럼 값진 몰약처럼 풍자 향과 오닉스 향과 유향처럼 천막 안에서 피어오르는 향연처럼 사방에 향내를 풍겼다.
- 16 내가 테레빈 나무처럼 가지를 사방에 뻗으

- 니 그 가지는 찬란하고 우아하다.
- 17 내가 친절을 포도 순처럼 따우니 나의 꽃은 영광스럽고 풍성한 열매가 된다.
- 18 나는 아름다운 사랑과 경외심의 어머니요 지식과 거룩한 희망의 어머니이다. 나는 내 모든 자녀들에게, 그분께 말씀을 받은 이들에게 영원한 것들을 준다.
- 19 나에게 오너라, 나를 원하는 이들아. 와서 내 열매를 베를리 먹어라.
- 20 나를 기억함은 꿀보다 달고 나를 차지함은 꿀송이보다 달다.
- 21 나를 먹는 이들은 더욱 배고프고 나를 따시는 이들은 더욱 목마르리라.
- 22 나에게 순종하는 이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나와 함께 일하는 이들은 죄를 짓지 않으리라."

지혜와 율법

- 23 이 모든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계약의 글이고 야곱의 회중의 상속 재산으로 모세가 우리에게 제정해 준 율법이다.
- 24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강해지고 그분께서 너희를 강하게 하시도록 그분께 매달려라. 찬송하신 주님 홀로 하느님이시고 그분 말고 아무도 구원자가 될 수 없다.
- 25 율법은 지혜를 피운 강처럼 첫 수확기의 티그리스 강처럼 흘러넘치게 한다.
- 26 율법은 지식을 유프라테스 강처럼 추수기의 요르단 강처럼 넘쳐흐르게 한다.
- 27 율법은 교훈을 내일 강처럼 포도 수확기의 기혼 샘처럼 쏟아 낸다.
- 28 첫 사람도 지혜를 완전히 알 수 없었고 마지막 사람도 지혜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리라.
- 29 지혜의 생각이 바다보다 풍부하고 지혜의 의견이 큰 심연보다 깊기 때문이다.
- 30 나로 말하면 강에서 끌어낸 운하와 같고 정원으로 이어지는 물길과 같다.

- 31 나는 "내 동산에 물을 대고 꽃밭에 물을 주리라." 하였다. 보라, 내 운하가 강이 되고 내 강이 바다가 되었다.
- 32 나는 교훈을 새벽빛처럼 다시 밝히고 그 빛을 멀리까지 보낸다.
- 33 나는 가르침을 예언처럼 다시 쏟아 붓고 세세 대대로 그 가르침을 남겨 주리라.
- 34 보라, 나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혜를 찾는 모든 이를 위해 애썼다는 것을 알아라.

좋은 남편과 나쁜 남편

- 25** 1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세 가지 있으니 그것들은 주님과 사람 앞에서 아름답다. 형제들끼리 일치하고 이웃과 우정을 나누며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이다.
- 2 나는 세 부류의 사람을 미워하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몹시 혐오한다. 잘난 체하는 가난한 사람과 거짓말하는 부자 지각없이 간음에 빠진 늙은이가 바로 그들이다.
- 3 내가 젊어서 아무것도 벌어들이지 못했다면 늙어서 무엇을 찾을 수 있겠느냐?
- 4 백발 노인으로서 판단력이 있고 원로들로서 건전한 의견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가!
- 5 노인들의 지혜와 존경받는 사람들의 지성과 의견은 얼마나 좋은가!
- 6 풍부한 경험은 노인들의 화관이고 그들의 자랑거리는 주님을 경외함이다.
- 7 내 마음에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아홉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열 번째 것을 덧붙여 내 혀로 알린다. 자기 지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과 살아서 원수들이 망하는 것을 보는 사람은 행복하다.
- 8 지각 있는 아내와 함께 사는 사람 혀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자기보다 못한 자에게 존도롭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 9 현명을 찾은 사람 주의 깊게 듣는 청중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 10 지혜를 찾은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가!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이보다 위대한 이는 없다.
- 11 주님을 경외함은 모든 것을 뛰어넘으니 주님을 경외하는 이를 누구와 비교할 수 있으랴?
- 12 주님을 경외함은 그분에 대한 사랑의 시작이요 믿음은 그분에 대한 의탁의 시작이다.

나쁜 아내

- 13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면 어떤 상처라도 좋고 여자의 악함이 아니라면 어떤 악함이라도 좋다.
- 14 미워하는 자들에게 받는 고통이 아니라면 어떤 고통도 좋고 원수들의 복수가 아니라면 어떤 복수도 좋다.
- 15 독사의 독보다 고약한 독은 없고 여자의 분노보다 고약한 분노는 없다.
- 16 내게는 사자와 용과 사는 것이 악한 아내와 사는 것보다 낫다.
- 17 아내의 악함은 제 모습을 바꾸는데 곱처럼 제 얼굴을 어둡게 한다.
- 18 그의 남편은 이웃과 밥상에 앉게 될 때 비통하게 한숨지를 뿐이다.
- 19 아내의 악행에 비하면 어떤 악행도 하잘것 없다. 죄인의 운명이 그 여자에게 닥치리라.
- 20 조용한 남자가 수다스러운 아내와 사는 것은 노인이 모래 언덕을 밟고 오르는 것과 같다.
- 21 여자의 아름다움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여자를 탐내지 마라.
- 22 아내가 제 남편을 먹여 살리게 되면 분노와 뻔뻔스러움과 커다란 수치가 있을 뿐이다.
- 23 비굴한 마음과 어두운 얼굴과 마음의 상처

는 악한 아내 때문이다. 힘없는 손과 마비 된 무릎은 제 남편을 행복하게 해 주지 않는 아내 때문이다.

- 24 죄는 여자에게서 시작되고 여자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는다.
- 25 물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사악한 아내에게는 말할 자유를 주지 마라.
- 26 그가 네 지시대로 걷지 않거든 네게서 그를 잘라 버려라.

좋은 아내를 가진 남편의 행복

- 26** 1 좋은 아내를 가진 남편은 행복하다. 그가 사는 날수가 두 배로 늘어나리라.
- 2 훌륭한 아내는 제 남편을 즐겁게 하고 그 남편은 평화롭게 수를 다하리라.
 - 3 좋은 아내는 큰 행운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그런 아내는 행운으로 주어지리라.
 - 4 그 남편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마음이 즐겁고 얼굴은 언제나 활기가 넘친다.

고약한 아내

- 5 나는 마음속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고 네 번째 것에 대해서는 공포심마저 느낀다. 읍내의 중상과 군중의 모임과 모락이 모든 것들은 죽음보다 고약하다.
- 6 다른 여자를 질투하는 아내는 마음의 고통과 슬픔이 되고 험악한 혀로 그것을 모두에게 전한다.
- 7 악처는 삐걱거리는 소 명에와 같고 악처를 가진 자는 전갈을 쥐고 있는 자와 같다.
- 8 술 취한 아내는 분노 덩어리다. 그 여자는 제 치부를 감추지 않으리라.
- 9 아내의 부정은 치켜 올린 두 눈에서 그리고 눈꺼풀 모양에서 알아볼 수 있다.
- 10 고집스런 딸을 철저히 감시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틈을 타 제 자유를 남용하리라.
- 11 그 애의 눈이 뻘뻘스러워지는지 잘 살펴라.

또 너를 배반하게 되더라도 놀라지 마라.

- 12 목마른 나그네가 입을 벌려 가까이 있는 물을 어느 것이나 마시듯 말뚝따다 그 앞에 주저앉고 화살 앞에서 제 화살 통을 열 어졌하리라.

안전한 아내에 대한 칭찬

- 13 우이한 아내는 남편을 즐겁게 하고 사려 깊은 아내는 남편의 뼈를 살찌운다.
- 14 조용한 아내는 주님의 선물이다. 교양 있는 영혼을 대신할 만한 것은 없다.
- 15 정숙한 아내는 은혜 중의 은혜이다. 어떤 저울로도 절제하는 영혼의 가치를 달 수 없다.
- 16 집 안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착한 아내의 아름다움은 주님의 창공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
- 17 다부진 몸매에 아름다운 얼굴은 거룩한 등경 위에서 빛나는 등불과 같다.
- 18 든든한 발꿈치 위로 뻗은 멋진 다리는 은반침대 위에 세워진 금 기둥과 같다.
- 19 애야, 네 삶의 한창때에 건강을 지키고 너의 힘을 낫은 여자들에게 허비하지 마라.
- 20 온 평야에서 기름진 땅을 찾고 네 좋은 혈통을 믿으며 자신의 씨앗을 거기에 뿌려라.
- 21 그러면 내가 남길 자녀들은 혈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번성하리라.
- 22 돈을 주고 산 여자는 가래침으로 여겨지고 결혼한 여자는 애인들에게 죽음의 성탑으로 여겨지리라.
- 23 불경한 아내는 무도한 자에게, 경건한 아내는 주님을 경외하는 이에게 주어진다.
- 24 수치스러운 아내는 불명예 속에서 세월을 보내지만 안전한 딸은 제 남편 앞에서조차 수줍어하리라.
- 25 고집스러운 아내는 개처럼 여겨지지만 부끄러움을 아는 여자는 주님을 경외하게 되리라.

- 26 제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는 모든 이에게 지혜롭게 비치겠지만 자만심으로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아내는 모두에게 불경한 여자로 알려지리라. 좋은 아내를 가진 남편은 행복하다. 그가 사는 햇수가 두 배나 되리라.
- 27 목소리 크고 수다스러운 아내는 전쟁터의 신호나팔과 같다. 이렇게 사는 모든 남자는 전쟁의 와중에서 삶을 보내게 되리라.
- 28 내 마음을 서글프게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고 세 번째로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것이 있다. 가난으로 궁핍해지는 용사 남에게 무시당하여 쫓겨나는 지성인 그리고 의로움에서 죄악으로 돌아서는 자다. 주님께서 그를 거슬러 칼을 준비하시리라.

장사의 위험

- 29 상인은 잘못을 피하기가 어렵고 장사꾼은 죄악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

- 27** ¹ 많은 이들이 돈 때문에 죄를 짓고 부를 찾는 자는 눈을 감아 버린다.
- ² 말뚝이 돌맹이 사이에 단단히 박히듯 죄악은 팔고 사는 가운데에 썩기를 막으리라.
- ³ 사람이 주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그의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지리라.

말

- ⁴ 체로 치면 찌꺼기가 남듯이 사람의 허물은 그의 말에서 드러난다.
- ⁵ 웅기장이의 그릇이 불가마에서 단련되듯이 사람은 대화에서 수련된다.
- ⁶ 나무의 열매가 재배 과정을 드러내듯이 사람의 말은 마음속 생각을 드러낸다.
- ⁷ 말을 듣기 전에는 사람을 칭찬하지 마라. 사람은 말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의로움

- ⁸ 네가 의로움을 추구하면 그것을 얻고 영예로운 예복처럼 그 의로움을 입으리라.
- ⁹ 새들은 끼리끼리 날아들고 진리는 그것을 실천하는 이들에게 돌아오리라.
- ¹⁰ 사자가 숨어서 먹이를 기다리듯 죄악도 불의를 일삼는 자들을 숨어서 기다린다.
- ¹¹ 경건한 이의 말은 항상 지혜로우나 미련한 자는 달처럼 변한다.
- ¹² 지각없는 자들과는 너의 시간을 줄여라. 그러나 사려 깊은 이들과는 시간을 늘려라.
- ¹³ 미련한 자들의 말은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방탕한 죄악에서 나온다.
- ¹⁴ 거둬 땀 흘리는 자의 이야기는 머리카락을 주뺏하게 만들고 그들의 말다툼은 귀를 막게 한다.
- ¹⁵ 거만한 자들의 말다툼은 피를 흘리게 하고 그들의 욕설은 듣기에 괴롭다.

비밀

- ¹⁶ 비밀을 폭로하는 자는 신의를 깨뜨려 목숨 같은 친구를 걸고 안지 못하리라.
- ¹⁷ 네 친구를 야기고 그에게 신의를 지켜라. 그러나 네가 그의 비밀을 폭로했다면 그에게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마라.
- ¹⁸ 자기에게 속한 이를 죽여 없앤 인간처럼 너는 이웃의 우정을 파괴하였다.
- ¹⁹ 네 손에서 새를 풀어 주었을 때처럼 네 이웃을 떠나게 하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리라.
- ²⁰ 그를 뒤쫓지 마라. 그는 이미 멀리 있다. 그는 울가미에서 풀려난 영양처럼 멀리 달아나 버렸다.
- ²¹ 상처는 싸낼 수 있고 욕설은 화해로 풀 수 있지만 비밀을 폭로한 자는 희망이 없다.

위선

- ²² 눈감는 자는 악을 꾸민다. 그를 알아보는 이는 그를 멀리하리라.
- ²³ 그가 네 앞에서 달콤한 말을 하고 네가 하

는 말에 탄복하리라. 그러나 나중에 그는 제 말을 바꾸고 내가 한 말로 말썽을 일으키리라.

- 24 나는 많은 것을 미워했지만 그에 대한 미움에는 미치지 못한다. 주님께서도 그를 미워하시리라.
- 25 돌을 위로 던지는 자는 제 머리에 던지는 것이다. 남을 교활하게 공격하는 자는 저도
- 26 함정을 파는 자는 자신이 거기에 떨어지고 밧을 놓는 자는 자신이 거기에 걸리리라.
- 27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악이 그에게 돌아오리라. 그런데도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리라.
- 28 거만한 자는 조롱과 모욕을 하지만 복수가 그를 사자처럼 숨어서 기다린다.
- 29 경건한 이들이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은 밧에 걸리고 고통에 시달리다 죽으리라.

복수심

- 30 분노와 진노 역시 혐오스러운 것인데도 죄 지은 사람은 이것들을 지니고 있다.

- 28** 1 복수하는 자는 주님의 복수를 만나게 되리라. 그분께서는 그의 죄악을 엄격히 헤아리시리라.
- 2 네 이웃의 불의를 용서하여라. 그러면 네가 간청할 때 네 죄도 없어지리라.
 - 3 인간이 인간에게 화를 품고서 주님께 치유를 구할 수 있겠느냐?
 - 4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자비를 품지 않으면서 자기 죄의 용서를 청할 수 있겠느냐?
 - 5 죽을 몸으로 태어난 인간이 분노를 품고 있으면 누가 그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겠느냐?
 - 6 종말을 생각하고 적개심을 버려라. 파멸과 죽음을 생각하고 계명에 충실하여라.
 - 7 계명을 기억하고 이웃에게 분노하지 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계약을 기억하고 잘못을 눈감아 주어라.

말다툼

- 8 말다툼을 그만두어라. 죄를 덜 짓게 되리라. 화 잘 내는 인간이 말다툼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 9 죄지는 사람은 친구들을 불안하게 하고 서로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 사이에 불목을 일으킨다.
- 10 뉘얼음을 넣을수록 불길은 더욱 타오르고 고집을 피울수록 말다툼은 더욱 격해지리라. 인간은 세도가 클수록 그 분노가 커지고 재산이 많을수록 그 진노가 치솟으리라.
- 11 성급한 말씨음이 불길을 일으키고 조금한 말다툼이 피를 흘리게 한다.
- 12 불씨를 입으로 불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불씨에 침을 뱉으면 꺼지리라. 바람과 침 둘 다 네 입에서 나온다.

사익한 혀

- 13 중상하는 자와 한 입으로 두말하는 자를 저주하여라. 그들은 평화로이 사는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켰다.
- 14 인간질하는 혀는 많은 이들을 혼란시키고 그들을 이 민족 저 민족으로 흩어 놓았으며 튼튼한 성읍을 파괴시키고 고관들의 집안을 파멸시켰다.
- 15 인간질하는 혀는 덕 있는 아내들을 집안에서 내쫓고 그들에게서 노고의 열매를 빼앗았다.
- 16 인간질하는 혀에 귀를 기울인 자는 안식을 얻지 못하고 편히 쉬 수 없으리라.
- 17 매에 맞으면 자국이 남지만 혀에 맞으면 뼈가 부러진다.
- 18 많은 이들이 칼날에 쓰러졌지만 혀 때문에 쓰러진 이들보다는 적다.
- 19 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혀의 분노에 걸려들지 않은 이는 행복하다. 그 멍에

를 쓰지도 않고 그 사슬에 묶이지도 않은 이는 행복하다.

- 20 사실 혀의 명에는 쇠 명에요 혀의 사슬은 청동 사슬이다.
- 21 혀로 말미암은 죽음은 고약한 죽음이고 혀 보다는 차라리 저승이 낫다.
- 22 그러나 혀는 경건한 이들을 압도하지 못한다. 그들은 혀의 불꽃에 타지 않으리라.
- 23 주님을 저버린 자들이 혀에 걸려들고 혀의 불같이 그들 가운데에서 타올라 결코 꺼지지 않으리라. 그 혀가 사자처럼 그들에게 보내져 표범처럼 그들을 찢으리라.
- 24 ㄱ. 네 터에 가시나무 울타리를 둘러치듯이
 ㄴ. 네 은과 금을 값아 두듯이
- 25 ㄱ. 네 말도 경중을 가려서 하여라. ㄴ. 네 입에 문과 빗장을 달아라.
- 26 혀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숨어 기다리는 자 앞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빛

29

- 1 자비를 베푸는 이는 이웃에게 돈을 꾸어 주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이는 계명을 지킨다.
- 2 이웃이 궁핍할 때 돈을 꾸어 주고 이웃에게 꾸는 돈은 재물에 값어치 있다.
- 3 한 번 한 말은 지키고 이웃에게 신의를 지켜라. 그러면 언제나 필요한 도움을 얻으리라.
- 4 꾸는 것을 황제로 여기고 도움을 준 이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자들이 많다.
- 5 돈을 풀 때까지는 이웃의 손에 입 맞추고 그의 재산을 두고 공손한 어조로 말한다. 그러나 값어치 때가 되면 시간을 미루고 빈말로만 값어치 하며 시간만 탕탈 뿐이다.
- 6 그가 값을 수 있다 하더라도 받아내면 황제로 생각해야 하리라. 그가 값을 수 없다면 재산을

빼앗긴 것이고 공연히 그를 원수로 만든 것이다. 빛진 자는 빛 준 이에게 저주와 욕설로 되갚고 존경 대신에 모욕으로 되갚으리라.

- 7 악의 없이 많은 이들이 꾸어 주기를 거절하는데 거저 빼앗길까 두려워서다.

자선

- 8 그렇지만 비천한 이에게는 참아 주고 자선을 베풀 때 그를 기다리게 하지 마라.
- 9 계명을 생각해서 빈곤한 이를 도와주고 그가 궁핍할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마라.
- 10 형제나 친구를 위해 돈을 내주어 그 돈이 돌 밑에서 녹슬지 않게 하여라.
- 11 네 보화를 지극히 높으신 분의 계명에 따라 내놓아라. 그러면 그것이 순금보다 훨씬 이득이 되리라.
- 12 네 곳간에 자선을 쌓아 두어라. 그것이 너를 온갖 재앙에서 구해 주리라.
- 13 자선은 튼튼한 방패와 단단한 창 이상으로 너를 위해 원수와 맞서 싸워 주리라.

보증

- 14 착한 사람은 이웃에게 보증을 서 주지만 수치심을 잃은 자는 그를 배반하리라.
- 15 보증인의 호의를 잊지 마라. 그는 너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
- 16 죄인은 보증인의 재산을 날려 버리리라.
- 17 고의로 은혜를 저버리는 자는 자기를 구해 준 이를 배반하리라.
- 18 보증은 성공한 사람들을 수없이 망쳐 놓고 바다의 파도처럼 그들을 뒤흔들었다. 그것은 세도가들을 유배 가게 만들어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망향하게 하였다.
- 19 죄인은 보증 서는 일에 뛰어들어 이익을 보려다가 소송에 걸려든다.
- 20 네 힘이 닿는 대로 이웃을 도와주어라. 그러나 스스로 망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식객

- 21 사는 데 꼭 필요한 것은 물과 빵과 옷 그리고 알몸을 가려 줄 집이다.
- 22 제 지붕 밑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남의 집에서 진수성찬을 받는 것보다 낫다.
- 23 크건 작건 주어진 것에 만족하여라. 식객으로서 비난을 듣지 않으리라.
- 24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는 것은 불행한 삶이다. 식객으로 지내면서 입을 열지 말아야 한다.
- 25 잔치를 열어 주어도 감시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고약한 말을 듣게 되리라.
- 26 "여보게, 식객. 이리 와서 상을 차리게나. 가진 게 있으면 나를 먹여 주게."
- 27 "나가 주게, 식객. 차체 높은 손님이 왔네. 내 형제가 나를 찾아왔으니 방이 필요하네."
- 28 식객으로서 당하는 비난과 빗쟁이에게 당하는 모욕은 현명한 사람에게는 참기 어렵다.

교육

- 30**
- 1 제 자식을 사랑하는 이는 그에게 중중 매를 댄다 그러면 말년에 기쁨을 얻으리라.
 - 2 제 자식을 올바르게 교육하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덕을 보고 친지들 가운데에서 그를 자랑으로 삼으리라.
 - 3 제 자식을 잘 가르치는 이는 적대자의 부러움을 사고 친구들 가운데에서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리라.
 - 4 이런 자식의 아버지는 죽어도 죽지 않는 것과 같으니 자기 뒤에 자신을 닮은 사람을 남겨 놓기 때문이다.
 - 5 그는 사는 동안에 자식을 보며 기뻐하고 죽을 때에도 슬퍼하지 않는다.
 - 6 그는 원수들에게 복수해 줄 사람과 친구들에게 호의를 갚아 줄 사람을 남겨 놓았다.

- 7 자식의 응석을 받는 자는 상처를 싸매고 자식이 큰 소리로 울 때마다 기슴앓이를 하리라.
- 8 길들이지 않은 말은 거칠어지고 제멋대로 하게 버려둔 자식은 고집쟁이가 된다.
- 9 자녀의 응석을 받아 주기만 하면 그가 너를 섬뜩하게 하고 그와 놀아 주기만 하면 그가 너를 슬프게 하리라.
- 10 그와 함께 웃지 마라. 그렇게 하면 함께 고통을 당하고 말년에 이를 갈게 되리라.
- 11 그가 젊을 때 권한을 주지 말고 그의 잘못을 모른 채하지 마라.
- 12 젊을 때 그가 목을 숙이게 하고 어릴 때 그의 열구리를 때려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고집불통이 되어 네게 순종하지 않고 너는 그로 말미암아 마음의 고통을 받으리라.
- 13 네 자식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그에게 공을 들여 그의 수치스러운 행동 때문에 다치는 일이 없게 하여라.

건강

- 14 가난하지만 건강하고 튼튼한 몸을 가진 이가 부유하지만 제 몸에 상처가 많은 자보다 낫다.
- 15 건강한 삶은 어떤 금보다 좋고 굳건한 영은 헤아릴 수 없는 재물보다 좋다.
- 16 몸의 건강보다 좋은 재산은 없고 마음의 기쁨보다 큰 즐거움은 없다.
- 17 비참한 삶보다 죽음이 낫고 지병보다 영원한 휴식이 낫다.

음식에 대하여

- 18 단힌 입에 좋은 음식을 쏟아 붓는 것은 무덤 앞에 음식을 갖다 놓는 격이다.
- 19 우상에게 제사 음식이 무슨 소용이겠느냐? 우상은 먹지도 냄새 맡지도 못한다. 주님께 벌을 받은 자도 이와 마찬가지로.
- 20 그는 음식을 보면서도 한숨을 쉬고 있으니

마치 내시가 처녀를 품에 안고 한숨 쉬는 것과 같다. 폭력으로 정의를 실천하려는 자도 이와 같다.

기쁨

- 21 슬픔에 너 자신을 넘겨주지 말고 일부러 너 자신을 괴롭히지 마라.
- 22 마음의 기쁨은 곧 사람의 생명이며 즐거움은 곧 인간의 장수이다.
- 23 긴장을 풀고 마음을 달래라. 그리고 근심을 네게서 멀리 던져 버려라. 정녕 근심은 많은 사람을 망쳐 놓고 그 안에는 아무 득도 없다.
- 24 질투와 분노는 수명을 줄이고 걱정은 노년을 앞당긴다.
- 25 마음이 밝은 이는 진수성찬을 받기며 제 음식에 관심을 기울인다.

재물

- 31** ¹ 재산 때문에 잠을 못 자면 몸이 야위고 재산 때문에 걱정하면 잠을 설친다.
- 2 늘 깨어 걱정하면 졸음까지도 달아나고 병이 중하면 잠도 사라지리라.
- 3 부자는 재물을 모으려고 열심히 일하며 일을 설 때에 풍족한 생활로 만족하리라.
- 4 가난한 이는 생계를 유지하려고 열심히 일하며 일을 쉬면 궁핍해지리라.
- 5 황금을 좋아하는 자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돈을 밝히는 자는 돈 때문에 그릇된 길로 들어서리라.
- 6 많은 이들이 황금 때문에 파멸하였고 멸망이 그들 앞에 닥쳤다.
- 7 황금은 그것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장애가 되고 어리석은 자는 모두 황금에 사로잡히리라.
- 8 아무 흠도 없고 황금을 밝히지도 않는 부자는 행복하다.

- 9 우리가 이렇게 칭찬하는 그는 누구인가? 그는 제 백성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을 하였다.
- 10 황금의 유혹을 받고도 온전한 이는 누구인가? 이 일이 그에게 자랑거리가 되리라. 죄를 지을 수 있는데도 짓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를 수 있는데도 저지르지 않는 그는 누구인가?
- 11 이 때문에 그의 재산은 확고해지고 회중이 그의 자선을 날날이 이야기하리라.

만찬

- 12 내가 큰상을 받고 있었느냐? 그렇다면 그 앞에서 목구멍을 벌리지 말고 "진수성찬이 로군!" 하고 말하지 마라.
- 13 탐욕스러운 눈은 좋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여라. 눈보다 더 탐욕스럽게 창조된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눈은 자칫하면 눈물을 흘리게 된다.
- 14 남이 눈독을 들인 음식에 손을 내밀지 말고 같은 그릇에 손을 대다 그와 부딪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 15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도 좋아하리라고 여기며 모든 일에 신중하여라.
- 16 네 앞에 놓인 것을 사람답게 먹고 게걸스럽게 먹어 마음을 사지 않도록 하여라.
- 17 예의 바르게 식사를 먼저 끝내고 탐식하여 실례를 범하지 마라.
- 18 여러 사람과 함께 먹을 때는 그들보다 먼저 손을 뺀지 마라.
- 19 교양 있는 사람은 적은 양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는 잡자리에서 숨을 가쁘게 쉬지 않는다.
- 20 음식을 절제하면 건강한 잠을 이루고 일찍 일어나 기분이 상쾌하다. 잠을 설치고 메스껍고 속이 뒤틀리는 고통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은 사람이 겪게 된다.
- 21 어쩔 수 없이 많이 먹었으면 나가서 토하여라. 편해지리라.

- 22 **애야,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무시하지 마라. 언젠가는 내 말을 고맙게 여기리라. 모든 일을 부지런히 하여라. 그러면 어떤 병도 네게 닥치지 않으리라.**
- 23 **음식 대접에 후한 이는 칭송을 받고 그의 너그러움에 대한 사람들의 증언은 참되다.**
- 24 **음식 대접에 인색한 자는 온 성읍의 비난을 받고 그의 인색함에 대한 사람들의 증언은 빈틈이 없으리라.**

술

- 25 **술 마시는 것으로 남자다움을 과시하지 마라. 술은 많은 사람을 망쳤다.**
- 26 **대장간의 화덕이 담금질로 쇠를 시험하듯 거만한 자들이 말다툼할 때 술은 그들의 마음을 드러낸다.**
- 27 **술은 알맞게 마시면 사람들에게 생기를 준다. 술 없는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술은 처음부터 흥을 위해 창조되었다.**
- 28 **제때에 술을 절제 있게 마시는 사람은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분이 유쾌해진다.**
- 29 **술을 지나치게 마신 자는 기분이 상하고 흥분하여 남들과 싸우게 된다.**
- 30 **만취는 미련한 자의 화를 돋우어 넘어뜨리고 기운을 떨어뜨려 그에게 상처를 입힌다.**
- 31 **술자리에서 남을 꾸짖지 말고 흥에 젖은 그를 무시하지 마라. 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이것저것 요구하여 그를 괴롭히지 마라.**

잔치

32

- 1 **사람들이 너를 잔치 주관자로 내세우더라도 우쭐대지 마라. 그들 앞에서 손님을 가운데 하나로 처신하여라. 다른 사람들을 먼저 보살피고 그다음에 자리에 앉아라.**
- 2 **네 임무를 다하고 자리에 앉아라. 그리하여 손님들과 즐거움을 나누고 훌륭하게 처신하**

여 화관을 받도록 하여라.

- 3 **원로여, 그럴 자격이 있으니 말하여라. 정확한 지식으로 이야기하되 음약을 방해하지는 마라.**
- 4 **여흥이 한창일 때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적절하지 못한 때에 지혜로운 채하지 마라.**
- 5 **술자리에서 연주되는 음악은 금장식에 박힌 흥옥 인장과 같다.**
- 6 **맛 좋은 술에 노랫가락은 금 장신구에 박힌 취옥 인장과 같다.**
- 7 **젊은이여, 필요하다면 말을 하여라. 그러나 사람들이 요청하더라도 두 번 이상은 말하지 마라.**
- 8 **많은 것을 간결하게 말하고 알면서도 침묵하는 사람이 되어라.**
- 9 **고관들 가운데에서는 권위를 내세우지 말고 노인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말을 많이 하지 마라.**
- 10 **천둥에 앞서 번개가 치듯 겸손한 이에게는 호의가 앞서간다.**
- 11 **제때에 일어나고 마지막까지 남지 마라. 머뭇거리지 말고 곧장 집으로 가거라.**
- 12 **술자리에서는 마음껏 즐기고 네 생각대로 하되 거만한 말로 죄짓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 13 **이 모든 일을 두고, 너를 만드신 분께 찬미를 드려라. 그분께서는 당신의 선물로 너를 흠족하게 해 주신다.**

제 4 부 하나님 경외와 처세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 14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일찍 일어나 주님을 찾는 이들은 그분의 인정을 받게 되리라.**
- 15 **올법을 찾는 이는 올법으로 충만하고 위선자는 올법에 걸려 넘어지리라.**
- 16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올바른 심판을 받**

게 되고 의로운 행동들을 것처럼 맞나게 하리라.

- 17 죄인은 꾸지람을 멀리하고 제 뜻에 맞는 판결만을 찾으리라.
- 18 지각 있는 사람은 사려 깊은 생각을 지나치지 않지만 거만하고 오만한 자는 겁 없이 나서리라.
- 19 지각없이 행동하지 말고 행동하는 동안에는 마음을 바꾸지 마라.
- 20 험한 길을 가지 말고 자갈밭에서 넘어지지 마라.
- 21 가 보지 않은 길에서 방심하지 말고
- 22 자녀들에게 주의를 기울여라.
- 23 모든 일에서 너 자신을 지켜라. 이것도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 24 율법을 믿는 이는 계명에 주의를 기울이고 주님을 신뢰하는 이는 해를 입지 않으리라.

- 33** ¹ 주님을 경외하는 이에게는 어떤 악도 닥치지 않고 오히려 그는 시련을 당할 때마다 구원되리라.
- 2 지혜로운 사람은 율법을 싫어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체하는 자는 폭풍우를 만난 배와도 같다.
 - 3 지각 있는 사람은 율법을 믿으니 그런 이에게 율법은 신탁처럼 믿을 만하다.
 - 4 준비하고 말하여라. 그러면 남들이 알아들으리라. 네 지식을 다 모아 대답하여라.
 - 5 어리석은 자의 감성은 수레바퀴와 같고 그의 생각은 돌아가는 굴대와 같다.
 - 6 조용하는 친구는 종마와 같다. 누가 올라타든 히힛거린다.

불평등

- 7 한 해의 모든 날빛이 같은 태양에서 오는데도 어찌하여 어떤 날이 다른 날보다 좋은가?
- 8 날들은 주님의 통찰력으로 구분되었고 그분

께서는 계절과 축일을 정해 놓으셨다.

- 9 그분께서는 몇몇 날을 높이시어 거룩한 날로 만드셨고 다른 날들은 어느 날로 자리잡게 하셨다.
- 10 인간은 누구나 땅에서 났으며 아담은 흙에서 창조되었다.
- 11 주님께서는 충만한 지식으로 사람들을 구별하시어 그들의 길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 12 어떤 사람들은 그분께서 복을 내리고 들어 높이셨으며 어떤 사람들은 거룩하게 하시어 당신 가까이 부르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저주하고 낮추셨으며 그 서 있는 자리에서 그들을 내치셨다.
- 13 옹기장이가 제 손에 있는 진흙을 제 마음대로 빚듯 인간은 자신을 만드신 분의 손안에 있고 그분께서는 당신 결정에 따라 인간에게 되갚으신다.
- 14 선은 악의 반대고 생명은 죽음의 반대다. 마찬가지로 죄인은 경건한 이의 반대다.
- 15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온갖 업적을 살펴보아라. 서로 반대되는 것들끼리 짝을 이루고 있다.
- 16 나는 마지막 파수꾼이 되었고 포도 수확이 끝난 뒤 남은 열매를 거두는 이와 같았다.
- 17 나는 주님의 복을 받아 다른 이들을 따라 잡고 포도 따는 사람처럼 확을 가득 채울 수 있었다.
- 18 내가 애쓴 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훈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였다. 이것을 기억하여라.

재산과 집안을 다스리는 법

- 19 백성의 고관들아, 내 말을 들어라. 회중의 지도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 20 이들과 아내에게, 형제와 친구에게 네가 살아 있는 동안 자신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지 말고네 재산을 남에게 넘겨주지 마라.

그렇게 하면 후회하면서 그것들을 간청하게 되리라.

- 21 네가 아직 살아 숨쉬는 한 아무와도 네 자리를 바꾸지 마라.
- 22 네 아들들의 손을 바라보느니 자녀가 네게 칭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 23 너는 모든 일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어라. 네 명예에 흠을 내지 마라.
- 24 네 생애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 죽을 때에 유산을 나누어 주어라.

종

- 25 당나귀에게는 여물과 채찍과 짐이 필요하고 종에게는 빵과 혼유와 일이 필요하다.
- 26 종을 혼유하여 일을 시키면 내가 휴식을 얻고 종을 느슨하게 풀어 주면 그가 자유를 요구하게 되리라.
- 27 멍에와 굴레로 짐승의 목을 구부리듯 못되게 구는 종에게는 주리와 곤장이 제격이다.
- 28 종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그에게 일을 시켜라.
- 29 게으름은 온갖 나쁜 짓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 30 종에게 알맞은 일을 시키고 그가 복종하지 않으면 족쇄를 채워라. 그러나 누구에게도 지나치게 행동하지 말고 올바른 판단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 31 네게 종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를 네 몸처럼 아껴라. 네가 그를 피땀 흘려 샀기 때문이다. 네게 종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를 형제처럼 대하여라. 네 목숨이 너에게 필요하다든 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32 그를 학대하면 가출하여 도망가리라. 그러면 어디 가서 그를 찾아내겠느냐?

허황된 꿈

34

¹ 지각없는 사람은 헛된 거짓 희망을 지니며 꿈은 미련한 자를 흥분시킨

다.

- 2 꿈에 집착하는 자는 그림자를 붙잡고 바람을 쫓는 자와 같다.
- 3 꿈의 환상은 현실의 반영일 뿐 제 얼굴을 자기가 보는 것과 같다.
- 4 더러운 것에서 어찌 깨끗한 것이 나오고 거짖에서 어찌 참이 나오겠느냐?
- 5 잠과 징조와 꿈은 헛된 것이다. 마음은 산고를 겪는 여인처럼 환상을 본다.
- 6 그것들이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 마음을 주지 마라.
- 7 꿈은 수많은 이들을 속이고 그것에 희망을 품는 자들을 몰락시켰다.
- 8 그런 기만이 없어야 율법이 성취되고 지혜는 진실한 이의 입에서 완성된다.

여행

- 9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은 아는 것이 많고 경험 많은 사람은 지각 있게 말하리라.
- 10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는 것이 적지만
- 11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은 모든 일에 능통하다.
- 12 나는 여행하면서 많은 것을 보았지만 내가 배운 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다.
- 13 나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이런 경험 덕분에 무사하였다.

주님을 경외함

- 14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영은 살아 있으리라.
- 15 그들의 희망이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분께 있기 때문이다.
- 16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아무것도 잡내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그의 희망이시니 무서울 것이 없다.
- 17 주님을 경외하는 이의 영혼은 행복하다.
- 18 그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누가 그를 후원하는가?

- 19 주님의 눈은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 위에 머무시니 그들에게 든든한 방패요 힘 있는 버팀목이시며 열풍을 막아 주는 쉼터요 한 낮의 피약별을 가려 주는 그들이시다. 또 비틀거리지 않게 지켜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
- 20 주님께서서는 영혼을 들어 높이시고 눈을 밝히 주시며 치유와 생명과 복을 내려 주신다.

참된 신앙심

- 21 불의하게 얻은 것으로 제사 드리면 부정한 제물이 되고
- 22 무도한 자들의 봉헌물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23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불경한 자들의 제물을 기꺼워하지 않으시고 제사를 많이 바치더라도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
- 24 날쌘말이의 재산으로 제사를 바치는 자는 아버지 앞에서 그 자식을 죽이는 자와 같다.
- 25 궁핍한 이들의 빵, 그것은 가난한 이들의 목숨이니 그것을 빼앗는 자는 살인자다.
- 26 이웃의 밥줄을 끊는 자는 그를 죽이는 자고
- 27 일꾼의 품값을 빼앗는 자는 그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다.
- 28 한 사람은 짓고 또 한 사람은 허무니 고생만 할 뿐 무슨 소용이 있느냐?
- 29 한 사람은 기도하고 또 한 사람은 저주하니 주님께서서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시겠느냐?
- 30 사체를 만지고 나서 손을 씻은 뒤 다시 만진다면 씻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 31 이처럼 어떤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단식을 하고 나가서 같은 죄를 짓는다면 누가 그의 기도를 들어 주겠느냐? 또 자신을 낮추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었느냐?

- 35 ¹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제물을 많이 바치는 것이고
- 2 계명에 충실한 것이 구원의 제사를 바치는 것이다.
- 3 은혜를 값는 것이 고운 곡식 제물을 바치는 것이고
- 4 자신을 배푸는 것이 찬미의 제사를 바치는 것이다.
- 5 악을 멀리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고 불의를 멀리하는 것이 속죄하는 것이다.
- 6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타나지 마라.
- 7 사실 이 모든 것은 계명에 따른 것이다.
- 8 의로운 이의 제물은 제단을 기쁨지게 하고 그 향기가 지극히 높으신 분께 올라간다.
- 9 의로운 사람의 제사는 받아들여지고 그 기억은 잊혀지지 않으리라.
- 10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네 손의 첫 열매를 바치는 데에 인색하지 마라.
- 11 제물을 바칠 때는 언제나 즐거운 얼굴을 하고 십일조를 기쁘게 봉헌하여라.
- 12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네게 주신 대로 바치고 기꺼운 마음으로 능력껏 바쳐라.
- 13 주님께서서는 값아 주시는 분이시기에 일곱 배로 너에게 값아 주시리라.
- 14 그분에게 뇌물을 바치지 마라. 받아 주지 않으신다.
- 15 불의한 제사에 기대를 갖지 마라. 주님께서서는 심판자이시고 차별 대우를 하지 않으신다.
- 16 그분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 주시리라.
- 17 그분께서는 고이의 간청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과부가 쏟아 놓는 하소연을 들어 주신다.

- 18 과부의 눈물이 그 뺨에 흘러내리고
- 19 눈물을 흘리게 한 자를 거슬러 그가 부르짖지 않았느냐?
- 20 뜻에 맞게 예배를 드리는 이는 받아들여지고 그의 기도는 구름에까지 올라가리라.
- 21 겸손한 이의 기도는 구름을 거쳐서 그분께 도달하기까지 위로를 마다한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살피 주실 때까지 그만 두지 않으니
- 22 그분께서 의로운 자들의 송사를 듣고 판결해 주신다. 주님께서는 머뭇거리시거나 악인들을 참아 주지 않으신다. 무자비한 자들의 허리를 부러뜨리시고
- 23 이방인들에게 원수를 갚으실 때까지, 방자한 자들의 무리를 땅에서 뽑아 버리시고 불의한 자들의 왕홀을 부러뜨리실 때까지,
- 24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시고 사람들의 소행을 그들의 속셈에 따라 갚으실 때까지,
- 25 당신 백성의 송사를 판결해 주시고 당신의 자비로 그들을 기쁘게 하실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
- 26 그분의 자비는 시련의 시기에 가뭄에 비구름처럼 반가우리라.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기도

- 36** ¹ 만물의 주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 2 모든 민족들 위에 당신에 대한 두려움을 펼치소서.
 - 3 이민족들을 거슬러 당신의 손을 들어 올리시고 그들이 당신의 권능을 보게 하소서.
 - 4 그들 앞에서 저희를 통하여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셨듯이 저희 앞에서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위대함을 드러내소서.
 - 5 주님, 당신 말고는 어떤 신도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아는 것처럼 그들도 알게 해 주소서.
 - 6 새로운 표징을 보여 주시고 다른 기적을 일으켜 주소서.

- 7 당신 손과 오른팔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소서.
- 8 진노를 일으키시고 분노를 쏟아 부으시어
- 9 적을 쳐부수시고 원수를 없애소서.
- 10 시간을 재촉하시고 정해진 때를 기억하소서. 사람들이 당신의 위대하신 업적을 헤아리게 하소서.
- 11 분노의 불꽃이 살아남은 자마저 사르고 당신의 백성을 확대하는 자들이 멸망하게 하소서.
- 12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다." 고 말하는 적의 통치자들의 머리를 부수어뜨리소서.

예루살렘

- 13 아픔의 모든 지파들을 모아들이시고
- 14 아픔의 모든 지파들을 모아들이시고
- 15 아픔의 모든 지파들을 모아들이시고
- 16 나. 처음처럼 그들 각자에게 상속 재산을 나누어 주소서.
- 17 주님, 당신 이름을 지닌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아들로 대우해 주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소서.
- 18 당신의 성소가 있는 도성이요 당신의 안식처인 예루살렘에 자비를 보이소서.
- 19 당신 위업에 대한 찬미로 시온을 채우시고 당신 영광으로 당신의 성전을 채우소서.
- 20 당신께서 한처음에 창조하신 이들을 증언해 주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선포된 예언들을 성취시켜 주소서.
- 21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보답을 주시고 당신의 예언자들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 주소서.
- 22 주님, 당신 백성에 대한 호의로 당신 종들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이 세상 만민이 당신께서 영원하신 주 하느님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분별력

- 23 위장은 온갖 음식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음

식은 다른 음식보다 낫다.

- 24 목구멍이 사냥으로 얻은 고기 맛을 알아내 듯 지각 있는 마음은 거짓말을 알아차린다.
25 마음이 뒤뜰린 자가 근심을 주어도 경험 많은 사람은 그 근심을 그에게 되갚는다.

아내의 선택

- 26 여자는 어느 남자든 받아들일겠지만 어떤 여자는 다른 여자보다 낫다.
27 여자의 아름다움은 보는 이의 얼굴을 밝게 해 준다. 이런 아름다움보다 더한 것을 남자는 바라지 않는다.
28 여자의 말에 자비와 온유가 담겨 있으면 그의 남편은 어느 남자들보다 행복하다.
29 뜻이 맞는 협조자로 의지할 기둥이 되는 아내를 얻는 것은 행운의 시작이다.
30 울타리가 없으면 재산을 빼앗기고 아내가 없으면 떠돌아다니며 한숨지으리라.
31 이 성읍 저 성읍 쫓다니는 약삭빠른 강도를 누가 신뢰하겠느냐? 마찬가지로 보금자리도 없이 밤이면 아무 데서나 묵는 자를 누가 신뢰하라?

참된 친구와 거짓 친구

- 37 ¹ 모두들 "나도 네 친구다." 하지만 어떤 친구는 이름만 친구일 뿐이다.
2 동무나 친구가 원수로 변하면 죽는 것처럼 슬프지 않겠느냐?
3 악한 생각이, 너는 왜 생겨나서 지상을 거짓으로 뒤덮느냐?
4 어떤 동무는 친구가 행복할 때는 기뻐하다가 곤경에 놓일 때는 그에게 맞선다.
5 그러나 어떤 동무는 먹거리리를 위하여 친구와 함께 고생하고 전쟁이 나면 그를 위해 무기를 든다.
6 마음으로부터 친구를 잊어버리지 말고 부유해졌을 때도 그를 잊지 마라.

선한 조연자와 악한 조연자

- 7 조연자들마다 제 조연을 내세우지만 그중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조연하는 자도 있다.
8 조연자를 조심하고 먼저 그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아보아라. 그가 제 이익을 위해서 조연할 수도 있고 너를 놓고 제비를 뽑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9 그는 "너의 길이 좋다." 고 하면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반대편에 서서 지켜보리라.
10 너를 의심하는 자에게 조연을 구하지 말고 너를 시기하는 자들 앞에서 네 의견을 감추어라.
11 여자의 경쟁자에 대하여 그 여자와 상의하지 말고 전쟁에 대하여 비겁자와 상의하지 마라. 사업에 대하여 상인과 상의하지 말고 판매에 대하여 구매자와 상의하지 마라. 감사람에 대하여 인색한 자와 상의하지 말고 관대함에 대하여 무자비한 자와 상의하지 마라. 노동에 대하여 게으름뱅이와 상의하지 말고 일 마무리에 대하여 한 해 품팔이꾼과 상의하지 마라. 많은 일거리에 대하여 게으른 종과 상의하지 마라. 이들의 조연에 일일이 주의를 기울이지 마라.
12 그러나 내가 보기에 계명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과는 어울려라. 그의 생각이 너의 생각과 같으니 내가 걸려 넘어질 때 함께 고통을 나누리라.
13 마음의 조연에 주의를 기울여라. 너에게 그보다 더 믿을 만한 자는 없다.
14 사실 사람의 마음은 높이 솟은 망루에 앉아 있는 파수꾼 일곱보다 때때로 더 확실한 정보를 알려 주곤 한다.
15 그러나 모든 일에 앞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너의 길을 진실하게 인도하시도록 하여라.

참자녀와 거짓 자녀

- 16 말은 만사의 시작이고 모든 행동에는 계획이 앞선다.

- 17 마음은 변화의 뿌리다.
- 18 그것은 네 갈래로 나타나는데 선과 악, 생명과 죽임이다. 그리고 이들을 끊임없이 다스리는 주인은 허다.
- 19 어떤 사람은 많은 이의 선생으로서 유능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 20 그는 말재간을 부려 미움을 받고 온갖 영화에서 멀어지리라.
- 21 사실 그는 온갖 지혜가 부족하여 주님의 총애를 얻지 못했다.
- 22 지혜로운 이는 자기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오고 그의 지식은 자기 몸에 좋은 결과를 낸다.
- 23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백성을 교육시키고 그의 지식은 믿을 만한 결실을 맺는다.
- 24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칭찬을 많이 받고 보는 이마다 그를 복되다 일컬으리라.
- 25 사람의 삶은 이미 날수가 정해져 있지만 이스라엘의 날수는 헤아릴 수 없다.
- 26 지혜로운 이는 제 백성 가운데서 명예를 차지하고 그의 이름은 영원히 살아 있으리라.

질제

- 27 **애야,** 살아가면서 너 자신을 단련시켜라. 무엇이 네게 나쁜지 살펴보고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 28 사실 모든 것이 누구에게나 좋은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을 누구나 즐기는 것은 아니다.
- 29 온갖 사치를 누리려 하지 말고 과도하게 음식을 탐하지 마라.
- 30 사실 병은 음식을 지나치게 먹는 데서 오고 탐식은 구토로 이어진다.
- 31 많은 사람들이 탐식 때문에 죽었으나 그것을 피하는 자는 생명을 연장하리라.

의술과 병

- 38 **1** **남을 도와주는 의사를 존경하여라.** 주님께서 그를 창조하셨다.
- 2 **치유는 자극히 높으신 분에게서 오니 그는 임금에게서 선물을 받는다.**
- 3 **의술은 그의 머리를 높여 주고 고관들 앞에서 칭송을 받게 한다.**
- 4 **주님께서 땅에 약초를 마련해 놓으셨으니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으리라.**
- 5 **주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알아보도록 나뭇가지로 물을 달게 만들어 주지 않으셨던가? 그분께서 친히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시어 당신의 놀라운 업적을 보고 당신을 찬양하도록 하셨다.**
- 7 **의사는 약초를 이용하여 병을 고치고 고통을 덜어 준다.**
- 8 **약사도 이 약초로 약을 조제하니 주님의 위업은 끝없이 이어지고 그분에게서 평화가 온 땅 위에 퍼져 나간다.**
- 9 **애야, 네가 병들었을 때 지체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여라. 그분께서 너를 고쳐 주시리라.**
- 10 **잘못을 그만두고 손을 씻으며 온갖 죄악에서 마음을 깨끗이 하여라.**
- 11 **향유와 고운 곡식 예물을 바치고 재물 위에 기름을 네 형편껏 쏟아 부어라.**
- 12 **그다음에는 의사에게 맡겨라. 주님께서 그를 창조하셨다. 의사가 너를 떠나지 못하게 하여라. 그가 너에게 필요하다.**
- 13 **치유의 성공이 의사의 손에 달려 있는 때가 있다.**
- 14 **그들 역시 주님께 기도하여 자신들에게 올바른 진단과 생명을 구하기 위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청한다.**
- 15 **자신의 창조주 앞에서 죄를 짓는 자는 의사의 신세를 져야 마땅하리라.**

애도

- 16 **애야, 죽은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극심한 고통을 겪는 이처럼 애도를 시작하여라. 죽은 사람의 처지에 따라 그 시체를 얹하고 그의 장례를 소홀히 치르지 마라.**
- 17 **슬피 울며 통곡하여라. 애도는 죽은 사람의 지위에 따라 하루나 이틀 동안 계속하여 비난받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나서 너 자신의 슬픔을 달래라.**
- 18 **슬픔이 지나치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고 미움의 슬픔은 기운을 떨어뜨린다.**
- 19 **불행 가운데 슬픔도 머무르니 미움은 가난한 자의 삶을 저주할 뿐이다.**
- 20 **네 마음을 슬픔에 넘기지 마라. 슬픔을 멀리하고 마지막 때를 생각하여라.**
- 21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너는 죽은 이를 돕지 못하고 너 자신만 상하게 할 뿐이다.**
- 22 **그의 운명을 돌이켜 보며 네 운명도 그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예제는 그의 차례요 오늘은 네 차례다.**
- 23 **죽은 이는 이제 안식을 누리고 있으니 그에 대한 추억만을 남겨 두고 그의 영이 떠나갔으니 그에 대하여 편안한 마음을 가져라.**

징인과 율법 학자

- 24 **율법 학자의 지혜는 여가가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고 사람은 하는 일이 적어야 지혜롭게 될 수 있다.**
- 25 **쟁기를 다루면서 막대기 휘두르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황소를 몰면서 자기 일에 몰두하며 송아지 이야기밖에 할 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지혜로워질 수 있겠느냐?**
- 26 **그는 밭이랑을 내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임송어지들을 먹이는 일에 열중한다.**
- 27 **밤낮으로 일하는 목수와 대목도 모두 마찬가지다.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는 데에 여념**

이 없는 인장을 새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도형을 똑같이 새기는 일에 전념하고 마무리하는 일에 잠을 잊는다.

- 28 **모루 앞에 앉아서 쇠 다루는 일에 열중하는 대장장이도 마찬가지다. 불기가 그의 몸을 녹초로 만들고 그는 화덕에서 나오는 열기와 씨름한다. 쇠망치 소리가 그의 귓전에 울리는데도 그의 눈은 그릇의 골에 붙박혀 있다. 그는 일 마무리에 전념하고 마무리 장식에 잠을 잊는다.**
- 29 **일터에 앉아서 자기 발로 물레를 돌리는 웅기장이도 마찬가지다. 그는 언제나 자기 일에 몰두하니 그의 일은 날날이 계산된다.**
- 30 **그는 손으로 진흙을 개고 발로 반죽을 한다. 마지막 유약을 바르는 일에 전념하고 가마를 정돈하는 일에 잠을 잊는다.**
- 31 **이들은 모두 자기 솜씨를 믿고 저마다 자기 일에 특기를 지니고 있다.**
- 32 **그들이 없으면 도시가 세워질 수 없고 사람들이 모여 살거나 돌아다닐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주민 회의에 불리지도 않고**
- 33 **집회에서 높이 평가받지도 못한다. 그들은 재판석에 앉지도 못하고 법정의 판결을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들에게서는 교양이나 판단력을 찾아볼 수 없고 격언을 이용하는 것도 볼 수 없다.**
- 34 **그러나 그들은 한 세대의 골격을 유지한다. 그들은 기술이 쓰여지기만을 빌 뿐이다. 온 마음을 다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을 명상하는 이는 이런 자들과 다르다.**

율법 학자

- 39 ¹ **그는 모든 조상의 지혜를 찾고 예언을 공부하는 데에 몰두한다.**
- 2 **그는 유명한 사람들의 말씀을 보존하고 여러 격언의 뜻을 절절이 꿰뚫어 파악한다.**

- 3 그는 금언의 숨은 뜻을 깨고 수수께끼 같은 격언을 쉽게 풀이한다.
- 4 그는 고관들 사이에서 봉직하고 통치자들 앞에 모습을 보인다. 그는 이방 민족들의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들 사이에서 좋고 나쁜 것을 체험으로 깨닫는다.
- 5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을 만드신 주님을 찾는 일에 마음을 쏟고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서 기도한다. 기도 중에 입을 열어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한다.
- 6 위대하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는 지각의 영을 충만히 받으리라. 그리하여 그분 지혜의 말씀을 쏟아 내고 기도 중에 그분께 감사사를 드리리라.
- 7 그는 의견과 슬기를 올바르게 갖추고 그분의 신비를 묵상하리라.
- 8 그는 자신이 배운 대로 교훈을 펼쳐 보이고 주님께서 주신 계약의 법을 자랑하리라.
- 9 많은 이들이 그의 지각을 칭찬하고 그 지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리라. 그에 대한 기억은 없어지지 않고 그의 이름은 대대로 살아남으리라.
- 10 못 민족이 그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회중이 그에 대한 칭송을 드높이리라.
- 11 그가 장수하면 천 명의 이름보다 큰 이름을 남길 것이요 죽더라도 여한이 없으리라.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 12 내게는 아직 할 말이 많으니 보름달처럼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 13 경건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사냇가에 피어나는 장미처럼 번성하여라.
- 14 유행처럼 향기를 내뿜고 백합처럼 꽃을 피워라. 소리 내어 함께 주님을 찬미하고 그분의 온갖 업적을 찬양하여라.
- 15 그분의 이름에 위엄을 드리고 그분을 찬미하며 그분께 감사하여라. 입술에 노래를 담고 수금을 타며 감사드릴 때 이렇게 말하

여라.

- 16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위업은 너무나 훌륭하고 그분의 모든 분부는 제때에 이루어지리라."
- 17 아무도 "이게 무어냐? 어찌된 일이나?" 고 말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제때에 풀리기 때문이다. 그분의 말씀으로 물이 모여들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그 물이 저수지가 된다.
- 18 그분께서 명령하시면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고 아무도 그분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막지 못한다.
- 19 모든 인간의 일은 다 그분 앞에 있고 그분의 눈앞에서 숨겨질 수 없다.
- 20 그분께서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내려다보시니 그분 앞에는 도무지 신기한 것이 없다.
- 21 아무도 "이게 무어냐? 어찌된 일이나?" 고 말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이 필요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 22 그분의 복은 강물처럼 넘쳐흘러 마른땅을 홍수처럼 적신다.
- 23 그러나 그분께서 물을 소금밭으로 바꾸실 때처럼 이민족이 그분의 분노를 상속받으리라.
- 24 그분의 길은 경건한 이들에게는 평탄하지만 무도한 자들에게는 장애가 된다.
- 25 좋은 것은 처음부터 선인들을 위해서 창조되었지만 나쁜 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 26 사람이 사는 데 꼭 필요한 것은 물과 불과 쇠와 소금 고운 말기루와 우유와 꿀 포도즙과 기름과 옷이다.
- 27 이 모든 것이 경건한 이들에게는 선이 되지만 죄인들에게는 악으로 변한다.
- 28 징벌을 위해 창조된 바람도 있으니 화가 나면 채찍을 마구 휘두른다. 종말의 때에 바람은 제 힘을 떨치며 자신을 만드신 분의 진노를 가리았하리라.

- 29 불과 우박과 굶주림과 죽음 이 모든 것도 장벌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 30 맹수의 이빨과 전갈과 독사와 불경스런 자들에게 벌을 내려 파멸시키는 칼,
- 31 이것들은 주님의 명령을 기꺼이 받아들여 땅 위에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가 때가 되면 그분의 분부를 어김없이 실천한다.
- 32 그러므로 나는 처음부터 확신을 가지고 깊이 생각한 끝에 이러한 말을 글로 남긴다.
- 33 "주님의 모든 업적은 좋으니 그분께서는 때에 맞춰 필요한 것을 모두 마련하시리라.
- 34 아무도 '이것이 저것보다 나쁘다.' 고 말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이 때가 되면 좋은 것으로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 35 그러니 이제 온 마음과 입을 모아 찬미가를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인간의 비참함

- 40 ¹ 어머니 배 속에서 나오는 날부터 만물의 어머니에게 돌아가는 날까지 모든 사람에게 몹시 힘든 일이 맡겨졌고 무거운 멍에가 아담의 아들들에게 지워졌다.
- 2 그들의 고민과 마음의 두려움 다가올 일에 대한 걱정, 그것은 바로 죽음의 날이다.
- 3 영광의 왕좌에 앉은 자부터 먼지와 재를 뒤집어쓴 비천한 자에 이르기까지,
- 4 자주색 옷을 입고 왕관을 쓴 자부터 누더기를 걸친 자에 이르기까지,
- 5 분노와 질투와 고난과 불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격노와 분쟁에 싸여 있다. 자리에 누워 쉬는 시간에도 한밤의 잠이 그의 의식을 혼란케 한다.
- 6 쉬면서도 거의 또는 전혀 쉬는 것 같지 않고 자면서도 낮에 일하는 것 같으며 제 마음의 허깨비에 쫓겨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온 자와 같다.
- 7 절박한 순간에 잠에서 깨어나 두려워할 이

유가 없었다는 사실에 놀란다.

- 8 사람에게서 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에 그리고 죄인들에게는 일곱 배나 더
- 9 죽음과 피와 분쟁과 칼 재난과 굶주림과 파괴와 재앙이 닥친다.
- 10 이 모든 것은 사악한 자들을 거슬러 창조되었으니 그들 때문에 홍수가 일어났다.
- 11 땅에서 난 것은 모두 땅으로 돌아가고 물에서 난 것은 모두 바다로 돌아간다.

여러 가지 금언

- 12 온갖 뇌물과 부정은 사라지겠지만 믿음은 영원히 머물러 있으리라.
- 13 불의한 자들의 재산은 강물처럼 말라 버리고 폭우 속의 요란한 천둥소리처럼 흩어지리라.
- 14 자신의 손길을 펼치는 사람은 기쁨을 맛보겠지만 뱀뱀자들은 완전한 멸망에 이르리라.
- 15 불경한 자들의 자녀는 많은 싹을 내지 못하고 가파른 바위 위에 저저분한 뿌리를 내리리라.
- 16 개울과 강둑마다 자리 잡은 갈대는 제일 먼저 뽑히는 풀이 되리라.
- 17 호의는 축복의 동산과 같고 자선은 영원히 남으리라.
- 18 자축하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에게 인생은 감미롭지만 이 둘보다 보물을 찾는 이가 낫다.
- 19 자녀와 도시의 건설은 이름을 떨치게 하지만 이 둘보다 흠 없는 아내가 더 자랑스럽다.
- 20 술과 음악은 마음을 즐겁게 하지만 이 둘보다 지혜에 대한 사랑이 낫다.
- 21 피리와 수금의 감미로운 소리를 내지만 이 둘보다 부드러운 말이 낫다.
- 22 눈은 호의와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 하지만 이 둘보다 곡식의 새싹이 낫다.

- 23 친구나 동무는 때에 따라 만나지만 남편에게는 아내가 이 둘보다 낫다.
- 24 곤경 중에는 형제들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이 둘보다 자신이 우리를 더 잘 구해 준다.
- 25 금과 은이 기반을 든든하게 하지만 이 둘보다 조인이 더 가치 있다.
- 26 부와 권력은 마음을 들뜨게 하지만 주님을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으니 이런 경외심을 지니고 있으면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다.
- 27 주님을 경외함은 축복의 동산과 같아서 어떤 영광보다 인간을 잘 보호해 준다.

구걸

- 28 애야, 구걸하는 생활을 하지 마라. 구걸하느니 죽는 편이 낫다.
- 29 다른 이의 밥상을 넘겨다보는 사람은 제대로 된 인생이라 할 수 없고 다른 이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힌다. 슬기롭고 교양 있는 사람은 절제할 줄 안다.
- 30 구걸이란 얽치없는 자의 입 안에서는 달다. 그러나 그의 배 속에서는 불이 일고 있다.

죽음

- 41** ¹ 아 죽음이, 자기 재산으로 편히 사는 인간에게, 아무 걱정도 없고 만사가 잘 풀리며 아직 음식을 즐길 기력이 남아 있는 사람에게 너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피로운 일인가!
- 2 아 죽음이, 너의 판결이 궁핍하고 기력이 쇠잔하며 나이를 많이 먹고 만사에 걱정 많은 인간에게, 반항적이고 참을성을 잃은 자에게 얼마나 좋은가!
 - 3 죽음의 판결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보다 앞서간 자들과 뒤에 올 자들을 기억하여라.
 - 4 그것은 모든 생명체에게 주어진 주님의 판결이다. 그런데 어찌자고 지극히 높으신 분

의 뜻을 거역하려 드는가? 십 년을 살든 백 년을 살든 천 년을 살든 저승에서는 수명이 따질 필요가 없다.

불경한 자들의 운명

- 5 죄인들의 자녀들은 혐오 거리가 되고 불경한 자들의 소굴을 들락거린다.
- 6 죄인들의 자녀들이 물려받은 유산은 소멸되고 그들의 후손에게는 치욕이 늘 함께한다.
- 7 자녀들은 불경한 아버지를 비난한다. 그 아버지 탓에 자신들이 수치를 당하기 때문이다.
- 8 불행하여라, 너희 불경한 인간들!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을 저버렸다.
- 9 너희 자손이 불어나도 파멸되기 마련이다. 너희는 태어나도 저주받기 마련이고 죽게 되어도 저주받기 마련이다.
- 10 흠에서 나온 것은 무엇이나 흠으로 돌아갈 듯 불경한 자도 저주에서 나와 멸망으로 돌아간다.

명성

- 11 인간들은 썩을 몸을 슬퍼하지만 죄인들에게는 좋지 않은 이름조차도 남지 않으리라.
- 12 네 이름에 주의를 기울여라. 이름이 황금덩이 천 개보다 오래 남는다.
- 13 행복한 삶은 그 날수가 정해져 있지만 좋은 이름은 영원히 남으리라.

부끄러움

- 14 자녀들아, 받은 가르침을 평화롭게 지켜라. 감추어진 지혜와 보이지 않는 보물 이 두 가지가 무슨 유익을 가져다주겠느냐?
- 15 어리석음을 감추는 사람이 자기 지혜를 감추는 사람보다 낫다.
- 16 그러므로 내 말을 존중하여라. 온갖 부끄러움을 간직하는 것은 좋지 않고 모든 일이 모두에게 진실되어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니다.

- 17 음행에 대하여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서, 거 짓말에 대하여 군주와 세도가 앞에서 부끄러워하여라.
- 18 실수에 대하여 재판관과 통치자 앞에서, 위 법에 대하여 회중과 백성 앞에서, 불의에 대하여 동료와 친구 앞에서,
- 19 절도에 대하여 내가 사는 동네 앞에서 부끄러워하여라. 하나님의 진리와 계약 앞에서 부끄러워하여라. 빵 위에 팔꿈치를 올려놓은 일을, 무례하게 주고받은 일을 부끄러워하여라.
- 20 인사하는 사람들에게 답하지 않은 일을, 창녀에게 눈길을 준 일을,
- 21 친척을 외면한 일을, 남의 몫과 선물을 가로챈 일을, 남의 아내에게 눈짓한 일을 부끄러워하여라.
- 22 남의 여종과 어울린 일을 부끄러워하고 그 여종의 잠자리에 다가가지 마라. 친구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일을 부끄러워하고 선물을 준 뒤에 모욕하지 마라.

- 42** 1 들은 이야기를 수다 떨며 남에게 옮긴 일을, 비밀을 폭로한 일을 부끄러워하여라. 그러면 너는 진실로 부끄러워하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서 호의를 얻게 되리라. 다음 것들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체면 때문에 죄를 짓지 마라.
- 2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과 계약을 불경한 자를 의롭게 하는 판결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 3 동료와 동행자와 계산하는 일을, 다른 상속자들과 유산을 나누는 일을,
- 4 저울과 추를 정확하게 다는 일을, 많건 적건 벌어들이는 일을,
- 5 상인들과 거래하여 얻는 이득을, 자녀들을 엄격하게 교육하는 일을, 고약한 종의 옆구리를 때려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 6 고약한 아내는 봉인해 두는 것이 좋고 손이 많이 오가는 곳에는 자물쇠를 채워라.
- 7 물건을 맡길 때는 수량과 무게를 정확히 하고 주고받을 때는 모든 것을 글로 남겨라.
- 8 미련한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음행하다 재판 받는 노인네를 깨우쳐 주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러면 너는 진실하게 교육받은 이로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으리라.

딸 가진 아버지의 걱정

- 9 딸은 그 아버지에게 은근한 걱정거리여서 그에 대한 염려로 아버지가 잠을 못 이룬다. 어릴 때는 혼기를 놓칠까, 시집가면 미움 받을까 걱정한다.
- 10 처녀일 때는 더럽혀질까, 출가 전에 임신할까 걱정한다. 남편을 맞으면 부정을 저지르까, 시집을 가면 아이를 낳지 못할까 걱정한다.
- 11 고집 센 딸은 철저하게 감시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그 애가 원수들 앞에서 너를 웃음거리로 만들리라. 또 동네의 소문과 주민들의 이야기거리가 되어 큰 무리 앞에서 너를 부끄럽게 하리라.

여자들을 조심하여라

- 12 아무에게나 그 이름다음에 눈길을 주지 말고 여자들과 동석하지 마라.
- 13 좁이 옷에서 나오듯 여자의 악은 여자에게서 나온다.
- 14 산을 행하는 여자보다 남자의 악이 더 낫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져오는 것은 여자다.

제 5 부 하나님의 영광

자연 안에서

- 15 나는 이제 주님의 업적을 기억하고 내가 본 것을 묘사하리라. 주님의 업적은 그분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그분의 결정은 선의에서

나왔다.

- 16 찬란한 태양은 만물을 내려다보고 주님의 업적은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 17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들에게조차 당신의 온갖 놀라운 업적을 묘사할 능력을 주지 않으셨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 놀라운 업적을 세우시어 만물을 당신 영광 안에 굳게 자리 잡게 하셨다.
- 18 그분께서는 깊은 바다와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리시고 그 술책을 꿰뚫어 보신다. 사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온갖 통찰력을 갖추시고 시대의 표징을 살피신다.
- 19 그분께서는 지나간 일과 다가올 일을 알려 주시고 숨겨진 일들의 자취를 드러내 보이신다.
- 20 어떤 생각도 그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분 앞에는 말 한마디도 숨길 수 없다.
- 21 당신 지혜의 위대한 업적을 질서 있게 정하신 주님께서서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같은 한 분이시다. 그분에게는 더 보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으며 어떤 조언자도 필요 없다.
- 22 그분의 업적은 모두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찬란하게 보이는가!
- 23 이 모든 것이 살아 있고 영원히 지속되며 그분께서 필요하실 때는 만물이 그분께 순종한다.
- 24 만물은 서로 마주하여 짝을 이루고 있으니 그분께서는 어느 것도 불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셨다.
- 25 하나는 다른 하나의 좋은 점을 돋보이게 하니 누가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싫증을 느끼겠는가?

태양 43

1 맑은 창공은 드높은 곳의 자랑이며 하늘의 모습은 찬란한 영광 속에 드러난다.

- 2 동이 틀 때 떠오르는 태양은 놀라운 도구가 되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위업을 선포한다.
- 3 한낮의 태양은 땅을 매마르게 하니 누가 그 열을 견디어 내겠는가?
- 4 화덕에 풀무질하는 자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일을 하지만 태양은 그 세 배나 되는 열기로 산을 달군다. 태양은 그 불꽃 같은 열기를 내뿜고 그 강렬한 빛으로 눈을 멀게 한다.
- 5 태양을 만드신 주님께서서는 위대하시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태양은 제 궤도를 바빠 돈다.

달

- 6 달은 제때에 맞춰 자리를 잡고 시간과 시대의 표징을 알려 준다.
- 7 축제의 표징도 달에서 나온다. 이 빛물체는 완전히 찼다가 기운다.
- 8 월이라는 말도 달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변하면서 차오르는 모습은 기묘하다. 달은 높은 곳에 진을 친 만민의 등대가 되어 하늘 창공에서 빛을 뿜어낸다.

별

- 9 하늘의 아름다움은 별들의 영광이고 별들은 주님의 드높은 처소에서 빛나는 장식이다.
- 10 거룩하신 분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정해진 자리를 지키고 한 번도 경계를 늦추는 법이 없다.

무지개

- 11 무지개를 바라보며 그것을 만드신 분을 찬미하여라. 그 찬란함은 매우 아름답다.
- 12 무지개는 영광스러운 호를 그리며 하늘을 가로지른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손길이 그것을 펼쳐 놓으셨다.

경이로운 자연

- 13 그분의 명령으로 눈이 내리고 심판의 번개

- 불이 떨어진다.
- 14 그분의 명령으로 하늘 공간이 열리고 구름이 새처럼 날아간다.
- 15 그분께서 당신 권능으로 구름을 뭉쳐 주시니 돌덩이 같은 우박이 산산이 부서진다.
- 16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는 산들도 떨며 그분의 뜻에 따라 남풍이 불어 닥친다.
- 17 7. 그분의 찬등소리는 땅을 뒤흔들고 나. 북녘에서 폭풍이 일고 회오리바람이 몰려온다. 그분께서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눈을 뿌리시니 그 모습이 배뚜기가 내려앉은 듯하다.
- 18 사람들은 흰 눈송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경탄하며 그 떨어지는 모습에 마음을 빼앗긴다.
- 19 그분께서는 서리를 소금처럼 땅에 뿌리시고 나무 끝에 얼음 꽃을 피우신다.
- 20 북새풍이 차갑게 불어오면 물 위에 얼음이 언다. 물 고인 곳마다 자리를 잡고 갑옷처럼 물을 덮는다.
- 21 그분께서는 산을 삼키시고 광야를 달아오르게 하시며 불처럼 초목을 살라 버리신다.
- 22 그러나 안개가 이내 이 모든 것을 어루만져 주고 이슬이 내려와 더위에서 생기를 찾게 해 준다.
- 23 주님께서는 당신 계획에 따라 깊은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그곳에 섬들을 심으셨다.
- 24 항해하는 이들이 바다의 위험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우리 귀를 의심하였다.
- 25 그곳에는 이상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며 온갖 종류의 생물과 용들이 살고 있다.
- 26 그분 덕택에 그분의 사자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만물이 그분의 말씀에 따라 잘 정돈되어 있다.
- 27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로 이야기해도 미치지 못하니 "그분은 전부이시다." 수밖에 없다.

- 28 무슨 힘으로 그분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사실 그분께서는 그분의 모든 업적보다 위대하시다.
- 29 주님은 두려우시고 매우 위대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권능은 놀랍다.
- 30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분을 높이 받들어서 아무리 높이 받들어도 그분께서는 그보다 더 높으시다. 그분을 높이 받들 때 내 온 힘을 다하고 지치지 마라. 아무리 찬미하여도 결코 다하지 못한다.
- 31 누가 그분을 뵈고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으며 누가 그분께 맞갖은 찬양을 드릴 수 있었느냐?
- 32 이러한 것들보다 큰 일들이 많이 숨겨져 있으니 우리는 그분의 업적 가운데 조금만을 보았을 뿐이다.
- 33 정녕 주님께서 만물을 만드셨고 경건한 이들에게 지혜를 주셨다.

조상들에 대한 칭송

- 44 ¹ 이제는 훌륭한 사람들과 역대 선조들을 칭송하자.
- 2 주님께서는 수많은 영광을 마련하시고 처음부터 그분의 위업을 이루셨다.
- 3 그들은 자신들의 왕국에서 다스리던 이들과 권세로 이름을 떨친 사람들, 지각으로 조인자가 된 이들과 예언을 선포한 이들이다.
- 4 그들은 백성의 통치자가 되어 바른 의견과 지각으로 백성을 가르치고 지혜로운 말로 백성을 교육하였다.
- 5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지어 내고 이야기를 글로 남겼으며
- 6 어떤 사람들은 큰 힘을 가진 부자가 되어 자기 집 안에서 편안한 삶을 누렸다.
- 7 이 모든 사람들은 당대에 명예를 얻었으며 그 시대의 자랑이었다.
- 8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름을 남겨 아직도 칭송을 받는다.

- 9 그러나 어떤 이들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존재한 적이 없었던 듯 사라져 버렸다. 그들은 태어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되었으며 그 뒤를 이은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 10 그러나 저 사람들은 자비로워 그들의 의로운 행적이 잊혀지지 않았다.
- 11 그들의 재산은 자손과 함께 머물고 그들의 유산은 후손과 함께 머물리라.
- 12 그들의 자손은 계약을 충실하게 지키고 그들 때문에 그 자녀들도 그러하리라.
- 13 그들의 자손은 영원히 존속하고 그들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으리라.
- 14 그들의 몸은 평화롭게 묻히고 그들의 이름은 대대로 살아 있다.
- 15 못 백성이 그들의 지혜를 기리고 회중이 그들을 칭송하리라.

예루

- 16 예루는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린 뒤 하늘로 옮겨졌다. 그는 만대에 회개의 모범이 되었다.

노아

- 17 노아는 완전하고 의로운 이로 드러나고 분노의 시대에 세대의 교체를 이루었다. 홍수가 닥쳤을 때 노아로 말미암아 땅 위에 살 아남은 자가 있게 되었다.
- 18 그와 더불어 영원한 계약이 세워졌으니 모든 생명체가 홍수로 다시는 사라지지 않게 되었다.

아브라함

- 19 아브라함은 수많은 민족의 위대한 조상으로 아무도 그의 영광에서 흠을 찾을 수 없었다.
- 20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을 지켰고 그분과 계약을 맺었다. 그는 자기 살에 계약을 새겼고 시련 가운데에서도 충실한 이로 드러났다.

- 21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에게 맹세하며 약속하시기를 민족들이 그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고 그가 땅의 먼지처럼 번성하며 그의 자손이 별들처럼 높이 솟아오르고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 끝까지 상속받으리라고 하셨다.

이삭과 아곱

- 22 주님께서는 이삭에게도 그의 부친 아브라함을 보시어 똑같이 맹세하며 약속하셨다. 그리고 만민에게 내리신 복과 계약을
- 23 아곱의 머리 위에 머무르게 하셨다. 주님께서는 복을 내리시어 아곱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상속 재산을 물려주셨다. 그분께서는 아곱의 몫을 나누어 열두 지파에게 분배하셨다.

모세

- 45 ¹ 주님께서는 아곱에게서 자비로운 사람이 나오게 하셨는데 그는 모든 사람의 눈에 꼭 들었다. 그는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모세로서 그에 대한 기억은 축복 속에서 이어진다.
- 2 주님께서는 모세를 성인들의 영광에 걸맞게 하였고 그를 위대한 이로 만드셔서 원수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 3 주님께서는 모세의 말이 떨어지자 표징을 일으키셨고 임금들 앞에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모세에게 당신 백성을 위한 계명을 주셨고 당신 영광의 일부를 그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 4 주님께서는 모세의 충실함과 온유함을 보시고 그를 거룩하게 하시어 만민 가운데에서 그를 선택하셨다.
- 5 그에게 당신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어두운 구름 속으로 그를 인도하셨다.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여 계명을 주시고 생명과 지식의 율법을 주셨다. 그리하여 아곱에게 계약을,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법령을 가르치게 하셨다.

이론

- 6 주님께서는 모세처럼 거룩한 이론을 들어 높이셨는데 이론은 레위 지파에서 나온 그의 형제다.
- 7 주님께서는 이론과 영원한 계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백성의 사제직을 주셨다. 그분께서는 이론에게 복을 내리시어 품위 있게 하시고 그에게 영광스러운 예복을 입혀 주셨다.
- 8 주님께서는 이론에게 호화로운 복장을 다 갖추어 주시고 권위의 표지들로, 속옷과 겹옷과 예뻐서 꾸미셨다.
- 9 그분께서는 이론을 석류로 두르시고 그 둘레에 금방울을 많이 매달아 주시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소리가 나 성전 안에 울려 들리게 하시고 당신 백성이 기억하게 하셨다.
- 10 지수가가 금색과 보라색 자주색 실로 수놓은 거룩한 어깨걸이와 판결의 가슴받이인 우림과 톱밧도 입히셨다.
- 11 이 가슴받이는 장인이 겹으로 누빈 진홍색 아마포에 보석공이 금판을 만들어 붙이고 그 금판 위에 인장을 새긴 값진 보석들을 박아 넣은 것이었다. 보석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맞추었는데 그 이름을 새겨 상기시키기 위해서였다.
- 12 터번 위에 금관을 씌워 주셨는데 거기에는 성별의 인장이 새겨져 있었다. 그 관은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걸작품이며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장식이다.
- 13 이론 이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없었고 일찍이 어느 누구도 그런 것을 입어 보지 못하였다. 그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만이 그것을 영구히 입게 되리라.
- 14 그의 제사는 날마다 두 번씩 끊임없이 번제로 바쳐지리라.

- 15 모세가 그를 성별하고 그에게 성유를 부어 주었다. 그것은 하늘이 존재하는 한 이론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계약이 되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동시에 사제직을 수행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 16 주님께서는 모든 생명체 가운데에서 그를 선택하시어 당신께 제사를 바치고 백성의 죄를 보속하기 위하여 향과 향기로 기념제를 드리게 하셨다.
- 17 주님께서는 그에게 당신의 계명을 맡기시고 심판의 계약에 대한 권위를 주셨다. 그가 아굽에게 계명을 가르치고 당신의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비추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 18 그러자 이방인들이 그를 두고 음모를 꾸미고 광야에서 그를 시기하였다. 그들은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힌 다탄과 아비람 주변에 모인 자들과 코라의 동료들이었다.
- 19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불쾌히 여기셨다. 그들은 타오르는 분노로 멸망하였다.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시어 당신 불길을 그들을 완전히 살라 버리도록 하셨다.
- 20 주님께서는 이론에게 영광을 더해 주시고 그에게 상속의 땅을 주셨다. 그분께서는 이론에게 만물의 가장 좋은 몫을 주시고 햇곡식으로 만든 빵을 풍부하게 마련해 주셨다.
- 21 사실 이론과 그의 자손은 주님께서 주신 화제물을 먹는다.
- 22 그러나 백성이 사는 땅에서 그가 차지할 상속 재산은 없고 백성 가운데에서 그가 차지할 몫도 없다. 그분만이 그의 몫이요 상속 재산이다.

피노하스

- 23 주님을 경외하는 일에 열성을 다한 이로써 세 번째로 영광을 차지한 위인은 엘야자르

의 아들 피느하스이다. 그는 백성이 반역하였을 때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였다.

- 24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와 더불어 평화의 계약을 맺으시어 그가 당신의 성소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고 그와 그의 자손이 사제직의 위엄을 영원히 지니도록 하셨다.
- 25 주님께서 유다 지파 이사이의 아들 다윗과 맺으신 계약은 대대로 아들 하나에게만 왕직을 물려주는 것이었으나 아론의 사제직은 그의 온 자손에게 계승된다.
- 26 주님께서 너희 마음에 지혜를 내리시어 너희가 그분의 백성을 의롭게 판결하기를! 그리하여 그들의 번영이 사라지지 않고 그들의 영광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여호수아

- 46** 1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용감하였고 예언자로서는 모세의 후계자였다. 그는 자기 이름이 뜻하는 대로 그분께서 뽑으신 아들 가운데 위대한 구원자가 되어 반역하는 원수들을 응징하고 이스라엘에게 상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해 주었다.
- 2 그가 손을 쳐들었을 때, 성읍들을 거슬러 칼을 빼들었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던가!
 - 3 여호수아 이전에 누가 그처럼 당당했던가? 참으로 그는 주님의 전쟁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 4 그의 손으로 태양이 멈추어 하루가 이들이 되지 않았던가?
 - 5 원수들이 그를 사방에서 에워싸 좁혀 올 때 그는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신 분께 호소하였고 위대하신 주님께서는 그의 호소를 들으시어 엄청난게 세찬 우박을 보내셨다.
 - 6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다른 민족을 쳐 내려가 산비탈에서 적군들을 무찔렀다. 그리하여 이민족들은 그의 무장을 보면서 자신들

이 주님을 거슬러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참으로 그는 전능하신 분을 충실히 따랐던 것이다.

칼렘

- 7 모세 시대에 여호수아는 충성을 다하였고 그와 여편네의 아들 칼렘은 회중 앞에서 백성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막았으며 그들의 사악한 불평을 가리았었다.
- 8 이 들만이 육십만 병병 가운데에서 살아남아 백성을 상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였다.
- 9 주님께서는 칼렘에게 힘을 주시어 그 힘이 노년까지 그에게 머무르게 하셨다. 칼렘은 산악 지대까지 정복하여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상속으로 차지하게 하였다.
- 10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따라 걷는 일이 얼마나 좋은가를 깨닫게 되었다.

판관들

- 11 판관들도 각각 그 이름에 걸맞게 우상 숭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고 주님에게서 돌아서지도 않았다. 그러니 그들이 축복 속에서 기억되기를!
- 12 그들의 뼈가 그들의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고 그들의 이름이 그 후손들 가운데에서 영광스럽게 받아들여지기를!

사무엘

- 13 사무엘은 주님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예언자로서 왕정을 수립하였으며 그분의 백성을 다스릴 통치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다.
- 14 그는 주님의 법으로 회중에게 판결을 내렸고 주님께서는 아픔을 돌보셨다.
- 15 사무엘은 자신의 믿음으로써 참예언자로 확인받았고 자신의 말로써 믿을 만한 환시가로 알려졌다.
- 16 원수들이 그를 사방에서 에워싸 좁혀 올

- 때 전능하신 주님께 호소하였고 젓먹이 양을 제물로 바쳤다.
- 17 그러자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천등을 내리시고 큰 소리로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셨다.
- 18 사무엘은 티로의 군주들과 필리스티아의 통치자들을 모조리 없애 버렸다.
- 19 사무엘은 영원히 잠들 시간이 다가오자 주님과 그분의 기름부음받음이 앞에서 이렇게 증언하였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제물은커녕 신발 한 켤레도 빼앗은 것이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 20 사무엘은 잠든 다음에도 예언을 하였는데 임금에게 닥쳐올 죽음을 미리 알려 주었고 예언으로 백성의 무도함을 없애려고 땅속에서조차 목소리를 높였다.

나탄

- 47 ¹ 그 후 나탄이 나타나 다윗 시대에 예언하였다.

다윗

- ² 친교 제물에서 굳기름을 따로 떼어 놓듯 다윗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선택되었다.
- ³ 다윗은 염소 새끼들과 놀듯 사자들과 놀고 양들 가운데 어린 양과 놀듯 꿈과 놀았다.
- ⁴ 그가 아직 소년이였을 때 거인을 죽여 백성의 수치를 씻어 주지 않았던가? 그는 손을 쳐들어 돌팔매로 골리앗의 교만을 꺾었다.
- ⁵ 그가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호소하여 주님께서 그의 오른팔에 힘을 주셨던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싸움에 능한 장수를 쓰러뜨려 백성의 사기를 높일 수 있었다.
- ⁶ 그리하여 사람들은 만 명을 물리친 다윗을 칭송하였고 그가 영화로운 왕관을 쓰게 되었을 때 주님의 복을 받은 그를 찬미하였다.

- ⁷ 사실 그는 에워싼 원수들을 무찔렀고 필리스티아 군대를 없애 버렸으며 오늘까지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
- ⁸ 그는 모든 일을 하면서 거룩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영광의 말씀으로 찬미를 드렸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찬미의 노래를 불렀으며 자신을 지으신 분을 사랑하였다.
- ⁹ 그는 제단 앞에 성가대를 자리 잡게 하여 그들의 목소리로 아름다운 가락을 노래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날마다 자신들의 노래로 찬미하였다.
- ¹⁰ 다윗은 축제를 화려하게 벌였고 그 시기를 완벽하게 정리하였으며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하고 그 찬미가 이른 아침부터 성소에 울려 퍼지게 하였다.
- ¹¹ 주님께서는 그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의 힘을 대대로 들어 높이셨으며 그에게 왕권의 계약과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좌를 주셨다.

솔로몬

- ¹² 다윗의 후계자로 슬기로운 아들이 일어섰는데 다윗 덕분에 이 아들은 편안히 살게 되었다.
- ¹³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사방을 평온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평화로운 시대에 나라를 다스렸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그 안에 영원한 성소를 마련해 드렸다.
- ¹⁴ 당신은 젊은 시절에 얼마나 현명하였습니까? 당신은 강물처럼 지식이 흘러넘쳤습니다.
- ¹⁵ 당신의 정심은 온 땅을 덮고 당신은 그 땅을 심오한 격언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 ¹⁶ 당신의 이름은 머나먼 섬까지 이르렀고 당신이 이른 평화로 당신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까.
- ¹⁷ 당신의 찬가와 잠언과 격언들과 당신의 풀

이는 못 나라가 당신을 경탄하게 하였습니
다.

- 18 당신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으로 불리시는 주 하느님의 이름으로 황금을 주석처럼 모으고 은을 납처럼 쌓아 두었습니다.
- 19 그러나 당신은 못 여인 곁에 누워 육체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 20 당신은 당신의 영예를 더럽히고 당신의 혈통을 오염시켜 자식들에게 징벌을 불러들였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그들을 통탄하게 하였습니다.
- 21 그리하여 당신의 통치권이 둘로 갈라지면서 반역의 왕국이 에프라임에서 일어났습니다.
- 22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 자애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어떤 말씀도 결코 사라지게 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몸소 선택하신 이의 후손들을 없애 버리시거나 당신을 사랑한 이의 자손들을 멸하지 않으셨다. 과연 그분께서는 아곱 집안에 남은 자를 허락하셨고 다윗에게도 그의 뿌리를 남겨 주셨다.

르하브암

- 23 솔로몬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자손들 가운데 그를 이을 후계자를 남겼다. 르하브암은 백성 가운데 우둔하고 지각없는 자로서 그의 정척 때문에 백성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에르보암

- 24 느밧의 아들 에르보암이 이스라엘을 범죄로 이끌었고 에프라임에게 최악의 길을 걷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죄악이 무척 늘어나서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에서 떠나게 되었다.
- 25 그들은 온갖 악을 따르다가 마침내 자신들에게 징벌을 불러들였다.

엘리아

48

- 1 엘리아 예언자가 불처럼 일어났는데 그의 말은 췌처럼 타올랐다.
- 2 엘리아는 그들에게 굶주림을 불러들였고 자신의 열정으로 그들의 수를 감소시켰다.
- 3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는 하늘을 단아 버리고 세 번씩이나 불을 내려 보았다.
- 4 엘리아여, 당신은 놀라운 일들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았습니까? 누가 당신처럼 자랑스러울 수 있었습니까?
- 5 당신은 죽은 자를 죽음에서 일으키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말씀에 따라 그를 저승에서 건져 냈습니다.
- 6 당신은 여러 임금들을 멸망으로 몰아넣고 명사들도 침상에서 멸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 7 당신은 사나이 산에서 꾸지람을 듣고 호렘 산에서 징벌의 판결을 들었습니다.
- 8 당신은 임금들에게 기름을 부어 복수하게 하고 예언자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당신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 9 당신은 불 소용돌이 속에서 불 마차에 태워 들어 올려졌습니다.
- 10 당신은 정해진 때를 대비하여 주님의 분노가 터지기 전에 그것을 진정시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되돌리며 아곱의 지파들을 재건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 11 당신을 본 사람들과 사랑 안에서 잠든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우리도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엘리사

- 12 엘리사가 소용돌이에 휩쓸릴 때 엘리사는 엘리사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엘리사는 일생 동안 어떤 통치자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굴복시키지 못하였다.
- 13 그에게는 어떤 일도 어렵지 않았으며 잠든 후에도 그의 주검은 예언을 하였다.

- 14 살아 생전에 엘리사는 기적들을 일으켰고 죽어서도 그의 업적은 놀라웠다.
- 15 이 모든 행적을 보고도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의 죄악을 포기하지도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고향 땅에서 끌려가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소수의 백성과 다윗 집안의 통치자 하나만 남게 되었다.
- 16 그들 가운데 일부는 하느님 뜻에 맞는 생활을 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많은 죄를 지었다.

히즈키야

- 17 히즈키야는 그의 도성을 견고하게 하고 그 한복판으로 물을 끌어들었다. 그는 쇠 연장으로 바위를 뚫고 저수 동굴을 만들었다.
- 18 그의 시대에 산헤립이 쳐들어왔는데 그는 랍 사게를 파견하고 떠났다. 그는 시온을 거슬러 손을 들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며 호언장담하였다.
- 19 그러자 그들은 마음과 손이 떨리고 몸 푸는 여자들처럼 고통을 겪게 되었다.
- 20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손을 펼쳐 들고 그분의 자비를 간청하였고 거룩하신 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청을 곧바로 들어 주시어 이사야의 손으로 그들을 구해 주셨다.
- 21 주님께서서 아시리아인들의 진지를 내리치시고 그분의 천사가 그들을 쫓아 버렸다.
- 22 히즈키야는 주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였고 자기의 환시에 충실하고 위대한 이사야 예언자의 명령에 따라 자기 조상 다윗의 길을 굳건히 지켰다.

이사야

- 23 이사야 시절에 태양이 거꾸로 돌아 임금의 수명이 연장되었다.
- 24 이사야는 위대한 영의 힘으로 마지막 때를 내다보고 시온에서 통곡하는 이들을 위로 하였다.

- 25 그는 영원에 이르기까지 일어날 일들을 보여 주었고 숨겨진 것들을 미리 알려 주었다.

요시아

- 49 ¹ 요시아에 대한 기억은 항 제조사의 솜씨로 배합된 향과 같다. 그것은 누구의 입이나 꿀처럼 달고 주언에서 연주되는 음악과 같다.
- 2 그는 백성을 회개시켜 바르게 이끌었고 험오스러운 악을 없앴다.
- 3 그는 제 마음을 주님께 바르게 이끌었고 무도한 자들이 살던 시대에 경건함을 굳게 지켰다.

유다의 마지막 임금들

- 4 다윗과 히즈키야와 요시아 말고는 모두가 잘못을 거듭 저질렀다. 과연 그들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법을 저버렸기에 유다 임금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 5 그들은 자기네 힘을 다른 자들에게 넘겨주었고 자기네 영광을 이방 민족들에게 넘겨 주었다.
- 6 이방인들은 성소가 있는 선택된 도성을 불태웠고 그 거리들을 폐허로 만들었다.
- 7 그것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였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박해하였는데 사실 그는 모태에서부터 예언자로 성별되어 뽑고 부수고 파괴하며 세우고 심는 소명을 받았다.

에제키엘

- 8 에제키엘은 하느님께서 커룹의 수레 위에서 보여 주신 영광의 환시를 본 사람이다.
- 9 에제키엘은 원수들이 폭풍우에 시달리던 것을 상기하고 올바른 길을 따르는 이들에게 선을 베풀었다.

열두 예언자들

- 10 그리고 열두 예언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의

빠가 그 무덤에서 다시 피어나기를! 정녕 그들은 야곱을 위로하고 굳센 희망으로 그 들을 구원하였다.

즈루베벨과 예수아

- 11 즈루베벨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까? 그는 오른손에 낀 인장 반지와 같았다.
- 12 여호차다의 아들 예수아도 마찬가지였다. 이 두 사람은 자기네 시대에 집을 짓고 거룩한 성전을 주님께 봉헌하였는데 그 성전은 영원한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느헤미야

- 13 느헤미야에 대한 기억도 위대한 것이다. 그는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과 그 빔장을 만들어 세웠으며 우리 집들을 다시 지었다.

에녹

- 14 이 땅 위에 창조된 자로서 에녹과 비슷한 사람은 없었다. 그는 지상에서 들어 올려 졌다.

요셉

- 15 요셉과 같은 사람도 태어난 적이 없으니 그는 형제들의 지도자가 되고 백성의 버팀 목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유골을 정성스럽게 모셨다.

첫 조상들

- 16 셋과 셋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아담이야말로 살아 있는 모든 피조물 위에 있다.

대제사관

- 50 ¹ 오니아스의 아들 시몬은 대제사로서 생전에 주님의 집을 수리하고 자기 생애에 성전을 견고하게 만들었다.
- 2 그는 안뜰의 높은 벽의 기초를 놓았고 성전

을 둘러싸는 담을 높이 쌓아 올렸다.

- 3 그는 자기 생애에 저수 동굴을 팠는데 그 웅덩이가 둘러싸는 바다 같았다.
- 4 시몬은 백성을 멸망에서 구해 낼 방도를 생각하고 포위를 대비하여 도성을 요새로 만들었다.
- 5 그가 지성소에서 나와 백성에게 둘러싸였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던가!
- 6 그는 구름 사이에서 비치는 새벽 별 같고 축제일의 보름달 같았으며
- 7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전을 비추는 해와 같고 영광의 구름 사이에서 빛나는 무지개와도 같았다.
- 8 그는 봄날 장미꽃 같고 샘물기에 핀 백합 같았으며 여름철 레바논의 푸른 싹과 같았다.
- 9 그는 향로에 담긴 불과 타오르는 향과 같고 두드려 만들어 온갖 보석으로 장식한 황금 그릇 같았다.
- 10 그는 열매들이 달린 올리브 나무 같고 구름까지 치솟은 송백 같았다.
- 11 시몬이 영광의 제복을 입고 호화로운 복장을 다 갖추어 거룩한 제단에 올랐을 때 그는 성소 인을 영화롭게 하였다.
- 12 그가 제단의 화로 곁에 서서 사제들의 손에서 제물의 뭇을 받을 때 그를 둘러싼 형제들은 레바논의 푸른 향백나무처럼 화관을 이루고 아자나무 등치처럼 그를 둘러쌌다.
- 13 이론의 모든 자손들이 영광에 싸여 주님께 드릴 화제물을 손에 들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 섰을 때
- 14 시몬은 제단 위에서 경신례를 드리면서 지극히 높시고 전능하신 분께 바치는 제물을 준비하였다.
- 15 그가 손을 내밀어 술잔을 들고 포도즙을 따라 바친 다음 제단 아래에 그것을 쏟아 붓자 향기가 만물의 임금인 지극히 높고

신 분께 올라갔다.

- 16 그때에 이론의 자손들이 합성을 지르고 두드려 만든 쇠 나팔을 불며 그 소리를 우렁차게 울려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서 기념이 되게 하였다.
- 17 그러자 온 백성이 서둘러 다 함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전능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 그들의 주님께 경배하였다.
- 18 성가대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로 그분을 찬양하였는데 노랫가락이 우렁찬 소리로 아름답게 울려 퍼졌다.
- 19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백성은 자비하신 그분 앞에서 기도를 올렸고 이 기도는 주님에 대한 경신례 절차가 끝나고 예절을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 20 그런 다음 시몬이 내려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회중을 향하여 손을 쳐두고 입술로 주님의 복을 빌어 주며 그분의 이름을 현양하였다.
- 21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께 복을 받기 위하여 두 번째로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권고

- 22 이제 만물의 하나님께 찬미를 드려라. 그분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위대한 일을 하시고 우리의 나날을 모태에서부터 높여 주시며 우리를 당신의 자비로 대해 주신다.
- 23 그분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 시대의 이스라엘 안에 옛날처럼 평화가 깃들게 해 주시기를!
- 24 그분께서 당신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혐오스러운 민족

- 25 나 자신이 혐오하는 민족이 둘 있고 셋째 것은 민족이라고 할 수도 없다.
- 26 그들은 셰이르 산에 사는 자들과 필리스티아인들 그리고 스켄에 거주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다.

결론

- 27 나는 지성과 지식에 대한 가르침을 이 책에 기록해 놓았다. 예루살렘 출신 엘아자의 아들, 시라의 아들인 나 예수는 마음으로 지혜를 이 책에 쏟아 부었다.
- 28 이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는 행복하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이는 지혜로워지리라.
- 29 사람이 그 가르침을 실천하면 만사에 강해지리라. 주님을 경외함이 그의 인생 행로이고 주님께서 경건한 이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서는 영원히 찬미를 받으소서. 아멘. 아멘.

부록

사탄의 아들 예수의 기도

- 51 ¹ 임금이신 주님, 당신께 감사를 드리고 저의 구세주 하나님인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 2 당신께서는 저의 보호자요 협조자가 되시어 이 몸을 멸망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중상하는 혀의 울가미와 거짓을 꾸며내는 자들의 입술에서 저를 건져 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제 주위 사람들 앞에서 협조자가 되시어 저를 구하셨습니다.
- 3 크신 자비와 당신의 이름으로 저를 삼키려는 자들의 울무에서, 제 영혼을 노리는 자들의 손아귀에서, 제게 다친 수많은 환난에서 저를 구하셨습니다.
- 4 사망에서 타올라 저를 질식시키는 불길에서, 제가 지피지도 않은 불길 한기운데에서 저를 구하셨습니다.
- 5 저승의 깊은 구렁에서, 부정한 혀와 거짓된 말에서,
- 6 불의한 혀의 화살에서 저를 구하셨습니다.

- 제 영혼은 죽음에 이르렀고 제 생명은 저 아래 저승 가까이 갔었습니다.
- 7 곳곳에서 저를 에워쌌지만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이 없었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 8 주님, 그때 저는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고 영원으로부터 드러난 당신의 자애를 기억하였습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을 고대하는 이들을 구출해 내시고 악인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 9 그리하여 저는 땅에서 당신께 간청을 올렸고 죽음에서 구출해 주십시오 기도드렸습니다.
- 10 저는 제 주인의 아버지이신 주님께 환난의 날에 거만한 자들 앞에서 도움이 끊겼을 때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부르짖었습니다.
- 11 저는 당신의 이름을 끊임없이 찬미하고 감사의 노래를 읊었습니다. 그러자 제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 12 과연 당신께서는 저를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곤경의 날에 저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당신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리다.

지혜를 열렬히 추구함

- 13 내가 아직 젊고 떠돌이 생활을 하기 전에 나는 기도 가운데 드러내 놓고 지혜를 구하였다.
- 14 나는 성전 앞에서 지혜를 달라고 청하였는데 마지막까지도 지혜를 구할 것이다.
- 15 꽃이 피고 포도가 익어 가는 것처럼 내 마음은 지혜 안에서 기뻐하였다. 내 발은 올바른 길을 걸었으며 젊은 시절부터 지혜를 찾아다녔다.
- 16 나는 조금씩 귀를 기울여 지혜를 받아들였고 스스로를 위해 많은 가르침을 얻었다.
- 17 지혜를 통하여 진전을 이루었으니 지혜를

주신 분께 영광을 드리리라.

- 18 사실 나는 지혜를 실천하기로 결심하였고 선을 추구해 왔으니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 19 내 영혼은 지혜를 얻으려 애썼고 율법을 엄격하게 실천하였다. 나는 하늘을 향해 손을 펼쳐 들고 지혜를 알지 못함을 탄식하였다.
- 20 나는 내 영혼을 지혜 쪽으로 기울였고 순결함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였다. 내가 처음부터 지혜와 더불어 깨달음을 얻었으니 결코 저버림을 당하지 않으리라.
- 21 지혜를 찾으려고 애간장을 태웠기에 나는 그 좋은 재산을 얻게 되었다.
- 22 주님께서는 나에게 보상으로 허를 주셨으니 나는 그 허로 주님을 찬미하리라.
- 23 배우지 못한 자들아, 내게 가까이 오너라. 내 배움의 집에 와서 묵어라.
- 24 너희는 어찌하여 아직도 지혜 없이 지내며 너희 영혼은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느냐?
- 25 나는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하였다. "돈 없이 지혜를 차지하여라."
- 26 너희 목에 멍에를 씌우고 너희 영혼이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하여라. 그것은 곁에 있어 찾기 쉽다.
- 27 나 자신이 얼마나 적은 노력을 기울여 큰 안식을 얻게 되었는지 너희 눈으로 보아라.
- 28 많은 양의 은으로 가르침을 얻어라. 그리고 그것으로 많은 금을 차지하여라.
- 29 너희 영혼이 주님의 자비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너희는 그분을 찬미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 30 정해진 때가 오기 전에 너희 일을 처리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너희에게 상급을 주시리라.

구약성경 - 29

예언서 - 1

이사야서

총 66 장

총 1,290 절

[구약성경]-[이사야서]

이사야 예언서 제 1 부

머리글

1 ¹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대의 임금 우찌야, 요탐, 아하즈, 히즈기야 시대에 유대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시.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

- 2**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내가 아들들을 기르고 키웠더니 그들은 도리어 나를 거역하였다.
- 3** 소도 제 입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이 놓아 준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백성

- 4** 아아, 탈선한 민족 죄로 가득 찬 백성 사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 등을 돌리고 말았다.
- 5** 너희는 얼마나 더 맞으려고 자꾸만 반항하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마음은 온통 골병들었으며
- 6**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데라곤 없이 상처와 상흔 새로 맞은 자국뿐인데 찌내지도 썩매지도 못하고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 7** 너희의 땅은 황폐하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으며 너희의 밭은 너희 앞에서 이방인들이 먹어 치우는구나. 이방인들이 파괴한 것처럼 황폐해졌구나.
- 8** 딸 시온이 남아 있는 모습은 포도밭의 초막 같고 참외 밭의 원두막 같으며 포위된 성읍 같구나.
- 9**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존자들을 조금

이나마 남겨 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똥처럼 되고 고모라같이 되고 말았으리라.

거짓 경신례와 참된 경신례

- 10** 소돔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고모라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라.
- 11**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나는 이제 숫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굳기름에는 물렸다. 황소와 어린 양과 숫염소의 피도 나는 싫다.
- 12** 너희가 나의 얼굴을 보러 올 때 내 뜰을 짓밟으라고 누가 너희에게 시키더냐?
- 13** 더 이상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분향연기도 나에게서는 역겹다. 초하룻날과 안식일과 축제 소집 불의에 찬 축제 모임을 나는 견딜 수가 없다.
- 14** 나의 영은 너희의 초하룻날 행사들과 너희의 축제들을 싫어한다. 그것들은 나에게 짐이 되어 짊어지기에 나는 지쳤다.
- 15** 너희가 팔을 벌려 기도할지라도 나는 너희 앞에서 내 눈을 가려 버리리라. 너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나는 들어 주지 않으리라. 너희의 손은 피로 가득하다.
- 16** 너희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여라.? 내 눈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들을 치워 버려라. 악행을 멈추고
- 17** 선행을 배워라. 공정을 추구하고 억압받는 이를 보살피라. 고아의 권리를 되찾아 주고 과부를 두둔해 주어라.

용서와 순종과 불순종

- 18**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오너라, 우리 시비를 가려보자. 너희의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같이 희어지고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 19 너희가 가까이 순종하면 이 땅의 좋은 소출을 먹게 되리라.
 20 그러나 너희가 마다하고 거스르면 칼날에 먹히리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죄상과 새로운 희망

- 21 충실하던 도성이 어찌다 창녀가 되었는가? 공정이 가득하고 정의가 그 안에 깃들어 있었는데 이제는 살인자들만 가득하구나.
 22 너의 은은 쇠 찌꺼기가 되고 너의 술은 물로 상거워졌다.
 23 네 지도자들은 반역자들이요 도둑의 친구들. 모두 뇌물을 좋아하고 선물을 쫓아다닌다. 고아의 권리를 되찾아 주지도 않고 과부의 송사는 그들에게 닿지도 못한다.
 24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장사 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아, 나의 적들에게 복수하고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리라.
 25 그리고 나서 나의 손을 너에게 돌려 잣물로 씻어 내듯 너의 쇠 찌꺼기를 걸러 내고 너의 불순물을 모두 없애 버리리라.
 26 너의 판관들을 처음처럼 돌려 놓고 너의 고문들을 시작처럼 돌려 놓으리라. 그런 다음에야 너는 '정의의 도읍' 충실한 도성'이라 불리리라."
 27 시온은 공정으로 구원을 받고 그곳의 회개한 이들은 정의로 구원을 받으리라.
 28 그러나 반역자들과 죄인들은 다 함께 파멸하고 주님을 버린 자들은 멸망하리라.

우상 숭배자들의 종말

- 29 너희가 좋아하는 그 참나무들 때문에 너희는 정녕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가 선택한 그 정원들 때문에 너희는 창피를 당하리라.
 30 너희는 정녕 잎이 시든 향엽나무처럼 되고 물이 없는 정원처럼 되리라.
 31 강자는 삼베 조각이 되고 그의 행적은 불타가 되어 돌 다 타 버리는데도 꺼 줄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2 ¹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환시로 받은 말씀.

영원한 평화

- 2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 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3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기 때문이다.
 4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5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주님의 날

- 6 당신께서는 정녕 당신의 백성 야곱 집안을 내치셨습니다. 그곳에는 동방에서 온 짐승이들이 가득하고 필리스티아처럼 요술쟁이들이 가득하며 이방인의 자식들이 득실거립니다.
 7 그들의 땅은 은과 금으로 가득하고 그들의 보화는 끝이 없습니다. 그들의 땅은 군마로 가득하고 그들의 병거는 끝이 없습니다.
 8 그들의 땅은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자기들 손으로 만든 작품에, 자기들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 경배합니다.
 9 이렇듯 인간은 비천해지고 사람은 낮아졌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마소서.
 10 너희는 주님에 대한 공포와 그분의 영광스

러운 위엄을 피하여 바위 속으로 들어가고
먼지 속에 몸을 숨겨라.

- 11 인간의 거만한 눈은 낮아지고 사람들의 교만은 꺾이리라. 그날 주님 홀로 들어 높여 지시리라.
- 12 정녕 만군의 주님의 날이 오리라. 오만하고 교만한 모든 것, 방자하고 거만한 모든 것 위로 그날이 닥치리라.
- 13 높고 우뚝 솟은 레바논의 모든 향백나무들과 비산의 모든 참나무들 위로
- 14 높이 솟은 모든 산들과 우뚝 솟은 모든 언덕들 위로
- 15 드높은 모든 성탑들과 가파른 모든 성벽들 위로
- 16 타르시스의 모든 배들과 호화로운 모든 선박들 위로 그날이 닥치리라.
- 17 인간의 거만은 꺾이고 사람들의 교만은 수그러지리라. 그날 주님 홀로 들어 높여지시리라.
- 18 우상들도 모조리 사라지리라.
- 19 주님께서 세상을 경악케 하시려 일어나실 때 너희는 그분에 대한 공포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피하여 바위 굴 속으로, 땅굴 속으로 들어가라.
- 20 그날에 인간들은 자기들이 경배하려고 만든 은 우상들과 금 우상들을 두더지와 박쥐들에게 던져 버리리니
- 21 주님께서 세상을 경악케 하시려 일어나실 때 그분에 대한 공포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피하여 바위 동굴과 암석 틈으로 들어가기 위함이다.
- 22 너희는 더 이상 인간에게 의지하지 마라. 코에 숨이 붙어 있을 뿐 무슨 가치가 있느냐?

모든 것을, 저장된 모든 빵과 저장된 모든 물을 없애 버리시리라.

- 2 용사와 전사 재판관과 예언자 점쟁이와 원로
- 3 장교와 귀족 고문관과 장인과 미술사를 없애 버리시리라.
- 4 그런 다음 나는 뜻내기들을 그들의 제후로 세우고 철부지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라.
- 5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를, 저마다 제 이웃을 괴롭히고 젊은이가 노인에게, 천민이 귀인에게 대들리라.
- 6 저마다 제 집안의 형제를 붙잡고서 "자네는 겉웃이라도 가졌으니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게나. 이 폐허를 자네 손으로 맡아 주게나." 하고 간청하리라.
- 7 그러나 바로 그날로 그는 소리쳐 말하리라. " 나는 치유자가 되고 싶지 않네. 내 집에는 빵도 없고 겉웃도 없으니 나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지 말게나."
- 8 정녕 예루살렘은 비틀거리고 유다는 쓰러졌으니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거슬러 그분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 9 그들의 얼굴 표정이 자기들의 죄를 증언하고 그들은 소돔처럼 자기들의 죄악을 감추지 않고 드러낸다. 그들은 불행하여라!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였다.
- 10 너희는 이렇게 말하여라. " 의인들은 잘되고 자기가 한 일의 성과를 누리리라."
- 11 악인은 불행하여라! 그는 잘못되리라. 제 손이 저지른 대로 되갚음을 받을 것이다.
- 12 나의 백성을 아이들이 억누르고 여자들이 다스리는구나. 아, 내 백성아! 너희 지도자들이 너희를 잘못 이끌고 너희가 걸어야 할 길을 혼란하게 하는구나.

예루살렘과 유다의 난세

3 ¹ 자 보라, 주 만군의 주님께서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너희가 의지할

지도자들에게 대한 심판

13 주님께서 재판하러 일어서신다. 백성들을 심판하러 일어서신다.

- 14 주님께서 당신 백성의 원로들과 고관들에 대한 재판을 여신다. "바로 너희가 포도밭을 망쳐 놓았다. 너희의 집은 가난한 이에게서 빼앗은 것으로 가득하다.
- 15 어찌하여 너희는 내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이들의 얼굴을 짓밟게느냐?" 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예루살렘 여인들에 대한 경고

- 16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을 부리고 목을 빼고 걸어 다니면서 호리는 눈짓을 하고 살랑살랑 걸으며 발찌를 갈랑거린다."
- 17 그러므로 주님께서서는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를 드러내시고 그들의 이마를 벗겨 보이시리라.
- 18 그날에 주님께서서는 패물들을 없애 버리시리라. 발찌와 태양? 목걸이와 반달 목걸이, 귀걸이와 팔찌와 머리쓰개,
- 19 모자와 발목 걸이와 가슴 띠, 향수병과 부적,
- 21 인장 가락지와 코걸이,
- 22 예복과 덧옷, 장옷과 손지갑,
- 23 망사 옷과 야마 속옷, 머릿수건과 너울을 없애 버리시리라.
- 24 향수 내음 대신 썩은 내가 나고 허리띠 대신 밧줄이 감기리라. 곱게 떨었던 머리가 대머리가 되고 호사로운 옷 대신 자루 조각이 감기리라. 정녕 아름다움 대신 수치가 자리 잡으리라.
- 25 너의 남편들은 칼에 쓰러지고 너의 용사들은 전쟁터에서 넘어지리라.
- 26 시온의 성문들이 슬피 통곡하고 시온은 황폐해져 땅바닥에 주저앉으리라.

4 ¹ 그날에 여자 일곱이 남자 하나를 붙잡고 애원하리라. "우리 양식은 우리가 장만하고 우리 옷도 우리가 마련할 터

이니 제발 당신을 남편이라고 부르게만 해주셔요. 우리의 이 수치를 모면하게 해주세요."

예루살렘의 부흥

- 2 그날에 주님께서 돌게 하신 썩이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되리라. 그리고 그 땅의 열매는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에게 자랑과 영예가 되리라.
- 3 또한 시온에 남은 이들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이들 곧 예루살렘에 살도록 기록된 이들이 모두 거룩하다고 일컬어지리라.
- 4 주님께서서는 심판의 영과 불의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오물을 씻어 내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닦아 내신 뒤에
- 5 시온 신의 모든 지역과 그 화중 위에 낮에는 구름을,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로 연기와 광채를 만들어 주시리라. 정녕 주님의 영광이 모든 것을 덮어 주는 지붕과
- 6 초막이 되어, 낮의 더위를 피하는 그들이 되어 주고 폭우와 비를 피하는 피신처와 은신처가 되어 주리라.

포도밭 노래

- 5 ¹ 내 친구를 위하여 나는 노래하리라, 내 애인이 자기 포도밭을 두고 부른 노래를. 내 친구에게는 기름진 산등성이에 포도밭이 하나 있었네.
- 2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가운데에 탑을 세우고 포도확도 만들었네. 그러고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네.
- 3 자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이 유다 사람들과 나와 내 포도밭 사이에 시비를 가려 다오!
- 4 내 포도밭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했더라면 말이나? 내가 해 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란 말이나?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었느냐?

- 5 이제 내가 내 포도밭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너희에게 알려 주리라. 울타리를 걸어치워 뜬어 먹히게 하고 담을 허물어 짓밟히게 하리라.
- 6 그것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어 가지치기도 못하고 감매기도 못하게 하여 가지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오게 하리라. 또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 7 만군의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나무라네. 그분께서는 공정을 바라셨는데 피 흘림이 웬 말이나? 정의를 바라셨는데 울부짚음이 웬 말이나?

여섯 가지 제앙의 선포

- 8 불행하여라, 빈 터 하나 남지 않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해 가고 밭에 밭을 늘려 가는 자들! 너희만 이 땅 한가운데에서 살려 하는구나.
- 9 만군의 주님께서 나의 귀에다 말씀하셨다. "정녕 수많은 집들이 폐허가 되어 크고 좋은 집들에도 사는 사람이 없으리라.
- 10 열흘 같이 포도밭이 포도주 한 바깥에 내지 못하고 한 호메르의 씨앗이 곡식 한에 파밖에 내지 못하리라."
- 11 불행하여라, 아침 일찍부터 독한 술을 찾아다니고 저녁 늦게까지 술로 달아오르는 자들!
- 12 그들은 비파와 수금, 손북과 피리 소리와 더불어? 술을 마셔 대면서 주님의 업적에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손이 이루신 일에는 눈도 돌리지 않는다.
- 13 그러므로 나의 백성은 지각이 없어 포로로 끌려가리라. 귀족들은 굶주리고 평민들은 갈증으로 목이 타리라.
- 14 그리하여 저승이 목구멍을 한껏 벌리고 그 입을 한없이 열어젖히면 그들의 영화와 범

- 석거림이, 떠들썩하게 기뻐 뛰던 자들이 그곳으로 빠져 들리라.
- 15 인간이 비천해지고 사람이 낮아지리라. 거만한 자들의 눈도 낮아지리라.
- 16 그러나 만군의 주님께서서는 공정으로 드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느님께서서는 정의로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리라.
- 17 어린 양들은 그곳에서 제 목장인 양 풀을 뜯고 살진 새끼 염소들은 그 폐허에서 풀을 뜬어 먹으리라.
- 18 불행하여라, 거짓의 끈으로 죄를 끌어당기고 수레의 줄을 당기듯 죄악을 끌어당기는 자들!
- 19 "우리가 볼 수 있게 그분께서 당신 일을 빨리 서둘러 해 보시라지. 우리가 알 수 있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뜻이 드러나 이루어져 보라지." 하고 말하는 자들!
- 20 불행하여라, 좋은 것을 나쁘다 하고 나쁜 것을 좋다 하는 자들! 어둠을 빛으로 만들고 빛을 어둠으로 만드는 자들! 쓴 것으로 만들고 단 것을 쓴 것으로 만드는 자들!
- 21 불행하여라,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 자신을 슬기롭다 여기는 자들!
- 22 불행하여라, 술 마시는 데에는 용사들이요 독한 술을 씬 데에는 대장부인 자들!
- 23 뇌물 때문에 죄인을 죄 없다 하고 죄 없는 이들의 권리를 빼앗는 자들!
- 24 그러므로 불같이 지푸라기를 삼키듯 검불이 불꽃에 스러지듯 그들의 뿌리는 썩고 그들의 꽃은 먼지처럼 날아가리라. 그들은 만군의 주님의 가르침을 업신여기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경멸하였다.

주님의 분노

- 25 그러므로 주님의 분노가 당신 백성 위에 타올라 당신 손을 뻗치시어 그들을 치시니 산들이 뒤흔들리고 그들의 주검들이 오물

처럼 거리 한가운데에 날려 있다. 이 모든 것에도 그분의 분노는 풀리지 않아 그분의 손은 여전히 뻗어 있다.

아시아인들의 침입

- 26 그분께서는 먼 곳의 민족에게 깃발을 올리시고 휘파람을 부시어 그들을 땅 끝에서 불러오신다. 보라, 그들이 서둘러 날췌게 달려온다.
- 27 그들 가운데에는 지친 자도 없고 비틀거리지는 자도 없으며 아무도 졸지 않고 잠들지 않는다. 허리띠가 풀린 자도 신발 끈이 풀어진 자도 없다.
- 28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활시위는 모두 당겨져 있다. 그들의 말발굽은 차들과 같고 병거의 바퀴들은 폭풍과 같다.
- 29 그들은 암사자처럼 포효하고 힘센 사자들처럼 함성을 지른다. 으르렁거리다 먹이를 잡아채 끌어가면 아무도 빼내지 못한다.
- 30 그날 그들은 노호하는 바다처럼 이 백성에게 으르렁거리리라. 땅을 바라보면 암흑과 고난뿐 빛마저 구름으로 어두워지리라.

이사야의 소명

- 6¹ 우췌야 임금이 죽던 해에, 나는 늙은이 솟아오른 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뵈었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 2 그분 위로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마다 날개를 여섯씩 가지고서, 들로는 얼굴을 가리고 들로는 발을 가리고 들로는 날아다녔다.
- 3 그리고 그들은 서로 주고받으며 외쳤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다."
- 4 그 외치는 소리에 문지방 바닥이 뒤흔들리고 성전은 언기로 가득 찼다.
- 5 나는 말하였다. "큰일났구나. 나는 이제 망

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면서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내 눈으로 뵈다니!"

- 6 그러자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
- 7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하였다. "자,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는 없어지고 너의 죄악은 사라졌다."
- 8 그때에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하고 내가 아뢰었더니
- 9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저 백성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듣고 또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마라. 너희는 보고 또 보아라. 그러나 깨치지는 마라.'
- 10 너는 저 백성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그 귀를 어둡게 하며 그 눈을 들어볼게 하여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치유되는 일이 없게 하여라."
- 11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성읍들이 주민 없이 황폐하게 되고 집집마다 사람이 없으며 경작지도 황무지로 황폐해질 때까지다.
- 12 주님이 사람들을 멀리 쫓아내 이 땅에는 황량함이 그득하리라.
- 13 아직 그곳에 십분의 일이 남아 있다 하여도 그들마저 다시 뜰어 먹히리라. 향협나무와 참나무가 잘릴 때 거기에 남은 그루터기와 같으리라. 그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앗이다."

이허즈에게 내린 첫 번째 경고

- 7¹ 우췌야의 손자이며 요탐의 아들인

유다 임금 아하즈 시대에, 아람 임금 르친과 르말야의 아들인 이스라엘 임금 폐키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지만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2 아람이 에프라임에 진주하였다는 소식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숲의 나무들이 바람 앞에 떨듯 임금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떨렸다.

3 그러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 아들 스이르 아슈과 함께 '마전장이 밭에 이르는 길가 윗저수지의 수로 끝으로 나가서 아하즈를 만나,

4 그에게 말하여라. '진정하고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르친과 아람, 그리고 르말야의 아들이 격분을 터뜨린다 하여도 이들은 타고 남아 언기만 나는 장작 끄트머리에 지나지 않으니 네 마음이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5 아람이 에프라임과 르말야의 아들과 함께 너를 해칠 계획을 꾸미고 말하였다.

6 '우리가 유다로 쳐 올라가 유다를 질겁하게 하고 우리 것으로 빼앗아 그곳에다 타브알의 아들을 임금으로 세우자.'

7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8 아람의 우두머리는 다마스쿠스요 다마스쿠스의 우두머리는 르친이기 때문이다. 이제 예순다섯 해만 있으면 에프라임은 무너져 한 민족으로 남아 있지 못하리라.

9 에프라임의 우두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우두머리는 르말야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녕 서 있지 못하리라.' "

두 번째 경고: 임마누엘의 표징

10 주님께서 아하즈에게 다시 이르셨다.

11 "너는 주 너의 하느님께 너를 위하여 표

징을 청하여라. 저 저승 깊은 곳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아무것이나 청하여라."

12 아하즈가 대답하였다.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13 그러자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여 나의 하느님께서 성가시게 하려 합니까?"

14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15 나쁜 것을 물리치고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될 때, 그는 앙긴 젖과 꿀을 먹을 것입니다.

16 그 아이가 나쁜 것을 물리치고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되기 전에, 임금님께서 혐오하시는 저 두 임금의 땅은 황량하게 될 것입니다.

17 주님께서 아시리아의 임금을 시켜,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과 임금님 부친의 집안에, 에프라임이 유다에서 떨어져 나간 날 이후 겪어 본 적이 없는 날들을 닦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일어날 멸망과 구원

18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주님께서 휘파람을 부시어 이집트 강들 끝에 있는 파리들과 아시리아 땅에 있는 벌들을 불러 오시리라.

19 그것들은 모두 물러와서 험한 계곡들과 바위틈에, 모든 가지 덩굴과 모든 물터에 내려앉으리라.

20 그날에 주님께서 강 건너편에서 빌려 온 칼로 아시리아의 임금을 시켜 머리털과 다리털을 밀고 수염까지도 깎아 버리게 하시

라라.

- 21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사람마다 짧은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를 키우리라.
- 22 이것들이 내는 젖이 넉넉하여 영긴 젖을 먹게 되리라. 장님 이 땅에 남은 자들은 모두 영긴 젖과 꿀을 먹게 되리라.
- 23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값이 은전 천 닢이나 되는 포도나무 천 그루가 있는 곳이 모두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덮이리라.
- 24 온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여 살과 활을 가지고서야 그리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
- 25 꿩이로 일구어 오던 모든 산에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서워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만 소나 먹이고 양이나 밍그 다니는 곳이 되고 말리라.

이사야의 아들의 탄생과 그의 상징적 이름

- 8 ¹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 너는 커다란 서판을 가져다가, 거기에 보통 글씨로 ' 마헤르 살랄 하스 바즈를 위하여'라고 써라."
- 2 그래서 나는 사제인 우리아와 여베레크야의 아들 즈카르야를 믿을 만한 증인들로 내세웠다.
- 3 그런 다음 나는 여예언자를 가까이하였다. 그러자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셨다. " 그의 이름을 마헤르 살랄 하스 바즈라고 하여라."
- 4 이 아이가 ' 아빠', '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마스쿠스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전리품이 아시리아의 임금 앞으로 운반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시리아의 침공

- 5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 6 " 이 백성이 잔잔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업신여기고 르친과 르말야의 아들 앞에서 용기를 잃었다. "
- 7 그러니 보라, 주님께서서는 세차고 큰 강물이, 아시리아의 임금과 그의 모든 영광이 그들 위로 치솟아 오르게 하시리라. 그것은 강바닥마다 차올라 득마다 넘쳐흐르리라.
- 8 그리하여 강물은 유대로 밀려들어 와 목가지 차게 되리라. 그 날개를 활짝 펴서 너의 땅을 온통 뒤덮으리라, 아, 임마누엘!

승리의 표징인 임마누엘

- 9 민족들이, 발악해 보아라. 그러나 질겁하고 말리라. 세상의 먼 나라들이, 모두 귀를 기울여라. 허리를 동여매어라. 그러나 질겁하고 말리라. 허리를 동여매어라. 그러나 질겁하고 말리라.
- 10 계획을 의논해 보아라. 그러나 깨져 버리리라. 결의를 말해 보아라. 그러나 성사되지 못하리라.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님만을 두려워하여라

- 11 주님께서 당신 손으로 나를 붙잡으시고 이 백성의 길을 걷지 말라고 경고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 12 이 백성이 모반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모반이라고 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라.
- 13 너희는 만군의 주님만을 거룩히 모셔라. 그 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고 그 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해야 할 분이시다.
- 14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게 성소가 되시고 차여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걸려 비틀거리게 하는 비위가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닳과 올라머가 되시리라.
- 15 많은 이들이 거기에 걸려 비틀거리고 넘어져서 깨어지며 걸려들어 사로잡히리라.

봉인된 증인 문서

- 16 나는 이 증인 문서를 묶고 나의 제자들 앞에서 이 가르침을 봉인하리라.
- 17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리라. 야곱 집안에서 당신 얼굴을 감추신 분 나는 그분을 고대하리라.
- 18 보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과 나아 말로 시온 산에 계시는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세우신 표징과 예표이다.

우매한 종교에 대한 경고

- 19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한다. "속살거리며 중얼대는 영매들과 점쟁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백성마다 자기네 신들에게 물어보고, 산 자들에 대하여 죽은 자들에게 물어보아야 하지 않느냐?"
- 20 그러나 가르침과 증언을 살펴보아라!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는 정녕코 서광이 없다.

역경의 때

- 21 그들은 억눌리고 허기진 채 걸어간다. 허기가 지면 그들은 화를 내며 자기네 임금과 자기네 하느님을 저주한다. 위를 향하여 고개를 쳐들었다가
- 22 땅을 내려다보건만 보라, 고난과 암흑, 답답한 어둠뿐. 그 흑암 속으로 그들은 내던져지리라.

장차 태어날 임금

- 23 그러나 곤궁에 처해 있는 그 땅에 더 이상 어둠이 없으리라. 옛날에는 즈불론 땅과 납탈리 땅이 천대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바다로 가는 길과 요르단 건너편과 이민족들의 지역이 영화롭게 되리라.

9 ¹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 2 당신께서는 즐거움을 많게 하시고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기뻐합니다, 수확할 때 기뻐하듯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
- 3 정녕 당신께서는 그들이 짊어진 멍에와? 어깨에 멘 창대와 부역 감독관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치신 그날처럼 부수십니다.
- 4 땅을 흔들며 저버거리는 군화도 피 속에 툇군 군복도 모조리 화염에 써여 불꽃의 먹이가 됩니다.
- 5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가, 용맹한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라 불리리라.
- 6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놓인 그 왕권은 강대하고 그 평화는 끝이 없으리이다. 그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공정과 정의로 그 왕국을 굳게 세우고 지켜 가리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정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에프라임을 발하시는 주님의 손

- 7 주님께서 야곱을 거슬러 말씀을 보내시니 그것이 이스라엘 위로 떨어졌다.
- 8 모든 백성이, 에프라임과 사마리아의 주민들이 이를 알고서도 오만하고 자만한 마음으로 말하였다.
- 9 " 토담이 허물어졌으니 네모 돌로 쌓자. 돌 무화과나무가 부서졌으니 향백나무로 대신 하자."
- 10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거슬러 적들을 일으키시고 원수들을 부추기셨다.
- 11 동에서는 아람이, 서에서는 필리스티아가 입을 크게 벌려 이스라엘을 삼켜 버렸다. 이 모든 것에도 그분의 진노는 풀리지 않아 그분의 손은 여전히 뻗쳐 있다.
- 12 그러나 이 백성은 자기를 치신 분에게 돌이키지 않았고 만군의 주님을 찾지도 않았

다.

- 13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를, 종려나무 가지와 골풀을 단 하루에 잘라 버리셨다.
- 14 원로와 고관이 머리고 거짓을 가르치는 예언자가 꼬리다.
- 15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잘못 이끌어 그 지도를 받은 이들이 혼란에 빠졌다.
- 16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젊은이들을 탐탁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의 고아와 과부들을 가엾이 여기지 않으셨다. 그들은 모두 무도한 자이며 악행을 저지르는 자이고 입이란 입을 모두 물지각한 것만을 말한다. 이 모든 것에도 그분의 진노는 풀리지 않아 그분의 손은 여전히 뻗쳐 있다.
- 17 정녕 사악함이 불처럼 타올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집어삼키고 잡목 숲을 사르니 연기 기둥이 휘돌며 치솟는다.
- 18 만군의 주님의 분노로 땅은 타 버리고 백성은 불꽃의 먹이처럼 되어 버렸다. 아무도 제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 19 오른쪽을 잘라 먹어도 배가 고프고 왼쪽을 뜯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 사람마다 제 팔의 살을 뜯어 먹는다.
- 20 므나세는 에프라임을, 에프라임은 므나세를 뜯어 먹고 이들은 함께 유다에게 달려든다. 이 모든 것에도 그분의 진노는 풀리지 않아 그분의 손은 여전히 뻗쳐 있다.

유다의 유력가들에 대한 일곱 번째 저주

- 10 ¹ 불행하여라, 불의한 법을 세우고 고통을 주는 규정들만 써 내려가는 자들!
- 2 이자들은 힘없는 이들의 소송을 기각시키고 내 백성 가운데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약탈하고 고아들을 강탈한다.
- 3 너희는 징벌의 날에, 멀리서 들이닥치는 폭풍의 날에 어찌하려느냐? 누구에게 도망하

여 도움을 청하고 너희 재산은 어디에 갖다 놓으려느냐?

- 4 포로들 사이에 쫓겨 앉거나 살해된 자들 사이에 쓰러지는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에도 그분의 진노는 풀리지 않아 그분의 손은 여전히 뻗쳐 있다.

아시리아 임금에 대한 벌

- 5 불행하여라, 내 진노의 막대인 아시리아! 그의 손에 들린 몽둥이는 나의 분노이다.
- 6 나는 그를 무도한 민족에게 보내고 나를 노엽게 한 백성을 거슬러 명령을 내렸으니 약탈질을 하고 강탈질을 하며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처럼 짓밟게 하려는 것이었다.
- 7 그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한 뜻을 마음에 품지도 않았다. 오로지 그의 마음속에는 멸망시키려는 생각과 적지 않은 수의 민족들을 파멸시키려는 생각뿐이었다.
- 8 사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 나의 제후들은 모두 임금이 아니냐?
- 9 칼노는 카르크미스처럼 되지 않았느냐? 하맛은 아르파트처럼 되고 사마리아는 다마스쿠스처럼 되지 않았느냐?
- 10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보다 더 많은 신상들을 치러 놓고 우상을 섬기는 이 왕국들을 내 손이 장악한 것처럼
- 11 사마리아와 그 신상들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예루살렘과 그 물신들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 12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다 마치신 다음, 아시리아 임금의 오만한 마음에서 나온 소행과 그 눈에 서린 방자한 교만을 벌하실 것이다.
- 13 그는 이렇게 말한다. " 나는 내 손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었다. 나는 현명한 사람이기에 내 지혜로 이루었다. 나는 민족들의 경계선을 치워 버렸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으며 왕좌에 앉은 자들을 힘센 장사처럼

끌어내렸다.

- 14 내 손이 민족들의 재물을 새 등지인 양 움켜잡고, 버려진 알들을 거두어들이듯 내가 온 세상을 거두어들였지만 날개를 치거나 입을 열거나 재잘거리는 자가 없었다."
- 15 도끼가 도끼질하는 사람에게 뽑힐 수 있느냐? 톱이 톱질하는 사람에게 으스스할 수 있느냐? 마치 몽둥이가 저를 들어 올리는 사람을 휘두르고 막대가 나무도 아닌 사람을 들어 올리려는 것과 같지 않느냐?
- 16 그러므로 주 만군의 주님께서는 그 비대한 자들에게 질병을 보내어 아위게 하시리라. 마치 불로 태우듯 그 영화를 불꽃으로 태워 버리시리라.
- 17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는 불같이 되시어 그의 영광과 가시덤불을 단 하루에 태워 삼켜 버리시리라.
- 18 그 화려한 숲과 과수원을 그분께서는 모조리 파괴시켜 버리시리라. 그러면 그는 병자처럼 말라 가리라.
- 19 그 숲의 나무들 가운데 남은 것은 몇 그루 되지 않아 아이라도 그것들을 기록해 둘 수 있으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

- 20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야곱 집안의 생존자들이 더 이상 자기들을 친 자에게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주님께만 충실히 의지할 것이다.
- 21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남은 자들이 용맹하신 하느님께 돌아올 것이다.
- 22 이스라엘아, 네 백성이 실사 바다의 모래 같다 하여도,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만 돌아올 것이다. 파멸은 이미 결정된 것, 정의가 넘쳐흐를 것이다.
- 23 정녕 주 만군의 주님께서는 이미 결정된

멸망을 온 세상 한가운데에서 집행하실 것이다.

아시리아를 두려워하지 마라

- 24 그러므로 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시온에 사는 나의 백성아, 너를 막대로 때리고 이집트처럼 너에게 몽둥이를 치켜드는 아시리아를 두려워하지 마라.
- 25 이제 아주 조금만 지나면 너를 향한 나의 진노는 다하고, 오히려 저들의 파괴 행위를 향하여 나의 분노를 터뜨릴 것이다."
- 26 만군의 주님께서는 오렘 바위 곁에서 미디안을 치신 것처럼 아시리아에게 채찍을 휘두르시고, 바다 위에 있는 당신의 몽둥이를 이집트에서처럼 치켜드릴 것이다.
- 27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너의 어깨에서 그의 짐이 벗겨지고 너의 목에서 그의 멍애가 사라지리라. 아시리아는 사마리아에서 올라와

침략자들의 공격과 실패

- 28 아얏에 이른다. 미그론을 지나 미크마스에 군수품을 맡긴다.
- 29 그들은 협곡을 지나면서 " 우리는 게비에서 하룻밤을 묵으리라." 한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이는 달아난다.
- 30 밧 갈림아, 크게 소리 질러라. 라이사야, 귀를 기울여라. 아나롯아, 대답하여라.
- 31 마드메나는 도망치고 게비 주민들은 피난간다.
- 32 바로 그날 아시리아는 늪에 머물면서 팔 시온 산을 향하여, 에루살렘 동산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른다.
- 33 보라, 주 만군의 주님께서 무서운 힘으로 가지들을 잘라 내신다. 높이 솟아오른 것들은 잘려 나가고 드높은 것들은 거꾸러진다.
- 34 잡목 숲은 쇠도기로 찍혀 넘어지고 레바논은 그 영화와 함께 쓰러진다.

메시아와 평화의 왕국

- 11** ¹ 이사이의 그루터기에서 햇슨이 돌아
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 ²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리니 지혜와 슬
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
님을 경외함이다.
- ³ 그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흐뭇해하리라.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 ⁴ 힘없는 이들을 정의로 재판하고 이 땅의 가
련한 이들을 정당하게 심판하리라. 그는 자
기 입에서 나오는 막대로 무죄배를 내리치
고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악인을
죽이리라.
- ⁵ 정의가 그의 허리를 두르는 때가 되고 신의
가 그의 몸을 두르는 때가 되리라.
- ⁶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리라. 송아지가 새끼 사자
와 더불어 살찌 가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
고 다니리라.
- ⁷ 암소와 곰이 나란히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지내리라. 사자가 소처럼 어물을 먹고
- ⁸ 젓먹이가 독사 굴 위에서 장난하며 젓 떨어
진 아이가 살무사 굴에 손을 디밀리라.
- ⁹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도 사람들은 악하
게도 패덕하게도 행동하지 않으리니 바다를
덮는 물처럼 땅이 주님을 앎으로 가득할 것
이기 때문이다.

유배자들의 귀향

- ¹⁰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이사이의
뿌리가 민족들의 깃발을 세워져 겨레들이
그에게 찾아들고 그의 거처는 영광스럽게
되리라.
- ¹¹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주님께서
당신 손을 두 번째로 다시 드시리니 아시
리아와 이집트 파트로스와 에티오피아와

엘람 신아르와 하맛과 바다 섬들에 생존해
있는 당신 백성의 남은 자들을 속량하시려
는 것이다.

- ¹² 또한 그분께서는 민족들에게 깃발을 올리
시어 사방의 땅으로부터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시고 흠어진 유다 사람들을
모아들이시리라.
- ¹³ 에프라임의 질투는 사라지고 유다의 적개
심은 없어지리라. 에프라임은 유다를 질투
하지 않고 유다는 에프라임을 적대하지 않
으리라.
- ¹⁴ 그들은 서쪽으로 필리스티아의 어깨를 내
리 덮치고 함께 동쪽 백성들을 약탈하리라.
그들은 애돔과 모압으로 손을 내뻗고 암몬
사람들도 그들에게 복종하리라.
- ¹⁵ 주님께서서는 이집트 바다의 물목을 말리시
고 당신 폭풍의 위력을 떨치시며 강 위로
당신의 손을 휘두르시고 그것을 일곱 개울
로 쪼개 놓으시어 신을 신은 채 건너가게
하시리라.
- ¹⁶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것과 같이 아시리아에 생존해 있는
당신 백성에게도 큰길이 생겨나리라.

구원된 이들의 감사 노래

- 12** ¹ 그날에 너는 이렇게 말하리라. " 주
님, 당신을 찬송합니다. 당신께서는
저에게 진노하셨으나 분노를 거두시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 ² 보라, 하느님은 나의 구원. 신뢰하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군셈. 나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다."
- ³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
리라.
- ⁴ 그날에 너희는 이렇게 말하리라. " 주님을
찬송하여야. 그 이름을 받들어 불러라. 그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리고 그 이름 높으심
을 선포하여야.

- 5 위업을 이루셨으니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이를 온 세상에 알려라.
- 6 시온 주민들아, 소리 높여 환호하여라. 너희 가운데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는 위대하시다."

바빌론의 멸망

- 13** ¹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본 바빌론에 관한 신탁.
- 2 너희는 민둥산 위에 깃발을 올려라. 그들에게 소리를 높여라. 그들이 ' 귀족 문'으로 들어오도록 손을 흔들어라.
 - 3 내게 봉헌된 이들에게 나는 명령을 내렸다. 내 분노의 심판을 위하여 나의 용사들도, 내 엄위에 환호하는 자들도 불러 모았다.
 - 4 들어라, 수많은 백성들이 모인 것처럼 저 산들 위에서 떠들어 대는 소리를. 들어라, 왕국들이, 모여든 민족들이 왁자지껄하는 소리를. 만군의 주님께서 전투에 나갈 군대를 사열하신다.
 - 5 그들은 먼 땅에서, 하늘 끝에서 온다. 주님께서 당신 진노의 도구들로 온 땅을 멸망시키려 오신다.
 - 6 슬피 울어라. 주님의 날이 다가왔다. 그것은 파멸과도 같은 것, 전능하신 분에게서 온다.
 - 7 그래서 손이란 손은 모두 맥이 빠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녹아 내리며
 - 8 불안에 떨리라. 그들은 경련과 고통에 사로잡히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리라. 서로 뉘 나간 듯 쳐다보는데 그들의 얼굴은 불처럼 달아오르리라.
 - 9 보라, 주님의 날이 온다.? 무자비한 그날이 진노와 격분과 함께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 죄인들을 땅에서 절멸시키려 온다.
 - 10 하늘의 별들과 별자리들은 재빛을 내지 못하고 해는 떠올라도 어둡고 달도 재빛을 비추지 못하리라.
 - 11 나는 세상을 그 사악함 때문에 벌하고 죄

- 인들을 그 죄악 때문에 벌하리라. 나는 오만한 자들의 교만을 끝장내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꺾으리라.
- 12 나는 사람을 순금보다, 인간을 오퍼르의 금보다 드물게 하리라.
- 13 그러므로 하늘은 떨고 땅은 흔들리다 제자리에서 벗어나리라. 만군의 주님의 진노로 그분 격분의 날에 그러하리라.
- 14 마치 쫓기는 영양들처럼 모이는 이 없는 가축 떼처럼 저마다 제 겨레에게 돌아가고 저마다 제 땅으로 도망가리라.
- 15 그러나 발각되는 자마다 절러 죽고 붙잡히는 자마다 칼에 맞아 쓰러지리라.
- 16 그들의 어린것들은 그들 눈앞에서 내동댕이쳐지고 그들의 집들은 약탈당하고 그들의 아내들은 욕을 당하리라.
- 17 보라, 나는 그들을 거슬러 메디아인들을 일으키리라. 메디아인들은 은에도 관심이 없고 금도 좋아하지 않는다.
- 18 그들은 활로 젊은이들을 거꾸러뜨리고 태아를 가없이 여기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아이들도 붙잡히게 보이지 않는다.
- 19 나라들 가운데 보배요 칼데아인들의 자랑스러운 영광인 바빌론은 하느님께서 뒤엎으신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리라.
- 20 자기에는 영원토록 거주하는 사람이 없고 세계 대대 이주하는 사람이 없으리라. 아랍인들도 그곳에는 천막을 치지 않고 목자들도 그곳으로는 양 떼를 몰고 가지 않으리라.
- 21 오히려 사막의 짐승들이 그곳에 깃들이고 그들의 집들은 부엉이로 우글거리리라. 타조들이 그곳에서 살고 염소 귀신들이 그곳에서 춤추며 놀리라.
- 22 그 궁성에서는 늑대들이 울부짖고 안락하던 궁궐에서는 승냥이들이 울부짖으리라.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날들은 미루어지지 않으리라.

이스라엘의 귀향

- 14** ¹ 주님께서서는 정녕 야곱을 가없이 여
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하시
어, 그들을 고향에 자리 잡게 하실 것이다.
이방인들이 그들과 합류하고 야곱 집안에
받아들여지며,
² 민족들이 야곱 집안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은 주님의
땅에서 그 민족들을 남종과 여종으로 차지
하고,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을 포로
로 잡아 오며, 자기네 압제자들을 지배할
것이다.

바빌론 임금의 종말

- ³ 주님께서 너의 괴로움과 불안에서, 너에게
지워진 심한 노역에서 너를 풀어 주시는 날
에,
⁴ 너는 바빌론 임금에 대하여 이러한 조롱의
노래를 지어 부를 것이다. 어찌하다 압제자
가 종말을 고하고 억압이 끝나게 되었는가?
⁵ 주님께서 악인들의 몽둥이와 통치자들의 흘
을 부수어 버리셨네.
⁶ 화를 내며 실 새 없이 민족들을 내리치고
성을 내며 사정없이 꺾박하고 겨레들을 짓
밟던 그 흘을.
⁷ 온 세상은 안식과 평온을 누리고 사람들은
기쁨에 넘쳐 소리 지르네.
⁸ 방백나무들도 너 때문에 기뻐하고 레바논의
향백나무들은 말하네. " 네가 쓰러진 뒤로
는 우리를 배려 올라오는 자가 없다."
⁹ 땅 밑 저승은 너를 위하여 너의 도착을 환
영하려고 소란을 떨며 너를 위하여 세상의
수령이었던 그림자들을 모두 깨우고 민족들
의 임금을 모두 그 왕좌에서 일으켜 세우는
구나.
¹⁰ 그들이 모두 너에게 " 너도 우리처럼 허약
해졌구나. 너도 우리와 똑같이 되었구나."

하고 말하네.

- ¹¹ 너의 영화도 네 수금 소리도 저승으로 떨
어졌구나. 구더기가 네 밑에 요로 깔리고
별레가 네 이불이 되었구나.
¹² 어찌하다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빛나는 별,
여명의 아들인 네가! 민족들을 쳐부수던
네가 땅으로 내동댕이쳐지다니.
¹³ 너는 네 마음속으로 생각했었지. ' 나는 하
늘로 오르리라.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나의
왕좌를 세우고 북녘 끝 신들의 모임이 있
는 산 위에 좌정하리라.
¹⁴ 나는 구름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
신 분과 같아져야지.'
¹⁵ 그런데 너는 저승으로, 구렁의 맨 밑바닥으
로 떨어졌구나.
¹⁶ 너를 보는 자마다 너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눈여겨 살펴보면서 말하리라. " 이자는 세
상을 뒤흔들고 나라들을 떨게 하던 자가
아닌가?
¹⁷ 땅을 사막처럼 만들고 성읍들을 파괴하며
포로들을 고향으로 보내 주지 않던 자가
아닌가?"
¹⁸ 모든 민족의 임금들은 저마다 제 능묘 속
에 영광스럽게 누워 있지만
¹⁹ 너는 사람들이 꺼리는 유산아처럼 무덤도
없이 내던져져, 구렁의 돌바닥으로 내려가
는 살해된 자들, 칼에 찔려 죽은 자들로
웃처럼 뒤달이고 발에 짓밟히는 송장처럼
되었구나.
²⁰ 너는 네 나라를 멸망시키고 네 백성을 죽
였으니 그들과 함께 묻히지 못하리라. 이
악독한 종자는 영원히 그 이름이 불리지
않으리라.
²¹ 너희는 그의 아들들을 그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학살할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일
어나 땅을 차지하고 세상을 성읍들로 채워
서는 안 된다.

바빌론의 멸망

- 22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 나는 그들을 거슬러 일어나 바빌론의 명성과 그 생존자들을, 그 자손과 후손들을 뿌리 뽑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 23 나는 또 그곳을 고슴도치의 차지로, 물웅덩이로 만들고 그곳을 멸망의 빗자루로 쓸어버리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아시리아의 멸망

- 24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셨다. " 내가 생각한 것은 그대로 실현되고 내가 결정한 것은 그대로 성사되리라.
- 25 나는 아시리아를 내 땅에서 쳐부수고 내 산들 위에서 짓밟으리라. 그러면 내 백성에게서 그의 땅이 벗겨지고 그들의 어깨에서 그의 짐이 벗겨지리라."
- 26 이것이 온 세상에 대하여 내려진 결정이며 이것이 모든 민족들 위로 뻗쳐진 손이다.
- 27 만군의 주님께서 결정하셨는데 누가 그것을 꺾을 수 있느냐? 그분의 손이 뻗쳐 있는데 누가 그것을 돌릴 수 있느냐?

필리스티아에 대한 경고

- 28 아하즈 임금이 죽던 해에 이러한 신탁이 내렸다.
- 29 필리스티아 사람들아, 너를 내리치던 막대가 부러졌다고 모두 기뻐하지 마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오고 뱀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 뱀이 된다.
- 30 힘없는 이들의 만이들이 배불리 먹고 가난한 이들이 안심하고 드러누워 쉬리라. 그러나 나는 굶주림으로 너의 뿌리를 죽게 하고 너의 남은 자들도 내가 죽이리라.
- 31 성문아, 슬피 울어라. 성읍아, 울부짖어라. 필리스티아 사람들아, 모두 불안에 떨어라. 북녘에서부터 연기가 내려온다. 그 대열에는 낙오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 32 이민족의 사절들에게 무어라 대답하리오?

"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며 그분 백성 가운데 가련한 이들이 그리로 피신한다." 하여라.

모압에 내릴 재앙

- 15 **1** 모압에 대한 신탁. 정녕 밤 사이에 파멸하였구나. 아르 모압이 멸망하였구나. 정녕 밤 사이에 파멸하였구나. 키르 모압이 멸망하였구나.
- 2 비잇과 디본이 통곡하러 산당으로 올라갔구나. 느보와 메드바 위에서 모압이 슬피 우는구나. 머리는 모두 벗겨지고 수염은 모두 깎였구나.
- 3 길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자루옷을 두르고 지붕 위와 광장들에서는 모두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리는구나.
- 4 헤스본과 엘알레가 울부짖으니 그들의 소리가 아하츠까지 들리는구나. 이 때문에 모압의 허리들이 떨리고 그들의 낫마저 떨고 있구나.
- 5 나의 마음은 모압 때문에 울부짖는다. 그의 피난민들이 초아르까지, 에글랏 슬리시야까지 도망치면서 루히의 오르막을 통곡하며 올라가고 호로나임으로 가는 길에서 몰락의 절규 소리를 높이는구나.
- 6 아, 니므림의 샘이 메말라 황폐하게 되어 풀은 시들고 목초는 타 버렸으니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구나.
- 7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이 남겨 놓은 것과 간직해 둔 재물을 버드나무 개울 건너로 짊어지고 가는구나.
- 8 아, 절규 소리가 모압 전역을 휘돌고 그 울부짖음은 에글라임까지, 그 울부짖음은 브에르 엘람까지 이르는구나.
- 9 정녕 디본의 물은 피로 가득하구나. 그러나 나는 디본 위로 또 다른 재앙을, 모압의 생존자들에게, 그 땅의 남은 자들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유다에게 한 모압의 호소

- 16** ¹ 이 땅을 다스리는 이의 어린 양을 보내어라.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딸 시온의 산으로.
- ² 퍼덕이며 달아나는 새들처럼 등지에서 쫓겨난 어린 새들처럼 모압의 딸들이 아른논 강의 건널목에서 헤매리라.
- ³ "고견을 들려주십시오.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한낮에 그대의 그늘을 밤처럼 펼쳐 주십시오. 쫓기는 이들을 숨겨 주고 도망치는 이들이 들키지 않게 해 주십시오.
- ⁴ 모압에서 쫓겨난 이들을 그대 곁에 머물게 하여 파괴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억압이 그치고 파괴가 끝나 압제자가 이 땅에서 사라지면
- ⁵ 다윗의 천막 안에는 신의로 왕좌가 굳게 세워져 공정을 추구하며 정의에 밝은 이가 그 위에 진실과 함께 좌정하리이다."

모압에 대한 애도

- ⁶ 우리는 너무나 도도한 모압의 교만에 대하여 들었다. 그의 거만과 교만과 방자함 그의 허풍에 대하여 들었다.
- ⁷ 그리하여 모압이 그 자신 때문에 슬피 우는구나. 모두가 슬피 우는구나. 그들은 키르 하레셋의 건포도 과자 생각에 더없이 상심하며 탄식하는구나.
- ⁸ 정녕 헤스본의 포도밭들과 시브마의 포도줄기들이 황폐하게 되었구나. 그 고급 포도들은 여러 민족의 군주들을 도취시켰었지만, 그것들은 아제르까지 뻗어 나가고 사막까지 퍼져 나갔으며 그 덩굴들은 무성하게 자라 바다 건너까지 다다랐었던만.
- ⁹ 나 이제 아제르가 통곡하듯 시브마의 포도줄기 때문에 통곡하리라. 헤스본과 엘알레야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라. 네 과일과 곡식의 수확 위로 적군의 함성이 덮쳤다.

- ¹⁰ 과수원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포도밭에서는 환호도 환성도 울리지 않는다. 포도 획에는 포도 밟는 사람이 없고 흥겨운 소리가 그쳐 버렸다.
- ¹¹ 그래서 나의 내장은 모압 때문에, 나의 속은 키르 헤레스 때문에 비파처럼 떨린다.
- ¹² 모압이 산당으로 올라가 애를 쓰더라도 자기 성소로 가 기도를 드리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
- ¹³ 이것은 예전에 주님께서 모압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
- ¹⁴ 그러나 지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날뿔이 햇수 같은 삼 년이 지나면, 그 수많은 무리 전체와 함께 모압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남은 자리아 아주 조금 밖에 되지 않아 보잘 것이 없을 것이다."

다마스쿠스와 이스라엘의 멸망

- 17** ¹ 다마스쿠스에 대한 신탁. 보라, 다마스쿠스는 이제 성읍이 아니라 폐허 더미가 되리라.
- ² 아로에르의 성읍들은 버려져 짐승들의 차지가 되고 그것들이 거기에 자리 잡아도 놀라 달아나게 할 자가 없으리라.
- ³ 에프라임에서 보루가, 다마스쿠스에서 왕국이 없어지고 아람의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화와 같은 꼴이 되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 ⁴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아람의 영화는 보잘 것이 없어지고 그 몸의 기쁨기는 다 빠지리라.
- ⁵ 이는 수확꾼이 곡식을 거두어들인 뒤 팔로 이삭을 모아들일 때와 같고 르파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워 모을 때와 같으리니
- ⁶ 거기에는 올리브 나무를 떨고 닳을 때처럼 남은 열매를 따는 일만 남아 있을 뿐, 과일 나무 끝 가지에 두세 알 줄기에 너덧 알만 남아 있으리라.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말씀

이다.

우상 숭배의 끝

- 7 그날에 사람들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바라 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로 눈을 들 것이다.
- 8 그리고 자기를 손으로 만든 작품인 제단들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 목상들과 분향 제단들을 쳐다보지 않을 것이다.

우상 숭배와 멸망

- 9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버리고 도망친 히위족과 아모리족의 성읍들처럼 내버려져 황폐하게 되리라.
- 10 정녕 너는 네 구원이신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네 피신처이신 반석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희열의 식물들을 심고 낫친 신의 덩굴나무 모퉁이를 심어
- 11 내가 심은 그날로 자라게 하고 씨앗을 뿌린 그 아침으로 썩어 뜨게 하여도 그것이 병드는 날 수확은 사라져 너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이 되리라.

침략자들의 멸망

- 12 아아, 수많은 민족들의 고향 소리! 그들은 바다가 노호하듯 고향을 지른다. 겨레들의 합성! 그들은 거대한 물이 포효하듯 합성을 지른다.
- 13 큰 물이 포효하듯 겨레들이 합성을 지른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을 꾸짖으시자 그들은 멀리 도망친다. 산 위에서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폭풍 앞의 방랑초처럼 그들은 쫓겨난다.
- 14 보라, 저녁때에 닥쳐온 두려움. 아침이 되기 전에 그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 이것이 우리를 약탈하는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노략하는 자들의 운명이다.

에티오피아에 대한 말씀

- 18** ¹ 아아, 에티오피아의 강 건너편 날개 달린 배들의 땅!
- 2 사신들을 바다로, 왕골 배에 태워 물 위로 보내는 땅! 너희 날쌌던 특사들이, 가거라, 흰칠하고 말쑥한 겨레에게로. 어디에서나 두려움을 일으키는 민족, 강줄기가 여러 갈래로 뺨은 땅에 사는 강력하고 승승장구하는 겨레에게로.
 - 3 세상의 모든 주민들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산들 위에 깃발이 오르거든 쳐다보아라. 나 팔 소리가 울리거든 들어 보아라.
 - 4 정녕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햇볕 아래 따가운 더위처럼 수확 철 더위 때의 이슬 구름처럼 나는 내 처소에서 조용히 바라보리라.
 - 5 수확하기 전에 꽃철이 지나서 꽃이 포도로 여물어 갈 때 가지들은 낮으로 잘리고 덩굴들은 건져 뜯겨 나가리라.
 - 6 그것들은 모두 산의 땀구름과 들의 땀수들에게 넘겨져 땀구름들이 그 위에서 여름을 나고 들의 온갖 땀수들이 그 위에서 겨울을 나리라."
 - 7 그때에 흰칠하고 말쑥한 민족과 어디에서나 두려움을 일으키는 민족에게서, 강줄기가 여러 갈래로 뺨은 땅에 사는 강력하고 승승장구하는 겨레에게서,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모신 곳 시온 산으로 만군의 주님께 드릴 선물이 보내질 것이다.

이집트의 멸망

- 19** ¹ 이집트에 대한 신탁. 보라, 주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시고 이집트로 가신다. 이집트의 우상들은 그분 앞에서 벌벌 떨고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은 속에서 녹아 내린다.
- 2 내가 이집트인들을 부추겨서 동끼끼리 이웃끼리 싸우고 성읍끼리 왕국끼리 싸우게 하

- 리라.
- 3 이집트 안에서 사람들은 혼이 빠지고 나는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켜 버리리라. 그러면 그들은 우상들과 혼령들 영매들과 점쟁이들에게 물어보리라.
- 4 내가 이집트인들을 냉혹한 군주의 손에 넘겨 포악한 임금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라. 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 5 바다에서는 물이 마르고 강은 바싹 메마르리라.
- 6 개천들은 악취를 풍기고 이집트의 나일 강과 지류들은 물이 줄고 메말라 갈대와 부들이 사들어 버리리라.
- 7 나일 강 어귀 강가에 있는 풀밭과 나일 강변의 파종된 밭들은 모조리 말라 바람에 날려 아무것도 남지 않으리라.
- 8 어부들은 탄식하고? 나일 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들은 모두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들은 생기를 잃어 가리라.
- 9 야미포를 만드는 자들은 실망에 빠지고 삼을 삼는 여인들과 삼베를 짜는 자들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 10 그 직조공들은 기가 꺾이고 품팔이꾼들은 모두 낙담하리라.
- 11 초안의 제후들은 어리석기만 하고 파라오의 현명하다는 고문관들은 우둔한 고문들이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 파라오에게 "저는 현인들의 자손이며 옛 임금들의 자손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 12 너희의 현인들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에 대하여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여 알리도록 해 보려무나.
- 13 초안의 제후들은 바보가 되고 멤피스의 제후들은 착각에 빠졌으며 그 종족들의 수장들은 이집트를 잘못 이끌었다.
- 14 주님께서 그 가운데에 혼란의 영을 섞어 놓으시자 그들은 하는 일마다 이집트를 비

틀거리게 하여 주정꾼이 제가 토해 낸 것 위에서 비틀거리는 꼴이 되게 하였다.

- 15 그리하여 머리는 쪼리든, 종려나무 가지든 골풀이든 누가 하든지 이집트에는 되는 일이 없으리라.

이집트의 미래

- 16 그날에 이집트인들은 여자들처럼 되어, 자기를 위로 휘두르시는 주님의 손 앞에서 무서워 떨 것이다.
- 17 유다 땅은 이집트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어, 유다 땅에 대하여 듣는 자들은 모두 만군의 주님께서 자신들을 거슬러 세우신 계획 때문에 무서워할 것이다.
- 18 그날에 이집트 땅에는 가난한 말을 하고 만군의 주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생길 터인데, 그 가운데 하나는 '태양의 도시'라 불릴 것이다.
- 19 그날에 이집트 땅 한가운데에 주님을 위한 제단 하나가 세워지고, 그 국경에는 주님을 위한 기둥 기둥 하나가 세워질 것이다.
- 20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만군의 주님을 위한 표징과 증인이 되어, 그들이 압제자들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으면,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시어 그들을 보호하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 21 주님께서는 이렇게 당신 자신을 이집트인들에게 알리시고, 그날에 이집트인들은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희생과 제물을 봉헌하며 주님께 서원을 하고 그대로 채울 것이다.
- 22 주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을 치시겠지만, 치신 뒤에는 곧바로 고쳐 주실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돌아오고, 그분께서는 그들의 간청을 들으시어 그들을 고쳐 주실 것이다.
- 23 그날에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가는 큰길 이 생겨, 아시리아인들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인들은 아시리아로 가며, 이집트인

들이 아시리아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 24 그날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시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복이 될 것이다.
- 25 곧 만군의 주님께서 " 복을 받아라, 내 백성 이집트야, 내 손의 작품 아시리아야, 내 소유 이스라엘아!" 하고 말씀하시면서 복을 내리실 것이다.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멸망

- 20 ¹ 아시리아 임금 사르곤이 파멸한 총사령관이 아스돗으로 진군해 와서, 아스돗을 공격하여 그곳을 점령하던 해의 일이다.
- 2 그때에 주님께서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를 시켜 이렇게 이르셨다. " 자, 네 허리에 두른 자루옷을 풀고 네 밭에서 산을 벗어라." 그는 그렇게 하고서 알몸과 맨발로 다녔다.
- 3 그 뒤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 나의 종이 사야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 대한 표징과 예표로서, 삼 년 동안 알몸과 맨발로 다닌 것처럼,
- 4 그렇게 아시리아 임금이 이집트 포로들과 에티오피아 유배자들을 짊어지거나 늪이나 할 것 없이, 이집트에게 수치스럽게도,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 알몸과 맨발로 끌고 갈 것이다.
- 5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네 희망이었던 에티오피아와 자기네 자랑이었던 이집트 때문에 놀라며 부끄러워할 것이다.
- 6 그리고 그날에 이 바닷가 주민들은 말할 것이다. ' 보라, 우리의 희망이었던 나라가 이 꼴이 되었구나. 아시리아 임금에게서 구해달라고 도움을 청하러 그곳으로 도망쳤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난을 피한단 말인가? "

바빌론의 멸망

- 21 ¹ 바닷가 광야에 대한 신탁. 내겟을 휩쓸고 지나가는 폭풍처럼 그것은 사막에서, 무서운 땅에서 몰아쳐 온다.
- 2 준엄한 환사가 나에게 전해졌다. 배신자가 배신하고 파괴자가 파괴한다. " 엘람아, 올라가거라. 메디아야, 포위하여라. 내가 모든 탄식을 그치게 하리라."
- 3 이 때문에 나의 허리는 온통 경련으로 뒤틀리고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과 같은 통증이 나를 덮친다. 듣고 있자니 놀라 자지러지고 보고 있자니 몸이 떨려 온다.
- 4 내 마음은 혼란스러운데 공포마저 들이닥친다. 내가 갈망하던 저녁때가 나에게 두려움이 되어 버렸구나.
- 5 상을 차리고 자리를 편 다음 먹고 마신다. " 제후들아, 일어나라. 방패에 기름을 발라라."
- 6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파수꾼을 세워 그가 본 바를 보고하게 하여라.
- 7 병거와 두 줄 기마대, 나귀 대열과 낙타 대열을 보면 주의를 기울여, 단단히 주의를 기울여 들으라고 하여라.
- 8 망꾼이 외쳤다. " 주님, 저는 온종일 쉴 새 없이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밤마다 망대 위에서 있습니다.
- 9 아, 읍니다! 병거 부대가, 두 줄 기마대가 읍니다." 그는 다시 말하였다. "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바빌론이! 그 신상들도 모조리 땅바닥에 부서졌습니다."
- 10 짓밟힌 나의 백성아 타작마당에서 으깨진 나의 겨례야 내가 이스라엘의 하느님 만군의 주님께서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였다.

에돔족에 대한 경고

- 11 두마에 대한 신탁. 세이르에서 나에게 외친

다. " 파수꾼아, 밤이 얼마나 지났느냐?
파수꾼아, 밤이 얼마나 지났느냐?"

- 12 파수꾼이 말한다. " 아침이 왔다. 그러나
또 밤이 온다. 너희가 묻고 싶거든 물어보
아라. 다시 와서 물어보아라."

드단족에 대한 경고

- 13 광야의 신탁. 드단족의 대상들이 너희는 광
야의 덤불 속에서 밤을 새우리라.
14 테마 땅의 주민들이 목마른 자들에게로 물
을 가져가거라. 먹을 것을 가지고 피난민을
마중 나가라.
15 그들은 칼을 피하여, 빼든 칼과 당긴 활을
피하여, 전란을 피하여 도망 나왔다.

케다르족의 멸망

- 16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 날
품팔이 했수 같은 한 해가 지나면 케다르
의 모든 영화가 다할 것이다.
17 그리고 케다르족 전사들에게 남은 활은 몇
개 되지 않을 것이다." 정녕 주 이스라엘
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에루살렘에 대한 책망

- 22** ¹ ' 환시의 계곡'에 대한 신탁. 도대체
너희가 어떻게 되었기에 모두 자분
으로 올라갔느냐?
2 소음으로 가득 차 범석대는 도성이 희희낙
락하는 도시야! 너희 가운데 죽은 자들은
칼에 찔려 죽은 자들도 아니고 전투하다 죽
은 자들도 아니다.
3 너희 지휘관들은 모두 함께 도망치다 활을
쏘아 보지도 못한 채 붙잡히고 너희 가운데
에 있던 자들도 멀리 달아났지만 모두 함께
붙잡혔다.
4 그래서 내가 말하였다. 내게서 눈을 돌려 다
오. 나 슬피 울지 않을 수가 없구나. 내 딸
백성이 멸망한 것을 두고 나를 위로하려고
애쓰지 마라.

- 5 주 만군의 주님께서 내리신 혼란과 유린과
혼돈의 날이다. ' 환시의 계곡'에서는 벽이
무너져 내리고 도와 달라 외치는 소리가 산
으로 치솟았다.

6 엘람은 화살 통을 메고 병거대와 기마대와
함께 오며 키르는 방패를 꺼내 들었다.

7 너희들의 가장 좋은 골짜기마다 병거들로
가득하고 기병들은 성문을 마주하여 정렬하
니

8 유다의 방어진이 무너졌다. 그날에 너희는 ' 수풀
굴'에 있는 무기들을 찾아내고

9 다윗 성에 군열이 많음을 살펴 알았으며 아
랫저수지에 물을 모아들었다.

10 그리고 너희는 에루살렘의 가옥 수를 파악
하고 성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옥들을
허물었으며

11 옛 저수지의 물을 받아 놓으려고 두 성벽
사이에 저장소를 만들었다. 그러나 너희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을 찾아보지 않았
고 이 모든 것을 멀리서 꾸미신 분을 살펴
보지 않았다.

12 그날에 주 만군의 주님께서 너희에게 통곡
하고 애곡하라고, 머리털을 깎고 자루옷을
두르라고 이르셨다.

13 그러나 보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며
서 " 내일이면 죽을 몸, 먹고 마시자." 하
는구나.

14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내 귀에 일러 주
셨다. "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결코 용
서받지 못하리라." 주 만군의 주님께서 말
씀하셨다.

세브나에게 내일 심판

15 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 너는 궁궐을 관리하는 저 세브나 시종장에
게 가서 말하여라.

16 ' 높은 곳에 제 무덤을 파고 바위에다 제

거처를 만든 자야! 네가 여기에 무슨 권한이 있기에, 네가 여기에 무슨 연고가 있기에 여기에다 너를 위해 무덤을 팠느냐?

- 17 보라, 너 세도가야 주님이 너를 사정없이 쓰러뜨리고 너를 단단히 묶어
- 18 세찬 발길로 너를 공처럼 넓은 땅으로 걸어차 버리리라. 너는 거기에서 죽고 네 영광의 마차들도 거기에 버려지리라, 네 상전 집안에 치욕인 자야!
- 19 나는 너를 네 자리에서 내쫓고 너를 네 관직에서 끌어내리리라."

엘아킴의 등용과 파멸

- 20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나는 할키아의 아들인 나의 종 엘아킴을 불러
- 21 그에게 너의 관복을 입히고 그에게 너의 띠를 매어 주며 그의 손에 너의 권력을 넘겨주리라. 그러면 그는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집안의 아버지라 되리라.
- 22 나는 다윗 집안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매어 주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
- 23 나는 그를 말뚝처럼 단단한 곳에 박으리니 그는 자기 집안에 영광의 왕좌가 되리라.
- 24 그러면 그 집안의 온갖 것들 곧 새싹과 이파리들, 온갖 작은 그릇과 대접에서 온갖 향아리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에게 매달릴 것이다.
- 25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힌 말뚝은 휘고 꺾여서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 위에 있던 것들이 깨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티로와 시돈에 내릴 심판

- 23** 1 티로에 대한 신탁. 통곡하여라, 타르시스의 배들아. 집 하나 남김없이 파괴되었다. 키팀 땅에서 오는 길에 그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다.

- 2 바닷가 주민들아 시돈의 상인들이, 입을 다물어라. 너의 대리인들이 큰 바다를 오가곤 하였다.
- 3 시호르의 곡식과 나일 강의 수확이 그의 수입. 티로는 못 민족들의 장터였다.
- 4 시돈아, 바다가 말하였으니, 바다의 요새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부끄러워하여라. "나는 산고를 겪지도 않았고 아이를 낳지도 않았다. 총각들을 기른 일도 없고 처녀들을 키운 일도 없다."
- 5 티로에 대한 소식이 이집트에 전해지면 사람들은 몹서리치리라.
- 6 타르시스로 건너가거라. 통곡하여라, 바닷가 주민들아!
- 7 이것이 너희의 흥겹던 성읍이나? 그 기원이면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먼 곳까지 가서 식민지를 만들던 성읍이나?
- 8 누가 왕관의 수여자 티로를 두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가? 그 상인들은 채후들이며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데.
- 9 모든 영화의 교만을 짓밟고 세상에서 존경 받는 자들이 모두 망신당하도록 만군의 주님께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셨다.
- 10 딸 타르시스야 나일 강처럼 네 땅으로 건너가거라. 굴레가 벗겨졌다.
- 11 주님께서 바다 위로 당신 손을 뻗치시어 왕국들을 떨게 만드셨다. 주님께서 가나안을 거슬러 그 요새들을 파괴하라고 명령하셨다.
- 12 그리고 말씀하셨다. " 짓밟힌 여자, 처녀 딸 시돈아 네가 다시는 기뻐 뛰지 못하리라. 일어나 키팀으로 건너가 보아라. 거기에서도 편안하지 못하리라."
- 13 칼데아인들의 땅을 보아라. 이제 그 백성은 없다. 아시리아가 그곳을 사막 짐승들이나 사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공격 축대를 세워 그 궁궐들을 허물어뜨리고 그곳을 폐허로 만들어 버렸다.

- 14 통곡하여라, 타르시스의 배들아. 너희의 요새가 파괴되었다.
- 15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티로는 한 임금의 수명과 같은 일흔 해 동안 잊혀질 것이다. 일흔 해가 지난 뒤에 티로는 창녀에 대한 이 노래처럼 될 것이다.
- 16 수금을 들고 성읍을 돌아다녀라, 너 잊혀진 창녀야. 사람들이 너를 다시 생각하도록 수금을 멋지게 뜯으며 마냥 노래 불러라.
- 17 일흔 해가 지난 뒤에 주님께서는 티로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는 다시 해웃음을 받게 되어, 땅 위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들에게 몸을 팔 것이다.
- 18 그러나 그 벌이와 해웃음을 쌓이거나 모이지 않고 주님께 봉헌될 것이다. 그 벌이는 주님 앞에서 사는 이들이 넉넉한 음식과 값진 의복을 장만하도록 바쳐질 것이다.

세상에 내릴 하느님의 심판

- 24** ¹ 보라, 주님께서 땅을 파괴하고 황폐시키시며 그 표면을 뒤엎고 주민들을 흠으신다.
- ² 서민도 사제도 종도 상전도 여종도 안주인도 사는 이도 파는 이도 빌려 주는 이도 빌리는 이도 빛 준 이도 빛진 이도 마찬가지로 다.
- ³ 땅은 온통 파괴되고 모조리 약탈당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 ⁴ 땅은 말라 시들고 누리는 생기를 잃어 시들며 하늘도 땅과 함께 생기를 잃는다.
- ⁵ 땅은 그 주민들 밑에서 더럽혀졌으니 그들이 법을 어기고 명령을 거슬러 영원한 계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 ⁶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집어삼키고 그 주민들은 쫓겨갈 받는다. 그러므로 땅의 주민들은 소멸되어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는다.

멸망한 도시

- ⁷ 햇포도주는 마르고 포도나무는 생기를 잃으며 마음에 기쁨이 넘치던 자들은 모두 한숨 짓는다.
- ⁸ 손북의 흥겨운 소리도 그치고 희희낙락하던 자들의 소란도 멎었으며 수금의 흥겨운 소리도 그쳤다.
- ⁹ 더 이상 노래 부르며 포도주를 마시지도 못하고 술은 입에 쓰기만 하다.
- ¹⁰ 혼돈의 도시는 파괴되고 집들은 모두 단혀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
- ¹¹ 거리에서는 포도주를 찾아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기쁨은 모두 자취를 감추고 세상의 즐거움도 사라졌다.
- ¹² 성읍에는 파멸만이 남아 있고 부서진 성문만이 황량하게 버려져 있다.
- ¹³ 정녕 세상 한가운데에, 민족들 사이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올리브 나무를 떨고났을 때처럼 포도 수확이 끝나고 남은 것은 딸 때처럼.

온 땅의 환호

- ¹⁴ 그들은 소리 높여 주님의 위엄에 환호하고 바다에서부터 환성을 올린다.
- ¹⁵ " 동쪽에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바닷가에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영광을 드러라."
- ¹⁶ 우리는 땅 끝에서 울려오는 노랫소리를 듣는다. " 의로운 이에게 영광이여라." 그러나 나는 말하였다. 나는 끝장이다, 나는 끝장이다, 큰일났구나! 배신자들이 배신하였다. 배신자들이 배신하고야 말았다.

온 세상의 파멸

- ¹⁷ 세상 주민들아 공포와 구렁과 울기끼가 너희 위로 덮쳐 온다.

심판 예고의 계속

- ¹⁸ 공포의 소리를 피하여 도망하는 자는 구렁에 빠지고 구렁에서 올라오는 자는 울기끼

에 걸린다. 정녕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들이 뒤흔들린다.

- 19 땅이 마구 부서진다. 땅이 마구 갈라진다. 땅이 마구 흔들린다.
- 20 땅이 주경꾼처럼 마구 비틀거리고 원두막처럼 흔들거린다. 땅은 자기가 지은 죄에 짓눌려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한다.
- 21 그날에 주님께서 하늘에서는 하늘의 군대를, 땅에서는 땅의 임금들을 벌하시리라.
- 22 그들은 죄수처럼 구덩이에 한데 모아지고 감옥에 갇혔다가 오랜 시일이 흐른 뒤에 벌을 받으리라.
- 23 만군의 주님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임금이 되시어 그 영광이 당신 원로들 앞에서 빛나리니 달은 수치스러워하고 해는 부끄러워하리라.

감사 기도

- 25** 1 주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제가 당신을 높이 기리며 당신 이름을 찬송하리니 당신께서 예로부터 세우신 계획대로 진실하고 신실하게 기적들을 이루신 까닭입니다.
- 2 성읍을 돌무더기로, 요새 도시를 폐허로 만드신 까닭입니다. 이방인들의 성채는 더 이상 성읍이라 할 수 없고 다시는 영원히 복구되지 못하리이다.
 - 3 그리하여 힘센 겨레가 당신께 영광을 드리고 포악한 민족들의 도시가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4 당신께서는 힘없는 이들에게 피신처가, 곤경에 빠진 가난한 이들에게 피신처가 되어 주시고 폭우에는 피난처, 폭염에는 그늘이 되어 주셨습니다. 포악한 자들의 기세는? 거울에 쏟아지는 폭우와 같고
 - 5 매머드 땅에 내리쬐는 폭염과 같습니다. 당신께서 이방인들의 소란을 잠잠하게 하시어 폭염이 구름 그늘로 스러지듯 포악한 자들

의 승리 노래가 스러지리이다.

모든 민족들을 위한 하느님의 잔치

- 6 만군의 주님께서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살진 음식과 잘 익은 술로 잔치를, 살지고 기름진 음식과 잘 익고 잘 거른 술로 잔치를 베푸시리라.
- 7 그분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겨레들에게 씌워진 너울과 모든 민족들에게 덮인 덮개를 없애시리라.
- 8 그분께서는 죽음을 영원히 없애 버리시리라. 주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 내시고 당신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치워 주시리라. 정녕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 9 그날에 이렇게들 말하리라. " 보라, 이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우리는 이분께 희망을 걸었고 이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희망을 걸었던 주님이시다. 이분의 구원으로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모압의 파멸

- 10 주님의 손이 이 산 위에 머무르신다." 그러나 검불이 거름 구덩이에서 짓밟히듯 모압이 제자리에서 짓밟히리라.
- 11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내뻛듯 모압이 그 구덩이 속에서 손을 내뻛지만 허우적거리는 그 손과 함께 그의 오만은 꺾이리라.
- 12 견고하고 드높은 너의 성벽은 무너지고 헐려서 먼지 바닥에 내던져지리라.

유다의 승리 노래

- 26** 1 그날 유다 땅에서는 이러한 노래가 불리리라. "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있네.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성벽과 보루를 세우셨네.
- 2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겨레가 들어가게 너

- 희는 성문들을 열어라.
- 3 한결같은 심성을 지닌 그들에게 당신께서 평화를, 평화를 베푸시니 그들이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 4 너희는 길이길이 주님을 신뢰하여라. 주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다.
- 5 그분께서는 높은 곳의 주민들을 낮추시고 높은 도시를 헐어 버리셨으며 그것을 땅바닥에다 헐어 버리시어 먼지 위로 내던지셨다.
- 6 발이 그것을 짓밟는다. 빈곤한 이들의 발이, 힘없는 이들의 발길이 그것을 짓밟는다."

신앙 고백의 시

- 7 의인의 길은 울버롭니다. 당신께서 닦아 주신 의인의 행로는 울곧습니다.
- 8 당신의 판결에 따라 걷는 길에서도 주님, 저희는 당신께 희망을 겁니다. 당신 이름 부르며 당신을 기억하는 것이 이 영혼의 소원입니다.
- 9 저의 영혼이 밤에 당신을 열망하며 저의 낮이 제 속에서 당신을 갈망합니다. 당신의 판결들이 이 땅에 미치면 누리의 주민들이 정의를 배우겠기 때문입니다.
- 10 악인이 자비를 입는다면 정의를 배우지 못하여 의로운 세상에서도 불의를 저지르며 주님의 위엄을 보지 못하리이다.
- 11 주님, 당신의 손이 높이 들렸건만 그들은 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 백성을 위한 당신의 열정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하소서. 당신 적들에게 내리시는 불이 그들을 삼켜 버리게 하소서.
- 12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에게 평화를 베푸십니다. 저희가 한 모든 일도 당신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 13 주 저희 하나님, 당신 아닌 상전들이 저희를 지배하였으나 저희는 당신만을, 당신이 림만을 생각하였습니다.

- 14 죽은 자들은 이제 살아나지 못하고 그림자들은 이제 일어서지 못합니다. 정녕 당신께서는 그들을 벌하여 멸망시키고 그들에 대한 기억도 모두 없애 버리셨습니다.
- 15 주님, 당신께서는 이 거래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 거래를 번성하게 하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 땅의 경계를 모두 넓히셨습니다.
- 16 주님, 사람들이 곤경 중에 당신을 찾고 당신의 징벌이 내렸을 때 그들은 기도를 쏟아 놓았습니다.
- 17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닥쳐와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소리 지르듯 주님, 저희도 당신 앞에서 그러하였습니다.
- 18 저희가 임신하여 몸부림치며 해산하였지만 나온 것은 바람뿐. 저희는 이 땅에 구원을 이루지도 못하고 누리의 주민들을 출산하지도 못합니다.
- 19 당신의 죽은 이들이 살아나리이다. 그들의 주검이 일어서리이다. 먼지 속 주민들아, 깨어나 환호하여라. 당신의 이슬은 빛의 이슬이기에 땅은 그림자들을 다시 살려 출산하리이다.

나의 백성아, 숨어라

- 20 자 나의 백성아, 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걸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어 있어라.
- 21 땅에 사는 주민들의 죄악을 벌하시러 주님께서 당신 거처에서 나오신다. 땅은 피를 드러내고 살해된 자들을 더 이상 덮어 두지 않으리라.

용을 쳐부수시다

- 27 ¹ 그날에 주님께서서는 날카롭고 크고 세찬 당신의 칼로 도망치는 뱀 레비아탄을, 구불거리는 뱀 레비아탄을 벌하시고 바다 속 용을 죽이시리라.

포도밭 노래

- 2 그날에 너희는 이 아름다운 포도밭을 이렇게 노래하여라.
- 3 " 주님인 나는 이 포도밭을 지키는 이. 시간마다 물을 주고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지키다.
- 4 나는 성내지 않는다. 가시덤불과 엉퀴가 있으면 그것을 쳐 없애려고 달려들어 모조리 불태워 버린다.
- 5 이렇게 되지 않으려거든 내 보호에 매달리고 나와 평화를 이루어라, 나와 평화를 이루어라."

용서받는 아픔과 처벌받는 압제자

- 6 장차 아픔은 뿌리를 내리고 이스라엘은 썩이 트고 꽃이 피어 그 열매가 누리에 가득 차리라.
- 7 그를 내리친 자들을 내리치신 것처럼 그분께서 그를 내리치셨다나? 그를 죽인 자들을 죽이신 것처럼 그분께서 그를 죽이셨다나?
- 8 그분께서는 그를 내몰고 내쫓아서 벌하시고 셋바람이 부는 날 그를 거센 바람으로 몰아내셨다.
- 9 이리하여 아픔의 죄는 용서받으리라. 그가 제단의 모든 돌들을 부수진 횃돌처럼 만들고 아세라 목상들과 분향 제단들을 다시는 새우지 않으리니 이것이 모두 그 죄악을 없앤 결과가 되리라.
- 10 요새 성읍은 적막해지고 광야처럼 버려져 텅 빈 마을이 되리라. 거기에서 송아지가 풀을 뜯고 거기에 누워 나무줄기들을 모조리 먹어 치우리라.
- 11 그 가지들이 말라 꺾여지면 여자들이 와서 그것들로 불을 지피리니 이 백성이 슬기가 없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지으신 분조차 그들을 가없이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을 빚으신 분조차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리라.

이스라엘의 귀향

- 12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서서는 유프라테스 강 줄기에서 ' 이집트 마른내'에 이르기까지 마당질을 하시어 너희들을 하나하나 모아들이시리라.
- 13 또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큰 나팔 소리가 울리리니 아시아야 땅에서 멸망해 가던 이들과 이집트 땅에 흩어진 이들이 모여 와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을 경배하리라.

사마리아에 대한 경고

- 28 불행하여라, 에프라임 주정꾼들의 거만한 화관! 그 화려한 아름다움을 잃고 시들어 버린 꽃! 술에 빠진 자들의 머리 위에, 기름진 골짜기 위에 자리 잡은 것!
- 2 보라, 주님께서 보내신 힘세고 굳센 이를. 그는 우박 섞인 폭우처럼, 들부수는 폭풍처럼 엄청나게 밀려와 물을 쏟아 붓는 폭우처럼 그것을 집어 땅으로 내동댕이치리라.
- 3 에프라임 주정꾼들의 거만한 화관은 밭에 짓밟히리라.
- 4 기름진 골짜기 위에 자리 잡은, 그 화려한 아름다움을 잃고 시들어 버린 꽃은 수확 때가 되기도 전에 익어 버린 무화과 같으리니 누구든 그것을 보게 되면 손에 잡히는 대로 삼켜 버리리라.
- 5 그날에 만군의 주님께서서는 당신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화려한 화관과 아름다운 꽃 관이 되어 주시고
- 6 법정에 앉은 이에게는 공정의 영이, 적군을 성문으로 몰아내는 이들에게는 용맹이 되어 주시리라.

그릇된 사제들과 예언자들

- 7 이자들마저 포도주에 취해 휘청거리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사제와 예언자가 술에 취해 휘청거리고 포도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술로 비틀거리고 환시 중에도 휘청거리며 판결을 내릴 때에도 비척거리다.

- 8 정녕 식탁마다 토한 것으로 그득하여 더럽지 않은 곳이 없다.
- 9 " 저자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베풀며 누구에게 계시를 설명하려는가? 겨우 젖 뎀 아이들에게나, 고작 어머니젖에서 떨어진 것들에게나 하려는가?
- 10 정말 저자는 ' 차우 라차우 차우 라차우 카우 라카우 카우 라카우 즈에르 삼 즈에르 삼'이라고 말해 댈다."
- 11 과연 그분께서는 이렇게 더듬거리는 말씨와 다른 나라 말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 12 그분께서는 예전에 이들에게 말씀하셨다. " 이곳은 안식처이니 고달픈 이들을 편히 쉬게 하여라. 이곳은 쉼터이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 13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 차우 라차우 차우 라차우 카우 라카우 카우 라카우 즈에르 삼 즈에르 삼"이라고 말씀하시리니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다치고 닢에 걸려 포로로 잡히게 하시려는 것이다.

시온의 모퉁잇돌

- 14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빈정거리는 사내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아!
- 15 정녕 너희는 이렇게 말한다. " 우리는 죽음과 계약을 맺고 저승과 협약을 체결하였지. 사나운 재앙이 지나간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미치지 않으니 거짓을 우리의 피신처로 삼고 속임수 속에 우리 몸을 숨겼기 때문이다."
- 16 그러므로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보라, 내가 시온에 돌을 놓는다. 풀

질이 입증된 돌 튼튼한 기초로 쓰일 값진 모퉁잇돌이다. 믿는 이는 물러서지 않는다.

- 17 그리고 나는 공정을 줄자로, 정의를 저울로 삼으리라. 우박이 거짓의 피신처를 쓸어 가고 물이 온신처를 씻어 가리라.
- 18 죽음과 맺은 너희의 계약은 파기되고 저승과 맺은 너희의 협약은 유지되지 못하리라. 사나운 재앙이 지나가게 되면 너희는 그것에 짓밟히리라.
- 19 그것은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낚아채고 아침마다, 또 낮에도 밤에도 지나가리니 그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놀랄 수밖에 없으리라.
- 20 침상은 짧아서 눕지 못하고 이불은 작아서 덮지 못하리라."
- 21 과연 주님께서는 프라침 산에서처럼 일어서시고 기브온 골짜기에서처럼 격노하시리라. 이는 당신의 일을 이루시려는 것이니 그분의 일은 기이하기도 하여라. 이는 당신의 사업을 수행하시려는 것이니 그분의 사업은 기묘하기도 하여라.
- 22 자, 이제 너희는 그만 빈정거려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의 오리가 더욱 조여 오리라. 온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씀이 내가 주 만군의 주님에게서 들었다.

농부의 비유

- 23 귀를 기울여 내 소리를 들어라. 주의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라.
- 24 농부가 씨를 뿌리려고 날마다 밭만 갈겠느냐? 제 땅을 뒤집고 씨레질만 하겠느냐?
- 25 그보다는 밭을 고르고 나서 검정풀 씨를 뿌리고 소회향 씨를 뿌린 다음 줄줄이 밭을 심고 적당한 자리에 보리를, 가장자리에는 귀리를 심지 않느냐?
- 26 이렇게 그의 하느님께서 그에게 법칙을 알려 주시고 그를 가르쳐 주신다.
- 27 또 검정풀을 타작기로 떨지도 않고 소회향

위로 수레바퀴를 굴리지도 않는다. 오히려 검정풀은 막대기로, 소화향은 작대기로 두드린다.

- 28 밀알을 바서지도록 떨었느냐? 아니다, 무턱대고 떨지는 않는다. 수레바퀴를 돌릴 때에도 말들이 밀알을 바수지 않게 한다.
- 29 이것도 만군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그분의 뜻은 놀랍고 그분의 지혜는 위대하다.

예루살렘의 곤경과 구원

- 29 불행하여라, 너 아리엘아, 아리엘아
다윗이 진을 쳤던 도성아! 한 해에 한 해를 거듭하면서 축제들이 돌아오게 하여라.
- 2 그러나 나는 아리엘을 압박해 가리니 슬픔과 서러움이 일리라. 예루살렘은 나에게 아리엘처럼 되리라.
- 3 나는 네 들레에 진을 쳐서 토성을 쌓아 너를 조이고 너를 향해 공격 축대를 세우리라.
- 4 그러면 너는 땅바닥에 쓰러진 채 말하리니 네 말소리는 먼지 속에서 가늘게 들려오리라. 네 목소리는 유행의 소리처럼 땅에서 올라오고 네 말소리는 먼지 속에서 웅얼웅얼 들려오리라.
- 5 그러나 네 적들의 무리도 작은 티끌처럼 되고 포악한 자들의 무리도 흠날리는 겨처럼 되리라. 그리고 한순간 갑자기
- 6 만군의 주님께서 너를 찾아오시리라. 천둥과 지진과 광음 태풍과 폭풍, 삼킬 듯한 불길과 함께 찾아오시리라.
- 7 그러면 아리엘을 치러 나온 모든 민족들의 무리, 그를 치러 나온 자들, 그 요새와 그를 압박해 가는 자들이 모두 꿈처럼, 밤의 환시처럼 되리라.
- 8 배고픈 자가 먹는 꿈을 꾸어도 깨어나면 계속 속이 비어 있듯이, 목마른 자가 마시는 꿈을 꾸어도 깨어나면 기진한 채 여전히 목

이 타듯이, 시온 산을 치러 나온 모든 민족들의 무리도 그렇게 되리라.

분별없는 백성

- 9 너희는 깜짝 놀라서 어리둥절해하리라. 스스로 눈을 들어볼게 하여 눈이 멀리라. 포도주 없이도 취하리라. 술이 없이도 비틀거리리라.
- 10 주님께서서는 너희 위로 깊은 잠의 영을 부으시고 너희 예언자들의 눈을 감기시며 너희 선견자들의 머리를 덮어 버리셨다.
- 11 이 모든 것에 대한 환시는 너희에게, 봉인된 문서의 말씀처럼 되어 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글을 아는 이에게 "이것 좀 읽어 주시오." 하고 그것을 내주면, 그는 "봉인되어 있어서 못 읽겠소." 하고 대답한다.
- 12 그리고 글을 모르는 이에게 "이것 좀 읽어 주시오." 하고 그 문서를 내주면, 그는 "나는 글을 모르오." 하고 대답한다.
- 13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고 나에게 대한 그들의 경외심은 사람들에서 배운 계명일 뿐이니
- 14 나는 이 백성에게 놀라운 일을, 놀랍고 기이한 일을 계속 보이리라. 그리하여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는 사라지고 슬기롭다는 자들의 슬기는 자취를 감추리라."

그릇된 자문관들

- 15 불행하여라, 자기네 계획을 주님 모르게 깊이 숨기는 자들! 어둠 속에서 행동하는 이 자들은 "누가 우리를 보라? 누가 우리를 알라?" 하고 말한다.
- 16 아, 거꾸로 행동하는 너희들! 진흙이 옹기장이와 똑같이 인정받을 수 있느냐? 작품이 제작자를 두고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할 수 있느냐? 빛어진 것이 자기를

빛은 자를 두고 "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
할 수 있느냐?

대역전

- 17 장님 이제 조금만 있으면 레바논은 과수원으로 변하고 과수원은 숲으로 여겨지리라.
- 18 그날에는 귀먹은 이들도 책에 적힌 말을 듣고 눈먼 이들의 눈도 어둠과 암흑을 벗어나 보게 되리라.
- 19 겸손한 이들은 주님 안에서 기쁨에 기쁨을 더하고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이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 20 포약한 자가 없어지고 빈정대는 자가 사라지며 죄자를 기회를 엿보는 자들이 모두 잘려 나가겠기 때문이다.
- 21 이들은 소송 때 남을 지게 만들고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에게 울가미를 씌우며 무죄한 이의 권리를 까닭 없이 왜곡하는 자들이다.
- 22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아굽 집안의 하느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아굽은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더 이상 얼굴이 창백해지는 일이 없으리라.
- 23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에서 내 손의 작품인 자녀들을 보게 될 때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리라."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거룩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려워하게 되리라.
- 24 그리고 정신이 혼미한 자들은 슬기를 얻고 불평하는 자들은 교훈을 배우리라.

이집트의 도움은 헛되다

30 ¹ 불행하여라, 반항하는 자식들!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은 계획을 실행하지만 그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내 뜻에 따라 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죄악에 죄악을 더할 뿐이다.

- 2 그들은 내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파라오의 보호 속에 안전을 찾고 이집트의 그늘 속에 피신하려 한다.
- 3 그러나 파라오의 보호는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로 피신함은 치욕이 되리라.
- 4 제후들이 이미 초안에 있고 사신들이 이미 하네스에 다다랐지만
- 5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민족에게 모두 수치만 당하리라. 그 민족은 도움도 이익도 되지 않고 수치와 모욕만 줄 뿐이다.
- 6 네겍의 들짐승들에 대한 신탁. 위험과 고난의 땅, 암사자와 으르렁대는 수사자와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 뱀의 땅을 거쳐 그들은 나귀 등에 재물을 싣고 낙타 등에 보화를 실어 이익이 되지 않는 민족에게로 간다.
- 7 이집트의 도움은 헛되고 허황될 뿐이니 나는 그것을 ' 움직이지 못하는 라합'이라고 한다.

순종하지 않는 백성

- 8 이제 너는 가서 이것을 그들 앞에서 서판에 적고 책에 기록하여 훗날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여라.
- 9 이들은 거역하는 백성 거짓된 자식들이며 주님의 가르침을 들으려 하지 않는 자식들이다.
- 10 이자들은 선견자들에게 " 계시를 보지 마시오" 하고 예언자들에게 " 우리에게 올 바른 것은 예언하지 말고 솔깃한 말이나 하고 환상 같은 것들이나 예언해 주시오.
- 11 정도를 버리고 바른길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 대한 말은 우리 앞에서 이제 그만 하시오" 하고 말한다.
- 12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 너희가 이 말을 배척하고 억압과 탈선을 믿어 그것에 의지하니

- 13 이 죄는 너희에게 점점 부풀어 올랐다가 떨어지는, 갑자기 일순간에 부서져 내리는 높은 성벽의 돌담과 같으리라.
- 14 그것은 옹기그릇이 부서지면서 산산조각으로 깨져 그 깨진 것들 가운데에서는 아궁이에서 불을 담아 내거나 웅덩이에서 물을 퍼낼 조각 하나 찾지 못하는 것과 같으리라."

필사적인 도주

- 15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회개와 안정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고 평온과 신뢰 속에 너희의 힘이 있건만 너희는 싫다고 하면서
- 16 ' 아닙니다. 말을 타고 도망하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너희가 도망치게 되리라. ' 날텐 말을 몰고 가렵니다.' 하였으니 너희의 추격자들이 날래게 쫓아키리라.
- 17 한 사람의 고향에 천 명이 도망치고 다섯 사람의 고향에 너희 가운데 몇 명만이 남아 산꼭대기의 갯대처럼, 언덕 위의 갯밭처럼 될 때까지 너희가 모두 도망치리라."

구원의 때

- 18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가없이 여기 시려고 일어서신다. 주님은 공정의 하느님 이시다. 행복하여라, 그분을 기다리는 이들 모두!
- 19 정녕 예루살렘에 사는 너희 시온 백성이 너희는 다시 울지 않아도 되리라. 내가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반드시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들으시는 대로 너희에게 응답 하시리라.
- 20 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곤경의 뺨과 고난의 물을 주시지만 너의 스승이신 그분께서는 더 이상 숨어 계시지 않으리니 너희 눈이 너희의 스승을 뵈게 되리라.

- 21 그리고 너희가 오른쪽으로 돌거나 왼쪽으로 돌 때 뒤에서 " 이것이 바른길이니 이리로 가거라." 하시는 말씀을 너희 귀로 듣게 되리라.
- 22 그러면 너희는 은을 입힌 너희의 우상들과 금을 입힌 너희의 주물들을 더럽게 여겨 그것을 모퉁처럼 내던지며 " 사라져 버려라!" 하고 말하리라.
- 23 그분께서 너희가 밭에 뿌린 씨앗을 위하여 비를 내리시니 밭에서 나는 곡식이 여물고 기름지리라. 그날에 너희의 가슴은 넓은 초원에서 풀을 뜯고
- 24 밭일을 하는 소와 나귀는 삽과 거름대로 까불러 간을 맞춘 사료를 먹으리라.
- 25 큰 살육이 일어나는 날 탑들이 무너질 때 높은 산 위마다 솟아오른 언덕 위마다 물이 흐르는 도랑들이 생기리라.
- 26 또 주님께서 당신 백성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당신의 매를 맞아 터진 곳을 낮게 해주시는 날 달빛은 햇빛처럼 되고 햇빛은 일곱 배나 밝아져 이레 동안의 빛을 한데 모은 듯하리라.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

- 27 보라, 주님의 이름이 멀리서 오신다. 그분의 진노가 타올라 언기 자욱하고 그분의 입술은 분노로 가득하며 그분의 혀는 집어삼키는 불과 같다.
- 28 그분의 입김은 목까지 차오르는 격류와 같다. 그분께서는 겨레들을 파멸의 체로 뒤흔드시며 민족들의 턱에 미혹의 재갈을 물리신다.
- 29 그러나 너희는 축일을 거룩히 지내는 받처럼 노래를 부르리라. 주님의 산으로,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께 가려고 피리 소리와 함께 나아가는 사람처럼 너희 마음이 기쁘리라.
- 30 또 주님께서는 격분과 집어삼키는 불길과

호우와 폭우와 우박덩이를 퍼부으시며 당신의 우렁찬 소리를 듣게 하시고 내리치시는 당신의 팔을 보게 하시리라.

- 31 주님께서 몽둥이로 치실 때 정녕 아시리아 인들은 그들의 소리에 놀라 자지러지리라.
- 32 주님께서 그들 위로 내리치시는 형벌의 막대가 휘둘릴 때마다 손복과 수금이 울리고 그분께서는 손을 휘저으시면서 그들과 싸우시리라.
- 33 그들을 태울 소각장이 이미 마련되었다. 임금을 태우려고 준비되었으니 불구덩이는 깊고 넓으며 불도 장작도 넉넉하다. 주님의 숨결이 유황 개울처럼 거기에서 타오르리라.

이집트와 맺은 동맹은 헛되다

- 31 불행하여라,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 군마에 의지하는 자들! 그들은 병거의 수가 많다고 그것을 믿고 기병대가 막강하다고 그것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을 찾지도 않는다.
- 2 그러나 그분 역시 지혜로우시기에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의 말씀을 거두지 않으신다. 악을 저지르는 자들의 집안에 맞서, 나쁜 짓 하는 자들을 돕는 자들에게 맞서 일어서시리라.
- 3 이집트인들은 인간일 뿐 하느님이 아니다. 그들의 군마는 고깃덩어리일 뿐 영이 아니다. 주님께서 손을 뻗치시면 돕는 자는 비틀거리고 도움을 받는 자는 쓰러져 모두 함께 망하리라.

시온은 구원받고 아시리아는 멸망한다

- 4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 사자와 새끼 사자가 먹이를 놓고 으르렁거릴 때 목자들의 무리가 몰려와 소리쳐도 놀라지 않고 소란을 피워도 이랑곳하지 않듯 만군의

의 주님이 시온 산과 그 언덕에 내려와 싸워 주리라.

- 5 등지 위를 땀도는 새들처럼 만군의 주님이 예루살렘을 지켜 주리라. 지키고 전져 주며 감싸고 구원해 주리라."
- 6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그토록 배신하였던 분께로 돌아오너라!
- 7 장녕 그날에는 너희가 저마다 자신을 위하여 제 손으로 마련해 죄를 지은 은 우상과 금 우상들을 내던질 것이다.
- 8 그러면 아시리아는 사람의 것이 아닌 칼에 맞아 쓰러지리라. 인간의 것이 아닌 칼이 그를 멸망시키리라. 그는 칼 앞에서 도망치고 그의 젊은이들은 강제 노동을 하게 되리라.
- 9 그리고 그의 반석은 질겁하여 떠나가 버리고 그의 제후들은 놀라 깃발을 버리고 달아나리라. 시온에 불을 가지고 계시고 예루살렘에 화덕을 가지고 계신 주님의 말씀이다.

정의의 나라

- 32 보라, 임금이 정의로 통치하고 제후들이 공정으로 다스리리라.
- 2 그들은 저마다 바람 앞에 피신처, 폭우 앞에 대피처 같으며 물기 없는 곳의 시냇물, 매마른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라.
- 3 그러면 보는 자들의 눈은 더 이상 들러붙지 않고 듣는 자들의 귀는 잘 듣게 되리라.
- 4 분별없는 자들의 마음은 깨달음을 얻고 더듬거리는 자들의 혀는 분명하고 거침없이 말하리라.
- 5 어리석은 자를 더 이상 고귀한 이라 부르지 않고 간교한 자를 더 이상 존귀한 이라 말하지 않으리라.
- 6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마음으로 죄악을 지어 내어 불경한 것을 저지르며 주님을 거슬러 배신을 말하고 굶주린 이의 속을 빈 채로 버려두며 목마른 이에게

마실 것을 주지 않는다.

- 7 간교한 자의 수단은 사악하여 그는 술책을 꾸미고 가난한 이가 올바른 것을 주장하여도 거짓말로 빈곤한 이들을 파멸시킨다.
- 8 그러나 고귀한 이는 고귀한 것을 계획하고 고귀한 것을 위하여 일어난다.

태평스런 여인들

- 9 걱정 없이 사는 아낙네들아, 일어나라. 내 소리를 들어라. 태평스런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 10 태평스런 여인들아, 한 해가 조금 지나면 너희는 무서워 떨게 되리니 포도 수확은 망치고 곡식 추수 때는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11 걱정 없이 사는 여인들아, 몸서리쳐라. 태평스런 여인들아, 무서워 떨어라. 옷을 벗고 알몸이 되어 허리에 자루 조각을 둘러라.
- 12 가슴을 쳐라, 아름다운 들과와 열매 풍성한 포도나무를 생각하며,
- 13 짙레나무와 가지덤불이 올라오는 내 백성의 땅을 생각하며, 기쁨이 넘치던 그 모든 집들과 흥겨워하던 도시를 생각하며 가슴을 쳐라.
- 14 정녕 궁궐은 버려지고 뿔비던 도성은 황량해지며 언덕과 망대는 영원히 짐승의 소굴이 되어 들나귀들의 기쁨이 되고 가축들의 풀밭이 되리라.

정의와 평화의 나라

- 15 그러나 마침내 하늘에서 영이 우리 위에 쏟아져 내려 광야는 과수원이 되고 과수원은 숲으로 여겨지리라.
- 16 그리고 광야에 공정이 자리 잡고 과수원에 정의가 머무르리라.
- 17 정의의 결과는 평화가 되고 정의의 성과는 영원히 평온과 신뢰가 되리라.
- 18 그러면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거처에, 안전

한 거주지와 걱정 없는 안식처에 살게 되리라.

- 19 그러나 숲은 모조리 쓰러지고 성읍은 남김없이 무너져 내리리라.
- 20 물길이 닿는 곳마다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놓아 기를 수 있으리니 너희는 행복하여라.

구원을 비는 기도

- 33** ¹ 불행하여라, 자기는 파괴되지 않았으면서 파괴만 하는 너! 자기는 배신당하지 않았으면서 배신만 하는 너! 네가 파괴를 끝내면 너 자신이 파괴되고 네가 배신을 마치면 너 자신이 배신을 당하리라.
- 2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가 당신만을 바랍니다. 아침마다 저희의 팔이 되어 주소서. 곤경의 때에 저희 구원이 되어 주소서.
 - 3 요란한 소리에 민족들이 도망치고 당신께서 일어나시면 겨레들이 흩어집니다.
 - 4 메뚜기 떼가 모여들 듯 약탈품이 모이고 누리 떼가 달려들 듯 사람들이 그것에 달려듭니다.
 - 5 높은 데에 계시니 주님께서 드높으시고 시온을 공정과 정의로 채우셨다.
 - 6 그분께서 너의 시대에 안경을 주시리라. 지혜와 지식은 풍성한 구원이 되고 주님을 경외함은 시온의 보화가 되리라.

역경과 주님의 도우심

- 7 보라, 아리엘 주민들이 거리에서 울부짖고 평화의 사절들이 슬퍼 운다.
- 8 큰길들은 황량해져 길손이 끊겼다. 계약은 깨지고 증인들은 배척을 받으며 사람들은 무시를 당한다.
- 9 땅은 슬퍼하며 생기를 잃어 가고 레바논은 부끄러워하며 메말라 간다. 사론은 사막처럼 되고 바산과 카르멜은 별거승이가 된다.

- 10 나 이제 일어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 이제 몸을 일으킨다. 나 이제 일어난다.
- 11 너희는 검뿔을 잉태하여 지푸라기를 낳는다. 너희의 입김은 너희 자신을 집어삼키는 불이다.
- 12 민족들은 불에 타 석회가 되고 잘려 타들어 가는 가시담בל처럼 되리라.
- 13 멀리 있는 자들아, 내가 한 일을 들어 보아라.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힘을 깨달아라.
- 14 시온에서 죄인들은 두려워 떨고 무도한 자들은 잔술에 사로잡힌다.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집어삼키는 불 속에 머물 수 있으랴?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영원한 불꽃 속에 머물 수 있으랴?"
- 15 의롭게 걷는 이와 정직하게 말하는 이 강압으로 얻는 이익을 업신여기는 이 뇌물을 받지 않으려고 제 손을 뿌리치는 이 살인하지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는 이 악한 일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이
- 16 이런 이는 높은 곳에 살게 되리라. 바위로 된 산성이 그의 피신처가 되고 그에게는 빵이 주어지며 물도 떨어지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임금이 되실 때

- 17 네 눈은 수려한 모습의 임금을 바라보리라. 널리 펼쳐진 땅을 보리라.
- 18 무서웠던 일들이 네 마음에 떠오르리라. "수를 세던 자는 어디에 있지? 무개를 달던 자는 어디에 있지? 탑의 수를 세던 자는 어디에 있지?"
- 19 너는 뻔뻔스러운 민족을 보지 않으리라. 알이 들지 못하는 괴이한 말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웅얼거리는 민족을 더는 보지 않으리라.
- 20 너는 시온을 바라보아라, 우리 축제의 도시를. 네 눈은 예루살렘을 보리라. 안전한 거처, 거두어지지 않는 천막, 말뚝이 다시는

뽑히지 않고 줄이 하나도 끊기지 않는 천막을 보리라.

- 21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위하신 분이 되시리라. 그곳은 넓은 강과 시내들이 흐르는 곳이 되리라. 그러나 노 젓는 큰 배는 그리로 가지 못하고 위풍을 뿜내는 배는 지나지 못하리라.
- 22 정녕 주님은 우리의 통치자 주님은 우리의 지도자 주님은 우리의 임금님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 23 너의 밧줄들은 늘어져 돛대의 버팀목을 단단히 잡아 주지 못하고 깃발을 퍼치지도 못하리라. 그때에 사람들은 수많은 전리품과 노획품을 나누어 받고 다리저는 이들도 노략하려고 달려들리라.
- 24 그곳에 사는 이는 아무도 "나는 병들었다." 하지 않고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은 죄를 용서받으리라.

민족들에 대한 심판

- 34¹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겨레들아, 주의를 기울여라.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 누리와 거기에서 자라는 모든 것들은 들어라.
- 2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들에게 분노하시어 그들을 전멸시키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이 살해되도록 버려두셨다.
- 3 살육된 자들은 내던져지고 시체들에서는 악취가 솟아오르며 산들은 그들의 피로 녹아 내리리라.
- 4 하늘의 군대는 모두 없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리며 그 군대는 모두 시들리니 포도 잎이 시들 듯, 무화과나무에서 열매가 시들 듯하리라.

애دم 땅의 대살육

- 5 정녕 나의 칼이 하늘에서 잔뜩 휘하였다. 보

라, 그것이 애돔 위로 내려온다. 내가 심판에 부쳐 전멸시키기로 작정한 민족 위로 내려온다.

- 6 주님의 갈은 피로 흥건하고 기름기로 덮여 있으며 어린 양과 숫염소들의 피에, 숫양들의 콩팥 기름에 젖어 있다. 주님께서 보츠라에서 제사를 지내시고 애돔 땅에서 큰 살육을 집행하신다.
- 7 들소들도 함께 쓰러지고 황소들과 함께 힘센 소들도 쓰러진다. 그들의 땅은 피로 흠뻑 물들고 그들의 흙은 기름기로 덮인다.
- 8 주님께 복수의 날이요 시온의 옹호자에게 응보의 해이다.
- 9 애돔의 강들은 역청으로, 그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어
- 10 밤에도 낮에도 꺼지지 않아 그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는다. 그 땅은 대대로 폐허가 되어 영영 그곳을 지나는 이가 없으리라.
- 11 올빼미와 고슴도치가 그곳을 차지하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리라. 그분께서는 그 위에 ' 혼돈의 줄'을 펴시고 ' 불모의 추'를 내리시리라.
- 12 그곳에서는 귀족들에게 더 이상 왕국이 섰 포되지 않고 제후들도 모두 없어지리라.
- 13 궁궐에는 가지나무가 올라오고 요새에는 췌기풀과 엉겅퀴만 무성하여 승냥이들의 소굴이 되고 타조들의 마당이 되리라.
- 14 그곳에서는 사막 짐승들이 늑대들과 만나고 염소 귀산들이 서로를 부르리라. 도끼비도 그곳에 쉬면서 안식을 얻으리라.
- 15 독사가 그곳에 깃들여 알을 낳고 제 그늘 아래 그것을 품어 부화시키리라. 거기에는 슬개들도 저마다 짝을 지어 모여들리라.
- 16 주님의 책에서 찾아 읽어 보이라. 이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제책이 없는 것이 없으니 그분께서 친히 명령하시고 그분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기 때문이다.
- 17 그분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

고 손수 줄로 제어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것들은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하고 대대로 그곳에서 살아키리라.

이스라엘의 귀향과 행복

- 35 **35** 1 광야와 메마른 땅은 기뻐하여라. 사막은 즐거워하며 꽃을 피워라.
- 2 수선화처럼 활짝 피고 즐거워 뛰며 환성을 올려라. 레비논의 영광과 카르멜과 사론의 영화가 그곳에 내려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우리 하느님의 영화를 보리라.
- 3 너희는 맥 풀린 손에 힘을 붙여넣고 꺾인 무릎에 힘을 돋우어라.
- 4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 굳세어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의 하느님! 복수가 들이닥친다, 하느님의 보복이! 그분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신다."
- 5 그때에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 6 그때에 다리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뚝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 광야에서는 물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는 냇물이 흐르리라.
- 7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늪이 되고 바싹 마른 땅은 샹터가 되며 승냥이들이 살던 곳에는 풀 대신 갈대와 왕골이 자라리라.
- 8 그곳에 큰길의 생겨 '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니 부정함 자는 그곳을 지나지 못하리라.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앞장서 가시니 바보들도 길을 잃지 않으리라.
- 9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맹수도 들어서지 못하리라. 그런 것들을 볼 수 없으리라. 구원받은 이들만 그곳을 걸어가고
- 10 주님께서 해방시키신 이들만 그리로 돌아오리라. 그들은 환호하며 시온에 들어서리니 끝없는 즐거움이 그들 머리 위에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과 함께하여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예루살렘에 대한 산헤립의 위협

- 36** ¹ 히즈기야 임금 제십사년에, 아시리아 임금 산헤립이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으로 올라와서 그곳들을 점령하였다.
- ² 아시리아 임금은 라키스에서 랍 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 예루살렘으로 히즈기야 임금에게 보냈다. 그는 '마친장이 밭에 이르는 길가 윗저수지의 수로 곁에 주둔하였다.'
- ³ 그러자 힐기아의 아들 엘야킴 궁내 대신과 세브나 서기관과 이삽의 아들 요아 역사 기록관이 그에게 마주 나갔다.
- ⁴ 랍 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즈기야에게 전하여라. 대왕이신 아시리아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던 말이나?'
- ⁵ 너는 전쟁 계획과 능력이 고작 입술에서 나오는 말뿐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 ⁶ 너는 저 부러진 갈대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 이집트를 믿는다면, 그것에 몸을 기대는 사람마다 손바닥만 찢리게 된다. 이집트 임금 파라오는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 바로 그러하다.
- ⁷ 그리고 너는 나에게 '우리는 주 우리 하느님을 믿소' 하고 말한다. 그러나 그분은, 히즈기야가 그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치워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드려라.' 하고 말한 그런 하느님이 아니냐?"
- ⁸ 자, 이제 아시리아의 임금님이신 나의 주군과 내기를 해 보아라. 내가 기수들을 마련할 수만 있다면, 내가 너에게 말 이천 마리를 주겠다.
- ⁹ 병자와 기병 때문에 이집트를 믿고 있는 네가, 어떻게 내 주군의 허찮은 신하들 가운데에서 총독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었느냐?

- ¹⁰ 그리고 내가 주님의 분부도 없이 이 땅을 멸망시키려고 올라왔겠느냐?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저 땅으로 공격해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켜라.' 하고 분부하셨다."
- ¹¹ 그러자 엘야킴과 세브나와 요아가 랍 사게에게 말하였다. "저희가 이람 말을 알아 들으니, 제발 이 종들에게 이람 말로 말씀해 주십시오. 성벽 위에 있는 백성이 듣고 있으니, 저희에게 유다 말로는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 ¹² 그러나 랍 사게는 대답하였다. "나의 주군께서 너희 주군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제 똥을 먹고 제 오줌을 마셔야 할 저 성벽 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도 이 말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겠느냐?"
- ¹³ 이어 랍 사게는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외쳤다. "대왕이신 아시리아 임금님의 말씀을 들어라.
- ¹⁴ 이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히즈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자는 너희를 구해 내지 못한다.
- ¹⁵ 히즈기야가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해 내신다. 이 도성은 아시리아 임금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 하면서, 너희가 주님을 신뢰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 ¹⁶ 히즈기야의 말을 곧이듣지 마라.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와 화친하고 나에게로 나와라. 그러면 너희는 저마다 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고, 제 저수 동굴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 ¹⁷ 때가 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땅과 다름없는 땅으로, 곧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 빵과 포도밭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 ¹⁸ 히즈기야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 내신다.' 하면서, 너희를 부추기는 일이 없게 하여라. 못 민족의 신들 가운데 누가 제 나라를 아시리아 임금의 손에서 구해 낸

적이 있느냐?

- 19 하맛과 아르파트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스파르와임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구해 냈느냐?
- 20 이 나라들의 모든 신 가운데 누가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구해 낸 적이 있기에, 주님이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해 낼 수 있느냐?"
- 21 그러나 그들은 침묵을 지키 채 그에게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에게 대답하지 마라." 한 임금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 22 할키아의 아들 엘야킴 궁내 대신과 세브나 서기관과 아삽의 아들 요아 역사 기록관은 찢어진 옷을 입은 채 히즈키야에게 와서 랍 사게의 말을 전하였다.

히즈키야가 이사야에게 문의하다

- 37 ¹ 히즈키야 임금은 그 말을 듣자 제 옷을 찢고 자루옷을 두르고서는, 주님의 집으로 들어갔다.
- 2 그리고 자루옷을 두른 엘야킴 궁내 대신과 세브나 서기관과 원로 사제들을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에게 보냈다.
- 3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히즈키야 임금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날은 환난과 장별과 굴욕의 날이요, 아이들이 태어 나려고 하는데 낳을 힘이 없구려.'
- 4 주 그대의 하느님께서 랍 사게의 말을 들으셨기를 바라오. 그는 살아 계신 하느님을 조롱하려고 자기 주군인 아시리아 임금이 보낸 자요. 주 그대의 하느님께서 들으신 그 말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오. 그대도 아직 살아남아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오."
- 5 히즈키야 임금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와서 이렇게 전하니,
- 6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주

군께 이렇게 말씀드리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시리아 임금의 종들이 나를 모욕한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마라.

- 7 보라, 내가 영 하나를 그에게 내려 보내면, 그는 뜰소문을 들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가 자기 나라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게 하겠다."
- 8 랍 사게는 돌아가서 리브나를 공격하는 아시리아 임금을 만났다. 그는 임금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다.

예루살렘에 대한 산헤림의 새로운 위협

- 9 그때 아시리아 임금은 에티오피아 임금 티르하카가 자기와 싸우려고 나왔다는 말을 들었다. 아시리아 임금은 이 말을 듣고 히즈키야에게 사신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 10 "너희는 유다 임금 히즈키야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믿는 너의 하느님이, 예루살렘은 아시리아 임금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 하면서, 너를 속이는 일이 없게 하여라.
- 11 자, 아시리아 임금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전멸시키면서 어떻게 하였는지 너는 듣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만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느냐?
- 12 나의 선왕들이 멸망시킨 고잔과 하란과 레첵, 그리고 틀라사르에 있는 에덴족을 그 민족들의 신들이 구해 낼 수 있었느냐?
- 13 하맛 임금과 아르파트 임금, 그리고 스파르와임 성읍과 헤나와 아와의 임금들은 어디에 있느냐?"

히즈키야의 기도

- 14 히즈키야는 사신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런 다음 히즈키야는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주님 앞에 펼쳐 놓았다.

- 15 그리고 히즈키야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 16 " 커룹들 위에 좌정하신 이스라엘의 하느님, 만군의 주님, 세상의 모든 왕국 위에 당신 홀로 하느님이십니다. 당신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 17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 주십시오. 주님, 눈을 뜨고 보아 주십시오. 살아 계신 하느님을 조롱하려고 산헤립이 보낸 이 말을 모두 들어 보십시오.
- 18 주님, 사실 아시리아 임금들은 모든 나라들과 그 영토를 황폐하게 하고,
- 19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버렸습니다. 그것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작품으로서 나무와 돌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없애 버릴 수 있었습니다.
- 20 그러나 이제 주 저희 하느님, 저희를 저자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왕국이 당신 홀로 주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산헤립에게 내린 말씀

- 21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히즈키야에게 사랑을 보내어 말하였다. "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너는 아시리아 임금 산헤립 때문에 나에게 기도를 바쳤다.'
- 22 주님께서 그를 두고 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처녀 딸 시온이 너를 경멸한다, 너를 멸시한다. 딸 예루살렘이 네 뒤에서 머리를 흔든다.
- 23 내가 누구를 조롱하고 모욕하였느냐? 내가 누구에게 큰소리를 치고 눈을 쳐켜들었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다.
- 24 너는 신하들을 보내어 주님을 조롱하였다. 너는 말하였다. ' 수많은 병거를 몰아 나는 높은 산들을 오르고 레바논의 막다른 곳까지 다다라 그 큰 항백나무들과 빼어난 방

백나무들을 베어 버리고 그 정상 끝까지, 가장 울창한 수풀까지 나아갔다.

- 25 나는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며 내 발바닥으로 이집트의 모든 강을 말려 버렸다.'
- 26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내가 오래전에 그것을 결정하고 옛날에 그것을 계획하여 이제 실행에 옮겼음을. 그래서 내가 요새 성읍들을 파괴시켜 무너져 내린 돌무더기로 만들 수 있었다.
- 27 그곳 주민들은 기운이 다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하였다. 그들은 들의 풀처럼 어린 잔디처럼 자라기도 전에 말라 버리는 지붕 위의 잡초처럼 되었다.
- 28 나는 네가 서고 앉는 것도 나고 드는 것도 나에게 격노하고 있음도 알고 있다.
- 29 내가 나에게 격노하고 너의 소란이 내 귀에까지 올라왔으니 나는 네 코에 나의 갈고리를 꿰고 네 입술에 나의 재갈을 물려 내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되돌아가게 하리라.

히즈키야에게 내린 표징

- 30 이것이 너를 위한 표징이다. 너희가 올해에는 떨어진 낱알에서 난 곡식을 먹고 내년에는 뿌리지 않고 저절로 난 곡식을 먹으리라. 그러나 후년에는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두고 포도밭을 가꾸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 31 유다 집안의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다시 밀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 32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생존자들이 시온 산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정이 이를 이루리라.
- 33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시리아 임금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곳으로 활을 쏘지도 못하리라.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고 공격 축대를 쌓지도 못하리라.

- 34 자기가 왔던 그 길로 되돌아가고 이 도성에는 들어오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 35 나는 이 도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니 이는 나 자신 때문이며 나의 종 다윗 때문이다."

산헤립의 말로

- 36 그런 다음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 아시리아 진영에서 십팔만 오천 명을 쳤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들이 모두 죽어 주검뿐이었다.
- 37 아시리아 임금 산헤립은 그곳을 떠나 되돌아가서 니네베에 머물렀다.
- 38 그런데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그의 두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르에체르가 그를 칼로 쳐 죽이고는 아라랏 땅으로 도망쳤다. 그의 아들 에사르 하똘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히즈키아의 발병과 치유

- 38 **1** 그 무렵 히즈키아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너의 집안일을 정리 하여라. 나는 회복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 2 그러자 히즈키아가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 3 말씀드렸다. " 아, 주님, 제가 당신 앞에서 성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왔고, 당신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 온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히즈키아는 슬피 통곡하였다.
- 4 주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내렸다.
- 5 " 가서 히즈키아에게 말하여라. ' 너의 조상 다윗의 하느님인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자, 내가 너의 수명에다 열다섯 해를 더해 주겠다.

- 6 그리고 아시리아 임금의 손아귀에서 너와 이 도성을 구해 내고 이 도성을 보호해 주겠다.
- 7 이것은 주님이 말한 일을 그대로 이룬다는 표징으로서, 주님이 너에게 보여 주는 것이다.
- 8 보라, 지는 해를 따라 내려갔던 아하즈의 해시계의 그림자를 내가 열 칸 뒤로 돌리겠다.'" 그러자 아하즈의 해시계 위에 드리워졌던 해가 열 칸 뒤로 돌아갔다.

히즈키아의 찬미가

- 9 병이 들었다가 그 병에서 회복된 유다 임금 히즈키아의 글이다.
- 10 " 나는 생각하였네. ' 내 생의 한창때에 나는 떠나야 하는구나. 남은 햇수를 지내려 나는 저승의 문으로 불려 가는구나.'
- 11 나는 또 생각하였네. '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을 뵈지 못하고 이제는 세상 주민들 가운데 한 사람도 보지 못하겠구나.'
- 12 목자들의 천막처럼 나의 거처가 뿔뿔히 내게서 치워졌으니 나는 배 찢는 이처럼 내 생을 감아 들어야 했네. 그분께서 나를 베들에서 잘라 버리셨네. 낮이나 밤이나 당신께서는 저를 막바지로 몰고 가시니
- 13 저는 구해 달라 아침까지 부르짖습니다. 당신께서 사자처럼 저의 뼈들을 모두 부수십니다. 낮이나 밤이나 당신께서는 저를 막바지로 몰고 가십니다.
- 14 저는 제비처럼 두루미처럼 울고 비둘기처럼 탄식합니다. 위를 보느라 제 눈은 지쳤습니다. 주님, 곤경에 빠진 이 몸, 저를 돌보아 주소서.
- 15 나 무어라 말하리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분께서 행하셨는데! 내 영혼의 쓰라림 때문에 내 잠이 모두 달아나 버렸다네.
- 16 주님, 사람들은 그것들로 해서 살아가고 제

- 목숨은 그러한 모든 것들에 달려 있습니다. 저를 낮게 해 주소서. 저를 살려 주소서.
- 17 보소서, 저의 쓰디쓴 쓰리림은 행복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신께서는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제 목숨을 지켜 주셨습니다. 정녕 저의 모든 죄악을 당신의 등 뒤로 던져 버리셨습니다.
- 18 저승은 당신을 찬송할 수 없고 죽음은 당신을 찬양할 수 없으며 구렁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당신의 성실하심에 희망을 두지 못합니다.
- 19 오늘 제가 하듯이 산 사람, 살아 있는 사람만이 당신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당신의 성실하심을 알립니다.
- 20 주님은 나를 구하시는 분. 우리 한평생 모든 날에 주님의 집에서 현악기 타며 노래 부르세."
- 21 이사야가 " 무화과 과자를 가져다가 종기 위에 발라 드리면, 임금님께서 나오실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 22 히즈기아가 " 내가 주님의 집에 오를 수 있다는 표징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바빌론의 사절단

- 39 ¹ 그때에 발아단의 아들인 바빌론 임금 므로다 발아단이, 히즈기아가 병 들었다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냈다.
- 2 히즈기아는 그들을 반기어 맞아들이고, 그들에게 자기의 보물 창고와 은과 금, 향료와 고급 기름, 병기고 전체와 창고 안에 있는 것을 다 보여 주었다. 히즈기아가 자기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 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 3 그때에 이사야 예언자가 히즈기아 임금에게 와서 물었다. "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히즈기아가 대답하였다. " 먼 나라에서 나를 찾아온

사람들이요, 바빌론에서 왔소."

- 4 이사야가 다시 물었다. "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즈기아가 대답하였다. " 내 궁궐 안에 있는 것을 다 보았소, 내 창고 안에 있는 것 가운데 내가 그들에게 보여 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소."
- 5 그러자 이사야가 히즈기아에게 말하였다. " 만군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 6 ' 보라, 네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과 네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 온 것들이 바빌론으로 옮겨져, 하나도 남지 않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 주님이 말한다.
- 7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들 가운데 더러는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내시가 될 것이다.'"
- 8 히즈기아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 그대가 전한 주님의 말씀은 지당하오." 그러면서도 그는 ' 내가 살아 있는 동안은 평화와 안정이 지속돼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이사야 예언서 제 2 부

위로와 구원의 선포

- 40 ¹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들. — 너희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 2 예루살렘에게 다정히 말하여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줏값이 치러졌으며 자기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주님 손에서 갑절의 벌을 받았다고 외쳐라.
- 3 한 소리가 외친다. "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에 길을 곧게 내어라.
- 4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 5 이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니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친히

- 이렇게 말씀하셨다."
- 6 한 소리가 말한다. " 외쳐라." " 무엇을 외쳐야 하나?" 하고 내가 물었다. " 모든 인간은 풀이요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
- 7 주님의 입김이 그 위로 불어오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진정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 8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 9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한껏 높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 너희의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다." 하고 말하여라.
- 10 보라, 주 하나님께서 권능을 떨치며 오신다. 당신의 팔로 왕권을 행사하신다. 보라, 그분의 상급이 그분과 함께 오고 그분의 보상이 그분 앞에 서서 온다.
- 11 그분께서는 목자처럼 당신의 가축들을 먹이시고 새끼 양들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 12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되었고 장뿔으로 하늘을 채었으며 되로 땅의 먼지를 되었느냐? 누가 산들을 저울로 달고 언덕들을 천칭으로 달았느냐?
- 13 누가 주님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어 그분을 가르쳤느냐?
- 14 그분께서 누구와 의논하시어 깨우침을 받으셨고 누가 그분께 올바른 길을 가르쳐 드렸느냐? 누가 그분께 지식을 가르쳤으며 슬기의 길을 깨치시게 하였느냐?
- 15 보라, 민족들은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 같고 천칭 위의 티끌같이 여겨질 뿐. 진정 그분께서는 섬들도 먼지처럼 들어 올리신다.

- 16 레바논은 뿔감으로도 모자라고 그곳 짐승들은 번개물로도 모자란다.
- 17 민족들 모두가 그분 앞에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분께는 아무것도 아니며 헛것으로만 여겨진다.
- 18 너희는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그분을 어떤 형상에 비기겠느냐?
- 19 우상이냐? 그것은 장인이 쇠를 부어 만들고 도금장이 금으로 입혔으며 은사슬을 만들어 걸친 것이다.
- 20 너무 가난하여 이런 봉헌물을 마련할 수 없는 자는 썩지 않은 나무를 고르고 채주 있는 장인을 찾아내어 흔들리지 않는 우상을 만들게 한다.
- 21 너희는 알지 않느냐? 듣지 않았느냐? 처음부터 너희에게 알려지지 않았느냐? 땅의 기초가 세워질 때부터 그것을 깨닫지 않았느냐?
- 22 그분께서는 땅 위 궁중에 좌정하여 계시고 땅의 주민들은 때뿔 때와 같다. 그분께서는 하늘을 엮은 휘장처럼 펴시고 거기에 사시려고 천막처럼 쳐 놓으셨다.
- 23 그분께서는 지배자들을 없애 버리시고 세상의 통치자들을 허수아비처럼 만들어 버리신다.
- 24 그들이 삼키기가 무섭게 그들의 씨가 뿌려지기 무섭게 그들의 줄기가 땅에 뿌리를 내리기가 무섭게 그분께서 입김을 부시면 그들은 말라 버리고 폭풍이 그들을 지푸라기인 양 쓸어 가 버린다.
- 25 " 너희는 나를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 26 너희는 눈을 높이 들고 보아라. 누가 저 별들을 창조하였느냐? 그 군대를 수대로 다 불러내시고 그들 모두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능력이 크시고 권능이 막강하시어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신뢰를 가져라

- 27 아굽아, 내가 어찌 이런 말을 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나의 길은 주님께 숨겨져 있고 나의 권리는 나의 하나님께서 못 보신 채 없어져 버린다."
- 28 너는 알지 않느냐? 너는 듣지 않았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피곤한 줄도 지칠 줄도 모르시고 그분의 슬기는 헤아릴 길이 없다.
- 29 그분께서는 피곤한 이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이 없는 이에게 기력을 북돋아 주신다.
- 30 젊은이들도 피곤하여 지치고 청년들도 비틀거리기 마련이지만
- 31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 치며 올라간다. 그들은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걸어도 피곤한 줄 모른다.

키루스의 소명

- 41 **1** 섬들아, 조용히 내 말을 들어라. 거레들은 새 힘을 얻어라. 가까이 와서 말하여라. 우리 함께 재판하러 나아가자.
- 2 밭길이 닿는 곳마다 승리를 불러오는 이를 누가 동방에서 일으키셨느냐? 그분께서 그에게 민족들을 넘겨주셔서 그가 임금들을 굴복시킨다. 그는 자기 칼로 그들을 먼지처럼 만들고 자기 활로 그들을 지푸라기처럼 날려 버린다.
- 3 그가 그들을 뒤쫓으며 거침없이 나아가는데 미처 밭이 땅에 닿지도 않는다.
- 4 누가 이를 이루고 실행하였느냐? 처음부터 세대들을 불러일으킨 이 나 주님이 시작이고 마지막에도 나는 변함이 없으리라.
- 5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 끝들이 무서워한다. 그들이 다가온다, 그들이 모여 온다.

- 6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며 자기 동료에게 "힘을 내!" 하고 말한다.
- 7 장인은 도금장이를 격려하고 망치로 쇠를 고르는 자는 모루를 치는 자를 격려하며 땀 질이 잘되었다고 말하면서 흔들리지 않게 그것을 못으로 고정시킨다.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 8 그러나 너 이스라엘, 나의 종아 내가 선택한 아굽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 9 내가 너를 땅 끝에서 데려오고 그 가장자리에서 불러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너를 내치지 않았다."
- 10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겁내지 마라. 내가 너의 힘을 북돋우고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 11 보라, 너에게 격분하는 자들은 모두 부끄러워하며 수치를 당하리라. 너와 다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되어 멸망하리라.
- 12 너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을 내가 찾으려 해도 찾아내지 못하리라. 너와 전쟁을 벌이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없어진 자들처럼 되리라.
- 13 나 주님이 너의 하나님 내가 네 오른손을 붙잡아 주고 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 14 두려워하지 마라, 벌레 같은 아굽아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너의 구원자이다.
- 15 보라, 내가 너를 날카로운 타작기로, 날이 많은 새 타작기로 만들리니 너는 산들을 타작하여 잘게 비수고 언덕들을 지푸라기처럼 만들리라.
- 16 내가 그것들을 까부르면 바람이 쓸어 가고

폭풍이 그것들을 흠날려 버리리라. 그러나 너는 주님 안에서 기뻐 뛰놀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안에서 자랑스러워하리라.

경이로운 귀향길

- 17 기련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이 물을 찾지만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탄다. 나 주님이 그들에게 응답하고 나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리라.
- 18 나는 벌거숭이산들 위에 강물이, 골짜기들 가운데에 샘물이 솟아나게 하리라. 광야를 못으로, 메마른 땅을 수원지로 만들리라.
- 19 나는 광야에 향백나무와 아카시아 도금양 나무와 소나무를 갖다 놓고 사막에 방백나무와 사철가막살나무와 잣나무를 함께 심으리라.
- 20 이는 주님께서 그것을 손수 이루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그것을 창조하셨음을 모든 이가 보아 알고 살표 깨닫게 하 시려는 것이다.

주님만이 하느님

- 21 " 너희의 소송 거리를 가져오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너희의 증거를 제시해 보아라." 야곱의 임금님께서 말씀하신다.
- 22 다가와서 우리에게 알려라,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지를. 예전의 일들이 어떤 것인지 알려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살표 그 결말을 알게 되리라. 아니면 앞으로 올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 보아라.
- 23 너희가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다가올 일들을 알려 보아라. 우리가 함께 겁내며 두려워하도록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해 보아라.
- 24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요 너희의 업적 따위는 있지도 없으니 너희를 선택하는 자는 험오스러울 뿐이다.

키루스의 승리를 예고하신 주님

- 25 내가 북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니 그가 왔다. 그는 해 뜨는 곳에서 그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는 웅기장이가 흙을 밟아 짓이 기듯 통치자들을 진흙처럼 짓밟으리라.
- 26 누가 처음에 이것을 알려 주어 우리가 알게 되었고 누가 오래전에 알려 주어 우리가 " 옳다!" 하고 대답할 수 있게 되었느냐? 알려 준 자가 아무도 없고 들려준 자가 아무도 없으며 너희의 말을 들어 본 자가 아무도 없다.
- 27 나는 먼저 시온에게 " 보라, 이들을 보라!" 하였고 이제 예루살렘에 기쁜 소식을 전할 이를 보낸다.
- 28 그러나 내가 둘러보니 아무도 없다. 내가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조언자가 그들 가운데에는 아무도 없다.
- 29 보라, 그들은 모두 아무것도 아니요 그들의 행적은 있지도 없으며 그들이 부어 만든 상들은 바람이요 헛것일 뿐이다.

'주님의 종의 첫째 노래

- 42** ¹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불러주어 주는 이, 내가 선택한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 2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 3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 4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 5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펼치신 분 땅과 거기에서 자라는 온갖 것들을 펴신 분 그곳에 사는 백성에게 목숨을, 그 위를 걸어 다

- 나는 사람들에게 숨을 넣어 주신 분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6 " 주님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네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 7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 주기 위함이다.
- 8 나는 아해,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남에게 돌리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돌리지 않는다.
- 9 보라, 예전에 알려 준 일들은 이루어졌고 새로 일어날 일들은 이제 내가 알려 준다. 싹이 트기도 전에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다."

승리의 찬가

- 10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땅 끝에서부터 그분께 찬양을 드려라. 바다와 그를 채운 것들, 섬들과 그 주민들은 소리를 높여라.
- 11 광야와 그 성읍들 케다르족이 사는 부락들은 큰 소리로 외치고 셀라 주민들은 환성을 울리며 산봉우리에서마다 기뻐 소리쳐라.
- 12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섬에서마다 그분에 대한 찬양을 알리라.
- 13 주님께서 용사처럼 나가시고 전사처럼 사기를 돋우신다. 고함을 치시고 함성을 터뜨리시며 당신 적들을 압도하신다.
- 14 나는 오랫동안 조용히 입을 다물고 참아왔다. 이제 나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으리라. 힘뻑이며 숨을 내쉬리라.
- 15 나는 산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고 그 초목들을 모두 메마르게 하리라. 강들을 땅으로 만들고 못들을 메마르게 하리라.
- 16 나는 눈먼 이들을 그들이 모르는 길에서 이끌고 그들이 모르는 행로에서 견게 하며

그들 앞의 어둠을 빛으로,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들리라. 이것들이 내가 할 일 나는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 17 우상을 믿는 자들 " 당신들이 저희의 신입니다." 하고 부어 만든 상에게 말하는 자들 그들은 뒤로 물러나 크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귀먹고 눈먼 이스라엘

- 18 너희 귀먹은 자들아, 들어라. 너희 눈먼 자들아, 눈을 뜨고 보아라.
- 19 눈먼 자가 누구냐? 나의 종이 아니냐! 귀먹은 자가 누구냐? 내가 보내는 사자가 아니냐! 하느님께 봉헌된 이자처럼 눈먼 자가 있느냐? 주님의 종처럼 눈먼 자가 있느냐?
- 20 그는 많이 보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귀가 열려 있으면서도 듣지 못한다.
- 21 주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움을 위해 당신의 법을 드높이시고 영광스럽게 만드시기를 원하셨다.
- 22 그러나 이들은 약탈과 노략질을 당한 백성 모두 굴속에 묶여 있고 감방에 갇혀 있다. 이들은 약탈품이 되었지만 구해 주는 이 없고 노략품이 되었지만 " 들려주어라." 하고 말해 주는 이 없다.
- 23 너희 가운데 누가 이것에 귀를 기울이고 앞날을 위하여 주의 깊게 들으려느냐?
- 24 누가 아굽을 노략질당하게 내놓으시고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내놓으셨느냐? 바로 주님이 아니시냐?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짓지 않았느냐? 그들은 그분의 길을 걸으려 하지 않았고 그분의 법에 순종하지 않았다.
- 25 그래서 그분께서 당신 분노의 열기와 전쟁의 폭력을 그들 위에 퍼부으시어 그것이 그들 주위에 타올랐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그들을 태웠지만 그들은 알아

듣지 못하였다.

이스라엘의 구원

43 ¹ 그러나 이제 아굽아, 너를 창조하신 분, 이스라엘아, 너를 빚어 만드신 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² 내가 물 한기운대를 지난다 해도 나 너와 함께 있고 강을 지난다 해도 너를 덮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불 한기운대를 걷는다 해도 너는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³ 나는 주 너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너의 구원자이다. 내가 이집트를 너의 몸값으로 내놓고 에티오피아와 스베를 너 대신 내놓는다.

⁴ 내가 나의 눈에 값지고 소중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 대신 다른 사람들을 내놓고 네 생명 대신 민족들을 내놓는다.

⁵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해 뜨는 곳에서 너의 후손들을 데려오고 해 지는 곳에서 너를 모아 오리라.

⁶ 내가 북녘에 이르리라. '내놓아라.' 남녘에도 이르리라. '잡아 두지 마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 나의 딸들을 땅 끝에서 데려오리라. 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아들,

⁷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아들, 내가 빚어 만든 이들을 모두 데려오리라."

주님만이 하느님

⁸ 눈이 있어도 눈먼 이 백성을, 귀가 있어도 귀먹은 이자들을 나오게 하여라.

⁹ 모든 민족들은 함께 모이고 겨레들은 모여 들어라. 그들 가운데 누가 이것을 미리 알려 주었으며 예전의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들려주었느냐? 그들이 증인들을 내세워서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밝혀 사람들이 듣고 "사실이다." 하고 말하게 해 보아라.

¹⁰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너희는 내가 선택한 나의 종이다. 이는 너희가 깨쳐서 나를 믿고 내가 바로 그분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나 이전에 신이 만들어진 일이 없고 나 이후에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으리라.

¹¹ 내가, 바로 내가 주님이다. 나 말고는 구원해 주는 이가 없다.

¹² 미리 알려져서 구원하고 이를 들려준 것은 나지 너희 가운데에 있는 어떤 낯선 신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고 나는 하느님이다.

¹³ 앞으로도 나는 그러하리니 내 손에 든 것을 빼내 갈 자 없으리라. 내가 하는 일을 누가 돌이킬 수 있었느냐?

바빌론의 멸망

¹⁴ 너희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때문에 내가 바빌론으로 사람을 보내어 빗장을 모두 벗기리니 칼데아인들의 아우성이 통곡으로 바뀌리라.

¹⁵ 나는 주님, 너희의 거룩한 이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임금이다."

새로운 탈출

¹⁶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은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내시고 거센 물 속에 큰길을 내신 분,

¹⁷ 병거와 병마 군대와 용사들을 함께 나오게 하신 분. 그들은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꺼져 가는 심지처럼 사그라졌다.

¹⁸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¹⁹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냐? 정녕 나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 20 들짐승들과 승냥이와 타조들도 나를 공경 하리니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는 샘을 내고 사막에는 강을 내기 때문이다.
- 21 이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빚어 만든 백성 이들이 나에 대한 찬양을 전하리라.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 22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싫증을 내었다.
- 23 너는 번제를 올리려고 나에게 양을 가져오 지도 않았고 희생 제물을 바쳐 나를 공경 하지도 않았다. 나는 봉헌물 때문에 너를 괴롭히지도 않았고 유향 때문에 너를 싫증 나게 하지도 않았다.
- 24 너는 나를 위하여 돈을 주고 향초를 사지 도 않았고 희생 제물의 기름기로 나를 흠 족하게 하지도 않았다. 너는 도리어 너의 죄로 나를 괴롭히고 너의 죄악으로 나를 싫증 나게 만들었다.
- 25 나, 바로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너의 악행 들을 씻어 주는 이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 지 않으리라.
- 26 내 기억을 되살려 보아라. 우리 함께 시비를 가려보자. 너 말해 보아라, 내가 옳다는 것이 밝혀지도록.
- 27 너의 첫 조상부터 죄를 지었고 너의 대변 자들도 나에게 반역하였다.
- 28 그래서 나는 성소의 제후들을 더럽혀지게 만들고 야곱이 전멸당하게, 이스라엘이 모 욱당하게 내어 놓았다.

하느님의 강복

- 44 ¹ 이제 들어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아.
- 2 너를 만드신 분 모태에서부터 너를 빚으시 고 너를 도우시는 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하신다. "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종 야곱 아 내가 선택한 여수론아.

- 3 내가 목마른 땅에 물을, 메마른 곳에 시냇물 을 부어 주리라. 너의 후손들에게 나의 영 을, 너의 새싹들에게 나의 복을 부어 주리 라.
- 4 그들은 물길 사이의 풀처럼, 흐르는 물가의 버드나무처럼 솟아나리라.
- 5 그때에 어떤 이는 ' 나는 주님의 것'이라 말 하고 어떤 이는 야곱의 이름을 따라 자신을 부르리라. 또 어떤 이는 제 손에 ' 주님의 것'이라 쓰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제 이름으 로 삼으리라."

주님만이 하느님

- 6 주 이스라엘의 임금님, 이스라엘의 구원자이 신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나는 처음이며 나는 마지막이다. 나 말고 다 른 신은 없다.
- 7 나와 같은 자 누구냐? 누구든 말해 보아라. 그것을 알리고 내 앞에 펼쳐 보아라. 다가올 일들을 누가 예전에 들려주었느냐? 앞으로 닥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 보아라.
- 8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예전부터 너희에게 들려주고 알려 주지 않 았느냐?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나 말고 다 른 신이 또 있느냐? 다른 반석은 없다. 나 는 그런 것을 모른다."

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

- 9 우상을 빚어 만드는 자들은 모두 헛것들이 고 이들이 좋아하는 우상들은 쓸모가 없다.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수치만 당할 뿐이다.
- 10 누가 쓸모없는 신을 빚어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드느냐?
- 11 보라, 그것을 신봉하는 자들은 모두 수치를 당한다. 그것을 만든 장인들은 인간일 따름 이다. 그들이 모두 모여 나서게 하여라. 무

서위하며 수치만 당하리라.

- 12 철공이 연장을 잡고 숯불에 달구어 작업을 한다. 망치로 두드려 그것을 만들면서 힘센 팔로 작업을 한다. 그러면 그는 허기져서 힘을 잃고 물을 마시지 못하여 지쳐 버린다.
- 13 목공은 줄을 늘어 석필로 그 모양을 그리고 대패질을 한 뒤 길음쇠로 그 모양을 그리고 사람의 모습처럼 인간의 아름다움을 본떠 우상을 만들어서 신전에 세운다.
- 14 그는 향백나무들을 찍어 오거나 솔갓나무와 참나무를 골라 그것들을 숲의 나무들 사이에서 튼튼히 자라게 한다. 그가 월계수를 심으면 비가 그것을 자라게 한다.
- 15 그것은 사람에게 땀감이 되기도 하니 그 일부를 가져다가 제 몸을 담히고 불을 피워 빵을 굽기도 한다. 그러고서는 산을 제 작하여 그것에 경배하고 신상을 만들어 그 앞에 엎드린다.
- 16 그는 나무 반 토막에는 불을 붙여 그 위에서 고기를 굽고 구운 고기를 배불리 먹는다. 또 제 몸을 담히면서 "아, 따뜻한 불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하고 말한다.
- 17 그 나며지로는 신을,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그리고 그것에게 기도하며 "당신은 저의 신이시니 저를 구하소서." 하고 말한다.
- 18 그것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 눈은 둘러볼어 보지 못하고 마음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 19 아무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각도 없고 분별력도 없어 "나는 그 반 토막에 불을 붙여 그 숯불 위에서 빵을 굽고 고기를 구워 먹었지. 이제 남은 것으로 혐오스러운 것을 만들어 그 나무 조각 앞에 엎드려야지." 하고 말할 줄도 모른다.
- 20 재를 뒤쫓는 자, 그는 현혹된 마음에 이끌려 제 목숨을 구하지도 못하고 "내 오른

손에 있는 것은 거짓이 아닌가?" 하고 말할 줄도 모른다.

회개하여라

- 21 아홉아, 이것을 기억하여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라.
- 22 내가 너의 악행들을 구름처럼, 너의 죄악들을 안개처럼 쓸어버렸다. 나에게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환희의 노래

- 23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으니, 하늘아, 환성을 올려라. 땅속 깊은 곳들이, 함성을 질러라. 기뻐 소리쳐라, 산들이 수풀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주님께서 아홉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에게 당신 영광을 드러내셨다.

주님의 관능

- 24 너의 구원자이신 주님, 너를 모태에서부터 빚어 만드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주님, 모든 것을 만든 이다. 나는 혼자서 하늘을 펼치고 나 홀로 땅을 넓혔다.
- 25 나는 수다쟁이들의 표징을 부수어 버리고 점쟁이들을 바보로 만든다. 나는 현자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은 것으로 만든다.
- 26 나는 내 종의 말을 실현시키고 내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시킨다. 나는 예루살렘에게는 '사람들이 살리라.' 하고 유다의 성읍들을 두고는 '이것들은 재건될 것이다. 그 폐허들을 내가 복구하리라.' 하고 말한다.
- 27 나는 깊은 물에게 '말라 버려라. 너의 물줄기들을 내가 메마르게 하리라.' 하고 말한다.
- 28 나는 키루스에 대하여 말한다. '그는 나의 목자. 그가 나의 뜻을 모두 성취시키며 예

루살렘을 두고 ' 그것은 재건되고 성전은 그 기초가 세워지리라.' 하고 말하리라."

주님께서 키루스를 세우시다

45 ¹ 주님께서 당신의 기름부음받은이에게, 당신께서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 키루스에게 말씀하시니 민족들을 그 앞에 굴복시키고 임금들의 허리띠를 풀며 버리며 문들을 열어젖히고 성문들이 닫히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² 내가 네 앞을 걸어가면서 산들을 평지로 만들고 청동 문들을 부수며 쇠 빗장들을 부러뜨리리라.

³ 내가 어둠 속에 있는 보화와 숨겨진 보물을 너에게 주리니 내가 바로 너를 지명하여 부르는 주님임을, 이스라엘의 하느님임을 내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⁴ 나의 종 아굽 때문에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고 너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나 너에게 칭호를 내린다.

⁵ 나는 주님이다. 다른 이가 없다.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나 너를 무장시키니

⁶ 해 뜨는 곳에서도 해 지는 곳에서도 나밖에 없음을, 내가 주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⁷ 나는 빛을 만드는 이요 어둠을 창조하는 이다. 나는 행복을 주는 이요 불행을 일으키는 이다. 나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룬다.

⁸ 하늘아, 위에서 이슬을 내려라. 구름아, 의로움을 뿌려라. 땅은 열려 구원이 피어나게, 의로움도 함께 싹트게 하여라. 나 주님이 이것을 창조하였다.

비할 데 없는 주님의 권능

⁹ 불행하여라, 자기를 빚어 만든 분과 다투는 자! 오지그릇 한 조각에 지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자. 진흙이 자기를 빚어 만

드는 이에게 " 당신은 무얼 만드는 거요?" " 당신이 만든 것에는 손집이가 없잖소" 하고 말할 수 있느냐?

¹⁰ 불행하여라, 제 아버지에게 " 무얼 낳고 계십니까?" 하고 여인에게 " 무엇 때문에 산고를 겪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는 자!

¹¹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그를 빚어 만든 신 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그래, 너희가 내 아들들에 대하여 나에게 물으려느냐? 내 손의 작품에 대하여 너희가 나에게 명령하려느냐?

¹² 바로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있는 인간을 창조하였다. 바로 이내 손으로 하늘을 펼쳤고 그 모든 군대에게 명령을 내린다.

¹³ 바로 내가 의로움으로써 그를 일으켰으니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라. 그가 내 도성을 재건하고 유배 간 나의 백성을 데가도 선물도 아니 받고 풀어 주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민족들이 주님께 돌아오다

¹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이집트의 재산과 에티오피아의 소독과 키 큰 족속 스바인들이 너에게 건너와서 너의 것이 되고 너의 뒤를 따르리라. 그들은 사슬에 묶여 건너와서 네 앞에 엎드려 빌며 말하리라. ' 과연 당신에게만 하느님이 계십니다. 다른 이가 없습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

¹⁵ 아, 구원을 베푸시는 이스라엘의 하느님! 정녕 당신은 자신을 숨기시는 하느님이십니다.

¹⁶ 그들은 모두 함께 부끄러워하며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차욕 속에 물러가리라.

¹⁷ 이스라엘은 주님께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영원한 구원이니라. 영원무궁토록 너희는 부끄러움도 수치도 당하지 않으리라.

주님의 언행은 뚜렷하시다

- 18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을 창조하신 분 그분께서 하느님이시다. 땅을 빗으시고 땅을 만드신 분 그분께서 그것을 굳게 세우셨다. 그분께서는 그것을 혼돈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살 수 있는 곳으로 빗어 만드셨다. 내가 주님이다. 다른 이가 없다.
- 19 나는 숨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어두운 땅 어느 구석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아굽의 후손들에게 " 너희는 나를 혼돈 속에서 찾아라." 하고 말하지 않았다. 나 주님은 의로운 것을 말하고 바른 것을 알린다.

주님은 만방의 하느님

- 20 민족들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모여 오너라. 다 함께 가까이 오너라. 나무 우상을 떠받들고 다니는 자들과 구원을 배풀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지각없는 자들이다.
- 21 말해 보아라. 설명해 보아라. 함께 의논도 해 보아라. 누가 이것을 옛날에 들려주었느냐? 누가 이것을 예전에 알려 주었느냐? 나 주님이 아니냐? 나밖에는 다른 신이 아무도 없다. 의롭고 구원을 베푸는 하느님 나 말고는 아무도 없다.
- 22 땅 끝들아, 모두 나에게 돌아와 구원을 받아라. 나는 하느님, 다른 이가 없다.
- 23 내가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 내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으니 그 말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정녕 모두 나에게 무릎을 꿇고 입으로 맹세하며
- 24 말하리라. " 주님께만 의로움과 권능이 있다. 그분께 격분하는 자들은 모두 그분 앞에 와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 25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은 주님 안에서 승리와 영예를 얻으리라."

바빌론 신들의 몰락

- 46 ¹ 벨 신이 꺾인다. 느보 신이 고꾸라진다. 그 우상들이 짐승과 가축에 실린다. 너희가 떠받들고 다니던 것들이 지친 동물들에게 짐으로 지워진다.
- 2 그들은 다 함께 고꾸라지고 꺾여서 짐을 견지기는커녕 저희들 자신이 유배를 간다.
- 3 내 말을 들어라, 아굽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남은 자들아, 모테에서부터 업혀 다니고 태중에서부터 안겨 다닌 자들아.
- 4 너희가 늙어 가도 나는 한결같다. 너희가 백발이 되어도 나는 너희를 지고 간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안고 간다. 내가 지고 가고 내가 구해 낸다.
- 5 너희는 나를 누구와 비교하고 견주겠느냐? 우리를 누구와 맞대어 비슷하다고 하겠느냐?
- 6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 내고 은을 저울로 다는 자들 그들은 금세공인을 고용하여 그것들로 신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 7 그들이 그것을 어깨에 올려 메고 가서 제자리에 내려놓으면 거기에 선 채로 그것은 움직이지도 못한다. 누가 그에게 소리 질러도 대답하지 못하고 그를 곤경에서 구해 주지도 못한다.

미래의 주인이신 주님

- 8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고 알아들여라. 너희 죄인들아, 마음을 가다듬고
- 9 먼 옛날의 일들을 기억해 보아라. 내가 하느님, 다른 이가 없다. 내가 하느님, 나 같은 이가 없다.
- 10 나는 처음부터 장래 일들을 알려 주고 예전부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알려 주며 " 내 계획은 성사되고 나는 내 뜻을 모두 이룬다."고 말하는 이다.
- 11 나는 해 뜨는 곳에서 땀금을 불러오고 먼 나라에서 내 계획을 이룰 사람을 불러오는

이다. 내가 말하였으니 그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계획하였으니 그것을 반드시 실행하리라.

- 12 내 말을 들어라, 마음이 굳은 자들이 의로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
13 나는 내 의로움을 가까이 가져왔다. 그것은 멀리 있지 않다. 나의 구원은 지체하지 않는다.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는 시온에 구원을 빼놓는다.

바빌론의 몰락

- 47 ¹ 처녀 딸 바빌론아 내려와 먼지 위에 앉아라. 딸 칼데야야 왕좌가 없으니, 땅바닥에 앉아라. 사람들이 너를 더 이상 부드러운 여인이라고, 상냥한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으리라.
2 땃들을 돌려 가루를 내어라. 너울을 벗고 치맛자락을 걷어 올려 다리를 드러낸 채 강을 건너라.
3 네 앞뿔이 드러나고 네 치부까지 보이게 하여라. 나는 복수하리라. 어떤 인간도 그냥 두지 않으리라.
4 우리의 구원자 그 이름 만군의 주님 그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다.
5 딸 칼데야야 잠자코 앉아 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거라. 사람들이 너를 더 이상 만국의 여왕이라 부르지 않으리라.
6 나는 내 백성에게 진노하여? 내 재산을 내 버렸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겼는데 너는 그들을 동정하지 않고 노인들에게도 네 멍에를 너무나 무겁게 짊어지웠다.
7 " 나는 언제까지나 영원한 여왕이리라." 너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일들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않고 장래 일을 생각하지도 않았다.
8 그러나 이제 이것을 들어 보아라, 음탕한 여인아 태평스레 앉아 있는 여인아. 너는 마음속으로 ' 나쁘이다. 나밖에는 없다. 나는 과부로 나앉지도 않고 자녀들을 잃는 일도 겪

지 않으리라.' 생각하였다.

- 9 그러나 이 두 가지가 한날에 갑자기 너에게 들이닥치리라. 너의 그 많은 마술에도, 너의 그 강력한 주술에도 자녀들을 잃고 과부 신세가 되는 일이 여지없이 너에게 들이닥치리라.
10 너는 네 사악함으로 자신만만하여 "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 하고 말하였다.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현혹시켜 너는 마음속으로 ' 나쁘이다. 나밖에는 없다.'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11 그러나 이제 불행이 너에게 들이닥치리니 너는 그것을 요술로도 막아 내지 못하리라. 이제 파멸이 너를 덮치리니 너는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또 네가 알지도 못하는 멸망이 순식간에 너에게 들이닥치리라.
12 그러나 내가 젊어서부터 애써 익혀 온 너의 그 주술들과 그 많은 마술들을 가지고 나서 보아라. 어쩌면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내가 위협하여 쫓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지.
13 너는 너의 그 많은 의견들 때문에 지쳤구나. 자, 하늘을 연구하는 자들 별들을 관찰하는 자들 너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매달 초에 알려 주는 자들 그들에게 나서서 너를 구해 보라고 하여라.
14 보라, 그들은 지푸라기처럼 되어 불이 그들을 살라 버리리라. 그들은 그 불길의 위력 앞에서 저 자신도 구해 내지 못한다. 그 불은 몸을 덥힐 숯불도 아니고 그 앞에 앉아 쥘 불도 아니다.
15 너와 함께 애써 온 자들, 젊어서부터 사귀어 온 자들이 너에게 바로 이러하다. 그들은 하나같이 어긋나서 너를 구할 자 하나도 없다.

창조주이며 구원자이신 하느님

- 48 ¹ 이 말을 들어라, 야곱 집안아 이스

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이 유대의
몸에서 나온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
하고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기리기를 진실과
의로움으로 하지 않는 자들이.

- 2 이들은 거룩한 도성의 백성이라 자처하고
그 이름 만군의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느
님께 의지한다 하는구나.
- 3 나는 예전의 일들을 이미 예로부터 알려 주
었다. 그것들은 내 입에서 나왔다. 내가 그
것들을 들려주었다. 내가 순식간에 행하니
그것들이 이루어졌다.
- 4 나는 정녕 내가 완고함을, 네 목이 쇠막대기
임을, 네 이마가 구리임을 안다.
- 5 내가 그것을 예로부터 알려 주었고 일어나
기도 전에 너에게 들려주었으니 너는 " 내
우상이 그 일들을 이루었고 깎아 만든 내
신상과 부어 만든 내 신상이 그것을 명령하
였다." 하고 말하지 못한다.
- 6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살펴보아
라. 너희도 그것을 알려야 하지 않느냐? 내
가 지금부터 너에게 새로운 일들을, 내가 모
르던 감추어진 일들을 들려주겠다.
- 7 이것들은 옛적이 아니라 지금 창조되어 오
늘 이전에는 내가 들어 본 적이 없으니 "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고 말하지 못한
다.
- 8 너는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다. 예
로부터 네 귀가 열리지 않았으니 내가 배신
만 하고 모태에서부터 반역자라 불릴 것임
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 9 나는 내 이름 때문에 노여움을 참고 내 명
에 때문에 너에 대한 분노를 억눌러 너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 10 보라, 나는 너를 단련시켰으나 은을 녹이듯
하지는 않고 고난의 도가니 속에서 너를
시련하였다.
- 11 나 자신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어찌 내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겠느냐? 나는 내 영광을 남에게 넘겨주
지 않는다.

주님의 일꾼 키루스

- 12 내 말을 들어라, 아람이나 나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아. 내가 바로 그분이다. 나는 처
음이며 나는 마지막이다.
- 13 내 손이 땅의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펼쳤다. 내가 그들을 부르면 다 함
께 일어선다.
- 14 너희 모두 모여 와 들어 보아라. 그들 가운
데 누가 이 일들을 알려 주었느냐? 주님께
서는 그를 사랑하시니 그가 바빌론을 거슬
러, 칼데아 족속을 거슬러 그분의 뜻을 실행
하라.
- 15 내가, 바로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를
불렀으며 그를 오게 하였으니 그는 제 길
을 성공으로 이끌리라.
- 16 너희는 나에게 다가와 이 말을 들어라. 처
음부터 나는 숨어서 이야기하지 않았고 이
일이 생길 때부터 나는 거기에 있었다. 이
제 주 하느님께서서는 나와 함께 당신의 영
을 보내셨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느님의 계획

- 17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의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나는 주
너의 하느님 너에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
치고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이
다.
- 18 아, 내가 내 계명들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너의 평화가 강물처럼, 너의 의로움이 바
다 물결처럼 넘실거렸을 것을.
- 19 네 후손들이 모래처럼, 네 몸의 소생들이
모래알처럼 많았을 것을. 그들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도 없어지지도 않았을
것을."

바빌론 탈출과 귀향길

- 20 너희는 바빌론에서 나와라. 칼데아인들에게서 도망쳐라. 환호 소리 울리며 이 일을 알리고 전하여라. 땅 끝까지 퍼뜨려라. "주님께서 당신 종 아굽을 구원하셨다." 하여라.
- 21 그분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목마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솟게 하셨다. 그분께서 바위를 가르시자 물이 쏟아져 나왔다.
- 22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주님의 종'의 둘째 노래

- 49 **1** 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나를 모테에서부터 부르시고 어머니 배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어 주셨다.
- 2 그분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시고 당신의 손 그늘에 나를 숨겨 주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처럼 만드시어 당신의 화살 통 속에 감추셨다.
- 3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에게서 내 영광이 드러나리라."
- 4 그러나 나는 말하였다. "나는 쓸데없이 고생한 하였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내 힘을 다 써 버렸다. 그러나 내 권리는 나의 주님께 있고 내 보상은 나의 하느님께 있다."
- 5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아굽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당신께 모여들게 하시려고 나를 모테에서부터 당신 종으로 빚어 만드셨다. 나는 주님의 눈에 소중하게 여겨졌고 나의 하느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
- 6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아굽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의 구원이 땅 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7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의 거룩하신 분 주님께서 심한 멸시를 받는 이, 민족들에게 경멸을 받는 이, 지배자들의 종이 된 이에게 말씀하신다. "임금들이 보고 일어서며 제후들이 땅에 엎드리리니 이는 신실한 주, 너를 선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때문이다."

기적적인 귀향과 복구

- 8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내어 백성을 위한 계약으로 삼았으니 땅을 다시 일으키고 황폐해진 재산을 다시 나누어 주기 위하여 이며
- 9 갠히 이들에게는 '나와라.' 하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모습을 드러내어라.' 하고 말하기 위함이다." 그들은 가는 길마다 풀을 뜯고 민둥산마다 그들을 위한 초원이 있으리라.
- 10 그들은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으며 열풍도 태양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리니 그들을 가없이 여기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며 설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 11 나는 나의 모든 산들을 길로 만들고 큰길들은 돋우어 주리라.
- 12 보라, 이들이 먼 곳에서 온다. 보라, 이들이 북녘과 서녘에서 오며 또 시냇쪽의 땅에서 온다.
- 13 하늘아, 환성을 울려라. 땅아, 기뻐 뛰어라. 산들아, 기뻐 소리쳐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로하시고 당신의 가련한 이들을 가없이 여기셨다.
- 14 그런데 시온은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고 말하였지.

- 15 여인이 제 찢먹이를 잇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기없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잇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잇지 않는다.
- 16 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은 늘 내 앞에서 있다.
- 17 너를 다시 세우려는 이들이 서두르니 너를 허물던 자들과 너를 부수던 자들이 너에게서 물러간다.
- 18 네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너에게로 모여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살아 있는 한 너는 그들을 모두 패물처럼 걸치고 그들로 신부처럼 치장하리라.
- 19 너의 패허와 너의 황무지 황폐해진 너의 땅이 내가 살기에는 이제 너무 비좁게 되고 너를 집어삼키던 자들은 떨어져 가리라.
- 20 잃었던 네 자식들이 너의 귀에다 대고 "이곳은 너무 비좁으니 제가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넓혀 주세요." 하고 말하리라.
- 21 그러면 너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리라. '누가 나에게 이 아이들을 낳아 주었지? 나는 자식들을 잃고 다시 낳을 수도 없는 몸이 되어 유배당하고 쫓겨났었는데 이 아이들을 누가 키워 주었지? 나 혼자 남아 있었는데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 22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민족들에게 내 손을 쳐들고 겨레들에게 내 깃발을 올리리라. 그러면 그들은 내 아들들을 품에 안아 데려오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오리라.
- 23 임금은 너의 시종이 되고 그들의 왕비들은 너의 보모가 되리라.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너에게 경배하며 네 발의 먼지를 핥으리라. 그때에 너는 내가 주님임을, 나를 고대하는 이들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음을 알게 되리라."

- 24 용사에게서 전리품을 빼앗을 수 있느냐? 폭군에게서 포로들을 빼낼 수 있느냐?
- 25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용사에게서 포로들을 빼앗을 수도 있으며 폭군에게서 전리품을 빼낼 수도 있다. 너를 대적하는 자에게 내가 대적하여 너의 자식들을 내가 구해 내리라.
- 26 나는 너의 압제자들에게 제 살을 먹게 하고 제 피를 새 포도주처럼 마셔 취하게 하리라. 그러면 모든 인간이 나 주님이 너를 구해 주는 이유 너의 구원자가 야곱의 장사임을 알게 되리라."

이스라엘의 잘못

- 50** ¹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어머니를 좇아내며 써 준 이 혼 증서가 어디 있길라도 하더냐? 내 빗쟁이들 가운데 누구에게 내가 너희를 팔아넘겼단 말이나? 바로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팔려 갔고 너희 죄악 때문에 너희 어머니가 쫓겨 갔다.
- ² 내가 왔을 때 왜 아무도 없었느냐? 내가 불렀을 때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느냐? 내 손이 너무 짧아 구해 낼 수가 없다는 말이나? 아니면 내가 힘이 없어 구원할 수가 없다는 말이나? 보라, 나는 호령 한마디로 바다를 말리고? 강들을 광야로 만든다. 물고기들은 물이 없어 썩어 가고 목말라 죽어 간다.
- ³ 나는 흑암으로 하늘을 압히고 자루옷으로 그 덮개를 만든다."

'주님의 종'의 셋째 노래

- ⁴ 주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

- 한다.
- 5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 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 6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 7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 8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께서 가까이 계시는데 누가 나에게 대적하려는가? 우리 함께 나서 보자. 누가 나의 소송 상대인가? 내게 다기와 보아라.
- 9 보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는데 나를 단죄하는 자 누구인가? 보라, 그들은 모두 옷처럼 해지고 쪼이 그들을 먹어 버리리라.
- 10 너희 가운데 누가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 종의 말에 순종하느냐? 빛이 없이 어둠 속을 걷는 자는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 11 그러나 스스로 불을 피우고 불화살에 불을 당기는 너희는 모두 자기가 피운 불 속으로, 자기가 맹진 불화살 속으로 들어가거라. 이것이 너희가 내 손에서 받아야 할 바 아니 너희는 고통 속에 드러누워야 하리라.

아브라함 자손들의 구원

- 51** 1 내 말을 들어라, 의로움을 추구하는 이들이 주님을 찾는 이들과. 너희가 떨어져 나온 반석을 우러러보고 너희가 피내 올려진 저수 동굴을 쳐다보아라.
- 2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우러러보아라. 내가 그를 부를 때 그는 혼자였으나 나는 그에게 복을 내려 그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였다.

- 3 주님께서서는 정녕 시온을 위로하시고 그 모든 폐허를 위로하신다. 그 광야를 에덴처럼, 그 황무지를 주님의 동산처럼 만드시니 그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감사와 찬미 노랫소리가 깃들리라.

하느님의 의로운 통치

- 4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내 겨레야, 내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서 가르침이 나가리라. 나의 공정을 내가 민족의 빛으로 만들리라.
- 5 내가 재빠르게 나의 정의를 가까이 가져오라니 나의 구원이 나아가고 나의 팔이 민족들을 심판하리라. 섬들이 나를 고대하며 나의 팔에 희망을 걸리라.
- 6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어라. 아래로 땅을 바라보아라. 하늘은 연기처럼 스러지고 땅은 옷처럼 해지며 그 주민들은 모기 떼처럼 죽어 가리라.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하고 나의 의로움은 꺾이지 않으리라.
- 7 내 말을 들어라, 의로움을 아는 이들과 내 가르침을 마음속에 간직한 백성아. 사람들의 모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악담에 낙심하지 마라. 그들을 웃인 양 쪼이 먹어 버리고
- 8 그들을 양털인 양 별레가 먹어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의로움은 영원하고 나의 구원은 대대에 미치리라.

주님의 깨어나심

- 9 깨어나소서, 깨어나소서, 힘을 입으소서, 주님의 팔이시여. 옛날처럼, 오래전 그 시절처럼 깨어나소서. 라합을 베어 쓰러뜨리시고 용을 꺾으신 이가 당신이 아니십니까?
- 10 바다를, 그 큰 심연의 물을 말리신 이가 당신이 아니십니까? 구원받은 이들이 건너가도록 당신께서 깊은 바다를 길로 만드셨습니까.
- 11 주님께서 구해 내신 이들이 돌아오리이다.

환호 소리와 함께 시온으로 들어서리이다. 끝없는 즐거움이 그들의 머리 위에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과 함께하여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이다.

능한 위로자이신 주님

- 12 내가, 바로 내가 너희의 위로자이다. 그런 데 죽을 인생을 두려워하고 풀 같은 운명을 타고난 인간의 아들을 두려워하는 너는 누구냐?
- 13 너는 잊었다, 너를 만드신 주님을 하늘을 펼치시고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을. 압제자가 너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였다고 너는 날마다 그의 노여움 앞에서 줄곧 겁을 내고 있다. 그러나 압제자의 노여움이 어디 있느냐?
- 14 사슬에 묶인 이들이 곧 풀려나리니 그들은 죽지도, 구령으로 내려가지도 않고 그들에게는 양식이 모자라지도 않으리라.
- 15 나는 주 너의 하느님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를 울부짖게 하는 이 그 이름 만군의 주님이다.
- 16 나는 네 입에 내 말을 담아 주고 내 손 그늘에 너를 숨겨 준다. 나는 하늘을 삼고 땅의 기초를 놓으며 시온에게 말한다. " 너는 나의 백성이다."

예루살렘의 깨어남

- 17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라, 예루살렘아. 주님의 손에서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신 너, 비틀거리게 하는 술잔을 바다까지 마신 너.
- 18 제가 낳은 모든 자식들 가운데 저를 인도해 줄 자 하나도 없고 제가 키운 모든 자식들 가운데 손을 붙잡아 주는 자 하나도 없는 신세.
- 19 이 두 가지가 너에게 닥쳐왔건만 누가 너를 동정하리오? 파멸과 파괴, 굶주림과 칼이 닥쳐왔건만 누가 너를 위로하리오?
- 20 네 아들들은 주님의 노여움을, 네 하느님의

- 질책을 가득 입어 그물에 걸린 영양처럼 실신하여 길로통이마다 쓰러져 있구나.
- 21 그러니 이 말을 들어라, 너 가련한 여인아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취한 여인아.
- 22 너의 주인이신 주님이시며 당신 백성을 변호해 주시는 너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 하신다. " 보라, 내가 네 손에서 비틀거리게 하는 그 술잔을 거두리니 너는 내 진노의 술잔을 다시는 마시지 않으리라.
- 23 내가 너를 괴롭히는 자들의 손에 그 술잔을 놓으리라. 그들은 너에게 ' 잃으리라. 우리가 딛고 지나가겠다.' 하였고 너는 네 등을 땅바닥처럼 만들어 그들이 바닥을 밟듯 그 위를 지나가게 하였다."

예루살렘의 해방

- 52 **52** 1 깨어나라, 깨어나라. 시온아, 힘을 입어라.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아 네 영화의 옷을 입어라.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너에게 들지 않으리라.
- 2 포로가 된 예루살렘아 먼지를 털고 일어나라. 포로가 된 딸 시온아 너의 목에서 굴레를 벗어 버려라.
- 3 정녕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너희가 대가 없이 팔려 갔으니 돈을 내지 않고 구원을 받으리라.
- 4 — 정녕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내 백성이 처음에는 나그네살이하려고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나중에는 아시리아가 그들을 까닭 없이 억압하였다.
- 5 그런데 나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다. 내 백성이 대가 없이 붙잡혀 왔고 그 지배자들이 억박치르며 내 이름은 날마다 끊임없이 멸시를 당하는데. 주님의 말씀이다.
- 6 그리하여 내 백성은 나의 이름을 알게 되리라. 그날에 그들은 ' 나 여기 있다.'고 말한 이가 바로 나임을 알게 되리라."

구원의 선포

- 7 얼마나 아름다운가, 산 위에 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저 발! 평화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는구나. "너의 하느님은 임금이시다." 하고 시온에게 말하는구나.
- 8 들어 보아라. 너의 파수꾼들이 목소리를 높인다. 다 함께 환성을 올린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심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본다.
- 9 예루살렘의 폐허들이 다 함께 기뻐하며 환성을 올려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셨다.
- 10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한 팔을 걷어붙이시니 땅 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11 떠나라, 떠나라, 거기에서 나와라. 부정함에 손대지 마라. 그 가운데에서 나와라, 몸을 정결하게 하여라, 주님의 기물들을 나르는 자들이.
- 12 너희는 황급히 나오지 않아도, 도망쳐 달아나지 않아도 되리니 주님께서 너희 앞에 서서 가시고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너희 뒤를 지켜 주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종'의 낮게 노래

- 13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승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 14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질겁하였다.
- 15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 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가?

- 2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돌아난 새순처럼, 매미든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 3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 4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 5 그러나 그가 찢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 6 우리는 모두 양 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 7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 8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쳐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 이들의 땅에서 잘려 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 9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지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지들과 함께 묻혔다.
- 10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 11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흠족해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깊어지리라.

- 12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에루살렘의 변창

- 54 ¹ 환성을 울려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아! 기뻐 소리쳐라, 즐거워하여라, 산고를 겪어 보지 못한 여인아! 버림받은 여인의 아들이 혼인한 여인의 아들들보다 많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2 너의 천막 터를 넓혀라. 네 장막의 휘장을 아낌없이 펼쳐라. 네 천막 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 3 내가 좌우로 퍼져 나가고 네 후손들이 못나랴를 차지하여 황폐한 성읍들에 지리 잡을 것이다.

에루살렘에 대한 주님의 사랑

- 4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수치스러워하지 마라. 내가 창피를 당하지 않으리라. 네 젊은 시절의 부끄러움을 잊고 네 과부 시절의 치욕을 내가 다시는 회상하지 않으리라.
- 5 너를 만드신 분이 너의 남편 그 이름 만군의 주님이시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너의 구원자 그분께서는 온 땅의 하느님이라 불리신다.
- 6 정녕 주님께서는 너를? 소박맞아 마음 아파하는 아내인 양 퇴박맞은 젊은 시절의 아내인 양 다시 부르신다. 너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 7 " 내가 잠시 너를 버렸지만 크나큰 자비로

너를 다시 거두어들인다.

- 8 분노가 북받쳐 내 얼굴을 잠시 너에게서 감추었지만 영원한 자애로 너를 기없이 여긴다." 네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9 " 이는 나에게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물이 다시는 땅에 범람하지 않으리라고 내가 맹세하였듯이 너에게 분노를 터뜨리지도 너를 꾸짖지도 않겠다고 내가 맹세한다.
- 10 산들이 밀려나고 언덕들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자애는 너에게서 밀려나지 않고 내 평화의 계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기없이 여기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새 에루살렘

- 11 너 기련한 여인아, 광풍에 시달려도 위로받지 못한 여인아. 보라, 내가 석류석을 너의 주춧돌로 놓고 청옥으로 너의 기조를 세우리라.
- 12 너의 성기퀴들을 홍옥으로, 너의 대문들을 수정으로, 너의 성벽을 모두 보석으로 만들리라.
- 13 너의 아들은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되리라. 또 네 아들의 평화가 넘치리라.
- 14 너는 의로움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압박에서 풀려나리니 내가 두려워할 일이 없으리라. 또 공포에서 풀려나리니 그것이 너에게 닥쳐오지 아니하리라.
- 15 누가 너를 공격한다면 그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누구든 너를 공격하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쓰러지리라.
- 16 보라, 내가 대장장이를 창조하였으니 그가 숯불을 피워 제가 쓸 무기를 만들어 낸다. 나는 또 파멸시키기 위한 파괴자도 창조하였다.
- 17 너를 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소용이 없고 재판에서 너를 거슬러 일어난 허들은 내가 모두 패소시키리라. 이것이 주님의 종

들을 위한 상속 재산이며 그들이 나에게서 받을 승리다. 주님의 말씀이다.

마지막 초대

- 55** ¹ 자,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가로 오너라. 돈이 없는 자들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술과 젖을 사라.
- ²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도 못 되는 것에 돈을 쓰고 배불리지도 못하는 것에 수고를 들이느냐?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쁜 음식을 즐기리라.
- ³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오너라. 들어라.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니 이는 다윗에게 베푸는 나의 변치 않는 자애이다.
- ⁴ 보라, 내가 그를 민족들을 위한 증인으로, 민족들의 지배자와 명령자로 만들었다.
- ⁵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나에게 달려오리니 주 너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그분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신 까닭이다.
- ⁶ 만나 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게실 때에 그분을 불러라.
- ⁷ 죄인은 제 길을, 불의한 사람은 제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그분께서 그를 기뻐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그분께서는 너그러이 용서하신다.
- ⁸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고 너희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주님의 말씀이다.
- ⁹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이 있듯이 내 길은 너희 길 위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 위에 드높이 있다.
- ¹⁰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쁨지게 하고 씨이 돌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 ¹¹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내

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 하고야 만다.

맺음말

- ¹² 정녕 너희는 기뻐하며 떠나고 평화로이 인도되리라. 산과 언덕들은 너희 앞에서 기뻐 소리치고 들의 나무들은 모두 손뼉을 치리라.
- ¹³ 가시덤불 대신 방백나무가 올라오고 췌기 풀 대신 도금양나무가 올라오리라. 이 일은 주님께 영예가 되고 결코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표징이 되리라.

이사야 예언서 제 3 부

이방인들에게 내린 약속

- 56** ¹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너희는 공정을 지키고 정의를 실천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로움이 곧 드러나리라."
- ² 행복하여라, 이를 실천하는 사람! 이를 준수하는 인간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이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이.
- ³ 주님을 따르는 이방인은 이렇게 말하지 마라. " 주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당신 백성에게서 떼어 버리시리라." 그리고 고자도 "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 고 말하지 마라.
- ⁴ 정녕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며 나의 계약을 준수하는 고자들에게는
- ⁵ 나의 집과 나의 울안에 아들딸들보다 나는 기념비와 이름을 마련해 주리라. 나는 그들에게 결코 끊어지지 않을 영원한 이름을 주리라.
- ⁶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주님의 종이 되려고 주님을 따르는 이방인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계약을 준수하는 모든 이들.

- 7 나는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고 나에게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의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은 나의 제단 위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지리니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리리라."
- 8 쫓겨 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시는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 나는 이미 모아들이진 이들 말고도 다시 더 모아들이리라."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

- 9 들짐승들이야, 숲의 짐승들이 모두 와서 잡아 먹어라.
- 10 그의 파수꾼들은 모두 눈이 먼 자들 아무 것도 모르는 자들, 모두 병어리 개들 짓지도 못하는 것들, 드러누워 꿈이나 꾸고 즐기나 좋아하는 자들이다.
- 11 깨걸스러운 개들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른다. 목자라는 자들이 알아듣지도 못한다. 모두 제 길만 쫓아가고 저마다 예외 없이 제 이익만 쫓아간다.
- 12 " 오나라, 내가 술을 가져올 터이니 우리 독한 것으로 마시자. 내일도 오늘과 같으리니 더할 나위 없이 좋으리라."

의인의 죽음의 뜻

- 57** 1 의인이 사라져 가도 마음에 두는 자 하나 없다. 알아보는 자 하나 없이 성실한 사람들이 죽어 간다. 그러나 의인은 재앙을 벗어나 죽어 가는 것이니
- 2 그는 평화 속으로 들어가고 올바르게 걷는 이는 자기 잠자리에서 편히 쉬리라.

이스라엘의 이상 숭배

- 3 너희 점쟁이의 자식들이 간통하는 남자와 매춘부의 종자야 이리 오나라.
- 4 너희가 누구를 조롱하느냐? 너희가 누구에

게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내미느냐? 너희 자신이 최악의 자식들이며 거짓의 종자가 아니냐?

- 5 너희는 참나무들 사이에서, 온갖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정육을 불태우고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서, 갈라진 바위 밑에서 자식들을 죽여 제물로 바친다.
- 6 골짜기의 매끈한 돌들이 너의 몫 바로 그것들이 너의 차지다. 그것들에게 너는 술을 부어 바치고 곡식 제물을 올렸다. 내가 이런 것들로 만족해야 하겠느냐?
- 7 너는 높이 솟은 산 위에 네 잠자리를 펴고 희생 제물을 바치려고 그리로 올라갔다.
- 8 너는 문과 문설주 뒤에 너의 기념상을 모셔 놓았다. 장영 너는 나를 버리고서 옷을 벗고 네 잠자리로 올라가 자리를 넓게 폈다. 너는 내가 잠자리를 같이하고 싶어 하는 자들과 약조를 맺고 그 손을 바라보았다.
- 9 너는 기쁨을 가지고 멜렉에게로 가서 너의 향료를 아끼지 않았다. 너는 사신들을 멀리까지 보내고 저승에까지 내려 보냈다.
- 10 길을 많이 걸어 지쳤으면서도 " 헛수고야." 하고 너는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는 네 손에 기운을 얻어 고단한 줄도 모르는구나.
- 11 누가 무섭고 두렵기에 너는 거짓말을 하고 나를 생각도 않으며 네 마음에 두지도 않느냐? 말없이 눈을 감아 준 내가 아니냐? 그랬더니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구나.
- 12 내가 너의 의로움과? 너의 행실들을 밝혀 내리니 그것들은 너에게 소용이 없으리라.
- 13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이 너를 구하게 해 보이라. 바람이 그것들을 모두 쓸어 가 버리고 입김이 앓아 가 버리리라. 그러나 나에게 피신하는 자는 땅을 상속받고 나의 거룩한 산을 차지하리라.
- 위로의 말씀**
- 14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 쌓아 올려라, 쌓아

올려라, 길을 닦아라. 내 백성이 갈 길에서 걸림돌을 들어내어라."

- 15 드높고 뛰어난 분, 영원히 좌정하여 계신 분 그 이름 ' 거룩하신 분'께서 정녕 이렇게 말씀하신다. " 나는 드높고 거룩한 곳에 좌정하여 있지만 겸손한 이들의 낮을 되살리고 누우치는 이들의 마음을 되살리려고 누우치는 이들과 겸손한 이들과 함께 있다.
- 16 나는 끝끝내 따지지 않고 끝까지 화를 내지 않는다. 낮들이, 내가 만든 혼들이 내 앞에서 힘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 17 나는 그들의 탐욕 죄 때문에 화가 나 그들을 치고 분노가 치밀어 내 얼굴을 가려 버렸다. 배신하여 제 마음의 길로 가 버린 그들.
- 18 나는 그들의 길을 보았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병을 고쳐 주고 그들을 인도하며 그들에게 위로로 झा아 주리라. 또 그들 가운데 슬퍼하는 이들에게
- 19 나는 입술의 열매를 맺어 주리라. 멀리 있는 이들에게도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도 평화, 평화! —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나는 그들의 병을 고쳐 주리라.
- 20 그러나 악인들은 요동치는 바다와 같아 가만히 있지 못하니 그 물결들은 오물과 진창만 밀어 올린다.
- 21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참된 단식

- 58** 1 목청껏 소리쳐라, 망설이지 마라. 나 팔처럼 네 목소리를 높여라. 네 백성에게 그들의 악행을, 야곱 집안에 그들의 죄악을 알려라.
- 2 그들은 마치 정의를 실천하고 자기 하느님의 공정을 저버리지 않는 민족인 양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 알기를 갈망한다. 그들은 나에게 의로운 범규들을 물으며 하느

님께 가까이 있기를 갈망한다.

- 3 " 저희가 단식하는데 왜 보아 주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고행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보라, 너희는 너희 단식일에 제 일만 찾고 너희 일꾼들을 다그친다.
- 4 보라, 너희는 단식한다면서 다투고 싸우며 못된 주먹질이나 하고 있다. 저 높은 곳에 너희 목소리를 들리게 하려거든 지금처럼 단식하여서는 안 된다.
- 5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단식이나? 사람이 고행한다는 날이 이리하냐? 제 머리를 골풀처럼 숙이고 자루웃과 먼지를 깔고 눕는 것이냐? 너는 이것을 단식이라고, 주님이 반기는 날이라고 말하느냐?
- 6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불의한 결박을 풀어 주고 멍에 줄을 풀러 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 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 버리는 것이다.
- 7 네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네 집에 맞이하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 주고 네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 8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너의 의로움이 네 앞에 서서 가고 주님의 영광이 네 뒤를 지켜 주리라.
- 9 그때 내가 부르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내가 부르짖으면 " 나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리라. 내가 네 가운데에서 멍에와 삿대질과 나쁜 말을 치워 버린다면
- 10 굶주린 이에게 네 양식을 내어 주고 고생하는 이의 낮을 흡족하게 해 준다면 네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오르고 암흑이 너에게는 대낮처럼 되리라.
- 11 주님께서 늘 너를 이끌어 주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네 낮을 흡족하게 하시며 네 뼈마디를 튼튼하게 하시리라. 그러면 너는 물이 풍부한 정원처럼, 물이 끊이지 않는

쌔터처럼 되리라.

- 12 너는 오래된 패허를 재건하고 대대로 버려졌던 기초를 세워 일으키리라. 너는 갈라진 성벽을 고쳐 쌓는 이, 사람이 살도록 거리를 복구하는 이라 일컬어지리라.

안식일

- 13 " 내가 삼가 안식일을 짓밟지 않고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일을 벌이지 않는다면 네가 안식일을 ' 기쁨'이라 부르고 주님의 거룩한 날을 ' 존귀한 날'이라 부른다면 네가 길을 떠나는 것과 네 일만 찾는 것을 삼가며 말하는 것을 삼가고 안식일을 존중한다면
- 14 너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나는 네가 세상 높은 곳 위를 달리게 하며 네 조상 아담의 상속 재산으로 먹게 해 주리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다

- 59** 1 보라, 주님의 손이 짧아 구해 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 2 오히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너희에게서 그분의 얼굴을 가리어 그분께서 듣지 않으신 것이다.
- 3 너희 손바닥은 피로, 너희 손가락은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너희 입술은 속임수를 말하며 너희 혀는 불의를 지껍힌다.
- 4 정의로써 소송을 제기하는 이가 없고 진실로써 재판하는 이가 없다. 헛된 것을 믿고 거짓을 이야기하며 재앙을 잉태하여 악을 낳는 자들뿐이다.
- 5 그들은 독사의 알을 까고 거미줄을 친다. 그 알을 먹는 자는 죽고 알이 깨지면 독사가 나온다.
- 6 그들이 쳐 놓은 줄은 옷이 되지 못하고 그

들이 만든 것으로는 제 몸을 덮지 못한다. 그들의 행실들은 악한 행실일 뿐이고 그들의 손바닥에는 폭행만이 들어 있다.

- 7 그들의 발은 나쁜 짓 하러 달려가고 죄 없는 이의 피를 쏟으려고 서두른다. 그들의 생각들은 악한 생각일 뿐이고 그들의 행로에는 파멸과 파괴만이 있다.
- 8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길에 공정이란 없다. 그들이 자기네 길을 비뚤게 만들어 그 위를 걷는 자는 아무도 평화를 알지 못한다.

죄의 고백

- 9 그러므로 공정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고 정의는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빛을 바라건만 어둠만이 있고 광명을 바라건만 암흑 속을 걸을 뿐이다.
- 10 우리는 눈먼 이들처럼 답을 더듬는다. 눈이 없는 이들처럼 더듬는다. 대낮에도 캄캄한 듯 비틀거리고 몸은 건강하다고 하나 죽은 자들이나 마찬가지다.
- 11 우리 모두 곰처럼 으르렁거리고 비틀거리며 슬피 울면서 공정을 바라건만 오지 않고 구원을 바라건만 우리에게서 멀리 있을 뿐이다.
- 12 정녕 저희 악행이 당신 앞에 많고 저희 죄가 저희를 거슬러 증언합니다. 참으로 저희 악행이 저희와 함께 있고 저희 죄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13 저희가 주님을 거역하고 배신하였습니다. 저희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억압과 반항을 이야기하였으며 거짓말을 품었다가 마음속에서부터 내뿜었습니다.
- 14 그래서 공정은 뒤로 물러나고 정의는 멀리서 있어야 합니다. 정녕 진실은 장터에서 비틀거리고 정직은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 15 진실은 자취를 감추고 악에서 떠난 이는 약탈을 당합니다. 공정이 없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언짢아하셨다.

주님의 오심

- 16 그분께서는 한 사람도 없음을 보시고, 나서는 자가 하나도 없음을 보시고 놀라워하셨다. 그리하여 그분의 팔이 그분을 돕고 그분의 정의가 그분을 거들었다.
- 17 그분께서는 정의를 갑옷처럼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다. 응보의 옷을 입으시고 열정을 겹옷처럼 두르셨다.
- 18 그분께서는 저마다 그 소행대로 갚으시니 당신의 적들에게 분노하시고 당신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시리라. 섬들에게 보복하시리라.
- 19 해 지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해 뜨는 곳에서 그분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주님의 바람으로 휘몰아치는 급류처럼 그분께서 오시기 때문이다.
- 20 그분께서는 시온에게, 악행에서 돌아선 야곱 땅 사람들에게 구원자로 오시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 21 이것이 그들과 맺은 나의 계약이다. —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광과 내가 너의 입에 담아 준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히 네 입과 네 후손의 입, 그리고 네 자지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말한다.

에루살렘의 영광

- 60 ¹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네 위에 떠올랐다.
- 2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겨레들을 덮으리라. 그러나 네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 3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
- 4 네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네게로 온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

에서 오고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 온다.

- 5 그때 이것을 보는 너는 기쁜 빛으로 가득하고 너의 마음은 두근거리며 벅차오르리라. 바다의 보화가 너에게로 흘러들고 민족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들어온다.
- 6 낙타 무리가 너를 덮고 미디안과 에파의 수 낙타들이 너를 덮으리라. 그들은 모두 스바에서 오면서 금과 유향을 가져와 주님께서 찬미받으실 일들을 알리리라.
- 7 케다르의 양 떼가 모두 너에게로 모여들리라. 느바웃의 숫양들이 너에게서 재물로 쓰여 그것들이 내 제단에서 합당한 재물로 바쳐지고 나는 내 영화로운 집을 더욱 영화롭게 하리라.
- 8 구름처럼 날아드는 저들, 제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비둘기처럼 날아드는 저들은 누구냐?
- 9 장년 섬들이 나를 기다리고 타르시스의 배들이 앞장서서 먼 곳에서 너의 아들들을 데려오는데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위하여 은과 금을 함께 싣고 오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 10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을 쌓고 그들의 임금들이 너에게 시중들리니 내가 진노하여 너를 쳤지만 내 호의로 너를 기없이 여겼기 때문이다.
- 11 너의 성문들은 늘 열려 있는 채 낮에도 밤에도 닫히지 않으리니 임금들의 인도 아래 민족들의 재물을 들여오기 위함이다.
- 12 너를 섬기지 않는 민족과 나라는 망하리라. 그런 민족들은 완전히 멸망하리라.
- 13 레바논의 영광이, 방백나무와 사철가막살나무와 잣나무가 다 함께 너에게 와서 내 성전 터를 영화롭게 하고 나는 내 발이 놓여 있는 곳을 영광스럽게 하리라.
- 14 너를 억누르던 자들의 자손들이 몸을 굽혀 너에게 오고 너를 멸시하던 자들이 모두

너의 발아래 엎드려 너를 ' 주님의 도성 '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 부르리라.

- 15 네가 버림받고 미움 받아 지나는 사람조차 없었던 대신 이제 내가 너를 영원한 영애로, 대대의 기쁨으로 만들리라.
- 16 너는 민족들의 젖을 빨고 못 임금들의 젖을 빨리라. 그래서 너는 나 주님이 너를 구해 주는 이요 너의 구원자가 아픔의 장사임을 알게 되리라.
- 17 내가 구리 대신 금을 들어오고 쇠 대신 은을 들어오리라. 나무 대신 구리를, 돌 대신 쇠를 들어오리라. 또 평화를 너의 감독자로, 정의를 너의 지배자로 세우리라.
- 18 다시는 너의 땅 안에서 폭력이라는 말이, 너의 영토 안에서 파멸과 파괴라는 말이 들리지 않으리라. 너는 너의 성벽을 ' 구원'이라, 너의 성문을 ' 찬미'라 부르리라.
- 19 해는 너에게 더 이상 낮을 밝히는 빛이 아니고 달도 밤의 광채로 너에게 비추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시고 너의 하나님께서 너의 영광이 되어 주시리라.
- 20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않고 너의 달이 사라지지 않으리니 주님께서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시고 이제 네 애도의 날들이 다하였기 때문이다.
- 21 너의 백성은 모두 의인들로서 영원히 이 땅을 차지하리라. 그들은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내가 심은 나무의 햇순이며 내 손의 작품이다.
- 22 그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가 한 부족을 이루고 그들 가운데 가장 하잘것없는 이가 강대한 민족이 되리라. 나는 주님이다. 때가 되면 내가 이 일을 서둘러 이루리라.

구원의 기쁜 소식

- 61 ¹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 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 2 주님의 은혜의 해, 우리 하나님의 응보의 날을 선포하고 슬퍼하는 이들을 모두 위모하게 하셨다.
- 3 시온에서 슬퍼하는 이들에게 재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맥 풀린 닢 대신 축제의 옷을 주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 정의의 참나무 ' ' 당신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라 부르도록 하셨다.
- 4 그들은 옛 폐허들을 복구하고 오랫동안 황폐한 곳들을 다시 일으키리라. 폐허가 된 도시들, 대대로 황폐한 곳들을 새로 세우리라.
- 5 낮은 사람들이 나서서 너희의 양 떼를 치고 이방인들이 너희의 밭과 포도원에서 일하리라.
- 6 너희는 ' 주님의 사제들'이라 불리고 ' 우리 하나님의 시종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너희는 민족들의 재물을 향유하고 그들의 영화를 이어받으리라.
- 7 그들은 수치를 갑절로 받았고 치욕과 수모가 그들의 뿔이었기에 자기네 땅에서 재산을 갑절로 차지하고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것이 되리라.
- 8 나 주님은 올리브를 사랑하고 불의한 수탈을 미워한다. 나는 그들에게 성실히 보상해 주고 그들과 영원한 계약을 맺어 주리라.
- 9 그들의 후손은 민족들 사이에, 그들의 자손은 겨레들 가운데에 널리 알려져 그들을 보는 자들은 모두 그들이 주님께 복 받은 종족임을 알게 되리라.
- 10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

은 나의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니 신랑이 관을 쓰듯 신부가 패물로 단장하듯 그분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로움의 겹옷을 둘러 주셨기 때문이다.

- 11 땅이 새순을 돌아나게 하고 정원이 싹을 솟아나게 하듯 주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민족들 앞에 의로움과 찬미가 솟아나게 하시리라.

새 예루살렘

- 62** ¹ 시온 때문에 나는 잠잠히 있을 수가 없고 예루살렘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의 의로움이 빛처럼 드러나고 그의 구원이 햇빛처럼 타오를 때까지.
- ² 그러면 민족들이 너의 의로움을, 임금들이 너의 영광을 보리라. 너는 주님께서 친히 지어 주실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리라.
- ³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 있는 화려한 면류관이 되고 너의 하느님 손바닥에 놓여 있는 왕관이 되리라.
- ⁴ 다시는 내가 '소박맞은 여인'이라, 다시는 네 땅이 '버림받은 여인'이라 일컬어지지 않으리라. 오히려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이라, 너의 땅은 '혼인한 여인'이라 불리리니 주님께서 너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네 땅을 아내로 맞이하시실 것이기 때문이다.
- ⁵ 정녕 총각이 처녀와 혼인하듯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와 혼인하고 신랑이 신부로 말미암아 기뻐하듯 너의 하느님께서서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
- ⁶ 예루살렘아, 너의 성벽 위에 내가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낮이고 밤이고 잠시도 잠잠하지 않으리라. 주님의 기억을 일깨우는 자들이 너희는 쉬지 마라.
- ⁷ 그분께서 예루살렘을 일으켜 세우시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니까 너희는 그분을 쉬시게 하지 마라.

- ⁸ 주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을 걸고, 당신의 힘센 팔을 걸고 맹세하셨다. "내가 다시는 너의 곡식을 네 원수들의 양식으로 내주지 않으리라.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다시는 이방인들이 마시지 않으리라.
- ⁹ 곡식을 모아들이는 이들이 그것을 먹고 주님을 찬미하리라. 포도주를 짜낸 이들이 그것을 내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 ¹⁰ 나가라, 성문을 지나 나가라. 백성을 위한 길을 닦아라. 쌓아 올려라, 쌓아 올려라, 큰길을 내어라. 돌을 골라내어라. 민족들 위에 깃발을 올려라.
- ¹¹ 보라, 주님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셨다. 딸 시온에게 말하여라. "보라, 너의 구원이 다가온다. 보라, 그분의 상급이 그분과 함께 오고 그분의 보상이 그분 앞에 서서 온다."
- ¹² 사람들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 주님의 구원을 받은 이들'이라 부르리라. 그리고 너는 '그리워 찾는 도성' 버림받지 않은 도성'이라 불리리라.

애들에 대한 심판

- 63** ¹ 애들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이신가? 진홍색으로 물든 옷을 입고 보츠라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이신가? 화려한 의복을 입고 위세 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이분은 누구이신가? 나다. 의로움으로 말하는 이 구원의 큰 능력을 지닌 이다.
- ² 어찌하여 당신의 의복이 붉습니까? 어찌하여 포도 화을 밟는 사람의 옷 같습니까?
- ³ 나는 혼자서 화을 밟았다. 민족들 가운데서 나와 함께 일한 자는 아무도 없다. 나는 분노로 그들을 밟았고 진노로 그들을 짓밟았다. 그래서 그 즙이 내 옷에 튀어 내 의상을 온통 물들게 한 것이다.
- ⁴ 나는 마음속으로 복수의 날을 정하였다. 내 구원의 해가 온 것이다.

- 5 내가 살펴보았지만 도와주는 자 아무도 없었다. 놀랍게도 거들어 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러자 내 팔이 나에게 협력하고 나의 진노가 나를 거들어 주었다.
- 6 그래서 나는 분노로 민족들을 밟아 으깨고 진노로 그들을 부서뜨려 그들의 즙을 땅에 흘린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배푸신 주님의 은혜

- 7 나는 주님의 자애로운 업적을, 주님께서 찬양받으실 업적을 회상하리라. 주님께서 당신의 자비에 따라 당신의 크신 자애에 따라 우리에게 배푸신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집안에 배푸신 그 선업을 회상하리라.
- 8 그분께서는 "정녕 그들은 나의 백성,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자녀들이다." 말씀하시고 모든 곤경 가운데 그들에게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
- 9 사자나 천사가 아니라 그분의 얼굴이 그들을 구해 내셨다.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동정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지난 세월 모든 날에 그들을 들어 업어 주셨다.
- 10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영을 거역하고 괴롭혔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들의 적이 되시어 몸소 그들과 싸우셨다.
- 11 그러자 그들은 지난날들을, 그분의 종 모세를 생각하였다. "당신 양들의 목자를 바다에서 이끌어 올리신 분은 어디 계신가? 당신의 거룩한 영을 그의 가슴속에 넣어 주신 분은 어디 계신가?"
- 12 당신의 영화로운 팔을 모세의 오른편에 서서 걸어가게 하신 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물을 가르시어 영원한 명성을 떨치신 분,
- 13 그들이 깊은 바다를 걸어가게 하신 분은 어디 계신가? 광야의 말처럼 그들은 비를 거리지 않았다.
- 14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 떼처럼 주님의 영이 그들을 안식처로 데려가셨다." 당신께

서는 이렇게 당신 백성을 이끄시어 영화로운 명성을 떨치셨습니다.

자비를 구하는 기도

- 15 하늘에서 굽어보소서. 당신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거처에서 굽어보소서. 당신의 열정과 당신의 위력이, 당신의 연민과 당신의 자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들이 이제는 저희에게 허락되지 않습니까?
- 16 그렇지만 당신은 저희 아버지십니다. 아브라함이 저희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저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 당신만이 저희 아버지시고 예로부터 당신 이름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 17 주님, 어찌하여 저희를 당신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희 마음이 굳어져 당신을 경외할 줄 모르게 만드십니까? 당신 종들을 생각하시어, 당신의 재산인 이 지파들을 생각하시어 돌아오소서.
- 18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 당신 성소를 잠시밖에 차지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저희의 원수들이 그것을 짓밟습니다.
- 19 저희는 오래전부터 당신께서 다스리시지 않는 자들처럼, 당신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 자들처럼 되었습니다. 아, 당신께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신다면! 당신 앞에서 산들이 뒤흔들리리이다.

- 64** ¹ 마치 불이 쏘나무를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하리이다. 이는 당신의 적들이 당신 이름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니 민족들이 당신 앞에서 무서워 떨리이다.
- 2 저희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을 당신께서 하셨을 때, 당신께서 내려오셨을 때 산들이 당신 앞에서 뒤흔들렸습니다.
 - 3 당신 아닌 다른 신이 자기를 고대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 보지 못하였고 아무도 귀로 듣

지 못하였으며 어떠한 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4 당신께서는 의로운 일을 즐겨 하는 이들을, 당신의 길을 걸으며 당신을 기억하는 이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죄를 지었고 당신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당신의 길 위에서 저희가 늘 구원을 받았지만

5 이제 저희는 모두 부정한 자처럼 되었고 저희의 의로운 행동이라는 것들도 모두 개집과 같습니다. 저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어 저희의 죄악이 바람처럼 저희를 휩쓸어 갔습니다.

6 당신 이름 부르며 경배드리는 자 없고 당신을 붙잡으려고 움직이는 자도 없습니다. 당신께서 저희를 외면하시고 저희 죄악의 손에 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7 그러나 주님, 당신은 저희 아버지십니다. 저희는 진흙, 당신은 저희를 빚으신 분 저희는 모두 당신 손의 작품입니다.

8 주님, 너무 진노하지 마소서. 저희 죄악을 언제까지나 기억하지는 말아 주소서. 제발 굽어보소서. 저희는 모두 당신의 백성입니다.

9 당신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시온은 광야가 되고 예루살렘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10 저희 조상들이 당신을 찬양하던 곳, 저희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집은 불에 타 버렸고 저희에게 보배로운 것들은 모두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11 주님, 이렇게 되었는데도 끝내 참고 계시십니까? 그렇게 잠잠히 계시십니까? 저희를 이토록 극심하게 억누르시겠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에게 내린 벌

65 ¹ 묻지도 않는 자들에게 나는 문의를 받아 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나를 찾지도 않는 자들에게 나는 만나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제레에게 나는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2 나는 반항하는 백성에게 날마다 팔을 벌리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네 멋대로 좋지 않은 길을 걷는 자들,

3 정원에서 제사를 지내고 벽들 위에서 분향하며 언제나 내 얼굴을 맞대 놓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백성,

4 굴 무덤 속에 들어가 앉고 은밀한 곳에서 밤을 지내는 자들, 돼지고기를 먹으며 부정 한 고기 국물을 제 그릇에 담은 자들이다.

5 "물러서서 나에게 다가오지 마시오, 당신 때문에 부정 타겠소." 하고 말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내 코로 들어와 화를 돋우는 연기이며 온종일 타오르는 불길이다.

6 보라, 이것들이 내 앞에 기록되어 있다. 나는 가만히 있지 않고 기어이 되갚으리라. 그들의 품에다 되갚으리라.

7 —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산들 위에서 분향하고 언덕들 위에서 나를 모욕한 그들의 죄악과 그 조상들의 죄악을 함께 되갚으리라. 나는 먼저 그들이 받을 응보를 재고 나서 그들의 품에다 되갚으리라.

주님의 종들과 죄인들의 운명

8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포도송이에 즙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에 복이 들어 있으니 그것을 으스러뜨리지 마라.' 하고 사람들이 말하듯 나도 나의 종들을 위해 행동하여 그들을 모두 파멸시키지는 않으리라.

9 나는 아람에게서 후손이, 유다에게서 내 산들의 상속자가 나오게 하리라. 내게 선택받은 이들이 그것을 상속받고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게 되리라.

10 나를 찾는 내 백성에게 사론은 양들의 목장이 되고 '아코르 골짜기'는 소들의 쉼터

가 되리라.

- 11 그러나 너희는 주님을 버리고 나의 거룩한 산을 잊어버린 자들, 갖에게 식탁을 차려 올리고 쓰나에게 혼합주를 채워 올리는 자들이다.
- 12 내가 너희를 칼에 맞아 죽도록 정하여 너희는 모두 살육에 몸을 내맡겨야 하리니 내가 불려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고 내가 말해도 너희가 듣지 않았으며 내 눈에 거슬리는 것만 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만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 13 — 그러므로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종들은 먹겠지만 너희는 굶주리리라. 나의 종들은 마시겠지만 너희는 목마르리라. 나의 종들은 기뻐하겠지만 너희는 수치를 당하리라.
- 14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워 환호하겠지만 너희는 마음이 아파 울부짖고 낮이 부서져 통곡하리라.
- 15 너희가 남긴 이름은 '이렇게 주 하느님께서 너를 죽이시리라.' 하고 내게 선택받은 이들이 저주하는 데에 쓰이리라." 그분의 종들에게는 다른 이름이 주어지리라.
- 16 땅에서 자신을 위하여 복을 비는 자는 신실하신 하느님께 복을 빌고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신실하신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여라. 지난날의 곤경들은 잊혀지고 내 눈에 서 사라지리라.

새로운 창조

- 17 " 보라, 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예전의 것들은 이제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으리라.
- 18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리라.
- 19 나는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 안에서 다시는 우는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리라.

- 20 저기에는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아기도 없고 제 수명을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으리라. 백 살에 죽는 자를 젊었다 하고 백 살에 못 미친 자를 저주받았다 하리라.
- 21 그들은 짐을 지어 그 안에서 살고 포도밭을 가꾸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 22 그들이 지어 남이 그 안에서 사는 일이 없고 그들이 가꾸어 남이 그것을 먹는 일이 없으리라. 장년 내 백성의 수명은 나무의 수명과 같고 내게 선택받은 이들은 저희 손이 이론 바를 즐기리라.
- 23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자식을 낳아 끔찍한 일을 겪지 않으리니 그들은 주님에게 복 받은 종족이며 그들의 자손들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 24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내가 대답하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 주리라.
- 25 늑대와 새끼 양이 함께 풀을 뜯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으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도 그들은 악하게도 패덕하게도 행동하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진정한 예배

- 66 ¹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하늘이 나의 어좌요 땅이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에게 지어 바칠 수 있는 집이 어디 있느냐? 나의 안식처가 어디 있느냐?
- 2 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었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굽어 보는 사람은 가련한 이와 낮이 꺾인 이, 내 말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다.
- 3 소를 잡아 제물로 바치는 자가 사람을 쳐 죽이고 양을 잡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자가 개의 목을 꺾는다. 곡식 제물을 올리는 자

가 돼지 피를 바치고 분향제를 드리는 자가 우상을 찬미한다. 이들이 제 갈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네 역겨운 우상들로 기꺼워하듯

4 나도 그들에게 가혹한 것을 선택하여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들이닥치게 하리라. 내가 불려도 대답하는 자 아무도 없었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은 듣지 않았으며 내 눈에 거슬리는 것만 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만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의 구원

5 내 말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를 미워하는 동포들,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는 자들이 "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어 너희가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 보아라." 하지만 수치를 당할 자는 바로 그들이다.

6 도성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 성전에서 들려오는 소리! 당신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시는 주님의 소리!

7 진통을 겪기 전에 해산하고 산고가 오기 전에 사내아이를 출산한다.

8 누가 이런 것을 들어 본 적이 있느냐? 누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한 나라가 단 하루 만에 탄생할 수 있느냐? 한 민족이 단 한 번만에 태어날 수 있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이 오자마자 자식들을 낳는다.

9 모태를 여는 내가 아이를 낳게 할 수 없겠느냐? —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이를 낳게 하는 내가 나오지 못하게 막겠느냐? — 너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10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들아? 모두 그와 함께 기뻐하고 그를 두고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 때문에 애도하던 이들이 모두 그와 함께 크게 기뻐하여라.

11 너희가 그 위로의 땀에서 젖을 빨아 배부

르리라. 너희가 그 영광스러운 가슴에서 젖을 먹어 흡족해지리라.

12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 평화를 강물처럼 끌어들이리라. 민족들의 영화를 넘쳐흐르는 시내처럼 끌어들이리라. 너희는 젖을 빨고 팔에 안겨 다니며 무릎 위에서 귀염을 받으리라.

13 어머니가 제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14 이를 보고 너희 마음은 기뻐하고 너희 뼈마디들은 새 풀처럼 싱싱해지리라. 그리고 주님의 종들에게는 그분의 손길이, 그분의 원수들에게는 그분의 진노가 드러나리라.

15 보라, 주님께서 불에 써오시고 그분의 병거들은 폭풍과 같다. 격분 속에 당신의 분노를, 불길 속에 당신의 질타를 퍼부으시려는 것이다.

16 정녕 주님께서는 불로 심판하시고 당신 칼로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리니 주님께 처형되는 자들이 많으리라.

17 한가운데에 있는 자의 뒤를 따라 정원에 들기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한 뒤 돼지고기와 부정한 짐승과 쥐 고기를 먹는 자들은 자기네 행동과 생각과 함께 멸망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18 나는 모든 민족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모으러 오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19 나는 그들 가운데에 표징을 세우고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타르시스와 꽃, 활 잘 쏘는 루드 두발과 아완 등 못 민족들에게 보내고 이에 대하여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내 영광을 본 적도 없는 먼 섬들에 보내리니 그들은 민족들에게 나의 영광을 알리리라.

20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깨끗한 그릇에 제물을 담아 주님의 집으로 가져오듯이 그들

도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희 동포들을 주님께 올리는 제물로 말과 수레와 마차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리라. —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21 그러면 나는 그들 가운데에서 더러는 사제로 더러는 레위인으로 삼으리라. —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22 정녕 내가 만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서 있을 것처럼 너희 후손들과 너희의 이름도 그렇게 서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23 매달 초하룻날과 매주 안식일에 모든 사람이 내 앞에 경배하러 오리라. —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24 그리고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 나를 거역하던 자들의 주검을 보리라. 정녕 그들의 구더기들은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아니한 채 모든 사람들에게 역겨움이 되리라.

구약성경 - 30

예언서 - 2

예레미야서

총 52 장

총 1,365 절

[구약성경]-[예레미야서]

- 1** ¹ 벤야민 땅 아나툼에 살던 사제들 가운데 하나인 할기아의 아들 예레미아의 말.
- 2** 유다 임금 이몬의 아들 요시아 시대, 그의 통치 십삼년에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 3** 그 말씀은 유다 임금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킴 시대를 거쳐 유다 임금 요시아의 아들 치드키야 제십일년 말까지, 곧 그해 다섯째 달, 예루살렘 주민들이 유배될 때까지 내렸다.

유다에 대한 신탁

예언자의 소명

- 4**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 5** " 모테에서 너를 빗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민족들의 예언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 6** 내가 아뢰었다. " 아, 주 하느님 저는 아이러시 말할 줄 모릅니다."
- 7**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 저는 아이입니다.' 하지 마라. 너는 내가 보이면 누구에게나 가야 하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말해야 한다.
- 8**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 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 9**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는 당신 손을 내미시어 내 입에 대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 이제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담아 준다.
- 10** 보라, 내가 오늘 민족들과 왕국들을 너에게 맡기니, 뿔고 허물고 없애고 부수며 세우고 심으려는 것이다."

첫 번째 환시와 계시

- 11**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 예레미야야,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 편도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 12**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 잘 보았다. 사실 나는 내 말이 이루어지는지 지켜보고 있다."
- 13**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나에게 내렸다. "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 풀은 냄비가 보이는데, 그것은 북쪽에서부터 쏟아질 듯 기울어져 있습니다."
- 14**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 북쪽에서 재앙이 터져 이 땅의 모든 주민 위에 덮칠 것이다.
- 15** 이제 내가 북쪽 왕국들의 모든 족속을 불러들일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이 와서 저마다 제 왕좌를 예루살렘 성문 입구에 차리고, 그 주변 모든 성벽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맞설 것이다.
- 16** 그러면 내가 그들을 거슬러, 그들이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바치며, 자기네 손으로 만든 것들을 삼긴 모든 죄악에 대하여 심판의 말을 내리겠다.
- 17** 그러므로 이제 너는 허리를 동여매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그랬다가는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떨게 할 것이다.
- 18** 오늘 내가 너를 요새 성읍으로, 쇠기둥과 창동 벽으로 만들어 온 땅에 맞서게 하고, 유다의 임금들과 대신들과 사제들과 나라 백성에게 맞서게 하겠다.
- 19** 그들이 너와 맞서 싸우겠지만 너를 당해 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첫사랑

- 2** ¹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² " 가서 예루살렘이 듣도록 외쳐라.
 —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네 젊은 시절의 순정과 신부 시절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나는 광야에서,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 나를 떠났다."
³ 이스라엘은 주님께 성별된 그분 수확의 말 물이었다. 그를 삼키는 자들은 누구나 벌을 받아 그들에게 재앙이 닥쳤다. 주님의 말씀이다.

생수의 원천을 저버리다

- ⁴ 야곱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족속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⁵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너희 조상들이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찾아냈기에 나에게서 떨어져 헛것을 따라다니다가 그들 자신도 헛것이 되었더라 말이나?
⁶ 그들은 이렇게 묻지 않았다. '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께서는 어디 계신가? 사막과 구렁의 땅에서 가뭄과 암흑의 땅에서 어떤 인간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떤 사람도 살지 않는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어디 계신가?'
⁷ 내가 너희를 이 기름진 땅으로 데려와 그 열매와 좋은 것을 먹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여기 들어와 내 땅을 더럽히고 나의 상속 재산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⁸ 사제들도 ' 주님께서 어디 계신가?' 하고 묻지 않았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몰라보고 목자들도 나에게 반역하였다. 예언자들은 바알에 의지하여 예언하고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것들을 따라다녔다.
⁹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다시 너희를 고소하고 너희 자손의 자손들도 고소하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¹⁰ 키팀의 해변에 건너가 살펴보아라. 케다르

에 사람을 보내어 자세히 조사해 보아라. 일찍이 이런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아라.

- ¹¹ 도대체 어떤 민족이 제 신들을 바꾼 적이 있더냐? 비록 그것들이 신이 아닐지라도 말이다. 그런데 내 백성은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것과 제 영광을 바꾸었다.
¹² 하늘아, 이를 두고 깜짝 놀라라. 소소리치고 몸서리쳐라. 주님의 말씀이다.
¹³ 정녕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저질렀다. 그들은 생수의 원천인 나를 저버렸고 제 자신을 위해 저수 동굴을, 물이 고이지 못하는 갈라진 저수 동굴을 팠다."

고통과 쓰라림

- ¹⁴ 이스라엘이 좋더냐? 그가 씨종이더냐? 그런데 어찌하여 그가 약탈 대상이 되었다 말이나?
¹⁵ 힘센 사자들이 그에게 으르렁거리고 소리를 질러 댔다. 그들이 그의 땅을 폐허로 만드니 그의 성읍들은 주민들이 없는 빈터가 되었다.
¹⁶ 게다가 펠피스와 타흐판레스 사람들이 네 머리통을 부수었다.
¹⁷ 이는 주 너의 하느님이 길을 따라 너를 이끌 때 내가 그를 저버려 스스로 만든 결과가 아니더냐?
¹⁸ 그런데도 내가 니일 강 물을 마시러 이집트로 내려가다니 웬 말이나? 유프라테스 강 물을 마시러 아시리아로 올라가다니 웬 말이나?
¹⁹ 네 악행이 너를 벌하고 네 배반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주 너의 하느님을 저버린 것이 얼마나 나쁘고 쓰라린지 보고 깨달아라. 나에게 대한 두려움이 너에게 없구나. 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고발당한 자의 변론에 대한 반박

- ²⁰ 나는 오래전에 네 땅을 부러뜨리고 그 줄을 끊었다. 그런데도 너는 " 더 이상 섬

가지 않겠다!" 하고는 온갖 높은 언덕 위에서 온갖 푸른 나무 밑에서 드러누워 불륜을 저질렀다.

21 나는 좋은 포도나무로, 옹골찬 씨앗으로 너를 심었는데 어찌하여 너는 낫선 들포도나무로 변해 버렸느냐?

22 내가 비록 깃물로 네 몸을 씻고 비누를 아무리 많이 쓴다 해도 죄악의 얼룩은 그대로 내 앞에 남아 있다. 주 하느님의 말씀이다.

23 내가 어찌 부정하지 않다고, 비알들을 따라다니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골짜기에서 걸었던 네 길을 살펴보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아라. 너는 가는 길 종잡을 수 없는 경박한 암투타로구나.

24 광야에 익숙한 들나귀가 몸이 달아 암내를 풍기며 혈떡이니 누가 그 발정을 막겠느냐? 수컷들은 다 애써 찾을 필요도 없이 발정한 암컷을 쉬이 발견하리라.

25 너는 맨발이 되지 않도록 네 발을 보살피고 목마르지 않도록 네 목을 보살피라. 그러나 너는 "안 돼요, 어쩔 수 없네요, 낫선 이들을 사랑하게 되었으니 그네들을 따라다니겠어요." 하고 말하였다.

26 도둑이 붙잡혀 수치를 당하듯 이스라엘 집안이 수치를 당하리라. 그들과 그 임금들과 제후들 사제들과 예언자들이 수치를 당하리라.

27 그들은 나무에 대고 "당신께서 제 아버지 이삽니다." 돌에 대고 "당신께서 저를 낳으셨습니다." 하고 말한다. 그들은 정말 나에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에게 재앙이 닥칠 때 그들은 "일어나시어 저희를 구해 주소서." 하고 부르짖는다.

28 내가 스스로 만든 신들은 어디 있느냐? 너에게 재앙이 닥칠 때 그들이 너를 구할 수 있다면 일어나 보라지. 유다야, 너의 신들

이 네 성읍의 수만쯤이나 많지 않느냐?

29 그런데도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따지려 드느냐? 너희 모두 나에게 반역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비난

30 내가 쓸데없이 너희 자녀들을 때렸구나. 그들은 혼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희 칼이 예언자들을 삼키는데 약탈하는 사자 같았다.

31 이 세대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던 말이나? 아니면 암흑의 땅이 되었던 말이나? 어찌하여 내 백성이, "우리가 자유로워졌으니 이제 더 이상 당신께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는가?

32 처녀가 노리개를 잇을 수 있으며 새색시가 각시 띠를 잇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 백성은 셀 수도 없이 허구한 날 나를 잊었다.

33 너는 사랑을 찾아 제 갈 길을 어찌 그리 잘도 걷는가? 그리하여 너는 탕녀들에게조차 네 길을 가르칠 정도가 되었다.

34 네 치맛자락에까지 죄 없는 가난한 이들의 피가 묻어 있구나. 그들이 짐을 뚫고 들어오다가 너에게 들린 것도 아닌데. 정말 이런 짓을 다 저지르고도

35 너는 말한다. "죄가 없으니 그분의 진노가 나에게서 분명 돌아설 수밖에." 그러나 이제 "죄지는 적이 없다."는 너의 말 때문에 나는 너를 심판하리라.

36 어찌 그대지도 지조 없게 네 길을 바꾸느냐? 내가 아시리아에게 수치를 당한 것처럼 이집트에게도 수치를 당하리라.

37 그곳에서도 너희는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나오리니 내가 믿었던 자들을 주님께서 배척하시어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번성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탕녀의 명예

- 3** ¹ 사람들은 이렇게들 말한다. " 만일 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내보내고 그 여자가 그에게서 떠나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면 그가 그 여자에게 다시 돌아서겠느냐? 그리되면 저 땅이 몹시 더럽혀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는 수많은 정부들과 불륜을 저지르고서 나에게 돌아오겠다는 말이냐? 주님의 말씀이다.
- 2** 눈을 들어 벌거벗은 언덕들을 보이라. 네가 더럽히지 않은 자리가 있느냐? 광야에 사는 아라비아인처럼 너는 길가에 앉아 그들을 기다렸고 불륜과 악행으로 땅을 더럽혔다.
- 3** 그리하여 소나기가 거두어지고 봄비도 내리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도 너는 탕녀의 이마를 하고 부끄러워하기를 마다한다.
- 4** 지금도 너는 나를 ' 저의 아버지 ' ' 당신은 제 젊은 시절의 친구'라 하지 않느냐?
- 5** " 그분께서 영원히 분노하시겠는가? 끝까지 진노하시겠는가?" 너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악행은 다 저질러 왔다.

이스라엘의 배반과 유다의 배신

- 6** 요시아 임금 시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 너는 배반자 이스라엘이 한 짓거리를 못 보았느냐? 그가 높은 언덕마다 올라 온갖 푸른 나무 밑에서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느냐?"
- 7** 나는 ' 그가 이 모든 짓을 저지른 뒤 나에게 돌아오겠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이를 배신자인 그의 자매 유다가 보았다.
- 8** 내가 보니 배반자 이스라엘이 온갖 간음을 저질렀기에, 나는 그를 내보내며 이혼장을 그에게 들려 주었다. 그런데도 배신자인 자매 유다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마저 가서 불륜을 저질렀다.

- 9** 그는 자신의 불륜을 가볍게 여겨, 땅을 더럽히고 돌과 나무와 더불어 간음을 하였다.
- 10** 이런 온갖 짓을 저지르고서도, 배신자인 자매 유다는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거짓으로 돌아오는 체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성실하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시리라

- 11**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 배반자 이스라엘이 배신자 유다보다는 의롭다.
- 12** 가서 북쪽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라. 배반자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너에게 상난 얼굴을 보이지 않으리라. 나는 자애로우니 영원히 진노하지 않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 13** 단지 네 죄를 시인하기만 해 다오. 내가 주님의 하느님을 거슬러 반역했고 온갖 푸른 나무 밑에서 낫선 자들에게 몸을 맡겼으며 내 말을 듣지 않은 죄를. 주님의 말씀이다.
- 14** 배반한 자식들아, 돌아오너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나는 너희를 이 성읍에서 하나, 저 거문에서 들썩 끌어내어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 15** 내가 너희에게 내 마음에 드는 목자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를 지식과 슬기로 돌볼 것이다.
- 16** 너희가 그날 그 땅에서 불어나고 번성하게 될 때, — 주님의 말씀이다. — 사람들은 더 이상 주님의 계약 궤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마음에 떠올리거나 기억하거나 찾지 않을 것이며, 다시 만들려 하지도 않을 것이다.
- 17** 그때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 주님의 옥좌'라 부를 것이고,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이름을 찾아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다. 그러고는 더 이상 자신들의 악한 마음을 고집스럽게 따르지 않을 것이다.
- 18** 그날에 유다 집안은 이스라엘 집안과 더불어

어 걸으리니, 그들은 북쪽 땅에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준 땅으로 함께 내려올 것이다."

탕자의 회개

19 나는 너를 어떻게 나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로 내세워 탐스러운 땅, 못 민족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속 재산을 너에게 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나는 너희가 나를 '저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따르던 길에서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20 그렇지만 여인이 제 남편을 배신하듯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는 나를 배신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21 한 소리가 떨거벗은 언덕들 위에서 들리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원하며 울부짖는 소리다. 그들이 제 길에서 벗어나 주 그들의 하느님을 잊은 탓이다.

22 배반한 자식들아,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 배반을 바로잡아 주리라.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주 저희 하느님이십니다.

23 분명 언덕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이요 산 위에서는 소란뿐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의 구원은 주 저희 하느님 안에만 있습니다.

24 그러나 저희 젊은 시절부터 수치가 저희 조상들의 노고를, 그들의 양 떼와 소 떼와 아들딸들을 삼켜 버렸습니다.

25 수치 가운데 드러눕고 부끄러움이 우리를 덮게 하자. 우리 젊은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주 우리 하느님께 죄를 지은 탓이다. 주 우리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탓이다.

4 ¹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온다면, — 주님의 말씀이다. — 내가 나에게 돌아만 온다면, 역겨운 것들을 내 앞에서 치워 버리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다면,

내가 살아 계신 주님을 두고

2 진실과 공정과 정의로 맹세한다면 다른 민족들이 주님 안에서 복을 받고 주님 안에서 찬양을 받으리라.

완전한 쇠신

3 참으로 주님께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 묵혀 둔 너희 땅을 갈아엎어라. 가시덤불에는 씨를 뿌리지 마라.

4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할례를 하여 자신을 주님께 바쳐라. 너희 마음의 포피를 벗겨 내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꽃처럼 터져 나와 아무도 끌 수 없게 타오르리라."

유다에 내린 경고

5 유다에서 알리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선포하여라. " 이 땅에서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쳐라." 그리고 말하여라. " 모여 와 요새 성읍들로 들어가자."

6 시온 쪽으로 깃발을 올리고 서 있지 말고 대피하여라. 내가 북쪽에서 재앙과 엄청난 재난을 가져오리라.

7 사자가 숲에서 달려 나오고 민족들의 파괴자가 길을 나섰다. 그가 네 나라를 폐허로 만들려고 재지리에서 나왔다. 네 성읍들이 헐려 아무도 살지 않게 되리라.

8 그러니 자루옷을 두르고 탄식하며 슬피 울어라. 주님의 타오르는 분노가 우리에게서 돌아서지 않았다.

혼란

9 그날에 — 주님의 말씀이다. — 임금이 용기를 잃고 제후들도 용기를 잃으리라. 사제들이 깜짝 놀라고 예언자들도 이연실색하리라.

10 내가 여쭙었다. " 아, 주 하느님! 당신께서는 참으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완전히 속이셨습니다. ' 칼이 목에 닿아도 너희는

안전할 것이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위험받는 예루살렘에 대한 마지막 권고

- 11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두고 이런 말씀이 들려오리라. " 별거벗은 언덕의 열풍이 내 딸 내 백성의 길을 향해 광야에서 불어온다. 그 열풍은 키질을 위한 것도, 쓰레질을 위한 것도 아니다.
- 12 이보다 드센 바람이 나를 위해 분다. 이제 나는 나도 그들을 거슬러 심판을 선언하리라."
- 13 그가 구름처럼 올라오니 그의 병거들은 폭풍과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날쌔다. 우리는 불행하구나! 우리는 망하였다.
- 14 예루살렘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네 마음에서 악을 깨끗이 씻어 내어라. 언제까지나 네 안에 악한 생각을 품어 두려느냐?
- 15 정녕 단에서 소식이 전해지고 에프라임 산에서 재난이 선포된다.
- 16 민족들에게 경고하고 예루살렘에 대고 선포하여라. " 원수들이 먼 나라에서 쳐들어와 유다의 성읍들에 대고 소리를 지른다.
- 17 그들은 밭을 지키는 자들처럼 사방에서 예루살렘을 포위한다. 이 백성이 나에게 반역한 탓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 18 너의 길과 행실이 이런 일을 스스로 불러들였으니 이것이 바로 너에게 닥친 쓰라린 재앙이요 네 심장까지 파고드는 재앙이다."

조국의 재앙 앞에서 예언자가 겪는 고뇌

- 19 아이고 베야, 베가 뒤틀리네! 내 심장의 벽이여 내 안에서 심장이 마구 뛰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나! 나팔 소리가, 전쟁의 함성이 나에게 들려오고 있다.
- 20 재난에 재난이 겹치는구나. 정말 온 땅이 황폐해지고 나의 천막이 순식간에, 나의 장막이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

- 21 내가 언제까지나 더 깃발을 보아야 하고 언제까지나 더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하느님의 판결

- 22 과연 내 백성이 어리석어서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이 미련한 자녀들이라 이해하지 못한다. 악을 저지르는 데는 약삭빠르면서도 선을 행할 줄은 모른다.

혼돈으로 돌아가다

- 23 내가 보니 땅은 혼돈과 불모요 하늘에는 빛이 사라졌다.
- 24 내가 보니 산은 떨고 있고 모든 언덕은 뒤 흔들리고 있다.
- 25 내가 보니 사람도 없고 하늘의 새들도 모두 달아나 버렸다.
- 26 내가 보니 옥도는 황무지가 되고 모든 성읍은 허물어졌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타오르는 분노 앞에서 그렇게 되었다.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징벌하기로 결정하시다

- 27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 온 땅이 폐허가 되겠지만 아직 끝장은 내지 않았다.
- 28 이리하여 땅은 통곡하고 저 위 하늘은 어두워지리니 내가 한번 말하고 계획했으면 뉘우치지도 물리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들에게 속은 시온

- 29 기병들과 궁수들의 고향 소리에 온 성읍 주민들이 달아난다. 그들은 숲 속으로 들어가거나 바위 위로 올라간다. 그리하여 온 성읍이 버려지니 그곳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 30 황폐해진 너 진홍색 옷을 갈치고 금붙이로 치장하며 눈을 돋보이게 화장하고 있으니 어찌되는 것이냐? 아름답게 꾸며 보았자 헛것이니 정부들이 너를 경멸하고 네 목숨

을 노린다.

- 31 나는 몸 푸는 여인이 내는 듯한 소리를, 첫 아기를 낳는 여인처럼 괴로워하는 소리를 들었다. 손을 뻗어 들고 헐떡이는 딸 시온의 소리를 들었다. "불행하여라, 이내 목숨! 살인자들 앞에서 내 힘이 다해 가느구나."

신문 위의 판결

5

- 1 예루살렘 거리마다 쓰다녀며 살펴보고 알아보아라. 한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는지 광장마다 찾아보아라. 올바르게 행동하고 진실을 찾는 이가 있어 내가 그곳을 용서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라.
- 2 그들이 살아 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더라도 그것은 거짓 맹세다.
- 3 주님, 당신의 눈이 진실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당신께서 그들을 치셨으나 그들은 아파하지 않았고 그들을 멸하셨으나 그들은 혼계를 받아들이길 마다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네 얼굴을 바위보다 더 단단하게 만들고 돌아오기를 마다하였습니다.
- 4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저들은 가련하고 어리석기만 하다. 그들이 주님의 길을, 저희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 5 그러니 이제 어르신들에게 가서 말하라. 그들이야말로 분명 주님의 길을,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으리라.' 그러나 그들 역시 멩애를 부러뜨리고 그 줄을 끊었습니다.
- 6 그러므로 숲 속의 사자가 그들을 물어뜯고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찢어 죽일 것입니다. 또 표범이 그들의 성읍마다 노니 거기에서 나오는 자는 누구나 갈갈이 찢길 것입니다. 그들의 반역이 잦고 그들의 배반이 크기 때문입니다.

풍기 문란

- 7 그러니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나? 네 자식들은 나를 저버리고 신도 아닌 것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었는데도 그들은 간음을 저지르며 창녀의 집에 모여들었다.

- 8 그들은 욕정이 가득한 살진 수말이 되어 저마다 제 이웃의 아내를 향해 항행거란다.
- 9 이런 것들을 보고서도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이때위 민족에게 내가 되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온갖 궤변에 대한 주님의 응답

- 10 그들의 포도밭 두둑 사이로 올라가 파괴하여라. 그러나 끝장은 내지 말고 그 가지들만 잘라 내어라. 그것들은 주님에게 속해 있지 않다.
- 11 사실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은 나를 완전히 배신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 12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면서 이렇게 지껄인다. "그분께서 그러실 리가 없다. 제앙이 우리에게 닥칠 리도 없고 우리가 칼이나 굶주림을 만날 리도 없다."
- 13 예언자들은 바람에 지나지 않고 그들 안에 말씀이 없으니 그런 일은 저들에게나 일어 나리라."
- 14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이런 말을 했으니 나 이제, 내 말이 너의 입에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장작이 되게 하여 그 불이 그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전쟁과 굶주림과 유배를 겪으리라

- 15 이스라엘 집안아 내가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너희에게 불러들이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은 끈질긴 민족이요 예로부터 있던 민족이다. 너는 그들의 말을 모르기에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리라.
- 16 그들의 화살 통은 열린 무덤과 같으니 그들은 모두 용사들이다.

- 17 그들은 내가 거둔 곡식과 양식을 먹어 치우고 네 아들딸들도 집어삼키리라. 또한 그들은 네 양 떼와 소 떼를 먹어 치우고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도 집어삼키리라. 그들은 요새 성읍들을, 내가 의지하는 성읍들을 칼로 파괴하리라.
- 18 그러나 그날에도 아직 내가 너희를 끝장내지는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 19 그들이 "어찌하여 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하셨소?" 하고 물을 때,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너희가 나를 저버리고 너희 땅에서 낯선 신들을 섬겼으니, 이제 너희는 너희 땅이 아닌 곳에서 이민족들을 섬겨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업적을 물러본 탓으로 창조 질서가 흐트러지다

- 20 이 말을 야곱 집안에 선포하고 유다에게 들려주어라.
- 21 어리석고 지각없는 백성이 제발 이 말을 들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 22 너희는 나를 경외하지도 않고 내 앞에서 떨지도 않는단 말이나?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모래를 놓아 바다에 경계를 짓고 영원한 독을 만들어 범람하지 못하게 하였다. 물결이 넘실거리려도 그것을 넘을 수 없고 파도가 으르렁거리려도 범람하지 못한다.
- 23 이 백성은 완고하고 반항하는 마음을 지니고 돌아서서 가 버렸다.
- 24 그들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품지 않았다. '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분은 제때에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시고 우리를 위해 수확 구간을 지켜 주시는 분이시다.'
- 25 너희의 죄악이 이런 질서를 어지럽혔고 너희의 범죄가 너희 선악을 가로막았다.
- 26 내 백성 가운데 사악한 자들이 있어 들새

사냥꾼처럼 숨어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그물을 쳐 놓고 사람들을 잡는다.

- 27 새들로 가득 찬 바구니처럼 그들의 집안은 사기쳐 얻은 재물로 가득 차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더욱 득세하고 부유해졌으며
- 28 기름기로 번들거린다. 그들은 악한 행실도 서슴지 않으니 고아들이 승소할 수 있도록 그 송사를 공정으로 다루지 않고 가난한 이들의 재판을 울버로 진행하지 않는다.
- 29 이런 짓들을 보고서도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이따위 민족에게 내가 되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잘못된 길

- 30 소름 끼치는 무서운 일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다.
- 31 예언자들은 거짓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사제들은 제멋대로 다스린다. 그런데도 내 백성은 그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끝 날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예루살렘에 대한 공격 개시

- 6 ¹ 벤야민 자손들이 예루살렘 한가운데를 떠나 파난하여라. 트코아에서 나팔을 불고 뱃 케렘 위에 봉화를 올려라. 북쪽에서 재앙이, 엄청난 파괴의 조짐이 보인다.
- 2 딸 시온은 아름답고 우아하나 내가 그를 파멸시키리라.
- 3 목자들이 자기네 양 떼를 몰고 그에게 다가 가리라. 그 주변에 천막을 치고 저마다 제자리에서 양 떼를 치리라.
- 4 시온을 거슬러 전쟁을 준비하여라. 일어나 한낮에 쳐 올라가자. 어허, 벌써 낮이 기울고 저녁 그들이 드리워지는군.
- 5 일어나 밤중에 쳐 올라가자. 그 궁궐을 파괴하자.

공격을 받는 도성에 대한 주님의 경고

- 6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나무를 베어 내고 예루살렘을 칠 공격 축대를 쌓아 올려라. 예루살렘이말로 벌을 받아야 할 도성으로 그 안에 온통 억압이 자리 잡고 있다.
- 7 샘에서 물이 솟구치듯 거기에서 악이 솟구친다. 폭력과 억압이 그 안에서 들려오고 질병과 상처가 언제나 내 앞에 보인다.
- 8 예루살렘아, 교훈을 받아들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와 갈라서고 내가 너를 폐허로 만들어 인적 없는 땅이 되게 하리라."

마음이 굳은 자들에 대한 징벌

- 9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그들은 포도를 남김없이 거두어들이듯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거두리라. 그러니 나는 포도 따는 사람처럼 그 가지에 손을 펼치라."
- 10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알아듣도록 경고해야 합니까? 그들의 귀는 할례를 받지 않아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비웃음 거리가 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 11 주님의 분노가 저를 가득 채우니 더 이상 그 분노를 견딜 수 없습니다. 거리에 있는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이 모인 자리에 쏟아 부어라. 정녕 남편도 아내도, 노인도 늙은 이도 잡혀가리라.
- 12 그들의 집은 밭과 아내와 함께 다른 이들에게 넘어가리니 내가 그 땅의 주민들을 거슬러 내 손을 뻗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 13 정녕 낮은 자부터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부정한 이득만 챙긴다. 예언자부터 사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거짓을 행하고 있다.
- 14 그들은 내 백성의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다루면서 평화가 없는데도 " 평화롭다, 평

화롭다!" 하고 말한다.

- 15 그들은 역겨운 짓을 저질렀으니 부끄러워해야 하는데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을 붉힐 줄도 모른다. 그러므로 그들은 쓰러지는 자들 가운데에서 쓰러지고 내가 그들을 징벌할 때 넘어지리라. 주님이 말한다.

책략이 빛은 결과

- 16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갈림길에서 서서 살펴보고 옛길을 물어보아라. 좋은 길이 어대냐고 물어 그 길을 걷고 너희 영혼이 설 곳을 찾아라. 그러나 그들은 '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 17 내가 너희에게 파수꾼들을 내세웠으니 나 팔 소리를 귀여겨들여라. 그러나 그들은 ' 귀여겨들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 18 그러므로 민족들아, 들어라. 그들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군중아, 깨달아라.
- 19 땅아, 들어라. 내가 이제 이 백성 위에 재앙을, 그들 자신의 책략이 빛은 결과를 가져오리니 이는 그들이 내 말을 귀여겨들지 않았고 내 가르침을 마다하였기 때문이다.
- 20 스바에서 들어온 향료와 먼 지방에서 가져온 향초 줄기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나? 너희 번제물이 마음에 들지 않고 너희 제사가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

걸림돌을 놓으리라

- 21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내가 이 백성 앞에 걸림돌을 놓아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리라. 아버지와 아들, 이웃과 친구들이 함께 망하리라."

파괴자의 공격

- 22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이제 한 백성이 북쪽 땅에서 오고 큰 민족이 땅 끝에서 일어나리라.
- 23 그들은 활과 창을 움켜쥐고 있는데 잔인하

고 무자비하다. 그들은 바다처럼 고품을 지르며 말을 타고 달려온다. 딸 시온아, 그들이 너를 치려고 전사처럼 전열을 갖추고 있다."

- 24 저희는 그 소식을 듣고 손을 떨구었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과 같은 괴로움이 저희를 사로잡았습니다.
- 25 너희는 들로 나가지도 길을 걷지도 마라. 정녕 원수가 칼을 쥐고 있으니 사방에 공포뿐이다.
- 26 내 딸 내 백성이, 자루옷을 두르고 깃털이 속에서 뒹굴어라. 외이들을 잃은 것처럼 구슬피 통곡하여라. 파괴자가 순식간에 우리에게 덮쳐 올 것이다.

이스라엘은 제련할 수 없는 쇠붙이

- 27 나는 내 백성 가운데에 너를 제련사로 내 세워 저들의 길을 살펴보고 시험하게 하리라.
- 28 그들은 모두 고집 센 반항자들이요 험뜯고 돌아다니는 자들로 구리와 쇠붙이에 지나지 않는다. 모두 썩어 빠진 것만을 저지른다.
- 29 풀무질을 세게 하고 납이 불에 녹아도 제련은 헛탕만 칠 뿐이니 악인들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 30 그들은 '버려진 은'이라 불리리니 주님께 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 7 ¹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 ² 주님의 집 대문에 서서 이 말씀을 외쳐라. "주님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서는 유다의 모든 주민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 3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길과 너희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겠

다.

- 4 '이는 주님의 성전, 주님의 성전, 주님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된 말을 믿지 마라.
- 5 너희가 참으로 너희 길과 너희 행실을 고치고 이웃끼리 서로 올바른 일을 실천한다면,
- 6 너희가 이방인과 고이와 과부를 억누르지 않고 무죄한 이들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않으며 다른 신들을 따라가 스스로 제앙을 불러들이지 않는다면,
- 7 내가 너희를 이곳에, 예로부터 영원히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 살게 하겠다.
- 8 그런데 너희는 아무 쓸모도 없는 거짓된 말을 믿고 있다.
- 9 너희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으로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 자신도 모르는 다른 신들을 따라간다.
- 10 그러면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 안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역겨운 짓들이나 하는 주제에!
- 11 너희에게는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강도들의 소굴로 보이느냐? 나도 이제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 12 내가 옛적에 내 이름을 자리 잡게 한 실로에 있는 나의 성소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행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무슨 일을 하였는지 보아라.
- 13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했기 때문에, — 주님의 말씀이다. — 내가 너희에게 줄곧 일렀어도 듣지 않고 너희를 불렀어도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 14 내 이름으로 불리고 너희가 그토록 의지하는 이 집에,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내가 실로에서 한 일과 같은 일을 하겠다.
- 15 내가 모든 형제를, 곧 에프라임 후손을 모두 쫓아낸 것처럼 너희를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

주님께서 더 이상 듣지 않으시다

- 16 그러니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하여 탄원도 기도도 올리지 말고 나에게 조르지도 마라. 나는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 17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무슨 짓들을 하는지 보고 있지 않느냐?
- 18 하늘 여왕에게 과자를 만들어 바치려고 아이들은 나무를 주워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아낙네들은 말기루를 반죽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어 바쳐 내 화를 돋우고 있다.
- 19 그러나 그들이 모욕한 것이 나인 줄 아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오히려 그들 자신이 아나냐?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이다.
- 20 — 그러므로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이제 나의 분노와 진노가 이곳에 쏟아져 사람과 짐승과 들짐의 나무와 땅의 과일과 모두 태우리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백성이 듣지 않은 탓이다

- 21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너희 번제물을 희생 제물에 섞어 그 고기를 먹어 치워라.
- 22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 그들에게 번제물과 희생 제물에 대하여 이야기하거나 명령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 23 오히려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 ' 내 말을 들어라.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만 온전히 걸어라. 그러면 너희가 잘될 것이다.'
- 24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도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제멋대로 사악한 마음을 따라 고집스럽게 걸었다. 그들은 앞이 아니라 뒤

를 향하였다.

- 25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는 내 모든 종들, 곧 예언자들을 날마다 끊임없이 그들에게 보냈다.
- 26 그런데도 그들은 나에게 순종하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목을 뻗듯이 세우고 자기네 조상들보다 더 고약하게 굴었다.
- 27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부르더라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 28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 이 민족은 주 그들의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은 민족이다. 그들의 입술에서 진실이 사라지고 끊겼다.' "

불경의 비참한 결과

- 29 네 머리카락을 잘라 내던져라. 벌거벗은 언덕 위에서 애가를 높이 불러라. 주님께서는 당신 진노를 일으키게 한 이 세대를 내치고 버리셨다.
- 30 참으로 유다 자손들이 내가 보기에 악을 저질렀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은 역겨운 것들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 안에 들여놓아 그 집을 더럽혔다.
- 31 그들은 ' 벤 힌눔 골짜기'에 토렛의 산당을 세우고 저희 아들딸들을 불에 살라 바쳤는데, 이는 내가 명령한 적도 없고 내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일이다.
- 32 그러므로 이제 그날이 오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에는 그곳이 더 이상 토렛이나 벤 힌눔이 아니라 ' 살육의 골짜기'라 불릴 것이다. 그들이 문힐 곳이 없어서 토렛에 시체를 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33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 밥이 되어도 그것들을 쫓아내는 자 아무도 없을 것이다.

34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환호성과 즐거움에 찬 목소리와 신랑 신부의 목소리를 멈추게 하리니 그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8 ¹ 그때에, — 주님의 말씀이다. — 사람들이 유다 임금들의 뼈와 그 제후들의 뼈, 사제들의 뼈와 예언자들의 뼈, 예루살렘 주민들의 뼈를 그들의 무덤에서 꺼낼 것이다.

2 그리하여 그들의 뼈는 그들이 사랑하고 섬기고 따라가고 붙좃으며 예배했던 해와 달과 하늘의 모든 군대 앞에서 흩어져, 다시는 거두어지거나 묻히지 못하고 땅 위에서 거름이 될 것이다.

3 내가 이 사악한 족속을 몰아낸 곳곳에서, 그 족속의 남은 자들은 모두 죽음을 삶보다 더 낫게 여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비길 데 없는 완고함

4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사람들은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지 않느냐? 누구나 밧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느냐?

5 그런데 어찌하여 이 예루살렘 백성은 한 번 밧나가면 배반을 고집하느냐? 그들은 거짓에 사로잡혀 돌아오기를 마다한다.

6 내가 귀담아들어 보았으나 그들은 바른말을 하지 않고 아무도 "내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하며 자신의 악행을 뉘우치지 않는다. 모두 제 길로 돌아서니 싸움터로 내달는 말과도 같다.

7 하늘을 나는 황새도 제철을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때맞춰 돌아오는데 내 백성은 주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구나.

거짓된 말과 주님의 말씀

8 그런데도 너희가 어찌 " 우리는 지혜롭고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

할 수 있단 말이나? 사실은 서기관들의 거짓 철필이 거짓을 만들어 낸 것이다.

9 지혜롭다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당황해하며 사로잡히게 되리라.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척했으니 이제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예언자들과 사제들의 비리

10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들을 다른 이들에게 주고 그들의 밭도 정복자들에게 주리라. 정녕 낮은 자부터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부정한 이득만 챙긴다. 예언자부터 사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거짓을 행하고 있다.

11 그들은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다수롭지 않게 다루면서 평화가 없는데도 " 평화롭다, 평화롭다!" 하고 말한다.

12 그들은 역겨운 짓을 저질렀으니 부끄러워해야 하는데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을 붉힐 줄도 모른다. 그러므로 그들은 쓰러지는 자들 가운데에서 쓰러지고 내가 그들을 징벌할 때 넘어지리라. 주님이 말한다.

호되게 휘두르시는 주님의 채찍

13 내가 거두어들여 할 때 — 주님의 말씀이다. — 포도나무에 포도가 하나도 없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파리마저 말라 버릴 것이니 내가 그들에게 준 모든 것이 사라지리라.

14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가? 모두 모여 요세 성읍들로 가 차라리 그곳에서 망해 버리자. 주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시니 우리가 주님께 죄지는 탓이다.

15 평화를 바랐으나 좋은 일 하나 없고 회복할 때를 바랐으나 두려운 일뿐이다.

16 단에서 그들의 말들이 내는 콧바람 소리가 들려온다. 군마들의 울음소리에 온 땅이 뒤

흔들린다. 그들이 쳐들어와 이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을, 성읍과 거기 사는 사람들을 잡아삼킨다.

- 17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 길들일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보내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예언자의 탄식

- 18 슬픔이 나를 덮쳐 오고 내 마음은 병들었다.
- 19 이 땅 저 멀리서부터 내 딸 내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 주님께서서 시온에 안 계신가? 시온의 임금님께서 그곳에 안 계신가?" 어찌자고 그들은 우상들로, 낯선 헛것들로 나를 화나게 만들었는가?
- 20 수확이 끝나고 여름이 지났건만 저희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 21 내 딸 내 백성의 상처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었다. 나는 애도하고 공포에 사로잡혔다.
- 22 길앗에는 유향도 없고 그곳에는 의사도 없단 말이나? 어찌하여 내 딸 내 백성의 건강이 회복되지 못하는가?
- 23 아, 내 머리가 물이라면 내 눈이 눈물의 샘이라면 살해된 내 딸 내 백성을 생각하며 밤낮으로 울 수 있련만!

진실이 사라지다

- 9¹ 아, 광야에 내가 머물 나그네의 처가 있다면 내 백성을 저버리고 떠나갈 수 있련만! 참으로 그들은 모두 간음하는 자들이요 배신하는 무리다.
- 2 그들은 자신들의 혀를 활처럼 굽히고 그 땅에서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 환을 치게 한다. 그들은 악에서 악으로 옮겨 다니며 나를 알아 모시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이다.
- 3 누구나 제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형제도 신뢰하지 마라. 형제들이 모두 사기꾼이요 이

웃들이 모두 중상꾼이 되어 돌아다닌다.

- 4 모두 제 이웃을 속이고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거짓을 말하도록 제 혀를 길들이고 죄에 무디어져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다.
- 5 약탈에 약탈을, 거짓에 거짓을 더하며 그들은 나를 알아 모시기를 마다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개입하러 오시다

- 6 그러므로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내가 이제 그들을 제련하고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달리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느냐?"
- 7 그들의 혀는 죽음의 화살. 입으로 거짓을 말한다. 서로 제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울기미를 씌우려 한다.
- 8 이런 짓들을 보고서도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이따위 민족에게 내가 되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제앙의 원인을 이해하는 현자

- 9 내가 산을 두고 울음과 곡을 터뜨리고 광야의 목초지를 두고 애가를 부르리라. 그것들이 초토가 되어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고 가축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하늘의 새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도망쳐 가 버렸기 때문이다.
- 10 내가 예루살렘을 폐허 더미로, 승냥이 소굴로 만들고 유다 성읍들을 주민들이 없는 폐허로 만들리라.
- 11 누가 이를 이해할 만큼 지혜로울까? 누구에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어 이를 선포하게 할 수 있을까? 어찌하여 이 땅이 망하게 되고 광야처럼 초토가 되어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게 되었는가?
- 12 주님께서 대답하신다. " 그들이 내가 자기들에게 세워 준 가르침을 저버리고 내 말

을 듣지 않았으며, 그것에 따라 간지 않았기 때문이다.

- 13 오히려 그들은 자기네 조상들이 가르쳐 준 대로 고집스럽게 바알들을 따라갔다.
- 14 —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이제 내가 이 백성에게 썩은떡을 먹이고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겠다.
- 15 내가 그들도 그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여러 민족들 가운데에 그들을 흠어지게 하겠다. 또한 내가 그들을 전멸시킬 때까지 그들을 뒤쫓아 칼을 보내겠다."

여자 곡꾼들을 부르다

- 16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너희는 잘 생각하여 여자 곡꾼들을 불러오너라. 사람을 보내어 곡을 잘하는 여자들을 데려오너라."
- 17 그들이 우리를 두고 서둘러 곡을 올리도록 해 다오. 그리하여 우리 눈에 눈물이 흘러 내리고 눈꺼풀이 눈물에 젖게 해 다오.
- 18 과연 곡소리가 시온에서 들린다. "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황폐해지고 이처럼 큰 수치를 당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 땅을 저버렸기 때문이지. 그들이 우리 거처를 짓밟았기 때문이지."
- 19 아나네돌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귀로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들여라. 너희 딸들에게 곡을 가르치고 그들도 저마다 이웃에게 얘기를 가르치게 하여라.
- 20 죽음이 우리 창문을 넘어 들어오고 있다. 죽음은 우리 궁궐에까지 들어오고 거리에서 어린아이들을, 광장에서 젊은이들을 쓰러뜨린다.
- 21 너는 말하여라. —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사람의 시체가 들간의 거름처럼 수확하는 사람 뒤에 남은 곡식 단처럼 쓰러져 있는데 아무도 거두려 하지 않으리라.

주님을 아는 것이 참지하다

- 22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지혜로운 이는 제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힘센 이는 제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유한 이는 제 부를 자랑하지 마라.
- 23 자랑하려는 이는 이런 일을, 곧 나를 이해하고 알아 모시는 일을 자랑하여라. 나는 과연 자애를 실천하고 공정과 정의를 세상에 실천하는 주님으로 이런 일들을 기꺼워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몸의 할례도 징벌을 면하게 하지 못한다

- 24 이제 그날이 오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몸의 할례만 받은 자들을 모두 징벌하겠다.
- 25 그들은 곧 이집트와 유대와 에돔과 암몬 자손들과 모압과, 관자놀이의 머리를 민, 광야에 사는 자들 모두이다. 이 모든 민족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고, 이스라엘 온 집안도 마음으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10 주 하느님과 우상의 비교

- 1 이스라엘 집안아, 주님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 2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이민족들의 길을 배우지 말고 하늘의 표징에 두려워 떨지 마라. 그런 것은 이민족들이나 두려워 떠다.
- 3 그 백성들의 관습은 헛것이다. 사실 나무가 숲 속에서 잘라진 뒤 장인의 손에서 도끼로 다듬어지고
- 4 금으로 장식된다. 사람들은 그것을 못과 망치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킨다.
- 5 저들의 우상들은 오이 밭의 허수아비 같이 말할 줄 모른다. 그것들은 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반드시 날라다 주어야 한다.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들은 해로

- 움도 끼칠 수 없고 이로움도 줄 수 없다."
- 6 주님, 당신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당신께서는 위대하시고 당신의 위대한 이름은 업위를 떨치십니다.
- 7 민족들의 임금님 누가 당신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을 경외함은 마땅한 일입니다. 민족들의 온갖 지혜로운 이들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온갖 왕국 가운데에서도 과연 당신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 8 저들은 하나같이 어리석고 바보스럽습니다. 헛것들의 혼계란 나무도막과 같습니다.
- 9 두드려 늘인 은은 타르시스에서, 금은 우파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것들은 장인의 작품이요 대장장이의 솜씨일 뿐입니다. 그들의 자주색 모직과 자홍색 양모 옷은 모두 다 기술자들의 작품입니다.
- 10 그러나 주님은 진리의 하느님, 그분은 살아 계신 하느님이시요 영원한 임금님입니다. 그분의 진노에 땅이 뒤흔들리니 민족들이 그분의 노여움을 견뎌 낼 수 없다.
- 11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은 저 신들은 땅에서 그리고 하늘 아래에서 사라질 것이다."
- 12 그분께서는 당신 능력으로 땅을 만드시고 당신 지혜로 세상을 세우셨으며 당신 예지로 하늘을 펼쳐 놓으셨다.
- 13 그분께서 소리를 내시자 하늘의 물이 요동친다. 그분께서는 땅 끝에서 안개가 피어오르게 하신다. 비가 내리도록 번개를 만드시고 당신의 곳간에서 바람을 꺼내신다.
- 14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고 지식이 모자란다. 대장장이는 누구나 우상 탓에 수치를 당한다. 사실 그가 부어 만든 상은 가짜라서 그 안에 숨결이 없다.
- 15 그것들은 헛것이요 조롱거리니 그들이 벌을 받을 때에 그것들도 사라지리라.
- 16 아낌의 뿔은 이런 것들과는 다르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이스라엘은 그분께서 상속 재산으로 삼으신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 이름 만군의 주님이시다.

주님을 찾지 않는 자는 모두 망한다

- 17 포위된 채 살아가는 자들이 땅에서 너희 보따리를 모아들여라.
- 18 정녕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내가 이번에는 이 땅의 주민들을 쫓아내고 그들에게 재난을 가져오리니 그들이 그것을 겪게 되리라."
- 19 내가 받은 부상으로 나는 불행하다. 나의 상처는 너무 깊다. 그러나 나는 ' 이 정도 고통이야 견뎌야지.' 하고 생각하였다.
- 20 나의 천막은 무너지고 천막 끈도 다 끊어졌다. 내 아들들마저 나에게서 떠나가 없으니 내 천막을 다시 펼쳐 주고 장막을 세워 줄 이가 있을 리 없다.
- 21 목자들이 어리석어 주님을 찾지 않는 까닭에 그들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그들의 모든 양 떼는 흩어지리라.
- 22 자, 소리가 들려오지 않느냐! 소문이 복녘 땅에서 다가온다. 유다의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고 늑대 소굴로 만들 큰 난리라고들 한다.

예언자의 기도

- 23 주님, 저는 압니다, 사람은 제 길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간은 그 길을 걸으면서도 자신의 발걸음을 가눌 수 없습니다.
- 24 주님, 저를 고쳐 주시되 공정하게 해 주소서. 저를 진노로 다루지 마시어 저를 없애지 마소서.
- 25 당신의 분노를 쏟아 부으소서, 당신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당신 이름을 받들어 부르지 않는 족속들에게. 그들은 아낌을 집어삼키고 그를 집어삼켜 없애 버렸으며 그 사는 곳을 부수었습니다.

계약에 불충실한 자들에 대한 징벌

- 11** ¹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² 이 계약의 말씀을 들어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전하여라.
³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이 계약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⁴ 이 계약의 말씀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곧 쇠를 녹이는 도가니에서 끄집어내던 날, 그들에게 이렇게 내린 명령이었다. ' 내 말을 듣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⁵ 이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한 맹세를 지키려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오늘날 너희가 보는 대로다.'" 이 말씀에 나는 "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⁶ 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 모든 말을 선포하여라. ' 이 계약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여라.
⁷ 이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려 내오던 날, 내 말을 들으라고 그들에게 경고했고, 그 경고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⁸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도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저마다 제 약한 생각대로 고집스럽게 굴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했는데도 지키지 않은 이 계약의 모든 말씀대로, 그들에게 집행하였다.'"
⁹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의 반역이 드러났다.
¹⁰ 그들 또한 내 말을 듣기를 마다하였던 조상들의 악습으로 되돌아가 다른 신들을 좇아 다니며 섬겼다.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은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내 계약

을 깨뜨렸다."

- ¹¹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이제 내가 그들에게 벗어날 수 없는 제앙을 내리리니, 그들이 나에게 울부짖어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¹² 그렇게 되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신들이 향을 피우는 신들에게 가서 울부짖겠지만, 그 신들이 제앙의 때에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없을 것이다.
¹³ 유다야,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만큼이나 많고 너희가 우상을 위해 세운 제단, 곧 바알에게 향을 피우려고 세운 제단이 예루살렘 골목만큼이나 많구나!
¹⁴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하여 탄원도 기도도 올리지 마라. 그들이 제앙의 때에 나에게 부르짖어도 나는 듣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당신의 올리브 나무를 치시다

- ¹⁵ 내 애인은 그토록 못된 짓을 저지르거셔도 무엇하러 내 집에 들어와 있는가? 맹세와 고기를 제물로 바친다고 너의 제앙을 들릴 수 있었느냐? 그러면서도 너는 좋아라 날 뛰느냐?
¹⁶ 주님께서 너의 이름을 "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 열매가 풍성한 이름다운 나무 "라고 하셨지. 그러나 거센 폭풍 소리와 더불어 그분께서 그 나무에 불을 붙이시리니 그 가지들이 타 없어지리라.
¹⁷ 너를 심어 주신 만군의 주님께서 너에게 제앙을 선포하십니다. 바알에게 향을 피워 나를 진노케 한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의 사악함 때문이다.

예레미야의 첫 번째 고백

- ¹⁸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 주시어 제가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그들의 악행을 보여 주셨습니다.
¹⁹ 그런데도 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없애려고 음모를 꾸미는 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저 나무를 열매째 베어 버리자. 그들 산 이들의 땅에서 없애 버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 20 그러나 정의롭게 판단하시고 마음과 속을 떠보시는 만군의 주님 당신께 제 송사를 맡겨 드렸으니 당신께서 저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소서.
- 21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우리 손으로 너를 죽이겠다." 하고 말하면서 내 목숨을 노리는 아나돗 사람들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 22 "그러므로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젊은이들이 칼에 맞아 죽고 그 아들딸들이 굶어 죽을 것이다.'
- 23 아나돗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살아남는 자가 없으니, 징벌의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불러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 12** ¹ 주님, 제가 당신과 소송을 벌일 때마다 당신께서는 정의로우십니다. 그렇더라도 당신께 공정성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의 길은 번성하고 배신자들은 모두 성공하여 편히 살기만 합니까?
- 2 당신께서 그들을 심으시자 그들이 뿌리까지 내리고 자라서 열매까지 맺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당신을 가까이 모시지만 속으로는 당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 3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알고 살피시며 당신에 대한 제 마음을 떠보십니다. 도살할 양처럼 그들을 끌어내시고 살해할 날을 위하여 그들을 떼어 놓으소서.
- 4 언제까지나 땅이 통곡하고 온 들녘의 풀이

말라 가야 합니까? 그곳에 사는 자들의 악행 때문에 짐승과 새들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앞날에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고 저들이 말합니다.

- 5 내가 사람들과 달리기를 하다가 먼저 지쳤다면 어찌 말들과 겨루겠느냐? 내가 안전한 땅에만 의지한다면 요르단의 울창한 숲 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 6 네 형제들과 네 아버지 집안조차도 너를 배신하고 너에게 마구 소리를 지르는구나. 그러나 그들이 너에게 좋은 말을 한다 해도 그들을 믿지 마라.

주님께서 당신의 소유를 포기하시라

- 7 나는 내 집을 버리고 내 소유를 포기하였다. 내가 사랑하던 이를 그 원수들의 손아귀에 넘겼다.
- 8 내 소유가 나에게 숲 속의 사자처럼 되고 나를 거슬러 소리를 높이니 내가 그를 미워할 수밖에.
- 9 하이에나가 나의 소유를 탐욕스레 바라보느냐? 맹금이 내 소유를 치러고 둘러싸고 있느냐? 가서 모든 들짐승을 불러 모으고 그것들을 태려와 내 소유를 삼켜 버리게 하여라.
- 10 수많은 목자들이 내 포도밭을 파괴하고 내 뭇을 짓밟았다. 그들은 내 탐스런 뭇을 폐허의 광야로 만들었다.
- 11 그들이 내 뭇을 폐허로 만들자 폐허가 된 그곳이 나를 향해 통곡한다. 온 땅이 폐허가 되었는데도 그 일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 12 광야의 벌거벗은 모든 언덕을 넘어 파괴자들이 쳐들어왔다. 주님의 칼이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휩쓸고 지나가니 살아 있는 모든 목숨이 안전할 리 없다.
- 13 사람들은 밀씨를 뿌리고도 가시를 거두어들이며 지칠 때까지 일을 해도 아무런 소

득이 없다. 너희의 수확을 두고 주님의 타
오르는 분노에 부끄러워하여라.

다른 민족들에 대한 경고

- 14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악한
모든 이웃 민족들에 관한 말씀이다. " 그
들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물려준
상속 재산을 건드렸다. 그러므로 이제 내
가 그들의 땅에서 그들을 뽑아낸 뒤, 그들
가운데에 살던 유다 집안을 뽑아내 오겠다.
15 그러나 그들을 뽑아냈다가 다시 그들을 가
없이 여겨, 그들을 모두 제 상속 재산, 곧
제 땅으로 돌려보내겠다.
16 그들이 내 백성의 길을 충실하게 배워 나
가고, 전에는 그들이 내 백성에게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가르쳤지만 이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살아 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면, 내 백성 가운데에 자리 잡게 될
것이다.
17 그러나 그 민족이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뽑아 없애 버리겠다. 주님의 말씀
이다."

아마포 띠의 가르침

- 13** 1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 가서 아마포 띠를 사, 허리에 두
르고 물에 담그지 마라."
2 그래서 주님의 분부대로 나는 띠를 사서 허
리에 둘렀다.
3 그러자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나에게 내
렸다.
4 " 내가 사서 허리에 두른 띠를 가지고 일어
나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바위 틈새에 띠를 숨겨 두어라."
5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나는 유프
라테스 강으로 가서 띠를 숨겼다.
6 여러 날이 지난 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
하셨다. " 일어나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서,

내가 너더러 거기 숨겨 두라고 명령한 띠를
가져오너라."

- 7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 흙을 헤치고
숨겨 둔 곳에서 띠를 꺼냈다. 그런데 그 띠
가 썩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었다.
8 그때 주님의 말씀이 다시 나에게 내렸다.
9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나도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것처럼 썩혀
버리겠다.
10 이 사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마다하
고, 제 고집스러운 마음에 따라 다른 신들
을 좇아 다니며 그것들을 섬기고 예배하였
으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띠처럼 되
고 말 것이다.
11 이 띠가 사람의 허리에 붙어 있듯이 내가
온 이스라엘 집안과 온 유다 집안을 나에
게 붙어 있게 한 것은 — 주님의 말씀이다.
— 그들이 내 백성이 되어 명성과 칭송과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그
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분노의 향아리

- 12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하여라. " 주 이스
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향아리마다 술이 가득 찰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나에게 ' 향아리마다 술이 가득 차
야 한다는 걸 우리가 모르는 줄 아느냐? '
하고 말할 것이다.
13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제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 왕좌에 앉은 임금들과 사제
들과 예언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잔뜩 취하게 하겠다.
14 그리하여 그들이 서로 부딪쳐, 심지어 아버
지와 자식이 함께 부딪쳐 깨지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을 파괴하면서
불쌍히 여기거나 동정을 베풀거나 가없이
여기지 않겠다.' "

너무 늦기 전에 들어라

- 15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너희는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우쭐거리지 마라.
- 16 주 너희 하느님께서 어둠을 가져오시기 전에, 너희 밭이 땅거미 지는 산등성이에서 비틀거리기 전에 그분께 영광을 드려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빛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분께서 빛을 어둠으로 바꾸시고 암흑으로 만드시리라.
- 17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너희의 오만 때문에 숨어 울며 눈물을 흘리리라. 주님의 양 떼가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리라.

불충한 자들에게 내리는 징벌

- 18 임금과 모후에게 말하여라. " 찬란한 왕관이 너희 머리에서 벗겨져 내렸으니 낮은 자리로 내려와라."
- 19 네겟 성읍마다 문이 닫혔는데 열어 줄 자 아무도 없다. 유다 전체가 유배되었구나. 모조리 유배되었구나.
- 20 너희 눈을 들어 북녘에서 오는 자들을 보아라. 너에게 맡긴 가축 떼가 어디에 있느냐? 그 영광스러운 양 떼가!
- 21 네 친구가 되도록 내가 직접 가르친 자들이 네 위에 군림한다면 너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아이 낳는 여인의 진통과 같은 고통이 너를 사로잡지 않겠느냐?
- 22 사실 너는 마음속으로 '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내게 닥쳤는가?' 하고 묻는다. 네 치마가 걷어 올려지고 네 몸이 폭행을 당한 것은 너의 큰 죄 때문이다.
- 23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색을, 표범이 자기 얼룩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럴 수만 있다면 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 24 내가 너희를 광야의 바람에 날려 다니는 검불처럼 흘으리라.

- 25 이것이 너의 제비요 내가 너에게 정해 준 뭇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나를 잊고 거짓을 의지한 탓이다.
- 26 나도 너의 치마를 얼굴 위로 벗겨 내어 네 치부가 드러나게 하리라.
- 27 간음과 음란한 괴성! 뻔뻔한 불륜! 나는 들뜬 언덕 위에서 역겨운 네 짓거리들을 보았다. 불행하여라, 예루살렘! 깨끗하지 못한 너, 언제까지 그렇게 지내려느냐?

가뭄
14

- 1 주님께서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탄원

- 2 유다가 슬피 울고 그 성읍들이 쇠약해져 간다. 그들이 땅에 쓰러져 통곡하고 예루살렘이 울부짖는 소리가 높이 오른다.
- 3 귀족들이 종들을 물 길으러 보내어 종들이 우물에 나와도 물을 찾지 못하고 빈 물동이를 든 채 돌아간다. 그들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머리를 가린다.
- 4 땅에 비가 오지 않아 밭이 갈라지니 농부들이 부끄러워 머리를 가린다.
- 5 들뜬 암사슴도 새끼를 낳고는 풀이 없어서 그것을 버린다.
- 6 들나귀도 벌거벗은 언덕 위에 서서 승냥이 처럼 숨을 헐떡이는데 눈동자에 힘이 하나도 없다. 풀이 없는 탓이다.
- 7 주님, 저희 죄악이 저희를 거슬러 증언할지라도 당신 이름을 위하여 선처하여 주소서. 정녕 저희가 당신을 수없이 배반하고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 8 이스라엘의 희망이시여 당신은 재난의 때에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이 땅에서 이방인처럼, 하룻밤 묵고자 들 어선 나그네처럼 되셨습니까?
- 9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놀란 사람처럼, 저희를

구원할 힘이 없는 용사처럼 되셨습니까?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 한가운데에 계십니다. 저희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니 저희를 버리지 마소서!

결정적 심판

- 10 주님께서 이 백성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 그들은 떠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발을 삼가지 못한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신다. 이제 그분께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를 벌하실 것이다.
- 11 그런 다음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 " 이 백성을 위하여 행복을 빌지 마라.
- 12 그들이 단식하여도 내가 그들의 호소를 듣지 않고,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쳐도 받지 않겠다. 오히려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나는 그들을 전멸시키겠다."
- 13 그때 내가 아뢰었다. " 아, 주 하느님! 예언자들이 저들에게 말하기를, ' 너희는 칼을 보지 않고 굶주림이 너희에게 닥칠 리도 없을 것이다. 나는 이곳에서 너희에게 참평화를 주겠다.' 하였습니까."
- 14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 그 예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말한 적도 없다. 그들이 너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은, 거짓 환시와 영터리 점괘와 제 마음에서 나오는 거짓말일 따름이다."
- 15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예언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 이는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 칼과 굶주림이 이 땅에 닥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내 이름으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 예언자들은 칼과 굶주림으로 전멸할 것이다.
- 16 그들의 예언을 듣는 백성도 굶어 죽고 칼에 맞아 예루살렘 거리에 내던져질 것이고,

그들과 그들의 아내와 아들딸들을 물어 죽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내가 악의 대가를 그들에게 쏟아 붓겠다."

또 다른 탄원

- 17 그들에게 이 말을 하여라.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다. 처녀 딸 내 백성이 몹시 얻어맞아 너무도 참혹한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 18 들에 나가면 칼에 맞아 죽은 자들뿐이요 성읍에 들어가면 굶주림으로 병든 자들뿐이다. 정녕 예언자도 사제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나라 안을 헤매고 다닌다.
- 19 당신께서 완전히 유다를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당신께서 시온을 지켜워하십니까?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회복할 수 없도록 저희를 치셨습니까? 평화를 바랐으나 좋은 일 하나 없고 회복할 때를 바랐으나 두려운 일뿐입니다.
- 20 주님, 저희의 사악함과 조상들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참으로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 21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저희를 내쫓지 마시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옥좌를 떨치지 마소서. 저희와 맺으신 당신의 계약을 기억하시고 그 계약을 깨뜨리지 마소서.
- 22 이민족들의 헛것들 가운데 어떤 것이 비를 내려 줄 수 있습니까? 하늘이 스스로 소나기를 내릴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은 주 저희 하느님이신 바로 당신이 아니십니까? 그러기에 저희는 당신께 희망을 둡니다. 당신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는 징벌

- 15 ¹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간청하더라도, 내 마음을 이 백성에게 돌리지 않겠다.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어 떠나가게 하

여라.

- 2 그들이 너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흑사병에 걸릴 자는 흑사병에 걸리고, 칼에 맞을 자는 칼에 맞고, 굶주릴 자는 굶주리고,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혀 가리라. ' '
- 3 내가 그들에게 네 가지 심판을 보내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곧 죽이는 칼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개들, 먹여 치우는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이다.
- 4 나는 그들을 세상의 모든 왕국에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이는 유다 임금 히즈키야의 아들 므나씨가 예루살렘에서 저지른 짓 때문이다."

배척하였기 때문에 배척받다

- 5 예루살렘아, 누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누가 너를 위해 슬퍼해 주랴? 누가 너에게 돌아와 네 안부를 물으랴?
- 6 너는 나를 버렸고 — 주님의 말씀이다. — 나에게 등을 돌려 가 버렸다. 그래서 내가 손을 뻗어 너를 멸망시켰다. 나는 불쌍히 여기기에도 지쳤던 것이다.
- 7 내가 이 땅의 성문들 앞에서 키로 그들을 흠어지게 하였다. 내가 내 백성에게서 자식들을 빼앗고 그들을 멸망시켰으나 그들은 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 8 나는 그들 가운데 과부의 수를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게 하였다. 젊은이들의 어머니들을 치도록 한낮에 파괴자를 불러들였다. 그리하여 불안과 공포가 갑자기 그들을 덮치게 하였다.
- 9 일곱 아이를 낳은 여자는 기력이 다하여 숨을 헐떡거렸다. 그 여자의 해는 아직 낮인데도 기울었다. 그 여자는 수치스러워 낯을 붉혔다. 나는 남은 자들도 그들의 원수 앞에서 칼에 내맡기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예레미야의 두 번째 고백

- 10 아, 불행한 이 몸! 어머니, 어찌자고 날 낳으셨나요? 온 세상을 상대로 시비와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 사람을, 빛을 놓은 적도 없고 빛을 얻은 적도 없는데 모두 나를 저주합니다.
- 11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내가 반드시 너를 풀어 주어 복되게 하리라. 재앙과 재난의 때에 네 원수가 너에게 간청하게 하리라.
- 12 누가 쇠를, 곧 북녘에서 오는 쇠와 청동을 꺾을 수 있겠느냐?
- 13 나는 너의 재산과 보화를 노획물로 내어 주리라. 그것은 네 거주지 곳곳에서 네가 저지른 온갖 죄악의 대가다.
- 14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원수들을 삼키게 하리라. 참으로 내 분노의 불꽃이 당겨져 너희를 거슬러 타리라."
- 15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저를 기억하시고 찾아 주소서. 저를 뒤쫓는 자들에게 복수하여 주소서. 당신 분노를 늦추시다가 저를 잃지 마시고 당신 때문에 제가 수모를 당하는 줄 알아주소서.
- 16 당신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더니 그 말씀이 제게 기쁨이 되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주 만군의 하느님 제가 당신의 것이라 불리기 때문입니다.
- 17 저는 웃고 떠드는 자들과 자리를 같이하거나 즐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를 가득 채운 당신의 분노 때문에 당신 손에 눌러 홀로 앉아 있습니다.
- 18 어찌하여 제 고통은 끝이 없고 제 상처는 치유를 마다하고 깊어만 갑니까? 당신께서는 저에게 가짜 시냇물처럼, 믿을 수 없는 물처럼 되었습니다.
- 19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 네가 돌아오려고만 하면 나도 너를 돌아오게 하여 내 앞에 설 수 있게 하리라. 내가 쓸

모없는 말을 삼가고 값진 말을 하면 너는 나의 대변인이 되리라. 그들이 너에게 돌아 올망정 내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 20 그러므로 이 백성에게 맞서 내가 너를 요새의 창동 벽으로 만들어 주리라.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싸움을 걸겠지만 너를 이겨 내지 못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고 건져 낼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 21 내가 너를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 내고 무도한 자들의 손아귀에서 구출해 내리라."

고독한 예레미야

- 16 ¹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 ² " 나는 이곳에서 아내를 얻지 말고 아들딸도 낳지 마라.
- ³ 이곳에서 태어난 아들딸과, 그들을 낳은 어머니들과 이 땅에서 그들을 낳아 준 아버지들을 두고 주님이 말한다.
- ⁴ 그들은 죽을 병에 걸려 죽겠지만, 아무도 그들을 위해 곡을 해 주지도 묻어 주지도 못할 것이다. 그들은 땅 위의 거름이 될 것이다. 그들은 칼과 굶주림으로 죽어 가리니, 그들의 시체는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 밥이 될 것이다."
- ⁵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나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고, 곡하려 가지도 말고, 그들에게 조의를 표하지도 마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화를 거두고, — 주님의 말씀이다. — 자애와 자비를 거두어 버렸다.
- ⁶ 이 땅에서 높은 자 낮은 자 할 것 없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묻히지도 못하고, 그들을 위해 곡을 해 주는 자도 없을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위해 제 몸에 상처를 내거나 머리를 밀지 않을 것이다.
- ⁷ 아무도 죽은 이를 애도하는 상주를 위로하려고 그와 음식을 나누지 않고, 그의 아버

지나 어머니를 생각해서 그에게 위로의 술잔을 건네지도 않을 것이다.

- ⁸ 너는 사람들과 앉아 먹고 마시려고 잔칫집에 들어가지 마라.
- ⁹ —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이제 내가 너희 당대에 너희가 보는 앞에서 기쁜 목소리와 즐거운 목소리, 그리고 신랑 신부의 목소리를 이곳에서 그치게 하겠다.
- ¹⁰ 내가 이 말을 모두 이 백성에게 전하면, 그들은 너에게 '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렇듯 큰 재앙을 모두 우리에게 선고하셨는가? 주 우리 하느님께 우리가 저지른 죄악이 무엇이며, 우리가 지은 죄가 어떤 것이냐?' 하고 물을 것이다.
- ¹¹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라. ' 너희 조상들이 나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은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예배하였으며, 나를 저버리고 내 법을 지키지 않았다.
- ¹² 그런데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행동하였다. 너희는 저마다 제 악한 마음을 고집스럽게 따르면서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 ¹³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너희도 너희 조상들도 모르던 땅으로 내던지겠다. 너희는 그곳에서 밤낮으로 다른 신들을 섬겨야 하고, 나도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 귀환**
- ¹⁴ 그러나 이제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하지 않고,
- ¹⁵ 그 대신 " 이스라엘 자손들을 북쪽 땅에서, 그리고 당산계에서 쫓아 보내셨던 모든 나라

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살아 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할 것이다. 정녕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죄인들을 모두 잡아들이라

16 이제 내가 많은 어부들을 보내어 그들을 잡아 올리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런 다음 많은 사냥꾼들을 보내어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틈을 뒤져 그들을 잡아내겠다.

17 내 눈이 그들의 모든 길을 살피고 있으니, 그들은 내 앞에서 숨지 못하고 자기들의 죄악을 내 눈앞에서 감추지도 못한다.

18 나는 우선 그들의 죄악과 잘못을 갑절로 갚겠다. 그들이 송장이나 다름없는 자신들의 혐오스러운 것들로 내 땅을 더럽히고, 자신들의 역겨운 것들로 내 소유지를 채웠기 때문이다.

주님에 대한 깨달음

19 재난의 날에 제 힘이시오 요새이며 피난처이신 주님 민족들이 땅 끝에서 모여 와 당신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저희 조상들은 정녕 쓸모없는 헛것만 물려주었습니다."

20 사람이 스스로 신들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21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들에게 알려 주리라. 이번에는 내 능력과 권세를 그들이 알게 해 주리라. 그리하면 그들은 내 이름이 야훼임을 깨닫게 되리라.

주님의 분노로 죄인들이 재산을 빼앗기다

17 ¹ 유다의 죄악이 철폐로 기록되었다. 금강석 축으로 그들의 마음 판에,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

2 그들의 자녀들이 높은 언덕 푸른 나무 곁에 세워진 제단과 아세라 목상들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 죄악이 새겨졌다.

3 산과 들녘에서 나는 너의 재산과 온갖 보화를 노획물로 내어 주리라. 너의 나라 곳곳에서 저지른 죄 때문에 너의 산당도 내어 주리라.

4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상속 재산에서 손을 떼게 되리라. 나는 내가 자신도 모르는 땅에서 원수들을 섬기게 하리라. 내 분노로 불이 맹져져 그 불이 영원히 타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속이는 자와 속이지 않는 자

5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스러질 몸을 제 힘인 양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

6 그는 사막의 덤불과 같이 좋은 일이 찾아드는 것도 보지 못하리라. 그는 광야의 메마른 곳에서, 인적 없는 소금 땅에서 살리라."

7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는 복되다.

8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제 뿌리를 시냇가에 뻗어 무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그 잎이 푸르고 가문 해에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는다.

9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더 교활하여 치유될 가망이 없으니 누가 그 마음을 알리오?

10 내가 바로 마음을 살피고 속을 떠보는 주님이다. 나는 사람마다 제 길에 따라, 제 행실의 결과에 따라 갚는다.

11 올바르게 못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자는 제가 낳지도 않은 일을 품는 자고새와 같다. 한창때에 그는 재산을 잃고 끝내는 어리석은 자로 드러나리라.

예레미야의 세 번째 고백

12 저희 성소가 있는 곳은 처음부터 드높은 영광의 옥좌였습니다.

13 이스라엘의 희망이신 주님 당신을 저버린 자는 누구나 수치를 당하고 당신에게서 돌

- 아선 자는 땅에 새겨지리이다. 그들이 생수의 원천이신 주님을 버린 탓입니다.
- 14 주님, 저를 낫게 해 주소서. 그러면 제가 나오리이다. 저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면 제가 구원받으리이다. 당신은 제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 15 저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 주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나? 내려와 보시라지!"
- 16 그러나 저는 당신께 제앙을 재촉하거나 파멸의 날을 기원하지도 않았습니니다. 당신께서는 제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지 아십니다. 제가 당신 앞에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 17 당신께서는 저를 두렵게 하지 마소서. 제앙의 날에 당신은 저의 파난처이십니다.
- 18 저의 박해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시되 저는 수치를 면하게 해 주소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게 하시되 저만은 두려움을 면하게 해 주소서. 제앙의 날이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들을 부수시되 갑절로 부수어 주소서.

안식일은 주님께 성별된 휴식

- 19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 일어나 유다 임금들이 들어오는 ' 백성의 문' 과 예루살렘의 모든 성문으로 가 그곳에서서,
- 20 그들에게 말하여라. ' 이 성문에 들어오는 유다 임금들과 온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 21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너희 목숨을 잃지 않으려거든 조심하여라. 안식일에는 짐을 지거나 예루살렘 성문으로 그 짐을 들여오지 마라.
- 22 안식일에는 너희 집에서 짐을 내가지도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 23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내게 순종하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목을 뺏뺏이 한 채 내 훈계를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 24 그렇지만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고, — 주님의 말씀이다. — 안식일에 이 도성의 성문으로 어떤 짐도 나르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며, 이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 25 이 도성의 성문으로 다윗의 왕좌에 오를 임금들과 그들의 대신들이 병거와 군마를 타고 들어오게 될 것이다. 또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도 함께 들어올 것이다. 그리하여 이 도성은 영원히 사람들의 거주지가 될 것이다.
- 26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인근 지역, 벤야민 땅과 평원 지대, 산악 지방과 내깎에서 사람들이 번계물과 희색 제물과 곡식 제물과 향료를 가져오고 감사 예물도 주님의 집으로 가져올 것이다.
- 27 그러나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내 말을 듣지 않고, 안식일에 짐을 진 채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그 성문에 불을 놓겠다. 그 불은 예루살렘 궁궐들을 집어삼키고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

옹기그릇과 옹기장이

- 18 ¹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 ² " 일어나 옹기장이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너에게 내 말을 들려주겠다."
- 3 그래서 내가 옹기장이 집으로 내려갔더니, 옹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 4 옹기장은 진흙을 손으로 빚어 옹기그릇을 만드는데, 옹기그릇에 흠집이 생기면 자기 눈에 드는 다른 그릇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되풀이하였다.

- 5 그때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 6 " 이스라엘 집안아,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웅기장이처럼 너희에게 할 수 없을 것 같으나? 이스라엘 집안아, 웅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처럼 너희도 내 손에 있다.
- 7 나는 언제든지 어떤 민족이나 나라든 뽑고 허물고 없애 버리겠다고 선언할 수 있다.
- 8 그러나 그 민족이 내가 이른 대로 죄악에서 돌아서면, 나는 마음을 바꾸어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였던 재앙을 거두겠다.
- 9 나는 언제든지 어떤 민족이나 나라든 세우고 심겠다고 선언할 수 있다.
- 10 그러나 그 민족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면 나도 마음을 바꾸어 그들에게 배풀고자 했던 복을 거두겠다.
- 11 그러니 이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일러 주어라. '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고 너희를 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제발 너희는 저마다 악한 길에서 돌아와 너희의 길과 행실을 고쳐라.' '
- 12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 소용없는 일ियो,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소, 우리는 모두 고집스럽고 악한 마음으로 행동하겠소. "

비극적 탈선

- 13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못 민족에게 물어보아라, 누가 이 같은 말을 들어 보았느냐고, 처녀 이스라엘이 너 무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 14 레바논의 눈이 시르온 산의 비위에서 사라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시원한 물줄기가 마를 수가 있겠느냐?
- 15 그러나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 신들에게 향을 피운다. 그들은 자기네 길

- 에서, 예로부터 걸어온 길에서 비틀거리더니 뒤이지도 않은 길, 셋길로 접어들었다.
- 16 그들이 자기네 땅을 폐허로 만드니 그 땅은 영원히 놀림감이 되어 버렸다.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너무 놀라서 제 머리를 흔든다.
- 17 내가 그들을 저희 원수들 앞에서 셋바람으로 흩어 버리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하는 날 나는 그들에게 얼굴 대신 등을 보이리라. "

예레미야의 네 번째 고백

- 18 그들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 자, 예레미야를 없앨 음모를 꾸미자. 그자가 없어도 언제든지 사제에게서 가르침을, 현인에게서 조언을, 예언자에게서 말씀을 얻을 수 있다. 어서 혀로 그를 치고,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 무시해 버리자. "
- 19 주님, 제 말씀을 귀담아들어 주시고 제 원수들의 말을 들어 보소서.
- 20 산을 악으로 갚아도 됩니까? 그런데 그들은 제 목숨을 노리며 구덩이를 파 놓았습니다. 제가 당신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 주고 당신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리려 했던 일을 기억하소서.
- 21 그리하여 그들의 자녀들을 굶주리게 하시고 그들을 칼날에 부치소서. 그들의 아내들이 자녀도 없는 과부가 되고 그 남편들은 흑사병에 걸려 죽어 가며 젊은이들은 싸움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소서.
- 22 당신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악탈자를 보내실 때 그들 집 안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게 하소서. 그들이 저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파 놓고 저의 발밑에 올라타기를 숨겨 두었습니다.
- 23 주님, 당신께서는 그들이 저를 죽이려는 흉계를 모두 아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당신 얼굴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을 당신 앞에서 거꾸러지게 하시고 당신 분노의 때에 그들을 마구 다루소서.

질그릇을 깨며 예언하다

- 19** ¹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 가서 옹기장이의 단지를 하나 사라. 그리고 나서 백성의 원로들과 원로 사제 몇을 데리고
- ² ' 토기 문' 곁에 있는 ' 벤 힌눔 골짜기'에 나가,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일러 줄 말을 선포하여라.
- ³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 유다 임금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이제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리니, 그 소식을 듣는 자마다 귀가 멍멍해질 것이다.
- ⁴ 그들이 나를 저버리고, 자신들이나 저희 조상들이나 유다 임금들도 모르는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면서 이곳을 더럽히고, 이곳을 무죄한 이들의 피로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 ⁵ 그들은 바알의 산당들을 세우고 저희 자식들을 불에 살라 바알에게 번제물로 바쳤는데, 이는 내가 명령한 적도 말한 적도 없으며, 내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일이다.
- ⁶ 그러므로 이제 그날이 오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에는 이곳이 더 이상 토벳이나 벤 힌눔 골짜기가 아니라 살육의 골짜기라 불릴 것이다.
- ⁷ 나는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겠다. 그들을 원수들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게 하고,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손에 죽게 하겠다. 또한 그들의 시체는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먹이로 내어 주겠다.
- ⁸ 나는 이 도성을 폐허와 놀림감으로 만들겠다.

다. 그리하여 여기를 지나는 사람마다 그 모든 상처를 보고 몹시 놀라고 비웃을 것이다.

- ⁹ 나는 그들이 제 아들딸들의 살을 먹게 하겠다. 그들은 원수들이 자신들을 포위한 채 목숨을 노리며 조여 오는 극심한 재난 가운데에서, 저마다 제 이웃의 살을 먹을 것이다. '
- ¹⁰ 그때 너는 함께 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단지를 깨뜨려라.
- ¹¹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하여라. '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옹기장이가 다시는 주워 맞출 수 없게 질그릇을 깨 버리듯이, 내가 이 백성과 이 도성을 그렇게 부수겠다. 장사 지낼 곳이 없어 사람들은 결국 토벳에서 장사를 지내야 할 것이다.
- ¹² 이곳과 여기 사는 주민들을 이렇게 만들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 도성을 토벳처럼 만들어 놓겠다.
- ¹³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임금들의 궁궐도 토벳 터처럼 더럽혀질 것이다. 집집마다 지붕 위에서 사람들이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향을 피우고 다른 신들에게 술을 따라 올린 탓이다. ' "
- ¹⁴ 그 뒤 예레미야는 주님께서 그곳에서 예언하라고 파견하신 토벳에서 돌아와 주님의 집 앞뜰에서 서서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 ¹⁵ "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보라, 이제 내가 이 도성과 부근의 성읍마다 그 위에 이미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마다하고 목을 뻗뻗하게 한 까닭이다. ' "

예레미야와 파스후르

- 20** ¹ 주님의 집 총감독인 임메르의 아들 파스후르 사제가 이런 일을 예언하

- 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서,
- 2** 예레미야 예언자를 때리고 그를 주님의 집 '벤야민 윗대문' 안에 있는 기둥에 묶어 놓았다.
- 3** 다음 날 파스후르가 예레미야를 기둥에서 풀어 놓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파스후르가 아니라 마고르 미짜빔이라 부르실 것이오."
- 4**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보라, 내가 너를 너 자신과 네 모든 친구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또한 네 친구들은 네가 지켜보는 가운데 원수들의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내가 온 유다를 바빌론 임금의 손에 넘겨주니, 그가 그 주민들을 바빌론에 유배시키고 그들을 칼로 죽일 것이다.'
- 5** 또한 내가 이 도성의 온갖 채물과 생선품과 귀중품을, 그리고 유다 임금들의 온갖 보물을 원수들 손에 넘기겠다. 그러면 원수들은 그것들을 약탈하고 가로채 바빌론으로 가져갈 것이다.
- 6** 파스후르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도 바빌론에 유배될 것이다.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친구들도 모두 거기에서 죽어 그곳에 묻힐 것이다."

예레미야의 다섯 번째 고백

- 7** 주님, 당신께서 저를 피시어 저는 그 꺾여 넘어갔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압도하시고 저보다 우세하시니 제가 날마다 놀림감이 되어 모든 이에게 조롱만 받습니다.
- 8** 말할 때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폭력과 억압뿐이다!" 하고 외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날마다 치욕과 비웃음 거리만 되었습니다.
- 9** '그분을 기억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작정하여도 뺏속에 가두어 둔 주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

처럼 타오르니 제가 그것을 간직하기에 지쳐 더 이상 견뎌 내지 못하겠습니다.

- 10** 군중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기 마고르 미짜빔이 지나간다!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가까운 친구들마저 모두 제가 쓰러지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속아 넘어가고 우리가 그보다 우세하여 그에게 복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 11** 그러나 주님께서 힘센 용사처럼 제 곁에 계시니 저를 박해하는 자들이 비틀거리고 우세하지 못하리이다. 그들은 성공하지 못하여 크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들의 수치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으리이다.
- 12** 의로운 이를 시험하시고 마음과 속을 꿰뚫어 보시는 만군의 주님 당신께 제 송사를 맡겨 드렸으니 당신께서 저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소서.
- 13** 주님께 노래 불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가난한 이들의 목숨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셨다.

어찌하여 내게 생명의 선물을 주셨는가

- 14** 저주를 받아라, 내가 태어난 날! 복을 받지 마라,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
- 15** 저주를 받아라, "당신에게 사내아가 태어났소!" 하며 아버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여 그를 몹시 기쁘게 한 사람!
- 16** 바로 그 사람을 주님께서 사정없이 뒤엎으신 성읍처럼 되게 하여라. 아침에는 울부짖음을, 한낮에는 전쟁의 함성을 듣게 하여라.
- 17** 그가 모태에 든 나를 죽여 어머니가 내 무덤이 되고 내가 언제까지나 모태에 있지 못하게 한 탓이다.
- 18**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나와 고난과 슬픔을 겪으며 내 일생을 수치 속에서 마감해야 하는가?

유다 임금들에게 내린 신탁

치드키야에게 내린 응답

21 ¹ 치드키야 임금이 딸기야의 아들 파스후르와 마야세야의 아들 스바니아 사제를 예레미야에게 보냈을 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린 말씀.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부탁하였다.

² "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니, 우리를 위해 제발 주님께 문의해 주시오. 행여 주님께서 예전처럼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어, 네부카드네자르를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 주실지도 모르지 않소?"

³ 그러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 치드키야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⁴ '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 이제 너희가 성벽 밖에서 너희를 포위하고 있는 바빌론 임금과 칼데아인들을 공격하려고 손에 든 전쟁 무기를 내가 거두어, 그것들을 이 도성 한복판에 모아 놓겠다.

⁵ 그리고 분노와 노여움과 무서운 진노 속에서 내가 손을 뻗치고 강한 팔을 휘둘러 너희에게 맞서 싸우겠다.

⁶ 내가 이 도성에 사는 것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치라니, 그들이 무서운 흑사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

⁷ 주님의 말씀이다. 그다음 이 도성에서 흑사병과 칼과 굶주림으로부터 살아남은 자들, 곧 유다 임금 치드키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을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와 그들의 원수들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손에 넘기겠다. 그러면 네부카드네자르는 그들을 칼날로 치고,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거나 그들을 불쌍히도 가없이도 여기지 않을 것이다.

⁸ 이 백성에게 말하여라. —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이제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놓아둔다.

⁹ 이 도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죽겠지만, 여기서 나가 너희를 포위하고 있는 칼데아인들에게 항복하는 자는 죽지 않고 제 목숨을 전리품으로 얻을 것이다.

¹⁰ 사실 나는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려고 이 도성을 마주 보고 있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 도성은 바빌론 임금의 손에 넘어가고, 그는 이 도성을 불태울 것이다. "'

임금들과 궁궐과 도성

¹¹ 유다 왕실에 대한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¹²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다향 집안아, 아침마다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착취당한 자를 압제자의 손에서 구해 주어라. 그러지 않으면 나의 진노가 불처럼 튀어나가 아무도 끌 수 없게 타오르리라. 이는 너희의 악한 행실 탓이다.

¹³ 골짜기에 사는 자야, 평지에 솟은 비위야 — 주님의 말씀이다. — 너희는 ' 누가 우리를 치러 내려오고 우리 거처까지 쳐들어 오겠느냐?' 하지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맞서겠다.

¹⁴ 나는 너희 행실의 결과에 따라 너희를 벌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예루살렘 숲에 불을 질러 그 불이 그 들레를 모두 삼키게 하리라."

22 ¹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유다 왕궁으로 내려가서 이 말을 전하여라.

²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 다향 왕좌에 앉은 유다 임금아, 이 성문으로 들어오는 네 신하들과 백성과 더불어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 3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정과 정의
를 실천하고 착취당한 자를 압제자의 손에
서 구해 주어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
롭히거나 학대하지 말고,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라.
- 4 너희가 정녕 이 말대로 실천한다면, 더위 왕
좌에 앉은 임금들이 병거와 군마를 타고, 신
하들과 백성과 더불어 이 왕궁의 성문으로
들어올 것이다.
- 5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나 자
신을 걸고 맹세하건대, — 주님의 말씀이다.
— 이 왕궁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 6 유다 왕실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
십니다. '너는 내게 길앗과도 같고 레바논
산 꼭대기와도 같으나 맹세코 내가 너를 광
야로 만들고 아무도 살지 않는 성읍들로 만
들리라.
- 7 나는 저마다 무기를 손에 들고 너를 파괴할
자들을 떼어 놓으리라. 그들이 너의 가장 좋
은 향백나무들을 베어 내어 그것들을 불에
던지리라.' "
- 8 수많은 민족들이 이 도성을 지나가면서, 서
로 제 이웃에게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이
큰 도성을 이렇게 만드셨는가?" 하고 물을
것이다.
- 9 그러면 그들은 "저들이 주 그들의 하느님
과 맺은 계약을 저버린 채 다른 신들을 예
배하고 섬겼기 때문이다." 하고 대답할 것
이다.

살롬의 운명

- 10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애도하지 마
라. 오히려 멀리 떠나가는 자를 위하여 슬
피 울어라. 그가 다시 돌아와 제가 태어난
땅을 보는 일이 없으리라.
- 11 요시야의 아들 살롬은 제 아버지 요시야
다음에 유다 임금이 되어 다스리다가 이곳
에서 떠나가야 했다. 그를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그는 이곳으로 다시
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 12 그는 포로로 끌려간 거기에서 죽어 다시는
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 13 불행하여라, 불의로 제집을 짓고 부정으로
누각을 쌓는 자! 그는 제 이웃에게 거저
일을 시키고 아무런 품삯도 주지 않는다.

여호아힘의 운명

- 14 " 나 자신을 위해 넓은 집을 짓고 널찍한
방들이 딸린 누각도 쌓아라." 하면서 그
는 제집에 창고를 만들어 달고 향백나무
판자를 붙인 다음 붉은색을 칠한다.
- 15 내가 향백나무를 쓰는 일로 으스스하다 해서
임금 노릇을 하는 줄 아니냐? 네 아버지는
먹고 마시면서도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느냐? 그러기에 그가 잘되었다.
- 16 가난하고 궁핍한 이의 송사를 들어주었기
에 그가 잘된 것이다. 이야말로 나를 알아
모시는 일이 아니냐? 주님의 말씀이다.
- 17 그러나 너의 눈과 마음은 오로지 제 부정
한 이익을 돌보고 무죄한 이의 피를 흘리
며 억압과 폭력을 일삼는 일이나 쫓아 갔
다.
- 18 그러므로 주님께서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
들 여호아힘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무도 그를 위하여 애곡하지 않으리라. "
아이고, 나의 형제여! 아이고, 자매여!"
아무도 그를 위하여 애곡하지 않으리라. "
아이고, 임금님! 아이고, 패하!"
- 19 사람들은 노새를 문듯 그를 문으리라. 그를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문 밖에 멀리 내던지
리라.

예루살렘의 탄식

- 20 레바논으로 올라가서 외쳐라. 바산에서 너
의 목소리를 높여라. 아비람에서 외쳐라.
너의 정부들이 모두 파멸할 것이다.
- 21 내가 안정을 누릴 때 너에게 일렀건만 너

는 " 듣지 않겠어요!" 하고 마다하였다. 너의 말을 듣지 않는 버릇은 네 젊은 시절부터 있어 왔다.

22 바람이 너의 목자들을 모두 몰아가고 너의 정부들도 유배되리니 너는 온갖 죄악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23 레바논에 자리 잡고 향백나무들 가운데 보금자리를 마련한 자야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과 같은 고통이 너에게 닥칠 때 너는 얼마나 괴롭게 신음할까?

콘야의 운명

24 내가 살아 있는 한, — 주님의 말씀이다. — 유다 임금 여호아킴의 아들 콘야 네가 내 오른손에 낀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빼어 버리겠다.

25 내가 너를 네 목숨을 노리는 자들 손에, 네가 두려워하는 자들 손에, 나아가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손과 칼데아인들의 손에 넘기겠다.

26 나는 너와, 너를 낳아 준 어머니를 너희가 태어나지 않은 다른 땅으로 내던지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27 그들은 그토록 돌아오고 싶어 하던 땅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28 이 사람 콘야는 깨어져 쓸모없는 옹기인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그릇인가? 어찌하여 그는 제 자식들과 함께 내던져졌는가? 어찌하여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땅으로 내팽개쳐졌는가?

29 땅아, 땅아, 땅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30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이 사람을 지식 없는 자로 기록하여라. 그는 자기 생애에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그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다윗 왕좌에 앉아 다시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나오지 않으리라."

미라의 임금 메사야

23 ¹ 불행하여라, 내 목장의 양 떼를 파멸시키고 흩어 버린 목자들! 주님의 말씀이다.

2 —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을 두고 말씀하신다. — 너희는 내 양 떼를 흩어 버리고 몰아냈으며 그들을 보살피지 않았다. 이제 내가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벌하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3 그런 다음 나는 내가 그들을 쫓아 보냈던 모든 나라에서 살아남은 양들을 다시 모아 들여 그들이 살던 땅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들은 출산을 많이 하여 번성할 것이다.

4 내가 그들을 돌보아 줄 목자들을 그들에게 세워 주리니,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잃어버리는 양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5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로운 썩을 돌이나게 하리라. 그 썩은 임금이 되어 다스리고 슬기롭게 일을 처리하며 세상에 공경과 정의를 이루리라.

6 그의 시대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리라.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 주님은 우리의 정의'라고 부르리라.

7 그러므로 이제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살아 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하지 않고,

8 그 대신 " 이스라엘 집안의 후손들을 북쪽 땅에서, 그리고 당신께서 쫓아 보내셨던 모든 나라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살아 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할 것이다. 그때에 그들은 자기 고향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예언자들의 과오

9 예언자들에 대하여. 내 심장이 내 안에서 터지고 내 모든 뼈가 떨린다. 나는 술 취한 사

람처럼 술에 전 인간처럼 되었으니 이는 주님 때문이요 그분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10 참으로 이 땅은 간음하는 자들로 가득하니 저주 때문에 땅이 슬퍼하고 광야의 풀밭이 매말라 간다. 그들의 행로는 악하고 그들의 권세는 옳지 못하다.

11 예언자도 사제도 불경스럽고 내 집에서조차 그들의 죄악이 보인다. 주님의 말씀이다.

12 그러므로 그들의 길은 미끄러운 통로와 같다. 그들은 어둠 속으로 떠밀려 그곳에서 넘어지리라. 징벌의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사마리아 예언자들보다 악한 예루살렘 예언자들

13 나는 사마리아 예언자들에게서 고약한 일을 보았다. 그들은 비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잘못 이끌었다.

14 나는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도 망측한 일을 보았다. 그들은 간음을 하고 거짓 속을 걷는다. 또 악을 저지르는 자들의 손을 거둔다. 그리하여 아무도 제 악에서 돌아서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나에게 소돔처럼 되고 그 주민들은 고모라처럼 되어 버렸다.

15 — 그러므로 저 예언자들을 두고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이제 내가 그들에게 쉰훅쑥을 먹이고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리라. 불경죄가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온 땅으로 번져 나갔기 때문이다.

16 —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너희에게 예언하는 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희망을 붙여놓고 있다. 그들은 제 마음에서 나온 환시를 말하고 있을 뿐 주님의 입에서 나온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

17 그들은 나를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줄곧 말한다. " 주님께서서는 너희가 평화를 누릴 것이라고 하신다." 제 고집스러운 마음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도 말한다. " 재앙이 너희에게 닥칠 리 없다."

18 누가 주님의 어전 회회에 참석하여 그분의 말씀을 보고 들었느냐? 누가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느냐?

주님의 분노

19 보라, 주님의 폭풍이, 그 노여움이 터져 나온다. 회오리치는 폭풍이 사악한 자들의 머리 위로 휘몰아친다.

20 주님께서서는 마음속에 뜻하신 바를 이행하고 이루시기까지 주님의 분노를 거두지 않으시리라. 훗날에야 너희는 그것을 분명히 깨달으리라.

21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달려 나가고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예언을 한다.

22 그러나 그들이 내 어전 회회에 참석했다면 내 말을 내 백성에게 들려주어 백성이 악한 길에서, 악한 행상에서 돌아서게 하였으리라.

온 우주에 계신 주님

23 내가 가까운 곳의 하느님이지만 하고 먼 곳의 하느님은 아닌 줄 아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24 사람이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내가 그를 보지 못할 줄 아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꿈정과 알곡

25 나는 예언자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며 이렇게 말한다. " 나는 꿈을 꾸었네, 꿈을 꾸었네!"

26 언제까지나 이런 일이 계속되어야 하는가?

거짓을 예언한 저 예언자들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 있는가? 그들은 제 마음의 속임수를 예언할 뿐이다.

- 27 그들은 자기네 조상들이 바알 때문에 내 이름을 잊었듯이, 서로 주고받는 꿈 이야기들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도록 흥계를 꾸미고 있다.
- 28 꿈을 꾸 예언자는 꿈 이야기를 하도록 버려두고, 내 말을 받은 이는 충실하게 그 말씀을 전하게 하여라. 쪽정이가 알곡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 29 나의 말이 불과 같고 바위를 부수는 망치와 같지 않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 30 그러므로 이제 내가 저희끼리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예언자들에게 맞서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 31 내가 "주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제 혀를 놀려 대는 예언자들에게 맞서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 32 이제 내가 거짓 꿈을 예언하고 거짓말과 허황된 말로 내 백성을 잘못 인도하는 예언자들에게 맞서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결코 그들을 보낸 적이 없으며 그들에게 명령한 적도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런 이익도 주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짐이 되는 주님의 말씀

- 33 이 백성이, 또는 어떤 예언자나 사제가 너에게 "무엇이 주님의 짐이오?" 하고 물으면, 너는 이렇게 대답하여라. "너희가 그 짐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내던져 버리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 34 또한 "말씀은 주님의 짐이다." 하고 말하는 예언자나 사제나 백성이 있으면, 내가 그와 그의 짐안에 벌을 내리겠다.
- 35 너희는 이웃이나 동기 간에 서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는가?" 또 "주님

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고 말해야지

- 36 더 이상 "주님의 짐이다." 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 저마다 그 말이 자신에게 짐이 되기 때문이다. — 너희는 살아 계신 하느님, 만군의 주 우리 하느님의 말씀을 왜곡하였다. —
- 37 그러므로 너는 예언자에게 물을 때 "주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소?" 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소?" 하고 말하여라.
- 38 그러나 너희가 "주님의 짐이다." 하고 말하면, —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주님의 짐이다.' 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일렀는데도 너희가 "주님의 짐이다."라는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 39 나는 반드시 너희를 들어 올렸다가, 너희를 그리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도성을 내 앞에서 내던져 버리겠다.
- 40 내가 너희에게 잊지 못할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수모를 가져다주겠다.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시

- 24 ¹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 주셨다. 그것은 바벨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유다 임금 여호야קים의 아들 여콘야와 유다의 제후들과 장인들과 대장장이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뒤였다.
- 2 한 광주리에는 만물 무화과처럼 매우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으나, 다른 광주리에는 너무 나빠 먹을 수 없는 매우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다.
- 3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무화과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매우 좋은 것이고, 나쁜 무화과는 너무 나빠 먹을 수 없는

- 것입니다."
- 4 그러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 5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내가 이곳에서 칼데아인들의 땅으로 내쫓은 유다의 유배자들을 이 좋은 무화과 처럼 좋게 보아 주겠다.
- 6 나는 그들이 잘되게 눈길을 주고, 그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부수지 않겠으며, 그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
- 7 나는 그들에게 내가 주님임을 알아보는 마음을 주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 8 —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그러나 유다 임금 치드키야와 그의 제후들, 이 땅에 남아 있는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과 이집트 땅에서 사는 자들은 너무 나빠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다루겠다.
- 9 내가 그들을 세상의 모든 나라에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고, 내가 그리로 몰아낸 모든 곳에서 수치와 속담 거리와 비웃음 거리와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 10 또한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을 보내어, 내가 그들과 그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유배 이전에 한 예레미야의 예언 요약

- ㉞** 1 유다 임금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킴 제사년, 곧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 원년에 온 유다 백성을 두고 예레미야에게 내린 말씀.
- 2 예언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 3 " 유다 임금 이몬의 아들 요시아 제사삼년 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말씀이 스물세 해 동안 나에게 내렸고, 나는 그것을

- 여러분에게 줄곧 전했으나 여러분은 듣지 않았습니다.
- 4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모든 종들, 곧 예언자들을 줄곧 보내셨으나, 여러분은 듣지도 않았고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 5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너희는 제발 저마다 제 악한 길과 악한 행실에서 돌아오너라. 그러면 주님이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예로부터 영원히 준 땅에서 살 것이다.
- 6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들을 섬기고 예배하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들로 나를 진노케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해치지 않겠다.
- 7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너희 손으로 만든 것들로 나를 진노케 하여 너희 스스로를 해쳤다.'
- 8 그러므로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 9 이제 나는 북쪽의 모든 족속들을, 나의 종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에게 불러 모으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저들을 데려와 이 땅과 이곳의 모든 주민과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치게 하여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을 폐허와 놀림감과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겠다.
- 10 그리고 그들에게서 기쁜 소리와 즐거운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 땃들질과 등잔 빛을 사라지게 하겠다.
- 11 이 땅은 온통 황무지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의 민족들은 일흔 해 동안 바빌론 임금을 섬길 것이다.
- 12 그러나 그 일흔 해가 끝난 뒤에는 내가 바빌론 임금과 저 민족도 그들의 잘못을 물어 칼데아인들의 땅과 함께 벌하고, 그들을 영원한 폐허로 만들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 13 나는 저 땅을 거슬러 한 모든 말을, 예레미

아가 모든 민족들을 거슬러 예언한 일이 이 책에 기록된 대로 그곳에 이루어 놓겠다.

- 14 이제는 참으로 바빌론 사람들이 많은 민족과 큰 임금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행실과 그들 손으로 만든 것에 대해 그들에게 되갚아 주겠다."

이민족들에 관한 신탁

- 15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이 분노의 술잔을 내 손에서 받아라.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민족들에게 이 잔을 마시게 하여라.
- 16 그들은 이 잔을 마시고 내가 그들 가운데에 보내는 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미치게 될 것이다."
- 17 그리하여 내가 주님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모든 민족들에게 마시게 하였다.
- 18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의 주민들, 그 임금들과 제후들이 마시게 하여 그들을 오늘처럼 황무지와 폐허, 놀림감과 저주가 되게 하였다.
- 19 또한 이집트의 임금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제후들과 그의 모든 백성,
- 20 모든 혼합 종족들과 우츠 땅의 모든 임금과 필리스티아 땅의 모든 임금, 아스클론과 가자와 에크론 주민들과 아스투의 남은 자들,
- 21 에돔과 모압과 암몬인들,
- 22 티로의 모든 임금과 시돈의 모든 임금과 바다 건너 해안 지방의 임금들,
- 23 드단과 테마와 부즈의 주민들과 관자늘이의 머리를 민 모든 자들과,
- 24 아라비아의 모든 임금과 사막에 사는 혼합 종족의 모든 임금들,
- 25 지브리의 모든 임금과 엘람의 모든 임금과 메디아의 모든 임금,

- 26 멀고 가까운 북쪽 땅 곳곳의 모든 임금 하나하나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리하여 땅 위에 있는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마시게 하였다. 마침내 세삭 임금도 마시게 될 것이다.
- 27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 보내는 칼로 말미암아 너희는 마시고 취하며, 토하고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마라.'"
- 28 그러나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마다하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그 잔을 마셔야 한다.
- 29 보라, 내 이름으로 불리는 그 도성에 내가 재앙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너희가 별받지 않을 수 있었느냐? 너희는 별받지 않을 수 없으리니,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칼을 불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 30 그러므로 너는 이 모든 말로 그들을 거슬러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고향치시고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지르신다. 그분께서 당신의 목장을 향해 큰 소리로 고향치시고 포도를 밟는 자들처럼 땅의 모든 주민에게 호령하신다.
- 31 벽력 같은 소리가 땅 끝까지 미친다. 참으로 주님께서 민족들과 사비를 가리시고 그분께서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며 사악한 자들을 칼에 넘기신다. 주님의 말씀이다.
- 32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재앙이 민족에서 민족으로 퍼져 나가고 거센 폭풍이 땅 맨 끝에서 일어나리라.'"
- 33 그날 주님께 죽임을 당한 자들이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널려 있는데도, 그들을 애도할 사람이 없고, 그들을 거두어 묻어 줄 사람도 없으리니, 그들은 땅바닥에 텅구는 거름이 될 것이다.

- 34 목자들이, 통곡하고 울부짖어라. 양 떼의 지도자들이, 땅에 뒹굴어라. 너희가 살해 될 날이 다 차 오고 있다. 그러면 너희는 흠어지고 값비싼 그릇이 깨지듯 쓰러지리라.
- 35 목자들은 아무런 피신처도 없고 양 떼의 지도자들은 아무런 도피처도 없으리라.
- 36 목자들이 울부짖는 저 소리! 양 떼의 지도자들의 저 통곡 소리! 주님께서 저들의 목장을 황폐하게 만드시기 때문이다.
- 37 주님의 타오르는 분노로 평화로운 목장이 황폐해지는구나.
- 38 그분께서는 사자처럼 굴을 떠나셨다. 정녕 압제자의 분노와 그분의 타오르는 분노로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는구나.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신약

- 유다와 예레미야의 삶 -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 26 ¹ 유다 임금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킴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내리셨다.
- 2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주님의 집 뜰에 서서, 주님의 집에 예배하러 오는 유다의 모든 성읍 주민들에게, 내가 너더러 그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한 모든 말을 한바디도 빼놓지 말고 전하여라.
- 3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저마다 제 악한 길에서 돌아설지도 모른다. 그러면 나도 그들의 악행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려는 재앙을 거두겠다.
- 4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너희 앞에 세워 둔 내 법대로 걷지 않는다면,
- 5 또 내가 너희에게 잇달아 보낸 나의 종 예

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 사실 너희는 듣지 않았다. —

- 6 나는 이 집을 실로처럼 만들어 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
- 7 사제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은 주님의 집에서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 8 그리고 예레미야가 주님께서 온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모두 마쳤을 때, 사제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이 그를 붙잡아 말하였다. "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 9 어찌하여 네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집이 실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아무도 살 수 없는 폐허가 되리라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님의 집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몰려들었다.
- 10 유다의 대신들은 이 소문을 듣고 왕궁에서 주님의 집으로 올라와, ' 주님의 새 대문' 입구에 앉았다.
- 11 그러자 사제들과 예언자들이 대신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 여러분의 귀로 들으신 것처럼 이 사람은 이 도성을 거슬러 예언하였으니 그를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 12 이에 예레미야가 모든 대신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이 집과 도성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으신 이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 13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길과 행실을 고치고, 주 여러분의 하느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것입니다.
- 14 이내 몸이야 여러분 손에 있으니 여러분이 보기에 좋을 대로 바르게 나를 처리하십시오.
- 15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 두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면, 여러분 자신과 이 도성과 그 주민들은 죄 없는 이의 피를 흘린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

게서는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시어, 여러분의 귀에 대고 이 모든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 16 그러자 대신들과 온 백성이 사제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사형당할 만한 죄목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주 우리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하였습니다."
- 17 이때 지방의 원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일어나 거기 모인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 18 "모래셋 출신 미카가 유다 임금 히즈키야 시대에 예언하였는데, 그가 온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시온은 갈아엎어져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폐허 더미가 되며,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수풀 언덕이 될 것이다.'"
- 19 그런데도 유다 임금 히즈키야와 온 유다 백성이 그를 죽였습니까? 오히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자비를 간청하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큰 재앙을 우리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예언자 우리아의 운명

- 20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또 있었으니 키르얏 여아림 출신 스미아의 아들 우리아였다. 그도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으로 이 도성과 이 나라를 거슬러 예언하였다.
- 21 여호야킴 임금은 자기의 모든 용사와 모든 대신과 더불어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죽이려고 찾았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아는 두려워서 이집트로 도망갔다.
- 22 그러자 여호야킴 임금은 악보르의 아들 엘나탄에게 몇 사람을 떨어져서 그들을 이집트로 보냈다.
- 23 그들이 이집트에서 우리아를 잡아내어 그를 여호야킴 임금에게 데려오자, 여호야킴 임금은 그를 칼로 쳐 죽이고 그 시체를 서

민 공동묘지에 던져 버렸다.

- 24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관의 아들 아히캄의 도움으로, 백성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지는 않게 되었다.

행복과 재앙 사이의 선택

- 27 ¹ 유다 임금 요시아의 아들 치드키아가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서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 2 주님께서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끈과 나무로 멩에를 만들어 그것을 목에 메어라.
- 3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애돔 임금과 모압 임금과 암몬 자손들의 임금과 티로 임금과 시돈 임금에게, 유다 임금 치드키야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절단들의 손에 돌려 보내라.
- 4 또한 그 주군들에게 이러한 말도 전하여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너희 주군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 5 '큰 권능과 뻗은 팔로 이 세상과 거기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든 이는 바로 나다. 나는 이 세상을 내가 보기에 올곧은 이에게 주겠다.
- 6 이제 나는 이 모든 나라를 나의 종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 손에 맡겼고, 들짐승 까지도 그에게 맡겨 그를 삼킬 것이다.
- 7 모든 민족들이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삼킬 것이다. 그런 다음 그의 나라에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많은 민족들과 큰 임금들이 그를 종으로 삼을 것이다.
- 8 그러나 어느 민족이나 왕국이든지 이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를 섬기지 않고 바빌론 임금의 멩에 밑에 제 목을 내밀지 않으면, 내가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그 민족을 징벌하여, 그의 손으로 그들을 없애 버리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 9 너희는 바빌론 임금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너희의 예언자들과 점쟁이들과 해몽가들과 요술사들과 마술사들의 말을 듣지 마라.
- 10 그들이 너희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이다. 너희는 결국 고향 땅에서 멀리 쫓겨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몰아내고 멸망시키겠다.
- 11 그러나 바빌론 임금의 땅에 밭에 제 목을 내밀고 그를 섬기는 민족은, 고향 땅에 남아 농사를 지으며 그곳에서 살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
- 12 나는 유다 임금 치드키야에게도 이러한 말을 하였다. " 여러분은 바빌론 임금의 땅에 밭에 여러분의 목을 내밀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 13 어찌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은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죽으려 합니까? 주님께서 바빌론 임금을 섬기지 않는 민족은 누구나 그와 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 14 여러분은 바빌론 임금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예언자들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예언한 것은 거짓입니다.
- 15 주님의 말씀입니다. '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는 너희에게 예언한 예언자들과 더불어 멸망할 것이다.' "
- 16 나는 사제들과 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집 기물들이 이제 곧 바빌론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예언하는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거짓을 예언합니다.
- 17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빌론 임금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 도성이 불모지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 18 그러므로 그들이 예언자라면, 또 주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있다면, 그들은 주님의 집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기물들이 더 이상 바빌론으로 가지 않도록 만군의 주님께 간청해야 할 것입니다.
- 19 만군의 주님께서 기둥과 큰 바다 모형과 받침대와 아직 이 도성에 남아 있는 다른 기물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20 ' 그것들은 바빌론 임금 내부카드네자르가 유다 임금 여호아킴의 아들 여콘야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유배시킬 때에 함께 가져가지 않은 것들이다.'
- 21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주님의 집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기물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22 ' 그것들은 바빌론으로 옮겨져 내가 찾을 때까지 그곳에 남아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 뒤에 내가 그것들을 다시 가져와 제자리에 돌려 놓겠다.' "

예레미야와 거짓 예언자 하난야의 대립

- 28 ¹ 같은 해, 곧 유다 임금 치드키아의 통치 초기 제사년 다섯째 달에, 기브온 출신의 예언자이며 아쭈르의 아들인 하난야가 주님의 집에서 사제들과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에게 말하였다.
- 2 "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내가 바빌론 임금의 명을 물리 부수기로 하였다.
- 3 두 해 안에, 바빌론 임금 내부카드네자르가 이곳에서 가져가 바빌론으로 옮겨 놓은 주님의 집 모든 기물들, 내가 이곳에 다시 돌려 놓겠다.
- 4 바빌론으로 끌려간 유다 임금 여호아킴의 아들 여콘야와 유다의 모든 유배자들을 이 자리에 다시 데려다 놓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정녕 바빌론 임금의 명을 물리 부수겠

- 다."
- 5 그러자 예레미야 예언자가 사제들과, 주님의 집 안에 서 있는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난야 예언자에게 말하였다.
- 6 예레미야 예언자가 말하였다. " 아무렴, 주님께서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소! 주님께서 당신이 예언한 말을 실현시키시어, 주님의 집 모든 기물과 모든 유배자를 바빌론에서 이곳으로 옮겨 주시기를 바라오.
- 7 그러나 이제 내가 당신의 귀와 온 백성의 귀에 전하는 이 말씀을 들어 보시오.
- 8 예로부터, 나와 당신에 앞서 활동한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들에게 전쟁과 재앙과 흑사병이 닥치리라고 예언하였소.
- 9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가 참으로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로 드러나는 것이오."
- 10 그러자 하난야 예언자가 예레미야 예언자의 목에서 멩애를 벗겨 내어 부수었다.
- 11 그리고 나서 하난야는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하였다. "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내가 두 해 안에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멩애를 모든 민족들의 목에서 벗겨 이와 같이 부수겠다.'" 그러자 예레미야 예언자는 자기 길을 떠났다.
- 12 하난야 예언자가 예레미야 예언자의 목에서 멩애를 벗겨 부순 뒤에,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 13 " 가서 하난야에게 말하여라. '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너는 나무 멩애를 부수고, 오히려 그 대신에 쇠 멩애를 만들었다.'
- 14 참으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내가 이 모든 민족들의 목에 쇠 멩애를 씌우고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것이다. 나는 들짐승까지도

그에게 넘겨주었다.' "

- 15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난야 예언자에게 말하였다. " 하난야, 잘 들으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이 백성을 거짓에 의지하게 하였소.
- 16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 내가 너를 땅 위에서 치워 버리리니, 올해에 내가 죽을 것이다. 너는 주님을 거슬러 거역하는 말을 하였다."
- 17 하난야 예언자는 그해 일곱째 달에 죽었다.

첫 번째 유배자들에게 보낸 편지

- 29 ¹ 이 글은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잡아간 유배자들 가운데 살아남은 원로들과 사제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 2 그것은 여롄야 임금과 그 모후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대신들과 장인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뒤였다.
- 3 편지는 유다 임금 치드키아가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에게 보낸, 사판의 아들 엘아사와 힐키아의 아들 그마르야를 통하여 바빌론에 전달되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하다.

그곳에 정착하여라

- 4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유배 보낸 모든 유배자들에게 말씀하신다.
- 5 "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지어 정착하고, 과수원도 만들어 그 열매를 따 먹어라.
- 6 아내를 맞아들여 아들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을 장가보내고 너희 딸들을 시집보내어, 그들도 아들딸을 낳고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 7 또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유배 보낸 그곳에서 그 성읍의 평화를 구하고, 그 성읍을 위

하여 주님에게 기도하여라. 너희의 평화가 그 성읍의 평화에 달려 있다.

8 —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너희 가운데에 있는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이 너희를 속이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너희가 꿈 꾸는 풀이하려고 하지 마라.

9 그들이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하는 예언은 거짓이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10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너희가 바빌론에서 일흔 해를 다 채우면 내가 너희를 찾아, 너희를 이곳에 다시 데려오리라는 은혜로운 나의 약속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겠다.

11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몸소 마련한 계획을 분명히 알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것은 평화를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계획이 아니므로,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한다.

12 그러니 너희가 나를 부르며 다가와 나에게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들어 주겠다.

13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14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 운명을 되돌려 주어, 내가 너희를 쫓아 보낸 모든 민족들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 오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를 유배 보냈던 이곳으로 너희를 다시 데리고 오겠다."

15 너희는 "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빌론에서 예언자들을 일으켜 주셨다." 하고 말한다.

고국에 남아 있는 유대인들도 벌을 받으라

16 주님께서 다윗 왕좌에 앉아 있는 임금과 이 도성에 살고 있는 온 백성, 곧 너희와 함께 유배되지 않은 너희 형제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17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이제 내가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을 보내고, 그들을 너무 나빠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18 내가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그들을 쫓아가, 그들을 세상의 모든 나라에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고, 내가 그리로 몰아낸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저주와 놀람과 놀람감과 수치의 대상이 되게 하였다.

19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나의 종 예언자들을 잇달아 그들에게 보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20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쫓아 보낸 모든 유배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21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고 있는 콜리아의 아들 아합과 미아세아의 아들 치드키야를 두고 하는 말이다. 내가 이제 그들을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손에 넘기면, 그가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22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바빌론에 살고 있는 유대의 모든 유배자들 사이에, ' 주님께서 너를 바빌론 임금이 화형에 처한 치드키야와 아합처럼 만들어 버리시리라.' 하는 저주가 생겨날 것이다.

스미아의 편지

23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추잡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들은 제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고, 내가 명령하지도 않은 거짓말을 내 이름으로 하였다. 이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24 너는 네헬람 사람 스미아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 25 "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너는 예루살렘에 있는 온 백성과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 사제와 모든 사제들에게, 너의 이름으로 이렇게 편지를 써 보냈다.
- 26 ' 주님께서 여호야다 사제 대신 당신을 사제로 세우신 것은, 당신이 주님의 집 관리자가 되어, 예언자 행세를 하는 미친 자들을 붙잡아 기둥에 묶고 목에 칼을 씌우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 27 그런데 지금 당신은 어찌하여 당신들에게 예언자 행세를 하는 아나톨 사람 예레미야를 꾸짖지 않습니까?
- 28 사실 그는 바빌론에 있는 우리에게, 아직 때가 멀었으니 집을 지어 정착하고 과수원도 만들어 그 열매를 따 먹으라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
- 29 스바냐 사제는 예레미야 예언자가 들도록 이 편지를 읽었다.
- 30 그때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 31 " 모든 유배자들에게 전하여라. — 주님께서 네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는 너희에게 예언을 하며 너희를 거짓에 의지하게 하였다.
- 32 —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내가 네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후손들을 징벌하겠다. 그의 후손 가운데에는 이 백성과 어울려 살 자가 아무도 없고, 내 백성을 위해 내가 베푸는 복을 누릴 자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가 주님에게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회복

마침

30

- 1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2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책에 적어라.

- 3 보라, 그때가 오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에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운명을 되돌리겠다. —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다시 그들을 데려와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징벌의 회상

- 4 이는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 5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공포의 소리가 들린다. 평화는 없고 두려움뿐이다.
- 6 남자가 해산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아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보기에 남자들이 모두 해산하는 여인처럼 손으로 배를 움켜잡고 있느냐? 어찌하여 얼굴이 모두 창백하게 변하였느냐?
- 7 아아 그날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무서운 날이다. 야곱에게 닥친 환난의 때다. 그러나 야곱은 그 환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해방과 심기

- 8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그의 목에서 땅을 벗겨 부수고 그의 사슬을 끊어, 더 이상 이방인들이 그를 종으로 부리지 못하게 하겠다.
- 9 그러면 그들은 주 그들의 하느님을 섬기고, 내가 그들에게 일으켜 줄 임금 다윗을 섬길 것이다.
- 10 나의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아,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너의 후손을 포로살이하던 땅에서 구원해 내리라. 야곱이 돌이와 평안히 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편안히 살리라.
- 11 내가 정녕 너를 구하기 위해 너와 함께 있

오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너를 모든 민족들 사이로 쫓아 버렸지만 이제 정녕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고 공정하게 징벌하리라. 나는 결코 너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리라.

- 12 —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의 부상은 심하다.
- 13 네 종기에 치료 약이 없고 너에게 새살이 돋지 않으리라.
- 14 네 장부들은 모두 너를 잊어버리고 너를 찾지 않으리라. 참으로 나는 네 원수를 시켜 너를 내리쳤으니 그것은 가혹한 훈계였다. 너의 죄악이 많고 허물이 컸기 때문이다.
- 15 어찌하여 내가 다쳤다고, 네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고 소리치느냐? 네 죄악이 많고 허물이 커서 내가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린 것이다.
- 16 그러나 너를 삼킨 자들이 모두 삼켜지고 네 원수들이 모두 유배되리라. 너를 악탈한 자들이 악탈당하고 너를 탈취한 자들이 탈취당하리라.
- 17 참으로 내가 너에게 건강을 되돌려 주고 너의 상처를 고쳐 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비록 그들이 너를 두고 " 시온은 버림 받은 여자, 아무도 찾지 않는 여자"라 부르더라도 그렇게 하리라.

주님 백성의 회복

- 18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내가 야곱 천막의 운명을 되돌려 주고 그의 거처를 기없이 여겨 그 언덕에 성읍을 세우고 궁궐도 제자리에 세게 하리라.
- 19 그들에게서 감사의 노래와 흥겨운 소리가 터져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고 내가 그들을 영예롭게 하리니 그들이 멸시당하지 않으

리라.

- 20 그들의 자손들은 옛날처럼 되고 그 공동체는 내 앞에서 굳건해지며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은 모두 내가 벌하리라.
- 21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통치자가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도록 하여 나에게 다가오게 하리라. 그러지 않으면 누가 감히 나에게 다가오겠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 22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리라."

주님의 폭풍

- 23 보라, 주님의 폭풍이, 그 노여움이 터져 나온다. 회오리치는 폭풍이 사악한 자들의 머리 위로 휘몰아친다.
- 24 주님께서서는 마음속에 뜻하신 바를 이행하고 이루시기까지 주님의 타오르는 분노를 거두지 않으시리라. 훗날에야 너희는 그것을 깨달으리라.

잘 가꾸어진 땅에서 새 출몰을 하라

- 31 ¹ 그때에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 2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칼을 피해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스라엘이 제 안식처를 찾아 나섰을 때
- 3 주님께서 먼 곳에서 와 그에게 나타나셨다. " 나는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그리하여 너에게 한결같이 재애를 베풀었다.
- 4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우면 네가 일어서리라. 내가 다시 손복을 들고 흥겹게 춤을 추며 나오리라.
- 5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밭을 만들리니 포도를 심은 이들이 그 열매를 따 먹으리라.

6 에프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이렇게 외칠 날이 오리라. ' 일어나 시온으로 올라가 주 하나님께 나아카자! "'

주님께서 당신 백성과 함께 시온에 도착하시다

7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야곱에게 기쁨으로 환호하고 민족들의 으뜸에게 환성을 올려라. 이렇게 외치며 찬양하여라. ' 주님, 당신 백성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 하소서!'

8 내가 이제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려오고 땅 끝에서 모아들이리라. 그들 가운데에는 눈먼 이와 다리저는 이 아이를 뺀 여인과 아이를 낳는 여인도 함께 있으리라. 그들이 큰 무리를 지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9 그들은 울면서 오리니 내가 그들을 위로하며 이끌어 주리라. 물이 있는 시냇가를 걷게 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곧은길을 걷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었고 에프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다

10 민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먼 바닷가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 이스라엘을 흠으신 분께서 그들을 모아들이시고 목자가 자기 양 떼를 지키듯 그들을 지켜 주시리라."

11 장님 주님께서 야곱을 구하셨고 그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12 이제 그들은 시온 언덕에 올라와 환호하며 주님의 선물인 곡식과 햇포도주와 햇기름 새끼 양과 송아지들을 받고 밝게 웃으리라. 그들의 마음은 물 댄 동산 같아 다시는 시들지 않으리라.

13 그때에는 처녀가 춤추며 기뻐하고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하리라. 나는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그들을 위로하며 근심 대신 즐거움을 주리라.

14 나는 사제들에게 기름진 것을 실컷 먹이고

내 백성을 내 선물로 배부르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슬픔과 위로

15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라미에서 소리가 들린다. 비통한 울음소리와 통곡 소리가 들려온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운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16 —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네 울음소리를 그치고 네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라. 네 노고가 보상을 받아 그들이 원수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17 네 앞날은 희망이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네 자녀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리라.

18 에프라임이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 갈들지 않은 송아지 같은 저에게 주님께서 순종을 가르치시어 제가 순종을 배웠습니다. 저를 돌아가게 해 주소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19 저는 돌아오고 나서야 누워눕고 깨닫고 나서야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젊어서 부끄러운 일을 저지른 탓으로 치욕과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20 에프라임은 나에게 귀한 자식이요 귀여운 자식이 아니던가! 그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마다 더욱 그가 생각난다. 그러니 내 마음이 그를 가없이 여기고 그를 몹시도 가여워하지 않을 수 없다. 주님의 말씀이다."

처녀 이스라엘에게 호소하다

21 너 자신을 위하여 길에 이정표를 세우고 꺾말을 막아 놓아라. 내가 다녔던 큰길 작은 길을 깊이 헤아려 보아라.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내가 살던 이 성읍들로 돌아오너라.

22 배반한 딸아 언제까지 해매려느냐? 주님께서 세상에 새것을 창조하셨으니 여자가 남자를 쫓아다니는 것이다.

유다의 회복

- 23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내가 그들의 운명을 되돌릴 때, 그들은 유다의 땅과 성읍들에서 이런 말을 다시 할 것이다. ' 정의의 보급자야 거룩한 산아 주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신다.' "
- 24 유다와 그 모든 성읍과, 농부들과 가축을 몰고 떠돌아다니는 자들도 그곳에 다 같이 살게 될 것이다.
- 25 나는 지친 사람들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고 허약해진 사람들을 모두 배불리 먹이겠다."
- 26 여기에서 내가 깨어나 보니, 잠이 달콤하였다.

새 질서, 새 정의

- 27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에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
- 28 전에 내가 뽑고 허물고 부수고 없애며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지켜보았듯이, 이제는 세우고 심으려고 그들을 지켜보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 29 그날에 그들은 더 이상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자식들의 이가 시다." "
- 30 오히려 인간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신 포도를 먹은 사람은 모두 제 이만 실 것이다.

새 계약

- 31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에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겠다.
- 32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에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그들은 내가 저희 남

편인데도 내 계약을 깨뜨렸다. 주님의 말씀이다.

- 33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맺어 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 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 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 34 그때에는 더 이상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영원한 사랑

- 35 낮을 밝히라고 해를 주시고 밤을 밝히라고 달과 별들에 질서를 정하신 분, 파도 소리 요란하게 바다를 뒤흔드시는 분, 그 이름 만군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36 " 정해진 이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 주님의 말씀이다. — 이스라엘의 후손도 내 앞에서 영원히 한 민족으로 남아 있으리라.
- 37 —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누가 위로 하늘을 채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헤아릴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이 저지른 온갖 소행 탓에 그들을 모두 내던져 버릴 수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침범할 수 없는 마태의 도성

- 38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에 주님을 위하여 도성이 ' 하난엘 탑에서 ' 모퉁이 성문'에 이르기까지 세워질 것이다.
- 39 측량줄이 가랩 언덕까지 똑바로 더 나아갔

다가 고아 쪽으로 돌아갈 것이다.

- 40 그리고 나서 시체와 깃털미로 가득 찬 골짜기 전체와 ' 키드론 골짜기', 그리고 동쪽 ' 말 문' 모퉁이에 이르는 모든 지역이 주님의 거룩한 땅이 되어, 영원히 다시 뽑히거나 부수어지지 않을 것이다.

유다의 회복을 알리는 상징적 행위

- 32** 1 유다 임금 치드키야 제십년, 곧 네 부카드네자르 제십팔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 2 그때에 바빌론 임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고, 예레미야 예언자는 유다 왕궁 경비대 울안에 갇혀 있었다.
- 3 그를 감옥에 가둔 유다 임금 치드키야가 말하였다. " 어찌하여 그대는 이러한 예언을 하는 것이오? '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론 임금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도성을 차지할 것이다.
- 4 유다 임금 치드키야도 칼데아인들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반드시 바빌론 임금 손에 넘겨져, 그와 직접 말하면서 그의 얼굴을 마주 보게 될 것이다.
- 5 그가 치드키야를 바빌론으로 데려가면, 치드키야는 내가 찾을 때까지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칼데아인들에게 맞서 싸워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
- 6 그러자 예레미야가 말하였다. "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내렸습니다.
- 7 '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므엘이 너에게 와서, ' 구원자 권한이 너에게 있으니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 다오' 하고 말할 것이다.'
- 8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내 사촌 하나므엘이 경비대 울안으로 저를 찾아와 말하였습니다. ' 벤야민 지방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게. 그 밭의 소유권은 자네 것이고 구원자 권한

도 자네에게 있으니, 그것을 자네가 사게.' 그때 저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9 저는 아나돗에 있는 제 사촌 하나므엘에게서 밭을 사기로 하고, 은 열일곱 세겔을 달아 그에게 주었습니다.
- 10 저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봉인한 다음, 증인들을 세우고 그 은을 저울에 단 것입니다.
- 11 저는 규정과 조건을 담아 봉인한 때에 계약서와 봉인하지 않은 계약서를 받았습시다.
- 12 그런 다음 저는 사촌 하나므엘이 보는 앞에서, 때때 계약서에 서명한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경비대 울안에 앉아 있던 모든 유다인이 보는 앞에서 때때 계약서를 마흐세아의 손자이며 네리아의 아들인 바룩에게 넘겨주었습니다.
- 13 그러면서 저는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당부하였습니다.
- 14 '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이 계약서들, 곧 봉인한 때때 계약서와 봉인하지 않은 계약서를 오랜 세월 보관할 수 있도록 옹기그릇에 넣어라.'
- 15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사람들이 이 땅의 집과 밭과 포도원들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
- 16 저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때때 계약서를 넘겨주고 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 17 ' 아, 주 하느님, 당신께서는 큰 권능과 빠른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으니, 당신께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 18 자애는 천대에 걸쳐 보여 주시지만, 조상들의 죄값은 다음 자손들에게 갚으십니다. 위대하시고 존엄하신 하느님, 당신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십니다.
- 19 계획하시는 일이 위대하시고 하시는 일이

거창하신 분, 눈을 드시어 사람들의 모든 길을 살펴보고, 저마다 제 길과 제 행실의 결과에 따라 갠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20 당신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기적들을 일으키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사람들 가운데 그 일을 계속하시어 이처럼 당신 이름을 떨치셨습니다.

21 당신께서는 표징과 기적들, 강한 손과 뻗은 팔, 그리고 무서운 공포로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22 당신께서는 그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23 그들이 들어와 이 땅을 차지했지만, 당신 말씀을 듣지 않고 당신 가르침에 따라 걷지 않았으며, 당신께서 실행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실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이 모든 재앙을 불러들이셨습니다.

24 도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공격 축대들이 쌓아 올려졌고, 마침내 칼과 굽주림과 흑사병 때문에 이 도성은 이곳을 공격하는 칼테아인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것을 당신께서 보고 계십니다.

25 그런데도 주 하느님, 당신께서는 저에게 분부하시기를, 돈을 주어 받을 사고 증인들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 도성이 칼테아인들의 손에 넘어갔는데도 말입니다."

26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27 " 나는 주님이며 모든 인간의 하느님이다. 무엇이 나에게 어려운 일이나?

28 —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내가 이 도성을 칼테아인들의 손과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손에 넘기겠다. 그러면 그가 이 도성을 차지할 것이다.

29 이 도성을 공격하는 칼테아인들이 들어와, 이 도성에 불을 지르고 그곳을 태울 것이

다. 지붕 위에서 바알에게 향을 피우고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어 바쳐 나를 분노하게 한 집들도 태울 것이다.

30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다 자손들은 젊은 시절부터 내가 보기에 나쁜 짓만 저질러 왔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네 손으로 만든 것들로 나를 분노하게 할 뿐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31 이 도성은 사람들이 그것을 세울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에게 분노와 진노를 불러일으켰으므로 내 앞에서 그곳을 쓸어버리겠다.

32 임금과 대신들, 사제들과 예언자들, 유다 사람이나 예루살렘 주민 가릴 것 없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다 자손들이 모두 온갖 죄악을 저질러, 나를 분노하게 한 탓이다.

33 그들은 나에게 얼굴이 아니라 등을 돌렸다. 내가 그들을 줄곧 가르쳤건만, 그들은 순종하지도 훈계를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았다.

34 오히려 그들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 안에 역겨운 것들을 세워 그 집을 더럽혔다.

35 또한 그들은 '벤 힌놈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들을 짓고, 저희 아들딸들을 몰록에게 제물로 바쳤다. 이런 일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적도 없다. 유다에게 이따위 역겨운 일을 저질러 죄짓게 할 생각은 내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다."

36 그러므로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 도성을 두고 말씀하신다. " 너희는 이 도성이 칼과 굽주림과 흑사병으로 바빌론 임금 손에 넘어갔다고들 한다.

37 그러나 이제 내가 분노와 진노와 큰 노여움으로 그들을 쫓아 보냈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 이곳으로 데려와 편안히 살게 하겠다.

38 그러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39 내가 그들에게 한바둑과 한길을 주어, 그들

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고,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 뒤를 잇는 자손들까지도 잘되게 하겠다.

- 40 그때에 내가 그들과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니, 나는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잘되게 하겠다. 나는 그들의 마음속에 나에게 대한 경외심을 심어 주어, 그들이 나에게서 돌아서는 일이 없게 하겠다.
- 41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하는 일에 기쁨을 느끼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땅에 그들을 성실하게 심을 것이다."
- 42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백성에게 온갖 무서운 재앙을 내렸듯이, 이제 나는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온갖 좋은 것을 내려 주겠다.
- 43 너희는 지금 이 땅을 두고 사람과 짐승이 살지 않는 폐허가 되어 칼데아인들의 손에 넘어갔다고 하지만,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게 될 것이다.
- 44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에서, 유다 성읍들과 산악 지방 성읍들에서, 평원 지대 성읍들과 내겟 성읍들에서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사서, 계약서를 꾸미고 봉인한 다 음 증인을 세울 것이다. 내가 그들의 운명을 되돌렸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미래의 영광스러운 회복

- 33** ¹ 예레미야가 아직 경배대 울안에 갇혀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내렸다.
- ² 땅을 만드신 주님, 그것을 빚어 든든히 세우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분의 이름은 주님이시다.
- ³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대답해 주고, 내가 몰랐던 큰일과 숨겨진 일들을 너에게 알려 주겠다.
- ⁴ — 참으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공격

축대들과 같이 맞서 저항하다 파괴된 이 도성의 집들과 유다 왕궁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

- ⁵ 사람들이 칼데아인들과 싸우려 나오지만, 내가 분노와 진노로 내리친 사람들의 시체들로 그 집들이 가득 찰 것이다. 그들의 온갖 죄악 때문에 내가 이 도성에서 얼굴을 숨긴 것이다.
- ⁶ 그러나 이제 내가 이 도성에 건강과 치유를 가져다주겠다. 내가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넘치는 평화와 안정을 보여 주겠다.
- ⁷ 내가 유다의 운명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되돌리고, 그들을 처음처럼 다시 세우겠다.
- ⁸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에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 ⁹ 그리하여 이 도성은 내가 이곳 주민들에게 배운 온갖 좋은 것을 전해 들은 이 세상 모든 민족들 앞에서, 나에게 기쁜 이름과 찬양과 영광이 될 것이다. 이 도성을 위하여 내가 몸소 마련한 온갖 좋은 것과 온갖 평화를 보면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떨게 될 것이다."
- ¹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곳을 두고 너희 스스로 사람이나 짐승도 없는 폐허라고 하는 소리가 아직도 들리는구나. 그러나 사람이나 주민이나 짐승이 살지 않던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마다,
- ¹¹ 기쁜 소리와 즐거운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참으로 주님께서 선하시고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들은 주님의 집에 감사의 제물을 바치면서 그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이 땅의 운명을 처음처럼 되돌릴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말한다."
- ¹²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금은 사람도 짐승도 살지 않는 황폐한 이

곳과 모든 성읍에 목자들이 양 떼를 쉬게 할 목장이 다시 생겨날 것이다.

13 산악 지방 성읍들과 평원 지대 성읍들, 네 겹 성읍들과 벤야민 땅, 예루살렘 주변과 유다 성읍들에는 수를 세는 이의 손 밑으로 양들이 다시 지나갈 것이다. 주님이 말한다."

14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 그 때에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15 그날과 그때에 내가 다윗을 위하여 정의의 씨를 돌아나게 하리니, 그가 세상에 공정과 정의를 이룰 것이다.

16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 주님은 우리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17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이스라엘 집안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18 레위 지파 사제들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내 앞에서 번제물을 바치고 곡식 제물을 태워 바치며 희생 제물을 바칠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19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20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너희가 낮과 맺은 내 계약을 깨뜨리고 밤과 맺은 내 계약을 깨뜨려, 낮과 밤이 제때에 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면,

21 나의 종 다윗과 맺은 내 계약도 깨져 그의 왕좌에서 다스릴 아들이 나오지 못할 것이다. 나의 시종들인 레위 지파 사제들과 맺은 계약도 마찬가지다.

22 셀 수 없는 하늘의 군대와 헤아릴 수 없는 바다의 모래처럼, 나의 종 다윗의 후손과 나의 시종들인 레위인들을 불어나게 하겠다."

23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24 " 너는 이 백성이 ' 주님께서는 스스로 선택하신 두 가문을 내치셨다.'고 불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내 백성을 멸시하여, 그들이 보기에 다시는 한 민족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여긴다.

25 —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내가 만일 낮과 밤과 계약을 맺지 않고 하늘과 땅의 질서를 정해 놓지 않았다면,

26 아돔과 나의 종 다윗의 후손들을 내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다스릴 자들을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뽑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운명을 되돌리고 그들을 가없이 여기겠다."

치드키야의 운명

34 ¹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왕국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2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유다 임금 치드키야에게 가서 말하여라. 그에게 말하여라. —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내가 이제 이 도성을 바빌론 임금의 손에 넘기면 그가 그곳을 불태우리라.

3 너는 그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의 손에 사로잡혀, 바빌론 임금의 얼굴을 마주 보고 그와 직접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바빌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4 유다 임금 치드키야야,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너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너는 결코 칼에 맞아 죽지 않고

5 평화롭게 죽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의 조상들 곧 너보다 먼저 살았던 임금들에게 향을 피워 주었던듯이, 너에게도 향을 피워 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 아이고, 임금님!' 하며 너를 위해 애곡하여 줄 것이다. 정녕 내

가 이 말을 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 6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루살렘에서 이 모든 말씀을 유다 임금 치스키야에게 전하였다.
- 7 그때에 바빌론 임금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성읍을 모두 공격하고 있었는데, 유다에서 요새 성읍들 가운데 남은 성읍이라고는 라키스와 아제카뿐이었다.

히브리 종들에 대한 약속 위반

- 8 치스키야 임금이 해방을 선포하기로 예루살렘에 사는 온 백성과 계약을 맺은 다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 9 그 계약이란 모든 이가, 자신의 종이 남종이든 여종이든 히브리인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풀어 주어, 어느 누구도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아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 10 이렇게 자신의 남종과 여종을 풀어 주어 다시는 그들을 종으로 삼지 않겠다고 계약을 맺은 모든 대신들과 온 백성은 그 계약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들은 계약에 따라 종들을 풀어 주었다.
- 11 그러나 그들은 얼마 뒤 마음이 변하여, 자신들이 풀어 준 남종과 여종들을 도로 데려와 종으로 마구 부렸다.
- 12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내리셨다.
- 13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나는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내던 날, 너희 조상들과 계약을 맺으며 이렇게 일렀다.
- 14 ' 너희는 저마다 너희 동족 히브리인이 너희에게 팔려 와 여섯 해 동안 너희를 섬겼으면, 일곱 해가 끝날 때에는 그를 보내 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너희에게서 자유롭게 풀어 보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 15 너희는 오늘에서야 마음을 돌려, 내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너희는 저마다 제 이웃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 들어와,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

- 16 그러나 너희는 또 마음이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혔으니, 너희가 남종과 여종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풀어 주었다가 도로 데려와 다시 종으로 삼아 마구 부린 것이다.
- 17 —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너희는 저마다 제 동족과 이웃에게 해방을 선포하려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해방을 선포하니, 너희를 칼과 흑사병과 굶주림에 넘겨 너희를 세상 모든 왕국에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 18 나는 내 계약을 어긴 사람들을, 곧 내 앞에서 송아지를 두 토막으로 가르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맺은 계약의 규정들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그 송아지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 19 유다의 대신들과 예루살렘의 대신들, 내시들과 사제들을 비롯하여 갈라놓은 송아지 사이로 지나간 나라 백성을 모두
- 20 원수들 손에,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손에 넘기겠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시체는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 21 나는 유다 임금 치스키야와 그의 대신들을 그 원수들 손에,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손에, 너희에게서 물러난 바빌론 임금 군대의 손에 넘기겠다.
- 22 이제 내가 명령을 내려, 그 군대를 이 도성으로 도로 데려오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들이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태워 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유다 성읍들을 인적 없는 폐허로 만들겠다."

레갑인들의 교훈

- 35** ¹ 유다 임금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킴이 다스리던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 ² " 레갑 집안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주님의 집 어느 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라."
- ³ 그래서 나는 하바친야의 손자이며 예레미야의 아들인 아야잔야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모든 아들과 온 레갑 집안 사람들을 데려다가,
- ⁴ 주님의 집에 있는 방으로 인도하였다. 그 방은 하느님의 사람 익달야의 아들인 하란의 아들들이 쓰고 있었는데, 그 옆은 대신들의 방이었고 그 밑은 살룸의 아들이며 문지기인 마야세야의 방이었다.
- ⁵ 그때 내가 레갑 집안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가득 담긴 술 단지와 잔들을 내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였다.
- ⁶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께서 우리에게, ' 너희와 너희 아들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 ⁷ 그분은 또 ' 집도 짓지 말고 씨앗도 뿌리지 말며 포도밭을 가꾸거나 갖지도 말고, 그 대신 평생 천막에서 지내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이 땅에서 오래도록 살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 ⁸ 우리는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자신과 아내와 아들딸들이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 ⁹ 또한 살림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과 밭과 씨앗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¹⁰ 우리는 천막에서 지내며, 우리 조상 여호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¹¹ 우리는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이 나라를 쳐 올라왔을 때, 칼데아 군대와 아람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 ¹² 그때에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려다.
- ¹³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가서 말하여라. ' 너희는 끝내 교훈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내 말을 듣지도 않을 작정이냐? 주님의 말씀이다.
- ¹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그의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그들은 이 말을 잘 지켜 이날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참으로 그들은 자기네 조상들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그토록 줄곧 일했는데도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 ¹⁵ 나는 너희에게 잇달아 나의 종인 예언자들을 모두 보내면서, 저마다 제 악한 길에서 제발 돌아서라고, 너희 행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섬기려 그것들을 좇아가지 말라고 일렀다. 그래야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 수 있으리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았다.
- ¹⁶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자손들은 자기네 조상들이 내린 명령을 지켰지만, 이 백성은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 ¹⁷ —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보라, 내가 유대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그들을 거슬러 선고한 온갖 재앙을 내린다. 내가 그들에게 일렀지만 그들이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고, 내가 그들을 불렀지만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¹⁸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는 레갑 집인에게 말

하였다. "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너희는 너희 조상 여호나답의 명에 순종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켰으며, 그가 명한 모든 것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 19 —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에게서 언제나 내 앞에서 있는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바룩에게 받아쓰게 한 예레미야의 첫 신약들

- 36** ¹ 유다 임금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킴 제사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내리셨다.
- ² " 두루마리를 가져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모두 적어라. 그것은 그날부터, 곧 요시아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민족들을 거슬러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다.
- ³ 행여 유다 집안이 내가 그들에게 온갖 제앙을 내리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저마다 제 약한 길에서 돌아서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겠다."
- ⁴ 그래서 예레미야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불렀고, 바룩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불러 주는 대로 두루마리에 받아 적었다.
- ⁵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 나는 묶여 있는 몸이어서 주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
- ⁶ 그러나 단식일에 내가 주님의 집에 들어가, 내가 불러 준 대로 받아 적은 두루마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읽어 주어라. 또한 유다의 성읍들에서 온 모든 사람이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읽어 주어라.
- ⁷ 행여 그들의 간청이 주님 앞에 올라가고, 그들이 저마다 제 약한 길에서 돌아갈지도 모른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거슬러 선포하신

분노와 진노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 ⁸ 네리아의 아들 바룩은 예레미야 예언자가 자신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그대로 이행하여,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읽었다.
- ⁹ 유다 임금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킴 제오년 아홉째 달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모든 백성은 주님 앞에서 단식을 선언하였다.
- ¹⁰ 그때에 바룩이 주님의 집에서, 곧 주님의 집 ' 새 대문' 어귀 위 뜰에 있는, 사관 서기관의 아들 그마르야의 방에서 예레미야의 말이 적힌 두루마리를 온 백성에게 읽어 주었다.
- ¹¹ 사관의 손자이며 그마르야의 아들인 미카야가 두루마리에 적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 ¹² 왕궁의 서기관 방으로 내려가니, 거기에는 모든 대신이 있었다. 곧 엘리사마 서기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 악보르의 아들 엘나탄, 사관의 아들 그마르야, 하난야의 아들 치드키야를 비롯하여 모든 대신이 앉아 있었다.
- ¹³ 미카야는 바룩이 백성에게 두루마리를 읽어 주어 자신도 듣게 된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
- ¹⁴ 그러자 모든 대신은 쿠시의 증손이고 셀레므야의 손자이며 느탄야의 아들인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 그대가 백성에게 읽어 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오시오." 하는 말을 전하였다.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그들에게 오자,
- ¹⁵ 그들이 바룩에게 " 거기 앉아 우리에게 그 두루마리를 읽어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래서 바룩은 그들에게 두루마리를 읽어 주었다.
- ¹⁶ 그들은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놀라 서로 쳐다보다가 바룩에게 말하였다. " 우리가

- 이 모든 말씀을 임금님께 보고해야겠소."
- 17 그리고 나서 그들은 바룩에게, "당신이 어떻게 이 모든 말씀을 그의 입에서 받아 적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 18 바룩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입으로 직접 내게 이 모든 말씀을 불러 주어, 먹으로 두루마리에 받아 적었습니다."
- 19 그러자 대신들은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숨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 20 그런 다음 그들은 두루마리를 엘리사마 서기관의 방에 놓아두고, 궁전 뜰에 있는 임금에게 나아가 이 모든 말씀을 들려주었다.
- 21 임금은 여후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였다. 여후디는 엘리사마 서기관의 방에서 두루마리를 가져와, 임금과 그 곁에서 있는 모든 대신들에게 읽어 주었다.
- 22 마침 이흠째 달이어서 임금은 겨울 궁전에 머무르고 있었고, 그의 앞에는 화롯불이 타고 있었다.
- 23 그런데 여후디가 서너 단을 읽을 때마다, 임금은 서기관의 칼로 그것을 베어 화롯불에 던졌다. 이렇게 하여 두루마리 전체가 화롯불 속에 들어갔다.
- 24 임금과 신하들은 모두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두려워하거나 제 옷을 찢지 않았다.
- 25 엘나탄과 들리아와 그마르야가 임금에게 그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라고 간청까지 하였지만, 임금은 그들의 말을 듣기는커녕,
- 26 여라흐므엘 왕자와 아즈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드엘의 아들 셀레므야에게 명령하여, 바룩 서기관과 예레미야 예언자를 잡아 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숨겨 주셨다.
- 27 임금이 그 두루마리, 곧 바룩이 예레미야가

- 부르는 대로 받아적은 말씀을 태운 뒤,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 28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와, 유다 임금 여호야김이 태워 버린 첫째 두루마리에 적혀 있던 먼처럼 말을 모두 거기에 다시 적어라.
- 29 그리고 너는 유다 임금 여호야김에 관하여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바빌론 임금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파괴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애 버릴 것이라는 말을 두루마리에 썼느냐고 하면서 그것을 태워 버렸다.'
- 30 그러므로 주님께서 유다 임금 여호야김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후손 가운데 아무도 다윗 왕좌에 앉을 자가 없을 것이고, 그의 시체는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추위에 내던져질 것이다.
- 31 내가 그와 그의 후손과 그의 신하들의 죄를 물어 그들을 벌하겠다. 그들뿐 아니라 예루살렘의 주민들과 유다 사람들에게도, 내가 선포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던 온갖 재앙을 내리겠다.' "
- 32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와, 네리아의 아들 바룩 서기관에게 주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 주는 대로, 유다 임금 여호야김이 불에 태워 버린 두루마리에 적혔던 말씀을 모두 거기에 받아 적었고, 비슷한 내용의 많은 말씀을 더 적어 넣었다.

치드키아의 기도 요청

- 37 ¹ 요시아의 아들 치드키아가 여호야김의 아들 여콘야를 대신하여 임금이 되었다.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그를 유다 땅의 임금으로 앉힌 것이다.
- 2 그런데 치드키아와 그의 신하들과 나라 백성은,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 3 치드키야 임금은 켈레미아의 아들 여후칼과 마야세아의 아들 스바니야 사제를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보내면서, " 우리를 위하여 주 우리 하느님께 기도해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 4 그때에 예레미야는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 가운데에 드나들 수 있었다.

포위를 풀다

- 5 그 무렵 파라오의 군대가 이집트에서 출동하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칼데아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물러갔다.
- 6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내렸다.
- 7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나에게 물어보라고 너희를 보낸 유다 임금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 너희를 도우러 출동한 파라오의 군대는 제 나라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 8 그러면 칼데아인들은 다시 돌아와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태울 것이다.
- 9 —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너희는 칼데아인들이 너희에게서 물러갈 것이라고 하면서 너희 자산을 속이지 마라. 그들은 물러가지 않을 것이다.
- 10 너희를 공격하는 칼데아인들의 모든 군대를 너희가 쳐부수어 그들 가운데 부상당한 자들만 남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저마다 진지에서 일어나 이 도성을 불태울 것이다."

예레미야가 갇히다

- 11 칼데아인들의 군대가 파라오의 군대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물러갔을 때,
- 12 예레미야는 자기 친족들 가운데에서 상속 재산에 관한 일을 처리하려, 예루살렘에서 벤야민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다.
- 13 그가 ' 벤야민 성문'에 이르렀을 때, 하난

의 손자이며 켈레미아의 아들로 이름이 이르리아인 수문장이 예레미야 예언자를 붙잡고, " 당신은 지금 칼데아인들에게로 넘어가고 있소!" 하고 말하였다.

- 14 그러자 예레미야가 " 그렇지 않소. 나는 지금 칼데아인들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르리아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붙잡아 대신들에게 데려갔다.
- 15 대신들은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며 그를 때리고, 요나탄 서기관 집에 있는 구덩이에 가두었다. 사람들이 그곳을 감옥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 16 예레미야는 천장이 둥근 저수 동굴에 들어가, 오랫동안 그곳에 갇혀 있게 되었다.

치드키야가 예레미야를 은밀히 만나다

- 17 치드키야 임금이 사람을 시켜 예레미야를 데려왔다. 임금은 자기 궁궐에서 그에게 은밀히 물었다. "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지 않으셨소?" 예레미야가 "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계속해서 그는 " 임금님께서서는 바빌론 임금의 손에 넘겨질 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 18 그리고 예레미야는 치드키야 임금에게 호소하였다. " 제가 임금님이나 임금님의 신하들이나 이 백성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저를 감옥에 가두신 것입니까?
- 19 ' 바빌론 임금이 여러분과 이 나라를 치러 오지 않을 것이오.' 하고 여러분에게 예언하던 예언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 20 저의 주군인신 임금님, 제발 제 말씀을 들어 주십시오. 저의 간청을 들으시어 저를 요나탄 서기관의 집으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곳에 가면 저는 죽습니다."
- 21 치드키야 임금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 예레미야를 경비대 율안으로 옮기고, 도성의 빵이 모두 동이 날 때까지 날마다 빵

굽는 이들의 거리에서 빵을 날라다 그에게 주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경비대 울안에 머무르게 되었다.

예레미야가 물 없는 저수 동굴에 갇혔다가 풀려나다

38

¹ 마틴의 아들 스파르와 파스후르의 아들 그달야와 셀렘야의 아들 유칼과 말기야의 아들 파스후르가,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² "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이 도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죽겠지만, 칼대이인들에게 나가 항복하는 자는 죽지 않고 제 목숨을 전리품으로 얻어 살게 될 것이다.

³ —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이 도성은 반드시 바빌론 임금의 군대에게 넘어가 점령당할 것이다."

⁴ 그러자 대신들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 이런 자는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가 이 때위 말을 하여, 도성에 남은 군인들과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자는 이 백성의 안병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구하고 있습니다."

⁵ 이에 치드키야 임금은 " 자, 그의 목숨이 그 대들의 손에 달려 있소. 이 임금은 그대들의 말에 어찌할 수가 없으려." 하고 말하였다.

⁶ 그들은 예레미야를 붙잡아 경비대 울안에 있는 말기야 왕자의 저수 동굴에 집어넣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밧줄로 묶어 저수 동굴에 내려 보냈는데, 그곳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어서 그는 진흙 속에 빠졌다.

⁷ 왕궁에 에벳 멜렉이라는 에티오피아 사람 내시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저수 동굴에 넣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임금은 ' 뱀이된 성문'에 앉아 있었다.

⁸ 에벳 멜렉은 왕궁에서 나와 임금에게 가서 말하였다.

⁹ "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레

미야 예언자에게 한 일은 모두 악한 짓입니다. 그들이 그를 저수 동굴에 던져 넣었으니, 그는 거기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제 도성에는 더 이상 빵이 없습니다."

¹⁰ 그러자 임금이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 멜렉에게 명령하였다. "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서른 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죽기 전에 그를 저수 동굴에서 꺼내어라."

¹¹ 에벳 멜렉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의 의복 창고로 갔다. 거기에서 해진 옷과 누더기를 꺼내어 줄에 묶은 다음, 그것을 저수 동굴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내려 보냈다.

¹²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 멜렉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 해진 옷과 누더기를 양쪽 겨드랑이와 줄 사이에 끼워 넣으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자,

¹³ 그들은 줄을 당겨 예레미야를 저수 동굴 밖으로 끌어 올렸다. 그 뒤 예레미야는 경비대 울안에 머물렀다.

치드키야와 마지막으로 만나

¹⁴ 치드키야는 예레미야 예언자를 주님의 집 셋째 입구로 데려오게 하였다. 임금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 물겠으니 무엇이든 나에게 숨기지 마시오."

¹⁵ 예레미야가 치드키야에게 대답하였다. " 제가 임금님께 사실대로 이르면 임금님께서 반드시 저를 죽이실 것이고, 제가 임금님께 조언을 드린다 해도 임금님께서 제 말을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¹⁶ 그러자 치드키야 임금은 예레미야에게 은밀히 이런 맹세를 하였다. "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주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내가 그대를 죽이지도 않고 그대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손에 넘기지도 않을 것이오."

17 예레미야가 치드키야에게 말하였다. "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 내가 바벨론 임금의 대신들에게 나가 항복하기만 하면, 너의 목숨이 살아남고 이 도성이 불타지 않을 것이며, 너와 네 집안도 살아남게 될 것이다.

18 그러나 내가 만일 바벨론 임금의 대신들에게 나가 항복하지 않으면, 이 도성이 칼데아인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은 이 도성을 불태울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19 그러자 치드키야 임금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 나는 칼데아인들에게 넘어간 유대인들이 무섭소. 칼데아인들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학대할 것이요."

20 예레미야가 말하였다. " 칼데아인들이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제가 임금님께 전해 드린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임금님께서는 일이 잘되고 목숨도 구하실 것입니다.

21 그러나 임금님께서 항복하기를 거절하실 경우에,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 주신 사정은 이렇습니다.

22 유다 왕궁에 남은 여인들이 모두 바벨론 임금의 대신들에게 끌려가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 당신과 가까운 친구들이 당신을 속이고 멋대로 조종했지요. 그러고는 당신의 발이 진흙에 빠져 들자 그들은 등을 돌려 버렸지요.'

23 임금님의 모든 아내와 아들들은 칼데아인들에게 끌려갈 것이고, 임금님께서도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바벨론 임금에게 사로잡히시고 이 도성은 불탈 것입니다."

24 치드키야는 예레미야에게 당부하였다. "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려서는 안 되고, 그랬다가는 그대가 죽게 될 것이요.

25 내가 그대와 이야기했다는 소문을 대신들

이 듣게 되면, 그들이 그대에게 찾아와 ' 그대가 임금님께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숨기지 말고 우리에게 알려 주시오. 우리가 그대를 죽이지 않을 터이니, 임금님께서 그대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 주시오.' 하고 말할 것이요.

26 그러면 그대는, 요나단의 집으로 돌아가면 죽게 되니 그곳으로 보내지 말아 달라고 임금님께 간청하였다고만 말하십시오."

27 과연 대신들이 모두 예레미야를 찾아와 그에게 물었으나, 예레미야는 임금이 분부한 말마디 그대로만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대신들은 이야기 내용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28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는 날까지 경비대 울안에서 지냈다.

예루살렘이 점령당한 뒤의 일

39 ¹ 예루살렘이 점령당하였을 때 …….
유다 임금 치드키야 제구년 열째 달에, 바벨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모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

2 마침내 치드키야 제십일년 넷째 달, 그달 구일에 도성이 풀렸다.

3 바벨론 임금의 대신들이 모두 들어와 중앙대문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네르갈 사르 에체르, 삼가르 느부, 랍 사리스인 사르 스킴, 랍 막인 네르갈 사르에체르, 그리고 바벨론 임금의 다른 모든 대신들이었다.

4 유다 임금 치드키야와 모든 군인들은 그들을 보고, 밤을 틈타 왕실 정원 길을 따라서 성벽 사이의 통로를 지나 도성 밖으로 빠져나갔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아라바 쪽으로 갔다.

5 그러나 칼데아 군대는 그들을 뒤쫓아가, 예리코 벌판에서 치드키야를 사로잡았다. 그들이 그를 끌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에게 데려오자,

- 네부카드네자르는 그에게 판결을 내렸다.
- 6 바빌론 임금은 리블라에서 치드키아가 지쳐 보는 가운데 그의 아들들을 살해하였다. 바빌론 임금은 유다의 귀족들도 모두 살해하였다.
- 7 그런 다음 그는 치드키아의 두 눈을 뽑고 청동 사슬로 묶어, 그를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 8 칼데아인들은 왕궁과 민가를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었다.
- 9 느부자르아단 친위대장은 도성에 남아 있던 백성과, 자기에게 넘어온 자들과 그 밖에 남은 백성을 바빌론으로 잡아갔다.
- 10 그러나 이때 느부자르아단 친위대장은 가진 것 없는 일부 가난한 백성에게는 포도원과 밭을 주어, 유다 땅에 남겨 놓았다.
- 11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는 예레미야를 두고 느부자르아단 친위대장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
- 12 " 그를 데려다가 잘 보살펴 주어라. 그를 조금도 해쳐서는 안 된다.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에게 해 주어라."
- 13 느부자르아단 친위대장은 랍 사리스인 느부사즈반과 랍 막인 네르갈 사르에케르와 그 밖의 바빌론 임금의 모든 고관을 보내어,
- 14 경비대 울안에서 예레미야를 데려다, 사관의 손자이며 아히캄의 아들인 그달야에게 맡겨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백성 가운데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 에벳 멜렉의 구원**
- 15 예레미야가 아직 경비대 울안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 16 "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 멜렉에게 가서 말하여라. '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 이 도성에 복이

- 아니라 재앙을 내리겠다고 한 나의 말을 이제 내가 이루겠다. 이런 일이 바로 그날 네 앞에서 일어나겠지만,
- 17 나는 그날에 너를 전져 주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너는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 18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하여, 내가 칼에 맞아 쓰러지지 않게 하겠다. 나는 나를 신뢰하였으므로 네 목숨을 전리품으로 얻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 "

그달야와 더불어

- 40** 1 느부자르아단 친위대장이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풀어 준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그때에 느부자르아단은 예레미야를 쇠사슬로 묶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유배자들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고 가던 중이었다.
- 2 친위대장이 예레미야를 데려다 놓고 말하였다. " 주 그대의 하느님께서 이곳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셨는데,
- 3 그대로 이루셨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신 것이요, 그대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이런 일이 그대들에게 일어난 것이요.
- 4 이제 나는 오늘로 그대의 손에 묶인 쇠사슬을 풀어 주겠소. 그대가 만일 나와 더불어 바빌론으로 가는 것이 좋으면 같이 갑시다. 내가 그대를 잘 돌보아 주겠소. 그러나 나와 더불어 바빌론으로 가는 것이 싫으면 그만 두시오. 그대 앞에 있는 이 땅 어디든지, 적당하고 좋은 곳으로 떠나가시오.
- 5 그대가 여기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사관의 손자이며 아히캄의 아들인 그달야에게 돌아가 그와 더불어 백성 가운데에서 사시오. 그는 바빌론 임금이 유다의 성읍들을 맡겨 돌보게 한 사람이요, 그것도 싫으면 적당한 곳을 찾아 어디로든 떠나가시오." 그리고

나서 친위대장은 예레미야에게 길에서 먹을 양식과 선물을 주어 그를 떠나보냈다.

6 예레미야는 미츠파에 있는 아히캄의 아들 그달야에게 가서, 그와 더불어 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 가운데에서 살았다.

7 들만에 있던 모든 지휘관들과 그 부하들은 바빌론 임금인 아히캄의 아들 그달야에게 이 땅을 맡겨 돌보게 하고, 남자들과 여자들과 어린이들, 그리고 바빌론에 잡혀가지 않은 이 땅의 일부 가난한 이들도 그에게 맡겨 돌보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8 그들은 그달야를 만나러 미츠파에 왔다. 부하들을 거느리고 온 그들은 느탄야의 아들 이스마엘, 케레이의 아들 요하난과 요나탄, 탄후렛의 아들 스리아, 느드파 출신 에파이의 아들들과 마야가 출신 아야잔이었다.

9 사관의 손자이며 아히캄의 아들인 그달야는 그들과 그 부하들에게 맹세하며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칼데아인들을 섬기시오,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론 임금을 섬기시오. 그러면 그대들은 잘될 것이오.

10 나는 미츠파에 머물면서 우리를 찾아오는 칼데아인들을 상대하겠으니, 그대들은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들여 그릇에 담아 두고, 그대들이 차지한 어느 성읍에서든 사시오."

11 모압과 암몬 자손들과 에돔과 그 밖의 여러 나라에 있던 유대인들도 모두, 바빌론 임금이 유다에 사람들을 남겨 두고 사관의 손자이며 아히캄의 아들인 그달야에게 그들을 맡겨 돌보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12 그래서 유대인들은 쫓겨 간 모든 고장에서 그달야를 찾아 유다 땅 미츠파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풍성하게 모아들였다.

그달야가 살해되다

13 그러자 케레이의 아들 요하난을 비롯하여

들만에 있는 군대의 지휘관들이 모두 미츠파에 있는 그달야에게 와서

14 말하였다. "나리께서는 암몬 자손들의 임금 바알리스가 느탄야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내어, 나리의 목숨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그러나 아히캄의 아들 그달야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15 케레이의 아들 요하난은 미츠파에 있는 그달야에게 은밀히 청하였다. "제가 가서 아무도 모르게 느탄야의 아들 이스마엘을 살해하게 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그가 나리의 목숨을 빼앗아, 나리 주변에 모여든 유대인들이 모두 흩어지고 유다의 남은 자들이 망해야 한단 말입니까?"

16 그러나 아히캄의 아들 그달야는 케레이의 아들 요하난에게, "그대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오. 그대가 이스마엘에 관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소." 하고 말하였다.

41¹ 그해 일곱째 달에, 왕족 출신이자 임금의 대신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탄야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부하 열 명과 함께 미츠파에 있는 아히캄의 아들 그달야를 찾아왔다. 그들이 미츠파에서 식사를 함께 할 때,

2 느탄야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온 부하 열 명이 일어나, 사관의 손자이며 아히캄의 아들인 그달야를 칼로 내리쳤다. 그렇게 하여 이스마엘은 바빌론 임금이 그 땅을 맡겨 돌보게 한 그달야를 죽였다.

3 이스마엘은 미츠파에서 그달야뿐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유대인들과 거기 와 있는 칼데아 군인들도 쳐 죽였다.

4 그달야가 살해된 다음 날 아직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가운데,

5 스켄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 여든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 상처를 낸 채, 곡식 제물과 향료를 손에 들고 주님의 집에 바치러 왔다.
- 6 느탄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맞이하려고 미츠파에서 나왔다. 그는 울면서 걷다가 그들을 만나자, 그들에게 " 아히감의 아들 그달야를 보러 오시오." 하고 말하였다.
- 7 그들이 성안으로 들어오자, 느탄야의 아들 이스마엘은 제 부하들과 함께 그들을 살해하여 웅덩이에 버렸다.
- 8 그런데 그들 가운데 열 사람이 이스마엘에게 빌었다. " 제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밭에 숨겨 놓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마엘은 그들을 일행과 함께 죽이지 않고 살려 주었다.
- 9 이스마엘이 살해한 사람들의 시체를 던져 넣은 웅덩이는, 아사 임금인 이스라엘 임금 바사에게 맞서려고 만들었던 큰 웅덩이었다. 그 웅덩이를 느탄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주검으로 가득 채웠던 것이다.
- 10 이스마엘은 미츠파에 남아 있던 모든 백성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느부자르아단 친위 대장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야에게 맡겨 보살피게 하였던 공주들을 비롯하여 미츠파에 남아 있던 모든 백성이었다. 느탄야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들을 사로잡아, 암몬 자손들의 땅으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 11 그러나 카레이의 아들 요하난과 그의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이, 느탄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저지른 온갖 악한 짓들을 전해 듣고,
- 12 부하들을 모두 거느리고 느탄야의 아들 이스마엘을 공격하려고 출동하였다. 그들은 기브온에 있는 큰 못 가에서 이스마엘을 만났다.
- 13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카레이의 아들 요하난과 그의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을 보고 기뻐하였다.
- 14 미츠파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아 끌고 간

백성은 모두 뒤돌아서, 카레이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넘어갔다.

- 15 그러자 느탄야의 아들 이스마엘은 부하 여덟 명과 함께 요하난에게서 달아나 암몬 자손들에게로 갔다.
- 16 카레이의 아들 요하난과 그의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은 남은 백성을 다 떠맡았다. 그 백성은, 느탄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야를 죽인 뒤에 미츠파에서 잡아 끌고 가려 했으나, 요하난이 기브온에서 구출하여 데려온 장정과 군인과 여자와 아이와 내시들이었다.
- 17 그들은 다 같이 이집트를 향해 걷다가 베들레헬 근처 게롯 캄함에서 쉬었다.
- 18 그들은, 바빌론 임금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야에게 그 땅을 맡겨 돌보게 했는데, 느탄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를 죽였기 때문에 칼데아인들이 두려워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집트로 도망가다

- 42 ¹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과 카레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아사르야와, 낮은 자에서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 2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와서 말하였다. " 제발 당신에게 있드려 간청하니, 우리 남은 자들 모두를 위하여 주 당신의 하느님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사실 우리는, 당신이 보시다시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조금밖에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 3 주 당신의 하느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길과 해야 할 일을 알려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 4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 잘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이 청한 대로 주 여러분의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숨기지 않고 다 말하겠습니다."
- 5 그러자 그들도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 우

리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하신 증인이신 주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우리는 주 당신의 하느님께서 당신을 시켜 우리에게 내리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6 우리는 당신을 주 우리 하느님께 보내 드리는데,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잘될 것입니다."

7 열흘이 지난 다음,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8 예레미야가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의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과, 낮은 자에서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고

9 그들에게 말하였다. " 여러분이 나를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보내면서 여러분의 간청을 그분께 전해 달라고 하였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 '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부수지 않겠으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11 바빌론 임금을 너희가 두려워하는데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낼 터이니,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이다.

12 내가 너희를 기없이 여겨, 그를 시켜 너희에게 자비를 내리서 너희를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게 하겠다.

13 그러나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 저희는 이 땅에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한다면,

14 또한 ' 저희는, 전쟁도 겪지 않고 나팔 소리도 듣지 않으며 양식이 떨어져 굶주리지도 않을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살겠습니다.' 하고 말한다면,

15 그리고 너희가 이집트로 얼굴을 돌려 그곳에 들어가 산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유다

의 남은 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16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뒤쫓고, 너희가 무서워하는 굶주림이 이집트에서 너희를 붙좃아, 그곳에서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17 이집트 땅으로 얼굴을 돌려 그곳에 들어가는 자들은 모두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죽게 되어, 그들 가운데에는 내가 그들에게 내릴 재앙에서 벗어나거나 빠져나갈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18 —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가면,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나의 분노와 진노가 쏟아졌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악담과 공포와 저주와 수치의 대상이 되고, 다시는 이곳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19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 유다의 남은 자들이, 이집트로 들어가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똑똑히 알아 두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20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숨이 달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주 여러분의 하느님께 나를 보내면서, ' 우리를 위하여 주 우리 하느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 우리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알려 주시면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까.

21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려드렸는데, 여러분은 주 여러분의 하느님의 말씀을, 곧 그분께서 나를 보내시어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신 모든 분부를 듣지 않았습니다.

22 그러니 이제 똑똑히 알아 두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들어가 정착하고 싶어 했던 바로 그곳에서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 43** ¹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주 그들의 하느님의 모든 말씀, 곧 주 그들의 하느님께서 그를 시켜 그들에게 내리신 이 말씀을 모두 전했을 때였다.
- ² 호시아의 아들 아자르야와 카레아의 아들 요한과 고집 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소, 주 우리 하느님께서서는 이집트에 들어가서 정착하지 말라는 말을 하라고 당신을 보내셨을 리가 없소.
- ³ 이것은 분명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우리를 칼데아인들의 손에 넘겨,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바빌론으로 유배 보내게 하려고 당신을 부추긴 것이오."
- ⁴ 이렇게 카레아의 아들 요한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과 온 백성은, 유다 땅에 머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 ⁵ 오히려 카레아의 아들 요한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은 쫓겨난 온갖 나라에서 유다 땅에 정착하려고 돌아온 유다의 모든 남은 자들과,
- ⁶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공주들, 그리고 느부자르야단 친위대장이 사판의 손자이며 아히캄의 아들인 그달야에게 맡겨 놓은 모든 사람과, 예레미야 예언자와 네리아의 아들 바룩까지 데리고
- ⁷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타흐판헤스에 도착하였다
- ⁸ 타흐판헤스에서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 ⁹ "네 손으로 큰 돌들을 날라다, 타흐판헤스에 있는 파라오의 궁전 입구 포장된 광장에 유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묻어라.
- ¹⁰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나의 종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를 데려오겠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의 왕좌를 내가 묻은 이 돌들 위에 차리겠다. 그는 자신의 차일을 그 위에 칠 것이다.

- ¹¹ 그가 와서 이집트 땅을 치면, 죽을 자는 죽고,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혀 가고, 칼에 맞을 자는 칼에 맞을 것이다.
- ¹² 내가 이집트 신전들에 불을 지르겠다. 그러면 그는 신상들을 태우거나 그것들을 전리품으로 가져가고, 목자가 제 옷을 털 듯 이집트 땅을 턴 다음 이집트에서 평화로이 떠나갈 것이다.
- ¹³ 그는 이집트 땅에 있는 태양신전의 기념 기둥들을 부수고 이집트 신전들을 불태울 것이다."

- 44** ¹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 곧 므딕들과 타흐판헤스와 뎀피스와 파트로스 지방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을 두고,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 ²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불러들인 온갖 재앙을 보았다. 그곳들은 오늘날 황무지가 되어 아무도 살지 않는다.
- ³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도 너희도 너희 조상들도 모르는 다른 신들에게 가 향을 피우고, 그것들을 섬겨 나를 분노하게 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 ⁴ 나는 너희에게 잇달아 나의 종인 예언자들을 모두 보내면서, '제발 내가 싫어하는 이 역겨운 짓을 하지 마라.' 하고 타일렀다.
- ⁵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도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 저희의 사악함에서 돌아서지도 않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는 일을 그만두지도 않았다.
- ⁶ 그러자 나의 진노와 분노가 쏟아져, 유다 성

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타올랐다. 그리하여 그것들은 오늘날처럼 황무지와 폐허가 되어 버렸다."

7 이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어찌하여 너희는 스스로에게 큰 해를 끼쳐, 결국 너희 가운데 남자와 여자, 아이와 찻먹이까지 유다 한복판에서 쓰러져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게 하려느냐?"

8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가 정작하러 들어간 이집트 땅에서 다른 산들에게 향을 피우면서, 너희 손으로 만든 것들로 나를 분노하게 하느냐? 결국 너희는 스스로를 멸망시키고,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저주와 수치의 대상이 될 셈이나?

9 너희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저지른 너희 조상들의 죄악과 유다 임금들의 죄악과 왕비들의 죄악, 그리고 너희의 죄악과 너희 아내들의 죄악을 잊었느냐?

10 그들은 오늘까지도 뉘우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내린 가르침과 계명에 따라 걷지도 않았다."

11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제앙을 내리기로 마음을 굳혔다. 온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12 이집트 땅에 들어가 정착하기로 마음을 굳힌 유다의 남은 자들을 붙들어, 이집트 땅에서 모두 전멸시키겠다. 그들은 칼에 맞아 쓰러지고, 낮은 자부터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굶주림으로 전멸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칼과 굶주림으로 죽어, 악담과 공포와 저주와 수치의 대상이 될 것이다.

13 내가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예루살렘을 벌한 것처럼, 이집트 땅에 사는 자들도 그렇게 벌하겠다.

14 이집트 땅에 들어와 사는 유다의 남은 자들 가운데 피신자나 생존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가 살고 싶어 하던 유다 땅으로는 돌아갈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정녕 몇 명의 피신자들을 빼놓고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15 제 아내가 다른 산들에게 향을 피운다는 사실을 아는 모든 남자, 큰 무리를 지어 그곳에서 있던 모든 여자, 그리고 이집트 땅 파트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였다.

16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소."

17 우리는 우리가 결정한 것을 모두 실천하겠소. 우리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임금들과 대신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했던 대로, 하늘 여왕에게 향을 피우고 그 여신에게 술을 부어 바치겠소. 이제껏 우리는 양식도 넉넉하고 잘 지냈으며 제앙도 꺾지 않았소.

18 그런데 우리가 하늘 여왕에게 향을 피우는 일과 술을 부어 바치는 일을 그치자, 모든 것이 부족해지고 칼과 굶주림으로 망하게 된 것이오."

19 여자들도 말하였다. "우리가 하늘 여왕에게 향을 피우고 그 여신에게 술을 부어 바칠 때에, 남편들 모르게 그 여신의 모습대로 과자를 만들고 술을 부어 바쳤겠습니까?"

20 예레미야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온 백성에게, 곧 그렇게 대답한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21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과 임금들과 대신들과 나라 백성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향을 피운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지 않을 리가 있겠소? 그런 일이 그분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을 리가 있겠소?"

22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의 악행과 여러분이 저

지른 역겨운 행동을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었고, 그래서 여러분의 나라가 오늘처럼 인적 없는 황무지와 폐허가 되고 저주의 대상이 된 것이요.

23 여러분이 항을 파워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의 가르침과 계명과 권고에 따라 걷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재앙이 여러분에게 닥친 것이요."

24 예레미야는 온 백성과 모든 여자에게 말하였다. "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이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25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너희와 너희 아내들은 입으로 말한 것을 행동으로 다 이루었다. 너희는 하늘 여왕에게 항을 파우고 그 여신에게 술을 부어 바쳐, 너희가 한 서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하는구나. 너희 서약을 채울 때면 채워 보고, 너희 서약을 실천할 때면 실천해 보아라!'

26 그러므로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유대인이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 내가 나의 위대한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온 이집트 땅에서 어떤 유다 사람이라도, ' 주 하느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이라고 하면서 입으로 내 이름을 더 이상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

27 이제 나는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려고 지켜본다.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은, 칼과 굶주림으로 그들 가운데 마지막 사람까지 전멸할 것이다.

28 칼을 피하여 이집트 땅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그 수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집트 땅에 정착하려 들어온 유대의 남은 자들은 모두, 나와 그들 가운데 누구 말이 들어맞는지 알게 될 것이다.

29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주님

의 말씀이다. 나는 이곳에서 너희를 벌하여,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는 나의 말이 반드시 들어맞는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

30 —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이제 내가 유다 임금 치드키야를 그의 목숨을 노리던 원수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손에 넘겼듯이, 이집트 임금 파라오 호프라를 그의 원수들 손에,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손에 넘겨주겠다."

바룩의 구원

45 ¹ 예레미야 예언자가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한 말이다. 바룩은 유다 임금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킴 제사년에 예레미야의 입에서 직접 이 말씀을 받아 책에 적었다.

2 "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너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 ' 너는, ' 불행하여라, 이내 신세! 주님께서 내 고통에 슬픔을 더해 주시니,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고 안식을 찾을 수 없구나.' 하고 말한다.'

4 — 너는 바룩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나는 내가 세운 것을 부수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는데, 이 땅의 모든 일이 바로 그렇다.

5 너는 자신을 위하여 무슨 위대한 일들을 찾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더 이상 찾지 마라. 내가 정녕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나는, 네가 어디를 가든 너의 목숨을 구해 주겠다."

이민족들에 관한 신탁의 계속

이집트

카르키스 전투에서 패배하다

- 46** ¹ 이민족들을 두고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내린 주님의 말씀.
- ² 이집트에 대하여. 이는 유다 임금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킴 제사년에, 유프라테스 강 근처 카르키스까지 갔다가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에게 패배한, 이집트 임금 파라오 느크의 군대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 ³ 등근 방패와 네모 방패로 무장하고 싸우러 나아가라.
- ⁴ 말에 마구를 달고 군마에 올라타라. 투구를 쓰고 전열을 갖추며 창을 닦고 갑옷을 입어라.
- ⁵ 어찌하여 그들이 놀라 뒷걸음치는 광경이 보이느냐? 그들의 용사들이 패배하여 허둥지둥 도망치는데 돌아보지도 못한다. 사방에 공포뿐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 ⁶ 날엔 자도 도망칠 수 없고 용사도 달아날 수 없다. 그들은 저 북녘 유프라테스 강에서 비틀거리다 쓰러진다.
- ⁷ 나일 강처럼 불어나고 강물처럼 물결이 넘쳐 나는 저것은 무엇인가?
- ⁸ 바로 이집트가 나일 강처럼 불어나고 강물처럼 물결이 넘쳐 난다. 이집트가 말한다. "나는 불어나서 땅을 덮고 성읍과 그 주민들을 멸하리라.
- ⁹ 달려라, 말들아. 돌격하라, 병거들아. 진격하라, 용사들아. 방패를 든 에티오피아인들과 쫓은들과 활을 들고 쏘아 대는 루드인들도 진격하여라."
- ¹⁰ 그날은 주 만군의 주님을 위한 날, 그분께서 당신 원수들에게 복수하시는 날이다. 칼이 그들을 삼켜 배부르고 그들의 피를 흠뻑 마시리라. 정녕 주 만군의 주님께서 희생 제사를 북녘 땅 유프라테스 강에서 지내신다.
- ¹¹ 처녀 딸 이집트야 길앗으로 올라가 유향을 구해 오너라. 그러나 아무리 많은 약을 써

보아도 너의 병은 고칠 수 없으리라.

- ¹² 민족들이 너의 수치스런 소문을 듣고 세상 이 너의 울부짖음으로 가득 차리라. 용사가 용사와 부딪쳐 비틀거리다 둘 다 쓰러진다.

네부카드네자르의 이집트 원정

- ¹³ 주님께서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이집트 땅을 치러 온다고,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이렇게 일러 주셨다.
- ¹⁴ "너희는 이집트에 알려라. 막들에서 선포하고 멤피스와 타흐판헤스에서 선포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여라. '전열을 가다듬고 너의 각오를 다져라. 칼이 너의 주변을 삼키려 한다.'
- ¹⁵ 어찌하여 너의 황소가 거꾸러졌느냐? — 주님께서 후려치시니 그가 서 있을 수가 없었다. —
- ¹⁶ 너의 군중이 비틀거리다 쓰러지면서 서로 말한다. '일어나 우리 백성에게 돌아가자. 무자비한 칼을 피하여 우리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자.'
- ¹⁷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이름을 ' 기회를 놓친 허풍쟁이'라고 불러라.
- ¹⁸ 내가 살아 있는 한 — 그 이름 만군의 주님이신 임금님의 말씀이다. — 산들 가운데에서는 타보르 같고 바닷가에서는 카르멜 같은 자가 반드시 쳐들어온다.
- ¹⁹ 딸 이집트의 주민들이 유배 짐을 꾸려라. 멤피스가 폐허가 되고 불에 타 인적 없는 곳이 될 것이다.
- ²⁰ 이집트는 얼마나 어여쁜 암송아지인가! 그러나 북녘에서 쇠파리 떼가 그에게 날아든다.
- ²¹ 그곳에서는 용병들도 살진 송아지 같으나 환난의 날과 징벌의 때가 그들에게 닥치면 그들도 견뎌 내지 못하고 등을 돌려 함께 달아나고 만다.
- ²² 적군이 나무를 쓰러뜨리는 자들처럼 도끼

를 들고 쳐들어오면 이집트는 뱀처럼 스치는 소리를 내며 도망간다.

- 23 그 숲이 백백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배어 넘긴다. 주님의 말씀이다. 과연 그들은 메뚜기보다 많아 헤아릴 수 없다.
- 24 딸 이집트가 수치를 당하고 복讎 백성의 손에 넘어간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25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 내가 테베의 신 아몬과, 파라오와 이집트와 그 신들과 임금들과, 파라오와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하겠다.
- 26 내가 그들을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손에, 곧 바벨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와 그 신하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나 나중에 이집트는 예전처럼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 27 나의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너의 후손을 포로살이하던 땅에서 구원해 내리라. 야곱이 돌아와 평안히 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편안히 살리라.
- 28 나의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를 모든 민족들 사이로 쫓아 버렸지만 이제 정녕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고 공정하게 징벌하리라. 나는 결코 너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필리스티아

- 47 1 파라오가 가자를 치기 전에 필리스티아인들을 두고,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내린 주님의 말씀.
- 2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북녘에서 물이 불어나 넘쳐흐르는 강물이 되리라. 그 강

물이 땅과 그곳을 가득 메운 것을, 성읍과 그 주민들을 휩쓸어 가리라. 그곳 사람들이 울부짖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이 통곡하리라.

- 3 그 군마의 발굽 소리와 병자들이 구르며 내는 요란한 바퀴 소리에 아버지들은 맥이 풀려 자식들을 돌아보지도 못하리라.
- 4 필리스티아인들을 모두 멸하고 티로와 시돈의 원군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마저 모두 쓸어버릴 그날이 왔기 때문이다." 정녕 주님께서서는 캅토르 섬의 남은 자들인 필리스티아인들을 전멸시키시리라.
- 5 가지는 머리를 밀고 아스클론은 말문이 막힌다. 그 골짜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너희가 언제까지 스스로에게 상처를 내려느냐?
- 6 " 아! 주님의 칼이 언제나 내가 잠잠해지려느냐? 칼집에 다시 들어가 거기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 나오!" 한다미는
- 7 주님께서 그 칼에게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어찌 잠잠해지겠느냐? 그 칼은 아스클론과 바닷가를 치려고 그분께서 고르신 것이다.

모압

- 48 1 모압에 대하여.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불행하여라, 느보! 그 성읍이 파멸되었다. 키르야티임도 수치를 당하고 점령되었다. 그 요새가 수치를 당하고 무너졌다.
- 2 이제 모압의 명성은 끝났다. 적들이 헤스본에서 모압을 거슬러 악을 꾸었다. ' 자, 저 민족을 아예 없애 버리자.' 마드멘아, 너도 적막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는다.
- 3 호로나임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 참 화와 큰 파괴가 닥쳤다!' 하고 외친다.
- 4 ' 모압이 파괴되었다.' 하고 외치는 젊은이들의 소리가 들린다.
- 5 그들은 울며불며 루히트 고개를 올라간다. 호로나임으로 내려가는 길에서도 파괴되었다는 절망의 외침이 들린다.

- 6 너희는 도망쳐 목숨을 구하고 광야의 들나귀처럼 되어라.
- 7 너는 내가 만든 것들과 네 보호에 의지하였으니 너 또한 정복당하리라. 크모스 신도 그 사제들과 대신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리라.
- 8 파괴자가 모든 성읍에 쳐들어오면 어떤 성읍도 피하지 못하리니 골짜기는 파괴되고 고원 지대는 황폐해지리라. —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
- 9 모압에게 묘비를 세워 주어라. 그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모압의 성읍들은 폐허가 되어 그곳에 사는 이가 아무도 없으리라.
- 10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피 흘리는 일에서 칼을 거두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 11 모압은 어릴 때부터 편안하게 살았으며 찌꺼기가 곱게 가리얏은 포도주 같았다. 아무도 모압을 이 그릇 저 그릇에 옮겨 담지 않았고 포로로 끌고 가지도 않았다. 그리하여 맛이 그대로 남고 향기도 변하지 않았다.
- 12 내가 그를 쏟아 부을 사람들을 보내리니, 이제 그를 쏟아 버릴 때가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은 그의 그릇을 바꾸고, 그의 술독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 13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을 의지하다가 수치를 당하였듯이, 모압은 크모스 신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 14 어찌 감히 너희가 ' 우리는 용사요 전투에 능한 군인이다.' 하고 말하느냐?
- 15 모압의 파괴자가 그 성읍들을 치러 올라오고 모압의 젊은이들 가운데 뽑힌 자들이 살육을 당한다. — 그 이름 만군의 주님이신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
- 16 모압의 환난이 가까이 다가오고 그 재앙이 재빨리 닥쳐온다.
- 17 모압 가까이 있는 모든 민족들과 그의 명성을 아는 모든 이들이 그를 에도하며

- 이렇게 말하여라. ' 어찌하여 힘을 떨치던 왕홀과 화려하던 지휘봉이 꺾였는가?'
- 18 딸 디본의 주민들이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 거름 위에 앉아라. 모압의 파괴자가 너를 치러 올라와 네 요새들을 무너뜨렸다.
- 19 아로에르의 주민들이 길가에 서서 지켜보아라. 도망치는 남자와 피난 가는 여자에게 ' 무슨 일시오?' 하고 물어보아라.
- 20 ' 모압이 수치를 당하고 정말 무너졌소. 통곡하고 울부짖으며 아르논에 가서 모압이 파괴되었다고 알려 주시오.'
- 21 심판은 고원 지대에 닥쳤고, 홀론과 아하츠와 메파앗,
- 22 디본과 느보와 벳 디블라티임,
- 23 키르아티임과 벳 가물과 벳 므온,
- 24 크리웃과 보츠라와 모압 땅의 멀고 가까운 모든 성읍에 닥쳤다.
- 25 모압의 뿔이 잘리고 그의 팔이 부러졌다. 주님의 말씀이다.
- 26 모압이 주님을 거슬러 거들먹거렸으니, 그에게 취하도록 술을 먹여라. 그리하면 그가 토한 것 위에서 땀굴고, 그 자신도 웃음거리가 되리라.
- 27 이제까지는 이스라엘이 너에게 웃음거리가 아니었느냐? 너는 그에 대해 말할 때마다, 그가 도둑질하다 들키거나 한 것처럼 머리를 흔들지 않았느냐?
- 28 모압 주민들이 성읍들을 버리고 비위에서 살아라. 절벽 어귀 양쪽 벽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비둘기처럼 되어라.
- 29 우리는 모압의 교만에 대하여, 그가 몹시 교만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의 거만과 교만과 오만과 그의 자만심에 대하여 들었다.
- 30 나는 그의 방자함을 알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의 자랑도 거짓이고 그가 한 일도 거짓이다.
- 31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두고 통곡하고, 모압

전체를 위해 울부짖으며, 키르 헤레스 사람들을 위해 슬피 울겠다.

32 시브마의 포도밭아 내가 아제르를 위해 우는 것보다 너를 위해 더 운다. 너의 가지들이 바다를 건너 아제르까지 뻗었는데 네 여름 과일과 포도를 거둘 때에 파괴자가 들이닥쳤구나.

33 모압의 기름진 땅에서는 기쁨도 즐거움도 사라졌다. 내가 술틀에서 포도주를 없애 버리니 아무도 흥에 겨워 술틀을 밟는 자가 없고 그들이 외치는 소리는 더 이상 흥겨운 소리가 아니다.

34 헤스본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엘알레까지, 심지어 아하즈까지 들린다.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 그 소리가, 초아르에서 호로나임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들리게 한다. 니므림의 썩도 패허가 되는구나.

35 산양에 올라가 제사를 바치고 자기 신들에게 향을 피우는 자를, — 주님의 말씀이다. — 내가 모압에서 뿌리 뽑겠다.

36 그러므로 내 마음은 모압 때문에 피리처럼 슬피 운다. 내 마음은 키르 헤레스 사람들 때문에 피리처럼 슬피 운다. 그들이 쌓아 둔 재물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37 모두 머리를 밀고 수염을 자르며, 손마다 상처를 내고 허리에 자루옷을 두르고 있다.

38 모압의 모든 지방과 광장에서는 애곡 소리만 들린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그릇처럼 내가 모압을 부수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39 어찌다 모압이 무너졌는가! 그들이 통곡한다. 모압이 등을 돌리고 수치스러워한다. 그래서 모압은 주위의 모든 민족들에게 웃음거리와 놀람 거리가 되어 버렸다.

40 —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적이 독수리처럼 날아와 모압을 향해 날개를 편다.

41 성읍들이 점령되고 산성들은 함락되리라.

그날에 모압 용사들의 마음은 산고를 겪는 여인의 마음처럼 되리라.

42 모압은 주님을 거슬러 거들먹거렸으니 더 이상 한 민족을 이루지 못하고 사라지리라.

43 모압 주민들아 네 앞에 공포와 함정과 올가미가 놓이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44 공포에서 도망치는 자는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가미에 걸리리라. 징벌의 해에 내가 정녕 모압에게 벌을 내리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45 도망치는 자들이 지쳐 헤스본의 그늘 아래 멈춰 선다 할지라도 헤스본에서 불이 나고 시혼의 집에서 불꽃이 나와 모압의 관자놀이와 소란을 피우는 자들의 정수리를 삼켜 버리리라.

46 불행하여라, 너 모압아! 크모스 신을 섬기는 백성이 멸망하리라. 네 아들들도 잡혀 유배되고 네 딸들도 잡혀 유배되리라.

47 그러나 낫날 내가 모압의 운명을 되돌리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모압에 대한 판결은 여기까지다.

암몬

49

1 암몬 자손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은 자식도 없고 상속자도 없느냐? 어찌하여 밀콤 신이 가드를 차지하고 그의 백성이 가드의 여러 성읍에서 사는가?"

2 그러므로 이제 그때가 오면 암몬 자손들이 사는 라빠에 전쟁의 함성이 들려오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라빠는 페희의 흠 언덕이 되고 그 마을들은 불타리라. 이제는 이스라엘이 자신을 차지했던 자들을 차지하리라. —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3 아이 성이 부서졌으니, 헤스본아, 통곡하여라. 라빠의 마을들아, 울부짖어라. 자루옷을 두르고 애곡하며 몸에 상처를 내고 돌아다녀라. 밀콤 신이 그의 사제들과 대신들과

더불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 4 배반한 딸아 어찌하여 너의 골짜기를 두고 자랑하느냐? 네 골짜기는 이제 스러지고 있지 않느냐? 암몬은 자기 보물을 의지하고 '누가 나를 치러 오겠느냐?' 하고 말한다.
- 5 내가 주위의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에게 공포를 가져오리라. — 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너희는 저마다 그분 앞에서 쫓겨 갈 것이고 도망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
- 6 그러나 그 뒤에 내가 암몬 자손들의 운명을 되돌리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에돔

- 7 에돔에 대하여.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티만에 는 더 이상 지혜가 없느냐? 지각 있는 자들에게서 의견이 사라지고 그들의 지혜가 다했던 말이나?
- 8 단단 주민들아 등을 돌려 달아나 깊이 숨어라. 내가 그에게 에사우의 환난을, 그를 징벌할 때를 가져올 것이다.
- 9 포도를 따는 사람들이 너에게 오면 지스러기도 남기지 않는다. 도둑들이 밤에 들어오면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털어 간다.
- 10 나도 에사우를 발가벗기고 그의 피신처들을 들추어내니 그는 더 이상 몸을 숨길 수 없다. 그의 후손과 형제들과 이웃들이 몰락하고 자신마저 살아남지 못한다.
- 11 너의 고아들은 남겨 두어라. 내가 살려 주겠다. 너의 과부들도 나를 의지하게 하여라."
- 12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마땅히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되는 자마저 마시는데, 너라고 별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는 별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너는 반드시 그 잔을 마셔야 한다.
- 13 내가 정녕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보츠라는 폐허가 되어 놀람과 수치와 저주의 대상이 될 것이다. 보츠라의 모든 성읍도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 14 나는 주님께 말씀을 들었다. 사자가 민족들에게 파견되었다. "한테 모여 에돔으로 진격하고 일어나 싸워라."
- 15 보라, 내가 너를 민족들 가운데에서 보잘것 없게 만들리니 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으리라.
- 16 비위틈에 살고 언덕에 자리 잡은 자야 네가 일으킨 두려움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 자신을 속였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차려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 내리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 17 에돔이 놀람 거리가 되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를 보고 깜짝 놀라며, 그 모든 찬사를 비웃을 것이다.
- 18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했을 때처럼, —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아무도 거기에 살지 않고 그곳에 머무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 19 사자가 요르단의 깊은 숲 속에서 뛰어나와 늘 푸른 목장으로 달려들 듯 나도 순식간에 그곳에서 그들을 몰아내고 누구든 내가 뽑은 자를 그곳에 세우리라. 과연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누가 나를 불러낼 수 있는가? 어떤 목자가 내 앞에 나설 수 있는가?
- 20 그러므로 주님께서 에돔을 치려고 세우신 결의와 티만 주민들을 치려고 짜 놓으신 계획을 들어 보아라. 양 떼의 어린것들이 그들을 반드시 끌어내고 이들 때문에 그들의 목장이 깜짝 놀라리라.
- 21 그들이 쓰러지는 소리에 땅이 흔들리고 그 울부짖는 소리가 갈래 바다까지 들리리라.
- 22 이제 그가 독수리처럼 떠올라 날고 보츠라를 치려고 날개를 펼치리라. 그날에 에돔 용사들의 마음은 산고를 겪는 여인의 마음처럼 되리라.

다마스쿠스

- 23 다마스쿠스에 대하여. 하맛과 아르파트이 나쁜 소식을 들은 까닭에 당황한다. 그들은 낙담하여 바다처럼 동요하니 잠잠히 있을 수 없다.
- 24 다마스쿠스는 기운이 떨어지자 몸을 돌려 달아나려 하지만 공포에 사로잡혔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근심과 슬픔이 그를 붙잡는다.
- 25 명성 높던 성읍이, 나의 기쁨이던 성읍이 어찌다 버림받았느냐?
- 26 그러므로 그날 성읍의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쓰러지고 모든 군인이 전멸하리라. 만군의 주님 말씀이다.
- 27 내가 다마스쿠스의 궁궐에 불을 질러 벤하닷의 성채를 태워 버리리라.

케다르와 하초르

- 28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멸망시킨 케다르와 하초르 왕국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일어나 케다르를 치러 올라가라. 동방 사람들을 몰락시켜라.
- 29 그들의 천막과 양 떼를 빼앗고 휘장과 살림살이도 모두 빼앗아라. 그들에게서 낙타들을 몰아내 오고 그들에게 ' 사방에서 공포가 밀려온다.' 하고 외쳐라.
- 30 하초르 주민들아, 어서 몸을 피해 달아나 깊이 숨어라. 주님의 말씀이다.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너희를 칠 구상을 하고 너희를 칠 계획을 짜 놓았다.
- 31 일어나 마음 놓고 편안히 살고 있는 민족을 치러 올라가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은 성문도 빗장도 없이 홀로 떨어져 살고 있다.
- 32 그들의 낙타들이 노획물이 되고 그들의 가축 떼가 전리품이 되리라. 관자놀이의 머리를 민 자들을 내가 사방으로 흩어 버리고 그들 주변 곳곳에서 그들에게 환난을 불러

오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 33 하초르는 승냥이의 소굴이 되고 영원히 폐허가 되리라. 아무도 거기에 살지 않게 되고 그곳에 머무는 사람도 없으리라."

엘람

- 34 유다 임금 치드키아가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엘람을 두고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내린 주님의 말씀.
- 35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내가 엘람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활을 꺾어 버리겠다.
- 36 내가 하늘 네 귀퉁이에서 네 가지 바람을 몰아와,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 버리겠다. 그러면 엘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없을 것이다.
- 37 나는 그들의 원수들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앞에서, 엘람이 무서워 떨게 하겠다. 그들에게 재앙을, 타오르는 분노를 내리고, 그들 뒤로 칼을 보내어,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때까지 뒤쫓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 38 나는 엘람에 내 옥좌를 차리고 거기에서 임금과 대신들을 없애 버리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 39 그러나 내가 뒷날 엘람의 운명을 되돌려 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바빌론의 패망과 이스라엘의 해방

- 50** ¹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바빌론, 곧 칼데아인들의 땅을 두고 하신 말씀.

바빌론

- ² 민족들 가운데에서 알리고 선포하여라. 깃발을 올리고 선포하며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전하여라. " 바빌론이 점령된다. 벨이 수치를 당하고 므로다이 공포에 질린다.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이 공포에 질린다."

3 북녘에서 한 민족이 바빌론을 치러 와 그 땅을 폐허로 만든다. 그러면 그곳에 사는 자 아무도 없고 사람도 짐승도 도망쳐 가리라.

이스라엘

4 그날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다 자손들이 함께 오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은 울며 돌아와서 주 그들의 하느님을 찾으리라.

5 그들은 시온으로 오는 길을 물어 그들의 얼굴을 이곳으로 향하리라. 그들은 돌아와 잊혀지지 않을 영원한 계약으로 주님과 결합하리라.

6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 떼였으니 목자들이 그들을 잘못 이끌어 산에서 헤매게 하였다. 그들은 산에서 언덕으로 떠돌아다니며 제 보금자리마저 잊어버렸다.

7 만나는 자들마다 그들을 잡아먹었다. 그들의 원수들은 "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그들이 자신들의 참된 치소이시며 자기네 조상들의 희망이신 주님께, 그 주님께 죄를 지은 탓이다." 하고 말하였다.

바빌론

8 바빌론 한가운데에서, 칼데아인들의 땅에서 도망하여라. 거기에서 빠져나와 양 떼 앞에서 걷는 숫염소들처럼 앞장을 서라.

9 이제 내가 큰 민족들의 무리를 일으켜 바빌론을 쳐들어가게 하리라. 그들이 북녘 땅에서 내려와 바빌론에 맞서 전열을 갖추니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바빌론은 정복당하리라. 그들의 화살은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는 노련한 용사와 같으리라.

10 칼데아인들이 악탈당할 것이니 그 악탈자들이 모두 흡족해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11 나의 소유를 빼앗은 자들이 너희가 참으로 즐거워하고 기뻐 뛰지만, 초원의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고 힘센 말처럼 소리를 지르지

만,

12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고 너희를 낳은 여인이 수모를 당하리라. 보라, 민족들 가운데 가장 뒤떨어진 민족, 메마른 광야와 사막을!

13 주님의 진노 때문에 그곳은 인적이 끊기고 온통 폐허가 되리라. 바빌론을 지나는 사람마다 깜짝 놀라고 그 모든 참상을 두고 비웃으리라.

14 활을 당기는 자들이 모두 바빌론을 에워싸고 전열을 갖추어라. 그 성읍을 향하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아라. — 그가 주님께 죄를 지었다. —

15 너희는 사방에서 그를 향하여 함성을 올려라. 그 성읍이 손을 들었다. 보루가 쓰러지고 성벽이 무너졌다. 이것은 주님의 복수이니, 너희도 바빌론에게 복수하여라. 바빌론이 한 대로 그에게 해 주라.

16 썩 뿌리는 자와 수확 때에 낫을 든 자를 바빌론에서 없애 버려라. 무자비한 칼 때문에 모두 제 백성에게 돌아가고 모두 제 나라로 도망치리라.

이스라엘

17 이스라엘은 사자들에게 쫓겨 흩어진 양과 같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임금의 잡아먹고, 마지막에는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그 뼈를 씹어 먹었다.

18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이제 내가 아시리아 임금에게 벌을 내렸듯이, 바빌론 임금과 그 나라에도 벌을 내리겠다.

19 내가 이스라엘을 그 목장으로 되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카르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에프라임 산악 지방과 길앗에서 배불리 먹으리라.

20 그날과 그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으려 해도 전혀 찾지 못하고 유다의 죄를 찾으

러 해도 발전하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살아남게 한 자들을 용서할 것이기 때문이다."

바빌론

- 21 브리타임 땅을 치러 올라가라. 그곳을 치러, 프곳의 주민들을 치러 올라가라. 그들을 쫓아가 모조리 없애 버려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모두 실행하여라.
- 22 그 땅에서 전쟁의 함성이 일고 엄청난 파괴가 일어난다.
- 23 어찌다가 온 세상을 내리치던 망치가 부러지고 깨졌는가? 어찌다가 바빌론이 민족들 가운데에서 놀람 거리가 되었는가?
- 24 바빌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라머를 놓았는데 너는 그걸 모르고 걸려들었구나. 네가 주님께 대들었기에 피하지 못하고 붙잡힌 것이다.
- 25 주님께서 무기고를 열고 당신 분노의 병기들을 꺼내 놓으셨다. 주 만군의 주님께서 칼테아 땅에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 26 사방에서 바빌론으로 쳐들어가 그곳의 곡식 창고를 열리라. 바빌론을 난가리처럼 썩아 올리고 없애 버려라. 그리하여 그곳에 아무것도 남겨 놓지 마라.
- 27 바빌론의 모든 황소들을 죽이고 그들을 도살장으로 끌고 가라. 그들은 불행하여라! 그들의 날, 그들이 별받을 때가 왔다.

이스라엘

- 28 들어라! 바빌론 땅에서 도망친 자들과 빠져나온 자들이 외치는 소리를. 그들은 주 우리 하느님께서 당신 성전을 위하여 복수하셨다고 시온에서 선포한다.

바빌론

- 29 바빌론을 거슬러 시위를 당기는 활잡이들을 모두 불러 모아라. 그곳에 진을 치고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여라. 그의 소행대로 그에게 보복하고 그가 저지른 모든 짓에 따라 그에게 갚아 주어라. 그가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앞에서 방자하게 굴었기 때문이다.

- 30 그러므로 그날 바빌론의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쓰러지고, 모든 군인이 전멸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 31 방자한 너! 이제 내가 너를 치겠다. 주 만군의 주님 말씀이다. 정녕 너의 날이 다가왔다. 내가 너를 징벌할 때가 다가왔다.
- 32 방자한 자가 비틀거리다 쓰러져도 아무도 일으켜 줄 자가 없다.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질러 그 주변까지 모조리 태우리라.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 33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다 자손들이 다 같이 억압을 받았다.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들은 모두 그들을 붙잡아 놓고 돌려보내기를 마다하였다."
- 34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신 분, 그 이름 만군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송사를 들어주시어 이 땅은 평안하게 하시고 바빌론 주민들은 불안하게 하시리라.

바빌론

- 35 같이 칼테아인들에게, 바빌론 주민들에게 떨어진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 대신들과 현자들에게 떨어진다.
- 36 같이 수다쟁이들에게 떨어져 그들을 어리석은 자로 만들고 같이 용사들에게 떨어져 그들을 무서워 떨게 한다.
- 37 같이 바빌론의 말과 병거들에게, 그곳에 함께 사는 모든 혼합 종족에게 떨어지니 그들이 여자처럼 된다. 같이 그곳 보물 창고에 떨어지니 보물이 약탈을 당한다.
- 38 같이 그곳 물 위에 떨어지고 물이 말라 버린다. 바빌론은 신상들의 나라고 그곳 사람

들은 우상에 미쳐 있다.

- 39 그러므로 그곳에는 사막 짐승들이 늑대들과 더불어 살고 타조들도 살게 되리라. 그러나 사람은 영영 다시는 그곳에 살지 않을 것이요 세계 대대로 거주하는 사람이 없으리라.
- 40 하느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근처 성읍들과 함께 멸망시키실 때처럼 아무도 그곳에 살지 않고 그곳에 머무는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 41 이제 한 백성이 북녘에서 온다. 큰 민족이 온다. 수많은 임금이 땅 끝에서 일어난다.
- 42 그들은 활과 창을 움켜쥐고 있는데 잔인하고 무자비하다. 그들은 바다처럼 고향을 지르며 말을 타고 달려온다. 딸 바빌론아, 그들이 너를 치려고 전사처럼 전열을 갖추고 있다.
- 43 바빌론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손을 떨구었다.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과 같은 괴로움이 그를 사로잡았다.
- 44 사자가 요르단의 깊은 숲 속에서 뛰쳐나와 늘 푸른 목장으로 달려들 듯 나도 순식간에 그곳에서 그들을 몰아내고 누구든 내가 뽑은 자를 그곳에 세우리라. 과연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누가 나를 불러낼 수 있는가? 어떤 목자가 내 앞에 나설 수 있는가?
- 45 그러므로 주님께서 바빌론을 치려고 세우신 결의와 칼데아 땅을 치려고 짜 놓으신 계획을 들어 보아라. 양 떼의 어린것들이 그들을 반드시 끌어내고 이들 때문에 그들의 목장이 깜짝 놀라리라.
- 46 바빌론이 함락되는 소리에 땅이 흔들리고 그 울부짖는 소리가 민족들 가운데에서 들리리라.
- 51 ¹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이제 내가 바빌론과 랭 카마이 주민들을 향하여 파괴하는 바람을 일으킨다.

- 2 내가 바빌론에 키질하는 자들을 보내어 그를 키질하고 그 땅을 말끔히 비우리라. 과연 제앙의 날에 그들이 사방에서 바빌론을 공격하리라.
- 3 바빌론의 활잡이가 시위를 당기지 못하게 하고 갑옷을 입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여라. 바빌론의 젊은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 군대를 모두 없애 버려라.
- 4 그들은 칼데아 땅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그 거리에서 중상을 입으리라."
- 5 이스라엘과 유다 땅이 비록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거스른 죄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만군의 주 자신들의 하느님께 소박맞은 것은 아니다.
- 6 너희는 바빌론 한복판에서 도망쳐 저마다 제 목숨을 구하여라. 바빌론의 죄 때문에 함께 죽지 마라. 지금은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때 그분께서 바빌론의 행실을 되갚으시리라.
- 7 바빌론은 주님의 손에 들린 금잔, 온 세상을 취하게 하였다. 민족들이 거기 담긴 포도주를 마셨기에 미쳐 버렸다.
- 8 바빌론이 갑자기 쓰러지고 무너졌다. 그를 두고 통곡하여라. 그의 상처에 유혈을 발라 보아라. 어찌다 나을지도 모른다.
- 9 우리가 바빌론을 낮게 하려 했으나 낮지 않았다. 그러니 그를 버리고 저마다 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에 대한 심판이 하늘까지 이르고 구름까지 닿았다.
- 10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드러내셨으니 어서 와 사온에서 주 우리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자.
- 11 화살촉을 갈고 방패를 잡아라. 주님께서는 바빌론을 파괴할 계획을 세우셨기에, 메디아 임금들의 마음을 깨우셨다. 이것이 정녕 주님의 복수, 당신 성전을 위한 복수다.
- 12 바빌론 성벽을 향해 깃발을 세우고 경비를 튼튼히 하여라. 보초를 세우고 매복을 준비

시켜라. 주님께서서는 바빌론 주민들을 두고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계획하시고 함께 실행하신다.

- 13 큰 물가에 살며 보화를 많이 가진 자야 너의 종말이 다가오고 네가 잘려 나갈 때가 되었다.
- 14 만군의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 " 내가 장님 네 땅을 때뚜기 때쳐럼 많은 군인들로 채우리라. 그러면 그들이 너를 이기고 승리의 함성을 지르리라."

찬가

- 15 그분께서는 당신 능력으로 땅을 만드시고 당신 지혜로 세상을 세우셨으며 당신 예지로 하늘을 펼쳐 놓으셨다.
- 16 그분께서 소리를 내시자 하늘의 물이 요동친다. 그분께서는 땅 끝에서 안개가 피어오르게 하신다. 비가 내리도록 번개를 만드시고 당신의 공간에서 바람을 꺼내신다.
- 17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고 지식이 모자란다. 대장장이는 누구나 우상 탓에 수치를 당한다. 사실 그가 부어 만든 상은 가짜라서 그 안에 숨결이 없다.
- 18 그것들은 헛것이요 조롱거리니 그들이 벌을 받을 때에 그것들도 사라지리라.
- 19 야곱의 뭇은 이런 것들과는 다르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이스라엘은 그분께서 상속 재산으로 삼으신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 이름 만군의 주님이시다.

바빌론에 대한 애가

- 20 너는 나의 망치요 나의 무기다. 너는 너를 통하여 민족들을 부수고 너를 통하여 나라들을 파괴하였다.
- 21 너는 너를 통하여 말과 기병을 부수고 너를 통하여 병거와 병거 부대를 부수었다.
- 22 너는 너를 통하여 남자와 여자를 부수고 너를 통하여 늙은이와 아이를 부수었으며 너를 통하여 총각과 처녀를 부수었다.

23 나는 너를 통하여 목자와 그의 양 떼를 부수고 너를 통하여 농부와 그의 겨릿소를 부수었으며 너를 통하여 총독과 지방 장관들을 부수었다.

24 그러나 이제는 내가 바빌론과 칼데아의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그것은 너희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이 시온에서 저지른 온갖 악에 대한 복수다. 주님의 말씀이다.

25 온 세상을 무너뜨리는 파괴자 산아 내가 너에게 맞서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 팔을 네 위에 펼쳐 너를 바위에서 굴러 내리고 너를 불에 탄 산으로 만들리라.

26 사람들이 너에게서 모퉁이돌 하나, 주춧돌 하나 얻지 못하니니 내가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27 그 땅에 깃발을 세우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팔을 불어라. 바빌론을 칠 민족들을 동원하고 그를 칠 왕국들 곧 아라랏과 미니와 이스쿠나즈를 불러들여라. 그를 칠 사령관을 임명하고 날개를 곤두세운 때뚜기 때같은 군마를 몰고 와라.

28 그를 칠 민족들을 동원하고 미디어 임금들과 그 총독들과 지방 장관들 또 그들이 지배하는 모든 속국을 동원하여라.

29 땅이 흔들리고 뒤틀리니 바빌론을 치려는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 계획이란 바빌론 땅을 인적 없는 폐허로 만드는 것이다.

30 바빌론 용사들이 전투를 포기하고 요새에 들어앉았다. 그들은 기력을 잃고 여자처럼 되어 버렸으며 바빌론 집들은 불타고 성문의 빗장들도 부서졌다.

31 한 보발꾼이 다른 보발꾼을 만나 이어 달리고 한 전령이 다른 전령을 만나 바빌론 임금에게 그의 도성이 끝에서 끝까지 점령되었다고 보고한다.

32 나루터들이 점겨되고 갈대밭이 불에 탔으며 전사들은 집에 질렀다.

33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딸 바빌론이 타작마당처럼 짓밟힐 때가 온다. 이제 곧 바빌론에 수확 때가 다친다."

이스라엘

34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나를 잡아 먹고 나를 무너뜨렸다. 그는 나를 빈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가 용처럼 나를 삼켜 나를 진미로 삼아 자기 배를 채우더니 다시 뱉어 냈다.

35 시온 주민들이 이렇게 호소하리라. " 내가 당한 폭행과 파괴를 바빌론에게 되갚아 주소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호소하리라. " 내가 흘린 피를 칼데아 주민들에게 되갚아 주소서."

36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이제 내가 너의 송사를 들어주어 너의 원수를 갚아 주리라. 내가 바빌론의 바다를 말리고 그 샘을 말려 버리리라.

37 바빌론은 패허 더미가 되고 승냥이의 소굴이 되리라. 그곳은 인적 없는 곳이 되고 놀람 거리와 놀림감이 되리라."

바빌론

38 그들은 모두 사자들처럼 으르렁대고 세끼 사자들처럼 울부짖으리라.

39 그들이 더위에 지쳤을 때 내가 술상을 차려 그들이 기절할 때까지 취하게 하리라. 그러면 그들은 영원한 잠에 빠져 들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40 내가 그들을 어린 양들처럼, 숫양과 숫염소들처럼 도살장으로 끌고 가리라.

41 어찌다가 온 세상의 자랑거리던 세상이 점령되고 점거되었는가? 어찌다가 민족들 가운데서 바빌론이 놀람 거리가 되었는가?

42 바닷물이 바빌론으로 밀려오자 그곳은 그 요란한 파도에 잠기고 말았다.

43 그 성읍들은 패허가 되고 매마른 땅과 사

막이 되었다. 그곳은 인간이 살지 않는 땅, 그곳을 지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44 내가 바빌론에서 벨 신을 징벌하여 그가 삼킨 것을 입에서 뱉어내리라. 민족들이 이제 더 이상 그에게 돌려드리지 않으리라. 바빌론의 성벽도 쓰러진다.

45 내 백성아, 바빌론에서 나와라. 저마다 주님의 타오르는 분노에서 제 목숨을 구하여라.

46 너희는 그 땅에서 들려오는 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 해는 이런 소문이, 저 해는 저런 소문이 계속 들려오기 마련이다. 그 땅에는 폭력이 판을 치고 통치자들끼리 서로 싸운다.

47 그러므로 이제 내가 바빌론의 신상들을 징벌할 날이 온다. 그곳은 땅이 수치를 당하고 칼 맞은 자들이 모두 그 한가운데에서 쓰러져 죽으리라.

48 하늘과 땅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빌론을 두고 기뻐 소리치리라. 북녘에서 그를 쳐부술 자들이 내려오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49 온 세상에서 살해된 자들이 바빌론 때문에 쓰러졌듯이 이제는 바빌론도 이스라엘에서 살해된 자들 때문에 쓰러져야 한다.

50 칼을 피한 자들이 서 있지 말고 어서 떠나라. 멀리서라도 주님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속에 떠올려라.

51 " 우리는 욱살을 듣고 수치를 당하였니다. 부끄러움이 우리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방인들이 주님 집의 거룩한 곳들에 쳐들어온 까닭입니다."

52 그러므로 이제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 내가 바빌론의 신상들을 징벌하니 그 땅 모든 곳에서 중상을 입은 자들이 신음하리라.

53 바빌론이 비록 하늘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기세를 뉘날다 할지라도 내가 파

과자들을 보내어 그를 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54 바빌론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칼데아인들의 땅에서 큰 참사가 일어난다.

55 주님께서 정녕 바빌론을 파괴하시고 그곳에서 큰 목소리가 사라지게 하신다. 파괴자들이 밀려드는 모습은 큰 물결 같고 그들의 목소리는 요란하다.

56 과연 파괴자가 바빌론에 쳐들어오자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부러진다. 주님께서 응보의 하느님이시며 반드시 갚으시기 때문이다.

57 내가 바빌론의 대신들과 현자들, 총독들과 지방 장관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면, 그들은 영원한 잠에 빠져 들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 이름 만군의 주님이신 임금님의 말씀이다.

58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바빌론의 날찍한 성벽도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 높은 성문도 볼타 없애지리라. 백성들이 힘들어 한 일이 쓸모없게 되고 민족들이 애써 한 일이 불에 타 버리리라."

예레미야가 바빌론에 관한 예언을 기록하다

59 마흐세이의 손자이며 네리아의 아들인 스라야 역관장이, 유다 임금 치드키야 제사년에 임금과 함께 바빌론으로 올라갈 때,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에게 내린 분부.

60 예레미야는 바빌론에 내릴 이 모든 재앙, 곧 바빌론을 두고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하였다.

61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바빌론으로 들어가면, 이 말씀을 다 읽고 나서,

62 이렇게 이르시오. '주님, 당신께서 이곳을 두고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곳을 멸망시켜 사람도 짐승도 살지 않는,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63 그리고 그대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그것에 돌을 매달아 유프라테스 강 한복판에 던지시오.

64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바빌론도 내가 그에게 내릴 재앙 탓에, 이처럼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지쳐 버릴 것이다.'"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이다.

부록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다

52 ¹ 치드키야는 스물한 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열한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루탈인데, 리브나 출신 예레미야의 딸이었다.

2 치드키야는 여호아킴이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3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님을 분노하시게 하였기에, 주님께서서는 마침내 그들을 당신 앞에서 쫓아내셨다. 그런데 치드키야가 바빌론 임금에게 반역하였다.

4 그래서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는 치드키야 통치 제구년 열째 달 초열흘날에, 전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왔다. 그들은 그곳을 향하여 진을 치고 사방으로 공격 축대를 쌓았다.

5 이렇게 도성은 치드키야 임금 제십일년까지 포위당하였다.

6 넷째 달 초아흐렛날 도성에 굶주림이 심해지고 나라 백성에게 양식이 떨어졌다.

7 드디어 성벽이 뚫렸다. 그러자 군사들이 모두 달아났다. 칼데아인들이 도성을 둘러싸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임금의 정원 곁에 있는 두 성벽 사이 대문을 나가 아라바 쪽으로 갔다.

8 칼데아인들의 군대가 임금을 뒤쫓아 예리코의 들판에서 치드키야를 따라잡자, 그의 모

- 든 군대는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 9 그들이 임금을 사로잡은 다음,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임금에게 데리고 올라가니, 바빌론 임금이 그에게 판결을 내렸다.
- 10 바빌론 임금은 리블라에서 치드키아가 보는 가운데, 그의 아들들을 살해하고 유다의 모든 대신들도 살해하였다.
- 11 그러고 나서 바빌론 임금은 치드키아의 두 눈을 멀게 한 뒤, 그를 청동 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가서는, 죽는 날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어 놓았다.
- 12 다섯째 달 초열흘날,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 제십구년에, 바빌론 임금을 면전에서 섬기던 느부자르야단 친위대장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 13 그는 주님의 집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태웠다. 이렇게 그는 큰 집을 모두 불태워 버렸다.
- 14 또한 친위대장이 이끄는 칼테이인들의 모든 군대는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가며 모두 허물었다.
- 15 느부자르야단 친위대장은 백성 가운데 일부 가난한 이들과 또 도성에 남아 있던 나머지 백성과 바빌론 임금에게 넘어간 자들, 그리고 그 밖의 나머지 장인들을 끌고 갔다.
- 16 그러나 느부자르야단 친위대장은 그 나라의 가난한 이들을 일부 남겨, 포도밭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 17 칼테이인들은 주님의 집에 있는 청동 기둥들과 받침대들, 그리고 주님의 집에 있는 청동 바다를 부순 뒤, 그 청동을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 18 그들은 냄비와 부삽, 불뿔 가위와 쟁반과 접시, 그 밖에 예배 때에 쓰는 모든 청동 기물도 가져갔다.
- 19 친위대장은 작은 대접과 향로, 쟁반과 냄비와 등잔대, 접시와 술잔도 가져갔는데, 금으로 만든 것은 금이라고 가져가고, 은으로 만든 것은 은이라고 가져갔다.
- 20 솔로몬 임금이 주님의 집에 만들어 놓은 기둥 두 개와 청동 바다 하나와, 받침대 밑에 청동으로 만든 황소 열두 개 등, 이 모든 기물에 쓰인 청동은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였다.
- 21 기둥만 해도 기둥 한 개의 높이가 열여덟 암마, 그 둘레가 열두 암마이다. 그 속은 비어 있지만 기둥 면의 두께가 손가락 빛을 합친 것만큼이나 되었다.
- 22 그 기둥 위에는 청동으로 만든 기둥머리가 있는데, 그 기둥머리의 높이는 다섯 암마였다. 이 기둥머리에는 모두 청동으로 만든 그물과 석류들이 돌아가며 달리고, 두 번째 기둥도 마찬가지로 석류들이 달렸다.
- 23 걸보기에는 아흔여섯 개지만 실제로 그물에 매달린 석류는 모두 백 개나 되었다.
- 24 친위대장은 스라야 수석 사제, 두 번째 서열의 스바냐 사제, 그리고 성전 문지기 셋을 체포하였다.
- 25 또한 군사의 지휘관이었던 내시 하나도 도성에서 체포하였다. 이 밖에도 도성에서 발견된 임금의 측근 일곱과 나라 백성을 징집하는 군부대신 서기관과, 도성 한가운데에서 발견된 나라 백성 예순 명도 체포하였다.
- 26 느부자르야단 친위대장은 그들을 체포하여,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임금에게 끌고 갔다.
- 27 바빌론 임금은 하맛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처 죽였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고향을 떠나 유배를 갔다.
- 28 네부카드네자르가 유배시킨 백성은 제칠년에 삼천이십삼 명이었고,
- 29 네부카드네자르 제십팔년에 예루살렘에서 끌고 간 사람은 팔백삼십이 명이었다.
- 30 네부카드네자르 제이십삼년에는 느부자르야단 친위대장이 유대인 칠백사십오 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이렇게 해서 모두 사천 육백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다윗 후손의 운명

- 31 유다 임금 여호야킨의 유배살이 제삼십칠 년 열두째 달 스무닷새날이었다. 바빌론 임금 에월 므로닥은 자기가 왕위에 오른 바로 그해에, 유다 임금 여호야킨을 감옥에서 풀어 주었다.
- 32 바빌론 임금은 그에게 친절히 말을 건네며, 그와 함께 바빌론에 있는 다른 임금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곳에 그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 33 그 뒤에 여호야킨은 죄수복을 벗고, 살아 있는 동안 내내 바빌론 임금 앞에서 늘 음식을 먹게 되었다.
- 34 여호야킨의 생계비는 그가 죽을 때까지 살아 있는 동안 내내, 바빌론 임금이 날마다 일정하게 대 주었다.

구약성경 - 31

예언서 - 3

애 가

총 5 장

총 154 절

[구약성경]-[애가]

첫째 애가

에루살렘의 참상

1 아, 사람들로 붐비던 도성이 외로이
 1 앉아 있다. 못 나라 가운데에서 뛰
 어나던 도성이 과부처럼 되고 말았구나. 모
 든 지방의 여왕이 부역하는 신세가 되어 버
 렸구나.

2 밤이면 울고 또 울어 뺨 위에 눈물이 그치
 지 않는구나. 그 모든 애인들 가운데 위로
 해 줄 자 하나 없고 벗들은 모두 그를 배반
 하여 원수가 되었다.

3 유다는 고통과 고역 끝에 유배를 당하여 안
 식처를 얻지 못한 채 민족들 사이에 앉아
 있다. 그를 뒤쫓는 자들이 모두 곤궁 속에
 있는 그를 붙잡았다.

4 축제를 지내러 가는 이들이 없어 시온을 향
 한 길들은 비탄에 잠기고 성문들은 모두 황
 폐하게 되었으며 사제들은 탄식하고 처녀들
 은 슬픔에 젖어 있으니 시온도 쓰러려하는
 구나.

5 그의 적들은 우두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
 은 편안히 지내니 그의 많은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내리신 것이다. 그
 의 아이들은 포로가 되어 적 앞으로 끌려갔
 다.

6 딸 시온에게서 그 모든 영화가 떠나가 버리
 고 고관들은 목초지를 찾지 못한 사슴들처
 량 되어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걸어갔다.

7 에루살렘이 제 고통과 유랑의 세월을 회상
 한다, 예로부터 있어 왔던 그 온갖 소중한
 것들도.

8 그의 백성이 적의 손에 떨어질 때 도와주는
 이 하나 없이 적들만 그를 보며 그의 몰락
 을 비웃었다.

9 에루살렘은 무거운 죄를 지어 혐오 거리가

되어 버렸다. 그 승배자들이 그를 멸시하니
 그의 치부를 보았음이다. 에루살렘 자신도
 탄식하며 등을 돌려 버린다. 부정이 옷차락
 에 묻어 있어도 제 종말을 생각하지 않더니
 기막히게 몰락하였건만 위로해 주는 이 아
 무도 없다. "주님, 제 고통을 보소서, 원수
 가 의기양양해합니다."

10 에루살렘의 모든 보물에 적이 손을 뻗었습
 니다. 당신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민족들이 성소로 쳐들어가는 것
 을 그는 보아야만 했습니다.

11 그의 온 백성이 탄식하며 빵을 찾고 기운
 을 차리려고 보물을 먹을 것과 바깥니다.
 "보소서, 주님, 살펴보소서, 제가 멸시만
 당합니다."

12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여 살펴보고 또
 보시오. 당신의 격렬한 진노의 날에 주님께
 서 고통을 내리시어 내가 겪는 이내 아픔
 같은 것이 또 있는지.

13 그분께서는 높은 태에서 불을 보내시어 내
 뺨속까지 꿰뚫게 하시고 내 발에 그물을
 펼쳐 놓으셨다가 뒤에서 나를 넘어쳐셨다
 오. 그분께서 나를 황폐하게 하시어 이 몸
 은 온종일 괴로워한다오.

14 그분의 손이 지우신 내 죄악의 멍에는 단
 단히 매여 있고 그것은 내 목 위에 올려져
 있어 내 기력을 쇠잔케 한다오. 주님께서
 는 내가 대항할 수 없는 자들의 손에 나를
 넘기셨다오.

15 주님께서는 나에게 속한 용사들을 모두 물
 리쳐 버리시고 내 젊은이들을 때려 부수시
 러 나를 거슬러 집회를 소집하셨다오. 주님
 께서는 포도 확을 밟듯 처녀 딸 유다를 짓
 밟으셨다오.

16 이 때문에 울지 않을 수 없어 내 눈은 눈
 물을 흘린다오. 나를 기운 차리게 해 주실
 위로자께서 내게서 멀리 계시기 때문이라
 오. 원수가 기세를 떨쳐 내 아들들은 쇠멸

해 간다오.

- 17 시온이 두 손을 내뻗었던만 위로해 줄 이 아무도 없다오. 주님께서 야굽을 거슬러 그의 적들을 그 들레에 불러 모으시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서 혐오 거리가 되어 버렸다오.
- 18 주님은 의로우신 분 내가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였다오. 민족들이여, 모두 내 말을 들어 보오. 내 상처를 보아 주오. 내 처녀들과 총각들이 포로로 끌려갔다오.
- 19 나의 애인들을 불렀건만 그들은 나를 배신하였다오. 나의 사제들과 원로들은 기력을 되 찾으려 막을 것을 찾아다니다 도성 안에서 죽어 갔다오.
- 20 보소서, 주님, 곤경 속에 있는 저를. 제 속은 들끓고 제 마음은 안에서 뒤잡하니 당신을 너무도 거역하였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같이 자식들을 잇아 가고 집 안에는 죽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 21 그들은 제가 탄식하는 것을 듣건만 아무도 저를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저의 모든 원수들이 제 불행을 듣고 당신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기뻐합니다. 당신께서 선언하신 날이 오게 하소서. 그들도 저와 같이 되게 하소서.
- 22 저의 모든 죄악 때문에 당신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셨듯 저들의 모든 악행을 당신 앞에 펼치시어 저들에게도 벌을 내리소서. 정녕 저의 탄식은 끝이 없고 저의 마음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둘째 애가

원수 같으신 하느님

2

¹ 원수 같으신 하느님 아, 주님께서 진노하시어 딸 시온을 먹구름으로 뒤덮으셨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던지시고 당신 진노의 날에 당신

의 발판을 기억해 주지 않으셨다.

- 2 야굽의 모든 거처를 주님께서 사정없이 쳐부수시고 딸 유다의 성채들을 당신 격노로 허무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땅에 쓰러뜨려 욱되게 하셨다.
- 3 주님께서서는 타오르는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꺾으시고 원수 앞에서 당신 오른손을 거두시어 사방을 태우는 불길처럼 야굽을 사르셨다.
- 4 당신의 오른손을 드시고 원수처럼 당신 활을 당기시어 우리 눈에 보배로운 것들을 적군인 양 모두 죽이시고 딸 시온의 천막에 당신 분노를 불처럼 퍼부으셨다.
- 5 주님께서서는 원수처럼 되시어 예루살렘을 쳐부수셨다. 그 모든 궁궐들을 쳐부수시고 그 성채들을 허물어뜨리시어 딸 유다에게 애통과 비애를 더하셨다.
- 6 그분께서는 당신 초막을 정원처럼 허물어뜨리시고 당신 축제의 자리를 헐어 버리셨다. 주님께서서는 시온에서 축제와 안식일을 잊게 하시고 당신 진노의 열기 속에 임금과 사제를 물리쳐 버리셨다.
- 7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제단을 버리시고 당신의 성소를 더럽히셨다. 그 궁궐들의 성벽을 적의 손에 넘기시니 주님의 집에서 축제의 날처럼 함성이 울렸다.
- 8 주님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허물기로 작정하시어 측량줄을 치시고 처부수실 때까지 당신 손을 거두지 않으시며 누벽과 성벽을 통곡하게 하시니 이들이 다 함께 스러져 간다.
- 9 성문들은 먼지 속에 파묻혀 있고 빗장들은 그분께서 깨뜨려 부수어 버리셨다. 임금과 고관들은 민족들 사이에 흩어지고 가르침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으며 예언자들은 주님께에서 어떤 환시도 받지 못한다.
- 10 딸 시온의 원로들은 땅바닥에 말없이 앉아 머리 위에 먼지를 끼었고 자루옷을 들렀으

며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까지 내려뜨렸다.

- 11 나의 딸 백성이 파멸하고 도시의 광장에서 아이들과 찢먹이들이 죽어 가는 것을 보고 있자니 내 눈은 눈물로 멀어져 가고 내 속은 들끓으며 내 애간장은 땅바닥에 쏟아지는구나.
- 12 "먹을 게 어디 있어요?" 하고 그들이 제 어미들에게 말한다. 도시의 광장에서 부상병처럼 죽어 가면서, 어미 품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 13 딸 예루살렘아 나 네게 무엇을 말하며 너를 무엇에 비기리오? 처녀 딸 시온아 너를 무엇에다 견주며 위로하리오? 네 파멸이 바다처럼 큰데 누가 너를 낮게 하리오?
- 14 너의 예언자들이 네게 환시를 전하였지만 그것은 거짓과 사기였을 뿐. 저들이 네 운명을 돌리려고 너의 죄악을 드러내지는 않으면서 네게 예언한 신탁은 거짓과 오도였을 뿐.
- 15 길 가는 자들은 모두 너를 보고 손뼉을 쳐댄다. 딸 예루살렘을 보고 휘파람 소리 내며 머리를 흔들며 댄다. "'아름다움의 극치요 온 누리의 기쁨' 이라 하는 도성이 이것이란 말이지?" 하고 반대하면서.
- 16 너의 원수들은 모두 너를 바웃어 휘파람 불고 이를 갈며 말하는구나. "우리가 쳐부숴 버렸지. 그래, 오늘은 우리가 기다리던 날. 마침내 이날을 보게 되는군."
- 17 주님께서서 뜻하신 바를 이루셨다. 옛날에 선포하신 당신의 말씀을 실행하셨다. 사정없이 허무시고 원수가 너를 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적들의 뿔을 쳐들어 주셨다.
- 18 주님께 소리 질러라, 딸 시온의 성벽아. 낮에도 밤에도 눈물을 시내처럼 흘려라. 너는 휴식을 하지 말고 네 눈동자도 쉬지 마라.
- 19 밤에도 야경이 시작될 때마다 일어나 통곡

하여라. 주님 면전에 네 마음을 물처럼 쏟아 놓아라. 길목마다 굶주려 죽어 가는 네 어린것들의 목숨을 위하여 그분께 네 손을 들어 올려라.

- 20 보소서, 주님, 살펴보소서, 당신께서 누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지. 여인들이 제 몸의 소생을 잡아먹어야 하였습니까, 애지중지하는 그 어린것들을? 사제와 예언자가 주님의 성전에서 죽임을 당해야 하였습니까?
- 21 어린이와 늙은이는 길바닥에 쓰러져 있고 저의 처녀들과 총각들은 칼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당신 진노의 날에 당신께서 죽이셨습니다. 당신께서 사정없이 도살하셨습니다.
- 22 당신께서는 축제 날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듯 제가 무서워하는 것들을 사방에서 불러들이셨습니다. 주님 진노의 날에는 살아난 자도 도망한 자도 없습니다. 제가 애지중지하며 키운 것들을 제 원수들이 모두 절멸시켰습니다.

셋째 애가

고통과 희망

- 3 ¹ 고통과 희망 나는 그분 격노의 막대로 고통을 겪은 사나이.
- 2 그분께서는 빛 없는 어둠 속으로 나를 몰아쳐 걷게 하시고
- 3 당신 손을 날마다 나에게 돌려 내리치시네.
- 4 내 살과 내 살갓을 닳아 없어지게 하시고 내 뼈를 부수시며
- 5 쓰러림과 괴로움으로 성을 쌓아 나를 애우시고
- 6 오래 전에 죽은 자들처럼 나를 암흑 속에 살게 하셨네.
- 7 내 들레에 빠져나갈 수 없는 담을 쌓으시고 쇠사슬로 나를 무겁게 채우셨네.

- 8 내가 소리 지르며 도움을 청해도 내 기도 소리에 귀를 막아 버리시고
- 9 내 길에 마름들로 담을 쌓으시며 내 앞길을 막아 버리셨네.
- 10 나에게 그분은 숨어 기다리는 꿈 배복하여 엿보는 사자.
- 11 내가 길을 벗어나 내 몸이 굳어지게 하시고 나를 뺏뺏하게 만드셨네.
- 12 당신의 활을 당기시고 나를 화살 과녁으로 세우셨네.
- 13 당신의 화살들로 나의 내장을 꿰뚫으셨네.
- 14 나는 온 백성의 웃음거리가 되고 날마다 그들에게 조롱의 노랫거리가 되었네.
- 15 그분께서 나를 쓴나물로 배불리시고 쓴흰 썩 물을 마시게 하셨네.
- 16 내 이가 자갈을 씹어 부서지게 하시고 나를 땅에다 짓밟으셨네.
- 17 당신께서 이 몸을 평화 밖으로 내치시어 저는 행복을 잊었습니다.
- 18 그래서 나는 말하였네. "나의 영광과 주님께 걸었던 나의 기대는 사라져 버렸구나."
- 19 내 고통과 내 불안을 생각함은 쓴흰썩과 독초와 같은데도
- 20 내 영혼은 생각을 거듭하며 안에서 녹아 내리네.
- 21 하지만 이것을 내 마음에 새겨 나는 희망 하네.
- 22 주님의 자애는 다함이 없고 그분의 자비는 끝이 없어
- 23 아침마다 새롭다네. 당신의 신의는 크기도 합니다.
- 24 "주님은 나의 뭇, 그래서 나 그분께 희망을 두네." 하고내 영혼이 말하네.
- 25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 26 주님의 구원을 잠자코 기다림이 좋다네.
- 27 짧은 시절에 명예를 매는 것이 사나에게 좋다네.
- 28 그는 홀로 말없이 앉아 있어야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짐을 지우셨기 때문이네.
- 29 그는 제 입을 먼지 속에 박아야 하네. 어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지.
- 30 그는 자신을 때리는 이에게 뺨을 내주며 수치를 가득히 받아야 하네.
- 31 주님께서서는 마냥 버려두지 않으시네.
- 32 고통을 주셨다가도 당신의 크신 자애로 가없이 여기시네.
- 33 그분께서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억누르지도 슬프게 하지도 않으시네.
- 34 세상의 모든 수인들이 발아래 짓밟히는데
- 35 지극히 높으신 분의 면전에서 인간의 권리가 박탈당하는데
- 36 송사에서 사람이 불의하게 다루어지는데 주님께서 보지 않으실 리 있으랴?
- 37 주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으면 누가 명령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겠는가?
- 38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명령에 따라 일어나지 않는가?
- 39 그러니 살아 있는 인간이 무엇을 한탄하리오? 저마다 제 잘못을 한탄할 수밖에.
- 40 우리의 길을 성찰하고 반성하여 주님께 돌아가세.
- 41 손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 들어 올리세.
- 42 저희는 거역하고 반항하였으며 당신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 43 진노로 몸을 감싸고 저희를 뒤쫓아 오시어 사정없이 죽이셨습니다.
- 44 어떤 기도도 꿰뚫지 못하게 당신 자신을 구름으로 감싸셨습니다.
- 45 저희를 민족들 가운데에서 오물과 폐물로 만드셨습니다.
- 46 저희의 원수들은 모두 저희를 바웃고
- 47 공포와 함정, 몰락과 파멸이 저희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 48 저의 딸 백성의 파멸로 제 눈에서 눈물이

사내 되어 흘러내립니다.

- 49 내 눈은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멈출 줄을 모르네,
- 50 주님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실 때까지.
- 51 내 도성의 그 모든 딸들을 보아야 하는 내 눈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네.
- 52 까닭 없이 나의 원수가 된 자들이 나를 날짐승인 양 쫓고 또 쫓네.
- 53 내 생명을 구렁 속으로 치널고 내 위에 돌을 내던졌네.
- 54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쳐흘러 "나는 이제 끝났구나." 하고 말하였네.
- 55 그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저는 당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 56 "제 탄원과 간청에 귀를 막지 마소서." 하는 제 소리를 당신께서는 들으셨습니다.
- 57 제가 당신을 부르던 날 당신께서는 가까이 오시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 58 주님께서서는 저의 송사를 맡으시어 제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 59 주님께서서는 억압당하는 저를 보셨습니다. 저의 권리를 되찾아 주소서.
- 60 당신께서는 그들의 모든 복수심과 저를 해치려는 그들의 모든 흥계를 보셨습니다.
- 61 주님, 당신께서는 그들의 빈정거림을, 저를 해치려는 그들의 모든 흥계를 들으셨습니다.
- 62 제 적대자들의 말과 쭉덕거림은 언제나 저를 해치려는 것일 뿐.
- 63 그들이 앉거나 서거나 지켜보소서. 저는 그들에게 조롱의 노랫거리가 되었습니다.
- 64 주님,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그 소행에 따라, 그들 손의 행실에 따라 되갚으시리이다.
- 65 당신께서는 그들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리이다. 그들 위에 당신의 저주를 내리소서.
- 66 주님의 하늘 아래에서 당신께서는 진노하

시어 그들을 뒤쫓아 없애 버리시리이다.

넷째 애가

징벌의 한가운데에서

- 4 ¹ 징벌의 한가운데에서 아, 황금은 어이 이리 빛을 잃고 순금은 어이 이리 번하였는가? 거룩한 돌들은 거리 모퉁이 마다 흩어져 있구나.
- 2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도 금으로나 값은 매길 수 있던 그들, 아, 어찌하여 웅기장이 손이 빛어낸 질그릇처럼 여겨지는가?
- 3 승냥이들도 가슴을 헤쳐 제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건만 내 딸 백성은 사막의 타조처럼 매정하게 되어 버렸구나.
- 4 젓먹이는 목말라 허가 입천장에 달라붙고 어린것들은 빵을 달라고 애원하건만 그들에게 한 조각 주는 이가 없구나.
- 5 맛있는 것만 먹던 아이들이 거리에 쓰러져 움직일 줄 모르고 자주색 옷에 싸여 업혀 다니던 아이들이 쓰레기 더미를 껴안고 있구나.
- 6 내 딸 백성의 죄악은 소돔의 죄보다 더 크다, 누가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삽시간에 멸망해 버린 소돔보다도.
- 7 그 여자의 나지르인들은 눈보다 깨끗하고 우유보다 하얗며 몸은 산호보다 붉고 그 몸매는 청옥과도 같았는데.
- 8 그들의 모습은 감맹보다도 까맣게 되어 거리에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살가죽은 뼈에 달라붙어 장작처럼 메말랐구나.
- 9 칼에 맞아 죽는 자들이 더 행복하여라! 굶주림에 시달려 죽는 자들보다, 들의 수확이 없어 기진하여 숨져 가는 자들보다.
- 10 인정 많은 여인들의 손이 제 자식들을 잡아 삶았구나. 내 딸 백성이 파멸할 때 자식들이 어미들의 양식이 되었구나.

- 11 주님께서 당신의 분노를 죄다 터뜨리시고
당신 진노의 열기를 퍼부으시어 시온에 불
을 지르시니 그 토대까지도 타 버렸다네.
- 12 세상 임금들도 땅의 주민들도 모두 믿지
않았다네, 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 안
으로 들어오리라고는.
- 13 예루살렘 예언자들의 죄와 사제들의 죄악
때문이라네. 의인들의 피를 그 안에 흘린
자들 때문이라네.
- 14 그들은 피투성이가 되어 눈먼 이들처럼 거
리에서 비틀거리니 그들의 옷을 아무도 건
드릴 수 없었다네.
- 15 "비키시오, 부정한 자요!" 사람들이 그들
에게 소리 지르네. "비키시오, 비켜! 건드
리지 마시오." 그들이 비틀거리며 도망다
니는데 민족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말하네.
"저들은 여기에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
지."
- 16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흠여 버리시고 그들
을 다시는 살피보지 않으셨다네. 사람들은
사제들을 우러리지 않고 원로들을 동정하
지도 않았다네.
- 17 헛되이 도움을 바라느라 우리 눈은 멀어
버렸다네. 구해 주지도 못하는 민족을 고
대하며 우리는 망루에서 눈을 떼지 않았
다네.
- 18 저들이 우리 발걸음을 뒤쫓으니 우리네 광
장으로 갈 수도 없었다네. 우리의 끝이 가
까왔구나, 우리의 날수가 잦아. 그래, 우리
의 끝이 다가왔구나.
- 19 우리의 추적자들은 하늘의 독수리보다 빨
라 산에서는 우리를 맹렬하게 뒤쫓고 광야
에서는 우리를 숨어 기다렸네.
- 20 우리의 목숨인, 주님의 기쁨부음받은이는
저들의 구덩이에 붙잡혀 있다네. "우리는
민족들 사이에서 그의 그늘 아래 살리라."
말해 왔건만.
- 21 우츠 땅에 사는 딸 애돔아 기뻐하고 즐겨

워하여라. 너에게도 술잔이 건네지리니 너
도 취하여 별거승이가 되리라.

- 22 딸 시온아, 네 죄벌은 끝났다. 그분께서 너
를 다시는 유배 보내지 않으시리라. 딸 애
돔아, 그분께서 너의 죄를 벌하시리라. 너
의 죄악을 드러내시리라.

다섯째 애가

애원의 기도

5 ¹ 주님, 기억하소서, 저희가 어찌 되었
는지를. 바라다보소서, 저희의 치욕
을.

- 2 저희 상속의 땅은 외국인들에게 넘어가고
저희의 가옥들은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으며
3 저희는 아버 없는 고아들이 되고 저희의 어
미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4 저희의 물을 돈 내고 마셔야 하고 저희의
빨감도 값을 치르고 들어야 합니다.

- 5 저희는 목에 멍에를 맨 채 심하게 내몰려
기운이 다 빠졌건만 숨 돌리기조차 허락되
지 않습니다.

6 양식으로 배블리려고 저희는 이집트와 아시
리아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 7 죄를 지은 저희의 선조들은 이미 없는데 저
희가 그들의 죄악들을 짊어져야 합니다.

8 종들이 저희를 다스리게 되었건만 그 손에
서 빼내 줄 이 하나도 없습니다.

- 9 광야의 갈 앞에서 저희는 목숨을 걸고 양식
을 들여와야 합니다.

10 굶주린 끝에 신열로 저희 살갓은 불기마처
럼 달아올랐습니다.

- 11 시온에서 여인들이 겁탈당하고 유다 고을
들에서는 처녀들이 폭행당하며

12 저들의 손에 고관들이 매달려 죽고 원로들
은 엽신여검을 당하였습니다.

- 13 젊은이들은 땃돌을 돌리고 아이들은 나뭇
짐 밑에서 비틀거리며

- 14 원로들은 더 이상 성문에 있지 않고 젊은 이들은 수금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 15 저희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춤은 통곡으로 바뀌었으며
- 16 저희의 머리에서는 먼류관이 떨어졌습니다. 오, 애통합니다, 저희가 죄를 지었으니!
- 17 이 때문에 저희의 마음은 괴롭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의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 18 쾌허가 되어 여우들이 나돌아 다니는 시온 산 때문입니다.
- 19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는 영원히 좌정하여 계시고 당신의 어좌는 세세 대대로 이어집니다.
- 20 어찌하여 저희를 끝내 잊으려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희를 영영 버리려 하십니까?
- 21 주님, 저희를 당신께 되돌리소서, 저희가 돌아가오리다. 저희의 날들을 예전처럼 새롭게 하여 주소서.
- 22 정녕 저희를 물리쳐 버리셨습니까? 저희 때문에 너무도 화가 나셨습니까?

구약성경 - 32

예언서 - 4

바 룯 서

총 6 장
총 214 절

[구약성경]-[바룩서]

서문

- 1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은 바룩이 바빌론에서 쓴 것이다. 바룩은 힐기야의 현손이며 하사드야의 증손이고, 마흐세야의 손자이며 네리아의 아들이다.
- 2 바룩은 칼데아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불태운 지 오 년째 되던 해, 그달 초이렛날에 이 책을 썼다.
- 3 그는 이 책에 나오는 말씀을 유다 임금 여호아킴의 아들 여콘야와, 그 말씀을 들으러 온 모든 백성이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낭독해 주었다.
- 4 세도가들과 왕족들과 원로들과 높고 낮은 온 백성, 곧 숲 강 가 바빌론 모든 주민도 귀를 기울였다.
- 5 그러자 그들은 주님 앞에서 울고 단식하며 기도하였다.
- 6 그리고 저마다 힘닿는 대로 돈을 모아
- 7 예루살렘으로, 살룸의 손자이며 힐기야의 아들인 여호아킴 사제를 비롯한 모든 사제와, 그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온 백성에게 보냈다.
- 8 한편 바룩은 성전에서 빼앗긴 주님의 집 기물들을 돌려받아, 시완 달 초열흘날에 유다 땅으로 보냈다. 그것들은 유다 임금 요시아의 아들 치드키야가 만든 은 기물들이었다.
- 9 이것은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여콘야를 비롯하여 고관들과 포로들과 세도가들과 나라 백성을 예루살렘에서 끌어내어, 바빌론으로 데려간 뒤의 일이다.
- 10 그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돈을 보내니, 이 돈으로 번제물과 속죄제물과 유향을 사고 곡식 재물을 장만하여, 주 우리 하느님의 제단에서 바치십시오.
- 11 그리고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와 그 아들 벨사차르가 오래 살도록 기도하여,

땅에서 그들의 날들이 하늘의 날들처럼 되게 하십시오.

- 12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눈을 밝혀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와 그의 아들 벨사차르의 그늘 아래 살 것이며, 오랜 나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총애를 받을 것입니다.
- 13 또한 우리를 위해서도 주 우리 하느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 우리 하느님께 죄를 지어, 이날까지 주님의 분노와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까.
- 14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이 책을 축일과 정해진 날에 주님의 집에서 봉독하고, 그 내용대로 고백하면서

참회기도

고백

- 15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 우리 하느님께는 의로움이 있지만, 우리 얼굴에는 오늘 이처럼 부끄러움이 있을 뿐입니다.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
- 16 우리 임금들과 우리 고관들과 우리 사제들, 우리 예언자들과 우리 조상들에게도 부끄러움이 있을 뿐입니다.
- 17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를 짓고,
- 18 그분을 거역하였으며,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걸으라는 주 우리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 19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신 날부터 이날까지 우리는 주 우리 하느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예사로 여겼습니다.
- 20 주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려고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시던 날, 당신 종 모세를 통하여 경고하신 제양과 저주가 오늘 이처럼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 21 사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내 주신 예언자들의 온갖 말씀을 거슬러, 주 우리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시다.
- 22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주 우리 하느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저마다 제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2 ¹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우리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우리 판관들과 우리 임금들과 우리 고관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셨습시다.

- 2 그분께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은 온 하늘 아래 어디에서도 일어난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 3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제 아들의 살을, 또 어떤 사람은 제 딸의 살을 먹기까지 하였습니다.
- 4 나이가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지배에 넘기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백성 가운데로 흩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에서 굴욕을 당하고 패망하게 하셨습니다.
- 5 그들은 위로 오르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주 우리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 6 주 우리 하느님께는 의로움이 있지만, 우리와 우리 조상들 얼굴에는 오늘 이처럼 부끄러움이 있을 뿐입니다.
- 7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그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고야 말았습니다.
- 8 그런데도 우리는 저마다 제 악한 마음의 생각에서 돌아서지 않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 9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재앙을 준비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에 의로우시기 때문입

니다.

- 10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에 따라 걷지 않았습시다.

기도

- 11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강한 손과 표징과 기적과 큰 권능과 빠른 팔로 당신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시고, 오늘 이처럼 당신 이름을 떨치셨습시다.
- 12 주 저희 하느님, 저희는 당신의 모든 규정을 어겨 죄를 짓고, 경건하지도 의롭지도 못하게 살았습니다.
- 13 당신의 분노를 저희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당신께서 저희를 민족들 사이로 흩으시어 저희가 적은 수만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 14 주님,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소서. 당신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유배시킨 자들 앞에서 저희에게 은총을 내려 주소서.
- 15 그리하여 온 세상이, 당신께서 주 저희 하느님이시라는 것과, 이스라엘과 그 민족이 당신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 16 주님, 당신의 거룩한 집에서 저희를 굽어보시고 생각해 주소서.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 주소서.
- 17 눈을 뜨고 보소서. 정녕 몸에서 숨이 끊어져 저승으로 내려간 죽은 자들은 주님께 영광과 정의를 돌려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 18 그러나 주님, 크게 슬퍼하는 이, 허리를 구부리고 힘없이 걷는 이, 눈이 풀린 이와 배고픈 이는 당신께 영광과 의로움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 19 주 저희 하느님, 저희가 조상들이나 임금들의 의로운 행위를 내세워, 당신 앞에서 자비를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 20 당신께서는 정녕 당신의 분노와 진노를 저

희에게 내리셨습니다. 당신 중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 21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머리를 숙여 바빌론 임금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 22 그러나 너희가 만일 바빌론 임금을 섬기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 23 기쁜 소리와 즐거운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를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서 그치게 하겠다. 그러면 온 나라가 인적 없는 폐허가 될 것이다. "
- 24 그런데도 저희는 바빌론 임금을 섬기라는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는 저희 임금들의 뼈와 조상들의 뼈가 무덤에서 파헤쳐지리라고 당신 중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 25 과연 그 뼈들은 낮의 뜨거운 햇볕과 밤의 서리에 팽개쳐졌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굶주림과 칼과 유배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 26 당신께서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의 죄악 때문에, 당신 이름으로 불리는 성전을 오늘 이처럼 만드셨습니다.
- 27 주 저희 하느님, 당신께서는 온갖 선과 크신 자비로 저희를 대해 주셨습니다.
- 28 이것은 당신의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기록하라고 당신 중 모세에게 명령하신 날, 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 29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백성은, 내가 그들을 쫓아 보낸 민족들 가운데에서 적은 수로 줄어들 것이다.
- 30 나는 이 백성이 완고하여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유배의 땅에서 마음을 돌려,
- 31 내가 주 그들의 하느님을 알게 될 것이

다.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올바른 마음과 들을 귀를 주고,

- 32 그들은 유배의 땅에서 나를 찬양하고 내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 33 그리고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죄를 지은 자기네 조상들의 길을 기억하여, 자신들의 완고함과 악한 행실에서 돌아설 것이다.
- 34 그러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은 그 땅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불러나게 하리니, 그들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 35 나는 그들과 영원한 계약을 맺어, 내가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준 땅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는 내쫓지 않겠다."

3 ¹ 전능하신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 고통 받는 목숨과 지친 영혼이 당신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 2 주님, 들어 주소서.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지었으니 자비를 베푸소서.
- 3 당신께서는 영원히 죄정하여 계시지만, 저희는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 4 전능하신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 이제 이스라엘의 죽은 자들과 당신 앞에서 죄를 지은 그 자손들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그들은 주 그들의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저희에게 재앙이 닥치게 하였습니다.
- 5 저희 조상들의 불의한 행실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제는 당신의 권능과 이름을 기억해 주소서.
- 6 당신은 주 저희 하느님이십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 7 당신께서는 저희 마음에 당신에 대한 경외심을 새겨 주셔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유배살이를 하면서도 당

신을 찬양하겠습니다. 당신 앞에서 죄를 지은 저희 조상들의 모든 불의를 저희 마음에 떨쳐 버렸습니다.

- 8 보십시오, 오늘날 저희는 당신께서 저희를 흠여 버리신 곳에서 유배살이를 하며, 수치와 저주와 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조상들이 주 저희 하느님을 떠나 저지른 온갖 불의한 행실 때문입니다.

지혜에 관한 명상

권고

- 9 이스라엘아! 생명의 계명을 들어라. 귀를 기울여 예지를 배워라.
- 10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원수들의 땅에서 살며 남의 나라에서 늙어 가느냐?
- 11 네가 어찌하여 죽은 자들과 함께 더럽혀지고 저승으로 가는 자들과 함께 헤아려지게 되었느냐?
- 12 네가 지혜의 샘을 저버린 탓이다.
- 13 네가 하느님의 길을 걸었더라면 너는 영원히 평화롭게 살았으리라.
- 14 예지가 어디에 있고 힘이 어디에 있으며 지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배워라. 그러면 장수와 생명이 어디에 있고 눈을 밝혀 주는 빛과 평화가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깨달으리라.

가까이 갈 수 없는 지혜

- 15 누가 지혜의 자리를 찾았으며 누가 지혜의 보고에 들어갔는가?
- 16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어디 있으며 땅의 짐승들을 지배하던 자들은 어디 있는가?
- 17 하늘의 새들을 가지고 놀던 자들은 어디 있으며 사람들이 의지하고 끝없이 가지려 드는 금과 은을 쌓아 둔 자들은 어디 있는가?

- 18 수고한 흔적도 찾지 못하면서 돈을 벌려고 피하고 애쓰던 자들은 어디 있는가?
- 19 그들은 사라져 저승으로 내려가 버리고 그들 대신 다른 이들이 일어났다.
- 20 새로운 세대가 빛을 보며 땅 위에서 살았지만 슬기의 길은 알지 못하였다.
- 21 그들은 슬기의 행로를 깨치지도 파악하지도 못하고 그들의 자손들은 그 조상들의 길에서 멀어졌다.
- 22 슬기에 관하여 가나안에서 들어 볼 수 없고 그것을 테만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 23 세상의 지식을 구하던 하카르의 자손들 메란과 테만의 상인들 이야기꾼들과 지식의 길을 구하던 이들도 지혜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 행로를 기억하지 못하였다.
- 24 아 이스라엘아, 하느님의 집이 얼마나 크고 그분의 소유지가 얼마나 넓으냐!
- 25 크고 끝없고 높아 젤 수가 없다.
- 26 이름난 거인들이 예로부터 거기에서 났는데 그들은 키가 크고 싸움에 능하였다.
- 27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슬기의 길을 주지도 않으셨다.
- 28 그들은 예지가 없어 망하였고 생각이 모자라 망하였다.
- 29 누가 하늘에 올라가 슬기를 잡았으며 누가 구름에서 슬기를 끌어 내렸는가?
- 30 누가 바다를 건너 슬기를 찾아냈으며 누가 순금을 주고 슬기를 사 오겠는가?
- 31 슬기의 길은 아는 이도 없고 그 행로를 깊이 생각하는 이도 없다.

하느님만이 슬기를 아시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

- 32 모든 것을 보시는 그분만이 슬기를 아시고 당신의 지식으로 그것을 찾아내신다. 이 세상이 영원하도록 마련하신 그분께서 그곳을 내발 가진 짐승들로 채우셨다.
- 33 그분께서 보내시니 빛이 가고 그분께서 부

르시니 빛이 떨어 복중한다.

- 34 별들은 때맞추어 빛을 내며 즐거워한다.
- 35 그분께서 별들을 부르시니 "여기 있습니다." 하며 자기들을 만드신 분을 위하여 즐겁게 빛을 낸다.
- 36 이분께서 우리 하느님이시니 어느 누구도 이분께 건줄 수 없다.
- 37 그분께서 슬기의 길을 모두 찾아내시어 당신 중 아곱과 당신께 사랑받는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 38 그러고 나서야 땅 위에 슬기가 나타나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다.

4 ¹ 슬기는 하느님의 명령과 길이 남을 율법을 기록한 책이다. 슬기를 붙드는 이는 살고 그것을 버리는 자는 죽는다.

권고

- 2 아곱아, 돌아서서 슬기를 붙잡고 그 슬기의 불빛을 향하여 나아가라.
- 3 네 영광을 남에게 넘겨주지 말고 네 특권을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지 마라.
- 4 이스라엘아, 우리는 행복하구나!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고 있다.

예루살렘을 위한 권고와 위로

유배자들에게 보내는 권고

- 5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내 백성아, 용기를 내어라.
- 6 너희가 이민족들에게 팔린 것은 멸망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너희가 하느님을 진노하시게 하였기에 원수들에게 넘겨진 것이다.
- 7 사실 너희는, 하느님이 아니라 마귀들에게 제사를 바쳐 너희를 만드신 분을 분노하시게 하였다.
- 8 너희는 너희를 길러 주신 영원하신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너희를 키워 준 예루살렘을

슬프게 하였다.

- 9 예루살렘은 너희에게 하느님의 진노가 내리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들어라, 시온의 이웃들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큰 슬픔을 내리셨다.
- 10 나는 영원하신 분께서 내 아들딸들에게 지우신 포로살이를 보았다.
- 11 나는 그들을 기쁨으로 키웠지만 슬픔과 눈물로 그들을 떠나보내야 했다.
- 12 과부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버림받은 나를 두고 아무도 기뻐하지 말아 다오 나는 내 자식들의 죄 때문에 황폐해졌다. 그들은 하느님의 율법을 멀리하고
- 13 그분의 규정들을 깨치지 못하였으며 하느님께서 주신 계명의 길을 가지도 않고 그분의 의로움에 따라 교훈의 행로를 걷지도 않았다.
- 14 시온의 이웃들이, 오너라. 너희는 영원하신 분께서 내 아들딸들에게 지우신 포로살이를 생각하여라.
- 15 그분께서는 먼 곳에서 한 민족을 그들에게 끌어들이셨다. 그 민족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다른 언어를 쓰며 노인을 존경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무자비하였다.
- 16 또한 그들은 과부가 사랑하는 아들들을 끌어가고 혼자된 여인에게서 딸들을 갖아 갔다.
- 17 그러나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 18 재앙을 내리신 바로 그분께서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너희를 빼내어 주시리라.
- 19 나아카라, 아이들아, 나아카라. 나는 정녕 버려져 외롭게 되었다.
- 20 나는 평화로울 때 입던 옷을 벗고 기도할 때 입는 자루옷을 둘렀다. 나는 영원하신 분께 한평생 부르짖으리라.
- 21 아이들아, 용기를 내어 하느님께 부르짖어라. 그분께서 너희를 억압에서, 원수들의

손에서 빼내어 주시리라.

- 22 나는 영원하신 분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를 비뚤다. 영원하신 너희 구세주께서 너희에게 곧 베푸실 자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분에게서 나에게 기쁨이 왔다.
- 23 나는 슬픔과 눈물로 너희를 떠나보냈지만 하느님께서 환희와 즐거움으로 너희를 영원히 나에게 돌려보내 주시리라.
- 24 사온의 이웃들이 지금 너희의 포로살이를 보지만 머지않아 너희 하느님에게서 구원이 내리는 것도 보게 되리라. 그 구원은 영원하신 분의 큰 영광과 광채와 함께 너희에게 오리라.
- 25 아이들아,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내리신 진노를 참아 내어라. 원수가 너를 박해하였으나 머지않아 너희가 그의 멸망을 보고 그들의 목을 밟게 되리라.
- 26 연약한 내 아이들은 험한 길을 걸어갔고 원수들에게 빼앗긴 양 떼처럼 끌려갔다.
- 27 아이들아, 용기를 내어 하느님께 부르짖어라. 이 재앙을 내리신 주님께서 너희를 기억해 주시리라.
- 28 너희 마음이 하느님을 떠나 방황하였으나 이제는 돌아서서 열 배로 열심히 그분을 찾아야 한다.
- 29 그러면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신 그분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에게 영원한 기쁨을 안겨 주시리라."

예루살렘에 대한 위로

- 30 용기를 내어라, 예루살렘아! 너에게 이름을 지어 주신 분께서 너를 위로하시리라.
- 31 너를 괴롭히고 내가 쓰러지는 것을 기뻐하던 자들은 불행하다.
- 32 네 아이들을 종으로 삼은 성읍들은 불행하다. 네 이들을 잡아 둔 성읍도 불행하다.
- 33 그 성읍은 내가 쓰러지는 것을 기뻐하고 내가 망하는 것을 즐거워하였으니 저도 혼

자된 신세를 슬퍼하리라.

- 34 그 성읍에 사는 큰 군중의 기쁨을 내가 앗아 가리니 그들의 자만이 슬픔으로 바뀌리라.
- 35 영원하신 분에게서 불이 내려와 그 성읍이 여러 날 타고 마귀들이 그곳에 오래 자리잡으리라.
- 36 예루살렘아, 동쪽으로 눈을 돌려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 37 보라, 내가 떠나보낸 아들들이 온다. 그들은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동쪽에서 서쪽까지 사방에서 모여 온다.

- 5 ¹ 예루살렘아, 슬픔과 재앙의 옷을 벗어 버리고 하느님에게서 오는 영광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입어라.
- 2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의 겹옷을 갈치고 영원하신 분의 영광스러운 관을 네 머리에 씌라.
- 3 하느님께서 하늘 아래 어디서나 너의 광채를 드러내 주시고
- 4 '의로운 평화, 거룩한 영광' 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너를 부르실 것이다.
- 5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동쪽으로 눈을 돌려 보아라. 네 자녀들이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께서 기억해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해 지는 곳에서 해 뜨는 곳까지 사방에서 모여드는 것을 보아라.
- 6 그들은 원수들에게 끌려 너에게서 맨발로 떠나갔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왕좌처럼 영광스럽게 들어 올려 너에게 데려오신다.
- 7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신 영광 안에서 안전하게 나아가도록 높은 산과 오래된 언덕은 모두 낮아지고 골짜기는 매워져 평지가 되라고 명령하셨다.
- 8 하느님의 명령으로 숲들도 온갖 향기로운 나무도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드리우리라.

9 하느님께서는 당신에게서 나오는 자비와 의로움으로 당신 영광의 빛 속에서 이스라엘을 즐거이 이끌어 주시리라.

에레미야의 편지

6 ¹ 에레미야가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바빌론인들의 임금인 바빌론으로 끌고 간 포로들에게 전하려고 보낸 편지의 사본. (1절) 너희는 하느님 앞에서 지은 죄 때문에 바빌론인들의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2 그리하여 너희는 바빌론으로 들어가, 일곱 세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해 동안 긴 세월을 그곳에서 보낼 것이다. 그러나 그 뒤에 나는 너희를 거기에서 무서히 데리고 나오겠다.

3 너희는 이제 바빌론에서 사람들이 은과 금과 나무로 만든 신들을 어깨에 메고 다니며 이만족들을 두렵게 하는 것을 볼 것이다.

4 그러나 너희도 다른 만족들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또한 저 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5 너희는 군중이 앞뒤에서 그것들에게 경배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 경배드릴 분은 당신뿐이십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여라.

6 내 천사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 목숨을 돌볼 것이다.

7 그것들의 혀는 목수가 다듬고 금과 은으로 도금해 놓았지만, 가짜라서 말을 할 수가 없다.

8 그들은 몸치장을 좋아하는 처녀에게 해 주듯, 금을 가져다가

9 관을 만들어 저희 신들의 머리에 씌운다. 그러나 사제들은 저희 신들에게서 금과 은을 떼어다가 자신들을 위해 함부로 쓰기도 하고,

10 심지어 누각의 창녀들에게 주기도 한다. 그들은 은과 금과 나무로 된 신들을 사람처럼 옷을 입혀 꾸미지만,

11 그 신들은 녹슬고 썩먹는 것을 스스로 막아 내지 못한다. 그것들은 자주색 옷을 입었으나,

12 사람들은 그것들 위에 뒤덮인 신전의 먼지 때문에 그 얼굴을 닦아 낸다.

13 어떤 신은 지방 제판관처럼 흠을 쥐고 있어도, 자기에게 죄지는 자를 죽이지 못한다.

14 또 어떤 신은 오른손에 칼과 도끼를 들었지만, 전쟁과 강도들에게서 자신을 보호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들이 신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15 사람이 쓰는 그릇이 깨지면 쓸모없어지듯,

16 그들이 신전에 모셔다 놓은 신들도 그렇게 된다. 그것들의 눈에는 신전에 들어오는 자들의 발에서 일어난 먼지가 가득 쌓여 있다.

17 임금에게 잘못을 저질러 사형당할 자를 가두고 사방을 막듯, 사제들은 강도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신전을 문과 자물쇠와 빗장으로 안전하게 한다.

18 그들은 그 신들이 보지도 못하는 등불을 자기 집보다 더 많이 켜 놓는다.

19 그것들은 신전의 들보나 같다. 땅에서 나온 벌레들이 그 신들의 심장이라는 것을 갉아 먹고 옷까지 먹어 치워도 그것들은 아픈 줄 모른다.

20 그 신들의 얼굴은 신전의 연기로 검게 그을렸다.

21 그 몸통과 머리 위에는 박쥐와 제비와 그밖의 다른 새들뿐 아니라 고양이들까지 올라가 않는다.

22 그래서 너희는 그것들이 신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들을 무서워

- 하지 마라.
- 23 그것들은 금으로 보기 좋게 입혀 놓아도, 누군가 때를 닦아 내지 않으면 결코 빛나지 못한다. 그것들은 부어 만들어질 때에도 아픈 줄 모른다.
- 24 그것들은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샀어도 그 안에 숨결이 없다.
- 25 그것들은 발이 없으니, 남들 어깨 위에 얹혀 다니며 저희 수치를 사람들에게 드러낸다. 그래서 그것들을 섬기는 자들도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
- 26 그 가운데 하나가 땅에 넘어지면 섬기는 자들이 일으켜 주어야 하는 것이다. 누군가 그것을 똑바로 세워도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기울어져도 바로 서지 못한다. 그러니 그것들에게 예를 바치는 것은 죽은 자들에게 바치는 것과 같다.
- 27 사제들은 그 앞에 바쳐진 제물을 팔아 제 이익을 챙긴다. 이처럼 사제들의 아내들도 제물의 일부를 소금에 절여 저장해 놓고서, 가난한 이와 힘없는 이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다.
- 28 게다가 그 제물을 달거리하는 여자와 몸푸는 여자가 만진다. 그래서 그것들이 신이 아님을 알 수 있으니, 너희는 그것들을 무시워하지 마라.
- 29 은과 금과 나무로 만든 산들에게 여자들이 음식을 차려 놓으니, 어찌 그런 것들을 신이라고 부르겠느냐?
- 30 사제들은 찢어진 속옷을 입고 머리와 수염을 깎고 머리를 가리지 않은 채, 그 신전에서 수레를 끈다.
- 31 그들은 초상집에 온 사람들처럼, 자기네 신들 앞에서 소리치며 울부짖는다.
- 32 사제들은 그것들의 옷을 벗겨다가 제 아내와 자식들에게 입힌다.
- 33 그것들은 누구한테 나쁜 대접을 받든 좋은 대접을 받든 되값을 수 없다. 그것들은 임금을 세우지도 못하고 몰아내지도 못한다.
- 34 마찬가지로 그것들은 재물도 돈도 주지 못한다. 누가 그것들에게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아도 요구하지 않는다.
- 35 그것들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 내지도 못하고, 약자를 강자에게서 빼내지도 못한다.
- 36 눈먼 사람의 시력을 되돌리지도 못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빼내지도 못한다.
- 37 과부에게 자선을 베풀지도 못하고, 고아를 잘 돌보아 주지도 못한다.
- 38 나무로 만들어 금과 은을 입힌 그것들은 산에서 가져온 돌이나 다름없으며, 그것들을 섬기는 자들도 창피를 당한다.
- 39 그러니 어떻게 그것들을 신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부를 수 있겠느냐?
- 40 칼데아인들도 그것들을 존경하지 않는다. 그들은 말 못하는 병어리를 보면 그를 벨에게 데리고 가, 마치 벨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거나 하듯, 그 병어리가 말하게 해 달라고 간청한다.
- 41 그런데 그들은 무지해서 그것들을 버릴 생각을 못한다.
- 42 여자들이 허리에 끈을 두르고 길거리에 나와 앉아 밀겨를 태운다.
- 43 그러다가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그 가운데 한 여자를 데리고 가서 자고 나면, 그 여자는 옆의 여자를 보고 자기만 한 매력 없이 어서 아무도 그의 끈을 풀어 주지 않았다고 비웃는다.
- 44 이런 산들을 두고 벌어지는 일들은 모두 거짓이다. 그러니 어떻게 그것들을 신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부를 수 있겠느냐?
- 45 그것들은 목수들과 금 세공인들이 만들었다. 그것들은 장인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질 뿐이다.
- 46 그것들을 만든 자들도 오래 살지 못한다.
- 47 그러니 어떻게 그들이 만든 것들을 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후손들에게 거짓

과 수치를 남길 뿐이다.

- 48 그것들에게 전쟁이나 재앙이 닥치면, 사제들은 그것들과 함께 어디에 숨을까 하고 저희끼리 의논한다.
- 49 그러나 이처럼 전쟁이나 재앙에서 자신을 구할 수 없는 것들이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
- 50 그것들은 나무로 만들어 금과 은을 입힌 것이니 나중에 거짓임이 밝혀질 것이다. 그것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이며, 그것들 안에 신의 활동이 없다는 사실이 모든 민족들과 임금들에게 드러날 것이다.
- 51 그러니 그것들이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가 모르겠느냐?
- 52 그것들은 결코 나라의 임금을 세울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 줄 수도 없으며,
- 53 자신들의 송사를 처리하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당한 사람을 힘이 없어 구제하지도 못한다.
- 54 그것들은 하늘과 땅 사이에 사는 까마귀들이나 같다. 나무로 만들어 금과 은을 입힌 신들을 모셔 놓은 신전에 불이 나면, 사제들은 도망쳐 살아남겠지만, 신들은 들보처럼 그 안에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 55 그것들은 임금이나 적들에게 맞설 수 없다.
- 56 그러니 어떻게 그것들을 신으로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나무로 만들어 금과 은을 입힌 신들은 도둑이나 강도들에게서 자신을 구할 수 없다.
- 57 힘센 자들은 금과 은을 빼앗고 그것들에게 입혀 놓은 옷을 벗겨 가져간다. 그런데도 그것들은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
- 58 그러니 이런 거짓 신들보다는 차라리 제 위용을 드러낼 수 있는 임금이 되거나, 주인이 집에서 쓸모 없게 쓸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게 낫다. 또 거짓 신들보다는 집 안

에 있는 것을 지켜 주는 집의 문이 되는 게 낫다. 아니면 거짓 신들보다는 궁전의 나무 기둥이 되는 게 낫다.

- 59 태양과 달과 별들은 빛을 내며, 맡겨진 제 일에 충실하다.
- 60 이처럼 번개도 번쩍일 때면 잘 보인다. 마찬가지로 바람도 어느 곳에서나 분다.
- 61 구름은 온 세상을 다니라는 하느님의 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을 수행한다.
- 62 불도 산과 숲을 태우라는 명을 위에서 받고 그 명을 이행한다. 그런데 저 신들은 겉모습이나 힘에서 이것들과도 견줄 수 없다.
- 63 판결을 내릴 줄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좋은 일도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신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부를 수는 없다.
- 64 그러니 그것들이 신이 아님을 알고, 그것들을 무시워하지 마라.
- 65 그것들은 임금들에게 저주나 복을 내리지도 못한다.
- 66 또한 민족들에게 하늘의 표징을 보여 주지도 못하고, 태양처럼 빛을 내거나 달처럼 빛나지도 못한다.
- 67 피신처로 달이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짐승들이 그것들보다 낫다.
- 68 그러니 그것들이 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줄 방법이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들을 무시워하지 마라.
- 69 나무로 만들어 금과 은을 입힌 그들의 신들은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는 오이 발의 허수아비와 같다.
- 70 나무로 만들어 금과 은을 입힌 그들의 신들은 온갖 새들이 내려앉은 뜰의 가시덤불과 같으며, 어둠 속에 내던져진 주검과 같다.
- 71 그것들에게 입혀 놓은 자주색 옷이나 아파포가 썩는 것으로 보아, 그것들이 신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마침내 그것들은 썩아 없

어저 그 나라의 수치가 된다.

72 그러니 우상을 갖지 않은 의로운 사람이 더 낫다. 그는 수치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구약성경 - 33

예언서 - 5

에제키엘서

총 48 장

총 1,273 절

[구약성경]-[에제키엘서]

에제키엘이 환시를 보다

- 1 제삼십년 넷째 달 초닷새날이었다. 나는 유배자들과 함께 크바르 강가에 있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나는 하느님께서 보여 주시는 환시를 보았다.
- 2 그날 초닷새날, 곧 여호아킨 임금의 유배 제오년에,
- 3 주님의 말씀이 칼데아인들의 땅 크바르 강가에 있는, 부즈의 아들 에제키엘 사제에게 내리고, 주님의 손이 그곳에서 그에게 내리셨다.

주님의 발현

- 4 그때 내가 바라보니,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 오면서, 광채로 둘러싸인 큰 구름과 번쩍거리는 불이 밀려드는데, 그 광채 한가운데에는 불 속에서 빛나는 금불이 같은 것이 보였다.
- 5 또 그 한가운데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습은 이러하였다. 그들은 사람의 형상과 같았다.
- 6 저마다 얼굴이 넷이고, 날개도 저마다 넷이었다.
- 7 다리는 곧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았는데, 광년 구리처럼 반짝거렸다.
- 8 그들의 날개 밑에는 사방으로 사람 손이 보였고, 네 생물이 다 얼굴과 날개가 따로 있었다.
- 9 그들의 날개는 서로 닿아 있으면서, 나아갈 때에는 몸을 돌리지 않고 저마다 곧장 앞으로 갔다.
- 10 그들의 얼굴 형상은 사람의 얼굴인데, 넷이 저마다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은 황소의 얼굴이었으며 독수리의 얼굴도 있었다.
- 11 이것이 그들의 얼굴이었다. 그들의 날개는 위로 펼쳐진 채, 저마다 두 날개는 서로 닿고 다른 두 날개는 몸을 가리고 있었다.
- 12 그들은 저마다 곧장 앞으로 나아가는데, 몸을 돌리지 않고 어디로든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갔다.
- 13 그 생물들 가운데에는 불타는 숯불 같은 것이 있었는데, 생물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햇불의 모습 같았고, 그 불은 광채를 낼 뿐만 아니라, 그 불에서는 번개도 터져 나왔다.
- 14 그리고 생물들은 번개가 치는 모습처럼 나왔다 들어갔다 하였다.
- 15 내가 그 생물들을 바라보니, 생물들 옆 땅 바닥에는 네 얼굴에 따라 바퀴가 하나씩 있었다.
- 16 그 바퀴들의 모습과 생김새는 빛나는 녹주석 같은데, 빛의 형상이 모두 같았으며, 그 모습과 생김새는 바퀴 안에 또 바퀴가 들어 있는 것 같았다.
- 17 그것들이 나아갈 때에는, 몸을 돌리지 않고 사방 어디로든 갔다.
- 18 바퀴 테두리는 모두 높다랗고 보기에 무서운 데다, 그 네 테두리 사방에 눈이 가득하였다.
- 19 그 생물들이 나아가면 그 곁에서 바퀴들도 나아가고,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떠올랐다.
- 20 어디로든 영이 가려고 하면, 생물들은 영이 가려는 그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올랐다. 그 바퀴들 안에 생물의 영이 있었기 때문이다.
- 21 생물들이 나아가면 바퀴들도 나아가고, 생물들이 멈추면 바퀴들도 멈추었다. 또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올랐다. 그 바퀴들 안에 생물의 영이 있었기 때문이다.
- 22 그 생물들 머리 위에는 빛나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무섭게 자리 잡았는데, 그

들 머리 위로 펼쳐져 있었다.

- 23 그 궁창 밑에서 생물들은 두 날개를 서로 맞닿게 펴고, 나머지 두 날개로는 몸을 가리고 있었다.
- 24 그들이 나아갈 때에는 날개 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큰 물이 밀려오는 소리 같고 전능하신 분의 찬등소리 같았으며, 군중의 고향소리, 진영의 고향소리 같았다. 그러다가 멈출 때에는 날개를 접었다.
- 25 그들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다가 멈출 때에는 날개를 접었다.
- 26 그들의 머리 위 궁창 위에는 청옥처럼 보이는 여좌 형상이 있고, 그 여좌 형상 위에는 사람처럼 보이는 형상이 앉아 있었다.
- 27 내가 또 바라보니,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부분의 위쪽은 빛나는 금붙이와 같고, 사방이 불로 둘러싸인 것 같았다. 그리고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부분의 아래쪽은 불처럼 보였는데, 사방이 광채로 둘러싸여 있었다.
- 28 사방으로 뻗은 광채의 모습은, 비 오는 날 구름에 나타나는 무지개처럼 보였다. 그것은 주님 영광의 형상처럼 보였다. 그것을 보고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나는 말씀하시는 분의 소리를 들었다.

에제키엘이 소명을 받다

2

- 1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 2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때 나는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 3 그분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아,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나를 반역해 온 저 반역의 민족에게 너를 보낸다.

그들은 저희 조상들처럼 오늘날까지 나를 기억해 왔다.

- 4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완고한 저 자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하고 말하여라.
- 5 그들이 듣든, 또는 그들이 반항의 집안이어서 듣지 않든, 자기들 가운데에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만은 알게 될 것이다.
- 6 그러나 너 사람의 아들이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도 두려워하지 마라. 비록 가시가 너를 둘러싸고, 내가 전갈 때 가운데에서 산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는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보고 떨지도 마라. 그들은 반항의 집안이다.
- 7 듣든 말든 너는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그들은 반항의 집안이다.
- 8 너 사람의 아들이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저 반항의 집안처럼 반항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리고 입을 벌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먹어라."
- 9 그래서 내가 바라보니, 손 하나가 나에게 뻗어 있는데, 거기에는 두루마리 하나가 놓여 있었다.
- 10 그분께서 그것을 내 앞에 펴 보이시는데, 앞뒤로 글이 적혀 있었다. 거기에는 비탄과 탄식과 한숨이 적혀 있었다.

3

- 1 그분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아, 내가 보는 것을 받아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안에게 말하여라."
- 2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려자 그분께서 그 두루마리를 입에 넣어 주시며,
- 3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배를 불리고 속을 채워라." 그리하여 내가 그것을 먹으니 꿀처럼 입에 달았다.
- 4 그분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이스라엘 집안에게 가서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하여라.

- 5 이상한 말과 어려운 언어를 쓰는 민족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집안에게 너를 보낸다.
- 6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과 어려운 언어를 쓰는 많은 민족들에게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면, 그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 7 그러나 이스라엘 집안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은 모두 이마가 단단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어서,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 8 보아라, 내가 네 얼굴도 그들의 얼굴처럼 단단하게 만들고, 네 이마도 그들의 이마처럼 단단하게 만들었다.
- 9 네 이마를 비위보다 단단하게 하여 금강석처럼 만들었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보고 떨지도 마라. 그들은 반항의 집안이기 때문이다."
- 10 그분께서 계속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모두 마음에 받아들이고 귀담아들여라.
- 11 그리고 네 동포 유배자들에게 가서 일러라. 그들이 듣든 말든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 12 그런 다음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던 그 자리에서 위로 올라갈 때, 큰 진동 소리가 내 뒤에서 들렸다.
- 13 그 큰 진동 소리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치는 소리와 그 곁의 바퀴들에서 나는 소리였다.
- 14 이렇게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려가셨다. 그래서 내가 쓰러리고 초조한 마음으로 가는데, 주님의 손이 나에게 무겁게 내리셨다.
- 15 나는 크바르 강 가에 사는 이들, 곧 텔 아비브에 사는 유배자들에게 이르렀다. 그들

은 바로 그곳에 살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이레 동안 그들 가운데에 아연히 앉아 있었다.

예언자: 파수꾼

- 16 이레가 지난 다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 17 "사람의 아들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안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 18 기령 내가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고 말하는데도, 내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곧 내가 악인에게 그 악한 길을 버리고 살도록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가 죽는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 19 그러나 내가 악인에게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기의 악과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 20 그리고 의인이 정의를 버리고 불의를 저지르면, 내가 그 앞에 걸림돌을 놓아 그가 죽게 하겠다. 내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가 한 의로운 행실들은 기억되지도 않은 채 자기 죄악 때문에 죽겠지만, 그가 죽는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 21 그러나 의인이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경고해 주어서 그 의인이 죄를 짓지 않게 되면, 그가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살게 되고, 너도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에제키엘이 병어리가 되다

- 22 그곳에서 주님의 손이 나에게 내리셨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넓은 계곡으로 나가라. 내가 그곳에서 너와 이야기하겠다."
- 23 그래서 내가 일어나 넓은 계곡으로 나가 보니, 전에 크바르 강 가에서 본 것과 같

은 주님의 영광이 그곳에 서 있었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 24 그때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네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가라.
- 25 너 사람의 아들이야, 너는 이제 밧줄로 묶어서 사람들에게 나가지 못할 것이다.
- 26 더욱이 내가 네 허를 입천장에 붙여 너를 병어리로 만들어서, 그들을 꾸짖지 못하게 하겠다. 그들은 반항의 집안이기 때문이다.
- 27 그러나 내가 너와 이야기할 그때에 너의 입을 열어 줄 터이니, 너는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들을 사람은 듣고 말 사람은 말게 하여라. 그들은 반항의 집안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이 적에게 포위된다

- 4 ¹ "너 사람의 아들이야, 벽돌을 가져다가 앞에 놓고 그 위에 도성 하나를, 곧 예루살렘을 세겨라.
- 2 그런 다음 그 도성에 포위망을 쳐라. 공격 보루를 세우고 공격 축대를 쌓아라. 또 진을 치고 성벽 부수는 기계를 성 둘레에 놓아라.
- 3 그리고 너는 철탑을 가져다가 너와 그 도성 사이에 철탑벽을 세우고, 그 도성에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 이렇게 그 도성을 포위하고 포위망을 좁혀라. 이것이 이스라엘 집안에게 보여 주는 표징이다.
- 4 너는 또 왼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누워서, 그 위에 이스라엘 집안의 죄를 놓아라. 그렇게 누워 있는 날수만큼 내가 그들의 죄를 짊어지는 것이다.
- 5 나는 그들 죄의 햇수만큼 날수를 정하였으니, 곧 삼백구십 일이다. 너는 그렇게 이스라엘 집안의 죄를 짊어져야 한다.
- 6 그 날수를 채운 다음에는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누워서, 유다 집안의 죄를 짊어져라. 하루를 한 해씩으로 쳐서 사십 일 동안이다.

- 7 너는 포위된 예루살렘에서 얼굴을 돌리지 말고 팔을 걷어붙인 채, 그 도성을 거슬러 예언하여라.
- 8 나는 너를 밧줄로 묶어서, 내가 갇혀 있는 기한이 다 할 때까지 옆구리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돌리지 못하게 하겠다.
- 9 너는 밀과 보리와 누에콩과 불콩과 가장과 귀리를 가져다가, 그릇 하나에 담아 내가 먹을 빵을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누워 있는 동안, 곧 삼백구십 일 동안 그 빵을 먹어라.
- 10 내가 먹는 음식은 저울로 달아 하루에 스무 세켈씩, 시간을 정해 놓고 먹어라.
- 11 물도 양을 제어 하루에 육분의 일 한씩 마시는데, 그것도 시간을 정해 놓고 마셔라.
- 12 너는 그 빵을 보리 빵처럼 구워 먹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으로 불을 피워 구워라."
- 13 그런 다음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민족들 사이로 내쫓으면, 그들은 그곳에서 이처럼 부정한 빵을 먹을 것이다."
- 14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아, 주 하느님! 저는 저 자신을 부정하게 만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저절로 죽거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고기가 제 입속으로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 15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좋다. 그러면 인분 대신 쇠똥을 쓰도록 허락한다. 그것으로 불을 피워 빵을 구워라."
- 16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야, 내가 이제 예루살렘의 양식을 끊어 버리겠다. 그래서 그들은 걱정에 싸여 빵을 저울로 달아 먹고, 놀라서 떨며 물도

양을 재어 마실 것이다.

- 17 그들은 빵과 물이 모자라 하나같이 놀라면서, 자기들의 죄 때문에 스러져 갈 것이다."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는 상징 행동

- 5 ¹ "너 사람의 아들이, 날카로운 칼을 한 자루 가져다가, 그것을 이발사의 면도날처럼 사용하여 네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고, 저울을 가져다가 그것을 나누어라.
- 2 그리고 포위 기간이 끝날 때, 삼분의 일은 성안에서 불로 태워 버리고, 삼분의 일은 가져다가 성을 돌며 칼로 내려치고, 또 삼분의 일은 바람에 날려 버려라. 그러면 내가 칼을 빼 들고 그것들을 뒤쫓겠다.
- 3 그러나 그것들 가운데에서 조금은 남겨 두었다가, 네 옷자락에 묶어 두어라.
- 4 다시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꺼내어 불 속에 던져 살라라. 거기에서 불이 나와 온 이스라엘 집안으로 번질 것이다."

상징 행동의 풀이

- 5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나는 그 도성이 못 나라에 둘러싸여 민족들 한가운데에 자리 잡게 하였다.
- 6 그러나 예루살렘은 나의 법규들을 다른 민족들보다 더 악하게 거슬렀다. 나의 규정들을 들레에 있는 나라들보다 더 거슬렀다. 정녕 그들은 나의 법규들을 업신여기고 나의 규정들을 따르지 않았다.
- 7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들레에 있는 민족들보다 더 반항하여 내 규정들을 따르지 않고 내 법규들을 지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들레에 있는 민족들의 법규들을 지켰다.
- 8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보아라, 나도 너 예루살렘을 대적하겠다. 그리고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네 가운데에 벌을 내

리겠다.

- 9 너의 그 모든 역겨운 것 때문에, 내가 전에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그런 일을 너에게 하겠다.
- 10 그리하여 네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아버지를 잡아먹게 될 것이다. 나는 이렇듯 너에게 벌을 내리고, 그러고도 너에게 남은 자들을 모두 사망으로 흩어 버리겠다.
- 11 그러므로 내 생명을 걸고 말한다.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의 그 모든 혐오스러운 것과 역겨운 것으로 나의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잘라 내고 동정하지 않으며, 또한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 12 너의 주민 삼분의 일은 성안에서 흑사병으로 죽거나 굶주림으로 스러져 가고, 삼분의 일은 너의 성 들레에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또 삼분의 일은 내가 사망으로 흩어 버린 다음, 칼을 빼 들고 그들을 뒤쫓겠다.
- 13 나는 이렇게 내 분노를 다 쏟아 내어 그들에 대한 화를 가라앉히고 내 속을 후련하게 하겠다. 이렇듯 내가 그들에 대한 화를 다 쏟을 때, 그들은 비로소 나 주님이 질투 속에서 말하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 14 나는 또 지나가는 모든 이가 보도록, 네 들레에 있는 민족들 사이에서 너를 쾌허와 우셋거리로 만들겠다.
- 15 내가 분노하고 화를 내며 열화 같은 징계로 너에게 벌을 내리면, 너는 들레에 있는 민족들에게 우셋거리와 치욕 거리가 되고, 교훈과 놀람 거리가 될 것이다. 나 주님이 말하였다.
- 16 너희에게 비참한 굶주림의 화살, 곧 너희를 파멸시키려고 멸망의 화살을 쏠 때, 나는 너희의 굶주림을 더욱 심하게 하고 너희의 양식을 끊어 버리겠다.

17 나는 또 너희에게 굶주림만이 아니라, 사나운 짐승들을 보내어 너희 자식들을 잇아 가게 하겠다. 그리고 흑사병과 피가 너에 루살렘을 휩쓸어 지나가게 하고, 너를 칠 칼을 끌어들이겠다. 나 주님이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6

1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2 "사람의 아들이아,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그것들을 거슬러 예언 하여라.

3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산들이아, 주 하느님의 말을 들어라. 주 하느님이 산과 언덕, 시내와 골짜기에게 말한다. 보아라, 나 이제 너희를 칠 칼을 끌어들이어 너희 산당들을 없애 버리겠다.

4 너희 제단들은 폐허가 되고 너희 분향 제단들은 부서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가운데에서 살해된 자들을 너희 우상들 앞으로 던져 버리겠다.

5 나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의 주검을 그들의 우상들 앞에 가져다 놓겠다. 그리고 너희 뼈를 너희 제단 둘레에 뿌려 놓겠다.

6 너희가 사는 곳마다 성읍들은 폐허가 되고 산당들은 황폐해질 것이다. 너희 제단들은 폐허가 되고 황폐해지며, 너희 우상들은 부서져 없어지고, 너희 분향 제단들은 조각날 것이다. 이렇게 너희가 만든 것들은 없어지고

7 너희 한가운데에는 살해된 자들이 널릴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8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로 흩어진 다음에는, 내가 일부를 남겨 민족들 가운데에서 칼을 벗어나 살아남게 하겠다.

9 그리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 민족들 사이에서 나를 기억 것이다. 나를 배반하여 간음하던 그들의 마

음과, 자기들의 우상들을 좇아 간음하던 그들의 눈을 나는 부수어 버리겠다. 그러면 그들 자신에게도 자기들이 저지른 악행들, 자기들의 그 모든 역겨운 짓들이 메스껍게 보일 것이다.

10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한 것은 빈말이 아니다.' "

11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손바닥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말하여라. '아, 슬퍼라! 이스라엘 집안이 저지른 악하고 역겨운 그 모든 짓. 그들은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쓰러질 것이다.

12 멀리 있는 자들은 흑사병으로 죽고, 가까이 있는 자들은 칼에 맞아 쓰러지며, 남은 자들과 보호를 받던 자들은 굶주림으로 죽어갈 것이다. 나는 이렇게 내 화를 그들에게 다 쏟겠다.

13 높은 언덕마다, 산봉우리마다, 푸른 나무 아래마다, 잎이 우거진 향엽나무 아래마다, 자기들의 온갖 우상에게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던 곳에, 자기네 제단들 둘레에 있는 그 우상들 사이에 살해된 자들이 널리게 되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14 이렇게 나는 그들에게 손을 뻗어, 광야에서 리블라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사는 땅을 모조리 황무지와 불모지로 만들겠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이스라엘의 종말이 다가왔다

7

1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2 "너 사람의 아들이아,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스라엘 땅에게 이렇게 말한다. 끝이 왔다. 이 땅 사방에 끝이 왔다.

3 이제 너에게 끝이 닥쳤다. 나 이제 너에게 내 분노를 쏟아 붓고 내가 걸어온 길에 따라 너를 심판하며 너의 역겨운 것들을 모두

- 나에게 되갚으리라.
- 4 나는 너를 동정하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리라. 오히려 내가 걸어온 길을 너에게 되갚고 너의 역겨운 짓들을 네 가운데에 남아 있게 하리라.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을 알게 되리라.
- 5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보아라, 재앙에 재앙이 잇따라 온다.
- 6 끝이 왔다. 끝이 왔다. 보아라, 그 끝이 깨어나 나에게 왔다.
- 7 이 땅의 주민들이 나에게 끝장이 왔다. 그때가 왔다, 그날이 가까웠다. 산에서 지르던 환호의 날이 아니라 경악의 날이다.
- 8 나는 이제 곧 너에게 내 화를 피우고 너에게 내 분노를 다 쏟으리라. 내가 걸어온 길에 따라 너를 심판하고 너의 역겨운 짓들을 모두 나에게 되갚으리라.
- 9 나는 동정하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리라. 오히려 내가 걸어온 길에 따라 너에게 되갚고 너의 역겨운 짓들을 네 가운데에 남아 있게 하리라. 그제야 너희는 이렇게 내려치는 이가 나 주님을 알게 되리라.
- 10 보아라, 그날이다. 보아라, 그날이 왔다. 끝장이 닥쳤다. 몽둥이는 꽃을 피우고 교만은 봉오리를 맺었다.
- 11 폭력이 일어나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다. 그들 가운데에서 아무도, 그 무리 가운데에서 아무도 남지 않으리라. 그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떠드는 소리도, 영화도 없으리라.
- 12 그때가 왔다. 그날이 다가왔다. 사는 자는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는 슬퍼하지 마라. 이 땅의 모든 무리에게 진노가 내린다.
- 13 판 자는 계속 살아 있다 하더라도 팔린 것을 되찾지 못하니 이 땅의 모든 무리에 대한 환시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저마다 자기 죄 때문에 생명을 부지하지 못하리라.
- 14 그들은 나팔을 불고 모든 준비를 갖추었다.

- 그러나 아무도 싸움터에 나가지 않으리니 나의 진노가 이 땅의 모든 무리에게 미쳤기 때문이다.
- 15 밖에서는 칼이, 안에서는 흑사병과 굶주림이 기다린다. 들에 있는 자는 칼에 맞아 죽고 성안에 있는 자는 굶주림과 흑사병이 삼켜 버린다.
- 16 더러는 살아남아 산으로 오르지만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저마다 자기 죄를 생각하며 슬피 울리라.
- 17 손은 모두 맥이 풀리고 무릎은 모두 젖어 물이 흐르리라.
- 18 자루옷을 두른 그들을 공포가 뒤덮으리라. 얼굴마다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머리는 모두 밀어 대머리가 되리라.
- 19 그들은 은을 밖으로 내던져 버리고 그들의 금은 불결한 것으로 여겨지리라. 주님이 진노하는 날 은도 금도 그들을 구해 주지 못하고 그들의 식욕을 채우지도, 그들의 배를 불러지도 못하리라. 그것들은 도리어 그들을 죄짓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을 뿐이다.
- 20 그들은 자기들이 자랑스레 여기던 아름다운 장신구로 여겨온 신상들, 혐오스러운 우상들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장신구를 부정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리라.
- 21 나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노획물로, 이 땅의 악인들에게 약탈물로 넘겨주어 더럽히게 하리라.
- 22 나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려 사람들이 내 보물을 더럽히고 강도들이 들어와 그것을 더럽히게 하리라.
- 23 나는 사슬을 만들어라. 이 땅은 살인 재판으로 가득하고 이 도성은 폭력으로 가득하다.
- 24 나는 민족들 가운데에서 가장 못된 것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집을 차지하게 하리라. 힘센 자들의 자랑에 끝장을 내고 그들의 성소들을 더럽히게 하리라.

- 25 공포가 들이닥치면 그들은 평화를 찾지도 얻지 못하리라.
- 26 파멸에 파멸이 겹쳐 오고 소문에 소문이 뒤따르는데 예언자에게 환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사제에게서는 가르침이, 원로들에게서는 조언이 사라져 버리리라.
- 27 임금은 슬퍼하고 제후는 절망을 옷처럼 입으며 이 땅에 사는 백성의 손은 떨리리라. 나는 그들이 걸어온 길에 따라 그들을 다루고 그들의 판결에 따라 그들에게 판결을 내리리라.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

에루살렘의 우상 숭배

- 8¹ 제육년 여섯째 달 초닷새날, 나는 내 집에 앉아 있고 유다의 원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주 하느님의 손이 나에게 내리셨다.
- 2 내가 바라보니, 사람처럼 보이는 형상이 있었다. 허리처럼 보이는 부분 아래는 불이고, 허리 위는 빛나는 금붙이의 광채처럼 보였다.
- 3 그 형상이 손 같은 것을 내밀어 내 머리를 잡았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보여 주시는 환시 속에서, 영이 나를 땅과 하늘 사이로 들어 올리셔서 예루살렘으로, 곧 북쪽으로 난 안뜰 때문 어귀로 데려가셨다. 그곳은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놓여 있는 자리였다.
- 4 그리고 거기에는 내가 전에 넓은 계곡에서 본 모습과 같은, 이스라엘 하느님의 영광이 있었다.
- 5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북쪽으로 눈을 들어 보아라." 내가 북쪽으로 눈을 들어 보니, 제단 때문 북쪽 어귀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 6 그분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이느냐?

- 나를 내 성전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이스라엘 집안이 여기에서 저지르는 이 몹시도 역겨운 짓들이 보이느냐? 그러나 너는 더 역겨운 짓들을 보게 될 것이다."
- 7 그분께서는 나를 뜰 어귀로 데리고 가셨다. 내가 보니 벽에 구멍이 하나 있었다.
- 8 그분께서 나에게 "사람의 아들이, 벽을 뚫어라." 하셔서, 내가 그 벽을 뚫으니 입구가 하나 보였다.
- 9 그분께서 또 나에게 "들어가 그들이 거기에서 저지르는 저 악하고 역겨운 짓들을 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 10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바라보니, 기어 다니는 온갖 생물과 혐오스러운 짐승과 이스라엘 집안이 섬기는 온갖 우상들의 그림이 사망의 벽에 돌아가며 새겨져 있었다.
- 11 그리고 이스라엘 집안의 원로 일흔 명이 사판의 아들 아야잔야를 가운데에 세우고 저마다 향로를 들고 그 앞에서 서 있는데, 향기로운 향 연기가 올라가고 있었다.
- 12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이스라엘 집안의 원로들이 어둠 속에서, 저마다 우상들을 새겨 놓은 방에서 저지르는 짓들을 보았느냐? 그러면서 저들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이 땅을 버리셨다.' 하고 말한다."
- 13 그리고 나서 "너는 그들이 저지르는 더 역겨운 짓들을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 14 이어서 그분께서는 나를 주님의 집 북쪽 때문 어귀로 데려가셨는데, 그곳에서는 여자들이 앉아서 탐무즈 신을 애도하고 있었다.
- 15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보았느냐? 너는 이보다 더 역겨운 짓들을 보게 될 것이다."
- 16 그런 다음 그분께서는 나를 주님의 집 안

뜰로 데려가셨다. 그곳 주님의 성소 어귀에서, 현관과 제단 사이에 스물다섯 명가량의 사람이 주님의 성소를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은 동쪽을 향하여 태양에게 절하고 있었던 것이다.

17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보았느냐? 여기에서 저지르는 저 역겨운 것들이, 유다 집안에게는 하찮은 일이라고 하겠느냐? 그런데도 그들은 이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워, 계속 내 화를 돌운다. 보아라, 그들이 나뭇가지를 코에 갖다 대고 있지 않느냐?"

18 그러므로 나도 이제는 화나는 대로 하겠다. 동정하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다 부르짖어도, 나는 그들의 말을 들어 주지 않겠다."

에루살렘이 받을 벌

9 ¹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는 내가 듣는 앞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이 도성의 징벌이 다가왔다. 저마다 파멸의 무기를 손에 들고 나와라."

2 그러자 북쪽으로 난 뒤편 쪽에서 여섯 사람이 오는데, 저마다 파멸의 무기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아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서기관 필갑을 차고 있었다. 그들은 이렇게 와서 구리 제단 곁에 섰다.

3 그러자 이스라엘 하느님의 영광이 그때까지 자리 잡고 있던 커름들 위에서 떠올라 주님의 집 문지방으로 옮겨 갔다. 주님께서서는 아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 필갑을 찬 사람을 부르셨다.

4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도성 가운데로, 에루살렘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저질러지는 그 모든 역겨운 것 때문에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해 놓아라."

5 그분께서는 또 내가 듣는 앞에서 다른 이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 사람의 뒤를 따라 도성을 돌아다니며 쳐 죽여라. 동정하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6 늙은이도 젊은이도, 처녀도 어린아이도 아낙네도 다 죽여 없애라.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내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주님의 집 앞에 있는 원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였다.

7 그분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집을 부정하게 만들어라. 그 뜰들을 살해된 자들로 채워라. 가거라." 그러자 그들은 도성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쳐 죽였다.

8 그들이 사람들을 쳐 죽이는 동안, 홀로 남은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부르짖었다. "아, 주 하느님! 에루살렘에다 이렇듯 화를 쏟으시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두 파멸시키실 작정이십니까?"

9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과 유다 집안의 죄가 너무나 크다. 이 땅은 피로 가득하고 이 도성은 불법으로 가득하다. 그러면서 저들은 '주님께서서는 이 땅을 버리셨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는다.' 하고 말한다.

10 그래서 나도 동정하지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들이 걸어온 길을 그들 머리 위로 되갚는 것이다."

11 그러는데 아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필갑을 찬 사람이 와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다

10 ¹ 내가 바라보니, 커름들 머리 위에 있는 궁창에 청옥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여좌 형상과 비슷하였다.

2 그분께서 아마포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커름 밑에 있는 둥근 틀 사이로

들어가, 그 커룹들 사이에서 숯불을 두 손 가득히 채워다가, 이 도성 위로 뿌려라." 그러자 그는 내가 보는 앞에서 그리로 들어갔다.

3 그 사람이 들어갈 때, 커룹들은 주님의 집 오른쪽에 서있었고, 안뜰에는 구름이 가득 차 있었다.

4 그뒤 주님의 영광이 커룹들 위에서 떠올라 주님의 집 문지방으로 옮겨 가자, 주님의 집은 구름으로 가득 차고, 뜰은 주님 영광의 광채로 가득 찼다.

5 그리고 커룹들의 날개 소리가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는 소리와 같았다.

6 그분께서 아마포 옷을 입은 사람에게, "둥근 틀 사이에서, 커룹들 사이에서 불을 집어내어라." 하고 명령하시자, 그는 가서 바퀴 곁에 섰다.

7 그러자 커룹 하나가 커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들고, 아마포 옷을 입은 이의 두 손에 넘겨주니, 그가 그것을 들고 나왔다.

8 커룹들의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보였다.

9 내가 또 바라보니, 바퀴 네 개가 커룹들 곁에 있는데, 커룹마다 곁에 바퀴가 하나씩 달려 있었다. 그 바퀴들의 모습은 빛나는 녹주석 같았다.

10 그것들의 모습은 빛이 똑같은 형상인데, 바퀴 안에 또 바퀴가 들어 있는 것 같았다.

11 그것들이 나아갈 때에는, 몸을 돌리지 않고 사방 어디로든 갔다. 어디로든 머리 쪽이 향하는 곳으로, 나머지도 나아키면서 몸을 돌리지 않고 그 뒤를 따라갔다.

12 그들의 몸 전체,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에 까지, 곧 네 커룹의 바퀴들까지 사방에 눈이 가득하였다.

13 바퀴들은 내가 듣기에 '둥근 틀' 이라고 불

렸다.

14 커룹마다 얼굴이 넷인데, 첫째는 커룹의 얼굴이고, 둘째는 사람의 얼굴, 셋째는 사자의 얼굴,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15 그 커룹들이 치솟았다. 그들은 내가 크바르 강 가에서 본 바로 그 생물이었다.

16 커룹들이 나아키면 바퀴들도 곁에서 함께 갔다. 커룹들이 날개를 펴고 땅에서 떠올라도, 바퀴들은 커룹들 곁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17 커룹들이 멈추면 함께 멈추고, 커룹들이 떠오르면 함께 치솟았다. 바퀴들 안에 생물의 영이 있었기 때문이다.

18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집 문지방에서 나와 커룹들 위에 멈추었다.

19 그러자 커룹들은 날개를 펴고, 내가 보는 앞에서 땅에서 치솟았다.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들도 옆에서 함께 나갔다. 그들이 주님의 집 동쪽 대문 어귀에 멈추는데, 이스라엘 하느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20 나는 크바르 강 가에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떠받들고 있는 생물들을 보았다. 나는 그들이 커룹임을 알 수 있었다.

21 그들은 저마다 얼굴이 넷이고 날개도 넷인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같은 형상이 있었다.

22 또 그들의 얼굴 형상은 내가 크바르 강 가에서 보았던 모습, 바로 그 얼굴이었다. 그들은 저마다 곧장 앞으로 나아갔다.

백성의 수령들이 심판받는다

11 ¹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어, 주님의 집 동쪽 대문으로 데려가셨다. 그 대문 어귀에는 스물다섯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그들 가운데에 이쭈르의 아들 야아잔야와 브나야의 아들 플라트야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백성의 수령이었다.

- 2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들은 이 도성에서 부정을 피하고 약한 계획을 꾸미는 자들이다.
- 3 그러면서 그들은 '집을 지을 때는 아직 멀었다. 이 도성은 솔이고 우리는 그 안에 담긴 살코기다.' 하고 말한다.
- 4 그러므로 그들을 거슬러 예언하여라.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여라."
- 5 그런 다음 주님의 영이 나에게 내려오시자,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의 생각은 이러하다. 너희 영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나는 알고 있다.
- 6 너희는 이 도성에서 살해된 이들의 수를 늘려 거리거리를 사체로 가득 채웠다.
- 7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 도성 안에 쌓아 놓은 살해된 이들이 바로 살코기고 이 도성은 솔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도성 밖으로 끌려갈 것이다.
- 8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은 칼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칼을 끌어들여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 9 나는 너희를 이 도성에서 끌어내어 이방인들의 손에 넘기겠다.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심판을 내리겠다.
- 10 너희는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나는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11 이 도성은 너희에게 솔이 되지 않고, 너희는 그 안에 든 살코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나는 너희를 심판하겠다.
- 12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규정들을 따르지도 나의 법규들을 지키지도 않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법규를 따랐다.' "
- 13 내가 예언하는 동안에 브나야의 아들 플라트야가 죽었다. 그래서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아, 주 하느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며 완전히 없애려 하십니까?"

유배자들에게 '새 마음'을 약속하시다

- 14 그러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 15 "사람의 아들아, 너의 형제들과 네 친족, 그리고 온 이스라엘 집안 전체를 두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들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 땅은 우리 소유가 되었다.' 하고 말한다.
- 16 그러니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민족들 사이로 쫓아 버리고 여러 나라로 흩어 버렸지만, 그들이 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얼마간 그들에게 성전이 되어 주겠다.'
- 17 그러므로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민족들 가운데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너희가 흩어져 사는 여러 나라에서 내가 너희를 모아들이겠다. 그런 다음 너희에게 이스라엘 땅을 주겠다.
- 18 그들은 여기로 돌아와서 험오스러운 것들과 역겨운 것들을 모두 이 땅에서 치워 버릴 것이다.
- 19 나는 그들에게 다른 마음을 넣어 주고, 그들 안에 새 영을 넣어 주겠다. 그들의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워 버리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 주어,
- 20 그들이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그대로 지키게 하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 21 그러나 자기들의 험오스러운 것들과 역겨운 것들을 따르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내가 그들이 걸어온 길을 그 머리 위로 되갚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

주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다

- 22 그런 다음 커룹들이 날개를 펴는데, 그 결

의 바퀴들도 함께 움직였다. 그들 위에는 이스라엘 하느님의 영광이 자리 잡고 있었다.

- 23 그 주님의 영광이 도성 한가운데에서 떠올라, 도성 동쪽에 있는 산 위에 멈추었다.
- 24 그때에 하느님의 영이 보여 주시는 환시 속에서, 그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셔서 칼데아에 있는 유배자들에게 데려가셨다. 그러자 내가 본 환시가 나에게서 떠나갔다.
- 25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 주신 모든 것을 유배자들에게 일러 주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상징으로 보여 주다

- 12 ¹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 ² "사람의 아들이아, 너는 반항의 집안 한가운데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 그들이 반항의 집안이기 때문이다.
- ³ 그러니 너 사람의 아들이아, 유배 집을 꾸려 대낮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유배를 가져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사는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유배를 가져라. 행여 자기들이 반항의 집안임을 그들이 깨달을지도 모른다.
- ⁴ 너는 짐을 유배 짐처럼 싸서 대낮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어 놓았다가, 저녁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유배를 떠나듯이 떠나라.
- ⁵ 그들이 보는 앞에서 벽을 뚫고 나가라.
- ⁶ 너는 어두울 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짐을 어깨에 메고 나가는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마라. 나는 너를 이스라엘 집안을 위한 예표로 삼았다."
- ⁷ 나는 명령을 받은 대로 하였다. 짐을 유배 짐처럼 싸서 대낮에 내어 놓았다가, 저녁에 손으로 벽을 뚫고, 어두울 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짐을 어깨에 메고 나갔다.
- ⁸ 이튿날 아침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 ⁹ "사람의 아들이아, 저 반항의 집안인 이스라엘

집안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나에게 묻지 않았느냐?

- ¹⁰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 신탁은 예루살렘에 있는 수장과 그 안에 있는 온 이스라엘 집안에 관한 것이다.'
- ¹¹ 나는 또 말하여라. '나는 여러분을 위한 예표입니다. 내가 한 것과 똑같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유배를 당해 끌려갈 것입니다.'
- ¹² 그들 가운데에 있는 수장은 어두울 때에 짐을 어깨에 메고, 사람들이 그를 내보내려고 벽에 뚫어 놓은 구멍으로 나갈 것이다. 그는 자기 눈으로 그 땅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릴 것이다.
- ¹³ 그러나 나는 그를 잡으려고 그물을 쳐 놓겠다. 내가 친 땅에 걸리면, 나는 그를 칼데아인들의 땅 바벨론으로 끌어가겠다. 그러면 그는 거기에서 그 땅을 보지도 못하고 죽을 것이다.
- ¹⁴ 나는 또 그의 곁에 있는 자들, 그의 수행원들과 군대를 모두 사방으로 흩어 버린 다음, 칼을 빼 들고 그들을 뒤쫓겠다.
- ¹⁵ 이렇게 내가 그들을 민족들 사이로 쫓아 버리고 여러 나라로 흩어 버릴 때에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¹⁶ 그러나 나는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남겨서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을 면하게 하여, 그들이 가 있는 민족들 사이에서 자기들이 전에 저지른 역겨운 짓들을 모두 이야기하게 하겠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공포에 떨며 먹고 마시는 상징 행동

- ¹⁷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 ¹⁸ "사람의 아들이아, 너는 떨면서 빵을 먹고 불안과 걱정에 싸여 물을 마시라.
- ¹⁹ 그리고 이 땅의 백성에게 말하여라. '주 하

느님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각정에 싸여 빵을 먹고 놀라움에 싸여 물을 미실 것이다. 모든 주민이 저지른 죄행으로, 이 땅은 풍요가 사라지고 황폐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 20 사람들이 살던 성읍들은 폐허가 되고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언자의 환시와 속담

- 21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 22 "사람의 아들이, '세월은 흐르는데 환시는 모두 그대로 지나간다.' 하며 너희가 이스라엘 땅을 두고 말하는 속담은 어찌 된 일이나?"
- 23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 속담을 없애 버려, 이스라엘에서 다니는 이 속담을 말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환시가 이루어질 날들이 가까웠다.'
- 24 이스라엘 집안에 다니는 어떠한 거짓 환시도 아침하는 점괘도 없을 것이다.
- 25 나 주님은 할 말을 하고, 그 말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반항의 집안아, 나는 너희가 살아 있는 동안에 말을 하고 그대로 실천한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
- 26 주님의 말씀이 또 나에게 내렸다.
- 27 "사람의 아들이, 이스라엘 집안이 '그가 보는 환시는 먼 훗날을 위한 것이고, 그는 먼 앞날을 위해 예언할 따름이다.' 하고 말한다.
- 28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 말은 어떤 것이든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

거짓 예언자들

- 13 ¹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 ² "사람의 아들이, 예언한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거슬러 예언하여라. 제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주님의 말을 들어라.'
- ³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불행하여라, 본 것 하나 없이 제 영을 따르는 어리석은 예언자들!
- ⁴ 이스라엘아, 너희 예언자들은 폐허 속의 여우와 같다.
- ⁵ 너희는 성벽이 무너진 곳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주님의 날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성벽을 보수하지도 않았다.
- ⁶ 그들은 거짓 환시를 보고 속임수 예언을 하며, 주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주님의 말이라고 하면서,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
- ⁷ 너희는 거짓 환시를 보고 속임수 점괘를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도 주님의 말이라고 하는데, 나는 말한 적이 없다.
- ⁸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거짓을 이야기하고 속임수 환시를 보았으므로, 나는 너희를 대적하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 ⁹ 거짓 환시를 보고 속임수 점괘를 말하는 예언자들에게 나는 손을 대겠다. 그들은 내 백성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이스라엘 집안의 명단에 오르지도 못하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¹⁰ 정녕, 평화가 없는데도 그들은 평화롭다고 말하면서, 내 백성을 잘못 이끌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담을 쌓으면 회칠이나 하는 자들이다.'
- ¹¹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들에게, 담이 무

너질 것이라고 말하여라. '비가 쏟아지고 큰 우박들이 떨어지며 폭풍이 일어날 것이다.

- 12 그러면 벽이 무너질 때에, 너희가 칠한 회는 어디에 있느냐고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겠느냐?
- 13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말한다.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일으키고 진노하여 비를 쏟으며, 분노하여 큰 우박을 내려 그 벽을 허물어 쓰러뜨렸다.
- 14 나는 너희가 회칠한 그 벽을 허물고 땅바닥에 쓰러뜨려, 비탕까지 드러나게 하겠다. 그것이 무너지면 너희는 거기에 깔려 죽을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15 나는 이렇게 그 벽과 거기에 회칠한 자들에게 내 화를 다 쏟고 나서, 너희에게 말하겠다. 벽도 없고 거기에 회칠한 자들도 없다고.
- 16 곧 예루살렘을 두고 예언하며 평화가 없는 데도 예루살렘에 관하여 평화의 환시를 보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도 없다고 말하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

거짓 예언자들

- 17 "너 사람의 아들이야, 네 동포 가운데 제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거슬러 예언하여라.
- 18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불행하여라, 사람 목숨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띠를 두르고, 온갖 키에 맞추어 머리에 쓰는 너울을 만드는 여자들! 너희가 내 백성의 목숨을 사냥하면서 너희의 목숨은 부지할 뜻있느냐?
- 19 너희는 거짓말을 끝이없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하여, 죽어서는 안 될 사람들을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을 살려, 보리 몇 줌과 빵 몇 조각 때문에 내 백성 앞에

서 나를 욕되게 하였다.

- 20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새를 잡듯이 사람의 목숨을 잡는 데에 쓰는 너희의 띠들을 가만두지 않았다. 내가 그것들을 너희 팔에서 찢어 내 버리고, 너희가 새를 잡듯이 사냥한 목숨들을 놓아 주겠다.
- 21 또 너희의 너울을 찢어 버리고 너희 손에서 내 백성을 구해 내어, 그들이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감이 되지 않게 하겠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22 내가 의인을 괴롭히지 않았는데도 너희는 속임수로 의인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악인의 손을 거들어 그가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아와 자기 목숨을 살리게 하지 않았다.
- 23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거짓으로라도 환시를 보지 못하고, 어떤 점괘도 말하지 못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구해 내겠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우상 숭배자들을 단죄하시라

- 14 ¹ 이스라엘의 원로 몇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앉았다.
- 2 그때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 3 "사람의 아들이야, 이 사람들은 자기 우상들을 마음에 품고, 자기들을 죄에 빠뜨리는 걸림돌을 제 앞에만다 모셔 놓은 자들이다. 내가 어찌 이러한 자들의 문의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
- 4 그러므로 그들에게 일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자기 우상들을 마음에 품고 자기를 죄에 빠뜨리는 걸림돌을 제 앞에만다 놓은 채 예언자에게 오면, 그 많은 우상 때문에 나 주님이 직접 그에게 대답하겠다.
- 5 그리하여 자기들의 그 모든 우상 때문에 나

에게 등을 돌린 이스라엘 집안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6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안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돌아와라. 너희 우상들에게서 돌아서라. 너희의 그 모든 역겨운 것에서 얼굴을 돌려라.'

7 누구든지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든 이스라엘에 머무르는 이방인이든, 나에게 등을 돌려 자기 우상을 마음에 품고, 자기를 죄에 빠뜨리는 걸림들을 제 앞에도 놓은 채, 예언자를 통하여 나에게 문의하려고 그에게 가면, 나 주님이 직접 그에게 대답하겠다.

8 나는 그 사람에게 얼굴을 돌려 그를 표징과 속담 거리로 만들고, 내 백성 가운데에서 잘라 내겠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9 그런데 만일 예언자가 속아 넘어가서 무슨 말을 선포하였다면, 이는 나 주님이 그 예언자를 속인 것이다. 나는 그에게 손을 뻗어 그를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없애 버리겠다.

10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문 의하는 자의 죄나 예언자의 죄나 마찬가지로.

11 그래서 이스라엘 집안이 다시는 나를 떠나 해매지 않고 온갖 죄악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도록,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려는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

막을 수 없는 하느님의 심판

12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13 "사람의 아들아, 어떤 나라가 배신하여 나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손을 뻗어 그 나라의 양식을 끊어 버리고 그 나라에 굶주림을 보내어, 거기에서 사람과 짐승을 잘라 내겠다고 하자.

14 비록 그곳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제 목숨만 구할 수 있을 따름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15 또 내가 그 나라에 사나운 짐승들을 돌아다니게 하여, 그것들이 아이들을 앗아가고, 그 짐승들이 무서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 나라가 황무지가 된다고 하자.

16 비록 거기에 그 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 있는 한, 그들은 아들도 딸도 구하지 못할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들은 자신만 구할 수 있을 뿐, 그 나라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

17 또 내가 그 나라에 칼을 끌어들이니 다음, '칼아, 너는 이 나라를 돌아다녀라.' 하고 명령하여 내가 그곳에서 사람과 짐승을 잘라 내겠다고 하자.

18 거기에 그 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 있는 한, 그들은 아들도 딸도 구하지 못할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들 자신만 구제될 수 있을 따름이다.

19 또 내가 그 나라에 흑사병을 보내어, 피로써 내 화를 그 나라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잘라 내겠다고 하자.

20 거기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 있는 한, 그들은 아들도 딸도 구하지 못할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제 목숨만 구할 수 있을 따름이다.

21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 내가 예루살렘에 네 가지 해로운 심판, 곧 칼과 굶주림과 사나운 짐승들과 흑사병을 보내어 사람과 짐승을 잘라 낼 때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22 그러나 그 안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서, 아들딸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온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그들이 걸어온 길과 행실을 보고, 내가 예루살렘에 끌어들이던 제양, 곧 내가 그곳에 끌어들이던 모든 것에 대하여 위로를 받을 것이다.

23 너희가 그들이 걸어온 길과 행실을 보게 될 때, 그들이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에 한 모든 일이 공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쓸모없는 포도나무 같은 예루살렘

15 ¹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² 사람의 아들이아, 포도나무가 다른 어떤 나무보다, 숲의 나무들 사이에 있는 덩굴보다 나은 게 무엇이나?
³ 거기에서 무엇을 만들 재목이 나오겠느냐? 아니면 무엇이라도 걸어 둘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⁴ 보아라, 그것은 켈감으로 불에 들어간다. 양쪽 끝은 불에 타 버리고 가운데는 그을렸으니 그것을 무엇에 쓰겠느냐?
⁵ 그것이 웅글 때에도 무엇 하나 만들 수 없었는데 하물며 불에 타고 그을렸으니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⁶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말한다. 숲의 나무들 사이에 있는 포도나무를 켈감으로 불에 집어넣듯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렇게 하리라.
⁷ 나는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리라. 그들이 불에서 빠져나온다 해도 불이 다시 그들을 삼켜 버리리라. 이렇게 내가 그들에게 얼굴을 돌릴 때에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⁸ 그들이 배신을 하였기에 나는 그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주 하느님의 말이다."

예루살렘의 역사: 부정한 아내의 역사

16 ¹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2 "사람의 아들이아, 예루살렘에게 자기가 저지른 역겨운 짓들을 알려 주어라.

3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의 혈통과 태생으로 말하자면, 너는 가나안 땅 출신이다. 너의 아버지는 아마리 남자와 너의 어머니는 히타이트 여자다.

4 내가 태어난 일을 말하자면, 내가 나던 날, 아무도 네 땃줄을 잘라 주지 않고, 물로 네 몸을 깨끗이 씻어 주지 않았으며, 아무도 네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 주지 않고 포대기로 싸 주지 않았다.

5 너를 애처롭게 보아서, 동정심으로 이런 일을 하더라도 해 주는 이가 없었다. 오히려 내가 나던 날, 너를 싫어하여 들판에 던져 버렸다.

6 그때에 내가 네 걸을 지나가다가, 피투성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았다. 그래서 내가 피투성이로 누워 있는 너에게 '살아남아라!' 하고 말하였다.

7 그리고 나서 너를 들의 풀처럼 자리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서 꽃다운 나이에 이르렀다. 젓가슴은 또렷이 드러나고 털도 다 자랐다. 그러나 너는 아직도 벌거벗은 알몸똥이였다.

8 그때에 내가 다시 네 걸을 지나가다가 보니, 너는 사랑의 때에 이르러 있었다. 그래서 내가 옷자락을 펼쳐 네 알몸을 덮어 주었다. 나는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계약을 맺었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리하여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9 나는 너를 물로 씻어 주고 네 몸에 묻은 피를 닦고 기름을 발라 주었다.

10 수놓은 옷을 입히고 돌고래 가죽신을 신겨 주었고, 아마포 띠를 매어 주고 비단으로 너를 덮어 주었으며,

11 장신구로 치장해 주었다. 두 팔에는 팔찌를,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 주고,

- 12 코에는 코걸이를, 두 귀에는 귀걸이를 달아 주었으며, 머리에는 화려한 면류관을 씌워 주었다.
- 13 이렇게 너는 금과 은으로 치장하고, 아마포 옷과 비단옷과 수놓은 옷을 입고서, 고운 곡식 가루 음식과 꿀과 기름을 먹었다. 너는 더욱더 아름다워져 왕비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 14 네 아름다움 때문에 너의 명성이 민족들에게 퍼져 나갔다. 내가 너에게 배운 영화로 네 아름다움이 완전하였던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 15 그런데 너는 네 아름다움을 믿고, 네 명성에 힘입어 불륜을 저질렀다. 지나가는 아무 하거나 마구 불륜을 저질렀다.
- 16 네 옷들을 가져다가 울긋불긋한 산당들을 꾸미고 그 위에서 불륜을 저질렀다. 그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 17 또 너는 내가 준 금은 패물들을 가져다가, 남자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과 불륜을 저질렀다.
- 18 너의 수놓은 옷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것들 앞에 가져다 놓았다.
- 19 내가 너에게 준 양식, 곧 내가 너에게 먹으라고 준 고운 곡식 가루와 기름과 꿀을 그것들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가져다 놓았다. 너는 정말 그렇게 하였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 20 그리고 너는 내가 너에게 낳아 준 아들딸들을 데려다가, 그것들에게 양식으로 바쳤다. 너의 그 탕녀 짓만으로는 모자랐단 말아냐?
- 21 너는 내 아들들을 잡아 바쳤다. 불 속을 지나게 하여 내 아들들을 그것들에게 바쳤다.
- 22 이 모든 역겨운 짓과 불륜을 저지르면서, 너는 벌거벗은 알몸뚱이로 지내던, 피투성이로 버둥거리던 네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았다.

- 23 너는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주 하느님의 말이다.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다음에도,
- 24 너는 단을 쌓고 광장마다 대를 만들었다.
- 25 너는 길 어귀마다 대를 쌓고서는,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두 다리를 벌려 수없이 불륜을 저지르며 네 아름다움을 더럽혔다.
- 26 너는 몸이 큰 네 이웃 이집트인들과도 불륜을 저질렀다. 수없이 불륜을 저질러 내 화를 돋우었다.
- 27 그래서 내가 너에게 손을 뻗어 네 뒀을 줄이고, 너를 미워하는 필리스티아 여자들의 뜻에 너를 맡겨 버렸다. 그들마저 내가 걸어온 추잡한 길을 수치스럽게 여겼다.
- 28 그러고도 너는 성이 차지 않아 아시리아 사람들과 불륜을 저질렀다. 그들과 불륜을 저지르고도 성이 차지 않자,
- 29 너는 저 상인들의 나라 칼데아와 수없이 불륜을 저질렀다. 그렇게 하고도 너는 성이 차지 않았다.
- 30 주 하느님의 말이다. 네 마음이 얼마나 달아올랐으면, 뻔뻔스러운 창녀들이나 하는 이런 모든 짓을 하였느냐?
- 31 길 어귀마다 단을 쌓고 광장마다 대를 만들었으니 말이다. 그러면서도 해웃음을 깔보아 마다하였으니, 너는 어느 창녀와 같지도 않구나!
- 32 오히려 남편 아닌 낯선 자들을 받아들여 간통하는 여자와 같다.
- 33 창녀들은 몸값을 받는 법이다. 그러나 너는 네 모든 정부에게 늙음차를 주었다. 불륜을 저지르는 너에게로 사방에서 모여들도록 그들에게 선물물을 주었다.
- 34 이렇게 너는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다른 여자들과는 반대로 하였다. 누가 정을 통하려고 너를 따라온 것도 아니고, 내가 해웃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웃음을 내

- 주니, 너는 반대로 한 것이다.
- 35 그러나, 이 탕녀야, 주님의 말을 들어라.
- 36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네가 정부들과 너의 그 모든 역겨운 우상과 불륜을 저지르면서 치부를 보이고 알몸을 드러내었으므로, 그리고 그것들에게 스스로 바친 네 자식들의 피 때문에,
- 37 나는 너를 미워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네가 함께 즐기던 정부들과 네가 사랑하던 자들을 모두 모아들이겠다. 그들을 사방에서 너에게로 모아들이는 다음, 그들 앞에서 네 알몸을 드러내어, 그들이 그 알몸을 다 보게 하겠다.
- 38 나는 간음하고 살인한 여자들을 재판하듯 너를 재판하고, 분노와 질투로 너에게 살인죄의 벌을 내리겠다.
- 39 내가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은 네 단을 허물고 대를 무너뜨리며, 옷을 벗기고 패물들을 빼앗은 다음, 너를 벌거벗은 알몸뚱이로 버려둘 것이다.
- 40 그들은 패거리를 물고 올라와서, 너에게 돌을 던지고 칼로 너를 토크 낼 것이다.
- 41 너의 집들을 불사르고 많은 여자들이 보는 앞에서 너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이렇게 너의 탕녀 짓에 끝장을 내고, 다시는 해웃음을 주지 못하게 하겠다.
- 42 그제야 너에 대한 나의 화가 풀리고, 내 질투가 너에게서 사그라질 것이다. 마음이 가라앉아 내가 다시는 분노를 터뜨리지 않을 것이다.
- 43 보아라, 속담을 짓는 이들은 모두 너를 두고 '그 어머니에 그 딸.' 이라고 말 것이다.
- 44 네가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고 이 모든 것으로 나를 화나게 하였으니, 내가 어찌 네가 걸어온 길을 네 머리 위로 되갚지 않을 수 있겠느냐? 주 하느님의 말이다. 너는 네 모든 역겨운 짓에다가 이 추잡한 것
- 마저 저지르지 않았느냐?
- 45 내가 바로 남편과 자식들을 미워하던 그 어머니의 딸이고, 내가 바로 남편과 자식들을 미워하던 그 자매들의 동기다. 너희 어머니는 히타이트 여자고 아버지는 아모리 남자다.
- 46 그리고 네 언니는 자기 딸들을 데리고 네 왼쪽에 살던 사마리아이고, 동생은 자기 딸들을 데리고 네 오른쪽에 살던 소돔이다.
- 47 너는 그들의 길을 따라가고 그들의 역겨운 짓을 따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짧은 시간에, 네가 걷는 모든 길에서 그들보다 더 타락하였다.
- 48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내 생명을 걸고 말하는데, 네 동생 소돔과 그 딸들은, 네가 네 딸들과 함께 한 것만큼은 결코 하지 않았다.
- 49 네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 딸들은 교만을 부리며, 풍부한 양식을 가지고 걱정 없이 안락하게 살면서도 가련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의 손을 거들어 주지 않았다.
- 50 그들은 거만을 떨며 내 눈앞에서 역겨운 짓을 저질렀다. 그래서 나는 네가 본 것처럼 그들을 없애 버렸다.
- 51 사마리아는 내가 지은 죄의 반만큼도 죄짓지 않았다. 너는 역겨운 짓들을 그들보다 더 많이 하였다. 네가 저지른 그 모든 역겨운 것으로, 너의 자매들이 오히려 의롭게 여겨지도록 만들었다.
- 52 네 자매들보다 더 역겹게 행동하고 죄를 지어 그들이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하였으니, 너도 마땅한 수치를 당하여라. 네 자매들이 오히려 너보다 더 의롭게 여겨진다. 네가 이렇게 네 자매들이 의롭게 여겨지도록 만들었으니, 너도 부끄러워하면서 마땅한 수치를 당하여라.
- 53 나는 그들의 운명을, 소돔과 그 딸들의 운

- 명을,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운명을 되돌리겠다. 그들과 함께 너의 운명도 되돌리겠다.
- 54 그것은 내가 마땅한 수치를 당하고 내가 저지른 모든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 그들을 위로하게 하려는 것이다.
- 55 너의 재배들, 곧 소돔과 그 딸들이 예전 상태로 돌아가고, 사마리아와 그 딸들이 예전 상태로 돌아갈 때, 너와 네 딸들도 예전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 56 내가 교만하던 때에는 네 동생 소돔이 네 이야깃거리가 아니었느냐?
- 57 그러나 그것은 네 악행이 드러나기 전의 일이다. 이제는 내가 아람의 딸들과 그 모든 이웃과 팔리스티아 딸들, 곧 사방에서 너를 비웃는 자들의 놀림감이 되었다.
- 58 내가 저지른 그 추잡한 짓과 역겨운 짓의 결과를 너는 짚어야 한다. 주님의 말이다.
- 59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네가 한 대로 너에게 해 주겠다. 너는 맹세를 무시하여 계약을 깨뜨렸다.
- 60 그러나 나는 네가 어린 시절에 너와 맺은 내 계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계약을 세우겠다.
- 61 너와 맺은 계약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내가 네 동생들과 함께 네 언니들도 데려다가 너에게 딸로 삼아 주면, 너는 내가 걸어 온 길을 기억하고 수치스러워할 것이다.
- 62 이렇게 내가 너와 계약을 세우면, 그제야 너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63 이는 내가 저지른 모든 일을 내가 용서할 때, 내가 지난 일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며, 수치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
- 2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안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비유를 말하여라.
- 3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큰 날개와 긴 것이 달리고 울긋불긋한 깃털로 가득한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으로 갔다. 향백나무의 꼭대기 순을 따고
- 4 가장 높은 가지를 꺾어 상인들의 땅으로 가져가서 장사꾼들의 성읍에 심어 놓았다.
- 5 그 땅에서 난 씨앗을 가져다가 기른 밭에 심었다. 큰 물 곁의 냇버들처럼, 버들일사시나무처럼 심었다.
- 6 싹이 돌아 포도나무가 되어 낮게 옆으로 퍼졌다. 즐기는 독수리를 향하고 뿌리는 땅에 박혀 있었다. 이렇게 그것은 포도나무가 되어 가지를 뺀고 덩굴손을 내뻗었다.
- 7 그런데 큰 날개가 달리고 깃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또 하나 있었다. 그러자, 포도나무가 뿌리를 그 독수리 쪽으로 돌리고 줄기를 그쪽으로 내뻗었다. 포도나무는 자기가 심긴 밭이 아니라 그 독수리에게서 물을 얻으려는 것이었다.
- 8 그 포도나무는 좋은 밭에, 큰 물 곁에 심어졌다. 햇가지를 뺀고 열매를 맺어 훌륭한 포도나무가 되라는 것이었다.'
- 9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 포도나무가 잘되었느냐? 독수리가 그 뿌리를 뽑고 그 열매를 훑어 말라 버리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새로 난 잎이 모두 말라 버리지 않았느냐? 그 포도나무를 뿌리에서 떼어 들어내는 데에는 힘센 팔도 많은 군사도 필요하지 않다.
- 10 포도나무가 한 번 심어졌다고 잘되었느냐? 셋바람이 휘몰아치면 바삭 말라 버리지 않느냐? 그것이 자라난 밭에서 말라 버리지 않느냐? "

불충한 임금을 비유한 노래

17 ¹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비유의 설명

11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 12 "이제 저 반항의 집안에게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느냐?' 하고 물으며, 이렇게 말하여라. '자, 바빌론 임금에 예루살렘에 와서, 임금과 고관들을 잡아 바빌론으로 데려갔다.
- 13 그는 또 왕실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골라, 그와 계약을 맺고 맹세를 시킨 다음, 이 땅의 유력자들을 잡아갔다.
- 14 그것은 이 왕국이 보잘것없이 되어 독립하지 못하고, 계약을 지켜야만 존속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 15 그러나 그는 바빌론 임금에게 반역하고 이 집으로 사절들을 보내어, 군마와 많은 군사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다고 성공할 것 같느냐? 그렇게 하는 자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계약을 깨뜨리고서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 16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내가 살아 있는 한, 그는 자기를 왕위에 앉힌 임금이 있는 곳에서 죽을 것이다. 그는 그 임금이 시킨 맹세를 무시하고 그와 맺은 계약을 깨뜨렸다. 그는 그 임금 곁, 바빌론에서 죽을 것이다.
- 17 적군이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공격 축대를 쌓고 공격 보루를 만들 때, 파라오가 강한 군대와 수많은 병사로 그를 전쟁에서 도와주지 않는다.
- 18 그는 맹세를 무시하고 계약을 깨뜨렸다. 그가 손을 잡았다가 이런 것들을 다 하였으니, 그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 19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아 있는 한, 나는 그가 무시한 나의 맹세와 그가 깨뜨린 나의 계약을 그의 머리 위로 되갚겠다.
- 20 나는 그를 잡으려고 그물을 쳐 놓겠다. 내가 친 땅에 걸리면, 나는 그를 바빌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나에게 저지른 배신을 그곳에서 심판하겠다.

- 21 그가 거느린 모든 군대의 장병들은 모두 칼에 맞아 쓰러지고, 남은 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나 주님이 말하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 22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손수 높은 향백나무의 꼭대기 순을 따서 심으리라. 가장 높은 가지들에서 연한 것을 하나 꺾어 내가 손수 높고 우뚝한 산 위에 심으리라.
- 23 이스라엘의 드높은 산 위에 그것을 심어 놓으면 헛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으며 훌륭한 향백나무가 되리라. 온갖 새들이 그 아래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이 그 가지 그늘에 깃들이리라.
- 24 그제야 들의 모든 나무가 알게 되리라.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며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시든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이가 나 주님을 알게 되리라.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 "

하느님의 정의와 개인의 책임

- 18 ¹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 ² "너희는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자식들이 이가 시다.' 는 속담을 말해 대느냐?
- 3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내가 살아 있는 한, 너희가 다시는 이 속담을 이스라엘에서 말하지 않을 것이다.
- 4 보아라, 모든 목숨은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목숨도 자식의 목숨도 나의 것이다. 죄지는 자만 죽는다.
- 5 어떤 사람이 의로워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 6 곧 산 위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 이스라엘 집안의 우상들에게 눈을 들어 올리지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고 달거리하는 여자를 가까이하지 않으며,
- 7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빛 담보로 받은 것을

- 돌려주며, 강도 짓을 하지 않고 굶주린 이에게 빵을 주며, 헐벗은 이에게 옷을 입혀 주고,
- 8 변리를 받으려고 돈을 내놓지 않으며, 이자를 받지 않고 불의에서 손을 떼며, 사람들 사이에서 진실한 판결을 내리면서,
- 9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진실하게 지키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 10 이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남의 피를 흘리며, 다음과 같은 것들 가운데 하나라도 저지르면,
- 11 곧 아버지는 이런 것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산 위에서 음식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 12 가련한 이와 가난한 이를 학대하거나, 강도 짓을 하거나, 담보로 받은 것을 돌려주지 않거나, 우상들에게 눈을 들어 올리며 역겨운 짓을 하거나,
- 13 변리를 받으려고 돈을 내놓거나, 이자를 받으면, 아들이 살 것 같으나? 그는 살지 못한다. 이 모든 역겨운 짓을 저질렀으니,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가 죽는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 14 이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저지른 모든 죄를 보고 깨달아, 그 대로 따라 하지 않으면,
- 15 곧 산 위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 이스라엘 집안의 우상들에게 눈을 들어 올리지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고,
- 16 사람을 학대하지 않으며, 담보물을 잡지 않고 강도 짓을 하지 않으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거리를 주고 헐벗은 이에게 옷을 입혀 주며,
- 17 불의에서 손을 떼고 변리도 이자도 받지 않으면서, 나의 법규들을 지키고 나의 규정을 따르면, 그는 자기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 18 그렇지만 그의 아버지는 난폭한 짓을 하고 형제에게 강도 짓을 하며,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좋지 않은 짓을 하였으므로,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 19 그런데 너희는, '왜 그 아들이 아버지가 지은 죄값을 짊어지지 않는가?' 하고 묻는다. 그 아들이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고 나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 지켰으므로,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 20 죄지는 자만 죽는다. 이들은 아버지의 죄값을 짊어지지 않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값을 짊어지지 않는다. 의인의 의로움은 그 자신에게만 돌아가고, 악인의 죄악도 그 자신에게만 돌아간다.
- 21 그러나 악인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를 버리고 돌아서서, 나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 22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은 더 이상 기억되지 않고, 자기가 실천한 정의 때문에 살 것이다.
- 23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악인의 죽음이겠느냐? 주 하느님의 말이다. 악인이 자기가 걸어온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 24 그러나 의인이 자기 정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불의를 저지르고, 악인이 저지르는 온갖 역겨운 짓을 따라 하면, 살 수 있겠느냐? 그가 실천한 모든 정의는 기억되지 않은 채, 자기가 저지른 배신과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 25 그런데 너희는, '주님의 길은 공평하지 않다.' 고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들어 보아라. 내 길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이나? 오히려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나냐?
- 26 의인이 자기 정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불의를 저지르면,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자

가가 저지른 불의 때문에 죽는 것이다.

- 27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그는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 28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생각하고 그 죄악에서 돌아서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 29 그런데도 이스라엘 집안은, '주님의 길은 공평하지 않다.' 고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내 길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이나? 오히려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 30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안아, 나는 저마다 걸어온 길에 따라 너희를 심판하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회개하여라. 너희의 모든 죄악에서 돌아서라. 그렇게 하여 죄가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라.
- 31 너희가 지은 모든 죄악을 떨쳐 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갖추어라.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 하느냐?
- 32 나는 누구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는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살라."

유다 임금들의 죽음을 애도하다

- 19 ¹ "너는 이스라엘의 제후들을 위하여 애가를 불러라.
- 2 이렇게 노래하여라. '너의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였는가? 수사자들에게 둘러싸인 암사자가 아니었던가? 힘센 사자들 틈에 누워 새끼들을 돌보던 암사자였는데.
- 3 그가 새끼들 가운데에서 하나를 키웠건만 힘센 사자가 되어 사냥하는 것을 배우고는 사람들을 잡아먹자
- 4 민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함정을 파서 그를 잡아 갈고리에 꿰어 이집트 땅으로 끌고 갔다네.
- 5 암사자는 제 희망이 어리석었음을, 그것이

겪었음을 보고 새끼들 가운데에서 또 하나를 골라 힘센 사자로 내세웠건만

- 6 수사자들 사이로 드나들며 힘센 사자가 되어 사냥하는 것을 배우고는 사람들을 잡아 먹으며
- 7 궁궐들을 부수고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니 그가 으르렁대는 소리에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 질겁하였네.
- 8 그러자 민족들이 그를 치려고 사방 여러 곳에서 몰려와 그 앞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서 그를 잡아
- 9 갈고리에 꿰어 우리에게 넣고 바빌론 임금에게 끌고 가 요새에 가두고는 그의 목소리가 다시는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였네.
- 10 너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긴 포도밭의 포도나무 같았지. 물이 많아서 열매가 풍성하고 가지가 무성하였는데
- 11 그 가운데 튼튼한 줄기 하나가 통치자의 홀이 되었네. 점점 키가 자라서 굵은 가지들 위로 솟아 그 키와 많은 가지들 덕분에 멀리서도 보였네.
- 12 그러나 그 포도나무는 분노 속에 뿔뿔히 땅바닥에 던져지니 셋바람에 말라 버리고 열매는 찢겨 나갔네. 그 세차던 줄기는 말라 버리고 불에 타 버렸네.
- 13 이제 그것은 광야에, 가물고 메마른 땅에 옮겨졌는데
- 14 줄기에서 불이 나와 가지와 열매를 살라 버렸네.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는 튼튼한 줄기가, 통치자의 홀이 남지 않았네.' "
- 이것은 애가이며, 또한 애가로 불렸다.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

- 20 ¹ 제칠년 다섯째 달 초월할날에, 이스라엘의 원로 몇 사람이 주님께 문의하려고 와서 내 앞에 앉았다.
- 2 그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 3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원로들에게 일

- 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 문의하려고 왔느냐? 내가 살아 있는 한, 나는 너희의 문의를 받지 않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 4 내가 오히려 그들을 심판해야 하지 않느냐? 사람의 아들이야, 내가 심판해야 하지 않느냐? 그들에게 조상들의 역겨운 짓들을 알려 주어라.
- 5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하던 날, 나는 야곱 집안의 후손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게 나 자신을 알려 주었다. '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하며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 6 나는 그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찾아 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가장 영화로운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 7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 저마다 너희는 눈을 흘리는 그 혐오스러운 것들을 내던지고, 이집트의 우상들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 마라.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 8 그러나 그들은 나에게 반항하고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아무도 눈을 흘리는 그 혐오스러운 것들을 내던지지 않고, 이집트의 우상들을 내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집트 땅 한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내 화를 퍼붓고 내 분노를 다 쏟겠다고 생각하였다.
- 9 그러나 나는 내 이름 때문에 달리 행동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살던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였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어,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나 자신을 그들에게 알려 주었던 것이다.
- 10 나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어 광야로 데리고 갔다.
- 11 나는 그들에게, 누구나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내 규정들을 주고 내 법규들을 알렸다.
- 12 나는 또 그들에게 나의 안식일을 나와 그들 사이의 표징으로 주어, 나 주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이라는 것을 알게 하였다.
- 13 그러나 이스라엘 집안은 광야에서 나에게 반항하였다. 누구나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내 규정들을 따르지 않고, 내 법규들을 업신여겼다. 그들은 내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화를 퍼부어 그들을 없애 버리겠다고 생각하였다.
- 14 그러나 나는 내 이름 때문에 달리 행동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는 것을 본 민족들 앞에서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였다.
- 15 그렇지만 나는, 그들에게 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가장 영화로운 곳으로 그들을 데려가지 않겠다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 16 그들의 마음이 자기 우상들을 따라가서, 나의 법규들을 업신여기고 나의 규정들을 따르지 않았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 17 그러나 나는 그들을 동정하여 멸망시키지 않았다. 광야에서 그들을 아주 없애 버리지 않는 것이다.
- 18 나는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 너희 조상들의 규정들을 따르지 말고 그들의 법규들을 준수하지 말며, 그들의 우상들로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 마라.
- 19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켜라.
- 20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게 하고, 나 주님이 너희

의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아라.’

- 21 그러나 그 자손들도 나에게 반항하였다. 누구나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내 규정들을 따르지 않고, 내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지 않았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화를 퍼붓고 내 분노를 다 쏟겠다고 생각하였다.
- 22 그러나 나는 내 이름 때문에 손을 거두고는 달리 행동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는 것을 본 민족들 앞에서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였다.
- 23 그렇지만 나는, 그들을 민족들 사이로 쫓아 버리고 여러 나라로 흩어 버리겠다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 24 그들이 나의 법규들을 지키지 않고 나의 규정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히고, 그들의 눈이 자기 조상들의 우상들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 25 나는 또 그들에게 좋지 않은 규정들과 지켜도 살지 못하는 법규들을 주었다.
- 26 그리하여 그들이 태를 맨 먼저 열고 나온 아들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나에게 바친 그 제물들로, 나는 그들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이는 그들을 질겁하게 하여, 내가 주님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 27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이아, 이스라엘 집안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 조상들은 나를 배신하여 또다시 나를 모욕하였다.
- 28 내가 일찍이 그들에게 준다고 손을 들어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갔더니, 그들은 높은 언덕과 무성한 나무를 볼 때 마다, 그곳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고 화를 돌우는 봉헌물을 바쳤다. 그곳에 향기로운 제물을 갖다 놓고 제주를 따라 놓았다.
- 29 그래서 나는 ‘ 너희가 찾아다니는 그 산당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나?’ 하고 그

들을 꾸짖었다.’ 그리하여 그런 곳이 오늘 날까지도 ‘산당’ 이라 불린다.

- 30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안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도 조상들의 길을 걸어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들이 받들던 혐오스러운 것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려느냐?
- 31 너희는 제물을 바치고 너희 아들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여, 너희의 그 모든 우상과 어울리며 오늘날까지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이스라엘 집안아, 그러면서 나보고 너희의 문의를 받으라는 말이나?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내가 살아 있는 한, 나는 너희의 문의를 받지 않겠다.
- 32 너희 영에 떠오르는 생각, ‘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다른 나라의 족속들처럼 되어 나무와 바위를 섬기자.’ 하는 너희의 생각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 33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내가 살아 있는 한, 나는 강한 손과 뻗은 팔로, 퍼붓는 분노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 34 나는 강한 손과 뻗은 팔로, 퍼붓는 분노로 너희가 흩어져 사는 그 여러 민족에게서 너희를 데려 내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또 아들이겠다.
- 35 너희를 민족들의 광야로 데려가, 그곳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너희를 심판하겠다.
- 36 내가 이집트 땅의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하였듯이, 이제에는 너희를 심판하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 37 나는 너희를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계약의 의무를 지우겠다.
- 38 너희 가운데에서 나에게 반역하고 나를 거역한 자들을 갈라내겠다. 그들이 머무르는 땅에서 그들을 데려 내오기는 하였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39 너희 이스라엘 집안아,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려거든, 가서 저마다 제 우상을 계속 섬겨라. 그러나 너희의 예물과 우상으로 너희는 더 이상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 40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나의 거룩한 산, 이스라엘의 드높은 산에서, 온 이스라엘 집안이, 그들이 모두 그 땅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나는 거기에서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너희가 바치는 온갖 거룩한 것과 더불어 너희의 예물과 가장 좋은 선물을 바랄 것이다.
- 41 나는 너희가 흠어져 사는 그 여러 민족에게서 너희를 데려 내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모이들일 때, 너희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들이겠다. 다른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를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 42 내가 이렇게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43 또한 그곳에서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만든 너희의 길과 모든 행실을 기억하고, 너희가 저지른 그 모든 악행 때문에 자신이 혐오스러워질 것이다.
- 44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걸어온 악한 길과 너희가 저지른 타락한 행실에 따라 내가 갚지 않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달리 해 주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

불타는 수풀의 비유

- 21** 1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2 "사람의 아들이아, 남쪽으로 얼굴을 돌려, 남녘을 거슬러 예고하고 네겟의 삼림 지대를 거슬러 예언하여라.
 3 네겟의 수풀에게 말하여라. '너는 주님의 말

을 들어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불을 놓겠다. 그러면 그 불은 푸른 나무 마른 나무 할 것 없이 모조리 태울 터인데, 타오르는 그 불꽃은 꺼지지 않아, 남쪽에서 북쪽까지 사람들 얼굴이 다 그 불에 데일 것이다.

- 4 그러면 나 주님이 불을 질렀음을 모든 살덩어리가 알아볼 것이다. 그 불은 꺼지지 않는다. "
- 5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다. "아, 주 하느님! 그들은 저를 가리켜, '저자는 비유나 들어 말하는 자가 아닌가?' 라고 합니다."

주님의 칼

- 6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7 "사람의 아들이아,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돌려, 성전을 거슬러 예고하고 이스라엘 땅을 거슬러 예언하여라.
 8 이스라엘 땅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를 대적하겠다. 칼집에서 칼을 뽑아 너에게서 의인이건 악인이건 다 잘라 내겠다.
 9 내가 너에게서 의인이건 악인이건 다 잘라 낼 터이니, 내 칼이 남쪽에서 북쪽까지 모든 살덩어리를 치려고 칼집에서 나갈 것이다.
 10 그러면 나 주님이 칼집에서 칼을 뽑았음을 모든 살덩어리가 알게 될 것이다. 그 칼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11 너 사람의 아들이아, 탄식하여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괴로워하며 탄식하여라.
 12 그들이 '어째서 탄식합니까?' 하고 물으면, 이렇게 말하여라. '들려오는 소문 때문이다.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녹아 내리고 손은 모두 맥이 풀리며, 기는 모두 꺾이고 무릎은 모두 젖어 물이 흐를 것이다. 보아라, 들려오는 소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주 하

느님의 말이다.' "

- 13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 14 "사람의 아들이아, 예언하여라.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이 말한다.' 하며 이렇게 말하여라. '칼이다! 잘 갈아 날이 선 칼이다.'
- 15 마구 죽이라고 간 칼이요 번개 치듯 내리치라고 날을 세운 칼이다.
- 16 날을 세워 손에 쥐라고 그것을 내어 놓았다. 그것은 살해자의 손에 넘기려고 잘 간 칼이요 날을 세운 칼이다.
- 17 사람의 아들이아, 울부짖어라, 슬피 울어라. 그 칼이 내 백성을 겨누고 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제후를 겨누고 있다. 그들은 내 백성과 함께 칼에 넘겨지고 말았다. 그러니 가슴을 쳐라.
- 18 주 하느님의 말이다.
- 19 너 사람의 아들이아, 예언하여라. 손바닥을 쳐라. 그 칼은 두 번 세 번 휘둘리리라. 그것은 살생의 칼 큰 살생의 칼 그들 둘째를 빙빙 도는 칼이다.
- 20 그리하여 사람의 마음이 떨리고 많은 이가 비틀거리리라. 나는 그들의 성문마다 살육의 칼을 세웠다. 아, 그것은 번개 치듯 내리치라고 만든 칼 마구 죽이라고 날을 세운 칼이다.
- 21 칼아, 뒤로 돌고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돌아라. 네 날이 향하는 곳 어디로든 돌아라.
- 22 나도 손바닥을 치며 내 화를 가리אה리라. 나 주님이 말하였다.' "

바빌론 임금의 칼

- 23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 24 "너 사람의 아들이아, 바빌론 임금의 칼이 갈 길을 두 개 그려라. 그 둘은 같은 나라에서 나오게 해야 한다. 그리고 표지판을 세우는데, 각 성읍으로 향하는 길 어귀에 그것을 세워라.

- 25 나는 칼이 암몬인들의 라바로 갈 길과, 유다와 요세 에루살렘으로 갈 길을 그려라.
- 26 바빌론 임금이 그 두 길의 어귀, 갈림길에 서서 짐을 칠 것이다. 화살을 흔들어 보기도 하고 집안 수호신들에게 물어보기도 하며, 짐승의 간을 살펴보기도 할 것이다.
- 27 그의 오른쪽에는 에루살렘을 가리키는 짐괘가 나와 있다. 성벽 부수는 기계를 놓고 학살 명령을 내리며, 전투의 함성을 울리고 성문마다 성벽 부수는 기계를 놓으며, 공격 축대를 쌓고 공격 보루를 만드는 짐괘다.
- 28 에루살렘 주민들에게는 이것이 거저 짐괘로 보일 것이다. 그들은 장엄한 맹세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빌론 임금은 그들을 사로잡아 그들 자신의 죄를 기억하게 할 것이다.
- 29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 죄악이 드러나고, 너희의 모든 행실에서 너희 잘못이 나타나, 너희는 자신의 죄를 기억해 내었다. 너희 스스로 기억하기에 이르렀으니, 이제 너희는 손아귀에 사로잡힐 것이다.
- 30 너 비천하고 사악한 이스라엘 제후야! 너의 날이 오고 마지막 벌을 받을 때가 왔다.
- 31 주 하느님이 말한다. 머리쓰개를 치우고 왕관을 벗겨라. 지금 이대로는 계속될 수 없다. 낮은 것은 높이고 높은 것은 낮추어라.
- 32 파멸이다, 파멸이다. 내가 파멸을 가져오겠다. 이 또한 지금까지 없던 일이다. 마침내 권리를 지닌 이가 오면, 내가 그 권리를 그에게 넘겨주겠다."

암몬인들을 치는 칼

- 33 "너 사람의 아들이아, 예언하여라. '주 하느님이 암몬인들과 그들이 받을 치욕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하며, 이와 같이 말하여라. '칼이다. 마구 죽이려고 빼어 든 칼

이다. 전멸시키라고, 번개 치듯 내리치라고
날을 세운 칼이다.

- 34 그들은 너에게 거짓 환시를 말하고 속임수
점괘를 말한다. 살해될 악인들의 목에다 너
를 갖다 놓는다. 그들의 날이 오고 마지막
벌을 받을 때가 왔다.
- 35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내가 창조된 곳,
너의 고향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 36 너에게 내 진노를 퍼붓고 내 노여움의 불
길을 내뿜으며, 파멸시키는 데에 능숙한
짐승 같은 사람들의 손에 너를 넘기겠다.
- 37 너는 빨감으로 불 속에 들어가고 너의 피
는 땅속으로 스며들어, 더 이상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나 주님이 말하였다. "

예루살렘의 죄와 심판

- 2** 1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2 "너 사람의 아들이야, 내가 심판해야
하지 않느냐? 이 피의 도성을 심판해야 하
지 않느냐? 이 도성에게 자기가 저지른 역
겨운 것들을 모두 알려 주어야.
- 3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
다. 사람의 피를 쏟아 자기의 때를 재촉하
는 도성, 우상들을 만들어 자신을 부정하게
만든 도성이!
- 4 내가 쏟은 피로 너는 죄를 지었고, 내가 만
든 우상으로 너는 부정하게 되었다. 너는 스
스로 너의 날을 앞당겼다. 너에게 정해진 햇
수의 기한이 찼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민족
들의 우렛거리로, 모든 나라의 조롱거리로
만든다.
- 5 가까이 있는 나라도 멀리 있는 나라도, 이름
이 더럽혀지고 혼란으로 가득한 너를 조롱
것이다.
- 6 보아라, 이스라엘의 제후들은 저마다 제 권
력을 믿고 네 안에서 사람들의 피를 쏟는다.
- 7 네 안에서 사람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
신여기고, 이방인을 억압하며 고아와 과부

를 학대한다.

- 8 너는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무시하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다.
- 9 네 안에는 남의 피를 쏟으려고 중상하는 자
들이 있고, 산 위에서 음식을 먹는 자들이
있으며, 추잡한 짓을 하는 자들이 있다.
- 10 네 안에서 사람들은 계모와 관계하고 달거
리로 부정한 여자를 범한다.
- 11 또 이웃의 아내와 역겨운 짓을 저지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추잡한 짓으로 며느리
를 부정하게 만드는 자도 있고, 자기 아버
지의 딸인 누이를 범하는 자도 있다.
- 12 네 안에서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아 남의
피를 쏟는다. 너는 변리와 이자를 받고 이
웃을 억압하여 착취한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잊고 있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 13 보아라, 나는 내가 거둔 부정한 소득과 네
안에서 흘린 피 때문에, 내 손바닥을 친다.
- 14 내가 너를 상대하는 날, 너의 심장이 배겨
나겠느냐? 네 손이 힘을 쓸 수 있겠느냐?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
- 15 나는 너의 주민들을 민족들 사이로 쫓아
버리고 여러 나라로 흩어 버려, 너에게서
부정을 치우겠다.
- 16 너는 스스로 잘못을 저질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더럽혀질 것이다. 그제야 너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 17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 18 "사람의 아들이야, 이스라엘 집안은 나에게
죄 찌꺼기가 되어 버렸다. 모두 용광로에
든 구리와 주석, 쇠와 납이다. 그들은 쇠
찌꺼기가 되어 버렸다.
- 19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말한다. 너희가 모두
쇠 찌꺼기가 되어 버렸으니, 나 이제 너희
를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모아 놓겠다.
- 20 은과 구리와 쇠, 납과 주석을 용광로에 모
아 놓고 불을 뿜어 녹이듯, 나도 분노와 진
노로 너희를 모아가, 그 안에 넣고 녹여

버리겠다.

- 21 내가 너희를 모아들어 내 격분의 불을 너희에게 뿜어 대면, 너희는 그 안에서 녹아 버릴 것이다.
- 22 은이 용광로 속에서 녹듯이, 너희도 예루살렘 안에서 녹아 버릴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나 주님이 너희에게 화를 퍼부은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 23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 24 "사람의 아들이아,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는 격분의 날에 깨끗해지지도 못하고, 비를 얻지도 못한 땅이다.
- 25 그 안에 있는 제후들은 먹이를 잡아 찢으며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다. 그들은 사 람들을 잡아먹고 보물과 보화를 빼앗으며, 그 안에 과부들을 많이 늘려 놓았다.
- 26 그 사제들은 나의 율법을 짓밟고 나의 거룩한 물건을 더럽혔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차이를 알려 주지 않았으며, 내 안식일에서는 아예 눈을 돌려 버렸다. 나는 이렇게 그들 사이에서 모독을 당하였다.
- 27 그 안에 있는 대신들은 먹이를 잡아 찢는 이리와 같이, 부정한 소득을 얻으려고 사람의 피를 쏟고 목숨을 파멸시킨다.
- 28 그런데도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은 그들에게 화칠을 해 주었다. 그들에게 거짓 환시를 보았다 하고 속임수 짐괘를 말하며, 주님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말하였다.
- 29 이 땅의 백성은 남을 억압하고 강도 짓을 하며, 가련한 이와 가난한 이를 학대하고 이방인을 부당하게 억압하였다.
- 30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성벽을 보수하며 그 성벽이 무너진 곳에 서서 나를 막는 이가 그들 가운데에 행어 있는지 내가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 31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내 격분을 퍼붓고,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없애 버리겠다. 그들이 걸은 길을 그들 머리 위로 되갚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두 탕어의 죄와 심판

- 23 ¹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 ² "사람의 아들이아, 두 여자가 있었다. 그들은 한 어머니의 딸이었는데,
- ³ 이미 이집트에서 불륜을 저질렀다. 어릴 때에 벌써 불륜을 저지른 것이다. 그곳에서 남자들이 그들의 젖가슴을 누르고, 그 처녀 젖꼭지를 어루만졌다.
- 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언니는 오홀라이고, 동생은 오홀리바이다. 그 여자들은 내 사람이 되어 아들딸들을 낳았다. 그들의 이름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 ⁵ 오홀리는 내 밑에 있으면서도 불륜을 저질렀다. 자기의 정부들을, 전사들이인 아시리아인들을 갈망하였다.
- ⁶ 그들은 자주색 옷을 입을 지방관과 총독이며, 말을 잘 타는 기사로서 모두 멋진 젊은이였다.
- ⁷ 오홀리는 아시리아인들 가운데에서도 뛰어난 그 모든 이와 불륜을 저질렀다. 자기가 갈망하는 자가 누구든 그의 온갖 우상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 ⁸ 이렇게 그 여자는 이집트에서부터 저질러 온 불륜을 그만두지 않았다. 그가 어릴 때에 이미 사람들이 그와 잠자리를 같이하고, 그 처녀 젖꼭지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정욕을 쏟아 부었다.
- ⁹ 그래서 나는 그 여자를 그 정부들의 손에, 그가 갈망하던 아시리아인들의 손에 넘겨 버렸다.
- ¹⁰ 그러자 그들은 그 여자의 치부를 드러내고, 그의 아들딸들을 붙잡아 갔으며, 끝내는 그를 갈로 죽여 버렸다. 이렇듯 그는 벌을 받

- 아 여자들 가운데에서 악명이 높았다.
- 11 그의 동생 오홀리바는 이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의 욕정은 언니보다 더 타락하였고, 그의 탕너 짓도 언니의 불륜보다 더하였다.
- 12 그는 아시리아인들, 곧 자주색 옷을 입은 지방관과 총독과 전사이며, 말을 잘 타는 기사로서 모두 멋진 젊은이인 그들을 갈망하였다.
- 13 내가 보니 그 여자는 그렇게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두 자매가 같은 길을 따라간 것이다.
- 14 그러나 오홀리바가 불륜을 더 저질렀다. 그는 벽에 새겨진 남자들의 모습, 붉은색으로 새겨진 칼데아인들의 상을 보았다.
- 15 모두 영웅 모습을 한 그들은, 허리에 띠를 매고 머리에는 건을 감아 늘어뜨렸는데, 칼데아가 고향인 바빌론인들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 16 오홀리바는 그 모습만 보고도 그들을 갈망하게 되어, 칼데아로 그들에게 사절을 보냈다.
- 17 그리하여 바빌론인들이 와서 그 여자와 사랑의 잠자리에 들어, 그들의 정욕으로 그 여자를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번 부정하게 된 다음에는, 그 여자의 마음이 그들에게서 떠났다.
- 18 그 여자가 이렇게 드러내 놓고 불륜을 저지르며 제 치부를 드러내자, 내 마음이 그 언니에게서처럼 그 여자에게서도 떠났다.
- 19 그러나 그 여자는 이집트 땅에서 불륜을 저지르던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서, 수없이 불륜을 저질렀다.
- 20 그러면서 몸이 나귀의 것과 같고 정액을 말처럼 쏟는 그곳의 셋서방들을 갈망하였다.
- 21 그렇게 너는 이집트에서 남자들이 너의 젖꼭지를 어루만지고, 너의 어린 젖가슴을 누르던 때, 네 어린 시절의 추잡한 짓을 그리워하였다.
- 22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네 마음이 떠난 너의 정부들을 부추겨, 너를 거슬러 그들을 사방에서 데려오겠다.
- 23 그들은 바빌론인들과 모든 칼데아인, 프곳과 소아와 코아인들과 모든 아시리아인이다. 모두가 멋진 젊은이들로서 지방관이요 총독이며, 말을 잘 타는 기사로서 영웅이며 전사다.
- 24 그들은 북쪽에서 벵기와 수레와 민족들의 무리를 거느리고 너에게 와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투구로 무장하고 사방으로 너를 둘러쌀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 앞에 소송 거리를 내놓으면, 그들은 저희 법규에 따라 너를 심판할 것이다.
- 25 나는 너에게 내 질투를 쏟겠다. 그러면 그들은 화를 터뜨리며 너를 다루고, 너의 코와 귀를 잘라 낼 것이다. 네 뒤에 남은 자들은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너의 아들 딸들은 붙잡혀 가고, 뒤에 남은 자들은 불에 타 버릴 것이다.
- 26 그들은 또 너의 옷을 벗기고 너의 패물들을 빼앗을 것이다.
- 27 나는 이렇게 하여 너의 추잡한 짓과, 이집트 땅에서부터 시작한 너의 탕너 짓을 그치게 하겠다. 그러면 너는 눈을 들어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이집트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 28 정녕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네가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 네 마음이 떠난 자들의 손에 너를 넘겨 버리겠다.
- 29 그러면 그들은 미움으로 너를 대하면서, 네 노고의 결실을 모조리 빼앗아, 너를 벌거벗은 알몸뚱이로 버려둘 것이다. 그리하여 불륜을 저지른 네 치부가 드러날 것이다. 너의 추잡한 짓과 탕너 짓이
- 30 너에게 이런 일들을 가져왔다. 내가 다른

민족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고, 그들의 우상들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31 네가 언니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으니, 나는 네 언니가 마신 잔을 네 손에 들려 주겠다.

32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언니가 마신 잔을 너도 마시리라. 깊고 넓은 잔이다. 그 잔에 술이 넘쳐 웃음거리와 놀림감이 된 너는

33 취기와 근심에 싸이리라. 그것은 질겁과 황폐의 잔, 네 언니 사마리아가 마신 잔이다.

34 너는 그 잔을 마셔 비우고서는 그 조각까지 깨물며 네 젓가슴을 쥐어뜯으리라. 내가 정녕 그렇게 말하였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35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나를 잊고 나를 등 뒤로 던져 버렸으니, 이제는 내가 저지른 추잡한 짓과 탕너 짓의 결과를 짊어지라."

36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아, 너는 오홀라와 오홀리비를 심판해야 하지 않느냐? 그들에게 자기들이 저지른 역겨운 짓들을 일러 주어라.

37 그들은 간음하고, 게다가 손에는 사람의 피까지 묻혔다. 자기들의 우상들과 간음하고, 나에게 낳아 준 제 아들들까지 불 속을 지나가게 하면서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쳤다.

38 더욱이 그들은 나에게 이런 짓까지 하였다. 바로 같은 날에, 나의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39 자기 아들들을 잡아 저희 우상들에게 바치고는, 같은 날에 나의 성전으로 와서 그곳을 더럽혔다. 그렇다, 내 집 한가운데에서 그런 짓을 하였다.

40 거기에다 그 여자들은 사람을 보내어 멀리서 사내들이 오게 하였다. 그들에게 사절이 파견된 것이다. 그들이 오자, 그 여자는 그들을 위하여 몸을 씻고 눈 화장을 하고 장

신구로 치장하였다.

- 41 또 화려한 자리를 깔고 앉았는데, 그 앞에는 상이 차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나의 향과 나의 기름을 올려놓았다.
- 42 태평스러운 군중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사막에서 술꾼들이 초대되어 사람 무리에서 뽑힌 사내들과 합류하였다. 그들은 두 자매의 팔에 팔짱을 끼우고, 머리에는 화려한 면류관을 씌워 주었다.
- 43 나는 '간음으로 사들여 빠진 여자에게, 바로 그 여자에게 사람들이 이제는 몸을 사러 가는구나.' 하였다.
- 44 그들은 창녀에게 가듯 그 여자에게 갔다. 그렇게 사람들은 추잡한 짓을 하는 여자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갔다.
- 45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이 있어, 간음한 여자들에게 해당하는 판결과, 사람의 피를 쏟은 여자들에게 해당하는 판결을, 그 두 자매에게 내릴 것이다. 그들은 간음하였고, 그들 손에는 사람의 피가 묻어 있다.
- 46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들을 거슬러 회중을 불러 올라오게 하여라. 그 두 자매를 공포와 악탈의 대상으로 내놓아라.
- 47 회중은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그들을 칼로 베어라. 그들의 아들딸들은 죽여 버리고 집들은 불에 태워 버려라.
- 48 이렇게 내가 이 땅에서 추잡한 짓을 그치게 하면, 모든 여자가 경고를 받아들여, 너희가 저지른 추잡한 짓들을 따라 하지 않을 것이다.
- 49 사람들이 너희가 저지른 추잡한 짓을 너희에게 되갚을 것이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너희 우상들로 지은 죄값을 짊어져야 할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에루살렘이 포위되리라

24

¹ 제구년 열째 달 초월흘날에 주님의

-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 2** "사람의 아들이아, 오늘, 바로 오늘 날짜를 기록해 두어라. 바빌론 임금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
- 3** 너는 저 반항의 집안에게 비유를 들려주어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술을 걸어라, 걸어라. 물을 붓고 고깃덩이들을 집어넣어라. 모두 좋은 고깃덩이로 넓적다리화 아게 고기를 골라 가장 좋은 뼈와 함께 가득 채워라.
- 5** 양 떼에서 가장 좋은 것도 잡아넣고 그 밑에 장작을 쌓아 안에 든 뼈까지 삶아지도록 펄펄 끓여라.
- 6**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불행하여라, 피의 도성! 안에 녹이 쓴 술, 녹이 없어지지 않은 술! 그 안의 고깃덩이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어라. 제비를 뽑아 고를 것도 없다.
- 7** 그 도성이 쓴은 사람의 피가 그 안에 그대로 있다. 그 도성은 피를 맨바위 위에 그대로 내버렸다. 흙으로 덮지 못하도록 땅에 흘리지도 않았다.
- 8** 내 화가 타올라 원수를 갚으려고 그 피가 덮이지 못하도록 내가 맨바위 위에 그것을 쏟아 놓았다.
- 9**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불행하여라, 피의 도성! 나도 이제 불구덩이를 높이 쌓으리라.
- 10** 장작을 많이 넣고 불을 지펴라. 고기를 푹 삶고 국물을 비워 뼈를 태워 버려라.
- 11** 술을 빈 채로 솥불에 올려놓아 그것이 뜨거워지고 낫쇠가 달아올라 술 안의 부정이 녹아 버리고 그 안의 녹이 가시게 하여라.
- 12** 그러나 지치도록 고생만 할 뿐 그 술의 녹이 많아서 그 녹은 불로도 없어지지 않는다.
- 13** 너의 부정과 추잡한 짓 때문에 내가 너를 정결하게 하였지만, 내가 부정을 벗고 정

결하게 되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 대한 화를 풀 때까지 너는 정결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 14** 나 주님이 말하였다. 때가 오면 내가 그대로 하겠다. 나는 돌이키지 않고 동정하지도 않으며 누우치지도 않았다. 내가 걸어온 길과 행실에 따라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

아내의 죽음을 상징으로 삼다

- 15**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 16** "사람의 아들이아, 나는 네 눈의 즐거움을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너에게서 앗아 가겠다. 너는 슬퍼하지도 울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마라.
- 17** 조용히 탄식하며, 죽은 이를 두고 곡을 하지 마라. 머리에 쓰개를 쓰고 발에 신을 신어라. 콧수염을 가리지 말고 사람들이 가져온 빵도 먹지 마라."
- 18** 이튿날 아침에 내가 백성에게 이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나는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
- 19** 그러자 백성이 나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려 주지 않았습니까?"
- 20**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에게 내리셨습니다.
- 21** '이스라엘 집안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희의 자랑스러운 힘이고 너희 눈의 즐거움이며 너희 영의 그릇이었던 나의 성전을 더럽히겠다. 너희가 두고 떠난온 너희 아들딸들은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 22** —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한 것처럼 하게 될 것이다. — 콧수염을 가리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가져온 빵을 먹지도 못할 것이다.
- 23** 머리에는 쓰개를 그대로 쓰고 발에는 신을

그대로 신은 채, 슬퍼하지도 울지도 못 것이다. 너희는 너희 죄 때문에 스러져 가면서 서로 바라보며 한탄할 것이다.

24 에제키엘이 이렇게 너희에게 예표가 되고, 그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나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 하느님을 알게 될 것이다.'

25 너 사람의 아들이, 내가 그들의 요새와 기쁨과 영화, 그들 눈의 즐거움과 그들 영의 열망, 그들의 아들딸들을 아가 가는 날,

26 그날에 파난된 한 사람이 소식을 전하러 너에게 올 것이다.

27 그날, 그 파난된 앞에서 너는 입이 열려 말을 하게 되고, 다시는 병어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렇게 그들에게 예표가 될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암몬인들에게 내리는 심판

5 1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2 "사람의 아들이, 암몬인들에게 얼굴을 돌리고 그들을 거슬러 예언하여라.

3 암몬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의 말을 들어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나의 성소가 더럽혀졌을 때에 '아하!' 하고 소리 지르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졌을 때에도, 이스라엘 집안이 유배를 떠날 때에도 그러하였다.

4 그러므로 나 이제 너를 동방인들에게 소유로 넘겨주겠다. 그들은 네 땅에 촌락을 세워 거처를 마련하고는, 너의 열매를 먹고 너의 우유를 마실 것이다.

5 나는 또 라빠를 낙타 목장으로, 암몬의 성읍들을 양 우리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6 정녕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이스라엘 땅을 두고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악의에 가득 찬 마음으로 기뻐하였다.

7 그러므로 나 이제 너에게 손을 뻗어 너를 민족들의 약탈품으로 내놓겠다. 너를 민족들에게서 잘라 버리고 나라들 가운데에서 멸망시켜, 너를 전멸시켜 버리겠다. 그제야 너는 내가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

모압에 내리는 심판

8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모압과 세이르는 '보아라, 유다 집안도 다른 모든 민족들과 다르지 않다.' 고 말하였다.

9 그러므로 나 이제 모압의 옆쪽을, 그 국경에 있는 성읍들, 곧 그 나라의 자랑인 벳 여시못, 비알 므온, 키르아티심부터 열어젖히겠다.

10 나는 모압을 암몬인들과 함께 동방인들에게 소유로 넘겨주겠다. 암몬인들이 민족들 사이에서 더 이상 기억되지 않게 하겠다.

11 이렇게 내가 모압에게 벌을 내리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에돔에 내리는 심판

12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에돔은 복수심을 품고 유다 집안에게 보복하였다. 그들에게 복수하여 큰 죄를 지었다.

13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에돔에게 손을 뻗어 그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잘라 내어 폐허로 만들어 버리겠다. 테만에서 드단까지 사람들이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14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에돔에게 원수를 갚겠다. 내 분노와 내 화에 따라 에돔에게 보복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의 복수를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필리스티아에 내리는 심판

15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필리스티아인들은 복수심에 차서 보복하였다. 옛날부터 품어 온 적개심으로 다 파괴해 버리려고, 악의에 가득 찬 마음으로 복수를

자행하였다.

- 16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필리스티아인들에게 손을 뻗어 이 크렛인들을 잘라 버리고, 바닷가에 살아남은 자들도 멸망시키겠다.
- 17 내가 이렇게 그들에게 분노의 징벌을 내려 크게 복수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복수하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티로에 내리는 심판

- 26** 1 제십일년 어느 달 초하룻날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 2 "사람의 아들이, 티로가 에루살렘을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야하, 민족들의 관문이 부서져 나에게 활짝 열렸구나! 나는 풍부해지고 그것은 폐허가 되는구나!'
- 3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티로야, 나 이제 너를 대적하리라. 바다가 물결을 밀어 올리듯 내가 너를 거슬러 많은 민족들을 불러올리리라.
- 4 그들은 티로의 성벽을 부수고 탑들을 허물어뜨리리라. 나는 그곳에서 흙을 끌어 내어 맨바위로 만들어 버리리라.
- 5 그리하여 그곳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물이나 퍼서 말리는 곳이 되리라. 정녕 내가 말하였다. 주 하나님의 말이다. 티로는 민족들의 약탈품이 되고
- 6 물에 있는 티로의 딸들은 칼로 살해되리라.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 7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기마와 병거와 기병, 그리고 많은 군대의 무리를 거느린, 임금들의 임금인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를 북쪽에서 데려오겠다.
- 8 그는 물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살해하고는 너를 치러 공격 보루를 만들고 공격 축대를 쌓고 너를 향하여 방패들을 세우리라.
- 9 파쇄기로 네 성벽을 치고 쇠파망치로 네 탑들을

을 부수리라.

- 10 그의 군마들이 너무 많아 그 먼지가 너를 뒤덮으리라. 뚫린 성벽으로 성인에 들어다 치듯 그가 너의 성문으로 들어올 때 기병들과 병거들의 바퀴 소리에 너의 성벽이 흔들리리라.
- 11 그는 말발굽으로 너의 거리들을 모조리 짓밟으며 백성을 갈로 학살하고 튼튼한 기둥들을 쓰러뜨리리라.
- 12 군사들은 너의 재물을 약탈하고 상품들을 노략하며 너의 성벽을 허물어뜨리고 호화로운 집들을 부수어 석재와 목재와 흙덩이까지 바다 한가운데로 던져 버리리라.
- 13 나는 이렇게 너의 시끄러운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고 수금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게 하리라.
- 14 내가 이렇듯 너를 맨바위로 만들어 버리면 너는 그물이나 퍼서 말리는 곳이 되고 더 이상 재건되지 않으리라. 정녕 나 주님이 말하였다. 주 하나님의 말이다.
- 15 주 하나님이 티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부상당한 자들이 신음하고 네 가운데에서 살육이 자행되면서 들리는 네 물락의 소리에, 어찌 섬들이 떨지 않겠느냐?
- 16 바다의 제후들은 모두 왕좌에서 내려와, 예복을 치우고 수놓은 옷을 벗을 것이다. 공포를 옷처럼 입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줄곧 떨며, 너 때문에 질겁할 것이다.
- 17 그리고 너를 두고 얘기를 지어 부를 것이다. '어찌다가 바다에서 사라졌나? 찬양받던 성읍! 주민들과 함께 바다에서 세력을 떨치며 온 육지를 공포에 떨게 하던 성읍!'
- 18 그런데 이제 네 물락의 날에 섬들이 떨고 네 종말을 보며 바다의 섬들이 어쩔 줄 몰라 한다.'
- 19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를 사람이 살지 않는 성읍처럼 황폐한 성읍으로 만들고, 심연을 끌어 올려 큰 물이 너를 덮

- 어 버리게 하며,
20 구렁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옛 사람들
 에게 내려가게 하겠다. 그리고 구렁으로 내
 려가는 자들과 함께 저 아래 땅, 태고의 폐
 허에 살게 하여, 사람들이 다시는 네 땅에
 서 살지 못하고, 네가 다시는 산 이들의 땅
 에서 일어서지 못하게 하겠다.
21 그리하여 나는 너를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
 겠다. 너는 더 이상 있지 않아, 사람들이
 너를 찾기도 다시는 영원히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티로를 위한 애가

- 27** ¹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² "너 사람의 아들이여, 티로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라.
3 바다 어귀에 자리 잡은 성읍, 수많은 섬으로
 다니며 여러 민족과 장사하는 상인 티로에
 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티로야, ' 나는 더없이 아름답워.' 하고
 너는 말하였다.
4 너의 경계선들은 바다 한가운데에 있고 조
 선공들은 너를 더없이 아름답게 지었다.
5 너의 바깥 판들은 모두 스니르의 방백나무
 로 짜고 레바논의 향백나무를 가져다가 네
 위에 올린 돛대를 만들었다.
6 바산의 참나무로 노를 만들고 키티 섬에서
 잣나무를 가져다가 상이를 박으며 갑판을
 깔았다.
7 너의 돛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수놓은 아마
 포로 그것이 너의 깃발이 되기도 하였고 차
 일은 엘리야 섬에서 온 자주와 자홍 색 천
 으로 만들어졌다.
8 시돈과 아르앗 주민들이 너의 노를 저었고
 티로야, 너에게는 기술자들이 있어 그들이
 너의 키잡이였으며
9 또 네 안에 머무르는 그말의 원로들과 기술
 자들이 너의 틈을 매우는 수선공들이었다.

- 바다의 모든 배와 선원들이 너에게 와서 물
 품들을 거래하였다.
10 페르시아와 루드와 쫓 사람들이, 전사들이
 너의 군대에 들어왔다. 그들이 너에게 걸
 어 놓은 방패와 투구가 너를 광채로 빛나
 게 하였다.
11 아르앗인들과 너의 군대가 너의 사망 벽
 위에 배치되고 감뱃인들이 네 탑들에 배치
 되었는데 그들이 사망 벽에 걸어 놓은 방
 패들이 너를 더없이 아름답게 하였다.
12 너에게는 온갖 재물이 많아 타르시스가 너
 와 무역을 하였다. 그들은 은과 쇠와 주석
 과 납을 주고 네 상품들을 가져갔다.
13 아완, 투발, 메섹도 너와 장사를 하여, 노
 예와 구리 연장을 주고 네 물품들을 가져
 갔고,
14 뱃 토카르미에서는 말과 군마와 노새를 주
 고 네 상품들을 가져갔다.
15 드단 사람들도 너와 장사를 하였고, 또한
 많은 섬이 너의 중개상으로 일하면서, 그
 대가로 너에게 상이와 흑단을 지불하였다.
16 너에게는 온갖 제품이 많아서 이람도 너와
 무역을 하여, 석류석, 자홍 천, 수놓은 천,
 아마포, 산호, 홍옥을 주고 네 상품들을 가
 져갔으며,
17 유대와 이스라엘 땅도 너와 장사를 하여,
 만릿 밀, 기장, 꿀, 기름, 유향을 주고 네
 물품들을 가져갔다.
18 너에게는 제품도 많고 온갖 재물이 많아,
 다마스쿠스도 헬본 포도주와 차하르의 양
 털을 가져와 너와 무역을 하고,
19 단과 아완 머우갈도 너와 상품을 교환하였
 는데, 그들이 네 물품 값으로 가져온 것은
 망치로 두드린 쇠, 계피, 향초였다.
20 드단은 말을 탈 때 인장에 끼는 천을 가져
 와 너와 장사를 하고,
21 아라비아와 케다르의 채후들도 너의 중개
 상으로서, 새끼 양과 수양과 숫염소를 가

- 저와 너와 무역을 하였으며,
 22 스바와 라마 상인들도 너와 장사를 하여, 온갖 최고급 향료와 보석과 금을 주고 너의 상품을 가져갔다.
 23 하란과 칸네와 에덴, 그리고 스바의 상인들과 아시리아와 칼맛도 너와 장사를 하였는데,
 24 그들은 화려한 의복, 수놓은 자주색 옷, 여러 색으로 짠 융단, 단단히 끈 밧줄을 너의 시장으로 가져와서 너와 장사를 하였다.
 25 그리고 타르시스의 배들이 너의 물품들을 싣고 항해하였다. 이렇게 너는 너무 무겁게 가득 싣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다.
 26 노 젓는 이들이 너를 큰 바다로 저어 나가자 셋바람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부수어 버렸다.
 27 그리하여 너의 재물과 상품과 물품 너의 선원들과 키잡이들 너의 틈을 메우는 수선공들과 너의 물품 상인들 네 안에 있던 모든 전사들 네 안에 모여 있던 모든 사람이 네 파멸의 날에 바다 한가운데로 빠져 든다.
 28 네 키잡이들이 울부짖는 소리에 바닷가 땅이 뒤흔들린다.
 29 노를 젓는 이들이 모두 배에서 내리고 선원들과 바다의 키잡이들이 모두 물으로 올라서서
 30 너 때문에 큰 소리를 지르며 비통하게 울부짖는다. 머리에 흙을 끼얹고 잣대미 속에서 뒹굴며
 31 너 때문에 머리를 밀고 자루옷을 두른다. 너를 두고 비통한 마음으로 울고 비통하게 통곡한다.
 32 비탄 속에 너를 두고 애가를 부른다. 너를 두고 이런 조기를 부른다. 누가 티로처럼 바다 한가운데에서 멸망하였던가?
 33 너는 바다에서 오는 상품들을 풀어 많은 민족들을 만족시키고 너의 그 많은 재물과

물품으로 세상의 임금들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 34 그러나 이제 너는 바다에 부서져 깊은 물속에 가라앉았구나. 너의 물품들과 네 안에 모여 있던 모든 사람이 너와 함께 빠져 버렸구나.
 35 섬에 사는 모든 주민이 네 소식에 질겁하고 그들의 임금들도 몹서리치며 얼굴에는 경련이 이는구나.
 36 모든 민족의 무역상들이 너를 두고 회파람을 불어 대는 가운데 이제 너는 공포를 일으키며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구나.' "

티로 임금에게 내리는 심판

28

- 1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2 "사람의 아들아, 티로의 군주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마음이 교만하여 '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의 자리에, 바다 한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고 말한다. 너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면서도 네 마음을 신의 마음에 비긴다.
 3 과연 너는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워 어떤 비밀도 너에게는 심오하지 않다.
 4 너는 지혜와 슬기로 재산을 모으고 금과 은을 창고에 쌓았다.
 5 너는 그 큰 지혜로 장사를 하여 재산을 늘리고는 그 재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졌다.
 6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네 마음을 신의 마음에 비긴다.
 7 그러므로 나 이제 이방인들, 가장 잔혹한 민족들을 너에게 끌어들이리니 그들이 칼을 빼들어 네 지혜로 이론 이롭다운 것들을 치고 너의 영화를 더럽히며
 8 너를 구덩이로 내던지리라. 그러면 너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무참한 죽음을 맞이하리라.
 9 너를 학살하는 자 앞에서도 네가 감히 ' 나는 신이다.' 할 수 있었느냐? 너는 너를 살해하는 자들의 손에 달린 사람일 뿐이지

신이 아니다.

- 10 너는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죽음을 맞이하리라. 정녕 내가 말하였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

티로 임금을 위한 애가

- 11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12 "사람의 아들이아, 티로 임금을 두고 애가를 불러라. 그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완전함의 본보기로서 지혜와 더없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13 하느님의 동산 에덴에서 살았다. 너는 홍옥수와 황옥 배수정과 녹주석과 마노 벽옥과 청옥과 홍옥과 취옥 온갖 보석으로 뒤덮였고 너의 귀걸이와 내가 걸친 장식은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내가 창조되던 날 그것들이 모두 준비되었다.
14 나는 우람한 커튼을 너에게 보호자로 붙여 주었다. 너는 하느님의 거룩한 산에 살면서 불타는 돌들 사이를 거닐었다.
15 너는 창조된 날부터 흠 없이 걸어왔다. 그러나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16 너의 그 큰 장사 때문에 너는 폭행을 일삼으며 죄를 지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더럽게 여겨 하느님의 산에서 쫓아냈다. 보호자 커튼이 너를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사라지게 하였다.
17 너의 아름다움으로 네 마음이 교만해지고 너의 영화 때문에 너는 네 지혜를 타락시키고 말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땅바닥에 내던지고 임금들의 구경거리로 내놓았다.
18 너의 그 많은 죄와 부정한 장사로 너는 네 성소들을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네 한가운데에서 불이 나와 너를 살라 버리게 하였고 구경하는 모든 이의 눈앞에서 너를 땅바닥의 재로 만들어 버렸다.
19 민족들 가운데에서 너를 아는 이들이 모두 네 소식에 질겁하는 가운데 너는 공포를

일으키며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 "

시돈에 내리는 심판

- 20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21 "사람의 아들이아, 시돈으로 얼굴을 돌리고 그곳을 거슬러 예언하여라.
22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시돈아, 나 이제 너를 대적하여 네 가운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내가 그 성읍에 벌을 내려 내 거룩함을 드러내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23 나는 그 성읍으로 흑사병을 보내고 거리마다 피가 흥건하게 하리라. 사방에서 일어난 칼로 살해된 자들이 그 성읍 안에서 쓰러지리라.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24 이제 이스라엘 집안을 비롯한 사방 모든 민족들에게서, 다시는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쥘레나 그들을 아프게 하는 가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 내리는 약속

- 25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이 흠어져 사는 민족들에게서 모아 올 때, 나는 겨레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 안에 내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집안은 내가 나의 종 아람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26 그들은 짐을 짓고 포도밭을 가꾸며 그 땅에서 평안히 살 것이다. 사방에서 그들을 비롯한 모든 민족들에게 내가 벌을 내리면, 그들은 평안히 살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 그들의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파라오와 이집트에 내리는 심판

- 29¹ 제삼년 열째 달 열이튿날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 2 "사람의 아들이아, 이집트 임금 파라오에게 일 굴을 돌리고, 그와 온 이집트를 거슬러 예언 하여라.
- 3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를 대적하리라, 이집트 임금 파라오야! 나일 강 한가운데에 드러누워' 나일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서 만 들었다.' 고 말해 대는 거대한 용아!
- 4 내가 갈고리로 네 턱을 깨고 네 나일 강의 물고기들을 너의 비늘에 달라붙게 하여 너를 비늘에 달라붙은 나일 강의 물고기들과 함께 나일 강에서 끌어 올리리라.
- 5 그리고 너와 나일 강의 물고기들을 모두 광야로 내동댕이치리니 너는 들판에 떨어져 아무도 너를 거두지도 모오지도 않으리라. 내가 땅의 짐승과 하늘의 새에게 너를 먹이로 준 것이다.
- 6 그제야 이집트 주민들이 모두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너는 이스라엘 집안에게 갈대 지팡이밖에 되지 못하였다.
- 7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으면 너는 부러지면서 그들의 어깨를 찢고 그들이 너를 의지하면 너는 꺾어지면서 그들의 허리를 온통 휘청거리게 하였다.
- 8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에게 칼을 끌어들여, 너에게서 사람과 짐승을 잘라 내 버리겠다.
- 9 그러면 이집트 땅은 황무지와 폐허가 될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일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 하고 너는 말하였다.
- 10 그러므로 나 이제 너와 너의 나일 강을 대적하여, 이집트 땅을 막돌에서 시에네까지, 에티오피아 국경에 이르기까지 폐허와 황량한 불모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 11 그리하여 그 땅에는 사람의 발길도 끊어지고 짐승의 발길도 끊어진 채, 사십 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다.

- 12 나는 이집트 땅을 황폐한 땅 가운데에서도 가장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 버리리니, 사십 년 동안 그 성읍들은 폐허가 된 성읍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황폐한 곳이 될 것이다. 나는 또 이집트인들을 민족들 사이로 쫓아 버리고, 여러 나라로 흩어 버리겠다.
- 13 그러나 주 하느님이 또 이렇게 말한다. 사십 년이 지나면, 내가 이집트인들을 그들이 흩어져 사는 민족들에게서 모아들이겠다.
- 14 나는 이집트인들의 운명을 되돌려, 그들을 파트로스 땅, 곧 그들의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겠다. 그곳에서 그들은 보잘것없는 왕국을 이룰 것이다.
- 15 그것은 왕국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왕국으로서, 다시는 다른 민족들 위로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작게 만들어, 그들이 다른 민족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
- 16 이집트는 이스라엘 집안이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몸을 돌려 지은 죄를 기억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집안에게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네부카드네자르가 이집트를 정복하리라

- 17 제이십칠년 첫째 달 초하룻날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 18 "사람의 아들이아,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는 티로를 치려고 자기 군대에게 힘겨운 일을 시켰다. 모든 군사들의 머리털이 빠지고 어깨가 벗겨지기까지 하였지만, 티로를 치려고 애쓴 일에 대한 보상을 그 자신도 그의 군대도 티로에서 받지 못하였다.
- 19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말한다. 나 이제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에게 이집트 땅을 주겠다. 그러면 그는 이집트의 재물을 가져가고, 악탈질과 노략질을 하리니, 그것

이 그의 군대에게 줄 보상이 될 것이다.

- 20 그들이 나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니, 그 일의 대가로 나는 이집트 땅을 네부카드네자르에게 넘겨준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 21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집안에 뿔이 돋게 하고, 그들 가운데에서 네 입을 열어 주겠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집트에 내리는 심판

- 30 ¹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 ² "사람의 아들이라, 예언하여라. 나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아, 이 날!' 하며 너희는 울부짖어라.
- ³ 그날이 가까웠다.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 그 날은 구름의 날이 되고 민족들에게 운명의 때가 되리라.
- ⁴ 이집트에 칼이 쳐들어오리라. 이집트에서 살해된 자들이 쓰러지고 재물이 약탈당하며 그 기초가 허물어질 때 에티오피아는 잔을에 사로잡히리라.
- ⁵ 에티오피아와 콧과 루드, 모든 혼합 종족과 콧과 동맹국 백성들이 이집트인들과 함께 칼에 맞아 쓰러지리라.
- ⁶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집트의 지지자들은 쓰러지고 이집트의 자랑스러운 힘은 내려앉으리라. 므딕에서 시에네까지 사람들이 칼에 맞아 쓰러지리라. 주 하느님의 말이다.
- ⁷ 그곳은 황폐한 땅 가운데에서도 가장 황폐한 곳이 되고 그 성읍들은 폐허가 된 성읍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폐허가 되리라.
- ⁸ 내가 이집트에 불을 지르고 그를 돕는 자들이 모두 죽이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 ⁹ 그날에 내가 있는 곳에서 사절들이 배를 타고 나가 안심하고 있는 에티오피아인들을 깜짝 놀라게 하리라. 이집트의 날에 에티오피아인들은 잔을에 사로잡히리라. 보이라,

정녕 그날이 다가온다.

- 10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손으로 이집트 무리들을 없애 버리리라.
- 11 이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그가 가장 잔혹한 민족들로 이루어진 군대와 함께 그곳으로 인도되리라. 그들은 칼을 뽑아 이집트를 쳐서 그 땅을 칼에 맞은 자들로 가득 채우리라.
- 12 나는 나일 강을 말려 버리고 그 땅을 악한들의 손에 팔아넘기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방인들의 손으로 황폐하게 만들리라. 나 주님이 말하였다.
- 13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우상들을 부수어 버리고 멍피스에서 신상들을 없애 버리며 이집트 땅에 다시는 제후가 나지 않게 하고 이집트 땅에 공포를 퍼뜨리리라.
- 14 파트로스를 황폐하게 만들고 초안에 불을 지르며 테베에 벌을 내리리라.
- 15 나는 또 이집트의 요새인 산에 내 화를 퍼붓고 테베의 무리들을 잘라 버리며
- 16 이집트에 불을 지르리라. 그러면 신이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테베는 적에게 둘러싸여 멍피스는 대낮에 적군을 맞게 되리라.
- 17 온과 피 베셋의 젊은이들은 칼에 맞아 쓰러지고 주민들은 포로로 끌려가리라.
- 18 내가 타호판헤스에서 이집트의 명예를 부수어 버릴 때 그곳은 대낮인데도 캄캄해지고 그 성읍의 자랑스러운 힘도 다하리라. 구름이 뒤덮인 가운데 그 성읍의 딸들이 포로로 끌려가리라.
- 19 내가 이렇게 이집트에 벌을 내리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파라오의 팔이 부러지다

- 20 제십일년 첫째 달 초이렛날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 21 "사람의 아들이라, 내가 이집트 임금 파라오

- 의 팔을 부러뜨렸다. 보아라, 아무도 그것을 낮게 하려고 묶어 주지도 봉대를 감아 주지도 않아, 그에게는 칼 잡을 힘도 없다.
- 22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이집트 임금 파라오를 대적하여 그의 두 팔을, 성한 팔과 이미 부러진 팔을 부러뜨려, 그 손에서 칼이 떨어지게 하겠다.
- 23 그런 다음 이집트인들을 민족들 사이로 쫓아 버리고 여러 나라로 흩어 버리겠다.
- 24 그리고 바빌론 임금의 팔을 강하게 하고 그의 손에 내 칼을 쥐어 주겠다. 그러나 파라오의 두 팔은 부러뜨리리니, 그는 살해되는 자처럼 바빌론 임금 앞에서 크게 신음것이다.
- 25 나는 이렇게 바빌론 임금의 두 팔을 강하게 하고, 파라오의 두 팔은 떨어져 나가게 하겠다. 내가 바빌론 임금의 손에 내 칼을 쥐어 주어, 그가 이집트 땅을 거슬러 그 칼을 뺏으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26 나는 이집트인들을 민족들 사이로 쫓아 버리고 여러 나라로 흩어 버리겠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파라오의 위대함과 그의 몰락

- 31** 1 제십일년 셋째 달 초하룻날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 2 "사람의 아들이아, 이집트 임금 파라오와 그의 무리에게 말하여라. '너의 그 큰 모습을 무엇에 비길 수 있으랴?'
- 3 보아라, 젓나무, 레바논의 향백나무를! 가지가 멋지게 우거져 숲처럼 그들을 드리우고 키가 우뚝 솟아 그 꼭대기가 구름 사이로 뻗어 있다.
- 4 물이 그 나무를 크게 하고 심연이 그 나무를 치솟게 하였다. 심연은 제 강들을 그 나무가 삼킨 주위로 흐르게 하면서 들의 모든 나무에게 물줄기들을 내보냈다.

- 5 그리하여 그 나무의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더 높이 솟았으며 그 뿌리에 물이 많아 가지가 많아지고 줄기가 길어져
- 6 하늘의 모든 새가 그 가지들에 보금자리를 틀고 들의 모든 짐승이 그 줄기들 밑에 새끼를 낳았다. 많은 민족들이 모두 그 나무 그늘에서 살았다.
- 7 그 나무가 크게 자라고 가지들을 길게 뻗어 아름다운 것은 그 뿌리가 큰 물까지 닿았기 때문이다.
- 8 하느님의 동산에 있는 향백나무들도 그것과 견줄 수 없고 방백나무들도 그 가지들에 비길 수 없으며 버즘나무들은 그 줄기만도 못하였다. 하느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도 아름다운 그 모습에 비길 수 없었다.
- 9 나는 많은 가지로 그 나무를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에덴의 모든 나무가, 하느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그 나무를 부러워하였다.
- 10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 나무의 키가 높이 솟고 꼭대기가 구름 사이로 뻗자, 제가 높다고 으스대었으므로,
- 11 나는 민족들을 이끄는 수령의 손에 그 나무를 넘겨주어, 그가 저지른 죄악에 따라 다루게 하였다. 나는 그 나무를 내던져 버렸다.
- 12 그러자 이방인들이, 가장 잔혹한 민족들이 그 나무를 베어서 내버렸다. 그 가지들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지고, 줄기들은 부러져 그 땅의 모든 시냇가에 흩어졌다.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그 나무 그늘에서 떠나갔다. 그들은 이렇게 그 나무를 내버렸다.
- 13 그 쓰러진 등걸 위에는 하늘의 모든 새가 살고 그 줄기들에는 들의 모든 짐승이 자리를 잡았다.
- 14 이는 물가의 어떤 나무도 다시는 키가 높지 않아 그 꼭대기를 구름 사이로 뻗지 못

하게 하고, 물을 흠뻑 먹으며 자라는 어떤 나무도 높아져서 구름과 미주 서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것들은 모두 사람들 사이에 끼여 구렁으로 내려가는 이들과 함께 죽음에, 저 밑 세상에 넘겨졌다.

- 15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 나무가 저 승으로 내려가는 날, 나는 나무 위로 심연을 닫아 나무를 덮고, 심연의 강들을 흐르지 못하게 하여 큰 물을 멈추게 하였다. 그리고 그 나무 때문에 레바논을 어둠으로 뒤덮고, 그것 때문에 들의 모든 나무를 시들게 하였다.
- 16 그 나무를 구렁으로 내려가는 이들과 함께 저승으로 내던질 때, 나는 그 파멸의 소리로 민족들을 떨게 하였다. 그러자 에덴의 모든 나무, 빼어나고 좋은 레바논의 나무들, 곧 물을 흠뻑 먹으며 자란 모든 나무가 저 밑 세상에서 위로를 받았다.
- 17 이 나무들도 그 나무와 함께 갈로 살해된 자들이 있는 저승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그 나무의 팔로서 그 그늘 아래 민족들 사이에서 살았었다.
- 18 에덴의 나무들 가운데 어느 것이 영광과 크기에서 너와 비길 수 있었느냐? 그러나 이제 너는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저 밑 세상으로 끌려 내려가, 할례 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에 칼로 살해된 자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파라오와 그의 무리가 바로 이리하다. 주 하나님의 말이다. "

파라오를 위한 애가

- 32** 1 제십이년 열두째 달 초하룻날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 2 "사람의 아들이, 이집트 임금 파라오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라. 그에게 말하여라. '민족들의 사자야, 네가 망하고 말았다. 너는 한 때 바다의 용과 같았다. 너의 강에서 물을 솟구치게 하고 발로 물을 휘저어 네 강의

물을 더럽혔다.

- 3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많은 민족들이 모인 곳에서 내가 너에게 그물을 던지리니 그들이 내가 씌운 그 망으로 너를 끌어 올리리라.
- 4 그러면 나는 너를 땅바닥에 내던지고 들만에 내동댕이치고서는 하늘의 모든 새가 네 위로 내려앉고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배불리 뜯어 먹게 하리라.
- 5 너의 살점을 이 산 저 산으로 흩어 버리고 골짜기들을 네 주검 더미로 가득 채우며
- 6 너에게서 흐르는 피로 산 위까지 땅을 흠뻑 적시리니 골짜기마다 네 피로 가득하리라.
- 7 내가 너의 빛을 끄는 날 나는 하늘을 가리고 그 별들을 어둡게 하리라. 해는 구름에 가리고
- 8 달은 제빛을 내지 못하게 하리라.
- 9 하늘에서 빛을 내는 모든 빛물체를 너 때문에 어둡게 하고 네 땅을 어둠으로 덮으리라. 주 하나님의 말이다.
- 10 내가 여러 백성 사이로, 네가 모르는 여러 나라에 너를 포로로 끌고 갈 때, 나는 많은 민족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겠다.
- 11 그들의 얼굴에 대고 내 칼을 휘두를 때, 나는 많은 민족들을 너 때문에 질겁하게 하고, 그들의 임금들을 너 때문에 몹서리치게 하겠다. 네 파멸의 날에 그들은 저마다 목숨을 잃을까 줄곧 떨 것이다.
- 12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바빌론 임금의 칼이 너에게 쳐들어가리라.
- 13 나는 너의 무리를 용사들의 칼로 쓰러뜨리리라. 그들은 모두 가장 잔혹한 민족들, 그들이 이집트의 자랑을 파멸시켜 이집트의 모든 무리가 멸망하리라.
- 14 나는 그 큰 물 가에서 이집트의 모든 짐승을 없애 버리리라. 다시는 사람의 발이 그 물을 휘젓지 않고 짐승의 발굽도 그것을 휘젓지 않으리라.

- 15 그 뒤에야 나는 그들의 물을 가라앉혀 그들의 강을 기름처럼 흐르게 하리라. 주 하느님의 말이다.
- 16 내가 이집트 땅을 황무지로 만들고 그 땅이 그 안에 가득한 것을 빼앗긴 채 황폐하게 되면서도 내가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치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저승으로 내려가는 이집트

- 17 이것이 그들이 부를 애가다. 민족들의 딸들이 부르리라. 이집트와 그 무리를 위하여 이 애가를 부르리라. 주 하느님의 말이다.' "
- 18 제십이년 어느 달 보름날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이집트의 무리 때문에 슬피 울며 그 이집트 무리와 막강한 민족들의 딸들을 구렁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저 밑 세상으로 내려 보내라.
- 19 '내가 누구보다 아름답다는 것이냐? 내려가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누워라.'
- 20 그들은 칼로 살해된 자들 한가운데로 떨어진다. 이집트는 칼에 넘겨진 몸, 사람들이 이집트와 그의 온 무리를 끌고 간다.
- 21 저승 한가운데에서 용사들의 수령들이 부하들과 함께 말하리라.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칼로 살해된 자들이 내려와서 누웠구나.'
- 22 그곳에는 아시리아가 있고 그의 온 집단도 그 들레에 무덤을 파고 누웠는데 모두 살해된 자들 칼에 맞아 쓰러진 자들이다.
- 23 아시리아의 무덤은 구렁의 가장 깊은 곳에 마련되었고 그의 집단도 그 무덤 들레에 누웠는데 모두 살해된 자들 칼에 맞아 쓰러진 자들 산 이들의 땅에 공포를 퍼뜨리던 자들이다.

- 24 그곳에는 엘람이 있고 그의 온 무리도 그 무덤 들레에 누웠는데 모두 살해된 자들 칼에 맞아 쓰러진 자들 할례 받지 않은 체 저 밑 세상으로 내려간 자들이다. 그들은 산 이들의 땅에 공포를 퍼뜨렸지만 이제는 구렁으로 내려간 자들과 함께 수치를 당하고 있다.
- 25 엘람의 자리는 살해된 자들 한가운데에 마련되어 그의 온 무리도 엘람의 무덤 들레에 누웠는데 모두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칼로 살해된 자들이다. 그들에 대한 공포가 산 이들의 땅에 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구렁으로 내려간 자들과 함께 수치를 당한 채 살해된 자들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 26 그곳에는 메섹과 투발이 있고 그들의 온 무리도 그 무덤 들레에 누웠는데 모두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칼로 살해된 자들이다. 그들이 산 이들의 땅에 공포를 퍼뜨렸기 때문이다.
- 27 그들은 옛날에 쓰러진 용사들과 함께 눕지 못한다. 그 용사들은 자기 무기를 가지고 저승으로 내려간 이들. 머리 밑에는 그들의 칼이 놓이고 유골 위에는 그들의 방패가 덮여 있다. 그 용사들에 대한 공포가 산 이들의 땅에 퍼져 있기 때문이다.
- 28 이제 너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에 부서진 채 칼로 살해된 자들과 함께 누워라.
- 29 그곳에는 에돔도 있다. 그 임금들과 제후들이 그토록 용맹하였지만, 칼로 살해된 자들과 함께 있다. 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구렁으로 내려간 자들과 함께 누워 있다.
- 30 그곳에는 북방의 제후들도 있다. 그 제후들은 공포를 퍼뜨렸지만 자기들의 그 용맹을 부끄러워하며, 살해된 자들과 더불어 거기로 내려간 모든 시몬인과 함께 있다. 그들

은 칼로 살해된 자들과 함께 할례 받지 않은 채 누워, 구렁으로 내려간 자들과 더불어 수치를 당하고 있다.

- 31 이들을 보고 파라오는 자기의 모든 무리에 대하여 위로를 받을 것이다.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가 칼로 살해된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 32 이는 그가 산 이들의 땅에 공포를 퍼뜨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파라오는 자기의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 칼로 살해된 자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예언자: 파수꾼

- 33** 1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 2 "사람의 아들이아, 네 동포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어떤 나라에 칼을 끌어들이러 할 때, 그 나라 백성이 너희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뽑아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자.
- 3 그는 자기 나라로 칼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할 것이다.
- 4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칼이 쳐들어와 그를 잡아간다면, 그가 죽은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 5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그가 죽은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경고를 받아들였다면 그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 6 그러나 칼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였는데 칼이 쳐들어와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잡아간다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잡혀가는 것이지만, 그가 죽은 책임은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
- 7 너 사람의 아들이아, 나는 너를 이스라엘 집안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 입

에서 나가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 8 가령 내가 악인에게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고 할 때, 내가 악인에게 그 악한 길을 버리도록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가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 9 그러나 내가 그에게 자기 길에서 돌아서라고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회개와 개인의 책임

- 10 "너 사람의 아들이아, 이스라엘 집안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우리의 죄와 죄악이 우리를 짓눌러, 우리가 그것들 때문에 스러져 가는데, 어떻게 산단 말인가?' 하고 말한다.'
- 11 그러나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 생명을 걸고 말한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나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악인이 자기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아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 하느냐?'
- 12 너 사람의 아들이아, 네 동포에게 말하여라. '의인이라도 죄를 짓는 날에는, 그의 의로움이 그를 구해 주지 못한다. 악인이라도 자기의 악을 버리고 돌아서는 날에는, 그 악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의인이라도 죄악을 저지르는 날에는 자기의 의로움으로 살 수 없다.
- 13 내가 의인에게 반드시 살 것이라고 하였어도, 그가 자기의 의로움만 믿고 불의를 저지르면, 그의 의로운 행위는 하나도 기억되지 않은 채, 자기가 저지른 불의 때문에 죽을 것이다.
- 14 그러나 내가 악인에게 ' 너는 반드시 죽

- 을 것이다.' 하였어도, 그가 자기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여,
- 15 담보로 받은 것을 돌려주고 강도 짓으로 뺏은 것을 배상하고, 생명의 규정들을 따르면서 불의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 16 그가 저지른 죄악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 그 대신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였으니 반드시 살 것이다.'
- 17 그런데도 네 동포는 '주님의 길은 공평하지 않다.' 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의 길이어말로 공평하지 않다.
- 18 의인이 자기 의로움을 버리고 돌아서서 불의를 저지르면, 그는 그 불의 때문에 죽을 것이다.
- 19 그러나 악인이 자기의 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그는 그것들 때문에 살 것이다.
- 20 그런데도 너희는 '주님의 길은 공평하지 않다.' 고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나는 저마다 걸은 길에 따라 너희를 심판하겠다."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

- 21 우리의 유배살이 제십이년 열째 달 초닷셋 날에, 예루살렘에서 온 피난민 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 "도성이 함락되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 22 그 피난민이 오기 전날 저녁에, 주님의 손이 나에게 내리셨는데, 아침에 그가 나에게 오기 전에 그분께서 내 입을 열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입이 열려 더 이상 병어리가 아니었다.

유다 땅이 황폐해지리라

- 23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 24 "사람의 아들이아, 이스라엘 땅의 저 쾨허에 사는 자들이 이런 말을 한다. '아브라함은 혼자이면서도 이 땅을 차지하였는데, 우리

는 수가 많다. 그러니 이 땅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소유로 주어진 것이다.'

- 25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고기를 피째 먹고,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어 울리며, 사람 피를 쏟는다. 그러면서 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말이나?'
- 26 너희는 칼에 의지하면서 역겨운 것을 저지르고, 저마다 이웃의 아내를 더럽힌다. 그러면서 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말이나?'
- 27 그러니 그들에게 또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아 있는 한, 쾨허에 있는 자들은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들만에 있는 자는 짐승에게 잡아먹히게 하겠다. 산성과 동굴에 있는 자들은 흑사병으로 죽을 것이다.'
- 28 나는 그 땅을 황무지와 불모지로 만들겠다. 그리하여 그 땅의 자랑스러운 힘은 끝장이 나고, 이스라엘의 산악 지방은 황폐하게 되어 지나가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 29 그들이 저지른 그 모든 역겨운 짓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 땅을 황무지와 불모지로 만들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백성의 반응

- 30 "너 사람의 아들이아, 네 동포가 담 곁에서 또 집 문간에서 네 말을 하며, 저희끼리 서로, '자, 가서 주님에게서 나온 말이 무엇인지 들어 보자.' 하고 말한다.
- 31 그러고서는 백성이 떼지어 모여들 듯 너에게 와서, 나의 백성으로 네 앞에 앉아 너의 말을 듣는다. 그러나 그 말을 실천하지는 않는다. 그들의 입에는 열정이 차서 그럴듯하게 행동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제 이익만 좇아간다.
- 32 보아라, 너는 그들에게, 악기를 잘 연주하고 목소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부르는 사랑

노래와 같다. 그래서 그들은 네 말을 듣기는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지는 않는다.

- 33 그러다 네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면, — 보아라, 그것은 이루어진다. — 그제야 그들은 저희 가운데에 예언자가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자들

- 34 ¹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² "사람의 아들이아,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거슬러 예언하여라. 예언하여라. 그 목자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불행하여라, 자기들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 양 떼를 먹이는 것이 목자가 아니냐?'
³ 그런데 너희는 짚을 짜 먹고 양털로 옷을 해 입으며 살진 놈을 잡아먹으면서, 양 떼는 먹이지 않는다.
⁴ 너희는 약한 양들에게 원기를 북돋아 주지 않고 아픈 양을 고쳐 주지 않았으며, 부러진 양을 싸매 주지 않고 흩어진 양을 도로 데려오지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폭력과 강압으로 다스렸다.
⁵ 그들은 목자가 없어서 흩어져야 했다. 흩어진 채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
⁶ 산바다, 높은 언덕마다 내 양 떼가 길을 잃고 헤매었다. 내 양 떼가 온 세상에 흩어졌는데, 찾아보는 자도 없고 찾아오는 자도 없다.
⁷ 그러므로 목자들아, 주님의 말을 들어라.
⁸ 내 생명을 걸고 말한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나의 양 떼는 목자가 없어서 약탈당하고, 나의 양 떼는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는데, 나의 목자들은 내 양 떼를 찾아보지도 않았다. 목자들은 내 양 떼를 먹이지 않고 자기들만 먹은 것이다.
⁹ 그러니 목자들아, 주님의 말을 들어라.

- 10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그 목자들을 대적하겠다. 그들에게 내 양 떼를 내놓으라 요구하고, 더 이상 내 양 떼를 먹이지 못하게 하리니, 다시는 그 목자들이 양 떼를 자기들의 먹이로 삼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 양 떼를 그들의 입에서 구해 내어, 다시는 그들의 먹이가 되지 않게 하겠다.'

좋은 목자

- 11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내 양 떼를 찾아서 보살펴 주겠다.
¹² 자기 가축이 흩어진 양 떼 가운데에 있을 때, 목자가 그 가축을 보살피듯, 나도 내 양 떼를 보살피겠다. 캄캄한 구름의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 떼를 구해 내겠다.
¹³ 그들을 민족들에게서 데려 내오고 여러 나라에서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의 산과 시냇기에서, 그리고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¹⁴ 좋은 풀밭에서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들은 그곳 좋은 목장에서 누워 쉬고, 이스라엘 산악 지방의 기름진 풀밭에서 뜯어 먹을 것이다.
¹⁵ 내가 몸소 내 양 떼를 먹이고, 내가 몸소 그들을 누워 쉬게 하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¹⁶ 잃어버린 양은 찾아내고 흩어진 양은 도로 데려오며, 부러진 양은 싸매 주고 아픈 것은 원기를 북돋아 주겠다. 그러나 기름지고 힘센 양은 없애 버리겠다. 나는 이렇게 공정으로 양 떼를 먹이겠다.'

목자 심판자

- 17 '너희 나의 양 떼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양과 양 사이, 숫양과 숫

염소 사이의 시비를 가리겠다.

- 18 너희는 좋은 풀밭에서 뜯어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나머지 풀밭을 발로 짓밟는 것이냐? 맑은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나머지 물을 발로 더럽히는 것이냐?
- 19 그래서 내 양 떼가 너희 발로 짓밟은 것을 뜯어 먹고,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셔야 하느냐?
- 20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그들에게 말한다. 나 이제 살진 양과 여윈 양 사이의 시비를 가리겠다.
- 21 너희가 악한 양들을 모조리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내고 뿔로 밀쳐 내어 밖으로 흩어 버렸으니,
- 22 내가 내 양 떼를 구하여 그것들이 더 이상 약탈당하지 않게 하겠다. 내가 양과 양 사이의 시비를 가리겠다.'

미라의 왕국

- 23 '나는 그들 위에 유일한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게 하겠다. 바로 나의 종 다윗이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 24 나 주님이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나의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에서 제후가 될 것이다. 나 주님이 말하였다.
- 25 나는 그들과 평화의 계약을 맺고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 버리겠다. 그러면 그들은 광야에서도 평안히 살고 숲에서도 편히 잠들 수 있을 것이다.
- 26 나는 그들과 내 동산 들레에 복을 내리겠다. 또 제때에 비를 내려 주리니, 그 비가 복이 될 것이다.
- 27 들의 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소출을 내어 주리니, 그들은 제 땅에서 평안히 지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땅에 물을 부수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

을 구해 내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28 그들이 다시는 민족들에게 약탈당하지 않고, 맹수들이 그들을 잡아먹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평안히 살고 아무도 그들을 놀라게 하지 않을 것이다.
- 29 나는 또 그들에게 이름 있는 식물들을 마련해 주리니, 다시는 이 땅에 굶주림으로 목숨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없고, 그들이 다시는 민족들에게 수모를 당하지도 않을 것이다.
- 30 그제야 그들은 나 주 저희 하느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음, 그리고 그들 이스라엘 집안이 내 백성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 31 너희는 나의 양 떼, 내 목장의 양 떼다.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세이르 산에 내리는 심판

- 35 **3**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 2** "사람의 아들아, 세이르 산으로 얼굴을 돌리고 그를 거슬러 예언하여라.
- 3 그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보아라, 세이르 산아, 나 너를 대적하리라. 너에게 손을 뻗어 너를 황무지와 불모지로 만들리라.
- 4 내가 너의 성읍들을 폐허로 바꾸어 놓으면 너는 황무지가 되리라. 그제야 너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 5 너는 옛날부터 적개심을 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이 마지막 벌을 받을 때, 그들을 칼날에 넘겨 버렸다.
- 6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 있는 한, 나는 정녕 너를 피투성이로 만들겠다. 피가 너를 뒤쫓을 것이다. 내가 피를 싫어하지 않았으니, 피가 너를 뒤쫓을 것이다.
- 7 나는 또 세이르 산을 황무지와 불모지로 만

- 들어, 오기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 8 그 땅의 산들을 살해된 자들로 채우겠다. 네 언덕과 골짜기, 그리고 네 모든 시냇가에서는 칼로 살해된 자들이 쓰러질 것이다.
- 9 나는 너를 영원히 황무지로 만들겠다. 다시는 너의 성읍들에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10 너는 '이 두 민족과 이 두 나라는 내 것이 된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 그곳에 있는 데도 그렇게 말하였다.
- 11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 있는 한, 네가 미워하는 마음에서 분노와 질투로 그들을 대하였듯이 나도 같은 분노와 질투로 너를 대하겠다. 내가 이렇게 너를 심판하여 나 자신을 그들에게 드러내겠다.
- 12 그제야 너는 이스라엘의 산들을 두고 '그것들이 황폐해졌다. 우리에게 먹이로 주어졌다.' 고 말하는 네 모든 불경한 소리를, 나 주님이 들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 13 너희가 입을 놀려 나를 거슬러 우쭐대고, 나를 거슬러 교만한 말을 늘어놓는 것을, 나는 똑똑히 들었다.
- 14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온 세상이 즐거워하는 가운데 나는 너를 황무지로 만들겠다.
- 15 이스라엘 집안의 상속 재산이 황폐하게 되었다고 네가 기뻐한 대로, 나도 너에게 그대로 해 주겠다. 세이르 산아, 온 에돔아, 너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이스라엘의 산들에 내리는 약속

- 36 ¹ "너 사람의 아들이아, 이스라엘의 산들에게 예언하여라.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산들이아, 주님의 말을 들어

- 라.
- 2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원수가 너희를 두고, '아하! 저 영원한 언덕들이 이제 우리 차지 되었다.' 하고 말하였다.'
- 3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라.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사방에서 너희를 황폐하게 만들고 짓밟아서, 너희가 나머지 민족들의 치지가 된 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민족들의 중상 거리가 되었다.
- 4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산들이아, 주 하느님의 말을 들어라. 들레에 있는 나머지 민족들에게 악당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어 버린 산과 언덕들, 시내와 골짜기들, 황폐하게 된 폐허와 버려진 성읍들에게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 5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타오르는 질투로 나머지 민족들과 온 에돔을 거슬러 말한다. 그들은 온통 기뻐하며 악의에 찬 마음으로 내 땅을 자기네 차지로 만들어, 그 목초지를 약탈하였다.'
- 6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땅을 두고 예언하여라. 산과 언덕들, 시내와 골짜기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하였으니, 나 이제 질투와 진노로 말한다.
- 7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너희 들레에 있는 민족들, 그들이야말로 미평한 수치를 당할 것이다.
- 8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이아, 내 백성 이스라엘이 곧 돌아오리니, 너희는 이제 그들을 위하여 가지를 뺀 열매를 맺을 것이다.
- 9 자 보아라, 나 너희에게 간다. 내가 너희에게로 몸을 돌린다. 사람들이 이제 너희를 경작하고 씨를 뿌릴 것이다.
- 10 나는 너희 위에 사는 사람, 곧 온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을 불러나케 하리니, 성읍들에는 다시 사람이 살고 폐허는 재건될 것이

다.

- 11 나는 너희 위에 사는 사람과 짐승을 붙여 나게 하리니, 그들은 수가 불어나고 번성 것이다. 나는 너희 위에 예전처럼 사람들이 살도록 하고, 너희에게 전보다 더 잘해 주겠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12 나는 또 너희 위로 사람들이, 곧 내 백성 이스라엘이 다시 다니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차지하여 너희는 그들의 상속 재산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다시는 그들의 자식들을 앗아 가지 않을 것이다.
- 13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너에게 '너는 사람을 잡아먹고 네 민족의 자식들을 앗아 간다.' 하고 말한다.
- 14 그러나 내가 다시는 사람을 잡아먹지 않고, 다시는 네 민족의 자식들을 앗아 가지 않을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 15 나는 내가 다시는 민족들에게서 수치스러운 말을 듣지 않고, 다시는 겨레들에게서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너도 다시는 네 민족을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

새로워지는 이스라엘

- 16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 17 "사람의 아들이아, 이스라엘 집안이 자기 땅에 살 때, 그들은 자기들이 걸어온 길과 행실로 그 땅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내 앞에서 걸어온 길은 마치 달거리하는 여자의 부정과 같았다.
- 18 그들이 그 땅에 쏟은 피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더럽히며 심긴 우상들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내 화를 퍼부었다.
- 19 그래서 그들을 민족들 사이로 쫓아 버리고 여러 나라로 흩어 버렸다. 그들의 길과 행실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였다.
- 20 사람들이 그들을 두고, '이자들은 주님의

백성인데 그분 땅에서 나와야만 했지.'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가는 곳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 21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집안이 민족들 사이로 흩어져 가 거기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걱정하게 되었다.
- 22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안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민족들 사이로 흩어져 가 거기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 23 나는 민족들 사이에서 더럽혀진, 곧 너희가 그들 사이에서 더럽힌 내 큰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 24 나는 너희를 민족들에게서 데려오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너희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 25 그리고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부정과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 26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 주겠다.
- 27 나는 또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 주어,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게 하겠다.
- 28 그리하여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 29 나는 너희의 모든 부정에서 너희를 구원하고, 극식을 불러들이고 풍성하게 하여, 다시는 너희에게 굶주림을 내리지 않겠다.
- 30 또 나무의 열매와 들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여, 다시는 너희가 민족들 사이에서 굶주림으로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 31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약한 길과 좋지 않은 행실을 기억하고, 너희가 저지른 죄와 역겨운 짓 때문에 자신이 혐오스러워질 것이다.
- 32 그러나 너희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너희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걸어온 길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겨라.
- 33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해 주는 날, 성읍들에는 다시 사람이 살고 폐허는 재건되게 하겠다.
- 34 이 황폐한 땅은 지나가는 모든 이의 눈앞에 황무지로 펼쳐져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경작될 것이다.
- 35 그래서 사람들이, '황폐하였던 이 땅이 에덴 정원처럼 되었구나. 폐허가 되고 황폐해지고 허물어졌던 성읍들이 다시 요새가 되어 사람들이 살게 되었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 36 그제야 나 주님이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우고 폐허가 된 곳에 초목을 다시 심었음을, 너희 들레에 남아 있는 민족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
- 37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또 이스라엘 집안이 나에게 간청하도록 허락하여, 그들의 사람 수를 양 떼처럼 불러나게 하겠다.
- 38 거룩한 제물로 바치는 양 떼처럼, 축제 때 예루살렘에 모여든 양 떼처럼, 폐허가 된 성읍들이 사람의 무리로 가득 찰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이스라엘의 부활 환시

37 ¹ 주님의 손이 나에게 내리셨다. 그분

께서 주님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나가시어, 넓은 계곡 한가운데에 내려놓으셨다. 그곳은 뼈로 가득 차 있었다.

2 그분께서는 나를 그 뼈들 사이로 두루 돌아다니게 하셨다. 그 넓은 계곡 바닥에는 뼈가 대단히 많았는데, 그것들은 바삭 말라 있었다.

3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주 하느님, 당신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4 그분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주님의 말을 들어라.'

5 주 하느님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희에게 숨을 불어넣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6 너희에게 힘줄을 놓고 살이 오르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씌운 다음, 너희에게 영을 넣어 주어 너희를 살게 하겠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분부받은 대로 예언하였다. 그런데 내가 예언할 때, 무슨 소리가 나고 진동이 일더니, 뼈들이, 뼈와 뼈가 서로 다가가는 것이었다.

7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오며 그 위로 살갗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숨은 아직 없었다.

8 그분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숨에게 예언하여라. 사람의 아들이아, 예언하여라. 숨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 숨아, 사방에서 와 이 학살된 이들 위로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

9 그분께서 분부하신 대로 내가 예언하니, 숨이 그들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10 그때에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

- 의 아들이,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집안이다. 그들은 '우리 뼈들은 마르고 우리 희망은 사라졌으니, 우리는 끝났다.' 고 말한다.
- 11 그러므로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 그리고 내 백성아,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
- 12 내 백성아, 내가 이렇게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 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13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 주어 너희를 살던 다음,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 그제야 너희는,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
- 14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남북 왕국의 통일

- 15 "너 사람의 아들이, 나무토막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와 한편이 된 이스라엘 자손들' 이라고 써라.
- 16 그리고 나무토막을 또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에프라임의 나무토막, 요셉과 그와 한편이 된 온 이스라엘 집안' 이라고 써라.
- 17 그리고 그 나무토막들이 하나가 되게 서로 연결시켜라. 그리하여 네 손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라.
- 18 그런 다음 네 동포가 '이 나무토막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에게 알려 주지 않았습니까?' 하거든,
- 19 그들에게 알려 주어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에프라임의 손안에 있는 요셉과 그와 한편이 된 이스라엘 지파들의 나무토막을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의 나무토막을 놓고, 그 둘을 하나로 만들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내 손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 20 또 내가 글을 쓴 나무토막들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손에 들고,
- 21 그들에게 알려 주어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가 사는 민족들 사이에서 그들을 데려오고, 그들을 사방에서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 22 그들을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산악 지방에서 한 민족으로 만들고, 한 임금에 그들 모두의 임금이 되게 하겠다. 그리하여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다시는 결코 두 왕국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 23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우상들과 혐오스러운 것들과 온갖 죄악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배신에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정결하게 해 주고 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 24 나의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그들 모두를 위한 유일한 목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법규들을 따르고 내 규정들을 준수하여 지키면서,
- 25 내가 나의 종 아삽에게 준 땅, 너희 조상들이 살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들만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영원히 그곳에서 살며, 나의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제후가 될 것이다.
- 26 나는 그들과 평화의 계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맺는 영원한 계약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그들을 불러나게 하며, 나의 성전을 영원히 그들 가운데에 두겠다.
- 27 이렇게 나의 거처가 그들 사이에 있으면서,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 28 나의 성전이 그들 한가운데에 영원히 있게 되면, 그제야 민족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마곡의 임금 곡

38

¹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 ² "사람의 아들이아, 마곡 땅의 곡, 곧 메섹과 투발의 으뜸 제후에게 얼굴을 돌리고 그를 거슬러 예언하여라.
- ³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메섹과 투발의 우두머리 제후 곡아, 나 이제 너를 대적하겠다.
- ⁴ 나는 너를 둘러세워 갈고리로 네 턱을 꿰고, 너와 너의 모든 군대, 곧 저마다 완전 무장한 군마와 기병, 저마다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들고 칼을 잡은 대군을 끌어내겠다.
- ⁵ 또한 그들과 함께 저마다 방패와 투구를 갖춘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와 뜻,
- ⁶ 고메르와 그의 온 부대, 북쪽 끝에 있는 벳토카르미와 그의 온 부대를 끌어내겠다.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 ⁷ 나는 너에게 모여든 모든 군대와 함께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너 자신은 그들을 위한 지원 부대가 되어라.
- ⁸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너는 명령을 받을 것이다. 결국 마지막 때에 너는 전화가 복구된 땅으로 쳐들어갈 것이다. 그 백성은 많은 민족들에게서 나와,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 있던 이스라엘의 산악 지방으로 모인 이들이다. 그들은 여러 민족들에게서 나와 이제 는 모두 평안히 살고 있다.
- ⁹ 그때에 너는 너의 온 부대와, 너와 함께 있는 많은 민족들과 더불어 쳐 올라가, 폭풍처럼 그 땅에 다가가서는 구름처럼 그곳을 뒤덮을 것이다.
- ¹⁰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날이 오면, 네 마음에 여러 생각이 떠올라, 너는 마침내 악한 계획을 꾸미고서는,
- ¹¹ 이렇게 말할 것이다. ' 아무 방비도 없는 저 나라로 쳐 올라가야지. 평안히 살고 있

는 저 평온한 자들에게, 모두 성벽도 없고 빗장도 문짝도 없이 살고 있는 저들에게 쳐들어가지지.'

- ¹² 이는 내가 약탈질과 노략질을 하면서, 한때 폐허였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사는 곳, 여러 민족들에게서 모여 와 세상의 중심에 살면서 가축과 재산을 늘려 가는 이들에게 손을 대려는 것이다.
- ¹³ 그러면 스바와 드단과 타르시스의 상인들과 그곳의 젊은 용사들이 이렇게 따질 것이다. ' 당신은 약탈질이나 하려고 쳐들어왔소? 노략질이나 하려고 군대를 불러 모았소? 은과 금을 가져가고 가축과 재산을 빼앗아 가면서, 크게 약탈질하려고 말시오?' "
- ¹⁴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이아, 예언하여라. 곡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사는 날 너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 ¹⁵ 나는 네 고장 북쪽 끝에서 많은 민족들을 거느리고 올 것이다. 그들은 모두 말을 탄 대군이며 큰 병력이다.
- ¹⁶ 그리하여 구름이 땅을 덮듯,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쳐 올라올 것이다. 마지막 때에, 내가 이렇게 너를 내 땅으로 쳐들어오게 하겠다. 곡아, 이는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너를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드러낼 때, 민족들이 나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곡에게 내리는 심판

- ¹⁷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내가 옛날에 나의 종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한 자가 아니냐? 그들은 저희 시대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도록 너를 대려올 것이라고 여러 해 동안 예언하였다.'
- ¹⁸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오는 날에, — 주 하느님의 말이다. — 내가 분노하여 네 화가 치솟을 것이다.

- 19 나는 내 질투 속에, 타오르는 진노 속에, 그날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려고 선언한다.
- 20 그때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들짐승,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것,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다. 또 산들은 허물어지고 절벽은 내려앉으며, 성벽도 모두 땅바닥으로 내려앉을 것이다.
- 21 그런 다음 나는 곡을 칠 칼을 나의 모든 산으로 불러들이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러면 저마다 제 동료에게 칼을 들이댈 것이다.
- 22 나는 흑사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겠다. 또 그와 그의 군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민족들 위로 폭우와 큰 우박, 불과 유황을 퍼붓겠다.
- 23 내가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를 알리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침략자 곡의 멸망

- 39 ¹ "너 사람의 아들이여, 곡을 거슬러 예언하여라.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메섹과 투발의 으뜸 제후 곡아, 나 이제 너를 대적하겠다.
- 2 나는 너를 돌려세워 이끌어 내고, 너를 북쪽 끝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스라엘 산악 지방으로 끌어들여겠다.
- 3 그런 다음 내가 네 왼손의 활을 내려치고 네 오른손의 화살을 떨어뜨리겠다.
- 4 너는 너의 온 부대와, 너와 함께 있는 민족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산악 지방에서 쓰러질 것이다. 나는 온갖 날개가 달린 맹금들과 들짐승들에게 너를 먹이로 내주겠다.
- 5 너는 이렇게 들뜬에 쓰러지리니, 내가 그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 6 나는 또 마곡과 여러 섬에서 평안히 사는

주민들에게 불을 보내겠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7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 한가운데에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어, 다시는 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겠다. 그제야 민족들은 내가 주님임을, 이스라엘에 있는 거룩한 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8 보아라,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되어 간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날이 바로 내가 말한 날이다.
- 9 그때에 이스라엘의 성읍마다 주민들이 나가서 무기들, 곧 작은 방패와 큰 방패, 활과 화살, 몽둥이와 창에 불을 지피 태울 것이다. 그것들을 일곱 해나 태울 것이다.
- 10 그들은 나무를 들에서 주워 오지도, 숲에서 베어 오지도 않을 것이다. 무기로 불을 지필 것이다. 그들은 또 자기들을 약탈한 자들을 약탈하고, 자기들을 노략한 자들을 노략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 11 그날 나는 이스라엘 땅에 무덤 자리 하나를 곡에게 내주겠다. 사해 동쪽에 있는 것으로 여행자들의 길을 막고 있는 '아비람 골짜기' 다. 사람들이 그곳에 곡과 그의 온 무리를 묻고서는, '하몬 곡 골짜기' 라고 부를 것이다.
- 12 이스라엘 집안이 자기 땅을 정결하게 하려고 그들을 묻는 데에는 일곱 달이 걸릴 것이다.
- 13 이 땅의 온 백성이 그들을 묻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날에, 이 일이 그들에게 영예가 될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 14 또 이 땅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땅바닥에 남아 있는 것을 묻어 이 땅을 정결하게 사람들이 뿔칠 터인데, 그들은 일곱 달이 지난 다음에 찾아다니기 시작할 것이다.
- 15 그들이 돌아다니다가 누구라도 사람의 뼈를 보게 될 경우, 그 옆에 쫓돌을 세워 두

- 면, 장사 지내는 이들이 그것을 '하몬 곡 골짜기'에 묻을 것이다.
- 16 그리하여 하모나라는 이름의 성읍도 생길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이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 17 너 사람의 아들이아,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온갖 날개가 달린 새들과 모든 들짐승에게 말하여라. '모여 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련하는 희생 제물 잔치, 이스라엘 산악 지방에서 벌이는 큰 희생 제물 잔치에 사방에서 모여들어, 고기를 먹고 피를 마셔라.
- 18 너희는 용사들의 살을 먹고 세상 제후들의 피를 마실 것이다. 그들은 숫양과 어린 양, 숫염소와 송아지, 모두 바산의 살진 짐승이다.
- 19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련한 희생 제물에서, 기쁨진 것을 배불리 먹고 피를 취하도록 마실 것이다.
- 20 내 식탁에서 너희는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전사를 배불리 먹을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

이스라엘의 구원 약속

- 21 "나는 이렇게 나의 영광을 민족들에게 펼치리니, 모든 민족들이 내가 내린 심판과 그들을 친 나의 손을 보게 될 것이다.
- 22 그러면 그날부터 이스라엘 집안은 내가 주 그들의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23 또한 민족들은 이스라엘 집안이 그 자신의 죄 때문에, 나를 배신하였기 때문에 유배 갔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감추고 그들을 적들의 손에 넘겨, 모두 칼에 맞아 쓰러지게 하였다.
- 24 그들의 부정과 그들의 죄악에 따라 그들을 다루고,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감추어 버린 것이다.

- 25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제 나는 야곱의 운명을 되돌리겠다. 온 이스라엘 집안을 가없이 여기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정을 쏟겠다.
- 26 그리하여 그들은 저희 땅에서 평안히 살고, 아무도 그들을 놀라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의 수치와 나에게 저지른 모든 배신을 알게 될 것이다.
- 27 그들을 민족들에게서 도로 데려오고 원수들의 땅에서 모아 와, 많은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 28 내가 이렇게 그들을 민족들에게 유배 보냈다가,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들의 땅으로 다시 모아들이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 그들의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29 내가 이스라엘 집안에 나의 영을 부어 주었으니, 다시는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감추지 않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새 성전

- 40 ¹ 우리의 유배살이 제이십오년 연초 초월흘날, 곧 도성이 함락된 지 십사 년째 되는 해, 바로 그날에 주님의 손이 나에게 내리시어, 나를 그 도성으로 데리고 가셨다.
- 2 하느님께서 보여 주시는 환시 속에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시어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다. 그 산 위 남쪽으로는 성읍의 건축물 같은 것들이 있었다.
- 3 그분께서 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을 때,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모습은 밝히는 구리 같았다. 그는 아마 줄과 측량 장대를 손에 들고 대문에서 있었다.
- 4 그 사람이 나에게 일렀다. "사람의 아들이아, 내가 너에게 보여 주는 모든 것을 눈으로 잘 보고 귀로 잘 듣고 마음에 새겨 두어라. 너에게 이것을 보여 주려고 너를 이곳으로

대려온 것이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집안에게 알려 주어라."

바깥담

5 내가 보니 주님의 집 밖에 사방으로 담이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측량 장대의 길이는 여섯 암마인데, 한 암마는 보통의 한 암마에 손바닥 너비를 더한 것이었다. 그가 그 벽의 두께를 재니 한 장대이고, 높이도 한 장대였다.

동쪽 대문

- 6 그가 동쪽으로 난 대문으로 가서 층계로 올라가 문지방을 재니, 너비가 한 장대였다. 문지방 하나의 너비가 한 장대였던 것이다.
- 7 대문 방은 길이가 한 장대, 너비도 한 장대였다. 대문 방들 사이는 다섯 암마였다. 대문 안쪽의 현관에 있는 문지방도 한 장대였다.
- 8 그다음 대문 안쪽의 현관을 재니 또 한 장대였다.
- 9 그리고 대문 현관을 재니 여덟 암마였고, 그 벽기둥들은 두 암마였다. 그 현관은 안쪽으로 나 있었다.
- 10 이 동쪽 대문의 대문 방은 이쪽에 셋, 저쪽에 셋 있었는데, 셋 다 치수가 같았고, 이쪽과 저쪽의 벽기둥도 치수가 같았다.
- 11 그가 대문 어귀의 너비를 재니 열 암마이고, 길이는 열세 암마였다.
- 12 대문 방 앞에는 칸막이벽이 있었는데, 통로 양쪽으로 각각 한 암마씩이었다. 대문 방들은 이쪽으로 여섯 암마, 저쪽으로 여섯 암마였다.
- 13 그가 또 대문을 재니, 문과 문을 마주한 이쪽 대문 방 지붕에서 저쪽 대문 방 지붕까지 너비가 스물다섯 암마였다.
- 14 그런 다음 현관을 재니 스무 암마였는데, 대문 현관은 뜰로 둘러싸여 있었다.
- 15 대문 입구 앞쪽에서 안쪽의 대문 현관까지

는 쉰 암마였다.

- 16 대문 방들과 그 벽기둥들에는 대문 안쪽 사방으로 격자창들이 나 있고, 현관에도 안쪽 사방으로 창들이 있었으며, 벽기둥에는 아자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바깥뜰

- 17 그런 다음 그가 나를 바깥뜰로 데려갔다. 거기에는 사방으로 방이 있고 바닥에는 돌을 깔아 놓았는데, 돌을 깐 그 바닥을 따라 방 서른 개가 붙어 있었다.
- 18 돌을 깐 바닥은 각 대문 옆으로 나 있으면서, 대문의 안쪽 길이와 일치하였는데, 이것이 낮은 바닥이었다.
- 19 그가 이렛대문 안쪽 정면에서 안뜰의 바깥쪽 정면까지 너비를 재니, 백 암마였다. 이것은 동쪽과 북쪽이 똑같았다.

북쪽 대문

- 20 그런 다음 그가 바깥뜰, 북쪽으로 난 대문의 길이와 너비를 재었다.
- 21 대문 방이 이쪽으로 셋, 저쪽으로 셋 있는데, 벽기둥과 현관까지 첫째 대문의 치수와 같아서, 길이가 쉰 암마, 너비가 스물다섯 암마였다.
- 22 창과 현관과 아자나무 모양도 동쪽으로 난 대문의 것들과 치수가 같았다. 일곱 층계를 올라서 대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현관은 그 안쪽에 있었다.
- 23 동쪽 대문과 마찬가지로, 북쪽 대문 맞은쪽 안뜰에도 대문이 하나 있었다. 그가 대문과 대문 사이를 재니 백 암마였다.

남쪽 대문

- 24 그는 나를 남쪽으로 이끌고 갔는데, 거기에 남쪽 대문이 있었다. 그가 벽기둥들과 현관을 재니 앞의 것들과 치수가 같았다.
- 25 대문과 현관 둘레의 창들도 다른 대문들의 창과 같았다. 그 대문은 길이가 쉰 암마,

너비가 스물다섯 암마였다.

- 26 그 대문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일곱 개 있었는데, 현관은 그 인쪽에 있었다. 이쪽저쪽의 벽기둥에는 아자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 27 안뜰 남쪽에도 대문이 하나 있었다. 그가 이 대문과 남쪽 대문 사이를 채니 백 암마였다.

안뜰 남쪽 대문

- 28 그가 나를 남쪽 대문으로 해서 안뜰로 데리고 갔다. 그가 남쪽 대문을 채니 앞의 것들과 치수가 같았다.
- 29 대문 방과 벽기둥과 현관도 앞의 것들과 치수가 같았다. 대문과 현관에는 사방으로 창들이 나 있었다. 그 대문은 길이가 원 암마, 너비가 스물다섯 암마였다.
- 30 사방으로 현관이 있었는데 길이가 스물다섯 암마, 너비가 다섯 암마였다.
- 31 그 대문의 현관은 바깥쪽으로 나 있고, 벽기둥에는 아자나무가 새겨져 있으며, 그리로 올라가는 층계가 여덟 개 있었다.

안뜰 동쪽 대문

- 32 그는 또 나를 동쪽 안뜰로 데리고 갔다. 그가 그곳 대문을 채니 앞의 것들과 치수가 같았다.
- 33 대문 방과 벽기둥과 현관도 앞의 것들과 치수가 같았다. 대문과 현관에는 사방으로 창들이 나 있었다. 그 대문은 길이가 원 암마, 너비가 스물다섯 암마였다.
- 34 그 대문의 현관은 바깥쪽으로 나 있고, 이쪽저쪽 벽기둥에는 아자나무가 새겨져 있으며, 그리로 올라가는 층계가 여덟 개 있었다.

안뜰 북쪽 대문

- 35 그는 또 나를 북쪽 대문으로 데리고 갔다. 그가 그것을 채니 앞의 것들과 치수가 같

았다.

- 36 대문 방과 벽기둥과 현관이 있고, 사방으로 창이 나 있었다. 그 대문은 길이가 원 암마, 너비가 스물다섯 암마였다.
- 37 그 대문의 현관은 바깥쪽으로 나 있고, 이쪽저쪽 벽기둥에는 아자나무가 새겨져 있으며, 그리로 올라가는 층계가 여덟 개 있었다.

안뜰 북쪽 대문에 딸린 것들

- 38 이 대문의 현관에는 문이 달린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 번제물을 씻게 되어 있었다.
- 39 이 대문의 현관에는 또 번제물과 속죄 제물과 보상 제물을 잡는 상이 이쪽에 둘, 저쪽에 둘 있었다.
- 40 이 북쪽 대문 어귀의 현관 바깥으로 한쪽에 상이 두 개 있고, 이 대문의 현관 다른 쪽에도 상이 두 개 있었다.
- 41 이렇게 인쪽에 상이 네 개, 대문 바깥쪽에 상이 네 개 있어서, 제물을 잡는 상이 모두 여덟 개였다.
- 42 또 번제물을 바칠 때 쓰는 상이 네 개 있었는데, 다듬은 돌로 만든 것으로 길이가 한 암마 반, 너비가 한 암마 반, 높이가 한 암마였다. 그 위에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물을 잡는 데 쓰는 연장을 놓게 되어 있었다.
- 43 상 안쪽으로는 손바닥 너비만 한 태두리가 사방으로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상들 위에는 예물로 바치는 살코기를 놓게 되어 있었다.
- 44 이 안쪽 대문 밖 안뜰에는 방이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북쪽 대문 곁에 남쪽으로 나 있고, 다른 하나는 동쪽 대문 곁에 북쪽으로 나 있었다.
- 45 그가 나에게 이렇게 일러 주었다. "남쪽으로 난 이 방은 주님 집의 직무를 맡은 사

제들의 방이고,

- 46 북쪽으로 난 이 방은 제단의 직무를 맡은 사제들의 방이다. 이들은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섬기는 차독의 자손들이다."

안뜰

- 47 그가 또 뜰을 재니 길어도 백 암마이고 너비도 백 암마인 정사각형이었다. 제단은 주님의 집 앞에 놓여 있었다.

성전 현관

- 48 그가 나를 주님의 집 현관으로 데리고 가서, 현관의 벽기둥들을 재니, 이쪽 것도 다섯 암마, 저쪽 것도 다섯 암마였다. 대문의 너비는 열네 암마이고, 대문의 양 옆벽은 이쪽으로 세 암마, 저쪽으로 세 암마였다.
- 49 현관의 길이는 스무 암마, 너비는 열두 암마였다. 그리고 층계 열 개를 밟고 현관으로 올라가는데, 안에는 벽기둥 말고도 기둥이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있었다.

성소

- 41¹ 그가 나를 성소로 데리고 가서 벽기둥들을 재니, 이쪽 것도 두께가 여섯 암마, 저쪽 것도 두께가 여섯 암마였다.
- 2 입구의 너비는 열 암마이고, 입구 옆벽은 이쪽도 다섯 암마, 저쪽도 다섯 암마였다. 그가 성소를 재니 길이가 마흔 암마, 너비가 스무 암마였다.

지성소

- 3 그런 다음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입구의 벽기둥을 재니, 두께가 두 암마였다. 입구는 여섯 암마이고, 그 입구의 옆벽은 양쪽이 일곱 암마였다.
- 4 그가 그 안을 재니 길이가 스무 암마, 성소와 마주한 너비도 스무 암마였다. 그가 나에게 "이곳이 지성소다." 하고 알려 주었다.

결체

- 5 그가 주님 집의 벽 두께를 재니 여섯 암마였다. 주님의 집을 사방으로 둘러싼 결방들의 너비는 각각 네 암마였다.
- 6 그 결방들은 방 위로 방을 놓아 삼 층을 이루면서, 층마다 방이 서른 개씩 있었다. 그런데 이 결방들을 얹히는 돌출부가 주님의 집 벽을 돌아가며 따로 붙여 있어서, 주님의 집 벽을 파고들지 않으면서도, 그런 구실을 할 수 있었다.
- 7 결방 앞 복도는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넓어졌다. 주님의 집을 돌며 층계가 둘러쳐져 있어서, 위층으로 갈수록 구조가 넓어지는 것이었다. 그렇게 아래층에서 가운데 층을 거쳐 맨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다.
- 8 내가 보니 주님의 집을 돌면서 높은 단이 둘러쳐져 있는데, 그것이 결방들의 기초로서 높이가 여섯 암마가 꼭 차는 한 장대였다.
- 9 결방들의 바깥벽의 두께는 다섯 암마였다. 주님의 집 결방들과
- 10 뜰의 방들 사이에 있는 빈 터의 너비는, 주님의 집 둘레를 빙 둘러 가면서 똑같이 스무 암마였다.
- 11 결방들의 입구는 빈 터로 나 있는데, 입구 하나는 북쪽으로, 다른 입구 하나는 남쪽으로 나 있었다. 그리고 이 빈 터를 둘러싼 벽의 두께는 다섯 암마였다.

서쪽 건물

- 12 주님의 집 서쪽 마당에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너비는 일흔 암마였다. 그 건물의 벽은 두께가 사방으로 다섯 암마이고, 그 건물 자체의 길이는 아흔 암마였다.

성전의 면적

- 13 그가 주님의 집을 재니 길이가 백 암마이고, 서쪽에 있는 마당과 건물과 양쪽 벽까

지 합한 길이가 또 백 암미였다.

14 그리고 주님의 집 동쪽 정면과 마당의 너비도 백 암미였다.

15 그가 또 뒷마당 쪽의 주님의 집 건물을 이쪽저쪽의 회랑과 함께 재니, 그 길이도 백 암미였다. 성소 내부와 뜰 쪽의 현관,

내부 장식과 설비

16 문지방들, 격자창들, 문지방을 마주하고 세 면에 둘러 있는 회랑에는, 바닥에서 창문에 이르기까지 널빤지로 입혀 있었다. 그러나 창문들은 덮여 있었다.

17 입구 위와 주님의 집 안과 밖, 사방 모든 벽의 안과 밖까지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18 그 무늬는 커룹과 야자나무로 이루어졌고, 커룹과 커룹 사이에 야자나무가 하나씩, 커룹마다 얼굴이 두 개씩이었는데,

19 사람 얼굴은 이쪽 야자나무를 향하고, 사자 얼굴은 저쪽 야자나무를 향하고 있었다. 주님의 집 전체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되어 있었다.

20 바닥에서 입구 위까지 성소의 벽에 커룹들과 야자나무들이 새겨져 있었다.

21 그리고 성소에는 네모난 문설주가 있었다. 지성소 앞에는

나무 채단

22 나무 채단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높이가 세 암마, 길이가 두 암미였다. 그 모서리와 밑받침과 옆면도 나무로 되어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이것은 주님 앞에 차려 놓는 상이다." 하고 일러 주었다.

문

23 성소와 지성소에는 각각 겹 문이 달려 있었다.

24 문마다 겹 문이고, 문마다 돌아가는 문짝이 들쭉 있었다. 문 하나에 문짝이 둘, 다른 문에도 문짝이 둘이었다.

25 이 성소의 문들에는 벽에 새긴 것과 같은 커룹들과 야자나무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현관 정면 바깥쪽에는 나무 차양이 달려 있었다.

26 현관 이쪽저쪽의 옆벽과 주님 집의 곁방과 차양에는 격자창들이 있고 야자나무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사제들의 방

42¹ 그는 나를 북쪽의 바깥뜰로 데리고 나가서, 마당으로 난, 곧 북쪽 건물을 비스듬히 마주한 방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2 그 방들은 북쪽 면의 길이가 백 암미이고 너비는 쉰 암미였다.

3 안뜰에서 스무 암마 되는 지점, 바깥뜰의 돌을 깎아 만든 바닷 맞은쪽에 삼 층으로 얹은 회랑이 있었다.

4 그리고 그 방들 앞에는 안쪽으로 복도가 있었는데, 너비가 열 암마, 길이가 백 암미였으며, 입구들은 북쪽에 나 있었다.

5 위층의 방들이 가장 좁았는데, 그것은 회랑이 건물의 아래층과 가운데 층에서보다 자리를 더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6 이 방들은 삼 층으로 되어 있는데다, 거기에는 바깥뜰의 기둥들과 같은 기둥이 없었다. 그래서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땅바닥에서 안으로 더 들어가 있었다.

7 이 방들 앞에는, 바깥뜰 쪽으로 이 방들과 나란히 바깥뜰이 있는데, 그 길이가 쉰 암미였다.

8 바깥뜰로 난 방들의 길이가 쉰 암미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성소 쪽으로 난 방들의 길이는 백 암미였다.

9 이 방들 아래에는 동쪽에서 들어오는 통로가 있었는데, 바깥뜰에서 그리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다.

10 뜰에 있는 벽과 나란히, 남쪽으로 마당과

건물을 마주하고 방들이 있었다.

- 11 그 방들 앞에는 북쪽에 있는 방들과 같은 식으로 길이 나 있었는데, 그 길이도 같고 너비도 같았으며, 나가는 곳도 그것들의 구조도 들어가는 곳도 마찬가지로였다.
- 12 남쪽으로 난 이 방들 아래, 보호 벽이 시작하는 길 어귀에, 동쪽에서 들어오는 입구가 있었다.
- 13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마당 맞은쪽에 있는 북쪽 방들과 남쪽 방들은 거룩한 방들로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제들이 가장 거룩한 제물을 먹는 곳이다. 그 방들은 거룩한 곳이니, 가장 거룩한 제물과 곡식 제물과 속죄 제물과 보상 제물을 그곳에 두어야 한다.
- 14 사제들이 성소에 들어가면, 그곳에서는 곧 바로 바깥뜰로 나가지 못한다. 그들이 주님을 섬길 때에 입는 옷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옷을 거기에 벗어 놓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야, 백성이 모이는 곳으로 가까이 갈 수 있다."

인들의 넓이

- 15 주님의 집 안쪽을 모두 쟀 다음, 그는 동쪽 대문으로 나를 데리고 나와서 사방을 재었다.
- 16 그가 측량 장대로 동쪽을 재니, 측량 장대로 오백 암마였고,
- 17 북쪽을 재니 측량 장대로 또 오백 암마였다.
- 18 그리고 남쪽을 재니 측량 장대로 또 오백 암마였다.
- 19 그런 다음 그가 서쪽으로 돌아 그것을 재니, 측량 장대로 또 오백 암마였다.
- 20 그는 이렇게 사방을 재었다. 거기에는 사방으로 길이가 오백 암마, 너비가 오백 암마 되는 담이 둘러 있었는데, 이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하기 위한 담이었다.

주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다

- 43 ¹ 그가 나를 대문으로, 동쪽으로 난 대문으로 데리고 나갔다.
- 2 그런데 보라, 이스라엘 하느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오는 것이었다. 그 소리는 큰 물이 밀려오는 소리 같았고,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빛났다.
- 3 그 모습은 내가 본 환시, 곧 그분께서 이 도성을 파멸시키러 오실 때에 내가 본 환시와 같았고, 또 그 모습은 내가 크바르 강 가에서 본 환시와 같았다. 그래서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 4 그러자 주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난 문을 지나 주님의 집으로 들어갔다.
- 5 그때 영이 나를 들어 올려 인뿔로 데리고 가셨는데, 주님의 집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
- 6 그 사람이 내 곁에서 있는데, 주님의 집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다.
- 7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사람의 아들이, 이곳은 내 어좌의 자리, 내 발바닥이 놓이는 자리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영원히 살 곳이다. 다시는 이스라엘 집안이 나의 거룩한 이름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나 그 임금들이 불륜을 저질러, 또 임금들이 죽었을 때 그 주검으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 8 그들은 자기들의 문지방을 내 문지방 옆에 놓고, 자기들의 문설주를 내 문설주 옆에 놓아, 나와 자기들 사이에 벽 하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들은 이렇게 역겨운 짓들을 저질러 나의 거룩한 이름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분노하여 그들을 멸망시켜 버렸다.
- 9 그러나 이제 그들은 자기들의 불륜과 자기네 임금들의 주검을 나에게서 멀리 치워 버

릴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 가운데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 10 너 사람의 아들이아, 이스라엘 집안에게 하느님의 이 집을 설명해 주어,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수치스럽게 여기며, 성전 모형을 측량해 보게 하여라.
- 11 자기들이 저지른 모든 것을 그들이 수치스럽게 여기거든, 주님 집의 구조, 그 배치와 나가는 곳과 들어오는 곳을 포함한 모든 구조와 모든 규정, 그 모든 구조와 법을 그들에게 알려 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려 주어, 그 모든 구조와 규정을 준수하여 지키게 하여라.
- 12 이것이 주님 집의 법이다. 이 산꼭대기, 사방 경계가 모두 가장 거룩한 곳이다. 바로 이것이 주님 집의 법이다."

인들의 제단

- 13 암마로 쟈 제단의 치수는 다음과 같았다. 한 암마는 보통의 한 암마에 손바닥 너비를 더한 것이다. 제단의 도량은 깊이가 한 암마, 너비가 한 암마이고, 그 가장자리에는 빙 돌아가면서 한 뼘 되는 턱이 있었다. 제단의 높이는 다음과 같았다.
- 14 땅바닥에 있는 도랑에서 아래 받침의 윗면까지는 두 암마이고, 너비는 한 암마였다. 이 작은 받침에서 큰 받침 위까지는 네 암마이고, 너비는 한 암마였다.
- 15 제단의 화덕은 네 암마 높이고, 그 화덕에는 뿔이 네 개 솟아 있었다.
- 16 화덕은 길이가 열두 암마, 너비도 열두 암마로서, 네 면으로 네모가 쳐 있었다.
- 17 큰 받침은 길이가 열네 암마, 너비가 열네 암마로서, 네 면이 나 있었다. 사방 턱은 반 암마이고, 도랑은 돌아가면서 한 암마였다. 층계들은 동쪽에 나 있었다.

제단의 봉헌

- 18 그분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아,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번제물을 바치고 피를 뿌릴 제단을 만드는 날에 지킬 제단의 규정들은 이러하다.

- 19 주 하느님의 말이다. 너는 차독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나를 섬기려고 나에게 가까이 나아오는 레위인 사제들에게, 속죄 제물로 황소 한 마리를 내주어야 한다.
- 20 그리고 너는 그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받침의 네 귀퉁이와 사방 턱에 발라, 제단을 정화하고 속죄하여라.
- 21 속죄 제물로 바친 황소는 가져다가, 성전 밖, 주님 집의 지정된 곳에서 태워라.
- 22 둘째 날에는 흠 없는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치고 나서, 황소로 제단을 정화하였듯이 그것을 다시 정화하여라.
- 23 정화 예식을 마친 다음에는, 흠 없는 황소 한 마리와 양 떼 가운데에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바쳐라.
- 24 네가 그것들을 주님 앞에 바치면, 사제들은 그 위에 소금을 뿌리고 주님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 25 너는 이제 동안 날마다 속죄 제물로 염소 한 마리씩 바쳐야 한다. 그리고 황소 한 마리와 양 떼 가운데에서 숫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들로 바치게 하여라.
- 26 이렇게 이제 동안 제단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여, 그것을 정화하고 봉헌하게 하여라.
- 27 이 기간이 끝난 뒤, 여드레째 되는 날부터는 사제들이 이 제단 위에서 너희의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동쪽 대문의 용도

- 44¹ 그 사람은 나를 성전 밖, 동쪽으로 난 대문으로 다시 데리고 갔는데, 그 대문은 잠겨 있었다.

- 2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문은 잠가 둔 채, 열어서는 안 된다. 아무도 이 문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이곳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잠겨 있어야 한다.
- 3 다만 제후는, 그가 제후이므로 여기에 앉아 주님 앞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는 대문 현관 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그 길로 나가야 한다."

성전 출입 규칙

- 4 그는 다시 나를 데리고 북쪽 대문을 지나 주님의 집 앞으로 갔는데, 내가 보니, 주님의 집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 5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여, 내가 주님 집의 모든 규정과 법과 관련해서 너에게 일러 주는 것을 모두 명심하여, 눈으로 잘 보고 귀로 잘 들어라. 그리고 주님의 집으로 들어오는 곳과 성전에서 나가는 모든 곳을 명심하여라.
- 6 저 반향의 집인 이스라엘 집안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는 온갖 역겨운 짓을 많이 저질렀다.
- 7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고 몸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들여보내어, 내 성전에 머무르면서 나의 집을 더럽히게 하였다. 너희는 나에게 음식, 곧 굳기름과 피를 바치면서, 이렇게 온갖 역겨운 짓을 하여, 나의 계약을 깨뜨렸다.
- 8 너희는 나의 거룩한 물건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나의 성전에서 너희 대신 이방인들이 나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 9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고 몸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은 누구도 내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 이스

라엘 자손들 가운데에 사는 어떤 이방인도 마찬가지다.'

레위인들

- 10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이 나를 떠나 자기들의 우상들을 좇으며 헤멜 때,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기 때문에, 그 죄값을 짊어져야 한다.
- 11 그들은 이제 나의 성전에서, 주님의 집 문지기 일을 하고, 주님의 집에서 시중드는 일을 하게 된다. 그들은 백성에게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물을 잡아 주고, 백성의 시중을 들기 위하여 그들 앞에 준비하고 서 있어야 한다.
- 12 레위인들은 백성이 섬기는 우상들 앞에서 그들의 시중을 들어, 이스라엘 집안을 죄 짓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거슬러 손을 들고 맹세하였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값을 짊어져야 한다.
- 13 그들은 사제직을 수행하려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나의 모든 거룩한 제물, 곧 가장 거룩한 것들에 다가가지 못한다. 이렇게 그들은 수치와 더불어, 자기들이 저지른 역겨운 짓들의 결과를 짊어져야 한다.
- 14 나는 그들을 주님 집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로 세워, 그곳의 온갖 일, 곧 그곳에서 해야 하는 온갖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사제들

- 15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를 떠나 헤멜 때, 차독의 자손들인 레위인 사제들은 내 성전의 직무를 준수하였으므로, 나에게 가까이 나와 나를 섬기고, 내 앞에 서서 나에게 굳기름과 피를 바칠 수 있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 16 그들은 내 성전에 들어올 수 있고, 내 상에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길 수 있으며, 나를 위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7 그러나 그들이 안뜰 대문으로 들어올 때에는, 아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 안뜰 대문 안에서나 주님의 집 안에서 예식을 거행할 때, 양털 옷을 걸쳐서는 안 된다.
- 18 머리에는 아마포 쓰개를 쓰고, 허리에도 아마포 속바지를 입어야 하며, 땀이 나게 하는 띠를 둘러서는 안 된다.
- 19 바깥뜰로 백성에게 나갈 때에는, 예식을 거행할 때에 입었던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사제들은 자기들의 옷으로 백성을 신성한 가운데 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20 그리고 사제들은 머리를 밀어서도 안 되고, 머리카락이 길게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된다. 그들은 머리를 잘 손질해야 한다.
- 21 어떤 사제든지 안뜰로 들어갈 때에는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 22 그들은 이스라엘 집안 후손의 처녀가 아니면, 과부나 소박맞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제의 과부는 맞아들일 수 있다.
- 23 사제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도록 내 백성을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도록 그들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 24 소송이 일어나면, 판관으로 나서서 내 법규들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또한 나의 모든 축일에는 나의 법과 규정들을 준수하고, 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내야 한다.
- 25 사제들은 죽은 이에게 다가가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 형제나 시집가지 않은 누이를 위해서는 자신을 부정하게 만 들어도 된다.
- 26 그 뒤 정결하게 된 다음에도 이레가 지나야 한다.

- 27 그런 다음 성소에, 곧 그곳에서 예식을 거행하려고 안뜰로 들어가는 날에는, 자기 몫으로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한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 28 사제들에게는 상속 재산이 있다. 내가 바로 그들의 상속 재산이다.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어떤 소유지도 그들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내가 바로 그들의 소유자다.
- 29 그들은 곡식 제물과 속죄 제물과 보상 제물을 먹는다. 또 이스라엘에서 바치는 완전 봉헌물은 모두 그들의 것이 된다.
- 30 온갖 종류의 모든 만물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 너희가 바치는 온갖 종류의 예물은 모두 사제들의 것이 된다. 너희는 반죽한 것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을 사제에게 주어, 네 집에 복이 내리게 하여라.
- 31 사제들은 새나 짐승 가운데에 저절로 죽은 것이나 맹수에게 찢겨서 죽은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땅의 분할: 주님의 몫

45

- 1 '너희는 제비를 뽑아 땅을 상속 재산으로 나눌 때, 그 땅의 한 부분을 거룩한 구역으로서 주님을 위하여 떼어 놓아야 한다. 그 길이는 이만 오천 암마, 너비는 이만 암마이다. 이 구역은 사방 그 경계 안이 모두 거룩하다.
- 2 이 가운데에서 길이가 오백, 너비가 오백 암마로서 사방으로 네모난 땅이 성전을 위한 것이다. 그 둘레에는 사방으로 천 암마 되는 빈 터를 두어야 한다.
- 3 이렇게 측량한 곳에서 너희는 길이가 이만 오천 암마, 너비가 만 암마 되는 땅을 제어 놓아라. 그 안에 성소, 곧 가장 거룩한 곳이 자리 잡게 된다.
- 4 그곳은 이 땅의 거룩한 구역으로서, 성전에서 봉직하는 사제들, 곧 주님에게 가까이 나아와 그를 섬기는 사제들의 것이다. 그곳은

그들의 집을 지을 자리이며, 성전을 위한 거룩한 땅이다.

- 5 그리고 길이가 이만 오천 암마, 너비가 만 암마 되는 다른 땅은, 주님의 집에서 봉직하는 레위인들의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소유지로서 그들은 그곳에 성읍들을 세우고 살 것이다.
- 6 너희는 또 거룩한 구역과 나란히 너비가 오천 암마, 길이가 이만 오천 암마 되는 땅을 도성의 소유지로 지정하여라. 그곳은 온 이스라엘 집안을 위한 것이다.'

제후의 몫

- 7 '거룩한 구역과 도성 소유지의 이쪽과 저쪽, 곧 거룩한 구역과 도성 소유지의 옆으로 난 지역은 제후의 것이다. 그 길이는 서쪽 면에서 서쪽으로, 동쪽 면에서 동쪽으로, 곧 이 땅의 서쪽 경계에서 동쪽 경계에 이르기까지 한 지파가 받을 몫의 길이에 상응하는 것이다.
- 8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그가 차지할 소유지다. 나의 제후들이 다시는 나의 백성을 학대하지 않고, 이 땅을 지파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제후들에게 내리는 경고

- 9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의 제후들이, 그만 하여라. 폭력과 억압을 치워 버리고,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여라. 내 백성을 수탈하는 일을 멈추어라. 주 하느님의 말이다.
- 10 너희는 바른 저울, 바른 에파와 바른 밧을 써야 한다.
- 11 에파와 밧은 용량이 같아야 한다. 한 밧은 십분의 일 호메르이고, 한 에파도 십분의 일 호메르이다. 호메르가 기준이 되는 것이다.
- 12 한 세켈은 스무 게라이고, 스무 세켈 짜리와 스물다섯 세켈 짜리와 열다섯 세켈 짜

리를 합하면, 한 미나가 된다.'

제물에 관한 규정

- 13 '너희가 바칠 예물은 다음과 같다. 밭은 한 호메르마다 육분의 일 에파, 보리도 한 호메르마다 육분의 일 에파를 바쳐야 한다.
- 14 기름에 관한 규정은 이러하다. 한 코르마다 십분의 일 밧을 바쳐야 한다. 열 밧은 한 호메르이고, 열 밧은 또 한 코르이기도 하다.
- 15 이스라엘의 가축 떼에서는 이백 마리 양 떼마다 한 마리씩 바쳐야 한다. 이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할 곡식 제물과 번제물과 친교 제물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 16 이 땅의 온 백성은 이 예물을 마련하는 일에, 이스라엘의 제후에게 협력해야 한다.
- 17 축제와 초하룻날과 안식일에,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축일에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제주는 제후가 책임을 진다. 그가 이스라엘 집안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할 속죄 제물과 곡식 제물과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쳐야 하는 것이다.'

성전 정화

- 18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 없는 황소 한 마리를 끌어다가, 성전을 정화해야 한다.
- 19 사제는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주님 집의 문설주와 제단 받침의 네 귀퉁이와 안뜰 대문의 문설주에 바른다.
- 20 너는 초이렛날에도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과 모르고 죄를 지은 이를 위하여 그와 같이 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주님의 집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여라.'

파스가 축제

- 21 '너희는 첫째 달 열나흘날에 파스가 축제를 지내야 한다. 이는 이레 동안 지내는 축제

- 로서,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 22 그날 제후는 자신과 이 땅의 온 백성을 위하여, 황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 23 그는 이 축제를 지내는 이레 동안 주님을 위한 번제물을 마련하는데, 이레 동안 날마다 황소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바치고, 속죄 제물로는 날마다 숫염소 한 마리를 바친다.
- 24 또 황소 한 마리에 곡식 제물 한 에파, 숫양 한 마리에도 한 에파를 곁들여 바치는데, 한 에파마다 기름 한 힌을 곁들인다.'

초막절

- 25 '일곱째 달 보름날에 시작하는 축제에도, 제후는 이레 동안 속죄 제물과 번제물, 곡식 제물과 기름을 똑같이 바쳐야 한다.'

안식일과 초하룻날

- 46 ¹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인들의 동쪽 대문은 일하는 여섯 동안 잠가 두었다가 안식일에 열고, 또 매달 초하룻날에도 열어야 한다.
- 2 제후는 바깥에서 이 대문 현관으로 들어와, 대문 문설주 곁에 선다. 사제들이 그의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치는 동안, 제후는 그 대문 문지방에 엎드려 경배한다. 그런 다음 그가 나간 뒤에도, 대문은 저녁때까지 닫지 말아야 한다.
- 3 이 땅의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룻날에는, 이 문 어귀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 4 제후가 안식일에 주님에게 바칠 번제물은, 흠 없는 어린 양 여섯 마리와 흠 없는 숫양 한 마리이다.
- 5 숫양 한 마리에는 곡식 제물 한 에파, 어린 양에는 원하는 만큼 곡식 제물을 곁들여 바치는데, 한 에파마다 기름 한 힌을 곁들인다.

- 6 초하룻날에는 흠 없는 황소 한 마리와, 어린 양 여섯 마리와 숫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바친다.
- 7 또 곡식 제물로는 황소 한 마리에 한 에파, 숫양 한 마리에도 한 에파, 어린 양에는 힘이 닿는 대로 바치는데, 한 에파마다 기름 한 힌을 곁들인다.'

여러 가지 규정

- 8 '제후가 들어올 때에는 대문 현관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그 길로 나가야 한다.
- 9 이 땅의 백성이 축일에 주님 앞으로 들어올 때에는, 북쪽 대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한 이는 남쪽 대문으로 나가고, 남쪽 대문으로 들어온 이는 북쪽 대문으로 나간다. 자기가 들어온 대문으로 되돌아가지 말고, 똑바로 앞쪽으로 나가야 한다.
- 10 제후도 백성이 들어올 때에 함께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함께 나가야 한다.
- 11 축제와 축일에 바치는 곡식 제물은 황소 한 마리에 한 에파, 숫양 한 마리에 한 에파, 어린 양에는 원하는 만큼 바치는데, 한 에파마다 기름 한 힌을 곁들인다.
- 12 제후가 주님에게 지원 예물로 번제물을 바칠 때나, 지원 예물로 친교 제물을 바때에는, 동쪽 대문을 열어 주어야 한다. 그는 안식일에 하듯이 자기의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치고 나간다. 그가 나간 다음에는 그 대문을 닫는다.
- 13 너는 날마다 주님에게 일 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침마다 그것을 바쳐야 한다.
- 14 이것이 곁들이는 곡식 제물로 아침마다 고운 곡식 가루 육분의 일 에파와 그것에 뿌릴 기름 삼분의 일 힌을 바친다. 이것이 주님에게 바치는 곡식 제물로서, 늘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정이다.
- 15 이렇게 아침마다 어린 양과 곡식 제물과

기름을 일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후의 재산권

- 16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제후가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에게 선물을 할 경우, 그것은 그 아들의 상속 재산으로서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된다. 그것은 상속 재산으로서 그들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 17 그러나 제후가 자기의 상속 재산에 든 것을 자기 신하에게 선물할 경우, 그것은 해방의 해까지만 그 신하의 소유가 되고, 그 뒤에는 제후에게 되돌아간다. 제후의 상속 재산은 그의 아들들만 차지할 수 있다.
- 18 제후는 백성을 학대하여 그들의 소유지에서 내몰아, 그들의 상속 재산을 빼앗아서 안 된다. 그는 자기의 소유지만 아들들에게 상속할 수 있다. 그래서 나의 백성 가운데 아무도 자기 소유지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성전 부역

- 19 그 사람은 나를 데리고 대문 곁에 있는 입구를 지나 북쪽에 있는 사제들의 거룩한 방으로 갔다. 그곳에서 나는 서쪽 끝에 있는 어떤 장소를 보았다.
- 20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곳은 사제들이 보상 제물과 속죄 제물을 삶고 곡식 제물을 굽는 장소다. 그것들을 바깥뜰로 가지고 나가, 백성을 신성한 기운에 닿게 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 21 그는 다시 나를 데리고 바깥뜰로 나가, 그 뜰의 네 모퉁이로 데리고 다녔다. 내가 보니 그 뜰의 네 모퉁이마다 뜰이 또 하나씩 있었다.
- 22 이렇게 그 뜰의 네 모퉁이마다 작은 뜰이 있는데, 길이는 마흔 암마, 너비는 서른 암마로, 넓이 다 치수가 같았다.
- 23 이 네 뜰에는 돌담이 둘러 있고, 담 밑으로 는 돌아가면서 화덕이 갖추어져 있었다.

- 24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곳은 주님의 집에서 봉직하는 이들이 백성의 희생 제물을 삶는 부엌이다."

성전에서 솟아 흐르는 물

- 47 ¹ 그가 다시 나를 데리고 주님의 집 어귀로 돌아갔다. 이 주님의 집 정면은 동쪽으로 나 있었는데, 주님의 집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 물은 주님의 집 오른쪽 밑에서,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 갔다.
- 2 그는 또 나를 데리고 북쪽 대문으로 나가서, 밖을 돌아 동쪽 대문 밖으로 데려갔다. 거기에서 보니 물이 오른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 3 그 사람이 동쪽으로 나가는데, 그의 손에는 줄자가 들려 있었다. 그가 천 암마를 재고서는 나에게 물을 건너게 하였는데, 물이 밭목까지 찼다.
- 4 그가 또 천 암마를 재고서는 물을 건너게 하였는데, 물이 무릎까지 찼다. 그가 다시 천 암마를 재고서는 물을 건너게 하였는데, 물이 허리까지 찼다.
- 5 그가 또 천 암마를 재었는데, 그곳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 있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치기 전에는 건널 수 없었다.
- 6 그는 나에게 "사람의 아들아, 잘 보았느냐?" 하고서는, 나를 데리고 강가로 돌아갔다.
- 7 그가 나를 데리고 돌아갈 때에 보니, 강가 이쪽저쪽으로 수많은 나무가 있었다.
- 8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나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가면, 그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 9 그래서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살아난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고기도 아주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 강이 닿는 곳

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 10 그러면 물기에는 어부들이 늘어서고, 엔 게 디에서 엔 에글라임까지는 그물을 퍼서 말 리는 곳이 될 것이다. 그곳의 물고기 종류 도 큰 바다의 물고기처럼 매우 많아질 것이다.
- 11 그러나 늪과 웅덩이 물은 되살아나지 않은 채, 소금을 얻을 수 있도록 남아 있을 것이다.
- 12 이 강가 이쪽저쪽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 라는데, 잎도 시들지 않으며 과일도 끊이지 않고 다달이 새 과일을 내놓는다.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양식 이 되고 잎은 약이 된다."

이스라엘 땅의 새 경계선과 분배

- 13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따라,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가질 이 땅의 경계선은 이러하 다. 요셉은 두 몫을 차지한다.
- 14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이 땅을, 너희는 서로 똑같이 나누 어야 한다. 이제 이 땅이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돌아가게 된다.
- 15 이것이 이 땅의 경계선이다. 북쪽으로는, 큰 바다에서 헤틀론 쪽으로 르보 하맛과 츠닷을 거쳐,
- 16 베로타, 다마스쿠스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 그리고 하우란 경 계선 쪽에 있는 하체르 티론에 이른다.
- 17 이렇게 이 경계선은 바다에서 하차르 에논 까지 이어지는데, 다마스쿠스의 영토와 하 맛의 영토를 북쪽으로 둔다. 이것이 북쪽 경계선이다.
- 18 동쪽으로는, 하우란과 다마스쿠스 사이에서 시작하여, 길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의 경계 를 이루는 요르단을 따라, 동쪽 바다와 타 마르까지 이른다. 이것이 동쪽 경계선이다.

- 19 남쪽으로는, 타마르에서 시작하여 트리밧 카데스 샘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이집트 마른내' 를 거쳐 큰 바다까지 이른다. 이 것이 남쪽 경계선이다.
- 20 서쪽으로는, 큰 바다가 경계를 이루어 르보 하맛 건너편까지 이른다. 이것이 서쪽 경계 선이다.
- 21 너희는 이 땅을 이스라엘의 지파에 따라 나누어 가져야 한다.
- 22 너희뿐 아니라, 자식들을 낳으면서 너희 가 운데에 머무르는 이방인들도, 제비를 뽑아 이 땅을 상속 재산으로 나누게 하여라. 그 들을 이스라엘 본토인처럼 대해야 한다. 그 들도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에서 너희 와 함께 제비를 뽑아 상속 재산을 받아야 한다.
- 23 이방인이 어느 지파에서 살든, 그곳에서 그 에게 상속 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북쪽 지파들의 몫

48

- 1 "지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북쪽 끝에서 헤틀론 길을 따라 르보 하 맛과 하차르 에논까지, 다마스쿠스 영토를 북쪽으로 두고 하맛 옆으로, 동쪽에서 서쪽 까지 이르는 땅이 단을 위한 한몫이다.
- 2 단의 경계에 잇닿아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세르를 위한 한몫이다.
- 3 아세르의 경계에 잇닿아 동쪽에서 서쪽까지 는 납탈리를 위한 한몫이다.
- 4 납탈리의 경계에 잇닿아 동쪽에서 서쪽까지 는 므나쎄를 위한 한몫이다.
- 5 므나쎄의 경계에 잇닿아 동쪽에서 서쪽까지 는 에프라임을 위한 한몫이다.
- 6 에프라임의 경계에 잇닿아 동쪽에서 서쪽까 지는 르우벤을 위한 한몫이다.
- 7 르우벤의 경계에 잇닿아 동쪽에서 서쪽까지 는 유다를 위한 한몫이다."

주님의 몫

- 8 "유다의 경계에 잇달아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따로 떼어 놓아야 하는 구역으로, 그 너비는 이만 오천 암마이고 길이는 다른 몫과 같이 동쪽에서 서쪽까지다. 그 한가운데에 성전이 자리 잡게 된다.
- 9 너희가 주님을 위하여 떼어 놓아야 하는 구역은, 길이가 이만 오천 암마이고 너비가 이만 암마이다.
- 10 이 거룩한 구역은 다음 사람들의 차지다. 사제들을 위한 땅은 북쪽으로 길이가 이만 오천 암마, 서쪽으로 너비가 만 암마, 동쪽으로 너비가 만 암마, 남쪽으로 길이가 이만 오천 암마이다. 그 한가운데에 주님의 성전이 자리 잡게 된다.
- 11 이것이 처독의 자손들이 성별된 사제들이 차지할 땅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를 떠나 헤멜 때, 레위인들이 헤멘 것처럼 헤메지 않고, 나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였다.
- 12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따로 떼어 놓은 구역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구역을 차지하게 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땅으로, 레위인들의 경계와 잇달아 있다.
- 13 레위인들은 사제들의 경계와 나란히, 길이가 이만 오천 암마, 너비가 만 암마 되는 땅을 차지한다. 그래서 전체 길이는 이만 오천 암마, 너비는 이만 암마이다.
- 14 이 땅은 떼어서 팔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한다. 그것은 이 땅의 가장 좋은 부분으로, 남에게 넘기지 못한다. 그 땅은 주님을 위한 거룩한 것이다.
- 15 그리고 너비가 오천 암마에 길이가 이만 오천 암마 되는 나머지 땅은, 거주지와 빈터로서 도성에 속하는 속된 땅이다. 도성은 그 한가운데에 자리 잡게 된다.
- 16 도성의 치수는 다음과 같다. 북쪽 사천오백

암마, 남쪽 사천오백 암마, 동쪽 사천오백 암마, 서쪽 사천오백 암마이다.

- 17 이 도성의 빈 터는 북쪽으로 이백오십 암마, 남쪽으로 이백오십 암마, 동쪽으로 이백오십 암마, 서쪽으로 이백오십 암마이다.
- 18 그러고 나면 거룩한 구역에 잇대어 길이가 동쪽으로 만 암마, 그리고 다시 거룩한 구역에 잇대어 서쪽으로 만 암마 되는 땅이 남게 되는데, 이 땅의 소출은 도성 일꾼들의 양식이 된다.
- 19 이 땅을 경작하는 도성의 일꾼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와야 한다.
- 20 따로 떼어 놓은 구역 전체는 이만 오천 암마에 이만 오천 암마이다. 이 네모진 땅을 도성의 소유지와 함께 거룩한 구역으로 떼어 놓아야 한다.
- 21 거룩한 구역과 도성의 소유지 이쪽과 저쪽에 있는 나머지 땅은 제후가 차지한다. 이만 오천 암마 되는, 이 따로 떼어 놓은 구역에서 동쪽 경계선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만 오천 암마 되는 서쪽 경계선까지, 지파들의 몫과 나란히 놓인 땅이 제후의 차지다. 이렇게 해서 거룩한 구역과 주님의 집 성전이 그 한가운데에 자리 잡게 된다.
- 22 그리고 레위인들의 소유지와 도성의 소유지는 제후가 차지하는 땅 사이에 놓인다. 또 제후가 차지하는 이 땅은 유다의 경계선과 벤야민의 경계선 사이에 자리 잡는다."

남쪽 지파들의 몫

- 23 "나머지 지파들의 몫은 이러하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벤야민을 위한 한몫이다.
- 24 벤야민의 경계에 잇달아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사메온을 위한 한몫이다.
- 25 사메온의 경계에 잇달아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카르를 위한 한몫이다.
- 26 이사카르의 경계에 잇달아 동쪽에서 서쪽

까지는 즈블론을 위한 한몫이다.

- 27 즈블론의 경계에 잇닿아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가드를 위한 한몫이다.
- 28 가드의 경계에 잇닿아 남쪽으로는 이스라엘의 경계가 타마르에서 시작하여, 므리밧 카데스 샘과 '이집트 마른내' 를 거쳐 큰 바다에 이른다.
- 29 이것이 너희가 이스라엘의 지파에 따라 제비를 뽑아 상속 재산으로 나눌 땅이고, 이것이 지파들이 차지할 몫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에루살렘의 성문들

- 30 "도성의 출구는 이러하다. 도성 북쪽의 치수는 사천오백 암마이다.
- 31 도성의 대문들은 이스라엘의 지파 이름을 따서 부른다. 그래서 북쪽에 대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르우벤 대문, 하나는 유다 대문, 하나는 레위 대문이다.
- 32 사천오백 암마 되는 동쪽에도 대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요셉 대문, 하나는 벤야민 대문, 하나는 단 대문이다.
- 33 치수가 사천오백 암마 되는 남쪽에도 대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시메온 대문, 하나는 이사카르 대문, 하나는 즈블론 대문이다.
- 34 사천오백 암마 되는 서쪽에도 대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가드대문, 하나는 아셀 대문, 하나는 납탈리 대문이다.
- 35 이렇게 도성의 둘레가 만 팔천 암마이다. 그리고 이 도성의 이름은 이제부터 '아훼 삼마' 이다."

구약성경 - 34

예언서 - 6

다니엘서

총 14 장

총 530 절

[구약성경]-[다니엘서]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왕궁에 들어가다

- 1 유다 임금 여호아킴의 통치 제삼년에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
- 2 주님께서는 유다 임금 여호아킴과 하느님의 집 기를 가운데 일부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네부카드네자르는 그들을 신아르 땅, 자기 신의 집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기물들은 자기 신의 보물 창고에 넣었다.
- 3 그리고 나서 임금은 내시장 아스프나즈에게 분부하여,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려오게 하였다.
- 4 그들은 아무런 흠도 없이 잘생기고, 온갖 지혜를 갖추고 지식을 쌓아 이해력을 지녔을 뿐더러 왕궁에서 임금을 모실 능력이 있으며, 칼데아 문학과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젊은이들이었다.
- 5 임금은 그들이 날마다 먹을 궁중 음식과 술을 정해 주었다. 그렇게 세 해 동안 교육을 받은 뒤에 임금을 섬기게 하였다.
- 6 그들 가운데 유다의 자손으로는 다니엘, 하난야, 미사엘, 아자르야가 있었다.
- 7 내시장은 그들에게 다른 이름을 지어 주었다. 곧 다니엘은 벨트사차르, 하난야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자르야는 아벳 느고라고 지어 주었다.
- 8 다니엘은 궁중 음식과 술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 속으로 다짐하고, 자기가 더럽혀지지 않게 해 달라고 내시장에게 간청하였다.
- 9 하느님께서 다니엘이 내시장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 주셨다.
- 10 내시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나는 내 주군이신 임금님이 두렵다. 그분께서 너희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정하셨는데,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의 젊은이들보다 못한 것

을 보시게 되면, 너희 때문에 임금님 앞에서 내 머리가 위태로워진다."

- 11 그래서 다니엘이 감독관에게 청하였다. 그는 내시장이 다니엘과 하난야와 미사엘과 아자르야를 맡긴 사람이었다.
- 12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저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시고 또 물만 마시게 해 주십시오.
- 13 그런 뒤에 궁중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과 저희의 용모를 비교해 보시고, 이 종들을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 14 감독관은 그 말대로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해 보았다.
- 15 열흘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들이 궁중 음식을 먹는 어느 젊은이보다 용모가 더 좋고 살도 더 올라 있었다.
- 16 그래서 감독관은 그들이 먹어야 하는 음식과 술을 치우고 줄곧 채소만 주었다.
- 17 이 네 젊은이에게 하느님께서 이해력을 주시고 모든 문학과 지혜에 능통하게 해주셨다. 다니엘은 모든 환시와 꿈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다.
- 18 젊은이들을 데려오도록 임금이 정한 때가 되자, 내시장은 그들을 네부카드네자르 앞으로 데려갔다.
- 19 임금이 그들과 이야기를 하여 보니, 그 모든 젊은이 가운데에서 다니엘, 하난야, 미사엘, 아자르야만 한 사람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임금을 모시게 되었다.
- 20 그들에게 지혜나 예지에 관하여 어떠한 것을 물어보아도, 그들이 온 나라의 어느 요술사나 주술사보다 열 배나 더 낫다는 것을 임금은 알게 되었다.
- 21 다니엘은 키루스 임금 제일년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네부카드네자르가 꿈을 꾸다

- 2 네부카드네자르 통치 제이년에, 네

부카드네자르는 꿈을 꾸고 마음이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2 임금은 자기 꿈을 풀이해 줄 요술사, 주술사, 마술사, 점성가들을 불러오라고 분부하였다. 그들이 와서 임금 앞에 서자,

3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인지 몰라 마음이 불안하다."

4 그러자 점성가들이 아람 말로 임금에게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이 종들에게 꿈을 말씀하여 주시면 저희가 그 뜻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5 그러나 임금은 점성가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의 뜻은 확고하다. 너희가 내 꿈과 그 뜻을 나에게 설명해 주지 못하면, 너희 사저는 찢겨 나가고 너희 집들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6 그러나 너희가 꿈과 그 뜻을 밝혀 주면, 내가 선물과 상을 내리고 큰 명예를 누리게 해 주겠다. 그러나 그 꿈과 그 뜻을 밝혀 보아라."

7 점성가들이 다시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이 종들에게 꿈을 말씀해 주시면, 그 뜻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8 그러자 임금이 대답하였다. "너희가 나의 뜻이 확고함을 보고서 시간을 벌려고 한다는 것을 이제 내가 분명히 알았다."

9 너희가 꿈을 설명해 주지 못하면 너희가 받을 판결은 하나밖에 없다. 너희는 사정이 바뀔 때까지 내 앞에서 거짓되고 그릇된 말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꿈을 나에게 말해 보아라. 그래야 너희가 그 뜻을 밝힐 수 있는지 내가 알 수 있을 것이다."

10 점성가들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그것들을 밝힐 수 있는 이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아무리 위대하고 강력한 임금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일을 어떠한 요술사나 주술사나 점성가에게 묻은 적이 없습니다."

11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 인간과 멀리 떨어져 사는 신들 말고는 그것을 임금님께 밝혀 드릴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12 이 일 때문에 임금은 분노하고 격분하여, 바벨론의 현인들을 모두 죽이라고 분부하였다.

13 그렇게 어명이 내려, 이제 현인들은 처형을 당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 동료들도 처형하려고 찾아 나섰다.

하느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알려 주시다

14 그러자 다니엘은 바벨론의 현인들을 처형하려고 나온, 임금의 친위대장 아르옥에게 현명하고 신중하게 말을 걸었다.

15 그가 임금의 무관 아르옥에게 이렇게 물었다. "임금님께서 내리신 어명이 어찌 이토록 기혹합니까?" 그러자 아르옥이 다니엘에게 사정을 알려 주었다.

16 그리하여 다니엘은 궁궐로 들어가서, 꿈의 뜻을 밝혀 줄 터이니 시간을 달라고 청하였다.

17 그런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가서, 자기의 동료 하난아와 미사엘과 아자르야에게 사정을 알렸다.

18 또 자기와 동료들이 바벨론의 나머지 현인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그 신비와 관련하여 하늘의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자고 하였다.

19 그러자 다니엘에게 그 신비가 밤의 환시 중에 드러났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느님을 찬미하며

20 이렇게 말하였다. "지혜와 힘이 하느님의 것이니 하느님의 이름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미받으소서.

21 그분은 시간과 절기를 바꾸시는 분, 임금들을 내치기도 하시고 임금들을 세우기도 하시며 현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지를 아

는 이들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 22 그분은 심오한 것과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시며 빛이 함께 머무르는 분이시다.
- 23 저의 조상들의 하느님 제가 당신께 감사드리며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께서는 저에게 지혜와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당신께 청한 것을 저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임금이 원하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꿈과 그 뜻을 밝히다

- 24 그리하여 다니엘은 바빌론의 현인들을 죽이라고 임금이 임명한 아르옥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바빌론의 현인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저를 임금님 앞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그러면 임금님께 꿈의 뜻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 25 그러자 아르옥은 다니엘을 임금 앞으로 급히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이뢰었다. "유대에서 온 유배자들 가운데에서 임금님께 꿈의 뜻을 알려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 26 임금이 벨트사차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내가 본 꿈과 그 뜻을 네가 나에게 알려 줄 수 있다는 말이나?" 하고 묻자,
- 27 다니엘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신비는 어떠한 현인도 주술사도 요술사도 점술사도 임금님께 밝혀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 28 그러나 하늘에는 신비를 드러내시는 하느님께서 계시니다. 그분께서 뒷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부카드네자르 임금님께 알려 주셨습니다. 임금님께서 침상에 누워 계시실 때에 머릿속에 나타난 꿈과 환시는 이렇습니다.
- 29 임금님, 임금님께서 침상에 드시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 생각이 오셨습니다. 그때에 신비를 드러내시는 분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 주신 것입니다.

- 30 저에게 이 신비가 드러난 것은 제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지혜를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임금님께 꿈의 뜻을 알려 드려서 임금님께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 31 임금님, 임금님께서서는 무엇인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큰 상이었습니니다. 그 거대하고 더없이 번쩍이는 상이 임금님 앞에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니다.
- 32 그 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청동이며,
- 33 아랫다리는 쇠이고, 발은 일부는 쇠로,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34 임금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실 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떨어져 나와,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상의 발을 쳐서 부수어 버렸습니다.
- 35 그러자 쇠, 진흙, 청동, 은,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처럼 되어 바람에 날려가 버리니,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을 친 돌은 거대한 산이 되어 온 세상을 채웠습니다.
- 36 이것이 그 꿈입니다. 이제 그 뜻을 저희가 임금님께 이뢰겠습니다.
- 37 임금님, 임금님께서서는 임금들의 임금이십니다. 하늘의 하느님께서 임금님께 나라와 권능과 권세와 영화를 주셨습니다.
- 38 또 사람과 들의 짐승과 하늘의 새를, 그들이 어디에서 살든 다 임금님 손에 넘기시어, 그들을 모두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임금님께서 바로 그 금으로 된 머리아십니다.
- 39 임금님 다음에는 임금님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청동으로

된 셋째 나라가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 40 그리고 나서 쇠처럼 강건한 넷째 나라가 생겨날 것입니다. 쇠가 모든 것을 부수고 깨뜨리듯이, 그렇게 으깨 버리는 쇠처럼 그 나라는 앞의 모든 나라를 부수고 깨뜨릴 것입니다.
- 41 그런데 일부는 옹기장이의 진흙으로, 일부는 쇠로 된 발과 발가락들을 임금님께서 보셨듯이, 그것은 들로 갈라진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쇠와 옹기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보셨듯이, 쇠의 강한 면은 남아 있었습니다.
- 42 그 발가락들이 일부는 쇠로, 일부는 진흙으로 된 것처럼, 그 나라도 한쪽은 강하고 다른 쪽은 깨지기가 쉬울 것입니다.
- 43 임금님께서 쇠와 옹기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보셨듯이 그들은 혼인으로 맺어지기는 하지만, 쇠가 진흙과 섞여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서로 결합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 44 이 임금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 왕권이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는 앞의 모든 나라를 부수어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 45 이는 아무도 돌을 때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산에서 떨어져 나와, 쇠와 청동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는 것을 임금님께서 보신 것과 같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임금님께 알려 주신 것입니다. 꿈은 확실하고 그 뜻은 틀림없습니다."

임금이 다니엘을 중용하다

- 46 그러자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은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나서, 예물과 분향을 그

에게 올리라고 분부하였다.

- 47 그리고 임금은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그대들의 하나님이말로 신들의 신이시고 임금들의 주군이시며 신비를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대가 이 신비를 드러낼 수 있었다."
- 48 그리고 나서 임금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큰 선물을 많이 주었으며, 그를 바빌론 지방 전체를 다스리는 통치자이며 바빌론의 모든 현인을 거느리는 총감독관으로 삼았다.
- 49 다니엘은 임금에게 청하여 사드락과 메사과 아벳 느고를 바빌론 지방의 일을 맡도록 임명하고, 자기는 대궐 문간에서 머물렀다.

네부카드네자르가 금 상에 경배하라고 명령하다

3

- 1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은 높이가 예순암마, 너비가 여섯 암마 되는 금 상을 만들어,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야에 세웠다.
- 2 그리고 나서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은 사람들을 보내어, 총독들, 태수들, 지방관들, 고문관들, 재무관들, 재판관들, 행정관들, 그리고 지방의 모든 관리를 모아서, 자기가 세운 상의 봉헌식에 참석하게 하였다.
- 3 그리하여 총독들, 태수들, 지방관들, 고문관들, 재무관들, 재판관들, 행정관들, 그리고 지방의 모든 관리가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세운 상의 봉헌식에 모여들었다. 네부카드네자르가 세운 상 앞에 그들이 서자,
- 4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여, 그대들에게 내리는 명령이오.
- 5 뿔 나팔, 피리, 비파, 삼각금, 수금, 풍적 등 모든 악기 소리가 나거든 엎드려, 네부카드네자르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 상에 절하십시오.

- 6 누구든지 앞드려 절하지 않으면, 곧바로 타오르는 불가마 속으로 던져질 것이요."
- 7 그리하여 빨 나팔, 피리, 비파, 삼각금, 수금 등 모든 악기 소리가 나자마자,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모두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에 세운 금 상에 절하였다.

다니엘의 세 동료가 고발되다

- 8 그때에 어떤 칼데아인들이 나서서 악의로 유대인들을 고발하였다.
- 9 그들이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 10 임금님, 임금님께서서는 칙령을 내리시어, 빨 나팔, 피리, 비파, 삼각금, 수금, 풍적 등 모든 악기 소리가 나면, 누구나 앞드려 금 상에 절하라고 하시고,
- 11 또 누구든지 앞드려 절하지 않으면, 타오르는 불가마 속으로 던져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 12 그런데 임금님께서 바빌론 지방의 일을 말도록 임명하신 유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곧 사드락, 메삭, 아벳 느고입니다. 임금님, 이 사람들은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도 않고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으며,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 상에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 13 그러자 네부카드네자르는 몹시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느고를 끌어 오라고 분부하였다. 이 사람들이 임금 앞으로 끌려오자,
- 14 네부카드네자르가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 메삭, 아벳 느고! 너희가 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또 내가 세운 금 상에 절하지도 않는다니, 그것이 사실이나?"
- 15 이제라도 빨 나팔, 피리, 비파, 삼각금, 수금, 풍적 등 모든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너희가 앞드려, 내가 만든 상에 절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타오르는 불가마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그러면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 낼 수 있겠느냐?"

- 16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느고가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이 일을 두고 저희는 임금님께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 17 임금님, 저희가 섬기는 하느님께서 저희를 구해 내실 수 있다면, 그분께서는 타오르는 불가마와 임금님의 손에서 저희를 구해 내실 것입니다.
- 18 임금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저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 상에 절하지도 않을 터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동료가 불가마에 던져지다

- 19 그러자 네부카드네자르는 노기로 가득 차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느고를 보며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가마를 여느 때에 달구는 것보다 일곱 배나 더 달구라고 분부하였다.
- 20 또 군사들 가운데에서 힘센 장정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느고를 묶어 타오르는 불가마 속으로 던지라고 분부하였다.
- 21 그리하여 그 세 사람은 겹옷과 바지와 쓰개와 그 밖의 옷을 입은 채로 묶여서, 타오르는 불가마 속으로 던져졌다.
- 22 그런데 임금의 명령이 급박한 데다가 가마가 매우 뜨거웠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느고를 들어 올렸던 사람들이 불꽃에 타 죽고 말았다.
- 23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느고, 세 사람은 묶인 채로 타오르는 불가마 속으로 떨어졌다.

이자르야의 노래

- 24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찬미하며 불길 한기운대를 거닐었다.

- 25 그리고 아자리아는 불 한기운데에 우뚝 서서 입을 열어 이렇게 기도하였다.
- 26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칭송받으소서. 당신의 이름은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 27 저희에게 하신 모든 일마다 당신께서는 의로우시고 당신께서 하신 일은 모두 진실하며 당신의 길은 다 올바릅니다. 당신의 판결은 모두 진실입니다.
- 28 그 모든 것을 저희에게, 저희 조상들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내리실 적에 당신께서는 진실하게 판정하였습니다. 저희의 죄를 보시고 당신께서는 진실히 판결하시어 그 모든 것을 내리셨습니다.
- 29 저희는 당신에게서 멀어져 죄를 짓고 법을 어겼습니다. 정녕 저희는 모든 일에서 큰 죄를 지었고 당신의 계명들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 30 저희는 그것들을 따르지도 않고 잘되라고 저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 31 그러므로 저희에게 내리신 그 모든 것, 저희에게 하신 그 모든 것을 당신께서는 진실한 판결에 따라 행하셨습니다.
- 32 당신께서는 저희를 무도한 원수들, 가장 가증스러운 반역자들, 불의한 임금, 온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임금에게 넘기셨습니다.
- 33 이제 저희는 입을 열 수도 없습니다. 당신의 종들과 당신을 경배하는 이들에게는 수치와 치욕뿐입니다.
- 34 당신의 이름을 생각하시어 저희를 끝까지 저버리지 마시고 당신의 계약을 폐기하지 마소서.
- 35 당신의 벗 아브라함 당신의 종 이사악 당신의 거룩한 사람 이스라엘을 보시어 저희에게서 당신의 자비를 거두지 마소서.
- 36 당신께서는 그들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 주시겠다

고 약속하였습니다.

- 37 주님, 저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죄 때문에 저희는 오늘 온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 38 지금 저희에게는 제후도 예언자도 지도자도 없고 반제물도 희생 제물도 예물도 분향도 없으며 당신께 제물을 바쳐 자비를 얻을 곳도 없습니다.
- 39 그렇지만 저희의 부서진 영혼과 검문해진 정신을 보시어 저희를 숭양과 황소의 반제물로, 수만 마리의 살진 양으로 받아 주소서.
- 40 이것이 오늘 저희가 당신께 바치는 희생 제물이 되어 당신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하소서. 정녕 당신을 신뢰하는 이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 41 이제 저희는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따릅니다.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의 얼굴을 찾습니다. 저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소서.
- 42 당신의 호의에 따라,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희를 대해 주소서.
- 43 당신의 놀라운 업적에 따라 저희를 구하시어 주님,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 44 당신의 종들에게 악행을 저지른 자들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모든 권세와 세력을 빼앗긴 채, 권력이 꺾인 채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 45 그리하여 당신께서 주님이심을, 하니뿐인 하느님이심을, 온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님의 천사가 불기둥에 내려오다

- 46 세 젊은이를 가마 속으로 단진 임금의 종들은, 석녀유와 송진과 삼 부스더기와 나뭇가지로 끊임없이 가마에 불을 때었다.

- 47 그래서 불길이가 가마 위로 마흔이홉 암마나 치솟아 오르고,
 48 또 옆으로도 퍼져 나와 가마 둘레에 있던 칼데아인들을 태워 버렸다.
 49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가마 속 아자르야와 그의 동료들 곁으로 내려와서, 불길을 가마 밖으로 내몰고,
 50 가마 복판을 이슬 머금은 바람이 부는 것 처럼 만들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불에 닿지도 않고 아프거나 괴롭지도 않았다.

세 짝은이의 노래

- 51 그러자 세 짝은이가 가마 속에서 한목소리로 하느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드리며 찬미하였다.
 52 "주님,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당신은 칭송과 드높은 찬양을 영원히 받으실 분이십니다. 당신의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당신의 이름은 드높은 칭송과 드높은 찬양을 영원히 받으실 이름입니다.
 53 당신의 거룩한 영광의 성전에서 찬미받으소서. 당신은 드높은 찬송과 드높은 영광을 영원히 받으실 분이십니다.
 54 당신의 왕좌에서 찬미받으소서. 당신은 드높은 찬송과 드높은 찬양을 영원히 받으실 분이십니다.
 55 커튼들 위에 좌정하시어 깊은 곳을 내려다 보시는 당신께서는 찬미받으소서. 당신은 칭송과 드높은 찬양을 영원히 받으실 분이십니다.
 56 하늘의 궁창에서 찬미받으소서. 당신은 찬송과 영광을 영원히 받으실 분이십니다.
 57 주님의 업적들이,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58 주님의 천사들이,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59 하늘이,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60 하늘 위 물들이,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61 주님의 군대들이,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62 해와 달이,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63 하늘의 별들이,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64 비와 이슬이,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65 바람이,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66 불과 열이,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67 추위와 더위야,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68 이슬과 소나기야,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69 서리와 추위야,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70 얼음과 눈이,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71 밤과 낮들이,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72 빛과 어둠이,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73 번개와 구름이,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74 땅이,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75 산과 언덕들이,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76 땅에서 싹트는 것들이,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

하여라.

- 77 새들이,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 78 바다와 강들이,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 79 용들과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 80 하늘의 새들이,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 81 들짐승과 짐짐승들이,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 82 사립들이,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 83 이스라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 84 주님의 사제들이,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 85 주님의 종들이,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 86 의인들의 정신과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 87 거룩한 이들과 마음이 겸손한 이들이,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 88 하난아와 아자르아와 미사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우리를 저승에서 구해 주시고 죽음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으며 불길에 타오르는 가마에서 건져 내시고 불 속에서 건져 내셨다.
- 89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분께서는 선하시고 그 자비는 영원하시다.
- 90 주님을 경배하는 이들이, 모두 신들의 신을 찬미하여라.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감사

하여라.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네부카드네자르가 기적을 보고 하느님을 찬미하다

- 91 (24)그때에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의 깜짝 놀라 급히 일어서서 자문관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불 속으로 던진 사람은 세 명이 아니더냐?" 그들이 "그렇습니다, 임금님." 하고 대답하자,
- 92 (25)임금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 결박이 풀렸을 뿐만 아니라, 다친 곳 하나 없이 불 속을 거닐고 있다. 그리고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 같구나."
- 93 (26)그리고 나서 네부카드네자르는 타오르는 불기둥 아래로 다가가서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느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느고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느고가 불 속에서 나왔다.
- 94 (27)총독들과 태수들과 지방관들과 임금의 자문관들이 모여 와서는, 불도 그 사람들의 몸을 어찌하지 못하여,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고 겉옷도 아무렇지 않을뿐더러, 불길에 닿은 냄새조차 나지 않음을 보았다.
- 95 (28)네부카드네자르가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느고의 하느님께서서는 찬미 받으소서. 그분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보내 시어, 자기들의 하느님을 신뢰하여 몸을 바치면서까지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의 하느님 말고는 다른 어떠한 신도 섬기거나 절하지 않은 당신의 종들을 구해 내셨다.
- 96 (29)이제 나는 칙령을 내린다. 어떠한 민족이나 나라나 언어권에서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느고의 하느님께 욕되는 말을 하는 자는 사지가 찢겨 나가고 그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처럼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신은 다시 없다."

97 (30) 그러고 나서 임금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느그에게 바빌론 지방에서 높은 벼슬을 내렸다.

네부카드네자르가 다시 꿈을 꾸다

98 (31)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온 세상에 사는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고한다. 그대들이 큰 평화를 누리기 바란다.

99 (32) 가장 높으신 하느님께서 나를 위하여 배푸신 표징들과 기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진다.

100 (33) 그분의 표징들은 얼마나 위대한가! 그분의 기적들은 얼마나 강력한가!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그분의 통치는 대대로 이어지리라.

4 ¹ 나 네부카드네자르는 집에서 편히 지내며 궁궐에서 영화를 누리고 있었다.

2 그러다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하였다. 침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상과

3 그래서 나는 칙령을 내려, 바빌론의 현인들을 모두 데려다가 나에게 꿈의 뜻을 설명하라고 하였다.

4 요술사, 주술사, 점성가, 점술사들이 오자, 내가 그들에게 꿈을 이야기해 주었지만, 그들은 나에게 그 뜻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5 마침내 다니엘이 나에게 왔다.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트사차르라는 이름을 가진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꿈을 이야기해 주었다.

6 "요술사들의 우두머리 벨트사차르야, 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녔으며 어떠한 신비도 너에게는 어렵지 않음을 나는 안다. 내가 본 꿈은 이리하니 그 뜻을 말해 보아라.

7 침상에 누워 있을 때에 나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환시를 보았다. 나무가 한 그루 보였

다. 세상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높이가 엄청난 나무였다.

8 그 나무가 더욱 크고 튼튼하게 자라서 높이가 하늘까지 닿으니 세상 끝 어디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었다.

9 잎은 이름답고 열매는 풍성하여 모든 사람의 양식이 될 수 있었다. 그 그늘 밑으로는 들짐승들이 찾아들고 그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이며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양식을 얻었다.

10 침상에 누운 나는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환시를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하늘에서 거룩한 감시자가 내려와

11 큰 소리로 외쳤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저 나무를 베어라. 가지는 잘라 내고 잎은 떨어 버리고 열매는 흠어 버려라. 짐승들을 그 밑에서,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어라.

12 그러나 뿌리등걸은 땅에 남겨 두어라. 쇠사슬과 청동 사슬로 묶어 들풀 사이에 남겨 두어라.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은 채 땅의 잡초들 사이에서 짐승들과 운명을 함께하게 하여라.

13 그 마음이 바뀌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을 지니고 일곱 해를 지내게 하여라.

14 이는 감시자들의 결정에 따른 명령이며 거룩한 이들의 지시에 따른 판결로서 가장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나라를 지배하심을 살아 있는 자들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원하시는 이에게 그 나라를 주시고 가장 낮은 사람을 그 나라 위에 세우신다.'

15 이것이 나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본 꿈이다. 벨트사차르야, 이제 내가 그 뜻을 말해 보아라. 내 나라의 현인들은 아무도 그 뜻을 나에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녔으니 할 수 있지

않느냐?"

다니엘이 꿈의 뜻을 밝히다

- 16 벨트사차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은 잠시 당황하였다. 임금의 생각들이 그를 놀라게 한 것이다. 그러자 임금이 말하였다. "벨트사차르야, 내 꿈과 그 뜻이 너를 놀라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제야 벨트사차르가 대답하였다. "임금님, 그 꿈이 임금님의 원수들에게, 그 뜻이 임금님의 적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17 임금님께서 보신 그 나무는 크고 튼튼하게 자라서 높이가 하늘까지 닿아, 세상 어디에 서도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 18 잎은 이름답고 열매는 풍성하여 모든 사람의 양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그늘 밑에는 들짐승들이 깃들이고, 그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 19 임금님, 그 나무는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임금님께서 크고 튼튼하게 자라셨습니다. 임금님의 위력은 더욱 커져 하늘까지 닿고, 임금님의 통치는 땅 끝까지 이르렀습니다.
- 20 그런데 임금님께서 하늘에서 거룩한 감시자가 내려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또 보셨습니다. '저 나무를 베어 없애 버려라. 그러나 뿌리등걸은 땅에 남겨 두어라. 쇠 사슬과 청동 사슬로 묶어 들뜰 사이에 남겨 두어라.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은 채, 들짐승들과 운명을 함께하게 하여라. 일곱 해를 지낼 때까지 그렇게 하여라.'
- 21 임금님, 꿈의 뜻은 이러합니다. 그것은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 내리신 가장 높이신분의 결정입니다.
- 22 임금님께서 사람들을게서 쫓겨나 들짐승들과 함께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소처럼 풀을 드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

실 것입니다. 그렇게 일곱 해를 지내시고 나서야, 임금님께서 비로소 가장 높이신 분께서 인간들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이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겠습니까.

- 23 또 그 나무의 뿌리등걸을 남겨 두라고 한 것은, 하늘이 세상을 다스림을 임금님께서 깨달으신 다음에야, 임금님의 나라가 임금님께 되돌려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 24 그러니 임금님, 저의 조언이 임금님께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일을 하시어 죄를 벗어나고, 가난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불의를 벗어나십시오. 그리하시면 임금님의 번영이 지속될지도 모릅니다."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다

- 25 이 모든 것이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 26 열두 달이 지난 뒤, 임금은 바빌론에 있는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 27 혼자 말하였다. "이것이 대바빌론이 아니냐? 내가 영광과 영화를 떨치려고 나의 강력한 권세를 행사하여 왕도로 세운 것이다."
- 28 이 말이 임금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아, 너에게 내리는 판결이다. 왕권이 너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 29 너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짐승들과 함께 살 것이다. 그래서 너는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일곱 해를 지내고 나서야, 너는 비로소 가장 높이신 분께서 인간들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 30 이 말이 곧바로 네부카드네자르에게 이루어졌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졌으며, 머리카락은 독수리처럼, 손발톱은 새처럼 자라기까지 하였다.

- 31 기한이 찼을 때에 나 네부카드네자르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때에 나는 정신을 되찾아, 가장 높으신 분께 영광을 드리고 영원히 살아 계신 분을 찬양하고 찬송하였다. 그분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이고 그분의 나라는 대대로 이어지리라.
- 32 세상의 모든 주민은 그분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그분께서 하늘의 군대와 세상 주민들에게 당신 뜻대로 하시지만 그분의 손을 막고 "왜 그리하십니까?" 하고 말자 아무도 없다.
- 33 바로 그때에 나는 정신을 되찾았다. 그리고 내 나라의 영광을 드높이는 영화와 영에도 되찾았다. 나의 자문관들과 대신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나는 내 왕권을 회복하고 더욱 더 큰 위력을 얻었다.
- 34 이제 나 네부카드네자르는 하늘의 임금님을 찬양하고 숭상하며 찬송한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진실하고 그 길은 다 공정하니 그분께서는 교만 속에 걷는 자들을 낮추실 수 있는 분이시다.

왕궁 밖에 글자가 저절로 쓰여지다

- 5 ¹ 벨사차르 임금의 천 명에 이르는 자기 대신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벌이고, 그 천 명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 2 술기운이 퍼지자 벨사차르는 자기 아버지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기물들을 내오라고 분부하였다. 임금은 대신들과 왕비와 후궁들과 함께 그것으로 술을 마시려는 것이었다.
- 3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곧 하느님의 집에서 가져온 금 기물들을 내오자, 임금은 대신들과 왕비와 후궁들과 함께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 4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금과 은, 청동과 쇠,

나무와 돌로 된 신들을 찬양하였다.

- 5 그런데 갑자기 사람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 왕궁 석고 벽에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임금은 글자를 쓰는 손을 보고 있었다.
- 6 그러다가 임금은 얼굴빛이 달라졌다. 떠오르는 생각들이 그를 놀라게 한 것이다. 허리의 뼈마디들이 풀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 7 임금은 큰 소리로 주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점술사들을 데려오라고 외쳤다. 임금은 또 바빌론의 현인들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 글자를 읽고 그 뜻을 밝혀 주는 사람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어 주고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겠다."
- 8 그리하여 임금의 현인들이 모두 들어왔지만,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임금에게 그 뜻을 설명하지도 못하였다.
- 9 벨사차르 임금은 크게 놀라며 얼굴빛이 달라지고 대신들은 혼란에 빠졌다.
- 10 그때에 왕후가 임금과 대신들이 하는 말을 전해 듣고 연회장으로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임금님께서서는 이런저런 생각으로 놀라시거나 얼굴빛이 달라지실 까닭이 없습니다.
- 11 임금님의 나라에는 거룩하신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임금님의 아버지 시대에 그는 형언과 통찰력과 신들의 지혜 같은 지혜를 지닌 사람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하여 임금님의 아버지 네부카드네자르 임금님께서서는 그 사람을 요술사들과 주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점술사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 12 네부카드네자르 임금님께서 벨트사차르라는 이름을 지어 주신 그 다니엘이, 빼어난 정신과 지식과 통찰력을 지니, 꿈을 해석하고 수수께끼를 풀며 어려운 문제들을 풀

어내는 사람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그가 저 글자의 뜻을 밝혀 줄 것입니다."

다니엘이 글자를 해독하다

- 13 이렇게 하여 다니엘이 임금 앞으로 불러왔다. 임금이 다니엘에게 물었다. "그대가 바로 나의 부왕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배자들 가운데 하신 다니엘인가?"
- 14 나는 그대가 신들의 영을 지녔을뿐더러, 형인과 통찰력과 빼어난 지혜를 지닌 사람으로 드러났다는 말을 들었다.
- 15 저 글자를 읽고 그 뜻을 나에게 설명하도록 현인들과 주술사들이 내 앞으로 불러왔지만, 그 뜻을 밝히지 못하였다.
- 16 또 나는 그대가 뜻풀이를 잘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이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제 그대가 저 글자를 읽고 그 뜻을 나에게 설명해 줄 수 있다면, 그대에게 자주씩 옷을 입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어 주고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겠다."
- 17 그러자 다니엘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선물을 거두시고 임금님의 상도 다른 이에게나 내리십시오. 그래도 저는 저 글자를 임금님께 읽어 드리고 그 뜻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18 임금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의 아버지 네부카드네자르 님께 왕권과 위력과 영광과 영화를 베푸셨습니다.
- 19 하나님께서 그분께 배후신 그 위력 때문에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분 앞에서 떨며 무서워하였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으며,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 20 그러나 마음이 우쭐해지고 정신이 완고해

져 오만하게 행동하시다가, 왕좌에서 내몰리시고 영광도 빼앗기셨습니다.

- 21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시어 마음이 짐승처럼 되었고, 들나귀들과 함께 사시면서 소처럼 풀을 드셨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를 그 나라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 22 그런데 이제 그분의 아드님인 벨사차르 님, 임금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 23 오히려 하늘의 주님을 거슬러 자신을 들어 높이셨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던 기물들을 임금님 앞으로 가져오게 하시어, 대신들과 왕비와 후궁들과 함께 그것으로 술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 청동과 쇠, 나무와 돌로 된 신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임금님의 목숨을 손에 잡고 계시며 임금님의 모든 길을 쥐고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셨습니다.
- 24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손을 보내셔서 저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 25 그렇게 쓰여진 글자는 '므네 므네 트켈', 그리고 '파르신'입니다.
- 26 그 뜻은 이렇습니다. '므네'는 하나님께서 임금님 나라의 날수를 헤아리시어 이 나라를 끝내셨다는 뜻입니다.
- 27 '트켈'은 임금님을 저울에 달아 보니 무게가 모자랐다는 뜻입니다.
- 28 '파르스'는 임금님의 나라가 돌로 갈라져서, 메디아인들과 페르시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 29 그러자 벨사차르는 분부를 내려, 다니엘에게 자주씩 옷을 입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어 주고 그가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

자가 된다고 선포하게 하였다.

- 30 바로 그날 밤에 칼데아 임금 벨사차르가 살해되었다.

6 ¹ 그리고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이어받았다. 그의 나이 예순 두 살이었다.

다니엘이 모함을 받다

² 다리우스는 자기의 뜻대로 나라에 총독 백스무 명을 세워, 온 나라에 두루 주재하게 하고

³ 그들 위로 다시 재상 세 사람을 임명하였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임금에게 손실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총독들은 이 재상들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되어 있었다.

⁴ 다니엘은 빼어난 정신을 지녀 다른 재상들이나 총독들보다 뛰어났다. 그래서 임금은 다니엘을 온 나라 위에 세우려고 생각하였다.

⁵ 그러자 다른 재상들과 총독들은 다니엘에게서 나라와 관련된 죄과를 찾아내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죄과나 과실도 찾아낼 수가 없었다. 다니엘이 충실한 사람이어서 아무런 태만이나 과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⁶ 그래서 그들은 서로 "저 다니엘이 믿는 하느님의 법과 관련하여 무엇을 찾아내기 전에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과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⁷ 그리하여 그 재상들과 총독들은 임금에게 물려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다리우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⁸ 나라의 모든 재상, 그리고 태수들과 총독들과 자문관들과 지방관들은, 임금님께서 법령을 세우시고 금령을 엄하게 만드셔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금님, 앞으로 서

른 날 동안 임금님 말고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 올리는 자는 누구든지 사자 굴에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⁹ 이제 임금님,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서명하시어, 철회할 수 없는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 그것을 바꾸지 못하게 하십시오."

¹⁰ 그리하여 다리우스 임금은 그 금령 문서에 서명하였다.

다니엘이 사자 굴에서 살아 나온다

¹¹ 다니엘은 임금이 그 문서에 서명하였다는 것을 알고 자기 집으로 갔다. 그의 집 옥상 방 창문은 예루살렘 쪽으로 나 있었다. 그는 이전에도 늘 그러하였듯이, 하루에 세 번 무릎을 꿇고 자기의 하느님께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다.

¹² 그때에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니엘이 그의 하느님께 기도와 간청을 올리는 것을 발견하였다.

¹³ 그래서 그들은 임금에게 다가가서 금령과 관련하여 말하였다. "임금님, 앞으로 서른 날 동안 임금님 말고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 올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 굴에 던진다는 금령에 서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임금이 "그것은 철회할 수 없는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 확실하오." 하고 대답하자,

¹⁴ 그들이 다시 임금에게 말하였다. "임금님, 유대에서 온 유배자들 가운데 하닌인 다니엘이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도 않고, 임금님께서 서명하신 금령에도 경의를 표하지 않은 채,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¹⁵ 임금은 이 말을 듣고 몹시 괴로웠다. 그는 다니엘을 살려 내기로 결심하고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구하려고 노력하였다.

¹⁶ 그러자 그 사람들이 임금에게 물려가서 말

- 하였다. "임금님, 임금이 세운 금령과 법령은 무엇이든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임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 17 그러하여 임금이 분부를 내리자 사람들이 다니엘을 끌고 가서 사자 굴에 던졌다. 그 때에 임금이 다니엘에게, "네가 성실히 섬기는 너의 하느님께서 너를 구해 내시기를 본다." 하고 말하였다.
- 18 사람들이 돌 하나를 굴러다가 굴 어귀를 막아 놓자, 임금은 자기의 인장 반지와 대신들의 인장 반지로 그곳을 봉인한 다음, 다니엘에게 내린 어떠한 조치도 바꾸지 못하게 하였다.
- 19 그리고 나서 임금은 궁궐로 돌아가 단식하며 밤을 지냈다. 여자들도 자기 앞으로 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는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 20 새벽에 날이 밝자마자 임금은 일어나 서둘러 사자 굴로 갔다.
- 21 다니엘이 있는 굴에 가까이 이르러, 그는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외쳤다. "살아 계신 하느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성실히 섬기는 너의 하느님께서 너를 사자들에게서 구해 내실 수 있었느냐?"
- 22 그러자 다니엘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 23 저의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저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그분 앞에서 무죄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금님, 저는 임금님께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 24 임금은 몹시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 올리라고 분부하니, 사람들이 그를 굴에서 끌어 올렸다. 다니엘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보이지 않았다. 그가 자기의 하느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 25 임금은 분부를 내려, 악의로 다니엘을 고발한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자식들과 아내들과 함께 사자 굴 속으로 던지게 하였다. 그들이 굴 바닥에 채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 그들의 뼈를 모조리 부수어 버렸다.
- 26 그 때에 다리우스 임금은 온 세상에 사는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렸다. "그대들이 큰 평화를 누리기를 바란다.
- 27 나는 칙령을 내린다. 내 나라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곳에서는 누구나 다니엘의 하느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한다. 그분은 살아 계신 하느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나라는 불멸의 나라 그분의 통치는 끝까지 이어진다.
- 28 그분은 구해 내시고 구원하시는 분 하늘과 땅에서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들의 손에서 구해 내셨다."
- 29 다니엘은 다리우스의 통치 때와 페르시아의 키루스 통치 때에 이렇게 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다니엘이 네 마리 짐승의 환시를 보다

- 7¹ 바빌론 임금 벨사차르 제일년, 다니엘은 침상에 누워 있을 때 꿈과 머릿속에 떠오르는 환시를 보았다. 그는 그 꿈을 적어 두었는데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 2 다니엘이 말하였다. "내가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불어오는 네 바람이 큰 바다를 휘저었다.
- 3 그러자 서로 모양이 다른 거대한 짐승 네 마리가 바다에서 올라왔다.
- 4 첫 번째 것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그것은 날개가 뽑히더니 땅에서 들어 올려져 사람처럼 두 발로 일으켜 세워진 다음, 그것

에게 사람의 마음이 주어졌다.

5 그리고 다른 두 번째 짐승은 꿈처럼 생겼다. 한쪽으론만 일으켜져 있던 이 짐승은 입속 이빨 사이에 갈비 세 개를 물고 있었는데, 그것에게 누군가 이렇게 말하였다. ' 일어나 고기를 많이 먹어라.'

6 그 뒤에 내가 다시 보니 표범처럼 생긴 또 다른 짐승이 나왔다. 그 짐승은 등에 새의 날개가 네 개 달려 있고 머리도 네 개였는데, 그것에게 통치권이 주어졌다.

7 그 뒤에 내가 계속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었는데, 끽씩하고 무시무시하고 아주 튼튼한 네 번째 짐승이 나왔다. 커다란 쇠 이빨을 가진 그 짐승은 먹이를 먹고 으스러뜨리며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다. 그것은 또 앞의 모든 짐승과 다르게 생겼으며 빨을 열 개나 달고 있었다.

8 내가 그 빨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들 사이에서 또 다른 자그마한 빨이 올라왔다. 그리고 먼저 나온 빨 가운데에서 세 개가 그것 앞에서 뿔뿔히 나갔다. 그 자그마한 빨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도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어 대고 있었다."

연로하신 분과 사람의 아들에 관한 환시를 보다

9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옥좌들이 놓이고 연로하신 분께서 자리에 앉으셨다.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카락은 깨끗한 양털 같았다. 그분의 옥좌는 불꽃 같고 옥좌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았다.

10 불길기 강물처럼 뿔어 나왔다. 그분 앞에서 터져 나왔다. 그분을 사중드는 이가 백만이요 그분을 모시고 선 이가 억만이었다. 법정이 열리고 책들이 퍼졌다.

11 그 뒤에 그 빨이 떠들어 대는 거만한 말소리 때문에 나는 그쪽을 보았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그 짐승이 살해되고 몸은 부서져 타는 불에 던져졌다.

12 그리고 나머지 짐승들은 통치권을 빼앗겼으나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

13 내가 이렇게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14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천사가 환시의 뜻을 풀이해 주다

15 "나 다니엘은 정신이 산란해졌다. 머릿속에서 떠오른 그 환시들이 나를 놀라게 하였다.

16 그래서 나는 그곳에서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에게 다가가서, 이 모든 일에 관한 진실을 물었다. 그러자 그가 그 뜻을 나에게 알려 주겠다고 말하였다.

17 ' 그 거대한 네 마리 짐승은 이 세상에 일어난 네 임금이다.

18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이 그 나라를 이어받아 영원히, 영원무궁히 차지할 것이다.'

19 나는 다른 모든 짐승과 달리 몹시 끽씩하게 생겼고 쇠 이빨과 창동 발톱을 가졌으며, 먹이를 먹고 으스러뜨리며 남은 것은 발로 짓밟는 네 번째 짐승에 관한 진실을 알고 싶었다.

20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 있던 열 개의 빨과 나중에 올라온 또 다른 빨에 관한 진실도 알고 싶었다. 그 다른 빨 앞에서 빨 세 개가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그 다른 빨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도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어 대고 있었으며, 다른 것들보다 더 커 보였다.

21 내가 보니 그 빨은 거룩한 백성과 전쟁을 벌여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 22 마침내 연로하신 분께서 오셨다. 그리하여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 권리가 되돌려졌다. 이 거룩한 백성이 나라를 차지할 때가 된 것이다.
- 23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네 번째 짐승은 이 세상에 생겨날 네 번째 나라이다. 그 어느 나라와도 다른 이 나라는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짓밟으며 으스스르르리라.
- 24 뿔 열 개는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임금이 다. 그들 다음으로 또 다른 임금이 일어날 터인데 앞의 임금들과 다른 이 임금은 그 가운데에서 세 임금을 쓰러뜨리리라.
- 25 그는 가장 높으신 분을 거슬러 떠들어 대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을 괴롭히며 축제일과 법마저 바꾸려고 하리라. 그들은 일 년, 이 년, 반년 동안 그의 손에 남기지리라.
- 26 그러나 법정이 열리고 그는 통치권을 빼앗겨 완전히 패망하고 멸망하리라.
- 27 나라와 통치권과 온 천하 나라들의 위력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그들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고 모든 통치자가 그들을 섬기고 복종하리라.'
- 28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난다. 나 다니엘은 떠오르는 생각들로 몹시 놀라 얼굴빛마저 달라졌지만, 이 일을 마음에 잔직하였다."

다니엘이 숫양과 숫염소의 환시를 보다

- 8¹ 벨사차르 임금의 통치 제삼년, 나 다니엘은 처음 본 것에 이어서 또 다른 환시를 보게 되었다.
- 2 나는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엘람 지방의 수사 성에 있는 것이었다. 나는 올라이 강가에 있었다.
- 3 내가 눈을 들어 보니, 뿔이 두 개 달린 숫양 한 마리가 강 옆에 서 있었다. 그 두 뿔이 다 길었는데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길었다.
- 4 더 긴 뿔이 나중에 올라온 것이었다.
- 5 내가 보니 그 숫양이 서쪽으로, 북쪽으로, 또 남쪽으로 들이받는데, 어떤 짐승도 그 숫양을 당해 내지 못하고 그 손에서 아무것도 빼내지 못하였다. 그 숫양은 제멋대로 행동하며 더욱 강력해졌다.
- 6 나는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에 숫염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 오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만큼 재빠르게 온 세상을 가로지르며 오는 것이었다. 그 숫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당당한 뿔 하나가 나 있었다.
- 7 그 숫염소는, 강가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던 그 두 뿔 달린 숫양에게 다가가서,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었다.
- 8 내가 보니 그 숫염소가 숫양 곁으로 가서는 분노를 터뜨리며 숫양을 쳐서 두 뿔을 부수어 버렸다. 숫양은 숫염소를 당해 낼 힘이 없었다. 또 숫염소가 숫양을 땅에 내동댕이치고 짓밟아도, 그 손에서 숫양을 빼낼 자가 하나도 없었다.
- 9 그리하여 그 숫염소는 매우 강력해졌다. 그러나 한창 힘이 셀 때에 그 큰 뿔이 부서지고, 그 자리에 당당한 뿔 네 개가 사방 하늘로 올라갔다.
- 10 그 뿔들 가운데 하나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와, 남쪽으로, 동쪽으로, 그리고 영화로운 땅 쪽으로 몹시 쾅쳐 갔다.
- 11 그것은 하늘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지더니, 그 군대와 별들 가운데에서 일부를 땅에 떨어뜨려 짓밟았다.
- 12 또 그 군대의 장수에게까지 오만하게 행동하더니, 그분께 바치는 일일 번제를 없애고 그분 성소의 토대를 뒤엎어 버렸다.
- 13 그 군대는 죄악으로 바뀌어 버린 일일 번제와 함께 그 뿔에게 넘겨졌다. 그 뿔은 진리를 땅에 내동댕이치면서도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었다.
- 14 그런데 내가 들으니, 어떤 거룩한 이가 말

을 하고 또 다른 거룩한 이가 먼저 말한 거룩한 이에게 묻는 것이었다. "일일 번째, 파멸을 가져오는 저 죄악, 성소가 넘겨지고 군대가 짓밟히는 일, 환시에 나타난 이 일들이 언제까지나 지속되겠습니까?"

- 14 먼저 말한 거룩한 이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저녁과 아침이 이천삼백 번 바뀔 때까지입니다. 그제야 성소가 복구될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환시를 설명하다

- 15 나 다니엘이 이러한 환시를 보고서 그 뜻을 깨달아 보려고 하는데, 장정처럼 보이는 이가 내 앞에 서 있었다.

- 16 그때에 나는 울라이 강 위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부르며 말하는 것이었다. "가브리엘아, 저 사람이 환시를 깨닫게 해 주어라."

- 17 그러자 가브리엘이 내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본 나는 깜짝 놀라 엎드렸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사람의 아들이라, 깨달아라. 환시는 종말의 때에 관한 것이다."

- 18 그가 나에게 말할 때에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혼수상태에 빠졌다. 그는 나를 잡아 일으켜 세우고서

- 19 말하였다. "자, 진노의 심판 끝에 무엇이 일어날지 너에게 알려 주겠다. 이는 정해진 종말의 때에 관한 것이다.

- 20 뿔이 두 개 달린 숫양을 내가 보았는데, 그것들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임금들이다.

- 21 숫염소는 그리스 임금이고, 두 눈 사이에 있던 큰 뿔은 그 첫 임금이다.

- 22 그 뿔이 부서지고 그 자리에 생긴 네 뿔은 한 왕국에서 생겨날 네 나라인데, 그것들이 그 왕국의 힘은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 23 그들의 통치 끝에 죄악이 가득 차면 얼굴이 뻘뻘하고 술수에 능란한 임금이 일어나리라.

- 24 그는 힘이 점점 세어질 터인데 제힘으로 그리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끔찍스러운 파괴를 자행하면서도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리라. 또 힘센 이들과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키리라.

- 25 그는 재간이 좋아 제 손으로 속임수도 성공을 거두게 하니 마음속으로 오만해져 불시에 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키리라. 그러나 제후들의 제후에게까지 맞서다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도 부서지리라.

- 26 내가 설명한 저녁과 아침의 환상은 진실이다. 그러나 아직 멀었으니 너는 이 환시를 봉인해 두어라."

- 27 나 다니엘은 기운이 빠져서 여러 날 동안 아팠다. 그런 다음에 일어나 임금의 일을 거들었지만, 그 환상 때문에 당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뜻도 깨닫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깊이 생각하다

- 9¹ 메디아족 출신으로 칼데아 나라 임금이 된, 크세르크세스의 아들 다리우스 제일년이었다.

- 2 그의 통치 제일년에 나 다니엘은 성경을 펴 놓고,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내린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채 채워야 하는 햇수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일흔 해였다.

- 3 그리하여 나는 단식하고 자루옷을 두르고 재를 쓴 채, 기도와 간청으로 탄원하려고 주 하나님께 얼굴을 돌렸다.

다니엘이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하다

- 4 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며 이뢰었다. "아, 주님! 위대하시고 경외로우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 계약과 자애를 지키시는 분!

- 5 저희는 죄를 짓고 불의를 저질렀으며 악을

행하고 당신께 거역하였습니다. 당신의 계명과 법규에서 벗어났습니다.

6 저희는 저희의 임금들과 고관들과 조상들과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당신의 종 예언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7 주님, 당신께서는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저희는 오늘 이차림 얼굴에 부끄러움만 가득합니다. 유다 사람, 예루살렘 주민들, 그리고 가까이 살든 멀리 살든, 당신께 저지른 배신 때문에 당신께서 내쫓으신 그 모든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8 주님, 저희의 임금들과 고관들과 조상들을 비롯하여 저희는 모두 얼굴에 부끄러움만 가득합니다.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지았기 때문입니다.

9 주 저희 하느님께서서는 자비하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께 거역하였습니다.

10 주 저희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당신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저희 앞에 내놓으신 법에 따라 걷지 않았습니다.

11 온 이스라엘은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당신의 율법을 어기고 그것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쓰인 저주와 맹세가 저희에게 쏟아졌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12 그리하여 주님께서서는 저희에게 큰 불행을 내리시어, 저희와 저희를 다스린 통치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것과 같이 그렇게 큰 불행은 온 천하 어디에서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13 모세의 율법에 쓰인 대로 이 모든 불행이 저희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의 죄악에서 돌아서지도 않고 당신의 성실

하심을 깨닫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 저희 하느님께 호의를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14 주님께서서는 그 불행을 간수하셨다가 저희에게 내리셨습니다. 정녕 주 저희 하느님께서서는 하시는 일마다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15 이제, 주 저희 하느님! 당신께서는 강한 손으로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시어, 오늘날까지도 명성을 떨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죄를 짓고 악을 저질렀습니다.

16 주님, 당신의 그 모든 의로운 업적을 보시어, 당신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당신의 분노와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저희의 죄와 저희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과 당신의 백성이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수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17 그러니 이제 저희의 하느님, 당신 종의 기도와 간청을 들어 주십시오. 주님, 당신 자신을 생각하시어 황폐한 당신의 성소에 당신 얼굴의 빛을 비추십시오.

18 저의 하느님, 귀를 기울여 들어 주십시오. 눈을 뜨시어 저희의 폐허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도성을 보십시오. 저희가 당신 앞에 간청을 올리는 것은 저희의 어떤 의로운 업적이 아니라, 당신의 크신 자비 때문입니다.

19 주님, 들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귀여겨들으시고 행동해 주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저의 하느님, 당신 자신을 생각하시어 그리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도성과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이 예언의 뜻을 설명하다

20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하고 나의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며,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너의 하나님 앞에 간청을 올리고 있었다.

- 21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아뢰고 있는데, 지난번 환사에서 본 가브리엘이라는 이가 저녁 예물을 바칠 때에 빨리 날아서 나에게 다가왔다.
- 22 그렇게 와서 나에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내가 너를 깨닫게 해 주려고 이렇게 나왔다.
- 23 내가 간청하기 시작할 때에 이미 말씀이 내렸는데, 그것을 일러 주려고 내가 왔다. 내가 충애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 24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도성에 정해진 일흔 주간이 지나야 악행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속죄가 이루어지리라. 또한 영원한 정의가 펼쳐지고 환시와 예언이 확증되며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이 부어지리라.
- 25 그러니 너는 이것을 알고 이해해야 한다.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부터 기름부음 받은 영도자가 나올 때까지 일곱 주간이 흐르리라. 또 예순두 주간이 흐르는 동안 예루살렘이 복구되고 재건되어 광장과 외호까지 갖추겠지만 그 기간은 어려운 때가 되리라.
- 26 이렇게 예순두 주간이 흐른 다음 기름부음 받은이가 잘려 나가 그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으리라. 그리고 도성과 성소는 앞으로 일어날 군주의 군대가 허물어 버리리라. 그 종말은 홍수처럼 들이닥치리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남도록 결정되었다.
- 27 그 군주는 한 주간 동안 많은 이와 강력한 동맹을 맺고 반 주간 동안은 희색 재물과 곡식 재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리라. 성전 날개에는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이 세워져 황폐하게 만드는 그자에게 이미 결

정된 멸망이 쏟아질 때까지 서 있으리라."

다니엘이 티그리스 강 가에서 환시를 보다

- 10 ¹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제삼년에 벨트사차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다니엘에게 말씀이 계시되었다. 그 말씀은 진실이며 큰 싸움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그 말씀을 깨달았다. 환상 중에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 2 그때에 나 다니엘은 세 주 동안 고향을 하고 있었다.
- 3 나는 세 주간을 다 채울 때까지,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고 고기와 술을 입에 대지 않았으며 향유를 바르지도 않았다.
- 4 첫째 달 스무나흘날에 나는 큰 강 곧 티그리스 강가에 있었다.
- 5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보니, 아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파즈 금으로 만든 띠를 두른 사람 하나가 서 있었다.
- 6 그의 몸은 녹주석 같고 얼굴은 번개의 모습 같았으며, 눈은 햇불 같고 팔과 다리는 광을 낸 청동 같았으며, 그가 말하는 소리는 군중의 아우성 같았다.
- 7 나 다니엘만 그 환상을 보았다. 나와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는 못하고, 다만 커다란 공포가 그들을 달치는 바람에 달아나서 몸을 숨겼다.
- 8 나 혼자 남아서 그 큰 환상을 보았다. 나는 힘이 빠지고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힘이 하나도 없었다.
- 9 그때에 나는 그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나는 혼수상태에 빠지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졌다.
- 10 그러자 어떤 손이 나를 흔들어 무릎과 손으로 일어나게 하였다.
- 11 그러고 나서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충애를 받는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라. 일어서라. 나는 파

전되어 너에게 온 것이다." 그가 나에게 이 말을 할 때에 나는 떨면서 일어섰다.

- 12 그가 다시 나에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깨달음을 얻고 너의 하느님 앞에서 극기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하느님께서는 너의 말을 들으셨다. 너의 그 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온 것이다.
- 13 그런데 페르시아 나라의 제후 천사가 스무 하루 동안 내 앞을 가로막았다. 그래서 일 제후 천사들 가운데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오자, 나는 그를 그곳 페르시아 임금들 곁에 남겨 두었다.
- 14 그리고 나는 뒷날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네가 깨닫게 해 주려고 왔다. 이 환시는 그때와 관련된 것이다."
- 15 그가 이러한 말을 나에게 할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다.
- 16 그때에 사람 형상을 한 이가 내 입술에 손을 대었다. 그래서 나는 입을 열고 내 앞에서 있는 이에게 말하였다. "나리, 환상 때문에 고통이 들이닥쳐 저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 17 나리의 이 종이 어떻게 나리와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까? 이제 저는 힘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고 숨조차 쉴 수가 없습니다."
- 18 사람 모습을 한 이가 다시 나에게 손을 대며 힘을 북돋아 주었다.
- 19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충애받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힘을 내어라. 힘을 내어라." 그가 이러한 말을 할 때에 나에게 힘이 솟았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다. "나리께서 저에게 힘을 주셨으니 이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20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너는 내가 왜 너에게 왔는지 아느냐?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제후 천사와 싸워야 한다. 내가 그 일을 마치면 그리스의 제후 천사가 올

것이다.

- 21 이제 나는 진리의 책에 적힌 것을 너에게 알려 주려고 한다. 너희의 제후 천사 미카엘 말고는 나를 도와 그들을 대적할 이가 없다.

11 ¹ 이미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 제일년에 미카엘에게 힘을 북돋아 주고 그를 뒷받침해 주려고 나신 적이 있다."

천사가 이집트와 시리아에 관하여 설명하다

- 2 "이제 나는 너에게 진실을 알려 주겠다. 페르시아에는 앞으로 세 임금이 더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넷째가 나와 앞의 어느 임금보다도 큰 재물을 모을 터인데, 그렇게 재물을 모아 강력해지면, 그는 그리스 왕국을 치려고 온 나라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 3 그러나 용맹한 임금이 일어나 막강한 통치력을 행사하며 제멋대로 행동할 것이다.
- 4 그렇지만 그가 일어설 때마다 그의 나라는 부서져 천하 사방으로 나뉘는데, 그의 자손들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고 통치력도 그의 때와 같지 않을 것이다. 그의 나라가 뿌리째 뽑혀 그들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 5 남쪽 임금이 강력해지겠지만, 그의 장수들 가운데 하나가 그보다 더 강력해져서 그의 영토보다 더 큰 영토를 통치할 것이다.
- 6 몇 해 뒤에 그들은 동맹을 맺고, 협약을 비준하는 뜻으로 남쪽 임금의 딸이 북쪽 임금에게 시집갈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세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아들도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여자와 또 그 여자를 그리로 데려간 자들, 그 여자의 자식과 지지자가 적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때에
- 7 그 여자와 같은 뿌리에서 난 가지가 그 뒤를 이어 일어나, 북쪽 임금의 군대를 공격

- 하고 성체로 들어가 그들을 쳐 이길 것이다.
- 8 또한 그들의 신들과 주조 신상들, 은과 금으로 된 값진 기물들을 전리품으로 이집트에 가져가고 나서, 몇 해 동안 북쪽 임금을 내버려 둘 것이다.
- 9 그 뒤에 북쪽 임금이 남쪽 임금의 나라로 쳐들어가는 하겠지만, 곧 자기 땅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 10 그러나 북쪽 임금의 아들들이 전쟁을 벌이면서 수많은 군대를 모은 다음, 그들 가운데 하나가 마침내 쳐들어가는데, 물밑듯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남쪽 임금의 성체에 이르기까지 다시 싸움을 벌일 것이다.
- 11 남쪽 임금도 분노를 터뜨리며 나가서 북쪽 임금과 싸울 것이다. 그러면 북쪽 임금이 수많은 군사를 일으키겠지만, 그 군사들은 남쪽 임금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 12 그 군사들이 제거되면 남쪽 임금은 마음이 우울해져 수만 명을 쓰러뜨리겠지만, 우위를 차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 13 북쪽 임금은 처음보다 더 많은 군사를 다시 일으켜, 몇 해 뒤에 많은 물자와 함께 큰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갈 것이다.
- 14 그때에 많은 사람이 남쪽 임금을 거슬러 일어날 것이다. 네 백성 가운데에서도 난폭한 자들이 환시를 실현시키겠다고 봉기하겠지만 실패할 것이다.
- 15 북쪽 임금이 내려가서 공격 축대를 쌓고 요새 성읍을 함락하는데, 남쪽의 병력은 정에 부대까지도 그들을 당해 내지 못할 것이다. 당해 낼 힘이 없기 때문이다.
- 16 남쪽 임금을 공격하는 자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는데도, 그들을 아무도 당해 내지 못 것이다. 그렇게 하여 북쪽 임금이 영화로운 땅에 자리 잡으면, 모든 것이 그의 손안에 들어가고 말 것이다.
- 17 그는 남쪽 임금의 온 나라를 자기의 세력 아래로 끌어들이겠다고 결심하고서는, 그

와 화친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남쪽 임금에게 여자를 하나 주지만,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게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 18 그는 섬과 해안 지방으로 얼굴을 돌려 많은 곳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장군 하나가 그러한 그의 행패를 끝장내는데, 그는 자기가 당한 행패를 그 장군에게 되갚지도 못 것이다.
- 19 그 뒤에 그는 자기 땅의 성체들 쪽으로 얼굴을 돌리지만, 비틀거리다 넘어져 사라져 버릴 것이다.
- 20 그의 뒤를 이어 다른 임금이 일어나 나라의 영광스러운 곳으로 조공 징수관을 보내 기도 하지만, 다통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그 임금은 얼마 되지 않아 살해될 것이다."

시리아의 사악한 임금에 관하여 설명하다

- 21 "그의 뒤를 이어 멸시받아 마땅한 자가 일어나는데, 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불시에 나서서 모략으로 왕권을 잡을 것이다.
- 22 그 임금 앞에서 적군들이 완전히 쓸려 나가고 부서지는데, 계약의 영도자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 23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고 나서부터는 속임수를 쓰는데, 얼마 되지 않는 백성을 거느리면서도 위치가 올라가고 더욱 강해질 것이다.
- 24 그는 불시에 그 지방의 비옥한 곳으로 쳐들어가, 자기 부하들에게 전리품과 노략물과 그 밖의 물자를 뿌리며, 자기 조상들 가운데 아무도 하지 않은 짓을 할 것이다. 그리고 요새들을 칠 계획을 꾸미지만 한때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 25 그는 힘과 용기를 내어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쪽 임금을 치려고 할 터인데, 남쪽

임금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을 벌이면서도 당해 내지 못 것이다. 사람들이 남쪽 임금을 칠 계락을 꾸밀 것이기 때문이다.

26 그와 함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파멸 시키고, 그의 군대는 휩쓸려 가며 많은 사람이 살해되어 쓰러질 것이다.

27 그 두 임금이 마음속으로는 악을 품고서도 한 식탁에 마주 앉아 거짓말을 주고받았지만, 아무도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정해진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8 북쪽 임금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다가, 거룩한 계약을 해칠 마음을 품고 그 계획을 이룬 다음에야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29 정해진 때가 되면 그가 다시 남쪽으로 쳐들어갔지만, 그때는 먼젓번과 같지 않을 것이다.

30 키팀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오는 바람에 그는 겁을 내고 말 것이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에 거룩한 계약에 분풀이를 할 것이다. 그는 다시 돌아가서 거룩한 계약을 저버린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31 그리고 그가 보낸 병력이 자리를 잡고서는, 성소와 성채를 더럽히고 일일 번제를 폐지 하며,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을 세울 것이다.

32 그는 계약을 깨뜨리는 자들을 달콤한 말로 배교하게 만들겠지만, 저희 하느님께 충성스러운 백성은 굳건히 서서 행동할 것이다.

33 또 백성 가운데에서 현명한 이들은 많은 사람을 깨우쳐 줄 것이다. 그러나 얼마 동안 그들은 칼과 화염에 쓰러지고 유배와 약탈을 당할 것이다.

34 그들은 쓰러질 때에 도움을 조금밖에 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그들과 합류하겠지만 거짓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35 현명한 이들 가운데 일부가 이렇게 쓰러지

면서, 마지막 때가 되기까지 다른 이들이 단련되고 정화되고 순화되게 할 것이다. 아직 정해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36 임금은 제멋대로 행동하고 교만스레 자신을 들어 높이며 자기가 모든 신보다 위대하다고 여길뿐더러, 신들의 하느님을 두고 끔찍한 말까지 해 낼 것이다. 이렇게 그는 진노의 때가 다하기까지 성공을 거두리니, 결정된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37 그는 자기 조상들의 신들을 비롯하여, 여자들이 아끼는 신이며 그 밖의 모든 신을 무시할 것이다. 자기가 그 모든 신보다 위대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38 그리고 그들 대신에 성채의 신을, 제 조상들은 알지도 못하던 신을, 금과 은과 보석과 그 밖의 보물들을 바쳐 가며 공경할 것이다.

39 그는 그 낯선 신을 모시고 가장 견고한 요새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신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영광을 더해 주고 많은 사람을 다스리게 하며, 보수로 토지도 나누어 줄 것이다.

40 마지막 때에 남쪽 임금이 그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 북쪽 임금은 병거와 기병과 수많은 배를 거느리고 그에게 돌진해 갈 것이다. 여러 나라를 쳐들어가며 물밀듯이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41 북쪽 임금은 영화로운 땅으로도 쳐들어갈 수만 명을 쓰러뜨리지만, 애덤과 모압과 대부분의 암몬인들, 바로 그들은 그의 손을 피할 것이다.

42 그가 이렇게 여러 나라에 손을 뻗으면 이집트 땅도 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43 그리하여 그는 이집트의 금과 은을 비롯하여, 그리고 다른 모든 보물의 주인이 되고, 리비아인들과 에티오피아인들도 그의 발아래 놓일 것이다.

44 그러다가 동쪽과 북쪽에서 들려오는 소문

들이 그를 놀라게 할 터인데, 그는 크게 화를 내며 나가서 많은 이를 죽이고 멸망시킬 것이다.

- 45 그는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임금이 머물 천막들을 칠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를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관하여 설명하다

- 12** ¹ "그때에 네 백성의 보호자 미카엘 대제후 천사가 나서리라. 또한 나라가 생긴 이래 일찍이 없었던 재앙의 때가 오리라. 그때에 네 백성은, 책에 쓰인 이들은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 ² 또 땅 먼지 속에 잠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많은 이가 깨어나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이들은 수치를, 영원한 치욕을 받으리라.
- ³ 그러나 현명한 이들은 창공의 광채처럼 많은 사람을 정의로 이끈 이들은 별처럼 영원 무궁히 빛나리라.
- ⁴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비밀에 부치고 이 책을 봉인해 두어라. 많은 이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 ⁵ 그때에 나 다니엘이 바라보니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이쪽 강가에, 다른 한 사람은 저쪽 강가에 있었다.
- ⁶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분에게 물었다. "이 놀라운 일들은 언제 끝이 납니까?"
- ⁷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로 쳐들고서는, 영원히 살아 계신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는 것을 나는 들었다. "일 년과 이 년과 반년이 지나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의 세력이 산산이 부서져야 이 모든 일이 끝날 것입니다."
- ⁸ 나는 이 말을 듣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하여,

"나리, 이 일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 ⁹ 그가 대답하였다. "가거라, 다니엘아! 이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비밀에 부쳐지고 봉인되어 있어야 한다.
- ¹⁰ 그동안에 많은 이가 정화되고 순화되고 단련되지만, 악인들은 줄곧 악을 저지를 것이다. 그리고 악인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지만, 현명한 이들은 깨달을 것이다.
- ¹¹ 일일 번제가 폐지되고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이 세워질 때부터, 천이백구십일이 흐를 것이다.
- ¹² 행복하여라, 천삼백삼십오 일이 될 때까지 견디어 내는 이들!
- ¹³ 그러니 너는 끝까지 가거라. 너는 잠들어 쉬겠지만 끝 날에 일어나 네 몫을 받을 것이다."

다니엘이 수산나를 구하다

- 13** ¹ 바빌론에 요아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 ² 그는 수산나라고 하는 힐기아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수산나는 매우 이름답기도 하거니와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다.
- ³ 수산나의 부모는 의로운 이들로써 그 딸을 모세의 율법에 따라 교육시켰다.
- ⁴ 한편 요아킴은 아주 부유한 사람으로서 넓은 정원이 그의 집에 맞붙어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큰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늘 그를 찾아오곤 하였다.
- ⁵ 그런데 그해에 어떤 두 원로가 백성 가운데에서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바로 그들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바빌론에서, 백성의 지도자로 여겨지는 재판관인 원로들에게서 죄악이 나왔다."
- ⁶ 그들이 줄곧 요아킴의 집에 있었으므로, 소송 거리가 있는 이들은 모두 그리로 그들을 찾아갔다.

- 7 한낮에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수산나는 남편의 정원에 들어가 거닐곤 하였다.
- 8 그렇게 그곳에 들어가 거니는 수산나를 매일 눈여겨본 그 두 원로는 수산나에게 음욕을 품게 되었다.
- 9 그들은 양심을 억누르고 하늘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돌린 채, 의로운 판결조차 생각하지 않았다.
- 10 둘 다 수산나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지만 서로 고만을 말하지 않았다.
- 11 수산나와 정을 통하고 싶다는 자기들의 음욕을 밝히기가 부끄러웠던 것이다.
- 12 그러면서도 그 여인을 보려고 매일 부지런히 기회를 엿보았다.
- 13 어느 날 그들은 "점심때가 되었으니 집으로 가세." 하고 서로 말하고서는, 그곳을 나와 헤어졌다.
- 14 그러나 그들은 되돌아오다가 마주치게 되었다. 그리고 서로 까닭을 캐묻다가 마침내 자기들의 음욕을 실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혼자 있는 수산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찾아보기로 약속하였다.
- 15 그들이 알맞은 날을 엿보고 있을 때, 수산나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허너 들만 데리고 정원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날이 무더웠으므로 그곳에서 목욕을 하려고 하였다.
- 16 거기에는 숨어서 수산나를 엿보는 그 두 원로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 17 수산나는 하녀들에게, "내가 목욕을 하케 올리브 기름과 물분을 가져오고 정원 문들을 닫아걸어라." 하고 말하였다.
- 18 하녀들은 수산나가 말한 대로 하였다. 곧 정원 문들을 닫아걸고서는 분부받은 것들을 가져오려고 열문으로 나갔다. 원로들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하녀들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 19 하녀들이 나가자마자 두 원로는 일어나서

- 수산나에게 달려가
- 20 말하였다. "자, 정원 문들은 잠겼고 우리를 보는 이는 아무도 없소. 우리는 당신을 간절히 원하오. 그러니 우리 뜻을 받아들여 우리와 함께 잡시다.
- 21 그러지 않으면, 어떤 젊은이가 당신과 함께 있었고, 바로 그 때문에 당신이 하녀들을 내보냈다고 증언하겠소."
- 22 수산나는 탄식하며 말하였다. "나는 꿈쩍 못할 곤경에 빠졌소. 그렇게 하면 그것은 나에게 죽음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여도 당신들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이오.
- 23 주님 앞에 죄를 짓느니,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들의 손아귀에 걸려드는 편이 더 낫소."
- 24 그러고 나서 수산나는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 두 원로도 수산나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더니,
- 25 그 가운데 하나가 달려가서 정원 문들을 열어젖혔다.
- 26 집에 있던 사람들이 정원에서 나는 고향 소리를 듣고, 열문으로 뛰어들어 가 수산나에게 일어난 일을 보았다.
- 27 원로들이 저희 쪽의 이야기를 하자 하인들은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하였다. 수산나를 두고 누가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 28 다음 날, 수산나의 남편 요아킴의 집으로 백성이 모여들 때, 그 두 원로는 수산나를 죽이겠다는 악한 생각을 가득 품고서 그리로 갔다.
- 29 그들이 백성 앞에서 말하였다. "사람을 보내어 요아킴의 아내, 힐기아의 딸 수산나를 데려오게 하시오." 그러자 백성이 사람을 보냈다.
- 30 수산나는 부모와 자녀들과 모든 친척과 함께 나왔다. 수산나는 매우 우아하고 모습이

이름다웠다.

- 31 그는 베일을 쓰고 있었는데, 그 악인들은 수산나의 아름다움을 보고 즐기려는 속셈으로 베일을 벗기라고 명령하였다.
- 32 그러자 수산나 곁에 있던 이들과 그를 보는 이들이 모두 울었다.
- 33 그 두 원로는 일어나 백성 한가운데에서 수산나의 머리에 자기들의 손을 얹었다.
- 34 수산나는 눈물이 가득한 채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35 그 두 원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단 둘이서 정원을 거닐고 있을 때, 이 여자가 여종 둘을 데리고 정원으로 들어가더니, 정원 문들을 닫아걸고서는 여종들을 내보냈소.
- 36 그때에 숨어 있던 젊은이 하나가 이 여자에게 가더니 함께 누웠소.
- 37 정원 구석에 있던 우리는 그 죄악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서 그들에게 달려갔소.
- 38 그리고 둘이서 정을 통하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그자가 우리보다 힘이 세어 붙잡을 수는 없었소. 그래서 그자는 문을 열고 달아나 버렸소.
- 39 그 대신 이 여자를 붙들고 그 젊은이가 누구냐고 물었지만,
- 40 이 여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려고 하지 않았소. 이것이 우리의 증언이오."
- 41 그들이 백성의 원로이며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회중은 그들을 믿고 수산나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 42 그때에 수산나가 크게 소리 지르며 말하였다. "아, 영원하신 하느님! 당신께서는 감추어진 것을 아시고 무슨 일이든 일어나기 전에 미리 다 아십니다.
- 43 또한 당신께서는 이자들이 저에 관하여 거짓된 증언을 하였음도 알고 계십니다. 이자들이 저를 해치려고 악의로 꾸며 낸 것들

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 44 주님께서 수산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 45 그리하여 사람들이 수산나를 처형하려고 끌고 갈 때, 하느님께서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을 깨우셨다.
- 46 그러자 다니엘이 "나는 이 여인의 죽음에 책임이 없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 47 온 백성이 그에게 돌아서서, "그대가 한 말은 무슨 소리요?" 하고 물었다.
- 48 다니엘은 그들 한가운데 서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여러분은 어찌 그토록 어리석습니까? 신문을 해 보지도 않고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어찌 이스라엘의 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 49 법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자들은 수산나에 관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습니다."
- 50 온 백성은 서둘러 돌아갔다. 그러자 다른 원로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 하느님께서서 그대에게 원로 지위를 주셨으니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설명해 보게."
- 51 다니엘이 "저들을 서로 멀리 떼어 놓으십시오. 제가 신문을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 52 사람들이 그들을 따로 떼어 놓자, 다니엘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 말하였다. "악한 세월 속에 나이만 먹은 당신, 이제 지난 날에 저지른 당신의 죄들이 드러났소.
- 53 주님께서 '죄 없는 이와 의로운 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 고 말씀하셨는데도, 당신은 죄 없는 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죄 있는 자들을 놓아 주어 불의한 재판을 하였소.
- 54 자, 당신이 참으로 이 여인을 보았다면, 그 둘이 어느 나무 아래에서 관계하는 것을 보았는지 말해 보시오." 그자가 "유항나무

아래요." 하고 대답하였다.

- 55 그러자 다니엘이 말하였다. "진정 당신은 자기 머리를 내놓고 거짓말을 하였소. 하느님의 천사가 이미 하느님에게서 판결을 받아 왔소. 그리고 이제 당신을 들로 베어 버릴 것이오."
- 56 다니엘은 그 사람을 물러가게 하고 나서 다른 사람을 데려오라고 분부하였다. 그리고 그자에게 말하였다. "유다가 아니라 가나인의 후손인 당신, 아름다움이 당신을 호리고 음욕이 당신 마음을 비뚤어지게 하였소."
- 57 당신들은 이스라엘의 딸들을 그런 식으로 다루어 왔소. 그 여자들은 겁에 질려 당신들과 관계한 것이오. 그러나 이 유다의 딸은 당신들의 죄악을 허용하지 않았소.
- 58 자 그러면, 관계하는 그들을 어느 나무 아래에서 붙잡았는지 나에게 말해 보시오." 그자가 "딱딱나무 아래요." 하고 대답하였다.
- 59 그러자 다니엘이 말하였다. "진정 당신도 자기 머리를 내놓고 거짓말을 하였소. 하느님의 천사가 이미 당신을 들로 잘라 버리려고 칼을 든 채 기다리고 있소. 그렇게 해서 당신들을 파멸시키려는 것이오."
- 60 그러자 온 회중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당신께 희망을 두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 61 다니엘이 그 두 원로에게, 자기들이 거짓 증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저희 입으로 입증하게 하였으므로, 온 회중은 그들에게 들고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이 이웃을 해치려고 악의로 꾸며 낸 그 방식대로 그들을 처리하였다.
- 62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들을 사형에 처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 날에 무죄한 이가 피를 흘리지 않게 되었다.
- 63 수산나가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으므로, 할키아와 그의 아내는 수산나의 남편 요아킴과 모든 친척과 함께, 자기들의 딸 수산나를 두고 하느님을 칭송하였다.

- 64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다니엘은 백성 앞에서 큰사람이 되었다.

다니엘이 벨 신상을 부수다

- 14 ¹ 아스타아게스 임금의 조상들 곁으로 가자, 페르시아인 키루스가 그의 나라를 이어받았다.
- 2 다니엘은 임금의 벗으로서 임금의 어떤 친구보다도 존경을 받았다.
- 3 한편 바빌론인들에게는 벨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날마다 고운 밀가루 열두 아르타바와 양 마흔 마리와 포도주 여섯 메트레테스를 바쳤다.
- 4 임금도 그 우상을 숭배하여 날마다 그 앞으로 나아가 경배하였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의 하느님만 경배하였다.
- 5 그래서 임금이 다니엘에게, "너는 어찌하여 벨께 경배하지 않느냐?" 하고 묻자, 다니엘이 대답하였다. "저는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을 지배하시는 살아 계신 하느님을 숭배합니다."
- 6 임금이 다시, "너는 벨께서 살아 계신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벨께서 날마다 얼마나 많이 마시고 드시는지 보고 있지 않느냐?" 하고 물었다.
- 7 다니엘이 웃으면서 말하였다. "임금님,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속은 진흙이고 같은 청동으로서 무엇을 먹거나 마신 적이 없습니다."
- 8 그러자 임금이 화를 내며 벨의 사제들을 불러 놓고 말하였다. "이 양식을 누가 먹는지 나에게 말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벨께서 드신다는 것

을 밝히면 다니엘이 죽을 것이다. 그가 벨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다."

- 9 다니엘은 "임금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임금에게 말하였다. 벨의 사제들은 일흔 명이나 되었고 그 밖에도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있었다.
- 10 임금은 다니엘과 함께 벨의 신전으로 갔다.
- 11 그러자 벨의 사제들이 말하였다. "자, 저희는 나갑시다. 임금님, 임금님께서는 음식을 올려놓으시고 포도주를 차려 놓으신 다음, 문을 잠그시고 임금님의 옥새로 봉인하십시오. 내일 아침에 와 보시고, 벨께서 그것들을 모두 드시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저희가 죽을 것입니다. 아니라면 저희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는 다니엘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 12 그러면서 그들은 걱정하지 않았다. 제사상 밑으로 비밀 통로를 만들어 놓고, 늘 그 통로로 들어가서 음식을 먹곤 하였던 것이다.
- 13 그들이 나간 다음에 임금은 벨에게 음식을 올려놓았다.
- 14 그러자 다니엘은 자기 종들에게 분부하여 재를 가져오게 하고, 임금이 혼자 있는 앞에서 온 신전에 그 재를 뿌려 놓았다. 그런 다음, 그들은 밖으로 나가 문을 닫고 임금의 옥새로 봉인하고 나서 떠나갔다.
- 15 그날 밤에도 사제들은 늘 하던 대로 아내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먹고 마셨다.
- 16 다음 날 아침에 임금은 일찍 일어났다. 다니엘도 그와 함께 있었다.
- 17 임금이 "다니엘아, 봉인이 그대로 있느냐?" 하고 묻자, 다니엘이 "임금님, 그대로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18 문들이 열리자마자 임금은 제사상 위를 살펴보고서는 큰 소리로 외쳤다. "벨이시여, 당신께서는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께는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 19 다니엘은 웃으면서 임금이 안으로 들지 못하게 하고서는, "바닥을 보십시오. 그리고 저것들이 누구 발자국인지 알아맞혀 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 20 임금은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의 발자국이 보이는구나." 하고 말하더니,
- 21 분노를 터뜨리며 사제들과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체포하게 하였다. 사제들은 자기들이 들어와서 제사상의 재물을 먹곤 하던 비밀 문들을 임금에게 보여 주었다.
- 22 임금은 그들을 사형에 처하고 벨은 다니엘에게 넘겨주었다. 다니엘은 벨과 그 신전을 부수어 버렸다.

다니엘이 큰 뱀을 죽이다

- 23 그곳에 큰 뱀이 하나 있었는데 바빌론인들은 그것을 숭배하였다.
- 24 임금이 다니엘에게 "너는 이분께서 살아 계신 신이 아니라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이분께 경배하여라." 하고 말하자,
- 25 다니엘이 대답하였다. "저는 주 저의 하나님께만 경배합니다. 그분께서 살아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저에게 허락을 내려 주십시오. 제가 칼이나 몽둥이를 쓰지 않고서 저 뱀을 죽이겠습니다."
- 26 임금은 "너에게 허락을 내린다." 하고 말하였다.
- 27 다니엘은 역청과 굳기름과 머리털을 가져다가 한데 풀여 여러 덩어리로 만들고 나서, 그것들을 뱀의 입 쪽으로 던졌다. 뱀은 그것들을 먹더니 터져 죽었다. 그러자 다니엘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숭배하던 것을!"
- 28 바빌론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몹시 화가 나서 임금을 모반하여 말하였다. "임금은 유대인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벨을 부수

고 빵을 죽이고 사제들을 살해한 것이다."

- 29 그들은 임금에게 가서, "다니엘을 우리에게 넘겨주시오. 그러지 않으면 당신과 당신 가족을 죽여 버리겠소." 하고 말하였다.
- 30 임금은 그들이 자기를 세차게 다그치는 것을 보고, 다니엘을 그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다니엘이 사자 굴에서 살아 나온다

- 31 사람들은 다니엘을 사자 굴에 던져 버렸다. 다니엘은 그곳에서 여섯 동안 지냈다.
- 32 그 굴에는 사자가 일곱 마리 있었는데, 날마다 사람 몸뚱이 두 개와 양 두 마리를 먹이로 주었다. 그러나 그때에는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게 하려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 33 한편 유다에는 하바쿠크 예언자가 있었다. 그는 국을 끓이고 빵을 부수어 사발에 담아서 들에 있는 추수꾼들에게 가져가는 길이었다.
- 34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하바쿠크에게 말하였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음식을 바빌론으로 가지고 가서 사자 굴에 있는 다니엘에게 주어라."
- 35 하바쿠크는 "주님, 저는 바빌론을 본 적도 없고 그 굴은 알지도 못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36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하바쿠크의 정수리를 붙들더니, 머리채를 잡고 자기 영의 위력으로 바빌론에 있는 그 굴 위에 데려다 놓는 것이었다.
- 37 하바쿠크는 "다니엘, 다니엘! 하느님께서 그 대에게 보내신 음식을 받으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 38 다니엘은 "하느님, 당신께서 저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 39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일어나 음식을 먹었

다. 하느님의 천사는 곧바로 하바쿠크를 그의 고장으로 데려다 놓았다.

- 40 이렛날에 임금은 다니엘의 죽음을 애도하려고 그곳으로 갔다. 굴에 다다른 임금이 안을 들여다보니 다니엘이 앉아 있는 것이었다.
- 41 임금이 큰 소리로 외쳤다. "주 다니엘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위대하십니다. 당신 말고 다른 분은 계시지 않습니다."
- 42 그리고 나서 임금은 다니엘을 끌어 올리고, 그의 파멸을 피한 책임자들을 굴속으로 던지게 하였다. 그들은 임금이 보는 앞에서 곧바로 사자들에게 먹히고 말았다.

구약성경 - 35

예언서 - 7

호세아서

총 14 장

총 197 절

[구약성경]-[호세아서]

머리글

1 ¹ 유다 임금 우짜야, 요담, 아하즈, 히즈키야 시대에, 그리고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의 아들 예로보암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이에게 내린 주님의 말씀.

호세이가 하느님의 명령으로 혼인하다

- 2** 호세이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시작. 주님께서 호세이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창녀와 창녀의 자식들을 맞이하여라. 이 나라가 주님에게 등을 돌리고 마구 창녀 짓을 하기 때문이다."
- 3** 호세이는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메르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그에게 아들을 낳아 주자,
- 4** 주님께서 호세이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즈르엘이라고 하여라. 머지않아 나는 이즈르엘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예후 집안을 벌하고 이스라엘 집안의 왕조를 없애 버리리라."
- 5** 또 그날에 이스라엘의 활을 이즈르엘 평야에서 꺾어 버리리라."
- 6** 고메르가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자, 주님께서 호세이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으로 루하마라고 하여라. 나는 더 이상 이스라엘 집안을 가없이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으리라."
- 7** 그러나 유다 집안은 가없이 여기고 주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을 구해 주리라. 그렇다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 군마나 기병들로 그들을 구해 주지는 않으리라."
- 8** 고메르가 로 루하마에게 젖을 떼 다음에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 9**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으로 암미라고 하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며 나는 너희를 위하여 있지 않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복한 날이 온다

- 2** ¹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늘어나 헤아릴 수도 셀 수도 없으리라.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던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 계신 하느님의 자녀들이다." 하리라.
- 2** 유다 자손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여 우두머리 하나를 내세우고 이 땅에서 크게 일어나리라. 이즈르엘의 날이 큰 날이 되리라.
- 3** 너희 형제들에게 "암미!" 라 하고 너희 자매들에게 "루하마!" 라 하여라.

배신한 이스라엘을 고발하여라

- 4** 고발하여라.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여라. 너희 어머니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 얼굴에서 불륜을, 그 젖가슴 사이에서 간음을 치워 버리라고 하여라.
- 5** 그러지 않으면 태어나던 날처럼 그 여자를 발가벗겨 밖에 내세우리라. 그 여자를 광야처럼 만들고 메마른 땅처럼 되게 하여 목이 타 죽게 하리라.
- 6** 나는 그 자식들도 가없이 여기지 않으리니 창녀의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 7** 그들의 어머니가 불륜을 저지르고 그들을 배었던 그 여자가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다. "양식과 물 양털과 아마 기름과 술을 주는 내 애인들을 쫓아가지." 하고 말한 것이다.
- 8** 그러므로 내가 이제 가시나무로 그 여자의 길을 막고 담을 둘러쳐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 9** 그 여자가 애인들을 쫓아가지도 그들을 따라 잡지 못하고 그들을 찾아다녀도 찾아내지 못하리라. 그제야 그 여자는 말하리라. "이제 가이지. 첫 남편에게 되돌아가이지. 그때가 지금보다 더 좋았는데 ……."

- 10 그 여자는 내가 곡식과 헛포도주와 햇기름을 주고 비알을 위하여 그들이 쓴 금과 은을 불러 주었음을 알지 못한다.
- 11 그러므로 나는 때가 되면 내 곡식을 되찾고 절기가 되면 내 헛포도주를 되찾으리라. 그리고 알몸을 가리라고 준 내 양털과 아마 옷을 벗겨 내리라.
- 12 이제 나는 그 여자의 애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여자의 치부를 드러내리니 내 손에서 그를 빼낼 자 아무도 없으리라.
- 13 그 여자의 모든 기쁨 축제와 초하룻날과 인식일 그 여자의 모든 축일을 없애 버리리라.
- 14 '내 애인들이 준 해웃값' 이라고 그 여자가 말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내가 망쳐 놓으리라. 그것들을 수풀로 만들어 들짐승들이 먹어 버리게 하리라.
- 15 나는 비알들의 축제일 때문에 그 여자를 벌하리라. 그 여자는 비알들에게 분항하고 귀걸이와 목걸이로 단장한 채 애인들을 쫓아갔다. 그러면서 나를 잊어버렸다. 주님의 말씀이다.

하느님께서 다시 일치를 이루어 주시리라

- 16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여자를 달래어 광야로 데리고 가서 다정히 말하리라.
- 17 거기에서 나는 그 여자에게 포도밭을 돌려주고 '아코르 골짜기' 를 희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리라. 거기에서 그 여자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응답하리라.
- 18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는 내가 더 이상 나를 "내 비알!" 이라 부르지 않고 "내 남편!" 이라 부르리라.
- 19 나는 그 여자의 입에서 비알들의 이름을 치워 버리리니 그 이름이 다시는 불리지 않으리라.
- 20 그날에 나는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하늘

의 새와 땅바닥을 기어 다니는 것들과 계약을 맺고 활과 칼과 전쟁을 이 땅에서 없애 버려 그들이 편안히 자리에 누울 수 있게 하리라.

- 21 나는 너를 영원히 아내로 삼으리라. 정의와 공정으로써 신의와 자비로써 너를 아내로 삼으리라.
- 22 또 진실로써 너를 아내로 삼으리니 그러면 내가 주님을 알게 되리라.
- 23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리라.
- 24 땅은 곡식과 헛포도주와 햇기름에 응답하고 그것들은 이즈르엘에 응답하리라.
- 25 나는 그를 이 땅에 심고 로 루하미를 기워 이 여기리라. 또 내가 로 암미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하고 그는 "저의 하느님!" 하고 말하리라.

호세아가 집 나간 아내를 찾아오다

- 3 ¹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여 간음을 저지르는 여자를 사랑해 주어라. 주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해 주어라.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돌아서서 전포도 과자를 좋아하고 있다."
- 2 그래서 나는 은 열다섯 세겔, 그리고 보리 한 호메르와 한 레택으로 그 여자를 사들였다.
- 3 나는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오랫동안 내 곁에서 지내야 하오. 창녀 짓을 해서도 안 되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도 안 되오. 나도 당신에게 그렇게 하겠소."
- 4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처럼 오랫동안 임금도 대신도 없이, 희생 제물도 기쁨 기동도 없이, 애향도 집안 수호신도 없이 살 것이다?
- 5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 주 저희 하느님과 저희 임금 다윗을 찾을

것이다. 그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워하며, 주님과 그분께서 베푸시는 좋은 것을 향해 돌아올 것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단죄하시다

- 4** ¹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을 고소하신다. 정녕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신의도 없으며 하느님을 아는 예지도 없다.
- ² 저주와 속임수와 살인 도둑질과 간음이 난무하고 유혈 참극이 그치지 않는다.
- ³ 그러므로 이 땅은 통곡하고 온 주민은 생기를 잃어 간다. 들짐승과 하늘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마저 죽어 간다.

사제들의 죄

- ⁴ 그러나 아무도 고소하지 말고 아무도 고발하지 마라. 사제야, 바로 내가 너를 고소한다.
- ⁵ 낮에는 내가 비틀거리고 밤에는 예언자가 너와 함께 비틀거리리라. 내가 너의 어머니를 망하게 하리라.
- ⁶ 나의 백성은 예지가 없어 망하리라. 내가 예지를 배척하니 나도 너를 배척하여 사제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네 하느님의 가르침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으리라.
- ⁷ 그들이 많아질수록 이렇듯 나에게 죄를 지었으니 나도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어 버리리라.
- ⁸ 그들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살며 내 백성이 죄짓기만 간절히 바란다.
- ⁹ 백성도 사제도 똑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이 걸어온 길에 따라 별하고 그들의 행실에 따라 갚으리라.
- ¹⁰ 그들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불륜을 저질러도 자손이 불어나지 않으리라. 그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백성의 죄

- ¹¹ 불륜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포도주와 햇포도주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
- ¹² 내 백성이 저마다 제 나무에게 묻고 그 가지가 대답을 하니 창녀기가 그들을 그릇 이끌어 자기 하느님을 버리고 불륜을 저지르게 하였다.
- ¹³ 그들은 산꼭대기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고 언덕 위에서 분향하며 그들이 좋다고 참나무와 은행양과 향엽나무 아래에서도 분향한다. 너희 딸들은 불륜을 저지르고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한다.
- ¹⁴ 너희 딸들이 불륜을 저지른다고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고 내가 그들을 벌하지는 않으리라. 남자들이 창녀들과 함께 밧나가고 신전 창녀들과 함께 희생 제물을 바치기 때문이다. 철없는 백성은 망하고 만다.
- ¹⁵ 이스라엘아, 너희는 불륜을 저지른다 하여도 유다만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게 하여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도 말고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도 마라. "주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 하며 맹세하지도 마라.
- ¹⁶ 고집 센 암소처럼 정녕 이스라엘은 고집이 세다. 그러니 주님이 어찌 그들을 어린 양처럼 넓은 곳에 놓아 기를 수 있겠느냐?
- ¹⁷ 에프라임은 우상들과 한해가 되었으니 그대로 버려두어라.
- ¹⁸ 술잔치가 끝나고 나면 그들은 언제나 불륜을 저지르면서 자기들의 자랑스러운 분보다 수치를 더 좋아한다.
- ¹⁹ 비람이 날개를 펴서 그들을 에워싸면 그들은 자기들의 희생 제물 때문에 부끄러워하리라.

지도자들이 백성을 멸망으로 이끌다

- 5** ¹ 사제들이야, 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 집안아, 주의를 기우려라. 임금의 집

안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는 공정을 세워야 할 사람들. 그러나 너희는 미츠파에 친 밧타보르에 펼친 그물

- 2 시탐에 깊이 판 함정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모두 징벌하리라.
- 3 나는 에프라임을 안다. 이스라엘은 내 앞에 다 드러나 있다. 에프라임아, 정녕 너는 지금 불륜을 자지르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
- 4 그들은 그 행실 때문에 저희 하느님에게 돌아가지 못한다. 그들 안에 창녀기가 있어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 5 이스라엘의 교만이 저희 자신을 거슬러 증언하니 이스라엘과 에프라임은 저희 죄 때문에 비틀거리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비틀거리리라.
- 6 그들이 양 떼와 소 떼를 거느리고 주님을 찾아가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주님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이다.
- 7 그들이 주님을 배신하여 사생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초하룻날이 그들을 재산과 함께 삼켜 버리리라.

동족상잔의 죄와 벌

- 8 너희는 기브이에서 뿔 나팔을 불고 라미에서 나팔을 불며 벳 아웬에서 경보를 울려라. 벤아민아, 뒤를 보아라.
- 9 징벌의 날에 에프라임은 패허가 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확정된 일을 알려 준다.
- 10 유다의 대신들은 경계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되어 버렸으니 내가 그들 위로 나의 분노를 물처럼 쏟아 부으리라.
- 11 에프라임은 억압당하고 공정은 꺾였다. 그는 헛것을 뒤쫓으려고만 하였다.
- 12 그러므로 내가 에프라임에게는 좀 벌레처럼 되고 유다 집안에는 뼈 고름처럼 되리라.
- 13 에프라임이 자기 병을 보고 유다가 자기

상처를 보았다. 그리하여 에프라임이 아시리아로 가고 대왕에게 사절을 보냈지만 그는 너희 병을 고치지도 못하고 너희 상처를 낮게 하지도 못한다.

- 14 나는 에프라임에게 사자처럼, 유다 집안에게 힘센 사자처럼 되리라. 바로 내가 잡아 찢어 가고 물어 가면 아무도 빼내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떠나시다

- 15 그들이 죄를 깨닫고 내 얼굴을 찾았을 때가지 나는 내 자리로 돌아가 있으리라. 그제야 그들은 환난 속에서 나를 찾으리라.

이스라엘의 불성실한 회개

- 6¹ 자, 주님께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잡아 찢으셨지만 아픈 데를 고쳐 주시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 주시리라.
- 2 이틀 뒤에 우리를 살려 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어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게 되리라.
- 3 그러나 주님을 알자. 주님을 알도록 힘쓰자. 그분의 오심은 새벽처럼 어김없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비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시리라.
- 4 에프라임아, 내가 너희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희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너희의 신의는 아침 구름 같고 이내 사라지고 마는 이슬 같다.
- 5 그래서 나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찍어 넘어뜨리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그들을 죽여 나의 심판이 빗처럼 쏟아오르게 하였다.
- 6 정녕 내가 바리는 것은 회생 제물이 아니라 신의다. 번제물이 아니라 하느님을 아는 예지다.

배신과 배반

- 7 그들은 아담에서 계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 나를 배신하였다.
- 8 길앗은 악을 저지르는 자들의 성읍 그곳에는 찢자국뿐이다.
- 9 강도떼가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듯 사제들이 무리를 지어 스켄으로 가는 길목에서 살인을 하니 정녕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구나.
- 10 나는 이스라엘 집안에서 끔찍한 일을 보았다. 거기에서 에프라임이 불륜을 저지르고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혔다.
- 11 유다야, 너에게도 수확 때가 정해졌다. 내가 내 백성의 운명을 되돌려 주려고 할 때 마다

- 7** ¹ 이스라엘의 병을 고쳐 주려고 할 때 마다 에프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행만 드러난다. 그들이 거짓을 일삼기 때 문이다. 안에는 도둑이 들고 바깥에는 강도 떼가 들끓는다.
- 2 내가 그들의 악을 모두 기억하고 있음을 그들은 마음에 두지 않지만 이제 그들을 둘러싼 행실들이 내 앞에 펼쳐져 있다.

배신과 정변

- 3 그들은 악행으로 임금을, 거짓말로 대신들을 기쁘게 한다.
- 4 그들은 모두 간음하는 자들 반죽을 하여 부 풀 때까지 빵 굽는 이가 불을 키우지 않아도 저절로 타오르는 화덕과 같다.
- 5 우리 임금의 날에 대신들은 포도주 열기로 병이 들고 임금은 빈정꾼들에게 손을 내민 다.
- 6 그렇지만 그들은 화덕처럼 마음을 음모로 가득 채우고 다가선다. 그들의 걱정은 밤새 잠잠하다가 아침에 불꽃처럼 타오른다.
- 7 그들은 모두 화덕처럼 뜨거워서 저희 통치자들을 잡아삼킨다. 이렇게 임금마다 죽어 가건만 아무도 나에게 부르짖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외세에 의지하다가 벌을 받다

- 8 다른 민족들과 뒤섞인 에프라임 그 에프라 임은 뒤집지 않고 구운 부꾸미다.
- 9 제 힘을 닦은 자들이 먹어 치우는데도 에프 라임은 깨닫지 못한다. 백발이 번져 가는데 도 깨닫지 못한다.
- 10 이스라엘의 교만이 저희 자신을 거슬러 증 언하지만 그들은 주 저희 하느님에게 돌아 가지 않는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그를 찾 지 않는다.
- 11 에프라임은 비둘기처럼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 그들은 이집트에 부르짖고 아시리아 로 간다.
- 12 그러나 나는 그들이 갈 때 그 위로 그들을 던져 하늘의 새를 잡듯 그들을 잡아채리라. 그들의 죄악을 내가 들은 대로 징벌하리라.
- 13 그들은 불행하여라, 나에게서 도망쳤으니. 그들은 망하리라, 나에게 거역하였으니. 내가 구해 주고 싶어도 그들은 나를 거슬러 거짓말만 한다.
- 14 그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나에게 부르짖지 않고 오히려 침상에 드러누워 울부짖는다. 곡식과 햇포도주를 달라고 제 몸에 상처를 내고 있으니 이 또한 나를 거스르는 것이 다.
- 15 그들의 팔을 힘 있게 길러 준 이가 바로 나인데 그들은 나를 거슬러 악을 피한다.
- 16 그들은 햇것을 향해 돌아서고 뒤틀린 활처럼 되어 버렸다. 그들의 대신들은 함부로 혀를 놀렸으니 칼에 맞아 쓰러지리라. 이집 트 땅에서 이것이 조롱거리가 되리라.

우상을 섬기다가는 망한다

- 8** ¹ 네 입에 빨 나팔을 대어라. 원수가 독수리처럼 주님의 집에 들이닥친 다. 이스라엘이 나의 계약을 어기고 나의 가르침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 2 "저희 하느님, 저희 이스라엘은 당신을 알니 다." 하고 나에게 부르짖으면서도

- 3 이스라엘은 좋은 것을 뿌리쳤으니 원수가 그를 뒤쫓으리라.
- 4 그들이 임금들을 세웠지만 나와는 상관없고 대신들을 뽑았지만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들은 은과 금으로 신상들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망하려고 한 짓일 뿐이다.
- 5 사마리아야, 네 송이지를 내던져 버려라. 내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오른다. 그들이 언제면 죄를 벗을 수 있을까?
- 6 송이질 신상은 이스라엘에서 나온 것 대장장이가 만든 것일 뿐 결코 하느님이 아니다. 정녕 사마리아의 송이지는 산산조각이 나리라.
- 7 그들이 바람을 심었으니 회오리바람을 거두리라. 줄기에 이삭이 패지 못하니 알곡이 생길 리 없다. 알곡이 생긴다 하여도 낫친 자들이 그것을 집어삼켜 버리리라.
- 8 이스라엘은 먹히고 말았다. 이제 그들은 민족들 사이에서 쓸모없는 그릇처럼 되어 버렸다.
- 9 그들은 외로운 들나귀처럼 아시리아로 올라가고 에프라임은 돈을 주고 사랑을 샀다.
- 10 그들이 돈을 주고 민족들에게 사랑을 샀어도 이제 내가 그들을 끌어 모으리니 그들은 임금과 대신들이 지우는 집에 눌러 머지않아 몸부림치리라.
- 11 에프라임이 제단들을 많이도 만들었지만 그것은 죄를 짓는 일이요 그 제단들은 죄 짓는 제단일 뿐이다.
- 12 내가 그들에게 나의 가르침을 많이 써 주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낫선 것으로만 여겼다.
- 13 그들은 희생 제물을 좋아하여 그것을 바치고 그 고기를 먹지만 주님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제 주님은 그들의 잘못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이집트로 돌아가야 하리라.
- 14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이를 잊어버리고

궁궐들을 지었다. 유다는 요새 성읍들을 많이도 만들었지만 나는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채들을 삼켜 버리게 하리라.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다

- 9¹ 이스라엘아, 기뻐하지 마라. 다른 민족들처럼 기뻐 뛰지 마라. 너희는 너희 하느님을 떠나 불륜을 저지르고 모든 곡식 타작마당에서 해웃값 받기를 좋아하였다.
- 2 그러나 타작마당과 포도 확은 그들을 먹이지 못하고 햇포도주는 그들을 숙이고 말리리라.
- 3 주님의 땅에서 그들은 살 수 없으리라. 에프라임은 이집트로 돌아가고 아시리아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리라.
- 4 그들은 주님께 포도주를 부어 드릴 수 없고 그들의 희생 제물도 그분께 달갑지 않으리라. 그것은 초상집 음식과 같아 그것을 먹는 자마다 부정하게 되리라. 그들의 음식은 저희 목구멍을 위한 것일 뿐 주님의 집에는 들어갈 수 없다.
- 5 그러니 축일과 주님의 축제일에 너희는 어떻게 하려느냐?
- 6 보라, 그들이 파멸을 피해 간다 하여도 이집트가 그들을 모아들이고 멍피스가 그들을 문으리라. 은으로 된 그들의 보화는 췌기풀이 차지하고 엉겅퀴가 그들의 천막에 들어앉으리라.
- 7 장벌의 날이 왔다. 보복의 날이 왔다. 이스라엘이 소리친다. "저 예언자는 어리석다. 영을 받은 저 사람은 미쳤다." 네 죄악이 커서 적대심도 그렇게 큰 것이다.
- 8 예언자는 나의 하느님을 위한 에프라임의 파수꾼. 그러나 그가 가는 길마다 새잡이 그물이 쳐 있고 적대심이 그 예언자의 하느님 집에게까지 자리 잡고 있다.
- 9 기브아의 그뻐처럼 그들은 깊이 타락하였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를 벌하시리라.

바알 프오르에서 지은 죄와 그 벌

- 10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이스라엘은 광야의 포도송이 같았다. 내가 처음 보았을 때 너희 조상들은 첫 절기의 무화과나무 만들 같았다. 그러나 바알 프오르에 이르자 그들은 우상에 몸을 바쳐 저희가 사랑하던 것처럼 혐오스럽게 되어 버렸다.
- 11 에프라임의 영광은 새처럼 날아가 버려 더 이상 출산도 임신도 수태도 없으리라.
- 12 그들이 자식들을 기른다 하여도 나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앗아 가 버리리라. 내가 그들에게서 떠날 때 그들은 진정 불행하게 되리라.
- 13 제가 보기에 에프라임은 풀밭에 심긴 티로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프라임은 제 자식들을 도살자에게 끌고 가야 합니다.
- 14 주님, 그들에게 주십시오, 무엇을 주시렵니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를, 말라붙은 젖 가슴을 주십시오.

길갈에서 지은 죄와 그 벌

- 15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서 드러나 그곳에서 내가 그들을 미워하게 되었다.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는 그들을 내 집에서 쫓아내리라.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리라. 그들의 대신들은 모두 반항이나 하는 것들.
- 16 에프라임은 찍히고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들이 자식들을 낳는다 하여도 나는 그들의 태에서 나온 그 소중한 것들을 죽이리라.
- 17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척하시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민족들 사이에서 떠돌이가 되리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벌을 받다

10 ¹ 이스라엘은 가지가 무성한 포도나무 열매를 잘 맺는다. 그러나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들도 많이 만들고 땅이 좋아 질수록 기념 기둥들도 좋게 만들었다.

- 2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하니 이제 짓값을 치러야 한다. 그분께서 그 제단들을 부수시고 그 기념 기둥들을 허물어 버시리라.
- 3 이제 그들은 말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임금이 없지만 임금이 있다 한들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리오?"
- 4 그들은 말만 하고 헛맹세로 계약을 맺는다. 그리하여 법이라는 것이 밭고랑의 독초처럼 솟아난다.
- 5 뱃 아웬의 송아지 때문에 사마리아 주민들이 편다. 정녕 그 송아지 때문에 그 백성이 통곡하고 그 우상을 숭배하던 사제들도 통곡하리라. 그들을 기뻐 뛰게 하였던 그 송아지의 영광이 그곳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 6 그 송아지도 아시리아로 옮겨져 대왕에게 선물로 바쳐지리라. 에프라임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자기의 계획 때문에 부끄럽게 되리라.
- 7 사마리아는 망하리라. 그 임금은 물 위에 뜬 나뭇가지 같으리라.
- 8 이스라엘의 죄악인 아웬의 산당들은 무너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 제단들 위까지 올라가리라. 그때에 그들은 산들에게 "우리를 덮쳐 다오!", 언덕들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 다오!" 하고 말하리라.

기브아에서 지은 죄와 그 벌

- 9 이스라엘아 너는 기브아 시절부터 죄를 지었다. 거기에서 줄곧 그러하였으니 전쟁이 기브아에서 죄짓는 자들에게 닥치지 않았느냐?
- 10 나는 그들을 징벌하러 가리라. 그들이 두 가지 죄악 때문에 벌을 받을 때 민족들도

그들을 거슬러 모이리라.

회개를 촉구하시다

- 11 에프라임은 같이 잘 든 안소 타작하기를 좋아하였다. 나는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웠다. 나는 에프라임에게 쟁기를 끌게 하리라. 유다는 밭을 갈고 아픈 씨레질하게 하리라.
- 12 너희는 정의를 뿌리고 신의를 거두어들여라. 묵혀 둔 너희 땅을 갈아엎어라. 지금이 주님을 찾은 때다, 그가 와서 너희 위에 정의를 비처럼 내릴 때까지.

돌이킬 수 없는 멸망

- 13 너희는 악을 갈아서 불의를 거두어들이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다. 너희가 병거와 수 많은 전사들을 믿었기 때문이다.
- 14 그러므로 너희 백성 가운데에서 전쟁의 함성이 일고 너희의 요새들이 모두 무너지리라. 전투의 날에 살만이 뱃 아르벨을 무너뜨렸듯이 적군이 어미를 자식들 위로 내동댕이치리라.
- 15 베델아 너희가 그렇게 되리라. 너희가 지은 그 큰 죄악 때문이다. 새벽녘에 이스라엘 임금은 반드시 망하리라.

배신당한 하느님의 사랑

- 11 ¹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에 나는 그를 사랑하여 나의 그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 2 그러나 내가 부를수록 그들은 나에게서 멀어져 갔다. 그들은 비알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우상들에게 향을 피워 올렸다.
- 3 내가 에프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고 내 팔로 안아 주었지만 그들은 내가 자기들의 병을 고쳐 준 줄을 알지 못하였다.
- 4 나는 인정의 끈으로, 사랑의 줄로 그들을 끌어당겼으며 젖먹이처럼 들어 올려 불을 비비고 몸을 굽혀 먹여 주었다.

- 5 그러나 그들은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고 아시리아가 바로 그들의 임금이 되니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마다하였기 때문이다.
- 6 그들의 계약 탓으로 칼이 그 성읍들에 들어닥쳐 성문 빗장들을 부수고 삼켜 버리리라.
- 7 내 백성은 나를 배반하려고만 한다. 그들이 위를 향해 부르짖어도 누구 하나 일으켜 세워 주지 않으리라.

하느님의 극진한 사랑

- 8 에프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내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저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내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츠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내 마음이 미어지고 연민이 복받쳐 오른다.
- 9 나는 타오르는 내 분노대로 행동하지 않고 에프라임을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다. 나는 네 가운데에 있는 ' 거룩한 이 ' 분노를 터뜨리며 너에게 다가가지 않으리라.

유배에서 돌아오리라

- 10 그들이 주님을 따라오리라. 주님이 사자처럼 포효하니 그가 포효하면 그의 자녀들이 떨면서 서쪽에서 오리라.
- 11 그들은 떨면서 이집트에서 새처럼 오고 아시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오리라. 그리고 나는 그들을 다시 제집에 살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배신

- 12 ¹ 에프라임은 거짓말로 나를 에워싸고 이스라엘 집안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다. 그러나 유다는 여전히 하느님과 함께 걸으며 ' 거룩한 이 ' 에게 성실하다.
- 2 에프라임은 바람을 먹고 온종일 동풍을 쫓아다니며 거짓과 폭력을 늘려 간다. 그들은 아시리아와 계약을 맺고 이집트로 기름을 날라 간다.

아굽의 자손들이, 회개하여라

- 3 주님께서 유다를 재판하시어 아굽을 그 걸어온 길에 따라 벌하시고 그 행실에 따라 갚으시리라.
- 4 그는 모테에서 제 형을 숙이고 어른이 되어서는 하느님과 겨루었다.
- 5 그는 천사와 겨루어 이기자 울면서 그에게 호의를 간청하였다. 그는 베델에서 하느님을 만났고 하느님께서서는 거기에서 그와 말 씀하셨다.
- 6 주님은 만군의 하느님 그 이름 주님이시다!
- 7 그러니 너는 내 하느님께 돌아와 신의와 공정을 지키고 내 하느님께 늘 희망을 두어라.

탐욕스러운 이스라엘

- 8 속임수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
- 9 에프라임은 말한다. "나는 정말 부자가 되었다. 한재산 얻었다. 내가 벌어들인 그 모든 것에서 죄가 되는 잘못을 아무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새로운 미래

- 10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너의 하느님이 다. 축일 때처럼 나는 다시 너를 천막에서 살게 하리라.
- 11 나는 예언자들에게 말하리라. 바로 내가 환시를 많이 보여 주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비유로 말하리라.

이스라엘의 죄와 그 벌

- 12 길가에 불의가 자리 잡고 있으니 그들은 진정 헛것이 되고 말리라. 그들이 길갈에서 황소들을 잡아 바치니 그들의 제단도 밧고랑의 돌무더기처럼 되리라.
- 13 아굽은 아람 땅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아내를 얻으려고 종살이하고 또 아내를 얻으려고 양 떼를 돌보았다.

- 14 주님은 예언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고 이스라엘은 그 예언자를 통하여 보호를 받았다.
- 15 그러나 에프라임이 주님의 화를 크게 돋우었으니 주님은 그가 흘린 남의 피를 그 위에 쏟고 그가 준 치욕을 그에게 되돌리리라.

우상 숭배와 벌

- 13 ¹ 에프라임이 말할 때에 모두 떨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뛰어났지만 바알 때문에 죄를 지어 죽었다.
- 2 그런데도 그들은 거듭 죄를 짓고 있다. 그들이 신상을 부어 만들고 은으로 솜씨를 부려 우상을 만들었지만 그 모든 것은 장인의 작품일 뿐이다. 그들이 "이것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쳐라." 하자 사람들이 그 송아지들에게 입 맞춘다.
- 3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처럼, 이내 사라지고 마는 이슬처럼 되리라. 타작마당에서 날려 가는 겨처럼, 창문으로 새 나가는 연기처럼 되리라.

배은망덕과 벌

- 4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너의 하느님이 다. 너는 나 말고 다른 신을 알아서는 안 된다. 나뭇가에 다른 구원자는 없다.
- 5 바로 내가 저 광야에서, 저 메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 6 내가 먹여 주자 그들은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자 마음이 우쭐해져 나를 잊어버렸다.
- 7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사자처럼 되고 표범처럼 길에서 숨어 기다리리라.
- 8 나는 새끼 잃은 곰처럼 그들을 덮쳐 그들의 가슴을 찢어발기리라. 사자처럼 그 자리에서 그들을 뜯어 먹고 들짐승이 그들을 찢어 먹게 하리라.

왕권의 종말

- 9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멸망시킬 터인데 누가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10 "저에게 임금과 대신들을 주십시오." 하더니 너를 구원할 임금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의 그 모든 성읍 어디에 통치자들이 있느냐?
 11 나는 분노하며 너에게 임금을 주고 또 진노하며 그를 앗아 간다.

피할 수 없는 멸망

- 12 에프라임의 죄악은 잘 간수되어 있고 그의 죄는 잘 보관되어 있다.
 13 그를 낳는 어미의 산고가 다가오지만 그는 지혜롭지 못한 아들, 때가 되어도 아기집에서 나오려고도 하지 않는다.
 14 내가 그들을 저승의 손에서 구해야 하는가? 내가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해야 하는가? 죽음아, 네 흑사병은 어디 있느냐? 저승아, 네 괴질은 어디 있느냐? 내 눈은 연민 같은 것을 모른다.
 15 에프라임이 형제들 가운데에서 번성하여도 동풍이 불어오리니 광야에서 차올라 오는 주님의 바람이 불어오리니 그의 썸은 마르고 우물은 메말라 버리리라. 그 바람이 보물 창고에서 값비싼 기물들을 모조리 앗아가 버리리라.

14 ¹ 사마리아는 자기 하느님을 거역하였으니 죄값을 치러야 한다. 그들은 칼에 맞아 쓰러지고 찢먹이들은 내동댕이쳐지며 임신한 여자들은 배가 갈리리라.

이스라엘의 회개와 새로운 삶

- 2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와라. 너희는 죄악으로 비틀거리고 있다.
 3 너희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돌아와 아뢰어라. "죄악은 모두 없애 주시고 좋은 것은 받아 주십시오. 이제 저희는 황소가

아니라 저희 입술을 바치렵니다.

- 4 아시리아는 저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다시는 군마를 타지 않으렵니다. 저희 손으로 만든 것을 보고 다시는 '우리 하느님!' 이라 말하지 않으렵니다. 고아를 기없이 여기시는 분은 당신뿐이십니다."
 5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풀렸으니 이제 내가 반역만 꾀하는 그들의 마음을 고쳐 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해 주리라.
 6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어 주리니 이스라엘은 나리꽃처럼 피어나고 레바논처럼 뿌리를 뻗으리라.
 7 이스라엘의 싹들이 돌아나 그 이름다음은 올리브 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으리라.
 8 그들은 다시 내 그들에서 살고 다시 곡식 농사를 지으리라.? 그들은 포도나무처럼 무성하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명성을 떨치리라.
 9 내가 응답해 주고 돌보아 주는데 에프라임이 우상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상상한 방백나무 같으니 너희는 나에게서 열매를 얻으리라.

마지막 경고

- 10 지혜로운 사람은 이를 깨닫고 분별 있는 사람은 이를 알아라. 주님의 길은 올곧아서 의인들은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죄인들은 그 길에서 비틀거리리라.

구약성경 - 36

예언서 - 8

요엘서

총 4 장

총 73 절

[구약성경]-[요엘서]

머리글

1 ¹ 프투엘의 아들 요엘에게 내린 주님의 말씀.

주민들아, 모두 들어라

- 2** 원로들아, 이것을 들어라. 이 땅의 모든 주민아, 귀를 기울여라. 이러한 일이 너희 시대에 있었느냐? 이러한 일이 너희 조상 시대에 있었느냐?
- 3** 이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들은 또 그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말하게 하여라.

메뚜기 재앙

- 4**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어 버렸다.
- 5** 술 취한 자들아, 깨어나 울어라. 술꾼들아 너희 입에 들어가다 만 포도주를 생각하며 모두 울부짖어라.
- 6** 셀 수 없이 많고 힘센 족속이 내 땅을 쳐 올라왔다. 그들의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암사자의 엄니 같다.
- 7**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망쳐 놓고 내 무화과 나무를 쪼개어 껍질을 벗기고 내던져 버리니 가지들이 하얗게 드러났다.
- 8** 서럽게 울어라, 신랑을 잃고 자루옷을 두른 처녀처럼.
- 9** 주님의 집에서는 곡식 제물과 제주가 동이 나고 주님을 섬기는 사제들은 통곡한다.

가뭄

- 10** 들은 황폐해지고 땅은 통곡한다. 곡식 농사는 망하고 햇포도주는 말라 버렸으며 기쁨은 떨어졌다.
- 11** 밀과 보리를 생각하며 농부들아, 질겁하여라. 포도나무를 가꾸는 자들아, 울부짖어

라. 들의 수확이 다 망가졌다.

- 12** 포도나무는 마르고 무화과나무는 시들었다. 석류나무 아자나무 사과나무 할 것 없이 들의 나무가 모조리 말라 버렸다. 장년 사람들에게서 기쁨이 말라 버렸다.

단식하고 기도하여라

- 13** 사제들아, 자루옷을 두르고 슬피 울어라. 제단의 봉사자들아, 울부짖어라. 내 하느님의 봉사자들아 와서 자루옷을 두르고 밤을 새워라. 너희 하느님의 집에 곡식 제물과 제주가 떨어졌다.
- 14** 너희는 단식을 선포하고 거룩한 집회를 소집하여라. 원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을 주 너희 하느님의 집에 모아 주님께 부르짖어라.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

- 15** 아, 그날! 장년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 능하신 분께서 보내신 파멸이 들이닥치듯 다가온다.

가뭄

- 16** 우리 눈앞에서 양식이 끊기고 우리 하느님의 집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끊기지 않았느냐?
- 17** 흉년이 밑에서는? 씨앗들이 오그라들었다. 들의 곡식이 메말라 곳간은 황폐해지고 곳집은 허물어졌다.
- 18** 짐승들이 어찌 저리 신음하는가? 풀밭이 없어 소 때는 저리 해매고 양 때는 죽어 가는구나.
- 19** 주님, 제가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광야의 풀은 불이 삼키고 들의 나무는 불꽃이 모조리 살라 버렸습니다.
- 20** 들짐승들마저 당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물줄기들은 마르고 광야의 풀은 불이 삼켜 버렸습니다.

주님의 날이 다가온다

- 2** ¹ 너희는 시온에서 뿔 나팔을 불고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땅의 모든 주민이 떨게 하여라. 주님의 날이 다가온다. 정녕 그날이 가까웠다.
- 2** 어둠과 암흑의 날 구름과 먹구름의 날이다. 여명이 산등성이를 넘어 퍼지듯 수가 많고 힘센 민족이 다가온다. 이런 일은 옛날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세세 대대에 이르도록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
- 3** 그들 앞에서는 불이 삼켜 버리고 그들 뒤에서는 불꽃이 살라 버린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이 땅이 에탄동산 같았지만 그들이 지나간 뒤에는 황량한 광야만 남는다. 그들 앞에서는 살아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 4** 그들의 모습은 말과 같고 달리는 것도 군마처럼 달린다.
- 5** 산꼭대기를 뛰어 달리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검불을 삼켜 버리는 불꽃 소리와 같다. 그들은 전열을 갖춘 막강한 군대 같다.
- 6** 그들 앞에서 민족들은 두려워 떨고 얼굴이 모두 하얗게 질린다.
- 7** 그들은 용사처럼 달려오고 전사처럼 성벽을 오른다. 저마다 제 길로 나아가고 아무도 제 진로를 벗어나지 않는다.
- 8** 그들은 서로 밀치지 않고 저마다 제 길로 나아간다. 무기 사이를 뚫고 지나가며 열을 흘뜨리지 않는다.
- 9** 그들은 성읍으로 쳐들어가 성벽 위를 뛰어 다니고 집 위로 올라가며 도둑처럼 창문으로 들어간다.
- 10** 그 앞에서 땅은 떨고 하늘은 뒤흔들린다. 해와 달은 어두워지고 별들은 제 빛을 거두어들인다.
- 11** 주님께서 당신 군대 앞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신다. 정녕 그분의 군대는 많기도 하고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이는 막강하기도 하구나! 정녕 주님의 날은 큰 날 너무

도 무서운 날 누가 그날을 견디어 내랴?

회개하여라

- 12**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너희는 단식하고 울고 슬퍼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 13** 옷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느님에게 돌아오너라. 그는 너그럽고 자비로운 이 분노에 더디고 자애가 큰? 이 제앙을 내리다가도 후회하는 이다.
- 14** 그가 다시 후회하여 그 뒤에 복을 남겨 줄지 주 너희 하느님에게 바칠 곡식 제물과 제주를 남겨 줄지 누가 아느냐?
- 15** 너희는 시온에서 뿔 나팔을 불어 단식을 선포하고 거룩한 집회를 소집하여라.
- 16** 백성을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하여라. 원로들을 불러 모으고 아이들과 젖먹이들까지 모아라. 신랑은 신방에서 나오고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여라.
- 17** 주님을 섬기는 사제들은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아뢰어라. "주님, 당신 백성에게 동정을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의 소유를 우셋거리로, 민족들에게 아يا갓거리로 남기지 마십시오. 민족들이 서로 '자들의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해야 어찌 되겠습니까?"

주님의 응답과 강복

- 18** 주님께서는 당신 땅에 열정을 품으시고 당신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 19** 주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햇포도주와 햇기름을 보내 주리니 너희는 그것들을 배불리 먹으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민족들에게 우셋거리로 남기지 않으리라.
- 20** 나는 북쪽에서 온 것들을 너희에게서 멀리 내쫓아 메마르고 황량한 땅으로 몰아내리라. 그 전위대는 동쪽 바다로, 후위대는 서쪽 바다로 몰아넣으리라. 그러면 그것들이

씩는 뱀새가 올라오고 악취가 올라오리라." 정녕 그분께서는 큰일을 하셨다.

- 21 땅아, 두려워하지 마라.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주님이 큰일을 하셨다.
- 22 들짐승들이아, 두려워하지 마라. 광야의 풀밭이 푸르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도 풍성한 결실을 내리라.
- 23 시온의 자손들이아, 주 너희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주님이 너희에게 정의에 따라 가을비를 내려 주었다. 주님은 너희에게 비를 쏟아 준다. 이전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쏟아 준다.
- 24 타작마당은 곡식으로 가득하고 황마다 햇포도주와 햇기름이 넘쳐흐르리라.
- 25 너희를 거슬러 내가 보낸 나의 대군 메뚜기와 누리 황충과 풀무치가 먹어 치운 그 여러 해를 갚아 주리라.
- 26 너희는 한껏 배불리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다시는 내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 27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 한가운데에 있음을, 주 너희 하느님이 바로 나요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되리라. 다시는 내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영을 내리시고 구원을 약속하시라

- 3 ¹ 그런 다음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라. 그리하여 너희 아들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리라.
- 2 그날에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 주리라.
- 3 내가 하늘과 땅에 징조를 보여 주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 4 그 크고 두려운?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해는 어둡고, 달은 피로 바뀌리라.
- 5 그때에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는 살아남은 이들이 있고 생존자들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들도 있으리라.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민족들을 심판하시리라

- 4 ¹ 보라, 나는 유대와 예루살렘의 운명을 되돌려 줄 그날과 그때에
- 2 모든 민족들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끌고 내려가서 나의 백성, 나의 소유 이스라엘에 한 일을 두고 그들을 거기에서 심판하시리라. 그들은 내 백성을 민족들 가운데에 흩어 버리고 내 땅을 나누어 가졌다.
- 3 또 제비를 뽑아 내 백성을 나누고서는 소년을 창녀와 맞바꾸고 소녀를 팔아 술을 마셨다.

티로와 시돈과 필리스티아를 징벌하시리라

- 4 티로와 시돈아 그리고 필리스티아의 모든 지방아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하려느냐? 무슨 보복이라도 하려느냐?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면 나는 곧 지체 없이 너희의 행실을 너희 머리 위로 되돌리리라.
- 5 너희는 나의 은과 금을 앗아 가고 나의 값진 보물들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다.
- 6 너희는 유대의 자손들과 예루살렘의 자손들을 그리스인들에게 팔아넘겨 제고장에서 멀리 끌려가게 하였다.
- 7 그러나 이제 나는 너희가 팔아넘긴 그들을 그곳에서 깨워 일으키고 너희의 행실을 너희 머리 위로 되돌리리라.
- 8 나는 너희의 아들딸들을 유대의 자손들을 통하여 팔아넘기리라. 유대의 자손들은 그들을 스바인들에게, 멀리 떨어진 민족에게 팔아넘기리라. 정녕 주님이 말하였다.

민족들을 '결판의 골짜기'로 불러 모으시라

- 9 민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여라. "전쟁을 거룩히 준비하여라. 용사들을 깨워라. 전사들

- 이 모두 가까이 올라오게 하여라.
- 10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나약한 이도 ' 나는 용사다!' 하고 말하게 하여라.
- 11 사방의 모든 민족들이 서둘러 와라. 이곳으로 모여라." — 주님, 당신의 용사들을 내려 보내 주십시오!
- 12 민족들은 일어나 여호사팟 골짜기로 올라가라. 내가 사방의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려고 거기에 자리를 잡으리라.
- 13 낫을 대어라. 수확 철이 무르익었다. 와서 밟아라. 포도 학이 가득 찼다. 학마다 넘쳐 흐른다. 그들의 악이 크다.
- 14 거대한 무리가 ' 결판의 골짜기' 로 모여들었다. ' 결판의 골짜기' 에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
- 15 해와 달은 어두워지고 별들은 제 빛을 거두어들인다.
- 16 주님께서 시온에서 호령하시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치시니 하늘과 땅이 뒤흔들린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파난처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요새가 되어 주신다.
- 17 그때에 너희는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사는 주 너희 하느님임을 알게 되리라.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되고 다시는 이방인들이 이곳을 지나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

- 18 그날에는 산마다 새 포도주가 흘러내리고 언덕마다 젖이 흐르리라. 유다의 개울마다 물이 흐르고 주님의 집에서는 샘물이 솟아 시팀 골짜기를 적시리라.
- 19 이집트는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량한 광야가 되리라. 그들이 유다의 자손들을 폭행하고 그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 20 그러나 유다에는 영원히, 예루살렘에는 대

대로 사람들이 살리라.

- 21 나는 그들의 피를 되갚아 주고 어떤 죄도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주님은 시온에 머무른다.

구약성경 - 37

예언서 - 9

아모스서

총 9 장

총 147 절

[구약성경]-[아모스서]

머리글

1 ¹ 트코야의 목양업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아모스가 전한 말씀. 유다 임금 우찌야 시대에, 곧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의 아들 예로보암 시대에, 지진이 일어나기 이태 전 그는 이스라엘에 관한 환시를 보았다.

하느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

2 아모스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호령하시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치시니 목자들의 풀밭이 사들고 카르멜 꼭대기가 말라 버린다."

다마스쿠스를 거슬러

3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마스쿠스의 세 가지 죄 때문에, 네 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타작기로 길앗 사람들을 짓몽갓기 때문이다.

4 그러므로 내가 하지엘 집안에 불을 보내리니 그 불이 벤 하닷의 성채들을 삼켜 버리리라.

5 나는 다마스쿠스의 성문 빗장을 부러뜨리고 아웬 골짜기에서는 그 주민들을, 벳 에텐에서는 왕홀을 쥔 자를 없애 버리며 이람 백성은 키르로 잡혀가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지를 거슬러

6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지의 세 가지 죄 때문에, 네 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사로잡은 이들을 모조리 끌고 가서 에돔에게 넘겨 버렸기 때문이다.

7 그러므로 내가 가자 성벽에 불을 보내리니 그 불이 성채들을 삼켜 버리리라.

8 내가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을, 아스클론에서

는 왕홀을 쥔 자를 없애 버리고 내 손을 돌려 에크론을 치리니 팔리스티아의 남은 자들까지 멸망하리라."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티로를 거슬러

9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티로의 세 가지 죄 때문에, 네 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형제 계약은 기억하지도 않고 사로잡은 이들을 모조리 에돔에게 넘겨 버렸기 때문이다.

10 그러므로 내가 티로 성벽에 불을 보내리니 그 불이 성채들을 삼켜 버리리라."

에돔을 거슬러

11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돔의 세 가지 죄 때문에, 네 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으리라. 그가 칼을 들고 제 형제를 뒤쫓으며 동정삼마져 버린 채 끊임없이 화를 내고 줄곧 분노를 품었기 때문이다.

12 그러므로 내가 테만에 불을 보내리니 그 불이 보츠라의 성채들을 삼켜 버리리라."

암몬을 거슬러

13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몬 자손들의 세 가지 죄 때문에, 네 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저희 영토를 넓히려고 길앗 여자들의 임신한 배를 갈랐기 때문이다.

14 전쟁의 날, 함성이 터지는 가운데 회오리바람이 몰아치는 날,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내가 라빠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그 불이 성채들을 삼켜 버리리라.

15 그들의 임금은 대신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압을 거슬러

1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압의 세 가지

2 지 죄 때문에, 네 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으리라. 그가 에돔 임금의 뼈를 불살라 헛가루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2 그러므로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 불이 크리옷의 성채들을 삼켜 버리리라. 그리하여 모압은 전투의 아우성 속에서 함성과 뿔 나팔 소리가 나는 가운데 죽어 가리라.

3 나는 또 그 가운데에서 통치자를 없애 버리고 그의 대신들도 모조리 죽여 버리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유다를 거슬러

4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유다의 세 가지 죄 때문에, 네 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주님의 법을 배척하고 그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으며 저희 조상들이 따라다니던 거짓 신들에게 흘러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5 그러므로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그 불이 예루살렘의 성채들을 삼켜 버리리라."

이스라엘을 거슬러

6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의 세 가지 죄 때문에, 네 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빗돈을 발미로 무죄한 이를 팔아넘기고 신 한 켤레를 발미로 빈곤한 이를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7 그들은 힘없는 이들의 머리를 흠먼지 속에 다 짓밟고 가난한 이들의 살길을 막는다. 아들과 아버지가 같은 처녀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

8 제단마다 그 옆에 처당 잡은 옷들을 퍼서 드러놓고 벌금으로 사들인 포도주를 저희 하느님의 집에서 마셔 댄다.

9 그런데 나는 그들 앞에서 아모리인들을 없애 주었다. 그 아모리인들은 향백나무처럼 키가 크고 참나무처럼 강하였지만 위로는 그 열매를, 아래로는 그 뿌리를 없애 주었

다.

10 그리고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이끈 다음 아모리인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다.

11 너희 자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세우고 너희 젊은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나지르인으로 세웠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사실이 그러하지 않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12 그런데 너희는 나지르인들에게 술을 먹고 예언자들에게 '예언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였다.

13 그러므로 이제 나는 곡식 단으로 가득 차 짓눌리는 수레처럼 너희를 짓눌러 버리리라.

14 날랜 자도 달아날 길 없고 강한 자도 힘을 쓰지 못하며 용사도 제 목숨을 구하지 못하리라.

15 활을 든 자도 버릴 수 없고 말 빠른 자도 자신을 구하지 못하며 말 탄 자도 제 목숨을 구하지 못하리라.

16 용사들 가운데 심장이 강한 자도 그날에는 알몸으로 도망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선택과 징벌

3 ¹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님이 너희를 두고, 이집트 땅에서 내가 데리고 올라온 씨족 전체를 두고 한 이 말을 들어라.

2 나는 이 땅의 모든 씨족 가운데에서 너희만 알았다.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지은 너희를 나는 벌하리라."

하느님과 예언자의 행동

3 두 사람이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같이 갈 수 있겠느냐?

4 먹이가 없는데도 사자가 숲 속에서 으렁거리겠느냐? 잡은 것이 없는데도 힘센 사자

가 굴속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 5 미기가 없는데도 새가 땅에 있는 그물로 내려왔겠느냐?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는데 땅에서 그물이 튀어 오르겠느냐?
- 6 성읍 안에서 뿔 나팔이 울리면 사람들이 떨지 않느냐? 성읍에 재앙이 일어나면 주님께서 내리신 것이 아니냐?
- 7 정녕 주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종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비밀을 밝히지 않으시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 8 사자가 포효하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랴?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으랴?

사마리아를 거슬러

- 9 "너희는 아스돗의 성채들과 이집트 땅의 성채들에서 선포하여라. '너희는 사마리아의 산들 위에 모여 그 안에서 일어나는 큰 혼란과 그 속에서 벌어지는 폭행을 보아라.'
- 10 그들은 옳게 행동할 줄을 모른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채 안에 폭력과 억압을 쌓아 올리는 자들이다.
- 11 — 그러므로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적이 이 땅을 포위하고 너의 방어벽을 허물어뜨려 너의 성채들을 약탈하리라."
- 12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다리 두 개나 귀 한쪽을 빼낸다.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 13 침상 발치와 침대 머리맡에서 그렇게 구출되리라.
- 14 너희는 듣고 야곱의 집안을 거슬러 증언하여라. 만군의 하느님, 주 하느님의 말씀이다.
- 15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벌하는 날 베델의 제단들도 벌하리니 제단의 깔들이 꺾여 땅에 떨어지리라.
- 16 나는 여름 별장이다 겨울 별장까지 쳐부수

리라. 상아로 꾸민 집들이 사라지고 큰 집들이 없어지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사마리아의 여자들을 거슬러

- 4¹ 사마리아 산에 사는 바산의 암소들이 이 말을 들어라. 힘없는 이들을 억압하고 빈곤한 이들을 짓밟으며 "우리가 마실 술을 가져와요." 하고 저희 남편들에게 말하는 여자들아!
- 2 주 하느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셨다. "보라, 정녕 그때가 너희에게 다가온다.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리로 끌어가고 너희 가운데 마지막 한 사람마저 낚시로 채가리라.
- 3 너희는 뚫린 성벽으로 한 사람씩 끈장 끌려나가 하르몬으로 내던져지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갈치레뻘인 예베

- 4 "너희는 베델로 오너라. 그리고 죄를 지어라. 길갈로 오너라. 그리고 더욱더 죄를 지어라. 아침에 너희의 희생 제물을 바치고 셋째 날에 너희의 십일조를 바쳐라.
- 5 누룩 든 빵을 감사 예물로 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자원 예물을 공포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주 하느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고집

- 6 "나도 너희의 모든 성읍에 끼릿거리를 없애고 너희의 모든 동네에 먹을거리가 모자라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 7 나는 또 수확을 석 달 남겨 놓은 채 너희에게 비를 내리지 않았다.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려 주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려 주지 않았다. 어떤 밭은 비가 내리고 어떤 밭은 비가 내리지 않아 말라 버렸다.
- 8 그리하여 물을 마시려고 두세 성읍에서 한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몰려들어도 아무도 실컷 마시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 9 나는 마름병과 캄부깃병으로 너희를 치고 너희 정원과 포도밭을 황폐하게 하였다. 또 너희 무화과나무와 올리브 나무는 메뚜기 떼가 먹어 치웠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 10 나는 너희에게 이집트 흑사병을 보내고 너희 젊은이들을 칼로 죽였으며 말들은 잡혀 가게 하였다. 또 너희 진영의 악취가 올라 와서 너희 코를 찌르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 11 나 하느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은 것처럼 너희를 뒤엎어 버리니 너희가 불 속에서 끄집어낸 나무토막처럼 되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 12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니

영광송

- 13 보라, 산을 빗으시고 바람을 창조하신 분 당신의 뜻을 사람에게 알려 주시는 분 아노을을 어둠으로 만드시는 분 땅의 높은 곳을 밟고 가시는 분 그 이름 주 만군의 하느님이시다.

이스라엘을 위한 애가

- 5 ¹ "이스라엘 집안아, 이 말을 들어라, 내가 너희를 두고 부르는 이 애가를.
- 2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구나. 제 땅에 내던져졌어도 일으켜 줄 사람 하나 없구나.
- 3 — 정녕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이스라엘 집안에서 천 명이 출정하던 성

읍은 백 명만 남고 백 명이 출정하던 성읍은 열 명만 남으리라."

삶이나 죽음이냐

- 4 정녕 주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집안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 5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마라. 브에르 세바로 건너가지도 마라. 길갈은 반드시 포로로 잡혀가고 베델은 폐허가 되리라.
- 6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불처럼 들이쳐 요셉 집안을 삼켜 버리리니 베델에는 그 불을 끌 자 없으리라.
- 7 아 너희, 공정을 쓴뿔쫂리로 만들어 버리고 정의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자들이!"

영광송

- 8 묘성과 오리온지리를 만드신 분 암흑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밤처럼 어둡게 하시는 분 바닷물을 불러올리시어 땅 위에 쏟으시는 분 그 이름 주님이시다.
- 9 그분께서는 강한 자 위로 파멸이 번뜩이게 하시고 그 파멸이 요새를 덮치게 하신다.

경고

- 10 그들은 성문에서 울바로 시비를 가리는 이를 미워하고 바른말 하는 이를 역겨워한다.
- 11 너희가 힘없는 이를 짓밟고 도조를 거두어 가니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지어도 그 안에서 살지 못하고 포도밭을 탐스럽게 가꾸어도 거기에서 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 12 정녕 나는 너희의 죄가 얼마나 많고 너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다. 너희는 의인을 괴롭히고 뇌물을 받으며 빈곤한 이들을 성문에서 밀쳐 내었다.
- 13 그러므로 신중한 이는 이러한 때에 입을

다문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 14 너희는 악이 아니라 선을 찾아라. 그래야 살리라. 그래야 너희 말대로 주 만군의 하느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15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정을 세워라. 어찌면 주 만군의 하느님이 요셉의 남은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 지도 모른다.
- 16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 만군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광장마다 곡소리가 터져 나오고 거리마다 '아이고, 아이고!' 하리라. 사람들은 농부들을 불러 통곡하게 하고 곡꾼들을 불러 곡하게 하리라.
- 17 포도밭마다 곡소리가 터져 나오리니 내가 너희 가운데를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주님의 날

- 18 불행하여라, 주님의 날을 갈망하는 자들! 주님의 날이 너희에게 무슨 득이 되느냐? 그날은 어둠일 뿐 결코 빛이 아니다.
- 19 사자를 피해 도망치다가 곶을 만나고 집 안으로 피해 들어가 손으로 벽을 짚었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으리라.
- 20 주님의 날은 어둠일 뿐 빛이 아니지 않느냐? 불빛이라고는 전혀 없이 캄캄할 뿐이다.

이스라엘의 예배를 배척하시라

- 21 "나는 너희의 축제들을 싫어한다. 배척한다. 너희의 그 거룩한 집회를 반길 수 없다.
- 22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하여도 받지 않고 살진 짐승들을 바치는 너희의 그 친교 제물도 거들떠보지 않으리라.
- 23 너희의 시끄러운 노래를 내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의 수금 소리도 나는 듣지 못하겠다.

- 24 다만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 25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광야에서 지낸 사십 년 동안 나에게 희생 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친 적이 있느냐?
- 26 너희는 스스로 만든 너희 임금 사쿰 상과 너희 별 신 케완 상을 짚어지고 가리라.
- 27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마스쿠스 너머로 유배를 보내리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이름 만군의 하느님이시다.

홍청거리는 지도자들

- 6¹ 불행하여라, 시온에서 격정 없이 사는 자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 놓고 사는 자들 으뜸가는 나라의 귀족들! 그들이 게 이스라엘 집안이 의지하려 가는구나.
- 2 너희는 칼네로 건너가서 살펴보아라.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갔다가 필리스티아인들의 성읍 갔으로 내려가 보아라. 너희가 그 왕국들보다 더 나으냐? 너희의 영토가 그들의 영토보다 더 넓으냐?
- 3 너희가 재앙의 날은 밀어내려 하면서도 폭정은 끌어당기는구나.
- 4 그들은 상아 침상 위에 자리 잡고 안락의자에 비스듬히 누워 양 떼에서 고른 어린 양을 잡아먹고 우리에서 가려낸 송이지를 잡아먹는다.
- 5 수금 소리에 따라 되짚는 노래를 불러 대고 다윗이나 된 듯이 악기들을 만들어 낸다.
- 6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고 최고급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 집안이 망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 7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맨 먼저 사로잡혀 끌려가리니 비스듬히 누운 자들의 홍청거림도 끝장나고 말리라.

무서운 징벌

- 8 주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걸고 맹세하셨

다. 주 만군의 하느님의 말씀이다. "나는 야곱의 자만을 역겨워하고 그 성체를 싫어 한다. 나는 성읍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넘겨 버리리라."

9 한 집에 열 사람밖에 남지 않는다 하여도 그들마저 죽을 것이다.

10 죽은 이를 불사르려고 온 친척이 그 집에서 시체를 꺼내 가면서, 그 집 가장 안쪽에 있는 사람에게 "또 있느냐?" 하고 물으면, 그는 "없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그 친척이 "숯!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 하고 말할 것이다.

11 보라, 주님께서 명령하신다. 그분께서 큰 집을 박살내시고 작은 집을 조각내시리라.

뒤틀린 공정과 정의

12 말이 바위 위를 달릴 수 있느냐? 소를 부려 바다를 갈 수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공정을 독으로, 정의의 열매를 쓴훤죽으로 만들어 버렸다.

무익한 승리

13 너희는 로 드바르에서 기뻐하며,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 카르나임을 차지하지 않았느냐?" 하는구나.

14 이스라엘 집안아 주 만군의 하느님의 말씀이다. 내가 지금 너희를 거슬러 한 민족을 일으킨다. 그들은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마른내까지 너희를 억누르리라.

첫 번째 환시: 메뚜기 떼

7 ¹ 주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보여 주셨다. 그분께서는 두 번째 그루 곡식이 올라오기 시작할 무렵에 메뚜기 떼를 빙그레 채셨다. 그 그루 곡식은 임금에게 바치는 수확 다음의 두 번째 것이었다.

2 메뚜기 떼가 땅의 풀을 모조리 먹어 치웠을 때, 내가 이렇게 아뢰었다. "주 하느님, 제발 용서하여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건디

어 내겠습니까? 그는 참으로 보잘것없습니다."

3 그러자 주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두 번째 환시: 불

4 주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보여 주셨다. 주 하느님께서 심판하시려고 불을 부르시니, 그 불이 커다란 심연을 삼키고 들녘도 삼켜 버렸다.

5 그때에 내가 이렇게 아뢰었다. "주 하느님, 제발 멈추어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건디 어 내겠습니까? 그는 참으로 보잘것없습니다."

6 그러자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세 번째 환시: 다림줄

7 그분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보여 주셨다. 다림줄을 드리워 쌓은 성벽 곁에 주님께서 다림줄을 손에 들고 서 계셨다.

8 주님께서 나에게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시기에, 내가 "다림줄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내 백성 이스라엘 한 가운데에 다림줄을 드리우려고 한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겠다."

9 이사야의 산당들은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폐허가 되리라. 내가 칼을 들고 예로보암 집안을 거슬러 일어나리라."

아모스가 베텔에서 쫓겨나다

10 베텔의 사제 아머츠야가 이스라엘 임금 예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집안 한가운데에서 임금을 거슬러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더 이상 참아

넬 수가 없습니다.

- 11 아모스는 이런 말을 해 답니다. ' 예로보암은 칼에 맞아 죽고 이스라엘은 제 고향을 떠나 유배를 갈 것이다. '
- 12 그런 뒤에 아미츠야가 아모스에게 말하였다. "선전자야, 어서 유다 땅으로 달아나, 거기에서나 예언하며 밥을 벌어들여라.
- 13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을 하지 마라.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이며 왕국의 성전이다."
- 14 그러자 아모스가 아미츠야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나는 그저 가축을 키우고 돌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다.
- 15 그런데 주님께서 양 떼를 몰고 가는 나를 붙잡으셨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 16 그러니 이제 너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는 ' 이스라엘을 거슬러 예언하지 말고 이사야의 집안을 거슬러 설교하지 마라.' 하고 말하였다.
- 17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네 아내와 네 성읍에서 창녀가 되고 네 아들딸들은 칼에 맞아 쓰러지며 네 땅은 측량줄로 채어 나누어지고 너 자신은 부정한 땅에서 죽으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제 고향을 떠나 유배를 가리라. '

네 번째 환시: 여름 과일 한 바구니

- 8 ¹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보여 주셨다. 그것은 여름 과일 한 바구니였다.
- 2 그분께서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시기에, 내가 "여름 과일 한 바구니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종말이 다가왔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으리라.

- 3 그날에 성전의 노래가 통곡으로 바뀌리라.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체가 너무 많은 온갖 곳으로 던져지리라. 조용히 하여라!"

속이고 착취하는 자들을 거슬러

- 4 빈곤한 이를 짓밟고 이 땅의 가난한 이를 망하게 하는 자들이 이 말을 들어라!
- 5 너희는 말한다. "언제면 초하룻날이 지나서 곡식을 내다 팔지? 언제면 안식일이 지나서 밀을 내놓지? 에파는 작게, 세켈은 크게 하고 가짜 저울로 속이다.
- 6 힘없는 자를 돈으로 사들이고 빈곤한 자를 싼 한 켈레 값으로 사들이자. 지스려기 밀도 내다 팔자."
- 7 주님께서 야곱의 자만을 두고 맹세하셨다. " 나는 그들의 모든 행동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 8 그 때문에 땅이 뒤흔들리고 온 주민이 통곡하지 않았느냐? 온 땅이 나일 강처럼 불어 오르고 이집트의 나일 강처럼 부풀었다가 잦아들지 않았느냐?"

주님의 날

- 9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나는 한낮에 해가 지게 하고 대낮에 땅이 캄캄하게 하리라.
- 10 너희의 축제를 슬픔으로, 너희의 모든 노래를 애가로 바꾸리라. 나는 모든 사람이 허리에 자루웃을 두르고 머리는 모두 대머리가 되어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통곡하게 하고 그 끝을 비통한 날로 만들리라.
- 11 보라, 그날이 온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땅에 굶주림을 보내리라.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굶주리는 것이다.
- 12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찾아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찾아내지 못하리라.

- 13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 총각들이 목이 말라 지쳐 쓰러지리라.
- 14 사마리아의 죄악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 "단아, 살아 계신 너의 신을 두고 맹세한다." "브에르 세바로 가는 길을 두고 맹세한다." 하는 자들은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다섯 번째 환시: 성전의 진동

- 9¹ 나는 주님께서 제단 옆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들이 흔들리게 하고 기둥들이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하여라.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은 내가 칼로 죽이리라.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고 아무도 피신하지 못하리라.
- 2 그들이 저승으로 파고들더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잡아끌어 올리고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끌어 내리리라.
- 3 그들이 카르멜 꼭대기에 몸을 숨겨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내어 붙잡아 오고 그들이 내 눈을 피해 바다 밑바닥에 숨더라도 내가 바다 뱀에게 명령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물게 하리라.
- 4 그들이 적군 앞에서 끌려가더라도 내가 칼에게 명령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죽이게 하리라. 행복이 아니라 재앙을 겪도록 그들에게서 내 눈을 떼지 않으리라."

영광송

- 5 주 만군의 주님께서 땅에 손을 대시면 땅이 녹아 버리고 그 모든 주민이 통곡하며 온 땅이 나일 강처럼 불어 오르다가 이집트의 나일 강처럼 잿이든다.
- 6 하늘에 당신의 처소를 지으시고 땅 위에 당신의 궁창을 세우시며 바닷물을 불러올리시어 땅 위에 쏟으시는 분 그 이름 주님이시라.

이스라엘에게 특전은 없다

- 7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나에게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똑같지 않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왔듯이 필리스티아인들도 갑트르에서, 아람도 키르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않았느냐?

죄인들의 처벌

- 8 보라, 주 하느님의 눈길이 죄 많은 이 나라 위에 있다. 나는 이 나라를 땅에서 없애 버리리라. 그러나 야곱 집안은 완전히 없애 버리지 않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 9 보라, 내가 이제 명령한다. 채를 흔들듯 내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집안을 흔들리니 돌맹이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 10 내 백성 가운데에서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도 덮치지도 않을 것이다." 하는 죄인들은? 모두 칼에 맞아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회복

- 11 그날에 나는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리라. 벌어진 곳은 배우고 허물어진 곳은 일으켜서 그것을 옛날처럼 다시 세우리라.
- 12 그리하여 그들은 에돔의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린 모든 민족들을 차지하리라. 이 일을 하실 주님의 말씀이다.
- 13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밭가는 이를 거두는 이가 따르고 포도 밟는 이를 씨 뿌리는 이가 따르리라. 산에서 새 포도주가 흘러내리고 모든 언덕에서 새 포도주가 흘러넘치리라.
- 14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운명을 되돌리리니 그들은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곳에 살면서 포도밭을 가꾸어 포도주를 마시고 과수원을 만들어 과일을 먹으리라.
- 15 내가 그들을 저희 땅에 심어 주리니 그들은 내가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

리라. — 주 너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구약성경 - 38

예언서 - 10

오바드야서

총 1 장

총 21 절

[구약성경]-오바드야서

머리글

에돔에 내린 심판

- 1** ¹ 오바드야의 환시. 주 하나님께서 에돔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주님께 말씀을 들었고 민족들에게는 사자가 파견되었다. "너희는 일어나라. 에돔과 싸우러 일어나 가자."
- 2** 보라, 내가 너를 민족들 가운데에서 보잘것 없게 만들리니 너는 크게 멸시를 받으리라.
- 3** 내가 비위틈에 살고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서는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 내리라?'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마는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 4**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치솟아도 내가 별들 사이에 보금자리를 틀고 있어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 내리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 5** 너에게 도둑이 들고 밤에 강도가 들어도 제가 원하는 것만 훔쳐 가지 않느냐? 포도를 따는 사람들이 너에게 들이닥쳐도 지스러기는 남기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어찌 그토록 망해 버렸느냐?
- 6** 에사우가 어찌 그리 털리고 숨겨 둔 보물마저 빼앗겼는가?
- 7** 너와 계약을 맺은 자들이 모두 너를 국경까지 쫓아내고 너와 동맹을 맺은 자들이 너를 속이고 제압하였다. 너와 함께 너의 빵을 먹던 자들이 "저자는 슬기가 없구나." 하면서 네 밑에 올라머를 놓았다.
- 8**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현인들을, 에사우 산에서 슬기를 없애 버리리라.
- 9** 테만이야, 너의 용사들이 겁에 질려 에사우 산에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전멸하리라.

에돔의 멸망

- 10** 네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살인과 폭행 때문에 너는 치욕으로 뒤덮여 영원히 멸망하리라.
- 11** 내가 저만치 떨어져 서 있던 그날 이민족들이 야곱의 재산을 끌어가고 낫선 자들이 그의 대문으로 쳐들어가 에루살렘을 두고 제비를 뽑던 그날 너도 그들과 마찬가지로였다.
- 12** 너는 네 아우의 날을, 그 재난의 날을 흐뭇하게 바라보지 말아야 했다. 유다의 자손들이 멸망하던 날 너는 그를 두고 기뻐하지 말아야 했다. 환난의 날에 너는 입을 크게 벌리지 말아야 했다.
- 13** 내 백성의 제앙의 날에 너는 그의 대문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했다. 그 제앙의 날에 너라도 그의 불행을 흐뭇하게 바라보지 말아야 했다. 그 제앙의 날에 너는 그의 재산에 손을 대지 말아야 했다.
- 14** 너는 갈릴갈에 서서 그 피신하는 이들을 전멸시키지 말아야 했다. 환난의 날에 너는 살아남은 이들을 넘겨주지 말아야 했다.

민족들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

- 15**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한 그대로 너도 당하고 너의 행실이 네 머리 위로 돌아기리라.
- 16** 너희가 나의 거룩한 산에서 쓴잔을 받아 마신 것처럼 모든 민족들도 그것을 끊임없이 마시리라. 그들은 마시고 또 들어켜 아예 없었던 자들처럼 되리라.
- 17** 그러나 시온 산에는 살아남은 이들이 있고 그 시온 산은 거룩한 곳이 되리라. 야곱 집안은 저희를 소유하던 자들을 소유하리라.
- 18** 야곱 집안은 불이, 요셉 집안은 불꽃이 되고 에사우 집안은 검불이 되리라. 그 불과 불꽃이 검불을 태우고 삼켜 버려 에사우 집안에는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주님께서 정녕 이렇게 이르셨다.

새로운 이스라엘

- 19 네겝 사람들은 에사우 산을, 평원 지대 사람들은 필리스티아 땅을 소유하리라. 그들은 에프라임의 영토와 사마리아의 영토를, 벤야민은 길앗을 소유하리라.
- 20 그리고 유배자들,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무리는 사렙타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을 소유하리라. 스파랏에 사는 예루살렘 출신 유배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소유하리라.
- 21 구원받은 이들은 시온 산으로 올라와 에사우 산을 다스리리니 이 나라는 주님의 나라가 되리라.

구약성경 - 39

예언서 - 11

요 나 서

총 4 장

총 48 절

[구약성경]-[요나서]

요나가 주님을 피하여 달아나다

- 1 ¹ 주님의 말씀이 아미타이의 아들 요나에게 내렸다.
- 2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그 성읍을 거슬러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나에게까지 치솟아 올랐다."
- 3 그러나 요나는 주님을 피하여 타르시스로 달아나려고 길을 나서 아포로 내려갔다. 마타르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뺏쌌을 치르그 배에 올랐다. 주님을 피하여 사람들과 함께 타르시스로 갈 셈이었다.
- 4 그러나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 5 그러자 뺏사람들이 겁에 질려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으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안에 있는 짐들을 바다로 내던졌다. 그런데 배 밀창으로 내려간 요나는 드러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다.
- 6 선장이 그에게 다가가 말하였다. "당신은 어찌 이렇게 깊이 잠들 수가 있소? 일어나서 당신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나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주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 7 뺏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자,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알아봅시다."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뽑혔다.
- 8 그러자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닥쳤는지 말해보시오. 당신은 무엇하는 사람이고 어디서 오는 길이요?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느 민족이요?"
- 9 요나는 그들에게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바다와 물을 만드신 주 하늘의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10 그러자 그 사람들은 더욱더 두려워하며, "당신은 어째서 이런 일을 하였소?" 하고 말하였다. 요나가 그들에게 사실을 털어놓아, 그가 주님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다.
- 11 바다가 점점 더 거칠어지자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 12 요나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 바다에 내던지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이 큰 폭풍이 당신들에게 들이닥친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소."
- 13 사람들은 물으로 되돌아가려고 힘껏 노를 저었으나, 바다가 점점 더 거칠어져 어쩔 수가 없었다.
- 14 그러자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아, 주님! 이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킨다고 부디 저희를 말하지는 마십시오. 주님, 당신께서는 뜻하신 대로 이 일을 하였으니, 저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 15 그리고 나서 그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내던지자, 상난 바다가 잔잔해졌다.
- 16 사람들은 주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 서원을 하였다.

요나가 회개하고 살아나다

- 2 ¹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시켜 요나를 삼키게 하였다. 요나는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그 물고기 배 속에 있었다.
- 2 물고기 배 속에서 요나는 주 그의 하느님께 기도드리며,
- 3 이렇게 이르었다. "제가 곤궁 속에서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승의 배 속에서 제가 부르짖었더니 당신께서 저의 소리를 들어 주셨습니다.
- 4 당신께서 바다 속 깊은 곳에 저를 던지시니 큰 물이 저를 에워싸고 당신의 그 모든 파

- 도와 물결이 제 위를 지나갔습니다.
- 5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뢰었습니다. '당신의 눈앞에서 쫓겨난 이 몸 이제 제가 어찌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 6 물이 저의 목까지 차오르고 심연이 저를 에워쌌으며 바닷말이 제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 7 저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고 땅은 빗장을 내려 저를 영원히 가두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구렁에서 제 생명을 건져 올리셨습니다.
- 8 제 일이 아득해질 때 저는 주님을 기억하였습니다. 저의 기도가 당신께, 당신의 거룩한 성전에 다다랐습니다.
- 9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신의를 저버립니다.
- 10 그러나 저는 감사 기도와 함께 당신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 제가 서원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주님의 것입니다."
- 11 주님께서는 그 물고기에게 분부하시어 요나를 육지에 뱉어 내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니네베로 가다

- 3 ¹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내렸다.
- 2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 3 요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베로 갔다. 니네베는 가로지르는 데에만 사흘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 4 요나는 그 성읍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하룻길을 걸은 다음 이렇게 외쳤다. "이제 사십 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 5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었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루옷을 입었다.
- 6 이 소식이 니네베 임금에게 전해지자, 그도

- 왕좌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자루옷을 걸친 다음 잣대미 위에 앉았다.
- 7 그리고 그는 니네베에 이렇게 선포하였다. "임금과 대신들의 칙령에 따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아무것도 맛보지 마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라.
- 8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자루옷을 걸치고 하느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제 악한 길과 제 손에 놓인 폭행에서 돌아서야 한다.
- 9 하느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리시고 그 타오르는 진노를 거두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 10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하느님께서 요나에게 자애를 깨우쳐 주시다

- 4 ¹ 요나는 이 일이 매우 언짢아서 화가 났다.
- 2 그래서 그는 주님께 기도하였다. "아, 주님! 제가 고행에 있을 때에 이미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둘러 타르시스로 달아났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느님이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크시며, 벌하사다가도 쉬이 마음을 돌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 3 이제 주님, 제발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았습니다."
- 4 주님께서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말씀하셨다.?
- 5 요나는 그 성읍에서 나와 성읍 동쪽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하였다.
- 6 주 하느님께서는 아주까리 하나를 마련하시

- 어 요나 위로 자라오르게 하셨다. 그러자 아주까리가 요나 머리 위로 그늘을 드리워 그를 고통스러운 더위에서 구해 주었다. 요나는 그 아주까리 덕분에 기분이 아주 좋았다.
- 7 그런데 이튿날 동이 틀 무렵, 하느님께서 벌레 하나를 마련하시어 아주까리를 쏘게 하시니, 아주까리가 시들어 버렸다.
- 8 해가 떠오르자 하느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보내셨다. 거기에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요나는 기절할 지경이 되어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 9 그러자 하느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셨다. "아주까리 때문에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은냐?" 그가 "옳다 뿐입니까?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고 대답하니,
- 10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았으며,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 버린 이 아주까리를 그토록 동정하는구나!
- 11 그런데 하물며 오른쪽과 왼쪽을 가릴 줄도 모르는 사람이 십이만 명이나 있고, 또 수많은 짐승이 있는 이 커다란 성읍 니네베를 내가 어찌 동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구약성경 - 40

예언서 - 12

미 카 서

총 7 장

총 105 절

[구약성경]-[미카서]

머리글

1 ¹ 유다 임금 요담, 아하즈, 히즈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카에게 내린 주님의 말씀. 그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시다.

이스라엘을 단죄하시다

- 2** 민족들아, 모두 들어라.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슬러 증인으로 나서신다.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성전에서 나오신다.
- 3** 보라, 주님께서 당신의 거처에서 나오시어 땅의 높은 곳으로 내려와 밟으시니
- 4** 산들이 그분 아래에서 녹아내리고 골짜기들이 갈라진다. 불 앞에서 녹아내리는 밀초 같고 벼랑에서 쏟아져 내리는 물과 같다.
- 5** 이 모든 것은 야곱의 죄, 이스라엘 집안의 죄악 때문이다. 야곱의 죄가 무엇이나?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죄악이 무엇이나? 예루살렘이 아니냐?
- 6** 그러므로 나는 사마리아를 빈 들의 폐허로, 포도나 심는 곳으로 만들리라. 나는 그 돌들을 계곡에 쏟아 붓고 그 기초들을 드러나게 하리라.
- 7** 그곳의 신상들은 모두 산산이 부서지고 그 모든 해웃값은 불에 타 버리리라. 나는 또 그곳의 우상들을 모두 조각내리라. 창녀의 해웃값으로 그것들을 모았으니 창녀의 해웃값으로 돌아가리라.

예언자의 애가

- 8** 이 때문에 나는 슬피하고 울부짖으며 맨발에 알몸으로 걸어 다니고 승냥이처럼 슬피 울며 타조처럼 애처롭게 울리라.
- 9** 나를 길 없는 그 상처가 유다까지 다다라 내 백성의 성문까지, 예루살렘까지 이트렸

기 때문이다.

- 10** 너희는 것에서 이 일을 알리지 말고 울지도 마라. 벧 르아프라에서는 먼지 위에서 땡굴어라.
- 11** 사피르의 주민들이 벌거벗은 채 부끄러워하며 지나가라. 차아난의 주민들은 나오지 마라. 통곡하는 벧 에셀은 더 이상 너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리라.
- 12** 장녕 마룻의 주민들은 행복을 기다렸으나 주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예루살렘 성문에 내려왔을 뿐이다.
- 13** 라키스의 주민들이 군마에 병거를 매어라. 그곳은 딸 시온이 지은 죄의 근본. 너에게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드러났다.
- 14** 그러므로 너희는 모레셋 것에게 작별의 선물을 주어야 한다. 악집의 집들은 이스라엘 임금들에게 속임수가 되리라.
- 15** 마레사의 주민들이 나는 너희에게 절령자를 다시 불러들이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달아나리라.
- 16** 귀여운 자녀들을 생각하여 너희는 머리를 밀어라, 머리털을 깎아라. 그들이 너희를 두고 사로잡혀 가리니 너희는 독수리처럼 대머리가 되어라.

착취자들을 거슬러

- 2** ¹ 불행하여라, 불의를 꺾하고 잠자리에서 악을 꾸미는 자들! 그들은 능력이 있어 아침이 밝자마자 실행에 옮긴다.
- 2** 탐이 나면 밭도 빼앗고 집도 차지해 버린다. 그들은 주인과 그 집안을, 임자와 그 재산을 유린한다.
- 3**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이 족속을 거슬러 재앙을 내리려고 하니 너희는 거기에서 목을 빼내지 못하고 으스대며 걸지도 못하리라. 재앙의 때이기 때문이다.
- 4** 그날에는 사람들이 너희를 두고서 조롱의

노래를 부르고 너희는 서럽게 애가를 읊으리라. '우리는 완전히 망했네. 그분께서 내 백성의 몫을 바꾸어 버리셨네. 어떻게 우리 밭을 빼앗으시어 변절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던 말인가?'

5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고 줄을 드리워 줄 이가 주님의 회중에는 아무도 없으리라."

거짓 설교자들을 거슬러

6 "너희는 설교하지 마라." 하고 그들은 설교한다. "아무도 이 일에 관하여 설교하지 마라. 치욕이 우리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7 야곱 집안이 저주를 받아야 하겠느냐? 주님의 인내가 모자란단 말인가? 그분께서 그러한 일을 하시겠느냐? 바르게 걷는 이에게 그분의 말씀이 유익하지 않단 말인가?"

8 그러나 너희는 내 백성에게 원수가 되어 일하였다. 싸울 뜻 없이 안심하고 지나가는 이들에게서 너희는 겉옷을 벗겨 냈다.

9 너희는 내 백성의 아내들을 정든 집에서 쫓아내고 그 아이들에게서는 내가 준 영예를 영원히 빼앗아 버렸다.

10 너희는 어서 떠나라. 이곳은 안식처가 아니다. 쓰디쓴 파멸을 부르는 부정 때문이다.

11 누가 바람을 쫓아다니며 거짓말을 퍼뜨리고 "나는 너에게 포도주와 독주에 관하여 설교할 것이다." 한다면 그자야말로 이 백성의 설교자가 되리라.

구원을 약속하시다

12 야곱아, 나는 기어이 너희를 모두 모으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반드시 모아들이리라. 우리에게 있는 양 떼처럼, 풀밭 가운데에 있는 가축 떼처럼 그들을 한데 모아 놓으리니 사람들로 복적거리리라.

13 길을 뚫는 이가 앞장서 올라가면 그들도 길을 뚫고 성문을 지나 밖으로 나가리라. 그들의 입금이 앞장서 가고 주님이 그들의

선두에 서리라.

백성을 억압하는 지도자들을 거슬러

3 ¹ 나는 말하였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안의 지도자들아, 들어라. 공정을 바로 아는 것이 너희 일이 아나?"

2 그런데 너희는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며 사람들의 살갓을 벗겨 내고 뼈에서 살을 발라낸다.

3 그들은 내 백성의 살을 먹고 그 살갓을 벗기며 그 뼈를 바순다. 내 백성을 냄비에 든 살코기처럼, 가마솥에 담긴 고기처럼 잘게 썬다."

4 그러고 나서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었지만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리라. 그때에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감추시리니 그들이 악하게 행동하였기 때문이다.

거짓 예언자들을 거슬러

5 내 백성을 잘못 이끄는 예언자들을 거슬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먹은 것이 있으면 평화를 외치지만 저희 입에 아무것도 넣어 주지 않는 이들에게는 전쟁을 선포한다."

6 그러므로 밤은 너희에게 환시 없는 밤이 되고 점을 칠 수 없는 암흑이 되리라. 예언자들 위에서는 해가 저물고 낮이 어두워지리라.

7 선견자들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점쟁이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그들은 모두 콧수염을 가리리니 하느님에게서 응답이 없기 때문이다.

8 그러나 나는 야곱에게 그 죄를 밝히고 이스라엘에게 그 죄악을 선포할 힘과 주님의 영으로, 공정과 능력으로 가득 차 있다.

예루살렘의 멸망

- 9 울바른 것을 역겨워하고 울곧은 것마다 왜곡하는 아굽 집안의 우두머리들이 이스라엘 집안의 지도자들이, 이 말을 들어라.
- 10 너희는 피로 시온을, 불의로 예루살렘을 세운다.
- 11 그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받아 판결을 내리고 사제들은 값을 받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 짐을 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제앙이 닥칠 리 없다." 하고 말한다.
- 12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시온은 갈아엎어져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폐허 더미가 되며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수풀 언덕이 되리라.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오리라

- 4 ¹ 마지막 때에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산들 가운데에서 가장 높이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백성들이 이리로 밀려들고
- 2 수많은 민족이 모여 모여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아굽의 하느님 집으로 올라가자.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 3 그분께서 수많은 백성 사이의 사비를 가리시고 멀리 떨어진 강한 민족들의 잘못을 밝혀 주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 4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지내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 5 정녕 모든 민족들은 저마다 자기 신의 이름

으로 걸어가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느님의 이름으로 언제나 지나 영원히 걸어가리라.

흩어진 이스라엘인들이 다시 모이리라

- 6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나는 절뚝거리는 이들을 모으고 내뿜긴 이들과 내가 고생시킨 이들을 모아들이리라.
- 7 나는 절뚝거리는 이들을 남은 자들로 만들고 쫓겨난 이들을 강한 민족으로 만들리라. 주님이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들을 다스리리라.
- 8 너 가축 떼의 탐아 딸 시온의 언덕이 이전의 통치권이 딸 예루살렘의 왕권이 너에게 오리라, 돌아오리라.

시온의 시련과 구원

- 9 어찌하여 너는 지금 큰 소리로 부르짖느냐? 너에게 임금이 없었느냐? 너의 고문관이 죽었느냐? 아이 낳는 여인의 진통과 같은 괴로움이 너를 덮친 것이냐?
- 10 딸 시온아 해산하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며 신음하여라. 이제 네가 성을 떠나 들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너는 바빌론까지 가야 하리라. 거기에서 너는 구출되고 거기에서 주님이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 11 그러나 지금은 수많은 민족이 너를 거슬러 모여 "시온이 망하는 꼴을 우리 눈으로 지켜보자." 하고 말한다.
- 12 그렇지만 그들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주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한다, 곡식 단들을 타작마당으로 모으듯 그들을 모아들이신 것을.
- 13 딸 시온아, 일어나 밟아라. 내가 네 뿔을 쇠로 만들고 네 굽을 놋쇠로 만들리라. 너는 수많은 민족을 짓밟아 그들이 노획물을 주님에게, 재물을 온 세상의 주님에게 바치게 하리라.

현재의 임금과 미래의 메시아 임금

14 악탈대의 딸아, 이제 네 몸에 상처를 내어라! 우리가 포위되었다. 그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 판관의 뺨을 친다.

5 ¹ 그러나 너 에프라타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에서 보잘 것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그의 뿌리는 옛날로, 이득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2 그러므로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주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리라. 그 뒤에 그의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오리라.

3 그는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주 그의 하느님 이름의 위엄에 힘입어 목자로 나서리라. 그러면 그들은 안전하게 살다니 이제 그가 땅 끝까지 위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4 그리고 그 자신이 평화가 되리라. 아시리아가 우리 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 땅을 밟으면 우리는 그들을 거슬러 일곱 목자와 여덟 채후를 세우리라.

5 그들은 아시리아 땅을 칼로 다스리고 니르롯 땅을 검으로 다스리리라. 아시리아가 우리 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 국경을 밟으면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에서 구출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

6 그때에 야곱의 남은 자들은 수많은 민족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내려 주시는 이슬처럼, 위에 내리는 비처럼 되리라. 사람에게 바라지도 않고 인간에게 희망을 두지도 않는 비처럼 되리라.

7 야곱의 남은 자들은 민족들 가운데에서 수많은 백성 한가운데에서 숲 속 짐승들 사이에 있는 사자처럼, 양 떼 속에 있는 힘센 사자처럼 되리라. 지나다니며 먹이를 밟고 찢어도 누구 하나 빼내지 못하는 힘센 사자

처럼 되리라.

8 너의 손은 적들 위로 높이 들리고 너의 왼수들은 모두 파멸하리라.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정화하시다

9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나는 네 가운데에서 군마들을 없애고 병거들을 부수어 버리리라.

10 네 땅의 성읍들을 없애 버리고 요새들을 모두 허물어 버리리라.

11 나는 또 네 손에서 마술을 없애 버리리니 너에게 다시는 마술사들이 없으리라.

12 너의 우상들을 없애고 네 가운데에서 기념 기둥들을 없애 버리리니 너는 네 손으로 만든 것에 더 이상 절하지 않으리라.

13 나는 네 안에서 아세라 목상들을 뽑아 버리고 성읍들을 파괴하리라.

14 나는 또한 복종하지 않는 민족들에게 분노와 진노로 보복하리라.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하시다

6 ¹ 너희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일어나 산들 앞에서 고소 내용을 밝히고 언덕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여라."

2 산들이 땅의 견고한 기초들이, 주님의 고소 내용을 들어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고소하시고 이스라엘을 고발하신다.

3 내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무엇으로 너희를 성가시게 하였느냐? 대답해 보아라.

4 정녕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구해 내었으며 너희 앞으로 모세를, 아론과 미르얌을 보냈다.

5 내 백성아, 기억해 보아라, 모압 임금 발락이 무슨 계락을 꾸짖었는지 브오르의 아들 발라암이 그에게 무엇이라 대답하였는지 시팀

에서 길가에 이르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면 너희가 주님의 구원 업적을 알게 되리라.

참다운 경신례

6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까? 번제물을 가지고 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7 수천 마리 숫양이면, 만 개의 기름 강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죄를 벗으려면 내 만아들을, 내 죄악을 갚으려면 이 몸의 소생을 내놓아야 합니까?

8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이고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너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의 불의와 징벌

9 주님께서 도성에 외치시는 소리다. — 당신의 이름을 경외함은 슬기입니다. — 지파야, 도성의 회중아, 들어라.

10 "내가 악인의 집에 있는 악의 보물들과 저 주받은 영터리 에파를 얻을 수 있었느냐?"

11 내가 부정한 저울을 거짓 추가 담긴 주머니를 옮다고 할 수 있었느냐?

12 도성의 부자들은 폭력을 일삼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며 그들 입 안의 혀는 속이는 말만 한다.

13 그러므로 나도 너의 죄 때문에 너를 치고 파멸시키기 시작하였다.

14 나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배고픔이 네 안에서 없어지지 않으리라. 내가 무엇을 따로 떼어 놓아도 그것을 보존할 수 없고 무엇을 보존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갈에 넘겨 버리리라.

15 내가 씨를 뿌려도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울리브를 짜도 네 몸에 기름을 바르지 못하

며 포도를 밟아도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16 나는 오므리의 규정과 아합 집안의 모든 행위를 따르고 그들의 뜻에 따라 걸었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패허로 만들고 너의 주민들을 비웃음 거리로 만들리라. 그리하여 너는 내 백성의 차욕을 짊어지리라."

온 백성의 타락

7¹ 아, 슬프다! 나는 여름 과일을 수확한 뒤에 남은 것을 모으는 사람처럼, 포도를 딴 뒤에 지스러기를 모으는 사람처럼 되었던만 먹을 포도송이도 없고 내가 그토록 바랐던 햇무화과도 없구나.

2 경건한 이는 이 땅에서 사라지고 사람들 가운데 옮은 이는 하나도 없구나. 모두 남의 피를 흘리려고 숨어 기다리고 저마다 제 형제를 그물로 잡는다.

3 그들의 손은 악을 저지르는 데에 이력이 나있고 권리와 관권은 뇌물을 달라 하며 권력자는 제가 원하는 것만 지시한다. 이처럼 그들은 모든 것을 그르친다.

4 그들 가운데 가장 좋다는 자도 가시덤불 같고 울곧다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 같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재앙의 날이 다가왔다. 이제 그들에게 혼란이 일어나리라.

5 친구를 믿지 말고 벗을 신뢰하지 마라. 네 품에 안겨 잠드는 여자에게도 네 입을 조심하여라.

6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대든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7 그러나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리라. 내 하나님께서 내 청을 들어 주시리라.

시련과 복구

8 내 원수야, 나를 두고 기뻐하지 마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어둠 속에 앉아 있어도 주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신다.

- 9 내가 그분께 죄를 지었으니 그분께서 나에게 판결을 내리시고 권리를 찾아 주실 때까지 나는 주님의 분노를 짊어지리라. 그분께서 나를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시라니 나는 그분의 의로움을 보리라.
- 10 "주 너의 하느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고 나에게 말하던 원수는 그것을 보고 수치를 느끼리라. 그리하여 내 눈은 원수의 몰락을 보고 그 원수는 이제 거리의 오물처럼 짓밟히리라.
- 11 너의 벽을 쌓는 날 그날에 너의 국경이 넓혀지리라.
- 12 그날에 아시리아에서 이집트까지 이집트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온갖 곳에서 사람들이 너에게 오리라.
- 13 세상은 그 주민들 때문에, 그들의 행동 때문에 황폐하게 되리라.

에루살렘의 기도

- 14 과수원 한가운데 숲 속에 홀로 살아가는 당신 백성을, 당신 소유의 양 떼를 당신의 지팡이로 보살피 주십시오. 옛날처럼? 바산과 길앗에서 그들을 보살피 주십시오.
- 15 당신께서 이집트 땅에서 나오실 때처럼 저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 주십시오.
- 16 민족들이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며 손을 입에 댈 것입니다 그들의 귀가 막힐 것입니다.
- 17 그들은 뱀처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것처럼 먼지를 밟고 저희 요새에서 떨어져 주 우리 하느님께로 나오고 무서워하면서 당신을 경외할 것입니다.
- 18 당신의 소유인 남은 자들,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못 본 체해 주시는 당신 같으신 하느님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분은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까이 자애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 19 그분께서는 다시 우리를 가엾이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들을 모르는 체해 주시리라. 당신께서 저희의 모든 죄악을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 주십시오.
- 20 먼 옛날 당신께서 저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아굽을 성실히 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자애를 베풀어 주십시오.

구약성경 - 41

예언서 - 13

나 훔 서

총 3 장

총 47 절

[구약성경]-[나훔서]

머리글

1 ¹ 니네베에 관한 신탁. 엘코스 사람 나훔이 본 환시의 책.

열정을 지니신 하느님

- 2** 주님은 열정을 지니신 분, 보복하시는 하느님 주님은 보복하시는 분,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당신의 적들에게 보복하시는 분 당신의 원수들에게 화를 터뜨리시는 분이시다.
- 3** 주님은 분노에 더디시고 힘이 뛰어난 분, 그러나 벌하지 않으신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폭풍과 회오리바람은 그분께서 다니시는 길이며 구름은 그분 발밑에 이는 먼지다.
- 4** 그분께서는 바다를 꾸짖어 말려 버리시고 강들을 모조리 바닥까지 드러내신다. 바산과 카르멜이 사들고 레바논의 초목이 시든다.
- 5** 그분 앞에서 산들이 떨고 언덕들이 비틀거린다. 그분 앞에서 땅이, 세상과 그 모든 주민이 황폐해진다.
- 6** 그분의 노기 앞에서 누가 버틸 수 있으랴? 그분의 타오르는 분노에 누가 맞설 수 있으랴? 그분의 진노가 불같이 쏟아지니 그분 앞에서 바위들이 부서진다.
- 7** 주님은 선하신 분 환난의 날에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분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을 알아 주시는 분이시다.
- 8**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께 맞서는 자들을 넘쳐흐르는 홍수로 끝장내시고 당신의 원수들을 어둠 속까지 쫓으신다.

유다와 니네베에 내리는 신탁

- 9** 너희는 주님께 무슨 음모를 꾸미느냐? 그분은 모조리 끝장내시는 분 어떤 적대자도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 10** 그들은 가시나무처럼 뒤엎히고 술고래처럼 굼아떨어졌다. 그들은 바삭 마른 감불처럼 타 버리리라.
- 11** 주님을 거슬러 악을 꾀하는 자 사악한 일을 꾸미는 자가 너에게서 나왔다.
- 12**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빈틈 없고 그토록 많아도 잘려 나가 사라지고 말리라. 내가 너를 괴롭혔지만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으리라.
- 13** 이제 나는 그가 너에게 메운 멩애를 부러뜨리고 너를 묶은 사슬을 끊어 주리라."
- 14** 주님께서 너를 거슬러 명령을 내리셨다. "다시는 너의 이름을 이을 자손이 나지 않으리라. 나는 조각 신앙과 주조 신앙을 너의 신전에서 없애 버리고 네 무덤을 파 놓으리니 내가 쓸모없기 때문이다."

- 2** ¹ 보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평화를 알리는 이의 발이 산을 넘어온다. 유다야, 축일을 지내고 서원을 지켜라. 불한당이 다시는 너를 넘나들지 못할 것이다. 그는 완전히 망하였다.
- 2** 파괴자가 너를 치러 올라갔다. 성채를 지키고 길을 살피며 허리를 동여매고 힘을 모두 모아라.
- 3**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들을 망쳐 버렸지만 정녕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영예처럼 아굽의 영예를 되돌려 주시리라.

니네베의 패망

- 4**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군사들은 자주색 옷을 입었다. 그가 전열을 갖추는 날 병거의 쇠발이들은 불타는 듯하고 창들은 물결친다.
- 5** 병거들이 거리에서 치닫고 광장에서 앞다투어 달려가니 그 모습이 햇불 같고 번개처럼

- 림 여기저기 번쩍인다.
- 6 그가 군관들을 부르자 그들은 비틀거리면서도 나아간다. 그들은 성벽으로 서둘러 가서 화살 막이를 세운다.
- 7 강이 수문들이 열리니 왕궁은 불안에 떠난다.
- 8 왕후는 끌려 나와 사로잡혀 가고 시녀들은 비둘기 소리처럼 한숨지며 가슴을 친다.
- 9 오래전부터 물웅덩이 같던 나네베, 물이 빠지기 시작하자 "땀추어라, 땀추어라!" 하고 소리치지만 돌아보는 자 아무도 없다.
- 10 너희는 은을 털어라! 금을 털어라! 보물이 얼마든지 쌓여 있다. 온갖 값진 기물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
- 11 황량, 황폐, 폐허! 심장은 녹아 내리고 무릎은 후들거리며 허리는 모두 떨리고 얼굴은 죄다 하얗게 질린다.
- 12 사자들의 굴이 어디 있느냐? 새끼 사자들의 소굴이 어디 있느냐? 수사자와 암사자와 새끼 사자가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드나들던 그곳.
- 13 그 수사자가 새끼들에게 먹을 것을 넉넉히 찢어 주고 암컷들에게 먹이를 잡아 주더니, 제 바위 굴을 먹이로, 찢어 놓은 고기로 제 굴을 가득 채우더니.
- 14 보라, 내가 너에게 맞서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너의 병거를 언기 속에 불태워 버리고 칼이 네 새끼 사자들을 삼키게 하리라. 또 너의 먹이를 이 땅에서 없애 버리고 다시는 전령들의 전갈이 들려 오지 않게 하리라.

3 ¹ 불행하여라, 피의 성읍! 온통 거짓 뿐이고 노획물로 가득한데 노략질을 그치지 않는다.

- 2 채찍 소리 요란하게 굴러가는 바퀴 소리 달려오는 말 튀어 오르는 병거
- 3 돌격하는 기병 번뜩이는 칼 번쩍이는 창 수없이 살해된 자들 시체 더미 끝이 없는 주

- 검. 사람들이 주검에 걸려 비틀거린다.
- 4 수없이 불륜을 저지르고 미술사가 되어 사람들을 흘린 탓이다. 불륜으로 민족들을, 마술로 부족들을 팔아먹은 탓이다.
- 5 보라, 내가 너에게 맞서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네 옷자락을 얼굴 위로 걸어 올려 네 알몸을 민족들이 보고 네 치부를 왕국들이 보게 하리라.
- 6 나는 너에게 오물을 던지고 너를 욕보이며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라.
- 7 너를 보는 자마다 너에게서 달아나며 "나네베가 망하였다! 누가 그를 기없이 여기겠느냐?" 하고 말하리니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해 줄 자들을 찾으랴?
- 8 내가 테베보다 낮은 말이나? 나일 강 곁에 자리 잡아 강물이 둘러싸고 바다가 방어벽이며 물이 성벽인 그곳.
- 9 에티오피아가 그 힘이 되고 이집트도 끝없이 그 힘이 되어 주었다. 꽃과 리비아인들은 그 협조자들이었다.
- 10 그러한 테베도 유배를 가고 포로로 끌려갔다. 잿먹이들도 거리 모퉁이마다 내동댕이쳐지고 귀족들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으며 고관들은 모조리 사슬로 묶였다.
- 11 너도 얼이 빠져 숨어야 하리라. 너도 원수를 피해 숨을 곳을 찾아야 하리라.
- 12 너의 모든 요새는 첫 열매들이 달린 무화과나무 같다. 그것들은 흔들기만 하면 먹을 사람의 입에 떨어진다.
- 13 보라, 네 군대들! 네 한가운데에 있는 그 군대는 여자들뿐이다. 네 땅의 성문들은 원수들에게 활짝 열리고 그 빗장들은 불이 삼켜 버린다.
- 14 포위에 대비하여 물을 길어 두고 요새들을 튼튼하게 하여라. 흙 밭에 들어가 진흙을 밟고 벽돌 짚는 틀을 잡아라.
- 15 자기에서 불이 너를 삼키고 칼이 너를 베어 버리리라. 불이 누리 때를 삼키듯 너를

삼켜 버리리라. 누리 떼처럼 불어나고 메뚜기 떼처럼 불어나 보아라.

- 16 너는 상인들을 하늘의 별들보다 더 많게 하였다. 그러나 누리 떼는 허물을 벗고 날아가 버리리라.
- 17 네 수비병들은 메뚜기 떼처럼 많고 네 관리들은 풀무치 무리 같다.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붙어 있다가 해만 뜨면 날아가 버리니 그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 18 아시리아 임금아 네 목자들은 즐고 군관들은 드러누워 있다. 네 백성이 산에 흩어졌으나 모을 자가 하나도 없다.
- 19 네 상처는 아물 길 없고 부상은 나을 길이 없다. 네 소식을 듣는 이들은 모두 너를 두고 손뼉을 쳐댄다. 너의 끊임없는 악행을 겪어 보지 않은 이가 있느냐?

구약성경 - 42

예언서 - 14

하바쿱서

총 3 장

총 56 절

[구약성경]-[하바룩서]

머리글

1 ¹ 하바룩 예언자가 환시로 본 신탁.

예언자가 탄원하다

- 2** 주님, 당신께서 듣지 않으시는데 제가 언제까지 살려 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까? 당신께서 구해 주지 않으시는데 제가 언제까지 "폭력이다!" 하고 소리쳐야 합니까?
- 3** 어찌하여 제가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제가 재난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제 앞에는 억압과 폭력뿐 이느니 시비요 생기느니 싸움뿐입니다.
- 4** 그러니 법은 스러지고 공정은 영영 모습을 드러내지도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니 왜곡된 공정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느님께서 응답하시다

- 5** 너희는 민족들을 보고 또 바라보아라. 잘겍하고 또 질겍하여라. 너희 시대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리니 그것을 듣더라도 너희는 믿지 못하리라.
- 6** 이제 내가 사납고 격렬한 민족 칼테아인들을 일으키리니 그들은 넓은 세상으로 진군하여 남들이 사는 곳을 차지하리라.
- 7**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민족 법과 권위를 멋대로 내세운다.
- 8** 그들의 말들은 표범보다 날렵하고 저녁 이리보다 민첩하며 그 군마들은 당당히 내달란다. 기병들은 먼 곳에서 달려온다 먹이를 달치는 독수리처럼 썰매에 날아온다.
- 9** 얼굴은 모두 앞을 향하고 저마다 폭력을 휘두르러 외서는 포로들을 모래알처럼 모아 놓는다.
- 10** 그들은 임금들을 엽신어기고 통치자들을 비웃는다. 어떤 성채도 우습게 여기며 흙을 쌓아 그것을 점령한다.

- 11** 그러나 제 힘을 하느님으로 여겨 죄를 지은 자들 그들은 바람처럼 지나가 사라지리라.

예언자가 다시 탄원하다

- 12** 주님, 당신은 옛날부터 불멸하시는 저의 하느님, 저의 거룩하신 분이 아니셨습니까? 주님, 당신께서는 심판하시려고 그를 내세우셨습니다. 바위시여, 당신께서는 벌하시려고 그를 세우셨습니다.
- 13** 당신께서는 눈이 밝으시어 악을 보아 넘기지 못하시고 잘못을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시면서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바라보고만 계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이를 잡아 삼켜도 잠잠코 계십니까?
- 14** 당신께서는 사람을 바다의 물고기처럼 만드시고 우두머리 없이 기어 다니는 것처럼 만드셨습니다.
- 15** 그는 사람들을 모두 낚시로 낚아 올리고 그물로 끌어 올리며 썰개로 모으고 나서는 기뻐 날뛰며
- 16** 자기 그물에다 제물을 바치고 썰에다 분향을 합니다. 그것을 덕분에 그의 몫이 기름지고 음식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 17** 이렇게 그가 줄곧 그물을 비워 대고 민족들을 무자비하게 죽여도 됩니까?

2 ¹ 나는 내 초소에 서서, 성벽 위에 자리 잡고서 살펴보리라. 그분께서 나에게 무어라 말씀하시는지, 내 하소연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주님께서 다시 응답하시다

- 2**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환시를 기록하여라. 누구나 막힘없이 읽어 갈 수 있도록 판에다 분명하게 써라."
- 3** 지금 이 환시는 정해진 때를 기다린다. 끝을 향해 치닫는 이 환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늦어지는 듯하더라도 너는 기다려라. 그것은

오교야 만다, 지체하지 않는다.

- 4 보라, 뻔뻔스러운 자를. 그의 정신은 바르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성실함으로 산다.
- 5 참으로 재물은 믿을 수 없다. 거만한 사람은 건디어 낼 수 없다. 저승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린 그자는 죽음과 같이 만족할 줄 모르고 모든 민족들을 끌어들이며 모든 백성들을 모아들인다.

다섯 가지 불행 선언

- 6 그러나 이들은 모두 그를 두고 조롱의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그를 비웃는 수수께끼를 지어 내지 않겠느냐? 불행하여라, 남의 것을 굶어모으고 담보로 잡은 것을 쌓아 두는 자! 언제까지 그러할 셈인가?
- 7 갑자기 너의 빚쟁이들이 일어나고 너를 떨게 하는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는 그들의 약탈물이 되리라.
- 8 내가 수많은 민족을 강탈하였으니 살아남은 모든 백성이 너를 강탈하리라. 내가 사람의 피를 흘리고 세상과 성읍과 그 주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탓이다.
- 9 불행하여라, 자기 집안을 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재앙의 손길에서 벗어나려고 높은 곳에 등지를 트는 자!
- 10 내가 수많은 민족을 멸망시키며 피한 것이 네 집안에 수치가 되고 너 자신에게도 죄가 되었다.
- 11 벽에서 돌이 울부짖으면 골짜지에서 들보가 대답하리라.
- 12 불행하여라, 피로 성읍을 세우고 불의로 성을 쌓는 자!
- 13 백성들이 애써 한 일이 불에 타 버리고 민족들이 힘들여 한 일이 쓸모없게 된 것은 만군의 주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 14 물이 바다를 뒤덮듯 땅은 주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리라.
- 15 불행하여라, 이웃들에게 술을 먹이고 취할

때까지 화를 퍼붓고는 그들의 알몸을 바라보는 자!

- 16 너는 영광은커녕 능욕이나 실컷 당하리라. 너도 술을 마시고 포피를 드러내어라. 주님의 오른손에 들린 잔이 너에게 돌아가고 수치가 네 영광을 덮으리라.
- 17 레바논에게 휘두른 폭력이 너를 뒤덮고 짐승들에게 저지른 살육이 너를 질겁하게 하리라. 네가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세상과 성읍과 그 주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탓이다.
- 18 조카 신상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장인이 조각한 것일 따름이다. 주조 신상은 또 거짓 스승일 뿐이다. 장인이 자기가 빚은 것에 의지함은 병어리 우상을 만드는 것일 따름이다.
- 19 불행하여라, 나무에게 "깨어나십시오." 하고 말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십시오." 하는 자! 그것이 가르칠 수 있느냐?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일 뿐 그 안에 숨결이라고는 전혀 없다.
- 20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다. 온 세상은 그분 앞에서 조용히 하여라.

하바국의 노래

- 3 ¹ 하바국 예언자의 기도. 시그요넷에 맞추어.
- 2 주님, 저는 당신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업적을 두려워합니다. 저희 시대에도 그것을 되살리시고 저희 시대에도 그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노여우셔도 자비를 잊지 마십시오.
- 3 하느님께서 태만에서 오신다. 거룩하신 분께서 파란 산에서 오신다.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뒤덮고 그분을 찬미하는 소리가 땅을 가득 채운다.
- 4 그분의 광채는 빛과 같고 두 줄기 빛이 그분 손에서 뻗어 나온다. 거기에 그분의 힘

- 이 숨어 있다.
- 5 흑사병이 그분 앞에 서서 가고 열병이 그분 발꿈치의 뒤를 따른다.
- 6 그분께서 멈추시고 땅을 흔드시며 그분께서 보시고 민족들을 떨게 하신다. 예로부터 있던 산들이 무너지고 처음부터 있던 언덕들이 내려앉는다. 그분의 갈만이 영원하다.
- 7 나는 쿠산의 천막들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평의 천막 휘장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 8 당신께서 말을 모시고 승리의 병거를 모시니 주님, 강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강들에게 화가 나셨습니까? 바다에게 분노하시는 것입니까?
- 9 당신께서는 활을 꺼내시어 시위에 화살을 매우십니다. 당신께서는 강줄기로 땅을 가르십니다.
- 10 산들이 당신을 보고 몸부림칩니다. 폭우가 휩쓸고 지나갑니다. 심연은 소리를 지르고 그 물줄기가 치솟습니다.
- 11 당신의 화살이 날아갈 때 번쩍이는 빛 때문에 당신의 번뜩이는 창이 광채 때문에 해와 달은 그 높은 거처에 멈추어 섭니다.
- 12 당신께서는 진노하시어 땅을 짓밟으시고 분노하시어 민족들을 내리밟으십니다.
- 13 당신께서는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기쁨부음받은이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셨습니다. 악인의 집 지붕을 부수시고 그 집을 주춧돌에서 천장까지 발기벗겨 버리셨습니다.
- 14 숨어 있는 가련한 이를 삼키려는 듯이 그의 용사들이 기뻐 날뛰며 저희를 흘려려고 들이닥쳤지만 당신께서는 당신의 화살로 그들의 머리를 깨뜨으셨습니다.
- 15 당신께서는 거대한 물결이 출렁이는 바다를 말을 타고 짓밟으셨습니다.
- 16 그것을 듣고 내 배 속이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린다. 뼈는 썩어 들어가는
- 듯하고 다리는 밑에서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공격하는 백성에게 들이닥칠 환난의 날을 조용히 기다린다.
- 17 무화과나무는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는 딸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내지 못 할지라도 우리에서는 양 떼가 없어지고 외양간에는 소 떼가 없을지라도
- 18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 19 주 하느님은 나의 힘. 그분께서는 내 발을 사슴 같게 하시어 내가 높은 곳을 치닫게 해 주신다.

구약성경 - 43

예언서 - 15

스바니야서

총 3 장

총 53 절

[구약성경]-[스바니야서]

머리글

1 ¹ 아몬의 아들, 유다 임금 요시야 때에 스바니아에게 내린 주님의 말씀. 스바니아는 쿠시의 아들, 쿠시는 그달야의 아들, 그달야는 아마르야의 아들, 아마르야는 히즈기야의 아들이다.

땅 위 모든 것에 내리는 심판

2 나는 모든 것을 땅 위에서 말끔히 쓸어버리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3 나는 사람도 짐승도 쓸어버리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도 쓸어버리며 악인들을 비틀거리게 하리라. 사람도 땅 위에서 없애 버리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는 심판

4 나는 유다에,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손을 뻗어 그곳에서 나머지 바알 신상들을 그 우상 숭배 사제들의 이름과 함께 없애 버리리라.
5 지붕 위에서 하늘의 군대를 경배하는 자들,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맹세하면서도 밀코를 두고 맹세하는 자들,
6 주님에게서 돌아선 자들,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에게 문의하지도 않는 자들을 나는 없애 버리리라.
7 주 하느님 앞에서 조용히 하여라.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 주님이 희생 제물을 마련하고 초대받은 이들을 성별하였다.
8 주님이 희생 제물을 잡는 날 대신들과 왕자들과 외국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하리라.
9 그날에 나는 문지방을 뛰어넘는 자들을 모두 벌하리라. 제 주인의 집을 폭력과 속임수로 가득 채우는 자들을 벌하리라.
10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물고기 대문'에서는 아우성 소리가, 신사가지에서는 울

부짖는 소리가, 언덕들에서는 크게 부서지는 소리가 나리라.

- 11** 막테스의 주민들아, 울부짖어라. 상인들이 모두 멸망하고 장사꾼들이 없어졌다.
12 그때에 나는 등불을 켜 들고 예루살렘을 뒤지리라. 하는 일 없이 태평스럽게 '주님은 선을 베풀지도 않고 악을 내리지도 않으신다.'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자들을 나는 벌하리라.
13 그들의 재산은 약탈당하고 그들의 집은 황폐하게 되리라. 그들이 집을 짓는다 해도 거기에서 살지 못하고 포도밭을 가꾼다 해도 거기에서 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주님의 날

- 14** 주님의 위대한 날이 가까웠다. 가까울뿐더러 득달같이 다가온다. 주님의 날에 들리는 소리는 쓰러리니 용사조차 비명을 지르리라.
15 그날은 분노의 날 환난과 고난의 날 파멸과 파괴의 날 어둠과 암흑의 날 구름과 먹구름의 날이다.
16 진고한 성읍과 드높은 망대를 향하여 뿔나팔 소리와 전쟁의 함성이 터지는 날이다.
17 내가 사람들에게 환난을 보내리니 그들은 눈먼 이들처럼 걸으리라. 그들이 주님에게 죄를 지은 까닭이다. 그들의 피는 먼지처럼 쏟아지고 그들의 삶은 오물처럼 쏟아지리라.
18 주님의 분노의 날에 그들의 은도 그들의 금도 그들을 구하지 못하리라. 온 땅은 주님의 열정의 불에 타 버리리라. 주님은 세상의 모든 주민에게 정녕 무서운 파멸을 내리리라.

회개하여라

2 ¹ 함께 모여라, 모여 오너라, 수치를

모르는 민족아!

- 2 **쏟려 가는 검불처럼 너희가 내쫓기기 전에** 주님의 타오르는 분노가 너희에게 닥치기 전에 주님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닥치기 전에
- 3 **주님을 찾아라, 그분의 법규를 살천하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이들아! 의로움을 찾아라. 겸손함을 찾아라. 그러면 주님의 분노의 날에 너희가 화를 피할 수 있으리라.

필리스티아에 벌이 내리리라

- 4 **정녕 가지는 인적이 끊기고** 아스클론은 폐허가 되리라. 아스돗 주민들은 대낮에 쫓겨나고 에크론 사람들은 모조리 내몰리리라.
- 5 **불행하여라, 해안 지방에 사는 크렛 민족!** — 주님께서 너희를 거슬러 말씀하신다. 필리스티아 땅 가나안아 내가 너를 없애 버려 주민들이 하나도 남지 않게 하리라.
- 6 **해안 지방은 풀벌이 되고** 목자들의 움막이 되며 양 떼의 우리가 되리라.
- 7 **그 지방은 유다 집안의 남은 자들 소유가** 되리라. 그들은 거기에서 양 떼를 먹이다가 저녁에는 아스클론에 있는 집에 누우리라. 정녕 주 그들의 하느님께서 찾아오시어 그들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모압에 벌이 내리리라

- 8 **나는 모압이 모욕하고** 암몬 자손들이 야유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내 백성을 모욕하고 자기들의 궁궐에 서서 으스스했다.
- 9 **이스라엘의 하느님,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 있는 한 모압은 소돔처럼 되고 암몬 자손들은 고모라처럼 되리라. 췌기풀이 자라는 땅이 되고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털고 내 민족의 살아남은 자들이 그것들을 차지하리라.
- 10 **이것은 그들 교만의 대가이니, 그들이** 만군의 주님의 백성을 모욕하며 으스스한 탓이다.

- 11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우신** 분으로 드러나실 것이다. 정녕 그분께서는 세상의 신들을 모두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모든 삼나라 민족들이 저마다 제고장에서 그분을 경배할 것이다.

에티오피아에 벌이 내리리라

- 12 **에티오피아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맞아 죽으리라.

아시리아에 벌이 내리리라

- 13 **그분께서는 북녘으로 손을 뻗으시어** 아시리아를 없애시고 니네베를 폐허로, 광아처럼 메마른 땅으로 만드시리라.
- 14 **가축 떼가, 골짜기의 온갖 짐승이** 그 한가운데에 눕고 사다새와 부엉이도 니네베 기둥 꼭대기에서 지내리라. 울새미는 창문턱에서, 까마귀는 문지방에서 노래하리니 향백나무 들보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 15 **이것이 "나야, 나밖에 없어!" 하면서** 희희낙락 태평스레 지내던 그 성읍이나? 어찌하여 그 성읍은 들짐승이 깃들이는 폐허가 되었는가?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휘파람을 불며 손을 흔들어 대리라.

에루살렘을 단죄하다

- 3 **1 불행하여라, 반항하는** 도성, 더럽혀진 도성 억압을 일삼는 도성!
- 2 **말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하느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구나.
- 3 **그 안에 있는** 대신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 그 판관들은 저녁 이리 떼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 4 **예언자들은** 허풍쟁이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사제들은 거룩한 것을 더럽히고 율법을 짓밟는다.

결실 없는 경고

- 5 그 한가운데에 계신 주님은 의로우신 분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당신의 공정을 피신다. 동틀 녘마다 어김없이 하신다. 그러나 불의한 자는 수치를 모르는구나.
- 6 나는 민족들을 없애고 성 모퉁이 망대들을 헐어 버렸다. 그들의 거리를 황폐하게 하고 지나가는 자가 아무도 없게 만들어 버렸다. 그들의 성읍들은 황폐해져 사람이 없다. 주민들이 하나도 없다.
- 7 '너만은 나를 경외하러니 내 교훈을 받아들여라니 이 도성만은 내가 내린 모든 벌에서 눈을 떼지 않으려니.' 하고 나는 생각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새벽같이 일어나 모두 못된 짓만 하였다.
- 8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증인으로 나설 그날을 기다려라. 나는 민족들을 불러 모으고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나의 진노를, 나의 타오르는 분노를 모조리 쏟아 붓기로 결정하였다. 정녕 온 세상이 내 열정의 불에 타 없어지리라.

민족들의 회개

- 9 그때에 나는 민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들이 모두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리라.
- 10 에티오피아 강 너머에서 나의 숭배자들, 흠어진 이들이 선물을 가지고 나에게 오리라.

이스라엘의 회개

- 11 그날에는 내가 나를 거역하며 저지른 그 모든 행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리라. 그때에는 내가 네 가운데에서 거만스레 흥겨워하는 자들을 치워 버리리라. 그러면 내가 나의 거룩한 산에서 다시는 교만을 부리지 않으리라.
- 12 나는 네 한가운데에 가난하고 가련한 백성을 남기리니 그들은 주님의 이름에 피신하

리라.

- 13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그들 입에서는 사기 치는 혀를 보지 못하리라. 정녕 그들은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으며 풀을 뜯고 몸을 누이리라.

예루살렘의 재건

- 14 딸 시온아, 환성을 울려라. 이스라엘아, 크게 소리쳐라. 딸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 15 주님께서 너에게 내리신 판결을 거두시고 너의 원수들을 쫓아내셨다. 이스라엘 임금 주님께서 네 한가운데에 계시니 다시는 네가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 16 그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리라. "시온아, 두려워하지 마라. 힘없이 손을 늘 어뜨리지 마라."
- 17 주 너의 하느님, 승리의 용사께서 네 한가운데에 계시다. 그분께서 너를 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신다. 당신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해 주시고 너 때문에 환성을 울리며 기뻐하시리라.
- 18 축제의 날인 양 그렇게 하시리라. 나는 너에게서 불행을 치워 버려 네가 모욕을 겪어지지 않게 하리라.
- 19 그때에 너를 억누르는 자들? 내가 모두 처치하리라. 나는 절뚝거리는 이들을 구하고 흠어진 아들을 모으리라. 온 세상에서 그들의 수치를 칭송과 명성으로 바꾸어 주리라.
- 20 그때에 내가 너희를 데려오리라. 그때에 내가 너희를 모으리라. 너희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운명을 되돌릴 때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너희가 칭송과 명성을 얻게 해 주리라. —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구약성경 - 44

예언서 - 16

하카이사

총 2 장

총 38 절

[구약성경]-[하가이서]

머리글

1 ¹ 다리우스 임금 제이년 여섯째 달 초 하룻날, 주님의 말씀이 하가이 예언자를 통하여 스알티엘의 아들 즈루빠벨 유다 총독과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가 대사제에게 내렸다.

하느님의 독촉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하다

- 2**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주님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고 말한다."
- 3** 주님의 말씀이 하가이 예언자를 통하여 내렸다.
- 4** "주님의 집이 무너져 있는데 너희가 지금 관벽으로 된 집에서 살 댐나?"
- 5** —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너희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 보아라.
- 6**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품팔이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 난 주머니에 넣는 꼴이다.
- 7** —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너희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 보아라.
- 8**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집을 지어라. 그러면 나는 그 집을 가까이 여기고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리라. —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 9** 너희는 많이 거두기를 바랐지만 얼마 거두지 못하고 집으로 거두어들이는 것조차 내가 날려 버렸다. 무슨 까닭이나?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내 집이 무너져 있는데도 너희가 저마다 제집 돌보는 데에만 바빴기 때문이다.
- 10** 그러므로 하늘은 너희에게 이슬을 내리지 않고 땅은 제 소출을 내주지 않았다.

- 11** 나는 땅에 산과 곡식에 햇포도주와 기름에 밭에서 나는 것에 사람과 짐승에게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의 결실에 기름을 불러들였다."
- 12** 스알티엘의 아들 즈루빠벨과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가 대사제와 나머지 모든 백성은, 주 저희 하느님의 말씀과 주 저희 하느님께서 보내신 하가이 예언자의 말을 잘 들었다. 그리고 백성은 주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 13** 주님의 사자 하가이는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주님의 말이다."
- 14** 주님께서 스알티엘의 아들 즈루빠벨 유다 총독의 영과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가 대사제의 영과 나머지 모든 백성의 영을 일으켰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저희 하느님, 만군의 주님의 집을 짓는 일을 하였다.
- 15** 그날은 여섯째 달 스무하룻날이었다.

새 성전의 영광

- 2** ¹ 그해 일곱째 달 스무하룻날에 주님의 말씀이 하가이 예언자를 통하여 내렸다.
- 2** "너는 스알티엘의 아들 즈루빠벨 유다 총독과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가 대사제와 나머지 백성에게 말하여라.
- 3** ' 너희 가운데 이 집의 옛 영화를 본 사람들이 남아 있지 않느냐? 지금은 이 집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도 있으나 마나 하지 않느냐?
- 4** 그러나 즈루빠벨아, 이제 용기를 내어라. 주님의 말씀이다.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가 대사제야 용기를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용기를 내어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일을 하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 5**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대로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에 머무르기를 허락하시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6 — 정녕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머지않아 나는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 뒤흔들리리라.

7 내가 모든 민족들을 뒤흔들리니 모든 민족들의 보화가 이리 들어오리라. 그리하여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 은도 나의 것, 금도 나의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9 이 집의 새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 내가 이곳에 평화를 주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

사제들에게 문의하다

10 디리우스 제이년 아홉째 달 스무나흘날에 주님의 말씀이 하카이 예언자에게 내렸다.

11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너는 사제들이 어떤 가르침을 내릴지 이렇게 물어보아라.

12 ' 어떤 사람이 봉헌된 고기를 옷자락에 담아 가져가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삶은 요리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어떤 음식에 닿으면, 그것들도 거룩해집니까?' " 그렇게 하자 사제들은 "아닙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3 하카이가 다시 "주검에 닿아서 부정하게 된 이가 이 모든 것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닿으면, 그것이 부정하게 됩니까?" 하고 물으니, 사제들이 "부정하게 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4 그러자 하카이가 말하였다. "내 앞에서는 이 백성도 그러하고 이 민족도 그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의 손이 하는 일도 모두 그러하다. 그들이 거기에서 바치는 것들도 다 부정하다."

15 "그러므로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아라. 주님 성전의 돌을 쌓기 전에

16 너희가 하는 일들이 어떠하였느냐? 누가 스무 섬 더미에 가면 열 섬밖에 없고 천 동이를 뿌리고 포도 화에 가면? 스무 동이밖에 없었다.

17 내가 머름병과 감부깃병과 우박으로 너희가 손으로 가꾼 모든 것을 찢지만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18 오늘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아라. 아홉째 달 스무나흘날부터 주님의 성전에 기초를 놓은 날부터 생각해 보아라.

19 곳곳에 씨앗이 없지 않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올리브 나무에 열매가 없지 않느냐?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주님께서 즈루뻬벨을 선택하시다

20 그달 스무나흘날에 주님의 말씀이 다시 하카이에게 내렸다.

21 "너는 유다 총독 즈루뻬벨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 나는 하늘과 땅을 뒤흔들리리라.

22 나는 왕국들의 왕좌를 뒤엎고 민족들의 왕국의 권세를 없애 버리리라. 또 병거와 거기에 탄 자들을 뒤엎으리라. 군마와 기병들은 서로 동료의 칼에 맞아 쓰러지리라.

23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스알티엘의 아들, 나의 종 즈루뻬벨아 — 주님의 말씀이다. — 내가 너를 받아들여 너를 인장 반지처럼 만들리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다시 복을 내리시리라

구약성경 - 45

예언서 - 17

즈카르야서

총 14 장

총 211 절

[구약성경]-[즈카르야서]

머리글

1 ¹ 다리우스 제이년 여덟째 달에 주님의 말씀이 이포의 손자이며 베레크야의 아들인 즈카르야 예언자에게 내렸다.

회개하여야

- 2** "주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크게 화가 났다.
3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 돌아와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4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되지 마라. 이전의 예언자들은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부디 너희의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버리고 돌아와라.' 하고 외쳤으나, 그들은 듣지도 않고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5 너희의 그 조상들은 어디에 있느냐? 또 그 예언자들은 아직도 살아 있느냐
6 그러나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에게 내린 말과 규정들이 너희 조상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를 두고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길과 행동에 따라 우리를 다루셨다.' 하고 말하였다."

첫 번째 환시: 말 탄 기사

- 7** 다리우스 제이년 열한째 달, 곧 스빳 달 스무하늘날에 주님의 말씀이 이포의 손자이며 베레크야의 아들인 즈카르야 예언자에게 내렸다.
8 내가 밤에 보니, 붉은 말을 탄 사람이 골짜기의 도금양나무 사이에 서 있었다. 그 사람 뒤에는 붉은 말들과 검붉은 말들과 흰말들이 서 있었다.

- 9** 그래서 내가 "나리, 저것들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니,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가, "저것들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여 주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10 그러자 도금양나무 사이에 서 있던 그 사람이, "이것들은 주님께서 세상을 두루 다니도록 보내신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11 말 탄 사람들이 도금양나무 사이에 서 있던 주님의 천사에게 말하였다. "저희가 세상을 두루 다녀 보니, 온 세상은 평온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12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이르었다. "만군의 주님, 당신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가없이 여기지 않으시고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렵니까? 그들에게 진노하신 지 일해나 되었습니까."
13 주님께서는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에게 다정하고도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하느님께서 시온을 가없이 여기시다

- 14**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에, 시온에 커다란 열정을 지니고 있다.
15 그러나 태평스러운 민족들에게는 몹시 화가 나 있다. 내가 조금밖에 화를 내지 않았는데도 그자들이 그들을 더 불행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16 —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나는 동정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 안에 나의 집이 다시 지어지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측량줄이 예루살렘에 펼쳐지리라.'
17 너는 또 외쳐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성읍들은 다시 좋은 것으로 넘쳐흐르리라. 주님이 시온을 다시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리라.' "

두 번째 환시: 뿔과 대장장이

2 ¹ 내가 눈을 들어 보니 뿔이 네 개 있었다.

²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에게 내가 물었다. "이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이 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흠어 버린 뿔이다."

³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대장장이 네 명을 보여 주셨다.

⁴ "이 사람들은 무엇하러 옵니까?" 하고 내가 묻자, 그가 대답하였다. "이 뿔들은 유다를 흠어 버려, 아무도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대장장이들은 민족들을 떼게 하려고, 곧 유다 땅의 주민들을 흠어 버리기 위하여 차켜들었던 민족들의 그 뿔들을 던져 버리려고 온 이들이다."

세 번째 환시: 측량줄

⁵ 내가 눈을 들어 보니, 손에 측량줄을 권 사람이 하나 있었다.

⁶ 내가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자, 그가 나에게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러 간다." 하고 대답하였다.

⁷ 그때에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가 앞으로 나가자, 다른 천사가 그에게 마주 나와

⁸ 말하였다.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일러 주어라. '사람들과 짐승들이 많아 예루살렘은 성벽 없이 넓게 자리 잡으리라.'

⁹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둘러싼 불 벽이 되고 그 한가운데에 머무르는 영광이 되어 주리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돌보시다

¹⁰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를 하늘 아래 사방으로 흠어 버렸지만 너희는 어서어서 그 북녘 땅에서 도망쳐 나와라. 주님의 말씀이다.'

¹¹ 딸 바빌론과 함께 살고 있는 백성이 어서 시온으로 빠져나와라.

¹² —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권위를 주어 파견하신 그분께서 너희를 약탈한 민족들을 두고 말씀하신다. — 너희를 건드리는 자는 정녕 내 농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¹³ 보라, 내가 그들 위로 손을 휘두르면 그들은 자기 종들의 약탈물이 되리라. — 그때에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게 되리라.

¹⁴ 딸 시온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정녕 내가 이제 가서 네 한가운데에 머무르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¹⁵ 그날에 많은 민족이 주님과 결합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 한가운데에 머무르리라.' 그때에 너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나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되리라.

¹⁶ 주님께서는 이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당신 몫으로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시리라.

¹⁷ 모든 인간은 주님 앞에서 조용히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다."

네 번째 환시: 예수아 대사제

3 ¹ 그가 주님의 천사 앞에서 있는 예수아 대사제를 나에게 보여 주었다. 그의 오른쪽에는 사탄이 그를 고발하려고 서 있었다.

² 주님의 천사가 사탄에게 말하였다. "사탄아,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신다.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신다. 이 사람은 불 속에서 꺼낸 나무토막이 아니냐?"

³ 그때에 예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서 있었다.

⁴ 천사가 자기 앞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겨라." 하고서는, 예수아에게 말하였다. "보이라, 나는 너에게

- 서 네 허물을 치워 버렸다. 나는 너에게 예복을 입혀 주겠다."
- 5 그리고 "너희는 그의 머리에 깨끗한 터번을 씌워라."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머리에 깨끗한 터번을 씌우고 그에게 예복을 입혔다. 그동안 주님의 천사가 곁에 서 있었다.
- 6 주님의 천사가 예수이에게 선언하였다.
- 7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내 길을 따라 걷고 내 명령을 지키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뜰을 지키리라. 나는 내가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사이를 드러나게 하리라.
- 8 예수아 대사제야! 너와 네 앞에 앉아 있는 너의 동료들은 들어라. — 이들은 정녕 예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 보라, 내가 나의 종 '새씩' 을 데려오려고 한다.
- 9 내가 예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아라. 돌은 하나인데 눈은 일곱이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거기에 내가 비문을 새기고 이 땅의 허물을 단 하루에 치워 버리리라.
- 10 그날에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서로 이웃들을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하리라.' "

다섯 번째 환시: 등잔대와 두 올리브 나무

- 4¹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가 돌아와, 사람을 잡아서 깨우듯이 나를 깨웠다.
- 2 그가 나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었다. 내가 대답하였다. "온통 금으로 된 등잔대가 보입니다. 등잔대 머리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그릇에는 등잔이 일곱 개 있습니다. 그 머리에 등잔 부리가 일곱 개 있는 것입니다.
- 3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 나무가 두 그루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그 왼쪽에 있습니다."
- 4 나는 나와 이야기하던 그 천사에게 물었다.

"나리,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 5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가 나에게, "너는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느냐?" 하고 묻자, 나는 "나리, 모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6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즈루뻬벨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 권력으로도 힘으로도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만 될 수 있다. —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7 큰 산아, 너는 무엇이나? 즈루뻬벨 앞에서는 평지일 따름이다. ' 좋다, 좋다!' 환호하는 가운데 그는 머릿돌을 빼내리라.' "
- 8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 9 "즈루뻬벨의 손이 이 집의 기초를 놓았다. 그리고 그의 손이 이 일을 마치리라." 그러면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 10 누가 감히 미약하게 시작한 날을 비웃느냐? 사람들은 즈루뻬벨이 손에 든 측량 추를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 눈은 바로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주님의 눈이다."
- 11 나는 그 천사에게 물었다. "등잔대와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는 무엇입니까?"

- 12 나는 다시 그에게 물었다. "두 금 대롱으로 금빛 기름을 흘려보내는 저 올리브 나무 가지 두 개는 무엇입니까?"
- 13 그 천사가 나에게 "너는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느냐?" 하고 물었다. 내가 "나리, 모릅니다." 하고 대답하자,
- 14 천사가 "이것들은 온 세상의 주님 곁에 서 있는 성별된 두 사람을 뜻한다." 하고 말하였다.

여섯 번째 환시: 두루마리

- 5¹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보니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하나 있었다.

- 2 그 천사가 나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었다.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하나가 보입니다. 그 길이는 스무 암파이고 너비는 열 암파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3 그러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온 세상에 내릴 저주이다. 도둑질하는 자는 이 두루마리의 한쪽 내용에 따라 모두 제거되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는 이 두루마리의 다른 쪽 내용에 따라 모두 제거될 것이다.
- 4 ' 나는 저주를 내린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이 저주는 도둑질하는 자의 집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집 안에 머무르며 들보와 돌을 없애 버리라.' "

일곱 번째 환시: 뉘주

- 5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가 앞으로 나와서 나에게 말하였다. "눈을 들어 가까이 오는 것이 무엇인지 보아라."
- 6 "저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내가 물었다. 그가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은 뉘주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어서 "이것은 온 땅에 퍼져 있는 그들의 죄악이다." 하고 말하였다.
- 7 그러자 납 덩개가 들어 올려지면서, 뉘주 한 가운데에 앉아 있는 여자가 보였다.
- 8 "이 여자가 악이다." 하고 천사가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를 뉘주 속으로 밀어 넣고는 그 아귀를 납 덩어리로 덮었다.
- 9 내가 또 눈을 들어 보니 여자 둘이 앞으로 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황새 날개처럼 생긴 날개를 달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들은 뉘주를 땅과 하늘 사이로 들어 올렸다.
- 10 나는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에게, "저들이 뉘주를 어디로 가져 가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 11 그가 나에게 "뉘주를 둘 집을 지으려고 신 아르 땅으로 간다. 그 집이 세워지면 뉘주는 반침대 위에 놓일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여덟 번째 환시: 병거

- 6 ¹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보니, 두 산 사이에서 병거 닢 대가 나오고 있었다. 그 산들은 청동 산이었다.
- 2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끌고,
- 3 셋째 병거는 흰말들이, 넷째 병거는 짐박이 말들이 끌고 있었다. 모두 건장한 말들이었다.
- 4 내가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에게, "나리, 저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 5 그러자 천사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온 세상의 주님을 뵈고 나서 이제 길을 나서는 하늘의 네 바람이다."
- 6 검은 말들이 끄는 병거는 북쪽 땅으로 떠나고, 흰말들이 끄는 병거는 서쪽 땅으로 떠나고, 짐박이 말들이 끄는 병거는 남쪽으로 떠날 것이다."
- 7 건장한 말들이 그곳을 떠나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고 싶어 하자, 그 천사가 말하였다. "가서 세상을 두루 돌아다녀라." 그리하여 병거들은 세상을 두루 돌아다녔다.
- 8 천사가 나에게 소리쳐 말하였다. "보아라, 북쪽 땅으로 떠난 말들이 나의 영을 북쪽 땅에 편안히 자리 잡게 하였다."

예수이에게 왕관을 씌워라

- 9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 10 "너는 유배자들, 곧 헬다리와 토비아와 여디아에게서 예물을 받아라. 그들이 바빌론에서 돌아와 스바니아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있으니, 오늘로 그곳에 가거라.
- 11 너는 은과 금을 받아 왕관을 만들어, 여호

- 차닥의 아들 예수가 대사제의 머리에 씌우고,
- 12 그에게 말하여라. '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을 보아라. 그의 이름은 ' 새씩 '이니 그가 제자리에서 돌아 나와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라.
- 13 그가 주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며 바로 그가 임위를 갖추고 자기 왕좌에 앉아 다스리리라. 그의 왕좌 곁에는 한 사제가 있을 터인데 그 두 사람은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리라.'
- 14 그 왕관은 헨다이, 토비아, 여다야, 스바니아의 아들 요시아를 기념하여 주님의 성전에 두어라."
- 15 또한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성전을 함께 지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참된 단식

- 7 ¹ 다리우스 임금 제사년 아홉째 달 곧 키슬레우 달 초나흘날, 주님의 말씀이 즈카르야에게 내렸다.
- 2 베델 사르에체르가 레겔 멜렉과 그의 부하들과 함께 주님께 은총을 간청하려고 사람들을 보내어,
- 3 만군의 주님의 집에 있는 사제들과 예언자들에게 물어 왔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해 온 대로, 다섯째 달에 애도하며 단식해야 합니까?"
- 4 그때에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 5 "너는 이 땅의 온 백성과 사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 너희가 지난 일흔 해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단식하며 슬퍼할 때 참으로 나를 위하여 단식하였단 말이나?

- 6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자신을 위하여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 7 이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 성읍들에서 사람들이 편안히 살고 있을 때, 그리고 네겔과 평원 지대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주님이 이전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선언한 말씀이 아니냐?"
- 8 주님의 말씀이 즈카르야에게 내렸다.
- 9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 너희는 진실한 제판을 하여라. 서로 자애와 동정을 베풀어라.
- 10 과부와 고아 이방인과 가난한 이를 억누르지 마라. 서로 남을 해치려고 마음속으로 궁리하지 마라.' "
- 11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등을 돌렸으며,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
- 12 그들은 만군의 주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이전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자기들에게 보내신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마음을 금강석처럼 굳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만군의 주님께서서 커다란 분노가 내렸다.
- 13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부를 때에 그들이 듣지 않은 것처럼, 그들이 부를 때에 나도 듣지 않았다.
- 14 나는 그들도 모르는 그 모든 민족들 가운데로 그들을 날려 버렸다. 그들이 떠난 이 땅은 오가는 사람 하나도 없이 황폐하게 되었다. 그들이 이 탐스러운 땅을 폐허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메시아 시대의 행복

- 8 ¹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 내렸다.
- 2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시온에 커다란 열정을, 격렬한 열정을 지니고 있다.
- 3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살리라. 예루살렘은 ' 진실한 도성' 이라고, 만군의 주님의

- 산은 ' 거룩한 산 ' 이라고 불리리라.
- 4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이가 많아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든 남녀 노인들이 다 시 예루살렘 광장마다 앉아 쉬리라.
- 5 도성의 광장마다 뛰노는 소년 소녀들로 가득 차리라.
- 6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때에 이것이 이 백성의 남은 자들 눈에 신기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 눈에까지 신기하게 보이겠느냐? 만군의 주님의 말이다.
- 7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제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에서 구해 내리라.
- 8 나는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살게 하리라. 그러면 진실과 정의 안에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리라.
- 9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힘을 내어라. 만군의 주님의 집,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던 날에 예언자들이 전한 그 말들을 너희가 오늘 듣고 있다.
- 10 전에는 사람이 품삯을 받지 못하고 짐승의 품삯도 받지 못하였으며 원수 때문에 안전하게 드나들 수도 없었다.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맞서게 하였던 것이다.
- 11 그러나 이제 내가 이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는 전과 같이 대하지 않으리라. 만군의 주님의 말이다.
- 12 정녕 평화의 씨앗이 뿌려지리라. 포도나무는 열매를 내주고 땅은 소출을 내주며 하늘은 이슬을 내주리라. 나는 이 백성의 남은 자들이 이 모든 것을 차지하게 하리라.
- 13 유다 집안과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전에는 민족들 가운데에서 저주의 대상이 되었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하면 너희는 복이 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어라!
- 14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의 분노를 돋우었을 때, 나는 너희에

- 게 제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가없이 여기지 않았다.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 15 그러나 이제는 다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집안에 잘해 주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 16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진실을 말하고, 성문에서는 평화를 이루는 진실한 재판을 하여라.
- 17 남을 해치려고 마음속으로 궁리하지 마라.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단식에 대한 답변

- 18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 19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뱃재 달의 단식과 다섯째 달의 단식, 일곱째 달의 단식과 열째 달의 단식은, 유다 집안에 기쁨과 즐거움의 때가 되고 흥겨운 축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실과 평화를 사랑하여라."

메시아 시대의 행복

- 20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민족들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오리라.
- 21 한 성읍의 주민들이 다른 성읍으로 가서 ' 자, 가서 주님께 은총을 간청하고 만군의 주님을 찾자. 나도 가겠다.' 하고 말하리라.
- 22 많은 민족들과 강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주님을 찾고 주님께 은총을 간청하러 오리라.
- 23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때에 저마다 말이 다른 민족 열 사람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웃 민족들에 대한 심판과 평화

- 9** ¹ 신탁. 주님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고 다마스쿠스에 머무른다. 아람의 성읍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주님께 속하기 때문이다.
- ² 그 가까이에 있는 하맛도 매우 지혜롭다는 티로와 시돈도 그분의 것이다.
- ³ 티로가 요새를 세우고 은을 흠쳐림 쌓고 금을 거리의 진흙처럼 쌓았다.
- ⁴ 그러나 주님께서 티로를 쫓아내시고 그 재물을 바다에 처박으시며 그 성읍을 불이 집어삼키게 하시리라.
- ⁵ 아스클론이 보고 두려워하고 가자도 크게 무서워하며 에크론도 그러하니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가지에서는 임금이 없었고 아스클론에는 사람이 살지 않으며
- ⁶ 아스돗에는 혼혈 민족이나 살리라. 나는 필리스티아의 교만을 꺾고서는
- ⁷ 그 입에서 피를 닦고 그 잇새에서 역겨움을 없애리라. 그리하여 그곳 주민들도 우리 하느님께 남은 자들이 되어 유다에서 한 씨족처럼 되고 에크론은 여부스 사람들처럼 되리라.
- ⁸ 나는 내 집 앞에 보초처럼 진을 치고 아무도 오가지 못하게 하리라. 압제자가 다시는 그들을 침범하지 못하리니 내가 직접 지켜볼 것이기 때문이다.

평화를 가져오는 겸손한 메시아

- ⁹ 딸 시온아, 한껏 기뻐하여라. 딸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 ¹⁰ 그분은 에프라임에서 병거를,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시고 전쟁에서 쓰는 활을 꺾으시어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리라. 그분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스라엘의 회복

- ¹¹ 너에게는 나와 피로 맺은 계약이 있으니 포로가 된 네 백성을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끌어내 주리라.
- ¹² 희망을 잃지 않은 포로들이 성채로 돌아와라. 바로 오늘 내가 선포한다. 나는 너에게 두 배로 갚아 주리라.
- ¹³ 내가 유다를 활처럼 당기고 에프라임을 화살처럼 매웠다. 시온아, 내가 네 아들들을 일으켜 세우고 너를 용사의 칼로 쓰리라. — 그리스야, 네 아들들을 거슬러.
- ¹⁴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어 당신 화살을 번개처럼 쏘시리라. 주 하느님께서 뿔나팔을 부시며 거센 마파람을 타고 진군하시리라.
- ¹⁵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리라. 그들은 무뎠매질하는 자들을 먹어 치우고 짓밟으며 그 피를 포도주처럼 마시어 제단의 모서리처럼, 쟁반처럼 피로 흠뻑 젖으리라.
- ¹⁶ 그날에 주 그들의 하느님께서 그들을, 당신 백성을 양 떼처럼 구원하시리니 그들은 왕관의 보석들처럼 그분의 땅에서 빛나리라.
- ¹⁷ 정녕 그들은 얼마나 좋고 얼마나 이롭다운가! 곡식이 총각들을, 햇포도주가 처녀들을 피어나게 하리라.

구원을 약속하시는 참 목자

- 10** ¹ 너희는 봄철에 비를 내려 달라고 주님께 빌어라. 주님은 비구름을 만드시는 분. 그분께서는 비를 넉넉히 주시어 사람들의 밭에 푸른 싹을 내신다.
- ² 그러나 집안 수호신들은 헛소리를 하고 점쟁이들은 가짜 환시를 보며 거짓 꿈을 말하고 헛된 위로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양 떼처럼 방황하고 목자가 없어 고통을 당한다.
- ³ 나의 분노가 목자들을 거슬러 타오른다. 나는 수평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당

- 신의 양 떼 유다 집안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전쟁터의 자랑스러운 군마처럼 만드시리라.
- 4 유다 집안에서 모퉁잇들이 나오고 천막 말뚝이 나오며? 전쟁에 쓸 활이 나오고 모든 통치자가 나오리라.
- 5 그들은 모두 용사가 되어 싸움터에서 적을 갈바디의 진흙처럼 짓밟으리라.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에 그들은 싸워서 말 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 6 나는 유다 집안을 강하게 하고 요셉 집안을 구원하리라. 나는 그들을 기없이 여겨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버린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되리라. 나는 주 그들의 하느님 이니 그들에게 응답하리라.
- 7 에프라임 사람들은 용사같이 되고 그들의 마음은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기뻐하리라. 그들의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그들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 8 내가 그들을 속박하였으니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아들이고 전처럼 많아지게 하리라.
- 9 내가 그들을 민족들 가운데에 흠여 버렸어도 그들은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자녀들을 낳아 기르다가 돌아오리라.
- 10 나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돌아오게 하고 아시리아에서 모아 오리라. 내가 그들을 길앗 땅과 레비논으로 데려가리니 그 땅들도 그들에게 넉넉하지 못하리라.
- 11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건널 때 바다의 너울은 가리웠고 니일 강의 깊은 곳도 모두 말라 버리리라. 아시리아의 교만은 꺾이고 이집트의 왕홀은 사라지리라.
- 12 내가 주님 안에서 그들을 강하게 만들리니 그들은 그 이름을 모시고 걸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강대국들의 멸망

- 11 ¹ 레비논아, 문을 열어라. 불이 네 향

백나무들을 살라 버리리라.

- 2 방백나무야, 울부짖어라. 향백나무가 넘어지고 커다란 나무들이 쓰러졌다. 비산의 참나무야, 울부짖어라. 우거진 수풀이 결판났다.
- 3 목자들의 통곡 소리를 들어라. 그들의 영화가 쓰러졌다. 사자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라. 요르단의 자랑거리가 쓰러졌다.

사악한 통치자들에게 내리는 위협

- 4 주 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도살될 양 떼를 돌보아라.
- 5 사람들은 그 양 떼를 사서 잡아도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팔아넘긴 자들은 '주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나는 부자가 되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목자들도 그 양 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 6 나도 다시는 이 땅의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 주민들을 저마다 제 이웃의 손에, 그리고 임금의 손에 넘기겠다. 그들이 이 땅을 황폐시켜도, 나는 그들의 손에서 아무도 구출하지 않겠다."
- 7 나는 양 장사꾼들의 도살될 양 떼를 돌보기로 하고, 지팡이 두 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호의' 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일치' 라고 하였다. 그렇게 하여 나는 양 떼를 돌보았다.
- 8 나는 한 달 사이에 목자 셋을 그만두게 하였다. 내가 그들을 참고 볼 수가 없었으며 그들도 나를 싫어하였기 때문이다.
- 9 그래서 나는 양 떼에게, "더 이상 너희를 돌보지 않겠다. 죽을 놈은 죽고 없어질 놈은 없어져라. 남은 놈들은 서로 잡아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 10 그러고 나서 나는 '호의' 라는 지팡이를 집어 들고 부러뜨려,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과 맺은 계약을 깨 버렸다.
- 11 그 계약은 그날로 깨졌다. 그리하여 나를

지켜보던 양 장사꾼들은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음을 깨달았다.

- 12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좋다고 생각하면 품삯을 주고, 그러지 않으면 그만 두시오." 그러자 그들은 내 품삯으로 은 서른 세켈을 주었다.
- 13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나의 값어치를 매겨 내놓은 그 잘난 품삯을 금고에 넣어라." 나는 은 서른 세켈을 집어 주님의 집 금고에 넣었다.
- 14 그리고 나서 나는 '일치' 라는 둘째 지팡이를 부르뜨려, 유대와 이스라엘의 형제 관계를 깨 버렸다.
- 15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리석은 목자의 도구를 다시 들어라.
- 16 이제 내가 이 땅에 한 목자를 세우겠다. 그는 없어진 것을 찾아보지도 않고 해매는 것을 찾아오지도 않으며, 다친 것을 고쳐 주지도 않고 지친 것을 먹이지도 않으며, 살진 것은 살을 발라 먹고 심지어 그 발굽까지 뜯어 먹을 것이다.
- 17 불행하여라, 양 떼를 저버리는 쓸모없는 나의 목자! 칼이 그의 팔과 오른 눈을 쳐서 그의 팔은 바싹 말라 버리고 오른 눈은 아주 멀어 버리리라."

예루살렘과 유대의 구원과 영화

- 12 ¹ 신탁. 이스라엘에 관한 주님의 말씀. 하늘을 펼치시고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사람 안에 얼을 빚어 넣으신 주님의 말씀이다.
- 2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술잔으로 만들어,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취하여 바들거리게 하겠다.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을 당할 때에 유다도 그러할 것이다.
- 3 그날에 나는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여, 그것을 들어 올리는 자마다 큰 상처를 입게 하겠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거슬러 모여들 것이다.

- 4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나는 말들을 모조리 쳐서 놀라게 하고, 말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겠다. 유다 집안에서는 눈을 떼지 않겠지만, 그 민족들의 말들은 모조리 쳐서 그 눈을 멀게 하겠다.
- 5 그러면 유대의 씨족들은 마음속으로, '예루살렘 주민들의 힘은 그들의 하느님, 만군의 주님 안에 있구나!' 하고 생각할 것이다.
- 6 그날에 나는 유대의 씨족들을 나뭇단 속에서 불붙은 도가니처럼, 곡식 단 속에서 불타는 햇볕처럼 만들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삼켜 버릴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같은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 7 주님은 먼저 유대의 천막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 집안의 영화와 예루살렘 주민들의 영화가 유다보다 더 크지 않을 것이다.
- 8 그날에 주님이 예루살렘 주민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날에 그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이도 다윗처럼 되고, 다윗 집안은 하느님처럼, 곧 그들 앞에 선 주님의 천사처럼 될 것이다."

'찢려 죽은 이'를 위한 애도

- 9 "그날에 나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없애 버리고 말겠다.
- 10 나는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 주민들 위에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영을 부어 주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나를, 곧 자기들이 찢른 이를 바라보며, 외아들을 잃고 곡하듯이 그를 위하여 곡하고, 만이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그를 위하여 슬피 울 것이다.
- 11 그날에 뜨기도 별관에서 하닷 림몬을 위하여 곡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곡소리가 크게 울릴 것이다.

- 12 나라가 곡하고 가족마다 따로따로 곡할 것이다. 다윗 집안의 가족이 따로 곡하고 그들의 여자들도 따로 곡할 것이다. 나탄의 집안이 따로 곡하고 그들의 여자들도 따로 곡할 것이다.
- 13 레위 집안의 가족이 따로 곡하고 그들의 여자들도 따로 곡할 것이다. 시므이의 가족이 따로 곡하고 그들의 여자들도 따로 곡할 것이다.
- 14 남은 자들의 가족마다 따로따로 곡하고 그들의 여자들도 따로 곡할 것이다."

우상 숭배와 거짓 예언자는 사라지리라

- 13** ¹ "그날에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 주민들의 죄와 부정을 씻어 줄 썸이 터질 것이다.
- ²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나는 이 땅에서 우상들의 이름을 없애 버려, 그들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겠다. 또한 나는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치워 버리겠다.
- ³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계속 예언하면,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너는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가 예언할 때,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찌를 것이다.
- ⁴ 그날에 예언자들은 예언을 하면서도 저희가 본 환시를 부끄럽게 여기며, 속이려고 입던 털옷을 걸치지 않을 것이다.
- ⁵ 그러면서 '나는 예언자가 아니라 땅을 일구는 사람이요. 사실 젊어서부터 땅이 나의 전 재산이었소' 하고 말할 것이다.
- ⁶ 누가 그에게 '당신 가슴에 있는 이 상처들은 어찌 된 것이요?' 하고 물으면, 그는 '내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남은 자들의 정화

- ⁷ "칼아, 나의 목자를 거슬러, 내 동료를 거슬러 깨어 일어나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너는 목자를 쳐서 양 떼가 흩어지게 하여라. 나도 손을 돌려 그 새끼들을 치리라.
- ⁸ 주님의 말씀이다. 온 땅에서 삼분의 이가 잘려 죽고 삼분의 일만 살아남으리라.
- ⁹ 나는 그 삼분의 일을 불 속에 집어넣어 은을 정제하듯 그들을 정제하고 금을 제련하듯 그들을 제련하리라. 그들은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리라. 나는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하고 그들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하리라."

주님의 날

- 14** ¹ "보라, 주님의 날이 온다. 너에게서 악랄한 것을 사람들이 네 가운데에서 나누어 가질 것이다.
- ² 예루살렘을 치라고 내가 민족들을 모두 모으겠다. 이 도성은 함락되고 집들은 털리며, 여자들은 욕을 당하고 도성의 절반이 유배갈 것이다. 그러나 남은 백성은 이 도성에서 잘려 나가지 않을 것이다.
- ³ 그 뒤에 주님이 내가 전투의 날에 싸우던 것처럼 저 민족들과 싸울 것이다.
- ⁴ 그날에 주님은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발을 딛고 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 산은 반으로 갈라져, 동서로 뺀 매우 넓은 골짜기가 생기고, 그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움직러들 것이다.
- ⁵ 그리하여 너희는 유다 임금 우찌야 시대에 자신을 피해 도망친 것처럼, 나의 산들 사이에 난 골짜기를 통하여 도망칠 것이다. 그 산들 사이에 난 골짜기가 아켈까지 이르기 때문이다." 그 뒤에 주 나의 하느님께서 거룩한 이들을 모두 데리고 오실 것이다.
- ⁶ 그날에는 빛도 추위도 서리도 없을 것이다.

- 7 주님만 아시는 그날에는 낮과 밤이 없이 대낮만 이어지고, 저녁때에도 빛이 있을 것이다.
- 8 그날에는 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 나와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흘러갈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늘 그러할 것이다.
- 9 그리고 주님께서 온 세상의 임금이 되실 것이다. 그날에는 주님이 한 분뿐이시고 그 이름도 하나뿐일 것이다.
- 10 계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온 땅은 평지로 바뀔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벤야민 대문'에서 '첫 대문'이 있는 곳까지, 곧 '모퉁이 대문'까지, 그리고 '하냐엘 탑'에서 '왕실 포도 환'까지 그 자리에 우뚝 솟아 남을 것이다.
- 11 그곳에 사람들이 살며 다시는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심하고 살 것이다.
- 12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전쟁하는 모든 민족들을 치실 재앙은 이리하다. 그들이 제 발로서 있는 동안에 살이 썩고, 눈알은 눈구멍 속에서, 혀는 입 안에서 썩을 것이다.
- 13 그날에 주님께서 내리신 커다란 공포가 그들에게 떨어지고, 그들은 서로 손을 들어 저희끼리 싸움을 벌일 것이다.
- 14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주변 모든 민족들의 재물, 곧 매우 많은 금과 은과 옷가지들이 모일 것이다.
- 15 이와 같은 재앙이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 할 것 없이, 그들의 진지에 있는 모든 짐승들에게도 내릴 것이다.
- 16 그러면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모두,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경배하러 해마다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낼 것이다.
- 17 이 세상의 어느 씨족이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경배하지 않

- 으면, 그들 위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 18 이집트 씨족이 올라와 참석하지 않으면, 초막절을 지내러 올라오지 않는 민족들에게 주님께서 보내시는 재앙이 그들에게도 내릴 것이다.
- 19 이것이 이집트가 받을 벌이고, 초막절을 지내러 올라오지 않는 모든 민족들이 받을 벌이다.
- 20 그날에는 말방울에도 '주님께 성별된 것'이라고 새겨지고, 주님의 집에 있는 술들은 제단 앞에 있는 그릇들처럼 될 것이다.
- 21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술도 만군의 주님께 성별된 것이 되어, 제물을 바치려는 이들이 모두 와서, 그 술들을 가져다가 고기를 삶은 것이다. 그날에는 만군의 주님의 집 안에 더 이상 장사꾼들이 없을 것이다.

구약성경 - 46

예언서 - 18

말라기서

총 3 장

총 55 절

[구약성경-말라키서]

머리글

1 ¹ 신탁. 말라키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내리신 주님의 말씀.

이스라엘과 애دم

- 2**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저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말한다. 에사우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 3** 에사위를 미워하였다. 나는 그의 산들을 폐허로, 그의 상속지를 승냥이들이나 사는 광야로 만들었다.
- 4** '우리가 파괴되었지만 황폐해진 곳을 다시 세우리라.' 하고 애دم이 생각하지만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그들이 세워도 내가 헐어 버리리라. 그래서 '죄악의 땅', '주님께서 영원히 노여워하시는 백성' 이라고 불리리라.
- 5** 너희는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국경 너머에서도 위대하시다!" 하고 말하리라.

그릇된 경신례

- 6** 아들은 아버지를, 좋은 주인을 공경하는 법인데 내가 아버지라면 나에게 대한 공경은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이라면 나에게 대한 두려움은 어디 있느냐? 내 이름을 업신여기는 사제들이 만군의 주님이 너희에게 말한다. "저희가 어떻게 당신의 이름을 업신여겼습니까?" 하고 너희가 말한다마는
- 7** 내 제단에 부정한 빵을 바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또 "저희가 어떻게 당신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너희가 말한다마는 '주님의 제사상이야 아무러면 어떠냐?' 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 8** 너희가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잘못이 없다는 말이나? 너희가 절름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바치면서도 잘못이 없다는 말이나? 그런 것을 너희 총독에게 가져가 보아라. 그가 너희를 달가워하겠느냐? 그가 너희를 좋게 받아들일겠느냐? —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9** 그러나 이제 너희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은총을 간청해 보아라. 너희 손이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도 그분께서 너희에게 호의를 베푸시겠느냐? —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10**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성전 문을 닫아걸어서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였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를 좋아하지 않는다. —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 손이 바치는 제물을 받지 않으리라.
- 11** 그러나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은 민족들 가운데에서 드높다. 내 이름이 민족들 가운데에서 드높기에, 곳곳에서 내 이름에 향과 정결한 제물이 바쳐진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12** 그러나 너희는 "주님의 제사상이 더럽혀졌으니 그 위에 있는 음식이야 아무러면 어떠냐?" 하고 말하여 내 이름을 더럽힌다.
- 13**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싫증나는 일인가!" 하면서 나를 멸시한다. —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너희는 흠진 짐승, 절름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몰고 와서 제물로 바치는데, 내가 그러한 것을 너희 손에서 달갑게 받았느냐? —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14** 자기 짐승 가운데 수컷이 있어서, 그것을 바치기로 맹세하고서는, 주님에게 흠 있는 것을 바치며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정녕 나는 위대한 임금이시다. —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민족들은 나

의 이름을 경외한다.

참된 사제직

- 2** ¹ 자 이제, 사제들아, 이것이 너희에게 내리는 계명이다.
- 2** 너희가 말을 듣지 않고, 명심하여 내 이름을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고 너희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어 버리겠다. —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사실 나는 이미 너희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어 버렸다. 너희가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3** 보라, 내가 너희 후손들을 꾸짖는다. 나는 창자에 든 오물을 너희 축제 제물의 창자에 든 오물을 너희 얼굴에 뿌리리라. 나는 너희를 내 앞에서 내다 버리리라.
- 4** 그러면 너희는 레위와 맺은 나의 계약이 살아 있도록 내가 이 계명을 내렸음을 알게 되리라. —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5** 그와 맺은 나의 계약은? 생명과 평화의 계약으로서 내가 그에게 배운 것이다. 그 계약은 경외심을 일으켜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였다.
- 6**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가 없었다. 그는 나와 함께 평화롭고 바르게 걸으며 많은 이를 악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 7** 사제의 입술은 지식을 간직하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법을 찾으니 그가 만군의 주님의 사자이기 때문이다.
- 8** 그러나 너희는 길에서 벗어나 너희의 법으로 많은 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너희는 레위의 계약을 깨뜨렸다. —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9**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온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리라. 너희는 나의 길을 지키지 않고 법을 공평하게 적용하지 않았다.

혼혈혼과 이혼에 대한 경고

- 10**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한 분이 아니시나?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서로 배신하며 우리 조상들의 계약을 더럽히는가?
- 11** 유다 사람들은 배신을 저지르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는 역겨운 짓이 벌어졌다. 유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분의 성소를 더럽히고 이방 신을 섬기는 여자들과 혼인하였다.
- 12** 주님께서서는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증인 이긴 보증인이건 만군의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건 야곱의 천막에서 모두 없애 버리시리라.
- 13** 너희는 또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그분께서 더 이상 제물을 굶어보지도 않으시고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으신다고 주님의 제단을 눈물과 통곡과 탄식으로 덮고 있다.
- 14** 그러면서 너희는 "어찌 이리럽습니까?" 하고 묻는다. 네가 배신한 젊은 시절의 네 아내와 너 사이의 증인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고 너와 계약으로 맺어진 아내이다.
- 15** 한 분이신 그분께서 그 여자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몸과 영이 그분의 것이다. 한 분이신 그분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나? 하느님께 인정받는 후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 목숨을 소중히 여겨 젊은 시절의 아내를 배신하지 마라.
- 16** 정녕 나는 아내를 내쫓는 짓을 싫어한다. —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는 제 옷을 폭력으로 뒤덮는 자다. —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그러므로 너희는 제 목숨을 소중히 여겨 배신하지 마라.

심판과 정화

17 너희는 말로 주님을 싫증나게 해 드렸다. 그런데도 너희는 "저희가 어떻게 싫증나게 해 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님의 눈에는 악한 일을 하는 자마다 다 좋고 그분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좋아하신다." 하고 "공정의 하느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며 주님을 싫증나게 해 드렸다.

- 3** ¹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 너희가 찾던 주님, 그가 홀연히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사자 보라, 그가 온다. —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² 그가 오는 날을 누가 전디어 내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겠느냐? 그는 제련사의 불 같고 염색공의 잿물 같으리라.
- ³ 그는 온 제련사와 정련사처럼 앉아 레위의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금과 은처럼 정련하여 주님에게 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하리라.
- ⁴ 그러면 유대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주님 마음에 들리라.
- ⁵ 나는 심판하러 너희에게 다가가리라. 나는 주술사와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 팔이꾼의 품삯을 떼어먹고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는 자 이방인을 밀쳐 내는 자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거슬러 곧바로 증인이 되리라. —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올바른 십일조와 예물 봉헌

- ⁶ 나 주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아곱의 자손들이, 너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 ⁷ 너희는 조상 때부터 나의 규정에서 벗어나?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나에게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하면 저희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고

말한다.

- ⁸ 사람이 하느님을 약탈할 수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약탈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당신을 약탈하였습니까?" 하고 말한다. 십일조와 예물이 아니냐!
- ⁹ 너희 온 백성이 나를 약탈하고 있으니 저주를 받으리라.
- ¹⁰ 너희는 십일조를 모두 창고에 들어놓아 내 집에 양식이 넉넉하게 하여라. 그리고 나서 나를 시험해 보아라. —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내가 하늘의 창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넘치도록 쏟아 붓지 않나 보아라.
- ¹¹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 떼를 꾸짖으리라. 그래서 그것들이 너희 땅의 소출을 망치지 않고 너희 밭의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리라. —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¹² 그러면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행복하다고 하리니 바로 너희가 기쁨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주님의 날에 드러나는 정의

- ¹³ 너희는 나에게 무덤한 말을 하였다. —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그런데도 너희는 "저희가 당신께 무슨 무례한 말을 하였습니까?" 하고 말한다.
- ¹⁴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하느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만군의 주님의 명령을 지킨다고, 그분 앞에서 슬프게 걷는다고 무슨 이득이 있느냐?"
- ¹⁵ 오히려 이제 우리는 거만한 자들이 행복하다고 말해야 한다.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변성하고 하느님을 시험하고도 화를 입지 않는다."
- ¹⁶ 그때에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서로 말하였다. 주님이 주의를 기울여 들었다. 그리

고 주님을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존중하는 이들이 주님 앞에서 비망록에 쓰여졌다.

17 그들은 나의 것이 되리라. —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내가 나서는 날에 그들은 나의 소유가 되리라. 부모가 자기들을 섬기는 자식을 아끼듯 나도 그들을 아끼리라.

18 그러면 너희는 다시 의인과 악인을 가리고 하느님을 섬기는 이와 섬기지 않는 자를 가릴 수 있으리라.

19 보라, 화덕처럼 불붙는 날이 온다. 거만한 자들과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모두 검불이 되리니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살라 버리리라. —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그날은 그들에게 뿌리도 가지도 남겨 두지 않으리라.

20 그러나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의 태양이 날개에 치유를 싣고 떠오르리니 너희는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나와서 뛰놀리라.

21 그리고 너희는 악인들을 짓밟으리라. 내가 나서는 날에 그들은 너희 말바닥 밑의 재가 되리라. —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22 너희는 나의 종 모세의 율법, 내가 호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내린 규정과 법규들을 기억하여라.

23 보라,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리라.

24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리리라. 그래야 내가 와서 이 땅을 파멸로 내리치지 않으리라.

신약성경
신약성경

신약성경 - 1

복음서 - 1

마태오 복음서

총 28 장

총 1,071 절

[신약성경]-[마태오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루카 3,23-38)

- 1 ¹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 2 아브라함은 이사악을 낳고 이사악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 3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리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 4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흐손을 낳았으며 나흐손은 살몬을 낳았다.
- 5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벧을 낳았다. 오벧은 이사이를 낳고
- 6 이사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 7 솔로몬은 르하브암을 낳았으며 르하브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 8 아삽은 여호시פט을 낳고 여호시פט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찌야를 낳았다.
- 9 우찌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기야를 낳았다.
- 10 히즈기야는 므나쎄를 낳고 므나쎄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아를 낳았다.
- 11 요시아는 바빌론 유배 때에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 12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즈루빠벨을 낳았다.
- 13 즈루빠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야킴을 낳았으며 엘야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 14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라웃을 낳았다.
- 15 엘라웃은 엘야자르를 낳고 엘야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 16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

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 17 그리하여 이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십사 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십사 대이며,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십사 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루카 2,1-7)

- 18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 19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 20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 21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 22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 23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는 뜻이다.
- 24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 25 그러나 아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동방 박사들의 방문

- 2** ¹ 예수님께서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헬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 2** “유대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 3**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 4**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 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 5**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헬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 6** ‘유다 땅 베들레헬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
- 7** 그때에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 8** 그들을 베들레헬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 9**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 10**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 11**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 12**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이집트로 피신하시다

- 13**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 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 버리려고 한다.”
- 14**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 15**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된 것이다.

헤로데가 아기들을 학살하다

- 16** 그때에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 그리고 사림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서 정확히 알아낸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헬과 그 온 일대에 사는 두 살 이하의 사내아이들을 모조리 죽여 버렸다.
- 17**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 18** “라미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애끊는 통곡 소리.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운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이집트에서 돌아오시다

- 19**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 20**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 21**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 22** 그러나 아르켈라오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래아 지방으로 떠나
- 23** 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

었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는 나 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세례자 요한의 설교 (마르 1,1-8 ; 루카 3,1-9 ; 루카 3,15-18 ; 요한 1,19-28)

3 ¹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 ²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 ³ 요한은 이사가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 ”
- ⁴ 요한은 낙타 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 풀이었다.
- ⁵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와,
- ⁶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 ⁷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이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 주더냐?

- 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 ⁹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 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들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 ¹⁰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 ¹¹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

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 ¹²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세례를 받으시다 (마르 1,9-11 ; 루카 3,21-22)

- ¹³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래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 ¹⁴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남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남께서 저에게 오시더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 ¹⁵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 ¹⁶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 ¹⁷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다 (마르 1,12-13 ; 루카 4,1-13)

4 ¹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 ² 그분께서는 사십 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지장하셨다.
- ³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 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 ”
- 5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 6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밀로 몸을 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 ”
- 7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
- 8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 주며,
- 9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 10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
- 11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카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갈릴레아 진도를 시작하시다 (마르 1,14-15 ; 루카 4,14-15)

- 12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
- 13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즈블룬과 납탈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카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 14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된 것이다.
- 15 “즈블룬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 16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 17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어부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다 (마르 1,16-20 ; 루카 5,1-11)

- 18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 1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 20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 21 거기에서 더 가시다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대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 22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과 군중 (루카 6,17-19)

- 23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 24 그분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과 마귀 들린 이들, 간질 병자들과 중풍 병자들을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 25 그러자 갈릴레아, 데카폴리스,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5

- 1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

오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2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참행복 (루카 6,20-23)

3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4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5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6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7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8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9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10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11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12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세상의 소금과 빛 (마르 9,49-50 ; 루카 14,34-35)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15 등불은 켜서 합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16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예수님과 율법

17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18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19 그러므로 이 계명을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20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화해하여라

21 “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 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22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 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 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23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에물을 바쳐라.

- 25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네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 26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날까지 갔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극기하여라

- 27 “ ‘간음해서는 안 된다.’ 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 28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 29 네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 30 또 네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아내를 버리는는 안 된다 (마르 10,11-12 ; 루카 16,18)

- 31 “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 주어야.’ 하신 말씀이 있다.
- 32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정직하여라

- 33 “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 드려라.’ 하고 옛사

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 34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느님의 옥죄이기 때문이다.
- 35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위대하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 36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네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37 너희는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라고 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폭력을 포기하여라 (루카 6,29-30)

- 38 “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 39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 대어라.
- 40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 41 누가 너에게 천 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이천 걸음을 가 주어라.
- 42 달리는 자에게 주고 꾸러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루카 6,27-28 ; 루카 6,32-36)

- 43 “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네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 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 44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 45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 주신다.

- 46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았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 47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 48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올바른 자선

- 6 ¹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한다.
- 2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 3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 4 그렇게 하여 네 자선을 숨겨 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올바른 기도

- 5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해서선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 6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 7 너희는 기도할 때에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 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 8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주님의 기도 (루카 11,2-4)

-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 10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 1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 12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 13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 14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 15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올바른 단식

- 16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 17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 18 그리하여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

버지게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 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루카 12,33-34)

- 19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마라. 땅에서는 썩과 녹이 망가뜨리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 간다.
20 그러므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거기에서는 썩도 녹도 망가뜨리지 못하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며 훔쳐 가지도 못한다.
21 사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 (루카 11,34-36)

- 22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맑으면 온몸도 환하고,
23 네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나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둡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하느님이나, 재물이나 (루카 16,13)

- 24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 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세상 걱정과 하느님의 나라 (루카 12,22-32)

-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26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

주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 27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28 그리고 너희는 왜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30 오늘 서 있다카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까지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희야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31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32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33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34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남을 심판하지 마라 (루카 6,37-38 ; 루카 6,41-42)

- 7¹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2 너희가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고,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3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가만, 네 눈에서 티를 빼내 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5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가 뿌엿이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것을 욕되게 하지 마라

6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루카 11,9-13)

7 “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8 누구든지 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9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10 생선을 칭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11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게 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황금물 (루카 6,31)

12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루카 13,24)

13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14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루카 6,43-44)

15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차림을 하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개걸 든 이리들이다.

16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두어들이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거두어들이겠느냐?

17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19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잘려 불에 던져진다.

20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주님의 뜻을 실천하여라 (루카 13,25-27)

21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22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 것이다.

23 그때에 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들 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하고 선언할 것이다.”

내 말을 실행하여라 (루카 6,47-49)

24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

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 25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 26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여러 석은 사람과 같다.
- 27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창중의 반응 (마르 1,22 ; 루카 4,32)

- 28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자 군중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 29 그분께서 자기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다 (마르 1,40-45 ; 루카 5,12-16)

- 8 ¹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 2 그때에 어떤 나병 환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 3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 4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백인대장의 병든 종을 고치시다 (루카 7,1-10 ; 요한 4,43-54)

- 5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인대장이 다가와 도움을 청하였다.

- 6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제 종이 중 풍으로 집에 드러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 7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 주마.” 하시자,
- 8 백인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올 것입니다.
- 9 사실 저는 상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노예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 10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 스코델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 11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 와, 하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사와와 야곱과 함께 잔칫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 12 그러나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 13 그리고 예수님께서 백인대장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종이 나왔다.

베드로의 병든 장모를 고치시다 (마르 1,29-31 ; 루카 4,38-39)

- 14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을 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드러누워 있는 것을 보셨다.
- 15 예수님께서 당신 손을 그 부인의 손에 대시니 열이 가셨다. 그래서 부인은 일어나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다 (마르 1,32-34 ; 루카 4,40-41)

16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마귀 들린 이들을 예수님께 많이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서는 말씀으로 악령들을 쫓아내시고, 앓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17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그는 우리의 병고를 떠맡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루카 9,57-62)

18 예수님께서서는 둘러선 군중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19 그때에 한 율법 학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스승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0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가릴 곳조차 없다.”

21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가,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22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너는 나를 따라라.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풍랑을 가라앉히시다 (마르 4,35-41 ; 루카 8,22-25)

23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그분을 따랐다.

24 그때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25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26 그러자 그분은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악한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다.

27 그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말하였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마귀들과 돼지 떼 (마르 5,1-20 ; 루카 8,26-39)

28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다라인들의 지방에 이르셨을 때, 마귀 들린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 왔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다닐 수가 없었다.

29 그런데 그들이 “하느님의 아드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고 외쳤다.

30 마침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놓아 기르는 많은 돼지 떼가 있었다.

31 마귀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 떼 속으로나 들여보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32 예수님께서 “가라.” 하고 말씀하시자, 마귀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 떼가 모두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 달려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

33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고을로 가서는, 이 모든 일과 마귀 들렸던 이들의 일을 알렸다.

34 그러자 온 고을 주민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그분을 보고 저희 고향에서 떠나가 주십사고 청하였다.

중풍 병자를 고치시다 (마르 2,1-12 ; 루카 5,17-26)

9 1 예수님께서서는 배에 오르시어 호수를 건너 당산에서 사시는 고을로 가셨다.

- 2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중풍 병자를 평상에 누어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 3 그러자 율법 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이자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고 생각하였다.
- 4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 5 ‘나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쉬우나?
- 6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런 다음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네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 7 그러자 그는 일어나 집으로 갔다.
- 8 이 일을 보고 군중은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그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마태오를 부르시고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다 (마르 2,13-17 ; 루카 5,27-32)

- 9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태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 10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었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다.
- 11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네 스승은 어찌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오?”
- 12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

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 13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단식 논쟁-세것과 헌것 (마르 2,18-22 ; 루카 5,33-39)

- 14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 1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 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 것이다.
- 16 아무도 새 천 조각을 헌 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형겅에 그 옷이 땅겨 더 심하게 찢어지기 때문이다.
- 17 또한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래야 둘 다 보존된다.”

아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허혈하는 부인을 고치시다 (마르 5,21-43 ; 루카 8,40-56)

- 1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서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 19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를 따라가셨다.
- 20 그때에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다가와, 그분의 옷자락 술

에 손을 대었다.

- 21 그는 속으로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았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 22 예수님께서 돌아서서어 그 여자를 보시며 이르셨다. "딸아, 용기를 내어라. 네 믿음 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부인은 구원을 받았다.
- 23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이르시어 피리를 부는 이들과 소란을 피우는 군중을 보시고,
- 24 "말러들 가거라. 저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 25 군중이 쫓겨난 뒤에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가시어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다.
- 26 그 소문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눈먼 두 사람을 고치시다

- 27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 28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그 눈먼 이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 29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셨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 30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하고 단단히 이르셨다.
- 31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 지방에 두루 퍼뜨렸다.

말 못하는 이를 고치시다

- 32 그들이 나간 뒤에 사람들이 마귀 들려 말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 33 마귀가 쫓겨나자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였다. 그러자 군중은 놀라워하며,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 34 그러나 바리사이들은, "저 사람은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였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 35 예수님께서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 36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없는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 37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 38 그러나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시오 청하여라."

열두 사도를 뽑으시다 (마르 3,13-19 ; 루카 6,12-16)

- 10** ¹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 주게 하셨다.
- 2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 3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해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 4 열혈당한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열두 사도를 파견하시다 (마르 6,7-13 ; 루

카 9,1-6)

- 5 예수님께서 이 열두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 6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 7 가서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 8 앓는 이들을 고쳐 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 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 9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 돈도 지니지 마라.
- 10 여행 보따리도 여벌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 11 어떤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 12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 13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 14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 버려라.
- 1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박해를 각오하여라 (마르 13,9-13 ; 루카 21,12-17)

- 16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 17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

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 18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 것이다.
- 19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 주실 것이다.
- 20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 21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 22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 23 어떤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 24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
- 25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람들이 집주인을 베엘세불이라고 불렀다면, 그 집 식구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여라 (루카 12,2-9)

- 26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 27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에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 28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지옥에서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

하여라.

29 참새 두 마리가 한 낚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30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 두셨다.

31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32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33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루카 12,51-53)

34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35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36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버림과 따름 (루카 14,25-27)

37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38 또 제 십자기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39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들이 받을 상 (마르 9,41)

40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41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42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이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11 ¹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다 지시하시고 나서, 유대인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그곳에서 떠나가셨다.

세례자 요한의 질문에 답변하시다 (루카 7,18-23)

2 그런데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3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5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머슴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6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세례자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시다 (루카 7,24-35)

7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8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나?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 9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 10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가 네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 11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 12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 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 13 모든 예언서와 율법은 요한에 이르기까지 예언하였다.
- 14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요한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 15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 16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기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 17 ‘우리가 파리를 붙여 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 18 사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말한다.
- 19 그런데 사람의 이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

회개하지 않는 고을들 (루카 10,13-15)

- 20 그때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21 “불행하여라, 너 코라진아!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 22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 23 그리고 너 카파르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오를 성실이나?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 고을은 오늘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 24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 (루카 10,21-22)

- 25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 드립니다.
- 26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 27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 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내 멍에를 메어라

- 28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 30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밭 이삭을 뜯다 (마르 2,23-28 ; 루카 6,1-5)

- 12** ¹ 그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밭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밭 이삭을 뜯어 먹기 시작하였다.
- ²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³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 본 적이 없느냐?”
- ⁴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그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 빵을 먹지 않았느냐?
- ⁵ 또 안식일에 사제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 본 적이 없느냐?
- ⁶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 ⁷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 ⁸ 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다 (마르 3,1-6 ; 루카 6,6-11)

- ⁹ 예수님께서서는 그곳에서 자리를 옮겨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 ¹⁰ 마침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어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 ¹¹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

가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을 잡아 끌어내지 않았느냐?”

- ¹²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안식일에 좋은 일은 해도 된다.”
- ¹³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뻗자 다른 손처럼 성해져 건강하게 되었다.
- ¹⁴ 바리새이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주님의 종 예수님

- ¹⁵ 예수님께서서는 그 일을 아시고 그곳에서 물러가셨다. 그런데도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 주시면서도,
- ¹⁶ 당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 ¹⁷ 이사가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되된 것이다.
- ¹⁸ “보아라, 내가 선택한 나의 종 내가 사랑하는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내가 그에게 내 영을 주리니 그는 민족들에게 율바름을 선포하리라.
- ¹⁹ 그는 다투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으리니 거리에서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 ²⁰ 그는 율바름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 나는 삼지를 끄지 않으리니
- ²¹ 민족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리라.”

예수님과 베엘세불 (마르 3,20-30 ; 루카 11,14-23 ; 루카 12,10)

- ²² 그때에 사람들이, 마귀 들려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 주시자, 말을 못하던 그 사람이 말도 하고 보게도 되었다.

- 23 그러자 군중이 모두 질겁하며, “저분이 혹시 다윗의 자손이 아니신가?” 하고 말하였다.
- 24 바리새이들은 이 말을 듣고,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쫓아내지 못한다.” 하고 말하였다.
- 25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고을이나 집안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어 내지 못한다.
- 26 사탄이 사탄을 내쫓으면 서로 갈라선 것이다. 그러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버티어 내겠느냐?
- 27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제자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나? 그러나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 28 그러나 내가 하늘의 영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 29 먼저 힘센 자를 묶어 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빼앗을 수 있겠느냐? 묶어 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 30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 버리는 자다.
- 31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짓든,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을 하든 다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 32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현재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말과 마음 (루카 6,43-45)

- 33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
- 34 독사의 자식들이라,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사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 35 선한 사람은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꺼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꺼낸다.
- 36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자기 지결인 쓸데없는 말을 심판 날에 해명해야 것이다.
- 37 내가 한 말에 따라 너는 의롭다고 선고받기도 하고, 내가 한 말에 따라 너는 단죄받기도 할 것이다.”

요나의 표징 (마르 8,11-12 ; 루카 11,29-32)

- 38 그때에 율법 학자와 바리새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스승님이 일으키시는 표징을 보고 싶습니다.”
- 39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나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 40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사흘 밤낮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 41 심판 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 42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되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되돌아오는 악령 (루카 11,24-26)

- 43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데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 44 그때에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 45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일곱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참가족 (마르 3,31-35 ; 루카 8,19-21)

- 46 예수님께서 아직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 47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 48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였다.
- 49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 50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마르 4,1-9 ; 루카 8,4-8)

- 13** 1 그날 예수님께서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 2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서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 3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 4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다.
 - 5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썩은 곧 돌아났지만,
 - 6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 버린 것이다.
 - 7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 버렸다.
 - 8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예순 배, 어떤 것은 서른 배가 되었다.
 - 9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마르 4,10-12 ; 루카 8,9-10)**
- 10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 11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 12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 13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 14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 15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이와 내가 그들을 고쳐 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 16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1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설명하시다 (마르 4,13-20 ; 루카 8,11-15)

- 18 “그러니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여라.
19 누구든지 하늘 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20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21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22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 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23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백 배, 어떤 사람은 예순 배, 어떤 사람은 서른 배를 낸다.”

가리지의 비유

- 24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 비길 수 있다.

- 25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밭 가운데에 가리지를 덧뿌리고 갔다.
26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리지들도 드러났다.
27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리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28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 낼까요?’ 하고 묻자,
29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리지들을 거두어 내다가 밭까지 함께 뽑을 지도 모른다.
30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리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 버리고 밭은 내 곳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였다.’ ”

겨자씨의 비유 (마르 4,30-32 ; 루카 13,18-19)

- 31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32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누룩의 비유 (루카 13,20-21)

- 33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 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비유를 들어 가르치시다 (마르 4,33-34)

- 34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 35 예언자를 통하여 “나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가리지의 비유를 설명하시라

- 36 그 뒤에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와, “밭의 가리지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 37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 38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 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리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 39 가리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 때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 40 그러므로 가리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 41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 42 불구덩이에 던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 43 그때에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보물의 비유와 진주 상인의 비유

- 44 “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 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 45 또 하늘 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 46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그물의 비유

- 47 “또 하늘 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이는 그물과 같다.
- 48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 버렸다.
- 49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 내어,
- 50 불구덩이에 던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비유를 끝맺는 말씀

- 51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 5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 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 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것도 꺼내고 옛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나자렛에서 무시를 당하시라 (마르 6,1-6 ; 루카 4,16-30)

- 53 예수님께서서는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 54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 55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 56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
- 57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

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58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헤로데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다 (마르
6,14-16 ; 루카 9,7-9)

14 ¹ 그때에 헤로데 영주가 예수님의 소
문을 듣고

² 시종들에게, “그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난 것이
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
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죽음 (마르 6,17-29)

³ 헤로데는 자기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
디아의 일로, 요한을 붙잡아 묶어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⁴ 요한이 헤로데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
하였기 때문이다.

⁵ 헤로데는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⁶ 그런데 마침 헤로데가 생일을 맞이하자, 헤
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그
를 즐겁게 해 주었다.

⁷ 그래서 헤로데는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청
하는 대로 주겠다고 맹세하며 약속하였다.

⁸ 그러자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부추기는 대
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이리 가져다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⁹ 임금은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
님을 맞이어서 그렇게 해 주라고 명령하고,

¹⁰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¹¹ 그리고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가다 소녀

에게 주게 하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
니에게 가져갔다.

12 요한의 제자들은 가서 그의 주검을 거두어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 가서 알렸다.

오천 명을 먹이시다 (마르 6,30-44 ; 루카
9,10-17 ; 요한 6,1-14)

13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거기에서 배
를 타시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여러 고을에서 그 소문을 듣고 군
중이 육로로 그분을 따라나섰다.

14 예수님께서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
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
운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

15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
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으거리를 사
게 하십시오.”

16 예수님께서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
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17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다섯 개와 물
고기 두 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18 예수님께서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
라.” 하시고는,

19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
셨다. 그리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
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
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20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21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
도 오천 명기량이었다.

물 위를 걸으시다 (마르 6,45-52 ; 요한

6,16-21)

- 22 예수님께서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 23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 24 배는 이미 물에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 25 예수님께서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 26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 댔다.
- 27 예수님께서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 28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 29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 30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 31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 32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 33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겐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다 (마르 6,53-56)

- 34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겐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 35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모든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병든 이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 36 그리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조상들의 전통에 관한 논쟁 (마르 7,1-23)

- 15** ¹ 그 때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 2 “어찌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어긋나니까?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 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또 어찌서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 4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고 이르셨다.
 - 5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하면,
 - 6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폐기하는 것이다.
 - 7 위선자들이,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 8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 9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
 - 10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듣고 깨달아라.
 - 11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

는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 12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기와 물었다.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아십니까?”
- 13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초목은 모두 뽑 것이다.
- 14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이들의 눈먼 인도자다. 눈먼 이가 눈먼 이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 15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 16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 17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나 배 속으로 갔다가 뒷간으로 나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 18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 19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살인, 간음, 불륜, 도둑질, 거짓 증언, 중상이 나온다.
- 20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가나안 여자의 믿음 (마르 7,24-30)

- 21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 22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 23 예수님께서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기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 24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 25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 26 예수님께서서는 “차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 27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 28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다

- 29 예수님께서서는 거기에서 갈릴래아 호숫가로 옮겨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오르시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 30 그러자 많은 군중이 다리지는 이들과 눈먼 이들과 다른 불구자들과 잘못된 이들과,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들을 그분 발치에 데려다 놓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 31 그리하여 잘못된 이들이 말을 하고 불구자들이 온전해지고 다리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눈먼 이들이 보게 되자, 군중이 이를 보고 놀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사천 명을 먹이시다 (마르 8,1-10)

- 32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저 군중이 가없구나. 벌써 사동인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곁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그들을 굶겨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 33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 34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자, 그들이 “일곱 개가 있고 물고기도 조금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35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 36 그리고 빵 일곱 개와 물고기들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 37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일곱 바구니에 가득 찼다.
- 38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사천 명이었다.
- 39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시고 나서 배를 타고 마카단 고장으로 가셨다.

바리사이들과 사두카이들이 표징을 요구하다
(마르 8,11-13 ; 루카 12,54-56)

- 16** ¹ 바리사이들과 사두카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 2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저녁때가 되면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겠구나.’ 하고,
 - 3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좋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징은 분별하지 못한다.
 - 4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런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남겨 두고 떠나가셨다.

바리사이들과 사두카이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마르 8,14-21)

- 5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면서 빵을 가

져가는 것을 잊어버렸다.

- 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사이들과 사두카이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 7 그러자 제자들은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하며 저희끼리 수군거렸다.
 - 8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너희끼리 수군거리느냐?”
 - 9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빵 다섯 개로 오천 명이 먹은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 10 그리고 빵 일곱 개로 사천 명이 먹은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 11 내가 빵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님을 어찌하여 이해하지 못하느냐? 바리사이들과 사두카이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 12 그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사이들과 사두카이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다**
(마르 8,27-30 ; 루카 9,18-21)
- 13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 14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 15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 16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17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냐,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이다.

- 18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 19 또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 20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수난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시다 (마르 8,31-33 ; 루카 9,22)

- 21 그때부터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만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 22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맘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 23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반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마르 8,34-9,1 ; 루카 9,23-27)

- 24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 25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 26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 27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에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 28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더러 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다 (마르 9,2-10 ; 루카 9,28-36)

- 17 ¹ 옛세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 2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얗졌다.
- 3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 4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 5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밝히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 6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 7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 8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엘리아의 재림 (마르 9,11-13)

10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 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아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물었다.

11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괴연 엘리아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12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아는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었다.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13 그제야 제자들은 그것이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어떤 아이에게서 마귀를 내쫓으시다 (마르 9,14-29 ; 루카 9,37-43)

14 그들이 군중에게 가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15 말하였다. “주님,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자주 물속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16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가 보았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17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한다는 말이나?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하고 이르셨다.

18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자 아이에게서 마귀가 나갔다. 바로 그 시간에 아이가 나왔다.

19 그때에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다가와,

“어찌하여 저희는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20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가져씨 한 알만 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 갈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21 그런 것은 기도와 단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수난과 부활을 두 번째로 예고하시다 (마르 9,30-32 ; 루카 9,43-45)

22 그들이 갈릴래이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23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성전 세를 바치시다

24 그들이 카파르나움으로 갔을 때, 성전 세를 거두는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여러분의 스승님은 성전 세를 내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25 베드로가 “네입니다.” 하고는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세금을 거두느냐? 자기 자녀들에게서냐, 아니면 남들에게서냐?” 하고 물으셨다.

26 베드로가 “남들에게서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면제받는 것이다.

27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 것은 없으니,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열어 보아라. 스타테르 한 닢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가

저다가 나와 네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하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 (마르 9,33-37
; 루카 9,46-48)

18 ¹ 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사
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²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
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³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 나라에서 가장 큰사람이
다.

⁵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
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죄의 유희를 단호히 물리쳐라 (마르 9,42-48
; 루카 17,1-2)

⁶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편이 낫다.

⁷ 불행하여라,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많은 이
세상! 사실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은 일어나
기 마련이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남을 죄짓
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

⁸ 네 손이나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 버려라.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
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불구자나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⁹ 또 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 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불타는 지옥
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생명에 들
어가는 편이 낫다.”

작은 이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¹⁰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
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¹¹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들을 구하러 왔
기 때문이다.)

되찾은 양의 비유 (루카 15,3-7)

¹²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
게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
리가 길을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남겨 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
느냐?

¹³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
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아흔아홉마리보
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¹⁴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의 뜻이 아니다.”

형제가 죄를 지으면 깨우쳐 주어라 (루카
17,3)

¹⁵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만나 그를 타일려라. 그가 네 말을 들
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¹⁶ 그러나 그가 네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
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¹⁷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
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
처럼 여겨라.

¹⁸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
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
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
서도 풀릴 것이다.”

함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 19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 20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고 용서하여라 (루카 17,4)

- 21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 22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매정한 종의 비유

- 23 “그러므로 하늘 나라는 자기 종들과 썬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빌길 수 있다.
- 24 임금이 썬을 하기 시작하자 만 탈렌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 25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 26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았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 27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 28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목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 29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 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 30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 31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 32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 33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 34 그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 35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혼인과 이혼 (마르 10,1-12 ; 루카 16,18)

- 19** ¹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래이를 떠나, 요르단 건너편 유다 지방으로 가셨다.
- 2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오자 그분께서는 그곳에서도 그들을 고쳐 주셨다.
 - 3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 4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 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오’ 나서,
 - 5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 6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것이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 7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 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 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 9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혼인과 독신

- 10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 1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 12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 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다 (마르 10,13-16 ; 루카 18,15-17)

- 13 그때에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 14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을 그냥 놓아두어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사실 하늘 나라는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 15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주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하느님의 나라와 부자 (마르 10,17-27 ; 루카 18,18-27)

- 16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 17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 18 그가 “어떤 것들입니까?” 하고 또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 19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는 것이다.”
- 20 그 젊은이가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지켜 왔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다시 묻자,
- 21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 22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 23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에 어려울 것이다.
- 24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 25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하였다.
- 26 예수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따름과 보상 (마르 10,28-31 ; 루카 18,28-30)

- 27 그때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 예수님께 물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 28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기 옥좌에 앉게 되는 새 세상이 오면, 나를 따른 너희도 열두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 29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백 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 30 그런데 첫째가 풀져 되고 둘째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

- 20** ¹ “하늘 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신 밭 임자와 같다.
- 2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 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 3 그가 또 아홉 시쯤에 나가 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 4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적당한 값을 주겠소.’ 하고 말하자,
 - 5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열두 시와 오후 세 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 6 그리고 오후 다섯 시쯤에도 나가 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서 있소?’ 하고 물으니,
 - 7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 8 저녁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에게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 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 9 그리하여 오후 다섯 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 10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레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 11 그것을 받아두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 12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한 시간만 일했는데도, 피약별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 13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 14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 15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 16 이처럼 풀져가 첫째 되고 첫째가 풀져 될 것이다.”

수난과 부활을 세 번째로 예고하시다 (마르 10,32-34 ; 루카 18,31-34)

- 17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 18 “보시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19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출세와 섬김 (마르 10,35-45 ; 루카 22,25-27)

20 그때에 제베대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을 청하였다.

21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22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2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은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아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24 다른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25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26 그러나 너희는 그레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27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28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

로 자기 목숨을 바치려 왔다.”

에리코에서 눈먼 두 사람을 고치시다 (마르 10,46-52 ; 루카 18,35-43)

29 그들이 에리코를 떠날 때에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다.

30 그런데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31 군중이 그들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32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부르신 다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다.

33 그들이 “주님, 저희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34 예수님께서 기없는 마음이 들어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자, 그들이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 (마르 11,1-11 ; 루카 19,28-38 ; 요한 12,12-19)

21¹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 산 벳파게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며

2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매여 있는 암나귀와 그 결의 어린 나귀를 곧바로 보게 될 것이다. 그것들을 풀어서 나에게 끌고 오너라.

3 누가 너희에게 무어라고 하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을 곧 보내 줄 것이다.”

4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

5 “딸 시몬에게 말하여라. 보라, 너의 임금님

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अपना 귀를, 짐바리 짐승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 6 제자들은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 7 그들은 그렇게 अपना 귀와 어린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위에 겹옷을 펴 놓았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앉으시자,
- 8 수많은 군중이 자기들의 겹옷을 길에 깔았다. 또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 9 그리고 앞서 가는 군중과 뒤따라가는 군중이 외쳤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 10 이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도성이 술렁거리며, “저분이 누구냐?” 하고 물었다.
- 11 그러자 군중이 “저분은 갈릴래아 나자렛 출신 예언자 예수님이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성전을 정화하시다 (마르 11,15-19 ; 루카 19,45-48 ; 요한 2,13-22)

- 12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그곳에서 사교팔고 하는 자들을 모두 쫓아내시고,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 13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였다.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이 곳을 ‘강도들의 소굴’ 로 만드느구나.”
- 14 그때에 성전에서 눈먼 이들과 절름거리리는 이들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 15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보고, 또 성전에서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하고 외치는

- 아이들을 보고 불쾌해하며,
- 16 예수님께 “저 아이들이 무어라고 하는지 듣고 있소?”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다. “그렇다. ‘당신께서는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너희는 읽어 본 적이 없느냐?”
- 17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두고 성을 나와 베타니아로 가시어 그곳에서 밤을 지내셨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다 (마르 11,12-14 ; 마르 11,20-25)

- 18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성안으로 되돌아가실 때에 시작하셨다.
- 19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가까이 가셨다. 그러나 잎사귀밖에는 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그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였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 맺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자 나무가 즉시 말라 버렸다.
- 20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서, “어째서 무화과나무가 즉시 말라 버렸습니까?” 하고 물었다.
- 2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에 일어난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여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 22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권한을 문제 삼다 (마르 11,27-33 ; 루카 20,1-8)

- 23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님께 다기와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그리고 누가 당신

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 24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다. 너희가 나에게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 주겠다.
- 25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늘에서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 그들은 저희끼리 의논하였다. “‘하늘에서 왔다.’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우리에게 말할 것이오.
- 26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 하자니 군중이 두렵소. 그들이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오.”
- 27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두 아들의 비유

- 28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만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 29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 30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 31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만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 32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

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 (마르 12,1-12 ; 루카 20,9-19)

- 33 “다른 비유를 들어 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 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 34 포도 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 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 35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 36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 37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 38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 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 39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 버렸다.
- 40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 41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 없이 없애 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 4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 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 4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44 그리고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고, 그 돌에 맞는 자는 누구나 으러질 것이다. ” 나 일부 수사본들에는 이 44절이 없다.

45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이 비유들을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차리고,

46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군중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혼인 잔치의 비유 (루카 14,15-24)

22 ⁻¹ 예수님께서서는 또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 “하늘 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배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3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4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칫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 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5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6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7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8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9 그러니 고을 어귀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 오너라.’

10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칫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11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와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12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13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 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14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 (마르 12,13-17 ; 루카 20,20-26)

15 그때에 바리사이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예수님께 올라미를 씌울까 하고 의논하였다.

16 그러고는 저희 제자들을 헤로데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께서 진실하시고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과연 스승님은 사람을 그 신분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17 그러니 스승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18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악의를 아시고 말씀하였다. “위선자들이여,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19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라.” 그들이 데나리온 한 닢을 가져오자

20 예수님께서,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21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

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 드려라.”

22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경탄하면서 예수님을 두고 물러갔다.

부활 논쟁 (마르 12,18-27 ; 루카 20,27-40)

23 그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카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24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의 형제가 죽은 이의 아내와 혼인하여 그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 고 하였습니다.

25 그런데 저희 가운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맏이가 혼인하여 살다가 죽었는데, 후사가 없어서 아내를 동생에게 남겨 놓았습니다.

26 둘째도 셋째도 그러하였고 일곱째까지 그러하였습니다.

27 맨 나중에는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28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 일곱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들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으니 말입니다.”

2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30 부활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진다.

31 그리고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해서는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 보지 않았느냐?

32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야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33 군중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에

감탄하였다.

가장 큰 계명 (마르 12,28-34 ; 루카 10,25-28)

34 예수님께서 사두카이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테 모였다.

35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36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37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38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39 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는 것이다.

40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르 12,35-37 ; 루카 20,41-44)

41 바리사이들이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42 “너희는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4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도움으로 그를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어찌 된 일이나?

44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네 발아래 잡아 놓을 때까지.’

45 이렇게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46 그들은 한바디도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리

고 그날부터 예수님께 감히 묻는 사람도 더 이상 없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꾸짖으시다 (마르 12,38-40 ; 루카 11,39-52 ; 루카 20,45-47)

23 ¹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²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³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

⁴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⁵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 술을 길게 늘인다.

⁶ 잔칫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⁷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⁸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⁹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¹⁰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¹¹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¹²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¹³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늘 나라의 문을 잠가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는 이들마저 들어가게 놓아두지 않는다.

¹⁴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너희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엄한 단죄를 받을 것이다.)

¹⁵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너희가 개종자 한 사람을 얻으려고 바다와 물을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이 생기면, 너희보다 갑절이나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¹⁶ 불행하여라, 너희 눈먼 인도자들이!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전의 금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 고 너희는 말한다.

¹⁷ 어리석고 눈먼 자들이! 무엇이 더 중요하냐? 금이나, 아니면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나?

¹⁸ 너희는 또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단 위에 놓인 예물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 고 말한다.

¹⁹ 눈먼 자들이! 무엇이 더 중요하냐? 예물이나, 아니면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나?

²⁰ 사실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고,

²¹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성전과 그 안에 사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며,

²²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하느님의 옥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²³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

리사이들이! 너희가 박해와 시라와 소회함은 십일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 처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십일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행해야만 했다.

24 눈먼 인도자들이! 너희는 작은 벌레들은 걸러 내면서 낙타는 그냥 삼키는 자들이다.

25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26 눈먼 바리사이야!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27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너희가 같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28 이처럼 너희도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29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묘를 꾸미면서,

30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다더라면 예언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31 그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32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짓을 마쳐 하여라.

33 너희 뱀들이, 독사의 자식들이! 너희가 지옥형 판결을 어떻게 피하려느냐?

34 그러므로 이제 내가 예언자들과 현인들과 율법 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면 너희는 그들을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또 이 고을 저 고을 쫓아다니며 박해할 것이다.

35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베레크야의 아들 즈카르야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쏟아진 무죄한 피의 값이 모두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36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 닥칠 것이다.”

예루살렘을 두고 한탄하시다 (루카 13,34-35)

37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입담이 제 병어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38 보라, 너희 집은 버려져 황폐해질 것이다.

39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하고 말할 때까지, 정녕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성전의 파괴를 예고하시다 (마르 13,1-2 ; 루카 21,5-6)

24 ¹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 성전 건물들을 가리켰다.

2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고 다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채난의 시작 (마르 13,3-13 ; 루카 21,7-19)

- 3 예수님께서 올리브 산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다가와 여쭙었다. “저희에게 일러 주십시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스승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의 표징은 어떤 것입니까?”
- 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누구에게도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 5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이를 속일 것이다.
- 6 그리고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났다는 소식과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아직 끝은 아니다.
- 7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 8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진통의 시작일 따름이다.
- 9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 속에 몰아넣고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 10 그러면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 서로 팔아넘기고 서로 미워하며,
- 11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 많은 이를 속일 것이다.
- 12 또 불법이 성하여 많은 이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 13 그러나 끝까지 견디어 내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 14 이 하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듣게 될 터인데, 그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가장 큰 재난 (마르 13,14-23 ; 루카 21,20-24)

- 15 “그러므로 다니엘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

- 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 읽는 이는 알아들으라.
- 16 그때에 유대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라.
- 17 옥상에 있는 이는 물건을 꺼내러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고,
- 18 들에 있는 이는 걸옷을 가지러 가려고 뒤로 돌아서지 마라.
- 19 불행하여라,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와 젖 먹이가 떨어진 여자들!
- 20 너희가 달아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 21 그때에 큰 환난이 닥칠 터인데, 그러한 환난은 세상 시초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다.
- 22 그 날수를 줄여 주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된 이들을 위하여 그 날수를 줄여 주실 것이다.
- 23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보라,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다!’ , 또는 ‘아니, 여기 계시다!’ 하더라도 믿지 마라.
- 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이들에게 속이려고 큰 표징과 이적들을 일으킬 것이다.
- 25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해 둔다.
- 26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광야에 계시다.’ 하더라도 나가지 마라. ‘보라, 골방에 계시다.’ 하더라도 믿지 마라.
- 27 동쪽에서 친 번개가 서쪽까지 비추듯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 28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든다.”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 (마르 13,24-27 ; 루카 21,25-28)

- 29 “그 무렵 환난이 지난 뒤 곧바로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

릴 것이다.

- 30 그때 하늘에 사람의 아들의 표징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세상 모든 민족들이 가슴을 치면서,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 31 그리고 그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가 선택한 이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무화과나무의 교훈 (마르 13,28-31 ; 루카 21,29-33)

- 32 “너희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 33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 34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 35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깨어 있어라 (마르 13,32-37 ; 루카 17,26-30 ; 루카 17,34-36)

- 36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로지 아버지만 아신다.
- 37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 38 홍수 이전 시대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 39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 40 그때에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 41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 42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 43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 44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충실한 종과 불충실한 종 (루카 12,41-48)

- 45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안 식솔들을 맡겨 그들에게 제때에 양식을 내주게 하였으면, 어떻게 하는 종이 충실하고 즐거운 종이겠느냐?
- 46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불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 4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 48 그러나 만일 그가 못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 49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또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며,
- 50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 51 그를 처단하여 위선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열 처녀의 비유

- 25 ¹ “그때에 하늘 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 2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 3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 4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 5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 6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 7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 8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 9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 10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 11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 12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다.’ 하고 대답하였다.
- 13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탈렌트의 비유 (루카 19,11-27)

- 14 “하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 15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탈렌트, 다른 사람에게는 두 탈렌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탈렌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 16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다.
- 17 두 탈렌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두 탈렌트를 더 벌었다.

- 18 그러나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 19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 20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다섯 탈렌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다섯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 21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 22 두 탈렌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두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두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 23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 24 그런데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 25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탈렌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 26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 27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에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 28 저자에게서 그 한 탈렌트를 빼앗아 열 탈

렌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 29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 30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

최후의 심판

- 31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싸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 32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릴 것이다.
- 33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 34 그때에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과,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 35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 들였다.
- 36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 37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 38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들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 39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보았습니까?’
- 40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

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이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 41 그때에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 42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 43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에 돌보아 주지 않았다.’
- 44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신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 45 그때에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
- 46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다 (마르 14,1-2 ; 루카 22,1-2 ; 요한 11,45-53)

- 26** ¹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모두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 2 “너희도 알다시피 이들이 지나면 파스카인데, 그러면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 3 그때에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카야파라는 대사제의 저택에 모여,
- 4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공모하였다.

5 그러면서도 “백성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 날지 모르니 축제 기간에는 안 된다.” 하고 말하였다.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다 (마르 14,3-9 ; 요한 12,1-8)

6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시실 때의 일이다.

7 어떤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다가와, 식탁에 앉아 계시는 그분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8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불쾌해하며 말하였다. “왜 저렇게 허투루 쓰는가?”

9 저것을 비싸게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을 터인데.”

10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11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12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려고 한 것이다.

1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다 (마르 14,10-11 ; 루카 22,3-6)

14 그때에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15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서른 닢을 내주었다.

16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다 (마르 14,12-16 ; 루카 22,7-13)

17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18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시오.”

19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제자가 배신할 것을 예고하시다 (마르 14,17-21 ; 루카 22,21-23 ; 요한 13,21-30)

20 저녁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21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22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2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24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차리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25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성찬례를 제정하시다 (마르 14,22-26 ; 루카 22,14-20 ; 1코린 11,23-25)

- 26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 27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 28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 29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이제부터 포도나무 열매로 빛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 30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베드로가 당신을 모른다고 할 것을 예고하시다 (마르 14,27-31 ; 루카 22,31-34 ; 요한 13,36-38)

- 31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 떼가 흩어지리라.’ 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 32 그러나 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갈 것이다.”
- 33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모두 스승님께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 34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 35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겻세마니아에서 기도하시다 (마르 14,32-42 ; 루카 22,39-46)

- 36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겻세마니아는 곳으로 가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
- 37 베드로와 제베대오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근심과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 38 그때에 그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 39 그런 다음 앞으로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 40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나?”
- 41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하시고,
- 42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아버지, 이 잔이 비켜 갈 수 없는 것이어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 43 그리고 다시 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감겨 자고 있었다.
- 44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시고 다시 가시어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 45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는나? 이제 때가 가까웠다.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46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잡히시다 (마르 14,43-50 ; 루카 22,47-53 ; 요한 18,1-11)

47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바로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그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보낸 큰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48 그분을 팔아넘길 자는, “내가 입 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으시오” 하고 그들에게 미리 신호를 일러두었다.

49 그는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 “스승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나서 그분께 입을 맞추었다.

50 예수님께서 “친구야, 내가 하러 온 일을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에 그들이 다기와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았다.

51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들고, 대사제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 버렸다.

52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잡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

53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 열두 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 주실 것이다.

54 그러면 일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55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에게도 이렇게 이르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단 말이나?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56 예언자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때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최고 의회에서 신문을 받으시다 (마르 14,53-64 ; 루카 22,54 ; 루카 22,66-71 ; 요한 18,12-14 ; 요한 18,19-24)

57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카이아 대사제에게 끌고 갔다. 그곳에는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이 모여 있었다.

58 베드로는 떨쩍이 떨어져 예수님을 뒤따라 대사제의 저택까지 가서, 결말을 보려고 안뜰로 들어가 시종들과 함께 앉았다.

59 수석 사제들과 온 최고 의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 거짓 증언을 찾았다.

60 거짓 증인들이 많이 나왔지만 하나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61 “이자가 ‘나는 하느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세울 수 있다.’ 고 말하였습시다.” 하였다.

62 그러자 대사제가 일어나 예수님께, “당신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소? 이자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어찌 된 일 이요?” 하고 물었다.

63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입을 다물고 계셨다. 대사제가 말하였다. “내가 명령하오. ‘살아 계신 하느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인지 밝히시오.’ ”

64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

65 그때에 대사제가 자기 겹옷을 찢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자가 하느님을 모독하였습니

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합니까? 방금 여러분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66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자는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다 (마르 14,65 ; 루카 22,63-65)

67 그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분을 주먹으로 쳤다. 더러는 손찌검을 하면서,

68 “메시아야, 알아맞혀 보아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하였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다 (마르 14,66-72 ; 루카 22,55-62 ; 요한 18,15-18 ; 요한 18,25-27)

69 베드로는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하니 하나가 그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래아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70 그러자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하고 부인하였다.

71 그가 대문가로 나가자 다른 하나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이들에게, “이이는 나 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하고 말하였다.

72 그러자 베드로는 멍새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73 그런데 조금 뒤에 거기 서 있던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당신도 그들과 한때임이 틀림없소. 당신의 말씨를 들으니 분명하오.” 하고 말하였다.

74 그때에 베드로는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75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시다 (마르 15,1 ; 루카 23,1 ; 요한 18,28)

27 ¹ 아침이 되자 모든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의한 끝에,

2 그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다.

유다가 자살하다 (사도 1,18-19)

3 그때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는 그분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치고서는, 그 은돈 서른 닢을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에게 돌려주면서

4 말하였다. “죄 없는 분을 팔아넘겨 죽게 만들었으니 나는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것은 네 일이다.” 하였다.

5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 안에다 내던지고 물러가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

6 수석 사제들은 그 은돈을 거두면서, “이것은 피 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어서는 안 되겠소.” 하고 말하였다.

7 그들은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웅기장이 밭을 사서 이방인들의 묘지로 쓰기로 하였다.

8 그래서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밭’ 이라고 불린다.

9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은돈 서른 닢, 값어치가 매겨진 이의 몸값, 이스라엘 자손들이 값어치를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

10 주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신 대로 웅기장이

발 값으로 내놓았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다 (마르 15,2-5 ; 루카 23,2-5 ; 요한 18,28-38)

- 11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셨다.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이오?” 하고 총독이 묻자,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 12 그러나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이 당신을 고소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 13 그때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저들이 갖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하고 물었으나,
- 14 예수님께서서는 어떠한 고소의 말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사형 선고를 받으시다 (마르 15,6-15 ; 루카 23,13-25 ; 요한 18,38-19,16)

- 15 축제 때마다 군중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총독이 풀어 주는 관례가 있었다.
- 16 마침 그때에 예수 바라빠리는 이름난 죄수가 있었다.
- 17 사람들이 모여들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내가 누구를 풀어 주기를 원하오? 예수 바라빠요 아니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요?” 하고 물었다.
- 18 그는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 19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당신은 그 의인의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큰 괴로움을 당했어요.” 하고 말하였다.
- 20 그동안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은 군중을 구슬려 바라빠를 풀어 주도록 요청하고 예수님은 없애 버리자고 하였다.
- 21 총독이 그들에게 “두 사람 가운데에서 누

구를 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오?” 하고 물었다. 그들은 “바라빠요.” 하고 대답하였다.

- 22 빌라도가 그들에게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오?” 하니, 그들은 모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였다.
- 23 빌라도가 다시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하자,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 24 빌라도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받아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책임이 없소. 이것은 여러분의 일이오.”
- 25 그러자 온 백성이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오.” 하고 대답하였다.
- 26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빠를 풀어 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군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다 (마르 15,16-20 ; 요한 19,2-3)

- 27 그때에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데리고 가서 그분 둘레에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 28 그분의 옷을 벗기고 진홍색 외투를 입혔다.
- 29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들의 임금님, 만세!” 하며 조롱하였다.
- 30 또 그분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때렸다.
- 31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외투를 벗기고 그분의 걸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마르 15,21-32 ; 루카 23,26-43 ; 요한 19,16-27)

- 32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보고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 33 이윽고 골고타 곧 ‘해골 터’ 라는 곳에 이르렀다.
- 34 그들이 쓸개즙을 섞은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라고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맛을 보시고서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 35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
- 36 거기에 앉아 예수님을 지켰다.
- 37 그들은 또 그분의 머리 위에 죄명을 붙여 놓았다. 거기에는 ‘이자는 유대인들의 임금 예수다.’ 라고 쓰여 있었다.
- 38 그때에 강도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못 박혔다.
- 39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 40 이렇게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해 보아라.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 41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과 함께 조롱하며 말하였다.
- 42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시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 터인데.
- 43 하느님을 신뢰한다고 하니, 하느님께서 저자가 마음에 드시면 지금 구해 내 보시라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야.”
- 44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숨을 거두시다 (마르 15,33-41 ; 루카 23,44-49 ; 요한 19,28-30)

- 45 낮 열두 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 46 오후 세 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는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 47 그곳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이자가 엘리야를 부르네.” 하고 말하였다.
- 48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와 신 포도주에 듬뿍 적신 다음, 갈대에 꿰어 그분께 마시게 하였다.
- 49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가만,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 주나 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 50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 51 그러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 52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되살아났다.
- 53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 54 백인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이들이 지진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하고 말하였다.
- 55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래아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시종들던 이들도.
- 56 그들 가운데에는 마리아 막달레나, 야고보

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제베대오 아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물히사다 (마르 15,42-47 ; 루카 23,50-56 ; 요한 19,38-42)

- 57 저녁때가 되자 아리마태아 출신의 부유한 사람으로서 요셉이라는 이가 왔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
- 58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 달라고 청하자, 빌라도가 내주라고 명령하였다.
- 59 요셉은 시신을 받아 깨끗한 아마포로 감싼 다음,
- 60 비위를 깎아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시고 나서,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러 막아 놓고 갔다.
- 61 거기 무덤 맞은쪽에는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다

- 62 이튿날 곧 준비일 다음 날에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가서
- 63 말하였다. “나리, 저 사기꾼이 살아 있을 때, ‘나는 사흘 만에 되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한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 64 그러니 셋째 날까지 무덤을 지키도록 명령하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 내고서는, ‘그분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기만이 처음 것보다 더 해로울 것입니다.”
- 65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당신들에게 경비병들이 있지 않소. 가서 재주껏 지키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 66 그들은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세워 무덤을 지키게 하였다.

부활하시다 (마르 16,1-8 ; 루카 24,1-12 ;

요한 20,1-10)

28

- 1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이 밝아 올 무렵,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 2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다가가 돌을 옆으로 굴리고서는 그 위에 앉는 것이었다.
 - 3 그의 모습은 반개 같고 웃은 눈처럼 희었다.
 - 4 무덤을 경비하던 자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다가 까무러쳤다.
 - 5 그때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나는 안다.
 - 6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와서 그분께서 누워 계셨던 곳을 보아라.
 - 7 그러니 서둘러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일러라.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알리는 말이다.”
 - 8 그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 여자들에게 나타나시다 (마르 16,9-11 ; 요한 20,11-18)**
- 9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 10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래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경비병들이 매수되다

- 11 여자들이 돌아가는 동안에 경비병 몇 사람이 이 도성 안으로 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수석 사제들에게 알렸다.
- 12 수석 사제들은 원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 13 말하였다. “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 갔다.’ 하여라.
- 14 이 소식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해 주겠다.”
- 15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킨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사명을 부여하시다 (마르 16,14-18 ; 루카 24,36-49 ; 요한 20,19-23 ; 사도 1,6-8)

- 16 열한 제자는 갈릴라이로 떠나 예수님께서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 17 그들은 예수님을 뵈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 18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 20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신약성경 - 2

복음서 - 2

마르코 복음서

총 16 장

총 674 절

[신약성경]-[마르코 복음서]

세례자 요한의 설교 (마태 3,1-12 ; 루카 3,1-9 ; 루카 3,15-18 ; 요한 1,19-28)

1 ¹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2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 보라, 내가 네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3 “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 하고 기록된 대로,

4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5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6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7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8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를 받으시다 (마태 3,13-17 ; 루카 3,21-22)

9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나자렛에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10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11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

이다.”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다 (마태 4,1-11 ; 루카 4,1-13)

12 그 뒤에 성령께서는 곧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13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갈릴래아 전도를 시작하시다 (마태 4,12-17 ; 루카 4,14-15)

14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래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15 이렇게 말씀하셨다. “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어부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다 (마태 4,18-22 ; 루카 5,1-11)

16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이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17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18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19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20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대오를 샴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나섰다.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다 (루카

4,31-37)

- 21 그들은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예수님께서서는 곧바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 22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 23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 24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 25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 26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 27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나?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이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 28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래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 나갔다.

시몬의 병든 장모를 고치시다 (마태 8,14-15 ; 루카 4,38-39)

- 29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갔다.
- 30 그때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 31 예수님께서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다 (마태 8,16-17 ; 루카 4,40-41)

- 32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 33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 34 예수님께서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 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도 여행을 떠나시다 (루카 4,42-44)

- 35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서는 일어나 외딴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 36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
- 37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 38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 39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서는 온 갈릴래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다 (마태 8,1-4 ; 루카 5,12-16)

- 40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 41 예수님께서서 가없는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 42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 43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 44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 45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중풍 병자를 고치시다 (마태 9,1-8 ; 루카 5,17-26)

- 2¹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카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 2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 3 그때에 사람들이 어떤 중풍 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네 사람이 들것에 들고 있었는데,
- 4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테러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의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 병자가 누워 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 보냈다.
- 5 예수님께서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 6 율법 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 7 ‘이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 8 예수님께서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

아하게 생각하느냐?

- 9 중풍 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네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 10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서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셨다.
- 11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레위를 부르시고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다 (마태 9,9-13 ; 루카 5,27-32)

- 12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 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 13 예수님께서서 다시 호숫가로 나가셨다. 군중이 모두 모여 오자 예수님께서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 14 그 뒤에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알례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 15 예수님께서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다. 이런 이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 16 바리사이와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께서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어찌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 17 예수님께서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단식 논쟁-새것과 헌것 (마태 9,14-17 ; 루카 5,33-39)

- 18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단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의 제자들은 단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 19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 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할 수야 없지 않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단식할 수 없다.
- 20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 21 아무도 새 천 조각을 헌 옷에 대고 감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헌 옷에 기워 댄 새 형질에 그 옷이 망져 더 심하게 찢어진다.
- 22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뜯다 (마태 12,1-8 ; 루카 6,1-5)

- 23 예수님께서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질러가 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길을 내고 가면서 밀 이삭을 뜯기 시작하였다.
- 24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 25 그러자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디윗과 그 일행이 먹은 것이 없어 배가 고팠을 때, 디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 본 적이 없느냐?”
- 26 에브라타르 대사제 때에 그가 하느님의 집

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 빵을 먹고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 27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 28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다 (마태 12,9-14 ; 루카 6,6-11)

- 3 ¹ 예수님께서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 2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 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 3 예수님께서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하시고,
- 4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 5 그분께서는 노기를 띠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뻗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 6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로데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군중이 호숫가로 모여들다

- 7 예수님께서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다. 그러자 갈릴래이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또 유다와
- 8 예루살렘, 이두매아와 요르단 건너편, 그리

고 티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 9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쳐 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타실 거룻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 10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 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 11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 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 12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곤 하셨다.

열두 사도를 뽑으시다 (마태 10,1-4 ; 루카 6,12-16)

- 13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다음,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 14 그분께서는 열둘을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 15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 16 이렇게 예수님께서 열둘을 세우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 주신 시몬,
- 17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이네 르게스라는 이름을 붙여 주신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 18 그리고 안드레아,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레오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열혈당한 시몬,
- 19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과 베엘제불 (마태 12,22-32 ; 루카 11,14-23 ; 루카 12,10-11.)

- 20 예수님께서서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 21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 22 한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이, “그는 베엘제불이 들렸다.” 고도 하고, “그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고도 하였다.
- 23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 24 한 나라가 갈라서면 그 나라는 버티어 내지 못한다.
- 25 한 집안이 갈라서면 그 집안은 버티어 내지 못할 것이다.
- 26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라서면 버티어 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 27 먼저 힘센 자를 묶어 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 수 없다. 묶어 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 28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 29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 30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 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참가족 (마태 12,46-50 ; 루카 8,19-21)

- 31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32 그분 들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아버님과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33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였다.

34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35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마태 13,1-9 ; 루카 8,4-8)

4 ¹ 예수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그분께서는 호수에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 물에 그대로 있었다.

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3 “자, 들어 보이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4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다.

5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썩은 곧 돌아났지만,

6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 버린 것이다.

7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 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8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어떤 것은 서른 배, 어떤 것은 예순 배, 어떤 것

은 백 배의 열매를 맺었다.”

9 예수님께서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마태 13,10-17 ; 루카 8,9-10)

10 예수님께서서 혼자 계실 때, 그분 들레에 있던 이들이 열두 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들의 뜻을 물었다.

11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겐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12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자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설명하시다 (마태 13,18-23 ; 루카 8,11-15)

13 예수님께서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14 씨 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15 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앗아 가 버린다.

16 그리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17 그러나 그들에게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18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 19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의 숨을 막아 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 20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서른 배, 어떤 이는 예순 배, 어떤 이는 백 배의 열매를 맺는다.”

등불의 비유 (루카 8,16-18)

- 21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등불을 가져다가 함지 속이나 침상 밑에 놓겠느냐? 등경 위에 놓지 않느냐?”
- 22 숨겨진 것도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
- 23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어라.”
- 24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되어서 받고 거기에 더 보태어 받을 것이다.
- 25 정녕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

- 26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 27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피되는지 모른다.
- 28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다음에는 이삭에 낱알이 영근다.
- 29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맨다. 수확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겨자씨의 비유 (마태 13,31-32 ; 루카 13,18-19)

- 30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 31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 32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비유를 들어 가르치시다 (마태 13,34-35)

- 33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 34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풍랑을 가라앉히시다 (마태 8,23-27 ; 루카 8,22-25)

- 35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 36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 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 37 그때에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 38 그런데도 예수님께서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 39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 40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

하셨다.

- 41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비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마귀들과 돼지 떼 (마태 8,28-34 ; 루카 8,26-39)

5 ¹ 그들은 호수 건너편 게라사인들의 지방으로 갔다.

- ²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 왔다.

³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그를 쇠사슬로 묶어 둘 수가 없었다.

⁴ 이미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어 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족쇄도 부수어 버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가 없었다.

⁵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치곤 하였다.

⁶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⁷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⁸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⁹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¹⁰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청하였다.

¹¹ 마침 그곳 산 쪽에는 놓아 기르는 많은 돼지 떼가 있었다.

¹² 그래서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돼지들에게 보내시어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¹³ 예수님께서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영들이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이전 머리쯤 되는 돼지 떼가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 달려,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¹⁴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고을과 여러 촌락에 알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왔다.

¹⁵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마귀 들렸던 사람, 곧 군대라는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¹⁶ 그 일을 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던 이와 돼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¹⁷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저희 고향에서 떠나 주십사고 청하기 시작하였다.

¹⁸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마귀 들렸던 이가 예수님께 같이 있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¹⁹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였다. “집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 주님께서 나에게 해 주신 일과 자비를 배풀어 주신 일을 모두 알려라.”

²⁰ 그래서 그는 물러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 주신 모든 일을 데카폴리스 지방에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아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허혈하는 부인을 고치시다 (마태 9,18-26 ; 루카 8,40-56)

²¹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²² 아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뵈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 23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서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 24 그러하여 예수님께서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 댔다.
- 25 그 가운데에 열두 해 동이나 허혈하는 여자가 있었다.
- 26 그 여자는 술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 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 27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 28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았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 29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 30 예수님께서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 31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 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 32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 33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 34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 35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

- 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 36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 37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 38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 39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 40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 41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는 뜻이다.
- 42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선다.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열두 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 43 예수님께서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나자렛에서 무시를 당하시다 (마태 13,54-58 ; 루카 4,16-30)

- 6** ¹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 ²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 3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 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 4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 5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 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열 두 제자를 파견하시다 (마태 10,1 ; 마태 10,5-15 ; 루카 9,1-6)

- 6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 7 그리고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들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 8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 9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 10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 11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의 먼지를 털어 버려라.”
- 12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 13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

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

헤로데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다 (마태 14,1-2 ; 루카 9,7-9)

- 14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헤로데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 15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는 엘리야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 16 헤로데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죽음 (마태 14,3-12)

- 17 이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 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 18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 19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 20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몹시 당황해 하면서도 가까이 들곤 하였기 때문이다.
- 21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래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 22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 23 “네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 24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 25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 26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다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 27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 28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 29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주검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오천 명을 먹이다 (마태 14,13-21 ; 루카 9,10-17 ; 요한 6,1-14)

- 30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 31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 32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곳으로 떠나갔다.
- 33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 34 예수님께서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기없는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 35 어느덧 늦은 시간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 36 그러니 저들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촌락이나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것을 사게 하십시오.”
- 37 예수님께서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은 “그러면 저희가 가서 빵을 이백 테나리온어치나 사다가 그들을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다.
- 38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아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알아보고서, “빵 다섯 개,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39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어, 모두 푸른 풀밭에 한 무리씩 어울려 자리 잡게 하셨다.
- 40 그래서 사람들은 백 명씩 또는 쉰 명씩 떼를 지어 자리를 잡았다.
- 41 예수님께서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 42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 43 그리고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 44 빵을 먹은 사람은 장정만도 오천 명이였다.

물 위를 걸으시다 (마태 14,22-33 ; 요한 6,16-21)

- 45 예수님께서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 벳사이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 46 그들과 작별하신 뒤에 예수님께서서는 기도

하시려고 산에 가셨다.

- 47 저녁이 되었을 때, 배는 호수 한가운데에 있었고 예수님께서서는 혼자 물에 계셨다.
- 48 마침 뭇바람이 불어 노를 젓느라고 애를 쓰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서는 새벽 녘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그분께서는 그들 걸을 지나가려고 하셨다.
- 49 제자들은 예수님께서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로 생각하여 비명을 질렀다.
- 50 모두 그분을 보고 겁에 질렸던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 51 그러고 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멎었다. 그들은 너무 놀라 낚을 잃었다.
- 52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이다.

겐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다 (마태 14,34-36)

- 53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겐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대었다.
- 54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알아보고,
- 55 그 지방을 두루 뛰어다니며 병든 이들을 들것에 눕혀, 그분께서 계시다는 곳마다 데려오기 시작하였다.
- 56 그리하여 마을이든 고을이든 촌락이든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면, 장터에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 주십시오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댈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조상들의 전통에 관한 논쟁 (마태 15,1-20)

7 ¹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

- 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물려왔다가,
- 2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 3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 4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냇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 5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찌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 6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가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 7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 8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 9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 10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고 말하였다.
- 11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 12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 드리지 못하게 한다.
- 13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

런 것들을 많이 한다.”

- 14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 15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 16
- 17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었다.
- 1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도 그토록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 19 그것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 속으로 들어갔다가 뒷간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밝히신 것이다.
- 20 또 이어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 21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 22 간음, 탐욕, 악의, 시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 23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시리아 페니키아 여자의 믿음 (마태 15,21-28)

- 24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티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나 결국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 25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을 둔 어떤 부인이 곧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
- 26 그 부인은 이교도로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십시오 그분께 청하였다.

- 27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어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 28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러나 상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 29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가 보아라. 마귀가 이미 네 딸에게서 나갔다.”
- 30 그 여자가 집에 가서 보니, 아이는 침상에 누워 있고 마귀는 나가고 없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고치시다

- 31 예수님께서 다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래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 32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청하였다.
- 33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 34 그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 35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 36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 37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사천 명을 먹이다 (마태 15,32-39)

- 8** ¹ 그 무렵에 다시 많은 군중이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다.
- 2** “저 군중이 가없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 3** 내가 저들을 굶겨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저들 가운데에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 4** 그러자 제자들이 “이 광야에서 누가 어디서 빵을 구해 저 사람들을 배불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 5**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일곱 개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6**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빵 일곱 개를 손에 들고 감사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나누어 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 7** 또 제자들이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축복하신 다음에 나누어 주라고 이르셨다.
- 8**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일곱 바구니나 되었다.
- 9** 사람들은 사천 명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나서,
- 10** 곧바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타 지방으로 가셨다.

바리새인들이 표징을 요구하다 (마태 16,1-4)

- 11**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기 시작하였다. 그분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 12**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 13** 그리고 나서 그들을 버려두신 채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바리새이들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마태 16,5-12)

- 14** 그런데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 버려, 그들이 가진 빵이 배 안에는 한 개밖에 없었다.
- 1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고 분부하셨다.
- 16**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빵이 없다고 서로 수군거렸다.
- 17**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완고하느냐?
- 18**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 19** 내가 빵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빵 조각을 몇 광주리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열둘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20** “빵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는, 빵 조각을 몇 바구니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일곱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 2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벳사이다의 눈먼 이를 고치시다

- 22** 그들은 벳사이다로 갔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먼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는 그에게 손을 대어 주십시오 청하였다.

- 23 그분께서는 그 눈먼 이의 손을 잡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신 다음,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셨다.
- 24 그는 앞을 쳐다보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25 그분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손을 얹으시니 그가 똑똑히 보게 되었다. 그는 시력이 회복되어 모든 것을 뚜렷이 보게 된 것이다.
- 26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집으로 보내시면서, “저 마을로는 들어가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다 (마태 16,13-20 ; 루카 9,18-21)

- 27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 28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 29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 30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수난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시다 (마태 16,21-23 ; 루카 9,22)

- 31 예수님께서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 32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 33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마태 16,24-28 ; 루카 9,23-27)

- 34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 35 장님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 36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 37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 38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 9** ¹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하느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더러 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다 (마태 17,1-9 ; 루카 9,28-36)

- 2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 3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천장이라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 4 **그때에 엘리아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 5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 6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 7 **그때에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 8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엘리아의 채림 (마태 17,10-13)

- 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틀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 10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틀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 11 **제자들이 예수님께 “울법 학자들은 어째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물었다.**
- 12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바**

로잡는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으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느냐?

- 13 **사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엘리야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가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제멋대로 다루었다.”**

어떤 아이에게서 더러운 영을 내쫓으시다 (마태 17,14-20 ; 루카 9,37-43)

- 14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 그 제자들이 군중에게 둘러싸여 울법 학자들과 논쟁하고 있었다.**
- 15 **마침 군중이 모두 예수님을 보고는 몹시 놀라며 달려와 인사하였다.**
- 1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저들과 무슨 논쟁을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 17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스승님, 빙어리 영이 들린 제 아들을 스승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 18 **어디에서건 그 영이 아이를 사로잡기만 하면 거꾸러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뻗뻗해집니다. 그래서 스승님의 제자들에게 저 영을 쫓아내 달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 19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한다는 말이나?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 20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 영은 예수님을 보자 곧바로 아이를 뒤흔들어 댔다. 아이는 땅에 쓰러져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다.**
- 21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적부터입니다.**

- 22 저 영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으로도, 물속으로도 내던졌습니다.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저희를 가없이 여겨 도와주십시오.”
- 23 예수님께서 그에게 “ ‘ 하실 수 있으면’ 이 무슨 말이나? 믿는 아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고 말씀하시자,
- 24 아이 아버지가 곧바로, “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 25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이 때를 지어 달려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영을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 병어리, 귀머거리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
- 26 그러자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마구 뒤흔들어 놓고 나가니,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 아이가 죽었구나.” 하였다.
- 27 그러나 예수님께서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다.
- 28 그 뒤에 예수님께서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분께 따로, “ 어찌서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 29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수난과 부활을 두 번째로 예고하시다 (마테 17,22-23 ; 루카 9,43-45)

- 30 그들이 그곳을 떠나 갈릴래이를 가로질러 갔는데, 예수님께서서는 누구에게도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 31 그분께서 “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

고 계셨기 때문이다.

- 32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가장 큰사람 (마테 18,1-5 ; 루카 9,46-48)

- 33 그들은 카파르나움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서는 집 안에 계시실 때에 제자들에게, “ 너희는 길에서 무슨 일로 논쟁하였느냐?” 하고 물으셨다.
- 34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누가 가장 큰사람이나 하는 문제로 길에서 논쟁하였기 때문이다.
- 35 예수님께서서는 자리에 앉아서서 열두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 36 그러고 나서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에 세우신 다음, 그를 껴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 37 “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지지하는 사람이다 (루카 9,49-50)

- 38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 하게 막아 보려고 하였습니다.”
- 39 그러자 예수님께서서 이르셨다. “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 40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

는 사람이다.

- 41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만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쳐라 (마태 18,6-9 ; 루카 17,1-2)

- 42 “나를 믿는 이 작은 아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배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 43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 44
- 45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 46
- 47 또 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 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박이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 48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 49 모두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 (마태 5,13 ; 루카 14,34-35)

- 50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맛을 내겠느냐? 너희는 마음에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

혼인과 이혼 (마태 19,1-9 ; 루카 16,18)

- 10 ¹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유다 지방과 요르단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 2 그런데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 3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 4 그들이 “ ‘이혼장을 써 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 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5 그러자 예수님께서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 6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서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 7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 8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 9 하느님께서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 10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 11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 12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라 (마태 19,13-15 ; 루카 18,15-17)

- 13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디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 14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 1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 16 그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하느님의 나라와 부자 (마태 19,16-26 ; 루카 18,18-27)

- 17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 18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 19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황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 ”
- 20 그가 예수님께 “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21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 22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 23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 24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

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 애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 25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 26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 27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따름과 보상 (마태 19,27-30 ; 루카 18,28-30)

- 28 그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 29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 30 현세에서 박해도 받았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백 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 31 그런데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수난과 부활을 세 번째로 예고하시다 (마태 20,17-19 ; 루카 18,31-34)

- 32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 앞에 서서 가고 계셨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또 뒤따르는 이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고 가시며, 당신께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 33 “ 보시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34 조롱하고 침 뱉고 채찍질하고 나서 죽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출세와 섬김 (마태 20,20-28 ; 루카 22,25-27)

- 35 제베대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키와, “스승님, 저희가 스승님께 청하는 대로 저희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 3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 37 그들이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저희를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 3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 39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 40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정해진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 41 다른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하였다.
- 42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

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 43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 44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 45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에리코에서 눈먼 이를 고치시다 (마태 20,29-34 ; 루카 18,35-43)

- 46 그들은 에리코에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에리코를 떠나실 때에,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 47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 48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 49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 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 50 그는 걸음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 51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먼 이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 52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 (마태 21,1-11 ; 루카 19,28-38 ; 요한 12,12-19)

- 11** ¹ 그들이 예루살렘 곧 올리브 산 근처 벧파게와 베타니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들을 보내며
- ² 말씀하셨다. “ 너희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 ³ 누가 너희에게 ‘ 왜 그러는 거요?’ 하거든, ‘ 주님께서 필요하시서 그러는데 곧 이리로 돌려보내신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 ⁴ 그들이 가서 보니, 과연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바깥 길 쪽으로 난 문 곁에 매어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푸는데,
- ⁵ 거기에서 있던 이들 가운데 몇 사람이, “ 왜 그 어린 나귀를 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 ⁶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알려 주신 대로 말하였다더니 그들이 막지 않았다.
- ⁷ 제자들은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겂옷을 얹어 놓았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올라앉으시자,
- ⁸ 많은 이가 자기들의 겂옷을 길에 깔았다. 또 어떤 이들은 들에서 잎이 많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깔았다.
- ⁹ 그리고 앞서 가는 이들과 뒤따라가는 이들이 외쳤다. “ ‘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여라.’
- ¹⁰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여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 ¹¹ 이윽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곳의 모든 것을 둘러보신 다음,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열두 제자와 함께 베타니아로 나가셨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다 (마태 21,18-19)

- ¹² 이튿날 그들이 베타니아에서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시장하셨다.
- ¹³ 마침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멀리서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달렸을까 하여 가까이 가 보셨지만, 잎사귀밖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 ¹⁴ 예수님께서서는 그 나무를 향하여 이르셨다. “ 이제부터 영원히 어느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 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다.

성전을 정화하시다 (마태 21,12-17 ; 루카 19,45-48 ; 요한 2,13-22)

- ¹⁵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에 들어가시어, 그곳에서 사교팔고 하는 자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셨다. 환관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도 둘러엮으셨다.
- ¹⁶ 또한 아무도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지 못하게 하셨다.
- ¹⁷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 ‘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 강도들의 소굴’ 로 만들어 버렸다.”
- ¹⁸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 군중이 모두 그분의 가르침에 감탄하는 것을 보고 그분을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 ¹⁹ 날이 저물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다.

말라 버린 무화과나무의 교훈 (마태 21,20-22)

- ²⁰ 이른 아침에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보았다.

- 21 베드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보십시오. 스승님께서 저 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 버렸습니다.”
- 22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을 믿어라.
- 2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러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면서,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 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 25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군가에게 반감을 품고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 26

예수님의 권환을 문체 삼다 (마태 21,23-27 ; 루카 20,1-8)

- 27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성전 뜰을 거닐고 계실 때,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이 와서,
- 28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환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또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환을 주었소?”
- 29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에게 한 가지 물을 터이니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환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 주겠다.
- 30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대답해 보아라.”
- 31 그들은 저희끼리 의논하였다. “‘하늘에서 왔다.’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말할 터이니,

- 32 ‘사람에게서 왔다.’ 할까?’ 그러나 군중이 모두 요한을 참예인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군중을 두려워하여,
- 33 예수님께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도 무슨 권환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 (마태 21,33-46 ; 루카 20,9-19)

- 12 ¹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 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 2 포도 철이 되자 그는 소작인들에게 종 하나를 보내어, 소작인들에게서 포도밭 소출의 얼마를 받아 오라고 하였다.
- 3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를 붙잡아 매질하고서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 4 주인이 그들에게 다시 다른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쳐서 상처를 입히고 모욕하였다.
- 5 그리고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 종을 죽여 버렸다. 그 뒤에 또 많은 종을 보냈지만 더러는 매질하고 더러는 죽여 버렸다.
- 6 이제 주인에게는 오직 하나, 사랑하는 아들만 남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 7 그러나 소작인들은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 버리자. 그러면 이 상속 재산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 8 그를 붙잡아 죽이고는 포도밭 밖으로 던져 버렸다.
- 9 그러니 포도밭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

는 돌아와 그 소작인들을 없애 버리고 포도밭을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

- 10 너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 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11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
12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두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워 그분을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 (마태 22,15-22 ; 루카 20,20-26)

- 13 그 뒤에 그들은 예수님께 말로 올무를 씌우려고,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 몇 사람을 보냈다.
14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께서 진실하시고 아무도 꾀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과연 스승님은 사람을 그 신분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까.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15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닢을 가져다 보여 다오.”
16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자 예수님께서서,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7 이에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 드려라.” 그들은 예수님께 매우 감탄하였다.

부활 논쟁 (마태 22,23-33 ; 루카 20,27-40)

- 18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카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19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만 두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이하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 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20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맏이가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21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이하였지만 후사를 두지 못한 채 죽었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22 이렇게 일곱이 모두 후사를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23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으니 말입니다.”
24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25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26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 보지 않았느냐? ‘나는 아버지함의 하나님, 이사야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27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가장 큰 계명 (마태 22,34-40 ; 루카 10,25-28)

- 28 율법 학자 한 사람이 이렇게 그들이 토론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 그분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 29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 30 그러므로 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 31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 32 그러자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 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 33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 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 모든 변제 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
- 34 예수님께서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 22,41-46 ; 루카 20,41-44)

- 35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 학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 36 다윗 자신이 성령의 도움으로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네 발아

래 잡아 놓을 때까지.’ ”

- 37 이렇게 다윗 스스로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마태 23,1-36 ; 루카 20,45-47)

- 38 예수님께서서는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겹옷을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 39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 40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 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 (루카 21,1-4)

- 41 예수님께서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 42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렘톤 두 닢을 넣었다. 그것은 콰드란스 한 닢인 셈이다.
- 43 예수님께서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 44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성전의 파괴를 예고하시다 (마태 24,1-2 ; 루카 21,5-6)

- 13 예수님께서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스승님,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돌들이고 얼마나 장엄한 건물들이니까?”

2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 웅장한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고 다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재난의 시작 (마태 24,3-14 ; 루카 21,7-19)

3 예수님께서 성전 맞은쪽 올리브 산에 앉아서 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아가 따로 예수님께 물었다.

4 “저희에게 일러 주십시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누구에게도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6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이를 속일 것이다.

7 그리고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났다는 소식과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불안해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아직 끝은 아니다.

8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곳곳에 지진이 발생하고 기근이 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진통의 시작일 따름이다.

9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는 너희가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증언할 것이다.

10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11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법정에서 넘길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걱정하지 마라. 그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 주시는 대로 말하여

라.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 이시다.

12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13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어 내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가장 큰 재난 (마태 24,15-28 ; 루카 21,20-24)

14 “있어서는 안 될 곳에 황폐를 부르는 힘으로서의 것이 서 있는 것을 보거든 — 읽는 이는 알아들으라. — 그때에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라.

15 옥상에 있는 이는 내려가지도 말고 무엇을 꺼내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마라.

16 들에 있는 이는 갈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 서지 마라.

17 불행하여라,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 먹이가 떨어진 여자들!

18 그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19 그 무렵에 환난이 다칠 터인데, 그러한 환난은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창조 이래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20 주님께서 그 날수를 줄여 주지 않으셨으면, 어떠한 사람도 살아 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몸소 선택하신 이들을 위하여 그 날수를 줄여 주셨다.

21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다!’, 또는 ‘보아라, 저기 계시다!’ 하더라도 믿지 마라.

22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이들에게 속이려고 표징과 이적들을 일으킬 것이다.

23 그러니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해 둔다.”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 (마테 24,29-31 ; 루카 21,25-28)

- 24 “ 그 무렵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 25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 26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들’ 사람들이 볼 것이다.
- 27 그때에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무화과나무의 교훈 (마테 24,32-35 ; 루카 21,29-33)

- 28 “ 너희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 29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 30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 31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깨어 있어라 (마테 24,36-44)

- 32 “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 33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 34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 계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
- 35 그러나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

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 36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 37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다 (마테 26,1-5 ; 루카 22,1-2 ; 요한 11,45-53)

- 14 ¹ 파스카와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다.
- 2 그러면서 “ 백성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축제 기간에는 안 된다.” 하고 말하였다.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다 (마테 26,6-13 ; 요한 12,1-8)

- 3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시실 때의 일이다. 마침 식탁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여자가 값비싼 순나르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그분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 4 몇 사람이 불쾌해하며 저희끼리 말하였다. “ 왜 저렇게 향유를 허투루 쓰는가?
- 5 저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러면서 그 여자를 나무랐다.
- 6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 이 여자를 가만 두어라. 왜 괴롭히느냐?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 7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잘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 8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바

른 것이다.

9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다 (마태 26,14-16 ; 루카 22,3-6)

10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수석 사제들에게 팔아넘기려고 그들을 찾아가었다.

11 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다 (마태 26,17-19 ; 루카 22,7-13)

12 무교절 첫날 곧 파스가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13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14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15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이층 방을 보여 줄 것이다. 거기에 다 차려라.”

16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 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제자가 배신할 것을 예고하시다 (마태 26,20-25 ; 루카 22,21-23 ; 요한

13,21-30)

17 저녁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셨다.

18 그들이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19 그러자 그들은 근심하며 차례로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20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는 열두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는 사람이다.

21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성찬례를 제정하시다 (마태 26,26-30 ; 루카 22,14-20 ; 1코린 11,23-25)

22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23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24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2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26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베드로가 당신을 모른다고 할 것을 예고하시

다 (마태 26,31-35 ; 루카 22,31-34 ; 요한 13,36-38)

- 27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 너희는 모두 떨어져 나갈 것이다. 성경에 ‘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고 기록되어 있다.
- 28 그러나 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갈 것이다.”
- 29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 모두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 30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 31 그러자 베드로가 더욱 힘주어 장담하였다. “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결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시다 (마태 26,36-46 ; 루카 22,39-46)

- 32 그들은 겟세마니라는 곳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야.” 하고 말씀하신 다음,
- 33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 34 그래서 그들에게 “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깨어 있어야.” 하고 말씀하셨다.
- 35 그런 다음 앞으로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리시어, 하실 수만 있으면 그 시간이 당신을 비켜 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며,
- 36 이렇게 말씀하셨다. “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

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 37 그러고 나서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라. 말이나?
- 38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하시고,
- 39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 40 그리고 다시 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누이 무겁게 내리 감겨 자고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분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랐다.
- 41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되었다. 시간이 되어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 42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잡히시다 (마태 26,47-56 ; 루카 22,47-53 ; 요한 18,1-11)

- 43 그러자 곧,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다. 그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이 보낸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 44 그분을 팔아넘길 지는, “ 내가 입 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아 잘 끌고 가시오 ” 하고 그들에게 미리 신호를 알려주었다.
- 45 그가 와서는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 “ 스승님!” 하고 나서 입을 맞추었다.
- 46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았다.
- 47 그때 곁에서 있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그의 귀

를 잘라 버렸다.

- 48 예수님께서 나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단 말이나?
49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리된 것이다.”
50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알몸으로 달아난 젊은이

- 51 어떤 젊은이가 알몸에 아무포만 두른 채 그분을 따라갔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52 그는 아무포를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최고 의회에서 신문을 받으시다 (마테 26,57-66 ; 루카 22,54 ; 루카 22,66-71 ; 요한 18,12-14 ; 요한 18,19-24)

- 53 그들은 예수님을 대사제에게 끌고 갔다. 그러자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과 율법 학자들이 모두 모여 왔다.
54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뒤따라 대사제의 저택 안뜰까지 들어가, 사종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55 수석 사제들과 온 최고 의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 증언을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56 사실 많은 사람이 그분께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그 증언들이 서로 들어맞지 않았던 것이다.
57 더러는 나서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58 “ 우리는 저자가, ‘ 나는 사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는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우겠다. ’ 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59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60 그러자 대사제가 한가운데로 나서서 예수

님께, “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이자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어찌 된 일ियो?” 하고 물었다.

- 61 그러나 예수님께서 입을 다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사제는 다시 “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요?” 하고 물었다.
62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 그렇다. ‘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 ”
63 그러자 대사제가 자기 옷을 찢고 이렇게 말하였다. “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합니까?
64 여러분도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단죄하였다.

예수님을 조롱하다 (마테 26,67-68 ; 루카 22,63-65)

- 65 어떤 자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분의 얼굴을 가린 다음, 주먹으로 치면서 “ 알아맞혀 보아라.” 하며 놀려 대기 시작하였다. 시종들도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다 (마테 26,69-75 ; 루카 22,55-62 ; 요한 18,15-18 ; 요한 18,25-27)

- 66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사제의 하녀 하나가 와서,
67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그를 찬찬히 살펴면서 말하였다. “ 당신도 저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지요?”
68 그러자 베드로는, “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겠소 ” 하고 부인하였다. 그가 바깥뜰로 나가자 닭이 울었다.

- 69 그 하녀가 베드로를 보면서 곁에 서 있는 이들에게 다시, “이 사람은 그들과 한테 예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 70 그러나 베드로는 또 부인하였다. 그런데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아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당신은 갈릴래아 사람이니 그들과 한테임에 틀림없소.” 하고 말하였다.
- 71 베드로는 거짓이면 찬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였다.
- 72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기 시작하였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다 (마태 27,1-2 ; 마태 27,11-14 ; 루카 23,1-5 ; 요한 18,28-38)

- 15** ¹ 아침이 되자 수석 사제들은 곧바로 원로들과 율법 학자들, 곧 온 최고 의회와 의논한 끝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
- ²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이오?” 하고 묻자, 그분께서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 ³ 그러자 수석 사제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소하였다.
- ⁴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보시오, 저들이 당신을 갖가지로 고소하고 있지 않소?” 하고 물었으나,
- ⁵ 예수님께서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사형 선고를 받으시다 (마태 27,15-26 ; 루카 23,13-25 ; 요한 18,38-19,16)

- ⁶ 빌라도는 축제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 주곤 하였다.

- ⁷ 마침 바라빠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 때에 살인을 저지른 반란군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다.
- ⁸ 그래서 군중은 올라가 자기들에게 해 오던 대로 해 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 ⁹ 빌라도가 그들에게 “유대인들의 임금을 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오?” 하고 물었다.
- ¹⁰ 그는 수석 사제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 ¹¹ 그러나 수석 사제들은 군중을 부추켜 그분이 아니라 바라빠를 풀어 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 ¹² 빌라도가 다시 그들에게, “그러면 여러분이 유대인들의 임금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오?” 하고 물었다.
- ¹³ 그러자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거듭 소리 질렀다.
- ¹⁴ 빌라도가 그들에게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하자,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 ¹⁵ 그리하여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빠를 풀어 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군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다 (마태 27,27-31 ; 요한 19,2-3)

- ¹⁶ 군사들은 예수님을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관저였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 ¹⁷ 그분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서는,
- ¹⁸ “유대인들의 임금님, 만세!” 하며 인사하기 시작하였다.
- ¹⁹ 또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참을 뱀

고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께 절 하였다.

20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걸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마태 27,32-44 ; 루카 23,26-43 ; 요한 19,16-27)

21 그들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는 키레네 사람 시몬으로서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였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이었다.

22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타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이는 번역하면 ‘해골 터’라는 뜻이다.

23 그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24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나서 그분의 걸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25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다.

26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아홉 시였다.

27 그분의 죄명 패에는 ‘유대인들의 임금’이라고 쓰여 있었다.

28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29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이렇게 모독하였다. “저런!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더니.

30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 보아라.”

31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 학자들과 함께 조롱하며 서로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 하는군.

32 우리가 보고 믿게,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숨을 거두시다 (마태 27,45-56 ; 루카 23,44-49 ; 요한 19,28-30)

33 낮 열두 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34 오후 세 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바타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는 번역하면,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35 곁에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저것 봐! 엘리야를 부르네.” 하고 말하였다.

36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싼 포도주에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라고 갔다 대며, “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주나 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37 예수님께서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38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39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 보고 서 있던 백인 대장이 그분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하고 말하였다.

40 여자들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에는 마리아 막달레나,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41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래이에 계실 때에 그분을 따르며 시종들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물하시다 (마태 27,57-61 ; 루카 23,50-56 ; 요한 19,38-42)

- 42 이미 저녁때가 되어 있었다.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으므로,
- 43 아리마태아 출신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당히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 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열심히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 44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돌아가셨을까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인대장을 불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느냐고 물었다.
- 45 빌라도는 백인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요셉에게 시신을 내주었다.
- 46 요셉은 아파포를 사 가지고 와서, 그분의 시신을 내려 아파포로 싣 다음 비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시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러 막아 놓았다.
- 47 마리아 막달레나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분을 어디에 모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부활하시다 (마태 28,1-8 ; 루카 24,1-12 ; 요한 20,1-10)

- 16** ¹ 안식일이 지나자, 마리아 막달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발라 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 2 그리고 주간 첫날 매우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에 무덤으로 갔다.
 - 3 그들은 “누가 그 돌을 무덤 입구에서 굴러 내 줄까요?” 하고 서로 말하였다.
 - 4 그러고는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 그것은 매우 큰 돌이었다.
 - 5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웬 젊은이가 하얗고 긴 겹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깜짝 놀랐다.

- 6 젊은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가 그분을 모셨던 곳이다.
- 7 그러니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일러라. ‘예수님께서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뵈게 될 것입니다.’ ”
- 8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달아났다. 덜덜 떨면서 겁에 질렸던 것이다.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시다 (마태 28,9-10 ; 요한 20,11-18)

- 9 예수님께서 주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 그는 예수님께서 일곱 마귀를 쫓아 주신 여자였다.
- 10 그 여자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 11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며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루카 24,13-35)

- 12 그 뒤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 13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사명을 부여하시다 (마태 28,16-20 ; 루카 24,36-49 ; 요한 20,19-23 ; 사도 1,6-8)

- 14 마침내, 열한 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되살아난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 15 예수님께서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 16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 17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を 말하며,
- 18 손으로 뱀을 집어 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승천하시다 (루카 24,50-53)

- 19 주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 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 20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그 여자들은 자기들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베드로와 그 동료들에게 간추려서 이야기해 주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통하여 동쪽에서 서쪽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는 거룩한 불멸의 말씀이 두루 퍼져 나가게 하셨다. 아멘.

신약성경 - 3

복음서 - 3

루카 복음서

총 24 장

총 1,149 절

[신약성경]-[루카 복음서]

머리말

- 1** ¹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 2**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 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 3** 존귀하신 테오피로스 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께 순서대로 적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4**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 드리려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출생 예고

- 5** 유다 임금 헤로데 시대에 아비야 조에 속한 사제로서 즈카르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 6** 이 둘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아들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에 따라 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 7**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낳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둘 다 나이가 많았다.
- 8** 즈카르야가 자기 조 차례가 되어 하느님 앞에서 사제 직무를 수행할 때의 일이다.
- 9** 사제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기로 결정되었다.
- 10**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밖에서는 온 백성의 무리가 기도하고 있었다.
- 11**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즈카르야에게 나타나 분향 제단 오른쪽에 섰다.
- 12** 즈카르야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 13**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

- 라, 즈카르야야. 너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 14**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이가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 15**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 16**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 17** 그는 또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의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여,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 18** 즈카르야가 천사에게,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저는 늙은이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말하자,
- 19**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이야기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
- 20**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나는 병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 21** 한편 즈카르야를 기다리던 백성은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 지체하므로 이상하게 여겼다.
- 22** 그런데 그가 밖으로 나와서 말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어떤 환시를 보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몹짓만 할 뿐 줄곧 병어리로 지냈다.
- 23** 그러다가 봉직 기간이 차차 집으로 돌아갔다.
- 24**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엘리사벳은 다섯 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25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 주시려고 주님께서 굽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 주셨구나.”

예수님의 탄생 예고

26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27 디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였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28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29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30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31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32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은 신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33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34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35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36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낳는 여

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37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38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다

39 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40 그리고 즈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41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42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43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44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45 행복하십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마리아의 노래

46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47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하니

48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49 잔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 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50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

들에게 미칩니다.

51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홀으셨습니다.

52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53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54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55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56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세례자 요한의 출생

57 엘리사벳은 해산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58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59 여드레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카르이라고 부르려 하였다.

60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61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62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63 즈카르이라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 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64 그때에 즈카르라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65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 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66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장년 주님의 손길 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즈카르아의 노래

67 아기의 아버지 즈카르아는 성령으로 가득 차 이렇게 예언하였다.

68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찬미받으소서.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찾아와 수량하시고

69 당신 종 다윗 집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힘센 구원자를 일으키셨습니다.

70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로부터 말씀하신 대로

71 우리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72 그분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거룩한 계약을 기억하셨습니다.

73 이 계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로

74 원수들 손에서 구원된 우리가 두려움 없이

75 한평생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당신을 섬기도록 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76 아기가,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리고 주님을 앞서 가 그분의 길을 준비 하라니

77 죄를 용서받아 구원됨을 주님의 백성에게 깨우쳐 주려는 것이다.

78 우리 하느님의 크신 자비로 높은 곳에서 별이 우리를 찾아오시어

79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이들을 비추시고 우리 발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요한의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

80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

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예수님의 탄생 (마태 1,18-25)

2 ¹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2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되었다.

3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4 요셉도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5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6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 날이 되어,

7 첫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혔다. 여관은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다

8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 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9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10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11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12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13 그때에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

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땀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목자들이 예수님을 뵈다

15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가자 목자들은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그 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봅시다.”

16 그리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17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이야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 주었다.

18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19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20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할례와 작명

21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알려 준 이름이었다.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봉헌하다

22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그들은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23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24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 바

차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사메온과 한나의 예언

25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26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뵈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 주셨다.

27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28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29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30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31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32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33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34 사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35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뚫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36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프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일곱 해를 살고서는,

37 여든네 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38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이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39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래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예수님의 유년시절

40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예수님의 소년 시절

41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가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42 예수님이 열두 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43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44 일행 가운데에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45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46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47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48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애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49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 50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 51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 52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 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세례자 요한의 설교 (마태 3,1-12 ; 마르 1,1-8 ; 요한 1,19-28)

- 3** ¹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십오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 로데가 갈릴래아의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 포스가 이투라이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 주로, 리사니아스가 이벨레네의 영주로 있 을 때,
- 2 또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 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즈카르야의 아 들 요한에게 내렸다.
- 3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 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 를 선포하였다.
- 4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 광야에서 외치는 이 의 소리.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 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
- 5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굽은 데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 6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 리라.’ ”
- 7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군중 에게 말하였다. “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 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 주 다냐?
- 8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 우 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 는 말은 아예 혼잣말로라도 꺼내지 마라. 내가

-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 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 9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 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 에 던져진다.”
- 10 군중이 그에게 물었다. “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11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 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 라.”
- 12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 자,
- 13 요한은 그들에게 “ 정해진 것보다 더 요 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 14 군사들도 그에게 “ 저희는 또 어떻게 해 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 15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 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 였다.
- 16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 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 17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 18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요한이 욕에 갇히다 (마태 14,3-4 ; 마르 6,17-18)

- 19 그러나 헤로데 영주는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온갖 악행 때문에 요한에게 여러 번 책망을 받고,
20 그 모든 악행에다 한 가지를 더 보태었다.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이다.

세례를 받으시다 (마태 3,13-17 ; 마르 1,9-11)

- 21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22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예수님의 족보 (마태 1,1-17)

- 23 예수님께서서는 서른 살쯤에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요셉의 아들로 여겼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
24 엘리는 마닷의 아들, 마닷은 레위의 아들, 레위는 맬키의 아들, 맬키는 안나이의 아들, 안나이는 요셉의 아들,
25 요셉은 마티타의 아들, 마티타는 아모츠의 아들, 아모츠는 나훔의 아들, 나훔은 헤슬리의 아들, 헤슬리는 나게의 아들,
26 나게는 마합의 아들, 마합은 마티타의 아들, 마티타는 시므이의 아들, 시므이는 요셉의 아들, 요셉은 요다의 아들,
27 요다는 요하난의 아들, 요하난은 레사의 아들, 레사는 즈루빠벨의 아들, 즈루빠벨은 스알티엘의 아들, 스알티엘은 네리의 아들,
28 네리는 맬키의 아들, 맬키는 아피의 아들, 아피는 코삼의 아들, 코삼은 엘마담의 아들, 엘마담은 에르의 아들,
29 에르는 여호수아의 아들, 여호수아는 엘리에제르의 아들, 엘리에제르는 요림의 아들,

- 요림은 마닷의 아들, 마닷은 레위의 아들,
30 레위는 사메온의 아들, 사메온은 유디의 아들, 유디는 요셉의 아들, 요셉은 요남의 아들, 요남은 엘리아킴의 아들,
31 엘리아킴은 멜레아의 아들, 멜레아는 맨나의 아들, 맨나는 마타타의 아들, 마타타는 나탄의 아들, 나탄은 다윗의 아들,
32 다윗은 이사이의 아들, 이사이는 오벳의 아들, 오벳은 보아즈의 아들, 보아즈는 살라의 아들, 살라는 나호손의 아들,
33 나호손은 암미나답의 아들, 암미나답은 아드민의 아들, 아드민은 아르니의 아들, 아르니는 헤즈론의 아들, 헤즈론은 페레츠의 아들, 페레츠는 유디의 아들,
34 유디는 야곱의 아들, 야곱은 이사악의 아들, 이사악은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은 테라의 아들, 테라는 나호르의 아들,
35 나호르는 스룩의 아들, 스룩은 르우의 아들, 르우는 펠렉의 아들, 펠렉은 에베르의 아들, 에베르는 쉘라의 아들,
36 쉘라는 케난의 아들, 케난은 아르팍삿의 아들, 아르팍삿은 셈의 아들, 셈은 노아의 아들, 노아는 라벱의 아들,
37 라벱은 므투셀라의 아들, 므투셀라는 에녹의 아들, 에녹은 예렛의 아들, 예렛은 마찰랄엘의 아들, 마찰랄엘은 케난의 아들,
38 케난은 에노스의 아들, 에노스는 셋의 아들, 셋은 아담의 아들, 아담은 하느님의 아들이다.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다 (마태 4,1-11 ; 마르 1,12-13)

- 4¹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2 사십 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작하셨다.

3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4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5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 주며,

6 그분께 말하였다. “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오.

7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오.”

8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

9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

10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11 ‘행어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 ”

12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13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갈릴래아 전도를 시작하시다 (마태 4,12-17 ; 마르 1,14-15)

14 예수님께서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래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15 예수님께서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

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나자렛에서 회년을 선포하시다 (마태 13,54-58 ; 마르 6,1-6)

16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17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전해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18 “ 주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19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

20 예수님께서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종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21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22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23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내가 카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네 고향에서도 해 보아라.’ 할 것이 다.”

24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 25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삼 년 육 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 26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 27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 28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 29 그래서 그들은 들고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 30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다 (마르 1,21-28)

- 31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래이의 카파르나움 고을로 내려가시어,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 32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 33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 34 “아!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 35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마귀는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에 내동댕이쳐

기는 하였지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고 그에게서 나갔다.

- 36 그러자 모든 사람이 몹시 놀라,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 저이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영들도 나가지 않는가?” 하며 서로 말하였다.
- 37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곳곳으로 퍼져 나갔다.

시몬의 병든 장모를 고치시다 (마태 8,14-15 ; 마르 1,29-31)

- 38 예수님께서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에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다.
- 39 예수님께서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다 (마태 8,16-17 ; 마르 1,32-34)

- 40 해 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 주셨다.
- 41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기며,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도 여행을 떠나시다 (마르 1,35-39)

- 42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외딴곳으로 가셨다.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분께서 계시는 곳까지 가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 주십사고 붙들었다.
- 43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44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고기잡이 가족-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다 (마태 4,18-22 ; 마르 1,16-20) 4:18-22,막 1:16-20,요1:35-42]

5¹ 예수님께서 켄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2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 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3 예수님께서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물에서 조금 저어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4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5 시몬이 “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6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7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8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9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10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대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11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물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다 (마태 8,1-4 ; 마르 1,40-45)

12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고을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다가왔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청하였다. “ 주님! 주님께서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13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나병이 가셨다.

14 예수님께서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에게 분부하시고, “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내가 깨끗해진 것에 대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하셨다.

15 그래도 예수님의 소문은 점점 더 퍼져, 많은 군중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 왔다.

16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외딴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

중풍 병자를 고치시다 (마태 9,1-8 ; 마르 2,1-12)

17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갈릴래아와 유다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 교사들도 앉아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주님의 힘으로 병을 고쳐 주기도 하셨다.

18 그때에 남자 몇이 중풍에 걸린 어떤 사람을 평상에 누인 채 들고 와서, 예수님 앞

으로 들여다 놓으려고 하였다.

19 그러나 군중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일 길이 없어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겨 내고, 평상에 누인 그 환자를 예수님 앞 한 가운데로 내려 보냈다.

20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21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저 사람은 누구인데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던 말인가?’

22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23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나?

24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서 중풍에 걸린 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네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25 그러자 그는 그들 앞에서 즉시 일어나 자기가 누워 있던 것을 들고, 하느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26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두려움에 차서 “우리가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하고 말하였다.

레위를 부르시고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다 (마태 9,9-13 ; 마르 2,13-17)

27 그 뒤에 예수님께서서는 밖에 나가셨다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28 그러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29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께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함께 식탁에 앉았다.

30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그들의 율법 학자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투덜거렸다. “당신들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오?”

31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32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단식 논쟁-새것과 헌것 (마태 9,14-17 ; 마르 2,18-22)

33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단식하며 기도를 하고 바리사이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지만 하는군요.”

34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 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35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36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무도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 내어 헌 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새 옷에서 찢어 낸 조각이 헌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37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38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39 묵은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 고 말한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밭 이삭을 뜯다 (마태 12,1-8 ; 마르 2,23-28)

6 ¹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밭밭 사이를 가로질러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밭 이삭을 뜯어 손으로 비벼 먹었다.

² 바리새이 몇 사람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찌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오?”

³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디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디윗이 한 일을 읽어 본 적이 없느냐?”

⁴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아무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 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⁵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다 (마태 12,9-14 ; 마르 3,1-6)

⁶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그 곳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⁷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⁸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에 서라.” 하고 이르셨다. 그가 일어나 서자

⁹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물겠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¹⁰ 그리고 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는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그렇게 하자 그 손이 다시 성하

여졌다.

¹¹ 그들은 곧이 잔뜩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였다.

열두 사도를 뽑으시다 (마태 10,1-4 ; 마르 3,13-19)

¹²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¹³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에서 열둘을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¹⁴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 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¹⁵ 마태오, 토마스, 알레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¹⁶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과 군중 (마태 4,23-25)

¹⁷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¹⁸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낮게 되었다.

¹⁹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 주었기 때문이다.

참행복 (마태 5,1-12)

²⁰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²¹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

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22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
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23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
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불행 선언

24 “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
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25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
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
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26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
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마태 5,38-48 ; 마태 7,12)

27 “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
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
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 주고,

28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
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29 네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네 겹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30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네 것을 가
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31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32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
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
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33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 주는 이들에게만 잘

해 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
도 그것은 한다.

34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꾸어 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
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서로 꾸어
준다.

35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 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
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
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
다.

36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마태 7,1-5)

37 “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
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
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38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
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39 예수님께서서는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
셨다. “ 눈먼 이가 눈먼 이를 인도할 수
야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40 체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
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41 나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2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
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네 눈 속
에 있는 티를 빼내 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마태 7,16-20 ; 마태 12,33-35)

- 43 “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44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45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내 말을 실행하여라 (마태 7,24-27)

- 46 “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 주님, 주님!’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실행하지 않느냐?
47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이가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 주겠다.
48 그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강물이 집에 들이닥쳐도, 그 집은 잘 지어졌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49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도 없이 맨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강물이 들이닥치자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다. 그 집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다.”

백인대장의 병든 종을 고치시다 (마태 8,5-13 ; 요한 4,43-53)

7 ¹ 예수님께서서는 백성에게 들려주시던 말씀들을 모두 미치신 다음, 카파르나움에 들어가셨다.

² 마침 어떤 백인대장의 노예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다.

- ³ 이 백인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원로들을 그분께 보내어, 와서 자기 노예를 살려 주십사고 청하였다.
⁴ 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말하며 간곡히 청하였다. “ 그는 선생님께서 이 일을 해 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⁵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당도 지어 주었습니다.”
⁶ 그리하여 예수님께서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그런데 백인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인대장이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이르렀다. “ 주님,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⁷ 그래서 제가 주님을 찾아뵙기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어 제 종이 낮게 해 주십시오.
⁸ 사실 저는 상관 밑에 매인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노예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⁹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서는 백인대장에게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군중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리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¹⁰ 심부름 왔던 이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 노예는 이미 건강한 몸이 되어 있었다.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시다

¹¹ 바로 그 뒤에 예수님께서서 나인이라는 고을에 가셨다. 제자들과 많은 군중도 그분과 함께 갔다.

¹² 예수님께서서 그 고을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마침 사람들이 죽은 이를 메고 나오

는데, 그는 외아들이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 고을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그 과부와 함께 가고 있었다.

- 13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울지 마라.” 하고 이르시고는,
- 14 앞으로 나아가 관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이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 15 그러자 죽은 이가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 16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느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났습니다.”, 또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고 말하였다.
- 17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들레 온 지방에 퍼져 나갔다.

세레자 요한의 질문에 답변하시다 (마태 11,2-6)

- 18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전하였다. 그러자 요한은 자기 제자들 가운데에서 두 사람을 불러
- 19 주님께 보내며,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여쭙게 하였다.
- 20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세레자 요한이 저희를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여쭙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 21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병고와 악령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을 고쳐 주시고, 또 많은 눈먼 이를 볼 수 있게 해주셨다.
- 2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여

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 23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 세레자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시다 (마태 11,7-11)**
- 24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돌아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 25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사는 자들은 왕궁에 있다.
- 26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 27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네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 28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그러나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 29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은 백성은 세례들까지 포함하여 모두 하느님께서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 30 그러나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은 바리사이들과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을 위한 하느님의 뜻을 물리쳤다.
- 31 그러니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기랴? 그들은 무엇과 같으는가?
- 32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 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 33 사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 34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 35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냈다.”

죄 많은 여자를 용서하시다

- 36 바리새이 가운데 어떤 이가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예수님을 초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이의 집에 들어가서 식탁에 앉으셨다.
- 37 그 고을에 죄인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이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왔다. 그 여자는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서
- 38 예수님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더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다.
- 39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이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곧 죄인인 줄 알 터인데.’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 40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스승님, 말씀하십시오.” 하였다.
- 41 “어떤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둘 있었다. 한 사람은 오백 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사람은 오십 데나리온을 빚졌다.
- 42 둘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들이 가운데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 43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옳게 판단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 44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셨다.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 주었다.
- 45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 46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발라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어 발라 주었다.
- 47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 48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 49 그러자 식탁에 함께 앉아 있던 이들이 속으로,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 용서해 주는가?’ 하고 말하였다.
- 50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여자들이 예수님의 활동을 돕다

- 8¹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열두 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 2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일곱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
- 3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안나, 수산나였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

게 시중을 들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마태 13,1-9 ; 마르 4,1-9)

- 4 많은 군중이 모이고 또 각 고을에서 온 사람들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 5 “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발에 짓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먹어 버리기도 하였다.
- 6 어떤 것은 바위에 떨어져, 썩이 자라키는 하였지만 물기가 없어 말라 버렸다.
- 7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한가운데로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면서 숨을 막아 버렸다.
- 8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백 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마태 13,10-17 ; 마르 4,10-12)

- 9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의 뜻을 묻자,
- 10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비유로만 말하였으니, ‘ 저들이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설명하시다 (마태 13,18-23 ; 마르 4,13-20)

- 11 “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 12 길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 13 바위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한 때는 만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 14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살아가면서 인생의 걱정과 재물과 쾌락에 숨이 막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 15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써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등불의 비유 (마르 4,21-25)

- 16 “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밑에 놓지 않는다. 등경 위에 놓아 들어오는 이들이 빛을 보게 한다.
- 17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져 훤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 18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잘 헤아려라. 정녕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줄로 여기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님의 참가족 (마태 12,46-50 ; 마르 3,31-35)

- 19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군중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 20 그래서 누가 예수님께 “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을 뵈려고 밖에 서 계 십니다.” 하고 알려 드렸다.
- 21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풍랑을 가라앉히시다 (마태 8,23-27 ; 마르 4,35-41)

- 22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어 그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이르시니, 그들이 출발하였다.

- 23 그들이 배를 저어 갈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잠이 드셨다. 그때에 돌풍이 호수로 내리몰아치면서 물이 차 들어와 그들이 위태롭게 되었다.
- 24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곧 잠잠해지며 고요해졌다.
- 25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너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셨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놀라워하며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시고 또 그것들이 이분께 복종하는가?”

마귀들과 돼지 떼 (마태 8,28-34 ; 마르 5,1-20)

- 26 그들은 갈릴래아 맞은쪽 게라사인들의 지방으로 저어 갔다.
- 27 예수님께서 물에 내리시자, 마귀 들린 어떤 남자가 고을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 왔다. 그는 오래전부터 옷을 입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에 있지 않고 무덤에서 지냈다.
- 28 그가 예수님을 보고 고함을 지르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말하였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청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 29 예수님께서서 더러운 영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 더러운 영이 그를 여러 번 사로잡아, 그가 쇠사슬과 족쇄로 묶인 채 감시를 받았지만, 그는 그 묶은 것을 끊고 마귀에게 물려 광야로 나가곤 하였다.
- 30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

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군대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에게 많은 마귀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 31 마귀들은 예수님께 지대로 물러가려는 명령을 내리지 말아 달라고 청하였다.
- 32 마침 그 산에는 놓아 기르는 많은 돼지 떼가 있었다. 그래서 마귀들이 예수님께 그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서 허락하시니,
- 33 마귀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 떼가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 달려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 34 돼지를 치던 이들이 그 일을 보고 달아나 그 고을과 여러 촌락에 알렸다.
- 35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나왔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마귀들이 떨어져 나간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 36 그 일을 본 사람들은 마귀 들렸던 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려 주었다.
- 37 그러자 게라사인들의 지역 주민 전체가 예수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 주십사고 요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서는 배에 올라 되돌아가셨다.
- 38 그때에 마귀들이 떨어져 나간 그 남자가 예수님께 같이 있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돌려보내며 말씀하셨다.
- 39 “집으로 돌아가, 하느님께서 너에게 해 주신 일을 다 이야기해 주어라.” 그래서 그는 물러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 주신 일을 온 고을에 두루 선포하였다.

아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허혈하는 부인을 고치시다 (마태 9,18-26 ; 마르 5,21-43)

- 40 예수님께서 되돌아오시자 군중이 그분을 맞이하였다. 모두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 41 그때에 아이로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는 회당장이었다.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가 주시기를 청하였다.
- 42 그에게 열두 살쯤 되는 외동딸이 있는데 그 아이가 죽어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 43 예수님께서 그리로 가시는데 군중이 그분을 밀어 댔다.
- 44 그 가운데에 열두 해 동안이나 하혈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의사들을 찾아 다니느라 가산을 탕진하였지만, 아무도 그를 고쳐 주지 못하였다.
- 45 그가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자락 술에 손을 대자 즉시 하혈이 멎었다.
- 46 예수님께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모두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스승님, 군중이 스승님을 에워싸 밀쳐 대고 있습니다.” 하였다.
- 47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다. 나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나는 안다.” 하고 말씀하셨다.
- 48 그 부인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음을 알고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기가 무슨 까닭으로 예수님께 손을 대었으며, 또 어떻게 즉시 병이 나았는지 온 백성 앞에서 아뢰었다.
- 49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어떤 이가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스승님을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 50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대답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 만 하여라. 아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 51 그리고 그 집에 가서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당신과 함께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 52 사람들이 모두 아이 때문에 울며 가슴을 치는데, 예수님께서 “울지들 마라.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 53 그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예수님을 비웃었다.
- 54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 55 그러자 아이의 영이 되돌아와서 아이가 즉시 일어섰다.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지시하셨다.
- 56 아이의 부모는 몹시 놀랐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열두 제자를 파견하시다 (마태 10,5-15 ; 마르 6,7-13)

- 9¹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시어, 모든 마귀를 쫓아 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다.
- 2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 주라고 보내시며,
- 3 그들에게 이르셨다. “길을 떠날 때에 아무 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포대리도 빵도 돈도 여벌 옷도 지니지 마라.
- 4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 5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을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 버려라.”
- 6 제자들은 떠나가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 주었다.

헤로데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다 (마태 14,1-2 ; 마르 6,14-16)

- 7 헤로데 영주는 이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더러는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났다.” 하고
- 8 더러는 “엘리아가 나타났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 하였기 때문이다.
- 9 그래서 헤로데는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 보려고 하였다.

오천 명을 먹이시다 (마태 14,13-21 ; 마르 6,30-44 ; 요한 6,1-14)

- 10 사도들이 돌아와 자제들이 한 일을 예수님께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로 데리고 뱃사이더라는 고을로 물러가셨다.
- 11 그러나 군중은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왔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시어,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 주셨다.
- 12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열두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 13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은 “저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사 오지 않는 한, 저희에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 14 사실 장정만도 오천 명기량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대충 쉰 명씩 떼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
- 15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모두 자리를 잡았다.

- 16 예수님께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 17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나 되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다 (마태 16,13-20 ; 마르 8,27-30)

- 18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그분께서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 19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아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 20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자, 베드로가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21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분부하셨다.

수난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시다 (마태 16,21-23 ; 마르 8,31-33)

- 22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하고 이르셨다.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마태 16,24-28 ; 마르 8,34-9,1)

- 23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 24 장님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 25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 26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싸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 27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곳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이 더러 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다 (마태 17,1-9 ; 마르 9,2-10)

- 28 이 말씀을 하시고 여드레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 29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었다.
- 30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 31 영광에 싸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 32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 33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 34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잠이 났다.

- 35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 36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어떤 아이에게서 더러운 영을 내쫓으시다 (마태 17,14-18 ; 마르 9,14-27)

- 37 다음 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가니 많은 군중이 그분께 마주 왔다.
- 38 그때에 군중 속에서 어떤 남자가 부르짖었다. “스승님, 청하건대 부디 제 아들을 보아 주십시오. 저의 외아들입니다.
- 39 영이 아이를 사로잡기만 하면 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영은 아이를 뒤흔들어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온통 상처를 입히면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 40 그래서 스승님의 제자들에게 저 영을 쫓아내 달라고 청하였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 41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으면서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네 아들을 이리 데려오너라.” 하고 이르셨다.
- 42 아이가 다가오는 동안에도 마귀는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뒤흔들어 댔다.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영을 꾸짖어 아이를 고쳐 주시고 나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 43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몹시 놀랐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수난과 부활을 두 번째로 예고하시다 (마태 17,22-23 ; 마르 9,30-32)

- 44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들여라. 사람의 이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 45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가장 큰사람 (마태 18,1-5 ; 마르 9,33-37)

- 46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사람이나 하는 문제로 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다.
- 47 예수님께서서는 그들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신 다음,
- 48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 어린이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사람이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지지하는 사람이다 (마르 9,38-40)

- 49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와 함께 스승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 하게 막아 보려고 하였습니다.”
- 50 그러자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이르셨다. “막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사마리아의 한 마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다

- 51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차자,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 52 그래서 당신에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 53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 54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내려 저희를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 55 예수님께서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 56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마태 8,19-22)

- 57 그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 58 그러자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말씀하였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릴 곳조차 없다.”
- 59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 60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하고 말씀하였다.
- 61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 62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일흔두 제자를 파견하시다

10¹ 그 뒤에 주님께서서는 다른 제자 일흔

- 두 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에 앞서 들쭉 보내시며,
- 2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시라고 청하여야.
- 3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 4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자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 5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야.
- 6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 7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 8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 주는 음식을 먹어라.
- 9 그곳 병자들을 고쳐 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 10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길에 나가 말하여라.
- 11 ‘여러분의 고을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 여러분에게 털어 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 두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 12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고을들 (마태 11,20-24)

- 13 “불행하여라, 너 코라진아!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지루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 14 그러나 심판 때에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 15 그리고 너 카파르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오를 성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 16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일흔두 제자가 돌아오다

- 17 일흔두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 18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 19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빵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 20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 (마태 11,25-27 ; 마태 13,16-17)

- 21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 22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 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께서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 23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이르렀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24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임금
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
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가장 큰 계명 (마태 22,34-40 ; 마르 12,28-34)

25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
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26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
었느냐?”

27 그가 “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
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
니다.” 하고 대답하자,

28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올케 대답
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
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29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
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30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
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추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 버렸다.

31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
다.

32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33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

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
은 마음이 들었다.

34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
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
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35 이튿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
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
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값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36 나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
하느냐?”

37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풀 사람
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
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
라.”

마르타와 마리아를 방문하시다

38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
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들었다.

39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
을 듣고 있었다.

40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종드는 일로 분
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
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종들게 내버려 두
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41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
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42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
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기도 (마태 6,9-13)

11 ¹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 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 3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 4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이를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끊임없이 간청하여라

- 5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세 개만 꾸어 주게.’
- 6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 7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 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 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 8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 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마태 7,7-11)

- 9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 10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 11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12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3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예수님과 베엘세불 (마태 12,22-30 ; 마르 3,20-27)

- 14 예수님께서 병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마귀가 나가자 말을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군중이 놀라워하였다.
- 15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세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 16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 17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 18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티어 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세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 19 내가 만일 베엘세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나?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 20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 21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 22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담벼들이 그를 이기면, 그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회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 23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흠여 버리는 자다.”

되돌아오는 악령 (마테 12,43-45)

24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쉼 데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에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25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26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일곱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참행복

27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군중 속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선생님을 배었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28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요나의 표징 (마테 12,38-42 ; 마르 8,11-12)

29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30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31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

리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32 심판 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어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눈은 몸의 등불 (마테 5,15 ; 마테 6,22-23)

33 “아무도 등불을 켜서 숨겨 두거나 함지 속에 놓지 않는다. 등경 위에 놓아, 들어오는 이들이 빛을 보게 한다.

34 네 눈은 네 몸의 등불이다. 네 눈이 맑을 때에는 온몸도 환하고, 성하지 못할 때에는 몸도 어둡다.

35 그러니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아닌지 살펴보아라.

36 너의 온몸이 환하여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이 그 밝은 빛으로 너를 비출 때처럼, 네 몸이 온통 환할 것이다.”

바리사이들과 율법 교사들을 꾸짖으시다 (마테 23,1-36 ; 마르 12,38-40 ; 루카 20,45-47)

37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자, 어떤 바리사이가 자기 집에서 식사하자고 그분을 초대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셨다.

38 그런데 그 바리사이는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39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정녕 너희 바리사이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40 어리석은 자들아, 길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41 속에 담긴 것으로 자신을 배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 42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이!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는 십일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십일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 43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이! 너희가 회당에서는 잇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 44 너희는 불행하여라! 너희가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이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무덤인 줄을 알지 못한다.”
- 45 율법 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 스승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까지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 46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율법 교사들도 불행하여라! 너희가 험겨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 놓고, 너희 자신들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 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 47 너희는 불행하여라! 바로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기 때문이다.
- 48 이렇게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으니,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너희가 증언하고 또 동조하는 것이다.
- 49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도,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들은 이들 가운데에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 50 그러니 세상 창조 이래 쏟아진 모든 예언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 51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어 간 즈카리아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

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52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 교사들이!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 버리고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 버렸기 때문이다.”
- 53 예수님께서 그 집을 나오시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독한 앙심을 품고 많은 질문으로 그분을 몰아대기 시작하였다.
- 54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분을 울어버려고 노렸던 것이다.

바리사이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마태 16,5-12 ; 마르 8,14-21)

- 12** ¹ 그러는 동안에 수많은 군중이 모여 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바리사이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여라.”
- ²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 ³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에서 한 말을 사람들이 모두 밝은 데에서 들을 것이다.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태 10,26-33)

- ⁴ 나의 벗인 너희에게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 ⁵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육신을 죽인 다음 지옥에 던지는 권 한을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 ⁶ 참새 다섯 마리가 두 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하느님께서 잊

지 않으신다.

- 7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 두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 8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 9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는 자는, 사람의 아들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 10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모두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 11 너희는 회당이나 관청이나 관아에 끌려갈 때, 어떻게 답변할까, 무엇으로 답변할까, 또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 12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에 알려 주실 것이다.”

탐욕을 조심하여라

- 13 군중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 형더러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 14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니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나?”
- 15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 1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 17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 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 18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공간들을 헐어 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는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 두어야겠다.’
- 19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 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 20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 21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리하다.”

세상 걱정과 하나님의 나라 (마태 6,25-34)

- 22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 23 목숨은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소중하다.
- 24 까마귀들을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골방도 곳간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먹여 주신다. 너희가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 25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 26 너희가 이처럼 지극히 작은 일도 할 수 없는데, 어찌 다른 것들을 걱정하느냐?
- 27 그리고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 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화려하지 못하였다.
- 28 오늘 들에 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풀까지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 29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 30 이런 것들은 모두 이 세상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 31 오히려 너희는 그분의 나라를 찾아라. 그러면 이것들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 32 너희들 작은 양 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마태 6,19-21)

- 33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신을 배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축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썩이 썩지도 못한다.
- 34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깨어 있어라 (마태 24,42-44)

- 35 “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 놓고 있어라.
- 36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 37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매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 38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 39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 40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기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충실한 종과 불충실한 종 (마태 24,45-51)

- 41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 42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체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 43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 44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 45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 46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 47 주인이 뜻과 맞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 48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불을 지르러 왔다

- 49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 50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가?”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마태 10,34-36)

- 51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 52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두 사람에게 맞서고 두 사람이 세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 53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시대를 알아보아라 (마태 16,2-3)

- 54 예수님께서 군중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오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 55 또 남풍이 불면 ‘더워지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 56 위선자들이여, 너희는 땅과 하늘의 징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

늦기 전에 회개하여라 (마태 5,25-26)

- 57 “너희는 왜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 58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재판관에게 갈 때, 도중에 그와 합의를 보도록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 재판관은 너를 옥리에 넘기고 옥리는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 59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닢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 13 ¹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래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 2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래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래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 3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것처럼 멸망할 것이다.
- 4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열여덟 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 5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비유

- 6 예수님께서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 7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삼 년째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 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 8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울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틀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 9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 버리십시오.’”

등 굽은 여자를 안식일에 고쳐 주시다

- 10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 11 마침 그곳에 열여덟 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는 여자가 있었다. 그는 허리가 굽어 몸을 조금도 펼 수가 없었다.
- 12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부르시어, “여인아,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 13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즉시 똑바로 일어서서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 14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님께서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셨으므로 분개하여 군중에게 말하였다. “일하는 날이 옛새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옛새 동안에 와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 15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자기 소나 나귀를 구유에서 풀어 물을 먹이려 끌고 가지 않느냐?”
- 16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를 사탄이 무려 열여덟 해 동안이나 묶어 놓았는데, 안식일일지라도 그 속박에서 풀어 주어야 하지 않느냐?”
- 17 예수님께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분의 적대자들은 모두 망신을 당하였다. 그러나 군중은 모두 그분께서 하신 그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겨자씨의 비유 (마태 13,31-32 ; 마르 4,30-32)

- 18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그것을 무엇에 비길까?”
- 19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다. 그랬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다.”

누룩의 비유 (마태 13,33)

- 20 예수님께서서 다시 이르셨다. “하느님의 나

를 무엇에 비길까?

- 21 그것은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 말 속에 집어넣었다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구원과 멸망 (마태 7,13-14 ; 마태 7,21-23)

- 22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들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 23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 24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 25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 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 26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 27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 28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 29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 30 보라, 지금은 풀썩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둘째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죽음에 직면하시는 예수님

- 31 바로 그때에 바리사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어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로데가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 32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 주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마친다.’”
- 33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다음 날도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 한탄하시다 (마태 23,37-39)

- 34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 35 보라, 너희 집은 버려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하고 말할 날이 올 때까지, 정녕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수종을 잃은 이를 안식일에 고치시다

- 14 ¹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서 음식을 잡수실 때 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데,
- 2 마침 그분 앞에 수종을 잃은 사람이 있었다.
- 3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사이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나, 합당하지 않느냐?” 하고 물으셨다.

- 4 그들은 잠자코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손을 잡고 병을 고쳐서 돌려보내신 다음,
- 5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일지라도 바로 끌어내지 않겠느냐?”
- 6 그들은 이 말씀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끝자리에 앉이라

- 7 예수님께서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뒷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 8 “누가 너를 혼인 잔치에 초대하거든 뒷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 9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 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 10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이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 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에 너는 함께 앉아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 11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가난한 이들을 초대하여라

가난한 이들을 초대하여라

- 12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초대한 이에게도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네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내가 보답을 받게 된다.
- 13 내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

을 초대하여라.

- 14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혼인 잔치의 비유 (마테 22,1-10)

- 15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던 이들이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그분께, “하느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게 될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 16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 17 그리고 잔치 시간이 되자 종을 보내어 초대받은 이들에게,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전하게 하였다.
- 18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양해를 구하기 시작하였다. 첫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는데 나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오.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고 그에게 말하였다.
- 19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다섯 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부려 보려고 가는 길이오.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였다.
- 20 또 다른 사람은 ‘나는 방금 장기를 들었소. 그러니 갈 수가 없대요.’ 하였다.
- 21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알렸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에게 일렀다. ‘어서 고을의 한길과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과 눈먼 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 22 얼마 뒤에 종이 ‘주인님, 분부하신 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하자,
- 23 주인이 다시 종에게 일렀다. ‘큰길과 울타리 쪽으로 나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이 가득 차게 하여라.’
- 24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를 받았

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아무도 내 잔치 음식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버림과 따름 (마테 10,37-38)

- 25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 26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 27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 28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 29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 30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한 해 놓고 마치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 31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이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만 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 32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 협정을 청할 것이다.
- 33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맛을 잃은 소금 (마테 5,13 ; 마르 9,50)

- 34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 35 땅에도 거름에도 쓸모가 없어 밖에 내던져 버린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되찾은 양의 비유 (마태 18,12-14)

- 15** ¹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 ²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 ³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 ⁴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지 않느냐?”
- ⁵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 ⁶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 ⁷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되찾은 은전의 비유

- ⁸ “또 어떤 부인이 은전 열 닢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닢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 ⁹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 ¹⁰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

- ¹¹ 예수님께서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 ¹² 그런데 작은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 ¹³ 며칠 뒤에 작은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헐겨서 먼 고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 ¹⁴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 ¹⁵ 그래서 그 고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 ¹⁶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나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 ¹⁷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 ¹⁸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 ¹⁹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 ²⁰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 ²¹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 ²²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

- 를 끼우고 밭에 산밭을 신겨 주어라.
-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 24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 25 그때에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 26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 27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 습니다. 아우님이 몹성히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 다.’
- 28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 자,
- 29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 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 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 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 30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 를 잡아 주시는군요.’
- 31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 이다.
- 32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

약은 집사의 비유

- 16 ¹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 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 2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 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 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네.’
- 3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 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에 부치고 빌어먹 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 4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 러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 이게 해야지.’
- 5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 씩 불러 첫 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 게 얼마를 빚졌소?’
- 6 그가 ‘기름 백 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으시오, 그리 고 얼른 앉아 선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 하였다.
- 7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 졌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 백 섬이 오’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 서를 받아 여든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 하였다.
- 8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 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재물을 올바르게 이용하여라

- 9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 구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재물이 없어질 때 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로 맞아들이 게 하여라.
- 10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일에도 불의하다.
- 11 그러니 너희가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 데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12 또 너희가 남의 것을 다루는 태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을 내 주겠느냐?”

하느님이나, 재물이냐 (마태 6,24)

13 “어떠한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 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사이들의 참모습

14 돈을 좋아하는 바리사이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다.
15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너희 마음을 아신다. 사실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되는 것이 하느님 앞에서는 혐오스러운 것이다.”

울렷함과 하느님의 나라 (마태 5,18 ; 마태 11,12-13)

16 “울렷함과 예언자들의 시대는 요한까지다. 그 뒤로는 하느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모두 이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을 쓴다.
17 울렷에서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쉽다.”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마태 5,31-32 ; 마태 19,9 ; 마르 10,11-12)

18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누구나 간음하는 것이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

19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

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20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21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22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23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24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서 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25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 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26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27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 주십시오.’

28 저에게 다섯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29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30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

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 31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

남을 죄짓게 하지 마라 (마태 18,6-7 ; 마르 9,42)

17 ¹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자!

²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것보다,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내던져지는 편이 낫다.

³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 ” 네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고 용서하여라 (마태 18,15 ; 마태 18,21-22)

⁴ 그가 너에게 하루에도 일곱 번 죄를 짓고 일곱 번 돌아와 ‘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

믿음의 힘 (마태 17,20 ; 마태 21,21 ; 마르 11,22-23)

⁵ 사도들이 주님께, “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⁶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나무더러 ‘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겸손하게 섬겨라

⁷ “ 너희 가운데 누가 발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중에

게 ‘ 어서 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⁸ 오히려 ‘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매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⁹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¹⁰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나병 환자 열 사람을 고쳐 주시다

¹¹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¹²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열 사람이 그분께 마주 왔다. 그들은 떨쩍이 서서

¹³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¹⁴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보시고, “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¹⁵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¹⁶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¹⁷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¹⁸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나?”

¹⁹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느님 나라의 도래

²⁰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사이들에게서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21 또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사람의 아들의 날 (마태 24,23-28 ; 마태 24,37-41)

22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을 하루라도 보려고 갈망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23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계시다.’, 또는 ‘보라, 여기에 계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서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라.

24 번개가 치면 하늘 이쪽 끝에서 하늘 저쪽 끝까지 비추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25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 배척을 받아야 한다.

26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27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28 또한 롯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교팔고 심고 짓고 하였는데,

29 롯이 소돔을 떠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흥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30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똑같은 것이다.

31 그날 옥상에 있는 이는 세간이 집 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려 내려가지 말고, 마찬가지로 들에 있는 이도 뒤로 돌아서지 마라.

32 너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33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34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35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36 일부 수사본들에는 ‘두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라는 36절이 있다.

37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사제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18 ¹ 예수님께서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2 “어떤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3 또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4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5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

6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어라.

- 7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 8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

- 9 예수님께서서는 또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 10 “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 11 바리사이는 꼴꼴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 12 저는 일주일에 두 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십일조를 바칩니다.’
- 13 그러나 세리는 멀쩡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 14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다 (마태 19,13-15 ; 마르 10,13-16)

- 15 사람들이 아이들까지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 16 예수님께서서는 그 아이들을 가까이 불러 놓고 이르셨다. “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 1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느님의 나라와 부자 (마태 19,16-26 ; 마르 10,17-27)

- 18 어떤 권력가가 예수님께, “ 선하신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 19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 20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 간음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
- 21 그가 예수님께 “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22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셨다. “ 너에게 아직 모자란 것이 하나 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 23 그는 이 말씀을 듣고 매우 슬퍼하였다.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이다.
- 24 예수님께서서는 그가 매우 슬퍼하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다. “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 25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 26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하였다.
- 27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라도 하느님께는 가능하다.”

따름과 보상 (마태 19,27-29 ; 마르 10,28-30)

- 28 그때에 베드로가 말하였다. “보사다시피 저희는 가진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 2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하느님의 나라 때문에 집이나 아내,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 30 현세에서 여러 곱절로 되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수난과 부활을 세 번째로 예고하시다 (마태 20,17-19 ; 마르 10,32-34)

- 31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고 가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사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제 사람의 아들에 관하여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 32 사람의 아들은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질 터인데, 그들은 사람의 아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며 침 뱉을 것이다.
- 33 또 체찍질하고 나서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 34 제자들은 이 말씀 가운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의 뜻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어서, 말씀하신 것을 알아듣지 못하였던 것이다.

에리코에서 눈먼 이를 고치시다 (마태 20,29-34 ; 마르 10,46-52)

- 35 예수님께서 에리코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 의 일이다. 어떤 눈 먼 이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 36 군중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라고 물었다.
- 37 사람들이 그에게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고 알려 주자,
- 38 그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 39 앞서 가던 이들이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 40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 41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 42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 43 그가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하느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랐다. 군중도 모두 그것을 보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다.

예수님과 자캐오

- 19 ¹ 예수님께서 에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 2 마침 거기에 자캐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 3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 4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들무화과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 5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캐오야, 일만 내려오

- 나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 6 자개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었다.
- 7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이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 8 그러나 자개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았습니다.”
- 9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 10 사람의 아들은 많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려 왔다.”

마나의 비유 (마태 25,14-30)

- 11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비유 하나를 덧붙여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데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12 그리하여 예수님께서서 이르셨다. “어떤 귀족이 왕관을 받아 오르고 먼 고장으로 떠나게 되었다.
- 13 그래서 그는 종 열 사람을 불러 열 마나를 나누어 주며, ‘내가 올 때까지 밭일을 하여라.’ 하고 그들에게 일렸다.
- 14 그런데 그 나라 백성은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어, ‘저희는 이 사람이 저희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 15 그러나 그는 왕권을 받고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종들이 밭일을 얼마나 하였는지 알아볼 생각으로 그들을 불러오라고 분부하였다.
- 16 첫째 종이 들어와서, ‘주인님, 주인님의

한 마나로 열 마나를 벌어들였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 17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렸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져라.’
- 18 그다음에 둘째 종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의 한 마나로 다섯 마나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 19 주인은 그에게도 일렸다. ‘너도 다섯 고을을 다스려라.’
- 20 그런데 다른 좋은 종은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주인님의 한 마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 21 주인님께서 냉혹하신 분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저는 주인님이 두려웠습니다.’
- 22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나는 네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한다. 내가 냉혹한 사람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 23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넣지 않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되찾았을 것이다.’
- 24 그리고 나서 곁에 있는 이들에게 일렸다. ‘저자에게서 그 한 마나를 빼앗아 열 마나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 25 — 그러자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이는 열 마나나 가지고 있습니다.’ —
- 26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 27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은 그 원수들을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처형하여라.’ ”

예루살렘에 임성하시다 (마태 21,1-11 ; 마르 11,1-11 ; 요한 12,12-19)

- 28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앉아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걸어가셨다.
- 29 올리브 산이라고 불리는 곳 근처 벳파게와 베타니아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며
- 30 말씀하셨다. “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 31 누가 너희에게 ‘ 왜 푸는 거요?’ 하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
- 32 분부를 받은 이들이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 33 그래서 그들이 어린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이, “ 왜 그 어린 나귀를 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 34 그들은 “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35 그리고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 그 위에 자기들의 겹옷을 걸치고, 예수님을 거기에 올라타게 하였다.
- 36 예수님께서서 나아가실 때에 그들은 자기들의 겹옷을 길에 깔았다.
- 37 예수님께서서 어느덧 올리브 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시자, 제자들의 무리가 다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 때문에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미하기 시작하였다.
- 38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임금은 복되시어라.’ 하늘에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
- 39 군중 속에 있던 바리사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 스승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

오.” 하고 말하였다.

- 40 그러자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다. “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들이 잠자코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며 우시다

- 41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우시며
- 42 말씀하셨다. “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 ! 그러나 지금 네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 43 그때가 나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면 너의 원수들이 네 돌레에 공격 축대를 쌓은 다음,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조여들 것이다.
- 44 그리하여 너와 네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네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하느님께서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성전을 정화하시다 (마태 21,12-17 ; 마르 11,15-19 ; 요한 2,13-22)

- 45 예수님께서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물건을 파는 이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시며,
- 46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 강도들의 소굴’ 로 만들어 버렸다.”
- 47 예수님께서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
- 48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듣느라고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권한을 문제 삼다 (마태 21,23-27 ; 마르 11,27-33)

- 20** ¹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이 원로들과 함께 다가와,
- ²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지, 또 당신에게 그러한 권한을 준 자가 누구인지 말해 보시오.”
- ³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을 터이니 대답해 보아라.
- ⁴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 ⁵ 그들은 저희끼리 서로 의논하였다. “‘하늘에서 왔다.’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말할 것이오.
- ⁶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 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확신하고 있으니 그들이 돌을 던져 우리를 죽일 것이오.”
- ⁷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 ⁸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 (마태 21,33-46 ; 마르 12,1-12)

- ⁹ 예수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일구어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 ¹⁰ 포도 철이 되자 그는 소작인들에게 종 하나를 보내어, 포도밭 소출에서 얼마를 내놓으라고 하였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를 매질하고서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 ¹¹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종도 매질하고 모욕하고 나서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 ¹² 그리고 또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 그 종도 상처를 입히고 내쫓아 버렸다.
- ¹³ 그래서 포도밭 주인은,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내 이들을 보내야겠다.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고 말하였다.
- ¹⁴ 그러나 소작인들은 그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저자를 죽여 버리자. 그러면 이 상속 재산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하고 서로 의논하면서,
- ¹⁵ 그를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 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은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 ¹⁶ 그는 돌아와 그 소작인들을 없애 버리고 포도밭을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 ¹⁷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똑바로 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은 무슨 뜻이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 ¹⁸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누구나 부서지고, 그 돌에 맞는 자는 누구나 으러질 것이다.”
- ¹⁹ 율법 학자들과 수석 사제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두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알아차리고, 당장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하였으나 백성이 두려웠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 (마태 22,15-22 ; 마르 12,13-17)

- ²⁰ 그리하여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선량한 사람처럼 꾸민 앞잡이들을 보내어 예수님의 말씀을 빌미로 그분을 붙잡게 하였다. 예수님을 직권과 사법권을 가진 총독에게 남기려는 것이었다.
- ²¹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께서 올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그 신분에 따라 가리지 않

으시고,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신다는 것을 압니다.

- 22 그런데 저희가 황제에게 조세를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 23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교활한 속셈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24 “테나리온 한 닢을 나에게 보여라. 누구의 초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25 이에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 드려라.”
- 26 그들은 예수님께서서 하신 말씀을 발미로 백성 앞에서 그분을 붙잡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답변에 경탄하며 입을 다물었다.

부활 논쟁 (마태 22,23-33 ; 마르 12,18-27)

- 27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카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 28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이하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 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 29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맏이가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 30 그래서 둘째가,
- 31 그다음에는 셋째가 그 여자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렇게 일곱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 32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 33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으니 말입니다.”
- 34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기도 들고 시집도 간다.

- 35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 36 천사들과 같이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 37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야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 주었다.
- 38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는 것이다.”
- 39 그러자 율법 학자 몇 사람이 “스승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였다.
- 40 사람들은 감히 그분께 더 이상 묻지 못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 22,41-46 ; 마르 12,35-37)

- 41 예수님께서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람들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 42 다윗 자신이 시편에서 말한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 43 내가 너의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 44 이렇게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마태 23,1-36 ; 마르 12,38-40 ; 루카 11,39-54)

- 45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 46 “울퉁 학자들을 경계하여라. 그들은 긴 겹옷을 입고 나다니기를 즐기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며,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좋아한다.
- 47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 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욱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 (마르 12,41-44)

- 21** 1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헌금함에 예물을 넣는 부자들을 보고 계셨다.
- 2 그러다가 어떤 빈곤한 과부가 렘톤 두 닢을 거기에 넣는 것을 보시고
- 3 이르셨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 4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을 예물로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던 생활비를 다 넣었기 때문이다.”

성전의 파괴를 예고하시다 (마태 24,1-2 ; 마르 13,1-2)

- 5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 6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재난의 시작 (마태 24,3-14 ; 마르 13,3-13)

- 7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 8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

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 9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 10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 11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 12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 13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 14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 15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 16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 17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 18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 19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시다 (마태 24,15-21 ; 마르 13,14-19)

- 20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된 것을 보거든, 그곳이 황폐해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
- 21 그때에 유대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

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은 거기에서 빠져 나간다. 시골에 있는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 22 그때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 23 불행하여라,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 먹이가 떨어진 여자들! 이 땅에 큰 재난이, 이 백성에게 진노가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 24 사람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포로가 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 (마태 24,29-31 ; 마르 13,24-27)

- 25 “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 26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 27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사람들이 볼 것이다.
- 28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무화과나무의 교훈 (마태 24,32-35 ; 마르 13,28-31)

- 29 예수님께서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 무화과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 30 잎이 돋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
- 31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 32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 33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깨어 있어라

- 34 “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덮어 처럼 갑자기 닥치지 않게 하여라.
- 35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 36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 37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올리브 산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나가 묵곤 하셨다.
- 38 온 백성은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계신 그분께 이른 아침부터 모여들었다.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다 (마태 26,1-5 ; 마르 14,1-2 ; 요한 11,45-53)

- 2 ¹ 파스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 ²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백성이 두려워, 예수님을 어떻게 제거해야 할지 그 방법을 찾고 있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다 (마태 26,14-16 ; 마르 14,10-11)

- 3 그런데 사탄이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들어갔다.
- 4 그리하여 그는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길 방도를 함께 의논하였다.
- 5 그들은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합의 를 보았다.

6 유다는 그것에 동의하고, 군중이 없을 때에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다 (마태 26,17-19 ; 마르 14,12-16)

- 7 파스카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 왔다.
- 8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파스카 음식을 차려라.”
- 9 그들이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자,
- 10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도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거라.
- 11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시오.’ 하여라.
- 12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놓은 큰 이층 방을 보여 줄 것이다. 거기에서 차려라.”
- 13 제자들이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 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성찬례를 제정하시다 (마태 26,26-30 ; 마르 14,22-26 ; 1코린 11,23-25)

- 14 시간이 되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다.
- 15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파스카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 16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파스카 축제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파스카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았다.”
- 17 그리고 잔을 받아 감사를 드리시고 나서

이르셨다. “이것을 받아 나누어 마셔라.

- 18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느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빛을 결코 마시지 않았다.”
- 19 예수님께서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 20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제자가 배신할 것을 예고하시다 (마태 26,21-25 ; 마르 14,18-21 ; 요한 13,21-30)

- 21 “그러나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지금 나와 함께 이 식탁에 앉아 있다.
- 22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 23 그러자 사도들은 자기들 가운데 그러한 짓을 저지를 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하고 서로 묻기 시작하였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마태 20,24-28 ; 마르 10,41-45)

- 24 사도들 가운데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 25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민족들을 지배하는 임금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민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자신을 은인이라고 부르며 한다.
- 26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27 누가 더 높이나? 식탁에 앉은 이냐, 아니면 시종들며 섬기는 이냐? 식탁에 앉은 이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에 있다.”

제자들에게 보상을 약속하시다 (마태 19,28)

28 “너희는 내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있어 준 사람들이다.

29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준다.

30 그리하여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실 것이며,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베드로가 당신을 모른다고 할 것을 예고하시다 (마태 26,31-35 ; 마르 14,27-31 ; 요한 13,36-38)

31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나섰다.

32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 네가 돌아오거든 네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리라.”

33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갈 준비도 되어 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34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다

35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둔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3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나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기고 여행 보따리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이는 겂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37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는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다.’ 는 말씀이다. 과연 나에게 관하여 기록된 일이 이루어지려고 한다.”

38 그들이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두 자루가 있습니다.” 하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그것이면 넉넉하다.” 하고 말씀하셨다.

겔세마니에서 기도하시다 (마태 26,36-46 ; 마르 14,32-42)

39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40 그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41 그리고 나서 돌을 던지면 달을 만한 곳에 혼자 가시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42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43 그때에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그분의 기운을 북돋아 드렸다.

44 예수님께서 고쳐에 싸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45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시어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다.

4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자고 있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

도하여라.”

잡히시다 (마태 26,47-56 ; 마르 14,43-50 ; 요한 18,1-11)

47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라고 하는 자가 앞장서서 왔다. 그가 예수님께 입 맞추려고 다가오자,

48 예수님께서 그에게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49 예수님 둘레에 있던 이들이 사태를 알아차리고, “주님, 저희가 칼로 쳐 버릴까요?” 하고 말하였다.

50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사제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 버렸다.

51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에 손을 대어 고쳐 주셨다.

52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잡으러 온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원로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단 말이냐?”

53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는 너희가 나에게 손을 뻗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이 권세를 떨칠 때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다 (마태 26,69-75 ; 마르 14,66-72 ; 요한 18,15-18 ; 요한 18,25-27)

54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끌고 대사제의 집으로 데려갔다. 베드로는 멀쩡이 떨어져 뒤따라갔다.

55 사람들이 안뜰 한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기어 앉았다.

56 그런데 어떤 하녀가 불가에 앉은 베드로를 보고 그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말하였다. “이이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57 그러자 베드로는 “이 여자야, 나는 그 사람을 모르네.” 하고 부인하였다.

58 얼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그들과 한테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닐세.” 하였다.

59 한 시간쯤 지났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이이도 갈릴레아 사람이니까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소.” 하고 주장하였다.

60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하고 말하였다. 그가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닭이 울었다.

61 그리고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62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예수님을 조롱하다 (마태 26,67-68 ; 마르 14,65)

63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은 그분을 매질하며 조롱하였다.

64 또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알아맞혀 보아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었다.

65 그들은 이 밖에도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많이 퍼부었다.

최고 의회에서 신문을 받으시다 (마태 26,59-66 ; 마르 14,55-64 ; 요한 18,19-24)

66 날이 밝자 백성의 원로단, 곧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이 모여 예수님을 최고의

화로 끌고 가서,

- 67 “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하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내가 그렇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고,
- 68 내가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 69 이제부터 ‘ 사람의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을 ’ 것이다.”
- 70 그러자 모두 “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 내가 그러하다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하시자,
- 71 그들이 말하였다. “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합니까? 제 입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들었으니 말입니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다 (마태 27,1-2 ; 마태 27,11-14 ; 마르 15,1-5 ; 요한 18,28-38)

- 23** ¹ 그리하여 온 무리가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 ²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기 시작하였다. “ 우리는 이자가 우리 민족을 선동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막고 자신을 메시아 곧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 ³ 빌라도가 예수님께 “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이요?” 하고 묻자, 그분께서 “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 ⁴ 빌라도가 수석 사제들과 군중에게 말하였다. “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 ”
- ⁵ 그러나 그들은 완강히 주장하였다. “ 이자는 갈릴래아에서 시작하여 이곳에 이르기까지, 온 유다 곳곳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헤로데 앞에 서시다

- ⁶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이 사람이 갈릴래아 사람이냐고 묻더니,
- ⁷ 예수님께서 헤로데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그분을 헤로데에게 보냈다. 그 무렵 헤로도도 예루살렘에 있었다.
- ⁸ 헤로데는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래전부터 그분을 보고 싶어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표징이라도 보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 ⁹ 그래서 헤로데가 이것저것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 ¹⁰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그 곁에서 예수님을 신랄하게 고소하였다.
- ¹¹ 헤로데도 자기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한 다음,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 ¹² 전에는 서로 원수로 지내던 헤로데와 빌라도가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사형 선고를 받으시다 (마태 27,15-26 ; 마르 15,6-15 ; 요한 18,38-19,16)

- ¹³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 ¹⁴ 그들에게 말하였다. “ 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한다고 나에게 끌고 왔는데, 보다시피 내가 여러분 앞에서 신문해 보았지만, 이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고소한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 ¹⁵ 헤로데가 이 사람을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을 보면 그도 찾지 못한 것이요, 보다시피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 ¹⁶ 그러니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 주겠소 ”
- ¹⁷ 일부 수사본에는 '그는 축제 때마다 그들에게 한 사람을 풀어 줄 의무가 있었다.'라는

17절이 있다.

- 18 그러자 그들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그자는 없애고 바리새를 풀어 주시오.”
- 19 바리새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자였다.
- 20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 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였지만,
- 21 그들은 “그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 22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을 받아 마땅한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 주겠소.” 하자,
- 23 그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그치며 요구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 24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하였다.
- 25 그리하여 그는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자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풀어 주고,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 넘겨 주었다.

십자가에 못박히시다 (마태 27,32-44 ; 마르 15,21-32 ; 요한 19,16-27)

- 26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사골에서 오고 있던 시몬이라는 어떤 키레네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였다.
- 27 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 28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자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 29 보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아이를 배어 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 보지 못한 여자는 행복하여라!’ 하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 30 그때에 사람들은 ‘산들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 하고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어 다오.’ 할’ 것이다.
- 31 푸른 나무가 이러한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야 어떻게 되겠느냐?”
- 32 그들은 다른 두 죄수도 처형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끌고 갔다.
- 33 ‘해골’ 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 34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다.
- 35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 36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 37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 38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대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죄명 패가 붙어 있었다.
- 39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 40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 41 **우리아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었다.**
- 42 **그리고 나서 “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 43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숨을 거두시다 (마테 27,45-56 ; 마르 15,33-41 ; 요한 19,28-30)

- 44 **낮 열두 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 45 **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에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
- 46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 아버지, ‘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 47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대장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 셧다.” 하고 말하였다.**
- 48 **구경하러 몰려들었던 군중도 모두 그 광경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 49 **예수님의 모든 친지와 갈릴래이에서부터 그분을 함께 따라온 여자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묻히시다 (마테 27,57-61 ; 마르 15,42-47 ; 요한 19,38-42)

- 50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의회 의원이며 착하고 의로운 이었다.**
- 51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인들의 고을 아리마테아 출신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 52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 달라고 청하였다.**

- 53 **그리고 시신을 내려 아마포로 감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셨다. 그것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무덤이었다.**
- 54 **그날은 준비일이었는데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 55 **갈릴래이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도 뒤따라가 무덤을 보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모시는지 지켜보고 나서,**
- 56 **돌아가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계명에 따라 쉬었다.**

부활하시다 (마테 28,1-8 ; 마르 16,1-8 ; 요한 20,1-10)

- 24** ¹ **주간 첫날 새벽 일찍이 그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 2 **그런데 그들이 보니 무덤에서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
- 3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
- 4 **여자들이 그 일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시게 차려입은 남자 둘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 5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으로 숙이자 두 남자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 어찌하여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찾고 있느냐?**
- 6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 셧다. 그분께서 갈릴래이에 계시실 때에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 7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 8 **그러자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내었다.**
- 9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열한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이에게 이 일을 다 알렸다.**
- 10 **그들은 마리아 막달레나, 요안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사도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였다.

- 11 사도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헛소리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 12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몸을 굽혀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아무도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속으로 놀라워하며 돌아갔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마르 16,12-13)

- 13 바로 그날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 14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 15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지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 16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 17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 18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 예루살렘에서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 19 예수님께서서 “ 무슨 일이나?”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 20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21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 22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 23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 계신다고 천사들이 알려 주더라고요.
- 24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 25 그때에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 아, 어리석은 자들이!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굳느냐?”
- 26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 27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 28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 29 그러자 그들은 “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 30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 31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 32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

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 33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34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35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사명을 부여하시다 (마태 28,16-20 ; 마르 16,14-18 ; 요한 20,19-23 ; 사도 1,6-8)

- 36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37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38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이느냐?
39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드시피 살과 뼈가 있다.”
40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 주셨다.
41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42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43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44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45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

46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47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는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48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49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이 내가 너희에게 보내 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승천하시다 (마르 16,19-20 ; 사도 1,9-11)

- 50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51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52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53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신약성경 - 4

복음서 - 4

요한 복음서

총 21 장

총 879 절

[신약성경]-[요한 복음서]

머리글

- 1** ¹ 한처음에 말씀이 계시었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었는데 말씀 또한 하나님이셨다.
- 2**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었다.
- 3**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 4**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 5**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 6**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 7**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 8**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 9**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이 세상에 왔다.
- 10** 그분께서 세상에 계시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 11**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이하지 않았다.
- 12**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 13** 이들은 혈통이나 육욕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 14**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들로서 지나신 영광을 보았다.
- 15**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

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 16**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에 은총을 받았다.
- 17**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 18**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알려 주셨다.

세례자 요한의 증언 (마태 3,1-12 ; 마르 1,2-8 ; 루카 3,1-9 ; 루카 3,15-18)

- 19**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 20**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 21**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에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22**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 23**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이다."
- 24**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 25**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요?"
- 26**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 27**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

말 끈을 풀어 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28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 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하느님의 어린양

29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30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31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32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33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 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이다.'

34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첫 제자들

35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그 곳에 다시 서 있다가,

36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37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38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3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 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네 시쯤이었다.

40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이었다.

41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42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게과라고 불릴 것이다." '게과'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필립보와 나타나엘을 부르시다

43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래아에 가기로 작정하였다. 그 때에 필립보를 만나시자 그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44 필립보는 안드레와 베드로의 고향인 베싸이다 출신이었다.

45 이 필립보가 나타나엘을 만나,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오." 하고 말하였다.

46 나타나엘은 필립보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였다. 그러자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47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48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데

답하였다.

- 49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스승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 50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셨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 51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였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카나의 혼인 잔치

- 2¹ 사흘째 되는 날, 갈릴래아 가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 2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 잔치에 초대받으셨다.
- 3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 4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저더러 어찌라는 말씀입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 5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저분이 사키시는 대로 하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 6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정결례에 쓰이는 돌로 된 물독 여섯 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 세 동이들이었다.
- 7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 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 갔다.
- 9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

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 10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 두셨군요."
- 11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처음으로 갈릴래아 가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 12 그 뒤에 예수님께서서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파르나움으로 내려가셨다. 그러나 그곳에 여러 날 머무르지는 않으셨다.

성전을 정화하시다 (마테 21,12-17 ; 마르 11,15-17 ; 루카 19,45-48)

- 13 유대인들의 과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 14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 15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쫓아 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탁자들을 엮어 버리셨다.
- 16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 17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하고 성서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 18 그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 줄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 19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 20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사십육 년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 21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 22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서와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모든 사람을 아시는 예수님

- 23 과월절 축제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킨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 24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 25 그분께서는 누가 사람에게 관하여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 속에 들어 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니코데모와 이야기하다

- 3¹ 바리새이 가운데 니코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인들의 최고의 회 의원이었다.
- 2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이 하느님에게서 오신 스승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스승님께서 일으키시는 그러한 표징들을 아무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 3 그러나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 4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야 없지 않습니까?"

- 5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 6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 7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하고 내가 말하였다고 놀라지 마라.
- 8 바람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 9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자,
- 10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들을 모르느냐?"
- 11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12 내가 세상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늘, 하늘에서 하를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 13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사람의 아들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 15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 16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 17 하느님께서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 18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

다.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 19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 20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 행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 21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 행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

- 22 그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가시어, 그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다.
- 23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애논에 물이 많아, 거기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았다.
- 24 그 때는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 25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인 사이에 정결례를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 26 그래서 그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하였다. "스승님, 요르단 강 건너편에서 스승님과 함께 계시던 분, 스승님께서 증언하신 분, 바로 그분이 세례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 27 그러자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 28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에 앞서 파견된 사람일 따름이다.' 하고 내가 말한 사실에 관하여, 너희 자신이 내 증인이다.
- 29 신부를 차지하는 이는 신랑이다. 신랑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 내 기쁨도 그렇게 충만하다.
- 30 그분께서는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분

- 31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세상에서 난 사람은 세상에 속하고 세상 것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 32 그분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33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되심을 확증한 것이다.
- 34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한량 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 35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내주셨다.
- 36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된다.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시다

- 4 ¹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만들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2 — 사실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다. —
- 3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유다를 떠나 다시 갈릴래아로 가셨다.
- 4 그 때에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셔야 했다.
- 5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렀다.
- 6 그 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걸으러 지치신 예수님께서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 7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으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 8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 9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 10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나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나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 11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 12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 물을 마셨습니다."
- 13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 14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 15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으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 16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나라." 하고 말씀하셨다.
- 17 그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한 것은 맞는 말이다.

- 18 너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로 말하였다."
- 19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시군요.
- 20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베를 드렸습니까. 그런데 선생님께서 예베를 드려야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 21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베를 드릴 때가 온다.
- 22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베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베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 23 그러나 진실한 예베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베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베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 24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베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베를 드려야 한다."
- 25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시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시겠지요." 하였다.
- 26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 27 바로 그 때에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아무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또는 "저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고 묻지 않았다.
- 28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 두고 고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 29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 30 그리하여 그들이 고을에서 나와 예수님께 모여 왔다.
- 31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 "스승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 32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시자,
- 33 제자들은 서로 "누가 스승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더라도 하였다는 말인가?" 하고 말하였다.
- 34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였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 35 너희는 '아직도 너 달이 지나야 수확 때가 온다.' 하고 말하지 않느냐?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수확 때가 되었다. 이미
- 36 수확하는 이가 싹을 받고, 영원한 생명이 들어갈 알곡을 거두어들이고 있다. 그리하여 씨 뿌리는 이도 수확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다.
- 37 과연 '씨 뿌리는 이가 다르고 수확하는 이가 다르다.'는 말이 옳다.
- 38 나는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수확하려고 너희를 보냈다. 사실 수고는 다른 이들이 하였는데, 너희가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 39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여자가 "저분은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혔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 40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들을 머무르셨다.
- 41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42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왕실 관리의 아들을 살리사다 (마태 8,5-13 ; 루카 7,1-10)

- 43 이를 뒤에 예수님께서서는 그 곳을 떠나 갈릴래아로 가셨다.
- 44 예수님께서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하신 적이 있다.
- 45 예수님께서서 갈릴래아에 가시자 갈릴래아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들였다. 그들도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서 축제 때에 그 곳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 46 예수님께서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래아 가나로 다시 가셨다. 거기에 왕실 관리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파르나움에서 앓아 누워 있었다.
- 47 그는 예수님께서서 유다를 떠나 갈릴래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가파르나움으로 내려가시어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고 청하였다.
- 48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 49 그래도 그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 50 그러자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말씀하였다. "가라. 네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 51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마주 와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 52 그래서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나아지기 시작한 시간을 묻자, "어제 오후 한 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 53 그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네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하고 이르신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 54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유다를 떠나 갈릴래아로 가시어 두 번째 표장을 일으켰다.

벳타라 못 가에서 병자를 고치시다

- 5¹ 그 뒤에 유대인들의 축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 2 예루살렘의 '양 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타라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그 못에는 주렁이 다섯 채 딸렸는데,
- 3 그 안에는 눈먼 이, 절름거리의 이,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진 이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 4 (일부 수사본에는) "3b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4 이따금 주님의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 물을 출렁거리게 하였는데, 물이 출렁거린 다음 맨 먼저 못에 내려가는 이는 무슨 질병에 걸렸더라도 건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5 저기에는 서른여덟 해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 6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느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 7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에 저를 못 속에 넣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 8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네 들것을 들고 걸어라."

- 9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 날은 안식일이였다.
- 10 그래서 유대인들이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 11 그가 "나를 건강하게 해 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네 들것을 들고 걸어라.' 하셨습니다." 하고 그들에게 대답하자,
- 12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라.'고 한 사람이 누구요?"
- 13 그러나 병이 나은 이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다. 그 곳에 군중이 몰려 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다.
- 14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 15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대인들에게 알렸다.
- 16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 17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 18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아드님의 권한

- 1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

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 20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 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 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 21 아버지께서 죽은 아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아들을 다시 살린다.
- 22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 23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 25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 26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도록 해 주셨기 때문이다.
- 27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을 실행하는 권한도 주셨다.
- 28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 29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 30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옳바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

- 31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못하다.
- 32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 33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 34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함에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 35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 빛 속에서 즐거워하려고 하였다.
- 36 그러나 나에게서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 37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 38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도록 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 39 너희는 성서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언짢다는 생각으로 성서를 연구한다. 바로 그 성서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 40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려고 하지 않는다.
- 41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 42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 43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 44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 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 45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려 하고 생각하지는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 온 모세이다.
- 46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나에 관하여 성서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 47 그런데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오천 명을 먹이다 (마태 14,13-21 ; 마르 6,30-44 ; 루카 9,10-17)

- 6¹ 그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호수 곧 티베리아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 2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 3 예수님께서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 곳에 앉으셨다.
- 4 마침 유대인들의 축제인 과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 5 예수님께서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산계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 6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 7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려면 이백 데나리온 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 8 그 때에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 9 "여기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

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10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 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어른 남자만도 그 수가 오천 명쯤 되었다.
- 11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 12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 13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다섯 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열두 광주리가 가득 찼다.
- 14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 15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물 위를 걸으시다 (마태 14,22-33 ; 마르 6,45-52)

- 16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은 호수로 내려가서,
- 17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가파르나움으로 떠났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님께서서는 아직 그들에게 가지 않으셨다.
- 18 그 때에 큰 바람이 불어 호수에 물결이 높게 일었다.
- 19 그들이 배를 스물다섯이나 서른 스타디온쯤 저어 갔을 때,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 20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 21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들이려고 하는데, 배는 어느 새 그들이 가려

던 곳에 가 닿았다.

생명의 빵

22 이튿날, 호수 건너편에 남아 있던 군중은, 그 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3 그런데 티베리아에서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 빵을 나누어 먹이신 곳에 가까이 와 닿았다.

24 군중은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그 배들을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파르나움으로 갔다.

25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 내 고, "스승님, 언제 이 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2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27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28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2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는 것이다."

30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31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라는 성서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

다."

3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다.

33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34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3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36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37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38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39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40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41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분을 두고 투덜거리기 시작하였다.

42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고 말할 수 있는가?"

43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

너희끼리 투덜거리지 마라.

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45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46 그렇다고 하나님에게서 온 이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47 나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48 나는 생명의 빵이다.

49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50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52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대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5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54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이는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58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59 이는 예수님께서 가짜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

60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에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었는가?"

61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62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63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이다.

64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 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65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66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67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68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69 스승님께서 하나님의 기록하신 분이시라고

저희는 믿어 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70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열들을 뽑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이다."
71 이는 시몬 이스가리옷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사실 그는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이면서도 머지않아 예수님을 팔아 넘길 자였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믿지 않다

7 ¹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래이를 돌아다니셨다.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 2 마침 유대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웠다.
3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이 곳을 떠나 유대로 가서, 형님이 하는 일들을 형님의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4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남몰래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할 때에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5 사실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6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아무 때라도 상관 없지만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7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내가 세상을 두고 그 하는 일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8 너희나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거라. 나는 이번 축제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9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갈릴래이에 머무르셨다.

초막절에 가르치시다

- 10 형제들이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셨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남몰래 올라가셨다.

- 11 그래서 유대인들은 축제 동안에, "그 사람이 어디 있지?" 하면서 예수님을 찾았다.
12 군중들 사이에는 예수님을 두고 수군거리는 말이 많았다. "그는 착한 사람시오."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오 그는 군중을 속이고 있소." 하는 이들도 있었다.
13 그러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분에 관하여 드러내 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14 축제가 이미 중간을 넘어섰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셨다.
15 그러자 유대인들이 놀라워하며,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서를 잘 알지?" 하였다.
1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17 누구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원하기만 하면, 이 가르침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18 스스로 나서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찾는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찾는 이는 참되고, 또 그 사람 안에는 불의가 없다.
19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 도대체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20 군중이 "당신은 마귀가 들렸군.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시오?" 하고 대답하자,
2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을 뿐인데 너희는 모두 놀라워한다."
22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였다. — 사실 할례는 모세가 아니라 선조들에게서 비롯되었다. — 아무튼 너희는 안

식일에도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푼다.

- 23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하여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을 수 있다면, 어째서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온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준 것을 가지고 나에게 화를 내느냐?
- 24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올바르게 판단하여라."

저분이 그리스도이신가

- 25 예루살렘 주민 가운데에서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저 사람 아닙니까?"
- 26 그런데 보십시오, 저 사람이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최고의회 의원들이 정말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 27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 28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 29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 30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 31 그러나 군중 가운데에는, "메시아가 오시더라도 저분께서 일으키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일으키시겠는가?" 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다

- 32 군중이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수군거리는

소리를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그리하여 수석 사제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오라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다.

- 33 그러자 예수님께서서 이르셨다. "나는 잠시 동안만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 34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아 내지 못할 것이다. 또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 35 그러자 유대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에 가려고 하기에 우리가 자기를 찾아 내지 못한다는 말인가? 그리스인들 사이에 흩어져 사는 동포들에게 가서 그리스인들을 가르치겠다는 말인가?"
- 36 그리고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아 내지 못할 것이다. 또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 오라

- 37 축제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서는 일어서시어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 38 나를 믿는 사람은 성서의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
- 39 이는 당신을 믿는 이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와 계시지 않았던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

- 40 이 말씀을 들은 군중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저분은 참으로 그 예언자이시다." 하고,
- 41 다른 이들은 "저분은 메시아이시다."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메시아가 갈릴래아에서 나올 리가 없지 않은가?"
- 42 성서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그리고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 43 이렇게 군중 가운데에서 예수님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다.
- 44 그들 가운데 몇몇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하나도 없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도자들

- 45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오자 수석 사제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그 사람을 끌고 오지 않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물었다.
- 46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고 성전 경비병들이 대답하자,
- 47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속은 것이 아니냐?"
- 48 최고의회 의원들이나 바리새인들 가운데에서 누가 그를 믿더냐?
- 49 율법을 모르는 저 군중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 50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 51 "우리 율법에는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 보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52 그러자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도 갈릴래아 출신이라는 말이오? 성서를 연구해 보시오. 갈릴래아에서는 예언자가 나지 않소."

간음하다 잡힌 여자

- 53 그들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가고

8 ¹ 예수님께서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²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

- 셨다.
- 3 그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 놓고,
- 4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 5 모세께서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6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 7 그들이 줄곧 물어 대자 예수님께서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 8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 9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 10 예수님께서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 11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라. 그리고 이제 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 12 예수님께서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 13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으니, 당신의 증언은 유효하지 않

- 소" 하고 말하자,
- 1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여도 나의 증언은 유효하다.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 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 15 너희는 사람의 기준으로 심판하지만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 16 그리고 내가 심판을 하여도 내 심판은 유효하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함께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 17 너희의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유효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 18 바로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관하여 증언하신다."
- 19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 20 이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현금함 곁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을 잡지 않았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신원

- 21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간다. 너희는 나를 찾겠지만 자기의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 22 그러자 유대인들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하였다.
- 2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 24 그래서 너희는 자기의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의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 25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해 오지 않았느냐?"
- 26 나는 너희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도, 심판할 것도 많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참되시기에,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이 세상에 이야기할 따름이다."
- 27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 28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 29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 두지 않으신다.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 30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다.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

- 31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 32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 33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노릇 한 적

- 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까?"
- 3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 35 좋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 36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장님 자유롭게 될 것이다.
- 37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 38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실천한다."
- 39 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따라 해야 할 것이다.
- 40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 41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한 일을 따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오,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오."
- 4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 43 어찌하여 너희는 내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
- 44 너희는 너희 아버지 악마에게서 났고, 너희 아버지의 욕망대로 하기를 원한다. 그는 처

- 음부터 살인자로서 진리 편에 서 본 적이 없다.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 45 너희는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 46 너희 가운데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다면,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 47 하나님에게서 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 전부터 계신 분

- 48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인이고 마귀 들린 자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소?" 하였다.
- 49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마귀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모욕한다.
- 50 나는 내 영광을 찾지 않는다. 그것을 찾아 주시고 또 심판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
- 51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 52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마귀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그러하였는데, 당신은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소.
- 53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이 그분보다 훌륭하다는 말이오? 예언자들도 죽었소. 그런데 당신은 누구로 자처하는 것이오?"
- 54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다. 너희가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하는 바로 그분이다.

- 55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와 같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 56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 고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 57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쉰 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요?"
- 5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 59 그러자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몸을 숨겨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 주시다

9 ¹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 2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길래 저이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 3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 4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 때에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
- 5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

이다."

- 6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 7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괴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 8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 온 이들이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 9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요"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오, 그와 닮은 사람이요"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 10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하고 묻자,
- 11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흙을 개시어 내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 12 그들이 "그 사람 어디 있소?" 하고 물으니, 그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사이드들이 개입하다

- 13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드들에게 데리고 갔다.
- 14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 15 그래서 바리사이드들도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그에게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 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16 바리사이드들 가운데에서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 17 그리하여 그들이 다시 눈이 멀었던 이에게,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 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 이십니다."
- 18 유대인들은 그가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앞을 볼 수 있게 된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
- 19 그들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당신네 아들이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 20 그의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 21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 보십시오. 오 나이를 먹었으니 제 일은 스스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 22 그의 부모는 유대인들이 두려워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인들이 이미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 23 그래서 그의 부모가 "나이를 먹었으니 그에게 물어 보십시오." 하고 말한 것이다.
- 24 그리하여 바리새이들은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시오. 우리는 그자가 죄인임을 알고 있소" 하고 말하였다.
- 25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제가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것은 압니다."
- 26 "그가 당신에게 무슨 일을 하였소? 그가 어떻게 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소?"

- 하고 그들이 물으니,
- 27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서 다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말씀입니까?"
- 28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말하였다. "당신은 그자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요.
- 29 우리는 하느님께서서 모세께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오. 그러나 그자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오."
- 30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제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모르신다니, 그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 31 하느님께서서는 죄인들의 말을 들어 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누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말은 들어 주십니다.
- 32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해 주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 33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 34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오?"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참으로 눈이 먼 사람

- 35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만나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 36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 37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

이다."

- 38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 39 그 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 40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몇몇 바리새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우라도 눈먼 자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하고 말하였다.
- 4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고 말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

목자의 비유

- 10 ¹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게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다.
- 2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이다.
- 3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 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 4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 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 5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 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착한 목자다

- 7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 8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 9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 10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도록 얻게 하려고 왔다.
- 11 나는 착한 목자이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 12 삯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 떼를 흩어 버린다.
- 13 그는 삯꾼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 14 나는 착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15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 16 그러나 나에게서 이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가 될 것이다.
- 17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 18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 19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다시 논

란이 일어났다.

- 20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는 마귀가 들려 미쳤소.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듣고들 있소?" 하였다.
- 21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그가 한 말은 마귀 들린 자의 말이 아니오. 마귀는 눈먼 이들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다

- 22 그 때에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봉헌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 23 예수님께서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는데,
- 24 유대인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작정이오?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 주시오."
- 25 그러자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 26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 27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28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 29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어,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 30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 31 그러자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 32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다.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희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 주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

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 33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느님으로 자처하고 있소." 하고 대답하자,
- 34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다. "너희 율법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신들이다.' 하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 35 폐기될 수 없는 성서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내린 이들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 36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였다 해서, '당신은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소.'라고 할 수 있느냐?
- 37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지 않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 38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 39 그러자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났었다.

요르단 강 건너편으로 가시다

- 40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요르단 강 건너편, 요한이 전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물러가시어 그 곳에 머무르셨다.
- 41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분께 몰려와 서로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가 저분에 관하여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 42 그 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라자로가 죽다

- 11¹ 어떤 이가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 는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사는 마을인 베다니아의 라자로였다.
- 2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아 드린 여자인데, 그의 오빠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 3 그리하여 그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 4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 5 예수님께서 마르타와 그의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 6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 7 예수님께서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 8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 바로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스승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지렵니까?" 하자,
- 9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열두 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터다니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어디에 걸터 넘어지지 않는다.
- 10 그러나 밤에 걸터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으므로 걸터 넘어진다."
- 11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우리의 친구 라자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12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그가 잠들었다면 곧 나았지요." 하였다.
- 13 예수님께서 라자로가 죽었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냥 잠을 잔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 14 그제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이르

셨다. "라자로 는 죽었다.

- 15 내가 거기에 없었으므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나는 너희 때문에 마음이 기쁘다. 이제 라자로에게 가자."
- 16 그러자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하고 말하였다.

부활이며 생명인 예수님

- 17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 18 베다니아는 예루살렘에서 열다섯 스타디온쯤 되는 가까운 곳이어서,
- 19 많은 유대인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그 오빠의 일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었다.
- 20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 21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 22 그러나 하느님께서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 23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 24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 25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 26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 27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다

- 28 이렇게 말하고 나서 마르타는 돌아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스승님께서 오셨는데 너를 부르신다." 하고 가만히 말하였다.
- 29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얼른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 30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타가 당신을 맞으러 나왔던 곳에 그냥 계셨다.
- 31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그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따라갔다. 무덤에 가서 울려는 줄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 32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그분을 뵈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 33 마리아도 울고 또 그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 34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 35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 36 그러자 유대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 37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누런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 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라자로를 다시 살리시다

- 38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 39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 40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 41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서는 눈을 들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 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 드립니다.
- 42 아버지께서 언제나 저의 말씀을 들어 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둘러선 군중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이들이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 43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오너라."
- 44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최고 의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다 (마태 26,1-5 ; 마르 14,1-2 ; 루카 22,1-2)

- 45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 46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사이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 47 그리하여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의회를 소집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 48 저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오."
- 49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회의 대사제인 가야파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아무 것도 모르는군요.

- 50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소"
- 51 이 말은 가야파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사제로서 예언한 셈이다. 곧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돌아가 사리라는 것과,
- 52 이 민족만이 아니라 흠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기 위하여 돌아가 사리라는 것이다.
- 53 이렇게 하여 그들은 그 날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 54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더 이상 유대인들 가운데로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 곳을 떠나 광야에 가까운 고장의 에브라임이라는 고을에 가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 곳에 머무르셨다.
- 55 유대인들의 과월절이 가까이 다가오자, 많은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과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 56 그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성전 안에 모여 서서 서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요? 그가 축제를 지내러 오지 않을까요?"
- 57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알면 신고하라는 명령을 내려 두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다 (마태 26,6-13 ; 마르 14,3-9)

- 12** ¹ 예수님께서서는 과월절 열새 전에 베다니야로 가셨다. 그 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킨신 라자로가 살고 있었다.
- ²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마르티는 시중을 들고 라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 ³ 그런데 마리아가 값진 순 나르드 향유 한 리트리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 드렸다. 그러자 온 집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 ⁴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유다 이스가리옷이 말하였다.
- ⁵ "어찌하여 저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 ⁶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챌까 하였다.
- ⁷ 예수님께서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가만 두어라. 그래서 내 장례 날을 위하여 이 기쁨을 간직하게 하여라.
- ⁸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라자로까지 죽이기로 결의하다

- ⁹ 예수님께서서 그 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몰려왔다.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킨신 라자로도 보려는 것이었다.
- ¹⁰ 그리하여 수석 사제들은 라자로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 ¹¹ 라자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떨어져 나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 임하시다 (마태 21,1-11 ; 마르 11,1-11 ; 루카 19,28-38)

- ¹² 이튿날, 축제를 지내러 온 많은 군중이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 ¹³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 이렇게 외쳤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이스라엘의

임금님은 복되시어라."

- 14 예수님께서서는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 앉으셨다. 이는 성서에 기록된 그대로였다.
- 15 '딸 시몬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오신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 16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신 뒤에야, 이 일이 예수님을 두고 성서에 기록되었고 또 사람들이 그분께 그대로 하였음을 기억하게 되었다.
- 17 그리고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무덤에서 불러 내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킬 때에 그분과 함께 있던 군중이 그 일을 줄곧 증언하였다.
- 18 군중이 이렇게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것은, 그분께서 그 표징을 일으키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 19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자, 이제 다 끝났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의 뒤를 따라가오."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찾다

- 20 축제 때에 예베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이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 있었다.
- 21 그들은 갈릴래이의 베싸이다 출신 필립보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뵈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 22 필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필립보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 23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 25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 26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이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들어 올려져야 한다

- 27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 28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라는 소리가 들려 왔다.
- 29 그 곳에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찬동이 울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 30 예수님께서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나니아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 31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 32 내가 땅에서 들어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들일 것이다."
- 33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 34 그 때에 군중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율법에서 메시아는 영원히 사할 것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사람의 아들이 들어올려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 35 그러자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빛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빛이 너희 곁에 있는 동안에 걸어가라. 그래서 어둠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36 빛이 너희 곁에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어, 빛의 자녀가 되어라."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을 떠나 몸을 숨기셨다.

유대인들의 불신

37 예수님께서서는 그들 앞에서 그토록 많은 표징을 일으키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38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한 말이 이루어지고 그리 된 것이다. "주님,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습니까?"

39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40 "주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였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 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41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 또 그분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기 때문이다.

42 사실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바리새이들 때문에 회당에서 내쫓길까 두려워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였다.

43 그들이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보다 사람에게서 받는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과 심판

44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45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46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47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48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49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친히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50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제자들의 말을 씻어 주시다

13¹ 과월절이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갈 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분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2 만찬 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3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4 식탁에서 일어나서어 걸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5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으시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6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7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8 그레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몫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9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10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 몸이 깨끗하여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 않다."

11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을 팔아 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12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다음, 겹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13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내가 사실 그러하다.

14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15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

16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좋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17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18 내가 너희를 모두 가리켜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뽑은 이들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제 빵을 먹던 그가 발꿈치를 치켜들며 저에게 대들었습니다.'라는 성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19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해 둔다.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나임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20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이를 맞이하는 사람은 나를 맞이하는 것이고, 나를 맞이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이하는 것이다."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고하시다 (마태 26,20-25 ; 마르 14,17-21 ; 루카 22,21-23)

21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 놓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22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23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바로 곁에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24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깃것을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쭙어 보라고 하였다.

25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26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가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27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 때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28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29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우리가 축 제에 필요한 것을 사거라."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30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새 계명

31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었다."

32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모든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33 애들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 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할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34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 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당신을 모른다고 할 것을 예고하시다 (마태 26,31-35 ; 마르 14,27-31 ; 루카 22,31-34)

36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37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라면 제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38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버지께 가는 길

14 ¹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2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3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4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그 길을 알고 있다."

5 그러자 토마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었습니까?"

6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7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뵈는 것이다."

8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뵈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9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나?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뵈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 '저희가 아버지를 뵈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10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

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 11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 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 13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 14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성령을 약속하시다

- 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 16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 17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 18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 19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20 그 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 21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아팰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 22 이스카리옷이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에게는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시겠다고 무슨 까닭입니까?" 하자,
- 23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 24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 25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 26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 27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 28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는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 29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 30 나는 너희와 더 이상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않겠다.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오고 있

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아무 권한도 없다.

31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일어나 가자.

나는 참포도나무다

15 ¹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다.

2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

3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4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6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 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 버린다.

7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8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10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

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11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12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13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14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15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16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17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18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나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19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20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21 그러나 그들은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 그 모든 일을 저지를 것이다.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 22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들의 죄를 변명할 구실이 없다.
- 23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까지 미워한다.
- 24 일찍이 다른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와 내 아버지까지 미워하였다.
- 25 이는 그들의 율법에 '그들은 까닭없이 저를 미워하였습니다.'라고 기록된 말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다.
- 26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로 보낼 보호자,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 27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할 것이다.

- 16** ¹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 ²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게다가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온다.
- ³ 그들이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짓을 할 것이다.
- 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그들의 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처음부터 이 말을 너희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 ⁵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그런데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에 아무도 없다.

- ⁶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였고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 ⁷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 ⁸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 ⁹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을 나를 만지 않기 때문이고,
- ¹⁰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 ¹¹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 ¹²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 ¹³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 ¹⁴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 ¹⁵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이별의 슬픔과 재회의 기쁨

- ¹⁶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 ¹⁷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서로 말

하였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18 그들은 또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군." 하고 말하였다.

19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묻고 싶어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내가 말한 것을 가지고 서로 물어 보느냐?

20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21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싸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22 이처럼 너희도 지금은 근심에 싸여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23 그 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24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25 나는 지금까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비유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 너희에게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께 관하여 드러내 놓고 너희에게 알려 줄 때가 온다.

26 그 날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청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청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27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왔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28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29 그러자 제자들이 말하였다. "이제는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시고 비유는 말씀하지 않으시는군요.

30 저희는 스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누가 스승님께 물을 필요도 없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스승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나오셨음을 믿습니다."

3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32 그러나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 두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 아니, 이미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33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당신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라

17 ¹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어,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십시오.

2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대한 권함을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이에게 아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하십시오.

3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나님인 아버

자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 4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 5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다

- 6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으시어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 7 이제 이들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 8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들에게 주고, 이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제가 아버지에게서 나왔음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 9 저는 이들을 위하여 바랍니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하여 바랍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 10 저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제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 11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 12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들을 보호하여, 성서 말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외

에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 13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 14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15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 주십시오.
- 16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 17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 18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 19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다

- 20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바랍니다.
- 21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음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 22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 23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음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

입니다.

- 24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 25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저는 늘 아버지를 알아 왔습니다. 또한 그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 26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 주었고 앞으로 알려 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잡히시다 (마태 26,47-56 ; 마르 14,43-50 ; 루카 22,47-53)

- 18 ¹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 곳에 들어가셨다.
- 2 예수님께서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 넘길 유다도 그 곳을 알고 있었다.
- 3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 4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 5 그들이 "나자렛 사람 예수요."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나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팔아 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 6 예수님께서서 "나다." 하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 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 7 예수님께서서 다시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나자렛 사람 예수요." 하고 대답하였다.

- 8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셨다. "'나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 9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 10 그 때에 칼을 가지고 있던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 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 11 그러자 예수님께서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았느냐?"

한나스의 신문과 베드로의 부인 (마태 26,57-75 ; 마르 14,53-72 ; 루카 22,54-71)

- 12 군대와 그 대장과 유대인들의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 13 먼저 안나스에게 데려갔다. 안나스는 그 회의 대사제 가야파의 장인이었다.
- 14 그리고 가야파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낫다고 유대인들에게 충고한 자이다.
- 15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저택 안뜰에 들어갔다.
- 16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 17 그 때에 그 문지기 하녀가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하

- 자, 베드로가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 18 날이 추워 종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 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 19 대사제는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 20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 21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 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 22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서 있던 성전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며, "대사제가 그 따위로 대답하느냐?" 하였다.
- 23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 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 24 안나스는 예수님을 결박된 그대로 가야파에게 보냈다.
- 25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하고 물었다. 베드로는 "나는 아니요." 하며 부인하였다.
- 26 대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라 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 27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답이 올았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다 (마태 27,1-2 ; 마태 27,11-14 ; 마르 15,1-5 ; 루카

23,1-5)

- 28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야파의 저택에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이 더러워져서 과일철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 29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요?" 하고 물었다.
- 30 그들이 빌라도에게, "저자가 범죄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오." 하고 대답하였다.
- 31 빌라도가 그들에게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하자, 유대인들이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소." 하고 말하였다.
- 32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 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 33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이요?" 하고 물었다.
- 34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네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하여 너에게 말해 준 것이냐?" 하고 되물으셨다.
- 35 "나야 유대인이 아니잖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오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하고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 36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으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 37 빌라도가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내가 말하

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38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

사형 선고를 받으시다 (마태 27,15-31 ; 마르 15,6-20 ; 루카 23,13-25)

39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내가 과일절에 죄수 하나를 풀어 주는 관습이 있소. 내가 유대인들의 임금을 풀어 주기를 원하오?"

40 그러자 그들이 다시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빠를 풀어 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빠는 강도였다.

19 ¹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

2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나서,

3 그분께 다가가 "유대인들의 임금님, 만세!" 하며 그분의 뺨을 쳐댔다.

4 빌라도가 다시 나와 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라는 것이요."

5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자, 이 사람이오." 하고 말하였다.

6 그 때에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여러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하겠소." 하자,

7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소. 이 율법에 따르면 그자는 죽여 마땅하오.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기 때문이요."

8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9 그리하여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당신은 어디서 왔소?" 하고 물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10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는 당신을 풀어 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11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12 그 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 줄 방도를 찾았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풀어 주면 총독께서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요. 누구든지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요." 하고 외쳤다.

13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리토스트로토스라고 불리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로토스는 히브리 말로 가빠타라고 한다.

14 그 날은 과일절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열두 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오." 하고 말하였다.

15 그러자 그들이 외쳤다. "없애 버리시오. 없애 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

가에 못박으라는 말이오?" 하고 물으니, 수석 사제들이 "우리 임금은 황제뿐이오" 하고 대답하였다.

16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내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 받았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마태 27,32-44 ; 마르 15,21-32 ; 루카 23,26-43)

17 예수님께서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 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18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박았다.

19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임금 나 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20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

21 그래서 유대인들의 수석 사제들이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유대인들의 임금'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대인들의 임금이다.' 하고 저자가 말하였다고 쓰시오."

22 그러나 빌라도는 "내가 한 번 썼으면 그만이오" 하고 대답하였다.

23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뭉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뭉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술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24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주사위를 던지자."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라고 한 성서 말씀이 이루어지려

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25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26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27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네 어머니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숨을 거두시다 (마태 27,45-56 ; 마르 15,33-41 ; 루카 23,44-49)

28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서는 성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29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꿰어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30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다 이루어졌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군사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다

31 그 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서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32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서뜨렸다.

33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서뜨리는 대신,

- 34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 나왔다.
- 35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 36 "그의 뼈가 하나도 부서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서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 37 또 다른 성서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썩은 이를 바리블 것이다." 하고 말한다.

물하시다 (마태 27,57-61 ; 마르 15,42-47 ; 루카 23,50-56)

- 38 그 뒤에 아리마태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 39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백 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 40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료와 함께 아마포로 감쌌다.
- 41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으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 42 그 날은 유대인들의 준비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부활하시다 (마태 28,1-8 ; 마르 16,1-8 ; 루카 24,1-12)

- 20** ¹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

었다.

- 2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까.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3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 4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 5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 6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 7 예수님의 얼굴을 찡뚱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 8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 9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서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 10 그 제자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시다 (마태 28,9-10 ; 마르 16,9-11)

- 11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 12 들여다 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 13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 갔습니까.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14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 15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이 정원지기인 줄로 생각하고, "선생님,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 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 16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랍부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 17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불렀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이시며 너희의 아버지이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 18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뵈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사명을 부여하시다 (마태 28,16-20 ; 마르 16,14-18 ; 루카 24,36-49 ; 사도 1,6-8)

- 19 그 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20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 21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 22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예수님과 토마스

- 24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 25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응답하였다.
- 26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이르셨다.
- 27 그리고 나서 토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뺀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 28 토마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 29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복음서를 쓴 목적

- 30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켰다.
- 31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 21** ¹ 그 뒤에 예수님께서서는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셨다.
- ²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 갈릴래아 가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대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 ³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 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 ⁴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 이신 줄 알지 못하였다.
- ⁵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구나?"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 ⁶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 ⁷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걸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 들었다.
- ⁸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물에서 백 미터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 ⁹ 그들이 물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 ¹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 ¹¹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물으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백천세 마리아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 ¹²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들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 ¹³ 예수님께서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 ¹⁴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예수님과 베드로

- ¹⁵ 그들이 아침을 든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아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 ¹⁶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양들을 돌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 ¹⁷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므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 ¹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매고 원하는

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매어 주고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 19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와 베드로

- 20 베드로가 돌아서서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 제자는 만찬 때에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 있다가, "주님, 주님을 팔아 넘길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 21 그 제자를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 22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 23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이 제자가 죽지 않으리라는 말이 퍼져 나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가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쥬은이의 맺음말

- 24 이 제자가 이 일들을 증언하고 또 기록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 25 예수님께서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알이 기록하면,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온 세상이라도 다 담

아 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신약성경 - 5

사도행전

사도행전

총 28 장

총 1,002 절

[신약서경] - [사도행전]

머리말

- 1** ¹ 테오필로스 님,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습니다.
- 2** 예수님께서 당신이 뽑으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분부를 내리시고 나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다 다루었습니다.
- 3** 그분께서는 수난을 받으신 뒤, 당신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사도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어,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4**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에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 5**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승천

- 6**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 물었다. “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 7**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 8**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 9**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 10**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 11** 이렇게 말하였다. “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기도하는 사도들

- 12** 그 뒤에 사도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산은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었다.
- 13** 성안에 들어간 그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위층 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아, 필립보와 토마스, 바르톨로메오와 마테오, 알헤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혈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 14**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마티아를 사도로 뽑다

- 15** 그 무렵 베드로가 형제들 한가운데에 서서 말하였다. 그 자리에는 백스무 명까랑 되는 무리가 모여 있었다.
- 16** “ 형제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서는,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 17** 유다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함께 이 직무를 받았습시다.
- 18** 그런데 그자는 부정한 값으로 밧을 산 뒤, 거꾸로 떨어져 배가 터지고 내장이 모조리 쏟아졌습시다.
- 19** 이 일이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알려져, 그 밧이 그들의 지방 말로 ‘ 하켈 드마’ 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 피밭’ 이라는 뜻입니다.

- 20 사실 시편에 ‘ 그의 처소가 황폐해지고 그 안에 사는 자 없게 하소서.’ 또 ‘ 그의 직책을 다른 이가 넘겨받게 하소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 21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 줄곧 우리와 동행한 이들 가운데에서,
- 22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승천하신 날까지 그렇게 한 이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 23 이렇게 기도하였다. “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둘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뽑으신 한 사람을 가리키시어,
- 24 그래서 그들은 바르사사스라고도 하고 유스투스라는 별명도 지닌 요셉과 마티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
- 25 유다가 제 갈 곳으로 가려고 내버린 이 직무, 곧 사도직의 자리를 넘겨받게 해 주십시오.”
- 26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티아가 뽑혀, 그가 열한 사도와 함께 사도가 되었다.
- 6 그 말소리가 나와 무리를 지어 몰려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 말로 듣고 어리둥절해하였다.
- 7 그들은 놀리워하고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 지금 말하고 있는 자들은 모두 갈릴래아 사람들이 아닌가?
- 8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인가?
- 9 파르티아 사람, 메디아 사람, 엘람 사람,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카파도키아와 폰토스와 아시아 주민,
- 10 프리기아와 팜필리아와 이집트 주민, 키레네 부근 리비아의 여러 지방 주민, 여기에 머무르는 로마인,
- 11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들, 그리고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 우리가 저들이 하느님의 위업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 12 그들은 모두 놀리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며, “ 도대체 어찌 된 영문인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 13 그러나 더러는 “ 새 포도주에 취했군.” 하며 비웃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 성령 강림
- 2¹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 2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 안을 가득 채웠다.
- 3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 4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 5 그때에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 14 그때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 유대인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 15 지금은 아침 아홉 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취하지 않았습니다.
- 16 이 일은 요엘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 17 ‘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라. 그리하여 너희 아들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 18 그날에 나의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 주리니 그들도 예언을 하리라.
- 19 또 나는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아래로 땅에서는 표징들을 일으키리니 곧 피와 불과 질은 언기다.
- 20 그 크고 찬란한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해는 어둡으로, 달은 피로 바뀌리라.
- 21 그때에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 22 이스라엘인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확인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일으키셨습니다.
- 23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지신 그분을, 여러분은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 24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 25 그래서 다윗이 그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언제나 주님을 내 앞에 모시어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 26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뻐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신마저 희망 속에 살리라.
- 27 당신께서 제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이에게 죽음의 나라를 아니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 28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 당신 면전에서 저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 29 형제 여러분, 나는 다윗 조상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묻혔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 30 그는 예언자였고, 또 자기 몸의 소생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자기 왕좌에 앉혀 주시겠다고 하느님께서서 맹세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31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견하며 ‘그분은 저승에 버려지지 않으시고 그분의 육신은 죽음의 나라를 보지 않았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 32 이 예수님을 하느님께서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입니다.
- 33 하느님의 오른쪽으로 들어 올려지신 그분께서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다음,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그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 34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지만 그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이라,
- 35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 36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 두십시오. 하느님께서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개종한 첫 사람들

- 37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꿰뚫리듯 아파하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 38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 39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또 멀리 있는 모든 이들, 곧 주 우리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에게 해당됩니다.”
- 40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증거를 들어 간곡히 이야기하며,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하고 타일렀다.
- 41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날에 신자가 삼천 명가량 늘었다.

첫 신자 공동체의 생활

- 42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 43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 44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 45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 46 그들은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 47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베드로가 불구자를 고치다

- 3¹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세 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 2 모테에서부터 불구자였던 사람 하나가 들려왔다. 성전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자선을 청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를 날마다 ‘이름다운 문’ 이라고 하는 성전 문 곁에 들어다 놓았던 것이다.

- 3 그가 성전에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자선을 청하였다.
- 4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를 유심히 바라보고 나서, “우리를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 5 그가 무엇인가를 얻으리라고 기대하며 그를 쳐다보는데,
- 6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 7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그가 즉시 발과 발목이 튼튼해져서
- 8 벌떡 일어나 걸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꺾충꺾뛰기도 하고 하느님을 찬미하기도 하였다.
- 9 온 백성은 그가 걷기도 하고 하느님을 찬미하기도 하는 것을 보고,
- 10 또 그가 성전의 ‘이름다운 문’ 곁에 앉아 자선을 청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경탄하고 경악하였다.

베드로가 솔로몬 주랑에서 설교하다

- 11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을 떠나지 않고 있는데, 온 백성이 크게 경탄하며 ‘솔로몬 주랑’ 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들에게 달려갔다.
- 12 베드로는 백성을 보고 말하였다. “이스라엘인 여러분, 왜 이 일을 이상히 여집니까? 또 우리의 힘이나 신심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들거나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유심히 바라봅니까?
- 13 여러분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그분을 놓아주기로 결정한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느님과 이사야의 하느님과 야곱의 하느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 14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배척하고 살인자를 풀어 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 15 여러분은 생명의 영도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 16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바로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또 아는 이 사람을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그분에게서 오는 믿음이 여러분 모두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해 주었습니다.
- 17 이제,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한 탓으로 그렇게 하였음을 압니다.
- 18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당신의 메시아께서 고난을 겪으시리라고 예고하신 것을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 19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
- 20 그러면 다시 생기를 찾을 때가 주님에게서 올 것이며,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정하신 메시아 곧 예수님을 보내 주실 것입니다.
- 21 물론 이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께서 예로부터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만물이 복원될 때까지 하늘에 계셔야 합니다.
- 22 모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서는 너희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야 한다.’
- 23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서 잘려 나갈 것이다.’
- 24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 말씀을 전한 모든 예언자도 지금의 이때를 예고하였습니다.
- 25 여러분은 그 예언자들의 자손이고, 또 하느

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희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시며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어 주신 계약의 자손입니다.

- 26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종을 일으키시고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시어, 여러분 하나하나를 악에서 돌아서도록 하여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최고 의회에서 증언하다

4¹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카이들이 다가왔다.

- 2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내세워 죽은 이들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을 불쾌히 여기고 있었다.
- 3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이미 저녁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 4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믿게 되어, 장정만도 그 수가 오천 명가량이 되었다.
- 5 이튿날 유다 지도자들과 원로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 6 그 자리에는 한나스 대사제와 카이파와 요한과 알렉산드로스와 그 밖의 대사제 가문 사람들도 모두 있었다.
- 7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 놓고, “당신들은 무슨 힘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였소?” 하고 물었다.
- 8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원로 여러분,
- 9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한 사실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문제로 오는 신문물을 받는 것이라면,
- 10 여러분 모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곧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온전한 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 11 이 예수님께서 ‘너희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 이십니다.
- 12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 13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또 이들이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임을 알아차리고 놀라워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 14 그러나 병이 나은 사람이 사도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반박도 하지 못하였다.
- 15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최고 의회에서 나가라고 명령한 다음, 저희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을 통하여 명백한 표징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알려진 타이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 17 그러나 이 일이 더 이상 백성 가운데로 퍼져 나가지 않도록, 다시는 아무에게도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만 합시다.”
- 18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지시하였다.
- 19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느님 앞에 옳은 일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 20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21 그들은 백성 때문에 그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거듭 위협만 하고 풀어 주었다. 그 일로 백성이 모두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다.
- 22 그 치유의 표징이 일어난 이는 마흔 살이 넘는 사람이었다.

공동체가 하느님께 기도하다

- 23 이렇게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들에게 가서,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 24 동료들은 그 말을 듣고 한마음으로 목소를 높여 하느님께 이뢰었다. “주님,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 25 주님께서서 성령으로 주님의 종인 저희 조상 디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민족들이 술렁거리며 겨레들이 헛말을 꾸미는가?’
- 26 주님을 거슬러, 그분의 기름부음받은이를 거슬러 세상의 임금들이 들고일어나며 군주들이 함께 모였구나.’
- 27 과연 헤로데와 본시오 빌라도는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분, 곧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을 없애려고, 다른 민족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과도 함께 이 도성에 모여,
- 28 그렇게 되도록 주님의 손과 주님의 뜻으로 예정하신 일들을 다 실행하였습니다.
- 29 이제, 주님! 저들의 위협을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아주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30 저희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서 손을 뻗으시어 병자들을 고치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징과 이적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 31 이렇게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면서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다.

초대 교회의 공동체 생활

- 32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 33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 34 그들 가운데에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 35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
- 36 키프로스 태생의 레위인으로, 사도들에게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르나바라는 별명을 얻은 요셉도,
- 37 자기가 소유한 땅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하나니아스와 사피라

- 5¹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사피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는데,
- 2 아내의 동의 아래, 판 값의 일부를 떼어 놓고 나머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 3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하나니아스, 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떼어 놓았소?”
- 4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 것이었고, 또 팔린 뒤에도 그 돈은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요? 그런데 어찌자고 이런 일을 하려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 5 하나니아스는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지고 말았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 6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써서 메고 나가 묻었다.
- 7 세 시간쯤 지나서 하나니아스의 아내가 그 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한 채 들어왔다.
- 8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나에게 말해 보시오. 그대들이 땅을 이만큼 받고 팔았소?” 하고 물으니, 그 여자가 “예, 그만 큼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9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어찌자고 그대들은 서로 공모하여 주님의 영을 시험하는 것이요? 보시오, 그대 남편을 묻은 이들이 바로 문 앞에 이르렀소. 그들이 당신도 메고 나갈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 10 그러자 그 여자도 즉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숨지고 말았다. 그 젊은이들이 들어와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 메고 나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 11 그리하여 온 교회와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키다

- 12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에서 많은 표징과 이적이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솔로몬 주랑에 모이곤 하였다.
- 13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감히 그들 가운데에 끼여들지 못하였다. 백성은 그들을 존경하여,
- 14 주님을 믿는 남녀 신자들의 무리가 더욱더 늘어났다.
- 15 그리하여 사람들은 병자들을 한길까지 데려다가 침상이나 들것에 눕혀 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누구에게나 드리워지기를 바랐다.
- 16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고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과 또 더러운 영에게 시달리는 이들을 데리고 몰려들었는데, 그들도 모두 병이 나았다.

사도들이 박해를 받다

- 17 그러자 대사제가 자기의 모든 동조자 곧 사두카이파와 함께 나섰다. 그들은 시기심에 가득 차
- 18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공영 감옥에 가두었다.
- 19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와 말하였다.
- 20 “가거라.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 백성에게 전하여라.”
- 21 그 말을 듣고 사도들은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가 가르쳤다. 한편 대사제와 그의 동조자들은 모여 와서 최고 의회 곧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원로단을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 22 경비병들이 감옥에 이르러 보니 사도들이 없으므로 되돌아가 보고하였다.
- 23 “저희가 보니 감옥 문은 굳게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 보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 24 성전 경비대장과 수석 사제들은 이 말을 듣고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며, 사도들 때문에 몹시 당황해하였다.
- 25 그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보고하였다. “여러분께서 감옥에 가두신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 26 그러자 성전 경비대장이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백성에게 돌을 맞을까 두려워 폭력을 쓰지는 않았다.
- 27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최고 의회에 세워 놓자 대사제가 신문하였다.
- 28 “우리가 당신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지시하지 않았소? 그런데 보시오, 당신들은 온 예루살렘에 당신들의 가르침을 퍼뜨리면서, 그 사람의 피에

-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소.”
- 29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 30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 31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영도자와 구원자로 삼아 당신의 오른쪽에 들어 올리시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 32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 33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 34 그때에 최고 의회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났다.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율법 교사로서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사이였다. 그는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한 뒤,
- 35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인 여러분, 저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잘 생각하십시오.
- 36 얼마 전에 테우다스가 나서서, 자기가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였을 때에 사백 명 가량이나 되는 사람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해되자 그의 추종자들이 모두 흩어져 끝장이 났습니다.
- 37 그 뒤 호적 등록을 할 때에 갈릴래아 사람 유다가 나서서 백성을 선동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게 되자 그의 추종자들이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 38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 일에 관여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저들의 그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없어질 것입니다.
- 39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면 여러분이 저들을 없애지 못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여러분이 하느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가말리엘의 말에 수긍하고,

- 40 사도들을 불러들여 매질한 다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고서는 놓아주었다.
- 41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며, 최고 의회 앞에서 물러 나왔다.
- 42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이 집 저 집에서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예수님은 메시아시라고 선포하였다.

일곱 봉사자를 뽑다

- 6¹ 그 무렵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자, 그리스계 유대인들이 히브리계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 배급을 받을 때에 홀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 2 그래서 열두 사도가 제자들의 공동체를 불러 모아 말하였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식탁 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3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 4 우리는 기도과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 5 이 말에 온 공동체가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테파노, 그리고 필리포스, 프로코로스, 니카노르, 티몬, 파르메나스, 또 유다교로 개종한 안티오키아 출신 니콜라오스를 뽑아,
- 6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인수하였다.
- 7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나, 예루살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사제들의 큰 무

리도 믿음을 받아들였다.

스테파노가 체포되다

- 8 은총과 능력이 충만한 스테파노는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과 표징들을 일으켰다.
- 9 그때에 이른바 해방민들과 키레네인들과 알렉산드리아인들과 칼리키아와 아시아 출신들의 회당에 속한 사람 몇이 나서서 스테파노와 논쟁을 벌였다.
- 10 그러나 그의 말에서 드러나는 지혜와 성령에 대항할 수가 없었다.
- 11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우리는 그가 모세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 12 또 백성과 원로들과 율법 학자들을 부추기고 나서, 느닷없이 그를 붙잡아 최고 의회로 끌고 갔다.
- 13 거기에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이런 말을 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끊임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합니다.
- 14 사실 저희는 그 나자렛 사람 예수가 이곳을 허물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물려준 관습들을 뜯어고칠 것이라고, 이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 15 그러자 최고 의회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테파노를 유심히 바라보았는데,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

스테파노가 최고 의회에서 설교하다

- 7¹ 대사제가 “그게 사실이요?” 하고 묻자
- 2 스테파노가 말하였다. “부형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자리를 잡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느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 3 ‘네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거라.’ 하고 이르셨습니다.
- 4 그리하여 그는 칼데아인들의 땅을 떠나 하

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옮겨 오게 하셨습니다.

5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곳에서 한 치의 땅도 상속 재산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가 아직 자식이 없는데도, 그와 그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6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후손은 남의 나라에서 나그네살이하며 사백 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7 그러나 그의 후손들이 종이 되어 섬길 민족을 나는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또 이르셨습니다. ‘그 뒤에 그들은 빠져나와 이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8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할례의 계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시악을 낳고 여드레째 되는 날에 할례를 베풀었으며, 이시악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열두 선조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9 그런데 이 선조들은 요셉을 시기한 나머지 이집트에 팔아넘겨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시면서,

10 모든 재난에서 그를 구하시고 이집트 임금 파라오 앞에서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하여 파라오는 그에게 이집트와 자기의 온 집안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11 그때에 온 이집트와 가나안에 기근이 닥쳐 재난이 극심하였는데, 우리 조상들도 양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12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 조상들을 처음으로 그리 보냈습니다.

13 그리고 두 번째로 보냈을 때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파라오도 요셉의 가족들을 알게 되

었습니다.

14 요셉은 사람을 보내어 아버지 야곱과 일흔 다섯 명이나 되는 자기 친족을 모두 불러 오게 하였습니다.

15 그래서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야곱도 죽고 우리 조상들도 죽었습니다.

16 그들의 유해는 스켄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스켄에 있는 하모르의 아들들에게 은전을 주고 사 둔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17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짐하신 약속이 실현될 때가 다가오자, 우리 백성은 이집트에서 늘어나고 불어났습니다.

18 그러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이 이집트에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19 그자는 우리 겨레에게 간계를 부리고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여, 갓난아기들을 버리게 하고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20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여운 아기였습니다. 그는 석 달 동안 아버지 집에서 자라다가

21 버려졌는데, 파라오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키웠습니다.

22 그리하여 모세는 이집트인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힘이 있었습니다.

23 마흔 살이 다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볼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24 어느 날 그는 자기 동족 가운데 한 사람이 부당한 일을 겪는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 학대받은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를 위하여 양값을 해 주었습니다.

25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동족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동족들이 깨달을 줄로 생각하였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26 이튿날 모세는 서로 싸우고 있는 동족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평화롭게 화해시키려고

‘여보시오, 당신들은 한 형제라오. 그런데 왜 서로를 해를 끼치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27 그러자 동료에게 해를 입히던 자가 모세를 때밀며 대꾸하였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판관으로 세우기라도 했소?’

28 어제 이집트인을 죽였듯이 나도 죽일 작정이요?’

29 이 말에 모세는 달이나 미디안 땅에서 나 그네살이하며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30 사십 년이 다 찼을 때, 시나이 산 광야에서 천사가 떨기나무 불길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31 그것을 본 모세는 그 광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주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2 ‘나는 네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이다.’ 모세는 몸이 떨려 자세히 불 엄두도 내지 못하였습니다.

33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습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34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그들의 신음 소리도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구해 내려고 내려왔다. 이제 가거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낸다.’

35 이 모세를, ‘누가 당신을 지도자와 판관으로 세우기라도 했소?’ 하며 사람들이 배척한 이 사람을, 하느님께서 떨기나무에 나타난 그 천사를 시켜 지도자와 해방자로 보내셨습니다.

36 이 사람이 이집트 땅과 홍해에서, 또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이적과 표징들을 일으키며 그들을 이끌어 냈습니다.

37 ‘하느님께서 너희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한 이가 바로 이 모세입니다.

38 이 사람은 광야의 집회 때, 시나이 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에 중개자가 되어, 살아 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39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에게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제쳐 놓고 마음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40 그러면서 아론에게 말하였습니다. ‘앞장 서서 우리를 이끄실 신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저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41 그때에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작품을 놓고 즐거워하였습니다.

42 그리하여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을 외면하시고, 그들이 하늘의 군대를 섬기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는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광야에서 지낸 사십 년 동안 나에게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바친 적이 있느냐?’

43 너희는 오히려 몰록의 천막과 너희 재판신의 별을, 곧 너희가 경배하려고 스스로 만들어 낸 상들을 떠메고 다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바빌론 너머로 유배를 보내리라.’

44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 있을 때에 증언의 천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께서 지시하신 대로, 자기가 본 모형에 따라 모세가 만든 것입니다.

45 이 천막을 물려받은 우리 조상들은 하느님께서 자기들 앞에서 쫓아내신 다른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 다윗 시대까지 이르렀습니다.

46 다윗은 하느님의 총애를 받은 사람으로서,

- 아름 집안을 위하여 하느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 달라고 간구하였지만,
- 47 하느님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 48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는 살지 않으십니다. 이는 예언자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 49 ‘ 하늘이 나의 어좌요 땅이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무슨 집을 지어 주겠는 것이냐? —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또 나의 안식처가 어디 있느냐?’
- 50 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지 않았느냐?’
- 51 목이 뻗뻗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줄곧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조상들과 똑같습니다.
- 52 예언자들 가운데 여러분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의로우신 분께서 오시리라고 예고한 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그 의로우신 분을 배신하고 죽였습니다.
- 53 여러분은 천사들의 지시에 따라 울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스테파노가 순교하다

- 54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화가 치밀어 스테파노에게 이를 갈았다.
- 55 그러나 스테파노는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가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니, 하느님의 영광과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다.
- 56 그래서 그는 “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 57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 그리고 일제히 스테파노에게 달려들어,
- 58 그를 성 밖으로 몰아내고서는 그에게 돌을 던졌다. 그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

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었다.

- 59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에 스테파노는, “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 60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스테파노는 이 말을 하고 잠들었다.

교회가 박해를 받다

- 8 ¹ 사울은 스테파노를 죽이는 일에 찬동하고 있었다.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사도들 말고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 2 독실한 사람 몇이 스테파노의 장사를 지내고 그를 생각하며 크게 통곡하였다.
- 3 사울은 교회를 없애 버리려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든 여자든 끌어다가 감옥에 넘겼다.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파되다

- 4 한편 흩어진 사람들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였다.
- 5 필리포스는 사마리아의 고을로 내려가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 6 군중은 필리포스의 말을 듣고 또 그가 일으키는 표징들을 보고, 모두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 7 사실 많은 사람에게 붙어 있던 더러운 영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또 많은 중병자와 불구자가 나왔다.
- 8 그리하여 그 고을에 큰 기쁨이 넘쳤다.
- 9 그 고을에는 전부터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 사마리아의 백성을 놀라게 하면서 자기가 큰 인물이라고 떠들어 댔다.
- 10 그리하여 아이에서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힘이다.” 하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 11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은 그가 오랫동안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하였기 때문이다.
- 12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필리포스를 믿게 되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세례를 받았다.
- 13 시몬도 믿게 되었다. 그는 세례를 받고 필리포스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여러 표징과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라워하였다.
- 14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 15 베드로와 요한은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다.
- 16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그들 가운데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께서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 17 그때에 사도들이 그들에게 인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 18 시몬은 사도들의 인수로 성령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가져다 바치면서,
- 19 “저에게도 그런 관능을 주시어 제가 인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 20 베드로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오.
- 21 하나님 앞에서 그대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일에 그대가 차지할 몫도 자리도 없소.
- 22 그러니 그대는 그 악을 버리고 회개하여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혹시 그대가 마음에 품은 그 의도를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 23 내가 보기에 그대는 쓴 쓸개즙과 불의의 포승 속에 갇혀 있소.”
- 24 그러자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일이 저에게 벌어지지 않도록 저를 위하여 주님께 간구해 주십시오.”
- 25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전파한 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의 많은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필리포스와 에티오피아 내시

- 26 주님의 천사가 필리포스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그것은 외딴길이다.”
- 27 필리포스는 일어나 길을 가다가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칸다케의 내시로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이었다. 그는 하나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 28 돌아가면서, 자기 수레에 앉아 이시야 예언서를 읽고 있었다.
- 29 그때에 성령께서 필리포스에게, “가서 저 수레에 바짝 다가서라.” 하고 이르셨다.
- 30 필리포스가 달려가 그 사람이 이시야 예언서를 읽는 것을 듣고서,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읽어드립니다니까?” 하고 물었다.
- 31 그러자 그는 “누가 나를 이끌어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읽어들을 수 있었습니까?” 하고서, 필리포스에게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청하였다.
- 32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러하였다. “그는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갔다. 털 깎는 사람 앞에 잡혀서 있는 어린 양처럼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 33 그는 굴속 속에 권리를 박탈당하였다. 그의

- 생명이 이 세상에서 제거되어 버렸으니 누가 그의 후손을 이야기하라?”
- 34 내시가 필리포스에게 물었다. “청컨대 대답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언자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 35 필리포스는 입을 열어 이 성경 말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그에게 전하였다.
- 36 이렇게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말하였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장애가 있었습니까?”
- 37 ‘마음을 다하여 믿으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필리포스가 대답하자, ‘나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그가 말하였다.
- 38 그러고 나서 수레를 세우라고 명령하였다. 필리포스와 내시, 두 사람은 물로 내려갔다. 그리고 필리포스가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다.
- 39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자 주님의 성령께서 필리포스를 잡아채듯 데려가셨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지만 기뻐하며 제 갈 길을 갔다.
- 40 필리포스는 아스돗에 나타나, 키이사리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을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

사울이 회심하다

- 9¹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살기를 내뿜으며 대사제에게 가서,
- 2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에 보내는 서한을 청하였다.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을 찾아 내기만 하면 남자든 여자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는 것이었다.
- 3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

- 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 그의 둘레를 비추었다.
- 4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자기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 5 사울이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 6 이제 일어나 성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누가 일러 줄 것이다.”
- 7 사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도 볼 수 없었으므로 멍하게 서 있었다.
- 8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다.
- 9 사울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였는데, 그 동안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 10 다마스쿠스에 하나니아스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시 중에 “하나니아스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그가 “예, 주님.” 하고 대답하자
- 11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곧은 길’이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이라는 타르수스 사람을 찾아라. 지금 사울은 기도하고 있는데,
- 12 그는 환시 중에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인수하여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는 것을 보았다.”
- 13 하나니아스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하였는지 제가 많은 이들에게서 들었습니다.
- 14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들을 모두 결박할 권한을 수석 사제들에게서 받아 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 15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거라. 그는 다른 민족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도록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 16 나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에게 보여 주겠다.”
- 17 그리하여 하니아스는 길을 나섰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인수하고 나서 말하였다. “사울 형제, 당신이 다시 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주님께서, 곧 당신이 이리 오는 길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 18 그러자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다음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복음을 선포하다

- 19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렸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낸 뒤,
- 20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선포하였다.
- 21 그 말을 들은 자들은 모두 놀라며, “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자들을 짓밟은 자가 아닌가? 또 바로 그런 자들을 결박하여 수석 사제들에게 끌어가려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 22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차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여,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사울이 피신하다

- 23 그렇게 꽤 긴 기간이 지나자 유대인들은 사울을 없애 버리기로 공모하였는데,
- 24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도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없애 버리려고 밤낮으로 성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 25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그를 데려다가 바구니에 실어 성벽에 난 구멍으로 내려

보냈다.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다

- 26 사울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지만 모두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가 제자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 27 그러나 바르나베는 사울을 받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어떻게 그가 길에서 주님을 뵈게 되었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또 어떻게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였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 28 그리하여 사울은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였다.
- 29 그리고 그리스계 유대인들과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사울을 없애 버리려고 버리고 있었다.
- 30 형제들은 그것을 알고 그를 카이사리아로 데리고 내려가 다시 타르수스로 보냈다.
- 31 이제 교회는 유대와 갈릴래이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서 평화를 누리며 굳건히 세워지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서 성령의 격려를 받아 그 수가 늘어났다.

베드로가 중풍 병자를 고치다

- 32 베드로는 모든 지방을 두루 다니다가 리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가게 되었다.
- 33 거기에서 베드로는 에네아스라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중풍에 걸려 팔 년 전부터 침상에 누워 있었다.
- 34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에네아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쳐 주십니다. 일어나 침상을 정돈하십시오.” 그러자 곧 에네아스가 일어났다.
- 35 리따와 사론의 모든 주민이 그를 보고 주님께 들어섰다.

베드로가 도르카스를 다시 살리다

- 36 야포에 타비타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이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카스라고 한다. 그는 선행과 자선을 많이 한 사람이었는데,
- 37 그 무렵에 병이 들어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어 옥상 방에 눕혀 놓았다.
- 38 리파는 야포에서 가까운 곳이므로, 제자들은 베드로가 리파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사람 둘을 보내어, “지체하지 말고 저희에게 건너와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 39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그를 옥상 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러자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에게 다가와 울면서, 도르카스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어 준 속옷과 겹옷을 보여 주었다.
- 40 베드로는 그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다음 시신 쪽으로 돌아서서, “타비타,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여자가 눈을 떴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 41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운 다음,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다시 살아난 도르카스를 보여 주었다.
- 42 이 일이 온 야포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 43 베드로는 한동안 야포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

코르넬리우스가 환시를 보다

- 10 ¹ 카이사리아에 코르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라고 불리는 군대의 백안대장이었다.
- ² 신심이 깊은 그는 온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유다 백성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 3 어느 날 오후 세 시쯤, 그는 환시 중에 자기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 “코르넬리우스!” 하고 부르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 4 그는 천사를 유심히 바라보며 잠에 질러, “천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너의 기도와 너의 자선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 좋게 기억되고 있다.
- 5 이제 야포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오게 하여라.
- 6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 7 코르넬리우스는 자기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자, 짐종 두 사람과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사들 가운데 신심이 깊은 사람 하나를 불러,
- 8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고 나서 야포로 보냈다.

베드로가 환시를 보다

- 9 이튿날 길을 가던 그들이 그 도시 가까이 이르렀을 즈음, 베드로는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다. 때는 정오쯤이었다.
- 10 그는 배가 고과 무엇을 좀 먹고 싶어 하였다. 그런데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 베드로는 무아경에 빠졌다.
- 11 이어서 하늘이 열리고 큰 아파도 같은 그릇이 내려와 네 모퉁이로 땅 위에 내려앉는 것을 보았다.
- 12 그 안에는 네발 달린 짐승들과 땅의 길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모두 들어 있었다.
- 13 그때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 14 베드로는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한 번

도 먹지 않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15 그러자 베드로에게 다시 두 번째로 소리가 들려왔다.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 16 이러한 일이 세 번 거듭되고 나서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베드로가 코르넬리우스를 찾아가다

- 17 자기가 본 환시가 무슨 뜻일까 하며 베드로가 속으로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코르넬리우스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알아내고서 문간에 다가섰다.
- 18 그리고 사람을 불러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 물었다.
- 19 베드로가 환시에 대하여 계속 꿈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지금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 20 그러니 일어나 내려가서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 21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내려가, “내가 바로 여러분이 찾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 22 그들이 대답하였다. “의롭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온 유다 민족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코르넬리우스 백인대장이, 선생님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 23 베드로는 그들을 맞이하여 그곳에 묵게 하였다.
- 24 이튿날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야포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 25 그다음 날 그는 카이사리아에 들어갔다. 코르넬리우스는 자기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 26 베드로가 들어서자 코르넬리우스는 그에게 마주 나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 27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일어나

삼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 28 그리고 코르넬리우스와 이야기하며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 29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다 사람에게는 다른 민족 사람과 어울리거나 찾아가는 일이 불법임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거나 더럽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 30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데리러 왔을 때에 이의 없이 따라온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슨 일로 나를 데리러 사람들을 보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자 코르넬리우스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바로 이맘때 곧 오후 세 시에 저는 집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눈부신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제 앞에 서서
- 31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코르넬리우스야, 하느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 주셨고 너의 자선을 기억하고 계시다.
- 32 그러니 야포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 33 그래서 제가 곧 선생님께 사람들을 보낸 것인데 참 잘 하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는 주님께서 선생님께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함께 하느님 앞에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코르넬리우스의 집에서 설교하다

- 34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 35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 주십니다.
- 36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주님

- 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 37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레 갈릴래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 38 하나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 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 39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 40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 41 그러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증인으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 42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의 심판관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 43 이 예수님을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합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 사람들이 성령을 받다

- 44 베드로가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께서 내리셨다.
- 45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 받은 신자들은 다른 민족들에게도 성령의 선물들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 46 이 다른 민족 사람들이 신령한 언어로 말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하였다.

- 47 “우리처럼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 48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다

- 11 ¹ 사도들과 유다 지방에 있는 형제들이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문을 들었다.
- 2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에게 따지며,
- 3 “당신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니요?” 하고 말하였다.
- 4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 5 “내가 야포 시에서 기도하다가 무아경 속에서 환시를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큰 아파 같은 그릇이 내려와 네 모퉁이로 내려앉는데 내가 있는 곳까지 오는 것이었습니다.
- 6 내가 그 인을 유심히 바라보며 살피니, 이 세상의 네발 달린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길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보였습니다.
- 7 그때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고 나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 8 나는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제 입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 9 그러자 하늘에서 두 번째로 응답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 10 이러한 일이 세 번 거듭되고 나서 그것들은 모두 하늘로 다시 끌려 올라갔습니다.

- 11 바로 그때에 세 사람이 우리가 있는 집에 다가와 섰습니다. 카이사리아에서 나에게 심부름 온 이들이었습니다.
- 12 성령께서는 나에게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갔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집에 들어가자,
- 13 그는 친사가 자기 집 안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야포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오게 하여라.
- 14 그가 나에게 말씀을 일러 줄 터인데, 그 말씀으로 너와 너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 15 그리하여 내가 말하기 시작하자,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 16 그때에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 17 이렇게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하느님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 18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잠잠해졌다. 그리고 “이제 하느님께서서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생명이 이르는 회개의 길을 열어 주셨다.” 하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안티오키아에 교회를 세우다

- 19 스테파노의 일로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이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¹와 안티오키아까지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 20 그들 가운데에는 키프로스 사람들과 키레네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안티오키아로 가서 그리스계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

- 면서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 21 주님의 손길이 그들을 보살피시어 많은 수의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섰다.
- 22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르나바를 안티오키아로 가라고 보냈다.
- 23 그곳에 도착한 바르나바는 하느님의 은총이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모두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계속 충실하라고 격려하였다.
- 24 사실 바르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인도되었다.
- 25 그 뒤에 바르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타르수스로 가서,
- 26 그를 만나 안티오키아로 데려왔다. 그들은 만 일 년 동안 그곳 교회 신자들을 만나며 수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이 안티오키아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안티오키아 교회가 유대 지방의 신자들을 돕다

- 27 그 무렵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티오키아로 내려왔다.
- 28 그들 가운데 하나인 하카보스리는 이가 나서서, 장차 온 세상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성령의 힘으로 예고하였다. 그 기근은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일어났다.
- 29 그래서 제자들은 저마다 형편에 따라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호 헌금을 보내기로 결의하였다.
- 30 그들은 그대로 실행하여 그것을 바르나바와 사울 편에 원로들에게 보냈다.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투옥되다

- 12¹ 그즈음 헤로데 임금이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었다.

- 2 그는 먼저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이게 하고서,
 3 유대인들이 그 일로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들이게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4 그는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네 명씩 짝 네 개의 경비조에 맡겨 지키게 하였다. 파스카 축제가 끝나면 그를 백성 앞으로 끌어낼 작정이었던 것이다.
 5 그리하여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나다

- 6 헤로데가 베드로를 끌어내려고 하던 그 전 날 밤, 베드로는 두 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두 군사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문 앞에서는 파수병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7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에 빛이 비치는 것이었다.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두드려 깨우면서, “빨리 일어나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의 손에서 쇠사슬이 떨어져 나갔다.
 8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매고 신을 신어라.” 하고 이르니 베드로가 그렇게 하였다. 천사가 또 베드로에게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라.” 하고 말하였다.
 9 베드로는 따라 나가면서도, 천사가 일으키는 그 일이 실제인 줄 모르고 환시를 보는 것 이려니 생각하였다.
 10 그들이 첫째 초소를 둘째 초소를 지나 성 안으로 통하는 쇠문 앞에 다다르자, 문이 앞에서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 어떤 거리를 따라 내려갔는데, 천사가 갑자기 그에게서 사라져 버렸다.
 11 그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았다.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헤로데의 손에서, 유다 백성이 바라던 그 모든 것에서 나를

빼내어 주셨다.”

- 12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13 베드로가 바깥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하녀가 누구인지 보려고 문으로 갔다.
 14 그 하녀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어 주지도 않고 안으로 달려가 베드로가 문 앞에서 있다고 알렸다.
 15 사람들이 “너 정신 나갔구나.” 하는데도 그 하녀는 사실이라고 우겼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의 천사다.” 하고 말하였다.
 16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자 사람들이 문을 열어 그를 보고서는 깜짝 놀랐다.
 17 베드로는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한 다음, 주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감옥에서 끌어내 주셨는지 이야기하였다. 이어서 “이 일을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하고 이르고서,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18 날이 밝자 군사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19 헤로데는 베드로를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자 파수병들을 문초한 뒤,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유다를 떠나 키이사리아로 내려가 그곳에 머물렀다.

헤로데가 죽다

- 20 헤로데는 티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몹시 화가 나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뜻을 모아 헤로데에게 갔다. 그리고 임금의 시종장 블라스투스를 설득하여 화평을 청하였다. 그들의 지방이 임금의 영토에서 양식을 공급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21 정해진 날에 헤로데는 화려한 임금 복장을

하고 연단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을 하였다.

- 22 그때에 군중이 “저것은 신의 목소리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 23 그러자 즉시 주님의 천사가 헤로데를 내리쳤다. 그가 그 영광을 하느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었다.

바르나바와 사울이 안티오키아로 돌아가다

- 24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면서 널리 퍼져 나갔다.
- 25 바르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사명을 수행한 다음,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돌아갔다.

바르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견되다

- 13** ¹ 안티오키아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르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메온, 키레네 사람 루키오스, 헤로데 영주의 어린 시절 친구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다.
- 2 그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단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이르셨다. “내가 일을 맡기려고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렀으니,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게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 3 그래서 그들은 단식하며 기도한 뒤 그 두 사람에게 인수하고 나서 떠나보냈다.

키프로스에서 선교하다

- 4 성령께서 파견하신 바르나바와 사울은 셀레우키아로 내려간 다음,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 5 그리고 살라미스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여러 회당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그들은 요한을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 6 그들이 온 섬을 가로질러 파포스에 다다랐을 때에 미술사 한 사람을 만났는데, 유대

인으로서는 바르예수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였다.

- 7 그는 슬기로운 사람인 세르기우스 바오로 총독의 수행원 가운데 하나였다. 총독은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다.
- 8 그러나 그리스 말로 미술사를 뜻하는 그 엘리마스는 총독이 믿지 못하게 막으려고 그들을 반대하고 나섰다.
- 9 그때에 바오로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가득 차 그를 유심히 보며
- 10 말하였다. “온갖 사기와 온갖 기만으로 충만한 자, 악마의 자식, 모든 정의의 원수! 당신은 언제까지 주님의 바른길을 왜곡시킬 셈이요?”
- 11 이제 보시오, 주님의 손이 당신 위에 놓여 있소. 당신은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오.” 그러자 즉시 짙은 어둠이 그를 덮쳐, 그는 사방을 더듬으며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 줄 사람을 찾았다.
- 12 그때에 그 광경을 본 총독은 주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동을 받아 믿게 되었다.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서 선교하다

- 13 바오로 일행은 파포스에서 배를 타고 팜필리아의 페르게로 가고,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 14 그들은 페르게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있었다.
- 15 율법과 예언서 봉독이 끝나자 회당장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백성을 격려할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 16 그러자 바오로가 일어나 조용히 하라고 손짓한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 17 “이스라엘인 여러분, 그리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내 말을 들어 보십시오.

- 18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시고,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살이할 때에 그들을 큰 백성으로 키워 주셨으며,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 19 그리고 약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소행을 참아 주시고,
- 20 가나안 땅에서 일곱 민족을 멸하시어 그 땅을 그들의 상속 재산으로 주셨는데,
- 21 그때까지 약 사백오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 뒤에 사무엘 예언자 때까지 판관들을 세워 주시고,
- 22 그다음에 그들이 임금을 요구하자, 하느님께서서는 벤야민 지파 사람으로서 키스의 아들인 사울을 그들에게 사십 년 동안 임금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 23 그리고 나서 그를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내가 이사이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나의 뜻을 모두 실천할 것이다.’ 하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 24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하느님께서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 25 이분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미리 선포하셨습니다.
- 26 요한은 사명을 다 마칠 무렵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형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 그리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파견되었습니다.
- 27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단죄하여,
- 안식일마다 봉독되는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 28 그들은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목도 찾아내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였습니다.
- 29 그리하여 그분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그들이 그렇게 다 이행한 뒤, 사람들은 그분을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모셨습니다.
- 30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 31 그 뒤에 그분께서는 당신과 함께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내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 32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 33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어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사편 제이편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 34 또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리시어 다시는 죽음의 나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신 것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것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 35 그래서 다른 사편에서는 ‘당신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가 죽음의 나라를 아니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 36 다윗은 일생 동안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나서 잠든 다음, 조상들 곁에 묻혀 죽음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 37 그러나 하느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께서는 죽음의 나라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 38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죄의 용서가 선포됩니다. 모세의 율법으

- 로는 여러분이 죄를 벗어나 의롭게 될 수 없었지만,
- 39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 안에서 모든 죄를 벗어나 의롭게 됩니다.
- 40 그러나 예언서들에서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미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 41 ‘보아라, 너희 바웃은 자들이! 놀라다 망해 버려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하리라. 누가 너희에게 일러 주어도 너희가 도무지 믿지 못할 그런 일이다.’ ”
- 42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 달라고 청하였다.
- 43 회중이 흠어진 뒤에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하여 하느님을 섬기는 이들이 따라오자, 바오로와 바르나베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하느님의 은총에 계속 충실하라고 권하였다.
- 44 그다음 안식일에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고 도시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들었다.
- 45 그 군중을 보고 유대인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모독하는 말을 하며 바오로의 말을 반박하였다.
- 46 그러나 바오로와 바르나베는 담대히 말하였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스스로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니, 이제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돌아섭니다.
- 47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구원을 가져다주도록 내가 너를 다른 민족들의 빛으로 세웠다.’ ”
- 48 다른 민족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되었다.

- 49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 50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느님을 섬기는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유지들을 선동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베를 박해하게 만들고 그 지방에서 그들을 내쫓았다.
- 51 그들은 발의 먼지를 털어 버리고 나서 이코니온으로 갔다.
- 52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코니온에서 선교하다

- 14¹ 바오로와 바르나베는 이코니온에서도 전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설교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유대인과 그리스인이 믿게 되었다.
- 2 그러나 믿기를 거부한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 사람들을 자극하여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만들었다.
- 3 그래서 바오로와 바르나베는 그곳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설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표징과 이적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어, 당신 은총에 관한 그들의 말을 확신해 주셨다.
- 4 그리하여 그 도시 사람들이 둘로 갈라져, 한 쪽은 유대인들의 편을 들고 다른 쪽은 사도들의 편을 들었다.
- 5 그런데 다른 민족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저희 지도자들과 더불어 사도들을 괴롭히고 또 둘을 던져 죽이려고 하였다.
- 6 바오로와 바르나베는 그 일을 알아채고 리카오니아 지방의 도시 리스트라와 테르베와 그 근방으로 피해 갔다.
- 7 그들은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다.

리스트라에서 선교하다

- 8 리스트라에는 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앓은뱅이로 태어나 한 번도 걸어 본 적이 없었다.

- 9 그가 바오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그를 유심히 바라본 바오로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알고,
- 10 “두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별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다.
- 11 군중은 바오로가 한 일을 보고 리카오니아 말로 목소리를 높여, “신들이 사람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하고 말하였다.
- 12 그들은 바르나바를 제우스라 부르고 바오로를 헤르메스라 불렀는데, 바오로가 주로 말하였기 때문이다.
- 13 도시 앞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사제는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문으로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제물을 바치려고 하였다.
- 14 바르나바와 바오로 두 사도는 그 말을 듣고서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 소리를 지르며
- 15 말하였다. “여러분, 왜 이런 짓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 계신 하느님께로 돌아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 16 지난날에는 하느님께서 다른 모든 민족들이 제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 17 그러면서도 좋은 일을 해 주셨으니,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와 열매 맺는 절기를 내려 주시고 여러분을 양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 18 그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겨우 말렸다.
- 19 그런데 안티오키아와 이코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와 군중을 설득하고 바오로에게 돌을 던졌다. 그리고 그가 죽은 줄로 생각

하고 도시 밖으로 끌어내다 버렸다.

- 20 그러나 제자들이 둘러싸자 그는 일어나 도시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르나바와 함께 데르베로 떠나갔다.

선교를 마치고 안티오키아로 돌아가다

- 21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은 다음, 리스트라와 이코니온으로 갔다가 이어서 안티오키아로 돌아갔다.
- 22 그들은 제자들의 믿음에 힘을 북돋아 주고 계속 믿음에 충실하라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 23 그리고 교회마다 제자들을 위하여 원로들을 임명하고, 단식하며 기도한 뒤에,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의탁하였다.
- 24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피시디아를 가로질러 팜팔리아에 다다라,
- 25 페르게에서 말씀을 전하고서 이탈리아로 내려갔다.
- 26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티오키아로 갔다.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선교 활동을 위하여 하느님의 은총에 맡겨졌었는데, 이제 그들이 그 일을 완수한 것이다.
- 27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교회 신자들을 불러, 하느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 주신 모든 일과 또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 28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물렀다.

예루살렘에서 사도 회의가 열린다

- 15 ¹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형제들을 가르쳤다.
- 2 그리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과 논란이 일어나,

그 문제 때문에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신자들 가운데 다른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에게 올라가기로 하였다.

3 이렇게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파견된 그들은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 가면서, 다른 민족들이 하느님께 돌아선 이야기를 해 주어 모든 형제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4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교회와 사도들과 원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느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 주신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5 그런데 바리사이파에 속하였다가 믿게 된 사람 몇이 나서서,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6 사도들과 원로들이 이 문제를 검토하려고 모였다.

7 오랜 논란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다른 민족들도 내 입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하느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나를 뽑으신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8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어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9 그리고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화하시어,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10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형제들의 목에 씌워 하느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11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 예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12 그러자 온 회중이 잠잠해졌다. 그리고 바르나바와 바오로가 하느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표

징과 이적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13 그들이 말을 마치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 보십시오.

14 하느님께서 처음에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당신의 이름을 위한 백성을 모으려고 어떻게 배려하셨는지, 시몬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15 이는 예언자들의 말과도 일치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

16 그 뒤에 나는 돌아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다시 지으리라. 그곳의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지어 그 초막을 바로 세우리라.

17 그리하여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다른 모든 민족들도 주님을 찾게 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이 일들을 실행하니

18 예로부터 알려진 일들이다.’

19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하느님께 돌아선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말고,

20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상에게 바쳐 더러워진 음식과 불륜과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멀리하라고 해야 합니다.

21 사실 예로부터 각 고을에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의 율법을 봉독하며 선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회의에서 안티오키아로 편지를 보내다

22 그때에 사도들과 원로들은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뽑아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함께 안티오키아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뽑힌 사람들은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인 바르사사스라고 하는 유대와 실라스였다.

23 그들 편에 이러한 편지를 보냈다. “여러

분의 형제인 사도들과 원로들이 안티오키아와 시리아와 킬리키아에 있는 다른 민족 출신 형제들에게 인사합니다.

- 24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에게서 지시를 받지 않고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정신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25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뽑아 우리가 사랑하는 바르나비와 바오로와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뜻을 모아 결정하였습니다.
- 26 바르나비와 바오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 27 우리는 또 유다와 실라스를 보냅니다. 이들이 이 글의 내용을 말로도 전할 것입니다.
- 28 성령과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 필수 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29 곧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불륜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들만 삼가면 옳바르시는 것입니다. 인영히 계십시오.”
- 30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을 떠나보내자, 그들은 안티오키아로 내려가 공동체를 모아 놓고 편지를 전하였다.
- 31 공동체는 편지를 읽고 그 격려 말씀에 기뻐하였다.
- 32 예언자이기도 한 유다와 실라스는 여러 가지 말로 형제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었다.
- 33 그들은 거기에서 한동안 지낸 뒤, 형제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받으며 자기들을 파견한 이들에게로 떠나갔다.
- 34 그러나 실라스는 그곳에 머물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유다만 떠났다.
- 35 그러나 바오로와 바르나비는 안티오키아에 머물면서, 다른 많은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였다.

바오로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다

- 36 며칠 뒤에 바오로가 바르나비에게,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고을로 형제들을 찾아가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 37 그런데 바르나비는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도 같이 데려가려고 하였다.
- 38 그러나 바오로는 팜필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떠나 함께 일하려 다니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39 그리하여 그들은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갈라졌다. 바르나비는 마르코를 데리고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 40 바오로는 실라스를 선택하여 떠났는데, 형제들은 바오로를 주님의 은총에 맡긴다고 기도해 주었다.
- 41 그는 시리아와 킬리키아를 두루 다니며 그곳 교회들을 굳건하게 만들었다.

티모테오를 데리고 가다

- 16 ¹ 바오로는 데르베를 거쳐 리스트리아에 당도하였다. 그곳에 티모테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신자가 된 유다 여자와 그리스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 서,
- 2 리스트리아와 이코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다.
- 3 바오로는 티모테오와 동행하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그 고향에 사는 유대인들을 생각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베풀었다.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 4 바오로 일행은 여러 고을을 두루 다니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신자들에게 전해 주며 자기게 하였다.
- 5 그리하여 그곳 교회들은 믿음이 굳건해지고

신자들의 수도 나날이 늘어 갔다.

마케도니아에 관한 환시를 보다

- 6 성령께서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은 프리기아와 갈라티아 지방을 가로질러 갔다.
- 7 그리고 미시아에 이르러 비티니아로 가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 8 그리하여 미시아를 지나 트로아스로 내려갔다.
- 9 그런데 어느 날 밤 바오로가 환시를 보았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오로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것이었다.
- 10 바오로가 그 환시를 보고 난 뒤,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떠날 방도를 찾았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필리피에서 리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다

- 11 우리는 배를 타고 트로아스를 떠나 사모트라케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스로 갔다.
- 12 거기에서 또 필리피로 갔는데, 그곳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첫째가는 도시로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그 도시에서 며칠을 보냈는데,
- 13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의 기도처가 있다고 생각되는 성문 밖 강가로 나갔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 그곳에 모여 있는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 14 티아티라 시 출신의 자색 옷감 장수로 이미 하느님을 섬기는 이었던 리디아라는 여자도 듣고 있었는데, 바오로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도록 하느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주셨다.

- 15 리디아는 온 집안과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저를 주님의 신자로 여기시면 저의 집에 오셔서 지내십시오.” 하고 청하며 우리에게 강권하였다.

바오로와 실라스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다

- 16 우리가 기도처로 갈 때에 짐 귀신 들린 하녀 하나를 만났는데, 그는 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 주고 있었다.
- 17 그 여자가 바오로와 우리를 쫓아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종으로서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 18 여러 날을 두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언짢아진 바오로가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니 그 여자에게서 나가라.” 하고 일렀다. 그러자 그 순간에 귀신이 나갔다.
- 19 그 여자의 주인들은 돈벌이할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오로와 실라스를 붙잡아 광장으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
- 20 그리고 그들을 행정관들 앞에 데려다 놓고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도시에 소동을 일으키면서,
- 21 우리 로마인으로서도 받아들이기에도 지키기에도 부당한 관습을 펴뜨리고 있습니다.”
- 22 군중도 합세하여 바오로와 실라스를 공격하자, 행정관들은 그 두 사람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지시하였다.
- 23 그렇게 매질을 많이 하게 한 뒤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 24 이러한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가장 깊은 감방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 차꼬를 채웠다.
- 25 자정 무렵에 바오로와 실라스는 하느님께 찬미가를 부르며 기도하고, 다른 수인들은

-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 26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뒤흔들렸다. 그리고 즉시 문들이 모두 열리고 사슬이 다 풀렸다.
- 27 잠에서 깨어난 간수는 감옥 문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였다. 수인들이 달아났으려니 생각하였던 것이다.
- 28 그때에 바오로가 큰 소리로, “자신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에 있소.” 하고 말하였다.
- 29 그러자 간수가 횃불을 달라고 하여 안으로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오로와 실라스 앞에 이르렀다.
- 30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두 분 선생님,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 31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오.”
- 32 그리고 간수와 그 집의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다.
- 33 간수는 그날 밤 그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상처를 씻어 주고, 그 자리에서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 34 이어서 그들을 자기 집 안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고, 하느님을 믿게 된 것은 온 집안과 더불어 기뻐하였다.
- 35 날이 밝자 행정관들은 시종들을 보내어, “그 사람들을 풀어 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 36 그래서 간수가 바오로에게 그 말을 전하였다. “행정관들이 여러분을 풀어 드리라고 시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 37 그때에 바오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로마 시민인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은 채 공공연히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슬그머니 내보내겠다는 말입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 38 그 시종들이 이 말을 전하자, 행정관들은 바오로와 실라스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불안해하며,
- 39 그들에게 가서 사과하고는, 그들을 데리고 나가 그 도시에서 떠나 달라고 요청하였다.
- 40 이렇게 그들은 감옥에서 나와, 리디아의 집으로 가서 형제들을 만나 격려해 주고 떠났다.

테살로니카에서 선교하다

- 17 ¹ 바오로 일행은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거쳐 테살로니카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다.
- 2 바오로는 늘 하던 대로 유대인들을 찾아가 세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 3 그는 메시아께서 고난을 겪으신 다음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했음을 설명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 4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감복하여 바오로와 실라스를 따르게 되었다. 또한 하느님을 섬기는 그리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그렇게 하였다.
- 5 그러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거리의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군중을 선동하게 하여 그 도시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러면서 야손의 집으로 몰려가 바오로 일행을 백성 앞으로 끌어내려고 그들을 찾았다.
- 6 그러나 그들을 찾아내지 못하자 야손과 몇몇 형제를 시 당국자들에게 끌고 가서 외쳤다. “온 세상에 소란을 일으키던 자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 7 야손이 그자들을 자기 집에 맞아들였습니다.

그자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임금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법령들을 어기고 있습니다.”

- 8 이렇게 그들은 군중과 또 이 말을 듣는 시당국자들을 자극하였다.
- 9 그러나 시 당국자들은 아손과 나머지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풀어 주었다.

베로이아에서 선교하다

- 10 형제들은 바로 그 밤에 바오로와 실라스를 베로이아로 떠나보냈다. 그들은 그곳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갔다.
- 11 그곳 유대인들은 테살로니키의 유대인들보다 짐작아서 말씀을 아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 12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에서 많은 이가 믿게 되었다. 지체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에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 13 테살로니키의 유대인들은 바오로가 베로이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을 알고, 그곳까지 가서 군중을 선동하고 자극하였다.
- 14 그러자 형제들은 곧바로 바오로를 떠나보내어 바닷가까지 가게 하였다. 그러나 실라스와 티모테오는 그곳에 남았다.
- 15 바오로를 안내하던 이들은 그를 아테네까지 인도하고 나서, 자기에게 되도록 빨리 오라고 실라스와 티모테오에게 전하라는 그의 지시를 받고 돌아왔다.

아테네에서 선교하다

- 16 바오로는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 17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과 토론하고, 또 날마다 광장에 나가 그 곳에 모인 사람들과 토론하

였다.

- 18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몇몇 철학자도 바오로와 대담을 나누었는데, 어떤 이들은 “저 떠버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바오로가 예수님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이방 신들을 신전하는 사람인 것 같군.” 하고 말하였다.
- 19 그들은 바오로를 아레오파고스로 데리고 가서 물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겠소?”
- 20 당신은 우리가 듣기에 생소한 것을 전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싶소.”
- 21 사실 아테네인들과 그곳에 머무르는 외국인들은 모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 22 바오로는 아레오파고스 가운데에 서서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대단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23 내가 돌아다니며 여러분의 예배소들을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겨진 제단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숭배하는 그 대상을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 24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으로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는 살지 않으십니다.
- 25 또 무엇이 부족하기라도 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이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 26 그분께서는 또 한 사람에게서 온 인류를 만드시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시고, 일정한 절기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 27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려는 것임

니다. 더듬거리다가 그분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 28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도 그분의 자녀다.’ 하고 말하였듯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 29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인간의 예술과 상상으로 빚어 만든 금상이나 은상이나 석상을 신과 같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 30 하나님께서 무지의 시대에는 그냥 보아 넘겨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 있던 모두 회개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 31 그분께서 당신이 정하신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어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 32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하여 듣고서, 어떤 이들은 바웃고 어떤 이들은 “그 점에 관해서는 다음에 다시 들겠소” 하고 말하였다.
- 33 이렇게 하여 바오로는 그들이 모인 곳에서 나왔다.
- 34 그때에 몇몇 사람이 바오로 편에 가담하여 믿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에는 아레오파고스 의회 의원인 디오니시오가 있고, 다미리스라는 여자와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코린토에서 선교하다

- 18 ¹ 그 뒤에 바오로는 아테네를 떠나 코린토로 갔다.
- 2 거기에서 그는 폰토스 출신의 아퀼라라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다. 아퀼라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자기 아내 프리스

- 킬라와 함께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었다. 바오로가 그들을 찾아갔는데,
- 3 마침 생업이 같아 그들과 함께 지내며 일을 하였다. 천막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생업이었다.
- 4 바오로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하려고 애썼다.
- 5 실라스와 티모테오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 바오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고 증언하면서 말씀 전파에만 전념하였다.
- 6 그러나 그들이 반대하며 모독하는 말을 퍼붓자 바오로는 옷의 먼지를 털고 나서, “여러분의 멸망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나에게서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다른 민족들에게로 갑니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 7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 티티우스 유스투스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였다. 그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 8 회당장 크리소포스는 온 집안과 함께 주님을 믿게 되었다. 코린토 사람들 가운데에서 바오로의 설교를 들은 다른 많은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 9 어느 날 밤 주님께서서는 환시 속에서 바오로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잠자코 있지 말고 계속 말하여라.
- 10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 11 그리하여 바오로는 일 년 육 개월 동안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씀 가르쳤다.
- 12 그러나 갈리오가 아카이아 지방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이 합심하여 들고일어나 바오로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 13 “이자는 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하나님

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 14 바오로가 입을 열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인 여러분, 무슨 범죄나 악행이라면 여러분의 고발을 당연히 들어 주겠소.
- 15 그러나 말이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여러분의 율법과 관련된 시비라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그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 16 그러고 나서 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내었다.
- 17 그러자 모두 회당장 소스테네스를 붙잡아 재판정 앞에서 매질하였다. 그러나 갈리오는 그 일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다.

안티오키아로 돌아가다

- 18 바오로는 한동안 그곳에 더 머물렀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프리스킬라와 아퀼라와 함께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갔다. 바오로는 서원한 일이 있었으므로, 떠나기 전에 켈크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 19 그들은 에페소에 도착하였다. 바오로는 그 두 사람을 그곳에 따로 남겨 두고 혼자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들과 토론하였다.
- 20 그들은 바오로에게 좀 더 오래 머물기를 청하였지만 그는 승낙하지 않았다.
- 21 그러나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여러분에게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 배를 타고 에페소를 떠났다.
- 22 바오로는 카이사리아에 내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인사한 다음, 안티오키아로 내려갔다.
- 23 바오로는 그곳에서 얼마 동안 지낸 뒤 다시 길을 떠나, 갈라티아 지방과 프리기아를 차례로 거쳐 가면서 모든 제자들의 힘을 북돋아 주었다.

아폴로가 에페소에서 선교하다

- 24 한편 아폴로라는 어떤 유대인이 에페소에 도착하였는데,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달변기이며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다.
- 25 이미 주님의 길을 배워 알고 있던 그는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 하며 정확히 가르쳤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 26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설교하기 시작하였는데, 프리스킬라와 아퀼라가 그의 말을 듣고 데리고 가서 그에게 하느님의 길을 더 정확히 설명해 주었다.
- 27 그 뒤에 아폴로가 아카이아로 건너가고 싶어 하자,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그곳의 제자들에게 그를 영접해 달라는 편지를 써 보냈다. 아폴로는 그곳에 이르러,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미 신자가 된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 28 그가 성경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이심을 논증하면서, 공공연히 그리고 확고히 유대인들을 논박하였기 때문이다.

바오로가 에페소에서 선교하다

- 19 ¹ 아폴로가 코린토에 있는 동안, 바오로는 여러 내륙 지방을 거쳐 에페소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제자 몇 사람을 만나,
- 2 “여러분이 믿게 되었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묻자, 그들이 “받지 않았 습니다.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 듣지 못하였 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3 바오로가 다시 “그러면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 4 바오로가 말하였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곧 예수님을 믿으라고 백성에게 일렀습니다.”
- 5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 6 그리고 바오로가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리시어, 그들이 신령한 언어로 말하고 예언을 하였다.
- 7 그들은 모두 열두 사람쯤 되었다.
- 8 바오로는 석 달 동안 회당에 드나들며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토론하고 설득하면서 담대히 설교하였다.
- 9 그러나 몇몇 사람이 회중 앞에서 주님의 길을 헐뜯으며 고집스럽게 믿지 않으려 하자, 바오로는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날마다 티란노스 학원에서 토론을 벌였다.
- 10 이 일이 두 해 동안 계속되어,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인 할 것 없이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바오로가 기적을 일으키다

- 11 하느님께서 바오로를 통하여 비범한 기적들을 일으키셨다.
- 12 그의 살갓에 닿았던 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그들에게서 질병이 사라지고 악령들이 물러갔다.
- 13 그러자 구마자로 돌아다니는 몇몇 유대인 까지도 “바오로가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면서, 악령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 14 그런데 스캐우아스라는 유대인 대사제의 일곱 아들이 그렇게 하자,
- 15 악령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오로도 하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였다.
- 16 그때에 악령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모조리 억누르고 짓누르는 바람에, 그들은 옷이 벗겨지고 상처를 입어 그 집에서 달아났다.
- 17 이 일이 에페소에 사는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인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움

에 휩싸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였다.

- 18 그러자 신자가 된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자기들이 해 온 행실을 숨김없이 고백하였다.
- 19 또 마술을 부리던 자들 가운데 많은 이가 자기 책들을 모아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라 버렸다. 그 책들을 값으로 따져 보니 은돈 오만 낭어치나 되었다.
- 20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은 더욱 힘차게 자라고 힘을 떨쳤다.

에페소에서 소동이 일어나다

- 21 이런 일들이 끝난 뒤, 바오로는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가야 하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 22 그래서 그는 자기의 협력자들 가운데에서 티모테오와 에라스토스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머물렀다.
- 23 그 무렵 주님의 길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 24 데메트리오스라는 은장이가 있었는데, 그는 은으로 아르테미스 신당 모형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돈을 벌이를 시켜 주고 있었다.
- 25 데메트리오스가 그 장인들과 또 같은 일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을 모아 놓고 말하였다.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직업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 26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저 바오로라는 자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에페소만이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 지방에 걸쳐 수많은 사람을 설득하고 유인하였습니다.
- 27 그래서 우리의 사업이 나쁜 평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르테미스의 신

전도 무시를 당하고, 마침내 온 아시아와 온 세상이 숭배하는 이 여신께서 위엄마저 상실하실 위험에 놓였습니다.”

- 28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에페소인들의 아르테미스는 위대하시다!” 하고 외쳤다.
- 29 그래서 온 도시가 혼란에 빠졌다. 사람들은 바오로의 동행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스와 아리스타르코스를 붙들어, 일제히 극장으로 몰려갔다.
- 30 바오로가 군중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를 말렸다.
- 31 바오로와 친하게 지내던 몇몇 아시아 지방 장관들도 바오로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극장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권고하였다.
- 32 한편 이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집회는 매우 혼란스러웠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무엇 때문에 모여들었는지 알지도 못하였다.
- 33 그때에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로스를 앞으로 밀어내자, 군중 가운데에서 몇 사람이 그에게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고 군중에게 설명하려고 하였다.
- 34 그러나 군중은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모두 한목소리로 거의 두 시간 동안이나 “에페소인들의 아르테미스는 위대하시다!” 하고 외쳐 왔다.
- 35 마침내 서기관이 군중을 진정시키고 나서 말하였다. “에페소 시민 여러분, 에페소인들의 도시가 위대한 아르테미스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상을 지키는 곳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 36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여러분은 진정하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 37 그런데 여러분은 신전 강도도 아니고 우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않은 이 사람들을 끌고

왔습니다.

- 38 데메트리오스와 그의 동료 장인들은 누구를 걸어 송사할 일이 있으면, 법정이 열려 있고 지방 총독들도 있으니 당사자들끼리 고소하십시오.
- 39 그리고 다른 요구 사항이 있으면 정식 집회에서 해결하십시오.
- 40 사실 우리는 오늘의 일 때문에 소요죄로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의 사유가 없으니 우리는 이 난동을 해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집회를 해산시켰다.

바오로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로 가다

- 20** ¹ 그 소동이 가라앉은 뒤에 바오로는 제자들을 불러오게 하여 그들을 격려한 다음,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가려고 길을 떠났다.
- 2 바오로는 그곳 지방들을 거쳐 가는 동안에 신자들을 여러 가지 말로 격려하면서 그리스까지 갔다.
 - 3 거기에서 석 달을 지낸 뒤에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하였지만, 유대인들이 그를 해칠 음모를 꾸몄으므로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결정하였다.
 - 4 베로이아 사람 피로스의 아들 소파테르, 테살로니카 사람 아리스타르코스와 세쿰두스, 데르베 사람 가이오스, 티모테오, 아시아 사람 티키코스와 트로피모스가 바오로와 동행하였다.
 - 5 이들은 트로아스에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렸고,
 - 6 우리는 무교절이 지난 뒤에 필리포에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트로아스에 있는 그들과 합류하여, 그곳에서 이레 동안 지냈다.
- 트로아스에서 에우티코스를 되살리다**
- 7 주간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어 나누려고 모

- 였다. 바오로가 신자들에게 이야기하였는데, 이튿날 떠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정까지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 8 우리가 모여 있던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 9 그런데 에우티코스는 젊은이가 창문에 걸터앉아 있다가, 바오로가 길게 이야기하는 동안 깊은 잠에 빠졌다. 그렇게 잠에 취하여 그만 삼층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사람들이 일으켜 보니 이미 죽어 있었다.
- 10 바오로가 내려가 에우티코스에게 일으켜 그를 끌어안고, “걱정하지들 마십시오. 살았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 11 바오로는 다시 올라가 빵을 떼어 나누고 또 식사를 한 다음, 날이 썰 때까지 오래 이야기를 하고 나서 떠났다.
- 12 그리고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면서 크게 위로를 받았다.

트로아스에서 밀레토스까지 항해하다

- 13 우리는 먼저 배를 타고 아소스로 떠났다. 거기에서 바오로를 배에 태울 참이었다. 바오로가 거기까지 육로로 가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정한 것이다.
- 14 우리는 아소스에서 바오로를 만나 그를 배에 태우고 미틸레네로 갔다.
- 15 그리고 이튿날 그곳을 떠나 키오스 섬 앞 바다에 이르렀고, 다음 날 사모스 섬에 들렀다가 그다음 날에는 밀레토스에 다다랐다.
- 16 바오로가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페소를 그냥 지나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사실 그는 되도록 오순절에는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서둘렀다.

에페소 원로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다

- 17 바오로는 밀레토스에서 에페소로 사람을 보내어 그 교회의 원로들을 불러오게 하였

- 다.
- 18 그들이 자기에게 오자 바오로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 19 나는 유대인들의 음모로 여러 시련을 겪고 눈물을 흘리며 아주 겸손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 20 그리고 유익한 것이면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회중 앞에서 또 개인 집에서 여러분에게 알려 주고 가르쳤습니다.
- 21 나는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회개하여 하느님께 돌아오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증언하였습니다.
- 22 그런데 이제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에게 무슨 일이 타찰지 나는 모릅니다.
- 23 다만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가 가는 고을에서마다 알려 주셨습니다.
- 24 그러나 내가 달릴 길을 다 달려 주 예수님께 받은 직무 곧 하느님 은총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야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 25 이제, 내가 두루 돌아다니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한 여러분 가운데에서 아무도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 26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의 멸망에 대해서도 나에게서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히 선언합니다.
- 27 내가 하느님의 모든 뜻을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 28 여러분 자신과 모든 양 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양 떼의 감독으로 세우시어, 하느님의 교회 곧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피로 얻으신 교회를 돌

보게 하셨습니다.

- 29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 양 떼를 해칠 것임을 나는 압니다.
- 30 바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진리를 왜곡하는 말을 하며 자기를 따르라고 제자들을 피어내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 31 그러니 내가 삼 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물로 타이른 것을 명심하며 늘 깨어 있으십시오.
- 32 이제 나는 하느님과 그분 은총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굳건히 세울 수 있고,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이와 함께 상속 재산을 차지하도록 여러분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 33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 34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이 두 손으로 장만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 35 나는 모든 면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애써 일하며 약한 이들을 거두어 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고 친히 이르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 36 바오로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 37 그들은 모두 흐느껴 울면서 바오로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 38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오로의 말에 마음이 매우 아팠던 것이다. 그들은 바오로를 배 안까지 배웅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다

- 21 ¹ 우리는 그들과 헤어져 배를 타고 곧 장 코스로 갔다가, 이튿날 로도스를 거쳐 거기에서 다시 파타라로 갔다.
- 2 그리고 페니키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그

것을 타고 떠났다.

- 3 키프로스가 눈에 들어오자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항진하여 티로에 닿았다. 그 배가 거기에서 짐을 내리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 4 우리는 제자들을 찾아내어 그곳에 이레 동안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바오로에게 거듭 이야기하였다.
- 5 그러나 기일이 다 차자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그들은 모두 부인들과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도시 밖까지 배웅하였다. 이윽고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
- 6 서로 작별 인사를 하였다.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 7 우리는 티로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프톨레마이스에 다다랐다. 거기에서 형제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 8 이튿날 그곳을 떠나 카이사리아에 이르러, 일곱 봉사자 가운데 하나로서 복음 선포자인 필리포스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다.
- 9 그에게는 처녀 딸이 넷 있었는데 그들은 예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 10 그런데 우리가 여러 날을 머무르는 동안 유다에서 하카보스리는 예언자가 내려왔다.
- 11 그가 우리에게 와서는 바오로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발과 손을 결박하고 나서 말하였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인들이 이 허리띠의 임지를 이렇게 결박하여 다른 민족들에게 넘길 것이다.’ ”
- 12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오로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하였다.
- 13 그때에 바오로가 대답하였다. “왜 그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습니다.”

- 14 바오로가 단념하지 않자 우리는 포기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만 말하였다.
- 15 그렇게 며칠을 보낸 뒤 우리는 여행 준비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 16 카이사리아의 제자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갔는데, 그들이 우리를 므나손의 집으로 데려가 그곳에 머무르게 하였다. 그는 키프로스인으로서 오래전에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

야고보를 방문하다

- 17 우리가 예루살렘에 다다르자 형제들이 반가이 맞아 주었다.
- 18 이튿날 바오로는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원로들도 모두 와 있었다.
- 19 바오로는 그들에게 인사하고 나서, 자기의 직무 수행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다른 민족들에게 하신 일들을 낱알이 이야기하였다.
- 20 이야기를 들은 그들은 하느님을 찬양하고 나서 그에게 말하였다. “바오로 형제, 보사다시피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신자가 된 이들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을 열성으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 21 그런데 당신이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모세를 배신하라고 가르치면서 자식들에게 할례를 빼놓지도 말고 우리 관습을 따르지도 말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 22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도 당신이 왔다는 것을 틀림없이 듣게 될 것입니다.
- 23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에 서원을 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 24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거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을 수 있도록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당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신도 율법을 정확히 지키며 산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 25 그리고 신자가 된 다른 민족들에 관해서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불륜을 삼가라는 우리의 결정을 이미 편지로 써 보낸 바 있습니다.”
- 26 그래서 바오로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튿날 그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거행한 다음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예식 기한이 차는 날, 곧 그들 각자를 위하여 예물을 바칠 날을 신고하였다.

성전에서 체포되다

- 27 그 이레가 거의 끝날 무렵,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오로를 보고서는, 온 군중을 선동하여 그를 붙잡고
- 28 외쳤다. “이스라엘인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자는 어디에서건 누구에게나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 성전을 거슬러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리스인들까지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 29 그들은 전에 에페소 사람 트로피모스가 바오로와 함께 성안에 있는 것을 보고, 바오로가 그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생각한 것이다.
- 30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면서 백성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바오로를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자 성전 문들이 곧 닫혔다.
- 31 그들이 바오로를 막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그곳 부대의 천인대장에게 올라갔다.

- 32 그는 바로 군사들과 백인대장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 달려갔다. 그들은 천인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오로에게 매질하는 것을 멈추었다.
- 33 그러자 천인대장이 다가가 바오로를 붙잡고 쇠사슬 두 개로 그를 결박하라고 명령한 다음, 그가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는지 물었다.
- 34 그런데 군중 속에서 이자들은 이렇게, 저자들은 저렇게 소리를 질러댔다. 천인대장은 그 소란 때문에 진상을 알아낼 수가 없었으므로, 바오로를 진지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 35 바오로가 층계에 이르렀을 때 군중이 난폭하게 구는 바람에, 군사들이 그를 둘러메고 가는 수밖에 없었다.
- 36 큰 무리가 따라가면서 “그자를 없애라.” 하고 외쳐 댔던 것이다.

자신을 변호하다

- 37 그렇게 진지 안으로 끌려 들어가던 순간에 바오로가, “당신에게 말을 좀 해도 되겠소?” 하고 천인대장에게 물었다. 그러자 천인대장이 되물었다. “당신은 그리스 말을 줄 아오?”
- 38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켰다가 자객 사천 명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오?”
- 39 바오로가 대답하였다. “나는 유대 사람으로, 칼리키아의 저 유명한 도시 타르수스의 시민이요. 청컨대 내가 저 백성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
- 40 천인대장이 허락하니, 바오로는 그 층계에서서 백성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하였다. 그리하여 아주 잠잠해지자 바오로가 히브리 말로 연설하였다.

에게 하는 해명을 들어 보십시오.”

- 2 그들은 바오로가 히브리 말로 자기들에게 연설하는 것을 듣고 더욱 조용해졌다. 바오로가 계속 말하였다.
- 3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칼리키아의 타르수스에서 태어났지만 이 도성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문하에서 조상 전래의 엄격한 율법에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 날 여러분이 모두 그렇듯이 나도 하나님을 열성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 4 또 신자들을 죽일 작정으로 이 새로운 길을 박해하여,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포박하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 5 대사제와 온 원로단도 나에 관하여 증언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동포들에게 가는 서한까지 받아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 처벌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 6 그런데 내가 길을 떠나 정오쯤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번쩍이며 내 둘레를 비추었습니다.
- 7 나는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 8 내가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여쭙자, 그분께서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자렛 사람 예수다.’
- 9 나와 함께 있던 이들은 빛은 보았지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 10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내가 여쭙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들어가거라. 장차 내가 하도록 결정되어 있는 모든 일에 관하여 거기에서 누가 너에게 알려 줄 것이다.’
- 11 나는 그 눈부신 빛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어, 나와 함께 가던 이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들어갔습니다.

- 12 거기에는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 사는 독실한 사람으로, 그곳에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 13 그가 나를 찾아와 앞에 서서, ‘사울 형제, 눈을 뜨십시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눈을 뜨고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 14 그때에 하나니아가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선택하시어, 그분의 뜻을 깨닫고 의로우신 분을 뽑고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 15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분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 16 그러니 이제 무엇을 망설입니까? 일어나 그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며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 17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 무아경에 빠져,
- 18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어서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라. 사람들이 나에 관한 너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19 그래서 내가 이윽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회당마다 다니며 주님을 믿는 이들을 감옥에 기두고 매질한 사실을 저들이 알고 있습니다.’
- 20 그리고 주님의 증인인 스테파노가 피를 흘리며 죽어 갈 때, 저도 곁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켜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 21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가거라. 나는 너를 멀리 다른 민족들에게 보내려고 한다.’”

로마 시민권을 행사하다

- 22 유대인들은 바오로의 말을 여기까지 들은 소리를 높여, “저런 자는 이 세상에서 없애 버려야 한다. 살려 두어서는 안 된다.” 하고 말하였다.
- 23 그들이 이렇게 고향을 지르고 겉옷을 벗어 내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려 대자,
- 24 천인대장이 바오로를 진지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채찍질로 바오로를 신문하라고 지시하였다. 유대인들이 바오로에게 소리를 질러 대는 까닭을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 25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죽 끈으로 바오로를 단단히 묶자, 바오로가 곁에 선 백인대장에게 말하였다.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은 채 채찍질해도 되는 것이요?”
- 26 이 말을 들은 백인대장이 천인대장에게 가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 27 천인대장이 바오로에게 가서, “나에게 말해 보시오. 당신은 로마 시민이요?” 하고 물으니, 바오로가 “그렇소” 하고 대답하였다.
- 28 천인대장이 “나는 그 시민권을 많은 돈을 들여 얻었소” 하자, 바오로가 “나는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소” 하였다.
- 29 그러자 바오로를 신문하려던 자들이 곧 물러났다. 천인대장도 바오로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결박해 놓은 일로 두려워하였다.

최고 의회에 출두하다

- 30 이튿날 천인대장은 유대인들이 왜 바오로를 고발하는지 확실히 알아보려고, 바오로를 풀어 주고 나서 명령을 내려 수석 사제들과 온 최고 의회를 소집하였다. 그리고 바오로를 데리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웠다.

23 ¹ 바오로가 최고 의회 의원들을 유심히 바라보고 나서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느님 앞에서 온전히 바른 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² 그러자 하나니아스 대사제가 그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바오로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³ 그때에 바오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회철한 벽 같은 자, 하느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려고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 나를 치라고 명령하던 말이요?”

⁴ 그 곁에 서 있던 자들이 “하느님의 대사를 욕하는 것이요?” 하자,

⁵ 바오로가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저분이 대사제인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성경에도 ‘네 백성의 수장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⁶ 그리고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사두기이들이고 일부는 바리사이들이라는 것을 알고, 바오로는 최고 의회에서 이렇게 외쳤다.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사이이며 바리사이의 아들입니다. 나는 죽은 아들이 부활하리라는 희망 때문에 재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⁷ 바오로가 이런 말을 하자 바리사이들과 사두기이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면서 회중이 둘로 갈라졌다.

⁸ 사실 사두기이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주장하고, 바리사이들은 그것을 다 인정하였다.

⁹ 그래서 큰 소란이 벌어졌는데, 바리사이파에서 율법 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 강력히 항의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면 어떻게 할 셈입니까?”

¹⁰ 논쟁이 격렬해지자 천인대장은 바오로가 그들에게 찢겨 죽지 않을까 염려하여, 내

려가 그들 가운데에서 바오로를 빼내어 진지 안으로 데려가라고 부대에 명령하였다.

¹¹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오로 앞에 서시어 그에게 이르셨다. “용기를 내어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유대인들이 바오로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다

¹² 날이 밝자 유대인들은 모의를 하고, 바오로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고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였다.

¹³ 그 음모에 가담한 자는 마흔 명이 넘었다.

¹⁴ 그들이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오로를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하느님을 두고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¹⁵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바오로에 관한 일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하려는 것처럼 꾸며, 다른 최고 의회 의원들과 함께 천인대장에게 가서 바오로를 여러분에게 데리고 내려오도록 요청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없애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¹⁶ 그런데 바오로의 생질이 그 매복 계획을 듣고 진지 안으로 들어가 바오로에게 알려 주었다.

¹⁷ 바오로는 백인대장 한 사람을 불러, “이 젊은이를 천인대장에게 데려다 주시오. 그에게 알려 줄 것이 있대요” 하고 말하였다.

¹⁸ 그래서 백인대장이 그를 천인대장에게 데리고 가서 보고하였다. “수인 바오로가 저를 불러 이 젊은이를 천인대장님께 데려다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천인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¹⁹ 천인대장이 그 젊은이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데로 가서, “나에게 알려 줄 것이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 20 그가 대답하였다. “유대인들이 바오로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신문하려는 것처럼 꾸며, 내일 그를 최고 의회로 데리고 내려 오도록 천인대장님께 청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21 그러나 그들을 만지 마십시오. 그들 가운데에서 마흔 명이 넘는 사람이 바오로를 치려고 매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오로를 없애 버리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를 갖추고 천인대장님의 승낙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 22 천인대장은 “이 사실을 나에게 알렸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하고 지시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다.

바오로가 카이사리아로 총독에게 호송되다

- 23 천인대장은 백인대장 두 사람을 불러 말하였다. “오늘 밤 아홉 시에 카이사리아로 출발할 수 있도록 군사 이백 명에다 기병 칠십 명과 경무장병 이백 명을 준비시켜라.
- 24 또 바오로를 펠릭스 총독께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들도 준비하여라.”
- 25 그리고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써 주었다.
- 26 “클라우디우스 리시아스가 존귀하신 펠릭스 총독님께 인사드립니다.
- 27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붙들려 그들에게 살해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듣고, 제가 부대를 거느리고 개입하여 그를 구출해 냈습니다.
- 28 그리고 유대인들이 무슨 까닭으로 그를 단죄하는지 알아보려고, 그들의 최고 의회로 그를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 29 거기에서 저는 그가 그들의 율법과 관련된 시비로 단죄를 받을 뿐 사형을 받거나 투옥될 만한 죄는 없음을 알았습니다.

- 30 그런데 이 사람을 해치려는 음모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바로 총독님께 보냅니다. 그를 고발한 자들에게도 총독님 앞에서 그에 관하여 진술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 31 그리하여 군사들은 자기들에게 내린 명령대로 바오로를 넘겨받아 밤에 안티파트리스로 데려갔다.
- 32 그리고 이튿날 기병들에게 바오로를 데리고 계속 행군하게 한 다음, 자기들은 진지로 돌아갔다.
- 33 기병들은 카이사리아로 들어가 총독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바오로를 그 앞으로 인도하였다.
- 34 총독은 편지를 읽고 나서 바오로에게 어느 지방 출신이냐고 물어, 그가 킬리키아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는,
- 35 “당신을 고발한 자들까지 도착하면 당신을 신문하겠소” 하였다. 그리고 그를 헤로데 궁전에 데리고 가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유대인들이 바오로를 총독에게 고발하다

- 24 ¹ 닷새 뒤에 하나니아스 대사제가 원로 몇 사람과 테르틸로스라는 법률가와 함께 내려가, 총독에게 바오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 2 바오로가 불러 나오자 테르틸로스가 고발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각하 덕분에 큰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선견지명으로 이 민족을 위한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 3 존귀하신 펠릭스 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언제 어디에서나 인정하며 매우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 4 각하를 길게 붙잡아 두지 않으려 하니,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잠시 우리의 말을 들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 5 우리는 이 사람이 흑사병 같은 자로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사이에 소요를 부추기는 자며 나자렛 분파의 괴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6 이자가 성전까지 더럽히려려고 시도하여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려려고 하였습니다.)
- 7 그러나 리시아스 친인대장이 와서 이자를 우리 손에서 아주 난폭하게 빼앗아 데리고 가서는,
- 8 (이자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각하 앞으로 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각하께서 친히 이자를 신문에 보시면, 우리가 이자를 고발하는 내용을 모두 아시게 될 것입니다.”
- 9 그러자 다른 유대인들도 합세하여 사실이 그러하다고 주장하였다.

바오로가 변론하다

- 10 그때에 총독이 고개를 끄덕이자 바오로가 답변하였다. “ 나는 각하께서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관으로 계신 것을 알기에, 이제 안심하고 나 자신에 관하여 변론하겠습니다.
- 11 각하께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올라간 지가 열이틀도 되지 않았습니다.
- 12 그동안 내가 성전에서든 회당에서든 성안에서든 누구와 논쟁하거나 군중의 소요를 일으키는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 13 저들은 지금 나를 고발하는 그 내용을 각하께 증명하지도 못합니다.
- 14 그러나 각하 앞에서 이것만은 시인합니다. 저들이 분파라고 일컫는 새로운 길에 따라 내가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 15 그리고 나도 바로 저들이 품고 있는 것과 똑같은 희망을 하느님께 두고 있습니다. 의로운 이들이나 불의한 자들이나 모두 부

활하리라는 것입니다.

- 16 그래서 나 또한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애를 씁니다.
- 17 나는 내 동족에게 자선 기금을 전달하고 하느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돌아왔습니다.
- 18 그래서 내가 정결 예식을 마치고 제물을 바칠 때에 그들이 성전 안에서 나를 본 것입니다. 그러나 내 곁에는 군중도 없었고 소동도 없었습니다.
- 19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몇 사람이 있었을 뿐인데, 나에게 시비를 걸 일이 있으면 그들이 각하께 와서 고발했어야 마땅합니다.
- 20 아니면, 내가 최고 의회에 출두하였을 때 여기에 있는 저들이 무슨 범죄 사실을 찾아냈는지 직접 말해 보라고 하십시오.
- 21 나는 다만 저들 가운데서 서서, ‘ 죽은 이들의 부활 때문에 나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한마디 외쳤을 뿐입니다.”
- 22 펠릭스는 새로운 길에 대하여 매우 자세히 알고 있었지만, “ 친인대장 리시아스가 내려오면 여러분의 사건을 판결하겠소.” 하면서 공판을 연기하였다.
- 23 그리고 백인대장에게 바오로를 지키되 편하게 해 주고 친지들이 그를 돌보는 것을 막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바오로가 감옥에 갇혀 지내다

- 24 며칠 뒤에 펠릭스는 유다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오로를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었다.
- 25 바오로가 의로움과 절제와 다가오는 심판에 관하여 설명하자 펠릭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 이제 그만 가 보시오 기회가 되면 다시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 26 그러면서도 바오로가 자기에게 돈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서, 바오로를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 27 두 해가 지난 뒤에 포르키우스 페스투스가 펠릭스의 후임으로 부임하였다. 그때까지 펠릭스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오로를 가둔 채 내버려 두었다.

황제에게 상소하다

- ㉠** 1 페스투스는 그 지방에 부임한 지 사흘 뒤에 카이사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 2 그러자 수석 사제들과 유대인들의 유력자들이 바오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페스투스에게 간곡히
- 3 요청하였다. 바오로에게는 불리한 호의를 자기들에게 배풀어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 달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도중에 바오로를 얹어 버리려고 매복을 계획하고 있었다.
- 4 그러나 페스투스는 바오로가 카이사리아에 간혀 있어야 한다고 대답하고 자기도 빨리 그곳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 5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에서 담당자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 그를 고발하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 6 페스투스는 여드레인가 열흘인가만 그들과 함께 지난 뒤에 카이사리아로 내려가, 이튿날 재판정에 앉아 바오로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 7 바오로가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그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냈지만,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 8 바오로도 “나는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게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하고 자신을 변호하였다.
- 9 페스투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오로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거기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고 물었다.

- 10 바오로가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아무 불의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 11 만일 내가 불의를 저질렀거나 사형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하였다면, 죽기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나를 고발하는 내용에 아무 근거가 없으면, 아무도 나를 저들에게 내어 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 12 그러자 페스투스가 고문들과 상의하고 나서, “당신은 황제께 상소하였으니 황제께 갈 것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아그리파스와 베르니케 앞에 서다

- 13 며칠이 지난 뒤, 아그리파스 임금과 베르니케가 카이사리아에 도착하여 페스투스에게 인사하였다.
- 14 그들이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나자 페스투스가 바오로의 사건을 꺼내어 임금에게 이야기하였다. “펠릭스가 버려두고 간 수인이 하나 있는데,
- 15 내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수석 사제들과 유대인들의 원로들이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죄 판결을 요청하였습니다.
- 16 그러나 나는 고발을 당한 자가 고발한 자와 대면하여 고발 내용에 관한 변호의 기회를 가지기도 전에 사람을 내주는 것은 로마인들의 관례가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 17 그래서 그들이 이곳으로 함께 오자, 나는 지체하지 않고 그다음 날로 재판정에 앉아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 18 그런데 고발한 자들이 그를 둘러섰지만 내가 짐작한 범법 사실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19 바오로와 다투는 것은, 자기들만의 종교와 관련되고, 또 이미 죽었는데 바오로는 살아 있다고 주장하는 예수리는 사람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뿐이었습니다.
- 20 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 그곳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 21 바오로는 그대로 간혀 있다가 폐하의 판결을 받았다고 상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황제께 보낼 때까지 가두어 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 22 야그리파스가 페스투스에게 “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하자, 페스투스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 23 그리하여 이튿날 야그리파스와 베르니케가 온갖 호사를 부리고 와서, 천인대장들과 그 도시의 명사들을 거느리고 접견실로 들어서자, 페스투스가 바오로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 24 그리고 나서 페스투스가 말하였다. “야그리파스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저 사람을 보십시오. 온 유다 주민이 예루살렘에서도 여기에서도, 그를 더 이상 살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원하였습니다.
- 25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가 폐하게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26 그러나 그에 관하여 우리 주군께 써 올릴 확실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신문하여 써 올릴 자료를 얻으려고 여러분 앞으로, 특히 야그리파스 임금님 앞으로 그를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 27 고발 사유를 밝히지도 않은 채 수인을 보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

다.”

야그리파스 임금 앞에서 변론하다

- 26 ¹ 야그리파스가 바오로에게 “당신 자신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바오로가 손을 들고 나서 변론하기 시작하였다.
- 2 “야그리파스 임금님, 유대인들이 나를 단죄하는 모든 일에 관하여 오늘 임금님 앞에서 변론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 3 특히 임금님은 유대인들의 모든 관습과 문제를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 말을 참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4 모든 유대인이 나의 삶을 어린 시절부터, 내 동족 가운데에 섞여 예루살렘에서 살기 시작한 처음부터 알고 있습니다.
- 5 그들이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으므로 원하기만 하면, 내가 우리 종교에서도 가장 엄격한 바리사이파 사람으로 살아왔음을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6 그런데 지금 나는 하느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희망 때문에, 여기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7 우리 열두 지파는 밤낮으로 하느님을 열렬히 섬기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임금님, 나는 바로 그 희망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단죄를 받고 있습니다.
- 8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왜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여갑니까?
- 9 사실 나도 한때 나자렛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반대하여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10 그리고 그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나는 수석 사제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성도들 가운데에서 많은 이를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처형할 때에도 찬성표를 던졌습니

- 다.
- 11 또 자주 회당마다 다니며 그들에게 형벌을 주어 예수님을 모독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너무나 격분하여 나라 밖 여러 고을까지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 12 한번은 내가 그런 일로 수석 사제들의 권 한과 위임을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 13 임금님, 그렇게 길을 가다가 한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번쩍이며 나와 내 일행 둘레를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 14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뾰족한 막대기를 차면 너만 아프다.’ 하고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 15 내가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여쭙자 그분께서 이르셨습니다. ‘나는 네가
- 16 자, 일어나 바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너를 종으로, 그리고 내가 나를 본 것과 또 내가 앞으로 너에게 나타내 보일 것의 증인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다.
- 17 나는 너를 이 백성과 다른 민족들에게서 구해 주겠다. 이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 18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를 용서받고 나에게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이들과 함께 상속 재산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 19 그래서 야그리파스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이 환시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 20 먼저 다마스쿠스에 사는 이들에 이어 예루살렘에 사는 이들에게, 또 온 유대 지방을 다니면서, 나아가 다른 민족들에게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하라고 선포하였습니다.
- 21 바로 그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나를 붙잡아 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 22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 날까지 이렇게 서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이야기한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 23 곧 메시아에게서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첫 번째 분으로서 이 백성과 다른 민족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 24 바오로가 이렇게 변론하자 페스투스가 큰 소리로, “바오로, 당신 미쳤구려.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치고 말았군.” 하고 말하였다.
- 25 바오로가 대답하였다. “존귀하신 페스투스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진리와 양식에 따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 26 임금님은 이것들을 알고 있으므로 내가 그분께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임금님은 이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 27 야그리파스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 28 야그리파스가 바오로에게, “당신은 조금 있으면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으로 행세하게 만들겠군.” 하고 말하였다.
- 29 그러자 바오로가 대답하였다. “조금 있는 오래 있든, 나는 임금님만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이 사슬만 빼고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 30 임금과 총독과 베르니케와 그 밖에 그들과 함께 앉아 있던 이들이 일어나
- 31 퇴장하여 서로 말하였다. “저 사람은 사형을 받거나 투옥될 만한 일은 하지 않는 군요”

32 아그리파스는 페스투스에게 “저 사람에게 황제에 상소하지 않았으면 풀려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로마로 출발하다

27 ¹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결정되자, 그들은 바오로와 다른 수인 몇을 ‘황제 부대’의 율리우스라는 백인대장에게 넘겼다.

2 그리하여 우리는 아시아의 여러 항구로 가는 아드라미티움 배를 타고 떠났다. 테살로니가 출신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타르코스도 우리와 함께 있었다.

3 우리는 다음 날 시돈에 닿았다. 율리우스는 바오로에게 인정을 베풀어, 바오로가 친구들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보살핌을 받도록 허락하였다.

4 그곳을 떠난 우리는 역풍이 불었기 때문에 바람이 가려진 쪽으로 키프로스 섬을 돌아,

5 칼키기아와 팜필리아 앞바다를 가로질러 리키아의 미리에 이르렀다.

6 거기에서 백인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7 우리는 여러 날 동안 느리게 항해하여 간신히 크니도스 앞까지 다다랐다. 그러나 맞바람 때문에 더 다가가지 못하고, 바람이 가려진 살모네 쪽을 향하여 크레타 섬으로 갔다.

8 우리는 간신히 살모네를 지나 라세아 시에서 가까운 ‘좋은 항구들’이라는 곳에 닿았다.

9 많은 시일이 흘러 단식일도 이미 지났다. 그래서 항해하기가 위험해지자, 바오로는 경고하면서

10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이대로 항해하면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위험하고 큰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11 그러나 백인대장은 바오로가 한 말보다 항해사와 선수를 더 믿었다.

12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않았으므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 수만 있으면 페니스에 도착하여 겨울을 나기로 의견을 모았다. 페니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로서 남서쪽과 북서쪽을 바라보는 곳이었다.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다

13 마침 남풍이 부드럽게 불자 그들은 이미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여, 닻을 올리고 크레타 해안에 바싹 붙어서 항해하였다.

14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크레타 쪽에서 ‘에우라킬론’이라는 폭풍이 몰아쳤다.

15 배가 바람에 휩쓸려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없었으므로 우리는 포기한 채 떠밀려 다니다가,

16 카우다리는 작은 섬으로 바람이 가려진 쪽을 지날 때, 간신히 보조선을 붙잡을 수 있었다.

17 선원들은 그것을 끌어 올리고 나서, 밧줄을 이용하여 본선을 동여매었다. 그리고 시르티스 모래톱에 좌초할까 두려워, 띄우는 닻을 내리고 떠밀려 다녔다.

18 폭풍에 몹시 시달리자, 이튿날 선원들은 일부 짐을 바다에 내던지고

19 셋째 날에는 배에 딸린 도구들을 자기들 손으로 내던져 버렸다.

20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나타나지 않고 거센 바람만 심하게 불어, 마침내 우리가 살아날 희망이 아주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21 그리하여 모두 식욕마저 잃었다. 그때에 바오로가 그들 가운데에 서서 말하였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크레타 섬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 22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에서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 23 사실 나의 주님이시고 또 내가 섬기는 하느님의 천사가 지난밤에 나에게 와서,
- 24 ‘바오로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황제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도 너에게 맡기셨다.’ 하고 말하셨습니다.
- 25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천사가 나에게 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 26 우리는 어떤 섬에 좌초하게 되어 있습니다.”
- 27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떠밀려 다닌 지 열나흘째 밤이 되었을 때였다. 자정 무렵에 선원들은 배가 육지에 다가간다는 느낌을 받았다.
- 28 그래서 추를 내려 보니 스무 길이었고, 조금 더 나아가서 다시 추를 내려 보니 열다섯 길이었다.
- 29 우리는 배가 암초에 좌초할까 두려워 고물에서 닻 네 개를 내려놓고 날이 밝기를 빌었다.
- 30 그러나 선원들은 배에서 달아날 속셈으로, 이물에서 닻을 내린다고 핑계를 대면서 보조선들을 바다에 내렸다.
- 31 그때에 바오로가 백인대장과 군사들에게, “저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 32 그러자 군사들이 밧줄을 끊어 보조선들을 그냥 떠내려 보냈다.
- 33 날이 밝기 시작할 때까지, 바오로는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나흘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은 채

바티면서 기다려 왔습니다.

- 34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남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을 것입니다.”
- 35 이렇게 말한 바오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빵을 들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 다음 그것을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 36 그러자 모두 용기를 얻어 그들도 음식을 먹었다.
- 37 배에 탄 우리는 모두 이백칠십육 명이었다.
- 38 그들은 음식을 배불리 먹은 뒤에 밀을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하였다.

배가 부서지다

- 39 날이 밝자, 어느 땅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해변이 평평한 작은 만이 보였다. 그래서 수 있으면 배를 그 해변에 대기로 작정하였다.
- 40 그들은 닻들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또 두 키를 묶었던 줄을 풀었다. 그리고 앞 돛을 올려 바람을 타고 해변 쪽으로 배를 몰았다.
- 41 그러나 그들은 물 밑 모래 언덕에 빠져 배를 주저앉히고 말았다. 이물은 박혀 전혀 움직이지 않고 고물은 세찬 파도에 부서지기 시작하였다.
- 42 군사들은 수인들이 헤엄쳐 달아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죽이기로 계획하였다.
- 43 그러나 백인대장은 바오로를 살리고자 하였으므로, 군사들이 그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명령을 내려 헤엄칠 수 있는 이들은 먼저 뛰어내려 물로 가고,
- 44 나머지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널빤지를, 일부는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가게 하였다. 그렇게 하여 모두 무사히 물으로 나오게 되었다.

바오로가 몰타 섬에서 지내다

- 28** ¹ 우리는 목숨을 구한 뒤에야 그 섬이 몰타라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
- ² 원주민들은 우리에게 각별한 인정을 베풀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데다 날씨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 놓고 우리를 모두 맞아 주었다.
- ³ 그런데 바오로가 빨갛은 다발을 모아 불 속에 넣자, 독사 한 마리가 열기 때문에 튀어나와 바오로의 손에 달라붙었다.
- ⁴ 원주민들은 뱀이 바오로의 손에 매달린 것을 보고, “저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살아 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대로 살려 두지 않는 것이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 ⁵ 바오로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뱀을 불 속에 떨어 버렸다.
- ⁶ 원주민들은 바오로의 몸이 부어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기다렸다. 그렇게 오래 기다리며 지켜보았지만 그에게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 바오로를 신이라고 하였다.
- ⁷ 그 근처에 섬의 수령인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의 소유지가 있었다. 그가 우리를 손님으로 맞아들어 사흘 동안 친절히 대접해 주었다.
- ⁸ 마침 푸블리우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는데, 바오로가 그에게 가서 기도하고 인수하여 그를 고쳐 주었다.
- ⁹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그 섬의 다른 병자들도 오자 바오로는 그들도 고쳐 주었다.
- ¹⁰ 그들은 우리에게 큰 경의를 표하고, 우리가 배를 타고 떠날 때에는 필요한 물건들을 실어 주었다.

몰타에서 로마로 가다

- ¹¹ 석 달 뒤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그 배에는 디오스쿠로이의 모상이 새겨져 있었다.

- ¹² 우리는 시라쿠사에 상륙하여 사흘을 머물렀다가,
- ¹³ 그곳에서 다시 닻을 올려 레기움에 닿았다. 하루 뒤에 남풍이 불어 우리는 이를 만에 푸테올리에 이르러
- ¹⁴ 형제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청을 받고 이레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로마에 도착하였다.
- ¹⁵ 형제들이 로마에서 우리 소문을 듣고 아피우스 광장과 트레스 타베르네까지 우리를 맞으러 왔다. 그들을 본 바오로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 ¹⁶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오로는 자기를 지키는 군사 한 사람과 따로 지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로마에서 선교하다

- ¹⁷ 사흘 뒤에 바오로는 그곳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이자 바오로가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백성이나 조상 전래의 관습을 거스르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도, 예루살렘에서 죄수가 되어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 ¹⁸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하고 나서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풀어 주려고 하였습니다.
- ¹⁹ 그러나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나는 내 민족을 고발할 뜻이 없는데도 하는 수 없이 황제에게 상소하였습니다.
- ²⁰ 그래서 여러분을 뵈고 이야기하려고 오시라고 청하였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희망 때문에 이렇게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 ²¹ 그러자 그들이 바오로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유다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형제들 가운데 누가 와서 당신

에게 불리한 보고나 이야기를 한 일도 없습니다.

22 그러나 이 분파가 어디에서나 반대를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23 그들은 바오로와 날짜를 정해 두었다가, 많은 사람을 데리고 바오로의 숙소로 찾아왔다. 바오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을 들어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였다.

24 그러자 어떤 이들은 바오로의 말을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믿지 않았다.

25 그들이 이렇게 서로 의견을 달리한 채 떠나려고 할 때에 바오로가 한마디 덧붙였다.
“

26 곧 이 말씀입니다. ‘너는 저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27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 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28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이 다른 민족들에게 보내졌다는 것을 알아 합시다. 그들은 들을 것입니다.”

29 바오로가 이 말을 마치자 유대인들은 서로 많은 논쟁을 하며 돌아갔다.

30 바오로는 자기의 셋집에서 만 이 년 동안 지내며, 자기를 찾아 오는 모든 사람을 맞이하였다.

31 그는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쳤다.

신약성경 - 6

서간서 - 1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총 16 장

총 432 절

[신약성경]-[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인사

- 1** ¹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바오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 2**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미리 성령에 약속해 놓으신 것으로,
- 3** 당신 아드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 4**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힘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확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 5** 우리는 바로 그분을 통하여 사도직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 6**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 7**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로써 하나님께 사랑받는 로마의 모든 신자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바랍니다.

로마를 방문하려는 원의

- 8**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9** 그분 아드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 10** 나는 끊임없이 여러분 생각을 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든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믿고 있습니다.

- 11** 나는 여러분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려는 것입니다.
- 12** 다시 말하면, 내가 여러분과 같이 지내면서 여러분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통하여 다 함께 서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 13**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도 알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까지 좌절되기는 하였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작정하였습니다. 다른 민족들에게서처럼 여러분에게서도 내가 어떤 성과를 거두려는 것이었습니다.
- 14** 나는 그리스인들에게도 비그리스인들에게도, 지혜로운 이들에게도 어리석은 이들에게도 다 빛을 지고 있습니다.
- 15** 그래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복음의 힘

- 16**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그리스인에게 까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힘이 때문입니다.
- 17**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됩니다. 이는 성경에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

- 18**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 19** 하나님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이미 그들에게 명백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명백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 20**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 곧 그분의 영원한 힘과 신성을 조

물을 통하여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 21 **하느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느님으로 찬양하거나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게 되고 우둔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 22 **그들은 지혜롭다고 자처하였지만 바보가 되었습니다.**
- 23 **그리고 불멸하시는 하느님의 영광을 씌어 없어질 인간과 날짐승과 네발짐승과 길짐승 같은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 24 **그리하여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이 마음의 욕망으로 더럽혀지도록 내버려 두시어,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몸을 수치스럽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 25 **그들은 하느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버리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받들어 섬겼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영원히 찬미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 26 **이런 까닭에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넘기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여자들은 자연스러운 육체관계를 자연을 거스르는 관계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 27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 맺는 자연스러운 육체관계를 그만두고 저희끼리 색욕을 불태웠습니다. 남자들이 남자들과 파렴치한 것을 저지르다가, 그 탈선에 합당한 대가를 직접 받았습니니다.**
- 28 **그들이 하느님을 알아 모시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이 분별없는 정신에 빠져 부당한 것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 29 **그들은 온갖 불의와 사악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덕으로 그득합니다. 그들은 험담꾼이고**
- 30 **중상꾼이며, 하느님을 미워하는 자고, 불손**

하고 오만한 자며, 허풍쟁이고 모략꾼이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며,

- 31 **우둔하고 신의가 없으며 비정하고 무자비한 자입니다.**
- 32 **이와 같은 것을 저지르는 자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느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들은 그런 것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같은 것을 저지르는 자들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하느님의 의로운 심판

2 ¹ **그러므로 아,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남을 심판하면서 똑같은 것을 저지르고 있으니, 남을 심판하는 바로 그것으로 자신을 단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2 **우리는 그러한 것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내리는 하느님의 심판이 진리에 따른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 3 **아, 그러한 것을 저지르는 자들을 심판하면서도 스스로 같은 것을 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하느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 4 **아니면, 하느님의 그 큰 호의와 관용과 인내를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그분의 호의가 그대를 회개로 이끌려 한다는 것을 모릅니까?**
- 5 **그대는 회개할 줄 모르는 완고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는 진노와 계시의 날에 그대에게 쏟아질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 6 **하느님께서서는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 7 **꾸준히 선행을 하면서 영광과 명예와 불멸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 8 **그러나 이기심에 사로잡혀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격분이 쏟아집니다.**
- 9 **먼저 유대인이 그리고 그리스인까지,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환난과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 10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그리스인에게까지, 선을 행하는 모든 이에게는 영광과 명예와 평화가 내릴 것입니다.
- 11 하느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민족들과 율법

- 12 율법을 모르고 죄지는 자들은 누구나 율법과 관계없이 멸망하고, 율법을 알고 죄지는 자들은 누구나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 13 율법을 듣는 이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가 아니라, 율법을 실천하는 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14 다른 민족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본성에 따라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실천하면,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들이 자신들에게는 율법이 됩니다.
- 15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고 그들의 엇갈리는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하면서, 그들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행위가 자기들의 마음에 쓰여 있음을 보여 줍니다.
- 16 이러한 사실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들의 숨은 행실들을 심판하시는 그 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유대인과 율법

- 17 그런데 그대는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면서 율법에 의지하고 하느님을 자랑하며,
- 18 율법을 배워 하느님의 뜻을 알고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할 줄 안다고 합니다.
- 19 또 자신이 눈먼 이들의 인도자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의 빛이라고 확신하며,
- 20 율법에서 지식과 진리의 진수를 터득하였

으므로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이며 철없는 자들의 선생이라고 확신합니다.

- 21 그렇다면 남은 가르치면서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그대는 도둑질을 합니까?
- 22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그대는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혐오한다고 하면서 왜 그대는 신전 물건을 훔칩니까?
- 23 율법을 자랑하면서 왜 그대는 율법을 어겨 하느님을 모욕합니까?
- 24 과연 성경에, “하느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 25 그대가 율법을 실천하면 할례는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대가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가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 26 그러니 할례 받지 않은 이들이 율법의 규정들을 지키면,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 27 그리하여 몸에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율법을 준수하는 이들이, 법전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어기는 그대를 심판할 것입니다.
- 28 겉모양을 갖추었다고 유대인이 아니고, 살갗에 겉모양으로 나타난다고 할례가 아닙니다.
- 29 오히려 속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참유대인이고, 문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할례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하느님의 진실성과 사람들의 죄

- 3¹ 그렇다면 유대인으로서 더 이로운 점은 무엇입니까? 할례의 이점은 무엇입니까?
- 2 어느 모로 보나 많이 있습니다. 우선, 하느

남께서 당신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 3 그러면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불성실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불성실함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무효로 만들어 버린다는 말입니까?
- 4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실 때에 당신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당신께 재판을 걸면 당신께서 이기실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 5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낸다면,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인간의 방식으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내리시므로 불의하시다고 해야 합니까?
- 6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까?
- 7 나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돋보여 그분 영광에 보탬이 된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 8 더 나아가서 “악을 행하여 선이 생기게 하자.” 고 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어떤 자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면서 우리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합당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

- 9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나는 접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유대인들이나 그리스인들이나 다 같이 죄의 지배 아래 있다고 고말하였습니다.
- 10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의로운 이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이 없고 하나님을 찾는 이 없다.
모두 뱃나가 다 함께 쓸모없이 되어 버렸다. 호의를 베푸는 이가 없다. 하나도 없

다.

- 13 그들 목구멍은 열린 무덤, 혀로는 사람을 속이고 입술 밑에는 살무사의 독을 품는다.
14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하고
15 밝은 남의 피를 쏟는 일에 재빠르며
16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17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18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19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이 말하는 것은 모두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모든 입은 다물어지고 온 세상은 하나님 앞에 유죄임이 드러납니다.
20 어떠한 인간도 율법에 따른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될 따름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

- 21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22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오는 하나님의 의로움은 믿는 모든 이를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도 없습니다.
23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잃었습니다.
24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속량을 통하여 그분의 은총으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
25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내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속죄는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사람들이 이전에 지은 죄들을 용서하시어 당신의 의로움을 보여 주시려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26 이 죄들은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실 때에 저질러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움을 보여 주시어, 당신께서 의로우신 분이며 또 예수님을 믿는 이

를 의롭게 하시는 분임을 드러내십니다.

- 27 그러나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그리되었습니까? 행위의 법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입니다.
- 28 사실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 29 하느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느님이십니까? 다른 민족들의 하느님은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다른 민족들의 하느님이시기도 합니다.
- 30 정녕 하느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할례 받은 이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할례 받지 않은 이들도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 31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무효가 되게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 4¹ 그렇다면 혈육으로 우리 선조인 아브라함이 찾아 얻은 것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 2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라면 자랑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 3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믿으니, 하느님께서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하였습니다.
- 4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이 선물이 아니라 당연한 보수로 여겨집니다.
- 5 그러나 일을 하지 않더라도 불경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받습니다.
- 6 그래서 다윗도 하느님께서 행위와는 상관없이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는 사람의 행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 7 “행복하여라, 불법을 용서받고 죄가 덮여진 사람들!
- 8 행복하여라, 주님께서 죄를 헤아리지 않으시는 사람!”
- 9 그렇다면 이 행복이 할례 받은 이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할례 받지 않은 이들에게도 해당됩니까? 우리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고 말합니다.
- 10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인정을 받으십니까? 할례를 받은 다음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입니까? 할례 받은 다음이 아니라 할례 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 11 그는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에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을 확증하는 것으로서 할례라는 표징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가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움을 인정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 12 또한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이들의 조상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에 걸어간 그 믿음의 발자취도 따라 걸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실현된 하느님의 약속

- 13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 14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의미가 없어지고 약속은 무효가 됩니다.
- 15 율법은 진노를 자아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 16 그러한 까닭에 약속은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고 은총으로 주어집니다. 이는 약속이 모

든 후손에게, 곧 율법에 따라 사는 이들뿐 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여 준 믿음에 따라 사는 이들에게도 보장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 17 그것은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었다.” 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분, 곧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시고 존제하지 않는 것을 존제하도록 불러내시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 18 그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너의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에 따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 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 19 백 살가량이 되어,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사리의 모태도 죽은 것이라 여기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 20 그는 불신으로 하느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더욱 굳세어져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 21 그리고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 22 바로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 23 하느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기록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 24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인정받을 것입니다.
- 25 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셨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되살아나셨습니다.

의롭게 된 이들의 삶과 희망

- 5¹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 2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

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 3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 4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 5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 6 우리가 아직 낙약하던 시절, 그리스도께서는 정해진 때에 불경한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 7 의로운 이를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 8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 9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 10 우리가 하느님의 원수였을 때에 그분 아드님의 죽음으로 그분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 그 아드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 11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자랑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 12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 13 사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없어서 죄가 죄로 헤아려지지 않았습다.
- 14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방식으로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죽음이 지배하였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예형입니다.
- 15 그렇지만 은사의 경우는 범죄의 경우와 다릅니다.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충만히 내렸습니다.
- 16 그리고 이 선물의 경우도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경우와는 다릅니다. 한 번의 범죄 뒤에 이루어진 심판은 유죄 판결을 가져왔지만, 많은 범죄 뒤에 이루어진 은사는 무죄 선언을 가져왔습니다.
- 17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지만, 은총과 의로움의 선물을 충만히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며 지배되었습니다.
- 18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듯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받습니다.
- 19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 20 율법이 들어와 범죄가 많아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 21 이는 죄가 죽음으로 지배한 것처럼, 은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의로움으로 지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

- 6 ¹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은총이 많아지도록 우리가 계속 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 ²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서는 이미 죽은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죄 안에 살 수 있겠습니까?
- ³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 ⁴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 ⁵ 사실 우리가 그분처럼 죽어 그분과 결합되었다면, 부활 때에도 분명히 그리될 것입니다.
- ⁶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옛 인간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소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 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⁷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 ⁸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 ⁹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 ¹⁰ 그분께서 돌아가신 것은 죄와 관련하여 단 한 번 돌아가신 것이고, 그분께서 사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 ¹¹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도 죄에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 ¹²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여 여러분이 그 욕망에 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 ¹³ 그리고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

에 넘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난 사람으로서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고, 자기 지체를 의로움의 도구로 하느님께 바치십시오.

- 14 죄가 여러분 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총 아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의로움의 종

- 15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총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좋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 16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종으로 넘겨 순종하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라는 사실을 모릅니까? 여러분은 죽음으로 이끄는 죄의 종이 되거나 의로움으로 이끄는 순종의 종이 되거나 하는 것입니다.
- 17 그러나 하느님께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전해 받은 표준 가르침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 18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어 의로움의 종이 되었습니다.
- 19 나는 여러분이 지닌 육의 나약성 때문에 사람들의 방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에 종으로 넘겨 불법에 빠져 있었듯이, 이제는 자기 지체를 의로움에 종으로 바쳐 성화에 이르십시오.
- 20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움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 21 그 때에 여러분이 지금은 부끄럽게 여기는 것들을 행하여 무슨 소득을 거두었습니까? 그러한 것들의 끝은 죽음입니다.
- 22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고 하느님의 종이 되어 얻는 소득은 성화로 이끌어 줍니다. 또 그 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

- 23 죄가 주는 품삯은 죽음이지만, 하느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

7 ¹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기에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그 위에 군림한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 2 혼인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율법으로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과 관련된 율법에서 풀려납니다.
- 3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몸을 맡기면 간통한 여자라고 불리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율법에서 자유로워져, 다른 남자에게 몸을 맡겨도 간통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 4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 덕분에 율법과 관련해서는 죽음으로써, 다른 분 곧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분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 5 사실 전에 우리가 육에 갇혀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죄 많은 여러 욕정이 우리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 6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율법과 관련해서는 죽음으로써 그것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하여 법전이라는 옛 방식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새 방식으로 하느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율법과 죄와 죽음

- 7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러나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죄를 몰랐을 것입니다. 율법에서 “ 탐내서는 안 된다.” 고 하지 않았으면 나는 탐욕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8 이 계명을 발미로 죄가 내 안에 온갖 탐욕을 일으켜 놓았습니다. 사실 율법과 상관없이 없을 경우 죄는 죽은 것입니다.

9 전에는 내가 율법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10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이끌어야 하는 계명이 나에게서는 죽음으로 이끄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1 죄가 계명을 발미로 나를 속이고 또 그것으로 나를 죽인 것입니다.

12 그러나 율법은 거룩합니다.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13 그렇다면 그 선한 것이 나에게서는 죽음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그 선한 것을 통하여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게, 죄가 계명을 통하여 철저히 죄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14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율법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육적인 존재, 죄의 종으로 팔린 몸입니다.

15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16 그런데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한다면, 이는 율법이 좋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17 그렇다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18 사실 내 안에, 곧 내 육 안에 선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음을 나는 압니다. 나에게 원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좋은 것을 하지는 못합니다.

19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20 그래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21 여기에서 나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기를 바라는데도 악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22 나의 내적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두고 기뻐합니다.

23 그러나 내 지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고 있음을 나는 봅니다. 그 다른 법이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24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 줄 수 있습니까?

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나 자신이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

8¹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은 단죄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2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그대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3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나약하여 이를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곧 당신의 친아드님을 죄 많은 육의 모습을 지닌 속죄 제물로 보내시어 그 육 안에서 죄를 처단하셨습니다.

4 이는 육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채워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5 무릇 육을 따르는 자들은 육에 속한 것을

-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이들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 6 육의 관심사는 죽음이고 성령의 관심사는 생명과 평화입니다.
- 7 육의 관심사는 하느님을 적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은 하느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 8 육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 9 그러나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 1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되지만,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 11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 12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육에 따라 살도록 육에 빛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 13 여러분이 육에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 14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 15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 주시는 영을 받았습니 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 16 그리고 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느님의

- 자녀임을 우리의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 17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고난과 희망과 영광

- 18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19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 20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 21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 22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23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 24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 25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 26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낙약한 우리를 도와 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 27 마음속까지 살펴보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 28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 29 하나님께서는 머리 뽑으신 이들을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양이 되도록 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드님께서 많은 형제 가운데 만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 30 그렇게 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믿는 이들의 확신

- 31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관련하여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 32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 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배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 33 하나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 34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었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 35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었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칼입니까?
- 36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37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 내고도 남습니다.

- 38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 39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바오로와 이스라엘

- 9¹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증언해 줍니다.
- 2 그것은 커다란 슬픔과 끊임없는 아픔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 3 사실 육으로는 내 혈족인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더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 4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영광, 여러 계약, 율법, 예배, 여러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 5 그들은 저 조상들의 후손이며, 그리스도께서도 육으로는 바로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들은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찬미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스라엘 선택

- 6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허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 7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시악을 통하여 후손들이 너의 이름을 물려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 8 이는 육의 자녀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여야 그분의 후손으로 여겨진다는 뜻입니다.

9 약속이라는 것은, “이때에 내가 다시 올 터인데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신 말씀입니다.

10 그뿐만 아니라, 레베카가 한 남자 곧 우리 조상 이삭에게서 잉태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1 두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선택의 뜻을 지속시키시려고,

12 또 그것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부르는 당신께 달려 있음을 드러내시려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고 레베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3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나는 아담을 사랑하고 에사우를 미워하였다.”

14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니까? 하나님 쪽이 불의하시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5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자비를 베푸려는 이에게 자비를 베풀고 동정을 베푸려는 이에게 동정을 베풀다.”

16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17 사실 성경도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려고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웠다. 곧 너에게서 내 힘을 보이고, 온 세상에 내 이름을 떨치게 하려는 것이다.”

18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은 완고하게 만드십니다.

하느님의 진노와 자비

19 이제 그대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여전히 책망하십니까? 사실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할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20 아, 인간이여! 하느님께 말대답을 하는 그대는 청년 누구인가? 작품이 제작자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21 또는, 용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한 덩이는 귀한 데 쓰는 그릇으로, 한 덩이는 천한 데 쓰는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없습니까?

22 하느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보이시고 당신의 힘을 알리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하게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들을 큰 은혜로 참아 주셨다면,

23 그리고 영광을 받도록 미리 마련하신 자비의 그릇들에게 당신의 풍성한 영광을 알려려고 그러하셨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렵니까?

24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대인 가운데에서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도 불러 주셨습니다.

25 이는 바로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사랑받지 못한 여인을 ‘사랑받는 여인’이라 부르리라.

26 그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하던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리라.”

27 그리고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하여도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28 주님께서 말씀은 온전히 또 조속히 세상에 실현시키실 것이다.”

29 이는 또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후손을 남겨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같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열성

- 30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던 다른 민족들이 의로움을, 믿음을 바탕으로 의로움을 얻은 것입니다.
- 31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로움의 율법을 추구 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 32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찾지 않고 행위로 찾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 33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을, 부딪쳐 쓰러지게 하는 바위를 놓는다. 그를 믿는 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10 ¹ 형제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 2 나는 그들에 관하여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위한 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깨달음에 바탕을 두지 않은 열성입니다.
- 3 하느님께서 오는 의로움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하느님의 의로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4 사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이십니다. 믿는 이는 누구나 의로움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

- 5 모세는 율법에서 오는 의로움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실천하는 이는 그것들로 살 것이다.”

- 6 그러나 믿음에서 오는 의로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누가 하늘로 올라가리오?’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 7 또 말합니다. “‘누가 지하로 내려가리오?’ 하지 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모시고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 8 의로움은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너희 입과 너희 마음에 있다.” 이것이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 9 그대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켰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 10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 11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 12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어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 13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 14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었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었습니까?
- 15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나!”
- 16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 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 18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 나갔다.”
- 19 나는 또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우선 모세가 말합니다. “나는 민족도 아닌 무리를 너희가 시기하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에게 너희가 분노하게 하리라.”
- 20 이사야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나를 찾지도 않는 자들을 내가 만나 주었고 나에 관하여 묻지도 않는 자들에게 나를 드러내 보았다.”
- 21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 11** 1 그래서 나는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물리치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벤야민 지파 사람입니다.
- 2 하나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당신의 백성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걸어서 어떻게 호소하였는지 모릅니까?
- 3 “주님, 저들은 당신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당신의 제단들을 헐어 버렸습니다. 이제 저 혼자 남았는데 저들은 제 목숨마저 없애려고 저를 찾고 있습니다.”
- 4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어떠하였습니까?

“나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칠천 명을 나를 위하여 남겨 두었다.”

- 5 이와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은총으로 선택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 6 이렇게 은총으로 되는 것이라면 더 이상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총이 더 이상 은총일 수가 없습니다.
- 7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하고, 선택된 이들만 그것을 얻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 8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을 마비시키는 영을, 보지 못하는 눈을, 듣지 못하는 귀를 주시어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 9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식탁이 그들에게 울가미와 덫이 되고 걸림돌과 응보가 되게 하소서.
- 10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늘 굽어 있게 하소서.”

다른 민족들의 구원

- 11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걸려 비틀거리다가 끝내 쓰러지고 말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으로 다른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다른 민족들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 12 그런데 그들의 잘못으로 세상이 풍요로워졌다면, 그들의 실책으로 다른 민족들이 풍요로워졌다면, 그들이 모두 만개 될 때에는 얼마나 더 풍요로웠습니까?
- 13 이제 나는 다른 민족 출신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민족들의 사도이기도 한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 14 그것은 내가 내 살붙이들을 시기하게 만들어 그들 가운데에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 수 있을까 해서입니다.

- 15 그들이 배척을 받아 세상이 화해를 얻었다면, 그들이 받아들여질 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 16 만물로 바치는 빵 반죽 덩이가 거룩하면 나머지 반죽도 거룩합니다.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합니다.
- 17 그런데 올리브 나무에서 몇몇 가지가 잘려 나가고,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인 그대가 그 가지들 자리에 접붙여져 그 올리브 나무 뿌리의 기름진 수액을 같이 받게 되었다면,
- 18 그대는 잘려 나간 그 가지들을 알아보며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 19 이제 그대는, “가지들이 잘려 나간 것은 내가 접붙여지기 위해서였다.” 하고 말것입니다.
- 20 옳은 말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아서 잘려 나가고 그대는 믿어서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만한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 21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아마 그대도 아까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 22 그러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함께 준엄하심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떨어져 나간 자들에게는 준엄하시지만 그대에게는 인자하십니다. 오직 그분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 23 그들도 불신을 고집하지 않으면 다시 접붙여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능력이 있습니다.
- 24 그대가 본래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나와, 본래와 달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다면, 본래의 그 가지들이 제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의 구원

- 25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를 알아 스스로 즐거움다고 여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신비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부가 마음이 완고해진 상태는 다른 민족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어지고
- 26 그다음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시온에서 구원자가 오시어 야곱에게서 불경함을 치우시리라.
- 27 이것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그들과 맺어 줄 나의 계약이다.”
- 28 그들은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조상들 덕분에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이들입니다.
- 29 하나님의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30 여러분도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 31 마찬가지로 그들도 지금은 여러분에게 자비가 베풀어지도록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지만, 이제 그들도 자비를 입게 될 것입니다.
- 32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안에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하느님 찬미가

- 33 오! 하나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정녕 깊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고 그분의 길은 얼마나 알아내기 어렵습니까?
- 34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안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분의 조연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 35 아니면 누가 그분께 무엇을 드린 적이 있어 그분의 보답을 받을 일이 있었습니까?”
- 36 과연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

- 12** ¹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러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 ²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 ³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에 힘입어 여러분 모두에게 말합니다. 자신에 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저마다 하느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십시오.
- ⁴ 우리가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체가 모두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 않듯이,
- ⁵ 우리도 수가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서로 지체가 됩니다.
- ⁶ 우리는 저마다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에 맞게 예언하고,
- ⁷ 봉사면 봉사하는 데에 써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 ⁸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쓰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면 순수한 마음으로, 지

도하는 사람이면 열성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면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

- ⁹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악을 혐오하고 선을 꼭 붙들십시오.
- ¹⁰ 형제애로 서로 깊이 아끼고, 서로 존경하는 일에 먼저 나서십시오.
- ¹¹ 열성이 줄지 않게 하고 마음이 성령으로 타오르게 하며 주님을 섬기십시오.
- ¹² 희망 속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 ¹³ 궁핍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손님 접대에 힘쓰십시오.
- ¹⁴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십시오.
- ¹⁵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
- ¹⁶ 서로 뜻을 같이하십시오.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비천한 이들과 어울리십시오.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 ¹⁷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 줄 뜻을 품으십시오.
- ¹⁸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로이 지내십시오.
- ¹⁹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서도 “복수는 내가 할 일, 내가 보복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 ²⁰ 오히려 “그대의 원수가 주리거든 먹은 것을 주고, 목말라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대가 솟을 그 의 머리에 놓는 샘입니다.”
- ²¹ 악에 굴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십시오.

그리스도인과 권위

- 13** ¹ 사람은 누구나 위에서 다스리는 권 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권위란 있을 수 없고, 현재의 권위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 ² 그러므로 권위에 맞서는 자는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고, 그렇게 거스르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 ³ 사실 지배자들이란 악행을 할 때에나 두렵지 선행을 할 때에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대는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권위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 ⁴ 지배자는 그대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악을 행할 경우에는 두려워하십시오. 그들은 공언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악을 저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그분의 일꾼입니다.
- ⁵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도 복종해야 합니다.
- ⁶ 여러분이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러한 일에 정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 ⁷ 여러분은 모든 이에게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내야 할 사람에게는 조세를 내고 관세를 내야 할 사람에게는 관세를 내며,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사랑은 율법의 완성

- ⁸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 ⁹ “간음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탐내서는 안 된다.”는 계명과 그 밖의 다른 계명이 있을 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이 한마디 곧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 ¹⁰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각심

- ¹¹ 또한 여러분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 ¹² 밤이 풀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 ¹³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마십시오.
- ¹⁴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욕신을 들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심판하지 마라

- 14** ¹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여러 견해를 두고 논쟁생각으로 그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 ² 어떤 사람은 무엇이나 다 먹을 수 있다고 믿지만, 믿음이 약한 이는 채소만 먹습니다.
- ³ 아무것이나 먹는 사람은 가려 먹는 사람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고, 가려 먹는 사람은 아무것이나 먹는 사람을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 ⁴ 그대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심판합니까? 그가 서 있던 넘어지든 그것은 그 주인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 ⁵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이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다른 사람은 어느 날이나 다 같다고 여깁니다. 저마다 자기 판단에 자신을 가져야 합니다.

- 6 특정한 날을 증거하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고, 아무것이나 먹는 사람도 하느님을 위하여 먹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먹으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려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가려 먹으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7 우리 가운데에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 8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 9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바로 죽은 이들과 산 이들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 10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심판합니까?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 11 사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 있는 한 모두 나에게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하느님을 찬송하리라.’”
- 12 그러므로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한 일을 하느님께 사실대로 이되게 될 것입니다.

형제에게 장애물이 되지 마라

- 13 그러나 더 이상 서로 심판하지 마시다. 오히려 형제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았다고 결심하십시오.
- 14 나는 주 예수님 안에서 알고 있고 또 확신합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더러운 것은 없습니다. 다만 무엇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더럽습니다.
- 15 그대의 형제가 음식 문제로 슬퍼한다면, 그

대는 더 이상 사랑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음식으로 형제를 파멸시키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 16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좋은 것이 모욕을 받지 않게 하십시오.
- 17 하느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입니다.
- 18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이는 하느님 마음에 들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 19 그러나 평화와 서로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에 힘을 쏟으시다.
- 20 하느님께서 하신 일을 음식 때문에 그러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어 남에게 장애물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 21 고기를 먹든 술을 마시든, 그 밖에 무엇을 하든, 그대의 형제에게 장애물이 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22 그대가 자기의 것으로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느님 앞에서 그대로 지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하면서 자신을 단죄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 23 그러나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았습니니다. 그것이 믿음에서 우려나온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우려나오지 않는 행위는 다 죄입니다.

공동체의 일치

- 15 ¹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나약한 이들의 약점을 그대로 받아 주어야 하고, 자기 좋을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 2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도록,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저마다 이웃이 좋을 대로 해야 합니다.
- 3 그리스도께서도 당신 좋으실 대로 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 제 위로 떨어졌습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 4 성경에 미리 기록된 것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아 희망을 간직하게 됩니다.
- 5 인내와 위로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서로 뜻을 같이하게 하시어,
- 6 한마음 한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 7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받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가까이 받아들이십시오.
- 8 나는 단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께서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 받은 이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조상들이 받은 약속을 확인하시고,
- 9 다른 민족들은 자비하신 하느님을 찬양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민족들 가운데서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 이름에 찬미 노래 바칩니다.”
- 10 성경은 또 말합니다.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 11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겨레들아, 그분을 찬미하여라.”
- 12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이의 뿌리에서 줄기가 돌아오니 그가 일어나 민족들을 다스리고 민족들은 그에게 희망을 걸리라.”
- 13 희망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에서 얻는 모든 기쁨과 평화로 채워 주시어, 여러분의 희망이 성령의 힘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바오로의 사도직

- 14 나의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 자신도 선의로 가득하고 온갖 지식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서로 타이를 능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 15 그러나 나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에 힘입어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대담하게 썼습니다.
- 16 이 은총은 내가 다른 민족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 되어,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제직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민족들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느님께서 가까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 17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 18 사실 다른 민족들이 순종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이룩하신 일 외에는, 내가 감히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 19 표징과 이적의 힘으로, 하느님 영의 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리리쿰까지 이르는 넓은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완수하였습니다.
- 20 이와 같이 나는 그리스도께서 아직 알려지지 않으신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여깁니다. 남이 뒤야 놓은 기초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 21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에 관하여 전해 들은 적 없는 자들이 보고 그의 소문을 들어 본 적 없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바오로의 여행 계획

- 22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가려 했지만 여러

번이나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 23 그러나 이제 이 지역에는 더 이상 내가 일할 곳이 없고, 또 나는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 가고 싶은 소망을 품어 왔습니다.
- 24 그래서 내가 에스파냐로 갈 때 지나는 길에 여러분을 보고, 먼저 얼마 동안 여러분과 기쁨을 나누고 나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 25 그러나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성도들에게 봉사하러 떠납니다.
- 26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 신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이들에게 자기들의 것을 나누어 주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 27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지고 있어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영적 은혜를 나누어 받았으면, 그들도 물질적인 것으로 성도들을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 28 그래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이 모금의 결실을 그들에게 확실히 전한 다음,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에스파냐로 떠나렵니다.
- 29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 30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느님께 기도드리며 나와 함께 싸워 주십시오.
- 31 내가 유다의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구출되고 예루살렘을 위한 나의 구제 활동이 성도들에게 가까이 받아들여지도록,
- 32 내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33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 인사와 권고

- 16 ¹ 우리의 자매이며 캅프레에 교회의 일꾼이기도 한 포이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 2 성도들의 품위에 맞게 그를 주님 안에서 맞아들이고, 그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무슨 일든 도와주십시오. 사실 그는 나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의 후원자였습니다.
- 3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인 프리스카와 아퀼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 4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하여 주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 5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에페네토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 6 여러분을 위하여 애를 많이 쓴 마리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 7 나의 동포이며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안드로니코스와 유니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뛰어난 사도로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 8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암플리우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 9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협력자인 우르바노와 내가 사랑하는 스타키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 10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펠레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아리스토볼로스의 집안 식구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 11 나의 동포 헤로디온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나르키소스의 집안 식구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 12 주님 안에서 애쓴 트리파나와 트리포사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애

를 많이 쓴, 사랑하는 페르시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 13 주님 안에서 선택을 받은 루포스, 그리고 나에게도 어머니와 같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 14 아싱크리토스, 플레곤, 헤르메스, 파트로바스, 헤르마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 15 필롤로고스와 율리아, 네레우스와 그의 누이, 올림파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 16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 17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가르침을 거슬러 분열을 일으키고 걸림돌이 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을 멀리하십시오.
- 18 그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기는 자들로서, 달콤하고 비위에 맞는 말로 순박한 이들의 마음을 속입니다.
- 19 사실 여러분의 순종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이 일로 기뻐하면서도, 여러분이 선에는 지혜롭고 악에는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 20 평화의 하느님께서 머지않아 사탄을 짓부수시어 여러분의 발아래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 21 나의 협력자 티모테오, 그리고 나의 동포들인 루키오스와 아손과 소시파테르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 22 이 편지를 받아쓴 저 테르티우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 23 나와 온 교회의 집주인인 가이오스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이 도시의 재정관 에라스토스, 그리고 콰르투스 형제가 여러분에

게 인사합니다.

- 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종결 찬송

- 25 하느님은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로, 또 오랜 세월 감추어 두셨던 신비의 계시로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 26 이제는 모습을 드러낸 이 신비가 모든 민족들을 믿음의 순종으로 이끌도록, 영원하신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을 통하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 27 홀로 지혜로우신 하느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약성경 - 7

서간서 - 2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총 16 장

총 437 절

[신약성경]-[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인사

- 1** ¹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오로와 소스테네스 형제가
- 2** 코린토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인사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다른 신자들이 사는 곳이든 우리가 사는 곳 이든 어디에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 3**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

- 4** 나는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총을 생각하며, 여러분을 두고 늘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5**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모로나 풍요로워졌습니다. 어떠한 말에서나 어떠한 지식에서나 그렇습니다.
- 6**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에 튼튼히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 7**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8** 그분께서는 또한 여러분을 끝까지 굳세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 잡을 데가 없게 해 주실 것입니다.
- 9** 하느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도록 여러분을 불러 주셨습니다.

코린토 교회의 분열

- 10**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모두 합심하여 여러분 가운데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오히려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 11**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클로에 집안 사람들이 나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 12**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오로 편이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 “나는 케파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 13**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 바오로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라도 하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바오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 14** 나는 여러분 가운데 크리스토스와 가이오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은 일을 두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15** 그러니 아무도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 16** 내가 스테파나스 집안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주기는 하였습니까.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준 기억이 없습니다.
- 17**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맡겨주려 하라는 것이 아니었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 18**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 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 19** 사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를 부수어 버리고 슬기롭다는 자들의 슬기를 치워 버리리라.”

- 20 지혜로운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논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 21 사실 세상은 하느님의 지혜를 보면서도 자기의 지혜로는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 22 유대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 23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 24 그렇지만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 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 25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 26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속된 기준으로 보아 지혜로운 이가 많지 않았고 유력한 이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 27 그런데 하느님께서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서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 28 하느님께서서는 있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시려고, 이 세상의 비천한 것과 천대받는 것 곧 없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 29 그리하여 어떠한 인간도 하느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 30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이 되셨습니다.

- 31 그래서 성경에도 “자랑하려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다

- 2 ¹ 형제 여러분, 나도 여러분에게 갔을 때에, 뛰어난 말이나 지혜로 하느님의 신비를 선포하려고 가지 않았습니까.
- 2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하신 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 3 사실 여러분에게 갔을 때에 나는 약했으며, 두렵고 또 무척 떨렸습니다.
- 4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는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5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힘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지혜

- 6 성숙한 이들 가운데에서는 우리도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이 세상의 것도 아니고 파멸하게 되어 있는 이 세상 우두머리들의 것도 아닙니다.
- 7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롭고 또 감추어져 있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 8 이 세상 우두머리들은 아무도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깨달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 9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
- 10 하느님께서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것들을 바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고 하느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십니다.
- 11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느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 12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오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 13 우리는 이 선물에 관하여, 인간의 지혜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 14 그러나 현세적 인간은 하느님의 영에게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기에 그러한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 15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 16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분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복음 선포자의 역할

3

1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여러분을 영적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2 나는 여러분에게 젓만 먹었을 뿐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 3 여러분은 아직도 육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일고 있는데, 여러분을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 4 어떤 이는 “나는 바오로 편이다.”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폴로 편이다.” 하고 있으니, 여러분을 속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 5 도대체 아폴로가 무엇입니까? 바오로가 무엇입니까? 아폴로와 나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해 주신 대로,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끈 일꾼일 따름입니다.
- 6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 7 그러니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라게 하시는 하느님만이 중요합니다.
- 8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나 같은 일을 하여, 저마다 수고한 만큼 자기 샅을 받을 뿐입니다.
- 9 우리는 하느님의 협력자고, 여러분은 하느님의 밭이며 하느님의 건물입니다.
- 10 나는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저마다 잘 살펴야 합니다.
- 11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 12 그 기초 위에 어떤 이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면,
- 13 심판 날에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

마다 한 일도 명백해질 것입니다. 그날은 불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한 일이 어떤 것인지 그 불이 가려낼 것입니다.

- 14 어떤 이가 그 기초 위에 지은 건물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샅을 받게 되고,
- 15 어떤 이가 그 기초 위에 지은 건물이 타 버리면 그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았지만 불 속에서 겨우 목숨을 건지듯 할 것입니다.
- 16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 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자를 파멸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 18 아무도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이가 되어야 합니다.
- 19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을 그들의 피로 붙잡으신다.”
- 20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생각을 아신다. 그것이 허황됨을 아신다.”
- 21 그러므로 아무도 인간을 두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 22 바오로도 아폴로도 케파도, 세상도 생명도 죽음도, 현재도 미래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 23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

- 4¹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시종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관리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 2 무릇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바는 그가 성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 3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서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 4 나는 잘못한 것이 없음을 압니다. 그렇다고 내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 5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을 밝히시고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에 저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 6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나 자신과 아폴로에게 적용시켜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기록된 것에서 벗어나지 마라.’ 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배워, 저마다 한쪽은 앞보고 다른 쪽은 편들면서 우쭐거리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 7 누가 그대를 남다르게 보아 줍니까? 그대가 가진 것 가운데에서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인 양 자랑합니까?
- 8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체쳐 두고 이미 임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임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임금이 될 수 있게 말입니다.
- 9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도들을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 10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슬기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명예를 누리고 우리는 멸시를 받습니다.
- 11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 12 우리 손으로 애써 일합니다. 사람들이 욕을 하면 축복해 주고 박해를 하면 견디어 내고
- 13 중상을 하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 14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타이르려는 것입니다.
- 15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끌어 주는 인도자가 수없이 많다 하여도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 16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 17 이러한 연유로 내가 티모테오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나의 성실한 아들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야 하는 나의 원칙들을 그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 18 그런데 어떤 이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지 않을 것으로 여겨 우쭐거리고 있습니다.
- 19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는 여러분에게 곧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쭐거리는 이들의 말이 아니라 힘을 확실히 보냈습니다.
- 20 하느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힘에 있기 때문입니다.
- 21 여러분은 어느 것을 원합니까? 내가 여러

분에게 매를 들고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까?

불륜에 대한 단죄

- 5¹ 사실은 여러분 가운데에서 불륜이 저질러진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 교인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불륜입니다. 곧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 2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전히 우쭐거립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슬피하며,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에서 제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3 나는 비록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과 다름없이, 그러한 것을 한 자에게 벌써 판결을 내렸습니다.
- 4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함께 모일 때,
- 5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 그 육체는 파멸하게 하고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 6 여러분의 자만은 좋지 않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린다는 것을 모릅니까?
- 7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고 새 반죽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누룩 없는 빵입니다.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기 때문입니다.
- 8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사악이라는 누룩이 아니라, 순결과 진실이라는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축제를 지냅니다.
- 9 나는 전에 써 보낸 편지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 10 물론 불륜을 저지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 그리고 강도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상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에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 11 내가 그렇게 쓴 뜻은, 교우라고 하는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는 자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거나 우상 숭배자거나 중상꾼이거나 주정꾼이거나 강도면 상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와는 식사도 함께 하지 마십시오.
- 12 배갈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이들이 아닙니까?
- 13 배갈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 악인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교우끼리의 송사

- 6** ¹ 여러분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어찌 성도들에게 가지 않고 이교도들에게 가서 심판을 받으려고 한다는 말입니까?
- ² 여러분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아야 할 터인데, 여러분은 아주 사소한 송사도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까?
- ³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하물며 일상의 일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습니까?
- ⁴ 그런데 이런 일상의 송사가 일어날 경우에도, 여러분은 교회에서 업신여기는 자들을 재판관으로 앉힌다는 말입니까?
- ⁵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형제들 사이에서 시비를 가려 줄 만큼 지혜로운 이가 하나도 없습니까?
- ⁶ 그래서 형제가 형제에게, 그것도 불신자들 앞에서 재판을 겁니까?
- ⁷ 그러므로 여러분이 서로 고소한다는 것부터가 이미 그릇된 일입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차라리 그냥

속아 주지 않습니까?

- 8 여러분은 도리어 스스로 불의를 저지르고 또 속입니다. 그것도 형제들을 말합니다.
- 9 불의한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륜을 저지르는 자도 우상 숭배자도 간음하는 자도 남창도 비역하는 자도,
- 10 도둑도 탐욕을 부리는 자도 주정꾼도 중상꾼도 강도도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 11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런 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느님의 영으로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었고 또 의롭게 되었습니다.

불륜과 그리스도인의 자유

- ¹² “나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나를 죄우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 ¹³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 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불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위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 ¹⁴ 하느님께서 주님을 다시 일으키셨으니, 우리도 당신의 힘으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 ¹⁵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모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탕녀의 지체로 만들 수 있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 ¹⁶ 아니면, 탕녀와 결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모릅니까? “둘이 한 몸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 17 그러나 주님과 결합하는 이는 그분과 한 영이 됩니다.
- 18 불륜을 멀리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불륜을 저지르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 19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상전임을 모릅니까? 그 성령을 여러분이 하느님에게서 받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모릅니까?
- 20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혼인 문제

- 7 ¹ 이제 여러분이 써 보낸 것들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 2 불륜의 위험이 있으니 모든 남자는 아내를 두고 모든 여자는 남편을 두십시오.
- 3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이행하고,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4 아내의 몸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의 것이고, 마찬가지로 남편의 몸은 남편이 아니라 아내의 것입니다.
- 5 서로 상대방의 요구를 물리치지 마십시오. 다만 기도에 전념하려고 얼마 동안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 뒤에 다시 합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하는 틈을 타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6 그러나 그렇게 합의하여도 괜찮다는 뜻이지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 7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런 은사, 저 사람은 저런 은사, 저마다 하느님에게서 고유한 은사를 받습니다.
- 8 혼자 사는 이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그

들은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 9 그러나 자제할 수 없으면 혼인하십시오. 육정에 불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 10 혼인한 이들에게 당부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 11 —만일 헤어졌으면 혼자 지내든가 남편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 12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말합니다. 어떤 형제에게 신자 아닌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계속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 13 또 어떤 부인에게 신자 아닌 남편이 있는데 그가 계속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 14 신자 아닌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고, 신자 아닌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도 더러울 터이지만, 사실은 그들도 거룩합니다.
- 15 그러나 신자 아닌 쪽에서 헤어지겠다고 헤어지십시오. 그러한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가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평화롭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 16 아내 된 이여, 그대가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지 혹시 없습니까? 그리고 남편 된 이여, 그대가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지 혹시 없습니까?

주님께서 정해 주신 삶

- 17 아무튼 주님께서 각자에게 정해 주신 대로, 하느님께서 각자를 부르셨을 때의 상태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 내리는 지시입니다.
- 18 누가 할례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할례 받은 흔적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오. 누가 할례 받지 않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19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대수롭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만이 중요합니다.

20 저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상태로 지내십시오.

21 그대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종이었습니까? 그것에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자유인이 될 수 있다 하여도 오히려 지금의 상태를 잘 이용하십시오.

22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좋은 이미 주님 안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르심을 받은 자유인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23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24 형제 여러분, 저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상태로 하느님과 함께 지내십시오.

혼인과 미혼

25 미혼자들에 관해서는 내가 주님의 명령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를 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자로서 의견을 내놓습니다.

26 현재의 재난 때문에 지금 그대로 있는 것이 사람에게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27 그대는 아내에게 매여 있습니까? 갈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아내와 갈라졌습니까?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28 그러나 그대가 혼인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또 처녀가 혼인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혼인하는 이들은 현세의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면하게 하고 싶습니다.

29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

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30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물건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31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2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혼인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33 그러나 혼인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일을 걱정합니다.

34 그래서 그는 마음이 갈라집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와 처녀는 몸으로나 영으로나 거룩해지려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일을 걱정합니다.

35 나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굴레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서 품위 있고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36 어떤 사람이 자기 약혼녀에게 잘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열정까지 넘쳐 혼인해야 한다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그 두 사람은 혼인하십시오.

37 그러나 마음속으로 뜻을 단단히 굳히고 어떠한 강요도 없이 자기의 의지를 제어할 힘이 있어서 약혼녀를 그대로 두겠다고 마음속으로 작정하였다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38 이와 같이 자기 약혼녀와 혼인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혼인하지 않은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과부의 재혼

- 39 아내를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남자와 혼인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일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40 그러나 내 의견으로는 과부도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나 역시 하느님의 영을 모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 8¹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지식이 있다.” 는 것을 우리도 압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성장하게 합니다.
- 2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 3 그러나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도 그를 알아주십니다.
- 4 그런데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관련하여, 우리는 “세상에 우상이란 없다.” 는 것과 “하느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5 하늘에도 땅에도 이른바 신들이 있다 하지 만 — 과연 신도 많고 주님도 많습니까만
- 6 우리에게는 하느님 아버지 한 분이 계시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시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 7 그렇지만 누구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아직까지도 우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정말로 그렇게 알고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럽혀집니다.
- 8 음식이 우리를 하느님께 가까이 데려다 주

지 않습니다. 그것을 먹지 않는다고 우리의 형편이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먹는다고 우리의 형편이 나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 9 다만 여러분의 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 10 지식이 있다는 그대가 우상의 신전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본다면, 그의 약한 양심도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을 수 있게끔 용기를 얻지 않았습니까?
- 11 그래서 약한 그 사람은 그대의 지식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형제를 위해서도 돌아가셨습니다.
- 12 여러분이 이렇게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약한 그들의 양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 13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죄짓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죄짓게 하지 않도록 차라리 고기를 영영 먹지 않았습니다.

사도의 본보기

- 9¹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랍지 못하였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바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나의 업적이 아닙니까?
- 2 내가 다른 이들에게는 사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사도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 사도직의 증표입니다.
- 3 나를 심판하는 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변론합니다.
- 4 우리는 먹고 마실 권리가 없다는 말입니까?
- 5 우리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형제들이나 케파처럼 신자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다는 말입니까?
- 6 또 나와 바르나바만 따로 벌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없습니까?

- 7 자기가 비용을 대면서 군대에 복무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포도밭을 만들 고서 그 열매를 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양 떼를 치면서 그 젖을 짜 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 8 내가 인간의 관례에 따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율법도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 9 사실 모세의 율법에, “ 타작 일을 하는 소에게 부리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 고 기록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소에게 마음을 쓰시는 것입니까?
- 10 어쨌든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기록 된 것입니다. 밭을 가는 이는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 밭을 갈고, 타작하는 이는 제 몫을 받으리라는 희망으로 그 일을 합니다.
- 11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씨를 뿌렸다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 12 다른 이들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권리를 갖는다면 우리야 더욱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떠한 지장도 주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건디 어 내고 있습니다.
- 13 성전에 봉직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양식을 얻고, 제단 일을 맡은 이들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 14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복음으로 생활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 15 그러나 나는 그러한 권리를 하나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해 달라고 이런 말을 쓴 것도 아닙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습니다. 아무도 나의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 16 사실은 내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

- 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 17 내가 내 자유 의사로 이 일을 한다면 나는 샅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수 없이 한다면 나에게 직무가 맡겨진 것입니다.
- 18 그렇다면 내가 받은 샅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것에 따른 나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복음을 거저 전하는 것입니다.
- 19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 20 유대인들을 얻으려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이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 21 나는 하느님의 율법 밖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으면서도, 율법 밖에 있는 이들을 얻으려고 율법 밖에 있는 이들에게는 율법 밖에 있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 22 약한 이들을 얻으려고 약한 이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 23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합니다. 나도 복음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 24 경기장에서 달리기하는 이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 25 모든 경기자는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화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는 화관을 얻으

려고 하는 것입니다.

- 26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습니다. 허공을 치는 것처럼 권투를 하지 않습니다.
- 27 나는 내 몸을 단련하여 복종시킵니다.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주는 교훈

- 10 ¹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 있었으며 모두 바다를 건넜습니다.
- 2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 3 모두 똑같은 영적 양식을 먹고,
- 4 모두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라오는 영적 바위에서 솟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이었습니다.
- 5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대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 널브러졌습니다.
- 6 이 일들은 우리를 위한 본보기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악을 탐했던 것처럼 우리는 악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 7 성경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흥청거리며 놀았다.” 고 기록되어 있듯이,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 8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우리는 불륜을 저지르지 맙시다. 그들은 하루에 이만삼천 명이 죽어 넘어졌습니다.
- 9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주님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 10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투덜거린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것처럼 여러분은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피지의 손에 죽었습니다.

- 11 이 일들은 본보기로 그들에게 일어난 것인데, 세상 종말에 다다른 우리에게 경고가 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 12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 13 여러분에게 다친 시련은 인간으로서 이겨 내지 못할 시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성찬례와 이교 제사

- 14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하십시오.
- 15 나는 여러분을 슬기로운 사람으로 여겨 말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 16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 17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 18 저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희생 제물을 먹는 이들은 모두 제단에 동참하는 이들이 아닙니까?
- 19 그러니 내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 무엇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우상이 무엇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 20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들에게 바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마귀들과 상통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21 여러분이 주님의 잔도 마시고 마귀들의 잔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식탁에도 참여하고 마귀들의 식탁에도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 22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강하다는 말입니까?

무슨 일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 23 “ 모든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 24 누구나 자기 좋은 것을 찾지 말고 남에게 좋은 것을 찾으십시오.
- 25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따져 보지 말고 무엇이든지 먹으십시오.
- 26 “ 세상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이 주님의 것” 이기 때문입니다.
- 27 불신자 가운데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여러분이 가고자 한다면, 양심을 따져 보지 말고 여러분 앞에 차려 놓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십시오.
- 28 그러나 누가 여러분에게 “ 이것은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하고 말하거든, 그것을 알린 사람과 그 양심을 생각하여 먹지 마십시오.
- 29 내가 말하는 양심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사실 무엇 때문에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 30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함께 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난받을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 31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 32 유대인에게도 그리스인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방해를 놓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 33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나처럼 하십시오. 나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찾습니다.

11 ¹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전례 때에 여자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

- 2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전한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3 그런데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 4 어떠한 남자든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자기의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 5 그러나 어떠한 여자든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자기의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자는 머리가 깎인 여자와 똑같습니다.
- 6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으려면 아예 머리를 밀어 버리십시오. 머리를 밀거나 깎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면 머리를 가리십시오.
- 7 남자는 하나님의 모상이며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 8 사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 9 또한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 10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생각하여, 그 머리에 권한의 표지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 11 그러나 주님 안에서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 12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를 통하여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 13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울리는 일입니까?
- 14 이미 자연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다니면 자기에게 수치가 되지만,
- 15 여자가 긴 머리를 하고 다니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나올 대신에 긴 머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 16 누가 논쟁을 벌이고 싶어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러한 관습이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주님의 만찬

- 17 이제 내가 지시하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임이 이익이 아니라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 18 우선, 여러분이 교회 모임을 가질 때에 여러분 가운데에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나는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 19 하기에 여러분 가운데에 분과도 있어야 참된 이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 20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데 모여서 먹는 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닙니다.
- 21 그것을 먹을 때, 저마다 먼저 자기 것으로 저녁 식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이는 배가 고프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합니다.
- 22 여러분은 먹고 마실 짐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진 것 없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
- 23 사실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 24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 25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 26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 27 그러므로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됩니다.
- 28 그러니 각 사람은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 29 주님의 몸을 분별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 30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또 이미 죽은 이들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 31 우리가 자신을 잘 분별하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 32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도,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단죄받지 않도록 우리를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 33 그러므로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만찬을 먹으려고 모임 때에는 서로 기다려 주십시오.
- 34 배가 고프은 사람은 집에서 미리 먹어, 여러분의 모임이 심판받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 밖의 것은 내가 가서 알려 주겠습니다.

하나이신 성령과 여러 은사

- 12** ¹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도 알기를 바랍니다.
- ² 여러분이 이교인이었을 때에 말도 하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려 정신없이 휩쓸렸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 ³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느님의 영에 힘입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다.” 할 수 없고,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 ⁴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입니다.
- ⁵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 ⁶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 ⁷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 ⁸ 그리하여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 ⁹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이, 어떤 이에게는 그 한 성령 안에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 ¹⁰ 어떤 이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 ¹¹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일으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그것들을 따로따로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인 몸과 여러 지체

- ¹²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 ¹³ 우리는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 ¹⁴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 ¹⁵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는다.” 고 말한다 해서,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 ¹⁶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는다.” 고 말한다 해서,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 ¹⁷ 온몸이 눈이라면 듣는 일은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온몸이 듣는 것이라면 냄새 맡는 일은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 ¹⁸ 사실은 하느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의 지체들을 그 몸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 ¹⁹ 모두 한 지체로 되어 있다면 몸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 ²⁰ 사실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 ²¹ 눈이 손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할 수도 없고, 또 머리가 두 발에게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할 수도 없습니다.
- ²²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 약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 ²³ 우리는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 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특별히 소중하게 감싸입니다. 또 우리의 짐झ지 못한 지체들이 아주 짐झ게 다루어집니다.
- ²⁴ 그러나 우리의 짐झ은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모자란 지체에 더 큰 영예를 주시는 방식으로 사람 몸을

짜 맞추셨습니다.

- 25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고 지체들이 서로 똑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 26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 27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 28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이들은, 첫째가 사도들이고 둘째가 예언자들이며 셋째가 교사들입니다. 그다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 도와주는 은사, 지도하는 은사,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 29 모두 사도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예언자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교사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기적을 일으킬 수야 없지 않습니까?
- 30 모두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질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신령한 언어를 해석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 31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 주겠습니다.

사랑

- 13** ¹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쟁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 ²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 ³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 ⁴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 ⁵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 ⁶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 ⁷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 ⁸ 사랑은 언제나 지나 스러지지 않습니다. 예언도 없어지고 신령한 언어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집니다.
- ⁹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 ¹⁰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없어집니다.
- ¹¹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헤아렸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 적의 것들을 그만두었습니다.
- ¹²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렵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 ¹³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세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신령한 언어와 예언

- 14** ¹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은사, 특히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 ²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예언하는 이는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4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는 자기를 성장하게 하지만, 예언하는 이는 교회를 성장하게 합니다.

5 나는 여러분이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예언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누가 해석을 해 주어 교회가 성장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아니면, 예언하는 이가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보다 더 훌륭합니다.

6 이제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신령한 언어로 말한다고 한들,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주는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7 마찬가지로 피리나 수금처럼 생명 없는 것들도 소리를 내지만 분명한 가락을 내지 않으면, 피리로 불거나 수금으로 뜯는 곡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까?

8 또 나팔이 확실하지 않은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 준비를 하겠습니까?

9 이와 같이 여러분도 신령한 언어로 말할 때에 분명하지 않은 말을 하면,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허공에 대고 말하는 셈입니다.

10 세상에는 물론 수많은 종류의 언어가 있지만 의미가 없는 언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11 그런데 내가 어떤 언어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 언어를 말하는 이에게 외국인 이 되고 그 언어를 말하는 이는 나에게 외국인이 됩니다.

12 여러분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를 열심히 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그것을 더욱 많이 받도록 애쓰십시오.

13 그러므로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는 그것

을 해석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14 내가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나의 이성은 아무런 수확이 없습니다.

15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면서 이성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양하면서 이성으로도 찬양하겠습니다.

16 그런데 그대가 영으로만 찬미하면, 그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초심자가 어떻게 그대의 감사 기도에 “아멘.” 하고 응답할 수 있었습니까?

17 그대야 훌륭하게 감사를 드리지만 다른 사람은 성장에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18 하느님께 감사하게도,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19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신령한 언어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내 이성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고 싶습니다.

20 형제 여러분, 생각하는 데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에는 어른이 되십시오.

21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 ‘내가 또 다른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자들을 통하여 다른 나라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내 말을 귀담아듣지 않으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 이렇게 신령한 언어는 믿는 이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표징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믿지 않는 이들이 아니라 믿는 이들을 위한 표징입니다.

23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데 초심자들이나 믿지 않는 이들이 들어온다면, 그들은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24 그러나 모두 예언하는데 믿지 않는 이나 초심자가 들어온다면, 그는 모든 이에게 질책을 받고 그 모든 이에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 25 또 그 마음속에 숨겨진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는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하느님께 절하면서, “ 참으로 하느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계시니다.” 하고 선언것입니다.

전례의 질서와 통일성

- 26 그러나 형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에 저마다 일이 있어서, 어떤 이는 찬양하고 어떤 이는 가르치고 어떤 이는 계시를 전하고 어떤 이는 신령한 언어를 말하고 어떤 이는 해석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의 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 27 누가 신령한 언어로 말할 때에는 한 번에 둘이나 많아야 셋이서 차례로 하고, 또 한 사람이 해석을 해야 합니다.
- 28 그러나 해석하는 이가 없으면, 그들은 교회 안에서 잠자코 혼자서 하느님께만 말해야 합니다.
- 29 예언자들은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식별하십시오.
- 30 그러나 그곳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내리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 31 이렇게 여러분 모두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배우고 또 모든 사람이 격려를 받게 됩니다.
- 32 예언자의 영은 예언자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 33 하느님은 무질서의 하느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 34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자코 있어야 합니

다.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하듯이 여자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 35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 36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나오기라도 하였습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만 내리기라도 하였습니까?
- 37 누구든지 자기가 예언자거나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이 말이 주님의 계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 38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 39 그러므로 나의 형제 여러분,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 40 다만 모든 일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 15** ¹ 형제 여러분, 내가 이미 전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 안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 ²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 말씀을 굳게 지키다면, 또 여러분이 헛되이 믿게 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 ³ 나도 전혀 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 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 ⁴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만에 되살아나시어,
- ⁵ 케파에게, 또 이어서 열두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 6 그다음에는 한 번에 오백 명이 넘는 형제들
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
습니다.
- 7 그다음에는 야고보에게, 또 이어서 다른 모
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 8 맨 마지막으로는 칠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 9 사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입
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
니다.
- 10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
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
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
의 은총이 한 것입니다.
- 11 그리하여 나나 그들이나, 우리 모두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게 되
었습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

- 12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
아나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데, 여
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째서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 13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 14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
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 15 우리는 또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죽은 이들이 정말로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되살리지
않으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되살리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증
언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 16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리스
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 17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
분의 믿음은 덧없고 여러분 자신은 아직도
여러분이 지은 죄 안에 있을 것입니다.
- 18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이들도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 19 우리가 현재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
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
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 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
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 21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므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 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
니다.
- 23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만물은 그리
스도이십니다. 그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
하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입니다.
- 24 그러고는 종말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과 권능을 파멸
시키시고 나서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
겨 드리실 것입니다.
- 25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아
래 잡아다 놓으실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 26 마지막으로 파멸되어야 하는 원수는 죽음
입니다.
- 27 사실 “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
이 굴복되었다고 말할 때, 모든 것을 그
에게 굴복시키신 분이 제외된다는 것은 명백
합니다.
- 28 그러나 아드님께서도 모든 것이 당신께 굴
복할 때에는, 당신께 모든 것을 굴복시켜
주신 분께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

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
실 것입니다.

- 29 그렇지 않다면, 죽은 이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죽은 이들이 전혀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무
엇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
까?
- 30 우리는 또 무엇 때문에 늘 위험을 무릅쓰
고 있습니까?
- 31 형제 여러분,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님 안에서 품고 있는 긍지, 곧 여러분에 대
한 나의 긍지를 결코 말합니다. 나는 날마
다 죽음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 32 내가 에페소에서 이를테면 땀수와 싸웠다
고 한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
습니까?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야 “내일이면 죽을 몸 먹고 마십시오.”
- 33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쁜 교제는 좋은
관습을 망칩니다.”
- 34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느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 때에 완성되는 인간의 구원

- 35 그러나 “죽은 이들이 어떻게 되살아나는
가? 그들이 어떤 몸으로 되돌아오는가?”
하고 묻는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36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 37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체가 아니라 밀이든 다른 종류든 씨앗일
때름입니다.
- 38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
로 그 씨앗에 몸체를 주십니다. 씨앗 하나
하나에 고유한 몸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 39 육체라고 다 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짐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날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
릅니다.

- 40 하늘에 속한 몸체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
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몸
체들의 광채가 다르고 땅에 속한 몸체들의
광채가 다릅니다.
- 41 해의 광채가 다르고 달의 광채가 다르고
별들의 광채가 다릅니다. 별들은 또 그 광
채로 서로 구별됩니다.
- 42 죽은 이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 43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
로 되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 44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
인 몸도 있습니다.
- 45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인간 아담이 생명체가 되었다.” 마지막 아
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 46 그러나 먼저 있었던 것은 영적인 것이 아
니라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그다음입니다.
- 47 첫 인간은 땅에서 나와 흙으로 된 사람입
니다. 둘째 인간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 48 흙으로 된 그 사람이 그러하면 흙으로 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속
한 그분께서 그러하시면 하늘에 속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 49 우리가 흙으로 된 그 사람의 모습을 지녔
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도 지나게
될 것입니다.
- 50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렇습니
다. 살아 피는 하느님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하고,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물려받
지 못합니다.
- 51 자, 내가 여러분에게 신비 하나를 말해 주

겠습니다. 우리 모두 죽지 않고 다 변화할 것입니다.

- 52 순식간에, 눈 깜박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리될 것입니다. 나팔이 울리면 죽은 이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되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 53 이 썩는 몸은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은 죽지 않는 것을 입어야 합니다.
- 54 이 썩는 몸이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이 죽지 않는 것을 입으면, 그때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승리가 죽음을 삼켜 버렸다.
- 55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 56 죽음의 독침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 5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 58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

- 16** ¹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티아의 여러 교회를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 2 매주 첫날에 저마다 형편이 닿는 대로 얼마씩을 자기 집에 따로 모아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갔을 때에야 모금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 3 내가 도착하면, 여러분이 선정하는 이들을 보내면서 편지와 함께 여러분의 고마운 선물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겠습니다.
- 4 나도 가는 것이 마땅하면 함께 가겠습니다.

바오로의 여행 계획

- 5 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 여러분에게 가겠습

니다. 사실 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 가려고 합니다.

- 6 어찌면 여러분과 함께 한동안 지내든가 아예 겨울을 나든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어디로든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 7 이번에 나는 그저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 8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에페소에서 지내겠습니다.
- 9 적대자들이 많기는 하지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큰 문이 나에게 열려 있습니다.
- 10 티모테오가 가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도 나처럼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 11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평안히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12 아폴로 형제에 관해서 말하자면,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내가 간곡히 권고 하였지만 그가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되면 갈 것입니다.

마지막 권고와 인사

- 13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 14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 15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스테파노스 집안 사람들은 아카이아의 첫 열매로서 성도들을 위한 직무에 헌신하였습니다.
- 16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 그들과 함께 일하고 애쓰는 모든 이에게 순종하십시오.

- 17 나는 스테파나스와 포르투나투스과 아카이 코스과 와 주어서 기쁩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한 나의 아쉬움을 채워 주었습니다.
- 18 나와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러한 이들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 19 아시아의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아퀼라와 프리스카가 자기들 집에 모이는 교회와 함께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인사합니다.
- 20 모든 형제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여러분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 21 이 인사말은 나 바오로가 직접 씁니다.
- 22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 타!
- 23 주 예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 24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신약성경 - 8

서간서 - 3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총 13 장

총 256 절

[신약성경]-[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인사

- 1** ¹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오로와 티모테오 형제가 코린토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카이아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 ²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하나님의 위로

- ³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서는 찬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인자하신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 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마다 위로해 주시어, 우리도 그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온갖 환난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 ⁵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듯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리는 위로도 우리에게 넘칩니다.
- ⁶ 우리가 환난을 겪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위로는 우리가 겪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여러분도 견디어 나아갈 때에 그 힘을 드러냅니다.
- ⁷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와 고난을 함께 받듯이 위로도 함께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 ⁸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겪은 환난을 여러분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힘겹게 짓눌린 나머지 살아날 가망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 ⁹ 사실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자신

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이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 ¹⁰ 그분께서는 과연 그 큰 죽음의 위협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고 앞으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구해 주시리라고 희망합니다.
- ¹¹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하면 많은 이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에게 내린 은사를 보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코린토 방문의 연기

- ¹² 우리의 양심도 증언하듯이 우리가 자랑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곧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순수함과 성실함에 따라, 또 나약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따라 처신하였다는 것입니다.
- ¹³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읽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것만 씁니다. 그리고 나는 장차 여러분이 온전히 알아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 ¹⁴ 여러분이 우리를 이미 부분적으로 알아들었으니 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듯 우리도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 ¹⁵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에, 나는 먼저 여러분에게 가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여러분이 또 한 번 은총을 누리게 하고 싶었습니다.
- ¹⁶ 곧 여러분에게 들러서 마케도니아로 가고 다시 마케도니아에서 여러분에게 갔다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유다로 떠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 ¹⁷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계획하면서 변덕이라도 부렸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내가 계획하는 것이 속된 동기로 하는 것이어서, 내가 “예, 예!” 하면서 “아니요, 아니요!” 한다는 말입니까?

- 18 **하느님의 성실하심을** 걸고 말하는데,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 하면서 “아니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 19 **우리 곧 나와 실비누스와 티모테오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 도 되시면서 “아니요!” 도 되시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는 늘 “예!” 만 있을 따름입니다.
- 20 **하느님의 그 많은 약속이** 그분에게서 “예!” 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아멘!” 합니다.
- 21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세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 주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 22 **하느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인장을 찍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 23 **나는** 목숨을 걸고 하느님을 증인으로 불러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에 아직도 코린토에 가지 않은 것입니다.
- 24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을 죄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동료일 따름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2 ¹ 그래서 다시는 슬픈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 2 **내가** 여러분을 슬프게 한다면, 내가 슬프게 한 사람 외에 누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 3 **내가** 그런 편지를 써 보낸 뜻은, 내가 그리 갔을 때에 나를 기쁘게 해야 할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슬픔을 겪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확

신합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이라고 말입니다.

- 4 **나는** 매우 괴롭고 답답한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나의 특별한 사랑을 여러분이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잘못한 자에 대한 용서

- 5 **누가** 나를 슬프게 하였다면, 과장 없이 말해서 나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여러분을 모두 슬프게 한 것입니다.
- 6 **그 사람**은 여러분 대다수에게서 충분한 벌을 받았습나다.
- 7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반대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빠지고 맙니다.
- 8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그에게 확인시켜 주기를 권고합니다.
- 9 **그 편지**를 써 보낸 것도 실은 내가 여러분을 시험해 보고,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 10 **여러분**이 무엇인가 용서해 준 사람을 나도 용서합니다. 사실 내가 무엇을 용서하였다면,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 11 **그래야**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의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티토에 대한 불안

- 12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트로아스에 갔을 때, 주님께서 일할 수 있는 문을 나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 13 **그러나** 나는 내 형제 티토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 14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분께서는 늘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내가 우리를 통하여 곳곳에 퍼지게 하십니다.
- 15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나 멸망할 사람들에게나 우리는 하느님께 피어오르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 16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죽음으로 이끄는 죽음의 향내고,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 이끄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러한 일을 할 자격이 있었습니까?
- 17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장사하는 다른 많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실한 사람으로, 하느님의 파견을 받아 하느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새 계약의 일꾼

- 3¹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내세우기 시작하려는 것처럼 들립니까? 아니면, 우리도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내보일 추천서나 여러분이 써 주는 추천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 2 우리의 추천서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추천서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며 또 읽을 수 있습니다.
- 3 여러분은 분명히 우리의 봉사직으로 마련된 그리스도의 추천서입니다. 그것은 먹물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느님의 영으로 새겨지고, 돌판이 아니라 살로 된 마음이라는 판에 새겨졌습니다.
- 4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 5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스스로 무엇인가 해냈다고 여긴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느님께서 옵니다.
- 6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약의 일꾼이 되
- 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계약은 문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 7 돌에 문자로 새겨 넣은 죽음의 직분도 영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곧 사라질 것이기는 하였지만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 8 그렇다면 성령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 9 단죄로 이끄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의로움으로 이끄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 것입니다.
- 10 사실 이 경우, 영광으로 빛나던 것이 더 뛰어난 영광 때문에 빛을 잃게 되었습니다.
- 11 곧 사라질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길이 남을 것은 더욱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 12 우리는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기에 아주 담대히 행동합니다.
- 13 그리고 우리는, 광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쳐다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에 너울을 드리운 모세처럼 하지도 않습니다.
- 14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각이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옛 계약을 읽을 때에 그 너울이 벗겨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 15 사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마다 그들의 마음에는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 16 그러나 주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그 너울은 치워집니다.
- 17 주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 18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거울로 보듯 어렴풋이 바라보면서, 더욱더 영광스럽게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는 영이신 주님께서 이루어시는 일입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물

- 4** ¹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 이 직분을 맡고 있으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 2** 그리고 우리는 부끄러워 숨겨 두어야 할 것들을 버렸으며, 간교하게 행동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드러내어 하나님 면전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 앞에 우리 자신을 내세웁니다.
- 3**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 하여도 멸망할 자들에게만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 4** 그들의 경우, 이 세상의 신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모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 5**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고,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위한 여러분의 종으로 선포합니다.
- 6**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어라.” 하고 이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빛을 주셨습니다.
- 7**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자니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힘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님을 보여 주시려는 것입니다.
- 8** 우리는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 9**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 10**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짚어지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 11** 우리는 살아 있으면서도 늘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잡니다. 우리의 죽을 육신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 12** 그리하여 우리에게서는 죽음이 약동하고 여러분에게서는 생명이 약동합니다.
- 13**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말하였다.” 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우리도 지니고 있으므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 14**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어 여러분과 더불어 당신 앞에 세워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15**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은총이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음에 따른 삶

- 16**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적 인간은 쇠퇴해 가더라도 우리의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 17**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이고 가벼운 환난이 그지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마련해 줍니다.
- 18**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 5** ¹ 우리의 이 지상 천막집이 허물어지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건물 곧 사람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을 하늘에서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 2** 이 천막집에서 우리는 탄식하며, 우리의 하늘 거처를 옷처럼 덧입기를 갈망합니다.
- 3** 사실 우리가 천막을 벗더라도 알몸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4 우리는 이 천막 속에 살면서 무겁게 짓눌려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천막을 벗어 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을 생명이 삼키도록 맏입니다.
- 5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 6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몸 안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확신에 차 있습니다.
- 7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 8 우리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을 떠나 주님 곁에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 9 그러므로 함께 살든지 떠나 살든지 우리는 주님 마음에 들고자 애를 씁니다.
- 10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몸으로 한 일에 따라 값을 받게 됩니다.

화해의 봉사직

- 11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경외해야 할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이 확신을 갖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 있기를 바랍니다.
- 12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내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계기를 주어, 마음이 아니라 절단 자랑하는 자들에게 반박수 있게 해 주려는 것뿐입니다.
- 13 우리가 정신이 나갔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한 것이고,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다면 여러분을 위하여 그러한 것입니다.
- 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한

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리하여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 15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살아 있는 이들이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돌아가셨다가 되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 16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속된 기준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속된 기준으로 이해하였을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 17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 18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 19 곧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 20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밍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 21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 6¹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헛되이 받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 2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로운 때에 내가 너의 말을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지금이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 3 이 직분이 흠잡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 4 오히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세웁니다. 곧 많이 견디어 내고, 환난과 재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 5 매질과 옥살이와 폭동을 겪으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또 수고와 밤샘과 단식으로,
- 6 순수하고 지식과 인내와 호의와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으로,
- 7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합니다. 오른손과 왼손에 의로움의 무기를 들고,
- 8 영광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중상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우리는 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진실합니다.
- 9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인정을 받습니다. 죽어 가는 자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벌을 받는 자같이 보이지만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 10 슬퍼하는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늘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11 코린토 신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 12 우리가 여러분을 옹색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이 옹색한 것입니다.
- 13 나는 자녀에게 이르듯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

- 14 불신자들과는 상충하지 마십시오. 의로움과 불법이 어떻게 짝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 빛이 어떻게 어둠과 사귄 수 있었습니까?
- 15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벨리아르와 화합하실 수 있었습니까? 신자와 불신자가 어떻게 한뫼를 나눌 수 있었습니까?
- 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떻게 뜻을 같이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르신 그대로입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 가운데에서 거닐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 17 그러므로 너희는 저들 가운데에서 나와 저들과 갈라져라. —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더러운 것에 손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맞이하리라.
- 18 나는 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에게 아들딸이 되리라. —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7¹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약속들을 받았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회개에 대한 바오로의 기쁨

- 2 마음을 열어 우리를 받아 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고 아무도 망쳐 놓지 않았으며 아무도 기만하지 않았습니다.
- 3 이것은 여러분을 단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 4 여러분에 대한 나의 신뢰도 크고 여러분에 대한 나의 자랑도 큼니다. 나는 위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그 모든 환난에도 기쁨에 넘쳐 있습니다.
- 5 사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신은 안정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면에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6 그러나 비천한 이들을 위로하시는 하느님께서 티토를 도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7 티토의 도착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도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가 여러분의 그리움과 여러분의 환탄, 그리고 나에게 대한 여러분의 열정을 우리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 기뻐하였습니다.

8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을 슬프게 하였더라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을 슬프게 하였음을 압니다. 그러나 내가 한때 후회하였을지라도

9 이제는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슬퍼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슬퍼하여 마침내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뜻에 맞게 슬퍼한 것이니, 우리 때문에 손해를 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10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를 자아내어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세적 슬픔은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11 보십시오, 하느님의 뜻에 맞는 바로 그 슬픔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열성을 불러일으켰는지! 게다가 여러분의 그 솔직한 해명, 그 의분, 그 두려움, 그 그리움, 그 열정, 그 징계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은 그 일과 관련하여 모든 면에서 잘못이 없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12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 보낸 것은 불의를 저지른 사람 때문도 아니고 불의를 당한 사람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열성이 하느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3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위로 말고도, 우리는 티토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이 여러분 모두 덕분에 안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4 사실 나는 티토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적이 있는데, 그 일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모두 진실이었듯이, 우리가 티토에게 한 자랑도 진실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15 티토는 여러분이 모두 자기를 두려워하고 떨면서 맞아들어 순종한 것을 회상하며, 여러분에게 더 큰 애정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16 나는 기뻐합니다. 모든 면에서 여러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헌금

8 ¹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께서 마케도니아의 여러 교회에 배부신 은총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2 환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은 기쁨이 충만하여, 극심한 가난을 겪으면서도 아주 후한 인심을 베풀었습니다.

3 나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가까이 내놓았습니다.

4 그러면서 성도들을 위한 구제 활동에 참여하는 특전을 달라고 우리에게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5 그들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기대하지는 않았는데도, 먼저 주님께 자신을 바치고, 또 하느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도 자신을 바쳤습니다.

6 그래서 우리는 티토에게, 여러분에게서 이미 시작한 이 은혜로운 일을 마저 끝내라고 권하였습니다.

7 이제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온갖 열성에서, 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일에서도 뛰어난므로, 이 은혜로운 일에서도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8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의 열성에 견주어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 확인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9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10 이 일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한 가지 충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이 작년부터 이미 실천하기 시작하였고 또 스스로 원하여 시작한 것이니,

11 이제 그 일을 마무리 지으십시오. 자발적 열의에 어울리게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그 일을 마무리 지으십시오.

12 열의만 있으면 형편에 맞게 바치는 것은 모두 기꺼이 받아들여지고, 형편에 맞지 않는 것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13 그렇다고 다른 이들은 편안하게 하면서 여러분은 괴롭히자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게 하자는 것입니다.

14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누리는 풍요가 그들의 궁핍을 채워 주어 나중에는 그들의 풍요가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 준다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15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많은 거둔 이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이도 모자라지 않았다.”

티토 일행의 파견

16 여러분을 위하여 티토의 마음속에도 나와 똑같은 열성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17 그는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어느 때보다도 큰 열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자신하여 여러분에게 가는 것입니다.

18 우리는 형제 한 사람을 티토와 함께 보냅니다. 이 형제는 복음을 선포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송을 받는 사람입니다.

19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영광과 우리의 열의를 드러내려고 우리가 맡아 수행하는 이 은혜로운 일을 위하여, 여러 교회가 우리의 여행 동반자로 뽑아 세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20 우리가 맡은 이 많은 헌금과 관련하여 누가 우리를 흠잡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들을 보냅니다.

21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바른 일을 하려고 주의를 기울입니다.

22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우리 형제 한 사람을 또 보냅니다. 그가 열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여러 번 여러 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그의 열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23 티토로 말하면, 그는 내 동지이며 여러분을 위한 나의 협력자입니다. 우리의 이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교회들의 대표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24 그러므로 교회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자랑이 사실임을 그들에게 보여 주십시오.

형제들을 돕는 일

9¹ 성도들을 위한 구제 활동에 관해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글을 또 써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2 사실 나는 여러분의 열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열의를 두고 나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 이야기에서는 작년부터 준

비를 갖추었다고 자랑합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열정이 많은 사람을 분발시켰습니다.

3 그런데도 내가 이 형제들을 보내는 까닭은, 우리가 이 일로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빈말이 되지 않게 하여, 내가 다른 이들에게 말한 대로 여러분이 실제로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4 마케도니아 신자들이 나와 함께 그리로 가서 여러분이 준비를 갖추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이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까지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5 그래서 나는 이 형제들에게 부탁하여, 먼저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이 이미 약속한 축복의 선물을 미리 갖추어 놓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것을 억지 선물이 아니라 축복의 선물로 준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6 요점은 이렇습니다. 적게 뿌리는 이는 적게 거두어들이고 많이 뿌리는 이는 많이 거두어듭니다.

7 저마다 마음에 작정한 대로 해야지,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해서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기쁘게 주는 이를 사랑하십니다.

8 하느님께서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은총을 넘치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언제나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가져온갖 선행을 넘치도록 할 수 있게 됩니다.

9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가 가난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내주니 그의 의로움이 영원히 존속하리다.”

10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마련해 주시는 분께서 여러분에게도 씨앗을 마련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 주시고, 또 여러분이 실천하는 의로움의 열매도 늘려 주실 것입니다.

11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부유해져 매우 후한 인심을 베풀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그 인

심은 하느님에 대한 감사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12 이러한 구제 활동 노력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 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하느님께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13 그들은 이 구제 활동을 높이 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순종을 보고 또 자기들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과도 함께 나누는 여러분의 후한 인심을 보고 하느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14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내린 하느님의 넘치는 은총을 생각하며 여러분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15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기의 사도직을 옹호하는 바오로

10 ¹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할 때에는 겸손하고 떨어져 있을 때에는 대담하다 고들 하는 나 바오로가 그리스도의 은유와 관용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직접 권고합니다.

2 우리가 속된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몇몇 사람에게는 내가 확신을 가지고 대담해질 작정입니다만,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곁에 있을 때에는 그럴 필요가 없게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3 우리가 비록 속된 세상에서 살아갈지언정, 속된 방식으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4 우리의 전투 무기는 속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 덕분에 어떠한 요새라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우리는 잘못 된 이론을 무너뜨리고,

5 하느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고 일어서는 모든 오만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포로로 잡아 그리스도께 순종시킵니다.

6 또한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모든 불순종을 처벌할 준비도 갖추고 있습니다.

7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어떤 이가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듯이 우리도 그러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8 내가 우리의 권위를 좀 지나치게 자랑한다 하여도,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성장시키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9 나는 편지로 여러분을 위협하려고 한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10 사실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차지만, 직접 대하면 그는 몸이 약하고 말도 보잘것없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1 그러한 사람은,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서 편지로 써 보내는 말과 절에 있으면서 하는 행동이 똑같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12 그렇다고 스스로 자신을 내세우는 자들과 우리 자신을 같은 부류로 여기거나 우리 자신을 그들과 견주어 보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저희끼리 서로 대어 보고 저희끼리 견주어 보고 있으니 분별없는 자들입니다.

13 그러나 우리는 한도를 넘어서 자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적정 한도 안에서만 그리할 터인데, 거기에는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14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지 않았던 사람처럼 이 한도 너머로 손을 뻗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처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15 우리는 한도를 넘어, 남이 수고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여러분 가운데에서 우리의 활동 영역이 더욱 커져 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16 그러면 우리가 남의 활동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일 없이,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17 “자랑하려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18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바오로와 거짓 사도들

11 1 아무쪼록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더라도 참아 주기를 바랍니다. 부디 참아 주십시오.

2 나는 하느님의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남자에게, 곧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그분과 약혼시켰습니다.

3 그러나 히와가 뱀의 간계에 속아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도 생각이 미혹되어 그리스도를 향한 성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저버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4 사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선포한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을 선포하는데도, 여러분이 받은 적이 없는 다른 영을 받게 하는데도, 여러분이 받아들인 적이 없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데도, 여러분이 잘도 참아 주니 말입니다.

5 나는 결코 그 특출하다는 사도들보다 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6 내가 비록 말은 서투르도 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든 일에서 갖가지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7 여러분을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면서 하느님의 복음을 내가 없이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다고 해서,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말입니까?

- 8 나는 여러분에게 봉사하려고 여러 교회에서 보수를 받는 바람에 그들을 악탈한 꼴이 되었습니다.
- 9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었습니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자제하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 10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걸고 말하는데, 아카이아 지방에서는 나의 이러한 자랑을 아무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 11 내가 왜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겠습니까? 하느님께 서는 아입니다!
- 12 나는 앞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일한다고 자랑할 기회를 노리는 자들에게 그 기회를 없애 버리려는 것입니다.
- 13 그러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위장한 거짓 사도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일하는 자들입니다.
- 14 그러나 놀랄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위장합니다.
- 15 그러니 사탄의 일꾼들이 의로움의 일꾼처럼 위장한다 하여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실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 사도로서 겪는 고난**
- 16 내가 거듭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려거든 적어도 나를 어리석은 대로라도 받아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자랑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 17 자랑하는 일과 관련하여 이제 내가 하는 말은, 주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에 빠진 자로서 하는 말입니다.

- 18 많은 사람이 속된 기준으로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렵니다.
- 19 여러분은 슬기로운 사람이어서 어리석은 자들을 잘도 참아 줍니다.
- 20 사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등쳐 먹어도, 누가 휘어잡아도, 누가 거드름을 피워도, 누가 얼굴을 때려도, 여러분은 참아 줍니다.
- 21 부끄럽게도 나는 이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약해서 이런 짓까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한다면, 어리석음에 빠진 자로서 말하는 것입니다만, 나도 자랑해 보렵니다.
- 22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 23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는 말입니다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였고 옥살이도 더 많이 하였으며, 매질도 더 잔혹하게 당하였고 죽을 고비도 자주 넘겼습니다.
- 24 마흔에서 하나를 빼 매를 유대인들에게 다섯 차례나 맞았습니다.
- 25 그리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세 번, 돌질을 당한 것이 한 번, 파선을 당한 것이 세 번입니다. 밤낮 하루를 꼬박 깊은 바다에서 떠다니기도 하였습니다.
- 26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 늘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에게서 오는 위험, 이민족에게서 오는 위험, 고을에서 겪는 위험, 광야에서 겪는 위험, 바다에서 겪는 위험, 거짓 형제들 사이에서 겪는 위험이 뒤따랐습니다.
- 27 수고와 고생, 잦은 밤샘, 굶주림과 목마름, 잦은 결식, 추위와 험벗음에 시달렸습니다.
- 28 그 밖의 것들은 제쳐 놓고서라도,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가 날마다 나를 짓누릅니다.

- 29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 때문에 죄를 지으면 나도
분개하지 않았습니까?
- 30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함을 드러내
는 것들을 자랑하렵니다.
- 31 하나님이며 주 예수님의 아버지신 분, 영
원히 찬미받으실 분께서는 내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아십니다.
- 32 다마스쿠스에서는, 아레타스 임금의 총독이
나를 잡으려고 그 성을 지키고 있었지만,
- 33 사람들이 나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난
창문으로 내려 주어서 그의 손아귀를 벗어
난 일도 있습니다.

바오로가 받은 환시와 계시

- 12** ¹ 이로우물 것이 없지만 나는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예 주
님께서 보여 주신 환시와 계시까지 말하렵
니다.
- 2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
는데, 그 사람은 열네 해 전에 셋째 하늘까
지 들어 올려진 일이 있습니다. 나로서는 몸
째 그리되었는지 알 길이 없고 몸을 떠나
그리되었는지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 3 나는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나로서는 몸
째 그리되었는지 몸을 떠나 그리되었는지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 4 낙원까지 들어 올려진 그는 말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어떠한 인간도
누설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 5 이런 사람에 대해서라면 내가 자랑하겠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 약점밖에 자랑하지
않으렵니다.
- 6 내가 실사 자랑하고 싶어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꼴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그만두겠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서 보고 듣는 것 이상으로

- 나를 생각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 7 그 계시들이 엄청난 것이기에 더욱 그렇습
니다. 그래서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느님
께서 내 몸을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나를 줄곧 찢러 대 내
가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 8 이 일과 관련하여, 나는 그것이 나에게서 떠
나게 해 주십시오고 주님께 세 번이나 청하였
습니다.
- 9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내 은총을 넉넉
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
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 10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
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깁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코린토 교회에 대한 염려

- 11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
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나를 내세워 주어야 했습니
다. 나는 비록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결코 그 특출하다는 사도들보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 12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한결같이
인내하며 여러 표징과 이적과 기적으로 참
사도의 표지들을 드러냈습니다.
- 13 여러분이 다른 교회들에 비해 나에게서 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쾌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 말입
니다. 그것이 부당한 처사라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 14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세 번째로 갈 준비
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쾌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재산을 모아 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법입니다.

- 15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것을 더없이 기쁘게 내놓고 나 자신도 남김없이 내놓았습니다.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내가 그만큼 덜 사랑받아야 합니까?
- 16 아무튼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았습시다. 그런데도 내가 교활하여 여러분을 속임수로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 17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이들 가운데 누구를 시켜 여러분을 기만하기라도 하였습니까?
- 18 나는 티토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권하면서 그 형제도 함께 보냈습니다. 티토가 여러분을 기만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티토와 내가 같은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같은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 19 우리가 여러분 앞에서 자기 변명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은 줄곧 생각해 왔습니까?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 20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갔을 때에 여러분이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또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에 분쟁과 시기와 격분과 이기심과 중상과 험담과 거만과 무질서가 있자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 21 또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에 나의 하느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나에게 다시 창피를 주지나 않으실까, 전에 죄를 짓고도 자들이 저지른 그 더러운 짓과 불륜과 방탕을 회개하지 않는 많은 사람 때문에 내가 슬피 울게 되자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니다. “ 모든 일은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합니다.”

- 2 내가 두 번째로 방문하였을 때 전에 죄를 지은 이들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미 경고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과 떨어져 있으면서 다시 경고합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냥 너그럽게 넘겨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 3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여러분이 찾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대하실 때에 약하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에서 힘을 떨치시는 분이십니다.
- 4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이제는 하느님의 힘으로 살아 계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지만, 여러분을 대할 때에는 하느님의 힘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있을 것입니다.
- 5 자기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따져 보십시오. 스스로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 6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 7 우리는 여러분이 어떠한 악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함격자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격자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을 선을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8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엇이든지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 9 우리가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자신을 바로잡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 10 그래서 내가 떨어져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를 써 보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

마지막 경고와 인사

13 ¹ 나는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갑

서 곁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을 준엄하게 다룰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권위는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 11 그럼 형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자신을 바로잡으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하고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 12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 1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 9

서간서 - 4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총 6 장

총 149 절

[신약성경-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인사

- 1** ¹ 사람들에게서도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파견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하느님 아버지를 통해서 파견된 사도인 나 바오로가,
- 2**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가 갈라티아의 여러 교회에 인사합니다.
- 3**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바랍니다.
- 4**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지금의 이 약한 세상에서 구해 내시려고, 우리 죄 때문에 당신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 5** 하느님께 영원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복음은 하나

- 6**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 주신 분을 여러분이 그토록 빨리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돌아서다니,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 7** 실제로 다른 복음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을 교란시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 8** 우리는 물론이고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 9** 우리가 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이제 내가 다시 한 번 말합니다. 누가 여러분이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 10** 내가 지금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느님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

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라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것입니다.

바오로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경우

- 11**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분명히 밝혀 둡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 12** 그 복음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은 것입니다.
- 13** 내가 한때 유대교에 있을 적에 나의 행실이 어떠한지 여러분은 이미 들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며 아예 없애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 14** 유대교를 신봉하는 일에서도 동족인 내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 있었고,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심이었습니다.
- 15** 그러나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따로 뽑으시어 당신의 은총으로 부르신 하느님께서 기꺼이 마음을 정하시어,
- 16** 내가 당신의 아드님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분을 내 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나는 어떠한 사람과도 바로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 17**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이들을 찾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왔습니다.
- 18** 그리고 나서 삼 년 뒤에 나는 케파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름 동안 그와 함께 지냈습니다.
- 19** 그러나 다른 사도는 아무도 만나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만 보았을 뿐입니다.
- 20**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글은 하느님 앞에서 말하지만 단 거짓이 아닙니다.

- 21 그 뒤에 나는 사리아와 칼리키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 22 그래서 나는 유다에 있는 그리스도의 여러 교회에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습다.
- 23 그들은 “ 한때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자기가 한때 그렇게 없애 버리려고 하던 믿음을 전한다.” 는 소문만 듣고 있었습니다.
- 24 그리고 그들은 나 때문에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사도 회의

- 2¹ 그리고 나서 십사 년 뒤에 나는 바르나바와 함께 티토도 데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 2 나는 계시를 받고 그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민족들에게 선포하는 복음을 그곳 주요 인사들에게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전에 한 일이 허사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 3 나와 함께 있던 티토는 그리스 사람이었는데도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 4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문제가 있기는 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다시 종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들어온 자들입니다.?
- 5 그러나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머물도록 하려고,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 6 주요하다는 그 인사들 쪽에서는, — 그들이 한때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나에게서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 그 주요 인사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따로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 7 그들은 오히려 베드로가 할례 받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임받았듯이, 내가

- 할례 받지 않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8 할례 받은 이들을 위하여 베드로에게 사도직을 수행하게 해 주신 분께서, 나에게도 다른 민족들을 위한 사도직을 수행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 9 그리고 교회의 기둥으로 여겨지는 야고보와 케파와 요한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배푸신 은총을 인정하고, 친교의 표시로 나와 바르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이들에게 가기로 하였습니다.
- 10 다만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기로 하였고, 나는 바로 그 일을 열심히 해 왔습니다.

바오로가 베드로를 나무라다

- 11 그런데 케파가 안티오키아에 왔을 때 나는 그를 정면으로 반대하였습니다. 그가 단죄 받을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 12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다른 민족들과 함께 음식을 먹더니, 그들이 오자 할례 받은 자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몸을 사리며 다른 민족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 13 나머지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저지르고, 바르나바까지도 그들과 함께 위선에 빠졌습니다.
- 14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올바른 길을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케파에게 말하였습니다. “ 당신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으로 살지 않고 이민족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민족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믿음으로 얻는 구원

- 15 우리는 본디 유대인으로, 죄인들인 이민족이 아닙니다.
- 16 그러나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율법에 따른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17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애쓰는 우리 자신도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결국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이시라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 18 내가 혈어 버린 것을 다시 세운다면 나 자신이 범법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19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율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 20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 21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하여 의로움이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율법과 성령

- 3¹ 아, 어리석은 갈라티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으로 여러분 눈앞에 생생히 새겨져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호령한 말입니까?
- 2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에 따른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어

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 3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고서는 육으로 마칠 셈입니까?
- 4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이 헛일이라는 말입니까? 참으로 헛일이라는 말입니까?
- 5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에서 기적을 이루시는 분께서, 율법에 따른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그리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에 그리하시는 것입니까?

율법과 믿음

- 6 이는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의 의로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7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아야 합니다.
- 8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내다보고, “모든 민족들이 네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전해 주었습니다.
- 9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이들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 10 율법에 따른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율법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한결같이 실천하지 않는 자는 모두 저주를 받는다.” 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11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 12 율법은 믿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규정들을 실천하는 이는 그것들로 살” 따릅니다.
- 13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저주받은 몸이 되시어, 우리를 율법의 저주

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모두 저주받은 자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14 그리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른 민족들에게 이르러, 우리가 약속된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율법과 약속

- 15 형제 여러분, 내가 인간의 관례에 따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유언도 율법 작성된 것이면 아무도 폐기하거나 무엇을 첨가할 수가 없습니다.
- 16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뜻하는 “후손들에게” 가 아니라, 한 사람을 뜻하는 “너의 후손에게” 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 17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예전에 율법 맺으신 계약을 사백삼십년 뒤에 생겨난 율법이 파기하여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 18 상속 재산이 율법에 근거한다면 그것은 결코 약속에 근거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것을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은혜로이 주셨습니다.
- 19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약속을 받은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사람들의 범법 때문에 덧붙여진 것입니다.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중개자의 손을 거쳐 공포되었습니다.
- 20 중개자는 한 분만의 중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한 분이십니다.
- 21 그렇다면 율법이 하느님의 약속과 반대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생명을 가져다줄 수 있는 율법을 우리가 받았다면, 분명 의로움도 율법을 통하여 왔을 것입니다.

- 22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믿는 이들이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 23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갇혀,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율법의 감시를 받아 왔습니다.

- 24 그리하여 율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감시자 노릇을 하였습니다.

- 25 그러나 믿음이 온 뒤로 우리는 더 이상 감시자 아래 있지 않습니다.

- 26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 27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 28 그래서 유대인도 그리스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 29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입니다.

종살이에서 자유로

- 4¹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렇습니다. 상속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면서도 어린아이일 때에는 종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 2 아버지가 정해 놓은 기한까지는 후견인과 관리인 아래 있습니다.

- 3 이처럼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이 세상의 정령들 아래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 4 그러나 때가 차자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 5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속량하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 6 진정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 영께서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 7 그러므로 그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세위 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종살이로 돌아가지 마라

- 8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본디 신이 아닌 것들에게 종살이를 하였습니까.
- 9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 약하고 초라한 정령들에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들에게 다시 종살이를 하고 싶다는 말입니까?
- 10 여러분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잘도 지킵니다.
- 11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애쓴 것이 헛일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 12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나에게 잘못된 적이 없습니다.
- 13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육신의 병이 계기가 되어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 14 그때에 내 육신의 상태가 여러분에게는 하나의 시련이었지만, 여러분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역겨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받아들였습니다.
- 15 그런데 행복을 느끼던 여러분의 그 마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내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은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뽑아 나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 16 그런데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한

다고 해서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 17 그들은 여러분에게 열성을 기울이고 있지만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따로 떼어 놓아 여러분이 자기들에게만 열성을 기울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 18 남들이 좋은 뜻으로 열성을 기울여 주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 19 나의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모습을 갖추실 때까지 나는 다시 산고를 겪고 있습니다.
- 20 내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다른 어조로 말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카르와 사라: 옛 계약과 새 계약

- 21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여러분,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 22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났고 하나는 자유의 몸인 아내에게서 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 23 그런데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에 따라 태어났고, 자유의 몸인 아내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의 결과로 태어났습니다.
- 24 여기에는 우의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두 계약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사나이 산에서 나온 여자로 종살이할 자식을 낳는데, 바로 하카르입니다.
- 25 하카르는 아라비아에 있는 사나이 산을 가리키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이 그 자녀들과 함께 종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26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의 몸으로서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 27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여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아! 기뻐 소리쳐라, 환성을 올려라, 산고를 겪어 보지 못한 여인아! 버림받은 여인의 자녀가 남편 가진 여인의 자녀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 28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사와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 29 그러나 그때에 육에 따라 태어난 아들이 성령에 따라 태어난 아들을 박해한 것처럼, 지금도 그렇습니다.
- 30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자식이 자유의 몸인 부인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는 없다.” 하였습니다.
- 31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의 몸인 부인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 5¹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 2 자, 나 바오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 3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시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 4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와 인연이 끊겼습니다. 여러분은 은총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 5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로워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 6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할례를 받았으나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한 따름입니다.

- 7 여러분은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 8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께서 그렇게 설득하셨을 리는 없습니다.
- 9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합니다.
- 10 나는 여러분의 의견도 다르지 않으리라고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 11 형제 여러분, 만일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라면 십자가라는 걸림돌도 이미 치워졌을 것입니다.
- 12 여러분을 선동하는 자들은 차라리 스스로 거세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육과 성령

- 13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자유를 육을 위하는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 14 사실 모든 율법은 한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곧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계명입니다.
- 15 그러나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한다면, 서로가 파멸할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 16 내 말은 이렇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의 욕망을 채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 17 육이 욕망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은 육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18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19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곧 불륜,

더러움, 방탕,

- 20 **우상 숭배, 미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 21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경고한 그대로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 22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 23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 24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육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 25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을 따라갑시다.**
- 26 **잘난 체하지 말고 서로 시비하지 말고 서로 시기하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법

6

- 1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 영적인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 2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 3 사실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냐 되는 듯이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 4 저마다 자기 행동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는 자랑거리라 하여도 남에게는 자랑거리가 못 될 것입니다.
- 5 누구나 저마다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입니다.
- 6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모두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 7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롱당하실 분

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는 법입니다.

- 8 **자기의 육에 뿌리는 사람은 육에서 멸망을 거두고, 성령에게 뿌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 9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에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 10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좋은 일을 합시다.**

마지막 권고와 축복

- 11 **보십시오, 내가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여러분에게 씁니다.**
- 12 **겉으로만 좋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 그자들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려고 그리하는 것입니다.**
- 13 **할례를 받은 그들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몸에 한 일을 자랑하려고, 여러분이 할례 받기를 원하는 것뿐입니다.**
- 14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 15 **사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 창조만이 중요 따름입니다.**
- 16 **이 법칙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 17 **앞으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낙인을 내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 18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

총이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
멘.

신약성경 - 10

서간서 - 5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총 6 장

총 155 절

[신약성경]-[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인사

- 1** ¹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오로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는 신자들에게 인사합니다.
-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풀어진 은총

-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찬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 4**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 5**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 6** 그리하여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배푸신 그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 7**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총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 8** 하나님께서는 이 은총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배부셨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통찰력을 다하시어,
- 9**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당신 선의에 따라 우리에게 당신 뜻의 신비를 알려 주셨습니다.
- 10** 그것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서 하여

한테 모으는 계획입니다.

- 11** 만물을 당신의 결정과 뜻대로 이루시는분의 의행에 따라 미리 정해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몫을 얻게 되었습니다.
- 12**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께 희망을 둔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 13**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되었을 때, 약속된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 14**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서 속량될 때까지, 이 성령께서 우리가 받을 상속의 보증이 되어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신자들을 위한 기도

- 15** 그래서 나도 주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 듣고,
- 16**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하며 여러분 때문에 끊임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 17** 그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 18**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나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 19** 또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한 그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난게 큰지를 그분의 강한 능력의 활동으로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 20**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펼치시어,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 21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과 주권 위에, 그리고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 22 또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굴복시키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에 머리로 주셨습니다.
- 23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 2¹ 여러분도 전에는 잘못과 죄를 저질러 죽었던 사람입니다.
- 2 그 안에서 여러분은 한때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공중을 다스리는 지배자, 곧 지금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 안에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 3 우리도 다 한때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 육의 욕망에 이끌려 살면서, 육과 감각이 원하는 것을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분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 4 그러나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 5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 여러분은 이렇게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 6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 7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로, 당신의 은총이 얼마나 엄청나게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시대에 보여 주려고 하셨습니다.
- 8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 9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아무

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 10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

- 11 그러므로 이민족으로 태어난 여러분은 한 때, 사람 손으로 몸애다 행하는 이른바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불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 12 그때에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약속의 계약과도 무관하였고, 이 세상에서 아무 희망도 가지지 못한 채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 13 그러나 이제, 한때 멀리 있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 14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유대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 둘을 가르는 장벽인 적개심을 허무셨습니다.
- 15 또 그 모든 계명과 조문과 함께 율법을 폐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당신 안에서 두 인간을 하나의 새 인간으로 창조하시어 평화를 이루하시고,
- 16 십자가를 통하여 양쪽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어, 그 적개심을 당신 안에서 없애셨습니다.
- 17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시어, 멀리 있던 여러분에게도 평화를 선포하시고 가까이 있던 이들에게도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 18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 양쪽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 19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 20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바로 모퉁잇돌이십니다.
- 21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잘 결합된 이 건물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납니다.
- 22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민족들을 위한 바오로의 사도직

- 3¹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이민족 여러분을 위하여 수인이 된 나 바오로가 말합니다.
- 2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은총의 직무를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 3 앞에서 간단히 적은 바와 같이, 나는 계시를 통하여 그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 4 그래서 그 부분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신비에 관하여 깨달은 것을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5 그 신비가 과거의 모든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 6 곧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 7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을 펼치시어 나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에 따라,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 8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나에게 그러한 은총을 주시어, 그리스도의 헤이될 수 없는 풍요를 다른 민족들에게 전

하고,

- 9 과거의 모든 시대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 신비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모든 사람에게 밝혀 주게 하셨습니다.
- 10 그리하여 이제는 하늘에 있는 권세와 권력들에게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매우 다양한 지혜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 11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 12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 13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겪는 환난 때문에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환난이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 14 이 때문에, 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 15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종족이 아버지에게서 이름을 받습니다.
- 16 아버지께서 당신의 풍성한 영광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내적 인간이 당신 힘으로 굳세어지게 하시고,
- 17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사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기초로 삼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 18 그리하여 여러분이 모든 성도와 함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는 능력을 지니고,
- 19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 20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청

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

21 그분께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세 대대로 영원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치

4¹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수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2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내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 주며,

3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4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5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6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안에 계십니다.

7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양에 따라, 우리는 저마다 은총을 받았습시다.

8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높은 데로 오르시어 포로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9 “그분께서 올라가셨다.” 는 것은 그분께서 아주 낮은 곳 곧 땅으로 내려와 계셨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10 내려오셨던 그분이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11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선포자로, 어떤 이들은 목자나 교사로 세워 주셨습니다.

12 성도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몸

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시려는 것이었습니다.

13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일치를 이루고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14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닐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사람들의 속임수나 잔교한 계약에서 나온 가르침의 온갖 풍랑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밀려다닙니다.

15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모든 면에서 저러나 그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분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16 그분 덕분에, 영양을 공급하는 각각의 관절로 온몸이 잘 결합되고 연결됩니다. 또한 각 기관이 알맞게 기능을 하여 온몸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옛 생활과 새 생활

17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헛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민족들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18 그들 안에 자리 잡은 무지와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정신이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19 감각이 없어진 그들은 자신을 방탕에 내맡겨 온갖 더러운 일을 탐욕스럽게 해 냅니다.

20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워지 않았습니다.

21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께 관하여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았을 줄 압니다.

22 곧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 가는 옛 인간을 벗어 버리고,

- 23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24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생활의 규범

- 25 그러므로 거짓을 벗어 버리고 “저마다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26 “화가 나더라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27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28 도둑질하던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애써 좋은 일을 하여 곤궁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29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떠한 나쁜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에 다른 이의 성정에 좋은 말을 하여, 그 말이 듣는 이들에게 은총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30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속량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시다.
31 모든 원함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증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32 서로 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5 1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 2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3 성도들에게 걸맞게, 여러분 사이에서는 불륜이나 온갖 더러움이나 탐욕은 입에 올리는

일조차 없어야 합니다.

- 4 추잡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상스러운 농담처럼 온당치 못한 것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여러분은 감사의 말만 해야 합니다.
5 이것을 꼭 알아 두십시오. 불륜을 저지르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몫이 없습니다.

빛의 자녀

- 6 여러분은 어느 누구의 허황한 말에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립니다.
7 그러므로 그런 자들과 상종하지 마십시오.
8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9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10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가려내십시오.
11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에 가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십시오.
12 사실 그들이 은밀히 저지르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입니다.
13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모두 빛으로 밝혀집니다.
14 밝혀진 것은 모두 빛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아, 깨어나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15 그러므로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살피보십시오.
16 시간을 잘 쓰십시오.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17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 18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방탕이 나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 19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 20 그러면서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드십시오.

아내와 남편

- 21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 22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 23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 몸의 구원자이신 것과 같습니다.
- 24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 25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 26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말쑥과 더불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 27 그리고 교회를 떠나 주름 같은 것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시며,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 28 남편도 이렇게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 29 아무도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자기 몸을 가꾸고 보살핍니다.
- 30 우리는 그분 몸의 지체입니다.
- 31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

다.”

- 32 이는 큰 신비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 33 여러분도 저마다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자녀와 부모

- 6¹ 자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 2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딸린 첫 계명입니다.
- 3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 4 그리고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종과 주인

- 5 종 여러분,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두려워하고 떨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현세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 6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좋아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느님의 뜻을 진심으로 실행하십시오.
- 7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기쁘게 섬기십시오.
- 8 종이든 자유인이든 저마다 좋은 일을 하면 주님께 상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 두십시오.
- 9 그리고 주인 여러분, 여러분도 종들을 이와 같이 대해 주십시오. 겹주는 일은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며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시고 또 그분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 두십시오.

영적 투쟁

- 10 끝으로,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

아 굳세어지십시오.

- 11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 12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 13 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채비를 마치고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 14 그리하여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 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 15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으십시오.
- 16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가 쓰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서 끌 수 있을 것입니다.
- 17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쥐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18 여러분은 늘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려 간청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내를 다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 19 그리고 내가 입을 열면 말씀이 주어져 복음의 신비를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도 간구해 주십시오.
- 20 이 복음을 전하는 사절인 내가 비록 사슬에 매여 있어도, 말을 해야 할 때에 이 복음에 힘입어 담대해질 수 있도록 말합니다.

끝 인사

- 21 내 사정이 어떠한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알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이며 충실한 일꾼인 티키코스가 모든 것을 알려 줄 것입니다.
- 22 그 때문에 내가 티키코스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우리의 형편을 알리고 여러분의 마

음을 격려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23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평화가, 그리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이 형제들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 24 불멸의 생명과 더불어 은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이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신약성경 - 11

서간서 - 6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총 4 장

총 104 절

[신약성경]-[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

- 1** ¹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바오로와 티모테오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는 필리피의 모든 성도에게, 그리고 감독들과 봉사자들에게 인사합니다.
- 2**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바랍니다.

필리피 신자들을 위한 기도

- 3** 나는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4**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늘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 5**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6** 여러분 가운데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 7**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로서는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간혀 있을 때나, 복음을 수호하고 확증할 때나 여러분은 모두 나와 함께 은총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 8** 사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애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몹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 9**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온갖 이해로 더욱더 풍부해져
- 10**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고,
- 11**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의로움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 하느님께 영광과 찬양을

사도의 삶과 그리스도

- 12** 형제 여러분, 나에게 닥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 13**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간혀 있다는 사실이 온 경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 14** 그리고 대부분의 형제들이 내가 간혀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확신을 얻고, 두려움 없이 더욱 대담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 15** 사실 어떤 이들은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지만, 어떤 이들은 선의로 그 일을 합니다.
- 16** 선의로 하는 이들은 내가 복음을 수호하도록 정해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사랑으로 그 일을 합니다.
- 17**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기심이라는 불순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할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 18**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니, 나는 그 일로 기뻐합니다. 사실 나는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 19**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으로 이 일이 나에게서 구원으로 끝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 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언제나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살든지 죽든지 나의 이 몸으로 아주 담대히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 21** 사실 나에게서 삶이 곧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
- 22** 그러나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야 한다면,

나에게는 그것도 보람된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23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여 있습니다. 나의 바램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편이 훨씬 낫습니다.
- 24 그러나 내가 이 육신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 25 이러한 확신이 있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남아 여러분 모두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 26 그리하여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가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랑할 거리 가 나 때문에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믿음을 위한 투쟁

- 27 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보든지 이렇게 떨어져 있든지 간에, 여러분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한뜻으로 굳건히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에 대한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 28 어떠한 경우에도 적대자들을 겁내지 않는다는 소식 말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표이며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표로 하느님께서 오는 것입니다.
- 29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특권을, 곧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까지 겪는 특권을 받았습니니다.
- 30 전에 나에게서 보았고 지금도 나에게 대하여 듣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여러분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치와 겸손

- 2¹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

을 나누다면,

- 2 뜻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 3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 4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 5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나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 6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 7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어느 사람처럼 나타나
- 8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 9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 10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 11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빛

- 12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늘 순종하셨습니다. 내가 함께 있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처럼 떨어져 있을 때에는 더욱더 그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십시오.
- 13 하느님은 당신 호의에 따라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어, 의지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실천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 14 무슨 일이든 투덜거리거나 따지지 말고 하십시오.
- 15 그리하여 비뚤어지고 뒤틀린 이 세대에서 허물없는 사람, 순결한 사람, 하나님의 없는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16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니십시오. 그러면 내가 헛되이 달음질하거나 헛되이 애쓴 것이 되지 않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17 내가 설령 하나님께 올리는 포도주가 되어 여러분이 봉헌하는 믿음의 제물 위에 부어진다 하여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 18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티모테오와 에파프로디토스의 파견

- 19 주 예수님 안에서 나는 티모테오를 여러분에게 곧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의 소식을 알고 기운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 20 나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을 성심껏 돌보아 줄 사람이 나에게서 티모테오밖에 없습니다.
- 21 모두 자기의 것만 추구할 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추구하지 않습니다.
- 22 여러분은 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나와 함께 마치 자식과 아버지처럼 복음을 위하여 일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23 그래서 내 형편이 어찌될지 아는 대로, 그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24 나 자신도 곧 가게 되리라고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 25 나는 에파프로디토스도 여러분에게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이고 협력자이며 전우이고 여러분의 대표이며,

내가 곤궁할 때에 나를 도와준 봉사자입니다.

- 26 그가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이 났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듣게 되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27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내가 이중으로 슬픔을 겪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 28 그래서 나는 더욱 서둘러 그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며 나도 근심을 덜려는 것입니다.
- 29 그러니 주님 안에서 그를 아주 기쁘게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 30 그는 여러분이 나를 위하여 못 다한 봉사를 마쳐 채우려고,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다가 죽음에까지 가까이 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의로움

- 3¹ 끝으로 나의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같은 내용을 적어 보낸다 해서 나에게서 생가실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안전한 것이 됩니다.
- 2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나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거짓된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 3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며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 4 하기가 나에게도 육적인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적인 것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 5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은 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벤야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며,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이입니다.
- 6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율법에 따른 의로움으로 말하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 7 그러나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 8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 9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오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 곧 믿음을 바탕으로 하느님께서 오는 의로움을 지니고 있으려는 것입니다.
- 10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 11 그리하여 어떻게든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향한 달음질

- 12 나는 이미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목적지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차지하려고 달려갈 따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당신 것으로 차지하셨기 때문입니다.
- 13 형제 여러분, 나는 이미 그것을 차지하겠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 14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 를 하늘로 부르시어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 15 성숙한 사람인 우리는 모두 이러한 생각을 지닙니다. 혹시 여러분이 무엇인가 달리 생각한다면, 그것도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 16 아무튼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 같은 길로 나아갑시다.
- 17 형제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이들도 눈여겨보십시오.
- 18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 19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이 세상 것만 생각합니다.
- 20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세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 21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키실 수도 있는 그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4 ¹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며 화관인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권고

- 2 나는 에우오디아에게 권고하고 신티케에게 권고합니다. 주님 안에서 뜻을 같이하십시오.
- 3 그렇습니다. 나의 진실한 동지여, 이 여자들을 도와주도록 그들에게도 당부합니다. 이들

은 클레멘스를 비롯하여 나의 다른 협력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려고 나와 함께 싸운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이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적혀 있습니다.

- 4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 5 여러분의 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 6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 7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
- 8 끝으로, 형제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의로운 것과 정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또 덕이 되는 것과 칭송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 9 그리고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실 것입니다.

선물에 대한 감사

- 10 여러분이 나를 생각해 주는 마음을 마침내 다시 한 번 보여 주었기에,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줄곧 나를 생각해 주었지만 그것을 보여 줄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 11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 12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모자라거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잘 자내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 13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 14 그러나 내가 겪는 환난에 여러분이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 15 필리피 신자 여러분, 복음 선포를 시작할 무렵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여러분 외에는 나와 주고받는 관계에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음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 16 내가 테살로니키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두어 번 필요한 것을 보내 주었습니다.
- 17 물론 내가 선물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 18 나는 모든 것을 다 받아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에파프로디토스 편에 보낸 것을 받아 풍족합니다. 그것은 향기로운 예물이며 하느님 마음에 드는 훌륭한 제물입니다.
- 19 나의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베푸시는 당신의 그 풍요로움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 20 우리의 하느님 아버지께 영원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끝 인사

- 21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는 모든 성도에게 인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 22 모든 성도가, 특히 황제 집안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 2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신약성경 - 12

서간서 - 7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총 4 장

총 95 절

[신약성경]-[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인사

- 1** ¹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오로와 티모테오 형제가
- 2** 콜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형제 신자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바랍니다.

감사 기도

- 3**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면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4**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 5** 그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마련되어 있는 것에 대한 희망에 근거합니다. 이 희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통하여 이미 들은 것입니다.
- 6**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다다라 여러분이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온 세상에서 그러하듯이 여러분에게서도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 7**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사랑하는 동료 종 에파프라스에게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는 그리스도의 충실한 일꾼이며,
- 8**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 준 사람입니다.

콜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

- 9** 그래서 우리도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청하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이 모든 영적 지혜와 깨달음 덕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서,

- 10**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면에서 그분 마음에 들고 온갖 선행으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 11**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에서 오는 모든 힘을 받아 강해져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어 내기를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 12** 성도들이 빛의 나라에서 받는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 13**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 내시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 14** 이 아드님 안에서 우리는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 찬가

- 15**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만이십니다.
- 16**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 17**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 18** 그분은 또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만이십니다. 그리하여 만물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십니다.
- 19** 과연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 20**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하느님과 화해한 공동체

- 21 여러분은 한때 악행에 마음이 사로잡혀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분과 원수로 지냈 습니다.
- 22 그러나 이제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아드님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유회로 여러분과 화해하시어,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 없고 나 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 23 다만 여러분은 믿음에 기초를 두고 깨끗하 게 견디어 내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희 망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복음은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되었고, 나 바오로는 그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위한 바오로의 사도직

- 24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며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 25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완수하라고 나에게 주신 직 무에 따라,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 26 그 말씀은 과거의 모든 시대와 세대에 감 추어져 있던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 가 이제는 하느님의 성도들에게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 27 하느님께서서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 나타 난 이 신비가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지 성도들에게 알려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 니다. 그 신비는 여러분 가운데에 계신 그 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영광의 희망이 습니다.
- 28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 으로 굳건히 서 있게 하려고, 우리는 지혜 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타이르고 모든 사

람을 가르칩니다.

- 29 이를 위하여 나는 내 안에서 힘차게 작용 하는 그리스도의 기운을 받아 열심히 노력 하고 있습니다.

2 ¹ 사실 여러분과 라오디케이아에 있는 이들, 그리고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모든 이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노력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 2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과 그들이 마 음에 용기를 얻고 사랑으로 결속되어, 풍부 하고 온전한 깨달음을 모두 얻고 하느님의 신비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추게 하 려는 것입니다.
- 3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 4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여러분을 그럴듯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려 는 것입 니다.
- 5 내가 비록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 는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 질서 있는 생활과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 한 믿음을 보며 기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충만한 삶

- 6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 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 7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분 안에 뿌리를 내려 자신을 굳건히 세우고 믿음 안에 튼튼히 자 리를 잡으십시오. 그리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 8 아무도 사람을 속이는 헛된 철학으로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이 세상의 정령들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 닙니다.
- 9 온전히 충만한 신성이 육신의 형태로 그리 스도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 10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권세와 권력들의 머리가십니다.
- 11 여러분은 또한 그분 안에서 육체를 벗어 버림으로써, 사람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 12 여러분은 세례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킨 하느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 13 여러분은 잘못을 저지르고 육의 할례를 받지 않아 죽었지만,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그분과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 14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담은 우리의 빚 문서를 지워 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에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 15 권세와 권력들의 무장을 해제하여 그들을 공공연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이끌고 개선 행진을 하셨습니다.
- 16 그러므로 먹거나 마시는 일로, 또는 축제나 초하루날이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 17 그런 것들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 18 거짓 겸손과 천사 숭배를 즐기는 자는 아무도 여러분을 실격시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시에 빠진 나머지 현재적 생각으로 까닭 없이 우쭐거립니다.
- 19 그는 자기의 머리이신 분께 단단히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몸은 이 머리로부터 관절과 인대를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잘 연결되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삶

- 20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이 세상의

정령들에게서 벗어났으면서도,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규정에 얽매어,

- 21 “ 손대지 마라, 맛보지 마라, 만지지 마라.” 합니까?
- 22 그 모든 것은 쓰고 나면 없어져 버리는 것들에 대한 규정으로, 인간의 법규와 가르침에 따른 것들일 뿐입니다.
- 23 그런 것들은 자발적인 신심과 겸손과 육신의 고행을 내세워 지혜로운 것처럼 들리지만, 육신의 욕망을 다스리는 데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3 ¹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 ²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 ³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 ⁴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 ⁵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현세적인 것들, 곧 불륜, 더러움, 욕정, 나쁜 욕망,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 ⁶ 이것들 때문에 하느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립니다.
- ⁷ 여러분도 전에 이러한 것들에 빠져 지낼 때에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 ⁸ 그러나 이제는 분노, 격분, 악의, 중상, 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수치스러운 말 따위는 모두 버리십시오.
- ⁹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인간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 버리고,
- ¹⁰ 새 인간을 입을 사람입니다. 새 인간은 자

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상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치식에 이르게 됩니다.

- 11 여기에는 그리스인도 유대인도, 할례 받은 이도 할례 받지 않은 이도, 야만인도, 스키타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 12 그러므로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리나라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 13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 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 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 주는 끈입니다.
- 15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한 몸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 16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타이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 드리십시오.
- 17 말이란 행동이란 무엇이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가정

- 18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 19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 20 자녀 여러분, 무슨 일에서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 21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들볶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들의 기를 꺾고 맙니다.
- 22 종 여러분, 무슨 일에서나 현재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좋아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 23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 24 주님에게서 상속 재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것을 알아 두십시오. 여러분은 주 그리스도의 종이 되십시오.
- 25 불의를 저지르는 자는 자기가 저지른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습니다.

4 ¹ 주인 여러분, 종들을 정당하고 공정하게 다루십시오. 여러분에게도 하늘에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 두십시오.

여러 가지 권고

- 2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 3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그 신비를 위하여 지금 간혀 있습니다.
- 4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말로 그 신비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5 바깥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처신하고 시간을 잘 쓰십시오.
- 6 여러분의 말은 언제나 정답고 또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끝 인사

- 7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이고 충실한 일꾼이며 나의 동료 종인 티키코스가 내 모든 사정을 여러분에게 알려 줄 것입니다.
- 8 그 때문에 내가 티키코스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우리의 형편을 알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9 충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수도 같이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향인입니다. 이들이 이곳 사정을 여러분에게 다 알려 줄 것입니다.
- 10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아리스타르코스, 그리고 바르나바의 사촌 마르코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이 마르코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지시를 받았으니, 그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받아들이십시오.
- 11 유스투스라고 하는 예수도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할례 받은 이들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협력자는 이들뿐인데, 이들이 나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 12 여러분의 동향인이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인 에파프라스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완전한 사람으로, 또 하느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도록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열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 13 나는 그에 관하여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또 라오디케이아와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14 사랑하는 의사 루카와 테마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 15 라오디케이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또 님파와 그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 16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고 난 뒤에 라오디케이아 교회에서도 읽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라오디케이아에서 가는 편지를 여러

분도 읽으십시오.

- 17 아르키포스에게는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 “그대가 주님 안에서 받은 직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 18 이 인사말은 나 바오로가 직접 씁니다. 사슬에 묶여 있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 13

서간서 - 8

테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총 5 장

총 89 절

[신약성경] -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인사

1 ¹ 바오로와 실바누스와 티모테오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테살로니카 사람들의 교회에 인사합니다.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바랍니다.

테살로니카 신자들의 믿음

- 2**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모두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 3**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노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의 인내를 기억합니다.
- 4** 하나님께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선택되었음을 압니다.
- 5** 그것은 우리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힘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 6** 또한 여러분은 큰 환난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 7**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의 모든 신자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 8**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시작하여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곳곳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 9** 사실 그곳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살아 계신 참하느님을 섬

게 되었는지,

- 10**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그분의 아드님, 곧 닥쳐오는 진노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게 되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선교

- 2** ¹ 형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가는 일이 헛되지 않았음을 여러분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 2**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전에 필리피에서 고난을 겪고 모욕을 당하였지만, 오히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어 격렬히 투쟁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 3** 우리의 설교는 그릇된 생각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불순한 동기에서 나온 것도 아니며,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닙니다.
- 4**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여 맡기신 복음을 그대로 전합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는 것입니다.
- 5**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한 번도 이침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구실을 붙여 탐욕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증인이십니다.
- 6**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찾지도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서도 찾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찾지 않았습니다.?
- 7**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위엄 있게 처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자녀들을 품에 안은 어머니 처럼 온화하게 처신하였습니다.
- 8**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자신까지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토록 우리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 9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였습니다.
- 10 우리가 신자 여러분에게 얼마나 경건하고 의롭게 또 흠 잡힐 데 없이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이 증인이고 하나님께서도 증인이십니다.
- 11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대하듯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하면서,
- 12 당신의 나라와 영광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격려하며 역설하였습니다.
- 13 우리는 또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신자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14 형제 여러분, 사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유다의 하나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곳 신자들이 유다인에게서 받은 것과 똑같은 고난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 15 유다인들은 주 예수님을 죽이고 예언자들도 죽였으며, 우리까지 박해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이고 모든 사람을 적대하는 자들로서,
- 16 우리가 다른 민족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는 일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계속 쌓아 갑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에게 진노가 닥쳤습니다.

테살로니카로 다시 가려는 바오로

- 17 형제 여러분, 우리는 잠시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을 떠나 고아처럼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니라 몸만 떨어져 있을 뿐이지만, 우리는 간절한 열망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보려고 갖은 애를 썼습니다.
- 18 사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하였는데, 나 바오로가 여러 차례 가려고 하였습니까.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 19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 때에 누가 과연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과 기쁨과 자랑스러운 화관이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 20 여러분이 아말로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 3** ¹ 그래서 우리는 더 참을 수가 없어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 있기로 하고,
- ² 우리의 형제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협력자인 티모테오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 ³ 이 환난 속에서 아무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는 이러한 일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 ⁴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환난을 겪으리라고 여러분에게 예고하곤 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 ⁵ 이러한 이유로 나도 더 참을 수가 없어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고 티모테오를 보냈습니다.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해서 우리의 노고를 헛되게 하지 않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 ⁶ 그런데 이제 여러분에게 갔던 티모테오가 돌아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관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알려 주었습니다.

7 그래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재난과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의 일로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 때문입니다.

8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다고 하니 우리는 이제 살았습니다.

9 우리가 여러분 덕분에 우리의 하느님 앞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두고, 하느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10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줄 수 있게 되기를 밤낮으로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1 하느님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 여러분이 서로 지니고 있는 사랑과 다른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도,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처럼 주님께서 더욱 자라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며,

13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시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하느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흠 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느님의 뜻에 맞는 생활

4¹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고, 또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렇게 살아 가십시오.

2 우리가 주 예수님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지시해 준 것들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3 하느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이 불분을 멀리하고,

4 저마다 자기 아내를 거룩하게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할 줄 아는 것입니다.

5 하느님을 모르는 이교인들처럼 색욕으로 아내를 대해서는 안 됩니다.

6 그리고 이러한 일로 형제에게 잘못을 저지르거나 그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고 또 엄숙히 경고한 바와 같이, 주님은 이 모든 일에 보복하시는 분이십니다.

7 하느님께서서는 여러분을 더러움 속에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8 그러므로 이 사실을 무시하는 자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느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9 형제애에 관해서는 누가 여러분에게 써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느님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0 사실 여러분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에게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더욱더 그렇게 하고,

11 우리가 여러분에게 지시한 대로, 조용히 살도록 힘써서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제 일을 하십시오.

12 그러면 바깥 사람들에게 품위 있게 처신할 수 있고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13 형제 여러분, 죽은 이들의 문제를 여러분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 14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이들을 그분과 함께 데려가실 것입니다.
- 15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말을 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남아 있게 될 우리 산 이들이 죽은 이들보다 앞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 16 명령의 외침과 대천사의 목소리와 하느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 17 그다음으로, 그때까지 남아 있게 될 우리 산 이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 18 그러니 이러한 말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5 ¹ 형제 여러분, 그 시간과 그 때에 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 2 주님의 날이 마치 밤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 3 사람들이 “평화롭다, 안전하다.” 할 때, 야기를 뱀 여자에게 진동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그들에게 파멸이 닥치는데, 아무도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 4 그러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여러분을 도둑처럼 덮치는 것을 피할 것입니다.
- 5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 6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

들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도록 합시다.

- 7 잠자는 이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이들은 밤에 취합니다.
- 8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니,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희망을 투구로 씌시다.
- 9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진노의 심판을 받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차지하도록 정하셨습니다.
- 10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살아 있든지 죽어 있든지 당신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 11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격려하고 저마다 남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권고와 인사

- 12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애쓰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이끌고 타이르는 이들을 존중하고,
- 13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하여 사랑으로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 14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지내는 이들을 타이르고 소심한 이들을 격려하고 약한 이들을 도와주며, 참을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십시오.
- 15 아무도 다른 이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서로에게 좋고 또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을 늘 추구하십시오.
- 16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 17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 18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 19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 20 예언을 염신여가지 마십시오.

- 21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은 간직하고
22 악한 것은 무엇이든 멀리하십시오.
23 평화의 하느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려
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 없이 지
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24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성실하신 분이십
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25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
시오.
26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인사하
십시오.
27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
어 주십시오.
2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 14

서간서 - 9

테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총 3 장

총 47 절

[신약성경-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인사

- 1** ¹ 바오로와 실바누스와 티모테오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테살로니카 사람들의 교회에 인사합니다.
-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심판

- 3**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나고 저마다 서로에게 베푸는 여러분 모두의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4**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그 모든 박해와 환난을 겪으면서도 보여 준 인내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합니다.
- 5** 이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징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 6** 하나님께서는 정녕 의로우시어, 여러분에게 환난을 겪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 7** 환난을 겪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같이 안식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은 주 예수님께서 능력을 지닌 당신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이루어질 터인데,
- 8** 그때에 그분께서는 타오르는 불에 휩싸여 오시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벌을 주실 것입니다.

- 9** 그들은 주님 앞에서, 그분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 영원한 파멸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 10**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어, 당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이들 가운데에서 칭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증언을 믿었습니다.
- 11** 그 때문에 우리는 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선의와 믿음의 행위를 당신 힘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12**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따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종말의 표징

- 2** ¹ 형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가 그분께 모이게 될 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 2** 누가 예언이나 설교로 또 우리가 보냈다는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말하더라도, 쉽사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 3** 누가 무슨 수를 쓰든 여러분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먼저 배교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무법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멸망하게 되어 있는 그자는
- 4**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과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 맞서 자신을 그보다 더 높이 들어 올립니다. 그리하여 신으로 자처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 5** 내가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이 일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 6**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은 어떤 것이 그자를 저지하고 있지만, 그자는 자기 때

가 되면 나타날 것입니다.

7 사실 그 무법자의 신비는 이미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저지하는 어떤 이가 물러나야 합니다.

8 그러면 그 무법자가 나타날 터이지만, 주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입김으로 그자를 멸하시고 당신 재림의 광채로 그자를 없애 버리실 것입니다.

9 그 무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작용으로, 그는 온갖 힘을 가지고 거짓 표징과 이적을 일으키며,

10 멸망할 자들을 상대로 온갖 불의한 속임수를 쓸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여 구원받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11 그러므로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사람을 속이는 힘을 보내시어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12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모두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구원받도록 뵈힌 이들

13 주님께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때문에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첫 열매로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14 이렇게 되라고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복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5 그러므로 이제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1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은총으로 영원한 격려와 좋은 희망을 주신 하느님 우리 아버지가,

17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여러분의 힘을 북돋우시어 온갖 좋은 일과 좋은 말을 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요청

3 ¹ 끝으로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처럼 빠르게 퍼져 나가 찬양을 받고,

2 우리가 고약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구출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3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의 힘을 북돋우시고 여러분을 악에서 지켜 주실 것입니다.

4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지시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실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행하리라고 믿습니다.

5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시어,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름에 대한 경고

6 형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지시합니다.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형제는 누구든지 멀리하십시오.

7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무질서하게 살지 않았고,

8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쾌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고와 고생을 하며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9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0 사실 우리는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거듭 지시하였습니다.

- 11 그런데 듣자 하니, 여러분 가운데에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일을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참견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 12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시하고 권고합니다. 묵묵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벌어들여먹도록 하십시오.
- 13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하십시오.
- 14 우리가 이 편지에 적어 보내는 말에 누가 순종하지 않거든, 그를 주목하여 그와 상종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여 그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십시오.
- 15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고 형제처럼 타이르십시오.

축복과 끝 인사

- 16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온갖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언제나 평화를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 17 이 인사말은 나 바오로가 직접 씁니다. 이것이 내 모든 편지의 표지입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편지를 씁니다.
- 1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 15

서간서 - 10

티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서간

총 6 장

총 114 절

[신약성경]-[티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서간]

인사

- 1** ¹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느님과 우리의 희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나 바오로가,
² 믿음으로 나의 착실한 아들이 된 티모테오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은총과 자비와 평화 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릇된 가르침에 대한 경고

- ³ 내가 마케도니아로 가면서 당부한 대로, 그대는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그곳의 일부 사람들에게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지 말라고 지시하십시오.
⁴ 신하나 끝없는 족보에 정성을 팔지 말라고 지시하십시오. 그러한 것들은 믿음을 통하여 알려지는 하느님의 계획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억측만 불러일으킵니다.
⁵ 그러한 지시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바른 양심과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⁶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에서 벗어나 쓸데없는 이야기에 빠져 있습니다.
⁷ 그들은 율법 교사로 자처하지만 자기들이 말하는 것도, 자기들이 그토록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역할

- ⁸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은 율법답게 이용하면 좋은 것입니다?
⁹ 이 말의 뜻은 율법이 의인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법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 불경한 자와 죄를 짓는 자, 하느님을 무시하는 자와 거룩한 것을 속되게 하는 자, 아버지를 죽인 자와 어머니를 죽인 자, 사람을 죽인 자,

- ¹⁰ 불륜을 저지르는 자, 비역하는 자, 인신매매를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증언을 하는 자, 그리고 그 밖에 무엇이든 건전한 가르침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자 때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¹¹ 건전한 가르침은 복되신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으로, 나는 이 복음을 위임받았습니다.

바오로의 감사

- ¹² 나를 굳게 해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께서는 나를 성실한 사람으로 여기시어 나에게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¹³ 나는 전에 그분을 모독하고 박해하고 학대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¹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우리 주님의 은총이 넘쳐흘렀습니다.
¹⁵ 이 말은 확실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죄인입니다.
¹⁶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당신의 한없는 인내로 대해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당신을 믿게 될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¹⁷ 영원한 임금이시며 불사불멸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며 한 분뿐이신 하느님께 영예와 영광이 영원무궁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티모테오의 책무

- ¹⁸ 내 아들 티모테오, 전에 그대에 관하여 선

포된 예언에 따라 그대에게 이 지시를 내립니다. 그 예언에 힘입어 훌륭한 전투를 수행하십시오.

- 19 믿음과 바른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파선당하였습니다.
- 20 그들 가운데에 히메네오스와 알렉산드로스가 있는데,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겼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다시는 하느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받게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 2 ¹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청과 기도와 전구와 감사를 드리라고 권고합니다.
- 2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우리가 아주 신심 깊고 품위 있게,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3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느님께서 좋아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시는 일입니다.
- 4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 5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 6 당신 자신을 모든 사람의 몸값으로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제때에 드러난 증거입니다.
- 7 나는 이 증거의 선포자와 사도로,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과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니다. 나는 진실을 말할 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예배 자세

- 8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성을 내거나 말다

툼을 하는 일 없이, 어디에서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 9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안전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단정하기를 바랍니다. 높이 땡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이 아니라?
- 10 하느님을 공경한다고 고백하는 여자답게 선행으로 치장하십시오.
- 11 여자는 조용히 또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로 배워야 합니다?
- 12 나는 여자가 남을 가르치거나 남자를 다루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 13 사실 아담이 먼저 빗어졌고 그다음에 허와가 빗어졌습니다.
- 14 그리고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넘어가서 죄를 지었습니다.
- 15 그러나 여자가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아 가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의 자격

- 3 ¹ 이 말은 확실합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 직분을 맡고 싶어 한다면 훌륭한 직무를 바라는 것입니다.
- 2 그러므로 감독은 나무랄 데가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충실한 남편이어야 하며, 절제할 줄 알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손님을 잘 대접하고 또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3 술꾼이나 난폭한 사람이 아니라, 관대하고 온순하고 돈 욕심이 없으며
- 4 자기 집안을 잘 이끌고 아주 품위 있게 자녀들을 순종시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5 자기 집안을 이끌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었습니까?
- 6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교만해져서 악마가 받는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 7 또한 바깥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방을 받거나 악마의 울가미에 걸리지 않습니다.

봉사자의 자격

- 8 봉사자들도 마찬가지로 품위가 있어야 하고,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으며, 술에 빠져서도 안 되고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도 안 됩니다.
- 9 그리고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10 또 그들을 먼저 시험해 보고 나서 흠잡을 데가 없는 경우에만 봉사직을 수행하게 해야 합니다.
- 11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품위가 있어야 하고, 남을 험담하지 않으며, 절제할 줄 알고 모든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 12 봉사자들은 한 아내의 충실한 남편이어야 하고, 자녀들과 자기 집안을 잘 이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13 사실 봉사직을 훌륭히 수행하는 이들은 좋은 명성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더욱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위대한 신앙의 신비

- 14 나는 그대에게 곧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도 이 글을 씁니다.
- 15 내가 늙어지게 될 경우,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진리의 기둥이며 기초입니다.
- 16 우리 신앙의 신비는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 분께서는 사람으로 나타나시고 그 옹호심이 성령으로 입증되었으며 천사들에게 당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시어 온 세상이 믿게 된 그분께서는 영광 속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짓 교사들에 관한 경고

- 4 ¹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이들은 사람을 속이는 영들과 마귀들의 가르침에 정신이 팔려 믿음을 저버릴 것입니다.
- 2 양심이 마비된 거짓말쟁이들의 위선 때문입니다.
- 3 그들은 혼인을 금지하고, 또 믿어서 진리를 알게 된 이들이 감사히 받아 먹도록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음식들을 끊으라고 요구합니다.
- 4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다 좋은 것으로, 감사히 받기만 하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 5 사실 그것들은 하느님의 말씀과 기도로 기록해집니다.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

- 6 이러한 사실을 형제들에게 주지시키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 그리고 그대가 지금까지 따라온 그 훌륭한 가르침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 7 저속하고 망령된 신화들을 물리치십시오. 신심이 깊어지도록 자신을 단련하십시오.
- 8 몸의 단련도 조금은 유익하지만 신심은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생명을 약속해 주기 때문입니다.
- 9 이 말은 확실하여 그대로 받아들이기 가치가 있습니다.
- 10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이들의 구원자이신 살아 계신 하느님께 우리가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 11 그대는 이것들을 권고하고 가르치십시오.
- 12 아무도 그대를 짧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니 말에서나 행실에서나 사랑에서나 믿음에서나 순결에서나, 믿는 이

들의 본보기가 되십시오.

- 13 내가 갈 때까지 성경 봉독과 권고와 가르침에 열중하십시오.
- 14 그대가 지닌 은사, 곧 원로단의 인수와 예언을 통하여 그대가 받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 15 이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더욱 나아지는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도록 하십시오.
- 16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 일을 지속해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대는 그대뿐만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이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신자들을 대하는 자세

- 5** ¹ 나이 많은 남자에게는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고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처럼,
- ² 나이 많은 여자는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는 누이처럼,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과부들에 관한 지침

- 3 무의탁 과부들을 존대하십시오.
- 4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먼저 자기 가정에 헌신하고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할스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 5 무의탁 과부 곧 의지할 데 없이 홀로 된 여자는 할스님께 희망을 걸고 밤낮으로 끊임 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 6 그러나 자기 욕심대로 사는 과부는 살아 있어도 죽은 몸입니다.
- 7 이러한 것들을 타일러 그들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 8 어떤 사람이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믿음을 저버린 자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쁩니다.

- 9 과부 명단에 오를 수 있는 이는 예수 살이 상으로 한 남편의 충실한 아내였고,
 - 10 선행으로 좋은 평판을 받는 여자여야 합니다. 자녀들을 잘 길러 내고 나그네를 후대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어 주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도와주고 온갖 선행에 몸을 바친 사람이여야 합니다.
 - 11 그러나 젊은 과부는 제외하십시오. 정욕에 겨워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면 혼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 12 그러면 처음의 서약을 깨뜨린 것이 되어 심판을 받게 됩니다.
 - 13 게다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빈둥거리는 버릇을 익힐 것입니다. 빈둥거릴 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며 수다나 떨고 남의 일에 참견이나 할 것입니다.
 - 14 그러므로 나는 젊은 과부들이 재혼하여 자녀를 낳고 집안을 꾸려 나가, 적대자에게 우리를 핍박는 기회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 15 사실 어떤 젊은 과부들은 이미 돌아서서 사탄을 따르고 있습니다.
 - 16 어떤 여신자의 집안에 과부들이 있으면, 그 여자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무의탁 과부들을 도울 수 있도록 교회에는 집을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 원로들에 관한 지침**
- 17 지도자 직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원로들은 이중으로 존대를 받아 마땅합니다.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애쓰는 이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 18 사실 성경도 " 타작 일을 하는 소에게 부리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 , 또 "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고 말합니다.
 - 19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원로에 대한 고발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 20 줄곧 죄를 짓는 이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움을 가지게 하십시오.
- 21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과 선택된 천사들 앞에서 엄숙히 경고합니다. 선입견 없이 이 모든 것을 지키고, 무슨 일이든 편견에 따라 하지 마십시오.
- 22 아무에게나 선뜻 인수하지 말고, 남의 죄에 연루되지 마십시오. 자신을 결백하게 지켜 가십시오.
- 23 이제는 물만 마시지 말고, 그대의 위장이나 잦은 병을 생각하여 포도주도 좀 마시십시오.
- 24 어떤 사람들의 죄는 명백하여 재판 전에 드러나고, 어떤 이들의 죄는 재판 때에야 드러납니다.
- 25 마찬가지로 선행 역시 명백한 것으로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언제까지나 숨겨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종들에 관한 지침

- 6** 1 종살이의 멍에를 메고 있는 이들은 누구나 자기 주인을 크게 존경해야 할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이 모욕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2 신자를 주인으로 둔 종들은 그 주인이 형제라고 해서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인을 더욱 잘 섬겨야 합니다. 자기들의 선행으로 덕을 보는 사람들이 사랑받는 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이단과 탐욕에 관한 경고

- 3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신심에 부합되는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 4 그는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논쟁과 설전에 병적인 열정을 쏟

- 습니다. 이러한 것에서부터 시기와 분쟁과 증상과 못된 의심과
- 5 끊임없는 알력이 나와, 정신이 썩고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사이에 번져 갑니다. 그들은 신심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 6 물론 자족할 줄 알면 신심은 큰 이득입니다.
- 7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 8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 9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는 유혹과 올가미와 어리석고 해로운 갖가지 욕망에 떨어집니다.
- 10 사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믿음에서 멀어져 방황하고 많은 이쁨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위한 싸움

- 11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대는 이러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그 대신에 의로움과 신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 12 믿음을 위하여 훌륭히 싸워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십시오. 그대는 많은 증인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을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 13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본시오 빌라도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대에게 지시합니다.
- 1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 없고 나무랄 데 없이 계명을 지키십시오.
- 15 제때에 그 일을 이루실 분은 복되시며 한 분뿐이신 통치자 임금들의 임금이시며 주

남들의 주님이신 분

- 16 홀로 불사불멸하시며 다가갈 수 없는 빛 속에 사시는 분 어떠한 인간도 뵈 일 없 고 뵈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영예 와 영원한 권능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자들에게 관한 지침

- 17 현세에서 부자로 사는 이들에게는 오만해 지지 말라고 지시하십시오. 또 안전하지 못한 재물에 희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어 그것을 누리게 해 주시는 하느님께 희망을 두라고 지시하 십시오.
- 18 좋은 일을 하고 선행으로 부유해지고, 아낌 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시오.
- 19 그들은 이렇게 자기 미래를 위하여 훌륭한 기초가 되는 보물을 쌓아, 참생명을 차지하 는 것입니다.

마지막 권고와 인사

- 20 티모테오, 그대가 맡은 것을 잘 지키십시 오. 사이비 지식의 속된 망언과 반론들을 멀리하십시오.
- 21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지식을 받아들여 믿음에서 빛나았습니다.
- 22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 16

서간서 - 11

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

총 4 장

총 83 절

[신약성경]-[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

인사

1 ¹ 하느님의 뜻에 따라,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오로가,
² 사랑하는 아들 티모테오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은총과 자비와 평화와 내리기를 빕니다.

감사와 격려

³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그대를 생각하면서, 내가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깨끗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⁴ 나는 그대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그대를 다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⁵ 나는 그대 안에 있는 진실한 믿음을 기억합니다.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에우니케에게 갓들어 있던 그 믿음이, 이제 그대에게도 갓들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⁶ 그러한 까닭에 나는 그대에게 상기시킵니다. 내 안수로 그대가 받은 하느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우십시오.
⁷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⁸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분 때문에 수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⁹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과 은총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은총은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

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¹⁰ 이제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폐지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불멸을 환히 보여 주셨습니다.
¹¹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스승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¹² 그러한 까닭에 나는 이 고난을 겪고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를 믿는지 잘 알고 있으며,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지켜 주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¹³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¹⁴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그대가 맡은 그 훌륭한 것을 지키십시오.

바오로의 반대자와 협력자

¹⁵ 그대도 알다시피, 피델로스와 헤르모게네스를 포함하여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저버렸습니다.
¹⁶ 주님께서 오네시포로스 집안에 자비를 베푸시기를 빕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생기를 돌려 주었으며,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¹⁷ 오히려 로마에 와서는 열심히 나를 찾아 만나 주었습니다.
¹⁸ 그날에 주님께서 허락하시어 그가 주님께서 자비를 얻기 바랍니다. 에페소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였는지는 그대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

2 ¹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은총으로 굳세어지십시오.
²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그대가 나에게서

들은 것을, 다른 이들도 가르칠 자격이 있는 성실한 사람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3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4 군대에 복무하는 이가 자기를 군사로 뽑은 사람의 마음에 들려면, 개인의 일상사에 얽매어서는 안 됩니다.

5 경기를 하는 사람도 규칙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 승리의 화관을 얻지 못합니다.

6 애쓰는 농부가 소출의 첫 몫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7 내가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8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9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죄인처럼 감옥에 갇히는 고통까지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10 그러므로 나는 선택된 이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11 이 말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12 우리가 견디어 내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며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그분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13 우리는 성실하지 못해도 그분께서는 언제나 성실하시니 그러한 당신 자신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정받는 일꾼

14 신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설전을 벌이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경고하십시오. 그런 짓은 아무런 이득 없이, 듣는 이들에게 해를 끼칠 따름입니다.

다.

15 그대는 인정받는 사람으로, 부끄러울 것 없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16 속된 망언을 피하십시오. 그것은 사람들을 점점 더 큰 불경에 빠지게 합니다.

17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사방을 파먹어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히메나오스와 필레토스가 있습니다.

18 이자들은 진리에서 벗어나,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고 말하면서 몇몇 사람의 믿음을 망쳐 놓고 있습니다.

19 그러나 하나님께서 놓으신 튼튼한 기초는 그대로 서 있으며, 거기에는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아신다.”, 또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사람은 모두 불의를 멀리해야 한다.” 는 말씀이 봉인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20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그릇만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21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에서 자신을 깨끗이 씻어 버리면, 귀하게 쓰이는 그릇, 곧 거룩하게 되어 주인에게 요긴하게 쓰이고 또 온갖 좋은 일에 쓰이도록 갖추어진 그릇이 될 것입니다.

22 청춘의 욕망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받들어 부르는 이들과 함께 의로움과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23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물리치십시오. 알다시피 그것은 싸움을 일으킬 뿐입니다.

24 주님의 좋은 씨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잘 가르치며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25 반대자들을 온유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키시어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

- 26 또 악마에게 붙잡혀 그의 뜻을 따르던 그들이 정신을 차려 악마의 울가미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타락상

3 ¹ 이것을 알아 두십시오. 마지막 때에 힘든 시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 2 사람들은 자신과 돈만 사랑하고 허풍을 떨고 오만하며, 남을 중상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3 비정하고 매정하며, 남을 험담하고 절제할 줄 모르고, 난폭하고 선을 미워하고
4 배신하며, 부모하고 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면서,
5 겉으로는 신심이 있는 체하여도 신심의 힘은 부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멀리하십시오.
6 그들 가운데에는 이 집 저 집에 몰래 들어가, 갖가지 욕정에 이끌려 죄에 빠져 있는 어리석은 여자들을 사로잡는 자들이 있습니다.
7 그 여자들은 언제나 배운다고 하지만 결코 진리를 깨닫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합니다.
8 안테스와 암브레스가 모세에게 대항한 것처럼 저들도 진리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정신이 썩고 믿음의 낙오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9 그러나 저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안테스와 암브레스가 그러하였듯이, 저들의 어리석음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지시

- 10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처신, 목표와 믿음, 끈기와 사랑과 인내를 따랐으며,
11 내가 안티오키아와 이코니온과 리스트라이

서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박해를 견디어 왔던가!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 12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이들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13 그런데 악한 사람들과 험잡꾼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면서, 점점 더 사악해질 것입니다.
14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확실히 믿는 것을 지키십시오. 그대는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15 또한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16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에 유익합니다.
17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 줍니다.

4 ¹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나타나심과 다시시심을 결코 그대에게 엄숙히 지시합니다.

- 2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3 사람들이 간전한 가르침을 더 이상 받아들여려고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교사들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4 그리고 진리에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화 쪽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5 그러나 그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신을 차

리고 고난을 견디어 내며, 복음 선포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 6 나는 이미 하나님께 올리는 포도주로 바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 7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 8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애타게 기다린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개인적인 부탁

- 9 그대는 서둘러 나에게 빨리 오십시오.
- 10 데마스는 현세를 사랑한 나머지 나를 버리고 테살로니카로 가고, 크레스켄스는 갈라티아로, 티토는 달마티아로 갔습니다.
- 11 루카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마르코는 내 직무에 요긴한 사람이니 함께 데리고 오십시오.
- 12 티키코스는 내가 에페소로 보냈습니다.
- 13 올 때, 내가 트로아스에 있는 카르포스의 집에 두고 온 외투와 책들, 특히 양피지 책들을 가져오십시오.
- 14 구리 세공장이 알렉산드로스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실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 15 그대도 그를 조심하십시오. 그는 우리의 말에 몹시 반대하였습니다.
- 16 나의 첫 변론 때에 아무도 나를 거들어 주지 않고, 모두 나를 저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이 불리하게 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 17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굳세게 해 주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 선포가 완수되고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듣

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습니다.

- 18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나를 모든 악행에서 구출하시고, 하늘에 있는 당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 인사

- 19 프리스키와 아퀼라에게, 그리고 오네시포로스 집안에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 20 에라스토스는 코린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트로피모스는 병이 나서 내가 밀레토스에 남겨 두었습니다.
- 21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에우블로스와 푸덴스와 리노스와 클라우디아와 그 밖의 모든 형제가 그대에게 인사합니다.
- 22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 17

서간서 - 12

티토에게 보낸 서간

총 3 장

총 46 절

[신약성경]-[티토에게 보낸 서간]

인사

- 1** ¹ 나 바오로는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선택된 이들의 믿음을 돕고 신앙에 따른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한 것으로,
- 2** 영원한 생명의 희망에 근거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 3** 사실 하나님께서는 제 때에 복음 선포를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선포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 4** 이러한 나 바오로가 같은 믿음에 따라 나의 착실한 아들이 된 티토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교회 지도자의 자격

- 5**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 둔 까닭은, 내가 그대에게 지시한 대로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고을마다 원로들을 임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 6** 원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충실한 남편이어야 하며, 자녀들도 신자이어야 하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하며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7** 사실 감독은 하나님의 관리인으로서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거만하지 않고 쉽게 화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술꾼이나 난폭한 사람이나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 8**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선을 사랑해야 하며,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자제력이 있으며,
- 9**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진정된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전한 가

르침대로 남을 격려할 수도 있고 반대자들을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

크레타 신자들의 상황

- 10** 순종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하며 남을 속이는 자들이, 특히할례 받은 자들 가운데에 많습니다.
- 11** 그들이 입을 다물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까지 가르치면서 여러 집안을 온통 망쳐 놓고 있습니다.
- 12** 그들 가운데 한 사람, 바로 그들의 예언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크레타 사람들은 언제나 거짓말쟁이, 고약한 짐승, 게으른 먹보들이다.”
- 13** 이 증언은 참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하게 꾸짖어 그들의 믿음이 건전해져서,
- 14** 유대인들의 신화, 그리고 진리를 저버리는 인간들의 계명에 정신을 팔지 않게 하십시오.
- 15**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더러워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들은 정신도 양심도 다 더러워졌습니다.
- 16**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행동으로는 그분을 부정합니다. 혐오스럽고 순종하지 않으며 어떠한 선행에도 적합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 관한 지시

- 2** ¹ 그러나 그대는 건전한 가르침에 부합하는 말을 하십시오.
- 2**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할 줄 알고 기쁨이 있고 신중하며, 건실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지녀야 합니다.
- 3** 나이 많은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몸가짐에 기쁨이 있어야 하고, 남을 험담하지 않고,

술의 노예가 되지 않으며, 선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 4 그대야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혼련시켜,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 5 신중하고 순결하며,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 6 젊은 남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신중히 행동하라고 권고하십시오.
- 7 그대 자신을 모든 면에서 선행의 본보기로 보여 주십시오. 가르칠 때에는 고결하고 품위 있게 하고
- 8 트집 잡을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여, 적대자가 우리를 걸고 나쁘게 말할 것이 하나도 없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십시오.
- 9 중들에게도 권고하여, 어떠한 일에서나 주인에게 복종하고 주인 마음에 들도록 하며, 말대꾸를 하거나
- 10 흠치지 말고, 늘 온전한 성실성을 보여,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빛내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

- 11 과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 12 이 은총이 우리를 교육하여, 불경함과 속된 욕망을 버리고 현세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해 줍니다.
- 13 복된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해 줍니다.
- 14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시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해방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어, 선행에 열성을 기울이는 당신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 15 그대는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이러한 것들

을 말하고 권고하고 또 꾸짖으십시오.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

- 3 ¹ 신자들에게 상기시켜, 통치자들과 집권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모든 선행을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 2 남을 중상하지 말고 온순하고 관대한 사람이 되어 모든 이를 아주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 3 사실 우리도 한때 어리석고 순종할 줄 몰랐고 그릇된 길에 빠졌으며, 갖가지 욕망과 쾌락의 노예가 되었고, 악과 질투 속에 살았으며, 고약하게 굴고 서로 미워하였습니다.
- 4 그러나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호의와 인간애가 드러난 그때,
- 5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비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고 새로워지도록 물로 씻어 구원하신 것입니다.
- 6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셨습니다.
- 7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의 은총으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희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 8 이 말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가 이러한 점들을 역설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이들이 선행을 하는 데에 전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행은 사람들에게 좋고 유익한 것입니다.
- 9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 논란을 피하십시오. 그러한 것들은 무익하고 헛될 뿐입니다.
- 10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에게는 한 번 또 두 번 경고한 다음에 관계를 끊으십시오.
- 11 그대도 알다시피 그러한 자는 탈선하여 죄를 지으면서 자신을 단죄하고 있는 것입니

다.

부탁과 인사

- 12** 내가 아르테마스나 티키코스를 그대에게 보내거든, 서둘러 니코폴리스로 나를 찾아 오십시오. 나는 거기에서 겨울을 나기로 걱정하였습니다.
- 13** 법틀가 제나스와 아폴로가 그대의 도움을 받아 부족한 것 없이 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 14** 우리 신자들도 선행에 전념하는 것을 배워, 남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15**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대에게 인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인부를 전해 주십시오.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 18

서간서 - 13

필레몬에게 보낸 서간

총 1 장

총 25 절

[신약성경]-[필레몬에게 보낸 서간]

인사

- 1** ¹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수인이 된 나 바오로와 우리 형제 티모테오가 사랑하는 우리의 협력자 필레몬에게,
² 그리고 아피아 자매와 우리의 전우 아르키포스, 또 그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인사합니다.
³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바랍니다.

필레몬의 믿음과 사랑

- ⁴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며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⁵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를 향한 그대의 사랑과 믿음을 내가 전해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⁶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끌어 주는 모든 선을 깨달아, 그대가 더욱 활발히 믿음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⁷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대 덕분에 성도들이 마음에 생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스에 대한 부탁

- ⁸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큰 확신을 가지고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명령수도 있지만,
⁹ 사랑 때문에 오히려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오로는 늙은이인 데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수인까지 된 몸입니다.
¹⁰ 이러한 내가 옥중에서 얻은 내 아들 오네시모스의 일로 그대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¹¹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대에게도 나에게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 ¹² 나는 내 심장과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¹³ 그를 내 곁에 두어,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대 대신에 나를 시중들게 할 생각도 있었지만,
¹⁴ 그대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선행이 강요가 아니라 자의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¹⁵ 그가 잠시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를 영원히 돌려받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¹⁶ 이제 그대는 그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형제라면, 그대에게는 인간적으로 보나 주님 안에서 보나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¹⁷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여간다면, 나를 맞이하듯 그를 맞이하여 주십시오.
¹⁸ 그가 그대에게 손실을 입혔거나 빚을 진 것이 있거든 내 앞으로 계산하십시오.
¹⁹ 나 바오로가 이 말을 직접 씁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그렇다고 나에게 빚을 진 덕분에 지금의 그대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²⁰ 그렇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덕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이 생기를 얻게 해 주십시오.
²¹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그대가 해주리라 믿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²² 아울러 나를 위하여 손님방을 하나 마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은총이 내려 내가 여러분에게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 인사

- ²³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에피프라스,
²⁴ 나의 협력자들인 마르코와 아리스타르코스

와 데마스와 루카가 그대에게 인사합니다.

25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 19

서간서 - 14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총 13 장

총 303 절

[신약성경]-[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다

- 1** ¹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 2**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온 세상을 만들기까지 하셨습니다.
- 3** 아드님은 하느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느님 본질의 모상으로서, 만물을 당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지탱하십니다. 그분께서 죄를 깨끗이 없애신 다음, 하늘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 4** 그분께서는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으시어, 그만큼 그들보다 위대하게 되셨습니다.

천사들보다 위대하신 아드님

- 5** 하느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 6** 또 만이 아드님을 저 세상에 데리고 들어가실 때에는 “하느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 7** 그리고 천사들과 관련해서는 “그는 자기의 천사들을 바랍처럼 만들고 자기의 시종들을 타오르는 불처럼 만든다.” 하는 말씀이 있고,
- 8** 아드님과 관련해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 하느님! 당신의 왕좌는 영원무궁하며 당신의 왕홀은 공정의 흠입니다.”
- 9** 당신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시기에 하느님께서, 당신의 하느님께서 기쁨

의 기쁨을 당신 동료들이 아니라 당신께 부어 주셨습니다.”

- 10**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태초에 땅을 세우셨습니다. 하늘도 당신 손의 작품입니다.’
- 11** 그것들은 사라져 가도 당신께서는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을 것입니다.
- 12** 당신께서는 그것들을 옷가지처럼 맡아 치우시고 그것들은 옷처럼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당신의 행수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 13** 하느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 14** 천사들은 모두 하느님을 시종드는 영으로서, 구원을 상속받게 될 이들에게 봉사하도록 파견되는 이들이 아닙니까?

고귀한 구원

- 2** ¹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더 명심하여, 망나까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2** 천사들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유효하고, 그것을 어기거나 따르지 않는 자들은 모두 정당한 벌을 받았는데,
- 3** 하물며 우리가 이렇듯 고귀한 구원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으로, 그것을 들은 이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었습니다.
- 4** 하느님께서도 당신의 뜻에 따라, 표징과 이적과 갖가지 기적을 통하여, 또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시어 당신의 증언을 보태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영도자

- 5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곧 앞으로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 두신 것이 아닙니다.
- 6 어떤 이가 어디에선가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에 그를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인가에 그를 돌아보 주십니까?”
- 7 천사들보다 잠깐 낮추었다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시고
- 8 만물을 그의 발아래 두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렇게 만물을 그의 지배 아래 두시면서, 그 아래 들지 않는 것은 하나도 남겨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보기에는 만물이 아직도 그의 지배 아래 들지 않았습니까.
- 9 그러나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깐 낮아지셨다가”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 10 만물은 하느님을 위하여 또 그분을 통하여 존재합니다. 이러한 하느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들이시면서, 그들을 위한 구원의 영도자를 고난으로 완전하게 만드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 11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 주시는 분이나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이나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 12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당신 이름을 제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 13 또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시고 “보라, 나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 14 이 자녀들이 피와 살을 나누었듯이, 예수님

- 께서도 그들과 함께 피와 살을 나누어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권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당신의 죽음으로 파멸시키시고,
- 15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한평생 종살이에 얽매어 있는 이들을 풀어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 16 그분께서는 분명 천사들을 보살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살피 주십니다.
- 17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이지셔야 했습니다. 자비로울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충실한 대사제가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 18 그분께서는 고난을 겪으시면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이들을 도와 주실 수가 있습니다.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님

- 3¹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이며 대사제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 2 모세가 “하느님의 온 집안을 충실히 맡고 있었듯이”,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세우신 분께 충실하셨습니다.
- 3 그러나 집을 지은 이가 집보다 더 존귀하듯이, 예수님도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셔야 마땅합니다.
- 4 어떤 집이든 그것을 지은 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 5 모세는 하느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려고, “중” 으로서 “그분의 온 집안을 충실히 맡고 있었습니까.”
- 6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집안을 맡은 아드님으로서 충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집안입니다. 우리의 희망에 대하여

확신과 긍지를 굳게 지니는 한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안식

- 7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를 듣거든
- 8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마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처럼 반항하던 때처럼.
- 9 자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며 시험하였다.
- 10 사십 년 동안 그리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 세대에게 화가 나 말하였다. ‘언제나 마음이 뱀나간 자들, 그들은 내 길을 깨닫지 못하였다.’
- 11 그리하여 나는 분노하며 맹세하였다. ‘그들은 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 12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 계신 하느님을 저버리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 13 “오늘”이라는 말이 들리는 한 여러분은 날마다 서로 격려하여,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 완고해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십시오.
- 14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료가 된 사람들입니다. 처음의 결심을 끝까지 굳건히 지니는 한 그렇습니다.
- 15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를 듣거든 반항하던 때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마라.” 하셨는데,
- 16 듣고도 반항한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모두 모세의 인도를 받아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 17 또 하느님께서 사십 년 동안 누구에게 화가 나셨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 시체가 되어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 18 또 하느님께서 누구에게 당신의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19 우리가 보듯이, 과연 그들은 불신 때문에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 4¹ 그러므로 하느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이 계속 유효한데도,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미 탈락하였다고 여겨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주의를 기울입니다.
- 2 사실 그들이나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은 그 말씀은 그들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귀여져들은 이들과 믿음으로 결합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 3 믿음을 가진 우리는 안식처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그리하여 나는 분노하며 맹세하였다. ‘그들은 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안식처는 물론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들은 세상 창조 때부터 이미 다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 4 사실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디에선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렛날에 쉬셨다.”
- 5 또 여기에서는, “그들은 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 6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곳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있고, 또 예전에 기쁜 소식을 들은 이들은 순종하지 않은 탓으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였기에,
- 7 하느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날을 정하셨습니다. 앞서 인용한 대로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를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마라.” 하고 말씀하실 때에 그리하신 것입니다.
- 8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을 안식처로 이끌었다면, 하느님께서 나중에 다른 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 9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직도 참안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10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그분의 안식처에 들어가는 이도 자기가 하던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 11 그러나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게, 우리 모두 저 안식처에 들어가도록 힘씁시다.
- 12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쟁쟁한 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 13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피조물도 감추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 눈에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는 셈을 해 드러야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대사제이신 예수님

- 14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 나아갑시다.
- 15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 16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에 도움이 되게 합시다.

- 5** ¹ 모든 대사제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뽑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지명된 사람입니다. 곧 죄 때문에 예물과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 ² 그는 자기도 약점을 짊어지고 있으므로, 무지하여 길을 벗어난 이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 ³ 그리고 연약한 탓에 백성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도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 ⁴ 이 영에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아 얻는 것입니다.
- ⁵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대사제가 되는 영광을 스스로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하고 말씀하신 분께서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 ⁶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너는 멜키세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다.”
- ⁷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할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 주셨습니다.
- ⁸ 예수님께서 이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 ⁹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
- ¹⁰ 하나님에게서 멜키세덱과 같은 대사제로 임명되었습니다.

성숙한 신앙생활

- ¹¹ 이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이 알아듣는 데에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 ¹² 사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벌써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를 다시 남에게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젓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 ¹³ 젓을 먹고 사는 사람은 모두 야기이므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에 서툽니다.
- ¹⁴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는 훈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6** ¹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교리를 놓아두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다시 기초를 닦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기초는 곧 죽음의 행실에서 돌아서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 ²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인수,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 ³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성숙한 경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 ⁴ 한 번 빛을 받아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이,
- ⁵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세상의 힘을 맛본 사람들이
- ⁶ 떨어져 나가면, 그들을 다시 새롭게 회개하도록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드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을 보이는 것입니다.
- ⁷ 자주 내리는 비를 빨아들여, 농사짓는 이들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는 땅은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습니다.
- ⁸ 그러나 가시나무와 엉덩퀴를 내게 되면 쓸모가 없어서 오래지 않아 저주를 받고, 마침내는 불에 타 버리고 맙니다.
- ⁹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는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더 좋은 것,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 ¹⁰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므로,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봉사하였고 지금도 봉사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 준 행위와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 ¹¹ 여러분 각자가 희망이 실현되도록 끝까지 같은 열성을 보여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¹² 그리하여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약속된 것을 믿음과 인내로 상속받는 이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 ¹³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당신보다 높은 분이 없어 그러한 분을 두고 맹세하실 수 없었으므로, 당신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 ¹⁴ “정녕코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너를 한껏 번성하게 해 주겠다.” 하고 말 씀하셨습니다.
- ¹⁵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끈기 있게 기다린 끝에 약속된 것을 받았습시다.
- ¹⁶ 사람들은 자기보다 높은 이를 두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 맹세는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는 보증이 됩니다.
- ¹⁷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상속 받을 이들에게 당신의 뜻이 변하지 않음을 더욱 분명히 보여 주시려고, 맹세로 보강해 주셨습니다.
- ¹⁸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로, 당신께 몸을 피한 우리가 앞에 놓인 희망을 굳게 붙잡도록 힘찬 격려를 받게 하셨습니다.
- ¹⁹ 이 희망은 우리에게 영혼의 닦과 같아, 안전하고 견고하며 또 저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 줍니다.
- ²⁰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대 사제가 되시어, 우리를 위하여 선구자로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멜기세덱의 사제직

- 7** ¹ 이 멜기세덱은 “살렘 임금” 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제”로서, “여러 임금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에게 축복하였습시다.”
- ²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십분의 일”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먼저 그의

이름은 ‘정의의 임금’ 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또한 살렘의 임금 곧 평화의 임금이었 습니다.

3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끝도 없는 이로서 하나님의 아들들 닮아, 언제까지나 사제로 남아 있습니다.

4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선조 아브라함도 가장 좋은 전리품에서 십분의 일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5 레위 자손 가운데에서 사제직을 맡는 이들에게는, 율법에 따라 백성에게서 십일조를 거두는 규정이 있습니다. 백성 역시 그들의 형제로서 같은 아브라함의 소생인데도 그렇 습니다.

6 그런데 멜키세덱은 그들의 족보에 들지 않았으면서도 아브라함에게서 십일조를 받았고, 약속을 받은 그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7 따질 것도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윗사람에게서 받는 법입니다.

8 그리고 한쪽에서는 언젠가 죽을 인간들이 십일조를 받고, 다른 쪽에서는 아직도 살아 있다고 성경에서 증언하는 이가 그것을 받았 습니다.

9 이를테면 십일조를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십일조를 바친 셈입니다.

10 멜키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가 자기 조상의 몸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멜키세덱과 같은 대사제

11 백성은 레위의 사제직을 바탕으로 율법을 받았는데, 만일 그 사제직으로 완전성에 이를 수 있었다면, 아론과 같은 사제를 임명하지 않고 멜키세덱과 같은 다른 사제를 세울 필요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12 사제직이 변하면 율법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13 여기에서 말하는 분은 다른 지파에 속하신

분으로서,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단에서 직무를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14 우리의 주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것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사제들에 관하여 말할 때에 이 지파를 언급한 적이 없 습니다.

15 멜키세덱과 닮은 다른 사제께서 나오시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16 그분께서는 육적인 혈통과 관련된 율법 규정이 아니라, 불멸하는 생명의 힘에 따라 사제가 되셨습니다.

17 “너는 멜키세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다.” 하고 성령에서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18 예전의 규정은 무력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폐지되었습니다.

19 사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 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희망이 주어져,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20 이 일은 하나님의 맹세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맹세 없이 사제가 되었습니다.

21 그러나 그분께서는 “주님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않으시리이다. ‘너는 영원한 사제다.’” 라고 하였듯이, 그분께 말씀하신 분의 맹세로 사제가 되셨습니다.

22 그러한 만큼 예수님께서서는 더 나은 계약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23 또한 다른 사제들은 죽을 때문에 직무를 계속할 수가 없어 그 수가 많았습니다.

24 그러나 그분께서는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영구한 사제직을 지니십니다.

25 따라서 그분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늘 살아 계시어 그들을 위하여 빌어 주십니다.

26 사실 우리는 이와 같은 대사제가 필요하였 습니다. 거룩하시고 순수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떨어져 계시며 하늘보다 더 높은 분이 되신 대사제이십니다.

- 27 그분께서는 다른 대사제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치고 그다음으로 백성의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으십니다. 당신 자신을 바치실 때에 이 일을 단 한 번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 28 율법은 약점을 지닌 사람들을 대사제로 세우지만, 율법 다음에 이루어진 맹세의 그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드님을 대사제로 세웁니다.

계약의 대사제

- 8¹ 지금 하는 말의 요점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대사제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곧 하늘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어좌 오른쪽에 앉으시어,
- 2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성소와 참성막에서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이십니다.
- 3 모든 대사제는 예물과 제물을 바치도록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대사제도 무엇인가 바칠 것이 있어야 합니다.
- 4 만일 그분께서 세상에 계시면 사제가 되지 못하십니다. 율법에 따라 예물을 바치는 사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 5 모세가 성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지시를 받은 대로, 그들은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상이며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성소에서 봉직합니다. 하느님께서 “자,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 준 모형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 6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더 나은 약속을 바탕으로 세워진 더 나은 계약의 중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 7 저 첫째 계약에 결함이 없었다면, 다른 계약을 찾을 까닭이 없었을 것입니다.
- 8 그런데 하느님께서 그들의 결함을 꾸짖으

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날이 온다. —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때에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으리라.

- 9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에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그들이 내 계약을 지키지 않아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 10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맺어 줄 계약은 이렇하다. —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그들의 생각 속에 내 법을 넣어 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 주리라.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 11 그때에는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제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으리라.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12 나는 그들의 불의를 너그럽게 보아주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리라.”
- 13 하느님께서 “새 계약”이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첫째 계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옛 계약의 제사

- 9¹ 첫째 계약에도 예배 법규가 있었고 지상 성소가 있었습니다.
- 2 사실 첫째 성막이 세워져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제사 빵이 놓여 있었는데, 그곳을 ‘성소’ 라고 합니다.
- 3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 라고 하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 4 거기에는 금으로 된 분향 제단과 은통 금으로 입힌 계약 껍이 있었고, 그 속에는 만나가 든 금 향아리와 섞이 돌은 아론의 지팡

이와 계약의 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 5 그리고 궤 위에는 영광의 커튼들이 속죄판을 덮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 6 이러한 것들을 갖춘 뒤, 사제들은 언제나 첫째 성막으로 들어가 예배를 집전합니다.
- 7 둘째 성막에는 대사제만 일 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데, 그때에는 반드시 자기와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바치는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 8 이로써 첫째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성령께서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 9 이는 현시대를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예물과 제물을 바치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예배하는 이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 주지는 못합니다.
- 10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몸을 씻는 여러 가지 예식과 관련된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새 질서의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만 부과된 외적인 법규일 따름입니다.

새 계약의 제사

- 11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을 주관하시는 대사제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 손으로 만들지 않은, 곧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는 더 훌륭하고 더 완전한 성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 12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성소로 들어가시어 영원한 해방을 얻으셨습니다.
- 13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리는 암송아지의 재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그 몸을 깨끗하게 한다면,
- 14 허물며 영원한 영을 통하여 흠 없는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음의 행실에서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여 살아 계신 하느님을 섬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 15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계약의 중개자이십니다. 첫째 계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속량하시려고 그분께서 돌아가시어,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약속된 영원한 상속 재산을 받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 16 유언이 있는 곳에서는 유언자의 죽음이 확 인되어야 합니다.
- 17 유언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야 유효한 것으로, 유언자가 살아 있을 때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 18 사실은 첫째 계약도 피 없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 19 모세는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계명을 선포하고 나서, 물과 주홍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계약의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 20 “이는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계약의 피다.” 하고 말하셨습니다.
- 21 그리고 성막과 의식에 쓰이는 모든 가물에도 같은 방식으로 피를 뿌렸습니다.
- 22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지고, 피를 쏟지 않고서는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23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본뜬 모상들은 이러한 의식으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들은 그보다 나은 제물이 필요하였습니다.
- 24 그리스도께서는, 참성소의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 곳에, 곧 사람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 25 대사제가 해마다 다른 생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듯이, 당신 자신을 여러 번 바치시려고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 26 만일 그렇다면 세상 창조 때부터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쳐 죄를 없애시려고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 27 사람은 단 한 번 죽게 마련이고 그 뒤에 심판이 이어지듯이,
28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고대하는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죄와는 상관없이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유일한 희생 제사의 효과

- 10 ¹ 율법은 장차 일어날 좋은 것들의 그림자만 지니고 있을 뿐 바로 그 실체의 모습은 지니고 있지 않으므로,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같은 제물로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이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2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예배하는 이들이 한 번 깨끗해진 다음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아 제물을 바치는 일도 중단되지 않았겠습니까?
3 그러한 제물로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될 뿐입니다.
4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 문입니다.
5 그러한 까닭에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제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6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당신께서는 기꺼워하지 않으셨습니다.
7 그리하여 제가 아뢰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느님! 두루마리에 저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8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제물과 예물”, 또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당신께서는 원하지도 기꺼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바치는 것입니다.

- 9 그다음에는 “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것을 치우신 것입니다.
10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바쳐짐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11 모든 사제는 날마다 서서 같은 제물을 거듭 바치며 직무를 수행하지만, 그러한 것 들은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12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한 번 제물을 바치시고 나서, 영구히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13 이제 그분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의 발판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14 한 번의 예물로, 거룩해지는 이들을 영구히 완전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15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니,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그들과 맺어 줄 계약은 이러하다. —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나는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넣어 주고 그들의 생각에 그 법을 새겨 주리라.”
17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나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의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리라.”
18 이러한 것들이 용서된 곳에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바치는 예물이 필요 없습니다.

충실한 신앙생활

- 19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덕분에 성소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20 그분께서는 그 휘장을 관통하는 새롭고도 살아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곧 당신의 몸을 통하여 그리해 주셨습니다.

- 21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사제가 계십니다.
- 22 그러나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악에 물든 양심을 벗고 깨끗해졌으며,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말끔히 씻겨졌습니다.
- 23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굳게 간직합시다. 약속해 주신 분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 24 서로 자극을 주어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 25 어떤 이들이 습관적으로 그러듯이 우리의 모임을 소홀히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합니다. 여러분도 보드시피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더욱더 그렇게 합시다.
- 26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서도 일부러 죄를 짓는다면,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바칠 수 있는 제물이란 남아 있지 않습니다.
- 27 심판, 그리고 적대자들을 삼켜 버릴 맹렬한 불에 대한 무서운 예상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 28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 자는 둘이나 세 증인의 말에 따라 가차 없이 처형됩니다.
- 29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드님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 준 계약의 피를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은총의 성령을 모독한 자는 얼마나 더 나쁜 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습니까?
- 30 “복수는 내가 할 일, 내가 보복하리라.” 또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 31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 32 예전에 여러분이 빛을 받은 뒤에 많은 고난의 싸움을 견디어 낸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 33 어떤 때에는 공공연히 모욕과 환난을 당하

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그러한 처지에 빠진 이들에게 동무가 되어 주기도 하셨습니다.

- 34 여러분은 또한 감옥에 갇힌 이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재산을 빼앗기는 일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보다 더 좋고 또 길이 남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35 그러나 여러분의 그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큰 상을 가져다줍니다.
- 36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약속된 것을 얻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 37 “조금만 더 있으면 올 이가 오리라. 지체하지 않으리라.
- 38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뒤로 물러서는 자는 내 마음이 기꺼워하지 않는다.”
- 39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 믿어서 생명을 얻을 사람입니다.

믿음

- 11** ¹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을 하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
- ² 사실 옛사람들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까.
- ³ 믿음으로써,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련되었음을, 따라서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음을 깨닫습니다.
- ⁴ 믿음으로써, 아벨은 카인보다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믿음 덕분에 아벨은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 덕분에 여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 ⁵ 믿음으로써, 에녹은 하늘로 들어 올려져 죽음을 겪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들어 올리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늘로

들어 올려지기 전에 “하느님의 마음에 들었다.” 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6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 나아기는 사람은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분께서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7 믿음으로써,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관하여 지시를 받고 경건한 마음으로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집안을 구하였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에 따라 받는 의로움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8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장차 상속 재산으로 받을 곳을 향하여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난 것입니다.

9 믿음으로써, 그는 같은 약속의 공동 상속자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막을 치고 머무르면서, 약속받은 땅인데도 남의 땅인 것처럼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10 하느님께서 설계자이시며 건축가로서 튼튼한 기초를 갖추어 주신 도성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1 믿음으로써, 사라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여자인 데다 나이까지 지났는데도 임신능력을 얻었습니다. 약속해 주신 분을 성실하신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12 그리하여 한 사람에게서, 그것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처럼 수가 많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13 이들은 모두 믿음 속에 죽어 갔습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멀리서 그것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며 나그네일 따름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14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들이 분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15 만일 그들이 떠난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

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16 그러나 실상 그들은 더 나은 곳, 바로 하늘 본향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하느님이라고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도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17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습니다.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18 그 외아들을 두고 하느님께서서는 일찍이, “이삭을 통하여 후손들이 너의 이름을 물려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9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죽은 사람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삭을 하나의 상징으로 돌려받은 것입니다.

20 믿음으로써, 이삭은 장래의 일을 두고 야곱과 에사우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21 믿음으로써,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에게 하나하나 축복해 주고, “자평이 끝에 의지하여 하느님께 경배하였습니다.”

22 믿음으로써,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탈출을 언급하며 자기의 유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시하였습니다.

23 믿음으로써,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의 부모는 그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아기가 잘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임금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24 믿음으로써,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파라오 딸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를 거부하였습니다.

25 죄의 일시적인 향락을 누리기보다 하느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26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 큰 재산으로 여겼습니다. 앞으로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 27 믿음으로써, 그는 임금의 분노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분을 보고 있는 사람처럼 굳건히 견디어 냈습니다.
- 28 믿음으로써, 모세는 파스카 축제를 지내고 피를 뿌려, 만아들과 만배의 파괴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 29 믿음으로써, 그들은 홍해를 마른땅처럼 건넜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그렇게 하려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 30 믿음으로써, 사람들이 이레 동안 에리코 성벽을 돌자 그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 31 믿음으로써, 창녀 리합은 정탐꾼들을 평화로이 맞아들였기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망하지 않았습니다.
- 32 내가 무슨 말을 더 해야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타, 다윗과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에 대하여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 33 그들은 믿음으로 여러 나라를 정복하였고 정의를 실천하였으며, 약속된 것을 얻었고 사자들의 입을 막았으며,
- 34 맹렬한 불을 겹고 칼날을 벗어났으며, 약하였지만 강해졌고 전쟁 때에 용맹한 전사가 되었으며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 35 어떤 여인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식구들을 다시 맞아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나은 부활을 누리려고, 석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고문을 받았습니다.
- 36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과 투옥을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 37 또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겪으며 양가죽이나 염소 가죽만 두른 채 돌아다녔습니다.
- 38 그들에게는 세상이 가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 39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인정을 받기는 하였지만 약속된 것을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 40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우리 없이 그들만 완전하게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시련과 안내

- 12** ¹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구름처럼 에워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짐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를 벗어 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 2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걸디어 내시어, 하느님의 여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 3 죄인들의 그러한 적대 행위를 걸디어 내신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낙심하여 지쳐 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 4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면서 아직 피를 흘리며 죽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 5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시면서 내리시는 권고를 잊어버렸습니다. “내 아들이, 주님의 훈육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라.
- 6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이를 책망질하신다.”
- 7 여러분의 시련을 훈육으로 여겨 걸디어 내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십니다. 아버지에게서 훈육을 받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 8 모든 자녀가 다 받는 훈육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지 자녀가 아닙니다.
- 9 게다가 우리에게 우리를 훈육하시는 육신의 아버지가 계셨고 우리는 그러한 아버지를 공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아버지께는 더욱 순종하여 그 결과로 생명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10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잠깐 훈육하였지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훈육하시어 우리가 당신의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 11 모든 훈육이 당장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된 이들에게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를 가져다줍니다.
- 12 그러므로 맥 풀린 손과 힘 빠진 무릎을 바로 세워
- 13 바른길을 달려가십시오. 그리하여 절름거리 는 다리가 접질리지 않고 오�히려 낮게 하십시오.

하느님의 은총과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 14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도록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뵈지 못할 것입니다.
- 15 여러분은 아무도 하느님의 은총을 놓쳐 버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또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하나라도 솟아나 혼란을 일으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 16 그리고 아무도 음식 한 그릇에 만자들의 권리를 팔아넘긴 예사우와 같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속된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17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사우는 나중에 아버지의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지만 거절당하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축복을 받으려고 애썼지만,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 18 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만져 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짙은 어둠과 폭풍이 일며
- 19 또 나팔이 울리고 말소리가 들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이들은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말씀이 내리지 않게 해 달

라고 빌었습니다.

- 20 “ 침심이라도 산을 건드리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하는 경고를 견디어 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 21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는 “ 나는 두렵다.” 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 22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시온 산이고 살아 계신 하느님의 도성이며 천상 예루살렘으로, 무수한 천사들의 축제 집회와
- 23 하늘에 등록된 만이들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또 모든 사람의 심판자 하느님께서 계시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 있고,
- 24 새 계약의 중개자 예수님께서 계시며, 그분께서 뿌리신 피, 곧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한 것을 말하는 그분의 피가 있는 곳입니다.
- 25 말씀하시는 분을 거부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땅에서 지시하시는 분을 거부할 때에 저들이 벌을 피할 수 없었는데, 하늘에서 지시하시는 분께 등을 돌릴 때에야 우리는 더욱더 그 벌을 피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 26 그때에는 그분의 소리가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 내가 한 번 더 땅만이 아니라 하늘까지 뒤흔들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 27 “ 한 번 더 ” 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이 치워져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 남는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 28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려 하고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와 함께 존경과 경외로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립니다.
- 29 우리의 하느님은 다 태워 버리는 불이십니다.

참된 공동체

- 13** ¹ 형제애를 계속 실천하십시오.
² 손님 접대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손님 접대를 하다가 어떤 이들은 모르는 사이에 친사들을 접대하기도 하였습니다.
- ³ 감옥에 갇힌 이들을 여러분도 함께 갇힌 것처럼 기억해 주고, 학대받는 이들을 여러분 자신이 몸으로 겪는 것처럼 기억해 주십시오.
- ⁴ 혼인은 모든 사람에게서 존중되어야 하고, 부부의 잠자리는 더럽혀지지 말아야 합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자와 간음하는 자를 하느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 ⁵ 돈 욕심에 얽매어 살지 말고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분께서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 ⁶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 ⁷ 하느님의 말씀을 일러 준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 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십니다.
- ⁹ 갖가지 이상한 가르침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음식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은총으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 살아간 이들은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 ¹⁰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는데, 성막에 봉직하는 이들은 이 제단의 음식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 ¹¹ 대사제는 짐승들의 피를 속죄 제물로 성소 안에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 짐승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웁니다.
- ¹²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피로 백성

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 ¹³ 그러나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치욕을 함께 짊어집니다.
- ¹⁴ 사실 땅 위에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올 도성을 찾고 있습니다.
- ¹⁵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언제나 하느님께 찬양제물을 바칩니다. 그것은 그분의 이름을 찬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 ¹⁶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 제물입니다.
- ¹⁷ 지도자들의 말을 따르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하느님께 쉼을 해 드려야 하는 이들로써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탄식하는 일 없이 기쁘게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탄식은 여러분에게 손해가 됩니다.
- ¹⁸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늘 울바로 처신하려고 하기에 바른 양심을 지니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 ¹⁹ 내가 여러분에게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더욱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축복과 끝 인사

- ²⁰ 영원한 계약의 피로, 양들의 위대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끌어올린 평화의 하느님께서
- ²¹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시어 여러분이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을 우리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 ²² 형제 여러분, 이렇게 간단히 적어 보내니 이 격려의 말을 잘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 ²³ 우리의 형제 티모테오가 풀려났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가 빨리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 보게 될 것입니다.

24 여러분의 모든 지도자와 모든 성도에게 안
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이들
이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25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신약성경 - 20

서간서 - 15

야고보 서간

총 5 장

총 108 절

[신약성경]-[야고보 서간]

인사

1 ¹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세상에 흠어져 사는 열두 지파에게 인사합니다.

믿음과 시련과 지혜

- 2** 나의 형제 여러분, 갖가지 시련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 3**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을 받으면 인내가 생겨납니다.
- 4** 그 인내가 완전한 효력을 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면에서 모자람 없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 5** 여러분 가운데에 누구든지 지혜가 모자라면 하느님께 청하십시오. 하느님은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베푸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 6** 그러나 결코 의심하는 일 없이 믿음을 가지고 청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 7** 그러한 사람은 주님에게서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 8**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어떠한 길을 걷든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가난한 이와 부자

- 9** 비천한 형제는 자기가 고귀해졌음을 자랑하고
- 10** 부자는 자기가 비천해졌음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꽃처럼 스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 11** 해가 떠서 뜨겁게 내리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저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만 골몰하다가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시련과 유혹

- 12** 시련을 견디어 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면, 그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
- 13** 유혹을 받을 때에 “나는 하느님께 유혹을 받고 있다.” 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악의 유혹을 받으실 분도 아니시고, 또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 14** 사람은 저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꼬임에 넘어가는 바람에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 15** 그리고 욕망은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다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 16**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 17**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옵니다. 빛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변동에 따른 그림자도 없습니다.
- 18** 하느님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당신의 피조물 가운데 이를테면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일

- 19**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것을 알아 두십시오. 모든 사람이 듣기는 빨리 하되, 말하기는 더디 하고 분노하기도 더디 해야 합니다.
- 20** 사람의 분노는 하느님의 의로움을 실현하지 못합니다.
- 21**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그 넘치는 악을 다 벗어 버리고 여러분 안에 심어진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습니다.
- 22**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 23 사실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에 자기 얼굴 모습을 비추어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 24 자신을 비추어 보고서 물러가면, 어떻게 생겼었는지 곧 잊어버립니다.
- 25 그러나 완전한 법 곧 자유의 법을 들여다 보고 거기에 머물면,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에 옮겨 실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의 그 실행으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 26 누가 스스로 신심이 깊다고 생각하면서도 제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아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신심은 헛된 것입니다.
- 27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흠 없는 신심은, 어려움을 겪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차별 대우

- 2 ¹ 나의 형제 여러분,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2 가령 여러분의 모임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추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 3 여러분이 화려한 옷을 걸친 사람을 쳐다보고서는 “선생님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저기 서 있으시오” 하거나 “내 발판 밑에 앉으시오” 한다면,
- 4 여러분은 서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악한 생각을 가진 심판자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 5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가 되

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 6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억누르는 사람들이 바로 부자가 아닙니까?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들도 그들이 아닙니까?
- 7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도 그들이 아닙니까?
- 8 여러분이 참으로 성경에 따라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지고한 법을 이행하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 9 그러나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으로, 여러분은 율법에 따라 범법자로 선고를 받습니다.
- 10 누구든지 율법을 전부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이 됩니다.
- 11 “간음해서는 안 된다.” 고 이르신 분께서도 “살인해서는 안 된다.” 고 하셨습니다. 그대가 비록 간음하지 않더라도 살인하면 율법을 어긴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 12 여러분은 장차 자유의 법에 따라 심판받을 사람으로서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 13 자비를 베풀지 않은 자는 가차 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믿음과 실천

- 14 나의 형제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 15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험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 16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이 녹이고 배불리 먹으시오.” 하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 17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 18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대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실천이 있소” 나에게 실천 없는 그대의 믿음을 보여 주십시오. 나는 실천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 주겠습니다.
- 19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마귀들도 그렇게 믿고 무서워 땀니다.
- 20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실천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싶습니까?
- 21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실천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 22 그대도 보십시오, 믿음이 그의 실천과 함께 작용하였고, 실천으로 그의 믿음이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 23 그렇게 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 24 여러분도 보십시오, 사람은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의롭게 됩니다.
- 25 마찬가지로 창녀 라합도 심부름꾼들을 맞이하고 또 그들을 다른 길로 내보냈을 때에 실천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 26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듯 실천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말조심

- 3** ¹ 나의 형제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교사가 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도 아다시피, 우리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 ² 우리는 모두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누가 말을 하면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 ³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복종하게 만들면, 그 온몸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 ⁴ 그리고 배를 보십시오. 배가 아무리 크고 또 거센 바람에 떠밀려도, 키잡이의 의도에 따라 아주 작은 키로 조종됩니다.
- ⁵ 이와 마찬가지로 혀도 작은 지체에 지나지 않지만 큰일을 한다고 자랑합니다. 아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수풀을 태워 버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 ⁶ 혀도 불입니다. 또 불의의 세계입니다. 이러한 혀가 우리의 지체 가운데에 들어앉아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행로를 불태우며, 그 자체도 지옥 불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 ⁷ 온갖 들짐승과 날짐승과 길짐승과 바다 생물이 인류의 손에 길들여질 수 있으며 또 길들여져 왔습니다.
- ⁸ 그러나 사람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쉴 사이 없이 움직이는 악한 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 ⁹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미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과 비슷하게 창조된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 ¹⁰ 같은 입에서 찬미와 저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 ¹¹ 같은 샘 구멍에서 단 물과 쓴 물이 솟아날 수 있습니까?
- ¹² 나의 형제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내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낼 수 있습니까? 썩은 썩도 단 물을 낼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

- ¹³ 여러분 가운데 누가 지혜롭고 총명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 자기의 실천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 ¹⁴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속에 모진 시기와 이

기심을 품고 있거든, 자만하거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 15 그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현세적이며 악마적인 것입니다.
- 16 시기와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행도 있습니다.
- 17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먼저 순수하고, 그다음으로 평화롭고 관대하고 유순하며, 자비와 좋은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 18 의로움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이들을 위하여 평화 속에서 심어집니다.

세상의 친구는 하나님의 적

- 4** ¹ 여러분의 싸움은 어디에서 오며 여러분의 다툼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욕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 ² 여러분은 욕심을 부러도 얻지 못합니다. 살인까지 하며 시기를 해 보지만 얻어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가지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³ 여러분은 청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욕정을 채우는 데에 쓰려고 청하기 때문입니다.
- ⁴ 절개 없는 자들이여, 세상과 우애를 쌓는 것이 하나님과 적의를 쌓는 것임을 모릅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 ⁵ 아니면,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영을 열렬히 갈망하신다.” 는 성경 말씀이 빈말이라고 생각합니까?
- ⁶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신다.”

⁷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악마가 여러분에게서 달아날 것입니다.

- ⁸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 ⁹ 탄식하고 슬퍼하며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고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 ¹⁰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형제를 심판하지 마라

- ¹¹ 형제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형제를 헐뜯거나 자기 형제를 심판하는 자는 법을 헐뜯고 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법을 심판하면, 법을 실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의 심판자가 됩니다.
- ¹² 입법자와 심판자는 한 분이십니다.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 그 분이십니다.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한단 말입니까?

자만하지 마라

- ¹³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어느 고을에 가서 일 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며 장사를 하여 돈을 벌겠다.” 하고 말하는 여러분!
- ¹⁴ 그렇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 ¹⁵ 도리어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아서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 ¹⁶ 그런데도 여러분은 허세를 부리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랑은 다 약한 것입니다.

니다.

- 17 그러므로 좋은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곧 죄가 됩니다.

부자들에게 대한 경고

- 5** ¹ 자 이제, 부자들이여! 그대들에게 닥쳐오는 재난을 생각하며 소리를 높여 우십시오.
- ² 그대들의 재물은 썩었고 그대들의 옷은 좀 먹었습니다.
- ³ 그대들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며, 그 녹이 그대들을 고발하는 증거가 되고 불처럼 그대들의 살을 삼켜 버릴 것입니다. 그대들은 이 마지막 때에도 재물을 쌓기만 하였습니다.
- ⁴ 보십시오, 그대들의 밭에서 곡식을 베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어들이 일꾼들의 아우성이 만군의 주님 곁에 들어갔습니다.
- ⁵ 그대들은 이 세상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고, 살육의 날에도 마음을 기쁨지게 하였습니다.
- ⁶ 그대들은 의인을 단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대들에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인내와 기도

- ⁷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리는 농부를 보십시오. 그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아 곡식이 익을 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 ⁸ 여러분도 참고 기다리며 마음을 굳게 가지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 ⁹ 형제 여러분,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대야 심판받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심판자께서 문 앞에서 계십니다.
- ¹⁰ 형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끈기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 ¹¹ 사실 우리는 끝까지 견디어 낸 이들을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욕의 인내에 관하여 들었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은 동정심이 크시고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 ¹² 나의 형제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을 두고도, 땅을 두고도, 그밖의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것은 “아니요.” 라고만 하십시오. 그래야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 ¹³ 여러분 가운데에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양 노래를 부르십시오.
- ¹⁴ 여러분 가운데에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원로들을 부르십시오. 원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십시오.
- ¹⁵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 ¹⁶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힘을 냅니다.
- ¹⁷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비가 내리지 않게 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자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 ¹⁸ 그리고 다시 기도하자,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소출을 냈습니다.
- ¹⁹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진리를 벗어나 헤매 때 누가 그 사람을 돌이켜 놓았다면,
- ²⁰ 이 사실을 알아 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놓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

혼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또 많은 죄를 덮어 줄 것입니다.

신약성경 - 21

서간서 - 16

베드로의 첫째 서간

총 5 장

총 105 절

【신약성경】-【베드로의 첫째 서간】

인사

- 1** ¹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폰토스와 갈라티아와 카파도키아와 아시아와 비타니아에 흠어져 나그네살이를 하는 선택된 이들에게 인사합니다.
- 2** 하느님 아버지께서 미리 선택하신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룩해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었고, 또 그분의 피가 뿌려져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내리기를 바랍니다.

희망에 대한 감사

-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고,
- 4** 또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 재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상속 재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 5**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을 얻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느님의 힘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 6** 그러니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7** 그러나 그것은 불로 단련을 받고도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훨씬 값진 여러분의 믿음의 순수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밝혀져, 여러분이 찬양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 8**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 9**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10** 이 구원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받을 은총을 두고 예언한 예언자들이 탐구하고 연구하였습니다.
- 11** 그들 안에서 작용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서 그리스도께 다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실 때에 가르쳐 주신 구원의 시간과 방법을 두고 연구하였던 것입니다.
- 12** 예언자들은 그 일들이 자신들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일들이 하늘에서 파견된 성령의 도움으로 복음을 전한 이들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희망에 합당한 거룩한 생활

- 13** 그러므로 마음을 가디듬고 정신을 치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받을 은총에 여러분의 모든 희망을 거십시오.
- 14**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하던 때의 욕망에 따라 살지 말고?
- 15** 여러분을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 16**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17** 그리고 여러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각자의 행실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살이를 하는 동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 18**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는데,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물건으로 그러된

것이 아니라,

- 19 흠 없고 티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그리워 된 것입니다.
- 20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뽑으셨지만,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 21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시어,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 주셨습니다.

신자 생활

- 22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영혼이 깨끗해져 진실한 형제애를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한결같이 사랑하십시오.
- 23 여러분은 썩어 없어지는 씨앗이 아니라 썩어 없어지지 않는 씨앗, 곧 살아 계시며 영원히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 태어났습니다.
- 24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 25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머물러 계시다.”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2

- 1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 그리고 모든 중상을 버리십시오.
- 2 갓난아이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자라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 3 주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신지 여러분은 이미 맛보았습니다.

교회의 기초와 사명

- 4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분은 살아 있는 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선택된 값진 돌입니다.

- 5 여러분도 살아 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에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영적 재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
- 6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 돌을 놓는다. 선택된 값진 모퉁잇돌이다. 이 돌을 믿는 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 7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 돌이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하는 그 돌이며,
- 8 또한 “차여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걸려 비틀거리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은 정해진 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 돌에 차여 넘어집니다.
- 9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겨레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분의 “위업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 10 여러분은 한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자비를 입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자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신자와 이교인

- 11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과 나그네로 사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움을 벌이는 육적인 욕망들을 멀리하십시오.
- 12 이교인들 가운데에 살면서 바르게 처신하십시오. 그해야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라고 여러분을 중상하는 그들도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지켜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선량한 국민

- 13 주님을 생각하여, 모든 인간 제도에 복종하십시오. 임금에게는 주권자이므로 복종하고,
- 14 총독들에게는, 악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상을 주도록 임금이 파견한 사람이므로 복종하십시오.
- 15 여러분이 선을 행하여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 16 자유인으로서 행동하십시오. 그러나 자유를 악행의 구실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행동하십시오.
- 17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 공동체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임금을 존경하십시오.

충실한 하인

- 18 하인 여러분, 진정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착하고 너그러운 주인뿐 아니라 못된 주인에게도 복종하십시오.
- 19 불의하게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양심 때문에 그 괴로움을 참아 내면 그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 20 잘못을 저질러 매를 맞을 때에는, 견디어 낸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명에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는데도 겪게 되는 고난을 견디어 내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받는 은총입니다.
- 21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시면서,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여러분에게 본보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 22 “ 그는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그의 입에는 아무런 거짓도 없었다.”

- 23 그분께서는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당신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 24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 나무에 달리시어, 죄에서는 죽은 우리가 의로움을 위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상처로 여러분은 병이 나았습니다.
- 25 여러분이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었지만,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이시며 보호자이신 그분께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남편

- 3¹ 마찬가지로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들도 아내인 여러분의 말 없는 처신으로 감화를 받게 하십시오.
- 2 그들은 여러분이 경건하고 순결하게 처신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그리될 것입니다.
- 3 머리를 땅아 올리거나 금발이를 달거나 좋은 옷을 차려입거나 하는 걸치장을 하지 말고,
- 4 온유하고 정숙한 정신과 같이 섞이지 않는 것으로, 마음속에 감추어진 자신을 치장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것입니다.
- 5 전에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부인들도 남편에게 순종하며 이렇게 자신을 치장하셨습니다?
- 6 예컨대 사라도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며 그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리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 7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자기보다 연약한 여성인 아내를 존중하면서, 이해심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아내도 생명의 은총을 함께 상속받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가로막히지 않습니다.

참다운 신앙 공동체

- 8 끝으로, 여러분은 모두 생각을 같이하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처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며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 9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시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을 상속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 10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는 이는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혀를 조심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입술을 조심하여야.
- 11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찾고 또 추구하여야.
- 12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그분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맞서신다.”

박해에 맞선 확신

- 13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데 누가 여러분을 해지겠습니까?
- 14 그러나 의로움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 하여도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 15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히 모십시오.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
- 16 그러나 바른 양심을 가지고 온유하고 공손하게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선한 처신을 비방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중상하는 바로 그 일로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입니다.
- 17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 18 사실 그리스도께서도 죄 때문에 단 한 번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느님께 이끌어 주시려고,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으로는 살해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 19 그리하여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시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 20 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느님께서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 곧 여덟 명만 방주에 들어가 물로 구원을 받았습시다.
- 21 이제는 그것이 가리키는 본형인 세례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세례는 몸의 때를 씻어 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하느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일입니다.
- 22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계시는데, 그분께 천사들과 권력들과 권능들이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참그리스도인

- 4¹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고난을 겪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각오로 무장하십시오. 육으로 고난을 겪는 이는 이미 죄와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 2 그리니 남은 지상 생활 동안, 더 이상 인간의 욕망을 따르지 말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 3 지난날 여러분은 오랫동안 이교인들이 즐기는 것을 하면서 지냈습시다. 방탕, 욕정, 주정, 흥청대는 술잔치, 폭음, 불경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 4 그래서 그들은 이제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

게 무모한 방종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놀라워하며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 5 그들은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을 심판하시려고 준비를 갖추신 분께 셈을 해 드려야 것입니다.
- 6 그래서 죽은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육으로는 다른 모든 사람처럼 심판을 받았지만, 영으로는 하느님처럼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종말과 공동체 생활

- 7 만물의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십시오.
- 8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한결같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 줍니다.
- 9 불평하지 말고 서로 잘 대접하십시오.
- 10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훌륭한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
- 11 말하는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는 이는 하느님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느님께서 무슨 일에 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영원무궁토록 영광과 권능을 누리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받은 고난

- 12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에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 13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도 여러분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 14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영광의 성령 곧 하느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15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약한이나 모략꾼으로서 고난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 16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겪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느님을 찬양하십시오.
- 17 사실 심판이 하느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될 때가 되었습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다면, 하느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종말이야 어찌하겠습니까?
- 18 “의인이 가까스로 구원을 받는다면 불경한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 19 그러므로 하느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겪는 이들은 선을 행하면서 자기 영혼을 성실하신 창조주께 맡겨야 합니다.

지도자들의 의무

- 5¹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원로들에게 같은 원로로서, 또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의 증인이며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으로서 권고합니다.
- 2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하느님의 양 떼를 잘 치십시오. 그들을 돌보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진해서 하십시오.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 하지 말고 열성으로 하십시오.
- 3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에서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 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 4 그러면 으뜸 목자께서 나타낼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

겸손과 깨어 있음

- 5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원로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 대하십시오. “하느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을

에게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 6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 7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그분께 내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 8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적대자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닙니다.
- 9 여러분은 믿음을 굳건히 하여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 10 여러분이 잠시 고난을 겪고 나면, 모든 은총의 하나님께서,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불러 주신 그분께서 몸소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며 든든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 11 그분의 권능은 영원합니다. 아멘.

끝 인사

- 12 나는 성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바누스의 손을 빌려 여러분에게 간략히 이 글을 썼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참된 은총임을 증언하려는 것입니다. 그 은총 안에 굳건히 서 있도록 하십시오.
- 13 여러분과 함께 선택된 바빌론 교회와 나의 아들 마르코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 14 여러분도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 22

서간서 - 17

베드로의 둘째 서간

총 3 장

총 61 절

[신약성경]-[베드로의 둘째 서간]

인사

- 1** ¹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느님이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덕분에 우리처럼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인사합니다.
- 2** 하느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앎으로써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내리기를 빕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명

- 3**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부르신 분을 알게 해 주시으로써, 당신이 지니신 하느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신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 주셨습니다.
- 4** 그분께서는 그 영광과 능력으로 귀중하고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어, 여러분이 그 약속 덕분에, 욕망으로 이 세상에 빚어진 멸망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 5** 그러니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앎을 더하며,
- 6** 앎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신심을,
- 7** 신심에 형제애를, 형제애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 8**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9**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지니지 못한 자는 근시안이라서 앎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옛 죄에서 깨끗해졌음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 10**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소명과 선택이 굳건해지도록 애쓰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

입니다.

- 11** 그리하여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추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증언

- 12**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알고 또 이미 받은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기는 하지만, 나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기억시키려고 합니다.
- 13** 내가 이 천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1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에게 밝혀 주셨듯이, 내가 이 천막에서 벗어날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15** 나는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여러분이 언제나 이러한 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 16** 사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 줄 때, 교묘하게 꾸며 낸 신화를 따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위대함을 목격한 자로서 그러한 것입니다.
- 17** 그분은 정녕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영예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존귀한 영광의 하느님에게서, “이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다.” 하는 소리가 그분께 들려왔을 때의 일입니다.
- 18** 우리도 그 거룩한 산에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 19** 이로써 우리에게는 예언자들의 말씀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밝아 오고 새벽이 떠오를 때까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불빛을 바라보듯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 20** 무엇보다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의 어떠한 예언도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21 예언은 결코 인간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에게서 받아 전한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

2 ¹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에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을 가져오는 이단을 끌어들이고, 심지어 자기들을 속량해 주신 주님을 부인하면서 파멸을 재촉하는 자들입니다.

2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들의 방탕한 행실을 본받아,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모욕을 받을 것입니다.

3 그들은 또 탐욕에 빠져, 지어낸 말로 여러분을 속여 착취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릴 판결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고, 그들에게 다칠 파멸은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4 사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으시고, 어둠의 사슬로 지옥에 가두시어 심판을 받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셨습니다.

5 또 불경한 자들의 세상을 홍수로 덮으실 때, 그 옛 세상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의로움의 선포자 노아는 다른 일곱 사람과 함께 지켜 주셨습니다.

6 소돔과 고모라 두 고을은 멸망하도록 단죄하시고 잿더미로 만드시어, 불경한 자들에게 내릴 벌의 본보기로 세우셨습니다.

7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생활로 고통을 겪던 의로운 롯은 구해 주셨습니다.

8 사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에 살면서 무도한 행실들을 보고 듣노라고 그 의로운 영혼이 날마다 괴로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9 주님께서 어떻게 신심 깊은 이들을 시련에서 구하시고, 불의한 자들을 벌하시어 심

판 날까지 가두어 두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10 특히 더러운 욕망에 빠져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주님의 주권을 업신여기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당돌하고 거만하여 거리낌 없이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합니다.

11 천사들은 더 큰 힘과 능력이 있으면서도 주님에게서 그들에 대한 모욕적인 판결을 끌어내지 않습니다.

12 그런데 그들은 잡혀 죽을 것으로 태어난 지각없는 짐승과 같이 자기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을 모독하고 있으니,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처럼 그들도 멸망할 것입니다.

13 이렇게 그들은 해악을 저지른 대가로 해악을 입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낮의 술잔치를 기쁨으로 삼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즐기는 너절하고 지저분한 자들입니다.

14 그들의 눈은 간음할 여자만 찾고 죄에 물리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확고하지 못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마음은 탐욕에 젖어 있는 그들,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15 그들은 바른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빠졌습니다. 보소르의 아들 발리암의 길을 따라 간 것입니다. 그는 불의한 돈벌이를 좋아하다가,

16 그 범법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목소리로 말을 하여 그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17 그들은 물 없는 썸이며 폭풍에 밀려가 버리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짙은 암흑이 마련되어 있을 따름입니다.

18 그들은 실업이 큰소리치면서,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갓 빠져나온 이들을 육체의 방탕한 욕망으로 유혹합니다.

19 그들은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신들은 멸망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굴복을 당한 사람은 굴복시킨 쪽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 20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써 이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난 그 사람들이 그것에 다시 밀려들어 굴복을 당하게 되면, 그들의 끝은 처음보다 더 나빠집니다.
- 21 의로움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하였던 편이 나올 것입니다.
- 22 “개는 자기가 개운 데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는 속담이 그들에게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주님의 재림

- 3 ¹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 순수한 정신을 불러일으키려고 합니다.
- 2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분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통하여 내리신 계명을 기억하십시오.
- 3 여러분은 무엇보다 먼저 이것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 욕망에 따라 사는 조롱꾼들이 나와서 여러분을 조롱하며,
- 4 “그분의 재림에 관한 약속은 어떻게 되었소? 사실 조상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창조 이래 모든 것이 그대로 있지 않소?” 할 것입니다.
- 5 이렇게 주장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예로부터 있어 왔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 6 그때의 세상은 홍수에 잠겨 물로 멸망하였습니다.
- 7 지금의 하늘과 땅도 불에 타 없어질 때까지

같은 말씀으로 보존됩니다. 불경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날까지만 유지되는 것입니다.

- 8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습니다.
- 9 어떤 이들은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 10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소멸되며, 땅과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 11 이렇게 모든 것이 스러질 터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신심 깊은 생활을 하면서,
- 12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하늘은 불길에 싸여 스러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녹아 버릴 것입니다.
- 13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언약에 따라, 의로움이 깃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14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 없고 흠 없는 사람으로 평화로이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 15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구원의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사랑하는 바오로 형제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지혜에 따라 여러분에게 써 보낸 바와 같습니다.
- 16 사실 그는 모든 편지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더러워지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무식하고 믿음이 확고하지 못한 자들은 다른 성경 구절

들을 꼭해하듯이 그것들도 꼭해하여 스스로 멸망을 불러옵니다.

17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니, 무법한 자들의 오류에 휩쓸려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18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은총과 그분에 대한 앎을 더욱 키워 나아가십시오. 이제와 영원히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약성경 - 23

서간서 - 18

요한의 첫째 서간

총 5 장

총 105 절

【신약성경】-【요한의 첫째 서간】

머리말: 생명의 말씀

- 1** ¹ 처음부터 있어 온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 눈으로 본 것 우리가 살펴 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 본 것,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 2**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보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선포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 3**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친교를 나누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교는 아버지와 또 그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것입니다.
- 4**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이 글을 씁니다.

빛 속에서 살아감

- 5**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곧 하느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 6** 만일 우리가 하느님과 친교를 나누는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 7** 그러나 그분께서 빛 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친교를 나누게 되고,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줍니다.
- 8**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산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 9**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성실하

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 10**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 2** ¹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 2**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사랑의 계명 준수

- 3**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 4** “나는 그분을 안다.”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이고,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 5**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는 참으로 하느님 사랑이 완성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 6** 그분 안에 머무른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 7**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지녀 온 옛 계명입니다.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 8** 그러면서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새 계명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도 또 여러분에게도 참된 사실입니다. 어둠이 지

- 나가고 이미 참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 9 빛 속에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입니다.
- 10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속에 머무르고, 그에게는 걸림돌이 없습니다.
- 11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 12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 덕분에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 13 아버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 14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쓴 까닭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쓴 까닭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쓴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며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 15 여러분은 세상도 또 세상 안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 사랑이 없습니다.
- 16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 17 세상은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 18 자녀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적’ 이 온다고 여러분이 들은 그대로, 지금 많은 ‘그리스도의 적들’ 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 19 그들은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갔지만 우리에게 속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아무도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20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부음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 21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또 진리에서는 어떠한 거짓말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22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드님을 부인하는 자가 곧 ‘그리스도의 적’ 입니다.
- 23 아드님을 부인하는 자는 아무도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아드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야 아버지도 모십니다.
- 24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면, 여러분도 아드님과 아버지 안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 25 이것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 26 나는 여러분을 속이는 자들과 관련하여 이 글을 씁니다.
- 27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에게서 기름부음을 받았고 지금도 그 상태를 보존하고 있으며

로, 누가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기름부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기름부음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그분 안에 머무르십시오.

28 그러나 이제 자녀 여러분, 그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래야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분의 재림 때에 그분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로움의 실천

29 그분께서 의로우신 분이심을 깨달으면, 의로운 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3 1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2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그분께 이러한 희망을 두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신도 순결하게 합니다.

4 죄를 저지르는 자는 모두 불법을 자행하는 자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5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분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6 그분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모두 그분을 뵈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자입니다.

7 자녀 여러분, 아무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의로운 일을 실천하는 이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로운 사람입니다.

8 죄를 저지르는 자는 악마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마가 한 일을 없애 버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9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10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는 이렇게 뚜렷이 드러납니다. 의로운 일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그렇습니다.

사랑의 실천

11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 악마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자기 동생을 죽인 카인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무슨 까닭으로 동생을 죽였습니까? 자기가 한 일은 악하고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13 그리고 형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여도 놀라지 마십시오.

14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음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15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모두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살인자는 아무도 자기 안에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16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목숨을 내놓

으신 그 사실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 17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마음을 달아 버리면,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 18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 19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되고, 또 그분 앞에서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 20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 21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 22 그리고 우리가 청하는 것은 다 그분에게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 23 그분의 계명은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 24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의 식별

- 4¹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영이나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 2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

셨다고 고백하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영입니다.

- 3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의 영입니다. 그 영이 오리라고 여러분이 전에 들었는데, 이제 이미 세상에 와 있습니다.
- 4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거짓 예언자들을 이미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분께서 세상에 있는 그자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 5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 6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을 알고 또 사람을 속이는 영을 압니다.

사랑과 믿음

- 7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나님을 압니다.
- 8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 9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 10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 주신 것입니다.
- 11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 12 지금까지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됩니다.
- 13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압니다.
- 14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언합니다.
- 15 누구든지 예수님께서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고백하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시고 그 사람도 하느님 안에 머무릅니다.
- 16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 17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분처럼 살고 있기에 우리가 심판 날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 18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두려움은 벌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자기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 19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 20 누가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 21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뿌리인 믿음

- 5 ¹ 예수님께서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그 자녀도 사랑합니다.
- 2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면, 그로써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 3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은 힘겹지 않습니다.
- 4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그 승리는 바로 우리 믿음의 승리입니다.
- 5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 6 그분께서 바로 물과 피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이십니다.
- 7 그래서 증언하는 것이 셋입니다.
- 8 성령과 물과 피인데, 이 셋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 9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면, 하느님의 증언은 더욱 중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느님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에 관하여 친히 증언해 주셨습니다.
- 10 하느님의 아드님을 믿는 사람은 이 증언을 자신 안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느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에 관하여 하신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11 그 증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당신 아드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 12 아드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을 지니고 있고, 하나님의 아드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생명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맺음말: 영원한 생명

- 13 내가 여러분에게, 곧 하나님의 아드님의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 14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가지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에 따라 청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 15 우리가 무엇을 청하든지 그분께서 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분께 청한 것을 받는다는 것도입니다.
- 16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을죄가 아니면, 그를 위하여 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는 죽을죄가 아닌 죄를 짓는 이들에게 해당됩니다. 죽을죄가 있는데, 그러한 죄 때문에 간구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 17 모든 불의는 죄입니다. 그러나 죽을죄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 18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께서 그를 지켜 주시어 악마가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 19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온 세상은 악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압니다.
- 20 또한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오시어 우리에게 참되신 분을 알도록 이해력을 주신 것

도입니다. 우리는 참되신 분 안에 있고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 21 자녀 여러분, 우상을 조심하십시오.

신약성경 - 24

서간서 - 19

요한의 둘째 서간

총 1 장

총 13 절

[신약성경]-[요한의 둘째 서간]

인사

1 ¹ 원로인 내가 선택받은 부인과 그 자녀들에게 인사합니다. 나는 그대들을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이 그대들을 사랑합니다.

2 이는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진리 때문입니다.

3 하느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 주시는 은총과 자비와 평화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

4 그대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5 부인, 이제 내가 그대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대에게 써 보내는 것은 무슨 새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지녀 온 계명입니다.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6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 계명은 그대들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자들

7 속이는 자들이 세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는 속이는 자며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8 여러분은 우리가 일하여 이루어 놓은 것을 잃지 않고 충만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살피십시오.

9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는 자는 아무도 하느님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이라야 아버지도 아드님도 모십니다.

10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 이 가르침을 내놓지 않으면, 그를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인사하지도 마십시오.

11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의 나쁜 행실에 동참하게 됩니다.

끝인사

12 내가 그대들에게 쓸 말은 많지만 종이와 먹으로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내가 그대들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하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13 선택받은 그대 자매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신약성경 - 25

서간서 - 20

요한의 셋째 서간

총 1 장

총 15 절

[신약성경]-[요한의 셋째 서간]

인사

- 1** ¹ 원로인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스에게 인사합니다. 나는 그대를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
- 2** 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영혼이 평안하듯이 그대가 모든 면에서 평안하고 또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 3** 형제 몇 사람이 와서 진리에 대한 그대의 충실성을, 곧 그대가 진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증언할 때에 나는 매우 기뻐합니다.
- 4** 나에게서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선교사들에 대한 협력

- 5** 사랑하는 이여, 그대는 형제들을 위하여, 특히 낮은 이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든 다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 6** 그들이 교회 모임에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맞갖도록 그대의 도움을 받아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7**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길을 나선 사람들로, 이교인들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 8**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이들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진리의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트레페스

- 9** 나는 그곳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우두머리 노릇하기를 좋아하는 디오테페스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 10** 그래서 내가 가면 그가 하는 행실을 지적

하겠습니다. 그는 나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이들에게 방해하며 교회에서 쫓아냅니다.

데메트리오스

- 11** 사랑하는 이여, 악을 본받지 말고 선을 본 받으십시오. 선을 행하는 이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악을 행하는 이는 하나님을 뵈지 못한 사람입니다.
- 12** 데메트리오스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진리 자체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를 위하여 증언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끝 인사

- 13** 내가 그대에게 쓸 말은 많지만 먹과 붓으로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 14** 그보다는 그대를 곧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굴을 마주하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5** 그대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곳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신약성경 - 26

서간서 - 21

유다 서간

총 1 장

총 25 절

[신약성경]-[유다 서간]

인사

- 1** ¹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이들, 곧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 주시는 이들에게 인사합니다.
- 2** 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내리기를 바랍니다.

거짓 교사들이 받을 심판

- 3**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공동 구원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려고 여러모로 애쓰던 참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해진 믿음을 위하여 싸우도록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편지를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 4**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심판을 받도록 이미 오래전에 기록된 불경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하느님의 은총을 방탕한 생활의 방편으로 악용하고,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 5** 여러분이 다 알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백성을 이집트에서 단번에 구해 내셨지만, 나중에는 만지 않는 자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 6** 자기 영역을 지키지 않고 거주지를 이탈한 천사들도 저 중대한 날에 심판하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묶어 어둠 속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 7** 그들과 같은 식으로 불륜을 저지르고 변태적인 욕욕에 빠진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고을들도,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 8** 저 꿈꾸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몸을 더럽히고 주님의 주권을 무시하며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합니다.

- 9** 그러나 미카엘 대천사도 모세의 주검을 놓고 악마와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모독적인 판결을 내놓지 않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하고 말하였을 뿐입니다.
- 10** 저들은 자기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다 모독하지만, 지각없는 짐승처럼 누구나 본성으로 아는 것들, 바로 그것들로 멸망하고 맙니다.
- 11** 저들은 불행합니다! 카인의 길을 따라 걸었고 돈벌이 때문에 발리암의 오류에 빠졌으며 코리처럼 반항하다 망하였기 때문입니다.
- 12** 겁도 없이 여러분과 잔치를 벌이면서 자신만 돌보는 저들은 여러분의 애찬을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바람에 떠밀려 가 버리는 메머른 구름이고, 늦가을까지 열매 하나 없이 두 번이나 죽어 뿌리째 뽑힌 나무이며,
- 13** 자기들의 수치스러운 행실을 거품처럼 뿜어 올리는 거친 바다 물결이고, 짙은 암흑에 영원히 갇힐 때들이 별입니다.
- 14** 저들을 두고 아담의 칠 대손 에녹이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당신의 거룩한 이들과 함께 오시어
- 15**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저마다 불경스럽게 저지른 모든 행실에 따라, 불경한 죄인들이 당신을 거슬러 지껄인 모든 무엄한 말에 따라 각자에게 벌을 내리신다.”
- 16** 저들은 불행꾼이며 불만꾼으로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잇속을 챙기려고 사람들에게 아첨하면서 입으로는 큰소리칩니다.

권고

- 17**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 18 그들이 여러분에게, “ 마지막 때에 자기의 불경한 욕망에 따라 사는 조롱꾼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 19 저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로서, 현세적 인간이며 성령을 지니지 못한 자들입니다.
- 20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아가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 2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 22 의심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 23 어떤 이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해 주십시오.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의 살에 닿아 더러워진 속옷까지 미워하더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십시오.

찬송

- 24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 당신의 영광 앞에 흠 없는 사람으로 기쁘게 나서도록 해 주실 수 있는 분,
- 25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과 위엄과 권능과 권세가 창조 이전부터, 그리고 이제와 앞으로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신약성경 - 27

목시록

요한 목시록

총 22 장

총 405 절

[신약성경]-[요한 묵시록]

머리말

- 1** ¹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당신 종들에게 보여 주시려고 그리스도께 알리셨고, 그리스도께서 당신 천사를 보내시어 당신 종 요한에게 알려 주신 계시입니다.
- 2**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 3** 이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는 이와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때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인사

- 4**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이 글을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여좌 앞에 계신 일곱 영에게서,
- 5** 또 성실한 증인이시고 죽은 이들의 믿음이 시며 세상 임금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 주셨고,
- 6**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어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신 그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 7** 보십시오,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 8**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소명

- 9** 여러분의 형제로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더불어 환난을 겪고 그분의 나라에 같이 참여하며 함께 인내하는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파트모스라는 섬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 10** 어느 주일에 나는 성령계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 11** 그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일곱 교회 곧 에페소, 스미르나, 페르가몬, 티아티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이아에 보내라.”
- 12** 나는 나에게 말하는 것이 누구의 목소리인지 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황금 등잔대가 일곱 개 있고,
- 13** 그 등잔대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 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 14**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처럼 또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으며,
- 15** 발은 용광로에서 정련된 놋쇠 같고 목소리는 큰 물소리 같았습니다.
- 16** 그리고 오른손에는 일곱 별을 쥐고 계셨으며 입에서는 날카로운 쌍날칼이 나왔습니다. 또 그분의 얼굴은 한낮의 태양처럼 빛났습니다.
- 17** 나는 그분을 뵈고, 죽은 사람처럼 그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 18** 살아 있는 자다. 나는 죽었지만, 보라, 영원무궁토록 살아 있다. 나는 죽음과 저승의 열쇠를 쥐고 있다.
- 19**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그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 20** 네가 본 내 오른손의 일곱 별과 일곱 황금

등잔대의 신비는 이렇하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고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이다.”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

- 2** ¹ “에페소 교회의 천사에게 써 보내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고 일곱 황금 등잔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 2** 나는 내가 한 일과 너의 노고와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너는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냈다.
- 3** 너는 인내심이 있어서, 내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치는 일이 없었다.
- 4**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저버린 것이다.
- 5**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추락했는지 생각해 내어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 버리겠다.
- 6** 그러나 너에게 좋은 점도 있다. 내가 니콜라오스파의 소행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나도 그것을 싫어한다.
- 7**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 주겠다.’ ”

스미르나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

- 8** “스미르나 교회의 천사에게 써 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이렇게 말한다.
- 9** 나는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너는 사실 부유하다. 또한 유대인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에게서 중상을 받는 것도 나는 안다. 그

러나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 10** 내가 앞으로 겪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이제 악마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겪을 것이다. 너는 죽을 때까지 충실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화관을 너에게 주겠다.
- 11**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승리하는 사람은 두 번째 죽음의 화를 입지 않을 것이다.’ ”

페르가몬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

- 12** “페르가몬 교회의 천사에게 써 보내라. ‘날카로운 쌍날칼을 가진 이가 이렇게 말한다.
- 13** 나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곧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지키고 있다. 나의 충실한 증인 안티파스가 사탄이 사는 너희 고을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너는 나에게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 14** 그러나 너에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에게는 발라암의 가르침을 고수하는 자들이 있다. 발라암은 발락을 부추겨,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 그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고 불륜을 저지르게 한 자다.
- 15** 너에게는 또한 니콜라오스파의 가르침을 고수하는 자들도 있다.
- 16**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곧 너에게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로 그들과 싸우겠다.
- 17**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숨겨진 만나를 주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그것을 받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 ”

티아티라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

- 18 “티아티라 교회의 천사에게 써 보내라. ‘
 불꽃 같은 눈과 늦쇠 같은 발을 가진 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한다.
 19 나는 네가 한 일을, 너의 사랑과 믿음과 봉
 사와 인내를 안다. 또 요즈음에는 처음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것도 안다.
 20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
 제벨이라는 여자를 용인하고 있다. 그 여자
 는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잘못
 가르치고 속여 불륜을 저지르게 하고 우상
 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한다.
 21 내가 그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었지만, 그는
 자기 불륜을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
 22 보라, 내가 그를 병상에 던져 버리겠다. 그
 와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 함께 저지르는
 소행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속으로
 던져 버리겠다.
 23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겠
 다. 그리하여 내가 사람의 속과 마음을 꿰
 뚫어 본다는 것을 모든 교회가 알게 될 것
 이다. 나는 너희가 한 일에 따라 각자에게
 갚아 주겠다.
 24 그러나 티아티라에 있는 너희 나머지 사람
 들, 곧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비밀’ 을
 알려고도 하지 않은 이들에게 나는 말한다.
 너희에게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25 다만 내가 갈 때까지 너희가 가진 것을 굳
 게 지켜라.
 26 승리하는 사람,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
 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겠
 다.
 27 그리하여 옹기그릇들을 바수듯이 그는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28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듯이 그 사람도
 나에게서 받는 것이다. 나는 또 그에게 셋

별을 주겠다.

- 29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
 시는 말씀을 들어라.’ ”

사르디스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

- 3 1 “사르디스 교회의 천사에게 써 보
 내라. ‘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말한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안다. 너는 살아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
 은 것이다.
 2 깨어 있어라. 아직 남아 있지만 죽어 가는
 것들을 튼튼하게 만들어라. 나는 네가 한
 일들이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보
 지 않는다.
 3 그러므로 내가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들었는지 되새겨, 그것을 지키고 또
 회개하여라. 내가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
 둑처럼 가겠다. 너는 내가 어느 때에 너에게
 갈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4 그러나 사르디스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5 승리하는 사람은 이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
 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책에서 그의 이름
 을 지우지 않을 것이고, 내 아버지와 그분
 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안다고 증언
 할 것이다.
 6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
 는 말씀을 들어라.’ ”

필라델피아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

- 7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써 보내라.
 ‘ 거룩한 이, 진실한 이 다투의 열쇠를 가
 진 이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
 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8 나는 네가 한 일을 안다. 보라, 나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네 앞에 열어 두었다. 너

는 힘이 약한데도, 내 말을 굳게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 9 보라, 나는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이렇게 하겠다.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자처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을 뿐이다. 보라, 나는 그들이 와서 네 발 앞에 엎드리게 하겠다. 그리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 10 내가 안내하라는 나의 말을 지켰으니, 땅의 주민들을 시험하려고 온 세계에 사탄이 다 쳐올 때에 나도 너를 지켜 주겠다.
- 11 내가 곧 간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지켜, 아무도 네 화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 12 승리하는 사람은 내 하느님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 다시는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게 하겠다. 그리고 내 하느님의 이름과 내 하느님의 도성, 곧 하늘에서 내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에게 새겨 주겠다.
- 13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

라오디케이아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

- 14 “라오디케이아 교회의 천사에게 써 보내라. ‘아멘 그 자체이고 성실하고 참된 증인이며 하느님 창조의 근원인 이가 말한다.
- 15 나는 네가 한 일을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으련만!
- 16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 17 ‘ 나는 부자로서 풍족하여 모자람이 없다.’ 하고 내가 말하지만, 사실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
- 18 내가 너에게 권한다. 나에게서 불로 정련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흰옷을 사 입어 너의 수치스러운 알몸이 드러나지 않게 하고, 인약을 사서 눈에 발라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여라.

- 19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는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열성을 다하고 회개 하여라.
- 20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 21 승리하는 사람은, 내가 승리한 뒤에 내 아버지의 어좌에 그분과 함께 앉은 것처럼, 내 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해 주겠다.
- 22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

천상 예배

- 4 ¹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었던 그 목소리, 곧 나팔 소리같이 울리며 나에게 말하던 그 목소리가, “이리 올라오너라. 이다음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 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 2 나는 곧바로 성령께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또 어좌 하나가 놓여 있고 그 어좌에는 어떤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 3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백옥과 홍옥같이 보이셨고, 어좌 둘레에는 취옥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 4 그 어좌 둘레에는 또 다른 어좌 스물네 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원로 스물네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 5 그 어좌에서는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좌 앞에서는 일곱 뿔뿔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일곱 영이십니다.

- 6 또 그 어좌 앞에는 수정처럼 보이는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좌 한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 7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황소 같았으며,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기는 독수리 같았습니다.
- 8 그 네 생물은 저마다 날개를 여섯 개씩 가졌는데, 사방으로 또 안으로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낮 쉬지 않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또 앞으로 오실 분!”
- 9 어좌에 앉아 계시며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신 그분께 생물이 영광과 영예와 감사를 드릴 때마다,
- 10 스물네 원로는 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신 그분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금관을 어좌 앞에 던지며 외쳤습니다.
- 11 “주님, 저희의 하느님 주님은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생겨나고 창조되었습니다.”

봉인된 두루마리와 어린양

- 5¹ 그리고 나는 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글이 적힌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일곱 번 봉인된 것이었습니다.
- 2 나는 또 큰 능력을 지닌 천사 하나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뜯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 누구인가?” 하고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 3 그러나 하늘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 4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들여다보기에 합당하다고 인정된 이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 5 그런데 원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울지 마라. 보라,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여 일곱 봉인을 뜯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게 되었다.”
- 6 나는 또 어좌와 네 생물과 원로들 사이에,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 어린양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양은 깎이 일곱이고 눈이 일곱이었습니다. 그 일곱 눈은 온 땅에 파견된
- 7 그 어린양이 나오시어, 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셨습니다.
- 8 어린양이 두루마리를 받으시자, 네 생물과 스물네 원로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수금과, 또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들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 9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서 두루마리를 받아 봉인을 뜯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께서 살해되시고 또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속량하시어 하느님께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 10 주님께서서 그들이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한 나라를 이루고 사제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 11 나는 또 어좌와 생물들과 원로들을 에워싼 많은 천사들을 보고 그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백만 수억만이었습니다.
- 12 그들이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살해된 어린양은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예와 영광과 찬미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 13 그리고 나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 그 모든 곳에 있는

만물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좌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양께 찬미와 영예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14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 하고 화답하고 원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처음 여섯 봉인

6 ¹ 나는 어린양이 일곱 봉인 가운데 하나를 뜯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2 내가 또 보니,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이는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관을 받자, 승리자로서 더 큰 승리를 거두려고 나갔습니다.

3 어린양이 둘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4 그러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탄 이는 사람들이 서로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거두어 가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큰 칼을 받았습니다.

5 어린양이 셋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또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이는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6 나는 또 네 생물 한가운데에서 나오는 어떤 목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밀 한 되가 하루 품삯이며 보리 석 되가 하루 품삯이다. 그러나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마라.”

7 어린양이 넷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나는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8 내가 또 보니, 푸르스름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이의 이름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저승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땅의 사분의 일에 대한 권한이 주어졌으니, 곧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과 들짐승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권한입니다.

9 어린양이 다섯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한 증언 때문에 살해된 이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0 그런데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님, 저희가 흘린 피에 대하여 땅의 주민들을 심판하고 복수하시는 것을 언제까지 미루시렵니까?”

11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희고 긴 겹옷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할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조금 더 쉬고 있으라는 분부를 받았습니다.

12 어린양이 여섯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에 나는 보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는 털로 짠 자루옷처럼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처럼 되었습니니다.

13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14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 사라져 버리고, 산과 섬은 제자리에 남아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5 그러자 땅의 임금들과 고관들과 장수들과 부차들과 권력가들, 또 종과 자유인도 모두 동굴과 산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16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로 무너져, 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얼굴과 어린양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숨겨 다오.

17 그분들의 진노가 드러나는 중대한 날이 닥쳐왔는데, 누가 견디어 낼 수 있겠느냐?”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

- 7** ¹ 그다음에 나는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고서는 땅에도 바다에도 그 어떤 나무에도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 ² 나는 또 다른 한 천사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인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땅과 바다를 해칠 권한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 ³ “우리가 우리 하느님의 종들의 이미에 인장을 찍을 때까지 땅도 바다도 나무도 해치지 마라.”
- ⁴ 나는 인장을 받은 이들의 수가 십사만 사천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인장을 받은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 ⁵ 이렇게 인장을 받은 이들은 유다 지파에서 만 이천 명 르우벤 지파에서 만 이천 명 가드 지파에서 만 이천 명
- ⁶ 아셀 지파에서 만 이천 명 납탈리 지파에서 만 이천 명 므나쎄 지파에서 만 이천 명
- ⁷ 시메온 지파에서 만 이천 명 레위 지파에서 만 이천 명 이사카르 지파에서 만 이천 명
- ⁸ 즈블론 지파에서 만 이천 명 요셉 지파에서 만 이천 명이었고 벤야민 지파에서도 만 이천 명이 인장을 받았습니다.

선택된 이들의 무리인 교회

- ⁹ 그다음에 내가 보니, 아무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그들은, 희고 긴 겹옷을 입고 손에는 아자나무 가지를 들고서 여좌 앞에 또 어린양 앞에서 있었습다.
- ¹⁰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은 여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느님과 어린양의

것입니다.”

- ¹¹ 그러자 모든 천사가 여좌와 원로들과 네 생물 둘레에 서 있다가, 여좌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느님께 경배하며
- ¹² 말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영예와 권능과 힘이 영원무궁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 ¹³ 그때에 원로 가운데 하나가, “희고 긴 겹옷을 입은 저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 ¹⁴ “원로님, 원로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내가 대답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 낸 사람들이다. 저들은 어린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겹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하였다.”
- ¹⁵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여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고 있다. 여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그들을 덮는 천막이 되어 주실 것이다.
- ¹⁶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해도 그 어떠한 열기도 그들에게 내리찍지 않을 것이다.
- ¹⁷ 여좌 한가운데에 계신 어린양이 목자처럼 그들을 돌보시고 생명의 샘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며 하느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일곱째 봉인과 금 향로

- 8** ¹ 어린양이 일곱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하늘에는 반 시간가량 침묵이 흘렀습니다.
- ² 그리고 나는 하느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에게 일곱 나팔이 주어졌습니다.
- ³ 다른 천사 하나가 금 향로를 들고 나와 제단 앞에 서자, 많은 향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여좌 앞 금

제단에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 4 그리하여 천사의 손에서 향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느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 5 그 뒤에 천사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숯불을 가득 담아 땅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네 나팔

- 6 그때에 나팔을 하나씩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 7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생겨나더니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땅의 삼분의 일이 타고 나무의 삼분의 일이 타고 푸른 풀이 다 타 버렸습니다.
- 8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리하여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고,
- 9 생명이 있는 바다 피조물의 삼분의 일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부서졌습니다.
- 10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햇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삼분의 일과 샘들을 덮었습니다.
- 11 그 별의 이름은 ‘쓴흰썩’ 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물의 삼분의 일이 쓴흰썩이 되어,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쓴 물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 12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의 삼분의 일과 달의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타격을 받아 그것들의 삼분의 일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하여 낮의 삼분의 일이 빛을 잃고 밤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 13 나는 또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높이 나는 것을 보고 그것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땅의 주민들! 아직도 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남아 있다.”

다섯째 나팔

- 9 **9**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에 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는데, 그 별에게 지하로 내려가는 구렁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 2 그 별이 지하로 내려가는 구렁을 열자, 그 구렁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큰 용광로의 연기 같았습니다. 해와 대기가 그 구렁에서 나온 연기로 어두워졌습니다.
- 3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 땅에 퍼졌습니다. 그 메뚜기들에게 권한이 주어졌는데, 땅의 전갈들이 가진 권한과 같았습니다.
- 4 그것들은 땅의 풀과 푸성귀나 나무는 하나도 해치지 말고, 이마에 하느님의 인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 5 그러나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다섯 달 동안 괴롭히기만 하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그 괴로움은 사람이 전갈에게 쏘았을 때와 같은 괴로움이었습니다.
- 6 그 기간에 사람들은 죽음을 찾지만 찾아내지 못하고, 죽기를 바라지만 죽음이 그들을 피해 달아날 것입니다.
- 7 그 메뚜기들의 모습은 전투 준비를 갖춘 말들과 같았는데, 머리에는 금관 같은 것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 얼굴 같았고,
- 8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았으며 이빨은 사자 이빨 같았습니다.
- 9 갑옷도 입었는데 쇠 갑옷 같았고, 날개 소리는 싸움터로 내달는 수많은 전투 마차들의 소리 같았습니다.
- 10 또 전갈 같은 꼬리에다 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꼬리에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권함이 있었습니다.
- 11 그것들은 지하의 사자를 임금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히브리 말로는 아
바뎨이고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입니다.

12 첫째 불행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두 가지 불행이 더 닥칠 것입니다.

여섯째 나팔

13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에
나는 하느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의 네 모퉁
이 뿔에서 나오는 한 목소리를 들었는데,

14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 강 유
프라테스에 묶여 있는 네 천사를 풀어 주
어라.”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15 그리하여 사람들의 삼분의 일을 죽이려고
이 해, 이 달, 이 날, 이 시간을 위하여 준
비를 갖추고 있던 그 네 천사가 풀려났습
니다.

16 그 기병대의 수는 이억이었습니다. 나는 그
수를 들었습니다.

17 이러한 환시 중에 나는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붉은색과 파란
색과 노란색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말들
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았으며, 그 입에서
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습니다.

18 이렇게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
황, 이 세 가지 재앙으로 사람들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19 그 말들은 권한이 입에도 있었고 꼬리에도
있었습니다. 뱀과 같은 그 꼬리에 머리가
달려 그 머리로 사람을 해쳤습니다.

20 이 재앙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도 저희 손으로 만든 작품들을 단념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귀들을 숭배하
고, 또 보지도 듣지도 걸어도 다니지도 못하
는, 금이나 은이나 구리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숭배하기를 그치지 않았습
니다.

21 그들은 또한 자기들이 저지른 살인과 마술
과 불륜과 도둑질을 회개하지도 않았습니

다.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

10 ¹ 나는 또 큰 능력을 지닌 천사 하나
가 구름에 휩싸여 하늘에서 내려오
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
가 둘러 있고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
둥 같았습니다.

2 그는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펴 들고 있었습
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
발로는 땅을 디디고서,

3 사자가 포효하듯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가 외치자 일곱 천둥도 저마다 소리를 내
며 말하였습니다.

4 그렇게 일곱 천둥이 말하자 나는 그것을 기
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울려
오는 어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일곱 천
둥이 말한 것을 기록하지 말고 봉인해 두어
라.”

5 그러자 내가 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디디
고 서 있던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서서,

6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신 분을 두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 땅과 그 안에 있는 것
들,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하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7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울
릴 때, 하느님께서 당신의 종 예언자들에게
선포하신 대로 그분의 신비가 완전히 이루
어질 것이다.”

8 하늘에서 들려온 그 목소리가 다시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가서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펼쳐진 두루마리를
받아라.”

9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작은 두루마
리를 달라고 하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
다. “이것을 받아 삼켜라. 이것이 네 배를

쓰리게 하겠지만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 다.”

- 10 그래서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삼켰습니다. 과연 그것의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고 나니 배가 쓰렸습니다.
- 11 그때에, “너는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임금들에 관하여 다시 예언해야 한다.” 하는 소리가 나에게 들려왔습니다.

두 증인

- 11 그리고 나에게 지팡이 같은 잣대가 주어지면서 이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제고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이들을 세어라.
- 2 성전 바깥쪽은 재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민족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들이 거룩한 도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 3 나는 나의 두 증인을 내세워 천이백육십 일 동안 자루옷을 걸치고 예언하게 할 것이다.”
- 4 그들은 땅의 주님 앞에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등잔대입니다.
- 5 누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 원수들을 삼켜 버립니다. 누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는 반드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 6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하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늘을 닫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원할 때마다 온갖 제앙으로 이 땅을 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7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끝내면, 지하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 이기고서는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 8 그들의 주검은 그 큰 도성의 한길에 내버려질 것입니다. 그 도성은 영적으로 소돔이라

고도 하고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그곳에서 그들의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 9 모든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들의 주검을 바라보면서, 무덤에 묻히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 10 땅의 주민들은 죽은 그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 두 예언자가 땅의 주민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 11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느님에게서 생명의 숨이 나와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밭로 일어섰습니다. 그들을 쳐다본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 12 그 두 예언자는 하늘에서부터, “이리 올라 오너라.” 하고 외치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원수들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 13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도성 십분의 일이 무너졌습니다. 그 지진으로 사람도 칠천 명이 죽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싸여 하늘의 하느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 14 둘째 불행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셋째 불행이 곧 닥칠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

- 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 16 그때에 하느님 앞에서 자기들의 어좌에 앉아 있던 스물네 원로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느님께 경배하며
- 17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주 하느님 큰 권능을 취시고 친히 다스리기 시작하셨으니 저희가 하

너님께 감사드립니다.

- 18 민족들이 분개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닦혔습니다. 이제 죽은 이들이 심판받을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에게, 그리고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이에게 상을 주시고 땅을 파괴하는 자들을 파멸시키실 때가 왔습니다.”
- 19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약 껍제가 나타나면서,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과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여인과 용

- 12 ¹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 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열두 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 ² 그 여인은 아기를 배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 ³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크고 붉은 용인데,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 있으며 일곱 머리에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 ⁴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여인이 해산하기만 하면 아이를 삼켜 버리려고, 이제 막 해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지켜 서 있었습니다.
- ⁵ 이윽고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사내 아이는 쇠 지팡이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분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아이가 하나님께로, 그분의 여좌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 ⁶ 여인은 광야로 달아났습니다. 거기에는 여인이 천이백육십 일 동안 보살핌을 받도록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처소가 있었습니다.
- ⁷ 그때에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운 것입니다. 용

- 과 그의 부하들도 맞서 싸웠지만
- ⁸ 당해 내지 못하여, 하늘에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 ⁹ 그리하여 그 큰 용, 그 옛날의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온 세계를 속이던 그자가 떨어졌습니다. 그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떨어졌습니다.
- ¹⁰ 그때에 나는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와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고발하던 자, 하느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발하던 그자가 내쫓겼습니다.”
- ¹¹ 우리 형제들은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자를 이겨 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 ¹²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이들과,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너희 땅과 바다는 불행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달은 악마가 큰 분노를 품고서 너희에게 내려갈 기 때문이다.”
- ¹³ 용은 자기가 땅으로 떨어진 것을 알고, 그 사내아이를 낳은 여인을 쫓아갔습니다.
- ¹⁴ 그러나 그 여인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 그 뱀을 피하여 그곳에서 일 년과 이 년과 반 년 동안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 ¹⁵ 그 뱀은 여인의 뒤에서 강물 같은 물을 입에서 뱀내어 여인을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니다.
- ¹⁶ 그러나 땅이 여인을 도왔습니다. 땅은 입을 열어 용이 입에서 뱀내낸 강물을 마셔 버렸습니다.
- ¹⁷ 그러자 용은 여인 때문에 분개하여,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과 싸

우려고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 18 그리고 용은 바닷가 모래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짐승

13 ¹ 나는 또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었으며, 열 개의 뿔에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고 머리마다 하느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2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 같았는데,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았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자기 권능과 왕좌와 큰 권한을 주었습니다.

3 그의 머리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은 것 같았지만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았습니다. 그러자 온 땅이 놀라워하며 그 짐승을 따랐습니다.

4 용이 그 짐승에게 권한을 주었으므로 사람들은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였습니다.

5 그 짐승에게는 또 큰소리를 치고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마흔두 달 동안 활동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6 그래서 그 짐승은 입을 열어 하느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거처와 하늘에 거처하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7 그 짐승에게는 또 성도들과 씨워 이기는 것이 허락되었고,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8 세상 창조 이래 땅의 주민들 가운데에서, 살해된 어린양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9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10 사로잡혀 갈 사람은 사로잡혀 가고 칼로 죽을 사람은 칼로 죽을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11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양처럼 뿔이 들어있는데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12 그리고 첫째 짐승의 모든 권한을 첫째 짐승이 보는 앞에서 행사하여, 치명성이 나온 그 첫째 짐승에게 온 땅과 땅의 주민들이 경배하게 만들었습니다.

13 둘째 짐승은 또한 큰 표징들을 일으켰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도 하였습니다.

14 이렇게 첫째 짐승이 보는 앞에서 일으키도록 허락된 표징들을 가지고 땅의 주민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땅의 주민들에게, 칼을 맞고도 살아난 그 짐승의 상을 세우고 말하였습니다.

15 둘째 짐승에게는 첫째 짐승의 상에 숨을 불어넣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짐승의 상이 말을 하기도 하고,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죽임을 당하게 수도 있었습니다.

16 또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17 그리하여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 말고는 아무것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18 여기에 지혜가 필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숫자로 풀이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그 숫자는 육백육십육입니다.

어린양과 그의 백성

- 14** ¹ 내가 또 보니 어린양이 시온 산 위에서 서 계셨습니다.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 2** 그리고 큰 물 소리 같기도 하고 요란한 천둥소리 같기도 한 목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그 목소리는 또 수금을 타며 노래하는 이들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 3** 그들은 어좌와 네 생물과 원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땅으로부터 측량된 십사만 사천 명 말고는 아무도 배울 수 없었습니다.
- 4** 그들은 동정을 지킨 사람들로써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어린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양을 위한 만물로 사람들 가운데에서 측량되었습니다.
- 5**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흠 없는 사람들입니다.

심판의 예고

- 6**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높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에서 사는 사람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권과 백성에게 선포할 영원한 복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 7** 그가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드려라. 그분께서 심판하실 때가 왔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 8** 또 다른 두 번째 천사가 따라와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대바빌론이! 자기의 난잡한 불륜의 술을 모든 민족들에게 마시게 한 바빌론이!”
- 9** 또 다른 세 번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와 말

-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 상에 경배하고 자기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자는,
- 10** 그 역시 하나님의 분노의 술을 마실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물을 섞지 않고 부은 술이다. 그런 자는 또한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 11**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 연기는 영원무궁토록 타오르고, 짐승과 그 상에 경배하는 자들, 그리고 짐승의 이름을 뜻하는 표를 받는 자는 누구나 낮에도 밤에도 안식을 얻지 못 것이다.”
- 12**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 13** 나는 또 “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이들은 행복하다.’ 고 기록하여라.” 하고 하늘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고생 끝에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마지막 수확

- 14** 내가 또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앉아 계셨는데,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 15**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수확을 시작하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 수확할 때가 왔습니다.”
- 16** 그러자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땅 위로 낫을 휘두르시어 땅의 곡식을 수확하셨습니다.
- 17**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 18 또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는 불에 대한 권한을 지닌 천사였습니다. 그가 날카로운 낫을 든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날카로운 낫을 대어 땅의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들을 거두어들이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 19 그러자 그 천사가 땅 위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들이고서는, 하나님 분노의 큰 포도 화에다 던져 넣었습니다.
- 20 도성 밖에 있는 그 화를 밟아 누르니, 그 화에서 높이가 말고삐에까지 닿는 피가 흘러나와 천옥백 스타디온이나 퍼져 나갔습니다.

마지막 일곱 재앙의 예고

- 15 ¹ 나는 또 크고 놀라운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분노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 2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 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상과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를 무찌르고 승리한 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수금을 들고,
- 3 하나님의 종 모세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민족들의 임금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 4 주님, 주님을 경외하지 않을 자 누구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자 누구입니까? 정녕 주님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님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처사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 5 그 뒤에 내가 또 보니 하늘에 있는 증언의 천막 성전이 열리고,
- 6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옷을 입

고 가슴에는 금 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 7 그때에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신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 담긴 금 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 8 그러자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

- 16 ¹ 나는 또 성전에서 올려오는 큰 목소리를 들었는데, “가서 하나님 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고 일곱 천사에게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 2 첫째 천사가 나가서 자기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지닌 사람들과 그 상에 경배한 사람들에게 고약하고 지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 3 둘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어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 4 셋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강과 샘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 5 그때에 나는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분, 거룩하신 분 이렇게 심판하시니 주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 6 저들이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쏟았으므로 주님께서 저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되어 마땅합니다.”
- 7 이어서 제단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 8 넷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해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을 불로 태우는 권한이 해에게 주어졌습니다.
- 9 사람들은 뜨거운 열에 타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러한 재앙들에 대한 권능을

- 지신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뿐, 회개하여 그분께 영광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 10 다섯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나라가 어둠으로 변하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 자기 혀를 깨물었습니다.
- 11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겪는 괴로움과 중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할 뿐, 자기들의 행실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 12 여섯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말라 해 돋는 쪽의 임금들을 위한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 13 그때에 나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 14 그들은 마귀들의 영으로서 표징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온 세계 임금들을 찾아 나섰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저 중대한 날에 일어날 전투에 대비하여 임금들을 불러 모으려는 것이었습니다.
- 15 “보라, 내가 도둑처럼 간다. 깨어 있으면서 제 옷을 갖추어 놓아, 알몸으로 돌아다니며 부끄러운 곳을 보일 필요가 없는 사람은 행복하다.”
- 16 그 세 영은 히브리 말로 하르마게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임금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 17 일곱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다 이루어졌다.” 하는 큰 목소리가 성전 안에 있는 어좌에서 울려 나왔습니다.
- 18 이어서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지진은 땅 위에 사람이 생겨난 이래 일찍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 19 그리하여 큰 도성이 세 조각 나고 모든 민족들의 고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바빌론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격렬한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 20 그러자 모든 섬들이 달아나고 산들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 21 하늘에서는 무개가 한 탈렌트나 되는 엄청난 우박들이 사람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그 우박 재앙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대탕너 바빌론에게 내릴 심판

- 17 ¹ 저마다 대접을 가진 그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나라. 큰 물 곁에 앉아 있는 대탕너에게 내릴 심판을 나에게 보여 주겠다.
- 2 땅의 임금들이 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땅의 주민들이 그 여자의 불륜의 술에 취하였다.”
- 3 그 천사는 성령계 사모잡힌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진홍색 짐승을 탄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데,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었습니다.
- 4 그 여자는 자주색과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였습니다. 손에는 자기가 저지른 불륜의 그 역겹고 더러운 것이 가득 담긴 금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 5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탕너들과 역겨운 것들의 어머니, 대바빌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의 신비였습니다.
- 6 내가 보니 그 여자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 7 그때에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놀라느냐? 내가 저 여자의 신비와 저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짐승 곧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인 짐승의 신비를 나에게 말해 주마.
- 8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 없다. 그것이 또 지하에서 올라오겠지만 멸망을 향하여 나아갈 때름이다. 땅의 주민들 가운데 세상 창조 때부터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것이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앞으로 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 9 여기에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한 까닭이 있다.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타고 앉은 일곱 산이며 또 일곱 임금이다.
- 10 다섯은 이미 쓰러졌고 하나는 지금 살아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나오더라도 잠깐밖에 머무르지 못할 것이다.
- 11 또 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여덟 번째 임금이다. 그러나 그는 일곱 가운데 하나였던 자로서, 멸망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다.
- 12 내가 본 열 뿔은 열 임금이다. 그들은 아직 왕권을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잠시 그 짐승과 함께 임금으로서 권함을 차지할 것이다.
- 13 그들은 한뜻이 되어 자기들의 권능과 권함을 짐승에게 넘겨주고
- 14 어린양과 전투를 벌이지만, 어린양이 그들을 무찌르고 승리하실 것이다. 그분은 주님들의 주님이시며 임금들의 임금이다. 부르심을 받고 선택된 충실한 이들도 그분과 함께 승리할 것이다.”
- 15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본 물, 곧 탕녀가 그 곁에 앉아 있는 물은 백성들과 군중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 16 그리고 내가 본 열 뿔과 그 짐승은 탕녀를 미워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여자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알몸이 되게 하고 나서, 그 여자의 살을 먹고 나머지는 불에 태워 버릴 것이다.
- 17 하느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당신 뜻을 실행하도록 의지를 불어넣으시어, 하느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이 뜻을

같이하여 자기들의 왕권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 18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진 큰 도성이다.”

바빌론의 폐망

- 18 ¹ 그 뒤에 나는 큰 권함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의 광채로 땅이 환해졌습니다.
- 2 그가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대바빌론이! 바빌론이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들의 소굴, 온갖 더러운 새들의 소굴, 더럽고 미움 받는 온갖 짐승들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
- 3 그 여자의 난잡한 불륜의 술을 모든 민족들이 마시고 땅의 임금들이 그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 여자의 사치 덕분에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 4 나는 또 하늘에서 울려오는 다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그리하여 그 여자의 죄악에 동참하지 말고 그 여자가 당하는 재앙을 입지 마라.
- 5 그 여자의 죄악들이 하늘까지 닿아 하느님께서 그 여자의 불의한 짓들을 기억하셨다.
- 6 그 여자가 남에게 한 것처럼 되갚아 주어라. 그 여자의 행실을 갑절로 갚아 주고 그 여자가 남에게 부어 준 잔에 갑절로 독한 술을 부어 주어라.
- 7 그 여자가 영화와 사치를 누린 그만큼 고통과 슬픔을 그 여자에게 안겨 주어라. 그 여자가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 자리에 앉아 있는 몸, 과부가 아니니 슬픔도 결코 맞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 8 그러므로 하루 사이에 여러 재앙이, 흑사병과 슬픔과 굶주림이 그 여자에게 닥칠 것이며 마침내 그 여자는 불에 타 버릴 것이다. 그 여자를 심판하시는 주 하느님은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 9 “그 여자와 함께 불륜을 저지르며 사치를 부린 땅의 임금들은 그 여자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울며 가슴을 칠 것이다.
- 10 그들은 그 여자가 받는 고통이 두려워 멀찍이 서서 말할 것이다.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저 큰 도성! 강한 도성 바빌론아 삼시간에 너에게 심판이 닥쳤구나.’
- 11 땅의 상인들도 그 여자 때문에 슬피 울 것이다. 더 이상 자기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 12 그 상품은 금, 은, 보석, 진주, 고운 아마포, 자주색 옷감, 비단, 진홍색 옷감, 온갖 향나무, 온갖 상아 공예품, 그리고 매우 값진 나무와 구리와 쇠와 대리석으로 만든 물품,
- 13 또 계피, 향료, 향, 몰약, 유향, 포도주, 올리브 기름, 고운 밀가루, 밀, 소, 양, 말, 마차, 노예, 포로 따위다.
- 14 네 마음이 탐내던 열매가 너에게서 사라지고 온갖 화려하고 찬란한 것들이 너에게서 없어서 다시는 그것들을 찾아보지 못할 것이다.
- 15 이러한 물품을 팔아 그 여자 덕분에 부자가 된 상인들은 그 여자가 받는 고통이 두려워 멀찍이 서서 슬피 울며
- 16 이렇게 말할 것이다.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저 큰 도성! 고운 아마포 옷, 자주색과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했었는데
- 17 그토록 많은 재물이 삼시간에 사라져 버렸구나.’ 모든 선장과 선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멀찍이 서서,
- 18 그 도성을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며 ‘저 큰 도성 같은 곳이 또 어디 있으랴?’ 하고 외쳤다.
- 19 또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슬피 울며 부르짖었다.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저 큰 도성! 바다에 배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그

재와 덕분에 부자가 되었건만 삼시간에 폐허로 변해 버렸구나.’

- 20 ‘하늘아,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저 도성을 보고 즐거워하여라. 하느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저 도성에 심판을 내리셨다.’ ”
- 21 또 큰 능력을 지닌 한 천사가 뿔처럼 큰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였습니다. “큰 도성 바빌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 22 수금 타는 이들과 노래 부르는 이들, 피리 부는 이들과 나팔 부는 이들의 소리가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않고 어떠한 기술을 가진 장인도 다시는 네 안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뿔 소리도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 23 등불의 빛도 다시는 네 안에서 비치지 않고 신랑과 신부의 목소리도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의 상인들이 땅의 세력가였기 때문이며 모든 민족들이 너의 마술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다.
- 24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바로 그 도성에서 드러났다.”

19 ¹ 그 뒤에 나는 하늘에 있는 많은 무리가 내는 큰 목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능은 우리 하느님의 것.

- 2 과연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자기 불륜으로 땅을 파멸시킨 대당너를 심판하시고 그 손에 묶은 당신 종들의 피를 되갚아 주셨다.”
- 3 그들이 또 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자가 타는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간다.”
- 4 그러자 스물네 원로와 네 생물이 어좌에 앉

아 계신 하느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하였습니다.

어린양의 혼인 잔치

5 그때에 어좌에서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느님의 모든 종들이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하느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6 나는 또 많은 무리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큰 물 소리 같기도 하고 요란한 천둥소리 같기도 한 소리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느님, 전능하신 분께서 다스리기 시작하셨다.

7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자. 어린양의 혼인날이 되어 그분의 신부는 몸단장을 끝냈다.

8 그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는 특권을 받았다.” 고운 아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9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행복하다.’ 고 기록하여라.” 천사가 또 이어서, “이 말씀은 하느님의 참된 말씀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10 나는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마라. 나도 너와 같은 종이다.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너의 형제들과 같은 종일 따름이다. 하느님께 경배하여라. 예수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흰말을 타신 분

11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흰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타신 분은 ‘성실하시고 참되신 분’ 이라고 불리십니다. 그분은 정의로 심판하시고 싸

우시는 분이십니다.

12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머리에는 작은 왕관을 많이 쓰고 계셨는데, 그분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분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13 그분께서는 또 피에 젖은 옷을 입고 계셨고, 그분의 이름은 ‘하느님의 말씀’ 이라고 하였습니다.

14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서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15 그분의 입에서는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 칼로 민족들을 치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리시고, 전능하신 하느님의 격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짜는 확을 친히 밟으실 것입니다.

16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임금들의 임금, 주님들의 주님’ 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7 나는 또 한 천사가 해 위에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하늘 높이 날아다니는 모든 새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하느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와라.

18 임금들의 살과 장수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 모든 자유인들과 종들, 낮은 사람들과 높은 사람들의 살을 먹어라.”

19 나는 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말을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에 맞서 전투를 벌이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0 그러다가 그 짐승이 붙잡혔습니다. 그 짐승 앞에서 표징들을 일으키던 거짓 예언자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 거짓 예언자는 그 표징들을 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짐승의 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그 둘은 유행이 타오르는 불 못에 산 채로 던져졌습니다.

21 남은 자들은 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온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천년 통치

20¹ 나는 또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지하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2 그 천사가 용을, 곧 악마이며 사탄인 그 옛날의 뱀을 붙잡아 천 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도록 결박하였습니다.

3 그리고 그를 지하로 던지고서는 그곳을 잠그고 그 위에다 봉인을 하여, 천 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는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뒤에 사탄은 잠시 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4 나는 또 어좌들을 보았는데, 그 위에 앉은 이들에게 심판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잘린 이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의 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5 나머지 죽은 이들은 천 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6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는 행복하고 또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이들에 대해서는 두 번째 죽음이 아무런 권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제가 되어, 그분과 함께 천 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사탄의 폐망

7 천 년이 끝나면 사탄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8 그는 감옥에서 나와 땅의 네 모퉁이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고서는 그들을 전투에 끌어들이길 터인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9 그들은 드넓은 땅을 건너 올라와서는 성도들의 진영과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 버렸습니다.

10 그들을 속이던 악마는 불과 유황 못에 던져졌는데,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이미 들어가 있는 그곳입니다. 그들은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11 나는 또 크고 흰 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달아나 그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2 그리고 죽은 이들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어좌 앞에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졌습니다. 또 다른 책 하나가 펼쳐졌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이들은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들의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13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이들을 내놓고, 죽음과 저승도 그 안에 있는 죽은 이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14 그리고 죽음과 저승이 불 못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 못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15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불 못에 던져졌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21¹ 나는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2 그리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3 그때에 나는 어좌에서 울려오는 큰 목소리
를 들었습니다.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
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 하느님께서 사람
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
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
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4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
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
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5 그리고 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
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
든다.” 이어서 “이것을 기록하여라. 이 말
은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 하신 다음,

6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
다.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고 시작이며 마
침이다. 나는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의 샘에
서 솟는 물을 거저 주겠다.

7 승리하는 사람은 이것들을 받을 것이며, 나
는 그의 하느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8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불충한 자들, 역겨운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
지뭇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못뿐이다. 이
것이 두 번째 죽음이다.”

새 예루살렘

9 마지막 일곱 재앙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어린양의 아
내가 될 신부를 나에게 보여 주겠다.”

10 이어서 그 천사는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는, 하늘로
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 주었습니다.

11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
습니다. 그 광채는 매우 값진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12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열두 성문
이 있었습니다. 그 열두 성문에는 열두 천
사가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열두 지파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13 동쪽에 성문이 셋, 북쪽에 성문이 셋, 남쪽
에 성문이 셋, 서쪽에 성문이 셋 있었습니
다.

14 그 도성의 성벽에는 열두 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양의 열두 사도 이름이 하
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15 나에게 말하던 천사는 도성과 그 성문들과
성벽을 재려고 금으로 된 잣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6 도성은 네모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았
습니다. 그가 잣대로 도성을 재어 보니, 길
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이 만 이천 스타
디온이었습니다.

17 또 성벽을 재어 보니 백사십사 폐키스였는
데, 사람들의 이 측량 단위는 천사도 사용
하는 것입니다.

18 성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도성은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9 도성 성벽의 초석들은 온갖 보석으로 꾸며
져 있었습니다. 첫째 초석은 벽옥, 둘째는
청옥, 셋째는 옥수, 넷째는 취옥,

20 다섯째는 마노, 여섯째는 홍옥, 일곱째는
감람석, 여덟째는 녹주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열한째는 자옥, 열두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21 열두 성문은 열두 진주로 되어 있는데, 각
성문이 진주 하나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성의 거리는 투명한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2 나는 그곳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과 어린양이 도성의 성 전이시기 때문입니다.

- 23 그 도성은 해도 달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그곳에 빛이 되어 주시고 어린양이 그곳의 등불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 24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을 받아 걸어 다니고 땅의 임금들이 자기들의 보화를 그 도성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 25 거기에는 밤이 없으므로 종일토록 성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 26 사람들은 민족들의 보화와 보배를 그 도성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 27 그러나 부정함은 그 무엇도, 역겨운 짓과 거짓을 일삼는 자는 그 누구도 도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어린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이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 22** 1 그 천사는 또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의 강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느님과 어린양의 어좌에서 나와,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이쪽저쪽에는 열두 번 열매를 맺는 생명 나무가 있어서 달일이 열매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에 쓰입니다.
- 3 그곳에는 더 이상 하느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도성 안에는 하느님과 어린양의 어좌가 있어,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 4 그분의 얼굴을 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 5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도 햇빛도 필요 없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무궁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맺음말

- 6 그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 씀은 확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주님, 곧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 주시는 하느님께서 머지않아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당신 종들에게 보여 주시려고 당신 천사를 보내신 것이다.”
- 7 “보라, 내가 곧 간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
- 8 이 일들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나는 이 일들을 듣고 또 보고 나서, 나에게 이것들을 보여 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 9 그러자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마라. 나도 너와 너의 형제 예언자들과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일 따름이다.”
- 10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 말씀을 봉인하지 마라. 그때가 다가왔기 때문이다.
- 11 불의를 저지르는 자는 계속 불의를 저지르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운 채로 있이라. 의로운 이는 계속 의로운 일을 하고 거룩한 이는 계속 거룩한 채로 있이라.”
- 12 “보라, 내가 곧 간다. 나의 상도 가져가서 각 사람에게 자기 행실대로 갚아 주겠다.
- 13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고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시작이며 마침이다.
- 14 자기들의 긴 걸음을 깨끗이 빼는 이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는 권한을 받고, 성문을 지나 그 도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 15 개들과 마술쟁이들,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거짓을 좋아하여 일삼는 자들은 밖에 남아 있어야 한다.
- 16 나 예수가 나의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에 관한 이 일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

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며 그의 자손이고
빛나는 셋별이다.”

- 17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
신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
오.” 하고 말하여라. 목마른 사람은 오너
라.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거저 받아라.
- 18 나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보태면, 하느님께서 이 책에 기록
된 제양들을 그에게 보태실 것입니다.
- 19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을 빼면, 하느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 나무와 거룩한 도성에서
얻을 그의 몫을 빼어 버리실 것입니다.
- 20 이 일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십니
다. “그렇다, 내가 곧 간다.” 아멘. 오십
시오, 주 예수님!
- 21 주 예수님의 은총이 모든 사람과 함께하거
를 바랍니다.